韓國戰爭史

第 5 卷

中共軍 侵略과 再反擊作戰期

(1950.12.1~1951.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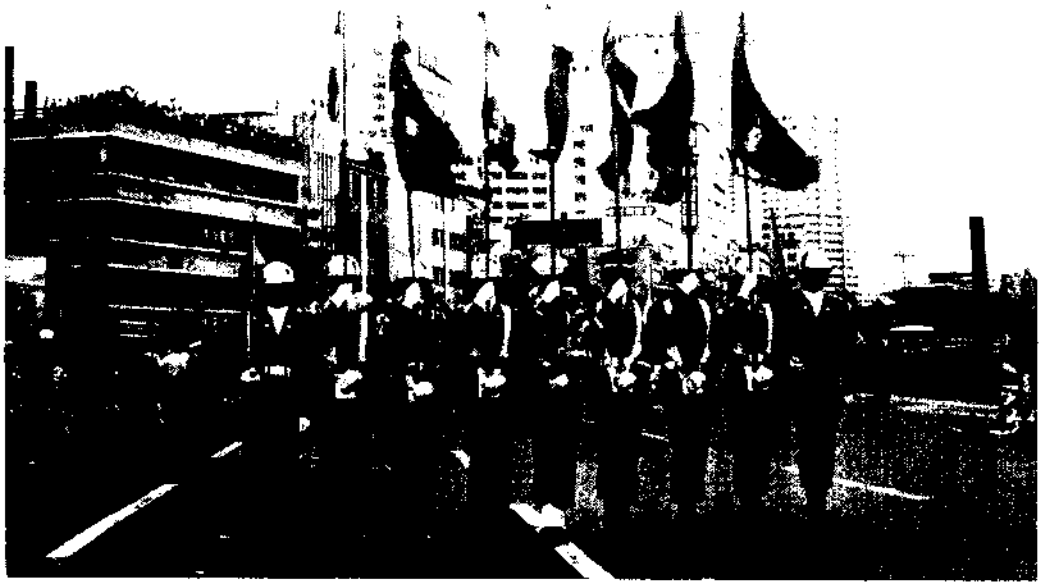
國 防 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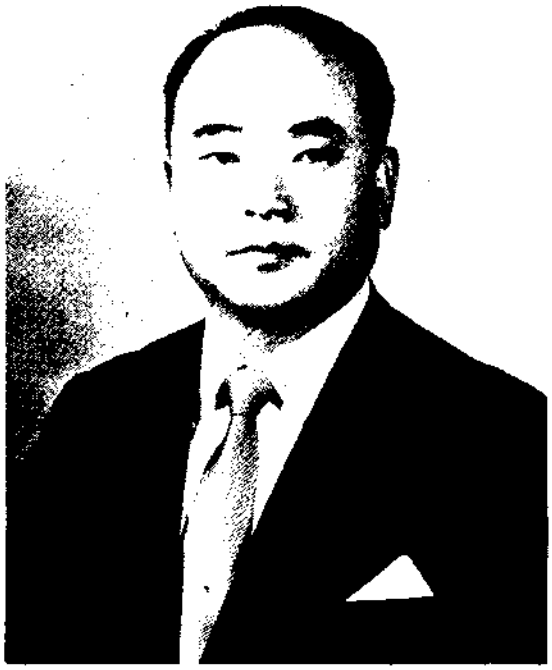


大統領 朴 正 熙



國防部　長官　劉　載　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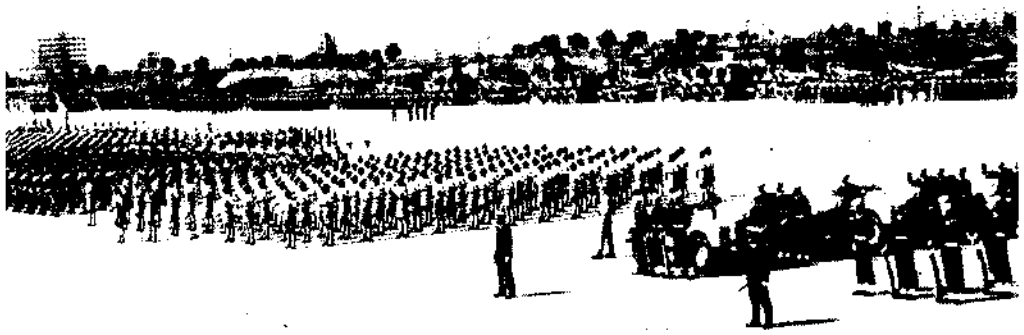




國防部 次官 柳 根 昌



合同參謀本部 議長 陸軍大將 沈 興 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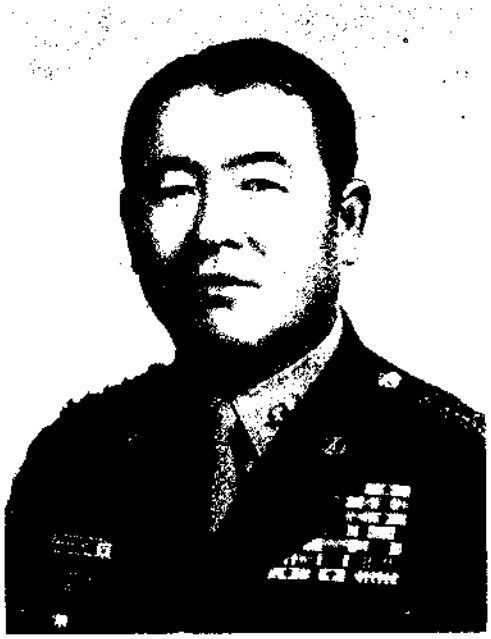
陸軍參謀總長 陸軍大將 徐 鍾 喆



海軍參謀總長 海軍大將 張 志 洙



空軍參謀總長 空軍大將 玉 滿 鎬



海兵隊司令官 海兵大將 李 丙 文

序　　文

무릇 人類의 歷史가 그러하듯 우리 民族의 지난날에도 숱한 戰爭이 點綴되어 있읍니다만, 韓國戰爭만큼이나 우리 民族을 不幸하게 한 것은 壬辰戰亂 以來 일찌기 없었다고 하겠읍니다。

이로 말미암아 疆土가 灰燼되고 同族이 相殘하였음은 물론이며, 對陣狀態의 休戰 아닌 休戰으로 이미 四半世紀가 흘렀는데 그동안 우리는 變轉하는 世界情勢의 激流속에서 間斷없는 戰火再燃의 威脅앞에 直面하는 分斷國家의 悲劇을 뼈저리게 體驗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不幸과 逆境을 民族中興의 試鍊으로 克服함으로써 이 땅 위에 새 歷史를 顯然히 創造할 줄 아는 民族임을 誇示하고 스스로 自負할 수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多幸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오랜 刻苦의 星霜을 통하여 다듬어진 民族의 叡智와 國力의 總和로서 國土統一을 追求하는 緊迫한 時點에 서게 된 우리는 民族殿堂의 새로운 一片礎石으로서의 使命感에 透徹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擧國的인 要請에 副應하여 이번에 當部의 戰史編纂委員會가 民族史觀을 定立하는데 보다 큰 意義를 두고 二十二年 前의 戰爭經過를 客觀的이고도 體系的으로 史實化하는 努力을 계속하였음은 실로 뜻깊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戰史가 단순히 記錄의 保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史料面에서 戰略的인 價値를 賦與하는 것이라고 할 때, 지난 해에 旣刊된 第四卷(總反擊作戰期)에 이어서, 中共軍의 侵略과 그에 對한 反擊過程을 다루고 있는 本卷을 通하여 一九五〇年 十一月 國土統一의 目前에서 그들의 大擧侵略으로 끝내 그 宿願을 이루지 못하였던 痛憤과 侵略經緯의 始末 및 難局을 打開하였던 當時의 眞相 등을 되새겨봄으로써 우리들 스스로의 國土統一에 對한 姿勢確立을 促求하고, 昨今의 國際舞臺에 또 하나의 肥大漢으로 登場한 中共의 正體를 直視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더우기 本卷에 收錄된 期間中 平壤과 興南의 戰略的인 撤收에서부터 38°線 再反擊에 이르기까지의 經過를 大觀하면, 한 마디로 中共軍의 物量과 우리의 信念의 對決로 集約할 수

있는 바 어떠한 物量의 威壓이라 할지라도 團結된 意志와 信念을 꺾지는 못한다는 敎訓을 우리로 하여금 體得하게 해 주었다고 評價할 수 있읍니다。

오늘날 우리가 平和統一에 대한 主體性을 具顯함으로써 南北對話의 길이 트였다고 하지마는 時時로 激變하는 內外情勢는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전쟁당시와 다름없는 物量의 威脅을 우리 民族에게 안겨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本卷의 發刊에 즈음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뜻과 힘을 모아 어떠한 挑發과 難關에 부딪치더라도 이를 斷乎히 膺懲할 수 있는 自立國防態勢와 能動的으로 對處할 수 있는 國力總和를 다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해마다 湮滅되어가는 資料와 줄어드는 參戰將兵의 산 證言을 發掘整理하고 이로서 公正無私한 叙述을 뒷받침한다는 어려움 속에서 本卷을 펴 낸 戰史編纂委員會 諸位의 勞苦를 致賀하며 아울러 삼가 戰歿한 護國英靈의 冥福을 빕니다。

1972年 12 月 1 日

國防部長官 劉 載 興

發　　刊　　辭

여기에 本戰史 제5권을 내어 놓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中共의 侵略과 이에 따르는 撤收와 再反擊을 主로 다루었읍니다。 즉 1950년 10월末의 大擧 침략으로 말미암아 國土統一을 눈앞에 둔채로 平壤과 興南등으로부터 철수한 다음, 三陟—安城을 連하는 線에서 다시 反擊을 斷行한 결과 대체로 현재의 휴전선까지 進出하게된 1951년 4월末까지의 戰況을 收錄한 것입니다。

우리의 天然國境線인 鴨水—豆滿의 兩江을 目標로 一瀉千里의 氣勢도 드높이 勇躍進擊하다가 不測와 豫期가 서로 부닥쳐 重圍를 뚫고 恨많은 退行길을 헤치게된 赤裸裸한 記錄을 꼭 後孫들에게 傳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國軍의 士氣가 과연 떨치지 않았던가? 戰鬪力이 상대적으로 低劣 하였던가? 決코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을 千秋에 밝혀야 할 것이며 또한 그렇게 힘쓰기로 하였으니 이것이 方針의 첫째입니다。 대체 中共은 무슨 까닭으로 侵略을 恣行하였고 어떠한 編成과 裝備로 어떻게 不法奇襲을 敢行하였으며 UN軍은 어찌하여 全面撤收하게 되었는가? 이것 또한 白日下에 빠짐없이 展示되어야 할 것이며 또 그렇게 着眼키로 하였으니 이것이 方針의 둘째입니다。 이 당시의 UN參戰軍의 活動은 우리 國軍못지 않게 눈부신 바 있었는데, 모진 苦難과 逆境속에서도 에상 以上으로 勇戰奮鬪하여 찬란한 光彩로 빛나고 있는 바, 自由의 十字軍으로서 以寡擊衆의 좋은 範例를 던져주고 있으므로 이것 또한 所重한 敎訓으로 남겨야 할 것이며 또 그렇게 留意키로 하였으니 이것이 方針의 셋째입니다。 北韓의 失地를 收復할 당시 우리 將兵들을 뜨거운 눈물로써 마지하던 反共同胞들이 戰勢의 돌변으로 猝地에 물러나게 되자 하늘이 무너지듯 驚動하고, 自由를 찾아 大同江의 大破된 鐵橋를 넘어 寒天雪野를 뚫고 南下의 길을 재촉하였으며 興南港에서는 肉親마저 서로 잃으면서 앞을 다투어 海上機動의 뒤를 따르기도 하였읍니다。 哀切하기 짝이 없는 이러한 慘景을 우리는 期必코 後世에 알려 주어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다짐하였으니 이것이 方針의 넷째입니다。 우리는 決斷코 卑怯하지도 않았으며 統一念願에 低調하지도 않았지만 남의 힘을 빌려야 하는 弱者의 立場에서 萬不得으로 完全統一이라는 絶好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는데, 그 슬픈 事緣을 진정코 우리 後裔들에게 들려 주어야 할 것이며 또 그렇게 努力키로 한 것이 方針의 다섯째입니다。 우리는 地下에 잠든 우리 戰友들을 부끄럽지 않게 대할 수 있기 위하여서도, 이러한 몇 가지의 主

張밑에서 되도록 昭詳하게 叙述하여 民族의 絶叫와 겨레의 悲憤을 永世에 남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UN에서 中共을 『侵略者』로 規定짓기는 하였으나, MacArthur元帥의 戰略思想은 끝내 그 實現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모든 職位에서 解免을 당하고야 말았으며 따라서 中共의 兇魔根性을 뿌리뽑지 못하였던 것인데, Truman의 姑息的인 安逸政略이 唯獨妥當하였고 元帥의 透徹한 滅共戰略이 과연 時宜에 어긋났던 것일가? 우리는 여기에서 구태여 그 黑白을 가리고자 하지는 않지만, 있는 事實은 사실대로 전하여져야 할 것입니다。그렇지 않고서는 世紀에 卓絶한 元帥가 오늘날 幽冥을 달리하고 있으니 만치 우리의 情誼와 禮道로서 보나 또 良識에서 보나 참사리 納得과 共鳴을 얻을 수 없을 줄로 압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想念밑에 本卷에서는 中共의 奸策과 그 侵略集團의 編成 및 戰法등을 하나의 章으로 設定하였고, MacArthur元帥의 解任과 이를 圍繞한 論爭을 또 별개의 章에서 다루어 美國의 亞細亞政策에 대하여 戰爭과 직접 關聯된 部分을 取扱키로 하였읍니다。

이제 戰爭以後 20餘年에 國際情勢는 豹變을 거듭하여 UN은 中共을 그 一員으로 받아들였고, 우리 自身도 民族統一의 基礎를 다지기 위하여 南北間에 『對話있는 對決』을 시작하고 있읍니다。

비록 직접적인 武力對決을 避하고 있을지라도 五極사이에는 스스로의 利益만을 追求하는 樣相이 더욱 露骨化한 版圖속에서, 우리는 自力만으로서 보다 험한 泰山峻嶺을 넘고 또 넘어야만 하는 어려운 試鍊에 直面하고 있으니, 말하자면 天行健이니 自强不息으로 우리의 進路를 開拓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왜그런고 하면 우리는 國際關係에서, 더구나 共產主義者와의 對決에서 힘의 뒷받침이 얼마나 緊要한 가를 잘 알고 있으니 만큼 우리의 力量을 더욱 補強하여야만 되겠으며, 그렇지 않고서는 榮光스러운 祖國의 統一을 앞 당길 수도 없으려니와 祖上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未來를 後孫에게 물려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見地에서 北共과 中共의 兩共產陣營과 對決하였던 眞相을 探究한다는 것은 커다란 意義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비록 그 樣相이 다르기는 하지만 對決의 本質을 剔抉함으로써, 가깝게는 現實에 對處하는 智慧으로 삼을 수 있고, 더 나가서는 現代世界史에 있어서의 韓國史가 지닌 座標를 가늠하며 더욱 未來를 指向하는 우리의 決意를 새롭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意義가운데 어느 만큼은 戰爭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本戰

史 제1~제4권과는 달리 本卷만이 갖는 特色에서 찾아지는 것이기도 하나, 그에 앞서 人類가 存在하여 自國의 利害와 關聯된 對決이 계속되는 限, 戰爭을 豫防하기 위한 것이든 勝利를 爭取하기 위한 것이든 간에 戰史는 硏究되어야 할 것이며 또 硏究될 것입니다。

다만 항상 느끼는 바이지만 이러한 作業은 보다 次元높은 史眼으로 充分한 資料를 活用하는 데서 水準높은 結果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인데, 아직도 不足한 認識과 未備한 與件속에서 우리의 努力이 과연 얼마나 企圖하는 바에 미칠 수 있었는가 하는 두려움이 가시지 않고 있읍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높은 次元의 戰史가 一朝一夕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으나, 加一層의 努力이 보다 나은 結果를 가져온다는 것을 믿으며 제3권 以來 계속하여 온 別冊要圖, 參戰者의 證言, 可能한 參戰將兵의 姓名 明記, 平易한 敍述, UN軍과 警察活動에의 留意등 몇가지 特色을 堅持하면서 스스로의 硏鑽도 게을리 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직접 編纂을 담당한 사람의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계속적인 關心과 鞭撻이 있어야 되겠읍니다。

이제 本卷을 發刊함에 있어 보여주신 上司의 깊은 理解와 관계기관의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發刊辭에 대신하는 바입니다。

1972年 12月 1日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委員長 李 炯 錫

凡　　例

1. 이 제5권 편찬상의 기본이 되는 몇가지 방침을 간추려 본다면 다음과 같다。

   가. 卷은 分量本位로 구분하고, 篇은 內容本位로 作戰期를 一括하되 일련번호를 넣지 않는다。

   나. 章은 作戰本位로 구성하되 旣刊된 제4권에 이어 全帙을 통한 일련번호를 넣는다。

   다. 節 以下는 戰闘本位로 서술하되, 「공문서 분함표기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구별하여 표기한다。

      節——1. 2. 3. 4. 5.

      項——가. 나. 다. 라. 마.

      目——(1) (2) (3) (4) (5)

      款——(가) (나) (다) (라) (마)

2. 같은 卷 속에 두개 이상의 篇이 있을 때에는 卷頭에 「總說」을 넣되, 다만 한 篇만일 때는 이를 생략하며 篇과 첫 章 사이에는 「概說」을, 章과 節 사이에는 「要旨」를 넣는다。

3. 概說에서 취급한 사항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가. 期間 中 敵側의 政治, 經濟, 社會, 軍事動向에 관한 大要。

   나. UN軍側의 軍事動向의 大要。

   다. 國內外 軍事動向의 大要。

   라. 敵軍側의 作戰構想。

   마. UN軍側의 作戰構想。

   바. 我軍(陸, 海, 空軍 및 海兵隊)의 作戰構想。

   사. 彼我政府 및 軍部의 주요한 人事異動과 그 動靜。

   아. 第3國의 動向에 관한 大要。

   자. 彼我兩軍의 編成, 裝備등의 변천에 관한 事項。

   차. 戒嚴에 관한 事項 및 기타。

4. 要旨에서 취급한 事項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가. 敵軍側 兵團(독립된 연대와 사단급 이상)의 작전계획과 그 행동의 大要。

   나. UN軍側 兵團의 작전계획과 그 행동의 大要。

   다. 我軍의 陸, 海, 空軍 및 海兵隊의 주요한 작전계획과 그 행동의 大要。

   라. 주요한 指揮將領의 人事異動에 관한 事項。

   마. 作戰上의 特異性(天候, 氣象 및 地形 포함)

   바. 主要兵團의 編成과 隸屬, 配屬 및 支援관계와 그 이동에 관한 事項。

   사. 彼我兩軍의 교육, 훈련 및 軍紀와 士氣에 관한 事項。

   아. 情報활동에 관한 事項。

   자. 民事, 救恤에 관한 事項。

5. 別途로 發刊되는 「UN軍參戰史」 안에서 취급하는 내에서 필요한 事項은 重複되더라도 피하지 않고, 이를 취급하기로 한다。

6. 순수하게 後方戰史에 屬하는 事項은 가급적으로 本文 안에서 취급하지 않고, 「後方戰史」에 실기로 한다。

7. 軍隊符號는 國軍의 現用符號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반드시 이에 따르지 않은 것도 있으니 그 一例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進擊과 後退를 구분하여 앞의 것은 實線으로 뒤의 것은 點線으로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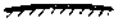
나. 我軍과 UN軍, 그리고 北共軍과 中共軍의 표시를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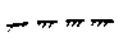
다. 行軍路와 攻擊 및 突擊 方向을 一見하여 명백하게 구분키로 하였다。

라. 같은 時期와 場所가 아닌 것은 되도록 구분키로 하였으며, 필요한 事項은 要圖에 註記토록 하였다。

8. 要圖는 色調化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되도록 別冊으로 수록키로 하였으며, 我軍은 靑色, 敵軍은 赤色으로 구분한다。

9. 狀況圖는 黑白을 원칙으로 하여 本文안에 삽입키로 하였으며, 我軍은 實線, 敵은 破線으로 구분한다。

例 : 我 軍  我 軍 

敵 軍 敵 軍 

10. 되도록 한글을 많이 쓰기로 하였으나, 人名, 地名, 方向(東西南北, 左右)등은 漢字로 쓰고, 한글로써서 그 뜻이 混同될 우려가 있는 것은 漢字를 쓰기로 하였다。

11. 되도록 慣用 軍事術語를 쓰되, 各軍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은 그 所屬軍의 記事에 있어서는 이를 존중키로 한다。

12. 戰鬪마다 獨立性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전투 경과의 개요」앞뒤에 각각 「전투 전의 개황」과 「전투 후의 개황」을 넣기로 한다。

13. 작전명령, 작전지시, 각서등의 문서와 附錄등은 本文에서 필요한 것만을 채택하고, 그 나머지는 부득이 이를 割愛키로 하였으니, 이는 그 내용이 너무나도 방대한 까닭이다。

14. 여러 장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작전명령등은 附錄에서 일괄, 취급하되 本文 안에서 필요한 것은 그 要旨만을 다루기로 한다。

15. 戰鬪地名은 종래 慣用된 것을 존중하되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은 바꾸기로 하였으며, 같은 地區에서 몇차례에 걸쳐 일어난 싸움은 이를 제1, 제2차 등으로 그 前後를 구분키로 한다。

16. 團隊號는 다음과 같이 명백히 구분키로 한다。

가. 隷屬부대 ——本來의 編成부대。

나. 配屬부대——임시로 指揮를 받는 부대。

다. 支援부대——砲兵, 工兵, 戰車부대와 通信, 輸送 等 他兵科와 後方부대가 직접지원할 때,

라. 協同부대 ——隣接부대와 UN軍 參戰部隊。

17. 外來語는 人名, 地名등을 原名 그대로 表記하였으나, 字母가 없는 外來語는 英語式으로 表하였다。우리말로 土着이 된 外來語는 한글表記法에 따라 表記하였다。

例 : Thailand語→英語字母로 Radio→라디오로

18. 我軍에 대하여서는 「退却」, 「撤收」등의 術語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니, 退却은 고급 지휘관의 명령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고, 撤收도 또한 各各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9. 기타 細部에 관한 事項

가. 略語와 俗語는 되도록 피한다。

나. 將軍 등의 敬稱은 쓰지 않기로 한다。

다. 要圖, 狀況圖, 附表등에는 卷別로 일련번호를 넣는다。

라. 年, 月, 日, 時 등 日記의 表記는 다음과 같이 통일한다。

例 : 1950년 9월 15일 오후 5시 45분

50. 9. 15. 17. 45

마. 필요한 때에 부대 記號에 北共軍을 NC, 中共軍을 CC로 표시하고 그밖의 UN軍은 일반 慣用語를 따른다。

바. 여기에서 특히 언급하지 않은 부호는 대체로 文敎部案과 육군대학 규정부호 및 군특명감열단 발행의 문서작성법에 따른다。

사. 참고문헌은 일괄하여 卷末에 첨부하였다。

20. 특히 北傀軍을 本卷부터는 「北韓共産軍」의 略稱인 「北共軍」으로 바꾸어 記述하기로 하였다。

韓國戰爭史 第5卷 目次

序 文 國防部長官 劉 載 興
發刊辭 戰史編纂委員長 李 鉉 錫
凡 例

中共軍侵略과 再反擊作戰期

槪 說……(9)

第35章 中共軍의 侵略槪況

要 旨……(31)
1. 中共平의 侵略과 그 政治的 軍事的 策略……(32)
2. 侵略前의 一般情勢……(38)
3. 中共軍의 編成 및 戰法……(43)
4. 侵略後의 一般情勢……(51)

第36章 鴨綠江方面 撤收作戰

要 旨……(57)
1. 楚山—溫井里地區 戰鬪……(59)
2. 第2次 雲山—寧邊附近 戰鬪……(78)
3. 价川—飛虎山附近 戰鬪……(89)
4. 博川—泰川—龍山洞附近 戰鬪……(102)
5. 寧遠附近 戰鬪……(115)
6. 德川附近 戰鬪……(128)
7. 平壤—38°線 撤收戰……(141)
8. 美 第1軍團의 淸川江附近 戰鬪……(149)

9. 美 第9軍團의 清川江附近 戰鬪……(163)
10. 海軍의 黃海道 避難民 救出作戰과 救護活動……(181)
11. UN海軍의 西海(鎭南浦—仁川)撤收作戰……(189)
12. 空軍의 撤收作戰……(196)
13. UN空軍의 活動……(229)

第37章 豆滿江方面 撤收作戰

要 旨……(219)
1. 合水·清津—興南 撤收作戰……(221)
2. 海兵隊의 元山·咸興附近 戰鬪……(239)
3. 美 海兵사단의 長津湖附近 戰鬪……(248)
4. 美 第10軍團의 興南 撤收作戰……(279)
5. UN海軍의 城津—興南—元山 撤收作戰……(302)
6. UN空軍의 活動……(314)

第38章 第2次 38°線 防守作戰

要 旨……(323)
1. 襄陽—西林附近 戰鬪……(326)
2. 縣里附近 戰鬪……(341)
3. 洪川附近 戰鬪……(354)
4. 東豆川附近 戰鬪……(371)
5. 第2次 서울 撤收戰……(386)
6. 南大里附近 戰鬪……(397)
7. 寧越附近 戰鬪……(409)
8. 原州地區 攻防戰……(422)
9. 赤城里 戰鬪……(434)
10. 海軍YMS—510艦 仁川 奇襲 上陸戰……(444)
11. 海軍의 第2次 仁川 上陸作戰……(446)
12. 海軍JMS—306艦의 鎭津地區 戰鬪……(449)
13. UN空軍의 活動……(452)

第39章 東部地區 反擊作戰

要 旨……(461)

1. 江陵附近 戰鬪……(464)
2. 橫城—浦洞里附近 戰鬪……(479)
3. 橫城附近 戰鬪……(504)
4. 旌善—倉里 附近攻防戰……(523)
5. 鷄林—安興—烽火山 進擊戰……(541)
6. 下珍富里—東沙里附近 戰鬪……(560)
7. 下珍富里附近 戰鬪……(580)
8. 泰岐山附近 戰鬪……(594)
9. 安東地區 共匪 擊滅作戰……(611)
10. 注文津—襄陽 進擊戰……(633)
11. 檢川里附近 戰鬪……(647)
12. 麟路附近 戰鬪……(660)
13. 海兵隊의 安東·盈德地區 戰鬪……(676)
14. 海兵隊의 寧越附近 戰鬪……(694)
15. 海兵隊의 洪川附近 戰鬪……(711)
16. 美 海兵隊의 橫城—洪川附近 戰鬪……(723)
17. 海軍의 永興灣島嶼 上陸作戰……(731)
18. 海軍YMS—514艦의 通川地區 奇襲戰……(742)
19. 海軍의 掃海作戰……(744)
20. UN空軍의 活動……(756)

第40章 中·西部地區 反擊作戰

要 旨……(769)

1. 第2次 서울 奪還戰……(771)
2. 春川西北方 進擊戰……(781)
3. 史倉里附近 戰鬪……(799)

4. 鳥山—漢江線 進擊作戰……(814)
5. 長湖院—砥平里—38°線 進擊戰……(830)
6. 서울—38°線 進擊作戰……(847)
7. 海兵隊의 金浦附近 戰鬪……(863)
8. 海兵隊의 東·西海 島嶼作戰……(871)
9. 海軍 PF—62艦의 舟洞島 戰鬪……(882)
10. 海軍의 輸送 支援作戰……(885)
11. 空軍 白鷗部隊 作戰……(894)
12. UN空軍의 活動……(915)

第41章 國立警察의 活動

1. 一般狀況……(923)
2. 國立警察의 共匪擊滅狀況……(929)

第42章 MacArthur元帥의 解任

要 旨……(947)
1. 美國의 亞細亞 政略과 戰略……(950)
2. 韓國戰爭과 MacArthur元帥의 解任……(966)
3. 國連演說과 聽問會의 論爭……(994)

狀況圖 目次

제 1 호 綜合戰況 (16)
제 2 호 楚山—溫井里附近 略圖 (63)
제 3 호 价川—飛虎山附近 戰鬪 (94)
제 4 호 寧遠附近 戰鬪 (120)
제 5 호 德川附近 戰鬪 (132)
제 6 호 平壤—38°線 撤收戰 (144)
제 7 호 美 第1軍團의 淸川江附近 戰鬪 (158)
제 8 호 黃海道 西部隣接 島嶼圖 (183)
제 9 호 空軍의 基地展開 (197)
제10호 空軍의 基地展開 (199)
제11호 空軍의 基地展開 (204)
제12호 柳潭里 防禦戰 (253)
제13호 柳潭里—下碣隅里 撤收戰 (259)
제14호 下碣隅里 防禦戰 (262)
제15호 下碣隅里—古土里 撤收間의 重要交戰 (267)
제16호 古土里 防禦 配置 (271)
제17호 Drysdale機動部隊의 戰鬪 (272)
제18호 古土里—眞興里 撤收戰 (274)
제19호 美 第10軍團의 興南 撤收作戰 (287)
제20호 興南 港灣圖 (306)
제21호 興南一帶의 作戰圖 (308)
제22호 興南 撤收作戰 (311)
제23호 第3師團 作命 第61號 別紙 (358)
제24호 原州附近 地形圖 (427)
제25호 赤城里 戰鬪 (437)
제26호 韓·美海兵隊 浦項·盈德附近 戰鬪 配置圖 (685)
제27호 碌田里附近 戰鬪 (699)
제28호 餘糧里附近 戰鬪 (702)
제29호 鳳山里附近 戰鬪 (704)
제30호 車項里 進擊戰 (707)
제31호 美 海兵 第1師團 Killer作戰 (725)

제32호 美 海兵 第1師團 Ripper作戰 ……(728)
제33호 永興灣 地形圖 ……(732)
제34호 麗島 上陸戰 ……(734)
제35호 薪島—小島—大島 一黃土島 上陸戰 ……(736)
제36호 西海地區 掃海實施狀況(1) ……(750)
제37호 西海地區 掃海實施狀況(2) ……(753)
제38호 UN軍의 戰略的 部隊移動과 再反擊 ……(760)
제39호 第2次 서울奪還戰 ……(775)
제40호 서울—臨津江 進擊戰 ……(778)
제41호 鳥山—漢江線 進擊作戰 ……(820)
제42호 美 第9軍團의 長湖院—38°線 進擊戰 ……(844)
제43호 서울—38°線 進擊作戰 ……(851)
제44호 身彌島作戰 ……(884)
제45호 北共 空軍 保有飛行機 出擊可能 範圍圖 ……(896)
제46호 白鷗部隊 作戰(1) ……(900)
제47호 白鷗部隊 作戰(2) ……(902)

附　　錄

1. 附　　表 ……(1011)
2. 作命·訓令·指示 ……(1027)
3. 戰歿者 名單 ……(1198)
4. 年　　表 ……(1239)
5. 索　　引 ……(1303)

中共軍 侵略과 再反擊 作戰期

概　　說

中共軍 侵略과 再反擊 作戰期

概 說

참조 : 별책부도 제 1 호
상 황 도 제 1 호

本卷에서는 1950년 10월末, 國軍과 UN軍이 韓滿國境線까지 進擊하였다가 中共의 大擧侵略으로 全面撤收에 이어 또다시 首都서울을 그들의 手中에 넘기지 않을 수 없었고, 그후 戰勢의 挽回로 再反擊을 斷行하였으나 이 戰爭을 둘러싼 國際關係의 微妙한 움직임에 따라 이내 戰局은 膠着狀態에 빠지고, 38°線을 固定化하려는 協商氣運이 擡頭하던 이듬해 4월末까지의 狀況을 網羅하는 實로 感慨과 痛恨이 서린 錯雜한 局面을 다루게 되었다。

즉, 歷史的인 仁川上陸작전의 成功을 契機로 하여 總反擊戰을 斷行한 國軍을 비롯한 UN軍부대는 38°線을 突破한 다음, 乘勝長驅의 破竹之勢로 北進을 계속하여 이해 10월 10일에는 元山을 攻陷하고 19일에는 赤都 平壤에 入城하였으며 10월 26일에는 楚山을, 그리고 11월 30일에는 惠山鎭을 占領하는 등 韓滿國境까지 進擊하므로서 戰勝의 氣勢는 그 絶頂에 다다랐다。

이리하여 우리 民族이 寤寐에도 念願하던 國土統一의 成就가 目睫에 다달았을 때에 참으로 奇想天外로 中共 大兵團의 同時侵略을 받게 되어 戰勢는 逆轉되고 我軍은 朔風雪寒속에 恨많은 全面撤收를 斷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듬해 1월 4일에는 또다시 首都 서울을 兇敵의 手中에 넘기지 않을 수 없게 되자, 男負女戴로 避難길을 재촉하는 數十萬의 放浪隊列은 南行 길을 메우고 怒濤와 같이 밀려든 胡虜의 발굽아래에 蹂躙된 被侵地區의 慘酷相을 빚어 우리 民族의 受難은 이에 더할 바 없었다。

그러나 國軍과 UN軍은 계속 侵攻하는 中共을 三陟—高山線에서 우선 막아내는데 成功하고 다시 戰力을 增強하여 再反擊을 加하므로서 같은해 3월 14일에는 首都를 再奪還하는 즉시로 38°線을 直衝하였으나 敵의 抵抗도 또한 만만치가 않아서 이 뒤의 戰局은 錯雜無雙한 紛戰으로 混迷狀態에 빠지고 말았다。

한편 이와때를 같이하여 美 行政府의 消極的인 政戰兩略과 UN軍司令部의 積極的인 殲滅

戰略의 相互乖離는 Truman大統領과 MacArthur元帥 사이의 深刻한 對立과 軋轢으로 飛火되고 마침내 4월 11일 同元帥의 解任까지 보게 되므로써 戰局은 制限된 局地戰으로 性格지워지고 이러한 事態를 收拾하기 위하여 또다른 形態의 國土分斷의 불씨를 던지는 怪異한 國際樣相을 露呈하게 되었다。

다음에서 中共軍의 侵入經緯의 概要와 이에 대한 UN의 動向 및 主要戰鬪의 經過의 大略에 이어 國內政情의 一班을 敍術코자 한다。

1. 中共軍의 侵略 : 中共軍의 韓國 侵略說은 戰爭의 勃發과 함께 끈질기게 나돌았고 또한 그 可能性에 대하여 區區한 臆測도 있었으나 北共의 潰滅로 中共은 그 時期를 노친것으로 判斷되었다. 왜냐하면 國軍과 UN軍이 洛東江 戰線에서 防禦하는 時期라면 그들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나 國軍이 이미 韓滿國境에 殺到한 時點에서는 制空權의 一方的인 掌握과 完勝直前인 地上軍의 戰況으로 보아 그 目的을 達成할 수 없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 中共의 侵略은 北共의 南侵當初부터 이미 決定되어 있었으나 두가지 理由로 곧 斷行하지 않고 다만 大兵을 滿洲에 집결시키면서 戰況의 推移를 觀望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진다. 그 理由의 첫째는 美國이 支援하지 않을 경우 國軍의 戰力을 微弱한 것으로 보아 鐵鞭一觸으로 推斷하였고, 둘째는 中共 自身의 內部事情때문이었다。즉 國民政府와의 內戰끝에 大陸을 席捲하여 政權을 樹立한지 一年도 되지 않은 그들 自體의 脆弱性과 疆界문제의 未決, 그리고 印度와의 國境 紛爭등 實로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까닭이다。

그러나 國軍과 UN軍이 50년 10월 1일에 38°線을 突破한 以來 敗退하는 敵을 追擊하면서 北進을 계속하여 이해 10월 末에 韓滿國境線까지 進擊하므로써 그들의 運命이 百尺竿頭의 危機에 直面하였을 때 마침내 中共은 韓國戰線에 그들의 軍隊를 侵入케 할 名分과 口實을 찾게 되고 또한 어느面에서는 切迫感마저 느끼기에 이른 것이다。

中共은 北共의 南侵이 開始되자 곧 韓滿國境線으로 兵力을 계속 集結시켰는데 이에 대하여 Acheson 國務長官은 9월 10일에 이르러 聲明하기를 『中共軍의 韓國侵略은 中共 自身의 滅亡을 招來할 뿐이다』라고 警告하였다。

또한 MacArthur元帥도 10월 5일에 이미 中共軍 36個師團의 滿洲移動과 18個師團의 國境線 配置를 是認하였다。

한편 中共 外相 周恩來는 9월말에 말하되 『이웃나라가 外勢에 의해서 侵略당하는 것을

袖手傍觀만 하지는 않겠다』라고 侵略의 可能性을 비쳤고 中共政府도 正式으로 이것을 뒷받침하는 성명을 發表하였다。

그러나 自由陣營은 이러한 發言을 單純하게 받아 넘기므로써 侵略行爲는 하지 않을 것으로 看做하였다. 또한 UN軍司令官 MacArthur 元帥도 10월 15일 Wake島에서 Truman大統領과 會談당시 現地 情勢에 關한 報告에서 中共軍의 向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披瀝하였다。

『中共은 滿洲에 40萬이상의 大兵力을 集結하고 있음이 事實이나 나의 專門的인 知識으로 判斷할때 UN軍이 優勢한 空軍力을 確保하고 있는 以上 中共의 指導者가 大規模의 正規軍을 韓國戰線에 投入하는 어리석은 冒險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主力은 平壤에 到着하기도 前에 UN空軍에 의해서 큰 打擊을 받고 殲滅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見解에 대하여서는 同席하고 있던 그 누구도 異論을 提起한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以上과 같은 現地 司令官의 情勢判斷과는 달리 中共은 10月 15日을 前後하여 夜間行軍과 巧妙한 欺瞞戰法으로 大兵團의 戰略 展開와 準備陣의 占領을 完了하였다。이 당시의 中共은 機械化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夜間을 利用하는 企圖의 秘匿이 容易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侵略에 즈음하여 所謂『抗美援朝』의 口號를 내세워 鼓吹하기 시작 하였는데 當時 그들의 政府 및 社會團體가 發表한 聲明의 要旨에 이르기를 『美軍이 38°線을 突破하고 北進하는 것을 北韓地域만을 奪取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中共의 本土까지 強占하려는 것이다. 中共이 美國을 反對하는 北韓의 抗爭을 支援하는 것은 곧 道義的인 責任만이 아니고 中共 自衛上의 必要에 따라 決定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이 大擧侵略에 대한 北共 金日成의 聲明에 이르기를 『中共의 參戰은 道義的인 것이며 自國의 防衛上 必要한 것』이라 하였으니 이와 같이 그들의 侵略을 마치 UN軍이 中國本土를 併呑하려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한 自衛戰爭인양 合理化하는데 狂奔하고 있었다。그러나 中共이 侵略을 敢行하게된 眞正한 目的은 따로 있었는데 당시의 西方國家들은 中共의 侵略目的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推測하였으니 곧 中共本土의 自主保全을 爲하여 라는 것, 또는 水豊댐의 保護를 위한다는 것, 或은 北韓안에 中共自身의 勢力을 扶植하고 蘇와 角逐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 여러가지 說이 區區하였다。

實際에 있어서 이러한 여러 推測은 各己 그럴사한 根據를 갖고 있으나 이는 近視眼的인 判斷이었다。中共이 國內문제가 複雜한 가운데에서도 一大冒險을 무릅쓰고 UN軍과의

決戰을 覺悟하면서 侵略을 敢行한 것은 좀더 高次元의 目的이 있었던 것이다。

즉 이해 12월 22일에 周恩來는 3個項의 休戰條件을 提示하였는데 이것은 UN三人停戰委員會의 두차례에 걸친 休戰提議를 拒否하면서 그들의 代案을 表明한 것이며 그 內容의 要旨는 韓國으로부터의 外國軍의 撤收가 其一이요, 臺灣으로부터의 美軍의 撤收가 其二아며 中共의 UN加入이 其三이다。

이같은 條件은 從前에도 主張하던 것이지만 이번에 또다시 되풀이 하여 主張하므로써 그들의 侵略目的을 그대로 說示한 것이다。

이러한 休戰條件을 分析하여 본다면 中共은 이로써 UN軍을 상대로 交戰하므로써 그들의 實存戰力을 誇示하고 나아가 UN議席을 차지하므로써 國民政府를 自然 抹殺하는 동시에 韓國에서 外軍을 撤收시키므로써 赤化一色으로 韓半島를 掌握코자 한 것이었다。

2. UN의 動向 : 11월 6일에 MacArthur元帥는 中共 侵略을 UN에 報告하기를『韓國에서 UN軍은 北方으로의 進擊을 계속하며 敵의 能力을 더욱 破壞하는데 努力중이며 그 成果를 거두고 있다. 그런데 UN軍은 지금 韓國의 一定한 여러 地域에서 새로운 敵과 遭遇중이다. 이 새로운 敵은 戰鬪部隊임이 明白하며 우리의 情報機關은 現在 UN軍과의 戰鬪를 위하여 布陣한 中共軍과 敵對的인 접촉상태에 있는 事實을 確認하였다』라고 前提하는 동시에 12個項에 達하는 侵略의 實證을 提示하였다。

한편 11월 7일에 周恩來도 侵略의 事實을 正式으로 是認하였는데 그는 덧붙여 말하기를『韓國戰線에 參加한 中共의 兵士는 正規軍이 아닌 義勇軍이다』라는 詭辯을 늘어 놓았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美國은 中共과의 戰爭을 回避하려는 誠意있는 努力을 계속 하였으나 中共은 11월 25일에 또다시 大兵團을 增強하여 攻勢를 取하였으므로 彼我의 攻守가 이와같이 逆轉되자 11월 30일에 Truman大統領은 宣言하되『如何한 事態에도 美國은 韓國을 끝까지 지키며 경우에 따라서는 原子彈을 使用하는 문제까지 考慮하고 있다』라고 하였다。또한 美國政府는 178억 $ 以上의 국방비 追加 豫算을 議會에 要請하였고 Acheson 國務長官은 言明하기를『美國民은 최악의 경우에 對備하여 一大軍備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斷乎한 決意를 表明하였다. 이와같은 美國 態度에 대하여 自由西方國家들은 차츰 不安을 느끼게 되었으며 마침내 英國 首相 Atlee는 美 大統領과의 會談을 위하여 12월 3일에 渡美한 다음 會談을 마치고 12월 9일에 共同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그 內容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兩國의 外交政策의 目的은 世界平和의 維持와 平和愛好國家의 國力增進, 그리고 民主主

義的 生活方式의 增進이다. 最近 中共에 의하여 惹起된 平和에의 挑戰에 美·英兩國은 斷乎한 決意로써 行動할 것이다. 韓國 戰線은 重大한 局面을 맞이하고 있으나 UN軍은 UN의 權限으로 派遣되었고 그 任務는 變更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地域에서도 侵略에 대하여 宥和政策을 取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交涉에 依한 韓國戰爭의 終結을 追求할 것이며 韓國문제는 平和的 方法에 의하여 解決되어야 한다』

이러한 움직임 외에도 UN會員國은 平和的 解決을 摸索하기 위한 活動을 展開하였으며 이에 발맞추어 Asia 및 Arab의 13個國 (Afghanistan, Burma, Egypt, 印度, Iran, Iraq, Lebanon, Indonesia, Pakistan, Philippine Saudi Arabia, Syria, Nepal)도 敵側에 대하여 兩侵을 抛棄하고 紛爭을 平和的으로 解決할 것을 促求하는 內容의 共同聲明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西方 6個國(美, 英, 佛, Cuba, Norway, Ecuador)은 共同決議案을 UN에 提出하였는데 그 內容은 다음의 五項으로 要約할 수 있다。

첫째—戰爭擴大와 國際危機를 防止하자.

둘째—北韓에 대한 軍事援助를 中斷하자.

세째—中共軍은 韓國에서 撤收하라.

네째—中共의 侵略은 重大한 危機를 招來할 것이다.

다섯째—中共의 權益을 保障한다.

이 決議案은 蘇聯의 反對에도 不拘하고 12월 7일에 UN政治委員會에서 可決되었다。

그러나 中共은 各國의 聲明이나 UN의 決議에도 아랑곳 없이 계속 侵攻을 恣行하였다。

12월 12일에 Asia, Arab의 13個國은 또다시 UN政治委員會에 두개의 決議案을 提出하였는데, 그 하나는 停戰을 위한 三人委員會의 設置이고 또 다른 하나는 極東의 當面 문제 해결을 위한 平和會議의 開催였다。

이에 대한 12월 13일의 表決 結果는 共產陣營의 反對에도 不拘하고 51 : 5로 第1案이 可決됨으로써 UN은 14일에 곧 總會議長(Iran代表)인 Nasrolla Enthezam과 Canada 代表인 Lestee, Bowles Pearson 그리고 印度代表인 Benegal Narsing Rau의 3人으로 委員을 任命하여 總會의 承認을 받았다。

이 三人委員會는 15日부터 事務를 開始하였으며 2回에 걸쳐 中共에 대하여 停戰을 要求하였으나 이번에도 中共은 이를 拒否하면서 앞서 言及한 바 있는 3個項으로 된 休戰條件을 12월 22일에 되풀이 提示하였다. 이렇게 되자 三人委員會는 다음 해 1월 2일에 中共과

의 停戰交涉에 失敗한 事實을 UN에 報告하였다。

그러나 三人委員會는 停戰을 위한 새로운 決議案을 1월 11일에 UN政治委員會에 提出하였는데 그 內容을 要約하면,

첫째로 即時 停戰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措置가 새로운 攻勢를 위한 準備期間이 안되도록 保障한다.

둘째로 停戰이 成立될 때에는 곧 平和回復을 위한 다음 方策을 講究한다.

세째로 韓國에서의 外國軍의 撤收와, 韓國民의 自由로운 意思表示를 保障한다.

네째로 上記의 모든 措置가 完了될 때까지 UN은 韓國의 行政을 管理한다.

다섯째로 臺灣문제와 中國의 UN代表權문제등 極東문제 해결을 위한 美·英·蘇 및 中國의 4個國會議를 開催한다.

이 5個項의 決議案은 1월 13일의 表決에서 45 : 5(기권 8)라는 壓倒的인 多數로 可決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 政府에서 1월 19일字로 要旨아래와 같은 抗議文을 提出하였다。

『韓國政府는 UN 三人委員會가 韓國戰爭의 平和的 解決을 위한 계속적인 努力에 感謝한다. 그러나 同 委員會에서 提案한 重要項目을 韓國政府로서는 受諾할 수 없다. 왜냐하면 中共은 모든 의미에 있어서 實際의 侵略者이니만큼 韓國 문제 解決에 中共이 參與하는 것을 反對하며 또한 4個國 會議는 實行 不可能하기 때문이다』라는 內容이었다。

한편 中共은 1월 17일에 이 決議案마저 拒否하고 早速한 停戰을 위하여 7個國(美·英·佛·蘇·中共·印度·Egypt)會議를 中共에서 開催하자는 등 한술 더 뜨는 잠꼬대를 늘어놓았다。

이에 UN의 一角에서는 UN의 權能을 蔑視하고 弄絡하는 이러한 中共의 無誠意하고 不遜한 態度에 대한 彈劾論이 擡頭하게 되었다。

그러자 中共은 1월 22일에 UN에 正式으로 새로운 提案을 하였는데 그 內容에 이르기를 『萬若 UN이 全極東문제를 討議하기 위한 會談을 開催한다면 協商의 첫 段階로서 條件附 休戰을 討議하는데 同意한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자 各國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2월 1일에 UN總會에서 『中共을 侵略者로 規定』하는 美國의 決議案을 44 : 7(기권 : 9)이라는 壓倒的 多數로 可決하였다。

그後에도 UN은 계속해서 韓國戰爭의 終結을 위하여 可用할 수 있는 모든 外交 經路와 方策을 通한 協商으로 平和的 解決을 摸索하는 一方으로 侵略者를 膺懲하기 위한 斷乎한

集團安保態勢도 아울러 展開하였다. 즉, UN機構內에 設置된 集團對策特別委員會와 三人調整委員會는 UN의 二大路線을 代表한 것으로써 前者는 侵略軍에 對한 UN의 確固不動한 集團行動을 계속하는 것이었고 後者는 平和的인 方法에 의한 戰爭의 終結方式을 摸索하자는 것으로서 武力충돌의 擴大를 防止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UN의 모든 努力은 中共의 拒否로 말미암아 그 實效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그 뒤에도 이러한 努力은 끈질기게 推進되어 마침내 韓半島를 또 다른 形態로 兩分하려는 周到한 策略이 胚胎하게 되었다.

3. 戰鬪의 經過：期間中의 戰鬪經過를 槪觀하면 大略 다음과 같은 作戰으로 크게 區分할 수 있다.

첫째—10월 26일 부터 敢行된 全 UN軍에 의한 國境 進擊作戰.

둘째—年內까지의 決戰終結을 目標로 11월 24일에 斷行된 總攻擊作戰.

세째—中共軍의 大擧侵攻에 對備하는 第2次 38°線 防守作戰.

네째—第2次 反擊作戰.

가. 國境 進擊作戰：이 作戰은 50년 10월 25일에 敢行되었는데 作戰開始 直前의 軍事情勢의 大要는 다음과 같다. 東部戰線에서는 第1軍團이 快速的인 進擊을 계속하여 元山—咸興을 거쳐 北靑 北方까지 進出하였으며 西部戰線은 10월 19일에 平壤을 占領하고 이어서 21일에는 美 第187空輸部隊를 順川에 投下하여 後退하는 敵의 退路를 遮斷하고 地上攻擊軍과 함께 敗退하는 北共을 前後挾攻으로 섬멸한 다음 淸川江까지 進擊하였다.

敵의 狀況을 볼때 北共은 이제 組織的인 軍事力을 喪失하고 完全 崩壞直前에 놓이게 되었으나 滿洲에 集結中인 中共은 10월 15일을 前後하여 그 一部가 鴨綠江을 건너 北韓山岳地帶에 配置를 完了하였다. 더구나 이 當時 中共과 北共은 合同司令部를 滿洲의 長春에 設置하여 戰線에 投入된 戰鬪部隊를 統合 指揮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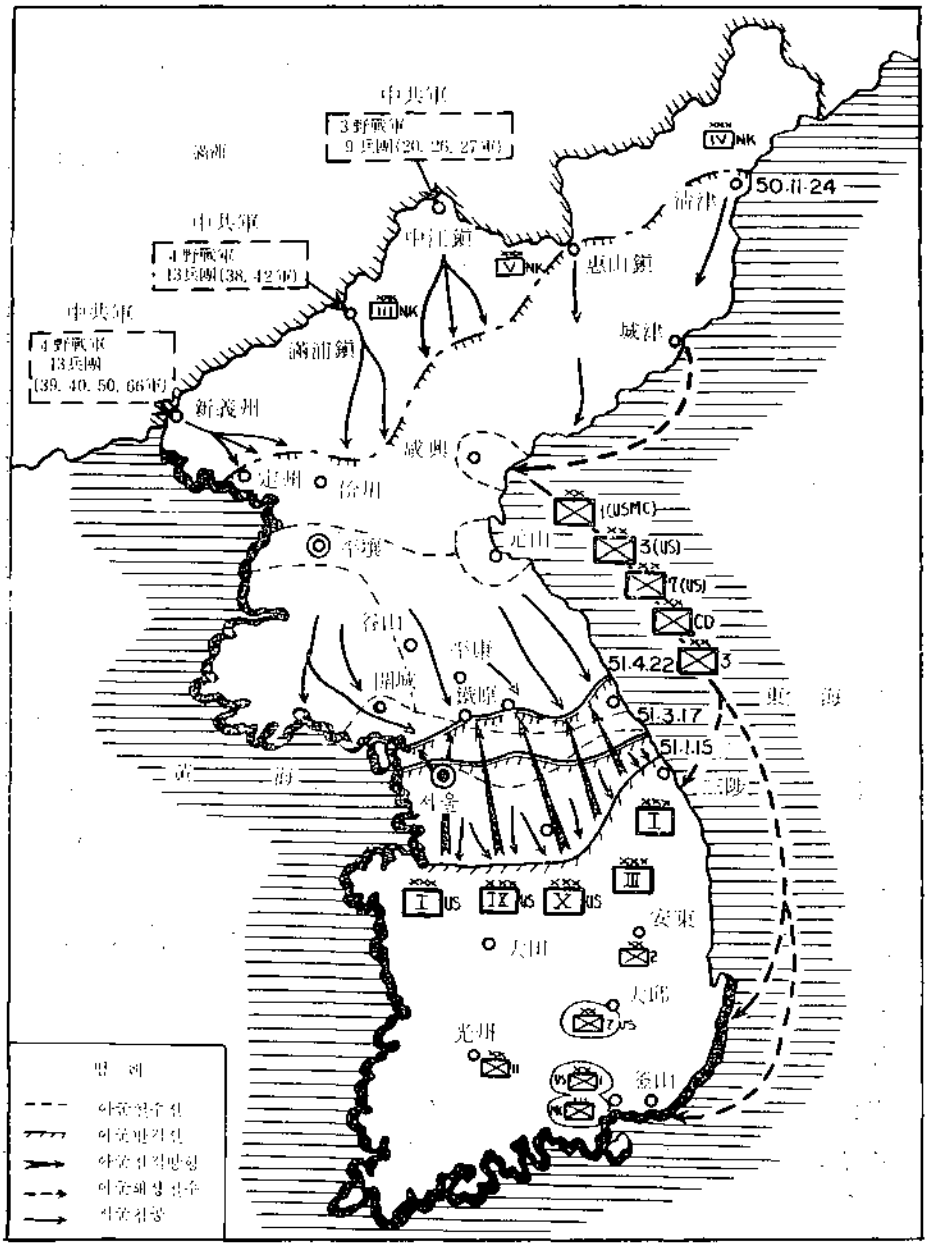
당시 共産軍의 兵力은 東部戰線에 中共 1個軍과 北共의 3個軍團이 있었고 西部戰線에는 中共 第13兵團의 5個軍과 北共 第1軍團이 있어서 그 總兵力은 300,000명에 達하고 또한 我軍 後方地域에는 數個師團의 敗殘兵으로 編成된 20,000명이 出沒하고 있었다. 그러나 破竹之勢로 北進하는 國軍과 UN軍에 대하여 敵은 이 程度의 兵力으로서는 決定的인 打擊을 加하여 阻止할 수는 없었으며 攻勢作戰으로 轉換하기 위하여는 더욱 많은 增援軍의 到着을 기다려야만 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臨機로 그들의 戰略展開를 暴露함이 없이 UN軍의 進擊을 一旦 阻止

하고 後續部隊의 來着을 기다려 決定的인 攻勢로 移行할 것을 決定한 것으로 判斷된다。

反面에 國軍과 UN軍은 여러가지 制限된 條件下에서 戰爭을 遂行하여야만 하였다. 즉 38°線을 突破한 다음 비록 順調로운 北進을 계속하고는 있지만 兵力에 比하여 擔當正面이

상황도 제1호 종합전황 (50.11.~51.4.22)



너무나도 廣大하고 東西 兩 戰線사이의 稀薄性이 있었으나 이 以上의 兵力의 增強을 期待할 수 없었고 그 反面에 앞으로의 戰線은 漸次로 擴大되어 國軍만으로는 擔當하기 어려운 正面이었다. 당시의 UN軍司令部는 韓滿 國境線으로의 進擊을 國軍만의 힘으로 限定하려 하였다. 왜냐하면 國軍以外의 모든 UN軍이 國境線까지 突進하므로써 發生할수 있는 副作用을 防止하자는 政略上의 配慮에서 였다。

위와 같은 不利한 情勢下에서 冬季作戰을 避하고 戰爭을 迅速히 終結하기 위하여서는 國軍만으로서 國境線에 進出시킬 것이 아니라 全 UN軍의 北進을 許容하므로서 迅速히 國境線을 確保케 하여 中共과 蘇聯의 軍事的 介入을 防止하여야만 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進擊速度를 늦추지 않고 北進을 서둘렀고 또한 進出에 따르는 敵의 衝力에 拘碍됨이 없이 오직 迅速한 進擊만이 要請되는 것이었다。

10월 25일 現在로 彼我의 接觸線은 淸川江口에서 비롯하여 博川—雲山—楚山—熙川—古土里—端川을 連하는 線이었는데 그 다음날인 25日에 作戰을 開始하자 淸川江北岸에서의 敵의 抵抗이 意外로 輕微하여 我軍의 進擊은 豫想보다도 順調로왔으나 이날 夜暗을 利用하여 中共軍은 喇叭를 불고 꽹과리를 치는 등의 奇想天外의 戰法과 人海戰術로써 反擊을 敢行하였다。

全般的으로 볼때에 共產軍은 東部戰線에서는 持久戰을 實施하였고 西部戰線에서는 先制攻擊을 主로 하였는데 特히 山岳地帶를 擔當한 國軍 正面에 力攻의 焦點을 指向하였다

즉 西部戰線의 京義本線을 中心으로 西海岸에 沿하여 作戰하는 UN軍(美 第1軍團)을 宣川 北方에서 龜城을 連하는 線까지 깊숙히 誘引하는 한편 第2軍團 正面을 突破한 다음 平壤으로 直衝하므로서 美 제1軍團을 淸川江 北岸에서 포위하려는 企圖인듯 하였다。

雲山과 溫井里에서 戰線을 突破한 中共이 价川을 危脅하게 되자 第8軍司令官 Walker中將은 美 第1軍團을 淸川江線까지 撤收시키는 同時에 可用한 豫備兵力을 第2軍團에 增援하여 中共軍의 南下를 阻止케로 하였다。

東部戰線에서는 進擊作戰이 順調롭게 進行되어 國境都市 惠山鎭과 東海岸의 港口都市 淸津을 奪還하였으나 西部戰線에서는 淸川江까지 撤收하고 또한 第2軍團이 价川地區에서 反擊을 斷行하자 敵은 11월 6일을 고비로 하여 一旦 南攻을 멈추고 北方으로의 退却으로 移行하게 되었다。

나. **總攻擊 作戰** : 國境進擊作戰末期에 不期의 中共 攻勢으로 苦戰하였으나 兵力을 增強하고 戰線을 整理한 然後 이달 24일을 期하여 再次 攻擊을 展開하게 되었으며 이 作戰을

斷行함에 즈음하여 MacArthur司令官은 麾下 參謀와 數名의 記者를 帶同하고 이날 아침 同 攻擊을 參觀하기 위해서 清川江岸에 位置한 美第8軍司令部에 이르러 要旨 다음과 같은 聲明을 發表하였다。

『共產軍에 대한 UN軍의 새로운 大規模包圍殲滅作戰은 이제 決定的인 段階에 突入하였으니 이 攻攻作戰을 成功的으로 遂行하기 위해서 敵 兵力의 分散孤立化를 企圖한 UN軍 航空機는 지난 數週間에 걸쳐 效果的인 空中爆擊을 계속하여 北으로부터의 敵 兵站線을 遮斷하는데 成功하므로서 그들에 대한 兵力 및 軍需品의 前方補給이 顯著히 줄어든 가운데 我軍은 이날 아침 西部戰線에서 總攻擊을 斷行하여 계속 前進中에 있고 또한 東部戰線에서도 海軍의 強力한 支援下에 北方의 有利한 地形에서 抵抗하는 敵을 包圍하고 계속 壓迫하여 潰滅을 催促하고 있다。이리하여 이 作戰에 成功하면 이 戰爭은 事實上 終熄될 것이며 이로써 韓國은 統一을 成就할 것이다』

그러나 이 當時만 하더라도 中共의 戰線 加入이 確認되기는 하였으나 그들의 侵略의 目的과 作戰의 方案은 勿論 兵力의 規模나 配置등에 대하여는 全혀 그 眞相이 確認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侵韓 現在의 中共兵力이 70,000名을 超過하지 못할 것으로 過少評價하고 있었다。

그러나 當時의 中共軍의 狀況을 본다면 東部戰線에 새로이 陳毅가 指揮하는 中共 第3野戰軍의 第9兵團 隷下 3個軍(第20, 26, 27軍)이 中江鎭 方面에서 國境을 넘어 東北部 戰線에 投入되었고 그때까지 江界 以東에서 作戰中이던 中共 第42軍은 興南方面으로 移動하였다 또한 支離滅裂되어 潰壞 直前에 있던 北共은 滿洲의 間島와 吉林一帶에서 兵力을 收拾再編成하는 한편, 第6, 第7 및 第8軍團을 創設하여 再次 戰線投入을 企圖하고 있었음이 判明되었다。

당시 그들의 兵力配置 現況을 볼때에 東部 戰線에는 中共 第20, 第26, 第27의 3個軍과 北共의 第3, 第4, 第5의 3個 軍團이 그리고 西部戰線에는 中共 제38, 제39, 제40, 제42, 제50, 제66의 6個軍과 北共 1個軍團이 各各 戰略展開하였다。

그들의 作戰計劃으로서는 『決定的인 反擊으로 轉換하여 中部 山岳地帶에서 戰線을 突破分斷하는 동시에 UN軍 戰線 後方에서 逆擊中인 北共 第2軍團과 서로 呼應하므로써 UN軍의 退路를 遮斷하여 포위 격멸한다』라는 內容인 것으로 判斷되었다。

한편 我軍도 戰線兵力을 增強하여 美 第10軍團은 10月下旬에 元山에 上陸하여 11月初에 東部戰線에 參加하였고 또한 戰線 後方에서 北共의 逆擊軍團을 追擊中이던 美 第9軍團이

北上하여 西部 戰線에 投入되었으며 11월에는 Philippine, 濠洲, Turkey, 泰國, Netherland 佛蘭西, Canada軍등이 戰線에 到着하여 UN軍에 編入 合勢하였다。

我軍의 部隊 配置를 보면 東部에서는 第1軍團이 海岸線을 따라 계속 北進하여 美 第10軍團과 함께 東北方向의 國境線을 向해서 進擊하였으며 西部에서는 東쪽으로부터 第2軍團, 美 第9軍團, 그리고 美 第1軍團의 順으로 進出하였다。

그리하여 이 戰爭을 年末까지는 終結할 것을 目標로 이달 24일에 總攻擊을 斷行하기에 이른 것이다. 攻擊初日에는 敵의 抵抗이 輕微하였으나 다음날 밤부터 敵은 大規模의 兵力으로 反擊을 開始하였다。

즉 中共 第66軍과 北共 第1軍團은 定州—博川으로 또 中共 第39軍은 泰川—龍山洞으로 그리고 第40軍은 雲山—寧邊과 价川으로 그 다음 第38軍은 熙川—球場洞—德川으로 또 끝으로 第42軍은 寧遠으로 各各 攻擊하였고 東部의 中共 第9兵團은 3個軍을 同時에 集中的으로 長津湖地區로 投入하였다。

이와같이 宣戰布告 없는 不時 奇襲의 大兵團의 強襲을 받게되자 國軍과 UN軍은 文字 그대로의 血戰을 展開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雲山地區에서는 第1師團과 美 第1機甲師團이 死力을 다하여 敵의 南進을 阻止하였고 价川—軍隅里地區에서는 美 第2師團과 Turkey 旅團이 勇戰 奮鬪하였으나 戰線이 漸次로 安州—价川線으로 壓縮되었다. 特히 第2軍團 正面인 德川—寧遠間에서 激戰을 展開하여 28일에는 敵이 德川 南方 35km까지 南下하자 美 第8軍司令官 Walker中將은 西部戰線의 各部隊를 淸川江線까지 撤收하도록 命令하였다。

全혀 豫期하지 못하였던 狀況에 直面한 MacArthur元帥는 美合同參謀本部에 中共軍의 大擧侵入에 關한 報告를 한데 뒤이어 28日에는 美 第8軍司令官 Walker中將과 第10軍團長 Almond少將을 東京으로 急遽 召還하여 當面한 情勢를 檢討하고 狀況을 分析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韓半島에서 가장 좁은 地域인 元山—陽德—成川—順川—淸川을 連하는 線에서 防禦할 것을 決心한 다음 部隊의 撤收를 서둘도록 命하는 한편, 要旨 다음과 같은 聲明을 發表하였다。『過去 4日間의 戰鬪에서 UN軍은 200,000名 以上의 中共 正規軍과 交戰하였으며 滿洲에는 強大한 兵力이 集結中이고 이들은 不斷히 前線으로 移動投入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全혀 새로운 戰爭에 直面하고 있으며 이러한 事態는 急速한 戰爭終結과 UN軍의 早速한 韓國撤收의 希望을 挫折시키고 말았다. 이제 問題의 解決은 UN軍司令官의 權限밖에 있으며 UN에서나 또는 美 行政府에서 政治的으로 解決하는 길만이 可能하다』

또한 MacArthur元帥는 12월 3일자로 다음과 같은 要旨의 電文을 美 合同參謀本部에 보냈다。『今番中共의 大擧侵入에 對處하기 위하여 最大級의 地上軍 增援部隊를 急派하지 않는 限 UN軍은 漸次 後退를 強要當할 것이며 軍實上 小數의 우리 군대는 宣戰없는 戰爭에 있어서 大規模 中共軍과 一大苦戰을 免치 못하고 있으며 어떤 積極的인 軍事行動이 곧 取해 지지 않는 限 勝利의 希望은 거의 없을 것이고 마침내 破滅로 끝나가는 것이 當然히 豫測된다. 따라서 政府로서는 앞으로 惹起되는 事態에 充分히 對處할 수 있는 政治的 決定과 戰略的 計劃에 대한 斷案을 곧 내려주기 바란다。』

이와같은 報告를 接한 Truman大統領은 이에 대한 MacArthur元帥의 眞意와 戰況을 把握키 위해서 참모총장 Colins大將을 東京에 急派하였다。

Colins大將을 맞은 MacArthur元帥는 美國이 取할수 있는 세가지 可能한 方策을 提示하였다. 즉 첫째, 局部的인 制約밑에서 從前과 같이 戰爭을 계속하는 것, 둘째 中國本土를 爆擊하고 中共沿岸을 封鎖하며 國府軍을 韓國戰線과 中共沿岸에 投入시켜 戰爭을 擴大하므로써 中共을 強壓하는 것, 세째 中共軍으로 하여금 38°선 이북에 남도록 한채로 UN監視下의 休戰에 同意하는 것. MacArthur元帥는 이상 세가지 方案中 둘째案을 贊成한다고 建議하는 한편 萬一의 경우 세째案도 無効하다고 留保하였다. 그러나 이 建議는 Truman 大統領의 다음과 같은 回信에 依해서 拒否되었다。

『全面戰을 각오하면서까지 韓國戰線에서 中共과 對決할 수는 없으며 貴官은 今後 日本에 대한 威脅을 계속적으로 고려할 것이며 따라서 우리 軍隊가 撤收를 決行할 適當한 機會가 언제인가를 미리 決定하기 바라며 또한 貴官이 使用할 수 있는 군대는 제8군밖에 없다는 것을 考慮하기 바란다』

한편 西部戰線에서는 部隊를 撤收하여 淸川과 順川사이에 第1師團과 美 第25師團을 配置하고 成川에 第2軍團을 配置하여 平壤을 防守키로 하였으나 12월 3일 成川이 突破되자 國軍과 UN軍은 12월 4일에 平壤을 撤收하였고 臨津江과 38°線에 沿한 새로운 防禦線을 形成키로 하였다。

東部戰線에서도 12월 1일부터 撤收를 開始하였으니 第3師團은 惠山鎭에서, 首都師團은 淸津에서, 그리고 美 第10軍團主力은 長津湖地區에서 각각 兼進하면서 最短時日內에 海岸線으로 撤收集結하였다。

首都師團은 12월 1일에 淸津에서 吉州로 撤收를 完了하고 5일에는 城津으로 移動한 다음 12월 7일에 師團司令部와 第18聯隊는 輸送船을 利用하여 興南으로 그리고 第1聯隊와

機甲師隊는 8일에 陸路로 興南으로 各各 撤收하였다. 이렇게 하여 師團은 12월 18일에 輸送船으로 巨濟를 거쳐 다시 江陵으로 北上하여 第9師團으로부터 東海岸을 沿한 防禦正面을 引受받고 中共軍의 南下에 對備하였다.

한편 第3師團은 撤收命令에 따라 12월 3일에 兵力의 損失없이 部隊를 吉州로 撤收하는데 成功하고 5일에는 城津을 거쳐 10일에 西湖津으로 上陸할 豫定이었으나 計劃이 變更되어 12일 釜山으로 上陸하였고 途中에 第23聯隊는 九龍浦로 上陸하였으며 그 後에 師團은 다시 北上하여 漢川北方을 占領하게 되었다.

長津湖 方面에서는 美 第1海兵師團과 美 第7師團의 一部가 中共3個軍과 北共 제3군단에 包圍된 결과 美空軍의 近接支援을 받으면서 凄絶한 抵抗을 계속한 끝에 水洞里에서 美 第3師團과 連結하는데 成功하므로써 包圍網을 突破하고 12월 11일에는 咸興으로 移動 集結하게 되었다.

以上과 같이 東部戰線의 國軍과 UN軍이 興南에 集結한 다음 海上 撤收를 斷行키로 하자 敵은 人海戰術로 興南 橋頭堡의 突破를 決意하게 된듯 하였으나 美 第10軍團은 海軍艦砲의 支援을 받으면서 遲延戰을 敢行하는 가운데 我軍은 12월14일부터 人員의 搭乘과 裝備의 積載를 始作하였으며 이윽고 24일에는 그 有名한 興南撤收作戰을 成功的으로 끝마치게 된 것이다. 이 作戰에서 敵은 感히 人間으로서는 想像하기도 어려운 凄絶無比한 人海戰術로 말미암아 3個師團 規模의 兵力損失을 보면서까지 斷末魔的인 發惡으로 撤收妨害를 꾀하였으나 我軍은 若干의 損失끝에 兵力 110,000名과 民間人 100,000名을 비롯하여 車輛 17,500輛와 荷物 350,000ton을 193隻의 船舶으로 海上機動하여 그 撤收目的을 達成하였다.

다. 第2次 38°線 防守作戰 : 興南에서의 撤收作戰을 完了하자 軍은 襄陽—春川北方—漣川—臨津江을 連하는 새로운 防禦線을 占領하였는데 12월 23일에 美 第8軍司令官 Walker中將은 事故로 戰死하고 後任에 Matthew B. Ridgway中將이 任命되어 26일에 赴任하였다. 新任 司令官은 赴任하는 즉시로 戰線任務部隊를 視察하고 連日 계속되는 激戰으로 피로의 기색이 감도는 將兵의 士氣를 북돋우면서 南下하는 敵을 阻止 擊退코자 하는 決意를 굳혀 나갔다.

한편 中共은 12월 6일에 平壤을 奪取한 다음 11일에 沙里院을 거쳐 24일에 金川과 開城으로 肉迫하였다.

이 당시 北共 第1軍團은 西海岸 地區로 南下하여 中共 第13兵團과 合勢한 다음 平壤에 進入하여 部隊를 整備한 然後에 계속 南侵한 끝에 開城 正面에 配置되었고, 第2軍團은 洛

東江 戰線에서의 敗殘兵으로 構成된 20,000名으로 中部山岳地帶에서 遊擊戰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南下한 北共 제5군단과 合勢하여 12월 下旬에는 華川 以東의 東部戰線에 進出한후 계속 我軍의 陣地後方으로의 侵勢을 劃策하였다。

또한 北共 제3군단은 長津湖—咸興—元山—金城을 經由하여 12월 下旬에는 38°線一帶의 東海岸 地域에 集結을 完了하는 즉시로 방어 임무를 겸하면서 豫備로 運用되었다。

또 北共 제4군단은 東海岸을 따라 北進하는 國軍 第1軍團의 正面에서 敗退를 거듭하여 清津 北方까지 後退하였다가 國軍이 撤收함에 따라 南下하여 興南 橋頭堡를 攻擊하는 中共軍에 加勢한 다음 西部로 移動하여 平壤地域과 西海岸 地域一帶를 占領하였다。

北共 제5군단은 江界一帶에서 部隊를 再編成 한다음 寧遠—陽德—谷山으로 南侵하여 北共 제2군단과 合流하였고 12월 下旬에는 38°線 一帶의 中東部 山岳地帶에 投入되었다。

이와같이 北共의 各 軍團이 38°線一帶에 集結을 完了하자 中共軍은 38°線을 넘어 攻擊할 氣勢를 보이기 始作하였고 그 總兵力은 450,000名에 達하였다。

反面에 38°線 방어를 위한 國軍과 UN軍의 配置狀況을 보면 東海岸으로부터 第1, 第3의 兩軍團과 美 第9軍團 그리고 西部에 美 第1軍團이 配置되었으나 이를 師團別로 볼때 美 第24 第25의 兩師團과 Turkey旅團을 除外하고는 모두 韓國軍師團으로 配置되었었다。(別冊附圖제1호參照)

이리하여 50년 12월 30일을 期하여 中共 6個軍과 北共 3個軍團을 包含한 大兵으로 同時에 一大 攻勢를 取하였는 바, 그 主攻을 東豆川—議政府—서울에 指向하고 助攻을 鐵城—汶山과 華川—春川 및 麟蹄—驪里등에 두면서 波狀的으로 戰線의 突破企圖를 反復하였다. 西部 戰線에서는 1월 2일에 汶山과 東豆川까지 南下하였고 漣川—東豆川과 金化—抱川의 兩 方面에서 挾攻하는 中共軍은 1월 3일 議政府까지 南侵하였으며 더구나 中部戰線의 洪川—橫城地區에서의 戰況이 不利하게 되자 我軍側은 漢江을 건너 서울에서 撤收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鐵城—汶山方面의 北共 第1軍團은 1월 4일에 서울로 突入하고 이어서 漢江을 건너 一部는 仁川으로 向하는가 하면 그 主力은 水原을 直衝하였다. 한편 中共軍은 7일에 水原을 거쳐 8일에는 烏山까지 南下하여 새로운 戰線을 形成하였다。

서울을 撤收한 我軍側은 곧 三陟—寧越—長湍院—烏山을 連하는 새로운 防禦陣地를 占領하고 反擊作戰을 準備하였다。

中部戰線에서는 春川으로 進入한 中共軍이 1월 4일에 洪川, 6일에 橫城까지 南下하였고 兵力을 더욱 增強하여[原州市에] 壓力을 加하므로써 我軍의 防禦線을 突破分斷하여 서울을 側方에서 威脅하고 UN軍의 방어선 後方을 遮斷하려는 듯 하였다. 이에 UN軍은 1월

8일에 敵이 原州에 侵入하자 美 第10軍團을 投入하여 다음날인 9일에 南進하는 敵의 鋭鋒을 鈍化시키는 反擊遲延戰을 敢行하여 國軍과 UN軍의 撤收作戰을 掩護하는 한편, 敵의 作戰企圖를 분쇄하여 버렸다。

東部戰線에서는 北共 제2軍團이 麟蹄地區에서 38°線을 突破하고 戰線 後方으로 侵透하여 1월 15일에는 平昌—寧越을 占領한 다음 安東까지 南進하여 鐵路와 道路등을 遮斷코자 하였으나 第2師團과 海兵隊 그리고 警察隊의 反擊으로 그들의 南下는 全般的으로 阻止되었고 侵透에 成功한 北共 제10사단 一部兵力도 그후 極甚한 食糧不足과 疲傷으로 오래 견디어 내지 못하고 겨우 목숨만을 救하여 潰走하고 말았다。

한편 戰線 正面의 北共은 山岳地帶를 헤치면서 第9師團 正面의 西林地區로 侵透한 다음 28日에는 五臺山—泰岐山을 따라 南侵하였다. 이와같이 第9師團의 狀況이 危急하여 지자 師團과의 連結을 위하여 首都師團이 進擊하기 시작하였으나 左側에 있는 第3軍團 當面의 敵이 이미 橫城까지 侵攻하므로써 第1軍團은 1월 6일에 防守線의 均衡을 維持하기 위하여 黃牛線을 占領한 다음 陣地를 強化하였다。

라. **第2次 反擊作戰**：이미 말한대로 서울 撤收 以後의 防禦線은 大體로 三步—寧越—堤川—長湖院—烏山을 連結하는 線이었고 我軍은 東海岸 戰線에 第1軍團, 中東部 山岳地帶에 第3軍團, 中部戰線에 美 第10軍團 그리고 長湖院 北쪽에서 安城間에 美 第9軍團이 配置되었고 그 以西에 美 第1軍團이 各各 配置되었다。

그러나 南侵을 계속하던 中共軍은 1월 10일을 고비로 그 進擊을 멈추므로써 戰線이 小康상태를 이루던 이달 15일에 美 陸軍參謀總長 Colins大將이 來韓하여 戰線을 視察하고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이르기를 『UN軍은 韓國에 끝까지 머무를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中共軍의 能力을 지나치게 過大評價하였다. UN軍은 充分히 中共軍을 粉碎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와 同時에 UN軍은 敵의 配置와 作戰企圖를 探知하고 아울러 敵의 次期攻勢를 事前에 擊破하기 위하여 各 部隊에 Wolf Hound作戰이라고 命名한 戰鬪偵察을 實施토록 하였는데 그 結果 敵의 進出線은 驪州—水原線 北쪽이며 계속 南下할 徵候도 보이지 않았음을 確認하게 되었다。

이에 UN軍은 敵에 대한 打擊을 極大化하고 38°線까지 再奪還할 것을 目標로 1월 25일에 Thunderbolt作戰을 展開하여 一大 反擊을 加하기로 하였으며 이때에 下達된 美 第8軍의 作命要旨를 보면 『1월 25일 07.30을 期하여 驪州—利川—水原과 漢江을 沿하는 線에서 搜索戰을 展開하여 敵의 集結部隊를 攪亂 分散시키고 兵力과 物資에 대하여 最大限의 損失을

加하라』는 것이었는데 地域의 奪還보다는 兵力을 殺傷하고 補給品의 損失을 強要하는 것이 이 作戰의 主目的이었다. 그리하여 이 作戰에 이어 Round up作戰을 계속하였는데 各 戰線에서의 戰鬪 經過의 大要는 다음과 같다。

東部 戰線—第1軍團은 黃牛線(三陟—寧越間)을 계속 維持하면서 1월 20일에 北쪽에 대한 搜索戰을 벌였으나 別다른 接敵은 없었고 1월 25일에 第7師團에 의한 寧越攻擊으로 當面의 敵은 崩壞하기 始作하였으므로 다음날인 26일을 期하여 全正面에서 攻擊으로 移轉하여 2월 3일에는 江陵—下珍富里—倉里北方—平昌—酒泉里를 連하는 線까지 進出하였다。

한편 東海岸에서 松溪里사이에 配置된 首都師團은 1월 22일 以後부터 陣地를 補強하였는데 이 地域의 敵은 正規軍이 아닌 遊擊部隊이므로 커다란 接戰없이 다만 西側에 있는 第3軍團의 狀況에 顧慮하면서 北進을 계속하여 2월 3일에는 江陵를 奪還하고 11일에는 38° 線을 넘어서 襄陽까지 進出하였다。

中部戰線—1월 13일부터 23일까지는 橫城—原州地區에서 美 第10軍團이 中共軍과 一進一退의 激戰을 展開한 끝에 1월 28일에 橫城을 奪還하고 2월 3일에는 平昌을, 4일에는 邱平을 攻略하자 敵은 그 威勢에 눌려 드디어 2월 7일부터 全戰線에서 退却하기 始作하였다. 그러나 敵은 部隊를 再整備하고 兵力을 增强하여 2월 12일에 逆襲(所謂 中共軍의 2月 攻勢)을 開始하여 13日에 다시 橫城에 突入하여 第5, 第8의 兩師團과 激戰을 展開하였으며 邱平과 原州地區에서는 美 第2師團과 함께 佛蘭西 大隊와 Netherland 大隊가 敵 4個師團에 依하여 包圍를 當하여 苦戰하였으나 優勢한 空地火力으로 분쇄한 결과 끝까지 固守하다가 2월15일에 美 第9軍團 일부의 增援으로 包圍網을 突破分斷하였으며 이로써 中共은 도합 30,000名의 兵力損失을 보면서 18일부터 退却하기 시작하였다。

西部戰線—美 第 1軍團은 Wolf Hound作戰을 展開한 결과 1월 15일에 烏山을 占領하고 17日에는 搜索隊가 水原에 突入하였는데 中共은 水原—冠岳山을 連한 地域에서 서울을 防禦할 것을 試圖하여 堅固한 진지를 構築하고 여기에서 頑强히 抵抗하였으나 UN軍은 肉迫戰까지 치르면서 이를 擊破한 다음 進擊을 계속하여 2월 10일에는 漢江線까지 進出하였다. 이날 金浦에는 空輸部隊가 投下되어 仁川과 永登浦를 連하는 漢江 南岸일대를 完全히 奪還確保하므로써 서울 奪還作戰을 準備하기에 이르렀다. 그 後에 敵은 두차례에 걸쳐서 反擊을 企圖하고 漢江 被渡를 試圖하였으나 UN軍은 이를 許容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各 戰線에서 敵의 逆襲과 反擊을 물리치고 많은 打擊을 加하면서 前進을 계

속하자 美 第8軍司令官 Ridgway中將은 또다시 屠殺作戰(Killer Operation)을 準備하였다. 비록 制限된 攻擊目標이기는 하였으나 MacArthur元帥는 이 作戰에 앞서 韓國戰線을 視察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本官은 敵이 戰術的 優勢에 놓이게 된 現戰局에 매우 만족한다. 그들의 精銳部隊는 큰 打擊을 받았으며 이를 代替할 交代部隊의 能力도 없다. UN軍의 戰略은 成功的이며 이제 戰局의 主導權을 다시 掌握하도록 攻擊을 命令하였다.』이 Killer作戰은 2월 21일에 開始되었는데 그 결과로 中部戰線에서 我軍은 橫城 北方의 高地一帶를 占領하였고 反面에 敵은 洪川北方으로 潰走하였다。

이와같이 戰局이 有利하게 進展되자 我軍은 3월 7일을 期하여 第2段階 反擊作戰(Ripper 作戰)을 開始하였다. 이 作戰의 目的은 戰線을 38°線 北方으로 北上시키는 同時에 敵에게 屠殺을 強要하는 것이었다. 作戰이 開始되자 中東部戰線에서 第3軍團과 美 第10軍團은 進擊을 계속하여 3월 15일에 洪川을, 22일에는 春川으로 進擊하였는데 敵은 冠岳里一麟蹄부근에서 執拗한 抵抗을 試圖하였으나 戰力과 士氣가 低下되어 더 以上 抵抗하지 못하고 3월末에는 38°線 以北으로 敗退하고 말았다。

西部戰線에는 共産軍이 서울一圓에 兵力을 集結하여 漢江 防禦線에서 掩收部隊를 掩護하는 한편 地上火力을 集中하여 我軍의 渡河作戰을 妨害하였으나 兩水里부근에서 UN軍이 漢江을 渡河하여 깊숙히 北進迂回하면서 左側方을 威脅하자 敵은 서울을 抛棄하고 北方으로 敗退하므로써 3월 14일 마침내 我軍 第1師團과 美 第3師團이 서울에 突入하여 殘敵을 殲滅하고 17일에는 完全히 이를 奪還하였다. 이어서 3월 23일에는 美 第187空輸部隊를 汶山地區에 投下하여 議政府 方面에서 北上하는 美 第1機甲師團과 合勢하므로써 西部地域一帶를 掌握하고 말았다。

以上과 같이 第2段階 作戰이 完勝을 거두고 4월 10일에는 杆城—瑞和—華川—漣川—開城을 連하는 線까지 北進하자 敵은 全戰線에 걸쳐 접촉을 끊었으며 戰線은 조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反擊作戰을 準備하는듯, 3月末頃에는 北으로 부터 南下하는 補給車輛이 急增하였고 戰車의 南進도 確認되었다。

한편 3월 12일 Ridgway中將은 『만일 38°線에서 停戰이 成立된다면 UN軍의 大勝이다』라는 談話를 發表하여 武力에 의한 韓國의 統一을 抛棄한 듯한 暗示를 하였고 同時에 休戰協商의 可能性을 間接的으로 表明하였다. 또한 MacArthur元帥도 3월 24일 戰線視察에 앞서서 要旨 다음과 같은 聲明을 發表하였다. 『UN軍은 現在 南韓에서 共産軍을 完全히

覆滅하였다. 中共軍의 人海戰術은 無意味한 人命의 損失만을 招來하였을 뿐이며 이제 UN軍앞에 無價値한 戰術이 되었다. 萬若 UN軍이 戰鬪地域을 韓國에 局限하는 努力을 中止한다면 中共은 반드시 軍事的 崩壞에 直面할 것이다. 韓國과 韓國民을 이 以上 犧牲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 重大한 關心事이므로 本人은 UN軍司令官의 權限內에서 어떤 軍事的 措置를 發見하기 위하여 中共軍의 總司令官과 前線에서 언제든지 協議할 用意가 있다』

이러한 그의 聲明은 意外로 큰 波紋을 이르켰으나 美行政府는 문제를 擴大하지 않고 收拾하려 하였는데 反하여 英·佛兩國은 이에 대한 抗議를 提起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Truman大統領은 MacArthur元帥에게 맷세지를 보내기를 앞으로는 어떠한 성명이든 間에 事前에 政府와 協議하기 바란다』라고 通告하였다. 그러던중 4월 5일에 共和黨 소속인 T. W Martin下院議員이 3월 20일附의 MacArthur元帥의 서한을 下院에서 公表하였는데 그 內容에 이르기를 『國府軍을 使用하여 第2戰線을 形成하여야 하며 萬一 Asia가 共產化되면 歐洲의 崩壞도 避할 수 없다』라는 要旨였다。

이로써 事態는 더욱 複雜하게 進展되었으며 마침내 Truman大統領은 MacArtur元帥의 解任을 決心하고 4월 11일에 放送을 通하여 이를 發表하였다。

그리고 後任에는 Ridgway大將이 任命되고 美 第8軍司令官에는 VanFleet中將이 就任하였다。

4. 國內 情勢 : 50년10월 19일 平壤을 奪還하고 계속 北進하여 淸川江 北方으로 進擊하게 되자 李承晩大統領은 10月 27日에 平壤을 訪問하여 以北 同胞들의 熱狂的인 歡迎을 받았다. 한편 政府는 收復地區에 對한 行政管理가 當然히 韓國政府의 管轄에 屬하는 것으로 확신하고 10월 12일에 趙炳玉 內務部長官은 北韓地域에 대한 施政方針을 밝히고 地域行政官을 任命하여 任地로 進出시켰으나 UN軍은 收復地域에 軍政을 實施키로 작정하고 北韓全域에 對한 UN軍의 軍政機構를 組織하였다. 이는 大韓民國 政府를 韓半島의 唯一한 合法政府라고 規定한 UN決議에 違背되는 處事였다. 따라서 政府의 施策은 北韓 全域에 充分히 미치지 못하였으며 北韓行政全般에 걸쳐 적지 않은 停滯와 混亂을 招來하게 되었다。

그리고 政府는 50년 7월 8일 이후부터 계속된 非常戒嚴을 解除하고 警備戒嚴으로 變更한다음 戒嚴司令官에는 丁一權少將을 任命하였다. 그러나 그후에도 段階的으로 戒嚴이 解除되었는데 3月 20日의 國務院公告 第11號와 4月 4日의 同 第12號에 따라 地域別 治安狀態가 回復되는 대로 解除된 것이다。

한편 貨幣發行高는 50년12월末 現在로 2,293億圓이었는데 財務部는 當時 流通되던 100

圓券 貨幣를 새로운 貨幣와 交換하였다. 이미 第一次는 慶尙南北道 일대에서 9月에 實施하여 175億圓을 交換하였고 第二次는 서울市와 京畿道 및 江原道 일대에서 10月에 實施하여 도합 217億圓을 交換한 바 있는데 11月11日부터 18日까지 第三次로 實施하였다. 이 때에는 第一, 第二次에서 實施되지 않은 全地域에서 交換하였는데 그 額數는 232億圓에 達하였다. 마지막으로 第四次는 全地域에서 누락된 것을 救濟하기 위하여 實施하였는데 交換額은 81億圓이었다. 그런데 一次부터 四次까지의 交換에서 發見된 僞幣額이 1억6천만 圓이나 됨으로써 戰亂中 通貨流通秩序의 混亂相을 들어 내 주고 있었다。

한편 國會는 12월 1일에 附逆行爲特別審査法案과 私刑禁止法案을 議決하였는데 그 立法趣旨를 보면 前者는 附逆者의 處罰을 愼重히 하기 위하여 中央과 地方에 『附逆行爲特別審査委員會』를 設置하고 附逆容疑者는 반드시 이 委員會의 審査를 거쳐서 處罰하기 위한 것이었고 後者는 附逆行爲의 懲治를 惡藉하여 人權을 蹂躪하는 지나친 行動을 防止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末端機關에서는 이러한 立法精神을 忘却하고 玉石을 가리지 않는 過度한 權力濫用이 恣行되어 民心을 動搖시킨 事例도 자주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戰局은 中共의 侵略으로 逆轉되고 있었다. 이에 李承晩大統領은 12월 2일에 新戰局에 대한 特別성명을 발표하였는데 그 內容에 이르기를 『中共軍의 韓國侵入으로 우리는 危機에 놓였으나 全國民은 이번 戰爭이야말로 우리의 自由와 獨立을 위한 最後決戰임을 깨닫고 온 國民이 蹶起하여 꿋꿋이 끝까지 싸우자』라고 하였다. 그러나 12월 4일 平壤을 撤收한 UN軍의 後退가 계속되자 政府는 國家非常時에 對處하기 위한 國民總力體制를 確立하는 한편 緊急時에 兵力動員을 迅速히 하기 위하여 50년 12월 21일에 國民防衛軍設置法을 公布하고 이에 따라 滿 17歲이상 40歲까지의 壯丁을 動員 訓練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政府는 51년 1월 4일에 또다시 서울을 撤收하게 됨에 따라 國民 防衛軍은 해당지역 壯丁들을 集團的으로 後方으로 移送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一部 幹部들이 그들의 職責과 使命을 忘却하여 國庫金과 補給物資를 不正處分하여 그들의 私服을 채웠고 數많은 犧牲者가 續出하게 되자 政府는 이를 解體시키는 한편 關聯者들을 軍法會議에 回附하여 處斷하였다。

第一次의 서울撤收에 뒤이어 9월 28일에 收復하자 곧 市民證과 道民證을 發給하여 이 證明을 갖지 않은 者에 대하여 엄중히 檢問하므로써 敵 遊擊部隊의 侵透를 막을 수 있었고 또한 政府에서는 事前에 戰況을 國民에게 알리므로써 第二次撤收는 비교적 秩序있게 치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撤收는 自由를 찾아 北韓에서 南下한 600,000명의 同胞

를 包含하여 避難民의 總數는 도합 700,000名에 達하였으며 이들의 救護문제는 當時 큰 社會문제로 되었다. 이에 政府는 이들에 대한 救護對策을 세워 大邱, 釜山等 都市에만 集中하므로서 住宅難과 食糧難이 極甚하므로 濟州島와 巨濟島등 地方으로 分散시키는데 注力하였고 한편으로는 各地의 集團收容所에 收容하여 食糧과 衣類等의 救護物資를 供給키로 하였다. 이 集團收容所에 收容된 人員總數는 650,000名에 達하였으며 支出된 救護費는 60억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戰局은 好轉되어 51년 3월 14일에 서울을 다시 奪還하였을 뿐아니라 UN軍이 38°線까지 北進하게 되자 休戰의 氣運이 엿보이기 始作하였다. 이렇게 되자 國民들은 統一을 念願하며 休戰을 反對하는 소리가 높아 갔고 마침내 張勉 國務總理는 51년 4월 3일에 國土의 分割을 招來하게 되는 어떠한 決定도 이를 反對한다는 聲明을 發表하였는데 그 內容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韓國戰爭에 參加하고 있는 友邦諸國에 대하여 韓國政府와 國民은 眞心으로 深甚한 謝意를 表한다. 韓國戰爭의 唯一한 目的은 統一된 獨立 民主韓國을 建設하는 것이며 이는 UN이 數次反復하여 聲明한 바 있다。

韓國은 韓國人 스스로가 모르는 가운데 國土가 南과 北으로 分割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戰爭이 不可避하였던 것이니 어떠한 일도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 韓國人은 合法的으로 樹立된 自主國家의 市民으로써 우리의 祖國을 分割하는 如何한 決定도 이를 絶對로 容認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當時 休戰을 反對하는 우리 國民의 總意를 代辯한 것이었으나 그뒤 4월 11일에 UN軍司令官이 바뀌었고 共產軍은 새로운 春季攻勢의 징후를 보이기 始作하였다。

第 35 章

中共軍의 侵略槪況

要　旨

1. 中共軍의 侵略과 그 政治的 軍事的 策略
2. 侵略前의 一般情勢
3. 中共軍의 編成 및 戰法
4. 侵略後의 一般情勢

第35章 中共軍의 侵略概況

참조 : 부표 제9.10.11호

要 旨

韓國戰爭의 勃發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東北地구에 兵力을 집결시켰던 中共은 UN軍이 38°線을 돌파하여 北進을 감행하자 韓滿 國境線의 北邊에 그 兵力을 이동시켜 UN軍의 北進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와같이 한 것은 一次的으로는 東北지구에 대한 UN軍으로 부터의 위협을 사전에 除去하려는데 있었고 二次的으로는 敗亡의 위기에 몰린 北共을 武力으로 救援하여 장차 北共에 미치는 蘇聯의 영향력을 견제 할으로써 北共에 대한 親中共 세력의 扶植과 아울러 政治的인 覇權을 강화하려는 黑心이 작용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中共의 底意는 이미 韓國戰爭을 도발한 1959년 6월 25일을 전후하여 北共과의 默契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韓國戰爭의 초기였던 8월에 北共과 中共軍의 이른바 朝中聯合司令部가 은밀히 長春에 설치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10월 25일을 전후하여 韓國에 대한 침략을 개시한 中共은 11월 4일에 所謂『抗美援朝 國土防衛에 관한 民主諸黨의 共同宣言』을 발표하고 韓國침략에 박차를 加하였다。

이와같이 하여 韓國戰爭은 전혀 예기치 않았던 새로운 양상으로 확대되었으므로 我軍은 이에 대응한 새로운 戰略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안되었는데, 그뒤 雙方間에 一進一退의 攻防戰을 되풀이 하던 끝에 51년 3월 12일에 Ridgway中將으로 부터 武力으로서의 韓國統一을 단념한다는 暗示的인 聲明이 있은 다음, MacArthur元帥로부터 停戰會談의 用意가 있다는 聲明이 발표됨으로써 內外에 충격적인 波紋을 일으켰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戰鬪는 치열하게 계속되다가 彼我의 爭奪焦點인 鐵의 三角地帶를 에워싸고 熾烈한 攻防戰이 벌어지던 무렵, 끈질기게 버틸던 停戰說은 드디어 表面化되어 Ridgway大將의 停戰會談提議로 진전되어 갔다。

그리하여 同族相殘의 慘劇을 빚어낸 韓國전쟁은 決死反對하는 韓國 全國民의 참뜻을 度外視한채 休戰會談開催의 문턱으로 한걸음 한걸음 다가 가고 있었다。

1. 中共軍의 侵略과 그 政治的 軍事的 策略

4년간에 걸친 中國內戰이 國府軍의 참패로 거의 終局에 접어들 무렵인 1949년 10월 1일 毛澤東을 魁首로 한 이른바 中華人民共和國 政府가 北京에 수립되어 亞細亞에 새로운 共産主義국가가 출현하게 되었다。

中共은 영토의 대부분을 席捲하기가 바쁘게 정부 수립을 선포하였으나 그렇다고 中國全域을 완전히 制覇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정부수립후 1년이 지난 1950년 10월에 臺灣 및 金門島를 제외한 영토의 全域을 비로소 掌握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는 바로 韓國戰爭이 勃發한 뒤 UN軍이 反撃戰을 감행함으로써 韓滿國境線을 향하여 破竹之勢의 北進공격을 단행하고 있을 때와 一致되는 時期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觀點에서 본다면 中共은 8년간에 걸친 對日 抗戰에 이어 4년간에 걸친 內戰을 치른 끝에 간신히 中國大陸을 席捲하고 계속 숨돌릴 사이도 없이 北共이 도발한 韓國전쟁에 직접 참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中共은 장기간에 걸친 전쟁을 치른 직후였으므로 당시의 情況으로서는 새로운 전쟁을 도발할 餘力이 없었고 또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臺灣과 金門島에 대한 侵攻을 숙제로 남기고 있던 때이므로 마음놓고 새로운 전쟁을 속개할 立場도 되지 못하였다고 볼수 있으나 그러나 抗日戰에 이어 內戰을 계속하는 동안에 과도하게 膨脹된 대병력을 정비하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 직면하고 있었다。

물론 中共은 이와같은 병력을 정비하더라도 臺灣과 金門島의 침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다가 臺灣에 퇴각한 蔣介石軍의 本土수복에 대비하기 위하여도 상당한 병력을 계속 보유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으나 때마침 美國정부는 臺灣정부의 中立化案을 UN에 상정하는 한편 美 제7艦隊를 臺灣 주변에 배치하여 蔣介石軍의 本土 수복을 억제하고 있었으므로 대병력을 손쉽게 韓國전쟁에 전환시킬 수 있었으며 그러한 관점에서 韓國전쟁은 中共에 있어서는 하나의 突破口가 된 셈이었다。

그러나 中共이 韓國侵略에 막대한 병력을 투입한 것은 단순히 그러한 軍事上의 枝葉的

인 문제해결을 노린데 있었다기 보다는 정치적 次元에서의 利害得失에 그 眼目을 두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中共은 軍事力을 韓國전쟁에 투입하여 UN軍에 대한 강력한 軍事的 압력을 加함으로써 UN총회에 상정된 韓國문제를 유리하게 해결하려는 底意가 있었다.

또한 極東지역에 自由진영의 軍事力을 끌어 들임으로써 때마침 擡頭되고 있었던 歐羅巴의 再武裝과 西方진영의 軍事행동에 制約을 주어 보자는 策略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같이 정치적 眼目에서 中共은 기꺼이 軍事力을 韓國전쟁에 투입할 수 있었지만 이 보다 더 절실한 문제는 바로 北共과의 정치적인 紐帶관계 때문이었다.

元來 北共과 中共은 韓國과 中國의 歷史的 親分 關係의 後光을 받아 政治와 文化 및 社會의 모든 분야에서 깊은 提携를 맺어 왔으므로 共産主義 체제 이후에도 밀접한 상호協力관계가 뿌리 깊이 작용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특히 共産化 과정에 있어서 蘇聯의 産婆역할에 크게 힘입은 雙童兒的인 緣故관계에 놓여 있었다.

즉, 太平洋 전쟁이 종결된 후 蘇聯軍의 北韓進駐를 계기로 蘇聯派 金日成 一黨과, 金科奉을 주축으로 한 延安派가 동시에 北韓에 들어가 이른바 蘇聯派, 延安派 그리고 國內派의 三角관계를 형성한 가운데 北共政權을 수립하였으므로 어느 의미에서는 北共정권이 수립되었던 初創期에 있어서 北共은 中共의 私生兒格인 延安派의 공헌으로 순조롭게 北共정권을 수립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中共과 北共은 원천적으로 밀접한 主從관계를 이루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軍事面에서 볼 때에 中共軍과 北共軍은 不可分離의 親分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建軍初期의 北共軍은 八路軍 出身의 韓國人 부대가 骨格이 되어 建軍作業을 추진하였으므로 넓은 眼目에서 본다면 北共軍은 中共軍의 품안에서 養育되고 成長된 것이었다.

이 韓國人 부대는 원래 國府軍과 共産軍의 內戰이 벌어졌을 때에 東北지구에서 편성된 林彪의 八路軍 속에 있었던 100,000餘의 韓國人部隊로서 이 部隊야 말로 八路軍의 核心으로서 항상 中共軍의 선두에서 활약하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中國의 內戰이 中共의 압도적 승리로서 종결되자 인제는 더 以上으로 韓國人 부대의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었으므로 中共은 善心을 쓰는 척하면서 이 韓國人 부대를 모조리 北韓으로 보내어 이른바 北共軍 창설의 모체구실을 하게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밝히면 이들 八路軍 속의 韓國人부대는 北共의 建軍 작업이 시작되기 직전

에, 한 때 鄭州에 집결되었다가 1949년 7월에 北韓으로 들어가 北共軍 창설의 산파역군으로서 활동하게 되었는데 東北지구에서 廣東省까지의 內戰에서 거의 누비다시피 싸운 이 歷戰의 부대는 그뒤 北共軍 창설의 모체로서 크게 활약하였을 뿐 아니라 이들은 北共軍 가운데서도 士氣가 높고 鬪志가 왕성한 부대로서 주목을 끌고 있었으므로 군사면에 있어서도 北共은 中共에게 톡톡히 은혜를 입은 셈이었다。

이와같이 韓國人 부대를 北共에 넘겨준 中共은 표면상으로는 國共 內戰 당시에 韓國人 부대로 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공로에 대한 道義的인 報答을 하면서 위기에 부닥친 北共에 善心을 쓰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으나 실상은 그 속셈이 다른데 있었다。

즉 中共은 自軍內의 韓國人 부대를 北共에 넘겨 줌으로써 內戰後의 존재가치가 희박하여진 韓國人 부대를 교묘하고도 용이하게 사후 처리를 할 수 있는 결과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 부대가 北共軍의 基幹요원이 되어 南北의 武力統一을 성취하는데 크게 공헌하게 된다면 統一後의 金日成 政權을 親中共派의 手中에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았던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蘇聯에 先手를 빼앗긴 北共에 대한 패권을 親中共派의 영향하에 이끌어 들임으로써 韓滿 國境일대에 유리한 戰略的 지역을 확보하고 아울러 상차 中共側에 利로운 정치적 布石으로 삼으려는 계산이 있었던 것이다。

그뒤 北共은 南侵을 위한 고도의 전쟁준비를 착착 진행하는 한편 1949년 3월 18일에 中共과 相互防衛協定을 체결하였는데 中共軍의 침략은 이 防衛協定을 구체적으로 이행한 것이 된다。

그런데 이 防衛協定의 要旨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兩側은 如何한 性質의 侵略에 대하여도 共同防衛를 한다. 또 어떠한 帝國主義 세력이든 北韓 또는 中共의 一方을 공격하는 경우 兩側은 그 帝國主義세력에 대한 共同 戰爭에 있어서 共同행동을 취한다。

(2) 中國共產黨은 1949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의 기간중 滿洲로부터 武器 및 兵力을 北韓에 제공한다。

(3) 北韓은 滿洲에 있는 日本技術者 및 雇傭者와 滿洲에 있는 日本軍需品의 使用에 관하여 最優先權을 保有한다。

(4) 北韓과 中國共產黨은 兩側이 經濟的 필요에 의거하여 物物交換을 한다』

이상의 협정내용을 보더라도 中共과 北共은 이미 韓國전쟁을 도발하기 이전에 방위협

정을 체결한 것이며 그 당시부터 南侵의 음모를 획책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뒤 1950년 1월에 北京에서 蘇聯, 中共, 北共의 三國會談이 개최되어 이 會談을 통하여 南侵에 따르는 諸般狀況을 면밀하게 熟議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그때부터 2개월 뒤인 3월에 金日成은 극비리에 Moscow를 방문하고 Stalin과 要談한바 있었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인 南侵계획이 최종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1950년 6월 25일에 南侵을 개시한 北共軍은 洛東江까지 侵略하는데 성공하였으나 그러나 1950년 8월초에 洛東江에서의 제1차공세에서 크게 타격을 입고 다시 8월말 제2차 공세를 感行하였으나 이 兩次 공세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은 北共軍은 기진맥진한 채 그 이상의 공세를 취할 여력을 가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 때 力不足을 통감하고 敗退의 가능성을 예감한 金日成은 Stalin에게 강력한 支援을 呼訴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때 Stalin은 韓國戰爭에 蘇聯軍이 介入하는 것은 美·蘇의 正面충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美·蘇의 직접적인 무력 대결을 피하려는 계산에서 8월 26일 北京에 특사를 보내어 毛澤東에게 北韓에 援軍을 投入할 것을 종용하였다。

그러자 毛澤東은 이를 쾌히 受諾하였으므로 金日成은 9月초에 軍事使節團을 北京에 파견하여 中共軍과 北共軍의 聯合司令部를 설치할 것을 협의한 끝에 이른바 中朝聯合司令部를 長春에 설치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때 毛澤東은 援軍을 파견하는 데는 협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끝에 여기에 다음과 같은 內容의 협정이 맺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첫째 : 聯合司令部 및 參謀部의 構成은 中共側이 長이 되고 北共側이 副가 된다。

둘째 : 同構成員은 中共側이 過半數를 차지하고 意見이 相反될 경우에는 中共側의 意見에 따른다。

세째 : 中共軍의 同意없이 休戰에 관하여 北共側은 어떠한 國家와도 協定을 맺지 않는다。

네째 : 北韓에 있어서 中共軍은 北共의 法律에 의한 適用을 받지 않는다。(참조 ; 林英樹論文)』

이상과 같이 中共의 절대적인 권한을 보장한 협정이 中共과 北共사이에 맺어졌으므로 사실상 中共軍은 이미 UN軍이 38°線을 넘기 以前인 9月에 韓國에 대한 侵略을 개시할

陰謀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던 차에 1950년 9월 15일에 仁川上陸作戰으로 서울이 탈환되고 이윽고 10월 1일 韓國軍이 38°線을 突破하여 北進을 감행하자 中共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UN軍의 動向에 주목하게 되었다。

즉 UN軍이 38°線을 넘어 北進을 단행할 것인가의 與否에 대하여 신경을 집중한 것이다。

실상 北共이나 中共은 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UN軍은 결코 北進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1950년 10월 14일 金日成이 全 北共軍에게 下達한 명령에서 확인되었으니 즉 金日成은 언급하기를「우리가 실패한 중요한 이유는 UN軍이 38°線을 越境하지 않을것이라고 믿었던데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北共이나 中共의 판단을 뒤엎고 UN軍은 10월 1일 38°線을 넘어 北進을 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北共의 統一계획이 그들이 예상하였던 것과는 달리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北共軍의 主力이 치명적인 타격으로 潰滅상태에 빠지고 北韓마저 차차 함락할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이에 唐慌하게 된 中共은 그들 나름의 被害妄想에 사로 잡히지 않을 수 없었다。

즉 中共은 北韓이 이대로 崩壞되어 韓半島 전체가 자유진영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中共은 싫든 좋든 鴨綠江을 사이에 둔채로 強力한 美軍勢力과 직접 衝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中共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東北 지구의 중공업기지가 美軍의 위협을 받게될 것이므로 北韓의 消滅은 곧 그대로 中共에 대한 美軍의 침략을 가능하게 할 지름길을 터놓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이론바 援朝志願軍이 侵略을 개시한 10일 뒤인 11월 4일에 발표된「抗美援朝國土防衛에 관한 民主諸黨派의 共同宣言」의 내용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즉「美帝國主義와 그 一黨은 侵略戰爭을 중지하고 평화적 방법으로 朝鮮問題를 해결할 意思가 없을 뿐 아니라 38°선을 넘어 鴨綠江 豆滿江에 육박하여 東北국경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

역사적 사실은 朝鮮의 興亡과 中國의 安危가 밀접하게 결부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朝鮮人民支援을 위한 中國人民의 抗美戰爭은 단순히 道義上의 책임에서 출발하였을 뿐

아니라 中國人民 전체의 절실한 利害와 결부되고 있으므로 自衛의 필요상 결정된 것이다.

옆 집 사람을 救하는 것은 자기를 救하는 것이 되므로 조국을 방위하기 위하여는 朝鮮人民을 돕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지적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망상에서 中共은 UN軍이 38°線을 넘어 北進을 개시하자 즉각 志願軍 형식의 대병력을 투입할 것을 집도하였다。

그리하여 10월 3일 周恩來는 印度大使에게 발표한 성명과 北京방송을 통하여 『만약 韓國軍 이외의 UN軍이 38°線을 넘어 北進할 경우에는 北韓에 介入할 것』이라고 엄포를 터뜨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周恩來의 성명은 虛勢에 찬 恫喝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韓國에 대한 침략을 단행할 決意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中共은 UN軍이 38°線을 돌파하여 北進을 하게된데 자극을 받고 침략을 개시한 것이 아니라 北共의 南侵이 시작된 6월下旬부터 이미 대병력을 北方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綜觀하여 볼 때에 中共軍의 침략은 北共과의 면밀한 제휴로 단행된 정치·군사상의 多目的인 계획밑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中共은 美軍과의 접전을 통하여 그들의 人海戰術로서 美軍의 現代式 武器에 効能한계를 시험하려는 일종의 豫防전쟁을 시도할 底意를 다분히 내포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이로써 中共은 北共과 더불어 韓半島 전체를 赤化統一하는데 공헌한 결과로 장차 日本에 대한 침략의 교두보로 삼으려는 속셈도 있었을 것이고, 정부수립 이후에 비상한 경제적 곤란과 旱魃 및 疾病으로 극도의 혼란에 직면하고 있던 당시의 국내 사정을 합리적으로 음폐하는 동시에 경제적 핍박에 허덕이는 방대한 中國人民들의 불평 불만을 이 戰爭관심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당면된 난관을 얼버무리려는 책략도 있었던 것 같다。

아무튼 韓國에 대한 中共의 침략은 亞細亞에 있어서의 中共의 정치적 지위를 鞏固히 하고 美軍을 비롯한 UN軍을 困境속에 몰아 넣음으로써 제3의 超強大國으로서 君臨하려는 妄想을 노골적으로 행동화 한 赤裸裸한 好戰 근성의 발악적 만용을 표면화 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 侵略前의 一般情勢

1949년 10월 1일에 政府를 수립한 中共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곤란에 봉착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곤란은 日本의 침략과 國共內戰이 12년 간이나 계속된데 그 原因이 있었음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國民정부는 內戰을 겪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인프레를 수반하였으며 여기에 겹드려 1949년도에는 自然災害가 크게 벌어 졌었다。

즉 大洪水로 말미암아 殆半의 토지가 피해를 입은 데다가 다시금 旱魃이 덮치고 거기에다가 雪上加霜으로 疾病이 만연하였다。

土地 개혁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농업생산과 공업생산은 戰前의 수준에 훨씬 미달한 부진상태에 있었다。

이 무렵 심각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간 힘을 쓰고 있던 毛澤東은 아직도 영토의 全域을 제패하지 못하고 계속 赤化 침략전을 벌이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軍事費를 삭감하여 軍隊를 생산활동에 전환시키는 비상조치를 취하였다。

그리하여 1950년 3월에 이르러 인프레는 다소 고개를 숙이는듯 하였으나 毛澤東은 계속 軍事費와 行政費를 삭감하는 조치를 고집하였다。

5월 1일 勞動節에 즈음하여 劉少奇는 『臺灣이 解放되면 敵의 봉쇄와 폭격이 중지될 것이므로 軍事費를 대폭 삭감함으로써 경제건설을 위한 투자를 증대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하여 과도적인 경제재건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보더라도 이 당시의 경제난이 얼마나 심각하였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리하여 中共은 東北지구를 위한 1950년도의 예산 중에서 군사비를 전년도의 40%선에서 10%선으로 減縮하였다. 그리고 6월 6일 毛澤東은 中國 共産黨 제7차 中央委員會에서 人民解放軍의 復員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피상적으로 볼 때에 침략전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기 위한 軍縮을 단행한 것 같은 인상을 주었으나 그러나 이러한 軍縮은 결코 침략전의 抛棄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毛澤東은 人民解放軍을 復員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즉 『人

民解放軍은 그 主力을 保有하면서 그 일부를 1950년도에 復員시키는 것이다. 臺灣과 西藏을 接收하는데 필요하고 또 國家防衛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反革命者들을 억압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軍隊를 보장하는 조건 밑에 復員을 단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復員하는 兵士들은 家庭에 돌아가 生産的 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配慮하여야 한다』라고 못박아 놓았던 것이다。

中共은 이상과 같이 당면한 경제문제와 농업문제를 타결하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담한 조치를 단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韓國戰爭의 추세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北共이 南侵을 도발한 1950년 6월 25일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中共의 제3 및 제4 野戰軍은 北方으로 이동을 개시하고 있었다。

이 무렵 美國은 中共의 臺灣侵攻을 염려하여 臺灣의 中立化案을 UN에 上程하고 國際조직에 의한 즉각적인 조사를 통하여 可否를 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UN駐在 Warren R. Austin 美大使는 Trygve Lie UN事務總長에게 美國의 입장을 밝히는 다음과 같은 7개 항목의 서한을 보내었다。

『첫째 : 美國은 中國을 침략하지 않았고 또 침략적 행위를 한 일도 없다。

둘째 : 美國의 행동은 臺灣이 中國本土와 交戰狀態에 있고 또한 中共이 韓國戰爭에 參戰한 美軍에게 위협을 미치기 때문에 취하여 진 것이다。

세째 : 美國의 행동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公正한 中立化를 목표로 한 것이며 결코 臺灣을 손아귀에 넣으려는 생각은 없다。

네째 : 美國의 행동은 臺灣의 지위에 대한 정치적 장래를 보장하려는데 있기 때문에 그 權利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다섯째 : 美國은 蘇聯과 비슷하게 必然的으로 中國과 友好的 유대관계를 맺어온 기록을 가지고 있다。

여섯째 : 美國은 UN이 臺灣문제를 취급하는 것을 환영하는 동시에 즉시 조사에 착수할것을 제안한다。

일곱째 : 美國은 UN이 韓國戰爭의 侵略者를 격퇴하기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병력을 轉用할 생각은 없다。』

美國이 이상과 같은 臺灣의 中立化案을 UN에 上程하고 있을 때 國民政府는 最新兵器로 장비된 33,000명의 병력을 韓國戰爭에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國民정부의 제안을 Washington當局은 거절하기로 결정하고 이와같은 美國정부

의 意思를 國民정부에 이해시키기 위하여 MacArthur元帥로 하여금 臺灣을 방문토록 하는 것을 考慮하고 있었다。

한편 MacArthur元帥도 韓國派兵의 제안을 받아 들이지 못하는 美國정부의 입장을 國民정부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그 自身이 臺灣을 방문할 것을 建議한 끝에 7월 31일 臺灣을 방문하여 國民정부와 요담한 다음 東京으로 되돌아 갔다。

그런데 東京司令部로 돌아간 그는 聲明을 발표하기를『臺灣이 攻擊을 받을 경우에 國府軍과 美軍과의 相互調整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며, 中共軍의 침략을 未然에 방지하는 것이 자기에게 부과된 임무이며 自己는 國民政府 지도자들의 굳은 反共결의를 보았으며 이 決意는 美國民의 공통된 관심과 목적에 일치한다』라고 하였다。

한편 蔣介石 총통도 성명을 발표하기를『臺灣의 방위를 위하여 國民정부와 美國정부는 군사적 협력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였고 MacArthur元帥는 亞細亞에 대한 共産主義의 威脅에 깊은 洞察力을 갖고 과감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높이 찬양하면서 美國과 군사적으로 밀접한 유대를 맺음으로써 終局의 승리가 확실하여 졌다』라고 하였다。

이 두 가지의 聲明은 Washington 당국을 매우 난처한 처지에 몰아 갔었다。

그 뒤 MacArthur元帥는 8월 28일에 海外遠征 在鄕軍人會長에게 長文의 聲明書를 보냈는데 이 聲明은 Washington당국을 크게 놀라게 하였다。

이 聲明에 이르기를『美國이 國民정부와의 약속을 최대한도로 지켜야 하며, 臺灣에 대한 効果的인 防衛에 필요조건은 Washington과 臺北間에 긴밀한 조화를 유지하는데 있으며 國民 政府에 대한 美國防省의 敵對的 태도는 긴밀한 軍事협력을 방해하고 있다』라며 날카롭게 비판하고 이어서『臺灣은 美國의 軍事基地로서 사용되어야 하고 臺灣에 대한 방위는 韓國戰爭에서의 原狀복구가 실현되는 동시에 종료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결론을 맺었다。

이상과 같은 聲明書의 내용을 알게된 Truman大統領은 一種의 冒瀆感을 느낀 나머지 MacArthur元帥를 해임하고 Omar N. Bradley大將으로 代替하는 문제를 考慮하고 있었다。

한편 東北地區로 이동하기 시작한 中共軍은 8월 하순경에 이르러 약 5개軍 20만명으로 추산되었는데 이러한 대병력은 林彪가 총지휘하고 있었다。

이에 앞서 8월末에 北共軍과 中共軍의 聯合司令部가 長春에 설치됨으로써 中共은 이미 韓國에 대한 침략을 노골적으로 행동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9월 15일을 기하여 UN軍과 韓國軍에 의하여 감행된 仁川上陸作戰은 韓國戰勢를 크게 뒤집어 놓았다。

그리하여 敵軍은 마침내 全戰線에 걸쳐 과도에 밀리듯 붕괴되기 시작하여 거의 抵抗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자 23일 金日成은 麾下의 全軍에 급기야 後退명령을 내리고야 말았다。

이와같이 韓國戰勢가 急轉直下로 돌변하게 되자 당황하게 된 것은 北共뿐만 아니라 中共과 蘇聯이었다。

10월 3일 周恩來는 印度大使에게 보낸 聲明과 放送을 통하여 『UN軍이 38°線을 넘어 北進하면 中共軍을 투입할 것이다』라고 侵略의 뜻을 공식으로 표명하였다。

그러나 韓國軍은 10월 1일을 期하여 일제히 38°線을 넘어 北進을 개시하였고 UN軍도 뒤따라 北進을 재촉하였다. 한편 UN軍은 결코 38°線을 넘어 北進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었던 北共과 中共은 UN軍의 北進을 확인하자 東北지구로 이동한 병력을 급속히 증강하여 韓滿 國境線 부근에 계속 집결시켰다。

이러한 中共軍의 동향에 대하여 UN軍司令部에서는 모든 情報網을 망라하여 신중하게 그 동향을 분석 검토하였으나 中共軍의 작은 兵力이 東北지구로 이동한 것으로만 판단하고 大兵力의 이동상황에 대하여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UN軍司令部나 Washington當局은 中共軍 侵略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않은채 北進을 허용하는 신중한 전략전술을 구사하기에 노력하였다。

즉 美國務省內에 설치된 國家安保會議에서 Bradley大將이 韓國戰爭에 관한 會議에서 말하기를 『極東으로 부터의 情勢 밀고에 의하면 전투에 참가하지 않는 2개의 敵師團이 北韓에 있고 이들의 參戰 가능성 이외에 韓國人 또는 中國人이 滿洲로부터 投入될지도 모른다』라고 하였다。

이 會議는 統合參謀本部가 北進命令을 하달하기 이전에 열렸던 會議였던 만큼 Bradley 大將의 말은 假想的으로 中共軍侵略의 가능성 여부를 占쳐 본데 불과하였으며 결코 어떠한 확고한 증거나 信憑할만한 근거가 있어서 한 말은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Washington當局은 仁川上陸作戰에 성공함으로써 戰勢가 급진전하기 이전까지는 假想的으로 中共軍 침략의 가능성을 考慮하였으나 戰勢가 好轉되어 北共軍이 거의 괴멸상태에 이르고 我軍의 北進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자 오히려 中共軍 침략의 가능성은 거의 稀薄한 것으로 단정하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中共軍의 兵力이 설사 부분적으로 東北지구로 이동하여 韓滿국경지대에 집결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UN軍의 東北지구 進入을 방비하려는 軍事행동에 불과한 것이며 당시의 中共 國內사정으로 보나 中共軍의 능력에 비추어 보아 中共이 韓滿 國境線을 넘어서까지 새로운 侵略戰爭을 도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中共軍 侵略의 가능성을 거의 부정한 채로 我軍은 東部—中部—西部등 全戰線에 걸쳐 눈부신 進攻을 재촉하였다.

그런데 이 무렵인 10월 15일에 Wake島에서 Truman大統領과 MacArthur元帥와의 會合이 개최되었다. 이 會合은 MacArthur元帥가 瀋陽을 방문한뒤 발표한 문제의 聲明이 빚은 Truman大統領의 意見對立을 調整하고 아울러 韓國戰爭에 관한 政略 및 戰略에 관한 서로의 隔意없는 協議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會合에서 MacArthur元帥는 『萬若 中共軍이 韓國戰爭에 介入하면 막대한 戰死傷者를 내고 말 것이다』라는 그 有名한 발언을 하였는데 그 요지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즉 『中共이 參戰할 徵候는 매우 약한 것이며 기껏해야 5~60,000명의 병력을 투입할 것이다. 그들은 空軍力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中共軍이 平壤까지 내려온다면 막대한 死傷者를 내고야 말 것이다.

蘇聯은 空軍力을 갖고 있으나 航空機와 操縱士의 質이 낮기 때문에 冬期가 닥쳐온 이때 兵力을 투입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會合과는 관계없이 계속 北進中이었던 我軍은 元山을 함락시키고 이어 10월 19일에는 平壤을 탈환한후 10월 26일에는 鴨綠江沿邊의 楚山, 11월 30일에는 惠山鎭까지 占領하였다.

11월 24일 MacArthur元帥는 北韓의 最北端까지의 進擊命令을 발표하고 戰鬪는 X-mas 이전까지 終結될 것이라고 樂觀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發表가 있은지 24시간을 넘기지 못한채 戰局은 다시금 急轉直下하는 운명에 부닥쳤는데 그것은 바로 中共軍의 大兵力이 UN軍의 바로 正面에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이 中共軍은 이른바 中國人民志願兵이라는 美名下에 侵入하였으나 그 實은 志願兵이 아니라 正眞正銘의 正規軍이었다.

中共은 이들 侵略軍의 參戰時期를 10월 25일로 발표하였는데 韓國軍 第1師團 隷下 第15聯隊는 雲山에서 中共軍의 捕虜 第1號를 사로잡은 바 있었다. 이렇게 하여 中共軍의 侵略으로 말미암아 韓國전쟁은 다시금 새로운 樣相으로 접어 들게 된 것이다.

3. 中共軍의 編成 및 戰法

가. 編　成

中共軍은, 中國大陸에 共產主義가 土着化하기 시작한 1922년을 前後하여 江西省의 瑞金 南昌등지에서 朱德등의 군인 출신당원에 의하여 조직된 「勞農紅軍」이 그 母體로서 「抗日鬪爭」과 「國共內戰」中에서 成長하였다。

1928년에 國民黨이 南京에 國民政府를 樹立하면서부터 國共對立이 不斷히 계속되었는데, 1937년에서 1945년에 걸친 7年餘의 「中日戰爭」期間中에는 「紅軍」이 國府軍과 「吳越同舟」하여 抗日戰線에 共同步調를 취하기도 하였으나 끝내 國府軍을 臺灣으로 驅逐하고 1949년 10월 1일에 共產黨으로 하여금 北京에서 「人民政府」(中華人民共和國)를 세우게 함으로서 「軍」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中國大陸을 席捲하게 된 中共軍이 그 이듬해인 1950년 10월에 韓國戰爭에 介入하여 그들의 人的物量을 誇示하였는데, 당시의 中共軍의 地上軍은 5개 野戰軍(20~22개 兵團, 71~75개軍, 210~245개 師團)으로 總兵力 2,438,000명을 넘는 것으로 推定되었다。(51. 4 陸本情報局 判斷)

1950년 9월에 들어서면서, 그간 北共의 南侵一邊倒였던 韓半島의 戰況이 急轉直下하여 戰線이 鴨綠江으로 北上 壓縮됨에 따라 中共軍은 各 野戰軍의 精銳를 차출하여 이른바 「抗美援朝志願軍」을 編成하고 10월에 그 일부가 韓國戰爭에 參加하게 되었는데, 이 「援朝志願軍」의 侵韓計劃과 後方指揮는 瀋陽(奉天)에 設置된 「援朝志願軍司令部」 司令官 彭德懷가 總管하였으며 侵韓兵力의 作戰指揮는 「前線司令部」(入韓中共軍) 司令官 林彪가 담당하였다。

따라서 林彪는, 第4野戰軍 산하의 第13兵團(장, 李天佑) 5개軍과 華北野戰軍의 第20兵團 1개 軍을 先遣部隊로 統合指揮하여 50년 10월에 제1차로 入韓하고, 그뒤 11월에 第3野戰軍의 第9兵團(장, 宋時輪)이 이에 合勢하였던 것이며, 그리고 1951년에는 第1野戰軍의 第19兵團(장, 楊得志)과 第2野戰軍의 第3兵團(장, 陳賡) 및 華北野戰軍의 第20兵團

(장, 揚成武)이 각각 侵韓함으로서 韓國戰爭期間中에 中共軍의 병력은 都合 5개兵團(25~27개 軍, 75~81개 師團)에 이르러 이들은 사실상 韓國戰爭의 主役을 떠 맡았던 것이다.

이들의 編成은, 지금까지 中共側에서 確認하거나 밝힌 바가 없으므로 그 正確한 數値의 判斷을 얻기가 어려우나, 韓國戰爭 初期에 我軍이 接敵蒐集한 情報資料와 後에 比較研究된 典據에 의하면 대체로 附表(第9號~第11號)와 같이 思料된다. (附表 入韓 前中共軍의 編成, 入韓中共軍의 編成 및 指揮官, 中共軍 入韓年表 參照.)

(註) 本節에 收錄된 中共軍의 編成內容은 主로 「中共軍特報 第1號」(51. 4. 1 陸本情報局發行)와 「入韓中共軍 部隊經歷」(56. 12. 31 陸本情報局發行) 및 「中共軍人志」(黃震遐編 '68. 12 香港 當代歷史研究所出版)에 準據하여 抽出整理한 것인데, 이 資料가 斷片的일 뿐만 아니라 또한 相差가 없지도 않아 資料의 取擇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 侵韓前 中共軍의 編成—「中共軍特報 第1號」

○ 侵韓中共軍의 編成 및 部隊經歷—「入韓 中共軍 部隊經歷」

○ 侵韓中共軍의 指揮官名—「中共軍人志」(「中共軍人志」에서 確認되지 않은 人名은 「入韓 中共軍 部隊經歷」의 人名을 轉載하였다).

그러나 어느 한 資料로서 取擇이 곤난한 것은 各 資料를 綜合詳考하여 推理하였으며, 이에 附隨되는 문제점은 「研究欄」에서 別途로 取扱하였다. (「研究欄」 參照)

나. 中共軍의 特異性과 戰法

(1) 特異性

어떠한 軍隊를 막론하고 國家를 배경으로 하고 바탕으로 삼아서 형성되기 마련이니 다시 말하면 國家가 生成된 다음에 비로소 軍隊가 형성되는 것이 통례적인 正道라고 할 것이다.

그러한 論理에 비추어 볼때 中共軍은 異變的인 체질속에서 성장되었다고 할수 있다.

왜냐하면 中共軍은 所謂 그들이 말하는 혁명투쟁속에서 탄생하여 혁명투쟁 過程에서 성장된 軍隊이므로 일반적인 軍隊의 生成過程과는 구별되는 특이한 환경에서 생성되었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中共軍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特性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가) **黨軍的性格** : 中共軍은 中國 共產黨의 軍隊이므로 한마디로 要約하면 黨의 무장력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軍이 탄생한 이래 30여년간 中國 共産黨의 혁명과정을 통하여 中共軍은 黨의 직접 지도하에서 무장 혁명을 위한 母體의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黨의 尖兵으로서 혁명사업에 종사하며 黨의 혁명노선을 수호하고 실천하는데 一貫하였다。

따라서 軍의 支配權은 黨이 장악하고 있으므로 「憲法上으로 국민에 복무하며 국민의 이익을 수호하는 국민의 軍隊」라는 命題와는 달리 다만 中共黨의 혁명 課業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무력을 行使함을 임무로 하는 武裝團體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軍에 대한 黨의 支配權은 絶對的인 優位에 있었는데 이러한 主從 관계는 毛澤東이 言明한 바와 같이 『우리들의 原則은 黨이 銃砲(軍隊)를 지배하는 것이지 銃砲가 黨을 지배하는 것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鐵則이다』라는 말이 這間의 眞相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이다。

즉, 軍에 대한 黨의 지배권은 절대적이라고 할수 있으며 이러한 절대성은 군대내의 政治委員제도를 보면 더욱 明白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政治委員 제도는 建國이래 中共軍이 실시한 제도로서 모든 부대는 作戰지휘관과 黨의 대표자(政治委員)가 併存하여 所謂 二元指揮제도로서 軍을 운용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그러니까 政治委員은 作戰지휘에 관여하는 이외에 특히 軍隊내부와 人民대중에 대한 정치활동의 骨幹으로서 부대를 통솔 관장하고 지휘하므로 어느 의미에서는 作戰지휘관 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지배력과 制裁力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國家의 生産建設에 대한 援助 : 中共은 이른바 人民의 軍隊라는 美名아래 軍隊로 하여금 생산부문에 적극 협조토록 함으로써 국가 기본건설과 농업생산부문에서 큰 역할을 담당케 하고 있다。

따라서 中共軍은 建軍 초기에서부터 兵農一致制의 성격을 다분히 지니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전투행동을 하며 또 한편으로는 自給自足을 위한 농업생산에 종사토록 하여 屯田軍으로서의 특징을 발휘케 하였다。

이와같은 中共軍의 特徵은 建軍 초기에서부터 一貫하여 지니고 있다。

中共이 軍隊를 국가건설 사업에 투입하고 있는 底意는 軍隊의 기동성과 조직력을 이용하여 국가산업을 高度로 발전시키려는데 있으나 그밖에도 軍民관계의 긴밀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노력관념의 증진을 통하여 汎國民的인 生産性을 提高하며 나아가서는 국가 財政上의 부담을 덜게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中共軍의 不法侵韓>

政治 및 思想工作의 强要 : 中共에 있어서 軍은 黨의 과업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道具에 불과하며 中共의 軍人은 誰何를 막론하고 이른바 革命理念에서 이탈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軍은 戰鬪의 기술적 능력을 練磨함에 앞서 確固한 共産主義理念과 革命思想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야 하므로 政治學習에 충실할 것을 各 個人에게 强要하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政治工作과 思想工作은 中共軍의 생명선이라고 할 만큼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이다。

中共이 그토록 軍內部에 까지 政治 및 思想學習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中共이 내포하고 있는 허다한 모순과 불합리성을 糊塗하기 위한 方便인 것이다。

실상 中共은 워낙 광대한 영토를 통치하여야 하고 또한 痼疾化된 貧困과 年例行事가 된 疾病과 災害생활난에 시달리는 人民대중과 軍內部의 不平不滿을 강력한 통제력으로 억제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러한 劃一的인 통제수단으로서 政治 및 思想工作을 강행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2) 戰法

國民黨의 黨內清淨으로부터 시작되어 國共內戰을 거쳐 抗日戰爭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혁명투쟁이라는 旗幟를 내걸고 始終 正規戰과 遊擊戰을 혼합한 전투를 벌인 中共軍은 당초에는 1개 野盜들의 集團으로서 혹은 流浪民과 暴徒들의 大群으로서의 체모를 벗어나지 못한 보잘것 없는 규모의 半武裝軍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부대편성은 물론 교육훈련과 장비에 있어서 지극히 열세하고 빈약한 것이 었으므로 「敵進我退」하고 「敵疲我打」하며 「敵退我追」하고 「敵駐我擾」하라는 이른바 毛澤東의

戰術原則이 생기게 되었고, 여기에 근거하여 「分散」과 「集中」 그리고 「병력이동」등의 유격전술사상을 확립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中共軍은 決戰을 피하고 戰力을 溫存하여 점차로 발전을 꾀하면서 순진히 遊動的인 방어로써 國共 內戰에 견디어 내었으며 그뒤 유격전을 위주로 하여 所謂 野戰에서의 機動戰과 陣地戰등의 妙用을 期하게 되었다.

이러한 戰術원칙에 따라서 그들의 특유의 戰術을 案出하고 연마한 中共軍은 今次의 侵略을 遂行하면서부터 韓國의 地形와 그리고 風土 氣候등을 勘案하여 現地의 實況에 적응할 수 있는 戰法을 驅使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戰法을 간추려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機動進攻戰法 : 이것은 그들이 韓國전쟁에서 타격을 받고 대규모의 전면 공세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 戰場의 主導權을 장악하기 위하여 구사한 戰法이다.

이 戰法의 주요수단은 突然공격과 신속한 천수 및 민활한 기동으로써 중점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俗稱 「대부대 유격전」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戰法의 특점을 열거하면 첫째로 敵의 약점을 찾아 돌연히 공격을 개시하는 것이니 그 행동은 奇襲과 類似하며 精強한 敵에 대한 공격을 회피한다.

둘째로 공세가 좌절되면 신속히 후퇴하며 始終 주동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膠着 상태나 진퇴의 반복등을 피한다.

세째로, 병력을 민활히 운용하며 신속히 이동하여 중점적으로 공격한다.

尖刀突進戰法 : 이것은 강대한 敵의 병력을 돌파하기 위하여 어느 지점에 기동화 된 병력을 집결시켜 正面이 협소하고 날카로운 병력으로 방대한 공격의 첨단을 형성하는 것인데 약간의 사다리 꼴 대형으로 나누어 포화의 엄호아래에서 계속적이며 강렬한 돌격을 실시한다.

이 戰法의 특점은 첫째로 제1선부대의 돌격 力量이 특별히 강대하고 둘째로 육박전을 이용하여 敵의 포화 및 공중공격으로 인한 손해를 감소한다.

侵透分割戰法 : 이것은 공격부대를 敵의 진지에 침투시켜 敵의 진지를 수개의 진지로 분할하여 이를 개별적으로 섬멸하는 것인데 그 특성은 첫째로 대목표를 약간씩의 소목표로 분할하고 차례로 이를 섬멸한다.

둘째로 敵의 진지내에 「1點2面」의 공격태세를 형성하며 세째로 敵의 미약한 지점에 침

투하고 기습과 강력한 공격을 병행한다。

臨機應變의 防禦戰法：이 戰法은 少數의 병력으로 넓은 정면을 점령하고 수색경계를 실시하는 한편 主力을 후방의 적당한 지점에 두고 공세시의 敵의 약점을 포착하여 敵이 나오면 신속히 이동하여 戰場에서 이탈한다。

이 戰法은 機動방어와 비슷하나 主動精神과 作戰要求는 그 보다 강하며 그 특성은,

첫째로, 敵에게는 방어형태로 보이고 공격행동으로 敵을 공격한다。

둘째로, 主力이 진지를 점령하지 않으며 작전에 최대의 彈力性을 보유한다。 세째로는 수시로 진퇴하여 작전에서의 주동적 지위를 확보한다。

機動防禦戰法：中共軍의 機動防禦는 바로 지연작전을 말하는 것인데 1면후퇴 1면전투를 뜻하는 것이다。

中共軍의 전법중에는 퇴각전법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機動防禦가 事實上 그들의 퇴각전투인 것이다。

이 戰法의 특성을 요약하면 첫째로 단계적으로 敵에게 저항하는 중에 잠복습격, 기습교란등 적극적 수단으로 소규모의 승리를 거둔다。

둘째로 후퇴 방어 遲延戰등의 두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세째로 넓은 正面의 깊은 縱深을 이용하여 多線式 저항을 할수 있다。

二線戰法：이것은 韓國전쟁당시에 中共軍의 每次의 공세에 있어서 北共의 유격대가 聯合軍의 배후에서 「습격」「교란」작전을 사용하여 聯合軍을 견제하고 中共軍의 공세를 도와 성과를 높인 바로 그 戰法이다。

이때부터 中共軍은 이러한 작전의 이익을 체득하고 유격대를 새로 편성하여 각 보병 사단에 배속시켰다。

이 戰法의 특성은 첫째로 敵의 후방을 제2戰線으로 化하고 둘째로 유격전과 정규전을 동시에 실시하고 서로 呼應하여 밀접하게 배합한다。

精强한 敵에 대한 공격 戰法：이것은 병력이 절대 우세하고 精銳한 敵의 진지를 공격하는 戰法으로서 韓國戰爭 당시에 春川作戰과 加平作戰과 같은 견고한 진지에 응용한 공격전법이다。

이 戰法의 특성은 첫째로 병력의 우세로써 火力의 우세를 극복한다。

둘째로 전술과 기술을 함께 중요시 하며 정신무장을 강조하며 세째로 교란, 기습, 강력한 공격등을 배합 운용한다。

中心開花戰法：이것은 敵을 完全포위 하였으나 敵에 대한 致命的인 손실을 주지 못할 때에 강력한 병력을 敵의 中心부분에 침입시켜 內部로부터 외곽의 敵軍을 공격한다。

其他戰法：그밖의 戰法으로서 中共軍이 곧잘 사용한 戰法가운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로 부대와 부대의 戰鬪地境線 중에서 敵의 병력이 약세한 지점에 夜間을 이용하여 소수부대를 침투시켜 돌파한 다음, 後方을 교란함으로서 敵軍이 혼란상태에 빠진 기회를 노려 일거에 主力부대로 공격을 감행한다。

둘째로, 分散행동을 취하여 비밀히 정하여 놓은 공격선까지 各個 전진한다。

세째로, 공격시에 呼角과 喇叭을 사용하여 敵軍의 士氣를 萎縮시키는 동시에 自軍의 士氣를 높이 공격하는 心理戰法이 있다。

§ 研　　究

侵韓 中共軍의 編成에 대한 問題

1. 「志願軍司令部」의 存續與否：「中共軍人志」에 의하면 後期志願軍司令部는 당시 中共軍副司令官 겸 瀋陽軍區司令官이었던 彭德懷가 瀋陽에 設置한 것으로 記述되어 있는 바, 51년 2월에 「前線司令官」林彪가 負傷으로 後送됨으로서 彭德懷가 그 뒤를 이어 前線總責으로 登場하였는데 이때 「志願軍司令官」의 引續與否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後任司令官에 대한 記錄이 비치지 않는다는 점과 제41군이 彭德懷의 在任期間과 비슷한 時期(50. 10~51. 1)에 瀋陽에서 「志願軍司令部」를 警備 하였다는 說을 綜合類推하여 보면 「志願軍司令部」는 彭德懷의 轉任과 더불어 解體되었거나 다른 機構(前線司令部)에 統合된 것으로 판단된다。(附表 第10號「志願軍司令部」는 그들의 編成體制와 指揮系統이 그와 같았을 것으로 보고 參考로 附記한 것이다)

2. 未確認 侵韓兵力

① 附表 10의 編成表上에는 25개군으로 圖式化하였으나 이외에도 다음 2개군의 入韓記錄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入韓中의 活動狀況과 所屬兵團의 不明으로 部隊編成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37군(장, 吉世烈？：제109, 제110, 제111사단)—50. 10侵入하였으나 侵入後 別다른 戰鬪活動없이 早期歸國한 것으로 판단된다(「入韓 中共軍 部隊經歷」).

○제41군(장, 溫玉成：제121, 제122, 제123사단—50. 10~51. 4 瀋陽(또는 平壤)의 「志願軍司令部」를 警備하였다는 說이 있다(「中共軍人志」)

② 捕虜陳述 또는 諜者報告를 引用한 51년 3~4월의 陸本定期情報報告에 의하면, 당시에 兵團未詳의 제30, 제32, 제46, 제53, 제56군이 後方豫備部隊로서 北韓에 駐屯한 것으로 判明되었으나, 이들 軍의 侵韓戰歷이 일체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이들은 軍 單位로 侵韓한 것이 아니고 部分的으로 侵韓하여 該 野戰軍 所屬의 軍에 補充兵으로 充當되었거나 혹은 實際로 軍 單位로 侵韓은 하였으나 獨自的인 軍活動을 하지 않고 該 野戰軍 산하 兵團의 既存軍에 흡수再編된 것으로 판단된다。

③ 本節에서는 我軍과 直接的인 相關性이 있

는 地上軍만을 收錄한 것이나 中共空軍의 侵韓說도 否認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中共軍人志」)

그러나 이에 대한 記錄이 分明하지가 않아 空軍에 관한 狀況은 밝히지 못하였다. 그리고 地上軍中에서도 附表의 編成部隊 以外에도 다음과 같은 部隊가 前線司令部直轄獨立部隊로 侵韓하였음이 判明되었다. (「入韓中共軍 部隊經歷」)

○步兵部隊—獨立師團 1개사단(제33사단) : 제33사단은 제31, 제32사단과 함께 당초에 제11군 예하사단이 있으나 侵韓을 계기로 제11군이 解編되어 제31사단은 제42군에, 그리고 제32사단은 제15군에 각각 編入되어 入韓하고 제33사단은 別途獨立師團으로 侵韓한 것으로 判斷되나 侵韓時期 및 侵韓後의 經歷은 未詳이다。

獨立警備司— 2개사단.

○砲兵部隊—獨立砲師 5개사단

로켓砲師 2개사단

카튜샤砲師 1개사단

對戰車砲師 2개사단

關隊號未詳 포병연대 5개연대

대전차포연대 3개 연대

○機甲部隊—戰車聯隊 3개연대

○工兵部隊—工兵聯隊 4개연대

○輸送部隊—自動車聯隊 19개연대

○後勤部[장, 楊至誠(51년)~ 洪學智(52년)~ 李雪三(54년)] 예하 5개 後勤分所

3. 軍의 配置 : 「入韓中共軍 部隊經歷」에는 附表의 제13병단 제66군이 제20병단 소속으로 明記되어 있다。

그러나 「中共軍人志」에 의하면 제20병단은 병단장 楊成武가 제67, 제68군만을 이끌고 51년 6월에 入韓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제66군은 60년 10월의 제1차 侵韓때 제13병단(장, 李天佑)을 따라 侵韓하여 51년 6월에 撤退하였다고 記述하였다。

따라서 제66군의 侵韓經歷을 미루어 보아 제66군은 在韓中에 제13병단에 配屬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밖에도 該 野戰軍 所屬이 아닌 軍이 配屬된 것으로서는 제20병단의 제54군(原所屬 : 제4야전군)과 그리고 제13단의 제1군(原所屬 : 제1야전군 제1병단)이 있다。

. 部隊基本編制 : 「中共軍特報 第1號」에 의하면 侵韓中共軍의 編制는 兵團—軍—師團—團—營—連—排—班—組의 指揮體制에 軍級以下는 1개군에 3개사단의 「3·3制」를 적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개사단의 兵力規模는 10,000명線이었으나, 실제로 侵韓初期에는 通常 8,000명線을 유지하였던 것으로서 我軍의 編制와는 多少 차이가 있었다。

4. 侵略後의 一般情勢

仁川上陸作戰의 성공을 계기로 反擊작전으로 전환한 我軍은 38°線을 돌파한 뒤 破竹之勢로 韓滿國境에 殺到하였으나 10월 25일을 期하여 韓滿 國境을 넘어 侵略을 恣行한 中共軍의 大兵力과 不時에 激突하게 되자 彼我간에 일대 攻防戰을 거듭하였으며 11월 24일부터 MacArthur元帥의 指揮下에 總反擊을 다시 敢行하였으나 끝내 事不如意하고 말았다。

이에 12월 4일 同 元帥는 『中共軍 百萬이 北韓에 집결중이며 UN軍은 새로운 전쟁에 直面하였으므로 이러한 사태는 이미 戰線司令官의 權限을 넘는 것으로 UN이나 外交기관에 의하여 취급되어야 한 것이다』라는 所信을 표명함과 아울러 第一次로 臨津江線까지 철수 하도록 명령하였다。

한편 이러한 中共軍의 侵略은 12월 7일에 韓國統一復興委員會 보고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었고 이 侵略의 상황은 統合司令部의 第9, 第10次 報告書에 소상하게 기록되었다。

이와같은 不意의 侵略으로 말미암아 戰勢가 一朝에 돌변하게 되자 世界輿論은 瞬息間에 沸騰하였으며 특히 美國民은 극도의 흥분에 휩싸였다。

이러한 雰圍氣속에서 11월 30일 Truman大統領은 定例 기자회견에서 『原子彈의 使用을 考慮中』이라는 중대한 선언을 公布함으로써 세계를 한층 더 긴장속에 몰아 넣었다。

한편 韓國政府는 이보다 1주일 앞선 11월 22일에 駐美大使인 張勉을 國務總理에 지명하여 다음날 國會에서 승인을 얻는 동시에 3部長官을 경질하고 法務에 金俊淵을, 農林에 孔鎭恒을, 그리고 社會에 許政을 各各 任命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UN軍의 후퇴작전은 계속되어 臨津江 線을 방어선으로 설정하고 反擊작전의 준비를 서두르고 있을때 12월 26일에는 美 第8軍司令官인 勇將 故 Walton Walker中將의 후임으로 Matthew Ridgway中將이 임명되었다。

그런데 中共軍의 침략과 더불어 南進을 계속하던 敵은 12월말에 38°線 일대에 집결을 마친다음 12월 31일 24.00를 期하여 일제히 38°線 돌파작전을 개시한 끝에 1월 4일에는 首都 서울을 強占하게 되었다。

이때 政府는 서울을 再撤收하여 釜山으로 遷都하고 國會는 釜山劇場을 임시 議事堂으

로 사용하게 되었다。

한편 我軍은 三陟—寧越—堤川—長湖院—烏山을 연결하는 線으로 第2次 철수를 하고 다시 反擊의 時運을 노리게 되었다。

그뒤 51년 1월 15일에 美 陸軍參謀總長 Lawton Collins大將이 때마침 來韓하여 戰況을 시찰한 다음 『UN軍은 계속 韓國에 머무른다』라고 함으로써 韓國戰爭에 있어서의 UN軍의 계속적인 전쟁수행의 意思를 闡明한바 있었다。

이리하여 UN軍은 다시금 戰意를 가다듬고 再反擊을 斷行하였는데 이 反擊作戰이 시작된지 불과 한달동안에 敵은 100,000명의 손실을 내는 큰 타격을 입었다。

이때 我軍은 戰勝의 餘勢를 몰아 계속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敵은 계속적인 人海戰術로서 병력을 補強하며 완강한 저항을 하였으므로 戰勢는 한때 一進一退를 되풀이 하는 치열한 樣相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我軍은 制空權의 장악과 火力의 우세로써 強靭한 奪還作戰을 벌인끝에 마침내 또다시 38°線에 進出할수 있었다。

이리하여 다시 38°線을 넘느냐의 與否로써 정치문제에 까지 飛火되어 옥신각신 論議가 거듭되던 끝에 마침내 MacArthur元帥는 38°線 再突破命令을 내렸으니 眞實로 世紀的인 上將의 快斷이었다。

그러자 英國 Attlee首相은 美 行政府에 대하여 『38°線 再越境은 參戰 各國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무질없는 警告의 思를 犯하였으나 Truman大統領은 3월 15일에 『38°線 越境은MacArthur元帥의 權限이며 UN의 결정은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담화로써 이를 反駁하였다。

그런데 同元帥가 38°線 越境명령을 내린 목적은 UN軍 전선을 漢江線으로부터 臨津江線으로 옮기려는데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보다 앞서 서울奪還이 가까워진 3월 12일에 Ridgway는 말하기를 『38°線에서 停戰된다면 UN軍의 大勝利가 되는 것이다』라고 自慢함으로써 武力으로서의 韓國統一은 斷念한다는 뜻을 밝히는 동시에 休戰協商의 可能性을 暗示하기에 이르렀으니 우리 民族의 悲運은 이로부터 또다시 계속되기에 이르렀다。

그뿐만 아니라 이보다 12일이 지난 3월 24일에 MacArthur元帥는 갑자기 『現地停戰會談을 할 用意가 있다』라는 성명을 발표하여 각 방면에 충격적인 파문을 일으켰고 이로 말미암아 韓國國民은 連日 休戰을 결사 반대한다는 口號를 외치며 汎國民的인 반대 시위를

벌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情況과는 관계없이 敵은 다시 끈질긴 공세를 취하였으므로 我軍은 強力한 反擊으로 敵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38°線에 다다랐다。

이때 MacArthur元帥는 戰線을 시찰하고자 3월 24일 任地를 출발하였는데 그는 출발에 앞서 다음과 같은 聲明을 발표하였다。

『이제 UN軍은 南韓에서 조직적인 共産軍을 거의 섬멸하였다。

中共이 수많은 희생을 내고 이 이상 전쟁을 계속하는 것은 공연히 韓國國民을 도탄에 빠뜨린 꼴이다。

UN軍이 전쟁을 韓國에 局限하는 관대한 노력을 중지하고 군사작전을 中國本土에 까지 확대한다면 中共은 곧 軍事的 붕괴에 직면할 것이다。

中共지도자가 宜當 韓國문제를 해결짓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는 언제든지 전쟁의 종결에 관하여 敵의 최고사령관과 前線에서 협의할 用意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元帥의 聲明은 美行政府를 비롯한 各國에 큰 파문을 일으켰으나 그는 聲明을 발표한뒤 東京司令部로 되돌아 갔다。

이 聲明에 대하여 敵側에서는 아무런 反應도 없었는데 MacArthur元帥는 觀察中에 現地司令官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언제든지 38°線을 넘어도 좋다고 하였다。

이때 대기하고 있던 東海岸의 韓國軍은 다음날 29일부터 일제히 38°線을 돌파하기 시작하여 襄陽등 5개 都邑을 탈환하였다。

한편 이에 따라 中部戰線의 美軍部隊도 38°線을 돌파하였으므로 北韓 전역은 다시 본격화 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我軍의 38°線 돌파와 아울러 北韓에 대한 진격이 본격화 하자 前述한 MacArthur元帥의 聲明문제는 의외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문제의 焦點은 즉 첫째로 MacArthur元帥가 UN軍司令官 자격으로서 休戰에 관하여 現地 共産軍司令官과의 회담을 제의하였다는것, 둘째로 동시에 UN은 종래의 不擴大主義 정책을 변경함으로써 中國군사기지 및 그 海岸地域 공격을 용인한 가능성 조차 있다는 것을 暗示하였다는데 있었다。

그뒤 Truman大統領은 3월 25일에 MacArthur元帥에게 맛세지를 보내어 『정부는 장군이 장차 행할 어떠한 聲明書도 公表前에 Washington當局과 협의하기를 요청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英國과 佛蘭西 側에서는 계속 맹렬한 반대를 하며 軍司令官으로써 政治問題를 논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경한 항의를 제출하였다。

이때 美 共和黨 Martine 議員이 3월 20일부의 MacArthur元帥의 서한을 下院에서 공개함에 이르러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飛火되었다。왜냐하면 MacArthur元帥는 앞서 Martine이 國會에서 『中共軍에 대하여 國府軍을 사용하자』고 주장한데 대하여 그에게 찬동의 뜻을 밝힌 書翰을 보낸 가운데서 『國府軍을 사용하여 第2戰線을 형성하여야 한다는 것과 歐羅巴 외교관들은 歐羅巴 第一主義를 생각하고 있으나 共産主義와의 전쟁에 있어서 亞細亞에서 패하면 歐羅巴의 붕괴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었다。

이 私信의 공개는 國際政局에 한층 더 심각한 자극을 주어 만약 MacArthur元帥의 主張대로 한다면 第3次 세계대전을 挑發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여 착잡한 物議가 비등하였던 것이다。더군다나 이때 民主黨領首이며 美下院의 議長 Reyburn은 國會에서 滿洲 및 韓國內의 敵軍은 中共軍뿐이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第3次 大戰의 危機切迫을 경고함에 비추어 Truman大統領은 급기야 4월 11일 방송을 통하여 MacArthur元帥의 해임을 발표하였다。

그리하여 元帥의 후임에는 Ridgway大將이 임명되고 第8軍司令官에는 Van Fleet中將이 各各 임명되었다。

한편 4월에 들어 國內에서는 國民防衛軍事件과 屈昌事件이 발생하여 政局을 어수선하게 하였는데 事態가 엄청나게 심각함에 비추어 李承晩大統領은 收拾책으로 各部長官을 해임하고 內務에 李錫澤을, 國防에 李起鵬을, 그리고 法務에 趙鎭滿을, 農林에 任文恒을 各各 임명하였다。

또한 5월에 접어들어 國政의 어지러움을 개탄한 李始榮副統領이 辭意를 표명한 끝에 새로히 金性洙副統領을 선출하여 미봉책으로 나마 政局의 수습에 일단락을 지었던 것이다。한편 國內外 정세가 그와같이 변천하는 가운데서도 전투는 여전히 계속되어 我軍은 敵의 春季공세를 완전히 좌절시키고 다시 38°線으로 진격하였다。

그리하여 장차의 敵의 侵略을 阻止하기 위한 鐵의 三角地帶를 확보하고자 西部에서는 5월 22일에 臨津江에 진출하고, 6월 30일에는 漣川으로 躍進하여 이 線에서 敵과 對陣하였으며 東部에서는 5월 26일에 襄陽을 탈환하고, 29일에 杆城을, 그리고 30일에는 高城을 점령하였다。그러나 5월 중순부터 떠돌던 停戰說은 6월 23일 Malik의 平和제안과 함께 급속히 진전되어 美 行政府는 관계 각국과 협의한 다음 Ridgway大將에게 停戰會談제안을 지령하였다。그리하여 6월 30일 08.00에 Ridgway는 방송을 통하여 休戰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第 36 章

鴨綠江 方面 撤收作戰

要 旨

1. 楚山—溫井里地區 戰鬪
2. 第2次 雲山—寧邊附近 戰鬪
3. 价川—飛虎山附近 戰鬪
4. 博川—泰川—龍山洞附近 戰鬪
5. 寧遠附近 戰鬪
6. 德川附近 戰鬪
7. 平壤—38°線 撤收戰
8. 美 第1軍團의 淸川江附近 戰鬪
9. 美 第9軍團의 淸川江附近 戰鬪
10. 海軍의 黃海道 避難民 救出作戰과 救護活動
11. UN海軍의 西海 (鎭南浦—仁川)撤收作戰
12. 空軍의 撤收作戰
13. UN空軍의 活動

第 36 章 鴨綠江方面 撤收作戰

要 旨

本章에는 1950년 10월 下旬에, 淸川江을 넘어선 美 제8군이 狼林山脈 以西의 中, 西部戰線에서 제2군단과 美 제1군단을 一線梯隊로 하여 滿浦鎭—楚山—碧潼—朔州—新義州를 連하는 鴨綠江岸의 國境을 目標로 進擊戰을 展開하다가 中共의 侵略으로 말미암아 不期 激突戰을 하게 된 것을 비롯하여, 敵의 鋭鋒을 꺾고 다시 淸川江 線에서 戰力을 補強한 다음 11월 24일을 期하여 全面 進擊戰을 敢行하였으나 中共 大群의 反擊으로 戰略上 撤收移轉케 되는 內容이 收錄된다。

北進當時 軍은 陸本作命 제221호(50. 10. 20)로서 設定한 德川里—順安洋—價木洞—栗谷洞까지의 前進限界線을 폐기하였으며, 政戰兩略의 配慮 때문에 國境진출을 躊躇하던 UN 當局에서도 10월 21일 MacArthur元帥의 총진격명령이 下達됨으로서 國軍과 UN軍은 協同作戰으로 國境을 向하여 突進하였다。

이때 中西部戰線의 進出正面은 270km에 達하는 廣大한 山岳地帶였으나, 當時 北共은 主力의 大部分이 四散되어 지휘체계가 蹂躪되고 조직적인 戰力을 상실한채 潰走北上 하기에 汲汲하였기 때문에 美 제8군은 個個의 敵을 擊破하면서 逐次進出하기 보다는 敵에게 再編成할 수 있는 時間餘裕를 주지않고 敏速한 突進作戰을 전개하여 早速한 終戰을 서둘렀다。

즉, 右翼인 제2군단은 제6사단을 先頭로 하여 楚山과 碧潼으로 진격토록 하였으며, 그 뒤를이어 제8사단은 熙川과 江界를 攻略한 다음 滿浦鎭으로 진격토록 하였으니, 제6사단은 제19연대를 熙川에 남겨 제8사단의 進出을 掩護하는 한편 主力은 별써 葵平과 溫井里를 占領한 然後에 제2연대는 碧潼으로 指向하고, 先鋒인 제7연대는 國境의 指呼之間인 古場에까지 다다랐다。이무렵 제8사단은 제10연대가 熙川에 進出하였으며 제16, 제21연대는 球場洞에서 계속 前進態勢를 갖추었다。

한편 左翼인 美 제1군단은 제1사단과 美 제24사단(英 제27여단 배속)을 左右로 展開하여 碧潼以西의 朔州와 新義州를 目標로 진격하였는데 제1사단은 碧山을 占領한 다음 제12, 제15연대를 攻擊梯隊로하여 계속 朔州로 向한 突進態勢를 갖추었고, 美 제24사단은 英 제27여단을 前衛로 하여 博川 南側에서 大寧江을 건너 西岸 高地를 공격하였다。 또한 군단의 예비인 제7사단은 价川—寧邊—龍山洞 一帶에서 後續準備를 하였으며, 美 제1기갑사단은 戰略 예비대로서 平壤과 鎭南浦 一帶에 남아 警戒任務를 遂行할 정도로 餘裕있는 作戰을 전개하였다。

이상과 같이 一線 4個사단이 中西部의 要線을 擇하여 破竹之勢로 急速進擊戰을 펴고 있을때, 뜻하지 않게 10월 25일 中共軍이 그 馬脚을 드러냈으니 이들은 제13병단 傘下의 5個軍 15個師團이 10월 中旬부터 韓滿國境으로 潛入하여 狄踰嶺山脈 南麓에 潛伏하고 있다가 一擧에 反擊함으로써 一大 激戰을 展開하게 되었다。

즉, 新義州로 潛入한 제39, 제40군은 中部의 要線인 北鎭과 靑山鎭 一帶에 潛伏하고 있다가, 제40군은 溫井里로 侵攻하여 제6사단의 제2연대를 攻圍하면서 멀리 楚山까지 進出한(26일 전출) 제7연대의 退路를 遮斷코자 함으로써 大血戰이 전개되었으며, 제39군은 雲山正面에서 제1사단의 進路를 막아 激戰이 전개되었고, 滿浦鎭으로 入韓한 제38군은 江界—熙川輜線을 따라 제8사단을 壓迫하면서 淸川江 上流의 河谷으로 侵入하였다。또한 新義州를 넘어선 제50, 제66군은 大寧江 上流에서 北共의 제17기갑사단 및 제32사단과 合流하여 美 제24사단의 正面으로 接近하고 있었다。

이렇듯 새로운 敵 中共의 무리는 人海戰法과 夜襲을 강행하여 主로 國軍의 진출正面인 熙川—溫井里—雲山에서 攻勢를 取하여 主攻을 제2군단의 正面으로 指向하고 院里와 軍隅里 北方으로 殺到하였다。

이와같이 戰況이 急變하자 美 제8군사령관 Walker 중장은 美 제1군단의 예비이던 제7사단을 제2군단으로 復歸시켜 제8사단과 함께 德川—軍隅里—球場洞의 線에서 敵의 一線을 擊破토록 하는 한편 美제1기갑사단을 平壤에서 急遽北上시켜 雲山 北쪽의 제1사단 戰鬪正面을 補強하였으며, 美 제24사단은 英 제27여단으로하여금 定州를 警備케 하고 主力은 黎邱洞—龜城—停車洞線까지 진출하여 敵의 右側背를 挾擊하였다. 그러나 제2군단의 防守一角이 무너지고 軍隅里가 威脅을 받게되자, 美 제1기갑사단은 新安州로 撤收하여 軍隅里 北쪽의 敵에 對한 反擊態勢를 갖추었으며, 美 제24사단은 淸川江 北岸의 橋頭堡陣地를 占領하였다。

그間 各戰線에서는 11월 5일까지 步戰砲空의 協同攻擊으로 치열한 격멸전을 전개한 끝에 11월 6일 제7사단의 飛虎山 勝戰을 고비로 戰勢를 恢復하였으며 敵은 全戰線에서 離脫하여 退却하기 시작하였다。

이상과 같이 제1차攻勢에서 失敗한 敵은 潰退한듯이 潛跡하였으나, 事實은 增援부대의 到着을 기다리면서 부대를 再編하고 補給을 增加하여 새로운 攻勢를 準備하고 있었는데, UN軍 當局에서는 敵의 能力을 過小評價하고 다시 全面進擊戰을 計劃하였으니, 이에 따라 江界과 開城—鐵原에서 殘敵 撲滅戰을 펴고 있던 美 제9군단이 最戰線의 中央으로 진출 하였으며, 11월 22일까지 戰鬪地境을 調整하고 공격준비를 完了하였다。

즉, 右翼인 제2군단은 제8사단을 寧遠에, 제7사단은 德川 一帶에 各各 展開하는 한편 제6사단은 예비대로서 北倉에 配置하였으며, 美제9군단은 球場洞—寧邊線을 擔當하였고, 左翼인 美 제1군단은 龍山洞—博川 線에서 각각 공격준비를 마치고 11월 24일 08.00를 期하여 總進擊戰을 敢行하였다。

이때 敵은 새로히 투입 제42군을 寧遠北方의 山岳地帶로 增援投入한 것을 비롯하여 제38군은 德川北쪽의 妙香山脈 一帶에서, 제39, 제40군은 美 제9군단의 正面에, 제50, 제66군과 北共 제1군단은 美 제1군단의 進出正面에 潛伏하고 있다가 26일 總攻에 200,000의 大兵으로 反擊함으로써 前後 彼我間에는 激戰이 反復되더니, 27일에 德川을 失陷한데 이어 敵은 계속 北倉으로 殺到하면서 西部의 UN軍을 壓迫하였다。

이렇듯 戰況이 反轉되자 美 제8군에서는 軍예비인 제1기갑사단으로 하여금 東側方을 掩護토록 하면서 28일부터 撤收하여 元山—陽德—成川—順川—肅川을 連하는 平壤北方의 장이陣을 形成하기에 盡力하였다。

그러나 12월 3일에 제2군단의 成川방어진이 무너지자 MacArthur元帥의 命令에 따라 38線으로 總退却을 하게 되었으니 國境을 뒤에두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將兵들의 마음은 痛憤하기 이를데 없었다。

1. 楚山—溫井里 地區 戰鬪 (1950년 10월 24일 부터 1950년 10월 30일 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2호
상 황 도 제2호
작명부록 제4권제21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제2 군단	장 소장	劉 載 興	제19연대	장 대령	朴 光 赫
제6 사단	장 준장	金 鍾 五	제1 대대	장 소령	金 俊 敎
제2연대	장 대령	咸 炳 善	제2 대대	장 소령	金 旭 篆
제1대대	장 소령	石 順 天	제3 대대	장 소령	朴 徹
제2대대	장(대리) 대위	李 學 勳	포병제16대대	장 소령	金 聖
제3대대	장 소령	宋 大 厚			
제7연대	장 대령	林 富 澤			
제1대대	장 중령	金 容 培	병력 : 예비속 부대 포함 약 10,000명		
제2대대	장 중령	金 鍾 洙	장비 : T/E상의 사단장비		
제3대대	장 중령	印 聖 瑢			

敵 軍

中共 제13병단	사령관	李 天 佑	제120사단	장	徐 國 夫
			(제358, 359, 360연대)		
제40군	장	韓 先 楚	병력 : 약 40,000명		
제118사단	장	鄧 岳	장비 : 62mm 및 82mm 박격포		
(제352, 353, 354연대)			2.36″ 및 3.5″ Rocket포		
제119사단	장	남 선 원	120mm 榴彈砲등		
(제355, 356, 357연대)					

나. 전투 전의 개황

中共軍의 韓半島 侵略與否가 국내외적으로 注視되어 論議되고 있던 1950년 10월 末頃에 제2군단(장, 劉載興소장) 예하의 제6사단(장, 金鍾五준장)은 最先鋒에선 進擊師團으로서 价川—球場洞을 攻擊한

다음 더욱 拍車를 加하여 一線聯隊로 하여금 韓滿國境에 까지 北進을 계속토록 하고 사단은 10월 24일 13.00에 熙川에 이르렀다。

한편 지휘체제가 瓦解되고 재편성의 시간적 餘裕를 얻지 못한 戰區內의 北共軍은 散發混成部隊(北共제1사단, 제6사단, 제42사단등)로서 極度로 士氣가 저하되고 대부분의 전투력이 喪失되어 救命圖生하기에 汲汲하였으며 특히 北共 제8사단(장, 소강 吳白龍)의 잔여 혼성부대는 연대 규모로서 楚山地區에서 最後의 抵抗을 企圖하였으나 제7연대 제1대대(장, 金容培중령)의 과감한 進擊으로 潰滅分散되므로서 드디어 先鋒聯隊인 제7연대(장, 林富澤대령)는 10월 26일 14.15에 感按어린 國境에 다다랐다(참조 : 前刊 제4권 P 674~676)。

그러나 不法 侵略한 中共軍이 東林山(△ 1165) 一帶에서 不意에 그 馬脚을 드러내고 사단의 前進軸線上에 나타남으로서 戰線은 一朝에 그 攻防樣相을 달리 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새로운 敵과 對峙하게된 사단의 전투정면은, 狄踰嶺山脈과 妙香山脈이 平北 楚山郡과 碧潼郡 그리고 雲山郡에 連하여 뻗어 보통 海拔 1,000m이상의 大小山脈으로 形成된 高山地帶이며 急傾斜를 이룬 斷崖와 峽谷은 大自然의 森林과 더불어 險峻한 山岳地帶를 이루고 있어 大部隊의 機動에 많은 제한을 주었으며 隣接部隊 및 후속부대와의 연락이 어려웠고 더욱이 冬季에 접어든 寒冷한 朔風과 降雪이 갖아 視界가 흐리게 되어 긴급을 요하는 航空支援 및 화력지원에 많은 제한을 받았다。

특히 제7연대가 占領確保하고 있는 楚山은 北共진부가 임시 자리잡은 滿浦鎭의 西南方 94km지점으로서 進擊路上의 要地이고, 제2연대가 진출한 溫井里는 北으로는 熙川—楚山—碧潼에 이르고 南으로는 雲山과 价川에 이르는 主要道路가 網羅되어 主補給路上의 據點일 뿐만 아니라 中部戰線에 接近하는 要衝地로서 萬一 이곳을 奪取當한다면 90km北方의 제7연대가 孤立상태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彼我間에는 더욱 치열한 격전이 전개 되었다。

敵軍의 狀況 : 各戰線에서 遲延戰을 劃策하던 北共은 그들의 政府와 주요 군사시설을 滿浦鎭을 中心으로 주위에 집결시켜 방어진을 구축하고 그곳에 遊擊基地를 形成하여 최후의 저항을 企圖하려는등(참조 : 1950. 10. 20 육군 정기정보 보고) 거의 衰盡한 상태에 이르렀으나 10월 中旬이후 계속 국경을 넘어선 中共軍은 최초 2個 野戰軍이 韓國戰에 投入되어 陳毅가 지휘하는 제3야전군은 滿浦鎭을 경유하여 東部戰線으로 향하였고 林彪 지휘하의 제4야전군은 新義州로 侵入하여 中西部戰線으로 南下하였다. 즉 中共 제20兵團 예하의 제66군(장, 蘇新視)은 西部 전선의 定州—宣川附近에서 연합군 美제24사단(장, John H. Church 소장)의 진출을 저지 하였으며, 제13병단 예하의 제39군은 左隣接부대인 제1사단(장, 白善燁준장)의 정면으로 南下하였고, 이 보다 먼저 10월 15일 亦是 新義州로 潛入한 中共 제13병단(장, 李天佑) 예하의 제40군(제118, 119, 120사단)은 韓先楚가 지휘하여 24일에 제6사단의 전투정면에 나타나게 되고 25일에는 그 正體를 드러내게 되었다。

한편 제6사단의 제7연대가 占領하고 있는 楚山附近에는 宋霖根이 지휘하는 제38군(제 112, 113, 114사단)이 滿浦鎭으로 潛入하여 接近하고 있었다(참조 : 入韓中共軍經歷 : 육군정보국 발행)。

이와같이 大擧潛入한 中共軍은 全 전선을 위협하는 동시에 敵都 平壤을 早速히 奪取할 目的으로

우선 전략적 주요 거점인 熙川—雲山—定州를 連하는 線을 확보하기 위하여 主攻을 中西部 전선으로 指向하였으며 先鋒進擊師團인 제6사단의 전투정면으로는 약 40,000명의 兵力으로 侵攻 南下하려 하였다. 즉 이들은 溫井里로 부터 약 3km~12km北方의 大小稜線上에 侵入潛伏하고 있다가 25일 제2연대의 主力이 碧潼을 향하여 전진을 계속하자 大擧包圍 공격을 가하는 한편 이미 超越攻擊한 제7연대의 後方을 遮斷한 다음 이미 形成된 포위권을 압축하려 하였다。

당시 中共軍의 戰法은 所謂『리와戰法』이라는 것이 었으니 이는 곧 彼我의 戰鬪能力을 比較 檢討한 다음 勝算이 있으면 攻擊하고 不利할 경우에는 일단 후퇴하여 다른 戰法으로 轉換하는 你退我進法과 그들이 소망하는 有利한 지형으로 유도한 연후에 決戰을 감행하려는 誘導戰法 그리고 相對便 配置線外의 局部와 弱點을 찾아 侵攻하는 侵透戰法 및 迂回戰法을 恒用하였으며 人海戰術을 並行한 夜間戰法을 唯一한 寶刀로 삼았다。

이들의 소질은 대부분이 農村出身으로 學歷은 얕았으나 인내심과 복종심이 강하고 전투경험을 쌓은 中共軍과 國府軍 및 八路軍 出身이 많았으며 中國 廣東省에서 山岳訓練을 받아 山岳戰鬪와 夜間戰鬪에는 야수와도 같은 만용성을 지녔었다. 縱深의 安全地帶를 배후로 한 보급 능력도 충분 하였으며 사기도 양호한 편이었다。

이들이 사용한 主要裝備는 62mm 및 82mm 박격포와 2.36″ 및 3.5″ Rocket砲 그리고 120mm 榴彈砲 정도였으나 各 個人은 산악전에 편리 하도록 輕장비를 가지는 대신 많은 手榴彈을 휴대 하였으며 특히 異彩로운 것은 전투간에도 피리와 나팔을 불며 북과 꽹과리를 치는등 前世紀的인 手法으로 오히려 士氣를 높혀 보려는 心理戰을 꾀하기도 하였다。

我軍의 狀況 : 10월 26일 東部戰線에서는 美제10군단이 元山에 上陸하였으며 西部의 연합군은 美제24사단이 平壤 西北方 80km지점인 博川에서 大寧江을 건너 계속 진출하고 있을 때 劉載興소장이 지휘하는 제2군단은 价川에 위치하여 前方師團을 모두 雲山과 熙川까지 進出시켰으며 一線연대는 楚山까지 進擊하는데 成功하였으나 我軍의 進出을 예상한 中共軍은 제6사단의 제2연대(장, 咸炳善대령)가 形成한 前進軸線上에 나타나 일시에 進路를 막고 總反擊戰을 敢行코자 하였다。

이때의 사단 右翼에는 제8사단(장, 李成佳준장)이 熙川 까지 進出하였고 左翼에는 제1사단(장, 白善燁준장)이 雲山에 다다라 並行攻擊을 하고 있었으나 隣接師團도 또한 거의 동시에 中共軍과 接敵하게 되어 전선은 超緊張裡에 敵情判斷을 위한 정찰활동을 강화하고 敵의 동향에 따른 對應策을 마련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때 제2연대는 溫井里를 占領하고 계속 碧潼에 이르는 중간목표인 北鎭(溫井北方 17km)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었으며 제7연대(장, 林富澤대령)는 前方 cp를 古場(楚山 南方 32km)으로 이동 하고 이미 占領 確保한 古場과 楚山附近에 병력을 展開하여 地域防禦를 強化하는 한편 依命待期 하였고 제19연대(장, 朴光赫대령)는 사단 지휘부와 함께 熙川에 위치 하며 前方연대의 뒤를 따라 進出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이와같은 前進狀況下에 反擊戰을 企圖하는 대병력의 中共軍과 接敵하게 된 제6사단장 金鐘五준장은 이 새로운 敵 中共軍 마저 擔當戰區內에서 저지 격멸하고 進擊을 계속하려 하였으나 敵은 제2연대

를 大擧 포위공격 하는 同時에 계속 병력을 증강하여 제7연대 마저 위협하며 攻擊을 계속하여 상황이 점차로 不利하게 되자 사단장은 예비대인 제19연대를 신속히 이동 시켜 敵의 側後方으로 부터 공격하므로써 제2연대를 지원토록 命令하였다。

그러나 제19연대도 急速히 南進하는 中共軍으로 말미암아 그 進出이 如意치 못하게 되자 제7연대를 旋回시켜 檜木洞(溫井 北方 38km)으로 移動토록 한 다음 敵의 背後를 무찔러 戰勢의 主導權을 挽回코자 하였으나 北으로 古場까지 80餘km나 되는 遠距離였고 이때는 이미 中共軍이 松坪洞(溫井 北方 20km)附近의 △724에 까지 肉迫하여 제7연대의 이동로 南端에 接近하고 있었다. 이런 까닭으로 軍團에서는 제8사단의 제10연대(장, 高根弘대령)를 급거 출동시켜 제6사단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各 部隊마다 새로운 作戰 및 機動計劃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本作戰 當時의 제6사단은 약 10,000명에 達하는 편제 상의 거의 完全한 인원과 장비를 갖추었으며 포병 제16대대를 배속 받고 있었다(제7연대는 장교 119명 사병 2,926명)。

10월 27일 이전까지는 보급도 원활 하였으며 二千餘里의 戰野를 굽히 추격하던 장병들은 한결 같이 사기도 드높고 見敵必滅의 용감성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楚山地區 戰鬪(10. 27~10. 30)

(가) 작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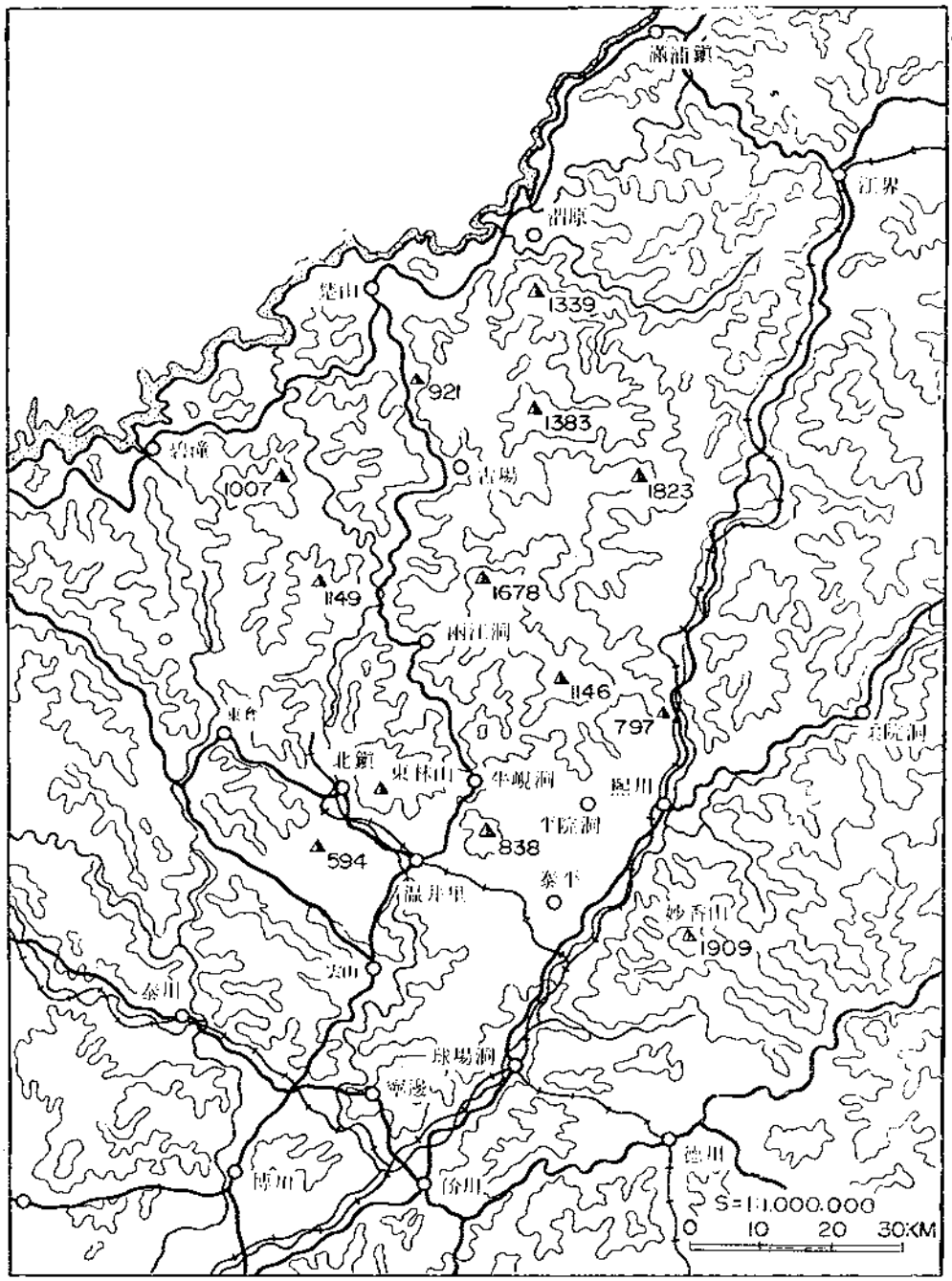
육본작명 제221호(1950. 10. 20 13.00 : 旣刊 제4권 부록 제20호참조)에 의거하여 檜木洞까지 점령확고 한 제2군단(장, 劉載興소장)은 統一을 目前에 두고 國境線 까지 진출할 계획하에 예하의 제6사단(장, 金鍾五준장)과 제8사단(장, 李成佳준장)으로 하여금 左右의 一線에서 각각 熙川과 溫井里를 경유하여 鴨綠江까지 進擊하도록 命令하였다。

이 計劃에 따라 제6사단장 金鍾五준장은 攻擊梯隊를 편성 하되 右一線의 제7연대(장, 林富澤대령)는 豊場과 古場을 경유하여 楚山을 목표로 進擊토록 하고, 左一線인 제2연대(장, 咸炳善대령)는 溫井과 北鎭을 경유하여 碧潼을 占領토록 하는 한편 제19연대(장, 朴光赫대령)를 예비대로 두어서 殘敵을 격멸 하면서 後續토록 하여 急速히 진출한 다음에 主力은 韓滿國境을 점령 방어 하도록 하고 사단사령부를 溫井里에 開設하려고 計劃하였다。

이러한 명령을 받은 제7연대장 林富澤대령은 10월 26일 古場과 楚山을 완전히 점령하고 依命待期 하였으나 제2연대는 전날 12.00 에 溫井里 西北方 7km인 長洞附近에서 不意의 中共軍과 접적 교전 끝에 26일에는 敵에게 완전히 포위 당하므로서 제7연대 마저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에 이르러 사단은 예비대인 제19연대를 急遽出動시켜 제2연대를 敵의 포위망속으로부터 救하고 제7연대의 背後로 진출하려는 敵을 阻止하려고 하였으나 戰勢는 急變하여 中

◇ 상황도 제2호 楚山—溫井里 附近 略圖



共軍은 병력을 계속 증강 하는 同時에 대대적인 侵攻을 감행하려 하므로 제6사단장 金鍾五준장은 要旨 다음과 같은 電文命令을 제7연대장에게 下達하였다。

『 ① 사단은 東林山 一帶에 出現한 敵을 저지 격멸 한 다음 이미 計劃된 任務를 遂行하려 한다.

② 제7연대는 迅速히 부대를 集結하여 楡木洞으로 移動하라。』

27일 12.00에 이상과 같은 명령을 받은 제7연대장은 임무를 확인하는 즉시로 各隊의 이동에 따르는 人員과 裝備를 수습 하도록 준비명령을 하달하고 임무수행상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검토키로 하였다。

첫째 : 敵은 제2연대 뿐만 아니라 제19연대까지 위협하는 大兵力으로서 移動路上의 重要據點인 板下洞(古場南方 25km)에 까지 侵襲하고 있다는 점,

둘째 : 연대는 迅速한 移動을 要하나 燃料가 枯渴되고 탄약이 부족하다는 점,

세째 : 楡木洞까지는 50km로서 機動路는 하나밖에 없으며 예비 통로는 險한 山路를 택할수 밖에 없다는 점, 특히 機動路는 폭이 좁고 起伏이 심할 뿐 아니라 山谷間의 급경사와 斷崖로 형성된 지역이 많아 신속한 이동과 접적시의 機動제한이 많다는 점,

네째 : 隣接부대가 없고 지원부대 및 友軍이 멀리 있어 단독으로 孤立 작전을 수행 할수 밖에 없다는 점,

다섯째 : 楡木洞에 이르기까지 접적 예상 지점과 접적시의 投入할 대대의 문제등을 고려한 나머지 부대를 차량으로 신속히 이동할 결심을 하고 사단에 油類와 彈藥의 긴급 지원 요청을 하는 한편 행군계획을 수립 하였으니 즉 主機動路는 古場을 出發하여 豊場—板下洞—兩江洞을 경유한 다음 楡木洞으로 향하는 車輛行軍路를 택하여 敵陣을 突破하되, 決戰을 피하고 이동에 優先權을 두도록 하였으며, 적정이 심할 때에는 제2대대(장, 金鍾洙 중령)로 하여금 선두에서 이를 견제 하도록 하고 주력을 신속히 이동 시킬 계획하에 화력의 중점을 제2대대에 두도록 하였다. 만일 主통로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豊場에서 倉洞(豊場 東方 8km)을 경유하여 朱沙山(△1677)을 우회하는 山路를 예비 통로로 사용할 계획 밑에 이에 필요한 모든 전투 준비를 갖추도록 하였다。

(나) 작전 실시

10월 27일 : 제6사단의 제7연대는 이날 12.00에 下達된 『楡木洞으로 移動하라』는 사단장 명령에 의하여 이동 준비를 완료하고, 이미 사단에서 18.00까지 計劃通報되었던 空輸補給이 推進되기를 기다렸으나 日沒時를 지나 24.00까지도 도착되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야

전 지휘소 古場일대에서 四周警戒를 하면서 野營하게 되었다。

한편 사단의 通報에 의하면 咸炳善대령이 지휘하는 제2연대는 지난 25일에 接敵한 以來로 溫井里附近에서 격전을 전개하였으나 다음날인 26일 12.00이후 부터는 中共軍에게 포위되어 戰況이 惡化一路에 있었으며 제19연대가 이를 救하고 敵軍의 進出을 阻止하기 위하여 急遽出動한 다음 兩江洞, △501, 豐中里(溫井 西北方 6km)一帶를 占領하고 계속 진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10월 28일 : 이날 제7연대가 補給推進의 지연으로 이동을 단행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제2연대는 溫井里에서 그 主力이 泰平으로 이동 하였으며, 제19연대 마저 진출을 저지 당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戰況으로 볼때 大兵力의 中共軍이 不遠間 北上할 것으로 推算되었으며 연대는 迅速히 부대를 이동 하여야 할 단계로 判斷되었고 楡木洞까지의 거리는 50餘km에 達할 뿐만 아니라 主補給路가 敵의 위협을 받고 있는 脆弱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부대의 徒步行軍이 어려움을 예상한 연대장 林富澤대령은 于先 연대 수색대를 출동시켜 이동로 전방의 敵情을 探索하고 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古場에서 豐場(古場 南方 16km)까지의 수색정찰을 명하였다. 이리하여 이날 08.00에 古場을 出發한 수색대는 古面川을 따라 主機動路 附近을 搜索하면서 12.00에는 豐場까지 이르렀으나 아직 敵情이 없었으며 移動路 周邊은 平穩한 상태를 유지 하고 있었다。

한편 연대에서는 苦待하던 空輸補給이 13.00에 이르러 겨우 4톤의 輸送機에 의하여 추진 되었으므로(휘발유 45드람, 야포탄 200발 기타 탄약등) 즉시 연료를 楚山에 위치한 제1대대(장, 金容培중령)에 直送하여 古場까지의 신속한 이동을 명령하는 즉시로 출발 준비에 박차를 加하였다. 즉, 寬大洞에 위치 하던 연대 보급소를 16.00에 출발시켜 20.00에는 古場으로 集結케 하므로써 本隊와 步調를 같이 하도록 하였으며 제2대대(장, 金鍾洙중령)를 제3대대(장, 印璽瑢중령)와 경계임무를 교대시켜 古場에 집결케 한 다음 전투태세에 임할 준비를 하도록 하였고 依命 제1대대(장, 金俊敎소령)는 楚山國民學校에 集結한 다음 24.00까지에는 古場에 도착케 되었다。

이날 연대는 제2차로 강력한 威力搜索隊를 편성하여 포병 제16대대 제2야포중대의 지원밑에 接敵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南進할 것을 명령하여 18.00에 古場을 出發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南下하던 搜索隊는 23.00에 豐場 南方 2km지점에서 1개중대 규모의 中共軍과 최초로 접적 하므로써 교전이 전개된 끝에 이 敵을 격퇴하고 계속 진격하여 24.00

에는 豐場 南方 약 6km지점에 까지 이르렀으나 中共軍은 계속 병력을 증강하여 側後方의 △517를 沿하여 侵攻 포위하려 하므로 지형과 상황이 不利하게 됨에 따라 명에 의하여 다시 豐場 南方 2km지점으로 이동 하고 중대는 戰鬪前哨의 임무를 수행 하면서 防守態勢에 臨하기로 하였다。

이날 사단은 球場洞에 위치 하였으며 제2연대는 泰平에서 分散된 兵力을 수습하여 재편성을 단행하고 있었고 제19연대는 溫井里附近에서 교전중에 있었다. 특히 제7연대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방어하고 있던 제19연대의 제1대대(장, 金俊敎소령)가 聯隊자체의 計劃에 따라 兩江洞으로부터 東林山麓의 龍淵洞(溫井 北方 19km)으로 이동 하고 있었다。

10월 29일 : 드디어 이동 준비를 완료한 제7연대는 林富澤대령의 지휘하에 이날 07.00에 제2대대를 尖兵大隊로 하여 제3대대—연대본부—제1대대 順으로 이미 마련된 행군계획에 따라 車輛化된 行軍縱隊로써 古場을 출발 하였다。

한편 이러한 출발 보고를 받은 사단에서는 즉시 군단에 航空支援을 요청하고, 제19연대로 하여금 敵의 배후를 공격토록 하여 제7연대의 이동을 容易케 지원하려 하였으나 이때에는 이미 제19연대 마저 敵의 포위에 빠지게 되었으며 中共軍은 古場 南方 26km의 板下洞과 板厓洞일대에 까지 侵入하고 있었다。

戰況이 이에 이르자 제6사단장 金鐘五준장은 이날 08.00에 電文으로 命令하기를 『貴연대는 위험한 상태에 빠졌으므로 최선을 다하여 철수전에 성공을 바람』이라 하였다. 이러한 뜻하지 않았던 電文을 받게 된 연대장은 이에 대한 결심을 굳게하고 부대를 계속 진출 시키던 중, 09.00에 이르러 연대의 선두 대대인 제2대대가 豐場 南方 2km지점에서 어제밤 출발한 연대 수색대와 合勢하여 계속 진출 하려 하자 我軍의 主力이 通過하기를 待機코자 有利한 지형을 이용하여 潛伏하고 있던 약1개연대 규모의 中共軍과 正面으로 衝突하게 되었다。

이때 中共軍은 제2대대를 포위하는 즉시로 一大決戰을 強要하려 하므로 대대는 즉시 下車하여 攻擊隊形으로 移行하고 연대 主力의 進路를 타개하기 위하여 反擊을 斷行키로 하였다. 이윽고 09.00에 이르러 마침 我空軍의 F—51 一個編隊(4機)가 上空에 나타나자 지원폭격을 퍼부었으므로 대대는 이에 呼應하여 과감히 공격을 계속한 끝에 약간 地步의 진출을 보았으며 연대의 주력도 또한 이의 엄호하에 계속 진출코자 꾀하였으나 敵은 △517와 △631 일대에서 溪谷을 利用하여 有利한 地域을 占領하고 執拗하게 저항하는 동시에 계속 대병력을 左右로 投入한 끝에 포위공격을 감행하려 하였다. 원래 이 地域은

斷崖로써 形成된 山谷間의 迂回路인 까닭으로 機動에는 매우 不利한 곳이며 시간이 지연되면 될수록 부대 主力이 동시에 포위당할 위험을 內包한 곳이기 때문에 短시간내에 決勝코자 치열한 공격을 감행 하였으나 점차로 상황은 不利하게 되기만 하였다. 이리하여 연대는 제2대대로 하여금 一旦 방어태세로 전환케 하고 주력을 豊場으로 集結시키도록 하였으니 攻擊에서 防守로 轉移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戰勢였기에 제2대대장 金鍾洙중령은 곧 대대를 이동하여 豊場을 中心으로 防壁을 이룬 △714를 占領하고 그 一帶의 稜線上에 대대 主力을 배치 하는 한편 古面川을 건너 絶壁을 利用하여 1개중대를 배치토록 하고 敵의 침공을 극력 저지키로 決心하였다。

이때 연대의 主力은 豊場에서 부대를 공격제대로 전환 편성하여 敵의 침투 여하에 따라 進路를 打開키 위한 전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때부터 戰勢는 惡化一路에 있었으니 敵은 中共軍의 常套手段인 人海戰術과 集中打擊을 감행하기 위하여 兵力을 계속 증강하는 일로에 있는 反面 제7연대는 我軍의 지원을 얻지 못한 채로 天險的인 地形의 制約과 보급의 杜絶로 말미암아 참으로 文字 그대로 進退維谷인 困境에 惡戰苦鬪의 戰況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날 12.00에 이르러 이상과 같은 상황 보고를 받게 된 제6사단장 金鐘五준장은 곧 命令하기를

『携帶할 수 있는 戰鬪裝備를 除外한 모든 것을 破壞 또는 燒却하고 檜木洞으로 集結하라』는 肝臟이 녹아나는 內容의 電文을 내리게 되었으니 戰野에선 將領들의 이러한 惱心焦思는 당해 본 사람 아니고는 敢히 헤아리기 조차 힘드리라. 이상과 같은 命令을 받게 된 연대장 林富澤대령은 敵情과 地形을 勘案한 끝에 미리 腹中에 새겨 놓은 예비통로를 이용키로 결심하고 計劃을 변경하여 야간행군으로써 山岳地帶의 突破를 強行할 것을 命令하게 되었으니 上下將兵 모두가 死中에서 活路를 찾고자 한 것이다. 이리하여 下午에 이르러 연대의 主力이 重要裝備를 整理하고 山岳行軍 준비를 하는 동안 제2대대의 방어정면은 一時 小康狀態였으니 이는 彼我간에 서로 작전계획을 변경하여 攻防態勢를 바꾸는데 기인한 것으로 判斷되었다. 즉 中共軍 역시 我空軍의 不時 폭격으로 인하여 주간 공격이 어려움게 되자 야간 공격으로 그들의 계획을 바꾸고 集中奇襲을 꾀하기 위한 準備에 狂奔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 까닭이다. 이렇게 하여 20.00에 이르자 연대의 主力은 제2대대의 엄호를 받으면서 제3대대—제1대대의 順으로 豊場을 출발하여 倉洞(豊場 東北方 8km)으로 機動하게 되었다. 山谷間의 예비통로를 따라 先頭의 제3대대(장, 印聖瑄중

령)가 약 7km정도 전진하였을 때 倉洞附近의 △623에서 다시 敵의 急襲을 받게 되자 대대는 즉각 攻擊을 시작하여 血路를 뚫기 위한 死力을 다 하였으나 원래 지형의 不利와 탄약의 제한으로 脫出速度가 遲遲不進하는 反面에 敵軍의 火力과 수류탄의 集中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不得已 부대를 이동 하여 豊場에서 4km 떨어진 明場山(△1197)의 後斜面을 占領하고 제2대대와 함께 敵의 진출을 저지 하고 있었으며 한편 제1대대는 연대 지휘부와 함께 다시 豊場으로 移動하여 四周防守태세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로부터 각 대대는 수색대를 파견하여 敵의 동향을 살피면서 강력한 방어진을 형성하고 있던 바 "敵은 이날 24.00를 期하여 야간공격을 감행할것"이라는 첩보를 入手하였으므로 날이 밝기를 기다리면서 긴장속에 오직 固守의 決意를 다짐하고 있었다。

10월 30일 : 이날 子正이 되자 中共軍은 피리를 불고 북과 꽹과리를 치면서 兵力을 大擧集中하여 제2대대(장, 金鍾洙중령)와 제3대대(장, 印聖琯중령)의 담당진지의 前面에 투입하는 즉시로 強襲과 直衝으로 突破와 分斷을 꾀하려는 듯 하였다. 兩 대대의 모든 將兵들은 限死코 이 敵을 저지 섬멸코자 힘썼으나 敵은 大병력으로 계속하여 집중공격을 加하여 彼我間에 2시간에 걸친 血戰이 전개된 끝에 진지가 여러 곳에서 돌파되어 兩 대대는 하는 수 없이 부대를 豊場쪽으로 撤收하게 되었으며 敵 中共軍은 더욱 乘勝加勢하여 02.00에는 이미 豊場前面까지 肉迫하기에 이르렀다。

이때에 豊場에서는 제1대대(장, 金容培중령)가 전방 2個대대의 철수를 극력 엄호하고 재편성 할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얻기 위하여, 李大鎔대위가 지휘하는 제1중대를 道路右側인 卧地線上에, 그리고 제2중대와 제3중대를 도로 左側 兩稜線上에 각각 배치하여 모든 火力을 집중하면서 이 敵을 저지코자 하였으나 四面으로 부터 겹겹이 侵攻하는 敵의 突風속에서 약 1시간의 육박전을 전개한 끝에 중과부적으로 제1대대 마저 무너지고 豊場이 마침내 돌파를 당하게 되었다. 슬프도다, 鴨水江畔에 총칼을 씻던 勇將猛士들도 이 濁濤와 이 狂波속에서는 끝내 헤어나지 못하였단 말인가!

이와같이 人海戰術과 人山戰法으로 發惡하는 最惡의 상황속에서도 屈하지 않고 끝까지 醜虜적멸에 挺身獻命하는 我軍의 威力앞에서 中共軍은 屠戮에 이은 떼죽음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督戰에 이은 暴進을 계속 하므로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전세는 惡化一路로 몰리게 되고 대부대의 집결 행동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자 제7연대장 林富澤대령은 부대의 손실을 最少限으로 줄이고 이 難局을 끝까지 克服하기 위하여 各隊를 各 個別的으로 分離脫出케 하는 悲壯한 결심을 한 나머지 命令을 내리되 『各隊는 全力을 다 하여 敵陣을 各個 돌

파 하고 球場洞으로 集結하라』하였다。

이리하여 어제의 進擊의 精兵이 오늘에는 分散突破의 決死之士가 되었으니 어찌 하늘도 無心타 아니할 수 있겠는가. 원래 球場洞은 南으로 100餘km가 되는 遠距離에 있으며 거기까지 가려면 萬重의 첩첩 峻嶺과 山野를 메운 피에 굶주린 虎狼속을 헤치면서 돌진하여야 할 뿐아니라 現在 여기에는 師團主力이 위치하는 곳이지만 대부대의 集結 행동으로서는 그 活路開拓이 不可能하였기 때문에 취해진 萬不得의 조치인 것으로 推斷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各隊는 各個別的으로 돌파行動을 단행하게 되었는데 제1대대의 主力은 이날 04.00에 夜下洞에 이르렀으며 제3대대는 倉洞과 小洞을 거쳐 朱沙山으로 향하였고 제2대대는 연대본부와 같이 山岳血路를 따라 檜木洞으로 向하여 모두 南下하고 있었으니 그 모습이 마치 重傷을 입은 百獸의 王과도 같았을 것이다。

이러한 空前絶後의 困境을 뚫고 이날 10.00에 檜木洞 北方 5km지점에 다다른 제2대대 및 연대본부는 여기에서 겨우 탄약과 식료품의 空輸補給을 받고 이미 敵이 侵襲한 檜木洞을 우회하여 계속 南下 하였다。

이날 이후 各隊는 小隊 또는 中隊 單位로 未知의 險한 血路를 따라 千辛萬苦를 겪으면서도 이를 극복하고 淸川江 防禦線까지 續續集結하고 있었다。

이때 제2연대는 价川으로 集結하고 있었고 제19연대는 溫井里에서 마지막으로 撤收하고 있었으니 將兵들의 悲憤은 하늘에 닿고 국민들의 慷慨는 땅에 사무쳤던 것이다。

(2) 溫井里 附近戰鬪(10. 24~10. 30)

(가) 작전계획

前述한 제2군단(장, 劉載興소장) 및 제6사단(장, 金鐘五준장)의 作戰計劃에 따라 24일 溫井里를 점령한 제2연대(장, 咸炳善대령)는 北共 殘敵에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신속히 進擊하여 鴨綠江 南岸의 碧潼까지 進出할 계획으로 예하의 제3대대(장, 宋大厚소령)를 機動大隊로서 火力에 重點을 두어 선두에서 車輛行軍으로 조속히 전식토록 하고 제1대대(장, 石順天소령)와 제2대대(장, 李聖勳대위)는 도보로서 殘敵을 적멸 하면서 後續토록 하여 北進을 계속하려 하였다. 그러나 不意에 中共軍과 長洞附近(溫井 北方 8km)에서 接敵하게 되어 치열한 교전을 전개한 끝에 兵力의 相對的인 不足과 지형의 제약으로 인하여 할수 없이 그 主力이 다시 溫井里로 이동 하게 되었을 때 제6사단장 金鐘五준장은 要旨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 하였다。

『① 사단은 南林山 一帶에 출몰한 敵을 격멸한 다음 이미 計劃된 任務를 遂行하려 한다.

② 제2연대는 溫井里를 確保하여 방어에 임한 후 命에 따라 進擊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③ 제19연대는 현위치에서 부대를 신속히 이동 하여 豊中里 兩江洞—△501(YE 505 554)를 점령한 다음 계속 攻擊할 준비를 하라。』

이상과 같은 명령을 받은 제2연대는 溫井里에서 계속 병력을 수습하여 방어에 임하였으며 제19연대는 急히 出動하여 明示된 地點으로 兵力을 移動하고 이 敵을 격멸코자 하였으나 各隊는 계획된 작전에 성공하지 못한 채로 오히려 溫井里를 敵의 手中에 맡기게 되자 제2연대는 즉시 泰平으로 移動하여 재편성 한 다음 反擊을 加하려 하다가 군단의 淸川江線방어 計劃에 따라 价川으로 이동 하였으며 제19연대는 最后까지 溫井里를 固守하려 하였으나 亦是 군단의 계획에 따라 价川으로 移動하였다。

(나) 작전실시

10월 24일 : 제6사단 제2연대는 咸炳善대령이 지휘하여 이날 08.00에 球場洞을 出發하였는데 제1대대를 先頭로 하여 제3대대—제2대대의 順으로 泰平을 경유하여 溫井里로 향하였다。

先頭의 제1대대(장, 石順天소령)가 이날 18.00에 溫井里附近에 다다랐을때 그곳 東北方 6km지점인 △559一帶에서 北共 2個中隊의 敗殘兵으로부터 사격을 받고 즉시 進擊하여 이를 격퇴한 다음 19.40에 溫井里로 突入하여 自體警戒를 하면서 宿營하였으며 제3대대(장, 宋大厚소령)는 이 보다 먼저 19.00에 溫井里에 돌입하여 殘敵을 격퇴하고 內務署를 急擊한 끝에 各種 書類를 노획하였다. 이때 我軍의 進出 狀況을 알지 못한 敵軍의 有線網을 盜聽하므로써 비로소 中共軍 출현에 대한 諜報를 얻게 되었으며 대대는 곧 이를 보고 하는 한편 溫井里 後斜面의 △326一帶를 점령하고 警戒에 臨하였다。(註 : 당시 사단급에서는 예하대의 보고에 의하여 中共軍출현의 첩보는 얻었으나 정기 정보에 의한 적정을 파악하지 못하였음 : 당시의 제6사단장 金鍾五준장의 진담에서) 연대의 예비대인 제2대대(장, 李聖勳대위)는 이날 20.00에 연대 지휘부와 함께 溫井里에 進入하였다。

한편 제7연대는 이날 檜木洞을 경유하여 冠德洞과 淨水洞에 다다랐으며 제19연대는 사단 예비대로서 熙川에 위치하여 제2대대가 熙川邑의 警戒에 임하고 있었다。

10월 25일 : 제2연대는 전날 全연대가 溫井里에 集結하여 宿營을 하고, 이날 아침에 戰列을 갖추어 出動準備를 한 다음, 李聖勳대위가 지휘하는 제2대대를 先頭로 09.00에 溫井里를 出發하여 우선 北鎭으로 向하도록 하였으며, 제1대대는 제2대대의 뒤를 이어 徒步로

서 11.00에 溫井里를 出發하였고 제3대대는 야포 및 대전차포로 증강한 機動大隊로서 車輛化하여 11.00에 출발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12.00에는 機動性 있는 제3대대가 先頭가 되어 溫井北方 약 7km 지점인 長洞附近에 進出하였고 제2대대는 그 뒤를 따라 △490下麓인 中興洞에 다다랐으며 후미인 제1대대의 主力은 溫井北方 약 3km 지점인 개활지대에 뻗쳐있는 道路를 通過하고 있었다。

이때에 中共軍은 地形의 利點을 最大限으로 이용 하여 미리 병력을 은밀히 배치하여 놓고 潛伏待機토록 하다가 제2연대의 主力이 12.00에 이 지점을 通過하게 되자 일제히 火力을 集中하면서 포위 공격을 加하게 되었다. 즉 연대 정면의 사단 규모의 병력으로 推算되는 中共軍은 東林山(△1165)을 배후로 道路邊의 大小稜線上에 그 主力을 潛伏시켰으며 溫井과 北鎭사이를 흐르는 九龍江을 건너 道峴山(△841)一帶의 주요 거점에 연대 규모의 병력을 潛伏시켰다가 左右 동시에 奇襲戰法을 감행하게 된 것이다。

이때 제6사단의 제2연대장인 咸炳善대령은 이 當面의 醜虜를 擊滅하는 즉시로, 계속 진출하기 위하여 各隊로 하여금 挺身敢鬪토록 激勵叱咤 하였으나, 屍體의 언덕을 만들면서도 계속되는 敵의 반복공격과 有利한 지형을 利用한 敵의 四面 包圍로 戰況은 시시 각각으로 不利하여 지고 있었다. 즉 제3대대(장, 宋大厚소령)가 선두에서 △240의 敵으로부터 不意의 奇襲을 당하자 즉시 下車하여 제9중대를 接敵牽制토록 하는 한편 대대의 주력은 도로 및 개활지로부터 離脫하여 九龍川을 건너 巖下洞 뒷山의 능선을 占領하려고 할 때 다시 그곳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 일부 병력이 分散상태에 빠지게 되자 대대장 宋大厚소령은 하는 수 없이 접적을 유지 하면서 溫井里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또 제2대대(장, 李聖鎭대위)는 中興洞 부근에서 奇襲을 받았으나 행군중인 대대를 즉시 공격대형으로 전환하여 △490(溫井 西北方 6km)을 目標로 진격토록 하는 한편 後尾의 1개중대를 곧 우회 시켜 敵의 左側方으로 부터 側面을 強打케 하여 이 高地를 占領하고 재편성을 하던 중 다시 2個中隊규모의 敵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으나 이를 격퇴하고 말았다. 한편 제1대대(장, 石順天소령)는 溫井北方 약 3km지점에서 기습을 받게 되자 곧 제1중대로써 이 敵을 견제토록 하고 주력을 左右로 전개한 다음 2시간 동안에 걸친 작전을 폈으나 원래 이 부근 일대는 水田과 道路와 개울이 連結하는 개활지로서 敵의 壓制밑에 戰勢가 점차로 不利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兵力을 徐徐히 뽑아 溫井里로 기동 하여 北方의 大小능선을 점령한 다음 방어 태세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不期遭遇戰에서 優勢한 敵의 壓力을 받게된 결과 이날 24.00 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차량과 보급품을 상실한 채로 제1대대와 제3대대의 一部가 溫井里에 集結하여 四周방어를 실시 하였으며 제2대대는 아직 △490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와같이 모든 戰況이 急變하게 되자 사단에서는 제2연대로 하여금 溫井里에서 계속 陣地를 固守토록 하고 예비대인 제19연대(장, 朴光赫대령)를 急速赴援토록 措置하였다。

한편 이날 제19연대의 제1대대(장, 金俊敎소령)는 08.00에 熙川을 출발한 다음 孤項站을 向하여 徒步로 機動하고 있었으며 제2대대(장, 金旭篆소령)는 熙川邑의 警戒에 臨하였고 제3대대(장,朴 敏소령)는 球場洞과 德川 北方의 九致里부근에서 北共의 敗殘兵을 격멸하고 20.00에 熙川으로 복귀 하였으며 제7연대는 그 선두가 이미 古場에 다다르고 있었다。

10월 26일 : 제2연대의 제1대대는 전날에 이어 溫井里에서 徹夜로 固守防禦에 臨하고 있었으며 제3대대는 溫井中學校에서 계속 병력을 집결하는 동시에, 일부 집결된 병력과 장비를 연대 직할대와 合同으로 溫井里의 後斜面에 있는 △157로 이동시켜 四周防禦에 臨하였으나 中共軍은 優勢한 兵力을 믿고 그들의 常套手段인 迂回와 包圍전법을 감행하기 위하여 이날 初更부터 九龍川을 潛渡한 다음 溫井 東南方 약 4km지점인 △535의 左前方으로 이동 시켜 溫井里를 四面으로 포위 하였다가 이날 04.00부터 一時에 喊聲과 銃砲聲으로 氣勢당당하게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1對5의 寡勢와 優勢의 正面대결로 彼我間에 치열한 교전을 치룬 끝에 △157의 我陣地一角이 무너지게 되고 계속하여 溫井中學校가 기습을 당하자 때마침 集結대이던 제3대대가 이 狂亂속에 휘말려 들어가 暗黑속에서 혼란상태를 이루게 되었으며 中共軍의 後續兵力은 이틈을 타서 四面으로 溫井里를 侵攻하기 시작하였다. 이와같은 상황속에서도 제1대대의 모든 將兵들은 銃劍과 短刀로서 육박전을 전개하며 끝까지 決死분투 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일부병력이 分散상태에 빠지게 되자 不得已 敵의 추격을 저지 하면서 연대의 主力은 (제1대대 및 연대본부) 泰平의 鄕校洞 方面으로 撤收하였으며 제3대대의 일부 병력은 熙川方面으로 이동 하였다. 이와 同時에 △490에서 徹夜 방어하고 있던 제2대대는 연대의 主力이 泰平으로 이동 하므로 말미암아 敵中에 孤立되어 四面의 敵으로 부터 壓縮을 받아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되자 05.00에 敵陣을 돌파分斷하고 九龍川을 건너 雲山方面으로 撤收하게 되었다。

또 한편 제19연대는 사단장 金鐘五준장의 명령에 따라 제2연대의 정면으로 侵攻한 敵을

저지 격멸하기 위하여 主先 聯隊의 예비대인 제2대대를 車輛化하여 溫井里 西北方 6km의 豊中里로 이동케 한 다음 敵의 背後로 부터 攻擊시킬 계획으로 熙川을 출발토록 하였으며 제3대대는 16.00에 △501(溫井 東北方 23km)를 占領 固守토록 엄명을 내렸는데 이때에 제1대대는 檜木洞에 進出하여 四周경계에 臨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날 제7연대는 楚山까지 完全히 占領確保하였다。

10월 27일 : 제2연대는 泰平으로 移動한 다음 제1대대를 四周경계토록 하는 한편 전날 熙川方面으로 移動한 제3대대를 신속히 泰平으로 集結토록 措置하였다. 연대장 咸炳善대령의 命을 받은 제3대대(장, 宋大厚소령)는 熙川에서 兵力을 수습하는 즉시로 泰平으로 향하여 進擊하다가 妙香山에서 露營을 하였으며, 제2대대(장, 李皇勳대위)는 西쪽으로 30餘km 떨어진 雲山附近의 龍田里에 18.00 도착하여 戰鬪력을 집결시키고 있었다。

한편 제19연대는 제1대대(장, 金陵敦소령)를 雨江洞까지 진출시켜 제7연대의 背後로 侵襲하려는 敵을 阻止하였으며 제2대대(장, 金旭峯소령)는 07.00에 豊中里 一帶를 占領하여 敵의 後衛部隊를 抑留牽制 하였고 제3대대(장, 朴 啟소령)는 07.30에 接敵한 中共軍을 격파하고 △501에 이르렀으나 19.00에는 1個 대대 규모의 敵이 다시 侵攻하였으므로 치열한 교전끝에 이를 陣前에서 격퇴하고 계속 固守作戰에 臨하였다。

이날 제7연대는 檜木洞으로 移動하라는 作命을 받고 楚山 및 古場附近에서 移動準備를



<國境을 뒤로 하고 淸川江을 건느는 勇士들>

하고 있었다。

10월 28일 : 제2연대는 泰平에서 계속하여 分散兵力을 集結시키고 있었으며, 妙香山에서 06.00에 出發한 제3대대의 主力이 12.00에 泰平에 到着하게 되자 제1대대와 제3대대의 재편성을 끝마치고 四周警戒에 臨하였으며 제2대대는 이날 13.00에 龍門을 出發하여 院里를 향해 機動하고 있었다。

한편 제19연대는 溫井里를 다시 奪還하기 위하여 제1대대를 兩江洞으로부터 東林山麓의 龍淵洞으로 進出시켜 제2대대와 함께 挾攻할 준비를 갖추도록 하였으며, 제2대대는 계속 豊中里에서 방어에 臨하고 있을 때 18.00에 來襲한 약 1개중대 규모의 中共軍을 격퇴하고 제1대대와 함께 溫井里로 進擊할 準備를 갖추고 있었다. 이때 제3대대는 계속 △501에서 敵의 진출을 저지하고 있었으며 溫井里를 確保한 中共軍은 병력을 증강하여 熙川을 侵攻할 企圖下에 東進을 재촉하며 이날 18.30에는 1개대대 규모의 병력으로 상투적인 夜間侵襲을 감행하여 왔다. 이때 제3대대는 화력을 집중하여 決戰을 強要한 끝에 一旦 이를 저지 격멸하는데 성공 하였으나 敵은 계속 병력을 증강 投入하여 頑強히 공격을 계속하는 한편 대대를 포위 하려고 全力을 集中하고 있었다。

또 한편 제7연대는 이날 모든 이동 준비를 완료하고 古場으로 全兵力을 집결하여 野營을 하고 있었으며 연대의 위력 수색대는 豊場附近에서 中共軍과 24.00까지 交戰하고 있었다。

사단의 前方 CP는 이날 球場洞에 있었으며 제2연대 CP는 泰平에, 그리고 제7연대 CP는 古場에 각각 위치 하였으며 제19연대는 18.00에 泰平北方 8km의 上西里로 이동 하였다。

10월 29일 : 제2연대는 전방의 제19연대 상황이 不利하여 全面的으로 威脅을 받게 되자 재편성된 제1대대와 제3대대의 병력을 泰平南方 3km지점의 △346附近으로 이동하고 방어진을 형성 하였으나 18.00에 사단으로부터 『球場洞으로 集結하라』는 긴급명령을 받고 이동하기 시작 하였으며 제2대대는 03.00에 院里에 到着하여 休息을 한 다음 13.00에 价川으로 향하였다。

한편 제19연대(장, 朴光赫대령)는 제2대대(장, 金旭鎭소령)가 02.00에 不意의 기습을 받아 혼란 상태에 빠지자 金俊敎소령이 지휘하는 제1대대를 直洞으로 급히 이동케 하여 敵의 側後方으로부터 支援攻擊토록 하였다. 또 제1대대가 直洞에 도착하여 06.00부터 공격을 시작하게 되자 東林山麓의 △405 일대에서 1개대대 규모의 敵이 완강히 저항하므로 제2중대를 정면에서 견제토록 하는 한편 제1중대로서 溫井里로 通하는 도로 兩側에

敵을 추격한 다음 제2대대를 지원 하였으며 제3중대는 제4중대의 지원하에 長洞 뒷山의 敵을 공격도록 하였으나 敵은 완강히 저항할 뿐만 아니라 계속 증원하여 11.00에는 그들의 唯一한 秘方인 人海戰法을 감행 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雙方間에 치열한 혈전이 전개되었으나 敵은 督戰隊의 총뿌리 앞에 몰려 吶文을 외치면서 狂亂하므로 제1대대 마저 드디어 紛戰狀態에 빠지게 되었다。

한편 제3대대는 08.00에 증강된 1개대대 규모의 敵이 雜種型武의 砲火力지원 밑에 騎馬隊를 先頭로 侵襲하였으므로 치열한 교전끝에 이를 일시 저지 하였으나 滔滔한 濁流와도 같은 敵의 공격과 증원은 그치지 않아 大隊의 左右兩側方에서 同時에 迂回攻擊을 加하고 함성과 북, 피리, 꽹과리의 요란한 雜音이 귀를 막게 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대대는 不得已 예비진지로 이동하여 全力을 集中하는 즉시로 또 다시 이를 저지 하였으나 戰勢는 漸次로 不利하여 지게 되었고 全兵力을 모아 敵의 虛隙을 強打하므로써 敵의 포위망을 突破하고 溫井里方向으로 移動하게 되었다. 「決死의 힘」이란 이와같이 偉大한 것이다。

이때 연대의 前方 CP는 아직 上西里에 있었으며 제7연대는 戰場에서 그 機動이 阻止된 채로 치열한 交戰을 반복하고 있었다。

10월 30일 : 이날 제2연대는 主연대가 价川에 도착하여 제1대대와 제2대대는 부대를 재정비 하였으며 제3대대는 군단명령에 따라 价川地區의 警備에 臨하였다。

한편 제19연대는 제3대대가 溫井里 一帶에서 병력을 수습하여 四周警戒를 실시하고 있다가 命에 의거 裕上洞을 경유하여 价川으로 이동하였고 제1대대 및 제2대대의 分散兵力도 敵陣을 突破하고 속속 价川에 到着되고 있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에 걸친 楚山 및 溫井里附近 戰鬪에서 제6사단은 약 4對 1의 大兵力과 不意에 對峙하게 되어 苦戰敢鬪 하였으나 不法侵略한 中共軍의 人海戰術로 因하여 民族의 念願인 統一을 目前에 두고 國境에서 물러서야 하는 쓰라림을 겪었다。

25일 反擊戰을 개시한 中共軍은 26일 溫井里를 奪還하고 제7연대가 楚山 및 古場에서 물러서자 계속하여 △501에서 제19연대 제3대대의 방어진을 돌파하여 熙川으로 向하는 同時에 그 主力은 要地誌上의 要衝인 淸川江線으로 南進을 계속하였다. 즉 中共 제40군의 주력은 溫井里와 泰平을 攻한 다음 右翼 제8사단의 정면으로 侵入한 中共 제38군과 熙川에서 合流하여, 我軍의 제7사단 및

제8사단이 形成하고 있는 淸川江 방어선의 종심깊이 侵襲을 감행하며 계속 南下를 기도하였고, 左翼 제1사단의 정면으로 侵攻한 中共 제39군은 雲山을 거쳐 寧邊과 价川으로 侵略을 계속하였다.

이때의 中共軍은 山岳地帶에서 준동하던 北共 敗殘兵과 合勢하여 人海戰法을 감행하며 敵都 平壤에 이르는 要衝인 淸川江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하여 狂奔하고 있었다.

한편 제6사단은 그 進出을 不意에 阻止당하자 최후까지 이敵을 격멸하려고 西方으로 힘썼으나 중과부적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淸川江선의 防守계획에 의거하여 제7연대는 鹽場에서 險峻한 山路를 따라 130餘km의 遠距離를 各隊別로 南下하여 价川에 集結하였고 제2연대와 제19연대는 溫井里 附近에서 价川으로 이동하였다. 각 대는 대부분의 주요 장비와 보급은 상실 하였으나 人命의 손실은 그다지 많지 않았으며 价川에 集結한 사단은 軍團의 예비가 되어 부대의 재편성과 다음에 있을 작전 준비에 臨하였다.

§ 參戰者의 證言

◇ 제6사단장 金錫五준장

(65년3월6일 합동 참모본부 의장, 대장)

軍隅里에서 우리 사단은 楚山과 碧潼으로 진격했으며, 右翼에는 제8사단이 滿浦鎭으로 向하였다.

國境地帶의 10월 末은 날씨가 차거웠지만 將兵들은 사기가 衝天하고 勇敢하였으며, 빨리 들어가서 越冬準備를 하기로 하였고, 將次 사단 指揮所를 溫井里에 定할 예정이었다.

이리하여 제7연대는 先頭에서 楚山으로 車輛行軍을 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제2연대는 溫井里를 거쳐서 碧潼으로 진격키로 하고 사단 지휘소를 球場洞으로 옮겼을 때에 避難民들이 南下하여 그 理由를 調査하였더니 『中共軍이 나왔다。』고 하였다.

그런데 當時 상급 사령부에서는 中共軍의 侵略與否에 對하여 사단에 通報된 사실이 全혀 없을 뿐 아니라 以上과 같은 諜報의 提供에도 이것은 北共敗殘兵의 收容부대 程度일 것으로 判斷하였다. 또한 사단에서도 乘勝長驅로 北進하던 때인 만큼 이 程度의 中共부대는 能히 擊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진격전을 계속 하였는데 指揮所를 熙川으로 移設하였을 때에는 喜悲가 交叉되었다. 즉 26일 제7연대로부터 『鴨綠江이 보인다。』는 電文報告가 들어 오는 反面에 제2연대는 東林山에서 中共 大兵力과 激突케 되어 苦戰中이라 하였다.

한편 제2연대로부터 押送된 2명의 中共捕虜 진술에 의하면 中共 正規軍인 제40군이 東林山一帶으로 潛入하여 사단의 進出正面에서 反擊준비를 갖추었다고 하였으며 以後戰況은 時時 刻刻으로 急變하였다.

이리하여 熙川에 있던 예비대인 제19연대를 溫井里로 急派하여 제2연대를 增援토록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國境까지 진출한 제7연대를 撤收토록 하였으니 참으로 感慨를 形容키 어려웠다.

당시 中共敗虜는 3개사단 이상의 大集團이 侵攻하여 熾烈의 激戰을 전개하게 되었거니와 이때에야 外國記者들이 찾아와서 포로들의 사진을 찍고 中共侵略의 사실을 確認하여 갔으니 이 전투가 사실상 中共軍과의 最初 接戰이었다.

◇ 제7연대장 林富澤대령

(64년 10월 30일 대한발표, 서울시무진 예소장)

古場에서 撤收命令과 空輸補給을 받고 德本洞으로 車輛行軍을 하다가 豊場에서 退路가 遮斷되어 突破작전을 전개 하였는데 너무 敵陣 깊이 孤立되었을 뿐 아니라 衆寡不敵으로 困하여 組織的인 부대 機動을 못하고 各隊別로 分散突破하게 되었다。

그러나 當時 兵士들은 資質이 優秀하고 勇敢하여 辛苦의 隘塞속에서도 大部分이 歸還하였으며 특히 南韓出身인 歸順兵들은 끝까지 우리에게 協調하면서 隨行하였다。

나는 연대본부와 제3대대를 지휘하여 德本洞을 거친 다음 熙川 北쪽에서 50명씩 組를 편성하여 여기를 迂回 通過하고, 다시 妙香山으로 돌아 제8사단의 제21연대 正面으로 나왔다。

機動間에는 主로 山岳을 利用함으로서 險峻한 高山地帶에서 補給難까지 겹쳐 어려움이 많았고 淸川江을 건너기에 많은 苦楚를 겪었으나 北倉에서 부대를 再編할 때에는 1,900명이 集結하였다. 그뒤 우리 연대는 다시 淸川江線 지연전에 參戰하였다。

2. 第2次 雲山一寧邊附近 戰鬪 (1950년 10월 26일부터 1950년 11월 3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3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美 제1군단 장 소장 Frank W. Milburn		제1대대	장 중령 劉 載 成
제1사단	장 준장 白 善 燁	제2대대	장 중령 金 振 峰
제11연대	장 대령 金 東 斌	제3대대	장 중령 安 秉 健
제1대대	장 중령 柳 重 秀	배속부대	
제2대대	장 중령 車 甲 俊	포병 제17대대	장 소령 朴 永 滉
제3대대	장 중령 鄭 永 祺	지원부대	
제12연대	장 대령 金 點 坤	美 제10고사포단	장 대령 William H. Hennig
제1대대	장 중령 韓 順 華	美 제6전차대대	장 중령 John S. Growden
제2대대	장 중령 趙 成 來		
제3대대	장 중령 金 基 容		
제15연대	장 대령 趙 在 美	C.D중대	

敵 軍			
中共 제39군	장 吳 信 泉	제116사단	장 汪 洋
제115사단	장 張 翼 誠	제117사단	장 龔 天 元

나. 전투 전의 개황

韓滿國境을 향한 美 제1군단의 진격은 10월 25일에 右翼의 韓國軍 제1사단이 熙山에, 左翼의 美 제24사단의 先頭인 英 제27여단이 博川 西北方에 각각 진출함으로써 北緯 40°線에 육박하고 있었다.

아미 敵은 거의 潰走한 듯, 조직적인 저항은 없었고 일부의 방어진지도 견성된 진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었다. MacArthur Line도 24일에는 撤廢되고, 이제 追擊은 곧 끝나며 國土統一이 完遂되는 순간이 눈앞에 다가 온 듯 하였다. 그리하여 25일에 제1사단은 一連의 追擊을 계속하여 제15,

제12연대가 雲山에 突入한 다음, 제15연대는 東北쪽으로 三灘川의 다리를 건너 진격을 계속코자 하였다. 그러나 곧 三灘川 東側 高地에 依據한 敵의 저항에 부딪쳐 연대의 전진은 頓挫되었으니, 我軍은 敵情을 정확히 파악치 못하고 추격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敵의 저항도 執拗하고 거기에 地形의 不利까지 겹쳤기 때문이었다。

이곳에서 연대는 1명의 敵을 捕虜하였는데 이 者가 곧 最初의 中共軍捕虜였으니, 이로써 高地의 敵이 中共軍임은 물론 中共軍侵入이라는 風聞이 決코 뜬 소문이 아닌 事實임이 判明되기에 이르렀다。

이 捕虜의 진술에 의하면, 中共軍은 이미 狄踰嶺山脈의 南麓에 걸쳐 布陣한 다음, 我軍의 北進을 저지할 것을 企圖하고 있었거니와 실상 그들은 美軍이 38°線을 돌파할 무렵에 對韓侵略을 결행키로 하고 10월 13일에는 그 先頭部隊가 이미 鴨綠江을 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所謂 援朝義勇軍司令官인 林彪 麾下의 第13兵團(장, 李天佑)의 6個軍이 對韓侵略을 시작하였고, 그 가운데 제40군과 제39군의 일부가 14일에서 20일 사이에 西義州를 통하여 溫井—雲山부근으로 野戰의 大群을 이끌면서 急速히 潛行 南侵하였다. 그런데 雲山부근으로 南下한 中共 제39군은 그 主力의 移動이 늦어져, 25일 현재 雲山 北方에 도달한 1개지 2개 연대 규모가, 雲山 西北方 6~10km의 鷲峰洞—松亭洞—南山下洞 등과 그 東北方에 있는 三灘川 越便의 間洞과 上洞 일대 및 그 北方에 있는 溫井 西南의 馬山洞 일대에 전개하여 제1사단의 진격을 저지하고 있었고, 溫井으로 南侵한 中共 제40군은 당돌하게도 제6사단(장, 金鍾五준장)을 정면으로 壓迫하는 한편 雲山의 제7연대(장, 林富澤대령) 後方까지 깊숙히 遮斷하려고 企圖하는 듯 하였다。

이와 같은 中共軍의 侵略方式은 그 企圖의 秘匿이 徹底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移動을 夜間에만 徒步로 潛行함으로서 비밀을 維持하게 된 것인데, 我軍은 제1사단에서 美 제1군단으로 中共軍과의 接觸을 報告하였고 그 實證이 되는 捕虜까지 직접 押送하였으나 UN軍總司令部나 美 제8군에서는 아직까지도 中共軍의 侵入說을 懷疑的으로 看做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25일 오후에는 美 제1군단으로부터 예하 全부대에 대하여 오히려 鴨綠江線으로 전진하라는 명령이 下達되는 混線을 빚어 내기도 하였다。

이날 제1사단은 사령부를 价川에 두고, 제15연대가 雲山 東北쪽 1km의 三灘川을 건너 間洞—上洞一帶의 敵을 공격하고 있었고, 제12연대는 雲山에, 그리고 後尾의 제11연대는 雲山 南쪽 4km의 立石下洞에 진출하였으며, 砲兵 제17대대 및 美 제10고사포단 등은 雲山 西南쪽의 松峴洞부근에서 東南쪽 花翁洞부근에 이르는 地帶에 배치되어 사단의 진격을 지원하고 있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 계획

韓半島에 侵入한 中共軍은 狄踰嶺山脈 南麓의 線에 第13兵團의 5個軍을 展開하여 我軍의 北進을 저지하려 하였거니와 雲山 정면의 敵 제39군은 우선 일부 병력으로 我軍 제

1사단의 진격을 저지한 다음, 主力이 도달하는 대로 九龍江에 沿하여 我軍을 포위 공격하려는 企圖였었다。

그런데 雲山부근의 地形은 徒步移動과 夜間을 利用하는 山岳戰鬪를 主로 하는 敵에게 有利한 山岳地帶였으니, 淸川江 流域一帶는 비교적 평탄하고 낮은 지대를 이루고 있는데 反하여 이로부터 北쪽은 淸川江과 並行하여 狄踰嶺山脈의 높고 험한 봉우리들이 잇달아 있으며 이어 그 北쪽에는 江南山脈이 또한 鴨綠江에 이르기까지 뻗쳐 있어 淸川江 계곡으로부터의 進攻을 가로 막는 形勢를 이루고 있다. 그리하여 鴨綠江으로 北上하는 주요 통로로서는 寧邊과 博川의 중간 지점인 龍山洞에서 雲山을 거쳐 昌城에 이르는 山間道路와 龍山洞에서 泰川—龜城을 거쳐 大寧江에 沿하여 朔州에 이르는 도로가 이용될 수 있었다。

당초 제1사단은 군단 右翼으로서 淸川江을 건너 寧邊—雲山으로 敵을 追擊한 다음, 山間道路를 따라 작전 목표인 水豊땜을 향하여 진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雲山에서 中共軍과 부딪침에 따라 우선 中共軍의 侵攻을 물리쳐야 하였는데, UN군사령부나 美 제8군에서는 이 敵의 正體를 곧 「在滿韓人」 또는 「中共國境守備隊」라 看做하여 中共 正規軍의 侵入이라고는 사인하지 않고 있었으며, 한편 24일의 MacArthur Line 撤廢에 따라 25일 오후에 美 제1군단의 계속 北進命令이 下達되는 判局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사단장은 제15연대를 右一線에, 제12연대를 左一線에 각각 전개하여 당면의 敵을 격파하면서 계속 北進할 것을 決心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무렵, 23日附로 제2군단장에 榮轉되었던 前 사단장 白善燁준장이 사흘 만에 文書上으로는 아직 發令되지 않은 채 다시 復歸하였으니, 開戰以來 계속 부대를 掌握하였던 사단장의 지휘로 새로운 局面을 수습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제15연대는 雲山 東北方으로 三灘川 越便인 間洞—上洞일대의 高地에서 저항하는 敵을 격파함으로서 雲山에 대한 위협을 排除토록 하고, 제12연대는 雲山 西北—西側 일대의 高地를 점령한 다음 敵의 南下를 저지케 하였으며, 제11연대는 雲山 南쪽에서 예비로서 背後를 경계케 하였다。

이와 같은 사단장의 作戰指導에 따라 제15연대장 趙在夏대령은 間洞을 중심으로 한 南北 高地일대의 敵을 격파코자 제2대대(장, 金振璋중령)를 右一線으로 朝陽洞 東쪽 高地를, 제1대대(장, 劉載成중령)를 左一線으로 間洞으로 각각 공격 전진토록 하였다. 그리고 제12연대장 金點出대령은 제2대대(장, 趙成來중령)를 右一線, 제3대대(장, 金基容중령)를 左一線으로 雲山 西北一西方으로 진출케 하는 한편, 제1대대(장, 韓順華중령)는 제1, 제3중

대로 연대 전진을 엄호하는 美 戰車隊의 경계를 담당시키고 나머지 중대를 연대 지휘소와 함께 雲山에 待期시켰다。

(2) 작전 실시

10월 26일 : 성큼 다가온 北韓의 추위속에서 사단은 전날에 이어 執拗한 中共軍과 계속 접전을 벌인 결과 雲山 北쪽에서는 약간의 진전이 있었으나, 西南쪽의 主補給路가 차단되고 主力이 포위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니 이는 物量의 甚한 隔差로 말미암은 不可抗力的 現象이었다。

즉 제15연대는 지휘소를 雲山에 두고 그 主力은 三灘川을 건너 高地의 敵을 공격하였는데, 右一線인 제2대대는 저항하는 2개중대 규모의 敵을 물리치고 朝陽洞 東쪽 高地를 일단 점령하였으나 곧 敵의 逆襲으로 물러나 下麓에서 더 나가지 못하고 있었으며, 또 左一線인 제1대대는 間洞 迂回攻擊을 企圖하였으나 敵 斥候隊의 奇襲으로 실패하였을 뿐 아니라 일부 병력이 분산되기 까지 하였다. 이에 연대장 趙在美대령은 正面攻擊을 斷念하고 敵의 右側方에 대한 迂回攻擊을 계획한 다음, 제3대대(장, 安秉健중령)를 제2대대와 併進으로 攻擊토록 하였던 바, 이 대대가 朝陽洞 東南쪽에 있는 △225를 점령 하므로써 연대는 朝陽洞 東쪽 高地의 敵을 격퇴하는데 成功하였다。

한편 사단 左一線인 제12연대는 제2대대를 연대 右一線으로, 雲山 西北方에 있는 龍浦洞 西北 高地에, 그리고 제3대대를 左一線으로 雲山 西南方에 있는 松峴洞 西쪽 高地에 각각 진출시켜 방어진지를 構築케 하였다. 각 대대는 砲兵 및 戰車의 支援下에 이날 07.00에 雲山으로부터 전진을 시작하여 無難히 목표를 점령한 다음 10.00까지는 각 중대를 진지에 배치하였으며, 제1중대(장, 李鍾吉대위)와 제3중대(장, 韓東秀중위)는 배속 戰車隊의 경계임무를 맡았고 對戰車砲 中隊(장, 白潤基대위)는 雲山에서 각 대대를 엄호하였다。

그런데 이날 06.00에 龍興洞으로부터 南下를 시작한 1개연대 규모의 敵은 그 사이에 雲山 北方 10km 內外의 南山下洞 및 松亭洞과 鷹峰洞일대에 각각 일부 병력을 배치하여 夜間을 틈타 진지를 構築中이었으며, 그 일부는 西쪽으로 계속 南侵하여 南面川 河口로 진출하니 이로써 雲山一龍山洞의 사단 主補給路가 차단되기에 이르렀다。

이때에 雲山 南쪽에 있던 제11연대(장, 金東越대령)는 일부 병력으로 이 敵을 격퇴코자 하였으나 衆寡不敵으로 오히려 北으로 밀렸고, 연대본부도 立石下洞에서 花翁洞으로 이동하였다。

그리하여 美 제6전차대대(장, John S. Growden중령)는 燃料가 딸려, 제15연대를 지원

하던 D중대를 南쪽으로 이동시켜야 할 형편이 되었으니, 이로써 攻守의 戰勢를 뒤바꾸는 端緖를 露呈하게 된것이다。

10월 27일 : 이날 사단은 空輸補給을 받음으로서 겨우 攻勢를 계속할 수 있었으니, 日本의 芦屋(Ashiya) 美 空軍基地로 부터 制空戰에 參加한 10대의 C-119 수송기가 11.00를 조금 지나 긴급보급품을 投下하였고, 이로써 연료가 부족하였던 美 제6전차대대와 제10고사포단이 進退維谷인 危局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새로이 탄약을 보급받은 제15연대는 아직도 진격을 계속하였으니, 제3, 제2, 제1의 각 대대가 間洞일대로부터 공격을 시작하여 각각 富興洞 뒷산의 △213—三巨里 西쪽 △199—△263—雲山 (溫井道 東쪽의 要地)등을 점령함으로서 北緯 40°線에 이르렀다。

한편 昌城地區로부터 南下한 1개 연대 규모의 敵은 主力을 白土洞에 두고 그중 약 500명이 白鶴山을 넘어 陽站 西北쪽에 진출한 다음, 南面川을 따라 계속 南侵할 氣勢를 보였다。

이에 제12연대는 南面川 方向으로 경계를 강화하여 부대배치를 약간 변경하였으니, 즉 제2중대(장, 韓鎭鎬대위)를 戰車警戒隊로 증강시킨 대신 제2대대 본부와 제5중대를 雲山으로 이동시킨 다음 연대장 金點坤대령은 연대 作命 제28호로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던 것이다。

『① 제1대대는 戰車隊와 행동을 같이 하되 중화기 중대는 제2, 제3대대 정면에 火力을 支援케 하라。

② 對戰車砲 中隊는 제2대대에 배속한다。

③ 야포 제1중대는 四周에 火力支援을 할 것이며, 특히 제2, 제3대대 정면에 火力支援케 하라。

④ 각 대대는 특히 夜間에 大隊間 連絡을 維持하라。』

이와 같은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제4중대(장, 林燕九중위)는 △277의 西麓에 배치되어 각 중대 정면을 지원 사격하였으며, 제8중대는 龍浦洞 뒷산에서 擾亂射擊을 실시하였다。그리고 제3대대는 이날 두 차례에 걸쳐 敵을 격퇴하였으나 제11중대는 02.00에 △277에서 數未詳의 敵과 부딪쳐 交戰 2시간 만에 이를 격퇴하였고, 18.00에는 공세를 취한 1개소대 규모의 敵을 또다시 격파하였다。

한편 雲山 南쪽에서는 제11연대(장, 金東斌대령)의 2개 대대가 도로를 차단하고 있는 敵을 공격하여, 오후 늦게 敵을 西北方으로 격퇴함으로서 雲山—龍山洞의 補給路를 다시 打

開하는데 成功하였다。

그리고 雲山國民學校의 前方指揮所에 進出한 사단장 白善燁준장은 敵情을 살펴 본 결과 『敵은 완전한 中共 正規軍부대』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곧 Milburn 군단장에게 提報하였다。

10월 28일 : 사단 正面은 일시 小康狀態를 이루어 각 연대는 陣地強化 및 搜索活動을 하였고, 敵도 간간이 박격포 및 직사포사격을 加할 뿐이었다。

즉 제15연대는 이른 아침부터 공격을 再開하였으나 敵은 후퇴하는 즉시로 점차 左右側面을 迂回하는 듯한 기세였으므로 연대장 趙宣美대령은 隣接部隊狀況을 勘案하여 각 대대로 하여금 40°線上에 있는 연대 戰鬪地境內의 要點을 확보한 다음 現地에서 防禦토록 하였다。

또 제12연대의 제2, 제3대대는 陣地를 強化構築한 다음, 夜間에는 각기 수색대를 편성하여 前方을 수색토록 하였는데, 제9중대의 1개 소대가 白嶽山을 향하여 수색하던 도중 18.00에 2명의 中共軍을 사로 잡았다。

이들 두 포로는 25일에 잡은 최초의 포로가 진술한 내용과 똑 같이 中共正規軍의 侵入을 시인하였으나, 美軍側은 여전히 頑迷하게도 이와 같은 첩보를 首肯치 않았다. 즉 美 제1군단의 정기 정보보고는 斷定하되, 『中共軍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나 이는 正規編制의 부대가 아니라, 개인적 志願인 義勇兵으로 생각된다』라고 하였으며, 美 제8군의 정보장교는 물론이고 美 極東軍總司令部 代辦人까지도 『在滿韓人이 中共軍의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速斷하였던 것이다。

이때 사단 右翼接인 제2군단(장, 劉載興소장)은 敵의 포위작전으로 危機에 직면하였으니, 楚山까지 진격한 제6사단(장, 金鍾五준장)의 각 연대가 中共 제40군의 포위공격으로 혼란상태에 빠지고, 雲山 北方 10km(直線거리)의 九峰山에서는 제2연대(장, 咸炳善대령)의 제2대대(장, 李聖默대위)가 敵에게 포위되는 困境에 빠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Walker 美제8군 사령관은 雲山 正面에서의 不振한 打擊力으로 戰局의 好機를 노칠가 염려한 나머지, 右翼을 경비중인 美 제1기갑사단(장, Hobart R. Gay 소장)으로 하여금 我 제1사단을 초월 전진하여 鴨綠江을 向하여 돌진하도록 군단장에 대해 작전을 지도하였다. 이에 따라 Gay 제1기갑사단장은 예하 제8기갑연대(장, Raymond D. Palmer대령)에 대하여 果敢한 진격命令을 下達하였으니, 이로서 美軍은 지금까지 그들이 수긍치 않던 中共正規軍과 不測의 正面衝突을 惹起하게 되는 것이다。

10월 29일 : 사단은 이날 아침부터 포병의 彈幕射擊과 美 第5戰術空軍의 공중지원을 받으면서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敵은 깊은 塹壕와 偽裝된 陣地에 蟠據하면서 前方에 지뢰를 매설하고 완강히 저항하였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小火器와 手榴彈 및 迫擊砲등의 性能에 있어서 劣勢하였을지라도 亂射와 亂擊의 계속으로 我軍의 공격은 뜻대로 진전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제15연대는 砂器洞일대의 敵을 공격하였으나 雲山—溫井道에 沿하는 西北 高地일대에서의 敵의 伏兵에 依한 側方威脅으로 말미암아 戰勢의 挽回가 如意치 못할 뿐 아니라, 敵은 오히려 泥踏洞의 軍擾을 貪하는듯 執拗하게 反擊하는 형편이었다. 또 제12연대의 제2, 제3대대는 각기 1km以上이나 전진하여, 제2대대는 松亭洞 부근의 △115를, 제3대대는 南面川 北쪽의 △131 및△241를 각각 점령한 다음 여기에 1개 소대씩을 배치하였는데, 제2대대 정면에는 21.00와 23.00의 兩次에 걸쳐 각각 1개 분대 규모의 敵이 侵襲하였었다.

그런데 이 무렵 右側인 溫井里—熙川地域의 제2군단은 中共軍의 포위공격으로 崩壞되었으며 泰川을 탈환한 左側의 美 제24사단과도 커다란 間隙이 생겼으나, 사단은 사령부를 价川에서 寧邊으로 前進시키고 北方에 홀로 突出하여 苦戰奮鬪하는 형세에 놓여 지게 되었다. 다만 사단과 交代하여 鴨綠江으로 돌진키로 된 美 제1기갑사단의 先頭인 제8기갑연대가 이날 아침에 平壤을 출발하여 저녁에는 이미 龍山洞에 진출하고 있었으니 戰勢가 逆轉되는 序幕이 장차 열리려고 한 것이다.

10월 30일 : 사단 右一線의 제15연대는 이날 제3대대를 예비대로서 右側方을 防禦케 하고 연대 주력은 砂器洞일대의 敵을 공격키로 하였다. 그러나 그 부근에 집결하였던 1개 연대 규모의 敵은 我軍의 砲擊에 怯내어 溫井道 西北方의 △164 △172에 潛伏한 듯 하였고, 泥踏洞의 敵은 견고한 진지를 構築한 다음에 오히려 陣前出擊까지 敢行하여 연대를 壓制하였다.

또 敵은 馬山洞부근에서도 我軍의 포격으로 일단 후퇴하였으나, 전체적으로 我軍에 비하여 數倍에 달하는 병력으로서 左右로 우회하면서 포위태세를 취하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左一線에서는 연대 예비로 있던 제12연대의 제1대대는 제1중대 진지에 敵의 迫擊砲彈 數發이 폭파하여 數名의 兵士가 死傷하였으며, 이날 밤에는 敵이 두차례에 걸쳐 제2대대 정면을 직접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즉 22.45에는 松亭洞의 南쪽에 있는 △288의 제7중대 정면으로 1개 대대 규모의 敵이 侵攻하였는데 我軍은 거의 2시간에 걸친 激戰

끝에 이를 격퇴하였으나, 敵은 다시 東側으로 우회하여 右側의 제5중대 정면을 공격하였다. 중대는 砲兵의 지원사격과 隣接 各隊의 火力支援을 받으며 奮鬪하였으나 地形의 不利와 兵力의 劣勢로 24.00에는 不得已 1km정도 南東쪽으로 轉進케 되었다。

한편 사단과 交代하기 위하여 北進中인 美 제1기갑사단은 제5기갑연대가 아침에 龍山洞에 진출하였고, 先頭인 제8기갑연대의 제1대대(장, John Millikin소령)는 오후에 雲山에 진출하였다. 이곳에서 美軍은 비로소 韓國軍에 강한 압력을 加하고 있는 敵이 틀림없는 中共軍임을 알게 되었거니와 美제8군은 美 제8기갑연대가 雲山에 진출하자 作戰地境을 變更하여 『제1사단은 溫井을 거쳐 楚山부근에, 美 제1기갑사단은 朔州부근을 향하여 공격하라』고 如前히 진격을 命令하였다。대개 先入感에서 오는 我執을 버리기 힘든 것이 이와 같은 것이다。

10월 31일 : 이날 오전부터 사단은 美 제1기갑사단과 交代를 시작하면서 계속 敵과 攻防戰을 벌리고 있었다。

즉 제15연대는 예비대였던 제3대대를 주력으로 다시 砂器洞일대를 공격키로 하였으며, 南面川邊에서 美 제8기갑연대의 제3대대와 交代한 제11연대는 九龍江 東岸으로 移動하여 軍團地境線에서 제8사단(장, 李成佳준장)의 제10연대(장, 高根弘대령)와 연결한 다음, 사단 右側背를 防備케 되었다。

한편 전날 밤에 敵의 공격으로 轉進하였던 제12연대의 제2대대는 제2, 제4중대의 增援과 戰車隊의 엄호를 받으며 이날 06.00부터 다시 진출을 시작하였다. 제5중대는 07.30에 野砲隊의 支援下에 敵을 격퇴하였으며, 12.00에는 제7중대가 △288 南쪽의 300稜線일대까지 진출하였고 제5, 제6중대도 이에 뒤질세라 그 左右에 각각 진출한 다음 防禦陣을 다시 構築하였다. 그리고 제2, 제4중대는 雲山으로 復歸하였는데, 이때에 대대와 交代키로된 美 제8기갑연대의 제1대대는 우선 대대 후방 진지에 배치되었다. 연대 左一線의 제3대대는 17.00에 防禦陣地를 美 제8기갑연대의 제2대대에 引繼한 다음, 제2대대의 東南 後方으로 移動配置하여 경계태세로 들어갔다。

이와 같이 하여 美軍과의 交代가 시작됨에 따라 사단장 白善燁준장은 工兵 제1, 제2, 제3중대로 하여금 각각 제11, 제12, 제15연대를 지원케 하는 한편, 美 제10고사포단장 Hennig대령에게 최대한의 지원사격을 당부하여 되도록 損失없이 원활하게 交代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그런데 敵은 中共 제39군 주력이 雲山부근으로 南下함에 따라 주위의 여러 곳에 산불

을 놓음으로서 그 연기로 UN軍의 空中觀測을 막고 我軍을 포위공격하려는 그들의 부대이동을 遮障코자 試圖하였으니 窮하면 通한다는 戰野의 한 묘책가 아닐 수 없다。

11월 1일 : 雲山부근의 戰況은 제12연대가 美 제8기갑연대와의 交代를 完了함으로서 사단이 北東—東—南東의 三方向에, 美軍이 北—西—南의 三方向에 각각 배치되어 雲山을 中心으로 서로 등을 맞대고 敵과 對決하여 싸우는 형세에 놓여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제12연대(장, 金點中대령)의 제1대대(장, 韓順華중령)는 11.00에 雲山으로부터 移動을 시작하여 18.00에 戰車隊와 함께 立石에 진출하였고, 10.00에 출발한 제3대대(장, 金基容중령)는 17.00에 立石 1km 北方에 배치되었다. 제2대대(장, 趙成來중령)는 02.30에 제5, 제7중대 정면을 侵攻한 敵을 격퇴한 다음 △288일대를 奪還코자 戰車의 지원을 받으며 약간 전진하였으나 敵의 120mm 박격포 사격으로 더 以上 나가지 못한 채로 戰車는 철수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대대는 15.00에 美 제8기갑연대의 제1대대와 交代한 다음 20.00까지는 立石으로 移動하였으니, 이로서 제12연대는 본부 및 각 대대가 모두 立石일대에 진출하고, 배속 포병 제17대대 제1중대(장, 房景源소령)도 東北方 雁田洞부근에 位置하여 경계태세를 취하게 되었다。

한편 敵은 我軍을 포위코자 서둘러 南下中이었으니, 雲山 西方 8km의 龍興洞 및 西南方 11km의 明燕洞 부근에서는 小路를 타고 縱隊로 南下하는 두개의 敵 보병부대를 目擊할 수 있었고, 어느 治安隊員의 증언에 따르면 이 당시에 五峰山에는 약 3,000명의 中共軍이 있었으며, 美軍의 偵察機는 雲山 東南方에서 九龍江 東岸을 향하여 南下하는 敵의 縱隊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九龍江 東岸의 제2군단과의 地境線부근은 제11연대(장, 金東斌 대령)가 방어하게 되었었는데, 결국 연대는 立石 北方에서 敵에게 포위되어 제2대대가 分散되었으므로, 우선 寧邊부근으로 機動한 다음 再編成을 서두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날 저녁에 이르러서는 美 제8기갑연대가 배치된 九龍江 西쪽이 완전히 敵에게 포위되었고, 東쪽 方面에서도 제15연대가 激戰中인 北쪽에서부터 제2군단 지역인 東南쪽까지 敵에게 圍繞되므로써 立石—寧邊을 連하는 道가 我軍의 유일한 後方連絡線을 이루는 형세가 되었다。

이때에 三灘川 北岸의 제15연대(장, 趙在美대령)는 漸增하는 敵의 壓力을 받고 있었으며, 특히 △263에서는 前線에 붙어 砲支援과 함께 나팔을 불며 괭과리를 치고 북을 울리면서 我軍 陣地로 육박하는 醜敵을 極力 阻止코자 惡戰苦鬪中이었는데, 19.00에는 지원사격을 하던 美 砲兵隊의 4.2″ 박격포대대 일부를 제외한 美 제10고사포단(장,

William H. Hennig대령) 등도 철수준비를 서둘러 대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安州에 있던 美 제1군단사령부에서는 會議가 소집되어 제1사단장 白善燁준장을 비롯하여 美 제1기갑사단장 Hobart R. Gay소장과 美 제24사단장 John H. Church 소장등과 주요 참모들이 참석하였다. 20.00에 시작한 이 會議에서 군단장 Milburn 소장은 全部隊에 대하여 洛東江戰線으로부터의 反擊以來 처음으로 防禦態勢로 轉移할 것을 지시함과 아울러 사단장의 견해에 따라 제15연대와 美 제8기갑연대를 龍山洞—寧邊線으로 철수시킬 것을 명령하였으며, 여기서 兩師團長의 협의결과로 제15연대가 마지막에 철수키로 決定되었다。

그리하여 美 제10군사포단도 21.00에 철수를 시작하였는데, 4.2″박격포의 지원을 받으며 友軍의 철수를 엄호하던 제15연대는 23.00에 이르러 40°線을 더 以上 確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兵力이 分散되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이리하여 각급 지휘관들은 우선 병력수습에 奔忙하였으나 일부 병력 밖에는 재집결할 수 없었으며, 연대본부는 寧邊을 目標로 撤收키로 하였으며, 사단사령부는 이날 獨山面 龍興里의 獨山中學校로 이동하였다。

11월 2일 : 제15연대는 前日에 이어 밤새도록 敵과 混戰中이었는데, 敵은 일부가 川洞으로, 또다른 일부가 泥踏洞에서 △194로 공격하는 등, 곳곳에서 연대에 대한 포위공격과 退路遮斷을 반복하니, 연대는 一面으로 反擊하고 一面으로 突破하면서 上下가 서로 遊離되고 左右가 서로 분산된 채로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연대는 많은 重火器 및 通信器材 등의 損失을 보았으나, 兵力은 一路 寧邊을 향하여 南下하면서 단계적으로 수습하여 결국 分散兵力의 70%以上이 再收拾되었고, 연대본부는 延山面 龍淵洞으로 移動하여 곧 後退를 策하였다。

한편 제12연대는 우선 본부를 寧邊으로 옮기고 隷下 各大隊도 立石으로부터 寧邊일대로 撤收하여 要地마다 兵力을 배치하였다. 즉 제1대대는 10.00에 立石으로부터 移動을 시작하여 17.00에는 寧邊을 通過하고 2km 南쪽의 峨嵯山 北麓에서 제2, 제4중대는 美 제6전차대대의 D중대를 경계하고, 제1, 제3중대는 전차 C중대와 함께 寧邊—龍山洞의 九龍江橋를 확보 경계하고 있었다. 11.00 에 立石을 떠난 제2대대도 17.00에 寧邊에 도착한 다음, 대대 CP를 雲霧川 東岸에 두고, 제5, 제6중대를 康東洞 東南方의 △180 北麓에서 鳳巢洞의 雲興—寧邊 道路 左右에 이르는 線에, 그리고 제7중대를 예비대로 石峴에 각각 배치하였다. 제3대대는 12.00에 떠나 18.00에 도착하였는데, CP를 寧邊에 두고 제9, 제10중대를 東北方의 中洞 南쪽—陽地일대에, 제11중대를 예비대로 康東洞에 배치하

였다. 이와 동시에 제8중대와 제12중대는 火器小隊를 각각 대대의 각 중대에 배속시켜 防禦陣을 強化하였다。 그런데 전날 밤에 天耳山 北쪽 계곡으로부터 南侵하기 시작한 1개 연대 규모의 敵이 이날 밤에는 제12연대 정면으로 육박하고 있었다。

11월 3일 : 사단은 이날로서 군단 예비대가 되어 사령부를 安州郡 立石面 龍珠里로 移動하였으며, 隷下 각 연대도 淸川江을 건너 安州로 撤收를 시작하였다。

즉 제11연대(장, 金東斌대령)는 立石面으로, 제15연대(장, 趙在美대령)는 龍花面 龍南里부근으로 각각 이동하였으며, 제12연대(장, 金點坤대령)도 본부는 龍花面 龍淵里로 이동 하였으나 隷下 대대는 전날 밤에 南下한 敵을 격퇴한 다음에 南進하여 淸川江 北岸에 이르고 있었다。이날 01.00에 1개 대대 규모의 敵이 제3대대 정면을, 뒤이어 02.00에는 역시 1개 대대 규모의 敵이 제2대대 정면을 각각 공격하였는데, 我軍은 포병 제1중대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3시간에 걸친 激戰끝에 이 敵을 격퇴하고야 말았다。그런다음 각 대대는 18.00에 이동을 시작하였던 바, 途中에 제2대대는 淸川江 北方에 있는 龍淵洞부근에서 敵의 奇襲을 받기도 하였으나 22.00에서 24.00에 이르기까지는 각 대대가 모두 淸川江 北岸의 孟下里 南쪽에 진출하여 그곳에서 경계 배치한 뒤 戰列을 가다듬게 되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사단은 乘勝長驅로 北進하던 가운데 雲山에서 처음으로 中共軍과 부딪쳐 苦戰을 치루고 이제 군단 예비가 되어 淸川江을 건너 安州일대에 布陣하게 되었다, 이때 敵은 敗殘兵으로 再編成된 北共軍의 일부가 中共軍과 함께 大寧江畔 일대로 南下中이었고, 美 제24사단은 아직 淸川江 北方에서 피어린 戰鬪를 거듭하고 있었다。이러한 상황아래 11월 4일에 孟下里 南쪽에서 新安州로 淸川江을 渡河한 제12연대는 5일에 新安州東北方으로부터 淸川江 河口부근까지에 걸쳐 江南岸에 부대를 배치하였고, 제11, 제15연대는 그 안쪽으로 南方에 부대를 배치하여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었다。그리하여 사단은 부대를 再整備하는 한편, 避難民으로 假裝하여 南下하는 敵의 便衣隊를 색출하기도 하며, 또 江北方의 美軍을 엄호하는 역할도 兼行하는 등 一人三役의 무거운 짐을 진 셈이었다。

戰果				損失			
사살	332명	중기	1정	전사	66명	81mm박격포	4문
포로	10명	경기	1정	부상	267명	60 〃	4문
사상	2명			실종	471명	중기	3정
귀순	1명	박격포	1문	MI소총	469정	경기	11정
소총	86정	Rockt포	1문	CAR 〃	40정		
기관단총	11정			(共히 제11연대分 除外)			

3. 价川—飛虎山附近 戰鬪 (1950년 11월 1일부터 1950년 11월 7일까지)

참조 : 상황도 제 3 호
작명부록 제 4 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제2군단	장 소장 劉 載 興	제2대대	장 소령 申 健 善
제7사단	장 준장 申 尙 澈	제3대대	장 소령 金 相 來
제3연대	장 대령 李 奇 建	제8연대	장 대령 金 龍 周
제1대대	장 소령 朴 俊 錦	제1대대	장 소령 梁 麟 錫
제2대대	장 소령 李 司 起	제2대대	장 소령 高 漢 薛
제3대대	장 소령 崔 昌 換	제3대대	장 소령 朴 寬 榮
	11월 2일까지	배속부대	
	소령 林 春 勃	포병 제18대대	장 중령 朴 延 錦
	11월 3일부터	兵 力 : 약 10,000명	
제5연대	장 대령 朴 昇 日	裝 備 : 사단 T/E에 약 90%	
제1대대	장 소령 鄭 陸 地		

敵 軍

中共 제38軍	장 宋 霜 根	兵 力 : 각 사단 약 10,000명	
제112사단	장 江 擁 邦	裝 備 : 125㎜ 및 160㎜곡사포, 82㎜ 및 120㎜박격포, 기관총, 소총	
제113사단	장 庶 靑 山		
제114사단	장 翟 仲 儒		

나. 전투 전의 개황

보병 제7사단은 50년 10월 29일 현재 韓國軍 및 UN軍이 韓滿國境線을 목표로 進擊하고 있을때 美 제1군단의 後續부대로 군단後方에 남아 있는 殘敵을 격멸하면서 鄭邊지역으로 進擊하여 차기작전에 對備하였다。

이 당시에 東部戰線에는 韓國軍 제1군단과 美 제10군단이 순조롭게 進擊하였으며, 西部戰線에는 美 제8군의 指揮下인 韓國軍 제2군단이 右翼부대로 楚山—滿浦鎭으로, 美 제1군단이 左翼부대로 新義州—碧潼으로 각각 進擊하고 있었다. 그러나 北共軍이 崩壞되어 滿洲를 指向하고 潰走할 무렵 對內外의 一般的인 見解는 中共이 韓國戰에 加擔하지 않을 것이라는 輿論이 支配的이었으나 이를 뒤엎고 中共軍은 10월 中旬에 韓滿國境線을 넘었는데 이는 中共 제13兵團 소속의 휘하부대로서 제39군과 제40군은 新義州로, 제38군과 제42군은 滿浦鎭으로 각각 侵略하여 西部지역에서 전투할 준비를 갖추므로써 전투의 樣相은 새로운 局面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敵의 狀況 : 西部지역에 侵攻한 中共軍은 10월 25~26일에 비로소 我軍과 接戰을 시작하였는데 이들은 北共이 戰線整理를 못하고 일사천리로 退却하자 我軍이 그들을 追擊하는 虛點을 틈타 西部戰線 全域에 걸쳐 물밀듯 하는 不意의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런데 당시 이들의 작전계획은 西部의 양호한 기동지대는 開放하여 기계화 부대와 강력한 火力을 가진 美제1군단을 龜城—宣川지역으로 誘引牽制하면서 韓國軍 제2군단과 分離하는 한편 이를 迂回하여 主力方向을 기만하고 高原地帶에서 我主攻로 強襲기동 즉, 江界—熙川—球場洞—价川으로 侵攻하여 西部戰線의 我軍을 포위할 企圖인듯 하였다。

이러한 계획아래 中共軍은 楚山에 진격한 我軍을 後退케 하고 계속 南進하여 溫井里(楚山 北쪽 15 km) 지역에서 제6, 제8사단과 激戰이 전개되었는데 이 敵은 新義州로 侵略한 中共軍의 先鋒부대인 제40군(장, 韓先楚)이었다. 또한 滿浦鎭으로 侵略한 제38군(장, 宋霜根)은 그 휘하에 제112사단(장, 江擁輝), 제113사단(장, 唐萬山), 제114사단(장, 鄧仲儒)인 3개사단과 數未詳의 포병부대로 구성되었는데 先鋒부대는 江界에서 熙川지역으로 侵攻하였다. 그뒤에 이들은 溫井里에서 激戰하는 我軍을 포위하는 一方으로는 淸川江 北쪽에 진격한 韓國軍 및 UN軍의 後方을 차단할 목적으로 球場洞—价川을 목표로 하여 南進하고 있었다. 당시 敵의 士氣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니 그 까닭은 我軍이 지연작전으로 戰線을 整理하고 있어서 그들이 용이하게 侵攻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我軍의 狀況 : 이와같이 豫期치 않았던 戰局을 맞은 西部戰線의 戰況을 살펴보면 제2군단은 그 예하에 楚山에 突進한 제6사단(장, 金鍾甲준장)이 撤收하여 溫井里에서, 그 右側에 熙川간을 제8사단(장, 李成佳준장)이 각각 담당하고 侵攻한 敵과 전투가 전개되었는데 이때에 敵은 溫井里지역을 突破코자 全力을 다 하였으므로 熙川을 防守하던 제8사단의 일부 兵力마저 10월28일에 이곳으로 집중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美제1군단(장, Frank W. Milburn 소장)은 龜城—宣川지역에서 전투를 하고 있으니 西部戰線은 熙川—溫井里—龜城—宣川을 連한 線으로 形成되었으나 熙川지역에 공백지대가 생겨서 敵의 進路가 되고 있었다。

이렇게 戰況이 急變되어 美 제8군의 東側方이 敵에게 威脅을 받게 되자 美 제8군사령관 Walker 중장은 熙川에서 侵攻하는 敵에 對處하여 제7사단을 价川—熙川간의 道路를 경계토록 지시한 다음 제2군단의 戰力을 강화하여 戰線을 보강토록 同사단을 美 제1군단에서 韓國軍 제2군단으로 배속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사단은 10월 29일 寧邊지역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 제8연대는 球場洞으로 轉進한 다음 제3연대는 新興里(球場洞 東北쪽 8km)를, 제8연대(一)는 龍登洞(球場洞 南東쪽 3km)을 각각 점령하였으며(제8연대의 제1대대는 平城市 경계중), 제5연대는 价川으로 이동하

였고, 포병 제18대대 및 사단 사령부는 价川에 있었다. 그뒤에 제2군단의 작전지휘를 받게 됨에 따라 사단은 10월 31일 道路경계임무를 美제2사단에 인계하고 次期 작전을 待機中이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제2군단(장, 劉載興소장)은 當面한 임무를 수행할 작전계획으로서 첫째로, 敵의 兵力과 戰況을 고려할 때 군단의 主抵抗線을 德川—球場洞—雲山을 連한 線으로 하여 이 線에서 侵攻하는 敵을 捕捉擊滅한 다음에 반격작전을 실시한다는 것, 둘째로 이 線을 防守하는 데는 熙川에서 球場洞—价川으로 흐르는 淸川江을 中心으로 하여 北쪽을 제8사단이, 南쪽을 제7사단이 각각 담당한다는 것, 세째로 溫井里에서 싸우는 제6사단은 執拗한 지연작전을 展開하여 방어진지를 占領하는데 많은 시간을 얻도록 한다는것 등이다.

이러한 군단작전方針에 따라 보병제7사단은 임무를 분석한 결과 敵情은 不明하나 부여된 임무가 德川—球場洞간의 戰鬪正面이 약 30km에 達하는 廣正面이므로 3개연대를 全部 배치키로 하였다. 그리고 이 지역의 유리한 地形과 地勢를 이용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熙川에서 淸川江 沿岸 및 험준한 妙香山脈을 따라 侵攻하는 敵을 阻止擊滅한 다음에 반격할 목적으로 사단장 申尙澈준장은 要旨 다음과 같은 구두명령을 하달하였다。『① 사단은 11월 1일 08.00에 행동을 개시하여 德川—球場洞간을 점령하고 이 線에서 侵攻하는 敵을 阻止擊滅한 다음 반격하려 한다. ② 제3연대는 球場洞지역을 점령하라. ③ 제5연대는 德川을 目標로 進擊하여 그곳을 占領하라. ④ 제8연대는 龍門山을 점령하고 특히 妙香山脈을 따라 侵攻하는 敵을 격멸하라. ⑤ 포병 제18대대는 의명 球場洞 또는 德川으로 전격하여 지원할 준비를 하라.』

이와같은 명령에 따라 제3연대는 제2대대를 右一線, 제1대대를 左一線으로 하고 제3대대는 예비대로 하여 전투진지를 편성키로 하였으며, 제5연대는 建制순으로 德川에 진격한 다음 제1, 제2대대를 前線대대로 하고 제3대대는 예비대로 하였고, 제8연대는 제1대대가 平壤에 派遣되었으므로 제2, 제3대대를 전부 前線대대로 하고 각기 예비대를 보유토록 하여 각 연대장은 이를 예하부대에 명령하고 필요한 준비를 하였다.

(2) 작전실시

11월 1일 : 사단은 이날 08.00에 일제히 행동을 개시하여 德川—球場洞간을 점령코자 하

였으나 熙川지역에 도사리고 있던 中共軍의 先鋒부대가 이미 이 지역에 侵透하였으므로 이 敵과 對峙하는 한편 급편방어진지를 구축하고 激戰을 반복하였는 바 그들은 壓倒的인 大兵力으로 波狀공격을 계속하므로 말미암아 力不足하여 본래의 작전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1. 제3연대(장, 李奇建대령)—新興里일대의 유리한 地形인 百嶺川을 이용하여 진지를 점령하였는데 제1대대는 淸川江을 左側에 끼고 百嶺川을 主抵抗線으로 하여 논골지역을, 제2대대는 大洞의 △385를 각각 中心으로 하여 급편방어진지를 구축하였으며, 제3대대는 경계부대로서 百嶺川 前方인 新興里일대의 高地를 점령하였다. 그런데 이에 앞서 연대수색중대는 이날 07.00에 △604(新興里 東쪽 3km)에서 右側方에 대한 경계임무를 수행하다가 敵을 발견하였는데 이들은 中國語를 사용하고 있어서 中共軍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처음으로 接戰을 시작하여 이들 斥候兵을 격퇴시키고 전투준비를 서둘렀던 것이다. 이리하여 17.00에 이르자 中共軍은 1개연대 규모의 兵力으로 侵攻함으로서 비로소 彼我간에 교전이 시작되었는데 敵은 더욱 兵力이 증가되고 있어서 전투가 激化되었다. 夜暗으로 접어들자 敵은 遊擊전투방법인 피리와 징, 꽹가리 등을 울리면서 2개연대 규모의 공격을 받게된 연대는 2시간에 걸친 치열한 激戰을 계속하였는데 敵은 數的으로 우세할 뿐 아니라 그 一部는 연대의 後方을 차단코자 淸川江 南岸으로 기동하여 价川쪽으로 侵攻하므로써 사단작전계획에 따라 20.00에 寧邊으로 撤收하였다. 그런데 이 전투중 前方 경계부대였던 제3대대는 右側 山岳과 左側 淸川江 沿岸에서 敵의 挾攻을 받아 대대장 崔昌煥소령은 부대를 진두지휘하면서 敵을 主陣地로 誘引하여 擊破한 다음 대대를 龍門洞(球場洞 東北쪽 3km)으로 撤收中 敵의 狙擊으로 負傷을 당하였다。

2. 제8연대(장, 金龍周대령)—08.00에 제2대대를 右一線으로 제3대대를 左一線으로 展開한 연대는 龍門山(△1190)을 目標로 진격하였는데 이때 龍門山에는 이미 敵1개소대 규모의 兵力이 점령하고 저항하였는 바 즉각 이를 擊破하고 여기를 점령한 다음 제3대대는 龍門山 北쪽 稜線을, 제2대대는 南쪽과 △968간을 각각 점령하고 敵과 對峙하였다. 夜暗이 되자 前面 △1032에서 敵 1개대대 규모가 공격하는 것을 무난히 擊退하였으나 20.00에 敵은 1개연대 규모로 증강되어 三面에서 재차 侵攻하였으므로 이 敵과 1시간에 걸친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연대의 防守一角이 무너졌으며 제2대대가 점령한 진지에서 敵을 阻止하고 전투를 계속하다가 사단장 명령으로 23.00에 지연작전을 벌이면서 院里로 撤收하였다。

3. 제5연대(장, 朴昇日대령)—08.00에 제1, 제2대대, 연대본부 및 제3대대 순으로 德川을 向하여 진격하다가 제3, 제8연대 正面에 나타난 敵의 大規模인 南侵으로 말미암아 사단장 命令으로 이날 14.00에 月峯山(德川 西쪽 16km)일대를 점령하게 되었다. 이 당시에 제1대대는 △816에, 제2대대는 月峯山(△1032)을, 그리고 제3대대는 △814—△805간을 각각 점령하고 前方 △1007 및 龍門山에서 侵攻하는 敵과 對峙하는 동시에 德川에서 价川으로 通하는 道路를 차단하였다. 그러나 20.00에 이르러 敵 1개중대 규모의 侵攻을 받았으므로 곧 이를 격퇴하였는데 敵은 계속 증가되면서 전투는 더욱 苛烈한 樣相을 보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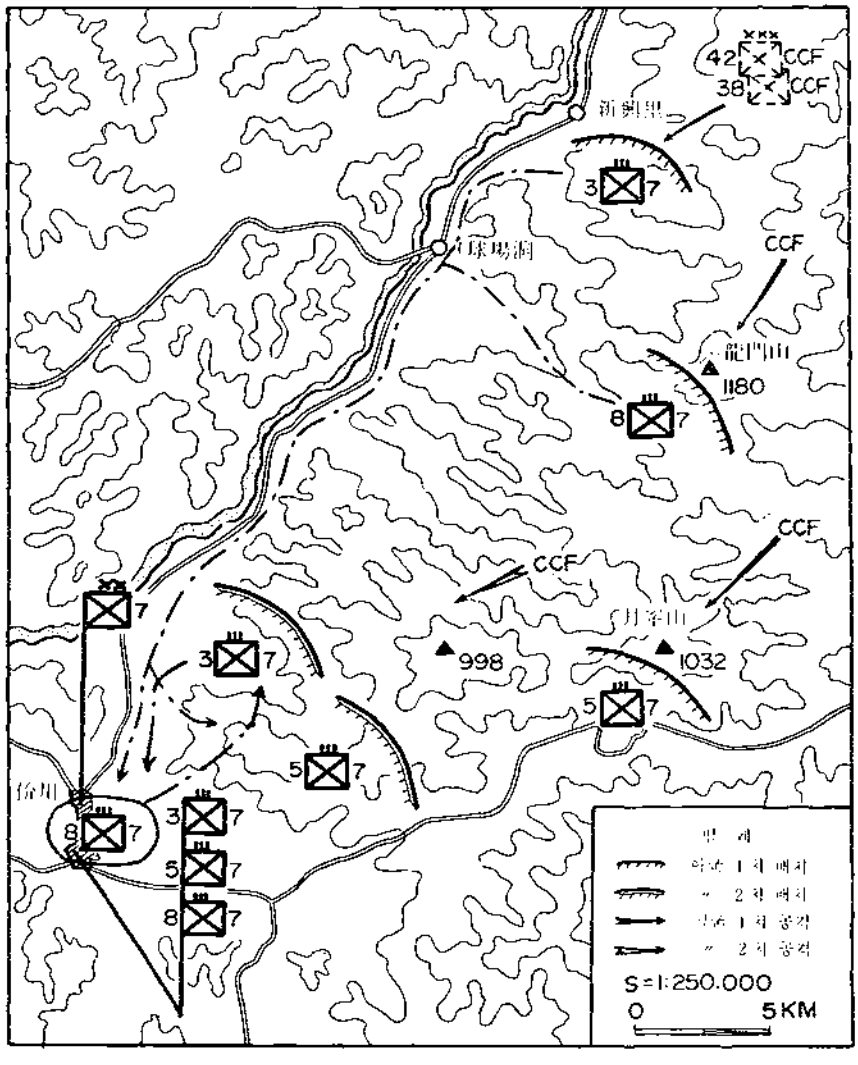
11월 2일 : 사단은 이날 价川지역을 固守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단작전계획에 따라 飛虎山(价川 東北쪽 6km)을 점령하고 이 高地를 中心으로 右一線에 제5연대를, 左一線에 제3연대를 配置하여 전투진지를 편성하고 當面의 敵을 막아내기로 하였다. 이에앞서 사단장이 여기를 固守키로 한 方策의 要點을 간추려 본다면 첫째로 진날까지 不明確하였던 敵이 德川—球場洞 사이에 가로 놓인 험준한 妙香山脈을 따라 大兵力으로 侵攻하는 것으로 보아 그들은 价川지역을 主目標로 한것이 確實視된것, 둘째로 价川지역은 西部의 戰況으로 보나 東쪽의 山岳지대와 西쪽의 平野와의 分岐點이라는 見地에서 보나 그리고 四方으로 通하는 交通의 中心地라는 點에서 보나 彼我간의 戰術的인 主要目標가 된다는 것, 세째로 戰線을 整理하고 价川을 防守하는데 飛虎山은 北쪽으로 淸川江, 南쪽으로는 价川—德川간의 主機動路까지 이 山의 稜線이 각각 뻗어 있으므로 自然的인 有利한 地勢를 占有할 수 있는 한편 진지구축에 最大限의 시간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등이었다。

1. 제5연대는 전날밤부터 月峯山에서 전투를 계속하다가 이날 04.00부터 지연작전을 벌이기로 하여 敵과의 接觸을 유지하면서 飛虎山의 東南쪽인 △535—△760간으로 撤收하여 진지를 점령하였는데 제1대대는 경계부대로 前方 △760를, 제2대대는 △535에, 그리고 제3대대는 예비대로 東邊里(价川 東쪽 7km)—新成里간을 점령하였고 연대본부는 价川에 설치하였다. 이리하여 妙香山脈의 南端과 德川에서 价川으로 通하는 道路를 차단하여 전투진지를 구축하고 만반의 固守태세를 갖추었는데 22.00에 이르러 敵은 1개대대 규모의 兵力으로 侵攻하였으나 이 敵과의 격전끝에 격퇴하고 말았다。

2. 한편 제3연대는 寧邊에 집결한 다음 이날 06.00에 院里(价川 北東쪽 8km)로 진격하여 여기에 연대본부를 설치하고 각대대는 淸川江을 넘어 南岸에서부터 飛虎山간(7km)을 점령하였는데 연대장은 球場洞에서 价川으로 이르는 鐵道와 國道가 敵의 主接近路가

된다고 판단한 결과 여기에 重點을 두어 兵力을 배치하였다. 이때에 제1대대는 飛虎山을 中心으로, 제2대대는 정계부대로 前方 鳳泉里(价川 北東쪽 10km)—△454간을, 제3대대는 龍淵里지역을 각각 점령하고 球場洞에서 侵攻하는 敵과 對峙하였는데 22.00가 되자 敵 1개대대 규모의 공격을 받았으나 격전끝에 이를 격퇴하였다. 그러나 敵은 계속 그 兵力을 增強하면서 侵攻에 拍車를 加하였으므로 전투는 더욱 加熱化되기만 하였다。

◇ 상황도 제3호 价川—飛虎山附近 戰鬪



3. 제8연대는 이날 07.00에 院里에 집결한 다음 부대를 점검하는 즉시로 龍蛇里(价川 南쪽 6km)로 이동하여 부대를 附近에 配置하였는데 제2대대는 龍成里를, 제3대대는 龍

峴里를 각각 점령하였으며, 연대본부는 雲龍里에 설치하였다. 이날 육본訓令 제91호(50, 10, 28)에 의하여 平壤市의 경비임무차 派遣되었던 제1대대는 육본作命 제221호(참조 : 작명부록 제4호)訓令 제 2 호에 따라 복귀하였다. 그뒤에 연대는 사단의 예비대가 되는 한편 价川江을 사이에 두고 南쪽과 北쪽에 있는 高地를 점령하여 德川에서 本道를 따라 계속 南侵하는 敵을 撃滅하기 위한 진지를 구축하였다。

11월 3일 : 전날부터 방어전투를 시작케 된 사단은 이날 03.00에 侵攻하는 敵 1개사단 규모와 激突한 결과 이敵을 撃滅하여 그 戰力을 크게 弱化시켰는데 이날은 사단이 北進한 以來 처음으로 치열한 激戰을 치루어 戰勝으로 이끈 바 勝利의 날이기도 하였다。

1. 사단의 右一線을 담당한 제5연대(장, 朴昇日대령)는 이날 03.00에 1개대대 규모의 敵과 교전한 끝에 前方 경계부대였던 제1대대가 점령한 △760의 防守가 위태로웠으나 대대장 鄭隨地소령은 예비중대를 投入하여 이 敵을 撃退하고 말았다. 또한 제2대대(장, 申健善소령)는 前方 仁興里에서 侵攻하는 敵을, 제3대대(장, 金相峰소령)는 雲興里에서 侵攻하는 敵을 각각 勇戰끝에 물리쳤다。

2. 한편 左一線을 담당한 제3연대(장, 李喜建대령)는 전날밤 늦게부터 전투가 激化되었는데 當面의 敵은 연대간의 戰鬪地帶인 九龍站 지역으로 侵攻하여 飛虎山을 장악코자 03.00에 2개연대 규모의 兵力으로 증강하여 砲撃과 더불어 공격을 감행하였으므로 彼我간에 砲火와 銃彈이 雷霆과도 같이 炸烈하였다. 이때에 前方 경계부대로 鳳泉里지역을 점령한 제2대대(장, 李再起대위)는 主抵抗線과 다름없는 치열한 격전을 展開한 결과 드디어 대대가 포위상태에 놓이게 되자 逐次로 지연작전을 펴면서 松林站一帶站간으로 撤收하였다. 이 전투가 계속되던 중에 敵의 砲撃으로 中隊와의 有線網이 杜絶되자 대대의 通信장교 成興基소위는 즉각 無線網을 개통하는 동시에 通信兵을 전두지휘하여 이를 疎通케 함으로써 부대지휘의 主軸역할을 하는 중대간의 有線網을 확보하여 무사히 대대가 撤收하였던 것이다. 이 대대의 後尾를 따라 敵은 물밀듯이 侵攻하였는데 主抵抗線을 점령한 제1대대(장, 朴俊鎬대위)와 제3대대(장, 林春勃대위)는 당시 价川지역에 있던 UN軍 포병대대의 중원火力을 지원받으면서 3시간에 걸친 激戰이 지속되어 무려 3回나 一進一退의 치열한 공방전을 거듭하던 끝에 2개대대 규모의 敵을 撃滅하므로서 中共軍은 분산 潰走하고 飛虎山을 끝까지 固守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때에 연대의 戰死傷者도 多少있었으나 각 대대장들은 예비중대의 兵力을 적시적절히 投入하여 全員이 진지를 死守하면서 싸웠으며 보유하였던 탄약은 거의 소모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연대 병기장교와 사단 병기

참모는 이날의 소모 탄약을 보충하는데 全力을 다하여 다음의 一戰을 준비하였다。

3. 제8연대(장, 金龍周대령)는 사단의 예비대로 부대를 정비하는 一方으로는 前線의 狀況을 銳意 注視하면서 出動準備를 갖추고 있다가 敵이 敗退한 다음 다시 전투력을 보강하는 一環策으로 소부대 전술훈련을 실시하여 전투기술를 연마하는 한편 後方지역에 대한 경계를 強化하였다。

4. 西部戰線의 全般的 戰況을 살펴 본다면 사단의 右一線에서는 美제2사단(장, Lawrence B. Keiser소장)의 제9연대(장, Charles C. Sloane)가 鳳鳴里(舊价川)에서 제5연대와 연결하여 德川으로부터 侵攻하는 敵과 對峙하였으며, 左翼에서는 제8사단(장, 李成佳준장)이 院里—雲山간을 점령하고 敵과 교전중이었고, 美제1군단 (장, Frank W. Milburn소장)은 雲山—寧邊—博川간을 連한 線을 확보하면서 當面의 敵과 전투中이었다。

11월 4일 : 사단은 平隱상태의 戰線을 유지하면서 전날에 激戰을 展開한 제3연대와 예비대인 제8연대를 서로 交代케 하는 한편 방어진지를 더욱 굳게 보강하면서 前方地區를 수색케 한 다음 敵과 對峙하였는데 이날밤 늦게 敵은 探索戰으로 예측되는 대대규모의 兵力으로 공격을 試圖하였으나 輕戰으로 이를 물리치고 말았다。

1. 제3연대는 10.00에 사단작전계획에 따라 전투임무를 제8연대에 인계하고 价川에 있는 朝陽國民學校에 집결하여 병기검사를 실시 하였고, 11.00에는 사단장의 안내로 연대를 訪問한 군단장 劉載興소장이 전날에 勇敢히 싸워 韓國軍의 戰鬪力을 UN軍으로 하여금 재평가토록 할 만큼 勇猛한 참모습을 드러내어 혁혁한 전투공로를 세운 각 대대장 세사람(朴俊鎬대위와 李再起대위, 그리고 林春勃대위)을 소령으로, 또 제2대대 통신장교 成興基소위를 중위로 각각 一階級 특진 시키는 동시에 사병 20명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며 百折不屈의 제3연대 장병을 높이 치하하였다。

2. 제8연대는 새로이 전투임무를 인수받은 다음 飛虎山에서 北쪽으로 뻗은 稜線을 따라 淸川江 南岸까지 점령한 진지를 더욱 보강하면서 만반의 전투준비를 끝마쳤는데 제1대대(장, 梁麟錫소령)는 龍淵里를, 제2대대(장, 高漢祚소령)는 飛虎山을, 그리고 제3대대(장, 朴寬榮소령)는 聞站—松林站간을 점령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23.00에 이르러 探索戰을 전개한 1개중대 규모의 敵과 교전끝에 이를 격퇴하였다。

3. 제5연대는 飛虎山 南쪽에서 妙香山脈의 줄기인 △535—△760간을 점령한 진지를 더욱 굳게 구축하고 敵과 對峙하였는데 22.00에 이르러 敵은 2개중대 규모의 兵力으로 威力搜索의 目的인 듯이 判斷되는 攻勢를 取하였으나 이를 즉각 격퇴하고 말았다. 그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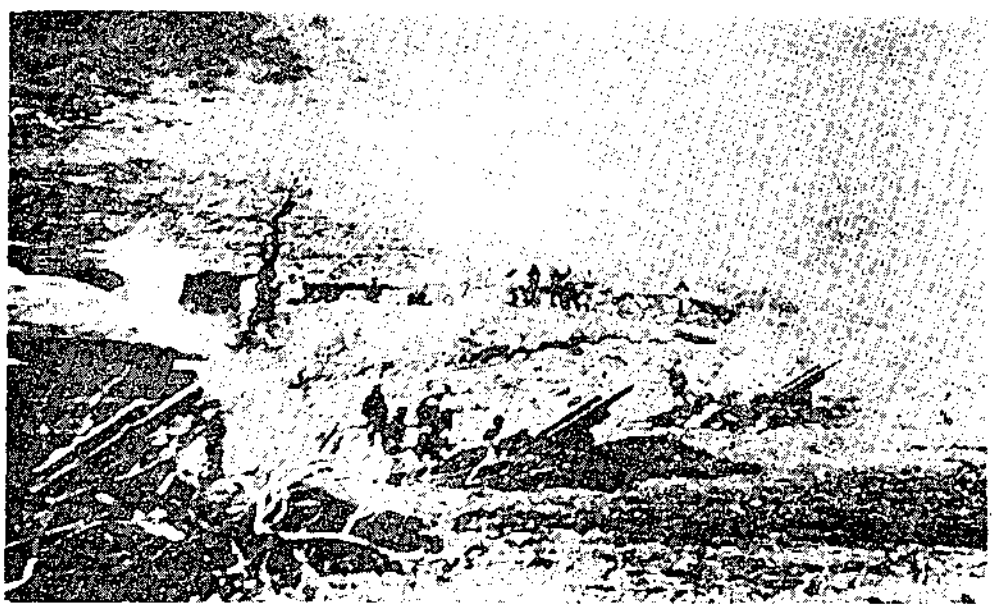
23.00에 이르러 敵은 1개대대 규모로 增強한 兵力으로 재차 侵攻하였으므로 1시간 동안에 걸친 치열한 교전끝에 또다시 격퇴하였다。

4. 사단 수색중대는 이날 前方연대의 交代를 엄호하는 동시에 鳳泉里—△454—仁興里지역을 수색한 결과 전날 전투에서 射殺된 敵의 屍體가 무수히 놓여 있으므로 이를 매장한 다음 원대로 복귀하여 사단사령부를 경비하였다。

이날 中共 제38군(장, 宋霸根)의 휘하부대로 球場洞에서 淸川江과 國道를 따라 价川으로 집중공격을 하던 敵은 球場洞 지역에서 부대를 재편성 하는 듯 하였으며, 德川에서 价川쪽으로 侵攻하던 敵이 主攻目標를 轉換하여 飛虎山을 노리면서 探索戰을 벌이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11월 5일 : 사단은 이날 제5연대의 防守가 무너지면서 飛虎山의 一角마저 敵에게 被侵당하여 鳳鳴里—中站—間站—龍淵里—院里를 連한 線으로 戰線을 形成하게 되어 价川의 防守가 危險한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는데 예비대인 제3연대가 价川까지 侵攻하려던 敵의 攻勢를 저지하고 飛虎山을 탈환할 進攻작전을 서둘렀다。

1. 제5연대는 右一線을 담당하였는데 전날에 探索戰을 하던 敵이 2개연대 규모의 兵力으



<价川 부근에서 警戒하는 砲兵들>

로 증강하여 德川에서 价川으로 通하는 作戰路를 따라 雲興里에 侵入한 다음 이날 未明에 기습공격을 敢行하였는 바 不時에 激戰이 전개되어 연대장은 포병의 火力과 美제2사단 포병의 火力도 증원받아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이날 짙은 안개가 끼여 50m 周圍를 識別할 수 없을 정도여서 火力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을 뿐아니라 彼我간에는 混戰亂鬪로 劍과 劍, 肉彈과 肉彈이 서로 相搏하는 激突을 계속하였으나 數的으로 劣勢한 연대는 不得已 지연전투를 펴면서 예비대인 제3연대와 연대의 右側에서 싸우던 美제9연대의 엄호를 받는 가운데 价川으로 撤收하여 다음날의 공격을 준비하였다。

2. 제8연대는 左一線을 담당하고 있다가 같은 시간에 侵攻한 敵 2개대대 규모와 激戰을 계속하였는데 龍淵里지역을 점령한 제1대대는 淸川江 및 鳳泉里에서 侵攻하는 敵을 무난히 격퇴하였으나 飛虎山을 점령한 제2대대는 제5연대가 무너지자 이 지역의 敵이 合勢하여 侵攻을 強行한 탓으로 수차에 걸쳐 飛虎山의 爭奪戰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마침내 力不足하여 이 山의 頂上을 빼앗기고 挾和站지역에 後退하여 敵을 저지하였다。 이때에 間站을 점령한 제3대대는 飛虎山에서 价川으로 侵攻하는 敵을 저지하고 전투를 계속하였다。

3. 제3연대는 价川 朝陽國民學校에서 前線연대의 戰況이 惡化되자 出動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사단장 명령으로 中站—雲洞간을 점령하고 제5연대의 撤收를 엄호하는 동시에 제8연대와 合同으로 敵의 突破口를 阻止하였는데 이때에 제1대대는 中站지역을, 제2대대는 雲洞지역을 各各 점령하였고, 제3대대는 예비대로 龍泉站을 지키고 있었다。 이리하여 敵이 价川으로 侵攻하는 것을 격멸하는 한편 敵의 氣勢가 多少 弱化된 틈을 타서 연대는 价川에 있는 韓國軍과 UN軍의 모든 포병화력을 飛虎山에 同時에 集中하면서 右一線에 있는 美제9연대와 合同作戰으로 공격을 斷行하였으나 △227(飛虎山頂上에서 1km 南쪽)에서 死力을 다하는 敵의 頑强으로 진격한 線에서 급편방어진지를 구축하였는데 이날 연대는 敵 32명을 射殺하였다。

11월 6일 : 사단은 이날 敵의 侵攻을 계속 阻止하는 한편 일부병력으로써 攻勢로 轉移하여 전날에 拋棄한 飛虎山을 다시 탈환함으로써 危急에 直面하였던 价川지역을 防守하는데 貢獻 하였다。

1. 제5연대(장, 朴昇日대령)는 사단作命 제43호(50.11.6)에 의하여 이날 08.00에 포병의 火力 지원을 받아 공격을 전개한 다음 저항하는 敵 2개중대 규모를 물리치고 △535

에 이어 飛虎山의 右端을 다시 탈환하였는데 제2대대는 右一線대대로 東邊里에서 공격하여 新成里지역을 점령하였으며, 제3대대는 左一線대대로 中站에서 공격하여 △535를 점령한 다음 계속 飛虎山 右端까지 진격하였고, 제1대대는 예비대로 東邊里지역을 점령하고 德川—价川간의 主作戰路를 차단하였다.

2. 한편 제8연대(장, 金龍周대령)는 間站지역에서 敵을 阻止하던 제3대대로 하여금 飛虎山을 공격하여 저항하던 敵 1개대대 규모를 擊破하고 이 山을 점령하므로써 左右에서 挾攻을 받은 敵은 鳳泉里쪽으로 退却하고 最初 이 方面을 담당한 제2대대는 예비대가 되어 間站—松林站간으로 이동하여 진지를 점령하였다. 이때에 제1대대는 龍淵里 진지에서 제3대대의 공격을 지원하는 한편 일부병력으로 退却하는 敵을 追擊하던 중 △454에서 저항하는 敵 1개소대 규모를 즉각 공격하여 그곳을 점령하므로써 敵은 球場洞쪽으로 계속 潰走하고 追擊하던 兵力은 17.00에 복귀하였다.

3. 敵의 突破口를 저지하기 위하여 中站—雲站간을 점령한 제3연대(장, 李奇建대령)는 价川을 노리고 侵透하는 敵 1개중대 규모와 교전하였으나 左右側方에서 飛虎山을 挾攻하는 兩연대가 이 山을 점령하기 直前에 놓이게 되자 이들은 退却하고 각 대대는 점령한 진지를 보강하며 계속 사단의 예비대로 後方을 경계하였다.

11월 7일 : 사단은 이날 小規模態의 戰線을 유지하면서 방어전투의 補強策으로 前方지역을 探索하는 한편 경계부대를 배치하여 전투준비를 더욱 강화하였다.

1. 제5연대는 攻防兩面作戰에 있어서 妙香山脈의 橋頭堡역할을 하는 前方 △760를 점령하였는데 이 高地를 공격한 연대 수색중대는 敵의 경미한 저항을 격퇴하고 여기에 진지를 구축하여 戰鬪前哨의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제1대대는 東邊里, 제2대대는 新成里, 제3대대는 △535에서 각각 진지를 보강하여 戰鬪力을 強化하였다.

2. 제8연대는 前線의 진지를 더욱 굳게하며 예비대인 제2대대에서 1개중대를 차출케 하여 前方 △454—鳳泉里지역을 수색토록 하였으나 별다른 첩보를 얻지 못한 채 여기를 점령하고 경계부대로서 敵의 侵攻을 早期에 발견하여 이를 阻止瓦解하고 主陣地를 기만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3. 사단의 예비대인 제3연대는 이날 08.00에 敵情探索과 전날에 退却한 敵이 재집결할 시간적 여유를 얻지 못하도록 1개대대로 戰鬪偵察을 하게 되어 龍泉站을 점령한 제3대대로 하여금 球場洞쪽으로 공격하여 院堂站(前線인 龍淵里 東北쪽 7km)까지 진격하였는데 이때에 上陽里(球場洞 西南쪽 6km) 일대에 占據中인 敵 1개대대 규모의 兵力이 완강

히 저항하여 이 敵과 교전을 전개하였는데 대대는 地勢的으로 瞰制를 당할 뿐 아니라 敵은 병력을 증강하여 反撃을 감행한 결과 마침내 守勢에 놓이므로써 逐次的인 지연작전으로 17.00에 原陣地로 복귀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敵의 動向 : 사단과 치열한 激戰을 계속하던 中共 제38군은 妙香山脈의 險峻함을 이용하여 价川 지역을 장악하고 一擧에 西部地域의 我軍後方을 차단 하려던 企圖는 마침내 水泡로 돌아가 사단장병의 執拗한 戰鬪力과 強力한 火力으로 말미암아 勝算이 없음을 스스로 깨달았음인지 그 鋭鋒을 감추어 버렸다. 그리하여 一部兵力만 경계부대로 △998(제5연대 正面)에서 北쪽으로 멀은 後線을 따라 院堂站지역까지 占領하고 사단의 進攻을 저지하는 듯 하였으며, 最初에 球場洞에서 价川으로 侵攻하려던 敵과 2次로 德川에서 价川을 노리고 공격하던 敵 즉, 兩個사단의 主力은 球場洞—德川간에서 부대를 재편성 하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그러므로 이들의 力點은 당분간 价川을 侵攻할 氣勢는 보이지 않고 방어전투와 지연전의 2가지 方途以外에는 없는 것으로 分析되었으나 새로운 부대를 계속 投入하여 德川에서 北倉—順川으로 侵攻하여 韓國軍 및 UN軍의 後方을 차단 교란할 企圖로서 南進하고 있었다. 그 뒤에 그들은 北倉지역을 장악하였으나 11월 中旬에 사단과 제8사단의 進攻으로 말미암아 결국 敗한 다음 德川—球場洞에서 熙川지역으로 退却하고 일부병력만 妙香山脈의 頂上後線을 連하는 指峰(△810)—豊德山—寺頂山線에서 彷徨하고 있었다。

我軍의 狀況 : 사단은 价川을 侵攻하려던 敵을 擊退하고 飛虎山을 中心으로 한 방어진지를 더욱 鞏強한 다음 9일과 10일의 2일간에 걸쳐 美軍 제1기갑사단에 전투임무를 인계하고 价川지역에서 부대를 정비하였는데 이때에 제3연대는 价川 朝陽鎭民學校에서, 제5연대는 鳳鳴里附近에서, 그리고 제3연대는 永昌里 일대를 점령하였으며 사단 사령부는 价川에 있었다。

이 당시에 西部戰線은 飛虎山에서 北쪽에 있는 院里—新遊—博川—淸川江을 連한 線에서 小康狀態의 戰線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价川지역을 노리던 敵은 공격방향을 轉換하여 德川에서 北倉쪽으로 南進하고 있으므로 이를 銳意 注視하던 사단은 이 敵을 격멸하기 위한 작전을 준비하였다. 그뒤 사단은 군단작전계획에 따라 11월 14일 공격을 전개하여 제3연대는 北倉에서 德川으로, 제5, 제8연대는 价川에서 月峰山(德川 西쪽 16km)—德川으로 각각 進攻하여 19일에 여기를 점령한 然後에 이곳에서 다음 작전을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 硏　究

사단은 이 戰鬪에서 中共軍과 치열한 激戰을 한 結果 多大한 戰果를 거두었으나 이에 대한 戰果記錄은 여러 資料에서도 發見하지 못하여 列記하지 못하였는데 앞으로 수집하는 대로 追記할 문제이다。

§ 參戰者의 證言

◇ 제7사단장 申尙澈 준장

(1972. 5. 26 체신부장관실에서, 예소장)

我軍이 鴨綠江을 向하여 進擊할때에 사단은 价川—寧邊지역에 있었는데 中共軍이 侵略하여 到處에서 南進한다는 情報를 받고 사단은 德川—球場洞간을 점령하고 侵攻하는 敵을 阻止키로 하였다. 그러나 예하 연대가 그곳으로 進攻하는 첫날에 敵은 이미 그 지역에 侵透하여 있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부대를 撤收하여 敵이 目標로 노리는 价川을 防守코자 飛虎山을 점령한 다음 右翼부대로서 淸川江을 사이에 두고 北쪽에 제8사단과 防禦戰鬪를 같이 하였는데 사단이 점령한 高地는 1개사단이 防禦하기에 適合한 地形이 였다. 따라서 그곳에 戰鬪陣地를 編成하고 侵攻하는 敵과 數次에 걸쳐 치열한 激戰을 하여 그때마다 勇戰奮鬪하는 장병들은 白兵力으로 그들을 물리쳐서 戰勝을 거두었는데 이 당시에 价川지역에 있던 UN軍이 支援하는 砲兵火力의 힘도 多大하였다고 본다。

◇ 제3연대 제3대대장 林春勃소령

(1972. 6. 14 在鄕軍人會別館에서, 예중령)

당시 부대대장으로서 中共軍이 侵攻하였다는 情報를 받고 대대가 球場洞(新興里)으로 進擊하였을 때 敵의 先鋒부대를 그곳에서 發見하고 전투가 시작되었는데 敵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兵力으로 侵攻하여 이 敵과 치열한 激戰을 하다가 대대장 崔昌煥소령이 負傷당하자 내가 대대장을 하게 되었다. 그뒤 명령을 받아 대대를 价川 飛虎山으로 撤收하여 그곳에서 防禦戰鬪를 하는동안 敵은 끈질기게 侵攻하였으나 대대의 全장병은 陣地를 固守하면서 勇戰으로 그들을 모조리 물리치고 陣地를 確保하였는데 나도 그때에 負傷을 당하여 이 전투가 끝나자 後方病院으로 後送되었다。

◇ 제8연대 제1대대장 梁麟錫소령

(1972. 5. 26 육군본부에서, 소장)

당시 저의 대대는 平壤경비임무를 遂行하다가 价川부근인 院里에서 연대에 복귀하여 龍門山 전투에는 참가하지 못하였다. 그후 飛虎山의 北端과 院里앞으로 흐르는 淸川江 南岸을 담당하고 侵攻하는 敵과 수차에 걸쳐 치열한 攻防戰끝에 그들을 擊退시킨 다음 UN軍과 交代하였다. 그리고 며칠간 그곳에서 부대를 정비한 다음 德川을 目標로 進擊하다가 月峰山(价川—德川간의 中間지역)에서 또다시 敵과 激戰끝에 그 山 일부분을 점령하였는데 이때에 北倉쪽에서 進擊하던 제6사단의 제7연대장 林富澤대령이 부대를 지휘하여 進出하다가 대대와 衝突할번 하던 일이 想起됩니다。

4. 博川—泰川—龍山洞부근 戰鬪 (50년 11월 6일부터 / 50년 11월 30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제4, 5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美 제1군단 장 소장 Frank W. Milburn
제1사단 장 준장 白 善 燁
제11연대 장 대령 金 東 斌
제1대대 장 중령 柳 重 秀
제2대대 장 소령 洪 斗 龍
제3대대 장 중령 鄭 永 洪
제12연대 장 대령 金 點 坤
제1대대 장 중령 韓 順 華
제2대대 장 중령 趙 成 來
제3대대 장 중령 金 基 容
제15연대 장 대령 趙 在 美
제1대대 장 중령 劉 載 成
제2대대 장 중령 崔 炳 淳
제3대대 장 중령 安 秉 健
사단 공병대대 장 중령 金 永 錫

배속 부대

포병 제17대대 장 소령 朴 永 混

병 력 약 11,000명
장 비 T/E

지원 부대

美 제10고사포단 장 대령 William H. Hennig
美 제6전차대대 장 중령 John S. Growden C.D중대

敵 軍

(孟中里·博川 地區)
北共 제17기갑사단
제8연대
內務署隊 및 新義州保安隊
(泰川·龍山洞 地區)
北共 제17기갑사단
제8연대
中共 제39군 장 吳 信 泉
제117사단 장 龔 天 允
제40군 장 韓 先 楚
제118사단 장 鄧 岳
제119사단
제66군 장 蕭 新 槐
제196사단 장 成 少 甫

제197사단
제198사단
(陸本情報參謀部 : 北傀 6.25南侵分析 및
제11연대 戰鬪詳報 제16호(1950. 11. 20~〃. 11. 30)
제12연대 戰鬪詳報 제44호(1950. 11. 24~〃. 11. 28)
제15연대 戰鬪詳報 제19호(1950. 11. 6~〃. 11. 26)
제20호(1950. 11. 24~〃. 12. 2)
에 依한)

나. 전투 전의 개황

敵軍의 상황 : 鴨綠江을 향하여 突進하던 我軍과 UN軍이 中共侵略軍과 부닥친 끝에 主力은 淸川江 南岸으로 철수한 11월 4일에, 中共軍은 橋頭堡를 확보하려는 博川과 淸川江北岸 高地의 UN軍 殘留部隊를 공격하였다. 즉 雪山—寧邊일대에서 제1사단과 激戰을 벌이던 中共 제39군은 九龍江을 중심으로 한 左右일대로 계속 南下하여 美 제24사단(장, John H. Church소장) 제19연대의 일부를 공격하였으며, 中共 제39군의 일부와 제40군의 일부 都合 1개사단 규모의 敵은 博川 橋頭堡의 背後를 공격하여 英 제27여단(장, Basil A. Coad준장)을 淸川江 北岸으로 빌고 갔으나 敵은 큰 손해를 입었다. 그리고 美 제1군단 右側의 軍隙里부근을 공격한 中共 제38군과 제40군의 일부도 제7사단(장, 申尙澈준장)과 美 제5연대 전투단(장, John L. Throckmorton대령)의 敢鬪로 큰 손해를 받고 물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敵의 指揮部는 中共 제13병단의 全部隊를 11월 5일 24.00를 期하여 일제히 泰川—雲山—球場洞 線으로 후퇴시켰으니, 이는 美 제9군단(장, John B. Coulter소장)의 戰線投入에 對備하며 次期作戰을 준비하는 한편 그들이 滿洲로 撤退하는 듯이 僞裝함으로서 我軍과 UN軍을 誘引하여 포위공격하려는 企圖로 判斷되었다. 그런데 敵은 主力의 후퇴를 엄호하기 위하여 5일 24.00부터 일부 병력으로 공격을 계속하였으며, 그들의 企圖를 감추고자 北共軍으로 하여금 我軍과 中共軍사이에서 경계케 하였다. 즉 5~6일경 北共 제17사단은 博川에 사령부를 두고, 隷下 제8연대와 內務署 및 新義州保安隊등이 일부 中共軍과 함께 納淸亭부근 牧牛山일대로부터 大寧江 沿岸으로 博川 南쪽까지와 博川—龍山洞 道 南쪽의 산악지대에서 主力의 퇴각을 엄호하면서 整成中에 있었다.

그리하여 我軍이 이들을 격파하고 博川부근에 다시 진출한 무렵, 11월 6일로서 그들의 所謂 제1차 작전을 끝낸 中共軍은 狄踰嶺山脈 南麓의 산악지대에 布陣하면서 제2차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移動中이던 中共 제50, 제66군과 東部로 南下한 제9병단이 속속 北韓으로 越境하여 侵略하자 西部의 中共 제13병단은 예하 6個軍 18個師團을 泰川—雲山—熙川 線에 전개하여 平壤을 直衝 공격할 준비를 하였던 것이다. 敵은 主攻을 熙川에 두어 산악지대에서 美 제8군의 右翼을 격파하고 平壤을 東南方으로 포위공격하여 攻取한 다음, 38°線을 향하여 南進하려는 企圖로 11월 25일에 공격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특히 泰川부근에서는 中共 제66, 제50군과 雲山일대의 中共 제40, 제39군, 그리고 龜城의 北共

제32사단, 博川 西方의 北共 제17사단 제8연대 등이 龍山洞—泰川—龜城 道 北側의 산악지대에 主力을 두고 일부는 大寧江沿岸을 따라 博川 北方 및 龍山洞부근으로 南下하였다. 그리고 我軍의 배치기도를 探索코자 分隊~中隊級의 小部隊가 各處에 出沒하여 我軍捜索隊와 부딛치기도 하였다.

我軍의 상황 : 中共軍이 狄踰嶺山脈線으로 일단 물러가고, 英 제27여단을 비롯한 美 제24사단의 일부가 淸川江北岸의 橋頭堡를 확보하고 있을 무렵부터 我軍과 UN軍은 다시 橋頭堡를 擴大하여 北進할 것을 企圖하였다.

이때 제1사단은 淸川江 南岸의 新安州일대에서 부대를 정비하면서 경계임무를 遂行하이었는데, 11월 6일부터는 橋頭堡擴大를 위한 威力捜索을 시작하여 먼저 제15연대(장, 趙在美대령)가 이날 오후에 淸川江을 건너 孟中里일대로 진출하였다. 즉 연대의 제2대대(장, 崔炳淳중령)는 新安州 北쪽 雲鶴里에 1개 소대 병력과 함께 대대 본부를 두고, 主力은 江을 건너 연대 右一線으로 孟中里 南쪽 東南洞에 진출하였으며, 제1대대(장, 劉載成중령)는 孟中里 西南쪽 △52일대에, 제3대대(장, 安基健중령)는 左一線인 孟中里 西쪽 孟下里일대에 각각 布陣하였다. 연대는 이렇게 孟中里일대에 진출함으로서 美 제24사단의 左側方을 확보함과 아울러 大寧江 沿岸일대에 대한 수색활동을 전개하고 배속공병 제2중대가 6.7兩日間에 淸川江의 橋梁을 보수하는 등, 앞으로의 北進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美 제24사단은 7일에 龍山洞과 博川에 대한 威力捜索을 시작하더니 8일에는 英 제27여단이 博川으로 진격하였다. 이에 제15연대는 博川 西南方으로 진출하여 美 제24사단의 左側方을 계속 防護케 되었다. 그리하여 10일에는 연대 본부가 孟中里로 전진하였고, 배속 포병 제3중대(장, 金榮鐘중위)는 美 제78고사포대대와 같이 前面의 敵에 대한 擾亂射擊을 시작하였으며, 11일에 연대는 大寧江을 渡河하여 博川郡 南嘉面의 博川—定州 道일대로 진격하였다. 즉 제2대대가 연대의 先頭로 08.00에 東南里로 부터 진격을 시작하였는데, 대대는 10.30에 大寧江을 渡河한 다음 蓮池洞부근으로 진출하여 그 北쪽 高地에서 저항하는 1개 연대 규모의 北共軍을 격파하였으며 23.00까지는 納淸亭 道 南쪽의 蓮池洞일대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제3대대는 제2대대의 후방—大寧江 北岸과 大寧江 南岸—上一里일대에 布陣하여 敵의 迂回攻擊에 대비하였는데, 16일에 이르러 支石里—元蓮里—德蓮里일대로 진출하였으며, 제1대대는 예비대로서 지휘소를 龜峰洞에 두고 각 중대는 上一里—南三里일대에서 계속 警戒中이었다. 제15연대가 이렇게 敵을 격퇴하고 博川 西南方일대를 확보한 데 이어 제12연대(장, 金點圭대령)도 北進하여, 17일까지는 연대본부가 博川으로 躍進하고 제1, 제2대대가 그 西方의 玉女峰—青龍山일대를 확보함으로서 제15연대와 연결하였다.

이와 같이 사단이 威力捜索을 전개하여 博川일대를 확보하고 있는 사이에, 中共軍의 全面攻攻을 「水豊댐의 보호 목적」 정도로 인식하고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치 못 하고 있던 UN군사령부는 다시 鴨綠江까지의 北進을 계획하였으니 이른바 X-Mas攻勢이었다. 당초에 11월 15일로 예정되었던 이 공격은 美 제9군단의 移動이 늦어져 西洋人의 秋收感謝祭 다음 날인 24일로 定하여 있고, 美 제8군 右翼의 熙川부근은 제2군단(장, 劉載興소장)이, 楚山—溫井부근은 美 제9군단이, 그리고 左翼의 龍山洞 以西 地域은 美 제1군단(장, Frank W. Milburn소장)이 각각 맡게 되었다.

그리하여 泰川일대로부터 西海岸에 이르는 地域을 맡은 美 제1군단은 楚山부근에서 큰 손실을 본

美 제1기갑사단을 후방으로 돌리고, 제1사단을 右翼으로 龍山洞—大寧江線에서 泰川·龜城으로, 美 제24사단을 左翼으로 大寧江 以西 海岸地帶에서 각각 진격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사단은 美 제24사단과 交代하여 그 陣地를 引受하였으니, 20일에 제11연대가 松德洞 東北方일대에 진출하여 美 제5연대전투단과 交代함으로서 사단 右一線 부대가 되었고, 이어 제12연대는 제11연대 左側의 美 제27여단 지역으로 진출하여 大寧江 北東方의 사단 左一線을 담당하였다.

즉 제11연대(장, 金東斌대령)는 20일 07.00에 安州郡 新里—龍興里일대를 출발하여 車輛機動으로 安州—孟中里를 거쳐 오후에는 松德洞부근에 진출한 다음, 제3대대가 美 제5연대 제2대대와, 제2대대가 美 제1대대와, 제1대대가 美 제3대대와 각각 交代하였다. 그리하여 제3대대(장, 鄭永洪중령)는 연대 右一線인 土隅洞 南쪽 △155일대에, 제2대대(장, 裵斗龍소령)는 三安嶺—三安洞부근에, 제1대대(장, 柳重秀중령)는 左一線인 大寧江 東岸 大村洞일대의 高地에 각각 陣地를 점령하여 龍山洞—博川 道를 확보한 가운데, 23일까지 前方 南山洞—倉洞—鷄集里와 戰場浦—烽燧山—古岩洞 일대에 대한 遠距離搜索을 감행하였던 것이다. 이 무렵 제12연대는 大寧江을 渡河하여 진격할 차비를 서둘렀으니, 제2대대(장, 趙成來중령)는 연대 右一線으로 遷賢洞부근에, 제1대대(장, 韓順華중령)는 左一線으로 一和洞부근에 각각 陣地를 점령함으로서 攻擊開始線에 待機中이었고 제3대대(장, 金基容중령)는 예비대가 되었다. 그리고 제15연대는 博川일대를 如前히 확보하여 사단 側方防護의 역할을 맡았다.

한편 그 동안에 사단에는 副師團長과 參謀部의 人事異動이 있었으니 2代 부사단장에는 11月 6日附 육본 특명 IP 제247호에 의하여 劉興宗대령이 11일에 취임하였고, 7代 참모장에 사단 작전참모 文宇泰중령이, 후임 작전참모에 朴珍錫중령이 13日附로 임명되었다. 그리하여 23일 현재 사단은 사령부가 孟中里에, 제11연대 지휘소는 松三里에, 제12, 제15연대 지휘소는 博川에 각각 전진한 가운데 다시 北進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 계획

UN軍總司令官 MacArthur元帥의 構想은 아직 「中共軍의 侵入은 制限된 것」이라는 판단아래 기본적으로는 國境을 향한 總追擊을 계속한다는 것이었으니, 일단 戰線을 정리한 뒤 다시 攻勢를 取할 것을 서두르면서 敵의 증원과 보급을 끊기 위하여 鴨綠江 鐵橋의 폭격까지 강행하였던 것이다.

美 제8군은 MacArthur元帥의 뜻에 따라 11월 15일에 공격을 시작할 예정으로 右翼으로는 제2군단이, 中央에 새로이 美 제9군단, 左翼으로는 美 제1군단이 각각 진격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었다. 그러나 美 제9군단의 北進이 지연됨에 따라 22일까지 공격준비를 마치고 24일에 공격을 시작하도록 결정되었다.

이렇게 美 제1군단이 鴨綠江下流 地域으로 진격하게 되자 군단장 Milburn소장은 제1사단을 右翼 第一線인 大寧江·桂之川線—龍山洞일대에서 泰川으로, 美 제24사단을 大寧江 以西海岸地帶로 진격케 하였다。

그런데 大寧江流域과 淸川江北岸 및 博川—定州—宣川—新義州 일대는 비교적 평탄한 地形이나, 北쪽에는 狄踰嶺·江南의 두 산맥이 뻗쳐 있고 특히 龍山洞—泰川—龜城道의 北쪽은 鴨綠江에 이르기 까지 높고 험준한 산악지대를 이루고 있다. 道路는 대체로 江沿岸에 발달하여, 新安州에서 淸川江을 건너 博川에 이르면 이곳에서 大寧江의 支流에 沿하여 北으로 泰川, 東北으로 龍山洞에 이르는 두 도로가 있고, 龍山洞—泰川 道는 西北方의 龜城으로 이어진다。

이제 제1사단은 泰川—龜城—義州로 鴨綠江까지 진격케 되었거니와, 그에 앞서 사단장 白善燁준장은 美 제24사단 左側方의 확보 및 前方에 대한 威力搜索을 계획하여 먼저 11월 6일부터 제15연대로 하여금 孟中里—大寧江西岸에 진출케 하고, 뒤이어 제12연대도 博川에 진출토록 하였다. 이어 그는 11月 18日附의 사단 작전명령 제50호로서 제11연대를 龍山洞부근으로 진출시켜 美 제5연대 전투단과 交代케 함과 아울러 다음과 같은 要旨의 공격계획을 隷下 各隊에 下達하였다。

『① 사단은 11월 24일 10.00를 期하여 西北方으로 공격을 斷行하려 한다.

② 제11연대는 美 제5연대전투단과 交代하여 師地를 점령한 다음, 사단 右翼攻擊梯隊로서 泰川北方 龍浦里—舊城洞일대를 점령하라.

③ 제12연대는 大寧江 北岸으로 진출하여 사단 左翼攻擊梯隊로서 泰川西方 登興洞—龍興里일대를 점령하라。

④ 제15연대는 예비대로서 博川에 대기하라。』

이와 같은 사단 작전명령을 받은 제11연대장 金東赫대령은, 20일부터 계속한 바 연대 前方에 대한 수색활동의 결과를 고려하여 22일에 연대의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즉 연대는 제3대대(장, 鄭永洪중령)를 右一線, 제1대대(장, 柳重秀중령)를 左一線攻擊梯隊로, 제2대대(장, 裵斗龍소령)는 예비대로 하되 龍山洞 西北쪽 高地의 제7중대만은 연대 右側方을 엄호하면서 제3대대와 併行 진격하며, 공격 첫 단계로는 龍北洞—烽燧山(△194)일대를 점령하고 다시 香積山—延興洞일대로 진격한 다음 泰川 北方 劍山(△280)—安坪里 北쪽(劍山 △549)까지 점령하려는 것이었다. 한편 사단 左一線攻擊部隊인 제12연대장 金點坤대령은 22일 09.00부로 연대 작전명령 제34호를 각 대대 및 배속 포병·공병중대에 下達

하였으니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제2대대는 右翼攻擊梯隊가 되어 頭幅山—鎭南洞일대 및 大興洞—仲山里 일대를 점령한 다음, 龍興里 西南方—龍浦里 西北方 송구峰(△242)일대를 점령 확보하라.

② 제1대대는 左翼攻擊梯隊가 되어 朝陽里 西方—頭幅山 및 新上里—大興洞일대를 점령한 다음, 觀祥里 東南方—龍興里일대를 점령확보하라.

제3중대는 戰車隊와 같이 행동하라.

③ 제3대대는 연대 예비대가 되어 제1대대 3,000*m* 후방을 전진하라.

④ ㄱ. 공병중대는 제1, 제2대대에 각 1개 소대씩 배속하라.

ㄴ. 야포대는 제1, 제2대대의 공격을 지원하라。』

(2) 작전 실시

11월 24일 : 맑게 갠 금요일 아침, 美 제8군 傘下의 全 戰線部隊는 일제히 공격을 시작하였거니와, 제1사단은 西部 美 제1군단의 右翼으로서 항공기의 엄호폭격과 함께 敵 補給路의 要衝인 泰川을 향하여 진격하였다。

제11연대(장, 金東斌대령)는 사단 右一線으로 途中에서 저항하는 일부의 敵을 격파하면서 大寧江 東岸과 東北쪽 山岳에 이르는 일대에 沿한 진격을 계속하여 18.00에는 泰川 東쪽에 육박하고 있었다。 즉 09.50에 연대 右一線攻擊梯隊인 제3대대(장, 鄭永洪중령)는 上洞 北쪽 高地—△279일대에서 저항하는 1개 대대 규모의 敵을, 제9중대가 정면으로 대대 주력은 右側 朝陽洞 西쪽 도로로 迂回攻擊하여 격파한 다음, 11.00에는 大寧江 支流를 건너 陽地洞일대로 계속 진격하였다。 제1대대는 연대 左一線攻擊梯隊로서 이미 05.00에 진격을 시작하였거니와, 伏興洞 南쪽으로부터 水驗洞 北쪽의 △102—△146일대에서 1개 대대 규모의 敵이 완강히 저항하므로 제2중대가 포병의 支援砲擊下에 △122로부터 이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敵도 江을 등진 가운데 4門의 砲火를 吐하면서 계속 완강히 저항하여 대대의 공격은 쉽게 진전되지 않았다。 이에 대대장 柳亞秀중령은 敵의 左側方에 대한 迂回攻擊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제1, 제3중대가 해목洞 △43로 迂回하여 伏興洞 南端 △74에 진출함으로서 敵의 退路遮斷을 企圖하니 敵은 惶怯하게 후퇴하고 말았다。 대대는 다시 前進을 계속하여 倉洞—蓬嶽山(△194)南麓일대에서 저항하는 2개 중대 규모의 敵과 부딪쳤는데, 敵은 倉洞 南쪽 龍山洞—泰川 道上의 콩크리트橋梁을 파괴하고 進擊路上에 障碍物을 설치하여 놓았었다。 그러나 연대에 배속된 공병 제3중대가 약진하여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橋梁右側으로 迂回路를 開設하고, 敵이 地雷代用으로

3個所에 2發式 埋設한 120㎜ 박격포탄을 探索除去함으로써 대대는 午前中에 敵을 격퇴할 수 있었다。이렇게 연대에 의하여 격파된 敵은 泰川 東北쪽 天壽里—鳳祥洞일대로 퇴각하였으며, 연대는 이 敵을 쫓아 北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니 18.00에는 新興山(물발산)—보라山—鶴塘洞—龍洲里일대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그런데 增援次 南下하던 1개 대대 규모의 敵이 연대 정면인 新上里를 중심으로 地靈山(△300)—新上里—松峴洞 西쪽 △287 일대로부터 數次에 걸쳐 反擊을 企圖하니, 연대는 다시 이 敵을 격퇴하여야만 되었다。

한편 제12연대(장, 金點坤대령)는 10.00에 還智洞—新興里 및 一和洞일대로부터 공격을 시작하여 별다른 接敵狀況없이 18.00까지는 泰川 南쪽에 진출하였다。연대는 12.40현재 제2대대(장, 趙成來중령)가 葛谷(갈골)에, 제1대대(장, 韓順華중령) 主力이 赤峴일대에 각각 진출하였으며 제1대대의 先頭인 제3중대가 美 戰車隊와 같이 石峰里에 진출하였는데, 戰車隊에 앞서 障碍物을 除去하며 戰車를 誘導前進하던 공병대는 前方 博川—泰川 道路上에서 敵의 戰車壕를 發見하여 곧 埋沒하였다。즉 敵은 제1대대 前方 雲石洞에서 德興里로 넘어가는 曲曲嶺의 機動路上에 30m 乃至 100m 간격으로 8個所의 戰車壕를 構築한 것인데 배속 공병 제1중대의 1개 소대가 이를 모두 埋沒하여 戰車 및 차량의 통과를 가능케 하였던 것이다。이어 진격을 재촉한 연대는 右一線의 제2대대가 銀坪里—龍頭일대의 山間小路를 거쳐 福興里—大興洞부근에 진출하여 18.00까지는 일대에 진지를 構築하였으며, 左一線의 제1대대가 이보다 앞서 富興洞에 진출하였는데 23.00에 이르러 대대 左側인 제2중대 정면을 뚫고 침공한 1개 중대의 中共軍과 接戰케 되었다。그리고 예비대인 제3대대(장, 金基容중령)는 이날 德興里까지 진출하여 일대를 警戒中이었다。

그런데 제15연대(장, 趙在美대령)는 이날 博川을 떠나 제3대대(장, 安秉健중령)가 安心洞으로 진출하여 捜索警戒를 강화함으로써 제12연대 左側方을 防護하였다。

11월 25일 : 사단은 이날 泰川을 目前에 둔채로 그 西南—東北쪽 일대에서 공방전을 벌리게 되었다。

특히 제11연대 정면에서는 지난 밤부터 敵의 반격이 激化되더니, 이날 17.00에는 1개 연대 규모의 敵이 제3, 제1대대 정면에서 반격하여 兩 大隊間의 接觸線을 뚫고 新上里로부터 鶴峰洞을 향하여 南侵하였다。이에 연대장 金東斌대령은 곧 예비대인 제2대대에 一線部隊와 협동하여 敵을 격파하도록 命令하였고, 대대장 崔炳澤중령은 제6중대를 龍興洞 北쪽 高地로부터 鶴峰洞 南쪽 高地로 東北進시키니, 중대는 정면에서 敵을 공격하고 제3, 제1대대가 그 兩側에서 挾擊함으로서 이 敵을 격퇴하고 말았다。

이와 같이 하여 연대는 敵을 격파하였으나, 右隣接인 美 제25사단(장, William B. Kean 소장) 제35연대(장, Henry G. Fishir대령)의 전적이 不振하므로 일단 現 戰線을 확보하면서 다음 공격을 계획케 되었다。 그리하여 연대는 지휘소를 대장동에 두고 主抵抗線의 要所마다 地雷를 埋設하였으며, 제7중대가 △659일대에서 연대 右端을, 연대 수색대가 연대 右側 香積山일대를 警戒中이었다。

또한 제15연대는 이날 博川으로부터 移動을 시작하여 본부를 龍山洞에 두고, 그일부가 제11연대의 後方右側에 있는 東谷으로부터 上豊洞—瑜伽洞 일대를 搜索警戒中이었다。

한편 제12연대는 지난 밤부터 侵攻하는 敵을 격퇴한 다음 防禦陣地를 構築하고, 연대 본부가 長林面 岾南洞으로 약진하는 가운데 경계에 임하고 있었다。이 당시 제1대대(장, 韓順華중령)는 반격을 加하는 中共軍과 交戰끝에 제2중대가 兵力의 增強을 얻고 또 04.00에는 포병의 지원포격을 받으면서 공격을 시작하여 05.00까지 敵을 격퇴한 다음 방어진지를 構築하였는데, 이 때에 1명의 中共軍 將校가 歸順함으로서 中共軍이 本格的으로 다시 南下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케 되었다。이에 따라 右一線의 제2대대(장, 趙成來중령)도 철저한 경계와 敵情蒐集에 임하였으며 예비대인 제3대대(장, 金基容중령)도 제10, 제11중대로서 新岩洞 南쪽 高地와 三峰山 東쪽 安心峴일대를 占領케하고 특히 側方에 대한 경계를 嚴하게 하고 있었다。

11월 26일 : 사단은 隣接部隊가 현재 사단이 확보하고 있는 線까지 진출할 것을 기다리면서 泰川奪還을 위한 再攻擊을 企圖하였다。

즉 제11연대(장, 金東斌대령)는 제3대대(장, 鄭永洪중령)가 祈雨山과 德化洞일대를, 그리고 제1대대(장, 柳重秀중령)가 地靈山—烽燧山—新城洞일대 및 豊山洞—仲山里일대를 각각 점령함으로서 전체적으로는 觀德里 南쪽—新城洞—劍山(△549)의 齊等線까지 진출하되 主力은 仲山里—燧燧山—光化里일대를 확보토록 계획까지 한 바 있었던것이다。 그러나 中共軍은 數次에 걸친 반격이 계속 虛事가 되어도 執拗하게 人海戰術로 侵攻하니, 연대는 우선 이를 격퇴하기 위하여 치열한 攻防戰을 되풀이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연대 最右翼인 제7중대는 이날 16.10에 文峰里와 그 西北 1.5㎞의 △137로부터 △659와 祈雨山(△760) 일대로 侵攻하는 각각 1개 연대 및 1개 대대 규모의 敵을 저지하는데 全力을 다 하고 激突과 打擊 그리고 阻止와 逆襲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15.30에 제3대대의 토라山(△358)을 공격하던 1개 대대 규모의 敵은 17.30에 이르러 드디어 격퇴 되었으나, 新上里로부터 侵攻한 1개 연대 규모의 敵은 左一線 제1대대 쪽으로 南

下한 1개 연대 규모의 敵과 서로 呼應하여 계속 迂回에 뒤이은 侵襲을 敢行하고 있었다.

이때 제15연대의 제2대대(장, 崔炳淳중령)는 제11연대의 右側背에서 屯田洞—上洞 東쪽 高地 일대에 陣地를 占領하여, 있을지 모르는 敵의 迂回로부터 사단 側方을 掩護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사단 右一線의 상황에 反하여 左一線인 제12연대는 特記할만한 接敵狀況이 없었으나 더욱 방어태세를 강화하여, 제1대대 主力을 現 進出線 後方인 銀谷洞 東쪽의 大寧江 西岸으로부터 加德洞 北쪽—新峰일대에 배치하고 陣地를 보다 堅固하게 強化하면서 敵情蒐集과 捕虜獲得을 위한 威力搜索을 전개하였다.

11월 27일 : 지난 밤부터 敵은 그 主攻을 大寧江 東쪽에 두어 제11연대에 계속 압력을 加하여, 夜間行動으로서 피리, 호각 등을 불어 그들간의 相互連絡과 我軍에게 脅怖心을 불러 일으키는 동시에 압도적인 大兵力의 힘으로 큰 規模의 包圍와 突破分斷을 노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659에서 계속 敵을 저지하던 제7중대도 敵의 迂回와 包圍로 말미암아 02.00에는 일단 上丹洞 北쪽의 △264로 옮기지 않을 수 없었고, 일부의 敵은 그 餘勢를 몰고 단숨에 연대 수색대와 맞부딪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新上里로부터 제1, 제3대대의 接觸地點으로 突進한 1개 연대 규모의 敵은 鶴峰洞일대로 南侵하여 제3대대를 兩翼으로 포위하니, 연대는 대대로 하여금 敵의 銳鋒을 지연시키면서 제2대대 후방인 嫌嫌山(△194)에 陣地를 占領토록 하였고, 新興里—和平里일대에서 이를 엄호하던 제2대대도 이보다 조금 늦게 龍山洞—泰川 道 北쪽의 △184—△200일대로 撤收한 다음 敵을 抑留키로 하였다. 아울러 제1대대도 鶴峰洞일대로부터 敵의 西進과 正面으로부터의 敵의 衝擊으로 말미암아 一翼을 포위당하게 되므로, 대대 主力을 제2대대 右側인 水谷(물골)의 △102일대에 배치하게 되었다. 07.00에 이르러 연대장은 제2대대를 右一線攻擊梯隊로, 제1대대를 左一線攻擊梯隊로 하는 攻勢移轉을 計劃하고, 제15연대와 협조하여 原陣地를 一氣에 회복코자 하였다. 그러나 1개 연대 규모의 敵이 大寧江邊으로 제1대대 左側을 迂回南下할 뿐만 아니라, 정면에서도 압도적인 兵力으로 殺到하므로 연대는 부득이 제5중대를 엄호부대로서 水踰洞 北쪽 山에 배치한 다음 제3대대를 風之里—內洞일대에, 제1대대를 그 左側 中幕洞일대에 移動配置하고, 제2대대는 연대 예비대로서 제3대대 후방 舊下洞일대로 옮겨서 收容陣地를 占領토록 하였다.

한편 제15연대(장, 趙在夏대령)는 사단의 右側方을 掩護中 제3대대(장, 安秉健중령)가

陽地洞의 △248—△122일대에서 중대 규모의 敵을 격퇴하였고, 제1대대(장, 劉載成중령)가 龍山洞 △43일대에 兵力을 배치하여 固守中이었으며, 제2대대(장, 崔炳濟중령)는 해목동—屯田洞일대로 진출하여 警戒中이었는데 오전에 제11연대 右側方으로 迂回南侵하는 敵을 공격하였다。그런데 제11연대 지역의 상황이 不利하여 짐과 아울러 敵은 연대 左右側方으로도 迂回突進하면서 壓力을 加하여 이날 밤에는 연대도 龍山洞 東北方으로 撤退하였으니, 新上里—新雨山—文峰里일대로부터 南下하여 제11연대 右側을 壓迫하던 都合 1개 사단 규모의 敵은 23.40부터는 龍山洞—泰川 道路에 沿하여 연대 정면으로 挾襲하면서, 그 일부는 左側의 제11연대 제3대대에 打擊을 加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大寧江 東쪽에서 敵의 압도적인 兵力에 밀리고 있을 때에 江의 西쪽에서 제12연대는 비교적 小規模의 敵과 공방전을 벌리고 있었다。즉 이날 01.30에 1개 대대 규모의 敵은 박격포 및 직사포의 지원을 받으면서 川防江을 건너 제2대대 정면 龍興里일대로, 1개 소대의 敵은 대대 右側 仙岩洞부근에서 大寧江을 건너 直路 侵襲하므로 대대는 일단 龍頭洞부근으로 撤收하여 제6중대를 中央에 제5, 제7중대를 左右에 각각 배치하여 敵의 氣勢를 一擊코자 하였다。그러나 1개 중대 규모의 敵 後續部隊가 제6중대 右側으로 侵攻하므로 05.30에 대대는 銀坪里 南쪽 山岳地帶로 철수하여 야포의 지원을 받아 敵을 저지하는 한편, 07.00부터 제1대대의 엄호와 제10중대의 支援下에 다시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龍頭洞일대에서는 치열한 육박전끝에 15.00에 이르러 마침내 이 敵을 격퇴하고, 助攻의 제10중대가 大寧江 南岸의 △133를 점령하였고, 대대는 다시 龍興里일대를 탈환하였다。

11월 28일 : 이날 UN軍總司令官 MacArthur元帥는 美 제8군 사령관 Walker중장, 美 제10군단장 Almond소장 등을 東京으로 불러 지난 24일 以來의 情勢를 분석 검토한 끝에 中共正規軍의 본격적인 參戰을 인정하고, 戰勢의 安定化를 위한 후퇴를 명령하였으며 이에 따라 Walker중장은 예하 각 군단에 淸川江 南岸으로의 철수를 斷行하였으므로 美 제1군단은 新安州부근으로, 美 제9군단은 安州—軍隅里 線으로 후퇴하는 동시에 제2군단은 成川—陽德 北쪽 線을 확보하면서 각각 次期의 攻勢를 준비케로 하였다。

그러나 사단은 이날 아침까지도 南侵하는 이 醜敵을 격퇴한 다음 北進을 계속코자 激戰과 血鬪를 반복 하기만 하고 있었다。

즉 敵은 계속 大寧江 東岸—龍山洞일대에 主力을 두면서, 龍山洞—泰川 道를 따라 都合 1개 사단 규모로서 제15연대 정면을 強打하였고 03.00에는 이미 龍山洞 北方 1km까지

侵入하자 西쪽의 일부兵力과 호응하여 연대를 迂回攻擊하였는데, 사단은 夜暗을 이용하는 敵의 大量併進으로 일시 밀리기도 하였으나 날이 밝자 다시 逆襲을 加하여 敵을 一擊함으로써 中幕洞—眞木洞—龍山洞 線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제15연대(장, 趙在美대령)는 龍山洞일대를 가로맡아 그 제3대대(장, 安秉健중령)가 敵의 공격으로 龍山洞 北쪽에 一時 후퇴하였던 바, 다시 1개 대대 규모의 敵이 대대를 포위하므로 드디어 龍山洞 南쪽으로 철수하였으나 黎明을 期하여 反擊을 시작하여 06.30에는 龍山洞 서가지를 탈환한 다음, 제11중대가 重火器中隊의 지원으로 北쪽 2km의 無名高地를 공격하여 육박전끝에 완강한 敵의 저항을 격파하고 15.30에 이를 점령하였다。그 右側의 제2대대(장, 崔炳淳중령)도 侵攻하는 1개 연대 규모의 敵을 저지코자 奮鬪하였으나, 敵은 大隊의 左右 隣接部隊와의 間隙으로 突進하여 후방 보급로를 차단한 다음 포위공격함에 이르러 不得已 포위망을 뚫고 瓦也洞일대로 철수하여 방어태세를 갖추었다。그리고 제1대대(장, 劉載成중령)는 제11연대 제3대대의 右隣接部隊로서 △155일대를 占領하고 있었는데, 계속적인 敵의 迂回南侵으로 제11연대 제3대대가 陣地를 移動하게 됨에 따라 대대도 △155 후방 舘下谷일대로 撤收하여 병력을 再配置하였다。

이때 제11연대는 右一線의 제3대대가 敵의 迂回包圍로 고립되고, 左一線의 제1대대는 水踰洞 △146와 △102를 占領한 1개 대대 규모의 敵과 對峙하고 있었다。이에 연대장 金東越대령은 제3대대로 하여금 제2대대의 掩護下에 철수케 하여 兩大隊의 협동반격으로 原陣地를 회복할 것을 명령하고, 제1대대는 특히 연대 左側方을 防護토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제1대대(장, 柳重秀중령)는 中幕洞 南쪽 江邊에 1개 소대를 파견하여 左側方에 대한 掩護에 임하였고, 제2대대(장, 裵斗龍소령)는 陣地를 東南쪽으로 옮겨 鳳之里—上秋洞의 高地에서 △129로 侵襲하는 敵을 저지하는 한편, 제3대대(장, 鄭永洪중령)는 그 후방으로 迂回撤收하여 上秋洞일대를 占領한 다음 제2대대와 협동하여 반격을 시작하였다。즉 右側의 제15연대가 敵을 저지 함과 아울러 07.00부터 攻勢移轉에 나선 연대의 제3대대는 西側의 제2대대와 같이 △129를 공격 탈환한 다음 계속 敵을 추격하여 鳳之里 北쪽의 △89까지 점령함으로서 11.00에는 △89—眞木洞일대의 陣地를 회복하게 되었다。

한편 제12연대는 左一線의 제1대대(장, 韓順華중령)가 제1, 제2중대 정면인 富興洞—文德里일대로 侵攻한 2개 중대 규모의 敵을 01.00~05.00에 걸친 치열한 공방전 끝에 격퇴하였으나, 03.30附로 연대 [작전명령 제35호가 下達됨에 따라 古倉里—馬坪洞 北쪽 線으로 철수하여 제11연대와 同一線을 維持하게 되었으니 同 作命의 要旨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① 연대는 사단 지시에 依據하여 古倉里—馬坪洞 北쪽에 連하는 線으로 移動하려함.

② 제1대대는 聯隊後衛에 任하여 제2, 제3대대의 移動完了後, 現在線을 철수 이동하라.

③ 제2대대는 28일 07.00까지 還興里일대에 移動, 還峴洞—馬坪洞 東北 大寧江 西岸의 線을 확보하라.

④ 제3대대는 28일 07.00까지 岾下里일대에 移動, 古倉里—還峴洞 線을 확보하라.

⑤ 野砲隊는 長淵里, 工兵中隊는 新 聯隊 CP位置로 移動하라.

⑥ 28일 07.00 以後 연대 CP는 和中里에 位置함。』

이와 같이 연대가 移動을 完了함으로써 사단은 龍山洞—眞木洞—中幕洞—還峴洞—古倉里를 連하는 20km에 뻗친 同一線上에서 大寧江 東쪽에 제15, 제11연대가, 江 西쪽에 제12연대가 각각 陣地를 占領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날 全 美8軍의 철수가 결정됨에 따라 사단장 白善燁준장은 사단의 철수를 명령하게 되었거니와 그는 부대를 먼저 博川으로 移動한 다음 淸川江을 渡河할 계획이었고, 博川으로의 移動은 제12연대를 먼저 제11연대의 後方인 大寧江 東쪽으로 移動시켜 그 掩護下에 제11, 제15연대를 철수시키려고 決心하였다。

그리하여 제12연대장 金點坤대령은 이날 13.00附로 「聯隊作命 제36호를 隷下 各隊에 下達함으로써 15.00까지 제3대대(장, 金基容중령)는 右一線인 高防山(△214)—龍井里일대에, 제1대대는 左一線인 社稷洞일대에 각각 방어 陣地를 占領하고, 제2대대(장, 趙成來중령)는 예비대로 博川 北方 古城里일대에 배치 되었으며, 그 北쪽을 占領한 野砲隊를 제외한 工兵, 對戰車砲中隊 등은 연대본부와 함께 博川으로 移動하였다. 이로써 연대는 사단의 전반적인 철수에 대비케 되었으며, 사단의 北進은 일단 끝나고 MacArthur 元帥의 말을 빌리면 "새로운 전쟁"을 치루게 된 것이었다。

11월 29일 : 西部戰線에서 我軍과 UN軍이 모두 「철수하기 시작한 이날, 사단의 각 연대도 이에 따라 모두 博川을 目標로 철수하였다。

제15연대는 06.00부터 機動을 시작하였는데, 제1대대의 掩護下에 徒步行軍으로 全 聯隊가 10.20까지 博川으로의 集結을 끝냈다。

그리고 제11연대는 06.00에 陣地離脫을 시작하여 각 대대가 三安嶺—大村洞 線에 집결한 다음, 09.00에 聯隊收容線인 제12연대의 占領線을 통과하여 社稷洞일대에 집결하였

고, 다시 車輛으로 博川을 거쳐 東南面 東二洞—下講洞일대로 移動하여 三峰里—鶴登洞—上講洞일대에 右側으로부터 제1, 제2, 제3대대 順序로 각각 陣地를 점령하였다.

뒤이어 제12, 제15연대도 제11연대 左側 東二洞부근으로 移動하였고, 제11연대는 다시 20.40까지 松鶴里—風項里 線으로 集結을 完了하였다. 그리하여 이날 사단 사령부는 이미 淸川江을 건너 安州郡의 萬城里로 撤收한 가운데 각 연대는 江北岸인 風項里—孟中里일대에서 渡河 撤退을 준비하고 있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이른바 Christmas공세가 잘 진전되지 않고 오히려 中共軍의 大量同時侵攻에 말리게 되자, UN軍 司令部는 사태를 다시 검토하게 되었고, 결국 MacArthur元帥는 中共正規軍의 本格的인 對韓侵略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美 제8군은 戰線을 정리코자 예하 全 部隊를 淸川江以南으로 철수케 하였다.

이에 따라 사단은 一進一退로 死中求活의 激戰을 벌리던 泰川일대로부터 11월 29일에는 淸川江 北岸까지 철수하였거니와, 30일에는 제11연대가 安州로, 그 밖의 연대는 淸川江을 渡河하여 安州郡일대로 撤收하였다. 그 다음 제12연대는 다시 平原郡 龍川邑으로, 제15연대는 平原郡 檢山面龍浦里로 각각 移動하였고, 사단은 永柔邑의 平原郡廳에 그 指揮所를 설치하였다.

그리하여 12월 1일 현재, 사단은 龍川을 중심으로 東側에 제12연대, 西側에 제15연대가 防禦陣地를 構築하고, 제11연대를 예비대로 永柔일대에 배치하여, 右側의 美 제9군단과 함께 平壤 北方에서 防禦線의 西端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敵이 山岳地帶를 이용하여 軍 右翼의 제2군단 지역으로 迂回侵攻하니, 사단은 곧 軍의 全般的인 作戰에 따라 戰友들의 孤魂을 남겨놓고 平壤으로부터 철수하게 되는 것이다.

戰果		損失	
射殺	1,353명	戰死	50명
捕虜	71명	戰傷	187명
小銃	177정	失踪	165명
輕機	11정	(제11연대 戰鬪詳報 50年 11月 20日~11月 30日, 제12연대 戰鬪詳報 50年 11月 24日~11月 28日, 제15연대 戰鬪詳報 50年 11月 6日~11月 26日 및 50年 11月24日~12月 2日	
60㎜迫擊砲	2문		
81㎜迫擊砲	1문		
無電機	2대		
地雷	150발	李에 依據함)	

5. 寧遠附近 戰鬪 (1950년 11월 23일 부터 1950년 11월 27일 까지)

참조 : 상 황 도 제 4 호
작명부록 제 59 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제2군단	장 소장	劉載興	제3대대	장 대위	崔昌煥
제8사단	장 준장	李成佳	제21연대	장 중령	金永魯
제10연대	장 대령	高根弘	제1대대	장 소령	金亨根
제1대대	장 소령	朴致玉	제2대대	장 소령	朴瑞權
제2대대	장 대위	金同曾	제3대대	장 소령	元秉漢
제3대대	장 소령	金淳基	포병 제50대대	장 소령	朴秉柱
제16연대	장 중령	俞義濬	**병력 및 장비** : 10,000명에 達하는 병력과 대체로 T/E상의 사단장비		
제1대대	장 중령	崔宇根			
제2대대	장 소령	李寬熙			

敵 軍

中共	제42군	장 吳瑞林	(제373, 제374, 제375연대)
	제124사단	장 蘇克之	제126사단
	(제370, 제371, 제372연대)		(제376, 제377, 제378연대)
	제125사단	장 王排淵	

나. 전투 전의 개황

1950년 10월 24일에 MacArthur Line을 넘어 韓滿國境을 目標로 進擊戰을 斷行하게 되었는데 이 당시 제8사단(장, 李成佳준장)은 제2군단(장, 劉載興소장)의 右翼으로 前方 指揮所를 院里(軍隅里 東北쪽 7km)에 開設하고 北共의 임시정부 所在地로 판단되는 滿浦鎭을 向하여 一路 北進을 계속하였다. 10월 末에 사단의 先鋒인 제10연대는 熙川까지 進出하고 그 主力부대가 球場洞에 이르렀을 무렵 中共軍의 侵略으로 戰線은 그 樣相을 一變하게 되었으니, 즉 군단의 左翼인 제6사단이 昭井里와

楚山에서 中共 제40군과 激戰끝에 衆寡不敵으로 撤收하게 되므로써 全 西部戰線은 새로운 敵과 對決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사단은 主力(一)을 곧 球場洞 부근에 展開하고 高根弘대령이 지휘하는 제10연대를 左廻轉하여 제6사단을 支援토록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11월 1일에는 院里로 集結하게 되었다。

이때에 美 제8군에서는 美제1군단에 配屬되었던 제7사단을 緊急히 제2군단으로 復歸시켜 제8사단과 함께 寧遠—德川—价川을 連한 線에서 敵의 진출을 阻止하고 戰力을 再整備한 다음 다시 北進을 계속토록 하였으며 이에따라 군단에서는 11월 初부터 中旬까지 飛虎山—月峯山—德川 一帶에서 敵의 攻勢를 꺽고 11월 22일에 제8사단은 寧遠地區에서, 제7사단은 德川地區에서, 各各 攻擊을 준비토록 하여 24일을 期해 進擊戰을 시작 하였다. 그런데 敵도 또한 中部의 山岳地帶로 大兵力을 投入하여 急襲을 強行함하므써 西部戰線의 最東側에 있는 사단은 寧遠부근에서 激戰을 展開하기에 이르렀다。

敵軍의 狀況: 제1차 攻勢에서 熙川—溫井里—雲山을 奪取한 敵은 다시 元山—平壤 線으로 진출할 企圖아래 11월 中旬부터 새로운 攻勢를 준비 하였는데, 宋時輪이 지휘하는 中共 제9병단은 美제10군단의 正面인 長津湖부근으로 江界地域에서 공격集團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李天佑가 지휘하는 제13병단(集團軍)은 그 隷下의 6個軍을 美제8군의 正面으로 集結할 目的으로 兵力을 더욱 增強하였고 또한 北共 제2군단을 主軸으로 하는 敗殘混成부대는 이른바 제2전선부대로 新編하여 美제8군과 美제10군단 中間의 戰鬪地境인 山岳地帶를 따라 戰線의 後方깊이 投入하여 11월 20일에는 이미 陽德부근까지 진출하더니 戰線을 攪亂하고 補給路를 破壞하는 등으로 前後方이 서로 呼應하여 早速한 平壤의 奪還을 노리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이때에 사단 正面으로는 中共 제42군(장, 우루이린)이 江界地區로부터 狼林山脈과 妙香山派을 따라 潛侵하더니 11월初에는 그 指揮所를 黃處嶺(寧遠 東北쪽 40km)에 開設하고 麾下의 제125사단(장 王排淵)은 新邑方面에, 제126사단은 寧遠과 德川 北쪽의 大同江 上流一帶에, 各各 展開한 다음 제124사단은 舊倉里 부근에서 예비로 控置한 것으로 判明되었다。

이들은 主로 夜暗을 利用하여 山岳깊이 機動하므로서 그 企圖를 秘匿하고 공격준비를 서두르더니 11월 20일에는 白岩山(△ 1105)—小快山(△ 1543)—白崖山(△ 1524)을 連하는 重要據點에 主力을 분산 展開하고, 그 警戒부대는 江을 건너 德仁峯—神奇峯—松坪里 線에 配置되었다。

당시 敵은 團隊號 未詳의 砲兵부대의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대체로 편제상의 인원과 장비를 갖추었고 山岳에서의 遊擊戰에 能하였다。

我軍의 狀況: 前述한 바와같이 사단은 寧遠 北쪽을 擔當하여 中部의 山岳地帶로 進擊하는 任務를 받고 主力을 展開하려 하였으나 제16연대(장, 俞義濬중령)와 제21연대(장, 金永魯중령)가 占領中인 德川地域을 담당한 제7사단(장, 申尙澈준장)이 飛虎山에서 激戰끝에 그 진출이 지연됨에 따라, 사단장 李成佳준장은 우선 現在 사단 예비대인 제10연대(장, 高根弘대령)를 孟山으로 急進시켜 孟山—寧遠의 機動路와 山岳據點을 수색하여 戰線後方의 未踏地域에 對한 敵情을 確認한 다음 寧遠으로 진출토록 하는 한편 제16, 제21연대는 德川에서 敵의 左側背를 牽制 하다가 제7사단이 進出하는 즉시로 제21연대를 寧遠으로 直行케 하고 제16연대는 陣地를 交代한 다음 곧 孟山으로 移動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12일에 孟山으로 移動한 제10연대는 19km에 達하는 寧遠까지의 戰線後方地域에 對한 搜索戰을 전개 하였는데 20일에는 寧遠 南쪽 6km의 頭留洞에서 제3대대가 2個중대 규모의 敵을 擊滅하였으며, 21일에는 제2대대가 寧遠 東南쪽 8km의 石幕里에서 중대규모의 中共軍을 一掃하고 22일 寧遠까지 진출하여 다음 전투를 準備 하였으며, 제21연대는 20일에 제7사단 先頭부대와 陣地를 교대하고 寧遠까지(東쪽으로 20km거리) 機動路 一帶를 수색하면서 戰術的 徒步機動 끝에 22일에 寧遠 東쪽 3km인 文谷里에 다다라 自體整成를 하면서 다음전투를 준비 하였고, 제16연대는 22일에 마지막으로 제7사단의 제3연대와 陣地를 交代하고 23일까지 孟山으로 이동하였다。

이 무렵 군단에서는 24일의 총공격을 앞두고(19일, 육본훈령 제119호) 現在 各 부대가 進出한 戰線이 地形上으로 不利한 점을 考慮하여 군단의 최초 공격개시선을 德仁峯—神奇峯—三越江巨里—百嶺川 線으로 策定하고 一線사단으로 하여금 23일까지 군단 LD를 占領하여 공격준비를 갖추도록 함으로서 사단은 22일에 前方 指揮所를 孟山으로 躍進開設하고 右一線에는 제21연대를, 左一線에는 제10연대를 展開하는 한편 제16연대를 예비대로 保有하여 군단의 공격예정 선까지 進出키로하였다。

이 當時 사단은 예, 배속 부대를 포함하여 10,000명에 達하는 兵力과 장비를 갖추었으며 포병 제50대대(장, 朴秉桂소령)가 직접 支援하였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군단이 淸川江 線에서 戰力을 整備強化하고 있을때 육본훈령 제119호 (참조 : 작명부록 제 59 호)가 下達되었는데 그 要旨에 依하면 『국군 및 UN군은 現戰線에서 戰列을 갖춘다음 50년 11월 24일을 期해 攻擊을 開始하여 敵陣을 粉碎하고 계속 韓滿 國境線까지 進出』하려는 作戰構想 이었다。

이에 따라 군단에서는 現在 寧遠까지 진출한 제8사단을 右翼으로 하고, 德川에 位置한 제7사단을 左翼으로 하는 한편 제6사단을 예비로 控置하여 진격을 斷行하되, 寧遠—德川間의 現戰線을 戰術上의 要線인 德仁峯—神奇峰—三越江巨里—百嶺川을 連한 前進線點까지 進出시킨 다음 여기에서 美제9군단과 步調를 같이 하면서 進擊하여 梨院鎭—熙川線을 攻略하고 계속 國境線까지 突進키로 하였다。

이와같이 군단이 設定한 사단의 前進軸線을 보면 寧遠 北쪽 5~10km의 德仁峯—神奇峯—三越江巨里를 連하는 大同江(上流) 南岸의 線을 最初의 공격개시선으로 하여 妙香山脈을 넘어 梨院鎭을 直衝토록 한것인데, 이 擔當正面은 開戰以來의 未踏地域일 뿐아니라 連山重峰이 險峻하고 巨樹大木이 鬱蒼하여 아직 正確한 敵情을 把握하지 못하였으며, 더

욱이 美제10군단과의 戰鬪地境인 右翼의 高山地帶에는 隣接한 友軍없는 最 右端部였고, 또한 現戰線이 重要高地 南端에 위치하여 地形上으로 不利하였으므로 이러한 모든 條件을 勘考한 사단장 李成佳준장은 一旦 부대를 군단의 공격개시선까지 진출시킨 다음, 敵情에 따라 臨機의 對應態勢를 갖추어 白岩山(△ 1105)과 小快山(△ 1543)을 占領하고 계속하여 楸院鎭으로 진격할 決心으로 要旨 다음과 같은 사단 작전명령 제91호(50. 11. 22)를 下達하였다。

『① 사단은 現戰線을 德仁峯—神奇山—三越江巨里의 線까지 진출시켜 공격준비를 갖춘 다음 계속 楸院鎭을 目標로 突進하려 한다.

② 제21연대는 右一線으로 展開하여 德仁峯—神奇山間의 兩坎嶺을 점령한 다음, 계속 白岩山으로 진격할 준비를 하라.

③ 제10연대는 左一線으로 展開하여 大同江(上流)沿岸을 수색한 다음 都坪里와 下嶺谷山 일대를 점령하고 계속 小快山으로 진격할 준비를 하라.

④ 제16연대는 孟山으로 이동하여 1個대대 兵力으로 孟山을 警備토록 하고 主力(一)은 兄弟峯과 加來峯間의 陣地을 占領하여 사단의 東側方을 警戒하라.

⑤ 포병 제50대대는 寧遠에 陣地를 占領하고 第一線의 兩연대를 支援하되 火力의 優先權을 제10연대에 두라.

⑥ 각연대는 目標를 점령하면 陣地를 構築하고 擔當正面에 對한 探索戰을 展開하라。』

(2) 작전실시

11월 23일 : 사단은 전날까지 主力을 寧遠부근으로 집결시켜 전투준비를 마치고 사단 작전명령 제91호(50.11.22)로서 進擊計劃을 완성한 다음 이날 08.00를 期하여 全戰線에서 진격을 시작하였는데 사단의 공격 目標는 군단에서 指定한 德仁峯(△ 1345)—神奇峯(△ 1465)—三越江巨里를 連한 前進 拔點을 確保하는 것이다。

1. 제21연대(장, 金永魯중령)는 文谷里(寧遠 東쪽 3km) 부근에서 南川江을 中心으로 東側에는 제1대대를, 西側에는 제3대대를, 各各 展開하는 한편 제2대대를 예비대로 하여 德仁峯과 神奇山間의 兩坎嶺을 目標로 공격을 시작 하였는데 제1대대(장, 金宇根소령)가 上興洞(寧遠 東쪽 7km) 부근에서 저항하는 소대 규모의 敵의 前哨를 擊破하고 계속 追擊하여 麻雉潭里로 진격하고 있을때, 제3대대(장, 元秉漢소령)는 馬上里와 鳳德山(△810)一帶를 搜索하면서 並行攻擊하여 麻雉潭里 北쪽 1.5km의 △813까지 진출 하였다. 그 뒤 연대는 接敵없이 계속 진출한 끝에 제1대대는 德仁峯 西쪽의 △1022를 점령 하였으며, 제

3대대는 小兩坎嶺 일대를 점령하였고, 예비대인 제2대대(장, 朴瑞權소령)는 麻糧潭里와 直里間의 東側方 警戒를 맡아 각각 陣地를 점령하고 探索戰을 전개하였다。

2. 제10연대(장, 高根弘대령)는 寧遠에서 大同江 上流의 沿岸을 따라 三越江巨里를 目標로 진격을 시작하였다. 제3대대(장, 金淳基소령)는 江 東側에서 △690를 넘어 和順里를 攻略한 다음 계속 都坪里로 進擊 하다가 △493 稜線 一帶에 潛伏하고 있던 소대 규모의 敵을 一蹴하고 神奇峯 右麓으로부터 龍興里間의 江 南岸까지 진출하여 江邊道路와 "마산골" 一圓의 陣地를 점령 하였으며, 제1대대(장, 朴致玉소령)는 寧遠에서 新里로 江을 건너 新里山 一帶를 수색하고 곧 이어 豊田里를 占領한 다음 계속 搜索戰을 펴면서 江 西側에서 下嶺谷山(△753)으로 진격 하다가 증강된 중대 규모의 敵과 激突하게 되었다. 이 때에 敵은 下嶺谷山과 △605의 兩稜線에 潛伏하고 그 一部의 埋伏組가 直洞 부근에서 대대의 先頭중대를 溪谷으로 誘引하려 하므로 대대장은 즉각 대대를 巨門洞 뒷山으로 展開한 다음 1시간 동안의 치열한 交戰끝에 이 敵을 擊滅하였으며 分散潰走하는 殘敵을 계속 추격하여 內倉川 北쪽으로 擊退하고 이날의 目標線을 奪取하자 三越江巨里로부터 下嶺谷山 까지의 陣地를 점령하였다. 또한 예비대인 제2대대(장, 金同會대위)는 연대 지휘부와 함께 寧遠에 남아 邑一圓을 경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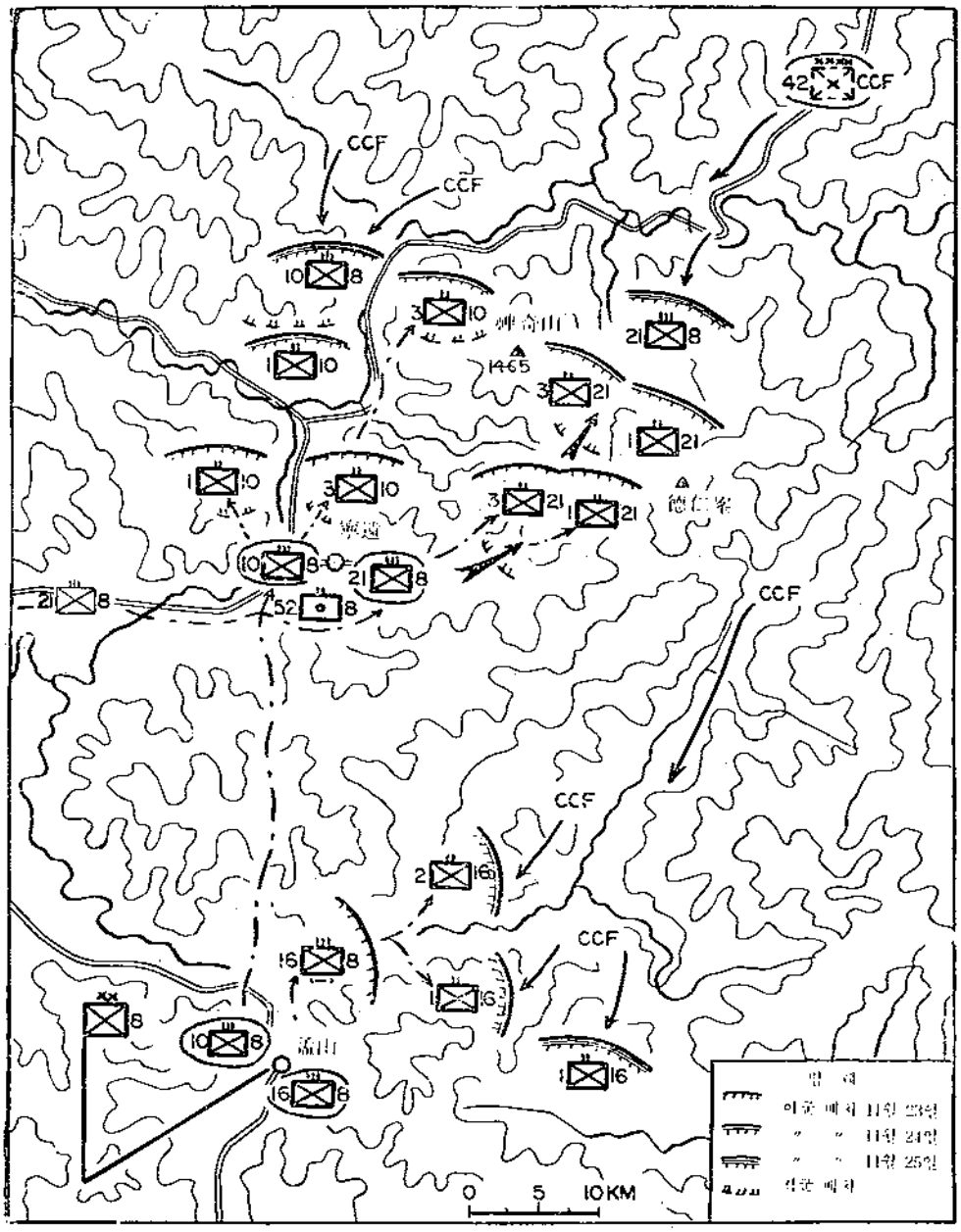
3. 제16연대(장, 兪義濬중령)는 이날 德川에서 孟山으로 移動한 다음 제3대대(장, 崔昌煥대위)로 하여금 사단과 연대의 指揮所가 開設되어 있는 孟山 一圓에 兵力을 展開케 하고 경계에 임하도록 하는 한편 主力을 東側方인 兄弟峯(△837)—草坪里—△942線으로 진출시켜 側方을 警戒토록 하였는데, 孟山을 出發한 제1대대(장, 崔宇根중령)와 제2대대(장, 李寬熙소령)는 그 中間地點인 龍德里(孟山 東北쪽 6km) 부근까지 진출한 다음 日沒과 함께 陣地를 점령하고 自體警戒를 하면서 다음 전투를 준비하였다。

4. 포병 제50대대(장, 朴秉柱소령)는 前方연대가 진격하는 동안 寧遠에 砲兵陣地를 설치하고 진출부대를 지원 하였으며 사단 搜索중대는 孟山과 寧遠사이의 補給路을 搜索警戒하였다。

이와같이 사단이 이날 敵의 前哨로 예상되는 소대 또는 중대 규모의 敵을 물리치고 군단의 공격개시선까지 진출하였을 때에 左隣接인 제7사단(장, 申尙澈준장)은 寺項山—百嶺川線까지 진출하는 同時에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11월 24일 : 西部의 全戰線에서 攻勢를 취한 國軍 및 UN軍은 드디어 이날 全面攻擊을 시작하였다。

◇상황도 제 4 호 寧遠附近 戰鬪 (50, 11, 23~27)



이때 군단은 妙香山脈을 넘어 熙院鎭—熙川線을 攻略한 다음 韓滿國境線까지 진격키로 하였으며, 사단은 군단의 右翼을 맡아 白岩山(△1105)과 小快山(△1543)의 敵陣을 擊破하고 계속하여 中間目標인 狼林山(△2014)—香羅峯(△1724)線을 점령한 다음 熙院鎭까지 진격하려 하였다. 그러나 美제8군과 美제10군단間의 戰鬪地境인 高山地帶에 據點을 마련

한 中共 제42군이 지지않고 攻勢를 취하므로써 彼我間에 不期遭遇戰이 전개되어, 사단은 이날 08.00부터 砲兵火力을 集中發揮하는 步砲協同戰을 斷行하였으나 끝내 白岩山—小快山의 線을 占領하지 못하고 熾烈한 攻防을 反復하였다。

1. 제21연대(장, 金永魯중령)는 小兩坎嶺 일대의 陣地에서 躍進하여 白岩山을 목표로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右一線인 제1대대(장, 金宇根소령)가 大兩坎嶺부근을 占領하려할 때 2個중대 규모의 敵으로부터 不時의 急襲사격을 받았다. 이 고개는 德仁峯과 神奇山 사이의 斷崖를 끼고 中間에 있는 唯一한 機動路로서 敵은 미리 이 一帶의 要地를 점령하고 頑強히 저항 하였으므로 대대의 果敢한 공격에도 不拘하고 좀처럼 突破하지 못하자 연대장은 左一線인 제3대대(장, 元秉漢소령)의 1個중대를 神奇峯 右麓의 峽谷을 따라 迂回시켜 敵의 右側背를 強打토록 하는 한편 砲兵대대의 砲擊支援을 받아 左右의 대대가 一齊히 挾擊한 끝에 드디어 이 敵을 격퇴하고 大兩坎嶺上의 主人이 되었다. 그뒤에 연대는 三巨里 부근까지 계속 진격 하였으나 다시 △943—△902線에서 대대 규모의 敵과 衝突하여 치열한 격전을 거듭 하다가 날이 저물자 공격을 멈추고 부대를 大兩坎嶺 부근으로 集結시켜 제1대대는 德仁峯 後斜面에, 제3대대는 △691와 神奇峯 사이에 各各 陣地를 確保하고 防禦態勢를 갖추었으며, 제2대대는 小兩坎嶺 부근에서 側方을 警戒하였다。

2. 제10연대(장, 高根弘대령)는 小快山(△1543)을 목표로 大同江 上流의 沿岸을 따라 공격 하였는데, 右一線인 제3대대(장, 金淳基소령)는 都坪里 부근의 陣地를 출발하여 輕微한 敵의 저항을 물리치면서 계속 진격 하다가 松坪里 東北쪽 2km인 △918 南麓의 敵을 驅逐하고 그 兩稜線을 占據한 다음 계속 저항하는 중대 규모의 敵을 壓制하였다. 이때의 敵은 그 兵力에 比하여 火力이 強盛하였으며 또한 位置未詳의 砲兵부대에 依한 砲擊이 熾烈하였으나 대대는 地形의 不利와 火力의 劣勢를 克服하고 과감한 돌격을 반복한 끝에 이 堅陣을 突破하여 많은 戰果를 거두고 △918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時間이 경과할수록 敵勢는 增強하고 砲擊은 加重되는 가운데 前方의 △845를 점령한 敵은 계속 氣勢를 높이는 데다가 左一線인 제1대대의 진출이 遲延되자 대대장은 여기에서 대대를 守勢로 轉換하여 △918와 生泉사이의 陣地를 確保하고 우선 敵의 逆襲에 對備하면서 다음 돌진을 준비하였다. 이 무렵 제1대대(장, 朴致玉소령)는 姑城山(△1145) 東南쪽 3km의 △1139一帶에서 兵力未確認의 敵과 激戰을 전개 하였는데 포병 제50대대의 砲擊支援을 받으며 終日토록 熱戰을 反復하였으나 끝내 이 敵陣을 突破하지 못하고 날이 저물자 △808를 連하는 一帶의 稜線으로 後退하여 敵의 逆襲에 對備하는 방어진을 형성하였으며 예비대인 제2대

대(장, 金同曾대위)는 第一線의 戰勢가 急하게 되자, 寧遠邑의 경계임무를 연대 수색중대에 引繼한 다음 곧 都坪里로 진출하여 戰鬪參加를 준비하였다。

3. 한편 제16연대(장, 前義浩중령)의 主力은(제3대대는 孟山경비) 側方경계를 위하여 전날 이미 龍德里까지 진출 하였는데 이날은 兄弟峯—草坪里—城齊里—△943의 側方要線을 점령할 目的으로 제1, 제3대대로서 區間躍進을 계속 하였다. 그런데 이 지역은 敵의 集結地로 예상되는 新邑으로 부터 孟山으로 迂回가 可能한 山間 小路上의 據點으로서 彼我間에 重視되는 要衝地 였으로로 西部戰線의 最右端인 사단으로서는 이 據點을 지켜 敵의 迂回 企圖를 制壓코자 하였는데 敵은 벌써 그 先頭부대인 中共 제125사단(장, 王排淵)의 一部가 橫川嶺(△1062)을 넘어 城齊里까지 直路 侵襲하게 되어 彼我間에 豫期치 않던 격전이 전개 되었다。

즉 제1대대(장, 崔宇根중령)는 鵲倉川의 東쪽을 搜索 하면서 계속 진출하여 兄弟峯 南麓에 손대었을 때 이미 이 高地에 나타난 중대 규모의 敵과 衝突하게 되었는데 敵도 아직 完全한 陣地를 形成하지 못하고 있는 터이라 이 機會를 捕捉한 대대장은 곧 左右로 대대를 展開하여 2시간 동안에 걸친 兩側攻擊 끝에 兄弟峯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이무렵 左一線인 제2대대가 城齊里(兄弟峯 西北쪽 3km)부근에서 敵의 後續主力과 激突하여 밀리는 바 되어 戰勢가 危急하게 되므로서 대대는 여기에 陣地를 점령하고 固守態勢를 갖춘다음 제2대대 當面의 敵을 間接的으로 壓制하였다。

제2대대(장, 李寬熙소령)는 제1대대가 兄弟峰에서 交戰하는 동안 鵲倉川 西便으로 계속 진출하다가 城齊里 부근에서 敵의 大兵力과 不期遭遇하게 되어 被包圍의 狀況에서 苦戰하게 되었다. 前述한 바와같이 이 一帶는 高山地帶의 狹谷을 이루어 城齊里를 中心으로 한 左右 稜線을 先占한 敵은 地形과 兵力의 利를 믿고 溪谷에 孤立된 대대를 挾擊함으로서 一時 混戰을 惹起하였으나 대대장은 즉시 병력을 수습하여 院里부근의 △728로 後退한 다음 제1대대와 連繫한 固守陣地를 점령하고 敵의 侵攻을 邀擊할 態勢를 갖추었다。

11월 25일 : 사단은 이날도 UN空軍의 支援威力과 地上의 全火力을 發揮하여 敵勢를 꺾고 先制攻略코자 努力하였으나 예상과는 달리 敵의 兵力이나 火力의 規模가 強大하여 如前히 激戰만을 反復하였는데 이때에 敵은 中部 山岳地帶의 虛隙을 뚫고 大兵力을 同時에 投入하여 步步侵襲으로 第一線의 攻擊을 壓制하는 동시에 反擊의 好機를 노리고 있다가 이날 日沒과 더불어 反擊의 強打를 試圖함으로서 一大混戰과 亂鬪가 전개되었다。

1. 제21연대(장, 金永燮중령)는 大興坊嶺 一帶에서 戰勢를 偵望하다가 이날 白岩山을

目標로 진격을 시작하여 계속 蹴威를 떨치다가 전날 격전을 치루었던 △943—△902 線에서 다시 대대 규모의 敵과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이때 敵은 거듭되는 砲爆擊과 集中銃擊에도 不拘하고 계속 그 병력의 增強을 催促하면서 執拗하게 저항할 뿐아니라 오히려 그 勢力이 漸高되어 一進一退의 攻守戰을 거듭 하였는데 이 무렵 左一線인 제10연대가 또한 敵의 大兵力과 激突한 끝에 苦戰에 빠지게 되자 사단장 李成佳준장은 當面한 敵의 動向과 그 繼戰能力을 分析한 결과 各 연대로 하여금 現在線에서 固守 방어진을 점령토록 決心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각 연대장은 전날의 陣地를 確保케 하면서 急編防禦陣을 형성하고 장차 닥아 올 決戰을 對備키로 하였다. 그뒤에 日沒과 더불어 攻勢로 移轉한 敵은 그들의 獨特한 夜襲戰法을 恣行하여 三巨里로부터 大兩坎嶺을 넘고자 波狀的 強襲을 거듭하였으나 연대의 全將兵은 渾身의 力戰끝에 이 敵을 阻止擊退하고 陣地를 固守하고야 말았다。

2. 제10연대(장, 高根弘대령)의 제1대대(장, 朴致玉소령)는 전날의 激戰場인 △1139를 東側으로 迂回하여 이 敵을 背後에서 急襲한 다음 계속 小鉄山(△1543)으로 진격할 計劃으로 이 高地를 迂回하여 進擊 하였는데, 大同江畔에서 敵의 埋伏組를 驅逐하고 계속 진출하다가 樂浦里 西南쪽 2km의 △866 一帶에서 연대 규모의 敵과 激突하였다. 敵은 미리 제8, 제7의 兩사단의 戰鬪地境線인 大同江 上流 沿岸에 大兵力을 集結한 다음 夜間攻擊을 감행코자 企圖하다가 연대의 攻擊第一線을 向한 逆襲를 加함으로서 一大격전이 전개된 것이다。

이때 연대장은 松坪里 부근에서 제1대대의 진출을 기다리면서 공격을 준비하던 제3대대(장, 金淳基소령)로 하여금 側面에서 強打토록 하고 포병 제50대대(장, 朴秉柱소령)의 集中砲擊下에 力攻을 거듭하였으나 意外에도 敵勢가 執拗하여 苦戰이 연속 되더니 더욱 兵力을 增強한 敵의 反擊으로 끝내는 제1대대 陣地의 一角이 무너지고 戰列이 混亂되어 그 推移가 漸次로 不利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戰況을 報告받은 사단장은 命令하되, 『제10연대는 공격을 中止하고 大同江流域을 占領하여 敵을 擊滅하라』 하였는데, 이 명령을 받은 연대장은 現戰線의 地形上의 不利와 兵力의 懸隔한 差異를 熟考한 나머지 부대를 공격 개시선인 "마산골"과 三越江巨里間의 大同江 南岸으로 撤收하여 急編 방어진을 형성키로 하였다. 그러나 夜間에 접어들자 敵의 공격威勢는 더욱 強盛하여지고 攻防戰의 樣相이 더욱 苛烈되었다。

3. 한편 제16연대(장, 俞義濬중령)는 兄弟峰—貴里線을 固守하면서 側方방어를 계속하

였는데, 이때에 敵은 正面에서의 侵攻을 避하고 望京亭嶺(△1166)의 嶮山을 끼고 大迂回에 依한 機動戰을 감행하여 孟山으로 衝擊코자 하였다. 이러하여 연대장은 제1대대(장, 崔宇根중령)로 하여금 西林寺 부근으로 急遽赴援케 하여 이 醜敵을 邀擊토록 하였으나, 이때에는 이미 이 一帶에까지 敵勢가 充滿 하였으므로 대대는 여기에서 夜戰과 森林戰의 二重으로 겹친 紛戰을 거듭하고 있었으며, 제2대대(장, 李寬熙소령)는 倉里부근으로 夜襲을 꾀한 敵과 混戰中에 있었다。

이와같이 사단은 右側背를 支撐할만한 友軍의 兵力이 全然없이 오직 前方과 右側方의 兩面으로부터의 溢出侵攻을 받아 力戰 又力戰을 거듭하고 있었다. 이 무렵 左翼인 제7사단도 또한 下嶺谷山—白嶺川線에서 優勢한 中共軍과 最突端에 예비대까지 모두 投入하면서 血戰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군단에서는 예비사단인 제6사단(장, 張都暎준장)의 제2연대(장, 金鳳喆대령)를 豊田里로 急히 轉進시켜 제7, 제8 兩사단 사이의 虛弱點을 補強토록 하였다。

11월 26일 : 攻勢로 移行한 敵은 그 氣勢을 더욱 높혀 이날 拂曉부터 全面에 걸친 總進擊을 감행하여 全戰線에서 攻防전을 전개하게 되었는데 04.00에는 左翼인 제7사단 제8연대의 正面이 突破되고 이 間隙을 따라 敵은 계속하여 德川까지 侵掠하게 되자 군단에서는 『제8사단은 孟山을 固守하라』는 緊急명령을 下達하였다. 이 때 사단은 예비대를 投入하여 제16연대는 孟山 東쪽 11km의 兄弟峰과 西林寺 부근에서, 제21연대는 孟山 東北쪽 28km의 大兩坎嶺 일대에서, 제10연대는 孟山 北쪽 24km의 大同江 上流에서, 各各 肉迫戰을 전개하고 있는 까닭에 사단장 李成佳준장은 現戰線을 緊急 整理하여 군단右翼인 孟山을 固守키 위한 窮餘之策으로 長遠한 距離中에서 激戰中인 孤立부대를 時急히 撤收하여 大要 다음과같은 戰術的展開를 斷行키로 決心하였다. 즉 제10연대를 寧遠으로 撤收시켜 德川과 孟山에 이르는 要路를 점령토록 하고, 제16연대는 계속 現在의 側方방어선을 固守토록 하는 한편 제21연대는 부대를 신속히 철수하여 孟山과 寧遠間의 要地인 頭留嶺을 점령 방어토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一線연대가 이 사단 명령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너무 敵陣깊이 孤立狀態로 있는데다 이미 寧遠까지 敵이 侵透하였으므로 彼我의 戰線을 區別할 道理가 없는 가운데 一進一退의 攻防으로 血戰과 白兵戰으로 紛紛擾擾한 苦戰을 전개하게 되었다。

1. 제21연대(장, 金永魯중령)는 大兩坎嶺 一帶의 陣地에서 이날 02.00부터 연대 규모의 敵과 격전을 계속 하였는데 이때 敵은 夜暗을 利用하여 強襲을 거듭 하면서 이 고개를 넘

고자 死力을 다 하였으나 自然要塞地를 이룬 이 高地의 兩稜線을 점령한 연대의 全將兵은 火力을 集中하여 挾擊戰을 전개한 끝에 이 敵을 三屯里 北쪽으로 擊退 시키고 陣地를 固守하였다。그런데 黎明과 더불어 돌연, 사단장으로부터 『신속히 부대를 철수하여 頭留嶺을 점령 방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리하여 연대장은 戰況의 危急을 直感하고 제1대대(장, 金亨根소령)로 하여금 敵을 牽制토록 하면서 신속한 撤收戰을 斷行 하였는데, 當時 계획된 연대의 機動路를 보면 馬上里를 거쳐 石幕嶺을 넘은 다음 大德山을 迂回하여 頭留嶺을 占領키로 한 것이었으나 先頭인 제2대대(장, 朴瑞權소령)가 馬上里 부근에 이르렀을 때에는 벌써 여기까지 侵襲한 大部隊의 中共軍과 不時에 부디쳐 混戰亂鬪가 展開 되었으니 敵은 연대의 退路를 遮斷하고 겹겹이 包圍하였으므로 血路를 打開하려는 苛烈한 攻防一戰이 反復되었다. 이렇듯 苦戰의 渦中에서도 연대장은 힘써 兵力을 수습하여 重圍를 突破하면서 孟山으로 向한 撤收戰을 끝까지 직접 指導하였다。

2. 제10연대(장, 高根弘대령)는 都上里 一帶의 陣地에서 前方과 左側方의 兩面同時 攻擊을 받아 새벽부터 격전이 계속되었는데, 全將兵은 步砲의 火力을 集中하고 渾身의 勇을 다 하면서 陣地를 固守하였으나 人海戰法을 至上으로 信奉하는 醜敵은 濁濤와 같이 밀려들어 04.00부터는 더욱 그 狂勢가 猖獗하기에 이르렀고 左翼인 제8연대의 正面을 分斷한 敵이 그 方向을 돌려 側後方으로 包圍를 企圖하였는데 喇叭소리와 꽹과리소리, 피리소리에 銃砲聲이 混雜되는 가운데 一大 血戰이 惹起되어 戰線은 惡化 一路에 놓여지게 되었다. 그 뒤에 各大隊間의 通信이 杜絶되고 彼我를 分別辨識할 수 없는 混亂相이 거듭 되더니 끝내 연대 指揮所까지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때 사단장으로 부터 『제10연대는 寧遠으로 撤收하여 德川과 孟山에 이르는 要線을 점령하고 敵의 진출을 저지 粉碎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때에는 이미 敵이 寧遠까지 奪取하여 四面이 모두 敵影으로 化하자 연대장은 부대를 사단 지휘소가 있는 孟山으로 철수시킬 決心을 하고 各隊에 傳令을 파견하여 『各대대는 敵의 包圍圈을 突破分斷하는 즉시로 孟山을 目標로 集結하라』는 要旨의 명령을 下達한 다음 對戰車砲 중대의 직접 경비下에 지휘소를 移動하기 開始하였다. 그뒤에 연대는 지휘소 마저 敵의 奇襲을 받았으나, 動搖하지 않고 敵陣을 돌파 하였으며 모든 將兵들은 千辛萬苦를 能히 克服하면서 孟山을 目標로 逐次遲延戰을 展開하였다。

3. 한편 제16연대(장, 俞義濬중령)는 孟山을 경비하던 제3대대(장, 崔昌煥대위)까지 投

入하여 西林寺—兄弟峰—廣里線에서 如前히 攻守戰을 계속 하였는데 敵은 이날 새벽부터 二個연대 규모의 兵力으로 增強하여 侵攻 하였으니, 兄弟峰--廣里線에서 固守中인 제2대대의 正面으로는 草坪里쪽에서 集結한 연대 규모의 敵이 藕倉川을 따라 침공하였으며, 제1, 제3대대가 死守中인 西林寺와 兄弟峰의 中間으로는 望京嶺嶺을 넘은 연대 규모의 敵이 侵襲하여 거듭되는 強打에도 不拘하고 극심한 피해도 아랑곳 없이 겹겹이 몰려들어 끝내 右側의 一角이 무너지자 敵은 陣地後方까지 밀려 들었으니 質과 量의 凄慘한 對決이었다。 이와같이 現戰線의 維持마저 어렵게 되자 연대장은 사단의 계획에 따라 孟山江線까지 離脫한 然後에 決戰을 圖謀코자 逐次 遲延戰을 펴면서 機動하기 시작하였다。

이상과 같이 戰況이 急轉直下하여 一線연대가 混戰亂鬪를 거듭하고 더우기 側方을 防守하던 제16연대의 堅陣까지 무너지게 되자 사단장은 指揮所를 新成里(孟山과 北倉의 中間지점)로 이동하는 한편 제16, 제21兩연대로 하여금 孟山을 固守토록 嚴命하여 끝까지 군단의 右翼을 방어키로 하였으나 戰況은 時時刻刻으로 惡化 一路에 있었으며, 이 무렵 제7사단은 지연전을 펴면서 順川으로 機動中이었다。

11월 27일 : 전날 寧遠과 德川까지 진출한 敵은 그 餘勢를 몰아서 一部는 北倉을 直衝하고 또 一部는 벌써 孟山까지 손대게 되어 美제1, 제9군단의 退路를 遮斷할 目的으로 西部로 指向한 戰線의 擴張을 企圖하였다。

이와같은 敵의 兇謀를 看破한 군단에서는 예비사단인 제6사단(一)으로 하여금 北倉 周邊에서 敵의 進出을 극력 阻止토록 하는 한편 제8사단으로 하여금 遲延戰을 展開하면서 假倉으로 離脫한 다음 戰力을 再強化키로 하였다。

이러한 命令을 받은 사단장은 이날 지휘소를 月浦里(假倉 西南쪽 5km)로 이동하는 同時에 要旨 다음과 같은 명령을 下達하였다。

『① 사단은 假倉으로 철수한 다음 戰力을 整備強化하려 한다。

② 제16연대는 孟山과 北倉間의 機動路를 確保하여 敵의 진출을 阻止하고 後續부대의 철수를 掩護한 然後에 제21연대의 後尾를 따라 假倉으로 集結하라。

③ 제21연대는 신속히 假倉으로 集結하라。

④ 제10연대는 敵의 包圍陣을 突破하고 可能한 모든 機動路를 利用하여 假倉으로 集結하라。』

이와같은 명령을 받은 제16연대장 俞載濬중령은 花里(孟山 南쪽 3km)부근에서 兵力을 收拾하여 防禦線(孟山 西南쪽 7km)까지 機動한 다음 그一帶를 점령하고 後續부대를 掩護

하였는데 여기에서 다시 연대 규모의 敵을 激戰끝에 물리치고 北倉을 경유하여 假倉으로 철수하였으며, 제21연대는 孟山과 北倉을 거쳐 假倉으로 集結 하였고, 제10연대는 分散된 兵力을 수습하면서 山路를 따라 假倉으로 집결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國境線에 進擊하려는 宿願이 깨어졌으나 모든 將兵들의 胸間에는 國天의 大望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銃劍을 孟山 淸溪水에 살았다。

라. 전투 후의 개황

敵軍의 動向：中部의 山岳地帶를 根據로 삼으면서 사단 正面을 強壓한 中共 제42군은 이 戰鬪 가 끝났을 때, 그 隷下의 제125사단은 孟山에서, 제126사단은 寧遠에서 各各 부대를 再編하는 듯 하더니 11월 末에는 다시 攻勢를 취하여 제125사단은 계속 山岳을 타고 谷山부근의 大角山(△1277)에 까지 이르렀고, 그 一部는 德川으로 侵攻한 中共 제38군과 合流하여 北倉과 假倉으로 侵襲하였다。

이들은 執拗無比한 사단과의 激戰을 치르는 동안 屍山血海의 被害로 日益衰殘하여감에도 不拘하고 계속 새로운 消耗用 兵力을 아낌없이 投入하여 西部로의 戰線의 擴張을 노리는 듯 하였는데, 이는 美제1, 제9군단을 背後로 부터 包圍하여 早速히 平壤을 奪還하려는 計略의 一環으로 判斷되었다。

한편 德原山脈에 據點을 둔 이들 北共 제2전선부대는 이에 呼應하듯이 陽德 谷山 一帶에서 蠢動하면서 곳곳에서 補給路를 破壞하고 戰線擾亂을 거하였으며 그 一部는 馬息嶺山脈을 넘어 平康 金化地區까지 侵透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敵의 企圖는 國軍 및 UN軍의 지연전으로 如意치는 못하였으나 12월 初에는 淸川江을 건너선 中共 제13병단의 主力과 合流하여 新倉—順川線까지 侵攻하였으며 계속 平壤—元山 線으로 向한 攻擊態勢를 취하였으니 物量戰法의 餘禮이라 할 수 있다。

我軍의 動向：寧遠과 孟山에서 激戰을 치른 사단은 제6사단과 방어임무를 교대하고 이제 군단의 예비가 되어 假倉에서 부대를 收拾하였는데, 敵은 連日 北倉까지 侵襲하여 제6사단의 제7연대(강, 林富澤대령)와 鵝島橋(北倉 西南쪽 1km) 부근에서 攻防戰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孟山에서 山路를 따라 平壤방향으로 南下한 一部의 敵이 成川—平壤 線으로 侵攻하려 하자 사단은 平壤—元山線 방어계획의 一翼으로 11월 30일에 지휘소를 江東으로 轉進開設하고 사단을 展開하였다. 즉 제10연대는 사단 교육대를 編入시켜 再編成한 다음 江東과 三登間의 要地인 黑嶺一帶를 점령 하였으며 제16연대는 江東 西北쪽의 芝石里부근에서 방어태세를 갖추었고 제21연대는 江東에서 예비대로 保有한 가운데 각아 올 決戰에 對備 하였다。

이 당시 軍에서는 戰略上 38°線에서 劃一的인 방어전을 計劃하게 됨으로서 사단은 다시 三登—栗里—遂安—新溪—市邊里를 거쳐 12월 5일 兎山에 이르렀으며, 여기에서 부대를 整備整頓한 다음 中部戰線으로 轉向하다가 별써 臨津江 上流에까지 侵襲한 北共 제2전선부대와 격전을 치루고 高浪浦—서울을 거쳐 中部戰線으로 이동 하였다.

6. 德川附近 戰鬪 (1950년 11월 22일부터 1950년 11월 26일까지)

참조 · 상 황 도 제 5 호
작명부록 제 59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제 2 군단	장 소장	劉 載 興	제3대대	장 소령	金 相 峯
제7사단	장 준장	申 尙 澈	제8연대	장 대령	金 龍 周
제3연대	장(대리) 중령	鄭 震	제1대대	장 소령	梁 麟 錫
제1대대	장 소령	朴 俊 鎬	제2대대	장 소령	高 漢 祚
제2대대	장 소령	李 再 起	제3대대	장 소령	朴 寬 榮
제3대대	장 소령	李 永 吉	배속부대		
제5연대	장 대령	朴 昇 日	포병 제18대대	장 중령	朴 延 鎬
제1대대	장 중령	尹 千 泰	兵 力 : 약 10,000명		
제2대대	장 소령	申 健 善	裝 備 : 사단 T/E에 약 90%		

敵 軍

中共軍	제38군	장 宋 霜 根	中共軍	제125사단	장 王 排 濤
	제112사단	장 江 擁 揮		제126사단	
	제113사단	장 唐 雪 山	병 력 : 각사단 약 10,000명		
	제114사단	장 翟 仲 儒	장 비 : 152㎜ 및 160㎜ 곡사포, 82㎜ 및 120㎜박격포, 기관총, 소총		
	제42군	장 吳 瑞 林			
	제124사단	장 蘇 克 之			

나. 전투 전의 개황

사단은 价川—飛虎山전투에서 戰功을 세운 다음 50년 11월 14일 군단작전계획에 따라 月峯山을 점령 하고 19일에는 德川지역으로 進擊하여 當面의 敵과 對峙하면서 다음작전을 준비하였다。

이 당시에 東部戰線의 제1군단은 吉州에서 淸津과 惠山鎭으로, 美 제10군단은 豊山에서 甲山—三水로 각각 進擊하고 있었으며, 西部戰線에 中共軍이 侵略하자 美 제9군단을 投入함으로써 도합 3개군

단으로 戰線을 담당하였는데 이때에 제2군단은 寧遠—德川지역을, 美 제9군단은 球場洞—雲山—寧邊간을, 美제1군단은 博川—淸川江을 連한 線上에서 각각 中共軍을 擊退하고 小康狀態의 戰線을 유지하면서 戰列을 整理하고 있었다。

이 무렵 中共軍은 西部地域에서 싸우던 제13兵團(제38, 제39, 제40, 제42軍)이 1次攻勢를 펴면서 1個軍이 3個사단으로 편성된 제50군, 제66군인 2個軍과 재편성한 北共의 제1군단을 증강하였으며, 東部地域에는 中共軍 제9兵團이 滿浦鎭—江界로 侵略한 다음 그 휘하의 제20, 제26, 제27군의 3개軍과 北共의 제5군단 先鋒부대가 長津湖지역으로 侵攻하고 있었다。

이와같이 彼我간에 兵力을 증강하면서 서로가 攻勢를 준비함으로써 戰爭樣相은 擴大一路로 共產軍對 UN軍의 對決을 보이게 되었으며 全自由世界는 中共의 參戰으로 크게 當惑하게 되었다。

敵軍의 狀況：2次攻勢를 준비하는 中共軍은 平壤—陽德—元山線을 攻略할 目的으로 大兵力을 戰線에 증강하는 한편 유격대를 侵透시켜 그들이 말하는 제2戰線을 形成코자 하였는데 이 유격부대는 再糾合한 北共의 제2군단으로서 熙川지역에서 險峻한 山脈을 따라 平康—金化—鐵原지역으로 侵透한 다음 이곳을 根據地로 하여 北쪽으로는 寧遠 東쪽의 山岳에서 南쪽으로 뻗은 彥眞山脈의 南端인 陽德지역과 南쪽으로는 太白山脈에까지 侵透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前線부대와 서로 呼應하면서 大規模의 포위기동과 後方 교란작전으로 38°線以北에 進擊한 韓國軍 및 UN軍을 一擧에 擊退할 企圖인 것으로 判斷되었다. 이러한 계획밑에 北倉지역에서 退却한 中共軍 제42군(장, 吳瑞林)의 휘하인 제124사단(장, 蘇克之), 제125사단 (장, 王排淵), 제126사단과 數未詳의 포병부대는 妙香山(德川 北쪽 24㎞)—加馬峰(△1304)—白崖山(寧遠 北쪽 16km)을 連한 險峻한 地勢를 이용하여 攻勢를 준비하면서 그 일부병력은 경계부대로 掛峯(德川 北쪽 12km)—豊德山—頂谷山(寧遠 西쪽9km)을 連한 지역을 占領하고 있었다. 또한 飛虎山과 德川전투에서 사단에게 많은 打擊을 받은 中共 제38군(장, 宋霜根)의 휘하인 제112사단(장, 江擁揮), 제113사단(장, 唐靑山), 제114사단(장, 翟仲儒)은 熙川지역에서 흩어진 부대를 재편성하여 侵攻할 준비를 거의 갖춘듯 하였으며, 中共 제40군은 球場洞—雲山간에 있었다。

我軍의 狀況：西部戰線의 右翼을 담당한 제2군단은 寧遠—德川지역의 戰線을 整備하고 있었는데 제8사단(장, 李成佳 준장)이 右翼부대로 寧遠지역을, 제7사단이 左翼부대로 德川지역을 각각 확보하고 있었으며, 제6사단(장, 張都暎준장)은 예비사단으로서 군단사령부와 같이 北倉에 있었다。

德川지역을 점령한 제7사단의 戰鬪正面은 右側에는 寧遠左端 大同江岸(上流)으로부터 左側에는 龍門山(球場洞 東南쪽 10km) 右端간인 약 35Km에 達하는 廣正面이었는데 이 때에 제8연대가 右一線으로 豊田里(寧遠 西北쪽 4km)—△546—新德里(德川 北東쪽 7km)를, 그 左側에 제3연대가 연결하여 安上里(德川 北쪽 7km)—長下里를 連한 線上을 각각 점령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5연대는 西倉(德川 西쪽 10km)에 있었으며, 포병제18대대는 德川에서 前方연대를 지원하였고, 사단사령부도 德川에 있었다。

이리하여 사단은 다음작전에 對備할 戰列을 가다듬기 위하여 寧遠에서 牛賢(寧遠 西北쪽 17km)—球場洞으로 通하는 道路와 牛賢에서 이 道路를 따라 新興里(球場洞 東北쪽 8km)로 흐르는 百嶺川線까지 진격코자 공격을 준비하였는데 이때에 左隣接인 美제2사단(장, Lawrence, B. Keiser 소장)도 球場洞에서 이 線까지 協同作戰으로 進擊할 態勢를 갖추고 있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이 작전은 육본訓令 제119호(참조 부록훈령 제59호)에 의하여 韓國軍 및 UN軍이 全戰線을 整理하여 50년 11월 24일에 일제히 現接觸線을 突破하고 韓滿國境線을 目標로 進攻할 계획이었다。

제2군단(장, 劉載興소장)은 當面한 戰線을 整備할 작전계획을 세웠는데 그 趣旨의 大要는 첫째로 前面의 輕微한 敵情을 고려할 때 이 敵을 擊退하고 군단의 攻擊開始線의 識別이 용이한 前方지역으로 推進하는 것인데 이 線을 寧遠 10km 北쪽에 가로놓인 大同江上流線에서 三越江巨里(寧遠 北쪽 7km)—新興里로 通하는 道路 및 百嶺川으로 한다는 것. 둘째로 이 線으로 進擊하는데 三越江巨里를 협조점으로 하여 東쪽에서 제8사단이 大同江上流線까지, 西쪽에서 제7사단이 百嶺川까지 각각 進擊한다는 것, 세째로 공격개시선까지 進擊하는 즉시로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敵의 逆襲에 對備하면서 다음날의 공격준비를 하여 依命 熙川지역으로 進擊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군단 작전방침에 따라 포병 제7사단은 임무를 分析한 결과 前面의 輕微한 敵情으로 보아 비록 戰鬪正面은 廣大하다 할지라도 前線을 담당한 兩個연대로써 공격토록 決心한 사단장 申尙澈준장은 要旨 다음과 같은 命令을 하달하였다。『① 사단은 50년 11월 22일 08.00에 2개연대의 併進으로 現接觸線에서 北쪽으로 공격을 개시하여 군단의 LD인 三越江巨里—牛賢—百嶺川을 連한 線까지 進擊한 다음 依命 妙香山—熙川을 공격 탈환하려 한다. ② 제3연대는 牛賢洞(德川 北쪽 17km)—龍淵洞간을 점령하라. ③ 제8연대는 下鎬谷山—寺項山(寧遠 西北쪽 15km) 간을 점령하라. ④ 제5연대는 西倉에서 德川으로 이동한 다음 사단예비대가 되어 前線에 投入할 준비를 갖추라. ⑤ 포병 제18대대는 兩공격연대를 直接 지원하라. ⑥ 兩공격연대는 목표를 점령하는 즉시로 유리한 地形을 이용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하라.』 이러한 要旨의 명령에 따라 공격연대는 기동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제3연대는 豊德山과 指峯—△967로, 제8연대는 項谷山으로 각각 목표를 점령하기로 하고 필요한 준비를 하였다。

(2) 작전실시

11월 22일 : 사단은 이날 08.00에 사단作命 제50호(50.11.21)로 제8연대를 右一線에, 제3연대를 左一線으로 展開하여 일제히 接觸線인 豊田里—新德里—長下里線을 突破한 다음 저항하는 1개대대 규모의 敵을 擊退하고 군단에서 指定한 攻擊開始線까지 進出하였다。

1. 제8연대(장, 金龍周대령)—接觸線인 豊田里—△546—新德里를 連한 線에서 공격을 전개하여 증강된 1개중대 규모의 敵을 擊破하고 項谷山(△646)을 거쳐 목표인 下嶺谷山—寺項山간을 점령하였는데, 제2대대(장, 高漢祚소령)는 △755—△546에서 공격을 시작하여 敵의 前哨兵을 물리치고 項谷山을 점령한 다음 계속 進擊하다가 下嶺谷山—△768간에서 저항하는 敵 1개소대 규모를 一蹴하고 그곳을 점령하였다. 또한 제3대대(장, 朴寬榮소령)는 新德里에서 공격을 시작하여 前面의 △562를 점령한 다음 이 山에서 北쪽으로 뻗은 稜線을 따라 進擊중 寺項山과 △976에 陣地를 占領한 1개중대 규모의 敵과 1시간에 걸친 교전끝에 이 陣地를 모두 점령하였으며, 제1대대(장, 梁麟錫 소령)는 예비대로 寺項山을 점령한 다음 연대의 後方을 경계하였다。

2. 제3연대(장, 鄭 震중령)—新德里—長下里간에서 공격을 시작하여 저항하는 2개중대 규모의 敵을 擊退하고 목표인 牛賢洞—龍淵洞간의 高地를 점령하였는데 이 때에 제1대대(장, 朴俊鎬소령)는 林下里의 △421—△452에서 공격하다가 豊德山(△728)에서 저항하는 2개소대 규모의 敵을 擊破하고 이 山을 점령한 다음 退却하는 敵을 追擊하여 敵에게 對抗할 여유를 주지 않고 牛賢洞까지 進擊하였다. 한편 제2대대(장, 李再起소령)는 △393—長下里간에서 공격을 시작하여 前方 △967를 占據한 敵 1개중대 규모와 치열한 激戰이 전개되었는데 이때에 대대의 일부병력이 掛峯에서 저항하던 敵 1개소대 규모를 擊破하고 退却하는 敵을 追擊하면서 이 山을 포위하자 敵은 결국 北쪽으로 潰走하고 대대는 이 山을 점령한 다음 계속 進擊하여 龍淵洞지역을 점령하였다. 제3대대(장, 李永吉소령)는 예비대로서 △967로 進擊한 다음 연대의 廣大한 後方지역을 경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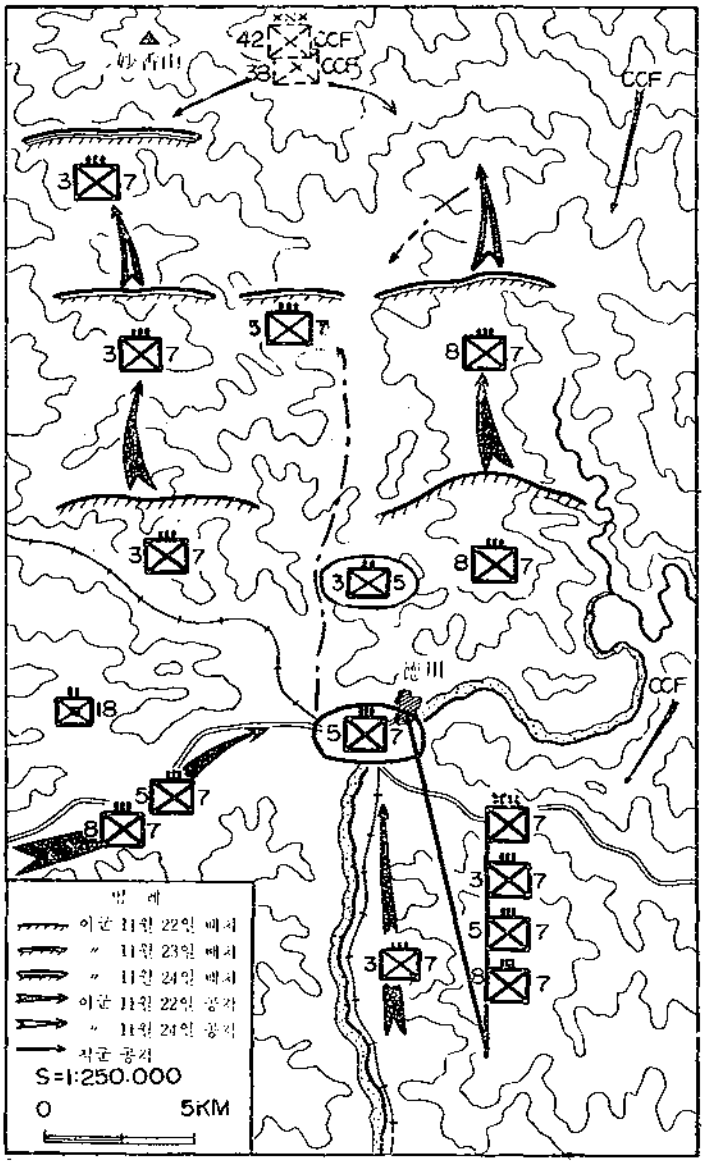
3. 제5연대(장, 朴昇日대령)—西倉에서 德川으로 이동한 다음 사단의 예비대가 되어 차기작전에 對備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4. 右隣接인 제8사단(장, 李成佳준장)은 寧遠지역에서 大同江 上流線까지 進擊하였으며, 左隣接인 美 제2사단(장, Lawrence B. Keiser 소장)의 제38연대(장, George B. Peploe 대령)는 球場洞에서 공격하여 新興里앞 百嶺川에 沿한 高地를 점령하고 각각 當面의 敵과 對峙하였다。

11월 23일 : 사단은 다음 날에 실시할 공격을 위한 준비의 一環으로 前方에 대한 수색정찰을 強行하는 한편 敵의 逆襲에 대한 對備策으로 前線의 유리한 地形을 이용하여 진지를 구축 하였다。

1. 제8연대(장, 金龍周대령)—사단계획에 따라 敵情探索을 兼한 先遣隊를 보내는

◇ 상황도 제5호 德川附近 戰鬪(50.11.22~26)



한편 진지를 구축하였는데 연대 수색중대는 수색 정찰 임무를 받고 前面에 있는 △709를 거쳐 新坪(새평)에 進擊할 무렵 左側의 △1098에 있는 1개소대 규모의 敵을 발견하자 즉각 공격하여 擊退시킨 다음 이 山을 점령하였다. 그런데 이 山은 加馬峯(△1304)에서 南쪽으로 뻗은 山줄기의 南端인 高地로서 다음날의 공격을 위한 발판이 되기 때문에 연대에서는 중대를 先遣부대로써 확보케 하였다. 한편 前線을 담당한 제2대대는 다음날의 공격을 위

하여 下嶺谷山 지역의 兵力을 △768—△936간으로 集中시켜 진지를 구축하였으며, 제3대대는 寺項山—△976간에서, 제1대대는 예비대로 後方 項谷山에서 각각 진지를 구축하면서 다음날의 공격을 준비하였다。

2. 제3연대(장, 鄭 震중령)—前線대대는 각 대대의 수색대로 다음날에 進攻할 지역인 前線에서 3km前方인 敵陣에 있는 △682—△886간을 수색하였다. 兩대대의 主力은 다음날의 공격준비를 하면서 점령한 진지를 補強하였는데 이때에 제1대대는 牛賢洞의 △785 △491간에서, 제2대대는 △491의 左端에서부터 △333간에서 각기 진지를 구축하면서 공격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제3대대는 예비대로 △967에서 공격준비를 하면서 연대의 後方을 경계하였다.

3. 제5연대(장, 朴昇日대령)—이날 연대장은 德川國民學校에서 전날에 飛虎山 및 月峯山 전투에서 功勞가 많은 중대에 대한 表彰狀을 수여하는 동시 장병의 戰功을 높이 치하한 바 있었다. 그 뒤에 前線연대 正面에서 어느쪽이라도 전투임무를 인수받아 즉시 수행할 수 있는 進擊 계획을 수립하였다。

4. 사단 수색중대는 제8연대가 前線으로 兵力을 집결함에 따라 공간이 생긴 下嶺谷山지역을 점령하고 三越江巨里에서 제8사단과 연결하였다。

5. 포병제18대대(장, 朴廷鎬중령)는 공격연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2개포대를 新下里(德川 東北쪽 10km)로 推進시켜 진지를 점령케 하고 사단前面을 지원사격 하였으며, 사단이 進擊함에 따라 現接觸線上의 機動路를 따라 轉進할 계획도 수립하였다。

11월 24일 : 이날 육본訓令 제119호(50. 11. 19)에 의하여 韓國軍 및 UN軍은 韓滿國境線까지 進擊할 目的으로 全戰線에 걸쳐 接觸線을 일제히 突破하고 총반격작전을 전개하였으며, 이 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美 제5공군의 전투기 편대는 地上軍의 進擊을 掩護하였고 포병부대는 一時에 砲門을 열어 敵陣를 強打하였다。

1. 사단은 이날 군단 작전계획에 따라 사단作命 제51호(50. 11. 24)에 의하여 08. 00에 공격을 전개하였는데 최초 목표인 加馬峯(△1304)—妙香山(△1203)을 連한 線을 점령한 다음 계속 進攻하여 중간 목표인 降仙峯(△1612)—香爐峯(△1600)의 峻嶺을 突破하고 군단의 目標인 熙川지역으로 進擊하려 하였다. 그런데 敵도 또한 공세를 取함으로서 左側연대만 약간 進出한 상태에서 激戰을 展開하였다。

2. 제3연대(장, 鄭 震중령)는 妙香山과 △1531를 목표로 공격개시선을 突破한 다음 敵의 輕微한 陣地를 突破하고 계속 3km 깊이 進擊하였을 때에 완강히 저항하는 敵과 對峙

하면서 戰線을 확보하고 다음 날의 공격을 준비하였다. 이 때에 제1대대(장, 朴俊鎬소령)는 △1531을 점령하기 위하여 敵陣의 右側(△682—△1063)과 左側(△751—△965)의 兩方向에서 協攻하여 1개중대 규모의 敵을 擊破하고 △682와 △751을 점령한 다음 계속 進擊을 하다가 △1063—△965 사이에 陣地를 占領한 敵과 치열한 交戰을 전개하였다. 한편 제2대대(장, 李再起소령)는 妙香山을 목표로 傾斜가 완만한 △886에서 北쪽으로 뻗은 稜線을 따라 △1101로 主攻을 指向케 하고 일부병력으로 △637에서 兄弟峯으로 進擊토록 龍淵洞에서 공격을 시작하여 저항하던 敵 1개중대 규모를 擊退하고 계속 追擊하여 △886—△637간을 점령한 다음 前方 △1101일대를 占據한 敵과 對峙하였다. 예비대인 제3대대(장, 李永吉소령)는 △967에서 4km 前方에 있는 △491—△426로 進擊하여 연대의 後方을 경계하였다.

3. 제8연대(장, 金龍周대령)는 加馬峯(△1304)—△1307을 목표로 하여 右一線의 제2대대를 △1307로 左一線의 제3대대를 加馬峯을 각각 점령토록 공격을 준비하였는데, 이때에 先遣隊로 △1098를 점령한 연대수색중대가 敵과 激戰끝에 撤收함에 따라 연대는 侵攻하는 敵을 우선 阻止擊滅한 다음에 공격키로 하였다. 이 당시 수색중대는 早朝에 侵攻한 敵 1개대대 규모와 1시간에 걸친 激戰끝에 力不足하여 지연전을 펴면서 項谷山으로 撤收하였는데 중대의 後退를 따라 공격한 敵은 下項山—△976간을 점령한 제3대대(장, 朴寬燮소령)에 依하여 陣前에서 擊退를 당하였다. 또한 제2대대(장, 高漢祚소령)는 前面인 △818—△709에서 侵攻하는 1개대대 규모의 敵을 △768—△936간을 占領한 진지에서 격퇴하였으며, 예비대인 제1대대(장, 梁麟錫소령)는 項谷山에서 前線대대의 상황을 注視하면서 만만의 전투준비를 갖추었다.

4. 예비대인 제5연대(장, 朴昇日대령)는 德川에서 下嶺谷山쪽으로 進擊하다가 新德里까지 進出하여 다음 작전을 待機하였으며, 사단 수색중대는 下嶺谷山 右翼에서 侵攻하는 敵 1개소대 규모를 즉각 물리쳤다.

5. 이날 中共軍도 그간에 공격준비를 갖추었는지 2次 攻勢의 前奏로 右翼되는 探索戰을 전개하였는데 前線을 담당한 中共 제42군(장, 吳瑞林)의 휘하부대는 사단의 進攻을 阻止하기 위하여 加馬峯—妙香山을 連한 南쪽 稜線上에 陣地를 占領한 듯 하였고, 熙川지역에서 재편성을 끝마친 中共 제38군(장, 宋霜根)의 先鋒부대가 投入되었는데 이는 공세를 위한 結戰의 徵候로 判斷되었다.

11월 25일 : 사단은 이날 2개연대 규모의 敵이 사단의 右側方과 左隣接인 美 제38연대(장,



<戰線에서 활약하는 勞務者들>

George B. Peploe 대령)正面을 侵攻하였는 바 사단장 申尙澈 준장은 이 敵을 조속히 擊滅한 다음에 계획대로 공식하기 위하여 예비대인 제5연대(一)를 投入하여 戰列을 가다듬고 사단의 3개연대가 全力으로써 激戰을 反復하였다。

1. 右一線인 제8연대(장, 金龍周대령)는 侵攻하는 2개대대 규모의 敵과 激戰을 展開하였는데 제2대대(장, 高漢祚소령)는 이날 주간에 1개의 경계분대를 前方 △709에 배치하였으나 敵은 1개대대 규모로 이 山을 포위하면서 侵攻하므로 대대장은 경계분대를 撤收토록 하면서 砲擊을 퍼붓고 대대의 △768—△936 陣前에서 이 敵을 擊退하였다. 그러나 이 敵은 夜暗을 이용하여 侵攻할 企圖로서 前線 直後方으로 兵力을 집결하는 듯 하였다. 또 제3대대(장, 朴寬榮소령)는 寺項山—△976의 진지에서 증강된 敵 1개대대 규모와 전투가 전개되었는데 夜暗으로 접어들자 敵은 兵力을 더욱 증강하여 侵攻한 탓으로 戰鬪前哨가 점령한 寺項山 北斜面의 △610를 빼았기고 主陣地에서 치열한 激戰이 더욱 苛烈化되었으며 예비대인 제1대대(장, 梁麟錫소령)는 突破豫想지역에 대한 역습계획을 준비하였다。

2. 이와같은 제8연대의 狀況을 파악하게 된 사단장은 전날에 제3연대가 進擊함에 따라 前線 연대간의 戰鬪地帶인 牛賢洞지역의 脆弱性과 廣正面의 前線을 고려하여 戰線의 補強策으로 제5연대(장, 朴昇日대령)에게 연대(一)主力으로 牛賢洞지역을 점령확보 하라고 명령하였다.(단 1개대대는 사단예비대) 이 명령을 받은 제5연대는 즉각 新德里에서 進擊하여 제1대대(장, 尹千泰중령)가 牛賢洞의 △785—△667간을 점령한 다음 전투준비를 갖추

고 있다가 22.00에 이르러 敵의 偵察隊로 예측되는 2개 중대 규모와 1시간에 걸친 격전 끝에 이를 擊退하였다. 또한 제2대대(장, 申健善소령)는 前線대대의 後方인 △586—△400간을 점령하였으며, 제3대대(장, 金用奎소령)는 사단의 예비대로서 사단의 後方 中心지역인 新德里에서 다음작전을 待機하였다.

3. 제3연대(장, 鄭 澄중령)는 妙香山의 中部까지 進攻하였으나 戰列을 整理하는 사단계획에 따라 경계부대만 일부 잔유시키고 연대의 主力은 전날에의 공격개시선으로 撤收하여 진지를 점령하였는데 右一線이 였던 제1대대(장, 朴俊鎬소령)는 예비대가 되어 △967一帶峰간을 점령 하였으며, 전날에 예비대로 △491—△426간을 점령한 제3대대(장, 李永吉소령)가 右一線을 담당하였고, 제2대대(장, 李再起소령)는 △332—△501간의 左一線을 담당하였다. 그 뒤에 연대는 侵攻하는 1개대대 규모의 敵으로 말미암아 그 경계 兵力을 主陣地로 撤收케 한 다음 이 敵을 陣前에서 擊退하였다.

4. 사단 수색중대는 下嶺谷山을 中心으로 점령한 진지에서 사단의 右側方을 防護하였는데 夜暗이 되자 전날에 擊退한 敵으로 看做되는 敵이 1개대대 규모로 증강하여 侵攻을 계속하였는 바 1시간에 걸친 공방전을 계속한 끝에 大同江岸을 따라 德川으로 撤收하였다.

5. 이날 군단에서는 侵攻하는 敵을 擊退하여 사단의 進攻을 促進하는 동시에 사단과 제8사단간의 전투지대가 脆弱한 것에 대처하여 예비사단의 일부병력을 投入하였는데 이 때에 제6사단(장, 張都映준장)의 제2연대(장, 金鳳喆대령)가 豊田里(寧遠 西北쪽 5km)로 進擊하였다.

6. 한편 右隣接인 제8사단(장, 李成佳준장)은 大同江線을 확보하면서 激戰中이었으며, 左隣接인 美 제2사단(장, Lawrence B. Keiser 소장)의 美 제38연대(장, George B. Peploe 대령)는 百嶺川 3km 前方의 △733—△453 간에서 1개연대 이상의 敵과 치열한 激戰을 계속하고 있었다.

11월 26일 : 사단은 이날 전날부터 侵攻한 敵이 그 兵力을 1개사단 이상의 大兵力으로 증강하여 02.00에 砲擊과 더불어 사단의 右側方을 強襲하였는 바 2시간에 걸친 치열한 激戰끝에 獸身으로 固守하던 防守陣이 무너지므로 부득이 지연작전을 展開하면서 撤收를 斷行하게 되었다.

1. 제8연대는 1개사단 규모의 敵과 激戰끝에 防禦陣地가 무너졌는데 敵은 사단포병사거리 외의 지역인 白嶺山과 加馬峯一帶陽洞간에 집결한 다음 夜暗을 이용하여 前線에 隱密히 接近하였다가 前面에서 2개연대 규모로 侵攻하는 동시에 전날밤 늦게 背後인 사단 수색

중대가 무너진 下嶺谷山 지역으로 1개연대 규모가 侵攻하여 東쪽에서 西쪽으로 공격을 敢行하였다. 이 때에 右一線인 제2대대는 점령한 △768—△936간의 진지에서 포병의 火力을 集中發揮토록 하면서 치열한 激戰을 계속하였는데 敵은 後方인 昌孝嶺으로도 공격을 敢行하여 대대는 포위된 상태에서 混戰亂鬪로 白兵戰을 계속하다가 力不足하여 지연작전을 피게 되었다. 한편 左一線인 제3대대는 古項山과 △976에서 交戰하여 侵攻하는 敵을 砲火力과 보병의 白兵戰으로 擊退하였으나 敵은 砲火力에 掩護하는 突擊方式으로 侵攻하여 대대의 威力앞에 폐쇄음을 당하면서도 人海戰術만을 계속 反復하므로 攻防戰은 더욱 苛烈되었으나 대대 장병들은 오직 敵을 壞滅하고야 말겠다는 信念으로 진지를 固守하였다. 그러나 右側대대의 防守가 무너지자 이 間隙을 뚫고 侵攻하는 敵을 예비중대로서 阻止하였는데 壓到的인 兵力을 자랑하는 敵은 계속 後方으로 侵攻하기 때문에 대대는 苦戰을 거듭하면서 德川으로 撤收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비대인 제1대대는 下嶺谷山에서 侵攻하는 敵과 項谷山의 진지에서 激戰을 반복 하였는데 前線 兩個대대가 撤收함에 따라 敵도 서로 混合되어 侵透하였는 바 대대 陣內에서는 肉迫戰을 전개한 끝에 삽시간에 彼我를 分別할 수 없는 混戰으로 突變하였다가 물밀듯 한 敵의 強壓탓으로 부득이 撤收하게 되었다。

2. 牛貿洞의 △786—△667진지를 지키던 제5연대는 加馬峯에서 侵攻하는 1개연대 규모의 敵과 2시간에 걸친 치열한 激戰끝에 前線을 담당한 제1대대의 防守一角이 무너지고 제2대대가 점령한 △586陣前에서 一旦 阻止하였으나 제8연대 지역에서 侵攻하는 敵은 연대의 後方을 차단하고 포위 압축을 加하였으므로 苦戰을 거듭하면서 德川으로 撤收하였다。

3. 제3연대는 이날 1개대대 규모의 敵을 격퇴하고 戰線을 유지하였는데 사단장 명령에 따라 龍登洞(球場洞 東쪽 3km)으로 轉進한 다음 左隣接인 美 제2사단의 제38연대와 合同으로 球場洞지역을 확보하였다.

4. 바로 이 무렵 사단에서는 사단 수색중대장으로부터 중대의 防守가 무너졌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이 중대의 後退를 따라 大同江岸으로 侵攻한 1개대대 규모의 敵은 사단사령부를 기습하는 동시에 德川 後方의 要路를 차단하였다. 그러므로 사단장은 緊急措置로서 사령부를 德川 北쪽 高地로 이동시킨 다음에 사단의 예비대인 제5연대의 제3대대를 출동시켜 사령부를 경비토록 하고 前方연대의 戰況을 파악하였으나 前述한 바와 같이 敵의 壓力은 加重되고 戰勢는 惡化一路로 急變하고 있을 뿐 아니라 後方에 侵透한 敵은 要路에 兵力을 投入하면서 교란사격을 集中하고 있었다. 이 때에 군단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자

戰鬪力이 健全한 제3연대로 하여금 美 제2사단과 合同으로 作戰토록 하고 사단은 順川으로 撤收하라는 명령을 下達하였다。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단장은 즉각 제3연대를 前進한 바와같이 措置한 다음 翌日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① 사단은 順川으로 撤收하여 부대를 정비하려 한다。② 사단에 배대한 敵의 포위망을 突破하고 德川지역에 있는 사단의 機動路를 打開하면서 北倉을 經由하여 順川으로 이동하라。③ 제5, 제8연대 및 포병 제18대대, 그리고 기타 작할부대는 예비대의 後退를 따라 順川으로 이동하라。』이와같은 명령을 받은 사단예비대인 제5연대의 제3대대장 金相基소령은 대대를 陣頭指揮하면서 정상적인 공격대형으로 전개한 다음 數重의 敵의 포위망을 突破하면서 北倉—順川축으로 前하였으며, 德川에서 지원하던 1개포대도 順川으로 이동하였다。그러나 제5, 제8연대의 일부 집결한 병력과 前方에 推進하였던 2개포대 및 기타 兵力도 그 뒤를 따랐는데 바로 이때 사단을 포위하고 있던 中共軍은 무질서하게 後續하는 弱點을 노리고 다시 退路를 차단하면서 前方에서 追跡하던 敵과 合勢하여 集中사격을 加하였기 때문에 兵力을 분산되어 各個擊破되고 2개포대의 野砲를 비롯하여 이 지역에 있던 重裝備, 重火器 및 通信裝備등을 破壞한 다음 順川으로 撤收하게되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敵軍의 動向 : 사단 正面에서 공격을 阻止하던 中共 제42군은 이 전투가 끝난 다음 德川지역으로 撤收하여 흩어진 부대를 재편성하는 듯 하였으며, 自然地勢와 密林을 이용하여 공격을 敢行하던 中共 제38군은 大海戰術과 浸透戰法으로써 侵攻을 계속하여 德川지역을 장악하게 되었다。그리고 西部戰線의 UN軍을 포위할 企圖로 德川에서 价川으로 侵攻하는 동시에 일부 兵力은 北倉을 經由하여 順川을 노리고 南進하였는데 이 때에 中共軍과 서로 呼應하면서 제2戰線을 形成하던 北共은 유격대를 避難民으로 假裝케 하여 我軍의 後方을 교란코자 하고 있었다。

그 뒤에 中共軍은 德川지역으로 大兵力을 投入하여 11월 下旬에는 順川—孟山線까지 侵攻하고 계속 南進할 氣勢를 보였다。

我軍의 狀況 : 이 전투가 끝난 사단은 順川에서 부대를 정비하고 德川지역에 侵攻한 敵을 擊滅코자 하였으나 敵은 시간적인 餘裕를 주지 않도록 계속 侵攻하면서 兵力을 加하기 때문에 我軍의 戰勢는 불리한 상태에 놓이므로 발미암아 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遮斷的인 지연작전을 展開하면서 12월 2일에는 勝湖里에 집결하였다。또한 美 제2사단에 임시로 배속된 제3연대는 계속 美 제38연대와 合同으로 11월 28일부터 球場洞에서 지연작전을 펴면서 价川—順川—平壤—勝湖里로 撤收하였다。

이 당시에 韓國軍 및 UN軍의 작전계획은 平壤 大同江으로부터 江東—陽德을 連한 線上에서 敵을 阻止하고 反擊을 斷行하려는 것이었는데 11월 29일에 美 제1군단의 일부병력은 价川에서 順川으로 撤收한 다음 지연작전을 펴고 있었으며, 美 제9군단의 일부병력은 順川에서 成川쪽으로 轉進하여 銀倉里에서 南進하던 敵과 對陣하고 지연작전中이었다。

이 때에 사단은 平壤 大同江線 방어작전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로 사령부를 勝湖里에 설치하고 제5, 제8연대는 貨泉里(勝湖里 東쪽 6km)에 제3연대 및 포병 제18대대는 勝湖里 부근에서 각각 다음 작전을 준비하였다。

§. 硏　究

사단은 이 전투에서 中共軍과 激戰끝에 苦戰을 하였으나 戰果와 被害에 대하여 상세히 記錄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문제에 대하여는 앞으로 수집하는 대로 追記할 것이다。

§. 參戰者의 證言

◇ 제8연대장 金龍周대령

(1967. 2. 16 敦岩洞 自宅에서, 예준장)

价川 飛虎山 戰鬪를 마치고 德川으로 進擊할 때에는 커다란 激戰이 없었으며, 이 때에 右一線 攻擊梯隊로서 妙香山—熙川을 目標로 進攻하다가 그곳의 깊은 溪谷에서 敵과 交戰이 展開되었다。연대는 可用한 모든火力과 白兵戰으로 그들과 치열한 激戰을 反復하였는데 敵은 연대의 威勢 앞에 많은 死傷者를 내면서도 兵力의 優勢를 誇示하는 듯 人海戰法으로 물밀듯이 侵攻하여 연대를 포위하였으므로 부득이 지연작전을 했으나 夜暗이라 연대의 兵力이 敵과 混合된데다가 敵의 壓力은 加重되고 지휘계통이 確立되지 않아서 苦戰을 거듭하며 順川으로 撤收하다가 나는 負傷을 當하여 部下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順川에 도착한 다음 病院으로 後送되었다。

◇ 제3연대 2대대 부대대장 姜順馨대위

(1965. 5. 24 육군본부에서, 대령)

당시 대대장은 발병으로 기동이 곤란하였기 때문에 내가 대대OP에서 대대장 대리 근무를 하였다. 이 때에 연대 正面에는 별로 敵情이 없어서 다음날 妙香山을 넘어 熙川으로 進攻할 준비의 一環策으로 그 山의 南쪽 進路를 수색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食事가 늦어 독촉하니까 德川에는 中共軍이 侵入하여 全사단이 포위되었다고 하므로 非常用食事로 措置한 다음 연대계획에 따라 대대는 球場洞으로 轉進하여 그곳에서 美軍과 合同作戰을 하게 되었다. 그 뒤 美軍으로부터 彈藥과 給食을 補給받아 戰鬪를 하였는데 그곳마저 敵에게 포위되어 美軍과 合同作戰계획을 세운 다음 연대는 포위망을 突破하고 美軍은 撤收作戰을 遂行케 되어 대대는 美軍의 戰車 10臺와 裝甲車 3臺를 支援받아 先頭부대로 포위망을 突破하여 价川—順川으로 撤收하였던 것이다。

◇ 제5연대 제3대대장 金相峯소령

(1972. 5. 26 在鄕軍人會에서, 예대령)

당시 저의 대대는 사단예비대로서 德川부근에 있었는데 사단사령부가 기습을 받자 즉각 출동하여 그 敵을 물리치고 警備를 하다가 사단장 명령으로 敵의 포위망을 先頭에서 突破하면서 北

倉一順川으로 撤收하였다. 이 때에 대대를 攻擊隊形으로 展開시킨 다음 포위한 敵을 攻擊하니까 敵은 대대의 威力 앞에 恸을 먹었던지 對抗을 하지 않아서 커다란 損失없이 대대를 이끌고 順川으로 集結하게 되었다。

◇ 제5연대 제2대대 작전과 辛錫連소위.

(1966. 5.19 육군본부에서, 대령)

대대는 예비연대의 一部로 德川에서 戰技를 鍊磨하다가 前線에 投入되어 妙香山을 앞에 두고 當面의 敵과 전투를 하였는데 前面의 한 골짜기가 500~800m가 되는 곳으로 敵은 물밀듯이 侵攻하므로 대대의 장병은 기관총과 박격포 및 소총으로 猛烈하게 사격을 하면서 陣地를 固守하고 血戰을 계속하였으나 敵은 迂回하여 연대 CP를 포위하며 後方을 교란시켰다. 그리 대대는 苦戰을 하면서 연대의 電文을 받고 順川으로 撤收하였는데 대대장과 OP에서 부대를 지휘하며 狀況을 把握 할때에 訓練所에서 실탄 射擊밖에 射擊訓練을 못하였다는 新兵들은 溪谷에서 侵攻하는 敵에게 射擊한다는 것이 大部分의 銃彈이 前面의 高地頂上으로 가는 것지 못할 사실을 알고 그 후에 철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이를 강조한바 있었다。

◇ 포병 제18대대 부대대장 崔 喆소령

(1964. 8.25 1군사령부에서, 중장)

德川지역에서 敵에게 포위당하였을 때에 2개 포대는 前方의 推進陣地를 점령하고 사단 前面을 支援하였으며, 1개포대는 德川부근에서 支援 하였는데 이 포대만 무사히 順川으로 撤收하였다。 이 때에 推進陣地를 점령한 2개 포대는 無數한 溪谷의 機動路를 따라서 撤收하다가 한 高地의 모퉁이를 돌아서자 갑자기 敵의 集中사격을 받다서 先頭車가 멈추면서 交戰이 展開되었다. 그리므로 自體의 防衛力이 없는 포대는 機動路가 차단된 대다가 敵의 壓力은 加重되어 부득이 砲를 敵이 使用하지 못하도록 重要部分을 破壞하고 兵力은 撤收하였는데 步兵이 지연작전을 실시할 때에는 事前에 通報를 하여 주었으면 포병도 철수하면서 步兵을 支援하여 시로의 被害가 減少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7. 平壤—38°線 撤收戰 (1950년 12월 2일 부터 1950년 12월 4일 까지)

참조 : 상황도 제 6 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美 제 1 군단 장 소장 Frank W. Milburn

제 1 사단 장 준장 白 善 燁

제11연대 장 대령 金 東 斌

중령 文 亨 泰 (12월 14일부터)

제 1 대대 장 중령 柳 重 秀

제 2 대대 장 소령 李 斗 龍

제 3 대대 장 중령 鄭 永 洪

제12연대 장 대령 金 點 坤

제 1 대대 장 중령 韓 順 華

제 2 대대 장 중령 趙 成 來

제 3 대대 장 중령 金 基 容

제15연대 장 대령 趙 在 美

제 1 대대 장 중령 劉 載 成

제 2 대대 장 중령 崔 炳 淳

제 3 대대 장 중령 安 秉 健

사단 공병대대 장 중령 金 永 錫

배속 부대

포병 제17대대 장 소령 朴 永 湜

지원 부대

美 제10고사포단 장 대령 William H. Hennig

美 제 6 전차대대 장 중령 John S. Growden

C·D중대

敵 軍

中共 제66군 장 蕭 新 槐 제197사단

제196사단 장 成 少 甫 제198사단

나. 전투 전의 개황

美 제8군은 中共軍의 侵略으로 淸川江 南岸으로 撤收하게 되자, 平壤北方에 防禦陣地를 構築하여 美 제10군단과 연결함으로서 平壤—元山을 連하는 線을 確保키로 하였다. 즉 11월 28일에 美제8군 사령관 Walker 중장은 右翼인 제2군단을 成川—陽德일대로, 中央의 美 제9군단은 安州—甁隅里일대

로, 左翼인 美 제1군단은 新安州일대로 철수하여 다음 작전을 준비토록 명령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北共 제1군단과 中共 제50, 제66 군은 定州—泰川—寧邊線을 一路 南下한 뿐 아니라 그 以東인 德川—寧遠에 이르는 일대로부터는 中共 제38, 제39, 제40, 제42군의 大兵力은 이 山岳地帶를 沿한 線으로 南侵하여 특히 美 제8군 右翼에 대한 重壓을 加하였다. 11월 29, 30일 兩日에 걸쳐 中共軍은 淸川江 北岸을 目標로 指向하면서 球場洞—德川—寧遠을 차례로 점령한 다음 大兵力으로 价川—三所里—新倉里를 連하는 方向으로 迂回함으로써 我軍側의 退路를 一擧에 遮斷할 氣勢로 보였다.

그리하여 12월 1일에 美 제8군의 각 부대는 美 제5연대 전투단과 Middlesex 대대를 主力으로 하는 英 제27여단 등의 掩護下에 淸川江 南岸으로부터 蕭川—順川 線으로 撤收하여 일단 平壤 北方에 防禦線을 構築하게 되었다. 즉 美 제1군단(장, Frank W. Milburn소장)의 제24사단(장, John H. Church 소장)은 平壤 東北方에 있는 三成里로부터 그 東쪽인 江東일대까지 진출하였고, 美 제1기갑사단(장, Hobart R. Gay소장)은 新倉—成川을 連하는 線에 防禦陣地를 마련하였다. 이와 동시에 그 西側에서는 제2군단(장, 劉載興소장)의 제6사단(장, 張都暎준장)이 新倉里로부터 殷山—順川으로 轉進하였고, 軍隅里—新安州—蕭川과 軍隅里—順川의 兩路로부터 撤收한 美 제9군단(장, John B. Coulter소장)은 제2사단(장, Lawrance B. Keiser소장)이 順川—殷山일대로, 그리고 제25사단(장, William B. Kean소장)이 順川—上八里(蕭川 東北方)까지 各各 撤收하는 즉시로 防禦陣地를 占領하였다. 따라서 美 제24사단은 美 제9군단의 地域으로, 美 제25사단은 美 제1군단의 地域으로 관할지역이 바뀌게 되었다.

이때 제1사단은 泰川—博川要域에서 激戰을 치루고 淸川江을 건너 新安州—萬成里일대로 撤收하였는데, 12월 1일에는 사단 사령부를 永柔에 設置하고, 이미 前日에 蕭川에 본부를 두게 된 右一線인 제12연대로 하여금 同地 以東地區를, 그리고 본부를 龍浦里로 옮긴 左一線인 제15연대로 하여금 同地 以西地區를 담당케 하여 各各 防禦陣地를 占領토록 하였다. 이와 同時에 제11연대는 사단 예비로서 永柔 北쪽의 漁隱里로 移動하였으니, 이로써 平壤 北方에서 美 제25사단은 右翼으로 제1사단은 左翼으로 蕭川—順川일대의 防禦線을 分擔하게 된 것이다. 또 美 제1기갑사단은 東北쪽에서 新倉—成川을 連한 線을 占領하면서 中共軍의 대대적인 侵攻에 맞서게 되었고, 美 제21사단은 江東일대에서 敵의 迂回 南侵을 막게 되었다.

한편 제2군단의 제7사단(장, 申尙澈준장)과 제8사단(장, 李成佳준장)은 각각 成川—江東을 거쳐 三登부근으로 撤收하였는데, 제8사단은 貨泉里—黑嶺山일대를 점령한 다음 그 부근에서 出沒하기 시작한 北共 敗殘兵의 擊滅을 企圖하고 있었다.

그런데 中共軍은 충분한 休息을 取하고 새로이 投入된 8개 군으로 그 일부는 新安州—安州 線을 沿하여 南侵하면서 그 主力은 계속 順川—成川 線을 따라 迂回하고 있었는데 이를 阻止한 美 제8군의 右翼師團들은 특히 頑强的인 敵과의 激戰을 치루었으므로 이제 다시 固守防禦戰을 完遂하기에는 兵力과 裝備의 補充 등을 必要로 하는 實情에 놓여 있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 계획

美 제8군의 當初 計劃은 蕭川—順川—成川—陽德을 連하는 線에서 中共의 南侵을 막고 平壤防禦를 위한 陣地를 占領코자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平壤의 東北과 正東의 兩面은 妙香山脈과 彦眞山脈이 西南으로 뻗은 山岳地帶를 形成한 까닭으로 敵은 이러한 地形을 利用하면서 急速하게 南下하는데 反하여 我軍側은 機動裝備의 喪失과 砲擊擊의 効能 減縮, 그리고 艦砲支援의 缺如 등 地形과 裝備上의 不利한 條件을 免할 도리가 없었다。

그리하여 12월 2일에 敵이 安州를 奪取하고 新倉을 占領한 다음 계속 順川 東南方으로 侵攻하니, 美 제8군은 防禦線을 逐次로 南遷하는 한편 그 일부는 平壤으로의 撤收를 시작하였다. 더우기 平壤을 東南方 깊숙히 包圍코자 노리는 敵은 成川을 侵掠하므로써 그 企圖를 露骨化하였으며 平壤 東쪽 山岳地帶에서는 我軍의 總進擊戰時에 밀리는 바 되어 四散潛走하였던 北共의 敗殘兵들로 구성된 遊擊隊가 回頭跳梁을 시작하니, MacArthur 元帥는 判斷하기를 『現在의 不利한 與件下에서 戰力을 消耗한 부대로써 새로이 侵攻한 中共軍을 격퇴한다는 것은 困難하며, 戰術的인 後退는 不得已하다.』라는 結論으로 全面的인 撤收를 斷行키로 決心하고 12월 3일에는 美 合同參謀本部로부터 이를 承認받았다。

이에 美 제8군 麾下의 각 부대는 敵의 平壤包圍 및 退路遮斷의 企圖를 抑制하는 한편 그 自體의 戰力을 되도록 溫保하면서 逐次的으로 38°線 以南으로의 撤收를 시작하였으니 不知彼而不知己의 惡影響은 實로 慘憺을 極하였다。

이리하여 제1사단은 美 제8군의 계획에 따라 美 제25사단과 함께 主力兵團의 撤收를 掩護한 다음 後衛로서 平壤을 떠나게 되었거니와, 사단장 白善燁준장은 제12, 제15연대로 하여금 撤收掩護의 역할을 專擔케 하고 제11연대로 하여금 豫備隊로 두어 逐次的으로 平壤을 거쳐 黃州—沙里院으로 移動할 것을 일단 決心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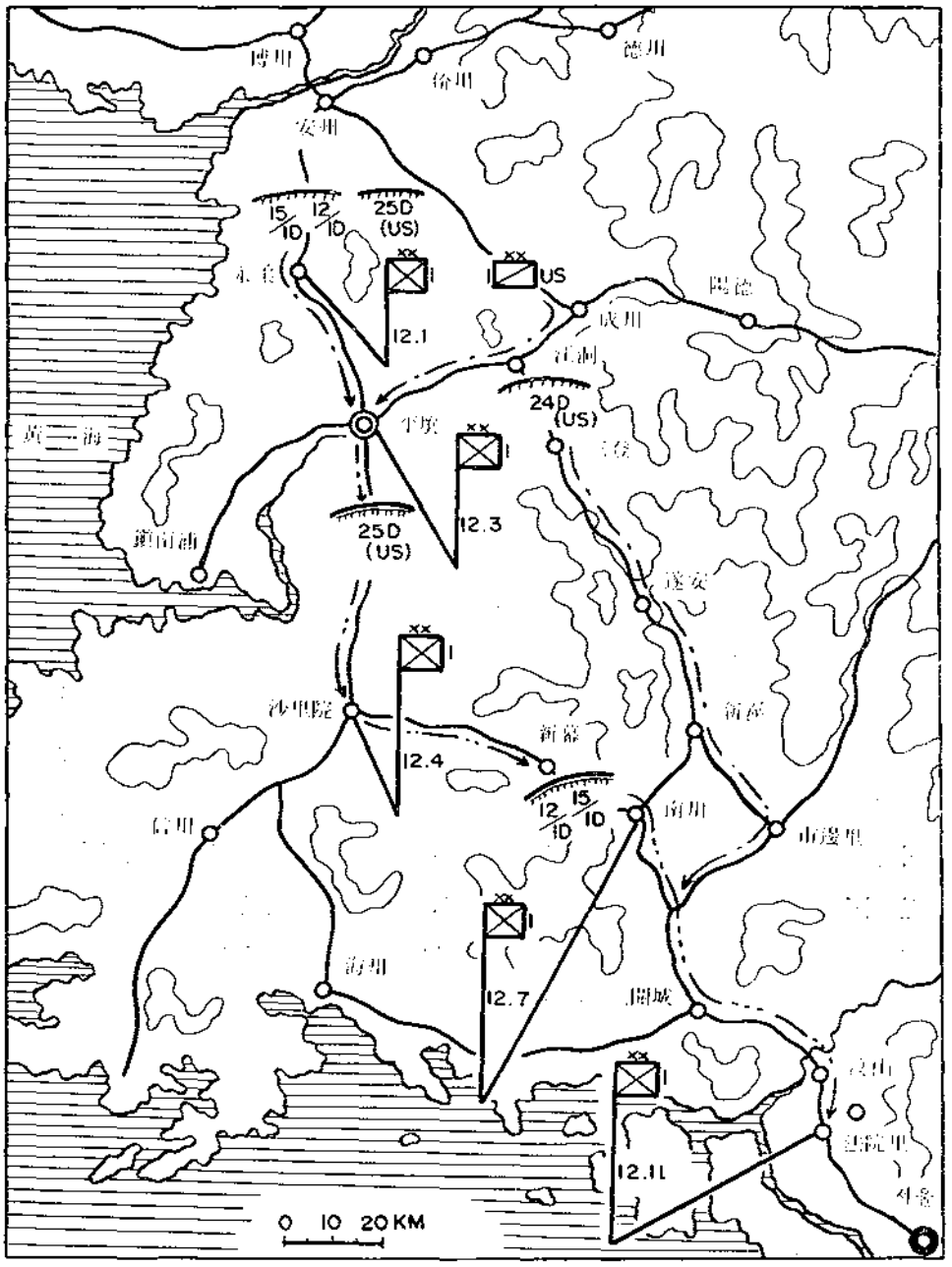
(2) 작전 실시

12월 2일 : 밝게 갠 土曜日인 이날, 美 제8군의 戰況은 계속 어두운 형편이었으니, 安州 및 新倉에서 물러나고 順川—成川線에서 脅威를 받게되어 그 防禦線을 南쪽으로 옮기고 일부는 撤收까지 하기에 이르러, 美 제25사단은 上八里—石串—芙蓉里—順川일대로부

터 御亭里(順川 西南等) 일대로 陣地를 移動한 다음 平壤으로 向하여 撤收하는 부대를 掩護하였다。

제1사단(장, 白善燁준장)은 사단 작전에 직접 관계없는 일부 兵力과 裝備를 平壤以南으로 移動시켜 黃州에 後方指揮所를 設置하였거니와, 右隣接인 美 제25사단의 後退에 따라

◇ 상황도 제6호 平壤—38°線 撤收戰 (50, 12, 2~4)



이날 저녁에 사단은 永柔로부터 院場里에 옮겨 사령부를 金祭國民學校에 設置하였다. 그리고 제15연대(장, 趙在美대령)도 肅川 西쪽의 龍浦里로부터 德山面 三井里로 移動하였다.

한편 美 제2사단은 慈山에서 平壤 北쪽으로 撤收하므로써, 제8사단(장, 李成佳준장)도 이에 隨伴하여 그 제16연대(장, 俞載清대령)는 三登일대에서 陣地를 固守하면서 掩護하는 가운데 제10연대(장, 대리權泰順중령)는 栗里로, 제21연대(장, 金永魯중령)는 新溪로 撤收하였다. 이밖에 英 제27여단은 慈山에서 舍人場으로, 美 제1기갑사단 및 Turkey旅團은 이에 呼應하듯이 平壤으로 각각 撤收하였으나, 美 제24사단은 계속 江東을 確保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MacArthur元帥는 記者團의 質問에 回答한 最近의 戰況說明에서 말하기를 『UN軍의 最近 後退는 地上軍 兵力에 있어서 敵이 數的으로 絕對優位를 確保한 까닭이다.』라고 하였으니 당시 敵我의 兵力量에 있어서 隔差가 懸殊한 것을 能히 說破하는 것이다.

12월 3일 : 이날 平壤 東北方에 있는 成川이 敵의 手中에 들어가고 三登부근까지 危險하게 되니, 美 제8군은 그 防禦線 一角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절대 優越한 UN空軍이 直接支援하는 Neipalm彈에 의한 爆擊과 我空軍의 對地掃射의 反復 가운데 全面的으로 地上 兵力의 撤收를 시작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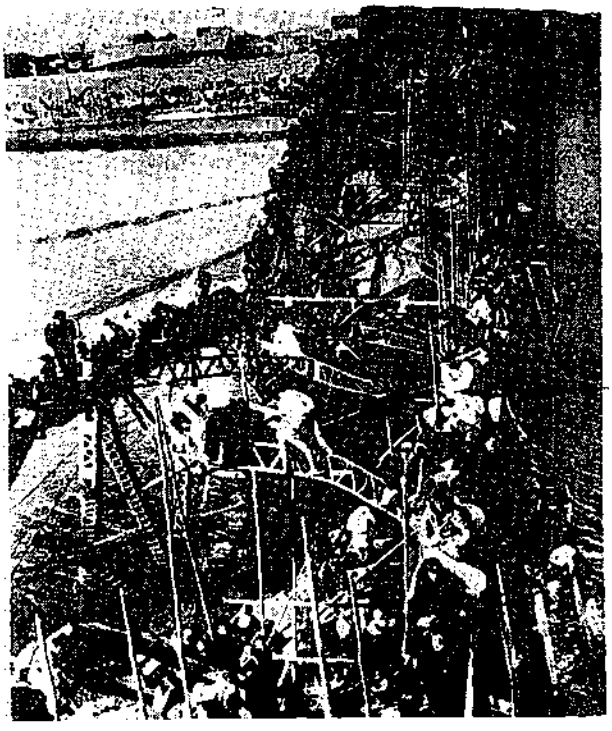
그리하여 第一線의 各 兵團은 我 제1사단과 美 제25사단의 掩護下에 平壤일대를 거쳐 더욱 撤收하고 南下하기 시작하였으며, 뒤이어 제1사단의 主力은 우선 平壤을 향하여 徐徐히 移動하면서 反擊의 機를 노렸으니 마치 傷處입은 獅子의 모습과도 같았다. 이리하여 사단 사령부는 19.00에 平壤 西城里 國民學校 부근에 陣을 쳤으며, 제12연대(장, 金點坤대령)는 肅川에서 順安으로, 그리고 제15연대도 外祭里로 移動하면서 사단 右側接인 美 제25사단과 더불어 平壤 北쪽에서의 掩護임무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미 平壤으로부터 撤收한 제8사단은 사령부와 撤收掩護部隊인 제16연대가 新溪를 占領하였고, 제10연대도 途中에 1개 중대 규모의 北共 遊擊隊와 交戰끝에 이를 격파 하고 軍灘里로 撤收하였다.

12월 4일 : 中共軍은 安州—新安州地區에 進出하는 한편 東側인 江東—三登일대로의 迂回運動을 계속하여, 부근 山岳地帶에 出沒하는 北共의 敗殘兵團과 呼應함으로서 平壤을 北쪽에서 東쪽에 이르는 弧形으로 壓縮하였거니와, 我軍側은 美 空軍의 B-29·B-26 爆擊機의 大擧出動으로 敵陣을 強打하는 가운데 平壤으로부터의 撤收를 完了하였으며, 平壤市

의 行政機構과 民間團體도 모두 같이 後退하였다。

이날 제1사단은 제15, 제12연대가 UN軍의 退却을 掩護한 다음, 最終的으로 大同江을 건너 각 연대가 모두 沙里院으로 移動을 시작하였으니, 사단은 14.00에 沙里院에 도착하여 郡廳에 지휘소를 설치하였으며, 제11, 제15연대도 郊外에 본부를 설치하였다. 北進當時 平壤에 第1着으로 突入하여 祖國統一의 象徵과도 같은 赤旗奪還의 感激에 가득찼던지 不過 45日, 아직 그 기쁨의 숨소리가 사라지기도 前에 이와 같은 慘憺한 戰況속에 大同江을 건너 南下하게 되니 수 많은 避難民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心懷가 凄凉하기 짝이없겠으나, 平壤出身의 사단장 白善燁 준장이나 麾下 將兵들은 虛脫感에만 빠져 있을 수도 없이 장차 기울어지려는 國運을 末倒에 挽回코자 곧 다음 작전에 대비하여야만 되었다. 슬프도다 이제 九仞의 功을 一簣에 虧하였을 뿐만 아니라 幾千將兵과 幾十萬良民을 劫火속에서 헤매이게 하였으니, 皇天도 無心하도다。



<파괴된 大同橋에 간신히 기대어 南下하는 피난민들>

이제 美 제25사단은 中和부근까지 撤收하는 즉시로 陣地를 占領하기 시작함으로서 東側의 제6사단, 美 제24사단과 아울러 松林—中和—遂安—谷山의 防禦線을 構成하였다. 한편 제8사단은 新溪로부터 市邊里를 向하여 徒步行軍을 시작하였고, 제7사단도 그 뒤를 따라 무거운 運步를 계속하고 있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平壤을 撤收한 다음인 12월 5일에 美 제25사단과 제1사단을 主力으로 하는 殘留部隊는 敵이 利用할 수 있는 일부 시설을 파괴하였는데, 이 당시 敵의 小規模의 偵察部隊가 그 뒤를 跟隨하여 이미 市

內一角에 潛入하고 있었다。

그러나 美 제5공군 麾下의 航空機들이 대규모의 出擊을 敢行하여 地幅을 흔드는 가운데 逐次的인 撤收는 계속되었으나, 12월 8일 現在로 美 제25사단은 中和부근의 防禦陣地를 堅持하고 있었으며, 제1사단은 12월 7일에 沙里院으로부터 南川邑으로 移動하였는데, 이날 사단 수색중대는 九月山에 潛伏한 대대 규모의 北共 敗殘兵을 擊滅하는 戰功을 세우기도 하였다. 그리고 제1사단 예하의 각 연대도 모두 南川으로 移動하였으니, 제12, 제15연대는 安城通일대로 南下하여 제15연대가 본부를 鐵川里에 두고 있었다。

한편 제8사단은 예하 각 연대가 모두 12월 7일까지는 兎山에 도착하였는데, 途中에 北共 敗殘兵에 依한 道路遮斷 등 妨害를 받아, 6일에는 제10연대가 龍峰洞일대에서 이를 擊破하여 51名을 射殺하는 戰果를 거두었고, 제16연대도 下岩洞 일대에서 敗殘兵을 擊滅한 다음 兎山으로 진출하였다。

그런데 敵은 大同江을 渡河하여 南侵을 계속하니, 10일과 11일의 兩日에 걸쳐 敵은 谷山—遂安—新溪를 侵襲하고 北共 제1군단의 일부가 沙里院일대까지 突入할 뿐 아니라, 黃海, 京畿의 道境北部의 山岳地帶 등 各處에서는 北共 敗殘兵들 마저 제철을 맞은듯이 跳梁하기 시작하여 埋伏과 奇襲 그리고 道路遮斷과 民家掠奪 등을 恣行하므로, 撤收하는 各兵團은 이 兇徒의 무리를 隨時到處에서 擊破하면서 豫定計劃대로 撤收하였다。

따라서 제1사단은 제12연대가 渭川里로 移動하여 제11연대와 함께 義川—市邊里—兎山일대에서 掩護하는 가운데, 사단 사령부가 12월 11일 06.00에 南川을 出發하여 高浪浦를 거쳐 臨津江을 건너 19.00에는 坡州郡 廣灘面 新山里에 到着하였으며, 제15연대도 高浪浦로 移動하였다. 그러나 제11연대(장, 金東斌대령)는 12일부터 九化里 北쪽에서 我軍의 撤收를 妨害하는 北共 敗殘兵에 대한 擊滅戰을 敢行하였는데, 九化里—市邊里—兎山일대에서는 敗敵의 出沒이 滋甚하여 9일에는 제8사단이 兎山부근에서 敵의 공격을 받은 바 있고, 제6사단도 兎山—市邊里—九化里 道를 迂回南下한 바 있었다。제11연대는 12일에 義川으로 부터 九化里로 移動하여 본부를 九化里에 두고, 제1대대를 右側攻擊梯隊로, 제2대대를 左側攻擊梯隊로 하여 13일 07.00에 鶴峰山—陵峴洞일대로부터 공격을 시작하여 13.30에는 魚鹽洞—元峴洞—杜門洞일대까지 진출하였으나, 各處에 分散配置된 敵은 東北쪽으로 退却하고, 이에 연대는 사단에서의 指示에 따라 攻擊을 中斷하고 제12연대의 撤收를 掩護한 다음 14일에 高浪浦로 撤收하여 防禦陣地를 占領하였다。

한편 13일에 渭川里로부터 撤收한 제12연대는 臨津江을 건너 楊州郡 南面 蓼山里로 移動하였으며, 제15연대도 14일에는 臨津江을 건너 坡州郡 泉峴面 法院里로 移動하였다。

그런데 13일에는 약 2개월 동안 文書上으로는 제2군단장으로 發令된 채로 사단을 지휘한 白善燁준장의 사단장 補任發令이 육군본부 일반명령 제40호(12월 8일附)로 下達되는 동시에 同 命令으로 崔榮喜준장은 副師團長으로 發令되었다. 또 14일에는 洛東江戰線으로부터 계속 제11연대를 지휘하던 제4대 연대장 金東斌대령이 육군본부 특별명령(甲) 제349호에 의하여 사단 참모장으로 補任되고 제5대 연대장에는 사단 작전참모인 文亨泰중령이 赴任하였다。

이제 사단은 戰爭勃發以前의 駐陣地에 다시 進入하여 제11연대를 前方 高浪浦里 일대에 제12, 제

15연대를 華山里—注院里의 臨津江 南岸에 배치한 가운데 38°線 防禦態勢를 갖추게 되었다。

이 무렵 사단 右側에는 제6사단이 東豆川일대에 防禦陣地를 構築하기 시작하였고, 左側에는 美 제25사단이 開城부근을 가로 막고 있었으며, 12월 11일과 12일의 兩日에 걸쳐 38°線을 넘은 美 제1기갑사단은 서울 東北쪽에 이르러 美 제8군 예비가 되었고, 美 제2사단은 永登浦에 集結하였다。

§ 硏　　究

平壤撤收作戰에 대하여 현재로는 陸軍本部의 作戰命令은 물론 美 제8군의 定期情報·作戰報告, 또는 旣刊 戰史類에서도 分明한 撤收命令이나 計劃 및 經過를 찾아 보기 어렵다. 最終 撤收地點에 대하여도 MacArthur元帥의 계획은 釜山 海岸線로 後하여 지나, 12월 1일에 UN軍總司令部의 한 情報參謀는 『中共軍의 전략목표는 38°線이다.』라고 말한 바도 있다。

여하튼 이러한 단계속 같은 不明確한 狀況은 美軍側의 資料가 제대로 公開되어야 어느 程度 解消되겠으나, 一擧에 38°線 以南까지 撤收한 事實은 當時 美軍의 注意가 무엇보다 美軍 自體의 出血을 막는데 주어지고 있었다는 說, 地圖縮尺의 錯覺에서 臨津江線까지의 後退가 決定되었다는 說 등과 함께 自國의 國土를 지키는 境遇와 他國을 도우는 境遇의 差異點도 考慮될 수 있을 것 같다。

8. 美 제1군단의 淸川江附近 戰鬪 (1950년11월3 일부터 1950년11월5 일까지)

참조 : 상 황 도 제 7 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美제 8 군 사령관 중장 Walton H. Walker
제 1 군단 장 소장 Frank W. Milburn
제24사단 장 소장 John H. Church
제 5 연대장대령 John L. Throckmorton
제19연대 장 대령 Ned D. Moore
제21연대장대령 Richard W. Stephens
제1기갑사단 장 소장 Hobart R. Gay
제5기갑연대장대령 Marcel B. Cromqez
제7기갑연대장대령 William A. Harris
제8기갑연대장대령 Raymond D. Palmer

英 제27여단 장 준장 Basil A. Coad
Middlesex 대대 장 중령 A. M. Man
Argyll 대대 장 중령 G. L. Neilson
濠洲軍 대대 장 중령 I. B. Ferguson
제 1 사단 장 준장 白 善 燁
제11연대 장 대령 金 東 斌
제12연대 장 대령 金 點 坤
제15연대 장 대령 趙 在 美
병력 : 약 45,000명

敵 軍

中共 제13병단 장 李 天 佑
제38군 장 宋 霜 根
제112사단 장 江 擁 輝
제113사단 장 唐 靑 山
제114사단 장 翟 仲 儒
제39군 장 吳 信 泉
제115사단 장 張 竭 誠
제116사단 장 汪 洋
제117사단 장 儡 天 允
제40군 장 韓 先 楚
제118사단 장 鄧 岳
제119사단 장 남 센 웬
제120사단 장 徐 國 夫
제50군 장 曾 澤 生
제148사단 장 趙 鶴 亭
제149사단 장 龍 耀
제150사단 장 王 家 善
제66군 장 蕭 新 槐
제196사단 장 成 小 甫
제197사단
제198사단
병력 : 약 150,000명

나. 전투 전의 개황

10월 24일 MacArthur Line의 撤廢宣言에 따라 滿浦鎭—新義州의 韓滿國境線을 목표로 無制限進擊을 開始한 美 제8군은, 25일에 제6사단(장, 金鍾五준장)의 제2연대(장, 咸炳善대령)와 美 제1군단의 右翼인 제1사단 (장, 白善燁준장)이 각각 溫井—雲山線에서 中共軍 대부대와 不規 遭遇戰을 演出하여 激戰을 벌이므로써 새로운 樣相을 보이기에 이르렀다。

제6사단 제7연대(장, 林富澤대령)는 楚山까지 進擊하였다가 명령에 따라 反轉을 시작하여 豆滿江邊에서 또다시 中共의 急襲으로 分散된 데에 이어 제2연대(장, 咸炳善대령)를 增援한 제6사단 제19연대(장, 金益烈대령)와 제8사단 제10연대(장, 高根弘대령)가 溫井里부근에서 中共軍의 공세로 큰 打擊을 받았다. 한편 雲山으로 進擊한 제1사단(장, 白善燁준장)이 頑强한 中共軍의 저항으로 進擊이 계속 阻止되자 美 제8군 사령관 Walker 중장은 美 제1군단(장, Frank W. Milburn소장)에비로써 平壤--鎭南浦경비 임무를 담당중이던 美 제1기갑사단(장, Hobart R. Gay소장)을 雲山으로 進出시켜 제1사단을 超越하는 즉시로 韓滿國境線을 目標로 進擊토록 하였다. 이와 동시에 平壤을 奪還한 다음 美 제1군단의 作戰 統制下에 主力을 後續중이던 제7사단(장, 申尙澈준장)을 제2군단(장, 劉載興소장)에 복귀시켜 戰列을 가다듬게 하였으며, 後方地域의 敗殘兵을 擊滅중이던 美 제9군단(美제2, 제25사단)의 急遽北上을 명령 하였다。

제2군단장 劉載興소장은 제7사단(장, 申尙澈준장)을 德川—球場洞線에, 그리고 제8사단(장, 李成佳준장)을 球場洞—寧邊線을 각각 占領 토록하여 敵의 主要接近路인 淸川江流域을 防守케 하였으나 31일에는 제7, 제8사단의 間隙인 球場洞부근이 突破되므로서 院里正面에 威脅을 받기에 이르렀다。

Walker중장은 美 제1군단장 Milburn소장에게 泰川—龜城—宣川線을 따라 進擊중인 美 제24사단(장 John H. Church소장)을 急히 雲山正面의 戰況에 適應할 수 있도록 命令하는 한편, 이미 下達한 명령의 일부를 修正하여 美 제1기갑사단(장, Hobart R. Gay소장)으로써 제1사단(장, 白善燁준장)의 작전임무를 引受케한 다음, 新州로 進擊토록 하고, 제1사단은 溫井里—楚山을 向하여 進擊토록 하였다. 이는 雲山正面의 戰況이 好轉되는대로 제1사단으로써 院里를 窺視하는 敵의 背後를 一擊케 함으로써 제2군단에 대한 威脅을 事前에 排除하려는 布石의 一着이었다。

이에 따라 美 제1기갑사단은 제7기갑연대(장, William A. Harris대령)로써 군단 예비로 新安州에 控置토록 하고 사단 主力은 龍山洞에 進出한 다음, 그 先遣隊인 제8기갑연대(장, Raymond D. Palmer 대령)로써 雲山의 제1사단 제11, 제12연대와 陣地를 交代토록 하였으며, 제5기갑연대는 球場洞—寧邊의 作戰道路를 確保하는 一方 제8기갑연대의 후방경계를 담당케 하였다. 한편 제1사단은 제8기갑연대에 作戰임무를 인계한 제11연대(장, 金東斌대령)를 立石 東北方으로, 제12연대(장, 金點坤대령)를 立石으로 각각 進出시켜 敵의 侵襲을 阻止하는 한편, 군단 東側方을 掩護하였고 제15연대(장, 趙在美대령)는 雲山東北方에서 優勢한 敵과 계속 激戰을 展開하였다。

이 무렵 中共 제38, 제40군의 集中공격을 받은 제2군단은 제7사단으로써 △535—飛虎山線으로 戰線을 縮少 하였고 제8사단이 月浦里로 撤收함에 따라 要衝인 軍隅里正面에 대한 敵의 威脅이 時時刻刻으로 增大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美 제8군 사령관 Walker중장은 美 제1기갑사단(장, Hobart R. Gay소장)을 우선 新安州로 撤收시켜 제2군단正面을 威脅하는 敵에 대한 반격준비를 명령 하는 한편, 美 제24사단 일부병력은 安州 渡河點을, 그리고 英 제27여단(豪洲軍 대대배속)은 博川부근의 大寧江渡河點을 각각 확보케 하고 美 제1군단의 主力은 淸川江 南岸에서 再編成토록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美 제1군단(장, Frank W. Milburn소장)은 淸川江 南岸에서 攻勢防作戰을 敢行하기에 이르렀다.

敵軍의 상황 : 美 제8군의 進擊正面을 가로 막은 中共軍은 所謂 援朝義勇軍司令官 林彪 麾下 제13병단(장, 李天佑)의 6개군으로써 UN軍과 我軍이 38°線을 突破한 무렵인 10월中旬부터 鴨綠江을 건너 侵略하기 시작 하였는데 그들의 所謂 一次作戰의 目標는, UN軍과 我軍의 韓滿國境線에 대한 進擊을 阻止하고 平壤을 奪取코자 하는 데 있었다. 그들은 展開線으로 狄踰山脈의 薩水를 擇하였는데 이는 그들의 展開速度와 北共의 遲延能力, 그리고 我軍의 進擊速度를 計算하였음은 勿論이거니와 狄踰, 江界의 二大山脈의 地形을 勘案하여 緖戰의 主戰場을 淸川江北岸으로 定한 것이다.

이리하여 그 예하의 제38군(장, 宋時輪)은 新州를 거쳐 熙川 北方에 展開하여 江界正面을 遮斷하면서 淸川江 南岸을 따라 제2군단의 東側方공격을 담당 하였고, 제39군(장, 吳信泉)은 新義州를 거쳐 雲山 西側方에서 展開하여 제1사단(장, 白善燁준장)의 進擊을 阻止하고 九龍江을 沿하여 侵攻하였으며, 제40군(장, 韓先楚)은 新義州를 거쳐 北鎭에서 展開한 다음, 제39군의 東側方에서 楚山—溫井里로 진격하는 我軍에게 一擊을 加하고 淸川江 北岸을 따라 侵攻을 계속 하였다. 한편 제50, 제66군은 大寧江 上流—龜城을 連하는 線에 展開하여 大寧江의 東, 西 兩岸을 따라 博川으로侵襲키로 하였으나, 그 豫定이 遲延되어 所謂 그들의 一次공세에 있어서는 그 일부병력만이 參戰하였던 것이다.

東部戰線으로 侵略키로 된 제3야전군 예하 제9병단(장, 宋時輪)은, 이 무렵 泰天 周邊에 集結하여 侵略準備를 서두르고 있었으며 그 到着時까지는 제13병단 예하의 제42군(장, 吳瑞林)이 滿浦鎭을 거쳐 長津湖로 侵襲하여 美 제10군단의 進擊을 阻止하고 있었다.

我軍의 상황 : 美 제1군단의 右翼인 제1사단(장, 白善燁준장)은 10월 25일 雲山으로 진격하여 中共 제39군 예하 제115, 제116, 제117의 3個사단을 상대로 激戰을 전개하던 중, 31일에 제11, 제12연대는 美 제1기갑사단의 제8기갑연대(장, Raymond D. Palmer대령)와 陣地를 交代한 다음 제11연대(장, 金東斌대령)는 九龍江東岸의 제8사단(장, 李成佳준장)을 增援하고 제12연대(장, 金點出대령)는 立石으로 轉進하여 군단 右側方 掩護를 담당 하였다. 한편 雲山 東北쪽에서 激戰을 계속하던 제15연대(장, 趙在美 대령)는 군단 계획에 따라 11월 1일 밤에 撤退를 시작하여 다음날, 立石에서 사단主力과 合勢하였으며, 사단은 계속적인 敵의 侵攻을 阻止하면서 寧邊으로 逐次撤收한 다음, 새로운 군단 작명에 따라 3일에는 新安州를 목표로 撤退하기 시작 하였다.

한편 군단 左翼인 美 제24사단(장, John H. Church소장)은 배속된 英 제27여단(장, Basil A. Coad 준장)을 前衛로 하여 10월 24일에 淸川江을 渡河한 다음, 제5연대(장, John L. Trockmorton대령)는 博川—泰川—龜城을 거쳐 11월 1일에는 犂邱洞으로 進擊하였고 제19연대(장, Ned D. Moore대령)는 主力을 後續하여 10월 31일에 定州에서 龜城으로 진격 하였으며 英 제27여단은 頑強한 北共의 저항을 擊破하면서 10월 29일에는 定州를 奪取하였으나 이날 제21연대(장, Richard W. Stephens대령)와 그

임무를 교대하고 사단 예비가 되어 定州에 駐留하였다. 한편 英 제27여단과 작전 임무를 교대한 前記 제21연대는 31일 郭山 西쪽에서 韓國戰爭 開戰以來의 最大規模의 對戰車戰을 展開하며 頑強하게 저항하는 北共 제1군단의 제17기갑사단과 제32사단의 일부를 驅逐하고 11월 1일에는 新義州 南쪽 30km의 停車洞을 奪還하였으나 前述한 바 Walker중장의 명령에 따라 反轉하여야만 하였다。

11월 2일에 사단은 예비인 英 제27여단과 濠洲軍 대대를 收容부대로 하여 泰川-定州에 배치 한 다음, 淸川江邊으로 撤退하기 시작 하였다。

美 제1기갑사단(장, Hobart R. Gay 소장)은 美 제8군 계획에 따라 10월 30일에 제7기갑연대(장, William A. Harris대령)를 군단 예비로 新安州에 控置케하고, 사단主力으로써 龍山洞으로 進出하였는데 31일에는 제8기갑연대(장, Raymond D. Palmer 대령)로 하여금 제1사단의 제11, 제12연대와 그 陣地를 交代토록 하여 龍浦洞— 南面川畔을 확보케 하였다. 그러나 11월 1일에 이르러 龍浦洞부근을 占領한 제8기갑 연대의 제1, 제2대대는 계속된 中共軍의 侵襲으로 激戰을 展開하였고 前述한 바 Walker중장의 명령에 따라 1일 밤에 撤退를 시작 하였으나 追擊하는 敵과 埋伏한 敵의 挾擊으로 雲山 東南쪽 三灘川邊에서 큰 打擊을 받으면서 血路를 打開하고 立石으로 分散集結하였다. 또 南面川畔에서 主力의 收容에 臨하던 제8기갑연대 제3대대는 1일 밤에서 2일 새벽에 걸쳐 中共軍의 奇襲을 받아 完全 孤立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제5기갑연대(장, Marcel B. Cromqez 대령)는 蓋祠峴—龍頭洞에 병력을 배치 하여 군단右側背를 掩護하는 동시에 作戰路를 確保中이었는데 前示한 대로 제8기병연대 제3대대가 孤立되자 2일에 이를 救出하고자, 제7기갑연대 제1대대의 增援을 받은 다음 南面川을 目標로 공격을 加하였으나 龍頭洞 北쪽 高地에서 敵의 頑強한 저항을 받게 되어 攻擊이 頓挫되었고 군단장 Milburn소장의 명령에 따라 제8기갑연대 제3대대의 救出目的을 拋棄한 채로 軍隅里 正面에 대한 反擊준비를 위하여 淸川江南岸으로 撤退하였다。

이 무렵 美 제1군단의 右隣接인 제2군단(장, 劉載興소장)은 中共 제38, 제40군 예하 6개사단의 強力한 攻勢로 제7사단(장, 申尙澈준장)이 △535—飛虎山(△622)으로 戰線을 整理하고 一進一退의 激戰을 展開하고 있었으며, 제8사단(장 李成佳준장)은 球場洞에서 月浦里로 轉進하여 德川으로 反擊중에 있었다. 한편 溫井里부근에서 큰 損失을 입고 군단 예비가 되어 再編成중이던 제6사단(장, 張都暎준장)은 CP를 北倉에 두고 主力은 三所里 (价川 南쪽 11km)에서 德川—飛虎山 中間地點의 百塔山(△1190)을 目標로 反擊 준비를 서둘렀다。

美 제9군단은 後方지역의 敗殘兵 擊滅작전 임무를 제3군단(장, 李亨根준장)에 引繼하고 北上을 서두르고 있었으며 先遣隊인 美 제2사단 제9연대는 价川으로 進出하여 그 南쪽에 陣地를 占領하고 제7사단을 增援하고 있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 계획

美 제8군 사령관 Walker중장은 中共 제38, 제40군의 공세가 제2군단 正面으로 集中하

여 清川江 南岸의 要衝인 价川—軍隅里부근의 戰況이 緊迫하여지자 美 제1기갑사단을 清川江南岸으로 撤收시켜 軍隅里 正面의 戰況에 對應한 反擊부대로 轉換하는 한편, 美 제2사단의 先遣부대인 제9연대와 美 제1군단의 일부병력을 제7사단에 增援케 하고 제2군단 主力(제6, 제8사단)으로써 德川—百塔山線에 대한 反擊을 敢行토록 措置 하였다。

이와 同時에 美 제1군단은 일부병력으로 博川부근의 大寧江과 安州北方에 橋頭堡를 確保케 하여 우선 清川江 北岸에서 敵의 侵攻을 阻止케 하는 一方 군단主力은 清川江 南岸에서 再編成토록 하였는데 이는 제2군단 主力의 德川—百塔山線 反擊으로 軍隅里—价川正面의 威脅을 排除하고 戰線을 整理하는 대로 總反擊으로 移行하여 一擧에 韓滿國境線까지 進擊하고자 하는 것이 그 作戰方針이 였다。

이와 같은 作戰概念에 따라 美 제1군단장 Milburn소장은 要旨 다음과 같은 명령을 下達하였다。

『① 군단은 清川江南岸으로 撤收하여 일부로서 清川江北岸과 大寧江에 橋頭堡를 확보하고 敵의 공세를 阻止, 殲滅토록 한 다음, 反擊作戰을 敢行하려 한다.

② 美 제24사단은 제19연대로써 安州北方에 陣地를 占領케 하여 安州橋를 비롯한 清川江 渡河點을 확보하고 敵의 공격을 阻止, 殲滅토록 하라.

또 제5연대로써 軍隅里로 進出하여 제7사단(韓國軍)을 增援하여 軍隅里를 固守케 하라.

③ 英 제27여단(濠州軍 대대배속)은 博川부근에서 大寧江의 兩岸을 확보하고 侵攻하는 敵을 捕捉殲滅하라.

④ 美 제1기갑사단은 主力(제 5, 제8기갑연대)으로써 古城里에 위치하여 명령에 따라 軍隅里로 反擊할 준비를 갖추라.

⑤ 군단 예비인 제1기갑사단의 제7기갑연대는 馬場里부근으로 進出하여 군단 右側方을 掩護하는 한편 雲興里에 이르는 清川江 南岸을 防護하라.

⑥ 제1사단은 新安州에 集結하여 명령에 따라 清川江北岸으로 反擊할 준비를 갖추라』

(2) 작전 실시

11월 3일 : 이날 군단은 美 제1기갑사단(장, Hobart R. Gay 소장)을 古城里(安州 東北쪽 3km)로 撤收시켜 軍隅里 正面의 危機에 對應케 하는 한편, 美 제24사단의 제19연대(장, Ned D. Moore 대령)를 清川江 北岸에, 英 제27여단(장, Basil A. Coad준장)과 濠州軍대대를 博川부근의 大寧江 兩岸에 각각 橋頭堡陣地를 확보케 하므로써 清川江 北岸에서의 敵의 銳鋒을 꺾을 態勢를 갖추었으며 立石—寧邊線에서 中共軍 3개사단의 集中攻擊를 果敢



<撤邱洞—停車洞으로 進擊하였던 美1軍團의 反轉>

하게 阻止중이던 제1사단(장, 白善燁준장)은 新安州를 목표로 撤退하기 시작 하였다。

1. 美 제24사단(장, John H, Church 소장)은 군단 작명에 따라 전날 英 제27여단(장, Basil A. Coad준장)의 掩護下에 撤邱洞—停車洞에서 反轉을 시작 하였는데 제19, 제5, 제21연대 順으로 大寧江을 渡河하여 사단 CP를 白石峴(安州 東北쪽 5km)에 開設하고 제21연대(장, Richard W. Stephens 대령)를 사단 예비로 白石峴에 措置한 다음, 제19연대(장, Ned D. Moore 대령)를 清川江 北岸에 배치하여 橋頭堡陣地를 占領케 하였고, 제5연대(장, John L. Throckmorton 대령)를 軍隅里로 急進시켜 제7사단(장, 申尙澈준장)을 增援토록 하였다。

즉 제19연대(장, Ned D. Moor대령)는 사단 前衛로 大寧江을 渡河한 다음, 孟中里—連峯里—下站을 거쳐 龍興洞에 연대 CP를 開設하고 제1대대(장, Robert L. Rhea중령)를 前哨로 하여 藥山峴一帶를 占領케 하므로써 九龍江을 渡河하는 敵을 阻止케 하였고 제3대대를 右一線으로 하여 立石洞—京角洞—修隅洞一帶에 배치하여 同盟站—修隅洞에 이르는 清川江 北岸을 確保케 하는 한편 九龍江에 이르는 道路를 監制토록 하였다. 한편 左一線인 제2대대(장, Thomas M. McTrail 중령)는 京角洞—平洞—花田洞부근에 陣地을 占領하였다。

제5연대(장, John L Throckmorton 대령)는 제19연대를 後續해서 大寧江을 渡河한 다음, 新安州—安州를 거쳐 軍隅里로 進出하여 龍泉站—軍隅里에 陣地를 占領하고 제7사단을 增援하였으며, 사단 포병단(장, George B. Barth준장)은 龍溪里(安州 東北쪽 8km)에

陣地를 占領하고 제19연대에 대한 直接支援 태세를 갖추는 한편 軍隅里 正面에 대한 火力增援計劃을 세웠다。

2. 英 제27여단(장, Basil A. Coad준장)은 泰川—定州에서 美 제24사단의 反轉을 掩護한 다음, 이날 博川으로 轉進, 여단 C P를 西未力里부근에 開設하고 Middle Sex 대대(장, A. M. Min 중령)를 博川—未力里一帶에 배치하여 大寧江 東岸을 沿하여 侵襲하는 敵을 阻止케 하였고 Argyll 대대(장, G. L, Neilson중령)는 東文里一帶에 배치하여 大寧江와 渡河點을 確保하는 한편 1번作戰路를 制壓토록 하였다. 한편 여단을 直接支援중인 美 제61포병대대는 大寧江 東岸에 陣地를 占領하고 支援태세를 갖추었다。

3. 豪州대대(장 I. B, Ferguson중령)는 전날 定州에서 美 제24사단(장, John H. Church 소장)의 撤收를 掩護한 다음, 이날 博川으로 轉進하여 大寧江 西岸의 玉女峯(△111)에 陣地를 占領하고 大寧江와 渡河點을 確保하였다。

4. 美1제기갑사단(장, Hobart R. Gay소장)은 전날 제2군단의 院里 正面이 突破되어 軍隅里부근에 威脅이 漸增하자 美 제8군계획에 의거한 군단장 Milburn소장의 명령에 따라 南面川畔에 孤立된 제8기갑연대 제3대대의 救出作戰마저 困難한 채로 淸川江을 渡河하기 시작하여 이날 새벽 古城里(安州 東北 3km)에 集結하여 軍隅里부근의 戰況에 注意하여 反擊을 斷行할 수 있도록 그 態勢를 갖추는 한편 古城里—安州를 連하는 淸川江線防禦를 담당 하였으며 군단 예비인 제7기갑연대(장, William A. Harris대령)는 馬場里(軍隅里 西쪽 2km)—雲興里에 陣地를 占領하여 군단東側方을 掩護하는一方 淸川江 東岸을 防護하였다。

5. 제1사단(장, 白善燁준장)은 10월 25일以來로 雲山과 立石 東北方에서 激戰을 展開하며 中共軍 3개사단의 集中攻勢를 阻止하고 美 제1기갑사단의 撤退를 掩護한 다음, 군단작명에 따라 寧邊을 거쳐 新安州를 目標로 撤退중에 있었다。

6. 군단 右翼援인 제2군단(장, 劉載興소장)예하 제7사단(장, 申尙澈준장)은 제5연대(장, 朴勝一대령)를 右一線으로 하여 △535(軍隅里 東쪽 8km)에, 제3연대(장, 李喜健대령)를 左一線으로 하여 飛虎山(△622)에 각각 배치하여 계속 侵攻하는 中共 제38, 제40군과 激戰을 反復하고 있었으며 제8연대(장, 金龍周대령)는 龍峴里에 位置하여 사단後方경계를 담당하는 한편 德川—軍隅里道를 確保하였다。

한편 제7사단을 增援한 美 제2사단의 先遣隊인 제9연대는 雲陽里—上龍峴一帶에 陣地를 占領하여 敵의 迂回侵襲에 對備하고 主要作戰路인 价川—順川道路를 確保하였다。



<九龍江 北岸을 노리는 無反動銃>

11월 4일

1. 美 제24사단(장, John H. Church소장)은 이날 飛虎山—軍隅里正面에 대한 敵의 공세와 때를 같이하여 九龍江을 渡河한 中共軍의 側後方공격으로 主陣地前方 7km에 陣地를 占領한 제19연대의 제1대대(장, Robert L. Rhea 중령)가 衆寡不敵으로 淸川江을 건너 安州로 撤退하였고, 夜間에는, 계속된 敵의 侵攻으로 제19연대의 主陣地가 混戰狀態에 빠지게 되자 사단장 Church 소장은 사단 예비인 제21연대에 逆襲을 준비 하도록 命令하였다.

한편 軍隅里부근에서 제7사단(장, 申尙澈준장)을 增援한 제5연대(장, John L. Throckmorton대령)는 敵의 거센攻勢를 擊退하고 軍隅里를 계속 確保하였다.

즉, 九龍江邊의 藥山峴—帶에 陣地를 점령한 제19연대 제1대대(장, Robert L. Rhea중령)는 이날 새벽, 九龍江을 渡河한 中共 제39군 예하 2개대대규모의 敵으로 부터 側後方공격을 받고 1시간에 걸쳐 激戰을 展開하였으나 계속되는 敵의 壓迫으로 車輛과 重裝備를 遺棄한 채로 淸川江을 건너 安州로 向하였다. 연대장 Moore대령은 立石洞—東角洞—帶에 배치중인 제3대대를 즉각 제1대대에 增援하도록 措置하였으나, 이 대대가 館洞에 進出할 무렵, 雜伏中이던 1개대대 규모의 敵의 奇襲으로 대대는 原陣地로 다시 復歸하고 말았다. 한편 계속하여 九龍江을 渡河한 사단 규모의 敵은 午後에 이르러 劍角山(△223)과 望洞—帶로 迂回侵襲하여 연대主力을 威脅하자, 연대는 사단 포병의 直接支援下에 激戰을 展開하고 敵의 侵襲을 果敢하게 阻止하였으나, 이날 밤에 西側背가 突破되므로써 밤새도록 混戰을 거듭하였다. 이에 사단장 Church 소장은 사단 예비인 제21연대(장, Richard W. Stephens대령)를 5일 未明을 期하여 敵의 西側方을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한편 龍泉洞—軍隅里에서 제7사단(장, 申尙澈준장)을 增援중인 제5연대(장, John L. Throckmorton대령)는 이날 새벽, △535—飛虎山(△622)—帶의 제7사단正面에 대한 공세에

뒤이어 德川—价川道路와 院里—軍隅里 道路를 따라, 侵襲한 中共 제38, 제40군 예하 2개 연대 규모의 敵의 挾擊을 받아, 한때는 그 左側인 C중대 正面이 突破될 듯한 威脅을 받았으나 Hansel 중위의 果敢한 奪回로 敵의 機關銃陣地를 파괴 함으로써 드디어 戰勢를 挽回하고 계속되는 敵의 侵襲을 擊退하여 軍隅里를 끝까지 固守하는데 成功하였다。

Walker중장은 飛虎山—軍隅里에서 血戰이 거듭되자 支援可能한 全砲兵 火力을 軍隅里에 增援하였고 空軍은 惡天候를 무릅쓰고 계속 出擊하여 제7사단과 美 제5연대를 支援하였다。

2. 博川부근의 大寧江 南岸에서 橋頭堡陣地를 確保한 英 제27여단(장, Basil A. Coad준장)은 이날 飛虎山—軍隅里부근의 제7사단正面과 淸川江 北岸의 美 제19연대正面에 대한 敵의 공세가 集中된 데에 反하여 全혀 敵情없이 전날의 陣地를 確保하였다。

3. 大寧江西岸의 玉女峯(△111)에 陣地를 점령한 韓州軍 대대(장, I. B, Ferguson중령)는 接敵없이 전날의 陣地를 확보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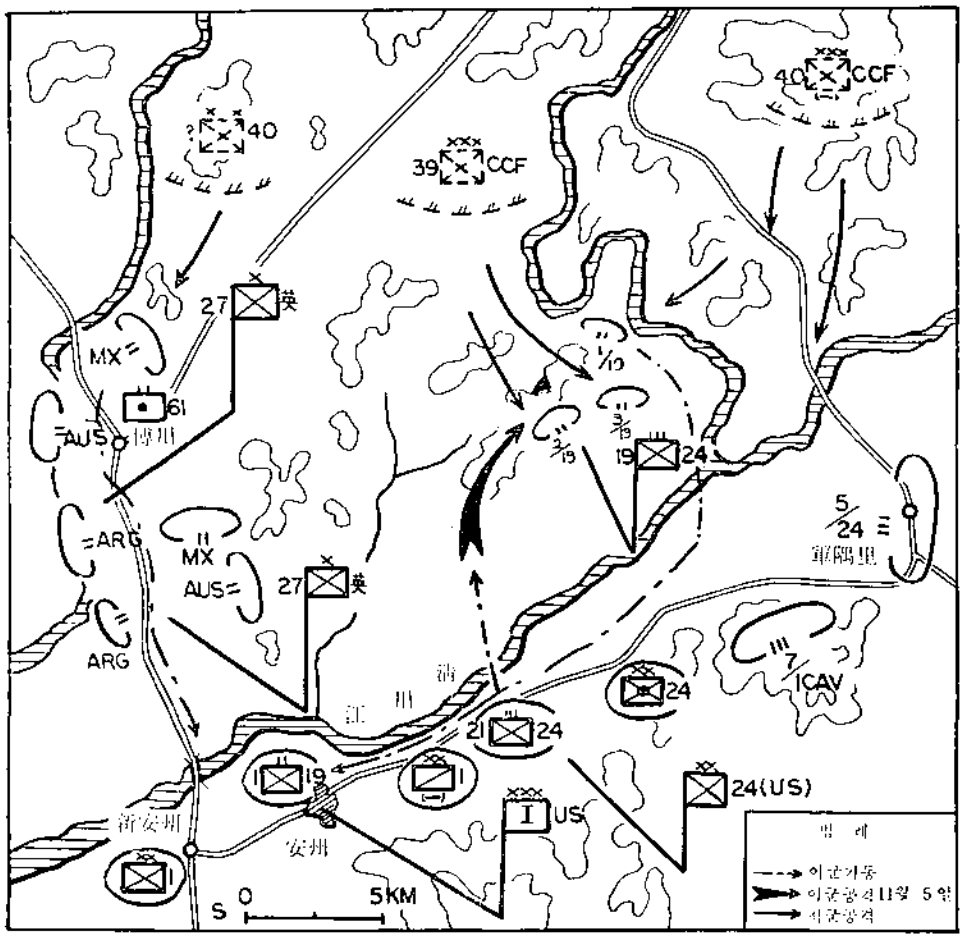
4. 美 제1기갑사단(장, Hobart R. Gay소장)은 전날에 이어 古城里에서 軍隅里 正面에 대한 反擊태세를 갖추고 待機하였으며 馬場洞—雲興里에 이르는 淸川江 南岸의 防禦임무를 수행중이던 제7기갑연대(장, William A. Harris 대령)는 이날 아침, 美 제19연대 제1대대의 撤退를 掩護한 다음, 敵이 軍隅里부근으로 侵襲하자 全火力을 集中 하여 美 제5연대를 支援하였다。

5. 제1사단(장, 白善燁준장)은 전날밤 寧邊에서 接敵을 維持하면서 逐次 撤收하여 美 제19연대의 掩護下에 淸川江을 渡河한 다음, 이날 新安州부근 비행장에 集結하여 再編成을 서둘렀다。

11월 5일 : 전날 飛虎山— 軍隅里를 强襲한 中共 제38, 제40군主力은 제7사단(장, 申尙澈준장)과 美 제5연대(장, John L. Throckmorton 대령)의 勇戰으로 이날 새벽부터 潰退하기 시작 함으로써 지난 10월 25일부터 11일간에 걸친 敵의 공세는 드디어 挫折되었고 中共軍의 主攻으로써 제2군단(장, 劉伯承소장)을 淸川江口에서 捕捉코자 한 敵의 作戰企圖는 霧散하였다。

한편 寧邊北方에서 제1사단(장, 白善燁준장)에 의하여 그 南侵이 阻止되었던 中共 제39군 主力은 사단의 撤退에 따라 4일 새벽부터 九龍江을 渡河하기 시작하여 美 제19연대(장, Ned D, Moore대령) 陣地를 强襲하고 이날 새벽에는 제21연대(장, Richard W, Stephens대령)의 反擊으로 一時 退却하였으나 이날 밤에 또다시 제19연대를 包圍공격 하여 연대正面

◇ 상황도 제7호 美 第1軍團의 淸川江附近戰鬪(50.11.3~5)



을 修鴨里一花田里線으로 壓迫하였다。

한편 中共 제40군(장, 韓先楚)에서 抽出된 1개사단 규모의 敵은 이날 새벽에 加川부근에서 大寧江 橋頭堡 陣地를 占領한 英 제27여단(장, Basil A, Coad준장)을 공격하여 여단을 新安州北岸 孟中洞부근으로 撤退케 한 다음 계속 夜襲을 敢行하므로서 또다시 血戰을 거듭하기에 이르렀다。

1. 美 제24사단의 제21연대(장, Richard W, Stephens대령)는 이날 새벽에 제1, 제2대대로써 제19연대(장, Ned D, Moore 대령)의 兩翼을 包圍한 敵을 공격하여 이를 驅逐한 다음, 명령에 따라 白石峴의 原陣地로 復歸하였으며, 제19연대는 제21연대의 增援으로 전날의 陣地를 回復하였으나, 22.00에 이르러 2개연대 규모의 中共軍이 安州橋 北方에 배치한 美 제3공병대대를 공격하는 一方, 연대를 三面으로 포위하고 侵攻하였다. 연대는 사단 포

병의 支援下에 激戰을 거듭하여 右一線인 제3대대는 陣地를 確保하는데 成功하였으나 西側方이 開放된 제2대대는 苧洞에서 迂回侵透한 敵이 E중대 後方을 奇襲하여 중대가 分散하므로써 G중대 正面도 連이어 崩壞하고 말았으며 대대는 예비陣地인 花田里로 集結하여 反擊준비를 서둘렀다. 한편 軍隅里부근에서 제7사단(장, 申尙澈준장)을 增援하던 제5연대(장, John L, Throckmorton대령)는 이날 새벽에 敵이 飛虎山 北쪽으로 潰退하기 시작하므로써 接敵없이 再編成을 서둘렀다。

2. 英 제27여단(장, Basil A, Coad준장)은 지난 3일 저녁, 博川부근에 橋頭堡陣地를 점령하고 接敵없이 小康狀態를 維持하던중, 이날 새벽에 대대규모의 敵이 南湖洞(博川 南쪽 2km)을 占領中인 美 제61포병대대를 奇襲함으로써 挑曉戰이 시작되었다. 대대는 砲手를 除外한 彈藥手以下의 全兵力으로 四周防禦陣地를 編成하고 激戰을 反復하는 一方, 砲는 零距離射擊으로 應戰하였으나 一波 又一波의 梯波突擊으로 危機를 맞이 하게 되었다. 이때에 여단장 Coad준장은 大寧江 西岸을 固守中인 Argyll대대(장, G. L. Neilson중령)를 제61포병대대로 急히 增援토록 하여 이 敵을 驅逐하는데 成功하고 再編成을 서둘렀으며 Argyll대대는 계속 제61포병대대의 掩護임무를 담당하였다. 午後에 이르러 前述한 바 中共 제40군(장, 韓先楚)에하 1개사단 규모의 敵이 博川 北쪽의 Middle Sex대대(장, A. M. Man중령)와 大寧江西岸의 濠州軍대대(장, I. B. Ferguson중령)를 同時에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여단은 美 제61포병대대의 熾烈한 近接支援下에 激戰을 계속 하다가 力不足하여 한때 西米力里부근 陣地의 失陷까지 보았으나 大寧江東岸으로 撤收한 濠州軍 대대(장, I. B Ferguson중령)의 果敢한 反擊으로 마침내 陣地를 回復하였다。

그러나 이때에 새로운 敵의 增援을 알게 되었고 그 공세가 漸次로 熾烈하여지자 여단장 Coad준장은 友軍의 增援이 없는限 이 博川橋 頭堡陣地의 確保가 매우 困難할 것으로 判斷하고 美 제24사단장 Church소장에게 增援하여 주거나 여단의 右側背에 侵透한 敵을 擊退하여 줄 것을 要請하였으나 當時의 사단 상황이 이 모든 要請에 應할 수 없는 形便이어서 여단장은 即刻 撤收를 斷行하기로 決心하였다。

이리하여 여단은 Middle Sex대대(장, A. M, Man중령)를 第一線 突破部隊로 하여 血路를 打開하면서 撤退한 결과 이날 저녁에 新安州 北쪽에 到達하여 東南洞에 여단 CP를 開設하고 Middle Sex 대대(장, A. M, Man중령)를 西松洞부근에, 그리고 Argyll대대(장, G. L. Neilson중령)를 孟中里—孟下里—帶에 각각 配置하여 新安州 北岸에 새로운 橋頭堡陣地를 編成하

였으나 이날 저녁 여단을 계속 追擊한 敵의 夜襲으로 또다시 激戰을 展開하기에 이르렀다. 여단은 美 제61포병대대의 熾烈한 近接支援下에 一進一退의 攻防戰을 반복 하였으나 一線의 2개중대正面이 突破되므로서 한때 危機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여단 全將兵의 逆襲으로 陣地를 回復하였으며 敵은 이날 밤 子正을 期하여 一齊히 戰場을 離脫하기 시작 함으로써 靜寂에 휩싸인 겨울의 긴 밤을 將兵들은 不安하고 焦燥한 마음으로 보내야 하였고 먼 동이 틀 무렵, 저 멀리 退却하는 中共軍을 보고야 安堵의 긴 한숨을 내쉬었다。

3. 濠州軍 대대(장, I. B, Ferguson중령)는 이날 午後에 中共軍 1개연대 규모의 包圍공격을 받고 激戰을 전개하던 중, 英 제27여단장 Coad준장의 명령에 따라 大寧江 東岸으로 撤收한 다음, 西未力里부근 高地를 傳統的인 銃劍突擊戰으로 공격하여, 여단이 失陷하였던 陣地를 恢復하는데 成功하였으나 12명이 戰死하고 64명이 負傷하였다. 대대는 英 제27여단의 撤收에 따라 新安州 北岸의 連峯里로 轉進하여 이날 밤에 여단을 追擊한 中共軍의 夜襲을 果敢한 攻防戰으로 擊退하였다。

4. 美 제1기갑사단(장, HobartR. R, Gay소장)主力은 전날에 이어 古城里에서 再編成을 서두르는 한편 군단장의 새로운 명령에 따라 寧邊을 目標로 反擊할 態勢를 갖추었으며, 馬場里—雲興里線에서 군단 右側方과 淸川江 南岸을 防護중이던 제7기갑연대(장, William A. Harris대령)는 接敵없이 전날의 임무를 계속 수행 하였다。

5. 제1사단(장, 白善燁준장)은 전날에 이어 新安州부근 비행장에서 부대 정비를 서둘렀으며 敵의 退却에 따라 새로히 下達된 군단장 Milburn소장의 명령에 의거하여 博川을 目標로 反擊할 준비를 갖추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11월 5일 21.00를 期하여 一齊히 戰線을 離脫하기 시작한 中共軍은 球場洞—雲山—泰川線의 狄踰山脈 南麓으로 後退하여 次期공세를 준비하는 한편 北共軍으로써 收容陣地를 編成케 하여 防守態勢를 假裝하므로써 UN군으로 하여금 그들이 滿洲로 撤退한 것으로 誤判케 하여 進擊意志를 再然하도록 誘導하는 듯이 判斷되었다。

美 제1군단(장, Frank W. Milburn소장)은 敵의 이러한 退却에 따라 美 제1기갑사단(장, Hobart R. Gay소장)을 寧邊으로, 美 제24사단(장, John H, Church소장)을 龍山洞으로, 그리고 英 제27여단은 博川을 거쳐 大寧江 東岸을 따라 각각 威力搜索을 敢行케 하였으며 제1사단은 博川으로 進擊하였다。美 제8군 사령관 Walker중장은 威力搜索의 순조로운 進展과 MacArthur元帥의 指導에따라 11월15일

을 期하여 所謂 Christmas 作戰을 敢行하고자 計劃하였다. 即 攻擊開始線을 仁德里—熙川—溫井—雲山—泰川—納淸亭으로 豫定하여 제2군단(장, 劉載興소장)은 熙川에서 江界—滿浦鎭으로, 새로히 戰線에 投入하게 될 美 제9군단(장, John B. Coulter소장)은 雲山—溫井을 거쳐 楚山—碧潼으로, 그리고 美 제1군단(장, Frank W. Milburn소장)은 鴨綠江下流로 각각 進擊하도록 規劃하고 공격 개시선까지의 進擊을 督勵하였으나 兵站物資의 確保와 美 제9군단의 北上이 遲延되므로써 공격개시일을 24일로 延期하였고 19일에 이르러서는 공격 개시선을 現接觸線으로 修正示達하므로써 각 군단은 進擊을 중지하고 부대를 재배치 하면서 다시 공격준비를 하기에 이르렀다.

美 제1군단(장, Frank W. Milburn소장)은 美 제8군계획에 따라 제1사단(장, 白善燁준장)을 右翼으로 하여 龍山洞—大寧江線에서 泰川—龜城을 거쳐 鴨綠江으로 進擊케 하는 一方, 美 제24사단(장, John H. Church소장)은 大寧江以西—西海岸街道를 따라 新義州로 進擊토록 하였으며 寧邊부근의 美 제1기갑사단(장, Hobart R. Gay 소장)은美 제25사단에 陣地를 引繼하고 美 제8군 예비로, 그리고 大寧江邊의 英 제27여단 (豪州第대대 배속)은 군단 예비로, 각각 轉換케 하여 淸川江 南岸을 目標로 轉進토록 하였다.

이때에 敵은 人海이 遲延되어 所謂 一次攻勢에 參加하지 못하였던 中共 제13병단(장, 李天佑)예하의 제50, 제66군主力이 鴨綠江鐵橋를 건너 大寧江上流에 戰略展開하였고 제9병단(장, 宋時輪) 예하의 제20, 제26, 제27, 제30군은 11월 初旬에 新安을 거쳐 長津湖로 南下하므로써 11월 25일을 期한 그들의 所謂 제2차공세의 態勢는 비로소 完備 하게된 것이다. 따라서 美 제8군 正面에서는 中共 제38, 제40군의 일부가 제2군단 正面에 그리고 제40군의 主力과 제39군이 美 제9군단 正面에 또 그밖에 새로히 展開한 제66, 제50군이 美 제1군단 正面에서 각각 整陣하였고 제42군은 제9병단에 長津湖부근의 侵略임무를 인계하는 대로 제13병단으로 복귀하여 增援할 계획이었다.

11월 24일 10.00를 期하여 寧邊—德川—球場洞—立石—龍山洞—博川을 連한線에서 一齊히 敢行한 美 제8군의 Christmas作戰은 25일부터 全戰線에 걸쳐 敵과 接觸하기 시작하여 進擊이 阻止되었고 26일에는 제2군단 正面의 德川이 突破하므로써 美 제8군의 東側方이 露出되었고 美 제9, 제1군단은 淸川江北岸에 孤立되는 危機에 逢着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美 제8군 사령관 Walker중장은 군 예비인 美 제1기갑사단의 일부를 北倉부근으로 急派하여 東側背를 掩護케 하는 한편 26일에 軍團里로 進出한 土耳其여단을 德川부근으로 進擊시켜 德川에서 後攻하는 敵을 遮斷하는 동시에 美 제9군단의 右側背를 掩護케 하였으며 美 제1군단 예비인 英 제27여단(豪洲第대대 배속)을 美 제9군단에 그 배속을 변경하여 戰勢의 挽回를 試圖하였으나 美 제9군단 右翼인 美 제2사단正面 마저 危機가 濃厚로 暴露하므로써 28일에는 드디어 左記와 같은 명령을 下達하였다.

① 美 제1군단은 即時 新安州부근으로 撤收하여 次後의 공격, 또는 緊急한 正面에 대한 轉進준비를 갖추라.

② 美 제9군단은 軍의 右翼을 掩護하면서 軍團里—安井線으로 撤收한 다음 次後의 공격준비를 갖추라.

③ 美 제1기갑사단은 即時 北倉—順川線을 확보하여 軍의 右側背를 掩護하라.

④ 제2군단은 부대를 정비하여 成川—德源線을 確保하라』

이에 따라 美 제1군단 右翼인 제1사단(장, 白善燁준장)은 泰川부근에서, 左翼인 美 제24사단(장, John H. Church소장)은 定州부근에서 各各 激戰을 避하고 接敵만을 維持하면서 逐次遲延戰을 시작하였는데 제1사단은 29일에 博川을 거쳐 다음날, 제11연대(장, 金東植대령)가 安州로 제12, 제15연대가 新安州로 각각 淸川江을 渡河하였다. 또 같은날 定州부근에서 撤收하기 시작한 美 제24사단은 이날밤 安州로 集結하였으나 새로히 下達된 명령에 따라 順川을 목표로 撤收를 계속 하였다. 제1사단(장, 白善燁준장)은 사단 CP를 永柔里에 開設하고 蕭川부근에서 平壤防禦線陣地를 占領하였고 사단을 後續한 美 제25사단(장, Lawrence B. Keiser소장)은 蕭川 東北方에서 順川道路를 따라 제35, 제27, 제24연대 順으로 陣地를 占領하여 제1사단과 連繫하였다. 한편 美 제21사단(장, John H. Church소장)은 美 제2사단(장, William B, Kean소장)이 价川—順川溪谷에서 敵의 포위공격으로 큰 打擊을 입게 되자 美 제2사단이 담당키로 된 順川부근으로 轉進하였다가 다시 江東부근으로 進出해서 平壤 北東쪽 防禦임무를 담당 하였으나 12월 3일에 이르러 平壤防禦線의 中核인 成川이 奪取되므로써 『38°線까지 總退却하라』는 MacArthur元帥의 명령에 따라 4일에 제1사단(장, 白善燁준장)을 後衛로 하여 平壤을 完全撤收하기에 이르렀다。

美 제8군은 平壤을 撤收한 다음 鐵原山脈線에서 부대를 정비하는 一方 제3군단(장, 李亨根준장)이 38°線에서 防禦태세를 갖출 수 있는 時間的 餘裕를 얻기 위하여 遲延戰을 展開키로 하였으나 이때 이미 敵의 先鋒부대가 伊川—平康으로 侵攻하는 한편 所謂 제2전선부대의 主攻으로 38°線 南쪽으로 退却을 계속 하였다. 12월 15일경, 美 제1군단(장, Frank W, Milburn소장)은 臨津江線에 連하여 右翼으로 제1사단을, 左翼으로는 새로히 배속된 美 제25사단을 각각 配置하였고, 金浦半島에 陣地를 占領한 Turkey여단의 作戰을 통제하였으며, 군단 예하이던 美 제24사단은 美 제9군단으로 그 배속이 변경되었다. 5年 1月 1日 子正을 期한 敵의 새로운 공세는 東 西部에 걸친 全戰線에서 또다시 UN軍과 我軍을 後退케 하였으며, 美 제1군단은 서울을 거쳐 鳥山線으로 轉進한 다음 最後防禦線을 編成하고 敵의 공세를 粉碎하는 한편 反擊準備를 서둘기에 이르렀다。

9. 美 제9군단의 淸川江附近 戰鬪 (1950년 11월 24일부터 1950년 11월 30일까지)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美제9군단 장 소장 John B. Coulter
제2사단 장 소장 Lawrence B. Keiser
제9연대 장 대령 Charles C. Sloane
제23연대 장 대령 Paul L. Freeman
제38연대 장 대령 George B. Peploe
제25사단 장 소장 William B. Kean
제24연대 장 대령 John Corley
제27연대 장 대령 John H. Michaelis
제35연대 장 대령 Henry G. Fishir

배속부대

Turkey여단 장 준장 Tahsin Yazici
英제27여단
장 준장 B. A. Coad D. S. O.
英제29여단 1개대대

敵 軍

中共 제13병단 장 李天佑
제39군 장 吳信泉
제115사단 장 張鶴誠
(제343, 344, 345연대)
제116사단 장 江 洋
(제346, 347, 348연대)
제117사단 장 倫天允
(제349, 350, 351연대)
제40군 장 韓先楚
제118사단 장 鄧 岳
(제352, 353, 354연대)
제119사단 장 남 생 원
(제355, 356, 357연대)
제120사단 장 曾國安
(제358, 359, 360연대)
제50군 장 曾澤生
제148사단 장 趙鶴亭
(제442, 443, 444연대)
제149사단 장 龍 躍
(제445, 446, 447연대)
제150사단 장 王家善
(제448, 449, 450연대)
제66군단 장 蕭新槐
제196사단 장 成小甫
(제586, 587, 588연대)
제197사단
제198사단
北共 제1군단

나. 전투 전의 개황

中共의 『제1차공세』로 戰局은 그 樣相을 突變하게 되어 10월 27일에 제2군단은 价川—德川일대에서 熾烈한 接戰끝에 작전상 後退하였고, 제6사단은 27일에서 29일에 걸쳐 楚山—溫井에서 그 退路가 遮斷된 결과 後衛의 보람도 없이 부대가 흩어지게 되었다.

이어서 11월 1일에 美제1기갑사단은 雲山부근에서 正面과 右翼에 동시 공격을 받게 되므로써 激戰끝에 球場洞을 거쳐 軍隅里로 後退하였고, 또한 熙川洞일대에 진출한 美 제24사단과 定州부근의 英 제27여단이 後退명령으로 다음날 淸川江 沿岸을 目標로 撤收하였으니, 이로써 宣義線을 중심으로 突破하면서 新義州까지 一擧에 진출 하려던 美 제1군단의 作戰계획은 그 攻守와 進退를 바꾸게 되었다. 이러한 戰況의 逆調는 계속되어 2일부터 5일에 이르는 사이에는 定州—泰川—价川線을 連하여 敵의 急襲이 強行되었고, 美 제8군은 곧 이에 對應하여 一部로서 掩護케 하면서 主力을 淸川江畔으로 作戰上의 撤收를 斷行케로 하였다.

同월 7일에 北京방송에서 公表하되 『中共의 人民義勇軍 7~8,000명이 韓國戰爭에 介入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와 때를 같이 하여 MacArthur 元帥는 Washington當局에 다음과 같이 報告하였다. 『乘勝長驅한 北進이 統一을 目前에 두고 中共의 侵略으로 戰爭의 樣相이 反轉하게 되므로써 戰況은 새로운 局面에 突入하여 時時刻刻으로 緊迫性이 高潮되고 있다.』

한편 美제8군사령관 Walker중장은 反擊作戰 斷行의 一環으로 軍의 戰線整備를 서둘러서 淸川江의 橋頭堡를 확보하는 동시에, 後方의 美 제9군단을 前線으로 早期北上토록 명령하였으며 麾下의 全군단을 11월 15일로 策定된 『X-mas 反擊작전』에 對處하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였다.

그뒤에 同軍은 後方地域에서 北共 Guerrilla의 跳梁으로 軍需支援이 不振하였을 뿐아니라 이들을 肅淸하려는 美 제9군단의 이동이 늦어지므로써, 當初 11월 15일로 예정한 공격 개시일을 變更하여, 同군단의 全병력이 戰線進入에 可能한 日字를 算定한 결과 "秋收總攻勢"의 종료인 11월 24일로 延期하였다.

同월 22일에 이르러 軍需지원의 不況이 多少 緩和됨과 아울러 美 제9군단 全부대의 戰列展開가 완료되자, 軍은 同월 23일에 美 제1, 제9의 兩군단과 韓국2군단에 反擊에 대한 最終的인 준비점검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명령에 따라 각 군단은 全前線부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준비의 점검을 마치고 一部의 병력으로 車輛에 의한 偵察을 실시하면서 다만 攻擊開始의 명령만을 기다렸다.

敵軍의 狀況——鴨綠江을 건너 統一直前의 進擊을 妨害하고자 江南山脈과 秋收總攻일대를 미리 占領한 中共 제13병단은 제39, 제40군을, 그리고 제20병단은 제66군과 再編成을 마친 北共 제1군단을 主軸으로 하여 10월 25일의 『제 1차공세』로 淸川江 北쪽의 橋頭堡를 攻略하고 계속 南進하여 11월 5일에는 定州—博川—寧邊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계속 全戰線을 推進한 敵은 11월 5일 21.00를 期하여 攻勢를 一旦 중지하고 時間과 空間의 利點을 최하면서 後續부대의 增強과 戰力損失의 補強을 企圖하는 것이었으나, UN軍 當局은 그

들의 戰勢가 이미 攻擊終末點에 다다른 것으로 誤認한 것이다. 이러한 誤導의 術策으로 敵은 次期의 「제2차공세」를 노리어 이미 奪取한 지역에 一部를 殘置하여 중, 소대 규모로 潛伏케 한 다음, 그 主力은 鴨綠江을 다시 건너 완전히 撤收하는 樣으로 欺瞞하고자 狹隘嶺山脈 南麓으로 물러가서 後續부대의 來到을 기다렸던 것으로 分析된다.

11월 中旬에 접어들어서 後續인 제39, 제50의 兩군이 戰線에 到着하고 이미 參戰한 군단의 부대 정비가 완료된 까닭에 敵은 곧 「제2차공세」를 시작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계획은 要旨 다음과 같다.

『① 공격개시일을 11월 25일로 定하며 제66군으로써 定州—龜城으로부터 博川—球安洞을 向하여 進擊한다.

그리고 제40군으로써 韓제6사단을 溫井부근에서 포위 공격한다.

② 淸川江 北岸에 殘留한 U.N군에 대한 공격과 더불어 U.N군의 主防禦線이 될 淸川江 沿岸을 공격 목표로 하여, 이를 強占하고 戰線을 南으로 擴大하여 제2전선 부대와의 連繫下에 38°線以北을 確保한다.

③ 「제1차공세」 때의 U.N군의 航空力을 비롯한 모든 火力이 優勢함에 對應하여 공격집단을 편성하고 全戰線의 偵察과 對空방어를 强化한다.

④ 「人海戰術」과 夜間作戰을 併行하고 晝間공격보다 夜戰을 重視한다.

⑤ 敵에 대하여서는 방력을 우선 迂回시켜 背後를 遮斷하는 동시에 潛伏과 奇襲을 並行하여, 正面에서는 人海戰術로써 反復되는 공격을 加하여 包圍로써 殲滅토록 한다.』

이러한 계획으로 敵은 定州—泰川—熙川—寧遠 北쪽에서 각각 공격집단을 편성하고 제2전선인 Guerrilla의 活動을 强化할 目的으로 一部를 孟山—陽德 方面에 潛入시켰다.

我軍의 狀況——美 제9군단은 戰線의 最南端으로부터 北進 敗殘병력에 對한 擊滅戰을 展開하였는데 前線의 北上에 따라 10월 5일에는 大田에 사령부를 開設한 다음, 제2사단으로 하여금 大田의 西南쪽을, 제25사단으로 하여금 大田의 東南쪽을 각각 책임지켜 補給路의 확보와 더불어 兵站線을 防護토록 하였으며 또한 警察과 合勢하여 책임지역 일대에서 浸透하는 敵을 捕捉키로 하였다.

10월 10일을 前後하여 韓제11사단을 配屬받았는데 제25사단의 수색중대를 사단에 派遣하여 淸州를 비롯한 大田 北東쪽 全域에 걸친 遊擊隊의 出沒을 根絶토록 함으로써 京釜線에 沿한 地域 一帶를 平定하였다.

그로부터 다시 北上한 군단은 水下의 제2사단이 江東에 사단 사령부를 開設하고 이를 중심으로 西南으로는 鎭南浦에 東으로는 陽德에, 그리고 北으로는 新倉(제38연대)에, 南으로는 三登(제23연대)에 이르는 全域에 걸친 後方경계와 殘敵에 대한 擊滅戰을 敢行하였다.

또 美제25사단은 開城에 사단 사령부를 開設하고 滅密山脈을 중심으로 北으로는 五峰山과 芝石里(제27연대) 일대에, 西로는 信川에, 그리고 南으로는 長端(제21, 제35연대)에 걸쳐서 殘敵을 驅逐키로 하였고, 10월末에 접어들자 中共軍의 侵入說에 따라 사단은 京元線에 沿한 鐵川—平康 一帶의 對遊擊活動을 위하여 東側의 美제10군단과 連繫하였다.

10월 23일 前線으로의 北上명령을 받은 군단은 곧 각 사단에 이를 下達하고 지금까지 遂行하던 임무를 韓제3군단(再編未完狀態)에 인계하고 제2사단과 함께 北上하여 군단 사령부를 順川에 開設하는

한편 제2사단을 軍團里로 進出토록 하였다。

그러나 제25사단은 U.N군의 主補給線인 平康지구에 대한 對遊擊戰이 지연되어 11월 19일에 配屬받은 Turkey여단과 함께 長湖으로 이동한 다음 계속 北上하여 11월 22일에는 靑川江에 到着하여 攻擊을 준비하였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이번 작전이 發起되고 여기에 隨伴하는 계획이 이룩되기까지의 前後經過를 살펴 본다면 我軍에서는 中共軍과 再編成을 마친 一部의 北鮮의 戰力을 過小評價하였으며 그나마 中共은 水豊發電所의 電源을 防護하는데 局限하여 狄隊嶺山脈 一帶에 駐兵하였을 것으로 輕視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MacArthur元帥는 判斷하기를 『敵의 組織과 저항력의 完備가 이룩되기 前에 韓滿國境線으로 進擊함으로써 早期에 韓國戰爭을 終結지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速斷한 나머지 곧 大大的인 作戰의 斷行을 決心하고 이러한 뜻을 美 제8군에 下達하였다。

(가) 美제8군 사령관 Walker 중장은 11월 14일에 작전 決行에 대한 指導에 따라 곧 그의 作戰構想과 더불어 모든 계획을 각 군단에 下達하였으니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攻擊을 斷行함으로써 敵을 韓滿國境線 밖으로 驅逐하고 韓半島의 統一事業에 寄與한다。이를 위한 速徑으로 작전에 참가 한 모든 전투부대가 언제나 相互 緊密한 協調를 維持하여야 하며, 또한 敵과 對峙함에 있어서도 不斷한 注意力과 攻擊力을 包藏할 것이다。

② 공격개시선은 仁德里(社倉里 西쪽 5km)—熙川—溫井—雲山—泰川을 거쳐 西海岸에 沿한 納淸里(博川 西쪽 20km)에 이르는 線(正面 100km)으로 한다。

③ 戰線配列 및 기동계획은 韓 제2군단(제8, 제7, 제6사단)을 右翼으로 하여 熙川—寧遠—德川線을 경유한 다음 滿浦鎭과 江界를 목표로, 美 제9군단(제2, 제25사단)을 中央으로 하여 雲山—溫井을 경유한 다음 楚山—碧潼의 鴨綠江 沿邊으로, 그리고 美 제1군단(韓 제1사단, 美 제24사단)을 左翼으로 하여 泰川—安州를 거쳐 鴨綠江 下流一帶를 각각 탈환 확보한다。

또한 美 제1기갑사단과 新來한 Turkey여단은 當初 예비대로 措置 하였다가 後方경계와 동시에 戰況에 따라 前線부대를 支援한다。

D—Day까지 前線투입부대는 공격준비의 一環으로 威力수색과 地形偵察을 併行한다.』

(나) 美 제9군단은 11월 19일에 隷下 제25사단의 來着과 때를 같이하여 군단을 展開하고 다음과 같은 기동계획을 承達하였다.

『제2사단은 右翼으로 溫井을 目標로 진격하여 小白頭山 東側을 거쳐 楚山을 占領토록, 그리고 제25사단은 左翼으로 小白頭山의 西側을 경유하여 碧潼을 占領토록 각각 機動한다.』

(2) 작전실시

11월 24일 : 反擊 第一日을 맞이한 이날 아침에 MacArthur元帥는 美 제5공군 사령관 Strate Meyer 중장과 작전부장 Wright 준장, 그리고 정보부장 Willoughby소장과 민정국장 Whitney소장을 帶同하고 東京駐在 記者들과 함께 平壤 美 제8군 사령부를 방문하고, Walker중장의 안내로 美 제1, 제9군단, 그리고 美 제24사단 사령부를 巡視한 결과 작전의 趨移를 樂觀하였으나, 이때 美 제1군단장 Frank. W. Milburn소장은 美제9군단 戰面의 敵은 그 저항이 頑強한 것으로 예측하여 제9군단 공격의 成功 與否를 危惧하는 바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10.00을 期하여 反擊작전은 드디어 幕을 열었고 MacArthur元帥는 戰線 前方의 新義州 一帶를 거쳐 鴨綠江 南岸을 따라 滿中 一巡을 마치고, 必勝을 예약 하되 『이번 작전은 전쟁을 終熄시키기 위한 反擊작전이다』라고 강조한 다음, 平壤 東京으로 向發하여 곧 공격개시를 合同參謀本部議長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聲明을 발표하였다.

이날 美 제9군단(장, J. B. Coulter소장)에서는 早朝에 MacArthur元帥 一行을 맞이한 결과 작전의 前途를 樂觀하는 喜悅에 휩싸여 장병들의 士氣는 鼓舞되었고, 10.00을 期하여 山野를 덮을듯 한 進軍이 시작됨으로서 그들의 目標앞에는 이미 鴨綠水가 目前인듯 하였다.

이날 군단의 右翼으로 展開한 제2사단은 제38연대를 右一線에, 제23연대를 中央에, 그리고 제9연대를 左一線에 展開하는 동시에 제38연대의 1개중대는 사단의 예비대로 留置하면서 球場洞—溫井을 目標로 進擊하였다. 또 군단 左翼으로 展開한 제25사단은 隷下의 제35. 제27, 제24연대를 一線으로 並列하여 立石을 거쳐 楚山을 指向토록 하였다.

兩사단은 진격에 있어서 戰車隊를 앞장세워 作戰機動路를 偵察케 하고 그 뒤를 이어서 중, 소대 단위의 梯次區分으로 愼重하게 北進하였으나 이날은 接敵이 없었고 어떠한 敵에 관한 情報도 入手하지 못하였다.

11월 25일 : 전날 全戰線에 걸쳐서 接敵이 없는 가운데 진격을 마치고 野營한 兩사단은 이날 아침에 다시 前進을 시작하였는데 군단 右翼接에서 寧遠—德川線을 北進中인 韓제2군단의 先頭부대가 妙香山脈의 中腹에서 비로소 敵과 부닥친 것을 感知로 하여, 全부대가 敵과의 火力戰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이미 先頭의 중, 대대가 敵의 包圍網속에서 左右 挾擊을 받고 있었으니 이야말로 典型的인 不期遭遇戰이요 準備의 暗中激突이었다。

敵은 비단 마련한 陣線를 이용하여 標定하여 놓은 重機 輕機등의 火力공격을 加하고 乘勢하여 오히려 逆襲까지 敢行하게 되니, 我軍은 意外에도 執拗하게 抵抗하는 敵을 完全驅逐하기 위하여 砲兵부대를 急히 前方으로 延進시키는 동시에 예비대까지 投入함으로써 戰線에서 正面으로 衝突하였으나, 이미 때는 늦어 敵의 陣容속에서 彼我의 戰力均衡은 비교가 안될만큼 무너져 있었으니, 이는 敵이 事前에 我軍의 공격목표와 진격계획을 探知한 결과 暗暗裡에 反擊준비를 마치고 그 企圖를 秘匿하는 데 成功한 탓으로 마침내 攻守가 逆轉되고 進退兩難으로 主客이 그 자리를 바꾸게 된 것이다。

이날 正午에 이르자 我軍 戰線은 動搖되기 시작하였고 右翼인 德川地區에서는 中共의 「제1차공세」때의 傷痕을 어루만지며 苦戰한 韓제2군단 隷下 제6사단의 血戰도 그 보람없이 마침내 德川까지 奪取 當하였으니, 이는 頑強한 敵의 大병력 앞에 實戰의 경험도 적은 보충 將兵에 의한 力不足이 그 큰 원인이라 할것이다。

日沒무렵이 되자 戰況은 小康상태를 이루었고 이사이에 我軍은 戰列의 補強과 부대의 정비를 서둘었는데 將兵들의 눈초리는 目前에 닥아선 聖業完遂의 希望을 一時나마 中絶하게된 激怒에 가득찬 듯 하였다。

한편 東海岸 方面에서는 西進명령을 받은 長津湖지구의 U.N군도 그 進擊이 중지되고 戰線은 漸次로 밀리는 바 되었다。

이날 美 제9군단(장, J.B. Coulter소장)은 제25사단을 九龍沿道를 따라 雲山으로, 제2사단을 淸川江 上流를 따라 熙川을 점령할 계획으로 대, 중대 단위의 梯次로써 진격시켰는데, 역시 中共의 大兵團과 不時에 遭遇하게 되어 正面에서 激戰을 벌이는 동안 潛伏한 敵으로부터 側面공격을 받는 동시에 退路마저 遮斷되기에 이르렀다。

1. 제2사단(장, L.B. Keiser 소장)의 제9연대는 사단의 左一線으로 3개대대를 並列케 하여 이날 아침부터 北進토록 하고 1개중대를 控置하였는데, 09.00에 제3대대의 B중대가 熙川 北쪽 5km에 있는 △219에서 血戰을 展開하여 全U.N군 中의 가장 突出한 前線에서

많은 人命의 損失을 입은것을 비롯하여 到處에서 激突하였으나, 中共 제40군의 主力에 밀리는 바 된 사단은 이날 晝間의 惡戰苦鬪 결과 逐次抵抗으로 熙川 南쪽 2km線에서 停止하고 陣地를 占領하였다。

2. 제25사단(장, W. B. Kean소장)은 이날 군단의 左翼으로 제35연대를 右一線으로 하여 雲山과 諸仁上洞으로 連하는 通路를 따라 진격시키고 제27연대를 中央 一線으로 하여 九龍江의 沿岸을 따라, 또 제24연대를 左一線으로 하여 立石一九上洞 일대로 진격토록 하였다。

그러나 사단도 역시 中共 제39군으로 추측되는 敵의 大병단과 不期遭遇한 결과 그 強壓에 밀리는 바 되어 많은 死傷者를 내는 가운데 雲山 東南쪽 3.2km지구까지 移動하여 防禦진지를 형성하였다。

3. 日沒무렵부터는 군단의 全지역에 걸쳐 대체로 小康상태를 이루었고 緊迫한 戰況이 멎자 잠시 安堵의 숨을 돌리게 되었는데, 차츰 어두움이 四方을 휩싸고 皎皎한 달빛이 前線을 밝힐 무렵에는 다시 中共軍의 夜襲이 시작되었다。

이로부터 月光밑에 決戰이 惹起되었는데 敵은 꽹과리를 치며 喊聲을 찢는듯 한 피리소리와 함께 野獸의 울부짖음과 같은 怪聲을 지르면서 殺到하였고 彼我間에 血戰을 벌이는 가운데 초겨울의 朔風도 찬거니와 敵의 怪異한 喊聲은 夜戰을 더욱 陰散케 하였다。

敵은 晝間에 溪谷깊이 潛伏하였던 병력과 合流하여 군단 全面에서 壓迫을 加하였으니 凄絶한 夜戰이 到處에 展開됨으로써 제2사단의 最左一線인 제9연대의 각 중대는 背後공격을 받아 崩壞寸前에 直面하게 되고 연대 中央의 제2대대는 淸川江 西岸에서 포위를 당하는 동시에 兩面挾攻까지 받게되었다。

그리고 淸川江 沿邊에 開設한 제23연대과 제1대대의 본부도 또한 奇襲을 받아 分散되었고 대대장을 비롯한 많은 將兵이 행방불명이 되었다。

4. 제2사단 제38연대(장, George. B. Peploe대령)는 兄弟峰(△1229)에 沿한 일대에서 激突하였는데 唯獨 △219北쪽에 突出한 B중대는 夜襲을 받지않고 孤立되었다。

5. 이 무렵 全戰線에 걸쳐 부대간의 通信이 杜絶된 가운데 各隊別로 分離된 激戰을 展開하고 子正에 접어들자 제9연대의 B중대가 占領中인 △219의 凹形陣地에서도 숨막히는 肉彈戰을 反復한 끝에 敵은 積屍를 남긴 채로 退却하고 말았다。

이로부터 연동이 틀 무렵까지 彼我의 攻防이 계속되었고 銃砲聲이 멎게되자 부상병의 呻吟소리만이 谷風속에 寂凄하였다。

11월 26일 : 美 제8군에서는 전날 밤 月光속에 展開한 攻防戰이 一旦中斷되고 이날 天明까지의 小康상태를 틈타서, 戰列整備와 아울러 全부대에 이르기까지 병력의 점검과 부대정비를 서둘도록 하였는데 전날 晝夜에 걸친 激戰을 치룬 각 부대는 대체로 병력이 이미 半減되는 상태였으니 不期로서 激突케된 傷痕은 참으로 컸었다。

또한 이 무렵의 戰線은 제9군단 左翼—線梯隊의 右側이 무너졌고 제8軍의 左翼인 美제1군단은 泰川—定州線을 固守하였으나, 右翼인 韓제2군단은 많은 損失을 입고 병력의 增援이 時急한 단계에 놓여 있었다。

이날 鷄鳴에 美제9군단(장, J. B. Coulter소장)은 雲山 南쪽 球場洞을 中心으로 陣地를 急編하였으나 隷下 각 연대는 제2사단 제9연대와 같이 대체로 병력이 半減되어 있었다。

1. 이날 早期에 敵은 다시 제9연대 B중대의 △219의 圓形 防禦陣地를 急襲하므로써 執拗한 敵에 比하여 力不足임을 痛感한 중대장 Wynn 중위는 山頂의 固守를 斷念하고 中腹의 박격포소대와 合勢할 것을 決心하고 곧 병력을 이동 하였는데, 이때에 중대의 健壯한 兵士는 40명 뿐이었고 그나마 실탄의 枯渴은 말할 나위도 없었으며 보급의 缺乏은 더욱 深刻하였다。

이날 09.30부터는 空中폭격의 連續的인 猛打로 敵의 銳氣를 꺾게되자 중대는 곧 陣地를 補強하면서 將次 一戰하기를 벼루었는데 이동안 後方과의 杜絶된 連絡網이 開通 되는 동시에 실탄까지 보급되므로써 곧 山頂의 敵을 制壓하여 擊退하고야 말았다。

그러나 그뒤에 중대는 명령에 따라 우선 側後方에 있는 D중대와 合勢하고 다시 淸川江西岸의 제2대대와의 合同에 成功하였는데 병력점검을 마친결과 공격초에 129명이던 중대兵力이 34명으로 줄었으며 26시간의 血戰에서 95명의 損失을 보았던 것이다。

2. 이와같이 B중대가 치룬 △219의 血戰에 뒤지지 않는 激突이 군단 全正面 여러곳에서 演出되었으며 불바다와 阿鼻叫喚의 殺戮戰 그것이었는데 이야말로 自由와 自主를 지키려는 十字軍과 侵掠과 併吞을 일삼는 野獸群과의 正面對決의 一場面이었다。

이날 正午까지 全戰線에는 小康상태가 계속 維持되었고 공격을 중지한 채로, 예상되는 敵의 夜襲에 對備하면서 防禦線 구축에 心血을 기우리던중, 韓제2군단 正面에 또다시 大병력의 強襲이 있게되어 이러한 戰勢를 맞게된 군단은 커다란 難境에 逢着하게 되었다。

3. 이로부터 隣接한 美제2사단의 제38연대가 위태롭게 되자 美제25사단에 配屬되어 軍隅里에 머물고 있던 Turkey여단을 急派하여 제38연대의 右—線을 방어토록 하여 14.00에

德川을 目標로 急進케 하였다。

그리고 右翼의 韓제2군단으로부터 제7사단의 제3연대를 배속 받아 제38연대와 합동작전으로 敵의 暴進을 阻止토록 하였다。

이날 夜半에 있어서의 군단 全線의 戰況은 11월초의 中共「제1차공세」때와 恰似하였다。

4. Turkey여단(장, Tahsin Yazici 준장)—이날 군단의 명령에 따라 16.00에 軍隅里를 출발하여 車輛機動으로 德川으로 進擊하였는데 瓦院(軍隅里 東쪽 18km)에 이르러 日沒을 맞이 하였으므로 곧 전적을 중지하고 敵의 夜襲에 對備하는 急編防禦陣地를 構築하면서 徹夜하였다。

5. 美 제2사단(장, L. B. Keiser소장)—이날 사단은 午前中 小康의 틈을타서 防禦線 強化와 동시에 戰線을 정리하였는데, 正午에 이르자 敵은 韓제2군단 正面을 비롯한 隣接한 제38연대의 前線을 壓迫하여 그 形勢가 차츰 不利하게 되었고 전날 德川지구를 攻略한 敵의 力量에 비추어, 사단은 挾擊을 받을 危險性을 미리 避하고 새로이 有利한 戰線을 확보하기 위하여 逐次로 부대를 南쪽으로 撤收시켜 이날 夜半에는 球場 北쪽의 線을 占領하면서 陣地를 強化하였다。

6. 美제25사단(장, W. B. Kean소장)에서는 이날 晝間의 小康상태에 이어서 夜暗을 노린 敵의 侵襲이 다시 계속되었고, 사단 當面의 中共 제39군은 全지역에 걸쳐 壓迫을 加하였는데 그중 雲山을 強占한 主力은 제35연대(장, Henry. G. Fisfir대령)의 뒤를 쫓아 一擧에 龍城洞까지 突出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은 緊迫한 戰勢에 따라 有亭洞 (△222.37) 부근에 急派된 英 제27여단의 正面에서도 九龍江을 건너 뛴 敵이 人海戰術로 三面으로 몰려들게 되므로써 彼我間에 屠戮戰을 惹起하게 되었다。

7. 한편 立石 北쪽을 占領한 제25사단 제27연대(장, J. H. Michaelis대령)의 제2대대 正面에 대하여 敵은 △232의 西쪽을 돌아 立石과 熙川間의 小路를 遮斷한 다음 兩面으로부터 挾擊을 加함으로써 대대는 孤立상태에 陷入하게 되었거니와 연대의 正面의 敵도 壓迫을 계속하였고 제24연대(장, John Corley 대령)에서도 前線이 이미 무너지고 있었으니 이러한 戰勢의 頹色은 初冬 大地의 荒涼을 더욱 짙게하였다。

11월 27일 : 전날밤부터 寒風속에 連이은 敵의 侵掠은 晝夜의 구별도 없이 全戰線에 걸쳐서 계속되었다。

이때의 敵은 人命의 尊貴性에는 아랑곳 없이 屍丘를 넘는 突擊을 數波로 몰려서 反復하

였으며 이를 맞은 군단은 各 大, 中隊, 단위로 生死를 판가름하는 白兵戰을 계속하여 마치 龍驤虎搏을 방불케 하는 盛殺과 血鬪의 演出로 이날의 戰線을 간신히 固守하였다。

그러나 밤에 이르자 잠시동안의 小康상태를 이루던 戰線은 다시 攻防戰을 벌리므로써 깊은 가을의 山野를 누비는 死鬪場面의 幕을 열었고, 軍의 右翼인 韓제2군단 지역에서는 敵이 數梯波의 集團을 이루면서 殺到하여 예측을 不許하는 戰況을 露呈하게 되어 끝내 寧遠을 敵에 強占당함으로써 군단의 防禦線 一角이 무너지게 되었다。

1. 이 무렵 美 제9군단에서는 대체로 전날밤까지의 戰線을 固守하였으나 龍城洞 東쪽 일대에서 背後와 側方공격을 받은 제25사단 제27연대의 제2대대는, 敵의 포위망을 突破하여 立石 西南쪽에서 병력을 收拾하는대로 陣地를 占領하였으나 그뒤를 急히 追擊한 敵의 夜襲으로 混戰에 빠져 紛亂과 潰退를 免치 못하게 되었다。

2. Turkey여단(장, Tahsin Yazici준장) —이날 未明부터 이단은 진격을 시작하였는데 진날 瓦院까지의 車輛機動에 反하여 이날은 前衛부대와 特殊부대를 제외한 그 나머지부대는 徒步가동이었으므로 진격의 速度는 느리었다。

14.30에 瓦院에서 實距離 16km를 進擊하였을 때에 군단으로부터 『瓦院으로 復歸하여 全縱방어 陣地를 占領하라』는 명령을 받게되었으므로 곧 轉進하게 되었는데 瓦院에서 7km 지점인 狹路에서 無線차량의 故障으로 通路가 遮斷되어 이곳에서 撤夜하였다。

11월 28일 : 이날까지의 敵情을 分析한 美 제8군에서는 戰線의 정비와 不利한 戰況의 克服및 敵의 새로운 戰術에 對應하기 위한 熟議를 거듭하였다。

戰況의 急變을 實感한 Walker 중장은 淸川江 沿岸으로의 戰線 撤收를 결심하고 이날까지의 모든 명령을 綜合 檢討한 뒤에 空路 東京으로 向發하였다。

이날 U.N군 총사령관 MacArthur元帥에 의하여 연려진 「東京會同」에는 美제8군사령관 Walker중장과 제10군단장 Almond소장 등이 招致되어 戰況을 분석하고 檢討하였고, MacArthur元帥는 비로소 中共精銳부대의 大擧侵略을 Washington에 보고하는 동시에 새로운 戰局의 突發을 內外에 辭明하였다。

그리고 이 會同의 結論으로 言明하기를 『U.N군은 平壤과 元山을 連한 線을 防禦線으로 設定하여 우선 戰列을 정비한 다음 다시 反擊계획을 마련한다』라고 하였다。

이날 Walker중장이 내린 命令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 ① 軍當面의 敵은 中共 제4야전군의 主力이며 26일 夜半이래 군의 右翼인 韓제2군단 지역에 集中的으로 殺到하여 戰況의 進展은 예측을 不許한다.

② 軍은 清川江 沿岸으로 撤收하여 後圖를 策하려 한다.

③ 제1군단은 迅速히 新安州부근으로 이동하여 다음공격을 준비하거나 또는 緊急한 正面으로의 轉進을 준비하라.

④ 제9군단은 군의 右翼을 掩護하면서 軍隅里—安州線으로 이동하여 次期의 공격을 준비하여 Turkey여단을 계속 통제하라.

⑤ 제1기갑사단은 北倉—順天線을 확보하여 軍의 右翼을 掩護하라 英여단을 配屬한다.

⑥ 韓 제3군단은 別命에 따라 北上하여 戰線에 참가하라』

1. 이날 제9군단(장, J. B. Coulter소장)은 軍의 右翼인 韓제2군단을 掩護하면서 移動을 준비하였는데 이미 敵의 先頭는 三所里 일대에 侵襲하였고, 敵 제38, 제50의 兩군 主力은 德川—寧遠線을 奪取하고 德川 南쪽 3.2km까지 肉迫하고 있었다。

한편 陣地를 占領한 美 제1기갑사단과 英 제29여단의 一部는 順天으로 撤收하였다。

2. Turkey여단(장, Tahsin Yazici준장)—전날 瓦院 7km 東쪽에서 밤을 맞이한 여단은 01.00에 敵1개연대와 不期 遭遇하게 되었는데, 敵은 迫擊砲와 機關銃등의 重裝備를 포함한 集中火力을 加하여 奇襲하였다。

이로부터 여단의 後衛부대는 地形의 不利와 奇襲의 逆境속에 서로 激突하여 敵의 包圍網을 突破하는데 成功하였으나, 美通信장교 Lorenzo대위를 비롯한 많은 병사가 戰死하였거나 失踪되었으며 通信차량도 敵에게 被奪되었다。

한편 瓦院에 먼저 도착한 여단의 主力부대는 때아닌 銃砲聲으로 敵의 奇襲을 直感하고 곧 後衛부대를 增援하기 위하여 反轉突入하였는데, 제3대대의 제10중대가 성불골溪谷 入口로 通하는 道路兩側 高地에 急히 展開하였다가 先頭에서 突進하는 敵을 맞아 激戰끝에 制壓함으로써 一旦 敵의 進擊을 挫折시키고 後衛부대의 增援에 成功하였다。

그뒤 正午무렵에는 여단의 西北쪽으로 侵襲하는 敵을 맞아 또다시 激突하게되자 急히 主力부대와 박격포중대를 增派하여 이 敵의 銳鋒을 強打하고, 이어서 瓦院—德川間의 道路에 沿한 △799稜線을 따라 다시 強襲하므로, 여단은 포병대대를 急히 展開토록 하여 敵의 後續부대의 通路가 되는 藹日嶺— △808—△814 —帶로 集中火力을 延伸하는 한편, 예비대인, 제1대대를 △799 稜線에 連하여 東쪽으로 展開하여 侵掠의 初頭를 粉碎키로 하였다。

15.30에는 군단장으로부터 『제2사단의 右—線부대와 연락을 維持하고 군의 右翼에 對한

遮斷임무를 계속하라』는 命令을 받았는데, 이때 이단 正面에서 兩翼을 威脅하는 敵은 中共 제38군 隸下의 1개여단 병력으로 추측되었고 戰力이 豫想外로 강한 부대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敵情을 分析한 여단(장, Tahsin Yazici준장)은 日沒과 동시에 7km 後方인 新林里로 後退하여 군단의 右翼과 後方으로 通하는 機動路를 遮斷하여, 敵의 進出을 困止키로 決心하는 한편 연락장교로 하여금 여단의 계획을 군단과 제2사단에 通報토록 하였다。

그리 여단은 日沒과 더불어 逐次的으로 後退하여 新林里로의 이동을 완료하였는데, 이날 여단이 군단의 右翼으로 侵襲하는 敵을 困止擊退한 結果는 美제8군 전체의 작전에 貢獻한 바 컸었다。

여단은 夜暗과 더불어 21.00에는 新林里 東南쪽에 있는 △524의 계곡을 連한 線에 부대를 배치한 것을 비롯하여 어운작—△205에 連하여 陣地를 占領하고 여단지휘소와 지원부대는 鳳鳴里를 確保하면서 예상되는 敵의 奇襲에 對備하였는데 이때에 여단 正面의 敵은 여단의 後退에 따라 조심스럽게 逐次로 追擊하고 있었다。

11월 29일 : 이날 아침에 MacArthur 元帥는 聲明하되 『中共의 大擧南侵으로 韓國戰爭의 局面은 終結을 바라기 힘들다.』라고 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U.N군은 淸川江 南岸으로의 撤收作戰을 시작하였는데 到處에서 激突한 끝에 많은 死傷者를 내었으나, 이날 日沒무렵에는 대체로 主力은 淸川江을 건너 陽德—成川—順川—新川을 連하는 線을 확보하고 固守陣地를 占領하였다.

그러데 이線은 元山과 連繫하는 平壤防禦의 要線이었으며 東西間 가장 좁은 지역일 뿐 아니라 元山—平壤의 要衝을 形成하고 있다。

이날 美 제9군단(장, J.B. Coulter소장)은 右翼의 제2사단을 一旦 軍隅里로 이동시켜 順川으로 後退케 하고, 제25사단을 비롯하여 Turkey여단 본부와 非戰鬪 차량 및 부상병을 安州로 輸送토록 하는 한편, 제2사단의 제9연대와 Turkey보병부대는 군단 主力의 撤收를 掩護한 뒤에 제2사단의 後衛로서 順川으로 後退토록 하였다。

1. 제2사단(장, L.B. Keiser 소장) 正面의 敵은 밤새의 구별없이 攻勢를 계속하여 이날 日出무렵부터 다시 사단 正面을 壓迫하기 시작하였는데, 사단은 數日동안 激戰의 連續으로 그 戰力은 半減以下가 되었고 그 中에서도 특히 보병대대는 200乃至 250명이라는 놀라운 數字였으며 소총중대는 不過 20名乃至 35명이라는 劣弱化된 兵力保有量을 나타내고 있

었으니 얼마나 彼我의 激突이 慘烈의 極을 이루었던가를 能히 짐작할 수 있다. 이 무렵 美 제9군단으로부터 順川으로 後退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사단장 Keiser소장은 이와같은 緊迫한 狀況下에서 一擧에 後退한다면 오히려 더욱 큰 災難에 直面하게 될 것을 憂慮하여, 逐次 陣地의 占領으로 一止 一退할것을 결심하고 곧 正面으로 暴進하는 敵을 牽制하고 阻止하는 陣地를 마련하는 동시에 退路에 대한 偵察을 命令 하였다。

이로부터 잠시 뒤인 07.30에 사단사령부에 流血이 狼藉한 Turkey병사 1名이 急히 달려가서 報告하기를 『지난밤에 順川을 출발하여 順川—价川道를 北上中이던 보급중대가 이날 早朝에 靑龍站에서 敵의 奇襲을 받아 모두 戰死하였다』라는 것이었으므로 이로써 이미 順川道가 遮斷된 事實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곳으로부터의 退路는 三所里를 거치는 順川道와 薪川—新安州의 本道를 지나서 順川에 이르는 두가지가 있지만, 本道는 제1군단과 左翼의 제25사단의 撤收路가 될것이므로 사단은 不得已 順川道를 使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같이 하여 撤收路의 선택이 끝나자 사단장은 곧 憲兵 1개분대를 靑龍站에 急派하여 敵情을 살피도록 하였으나 이들로부터는 아무런 보고도 없었고 前線의 情勢는 더욱 緊迫한 상태에 이르고 있었다。

08.00에 제1군단장으로부터 『順川道를 버리고 비교적 안전한 安州道를 擇하라』라는 指示가 있었으나, 사단장은 군단의 右翼掩護의 重責을 저버릴 수 없을 뿐아니라 제1군단과 제25사단 撤收路의 同時利用에 따르는 混雜을 考慮하여 初志一貫으로 順川道를 擇하여 撤收할 것을 다짐하고 戰車 1개소대로 하여금 偵察토록 하였는데, 正午前에 출발한 이 戰車소대는 葛峴을 통과하기 直前에 無線보고 하기를 『이상이 없다』라고 한 뒤에는 아무런 보고가 없었다。

다시 偵察중대를 增派하였으나 靑龍站 南쪽 無名高地에 潛伏하였던 敵으로부터 奇襲을 받아 苦戰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따라 제9연대의 C중대와 戰車소대를 急派하였는데 대대 규모로 推測되는 敵의 抵抗은 매우 執拗하여, 偵察중대의 生存병력은 35명으로 줄어들었고 增援부대의 急派도 無爲로 日沒에 접어들었다。

사단은 이로써 靑龍站 一帶를 占據中인 敵이 대대 규모인 것으로 判斷하여 明朝에 공격키로 하고 敵의 夜間奇襲을 막기 위하여 事前對備토록 하는 한편 靑龍站에 파견한 부대를 陣地로 復歸토록 하였다。

사단은 초저녁에 이르러, 한낮을 지나는 동안에 緊迫하던 戰況이 小康상태를 이루자 이 間隙을 이용하여 槽桶江 南쪽에 있는 東站으로 後退하여 全面的인 後退계획을 각 예하대에 下達하였는데 그 계획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韓제3연대와 Turkey여단 및 제9연대는 우선 靑龍站 南쪽의 敵을 격파하고 사단의 撤收路를 開拓하라.

② 위의 撤收路를 開拓하면 우선 順川으로 集結하고 이어서 제38연대를 先頭로 제2정찰대, 사단사령부, 통신중대, 사단 포병대대, 그리고 공병제2대대의 順으로 南下키로 한다.

③ 제23연대는 사단의 後衛를 專擔하고 後續토록한다.』

그뒤 제8군으로부터 『사단의 退路를 掩護하기 위하여 英제29여단의 1개대대를 順川에서 北上시킨다』라는 指示에 이어 사단은 곧 靑龍站방면을 目標로 機動을 시작하였다。

제9연대(장, Charles. C. Sloane대령)는 敵2개중대 규모가 占據中인 것으로 판단되는 靑龍站부근에서의 接敵은 明日 07.00부터가 될것으로 예상하며 곧 목표를 향하여 진격하였다。

어슴푸레한 下弦달 마저 차게만 느껴지는 異域의 밤길을 누비며 南進한 연대는, 目標지역 2km 北쪽에서 突然히 敵의 奇襲을 받게 되었고 달마저 기운 漆黑속에서 奇襲을 받게되자, 연대는 약간의 動搖를 일으켰으나 곧 反擊態勢로 轉換하여 夜暗의 고요를 일깨우는 銃擊戰과 사단의 血路개척의 一戰의 幕을 열었다。

이로써 연대는 韓제3연대와 Turkey보병부대, 그리고 제38연대의 1개대대와 協同으로 모든 戰力을 展開하고 道路 前面의 高地를 공격하여 이를 占領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이 一戰은 예상과는 달리 敵의 抵抗이 執拗하여 오랜시간과 많은 損失을 가져왔으니 이는 當初 예상했던 輕裝備를 갖춘 小規模의 敵이 아니고, 中共 精銳 1개연대 이상의 병력이 도사리고 있었을 뿐아니라, 반대로 연대의 병력은 200명을 上廻하는 有名無實의 2개대대로서 그나마 각 중대의 實병력은 소대 규모만을 保有하는 形便이었으니 당연한 歸結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연대는 이와같은 敵情을 分明하게 把握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로써 사단의 退路가 突破된 것으로 錯覺하고 있었다。

2. Turkey여단(장, Tahsin Yazici 준장)—전날 夜半부터 追擊하는 敵과 夜戰을 벌인 끝에 得失相半의 戰況을 이루었고, 이날 午前中에 걸쳐 激戰을 계속하였는데, 10.00에 군단

으로부터의 全面 撤收명령과 동시에 배속된 美 제38연대의 1개대대와 함께 제2사단의 撤收를 掩護하기 위하여 全 戰下의 부대를 鳳凰里 일대로 集結토록 하였다。

12.00에 여단장 Tahsin Yazici준장은 新林里에서 一部의 高地를 固守하다가 適時에 後退하지 못한 부대를 掩護하기 위한 공격명령을 下達하여, 敵中에 孤立된 부대를 後退시키는데 성공하였으나 緊迫한 戰況에 따라서 많은 重裝備를 遺棄하는 바 되었다。

그뒤 16.00에는 1개연대 규모로 推定되는 敵이 제38연대(장, George. B. Peploe대령)제 1대대의 陣地인 鳳凰里 東西쪽 △182와 △132의 正面을 攻略하므로, 여단은 포병대대와 戰車砲에 의한 火力을 集中하였으나 敵의 攻擊은 더욱 執拗하여 17.00에는 제38연대 제1대대의 右側一角이 突破되므로써 여단의 左一線이 敵의 包圍에 露出되었고, 敵 主力이 여단의 右一線으로 急旋回하면서 포위를 企圖하므로 여단은 커다란 威脅에 直面하게 되어 一部부대의 掩護下에 撤收를 斷行하였다。

17.30에 여단은 軍隅里로 撤收함에 있어서 美전차소대와 여단의 포병대대를 先頭로 하고 보병부대를 後衛로 하여 轉進을 시작하였는데, 이때 敵은 여단의 退路를 앞질러 軍隅里에 이르는 道路沿邊의 △182와 陽洞부근에 있는 △126 일대에서 遮斷 陣地를 이미 占領하고 있었다。

이로부터 挺進한 전차소대와 포병대대는 敵의 공격에서 離脫하게 되었으나 보병부대와 제38연대의 제1대대가 △182—龍伏里에 걸친 山間道路에 이르자 또다시 敵의 重火器에 依한 集中火力을 받게되어 이를 突破하려는 여단과의 사이에 一大激戰이 演出되었다。

그러나 유리한 지형과 優勢한 兵力 및 裝備를 갖춘 敵의 공격에 의하여 여단은 一時 危機에 빠지기도 하였으나 美공군기 4대의 지원 폭격에 依한 強打와 사단 포병대대의 지원사격에 의한 鐵火의 集中으로 마침내 血路를 뚫고 魔의 계곡을 돌파한 다음 여단은 군단의 지시에 따라 順川道와 安州道로 分離되어 지휘부는 제25사단과 行動을 같이 하고, 보병부대는 제2사단에 배속되어 順川道를 따라 撤收하였는데 이날밤 제9연대와 協同으로 龍原里부근에서 다시 敵과의 激突을 벌였다。

11월 30일 : 敵은 이날 早曉의 暗黑을 뚫고 全戰線에 걸쳐 계속 追迫하였는데 살을 에이는 듯한 朔風이 휘몰아 치는 가운데 이 敵의 侵略速度를 저연시키고, 我軍의 撤收를 掩護하려는 사단 殘留부대는 또다시 阿修羅와 같은 兇敵을 맞아 激戰을 反復하였으니 그들은 이미 德川—北倉里—安州線을 뚫고 价川을 중심으로 한 淸川江 北岸까지 突進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美제9군단 主力은 新安州 비행장을 撤收한 것을 비롯하여 美제1기갑사단은 順川 南쪽 25.6km 線에서 防禦陣地를 構築하고, 新安州—順川—平壤을 連하는 京義幹線에는 제1군단 主力의 南下 隊列로 길을 메웠다。

그밖의 間道에는 落伍兵을 비롯한 地方牛馬車와 車輛등으로 붐비는 가운데 自由의 길을 헤치려는 避難民의 大行軍이 雪山과 寒野를 덮는듯 하였는데, 이를 目標로 中共의 박격포와 機銃사격이 無差別層戮을 恣行하므로써 그 凄絶한 慘景은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

1. 제9군단 제2사단(장, L.B.Keiser소장)의 제9연대(장, John G.Hill대령)는 전날밤 占領한 高地 一帶에서 安堵의 숨을 내쉬면서 이날 鷄鳴時에 戰車 1개소대로 하여금 威力偵察을 兼하여, 北上中인 英 제29여단과의 連絡을 爲하여 急派하였다。

이 戰車소대는 10.00에 葛峴에 到着하는 즉시로 『현지의 상황은 異狀이 없다』라고 보고 하였고, 反復된 偵察에서도 敵의 抵抗을 받지않고 계속 南下 하는데 성공하였다。

연대는 이와같이 活路가 開拓되었다는 報告에 接하자 士氣冲天으로 砲, 爆擊의 支援下에 곧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安易하게 생각하던 敵情과는 달리 그 抵抗이 매우 執拗하여 熾烈한 激突로써 強打 一蹴코자 하였으나 敵은 물러설 氣色조차 보이지 않고 迂回와 包圍 그리고 突破와 分斷을 노리면서 북과 피리, 꽹과리와 喇叭로써 進擊만을 재촉하였다. 이로부터 여러차례의 波狀攻擊으로 彼我間에 一進一退를 되풀이 하여 서로 死傷者의 數를 늘리기만 하였고, 그 위에 연대는 실탄의 缺乏과 戰車砲의 誤發로 戰況은 갈수록 不利하게만 되어 占領하였던 高地마저 敵手에 마끼는 바 되었다。

2. 이 무렵 英 제29여단은 커다란 接敵없이 北上하여 葛峴洞 南쪽에 있는 三叉路를 迂回하는 瞬間에 미리 潛伏하였던 敵으로부터 박격포와 機關銃에 의한 奇襲을 받아 순식간에 많은 損失을 입고 공격력까지 一時에 喪失하게 되었다。

雪上加霜으로 美 제2사단과는 連絡에 대한 事前協調도 없었을 뿐아니라 심한 비바람속의 궂은 날씨에 飛行機의 偵察도 困難하였으므로, 사단과의 거리가 不過10km인 곳에서 苦戰을 겪고 나머지 進退兩難의 危局속에 놓이게 되었으니 中共의 兵力과 裝備 그리고 그 戰法과 鬪志를 輕視한 誤謬가 빚은 損失은 참으로 컸었다。

3. 이와같은 戰況이 隣接지역에서 展開되는 동안에 四方에서 몰려든 敵은 사단의 主力을 壓迫하였고 美 제2사단사령부 마저 공격을 받기에 이르렀으니 中共은 個人에 대한 一

網打盡의 꿈으로 敵退하였을 것이다。

이로써 사단은 더욱 緊迫한 전황에 直面하게 되어 正午에는 사단장KeiSer소장이 直接 退路偵察을 끝마치고 제38연대(장, G. B. Peploe대령)를 先鋒으로 삼고 靑龍站을 目標로 後退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연대는 포병의 制壓사격에 이어서 제1대대를 先頭梯隊로 하여 戰車中隊를 앞세우면서 前進하였다。

연대의 主力이 靑龍站 南쪽 高地와 西쪽高地가 보이는 지점에 이르러 Turkey여단의 표식이 붙은 戰車와 트럭을 목격하는 刹那에 兩側高地로부터 박격포와 機關銃사격이 集中되었으며 이에 驚愕하게된 사단은 急히 兵力을 展開하여 銃砲擊을 따라 攻勢를 取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兵力과 裝備의 損失만을 더하게 되고 敵을 制壓할 수가 없었으니 完全히 包圍網속에서 包圍合擊을 당하고 말게 되었다. 이리하여 최초에 隘地를 突破하고 死中에서 活路를 開拓하였을 때에는 남은 戰車가 不過一輛뿐이었다。

後續하는 사단의 主力도 이 決戰에 逐次로 投入된 결과 生死生生의 惡戰苦鬪를 계속한 결과 積屍가 纍纍한 가운데 裝備와 車輛은 불타고 砲聲이 殷殷한 가운데 重傷 衛生兵이 물을 찾고 輕傷 將校가 拳銃으로 應射하니 鮮血은 凍土에 얼룩지고 醒臭는 冷風이 찾는 慘景을 보였다。

이와 같은 凄絶한 紛戰亂鬪끝에 간신히 血路를 突破한 사단이 順川 南쪽에 이르렀을 때의 生存 將兵數는 겨우 20%에 不過하였다。

4. 제23연대(장, Paul. L. Freeman대령)는 이날 사단의 後衛를 담당하였으나 阿修羅의 무리가 狂亂하는 싸움터에서 사단과의 通信마저 杜絶되던중 無線의 連絡이 訛傳되어 제2사단의 隊列을 벗어나 제25사단의 掩護부대에 後續하므로써 接敵이 없는 安州道를 따라 後退하였다。

5. Turkey여단의 보병부대는 전날밤 龍源里부근에서의 전투를 계속하여 많은 戰死傷者를 내는 가운데 제9연대와 協同으로 血路를 突破하고 慈山으로 後退하여 제35연대와 陣地를 연결하였다。

이날 제25사단(장, W. B. Kean소장)은 前線의 右一線을 맡았던 연대의 掩護를 받으면서 淸川江을 渡河하였으나, 安州 南쪽에서 一戰을 決하였을 뿐으로 커다란 接戰이 없는 가운데 淸川으로 後退한 다음 軍의 全面的인 撤收를 掩護하기 위하여 淸川 東北方에 있는 順川—北八里로 通하는 作戰路를 따라 제24, 제27, 제35연대의 順으로 陣地를 占領하였다。

그런데 이때의 부대 配置는 제24연대를 "돌곡재"로부터 芙蓉里에 이르는 線에 제27연대는 上八里—八龍里間에, 또 제35연대는 芙蓉里—肅川에 이르는 線에 각각 掩護陣地를 占領 強化하면서 敵의 南侵을 警戒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12월 1일과 2일의 兩日에 걸쳐 U.N군이 陽德—成川—順川—肅川을 連하는 「平壤防禦線」에 布陣하였을 때에는 敵의 侵略 攻擊도 주춤하는 듯 하였고 이 敵을 찾아 痛擊을 加하려는 戰爆機의 一方的인 制空속에서 地上軍은 後退의 발길을 멈추고 捲土重來의 反擊을 企圖코자 하였다。

그러나 잠시동안의 小康상태가 明滅하였을 뿐 다음날인 3일에 이르자 敵은 中部山岳지대를 비롯한 成川—順川지구를 攻略하였는데 곧 이어서 平壤을 強占할 氣勢로 다시 大軍을 휘몰아 狂波와 같이 몰려 드리라는 說이 파다 하였거니와, 이를 뒷받침 하듯이 東部戰線의 咸興—元山—圓을 壓迫하려는 敵은 먼저 長津湖부근에서 美 제1해병사단에 대한 數梯波의 包圍攻擊을 斷行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當初 「平壤防禦線」을 固守하려던 U.N군의 계획은 全전선에 걸친 부대간의 連繫가 어려운 狀況에 이르렀을 뿐아니라, 長時日에 걸친 連이은 激戰에서 戰力이 激減되어 再정비를 要하는 부대가 많았고 또한 航空지원에 의한 連爆도 天候의 惡條件등으로 크게 期待하기 힘들었으므로 38°線으로의 撤收가 斷行되었으니 참으로 悲痛한 노릇이 었다。

이 무렵 美 제2사단은 부대정비를 위하여 Turkey여단 및 美 제1기갑사단과 같이 慈山을 경유하여 一旦 平壤으로 撤收한 다음 다시 一路 南下하여 同월 中旬에 美제2사단主力은 永登浦에, 그리고 Turkey여단은 素砂에 各各 집결하여 부대를 再정비 하다가 뒤에 여단은 美 제25사단에 배속되어 金浦半島를 防禦하였다。

한편 제25사단은 上八里—肅川間에서 陣地를 占領하다가 激戰의 連續에 의하여 疲勞한 將兵들의 士氣振作과 부대정비를 위하여 順川 南쪽 御重里로 撤收하였다。

그뒤 12월 4일부터 「平壤撤收」가 시작되므로써 御重里 一帶의 방어진지를 정리하고, 翌日인 5일부터는 韓제1사단과 英제29여단과의 連繫를 이루며 平壤 北쪽에서 撤收부대의 掩護임무를 遂行하였는데, 이때 小規模의 中共偵察隊와의 接敵이 있었을 뿐 敵主力과의 激戰은 없었다。

U.N군 主力의 「平壤撤收」가 완료되자 사단은 계속 後衛로서의 掩護임무를 專擔하여 8일에는 敵의 迅速한 南侵을 阻止하기 위하여 中和를 回守하였는데, 이때의 U.N군의 主抵抗線은 新溪—谷山—遂安—中和—兼二浦를 連하는 線까지 물러나 있었다。

그뒤 사단은 大局的인 戰況의 轉換에 隨伴하여 38°線을 경유하여 金浦半島에서 防禦임무를 遂行하다가 배속된 Turkey여단과 함께 安城으로 移動하여 次期의 反擊을 待期하였다。

군단 動向의 大要는 上述한 바와 같거니와 平壤 以南의 250km餘의 空間에서는 北共의 敗殘 Guerrilla의 蠻行과 奇襲이 恣行되었고 自由를 찾아 越南하는 避難民의 大 行列이 定處없는 流浪의 길을 헤쳤으니, 嚴冬雪寒에 헐벗어 凍死한 겨레도 많았거니와 굶주려 餓死한 눈물겨운 慘狀은 同族相殘의 싸움에서 더욱 뼈속깊이 사무치게 하였다。

10. 海軍의 黃海道 避難民 救出作戰과 救護活動

(1951년 1월 5일부터
1951년 5월 31일까지)

참조 : 상황도 제 8 호

가. 참가함정 및 주요 지휘관

PF—61함	장 중령 崔 孝 鏞	YMS—309함	장 대위 柳 來 赫
PC—704함	장 소령 玄 時 學	YMS—313함	장 대위 朴 堯 鉉
YMS—304함	장 대위 梁 漢 杓	白翎島駐屯部隊	장 중령 李 熙 品

나. 작전 전의 개황

潰走하는 敵을 추격하여 北進 중이던 我軍은 1950년 10월 18일 載寧—信川 地域에 진출하였다. 이곳 黃海道 西部地域의 敵 主力은 我軍의 進駐에 앞서 이미 退却하여 버렸으며 그 一部의 殘黨은 九月山 一帶에 潛入하여 隣近住民에 대한 行悖를 일삼고 있었는데 自由를 다시 찾은 이 地域의 각 마을에서는 愛國青年들이 중심이 되어 治安隊와 自治委員會를 結成하여 大韓民國 行政府가 들어선 해를 기다리면서 鄕土의 治安維持와 共産殘黨과 附逆者의 索出에 盡力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中共軍의 侵略으로 戰勢가 바뀌어 我軍이 後退하여 38°線 以南에서 戰線을 維持하게 되자 西部 黃海道 一帶의 事態는 배우 어렵게 되어갔던 것이다.

北韓의 수많은 同胞가 我軍의 移動을 따라 南으로 避難길에 올랐으나 軍의 迅速한 移動에 따르지 못하고 뒤 따르는 敵으로 인하여 進路가 막히게 되자 不得已 中途에서 西海 黃海道로 몰려들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이 地域의 住民들도 敵이 또다시 侵略하게되자 共産黨 治下의 삶을 拒否한 결과 赤上들로 부터 몰려받은 정든 故鄕 땅을 버리고 男負女戴하고 自由大韓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愛國青年들은 敵이 再次 이 地域을 占據하는 것을 袖手傍觀 하지는 못하였으며 載寧—信川—安岳—長淵—松禾—殷栗—長連 등 각 마을에서 그들은 鄕土防衛隊를 조직하여 내고장 防衛에 직접 나섰던 것이다. 비록 兵力과 裝備 그리고 訓練 등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滿足스러운 것이 없었으나 오직 反共精神과 士氣만은 衝天하여 곳곳에서 적과 싸우면서 敵이 다시 진격하기를 鶴首苦待하게 되었던 것이다.

1951년 1월 6일 北共 제26海岸警備旅團의 重火器部隊가 鎭南浦로부터 對岸인 黃海道 甕島에 上陸을 試圖하였으나 이 地域은 앞서 金宗鎭 陸軍大尉(뒤의 九月山 部隊長)가 中心이 되어 長連邑 出身青年으로 구성한 青年義勇軍(連豊部隊라 呼稱, 뒤의 九月山部隊의 前身이다)이 活動하던 고장이어서 上陸한 敵은 連豊部隊의 攻擊으로 上陸하자 마자 곧 全滅되었다.

8일에 敵은 執拗하게도 北共 제26海岸警備旅團의 제5대대를 北甲에 上陸시키고 제3대대는 載

第一安岳을 거쳐 迂廻하여 攻擊하게 되었다。彼我間에 熾烈한 戰鬪가 繼續되었으나 連隊部隊는 力不足하여 不得已 西쪽으로 轉進하면서 戰鬪를 계속하게 되었다。

또한 黃海道 南部에서는 北共 제26여단이 沙里院에서 載寧—信川을 거쳐 1월 10일에 松禾邑을 攻擊하였는데 이때에 松禾郡守 李眞彦과 警察署長 朴宗華는 警察隊와 愛國青年들의 陣頭에서 敵과 싸웠으나 종내 버티지 못하고 마침내 住民들을 이끌고 松禾을 撤出한 다음 長山串島의 德積鎭로 向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西部 黃海道 一帶의 住民과 避難民들은 長淵—松禾—殷栗 등 三處의 海岸地帶에 集結하게 되었고 드디어 西海에서 活動 중인 우리 海軍艦艇에게 救出을 要請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계속 遊擊戰을 展開 중인 青年義勇軍에 대한 支援도 要請하게 된 것이다。

다. 작전 경과의 개요

1월 5일 : 이날 19.30에 海軍의 PF—61艦 (장, 崔孝鎬 중령)은 YMS—303艦 (장, 金元錫 대위)과 YMS—304艦(장, 梁漢昇 대위)을 거느리고 大同江 入口의 椵島—席島 一帶의 沿岸警備 任務를 遂行하고 있었던 바 小型發動船을 타고 온 松禾郡守 李眞彦의 訪問을 받게 되었는데, 李 郡守는 黃海道 西海岸에 집결한 피난민의 救出과 青年義勇軍에 대한 支援의 緊急함을 呼訴하고 海軍艦艇의 支援을 要請하였다。

이어 PF—61함장 崔孝鎬 중령은 사태의 重要性에 비추어 즉각 海軍本部에 이 狀況을 打電하는 한편 麾下 艦艇을 거느리고 急遽 現地로 出動하여 青年義勇軍을 위한 支援射擊을 敢行하였다。한편 PF—61艦으로부터의 報告에 접한 海軍本部에서는 이날로 海本 作命 甲 제25호로서 다음과 같은 要旨의 基本方針을 下達하였다。

『① 貴 編隊는 義勇青年軍의 作戰에 積極 協力할 것이며 同 地區의 확보가 至難하여 부득이 撤收할 경우에는 全艦艇을 동원하여 最近距離에 있는 각 島嶼에 救出 輸送하는데 全力을 다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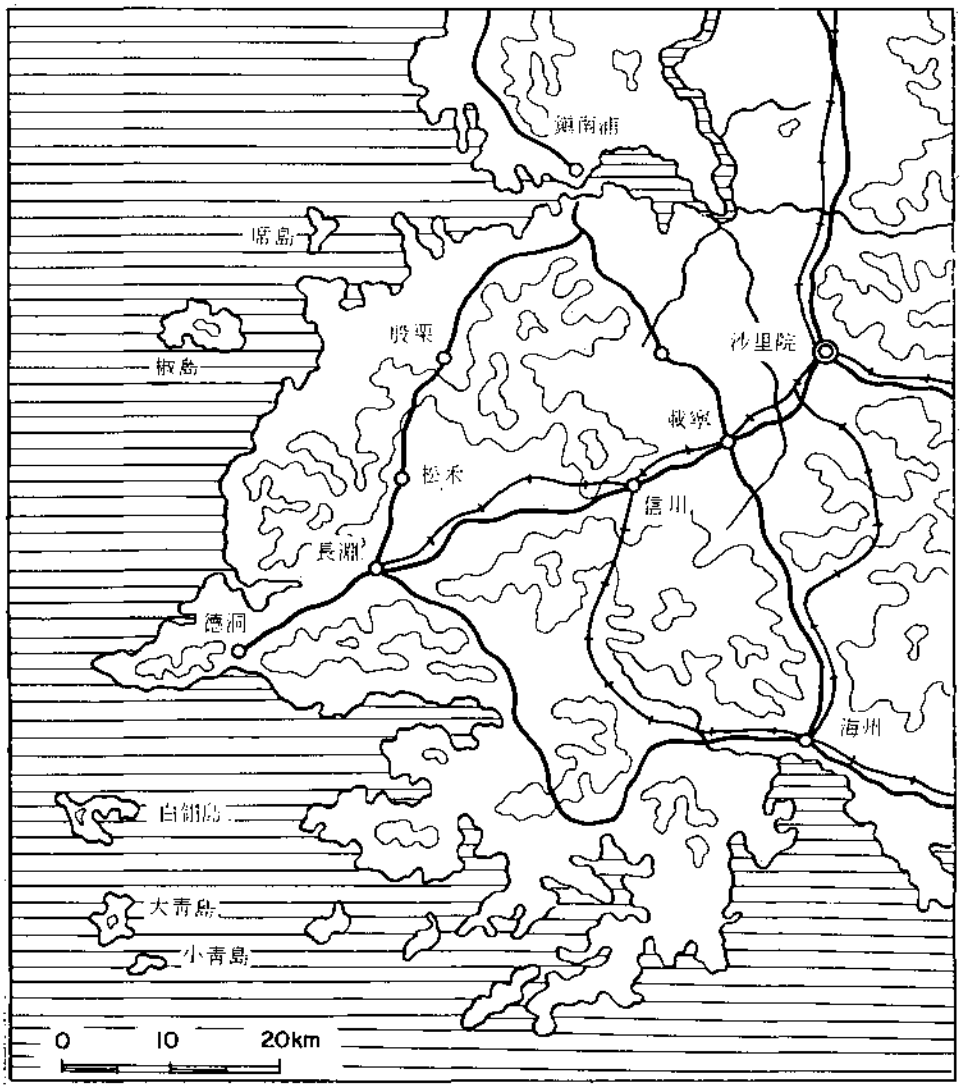
② 輸送用 船舶을 該 地域에 廻航시킬 것이니 避難民과 米穀에 牛馬車를 動員하여 海岸地帶에 集結시켜라。

③ 彈藥의 供給을 實施할 것인즉 義勇軍이 所持하고 있는 銃器의 種類를 報告하라。

④ 輸送船舶이 現地에 到着하면 避難民은 白翎島와 於靑島에 輸送하고 米穀은 德積島에 輸送하였다가 避難民에게 供給토록 하라。

⑤ 可能한 限 現地에서 發動艇과 木船을 徵發 動員하여 戰鬪要員 以外의 良民을 近距

◇ 상황도 제8호 黃海道 西部隣接島嶼圖



離에 있는 島嶼에 輸送하라。』

1월 7일 : 위의 作命에 따라 現地 出動한 PF—61艦은 旗下 艦艇과 더불어 海岸線의 各 擔當區域을 封鎖하는 한편 地上의 義勇軍에 대한 艦砲 支援射擊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피난민과 米穀의 수송에 從事하였다。 이날 PF—61艦은 北緯 38°40′ 東經 124°25′에 있는 目標에 대하여 도합 3″砲彈 34발과 40㎜砲彈 22발, 그리고 20㎜ 砲彈 758발과 爆

彈 4발을 集中 強打하였다。

1월 9일 : 앞서 軍의 基本方針을 下達한 海軍本部에서는 이날 現地의 作戰強化를 위하여 PC—704艦(장, 玄時學소령)에 대하여 出動을 命令하였으며 同艦은 義勇軍에게 供給할 各種 實彈(蘇式小銃彈 10,000 발, 99式小銃彈 10,000발 등)을 積載하고 11일 釜山을 출항하였다。또한 이날 LST 丹陽號 (船長 金依良)가 피난민의 수송을 위하여 急派되었는데 同 船便에는 피난민들의 衛生管理를 考慮하여 軍醫官 2명과 衛生下士官 6명을 便乘시켜 派遣하였다。

避難民의 본격적인 救出은 長淵郡 海安面 德洞浦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곳에는 이미 記述한 北共軍의 松禾邑 侵入을 계기로 수많은 피난민이 蝟集하여 艦艇의 구원의 손길을 苦待하고 있었던 것이다。

1월 12일 : YMS—309艦(장, 柳來赫)은 德洞과 月乃島에서 509명의 피난민을 救出하는 즉시로 後送하였다。

한편 戒嚴部隊는 殷栗郡 大谷面에서 連隊部隊와의 合流를 企圖한 바 있었으나 連隊部隊의 熊島 脫出로 目的을 이루지 못하고 一部는 故鄕으로 돌아가고 一部는 連隊部隊의 뒤를 쫓아 熊島로 入島하게 되었다。

1월 13일 : 이날 支援 次 急派된 PC—704艦과 合勢한 YMS—309艦은 現地의 發動船 2척과 帆船 10척을 얻어 德洞에서 피난민을 수송하여 YMS—309艦에 滿載한 다음 大靑島로 수송하였다。

1월 14일 : 이날 YMS—304艦(장, 梁漢昀 대위)은 松禾郡 鶴溪里의 敵陣에 포격을 加하는 한편 이 곳의 피난민 800명을 救出하여 椵島에 移送하였으며 YMS—309艦은 德洞에서 피난민 97명을 大靑島로 수송하였다。

또한 PF—61艦은 德洞 後方에 PC—703艦(장, 李成浩 중령)은 豊川地區에 각각 함포사격을 실시하였다。

한편 敵은 長淵—殷栗에 侵入하였으며 黃海道 北部 一帶에서 활약중이던 靑年 義勇軍에게 壓力을 주고 있었다。

1월 15일 : YMS—304 艦은 松禾郡 眞風面 許沙里에서 피난민 1,300명을 救出하여 椵島로 移送하였으며 YMS—309艦은 德洞에서 91명을 救出하여 PF—61艦에 引繼하여 白翎島로 수송케 하였다。

1월 16일 : YMS—304艦은 松禾郡 許沙里에서 피난민과 糧穀 314 가마니를 적재하고 나

서 다시 同 郡 雲遊面 龍首里에서 피난민 250명을 救出하여 椵島에 移送하였으며 YMS—309艦은 龍堤浦에서 피난민 225명을 便乘시켜 白翎島로 수송하였다。

1월 18일 : 殷栗郡 西部面 谷里에서 活動중이던 殷栗部隊는 敵의 공격을 받고 熊島와 椵島로 移動하므로 黃海道로부터의 避難民의 數가 激增하게 되자 이들을 應急收容하게 된 각 島嶼와 海軍에서는 이들에 대한 管理와 救護가 커다란 문제로 擡頭되었으므로 이날 海軍本部에서는 이러한 實情을 勘案하여 보다 強力한 作戰遂行을 目的으로 海軍作命 甲 제32호로서 白翎島 駐屯部隊를 創設하게 되었고 部隊長에는 李熙品 海軍中領이 任命되었으며 駐屯兵力으로는 海兵隊가 配屬되었다。

한편 現地에서는 피난민의 救出作業이 계속되었으며 이날도 PC—704艦과 YMS—304艦 그리고 YMS—313艇(장, 朴兌鉉 대위)는 松禾郡 月沙里에서 5,000명의 피난민을 白翎島에 救出 輸送하였다。

1월 19일 : YMS—309艦은 甕津郡 月乃島에서 16일부터 이날까지 걸쳐 도합 689명의 피난민을 救出하였다。

1월 20일 : YMS—309艦은 月乃島에서 警察隊員 103명을 救出하여 白翎島에 移送하였다。

1월 22일 : 이날 YMS—304艦은 松禾郡 許沙里 近傍에 艦砲射擊을 실시하고 武裝한 隊員을 上陸시켜 敵情을 蒐集하는 동시에 피난민 300명을 救出하여 椵島에 수송하였으며 YMS—309艦은 漁化島에서 信川署員 金正海 外 170명을 便乘시켜 龍湖島에 移送하였다。

1월 23일 : YMS—304艦은 전날에 이어 靑年義勇軍 200명을 月沙里에 上陸시켰으며 YMS—309艦은 甕津地區의 靑年義勇軍의 家族 248명을 救出하여 白翎島에 수송하였다。

1월 25일 : YMS—304艦은 지난 23일 月沙里에 上陸시켰던 靑年義勇軍 200명을 철수시켜 椵島에 移送하였는데 이들은 上陸한 뒤 敵 1개중대 병력과 交戰을 벌린 바 있으며 地上의 敵情을 수집하고 돌아온 것이다。

1월 26일 : YMS—304艦이 眞風面 許沙里에서 350명의 피난민을 椵島로 수송하였으며 27일에도 1,000명을 救出하여 椵島로 수송하였다。

1월 30일 : YMS—304艦은 松禾郡 月沙里의 敵陣에 砲擊을 加하였으며 熊島에 孤立된 靑年義勇軍과 피난민 300명을 椵島로 수송하였다。 이 날의 포격에서 同 艦은 40㎜ 砲彈 214발과 30㎜ 砲彈 70발 및 重機彈 245발을 集中사격 하였다。

1월 31일 : YMS—304艦은 松禾那 雲遊面 龍首里의 敵에게 포격을 실시하고 이 지역의 주민 700명을 救出하여 椵島에 피난시켰으며 YMS—309艦은 月乃島에 피난한 警察隊員 51명을 救助하여 白翎島에 수송하였던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黃海道 地區의 피난민 救出作戰은 年中에서도 가장 酷寒期에 實施되었으니 零下 15°C에서 20°C를 내리는 추위와 심한 風浪을 무릅쓰고 진행되었으며 더우기 海岸은 結氷하여 艦艇을 直接 着岸시킬 수 없었으므로 現地의 小型木船을 利用하거나 陸地와 艦艇 사이를 로프로 연결하여 이 줄을 타고 乘艦시키는 등 말 못할 苦衷을 겪어야 하였다。

1월 말 현재로 우리 해군 함정에 의하여 구출된 피난민의 總數는 62,082명이었으며 이들 가운데 靑年壯丁 7,433명은 우리 해군에서 유격대로 訓練 編成하여 陸地에 逆上陸시켜 遊擊活動과 情報蒐集工作에 從事시켰는데 各 島嶼別 피난민 및 靑年壯丁의 收容狀況은 다음과 같다。

島名	피난민(명)	靑年壯丁 (명)
德積島	8,000	2,003
白翎島	2,961	2,717
延坪島	15,000	—
椵島	3,000	1,005
大睡鴨島	8,000	—
小睡鴨島	3,000	—
大, 小靑島	1,500	—
於靑島	178	—
茂島	8,000	—
興島 騎島 漁化島 遮島 龍湖島	500	1,708
計	54,649	7,433
合計	62,08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도합 62,000 餘名에 달하는 避難民들을 일단 黃海道 西, 南部 沿岸 여러 섬에 分割 收容하였으나 不時에 피난하게 된 그들의 生計는 막연하였으며 衛生 및 醫療施設도 殆無하여 이들에 대한 救護對策이 深刻하고도 時急한 문제로 浮刻되었다。

당초에 海軍本部에서는 이와같은 문제를 豫見하고 일찌기 1월 5일의 海本 作命 甲 제25호에서 피난민의 救出과 아울러 陸地로부터 米穀등 食糧의 收集 搬出을 指示한 바 있었으며 1월 11일 피난민을 수송하기 위하여 現地에 急派된 LST 丹陽號 便에 軍醫官과 衛

生下士官을 派遣한 것인데 이들은 現地에 도착하자 곧 白翎島와 德積島에 軍醫官 1명과 衛生下士官 3명을 各各 駐留케 하면서 인근 島嶼를 巡廻 治療토록 하였다。

2월 9일 : 海軍本部에서는 이날 再次 LST 丹陽號로써 救護物資과 多量의 醫藥品을 輸送하여 白翎島 駐屯部隊長 李熙晶 중령으로 하여금 西海岸 각 島嶼에 分配토록 하였는데 각 도서 별 의약품 공급 현황은 다음과 같다。

島嶼 \ 藥品	發疹티프스藥 (CC)	腸티프스藥 (CC)	天然痘 왁 친 (명분)	DDT (Pound)	페니시린 (상자)	아스피린 (상자)	포도당 (注) (상자)	다이야진 (정)	脚絆붕대 (개)
白翎島	4,500	3,500	7,000	425	45	2,000	150	1,000	500
德積島	3,400	2,500	5,000	300	30	1,000	150	2,000	500
於靑島	5,800	2,000	5,000	725	15	1,000	0	1,000	400
椵島	5,400	3,000	6,000	1,250	650	2,100	250	3,000	2,050

2월 11일 : 海軍本部에는 이날 수송선 平澤號에 白米 4,000 가마니와 소금 200가마니를 積載하고 釜山을 출발케 하여 16일과 17일 兩日間에 걸쳐 白翎島와 德積島에 도착하여 下役토록 하였다。

2월 14일 : 이날 海軍本部에서는 美軍에서 提供한 救護物資를 LST 三陟津號로서 또다시 白翎島와 德積島에 수송하여 공급토록 하였다。

2월 17일 : 白翎島 駐屯部隊長의 報告에 의하면 椵島에서 發疹티프스가 發生하였으므로 部隊에서는 이날 豫防약젠 50병과 DDT 160파운드 그리고 5일분의 食糧으로 白米 350 가마니를 同島에 分配 수송하였으며 기타 섬에도 各各 所要의 食糧과 藥品을 수송 공급하였다。

2월 20일 : 海軍本部에서는 이날 수송선 金海號로써 釜山을 出港케 하여 群山에서 政府의 救護米를 積載하고 白翎島에 이르러 各 島嶼에 分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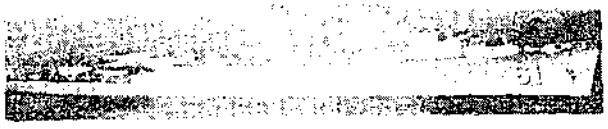
3월 15일 : 또 海軍本部에서는 이날 수송선 雄川號로써 延坪島와 그 인근 섬에 수송될 救護物資와 醫藥品을 싣고 17.00에 釜山을 出港케 하였다。

3월 19일 : 수송선 原州號는 美軍民事處에서 제공한 救護米와 食鹽을 滿載하고 白翎島에 수송하기 위하여 釜山을 출항하였다。

4월 6일 : 이날 수송선 倭館號가 政府의 救護米 150ton을 싣고 椵島를 향하였으며 同船은 4월 25일에도 또한 救護米를 椵島에 수송한 바 있었다.

5월 18일 : 이날 海本 作命 甲 제276호에 의거하여 LST 洪川號가 政府의 救護米 4,000

가마니를 積載하고 白翎島와 延坪島를 향하여 釜山을 出發하였다。



<피난민 구출작전을 수행한 PF—61함>

§ 參戰者의 證言

◇ YMS—304艦 부장 金 煥 秀

(1965년 7월 13일 현직 미상.예)

1951년 1월 초순에 우리 YMS—304艦(장, 梁漢杓 대위)은 椒島—席島에서 避難民 救出에 從事하였읍니다。우리 배에 가득히 태우니 400명을 태우겠읍디다. 24시간을 꼬박 陸地와 椒島—席島 사이를 往來하면서 수송하였읍니다。

나중에는 北共軍이 海岸까지 오게 되었읍니다。그래서 처음에는 小型木船(傳馬船)을 갖고 陸地에서 배까지 피난민을 운반하다가 뒤에는 陸地에서 배까지 Rope로 연결하여 이 줄을 타고 운반하였읍니다. 寢室은 勿論 甲板 위까지 피난민과 식량을 싣고 수송하였던 것입니다。

11. UN海軍의 西海(鎭南浦-仁川)撤收作戰(1950년 12월 4일부터 1950년 12월 6일까지)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極東艦隊 사령관 美 해군중장
C. T. Joy
제90機動部隊(TF 90)사령관
美 해군소장 J. H. Doyle
제90.1機動戰隊(TG 90)사령관
美 해군소장 L. A. Thackrey
제1輸送戰團(Transportation squadron)
사령관 美 해군대령 S. G. Kelly
제95機動部隊(TF 95)사령관
美 해군소장 A. E. Smith
제95.1機動戰隊(TG 95.1)사령관
英 해군소장 Sir. W. G. Andrews
제95.12機動分隊(TU 95.12)사령관
加 해군대령 J. V. Brock

나. 작전 전의 개황

1950년 11월 초순 我軍이 鴨綠江을 목전에 두고 쾌속조로 北進을 계속하고 있을 무렵에 한가닥의 어렴풋한 두려움이 極東海域의 美 海軍 高級將星들의 심중을 괴롭히고 있었다. 中共軍의 출현을 알리는 산발적인 보고라던가 후퇴를 계속하는 敵이 頑强한 저항을 試圖하지 않는 점이며 西部戰線의 美 제8군과 東部戰線의 美 제10군단 사이의 단절된 戰線, 그리고 날로 발악을 더하여가는 中共의 北京放送의 威嚇的인 宣傳등은 앞으로 닥쳐올 불길한 사태를 예고하는 듯이 보였던 것이다.

11월 초에 美 제10군단과 해병대를 元山에 上陸시키고 나서 美 極東艦隊 司令官 C. T. Joy중장은 제90上陸機動部隊司令官인 J. H. Doyle 소장을 東京으로 招致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Doyle소장이 현지의 사태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떠나기를 꺼리자 자신이 Doyle소장을 그의 旗艦 Mount McKinley 艦로 訪問하였던 것이다.

이 때 Doyle소장은 Joy중장과 또 그와 同行하였던 美 海軍長官 F. D. Mathews와 美 上院議員 C. Pepper 앞에서 당시의 戰況에 대한 자신의 危懼心을 다음과 같이 表明하였다고 뒤에 회상하고 있다。

『나는 敵의 動向에 대하여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고 동시에 美 제8군과 美 제10군단 간에 존재하는 불안에 대하여 지적하였는바 우리는 이 兩 부대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한편 Joy중장의 美 極東艦隊 司令部에서도 韓國戰線에 中共軍의 모습이 나타났을 무렵부터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총체적인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다.

이 계획은 진척되어 11월 13일 「제116—50작전」이라고 命名되어 하달되었는데 이 작전계획에는 비상시에 UN군을 韓國으로부터 철수시키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또한 韓國과 日本의 각 港口의 水路와 貨物을 積載할 때에 필요한 세부적인 정보도 기재하고 있었고 各型 艦艇의 人員과 搭載能力도 기술하고 있었다. 이 계획에 의하면 美제90상륙기동부대 사령관이 각 海域의 海軍部隊의 지원을 받아가며 공군과 해군의 전 작전을 지휘하게 되어 있었다.

11월 28일 15.34에 드디어 구체적인 첫통보가 美 極東艦隊 司令部로부터 美 제90상륙기동부대 사령관 J. H. Doyle소장에게 전달되었으니 北韓地域으로부터 UN군을 철수하게 될지도 모르는 사태에 대비하여 제반 작전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Doyle소장과 그의 참모들은 즉시 상륙기동함대의 艦下 艦艇의 半으로 제90.1機動戰隊 사령관 L. A. Thackrey 소장 지휘 아래 西海岸에서의 철수작전을 수행토록 하고 나머지 半을 元山—興南 지역에 배당토록 하는 예비계획을 작정하였다.

11월 29일에 이 계획은 하달되었는데 여기에서 모든 함정은 공중으로부터의 敵의 공격에 대비하도록 경고하였고 美 제90상륙기동부대는 6時間 以內에 非常出動을 對備할 態勢에 들어갈 것과 韓國海域의 모든 上陸用 艦船은 各自의 위치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하였다. 또 아울러 日本의 Yokosuka(橫須賀) 港에 있는 모든 海軍部隊는 Sasebo(佐世保)港에 집결하도록 지시하고 있었다.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첫 段階 조치가 진행되고 있을 때 한편에서는 그와 같은 최악의 사태를 저지하려는 노력이 전선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11월 28일에 美 제5공군의 지원요청에 따라 美 제77기동부대에서는 旗艦인 Philippine Sea號와 Leyte號로부터 8대의 함재전투기를 일선에 배치하고 있었으며 6척의 驅逐艦 母艦도 일선해역에 배치되었다. 함재전투기들은 처음에는 정찰비행대만 종사하였으나 뒤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상공격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앞으로 닥쳐 올 사태는 보다 많은 함정을 필요로 할 것이 분명하였으므로 香港에 가 있던 英國 海軍에게 급히 戰線에 복귀하라는 긴급電文이 발송되었고 이에 따라 W. Andrews 소장은 Theseus號로 12월 1일에 日本 Sasebo(佐世保)를 향하여 출발하였으며 Kenya號도 곧 그뒤를 따랐다.

한편 臺灣海峽에 있던 美 遠洋艦 Manchester號도 韓國海域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定期修理를 하기 위하여 美 本國으로 귀국 중이던 제31驅逐艦戰隊은 進路를 韓國으로 되돌리도록 명령이 내려졌고 또한 本國으로 귀국 예정이던 공격수송선의 예정도 변경되었다.

한편 Guam島로부터 日本에 도착된 Sicily號는 새로 海兵隊 戰鬪機를 탑재하기 위하여 급히 積荷를 풀도록 지시 되었으며 高性能 空軍 Z機를 탑재한 輕航母艦 Bataan號도 Yokosuka(橫須賀)에 도착하여 대기 상태에 있었다.

또 護送航空母艦 Bairoko號는 美國에서 歸航중에 있었으며 앞서 Joy중장으로부터 파견요청을 받았

된 航空母艦 Boxer號도 美 海軍作戰部長 Sherman 대장의 파견 승인이 내리졌다.

위와 같은 함정 배치의 변동에는 많은 시간이 소비되기 마련이었지만 비교적 신속한 撤收이 가능하였던 까닭은 美 海軍에 예비함대가 있었고 再就役이 事前에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 예로 7월 25일에 美 海軍作戰部長은 高速航空母艦 Princeton號의 就役을 지시하였었는데 W.O. Gallery 대령 지휘 아래 거의가 再召集된 예비역 장병으로 편성된 승조원에 의하여 8월 28일에 취역할 수 있었으며 所定의 훈련을 마치고나서 제5항공모함전대 사령관 R.A. Ofstie 소장을 태우고 11월 초에는 韓國을 향하여 출발하였던 것이다.

한편 陸上에서는 11월 29일과 30일의 兩日에 걸쳐 美 제8군이 淸川江을 건너 계속 南으로 撤退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韓半島의 中部나 東部에서와는 달리 별다른 敵의 저항을 받지 않았으나 苦難을 겪으면서 淸川江을 건넜던 美 제2사단은 順川 北쪽 5miles에 걸친 敵의 도로봉쇄와 공격으로 모진 시련을 겪어야만 하였다.

이 무렵 美 제5공군과 더불어 고속항공모함 소속의 항공대는 도처에서 지상군을 엄호하여 敵을 공격하였다. 12월에 들어서자 제2사단의 나머지 부대들도 順川에 도착하였으며 美 제8군과는 달리 별도로 平壤을 향하여 撤收를 계속하고 있었다.

11월 29일의 Doyle소장의 명령으로 西海岸에서의 철수작전을 지휘하게 된 Thackery 소장은 즉시 활동을 개시하였으니 그는 그날로 몸소 仁川으로 비행하여 美 제8군의 Walker중장과 港灣作戰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다음날 30일에는 현지 사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2명의 참모를 직접 鎭南浦로 파견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12월 1일 앞으로의 계획을 협의하기 위하여 興南에 있는 Doyle소장을 기함 Mount McKinley號로 방문하였다.

12월 1일의 東海岸의 일기는 몹시 좋지 못하였는데 항공모함으로부터 아침 출동을 한 항공대는 고원지대에서 짙은 구름을 만났으나 美 제8군의 作戰地域으로 빠져나가 그 곳에서 敵의 大部隊集結地를 발견하는 즉시로 곧 공격하였으며 新安州에서는 友軍이 버리고 간 장비와 탄약 저장소를 모조리 폭파하였다.

다음 날인 12월 2일에 다시 10대의 항공기가 출격하였으나 이 출격이 西部戰線에서는 마지막의 출격이 된 셈이였다. 西部戰線에서는 이미 美 제8군은 전투를 하고 있지 않았으며 주로 鎭南浦로 밀리게 되리라는 전망이 支配的이어서 平壤—元山을 잇는 腰部地帶에 戰線을 유지한다는 기대는 거의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다.

12월 3일 마침내 美 제5공군은 南韓과 日本으로 이동하는 최 단계의 작업을 완료하였고 美 제8군의 Walker중장의 지휘소도 平壤에서 서울로 이전하였다. 그 밖의 後方支援部隊들도 南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짐을 꾸리고 있었는데 敵은 드디어 平壤에 들어왔으나 美 제8군이 너무나도 신속하게 南還하였기 때문에 鎭南浦를 순식간에 무방비상태로 노출시키는 결과가 되었고 이 항구의 철수는 시급하게 되었다.

다. 작전 경과의 개요

1950년 12월 1일 日本에 있던 APA Bayfield號에 승조한 美 海軍의 제1수송전단 사령관 S. G. Kelly대령은 제90. 1기동전대에 소속되어 仁川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출항하였다.

3일 黃海를 향하여 항해 중이던 Kelly대령은 極東艦隊 司令官인 C. T. Joy중장으로부터 제90. 1기동전대 사령관 Thackrey소장에게 보내는 전문을 傍受하였는데 거기에는 Bayfield호를 포함한 함정들을 급히 鎭南浦로 파견하여 줄 것을 美 제8군이 요청하고 있다는 사연이 있었고 아울러 현지의 많은 부대를 탑재하고 보호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위구심을 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電文이 있은 뒤에 있어야 할 Kelly대령 자신에 대한 행동지시 電文은 뒤따르지 않았다. 당시 제90. 1기동전대 사령관인 Thackrey소장은 아직 韓國內에서 여행 중이었고 그의 참모들은 행동을 취하는데 민첩치 못하였던 것이다.

계속하여 北으로 항해하면서 Kelly대령은 極東艦隊 司令部의 電文에서 받은 印象과 자신에 대한 행동지시의 缺如로 다섯시간이나 속을 태우고 있었다. 22. 00에 이르러 그는 드디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현지로 갈 것을 결심하였으며 분산되어 있는 그의 麾下 함정에게 4일 아침에 鎭南浦의 機雷掃海 完了區域 밖에서 자기와 會同할 것을 命令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른 함정들도 역시 행동을 개시하였다.

4일 03. 30에 Kelley대령은 또다시 美 제95기동부대 사령관 A. E. Smith소장으로부터 Thackry소장에게 보내는 전문을 傍受하였는데 거기에는 Canada海軍의 J. V. Brock대령(제95. 12기동분대 사령관)이 지휘하는 6척의 驅逐艦이 수송부대를 護送하게 될 것이라는 것과 Ceylon號 역시 日本의 Saseho(佐世保)港을 떠나 西海를 향해 중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실은 Kelly대령 자신은 몰랐었지만 더 많은 지원대책이 진행되고 있었으니 즉 香港으로부터 Saseho(佐世保)港에 긴급히 돌아온 Andrews소장은 기함인 Theseus號와 4척의 驅逐艦을 거느리고 黃海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들과는 달리 이미 鎭南浦에 있었던 海軍部隊로는 同 市街에 電力을 공급하고 있던 H. J. Ereckson소령이 지휘하는 호송구축함 Foss號와 韓國海軍의 鎭南浦 前進基地 司令部 및 3척의 소형 기동선이 있었고 外港에는 機雷掃海戰隊가 작업 중에 있었다. 그들은 교불교불한 掃海水路를 따라 입항하는 함정을 안내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4일 02.36에 Ereckson소령은 鎭南浦의 사태가 불안정 하기는 하나 가능한 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상부의 허락이 있는대로 병력을 철수시키며 호송부대를 構成하여 선박을 鎭南浦로부터 빼낼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韓國海軍의 鎭南浦 前進基地 司令官도 海軍本部에 美 제8군이 즉시 이동할 것을 지시하여 왔으며 현지에는 100척의 범선과 50,000명의 피난민이 있으나 30,000명은 해상으로 나머지는 地上으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Kelly대령이 鎭南浦로 향하라는 자기에 대한 行動指示를 받은 것은 이날 04.25이었으나 그는 이 때 이미 밤을 새워 鎭南浦로 달리고 있는 중이었다. 그가 사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전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6시간 이상의 시간적인 이득을 얻은 셈이었다. 그리하여 이날 09.30까지에 Boxer號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그의 휘하 함정이 鎭南浦 外港의 소해완료구역 外口의 약속된 지점에 도착 대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작전 수행 상 필요한 정보 例컨대 철수부대의 규모와 그 형태, 해안의 전술적상황, 지상과 공중과의 지원 문제, 또 누가 이 작전을 지휘할 것이냐 등의 문제에 대한 모든 指示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아무런 회답도 없었다.

正午에 이르러 Kelly대령은 드디어 작전을 개시하라는 獨斷명령을 내렸으며 각 砲要員이 배치 되었고 모든 Boat가 내려져 즉시 행동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는데 機關部는 어느 때에라도 출항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었다.

이 무렵 이와 때를 같이하여 電文 지시가 들어오기 시작하였으며 호송을 맡게된 Brock대령의 驅逐艦들이 도착 중에 있었고 Andrews소장의 Theseus號가 명일 現地의 항공지원을 맡게될 것이며 또 Andrews소장이 이 작전을 지휘한다는 것이었으나 이로써 그 동안 궁금하였던 작전의 세부가 명백해진 것이었다.

닻이 내려지고 철수부대를 싣기 위하여 Boat가 흰 물결을 차고 母艦을 떠나 육지로 향하였으니 美 제8군의 구조 요청에 대한 海軍의 應答이 드디어 이루어지려는 것이다.

이 때 鎭南浦에는 1,700명의 UN군과 6,000여명의 韓國人이 있었는데 이 韓國사람의 대부분은 부상병을 비롯하여 정부요원과 捕虜와 경찰 등이었고 이 숫자는 수송부대로서는 충분히 감당할 만 하였다. 뒤떨어졌던 Boxer號도 눈보라를 무릅쓰고 18.30에 수로 입구에 도착하였다.

이리하여 예정하였던 모든 함정이 집결하였으며 탑재作業도 순조로히 진행되고 있었는데 앞으로의 문제는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 뿐이었다. 이 鎭南浦는 심한 潮汐差와 얕은 海

深 그리고 도처에 많은 뻘이 드러나 있으며 더욱이나 外港까지에는 폭이 불과 500yds 밖에 안되는 교불교불 하고도 긴 소해수로를 통과하여야 하므로 港口로서는 매우 不適合한 곳이었다。

수송부대를 호송하기 위하여 6척의 驅逐艦을 거느리고 도착한 Brock대령은 鎭南浦 내항에 들어가기 위하여 야간에 항해하기를 꺼리는 심정이었지만 港內의 사정은 이와 달랐다。

敵은 平壤으로부터 鎭南浦를 향하여 진격 중이라는 정보가 있었으나 同市를 수비할 전투용 부대는 전혀 없는 형편이었고 일부 부대는 夜半에야 도착할 예정이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한 Brock대령은 꺼리던 야간항해를 감행하기로 최종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21.00에는 마침내 6척의 구축함이 鎭南浦港內로 돌진하였으나 이러한 야간에 強行하는 항해는 Brock대령이 미리 염려하였던 대로 순탄하지가 못하였으니 항해 도중에 Warramunga號가 우선 坐礁하였다가 얼마 뒤에 다행히도 이탈할 수가 있었고 Siaux號는 浮標繫留線이 推進機에 감기는 까닭으로 할 수 없이 되돌아 서지 않으면 안되었다。

다음날인 5일 02.40에 나머지 Cayuga號와 Athabaskan號 그리고 Bataan號와 Forrest Royal號가 鎭南浦 內港에 가즈런히 닻을 내리고 전 포문을 市街地를 향하여 겨누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이 모든 일이 순조로히 진행되어 갔으며 日出前까지 화물과 인원의 탑재가 진행되었고 피난민을 가득히 실은 帆船들이 분주히 왕래하였다. Foss號는 계속하여 電力을 市街地에 공급하고 있었고 韓國海軍의 前進基地 司令部의 소형 기동선은 항만 안을 분주히 순시 경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이날 正午가 되자 Theseus號로부터 출발한 항공기가 상공에 나타났다。

12.30에 드디어 적재를 완료한 배부터 港口를 빠져나가 시작하였으며 14.30에는 해안을 말끔히 비워 놓을 수 있었으나 뒤 늦게 殺到한 피난민 약 3,000명이 부두에 남아 있게 되었다. 敵中에 無辜한 良民을 버려두려는가 하고 悶心되던 瞬間이었는데 이들의 수송문제는 다행히도 기대하지 않았던 美 海軍 MSTS船舶이 나타남으로써 해결되어 빠짐없이 後送隊列에 넣게 되었다。

17.30에 이르러 마지막 수송선인 Boxer號가 Foss號의 호위를 받으면서 鎭南浦를 뒤로 하고 출발하였으나 Brock대령은 하루를 더 항내에 머무르기로 결심하였다. 다음 날인 6일 아침에 그는 일반 시민에게 군사지역에서 떠나도록 종용한 다음 計劃에 따라 石油貯藏所

와 港灣施設 그리고 鐵道施設과 補給倉庫 등을 차례로 포격하여 모두 파괴한 뒤에 同港을 출발하였다。

이러한 經緯로서 무사히 水路를 빠져나온 수송부대는 항해 도중 鹿島 北쪽에서 수송선 Boxer호가 坐礁하여 한 때 이번 작전을 통하여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이한듯 하였으나 다행히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으며 이날 12.00에 모든 철수부대가 심한 눈보라를 무릅쓰고 무사히 椵島에 도착하여 鎭南浦로부터의 철수작전을 끝맺게 되었다。

한편 仁川으로부터의 陸軍의 軍需物資의 積載는 다음날인 7일부터 시작되었으며 31일까지에 걸쳐 仁川으로부터 수송된 人員과 物資는 도합 人員이 32,428명이고 車輛이 1,103대 그리고 貨物이 54,741ton에 達하였다。

12. 空軍의 撤收作戰 (1950년12월 1일부터 1950년12월31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6호
상 황 도 제9, 10, 11호
부 표 제1, 2, 3, 4, 5, 6, 7, 호
작명부록 제253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공군 총참모장	소장 金 貞 烈	전투비행단장	대령 張 德 昌
항공기지사령관	준장 崔 用 德		

나. 撤收作戰과 基地展開

北韓의 各 基地에 前進하였던 공군은 中共軍의 侵略으로 그 예하 부대들을 進擊以前의 後方基地로 移動시킴으로써 다음 작전을 미리 計劃하였다。

이 部隊移動은 1950년 12월 1일부터 一個月餘에 걸쳐서 實施되었는데 차량을 비롯한 모든 裝備는 대부분이 創設時期에 지급된 것이었기 때문에 많이 낡은 것이 있으므로 적지않은 障碍가 있었다。

총참모장 金貞烈소장은 1950년 11월 30일부로 北韓에 展開된 各 예하 부대를 일단 서울과 大田으로 移動시켜 다음 작전에 對備하려는 空本作命 제55호를 下達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1. 비행단장 張德昌대령은 12월 1일 00.00부터 12월 3일 24.00까지 예하 부대 全兵力과 裝備를 陸路와 空路를 利用하여 大田 基地로 移動을 完了하고 別命이 있을 때까지 次期作戰을 爲한 준비에 萬全을 期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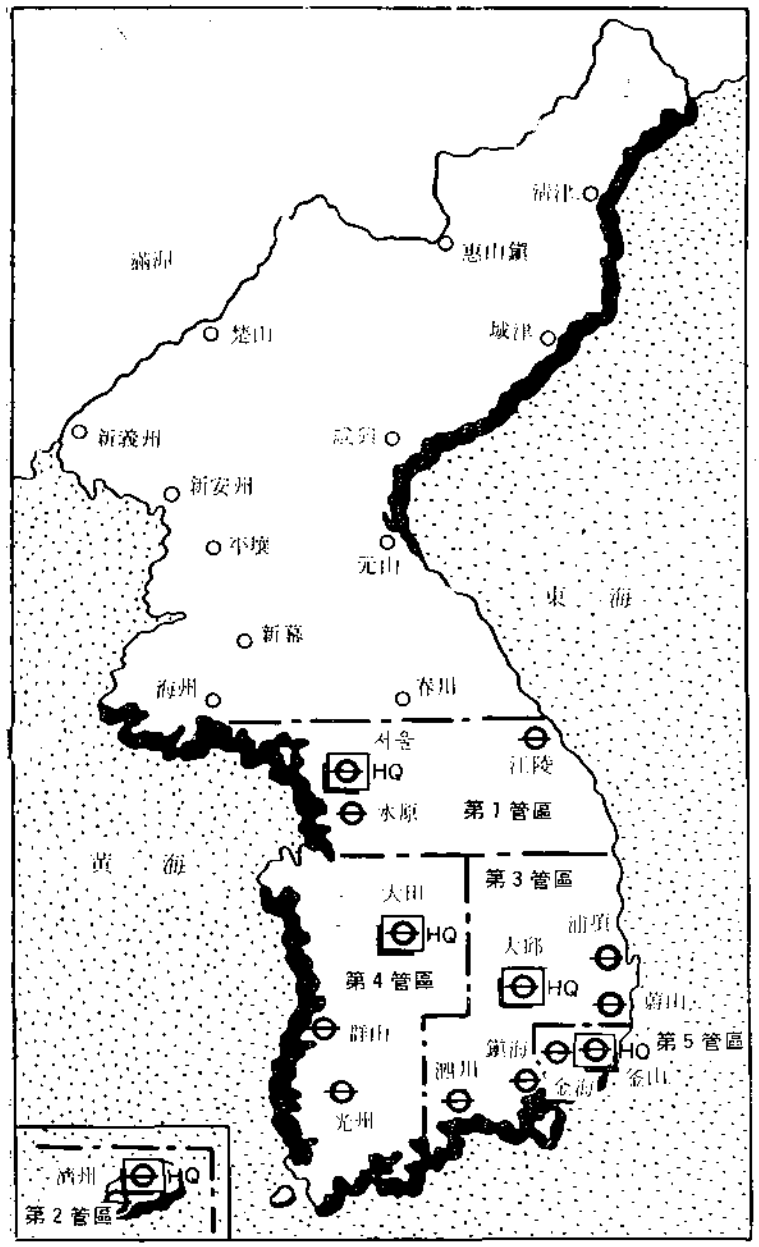
2. 항공기지 司令官 崔用德준장은 1950년 12월 4일 00.00부터 12월 8일 24.00까지 北韓의 各 基地를 管轄하고 있는 第4管區와 第5管區의 全兵力과 裝備를 서울로 集結完了하고 基地展開를 爲한 態勢를 完備하라.

3. 현병대장 金得龍소령은 北韓 各 基地의 殘餘 주요 시설을 使用 不可能한 상태로 파괴하고 12월 9일 24.00까지 全兵力을 서울로 撤收하고 서울 地區 保安維持에 萬全을 期하라.』

이리하여 12월 1일 비행단의 主戰力인 비행대와 정비대 그리고 통신대와 기상대의 人員 및 主要裝備를 張盛煥중령의 空輸指揮아래 3次에 걸친 공중수송으로 撤收하였으며 나머지 병력 95名은 현병대의 경호 아래 金主轍대위 指揮로 12월 2일 09.00에 平壤을 출발하여 다음날 15.00에 大田 基地에 도착함으로서 비행단의 移動을 完了하여 다음 작전준비에 着手하였다。

항공기지 司令部는 航基司作命 제2호에 의거하여 第4, 第5管區의 人員과 裝備를 12월 7일까지 서울

◇ 상황도 제9호 空軍의 基地展開 (50. 10. 20)



로 集結하도록 指示함으로써 第4管區 本部兵力 70名과 新安州 基地의 派遣隊 兵力 30名을 管區長 許永杰대위가 指揮하여 陸路로 서울을 向하였는데 途中 新幕 北쪽 20km 지점에서 氷雪로 因한 裝備 積載차량의 顚覆事故로 路程을 변경하여 新幕에서 그날밤을 野營하고 7일 15.00에 서울에 도착하여 本部兵力과 合勢하였다。

한편 이날 東海岸地區에 있는 第5管區의 傘下인 咸興 基地隊는 美 공군의 협조를 얻어 空路로 서울에 도착하였고 元山 基地隊는 12월 7일 美 공군 輸送機편으로 직접 大邱로 移動하여 東明 비행장을 확보하는 동시에 空軍本部가 사용하게 될 大邱 曉星女子中學校 건물의 보수작업에 着手하였다。

공군 헌병대는 金相台중위로 하여금 平壤地區 헌병대의 병력 40名을 指揮하여 美林 비행장에 있는 건물 및 차량과 연료보급소등 各種 주요 시설을 폭파하고 新幕基地 派遣隊 병력과 함께 서울로 移動하도록 指示하였다。

平壤地區 헌병대장 金相台중위는 全兵力을 指揮하여 통신시설과 발전소 및 연료탱크 그리고 탄약과 급수시설등을 완전히 폭파한 다음 金日成 大學 도서관에서 노획한 書籍을 싣고 12월 7일 08.00에

平壤을 출발하여 12.00에 新幕基地에 도착한 다음 派遣隊 병력 30名과 合勢하여 16.00에 서울 本隊로 移動을 完了함으로써 北韓 基地에 前進하였던 예하 부대가 전부 서울로 集結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서울 地區로 集結된 各級部隊들을 戰線의 移動과 航空管區의 개편에 따라 大邱 以南에 位置한 基地에 다시 展開하여 파괴된 基地를 復舊하면서 戰力培養의 기틀을 굳건히 하는데 盡力하였다.

다. 主要部隊의 基地展開

(1) 第1, 第2, 第3管區

서울을 비롯하여 水原一平澤一群山과 一線 基地인 江陵등을 統轄하고 있던 第1管區는 그 主力으로 서울과 大田 基地를 위시하여 一部로서 江陵과 鎭海 基地에 각각 展開되어 있었다.

51년 12월 12일 이 管區는 本部를 水原 基地로 移動한 다음 韓國軍 및 UN軍의 戰線 移動에 따라 점차적으로 大邱 以南의 항공 基地로 後退토록 措置하였다.

그뒤에 51년 3월 27일에는 一部 병력을 다시 서울로 前進시켰고 나머지 병력은 轉進한 基地에 계속 殘留하면서 駐屯部隊에 對한 基地 支援과 시설물의 復舊작업에 全力을 다 하였다.

이러던 중 4월 1일에 第101基地 戰隊가 創設되면서 이 管區는 解編되어 基地戰隊에 흡수되었으며 江陵 基地隊 兵力은 第3管區로 編入되었다.

이 基地 展開 狀況을 時期別로 살펴보면 大田 基地에서 滑走路 補修공사에 注力하던 管區 兵力은 최소한의 基地確保 人員만을 金信중령 指揮下에 남겨두고 그 나머지 全員을 大邱에 있는 東村 基地로 移動 하였다가 1월 11일 金海基地 經由 1월 14일에는 濟州道에 있는 慕瑟浦基地로 展開하여 비행단의 작전 및 비행訓練을 支援하였다.

한편 金錬器대위는 管區兵力 150名을 引率하고 慕瑟浦基地에 移動하기 위하여 1월 11일 서울에서 大邱로 轉進하였다가 1월 15일 空本作命 제6호에 의거하여 공군사관학교 敎育隊長인 朴元鍵소령이 指揮하는 공사교 병력 320名과 항공 基地司令部의 本部 人員 60名등을 合쳐서 再編成하여 陸路와 海上 船舶편으로 濟州道로 移動을 完了하였다.

또 管區에서는 1월 21일에 美 제5공군司令部에 一部 兵力을 派遣하여 경비任務를 지원협조 토록 하였으며 이날 空本作命 제9호에 의거하여 江陵基地隊가 葛珍 基地로 轉進하였는데 이것이 韓國 제1군단의 移動에 따라 제1군단에 있는 偵察비행대의 派遣隊가 사용하기 위한 것이 었으며 이 葛珍 基地隊는 2월 12일 다시 江陵基地로 復歸하기 爲하여 三陟으로 轉進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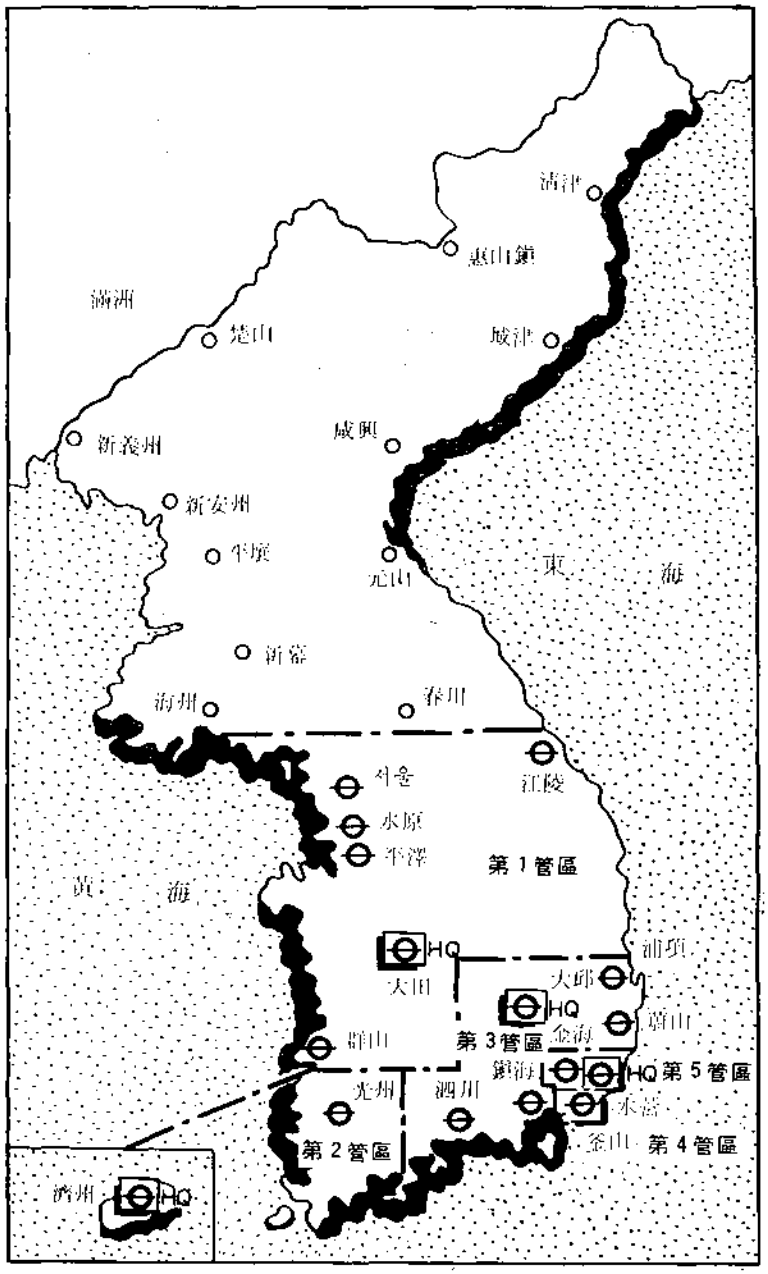
이와같이 基地를 展開하는 동안 戰勢의 好戰으로 2월 18일에 金錬器대위는 濟州地區의 兵力을 金海基地에 移動시킨 다음 서울로 前進하기 위하여 3월 16일 汝矣島基地에 前進 完了하고 작전시설을 補修하는데 협조하였다.

한편 3월 20일에 空本作命 제21호에 의거하여 鎭海에 派遣된 管區傘下의 一部 兵力이 서울에 前進하게 되어 第1管區의 主力이 서울 汝矣島基地에 集結하게 됨으로써 展開를 完了하였는데 4월 1일

第1管區는 空本一般命令 제25호에 의거하여 解編되면서 管區 全兵力이 제101基地戰隊에 흡수되었고 江陵 基地隊 兵力은 第3管區에 編入되었으며 美 제5공군司令部에 派遣되었던 人員은 항공 基地司令部로 소속이 변경 되었다.

한편 第2管區는 戰線의 配置와 基地의 展開 狀況으로 보아 光州基地에 병력을 派遣할 필요성이 없음을 판단하여 51년 1월 5일 光州의 全兵力을 濟州에 轉進시켜 비행단과 공군사관학교의 교육 訓練에 협조토록 하였으며 第3管區와 東村基地의 基地 확보 및 復舊작업에 全力을 다하였다.

◇ 상황도 제10호 공군의 基地展開 (50. 12. 28)



(2) 第4管區

서울로 撤收하여 공군사관학교 등에 대한 後方支援을 계속하면서 基地展開를 待機中이던 第4管區는 北韓에서 撤收한 다음 豫備管區로 再編成되었기 때문에 釜山 地區를 根據地로 하여 濟州와 泗川등의 主要基地의 확보와 復舊에 全力을 다 하였다.

12월 12일에 管區의 主力을 서울에서 金海로 展開시킨 다음 水營과 濟州 그리고 泗川의 3個基地에 병력을 다시 轉進시켰는데 12월 28일에 朴萬成중위는 主力 150名을 引率하고 陸路車輛편으로 釜山으로 移動하여 水營基地

를 확보하는 동시에 一部 人員을 差出하여 釜山에 있는 병참감실分室의 경비를 兼務토록 하였다。

이날 一部 人員 30名은 泗川基地의 滑走路 復舊작업을 爲하여 泗川으로 派遣하였으며 51년 1월 9일에 나머지 병력은 空本作命 제6호에 의거하여 공군사관학교가 展開하게 될 濟州道 慕瑟浦 국민학교의 復舊를 爲하여 船舶편으로 濟州道에 展開하였다。

이와같이 水營基地와 泗川基地를 계속 확보하면서 濟州道로 展開한 管區의 병력은 第2管區가 濟州基地를 管轄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군사관학교 支援要員 20名만을 남기고 2월 8일에 다시 金海基地로 移動하였다。

그 뒤에 이 병력은 大邱와 大田의 兩基地에 다시 分散展開하였는데 大邱로 展開한 兵力은 3월 20일에 東明비행장을 확보하여 偵察비행전대의 後方支援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大田基地로 展開된 병력은 4월 4일에 朴萬成중위 外 82名이 轉進하여 群山과 光州의 兩基地를 확보함으로서 管區의 基地展開를 完了하였다。

(3) 第5管區

서울과 大邱로 分散撤收한 第5管區는 航基司作命 제2호에 의거하여 後方基地管轄管區로 편성되어 水營基地에 展開하면서 基地의 확보와 補修작업에 着手하였는데 51년 4월 4일에 第4管區가 金海基地를 撤收하여 大田과 大邱基地로 展開함에 따라 51년 3월 16일 이 基地를 引受하기 爲하여 金海基地로 展開하였다。

즉 元山 基地隊 병력은 崔漢京중위가 이끌고 서울로, 그리고 美 공군의 협조아래 공중수송편으로 大邱 基地로 나누어 撤收하였는데 서울 城南中學校에 위치한 공군사관학교의 교육지원과 空軍本部가 移動하여 駐屯할 大邱 효성여자중학교의 건물 補修作業에 着手함과 동시에 東明基地를 支援하였다。

공군사관학교의 後方支援을 담당하던 第5管區 병력과 12월 7일 洪南範대위가 指揮하여 汝矣島基地로 撤收한 管區의 全 兵力을 水營基地로 展開하여 滑走路를 비롯한 基地補修작업에 着手하였으며 12월 30일에는 元山 基地에서 大邱로 撤收한 병력 150名을 姜輝鎭대위 指揮로 7臺의 차량으로 水營基地와 金海基地로 移動하였다。

한편 金海基地로 展開한 병력중 20名은 不法으로 基地에서 居住하고 있는 民間人의 撤去에 협조하도록 措置하였다。

金海基地에 展開된 병력은 1월 9일에 水營基地로 移動하여 本部兵力과 合勢한 다음 계속 基地를 확보하다가 第4管區가 3월 20일에 大田과 大邱地區로 前進하게 되었으므로 3월 16일에 金海 基地를 引受함으로서 第5管區의 基地展開를 일단 完了하였다。

(4) 飛行團

部隊 移動에 對한 細部 계획은 비행단 作命 제5호에 의거 下達되었다。

張志良소령을 總指揮官으로 하는 비행단의 수송梯團은 4個部隊으로 編成되어 先遣部隊와 공중근무자로 編成된 第1 및 제4部隊을 空路로 서울 汝矣島에, 그리고 主力과 地上諸裝備를 포함하여 編成한 第2, 第3梯團은 陸路 차량便으로 大田에 移動을 開始하는 한편 空軍本部에서는 空本作命 제55호를 下達하여 金東喆대위로 하여금 移動에 필요한 所要人員의 撤收에 협조하도록 措置하였다。

이와 같이 50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第1段階 撤收作戰을 完了한 비행단은 12월 7일 汝矣島에 集結된 병력을 大田 基地에 移動시켜 本隊와 合勢하였는데 12월 19일 空本作命 제38호 및 飛行團作命 제7호에 의거하여 飛行團의 全 兵力과 裝備를 空路와 陸路 그리고 船舶편으로 다시 濟州基地에 展開함으로서 飛行團의 撤收 및 基地 展開를 完了하였다。

大田 基地에 殘留한 飛行團의 兵力은 美林 基地에서 같이 撤收한 美 제6146部隊의 작전을 계속 支援하였다。

(5) 空軍本部 및 航空基地 司令部

空軍本部는 空軍作命 제59호에 의거하여 나머지 裝備의 撤收를 爲하여 88名을 남기고 12월 25일 空軍本部의 主力 423名과 항공기지 司令部 要員 50名 그리고 서울 地區에서 모집되어 교육중이던 各種 候補生 全員을 金東晶대위가 指揮하여 大邱 七星國民學校로 移動을 完了하였으며 殘留 人員 88名도 12월 30일까지 朴炳植대위가 引率하여 大邱에 있는 本部에 復歸하였다。

항공기지司令部는 그 主力을 大邱의 慶北産業 株式會社자리로 移動한 다음 예하 5個管區의 基地 展開를 指揮하다가 대부분의 兵力이 金海와 濟州地區에 集結하자 本部를 金海로 移動하였다가 戰線에서 敵을 北쪽으로 敗走시키므로서 空本作命 제22호에 의거하여 3월 20일에는 다시 大邱로 前進하여 空軍本部와의 연락을 維持하면서 全 基地를 統轄 指揮하였다。

(가) 通信隊

北韓의 各 基地에 前進하였던 通信隊 兵力은 第4 및 第5管區가 撤收함에 따라 일단 서울에 集結하게 되었는데 12월 21일에 空本作命 제56호에 의거하여 大邱로 轉進한 다음 大邱 以南으로 移動한 單位部隊들에 對한 通信支援 업무를 遂行하였다。

51년 1월 6일에 空本作命 제4호에 의거하여 釜山에 第8通信隊를 그리고 水營에 水營通信所를 신설하는 한편 空本 大邱 基地 通信所의 主力을 鎭海로 移動하고 大邱 基地通信所는 空軍本部직할통신대로써 운영키로 하였다。

1월 13일에는 空軍本部통신대의 一部 兵力을 慶南浦基地에 轉進시켜 通信網을 強化하였으며 2월 1일에는 美 空軍諜報 통신부대에 將校 1名과 士兵 9名을 派遣하여 하루 50여통의 暗號文을 取扱하면서 敵의 移動 및 작전계획을 미리 探知하므로써 空地立體作戰을 遂行토록 하였다。

2월 9일에는 韓國軍과 UN軍이 敵을 北으로 敗走시킴에 따라 空本作命 제12호에 의거하여 鎭海 통신소를 平澤基地에 前進시켰다가 2월 28일에는 空本作命 제16호에 의거하여 全 兵力을 다시 水原으로 移動시켜 前後方에 이르는 通信網을 구성토록 하였다。

2월 27일에 崔三然중위는 33名의 통신병을 引率하고 濟州에서 서울로 前進하기 爲하여 大邱에 移動하는 한편 3월 20일에는 水原 通信 派遣隊를 서울로 前進시켰다。

그 뒤인 5월 4일에 第1通信隊는 空本作命 제27호에 의거하여 訓練基地로 策定된 論山基地에 轉進함으로써 期間中의 통신대 展開를 매듭지었다。

(나) 憲兵隊

憲兵隊는 北韓 基地에서 서울로 撤收하여 保安維持와 基地整備를 遂行하였으며 51년 1월 5일에 대

장 金得龍소령에 의하여 서울의 本隊를 大邱 東村基地에 展開시키고 다음날 金浦 派遣隊를 泗川基地로 移動시키는 한편 永登浦 派遣隊도 撤收하여 大邱 本隊에 復歸하였다。

濟州에 先遣隊로 派遣되었던 장병 27名은 空本作命 제11호에 의거하여 金相京중위가 이끌고 2월 8일에 서울로 前進하기에 앞서 大邱本隊로 移動하였으며 鎭海 派遣隊는 2월 19일에 李良淑상사의 指揮로 全員 鎭海에서 群澤 基地로 前進하였다。

서울로 前進하기 爲하여 大邱 本隊로 集結된 병력은 空本作命 제13호에 의거하여 尹炳學소위의 指揮로 서울에 前進하였고 濟州의 병력도 汝矣島에 前進하므로서 헌병대의 基地展開를 完了하였는데 汝矣島 헌병 派遣隊는 空本 一般命令 제42호에 의거하여 5월 1일부터 解體되면서 第101基地戰隊에 흡수되었다。

(다) 其他部隊

空軍 사관학교는 城南中學校에서 교육을 실시하던중 12월 22일에 候補生隊長 金石恒소령의 指揮아래 全兵力을 大邱 七星國民學校로 移動시킨 다음 교육을 계속하다가 51년 1월 14일 다시 濟州島의 慕瑟浦 국민학교로 展開하였다。

그 다음 5월 1일에 鎭海 分校에 進駐하므로서 공군사관학교의 展開를 完了하였으며 이곳에서 安定된 軍敎育과 빈틈없는 訓練으로 수 많은 操縱士를 비롯한 軍의 基幹將校를 輩出하였다。

또한 北으로 進擊하였던 飛行團을 비롯한 各級部隊가 濟州基地로 撤收하였을 당시에는 部隊指揮에 多少의 혼란도 있었으나 총참모장 金貞烈소장은 空本作命제3호를 下達하여 『濟州基地의 空軍部隊를 공군 사관학교장 崔用德준장이 統合指揮하라』는 指示에 따라 指揮體制를 確立하였다。

서울 家庭保育사범학교에 자리잡고 있던 空軍病院은 모든 환자와 더불어 水營 東萊基地에 轉進하였으며 51년 4월 19일에는 本院을 다시 馬山으로 移動하는 즉시로 醫療支援을 계속하였다。

한편 氣象隊는 12월 19일에 金錫祐대위 指揮下에 陸路로 機動하여 大邱 東村基地에 本部를 設置한 다음 濟州基地 비행단에 金濟聲중위등 30名의 氣象支援班을 派遣하여 비행훈련에 협력토록 하는 한편 美 空軍氣象隊와의 氣象情報의 交換으로 업무의 萬全을 期하였으며 2월 2일에 永登浦를 轉進하자 서울 地區 氣象情報網을 強化하고 4월 1일에는 汝矣島基地에 金英一소위등 12名의 氣象班을 增派하여 白鷗部隊의 작전을 지원토록 하였다。

라. 機構改編

第2次撤收作戰과 基地展開를 遂行하는 동안 총참모장 金貞烈소장은 空軍勢力이 敵 空軍에 비하여 微弱함을 痛感하던중 對外的으로는 美 極東 공군司令官 George E. Stratemeyer중장과 美 제5공군 司令官 Earle E. Partridge소장을 接見하여 新鋭裝備를 支援 받도록 하였으며 對內的으로는 軍의 擴張을 前提로 하는 병력의 增大와 效率的인 새로운 編制로 再整備하기 爲하여 現機構를 解編과 增編 뿐만 아니라 新設등의 機構調整을 斷行하면서 교육훈련에 全力을 傾注하며 다음의 作戰遂行을 爲한 戰備態勢의 完璧을 期하였다。

항공基地司令部는 北韓의 各 基地에 前進하였던 第4管區인 新義—平壤—新安州의 3個基地와 第5管區인 元山과 連浦 그리고 咸興등 3個基地의 全兵力이 서울 地域으로 일단 撤收한 뒤에 空軍本部의 다음 작전 계획에 依한 各 部隊의 基地異開에 앞서 基地를 미리 確保하기 爲하여 50년 12월 25일 空本一般命令(邱) 제1호에 의거하여 5개管區傘下의 基地隊를 再調整하는 항공 基地司令部의 改編을 斷行하였다。

즉 제1管區는 서울, 水原, 平澤, 大田, 群山, 江陵등 改編前의 第2管區가 管轄하던 平澤—大田—群山基地를 編入하므로서 前線地區에 位置한 서울, 水原, 江陵基地를 補強토록 하는 前進基地로 編成하였고 第2管區는 비행단을 支援하기 爲하여 濟州와 光州의 2個基地로 編成하였으며 제3管區는 改編前의 金海와 水營基地를 제5管區에 移管하고 大邱, 浦項, 釜山, 鎭海, 泗川등 5個基地를 空軍本部의 直轄管區로 再編하였다. 한편 北韓으로 進擊할 때에 前進 基地로 사용한 平壤, 新義, 新安州의 3個基地를 管轄하던 제4管區는 豫備管區로서 釜山에 駐屯토록 하였으며 東海岸地區에 位置한 元山, 連浦, 咸興의 3個基地를 管轄하던 제5管區는 改編前에 제3管區 傘下에 있던 水營과 金海의 2個基地로 編成하여 後方基地를 管轄하도록 하였다。(附表 제1호 參照)

51년 12월末을 前後하여 많은 부대가 濟州 地區를 비롯한 大田 以南의 主要基地에 展開하게 되자 무엇보다도 緊急히 要請되는 것은 軍需지원에 關한 問題였었다. 그리하여 空軍本部에서는 空本 一般命令 제5호를 下達하여 濟州地區에 병참감실 濟州分室을 51년 1월 25일 空本 一般命令 제6호에 의거하여 大邱, 大田, 釜山의 3個基地에도 各 分室을 設置하여 보급지원 업무에 만전을 期하도록 하였다。

한편 총참모장 金貞烈소장은 51년 1월 10일 관계참모와 함께 東京에 있는 美 極東空軍司官 George E. Stratemeyer 중장을 接見하여 韓國空軍力을 增強하여야 되겠다는것과 여기에 所要되는 美國의 軍援物資導入의 增加에 對한 필요성을 力說한 끝에 많은 成果를 거둠으로서 空軍의 군수업무發展史에 劃期的인 契機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결과 50년 7월에 F—51戰爆機 10盞가 導入된 初期에는 항공작전 및 訓練에 필요한 物資만을 美 제6146부대에서 제5공군 司令部에 신청하여 韓·美 공군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며 모든 支援과 相互 協定된 T/O나 T/E의 概念도 없이 필요에 따라 導入 되던중 51년 3월에 이르러 이미 導入된 군원물자에 對한 淸算 문제 때문에 美 제6146부대와 비행단에서는 이미 消耗한 物資에 대한 證憑書를 遡及하여 작성하는 등의 處理過程을 거쳐 空軍本部에서는 군수국의 李圭星소령이 그리고 美 공군에서는 군수 고문관 Weiner대위가 각각 主管하여 처리하게 됨으로서 군원물자의 需給업무가 비로소 正常化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여 군원물자가 점차로 增加導入됨에 따라 各主要基地에 設置한 병참감실 地區分室을 解編하면서 3월 15일에는 空本 一般命令 제21호에 의거하여 空軍本部 直轄 보급창을 비로소 創設하여 徐鉉圭소령을 初代廠長으로 임명하는 한편 空軍本部 병참감실도 아울러 解體하였다。

이렇게 됨으로서 美 極東航空廠과의 업무 交涉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졌었고 空軍本部에 金昌圭대령을 委員長으로 하는 군수물자 審議委員會를 設置 운영하여 군수물자의 受給體制를 더욱 確立하기에 이르렀다. (附表 제2, 제3, 제4호 참조)

空軍의 軍紀保安등 감찰업무는 51년 1월까지 憲兵隊에서 管掌하다가 2월 1일에 空本 一般命令 제7

호에 의거하여 空軍本部에 감찰감실을 創設하여 정보국장 金吉成소령을 初代 감찰감으로 겸임하게 됨으로서 飛行事故를 미리 막기 爲하여 비행안전업무와 地上裝備의 안전운영을 爲한 地上안전 업무와 아울러 부대 운영에 있어서의 檢閱制度를 확립하여 軍紀의 體制를 확립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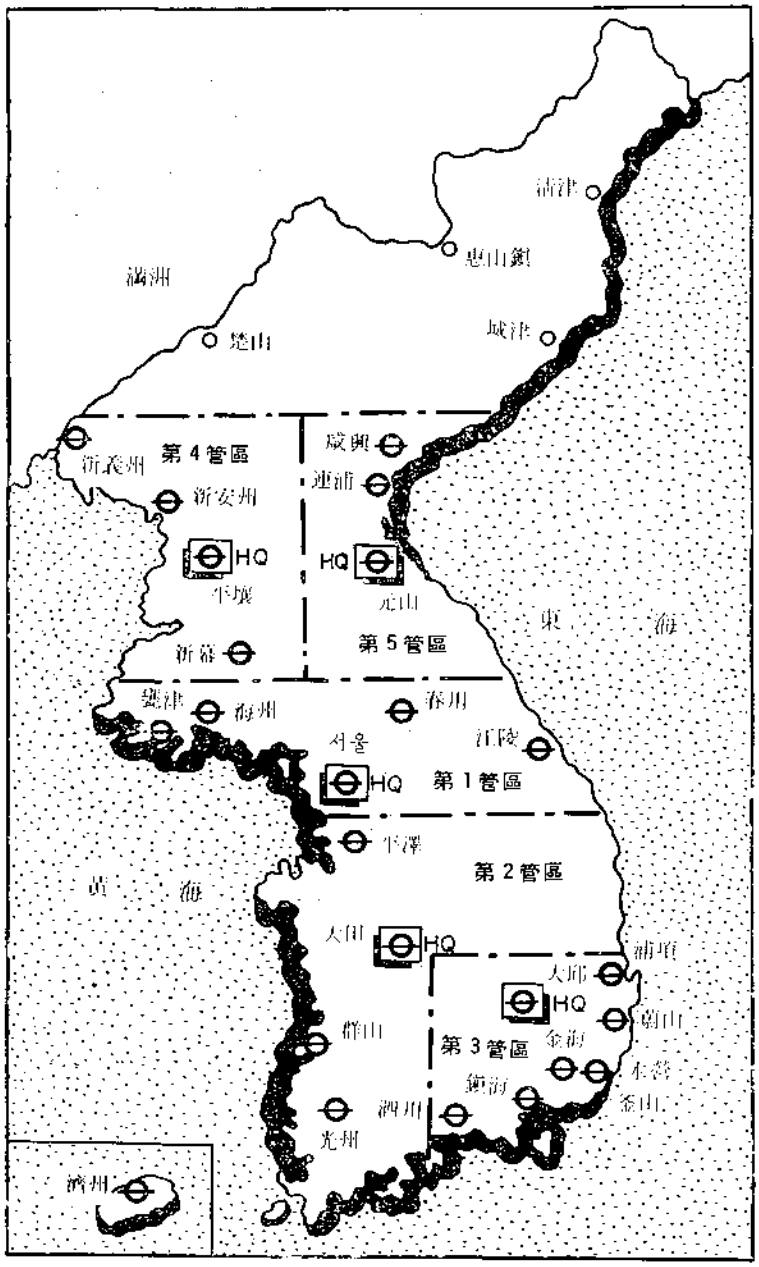
3월 1일에 空軍本部 一般命令 제14호에 의거하여 空軍本部에 의무감실을 創設하여 의료지원의 기구를 強化하고 張德昇 중령을 初代 의무감으로 임명하는 한편 濟州分室을 解編하고 馬山분실을 新設하여 空軍의료 기능을 擴張補強하였다。

그리고 3월 10일에는 空軍本部에 일반참모비서실을 創設하여 참모기능을 補強하였으며 3월15일에는 空本 一般命令 제15호에 의거하여 공군사관학교의 鎭海基地展開를 爲하여 鎭海분교를 설치운영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前進 체제를 갖춘 항공基地司令部는 3월 30일부로 空本 一般命令 제23호에 의거하여 예하 5個管區의 第2次 改編을 斷行하였다。

즉 第1管區를 前方管區로 하여 서울—水原—江陵등의 3個基地를 管轄하게 하였고 제2管區를 最後方管區로 하여 濟州—光州등의 2個

◇ 상황도 제11호 空軍의 基地展開



基地를 第3管區는 本部直轄管區로서 大邱, 浦項, 蔚山, 鎭海, 泗川등의 5個基地를 各各 管轄하도록 하는 한편 제4管區를 中部地區의 豫備管區로서 大田—群山—光州등의 3個基地를 그리고 제5管區는 後方地區의 管區로서 水營, 金海의 2個基地를 各各 管轄하도록 하였다。(附表 제5호 參照)

그리고 4월 1일에는 서울 汝矣島基地에 前進한 各基地部隊들을 統合하여 第101基地戰隊를 創設하였으며 各部隊가 現地에서 新兵을 募集하여 신병교육을 실시하던바 4월 15일에 空本 一般命令 제27호에 의거하여 慶北 慈仁에 제1항공 교육대를 創設하여 初代 교육대장에 鄭重信소령을 임명하고 軍의 신병교육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整兵의 組織增進策의 一環으로 空軍本部에 憲兵감실을 창설한 다음 崔德소령을 初代 감으로 임명하였다。

같은 날 空軍本部 제무감실을 제무국으로 改編하여 일반 참모부로서 擴張운영케 하였다。

이와같이 空軍本部의 지원임무가 增強됨에 따라 4월 25일에 本部대隊를 本部司令室로 擴張하여 柳義烈대위를 本部司令으로 임명하였으며 정보국의 特務隊를 空軍本部直轄 特務部隊로 改編하였다。
(附表 제6호 參照)

마. 敎育訓練

空軍은 韓國戰爭의 勃發以來로 「一面 戰爭 一面 訓練」이라는 目標아래 兵力의 擴充을 圖謀하는 한편 賦與된 任務의 完遂를 期하였다。

50년 7월 F—51戰爆機 10臺가 導入되면서 操縱 교육을 비롯하여 整備士의 航空機整備 및 통신전자 그리고 武裝裝着등의 실무교육이 활발하게 進行되었는데 이 교육은 主로 비행단과 士官學校가 展開하는 基地로 移動하여 美 공군의 移動敎育班(Movil Trainning Team)의 교관단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며 이 교육은 서울 大邱 鎭海 慕基浦의 各基地에서 實施되었다。

모든 교육은 戰爭勃發로 일단 中止되었다가 7월 7일부터 再開되었는데 大邱基地로 移動한 비행단은 美 공군 제6146부대의 協助아래 제1기 士官候補生에 대한 F—51 戰爆機의 整備 및 武裝에 對한 地上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7월 30일에 비행단의 鎭海基地 移動으로써 美 공군의 移動敎育班과 함께 鎭海로 와서 美 공군 제3395비행단의 협조를 얻어 계속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旣成조종사들은 技能的上을 爲한 練成비행을 계속하는 한편 51년 4월과 5월의 2차에 걸쳐 도합 25명의 조종사를 日本에 있는 美 공군基地에 派遣하여 計器비행에 대한 교육을 습득케 함으로서 全天候 邀擊出動에 對處하였다。

한편 空軍은 作戰, 人事, 軍需, 通信電子등 各分野 全般에 걸쳐 運營體制를 發展시켜 制度를 確立하는데 全力을 다하기 始作하였는데 各分野의 運營制度를 開發하기 爲하여서는 先進國의 各種 制度에 關한 文獻등을 參考로 우리 空軍의 體制에 適應되도록 하는 새로운 規程이나 敎範을 制定하여 運營에 適正하여야 되겠다는 劃期的인 課題가 要請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이 課題를 完遂하기 爲하여서는 該當 업무를 適切히 遂行할 수 있는 所要의 人的資源이

大端히 부족한 실정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지음 軍의 主兵力들은 비행단을 비롯하여 일선 부대에 배치되어 作戰을 遂行하여야 했기 때문에 後方에서 일반 행정이나 軍需업무등을 담당할 實務人員마저도 極히 不足하였기 때문에 兵力의 充員은 불가피 하였었다。

兵力의 充員計劃이 具體化되면서 空軍本部에서는 入隊하는 장교 候補生들이 學者와 技術者를 비롯하여 各者의 專門分野에서 오랜 經歷을 所持한 여러 階層의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을 고려하여 총참모장 金貞烈소장은 아래와 같이 初任階級 賦與를 爲한 分類基準을 樹立하여 所定의 裁可를 받았다.

첫째 : 博士學位를 所持한 學者와 理事官級 職位에 있는者 그리고 專攻分野에서 10年 이상의 사회적인 경력을 가진者에게는 初任계급 소령을 賦與하며,

둘째 : 敎授級 職位의 官職에 있거나 學士 學位 소지자가 該當 專攻分野에서 5년이상의 經歷을 가진 者에게는 初任계급 대위를 賦與하고,

셋째 : 學士 學位를 소지하고 該當職分野에서 3년 이상의 經歷을 소지한 者에게는 중위를 初任계급으로 賦與하며,

넷째 : 當該年度의 4년制 大學 졸업예정자나 기타 學士 學位소지자에게는 소위계급을 賦與한다.

이들은 鎭海航空基地에 자리잡은 士官學校에서 短期間의 基本軍事訓練課程을 거쳐 各各 任官시켰는데 劉載晟 工學博士를 비롯하여 金業, 柳洪烈, 朴忠勳, 黃義俊등 10名은 空軍特命제26호에 의거 51년 2월 15일부 그리고 刀圭界의 桂鎭敎등 3名은 空軍特命제27호에 의거 51년 3월 2일부로 初任계급 소령을 賦與하여 各各 任官시켰다。

李萬甲, 劉敬相, 崔亨燮, 尹天往, 蘇尙永등 31名은 空軍特命제26호에 의거 51년 2월 15일부 그리고 李敬馬와 3名도 4월10일부로 대위를 初任계급으로 賦與하여 各各 任官시켰으며 鄭在久, 金東培, 尹錫憲, 李夏榮등 47명은 2월15일부로 그리고 林炳祚외 53名은 4월10일부로 중위계급을 賦與하여 任官시켰으며 文鍾泰외 13名은 2월15일부 李廣雨외 127名은 4월10일부로 各各 소위로 任官시킴으로서 조종사와 정비사를 除外한 期間中에 있어서의 後方要員의 將校 充員을 끝마치었다。

이 外에도 下士官과 兵을 募集하여 充員하였는데 通信, 情報 憲兵등 都合 200名을 비롯하여 一般및 기술병 759名을 募集하여 配屬시켰으며 士兵 교육은 4월 15일부로 慶北 慈仁에 제1항공 교육대가 창설됨으로서 各種 士兵의 교육이 單一化된 體制下에서 더욱 發展을 보게 되었다。

이리하여 戰爭勃發 初期에 불과 2,000餘名이었던 兵力이 51년 中葉에는 5,000名을 上廻하는 兵力을 보유하기에 이르렀다。(附表 제7호 參照)

바. 偵察 비행전대의 活動

偵察 비행전대는 서울 汝矣島基地에 本部를 두고 계속하여 陸軍 제1, 제2, 제3군단에 各各 비행派遣隊를 設置하고 地上軍 작전에 협력하다가 12월 31일 大邱 東明基地에 轉進하여 예하 3個 비행派遣隊를 계속 指揮하였다。

이때 T—6항공기는 비행단을 비롯하여 작전부대와 偵察 戰隊本部 그리고 汝矣島基地에 각각 配置되어 있었으므로 派遣隊에 支援된 항공기는 2人乘 軍用機인 連絡用 항공기로서 L—4型 11台와 L—5型 2台 그리고 L—19型 1台로서 SCR—300통신機材을 搭載하여 各軍團에 配置하고 있었다. 各 派遣隊는 地上軍의 移動에 따라 前進 또는 後退하면서 그 軍團의 正面 偵察에서 얻은 모든 情報狀況을 戰線部隊와 陸軍本部 그리고 美 제5공군 司令部에 緊急 통보하는 한편 戰鬪機의 目標誘導를 비롯하여 各 軍團의 연락 및 主要 指揮官의 空輸와 傳單 삐라의 空中 撒布등의 임무도 兼行하였다. 이러한 傳單의 撒布는 我軍의 反共戰意를 鼓吹시키는 한편 敵에게 대한 心理戰에도 寄與하였는 바 各 軍團派遣隊의 細部에 대한 活動狀況은 다음과 같다。

(1) 第1軍團의 飛行派遣隊

12월 7일에 咸興基地에서 서울로 撤收한 제1軍團派遣隊는 汝矣島基地에서 戰備를 가다듬고 51년 1월 5일에 江陵基地로 前進하여 軍團 예하 師團의 接敵地域 全般에 對한 偵察을 遂行하는 동안 汝矣島基地에서 羅昌俊소위가 江陵基地에 進出하게 되어 操縱士의 增員을 보았으며 1월 10일에는 原州 基地로 移動하였다. 그뒤에 春川 基地에서 邊喜柱중위外 4名의 병력 支援을 받아 派遣隊를 補強한 다음 13일에 다시 蔚珍 基地로 轉進 하였다가 2월 4일에는 三陟 基地에 展開하여 賦課된 임무를 계속하였다。

三陟基地에서 地上軍작전을 지원하면서 2월 12일 忠州 基地로 옮겨 第3軍團과 美 제10군단의 偵察도 아울러 협력하였다. 그 다음에 2월 14일 堤川基地로 移動하였다가 3월 4일에 軍團이 北進함에 따라 江陵 基地로 다시 前進하여 계속 1군단작전에 협력하였다。

3월 28일에 權重熙중위는 제1軍團長의 指揮官 수송 임무를 받고 L—5型 항공기로 汝矣島基地에서 江陵으로 向하던중에 갑작스러운 氣象障害때문에 大關嶺의 上空에서 군단장 金白一소장과 더불어 壯烈하게 散華하였다。

(2) 第2軍團의 飛行派遣隊

12월 5일에 沙里院에서 서울로 撤收하여 汝矣島基地에 駐屯中인 戰隊本部에 잠시 合勢하였다가 12월 13일에 제2군단에 派遣되었는데 12월末을 前後하여 제2軍團이 解體되면서 예하 제3, 제7師團이 第3軍團에 흡수되었으나 제2軍團 派遣隊는 期間中에 5個基地를 轉轉하면서 계속 예하 師團의 偵察을 敢行하여 2월 中旬부터 展開되는 總反擊 작전에 貢獻하는 바가 많았다。

(3) 第3軍團의 飛行派遣隊

서울과 大田 基地를 중심으로 作戰을 遂行하던 제3軍團 派遣隊는 51년 1월 2일에 榮州로 1월 18일에는 乃城基地로 轉進하여 제3軍團을 비롯한 美 제10軍團 예하 師團과 接戰하는 敵情을 偵察하였다。

2월 23일까지 乃城基地와 寧越基地를 중심으로 戰勢를 따라 轉進하다가 戰線의 北上으로 下珍富里로 躍進하여 地上軍에 對한 협력작전에 만전을 期하였다。

이와같이 偵察비행전대는 第2次撤收作戰 以來 51년 5월까지 地上軍의 耳目이되어 그 作戰에 직접 협력하다가 5월 下旬에 이르러 陸軍에 항공대가 創設됨으로써 偵察 및 연락 임무를 陸軍에 移讓하고 제1軍團 派遣隊는 4월 17일에 이미 撤收하였고 제2 및 제3軍團 派遣隊는 5월 29일에 撤收하여 本隊인 大邱 東明基地에 復歸하였다。

그 뒤에 偵察 비행전대는 6월에 泗川基地로 移動하여 조종사의 비행 訓練과 정비사의 정비 교육에 협력하면서 다음 作戰 준비에 着手하였다. 偵察飛行隊의 活動狀況을 表示하면 다음의 表와 같다。

偵察 비행대의 活動現況

區分 / 기간	L-4		L-5		L-16		L-17		L-19	
	정찰	연락	정찰	연락	정찰	연락	정찰	연락	정찰	연락
50. 12. 13—51. 5. 31	62	309	66	524	6	17		60	13	47

§戰　訓

1. 地上戰에서도 勇猛을 떨친 空軍의 戰士

12월 17일 興南地區의 連浦基地를 死守하던 헌병 派遣隊는 大隊規模의 敵에게 包圍되었는데 派遣隊長 金榮吉상사外 7名의 隊員들은 敵을 1名이라도 더 죽이고 우리도 죽겠다는 死境에서 血戰을 거듭하다가 包圍網을 뚫고 本隊로 撤收하려고 하였으나 通信網의 杜絶로 本隊와의 交信이 不可能하였으므로 戰況이 어떠한 狀況인지도 알 수 없었다. 隊長 金상사는 上部의 命令없이 부대를 撤收시킬수 없다는 책임감과 友軍이 短時日內에 다시 奪還하게 될 것이라는 信念아래 連浦 비행장앞 바다 7km지점에 있는 花島로 移動할 것을 결심하고 夜間을 이용하여 漁船으로 花島에 상륙하였다. 金상사는 이곳을 根據地로 하여 夜間 게릴라 전을 展開한 것을 결심한 다음 낮에는 동굴에서 作戰計劃을 樹立하고 夜間을 이용한 奇襲作戰을 敢行하여 敵의 보급창고와 탄약고를 폭파하는 한편 30여명의 敵을 射殺하는 등 많은 成果를 거두었으나 15일간의 끈질긴 血戰에서 隊員인 崔沃培중사를 잃고 말았다。

崔중사는 單身으로 敵의 탄약고를 수류탄으로 爆破시킬 목적으로 接近하였다가 敵에게 발견되어 交戰하게 되었는데 崔중사는 所持하고 있던 탄약을 最後의 一發까지 모조리 쏘아 敵 5名을 射殺한 다음 敵彈으로 壯烈하게 戰死하였다. 그리하여 1월 5일 戰況이 不利함을 깨달은 全隊員들은 崔중사의 屍體를 花島 海邊의 南녘 땅을 지켜보는 양지 바른 언덕에 埋葬하고 本船으로 이곳을 撤收하여 連浦에 上陸한 다음 1월 12일 大邱本部에 歸着하였다。

2. 한空軍중위의 沈毅果斷

51년 1월 6일 偵察 비행전대 本部인 大邱 東門基地에서 작전 임무를 遂行하던 王滿錄중위는 육군 총참모장 丁一權소장을 T-6항공기로 忠州까지 수송하는 임무를 賦與받았다. 총참모장 丁一權소장은 당시 忠州地區에 駐屯 하고 있는 美 제10군단장 Almond소장과 緊急作戰 會議를 하기 爲하여 11. 00 大邱를 출발하였는데 目的地인 忠州 上空에 이르렀을 때에 갑작스러운 氣象의 變化로 거센 氣流와 눈보라 때문에 視界를 分別할 수 없을 정도였다. 여기에서 王중위는 2時間 동안이나 그 上空에서 旋回하면서도 忠州基地를 발견할 수가 없었으며 燃料는 20분 정도밖에 비행할 수 없는 緊迫한 狀況에 處하게 되었다. 그러나 王중위는 沈着한 마음으로 狀況을 正確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정신을 잃지 않고 가장가까운 原州基地로 向하여 유유히 착륙 자세를 取한 다음 着陸을 敢行하였는데 당시 原州基地는 敵의 手中에 있었으므로 四方에서 敵彈이 빗발같이 集中하는 가운데 機敏한 행동으로 파괴된 C-47 항공기에서 연료를 보급한 다음 무사히 離陸하여 忠州 基地에 다시 着陸하는데 成功하였다。

13. UN空軍의 活動 (1950년 12월 1일부터 1950년 12월 31일까지)

要 旨

UN空軍은 1950年 11月末까지 北으로 攻擊을 계속 펴고 있는 UN地上軍과 완벽한 空地 立體作戰을 수행하기 위하여 制空權을 掌握하고 韓·滿國境을 따라 散在한 敵의 주요 軍事施設에 대하여 晝夜를 막론하고 爆擊을 감행하였다。

極東空軍司令官 George E Stratemeyer 중장은 MacArthur 元帥에게 「滿洲의 국경을 넘지 않고서는 鴨綠江의 교량을 폭격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거듭 강조 하였으며 MacArthur元帥는 「敵의 많은 兵力과 보급 물자들이 鴨綠江 다리를 건너 滿洲로부터 國內로 수송되고 있다. 이러한 敵의 兵力증강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方法은 鴨綠江의 교량과 敵의 移動을 지원하는 시설과 장비를 폭파하는 길이다。」라고 하였으나 合同參謀本部에서는 「韓·滿國境까지의 攻擊은 허락 하되 滿洲로의 進入은 엄금하라。」고 MacArthur 元帥에게 警告하였다。



<美극동空軍사령관 중장 G. E. Stratemeyer>

이와 같은 國境 侵犯문제가 擡頭되어 UN空軍에서는 많은 作戰制限을 받았는데 作戰地域內에서의 敵의 兵力과 보급 집결의 중심지는 集中的인 爆擊으로 말미암아 그 기능이 거의 상실되었으나 好適의 목표는 그 大部分이 滿洲땅에 있었으므로 敵의 兵力증강을 막기 위한 과감한 遮斷作戰은 상당히 低下되었다。

뿐만 아니라 UN空軍의 戰鬪機들보다 성능이 우수한 敵의 MIG—15 戰鬪機들이 數次에 걸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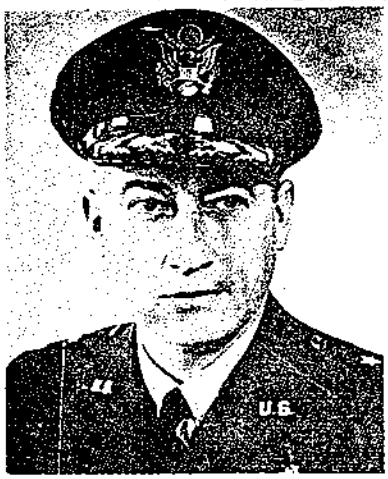
<美제5공군사령관 중장 E. E. Partridge>

MIG 通路(MIG Alley)로 鴨綠江을 넘어서 攻擊하였는데 國境을 넘지 못하도록 한 政策的인 配慮때문에 敵機를 끝까지 追擊하여 격추하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韓·滿國境의 南쪽에 位置한 敵陣을 爆擊하고 있던 UN空軍機들은 滿洲땅 地上으로부터의 對空砲火의 洗禮를 받기도 하였다。이러한 난관을 극복하면서 滿洲로부터 國內로 수송되는 보급로를 遮斷하기 위하여 [illegible]

際교량인 鴨綠江 철교를 성공적으로 폭파 하였으나 江물의 結氷으로 말미암아 그 實效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韓·滿國境을 따라 敵의 兵力과 보급의 집결지를 爆擊하고 있던 UN空軍은 12月中에 있은 中共軍의 侵略으로 UN軍이 全面的으로 撤收함에 따라 敵軍과의 接戰이 가장 치열하였던 美第8軍과 第10軍團의 戰場離脫을 가장원활하게 수행 하도록 空中支援作戰에 全力을 다 하였다。

UN空軍의 活動은 주로 制空權을 계속 維持하여 南侵中인 中共軍의 보급수송을 遮斷하기 위한 攻擊을 계속하였고 UN 地上軍의 戰勢變化에 即應할 수 있도록 敵戰目標에 對한 파괴공격과 撤收作戰의 難局을 打開하기 위한 보급품과 戰鬪要員의 空輸任務까지 勤當하였던 것이다。



<美극동공군폭격사령관 소장 E. J. O. Donnell>

즉 地上軍과 協同하여 一方的인 敵의 南侵 속도를 지연 시키고 敵을 격멸하는 임무를 동시에 並行하였는데 사실상 UN軍이 撤收하는 期間中에 있어서 敵과 대결하여 싸운 유일한 軍隊는 空軍뿐이라고 하여도 過言은 아니었다。

極東空軍 爆擊司令官 Emmett J. O'Donnel 소장은 遮斷作戰 第4號(Interdiction program No-4)를 策定하여 北韓의 輸送 도로를 파괴 하도록 命令하였으나 作戰遂行에 있어서 以前과는 달리 多少의 受難을 겪었다。

그것은 敵의 戰鬪邀擊機의 出現 때문에 MIG 通路(MIG Alley) 地域內의 목표물을 공격할 때에는 반드시 自體防禦에 充分한 다수의 전폭기 編隊로서만 攻擊이 可能하였던 까닭이다。

大體로 敵의 MIG機는 鴨綠江 근처에 머물러 있으면서 4機 혹은 6機, 때에 따라서는 8機가 한 무리가 되어 선회 하다가 UN機를 보면 攻擊을 敢行하였다。

즉 12月 6日 新安州 西北上空에서 B—29 폭격기 5機로 編成된 1個 編隊가 MIG의 공격을 받은 결과 그중의 1機는 金浦(K—14)에 또 1機는 日本의 Itazuke로 비상 착륙하는 피해를 입었다。

UN空軍에서는 이러한 敵 MIG 機들의 공격을



<美극동空軍전투물자 공수사령관 소장 W. H. Tunner>

반으면서도 美 第8軍에 對한 近接支援과 美第10軍團의 海上撤收作戰을 도와 과감한 遮斷作戰을 敢行하였으며 13日間 敵과 치열한 接戰을 벌리고 있던 第10軍隊에게 空中投下 보급은 물론이고 귀로에는 戰傷者와 주요 장비들을 空輸하였는데 이때 戰場에 처음으로 뛰어 든 Greece 空軍의 C—47 수송기도 美 第21空輸飛行大隊에 배속

되어 30回의 공수출격을 記錄하였다。

이 期間을 通하여 UN空軍은 1日 平均 1212回의 出擊을 記錄하였는데 이중 近接支援이 113回였고 遮斷出擊은 486回였으니 참으로 空知一如의 立體作戰을 위한 絶妙의 典型이요 協同作戰을 위한 精粹의 極致라고 할 것이다。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美 極東空軍사령관 중장
George E. Stratemeyer

美 第5空軍사령관 소장
Earle E. Patridge

美 極東空軍 戰鬪物資 空輸사령관
소장 William H. Tunner

美 極東空軍 爆擊사령관 소장
Emmett J. O'Donnel

美 極東空軍 作戰副長 소장
O. P. Weyland

美 第5空軍 副사령관 준장
Edward J. Timberlake

나. 中共軍에 對한 UN空軍의 活動

UN空軍이 北韓에서 撤收하는 期間은 대체로 1950년 12월 26일까지로 끝났던 것인데 이동안에 있어서의 極東空軍의 空中任務는 변경되지 않았으나 즉 極東空軍司令部에서는 北韓의 機動路와 補給路를 완전히 遮斷할 수 있도록 攻擊을 계속하였고 北韓의 교통 시설의 中心地를 파괴 하였으며 敵 地上軍과 隨時로 변경되는 戰術狀況에 즉각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目標에 對한 파괴작전을 담당하였다。

또한 制空權을 계속 維持하면서 敵 空軍을 격멸하고 UN地上軍과 海軍의 撤退를 자유롭게 하였으며 敵 地上軍을 공습하여 그 作戰을 攪亂시키는 동시에 UN地上軍에 對한 보급과 軍隊의 空輸를 담당 하였다。

이와 같이 航空作戰은 敵의 攻擊을 阻止하였으며 敵의 地上戰鬪 수행 능력을 粉碎하는데 絶對的인 決定打가 되었다。

勿論 근접항공 지원으로 敵軍은 많은 타격을 받았을 것이지만 敵이 입은 最大의 것은 UN空軍이 敵의 中心戰域을 目標로 集中攻擊하여 치명적인 痛擊을 加하고 牽制와 粉碎의 効用을 自由自在로 發揮한 데 있었던 것이다.

그 뒤에 中共軍이 MIG—15 戰鬪機를 公開的으로 活用하여 挑戰의 빛을 보이게 되자 UN空軍의 作戰方向은 制空權을 계속 유지 하는데 그 努力을 集約하게 되었다。

1950년 11월과 12월中에 있어서의 北韓 上空의 制空權 획득을 위한 空中戰은 그 大多數가 清川江에서 鴨綠江 사이의 半島 北西部 上空에서 敢行된 것인데 이 地域을 所謂 MIG 通路라고 불리우게 된 곳이었다。

敵의 MIG 機가 宣川이나 泰川 以南까지 侵犯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였지만 大體로 그들은 6臺 혹은

8機의 編隊로서 鴨綠江의 近接地域을 선회 하다가 소수의 UN機를 만나면 空中戰을 벌이는 것을 常例로 하였다.

第49戰爆戰隊의 F—80戰鬪機 3個編隊가 各各 12월내에 세번, 敵의 MIG와 空中戰을 展開하였는데 이 모두의 경우 敵機가 數量的으로 월씬 우세 하였다。

특히 敵機 24機와 F—80戰鬪機 4機가 맞부딪치기도 하였는데 MIG 敵 조종사들은 그들의 비행기가 F—80 전투기보다 속도가 빠른 利點을 갖고서도 速度가 느린 F—80 전투기를 격퇴시키지 못하였다。

12月 15日에 第4전투요격 비행단의 F—86 戰鬪機 7機가 金浦(K-14)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F—51 (Mustang) 戰鬪機나 F—80戰鬪機로 敵 MIG機와 불리한 空中戰을 더 계속하지 않아도 되었다。

F—86 전투기의 出擊任務는 第5空軍 合同作戰本部의 계획에 따라 공중 哨戒임무로 局限하였으며 1951년 1월 2월 F—86 전투기가 金浦에서 日本으로 撤收하기까지 도합 280回를 出擊하였고 415時間 45分이라는 戰鬪 비행시간을 記錄하였다。

F—86 전투기가 最初의 솜리를 거둔 것은 12월 17일이었는데 이날 MIG機 4機를 격추시켰다。

특히 Bruce, H. Hinton 중령은 MIG機를 격추시킨 最初의 Sabre 전투기 조종사 였다。

12월 마지막 週 동안 168回의 MIG機 出擊을 목격 하였는데 12월 30日일 MIG機 31機 F—86 전투기 16機 사이에 서로 전투가 展開되어 MIG機 2機를 破損시켰으며 F—86 전투기가 作戰을 開始한 뒤 1個月 동안에 걸쳐 MIG—15機 8機를 격추하였고 다시 2機에 피해를 주는 戰果를 거두었다。

한편 遮斷作戰과 武裝偵察로 中共軍의 南侵을 阻止시켰는데 12月 7日에 極東空軍 作戰副長 O.P. Weyland 소장은 B—29 中爆擊機의 戰力을 우선적으로 敵軍과 敵이 補給物資를 鴨綠江에서 南쪽으로 철도 수송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계획된 遮斷作戰에 使用함은 물론이고 차단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 都邑에 對한 攻擊은 敵의 軍隊와 보급품이 많이 集結되어 상당한 數量에 達하였을때 爆擊하라는 遮斷 第4號(Interdiction Program NO-4) 作戰에 B—29 폭격기를 投入시켜 中共軍의 作戰을 송두리채 뒤흔들어 놓았다。

그러나 MIG 通路(MIG Alley) 地域內의 目標物을 攻擊할 때에는 반드시 자체방어에 充分한 많은 폭격기 編隊로서 攻擊하여야만 되었으며 從前과 같이 單機로 교량 目標등을 上空에서 여러번 進入하며 爆擊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난관을 무릅쓰고 爆擊司令部에서는 4機씩 1組가 되어 (4—Plane Bombing Attack) 12월 둘어서 3週 동안에 新安州와 軍隅里 그리고 平壤등 12個의 主要한 都邑에 있는 操車場과 철도 시설 및 補給根據地를 攻擊하였다。

12월 10일에는 平壤의(K—23) 비행장을 500 LBS폭탄으로 敵이 使用할 수 없도록 爆擊을 감행 하였으며 12月 中旬까지 UN空軍의 기총소사와 폭격, 그리고 Napalm(燒夷油脂彈)공격으로 4個師團에 해당하는 敵에게 도합 3,300名의 사상과 많은 부상자를 내게 하였다고 極東空軍사령관 Gerge E. Stratemeyer 중장은 推算하였다。

이토록 美 第5空軍이 武裝偵察과 遮斷攻擊에 全力을 다 하였는데 12월中 極東空軍에서 감행한 遮斷과 武裝偵察의 出擊 총회수는 도합 7,651回를 記錄하였으니 그 熾烈性과 執拗性을 能히 推斷할 수 있을 것이다。

다. UN軍의 撤收作戰에 對한 支援

極東空軍機들은 위에서 말한 바 遮斷攻擊과 무장정찰을 위한 超記錄的인 出擊外에도 12월中에는 도합 3,563回의 近接支援 出擊을 敢行하였는데 이 出擊의 大部分은 美 第8軍을 支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근접지원 출격은 12月初에 美第8軍이 中共軍과 戰鬪를 전개하였을 때와 12월末에 中共軍이 최종적으로 UN軍의 戰線을 깨뜨리려고 投入하였을 때가 가장 격심 하였다。

UN空軍은 敵의 攻擊을 粉碎하고 또한 美 第8軍의 배후에 投入하여 機動路를 遮斷하는 敵을 격멸하는 二重의 任務를 담당 하였다。

美 第8軍의 우측면에서 敵과 치열한 戰鬪를 展開하고 있는 美 제2사단과 Turkey 여단 그리고 英 第27여단이 敵의 포위권내에 들어갈 위기에 있었으나 UN空軍은 敵 集結地에 500 LBS 폭탄을 投下하여 600名 가량의 敵軍을 탄광속에 매몰 시켰으며 많은 敵兵들이 戰鬪機의 기총소사를 받고 山기슭을 따라 도주하는 퇴로를 遮斷하여 UN地上軍이 敵 50名을 생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危機에서 오히려 유리한 反擊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2월 2일에는 UN軍이 軍隅里에서 順川으로 撤收하고 있었는데 中共軍이 이미 退路를 遮斷한 것을 모른 탓으로 苦戰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進退維谷을 打開하기 위하여 第5空軍의 戰鬪機들은 低高度의 急降下로써 하루 종일 敵을 爆擊하여 美 제2사단을 能히 危機에서 모면토록 하였는데 이때의 空中支援의 大部分은 第51戰鬪邀擊 비행단의 F—80 전략기들이 담당 하였으며 危機의 絶頂期인 며칠 동안에 걸쳐 도합 763回의 出擊을 記錄하였으니 可謂 捨身成仁이라고 할 수 있었다。

12월末에 이르러 中共軍이 美 제8군에 對하여 再次 강력한 공세를 취하게 되자, MacArthur 司令官은 極東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B—29機 戰力의 75%를 敵軍의 集結地와 都邑을 목격하는데 사용하라는 拔本塞源같은 命令을 내리게 되고 美 제5空軍사령관 Earle E. Patridge 소장은 제5공군의 야간 폭격기들도 美 第8軍의 主抵抗線上에서 새로운 技術을 發揮하여 보다 긴밀한 作戰支援을 完遂하도록 大喝하였다。

이 새로운 技術이란 B—26 경폭격기가 F—80 전투기와 戰術空中統制團의 지시에 따라 前線에 조명탄을 投下한 다음 指定目標를 공격하는 것을 말하며 조명탄 1個가 投下될 때마다 두번 혹은 세번씩 目標에 進入하여 強打를 加하게 되자 敵은 많은 타격을 입고 그 士氣가 急速히 低下되기에 이르렀다。

이 반면에 UN軍의 사기는 크게 昂揚되어 야간 공군력을 戰線目標에 對한 攻擊으로 전환 하므로써 B—29重爆擊機들은 戰線에 인접한 마을이나 도시에 出擊하여 敵의 主要한 補給路 차단작전에 投入할 空軍力을 줄이는 效果를 거두게 되었다。

期間中에 美 第10軍團의 戰勢는 第8軍보다도 훨씬 더 險惡하였고 더욱 長期間에 걸친 困境을 打開하여야 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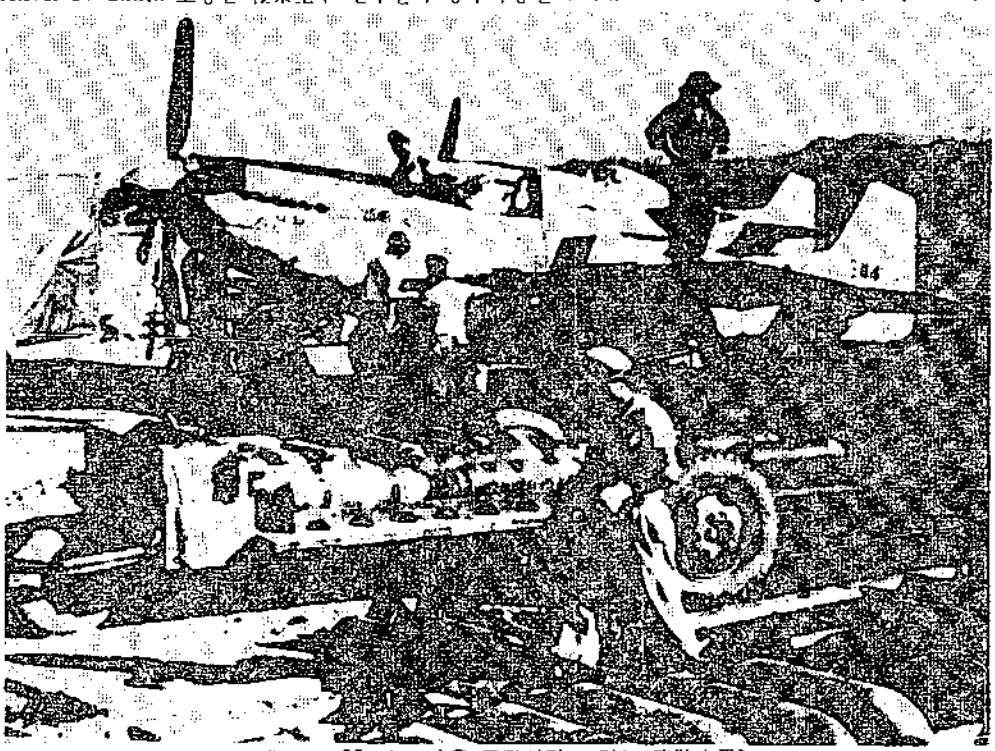
12월 4일 極東空軍에서는 空輸司令部에 C—119과 C—46 그리고 C—47 수송기를 동원하여 美 제10군단을 急速支援토록 하였으며 단지 C—54 수송기만은 美 제8군과 제5空軍을 지원키로 하였다。

空中投下 方法이 증강 된 다음의 2日間은 每日 250 ton씩 공중 투하량이 증가 되었는데 이 2일間에 柳潭里와 新興里의 공중 투하 작전도 계속되었다。

이와 같이 공중투하 기구가 완전히 稼動되어 空中補給品이 축적 되었으므로 당일에 美 海兵隊와 陸軍部隊들은 下碣隅里를 향하여 撤收作戰을 개시하였다。

12월 10일까지 下碣隅里와 古土里 兩飛行場에 도합 240回에 걸친 出擊으로 273.9 ton의 보급품을 空輸하였으며 귀로에는 戰鬪員 4,689名을 후송 하였는데 그 大部分은 제21공수대대에서 담당한 것이었다。

더욱 특기할 것은 12월 7일에 美 海兵 제1사단은 下碣隅里를 벗어나 古土里에서 분투하고 있는 美 海兵 제1연대와 합세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古土里 北方에 侵入한 敵이 1,500 Feet의 깊은 狹谷入口 바로 위에 있는 潮水를 건느는 교량을 끊어버려 서로 합세할 수 없게 되자, 제1海兵 사단장 Aliver P. Smith 소장은 極東空軍 전투물자 공수사령관 William H. Tunner 소장에게 Plywood(합



<F—51 (Mustang)을 무장시키고 있는 武裝士들>

판)으로 만든 8個의 徑間(Span)으로 된 M—2 踏橋를 공중投下 하여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에따라 제5空軍의 C—119 수송기로 1個의 徑間(Span)을 積載한 다음 5分 간격으로 連續 비행장을 이륙하여 古土里 上空 800 Feet에서 投下하는데 성공하였다。

美 海兵 제1사단에서는 投下된 8個의 徑間(Span)으로 M—2踏橋를 組立하여 다리를 놓고 12월 7일밤 古土里 바로 北方에서 海兵 제1연대와 합세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13일間이나 계속되는 敵의 攻擊을 받으면서 海兵隊와 제31보병 연대의 잔유병력은 敵을

피하여 轉進하는 동안 師團급을 훨씬 초과하는 규모의 我軍側의 補給源은 모두가 空中投下에 依한 것이었다。

그 內容을 더듬어 본다면 C—119 수송기 313臺와 C—47 수송기 37臺가 도합 1,580.3ton의 補給品과 장비를 投下하였으며 有史以來 最初로 完全한 교량을 投下한 것이었다。

美 海兵 제1사단이 12월 11일 興南에서 咸興橋頭堡로 後退하자 이미 말한 대로 美 제10군단은 全面 海空撤退라는 중대한 試練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2월 14일 連浦飛行場에서 大大的인 空中撤收 작업이 시작되어 17일 21.00에 完了되었는데 戰鬪空輸司令部에서는 도합 393回에 걸친 出擊으로 환자 228名과 기타 人員 3,891名, 그리고 2,088.6 ton의 화물을 공수 하였으며 여기에는 탄약 772.2ton과 차량 439ton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10군단의 軍隊와 보급품의 大部分은 興南과 城津 그리고 元山으로 空輸되어 다시 海上으로 수송되었는데 이와같이 全面的인 撤收作戰으로 橋頭堡가 무너지자 敵이 海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5空軍의 B—26 경폭격기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集中爆擊을 계속하여 12월 24일 14.30에 이르러 드디어 제10군단의 撤退를 完了토록 하였으니 하늘에서의 支援威力이 얼마나 有効하였고 또 適切하였던가를 能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 北韓에서의 空軍部隊의 撤收

제5空軍이 北韓에서 撤退하던 중의 가장 큰 손실은 당시 新安州에 있던 제605 航空統制 및 警報대대(Aircraft Control, and Warning Squadron)를 잃은 事實인데 이 대대는 이해 11월에 당시 空軍의 여러 部隊中에서 가장 敵에 가까히 位置하고 있었다。

이해 12월初에 이 大隊가 撤收하는 데는 다만 3시간 밖에는 준비시간이 없었던 까닭으로 하는 수 없이 Radar와 기타 貴重한 모든 장비들을 파괴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밖의 항공통제 및 경보대로서는 平壤에 제6132대대가 있었는데 이 大隊는 아무런 손실없이 大邱로 撤退할 수 있었다。

또 東海岸에서는 당시 連浦 비행장에 있던 제35戰鬪邀擊 비행단이 12월 3일에 LST로 兵力과 物資의 大部分을 釜山으로 後送하였으므로 作戰 출격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平壤(K—23)에 있던 제8戰爆團은 敵의 경비행기 1臺의 夜暗을 이용한 空中報復으로 말미암아 行路(Flight line) 근처에 파편탄 3個의 投下를 받게 되어 空軍 1名이 戰死하였고 Mustang(F—51) 11臺가 파괴하는 등 撤收上 뜻하지 않았던 蹉跌이 있었으나 여기에 남아 있던 전방 掃隊들은 서울 근교 汝矣島 비행장(K—16)까지 轉進하여 임시로 풀밭 滑走路에서 作戰을 계속할 수 있었다。

또한 平壤 東部飛行場(K—24)에 있던 제18戰爆戰隊는 12월 1日일 C—119 수송기로 兵力과 보급품 그리고 천막까지 모두 積載하고 水原(K—13)으로 撤收하였다。

그러나 12월 中旬 水原(K—13)에 있던 部隊들은 또 다시 移動命令을 받고 南 Africa 2個大隊와 같이 鎭海(K—10) 비행장으로 이동 하였다.

한편 제6147戰術統制대대(Mosquito)는 平壤에서 서울로, 다시 大邱로 移動하였으며 제6151 空軍基地隊는 連浦 비행장(K—27)에서 浦項(K—3)으로 撤收하였다。

그리고 서울에 設置하였던 제5空軍의 合同作戰本部(J.O.C.)와 戰術航空統制本部(TACC) 등은 해

체되어 12월 20일에 수송기와 철도 기타 차량수송편으로 大邱(K—2)로 이동 하였다。

또 12월 1일에서 15日 사이에 戰闘空輸司令部에서는 제5空軍의 화물 5,069.3 ton을 空輸하였는데 이것은 全空輸所要 35%에 해당되는 것이며 12月 16日에서 31日까지는 도합 2,885 ton의 화물을 공수 하였다。

이와 같이 北韓에서의 日體部隊를 撤收하면서 UN軍의 全面撤收作戰을 縱橫無盡으로 支援한 결과 期間中에 다음과 같은 戰果를 거두었다。

戰 果

操車場 파괴——20個所
航空機 全破 또는 半破——12臺
<地上破壞>
野砲——60門
戰車——17臺
철도차량—26輛
一般차량—542臺
터널 및 敵의 군사시설 破壞—4,168個所
敵射殺—6,694名

마. 第5空軍의 再編成

이해 7월初에는 韓國戰爭이 長期間에 걸쳐 계속 되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美空軍의 指揮體系는 다만 目前의 一時的인 必要性에 따라 마련하게 되었으니 곧 제5空軍사령관 Earle E. Patridge 소장과 副사령관 Edward J. Timberlake 준장이 韓國內에서 제5空軍의 前方 機隊本部를 設置한데 不過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機隊本部는 7월 24일 이후 부터는 駐韓 제5空軍本部로 改稱되었고 Delmar, T. Spivey 준장은 제5空軍의 후방機隊本部를 指揮하고 있다가 제5空軍의 副사령관으로 임명되었으며 日本 Nagoya에 位置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 밑에서는 指揮의 책임 계통이 2個司令部로 나누어지고 참모들도 兩分되기 때문에 혼란을 免치 못하였으므로 12월 1일 美 空軍에서 새로운 조직에 대한 승인이 내리자 사령관 Earle E. Pafridge 소장은 副사령관 Delmar T. Spivey 준장 指揮下에 제314飛行團(The 314th Air Divistion)을 創設하게 되었다。

그리고 駐韓 제5空軍本部와 本部대대를 해체하고 改稱된 제5空軍이 最少限의 人員과 兵力으로 日本으로부터 서울에 移動하였기 때문에 해체된 駐韓 美第5空軍의 人員과 장비를 흡수하였다。

이와 같이 指揮체제를 改定함과 동시에 제5空軍에서는 團級 편제를 재조정 하였으며 命令書를 下達하여 韓國에서 戰闘中인 部隊들은 정규 상태로 승격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즉 제6002 戰闘支援團은 제8戰闘爆擊團으로, 또 제6149戰術支援團은 제49戰闘爆擊飛行團으로 그리고 제6133 戰術支援團은 제3爆擊支援團으로 승격 배치되었다. 새로운 문배 기준표에 의한 空軍支援團들은 日本의 Itazuke와 Johnson 그리고 Yokoda와 Misawa 및 比島의 Clark 空軍基地에서 作戰하도록 되었다. 이러한 名稱 변경으로 戰闘團들은 정규상태로 되었을 뿐아니라 兵力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열리게 되었다。

第 37 章

豆滿江方面 撤收作戰

要 旨

1. 合水·淸津—興南 撤收作戰
2. 海兵隊의 元山, 咸興附近 戰鬪
3. 美 海兵사단의 長津湖附近 戰鬪
4. 美 第10軍團의 興南 撤收作戰
5. UN海軍의 城津—興南—元山 撤收作戰
6. UN空軍의 活動

第37章 豆滿江方面 撤收作戰

要 旨

이 章에서는 美제10군단과 韓제1군단이 1950년 12월 1일부터 同年 12월 24일까지 咸境道 一圓의 國境線 附近에서 興南으로 撤收하여 그곳에서 海路로 釜山方面에 轉進을 敢行한 戰鬪經過의 內容이 收錄된 바, 같은 期間에 西部戰線에서는 이미 10월 下旬부터 中共軍 大兵團과 接戰되어 我 및 友軍部隊가 淸川江—平壤—38°線附近까지 撤退하여 12월 中旬에는 臨津江線에서 遮斷陣地를 占領하고 있을 때였다。따라서 咸境南北道 一帶에서 11월 30일까지도 進擊作戰을 계속하고 있던 美제10, 韓제1兩軍團은 全戰線上에서 볼때 孤立 乃至는 後方이 遮斷된 結果를 가져왔는데 이는 中共軍의 出現이 西部戰線보다 1個月 가량 늦은 이유도 있지만 東北戰線에서는 早期에 韓滿, 韓蘇 國境線을 掌握하기 위한 計劃에서 였다。그러나 中共軍의 侵韓規模가 11월 中에 남로 擴大되어가고 더우기 11월 末에 이르러서는 長津湖 附近에 中共軍 제9집단군 소속 제20, 제26, 제27 3個軍團의 總 9個師團의 大擧 出現하여 美제10군단의 左一線을 包圍 壓迫함으로써 戰勢는 全轉하게 되었다。그리하여 11월 27일 在東京 極東軍 總司令部에서의 作戰會議이후, 이곳 咸境地區의 全我軍및 友軍은 作戰上 後退가 결정되기에 이르렀는데 同 部隊들은 鴨綠江 上流인 惠山鎭—新義州鐵路를 占領한 것을 除外하고는 豆滿江邊에 이르지 못한채 75일간의 總反擊作戰(제4권참조)의 大團圓을 끝맺고 興南으로 撤收하여 海上轉進作戰을 始作하게 되었다。

이 때의 陸上部隊로는 韓제1군단 예하首都 사단과 제3사단 그리고 美제10군단 예하 美제1해병사단과 美제7사단 및 美제3사단 등 총 5개사단이었으며 海上支援部隊로는 韓國海軍과 美제90機動艦隊(Task Force 90) 및 美제7함대의 一部이었다。그리고 空軍으로서는 美海兵飛行隊와 美海軍艦載機등이었다。

上記部隊들의 상세한 戰鬪經過는 各節에서 詳述될 것이나 陸上部隊를 中心한 概略的인 戰鬪 및 撤收經緯는 다음과 같다。

제1군단 : 城津에 開設되어 있던 指揮所가 12월 3일 興南 西湖津으로 철수하여 그곳에서 興南橋頭堡作戰에 參加한 다음 12월 15일 蔚珍으로 海上移動하여 指揮所를 開設하고 장차 東部戰線 專擔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首都사단 : 淸津北쪽 草興洞(18R,)과 富居洞(18R,) 一帶에서 12월 1일 철수를 시작하여 朱乙—明川—吉州—城津에 철수한 다음 城津에서 사단CP와 제18연대는 海路로 興南에, 제1및 제1기갑연대는 陸路로 端川—北靑—洪原정유 退潮에 轉進하여 興南橋頭堡를 확보하다가 11월 17일興南港을 出航하여 12월 18일에 釜湖로 上陸하였다。

제3사단 : 白岩—羅南附近에서 12월 1일에 철수를 시작하여 首都사단의 철수를 엄호하다가 12월 9일에 城津에서 海路로 興南으로 철수한 다음 다시 그곳에서 釜山으로 回航하여 12월 12일 釜山및 九龍浦에 上陸하여 부대정비에 임하고 있었다。

美第10군단 : 11월 30일 현재 咸興에 開設되어 있던 指揮所는 12월 14일에 興南으로 이동하여 興南橋頭堡작전과 海上撤收作戰을 指揮하고 있다가 12월 18일 海上(Mt. Mekinly號)으로 이동한 다음 興南撤收종료와 함께 釜山으로 轉進開設하였다。

美第1해병사단 : 12월 1일~11일까지 長津湖附近의 中共軍 제9집단군의 重圍를 突破하고 12월 15일에 興南에서 出港하여 17일 釜山에 上陸한 다음 馬山으로 集結하였다。

美第7사단 : 11월 30일 현재 鴨山鎭—新坡鎭을 점령하고 있다가 철수명령에 따라 鴨山—北靑을 경유 咸興에 轉進하여 興南橋頭堡를 확보하던 중에 12월 17일 興南港을 出港하여 釜山에 上陸하였다。

美第3사단 : 11월 30일까지 元山—咸興에서 美第10군단의 後側方을 防護하다가 咸興으로 北上하여 收容陣地를 점령하고 興南撤收에 있어 橋頭堡陣地를 最後까지 確保하다가 12월 24일에 出港함으로서 興南撤收作戰을 終了한 部隊이었는데 同사단도 釜山에 上陸하였다。

이상과 같은 概要가 이 章의 골거리인 바, 본시 美第10군단은 美第8군과 같이 MacArthur 元帥의 直接指揮를 받고 있었으나 興南撤收作戰을 끝낸다음에는 그 指揮權이 美第8군사령관 麾下로 바뀌었고 韓第1군단도 그간 美第10군단장의 작전지휘를 받았으나 興南撤收作戰 다음에는 그 指揮權이 韓國陸軍總參謀長에게 復歸되어 東部 38°線一帶를 專擔하게 되었다。

本作戰期間中의 敵은 中共軍 제3야전군 예하 제9집단군 소속 9개사단이 主攻으로, 北共 제4, 제5, 제8군단 등이 助攻으로 戰鬪에 參加하였으며 各己 主敵는 높은편이었다。

이 章에서 가장 특징적인 戰鬪는 제4절의 興南撤收作戰인바, 前述한 바와 같이 孤立된 興南橋頭堡에서 中共 제9집단군와 波狀人海공격을 擊退하고 友軍의 손실이 全無한 가운데 海上撤收作戰을 成功시킨 것은 흔히 "Dankirk"작전에 비교한 것으로서 이의 要諦는 陸·海·空軍의 三位一體作戰이 實施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때 中共軍 제9집단군은 거의 全滅되어(70% 이상) 그들의 再編成期間이 무려 3개월이나 걸렸다는 사실은 당시 世界의 耳目이 이곳 興南에 集中되게 된 理由의 하나였다。

따라서 이 章의 全般的인 戰鬪경과를 고려해 볼때 作戰性格이 二大別되는데 첫째는 各己最終占領地에서 咸興—興南으로 轉進한 期間(12. 1~12. 11)과 둘째는 海上撤收를 爲한 興南橋頭堡作戰期間(12. 14~12. 24)의 二段階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첫째 段階는 全部隊의 一貫된 철수작전으로 別問題이 없으나 特記할 것은 美第1해병사단의 長津湖—興南間 突破작전이었고 둘째 段階의 興南橋頭堡 確保및 海上撤收作戰은 韓國戰史上은 물론이려니와 世界戰史上에도 그 戰例가 남을만한 成功的인 작전이었다。

1. 合水·清津—興南 撤收戰(1950년12월 1일부터 1950년12월16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7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제1군단 장 소장 金白一	제26연대 장 중령 徐廷哲
首都사단 장 준장 宋堯讚	배속부대
제1연대 장 대령 韓信	제10포병대대
제18연대 장 대령 任忠植	제11포병대대
제1기갑연대장 대령 金東洙	수도야전공병대대
제3사단 장 준장 崔錫	제3야전공병대대
제22연대 장 대령 金應祚	병력 : 약 22,000명
제23연대 장 대령 金漢雄	장비 : 각사단 보유지

敵 軍

北共제4군단	제8군단
제41사단	제5사단
제507여단 및 海岸警備隊	제6사단
제5군단	제7사단

이밖에 戰鬪詳報에 나타난 敵情으로는 合水독립대대, 白岩독립대대, 茂山사단, 原興독립중대, 松景독립여단 등 그리고 長津湖 附近의 中共軍의 제3야전군예하 제9병단의 제20, 제26, 제27군단.

나. 전투 진의 개황

本節에서 取扱하게 될 제1군단의 東北海岸에서의 撤收作戰은 當初 1950년 12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韓國軍 단독으로 合水및 淸津 北쪽에서 城津경유 興南으로의 轉進作戰이었으나 그 다음부터는 美

제10군단의 엄호아래 16일 乘船할때까지 興南 東北外郭의 橋頭堡확보의 일환으로서 遮斷陣地를 점령하고 있다가 최종부대가 17일 拂曉에 興南港을 出港한 것으로 끝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볼때에 이는 美 제10군단의 主導한 興南撤收作戰의 一環인 것이다. 그런데 豆滿江岸을 目前에 둔 韓國軍의 追擊戰이 어떻게하여 撤收作戰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하는 動機에 대하여서는 이미 제35장에서 말한바와 같다.

敵軍의 狀況 : 上記와 같이 東北戰線에서 美 제10군단 (美 제1해병사단, 美 제7사단, 美 제3사단)과 韓 제1군단(首都사단, 제3사단)의 五個師團이 國境線을 向하여 四個縱隊로 진격하고 있을 무렵, 이미 中共 제3야전군 예하 제9병단의 제20군단(제58, 제59, 제60사단)과 제26군단(제76, 제77, 제78사단) 그리고 제27군단(제79, 제80, 제81사단)은 鴨綠江 上流 國境地帶를 越境하여 狼林山脈을 타고 長津湖 附近으로 南下하여 대체로 11월 25일에는 이곳을 中心으로 西쪽에 제20군단, 北쪽에 제27군단, 東쪽에 제26군단이 각각 진출하여 美 제1해병사단을 威脅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11월 27일 同 사단이 攻擊을 시작함과 때를 같이하여 三面에서 그들의 侵略金魁가 露出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에 앞서 美 제1해병사단은 11월 初에 數名의 中共軍을 사로 잡았는데 심문결과 그들의 소속이 제124사단이라는 것을 보면, 中共 제9병단에 앞서 제4야전군 예하 제13병단의 제42군단이 滿浦鎭에서 江界를 경유하여 이곳 長津湖 南쪽에 潛入한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렇게 하여 美 제10군단 左一線 진격부대인 美 제1해병사단의 鴨綠江畔진격과 인접 美 제8군과의 連繫작전은 長津湖 附近에서 中共軍에 의하여 遮斷되고 있었다.

한편 이무렵 東北海岸線의 韓國軍 제1군단은 豆滿江畔을 向한 진격작전을 계속하였는데 11월 30일 현재로 首都사단은 淸津 北方에, 제3사단은 倉水에 각각 主力을 두면서 일부가 惠山鎭에 진출하였던 것이다. 이 때만 하더라도 군단 前面의 敵은 계속 退却하여 敵 제4군단 소속 제41사단과 제507여단 및 團隊號 未詳의 海岸警備隊가 그 主力을 會寧과 茂山 一帶에 집결하여 再編中에 있었고 特히 會寧附近에는 10월 末부터 新編한 敵 제8군단의 제5, 제6, 제7사단이 戰列을 강화하면서 防衛에 對備하고 있었다. 또 그들의 일부는 富寧과 茂山 北쪽에서 首都사단의 진격을 阻止하기 위하여 敵 제41사단과 함께 投入된듯 하였다.

그리고 제3사단 前面에는 敵 主力이 이미 美 제7사단의 惠山鎭 점령으로 因하여 惠山鎭 北方 國境더머로 潰走한바 있거니와 白岩 東北쪽으로 미처 後退한 것들이 없는 상당한 數의 殘敵이 徘徊하고 있었다. 즉 이 일대의 敵兵力을 判斷한다면 그간 敗殘合流兵을 위시하여 內務署員과 警察等 混合兵으로서 그 團隊號로는 倉水독립대대, 白岩독립연대, 茂山사단, 厚興독립중대, 長白독립여단 등으로 되어 있다.

一連의 상황을 綜合分析하면 군단正面의 敵은 11월 30일까지도 戰意가 喪失된채 潰走一路에 있어서 장비면이나 士氣는 좋지 못하였으나 中共軍의 投入을 事前에 알고 있다는 사실을 前提로 한다면 그들의 戰意는 無視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長津湖附近에 나타난 中共軍은 전개상의 兵力과 重裝備까지 保有하고 있음에 反하여 東北戰線 淸津-倉水 北方의 北共軍은 敗殘兵潰走-一路로 分散되고 그 裝備도 個人火器에 不過한 것이었다.

我軍의 狀況 : 美 제10군단장 Almond소장은 11월 中旬까지도 당초의 계획대로 東北戰線의 진격전

은 범추지 않고 있었다. 특히 그는 가급적 빨리 咸鏡地區의 交通및 兵站線의 大動脈을 장악하면서 國境線을 突出할 계획으로 11월 25일 이후에도 首都사단이 高津에서 會寧—雄基線으로, 제3사단이 甘州 合水—茂山線으로, 美 제7사단이 豊山—惠山鎭으로, 美 제1해병사단이 長津湖에서 鴨綠江 上流로 各各진격케 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에는 이미 中共軍의 大兵이 侵入한 狀況아래에서 진격을 강행한 것인데 특히 美제1해병사단이 11월 27일 長津湖 西端 柳潭里에서 공격을 개시함과 때를 같이하여 中共 제9병단의 포위태세가 완료되었고 同時에 下碣隅里—柳潭里線에서 攻勢移轉을 斷行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이 東北戰線의 직접적인 敗收계기가 되었거니와 韓國軍 제1군단이 担當하고 있는 咸北地區에서는 大規模의 接敵이 없는 가운데 急進擊戰을 續行하여 철수명령이 하달되기 直前까지 東으로부터 富居—富寧—惠山鎭線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我軍의 士氣는 높았으며 11월 30일 현재로 지휘소는 제1군단이 城津에, 首都사단이 高津에, 제3사단이 甘州에 各各 開設 하고 있었다. 또한 이날 현재로 각 연대의 主陣地線은 대략 다음과 같다。

제 1 연대—檢城 西쪽

제18연대—草興洞 부근

제1기갑연대—上碣洞 부근

제22연대—白岩 부근

제23연대—羅南 부근

제26연대—洪吉 부근

나.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美 제10군단이 担當한 東部戰線에서 中共軍의 大兵團을 확인한 것은 前述한 바와 같이 11월 27일 이었는데 이는 美 제1해병사단의 공격과 때를 같이하여 中共 제9병단의 3개군에 依한 包圍태세에서 집작 되었고 이 당시 西部戰線의 美 제8군도 中共 제3야전군 제13병단의 主力과 不時에 接觸하게 되었다.

이렇게 狀況이 急變하자 11월 28일 밤에 在東京 UN군총사령부의 MacArthur 元帥는 Walker 중장과 Almond 소장을 招致하여 戰略指導를 마치고 撤收命令을 내린 다음, 이어 Washington으로 보고하기를 「UN군은 더 이상 攻勢를 취할 수 없음으로 守勢에 임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全的으로 새로운 戰爭樣相에 直面하고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中共軍의 侵略規模가 東西 兩戰線에서 同時攻勢가 확인된 연후의 일이었다. 中共軍의 侵略규모나 그 성격에 대하여는 이미 1950년 10월부터 논의된 바 있었으나 一部刀餘를 낙관적인 見解로

自壞하다가 결국 이 困厄을 당하게 되어 마치 눈먼사람이 지팡이를 잃게 된 格이 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美 제10군단장 Almond 소장은 곧 바로 歸任한 다음 東北戰線의 全部隊를 撤收시키기 위하여 11월 30일 오후에 要旨 다음과 같은 군단작명 제8—50호를 하달하였다.

「全 部隊는 戰列을 가다듬어 최대한의 능력으로 敵과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咸興—興南의 작전기지로 轉進하라。」

그 轉進路는 從來의 4個 進擊軸線上을 따라 그대로 利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1군단장 金白一 소장은 이날밤 首都사단장 宋堯讚 준장과 제3사단장 崔錫 준장에게 군단작명 제112호를 하달하게 되었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首都사단장은 現진지(淸津北쪽)에서 12월 1일 철수를 시작하여 北靑과 利原을 目標로 轉進하라.

제3사단은 合水—吉州線에서 首都사단의 철수를 엄호하면서 攻勢防禦를 실시한 다음 逐次的으로 부대를 城津으로 轉進하라。」

이와같은 명령을 받은 兩師團長은 즉시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는데 그중 엄호임무를 맡은 제3사단장은 다음과 같은 要旨의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

「제22연대는 현 임무를 계속하면서 右翼 제23연대와 連繫하여 공세방어를 실시하라.

제23연대는 즉시 현위치로부터 행동을 개시하여 主力을 吉州로 이동하고 1개 대대는 古茸洞을 거점으로 明川方面에 대한 경계를 할것이며 左翼 제22연대와 連繫하여 首都사단의 轉進을 엄호하는 同時에 공세방어를 실시하라。」

(2) 작전실시

(가) 제3사단의 惠山鎭·吉州—城津撤收戰

12월 1일 : 제1군단장 金白一 소장은 전날 밤에 예하 2개사단에 撤收命令을 하달한 다음 이날 11.00에 군단 지휘소를 城津에서 興南과 西湖津으로 撤收하기 위하여 城津港을 艦艇便으로 出港하였다. 군단의 兩進擊線인 惠山鎭 및 淸津 北쪽에는 敵의 直接的인 大部隊 壓迫은 없었지만 美 제10군단의 左一線地區인 長津湖 附近에는 陳數가 지휘하는 中共 제3야전군 소속 제9집단군의 壓迫으로 西部戰線의 影響과 아울러 戰況이 자못 緊迫하게 되었다. 이러한 狀況은 韓國戰線에서의 最長程 追擊部隊인 군단의 轉進을 불가피하게 하였고 이 결과 군단 지휘소가 效果的인 부대지휘를 위하여 일단 興南으로 移設하게 된것이다。

제3사단(장, 崔 錫준장)은 군단 左一線부대로서 그 先頭가 美 제7사단에 이어 惠山鎭까지 진격한바 있거니와 일부는 首都사단(장, 宋堯讚 준장)의 後方인 羅南에 진출하여 淸津西北쪽 지역을 경계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날 군단의 철수 명령에 따른 엄호 부대로서 제23연대(장, 金漆舜대령)는 羅南—鏡城에서 앞서 진격하였던 首都사단의 철수를 엄호하면서 逐次的으로 吉州를 向하여 後退할 준비를 갖추었고 제22연대(장, 金應祚대령)는 主力이 合水 일대에, 그리고 惠山鎭에 突入한 제1대대 제3중대를 白岩으로 復歸시켜 역시 吉州附近으로 撤收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이때 同사단지휘소는 羅南에서 吉州로 移動 開設하였고 사단 주력이 合水—吉州線에서 인접 首都사단의 철수를 엄호하는 동시에 該線에서 攻勢防禦를 실시하고 있었다.

한편 富寧 및 富居 南쪽 4km까지 진격한 首都사단(장, 宋堯讚준장)은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가 富寧 南쪽 華興洞에서 제1가갑연대(장, 金東洙대령)가 富居 南쪽 土幕洞에서 제1연대가 淸津市 農浦洞에서 제3사단의 엄호아래 각각 朱乙로 철수를 완료하였으며 사단지휘소는 朱乙에서 城津으로 이동을 시작하였다.

이 무렵 美 제10군단 예하 美 제1해병사단과 美제7사단도 長津湖 및 惠山鎭—新乭波鎭에서 각각 咸興을 향하여 後退를 시작하였는데 특히 長津湖의 南端附近에는 中共 제9집단군 예하 제20, 제26, 제27군단 소속 3개사단이 이미 長津에 南下한 다음 長津湖의 西 및 東쪽의 간극을 이용하여 下碣隅里 南쪽까지 진출하여 美 제10군단의 주력을 후방깊이 차단하고 있었다. 그리고 淸津 北方에서는 敵 제41사단과 제507여단이 점차로 南下할 氣勢를 보이고 있었다.

12월 2일 : 제3사단 및 首都사단 지휘소는 이날 城津으로 이동완료, 혹은 이동중에 있었으며 군단본부는 14.00에 海路로 西湖津에 上陸하는 즉시로 西湖津 國民學校에 지휘소를 開設함과 아울러 咸興에 設置되어 있는 美 제10군단 지휘소와 連絡網을 구성하고 有機的인 작전지도 체제의 정비를 서두르게 되었다.

이때 제3사단 제23연대(장, 金漆舜대령)의 掩護를 받은 首都사단 主力은 이날 吉州를 向하여 轉進을 계속하였고 그곳에 이동완료하면 이어 城津으로 撤收할 예정으로 있었다. 이와 함께 上記 제23연대도 鏡城에서 逐次的으로 吉州를 向하여 轉進하였는데 연대 主力인 제1, 제3대대의 吉州로 向한 이동완료시간은 다음날 10,00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때 제22연대(장, 金應祚대령)는 惠山鎭까지 進擊하였던 제3중대가 白岩에 復歸하는 즉시로 吉州를 向

하여 後退하고 있었으며 제26연대(장, 徐廷哲중령)는 이날 美 제10군단으로 부터 配屬이 解除되어 사단으로 復歸되어 洪君에 진출하여 있다가 北青으로 轉進을 하기 위해 豊山으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이에 앞서 연대의 제3대대(장, 朴徹洙소령)는 이날 三水에서 철수하여 本隊와 合同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한편 美 제1해병사단은 長津湖 西쪽 柳潭里에서 下碣隅里로 中共軍의 包圍를 突破하여 撤收를 계속하였던바 이날 拂曉부터 中共軍의 東西北쪽 三面에서 加하는 壓迫으로 그轉進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이와 함께 美 제7사단도 惠山鎭 附近에서 咸興一帶로 轉進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長津湖 東쪽에서의 中共軍의 侵攻威勢가 더욱 極甚하였다。

12월 3일 : 이날 東北戰線의 敵은 더욱 增强되어 계속 南進中이 었는데 長津湖 附近의 中共 제9병단 소속 제20, 제27군단이 柳潭里—新興里—下碣隅里의 狹谷을 目標로 그 東西兩側에서 遮斷코자 企圖하는듯 하였으므로 이와같은 兩面 包圍는 美 제1해병사단을 자못 困境에 바므리게 되었다. 이와 반면 吉州 附近의 제1군단 예하 首都, 제3의 兩사단은 周到綿密한 計劃에 따라 部隊를 轉進시키고 있었는데 제3사단(장, 崔 錫준장)의 지휘소가 전날 吉州에서 城津으로 移設된데 이어 제22연대(장, 金應祚대령)는 惠山鎭—白岩—合水—豊德—松德에 配置된 병력을 吉州로 集結시키고 있었으며 제23연대(장, 金淙舜대령)도 首都사단 主力을 掩護하면서 이날 吉州로 轉進하였다. 그 중 제1대대(장, 金光燮소령)는 사단지휘소의 경비를 위하여 城津까지 이동한 다음, 경계 陣地를 占領하였고 제2, 제3대대는 吉州에서 그대로 掩護작전에 임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26연대(장, 徐廷哲대령)는 主力이 豊山에 집결하여 北青으로 철수할 예정이었는데 제3대대(장, 朴徹洙소령)는 이날 三水에서 豊山을 向해 이동하려 하였으나 그때에 약 300명의 敵이 대대의 철수를 탐지하였음인지 그곳(三水) 西北쪽 高地로부터 不意의 奇襲을 企圖하였다. 이에 대대는 이러한 敵의 企圖를 看破하는 즉시로 제10중대가 機先을 制하고 突擊을 감행하여 敵 195명을 射殺하고 포로 1명을 얻었으며 81mm박격포 1문과 重機1정, 그리고 輕機 4정과 小銃 53정을 비롯하여 MI소총 4정과 칼빈소총 4정 및 실탄 15상자등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한편 首都사단(장, 宋堯讚준장) 主力은 제3사단의 掩護를 받으면서 이날 逐次로 明川—吉州에 이동하여 계속 城津으로 轉進할 예정으로 있었다. 이때에 사단지휘소는 城津으로 철수를 완료하여 西湖津에 있는 군단사령부와의 연락을 유지하였다。

12월 4일 : 首都사단의 轉進을 掩護하던 제3사단 主力인 제22연대(장, 金應祚대령)와 제

23연대(장, 金深舜대령)가 이날 主力으로 吉州에 集結을 完了하였는데 그중 제22연대는 城德에 있는 2개중대(제6, 제7중대)의 未集結로 그 出發이 늦어 졌다. 제23연대는 吉州集結이 완료된 다음 사단 작전지시에 따라 대전차포 중대를 먼저 城津으로 이동시켰으며 나머지 主力은 이날 17.00에 鶴城洞에 집결을 완료하고 城津附近의 경비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사단전차포 공격대대는 군단직할로서 端川에서 西湖津으로 轉進하였으며 제26연대(장, 徐廷哲중령)도 군단직할로서 豊山에서 北青으로 撤收하고 있었다。

한편 首都사단 제1연대(장, 韓 信대령)와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대령)는 城津에 集結하였고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吉州에서 城津으로 轉進하고 있었다。

이무렵 中共軍은 全戰線에 걸쳐 意外의 大兵團으로 더욱 增強되어 西部 및 中部戰線은 거의 崩壞寸前에 놓여지게 되었고 東部戰線에서도 長津湖 附近의 大兵團으로서의 挾攻은 장차 咸興一帶를 위협할 것으로 展望되었다. 이와같이 戰況이 急變하게 되자 제1군단장 金白一소장은 東北海岸의 二個師團을 急히 後方으로 轉進시켜 이날 吉州에 集結을 完了하는 즉시로 一部 兵力을 계속 城津으로 轉進하므로써 中共軍을 東北에서 牽制키로 하였다。

西湖津에 設置되어 있는 군단지휘소에서는 이날 人馬와 車輛등 通行이 심한 咸興方面및 東北쪽 麻田里의 通路 入口에 각각 檢問所를 설치하고 出入者의 檢問檢索을 실시하여 五列의 적발에 노력하는 한편 興南 埠頭에 憲兵派遣隊를 설치하고 제반 출입물자를 統制하는데 만전을 期하고 있었다。

12월 5일 : 淸津및 惠山鎭方面의 敵은 이날 현재로 그 動向에 커다란 變化를 볼수 없었으니 그들의 南侵速度가 빠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군단예하 兩個師團이 철수 도중에 敵과의 接觸이 一時中斷 되었으며 전날에 北青및 端川附近에 小數의 敵이 出沒하였다는 情報도 있었으나 正規軍은 아닌듯 하므로 크게 問題視되지 않았고 다만 明川—淸津間에서는 점차로 集結하여 큰 兵力으로 侵襲을 企圖하는 것으로 보였다. 我軍의 豫期치 않던 撤收로 말미암아 吉州—城津附近의 良民들은 避亂의 隊列에 나서게 되어 男負女戴로 一時 作戰上의 混亂을 招來하기도 하였다。

首都사단(장, 宋堯讚준장)의 主力은 제3사단의 엄호를 받으면서 이날 15.00까지 城津에 集結을 完了하였는데 이미 이에 앞서 城津에 設置된 사단지휘소에서는 08.30부터 指揮官會議를 開催하여 轉進作戰에 따르는 모든 對策을 講究하였다. 이와함께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대령)는 城津에서 利原을 向해 陸路 行軍을 시작하였다。

한편 제3사단(장, 崔錫준장)은 그 前方 지휘소를 吉州에서 城津으로 옮기고 吉州一帶에서 군단 收容所로 남아있는 사단 주력의 작전指導에 임하였다。이때에 제22연대(장, 金應祚대령)의 제1, 제2대대는 사단 진방지휘소의 철수를 엄호하였으며 제3대대는 이미 城津으로 철수를 완료하여 그 일대의 경비에 임하고 있었다。제23연대(장, 金錄彈대령)는 吉州北쪽에서 急編陣地를 구축하고 제22연대가 철수완료할 때까지 掩護임무를 專擔하였다。

이 무렵 吉州 北쪽의 明川—黃谷里와 吉州 西北쪽의 被德 附近에 敵 1개대대 규모의 出沒이 있다는 첩보에 接하자 제22연대장 金應祚 대령은 곧 1개중대를 威力搜索부대로 派遣하여 敵情을 探知케 하였다。

이 당시 美 空軍과 海軍은 군단의 要請에 依하여 수시로 군단 前面에 지원 爆擊과 艦砲射擊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리고 西湖津에 設置한 군단 지휘소에서는 군단 작전지시 제88호에 의하여 各處에서 無秩序하게 雲集한 避亂民을 統制하기 위하여 交通制限線을 설치하여 이의 整理에 만전을 期하는 一方, 興南市—西湖里의 有志 120명을 모아 興南造船所에서 戰況을 포함한 時局講演會를 開催하고 아울러 宣撫活動 및 報導放送을 실시하고 있었다。

12월 6일 : 首都사단 지휘부를 포함한 G—5, 정훈, 감찰, 법무, 등 각 참모부와 본부중포 및 대전차 공격대대 2개중대는 이날 未明에 城津港에서 美 海軍 L. S. T에 乘船을 완료하여 08. 30에 海路로 西湖津을 向하여 出港하였고 전날 이미 陸路로 轉進을 계속하고 있던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대령)는 이날 利原을 경유하여 洪原까지 이동을 완료하였다。이와함께 제1연대(장, 韓信대령)는 이날 城津에서 列車便으로 13. 50에 興南을 향하여 出發하였는데 당시 陸路에는 積雪量이 많아 여러가지 애로를 克服해야만 되었다。

首都사단이 이와같이 城津에서 陸路및 海路로 이동하고 있을 무렵 제3사단도 제22연대장 金應祚 대령을 輸送梯團長으로 임명하고 일부 선발대가 城津에서 陸路로 興南을 向해 출발하였는데 여기에는 사단본부중대, 군악대, 병기중대, 통신중대등과 의무대대 등 직할부대 및 연대 차량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제3사단(장, 崔錫준장)의 主力부대인 제22, 제23연대는 이날도 吉州附近에서 掩護부대로서 防禦戰에 임하고 있었는데 제22연대 제1대대(장, 金相均대위)가 溫水坪일대에서 急編陣地를 구축하고 경계하던중 19. 30에 敵 車輛 1臺가 제2중대 前方으로 나타났다。이에 동대대는 인접 제2대대(장, 吳廷錄소령)와 迅速히 연락을 취하여 兩個大隊 合同작전으로

急射를 加하였는데 이 車輛은 不意에 대대의 銃擊을 받아 40명이 그자리에서 射殺되고 車輛 1臺를 비롯하여 체코식輕機 1정과 多發銃 1정, 그리고 小銃 9정과 油類 3드럼통을 노획하였다.

그리고 제23연대(장, 金淙舜대령)도 鶴城防禦線에서 陣地를 강화하고 있었는데 이날 오후에 이르러 전체적으로 敵의 전투정찰대가 강화되고 我軍 前面에 散發的으로 出現하였는바 이는 敵의 挺進部隊로 보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敵의 部隊는 空軍의 지원 爆擊으로 그 企圖가 擊退되었는데 明川附近의 약 100여명과 黃谷里 附近의 600여명, 그리고 載德과 三巨里의 50여명이 바로 이러한 挺進部隊였으며 淸津附近에서부터 南下한 敵은 이미 明川北方에 까지 進出한 결과 그 榴彈砲의 射彈은 陣地近方에 까지 떨어지는 形勢였다.

(나) 城津—興南 撤收戰(C D)

12월 7일 : 敵의 挺進部隊는 대체로 이날 제3사단 主力의 掩護陣地인 吉州 地方까지 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이날 高倉洞 北쪽 2km인 無名高地 附近에는 敵 추력 5명가 南下하다가 일시잠복중인 것이 확인되었으며 載德 南쪽 8km지점에도 약 50명의 敵이 吉州—城津방면으로 侵透하려 하였고 端川 西北쪽 水下面 一帶에 潛伏하던 것으로 보이는 敵 敗殘兵 600여명이 古城里 附近으로 南下하는 것과 아울러 洪君의 殘兵 2~300명과 利原—端川 南北쪽 山岳地帶에 潛入한 敵이 合流하여 端川을 侵襲할 企圖로 보였다. 또한 富寧—淸津附近과 舍水附近에 各各 一個연대규모의 敵이 集結하여 점차 南下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狀況 아래 군단 철수의 掩護임무를 遂行中인 제3사단(장, 崔錫준장)의 主力은 吉州一帶에서 收容掩護陣地를 구축하고 該線에서 敵 挺進部隊를 견제하면서 攻勢防禦戰을 펴고 있었는데 제22연대의 제1대대(장, 金相均대위)는 高倉洞에서 100여명의 敵과 交戰끝에 이를 擊退하였으며 사단 작명 제60호(1950. 12. 6일附)에 따라 部隊轉進을 準備하기 위하여 점차로 吉州에 집결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23연대는 이날도 계속 鶴城洞에서 防禦戰에 임하고 있으면서 逐次的으로 城津으로의 撤收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무렵 동 사단의 輸送梯團(장, 金應祚대령)은 전날 城津에서 陸路로 出發한 이래 이날 利原에 後退하였다.

한편 首都사단은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대령)가 전날 洪原에까지 이동하였다가 이날

興南市 西湖津 埠頭까지 移動을 完了하여 그곳에 集結한 다음 待命中에 있었고 제1연대(장, 韓 信대령)는 전날 늦게 列車便으로 城津을 出發한 다음 이날 退潮驛에서 下車한 다음 그 附近에서 一時 부대를 정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단장 宋堯讚준장 이하 사령부 요원 전원과 전날 出發하지 않았던 모든 參謀部(G-1, G-2, G-3, G-4, 통신, 병기, 헌병, 공병)와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 主力이 이날 城津港에서 美 海軍 A.P.A號로 16.00에 城津港을 出港한 다음 一路 西湖津을 向하고 있었다. 이로써 首都사단 사령부및 殘餘部隊는 城津을 完全히 撤收하게 되었다。

이 무렵 군단 직할로 있던 제26연대(장, 徐廷哲중령)는 豊山에서 撤收한 이후 이날 北靑에 집결하였다。

12월 8일 : 首都사단 지휘부와 제18연대가 전날까지 西湖津으로 海上轉進을 완료하고 제1연대 및 제1기갑연대가 退潮및 西湖津에 陸路機動을 完了하자, 제3사단 主力인 제22, 제23연대도 海上轉進을 위하여 이날 吉州 附近의 엄호진지를 撤收하고 城津으로 移動 集結하게 되었다. 이에 앞서 제22연대(장, 金應祚대령)의 殘置部隊는 吉州 北쪽 10km인 △540에서 敵의 挺進部隊와 衝突하여 이를 擊退한 다음 吉州로 이동하여 본대와 함께 城津으로 轉進하였고 제23연대(장, 金淙珊대령)도 鶴城洞에서 城津으로 이동하여 城津港부근에 集結한 다음 兩個연대가 동시에 美 海軍 L.S.T에 乘船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제26연대(장, 徐廷哲중령)의 主力은 北靑에 位置하면서 城津—端川—利原—北靑 街道를 中心으로 固守하면서 城津에서 陸路로 興南을 向해 撤收하는 최종부대의 收容에 任하고 있었다。이 무렵 동 사단 陸路 輸送梯團은 전날 利原에 도착한 다음 이날 다시 洪原 경유 興南으로 撤退하였다。

한편 首都사단 제1연대(장, 韓 信대령)는 이날 退潮에서 西쪽 8km지점인 雲柱峰(△618) 草興洞 線을 점령하기 위하여 新豊里 集結地를 出發하였다. 이 연대의 雲柱峰—草興里를 잇는 陣地의 점령은 美 제10군단 主力의 집결예정인 咸興 東南側을 掩護할 뿐더러 興南 橋頭堡의 占領에 있어 그 先遣陣地의 役割도 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대령)는 그 指揮所를 西湖津에 開設하고 興南港의 東北쪽 外郭 8~10km를 連하는 馬蹄型 陣地를 점령하기 위하여 연대 주력인 제1대대(장, 朴京奎소령)와 제2대대(장, 朴鍾均소령)가 朱興里 一帶에, 제3대대(장, 林觀默 소령)가 麻田里 一帶에 각각 진지를 점령하고 이를 強化하였다。

이로써 사단 陸路 撤收部隊인 兩個연대는 西湖津 및 退潮에 이동 완료한 다음 각기 興南 東北外廓의 掩護陣地를 점령 하고 施設을 強固하게 構築하고 있었다。

12월 9일 : 전날까지 城津港에서 陸路에 이어 海路로 西湖津에 轉進함과 때를 같이하여 군단 최종 엄호부대인 제3사단 주력(제22, 제23연대)도 吉州에서 城津으로 集結을 완료한 다음 이날 아침부터 사단장 崔錫 준장의 지휘아래 美 海軍 Saint Wind號로 13.00에 城津港을 出港하였다。 이로써 吉州附近에서 最後까지 掩護任務를 遂行하던 사단 主力의 海上 撤收작전을 완료하게 되었다。

한편 제26연대(장, 徐廷哲중령)는 군단직할로서 城津에서 興南에 이르는 陸路轉進部隊의 최종 엄호전을 北靑—圓에서 펴고 있었는데 연대가 이날 06.00를 期하여 北靑에서 撤收를 시작하려 할때 약 200여명의 敵이 北靑 西北쪽 懸制高地에서 侵襲을 企圖하여 연대의 轉進을 妨害하려 하였다. 이에 연대본부요원과 제3대대(장, 朴徹洙소령)가 北靑驛에 集結中 05.00에 敵의 來襲企圖를 看破하는 즉시로 부대를 戰鬪隊形으로 散開한 다음 일부가 高地正面에서 射擊으로 견제하고 있는 동안 대대주력이 신속히 同高地를 右쪽으로 迂回하여 包圍網을 압축하였다. 이와같이 兩面에서 敵을 압축한 대대는 06.00부터 사격과 突擊으로 不時에 逆襲한 결과 그 主力이 擊滅되고 殘兵은 06.30에 四分五裂로 潰走하였다. 이 逆襲에서 대대는 112명의 敵을 사살하고 포로 12명을 얻었으며 다발총 6정과 小銃 28정을 노획하였다. 그러나 대대에서도 3명의 전사자와 14명의 부상자를 내는 손실을 보았다. 이와같이 연대는 敵 先遣부대를 擊退하고 즉시로 北靑을 出發하여 洪原 경유 興南으로 向하게 되었다。

이 무렵 首都사단 주력은 제1연대(장, 韓信대령)가 전날 점령하였던 雲柱峰(△618)一帶와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대령)가 朱興里—龍田里線에서 계속 진지를 강화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와같이 군단예하 전 부대가 城津港에서 海上機動한 다음 西湖津 東北쪽에서 진지를 점령하여 군단의 제1차 철수전이 완료될 즈음에 敵은 北方에서 점차 대병력으로 집결하여 一路 南侵하려는 氣勢를 보이었고 咸興 西北쪽 長津湖 附近에서는 中共軍의 重圍를 벗어나기 위하여 美 제1해병사단이 古土里—新興里의 突破作戰을 敢行하고 있었다. 이 사단의 勇戰은 長津湖—咸興 撤收戰에서 詳述될 것이 거니와 韓國戰爭 勃發이래 最大의 空中爆擊이 이 一帶에 實施되어 中共 제9집단군 소속 4個師團의 包圍網을 餘地없이 粉碎하고 있었다。

12월 10일 : 이날 군단지휘소와 首都사단 지휘소는 계속 西湖津에 位置하면서 有機的인 작전지도에 임하였고 이와함께 제1기갑연대 지휘소도 그 부근에 開設되어 있었다。그러나 제1연대 지휘소는 지난 8일 退潮와 接해있는 新豊里에서 8km南쪽인 新興里로 移設한 이래 그곳에서 계속 指揮하고 있었으며 제3사단 지휘소는 興南港 內港 船上에 사단주력과 함께 위치하였다。

首都사단 주력은 지난 8일이래 이날도 興南外廓의 雲柱峰 및 朱興里—麻田里 線에서 掩護陣地를 점령하고 있었으며 제18연대는 西湖津—興南內湖 일대를 경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陸路 最終 철수부대인 제26연대는 이날 北靑에서 麻田里에 轉進을 완료하는 동시에 제3사단으로 부터 解編되어 입시로 首都사단에 配屬되었다.

이 무렵 제3사단 海上撤收 主力은 興南港에 碇泊하면서 待機하던中 이날 14.00에 西湖津으로 上陸할 計劃이었으나 戰況의 急變으로 當初의 計劃을 변경하여 15.00에 上陸하지 않고 바로 釜山을 向하여 回港하게 되었다。이때 제18연대도 釜山으로 海上撤收하기 위하여 興南埠頭 內港에 집결하여 乘船을 대기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군단 작전명령 제125호에 의한 것으로 군단의 興南 철수에 있어서 제3사단을 第一梯團(장, 崔錫준장)으로, 首都사단을 第二梯團(장, 宋堯讚준장)으로 하여 各師團長이 梯團長을 兼하였고 군단사령부 梯團은 직할 諸部隊로 構成되었는데 군단 참모장 金鍾甲 준장이 梯團長이 되었다。

이리하여 前述한 바와 같이 제3사단 主力을 中心으로 한 第一梯團의 일부가 興南에서 釜山을 向해 美 海軍 L.S.T로 出港하게 되었다。

한편 美 제10군단 예하 美 제1해병사단은 眞興里를 突破한 다음 美 제3사단의 旣設陣地를 經由하여 接敵없이 咸興으로 機動하게 되었다。이 때에 美 제10군단장 Almond소장은 장차 興南 橋頭堡를 占領함에 따르는 모든 事前對策을 강구하고 있었다。

12월 11일 : 美 제1해병사단(장, Smith소장)의 主力部隊가 下碣隅里—古土里에서 中共軍의 重圍를 突破하고 이날 13.00에 眞興里에 撤收한 다음 21.00에는 戰車隊를 除外한 全部隊가 咸興—興南間의 집결지에 到着하였고 그 뒤 23.30에는 最終철수부대였던 戰車隊도 이곳에 集結하여 本隊와 合同하였다。

그런데 이날 Almond 소장은 美 제10군단 작명 제10—50호를 하달하여 橋頭堡陣地를 占領하는 한편으로 興南港에서의 海上撤收順位를 다음과 같이 決定하였다。① 美 제1해병사

단 ② 韓國軍 제1군단 ③ 美 제7사단 ④美 제3사단, 이에 따라 各兵團은 指定된 順位에 따라 乘船을 準備하게 되었다。

그러나 興南港에서의 最終撤收日이 12월 24일이고 보면 그간 10여일 동안에 各兵團의 順次的인 乘船을 위해서는 強力한 橋頭堡가 構築 確保되어야만 하였다。 이 橋頭堡의 一部는 이미 지난 8일에 이어 이날까지 首都사단 제1연대와 제1기갑연대에 의하여 興南 東北쪽 新興里—雲柱峰線에 構築되어 있어서 사실상 興南 東北 外廓은 首都사단이 專擔하고 있는 셈이었다。 그리고 長津湖—咸興線을 撤收한 美 제1해병사단이 咸興集結과 때를 같이하여 興南港 西北쪽 橋頭堡는 美 제3, 제7의 兩사단이 專擔하여 確保하게 되었다。 이 무렵 美 海軍 제77기동함대의 艦砲 사격과 美 空軍의 支援 爆擊은 中共제9병단 主力을 強打하므로써 咸興을 向한 突進과 壓縮企圖를 크게 挫折시키고 있었다。

한편 제1군단지휘소는 興南에 계속 위치하면서 군단장 金白一소장은 美 제10군단장 Almond 소장과의 작전협의에 따라 제3사단 主力을 興南港에 上陸시키지 않고 그대로 釜山으로 回港을 命令하였으며 나머지 제18연대도 이날 同港에서 乘船하는 즉시로 그뒤를 따르도록 하였다。

首都사단장 宋堯讚 준장은 사단主力을 掌握하기 便하도록 전날 그 지휘소를 麻田里로 一時 前進開設 하였다가 이날 다시 西湖津으로 復歸시켰는데 이는 Almond 소장의 興南撤收 命令의 順位에 따른 諸般對策을 講究하기 위한 까닭이었다. 그런데 同師團 主力인 제1연대(장, 韓 信대령)는 이날도 雲柱峰(△618) 一帶에서 陣地를 強化하였고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대령)도 朱興里 附近에서 제1, 제2대대가 계속 진지를 점령한데 이어 제3대대도 麻田里 附近에서 진지를 점령하여 興南橋頭堡를 扇形으로 構成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날 同師團에 임시 編入된 제26연대(장, 徐廷哲중령)는 이날 麻田里에 集結하여 待機中이었다。

이때 興南에 開設된 군단지휘소에서는, 예하 사단으로부터 押送된 175명의 포로를 咸興의 美 제10군단 사령부로 移送하는 한편 西湖津 埠頭에 殺到하는 避難民을 船舶便으로 釜山 및 巨濟島로 急送하는데 上下將兵 모두가 心血을 傾注하고 있었다。 특히 군단장 金白一 소장은 當時 李承晩 대통령의 特命도 있었지마는 數없이 雲集하는 避難民을 安全地帶로 海上輸送하기 위하여 可能한 모든 力量과 誠實을 總集中 하고 있었는데 이는 自由民의 守護라는 至上의 命令을 누구보다도 強力히 履行하려는 將兵들의 誠心의 總結晶이기도 하였다。

이 무렵 제3사단(장, 崔 錫준장)의 主力인 제22, 제23연대는 一路 釜山을 向하여 航進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同師團 興南 殘留部隊인 사단직할대는 이날 군단의 지시에 따라 金鼎祚대령의 지휘아래 全兵力을 埠頭에 集結하고 乘船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滿船 관계로 그 가운데 아직 乘船을 못한 部隊는 同사단 副官인 李勳燮 대위가 輸送指揮官으로 임명되어 後續出港할 준비를 갖추었다.

12월 12일 : 美 제1해병사단이 完全히 咸興平野로 撤退함과 때를 같이하여 美 제7사단과 美 제3사단은 興南橋頭堡의 扇形陣地를 構築強化하고 있었는데 이 무렵 興南 外港에 碇泊하고 있던 美 제7함대 소속 제77기동함대의 高速航空母艦의 戰鬪機들은 連日 晝夜間에 걸쳐 橋頭堡 前面의 中共軍 接近路에 近接支援 爆擊을 加하였으며 이와 同時에 艦上의 巨砲는 그 砲門을 열어 空中觀測으로 中共軍의 行列과 集結地에 猛爆을 集中하고 있었다. 또한 96.8 護送航空母艦戰隊는 Sicily號 및 Strait號 外에 다시 Bataan號를 追加하여 地上軍과 輸送船團에 대한 空中支援을 계속하니 空海地三面에서는 連日鐵火가 亂舞하고 있었다. 이러한 掩護 아래 美 제1해병사단은 興南內港에서 乘船을 시작하여 重裝備를 포함한 兵員의 搭乘 및 積載에 이날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한편 제1군단 지휘소가 開設된 西湖津에서는 地方 愛國團體및 避難民에 대한 疏開와 海上撤收에 關한 斡旋을 계속하였는데 自由를 찾는 人波는 끝일줄을 몰랐다. 이때에 首都사단(장, 朱堯讚준장)은 제1연대가 雲柱峰一新興里線에, 제1기갑연대가 朱興里一麻田里線에 各各 진지를 점령하여 이를 強化하였는데 사단은 海上機動을 掩護하려는 使命아래 將兵 모두가 獅子奮迅의 勇을 다하는 것이었다.

한편 제3사단(장, 崔 錫준장)은 2일간의 航進끝에 이날 釜山과 九龍浦에 各各 轉進하여 兵員과 裝備의 上陸및 揚陸 작업이 계속되어 大體로 19.00까지 완료되었다. 이로써 同師團은 惠山鎭一合水一城津 撤收 이래 海上轉進作戰을 完了하게 되었다.

12월 13일 : 이날 西部戰線에서는 제1사단 및 美 제9군단이 38°線을 通過하여 臨津江一高浪浦線에, 中部戰線에서는 제2군단 主力이 38°線 北쪽인 鐵原 附近에 철수하여 大體로 中一西部戰線은 38°線 附近에서 急編 防禦陣地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와 併行하여 東部戰線의 38°線 北쪽에도 新編된 제9, 제5의 兩사단을 配陣하여 遮斷陣地를 점령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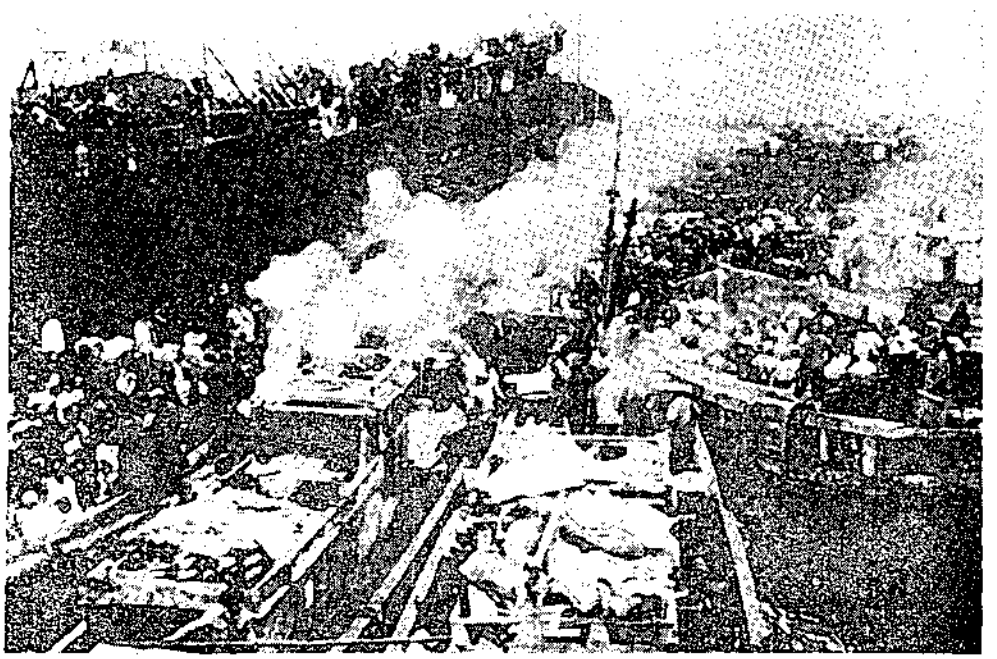
全戰線의 形態가 이러할때 咸興一興南 一圓에서는 興南橋頭堡를 壓迫하기 위한 攻擊과 이를 驅破粉碎하려는 固守作戰이 展開되어 日日夜夜의 熾烈한 攻防을 反復하고 있었으니

이 당시의 咸興—興南附近의 最後堡壘가 敵에게는 最大의 攻破目標가 될 것이 明若觀火한 사실이요, 我軍에 있어서는 이 敵을 邀擊하면서 橋頭堡를 確保한 가운데 計劃된 海上撤收作戰을 끝까지 完了하여야만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니 敵은 이곳 攻擊을 위하여 前述한바 있는 中共 3개군단이 主攻이 되고 北共 제4, 제5군단등이 助攻이 되어 無慈悲한 人海戰術로써 肉迫하게 되었던 것이고, 이에 對處한 我軍으로서는 橋頭堡 確保에 따른 強力한 掩護와 收容을 위한 陣地 構築이 무엇보다도 時急하였으며 이에 따른 空軍및 海軍艦砲의 支援은 倍加되어야만 하였다。

이리하여 Almond 소장과 金白一 소장등 韓美 指揮官은 有機的인 協調아래 興南外郭의 天然的인 地勢를 이용하여 二重으로 陣地를 構築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海·空軍의 支援砲擊은 敵의 物量 銃鋒을 계속 擊碎하였다。

이럴 즈음에 首都사단은 현 진지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撤收順位에 따라 그 主力을 逐次的으로 興南 埠頭에 集結 收容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는데 제1연대(장, 韓信대령)는 新興里의 지휘소를 雲洞里로 옮기고 雲柱峰—草興里의 陣地를 南으로 이동하여 新興里—新上里線으로 前進시킬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대령)의 主力은 朱興里 陣地를 계속 강화하는 가운데 제2대대(장, 朴鍚均대위)는 廐田里 北쪽 △249



<興南埠頭에 殺到한 避難民>

—△194線에서 柳亭洞으로 轉進하고 西湖津 北쪽 △233 一帶의 경계를 강화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제26연대(장, 徐廷哲중령)도 이날 麻田里에서 興南市 新田里로 이동하여 그 일대에 陣地를 占領하고 있었다。

한편 同師團 지휘소와 특별참모부인 法務, 監察, 政訓, 民事部가 西湖津에서 乘船하여 鏧湖를 向해 海上轉進을 시작하였으며 지휘소 잔류부대와 作戰 및 情報참모부등은 다음날 出發하기 위한 乘船을 준비하고 있었다。

12월 14일 : 興南橋頭堡는 興南市를 中心으로 東쪽으로부터 退潮—咸興—宣德面을 連한 半徑 약 10km의 馬蹄型으로 構築되어 있었는데 이는 首都사단 美 제7사단 美 제3사단 順으로 陣地를 占領한 것이며 美 제1해병사단의 乘船이 이날까지 完了됨과 때를 같이 하여 新興里—호상리—連浦線의 主抵抗線으로 橋頭堡가 縮編強化되고 火網 構成을 強烈化하는 一方으로는 美 海軍艦砲로써 事前 計劃에 따라 火力을 同時에 大量集中하여 中共軍의 波狀的인 人海戰法에 破邪顯正의 鐵槌를 加하여 이 醜敵으로 하여금 敢히 突進를 하지 못하도록 그 氣勢를 크게 制壓하였다。

한편 首都사단의 主力이 그간 興南 東北쪽 外廓陣地를 專擔하고 있다가 橋頭堡 縮少에 따라 제1연대와 제1기갑연대도 陣地를 南쪽으로 이동하여 新興里(退潮—雲柱峰間의 道路邊)와 新上里(麻田里 北쪽)에 각각 진지를 점령하고 敵의 侵襲에 對處하고 있었다. 이렇게 興南 東北쪽에서 사단이 진지를 강화하고 있을때 中共 제3야전군 主力인 제20, 제27군단 예하 5개사단 병력은 美 제10군단 正面에서 大大的인 攻擊을 시작하여 我軍의 橋頭堡 확보를 방해하려 하였으나 地上部隊와 海·空軍의 立體作戰으로 그 攻擊을 끝까지 擊退하고 있었다。

12월 15일 : 전날 大大的인 中共軍의 공격이 실패로 돌아간데 이어 이날 또다시 그들의 集中 波狀공격이 시작되었다. 이는 咸興附近과 咸興—興南을 連하는 西쪽및 海岸線 一帶의 我軍 橋頭堡를 무너뜨리려는 企圖였다. 그러나 美 제3, 제7의 兩사단도 敵의 強力한 侵襲企圖를 逆攻으로 粉碎하기 위하여 反擊을 시작하였는데 이때에도 地上部隊의 砲火와 아울러 美 제7함대의 艦砲사격 및 航空支援 爆擊은, 戰列을 集中的으로 強化한 中共軍에게 또 다시 鐵槌를 加하여 그들의 人海戰術을 無爲로 만들게 하였다. 이러한 中共軍의 集中的 波狀攻擊을 美 제10군단 주력이 主抵抗線에서 擊破한 즉시로 敵의 侵透路로 예측되는 橋頭堡 陣地를 더욱 強化하고 逆擊態勢에 萬全을 期하고 있었다。



<美海軍 LST에 乘船하는 首都사단 용사들>

이때 興南 東쪽의 陣地에서는 首都사단 主力인 제1연대(장, 韓 信대령)와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대령)가 전날에 이어 집령하고 있던 陣地를 더욱 強化하여 敵 제4군단의 南侵에 對處하는 一方으로는 西湖津과 麻田里에 開設된 各 연대 지휘소에서 一部兵力을 興南埠頭에 집결시킬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와 아울러 西湖津의 군단지휘소에서도 군단작전지시 제99호에 의하여 美 海軍 L.S.T에 乘船할 준비에 임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3사단 잔류부대도 同지시에 의하여 美 海軍 Henrico號에 乘船을 完了하고 海上에서 出航을 待期하고 있었다。

12월 16일 : 中共軍의 波狀的 人海戰術의 攻擊은 이날도 계속되었다. 咸興 北쪽과 그 西側에서 치열한 激戰이 계속되는 가운데 美 제10군단 전방지휘소는 咸興에서 興南으로 이동하고 咸興 北쪽의 一線 陣地도 咸興—興南 사이의 主抵抗線으로 縮少하여 強化하였다. 이는 최대한으로 中共軍을 牽制하다가 一時에 誘引하여 擊退하기 위함에서 였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敵을 野地에 露出시켜 計劃된 火網에 의한 同時集中 사격으로 결정적인 戰果를 거두기 위한 措置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狀況가운데 제1군단 主力인 首都사단은 順次的인 乘船 出港 計劃에 따라 興南 西湖의 埠頭에 集結하게 되었는데 晝間에는 전날과 다름없이 진지를 점령하고 있다가 夜暗을 利用하여 埠頭에 이동 집결하였다. 즉 제1연대는 新上里—新興里 陣地에서 이날 10.00부터 逐次的으로 이동을 시작하여 20.00까지 최종부대가 埠頭에 집결 완료하여 美

海軍 L.S.T에 乘船을 시작하였고 제26연대와 제1기갑연대도 新田里와 柳亭洞에서 이날 밤에 埠頭집결을 완료하여 乘船하므로써 24.00까지에는 모든 出港準備가 完了되었다. 그리하여 다음날 拂曉에 사단 전병력은 興南港을 出發하여 上陸地點인 東海岸의 鏡湖를 향해 航進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韓國軍 제1군단 全部隊는 美 제10군단의 興南 橋頭堡 확보와 이의 엄호아래 興南海上撤收戰을 예정된 계획대로 완료하게 되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韓國軍 제1군단은 美 제10군단의 興南橋頭堡 확보와 이의 掩護아래 제3사단 主力은 이미 12월 10일 興南港에서 出港하고 12일에 九龍浦 및 釜山港에 上陸하여 20일까지에는 新擔當地域인 洪川으로 轉進을 完了하였으며 首都사단은 17일 拂曉에 興南港을 떠나 18일 15.00에 東海岸 鏡湖에 上陸하고 20일에는 主力이 襄陽으로 進出하여 이미 陣地를 점령하고 있던 제9사단의 襄陽—西林 陣地를 交代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군단이 興南에서 美 제10군단 主力보다 먼저 海上撤收를 완료하게 된것은 그 撤收順位도 願位려니와 東部戰線의 38°線 北方에서 敵 제2전선 부대와 그들의 南下正規軍의 連繫를 遮斷 擊滅한 任務履行에서 였다。

군단이 興南을 철수한 다음에도 興南橋頭堡作戰은 계속되어 同月 24일에 最終부대가 出港함으로서 終結되었는데 이 무렵 敵은 興南橋頭堡작전에 中共 제3야전군 제9병단 소속 9個사단과 北共軍 예비대인 제6, 제7, 제8군단의 대병력이 投入되고 있었다。

한편 군단이 上陸한 東海岸 太白山脈一帶에는 敵 제2군단의 敗殘兵으로 구성된 所謂 제2전선 부대가 山岳地帶에 據點을 두면서 出沒하여 後方 攪亂을 일삼았고 그들의 企圖는 장차 南下할 것으로 여긴 敵 正規部隊의 連繫에 앞서 治安을 混亂케 하는 동시에 我軍의 戰力을 分散시켜 보자는 데에 있는듯 하였다。

이러한 狀況을 早期判斷한 陸本에서는 이미 38°線 일대에 新編된 제9사단 및 제5사단등을 配備한 바 있거니와 군단의 釜山및 鏡湖에의 海上轉進을 계기로 다시 38°線 北쪽 일대에 連隊진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38°線 北쪽에 部隊를 再配置하게된 理由는 西部戰線에서 12월 20일에 中共 제4야전군 제13병단 소속 15個編制兵力과 北共軍이 開城 北쪽 金川에 內迫하게 됨과 또한 그들의 所謂「제2차작전계획」이 38°線 以北을 再掌握한다는 企圖에서 였다. 이 무렵의 敵의 戰法은 中共軍은 大海戰術이요 東部에서 展開하고 있는 제2전선부대는 유격전법 이었다。

이러한 一連의 상황에 對備해서 군단은 38°線 北쪽 襄陽—西林—麟里線의 陣地를 강화하는 一方 그 附近에서 出沒하는 敵 유격대를 掃蕩 擊滅하기 위하여 對유격전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런데 제3사단은 그간 당 군단에 所屬되어 있었으나 海上 轉進을 계기로 제2군단에 配屬되어 中東部 戰線을 담당하게 되었고 그 交代로서 陸本直轄로 있던 제9사단을 編入받아 東部戰線을 擔當하게 되었다。

2. 海兵隊의 元山, 咸興附近 戰鬪 (1950년 12월 3일부터 1950년 12월 15일까지)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해병대	사령관 준장	申 鉉 俊	제 3 대대	장 소령	金 潤 根
제 1 대대	장 소령	高 吉 勳	제 9 중대	장 중위	黃 泳
제 1 중대	장 중위	鄭 滿 鎭	제10중대	장 중위	鍾 德 源
제 2 중대	장 중위	金 光 植	제11중대	장 중위	朴 東 烈
제 3 중대	장 중위	李 鳳 出	화기중대	장 중위	林 東 根
화기중대	장 중위	高 相 河	제 5 대대	장 중령	金 大 植
제 2 대대	장 소령	崔 鳳 生	제21중대	장 중위	安 昌 寬
제 5 중대	장 중위	沈 布 學	제22중대	장 중위	韓 禮 澤
제 6 중대	장 중위	朴 成 哲	제23중대	장 중위	權 錫 基
제 7 중대	장 중위	鄭 光 鎬	화기중대	장 중위	閔 容 植
화기중대	장 중위	徐 廷 南			

敵 軍

北共 및 中共軍 混成부대 1개 사단

나. 전투 전의 개황

1950년 11월 21일, 美 제10군단 隸下의 美 제7사단이 惠山鎭을 점령하고, 美해병 제1사단이 長津湖까지 전진하여 鴨綠江을 목표로 進擊할 態勢를 갖추므로써, 祖國統一을 눈앞에 보는 듯 하였으나 中共軍의 不法侵略에, 12월 2일부터 美해병 제1사단이 撤收를 시작하였고, 東部戰線의 全韓國軍 및 UN軍도 咸興과 元山一帶의 橋頭堡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해병대(사령관, 申鉉俊준장)는 美 제10군단(장, Edward M. Almond소장)에 배속되어,

主力으로써 元山을 防守하고, 제3대대(장, 金鍾根소령)로써 東陽(元山 西쪽 45㎞)까지 전진하였으나, 急變하는 戰況에 對處하여 12월 2일, 사령부와 제2, 제5대대는 咸興으로 이동하였고, 제3대대는 12월 3일, 馬轉里(元山 西쪽 26㎞)로 이동한 다음, 다시 元山으로 轉進하여 제1대대와 合勢하게 되었다.

한편 元山부근의 敵情은 北共軍 3,000명이 德源郡一帶에서 元山을 威脅하였고, 1개사단 규모의 北共軍과 中共軍의 混成부대가 內陸山岳地帶로부터 馬息嶺(元山 西쪽 25㎞)에 近迫하였으며, 이러한 敵의 勢力은 날이 갈수록 增強되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12월 3일 현재, 해병대는 咸興에 사령부와 제2, 제5대대, 元山에 제1대대, 馬轉里에 제3대대가 각각 배치되어 있었고, 이때 美 제3사단은 美 제10군단의 예비대로써 一線에 이르는 主補給路와 군단의 後方지역을 防禦하고 있었으므로, 해병대는 美 제3사단의 작전통제 아래에 있었다.

咸興에 전진한 해병대의 임무는 美 제3사단의 작명 제38호에 따라, 咸興橋頭堡의 南쪽을 防禦하고, 美 제3사단 隸下인 제7연대의 이동을 掩護하는 것이었다.

이때 咸興으로 이동중인 美 제7연대는 이미 黑水里(咸興 西北쪽 25㎞) 근방에서 中共軍과 交戰상태에 있었으며, 內陸으로부터 東進한 中共軍은 地境—黑水里間의 도로를 威脅하기에 이르렀다.

사령관 申鉉俊 준장은 賦與된 임무와 상황을 檢討한 다음, 交戰中인 美 제7연대를 우선 1개대대로 增援하는 한편, 1개대대는 地境(咸興 西南쪽 10㎞)에 배치하여 地境—黑水里間 南쪽 機動路를 防禦키로 하고, 12월 3일, 작명 제44호를 하달 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부대는 美 제7연대를 增援하고, 美 제3사단과 合同으로 地境—黑水里間의 南쪽 機動路를 防禦하려 한다.

② 제2대대는 地境에 이동하여 賦與된 지역을 防禦하라.

③ 제5대대는 黑水里에 이동하여 美 제7연대장의 지휘를 받으라.

④ 사령부는 地境국민학교에 위치한다.』

한편, 元山에 殘留한 제1대대(장, 高吉勳소령)와 제3대대(장, 金潤根소령 12월 4일 元山에 도착)는 元山방어임무를 계속 수행하여, 友軍부대의 海上이동을 最後까지 掩護한 다음, 咸興에서 부대 主力과 合勢할 계획이었다.

(2) 작전 실시

12월 3일 : 작명 제44호에 따라, 제5대대(장, 金大植중령)는 이날 04.00에 咸興에 도착하여 부대를 整備할 여유도 없이 다시 黑水里로 진진하여 美 제7연대에 배속되었다. 이어서 이날 13.00에 사령부와 제2대대(장, 廉鳳生 소령)는 地境(咸興 西南쪽 10km)으로 출발하여, 사령부는 地境국민학교에 設置하고, 제2대대는 제5중대(장, 沈右學중위)를 地境 南쪽 新興里에 배치하여 南쪽에 대한 敵情을 搜索케 하고, 대대(-)는 楸下里(地境 西쪽 3km)에 배치하여 西北쪽을 防禦하였다.

12월 4일 : 이날 제7중대(장, 鄭光鎬 중위)의 鄭萬壽소위는 南쪽으로부터 少數의 北共軍이 侵襲하고 있다는 諜報에 따라, 대원 5명을 지휘하여 南쪽 高地一帶를 搜索하였으나 接敵치 못하였다.

한편, 사령관 申鉉俊준장은 連浦(咸興 南쪽 12km)로 侵襲하는 敵을 阻止하라는 美 제3사단의 작명에 따라 사령부를 다시 九萬里(連浦 西北쪽 6km)로 이동하고, 제2대대의 再배치를 명령하였다. 따라서 제2대대(장, 廉鳳生 소령)는 16.30에 CP를 九萬里로 이동하고, 제5중대(장, 沈右學 중위)를 浦項里(連浦 西쪽 6km)에 배치하여 連浦를 防禦토록 하였으며 제6중대(장, 朴成哲 중위)는 香中里(地境 南쪽 6km)에, 제7중대(장, 鄭光鎬중위)는 그 東쪽인 章文里에 각각 배치하여 西쪽의 美 제3사단 제15연대와 연결토록 하였다.

한편, 馬轉里에 배치하였던 제3대대(장, 金潤根 소령)는 이날 08.00에 美제3사단의 차량으로 元山에 이동하여 제1대대(장, 高吉勳 소령)와 合勢한 다음, 兩個대대는 協調된 防禦계획을 수립하고, 제1대대는 防蘆山里에서 屈羅里에 이르는 元山南쪽 防禦陣을 점령하였고, 제3대대는 北쪽의 德源方面으로 侵入하는 敵을 방어하기 위하여, 제9중대(장, 黃 泳 중위)를 右, 제10중대(장, 鍾德源중위)를 中央, 제11중대(장, 朴東烈중위)를 左로 하여 元山北쪽 一圓의 방어陣을 점령하였다.

12월 5일 : 美 제10군단장 Almond 소장은 이날 咸興지역의 橋頭堡를 確保하기 위한 작명 제9-50호를 하달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咸興과 興南을 中心으로, 그 東北쪽은 제1군단이, 그 西쪽은 美 제7사단이, 그리고 그 西南쪽은 美 제3사단과 美 해병제1사단이 각각

방어토록 되었고, 해병대는 美 제3사단의 작전통제아래, 地境南쪽의 防禦線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美 제3사단을 제외한 一線부대들은 中共軍과 激戰을 치루면서 咸興을 향하여 撤退中이 었으므로 이러한 방어진지는 아직 構築되지 않고 있었다。

한편, 元山地區에서는 北共軍 3,000명이 이미 德源에 侵入하여 元山을 威脅하였고, 馬息嶺을 넘은 中共軍이 合勢하므로써 戰況은 더욱 緊迫하기에 이르렀으나, 제1, 제3대대는 아무런 動搖없이 防禦임무를 계속하였다. 이때 元山의 友軍부대는 이미 모두 撤收하였고, 다만 4.2″박격포 4문과 近海의 美구축함 4척만이 해병대를 지원하고 있었다。



<黑水里에서 咸興으로 이동중인 제5대대>

12월 6일 : 元山의 제3대대(장, 金潤根 소령)는 이날 새벽, 제9중대(장, 黃 泳 중위)로 하여금 長德里(元山 西南쪽 3km)와 方下山里(元山 西쪽 2km) 一帶를 搜索케 하였던 바 敵은 아직 元山市內에 공격을 개시하지는 않고 있었다。

한편, 지난 12월 3일, 美 제7연대를 增援하기 위하여 黑水里에 出動하였던 제5대대(장, 金大植 중령)는 임무를 완수하고, 이날 咸興에 도착 즉시로 市內의 경계임무를 맡았으며, 사령부는 西興里(連浦 西쪽 2km)로 이동하였다。

12월 7일 : 元山을 威脅하던 敵은 이날 德源의 外廓高地를 모두 점령하고 元山市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또한 馬息嶺을 넘은 中共軍도 이미 元山의 東側에 肉迫하였으며, 더우기 元山市內에서는 敵 敗殘兵으로 構成된 듯한 게릴라까지 出沒하기 시작하여 市民들은 我軍陣地에 모여서 부대의 動態만을 注視하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戰況아래에서 陣地를 固守하고 있던 제3대대(장, 金潤根 소령)는 이날 元山 北方防禦線에서 元山埠頭에 撤收하여 이동할 준비를 하라는 美 제3사단의 작명에 따라, 제10중대, 대대본부, 제11중대 및 화기중대 順으로 이동을 시작하였고, 제9중대(장, 黃 泳 중위)는 대대의 이동을 掩護하기 위하여 市內로 侵入하는 敵을 阻止하고 있던 중, 11.00에 이르러, 박격포로 무장된 1,000명 규모의 敵이 중대의 陣地에 侵攻하므로써, 중대원

111명은 중대장 黃 泳중위의 지휘아래 14.00까지 4시간에 걸친 激戰끝에, 敵을 擊退하고 敵 사살 15명, 負傷 40명을 내게 하는 동시에 소총 20정, 실탄 30발을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으며, 중대도 부상 8명의 손실을 입었다。

이와같이 대대의 이동을 掩護한 다음 중대는 元山埠頭로 이동하여 대대와 合勢하므로써, 제3대대는 대기하고 있던 美 LST 845艦에 搭載한 다음, 16.30에 元山을 出航하여 釜山으로 向하였다。

그러나 제1대대(장, 高吉勳 소령)는 葛麻半島의 비행장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고 이날 元山 南쪽 방어陣으로부터 撤收하여 12.00에 비행장을 中心으로 한 防禦陣을 점령하므로써, 元山地區의 最終방어 부대가 되었다。

한편 咸興지역의 해병대는 美 제3사단의 명령에 따라, 14.00에 사령부를 新興里 (地境 南쪽 1km)의 朱地국민학교로 이동 하였고, 제2대대(장, 雁鳳生소령)는 元山부근의 增強되는 敵 勢力에 對處하여 더욱 경계를 強化하였다。

12월 8일 : 前날 밤과 이날 새벽 사이에 敵의 前哨부대는 元山 西北쪽으로 侵入하여 市內 一圓을 점령하였고, 10.00에는 主力이 元山 西側 高地를 모두 점령하므로써, 元山은 완전히 敵의 掌握下에 들어갔다。

그러나 제1대대(장, 高吉勳 소령)는 비행장을 中心으로 敵의 侵攻을 阻止하면서 友軍부대의 離陸을 掩護하는 한편, 비행장 施設을 撤出하는 작업을 지원하였고, 이날 18.00에, 각 중대의 搜索분대와 제3중대(장, 李鳳出 중위)의 1개소대는 이미 敵이 점령한 元山市內에 突入하여 敵을 攪亂하는 果敢한 威力搜索戰을 展開하였다。

이날 咸興지역의 제2대대(장, 雁鳳生 소령)는 美 제3사단의 防禦 正面이 擴張됨에 따라 제5중대(장, 沈布學중위)를 浦興里(連浦 西쪽 6 km)에 배치하여 連浦를 방어케 하고, 제6중대(장, 朴成哲 중위)를 富平里(地境 南쪽 10km)에, 제7중대(장, 鄭光鎬 중위)를 京興里(富平里 東쪽 3km)에 각각 배치하여 방어陣



<元山埠頭에 모여든 피난민>

地를 構築토록 하였다。

12월 9일 : 北共의 道黨部를 비롯한 행정機關은 元山에서 이미 활동을 개시하였는데 제1대대(장, 高吉勳 소령)는 이날 葛麻半島의 비행장에서 마지막 友軍부대가 떠남으로써 방어임무를 끝마치고, 16.00에 葛麻半島의 이른 바, 明沙十里 海岸에 集結하여, 20.00부터 제1중대는 LST 898艦에, 제2, 제3, 화기중대 및 대대본부는 LST 973艦에 각각 搭乘하여 20.30에 最終的으로 元山灣을 出航하였다。

한편 咸興지역에서는, 美 해병제1사단이 長津湖로부터 激戰을 거듭하면서 中共軍의 包圍를 突破하고 咸興지역으로 이동 하는데 성공하였으며, 美 제10군단의 咸興방어 계획에 따라 隷下의 제1연대는 地境에, 제5, 제7연대는 連浦비행장부근에 각각 배치하였다。

이로써 咸興, 興南지역에 집결한 韓國軍 및 UN軍부대들은 咸興지역 橋頭堡를 確保하면서, 이미 수립된 이동계획에 따라 海上이동에 着手하게 되므로써 興南撤收작전도 그 終局에 접어들게 되었다。

12월 10일 : 咸興에 近迫하고 있는 中共軍은 數的으로는 優勢하다 할지라도 장비는 완전히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해병대는 이러한 敵의 弱點을 이용하여 夜間에는 가급적 敵을 近接시킨 다음, 集中사격을 加하므로써 敵을 殲滅하는 方式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날 제2대대는 防禦陣地를 補強키 위하여 前方에 철조망을 設置하고, 有線을 架設하여 敵의 人海戰術에 對備하였다。

12월 11일 : 美 제10군단의 명령에 따라, 이날부터 韓國軍 제3사단과 美 해병 제1사단은 搭載를 개시하였으며, 이동계획은 순조로히 진행되었다。

제2대대(장, 康鳳生소령)의 정보搜索隊는 이날 14.00에 草原(地境 南쪽 30km) 一帶를 搜索中에, 敵의 정찰대와 不時에 交戰하여 3명을 사살하고, 2명을 사로 잡았으며, 輕機 1정과 소총 1정을 노획하였다。

12월 12일 : 해병대는 제2대대(장, 康鳳生 소령)가 地境 南쪽의 防禦線에서, 제5대대(장, 金大植중령)가 咸興에서 각각 임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이날 제2대대는 1개중대의 敵이 新上里(富平里 南쪽 5km) 부근까지 北上하였다는 諜報에 따라, 제7중대(장, 鄭光鎬 중위)의 1개소대를 出動시켜 10.00부터 5시간에 걸쳐 威力搜索을 전개하였으며, 제6중대(장, 朴成哲 중위)는 1개소대와 정보요원 5명으로 富平里—新豊里間의 도로를 정찰케 하였다. 또한 이때 咸興으로 들어닥치는 避難民이 成群하여 부

대 이동에 지장을 招來케 하므로써, 제2대대는 美 제3사단의 작명에 따라 咸興에 이르는 도로 上에서 이를 統制케 하였다。

12월 13일 : 이날 해병대는 美 제3사단으로부터 부대 이동을 위한 준비명령을 받고, 사령관 申鉉俊준장은 곧 작명 제46호를 하달하여 이동준비에 着手토록 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부대는 현 防禦陣地를 美 제7연대에 引繼하고, 連浦부근으로 이동하여, 부대의 後方 機動을 준비하려 한다.

② 제2대대는 12월 14일 12.00를 期하여 連浦 西쪽 방어陣地를 점령하고, 航空이동을 위한 준비를 하라.

③ 사령부는 12월 14일 12.00 以後, 連浦비행장에 위치한다.』

12월 14일 : 제2대대는 美제7연대에 陣地를 引繼하고, 이날 14.00에 西興里(連浦 西쪽 2km)에 이동하여 방어陣地를 점령하였고, 사령부 역시 連浦비행장으로 이동하여 機動을 준비하였다。

또한 16.00에는 先發隊로 編成된 사령부 군수참모실의 黃永植소위 以下 21명이 먼저 船便으로 鎭海를 向하여 出航하였다。

2월 15일 : 이날 12.00를 期하여, 咸興에 있던 제5대대(장, 金大植중령)는 美 제3사단의 지휘를 떠나 해병대에 復歸되어 連浦비행장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해병대는 咸興지역의 방어임무를 끝마치고, 12.00부터 美 항공기便으로 連浦비행장을 떠나게 되나, 榮光된 祖國 統一을 이루지 못하고, 비행기에 오르는 장병들의 가슴은 터지는 듯 하였는데 더욱이 비행장에 몰려와서 "이 子息만이라도 데려가 달라"고 哀願하는 避難民들을 두고 떠나는 장병들의 마음은 모두 찢어지는 듯 하였으리라。

라. 전투 후의 개황

元山撤收작전은 最終방어부대였던 해병대의 제3대대가 12월 7일에, 제1대대가 12월 9일에 각각 元山港을 떠나므로써 끝을 맺었고, 兩個대대는 12월 12일 釜山에 入港하였다. 그러나 元山을 떠날때, 장병들은 咸興의 부대主力과 合勢하기 위하여 興南으로 이동하는 줄 알았으나, 豫想과는 달리 艦首는 南쪽을 向하였으니, 장병들의 가슴은 鬱憤에 가득 찬 듯, 무거운 沈默속에 잠겼던 것이다。

한편 咸興지역에서는, 해병대의 主力이 12월 15일 連浦비행장을 離陸한 다음, 殘餘부대의 搭載도

계획대로 진행되어, 12월 24일에 美제3사단의 마지막 海岸방어부대가 興南海岸을 떠나므로써, 109척의 수송艦艇이 動員되어 105,000명의 병력과, 17,500대의 차량, 350,000ton의 貨物, 그리고 91,000명의 避難民을 撤收시킨 興南撤收작전은 그 幕을 내렸고, 興南하늘에는 殘留된 貨物을 爆破하는 爆音과, 火焰만이 치솟고 있었다。

連絡비행장을 離陸한 사령부와 제2, 제5대대는 같은 날인 12월 15일 釜山의 水營비행장에 도착하여 제1, 제3대대와 合勢한 다음, 12월 16일 16.00에 艦艇便으로 다시 釜山을 떠나 18.00에 鎭海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一部병력을 실은 비행기는 水營비행장의 활주로가 能力을 超過하므로, 멀리 日本 九州의 비행장에 着陸하여 다시 艦艇便으로 鎭海에 集結하였다。

이리하여 鎭海에서는 月餘에 걸쳐 부대를 整備하고, 敎育과 訓練을 쌓으면서 次期작전에 對備하였다。

해병대가 10월 27일 元山에 上陸한 後, 12월 15일 連絡를 떠날때까지 거둔 綜合전과는 다음과 같다。

戰　　果

사살—715명, 負傷—315명, 포로—18명, 귀순—16명

노획, 輕機—2정, 120m/m 박격포—5문, 다발총—13정, 각종 소총—135정, 수류탄—65발

§ 參戰者의 證言

◇ 제5대대 제23중대 제1소대장 李東用 소위
(1972. 9. 10. 해병대사령부 군수참모부장室에서, 소장)

제5대대는 咸興으로 전진한 다음, 中共軍의 侵攻으로 苦戰을 겪고 있던 美제3사단의 제7연대를 增援하기 위해 다시 黑水里로 전진하여 劍山嶺에 배치되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中共軍의 피리와 꽹과리소리를 들었으며 이 地域의 전투에서 가장 苦戰을 겪은 것은 補給문제였다. 그때 대대는 空中補給을 받았는데, 운 山이 氷板으로 덮혀서 落下되는 補給物이 陣地를 벗어나면 數km나 되는 山아래로 미끄러져, 그것을 回收하는데 며칠씩 걸리므로 하루 이틀 굶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 後 다시 地境으로 돌아와서 정찰전을 하면서 소대는 夜間埋伏을 하였는데, 우리 소대의 先任下士官組가 中共軍과 交戰하여 10여명을 사살하였다. 이것이 咸興부근까지 侵襲한 中共軍과의 첫 接觸이 되어 敵情의 把握에 큰 도움을 주었다 하여 美제10군단장의 表彰을 받았다. 그리고 대대는 다시 咸興으로 이동하여 市內경비와 피난민의 統制等, 경계작전을 수행한 다음, 連絡비행장에서 釜山으로 空輸되었다. 이때 우리는 아군까지 北進했다가 다시 撤收해야 하는 理由를 理解하지 못했으며 特殊무기를 사용하기 위해 一時的으로 後退하는 줄로만 알았지, 다시 돌아오지 못하리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다。

◇ 제3대대 제9중대 제3소대 장 許 孟소위
(1972. 9. 11. 해병대사령부 관리참모부장 실에서, 중장)

제3대대는 東陽까지 전진하였다가 馬轉里를 거쳐서 元山으로 이동하여, 友軍부대의 撤收를 掩護하면서 마지막까지 남아서 元山을 방어하였

다. 이때 제9중대는 元山 北쪽 대대의 右一線에 배치되었는데, 搭載하기 直前에는 敵의 主力이 중대의 방어線까지 近接하여 熾烈한 砲擊戰이 벌어졌다. 敵의 전진을 阻止하면서 元山부두에서 美 LST에 搭乘한 다음, 釜山을 向하였는데, 우리는 釜山 앞바다에 내려올 때까지 우리가 後退한다는 것을 몰랐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將兵들은 憤慨을 터뜨렸으며 장교들은 곧 다시 北進할 것이라고 사병들의 士氣를 높이는데 온 힘을 기우렸다. 特히 記憶에 남는 것은 배를 탄 다음, 一참대에 누워서 그동안 안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英語사전을 꺼내보니, 敵彈의 破片이 거의 마지막 Page까지 뚫고 박혀 있었다. 내 생명을 救해준 이 册은 그 後, 소중히 간직하였다.

3. 美 海兵사단의 長津湖附近 戰鬪 (1950년 11월 27일부터 1950년 12월 11일까지)

참조 : 상황도 제12, 13, 14, 15, 16, 17, 18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美해병제1사단 장 소장 Oliver P. Smith
제1연대전투단장 대령 Lewis B. Puller
제5연대전투단장 중령 Raymond L. Murray
제7연대전투단장 대령 Homer L. Litzenberg, Jr
제11연대포병장 대령 James H. Brower
(11월 31일 부터)
중령 Carl A. Youngdale

제1공병대대 장 중령 John H. Partridge
제1전차대대 장 중령 Harry T. Milne
기타 사단 직할 대대

배속부대

英해병제41특공대장 중령 Douglas B. Drysdale

지원부대

美해병제1항공사단장 소장 Field Harris

敵 軍

中共제3야전군 제9병단
제20군
제58사단(172, 173, 174연대)
제59사단(175, 176, 177연대)
제60사단(178, 179, 180연대)
제89사단(226, 227, 268연대)
제30군에서 배속

제26군
제76사단(226, 227, 228연대)
제77사단(229, 230, 231연대)
제27군
제79사단(235, 236, 237연대)
제80사단(238, 239, 240연대)
병력 : 60,000명

나. 전투 전의 개황

中共軍이 韓國戰線에 侵入한 以後, 11월 初에 이르기까지 UN軍은 그들의 侵略目的과 兵力규모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11월 7일에 MacArthur元帥는 中共軍이 全面的으로 軍事介入을 企圖하지 않을 것이라는 本來의 見解를 굳히는 동시에, 만일 敵이 계속 增強된다면 我軍의 전진을 中止, 또는 後退해 할 展望이 있을 것으로 判斷豫見하여, 우선 先制攻擊을 斷行키고 決心하였다。

이에 따라서 美제10군단장 Almond소장은 그동안 망서리고 있던 北進을 再開하여 國境線을 目標로 進擊키로 決心하였다。

敵軍의 상황 : 이 무렵 中共은 UN軍의 判斷과는 달리, 그들의 侵略本性을 露骨化하여 大兵團을 投入하였는데 西部의 美제8군 正面에는 中共제4야전군이 鴨綠江을 건넜고, 東北의 美제10군단지역에는 제3야전군에 배속된 제42군이 水津(咸興 西北쪽 28km)부근까지 南侵하였으나 11월初에 美해병사단에 依하여 擊破되자, 제3야전군 제9병단이 交代하여 長津湖부근에 投入되었으니, 그 主任務는 美해병사단을 擊破한 다음, 咸興—興南지역을 攻略하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이 제9병단은 宋時輪의 指揮아래 제20, 제26, 제27의 3개군으로 編成되었고, 제20군은 제58, 제59, 제60 및 제89사단(제30군에서 배속)으로, 제26군은 제76, 제77, 제78사단으로, 제27군은 제79, 제80 제81사단으로 각각 構成되었는데, 이 가운데 7개사단(제58, 제59, 제60, 제76, 제77, 제79, 제89사단의 兵力60,000명)이 해병사단과, 그리고 제27군의 제80사단이 美제7사단부대와 서로 激突하게 되었다。

我軍의 상황 : 韓滿國境線을 目標로 하는 總進擊계획에 따라, 美제10군단장 Almond소장은 11월1일에 군단의 攻擊명령을 下達하였는데, 그 要旨는 韓國軍제1군단을 右翼, 美제7사단을 中央, 美해병사단을 左翼으로 하여 國境線까지 一擧에 突進한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해병사단은 新興—厚昌江口 間의 鴨綠江岸까지 進擊하는 임무를 賦與받고, 제1연대 전투단을 黃水里(咸興 西北쪽 42km)에 배치하여 군단의 左翼을 掩護케 하고, 主力은 下碣隅里를 目標로 전진하게 되었다. 이때에 제5연대 전투단은 長津湖의 東側을, 제7연대 전투단은 同 西側을 따라 進擊키로 계획하고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 당시에 군단과 西側의 美제8군과의 戰線사이에는 80mile에 達하는 空間部를 露呈하였는데 MacArthur元帥는 美제10군단으로 하여금 이 間隔을 補塡하여 美제8군의 東部를 掩護토록 하고, 또한 進擊을 聲援할 수 있는 措置를 講究토록 指示하였다. 이에 따라서 Almond소장은 最初의 군단 전략계획을 다음과 같이 一部 變更하였다。

『① 해병사단은 長津湖의 西쪽으로 전진하여 滿浦鎭—江界—熙川을 連하는 中共軍의 補給路를 遮斷하여 美제8군의 進擊을 支援하면서 계속 滿浦鎭을 目標로 進擊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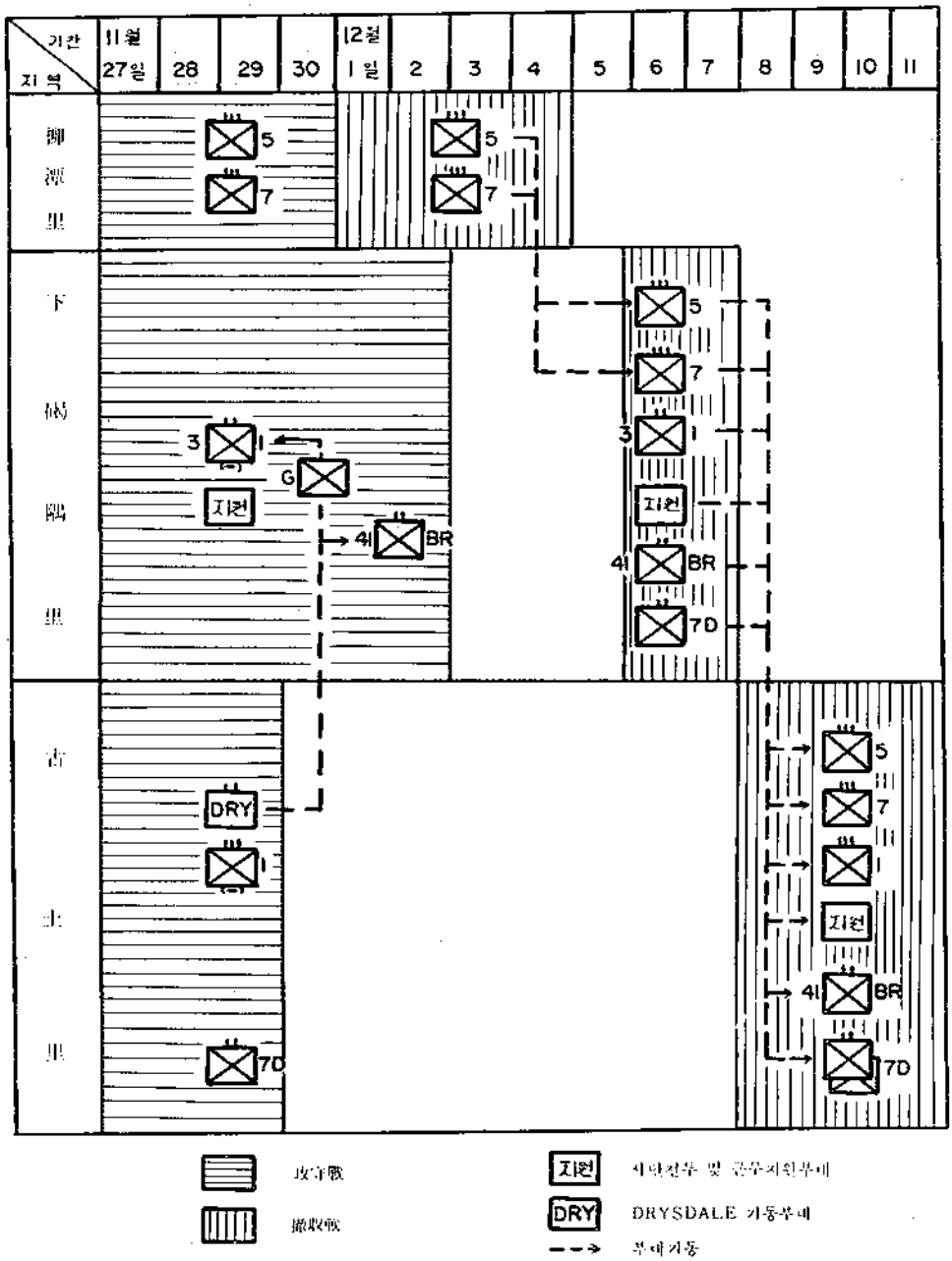
② 제7사단은 一部를 長津湖의 東側에 投入하여 最初 해병사단의 進擊路를 따라 전진하라.

③ 11월 18일에 元山에 上陸을 完了한 제3사단은 군단의 左翼을 掩護하고, 후방지역을 防護하는 동시에 제8군과 連結을 維持하라.

④ 이 작전은 제8군戰線과 連繫하기 위하여 11월 24일 제8군이 總攻擊을 개시한 다음인, 11월 27일에 進擊을 개시키로 한다。』

이러한 계획은 11월 25일 군단작명 제7호로 하달되었고, 이와 同時에 각 사단은 곧 機動에 着手하

◇ 各 작전에 隨伴하는 地域別 부대 구분 一覽表



였는데, 해병사단의 제1연대 전투단은 黑水里에서 地境—興興里—古土里—下碣隅里를 따라 北上하였고, 제5연대 전투단은 長津湖의 東側에서 柳潭里로 轉向하였으며, 제7연대 전투단은 이미 柳潭里에 전진하였다. 또한 제7사단의 1개 混成연대는 長津湖의 東側으로 전진하여 해병사단의 제5연대 전투단과 그 任務를 交代하였다.

이리하여 해병사단은 부대의 展開를 完了하기 前에 이미 공격을 개시하였는데, 이와 同時에 이미 柳潭里—古土里에 이르는 全지역을 包圍한 中共軍도 또한 공격을 개시하므로써, 처음에는 柳潭里, 下碣隅里 및 古土里에서 遭遇戰이 展開되었고, 이어서 사단은 中共軍의 包圍網을 突破하여 柳潭里에서 咸興까지 撤收戰을 展開하였던 것이다。

本節에서는 전투상황을 (1) 柳潭里부근의 전투, (2) 下碣隅里 부근의 전투, (3) 古土里부근의 전투로 三區分하여 전투상황을 各 지역別로 區分, 敍述키로 하였는데, 各 전투에 隨伴되는 地域別부대 區分은 다음과 같다. (各 작전에 隨伴하는 地域別 부대 區分 一覽表 참조)

또한 部隊의 表記는, 美해병제1사단—해병사단, 연대 전투단(RCT)—연대로 略稱키로 하고, 대부분의 전투가 夜間에 展開되었으므로 表記된 日字에는 翌日 06.00까지의 狀況을 包含시키기로 하며, 전투상황이 많은 日字는 地域別, 또는 부대별로 區分키로 한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사단장 Oliver P. Smith소장은 군단작명 제7호에 따른 사단의 임무를 分析한 結果, 사단의 最初目標를 龍林洞(柳潭里 西쪽29km)으로 定하는 즉시로 계속 古仇洞—武坪洞(江界 南쪽 35km)으로 전진하여 中共軍의 補給路를 遮斷하고 北進을 계속하여 滿浦鎭을 점령한다는 사단의 공격계획을 세운 다음 移動中인 각 연대의 位置를 考慮하여 11월 26일 08.00에 다음과 같은 要旨의 작명 제24—25을 하달하였다。

『 ① 제5연대는 11월 27일 08.00까지 제7연대를 超越한 다음 南쪽으로 進擊하여 龍林洞을 점령하고, 계속 西進할 준비를 갖추라.

② 제7연대는 遲滯없이 柳潭里를 점령하여, 이를 確保하고, 제5연대의 超越에 呼應하여 柳潭里—新興里(下碣隅里 西北쪽 8km)間의 보급로를 防護하라.

③ 제1연대는 사단의 예비로써 新興里—古土里—下碣隅里에 位置하여 사단의 후방지역과 主補給路를 防護하라.

④ 포병제11연대는 主力으로 柳潭里에 陣地를 占領하고 사단을 一般 支援하라.

⑤ 사단搜索중대는 柳潭里로 이동하여 제7연대와 協調한 다음, 北쪽 지역에 대한 정찰을 실시하라.

⑥ 美해병제41특공대는 柳潭里로 이동하여 사단의 右翼을 掩護하기 위한 작전을 준비하라.』

이리하여 각 연대는 賦與된 임무에 따라 부대를 展開하였는데, 공격개시 直前의 각 연대의 배치상태는 다음과 같다。

제5연대—제1, 제2대대는 柳潭里에 集結되어 공격을 준비하였고, 제3대대는 長津湖의 東側에서 柳潭里로 이동中이었다。

제7연대—제1, 제3대대 및 제2대대의 D, E중대는 柳潭里에 位置하고, 제2대대(—2)는 下碣隅里에서 柳潭里로 이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제1연대—제1대대는 眞興里, 제2대대 및 제3대대의 G중대는 古土里, 제3대대(—)는 下碣隅里에 각각 位置하고 있었다。

기타 본부 및 지원부대—사단본부대대와 英제41특공대 및 기타 지원부대는 古土里에서 下碣隅里로 北上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一部 지원부대는 下碣隅里에 集結하였다。

(2) 柳潭里부근의 전투

(가) 제1段階(攻守戰)

柳潭里는 長津湖의 西北端인 溪谷에 있는 마을이며, 이 溪谷을 中心으로 5개의 큰 稜線이 四方으로 뻗쳐있다. 사단이 공격을 개시하기 前에 柳潭里를 中心으로 編成된 방어배치는 다음과 같았다。

北쪽 稜線—제7연대 제2대대의 D. E중대(제1대대에 배속)

北西쪽 稜線—제5연대 제2대대, 제7연대 제3대대의 H중대

南西쪽 稜線—제7연대 제3대대의 G. I중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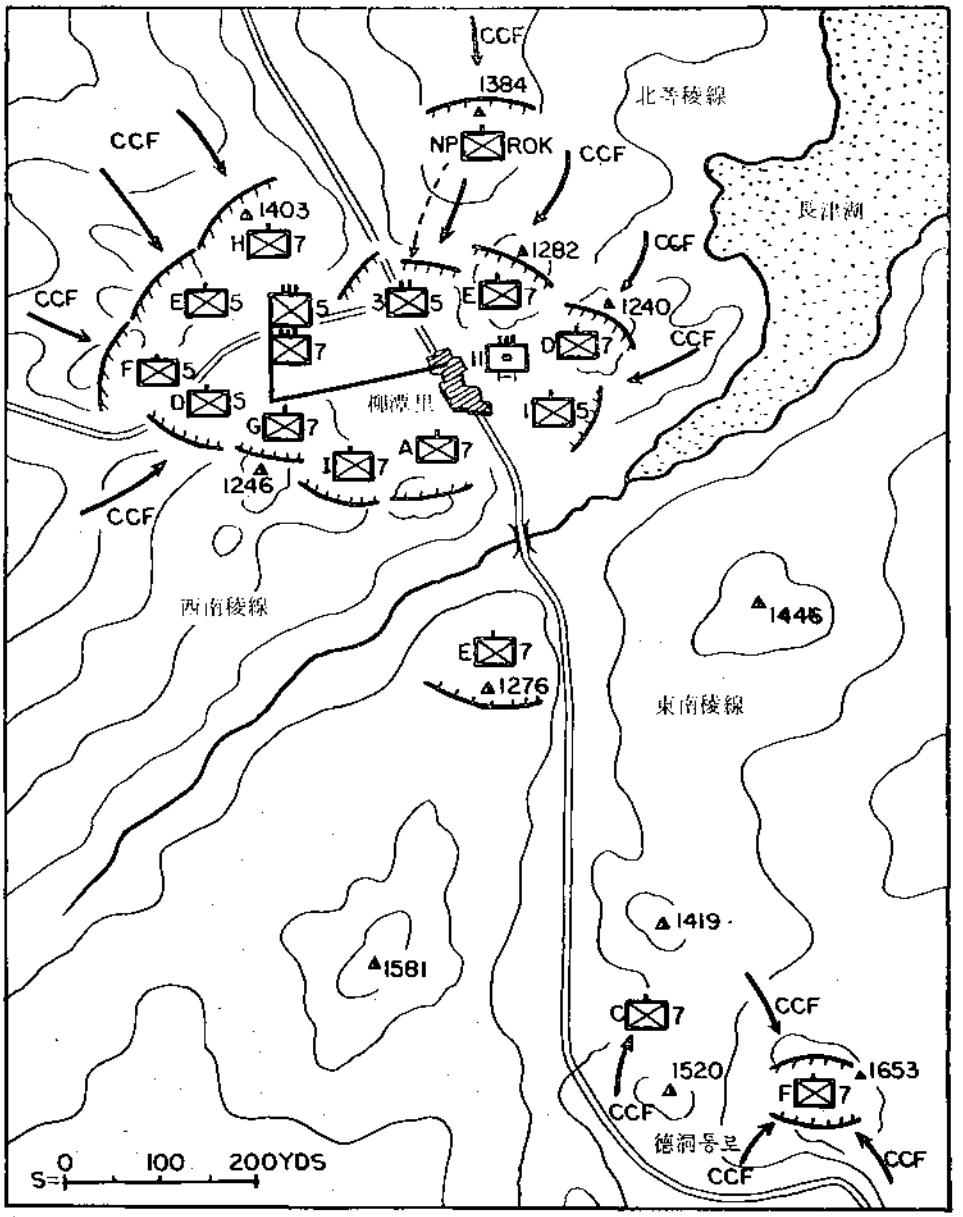
南쪽 稜線—제7연대 제1대대의 A. B중대

또한 防禦線 안에는 제5연대 제1대대, 제11연대(一), 제5, 제7연대의 CP가 있었고, 南쪽 보급로에는 제7연대 제1대대의 C중대가 배치되어 있었다。

11월 27일 : 柳潭里 방어임무를 맡은 제7연대(장, Litzenberg대령)는 방어縱深을 擴張하고 제5연대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날 08. 15에 제3대대(장, Warren Morris소령)의 G 및 H중대로써 공격을 개시하여, 08. 45에 G중대(장, Thomas E. Cooney대위)는 南西쪽의 △1426를, H중대(장, Leroy M. Cooke대위)는 北西쪽의 △1403을 각각 점령하였다。

이와같이 제7연대가 西쪽 作戰路의 兩側에 있는 瞰制高地를 점령하자, 제5연대(장, Murray중령)는 제2대대(장, Harold S. Roise중령)를 先頭로 하여 西쪽 作戰路를 따라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西南쪽 稜線에서의 中共의 執拗한 抵抗을 받고, 接戰 끝에 14. 30에 이르러 稜線의 下半部를 점령하고 야간전투에 對備하므로써 첫날은 愼重한 探索戰으로 끝

◇ 상황도 제12호 柳潭里 防禦戰(50. 11. 27~29)



마치게 되었다。

한편 제5연대 제3대대(장, Robert D. Taplett중령)는 이날 12.00에 長津湖의 東側으로부터 柳潭里에 進出하여 北쪽 稜線의 下麓를 占領하고, 다음날의 공격을 준비하였고, 같은 시간에 제7연대 제2대대 F중대(장, William E. Barber대위)는 下碣隅里를 출발하여 柳潭里—下碣隅里間 보급로의 要衝인 德洞通路를 占領하였다。

18.30, 北녘의 짧은 해가 자취를 감춘지 2시간 뒤에는 氣溫이 零下 20℃를 오르 내렸고 해병 장병들은 개인壕 속에 몸을 감추고 이 추운 밤이 빨리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數千명을 헤아리는 中共軍의 물결이 山谷을 數群으로 덮고 柳潭里의 방어陣地를 目標로 殺到하였으니 喊聲과 銃砲聲, 그리고 피리와 나팔 소리가 寒天을 뚫고 陳土를 누비면서 步一步의 進攻과 蹂躙의 侵襲을 敢行하게 되었다。

이날 밤의 이 敵은 中共 제59, 제79, 제89사단의 合同으로써 제79사단(제235, 236, 237연대)은 北쪽 稜線을, 제89사단(제266, 267, 268연대)은 西北쪽 稜線을 각각 攻略하였으며, 제59사단은 南쪽으로 迂回하여 德洞通路—柳潭里 間의 보급로를 遮斷하므로써 柳潭里는 완전히 包圍되고 孤立되었다。

西北쪽 稜線 : 이 稜線에는 이날 공격에서 下半部를 점령한 제5연대 제2대대(장, Roise 중령)가 E중대(장, Samuel Jaskilka대위)를 右, F중대(장, Uel D. Petters대위)를 左, D중대(장, Samuel S. Smith대위)를 後方에 배치하였고, 대대의 右側 △1,403에는 제7연대 제3대대 H중대(장, Cooke대위)가 배치되어 있었다。

21.00에 제5연대 제2대대 지역에서는 대대의 優勢한 火力으로 많은 損失을 보면서도 中共軍은 이른바 人海戰術로써 대대의 陣前까지 肉迫하여 21.25에는 마침내 F중대의 右側이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22.15에는 그 攻勢가 絶頂을 이루었다. 그러나 敵은 끝내 대대의 火網을 뚫지 못하고 攻擊梯隊는 거의 潰滅되어 22.30부터 退却하기 시작하였다。이 전투에서 대대는 中共軍 500명을 사살하였고, 전사 7명, 부상 28명의 손실을 입었다.

한편 △1403의 제7연대 제3대대 H중대도 同時에 中共軍의 공격을 받고 善戰을 계속하였으나 敵은 손실을 介意치 않는듯 끝없이 몰려들어 21.35에는 마침내 중대의 右側이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중대장 Cooke대위는 壯烈하게 전사하였다. 24.00에 새로 任命된 중대장 Harris중위가 대대 CP로부터 彈雨를 뚫고 중대의 陣地에 도착하였을 때, 중대는 Newton중위를 제외한 모든 장교가 전사, 또는 부상 하였지만 끝까지 陣地를 死守하고 있었다。

24.00 부터 敵은 부대를 再編하는 듯 2시간 동안 攻勢를 늦추었으나 28일 03.00부터 다시 執拗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제7연대 제3대대장 Harris중령은 04.00에 더 이상 △1403의 確保를 단념하고 H중대에 撤收를 명령하였다. 이로써 西北쪽 稜線의 主要高地인 △1,403은 敵이 強占하게 되었다.

北쪽 稜線 : 이 稜線에는 △1282와 △1240의 2개 重要高地가 있었는데, 제7연대 제2대

대 E중대와 D중대가 각각 占領하고 있었다。

△1282를 占領한 E중대(장, Walter D. Phillips, Jr 대위)는 이날 22.00부터 中共 제235연대 제1대대와 特殊임무중대의 合勢공격을 받게 되었고 24.00부터 2시간에 걸친 계속적인 梯波공격을 激戰끝에 200명을 사살하고 그 銳鋒을 물리쳤으나 敵은 28일 03.00부터 새로운 부대를 아낌없이 投入하여 계속공격을 하므로써 05.00에 이르러 마침내 중대의 방어陣은 무너지기 시작하니, 중대장 Phillips대위는 高地의 下麓으로 물러나 새로운 진지를 점령하고 敵의 進擊을 阻止코자 하였다。

한편 △1240를 占領한 D중대(장, Milton A. Hull대위)는 中共 제236연대의 공격으로 激戰을 거듭하였으나, 衆寡不敵으로 28일 03.00에는 중대 CP까지 突破당하여 高地의 下端部로 물러 났으며, 중대장 Hull대위는 두번이나 부상하였으나 끝까지 중대를 指揮하면서 最後방어선을 固守하고 있었다。

이때 高地의 下麓에 배치되었던 제5연대 제3대대(장, Robert D. Taplett중령)와 제1대대(장, John W. Stevens Ⅱ중령)는 前方방어진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03.00부터 逆襲을 敢行하여 G중대(장, Chester R. Hermanson대위)는 △1384를 再점령하였고, C중대(장, Jack R. Jones대위)는 主力으로써 △1282를 공격하고, 1개소대는 △1240의 제7연대 제2대대 D중대를 지원하였다. 04.30에 C중대 主力은 제7연대 제2대대 E중대의 殘餘병력과 合勢한 다음, 중대장 Jones대위가 直接指揮하는 돌격대를 선두로 敵陣에 突入하여 熾烈한 肉迫戰끝에 △1282를 再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高地에 投入된 敵은 中共 제285연대였는데 제7연대 제2대대 E중대만으로 250명을 사살하였고, 제5연대 제1대대 C중대의 逆襲으로 또한 400명을 사살하므로써 敵은 潰滅되고 말았다. 한편 E중대는 150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C중대는 전사 15명, 부상 67명의 손실을 입기도 하였으나 그 士氣는 低下되지 않았으니 自由를 지키고자 하는 大義의 힘은 이와 같이 偉大하였고, 남의 땅을 強取하려는 野盜의 힘은 이와 같이 無力한 것을 보여준 것이었다。

한편 C중대의 제3소대(장, Harold L. Dawe소위)는 △1240로 전진하여 28일 새벽에 D중대의 陣地에 이르렀을 때 D중대는 다만 16명만이 남아서 전투를 계속하고 있었다。 소대는 D중대의 殘餘병력과 合勢한 다음, △1240에 逆襲을 감행하여 激戰끝에 이 高地를 또한 再점령하고야 말았으니 正義는 항상 強하다는 一例證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柳潭里 南쪽 보급로 : 이날 저녁, 德洞通路는 제7연대 제2대대 F중대(장, William E. Baber대위)가 占領하고 그 北쪽에 있는 보급로 東側의 △1419는 제1대대 C중대(장,

John F. Morris대위)가 固守態勢를 갖추고 있었는데, 28일 02.30부터 中共 제59사단 이 優勢한 兵力으로 이 兩 중대를 포위하는 동시에 集中공격을 加하기 시작하였다。

△1419를 固守하려는 C중대는 激戰을 거듭하는 동안에 모든 통신기가 砲擊으로 파괴되어, 孤立된 상태에서 柳潭里로부터 救援을 기다리면서 死鬪를 계속하다가 날이 밝으므로 겨우 危機를 謀免하였다. 밤새 전투에서 중대는 40명의 사상자를 내고 戰力은 2개소대로 줄어 들었다。

또한 德洞通路를 지키던 F중대도 밤새 血戰을 거듭한 끝에 敵 450명을 사살하고 그 攻擊威力을 粉碎하였으나 중대도 또한 20명의 전사자와 54명의 부상자를 내었으니 이 山野에는 自由守護의 高貴한 鮮血이 이같이 물들었던 것이다。

11월 28일 : 피에 얼룩진 긴 밤은 지나고 먼동이 트기 시작하였는데 밤새도록 반복된 攻守戰의 결과로 北쪽 방어선에서는 彼我가 稜線의 兩端을 서로 堅守하면서 至近距離에서 對峙상태를 보였고, 西北쪽 稜線의 △1,403은 敵이 奪還하므로써 柳潭里를 眼下에 내려다 보고 있었으나 그 부근에는 死屍가 累累하고 哭鬼가 啾啾하였다.

이날 사단은 全面的인 中共의 攻勢에 따라 本來의 계획을 變更하게 되었으니, 즉 제5연대(장, Murray중령)는 이날 05.45에 西쪽으로의 進擊계획을 일단 中止하고, 제2대대를 西南쪽 稜線으로 撤收토록 명령하여 대대는 11.00에 새로운 방어陣을 占領하고 右側은 제3대대, 左側은 제7연대 제3대대와 서로 連結하게 되었다。

이때에 사단장 Smith소장은 全般的인 戰況을 銳意檢討한 결과 사단의 進擊을 中斷키로 決心하고 16.50에 이르러 제5연대는 제7연대와 協調하여 柳潭里를 固守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리하여 兩연대장은 서로 協調한 끝에 柳潭里 방어선의 西쪽과 北쪽은 제5연대가, 東쪽과 南쪽은 제7연대가 각각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앞서, 제7연대장 Litzenberg대령은 사단장으로 부터 柳潭里 南쪽의 敵을 擊滅하여 下碣隅里까지의 補給路를 開通하라는 명령을 받고 제1대대장 Davis중령에게 南쪽의 C중대를 救出한 다음 德洞通路의 F중대와 交代하여 보급로를 再確保하도록 명령하였다。

10.15에 제1대대장 Davis중령은 A, B중대로 공격을 개시하여 5시간 동안에 걸친 激戰끝에 드디어 C중대와 連結하는데 성공하였으나 敵은 계속 增強一路의 氣勢로 대대 마저 포위당하려는 危機에 處하게 되자, 연대장은 즉시 柳潭里 방어선으로 復歸할 것을 명령하여 대대는 21.10에 C중대와 부상자 40명만을 救出한 다음 柳潭里로 復歸하였다。

한편 德洞通路의 F중대(장, Baber대위)는 이날 아침 날이 밝자 전사자를 收容하고 歩兵

한 火器와 彈藥을 收集한 다음, 10.30에는 空中으로서의 補給을 받아 戰列을 가다듬고 敵의 夜間攻勢에 對備하고 있었다.

29일 02.15에 敵은 전날밤과 같이 狂暴的인 공격을 반복하므로써 밤새도록 阿鼻叫喚의 慘相이 展開되었다. 날이 밝았을 때, 중대는 5명이 전사하고 29명이 부상하였으며, 중대장 Barber대위와 부중대장 McCarthy중위가 모두 부상하였으나 陣地는 끝까지 계속 死守되었던 것이다.

이때 柳潭里 방어진지에서는 비교적 조용한 밤을 보내면서 F중대를 救出하고 보급로를 開通하기 위한 두번째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이 방어진지에서는 심한 兵力의 不足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제7연대장 Litzenberg대령은 각 부대에서 一部병력을 차출하여 混成부대를 編成하고, 이를 제3대대 부대대장 Morris소령이 직접지휘하여 다음날 공격토록 措置하였다.

11월 29일 : 이날 08.00에 Morris특공대는 德洞通路를 向하여 진전을 개시하였으나 불과 300m 진전하였을때 부터 敵의 執拗한 抵抗을 받기 시작하여 4.5km까지 前進하였을때 Morris소령은 觀測機로 부터 前方에 中共軍의 大部隊가 集結하고 있다는 電文通知를 받았다. 이와 同時에 같은 敵情을 보고 받은 연대장 Lizenberg대령은 처음의 계획을 變更하여 F중대를 救出한 다음에 柳潭里로 복귀 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이때 이미 Morris특공대는 敵의 大部隊와 激突하여 接戰에 들어갔고 戰況은 점점 急迫하기에 이르렀다. 연대장은 Morris특공대의 危機를 直感한 나머지 즉시 敵과 離脫하여 柳潭里로 복귀 하라는 명령을 하달하니, F중대를 救出하려는 두번째의 企圖도 挫折되고 말았다.

이날도 날이 어둡자 氣溫은 다시 急降下하였으나, F중대장 Barber대위는 곧 支援부대가 도착할 것이라고 소대장들을 激勵하면서 야간 戰鬪에 對備하였다.

30일 02.00, 『F중대! 너희들은 완전히 포위당했다. 나는 11연대에 있던 中尉다. 中共軍은 너희들에게 따뜻한 옷과 좋은 待遇를 해줄 것이다. 降伏하라』는 中共軍의 擴聲器 소리가 靜寂을 깨뜨렸다. 중대는 조명탄과 함께, 機關銃사격으로 이에 應答하니, 敵은 일제히 공격을 再開하였다. 날이 밝을 때까지 戰鬪는 계속되었으나, 中共軍은 延3일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 強陣을 奪還하지 못한 채로 오히려 退却하고 말았다.

이로써 中共軍은 柳潭里부근에서 延 3일간에 걸쳐 總力을 다하여 공격하였고 또한 莫大한 손실을 치루었음에도 不拘하고 그 代價는 몇개의 局地를 強占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이날 以後 柳潭里부근에서 中共軍의 攻勢는 鈍化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까닭은 그들의

戰力이 이미 바닥이 났으며, 새로운 兵力과 補給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推測되었다。攻取는 쉬우나 守成은 힘든 것이 兵戰의 原理라고 할 진대 F중대는 寡兵으로써 能히 大敵을 물리치고 守地를 끝까지 지켰으니 可謂 一當百의 精軍強兵이라 할 것이다。

(나) 제2段階(撤收戰)

中共의 大擧侵略으로 美제8군은 이미 西部에서 撤收를 시작하였으며, 長津湖부근의 美해병사단과 美제7사단의 戰況이 急迫하게 되자, 美제10군단은 最初에 계획하였던 北進계획을 再檢討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11월 30일 下碣隅里의 해병사단 CP에서는 美10군단장 Almond소장과, 해병사단장 Smith소장 그리고 美제7사단장 Barr소장이 參席한 가운데 작전회의가 열렸으며, 이 회의 席上에서 Almond 소장은 長津湖부근의 모든 부대를 咸興—興南지역으로 撤收시키려는 그의 決心을 表明하고, 特히 機動速度를 強調하여 Smith 소장에게 撤收에 支障을 주는 모든 裝備를 破壞하는 權限을 賦與하는 同時에, 空中補給을 約束하였다。

이러한 군단장의 決心은 곧 군단작명으로 하달되었는데, 그 要旨에 이르기를 『군단은 總力을 다하여 敵과의 接觸을 維持하면서 咸興—興南의 작전기지로 이동한다』하였으며, 해병사단의 임무는 下碣隅里—水洞을 連하는 보급로를 確保하면서 咸興지역으로 後退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서 사단장 Smith소장은 우선 柳潭里 包圍網을 突破하여 제5, 제7연대를 下碣隅里로 撤收시킨 다음, 段階的으로 下碣隅里 및 古土里 包圍網을 突破하면서 咸興부근으로 이동한다는 要旨의 사단 撤收계획을 樹立하였다。

11월 30일 : 사단의 撤收명령이 내리기 前에, 이미 柳潭里의 제5, 제7연대는 이 지역의 작전을 一元化하기 위하여 兩연대장이 合同으로 작명 1—50을 作成하여 이를 사단에 建議하였는데, 그 要旨는 柳潭里의 全部隊를 南쪽의 새로운 遮斷陣地에 배치하여 北으로 부터 中共軍의 侵攻을 阻止하고, 包圍網 突破를 위한 첫 段階로서 보급로를 開通한다는 것이었다。

사단장 Smith소장은 이러한 연대장의 建議를 檢討한 다음, 이날 19.00에 다음과 같은 要旨의 撤收명령을 하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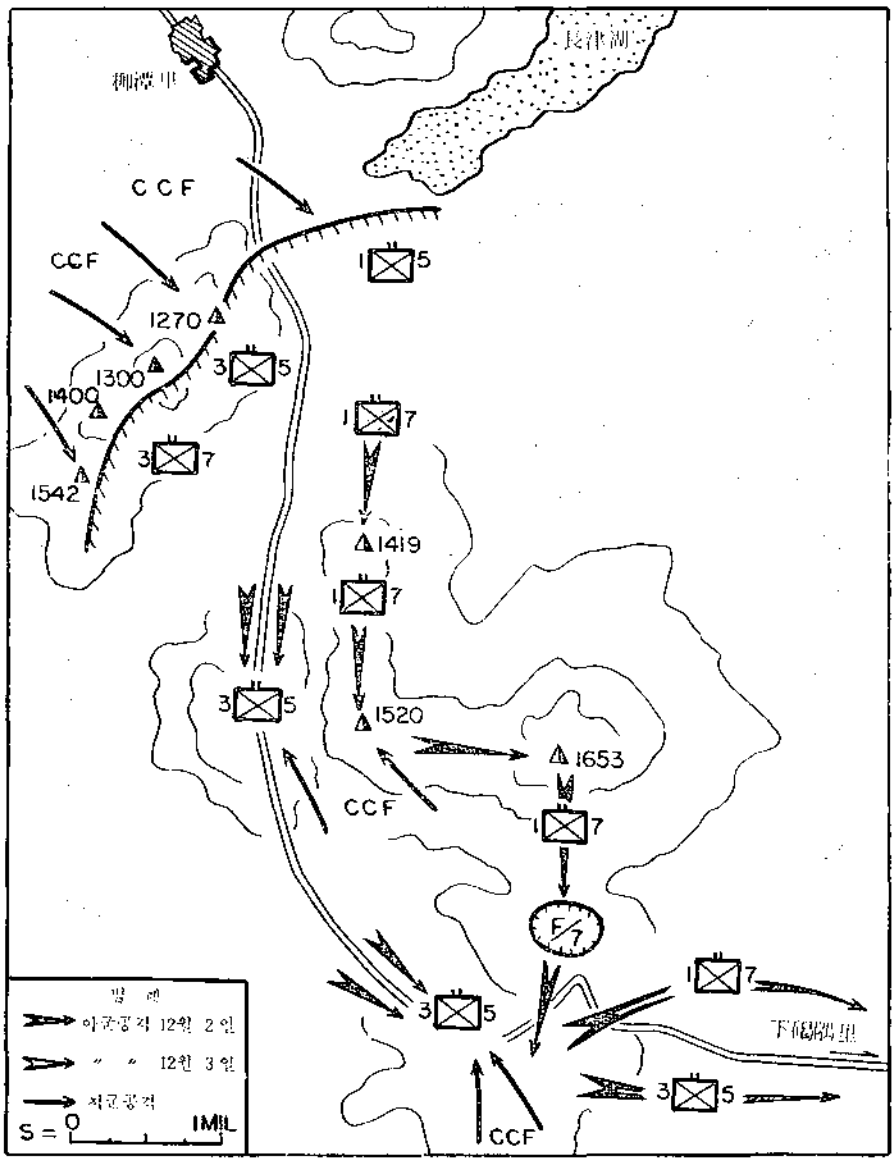
『합동작명 1—50의 실시를 承認하며, 제5, 제7연대는 合同으로 下碣隅里로 撤收하여 계속 南쪽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라. 撤收時에 運搬못할 장비는 모두 破壞하라』

이리하여 제5연대장 Murray중령과 제7연대장 Litzenberg대령은 즉시 柳潭里 包圍網의

突破를 위한 계획에 着手하여 『첫째, 一部부대는 山岳을 따라 공격하여 德洞通路의 제7연대 제2대대 F대중대를 救出한 다음, 主力이 通過하기 前에 이 지역을 確保하며, 둘째, 부상자를 포함한 차량梯隊는 도로를 따라 接敵行軍으로 이동한다』는 基本계획을 세우고, 合同작명 2-50을 作成하여 사단장의 承認을 얻었다。

12월 1일 : 이날 아침, 제5, 제7연대장은 合同작명을 하달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았다。

◇ 상황도 제13호 柳潭里—下碣隅里 撤收戰(50. 12. 1)



『① 제7연대 제1대대는 12월 1일 夜間에 作戰路의 東側高地를 따라 공격하여 德洞通路의 F중대와 交代한 다음, 이 地域을 確保하라.

② 제5연대 제3대대는 作戰路 兩側의 瞰制高地를 점령하면서 南으로 전진하여 後續부대를 掩護하라.

③ 제5연대 제1, 제2대대 및 제7연대 제3대대는 長津湖의 西南端으로부터 △1542에 이르는 收容陣地를 점령하여 부대의 退却을 後方에서 收容한 다음, 단계적으로 撤收하라.

④ 제11연대 제4대대는 155mm포탄을 이동 前에 전부 射撃하고, 後衛梯隊로 이동하라.

⑤ 모든 殘餘병력은 9개의 임시소대로 編成하여 2개소대는 제7연대, 3개 소대는 제5연대를 增援하고 나머지 4개소대는 McReynold소령의 指揮아래 차량梯隊의 側方을 경계하라.

⑥차량梯隊는 제5연대 제3대대를 後續하면서 重傷者만을 收容하고, 전사자는 遺品만을 保管한 다음 現地에서 埋葬하라.』

모든 부대는 즉시 명령에 따라 준비에 着手하였다. 이날 08.00에 收容부대는 제5연대 제2대대부터 陣地變換을 시작하여 11.00에 제5연대 제1대대는 長津湖의 西南端을, 제2대대는 △1276를, 제7연대 제3대대는 △1542를 각각 占領하고 全長 5.1km에 達하는 收容陣地를 形成하였다.

15.00에 제5연대 제3대대(장, Taplett중령)가 먼저 作戰路의 兩側高地를 따라 공격을 시작하고 뒤이어 제7연대 제1대대(장, Davis중령)는 △1419—△1520을 따라 공격하여 2일 03.00에 △1520까지 南進하였으나 敵의 執拗한 抵抗으로 戰線이 膠着되어 防守로 轉換한 다음 陣地를 점령하였다. 이때에 사단의 突破意思를 看破하게된 敵은 더욱 乘勝氣勢로 熾烈한 火力을 集中하니 △1520의 西側까지 진출한 제5연대 제3대대는 그 이상의 전진을 계속하지 못하고 彼進我一退의 血戰과 我一進彼一退의 亂擊으로 밤을 새웠으며 대대는 敵 342명을 사살하였고, 가장 熾烈한 공격을 받았던 제I중대(장, Harold G. Schrier대위)는 20명만이 남았고 G 및 H중대도 2개소대의 戰力으로 줄어들었다. 이때 제5연대장 Murray중령은 제3대대의 危機를 救하기 위하여 제7연대 제2대대의 D, E중대 一部로 편성된 混成부대를 急派하였으나 이날밤은 대대 陣地까지 進出하지 못하였다。

한편 後方의 3개 대대도 밤새도록 激戰을 계속하여 제5연대 제1대대 正面에서만 敵 200명을 사살하였고, 제7연대 제3대대는 中共 제235연대의 集中공격을 받고 한때 陣地를 奪取당하는 紛戰亂鬪를 계속하기도 하였다。

12월 2일 : 날이 밝자. 제7연대 제1대대는 다시 공격을 시작하여 11.25에는 德洞通路의

F중대와 連結하는데 마침내 성공하였다. 이때 F중대(장, Barber대위)는 連 5일간의 밤낮없는 전투에서 26명이 전사하고, 3명이 실종되었으며, 89명이 부상하였는데, 7명의 장교中 6명이 부상하였고 나머지 隊員들도 대부분 傷病者로 終戰을 계속하면서 最後의 一人 最後의 一刻까지 그 所任을 完遂하였으니 自由를 守護하려는 그 丹誠에는 神明도 感泣하였을 것이다。

한편 後方遮斷陣地에서도 敵은 계속적으로 一波又一波의 人海공격을 계속하였다。



<歩兵부대의 전진을 기다리는 車輛梯隊>

그러나 突破작전은 계획대로 進行되어 이날 午後에는 차량 梯隊가 이동을 개시하여 제5연대 제3대대를 後續하였다. 이때 제5연대 제3대대는 겹겹이 둘러싸인 敵의 包圍網을 뚫고 血路를 開拓하여 3일 02.00에는 德洞通路 前方 1km까지 전진하였으나, 대대의 손실과 疲勞가 너무 過重하여 날이 밝을 때까지 방어態勢에 들어갔다。

12월 3일 : 밤사이 내린 폭설로 온누리는 흰눈으로 덮혔다. 제5연대 제3대대는 날이 밝자, 다시 공격을 시작하여 10.30에, 執拗하게 공격을 계속하던 敵의 遮斷부대를 擊破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이어서 제7연대 제1대대도 東側에서 德洞通路를 突破하므로써 이 要衝地 一帶를 해병사단이 確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작전의 성공은 너무나 큰 代價를 치루었으니, 特히 激烈한 전투를 계속하였던 제5연대 제3대대의 兵力次第은 4일 새벽까지 437명이 194명으로 줄어들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柳潭里부대가 苦戰을 겪게되자 下碣隅里에서는 이날 16.30에 英제41특공대가 出動하여 北쪽 作戰路를 占領하고 南下하는 부대를 掩護하였고, 19.00에는 柳潭里의 첫 撤收隊列이 下碣隅里에 進入하였다。

12월 4일 : 德洞通路를 突破한 다음부터 부대이동은 順調로히 진행되어 이날 14.00에 後方收容부대였던 제7연대 제3대대의 마지막 부대가 下碣隅里에 進入하므로써, 先頭부대는 59시간, 後衛부대는 79시간만에 21km에 걸친 柳潭里 包圍網의 突破작전은 전부 끝을 맺었다。

11월 30일부터 이날까지, 해병사단의 손실은 그 대부분이 이 작전에서 입은 것이었으며, 이 기간중 사단의 總손실은 다음과 같았다。

전사—164명, 실종—55명, 부상—921명, 계 1,14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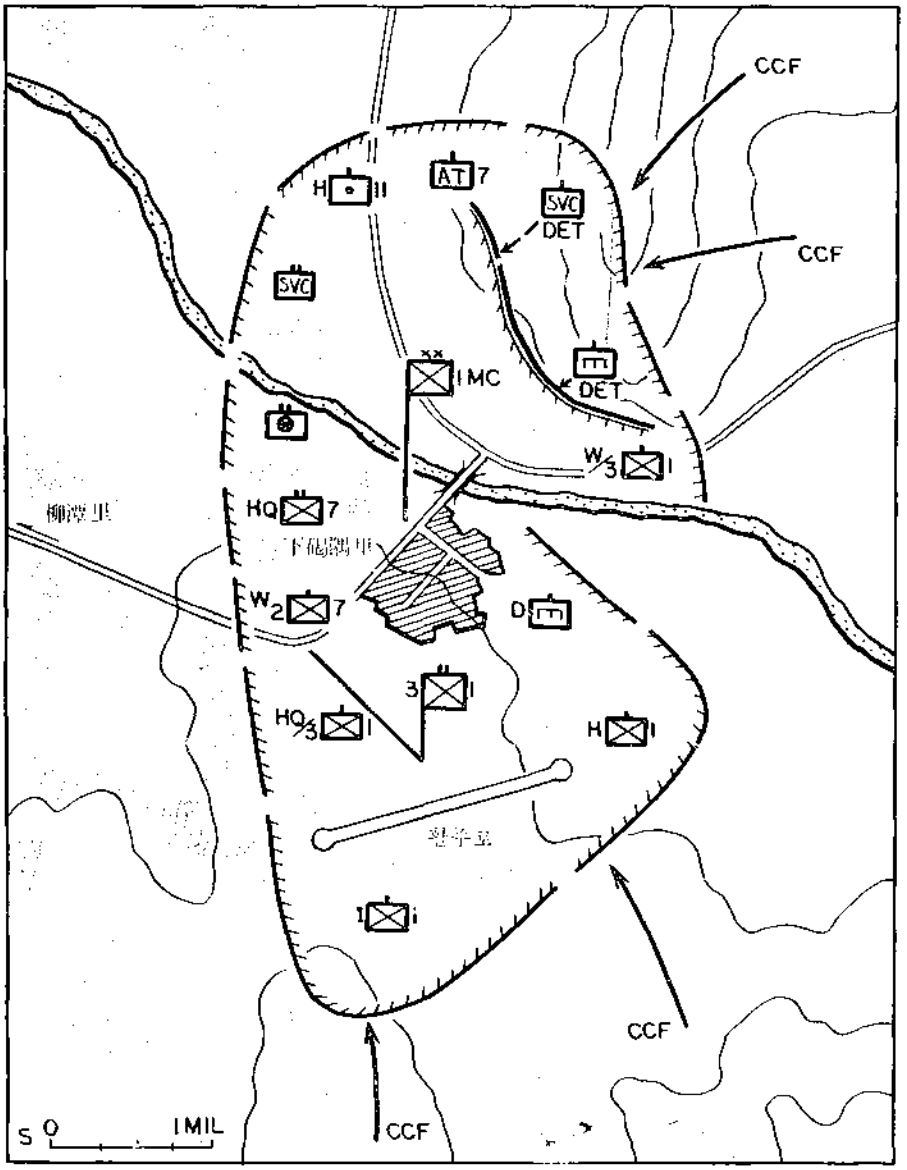
非전투손실(대부분凍傷) 1,194명

(3) 下碣隅里 부근의 전투

(가) 제1段階(攻守戰)

下碣隅里는 長津湖의 南端에 있는 作戰路의 分岐點으로써 簡易활주로가 있으므로, 사단

◇ 상황도 제14호 下碣隅里 防禦戰(50. 11. 28~12. 2)



은 이곳을 前方본부 및 勤務지역으로 設定하고, 본부 및 勤務部隊를 集結시키는 한편, 簡易활주로를 復舊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地域은 방어陣地가 완전히 編成되지 못하고 다만 제7연대 제2 대대(—)가 占領하고 있었는데, 11월26일 밤에 비로소 제1연대 제3대대(—)가 進出하였다。

11월 27일 : 이날 下碣隅里에서는 전날밤 이곳에 도착한 제1연대 제3대대(장, Thomas L Ridge중령)가 제7연대 제2대대(—2)(장, Randolph S. D. Lockwood중령)와 방어임무를 교대 하였다. 제7연대 제2대대는 任務를 引繼한 다음 柳潭里로 機動할 豫定이었으나, 제1연대 제3대대의 進出이 豫定보다 늦어져 이날까지 下碣隅里를 방어하고 있었으며 12.00에 F중대를 德洞通路에 전진시키고, 대대와 화기중대는 차량이 부족하여 이날 이곳에 머물러 있게 되었으며, 이날도 사단의 後續본부 및 근무부대는 계속 이곳에 集結하고 있었다。

이날밤, 이곳 방어부대는 柳潭里의 急迫한 戰況을 알게되어 긴장된 가운데에 지냈으나 敵의 커다란 活動은 없었다。

11월 28일 : 제7연대 제2대대(—)는 前날밤, 연대장으로부터 F중대를 支援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날 아침 德洞通路를 向하여 전진하였으나 中共軍의 熾烈한 阻止力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15.00에 다시 下碣隅里로 돌아갔다。

한편 11.00에는 사단장 Smith소장 一行이 飛行機로 前進하여 사단 CP를 開設하였는데 이때에 敵은 이미 柳潭里—下碣隅里—古土里間의 보급로를 遮斷하고 사단 CIC는 敵情을 判斷하기를 『敵의 主力은 下碣隅里 前方 5 mile까지 近接하였고, 이날 21.30 以前에 陣地前에 나타날 것이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날 저녁, 下碣隅里의 방어선에는 제1연대 제3대대의 2개 보병중대(G중대는 古土里에서 北上중이었다)와 그 나머지는 전투 및 勤務지원부대가 배치되었으며, 그나마 兵力이 부족한 상태였다。(상황도 참조)

22.30에 中共軍은 제58사단을 主力으로 하여 下碣隅里에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南쪽의 제1연대 제3대대 H중대 및 I중대는 일제히 火力을 集中하여 敵의 攻擊部隊를 擊滅하였으나 敵은 계속 새로운 부대를 投入하여 29일 03.00에는 마침내 H중대의 右翼이 돌파 당하는 동시에 중대CP까지 侵入하였다. 이때 대대장 Ridge중령은 勤務 및 行政要員으로 新編된 50명의 增援부대를 H중대에 急派하니, 중대장 Corely대위는 즉시 戰力을 가다듬고 04.20부터 反擊을 斷行하여 06.30에는 喪失하였던 陣地를 모두 奪還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전투에서 H중대는 16명이 전사하고 36명이 부상하였으며 이 正面의 공격을 담당하

였던 中共 제172연대는 거의 潰滅되고 말았으니 火力의 優勢앞에 무릎을 꿇고만 셈이었다.

한편 東쪽 高地를 占領中인 제10전투공병대의 D중대(장, Philip A. Kules대위)도 敵의 공격으로 混戰을 계속하던 中, 29일 01.30에 이르러 陣地가 突破되어 중대는 高地의 下麓으로 물러났고, 高地 頂上은 敵의 손에 들어갔다. 이 高地를 빼앗기므로써 下碣隅里의 방어 陣地 全線이 威脅을 받게 되었으므로 제1연대 제3대대장 Ridge중령은 즉시 殘餘 병력으로 混成부대를 新編하여 Myers소령의 지휘 아래 05.30를 期하여 逆襲을 斷行키로 決心하였다.

11월 29일 : 이날 Myers특공대는 執拗한 中共軍의 妨害를 排除하면서 步步前進과 集中火力의 發揮로 激戰을 계속한 끝에 東側高地의 中腹까지 진출하였으나 날이 어둡자 占領線에서 야간방어에 대비하였다.

한편 이날 19.15에는 제1연대 제3대대의 G중대(장, Carl L. Sitter대위)와 英제41특공대(장, Dougals B. Drysdale중령)가 古土里로부터 血路를 뚫고 下碣隅里에 進入하였다. (古土里부근 전투 참조) 이로서 下碣隅里의 戰力은 急速히 補強되었으며, 대대장 Ridge중령은 G중대를 東側高地 공격에 投入하고, 英제41특공대는 예비로 保有하였다.

한편 이와같이 해병사단이 激戰을 계속하는 동안 長津湖의 東側에서는 제7사단의 제31연대장 Allan D. MacLean대령의 指揮아래 제31연대 제3대대, 제32연대 제1대대 및 제57야전포병 대대가 해병사단과 同時에 優勢한 兵力의 包圍攻擊을 받고 一進一退의 混戰을 계속한 끝에 연대장을 비롯하여 500명의 사상자를 내고 危機에 빠지게 되었다.

이날 군단장 Almond소장은 20.30을 期하여 이 부대의 指揮權을 Smith소장에게 賦與하는 同時에 柳潭里의 1개연대를 急派하여 이 부대를 救出토록 명령하였으나 下碣隅里로 이르는 補給路의 突破가 실패로 돌아 가므로써 救出계획은 挫折되고 만았다.

11월 30일 : 이날 08.00에 G중대(장, Sitter 대위)는 Myers특공대와 合同으로 東側高地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險峻한 地形과 優勢한 敵의 強壓으로 攻擊의 進展을 보지 못하고 다만 高地의 中腹에 마련된 진지를 固守하면서 야간 전투에 對備하였다.

24.00에 敵은 그 主攻을 돌려 南쪽과 東側高地에 대한 공격을 再開하였으므로 南쪽의 I중대 진지에서는 敵은 中隊火力의 集中사격을 받은 나머지 750명에 達하는 손실만을 입은 끝에 包圍를 풀고 北으로 退却하게 되었다.

그러나 東側高地의 G중대 및 지원부대의 陣地에서는 地形上으로 有利한 敵의 波狀공격을 받고, 먼저 지원부대의 陣地가 무너지기 시작하였으며, 12월 1일 01.00에는 敵의 공격

이 絶頂에 達하여 G중대의 방어陣도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彈藥마저 消盡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대대 S—2인 Carey중위는 골 增援부대를 편성하여 彈藥을 G중대의 陣地에 補給하게되니, 중대장 Sitter대위는 부상한 채로 전투를 指揮하였고 중대는 불과 1개분대 규모의 병력만이 남아 있었다. 대대장 Ridge중령은 즉시 예비대인 英제41특공대를 投入하여 G중대를 支援하는 한편, 날이 밝기를 기다려 逆襲을 준비하였다。

12월 1일 : G중대는 날이 밝자, 火力과 白兵力을 綜合發揮하는 逆襲을 敢行하여 前날밤에 잃었던 陣地를 다시 奪還하는데 成功하였는데 碧血은 白雪을 染놓고 負傷者의 呻吟소리는 朔風에 찼으되 日輪은 고요하게 비치기만 하였다. 09.00부터 空中支援이 시작되므로써 天地가 소란스러운 가운데 戰況은 더욱 好轉되어 中共軍은 다만 莫大한 손실만을 치루고 督戰隊의 고함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멀리 退却하고 말았으니 그 모습이 엣날 Rome城을 치다가 撤收하는 Atila軍을 彷彿하는 듯 하였다。

中共軍은 지난 28일 밤부터 2번에 걸친 大攻勢에서 1,500명이 사살되었고, 부상자는 7,500명~10,000으로 推算되며 當時 그들의 補充과 補給能力으로 보아 부상자의 대부분이 사망하였을 것으로 推測되었다. 같은 期間中 제1연대 제3대대의 손실은 전사 43명, 실종 2명, 부상 270명이었고, 전투 및 지원부대의 손실도 이와 비슷하게 集計되었다。

한편 長津湖의 東側에서 제7사단의 孤立부대에 대한 救出계획이 進展되자, 이 부대를 指揮하게 된 제31연대 제1대대장 Don C. Fath중령은 自力으로 包圍網을 突破하기로 決心하고, 이날 下碣隅里로 출발하였으나, 激戰끝에 Fath중령이 부상하므로서, 指揮官을 잃은 부대는 小集團으로 分散되었고, 이들 生存者들은 이날밤부터 下碣隅里에 도착하기 시작하였다。

12월 2일 : 이날 새벽까지 제7사단 부대의 生存者 도합 670명이 下碣隅里에 復歸하였다。

제1수송대대장 Beall 중령이 지휘하는 搜索부대는 이날 아침부터 殘餘 生存者의 收容에 나서서 도합 319명을 救出하였고, 이날 저녁까지 救出작전은 계속되어, 長津湖부근 戰鬪에 投入되었던 제7사단의 3개대대의 總 2,500명中1,050명이 救出되었고 이中에는 385명만이 진투 可能한 兵士들이었으며, 300명이전사로 確認되었을 뿐, 나머지는 실종된 것으로 判斷되었다。



<얼어붙은 長津湖>

(나) 제2段階(撤收戰)

12월 4일에 제5, 제7의 兩연대가 咸潭里의 包圍網을 突破하고 下碣隅里에 進入하므로써 (咸潭里 부근의 전투 참조) 이 地域의 突破계획은 本格的으로 進行되었다。

이에 앞서, 제10군단장 Almond소장은 12월 3일 16.00에 이미 작전지시 제22호로써 『해병사단은 부상자를 後送하고 준비가 끝나는 즉시로 下碣隅里—咸興 軸線을 따라 부速히 撤收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또한 같은날 下碣隅里로 飛來한 Almond소장은 Smith소장과의 撤收에 대한 最終會議에서

『부상자의 後送에 支障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모든 장비를 後送하기로 決心』한 Smith소장의 提議에 同意하였다。

下碣隅里의 突破계획은 즉시 着手되었으며 사단장 Smith소장은 참모들의 判斷으로 建議한바 『비록 敵에게 下碣隅里 南쪽의 보급로를 따라 大부대를 展開할 時間的인 여유를 주는 限이 있더라도 부대의 休息과 再編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더욱 所望된다』고 하는 內容에 同意하고 突破작전의 D일을 12월 6일로 決定하였다. 이러한 決定은 사단指揮部의 弱化에도 그 原因이 있었으니, 부사단장을 비롯한, G—1, G—4, G—4 보좌관 等이 戰傷派遣 等으로 空席이었으므로, 參謀陣의 부족은 계획수립에 큰 障碍가 되었다。

그러나 撤收를 위한 작업은 계속 진행되어, 12월 2일에서 5일까지의 부상자는 總 4,312명이 後送되었고, 兵器 및 대량의 兵站物資를 後送하였다. 또한 空中補給을 받아서 戰力을 強化하는 한편, 12월 4일에는 이동이 不可能한 施設과 物資에 대한 破棄명령이 하달되어 撤收를 위한 준비는 모두 끝냈다。

12월 5일 : 이날 08.00에 드디어 下碣隅里의 包圍網 突破작전은 작명 25—50으로 하달되었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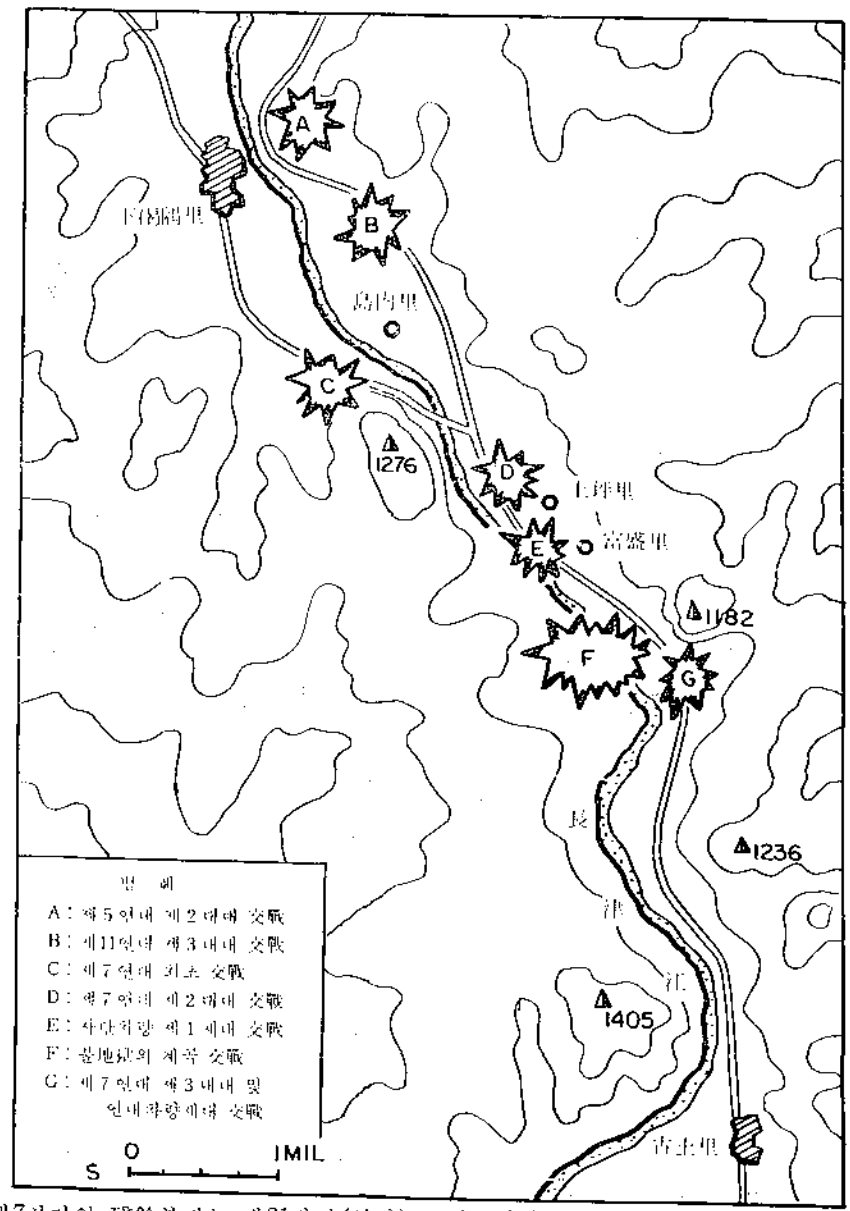
『① 사단은 古土里—眞興里—咸興 軸線을 따라 咸興, 興南부근으로 撤收하려 한다.

② 제5연대(제1연대 제3대대 배속)는 12월 5일 12.00까지 下碣隅里의 방어임무를 引受하고, 제7연대의 이동을 掩護한 다음 後續하여 咸興 興南부근으로 撤收하라. 但 古土里—咸興間에서는 사단 예비연대로서의 任務를 遂行하라.

③ 제7연대(제7사단 31대대 배속)는 12월 6일 古土里—眞興里—麻田洞 軸線을 따라 撤收하라.

④ 제1연대는 古土里, 眞興里를 계속 確保하고, 사단 主力의 古土里 進入을 掩護하라. 古土里—咸興間에 있어서는 사단의 後方을 掩護하라.

◇ 상황도 제15호 下碣隅里—古土里 撤收間의 重要交戰(50. 12. 6~7)



⑤ 제7사단의 殘餘부대는 제31대대(임시)로 편성하여 제7연대에 배속한다.

⑥ 殘餘본부 및 勤務부대는 차량梯隊를 따라 도보로 撤收하면서 直接경계임무를 수행한다。』

이날 12.00에 제5연대는 제1대대를 北쪽, 제2대대를 東쪽, 제3대대를 西쪽, 그리고 제연대 제3대대를 南쪽에 각각 배치하여 下碣隅里의 全방어陣地를 점령하였다. 또한 이날

下碣隅里에는 597명의 增援병력이 空輸되어 사단의 戰力을 增强하였다。

이날밤은 마치 暴風前夜같이 조용하였다. 이때에 中共軍은 大兵團을 下碣隅里—古土里間의 보급로를 따라 展開하고 있는듯 하였으며, 確認된 부대는 中共 7개사단(제58, 제59, 제60, 제76, 제79, 제80, 제89사단)이었고, 그 밖에 제77, 제78사단이 增援부대로써 후방에 집결되어 있는 것으로 判明되었다。

12월 6일 : 이날은 下碣隅里 突破작전의 D일, 全世界의 耳目은 이곳에 集中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병사단이 과연 7개 사단의 蠢蠢된 人海와 人山을 突破하고 分斷할 수 있을 것인지 注視하고 있었다。

1. **제7연대** : 이날 새벽, 제7연대장 Litzenberg대령은 연대작명 14--50으로써, 『제2대대는 作戰路를 따라 공격하여 後續부대의 撤收路를 開拓하고, 지휘 및 차량梯隊를 中心으로 右側은 제1대대, 左側은 제7사단 제31대대, 後方은 제3대대가 각각 掩護하면서 南進하라』는 要旨의 명령을 하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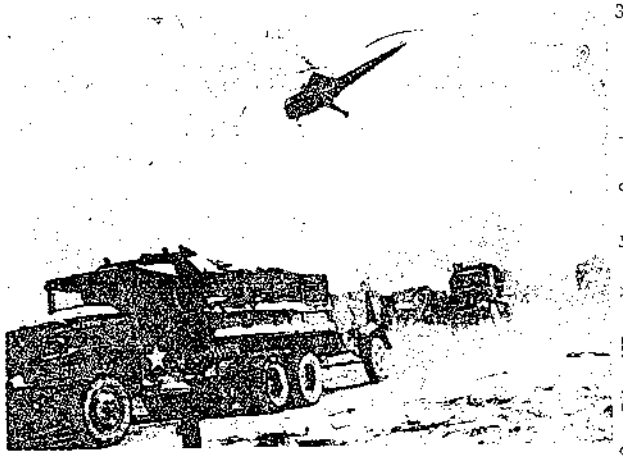
이리하여 연대는 이날 04.30에 공격을 개시하여, 제2대대(장, Lockwood중령)는 불과 1.2km를 전진하였을 때부터 熾烈한 敵의 抵抗을 突破하면서 22.00에, 下碣隅里 南쪽 5km (일명 地獄의 溪谷)에 突進하였을 때, 敵의 공격은 더욱 加熱되어 전진이 挫折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機動路 兩側의 제1대대(장, Davis중령)와 제31대대도 역시 一波又一波의 공격을 排除하면서 "일명 地獄의 溪谷"에 이르렀을 때, 제31대대의 손실이 너무 過重하여 연대장 Litzenberg대령은 차량 梯隊의 後方을 掩護하던 제3대대로 하여금 제31대대의 임무를 同時에 수행토록 措置하였다. 이리하여 제3대대(장, Harris중령)는 차량梯隊의 左側과 後方을 同時에 掩護하면서 전진을 계속하였다。

02.00에 敵의 공격은 絶頂에 達하여 제3대대와 연대차량梯隊가 同時에 肉戰을 展開하게 되었다. 날이 밝을 때까지 血戰을 계속하는 동안에 연대지휘부는 부연대장 Dowsett중령까지 부상하였고, 05.30에는 제3대대장 Harris중령이 전사하였다。

이와같이 제3대대와 연대의 指揮部 및 차량梯隊가 危機에 陷入하게 되자, 右側의 제1대대는 즉시 東쪽으로 下山하여 차량梯隊와 合勢하였다. 한편 제2대대는 02.00에 敵의 遮斷부대를 擊破하고 계속 전진하여 7일 새벽에, 先頭부대가 古土里에 進入하였다。

2. **사단指揮 및 차량梯隊** : 이 梯隊는 2개 梯隊로 編成되어, 제1梯隊는 제7연대를 後續하여 이날 16.00에, 제2梯隊는 24.00에 각각 전진을 개시하였다。



<차량梯隊가 이동을 準備하는동안 **Helicopter**가 부상자를 후송하고 있다>

제1梯隊는 2km를 전진하였을 때부터 中共軍의 공격을 받기 시작하여 날이 어둡자 전투는 더욱 加熱되었다。中共軍의 集中공격을 받은 제11연대 제3대대는 曲射砲를 直接照準사격까지 하면서 2시간에 걸친 激戰끝에 中共軍 800명을 사살하고 이를 擊退하였다. 그러나 전진을 계속할수록 中共軍의 공세는 더욱 熾烈하여 7일 01.30에는 차량梯隊가 불길에 싸였고, 다시 현병중대가 공격을 받아 護送하던 敵포로 160명은 137명이 그들의 사격으로 사망하였다. 이러한 苦戰을 겪으면서 부대는 전진을 계속하여 새벽에는 "불 地獄의 溪谷"을 通過하였다。

3. **제5연대** : 연대는 이날 07.00에 제2대대(장, Roise중령)가 東側高地를 공격하여 激戰끝에 中共軍 30명을 사살하고 이를 점령하므로써 방어陣을 確固히 하였다。 그러나 날이 어둡자 中共軍은 大규모의 逆襲을 시작하여 高地는 다시 激戰場으로 變하였다. 이때 대대는 本 전투期間中 記錄的인 전과를 거두었으니, 220명의 中共軍이 D중대 제2소대(장, McNaughton소위)에 降伏하므로써 전부를 사로 잡았다. 이러한 손실에도 不拘하고 敵은 D중대(장, Smith대위)에 계속 공격을 加하여 7일 03.00에는 제2소대장 McNaughton소위가 전사하고 부중대장 Honeycatt중위는 부상하였다. 계속되는 血戰끝에 중대장Smith대위 마저 전사하니 중대에는 Seydel소위만이 남아 중대를 指揮하였으나 마침내 Seydel소위마저 전사하므로써 중대는 指揮者를 잃고 高地의 下端으로 물러나고 말았다。

한편 제1, 제2대대 및 제1연대 제3대대 正面에서도 敵의 攻勢는 계속되어 날이 밝을 때까지 제1대대는 中共軍 260명을 사살하고, 53명의 손실을 입었으며, 제1연대 제3대대는 中共軍 60명을 사살, 15명을 사로 잡았고, 또한 제2대대 지역에서는 800명의 中共軍이 사살되었다。

12월 7일 : 날이 밝자 제7연대 제3대대는 航空機의 지원을 받으면서 "불 地獄의 溪谷"을 突破하여 07.00에 古土里에 進入하였고, 10.00에는 사단指揮 및 차량梯隊의 제1梯隊가 도착하기 시작하였으며, 17.00까지 제7연대는 全부대가 古土里에 集結하였다。

한편 下碣隅里에서 後方을 遮斷하고 있던 제5연대는 이날 아침부터 이동을 개시하여,

제2대대에 배속된 공병부대가 마지막으로 爆破작업을 끝마치고 下碣隅里를 떠나므로써 해병사단의 重要한 전진基地였던 下碣隅里는 불길에 싸였고, 연대의 뒤에는 수많은 避難民이 뒤를 따르고 있었다。

제5연대는 소규모의 接敵을 계속하면서 順調로운 전진을 계속하여 이날에 마지막 後衛掩護부대가 古土里에 進入하였다。

이로써 延 38시간에 걸쳐, 10,000명의 병력과 1,000대의 차량이 이동한 下碣隅里 包圍網의 突破작전은 끝을 맺었다。이 작전 期間중 사단의 손실은 다음과 같았다。

전사—103명, 실종—7명, 부상—506명

(4) 古土里부근의 전투

(가) 第1段階(攻守戰)

古土里에는 사단의 예비대인 제1연대(장, Lewis B. Puller대령)가 CP를 設置하고, 眞興里—下碣隅里 間의 보급로를 防護하고 있었으며, 제1연대의 제2대대, 제7사단의 제31연대 제2대대 및 수색중대가 배치되어 있었다。(상황도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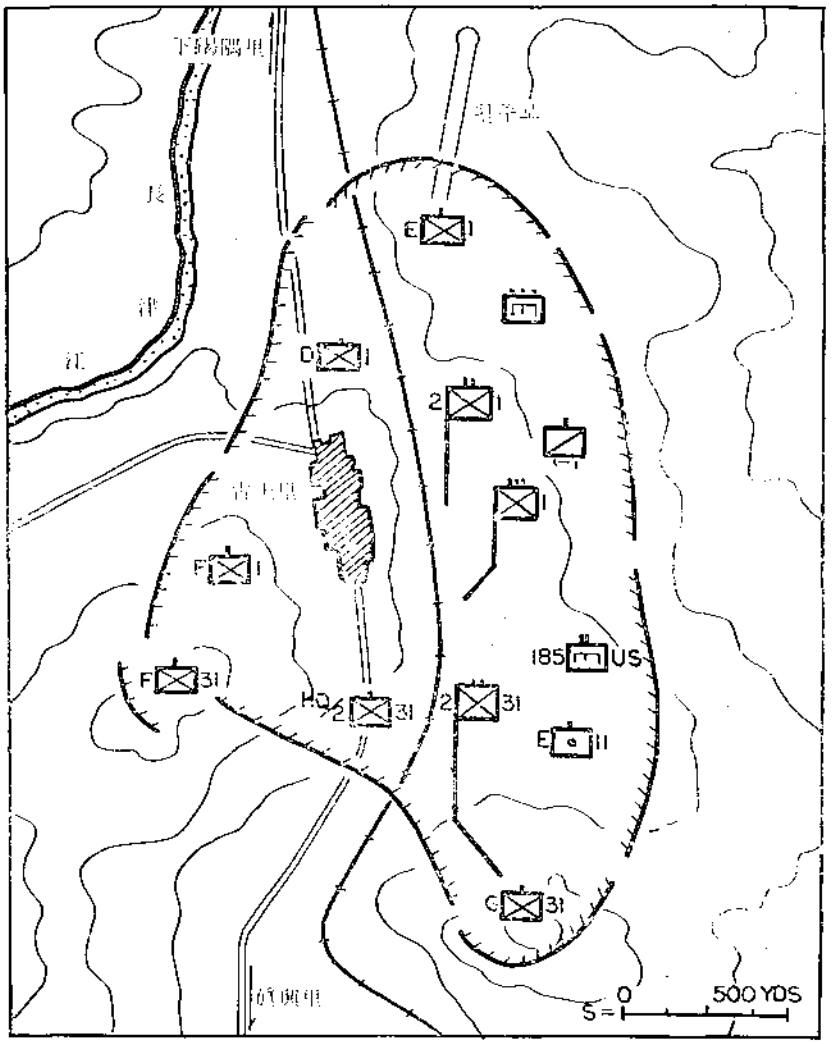
또한 이곳에는 下碣隅里로 向할 사단본부 대대의 一部와 제1연대 제3대대 G중대 및 英제41특공대가 北上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때 中共 제60사단((178, 179, 180연대)은 이미 古土里까지 南下하여 下碣隅里에 이르는 보급로를 遮斷하고 있었다。

11월 28일 : 이날 11.00에, 사단장 Smith소장은 제1연대장 Puller대령에게 一部 병력을 北上시켜서 下碣隅里의 부대와 연결하고, 보급로를 確保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리하여 13.30에 제2대대 D중대(장, Welby W. Cronk대위)는 사단본부 梯隊를 護衛하여 下碣隅里를 向하여 출발하였다。중대는 古土里 北쪽 1 mile에 이르렀을 때에 中共軍의 不時奇襲을 받고 熾烈한 交戰끝에 이를 擊退하였으나 敵은 一方的으로 계속 增強하여 중대를 包圍할 態勢를 갖추게 되니 이러한 狀況의 報告를 받은 연대장 Puller대령은 즉시 古土里로 復歸하도록 명령하여 중대는 17.35에 突破口를 해치면서 다시 原位置로 復歸하였다。이 전투에서 D중대는 전사 4명, 부상 34명의 손실을 보면서도 敵 154명을 사살하고 3명을 사로 잡았으며, 소총 130정, 기관총 25정을 노획하였다. 또한 포로의 진술에 依하여 이 敵은 中共軍 제179연대의 兵力임이 밝혀졌다。

이날 저녁, 연대장 Puller 대령은 遮斷된 보급로를 打開하기 위하여, 下碣隅里로 전진할 全부대를 強力한 機動化부대로 編成하여 다음날로 전진을 斷行키로 명령하였다. 이 機動부대의 主力은 英제41특공대와 제3대대의 G중대, 그리고 제7사단 제31연대 제1대대의

◇ 상황도 제16호 古土里 防禦配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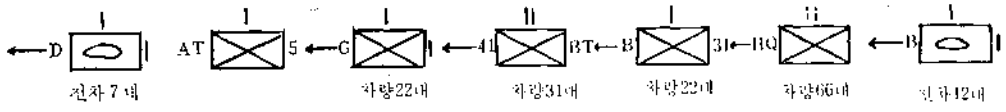
B중대와 사단본부 梯隊로써 混成한 것이고 그 總指揮는 前제41특공대장인 Drysdale중령이 직접 담당하게 되었다。

11월 29일 : 이날 古土里의 陣地에서는 17.45부터 東北쪽을 지키는 제2대대 E중대(장, Jack A. Smith대위)가 우선 中共軍의 大규모 공격을 받았으나 1시간 동안에 걸친 熾烈한 激戰끝에 敵 175명을 사살하고, 200명의 부상자를 내게 하였으며, 대대도 전사자 6명 부상자 18명의 損失을 입었다。

한편 前날 編成된 Drysdale機動부대는 이날 09.45에 下碣隅里를 向하여 전진을 개시하였으나 敵勢는 刻刻으로 增強되고 火力은 處處에 集中되어 機動力의 發揮가 容易치 않은 가운데 血路를 뚫고 躍進을 계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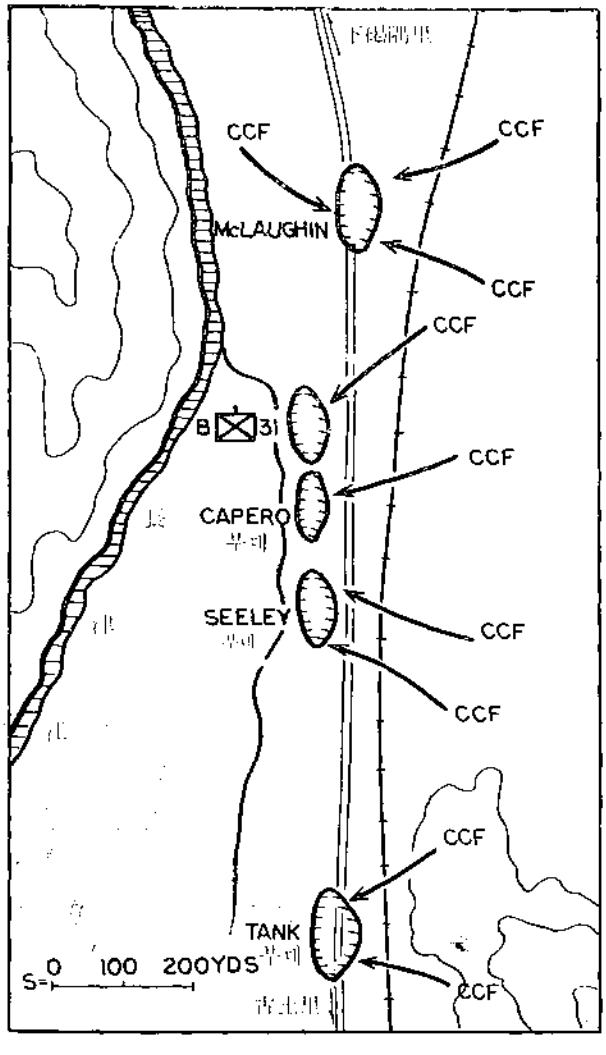
이러한 狀況을 알게된 연대장 Puller대령은 오직 萬難을 克服하고 初志를 斷行키로 決心한 결과 13.00에 이날 아침에 비로소 集結한 제1전차대대의 B, 및 D중대를 Drysdale機動부대에 急히 增派하여 戰勢의 逆轉을 圖謀키로 하였다。

이때의 Drysdale機動부대의 行平隊形과 병력 및 장비는 다음과 같았다。



총병력 : 922명, 장비 : 차량141대, 전차 29대

◇ 상황도 제17호 Drysdale 機動部隊의 戰鬪



16. 15, Drysdale機動부대는 古土里 北쪽 6km에 이르렀을 때에, 東側으로부터 步砲協同으로 敢行되는 中共 大兵團의 急襲으로 전진이 一時 中斷되는 가운데 彼我의 熾烈한 激突이 展開되었다。 날이 어둡자 機動力이 劣勢한 敵의 공격은 더욱 前熱化되어 각 행군 梯隊는 前後 서로 分離되었고 分離된 各單位隊는 다시 소규모로 分散된 채로 補給路 兩側에서 임시 방어陣을 占領하여 야간 固守態勢를 갖추게 되었다. 이 中에서도 가장 熾烈한 공격을 받고 있던 사단본부 梯隊는 McLaughlin소령의 지휘아래 제31연대 B중대의 一部와 헌병, 그리고 英해병과 사단본부要員 및 勤務부대 등 도합 130명으로 급편 방어陣地를 마련하는 즉시로 물밀듯이 몰려드는 敵을 擊退하는 데 死力을 다하고 있었다。

21. 10에 後衛梯隊인 전차대대 B중대는 敵의 包圍網을 突破하면서 다시 古土里로 復歸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사단본부 梯隊의 戰況은 더욱 危急하여 졌다. 02. 00에 이르러 McLaughlin부대는 수류탄 마저 모두 消盡하는 가운데 唯一한 지원화기 였던 75mm 및 박격포 射手는 全員전사하였다. 04. 30에 中共軍은 突擊發起線까지 包圍網을 縮縮한 다음 友軍포로를 앞세워 防禦를 삼으면서 곧 降伏할 것을 勸告하였다. McLaughlin소령은 支援부대가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의 餘裕를 얻는 동시에 보다 많은 병사의 脫出을 돕기 위하여 시간을 遲延시키면서, 陣地를 굳게 지키기로 하였는데 남은 병력은 40명에 불과하였고 그나마도 대부분이 실탄이 消盡되었으며, 그 自身도 부상을 입고 있었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다시 전투를 계속한다는 것은 곧 全滅을 意味하는 것이었으므로 McLaughlin소령은 重傷者는 後送한다는 條件으로 降伏에 同意하고 中共軍도 이를 맞아 드리므로써 이 "붉 地獄의 溪谷"(後日 Drysdale중령이 命名)전투는 끝을 맺었다。

그러나 McLaughlin소령의 企圖는 的中하여 隣接에 있던 Capraro대위(사단 政訓참교)부대와 Seeley소령(사단 수송장교)부대는 敵의 공격이 中斷된 틈을 타서 古土里로 復歸하는데 성공하였다。

한편 行軍梯隊의 前衛인 전차대대 D중대와 제1연대 제3대대 G중대 및 英제41특공대는 後衛와의 連結이 끊어진채로 苦戰을 겪으면서 계속 전진하여 下碣隅里 前方까지 진출하였다. 이 때 다시 敵의 強襲을 받고 激戰끝에 Drysdale 중령은 부상하였고, G중대장 Sitter 대위가 부대를 指揮하여 19. 15에 下碣隅里에 進入하였다。

이날밤 Drysdale機動부대의 손실은 正確히 把握할 수 없으나, 대략 다음과 같이 集計되었다。

전사 및 실종—162명, 부상—159명, 차량손실 75대.

그러나 이와같은 손실에도 不拘하고 Drysdale機動부대의 一部가 下碣隅里에 進入하는데 성공하므로써 29일~30일 밤, 中共軍의 大攻勢로부터 下碣隅里를 방어할 수 있었다。(下碣隅里부근 전투 참조)

(나) 제2段階(撤收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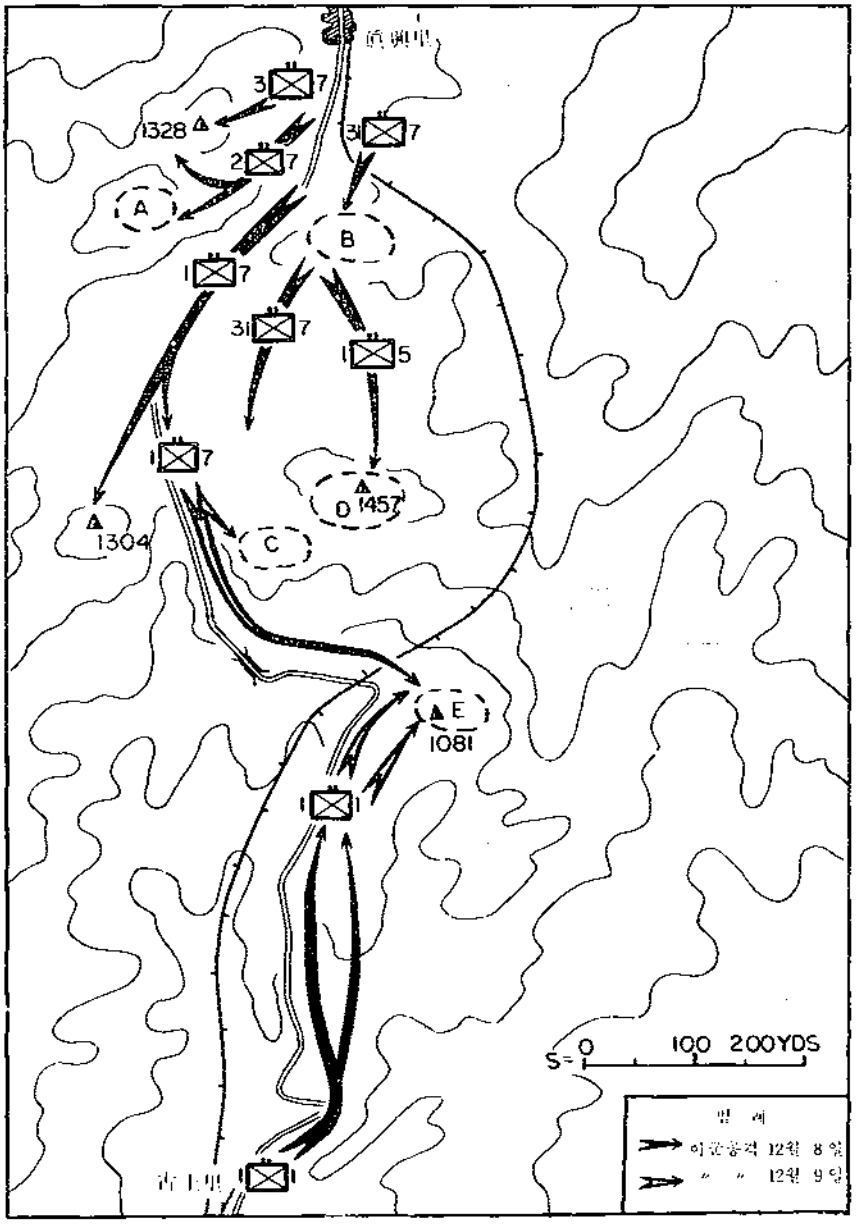
12월 7일에 사단의 主力이 下碣隅里로부터 古土里에 撤收를 完了하므로써(下碣隅里부근의 전투 참조) 古土里에는 제1연대 제1대대(眞興里에 배치)를 제외한 全사단 兵力이 集結하게 되었으며, 사단장 Smith소장은 즉시 이 地域의 突破계획에 着手하였다。

이때, 古土里의 南쪽에는 中共 제60사단이 南下하여 古土里—眞興里間의 보급로를 遮斷

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古土里부근에는 제76, 제77사단이 배치되었고, 제89사단은 古土里 西南쪽에 위치하여 보급로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런데, 古土里—眞興里間 보급로의 中間에 있는 △1,081는 이 도로上의 가장 要衝地로써 이를 事前에 確保하지 않고는 通過가 不可能하였으므로 사단장은 眞興里에 있는 제1연대 제1대대로 하여금, 北上공격하여 이를 確保키로 決心하고, 眞興里지역을 美제3사단에

◇ 상황도 제18호 古土里—眞興里 撤收戰(50. 12. 8~9)



引繼할 것을 군단장에게 建議하였다。

이때, 군단은 이미 美제3사단을 西部의 美제8군지역에 投入할 可能性에 對備하여 元山에 集結시키라는 명령을 받고 실시중에 있었다. 그러나 군단장 Almond소장은 즉시 東京에 建議하여 12월 3일 제3사단을 다시 군단에 復歸토록 하여 이 사단으로 하여금 眞興里 방어임무를 引受하고 해병사단의 撤收를 支援하도록 措置하였다. 이리하여 12월 7일, 美제3사단의 1개대대가 眞興里로 이동하여 제1연대 제1대대와 交代하므로써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

또 하나의 문제는 古土里 南쪽 3.5mile에 있는 橋梁을 復舊하는 것이었으나, 12월 7일 橋梁部分品이 古土里에 空輸되므로써 모든 준비는 끝났다。

사단장 Smith소장은 12월 7일 18.50에 다음과 같은 要旨의 작명 26—50을 하달하였다。

『① 제7연대(제31대대 배속)는 12월 8일 08.00를 期하여 南쪽으로 공격하여 목표 A, B, C를 점령하라. 제1연대가 後續한 다음, 목표를 引繼하고 咸興지역으로 계속 南進하라.

② 제5연대는 제7연대가 목표 B를 점령하는 즉시, 이를 超越하여 목표 D를 공격, 점령하라. 제1연대가 後續한 다음, 목표를 引繼하고 咸興지역으로 계속 南進하라.

③ 제1연대 제1대대는 12월 8일 08.00를 期하여 眞興里로부터 공격을 개시하여 목표 E(△1,081)를 점령하고, 사단의 主力이 通過할 때까지 이를 確保하라.

④ 제1연대(—제1대대, 제31연대 제2대대 배속)는 사단의 主力이 古土里를 떠날때까지 古土里를 確保한 다음, 목표 A, B, C, D로 진진하여 제5, 제7연대와 交代하라. 사단의 主力이 通過한 다음, 제5연대를 後續하면서 사단 後方을 掩護하라.

⑤ 사단본부 및 차량梯隊는 제5, 제7연대를 後續하여 咸興지역으로 이동하라』

12월 8일 : 제7연대(장, Litzenberg대령)는 이날 08.00에 제3대대를 右一線, 제31대대를 左一線으로 展開하여 목표 A와 B를 각각 공격하였고, 제1대대(장, Webb D. Sawyer소령)는 도로를 따라 兩側대대와 併進하면서 後續하는 차량梯隊의 通路를 開拓하였으며, 제2대대(장, Lockwood중령)는 연대의 後方을 掩護하면서 전진하였다. 이리하여 제31대대는 목표 B를 무난히 점령한 다음, 계속 南進하여 목표 D의 西側까지 전진하였으나 제3대대(장, Warren Morris소령)는 목표 A로부터 敵의 最後發惡的인 抵抗을 받고 공격이 遲延되므로써, 연대장 Litzenberg대령은 제2대대를 다시 投入 攻擊케 하여 18.00에 兩側대대는 목표 A를 점령하고 連結을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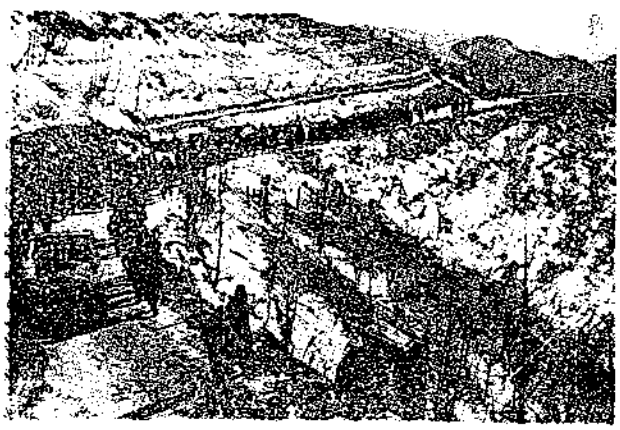
한편 제5연대(장, Murray중령)는 제7연대에 뒤이어 이날 12.00에 공격을 개시하여 제1

대대(장, Stevens중령)는 목표 D(△1,457)를 점령하여 西側의 제31대대와 連結하므로써 이날 공격은 順調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眞興里의 제1연대 제1대대(장, Schmuck중령)는 08.00에 공격을 개시하여 목표 E의 前方까지 전진하였으나 심한 눈보라로 航空지원이 中斷되었고, 또한 △1,081로부터의 熾烈한 敵의 抵抗을 받은 결과 交戰끝에 高地 中腹까지 점령하였으나 날이 어두워 야간전투에 對備하였다。

12월 9일 : 제1연대 제1대대는 이날 아침 다시 목표 E(△1,081)를 공격하였으나, 방어陣地를 固守하는 敵의 執拗한 抵抗은 계속되었다。대대는 空地協同의 熾烈한 공격을 계속하면서 몇번에 걸친 突擊戰을 敢行한 끝에 15.00에 Umbaugh하사가 指揮하는 突擊분대가 敵陣을 突破하는데 성공하므로써 대대는 이것을 分斷하여 마침내 이 高地를 掌握하게 되었다。대대는 이 전투에서 中共軍 530명을 사살하였고, 대대도 또한 112명의 사상자를 내었다。

한편 제7연대는 계속 南으로 전진하여, 제1대대는 古土里 南쪽 3.5mile에 있는 橋梁가설지역을 確保하였고, 後續한 공병대(장, Partridge중령)는 15.30에 橋梁가설을 끝냈다。이로써 사단의 차량梯隊는 이동을 개시하여 18.00부터 이 다리를 通過하기 시작하였고, 제7연대 제1대대는 02.45에 사단의 先頭부대로써 眞興里를 通過하였다。



<마지막 撤收隊列이 眞興里에 도착하고 있다>

12월 10일 : 제1연대 제1대대가 △1,081을 점령한 後, 사단의 이동은 順調롭게 진행되어 차량梯隊의 先頭는 08.30에 眞興里를 通過하였고, 사단장과 사단指揮部는 10.30에 興南으로 向하였다。

제1연대(장, Puller대령)는 이날 午後부터 古土里에서 撤收를 개시하여 散發的인 敵의 抵抗을 물리치면서 비교적 順調롭게 南進을 계속하였다。

12월 11일 : 眞興里의 南쪽지역은 美제3사단이 방어임무를 맡고 있었다。사단은 眞興里를 通過한 다음부터는 美제3사단의 掩護를 받으면서 一路 咸興으로 전진하여 이날 13.00에 마지막 後衛부대가 眞興里를 通過하였고, 21.00에 咸興지역에 모두 進入하였다。이로써 사단은 10일간에 걸쳐, 柳潭里에서 咸興까지 長長 100km에 이르는 中共軍의 重圍를

突破하는데 성공하였다。

古土里 包圍網의 突破작전 期間中 사단의 손실은 다음과 같다。

전사—75명, 실종—16명, 부상—256명

라. 전투 후의 개황

해병사단이 咸興부근으로 後退하였을 때에 이 地域 一帶는 이미 韓國해병대와 美제3사단이 確有하고 있었다. 사단은 美제10군단의 방어계획에 따라, 連浦비행장 一帶를 占領하고 정찰활동을 展開하면서 지역방어의 一翼을 담당한 다음 군단의 再配置계획에 따라 12월 14일 艦艇에 搭載를 완료하고 다음날인 15일 興南을 出航하여 釜山으로 向하였다。

해병사단의 長津湖부근 전투는 撤收戰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方向으로의 攻擊戰이었으며 이 전투의 成功은 여러 側面에서 全韓國戰線에 영향을 주었다。

敵軍의 動向：이 전투에 投入되었던 中共 제9병단은 3개軍, 12개사단으로써 그 中 7개사단이 해병사단을 包圍攻擊하였는데 이들은 莫大한 손실에도 不拘하고 해병사단을 擊破하고 咸興지역을 奪取하려는 企圖가 水泡로 돌아갔으며 더우기 酷寒과 疾病으로 因한 非戰鬪손실이 加重되므로써 제24군은 거의 90%가 凍傷에 걸렸고, 제27군의 非전투 손실만도 10,000명을 넘었다. 또한 해병사단과 接觸하지 않은 殘餘부대도 我方의 熾烈한 空中爆擊과 酷寒으로 因하여 거의 潰滅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中共 제9병단은 더 이상 軍事작전을 수행할 能力을 喪失하였고, 부대를 再編成, 補給 및 補充하는데 무려 3個月의 期間이 걸렸으며 1951년 3월 中旬에야 그 戰勢를 다시 나타낼 수 있었다。

이러한 작전의 실패原因은 中共軍의 內部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니 노획문서에서 밝혀진 바에 依하면,

첫째, 中共軍은 輸送力의 不足으로 補給支援이 圓滑치 못하였으며

둘째, 通信運用의 未備로 迅速한 부대機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세째, 그들 自身의 전술적인 缺陷을 內包하고 있었다。

中共軍이 長津湖지역에 投入된 以來 해병사단이 興南을 떠날 때까지 입은 전투손실은 대략 다음과 같이 推算되었다。

地上전투에서 : 전사—15,000~37,500명, 부상 7,500명

航空爆擊에서 : 전사—10,000명, 부상—5,000명

我軍의 動向：사단은 中共 7개사단의 重圍를 突破하고 또한 敵에게 致命的인 打擊을 주므로써 咸興지역으로 撤收하는데 成功하였을 뿐만아니라, 中共軍 제3야전군이 西部戰線의 제4야전군을 增援할 수 있는 可能性을 排除하므로써 美제8군의 危機를 緩和케 하였다。

즉, 이 전투의 全般的인 결과는 다음 4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

첫째, 해병사단은 戰術的으로 完璧한 空地協同작전을 展開하여 모든 부상자와 전투장비를 後送하는데 성공하였다。

둘째, 敵이 전투의 機先을 制하고 또한 敵에 의해 選擇된 地形과 氣候條件 아래서도 사단은 전투를 成功的으로 이끌었으며 酷寒은 사단의 작전에 큰 支障을 주었지만 敵에게는 보다 甚하고 決定的인 打擊을 주었다.

세째, 敵의 主力을 長津湖부근 戰線에 固着시키므로써 東北戰線에서 다른 부대들의 撤收를 容易케 하였다.

네째, 中共軍제9병단의 潰滅로 말미암아 美제10군단은 成興지역에서 敵의 侵攻을 받지 않고 成功的으로 撤收작전을 끝맺을 수 있었다.

또한 이 전투의 결과는 美國의 高位軍事政策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바, 當時 美國은 韓國에서 美軍의 撤收與否로 論難이 일고 있었는데, Time誌는 다음과 같이 論評하였다. 『……이 戰鬪로써 韓國戰爭은 새로운 局面에 접어들었다. 이 激戰相이 담긴 記事, 사진, 그리고 뉴스, 필림들은 美國의 政策을 결정하는데 그 어떤 "말"보다도 많이 貢獻하였다. 이제 美國은 共產侵略者를 擊滅하기 위하여 보다 좋은 場所와 機會를 찾을 때까지 美國의 戰鬪要員은 韓國에 머물러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전투기간중 사단의 綜合손실은 다음과 같았다。

전투손실—전사 463명, 後送後의 死亡者—98명, 실종 182명, 부상—2,872명

非전투손실 : 3,659명(대부분 凍傷)

4. 美 제10군단의 興南 撤收作戰(1950년 12월 14일부터 1950년 12월 24일까지)

참조 : 상 황 도 제19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美 제10군단 장 소장 Edward M. Almond
美제3사단 장 소장 Robert H. Soule
제7연대 장 대령 James O. Boswell
제15연대 장 대령 Dennis M. Moore
제65연대 장 대령 William W. Harris
美제7사단 장 소장 David G. Barr
제17연대 장 대령 Herbert B. Powell
제31연대 장 대령 Richard P. Ovenshine
제32연대 장 대령 Charles E. Beauchamp
美제1해병사단장 소장 Oliver P. Smith
제1연대 장 대령 Lewis B. Puller
제5연대 장 중령 Raymond Murray
제7연대 장 대령 Homer L. Litzanberg
지원부대(美海軍)
Task Force 90. (기동부대)
소장 J. H. Doyle
Task Group 90.2(수송전단)
대령 S. G. Kelley
Task Group 90.8(함포지원전단)
소장 R. H. Hillenkoetter
Task Group 95.2(호송및소해전단)
소장 J. M. Higgins
제7함대 사령관 중장 A. D. Struble
Task Force 77. (고속항공모함부대)
소장 E. C. Ewen
Task Group 96.8(호위항공모함전단)
소장 R. W. Ruble
Task Group 79.2(군수지원전단)
대령 B. L. Austin
병 력
地上軍 2個師團 O/T 및 E/T

敵 軍

中共 제3야전군 사령관 陳 毅
제9 집단군 사령관 宋 時 輪
제20군 장 張 賚 翔
제58사단(제172, 제173, 제174연대)
제59사단(제175, 제176, 제177연대)
제60사단(제178, 제179, 제180연대)
제26군 장 張 仁 初

제76사단(제226, 제227, 제228연대)	北共
제77사단(제229, 제230, 제131연대)	제4군단
제78사단(제232, 제233, 제234연대)	제5군단
제27군 장 彭德淸	제8군단
제79사단(제235, 제236, 제237연대)	其他 團隊號미상의 諸部隊
제80사단(제238, 제239, 제240연대)	병 력
제81사단(제241, 제242, 제243연대)	總 6~10만名

나. 전투 전의 개황

이 作戰은 美제10군단(장, Edward M. Almond소장)과 韓제1군단(장, 金白一소장)이 橋頭堡의 確保와 血戰을 併行하면서 그 一方으로는 海路를 따라 大擧 撤收한 作戰으로서 이는 흔히 말하는 第二次世界大戰初의 Dunkirk에서의 撤收와 類似한 作戰이라고 할 수 없다. 당시 彼我의 兵力比率은 5 : 1이란 懸隔한 差가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이 撤收作戰에 先行하는 海岸堡의 維持確保에 있어서 陸·海·空 三軍의 立體的인 統合의 妙를 유감없이 發揮함으로써 海上撤收라는 難關을 成功裡에 遂行할 수 있었다.

1950년 12월 1일을 期하여 東北部戰線의 韓滿國境에서 我軍이 撤退한 經緯는 이미 앞 節에서 詳述한 바 있거니와 同年 12월 10일을 前後하여 美제10군단 主力인 美 제1해병사단(장, Oliver P. Smith소장)과 美제7사단(장, David G. Barr소장)및 韓 제1군단의 主力인 首都사단(장, 宋堯讚준장)은 各己 咸興—興南 一圓으로 轉進을 完了하였는데, 이 무렵 西部戰線에서는 中共 제4야전군이 38°線 附近까지 直衝하였는데 時日의 經過에 따라 그들의 兵力規模가 더욱 增強되고 戰線이 더욱 縱深橫廣하게 되어 我軍은 全戰線上에서의 均衡을 維持하기가 매우 어려워 지고 있었다. 이렇게 되자 美제10군단은 咸興—興南 附近에서 孤立되기에 이르러 그 退路를 陸上에서 보다는 차라리 海上에서 求하게 되어 一大決斷을 必要로 하는 海上撤收를 敢行키로 되었는데 그 主要한 理由로서는 당시 中共軍이 38°線을 向하여 迂回 侵襲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元山 附近에서 그 西北部 美제8군과 連繫하려던 美제3사단(장, Robert H. Soule소장)이 咸興으로 北上한 다음이 되어 사실상 咸興—元山—東海岸—38°線을 잇는 陸路는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美제10군단 主導下의 이 作戰이 始作된 것인데 中共軍은 이 咸興一帶가 自己들의 完全包圍圈內에서 孤立 無援狀態에 빠진 것으로 判斷하고 제3야전군(장, 陳 毅) 소속인 제9집단군의 3개군단으로 이 包圍圈을 壓縮하여 殲滅코자 狂奔하게 되었는데 이는 戰理上 매우 當然한 일이 었다. 이와 同時에 我軍側은 敵中孤立으로 被包圍의 虛脫을 보임으로써 中共의 大兵團을 吸引하여 이를 抑留하고 牽制하는 效果를 거두기도 하였으니 이지역에서 15일 동안에 걸쳐 能히 支撑한 까닭으로 戰略上 敵의 兵力運用을 一地에 膠着시킨 결과를 나타내게 하여 西部戰線의 中共軍과 有機的으로 呼應하는 것을 封鎖하고 이 線을 무난에 掌握하는데 蹉跌을 빚게 하였다. 만약 東北部戰線에서 中共 제9집단군이 西部戰線에서와 같이 38°線으로 一路殺

到하게 되었다면 당시의 情勢는 더욱 混迷하게 되었을 것이다。

敵軍의 狀況 : 中共軍의 所謂 「제2차 공격」은 1950년 11월 25일부터 同年 12월 24일까지 38개월간에 걸쳐 敢行되었는데 이 期間에 그들은 38°線 以北 全地域을 점령하고 興南橋頭堡를 奪取하는 것이 그 主目標였다. 이 당시 敵은 中共과 北共의 聯合戰線을 形成하였는데, 咸興附近에서는 中共軍이 主軸이 되어 長津湖를 經由하여 咸興으로 侵攻을 企圖하였고 北共은 淸津—惠山鎭 方面에서 興南附近으로 一路南下하여 中共과 서로 合流하려고 하였는데 大體로 12월 11일에서 13일 까지의 사이에 咸興—興南 外郭 10乃至 30km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長津湖 方面의 中共軍은 제3야전군 소속 제9집단군 예하 제20군(장, 張賢紹의 제28, 제29, 제60의 3個 사단과 제26군(장, 張仁初)의 제76, 제77, 제78의 3個 사단 그리고 제27군(장, 彭德淸)의 제79 제80, 제81의 3個사단등 도합 9個師團으로서 이 들은 當初에 長津湖 西端에 있는 柳潭里까지 進擊하였던 美제1해병사단(장, Smith소장)을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長津湖—眞興里를 連하는 狹谷에서 四面으로 包圍攻擊하다가 끝내 失敗하여 많은 兵力損失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美제1해병사단 長津湖附近戰鬪 참조) 咸興 攻擊에 있어서 계속 主攻正面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렇게 咸興—興南附近의 攻擊을 激化시키려 하였던 意圖는 東北部戰線의 我軍의 全部隊가 이곳에 轉進한 것을 完全한 被包圍로 看做하고 이 好機를 勿失할 것이라고 判斷한 결과 全兵力으로 同時에 急襲을 強行하면 能히 捕捉殲滅할 수 있고 早期決勝의 단맛을 보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리다. 이 興南橋頭堡의 一線에 직접 投入한 敵兵力은 5개사단 규모였고 그 나머지는 人海戰術의 後續梯波로 推算되었다. 그들의 戰法은 大海의 巨浪이라도 能히 삼키는 攻擊의 反復이었으며 裝備는 蘇聯製를 中心으로 所持하고 있었다. 또한 그들의 士氣는 長津湖—眞興里 戰鬪에서 많은 死傷者및 凍傷者를 낸것과 아울러 酷寒으로 非戰鬪損失이 急增하여 그것이 全體의 1/4에 達할 정도였으니 그다지 좋은 편은 못되었지만 東海를 背後로 孤立狀態에서 包圍에 빠진 UN軍을 殲殺하려는데 血眼이 되어 最後까지 發惡하였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본시 士氣의 高下如何는 介意치 않고 無慈悲한 殺戮戰만을 強要하였기 때문에 一路功成에 萬骨枯를 사양할 까닭이 없다。

한편 北共은 淸津과 惠山鎭方面에서 南下하여 東北沿岸을 南北走하는 山脈을 따라 장차 興南橋頭堡攻擊에 있어 中共과 協合하여 漁夫之利를 貪하려고 하였을 것이다. 즉 北共 제4군단의 主力은 海岸線의 羊腸險路를 따라 吉州—城津—端川—利原을 경유하여 12월 13일에는 大體로 北靑—洪原線에 進出하였는데 이들은 美海軍의 艦砲사격으로 良道를 버리고 追擊하려는 制約을 받았을 뿐 아니라 機動力이 卓越한 我軍을 敢히 追跡할 도리가 없었다.

또한 北共 제5군단의 主力도 惠山鎭 方面에서 合水—吉州—海岸線과 豊山—北靑의 內陸道路에 沿하여 東陸進한 다음 北靑—洪原線에서 그들의 제4군단과 合流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 豫備兵團으로써 會寧에서 제8군단을 新編한 다음 後續하여 증원할 것으로 보였다. 그들의 장비는 아미 많은 損壞와 遺棄로써 個人火器 以上의 것을 補充하지 못한 탓으로 中共軍에 比하여 低劣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士氣는 그들의 總退却때 보다 나은 편이었으나 補給등이 不良하여 결과적으로 興南교두보 공격에 있어 助攻 역할 정도로 끝이고 있었다。

이 興南橋頭堡를 공격하기 위한 敵의 總兵力은 中共軍이 60,000명 以上이고 北共이 30,000명으로

都合 90,000명 以上으로 推算되고 我軍의 地上兵力이 最大로 30,000명이었으므로 약 3倍強의 比率이었다.

我軍의 狀況 : 美第10군단과 韓제1군단이 最終進擊線인 淸津—惠山鎭—長津湖 線에서 咸興—興南附近으로의 轉進을 完了한 것은 12월 10일 前後였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치열한 激戰을 展開한 것은 前述한 바와 같이 美제1해병사단이 敢行한 長津湖—古興里부근의 突破戰이었다. 美제10군단 撤收의 直接的인 계기가 바로 이 長津湖地區에서 惹起된 中共 제9집단군의 포위공격 때문이었던 바 그 포위망을 突破한 美제1해병사단이 12월 11일에 咸興—興南間에 접결을 完了함으로써 이제 本格的으로 興南橋頭堡가 構築되기에 이르렀다.

Almond소장은 當初 中共의 大擧侵略에도 불구하고 東北部戰線에서 韓滿國境線을 빨리 점령 장악하려고 決意하였으나 戰況의 急轉惡化로 말미암아 興南으로의 轉進과 이곳에서 敵을 邀擊하면서 海上撤收를 決行키로 하였다. 이와같이 12월 1일부터 11일까지 各 兵團이 興南附近으로의 轉進을 完了하게 되었는데 首都사단(장, 宋堯讚준장)은 淸津에서 城津—北靑—興南으로 撤收하였다. 한편 제3사단(장, 崔錫준장)은 合水에서 城津까지 各各 撤收한 다음 그곳에서 船舶便으로 興南으로 航進하였다가 上陸하지 않고 釜山으로 回航하였는데 이 제3사단은 興南港에서 橋頭堡에 參戰하지 않은채로 제일 먼저 海上撤收를 한 部隊가 되었다. 한편 美제1해병사단(장, Oliver P. Smith소장)은 柳潭里—古土里—眞興里를 경유하여 咸興으로 철수하고 美제7사단(장, David G. Barr소장)은 惠山鎭—新坮波鎭에서 豐山—北靑경유 咸興으로 轉進하였으며 美제3사단(장, Robert H. Soule소장)은 元山附近에서 咸興으로 北上하여 美제1해병사단의 철수를 엄호하는 한편 咸興北方에서 收容陣地를 점령하고 있었다.

이와같이 地上兵團이 咸興附近으로 轉進을 하고 있을 무렵 美 海軍의 支援部隊가 그 主力으로써 이곳 興南 近海로 집결하고 있었는데 본시 韓國水域에서 작전을 펴고 있던 美海軍 機動艦隊(Task Force 90)와 이를 다시 증원하려는 美제7함대가 이곳 東韓灣으로 航進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高速航空母艦(Task Force 77)등 다음 編成表와 같은 航空母艦이 있어 이미 活動하고 있던 元浦飛行場으로 美 空軍과 戰術航空統制單艦艦(Task Element 90.01 艦)를 더욱 증원하게 되었다. 그리고 艦砲支援軍艦 外에 輸送戰團이 海上철수를 위하여 興南外港으로 進入하였는데 이 당시의 美海軍의 興南機動艦隊編成은 다음과 같다.

興南機動艦隊編成表

Task Force 90 (機動艦隊)	艦長 소장	J. H. Doyle
Task Element 90.00(旗艦)	대령	C. A. Printup
AGC 1隻		
Task Element 90.01(戰術航空統制艦)	중령	R. W. Arndt
Tacron 1隻		
Task Element 90.02(補修 및 救助艦)	중령	L. C. Conwell
ARG 1, ARL 1, ARS 2, ATF 1隻		
Task Element 90.03(統制艦)	소령	C. F. Allmon

APD 2, PCEC 1隻

Task Group 90.2(輸送戰隊) 대령 S.G. Kelly

Task Element 90.21(輸送單隊) 대령 A.E. Jarrell

APA 3, AKA 3, APD 2, PCEC 1, LSD 3, LST 11, Scajap LST 27,

기타 MSTS 소속함선

Task Group 90.8(艦砲支援戰隊) 소장 R.H. Hillenkoetter

重巡洋艦 1隻, 驅逐艦 4, LSMR 3, 機動戰隊 95.2에서 배속된 重巡洋艦 1, 驅逐艦 1隻

Task Group 95.2(遮斷, 護衛 및 掃海戰隊) 소장 J.M. Higgins

重巡洋艦 1, 驅逐艦 4, PF 6, 機動戰隊 95.6에서 배속된 DMS, AM, AMS 各 1隻

第7艦隊 사령관 중장 A.D. Struble

Task Force 77 (高速航空母艦部隊) 소장 E.C. Ewen

Task Group 77.1(支援戰隊) 대령 I.T. Duke

戰艦 1, 輕巡洋艦 1, 對空輕巡洋艦 1隻

Task Group 77.2(護衛戰隊) 대령 J.R. Clark

驅逐艦 17~22隻

Task Group 77.3(航空母艦戰隊) 소장 E.C. Ewen

航空母艦 3~4隻

Task Group 96.8(護衛航空母艦戰隊) 소장 R.W. Ruble

護衛航空母艦 1~2, 輕航空母艦 1, 驅逐艦 3~8隻

Task Group 79.2(軍需支援團) 대령 B.L. Austin

以上과 같은 美海軍艦隊外에도 韓國 海軍艦艇과 興南 沿海의 大小 漁船까지 動員되어 이 作戰의 一翼을 擔當하고 主로 避難民의 輸送으로 바다의 天使와 東海의 十字軍役을 完遂케로 하였다.

한편 12월 10일부터 興南의 橋頭堡가 構築될 무렵 Almond소장과 金白一소장의 有機的인 協調體制가 充分히 이루어 졌으며 地上軍兵團과 海上艦隊 사이의 協同連絡體制도 잘 維持되고 있었다. 特히 韓 제1군단의 首都사단은 12월 7일에 退潮一興南 東北外廓이 西湖津線으로 轉進을 完了하는 즉시로 退潮一雲住峰(△618)線에 遮斷陣地를 점령하고 이 線을 橋頭堡의 前哨線(Out Post Line)으로써 強化하고 있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美 제1해병사단을 除外한 韓美의 全地上 兵力이 咸興一興南附近에 轉進을 完了할 즈음인 12월 9일에, MacArthur元帥는 Almond소장에게 興南撤收에 關한 要旨 다음과 같은

命令을 下達하였다。

『美 제10군단은 興南에서 釜山과 馬山 및 蔚山으로 海上撤收하여 部隊를 集結시키고 美 제8군사령관 指揮下에 들어가라。』

이와같은 命令을 받은 Almond소장은 그간 綜合指揮하였던 韓 제1군단을 東海岸 三陟附近으로 上陸시킬 計劃을 세우고 그 以後는 韓 陸軍總參謀長 指揮下에 들게 하였다.

그런데 Almond소장은 興南撤收에 臨한 地上兵團의 總指揮官으로서 綜合的인 作戰計劃을 樹立하여야만 되었다. 즉 橋頭堡 構築과 撤收順位 및 方法, 그리고 海軍 및 空軍支援部隊의 效果的인 協同作戰 等으로 이미 事前에 協助되고 各自의 所任을 實踐한 것도 있지만 이로부터 樹立確定할 計劃도 많이 남았으니 그 作戰腹案의 大要는 다음과 같다.

『① 咸興—興南을 連하는 有利한 地勢를 이용하여 橋頭堡를 確保하는 同時에 海上撤收作戰을 完了한다。

② 橋頭堡는 前哨線(OPLR I)과 제1主抵抗線(MLR I) 및 제2 主抵抗線(MLR II), 그리고 최후방어선인 제3 주저항선(MLR III)을 逐次的으로 構成하여 邀擊態勢를 갖춘다.

③ 海上撤收方法은 興南港에서 師團別로 撤收토록 하되 그 順位는 美제1海兵師團—韓首都사단—美 제7사단—美 제3사단 順으로 한다。

④ 橋頭堡를 逐次로 壓縮編成함에 따라 陸正面에 있어서의 最終防禦線은 美 제3사단이 직접 담당하고 同 사단의 乘船준비 이후는 美 海軍이 艦砲射擊으로써 掩護한다。

⑤ 乘船에 있어서는 兵力을 優先 取扱토록 하고, 裝備를 그 다음에 搭載하는 동시에 避難民은 可能한 限度內에서 收容한다。

⑥ 艦砲 및 航空支援計劃은 軍團火力支援協同本部와의 協調아래 效果的으로 실시하고 興南港의 東北과 西南의 兩面에서 各各 10mile 擴張된 掃海作業이 完了된 海正面에서 再調整한다。』

이와같은 大要의 作戰構想은 12월 11일 東京에서 連浦飛行場으로 來着한 MacArthur 元帥에 의하여 승인되었고 이어 12월 27일附로 美 제10군단은 제8군사령관 指揮下에 들도록 變更되었다。

그런데 美 海軍에서는 이미 12월 8일에 Mount Mckinly艦上에서 興南撤收에 對備하는 作戰會議를 開催하였는데, 제7함대사령관인 Strubl중장과 極東艦隊사령관인 Joy중장 및 太平洋艦隊海兵隊사령관인 Shepherd중장, 그리고 제90機動함대 사령관인 Doyle소장과 제5

遠洋艦隊사령관인 Higgins소장등이 參席하여 MacArthur元帥의 撤收腹案에 따르는 구체적인 作戰計劃을 檢討 樹立하였다. 이 會議에서 興南撤收에 直接的으로 支援하게 될 제90機動艦隊(Task Force 90)에 부여한 任務는 다음과 같다。

『① 指示된 바와 같이 韓國에 있는 UN軍의 再配置 작전을 위하여 海上輸送을 제공한다。

② 指定된 搭載地域에서의 모든 航空 및 艦砲 支援을 統制하라.

③ 搭載港으로부터 揚陸港에 이르는 海上移動을 防禦하라.

④ 釜山을 包含한 東海岸 友軍部隊에 대한 艦砲支援과 海上遮斷 임무를 遂行하다.

⑤ 韓國軍과 UN軍을 包含하여, 소규모 철수작전을 실시할 준비를 갖추라.

⑥ 美 제10군단장 및 다른 관계부대장들과의 철수 작전을 協助하라.

⑦ 興南 및 其他, 指定된 搭載港에서 실시되는 再配置作戰을 支援 및 掩護하라。』

(2) 작전실시

12월 14일 : 美 제10군단장 Almond소장은 이날부터 興南橋頭堡의 占領을 本格的으로 強化키로 하였는데 主抵抗線에 앞서 前哨線(Out Post Line of Resistance I)을 우선 堅固히 構築하여 中共 제9집단군(사령관 宋時輪)의 強襲을 遠距離에서 擊滅하기 위한 遊擊態勢를 갖추었다. 이 前哨線은 興南을 中心으로 半徑 10km의 外廓線上에 있는 楕圓形의 堡壘로서 構成되고 東으로부터 退潮—咸興—東川里를 連하는 線으로서 退潮—雰住峰間에는 이미 韓 首都사단 제1연대(장, 韓 信대령)과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대령)에 의하여 遮斷陣地가 占領되어 있었다。그 西쪽으로 이어진 橋頭堡는 美 제3사단(장, Soule소장)이 專擔하면서 美 제7사단(장, Barr소장)이 支援하고 있었다. 이와같이 橋頭堡의 前哨線을 強化하고 있을 때에 陳毅와 宋時輪이 거느리는 中共제3야전군 제9집단군 소속 제20, 제27의 兩군 예하 5개 사단규모의 병력이 咸興 北쪽에서 集中的으로 同時에 攻擊을 시작하였다。앞에서는 波狀的 人海戰法으로 無慈悲하게 殺戮되는 것을 避하지 않았고 뒤에서는 重輕砲와 迫擊砲의 火力으로써 督戰을 兼하고 있었다. 그러나 友軍 前哨線에서는 이와같은 敵攻勢의 初動을 一次的으로 艦砲 射擊 및 航空爆擊으로 強打하면서 地上部隊의 銃砲火力을 集中하여 그들의 侵襲을 물리치고 말았다。

한편 美 제1해병사단(장, Smith소장)은 長津湖—眞興里間에서 中共의 重圍에 대한 突破作戰을 끝낸 다음 12월 11일부터는 興南에서 部隊를 整備하고 있다가 撤收順位에 따라 이날 乘船을 完了하고 海上에서 出港을 待機하고 있었다。이에 앞서 韓제3사단(장, 崔錫

준장)은 12월 10일에 興南에서 上陸하지 않고 그대로 釜山을 向하여 回港한바 있거니와 이날 현재 釜山 및 九龍浦에서 部隊 整備를 거의 完了하고 일부는 새로운 擔當陣地인 洪川을 向하여 北上中에 있었다. 따라서 興南港에서 가장 먼저 海上機動을 完了한 부대는 韓國軍 제3사단이 되었다。

12월 15일 : 전날까지 乘船을 完了한 美제1해병사단은 이날 拂曉에 Kelly대령이 지휘하는 輸送戰團(Task Group 90.2)으로 出港하였는데 同 사단이 分乘한 艦艇은 APA 1, AKA 1, AP 3 LST 13, LSD 3과 7隻의 用役商船으로 도합 28隻이었다. 이 輸送船團은 날이 밝기 전까지 모두 興南港을 떠났으며 未明과 同時에 陸上 橋頭堡에서는 中共의 波狀攻擊에 對備하여 더욱 陣地를 強化하고 있었다. 美 제3사단(장, Soule소장)은 특히 咸興 北쪽을 重點的으로 強化하였는데 이는 咸興 西南쪽 平野地帶보다도 이 方面이 山岳의 連綴로 敵의 接近에 有利하기 때문이다。



<LCVP로 母艦으로 向하는 장병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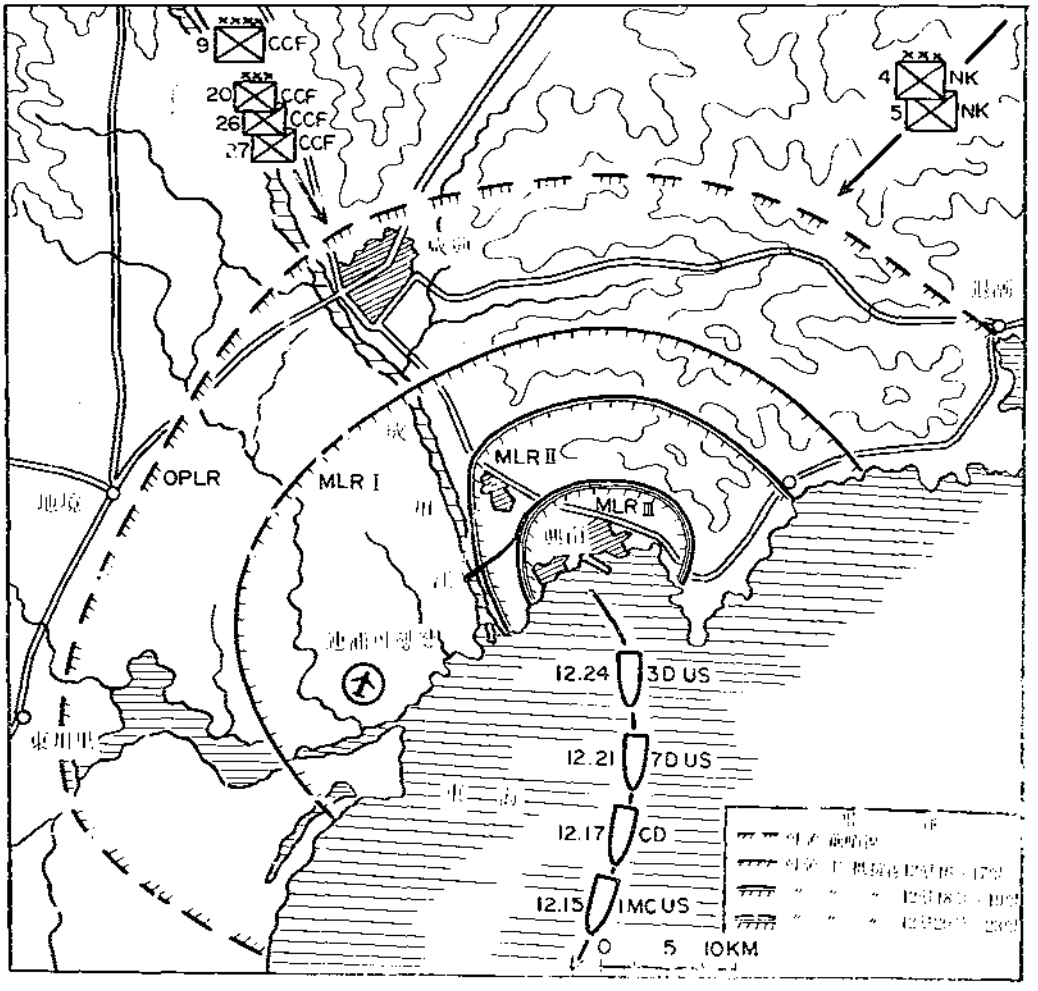
한편 中共 제9집단군(장, 宋時輪)의 主力은 전날 強襲에서 이미 많은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또 다시 攻勢를 試圖하였으나, 이와 때를 같이하여 興南 兩便 10mile씩 擴張된 海峽에서 機動艦隊(Task Force 90, 艦長 Doyle소장) 소속 Hillenkoetter소장이 지휘하는 艦砲支援戰團(Task Group 90.8)의 艦砲射擊과 美제7함대(사령관, Struble중장) 소속 高速航空母艦의 計劃된 火集點 砲擊으로 敵의 接近路를 遮斷하는 동시에 그들의 梯波깊이 鐵火를 퍼부었다。이러한 艦砲射擊과 併行하여 地上部隊에서는 手砲의 火力을 同時에 集中하여 敵의 銳鋒을 꺾음으로써 그들이 咸興을 奪取하려는 企圖를 一蹴하고 말았다。이 무렵 美 海軍의 艦載機들은 空中爆擊과 對地攻擊을 계속하였고 暮夜以後부터는 艦砲支援戰團 소속인 Saint Paul號에서 8″ 砲로 橋頭堡 前方 깊숙한 地域까지 誘導支援砲

擊을 加하였는데 그 轟音은 咸興平野를 흔들고 그 鐵片은 中共의 波狀隊列을 擊碎하였다。

한편 이날 美 Truman大統領은 韓半島에서 中共軍의 侵略規模가 擴大됨에 따라 美軍의 增強이 倍加 要請되자, 國家非常事態와 動員令을 宣布한 바 있었다。

12월 16일 : 咸興 北쪽에서의 中共의 強襲企圖는 끊길줄을 모르는듯 하여 이날도 波狀殺戮劇이 再演되었는데 그동안 이미 많은 兵力의 損失을 입게 된 탓인지 이번에는 北共을 先遣 第1線으로 몰아 세워 聯合戰線을 펴면서 서로 屠戮되기를 다투었으므로 따라서 이날은 前日에 比하여 가장 치열한 地上血戰이 展開되었다. 이는 그들의 一次的 目標인 咸興 北쪽에 있는 橋頭堡의 前哨堡를 奪取하기 위한 必要不可避한 一戰이었다。

상황도 제19호 美제10군단의 興南撤收作戰.(50. 12. 14~24)



이와같은 中共의 集中攻擊에 대하여 美 제3사단이 決勝아닌 決勝과 牽制아닌 牽制로써 血鬪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 艦砲射擊은 이를 支援하기 위하여 이곳으로 集中發揮되어 치열한 火力이 驚天動地를 계속하였다. 地上에서는 美 제3사단이 遊擊 遲延戰을 海上에서는 艦砲支援戰艦의 艦砲射擊을, 空中에서는 美 海軍 艦載機가 航空爆擊을 立體的으로 實施하여 中共軍의 集中波狀攻擊을 無爲로 만들어 버렸다.

特히 이날의 海上艦砲支援은 Hillenkoetter소장이 지휘하는 Task Group 90.8의 旗艦인 Saint Paul號를 비롯한 驅逐艦들과 Higgins소장이 지휘하는 Task Group 90.2의 旗艦인 Rochester를 爲始한 驅逐艦들이 艦砲支援射擊에 參加하였고 巡洋艦및 Rocket艦등 10餘隻도 合同하여 支援砲擊의 火門을 같이 열었다.

이렇게 咸興北쪽과 그 一圓에 대한 壯烈한 火力戰이 展開되고 있을 때 美 제10군단 장 Almond소장은 그 前方指揮所를 咸興에서 興南으로 옮기고 中共을 이제 露天野地로 끌어내어 擊滅하고자 橋頭堡를 咸興南쪽 主抵抗線(MLR I Main Line of Resistance I)으로 縮小強化키로 決心하고 兵團의 轉進을 命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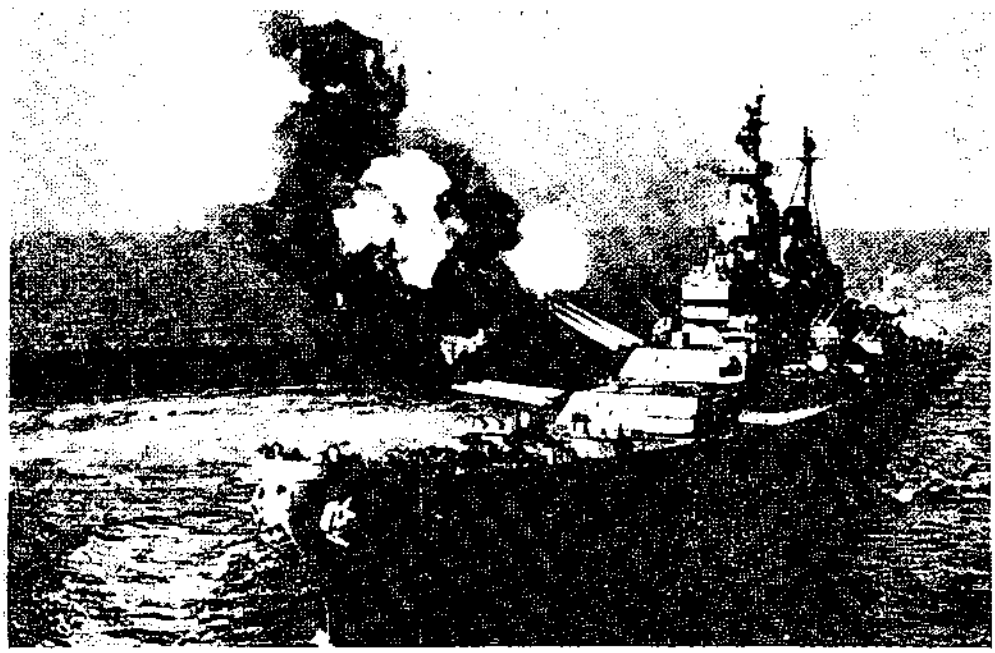
한편 首都사단은 興南의 東北外廓인 新興里 一帶에 固守陣地를 占領하여 北共主力을 牽制하고 있었던 바 이 附近에서는 그들이 敢히 挑接戰하지 못하였는데 그것은 海上 艦砲射擊으로 敵의 機動이 크게 制約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聲威에 미리부터 怯내고 萎縮된 까닭으로 推斷되었다. 同 사단은 이와같은 形勢를 살피고 이미 下達된 撤收順位에 따라서 新興里—新上里線의 제1연대(장, 韓 信대령)와, 柳亭洞 附近의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대령) 및 麻田里 一帶의 제25연대(장, 徐正哲중령)의 順으로 검차 部隊를 機動케 하여 興南港으로 集結토록 하였는데 이날 밤까지 全兵力이 집결을 完了하여 乘船을 시작하고 子正까지에는 出港 準備를 모두 마친 다음 海上에서 整然히 待機하고 있었으니 攻에 強한 者가 굳경 防守에도 能하다는 實證을 보여 주었다.

이렇게 海上撤收作戰이 計劃대로 進行되고 있는 동안 機動艦隊의 Doyle소장과 그 참모들은 이미 構想된 東海岸의 小規模 上陸作戰을 敢行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入手된 情報의 檢討와 寫眞偵察의 判讀결과로 38°線 南쪽 60km지점인 墨湖에 首都사단을 上陸시키기로 決定하고 Almond소장 및 金白一소장과의 구체적인 協議를 거친 다음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다.

이 무렵에 東海岸 太白山—五臺山—雪岳山을 이은 山岳地帶에는 北共의 敗殘合流兵으로 急編된 『제2전선』의 유격대가 出沒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장차 그들 正規軍의 南下에 앞

서서 據點을 確保하고 合流를 容易케 하려는 것으로 判斷되었는데 이러한 敵의 企圖를 事前에 壓破하기 위한 措置로서 東海岸의 上陸作戰이 計劃된 것이다。

12월 17일 : 이날 拂曉에 首都사단은 主力으로서 輸送戰隊 소속인 Task Element 90.21 (艦長, A.E. Jarrell 대령)의 APA및 LST등에 搭乘하여 聖湖를 向해 出港하였는데 韓제3사단은 12월 10일에 美 제1해병사단은 12월 15일에 出港하므로써 도합 3개사단이 興南撤收를 完了하게 되었다. 그 나머지의 美 제3, 제7의 兩師團이 興南橋頭堡 作戰에 參加하였으나 首都사단이 出港한 다음부터는 美 제7사단도 점차 乘船準備를 갖추고 있었다。



<Missouri號의 艦砲射擊>

이와같이 興南港에서는 乘船出港이 連日 晝夜로 계속되는 가운데 地上戰은 더욱 熾烈化되어 橋頭堡의 確保와 함께 艦砲支援射擊을 계속하고 있었다. 橋頭堡는 이날 主抵抗線으로 壓縮하여 編成되었는데 이는 東으로부터 麻田里—咸興 南쪽3km—連浦飛行場을 連하는 線으로 美 제3사단(장, Soule소장)과 美 제7사단(Barr소장)의 一部가 그 固守를 專擔하고 있었다. 따라서 主抵抗線의 陣地占領은 前述한 바와 같이 順次的인 撤收로 因한 橋頭堡縮少의 一環이었으며 同時에 敵을 有利한 地帶로 誘引하여 集中火力으로서 各個 擊滅하기 위한 作戰計劃의 一部를 기도하였다。

특히 이날은 惡天候의 影響으로 高速航空母艦(Task Force 77 함장 E.C. Ewen소장)에

서는 거의 出擊을 하지 못하는 狀態였으며 또한 零下의 酷寒에 時速 40knots의 強한 西北風으로 海上 및 空中作戰을 困難케 하고 있었다. 이러한 強風 때문에 LCM 4隻이 漂流되어 掃海되지 않은 機雷水域으로 들어가 爆發되는 事件이 일어나고 17.00부터 24.00까지에는 모든 小艦艇의 運航을 中止하게 되었다. 그러나 Rochester號를 비롯한 大型艦隊는 氣象條件에 관계없이 이날도 晝夜間에 걸쳐 8" 艦砲 射擊을 계속하였으며 地上 橋頭堡에서 要請하는 대로 集中射擊으로 支援하였고 事前에 준비계획된 攪亂射擊과 照明射擊의 反復으로 敵의 교두보 접근을 寸地도 許容하지 않았다. 이 무렵 釜山港을 中心으로 하여 蔚山과 馬山港에서는 海上轉進을 完了한 部隊들의 揚陸作業이 계속되었고 특히 釜山港에서는 荷役施設의 完備로 美 제1해병사단을 上陸시킨 LST함정들이 適時에 揚陸作業을 完了하자 곧 興南으로 回航할 수 있었다。

한편 興南埠頭에 雲集한 避難民들은 共産治下로 부터 脫出하기 위한 苦難도 甘受하면서 12월 10일 以後부터 더욱 殺到하기 시작하였는데 韓美兩指揮部의 가능한 한 最大의 輸送計劃에 따라 모든 方法을 講究하고 있었다. 이것은 LST 1隻당 적어도 5,000名을, 그리고 貨物船 1隻에 12,000名을 넘도록 승선시킨 것으로도 能히 짐작할 수 있으니 自由를 渴求하는 避難民들의 生死를 건 活路에의 脫出결과 라고도 할 수 있었다. 이들 避難民들은 安全地帶인 巨濟島등 釜山附近과 멀리 濟州島에까지 一路直送되었다。

12월 18일 : 連浦에 있는 美海兵의 空軍基地가 전날에 閉鎖됨과 아울러 이날에는 興南橋頭堡가 麻田里—朱興里 北쪽—호상里—城川江下流東側의 堤防을 連하는 線(MLR. II)으로 變更縮少되어 美제3사단(장, Soule소장)이 最終 堅守任務를 담당하였다. 이는 美 제7사단이 이날부터 興南埠頭에서 乘船을 시작하였고 이에 앞서 韓 제1군단 잔류부대가 이미 興南을 떠났기 때문이다。

한편 連浦飛行場을 폐쇄하는 동시에 그 基地를 日本 Osaka北쪽 Itami空軍基地로 옮긴것과 때를 같이하여 機動艦隊(CTF 90: Task Force 90.)가 興南으로 부터 半徑 약 52.5km 以內地域에 對한 空中偵察을 實施하였고 이와 아울러 興南港 兩海峽에서는 艦砲支援戰團의 艦砲射擊이 계속되었으며 그 사이에 釜山에서 回航한 輸送戰團이 興南港에 到着하여 兵員을 搭乘시키고 裝備를 積載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中共의 強襲은 전날의 小康상태에 比하여 다시 그 慘烈性을 加하므로써 一波又一波의 狂瀾으로 부닥쳤는데 艦砲와 地上砲大量으로 一時에 集中火力을 發揮하여 敵의 主力이 潰滅되기에 이르렀고 北共 2개사단 규모의 兵力을 最先鋒으로 앞세우고 中



<LST上으로 押送된 中共軍 포로>

其은 뒤에서 督戰하면서 橋頭堡 正面을 끝내 突破하였다. 그러나 이날도 有機的인 艦砲射擊과 空中爆擊이 敵主力의 兵員과 裝備를 粉碎하고 그 接近路를 遮斷하였으며 防守陣地에서의 統砲火力은 그 突擊을 制壓하여 進退維谷으로 몰아 넣으므로써 中共軍은 晝間攻擊을 포기하고 夜間迂回攻擊만을 企圖하였으나 그것도 결국 火網앞에 無爲로 그쳤다。이와 아울러 延伸된 火砲는 敵의 後方 깊숙히 補給路를 遮斷하고 더구나 咸興 西北쪽에 있는 敵의 彈藥庫를 격파하므로써 焰煙이 하늘을 덮고 그들의 보급源을 完全히 烏有化하고 말았다。

한편 이날 15.00에 首都사단(장, 宋堯讚준장)은 美 海軍 驅逐艦의 護衛를 받으면서 接敵없이 墨湖에 上陸하여 그 附近에서 人員과 裝備점검을 실시한 다음 장차 38°線 附近에서 遮斷陣地를 占領하기 위하여 襄陽까지 北上機動 할 準備를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韓 제1군단 사령부는 興南에서 海上으로 轉進하여 蔚珍에 그 指揮所를 開設하고 군단 장 金白一소장은 東海岸 戰線을 專擔할 모든 對策을 檢討하고 있었다.

12월 19일 : 宋時輪이 이끄는 中共 제9집단군 예하 제20, 제26, 제27의 3個군과 北共 제4, 제5의 2個군단은 興南橋頭堡를 突破分斷코자 死力을 다 하였으나 當初에 興南을 早速히 攻略한다는 그들 本來의 企圖가 시간이 갈수록 어렵게 되고 이와 反面에 美제10군단은 計劃대로 各 兵團을 海正面에서 機動케 되자 中共軍은 이제 焦燥하게 된 나머지 艦砲射擊의 餘物로 막대한 損失을 받음에도 不拘하고 다시 後續增援軍과 合勢하여 總攻勢를 사양치 않았으니 거의 狂的 發惡에 가까웠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그들의 攻擊은 熾烈하기 無雙하였고 晝戰에 또 晝戰을 加하여 橋頭堡正面을 目標로 殺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中共 및 北共의 聯合 強襲도 사전에 構成된 友軍의 火網에 의하여 철저하게 封壓되고 나아가서 그들의 後退路까지 彈雨로 遮斷됨으로써 별 수 없이 進退幽谷에 陷入되고 말았다. 이와같은 作戰은 友軍의 陸, 海, 空 三位一體인 協同作戰이 奏效하였기 때문이며 特히 美海軍의 艦砲射擊은 이들의 銳鋒을 결정적으로 꺾고 있었다. 이러한 協同作戰에 당황한 中共軍은 橋頭堡 突破를 斷念한듯 兵力을 再整備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이때를 이용한 美제3사단(장, Soule소장) 主力은 橋頭堡를 더욱 强化하고 있었다。

한편 美 제7사단(장, Barr소장)은 이날부터 乘船準備를 爲한 逐次的인 部隊移動을 始



<LST에 乘船하는 避難民>

作하였다。

12월 20일 : 美 제7사단(장, Barr소장)의 全兵力은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興南埠頭에 集結하는 대로 搭乘 및 搭載를 完了하고 出港을 待機하였다. 이렇게 豫定된 計劃대로 사단의 作戰이 遂行되자 Almond소장은 揮下 參謀들과 함께 Mount Mckinley號에 乘船하여 CTF 90과 合勢하였으며 따라서 同 군단지휘소는 海上艦隊로 이동되었는데 이 때에 興南防禦任務는 Almond소장으로부터 CTF 90(機動艦隊)의 Doyle소장에게 引繼되고 地上部隊로는 美 제3사단(장, Soule소장)만이 남아서 興南港外廓 2~5㎞로 교두보를 縮少하여(MLR III)海岸防禦를 專擔하였다. 이렇게 橋頭堡가 壓縮되고 地上에 1개사단 兵力만이 殘置됨에 따라 興南外廓에 대한 防禦의 主力 任務는 美 海軍에 移讓되었다. 그렇지만 이미 美 海軍側에서는 連浦飛行場이 閉鎖된 이래 교두보 방어임무를 火力으로서 專擔하다 시피 하였는데 이날에 이르기 까지 巡洋艦 2隻과 驅逐艦 7隻 및 Rocket發射艦 3隻등이 近接支援砲擊을 實施하였다. 이 艦隊들은 그간에 總 34,000發의 砲彈과 12,800發의 Rocket砲를 發射하였으며 戰艦 Missouri號도 16" 巨砲와 8"砲 및 5"砲등으로 砲擊을 集中하여 彈幕으로 敵의 接近을 封鎖하였는데 地形마저 改變되고 動植物의 生存을 不許하였다。

그런데 교두보의 縮少編成에 따르는 中共의 即刻的인 反擊이 豫測되었으나 敵은 이미 그 能力을 喪失함인지 다만 興南 西쪽 海岸地帶에서 小規模의 攻擊만을 試圖하였을 뿐으로 별다른 接戰이 없었다。

한편 이 무렵에 中東部 및 西部의 全戰線 兵團에서는 38°線 附近을 連한 "B線"(東으로부터 襄陽—春川北方—臨津江線)上에 一齊히 進斷御地를 점령하고 南侵한 敵을 擊滅하기 위한 邀擊態勢를 갖추고 있었다。

12월 21일 : 전날까지 乘船을 完了한 美 제7사단은 이날 未明에 釜山을 向하여 出航하였으므로 이제 興南港에는 美 제3사단의 제7연대(장, James O. Boswell대령)와 제15연대(장, Dennis M. Moore대령) 및 제65연대(장, William W. Harris대령)등 3개의 연대 전투단과 戰車部隊 그리고 6個의 포병대대와 3개 AAA(對空砲) 대대 만이 最終 固守部隊로 남아 있었다. 따라서 陸上 部隊 및 砲隊가 계속 철수하므로 海上艦砲射擊은 그 임무에 따라 더욱 加熱化되었다. 특히 3隻의 Rocket艦은 興南 東北쪽 山岳地帶의 敵 密集部隊에 集中砲擊을 加하여 興南 東側面에서 迂回侵襲하려는 敵의 企圖를 一擧에 擊碎하였다。

興南 西쪽에서의 中共軍은 지난 19일에 이어 北共軍 {2개사단병력을 先頭에 내세워 교두보 침공을 間歇的으로 시도하였으나 美제3사단의 地上火力은 이를 捕捉하여 끝내 潰走시

키고 말았다。

그런데 이날 Almond소장과 Doyle소장은 興南撤收에 있어 最終철수의 D-day를 12월 24일로 豫定하고 이에 따르는 諸般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12월 22일 : 興南橋頭堡는 더욱 熾烈化하여 지는 艦砲支援射擊의 彈幕밑에 市內中心部로부터 半徑 4km以內로 줄어 들었고(MLR III). 그 前哨線(Out post line)도 1km 가량 縮少되어 이 撤收作戰도 이제 마지막 단계로 접어 들었다。

이 무렵 敵은 많은 損失때문에 再攻擊의 氣力을 喪失한 듯 하여 波狀的인 殺到方式은 中斷되고 다만 橋頭堡前面에서 砲擊으로 應射하는 消極戰法으로 轉移하였다。

이는 艦砲射擊이 그들의 機動을 極度로 制約한 것으로 維斷되었으나 夜暗에 이르러서는 北共 1개연대 규모의 병력을 앞세운 中共軍이 海岸線에 따라 侵透를 꾀하였으나 美 제3사단의 步砲火力앞에 擊退됨으로써 다시 貧血性砲擊으로 局面을 模塗하고만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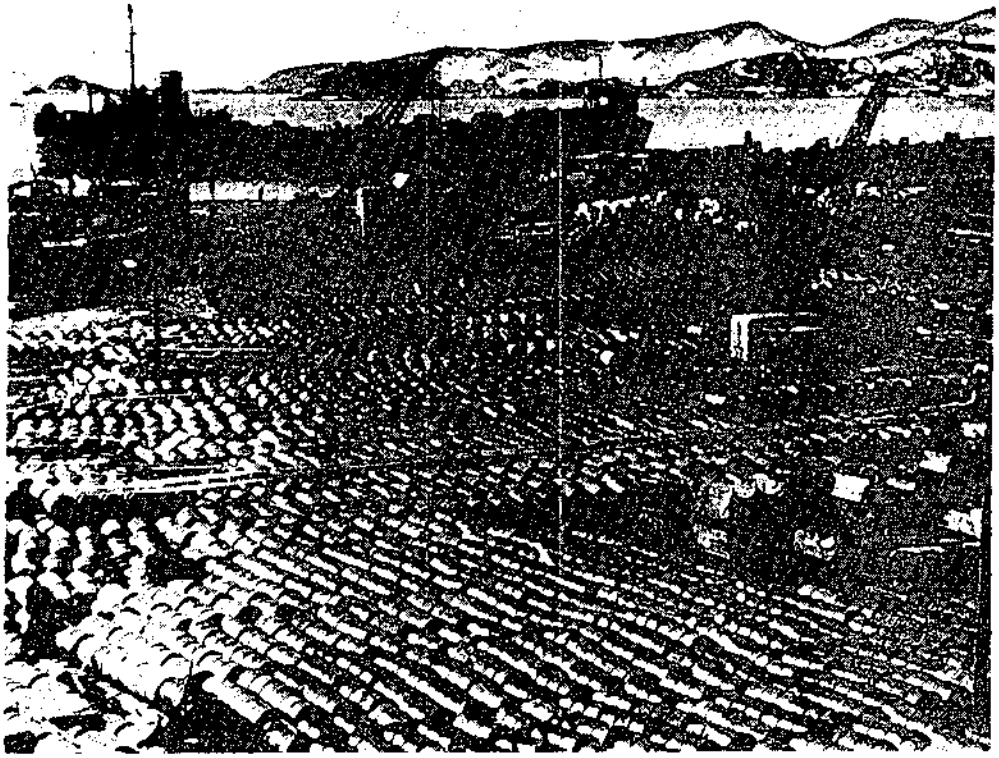
東韓灣의 興南外港에서 그 偉容을 과시하던 美 제7함대(함장, Struble중장)의 高速航空母艦(장, Ewen소장)등은 본시 太平洋艦隊의 所屬이지만 韓國海峽을 專擔하던 CTF 90°을 增強할 目的으로 이곳에 急派된 것인데 지난 12월 15일부터 이날까지 그 支援威勢는 계속 高調되어 한때는 攻擊母艦 4隻과 戰艦 1隻, 그리고 驅逐艦 22隻및 巡洋艦 2隻등 巨艦 30餘 隻이 海上에서 불을 뿜기도 하였으니 制空權없는 中共이 陸·海·空의 三面을 威壓하는 艦艇앞에 맞선다는 것은 螳螂의 一斧格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이날에는 Velley Forge號가 美 本土로부터 太平洋을 가로질러 이곳 興南近海에 까지 進入하여 機動作戰에 參加하기도 하였다。

埠頭에서는 이날 主로 美 제10군단 砲兵部隊등 重裝備가 搭載되어 完了되는 대로 出港하였고 이러한 作業은 다음날까지 계속되어 美 제3사단의 搭乘前에 모두 出港하였다。

12월 23일 : 橋頭堡가 興南市 一圓으로 縮少되고 海上撤收도 最終段階에 접어 들게 되자 敵은 斷末魔의 發惡으로 最後強襲을 決行하였는데 興南 西北쪽에서 새로 增援된 1개사단 규모를 同時에 投入한 것이 곧 그 主力이었다. 그러나 艦砲의 咆哮와 艦載機의 急降下爆擊과 地上掃射로 灼裂되는 鐵火속에서 그 마지막 숨소리를 겨우 부지하면서 海岸線밖으로 潰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무렵에 Almond 소장과 Doyle소장은 橋頭堡陣地에 끝까지 남아 있는 美 제3사단의 철수 계획을 再檢討하는 한편 D-day를 위한 最終對應策을 準備하였다。



<興南埠頭에 山積된 油類와 彈藥>

끝 美 제3사단의 同時乘船을 위한 搭載地點을 選定하였는데 興南港 東쪽에서부터 西쪽으로 沿한 海岸을 Yellow海岸—Green海岸—Blue海岸—Pink海岸으로 4區分하여 全體 7개의 搭載地點으로 다시 細分하였다. 따라서 同 사단 제7연대(장, Boswell대령)는 Pink海岸에서, 제15연대(장, Moore대령)는 Yellow海岸에서, 그리고 제65연대(장, Harris대령)는 Blue 및 Green海岸에서 각각 搭載키로 하였다.

이와 아울러 Almond 소장은 Struble중장에게 Missouri號를 파견하여 줄것을 要請하자 同艦은 즉각 興南港으로 急派되어 支援作戰에 合勢하게 되었으며 이날에는 主로 美 제10군단 砲兵隊의 남아 있는 裝備를 搭載하여 出港시키고 있었다. 이렇게 橋頭堡地上 兵力을 乘船準備시키고 地上砲台도 搭載準備에 들어가자 敵은 상당규모의 兵力으로 警戰隊의 鐵鞭아래 興南郊外를 目標로 肉迫하여 生死를 決斷코자 하였다. 그러나 敵의 이 無謀한 企圖를 事前에 짐작하고 있던 艦砲支援戰團과 艦載機들은 計劃된 火集點에 同時集中砲擊을 加하고 또 興南으로 通하는 敵 豫想接近路를 모조리 爆擊하였으며 特히 咸興 西쪽에 位置한 敵의 司令部도 爆破시킴으로써 그들의 據點을 거의 粉碎하고야 말았다. 이것은 高速航空母艦(Task Force 77)의 艦載機들이 지난 21일에 105回를 爆擊한데 이어 이날의 出擊

回數가 161回란 것으로 보아도 그 熾熱性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한편 美 제10군단 參謀副長인 Edward H. Forney대령은 이날 Victory Ship(商船) 3隻과 L.S.T 2隻을 지휘하여 興南 埠頭에서 50,000餘名의 避難民을 실어 내었다. 이리하여 興南埠頭에서 安全地帶로 輸送된 避難民의 總數는 公式記錄으로 91,000名으로 나타나 있으나 거기에는 幼兒가 包含되지 않았고 또한 殺到하는 避難民의 乘船人員數를 正確히 算定할 수 없었던 당시의 실정으로 미루어 본다면 그 實數는 100,000名 內外가 될 것이다。

Forney大領은 당초 興南港에서 25,000名 정도의 피난민을 輸送하려는 心算이었으나 咸境南北道의 거의 全地域에서 自由를 찾아 몰려드는 群衆으로 말미암아 50,000名線으로 늘어 났다가 다시 100,000名線을 肉迫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엄청난 避難民의 後送問題가 輸送船舶의 不足으로 한때 어려움에 봉착한 일도 있었으나 政府의 強力한 要請과 美軍側도 可能한 限度로 모두 後送시킨다는 原則아래 最善을 다 하였지만 興南港에서 100%로 乘船시켰다고는 볼 수 없었다. 共產虐政을 避하려 하여도 避할 廣場이 없고 自由天地를 찾으려 하여도 찾을 門戶가 막혔으니 지금 이 時間에도 피눈물을 흘리는 同胞가 얼마나 많을 것인가. 우리는 다만 神의 恩寵이 남아있는 그네들과 같이 할 것을 빌뿐이다。

12월 24일 : 興南撤收作戰의 D日 H時는 바로 이날 11.00였다. 어느 때의 暴雪 및 強風의 惡天候와는 달리 이날 아침은 맑게 개였으며 海上도 잔잔한 편이었다. 전날부터 24시간동안 興南外廓線 1.5km에 艦砲射擊과 對地攻擊이 集中되어 빠져날 수 없는 彈幕을 내려뜨린 가운데 이날 08.00까지에는 地上 및 海上에서의 철수준비가 모두 완료되었다。

美 제3사단(장, Soule소장)의 9,720명을 同時에 搭乘시키기 위하여 Yellow-Pink 兩海岸에 선정된 7개의 地點에는 7隻의 L.V.T艦艇이 모래사장에 배를 대고 올라서기 시작하였다.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11.00부터 乘船이 시작되었는데 一部兵力으로 海岸線을 경계하는 가운데 逐次的으로 收容하여 最終部隊인 步兵 1개중대와 上陸軌道車輛大隊의 A, B 중대가 올라타는 것을 끝으로 14.00까지 海岸에 있던 全 地上部隊가 한 사람 빠지지 않고 乘船을 完了하였다。

이와같이 每事가 順調롭게 進行되고, 艦砲航空 支援도 計劃대로 實施되었었지만 Pink 海岸의 彈藥積載所가 事故로 爆發하여 2명이 死亡하고 21명이 부상을 당하는 意外의 不祥事가 있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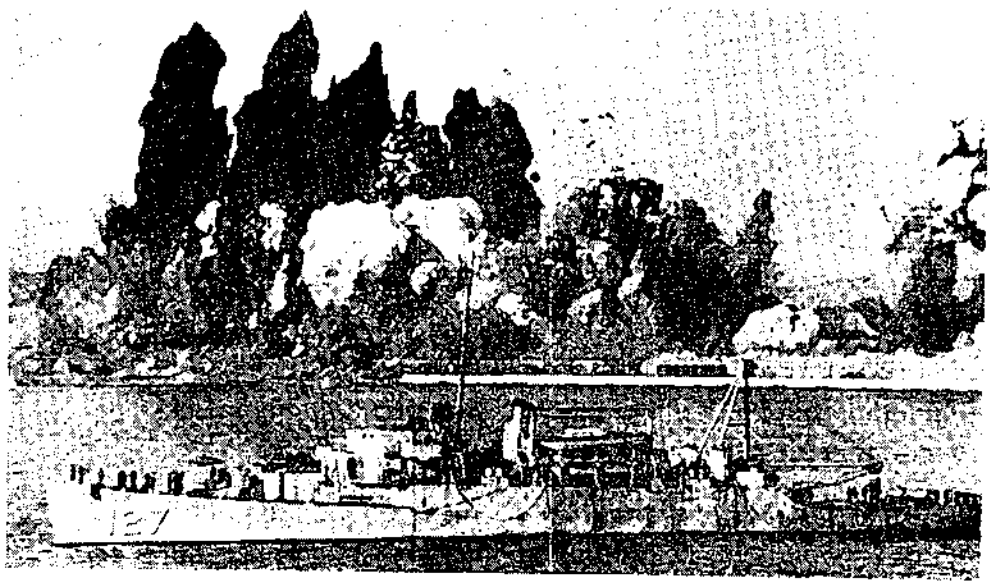
이 搭乘積載에는 總 37隻의 L.V.T.가 動員되었으나 船舶의 부족으로 海岸에는 400ton의 다이나마이트와 500,000lb의 폭탄이 남아 있었는데 끝내 積載되지 못한채로 放置되

었다。

이리하여 輸送船團이 모든 出港準備를 끝마치자 14. 10에 Doyle소장은 예하 U. D. T. 대원에게 興南埠頭施設의 爆破를 命하였고 아때에 海岸에 殘置되어 있는 彈藥도 爆破 措置되었다. 이어 14. 45에 輸送船團(Task Group 90. 2)의 艦長인 Kelly대령이 水陸兩用舟艇을 出動시킴으로써 興南港의 最終撤收가 完了되었다。

이 輸送船團이 興南 外港으로 빠져 나갈때에 埠頭와 彈藥積載所가 거의 同時에 爆破되어 防波堤 및 크레인등 一切의 施設은 요란한 爆音과 치솟는 爆煙, 그리고 불기둥과 함께 天地를 뒤흔들었는데 이 무렵 高速航空母艦의 艦載機編隊도 興南上空을 旋回하면서 自由를 잃은 江山의 慘景을 지켜 보았다。

한편 敵敵은 이날도 興南 뒷山의 嶺上마저 올라서 보지 못한채로, 그 附近山野에는 오로지 그들의 붉은 피와 찢어진 솜외투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을 뿐이었다。



<興南港의 爆破>

이렇게 Kelly艦長이 지휘하는 輸送戰團이 興南港口에서 完全히 出航함으로써 그간 集中된 自由世界의 耳目은 安堵의 순간으로 바뀌게 되었고 10餘日간 가장 바쁘고 부산했던 이 港口는 검은 구름만이 廢墟위를 덮고 있었을 뿐이었다。

本 作戰을 成功的으로 끝마친 Almond소장과 Doyle소장은 이날 밤 東海의 艦上에서 뜻깊은 Christmas Eve를 마지하고 있었다。

이 興南撤收作戰의 全期間을 通한 人員 裝備의 輸送 및 諸般 統計는 다음과 같다。

〈興南撤收作戰期間中 各種統計表〉

① 兵力 裝備 輸送統計

兵力	105,000명	韓 제1, 美 제10군단 全兵力
避難民	91,000명	一部 記錄에는 98,000명
車輛	17,500대	貨物總量에 包含된 量數
貨物	350,000ton	연료 29,500드럼 탄약 9,000톤
總輸送船	112隻	APA 6, AKA 6, FAP 13, MSTS(임대선) 75, LST 81, LSD 11隻
空輸機	112臺	浦項空軍基地에서 병력 3,600명 차량 196台 화물 1,300톤과 피난민 약간 공수

② 艦砲射擊 統計

3″	71發	
5″	18,637發	仁川上陸 때보다 12,800發 더 발사(70% 더 소모)
8″	2,932發	仁川上陸 때보다 800發 더 발사(27% 더 소모)
16″	162發	
Rocket	12,800發	
40mm	185發	
其他艦砲	34,000發	12.18~12.24間에 순양함 2, 구축함 7隻에서 Rocket砲를 除外한 全發射量

③ 航空戰擊機保有量數 (CV80 CVL30 CVE24 VMF24 VMFN 12)

月日	海岸基地	航空母艦	計
12. 1	96	184	230
12. 10	72	288	360
12. 16	-	318	318
12. 23	-	398	398

라. 전투 후의 개황

敵軍의 動向 : 陳毅가 總指揮하는 中共 제3야전군 소속 제9집단군의 제20, 제26, 제27의 3개군과 北共 제4, 제5, 제8의 3개군단이 興南橋頭堡에서 擊破되고 12월 24일 友軍의 海上撤收가 終了된 다음에는 興南附近에서 直接的인 接敵이 없었기 때문에, 敵의 動向에 대해서는 자세히 詳考할 수 없으나 大體的으로 다음과 같은 內容에서 그들의 動向을 推斷할 수 있다。

즉 興南撤收작전을 끝마친 다음에 UN군 총사령부에서는 咸興附近의 中共 제9 집단군이 西部戰線의 中共 제4야전군을 증원하기 위하여 南쪽으로 移動할 가능성을 놓고 檢討하고 있었는데 51년 1월 2일에 美 제7함대 및 CTF 90에 同 中共軍의 部隊位置 및 移動狀況등에 관한 情報를 보낼 것을 命令한 바 있으나 그 動靜을 捕捉하지 못하다가 興南撤收完了日로부터 만 3개월을 지낸 다음인 1951년 6월 中旬에야 그들의 所謂「제4차춘계공세」때에 中部戰線에서 나타남으로써 비로소 그 馬脚이 들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中共 제9집단군은 長津湖附近戰鬪에서부터 興南橋頭堡 作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큰 손실을 입었는가를 充分히 짐작할 수 있다. 이와같은 事實은 中共 제26군만 하드라도 90% 정도가 疎開에 걸려 있었고 제27군도 非戰鬪損失이 10,000명에 이르렀다는 記錄들에서 充分히 反證된 것인데 大體로 中共軍은 長津湖附近에서 5, 60%, 興南橋頭堡에서 2, 30% 정도의 손실을 가져와 완전히 再起不能狀態에 빠졌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이와함께 빈약한 보급과 겸친 酷寒은 士氣마저 極度로 저하시켜 그들의 完全 再編이 不可避하였고 그 期間이 3개월餘가 되었던 것이었다。

한편 北共 제4, 제5군단등은 中共보다 戰鬪損失이 덜 한듯하여 12월末경에 再編을 대략 마치고 다음해 1월 中旬에 東部戰線의 제2전선부대와 合流하여 戰場에 投入되었다。

我軍의 動向 : 12월 24일에 이 作戰을 終結지은 것은 美 제 10군단을 爲始한 全友軍에 대한 최대의 X-mas선물이 되었으나 中共 제9집단군에게는 屈辱의 苦盃를 던져주는 순간이었다. 이렇듯 海上撤收의 성공은 友軍의 士氣를 高揚하는 결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陸, 海, 空軍의 立體的 協同作戰을 最大로 발휘하여 Dolye소장이 述懷와 마찬가지로 교두보를 효과적으로 방어함으로써 時間을 얻어 모든 것을 무사하게 철수시켰던 것이다. 이것은 Dunkirk철수작전의 悲慘한 例를 보아도 알수 있는 것으로 人員裝備를 버리지 않고 모두 無事하게 철수시켰다는 것은 一大驚異가 아닐 수 없고 作戰의 큰 成果라고 아니할 수 없다. Dunkirk작전 때에는 興南작전 때 보다 兵力200,000명을 더 한 總338,000명이었으나 이 兵力을 모두 철수시키지 못한 채로 裝備는 거의 輸送하지도 못하였으며 또한 輸送艦艇들이 雪上加霜으로 空中의 熾烈한 攻擊까지 당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興南撤收作戰때의 輸送船團은 모조리 安全하였으며 制海空權을 一方的으로 掌握하고 있었던 것이다. 단지 興南撤收作戰의 問題點은 艦艇들의 效用性이었을 뿐인데 釜山에서의 制限된 下船能力과 쉴새 없이 밀려드는 貨物을 감당해 낼 수 없어 時間上 너무 오래 걸렸던 點이다. 즉 예비 艦艇의 결핍이 지적될 수 있었다。

機動艦隊 및 航空母艦의 艦載機들은 이제 38°線에 연한 中東部 山岳地帶의 敵에 爆擊을 加하기 시

작하고 그 사이에 釜山港에 上陸한 美 제10군단 主力은 다시 戰力을 強化하여 새로운 擔當正面을 向해 進擊中에 있었다。

撤收後 美 제10군단은 12월 27일 附로 美 제8군사령관의 작전권 아래에 들게 되었고 韓 제1군단은 韓國軍 總參謀長의 지휘下에 復歸하여 中東部戰線을 擔當하게 되었다. 그런데 美 제8군사령관 Walker중장이 12월 23일에 戰死하자 12월 26일부로 Ridgway중장이 美제8군사령관에 着任되어 Almond소장은 그 예하로 들게 되었다。

撤收후 各部隊의 12월末까지의 狀況은 다음과 같다。

韓 제 1 군단——지휘소, 蔚珍

首都사단——襄陽—西林線에 진지점령

제 3 사단——洪川—38°線에 진지 점령

美 제10군단——지휘소, 忠州

제 3 사단——慶州—安城—平澤으로 北上중

제 7 사단——永川—丹陽으로 北進中

제 1 해병사단——馬山에서 再補給中

戰果 및 損失

戰果 : 20,000~40,000名 戰鬪射殺 推算

損失 : 橋頭堡 作戰中 全無

§ 戰　訓

立體戰의 特異性

巨艦主義와 航空母艦主義의 對立은 第二次 世界大戰을 契機로 完全히 決判을 보게 되어 아무리 두터운 巨艦의 鋼鐵板이라도 雷擊을 當할 수 없고 아무리 큰 艦砲의 射程이라도 艦載機의 飛翔距離를 넘을 수 없다. 따라서 制空權을 喪失한 巨艦은 다만 空中攻擊의 好餌가 된다는 것은 眞珠灣과 馬來灣의 例에서도 찾을 수 있고 더구나 大戰末期의 Leyte. Okinawa등의 例에서 立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이 作戰에서 友軍이 損失없이 撤收하게 된 큰 原因은 中共이 制空權을 全혀 掌握하지 못하였다는 事實을 指摘할 수 있고 橋頭堡를 逐次的으로 縮少하면서도 끝까지 防守目的을 達成한 主된 要因이 곧 陸, 海, 空 三面으로 斷行한 立體戰의 效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立體戰 成功의 要諦는 三位一體의 協同精神이 其一이요, 以熱治熱로 空에는 空으로, 海는 海로, 陸에는 陸에서 各自의 戰力을 集中하여 同時에 發揮하는 것이 其二요, 大局的 見地에서 豫定計劃대로 指揮能力의 統合을 期하는 것이 其三이다. 이 作戰에서는 그 基礎條件이 不利하였으니 만치 그 成果를 더욱 높이 評價하여 마땅한 것이다。

§ 研　究

興南撤收作戰期間中 各種統計는 다음의 여러 册을 參考로 하여 綜合作成한 것임.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 Korea

U.S. Marine Operation in Korea

Sea war in Korea

§ 參戰者의 證言

◇ 제1군단 군수참모 金龍紀대령

(1966. 11. 29 水産開發公社 副社長, 豫備將)

中共軍의 包圍網이 壓縮되고 元山이 遮斷되므로써 美 제10군단과 제1군단은 橋頭堡를 확보하고 逐次撤收하여 興南에서 海上撤收作戰을 敢行하였읍니다。

軍 兵員과 裝備는 勿論, 咸鏡南北道 全域에서 蝟集한 避難民을 輸送하게 되었는데 上部의 方針도 있었지만 白山을 그려 敵地를 벗어 나려는 避難民을 한명이라도 더 보내기 위하여 L.S.T. 1隻에 그 定員의 10倍가 넘는 5,000명을 乘船시켰고 그래도 모자라서 徵發한 漁船 約 200隻에도 分乘시켜 내려 보냈는데 南下한 人員이 15~20萬名은 되리라고 믿습니다。

군단장 金白一소장과 참모장 金鍾平준장 그리고 輸送責任官인 나는 最後까지 남아서 兵員과 裝備 그리고 避難民의 乘船과 輸送을 指揮하였고 移動不可能한 裝備와 輸送할 수 없는 補給品을 燒却, 整理 한 다음에야 L.V.T를 타고 輸送船으로 올라 갔읍니다。

◇제1군단 헌병참모 金得模

(1966. 11. 28 住宅公社 理事 豫備將)

군단 사령부가 城津에 있을 때 後退命令을 받았읍니다. 憲兵參謀이던 나는 군단장 金白一소장의 명령에 따라 摩天嶺을 넘어 興南으로 先行하였더니 警察과 靑年團의 幹部들이 찾아와 撤收問題를 걱정합디다. 나는 美 제10군단의 憲兵參謀를 만나 民間人의 撤收問題를 相議하였더니 難題은 절대로 利用할 수 없다는 것이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小型船舶을 約 200隻을 모아서 民間人撤收에 對備하였고 나중에는 군단장 金白一소장이 Almond소장과 協議해서 L.S.T에도 태울 수 있는 대로 태웠는데 最小限 15~20萬의 避難民을 輸送한 것으로 압니다。

아직도 눈에 선한 情景이 있는데, 兵力과 裝備 그리고 避難民을 乘船시킨다음 마지막으로 興南市內를 巡察하면서 驛舍에 갔더니 19~20歲의 少女들 數十名이 十字架를 들고 울면서 讚頌歌를 부르고 있다가 나에게 달려 들면서 배를 태워 달라는 것입니다. 그 情景이 하도 애처러워 나도 같이 울었읍니다. 결국 다 태워가지고 데리고 나오기는 했읍니다만은 아직도 그 光景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 집니다。

5. UN海軍의 城津—興南—元山 撤收作戰

(1950년 12월 1일부터
1950년 12월 24일까지)

참조 : 상황도 제20, 21, 22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極東艦隊 사령관 美 해군중장 C. T. Joy
第90機動部隊 사령관 美 해군소장 J. H. Doyle
第90. 2機動戰隊(輸送戰隊) 사령관 美 해군대령 S. G. Kelly
第90. 21機動分隊(輸送分隊) 사령관 美 해군대령 A. E. Jarrell
第90. 8機動戰隊(艦砲支援戰隊) 사령관 美 해군소장 R. H. Hilenkoetter
第95. 2機動戰隊(封鎖, 護送 및 掃海戰隊) 사령관 美 해군소장 J. M. Higgins
第7艦隊 사령관 美 해군중장 A. D. Struble
第77機動部隊(高速航空母艦部隊) 사령관 美 해군소장 E. C. Ewen
第96. 8機動戰隊(護送航空母艦戰隊) 사령관 美 해군소장 R. W. Ruble
第79. 2機動戰隊(補給支援戰隊) 사령관 美 해군대령 B. L. Austin

나. 작전 전의 개황

1950년 10월 下旬에 멀지 않아 이 戰爭을 終結지울 것이라는 希望에 찬 我軍은 潰走하는 敵을 追擊하여 乘勝長驅로 北韓 땅을 席捲하고 있었으니 東部戰線에서는 美 第10軍團(장, E. M. Almond 소장) 휘下의 각 부대는 4개 縱列로 韓滿國境을 向하여 진격하고 있었다。

即 美 第1海兵師團(장, O. P. Smith 소장)은 長津 溪谷을 따라서 西北方에서 進擊하고 있었고 美 第7步兵師團(장, D. G. Barr 소장)은 中央部에서 北쪽으로 進擊路를 잡아 一路 惠山鎭으로 向하고 있었으며 我 第1軍團(장, 金白一 소장)의 第3師團(장, 崔 錫 준장)과 首都師團(장, 宋堯讚 준장)은 각각 東海岸을 따라서 北進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11월 20일에야 뒤늦게 元山에 上陸을 마친 美 第3步兵師團(장, R. H. Soule 소장)만은 이 진격대열에서 빠지고 있었다。

Almond 소장의 意圖는 可能한 限 빨리 國境線에 이르는 交通과 通信의 動脈線을 制壓하려는데 있

었으며 이와 같은 그의 作戰方針은 쉽게 成就될 것 같이 보였으나 散發的으로 報告되는 中共軍 出現의 소식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樂觀的인 전망은 차츰 흐려지기 시작하였다。

12월 2일 마침내 그 동안 風聞에만 나돌던 中共軍의 部隊가 長津 溪谷을 진격중이던 美 海兵隊의 前面에 나타났다. 이날 中共 第124師團이 興興里 南쪽에서 H. L. Litzenberg 대령이 거느리는 제7연대를 공격한 것이며 5일간에 걸쳐 熾烈한 전투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보다 決定的인 局面의 轉換은 所謂「X—mas 攻勢」面後에 일어났다. 11월 25일 西部戰線에서는 日設과 더불어 中共 第4野戰軍의 18개 師團이 美 제8군의 右翼을 攻擊하였으며 東部戰線에서는 第3野戰軍의 12개 師團이 長津湖 西岸의 柳潭里에 진출한 美 海兵隊의 제7연대를 包圍 攻擊하였던 것이다。

X—mas에 앞서 本國으로 歸國시킬 것이라는 약속과 더불어 시작되었던 UN군의 공세는 드디어 中共軍의 侵略으로 인하여 挫折되었으며 戰爭은 앞으로 새로운 局面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事態를 重視한 MacArthur 元帥는 急히 美 제8군 사령관과 제10군단장을 現地로부터 東京으로 불러들여 28일 深夜에서 29일 早朝에 걸쳐 情勢를 檢討한 끝에 드디어 그는「UN군은 防勢로 전환할 것」을 決定하게 되었다。

29일 저녁에 Almond 소장은 第1海兵師團에게 防勢로의 전환을 命하였으며 30일에는 下碣隅里에서 第1海兵師團長 Smith 소장과 第7師團長 Barr 소장 및 各 副師團長들과 陣中會議를 갖었으며 이날 다음과 같은 軍團命令을 下達하였다。

『軍團은 敵과 最大限의 接觸을 유지하면서 그 主力을 咸興—興南地域에 集結한다……』

이 作命에 따라 美 제10군단 산하의 각 부대의 後退가 시작되었는데 美 第1海兵師團은 柳潭里에서 血鬪 끝에 敵의 重圍를 脫出하여 豫定된 集結地로 후퇴하게 되었으며 美 第7師團도 앞서 11월 21일 同 사단의 제17연대 전투단(장, H. B. Powell 대령)이 退山鎭을 占領함으로서 待望의 國境線까지 진출한 바 있었으나 역시 咸興으로 후퇴를 시작하였다。

또한 美 海軍의 第1巡洋艦戰隊(사령관, R. H. Hellenketter 소장)의 巡洋艦 Saint Paul號와 驅逐艦 Zellars號의 함포지원을 받으면서 合水와 清津 郊外까지 진출하였던 우리 第3師團과 首都師團도 일단 城津으로 이동 집결하였다가 次後의 이동에 대비하게 되었으며 美 第3師團은 元山에 上陸한 뒤 韓半島의 腰部를 가로 질러 西進하고 있었으나 또한 元山으로 재집결하게 되었다。

한편 美 極東海軍에서는 이와 같은 戰局의 逆轉이 있기에 앞서 이미 11월 中旬에 釋然치 않은 戰勢의 趨移에 危懼心을 품게 되어 最惡의 경우 UN군을 韓半島로부터 撤收시키게 될지도 모른다고 判斷하고 事前에 그 準備를 진행시키고 있었다。

11월 28일 드디어 구체적인 첫 지시가 내려졌으니 美 極東艦隊 司令官 C. T. Joy 중장은 美 第90機動部隊 司令官 J. H. Doyle 소장에게 地上軍의 撤收에 대비한 제반 計劃을 작성할 것과 앞으로 이 撤收作戰이 現實化할 경우 Doyle 소장이 모든 指揮를 맡게 될 것 것이라는 電文을 띄었던 것이다。이 지시는 공교롭게도 美海兵隊가 柳潭里에서 中共軍의 공격을 받은 바로 數時間뒤에 내려졌다。

다. 작전 실시의 개요

1950년 12월 1일 元山에서는 敵이 공격하여 올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美 第77機動部隊(사령관, E.C. Ewen 소장)의 航空機들은 밤 새 쉬지를 못하고 계속하여 출격하고 있었으며 美 第10軍團으로부터는 元山—興南 사이의 陸路와 鐵路가 이미 遮斷되었다는 報告가 있게 되자 Doyle 소장은 더 이상 元山으로부터의 철수를 遲延시킬 수 없다는 判斷을 내리게 되었다。

이에 Doyle 소장은 第7艦隊 司令官 A.D. Struble 중장에게 巡洋艦 Saint Paul號와 驅逐艦 Zellers號를 艦砲支援 次 元山에 急派하여 줄 것을 要請하였으며 이 要請에 따라 당시 韓國軍의 後退를 지원하면서 鏡城灣에 이동하고 있었던 Saint Paul號는 即刻 艦首를 南으로 돌려 3일 낮에는 元山灣 안에 投錨하게 되었고 Zellars號도 이어서 來航하였다。

한편 元山灣에는 앞서 命令을 받고 UN군의 海上撤收作戰에 參加하고자 日本에서 달려온 제90.12기동분대(사령관, A.E. Jarrell 대령)의 Henrico號 외에 4척의 攻擊輸送艦(APA)과 2척의 攻擊貨物船(AKA)이 미리 到着하여 대기하고 있었다。

3일 午後에 Doyle 소장은 Jarrell 대령에게 美 第3師團이 도착하는 대로 곧 搭載를 실시할 것을 命하였으며 自身도 이 作戰을 직접 감독하기 위하여 元山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元山의 緊急事態란 豫想하였던 것보다는 誇張된 것이었다. 敵의 威脅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美 제3사단도 또한 그의 병력의 大部分을 이미 陸路로 興南으로 移動시킨 뒤여서 元山에는 4,000여명의 殘留兵力과 12,000ton의 裝備만이 탑재를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었다。

元山의 事態가 이와 같이 예상하였던 것보다 平穩하고 撤收의 規模도 작은 것이 判明되자 이곳에 집결시켰던 艦船의 一部를 城津으로 파견하게 되었다. 城津에는 이미 집결을 完了한 우리 제3사단(장, 崔錫 준장)과 首都師團의 一部 兵力이 乘船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5일 攻擊輸送艦(APA)인 Noble號에 乘組한 Michael F.D. Flaherty 대령은 元山에서 2척의 輸送船을 거느리고 城津으로 急行하여 미리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던 Scajap LST 1척과 韓國 海軍의 LST 1척과 더불어 上記 韓國軍의 輸送을 맡게 되었다。

搭載는 7일부터 시작되어 9일에 完了하였으며 한편 이 輸送部隊를 護送하기 위하여 驅逐艦 Samuel N. Moor號(함장, R.H. Wainless 대령)과 Maddox號(함장, P.B. Haines 대

령)도 도착하였다. 본시 Flaherty 대령은 이 輸送部隊를 거느리고 釜山에 直行하도록 명령을 받고 있었으나 9일 午後에 城津을 出發한 다음 子正에 이르러 새로운 命令을 받기를 興南에 寄港하라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곧 興南에 도착하자 이 지역의 橋頭堡를 구축하기 위하여 首都師團의 1개연대 병력을 상륙시킨 다음 다시 南下를 계속하여 12일 19.20에는 드디어 제3사단을 九龍浦에 上陸시켰으며 나머지 부대는 15.00에 釜山에 上陸시킴으로서 東部戰線에서의 첫 撤收作戰에 成功하였다.

한편 元山에서는 12월 3일부터 美 第3師團(장, R.H. Soule 소장)의 殘留兵力과 裝備의 搭載가 美 海兵隊의 Crown 소령이 지휘하는 第1海岸部隊의 掩護아래 실시되고 있었으며 5일에는 美軍 1개대대와 우의 海兵隊 2개대대가 橋頭堡를 구축하고 이 지역의 방어에 임하게 되었다.

또한 海上에서는 제 90.8 함포지원전대(사령관, R. H. Hellenketter 소장)의 巡洋艦 Saint Paul號와 驅逐艦 Zellars號 그리고 Sperry號 및 Hank號 등이 밤낮으로 함포지원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제90.21수송분대의 A.E. Jarrell 대령은 그의 隷下 艦艇이 搭載를 계속하는 사이에 元山灣 內의 主要 島嶼에 있는 敵의 軍事施設을 砲擊 破壞하고 있었다. 例컨대 麗島에는 敵의 觀測所가 있었으며 葛島에는 4門의 76mm砲와 2개의 彈藥貯藏所가 設置되어 있었던 것이다.

7일 드디어 葛麻半島에 있는 第12海兵航空戰隊의 이동을 보호하도록 命令받은 韓國 海兵隊 1개대대를 除外한 나머지 모든 友軍의 搭載가 完了하게 되었고 아울러 인근 지역에서 몰려든 피난민을 7일 05.00부터 夜半에 걸쳐 輸送艦 Lane Victory號에 收容하였는데 그 수는 定員을 훨씬 초과한 7,009명이었다.

9일 Saint Paul號와 驅逐艦들의 護送을 받으면서 撤收部隊는 元山灣을 빠져나갔는데 이 元山撤收에 있어서 兵力 3,834명과 피난민 7,009명 그리고 車輛1,146輛 및 貨物 10,013ton이 釜山으로 輸送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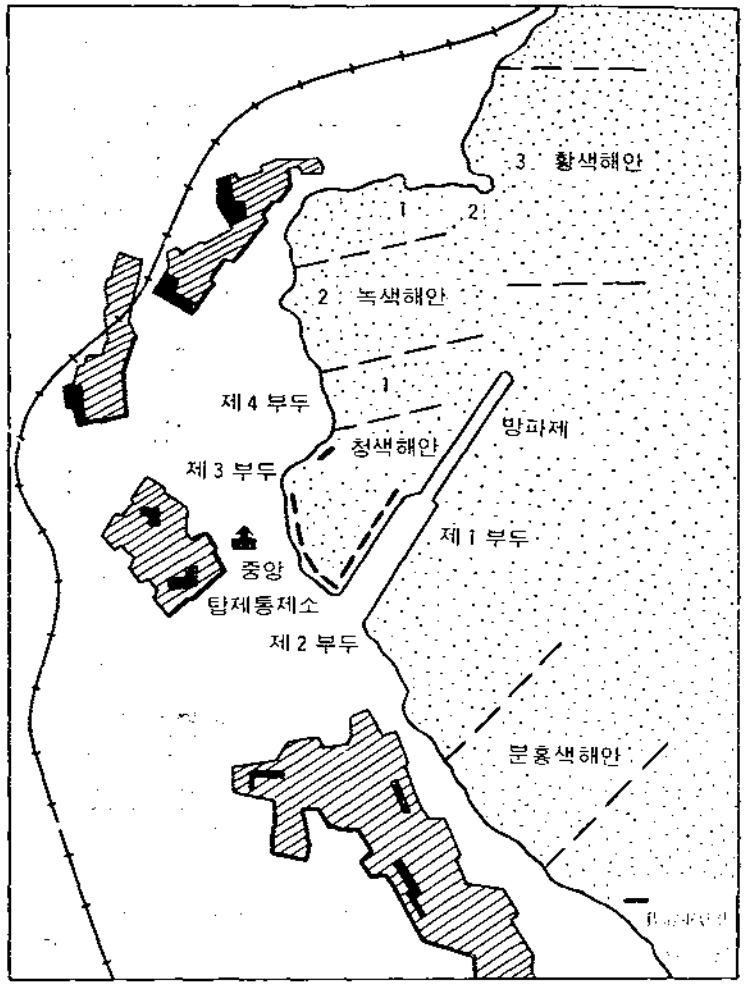
한편 Almond 소장의 命令에 따라 제10군단 휘下의 각 부대가 속속 城興—興南地域으로 집결하고 있을 때 韓國戰線에서의 事態의 急變에 대처하기 위하여 美 高位指揮官들이 太平洋을 건너오게 되었다.

12월 6일에 太平洋艦隊의 海兵隊司令官인 Shephard 중장이 眞珠灣에서 달려왔으며 美陸軍長官 Collins 대장도 Washington에서 飛來하였다. 7일 이들을 맞이하여 MacArthur 元

帥는 東京에서 會議를 열고 UN군을 釜山으로 後退시키기에 앞서 可能한 限 서울을 오래 支撑토록 하는 문제와 美 제10군단을 南으로 이동시켜 美 제8군에 編入시키는 문제를 檢討하였다. 이 會議에 海軍에서는 極東艦隊 司令官 Joy 중장과 第7艦隊 司令官 Struble 중장등이 참석하였다。

다음 날인 8일에는 제 90기동부대의 旗艦인 Mount McKinley號 上에서 主要海上指揮官의 會議가 召集되었다. 이때에 Joy 중장(極東艦隊司令官), Shephard 중장(太平洋艦隊 海兵隊司令官), Struble 중장(第7艦隊司令官), Doyle 소장(第90機動部隊 司令官), Higgins소장(第95.2 機動戰隊 司令官) 등이 한 자리에 모인 이 會議에서 興南一咸興의 橋頭堡를 死守하는 문제와 海上으로 撤收하는 문제등 2가지 案이 討議되었으나 다음 날인 9일에 앞서

◇ 상황도 제20호 興南港灣圖



제출된 MacArthur 元帥의 撤收案이 美 合同參謀本部의 承認을 얻어 發表됨으로서 自動的으로 單一化되었다。

그러나 제 90기동부대에서는 이보다 1주일 전부터 철수에 대비하여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었으니 興南 港灣안의 可用한 海域을 넓히며 또한 艦砲射擊時의 艦艇들의 航路를 確保하기 위하여 掃海作業을 進行시키고 있었으며 橋頭堡의 防禦와 撤收에 대한 作戰計劃도 아울러 樹立하고 있었다。

東海岸의 UN군을 撤收시키기 위한 港灣으로서 興南을 선택한 것은 몇가지의 이유가 있었으니 즉 이 곳은 美 제1군단 본부가 있는 咸興에서 4miles 밖에 떠러져 있지 않았으며 航空統制所로서 활약한 海兵航空戰鬪團이 있는 連浦飛行場으로부터도 거의 같은 거리에 있었다。

또한 元山에서 利川 北쪽에 걸쳐 扇形으로 展開하고 있는 美 제10군단 傘下부대의 集結과 搭載 時의 戰術的 見地에서도 가장 有利한 지점이었으며 港灣條件에 있어서도 良港의 發達이 적은 東海岸에 있어서는 가장 적합한 곳이었다. 비록 狹少하기는 하였으나 干滿의 差도 1ft를 넘지 않았으므로 港口로서의 條件도 좋은 편이었다. 船着場所도 독크에 7척을 繫留할 수 있었으며 만일 2척을 겹쳐 繫留하는 경우에는 4척을 더욱 追加할 수 있었고 海濱에는 LST가 着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興南에서의 撤收作戰을 遂行하는데 있어서 제 90기동부대 사령관 Doyle 소장에게 부여된 임무는 要旨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 ① UN군의 撤收를 위한 海上輸送計劃의 樹立과 그 遂行.

② 撤收地域에 대한 모든 空中 또는 海上에서의 火力支援의 統制.

③ 揚陸港까지의 艦艇의 護送.

④ 釜山을 포함한 東海岸地域에서 활동하는 友軍을 위한 海上封鎖와 艦砲支援.

⑤ 撤收作戰의 途中에서 韓國軍등을 위한 小規模인 上陸作戰의 遂行.

⑥ 興南과 그 밖의 指定된 이동지구에서의 支援과 協助.

⑦ 撤收作戰을 遂行하는데 있어서 美 제10군단장 및 그 밖의 지휘관과의 協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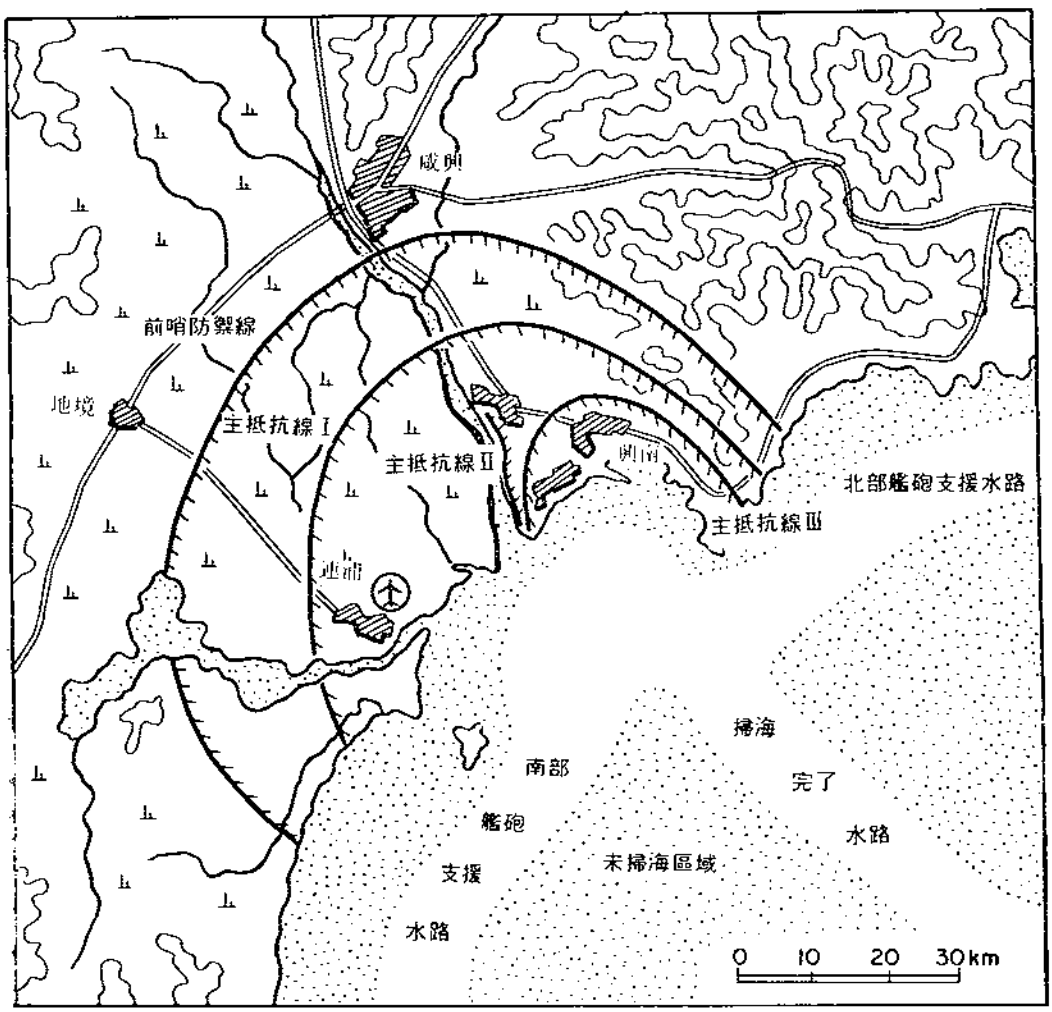
撤收의 決定이 내리자 Doyle 소장은 모든 努力을 이 문제에 집중하게 되었으니 우선 油類와 彈藥의 海上貯藏庫가 設置되었으며 救命袋와 기타 上陸用裝備도 大量으로 준비되는 한편으로 아울러 上陸用 艦艇의 集結이 進行되었다. 西海岸에서 撤收作戰을 指揮하던 Thackrey 소장에게 利用할 수 있는 모든 攻擊輸送艦(APA)와 攻擊貨物船(AKA)을 1척의

LSD와 더불어 興南으로 廻航시키도록 指示하였으며 極東艦隊司令官 Joy 중장에게는 別途 要求가 있을 때까지 每日 10척의 貨物船을 興南에 대기 시켜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元山과 城津에서의 撤收部隊의 豫定에도 修正이 加하여졌으니 Jarrell 대령이 거느린 元山으로부터의 撤收部隊는 당초에 釜山으로 直行하도록 命令을 받고 있었으나 9일 豫定을 변경하여 海兵隊의 海岸部隊 등을 興南으로 輸送토록 지시되었고 城津에서는 前述한 바와 같이 南下하던 도중에 興南에 寄港하여 탑재하였던 一部兵力을 上陸시켜 교두보 구축에 참가시켰던 것이다。

城津—元山에 이어 세번째이자 마지막인 東海岸에서의 撤收準備는 進陟되어갔다. 韓國軍

◇ 상황도 제21호 興南일대의 作戰圖



및 美 陸軍과 海軍 그리고 海兵隊와 各種 商船隊등이 組織的이고도 大規模의 撤收作戰을 수행하기 위한 努力으로써 12월 10일에는 행정 및 관리상의 모든 준비가 거의 完了하게 되었다.

이번 作戰에 있어서 航空支援의 任務를 맡은 E.C. Ewen 소장의 제 77기동부대는 본래 2척이었던 隷下 航空母艦이 4척으로 增強되었다. 即 11월 初부터 Philippine Sea號와 Leyte號가 東海에서 地上軍에 대한 航空支援을 수행하여 왔으나 새로이 美 本土로부터 Valley Forge號가 제 2航空戰隊를 搭載하고 緊急召還되여 왔으며 Prinston號도 제 19航空戰隊를 搭載하고 여기서 合勢하였던 것이다.

12월 12일에 이르러 제 7함대의 작전계획에 따라 제 77기동부대의 高速航空母艦들은 晝間에는 友軍을 엄호하기 위하여 近接航空支援과 空中防禦에 從事하였으며 橋頭堡 外郭地帶에 대한 遠離距出擊 및 交通路遮斷 작전과 그리고 興南에 出入하는 艦船의 掩護를 실시하였으며 夜間에도 戰鬪巡察飛行을 수행하였다.

한편 제 96.8 護送航空母艦戰隊(사령관, R.W. Ruble 소장)는 본래의 隷屬艦인 Sicily號와 Badoeng Strait號 외에 새로이 Bataan號가 配屬되어 地上軍과 興南海域의 輸送船團에 대한 航空支援을 수행하게 되었다.

12월 15일에 Doyle 소장은 興南 周邊의 半徑 35miles 안의 모든 航空支援作戰을 統轄 指揮하게 되었다. 이는 제 77기동부대와 제 96.8기동전대의 모든 航空作戰을 포함하는 것이었으며 15일부터 最終撤收日인 24일까지에 총 1,700회의 出擊이 興南 橋頭堡의 안팎에 대하여 실시되었다.

이때에 艦砲支援의 責任은 제 90.8기동전대의 R.H. Hellenketter 소장이 맡고 있었으며 그의 艦隊는 새로이 Higgins 소장의 제 95.2기동전대로부터 旗艦인 重巡洋艦 Rochester號와 2척의 驅逐艦의 增援을 받게 되어 그 勢力은 都合 다음과 같았다.

戰　　艦——1척(Missouri號)　　重巡洋艦——2척(Saint Paul號, Rochester號)
驅 逐 艦——7척(Forest Royal號, Hank號, Massey號, Norris號, Borie號, English號, Lind號)
Rocket 砲艦(LSMR)——3척(401號, 402號, 403號)

또한 제 95.2기동전대(사령관, J.M. Higgins 소장)와 제 95.6기동전대(사령관, R.T. Spofford 대령)는 海岸線의 封鎖와 輸送船團의 護送 그리고 機雷掃海 등 여러 임무를 遂行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北쪽에 대한 海上封鎖區域에 2척의 驅逐艦을 배치하는

것과 元山의 掃海完了水路 밖에 1척의 大型警備艦(Frigait)으로 巡視를 계속토록 하는 것 및 3척으로서 興南의 港口 안팎을 出入하는 艦船을 조종하는 책임 등을 맡고 있었다。

12월 15일 夜半에 St. Paul號는 8″砲로서 內陸 10miles에 걸쳐 遠距離支援射擊을 실시하였으며 철수작전의 진행에 따라 橋頭堡가 縮少되자 艦砲支援艦들은 보다 有利한 射擊目標을 찾아 海岸에 接近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 17일에는 Rochester號가 그리고 21일에는 3척의 Rocket砲艦이 각기 함포사격을 실시하였으며 23일에는 戰艦 Missouri號가 처음으로 興南 밖의 五里마을 근방에 16″主砲와 5″砲의 集中火力을 加하였다。

철수 마지막날인 24일에는 港口를 中心으로 한 폭 2,500yds 깊이 3,000yds에 걸친 지역에 함포사격을 集中하였다。

이리하여 지난 12월 7일에서 24일까지에 제 90기동부대가 실시한 함포사격에서의 消耗彈은 도합 다음과 같다。

16″砲彈	162발	8″砲彈	2,932발	5″砲彈	18,637발
3″砲彈	71발	40mm砲彈	185발	Rocket砲彈	1,462발

이 수량을 仁川上陸作戰에서의 彈藥消費量에 比할 때 8″ 砲彈에 있어서 800발을, 5″砲彈에 있어서 12,800발을 능가하고 있다。

12월 11일의 Almond 소장이 내린바 美 제10군단 作命 10—50에 의하면 興南에서의 撤收順位는 (1) 美 第1海兵師團, (2) 我 第1軍團, (3) 美 第7師團, (4) 美 第3師團의 順序로 되어 있었다。

美 제1해병사단은 柳潭里로부터 中共軍의 重圍를 突破하고 11일 13.00에 師團의 全兵力이 眞興里를 通過하였으며 그날 21.00에는 戰車隊를 除外한 총원이 咸興—興南間의 集結地에 到着하였고 戰車隊도 23.30에 LST 乘船地域으로 撤收하였다。

한편 이들의 輸送을 담당한 제 90.2기동전대(사령관, S. G. Kelly 대령)도 때를 같이 하여 도착하였는데 Kelly 대령은 앞서 西海岸에서의 撤收에 종사하다가 興南으로 直行하라는 命令을 받고 달려와 11일에 도착하여 海兵師團의 輸送을 責任지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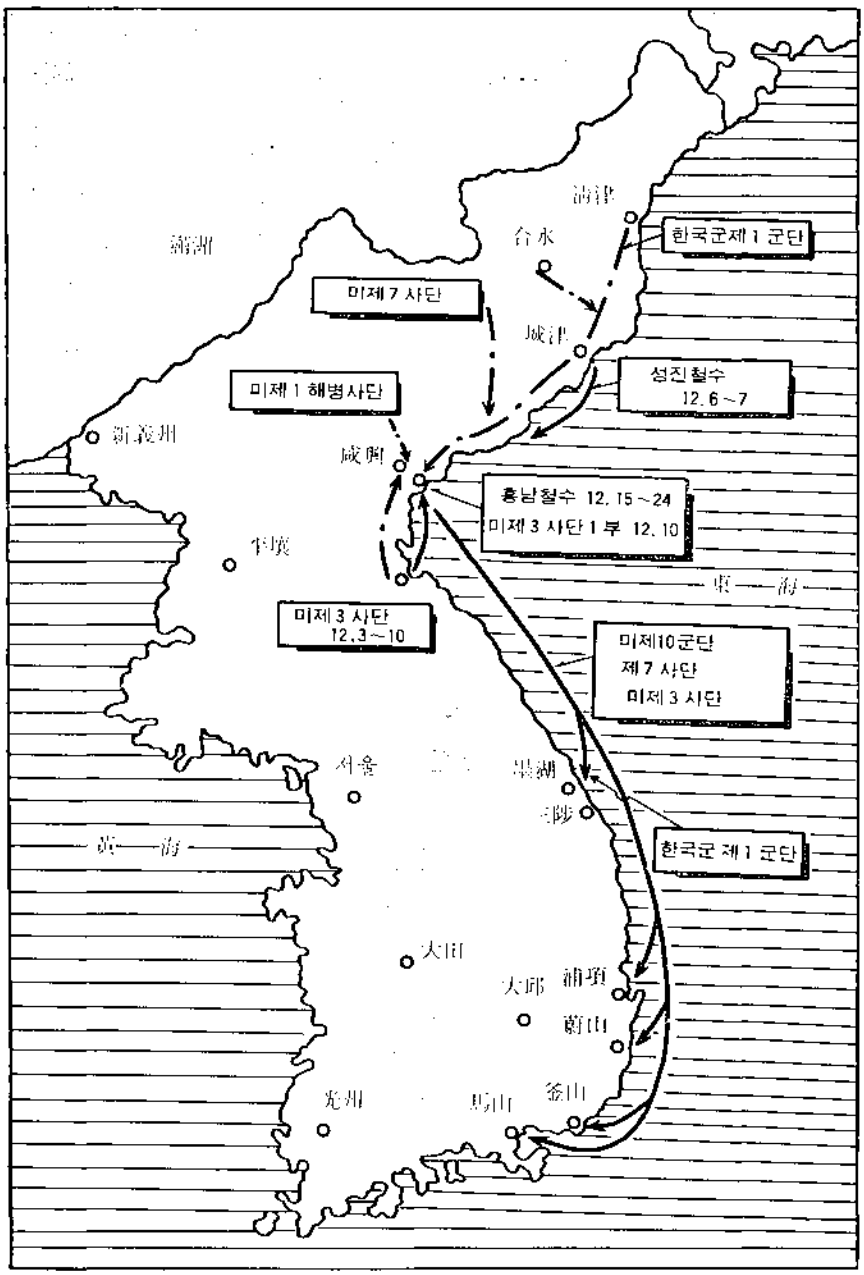
11일에 드디어 海兵隊의 乘船이 시작되었는데 다음날인 12일에 師團長 Smith 소장이 視察次로 興南 埠頭에 들렀을 때에는 모든 것이 順調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13일에 이르러 마침내 제5, 제7海兵聯隊의 搭載가 끝나고 出航準備도 完了하였으며 15.00에는 Smith 소장도 Bayfield號에 乘艦하여 艦上에 師團 C.P를 設置하게 되었다。

14일에 모든 搭載는 完了되었으며 15일 10.13에 Bayfield號를 先頭로한 수송부대는 釜

山을 향하여 뱃머리를 돌리고 항구를 빠져나갔다. 美 海兵隊의 175년에 걸친 역사를 통하여 가장 인상깊었던 戰鬪의 막이 내려진 것이다。

이 作戰에서 도합 22,215명의 海兵隊員이 철수하였으며 動員된 艦船은 APA 1척, AKA

◇ 상황도 제22호 興南 撤收作戰



1척, 輸送船(AP) 3척, LST 13척, LSD 3척 그리고 Scajap의 LST 7척이었다. 釜山에 上陸을 마친 美 제1해병사단은 다시 馬山으로 이동하여 부대를 재정비하게 되었다.

美 海兵隊의 撤收에 뒤이어 我 第1軍團을 三陟地區에 上陸시키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었다. 15일에서 18일에 걸쳐 제95.6掃海機動戰隊(사령관, R.T.Spoffo:d 대령)는 三陟一帶의 海岸의 掃海作業을 실시하였으며 한편 제 90.21輸送機動分隊의 사령관 A. E. Tarrell 대령은 Henrico號등 2척의 APA와 3척의 AKA 그리고 Scajap의 LST 2척을 거느리고 釜山에서 來航하였다.

12월 17일 낮에 제1군단의 搭載를 完了한 Jarrell 대령이 거느린 輸送部隊는 興南을 출발하여 18일에 三陟에 上陸을 마쳤다.

美 第7師團(장, D.G. Barr 소장)의 搭載도 併行하여 실시되고 있었으며 마지막 韓國軍이 興南을 뒤로하였을 때는 겨우 半정도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20일에는 全師團의 乘船이 完了되었다. 21일에는 드디어 Almond 소장이 그의 參謀들과 같이 제 90기동부대의 旗艦인 Mount McKinley號에 乘船하였으며 이제 興南地區의 防衛의 責任은 Doyle 소장에 돌아가게 되었고 R.H. Soule 소장이 지휘하는 美 제3사단은 獨力으로 海岸防衛에 임하면서 乘船을 기다리게 되었다.

美 제3사단의 乘船을 위하여 7개소의 搭載場所가 마련되었고 北로부터 분홍색海岸一青色海岸一第1綠色海岸一第2綠色海岸一第1黃色海岸一第2黃色海岸一第3黃色海岸으로 命名되었다. 左翼을 담당하였던 제7연대 전투단은 분홍색 海岸에서 搭載토록 계획되었으며 中央의 제65연대전투단은 青色海岸과 第1綠色海岸을 할당 받았고 제 15연대전투단에게는 第2綠色海岸과 세곳의 黃色海岸이 지정되었다.

作戰開始時間(H-hour)은 24일 11.00로 豫定되었는데 이날 08.00에 이들은 수송할 7척의 LST가 着岸하자 각 연대도 곧 지정된 海岸에 도착하기 시작하였다. 각 부대의 搭載는 계획한데로 진행되어 14.36에는 마침내 모든 搭載는 完了하였다.

興南 上空에 마지막 출격을 한 航空母艦 Prinston號의 R.B. Mack 대위는 그날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我軍의 撤收를 위한 哨戒飛行의 任務를 띄고 興南 上空에 출격하였다. ……나는 特別觀覽席에 앉아서 지난 날 일찌기 겪어보지 못하였던 우울하고도 슬픈 光景을 보게된 것이다.

밑에서는 마지막 兵力과 補給物資가 LST에 搭載중에 있었으며 다른 철수 함정들은 興

頭에서 빠져 나가고 있었다. 도처에서 불이 붙고 있었다. 처음에는 埠頭 주변에서 불이 나더니 차츰 全港口에 번져갔다。

LST가 海岸을 떠났을 때 수척의 우리 驅逐艦이 이동하여 와서 앞으로 敵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모든 건물을 砲擊 파괴하였다. 나는 20. 45까지 興南上空을 선회하면서 警戒하였다. 빌의 배들은 써커스團의 코끼리가 앞의 코끼리의 꼬리를 입에 물고 行進하듯 一列로 灣外로 航海하여 나가더니 마침내 船首를 釜山으로 돌렸다。

나는 母艦 Prinston號로 돌아갈 때 Mount McKinley號를 呼出하여 人事를 교환하였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 날은 바로 1950년 크리스마스 아브였던 것이다。

興南撤收作戰은 艦隊機動에 있어서 가장 成功한 例였다. 期間은 짧았고 各種部隊가 參加하여 協同作戰의 遂行을 극도로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 作戰의 特異性은 그것이 上陸作戰을 逆順으로 실시한데 있다. 이에 類似한 作戰을 戰史에 찾아볼 수 없다. 航空母艦의 戰鬪機나 海上 艦艇의 火力支援은 地上軍의 士氣를 높이는데 크게 貢獻하였다.』라고 하였다。

이 海上輸送作戰이 끝난 뒤의 最終集計에 依하면 美軍과 韓國軍의 兵力 105,000명과 피난민 91,000명이 수송되었으며 그 밖에 車輛 17,500輛, 貨物 350,000ton이 6척의 APA, 6척의 AKA, 12척의 TAP, 76척의 Scajap의 輸送艦, 21척의 LST, 11척의 LSD로써 輸送을 完遂한 것이다。

6. UN空軍의 活動 (1950년 1월 1일부터 1950년 1월 31일까지)

要 旨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나. 제13次 中共軍 공세에 對한 UN空軍의活動
다. 제5空軍 京仁地區에서의 撤收作戰

要 旨

UN空軍은 1950年 10月 25日부터 11月 8日까지 鴨綠江에서 淸川江까지 南侵을 敢行한 中共軍의 大大的인 제1次攻勢를 挫折 시키므로서 中共軍이 北韓內에서의 UN軍을 包圍擊破하기에 適合한 據點을 占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11月 25日에 淸川江에서 中共軍의 제2차 攻勢가 시작되어 12月 5日에는 大同江 流域에까지 進出하였는데 이 期間中에 UN空軍은 中共軍의 最初공격을 擊滅하고 뒤따른 공격의 速度를 遲延시켜 美 第8軍과 제10軍團이 撤收할 수 있도록 支援하였으며 事實上 12月 3日 以後에는 中共軍의 강력한 공격에 對決한 唯一한 勢力을 이루고 있었다。

이와같이 UN空軍의 果敢한 遮斷作戰과 武裝偵察로써 晝間의 機動은 물론이고 夜間의 南侵進擊까지도 遲延케 하였으며 敵陣을 強打하여 敵의 地上 공격을 無力化 시켰다。

UN空軍의 이 같은 활약으로 中共軍의 공격이 中止된 12月中에 美 제8軍은 서울을 防衛하기 위하여 38°線에 沿한 據點을 확보하면서 防守준비에 熱中하고 있는 동안 Walker중장의 後任으로 Matthew B. Ridgway 중장이 赴任하였는데 12月 26日에 그는 직책을 인수 받자 美 제8軍 隷下에 제10軍團을 配屬시키고 다시 美 제8軍을 다음과 같이 配置 하였다。

즉 서울 西北方의 左側面에는 美 제1군단을 그리고 서울 北方은 美 제9군단을 配置하였으며 加平에서 襄陽 附近의 東海岸에 이르는 地域은 韓國軍 제3, 제2, 제1군단이 담당토록 하였다。

한편 美 제10군단은 原州의 주요 교통 중심지에 있었는데 이곳에 位置 하므로서 美 제8군 中心部에서 韓國部隊 背後의 遮斷陣地들을 維持할 수 있었다。

UN空軍은 北韓으로부터 38°線방어지대로 戰略的인 撤收作戰을 실시하는 UN地上軍과 敵과의 接戰을 막기 위하여 強力한 遮斷作戰과 武裝偵察 비행 그리고 夜間 爆擊을 敢行하였으나 敵의 人海戰術을 常套로 하는 侵攻은 계속 되어 UN軍은 1950年 12月 31日 이른바 中共軍의 제3차 공세를 받게 되었다。

韓國의 冬季 氣象이 대체로 北西쪽에서 東南쪽으로 氣流가 移動 하는 것을 예측한 敵은 飛行하기 困難한 條件의 氣象과 時期를 택하여 美 1군단과 接戰 끝에 臨津江을 건너 서울로 侵入하였다。

따라서 美 제8군은 서울 橋頭堡로 撤收 하였고 1951年 1月 4日 또 다시 後退하였으며 結氷한 漢江 南岸에 防禦線을 구축하여 敵과 接戰하고 있는 동안 UN空軍에서는 惡天候를 무릅쓰고 敵을 폭격하여 人海戰法의 弱點을 粉碎하는데 全力을 다 하였다。

또한 敵 Guerrilla의 跳梁으로 말미암아 地上에서의 補給 輸送이 극히 어려워 지자 비상 공중 投下 方式에 의한 보급이 不可避하게 되었다。

極東空軍의 전투물자 空輸司令官 William H. Tunner 소장은 空輸 司令部의 C-119수송기로 地上軍에 對하여 보다 적극적인 空輸 支援을 斷行하도록 命令하였다。

이리 하여 空輸司令部에서는 山岳地帶에서 戰鬪하고 있는 美 제10군단에 對하여 보급품을 投下 하였으며 그밖에도 美 제5공군과 美 제8군에 적극적인 空輸를 실시 하는 한편 歸路에는 많은 환자를 後送 하였다.

또한 美제5공군의 전투폭격기들은 戰線의 西半部에 對한 近接支援을 담당하여 熾烈한 敵의 地上攻擊을 阻止하는 동안 敵의 空軍은 뒤 늦게 空中活動을 始作하여 UN軍 戰線의 몇個 地區에 대한 策應을 試圖하였으나 UN空軍의 즉각적인 反擊으로 敵의 MIG機들은 많은 損失만을 입게되었다.

그러나 UN地上軍이 京仁地區를 撤收하게 되자 UN空軍도 이에 따라 大邱((K—2)基地를 비롯하여 釜山(K—9)과 鎭海((K—10) 基地로 撤收하였다가 다시 日本의 各 비행장으로 移動 하였다.

UN空軍은 이토록 撤收作戰을 계속 하면서 期間中에 1日 平均 1,125回에 達하는 出擊을 記錄하였는데 이중 近接支援 出擊은 96回였고 遮斷出擊이 338回였다.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美 極東공군사령관
중장 George E. Stratemeyer
美 제 5 공군사령관
소장 Earle E. Patridge
美 極東공군 전투물자 공수사령관
소장 William H. Tunner
美 極東폭격사령관
소장 Emmett J. O'Donnel
준장 James E. Briggs
(1951. 1. 10 부터)

나. 제3次 中共軍 공세에 對한 UN空軍의 活動

UN空軍은 強力한 遮斷作戰과 武裝偵察을 敢行하였으며 敵地上軍이 夜間을 利用하여 하루에 겨우 8mile 밖에 機動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고 그 攻擊 威勢를 抑制하는데 크게 貢獻하는 바가 있었다.

이와 같은 UN空軍의 활약으로 敵의 攻擊이 잠시 中絶된 1950年 12月中에 美 제8軍은 서울을 防衛하기 위하여 38°線 바로 南쪽에 있는 據點들을 확보 하였으나 12月末에 中共軍의 3次 공세로 臨津江畔의 美 제8軍 防禦線까지 肉迫하게 되자 12月 27日에 極東 海軍과 空軍의 兩者 회담에서 상호 협력을 증진 시키기 爲하여 제77機動 航空母艦의 艦載機를 戰線의 東半部에서 근접지원 할 것과 地上 관제사로부터 근접지원 攻擊目標를 지정받지 못할 경우를 豫想하여 海軍 조종사들이 武裝偵察을 할 수 있도록 事前敎育을 실시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第5空軍 전투폭격기들은 戰線의 西半部에 對한 근접지원을 담당하여 12月 31日부터 다음 해인 1951年 1月 15日까지 每日 平均 104回에 達하는 出擊을 記錄하였다。

뿐만 아니라 美 제8軍이 強力한 敵의 攻擊을 받고 있던 1月 1日에는 258回의 近接支援出擊을 敢行하였고 그뒤 1月10日 하루만 진눈개비가 뿌리는 惡天候로 因하여 地上支援을 中止하였고 계속 地上軍支援에 心血을 기우렸으니 즉 1月 4日에는 서울 西北方 3~4mile 지점에서 전투폭격기의 공격으로 敵 500名을, 그리고 6日에는 橫城 西北方 6mile지점에서 敵 100名을 各各 擊滅하므로써 地上軍의 聲勢를 크게 鼓舞하였다。

이제 3次 공세 기간중에 UN空軍의 전투폭격기들은 攻擊할 敵의 目標가 鮮明하여 짙기 때문에 機銃掃射와 Rocket 그리고 Napalm (燒夷 油脂彈) 攻擊을 集中하여 敵을 痛打하였는데 1月 7日에는 橫城 東北 쪽에서 敵 150~200名을 戰鬪爆擊機로 原州 근방에서는 60名을 射殺하고 敵陣을 撲滅하므로써 一方的인 制空權의 威力을 如實히 보여주었다。

그뒤에도 계속 氣勢를 떨쳐 1月 13日에는 杆城에서 南下 中인 敵을 공격하여 150名을 擊滅하였고 原州市에 侵透하는 敵을 擊退하므로써 最後까지 여가를 固守하고 있던 美제8軍을 직접 支援하였다。

第5空軍 以外의 다른 飛行部隊들도 敵의 攻勢를 牽制하고 抑留하는데 많은 效果를 보았으니 제3폭격단의 B-26 夜間 爆擊機들은 敵主力軍에 對한 近接攻擊을 계속 集中하였으며 1月 2日에는 C-47 輸送機로써 戰線에 조명탄을 投下하는 方式을 適用하기도 하였는데 이 方式으로 B-26 夜間 爆擊機는 低空飛行 공격까지 敢行할 수 있게 되었고, UN軍의 前線에서 模糊한 敵陣을 確認하고 效力射를 發揮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敵의 夜間 機動力에 커다란 威脅을 주게 되었다。

한편 폭격 司令部도 美제5空軍과 美 제8軍의 요청에 따라 隨時로 敵陣을 爆擊하여 人馬에 대한 殺傷과 殲滅의 效果를 거두었다。

타이즌 폭탄(Tarzon Bomb) 2個씩을 장비한 B-29爆擊機가 華川댐을 폭파하여 洪水가 一時에 北漢江 一帶에 넘쳐 흐르도록 하였으며 漢江과 北漢江의 凍結을 防止하기 위한 여러 차례의 폭격을 敢行하여 結氷된 河川을 넘고 南侵하려는 敵의 進擊速度를 牽制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요청된 戰線目標 以外에도 極東空軍 폭격司令官 Emmett J. O'Donnel 소장은 敵戰線 背後 깊은 地域에 對한 爆擊을 命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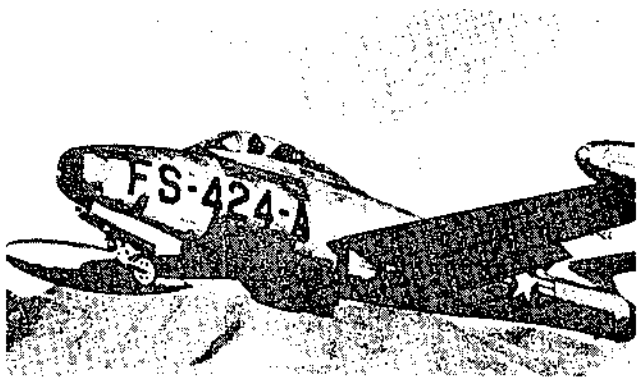
開전대 平壤이 敵의 本部일 뿐 아니라 주요한 보급 및 통신과 수송의 中心地 이므로 爆擊司令部에서는 1月 3日과 5日에 B—29爆擊機의 大大的인 集中強打를 斷行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氣象이 나빴고 建物 지붕에 눈이 덮여서 燒夷彈 攻擊의 效果는 어느 程度 감소되어 目標物의 35%밖에는 파괴할 수가 없었다。

두 차례에 걸친 平壤의 大爆擊 以後에도 폭격 司令部에서는 北韓의 端末地域에 있는 철도를 파괴 할 것과 西海岸을 따라 橋梁과 操車場 및 철도 시설을 폭파 하라는 任務를 받게 되었는데 1月 9日에 極東空軍 司令官 George E. Stratemeyer 중장은 命令 하기를「B—29 폭격기 全力의 30% 以上을 操車場 폭격에 投入하고 각종 高性能의 時限 폭탄을 사용하라」고 하였다。

1月 14日以後 極東空軍에서는 B—29폭격기 全力을 投入하여 遮斷作戰을 敢行하였고 이와 동시에 極東 海軍에 對하여 咸興과 高城사이의 東海岸 철도를 파괴하도록 요청하였다。

第4戰鬪團의 Sabre 戰鬪機들은 UN軍이 金浦地區에서 撤收하므로써 부득이 日本으로 移動하였다。



<北韓으로 出擊한 F-84戰鬪爆擊機>

그러나 UN空軍에서는 敵 空軍의 活動을 封鎖하기 위하여 1月 8日에 B—29폭격기로 金浦(K—14) 비행장을 폭격, 파괴 하였고 1月 23日에는 平壤(K—23) 비행장을 다시 폭격 하였으며 時限폭탄을 投下하여 時急한 修理가 곤란하도록 만들어 놓기도 하였다。

이 期間中의 敵 포로들은 縱橫無盡한 UN空軍의 파괴력을 인정하면서 UN空軍은 中共軍의 보급로를 遮斷하는 目的에서만 아니라 人員의 殺傷率에 있어서도 그 50%以上이 UN 空軍力에 의한 것이라고 述懷하였다。

이와같이 UN空軍이 눈부신 地上支援을 하고 있는 동안 敵의 空軍은 뒤 늦게 1月 14日과 15日에 活動相을 보이게 되어 몇 차례에 걸친 UN軍 戰線에 대한 攻擊以來로 1月中에는 MIG機의 跳梁이 계속 되었으나 1月 21日에는 William E. Bertram중령이 MIG-15機 1臺를 격추 하여 버렸는데 F-84E 戰鬪機로서는 MIG機를 격추 시킨 最初의 일이었다。

또한 開戰以來 여러차례에 걸친 空中戰에서 1月 23日에 있었던 最大의 Jet機 空中戰이였는데 滿州國境 근처에서 B-29폭격기를 護衛飛行하던 F-84E 戰鬪機 33臺와 MIG機 25臺間에 熾烈한 空中戰이 展開되어 UN空軍機 F-84E는 1臺의 損失도 없이 MIG機 3臺를 격추 하였으며 또 다른 3臺를 파손시키는 戰果를 얻었다。

이 期間中 敵의 MIG機는 많은 격추를 당하여 飛行機가 不足되었다고는 하나 淸川江까지 南下하여 韓國의 西北部 上空을 侵入하고 있었다。

한편 UN空軍의 空輸作戰은 中共軍의 제3次 공세로 서울과 水原에 있는 UN空軍의 비행장이 敵에게 占領되자 이 兩 비행장에 空輸되던 보급품이 끊어지므로써 美 제8軍은 空中投下 보급을 받아야 할 戰況에 놓여지게 되었다。

極東空軍의 전투물자 空輸司令部에서는 C-54와 C-119 수송기로 空輸할 수 있는 前方基地로는 大邱(K-2)와 釜山(K-9)의 두 비행장 뿐이 었고 大田(K-5) 비행장의 滑走路는 結氷期에 限하여 大型 수송기들이 離 着陸할 수 있었다。

解氷된 며칠 뒤인 1月 4日에 C-54 1臺가 大田비행장에 着陸하다가 큰 事故를 이르켰기 때문에 C-46이나 C-47 수송기 보다 무거운 비행기는 여기에서의 作戰을 禁止하기에 이르렀다. 戰況의 進展에 따라 空輸가 時急하여 지고 國內의 비행장 能力으로서는 도저히 必要量을 充當할 수가 없게 되자 地形上으로 設置可能한 곳에 몇개의 臨時 滑走路를 만들기로 하였으니 長津湖 地域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美 제10軍團에서는 原州와 忠州 그리고 安東에 각각 滑走路를 만들었고 空輸司令部에서는 여기를 利用하여 C-46과 C-47수송기의 作戰을 展開하였다。

이리 하여 1951年 1月 1日에서 24日에 이르는 동안에 空輸司令部에서는 C-119 수송기를 모두 406回에 걸쳐 出擊하여 美 제10軍團에 도합 2,007 ton의 보급품을 投下 하였다。

이러한 보급품의 大多數는 山岳地帶에서 戰鬪하고 있는 美 제10軍團의 部隊들에게 投下 되었는데 보급품은 주로 Ration과 彈藥 그리고 POL 장비 와 기타 部隊 장비들이 었다。

이러한 空中投下 以外에도 戰鬪空輸司令部에서는 1月 1日부터 24日까지 제5空軍에 5041.2 ton을 美 제8軍에 7445.3 ton을 各各 空輸하였으며 歸路에 10,489名의 戰傷者를 後送하였다。

中共軍의 3次 공세 期間中 戰鬪가 熾烈하고 地上軍이 進退維谷에 處하였을 당시에 UN 空軍이 敵의 人海戰法을 물리치는데 이룩한 功績으로 말미암아 UN軍司令部에서는 空軍力에 많은 信賴를 갖게 되었다。

지금까지 地上軍에만 置重하였던 指揮官들도 「敵背後에 對한 UN空軍의 強力한 攻擊作戰의 突效로 그 見解를 再認識하게 되었으니 空軍의 地上戰 參加로 數많은 敵을 殺傷하였을 뿐 아니라 敵의 군수지원력과 機動力을 파괴하여 人海戰術을 無力化하는데 절대적인 힘이 되었다」라고 찬양하였다。

다. 第5空軍의 京仁地區에서의 撤收作戰

1951年 1月初에 UN軍이 京仁地區의 地上基地를 喪失 하므로써 제5空軍은 처음에 敵이 不法 南侵할 때에 使用하였던 基地들로 다시 撤收하지 않을 수 없었다。

暫時 동안이기는 하였으나 美제5空軍 部隊들은 모두 日本으로 撤收할 계획을 세워 敵이 京仁 地區로 侵入하기 以前인 1月 5日에 중장비와 주요 補給品을 移動시켰으며 少量의 긴급 物資만을 仁川에 남겨 두었는데 이날 海軍에서는 敵이 사용할 수 없도록 仁川港을 파괴하고 撤收하였다。

1月 2日에 제4전투 비행단의 F-86戰鬪機들이 金浦(K-14)를 撤收하였고 1月 4日 正午에는 제51전투 비행단이 金浦를 完全히 撤收 하였으며, 1月 6日에는 水原(K-13) 비행장을 抛棄하므로써 제18전투 폭격단은 前方基地를 잃어 버리게 되었다。

이리하여 제18전투 폭격단의 승무원들은 1月 5日 鎭海(K-10)基地로 後退하여 作戰을 계속 하였는데 이에 따라서 다시 한번 大邱(K-2) 비행장이 最前方 基地가 되었으나 여기도 또한 당시의 戰況變動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제5空軍에서는 極東空軍의 指示에 따라 만약 이 基地를 잃게 되면 釜山에 作戰梯隊(Operational Echelon)를 設置하고 日本에 後方梯隊(Rear Echelon)를 두기로 決定하였다。

이와 같은 撤收 계획에 의하여 제5空軍의 全部隊들은 作戰 계획을 마련하였고 모든 장비들을 韓國에서 日本으로 空輸하였다。

또 戰術偵察 기구로 창설된 제543전술 지원대는 1月 12日에 大邱로부터 日本의 Komaki로 직접 전투에 필요하지 않은 人員과 장비를 空輸하였다。

또한 1月 24日에서 31日사이에 大邱에 있던 제21전투 護衛 비행단의 派遣隊는 Itazuke로 撤收하였으며 1月 26日에 제49전투 폭격비행단에서는 派遣隊를 大邱에 주둔 시키고 團本部는 日本의 Tsuiki基地로 移動 하였다。

大邱에 주둔한 제49전투 비행단 派遣隊의 주요한 임무는 大邱에서 作戰을 수행하고 있는 全 戰鬪機에 연료를 보급하고 再武裝시키는 일이 었다。

釜山(K-9)基地에서도 제35전투 폭격단은 중장비와 보급물자들을 釜山 비행장에서 日本으로 空輸하였으며 1月末에는 韓國에 주둔하고 있던 제51전투 폭격단은 단지 2個團 뿐으로써 제18전투 폭격단은 鎭海(K-10)에 제35전투 邀擊 비행단은 釜山水營(K-9) 비행장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兩 戰鬪團도 그들의 基地 지원력을 연료 재보급과 재무장 派遣정도로 減少 시키려고 24時間 계속 근무로 撤收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地上戰況이 好轉 되는 徵候가 보이자 제5空軍 司令官 Earle E. Patridge 소장은 제18전투 폭격단과 제35전투 폭격단은 당분간 그대로 남아 있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1950年 여름 釜山 防衛作地에서 戰鬪하던 당시와 마찬가지로 1951年 1月末 美제5空軍의 戰鬪力의 大多數가 日本에 있었다。

즉 제8비행단과 제27비행단은 Itazuke로 撤收 하였으며 제51전투 邀擊戰隊는 Tsuiki로 撤收하였고 제4전투 邀擊戰隊는 Johnson基地로 機動한 것이고 또 제3폭격전대는Iwakuni로 제452 폭격전대는 Miho로 各各 撤收하였다。

UN空軍은 이와같이 계획된 撤收作戰을 展開하면서 期間中에 다음과 같은 戰果를 거두었다.

戰　　果

戰　　車—— 8臺	貨 物 車—— 137輛
野　　砲—— 26門	MIG機격추—— 6臺
一般車輛——444臺	敵 射 殺—— 18,829名
기 관 차—— 11臺	

第 38 章

第2次 38°線 防守作戰

要　旨

1. 襄陽—西林附近 戰鬪
2. 縣里附近 戰鬪
3. 洪川附近 戰鬪
4. 東豆川附近 戰鬪
5. 第2次 서울 撤收戰
6. 南大里附近 戰鬪
7. 寧越附近 戰鬪
8. 原州地區 攻防戰
9. 赤城里 戰鬪
10. 海軍YMS—510艦 仁川 奇襲 上陸戰
11. 海軍의 第2次 仁川 上陸作戰
12. 海軍JMS—306艦의 麗津地區 戰鬪
13. UN空軍의 活動

第38章 第2次 38°線 防守作戰

要 旨

韓滿國境에서 철수한 我軍이 38°線上에 배치한 12월 20일의 배치상황은 다음과 같았다。즉 東에서 西로 제1군단(首都 제9사단)이 襄陽—西林里—縣里—院堡里간에, 제2군단 (제3사단 제7사단)이 院堡里—寬堡里간에 배치하였고 제3군단(제2, 제5, 제8사단)이 春川正面에, 美제9군단(我제6, 美제24사단, 英제27여단)이 議政府正面에, 美제1군단 (我제1, 美제25사단, Turkey여단)이 高浪浦里—汶山간에 각각 배치되어있었다。그리고 이 第一線 諸部隊의 철수시에 次期 行動을 준비하기 위하여 我제7사단과 美제2사단은 原州부근에, 그 후방 大邱에는 美제10군단사령부와 美제7사단이 진출하였으며 美제1해병사단은 馬山에서 再編中에 있었다。그리고 西部지구의 美제9군단 후방 議政府에는 美제1기갑사단이, 美제10군단후방인 平澤부근에는 美제3사단이 각각 제1선으로 起用할 만한 狀態에 있지 못한채 第2線부대로서 陣地占領과 再編成을 서두르고 있었다。戰線은 220km에 달하는 山岳地帶였으며 戰爭에 지친 제1선 사단의 正面은 20km~30km에 達하여 各師團은 小·中隊단위의 據點式 陣地로서 主抵抗線을 구축하였으며 強力한 예비대를 擔置하지 못한 縱深없는 陣地를 형성하였으므로 一點이 突破된다면 全正面이 崩壞될 위험에 있었다。

당시 我軍의 兵力은 總 365,000명이나 그중 戰鬪兵力은 韓國軍 14萬과 美軍10萬 그리고 그 외의 1萬名으로 불과 25萬名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당시 我軍陣地 全面으로 南下한 敵의 總兵力은 中共軍 30개사단 약 30만명 (당시추정 21개사단 276,177名)과 北共軍 12個師團 및 Guerrilla부대등 167,283名을 合하여 제1線부대만도 總 470,000名에 達하는 한편 참전준비를 끝낸 65萬名이 滿洲에서 待機中이며 25萬名의 부대가 滿洲로 이동하고 있었다。

如斯한 狀況下에 12월 26일에 부임한 Ridgway 제8군사령관은 多方面에 걸친 세심한 검토끝에 『決戰的防禦의 反復에 의하여 戰力의 轉換을 도모한다』는 戰略方針을 確固히 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數線의 방어線을 선정하였다。

『第1防禦線 : 襄陽에서 38°線에 沿하여 臨津江南岸에 沿하는 線으로서 同線上에 前記한 我首都, 제1, 제2, 제3, 제5, 제6, 제8, 제9사단과 美제24, 제25사단등 10개사단을 배치방어케 하는 동시에 三陟—平澤線上에 我제7사단과 美제1기갑, 제2, 제3, 제7, 제1해병사단을 예비로 배치하여 부대의 재편과 방어진지를 구축한다。

第2防禦線 : 注文津—洪川—陽平—永原을 沿하는 線으로서 同陣地設定의 目的은 38°線上에서 후퇴하는 제1선부대의 수용과 三陟—平澤線의 방어준비를 위한 時間的여유를 얻는데 있다。

第3防禦線 : 前記한 三陟—原州—安城—平澤線으로서 38°線 다음의 제2次 抵抗陣地였다。

第4防禦線 : 小白山脈과 錦江南岸으로 沿하는 錦江線

第5防禦線 : 小白山脈陣地線

第6防禦線 : 1950年의 洛東江戰線등이다。

이 준비된 陣地에 의하여 我軍의 人的損失을 最少限으로 避하고 準備된 火力에 의하여 敵에게 最大限의 損失을 주어 그線이 突破될 危險에 빠지면 다음 陣地로 후퇴하는 등의 防禦의 反復을 통하여 敵의 戰力을 소모시킴으로써 攻勢로 轉換할 方針이었다。

한편 이 무렵 中共軍과 北共軍은 我軍의 撤收에 追隨하여 12月현재 北共 제2전선 부대와 연계하여 東에서 西로 東海岸에 北共제1군단이 蔚蔚부근에, 北共제2군단과 제3군단이 다시 楊口에, 北共제5군단이 집결하였으며, 華川, 金化, 平康, 鐵原, 漣川, 開城등지에 中共軍 7개군이 각각 집결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당시 敵의 作戰方針은 제2전선부대의 주력 北共제10사단 및 吉元八유격부대병력을 戰線東部에서 我軍의 縱深으로 깊숙히 侵透시켜 春川—原州—大邱의 中央道에 걸친 要點을 先取하여 中東部戰線주력의 南下에 호응토록 한 다음 서울지구에 主攻을, 春川—原州線에 助攻을 지향하려 한 것이다。

如斯한 作戰構想에 따라 中東部戰線의 北共軍은 主力集團의 作戰開始에 先行하여 12월 下旬부터 제2전선 (12월 말에 제2군단으로 개편)의 吉元八유격부대와 제10사단을 투입하기 시작하였다。

곧 楊口 西쪽의 我제8사단 지역에는 敵제10사단의 일부병력이 12월 22일부터 山岳을 타고 潛入하기 시작하였으며, 東쪽 我제9사단 右側의 太白山脈과 同사단 左一線의 山岳지대에는 吉元八유격부대가 침투하기 시작하였다。이들 敵제2전선부대는 12월 30일 陽德院里(洪川 西南 10km)에 진출하였고 주력은 平昌—寧越 및 丹陽—安東부근에까지 침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같이 敵은 中東部戰線에서 제2전선부대를 我軍의 後方으로 침투시킨 다음 12月 31日 서울지구의 美제1군단 예하 我제1사단 正面인 高浪浦里와 美제9군단의 議政府正面에 主攻을, 中部地區의 春川正面에 助攻을 두고 全戰線에 걸쳐 일제히 攻擊을 개시하여 그들의 所謂「제3차작전」을 전개하였다。

이때 서울에 主攻을 둔 中共軍의 兵力은 5個軍 15個師團으로 推算되었거니와 그중 1個軍은 高浪浦里 正面의 韓國軍 제1사단을 突破하여 北漢山麓을 따라 서울로 指向하였고, 各 1個軍은 我제6사단과 美제24사단 正面을 突破하여 漣川—東豆川—議政府道와 鐵原—抱川—議政府道를 따라 서울을 目標로 南下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二個軍은 我제2사단 正面을 돌파하여 漢江과 北漢江의 合流點부근을 목표로 서울의 背後를 遮迫하였다。

한편 이날 春川—原州線에 助攻을 지향한 北共제3, 제5군단의 약 10개사단과 北共 제2군단의 일부병력은 12月下旬에 我軍의 後方으로 침투한 제2전선부대와 호응하여 中部戰線의 제3, 5, 8, 9사단 정면을 돌파하고 급속히 南下하기 시작하였다。이에 美제8軍은 1월 3일 『我제1군단(首都사단)과 제3군단(제3, 제7, 제9사단)을 注文津—洪川간에 美제10군단 (제2, 제7사단)으로 하여금 前 我제3군단 예하 제2, 제5, 제8사단을 통합지휘하여 洪川—楊平間을 각각 확보토록하였다。그리고 이날 西部戰線에 대해서도 美제9군단과 美제1군단은 美제25사단과 英제29여단의 엄호에 서울을 철수하여 楊平—水原간을 확보케 하는 동시에 美제3사단은 平澤부근으로, 美제1기갑사단은 安城부근으로 각각 이동하여 차후 행동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따른 注文津—洪川—楊平—水原전지의 형성은 4일 서울철수와 같은 時刻에 洪川이 敵에 奪取되자 1월 5일 12.00에는 다시 三陟—原

州—長瀞院—竹山里—安城—平澤線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고 이어 1월 6일 東部戰線의 我제1군단과 제3군단은 육본작전명령 제258호 수정훈령 제1호에 의거 黃牛線(三陟—寧越)으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1월 6일 현재 敵의 主攻을 맞은 西部戰線의 美제1군단과 제9군단은 長瀞院—竹山里—安城—平澤線으로 후퇴하여 抵抗陣地를 점령한뒤 中共軍의 攻勢가 頓挫되어 敵과의 접촉을 갖지못하자 1월 15일 敵과의 접촉을 유지하고 中部戰線에 加해진 壓力을 완화하기 위하여 利川—水原지역을 위력정찰하기 위한 Wolfhountd 作戰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와는 反對로 中東部戰線의 戰況은 날로 深刻하여 갔다。1월 4일 洪川을 奪取한 北共軍 중 제2군단에하 제2, 제9, 제31사단이 6일에는 橫城을 탈취하고 이어 原州의 美제2사단을 공격하여 7일에는 原州를 함락하였다。이에 美제2사단은 일시 후퇴하였으나 原州부근을 死守하였거니와 이어 이를 敵의 主力은 原州에서 堤川—寧越間으로 南下하여 太白山脈을 따라 南下한 敵과 合流하여 春陽—榮州間을 압박하였다。

이에 我제3사단은 南大里에서 이를 北으로 退擊하고 寧越右側方의 我제7사단이 다시 이 退敵을 맞이 공격하므로써 中部戰線에서의 敵의 계속적인 南下는 阻止되었다。

1. 襄陽—西林附近 戰鬪 (1950년 12월 21일부터 1950년 12월 31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8호
작명부록 제89, 115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我 軍	
제 1 군단	장 소장 金 白 一	제26연대	장 대령 徐 廷 哲
首都사단	장 준장 宋 堯 讚	제 1 대대	장 소령 權 用 性
제 1 연대	장 대령 韓 信	제 2 대대	장 소령 韓 鶴 頊
제 1 대대	장 대위 咸 溶 奭	제 3 대대	장 소령 朴 徽 洙
제 2 대대	장 중령 申 彦 國	배속부대	
제 3 대대	장 대위 李 聖 鳳	제10야포대대	장 중령 李 奎 三
제1기갑연대	장 대령 金 東 洙	首都야전공병대대	
제 1 대대	장 소령 朴 京 虎	병력 및 장비	
제 2 대대	장 소령 朴 翊 均	대체로 사단 T/O 및 T/E를 유지함.	
제 3 대대	장 소령 林 觀 默		

敵 軍	
北共 제 2 군단 소속 제 2 전선부대	제69여단
제10사단	吉元八유격부대
제12사단	

나. 전투 전의 개황

제1군단(장, 金白一소장)의 首都사단과 제3사단은 興南에서 美 제10군단(장, Almond소장)의 엄호 아래 咸興와 蔚珍및 釜山에 各各 海上輸送作戰을 完了한 다음 새로운 진지점령을 위하여 一路 38°線 부근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首都사단(장, 宋堯讚준장)이 담당하게 될 이 新陣地는 襄陽을 中心으로 한 東部戰線으로서 제1차적으로는 太白山脈을 據點으로 遊擊活動을 펴고 있는 敵의 "제2전선"(敵 제2군단이 주축이 된 後方攪亂

部隊)의 敵을 捜索 撲滅하고 제2차적으로는 中共軍을 包含한 敵 主力部隊의 南下를 阻止 擊退하기 위한 韓國軍 專擔의 最東翼 戰術責任地域이었다. 이 부근의 地勢는 韓半島의 脊椎를 이룬 太白山脈이 平均 海拔 100m이상인 大小連峰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울창한 森林과 天險의 山勢는 敵 제2군단의 遊擊跳梁을 爲한 제2전선의 形成에 適合하였으며 北으로부터 金剛山—雪岳山—五臺山—大關嶺—泰岐山을 이은 峻嶺은 敵의 潛跡 出沒에 有利한 반면 我軍의 追躡 接觸에 不利한 條件이었다.

또한 交通網도 東海岸에 接한 江陵—襄陽—東草間의 道路는 비교적 良好하나, 襄陽에서 雪岳山을 끼고 元通里에 이르는 도로와 襄陽에서 西林에 이르는 道路등은 粗雜하여 部隊機動을 阻害하였고 五台山에서 東海로 流入하는 連谷川(注文津) 및 南大川(襄陽)등도 酷寒期로 인한 結氷으로 天然障碍物로서의 이용 가치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總反擊作戰에 있어서 38°線 突破部隊로서 이미 地形을 熟知한 바 있었던 我軍은 이와 같이 不利한 여러가지 條件을 오히려 逆이용 할 수도 있을 것이다.

敵軍의 상황 : 中共軍의 不法侵略으로 韓滿國境에까지 진격하였던 我軍 및 友軍은 全戰線에서 全般的인 철수 작전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美 제10군단만이 興南에서 橋頭堡를 설치하여 陳毅가 지휘하는 中共 제3야전군의 제9병단 예하 제20군과 제26군 및 제27군의 총 9개사단에 의해 長津湖—古土里부근에서 포위된 美 제1해병사단을 무사하게 興南으로 철수시키고 清津 및 恵山鎭에서 철수한 韓國軍 제1군단을 興南에서의 海上철수를 成功的으로 끝마치기 위하여 興南—咸興일대에서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와같이 中共 제9병단과 北共 제3군단, 제5군단이 興南 橋頭堡 陣地에서 美 제10군단과 對峙하고 있을 무렵, 西部戰線에서는 林彪가 이끄는 中共軍 제4야전군의 제13병단예하 제38, 제39, 제40, 제42, 제50군 등 都合 15個師團과 北共 제1군단은 平壤(12월 6일)을 거쳐 12월 20일경에 金川에 육박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敵軍의 作戰은 所謂 그들의『제2차 작전계획』에서 그 大要를 찾아 볼수가 있으니 즉,『決定的인 反擊으로 轉換하여 清川江과 長津湖 그리고 清津地域에서 UN軍 및 韓國軍을 포위 섬멸한 다음 南으로 戰果를 擴大하면서 제2전선부대와의 連繫下에 38°線 以北지역을 완전히 확보한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곧『제1차 작전의 餘勢를 몰아 西部地域에서는 清川江線을 넘어 平壤을 단번에 奪取하며 東部地域에서는 長津湖畔에서 咸興으로 진출하여 東北部 일대의 UN軍및 韓國軍을 孤立시킨 다음 38°線 以北을 再掌握하려 한다』는 것으로 敵의 作戰企圖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敵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中共 제9, 제13兵團과 北共 제1, 제2, 제3, 제4, 제5군단이 그들의 제2차작전에 投入되었었고 中共—北共軍의 聯合體制에 의하여 東·西地域別로 統合지휘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敵의 제1, 제2차 작전이란 다음과같은 槪念을 뜻한다.

즉 敵 제1차 작전은 中共軍의 不法侵略과 때를 같이 하여(1950년 10월 25일) 시작된 敵의 所謂 反擊作戰을 말함이며 中共 제13兵團의 4個軍이 清川江線에 육박하게 되는 11월 24일까지의 기간이다.

敵 제2차 작전은 1950년 11월 25일부터 同年 12월 24일까지의 기간으로 이때 敵은 西쪽으로 開城, 東쪽으로 咸興附近에 진출하였다.

이 기간중에 敵의 戰術은 主로 大規模의 包圍와 積極的인 迂回戰法을 使用하였고 特히 中共軍의 人海戰術로서 波狀攻擊과 浸透戰法으로 一貫하였다. 이와같이 하여 西部戰線에서는 淸川江(12월1일)—平壤(12월 6일)—沙里院(12월 11일) 경유 12월 20일 무렵에 金川에 進出하였고 東部戰線에서는 中共軍이 長津湖畔에서 咸興으로, 北共軍이 淸津에서 城津경유 洪原으로 各各 南下하여 12월 10일부터 美 제10군단 主導下의 興南 橋頭堡작전에 彼我가 서로 對峙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東部戰線의 敵은 15일간이나 계속되는 興南 橋頭堡작전에 中共軍 및 北共軍이 美 제10군단 및 한국군에 의해 戰力消耗를 너무나 많이 強要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企圖하였던 바 38°線 부근의 早期진출에도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된 셈이었다.

이상과 같은 戰況의 進展에서 미루어 볼때 12월 20일 무렵에는 敵의 主力부대가 首都사단 담당지역인 襄陽附近에 있는 東部戰線까지 미치지 못하였고 오직 敵 제2군단만이 後方遊擊部隊로서 所謂 제2전선을 형성하여 太白山脈 일대에서 出沒하는 형편이 었다. 이당시 이 제2전선부대는 我軍의 총반격 작전으로 말미암아 그退路가 차단 된 敵 제2군단의 패잔 합류병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敵 제2, 제4, 제9, 제10, 제15, 제27, 제31사단 등의 패잔병이 주로 포함되어 있었다. 38°線 以南에서는 太白山脈, 그리고 그 以北에서는 狼林山脈이 각각 그들의 據點이 었으며 敵의 제2차작전 期間 동안에는 게릴라戰을 企圖한 바 있었고 또한 西部戰線에서 UN軍이 철수할때 平壤—新溪間에서 一時 退路를 차단하는 등 始終 我軍의 철수작전을 妨害하는 것으로 一貫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中東部戰線에서의 38°線 以北에 蟠踞하고 있던 敵 第二戰線部隊의 상황을 보면, 당시 華川附近에 跳梁하고 있던 敵 제2군단 소속인 제10사단의 제29연대가 春川을 目標로 戰車10台를 先頭에 내세우면서 一路 南下하였고 敵 제9사단이 鐵原—金化부근에서 中部戰線인 東豆川—議政府를 目標로 南進中에 있었다. 또한 元山 北쪽에서는 中共 제42군 소속인 제124, 제125, 제126사단이 장차 東部山脈을 타고 平康—鐵原방면으로 南侵하여 직접 北共 제2전선부대를 지원할 것으로 보였다. 특히 首都사단의 새로운 작전지역인 五台山 일대에는 敵 遊擊隊 약 2,000명이 跳梁하고 있었으며 五臺山과 雪岳山이 山岳으로 連綴되어 共匪들의 絶好의 根據處였으므로 여기를 발판으로 하여 그 遊擊隊는 襄陽과 江陵 一帶에까지 後方攪亂의 손길을 뻗쳐 我軍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我軍의 상황 : 이와같은 敵情의 判斷아래 제1군단(장, 金白一소장)예하 首都사단은 12월 18일까지 興南에서의 海上轉進作戰을 完了한 다음 墨湖에 上陸하자마자 곧 이곳에 開設된 사단지휘소에서 사단장 지휘아래 各隊에 대한 部隊점검을 실시하고 戰列을 가다듬는등 部隊整備를 서두르게 되었다.

그뒤 20일까지 각 연대의 진출상황을 보면 제1연대(장, 韓 信대령)는 18일 墨湖에 上陸한 다음 그날로 樂豊里(江陵郡 王溪面)로 진출하여 露營하였고 19일에는 이곳을 출발하여 다시 仁邱里를 向하여 진출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20일까지에는 全 연대가 仁邱里에 진출 완료하게 되었고 이와 아울러 연대 지휘소도 躍進하여 仁邱里에 設置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제1연대가 墨湖에 上陸한 이래 江陵경유 仁邱里까지 接敵없이 곧장 진출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이미 제9사단(장, 吳德俊준장)이 襄陽에서 冠垈里에 이르는 東部戰線에 진지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五臺山 부근의 敵 유격대가 東海岸 沿道에까지 潛入하여 直接的인 戰鬪를 敢히 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推測된다.

한편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대령)도 18일 墨湖에 轉進한 다음 그날로 王溪에 진출하여 野營하였

고 19일에는 安仁津里에 20일에는 연대주력인 제1, 제3대대가 仁邱里에 그리고 제2대대는 注文津에 각각 진출 하였으니 이로써 먼저 집결한 제1연대와 같이 사단 主力부대가 仁邱里에 集中을 완료한 셈이었다. 이때 역시 제1거갑연대 지휘소도 本隊를 따라 下溪—安仁津里, 注文津—仁邱里로 진출하여 20일에 仁邱里에 設置하게 되었다。

제26연대(장, 徐延哲대령)는 當初에 제3사단 예하의 연대였으나 興南撤收作戰때 군단 직할부대로 首都사단과 같이 행동하게 됨에 따라 首都사단에 임시 편입되어 그 지휘아래에 들게되었고 興南에서의 海上轉進作戰도 같이 하여 18일에 墨湖에 上陸하게 되었다. 19일에는 제1군단 작명 제125호에 의하여 제3사단에서 首都사단으로 정식 편입하게 되었고 이날로 望祥里(江陵都 望祥面)에 移動하였다가 20일에 江陵으로 진출하여 사단작명 제116호에 의해 사단 예비대로서 部隊를 再整備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20일까지에는 사단 주력부대가 仁邱里에 그리고 사단예비대가 江陵에 각각 진출을 완료하고 제9사단의 襄陽—冠帶里에 걸친 폭넓은 진지의 一部를 交代하기 위하여 더구나 제30연대의 襄陽—西林부근에 既存陣地를 引受하기 위하여 만전을 期하고 있었다。

당시 사단의 병력은 대체로 사단편제 T/O 병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總反擊작전을 2個月半동안이나 遂行 하였어도 我軍의 兵力損失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고 興南撤收 작전에서 아무런 兵力損失을 보지않은 작전으로 始終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中共軍의 本時侵略으로 약간의 士氣저하는 고려될 수 있었으나 酷寒期의 惡天候와 如意치 못한 補給에도 불구하고 再反擊의 決意는 그 어느때 못지않게 旺盛하였으나 이는 中共軍의 侵略에 대한 認識이 上下一般에 걸치 그다지 深刻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推測되며 실마 本格的인 侵襲으로 再後退한 있을수 있으랴 하는 安易感이 作用된 것으로 믿어진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제1군단장 金白一소장은 예하 각 부대를 12월 10일~18일 사이에 興南에서 釜山 및 墨湖等地를 목표로 각각 海上轉進케 한 다음 江陵에 開設된 군단지휘소에서 새로운 局面에 접어든 戰況推移의 검토와 이에 對處할 작전계획의 構想에 대하여 작전참모 朴林恒 대령을 위시한 麾下 여러 참모들과 함께 熟議하고 있었다。

즉, 轉進作戰을 끝마친 다음 군단 任務는 陸本作命 제251호의 수정명령인 訓令 제5호(참조 부록작명 제89호)의 要旨와 같이 東部 38°線부근의 攻勢防禦陣地의 점령과 이에 따른 敵 제2진선의 遊擊部隊를 撲滅하고 이어 中共軍을 포함한 敵 主力部隊의 南侵을 現진지에서 격퇴하는 任務가 그 主題이었다. 이와같은 任務를 完遂하기 위하여 諸般對策을 講究하게 되었던 바 그 作戰會議에서 論議 決定된 狀況은 다음과 같다。

첫째. 敵 정규군과의 緊迫한 對陣狀態가 아니고 所謂 제2진선으로 형성된 敵 Guerilla部

隊에 對한 對應 작전을 兼行하면서 장차 豫期되는 敵 정규군의 南侵에 미리 措處해야 할 것이고,

둘째, 五聖山을 中心으로 한 작전지역의 分雜擴散으로 말미암아 部隊를 集中統轄할 수가 없는 관계상 前方 못지않게 後側方 防護를 위해 據點占領이 必要하며,

세째, 새로 引受받은 제9사단의 主抵抗線인 襄陽—西林—縣里—冠峴里를 沿하는 線이 군단의 主陣地로 됨에 따라 全般的인 戰線調整이 不可避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모든 與件을 감안한 끝에 군단장이 取하게 된 決心과 그에 따르는 必須措置는 대략 다음과 같다

『①군단 前線主陣地를 調整하기 위하여 종래의 제9사단 陣地를 縮少시키고 같은 사단隸下인 제30연대가 담당하였던 襄陽—西林間의 진지를 歷戰의 經驗이 豊富한 首都師團으로 하여금 交代占領케 하는 동시에 首都사단을 군단의 右翼으로, 제9사단을 군단의 左翼으로 各各 配備토록 한다.

②군단 後側方 警備를 위하여서는 군단 직할 3개경비대대(제1, 제2, 제3)를 寧越과 旌善 및 下珍富里에 각각 陣地를 점령케 하고 敵의 후방침투를 剔抉토록 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곧 바로 作命化되어 군단작명 제127호로써 예하 각부대에 하달하게 되었다。

한편 首都사단장 宋堯讚 준장은 위와 같은 要旨의 군단작명을 수령하고 襄陽附近의 제9사단 제30연대 진지를 交代占領하는 즉시로 五聖山부근에서 跳梁하는 敵 遊擊隊를 搜索撲滅하기 위하여 江陵에 開設된 사단 지휘소에서 작전참모 李 龍 중령을 비롯한 모든 참모와 지휘관의 合同作戰會議를 거쳐 要旨 다음과 같은 作戰計劃을 樹立 하였다。

즉 우선 제1단계로 襄陽에서 注文津까지 사이에 예하 3개연대를 제1, 제1기갑, 제26연대 순으로 縱深깊게 진지를 占領토록 하고 다음 제2단계로 狀況의 推移를 보아 제1연대를 사단 右一線으로, 제1기갑연대를 사단 左一線으로 配備하는 동시에 제26연대는 사단예비대로써 五聖山부근의 敵 유격대에 對處토록 하는 것이다。(首師작명 제116호 要旨)

이와같은 措置는 敵 정규군이 東部戰線에 아직 나타나지 못한 반면에 五聖山부근의 敵 遊擊部隊가 山岳을 이용하여 後方攪亂戰法을 펼것이 예상되었고 더구나 장차 南侵할 中共軍을 포함한 敵 정규군이 五聖山—雪岳山을 이은 疊疊重峯의 狹谷隘路를 이용하여 敵 제2전선부대와 서로 손잡을 수 있는 公算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敵의 野望을 정통으로 찌르기 위하여서는 中東部戰線을 横으로 連結하여야만 되었으므로 襄陽—西林을 連하는 線上에 사단 左隣接部隊인 제9사단의 主陣地와 서로 連結할수 있는 戰術的 部隊配備를 斷行하기에 이르렀다。

(2) 작전실시

12월 21일 : 首都사단장 宋堯讚 준장은 이날 江陵에 있는 사단지휘소를 注文津으로 躍進開設하고 이미 전날 하달된 사단 작명 제116호에 의하여 예하 제1연대(장, 韓 信대령)를 主陣地 점령부대로,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대령)를 主陣地의 예비진지 점령부대로, 그리고 제26연대(장, 徐廷哲대령)를 사단 예비대로 각 담당진지를 점령케 하였다。

이에 따라 제1연대장 韓 信 대령은 연대 전방지휘소를 仁邱里에서 祥雲里(襄陽 南쪽 5km)로 躍進시키고 제9사단 제30연대(장, 高時福대령)와 襄陽 南쪽 2-3km附近인 下旺道里—△154 一帶를 交代占領하게 되었다. 즉 제1대대(장, 咸炳奭대위)는 下旺道里 일대에, 제2대대(장, 申彦國중령)는 新陽里 일대에 그리고 제3대대(장, 李聖鳳대위)는 長城里 일대에서 각각 진지를 교대한 다음 진지를 보강 하였으며 사단포병대인 제10포병대대(장, 李奎三중령)의 제1중대는 如雲浦里에, 그리고 제2, 제3중대는 연대 지휘소 부근인 祥雲里에 각각 砲陣地를 점령하여 연대를 직접지원할 태세를 갖추도록 하였다。



<左로부터 金白一소장, 丁一權소장, 李俊植준장>

이 무렵 敵은 각 전선에서 敗殘된 병력을 再收拾하여 中共軍의 지원아래 南下를 계속하고 있었으며 특히 五嶺山을 중심으로 한 共匪化武裝團 약 2,000명이 山岳地帶에 出沒하면서 유격전을 전개 하였는데 注文津 西쪽 連谷川上流附近과 江陵 南쪽 望德峰등 여러곳에서도 상차 서로 呼應하여 江陵을 直衝할 것으로 보였다. 또한 江陵에서 이미 北上潰走한 敵 제69여단은 襄陽 北쪽에서 再編하는 동시에 때를 보아 反擊할 기미가 엿보였고 사단 左隣接 前方에는 敵 제2군단 소속의 제12, 제15사단 등의 그 兵力규모를 알 수 없는 제2전선부대가 蹉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대령)는 전날 注文津에서 仁邱里로 推進設置한 연대 전방지휘소에서 사단 左一線에서 縱深陣地를 점령하기 위하여 각 대대를 配備케 하였는데 제1대대(장, 朴京皖소령)는 上光丁里(襄陽—仁邱里中間) 일대에, 제2대대(장, 朴嘉均소령)는 제1대대와 연결된 上光丁里 西側 일대에 진지를 점령하고, 제3대대(장, 林觀默소령)는 연대 주력부대 보다 5~6km후방인 亭子里(仁邱里 西쪽 4km)부근에 각각 진지를 점령하였다。

제26연대(장, 徐廷哲대령)는 사단작명 제116호에 의한 사단 예비대로서 연대주력이 注文津에 진출한 다음 연대 지휘소를 전날 위치하였던 望祥里에서 江陵으로 진출하였다가 다시 坊內里(注文津 南쪽 3km)로 진출토록 하였다。

이렇게 사단主力이 각각 진지점령을 완료할 무렵 인접 제9사단(장, 吳德俊준장)은 그 사단지휘소가 大和(平昌 北쪽 18km)에 위치하고 있었고 제1연대와 襄陽附近에서 진지를 교대하고 西向한 제30연대를 비롯하여 제28연대 및 제29연대는 寒溪里—蒼村을 連하는 東江道路 北方의 山岳지대에 진지를 점령하고 攻勢防禦의 態勢를 갖추고 있었다。

12월 22일 : 사단 前面의 敵은 山岳地帶에서 遊擊戰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高地中腹 및 山間岩石地帶등 天然障碍物을 이용하여 潛伏하고 있다가 補給路 沿邊에 出沒하여 我軍의 補給輸送을 妨害하려고 꾀하였다。이러한 상황을 알게된 사단장은 사단 北쪽 前線에 진출하여 있는 제1연대가 장차 예기되는 敵主力부대의 南侵에 계속 對處토록 하고 나머지 제1기갑연대 및 제26연대는 군단의 後側方地帶인 下珍富里—大和附近을 整備하는 동시에 主로 사단 西側方 작전지역인 五嶺山附近의 敵 遊擊據點에 對하여 威力搜索戰을 펴게하였다。

이에따라 제1연대는 전날에 이어 襄陽附近에서 계속 진지를 강화하였는데 일부 수색대

는 敵의 隻影이라도 捕捉코자 偵察에 注力하고 있었으며 연대를 직접지원하는 포병 제2중대(장, 朴麟道중위)로서 如雲浦里에서 陣地를 占領케 한 다음 特火點을 비롯한 火力集中地點에 대한 事前計劃을 樹立케 하는 등 諸般 戰列을 가다듬고 있었다. 그리고 首都야전공병대대 예하로 연대에 배속되어 있는 공병 제1중대(장, 金成恩중위) 및 제2중대(장, 李鍾烈중위)는 機動部隊의 陣地 進入路와 各隊 補給推進에 支障을 받고있는 一般補給路 및 狹小路를 補修하는 한편 主抵抗線 前方에 대한 障碍物 設置에 全力을 傾注하고 있었다。

한편 제26연대(장, 徐廷哲대령)의 主力은 사단 예비대로서 注文津일대에서 戰力을 強化하고 있었는데 특히 이날 제2대대(장, 韓鶴頊소령)가 18.00에 坊內里(注文津 南쪽3km)에서 西쪽으로 약 20km지점인 松川洞(一名 솔내, 五臺山 東쪽 10餘km 連谷川 上流)에까지 수색전진 하였는데 이때 敵 遊擊部隊인듯 한 약 1개대대 규모의 병력을 발견하는 즉시로 戰鬪隊形으로 散開한 다음 先制攻擊으로 이 敵을 潰散 擊退 시키게 되었다. 이때 四散된 敵 200여명은 이날 24.00에 다시 夜襲을 試圖하려 하였으나 대대의 엄중한 前哨 경계에 부닥쳐 다시 擊退되기에 이르렀다. 이 遊擊隊는 主力으로서의 決戰은 避하려는 듯이 판단되었는데 그들은 主로 越冬補給을 준비하기 위하여 山村僻地에 있는 民家에 侵入하여 食糧과 衣類를 強奪하는 등 半野盜의 무리로써 跳梁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12월 23일 : 제1연대장 韓信 대령은 襄陽 北쪽 일대에서 수색정찰대가 敵情정찰결과 어떠한 情報도 入手하지 못하였다는 提報를 연대 작전주임 尹興楨소령으로부터 받은 결과, 연대 주력을 襄陽 北쪽 전지로 진출시켜 더욱 有利한 主陣地를 점령코자 企圖하였다。

이에따라 제1대대(장, 咸溶翼대위)는 下旺道里 전지에서 南大川을 건너 襄陽 北쪽 4km 地點인 金風里 一帶에 전지를 점령하였고, 제2대대(장, 申彦國중령)도 密陽里 전지로부터 南大川을 건너 襄陽 西北쪽 5km지점인 長承里 一帶에 진출하였으며 제3대대(장, 李聖鳳대위)는 연대예비대로서 下旺道里 附近에 각각 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렇게 연대주력부대가 襄陽北쪽 및 西北쪽 4~5km지점까지 계획대로 전지를 北進할 수 있는 큰 이유는 물론 時期的으로 보아 敵 主力부대가 이곳까지 아직 進出하지 못한 탓도 있겠지만 主로 東海上의 UN海軍 艦砲射擊의 위협으로 良好한 東海岸 沿邊의 道路를 敵이 사용할 수가 없어서 我方의 勢威가 떨쳤기 때문이었다。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 대령은 제1연대西側인 사단 左一線陣地를 점령하기 위하여 西林里附近의 敵情및 모든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름과 동시에 이미 사단 後側方陣

地인 上光丁里와 亭子里一帶에서 수색경계를 강화하다가 命에 의하여 西林里附近으로 진출하기에 앞서 魚城田里(綿王里 東쪽 7km)까지 陣地 推進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게 되었는데 이때 연대 지휘소는 전날에 이어 仁旺里에 계속 위치하고 있었다。

제26연대(장, 徐廷哲대령)는 연대주력인 제1대대 및 제2대대가 注文津附近에서 계속 戰列을 가다듬고 있는 반면 그 제2대대는 전날에 이어 五臺山 東麓於口인 松川洞 一帶에서 山間에 흩어진 敵 유격대를 捕捉擊滅코자 계속 威力搜索戰을 펴고 있었다。

한편 군단 左隣接部隊인 제2군단(장, 劉載興소장) 예하인 제3사단(장, 崔錫준장)은 사단지휘소가 洪川에 開設되었고 同사단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가 自隱里附近에서 敵 제2군단의 一部와 對峙中이었으며 특히 제8사단(장, 崔榮喜준장)은 俗稱 삽다리 고개(洪川南, 自隱里 西北쪽)에서 敵 제2군단의 主力部隊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은 결과 일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12월 24일 : 襄陽 西北쪽 4~5km 일대까지 戰術的 展開를 완료한 제1연대는 그 主力인 제1 및 제2대대가 金風里—長承里線에서 진지를 강화하며 수색활동을 멈추지 않았고 연대 예비대인 제3대대는 襄陽 南쪽 2km지점인 下旺道里 부근에서 약 2km 西進하여 牛岩里 부근으로 진지를 移轉占領한 다음, 연대 後側方 鞏固任務에 萬全을 期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제1기갑연대도 전날의 진지에서 점차 西쪽으로 진지를 확대시켜 나갔는데 즉 연대주력이 上光丁里에서 3km 西쪽인 △326까지 진출하게 되었고, 제26연대는 注文津—松川線에서 對 유격활동을 펴고 있었다。

이와같이 사단예하 3개연대는 각각 더욱 유리한 主陣地 및 豫備陣地를 점령함과 아울러 진지를 견고하게 구축하면서 수색활동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날도 사단 主抵抗線 일대인 襄陽 北쪽 水餘里—金風里—長承里 線에서는 敵에 대한 諜報가 入手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단 左隣接 제9사단 제29연대 地帶였던 西林里附近에서는 이날 日暮를 期하여 敵의 夜襲이 恣行되었는 바 이는 首都사단과 제9사단이 진지를 교대할 때에 一時로 생긴 部隊間隙의 空白을 틈타 敵 遊擊隊가 五臺山 一帶로 潛入하려는 計策의 하나였는데 이때 제29연대는 일시 형세가 좋지 못하여 潛村으로 後退하고 있었던 때였다。

12월 25일 : 敵 제2군단 소속으로 보여지는 數未詳의 제2전선부대가 이날부터 급작히 침투공격을 企圖하자 사단 인접 제9사단(장, 吳德俊준장)은 38°線 부근에서 該敵을 격퇴하기 위하여 공격으로 전환하였다. 즉 제28연대(장, 李昌禎대령)가 縣里 南쪽을, 제29연대

(장, 高白圭대령)가 縣里—西林附近을 각각 공격하게 되었는데 특히 전날 제28연대의 제2대대의 縣里撤收에 따른 敵의 침투를 同 연대의 제1대대가 막기 위하여 高砂里에서 院基里로 진격하고 제3대대는 眞木亭에서 下南里로 진격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縣里—西林附近의 狀況이 좋지 못하자 首都사단장은 예하 全部隊에게 진지를 더욱 강화토록 하는 반면 군단장의 지시에 따라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대령)로 하여금 방어력이 결여된 西林地區를 담당 공격토록 하였다. 이에따라 연대장 金東洙대령은 제2대대(장, 朴翊均소령)를 西林에 진출토록 하고 제3대대(장, 林觀默소령)을 西林里 東北쪽 鼎足山 일대로 진출토록 조치하였다.

12월 26일 : 군단 前面의 敵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자 사단 예비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제1기갑연대가 西林 地區로 急遽 진출하게 되었는데 同 연대 제2대대(장, 朴翊均소령)가 이날 먼저 약진하여 下西林里—조침嶺—土黃피 一帶에 陣地를 점령하게 되었다. 이와함께 제3대대(장, 林觀默소령)도 전날의 진지를 출발하여 西林 東쪽인 綿玉串—鼎足山(△943, △933)일대의 진지를 점령하고 사주경계배치를 준비하고 있었다. 同 연대 제1대대(장, 朴京虎소령)는 上光丁里附近 진지에서 다시 西進하여 魚城田里로 이동하고 장차 西林地區로 진출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제1연대(장, 韓 信대령)는 제1기갑연대의 西林里 진출과 때를 같이하여 襄陽 北쪽 金風里—長承里線에서 西側 제1기갑연대의 진지와 連繫하기 위한 戰線을 정리하게 되었는데 즉 제1대대(장, 咸溶翼대위)가 長承里 陣地에서 西林方向의 中間인 盈德里附近으로 진지를 轉換시켰다. 그리고 제2대대(장, 申彦國소령)도 金風里陣地에서 襄陽 南쪽의 下旺道里로 이동하고 南大川 南岸에서 西쪽 牛岩里의 제3대대(장, 李聖鳳대위)와 平衡을 이룬 진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한편 사단예비대인 제26연대는 任務變動이 없이 戰力을 계속 強化하고 있었는데 단지 제2대대(장, 韓鵬頂소령)만이 松川洞 附近에서 계속적인 對遊擊戰을 遂行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무렵 玉盤山一帶의 敵遊擊隊가 軍團左前線의 敵 攻勢強化와 때를 맞추어 後方攪亂作戰이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단 포병대대의 주력인 제1중대 및 제2중대가 襄陽 南쪽 下旺道里에서 仁邱里—注文津을 경유 連谷川 中流부근인 長川洞 및 退谷洞에 이동하여 제26연대 제2대대의 對 유격작전에 직접 지원할 態勢를 갖추고 있었다.

한편 전날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시도한 敵 제2군단 소속 약 3,000명 규모의 병력은 縣

里附近에서 上南里를 향해 波狀的인 攻擊을 試圖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제9사단 제28연대의 戰況이 좋지 못하였다. 당시 제9사단은 苔村—臙院里線을 확보하면서 제30연대는 다시 上南里 東側으로 迂回하는 敵을 공격하였고 제28연대도 縣里 東쪽 1km지점인 △321부근에서 無名川을 사이에 두고 敵과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首都사단은 제9사단 右翼을 연결하는 西林里附近에서부터 襄陽까지를 점령하고 진지를 강화하였는데 首都사단이 제9사단 正面의 일부를 담당하므로써 그간 虛點을 보여왔던 空間地帶에 대한 兵力配備를 완료한 셈이 되었다。

12월 27일 : 縣里附近에서 敵 제2군단 소속 제12사단의 攻勢가 계속적으로 강화되자 이에 對處하고 있던 군단 左翼의 제9사단은 一時不利한 戰況을 克服하면서 再攻擊을 敢行하였다. 즉 同사단 제28연대장 李昌煥 대령은 縣里에서 一時분산된 제2대대를 糾合하여 鷲峰山 南쪽 △1091에 진격시켜 군단 左側方을 防守키로 하면서 연대 주력으로서는 縣里를 직접 壓迫토록 措置하였다. 그리고 제29연대장 高白奎 대령도 下雉田 北쪽에서 對峙中인 敵을 反擊하여 △847附近으로 격퇴하고 貴屯里 北쪽으로 主攻을 指向하면서 追擊戰으로 移行하게 되었다. 이 縣里附近의 敵은 五聖山附近의 敵과 서로 連繫하려는 底意로 보였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군단의 中央戰線이 突破될 憂慮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狀況아래 縣里—五聖山의 中間地點인 西林里附近에서 遮斷陣地를 점령하고 있던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대령)는 연대 주력을 西林里附近으로 急히 集結시키고 陣地를 強化하는 한편 敵의 企圖를 早期에 看破한 다음 즉시 擊退하기 위한 偵察活動을 倍加하였다。

그리고 제1연대는 襄陽 南쪽 下旺道里—牛岩里線에서, 제26연대는 注文津과 松川洞附近에서 各各 전날과 다름없이 陣地補強 및 수색전을 계속 펴고 있었다。

12월 28일 : 사단 左翼接인 제9사단이 縣里附近에서의 戰況의 惡化로 말미암아 제1군단장 金白一 소장은 首都사단장 宋堯讚 준장에게 예하 一個연대를 縣里 東쪽인 下雉田附近을 공격토록 명령한 바 있었는데 이에따라 首都사단장은 西林里附近에 진출하여 있는 제1기갑연대장에게 다음날(29일) 04.00부터 下雉田 공격임무를 부여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명령을 받은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 대령은 이미 西林里附近과 鼎足山 일대에 진출하여 진지를 점령하고 있는 제2대대(장, 朴翊均소령) 및 제3대대(장, 林觀默소령)外에 연대후방 대대로서 魚城里 北쪽 童山里 일대에 집결하고 있는 제1대대(장, 朴京虎소

령) 마저도 西林里 附近으로 急히 진출케 하여 연대主力과 合勢토록 하고 다음날의 공격을 위한 모든 對策을 미리 講究하였다。

한편 사단 右一線前方에 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제1연대는 이날 연대 지휘소를 祥雲里에서 仁坪里로 옮기는 동시에 연대주력은 전날과 다름없이 陣地工事에 專念하였고 제26연대도 現임무를 계속 遂行하였다。

12월 29일 :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대령)는 이날 04.00부터 縣里 東쪽 道探洞附近의 溪谷에서 五聖山으로 指向하려는 敵의 主力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는데 제1대대(장, 朴京虎소령)가 西林里—眞黑里—龍德里를 차례로 진격하고 제3대대(장, 林觀默소령)는 下西林里에서 출발한 다음 제1대대 陣地를 초월하여 제1대대 西側을 연결한 眞黑里—道探洞에 진출하는 즉시로 진지를 점령하고 北쪽 및 西쪽을 경계하면서 威力搜索戰을 展開하고 있었다。

한편 五聖山附近에서 對遊擊戰을 펴고 있는 제26연대 제3대대는 그간 松川洞 일대에서 搜索戰을 展開하다가 이날 06.00에 인접 제9사단 제30연대의 작전지역인 苔村—廣院里를 連하는 線과 連繫하기 위하여 葛田谷 南쪽을 目標로 진격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날 敵 增援部隊는 제1군단과 제2군단의 戰鬪地境線 前面인 寒溪里(元通 東쪽, 敵 豫想根據地)에서 元通里—麟蹄를 경유하여 一路 南下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12월 30일 : 제1군단장 金白一 소장은 군단 左翼의 제9사단의 戰況을 감안하여 江陵附近에서 군단지휘소를 경계하고 있던 제1경비대대를 五聖山 西麓에 있는 제30연대의 작전지역으로 증원시키고 지난 28일 이래 縣里—下雉田附近에 出沒하던 敵이 제9사단과 首都사단의 接觸點에 생긴 間隙을 틈고 五聖山에 潛入한 것을 殲滅키로 하였다。

이러한 縣里—五聖山사이에 생긴 敵의 侵襲路를 中間에서 遮斷하면서 敵을 分斷하여 孤立시켜 이를 各個로 擊破하기 위한 戰鬪가 제1기갑연대에 의하여 西林—縣里附近에서 전개되었는데 同연대 제1대대(장, 朴京虎소령)는 이날 眞黑里—大同里間 및 點峰山 南端麓인 연덕里 附近에 진지를 점령하였고, 제2대대(장, 朴翊均소령)는 廣院里에서 西林으로 다시 진출하였으며, 제3대대(장, 林觀默소령)는 연대 最先頭 西側方 진격부대로서 縣里 東쪽 5km地點인 道探洞—방동리까지 진격하여 진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특히 제3대대 제9중대(장, 李元熙대위)가 道探洞에서 방동리로 진격하다가 縣里附近에서 東向하려는 敵 遊擊隊 50여명을 발견하자 우선 企圖를 秘匿하면서 中隊를 散開하는 동시에 敵을 有効射

程內로 誘導하고 난 다음 機先을 制壓한 連速射擊으로 이 敵을 거의 擊滅시키고 말았다。 이와같은 不時의 攻擊을 받게 된 敵은 多數의 死體를 遺棄한 채로 그 殘餘兵力이 分散潰走하였는데 약 40分뒤에 확인된 戰果는 敵 사살 18명을 비롯하여 蘇式小銃 12정, 九九式小銃 5정등을 노획하였고 이 근접전투에서 我軍도 1명의 전사자와 2명의 부상자를 내었다。 (제1기갑연대 戰鬪詳報 12월30일字참조)。

한편 제1연대(장, 韓 信대령)는 襄陽 南쪽에서 별다른 接敵없이 陣地를 보강하고 있었으며, 松川洞에서 西進中인 제26연대 제3대대(장, 具泰益소령)는 이날 20.00에 大沙里(院里 東北쪽)에서 敵 遊擊隊 1,000여명을 발견하는 즉시로 이를 뒤따라 치게 되자 敵은 五台山과 깊숙한 곳과 그 南쪽 平昌方面의 丘陵地帶를 向하여 潰走에 潰走를 거듭하면서 雲散霧消로 그 자취를 감추었다。

12월 31일 : 사단 左一線最前方에 진출하여 있던 제1기갑연대의 제3대대는 전날에 이어 道探洞에서 縣里에 이르는 계곡을 수색 전진하다가 전날 潰散된 敵의 再編成 部隊로 推測되는 약 80여명을 발견하고 유리한 地形을 이용하여 先制 공격을 加하였는데 이때 敵은 그 攻勢를 늦추지 않고 抵抗하므로 이에 대대에서도 側射, 斜射를 兼用한 急速射擊의 集中發揮로서 敵의 銃鋒을 꺾어버린 다음 突進으로서 敵을 潰散시켰다。 이때 敵은 전날에 이어 두번째의 공격에 실패하자 8具의 屍體를 遺棄한채 황망하게 退却하였는데 이 전투에서 我軍도 1명의 부상자를 내었다。 (제1기갑연대 戰鬪詳報참조) 이와같이 縣里 東側에서 제1기갑연대가 敵과 對戰하고 있는 동안 사단 右一線의 제1연대는 襄陽 附近에서 特記할만한 敵情이 없는 가운데 계속 待機하고 있었으며 제26연대는 注文津附近에서 사단 예비대 임무를 遂行함과 아울러 同연대 제3대대로서 五臺山 南麓에서 계속 偵察및 수색활동을 강화하고 있었다。

이날까지의 제1군단 配備狀況을 槪觀하여 보면 제1군단지휘소는 江陵에 位置하고 있었고 군단 右一線인 首都사단은 그 지휘소가 注文津에, 군단 左翼인 제9사단의 지휘소는 東沙里에 각각 開設되어 있었다。

수도사단의 전방 진출선은 東으로부터 金剛里(襄陽 東쪽3km)—盈德里—下西林里—眞黑里—道探洞(縣里 東쪽6km)를 連하는 線이었으며 제9사단은 蒼村里—上南里—縣里附近에서 縱深깊은 陣地를 形成하고 있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敵의 動向 : 1950년 12월 31일부터 시작된 敵(中共軍包含)의 所謂 "제3차작전" 企圖는 『東部戰線에서 UN軍의 縱深을 向하여 直衝함으로써 그 背後에 益出공격하여 38°線上의 UN軍의 防禦線을 突破하는 契機를 마련코자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그들의 企圖를 達成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작전집단을 재편성하는 동시에 공격을 위한 체제로 부대배치를 변경한 것으로 보여진다。이와 동시에 東部戰線에서는 敵의 제2전선부대로 하여금 東部戰線의 後側方으로 침투시켜 前方의 正規戰과 서로 呼應하면서 後方의 非規正戰을 전개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敵 제2군단과 제3군단 및 제5군단 등은 太白山脈 西麓에 있는 中東部 戰線에서 美 제10군단 및 我 제3군단 陣地로 침투를 꾀하였으나 그 進陟이 如意치 못했고 그중에서 五臺山附近의 敵 遊擊隊가 제1군단 右翼인 제9사단 陣地에 여러번 出沒하여 後方攪亂을 계속 試圖하여 敵 제2군단 南下主力과 連繫하려고 하였다。그리고 東海岸 沿道의 敵 제3군단은 杆城에서부터 東草—襄陽—江陵을 指向하려 하였으나 東海上에 浮戈하는 UN海軍 艦隊의 壯觀한 活躍으로 그 行動의 制扼을 받고 있었다。

이와같이 東部 38°線 附近에서의 敵의 集中的인 攻勢는 中共軍 제38군 主力이 서울 진출을 目해 我軍 및 友軍의 관심을 東部戰線으로 전환시키려는 底意로 엿보이게 하였는데 이는 12월末경에 敵 제2전선 유격대가 寧越—榮州—安東일대까지 南侵하여 攪亂作戰을 위한 事實로 보아서도 能히 짐작할수 있는 일이었다。

我軍의 動向 : 我軍 및 友軍은 中共의 侵略으로 全戰線에서 逐次的인 철수를 단행하여 38°線附近인 臨津江—漣川—春川北方—襄陽을 連하는 線에서 새로운 防禦線을 形成하였는데 이무렵 UN軍總司令官 MacArthur 元帥는 美合同參謀本部로부터 韓國戰爭의 局地化와 中共軍 擊退에 대한 全權을 부여받고 12월 30일에 美 제8군사령관 Ridgway중장(12월 26일 부임)에게 命令하기를 『友軍은 最少限의 손실로써 敵에게 최대한의 被害를 加하면서 현 전지를 방어하라』고 強調한 바 있었다。

이와같은 作戰槪念은 韓國軍에도 그대로 適用되어 東部戰線을 單獨으로 담당하고 있던 제1및 제3군단은 春川 東北쪽에 있는 美 제10군단 右側으로부터 東海와 接한 襄陽附近까지 38°線을 中心한 一帶에서 陣地를 점령하고 다음 작전에 對備하게 되었다。특히 제1군단은 군단지휘소가 江陵에 開設하였고 예하 首都사단이 군단 右翼으로 襄陽—西林—道探洞을 이은 線에서 진지를 강화하면서 敵 제2군단 主力의 南侵에 對處하는 一方으로 五臺山附近의 敵 제2전선의 遊擊隊를 銳意 擊滅하여 그들의 南北連繫를 遮斷하는데 注力하였다。

그러나 春川과 洪川東北쪽에서 제12, 제2, 제10사단의 주력이 계속적으로 南侵하고 縣里附近의 戰況이 惡化되자 陸本作命 제257호(참조; 작명부록 제115호)에 따라 "C"線(東部線一帶)을 점령 防禦하기 위하여 首都사단도 戰線整理를 위한 준비에 임하게 되었다.

戰果 및 손실 : 首都사단이 興南에서 鎭湖로 海上轉進作戰을 完了한 다음 1950년 12월 21일부터 동 12월 31일까지의 작전은 襄陽附近에서 제9사단과 陣地交代를 爲始한 새로운 진지점령 기간이었는데 특히 이 期間에는 敵 正規軍이 東部戰線에 미치지 못한 때이어서 彼我 서로가 對陣狀態를 이룬 가운데 蠢起된 커다란 攻防戰은 없었고 다만 五臺山을 中心으로 한 敵 遊擊部隊에 對한 對유격전에서 다

음과 같은 戰果가 있었다。

① 五聖山附近(제26연대)

戰 果	
적 사 살	225명
포 로	26명
蘇式小銃	106정
損 失	
전 사	11명
부 상	22명

(제26연대전투상보 1951년 1월 3일字)

② 道峴洞附近(제1기갑연대)

戰 果	
적 사 살	26명
蘇式小銃	16정
九九式小銃	5정
損 失	
전 사	1명
부 상	2명

(제1기갑연대전상투보 1950년 12월 30~31일字)

§ 研 究

1. 首都사단 예하로서 清津 北쪽에까지 진격하였던 제18연대는 清津에서 城津으로 撤收하였다가 12월 9일 城津에서 제3사단과 같이 LST에 乘船하여 12월 12일 釜山으로 轉進作戰을 完了하게 됨으로써 이후 제3사단장의 지휘아래 들게 되었다。
2. 제26연대의 戰鬪詳報나 部隊歷史資料級 및 제1군단사 草稿資料等에 제26연대가 松川洞 附近에서 약 1개대대 규모의 敵유격대를 격퇴하였다는 記錄은 있으나 그 戰果에 대한 자세한 記錄은 共히 결여되어 있어 이를 正確히 評考할 수가 없고 參戰者의 證言에서도 종잡을 수가 없다。
3. 旣刊된 陸軍戰史 제5권에 p. 112 "葛田谷방면으로 西進中인 제1기갑연대 제2대대가 만동리(DS 5588 廣院里附近)까지 진출하여 부근에서 출현한 敵 50명을 사살하고 同지역에서 사주방어에 임하였다"는 記錄은 一次史料인 戰鬪詳報나 部隊歷史級에 보이지 않고 其他 사단 및 군단의 部隊歷史資料級에도 記錄되지 않아 자세한 內容을 比較評考할 수는 없지만 다음날(30일) 제2대대가 廣院里附近으로 진격하였다는 戰鬪詳報의 記錄으로 미루어 보면 그 可能性을 完全히 排除할 수 없으므로 參考에 供하도록 여기에 收錄한다。

2. 縣里附近 戰鬪 (1950년 12월 24일부터 1950년 12월 31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9 호
작명부록 제89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제1군단	장 소장 金白一	제3대대	장 소령 李永鎬
제9사단	장 준장 吳德俊	제30연대	장 대령 高時福
	장 준장 金鍾甲	제1대대	장 소령 金相護
	(12월 30일 부터)	제2대대	장 소령 金鍾煥
제28연대	장 대령 李昌禎	제3대대	장 소령 金在康
제1대대	장 소령 金祥圭	배속부대	
제2대대	장 소령 金寅文	제30포병대대	장 소령 張庚石
제3대대	장 소령 李成烈	제9야전공병대대	장 소령 羅南麟
제29연대	장 대령 高白圭	제101박격포중대	장 대위 宋善陽
제1대대	장 소령 趙鏞春		
제2대대	장 소령 張泰煥	병력 ; 약 10,000명	

敵 軍

北共 제 2 군단	장 중장 崔 仁	장비 ; 122mm 곡사포, 76mm유탄포, 120mm, 82mm, 60mm 박격포 및 重·輕기관총 등.
제10사단		
吉元八遊撃部隊장	吉 元 八	
병력 ; 약 20,000명		

나. 전투 진의 개황

당 제9사단은 1950년 10월 25일 國本 일반명령 제92호에 의거 서울(淸溪국민학교)에서 창설되어 27일에는 大田으로 이동, 제3군단에 배속되었고 11월 26일에는 大邱로 이동 하였으며 12월 14일에는 제3군단에서 배속이 해제되어 제2군단에 편입되었다.

이에 사단은 CP를 大邱에서 原州를 경유 12월 17일 江陵에 개설함과 동시에 제28연대(장, 李昌馥 대령)를 洪川에 집결시킨 다음 주력을 縣里—冠垈里線에 배치하고, 제29연대(장, 高白奎 대령)를 西林里—縣里線에, 제30연대(장, 高時福 대령)를 仁邱里—西林里간에 진출시킴으로써 東海岸에서 冠垈里에 이르는 38°線上의 廣大한 正面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12월 18일, 『제1군단장은 上陸완료 후 가능한 한 급속히 제2군단장과 상호 합의하여 적절한 日時부터 제9사단 및 제1, 제2, 제3경비대대를 통합 지휘하라』는 육본작명 제251호 수정훈령 제5호(참조; 작명부록 제89호)가 발한 다음날인 12월 19일부터 사단은 제1군단에 배속되었다.

이 무렵 首都사단(장, 宋堯讚 준장)은 墨湖에 상륙하여 江陵을 경유 仁邱里로 이동하였고 左側 제2군단 소속 제3사단(장, 崔 錫 준장)은 洪川에 집결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 제1군단장 金白一 소장은 군단작명 제127호를 하달 하였는데 그 要旨는 『인접 右翼 제2군단에 이어 제9사단을, 首都사단은 제9사단의 右側에서 東海岸에 이르는 38°線上에 각각 展開하며 제1, 제2, 제3경비대대는 下珍富里—旌善—寧越에 각각 1개대대씩 배치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제9사단은 제30연대가 담당한 仁邱里—西林里지역을 首都사단에, 富坪里—冠垈里지역을 제3사단에 각각 인계케 하므로써 사단의 전투담당 지역은 西林里—縣里—富坪里線으로 壓縮되었다.

당 사단의 전투지경내에는 험준한 山岳이 連在하여 양호한 기동로가 없었다. 또 사단 右隣接인 首都사단과의 사이에는 北에서부터 雪岳山(△1708)—鷹伏山(△1360)—五台山(△1563)—大關嶺을 잇는 海拔 1000m 이상에 달하는 太白山脈의 大小連峰이 가로 지르고 있으며 左隣接인 제3사단과의 사이에도 苦香山(△943)—釜峰(△1191)—可得峰(△1060)으로 連하는 山岳이 南北으로 가로막고 있다. 그리고 더우기 담당지역 중앙에도 △1073와 芳苔山(△1436) 및 九鳳德峰(△1388)이 자리잡고 있어 사단은 사실상 左右인접 사단과의 相互呼應과 주력부대 상호간의 전선 連繫가 어려운 조건하에 있었다.

이 지역의 교통망은 西林—縣里간을 잇는 東西의 小路와 縣里에서 西南으로 뻗은 縣里—下南里—上南里—結城—豐岩里를 通하는 도로가 西林—蒼村—洪川간의 도로와 서로 연결하는 정방형의 도로망이 구성되어 있으나 東西의 山岳으로 말미암아 路面이 狹少하고 斷崖와 屈折이 심하기 때문에 큰 부대의 기동로로서는 적합한 수 없었다.

그리고 이 무렵에는 −29°C로 下降한 酷寒과 계속적인 降雪로 路面이 結氷되어 機動의 불편성을 더욱 加重시켰었다.

敵軍의 狀況 : 太白山脈과 그 支脈으로 형성된 이 험준한 山岳地帶에는 我軍의 總反擊이래 吉元八 유격부대가 盤居하여 我軍의 後方을 교란하고 있었으며, 그 후방인 太白山脈의 北端에서 狼林山脈을 거점으로 하는 그들의 所謂 제2전선 부대가 편성되어 我軍의 東西間 전선提携와 후방보급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여 왔다.

이들 제2전선부대나 吉元八 유격부대는 모두 我軍의 總反擊 때에 그 退路를 차단당한 敗殘兵들을 基幹요원으로 편성된 起死回生의 부대들이었다.

제2전선부대가 본격적으로 참전한 것은 10월 末頃의 일로서 그들의 所謂 「제2차작전기」에 해당한다. 그것은 그들의 제2차 작전계획에 『決定的인 反擊으로 전환하여 長津湖와 淸川江지역에서 韓國軍

과 UN軍을 포위 섬멸한 다음 南으로 戰果를 확대하여 제2전선부대와 連繫함으로써 38°線 以北지역을 완전 확보한다』고 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어쨌든 이들 제2전선부대는 12월 初까지 元山以南의 東海岸 지구를 완전 봉쇄함으로써 興南地區에서 철수중인 我軍의 退路를 차단하였고, 西部戰線에서도 UN軍이 철수할 때 平壤—新溪間에 侵襲하는 등 我軍의 철수작전을 방해하면서 38°線上의 中東部지역을 뚫고 一路 南下하였다。

이들 제2전선부대와 緩的 連繫下에 있었던 吉元八유격부대 10,000여명은 그간 太白山脈을 據點으로 江陵—注文津—麟路—春川등지와 三陟—寧越—榮州 등지에 출몰하여 我軍의 후방을 교란하였는 바 이 부대는 당시 제1, 제2병단과 제1, 제3, 제5여단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제2전선부대가 38°線으로 南下하여 제2군단으로 개편될 때에 이 吉元八 유격부대도 이에 편입되어 군단장인 중장 崔仁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이와같은 吉元八 유격부대를 통합 지휘하게 된 敵 제2군단장 崔 仁은 我軍의 주력이 예정된 B방어선에 진지를 편성하게 되자 그 주력인 제2, 제9, 제10사단을 麟路—楊口—華川지구에 배치하고 我 제1, 제2군단의 정면을 공격하게 하고 吉元八 유격부대를 我 제9사단의 右側方인 五台山—大關嶺—泰岐山—普賢山 일대에 침투시켜 전반적인 후방교란을 획책하면서 주력을 洪川—原州선으로 指向시켜 그들의 전술인 포위작전과 迂回戰法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보려는 心算인 듯 하였다. 이 무렵 敵의 士氣는 中共軍의 侵略으로 말미암은 급진적인 총반격으로 일약 高潮되었을 것이지만 敵의 火力裝備는 그 機能이 시원치가 못한듯 하였고, 補給 또한 輸送力의 결함으로 適期補給이 어려웠던 위에 酷寒으로 말미암아 凍傷者가 속출하고 있음이 포로들의 陳述에서 나타났다。

敵 제2군단의 총 병력은 40,000명으로 추산되었고 裝備로서는 개인장비인 蘇式소총, 수류탄, 重輕기관총 외에 122mm 곡사포, 76mm 유탄포, 120mm, 82mm, 60mm의 박격포를 보유하고 있었다。

我軍의 狀況 : 제9사단이 仁邱里—西林里—縣里—富坪里—冠堡里線의 東西一線을 首都사단과 제3사단에 인계할 무렵인 12월 20일경의 38°線上에는 中部와 西部戰線에서도 제3군단과 美 제1, 제9군단이 中共軍 제13병단과 北共 제1, 제2군단의 일부와 서로 對峙하고 있었다。

그러나 咸興—興南의 철수작전선에는 美 제10군단의 제3, 제7사단과 美 제1해병사단이 中共軍 제9병단 및 北共 제3, 제4, 제5군단과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고 있어 中東部戰線에 투입될 中共軍 제9병단이나 北共軍의 南進이 사실상 進陟을 보지 못하고 있었으나 美軍의 철수가 12월 24일에 완료된 뒤에는 당해 中東部戰線의 전면에도 中共軍이나 北共軍의 축차적인 증강이 예상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아래에서 이 무렵 제9사단이 처한 當面의 戰況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첫째 사단의 담당 방어정면이 통상 방어전면의 무려 3倍에 가까운 30km 이상에 달하는 데다가 東側에 있는 太白山脈의 中央部인 △1073—芳若山—九盡德峰과 西側의 吉吉山—大岩山—釜峰—可得峰 등의 高山峻嶺이 南北으로 가로질려 있어 左右사단 및 주력부대 상호간의 戰線연결이 困難하였고

둘째로는 사단이 創設未久로 전투경력이 적다는 事實일 것이다. 즉 사단은 韓·滿國境으로 향한 我軍의 北進攻勢가 절정에 달하였던 10월 25일에 創設命令으로 呱呱之聲을 올린 다음 서울—大田—大邱로 전전하면서 18주간의 단기훈련을 마친 新任將校들과 치료를 마치고 戰線으로 향하던 負傷兵들

을 基幹으로 전투경험이 없는 피난민들 중에서 뽑은 國民兵役의 青年을 主軸으로 편성한 부대였다。
(당시 제28연대장 李昌禎 대령과 창설시의 崔一燮 소위의 증언참조)

세째는 험준한 산악지대의 不良한 도로망에서 기동력의 발휘가 어려운 데다가 敵 吉元八 유격대는 오랫동안 이 지역을 무대로 跳梁하던 半土着의 무리들로 그들의 常套的인 포위 突破와 迂回戰法을 분쇄하는 데는 많은 難點이 있었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은 제9사단이 우선 극복하여야 할 당면 과제였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사단의 右 인접인 首都사단의 주력부대가 仁邱里에 그리고 左 인접인 제3사단이 洪川에 각각 집결하고 있던 12월 21일 08.00에 육군본부에서는 요지 아래와 같은 작전명령 제251호 수정 훈령 제7호(참조; 작명부록 제95호)를 하달하였다。

『① 제1군단장은 首都사단, 제9사단 및 제1, 제3경비대대를 指揮하여 담당지구내 방어진지 B선상의 가장 유리한 지형을 점령 방어하라。

② B線 부근이나 혹은 현 진지가 B線 以北일 경우에는 현 진지상의 가장 유리한 지형상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 축성 공사를 실시하라。

③ 각급 지휘관은 인접부대 상호간에 서로 긴밀히 협의하여 전투지경선상의 간극을 소멸하고 방어에 만전을 기하라。』

이 육본작명의 수정훈령에 따라 이날 군단장 金白一 소장은 『인접 右翼 제2군단에 이어 제9사단을 배비하고 首都사단은 제9사단의 右翼에 연결하여 38°線上을 따라 東海岸에까지 배치하여 방어진지를 구축케 하고 배속된 제1, 제2, 제3경비대대를 下珍富里, 旌善, 寧越에 각각 1개대대씩 배치하여 寧越發電所의 경비와 殘敵섬멸을 담당케 한다』는 方針으로 新陣地 占領에 관한 작전명령 제127호를 하달하였다. 如斯한 군단작전명령을 수령한 사단장은 우선 다음과 같은 이 지역의 전술적 특수성을 고려하였다。

첫째로, 이 지역내의 작전은 敵 유격부대의 太白山脈으로의 침투 南下를 가능한 한 저지 하면서 元通—麟蹄부근에서 南下할 것을 豫想하는 敵 주력부대를 격멸하여 西林—縣里—院垈里를 연한 B線을 확보할 것이며,

다음에는 江陵—平昌—原州—서울간의 京江道路를 확보 할 것이라는 大前提下에 西林—

縣里—上南里—道寬里—洪川 街道와, 西林—蒼村—瑞石—橫城간을 연결하는 기동로를 장악하여 東側의 首都사단과 西側의 제3사단과의 戰線連繫를 도모할 것이라는 두가지 점이다.

이에 따라 사단장 吳德俊 준장은 작전명령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달하였다.

『① 제28연대장은 제1대대의 진지를 제3사단 제22연대에 인계하고 주력으로써 縣里—院垈里선을 占領하라

② 제29연대장은 제1대대의 진지를 首都사단에 인계하고 연대를 豊岩里—下南里로 진출시켜 주력으로써 下雉田—縣里선을 占領하라

③ 제30연대장은 진지를 首都사단에 인계하고 蒼村으로 이동 집결하는 즉시로 후방경계를 담당하라。』

(2) 작전실시

12월 24일 : 사단작명에 따라 이날 사단의 右一線인 제29연대(장, 高白奎 대령)의 연대본부와 직할대는 24.00까지 瑞石面 豊岩里로 이동 하였고, 제1대대(장, 趙鍾春 소령)는 西林里의 진지를 首都사단 기갑연대(장, 金東洙 대령)에 인계한 뒤 俗稱 쇠나드리—眞黑洞—俗稱 갈터를 경유, 下雉田으로 이동한 다음 12.00에 加七峰 西南高地를 占領하였다. 그리고 襄陽—西林—蒼村—東沙里에 이르는 기동로의 경비를 담당한 제2, 제3대대중 연대 예비대로서 蒼村에 배치되어 있었던 제2대대(장, 張泰煥 소령)는 이날 12.00에 瑞石面 豊岩里로 이동, 제7중대로 하여금 長津坪—瑞石—下梨峙—防內里간의 보급로를 경비케 하였으며 12월 19일 以來로 廣院里에 배치되었던 제3대대(장, 李永鎬 소령)는 12.00에 下南里로 이동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上南里—防內里간의 보급로를 확보하였다.

한편 사단의 左一線인 縣里—冠垈里간의 진지를 담당하여 왔던 제28연대(장, 李昌祖 대령)는 전날 연대본부가 洪川郡 化村面 城山里에서 제3대대와 上南里로 이동한데 이어 제1대대(장, 金祥圭 소령)는 이날 富坪里—冠垈里 진지를 제3사단 제22연대(장, 金應祚 대령)에 인계하고 驛路 南쪽 5km 지점인 高砂里로 이동 하였으며 제2대대(장, 金寅文 소령)는 縣里 西쪽 院垈里 부근에서 敵의 유격대를 격멸중 이날 縣里로 진출하고 있었다.

다음 제30연대(장, 高時福 대령)는 襄陽부근의 진지를 首都사단 제1연대(장, 韓 信 대령)에 인계하고 蒼村으로 이동 집결한 다음 주력부대를 廣院里 일대에 배치하였다.

이상과 같이 이날 我軍의 전반적인 이동이 단행되자 항시 간극을 엿보아 五臺山으로 잠투 남하 하려던 敵의 유격부대는 21.00에 西林—下雉田간에의 제29연대의 주력이 완전 철수하고 극소수의 병력만이 남아 殘務를 정리하고 있을 때 대대적인 기습을 加하였다. 연

대는 이 敵을 격퇴하기 위하여 한 시간여에 걸쳐 火力戰을 展開하였으나 終始不敵으로 진지를 유지하지 못하고 蒼村방면으로 철수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제28연대(장, 李昌植 대령)의 제2대대(장, 金寅文 소령)가 縣里로 진출하자 이날 밤 1개 연대 규모의 敵 병력이 기습하여 대대의 左右兩側方을 협공하기 시작하였으므로 彼我의 치열한 攻防戰이 子正을 지나 다음날까지 계속되었다。

12월 25일 : 전날 밤 縣里에서 敵으로부터 左右側方을 협공 당한 제28연대 제2대대(장, 金寅文 소령)는 이날 04.00에 이르기까지 치열한 반격전을 전개하였으나 敵의 연대병력은 계속 포위망을 압축 하였으므로 대대는 하는 수 없이 철수를 단행하여 연대 지휘소가 위치한 上南里에 이동 집결하였다。

이에 同 연대는 제2대대의 縣里철수로 말미암아 空間이 생긴 縣里 南쪽地區를 補強하기 위하여 제1대대(장, 金祥基 소령)를 高砂里에서 院盛里로, 또 제3대대(장, 李成烈 소령)를 眞木亭에서 下南里로 각각 이동시켜 진지를 占領한 뒤 제3대대로 하여금 縣里의 敵을 공격케 하였으나 敵의 裏間철수로 말미암아 접적없이 다시 원진지로 이동하였다。

이 무렵 제29연대(장, 高白圭 대령)는 西林—縣里간의 진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제1대대(장, 趙鎭容 소령)는 下雉田 일대에, 제2대대(장, 張泰煥 소령)는 下南里에, 제3대대(장, 李永鎬 소령)는 縣里 南쪽에 각각 진출하였다. 그 중 제1대대의 수색대는 이날 南下중인 敵 1개대대 규모와 조우하였으나 직접적인 정면 교전을 회피하고 대대의 주력과 호응하기 위하여 下雉田里로 後退함에 따라 敵은 계속 南下하여 23.00에 이르러서는 下雉田 근교에까지 침투 하였으므로 대대는 이 敵을 下雉田 北쪽 1km 지점의 無名高地에서 저지한 다음 對峙상태에 들어갔다。

한편 제30연대(장, 高時福 대령)는 蒼村에 위치하여 제1대대(장, 金相義 소령)를 虎院谷에, 제2대대(장, 金鍾煥 소령)를 虎院谷 東쪽 高地에 배치하여 五聖山으로부터의 敵 유격대의 침투에 대비하였고 제3대대(장, 金在康 소령)는 蒼村에 있는 사단 및 연대지휘소의 경비 임무를 담당하였다。

사단이 이와 같은 狀況에 있을 무렵 군단의 右翼을 담당하고 있는 首都사단장 宋堯讚 준장은 全主力에 진지보강을 강조하는 한편 金東洙 대령이 지휘하는 기갑연대를 방어력이 미약한 제9사단과의 간극인 西林일대에 배치하기 위하여 제1대대(장, 朴京虎 소령)는 현 진지에 두고 제2대대(장, 朴鎬均 소령)를 下西林--조침嶺—土黃耳간에, 제3대대(장, 林觀默 소령)를 錦玉峙—鼎足山--△443간에 각각 배치 하였으며 연대 지휘소 역시 西林으로

이동 설치토록 하였다。

12월 26일 : 首都사단 기갑연대의 西林里 진지 보강으로 貴屯里—下雉田 일대에서 敵과 對峙하고 있는 제29연대(장, 高白圭 대령)의 제1대대(장, 趙鍾春 소령)는 이날 전적없이 계속 진지를 강화하였으며 전일 縣里 南쪽으로 진출한 同 연대의 제3대대(장, 李永鎬 소령)는 이날 縣里 東쪽 1km인 △521의 敵과 江을 사이에 두고 교전 하였으며 제2대대(장, 張泰煥 소령)는 下南里에서 경계 중에 있었다。

그런데 이날 제28연대(장, 李昌禎 대령)의 전투 지경선내인 사단 左側과 後方지구에는 不時에 敵의 대병력이 출현하였으니 곧 敵 約 3,000명이 麟蹄부근에서 사단의 前面으로 南下한 뒤 제28연대의 정면에 침투하였던 3,000여명과 合流하여 鷹峰山—吉香山—大岩山—釜峰 등 제28연대와 제3사단 제22연대(장, 金應祚 대령)의 戰鬪境界線 사이로 침투한 다음 12.20에는 俗稱 웃패석에 2,000명이, 19.50에는 俗稱 햇다무리에 1,300명이 출현한데 이어 제3사단 제22연대의 본부가 위치한 於論里 東쪽 3km인 俗稱 햇다무리에 300명을 目擊할 수 있었다. 그리고 敵의 일부는 上南里 西南쪽의 可得峰(△1,060)까지 침투하여 下美達洞으로 이동하여 上南里를 위협하였고, 이어 五聖山을 지향하고 廣院里 부근으로 南下하고 있었다. 이에 廣院里—蒼村 일대에 陣地를 占領한 제30연대(장, 高時福 대령)는 이 敵을 포착 격멸키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고 前哨중대는 敵의 소수병력과 廣院里 東北高地 일대에서 교전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12월 27일 : 이날 제28연대(장, 李昌禎 대령)은 지난 25일 縣里에서 上南里로 분산 철수한 제2대대(장, 金貞文 소령)를 再수습하여 鷹峰山 南쪽의 △1091에 진출시켜 사단의 左側方을 방호토록 하였고 연대의 주력인 제1, 제3대대로 하여금 縣里에서 진지를 구축중인 敵을 격퇴하기 위하여 출동시켰다。

한편 下雉田 부근에서 敵과 對峙중인 제29연대(장, 高白圭 대령)의 제1대대(장, 趙鍾春 소령)는 이날 반격전을 전개하여 敵을 △847로 격퇴하고 貴屯里 北쪽을 目標로 進擊戰을 전개하였으며 제3대대(장, 李永鎬 소령)는 전일에 江을 사이에 두고 敵과 서로 교전하던 중 이날에 접어들면서 더욱 진지를 강화하면서 對峙상태를 維持하고 있었다。

또 한편 전날 可得峰 東쪽 下美達洞 부근에서 五聖山을 目標로 南下中인 敵의 소수 병력과 접촉한 제30연대(장, 高時福 대령)의 前哨중대가 교전을 전개하고 있을 무렵 은밀히 後續한 약 2개대대 규모의 敵은 廣院里—元堂里 일대와 沙原坪 부근에 潛入하여 제2대대(장, 金鍾煥 소령)의 주력과 제3대대(장, 金在康 소령)의 제9중대를 側後方 깊숙히 포위하

계 되었다. 이에 제2대대와 제9중대는 치열한 교전 끝에 敵의 포위망을 뚫고 07.40에 沙原坪 西北高地를 점령하여 반격전을 개시하였다。

그중 특히 제9중대의 제3소대는 08.00에 元堂里에 진지를 구축하고 敵 2개소대 규모와 元堂里의 벼락峰에서 30분간에 걸친 교전을 전개하였는데 敵의 계속적인 증강으로 밀리는 바 되어 09.30에는 同 高地를 철수하고 말았으며 제2대대(장, 金鍾煥 소령)도 계속 敵과 교전하다가 15.00에 廣大峴에 방어 진지를 구축하였다。

이 전투에서 我軍은 敵 31명을 사살하고 蘇式 소총 등의 무기를 노획한 반면 11명이 전사하고 3명이 戰傷을 입었으며 31명의 실종자를 내게 되었다。

12월 28일 : 전일 貴屯里 北쪽을 향하여 追擊戰을 전개중이던 제29연대(장, 高白奎 대령)의 제1대대(장, 趙鍊春 소령)와 縣里 南쪽의 제3대대(장, 李永鎬 소령)등 연대의 주력부대는 이날 06.00에 사단의 全 전투지역 정면에 계속 증강된 敵 사단 규모 병력의 저항으로 그 진출이 鈍挫되기에 이르렀다. 敵은 屍體를 넘고 또 넘는 인해전술과 包圍와 공격을 兼用하는 突破氣勢를 올리기 시작하였으며 드디어 我軍의 前進을 不許할 뿐 아니라 그 중 일부는 縣里 南쪽 제3대대 진지의 東側方으로 迂回하여 背側 깊숙히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敵의 如斯한 前後협공을 받게 된 연대의 제3대대는 光珠洞—三山洞으로 轉進하는 한편 제1대대는 下雉田 西南方으로 逐次로 진지를 이동하면서 抵抗을 계속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제28연대(장, 李昌禎 대령)는 06.00에 縣里의 西南方에서 진출이 頓挫되어 제1대대(장, 金祥圭 소령)는 원진지에 복귀하여 敵의 南進을 不容하는 방어력을 강화하였고 제3대대(장, 李成烈 소령)만이 敵 1개연대의 공격을 받고 23.00에 上南里로 철수하였다。

이 무렵 제29연대(장, 高白奎 대령)의 背側에 침투한 敵은 계속 南下를 강행하여 蒼村과 三山洞에 이르는 我軍의 主補給路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단의 예비진지인 院堂里 北쪽 地平里로부터 新論谷까지 突進하여 이 지역의 제30연대(장, 高時福 대령) 제1, 제2대대 진지를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戰勢가 이에 이르게 되자 연대의 주력부대는 이 敵과 1시간여에 걸쳐 격전을 展開한 다음 院堂里 北쪽 高地와 生屯里 일대로 각각 後退한 다음 다시 진지를 占領하였다。

12월 29일 : 사단 右一線인 제29연대(장, 高白奎 대령)는 이날 數倍에 달하는 敵의 병력과 격전을 전개하여 오다가 더욱 효율적인 접전을 계속하기 위하여 그 주력부대를 후방진지로 敏退시켰다。

전일 貴亞里에서 下雉田 西南方으로 이동하였던 제1대대(장, 趙鏞春 소령)는 이날 제30연대(장, 高時福 대령) 주력부대의 방어진지 東北方에 위치한 葛田谷峯 南쪽으로 撤收하였고 제3대대(장, 李永鎬 소령) 또한 下南里로 後退하여 각각 진지를 占領 강화하였다.

그리고 蒼村에 있는 사단 지휘소도 이날 東沙里로 이동 설치 하였다.

한편 사단 당면의 敵은 전일에 이어 계속 南下하여 五台山—泰岐山 방면으로 突出分斷을 企圖하고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이날 05.00에는 豊岩里에 위치한 제29연대(장, 高白奎 대령)의 후방지휘소가 敵의 奇襲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28, 제29연대의 보급로 마저 차단 당하였으므로 긴급한 부대보급은 항공기에 의한 공수투하로서 충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모든 要件이 逆次로 불리하게 되자 제29연대(장, 高白奎 대령)는 다시 제1대대(장, 趙鏞春 소령)를 葛田谷峯 南쪽으로부터 西北方으로 진출케 하고 縣里 南쪽에서 下南里로 轉進한 제3대대(장, 李永鎬 소령)를 縣里 南쪽으로 진출시켜 부근의 敵을 격퇴하면서 敵 후속부대의 南下에 果敢히 대비케 하였다. 이날 연대의 전방지휘소와 제2대대(장, 張泰煥 소령)는 上南里에 있었다.

이와 같이 제9사단의 상황이 급변하여짐에 따라 군단 右翼인 首都사단장은 군단장 金白一 소장의 지시를 받고 기갑연대(장, 金東洙 대령)의 주력인 제2대대(장, 朴翊均 소령)와 제3대대(장, 林觀默 소령)로 하여금 이날 04.00를 기하여 西林을 출발하여 下雉田 南쪽으로 진격케 하였으며 또한 注文津에서 松川으로 이동 배치하였던 제26연대(장, 徐延哲 대령) 제3대대(장, 朴敏洙 소령)도 06.00에 제30연대(장, 高時福 대령)의 전투지역과 연결하기 위하여 葛田谷峯 南쪽으로 진출케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사단의 제30연대의 주력부대는 이날 院堂洞 南쪽 高地로 이동하여 부대를 정비하고 진지를 강화한 다음 院堂洞의 敵을 격멸하기 위하여 제1대대(장, 金相義 소령)가 17.00에 공격하여 무려 3시간에 걸친 치열한 교전 끝에 院堂洞에 돌입하는데 成功하였으며, 제2대대(장, 金鍾煥 소령)는 연대장의 지시에 따라 연대 예비대로서 蒼村에 집결하였고 그 중 1개중대가 廣院里에서 일시 敵에게 포위되었으나 全力을 다하여 포위망을 突破하고 원대로 복귀하였다.

한편 이날 17.00에 제28연대장 李昌禎 대령은 사단장의 지시를 받고 縣里 西南方에 배치한 주력부대를 철수시킨 다음 제1대대(장, 金祥圭 소령)를 釜峯 東쪽에 제2대대(장, 金貴文 소령)를 砧隣에, 제3대대(장, 李成烈 소령)를 제1대대의 右一線에 각각 배치하였고

제29연대장 高白奎 대령은 上南里에서 下南里 西北方 △1091(大岩山)의 敵 據點을 점령하기 위하여 제2대대(장, 張泰煥 소령)를 上南里 北쪽 左一線에, 제3대대(장, 李永鎬 소령)를 그 右一線에 각각 배치하였다. 이때 제1대대(장, 趙鏞春 소령)는 葛田谷峯 西北方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12월 30일 : 釜峯 東側方에서 砧橋 北方에 이르는 사단 전투지역, 左翼 방어선상에 진출한 제28연대(장, 李昌禎 대령)의 주력부대인 제1, 제3대대는 同 선상에서 연대 규모의 敵 병력과 衝突하여 치열한 교전을 전개함으로써 계속 北方으로의 진출을 抑制당하게 되었으나 제2대대(장, 金寅文 소령)는 커다란 接敵없이 砧橋에서 그 西側方인 可得峯(△1060)으로 진격하게 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1091(下岩山)에 진출중인 제29연대(장, 高白奎 대령)의 제2, 제3대대는 同 高地의 北方으로 진격하였는데 이때 제28연대 정면의 敵이 연대의 배후를 위협하게 되었으므로 연대는 敵의 前後협공을 회피하고 차기의 반격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대를 砧橋로 抽出키로 하였다。

이상과 같은 제28, 제29 兩연대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6포병중대(장, 崔南守 대위)는 이날 平昌郡 大和面에서 珍富面 蒼村으로 그 陣地를 이동하여 본 전투지구에 대한 직접 지원을 시작하여 그 火力이 敵陣을 뒤흔들고 砲煙이 山野에 가득하였다。

한편 生屯里 西南方을 방어중인 제30연대(장, 高時福 대령)의 제2, 제3대대는 계속 방어력을 강화하고 있었으며 제1대대(장, 金相義 소령)는 사단 방어진지의 右側인 院堂里로 침투한 敵을 예하 1개중대로써 五台山 방면으로 격퇴하였고, 16.20에는 제2대대(장, 金鍾煥 소령)의 본부요원 5명이 新興洞(蒼村 西쪽 4km)에 출현한 敵 주력부대의 落伍兵 5명을 사로 잡았다。

그런데 이날 松川에서 蒼村—廣院里선상의 제30연대(장, 高時福 대령)와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急히 西進중인 제26연대(장, 徐廷哲 대령)의 제3대대(장, 朴徹洙 소령)는 大沙里까지 진출하여 20.00에 부근에 출현한 敵 약 1,000명과 衝突하여 치열한 火力戰에 이은 白兵戰을 전개하였다。

한편 군단장 金白一 소장은 사단의 戰況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江陵의 군단지휘소를 경비중인 제1경비대대의 예하 1개중대를 제30연대 지역으로 출동케 하였다. 이에 따라 同대대의 1개중대는 蒼村으로 이동한 뒤 이날 06.00부터 △1251에서 敵 1개 중대와 교전중인 제30연대 제7중대와 서로 협력하여 同 高地의 敵을 五台山 방면으로 격퇴하였으며 이

어 九谷洞과 俗稱 내국숙洞에 출현한 敵 50명을 격멸하고 말았다。

12월 31일 : 지난 28일 下雉田--縣里 일대로 침투한 敵 제2군단의 일부 주력부대는 이제 제 9사단과 首都사단과의 接際部인 葛田谷案 東側으로 침투하여 五台山 깊이 潛伏하였으며 그 중 일부의 敵은 사단의 후방地域을 교란할 목적으로 蘇東擊退의 術策을 다하여 要地要部에 출몰 自在하였다. 그런데 이날 제28연대의 前面에는 다시 敵 제10사단의 병력이 축차적으로 증가되고 있었다。

전날 砧橋 北쪽의 진지에서 敵 1개연대와 교전하였던 제28연대의 제1, 제3대대는 이날 사단 작전지시 제4호에 의거하여 포병의 지원사격을 받으면서 공격을 재개한 끝에 敵을 北으로 격퇴하고 방어력을 보강하였다. 이에 따라서 제2대대(장, 金寅文 소령)는 △1059(可得峯)의 東北쪽에서 西南으로 진격하던 중 砧橋 北쪽에서 400여명의 敵과 衝突하여 한 시간에 걸쳐 교전한 끝에 敵을 同 高地의 西北方으로 격퇴하였다。

그러나 이날 연대의 左 인접인 제3사단 제22연대(장, 金應祚 대령)는 연대의 正面인 上水內里로 南侵한 敵 제10사단의 주력부대와 激突하여 치열한 접전 끝에 新豊里진지를 同 사단의 제18연대(장, 任忠植 대령)에 인계하고 於論里로 撤收하고 있었으며, 사단 제28연대(장, 李昌植 대령)의 西南方에 있는 龍浦洞과 下雉峙 방면에는 可得峯 부근에서 南下한 敵의 유격부대가 출현하여 사단과 제3사단의 地境線을 방호하던 제3사단의 제23연대(장, 金漢舜 대령) 제5중대를 포위함으로써 제23연대의 1개대대가 출동하는 등의 動態로 말미암아 제28연대는 그 左側背로부터 뜻하지 않은 敵의 위협에 直面하게 되었다。

한편 사단의 右一線부대인 제29연대의 연대장 高白奎 대령은 제2, 제3대대로써 △1091를 공격할 준비를 갖추는 한편 葛田峯 南쪽의 제1대대(장, 趙鎭春 소령)를 이날 03.00에 蒼村으로 집결시킨 다음 05.00에 연대주력이 방어중인 上南里로 이동 시켰다. 이로 말미암아 連 3일간이나 연대장의 지휘권하에서 벗어나 있었던 同 대대를 비로소 장악하여 급변하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전날에 이어 제30연대(장, 高時福 대령)의 제2대대(장, 金鍾煥 소령) 본부요원은 이날 05.00에 新興洞에서 敵 1명을 사로 잡고 15.00에는 新基에서 다시 敵 3名을 격퇴시켰으며 제5중대 제1소대는 鷹峯山에서 落伍된 北共軍 大尉 1名을 사로 잡았다(제30연대 部隊歷史資料級 참조)

한편 전날 大沙里에서 1,000명 규모의 敵과 교전한 제26연대(장, 徐廷哲 대령) 제3대대(장, 朴徹洙 소령)는 敵이 五台山—平昌 방면으로 潰走함으로써 이를 急히 추격하여 下

珍富里까지 진출하였으나 끝내 이 敵을 포착하지 못하였으니 敵은 공격에도 能하였으나 潰散退却에 있어서는 더욱 能手능란 하여 마치 九天之上에서 九地之下에 숨어드는 듯 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1월 1일에 사단은 전임 吳德俊준장의 사단장 해임과 더불어 신임 사단장 金鍾비 준장의 취임을 맞이한 다음 上南里 北方에서 38°線上의 "C"방어선을 점령하기 위하여 진출하고 있었다。

곧 金富里로부터 上南里—△1091에 이르기까지는 李昌植 대령이 지휘하는 제28연대가 진출하였고, △1091 東側으로부터 光珠洞—芳苔谷—龍浦 前方과 그 東方에 이르기까지는 高白奎 대령이 지휘하는 제29연대가 각각 진출하였다。

이날 12.00에 金富里 전방으로부터 敵 제2군단 주력 약 1,000명이 급속히 침공하므로써 부대는 진출을 멈추고 敵에 대한 치열한 방어를 단행하게 되었는데, 20.00에 이르러는 사단의 全戰鬪地域에 敵 제10사단의 주력이 투입되어 완강한 침공을 감행 하였으므로 사단은 이 敵을 저지하기 위하여 同 방어선상에서 2일 18.00까지 血戰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종과부적으로 現진지를 유지하지 못하고 사단의 주력은 명에 의하여 각 대별로 芳苔谷에 철수하였다. 더구나 제29연대(장, 高白奎대령)의 제3대대(장, 李永鎬소령)는 芳苔谷 前方에서 敵 1개연대의 포위로 퇴로를 잃고 고립하였기 때문에 그 퇴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육박전까지 전개하였으나 敵勢의 계속적인 증원으로 不得已 分散철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高時福 대령이 지휘하는 제30연대는 사단 예비대로서 春村부근에 배치하여 있었거니와 그중 제3대대(장, 金在旭소령)는 이날 松亭里로 後退하였다。

이때 군단장 金白一 소장은 下珍富里에 있는 제1경비대대에 대하여 松洞 옥부洞 및 △770에 侵攻한 敵 1개대대를 捕捉 섬멸하라는 命令을 내렸으므로 이 제1경비대대는 제3,제5중대로 하여금 2일 04.00에 同 高地를 공격하여 이를 점령함으로써 마침내 敵은 戰意를 상실하고 북田里로 潰走하고 말았는데 그 뒤에 이 敵은 首都사단 제26연대(장, 徐延哲 대령) 제3대대(장, 朴敏洙소령)의 북田里 진출로 말미암아 또다시 무참으로 潰走하였다。

그리고 寧越에 있던 제2경비대대도 寧越 東北쪽 25km의 無名高地에 출현한 敵 250명의 섬멸 임무를 군단장으로부터 받게되자 1일 20.00부터 同 高地의 敵에 대한 포위 공격을 감행하여 6시간에 걸친 교전을 전개한 뒤 2일 02.00에 敵을 北方으로 격퇴하고 同 高地를 점령하였다。

이렇게 하는 동안 사단은 陸本作命 제257호에 의거 3일 13.00에 제1군단 배속이 해제되고 제3군단(장, 李亨根준장)에 전속되어 "C"방어선을 점령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철수가 단행되었으나 이미 敵이 당 사단의 후방지역에 침투하여 견고한 진지를 구축할 뿐 아니라 계속 후방을 교란하고 있었으므로 예정방어선 점령에는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었다。

더구나 金富里와 △1091 및 光珠洞에서 芳苔谷과 上南里에 철수한 제28연대와 제29연대는 그 후

방에 침투한 敵에 의하여 퇴로가 차단되었고, 또한 사단사령부 및 左右부대간의 연락마저 杜絶되는 상태였다。

이에 제28, 제29연대는 각기 연대장의 단독지휘로 사단사령부가 위치한 東沙里를 目標로 도보 철수를 단행하였다. 이와같이 하게된 兩個연대는 敵 제10사단의 주력이 砧橋 南쪽 行蛙에 1,000명, 生屯里에 1,000명 下梨峴에 1,800명이 배치되어 있어 사실상 敵에게 포위된 상태하에 놓여 있었으나 且戰且退의 철수작전을 적절히 운용하여 敵의 포위망을 분쇄하고 4일에는 蒼村을 경유 東沙里에 집결하였다。

그런데 이 무렵 五臺山으로 침투한 敵 2,000명이 平昌으로 南下한 뒤 東쪽으로 突進하여 廣河里(旌善 西南 3km) 부근에서 사단의 후방을 차단할 기도였으며, 左 인접 제3사단 지역인 橫城 역시 敵 제12사단 주력의 침투를 보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제3군단장 李亨根 준장은 제3사단과 아울러 黃牛線(三陟—寧越)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사단장에게 하달하였다。

이에 사단장 金鍾甲 준장은 제30연대 제3대대(장, 金在康소령)를 東沙里에 陣地를 占領케 하여 사단 주력부대가 東沙里에 집결하는 것을 收容토록 한 다음 旌善으로 철수토록 지시한 然後에 사단 사령부와 제30연대의 주력부대를 곧 旌善으로 後退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제28, 제29의 兩연대는 東沙里에서 병력을 재정비한 다음 6일에는 제30연대 제3대대의 엄호를 받으면서 다시 東沙里를 출발, 黃牛線을 향하여 撤收하기 시작하였다。

3. 洪川附近 戰鬪 (50년 12월 21일부터 50년 12월 31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10 호
상 황 도 제 23 호
작명부록 제111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제2군단	장 소장 劉 載 興		제1대대	장 소령 金 尤 榮
제3사단	장 준장 崔 錫		제2대대	장 소령 文 泰 俊
제18연대	장 대령 任 忠 植		제3대대	장 소령 崔 尙 俊
제1대대	장 소령 李 秉 衡		사단직할특별대대	장 중령 李 昌 雲
제2대대	장 중령 金 鳳 翊		배속부대	
제3대대	장 중령 安 昉 一		제11포병대대	장 소령 宋 賛 鎬
제22연대	장 대령 金 應 祚		제3야전공병대대	장 대위 金 在 植
	장 중령 李 召 東 (12월 26일부터)		병력 : 약 11,000명	
제1대대	장 대위 金 相 均		장비 : 60mm박 격 포	52문
제2대대	장 소령 吳 廷 錄		81mm박 격 포	34문
제3대대	장 소령 鄭 淳 珉		3.5″로켓트포	23문
제23연대	장 대령 金 漆 舜		57mm대전차포	11문
			105mm곡 사 포	12문

敵 軍

北共 제2군단 병력 : 약 45,000명
제2사단(제4, 제6, 제17연대) 병력 : 약 2,800명과 제10 및 제12사단의 일부병력으로서 장비는 重迫擊砲 및 自動火器였다.

나. 전투 전의 개황

咸北 城津港에서 興南을 경유, 12월 12일에 釜山과 九龍浦에 상륙한 제3사단은 다시 12월 15일 22.00에 『제3사단장은 部隊를 原州로 진출시킨 다음 麟蹄지구의 38°線上에 배치하여 南進하는 敵을 포착

섬멸하라』는 제2군단 작전명령 제100호에 의거하여 각각 麟蹄를 目標로 하여 北上하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東海岸의 注文津에서 西쪽으로 昭陽江—春川—抱川—東豆川—汶山—高浪浦里일대를 沿하는 38°線上에는 韓國軍 제3군단과 美 제9, 제1군단 병력이 中共 제13병단 및 北共 제1, 제2군단(제2전선부대)과 對峙하고 있었다. 이중 襄陽—麟蹄—華川지구의 中東部戰線은 長津湖에 침입한 中共 제9병단과 北共 제3, 제4, 제5군단이 南下하여 이를 占領할 기도였으나 咸興—興南지구의 美 제10군단 撤收作戰 (12월 24일완료)에 牽制되므로서 北共 제2군단(제2, 7, 10, 12, 15, 31사단으로 구성) 병력이 담당하고 있었다。

敵軍의 狀況：北共 제2군단은 我軍의 總反擊作戰에 투입된 敵 패잔병의 混成部隊로서 我軍의 豆滿江 및 鴨綠江 北進 당시에는 狼林山脈과 太白山脈 및 鐵原—金化—平康일대를 據點으로 하면서 我軍의 後方을 교란하여 왔다. 그러나 이 무렵에는 元通里—麟蹄—楊口—華川일대에 主力을 배치하여 麟蹄—洪川—原州輸線과 華川—春川—洪川—原州輸線을 따라 南下하려 하였다。

12월 20일에 제3사단이 제9사단과 陣地를 交代하고 昭陽江 南岸에 배치하였을 때 사단 前面에는 北共 제2사단이 陣地를 강화하고 있었다。

이 제2사단은 50년 12월중에 再編되었고 新兵이 대부분이며 裝備는 重迫擊砲 및 自動火器등이 있으며 이들의 補給狀態는 補給路의 延長과 輸送力의 缺陷으로 不良한 편이 었는데 그위에 酷寒으로 말미암아 凍傷者가 속출하고 있음이 포로들의 陳述에서 밝혀졌다. 그리고 이들의 作戰企圖로서는 우선 遊擊戰法으로 我軍의 後方에 侵襲하여 보급로 및 通信網을 차단하는 한편 38°線 北쪽에서 부대를 재편 강화하여 我 사단의 陣地를 突破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我軍의 狀況：12월 15일 釜山과 九龍浦에서 각각 釜田—慶州—永川—安東—榮州—堤川—原州—洪川線을 따라 北上전출한 제3사단의 주력부대는 12월 20일까지 洪川에 집결하였다. 사단은 그동안 제1군단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12월 15일부로 제2군단(장, 劉載興소장)에 편입되어 中東部戰線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제26연대(장, 徐廷哲중령)가 首都사단의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와 교대하였다。

12월 20일에 洪川집결을 완료한 사단 주력은 군단작명 제102호와 사단작명 제61호에 의거하여 38°線上의 잔지를 집령하기 위한 부대 전출이 단행 되었는데 이에 앞서 사단의 작전지역이 갖는 立地的 條件을 간추려 보면 대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할 수 있었다。

陣地의 前面에는 昭陽江이 東西로 貫流하고 있으며 蛇行으로 형성된 江의 北岸에는 大小高地가 솟아 있다. 그리고 이 일대의 道路網은 첫째 洪川에서 洪川江邊을 따라 麟蹄 및 楊口에 이르는 24番道路와 92番道路가 비교적 良好한 편이었으나 길의 폭이 좁고 도로의 左右에는 海拔 평균 700m의 聳立된 群少高地가 錯綜되어 縱隔室을 形成하고 있으며, 春川에서 昭陽江의 29番道路는 陣地의 前方을 東西로 橫斷하고 있다。

이러한 道路網은 특히 敵의 中東部戰線 接近路로서 東部 山岳地帶에 비하면 作戰上 敵에게 유리한 立地的인 條件을 주고 있었다。

그리고 我軍으로서는 주로 洪川에서 麟蹄로 北上하는 24番道路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도로가 협소할 뿐아니라 15mm이상의 積雪과 結氷으로 보급수송에 어려움이 있었고 左右山岳의 울창한 森林은

공격 전진에 큰 장해물이 되었다. 한편 氣候는 점차 酷寒期로 접어들어 낮에는 다소 溫和한 편으로 視界 또한 良好하였으나 밤에는 零下 20°를 오르내리고 있어 兵士들의 耐寒措置가 절실하였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제2군단장 劉載興소장은 原州에 開設한 군단지휘소에서 새로 編入된 제3사단의 戰術的 運用과 함께 春川 東쪽 38°線 일대의 戰線構成에 대한 전반적인 작전을 계획하였다.

그간 군단장 지휘아래 있었던 제9사단을 비롯하여 제1, 제2, 제3경비대대와 제101野砲 격포중대를 12월 19일 12.00부로 배속 해제하여 제1군단장 지휘하로 들게 하고 그 대신 제3사단과 제7사단을 12월 20일 12.00를 期하여 새로 지휘하게 되었다. 군단 예하 제7사단은 이미 春川부근에서 진지를 점령하고 있었으므로 계속 현임무를 수행케 하고 제3사단은 제7사단 右側에서 麒路 南쪽의 38°線을 중심으로 하는 中東部戰線에 진지를 점령케 하여 敵의 南侵을 擊滅키로 하였다.

그런데 이 무렵 西部戰線의 美 제8군은 臨津江口—高浪浦里—長岩里線에 防禦陣地를 구축하고 現전선에서 林彪가 지휘하는 中共 제4야전군 제13병단과 北共 제1군단 주력의 공격집단을 격퇴하기 위한 새로운 任務를 담당 하였고 東部戰線에서는 墨湖에 上陸한 제1군단 예하인 首都사단이 장차 襄陽부근 38°線 北쪽 일대에서 진지를 점령하여 敵의 南侵을 격퇴하려 하였다. 이와 連繫하여 中東部의 春川부근에서는 제2軍團도 이에 呼應하여 B線(38°線)에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南下하는 敵을 陣前에서 捕捉 擊滅하려는 作戰構想이었다.

이에 따라 군단장은 제3사단에 대하여 洪川 東北쪽 38°線 일대의 固守防禦 임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1개연대로 하여금 洪川에 駐留시켜 軍團후방을 경계토록 하고 연대주력을 38°線 上의 진지를 固守케 하는 一方, 제9사단 제28연대의 제1대대 진지를 交代하고 인수토록 하였다. (제2군단 작명 제102호 참조)

이상과 같은 要旨의 군단작명을 받은 제3사단장 崔錫준장은 洪川에 開設한 사단의 전방 지휘소에서 12월 20일 22.00부로 다음과 같은 사단 작명 제61호를 예하 각 부대에 하달하였다.

『사단은 군단작명에 의거 조속히 38°線에 진출하여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南下하

는 敵을 저지 섬멸 하려함。

① 제22연대장은 예하 전병력을 12월 20일 夜間을 이용하여 新豊里에 진출시켜 21일 20.00까지 별지 투명도와 같이 병력을 배비 완료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라. 이상과 같이 배비 완료되면 조속히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南侵하는 敵을 陣前에서 저지 격멸하라. 그리고 제9사단 제28연대와 진지교대를 조속히 완료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라.

② 제18연대장은 예하 전 병력을 自隱里에 진출시켜 21일 24.00까지 별지투명도와 같이 병력을 배비하라. 그리고 自隱里로부터 於論里간의 도로 경비를 담당하라.

③ 제23연대장은 예하 全병력을 조속히 洪川으로 집결시켜 별지투명도와 같이 병력을 배비하라.

④ 포병대대장은 각 연대에 1개중대를 각각 배속하여 직접 지원케 하라.

⑤ 공병대대장은 제22연대와 제18연대에 각각 1개소대(지뢰탐지반)를 배속하여 직접지원케 하라。』(제3사단 작전명령 제61호 1950년 12월 20일 22.00 江原 洪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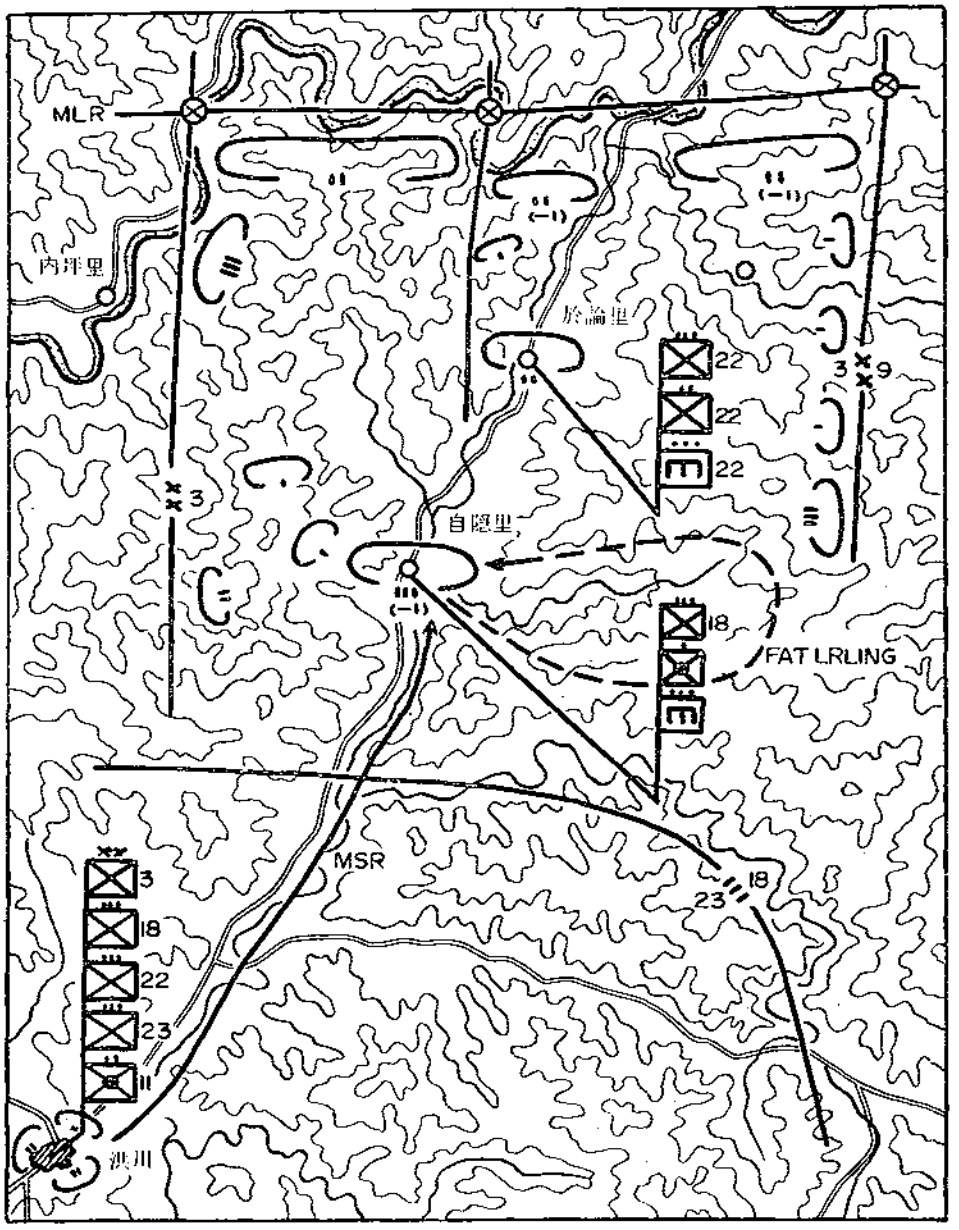
(2) 작전실시

12월 21일 : 제3사단장 崔錫준장은 이날 군단작명 제102호에 의거 38°線上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南侵하려는 敵을 현지에서 격멸하기 위해 昭陽江 中流 38°線上의 진지를 점령케 하는 동시에 제22연대를 사단 右一線에, 제18연대를 사단 左一線으로 配備하고 제23연대를 사단 예비대 및 洪川부근 경계부대로 하여 각각 진지를 점령케 하였다. 이에 따라 제22연대와 제18연대는 각각 사단작명 제61호에 의거 목표를 향하여 分進하기 시작하였다。

즉 제22연대(장, 金應祚대령)는 전날밤에 洪川에서 야간 기동으로 진출하여 제1대대(장, 金相均대위)는 수리봉 전방 38°線에 沿한 지역에서 이날 제8사단 제16연대와 진지를 교대하고 병력 배비를 완료하였으며 제2대대(장, 吳廷錄소령)는 新豊里에 진출하여 사주경계 및 露宿을 준비하였고 제3대대(장, 鄭淳珉소령)는 연대 예비대로서 於論里에 躍進하여 여기에 開設된 연대 CP의 직접 경비와 연대 후측방을 경계하였다。(部隊歷史資料綴 22 참조)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제22연대의 西쪽에서 사단 左一線진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09.00에 洪川을 徒步로 출발하여 13.00에 城山里부근에서 晝食을 끝마치고 계속 行軍하여 指揮所 및 제2대대(장, 金鳳翔소령)는 自隱里에 제1대대(장, 李秉衡소령)는 廣灘里에 제3대대(장, 安旼一소령)는 長南里에 각각 18.00에 도착한 다음 자체경계를 하면서 露營하였다。(전투상보21 自隱里전투 참조)

◇ 상황도 제23호 제3사단 作命 제61호 別紙



제23연대(장, 金宗舜대령)는 전날에 이어 原州에 집결하고 있었는데 전날 제3대대(장, 鄭淳珉소령)가 原州에 도착한 것을 선두로 이날 제2대대(장, 文泰俊소령)가 利林에서 列車편으로 原州에 도착 하였으며 제1대대(장, 金光榮소령)는 堤川에서 列車로 原州를 향해 北上중에 있었으며 다음날 14.00까지 洪川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포병대대(장, 宋貴錦중령)의 제1, 제3중대는 洪川에 이미 진출하고 제2중대는 洪川으로 이동 중에 있었으며 공병대대의 CP 역시 洪川에 위치 하였고 主力은 江陵에서 洪川으로 진출중에 있었다.

한편 18일 未明에 墨湖에 상륙 하였던 사단 殘留部隊는 李勳燮대위의 인솔하에 이날 橫城으로 이동 완료하여 사단 후방지휘소를 설치 하였다. (제3사단 사령부관계 부대역사 자료철참조)

이날 左隣接 제8사단 제16연대 제3대대는 敵 약 1개연대 규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主抵抗線에서 分散상태에 빠져 있었으나 사단 右翼 제9사단은 38°線上에서 강력히 방어중이며 美空軍은 수시로 出擊하여 我軍을 지원하였다.

그런데 이날 敵의 動向을 보면 前記한 제16연대 제3대대 正面인 晉鶴里에 敵 약 1개연대 규모가 확인되었고 사단의 右側前方인 麟蹄에서도 敵 약 1개연대 규모가 南侵하려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12월 22일 : 이날 사단 전방인 冠堡里—大興里—西武里일대에 약 1,000명의 敵이 집결하여 南侵을 기도 하였고 麟蹄방면에는 2개대대에 달하는 敵이 我軍 左側인 제8사단 제10연대 前面으로 이동 하였으며 같은 사단의 제16, 제21연대의 진지 전방에도 敵 1개연대 규모의 병력이 집결하여 南下하려는 기도가 濃厚하였는데 한편 이 敵의 후방에는 中共軍의 後續部隊가 지원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전투상보(21) 洪川지구전투 참조)

이와 같은 戰況下에서 이날 사단 右一線을 담당한 제22연대(장, 金鍾輝대령)는 CP를 전날에 이어 於論里에 開設하고 戰線을 強化하였다. 곧 38°線上의 陰陽洞—高坪洞線에 배치중이었던 제1대대(장, 金相均대위)를 16.00 右側으로 이동 水利峰(△704) 北麓에 배치케 하고 대대의 진지는 제2대대(장, 吳延錄소령)가 교대하여 점령하였다. 다음의 제2대대(장, 鄭淳抵소령)는 변동없이 於論里일대에 배치하여 연대의 후방 및 東側方을 방호하였다.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의 指揮所와 제2대대(장, 金鳳烈소령)는 自隱里에 위치하여 戰鬪中에서도 機會敎育計劃表에 따라 교육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일부 병력은 自隱里부근의 수색 경계에 臨하였고 제1대대(장, 李秉衡소령)는 이날 廣灘里에서 洪川고개로 搜索進出하여 그 左右高地일대에 진지를 점령하고 그 西北쪽 3km인 산다리까지 수색 경계중이며 제3대대(장, 安收一소령)는 05.00에 長南里에서 徒步로 출발하여 於口村을 경유 11.00에 上水內里와 上水內里 西쪽 1km 昭陽江 南岸일대에 진출하였다.

연대 수색중대는 三巨里(洪川峙 東쪽 2km)에 위치하고 그중 일부병력은 大谷(매봉고개

南쪽 1km)에 잠복 배치토록 하였다。

한편 사단 예비대인 제23연대(장, 金錄舜대령)의 제1대대(장, 金尤榮소령)는 이날 堤川에서 列車便으로 原州로 이동한 다음 다시 徒步로 洪川을 향하여 行軍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제2, 제3대대는 原州에서 洪川으로 이동 완료하였다。(전투상보(21) 23연대 관계자료 참조)

인접 右翼 제9사단(장, 吳德俊준장)은 縣里村附近에서 계속 38°線上을 경계중이며 左翼 제8사단(장, 李正一(改名 成佳)준장)의 제21연대(장, 河甲淸중령)는 38°線上에서의 敵의 돌파 分斷으로 약 5km를 후퇴하여 그 戰況이 一時 憂慮되었다.(전투상보(21) 洪川지구전투 참조)

12월 23일 : 사단 지휘소는 계속 洪川에 위치 하고 있는 가운데 제22연대(장, 金應祚대령)의 CP 및 제3대대(장, 鄭淳珉소령)는 於論里 제1대대(장, 金相均대위)는 38°線上의 陰陽洞 北쪽 1.5km에서 水利峰 東北 2km일대에 제2대대(장, 吳延錄소령)는 上水內里—陰陽洞간에 걸쳐 각각 방어진지를 견고하게 구축하고 敵侵을 捕捉코자 수색전을 펴고 있었다.

사단 左一線인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의 前方指揮所는 自隱里에 위치한 가운데 제1대대(장, 李秉衡소령)의 제1, 제4중대는 이날 07.00 廣灘里를 출발하여 三巨里에서 제8사단 제10연대와 連繫하여 合同作戰을 전개한 끝에 △714.1의 敵을 砲兵射擊으로 타격한 다음 左右 협공한 결과 11.30에 敵은 北쪽으로 潰走하였다. 이에 同 대대는 곧 洪川고개 東北으로 이동하여 그 주력을 △625에 배치하고 제3중대로 하여금 長南里에 이동하여 機動路을 경계토록 하였다。

제2대대(장, 金鳳翰소령)는 부대진격에 앞서 午前中 教育訓練을 실시하고 戰列을 가다듬은 다음 12.00에 自隱里를 출발하여 16.00에 孟坪里— △914(가삼고개)에 도착하는 즉시로 부근일대에 병력을 배치하고 加里峰(△1051)일대를 수색하였다. 그리고 제3대대(장, 安政一소령)는 38°線上의 上水內里 西쪽에서 전날에 이어 계속 공세 방어에 임하였다。

제23연대(장, 金錄舜대령)는 전 부대가 洪川에 집결하고 연대 CP도 洪川에 開設하였는데 이날 연대의 左隣接인 제8사단 진지가 敵에게 強占당하게 되자 연대의 제2대대(장, 文泰俊소령)는 사단장의 명령을 받고 사단의 지경내로 침투한 敵을 격멸하기 위하여 洪川북부근으로 출동 하였으며 제1, 제3대대는 洪川부근을 계속 경비하고 있었다。

한편 포병대대(장, 宋贊鎬중령)의 제1중대는 제23연대를 제2중대는 제18연대를 제3중대는 제22연대를 각각 지원 하였으며 공병대대는 橫城에 집결하는 즉시로 각 연대에 1개소

대(지뢰탐지반)씩을 파견하여 직접 지원토록 하였다。

12월 24일 : 전일에 이어 제22연대(장, 金應祚대령)의 CP 및 제3대대(장, 鄭淳琨소령)는 於論里에 제1대대(장, 金相均대위)는 38°線上의 水利峰 北麓에 제2대대(장, 吳廷錄소령)는 陵陽洞一帶에 각각 진지를 강화하고 있었으며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은 自隱里지휘소에서 이날 07.00부로 사단명령 제61호에 의하여 左隣接部隊인 제8사단 제10연대의 제1, 제2대대를 통합 지휘한 다음 제8사단 방어선을 돌파한 敵을 昭陽江 北岸까지 공격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였다。

제1대대(장, 李秉衡소령)는 於口村 △593.3를 경유하여 16.00에 △509.3일대로 진출하여 亭子洞一水山里일대로부터 △509.3의 東北쪽 稜線으로 침투한 敵 약 2개대대 병력에 대하여 박격포 사격을 加하기 시작하였다。

제2대대(장, 金鳳翔소령)은 △914로부터 加里山의 △1051일대로 주력을 이동 배치한 다음 제5, 제7중대에서 각기 1개소대씩 차출토록 하여 △834와 참배나무골의 △588에 잠복시켜 敵의 공격에 대비케 하였다. 그리고 제3대대(장, 安昶一소령)는 間道를 따라 침투한 소수의 적병을 격퇴한 다음 전날의 진지인 上水內里에서 계속 敵侵에 對備토록 하였다. 연대의 수색중대도 전날과 다름없이 洪川고개 東쪽 三巨里에 위치하고 일부병력은 大谷에 잠복하여 계속 수색중에 있었다. (전투상보(21)제18연대 自隱里전투 참조)

제23연대(장, 金淙舜대령)는 계속 사단 예비대로서 洪川부근을 경계하고 있었는데 이날 18.00에 약 1,000명의 敵이 洪川峙에 침입하여 제18연대 주력과 교전하게 되자 연대는 제2대대(장, 文泰俊소령)의 2개중대를 自隱里 西쪽 4km지점에 배치하여 洪川峙부근으로부터 위협하는 敵을 저지케 하였다。

특히 이날 사단은 일반명령 제8호에 의거하여 사단직할 특별대대를 창설하여 부대본부를 洪川에 두게 하였으며 初代대대장에 李鍾雲중령을 임명하였다。 (제3사단사령부 각계 부대역사자료철 참조)

이날 포병대대(장, 宋貴錦중령)의 각 중대는 전날에 이어 각 연대를 직접지원 하였고 전차공격 대대는 이날 墨湖에 上陸하여 江陵에 집결하였다. 사단의 隣接 右翼부대인 제9사단의 제28연대는 전날 38°線에서 後退한 다음 아직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사단 左翼 제8사단 제10연대는 昭陽江 南岸에서의 敵의 突破로 三巨里(삼다리 北쪽 3km)一洪川으로 후퇴한 다음 自隱里에서 부대를 再수습하는 즉시로 夜暗을 타고 洪川 南에 진출한 연후에 04.00를 기하여 원 위치로 복귀하였다。

이날까지 각 전선에 침투한 敵은 대부분이 소수집단의 遊擊隊로서 가능한 한 접전을 회피 하면서 我軍의 間隙을 뚫고 후방 깊숙히 침투한 다음 적극적인 후방교란에 역점을 둔 것으로 판단되었다。

12월 25일 : 사단의 左一線을 담당하고 있던 제22연대(장, 金應祚대령)의 於論里 CP에 이날 01.10에 敵 약 2개소대 병력이 불시에 기습 하였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일시 연대 지휘소는 혼란에 빠졌으나 곧 병력을 再 수습하여 반격전을 전개한 끝에 06.00까지 敵兵을 격퇴하고 원 위치로 복귀하였다。

이로 인하여 3명의 敵兵을 사로 잡았고 九九式소총 1정을 노획하였으나 我軍도 2명의 전사자와 5명의 전상자를 내었고 4명을 실종하는 등의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同 연대의 一線부대인 水利峰北麓의 제1대대(장, 金相均대위)는 전날에 이어 진지를 더욱 강화하던중 右인접 제9사단 제28연대를 돌파하고 산수리에 침입한 敵兵을 격멸하기 위하여 新興里에 병력을 집결한 다음 이날 06.30을 기하여 공격을 개시한 결과 13.00에는 旧屯里를 점령하였다. 이 전투에서 대대는 敵 40명을 사살하고 21명을 사로 잡았으며 체코식경기 1정, M1 1정, 칼빈 1정, 다발총 3정, 장총 12정, 수류탄 14발 등을 노획하는 전과를 얻었다。

제2대대(장, 吳廷錄소령)은 左隣接 제18연대 제3대대와 때를 같이하여 北韓 제2사단의 집요한 침습을 받았으며 동시에 연대본부 또한 敵의 기습으로 混亂을 면치 못하므로써 부대를 於論里로 철수한 다음 연대본부가 수습된 뒤에 그 일대에 배치하였다. (부대역사자료철 22연대전계자료 참조)

한편 이날 사단의 左一線부대인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自隱里의 진방지휘소에서 그 西北쪽으로 진개된 예하대의 戰況접보와 작전지도에 임한 뒤 05.00를 期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연대작명 제62호를 예하대에 하달하였다。

『① 제1대대장은 예하부대 전병력을 26일 11.00까지 "B線"에 横座標96線에 이동 시키고 北方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라。

② 제2대대장은 예하부대 全병력을 26일 10.00까지 B線에 이동 시키고 주위를 경계하라。

③ 제3대대장은 조속히 現진지를 철수하여 목표 4에 도달한 다음 차후 지시를 받으라』 (전투상보(21) 自隱里전투 18연대전계자료 참조)

이날 同 연대의 제1대대(장, 李秉衡소령)는 亭子洞으로부터 침입한 敵 약 1개중대와 9.30부터 △509.3前方에서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는 한편 공중지원을 요청하여 空地合同

으로 12.00까지 이 敵을 격멸하였다。

제2대대(장, 金鳳翔소령)는 加里山 △1051를 중심으로 부근일대의 수색 경계를 펴는 한편 將校를 隊長으로 한 정찰대 1개소대를 09.30에 출발시켜 三巨里(昭陽江 東南 4km) 일대를 수색케 하였던 바 16.00 이상없이 귀대하였다。

제3대대(장, 安敎一소령)의 제9, 제11중대는 △665.2(昭陽江 西쪽 1km)일대에서 단대호 미상의 敵 약 1개대대 규모의 병력과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20.00에, 左隣接부대인 제8사단과 제7사단의 일부병력이 敵에게 돌파당하여 洪川北부근으로 철수함에 따라 敵은 亭子洞—泉水(샘말)—蒼幕—매봉고개를 경유 於論里부근의 △593.3까지 침투한 다음 그 주력을 於論里 左右高地에 배치하여 我軍의 退路를 차단하려 하였다。

이상과 같이 제22연대와 제18연대가 접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이날 제23연대(장, 金漢舜대령)는 접적없이 洪川부근의 사단 후방경계에 임하고 있었으며 사단 右翼인 제9사단 제28연대도 일시 분산되었던 부대를 다시 수습하여 원 위치에 再배치 하였다。

12월 26일 : 이날 사단의 前面에는 敵 遊擊隊의 侵透가 계속 되었는데 12.30에 이르러 사단 右翼인 제9사단 제28연대 戰鬪地境內에 있는 웃괘석에 20,000여명의 敵이 출현 하였고 19.50에는 샛다무리에 약 1,300명, 그리고 於論里 東쪽 3Km지점인 홧다무리에 300명이 나타난데 이어 사단 전방 막장골에서도 1개대대 규모의 敵 병력이 南侵中에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아래 제22연대(장, 金應祚대령)는 이날 CP를 自隱里로 이동 하고 주력을 B線上에 배비하여 攻勢防禦에 臨하였는데 연대는 이날 사단특명(갑)제62호(50.12.26부)에 의하여 연대장 金應祚대령이 해임되고 사단 정보참모인 李召東중령이 그 後任으로 임명되었었다。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의 제1대대(장, 李秉衡소령)는 전날의 陣地인 △509일대에서 소수의 敵과 交戰한 뒤 이를 격퇴하고 진지를 계속 확보하고 있으며 제2대대(장, 金鳳翔소령)는 이날 07.30 加里山의 △1051를 출발하여 10.00에 三巨里에 진출한 뒤 제6중대를 매봉(△800)의 東北쪽에 배치하고 주력은 매봉고개(△777)일대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同 대대는 이어서 대대 수색소대와 제5, 제7중대에서 1개소대씩을 차출하여 매봉 西南쪽인 터골, 무애리 능지를 수색케 하였는데 16.00에 귀대하였다。

한편 同 연대의 제3대대(장, 安敎一소령)는 전날 20.00에 上水內里戰鬪에서 左隣接부대인 제8사단과 제7사단의 일부진지가 무너지게 되자 대대 전면의 敵이 亭子洞—泉水—蒼幕—매봉고개를 따라 후방 깊숙히 침투하여 사실상 同 대대는 退路가 차단 당하고 있었

다。

그런데 이날 01.10에 敵의 일부인 약 2개소대 규모의 병력이 대대지휘소에 襲擊하였고 이어 연대 지휘소를 기습하였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사단장은 곧 작전지시 제105호를 하달하여 철수를 지시 하였고 대대는 03.00에 上水內里를 출발하여 玉山洞一槍谷峴을 경유하여 06.00에 於論里부근의 狹路에서는 도로 兩邊山中에 잠복하였던 敵의 기습이 있었으며 07.00에는 於論里시내를 통과중 다시 敵의 포위 공격을 받게 되었다。

이에 同 대대는 수색대를 於論峙 右端의 無名高地로 진출시켜 敵의 側方을 공격케 함으로써 11.00에 敵의 포위망을 분쇄하고 계속 전진하여 於口洞 西쪽 △593를 점령한 다음 新村(自隱里 南쪽 1km)으로 이동 하였다. 그리고 14.00에는 다시 西北으로 이동 하고 洪川峠에 진출하여 그 일대의 진지를 점령 하였으며 수색중대는 계속 수색 경계에 임하며 그중 일부 병력으로 편성한 수색분대는 三巨里(삽다리 北쪽 2km)방면으로 적정 수집차 출동하였다가 16.20에 귀대하였다。

한편 제23연대(장, 金漳舜대령)의 제1, 제3대대는 洪川지구를 계속 방어하고 있으며 제2대대(상, 文泰俊소령)의 제6, 제7중대는 사단右翼 제9사단 제28연대의 전투지경내인 웃괘석에 敵 약 2,000명이 출현하여 사단의 후방을 위협함으로써 사실고개(가리산 南쪽 4km)에서 철수하여 寒溪里를 경유하고 샛골에 진출한 다음 제5, 제8중대와 合勢함으로써 다시 이 敵을 공격할 준비를 갖추었다。

이날 사단 右翼인 제9사단의 제28연대는 변동 상황이 없으며 左翼 제8사단 제10연대는 38°線上에 陣地를 再占領한 뒤 방어태세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날 原州의 군단 지휘소에서는 18.00를 期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작전명령을 사단장에게 하달하였다。

『① 我 군단의 담당지역내에는 北共軍 패잔병으로 편성된 제2사단 병력 약 2,500명이 彷徨하고 있으며 縣里에도 敵 제12사단의 일부가 出沒하고 있음。

② 군단은 금시일내로 담당지역내인 B線(신수리--洪川부근)을 目標로 이 敵을 공격하여 陣地를 확보하려함。

③ 제3사단장은 제22연대로 하여금 橫座標 96線을 확보케 한 다음 27일 09.00에 행동을 개시하여 "가"線을 공격 확보하고, 同線 확보후에는 "나"線을 공격 확보하라。』(제2군단 작전명령 제10호)

이에 따라 사단장 崔 錫준장은 그간의 전황과 군단작명을 분석한 뒤 20.00에 要旨 다음과 같은 사단작명 제63호를 하달하였다。

『① 인접 右翼 제9사단 제28연대는 변동 상황이 없으며 左翼 제7사단 제8연대는 장춘발 線에서 我 사단과 호응하여 공격을 斷行키로 하였음.

② 제18연대장은 27일 06.30에 공격을 개시하여 목표 1(매봉고개)과 3(샛말 西쪽 △538)을계속 확보하고 그 뒤에는 목표 2(매봉 東쪽 5km △721)와 4(水山里 南쪽 2km △509) 및 5(昭陽江 南쪽 孝子谷北岸)를 공격 확보하라.

③ 제22연대장은 27일 06.30에 행동을 개시하여 목표 A(新豊里 東南 3km △690)와 B(於論--新豊間의 아랫나무리)를 공격 확보하라。』(제3사단작명 제63호 1950년 12월 26일 20.00)

12월 27일 : 이날 敵의 動態는 △618(산다리 南쪽 3km)에 약 1개대대 병력이 출현한 데 이어 麻田洞(洪川 東北쪽 20km)에 600여명이 출몰하는 등 사단 左右의 인접부대 지경내에 침투하여 드디어는 직접 사단의 작전지역까지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사단의 주력부대는 전날에 하달된 사단작명에 의거하여 이날 06.30부터 공격을 개시하여 38°線을 목표로 北進을 계속하였다。

곧 제22연대(장, 李召東중령)는 전방지휘소를 自隱里에 두고 제1대대(장, 金相均대위)는 於口村—於論里間의 東쪽 無名高地에서 예정대로 공격을 개시하여 北으로 2km 진출하였으며 제2대대(장, 吳廷錄소령)도 於口村 東北쪽 "B"線上에서 제1대대와 병행하여 약 3km를 北進하였다。

제3대대(장, 鄭潭珉소령)은 연대의 예비대로 연대후방을 방호하고 있었다。

한편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전방지휘소를 自隱里에 설치하고 제1대대(장, 李泰衡소령)는 於口村 北쪽에서 06.30에 행동을 개시하여 목표②인 △721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洪山峠부근의 제2대대(장, 金鳳翰소령)는 제5, 제7중대를 攻擊梯隊로 06.30에 △597(△578인듯)을 출발한 다음 12.00에는 제7사단 제8연대와의 경계지역인 무애리에 도착하여 △800(대봉)에서 완강히 저항하는 敵 약 1개대대 병력과 3시간에 걸친 공방전을 전개한 끝에 15.00에 이를 격파하는 즉시로 같은 高地를 점령하였으며 대대의 수색대는 舞鶴洞일대에 잠복하여 水山里방면의 敵情을 감시하였다. 제3대대(장, 安致一소령)는 연대 예비대로서 自隱里부근에서 사주방어를 실시하고 있었다。

한편 제23연대(장, 金漢雄대령)의 제1, 제3대대는 洪川지구를 경계하고 있었고 제2대대(장, 文泰俊소령)는 白羽山 東쪽 2km지점으로부터 掛石里로 連하는 線에서 06.00에 가

령洞 일대의 敵을 공격하여 敵 1명을 포로로 하였고 제22연대의 失踪者 45명을 구출하는 戰功을 세웠다. 17.00에 同 대대는 제5중대를 샛골에 배치하고 3개중대는 道寬里에 집결하였다。(전투상보(21) 洪川地區전투 참조)

이날 포병대대(장, 宋賛鎬중령)의 CP는 洪川에 위치하면서 제1중대는 제18연대를 제2중대는 제23연대를 제3중대는 제22연대를 각각 직접 지원하였고 공병대대의 CP는 洪川에 있었고 주력은 도로 보수작업 및 전선의 방어 진지 구축작업에 臨하고 있었으며 전차공격대대는 大和里에 집결하였다。

12월 28일 : 이날 제22연대(장, 李召琫중령)의 제1, 제2대대는 "B"線(於口洞—於論里중간)에서 07.00에 공격을 개시하여 102線(新豊里 北쪽 1km)까지 진출하였으나 敵情이 없었으므로 다시 原位置에 복귀하여 진지를 강화하는 한편 명일의 공격을 준비하였고 제3대대(장, 鄭淳珉소령)는 예비대로서 自隱里에서 경계하고 있었다。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의 제1대대(장, 李秉衡소령)는 전날의 진지인 △721에서 敵 소수의 流動兵力과 교전하는 一方 계속 진지를 보강 하였다. 그런데 이 대대의 이날 임무는 제2대대와 같이 07.00를 期하여 橫座標 100線에서 38°線을 목표로 공격하는 것이었으나 인접 제7사단 제8연대의 進出이 遲延됨으로써 현재 선에서 제8연대와 連繫하여 방어중이며 따라서 제2대대(장, 金鳳煥소령)도 別命이 있을 때까지 如前히 △800(매봉)를 占領중이었던 바 13.00에 대대의 제5중대에서 보낸 前哨 1개소대가 수색차 출동중 추운봉里(매봉리 서쪽 2km)에서 敵 1개중대와 激突하여 약 3시간에 걸친 교전끝에 이를 격퇴하고 同 지점에서 사주 경계에 들어 갔다. 제7중대는 △777.3(매봉고개)를 占領하고 제6중대는 대대 예비대로서 △800(매봉) 左側에서 후방 경계에 臨하였다。

제3대대(장, 安政一소령)는 예비대로서 전날과 다름없이 1개중대는 洪川縣에 3개중대는 自隱里에 배치되어 후방 경계에 臨하였다。

한편 이 무렵 제18연대 前面인 샛말에는 敵 약 2개연대 규모가 집결하였으나 美空軍의 지원폭격으로 커다란 打擊을 받고 거의 潰滅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날 사단의 후방을 경계하고 있던 제23연대(장, 金錄源대령)는 CP를 洪川에 두고 제1, 제3대대가 洪川일대를 방호하였으며 제2대대(장, 文泰俊소령)의 제5중대는 白羽山 東北쪽 제9사단과의 경계지점인 샛골부근에 진출하여 敵을 威力 수색하였고 제6, 제7, 제8중대는 이날 01.00에 道寬里를 출발하여 04.00 洪川에 도착하는 즉시로 그곳에서 지역방어에 臨하였는데 그중 제7중대는 09.00에 新村(麻田洞 東쪽 3Km의 새말)에 나타난 약 300

명의 敵을 격멸하기 위하여 徒步로 洪川을 출발하였다。

포병, 공병, 전차공격대대는 전날과 다름없이 부여된 작전임무를 수행하였고, 사단左側의 인접부대인 제7사단 제8연대는 DT 101線(매봉 西쪽)에서 제8연대와 연계하여 차후작전에 대비하였다。

12월 29일 : 제22연대(장, 李召東중령)의 제3대대(장, 鄭漳珉소령)의 주력은 이날 08.00에 自隱里를 출발하여 於論里 北쪽에서 대대의 나머지 2개중대와 합동한 다음 一線까지 진출하였다가 연대장의 지시로 다시 현진지에 복귀하여 부근의 경계에 臨하였으며 제1대대(장, 金相均대위)는 橫座標 97.5線에서 右翼 방면에 대한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

제18연대(장, 任思植대령)의 제1대대(장, 李秉衡소령)는 左翼 제2대대의 공격전진을 엄호하면서 계속 진지를 확보하였고 이에 따라 제2대대(장, 金鳳翔소령)는 18.00에 목표③인 △538(舞鶴洞 西北 1km)를 완전 점령한 뒤에 제5중대로 하여금 舞鶴洞에 진출케 하여 敵의 역습에 대비토록 하였으며 제6, 제8중대는 전날에 이어 △800(매봉)에서 직접 경계에 臨하였다. 그리고 제3대대(장, 安政一소령)는 예비대로서 전날에 이어 계속임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제23연대(장, 金漆舜대령)는 사단 예비대로서 洪川부근을 경계하던 중 제2대대(장, 文泰俊소령)의 제7중대는 사단 東南側 後方인 長坪里 下松峠(하솔치)부근의 敵情에 따라 출동 하였다가 現川郡 타학里로 진출하였으며 제3대대(장, 崔尙俊소령)의 제11중대는 16.00에 洪川을 출발하여 洪川—橫城間으로 출동하였다。

포병과 공병은 전날과 변동 상황이 없으며 戰車攻擊大隊는 大和里에서 이날 주둔으로 이동 집결하였다。

이날 인접 右翼인 제9사단의 상황은 確認되지 않았고 左翼인 제7사단 제8연대는 사단과 연계하여 공격중 戰線을 제8사단 제10연대에 인계하고 물도리에 집결한 뒤 제7사단 제3연대와 戰線을 연결하여 38°線上에 배치 하였으며 제9사단 제30연대 및 제7사단 제5연대 역시 38°線부근 일대에 배비하였다。

12월 30일 : 이날 敵 약 1개연대 규모의 병력이 사단 右隣接인 제7사단 제28연대의 정면을 돌파하고 사단의 후방 교란 및 보급로 차단을 목적으로 09.00에는 蓍峰里에 출현한 데 이어 洪川을 향하여 北上하고 있음이 판명되었다。

이에 사단 後側方을 防護하고 있던 제23연대(장, 金漆舜대령)의 제2대대(缺 1개중대)(장, 文泰俊소령)가 三馬峠에서 이를 阻止한 다음 上蓍峰里에서 교전중에 있다. 그리고

제1, 제3대대는 洪川방어에 주력하는 가운데 그중 제3대대의 제11중대는 洪川과 橫城사이의 電話線을 補修하기 위하여 출동하였다.

한편 사단 第一線인 제22연대(장, 李召東중령)는 12.00부터 현재 선에서 공격을 시작하여 新豊里일대로 진출하였지만 敵情이 없는 반면, 연대 右翼 제9사단 제28연대 지역에서의 敵의 위협을 받게되어 16.00에 新豊里에서 於論里 南쪽의 原位置로 복귀하였다.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의 제1대대(장, 李秉衡소령)는 상황 변동이 없었고 제2대대(장, 金鳳翔소령)는 △800(매봉)와 그 西北쪽 △504 일대에서 이날 左右인접부대와 더불어 戰線을 유지한 채로 固守방어 중이었다. 그러나 제3대대(장, 安岐一소령)는 07.00에 현진지인 洪川교개에서 이동하여 15.00에 泉峙里(自隱里 南쪽 2km)에 도착하여 그 일대에 진지를 점령하고 주로 도로망의 경계에 임하였다.

이날 사단의 金泰漢, 朴完緖소령은 忠武勳章을, 文鶴松대위는 花郎勳章을 각각 받았다.

12월 31일 : 이날 사단 前面 上水內里에는 敵 제10사단이 다시 증가되었으며 사단 후방 斧峰里부근에서도 敵 약 2개대대가 美 제10군단의 일부 병력과 교전중에 있었다.

전날에 이어 사단 후측방을 경계하고 있던 제23연대(장, 金清舜대령)의 제2대대(缺 제5중대)(장, 文泰俊소령)는 이날 三馬峙에 출동하여 洪川—橫城가도를 횡단하여 陽德院里방면으로 향하려는 敵 2개대대와 교전하는 한편 同 연대는 다시 下松峠부근에서 포위상태에 빠진 제5중대를 구출하기 위하여 1개대대(關隊號미상)를 출동시켜 寒溪里 東쪽의 龍浦洞과 下松峠 방면의 敵을 각각 공격하여 이를 격퇴하였다. (전투상보(21) 洪川지구 전투 참조)

제22연대(장, 李召東중령)는 전날의 진지에서 계속 방어하던 중 사단 명령에 의거하여 담당 지역을 제18연대에 인계하고 自隱里로 轉進하였다. 이에 따라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의 제1대대(장, 李秉衡소령)가 제22연대와 그 임무를 교대하고 사단의 第一線에 위치하여 집요한 敵과 교전하면서 계속 진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제2대대(장, 金鳳翔소령)는 전날의 진지에서 방어중에 있다. 한편 제3대대(장, 安岐一소령)는 07.00에 泉峙里에서 北進하여 於論里에 진출하는 즉시로 제1대대를 증원하게 되었다.

이날 인접 右翼인 제9사단 제28연대와 제29연대는 戰況이 대우 악화되어 임시 분산상태에 빠졌고 잔여 병력은 上南里에 집결하고 있었다. 이 무렵 사단 右翼인 제8사단은 春川東쪽에서 계속 "B"線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제7사단의 제5, 제8연대는 陽德院에서 아편村

으로 이동 집결하여 차후 작전에 대비하고 있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中共軍의 강력한 支援을 받은 北共軍은 12월 31일 그들의 所謂「제3단계 제3차작전」을 감행하여 38°線 일대에서 총 반격전을 전개하였다. 그중 我 제2군단 前面인 中東部戰線의 敵 제2군단은 縣里—冠堡里線을 연한 昭陽江일대에서 대대적인 南侵을 감행하였다。

즉 사단 전방의 敵 제2사단의 주력부대는 於論里의 狹路를 따라 自隱里—洪川—原州를 목표로 南下하였고 사단 右翼인 제2사단 正面의 敵 제12사단은 橫城을 목표로 左翼인 제7사단 정면의 敵 제10사단은 洪川—橫城을 목표로 南下하였다。

12월 31일 오후 右隣接인 제9사단의 縣里부근 진지가 敵에게 돌파 당하고 이어 左隣接 我 제7사단의 春川 東北쪽의 진지가 무너지므로써 敵은 이것을 迂回 南進하여 사단 후방인 原州—洪川간에까지 侵襲하여 사단 후측방을 교란할 뿐 아니라 退路마저 遮斷하려는 氣勢를 보였다。

이 中東部戰線의 狀況을 고려한 軍은 敵의 보급로의 延長과 소모전에서의 損失에 基因하는 我軍의 유리한 차후작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全戰線에 걸쳐 段階的인 轉進作戰을 단행하였다. 곧 軍은 전부대를 "B"線에서 "C"線으로 철수한 다음 "C"線上에서 敵을 저지하였다가 다시 "E"線으로 轉進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단은 주력을 38°線上에서 철수하여 自隱里線으로 이동하고 여기에서 다시 "C"線인 寒溪里로 집결하게 되었다。

51년 1월 1일 17.00에 陸軍本部는 作戰命令 제256호를 수정하여 훈령 제2호(참조 부록작명 제111호를 하달하였다. 그중 제2군단은『가능한 한 속히 原州로부터 大田으로 이동하여 我 제11사단 및 配屬部隊를 통합 지휘하고 原州 출발과 동시에 我 제3사단을 배속해제하여 陸本 直轄로 할 것이며 따라서 제3사단은 軍 豫備隊가 되어 平昌으로 이동하라。』는 것이었다。

사단장 崔 錫준장은 이날 陸本作命에 의거하여 곧 명령하기를『제18연대와 제22연대를 축차적으로 寒溪里—洪川으로 이동하고 제23연대를 洪川부근과 사단 후측방인 洪川—橫城에 이르는 도로를 警備토록 한다。』는 要旨의 작전명령 제1호를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사단의 全부대는 平昌을 목표로 축차적인 이동을 하기 시작하였는 바 1월 2일 17.00에 다시 陸軍本部로부터『제3사단은 계속 平昌으로 이동하여 擔當地域內 何處에서라도 敵의 侵襲에 대해 반격할 수 있도록 또 후방지역의 敵出現을 격멸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는 요지의 작전명령 제257호를 受領하고 계속 이동하여 제22연대가 平昌 집결을 완료함을 선두로 1월 4일까지는 사단의 全병력이 이동을 완료하고 차후작전을 준비하게 되었다。

戰 果

사살	321명
포로	59명
다발총	10정
蘇式장총	19정
수류탄	9점

九九式소총	2정
SMG	2정
M1소총	2정
칼빈	2정
輕機	2정

損 失

전사	18명
전상	52명
신종	58명
M1소총	30정
CAR	20정
자동소총	1정
81mm박격포	2정
3.5inch로케트포	1정
전차	1정

(전투상보(21) 漢川지구전투 참조)

4. 東豆川附近 戰鬪 (50년 12월 11일부터 / 51년 1월 3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11호
작명부록 제48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美제 9군단	장 소장	Bright E. Moore
제 6사단	장 준장	張都暎
제 2연대	장 대령	金鳳喆
제 1대대	장 소령	李星憲
제 2대대	장 소령	金京哲
제 3대대	장 대위	崔勳大
제 7연대	장 대령	林富澤
제 1대대	장 중령	金容培
제 2대대	장 중령	金鍾洙
제 3대대	장 중령	印聖瑄
제19연대	장 중령	林益淳
제 1대대	장 소령	金俊敎
제 2대대	장 소령	金旭篆
제 3대대	장 대위	朴鍾吉
공병대대	장 중령	李琪練
제27포병대대	장 중령	金聖

병력 및 장비 : 예배속 부대를 포함하여 약 10,000명의 병력과 대체로 T/E상의 사단 장비를 갖추었음。

敵 軍

中共 제13병단	사령관	李天佑
제38군	장	宋霜根
제112사단 (제334. 335. 336연대)	장	江擁輝
제113사단 (제337. 338. 339연대)	장	唐靑山
제114사단 (제340. 341. 342연대)	장	翟仲儒

병력 및 장비 : 약27,000명의 中共軍과 약간의 北共軍 유격대가 加勢 하였으며 대대규모 이상의 砲兵火力을 갖추었음。

나. 전투 전의 개황

1950년 12월 初旬에 平壤으로 集結한 國軍 및 UN군은 大同江線에서 敵의 南下를 저지 하려 하였으나 淸川江 방어진을 突破한 中共軍은 西部의 全戰線에서 急速하게 侵攻 하는 한편 그 일부는 中部의 山岳地帶로 迂回 하면서 그 진출이 急迫 하게 되자 軍에서는 戰略上 計劃을 바꾸어 38°線에서 劃

一的인 방어전을 展開할 계획으로 12월 中旬부터 지연전을 거듭 하면서 부대를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이와같이 西部의 모든 부대를 逐次로 撤收하는 同時에 東部에서는 12월 24일에 興南을 撤收하고 부대를 轉進하여 戰線을 東部의 襄陽으로부터 西部의 臨津江에 連하는 線으로 劃定한 다음 방어작전으로 移行하게 되었다.

이때 제6사단(장, 張都暎준장)은 이 방어계획의 一環으로 美제9군단(장, Bright E. Moore 소장)으로부터 『東豆川 北쪽 10~12km의 38°線일대를 占領 방어하라』는 임무를 賦與받았으니 이때에 사단이 擔當 하였던 방어正面은 漣川郡과 抱川郡 그리고 楊州郡이 相互隣接하는 西部戰線의 要衝地帶였다. 이 지역은 漣川으로부터 東豆川~議政府를 거쳐 서울에 이르는 가장 가까운 接近路인 3番道路를 中央에 끼고 東쪽에는 鍾馗山(△588)과 西쪽에는 磨叉山(△587)이 높이 솟아 앞쪽에 대한 監制가 가능하였으며 陣前의 漢灘江(臨津江上流)은 斷崖와 屈曲이 甚하여 天然障壁을 이루는 要衝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그 反面에 3番道路는 이 戰爭의 勃發當時 敵의 主攻을 指向하던 곳으로서 徒步부대 및 機械化부대의 기동이 容易한 접근로 일 뿐만아니라 中西部의 여러 도로가 서로 交叉되어 萬一 이곳이 突破된다면 首都 서울은 勿論이고 廣州山脈을 넘어 淸平方面의 中部戰線으로 轉進 할수 있는 戰略的인 要衝地帶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 까닭으로 本戰鬪 당시에도 中共軍의 大兵力이 侵襲하였으며 더욱이 嚴冬에 접어든 酷寒과 降雪로 因하여 大小河川이 結氷 되므로서 陣前의 漢灘江도 敵의 渡河가 가능 하였을 뿐 아니라 右前方의 種子山(△643) 一帶에는 稜線과 溪谷이 많아 敵의 활동에 隱蔽를 提供하는 不利가 있었다.

敵軍의 狀況 : 我軍의 撤收를 妨害하면서 一路南下하던 敵은 38°線上에서 軍의 강력한 방어전에 부딪치자 一旦 추격을 멈추고 12월 中旬부터 새로운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으니 소위 그들의 제3단계 제3차작전 이라는 것이며, 그 計劃의 要旨는 즉 『東部戰線에서는 UN군의 縱深을 향하여 진출한 다음 背後를 공격하며, 中部와 西部戰線에서는 이에 呼應하여 38°선을 突破하고 一線방어지대의 병력에 타격을 加한 다음 短時日內에 서울을 공격하는 한편 一部의 병력집단을 淸平方面의 中部戰線으로 진출시킨다』는 內容이었으며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早速히 南下할 企圖下에 공격집단의 再編을 서두르고 있었다.

이때 中西部 전선에서는 中共軍의 6個군 약 160,000명이 平康—漣川—抱川—新都—伊川等에 집결하여 공격을 서두르고 있었으며 李建武가 지휘하는 北共 제1군단은 開城과 汶山을 거쳐 서울로의 南下를 준비하고 있었다.

한편 北共 제7, 제10사단의 유격대로 편성된 吉元八 遊擊부대는 中東部의 山岳地帶를 通하여 國軍의 後方지역으로 侵襲하더니 12월 30에는 洪川 南쪽의 陽德院에까지 侵襲하여 後方지역을 攪亂하고 UN군의 判斷을 混迷시키고 있었다.

사단의 방어正面으로는 12월 末에 접어들면서 宋霜根이 지휘하는 中共 제38군이 出現하여 그 지휘소를 漣川에 開設하고 일부의 偵察隊가 全谷부근의 仙花洞—楸里洞—新店—新興里—△353—回春里等의 방어지역 全面에 出沒하면서 사단의 配置상황을 탐지하고 散發的인 侵掠을 試圖하다가 12월 31일에 中共 제112사단을 선두로 제113, 제114사단의 3個사단 都合 27,000명에 달하는 兵力으로 一

時에 공격을 감행 하였다。

이때의 中共軍은 대대 규모 以上으로 推測되는 砲兵의 火力支援을 받으면서 非武裝의 良民을 앞세워 地雷源을 通過토록 하는 天人이 共怒한 人海戰法을 감행하여 무수한 人命의 被害도 생각하지 않았으며 主로 夜襲과 迂回를 互用하고 遊擊隊의 偵察活動과 攪亂작전을 配合하는 方法을 쓰는 것을 例로 하였다. 이들은 계속적인 진출에 따라 사기가 양호하고 戰意가 상당한 듯 하였다。

我軍의 狀況 : 遲延戰을 거듭하면서 38°線으로 철수한 國軍및 UN軍은 제1, 제3군단이 東海岸의 南涯里로부터 長坪里 以東의 鷹峯山에 이르기까지 東部戰線을 맡아 北共 제2군단과 對峙하였으며 中部戰線은 美제10군단(國軍 제2, 제5, 제8사단 배속)이 담당 하였고 西部戰線은 美제1, 제9군단이 抱川으로 부터 汝山에 이르는 臨津江 南岸의 主要地域을 점령하고 방어진을 형성 하였다。

이때 제6사단은 美제9군단의 左翼부대로서 前方CP를 楊州郡의 德亭里에 開設하고 市邊里 一帶에서 지연전을 펴고 있던 사단主力으로 12월 11일부터 撤退하기 시작하여 市邊里—九化里—漣川—金谷을 거치는 동안 漣川부근에서 北共軍 유격대의 기습을 받기도 하였으나 이 敵을 격퇴한 다음 38°線 부근으로 이동하여 主陣地를 점령하였다。

사단의 右翼에는 美제24사단(장, Johe H Church 소장)이 抱川 北쪽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左翼에는 제1사단(장, 白善燁준장)이 積城面 一帶를 占領하고 서로 呼應하면서 방어진을 形成하였다。

사단은 제19연대(장, 林益淳중령)를 右一線으로하여 檄洞里로부터 白蟻里까지의 主陣地를 占領토록 하고 제7연대(장, 林富澤대령)를 左一線으로하여 漢灘江 南岸一帶를 점령케 하고 방어前線을 連繫토록 하였으며 제2연대(장, 金鍾赫대령)는 예비대로서 東豆川에 集置케 하여 防禦縱深을 형성토록 하였다。한편 포병대대는 東豆川 北쪽의 鳳岩里에서 砲陣地를 점령 하였고 공병대대는 德亭里에 위치케 하여 장차 닥아오는 決戰을 준비하였다。

이 전투 당시의 사단은 거의 完全한 3個연대와 기타 예, 배속부대를 포함하여 10,000에 達하는 병력과 대체로 편제상의 사단 장비를 갖추었으며 포병 제27대대가 지원하였다. 一部의 實戰經驗이 不足한 新兵들도 있었으나 사단의 全將兵은 渾然一體가 되어 酷寒과 暴雪로 因한 어려움 속에서도 萬難을 克服하고 38°線을 지키려는 決意에 차 있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12월 1일에 下達된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247호(참조 작명부록 제 48 호)의 要旨에 이르기를 『軍은 首都 서울의 방어에 最大限의 力量을 傾注하는 동시에 最後의 방어선을 臨津江 南岸의 坡州로부터 서울 北方을 경유하여 北漢江 南岸의 兩水里와 長坪里, 鷹峯을 거쳐 東海岸의 38°線 接境인 南涯里를 連하는 線으로 劃定한다』고 하였으며 美제9군단의 作戰計劃에서는 強調하되 『我軍은 最少限의 손실로서 敵에게 最大限의 被害를 加하면서 現陣地에서 방어한다』라고 하였으니 軍團에서 이르는 現陣地란 서울 北쪽의 要衝地帶인 永

平川(抱川 北쪽)과 漢灘江을 連하는 線으로 군단은 이곳에서 敵의 南下를 저지 격멸키로 한 것이다。

이 計劃에 따라 사단은 군단의 左翼을 擔當하여 決戰방어를 決行할 自體의 작전계획을 수립하였으니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楸洞里—白蟻里—大田里—高陵里을 連하는 現戰線에서 地域방어를 실시한다。

② 3番道路(京元街道)를 中心으로 하여 右一線에는 제19연대를, 左一線에는 제2연대를 각각 전개하여 강력한 主陣地를 점령하는 한편 제2연대의 2個대대를 一線연대의 縱深깊이 배치하여 阻止陣地를 형성하고 방어중심을 유지토록 한다。

③ 3番道路 일대에는 對人및 對戰車 障壁을 설치하여 敵의 徒步부대 및 機械化부대의 機動을 차단하고 도로와 橋梁경계를 철저히 하다가 戰況에 따라 이를 破壞 또는 使用不能케 할 준비를 한다。

④ 제19연대 右前方의 種子山(△463)을 利用한 敵의 예상 집결지와 回春里—白蟻里, 蓮川—金谷等의 예상 접근로 一帶에는 火力集中點을 設定한 강력한 화력계획을 수립하여 敵의 부대행동과 侵攻企圖를 粉碎한다。

⑤ 繼續不斷히 정찰전을 展開하여 敵의 동향에 따른 對應策을 마련하고 空中爆擊 지원을 요청하여 미리 敵의 戰鬪能力을 擊破한다。』

(2) 작전실시

12월 11일 : 사단은 지연전을 거듭 하면서 市邊里까지 이동한 다음 부대를 展開하여 방어진을 형성하고 있을때 美제9군단장 Bright E. Moore 소장으로부터 『主陣地를 東豆川 北쪽으로 이동하여 鍾懸山(△588)과 磨叉山(△587)이 連하는 38°線 一帶를 占領 방어하라』는 要旨의 작전명령을 받고 사단장 張都暎준장은 이날 前方CP를 東豆川으로 推進開設하는 한편 예하의 각 연대를 市邊里부근의 現陣地로부터 逐次的으로 移動하였다。

1. 제2연대(장 金鳳鎭대령)는 사단작전명령 제129호로서 下達된『機動路上의 주요 據點인 金谷으로 迅速히 이동하여 後續부대의 機動을 掩護한 다음 主陣地를 점령할 준비를 하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사단의 先頭부대로서 出動하였다。

제1대대(장, 李星基소령)는 兎山 西北쪽에 있는 上里에서 부대를 집결한 다음 09.30에 徒步行軍을 시작하여 市邊里를 통과하고 계속 金川으로 向하다가 날이 저물자 侵橋里부근에서 野營하였으며 제2대대(장, 金京哲소령)는 08.00에 兎山을 출발하여 機動한 끝에 19.00에는 侵橋里에 다다라 제1대대와 合勢하였다。

한편 제3대대(장, 崔勳大대위)는 市邊里 東北쪽에 있는 文修里에서 14.00까지 부대를 집결하여 연대의 主力이 있는 侵橋里로 向하다가 22.00에 松亭里(市邊里 西南쪽 14km)에서 野營하였다。

이날 연대CP는 主力을 출발시킨 다음 市邊里을 떠나 金川과 汶山을 경유하여 議政府까지 이동 하였으며 연대에 배속되어 있는 對전차포 중대는 12.00에 市邊里를 출발하여 24.00에는 目的地인 東豆川에 도착하였다。

2. 제7연대(장, 林富澤대령)는 小仁里에서 부대를 집결하여 金川을 目標로 행군 하다가 19.00에는 松亭里에 다다라 그 主力은 이곳에서 野營을 하고 연대CP는 다시 金川까지 이동 하였다。

3. 제19연대(장, 林益淳중령)는 07.00부터 亦是 徒步機動을 하고 있을때 연대의 수색대가 岐灘里(新溪와 南川의 中間地點)부근에서 중대 규모의 敵으로부터 奇襲을 받게 되자 연대는 곧 이를 擊退하고 다시 행군을 계속하여 松亭里에서 제7연대와 合勢하였다。연대CP는 盤石洞으로부터 19.00에 松亭里로 移動開設하였다。

이와 같이 사단이 市邊里로부터 朔寧과 漣川을 경유하여 全谷에 이르는 捷徑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市邊里—金川—九化里—漣川으로 通하는 迂回路를 採하게 된 것은 兎山부근에서 제8사단(장, 李成佳준장)이 9일부터 交戰中에 있는 까닭으로 大部隊의 신속한 기동이 어려웠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인 것으로 판단된다。

12월 12일 : 이날도 兎山부근에서는 제8사단의 後續부대인 제7사단(장, 申尙澈준장)이 激戰을 展開하고 있었으며 臨津江 上流일대에는 敵勢가 極甚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사단은 부대를 신속히 擔當地域으로 이동 하기 위하여 제2연대를 車輛으로 先行시켜 全谷을 確保토록 하였으며 다른 연대는 전날에 이어 強行軍을 계속토록 하였다。

1. 제2연대는 이날 前方CP를 議政府로부터 東谷川으로 轉進開設하고 각 대대는 06.00부터 도보 행군을 계속 하다가 제1, 제3대대는 08.20에 九化里부근에 다다랐을 때 군단에서 지원된 차량을 利用하여 接敵없이 全谷까지 進出한 다음 24.00에는 全谷一圓에 병력을 배치하고 四周를 警戒하면서 宿營 하였으며 松亭里에서 出發한 제3대대도 全谷에 도착하여 合勢하였다。

2. 한편 제7연대는 07.00에 松亭里를 출발하여 漣川을 목표로 기동 하다가 主力은 九化里부근에서 野營을 하고 연대CP는 九化里을 지나 高旺里까지 이동 하였다。

3. 제19연대는 이 보다 먼저 12.00에 九化里를 통과하여 基谷里까지 이른 다음 제1대

대CP는 이곳에서 野營을 하고 제2, 제3대대는 계속 漣川을 向하여 強行軍을 하였다。

이와 같이 각 연대가 雪野를 헤치며 連日 強行軍을 하고 있는 동안 中部의 山岳地帶로 南下한 敵은 平康부근에서 공격집단을 형성하는 듯 하였으며 그 일부와 北其 敗殘兵은 合勢하여 鐵原의 一角까지 出沒하였다。

12월 13일 : 전날 兎山부근에서 지연전을 펴던 제7사단이 이날 새벽에 漣川으로 철수하므로서 사실상 漣川以北의 地域은 敵의 勢力圈內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이와같이 各部隊가 機動하는 虛를 타고 敵은 곳곳에서 跳梁하였다。

1. 이리하여 제2연대(장, 金鳳浩대령)는 主力의 철수를 엄호 하려고 우선제2대대(장, 金京哲소령)로 하여금 金谷을 四周警戒토록 하는 한편 제1, 제3대대와 연대 수색대는 金谷과 漣川의 一圓에 걸친 搜索戰을 전개 하였다. 즉 제1대대(장, 李星憲소령)와 수색대는 臨津江沿岸을 따라 三距里—仙谷里—玉溪里 일대를 수색 하였으며 제3대대는 金谷으로부터 漣川에 이르는 京元街道를 수색한 다음 부대를 정비 하였다。

2. 한편 제7연대(장, 林富澤대령)는 主陣地 投入을 위한 集結地인 三距里(漣川 西南쪽 4km)를 목표로 06.00에 九化里를 출발하여 接敵없이 이동한 다음 自體경계를 하면서 부대를 정비 하였다。

3. 제 19연대(장, 林益淳중령)는 漣川을 목표로 제2, 제3대대가 선두에서 機動하다가 16.00에 漣川 西北쪽 3km지점인 玉溪里를 通過할 무렵 玉女峯(△126)일대에 潛伏하고 있던 중대 규모의 敵으로부터 不意의 奇襲을 받게 되자 제3대대(장, 朴鍾吉대위)가 즉각 반격을 단행하여 이를 격퇴 한 다음 玉女峯일대를 점령 하고 後續부대의 기동을 엄호 하였다. 이때 제2대대(장, 金旭緖소령)는 계속 진출 하여 17.00까지 漣川을 점령하고 四周를 경계하였으며 08.00에 基谷里를 출발한 제1대대(장, 金俊敎소령)와 연대CP는 이날 玉溪里까지 도착하여 제3대대와 合勢하였다。

이와 같이 11일부터 3일간에 걸쳐 전술적인 이동을 단행한 각 연대는 主陣地 前方 5~10km지점에까지 도착하여 일단 부대를 再整備하고 敵의 散發的인 저항을 격퇴 하면서 진지 투입을 준비 하였다。

12월 14일 : 이날 사단장 張都暎준장은 각 연대로 하여금 이미 계획된 陣地를 占領하도록 명령 하였다。

1. 제19연대(장, 林益淳중령)는 右一線연대로서 鍾愚山(△588)일대의 主抵抗線을 향하여 제1대대(장 金俊敎소령)을 선두로 06.30에 漣川을 출발하였다(제1, 제3대대는 玉溪里에서

04.00에 漣川으로 이동 하였음) 이리하여 선두의 尖兵중대가 漣川 南쪽 1.5km지점인 通峴里부근에 이르렀을 때 △93를 中心으로 도로 左右側 稜線일대에 潛伏하고 있던 중대 규모의 敵으로부터 치열한 사격을 받게 되자 대대는 즉각 반격을 단행 하였으나 敵은 미리 有利한 地形을 점령 하고 있는 反面에 대대는 開闊地상에 노출되어 지형적인 與件이 不利하므로 제1중대를 正面에서 牽制토록 하는 한편 제2, 제3중대를 左右로 迂回시켜 총공격을 실시하여 敵이 혼란상태에 빠진 機會를 捕捉한 제1중대가 과감한 공격으로써 11.00에는 이를 격퇴 하고 이 高地를 완전히 점령 하였으며 한편 제2, 제3대대는 道路兩側을 沿하여 계속 진격하고 있었다. 이때 새로이 先頭가 된 제2대대가 通峴里 南쪽 1km지점에 이르렀을때 다시 左側의 無名高地로부터 敵의 사격을 받았으나 이를 격퇴하고 14.00에는 연대의 全主力이 全谷으로 집결 하였다. 이곳에서 연대는 이날의 戰況을 사단에 보고하고 主陣地로 進入예정이던 計劃을 바꾸어 主力은 全谷에서 부대를 정비 하면서 敵의 侵透를 저지 하였으며 제3대대(장, 朴鍾吉대위)는 主저항선 前方 3km지점까지 진출하여 機動路를 확보 하였다。

2. 제7연대(장, 林富澤대령)는 左一線연대로서 磨叉山(△587)北쪽의 擔當正面을 향하여 07.00부터 行動을 開始하였다. 제1대대(장, 金容培중령)는 三峴里를 출발하여 14.00에 主저항선 前方 1km지점인 沙浪里에 도착한 다음 연대의 右一線 대대가 되어 鶴潭里로부터 "사기점"까지의 高陵山 右下麓 일대를 점령하고 진지 작업을 시작 하였으며 제2대대(장, 金鍾洙중령)는 13.00에 西坪洞에 도착하여 연대의 左一線을 맡아 右側으로는 "사기점"에서 제1대대와 連結하고 左側으로는 左隣接부대인 제1사단의 제12연대(장, 金鍾坤대령)와 "도감포"에서 戰線을 연결하여 진지를 점령하고 漢灘江 下流의 斷崖를 利用한 진지 작업을 시작하였다. 한편 제3대대(장, 田堅琉중령)는 연대 예비대로서 08.00에 행동을 개시하여 主力의 진지 점령을 엄호한 다음 16.00에 高陵里에 도착하여 320番道路 後方의 高地를 점령하고 진지 작업을 시작 하였다. 이날 연대CP는 三峴里로부터 東豆川 西北쪽 5km지점인 鳳岩里로 移動開設하였다。

3. 제2연대(장, 金鳳喆대령)는 사단의 예비대로서 제7, 제19연대가 기동 하는 동안 全谷一帶에서 방어진을 형성하고 있다가 제19연대가 全谷에 다다르자 主力을 東豆川 부근으로 이동 하였다。 즉 제2대대(장, 金京哲소령)는 主力을 全谷에 배치하고 제7중대와 연대 搜索隊가 合勢하여 漣川부근에까지 搜索戰을 전개 하다가 漣川北쪽 3km 지점인 만유村에서 北共 遊擊隊와 遭遇하여 3시간에 걸친 交戰끝에 이 敵을 격퇴하고 京元街道를 수색한 다음 16.00에 全谷을 출발, 東豆川 西北쪽 4km 지점인 安興里로 이동 하였으며 제3대대(장

崔勳大대위)는 全谷一圓에 兵力을 展開하고 있을 때 제19연대가 交戰한다는 通報를 받고 제9중대를 出動시켜 敵의 左側背를 공격 하였으나 이때는 이미 敵은 退却하고 말았으므로 부근 일대를 수색하면서 14.00에 全谷을 거쳐 全대대가 16.00부터 合勢하여 東豆川邑 北端에 있는 保山里로 이동한 다음 北쪽 一帶의 後線을 점령하고 邑內를 경계 하였다. 또 제1대대는 11.00에 保山里로 이동한 다음 대전차 중대와 함께 대기 하였다。



<陣地占領을 위하여 행군중인 勇士들>

12월 15일 : 제2연대 搜索隊의 보고에 의하면 漣川부근에 연대 규모의 敵이 出現하였으며 그 일부의 敵은 漢灘江 上流와 全谷의 北쪽으로 接近하고 있었다。

이러한 狀況속에 사단은 이날 前方ＣＰ를 東豆川으로부터 그 南쪽 6km 지점인 德亭里로 轉進開設하고 主陣地 점령이 遲延된 제19연대를 投入시키는 한편 偵察활동과 진지의 强化를 계속 하였다。

1. 제19연대(장, 林益淳중령)는 白體의 예비대인 제3대대의 掩護下에 右一線대대인 제2대대가 선두로 全谷을 출발하여 白蟻里로 이동한 다음 右隣接사단인 美제24사단과 連結하여 君子洞으로부터 白蟻里까지의 主陣地를 점령 하고 방어진지를 구축 하였으며 後續한 제1대대는 上大田里로 이동한 다음 左一線대대로서 제7연대와 戰線을 연결하여 白蟻里와 鵝潭里 사이의 진지를 점령 하였다. 한편 제3대대는 主力이 진지를 점령하는 동안 이를 妨害코자 企圖하는 敵을 △177에서 격퇴한 다음 楸洞里로 이동 하여 △555 일대를 점령

하고 방어진을 형성 하였다。

이날 연대CP는 東豆川으로부터 主陣地 後方인 楸洞里로 移動開設하고 美제24사단을 訪問하여 陣地와 火力等의 協調와 敵情을 交換하였으며 연대 수색대를 陣前 4km 北쪽에까지 진출시켜 敵情을 탐색 하였다。

2. 제7연대는 전날 점령한 主陣地를 계속 強化하면서 戰鬪前哨를 파견 하여 제1대대는 沙浪里 北쪽 3km 지점에, 제2대대는 西坪村 東北쪽 4km 지점에까지 各各 진출시켜 前哨陣地를 점령토록 하였으며 이러는 동안 연대의 수색대는 全谷에서 중대 규모의 敵 偵察隊와 交戰하여 이를 격퇴 하였다. 또한 사단 공병대의 제2중대를 支援받아 全谷 南쪽 1km 지점에 있는 鮎味洞 부근의 敵의 예상 접근로 일대에 地雷를 埋設토록 하였다. 이 지점은 全谷에서 漢灘江을 건너 東豆川에 이르는 唯一한 機動路로서 敵의 徒步부대및 機械化부대에 대한 가장 양호한 接近路였다。

3. 한편 東豆川에 있는 제2연대는 제1대대를 15.00에 保山里로부터 東豆川 東北쪽 4km 지점인 傑山里로 이동 하여 道遙山一帶를 점령 하고 東豆川을 縱距離로부터 경계 하면서 戰鬪를 준비토록 하였으며 제2대대는 安興里에서 上鳳岩里로 이동 하여 그 일대의 진지를 점령 하고 포병대대의 砲陣地를 掩護하면서 防禦縱深을 형성토록 하였다. 또한 제3대대의 제9중대는 14.00에 德亭里로 이동 하여 사단CP를 경계 하였으며 主力은 保山里 一圓에 兵力을 배치 하고 東豆川을 경계 하였다。

4. 제27포병대대는 主陣地를 上鳳岩里를 占領하고 1個 砲隊는 新川江을 건너 下鳳岩里의 同一골로 이동 하여 진지를 구축 하였다. 또한 사단 공병대대(장, 李珉練중령)는 제1중대를 제19연대에, 제2중대를 제7연대에 각각 지원시켜 지뢰 매설과 철조망 작업을 하도록 하는 同時에 殘餘兵力으로 主진지의 進入路작업을 하였다。

12월 16일~30일 :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 동안 사단은 작전명령上의 담당 지역인 楸洞里로부터 高陵里에 이르는 主陣地를 점령 하고 계속 진지를 強化하는 한편 예하의 각 연대로 하여금 繼續不斷히 探索戰을 전개토록 하여 그에 따른 對應策을 講究하고 各種 裝備와 보급품을 增強하는 동시에 교육훈련을 실시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때 敵은 宋霜根이 지휘하는 제38군의 主力이 漣川 부근에서 공격집단을 형성 하고 南侵의 기회를 노리면서 그 일부의 정찰대가 거의 每日 小隊 또는 중대 규모로서 陣前에 出沒 하였으며 때로는 대대 규모의 威力정찰도 감행 하였다。

1. 이러한 상황속에 제19연대(장, 林益淳대령)는 CP를 楸洞里에 設置하고(21일 以後는

葛月里로 이동) 제3대대의 一部를 전투 前哨로 편성 하여 主진지 前方 3km 지점인 宮坪里 부근에 배치 시키는 한편 主力은 계속 陣地를 堅固히 하면서 공병 제2중대를 지원받아 白蟻里와 杜岩洞을 비롯한 敵의 예상 접근로 일대에 地雷埋設과 철조망 架設等의 諸般工事를 실시 하였으며 또한 威力수색대를 편성하여 敵情 탐색전을 계속 하였다.

이때 敵은 主로 野山과 戰線이 많은 연대의 正面으로 자주 出沒 하였으니, 16일에는 대대 규모의 敵이 제2대대(장, 金旭榮소령)의 방어正面에 출현하여 杜岩洞(全谷 東쪽 6km) 부근까지 侵襲하였다. 이때 제5연대가 이 敵을 陣前으로 誘導한 다음 一齊히 火力을 集中하여 支離滅裂시켜 長灘里 方面으로 격퇴 하였으며 전투 前哨가 진지를 점령하고 있는 △177 일대에서는 23일까지 거의 每日 敵의 정찰대와 接觸이 있었으나 그 때마다 이에 타격을 加하여 격퇴 하되 遠距離의 追擊을 삼가 하고 진지를 堅持하면서 前哨임무를 수행 하였다.

23일 부터는 彼我間 偵察隊의 散發的인 接敵以外에는 戰線이 小康狀態를 유지 하였으나 연대의 威力수색대는 계속 적정을 탐색하여 北쪽 8~10km의 敵陣에까지 수색활동을 전개 하였던 바 24일에 古文里에서 捕虜한 2명의 中共軍配置에 의하여 대부대의 中共軍이 漣川에 집결하여 不遠間 南侵을 企圖한다는 諜報를 얻었으며 다시 26일에는 新店里에서, 27일 에는 回春里에서, 各各 중대 규모 이상의 中共軍이 출현 하여 보다 積極的으로 연대의 前哨陣을 위협 하였다.

이후 연대는 더욱 主陣地를 強化하는 한편 닥아오는 決戰에 對備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다.

2. 제7연대(장, 林富澤대령)는 左一線에서 CP를 如前히 鳳岩里에 설치 하고 이미 占領한 방어진지를 견고히 하는 한편 前方대대에서 配置하고 있는 前哨를 예비대인 제3대대의 一部와 交代시키고 특히 全谷으로부터 東豆川에 이르는 京元街道의 一帶에는 對人및 對戰車 防壁공사를 철저히 하였다. 이때 敵은 漢灘江 南岸의 斷崖가 險하여 陣前으로는 侵襲하지 못하였으나 前哨部隊와는 間歇的인 交戰이 전개 되더니 17일에는 左隣接부대인 제1사단(장, 白善燁준장)과의 接境으로 중대 규모의 敵이 侵襲하였으나 제2대대가 이를 격퇴 하였으며 24일에도 같은 지역으로 중대 규모의 敵이 출몰 하였으나 역시 이를 격퇴하였다.

그러나 26일부터는 全谷 西北쪽의 仙花洞—新岩—蓮院里 일대에 대대 규모의 中共軍이 출몰 하였으며 30일에는 全谷에서 연대의 搜索隊와 치열한 교전을 전개한 바 있었다.

3. 한편 제2연대는 예비대로서 東豆川에 CP를 開設하고 제1, 제2대대를 前方연대의 縱

深깊이 각각 배치하여 방어종심을 유지 시키는 한편 出動準備에 萬全을 期하였으며 21일 以後부터는 射擊術과 分隊攻防의 교육훈련을 병행 하면서 決戰에 對備하였다。

4. 제27포병대대(장, 金 聖중령)는主陣地를 東豆川 北쪽 3km 지점인 鳳岩里一帶에 設置하고 前方의 敵情이 있을때 마다 그들의 集結地에 打擊을 加하였으며 특히 敵情이 強하여 지면서부터는 夜間攪亂사격과 破壞사격을 加하여 主로 제19연대 正面의 回春里및 柳洞과 제7연대 正面의 梧里洞一仙花洞一新店等의 敵의 集結地및 砲陣地에 破壞사격과 攪亂사격을 실시 하였다。

5. 공병대대(장, 李珙練중령)는 如前히 1個중대씩 前方연대에 지원 시켜 철조망等을 架設토록 하는 동시에 京元街道上의 對戰車 地雷埋設과 기타 障碍物을 설치 하였으며 22일과 23일에는 제19연대의 새로운 CP인 葛月洞으로부터 東豆川에 이르는 도로를 補修하였다. 28일부터 더욱 敵情이 強하여 지자 峴城里驛부근의 新川江 鐵橋를 사용 불능토록 하였으며 29일에는 제3중대로 하여금 議政府에서 서울에 이르는 道路上에 障碍物을 설치토록 하였다. 또한 戰區內의 重要橋梁을 감시하고 戰況에 따라 이를 爆破할수 있도록 준비 하였으며 三八橋의 橋梁 감시組는 江沿岸의 搜索을 계속 하였다. (당시의 참전자 崔五烈 상병의 면담에서)

12월 31일 : 年末에 접어들면서 敵의 활동이 강하여 지고 侵攻의 徵候가 뚜렷하게 되자 사단에서는 年末年始를 通한 특별 경계령을 하달하고 만반의 전투 준비를 갖추고 있을때 드디어 이날 敵은 所謂 그들의 제3단계 제3차작전을 시작하여 강력한 砲兵火力의 지원을 받으며 사단의 방어正面으로 侵攻하였다. 이때의 敵은 6.25의 前轍을 밟아 主攻을 東豆川과 議政府로 南下시킬 企圖下에 中共 제38군을 主軸으로 하여 사단의 방어正面으로 侵攻하였으니, 이들은 人海戰法을 감행하여 非武裝한 良民을 앞세워 地雷源地帶를 通過하도록 한 다음 그 뒤를 따라 波狀的으로 侵攻하였다。

1. 林益淳 중령이 지휘하는 제19연대의 正面으로는 연대 규모의 中共軍이 回春里 부근으로부터 侵襲하여 그 선두의 2個대대가 陣前 2km의 △353와 金谷부근의 △126로 侵攻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사단 규모의 大兵力이 波狀的으로 侵攻하는 同時에 柳洞과 梧里洞부근에 설치된 것으로 推測되는 敵의 砲火가 極熱하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제2대대장 金旭鎔소령은 陣前에까지 肉薄한 敵을 맞아 치열한 격전을 전개하고 있었으며 제1대대(장, 金俊敎소령)는 上大田里에서 최후 저지 사격으로 敵에게 極甚한 타격을 加하였다。

2. 이 무렵 林富澤대령이 지휘하는 제7연대의 正面으로는 金谷으로부터 漢灘江을 건너

大擧의 敵主力이 侵攻하였다。

그러나 全將兵은 渾然一體가 되어 陣地를 固守하고 이미 계획된 總火力을 집중 하여 이를 阻止하면서 敵에게 타격을 加하고 있을 때 사단 포병대대(장, 金聖중령)의 砲擊支援이 熾熱하였고 이때 마침 我 空軍의 空中爆擊은 敵의 戰列을 파괴하고 戰意를 꺾어놓자 全線의 敵은 退却하기 시작 하였으며 이 기회를 捕捉한 제7연대의 제5중대는 金谷까지 追擊하여 敵을 격퇴 하였다。

이와 같이 敵은 사단의 최후 저지 火網에 부딪쳐 퇴각 하였으나 18.4C현재 敵의 砲擊은 계속 되었으며 右隣接부대인 美제24사단은 主陣地의 일부가 突破되어 後退하고 있었다。

1월 1일 : 전날 공격을 시작한 中共軍은 사단의 방어正面에서 그 企圖를 挫折 당하고 퇴각 하였으나 戰況은 時時刻刻으로 急轉하여 이날 02.2C에 左隣接인 제1사단(장, 白善燁준장)이 突破되므로서(註 : 제6사단의 전투상보에서) 敵은 急速히 侵攻하여 東豆川 西北쪽 5km지점인 安興里 부근으로 侵入하였으며 03.CC에는 右인접인 美제24사단의 正面으로 侵襲한 敵이 사단의 側後方으로 迂回하여 그 일부가 東豆川으로 侵襲하였다。

이와 같이 主陣地가 敵中에 孤立될 상태에 이르게 되자 사단장 張都暎준장은 부대를 德亭부근의 예비 진지로 撤收시킬 결심을 하고 前方CP를 德亭里로부터 서울 北쪽의 倉洞으로 移動開設하는 한편 主力은 제2연대의 掩護下에 예비 진지로 철수토록 하였다。

1. 제19연대장 林益淳중령은 『신속히 부대를 철수하여 楡岩里와 松隈里 一帶의 예비 진지를 점령 하고 敵의 南下를 저지 격멸하라』는 要旨의 철수명령을 받고 03.4C에 撤收開始하여 04.2C에는 三政里 부근에서 葛月洞을 출발한 연대CP와 主力이 合勢한 다음 山谷間의 溪谷을 따라 東豆川으로 撤收하다가 이미 美제24사단의 正面을 突破한 中共軍으로부터 奇襲을 받아 일부의 兵力이 분산되려 하였다. 이때 연대장은 兵力의 수습에 힘써서 敵의 包圍網을 돌파 하고 계속 德亭里로 향하여 後退하였다。

2. 제7연대(장, 林富澤대령)는 예비 진지인 龍岩里와 梅亭里부근으로 철수하려 하였으나 敵의 正面砲衝이 極甚하여 08.CC까지 치열한 교전을 전개 하다가 제2연대 제2대대의 엄호를 받으면서 철수를 시작하여 德亭里로 이동 하였을 때에는 이미 敵이 德亭里까지 侵入한 뒤였으므로 다시 議政府를 경유하여 倉洞으로 집결 하였다。

3. 한편 제2연대는 인접 사단을 돌파한 敵이 兩側方에서 東豆川으로 侵攻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방어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次에 사단으로부터 『前方主力의 철수를 엄호한 다음 倉洞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받고 제1대대(장, 李星憲소령)는 東豆川 東北쪽 5km지

점인 傑山里로 이동 하다가 東豆川 부근에서 不意의 奇襲을 받게 되어 彼我間에 치열한 交戰을 전개 하였다. 그러나 四面의 敵勢속에 戰況이 점점 不利하게 되어 대대는 南陽堂里를 경유 하여 德亭里부근에 다다랐을 때에 다시 敵의 奇襲을 받았다. 이와같은 惡戰苦鬪속에서도 대대는 다시 戰列을 갖추고 接敵을 유지 하면서 21.00에는 倉洞으로 後退하였다. 또한 제2대대(장, 金京哲소령)는 계속 上鳳岩里 일대에서 安興里쪽으로 侵襲하는 敵을 牽制하고 있다가 08.30에 제7연대가 철수하게 되자 이를 엄호한 다음 10.30에 철수를 시작 하였다. 이때 대대는 最後의 殘留接觸隊로서 신속한 機動을 要하나 이때는 이미 東豆川 一圓에 敵勢가 蔓延한 까닭으로 할수없이 山路를 探하여 敵陣을 돌아 德亭里 北쪽 4km지점에 이르렀을 때 13.00에 敵에게 포위되었다. 그러나 대대장은 萬苦의 濁壽속에서도 힘써 병력을 수습하고 敵의 包圍網을 돌파하여 계속 倉洞으로 철수 移動하였다。

한편 제3대대(장, 崔勳大대위)는 이날 04.30에 연대로부터 『제3대대는 신속히 德亭里로 이동 하여 사단 指揮所를 경비하라』는 명령을 받고 06.00에 德亭里에 도착한 다음 兵力을 展開하고 있을때 벌써 龍岩里(德亭里 西北쪽 2km)부근에까지 중대 규모의 敵선두부대가 出沒하여 奇襲攻擊을 감행하려 하므로 대대는 즉각 反擊을 加하여 이를 격퇴 시킨 다음 경계임무를 계속 수행하다가 사단CP와 함께 倉洞으로 이동 하였다。

이날 사단CP는 倉洞에서 다시 서울市內의 九宜洞으로 轉進開設하였다。

1월 2일 : 사단은 이날 主力의 大部分을 倉洞에서 집결하고 부대를 再編成하여 首都圈방어의 一翼을 맡으려 하였으나 美제8군에서는 美제1군단 산하의 英國軍으로 하여금 議政府에서 방어진지를 점령토록 하였기 때문에 사단은 이제 美제9군의 예비가 되어 逐次陣地인 漢江방어線으로 이동 하였다。

2. 제2전대의 제1대대는 09.00에 車輛으로 倉洞을 출발하여 漢江南岸의 新長里로 이동한 다음 16.00에는 江南岸일대를 점령하고 진지를 구축하였으며 제2대대는 廣壯橋로 이동하여 22.30에 진지를 점령 하였다。한편 제3대대는 그 뒤를 이어 新長里로 이동한 다음 四周경계를 하면서 부대를 整備하였다。

이날 一部의 落伍兵은 廣壯里와 新長里로 續續도착 하고 있었다。

2. 제7연대는 07.00에 倉洞을 출발하여 23.00에는 京畿道 廣州에 도착한 다음 부대를 再編하였으며 제19전대는 議政府및 倉洞에서 兵力을 수습하여 19.30에 廣州郡 中部面의 壽進里로 이동한 다음 부대를 再編하였다。

이와같이 사단은 이날 主力을 漢江以南으로 이동 하여 부대를 再編하고 戰列을 整備하여

다음 전투에 臨할 태세를 갖추었으며 사단CP는 12.00에 東林里(龍仁郡 慕賢面)로 轉進開設하였다。

1월 3일 : 사단은 이날 제2연대로 하여금 계속 漢江南岸일대를 점령하고 방어진지를 強化토록 하는 한편 다른 연대는 後續兵力을 수습하여 부대를 再編한 다음 전술적으로 배치하였다。

1. 제2연대의 제1대대는 전날 점령한 진지를 계속 강화 하였으며 新長里에서 부대정비를 완료한 제3대대는 廣壯里로 이동 하여 제2대대의 진지를 引受하였다. 즉 제9중대는 △88에, 제10중대는 "광나루"부근에, 제11중대는 寺岩里부근에서 각각 진지를 점령하고 17.00까지 방어진을 형성 하였다. 한편 진지를 引繼한 제2대대는 21.00에 城內里로 集結하여 부대를 整理하면서 사단 收容隊의 임무를 並行하였다。

2. 제7연대는 "광나루"에 도착한 後續兵力을 廣州로 집결하여 부대를 再編한 다음 계속 전투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제19연대는 人員과 裝備를 수습하여 南漢山(△344) 東北쪽의 高登里(廣州郡 大旺面)로 이동한 다음 兵力을 展開하고 진지를 점령 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사단은 이 전투에서 擔當戰區를 固守하고 敵의 侵襲을 阻止 하였으나 左右의 隣接사단이 무너지게 되자 오히려 敵陣中에서 苦戰을 치르고 1월 3일 漢江南岸에서 방어진을 형성하고 있을때 軍에서는 戰略上 次期作戰을 위하여 現戰線을 烏山—長湖院—堤川—寧越—三陟을 連하는 線으로 옮긴 다음 反擊戰을 준비토록 하였다。

이때 敵은 北共 제1군단과 中共 제38, 제39, 제41군等의 大兵力이 서울을 목표로 急速하게 侵襲하여 3일에는 議政府를 거치고 4일에는 서울로 侵入하더니 그 일부가 仁川과 水原까지 南下하면서 계속 진출을 企圖하였다。그러나 이들이 當初 기대했던 "서울에 進入하면 補給문제는 現地에서 解決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妄想이 軍의 緻密한 計劃에 의하여 무너지고 또한 戰線이 延長됨에 따라 補給상태가 不良한데다가 雪上 加霜으로 곳곳에서 我軍의 陸海空軍 協同작전에 의하여 極甚한 타격을 받게 되자 漸次로 戰意가 상실되어 가고있었다。이러한 가운데 사단은 美제9군단의 계획에 따라 부대를 烏山—三陟線으로 撤收하여 戰列을 갖춘 다음 反擊戰을 決行할 계획으로 지연전을 펴면서 각 연대를 逐次的으로 철수 하였다。

제2연대는 4일에 廣州로 集結하여 人員과 裝備를 수습한 다음 5일에는 金良場을 거쳐 6일에는 安城 東北쪽의 一竹面에 도착하여 이곳에서 새로운 담당진지를 점령 하였으며 제7연대는 廣州에서 陽智里를 거쳐 6일에는 龍仁郡의 九峯山부근까지 다다라 白岩里 一帶를 점령 하였고 제19연대는 高登里에서 竹山을 거쳐 鎭川北쪽의 大農里로 철수 하였다。

이와같이 사단은 CP를 忠北 鎭川에 開設하고 1월 6일까지 主力을 그 北쪽 一圓의 新戰區로 이동

시킨 다음 7일부터 戰力의 補強과 搜索戰을 전개 하면서 反擊준비에 拍車를 加하고 있었다。

사단은 이 전투에서 擔當방어 正面을 固守하고 그 임무를 다한데 對한 戰功으로 大統領의 表彰과 美 제9군단으로부터 부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戰果		損失	
敵 사 살(추정)	594 명		
포 로	22 명	전 사 장 교	7 명
기 관 총	7 정	사 병	43 명
각 종 소 총	97 정		

§ 參戰者의 證言

◇ 제6사단 작전참모 曺禎鍊 중령

(1967년 4월 12일, 군기사 부사령관, 준장)

38°線 防守當時 우리사단은 東豆川 北쪽에서 漢灘江을 끼고 陣地를 占領하였다. 눈이 쌓이고 地雷이 連結되어 難點이 많았지만 主陣地와 補助陣地까지 작업을 마치고 完全한 방어진을 形成하였으며, 右翼에는 美제24사단이 抱川 北쪽에서 제19연대의 右端과 連繫하였고, 左翼에는 제1사단의 제12연대와 戰線을 連結하여 同時에 防守態勢를 갖추었다。

이때는 마침 年末이었기 때문에 新正元旦을 앞두고 떡을 빚어서 特食으로 分配하는 한편 年始 年末을 通한 特別警戒에 臨하고 있었는데, 敵은 31일 下午에 砲擊을 同伴한 攻擊을 감행 하였다。

이리하여 우리도 對應砲擊과 空爆支援을 받아가면서 激戰을 展開하여 이 敵을 擊退 하였으나, 이날 밤까지 敵의 無數한 砲擊이 계속되더니 左右의 隣接사단이 무너지고 새벽부터는 우리사단만이 陣地를 固守한 채 敵中에 孤立되었다。

이에 사단은 各연대별로 突破戰을 펴면서 東豆川—德亭—議政府를 거쳐 倉洞으로 集結하였는데, 이 防守作戰의 戰功으로 大統領으로부터 부대 표창까지 받았으나 終乃에는 1월 4일 서울을 撤收하였으며, 그뒤 忠北鎭川으로 옮겨 戰力을 補強한 다음 다시 進擊戰을 斷行하였다.

◇ 제6사단 제19연대 제5중대장 崔源斗중위

(65년 12월 9일, 국방대학원 학생, 대령)

우리중대는 연대의 前哨中隊로서 鉢盤山 北쪽에서 道路 直後方에 散開하였다. 즉, 제1 제2소대를 一線에 配置하는 한편 제3소대는 △800 稜線에 위치한 대대본부와의 사이에서 左右側方을 警備토록 하고, 全中隊員은 3個이상의 個人壕를 構築하여 邀擊態勢를 갖추었다。

그런데 12월 31일 연대 규모의 敵이 密集부대로서 接近하자 나는 全中隊員에게, 射擊開始 信號가 있을 때까지 待機하도록 命令한 다음 敵을 陣前으로 誘導하여 殲滅的인 打擊을 加하였다。當時 제2소대장은 日本軍 伍長出身이 였는데 勇敢하게 잘 싸워서, 大隊의 迫擊砲 支援사격도 奏效하였지만 이 소대장의 功勞가 컸으며, 敵은 여기에서 2個대대 규모의 被害를 받고 退却하였다。

이 戰功으로 나는 金星화랑훈장을 받았으며 全중대원에게 一階級 特進說까지 있었으나 다음날 우리는 敵의 重圍를 뚫고 撤收하게 되었으니 아깝기 짝이 없었다. 그 뒤 우리는 京畿道 利川으로 옮겨 부대정비를 하였다。

5. 제2차 서울 撤收戰 (1950년 12월 31일 부터 1951년 1월 4일 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12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美 제1군단	장	소장	Frank W. Milburn	제 3 대대	장	중령	金 基 容
제 1 사단	장	준장	白 善 燁	제15연대	장	대령	趙 在 美
제11연대	장	중령	文 亨 泰	제 1 대대	장	중령	劉 載 成
제 1 대대	장	중령	柳 重 秀	제 2 대대	장	중령	崔 炳 淳
제 2 대대	장	소령	裵 斗 龍	제 3 대대	장	중령	安 秉 健
제 3 대대	장	중령	鄭 永 洪	사단공병대대	장	중령	金 永 錫
제12연대	장	대령	金 點 坤	배속 부대			
제 1 대대	장	소령	全 勉 植	포병 제17대대	장	소령	黃 鍾 甲
제 2 대대	장	중령	趙 成 來				

敵 軍

中共 제39군	장		吳 信 泉	(제346·제347·제348연대)			
제115사단	장		張 竭 誠	제117사단	장		倘 天 允
	(제343, 제344, 제345연대)				(제349, 제350, 제351연대)		
제116사단	장		汪 洋	北共 제2군단	工兵大隊		

나. 전투 전의 개황

我軍과 UN軍이 38°線일대의 陣地에 進入한 12월 15일 현재의 狀況은 最東端에 제9사단, 春川 東北 및 北方에 제8사단과 제5사단, 加平 北쪽에 제2사단, 抱川 北쪽에 美 제24사단, 東豆川 北쪽에 제6사단, 高浪浦 正面에 제1사단, 汶山 일대에 美 제25사단이 각각 배치되어 있었거니와 當時 我軍

側이 어디까지 後退할 것인지는 豫測을 不許하는 형편이었다. 一例로 12월 9일에 美 제8군 사령관 Walker중장이 『싸우지 않고 서울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言明하였다는 新聞報道가 있자, 다음날 제8군 대변인은 『서울 防禦의 言質을 준 事實이 없다』고 發表한 바도 있었다.

실제로 UN軍總司令部의 中國本土로의 戰爭擴大 主張이 美 行政府에 依하여 拒否되고 制限된 戰爭을 계속한다는 戰局에서 UN軍이 日本으로 撤退한 경우까지 想定된 바도 있었으니 當時의 UN軍總司令部 및 美 제8군이 判斷한 兵力對比(UN軍 總 36,000名인데 其中 戰鬪兵力이 25,000名 : 共産側 總 440,000名)로서는, 增援이나 滿洲爆擊등 敵 補給路에 대한 遮斷등이 決行되지 않는 限 敵을 擊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美 제8군은 我軍側의 損失을 最小限으로 줄인다는 立場에 서서 38°線으로부터 釜山까지에 數線의 防禦陣地를 마련하여 逐次的인 撤收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12월 23일에 美 제8군사령관 Walton H. Walker중장이 議政府 北쪽에서 自動車衝突事故로 殉職하고, 그 後任으로 當年 55歲인 Matthew B. Ridgway중장이 任命되었다. 12월 26일에 大邱의 司令部로 赴任한 新司令官은 戰線의 現況과 後退에 대한 준비計劃을 報告받고 곧 各前線의 防禦陣地를 強化토록 命令하고 戰線視察에 나섰다.

이때에 敵은 西部에 中共 제13병단이, 中部에 中共 제9병단 및 北共 제5군단이, 東部에 北共 제1, 제3군단이 각각 投入되어 다시 38°線을 넘어 南侵한 것을 劃策中이었는데, 我軍側은 敵이 主攻目標를 서울에 두고, 제1사단의 高浪浦 정면과 美 제9군단의 議政府 北方으로 侵攻하면서 助攻은 春川 北方에서 突破에 依한 包制를 企圖하는 것으로 判斷하였다.

한편 12월末의 我軍側의 形勢는 東部戰線에 제1군단(장, 金白一소장)과 제2군단(장, 劉載興 소장) 中部戰線의 春川—加平 北쪽에 제3군단(장, 李亨根 준장), 西部戰線의 抱川—東豆川 北쪽에 美 제9군단(장, B. E. Moore 소장), 議政府—汝山일대에 美 제1군단(장, Frank W. Milburn 소장)이 防禦態勢를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敵의 主攻이 예상되는 高浪浦正面을 맡은 제1사단은 軍團 右翼으로서 제12연대를 사단 右一線으로 臨津江과 漢灘江의 合流點인 도감浦—馬浦里—佳月里일대에, 제11연대를 左一線으로 佳月里—舟月里—斗貝里—紫良里—紫下里—長波里일대에, 그리고 제15연대는 예비대로 그 主力을 積城—馬智里 南쪽에 각각 배치하였다. 아울러 사단은 陣地進入以後 工兵隊를 각 연대에 배속하여 前面에의 地雷埋設과 鐵條網架設 및 橋梁爆破등의 工事로서 陣地를 強化하는 한편 12월 29일에는 高浪浦에서 臨津江을 渡河 南侵한 2개 중대 규모의 中共軍을 제11연대 제7중대가 擊退하였으며, 각 연대는 경쟁적으로 捜索隊를 江北岸에 보내어 敵情을 蒐集하는 등, 飽敵驅扶의 決意를 새롭게 하고 있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 계획

UN軍이 이미 『人的損失을 最少限으로 줄이고 敵에게 最大의 出血을 強要하면서 可能

한 限의 防禦를 계속한다.』는 方針을 세우고 있던 바와 같이 아직 UN軍의 增援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38°線으로부터의 反擊이란 이루어질 수 없는 노릇이었다。

따라서 美 제8군은 釜山까지의 사이에 몇개 線으로 構成되는 防禦陣地를 준비하여 한 線에서 敵에게 最大의 打擊을 加하고 다음 線으로 移動하는 所謂 機動防禦에 依한 遲延作戰의 反復으로 攻守力의 轉換을 策謀하려는 見地에서 다음과 같은 防禦計劃을 樹立하였다。

『① 38°線일대를 韓國軍 8개 사단과 美軍 2개 사단으로 固守하는 동안 韓國軍 1개 사단과 美軍 5개 사단은 三陟—平澤의 防禦線의 構築과 再編成을 이룩한다。

② 38°線에서 撤收하면 注文津—洪川—楊平—水原을 連하는 線에서 일단 戰線을 整理한 다음 三陟—原州—安城—平澤의 旣設된 防禦陣地로 撤收한다。

③ 三陟—平澤 以南에서는 錦江線에 이어 小白山脈線과 洛東江 沿線에 逐次로 防禦陣地를 준비한다。』

이러한 事態를 알게 된 新任 美 제8군 사령관 Matthew B. Ridgway 중장은 곧 陣地强化의 措置를 취함과 아울러 敵의 主攻이 豫想되는 西部의 美 제1, 제9兩軍團에 대하여 相互提携下에 梯次로 後退토록 計劃을 세울 것을 지시하였다。

이때 美 제1군단은 戰線의 西部를 맡아 積城—汶山일대의 臨津江 南岸에서 右翼에 제1사단, 左翼에 美 제25사단을 배치하고 있었거니와 撤收에 있어서는 제1사단이 먼저 戰線에서 離脫하고 美 제25사단은 이를 掩護한 다음 그 뒤를 이어 後退하도록 措置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제1사단은 右側의 도감浦로부터 馬浦里—栗浦里—舟月里—斗貝里—長波里일대에서 사단 右一線인 제12연대와 左一線인 제11연대에 각각 防禦陣地를 構築케 하였으나, 江南岸의 屈曲이 甚한 地形과 넓은 防禦正面으로 因한 어려움을 考慮하여 예비대인 제15연대의 主力을 제11, 제12연대 戰鬪地境線 南쪽에 미리 배치 함으로서 防禦力의 彈力性과 아울러 제11, 제12연대의 撤收를 掩護하는 持久性의 效果도 거둘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연대는 結氷前의 敵의 强行 渡河를 前提로 하는 몇가지 方案을 包含하는 防守作戰을 策定하여 最大限의 時間과 空間을 벌어들일 수 있는 持久와 遲延을 企圖하는 한편 撤收에 있어서는 일단 雲岩里 南쪽—庚申里—新村—法院里일대에서 敵을 抑留하고 阻止하면서 각 대대별로 高陽要域에 集結할 것을 計劃하였다。

(2) 작전 실시

12월 31일 : 民族의 悲哀가 서리고 戰友의 碧血로 얼룩진 한 해도 저무는 이날, 敵은38°線에 沿한 全戰線에서 다시 急襲과 強襲을 恣行하기 시작하였거니와, 제1사단은 高浪浦—積城일대의 臨津江 南岸에서 敵의 主力軍과 激突하면서 서울 周邊의 堅守持久를 策하고 있었다. 그러나 敵은 1개 군단 이상의 큰 兵力으로 人命을 돌보지 않는 強行渡河와 突破分斷으로 迂回와 包圍의 兩面作戰까지 併用하니, 결국 사단은 이날 밤부터 敵中孤立을 避하고 掩土重來를 꾀하는 次善之策으로 豫定한 計劃에 따라 撤收를 斷行하게 되었다。

즉 사단 右一線인 제12연대 정면의 敵은 저녁에 일제히 各種砲門을 열어 공격준비 사격을 集中하더니, 2개 연대 규모로서 臨津江을 넘어 18.00에는 이미 연대 右一線인 제2대대의 左側 突出部, 즉 麻田里 南岸과 정면 馬浦里일대로 侵攻하는 한편 左一線인 제1대대 陣地前에 있는 栗浦里 南쪽으로 殺到 하였다. 이에 각 대대는 이 兇敵을 阻止코자 全戰力을 集結發揮하였으나 원래 臨津江 南岸은 屈曲이 甚하여 防禦正面이 넓은데, 敵은 後續部隊를 아낌없이 投入하여 계속 渡河하면서 제2, 제1대대의 間隙을 突破하는 동시에 제1대대 右側인 桂月里쪽으로 迂回奇襲을 敢行하니, 각 대대는 포위된 寡兵으로 더욱 버티는 愚를 버리기로 하고 무거운 발길을 돌리게 되었는데 이때에 가장 勇猛하던 精兵의 일부가 分離된 채로 各個別抵抗을 互用하면서 撤收케 되었다. 그리하여 제2대대의 主力은 豫備陣地인 赤巖里 南쪽 高地를 占領하고 敵을 阻止할 企圖였으나, 계속되는 敵의 肉迫으로 줄어든 兵力으로 끝내 支撐하지 못하고 19.30에는 다시 赤岩池 東西쪽 高地로 옮겨 反擊을 꾀하였으나, 또 다시 그 일부가 孤立되므로써 제4중대의 掩護下에 收容하는 場面도 있었으니 一人의 勇士가 百人의 匹夫懦卒을 감당하기 힘든 것이 과연 이와 같았다. 그런데 이 부근에는 예비대인 제3대대(1개 중대 缺)가 通信杜絶로 全般狀況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던 中, 제2대대를 뒤 쫓는 敵과 不時에 衝突하였는데 어느새에 三面으로 포위를 당하게 되므로 平坡里 南쪽 高地로 옮겨 제2대대의 철수를 掩護한 다음, 主力으로 開山里를 占領하고 一波又一波로 몰려드는 醜虜를 邀擊코자 하였다. 그리고 제1대대는 栗浦里 南쪽의 대대 정면으로 侵攻한 1개 대대 규모의 敵과 熾烈한 交戰을 展開하였는데 夜陰과 여러 방향에서 일어나는 鉦과 喇叭 그리고 북과 피리소리에 狀況을 正確히 분간하지 못하는 가운데 各 1개 대대 규모의 敵이 右側으로는 松峴에서, 左側으로는 桂月里에서 兩翼包圍를 企圖하니, 대대의 일부 병력은 드디어 분산되고 主力은 일단 紺嶽山麓을 中心으로 防禦態勢를 갖추었으나 밀려드는 雪霞의 群을 어찌할 도리없이 또다시 撤收를

계속하게 되었으니 猛將勇兵들의 心懷가 과연 어떠하였으랴!

한편 사단 左一線인 제11연대는 예비대인 제3대대의 일부와 제1대대의 일부가 臨津江 越東으로 石橋—元堂里에 蝟集한 一群의 敵을 反擊하는 등으로 그들의 臨津江 渡河를 妨害하고 있었는데, 18.30에는 연대 右一線인 제1대대가 제12연대 제1대대를 突破한 敵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대대는 背後인 舟月里로 侵襲한 1개 대대 규모의 敵에 대하여 △45를 占據中인 제2중대의 1개소대와 無名高地를 固守中인 제3중대의 1개 소대로 하여금 反擊케 하였으나 敵은 土亭에서 渡河한 後續部隊와 함께 20.15에는 舟月里 南쪽의 舘峴일대까지 계속 潛入하였다. 이러한 狀況을 알게 된 연대장 文字泰중령은 대대장 柳重秀중령에게 제1, 제2의 兩 중대로 하여금 四周警戒로써 陣地를 固守토록 指示하는 한편, 食峴里에 集結中인 제3대대의 제10, 제11兩중대로 하여금 鼎後(솥뒤)—斗只里의 高地일대를 占領토록 措置하였다. 그런데 연대 정면에 있는 防築洞—石浦—高浪浦—紫芝浦—元堂里 △87을 連하는 線까지 進出한 敵은 이날 새벽에도 각 1개 중대 규모로 渡河를 企圖하더니, 제12연대의 防禦線을 突破하는데 呼應하여 特히 石橋—△87일대에서 增強된 兵力으로 強行 渡河하고 있었다。

이때에 제15연대는 예비대로서 제2, 제3대대를 積城 南쪽 高地일대 즉 제11, 제12연대 戰鬪地境線 南쪽에 배치하고 있었는데, 19.20에는 分散된 제12연대 제1대대의 일부가 積城—廣水院을 通하는 本道 東쪽의 제15연대 제3대대 정면으로 後退하는 狀況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미 날은 어두워 我軍과 敵軍을 區分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연대장 趙在英대령은 사단장 白善燁준장에게 이러한 狀況과 陣地를 防禦키 위하여는 彼我不問코 射擊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報告하였다。

이에 대하여 사단장은 반드시 彼我를 識別한 다음 비로소 射擊할 것을 命令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追跡한 敵은 일부의 分散된 제12연대 兵力과 뒤섞여 陣前에 다가오니 연대장은 다시 이를 사단장에게 보고하고 대대에 發射를 命令코자 하였다. 그러나 敵은 이미 제10중대를 공격하기 시작하여 △182를 奪取하고 말았다. 이렇게 하여 대대 정면이 백없이 突破되었을 뿐 아니라 일부의 敵이 右側에서 △314로 迂回하고, 제9, 제12중대가 계속 敵의 奇襲을 받아 22.00에는 연대와의 連絡마저 杜絶되니 연대장은 곧 부 연대장 金振暎중령에게 補充隊 1개 중대를 지휘하고 제3대대를 支援할 것을 명령하였다. 한편 제2대대의 제5중대는 斗只里—馬智里등을 거쳐 侵攻하는 1개 대대 규모의 敵과 激戰을 展開하였는데, 중대장 申東奎대위는 제2, 제3소대로서 前面을 堅守케 하고, 自身은 제1소대와

火器小隊를 직접 지휘하고 後方으로 포위하는 敵을 攻擊中 얼마 남지 않은 새해를 맞지 못하고 戰死하였다. 이때에 左側에서 △180를 固守토록 명령받은 제6중대는 제3대대를 突破한 敵과 交戰中이었던 바 155mm 曲射砲까지 前面의 敵에 대한 支援砲擊을 加하였으나 敵은 이미 陣前 50m에 近迫하였으므로 砲擊의 効果를 보지 못한채로 肉迫戰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長鞭이 馬腹에 達하지 못한다는 것은 都是 이를 두고 하는 말이리라. 참으로 아까운 일이었다。

1951년 1월 1일 : 밤새 攻防戰이 벌어지는 가운데 새해의 첫날이 밝았으나 送舊迎新의 기쁨은 姑捨하고 敵의 이른바 正月攻勢는 서울을 指向하고 더욱 高潮되었으며 我軍은 一面防禦와 一面撤收를 逐次的으로 계속하고 있었다。

즉 제12연대는 지난 밤에 分散되었던 제1대대가 庚申里 비석거리 부근에서 再集結하여 蓮谷里일대로 機動하여 警戒中이었으며, 敵의 포위망을 뚫었던 제2, 제3대대는 東豆川 西南方에서 다시 포위되어 一旦 分散되었었으나 08.00에는 佳納里에서 再集結한 다음 西進을 시작하였다。

한편 제15연대는 제3대대의 일부가 01.00에 紺嶽山 西麓의 道路 兩側高地에서 제12연대의 일부와 함께 配置되었었으나 我軍의 落伍兵과 混合된 채로 계속 밀려드는 敵의 壓力으로 다시 撤收케 되었으며, 이를 支援코자 부연대장 指揮下에 龜岩里로부터 △295부근으로 向하던 補充隊도 또한 敵의 奇襲으로 결국 分散되기에 이르렀다. 제2대대는 제6중대가 激戰끝에 많은 死傷者를 내고 01.00에는 △180 西北쪽으로 轉進한 다음, 敵에 대한 砲擊을 요청하였으나 觀測이 不良하고 敵이 지나치게 近接한 탓으로 그 砲火의 効果를 보지 못한 채로 △180를 빼앗기고 중대는 分散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180를 점령한 敵의 일부가 右側에서 中隊長 戰死後에도 계속 버티고 있던 제5중대를 공격하니, 銃彈마저 떨어진 중대는 결국 分散되고 말았다. 이에 대대장 崔炳潭중령은 熊潭里 北쪽의 道路 交叉點부근에서 約 100名의 兵力을 再집결한 다음, 이곳에 急派된 연대 수색대의 일부 및 공병 1개 중대와 함께 敵을 強打阻止코자 하였다. 아울러 제11연대 東쪽에 隣接하여 있던 제7중대를 交叉路 北쪽 高地일대로 移動시켜 道路를 確保케 하였는데, 연대장은 補充隊 兵力 72명을 △180南쪽에 있는 △357 西峰(△300)에 배치하여 이를 確保토록 命令하였다. 그런데 敵은 △180로부터 補充隊 陣地를 目標로 南下하여 銃劍과 手榴彈으로 白兵戰을 벌인끝에 同 高地를 奪取한 다음 熊潭里일대를 거쳐 06.00에는 大川里까지 侵襲하므로 不得已 대대관측소를 虛坡洞으로 옮기고 공병대의 일부를 △194 左側에 배치한 가운데 正確한 觀測

에 의한 砲擊을 要請하였다. 그리하여 약 300발의 砲擊을 集中한 결과 1개 대대 규모의 敵은 거의 潰滅되어 버리고 대대는 연대장의 命令대로 金谷里 北方을 確保할 수 있었다. 그리고 龜岩里를 確保하라는 사단의 指示를 받은 연대장은 제1대대를 직접 이끌고 新村부근에 진출하여 左側의 사단 對戰車攻擊大隊와 함께 北으로 공격토록 할 意圖였는데, 09.30에 1개 대대 규모의 敵이 侵攻을 시작하므로 航空機의 支援을 받으면서 空地協同으로 이를 擊退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낮이 되자 敵은 我軍의 爆擊과 砲擊의 威力을 避하고 그 所在의 隱蔽에 狂奔한 까닭으로 연대 當面에는 별다른 接敵狀況이 없었다. 그러나 暮夜以後부터 敵이 다시 侵襲을 시작하므로 연대는 제2대대를 隱谷里부근에 撤收시켜 그 東北方 2km에 있는 高地를 占領케 함으로서 비로소 上雲洞에서 新村 西쪽으로 通하는 作戰路를 掌握하게 되었다. 또 사단의 指示에 따라 연대 지휘소를 延豊里로 옮기는 한편, 20.00에는 연대 작전명령 제38호로써 다음 날의 撤收를 명령하는 동시에 佛國山(△361) 西쪽에 있는 무대안 일대에 再集結한 제3대대를 부연대장의 指導로 그 西쪽 加葉里부근에 다시 배치하여 議政府로 侵攻하는 敵을 阻止토록 하면서 退路를 確保케 하였다. 그런데 22.00에는 제1대대와 사단 對戰車攻擊大隊의 防禦陣이 무너지고 敵은 法院里로 通하는 作戰路와 그 沿邊의 山岳地帶에서 西進하고 있었으며, 일부의 敵은 제2대대 正面으로 內迫하게 되니 대대는 兩面에서 挾攻을 받게 될것을 憂慮한 나머지 다시 隱谷里일대로 移動하였다.

이날 左一線인 제11연대는 右一線의 제1대대가 지난 밤부터 계속 敵의 威脅을 받더니 積城으로 南下한 敵이 제3대대 일부의 防禦陣을 뚫고 馬智里까지 侵攻하게 되자, 제1, 제2중대를 撤收시켜 介石里 北쪽의 원촌에 集結토록 하는 한편 斗貝里—紫長里를 占領한 제3중대는 그 方向을 바꾸어 食峴里의 △150일대를 占領하였는데 이때에 그 右側에서는 제10, 제11의 兩 중대가 제15연대 제2대대와 연결하여 敵을 抑留코자 하였다. 그런데 사단으로부터 撤收命令이 下達되었으므로 연대는 07.00부터 단계적인 遲延作戰을 시작하게 되었다. 즉 먼저 左一線인 제2대대가 馬智里—金坡里를 通하는 本道 南쪽인 介石里에서 高士洞에 이르는 高地일대를 占領한 다음, 제1, 제3의 兩 대대가 金谷里—法院里 北쪽의 道路를 따라 그 西南쪽으로 撤收하고 16.00까지는 제2대대도 斗浦里—金谷里일대로 撤收하는 그러한 方式이었는데다시 眼下無人格으로 南侵하는 敵에게 一擊을 加하고 23.00까지는 金谷里—法院里 道路를 中心으로 東쪽의 法院里 北方에 제1대대를, 西쪽의 남두里일대에 제3대대를 각각 展開하고, 제2대대는 그 南쪽인 錦屛山 北峰부근에 配置하였다.

아울러 사단 사령부는 이날 新山里로 부터 서울 碌磻洞으로 移動하였다。

1월 2일 : 서울을 둘러 싼 驕醜의 壓力이 점차로 加重되자 美 제8군 사령관 Ridgway중장은 이날 隷下 各 軍團長과 師團長들로부터 狀況判斷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 서울 南쪽 防禦線으로의 撤收를 결정 하였거니와, 사단은 군단명령에 따라 이날 아침에 사령부를 安養으로 옮긴 가운데 前方의 각 연대도 逐次的으로 漢江 南岸으로 撤收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이미 서울 北方에 이르고 있던 제12연대는 그 본부를 果川으로 移動하고 始興郡 新東面으로부터 銅雀洞—黑石洞—漢江鐵橋에 이르는 漢江 南岸 防禦線을 構築中이었다。

제15연대는 아직 戰鬪를 계속하는 가운데 연대장은 전날 20.00附로 撤收命令을 隷下 各隊에 下達하였는데 同 연대작명 제38호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1월 2일 07.00를 期하여 遲延戰을 계속하면서 漢江 南岸으로 撤收한다.

② 연대는 現陣地를 계속 防禦하고 1월 2일 07.00를 期하여 遲延戰을 계속하면서 撤收한 다음 사단 左一線으로서 漢江鐵橋—永登浦區廳 및 汝矣島일대의 陣地를 占領하려 한다.

③ 제1대대는 現陣地를 계속 防禦하고 1월 2일 07.00에는 德道里—梧山里일대에서 연대의 철수를 掩護한 다음 梧山里에서 素沙峴을 넘어 高陽里로 集結하라.

撤收完了後에는 연대 右一線으로 鷺梁津일대의 陣地를 점령하라。

④ 제2대대는 隱谷里—比岩里 전진바위 일대에서 연대철수를 掩護하고 靈場里를 거쳐 高陽里에 集結하라.

撤收完了後에는 연대 左一線으로 永登浦일대의 陣地를 점령하라。

⑤ 제3대대는 現集結地(무태안)로부터 加業里부근에 移動하여 議政府 本道를 確保하고, 撤收時에 議政府—松楸—日迪里를 經由하여 高陽里로 集結하라.

撤收完了後에는 연대 前哨部隊로서 汝矣島의 陣地를 점령하라,

⑥ 配屬 師團 對戰車攻擊大隊는 遲延戰을 계속하면서 撤收하여 原隊에 復歸하라.

⑦ 各 大隊長은 隷下 將兵을 掌握하여 分散을 未然에 防止하고, 裝備의 紛失을 根絶하며 他軍團 戰鬪地境을 犯하지 않도록 留意하라。』

이러한 命令가운데 제3대대의 移動配置는 이미 전날에 시행케 하였거니와 제1대대와 對戰車攻擊大隊의 陣地는 전날 밤에 이미 突破되었으며 제2대대는 法院里로 侵攻하는 1개대대 규모의 敵과 交戰中 敵의 包圍로 法院里 東쪽으로 機動한 다음 다시 이 敵과 激戰을

벌였다. 그런데 부근에서 제11연대의 제1, 제3대대의 間隙으로 侵透한 1개 중대 규모의 敵이 대대의 背後를 奇襲하였으므로 일부가 分散되었으나 대대장은 곧 大陵里일대에 兵力을 集結시켜 연대 지휘소가 東巨里를 거쳐 汾水里부근에 移動한 05.00까지도 계속 그 부근 일대를 固守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날 연대본부는 다시 始興으로 移動하였고, 제1대대도 03.00에 再集結하여 命令대로 高陽으로 撤收하여 全 聯隊가 自動車輸送으로 永登浦에 移動하였는데, 제3대대는 命令以前에 主力과 대대장이 서로 離脫하여 彷徨하는 混亂을 빚기도 하였다。

한편 제11연대는 계속 法院里 北一西北方일대를 防禦中, 이날 03.00에는 제1대대가 上聲洞으로부터 侵攻하는 1개 대대 규모의 敵과 混戰을 벌이기도 하였으나, 곧 사단 지시에 따라 逐次的인 撤收를 시작하여 美軍의 車輛支援을 받으며 서울로 移動하였다。

1월 3일 : 이제 사단은 제11연대의 일부 등이 漢江 南岸으로의 撤收를 계속하는 가운데 銅雀洞一鷺梁津一永登浦 일대의 漢江 南岸에 제12연대가 右一線을, 제15연대가 左一線을 맡아 各各 防禦陣地를 構築하기 시작하였다. 冬季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市民의 協力을 얻어 工事는 잘 진행되었으며, 사단은 陣地工事와 아울러 部隊整備에도 着手하였으니 이날 제2훈련소로부터 632名의 兵力을 引受하여 제12연대에 400名, 사단 對戰車攻擊大隊에 232名을 補充한 바 있다。

그런데 이날 아침 美 제8군사령관 Ridgway중장은 2일에 결정한 注文津一洪川一楊平一水原 線으로의 後退命令을 發令하였다. 이 命令에 依하면 『美 제1, 제9의 兩 군단은 美 제25사단의 掩護下에 並行撤收하여 楊平一水原 線에 防禦陣地를 構築』하라고 하였거니와 美 제1군단에 配屬된 제1사단도 Ridgway중장의 말을 빌리면 『本意는 아니나』 水原으로의 撤收를 준비할 수 밖에 없었다。

美 제8군의 後退는 이날 午後부터 시작되었는데 漢江舟橋의 安全通行이 問題가 되는 가운데 줄을 지어 南下하는 車輛이 길을 메웠고, 더욱이 自由를 찾아 南下하는 市民들이 男負女戴하고 江邊 各處에 殺到하니 『史上 最大의 集團避難의 一例』이라고 표현하리 만치 慘憺無比한 雪寒風冷속의 放浪大群을 이루었다. 天災地變으로 돌리기에는 兇虐의 侵寇가 너무도 殘暴하였고 試練이라고 斷念하기에는 半年만에 두번 맞는 同族의 受難이 너무도 凄絶을 極하였다。

1월 4일 : 서울撤收를 完了한 이날, 사단은 저녁에 安養을 떠나 水原에 그 사령부를 設置하였는데, 사단장 白善燁준장은 作戰協議次 安養의 軍團司令部에 갔다가 군단장 Milbu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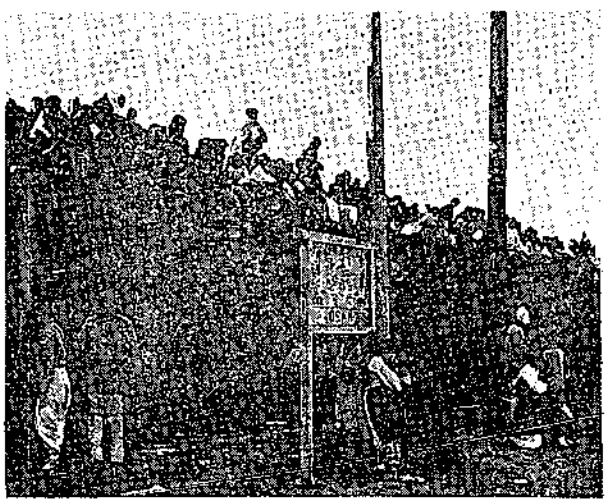
소장으로부터 『最惡의 경우 日本으로 撤退한다.』는 말을 듣고 크게 落心하였으나, 反面 韓國軍의 指揮官으로서의 悲壯한 覺悟를 다짐하기도 하였다。

실상 中共偵察隊가 이미 서울 西南쪽 郊外에까지 出沒하고, 中部戰線에서는 洪川이 敵의 手中에 넘어가니 楊平—水原 線에서의 防禦는 어렵게 되어, 다시 三陟—原州—安城—平澤을 잇는 線으로 물러서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사단은 제11연대의 漢江渡河가 完了됨과 아울러 제15연대가 安城으로 移動하여 새로운 防禦陣地의 構築을 시작하였다。

한편 我軍側의 掩護部隊인 美 제25사단 제27연대가 마지막으로 撤收를 시작하자 UN軍前進指揮所도 大邱로 移動하였는데, 美 제8군 사령관 Ridgway중장은 記者會見席上에서 『共產主義의 威脅에 直面하여 自由를 찾는 人間의 心情을 赤裸裸하게 나타낸 漢江畔의 事態를 平和를 즐기는 美國民들에게 傳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呼訴하였다。

혹시 때를 놓칠세라 酷寒風雪을 무릅쓰고 晝夜를 가리지 않고 앞을 다투어 南下하는 避難民의 慘狀과 苦難은 筆舌에 絶한 바 있거니와 여기에는 서울市民 뿐이 아니라 38°線以北으로부터 越南한 同胞는 물론, 漢江以南의 住民들까지도 떼를 짓고 있었으니 단순히 戰場터에서 避難하는 것만이 아님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었다. 우리 民族이 38°線의 悲痛을 맛보게 된것은 美·蘇의 罪過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結局에는 日本軍閥의 強占탓이었고 또 나가서는 李朝末葉에 政治力이 衰退하고 軍事力이 微弱하였던 必然的인 結果라고 할 것이다. 이 38°線을 넘어 侵略의 野慾을 보인 것은 北共과 中共의 兩者 였다.



<貨車위에까지 올라가 南下하기에 바쁜 피난민들>

自主를 잃은 탓으로 38°線이 생기고 自由를 위하는 까닭으로 이 兩次侵略을 받고 이 戰局을 맞이하게 된 것이니 우리 後孫들은 永劫도록 이 事實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이제 군단 계획에 따라 安城일대의 새로운 防禦陣地를 점령케 된 사단은 1월 6일에 天安郡 笠場으로 移動하여 國民學校에 지휘소를 設置하였고, 廣州 敦化를 거쳐 撤收한 제12연대는 예비대로서 安城郡 瑞雲面일대에 配置하였다. 이미 安城으로 移動한 제15연대는 前方部隊로서 安城川 南岸의 陣地를 強化中이 었으며 제11연대는 제3대대가 果川 부근에서 出沒한 敵을 擊退한 다음 安城 西쪽으로 撤收 하여 京釜國道 沿邊을 경계하고 있었다。

이때 사단 右側에서는 美 제9군단이 長湖院—竹山 北쪽 線을 담당하여 제6사단(장, 張都暎준장)이 右隣接部隊로서 防禦陣地를 構築中이었으며, 左側에서는 美 제3사단이 平澤일대의 陣地를 점령하였는데, 다시 敵과의 接觸이 끊어져 1월 7일에 Ridgway중장은 美 제27연대(장, John H. Michaelis 대령)로 하여금 烏山으로 進出 搜索케 하였으나 아직 敵을 찾을 수 없었다。

이러는 동안 사단은 部隊整備와 敎育訓練 및 將兵의 士氣振作에 努力하고 있었다. 즉 1월 7일에는 陸軍補充隊로부터 1,000名의 新兵을 引受하여 제12연대에 250名, 제15연대에 450名, 사단 戰車攻擊大隊에 233名을 각각 補充하였으며, 각 연대는 1월 7일에 제11연대가 부사단장 劉興守대령의 指導下에 實施한 作戰計劃 및 火網構成法에 대한 敎育을 비롯하여 各 大隊 中隊別 射擊訓練, 제12연대의 重火器敎育隊 強化등 部隊精銳化에 拍車를 加하였다. 또 臨津江 防禦戰鬪에서 善戰奮鬪한 제15연대 제2대대(장, 崔炳淳중령)에 대한 表彰狀 授與등 模範將兵에 대한 表彰 激勵와 아울러, 사단장은 각 연대를 巡視하면서 앞으로의 攻擊戰과 나라의 干城으로서의 精神姿勢에 대한 訓話를 通하여 불타는 敵愾心과 왕성한 攻擊精神의 鼓吹에 힘썼다. 한편 제15연대는 陸本 特命(甲) 제24號(1.8)에 依하여 제7대 연대장 趙在美대령이 제2사단으로 轉任되고, 제8대 연대장으로 사단 정보참모인 金安一중령을 맞이 하게 되었다。

戰果		損失	
사살	1,151명	전사	63명
사상	150명	부상	153명
		신종	490명
		(以上 제11, 제15연대分)	

6. 南大里附近 戰鬪 (1951년 1월 14일 부터 1951년 1월 19일 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13호
작명부록 제120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제3군단	장 소장	劉 載 興	
제3사단	장 준장	崔 鶴	
제18연대	장(대리) 중령	張 春 權	
제1대대	장 소령	李 秉 衡	
제2대대	장 소령	鄭 昇 和	
제3대대	장 소령	安 敎 一	
제22연대	장 중령	李 召 東	
제1대대	장 대위	金 相 均	
제2대대	장 소령	吳 延 錄	
제3대대	장 소령	鄭 等 根	
제23연대	장 대령	金 漆 舜	
제1대대	장 소령	金 光 燁	
제2대대	장 소령	文 泰 俊	
제3대대	장 소령	崔 尙 俊	

배속부대

제11포병대대	장 소령	宋 貴 鎬	
제3야전공병대대	장 대위	金 在 植	

병력 : 약 7,500명

장비 : 60mm 박격포 52문
81mm박격포 34문
3.5〃 로켓트포 23문
57mm 대전차포 11문
75mm 직사포
105mm 곡사포 12문

敵 軍

北共제2군단	장 중장	崔 仁	
제9사단			
제27사단			
제31사단			
제5유격여단			

병력 : 10,840명
(戰鬪詳報21 南大里戰鬪 참조)

장비 : 각종포 34~36문
(처음으로 로켓식 추현)

나. 전투 전의 개황

당 제3사단의 南大里부근戰鬪는 黃牛線의 背面에 침투한 敵 제2군단 주력부대에 대한 섬멸 작전이었다.

馬駒嶺 北麓에 자리잡은 南大里는 江原道와 慶尙北道 그리고 忠淸北道의 分岐點이기도 하거니와 이 지역에는 太白山(△1561)—九龍山(△1341)—馬駒嶺(△792)—兄弟峰(△1178)—竹嶺 등 高山峻嶺을 연결하는 小白山脈이 東쪽에서 西쪽으로 뻗어 있다. 따라서 그간 道路網은 발달되지 못하여 永川—安東—榮州—醴泉—堤川—原州간의 中央線과 연결하는 三陟—長省—春陽—乃城—榮州 간의 35番道路상에서 春陽—西碧里—鳳田—寧越 간의 998番道路와 乃城에서 南大里 南쪽을 左廻하는 915番 道路가 있으나 路面이 狹少하고 屈曲이 많아 매우 불량한 상태였다. 그런데다가 이 부근의 氣溫은 零下 12°~20°를 오르내렸으며 降雪 또한 結氷하여 彼我間의 機動上 많은 고난을 不免케 하였다. 그러나 敵의 이곳으로의 침투는 機動力의 弱點을 逆利用하려는 心算과 勢窮力盡時의 脫出口를 太白山脈으로 찾으려는 데는 立地的인 好條件을 갖는 곳이기도 한 것이다.

敵軍의 상황 : 이 中東部戰線에 대한 敵의 作戰은 제2전선부대를 깊숙히 我軍의 후방에 침투시킨 다음 강력한 주력을 正面에 투입하여 我軍을 前後에서 挾擊하려는데에 主眼點을 두어 왔다. 이리하여 50년 12월 22일 이래 敵은 계속 제2전선부대의 제10사단과 吉元八유격부대 병력을 太白山脈과 그 西側方의 대소 山岳地帶를 통하여 我 戰線의 후방으로 투입시켜 왔었다. 이와같이 敵의 후방침투가 완료되자 12월 31일부터는 所謂「제3차작전」을 실시하게 되고 이듬해 1월 4일에는 舊村—豊岩里—洪川線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事態가 이에 이르자 또다시 大邱로 撤收한 陸軍本部에서는 前線에 緊急命令하기를『1월 6일 09.00를 期하여 黃牛線(三陟—寧越線)으로 撤收하라』는 요지의 작전명령 제258호 修正訓令 제1호(1.5 20.00附)를 하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軍은 1월 6일부터 1週日間에 걸쳐 黃牛線 점령을 완료하게 되었거니와 敵은 이 機會를 틈타 제2, 제9, 제31사단의 주력부대로서 1월 8일에 原州를 함락한 다음 敵 제2사단은 安東—義城간에서 후방을 교란하고 있었던 敵 제10사단 및 유격부대와 연결하기 위하여 原州—堤川—榮州—安東線을 따라 南下하는 한편 제9, 제31사단은 我 제9, 제7사단 그리고 제3군단과 美 제10군단과의 接際部를 따라 제3군단의 방어선 후방인 春川—乃城—榮州間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前面의 小白山脈을 목표로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곧 12일 현재 前記한 敵 제2사단은 元滿城(南大里 西쪽 15km)로 제9사단은 寧越 東南쪽 玉洞里를 경유 注文里(南大里 西北 10km)로, 그리고 제31사단은 南大里로 각각 침투하고 있었으며 敵은 이 외에도 제5여단이 儀鳳里(南大里 西北쪽 5km)에, 제27사단이 望鏡臺山(注文里 北쪽 4km)에 각각 집결중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戰訊詳報 21 제3사단의 南大里전투 참조)

그리고 南大里에는 이미 敵의 慶北道黨員과 일부 殘敵으로 규합된 유격부대가 出沒하고 있었다.

我軍의 상황 : 前述한 바와 같이 1월 6일 09.00를 期하여 실시된 黃牛線을 향한 轉進作戰은 비록 敵의 山岳을 통한 후방침투를 阻止하지는 못하였으나 且戰且退의 遲延戰으로 12일에는 全부대가 진

지 점령을 완료하였다。

곧 군단사령부가 1월 8일 乃城으로 躍進하여 開設되면서 9일부터는 李亨根준장의 후임으로 부임한 新任 軍團長 劉載興소장의 명령으로 戰線의 整備가 단행된 것이다. 이리하여 12일 현재 제9사단(장, 金鍾甲준장)은 군단의 右翼부대로 주력을 松溪里—旌善—後川간에 배치하고 제29연대를 사단 예비로 義林寺에 집결시켰으며, 또 제7사단(장, 金炯一 준장)은 군단의 左翼部隊가 되어 後川—完生山(△916)—斗坪(寧越 東쪽 4km)간에 주력을 배치한뒤 제5연대를 예비로 篤田에 控置하였다。

한편 당 제3사단(장, 崔錫 준장)은 陸本作命 제258호 修正 訓令 제1호(1.5 20.00)에 의거하여 1월 5일 21.00부로 제3군단에 배속되는 동시에 군단 예비대가 되어 6일에는 平昌을 출발한 다음 寧越을 경유하여 10일에는 春陽에 집결하였다。

따라서 사단장은 이날 다음과 같은 要旨의 命令을 下達하였다。

『① 제18연대장은 부대를 馬山里—小廣里간에 배치하고 12일 08.00~14일 17.00까지 輕易한 방어진지를 구축 완료하라.

② 제22연대장은 부대를 金井里—迎鼎里간에 배치하여 內德—春陽간의 도로를 확보하고 담당지구인 太白山—成白山의 敵을 조착 섬멸하라.

③ 제23연대장은 부대를 春陽—法田—昌平 간에 배치하여 36番도로 및 사단 후방경계에 임하라。(51 1.10 附 작명 제4호)』

이 작명에 따라 각 연대는 담당방어선으로 이동하여 방어 진지 구축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 무렵 제3軍團 右側인 제1군단의 CP는 蔚珍으로 이동하였고 首都사단 또한 사령부와 제1연대가 三陟으로 轉進하는 한편 제26연대와 제1연대가 黃牛線上인 靈溯—松溪里간에서 제9사단 제28연대의 右側과 連繫하고 있었다。

그리고 軍團의 左側인 美 제10군단(韓제2, 제5, 제8, 美 제2, 제7사단)의 美 제2사단은 8일 敵 제2, 제9, 제31사단의 三面挾攻으로 일시 原州에서 물러났다가 12일에 再奪還하였고 이어 14일에는 敵의 後方浸透로 말미암아 부대를 철수하여 寧越—堤川간에 배치한 美 제7사단의 左側 陣地를 점령하였으며, 美 제7사단의 직후방 黃江일대에는 제8사단이 이동 배치하였고 그 후방인 丹陽에는 제2사단이 榮州에는 제5사단이 각각 배치되는 등 종심적 전술전개를 단행하여 原州—堤川—榮州간의 국도를 따라 南下하는 敵의 주력부대를 저지하는 한편 安東부근의 敵을 고립하려 하였다. 따라서 美 제8군사령관은 1월 11일 興南철수 이래 馬山에서 재편중에 있었던 美 제1해병사단을 抽出하여 安東부근의 敵을 安東—盈德線에서 저지 섬멸하기 위하여 北上시키고 있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제3사단의 주력부대가 사단 작명 제4호(51. 1. 10附)에 의거하여 각기 담당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을 무렵 乃城의 군단 사령부에서 종합 판단한 敵情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① 玉洞里를 경유하여 注文里일대와 馬垈山방면으로 침투한 敵 제9사단의 제3, 제244연대는 14일, 주력을 谷口에 집결하여 木實里를 占領한 제7사단 제5연대 제3대대 진지를 돌파 하고 春陽—寧越간의 本道를 차단할 기세로 보였다.

② 南大里방면에 침입한 敵 제31사단의 일부 병력 약 500명은 夜間機動으로 14일 02.00에 水家에 집결한 다음 선견부대는 朱實嶺을 넘어 06.00에는 제22연대의 전면인 西碧里 西側方으로 侵襲하고 있었는데 이 敵의 기도는 장차 內德里—春陽간의 998番道路를 차단할 목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③ 南大里—瓦谷부근의 敵 제31사단의 後續部隊로 中共軍과 北共軍으로 混合編成한 3,000명 규모의 병력이 寧越부근에서 南下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작전기도는 제31사단과 호응하여 春陽—乃城—榮州간의 機動路를 차단하고 군단 사령부가 위치한 乃城을 일거에 점령할 목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④ 이러한 敵의 動向에 따라 軍團의 主陣地인 黃牛線上 곧 松溪里—旌善—後川—斗坪(寧越 東쪽 4km)線의 前面에는 강력한 敵의 저항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오히려 군단의 주력부대도 防禦線 後方의 위협을 제거 하여야만 할 狀況下에 놓이게 되었다。』

以上과 같은 敵情을 종합 분석한 군단장 劉載興소장은 다음과 같은 作戰의 構想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곧 『敵의 주력이 이미 黃牛線의 後側方으로 侵透하였으니 黃牛線의 主力部隊는 敵後續部隊의 남하를 저지할 뿐만아니라 그 左側方인 寧越부근의 敵을 격멸하는 동시에 예비대를 전용하여 방어선 後方에 침투한 敵을 側背에서 공격하고 군단예비사단인 제3사단을 北進시킴으로서 前後挾攻에 의한 敵의 섬멸을 期하려 한다。』

이리하여 군단장은 요지 다음과 같은 구두명령을 예하사단에 하달하였다。

『① 제7사단장은 제3연대로 하여금 寧越을 점령하기 위하여 그 西側方을 공격토록 하는 동시에 제5연대를 碌田—卧人連—寧越 軸線을 따라 西北으로 진격케 할 것이며, 제8연대는 제3연대의 西側方 進出에 呼應하여 방어정면을 西側方으로 확대케 하라。

② 이에 따라 제9사단장은 黃牛線 주력부대의 방어전면을 西쪽으로 擴大하여 제7사단과의 虛隙을 補塡하라。

③ 제3사단장은 제23연대로 하여금 제7사단 제5연대를 지원 공격케 하고 제22연대는 군단의 후방을 방호케 하는 일방 1개 대대를 注文里로 전진케 할 것이며, 제18연대는 南大里를 향해 北上시키라。』

上記한 요지의 명령을 수령한 제3사단장 崔 錫준장은 이날 未明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사단작명 제5호를 예하대에 하달하였다。

『① 제18연대는 物野面으로 출동하여 南大里—儀鳳里일대의 敵을 격멸하라.

② 제22연대는 제1대대를 西碧里—朱賓嶺 일대로 전진케 하고 主力으로 후방경계에 임하라.

③ 제23연대는 磻田으로 이동하여 제7사단장의 작전지휘를 받아라。』

(2) 작전실시

1월 14일 : 사단의 각 연대는 이날 작전명령 제5호에 의거하여 전투담당지역을 목표로 기동을 시작하였다。

제18연대장 張春權중령은 출동에 앞서 『연대는 사단의 左一線을 담당하여 南大里 左右高地를 점령한 다음 敵을 陣前으로 誘引 섬멸한다』는 연대작명 제6호(51. 1. 14. 12. 20附)를 하달한 다음 출동준비가 완료되자 長洞을 출발, 사단 및 自隊의 全차량을 동원한 車輛機動으로 이날 밤 物野面에 집결중에 있었다。

다음 제22연대(장, 李召東중령)는 西碧里—朱賓嶺부근의 敵을 공격하기 위하여 제1대대(장, 金相均대위)의 주력과 제2대대(장, 吳延錄소령)의 일부 병력이 출동하였으며, 제23연대(장, 金漂舜대령)는 法田을 출발, 磻田으로 이동하였다.

곧 제23연대의 지휘소는 法田에 位置하고 OP 및 주력부대는 07. 00 車輛機動으로 法田을 출발, 12. 30 內德里에 집결하면서 제7사단장 金鍾一준장의 지휘를 받게 되었거니와 이날 제2대대(장, 文泰俊소령)는 제7사단 사령부의 방호임무를 맡는 반면 연대 OP와 제1, 제3대대는 다시 內德里를 출발 15. 00 磻田里에 도착한 다음 제7사단 작전명령 제73호에 의거하여 전방지휘소를 磻田에 두고, 제1대대(장, 金丈榮소령)는 19. 30 미사리 어구에서 命生洞간의 稜線에 제3대대(장, 崔尙俊소령)는 命生洞에서 御來山(△1064)간의 稜線上에 각각 배치하였다。

1월 15일 : 이날의 緖戰은 제22연대(장, 李召東중령)의 朱賓嶺 공격전이었다。

연대는 공격에 앞서 朱賓嶺의 敵을 三面으로 협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술적 전개를 단행하였다。

곧, 제1대대(장, 金相均대위)의 제1, 제3중대로서 朱賓嶺의 敵을 正面 공격케 하고 이와 병행하여 제2대대(장, 吳延錄소령)의 제5중대로 하여금 左側 玉石山을 점령케 하는 한편 연대수색대를 朱賓嶺 西北쪽 5km의 烏提里에서 南下케 하는 동시에 제3대대(장, 崔尙

俊소령)의 제9중대로 하여금 敵의 退路를 차단할 목적으로 文殊山을 경유 迂回하여 朱賓嶺 西南 4km의 水家에 진출시켰다.

이상과 같은 병력의 배치가 끝나자 06.00에 제1, 제3중대는 드디어 朱賓嶺의 敵 400명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1시간에 걸친 치열한 교전끝에 敵의 방어선을 돌파하자 敵은 水家방면으로 후퇴하기 시작하였는데 水家에서 제9중대와 衝突하게 되자 당황한 敵은 다시 北쪽의 朴達嶺을 向하여 突出을 企圖하였으나 연대수색대가 烏提里에서 南下중에 즉시 邀擊함으로써 敵은 潰滅的인 打擊을 받고 그 西北쪽을 향하여 分散退走하였다.

이날 제2대대(장, 吳廷錄소령)의 3개 중대는 西碧里일대에 배치하여 경계에 臨하였고 제3대대(장, 鄭淳珉소령)의 3개 중대는 사단작명 제6호로 茂堂里로부터 春陽 獐洞으로 이동 하여 자체방어에 臨하였다.

한편 제18연대(장, 張春權중령)는 연대본부가 法田에서 乃城(三溪里)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제1대대(장, 李秉衡소령)는 연대의 右翼부대로서 物野面 梧麓里를 출발한 다음 △954를 점령하고 계속 전진중 이날 13.20에 이르러 先達山에서 敵 1개대대와 激突하여 火力戰과 白兵戰을 전개하였으나 日沒 以後부터 戰鬪가 膠着狀態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18.00에 敵이 夜陰을 틈타고 기습하므로써 이를 맞아 무려 4시간에 걸친 치열한 공방전끝에 22.00에 이를 격퇴하였다.

연대 左翼부대인 제2대대(장, 鄭昇和소령)는 06.00에 大栗洞을 출발하여 제7중대는 右一線으로 △1051一馬駒嶺간을 점령하고 제5중대는 左一線으로 馬駒嶺一△1096.3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대대 CP와 제6, 제8중대는 그 東南方에 있는 △937일대를 占領하여 右一線 제1대대와의 연계를 維持하면서 자체방어에 들어갔다. 다음 제3대대(장, 安政一소령)는 05.00에 於音里의 진지를 점수하여 19.00에 梧麓里에 도착한 다음 연대의 예비대로서 부근 일대에 배치하는 한편 제11중대는 南大里 東南쪽의 제1대대에 배속시켰다.

한편, 제7사단의 작전지휘를 받고 있는 제23연대(장, 金淙舜대령)는 이날 제5연대 제3대대(장, 尹在善소령)가 敵의 기습을 받고 후퇴하므로써 이에 대한 掩護와 진지강화에 주력하였다.

곧 제1대대(장, 金尤榮소령)는 전일과 같이 미사리 어구一命生洞간에 배치하고 있었는데 전날밤 대대 右一線 제5연대 제3대대가 敵의 기습을 받고 후퇴함에 따라 대대는 제1중대를 출동시켜 이 敵의 背後를 공격케 하였고, 나머지 대대 주력은 현 진지에서 待機토록 하였다. 그리고 대대 左側 제3대대(장, 崔尙俊소령) 역시 命生洞一御來山간에 배치된 채

로 제5연대의 후퇴로 공격을 중지하고 있었는데 이날 22.00에 제11, 제12중대는 정면으로 侵襲한 敵 제244연대와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게 되었다。

한편 제7사단장 金炯一준장은 제5연대 제3대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內德里에서 사단사령부를 방호하고 있던 제2대대(장, 文泰俊 소령)를 內德里—碌田—外龍里로 전진시켰다。

1월 16일 : 南大里 東南 3km 지점을 占領한 제18연대 제1대대(장, 李秉衡소령)는 전일 22.00에 先達山으로부터 來襲한 敵을 격퇴하였으나 一旦 물러갔던 敵은 24.00에 다시 제2중대의 진지로 攻襲하였으므로 이에 제2중대는 전일 제1대대에 배속된 제11중대와 함께 4시간여에 걸쳐 치열한 수류탄 전을 전개한 끝에 이날 04.00에 비로소 이 敵을 완전히 격퇴하고야 말았다。

대대는 이어서 06.00부터 반격을 斷行하여 11.30에는 右一線인 제3중대가 先達山 △1236를 점령함으로써 대대는 그 北麓에 進出하였는데 이날 夜陰을 타고 敵은 제2중대 전면으로 三次에 걸친 夜襲을 감행하였으나 즉시 응전 격멸하고 진출선상에서 固守태세를 強化하였다。

이때 左側에서 △1051—馬駒嶺—△1097를 連한 線을 占領中인 제2대대(장, 鄭昇和소령)도 08.00에 행동을 개시하여 右一線 제1대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敵 일부의 저항을 받았으나 대대 右一線을 西北으로 前進시켜 南大里의 敵을 西南方에서 壓迫하였다。

곧 제5, 제7중대를 攻擊梯隊로 하여 18.00에 전골 北쪽 △921를 확보하고 제6중대는 예비대로서 馬駒嶺을 占領토록 하였다。

그리고 제3대대(장, 安政一중령)는 梧麓里일대를 占領하여 후방 경계에 임하는 한편 제1대대에 작전배속 되었던 제11중대를 원대 복귀 시켰다。

이와같이 제18연대가 南大里를 향하여 정면으로 北進하는 한편 그 東側方에서 敵을 壓迫한 部隊는 제22연대(장, 李召東중령)였는데 전일 朱實嶺上의 敵 400명을 격멸한 同 연대 제1대대(장, 金相均대위)의 제1, 제3중대는 朱實嶺 西側 稜線에 진지를 구축한 다음 수색대를 南大里 東쪽에 있는 先達山 南쪽까지 진출시켜 제18연대 제12대대와의 연락을 유지하였으며, 대대 左側 玉石山을 占領한 제2대대(장, 吳廷錄소령)의 제5중대는 이날 진지를 계속 강화하였고 연대수색대가 진출한 烏提里에는 이날 제6중대가 제1대대 後側方 道驛嶺(俗稱 도래기재)에는 제7중대가 각기 이동 배치되었다. 그런데 제3대대장 鄭淳珉소령은 05.20에 직접 2개중대를 거느리고 烏提里를 경유하여 七龍里까지 進襲한 敵 200명을 격퇴하고 15.00까지 △862—△1088에 진출한 다음 左側 先達山 北麓에 배치 한

제18연대 제1대대와 連結하였다。

한편 제23연대(장, 金淙舜대령)의 제1대대(장, 金尤榮소령)는 계속 미사리어구—命生洞 간의 진지에서 방어중에 있으나 左側 命生洞—御來山(南大里 北쪽 4km) 간의 제3대대(장, 崔尙俊소령)는 전날 22.00에 攻襲한 敵 제244연대와의 공방전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대대는 병력부족과 탄약보급의 杜絶로 苦戰을 면치 못하였다. 다음 제2대대(장, 文泰俊소령)는 전날에 이어 內德里—碌田里—外龍里로 도보 행군중 이날 03.00에 外龍里에 도착하여 연대예비대로 대기하였는데 07.00에 제7사단장 金炯一준장의 명에 의하여 대대는 제6중대로 하여금 命生洞—御來山의 제3대대를 지원케 하고 주력은 전날 제5연대(장, 金道榮대령) 제3대대(장, 尹在善소령)가 포기하였던 注文二里의 △752를 공격중 사단장의 命令으로 右一線 제3연대(장, 鄭震대령)에 임무를 인계하고 12.00에 外龍里로 부대를 철수한 다음 제7중대를 연대 예비중대로 殘置하는 동시에 2개중대는 先遣部隊인 제6중대에 追隨하여 제3대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御來山으로 출동하였다。

1월 17일 : 제18연대(장, 張春權중령)의 주력부대는 砲兵과 航空機의 지원을 받으며 06.30에 공격을 개시하여 敵 제31사단의 據點인 南大里일대를 13.00에 완전 점령하였다。

곧 제1대대(장, 李秉衡소령)의 제3중대가 先達山 능선을 타고 南大里 전방으로 진출하여 南大里 右側능선에 배치함과 동시에 제1중대는 左側 능선을 따라 13.00에 南大里에 돌입하여 殘敵을 적멸하고 이를 완전히 점령한 뒤 儀豊里로 가는 도로를 따라 2km를 追擊하여 松內의 西南쪽 高地를 占領하였다. 이에 제2, 제4중대는 南大里로 전진하여 그 후방능선에 각각 배치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南大里 전투에 대하여는 1월 22일 제23연대가 大野里에서 포로한 北共軍 少尉 金鳳石의 陳述을 들어보면 "당시 南大里에는 1개 대대가 배치하여 반격전을 기도하였는데 韓國軍의 각종 포화력의 적중한 맹타로 불과 24명만이 살아 남았으며 전 대대가 거의 전멸하였다"고 하고 있다。(제3사단사 南大里戰鬪 참조)

어떻든 이 제1대대의 南大里점령과 아울러 左一線부대인 제2대대(장, 鄭昇和소령) 주력인 제5, 제6중대는 06.30에 儀豊里로 연하는 능선을 따라 前進中 제6중대는 左側에서 攻襲하는 殘敵을 격퇴시켰으며, 13.00에 주력은 돗대골 後側 高地를 점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7중대는 △971에서 法水洞—桃花洞간에 배치 하였으며 제8중대는 제5중대 左側으로 이동 하였다. 그런데 이날 제3대대(장, 安旼一중령)는 예비대로 梧麓里에 위치하여 후방경계에 臨하는 한편 제3군단 경비대대를 제2대대의 左側方으로 진출시켜 군단과 美제10

군단과의 간극을 방호케 하였다。

이상과 같이 제18연대의 주력부대가 南大里를 점령하고 있을 무렵 연대 제1대대의 左側인 七龍洞을 占領한 제22연대 제3대대(장, 鄭源服소령)는 南大里부근의 敵 右側方을 牽制하면서 진지를 더욱 강화하였고, 朱實嶺의 제2대대(장, 吳廷錄소령)를 비롯한 잔여병력은 전날과 같이 후방경계에 임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사리어구—命生洞—御來山간의 稜線上을 占領한 제23연대(장, 金漳舜대령)는 이날 當面의 敵과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고 있었다。

곧 제1대대(장, 金尤榮 소령)는 전날의 진지인 미사리어구—命生洞간에서 방어중 07.00에 골어구와 싸리골로부터 敵 1개대대 규모 兵力의 공격으로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으며, 제2대대(장, 文泰俊소령)는 전날에 이어 제7중대를 연대 예비중대로 殘置하는 일방 주력은 玉東川을 따라 南下하여 제3대대(장, 崔尙俊소령)가 작전중인 御來山으로 진출하였다。이때 제3대대는 敵 제244연대와 遭戰苦鬪 중 07.00에는 진지의 일부가 敵의 手中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제2대대가 增援投入되자 대대는 공격중인 敵을 陣前으로 接近시키는 한편 제2대대의 주력을 右側으로 진출시켜 敵의 背後를 공격케 하고 대대의 2개 중대로 하여금 정면 공격을 감행하여 12.00에는 이 敵을 완전히 포위 섬멸함으로써 御來山의 진지를 再奪還하는데 成功하였다。

1월 18일 : 전날 제18연대가 南大里일대를 완전히 확보하고 攻勢를 儀鳳里로 지향하게 되자 그 西北方 미사리어구—命生洞—御來山간을 占領한 제23연대(장, 金漳舜대령)는 이날 일부 진지를 변경하여 敵 주력부대에 대한 공격을 강화키로 하였다。

14일이래 미사리어구—命生洞간에서 敵 제9사단의 주력부대와 激突한 以來로 치열한 공방전을 거듭한 연대의 제1대대(장, 金尤榮소령)는 이날에 공격한 敵 1개대대 병력과 치열한 전투를 치루고 있었는데 15.00에 제3대대(장, 崔尙俊소령)의 증원과 포병대의 강력한 화력지원을 받으며 強打를 加하므로서 敵은 谷口방면으로 퇴각 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제1대대를 증원한 제3대대는 전날 命生洞—御來山에서 제2대대(장, 吳廷錄소령)의 증원을 받아 敵 제244연대를 격멸한 다음 이날 03.00에 전투구역을 제2대대에 인계하고 연대 예비대로 外龍—里의 俗稱 삼짝모링이를 占領하기 위하여 이동 중 15.00에 제1대대의 진지를 통과할 무렵 제1대대와 교전중인 敵과 激突하였으므로 제1대대와 호응하여 치열한 공격전을 전개하자 敵은 당황하여 谷口 방면으로 潰走하였다. 이에 대대는 제1대대의 後側방인 미사리어구와 그 東南쪽 2km지점인 △572간 능선을 占領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3대대의 진지를 인수한 제2대대는 이날 外龍里의 연대 예비중대인 제7중대를 03.00에 원대복귀 시킨 다음 07.00부터 공격을 개시하여 제5, 제8중대는 右一線을 담당하여 於隱洞방면으로, 제6중대는 左一線을 담당하여 儀豊里방면으로 並進하면서 12.00에 於隱洞—儀豊里 간의 高地를 확보한 뒤 현지에서 左側 제18연대의 진출을 대기하였다가 14.00에 제18연대가 진출하자 전투지구를 인계하고 그 右側 △930—△926에 배치되었다。

이 제23연대 제2대대(장, 文泰俊소령)의 進擊에 호응하여 南大里를 점령한 제18연대(장, 張春權중령)는 이날 儀豊里(南大里 西北쪽 8km)를 향하여 진격하였다。

곧 제1대대(장, 李秉衡소령)는 南大里 前後高地에 배치한 진병력을 철수하여 06.00에 현지를 출발하여 儀豊里로 가는 도로 左右側 능선일대의 殘敵을 포착 격멸하면서 계속 진격하여 14.00에 儀豊里에 돌입한 다음 제23연대 제2대대와 교대하여 儀豊里 右側 無名高地를 占領하였으며, 제2대대(장, 鄭昇和소령) 역시 06.40에 연대의 左一線을 담당하여 松內—중마—마흘천—於隱洞을 沿한 線으로 진격하여 14.00에 제1대대와 함께 儀豊里에 진출한 다음 제23연대 제2대대와 교대하고 儀豊里 左側 高地를 占領하였다。

이에 따라 제3대대(장, 安旼一소령)는 연대의 後側方을 방호하기 위하여 11.00에 수화—塔坪일대의 高地로 이동 배치하였다。

이날도 제22연대는 주력을 朱賢嶺—朴達嶺간에 배치하고 春陽—西興里—孫田里간의 후방경계에 임하고 있었다。

1월 19일 : 제18연대(장, 張春權중령)는 지난 14일부터 6일간에 걸쳐 南大里의 敵 제31사단을 격파하고 儀豊里까지 진격한 다음 이날 작전 임무를 제23연대(장, 金漆舜대령)와 제5사단(장, 閔機植준장)의 제27연대(장, 李相喆대령)에 인계하고 주력을 후방으로 移動하였다。

곧 제1대대(장, 鄭昇和소령)는 儀豊里 右側高地의 진지를 제23연대에 인계하고 20.00에 도보행군으로 현지를 떠나 15km 후방의 梧麓里로 이동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제2대대(장, 鄭昇和소령)도 06.00에 儀豊里 左側 高地의 진지를 제5사단 제27연대에 인계하고 도보행군으로 大栗洞으로 이동 하였다. 또 제3대대(장, 安旼一소령)도 05.00에 塔坪里를 출발하여 17.00에 梧麓里에 집결한 다음 연대의 예비대가 되었다. 그리고 제22연대(장, 李召東중령)는 변동 상황없이 주력으로써 朱賢嶺—朴達嶺을 占領하고 그 一部 兵力으로 春陽—西

碧里—內德里—礙田間에서 998番道路의 경비와 軍團 후방경계를 專擔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我 제7사단(장, 金炳一준장)에 작전 배속되어 있는 제23연대(장, 金淙舜대령) 제1대대(장, 金光榮소령)의 玉洞里(南大里 北쪽 12Km) 진투는 치열함을 극하였으며 이 전투에서 비로소 敵 제9사단의 根幹이 분쇄되었던 것이다。

골 마사리어구—△930에 배치한 제1대대는 08.30에 右翼 제7사단 제3연대(장, 鄭濩대령)와 併進공격하면서 골어구—擊石—臥石—里간에 배치된 敵의 執拗한 저항을 받았으나 航空機와의 긴밀한 협조로 13.00에 이를 포착 섬멸하고 16.00에는 瓦谷 西北쪽으로 진출하였다. 이에 따라 제2대대(장, 姜順碧소령)도 08.00에 礙田里를 떠나 12.00에는 外龍一里의 雲積山에 진출한 연대主力을 左側方으로 초월 공격하여 12.00에 제23연대 제1대대와 호응하여 前記한 골어구—擊石—臥石—里간의 敵을 격멸한 다음 同대대가 右一線을 담당하고 제23연대의 제1대대가 左一線을 담당하여 20.00에는 玉洞里를 공격한 끝에 완강하게 저항하는 敵을 완전 섬멸하고 玉洞里를 확보하였다. 이에 敵 제9사단 주력 부대는 섬멸적인 타격을 받고 西北의 寧越方面으로 潰走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이 제7사단 제3연대 제2대대와 함께 제1대대가 玉洞里를 공격하고 있을 무렵 左側의 同 제23연대 제2대대(장, 文泰俊소령)는 命生洞의 △930—△926 간의 진지에서 08.30에 馬盛山—신낙골(玉洞里 南쪽 5km)을 향하여 진격하여 소수병력의 敵을 포착 섬멸하고 20.00에는 玉洞里 南쪽 2km지점에서 馬盛山에 이르는 稜線까지 진출한 다음 제1대대와 전선을 연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1대대의 후방에 예비대로 있었던 제3대대(장, 崔尙俊소령)는 제1대대에 후속하여 전진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我軍의 黃牛線 轉進作戰의 개시일인 1월 6일 이후 南大里전투가 전개된 1월 14일까지에 걸쳐 我제3군단의 후방으로 침투한 敵 제9, 제31사단 등 도합 1,000여명의 敵에 대한 처열한 決戰의 결과로 마침내 敵 1,462명을 사살하고 67명을 사로 잡는 등 커다란 戰果를 거두었으며 前後 所要日數는 滿6일이었다。

그중 특히 결정적인 전투는 17일의 南大里전투와 19일의 玉洞里전투거니와 이 兩 戰鬪에서 敵은 거의 섬멸적인 타격을 받고 그 주력은 寧越—堤川간의 제7사단과 美제7사단의 간극을 통하여 平昌—原州線을 목표로 西北으로 간신이 退却하였고 그 일부는 南大里에서 西쪽 美제10군단 전투지경내의 我 제5사단 前方인 兄弟峰일대로 分散 潰退하였다。

이에 군단장 劉載興 소장은 제7사단의 左側防禦線을 寧越 西北方으로 확대시켜 敵의 背後를 強打

케 하였고 제23연대를 寧越 南쪽에서 美제7사단과 연계하여 兄弟峰 일대로 잠입한 敵의 退路를 차단케 하는 한편 그간 錯綜混同하였던 戰線의 整理를 단행하였다.

따라서 사단의 제18연대는 29일 三溪里의 연대본부를 法田里(春陽 西쪽 8km)로 이동함에 이어 梧麓里 大栗洞의 주력 역시 法田里로 이동하여 군단사령부가 위치한 乃城과 사단 사령부가 위치한 春陽간의 경비임무를 담당하였고 제22연대는 전과 같이 西碧里에 본부를 두고 春陽—西碧里—碌田간을 占領하면서 군단의 右側方을 엄호하였다。

그러나 前記한 바와 같이 제23연대는 계속 제7사단에 작전 배속되어 玉洞里에서 寧越을 지향하고 退走하는 殘敵을 追擊하여 漢江과 玉洞川의 交叉地點인 大野里(寧越 東南 15km)에 진출한 다음 左側 美제7사단 제3대대와 연계하여 殘敵의 退路를 차단하는 일방 軍團의 左側方을 掩護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제23연대의 지역에 대한 임무는 1월 27일 12.00부로 『제23연대는 제7사단에서 배속해제하고 原隊로 복귀하라』는 군단장의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어떻든 사단에 의한 南大里 玉洞里 전투의 승리는 그간 錯綜한 我 제9사단과 제7사단의 主陣地 배치를 정리하여 兎山里를 制限點으로 하는 新黃牛線의 형성을 가능케 하였을 뿐아니라 軍으로 하여금 防禦에서 攻勢로 移轉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戰果 및 損失

전과 / 대별	사 산	생 포	蘇式 소 총	다발총	M I 소 총	칙코식 경 기	박격포	38 식 소 총	손실 / 대별	전 사	부 상	길 종	칼 빙	M I 소 총
18R	738	36	14	1	9	1	1		18R	7	27			
22R	117	19			1		1	1	22R	1	1			
23R	607	12	106	8					23R	34	85	43	12	30
계	1,462	67	120	9	10	1	2	1	계	42	113	43	12	30

7. 寧越附近 戰鬪 (1951년 1월 19일부터 1951년 1월 24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14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軍		
제3군단	장 소장	劉載興
제7사단	장 준장	金炳一
제3연대	장 대령	鄭震
제1대대	장 소령	朴俊鎬
제2대대	장 소령	姜順鎭
제3대대	장 소령	李永吉
제5연대	장 대령	金道榮 (51.1.20까지)
	중령	金仁哲 (51.1.21부터)
제1대대	장 소령	申健善
제2대대	장 소령	趙在俊
제3대대	장 소령	尹在善
제8연대	장 대령	李賢進

敵軍		
제2군단	장 중장	崔仁
제2사단	장 소장	崔玄
제9사단	장 소장	朴虎尙
제10사단	장 소장	李判男

我軍		
제1대대	장 소령	咸炳甲
제2대대	장 소령	金弼鎭
제3대대	장 소령	朴鎭榮
배속부대		
제23연대	장 대령	金漆舜
제1대대	장 소령	金光榮
제2대대	장 소령	文泰俊
제3대대	장 소령	崔尙俊
포병제16대대	장 소령	金 [illegible]
병력 : 약 13,000명		
장비 : 사단 T/E에 가까운 장비		

敵軍		
유격부대	장	吉元八
병력 : 약 30,000명		
장비 : 76mm유탄포, 122mm곡사포, 60mm, 82mm, 120mm박격포.		

나. 전투전의 개황

사단은 德川지역에서 中共軍과 격전을 치른 다음 군단 작전계획에 따라 50년 12월 2일에 勝湖里(平壤 東쪽 4km)—遂安—市邊里—德川까지 지연작전을 벌이면서 同월 13일에 原州로 撤收하였다. 그 뒤 부대를 정비하면서 洪川—春川으로 진격하여 同월 28일에 제3군단에 배속되어 군단의 예비사단으로서 이 지역에서 暗躍하는 北共의 敗殘兵에 대한 격멸작전을 벌이다가 中共軍과 北共軍이 대규모의 공격

作戰을 企圖하므로 洪川—原州—堤川지역으로 축차적인 지연작전을 계속하면서 51년 1월 8일에는 寧越로 撤收하였다。

이 무렵 東部戰線을 담당한 韓國軍 및 UN軍은 三陟—旌善—寧越—堤川을 連하는 線上에서 戰列을 가다듬고 있었는데 敵은 主로 험준한 山岳지대를 따라 縱深 깊이 뚫고 들었으며 我軍의 後方을 교란하면서 大邱—平昌을 장악한 다음에 旌善—寧越을 連하는 지역으로 南進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단이 담당한 전투지역내의 地形은 東쪽으로는 太白山脈이 南走하고 그 西쪽으로 뻗은 支脈들도 海拔이 平均 1,000m上下인 連峯과 鐵鎖을 넣지 않은 森林으로 錯綜되는 地勢를 形成하였으므로 彼我간의 기동에 제한을 주었으며, 南漢江의 上流는 太白山脈에서 旌善을 거쳐 南西쪽인 寧越 南端으로 흘러내려, 여기에서 平昌 北쪽에서 시작된 같은 江의 支流와 合流하여 丹陽쪽으로 흐르고 있으나 이때는 겨울철이라 이미 凍結되어서 보병의 기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한 주요 道路는 寧越에서 東쪽 13km의 石項과 여기에서 南쪽으로 雉田里(寧越 東南쪽 18km)—春陽으로, 다시 寧越에서 北쪽으로 平昌—大邱, 西쪽의 堤川으로 각각 連하여 이것이 唯一한 補給路인 동시에 차량부대의 기동로가 되기때문에 寧越은 高原지대의 東西南北으로 通하는 交通의 中心地일 뿐 아니라 雙方간의 戰術的인 主要爭奪 목표가 되었다. 작전기간중의 날씨는 대체로 맑았으나 氣溫이 낮아 몹시 추웠으므로 심식의 분편은 물론이거니와 전투행동에 미치는 영향도 至大하였다。

敵軍의 狀況 : 旌善—寧越지역으로 侵攻하던 敵은 北共의 중장 崔 仁이 지휘하는 제2군단으로서 藥水里(平昌 南쪽 3km)에서 그 휘하의 제2, 제9, 제10, 제19, 제27, 제31사단의 도합 6개사단과 數未詳의 지원부대를 장악하고 있었다. 이 당시에 敵의 작전계획은 포위기동과 적극적인 侵透戰法으로 我軍의 背後急襲을 노리고 寧越—春陽과 丹陽—榮州간의 道路를 차단하여 後方교란을 획책함으로써 一擧에 春陽—榮州線까지 侵攻할 企圖인 것으로 判斷되었다。

이러한 계획밑에 그들은 我軍이 지연작전을 벌이면서 三陟—堤川간의 戰線을 정리하는 시기를 틈타 군단 및 사단간의 전투지역으로 侵透作戰을 전개하여 1월 中旬에 旌善 西쪽에 있던 北共의 제9사단(장, 소장 朴호상)은 제7, 제9사단간의 전투지대인 德川里(寧越 東北쪽 13km)에서 사단지역내에 있는 玉洞里(寧越 東南쪽 11km)에까지 侵攻한 다음 北쪽에 있는 望鏡台山 및 龍鳳山을 장악하고 사단의 後方을 교란하는 동시에 일부병력은 馬盆山(玉洞里 南쪽) 및 小白山脈쪽으로 南進하고 있었다. 또한 平昌 南쪽에 있던 北共의 제2사단(장, 소장 崔 玄)은 美 제10군단과 我군단간의 전투지대인 南漢江畔을 따라 丹陽郡 永春面 元滿嶺를 侵攻하여 그 先鋒隊는 豊基에까지 侵透하였으며, 또 제10사단(장, 소장 李반남)은 寧越에 侵攻하여 사단과 對峙하였고, 吉元八이 지휘하던 敵 유격부대는 寧越에서 제8연대와 교전끝에 平昌으로 退却하여 흩어진 부대를 再編合하고 있었다. 이때에 敵軍의 士氣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食糧은 現地조달을 병행하는듯 하였다。

我軍의 狀況 : 三陟—堤川간의 中間에 놓인 太白山脈의 高原지대를 담당한 제3군단(장, 劉載興소장)은 제3, 제7, 제9사단의 3개사단과 각 사단을 지원하던 3개 포병대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前線右翼에 제9사단(장, 金鍾甲준장)이 松溪里(旌善 東北쪽 23km)에서 旌善 7km 南쪽에 있는 後川(뒷내)간을 점령하였고, 左翼에 제7사단이 寧越 左端까지를 점령한채로 각각 敵과 對峙하고 있었다. 또한 제3사단(장, 崔 錫 준장)은 예비사단으로서 春陽에서 元滿嶺지역에 侵攻한 北共의 제2사단을 격멸하면

서 寧越쪽으로 前進하여 그 先頭부대인 제23연대는 南大里(寧越 東南쪽 25km)에서 西北쪽에 있는 御來山—外龍里(礪田 南西 4km)간을 점령하고 敵과 對峙하였는데 이곳에 군단사령부는 春陽에 있었다。

한편 군단의 右側에는 제1군단(장, 金白一소장)이 三陟의 北쪽 高地를 점령하고 있었으며, 左側에는 美 제10군단(장, Edward M. Almond소장)이 堤川—丹陽간을 점령하고 敵과 서로 對峙하였다. 이 당시에 我軍의 作戰計劃은 戰場의 主導權을 장악하고 敵의 차기공세를 사전에 분쇄하기 위하여 이미 江陵—原州線에서 敵軍에게 커다란 손실을 주어 그 戰力을 弱化시킨 다음 三陟—旌善—寧越—堤川線을 확보하면서 이 線 南쪽으로 侵攻하는 敵을 邀擊하는대로 攻勢로 轉移할 계획이었다。

따라서 寧越지역에서 전투를 벌이게 된 사단은 後川—寧越간의 戰鬪正面을 1월 8일에는 제8연대가 담당하고 敵이 主目標로 노리고 있던 寧越을 防守하기 위하여 蓬萊山(寧越 北쪽)—陵谷(능말)간을 점령하였다. 그 뒤 侵攻한 北共의 유격부대를 격퇴하였으나 北共의 제10사단이 재차 侵攻하자 연대는 치열한 격전끝에 方不足으로 지연작전을 피면서 15일에는 道下里(寧越 東쪽 7km)로 이동하여 北쪽에 있는 完擇山에서 石項간을 점령하였는데 이 때에 제3대대는 完擇山을, 제2대대는 △535를, 그리고 제1대대는 △815를 占據하면서 一戰을 준비하였다. 한편 제5연대는 1월 9일 寧越 德浦里에서 礪田里(寧越 東南쪽 18km)로 이동하여 사단의 後方지역을 방호하다가 14일에 大野里(寧越 南東쪽10km)로 진격하여 南漢江 沿岸을 점령하였는데 지역내인 玉洞里에 侵攻한 敵의 壓力을 받은 결과 戰列을 收拾하면서 17일에는 다시 礪田里로 撤收하여 △935(礪田 南쪽 3km)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제3연대는 1월 8일 堤川에서 寧越로 이동 하려다가 北共의 제2사단이 이미 寧越—堤川간을 차단하였으므로 敵의 意表로 나가 接戰을 避하면서 은밀히 丹陽—豊基—西碧里(春陽 西北쪽 13km)를 거쳐 同월 13일에 礪田里에 집결하였다. 그리고 다음날인 14일 草里(寧越 東쪽3Km)로 진격하여 寧越을 防守하던 제8연대의 右側에 敵과 격전을 展開하다가 제8연대가 逐次的지연전을 계속함에 따라 石項—礪田里간으로 다시 撤收하여 제1대대는 聽美山을, 제2대대는 梨木里를, 제3대대는 雲嶺山을 각각 점령하면서 臨戰無退를 다짐하였다。

이상과 같이 각 연대는 固守를 위한 진지를 점령하여 旌善—寧越線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단지역내에 侵攻하는 敵을 擊破하기 위한 산발적인 전투와 탐색전을 反復하면서 攻勢移轉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는데 이 때에 사단사령부 및 각 연대본부는 礪田里에 있었으며 포병 제16대대는 倍衝 솔고개(礪田 東南 4km)에서 지원사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사단은 旌善—寧越간의 戰線을 확보하면서 담당 전투지역내에 侵攻하는 敵을 격멸하는 동시에 寧越을 탈환하여 有利한 地形을 이용,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반격작전을 실시할 계획으로 敵情을 살펴 보았는데 첫째로 敵은 平昌—寧越사이에 있는 울창한 森林과 험준한

地勢를 이용하여 主抵抗線을 삼으면서 일부 부대를 재편성하는 동시에 사단 正面인 北쪽 旌善에서 寧越로 흐르는 南漢江畔에는 兵力의 配備가 거의 없었으며, 물째로 사단의 지역내인 王洞里를 根據地로 삼은 北共의 제9사단은 사단의 後方을 교란하고 있었으나 일부병력은 小白山脈쪽으로 南進하였으므로 그 兵力이 兩分된 것으로 判斷되었다。

그러므로 사단장 金剛一준장은 敵의 증원부대가 투입되기 전에 지역내에 侵攻한 敵을 捕捉擊滅하고 寧越을 탈환하기 위하여 要旨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①사단은 51년 1월 19일 H시를 期해 제8연대를 右一線, 제3연대를 左一線으로 하여 현 接觸線인 石項一雲積山에서 西쪽으로 공격한 다음 寧越 中央으로 흐르는 南漢江 沿岸까지 진격하여 지역내에 侵攻한 敵을 攻滅하고 계속하여 寧越을 탈환하려 한다. ② 제3연대는 사단의 主攻이 되어 望鏡臺山 및 龍鳳山을 점령하고 依命, 寧越을 탈환하라. ③ 제8연대는 北쪽 新兵山에서 侵攻할 수 있는 敵을 牽制하며 一部 兵力으로 石項一寧越간의 道路를 따라 東部 寧越을 점령하라. ④ 제5연대는 최초 사단 예비대가 되어 현 위치(△935)에서 石項 北쪽 진지를 점령할 준비를 갖추면서 待機하라. ⑤ 포병 제16대대는 사단 正面을 일반지원하라. 火力의 우선권을 제3연대 正面에 둔다。』 이상의 要旨와 같은 명령을 받은 각급 부대장은 필요한 명령을 예하 부대장에게 하달하고 공격준비에 着手하였다。

(2) 작전실시

1월 19일 : 사단은 이날 사단 作命 제74호(51. 1. 19)에 의거하여 08.00에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여 望鏡臺山에서 저항하던 2개대대 규모의 敵兵力과 치열한 전투끝에 이 高地를 점령하고 右側에서는 石項까지 左側에서는 注文里까지 進擊하여 지역내에 있는 敵을 壓縮하는 동시에 旌善一寧越간의 戰線을 유지하였다。

1. 제3연대(장, 鄭震대령)—이날 聯隊는 禮美山(△989)—梨木里를 連하는 線에서 望鏡臺山을 正面과 左側方에서 바라보면서 공격을 敢行하였는데 여기를 방어하던 증강된 1개대대 규모의 敵은 이 高地의 중요성 즉 寧越에서 石項—礪田里로 通하는 道路를 瞰制할 수 있기때문에 완강히 저항하였으므로 正面에서 공격하던 제1대대는 잠시 공격이 頓挫되었으나 포병의 火力을 집중 發揮하므로써 3시간에 걸친 치열한 전투를 거듭한 끝에 14.00에 萬鏡臺山을 점령한 다음 退却하는 敵을 追擊하여 萬鏡臺山의 西端까지 진출하였다. 이 무렵 제2대대는 敵 1개중대 규모의 병력을 격퇴하는 즉시로 이 敵을 따라 萬鏡臺山 左側方으로 迂回하면서 注文里(礪田 西쪽 7km)까지 追擊을 斷行한 끝에 급편 방어진지를 占領하여 敵의 기습에 對備하고 다음 날의 공격준비를 서둘렀다. 또 제3대대는 점령하고 있던 雲積山

에서 제1, 제2대대의 공격을 지원한 다음 연대의 예비대가 되었는데 이날 연대가 거둔 戰果는 捕虜 4명, 射殺 72명과 多發銃 4, 小銃 16, M1 4, BAR 6挺을 鹵獲하였다。

2. 제8연대(장, 李賢進대령)—助攻인 연대는 그 所命의 임무와 地形的인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最初 蓮上里(△815)에 있는 제1대대만으로 공격을 전개하여 1개중대 규모의 敵과 격전 끝에 이를 격퇴하고 △694(萬鏡臺山 西北쪽 3km)를 점령하므로써 望鏡臺山의 敵을 右側方에서 挾攻한결과 제3연대의 攻擊에 呼應하였는데 이날 대대는 敵 23명을 射殺하고 戰死 5명, 戰傷 3명의 손실을 입었다. 한편 제2, 제3대대는 제1대대의 공격을 지원하면서 △935—完澤山간을 확보하고 北쪽 新兵山에서 侵攻할 것으로 예상되는 敵과 對峙하였다。

이와같은 제3, 제8연대의 상황을 報告받은 사단장은 이날 15.00에 旌善—寧越線을 확보하고 있던 兵力이 공격으로 轉換함에 따라 德川里(石項 北쪽 7km)에서 侵攻할 가능성이 있는 敵에 대처하여 要旨 다음과 같은 명령을 下達하였다。『제5연대는 즉시 石項으로 진격하여 北쪽에 있는 △821—△875간을 점령하고 德川里에서 侵攻하는 敵을 격멸하라.』

3. 제5연대(장, 金道榮대령)—연대는 점령하고 있던 △935에서 즉각 행동을 開始하여 이날 17.00에 石項으로 進擊한 다음 제2대대를 右一線대대로 하여 △821를 점령케 하는 동시에 제9사단의 제30연대와의 연결을 유지하였으며, 제3대대를 左一線대대로 하여 △875를 점령케 하고 제8연대의 제2대대와 연결토록 하였다. 그리고 제1대대는 예비대로 控置하여 石項에서 後方경비를 專擔토록 하였다。

한편 사단과 서로 連繫를 維持하던 제3사단의 제23연대(장, 金漆舜대령)는 1개대대 규모의 敵兵力을 격퇴하고 제1대대가 外龍里(緣田 南西쪽 7km)에 있는 △930를 점령함으로써 제3연대의 제2대대와 서로 提携하게 되었으며, 제2대대는 儀風里(緣田 南西쪽 11km)를 점령하였고, 예비대인 제3대대는 御來山을 점령하고 後方地域에 대한 경계에 臨하였다。

4. 反面에 望鏡臺山 및 △930를 점령하고 있던 北共軍의 제9사단(장, 소장 朴호상)은 큰 打擊을 입은 다음 분산되자 龍鳳山(제3연대 正面) 및 馬堡山(제23연대 正面)에서 방어진을 구축하고 있었으며, 寧越에 있던 北共의 제10사단(장, 소장 李반남)의 일부는 鷄足山(寧越 東南쪽 4km)줄기를 따라 侵攻하는 듯 하였다. 그리고 제5, 제8연대의 防禦 正面인 北쪽 德川里—新兵山 사이에서는 彼我간에 별다른 接戰이 없었다。

1월 20일 : 사단은 전날에 이어 공격을 계속하여 龍鳳山 및 敵의 根據地인 玉洞里를 挾攻하여 敵을 격퇴한 다음 여기를 점령하고 다음날의 공격준비를 서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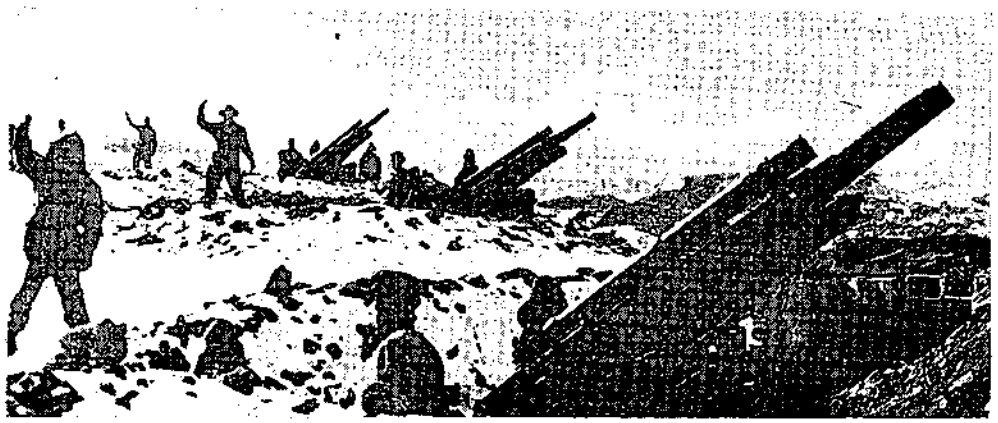
1. 제3연대는 이날 敵이 龍鳳山(△1013)을 固守하기 위하여 前哨陣地와 같은 역할을 하

는 △988—△832간을 連한 稜線에서 완강한 저항으로 치열한 전투가 있을 것을 예측하고 예비대를 필요할 때는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前線대대의 後尾에 近接하여 따르도록 하고 공격을 전개하였다. 이 때에 望鏡臺山에서 龍鳳山으로 連한 高地의 頂上인 稜線으로 공격을 敢行하던 제1대대는 前方 △964에서 저항하는 敵의 경계부대를 擊破하고 계속 진격하다가 △988에서 저항하는 敵과 一大激戰이 展開되었는데 敵은 깊은 壕속에서 小火器와 手榴彈으로 對應하면서 集中射擊을 계속하므로 잠시 進擊이 멈추어지게 되자 대대장 朴俊鎬소령은 모든 砲火를 이곳에 퍼부으면서 一進一退의 격전을 反復한 끝에 마침내 11.00에 여기를 점령하고 龍鳳山에서 저항하는 敵과 교전하게 되었다. 이 무렵 제2대대(장, 姜順燮소령)는 穩美村까지 진격하여 △832에서 저항하는 敵과 3시간에 걸친 공방전을 벌인 끝에 이 高地를 점령하였는데 이 때에 연대장은 공격의 趨勢를 몰아 龍鳳山을 조속히 점령하기 위해 望鏡臺山의 西端에 진출한 예비대인 제3대대(장, 李永吉소령)로써 龍鳳山의 左側方을 強打하자 敵은 드디어 퇴각하기 시작하고 15.00에 이 高地를 점령한 다음에 차기작전을 준비하였다. 이날 연대는 捕虜 장교 1명, 사병 16명, 射殺 558명과 60mm 박격포 1門, 기관총 6, 소총 74, 多發銃 13挺, 기타 수류탄 및 박격포탄을 鹵獲하였으며 戰死者 57명, 戰傷者 62명의 損失을 입었다。(부대역사자료에서)

2. 제8연대는 이날 2개대대로 공격을 전개하여 저항하던 敵 2개중대 규모의 兵力을 격퇴하고 제1대대는 △785(蓮下里 南쪽)를 經由하여 △583를 目標로 진격한 다음 龍鳳山을 점령한 제3연대와 서로 연결하였고, 제2대대는 △935에서 完擇山을 거쳐 南西쪽으로 진격하여 △872(蓮下洞 西北쪽)를 점령한 다음 南쪽으로 뻗은 稜線을 따라 兵力을 배치하여 제1대대와 연결 하였는데 地勢的으로 높은 곳에서 敵을 壓制하면서 攻擊을 계속한 탓인지 별다른 戰果는 없었다. 그리고 제3대대는 完擇山에서 제1, 제2대대의 공격을 지원하는 한편 北方으로부터의 敵의 反擊을 事前에 경계하였다。

3. 군단장 명령에 따라 이날부로 사단에 임시 배속된 제23연대는 제3연대와 協同으로 공격을 전개한 끝에 敵의 根據地인 玉洞里를 挾攻한 결과 敵이 퇴각하자 제1대대는 玉洞里를 점령하였으며, 제2대대는 馬盤山에서 저항하는 敵과 2시간에 걸친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여기를 점령한 다음에 敵의 역습에 대처하는 급편 방어진지를 구축하였고, 예비대인 제3대대는 御來山에서 4km 진격하여 瓦谷(와골)을 점령하고 연대의 後方을 경계하였다。

4. 한편 제5연대는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875를 점령대인 제3대대로 하여금 제8연대의 제2대대가 공격함에 따라 생긴 공백지대인 △935를 포함하여 방어토록 하였으며, 제2



<薛田里 부근에서 지원사격을 하는 포병들>

대대는 별다른 상황이 없는 가운데 진지를 보강하였고, 예비대인 제1대대는 石項에서 차기 작전에 대비하여 소부대 전술훈련을 하였다.

5. 포병 제16대대는 松峙(솔고개)에서 薛田里로 이동하여 사단의 공격을 지원하면서 일부 砲隊는 石項으로 推進하여 다음 날의 支援사격을 준비하였다.

이날 龍鳳山 및 玉洞里에서 퇴각한 敵은 德山(寧越 東南쪽 8km)—安院谷(안원골)에서 지연작전을 기도하는 듯 하였다.

1월 21일 : 사단은 이날 寧越에서 丹陽으로 흐르는 南漢江畔까지 進攻하여 敵의 退路를 차단하고 지역내에 殘留한 敵에 대한 撲滅작전을 斷行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사단장 金炯一준장은 제8연대장에게 命令하되 『貴연대에 부여된 임무인 東部 寧越—鷄足山을 이날 未明을 期하여 신속히 점령하고 退却하는 敵을 격멸하라』라고 하였다.

1. 이러한 명령에 따라 제8연대(장, 李賢進대령)는 이날 黎明을 期하여 기습공격을 감행한 결과 연대 當面의 敵을 擊破하고 제1대대(장, 咸炯甲소령)는 鷄足山을 점령하였는데, 이 무렵 金弼虎소령이 지휘하는 제2대대는 完澤山에서 西南으로 뻗은 稜線을 따라 東部 寧越을 目標로 突進하여 敵의 退路를 차단하는 즉시로 退却하는 敵을 擊破한 다음 南漢江 沿岸에 급편 방어진지를 占領하였다. 이 때에 敵은 寧越을 防守하는 橋頭堡의 역할을 하던 鷄足山을 抛棄하게 되고 退路마저 차단을 당하게 되자 危機에 놓이게 되어 右往左往하다가 분산된 狀態로 南漢江을 넘어 西쪽 美 제10군단 지역으로 退却하고 그 일부의 殘餘兵은 北쪽인 福德院쪽으로 潰走하였다. 그러자 完澤山을 점령하고 있던 제3대대(장, 朴寬榮소령)는 福德院을 向하여 北上하는 이 敵을 격멸하고 그 일부는 捕虜로 잡았는데 이날 연대가 거둔 戰果는 捕虜 3명, 射殺 45명과 기관총 5, 多發銃 3, 소총 15挺을 鹵獲하고 戰死 3

명, 戰傷 7명, 失踪 2명을 내었다。

2. 한편 제3연대(장, 鄭震대령)의 제3대대는 龍鳳山에서 安院谷을 目標로 진격한 다음 제8연대가 鷄足山을 점령하려는 공격에 참가하여 挾攻하였으며, 제2대대는 德山을 점령하자 여기를 제23연대에 인계하였고, 제1대대는 後方의 禮美村—注文里지역을 탐색하면서 敗殘兵을 捕捉하였다. 이날 14.00에 이르러 연대는 사단장 명령으로 차기작전에 대비한 공격준비를 위해 篠田里로 集結하였다。

3. 제23연대(장, 金漢舜대령)는 연대 當面의 敗殘兵들을 격멸하면서 大野里(寧越 東南 10km)—東大里(大野里 南쪽 5km)간으로 진격한 다음 제1대대는 제8연대의 제1대대와 연결하여 正義里(寧越 南쪽 2km)에서 大野里간을, 제2대대는 大野里에서 東大里간을 각각 점령하고 南漢江 沿岸에 따르는 군단의 左側方을 방호하였으며, 제3대대는 玉洞里로 진격한 다음 그 後方地區를 경계하였다。

4. 제5연대는 별다른 상황없이 前線의 방어진지를 보강하는 동시에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연대장 金道榮대령은 陸本特命(甲) 제64호(51. 1. 18)에 의하여 육군본부로 轉出하고 金仁哲중령이 新任연대장으로 취임하여 일반현황을 파악하였다。

이상과 같이 사단은 이날로서 지역내에 侵攻한 敵을 격퇴하고 旌善—寧越線을 확보함으로써 사단 後方지역에 대한 敵의 威脅을 제거하였으며 앞으로 寧越을 탈환하는 작전만이 남게 되었다。

1월 22일 : 사단은 군단의 작전계획에 따라 左翼의 美 제10군단(장, Edward M. Almond 소장)이 丹陽—堤川線에서 寧越—堤川線을 沿한 地區로 진격하는 경우에 寧越에 대한 兩군단의 협동작전을 위하여 당분간 점령하고 있는 現진지를 더욱 보강하게 되었다。

1. 이에 따라 사단의 右一線을 담당한 제5연대는 現점령진지를 補強하면서 前方에 對한 수색활동을 계속 하였는데 이 때에 제2대대는 △821에서, 제3대대는 △875—△935에서 각각 진지를 보강하였으며, 예비대인 제1대대는 前線 4km 前方에 있는 德川里까지 수색하였다. 그리고 薺田里에 있던 연대본부는 石項으로 進出하였는데 연대장은 곧 각 대대를 순방하면서 부대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2. 한편 사단의 左一線을 담당한 제8연대는 부대배치를 調整하여 제3대대를 完澤山에서 西南쪽 2km 지점에 있는 △872까지 사이를 점령케 하고, 제2대대는 △749를 中心으로 草里(寧越 東쪽 3Km) 北쪽 高地의 左端까지를 담당케 하였으며, 제1대대는 德浦里에서 東部 寧越을 포함한 正義里간을 점령하여 각각 방어진지를 強化하였다。

3. 전날에 碌田里로 이동한 제3연대는 碌田國民學校에서 呼名點呼를 하였으며 10.00에는 사단장의 안내로 연대를 訪問한 군단장 劉載興소장이 有功將兵들에게 표창장과 武功勳章을 수여하였다. 이때에 三等 忠武勳章은 제1중대장 吳在觀대위 외 8명과 四等 花郎勳章은 安秉永소위 외 29명이 그 대상이었다。

그 뒤에 연대는 사단에서 장교 10명과 사병 837명을 보충받아 부대편성을 강화하여 차기 작전에 만전을 期하였다。

4. 한편 제23연대는 별다른 상황없이 진지를 보강하면서 南漢江 西쪽을 경비하였다。

이날 右隣接인 제9사단(장, 金鍾甲준장)은 旌善을 中心으로 敵과 對峙하면서 소강상태를 유지하였으며, 左隣接인 美 제7사단(장, David G. Barr소장)은 丹陽—堤川線에서 저항하던 敵을 격퇴한 다음 사단과 寧越 西쪽 2km지점에 있는 日谷(날골)에서 연결코자 東北進中이었다. 그리고 美 제10군단에 배속된 제5사단(장, 閔機植준장)은 當該군단의 예비로서 元滿墟—豊基지역에 侵攻한 北共 제2사단(장, 소장 崔玄)의 殘敵을 격멸하기 위하여 예하 제27연대를 △742 (詔川里 北쪽 7km)에서, 제35연대를 △495 (順興 北쪽 7Km)에서 각각 西北쪽으로 진격시켜 △1059를 점령 케하였다。

1월 23일 : 사단은 小康狀態의 戰線을 유지하면서 第一線진지를 보강하는 동시에 장차 企圖하는 寧越탈환을 위한 준비를 서둘렀다。

1. 제5연대는 진지의 보강책으로 前方에 경계부대를 배치하는 한편 主陣地를 더욱 굳게 하였는데 이날 第一線을 담당한 제2, 제3대대는 진지를 보강하는 동시에 師中근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제1대대는 연대장 명령으로 1개중대를 차출하여 전날에 수색하였던 德川里를 점령 케하고 前哨임무를 수행케 하였다。

2. 제8연대는 전날에 調整한 방어진지를 보강하는 한편 南漢江 沿岸을 따라 전투前哨를 배치하였는데 이 당시 제3대대는 萬池洞—三玉二里간을, 제2대대는 三玉一里를, 그리고 제1대대는 東部 寧越의 南漢江邊을 각각 1개소대 규모로서 점령 토록하여 當面의 敵과 對峙하였고, 연대본부는 碌田里에서 福德院으로 躍進하였다。

3. 碌田里에서 부대정비를 하던 제3연대는 병기검사를 실시한 다음 이날 13.40에 사단장의 안내로 연대를 訪問한 陸本作戰局長 姜文泰준장으로부터 總參謀長을 代理한 부대표창장을 수여받았다. 그뒤 각개전투 훈련 및 실탄사격 훈련을 실시하여 전투기술을 더욱 연마하는 동시에 사단장의 명령으로 寧越을 탈환할 공격준비를 갖추었다。

4. 한편 군단의 左第一線을 담당하고 있던 제23연대는 계속 진지를 보강하던 중 南漢江

西쪽인 美 제10군단의 담당 正面에서 敵의 敗殘兵들이 間歇的으로 侵襲하므로 그때마다 이를 격퇴하였는데 이敵은 전날에 丹陽—堤川線을 攻破하면서 진격하던 美제7사단의 先頭부대인 美 제17연대가 이날 鵬堂里(寧越 西南쪽 6km)까지 進擊함에 따라 寧越을 目標로 潰走하려는 一部로 보였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寧越로 집결하는 北共 제2사단과 전날에 사단지역에서 退却한 제9, 제10사단은 부대를 재편성한 然後에 寧越을 固守하려고 兵力集結에 全力을 다하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이 때에 군단장 劉載興소장과 美 제10군단장 Almond소장은 敵에게 부대를 재편성할 시간을 주지 않도록 빠른 時日內에 이를 擊破하기 위하여 다음 날인 24일에 寧越을 협동하여 공격할 것에 合議를 본 결과 이 뜻으로써 사단장에게 명령을 하달하게 되었다. 사단장 金炯一준장은 이 命令에 따라 美 제7사단장 Barr소장과 協議한 끝에 美 제7사단은 平昌에서 흐르는 南漢江線까지 진격하여 日谷에서 사단과 연결한다는 方案 밑에 기동 및 화력계획 등을 협조한 다음 우선 제3연대에 준비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1월 24일 : 사단은 이날 사단작명 제75호(51. 1. 24)에 의하여 寧越을 공격 점령하였는데 그 명령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이날 未明을 期하여 寧越을 공격 점령한 다음 美 제7사단과 연결하여 이 線을 確保하려 한다. ② 제3연대는 寧越을 공격점령하라. ③ 제5, 제8연대는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되 제8연대는 최초 제3연대의 공격을 지원하라. ④ 제 23연대는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며 일부병력으로 假洞里(大野里 西쪽 3km)를 目標로 진격한 다음 美 제7사단의 후속부대와 協力하면서 敵의 敗殘兵을 격멸하라. ⑤ 포병 제16대대는 제3연대의 공격에 直接 支援하라.』

1. 이러한 명령에 따라 제3연대장 鄭震대령은 기동계획으로서 제2대대를 主攻으로 寧越의 中心部를 突破하여 北쪽의 △675를 점령케 하며, 제1대대는 蓬萊山을 점령하되 일부병력으로 蓬萊山의 後方을 強打토록 하고, 제3대대는 예비대로서 寧越로 진격하여 西側方을 방호하는 동시에 日谷에서 美軍과 연결토록 하여 이를 각 대대에 하달한 다음 04. 00에 부대를 前頭指揮하여 篠田里에서 제8연대가 점령하고 있는 南漢江 東쪽 沿岸인 三玉—里 德浦里간으로 隱密히 接近하였다. 여기에서 공격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춘 다음 07. 30에 일제히 공격을 감행하였는데 主攻인 제2대대(장, 姜順鏘소령)는 突風과 같이 寧越을 向하여 進擊을 계속한 다음 火力戰과 白兵戰의 反復으로 敵과 激戰을 展開한 끝에 敵의 威勢를 뒤흔들어 놓고 있을 무렵 제1대대(장, 朴俊鎬소령)는 蓬萊山을 점령하고 퇴각하는 敵을 휘

몰아쳐서 거의 모조리 捕捉殲滅 하다시피 하니 寧越 西쪽에 있던 敵도 平昌쪽으로 潰走하게 되어 계획한 目標를 각기 점령(제2대대는 △675—두목)하였다. 이 때에 敵의 시체와 小火器 等屬은 일일히 處理하기 곤란할 정도로 散在하여 있었다. 한편 敵에게 충격을 加하기 위하여 主攻대대와 거의 同時에 寧越에 突進한 제3대대(장, 李永吉소령)는 그 일부의 병력으로 南漢江 沿岸을 占領하였으며 14.00에는 左側에서 공격하던 美 제17연대의 제3대대와 日谷에서 연결하게 되었다. 이 공격에 있어서 포병의 火力은 主로 敵의 退路를 차단하여 그 增援부대의 투입을 막았을 뿐 아니라 이 지역에서 퇴각하는 敵을 假借없이 격멸함으로써 이날 연대는 많은 戰果를 거두었는데 즉 敵에게 捕虜가 되었던 我軍 4명을 救出한 것을 비롯하여 捕虜 17명, 射殺 346명과 60mm박격포 1門, 자동소총 3, 多發銃 2, 소총 83挺등을 鹵獲하였고 戰死 6명과 戰傷 18명의 損失을 보았다。

2. 한편 제8연대(장, 李資進대령)는 可用한 모든 砲火를 동원하여 제3연대의 공격을 지원한 다음 제3대대를 完澤里에서, 제2대대를 △749에서 각각 陣地를 점령케 하여 즉시 이를 보강토록 하였으며, 제1대대는 德湘里에 집결하여 부대를 정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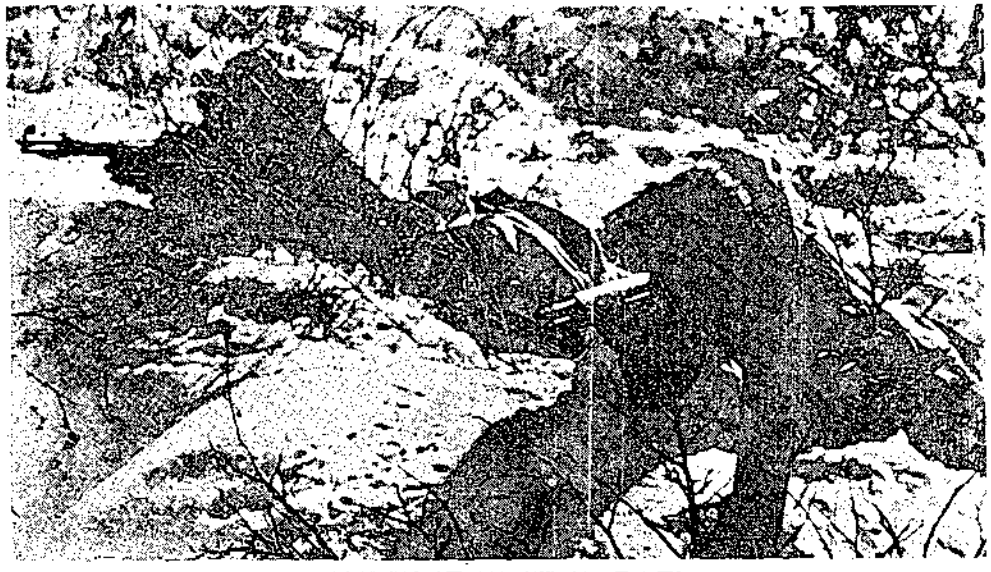
3. 제5연대(장, 金仁哲중령)는 별다른 상황없이 진지를 계속 보강하면서 敵 侵攻이 可能한 △724(德湘里 東쪽)에 대한 역습훈련을 실시하였다。

4. 한편 제23연대(장, 金孫舜대령)는 玉洞里에 있는 예비대인 제3대대로 하여금 假洞里로 진격토록 하여 敵의 敗殘兵에 대한 격멸작전을 벌이게 하다가 이날 15.00에 美 제7사단의 후속부대로 진격하던 美 제31연대의 수색중대와 合勢한 다음 계속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제1, 제2대대는 별다른 상황이 없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敵의 動向: 사단과 치열한 激戰을 계속하던 北共의 제9, 제10사단 및 제2사단의 일부병력은 사단 지역내에 있는 玉洞里등 根據地로 하고 사단의 後方을 교란하면서 一擧에 春陽—榮州線까지 侵攻하려던 企圖는 마침내 水泡로 돌아가 我軍의 熾烈한 攻擊 앞에 退却을 거듭하게 된 敵은 磨磋里(寧越 北쪽 8km) 北쪽으로 潰走하는 바 되었다. 그리하여 그 少數만이 경계부대로 磨磋里지역에서 彷徨하게 된 듯 하고 그 主力은 平昌—倉里(磨磋里 北쪽 10km) 지역에서 執拗하게 재편성 中인 것으로 判斷되었다。

그러므로 아둔의 力量은 당분간 侵攻할 氣勢는 보이지 않고 다만 지연전과 撤退의 두가지 方途 以外에는 없는 것으로 判斷되었으나 이때에 我軍의 정기정보 보고서에 의하면 北共의 제2군단 휘하인 제



<寧越附近전투에서 奮戰하는 勇士들>

31사단이 磨碓里 北쪽 高地에 새로 투입되어 我軍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하여 防禦陣을 구축하는데 全力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방어 또는 지연전을 실시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判斷되었다。

그 뒤 이들은 사단의 進攻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敗하여 주로 北쪽으로 退却하였던 것이다。

我軍의 狀況 : 사단은 6일간에 걸쳐 지역내에 侵攻한 敵에 대하여 일찌기 없었던 戰勝을 거두었으므로 德川에서 苦戰한 사단의 名譽를 回復하게 되었다. 이 결과 사단은 최초의 작전계획대로 寧越 南쪽으로 侵攻한 敵을 消滅하였고 또한 寧越을 탈환하여 旌善—寧越간의 진지를 확보하였는데 이때에 군단의 반격작전이 展開될 때까지 이 지역의 유리한 地形과 地勢를 이용하여 방어전투를 하면서 차기 작전을 준비하게 되었다。

따라서 右一線을 담당한 제5연대는 龍美里(石項 東北쪽 4km)에 있는 義林吉로 轉進하여 여기에 연대본부를 설치하고 제2대대는 北쪽에 있는 △989를 中心으로 右側 後川에서 제9사단의 제29연대와 연결하였으며, 제3대대는 北쪽 △754—△724간을 점령하였고, 제1대대는 예비대로 義林吉에 위치하였다. 한편 中間의 一部分을 담당한 제8연대는 完擇山을 점령하고 있는 제3대대만 3km 北쪽의 新兒山을 점령하였고, 연대본부를 비롯하여 제1, 제2대대는 寧越로 이동한 다음 사단의 예비대가 되었다. 그리고 左一線을 담당한 제3연대는 蓬萊山—△675간의 진지에서 3km 北쪽으로 진격하여 제1대대는 △806를, 제2대대는 시루山을, 예비대인 제3대대는 蓬萊山—△675간을 각각 점령하였고 연대본부는 寧越에 位置하였다。

이리하여 반격작전을 준비한 사단은 군단 작전계획에 따라 51년 2월 初旬에 旌善—주로 北쪽으로 進攻하게 되었다。

한편 사단에 배속되었던 제23연대는 美 제10군단이 寧越—堤川線을 확보하였으므로 군단의 右側方

방호임무가 자동적으로 解除됨에 따라 26일 原隊인 제3사단으로 복귀하였다.

이 전투기간 중에 거둔 綜合的인 戰果와 損失은 아래와 같다.

구분 / 대응 / 부대명	戰果								損失			
	사 살	포 로	60mm 박격포	기관총	AR	다발총	소 총	기 타	전사	부상	실종	계
제 3연대	976	38	2	6	2	19	190	수류탄 포탄	63	80	0	143
제 8연대	68	3	0	2	0	3	15	0	8	10	2	20
계	1,044	41	2	8	2	22	205	수류탄 포탄	71	90	2	163

§ 參戰者의 證言

◇ 제5연대 부연대장 金相峰중령

(1972. 5. 26. 在鄕軍人會에서, 예대령)

寧越 戰鬪時에는 부연대장을 하였는데 이 때에 연대는 사단의 예비대로서 礪山里에서 後方지역을 警戒하여 별다른 激戰을 하지 않았다. 그 뒤 연대는 旌善에서 寧越로 흐르는 南漢江 上流를 끼고 陣地를 점령하고 防禦戰鬪를 하다가 연대는 旌善으로 進擊하여 下珍富里 進攻作戰에 參加하였다.

◇ 제8연대 제2대대장 金周虎소령

(1972. 5. 26. 육군본부에서, 소장)

51년 1월 初旬에 내대는 寧越을 防守코자 攻攻하는 敵과 一進一退의 激戰을 거듭하다가 力不足하여 지연전투를 하면서 寧越—週美간의 高地 일부를 점령하였는데 敵은 이미 사단 작전지역 내에 侵透하여 있었다. 그러므로 내대는 연대의 右側내대로 이 敵을 擊滅코자 공격을 展開한 다음 東部 寧越의 南漢江 沿岸까지 突進하여 敵의 退路를 차단하고 많은 戰果를 거뒀는데 이 때에 金장병은 酷寒을 무릅쓰고 勇敢하게 싸워서 전투를 成功裡로 이끌게 하였다.

◇ 제3연대 통신중대 韓 勳 소위

(1966. 4. 6. 육군본부에서, 중령)

당시 연대의 통신장교를 하였는데 연대장 鄭瀗대령은 군인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연대를 陣頭指揮코자 OP에서 攻擊대대를 指揮하다가 敵의 阻擊兵에게 貫通傷을 당하였으나 應急治療를 받고 衛生兵이 後送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놈아 指揮를 指揮하다가 이렇게……그러면서 저에게 명령하기를 『전연대장병이 나의 명령을 들도록 有無線網을 준비하라』고 말하였다. 이때에 敵의 砲擊으로 因하여 大部分의 有線網은 杜絶되고 主로 SCR 609로 작전을 지휘하였으며 無線網마저 不通하는 곳은 通信兵을 總動員하여 연대장의 명령을 傳達하였는데 그 內容은 즉 이번 寧越 공격전투는 北進하느냐 撤收하느냐 運命을 決定하는 重要한 戰鬪라고 強調한 것으로서 全연대 장병은 이를 銘心하고 과감하게 突進한 結果 戰勝을 기두게 되었다. 그 후 연대장은 이 작전에 功勞가 많은 중대를 치하하면서 通信이 잘 通하였기 때문이라고 通信의 重要性도 강조한 바 있었다.

8. 原州 地區 攻防戰 (1951년 1월 5일부터 / 1951년 1월 12일까지)

참조 : 상 황 도 제24호
작명부록 제120, 123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軍		敵軍	
美제10군단 장 소장	Edward M. Almond	배속부대	
제2사단 장 소장	Robert B. McClure	佛蘭西 대대 장 소령	Lemire
제9연대장 대령	Edwin J. Messinger	Netherland 대대 장 중령	M.P.A. den Ouden
제23연대 장 대령	Paul L. Freeman	美제37야전포병대대 장 중령	John B. Hector
제38연대 장 대령	George B. Peploe		
北共 제2군단 장	중장 鄧 仁	北共 제9사단	
제2사단		제31사단	

나. 전투 전의 개황

原州는 中部戰線 第一의 要衝으로 만일 敵이 原州를 奪取한다면 忠州를 거쳐 大田과 金泉으로 進出하여 서울地區의 我軍을 孤立시킬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東南으로 堤川—榮州를 지향하여 安東 大邱를 壓迫할 수 있는 중요한 戰略的인 位置에 놓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敵의 一원攻勢를 통하여 美제2사단이 이 原州 戰에서 치열한 血戰이라도 사양치 않은 것은 그 爭奪與否가 今後 用兵上에 미치는 影響이 또한 컸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첫째로 春川正面의 我 제2, 제3군단의 "C"線 및 "D"방어선 上으로의 철수와 "E"방어선 上으로의 철수작전을 掩護하여 敵의 급속한 南下를 지연시킬 수 있으며, 둘째로 我 제3군단과 美 제10군단(韓제2, 제5, 제8, 美제2, 제7사단)의 攻勢反擊作戰을 위한 左翼心으로 또는 美제9군단의 右翼心으로서의 支援역할을 담당한다는 觀點에서이다。

敵軍의 상황 : 中共 28개사단과 北共 제1, 제2, 제5의 3개군단은 12월下旬에 38°線 北邊에 大集結하여 다음공세를 準備하는 듯 하였다。

그들은 2개사단 규모의 유격대를 太白山脈을 따라 侵透시켜 春川—原州—大邱의 中央線에 沿한 要

域에 出沒시킴으로써 中東部 戰線에서의 南下初動에 策應케 하는 동시에 그主攻을 서울地區에, 助攻을 春川—原州線에 指向하여 中東部戰線의 我軍後方 깊숙히 突進하므로서 西部戰線의 東側方을 위협하려는 作戰構想이었다. 이에 따라 中東部當面의 敵은 主力集團의 作戰發起에 先行하여 12월 下旬부터 所謂 제2전선부대 中 吉元八이 거느리는 유격부대와 再編한 제10사단의 병력을 다시 投入하였다.

즉 楊口 西南쪽에 進出한 我 제8사단지역에는 北共 제10사단의 일부가 12월 22일부터 陰山峻嶺을 따라 침입하였으며 東쪽에 있는 我 제9사단 右側의 太白山脈과 당 사단 左一線의 連峰深谷에는 吉元八 부대가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또 이들의 일부는 12월 30일까지 陽德院里(洪川 西南 10km)에 侵襲하였고 그 主力은 平昌—寧越지구와 丹陽—安東부근까지 迂回침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어떻든 敵은 中部戰線에서의 유격活動으로 我軍 後側方깊이 파고드는데 一旦 成功하자 12월 31일을 期하여 서울지구 美제1군단에 配屬된 我 제1사단의 正面인 高浪浦里에 主攻을 指向하는 한편 春川正面에 助攻을 두고 全戰線에 걸쳐 일제히 攻勢로 轉移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곧 그들의 所謂 "제3차작전"이다. 그런데 이 攻勢中 中部戰線에 내세운 敵은 北共 제3, 제5 兩軍團의 도합 10개사단이었다.

我軍의 상황 : 敵의 所謂 1月 攻勢에 앞서 我軍은 12월 19일부터 東部戰線의 제1군단(首都사단 및 제3사단)과 美제10군단(제3, 제7 및 제1해병사단)의 興南철수가 제1군단—美 제1해병사단—美제7사단—美제3사단 順으로 進陣되는 가운데, 同月 15일에는 西部戰線이 38°線以南으로의 機動을 끝마치게 되었다. 이리하여 同月下旬에는 제1군단이 東海岸에서 縣里사이에, 제3사단이 昭陽江 南岸에, 제3군단(제2, 제5 및 제8사단)이 春川正面에 美제9군단(我 제6사단, 美제24사단 및 英 제27여단)이 議政府正面에, 그리고 美 제1군단(我 제1사단, 美 제25사단 및 Turkey여단)이 汝山正面에 각각 배치되었고 제2전선으로 美 제10군단 사령부가 大邱에 설치되는 가운데 美 제1해병사단이 馬山에, 美 제7사단이 大邱에, 我 제7사단과 美 제2사단이 原州부근에, 그리고 美 제1기갑사단이 議政府부근에, 美 제3사단이 平澤에 각각 집결하여 부대의 再編과 진지占領을 서두르고 있었다.

이와같은 전선 정리를 끝낸 我軍은 中共의 대대적인 兵力增强의 事實을 確認하게 되고 國境지대로부터의 철수작전에서 입은 손실과, 현전선의 增强正面이 兵力基準量을 초과하는 虛點을 內包하고 있는 點을 勘案한 결과 遂次로 遲延작전을 펌으로서 持久態勢를 圖策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곧 "人的損失을 最少限度로 줄이면서 敵에게 최대한의 出血을 강요하여 가능한 限의 決戰防禦를 반복함으로서 我軍의 戰力轉換을 도모한다"는 전략방침을 再確認한 것이다.

이러한 方針의 具體化를 위하여 軍은 다음과 같은 段階的 陣地線을 確定하기에 이르렀다.

(1) 東海岸에서 38°線 南岸을 따라 臨津江南岸에 이르는 線을 主抵抗線으로 하여 제1, 제2, 제3군단과 美 제1, 제9군단의 全力을 배치하는 한편, 예비사단을 三陟—平澤線上에 控置하여 차후방어선의 점령과 부대의 再編強化를 도모한다.

(2) 注文津—洪川—楊平—水原線은 主抵抗線의 各兵團을 위한 萬一의 境遇 收容陣地로 運用하는 동시에 三陟—平澤線의 방어준비를 위한 時間的 여유를 확득한다.

(3) 三陟—原州—安城—平澤線은 次期의 主抵抗陣地로 事前에 準備한다.

(4) 小白山脈과 錦江의 南岸에 沿한 線을 제3의 抵抗陣地로 설정하는 동시에 小白山脈陣地와 洛東

江陣地를 차후의 豫備방어진지로 確保한다。

이와같이 具體化된 計劃을 통한 我軍의 遲延과 持久의 方策이 확정된 것은 12월末이었다。

그리하여 12월 31일에 前述한 바와 같이 敵의 제3차작전은 全戰線에 걸쳐 展開되었거니와 그중 산악지대의 넓은 방어正面을 담당한 中部戰線이 먼저 突破되기 시작하였다. 北共 제3, 제5군단은 春川—原州軸線을 따른 공격으로 제3, 제5, 제8 사단의 春川正面을 돌파 하자 이에 呼應하여 敵의 유격부대는 各處에서 我軍의 退路 및 보급로를 차단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戰局의 危機를 그대로 放置한다면 北共은 乘勝長驅로 大田이나 大邱부근까지 直衝한 것이므로 戰線을 東西로 分斷할 可能性마저 憂慮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美 제8군사령관은 이러한 위기가 계속되는 限 그의 머리 마련한 作戰構想이 倒錯될 時點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1월 2일에 다음과 같이 緊急措置하였다. 즉 18.00부로 原州의 美 제2사단과 아울러 제3군단(제2, 제5 및 제8사단)을 美 제10군단(美 제7사단 포함)에 배속하여 종래의 제3군단 지역을 방어토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美 제10군단장 Edward M. Almond소장은 原州의 美 제2사단으로 하여금 中部戰線의 한국군 철수를 엄호토록 하는 한편 大邱부근에 배置된 美 제7사단을 堤川으로 北上 增援케 한 것이다. 그러나 1월 3일 아침에는 이와같은 위기에 겸쳐 서울周邊의 戰線이 또한 動搖하게 되자 美제8군사령관은 要旨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

『(1) 美 제25사단(英 제29여단 배속)은 서울 外郭에 收容진지를 점령하여 제1선군단에 대한 수용과 漢江도하를 엄호하라。

(2) 美 제1군단과 美 제9군단은 병행 후퇴하여 먼저 楊平—水原간의 진지를 점령하라。

(3) 美 제10군단은 韓 제2, 제5 및 제8사단을 통합 지휘하여 洪川—楊平間의 진지선을 확보하라。

(4) 韓 제1, 제3군단은 注文津—洪川間의 陣地를 확보하라。

(5) 美 제3사단은 平澤부근에, 美 제1기갑사단은 安城부근으로 各各 이동하여 차후 作戰을 준비하라。』

이에 따라 全戰線에 걸쳐 "C"방어선(注文津—長坪里—洪川—楊平—水原線)으로의 後退機動을 단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敵의 戰勢는 갈수록 더욱 增強되어 1월 4일에 洪川을 탈취 하였기 때문에 "C"방어선의 形成에 직접 위협을 받게 되자, 美 제8군사령관은 1월 5일 12.00를 期하여 다시 "D"방어선(三陟—原州—長湖院—竹山里—安城—平澤線)을 占領하고 當面의 敵을 阻止擊滅하라는 작전명령을 하달 하였다。

이에 따라 西部戰線에도 더욱 그 餘波가 미치게 되어 美 제1, 제9의 兩군단은 1월 3일에 烏山을 抛棄하고 다음 날인 6일에 제9군단(我 제6사단, 美 제24사단, 英 제27여단)은 長湖院—竹山里間을, 美 제1군단(我 제1사단, 美 제3, 제25사단, 및 英 29여단)은 安城—平澤間을 目標로 徐徐히 그 陣容을 옮기게 되었다. 이때에 中部戰線의 美 제10군단(美 제2, 제7, 我 제2, 제5 및 제8사단)도 西部戰線과 連繫하기 위하여 全부대를 37°線上으로 後退하는 한편 原州부근의 美 제2사단은 철수중의 한국군 제2, 제5 및 제8사단을 엄호하기 위하여 反擊을 敢行하고 있었으며, 東部戰線의 제1, 제3군단은 1월 5일 20.00부터 다음과 같은 육군본부의 작전명령 제258호 수정훈령 제1호(참조 육작명 제120호)에 의거하여 黃牛線(三陟—蔚越間)으로의 後方機動을 준비하고 있었다。

「(1) 軍은 1951년 1월 6일 09.00를 期하여 "黃牛線"으로 후퇴 하려함。

(2) 제1군단은 1951년 1월 6일 09.00를 期하여 담당 지역내에 있는 黃牛線으로 후퇴하여 軍의 東側方을 경호하라。

(3) 제2군단은 1951년 1월 5일 21.00부로 제3사단 배속을 해제하여 제3군단에 再배속하고 군단은 계속 현 임무를 수행하라。

(4) 제3군단은 1951년 1월 5일 21.00부로 제3사단을 통합 지휘하는 동시에 1월 6일 09.00를 期하여 담당지구내인 黃牛線으로 후퇴하는 즉시로 방어진지를 구축하라. 그리고 美 제10군단과의 有機的인 접촉을 유지하고 전투상황이 許하는 限 제9사단을 제천 정리하라。」

이러한 中東部戰線의 철수작전이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美 제2사단은 엄호와 확보을 위하여 原州正面을 確保中이었다. 사단 當面의 敵은 我제3군단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1월 2일에 春川—加平線에 진출한 다음 南侵을 계속하여 이미 陽德院里(洪川 西南 10km)의 南쪽 限界線까지 진출한 敵 제2전선부대와 呼應하면서 陽德院里의 我 제5사단 및 제8사단의 철수부대를 急襲하고 驪州方面으로 直向하였고, 東部의 敵主力인 제2, 제9 및 제31사단은 我 제3, 제8兩사단의 간적을 뚫고 南下하여 1월 4일에는 洪川을 점령하고 6일에는 橫城을 탈취하였다. 이때 原州의 美 제2사단(장, Robert B. Mc Clure소장)은 12월에 佛蘭西대대를 제23연대(장, Paul L. Freeman대령)에, Netherland대대를 제38연대(장, George B. Peploe대령)에 배속하고 美 제10군단장 Edward M. Almond 소장의 명령에 따라 原州—橫城間의 방어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1월 6일 敵 제2, 제9 및 제31사단의 주력부대가 橫城지구에 육박하기에 앞서 1월 5일 20.00에 육군본부는 한국군 제1 및 제3군단의 병력을 三陟—原州間의 "D"방어선상에서 三陟—寧越間의 黃牛線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下達함으로써 縣里부근의 제9사단(장, 吳德俊준장)은 4일 蒼村을 경유, 6일에는 東沙里에 집결 하였고 洪川의 제3사단(장, 崔錫준장)은 洪川—橫城을 경유하여 1월 4일에는 이미 平昌에 집결하였다. 또 洪川—春川사이를 北進하였던 제7사단(장, 金炯一준장)은 春川東北쪽에서 占領한 진지를 철수하여 洪川—橫城—原州를 경유 6일 현재 牧溪—倉洞線으로 철수하였고, 春川 西北쪽을 占領한 제5사단(장, 閔機植준장)은 加平—橫城線을 경유하여 原州를 迂廻한 다음 文幕을 거쳐 6일 현재로 驪州에 집결하고 있었으며 加平 北쪽의 제2사단(장, 咸炳善준장)은 淸平—陽平을 경유하여 같은날 제5사단과 驪州에서 合勢하였다。

이상과 같이 中東部戰線의 한국군 사단이 6일 현재 이미 原州 界線을 지나 忠州—堤川—寧越—三陟을 연하는 "E"線(黃牛線)上으로 철수 南下하고 있었으므로 原州지구에서 한국군의 철수를 엄호하려던 美 제2사단은 左右兩側을 暴露하게 된 결과 群敵中에 孤立하는 情勢下에 놓여지게 되었다。

이에 美 제8군사령관은 1월 5일 12.00를 期하여 "D"방어선(三陟—原州—安城—平澤線)으로 철수하라는 작전명령을 각군단에 下達함에 따라 美 제10군단장 Edward M. Almond 소장은 永川의 美 제7사단(장, Claude B. Ferenbaugh소장)을 堤川으로 北上시키는 한편 橫城지역의 美 제2사단 주력부대를 "D"방어선상의 原州로 철수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美 제2사단장 Robert B. McClure 소장은 要旨 다음과 같은 口頭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제9연대는 주력부대의 原州집결을 엄호한 다음, 鳳陽面 長坪里(堤川 西쪽 8km)부근으로 이동하여 原州—堤川間의 作戰路를 경계하라。

② 제23연대는 현진지를 철수하여 原州郊外 西北 쪽에서 진지를 점령하라。

③ 제38연대는 현진지를 철수하여 原州 외곽 東北쪽에서 진지를 점령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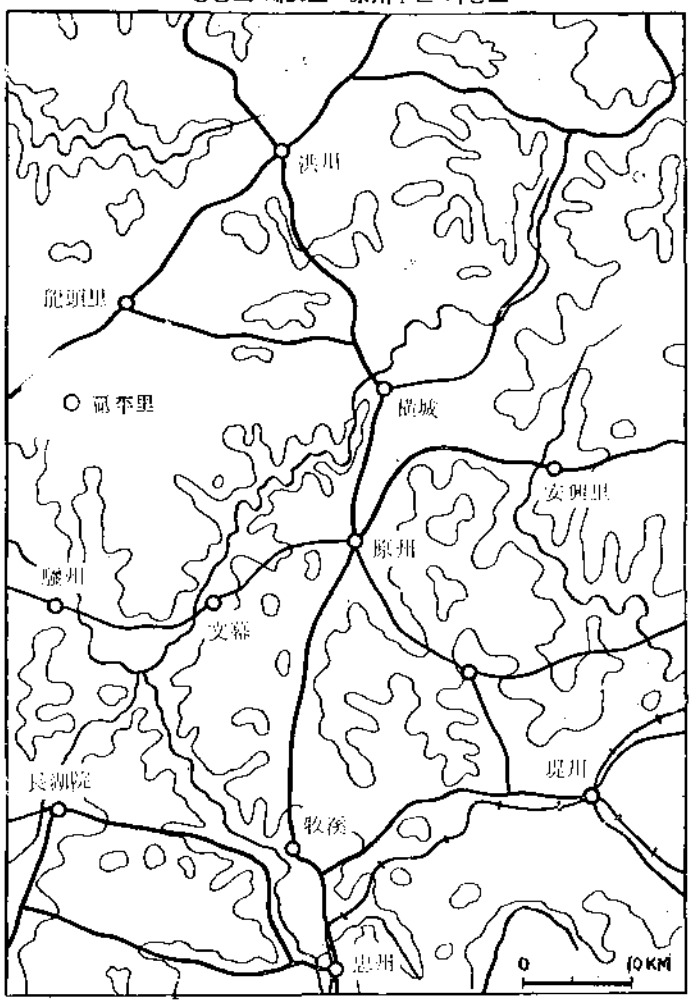
(2) 작전실시

1월 5일 : 美 제2사단 사령부는 20.30에 그 CP를 忠州에 개설하는 가운데 사단의 右一線인 제38연대(장, George B. Peploe대령)는 Netherland대대(장, M. P. A. den Ouden 중령)와 합동하여 楸洞里—橫城간의 진지에서 敵과의 치열한 교전을 전개한 다음 橫城에 집결하였으며, 사단의 左一線으로 上舍峯里(橫城 西北 15km)를 占領한 제23연대(장, Paul B. Freeman대령)의 주력인 제2, 3대대와 柳洞里(橫城 東北 15km)의 佛蘭西대대(장, Lemire소령)는 前날 대부대의 奇襲을 받고 橫城에 집결한 다음 이날 原州로 철수할 준비중에 있었으며, 제23연대의 제1대대는 牧溪에서 사단 사령부를 직접 경계 하였다。

한편 사단의 예비대인 제9연대(장, Edwin J. Messinger대령)의 제1, 제3대대는 原州의 "D"방어선을 점령하고 사단 주력부대의 철수를 엄호하던 중, 이날 05.30에 橫城 西北쪽 道路를 차단하고 있던 1개중대는 200명 규모의 敵의 기습을 받자 치열한 교전 끝에 장교 1명과 사병 10명의 전사자를 내고 橫城으로 집결하였으며, 연대의 제2대대는 堤川—忠州간을 機動정찰하고 있었다。

이날 美 제10군단 예하 美 제7사단(장, Claude B. Ferenbaugh소장)의 제17연대 제2, 제3 兩대대는 堤川에 집결하였고, 제1대대는 丹陽에서 제32연대 제3대대와 그 임무를 교대

상황도 제24호 原州부근 지형도



대이 었으며, 제31연대와 제32연대의 제1, 제2대대는 丹陽을 향하여 北上하고 있었다. 그리고 我 제1102 야전공병단(제104야전공병대대 缺)은 命에 따라 이날 美 제10군단에 작전배속 되었다.

1월 6일 : 이날 사단의 주력부대는 前日에 이어 橫城지구의 방어선을 철수하여 "D"방어선상의 要衝인 原州를 固守하기 위하여 陣地를 占領強化하기 시작하였다.

사단 左一線 제23연대(장, Paul L. Freeman 대령)의 제2, 제3대대는 이날 右一線인 제38연대의 엄호下에 佛蘭西대대(장, Lemire중령)와 함께 原州를 目標로 철수한 다음 鶴城里(原州 西北쪽)—萬鏡里를 連하는 野山에 진지를 점령하게 되자, 右一線 제38연대(장, George B. Peploe대령)는 Netherland대대(장, M. P. A. den Ouden중령)와 協力하여 橫城에서 제23연대의 철수를 엄호한 다음 原州로 이동하여 興業里—青岩里—長陽里간의 진지를 점령하였다.

이와같이 사단의 주력부대가 原州에 집결을 완료하게 되자 제9연대(장, Edwin J. Messinger대령)의 제1, 제3대대는 原州—堤川간의 기동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날 鳳陽面 長坪里(堤川 西쪽 10km)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전날과 같이 제9연대 제2대대는 堤川—忠州간의 도로를 정찰하고 있었으며 제

23연대 제1대대는 牧溪의 사단 사령부를 경비하였다。

한편 이날 美 제7사단(장, Claude B. Ferenbaugh소장)의 제31연대와 제32연대의 제1, 제2대대는 丹陽으로 이동 중이며 제3대대는 전일 제17연대 제1대대와 교대한 뒤 丹陽을 占領함에 따라 제17연대의 제1대대는 堤川으로 이동 하였다。

1월 7일 : 전날에 이어 제9연대(장, Edwin J. Messinger대령)는 鳳陽面 長坪里(堤川 西쪽 10km)로 이동하는 가운데 原州외곽의 진지를 점령한 사단의 주력부대는 이날 東北西 三面으로부터 敵 제2, 제9, 제31사단의 挑戰을 맞고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날 原州에 있는 圓形陣地의 占領은 제38연대(장, George B. Peploe대령)와 Netherland대대(장, M. P. A. den Ouden중령)가 興陽里(原州의 東北)—蒋岩里—長陽里간의 大小稜線上을 確保하면서 新基에서 原州로 通하는 42番 道路와 横城—原州街道를 遮斷하였으며 제23연대(장, Paul L. Freeman대령)의 주력인 제2, 제3兩대대와 佛蘭西대대(장, Lemire소령)는 鶴城里(原州의 西西北)—萬鏡里要域을 占領한 다음 横城—原州街道의 東側과 原州—驪州道를 遮斷하고 있었다. 그리고 圓形陣地의 中央에는 제37야전포병대대(장, John B. Hector중령)가 대대主力을 放列하여 主力부대의 防守作戰을 직접 지원하였다. 따라서 原州의 上空에는 砲兵火力의 目標를 誘導하는 觀測機가 旋廻하고 있었으며 現地의 要請에 따라 美 제5공군의 전폭기편대는 上空에 나타나 爆撃과 對地攻撃을 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무렵 山野에는 무릎을 덮는 白雪이 荒涼天地를 이루었으며 기온은 —12°C를 上下하였다。

北共 제2, 제9 및 제31사단의 前線은 圓形陣地의 1km 前面까지 접근한 다음 이날 05.00에는 제38연대(장, George B. Peploe대령)의 진지인 原州 東東北에 대한 새로운 공격을 시작하였으나 연대는 곧 이 敵을 격퇴하고 말았는데, 낮에는 전폭기 편대에 의한 爆音과 空中으로 散飛하는 炸裂의 閃光으로 大地가 흔들리고 하늘에 때아닌 무지개가 빛났다. 그런데 이날밤 北共의 3개사단은 東北西의 三面에서 일제히 包囲態勢로서 공격을 再開하였는데, 이는 空地의 立體戰을 두려워한 나머지의 夜襲의 手法인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제37야전포병대대(장, John B. Hector중령)의 18문의 포열은 一時에 그 砲門을 열어 主抵抗線 전면에 탄막을 구성하고 1문당 500발 이상의 화력을 總集中하였으며, 一線守兵은 狂濤같은 敵襲을 맞아 迫撃砲와 機關銃 그리고 小銃과 手榴彈을 모조리 集結使用하므로써 敵의 一波와 二波를 마침내 물리치고야 말았다. 그러나 敵의 필사적인 三波 四波의 肉迫으로 敵은 四周陣地의 中央에 있는 砲陣 20m 전방까지 접근함으로써 砲兵은 射手와 彈藥手까지 모조리 動員하는 白衛戰으로 바꾸어 拳銃과 銃劍으로 白兵戰을 敢行한 끝에 砲陣地를 끝까지 死守하

였거니와 이 砲陣地를 노리고 殺到하던 敵의 遺棄屍體는 600을 넘었으며 守兵들의 戰衣와 鐵帽는 鮮血로 물들어 있었다. 이와같이 사단의 주력부대는 血戰에 이은 血戰을 거듭하다가 이날밤 子正을 前後하여서는 彼我를 분간하기 힘든 戰野의 稜線과 谿谷을 따라 原州街道를 벗어나 南으로 向하여 且戰且退하기 시작하였다。

1월 8일 : 전일에 이어 사단의 주력부대는 철수를 계속하여 이날 06.00에는 原州 南쪽 5km의 觀雪里—瑞谷里—興等里間에 방어진지를 점령하였다. 이로부터 原州市內의 敵에 대한 砲火力의 集中을 유도하는 偵察機가 旋廻하는 가운데 제37야전포병대대(장, John B. Hector중령)와 제5공군 전폭기의 火力이 敵陣에 집중되고 있었다. 이 砲空火力의 지원을 받은 사단 주력은 敵中에 수색대를 투입하는 한편 제38연대(장, George B. Peploe대령)와 Netherland대대(장, M. P. A. den Ouden중령)의 지원하에 제23연대(장, Paul L. Freeman대령)의 제2대대는 09.45에 敵을 공격하기 시작하여 1개대대 규모의 敵과 12.30에 이르기까지 치열한 교전을 전개한 끝에 200여명을 사살하였으며, 砲兵大隊는 이날 8km 사거리내에 밀려든 敵의 騎馬隊를 포격하여 수백명의 人馬를 同時에 殺傷하였는데 馬骨과 肉片이 天空에 치솟기도 하였다. 이날 砲兵大隊가 발사한 砲彈의 數는 대개 10,000餘發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原州의 要衝地는 사단 주력에 의하여 이러한 격전이 전개되는 가운데 사단 예비대인 제9연대(장, Edwin J. Messinger대령)의 제1, 제3대대는 이날 周浦里(堤川 西쪽 10km)北쪽 3km에 있는 酒泉江 兩岸의 高地일대에 阻止진지를 구축확보 하였으며 제2대대는 堤川에 본부를 두고 堤川—忠州間의 補給路를 機動警戒하였다. 이와같이 原州要域에서의 전황이 갈수록 심각하여지자 美 제8군사령관은 이날 12.00에 要旨 다음과 같이 命令하였다。

『美 제187공수연대전투단은 지체없이 安東으로 이동하여 美 제10군단의 右側方을 防護하고 義城—安東—榮州間의 모든 補給路를 경비하라』 彼我의 모든 戰勢를 分析檢討한 결과 同사령관은 다시 麾下兵團을 "E"방어선 상으로의 철수를 모색 하였다。

1월 9일 : 이날 美 제8군사령부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작전계획을 內示하였다。

『① 軍은 麾下 각 군단으로 하여금 앞으로 하달하는 D일 H시에 "E"방어선으로 협조된 철수를 실시한다。

② "E"방어선은 錦江에 沿하여 東으로 忠州—堤川—桶里—鍾城里에 이르는 線이다。

③ 제9, 제10 兩군단의 작전 지경선은 牧溪洞—하금단—朴達山(△825)—德加山(△857)—葛洞里—尙州를 連하는 線으로 豫定한다。

④ 韓 제3군단과 美 제10군단의 지경선은 "소사리"(橫城 東쪽 20km)—酒泉里—寧越—南大里—원천동—安東을 連하는 線으로 豫定한다。』

美 제8군은 이러한 作戰計劃을 內示하는 동시에 東部戰線의 한국 육군본부에서도 이날 06.00에 要旨 다음과 같은 작전계획 제14호(참조 부록작명 제123호)를 下達하였다。

『① 軍은 別途로 後達하는 時日에 現在線에서 "E"線으로 협동 후퇴하는 동시에 군단내 및 군단間에 있어서 긴밀한 협조를 維持하면서 모든 主要 兵團을 건전히 保全할 수 있는 限, 敵에게 可能한 최대의 打擊을 加하고 그 南侵을 極力 지연 시키려고 한다。

② 제1군단은 육군본부 명령이 있을 때에는 左側 제3군단과 협조하여 "E"線으로 후퇴한 다음 同線上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敵의 南進을 저지하라。

③ 제3군단은 육군본부 명령이 있을 때에는 左側 美 제10군단과 협조하여 담당지구내 "E"線으로 후퇴한 다음 同線上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敵의 南進을 저지하라。

④ 敵에게 최대한의 손해를 加하는 동시에 敵의 南進을 최대한으로 지연시킬 것이며 특히 敵의 기습 및 우회공격에 유의하여 연락없이 急速追尾하는 敵을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捕捉하여 擊滅하라。

⑤ 본 작전계획을 수령하는 즉시로 각 군단은 "E"線에 대한 事前偵察을 實施하라。』

中東部戰線의 我軍은 敵 제2, 제3, 제5군단의 南下에 따라 그 보급로의 연장과 戰力의 消耗를 遲增시키기 위한 지연작전을 전개함으로써 次期의 反擊을 준비할 目的으로 "E"線인 錦城里—桐里—寧越—堤川—忠州線으로의 철수에 대한 작전계획을 示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美 제8군사령부는 이날 06.00에 다시 命令하기를 『美 제10군단은 "E"방어선으로 철수하고 安東—榮州—堤川간의 鐵路線과 그 施設을 防護하라. 또한 敵을 分離하고 孤立시키기 위하여 계속 엄호부대를 配置 활용하라.』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美 제2사단(장, Robert B. McClure소장)은 엄호부대로써 原州—堤川—忠州—原州를 연결하는 "△"型의 戰區에 縱深진지를 구축케 하고 계속적인 지연전과 軸心要域을 固守하는데 注力하고 있었다。

右一線인 제38연대(장, George B. Peploe대령)와 Netderland대대(장, M. P. A. den Ouden중령)는 이날 主보급로인 原州—堤川道를 西쪽으로 橫斷하여 제23연대(장, Paul L. Freeman대령)의 제2, 제3대대와 佛蘭西 대대(장, Lemire소령)는 이날 아침 蘆業洞에서 西北을 目標로 공격하였으며 제1대대는 周浦里(堤川 西쪽 10km) 高地에 阻止진지를 확보하였다。

한편 사단의 예비대인 제9연대(장, Edwin J. Messinger대령) 주력은 계속 原州—堤川간의 主보급로를 정찰하였는데 이날, 제2대대는 堤川—忠州간의 도로를 정찰중 院月里(堤川 西南 24km)에서 200名 규모의 敵과 不時에 衝突하여 치열한 교전을 전개한 끝에 敵을 北으로 격퇴하였으나 이 전투에서 대대는 꽤 多 2대를 잃었다。

1월 10일 : 이날 사단 주력은 原州부근의 敵과 계속적인 교전을 전개하였다. 제23연대(장, Paul L. Freeman대령)의 제3대대와 제38연대(장, George B. Peploe대령)의 제1, 제3대대가 興業里에 있는 高地에 방어진지를 점령하는 한편, 공격제대인 佛蘭西대대(장, Lemire소령) 및 제23연대 제2대대와 제38연대 제2대대는 그 前方으로 진출하여 懶翁亭(原州 南쪽 3km)—外南松—銀杏亭—三里洞(文幕 東쪽 5km)線上을 占領한 다음 16.30에 진지의 兩翼을 包圍하려고 공격을 敢行해온 敵과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여 24.00에는 이를 완전 격퇴 하였다。

한편 이날 예비대인 제9연대(장, Edwin J. Messinger대령)는 제1대대를 周浦里(堤川 西 10km) 1km전방에 있는 左右高地에 配置하고 그 前方 12km地點인 神林驛에 제3대대를, 그 前方 12km인 神林里에 제2대대를 각각 배치하여 堤川—原州間街路를 따라 종심진지를 구축하고 敵의 南下를 저지 하였다。

이날 美 제7사단(장, Claude B. Ferenbaugh소장)의 제17연대는 堤川에, 그리고 제32연대는 榮州에, 그리고 연대 제3대대는 安東에 각각 배치하여 安東—榮州—丹陽—堤川線을 確保하고 있었다。

1월 11일 : 原州지구에 대한 敵의 侵襲威勢는 전날을 고비로 激減되었는데, 그것은 右翼에 있는 我 제3군단(제3, 제7 및 제9사단)이 육군본부의 命令으로 1월 6일 09.00를 期하여 蒼村—橫城간을 占領한 주력부대가 原州를 迂回하여 堤川—寧越間으로 南下하였기 때문이다。

敵은 제3군단의 後退에 따라 군단과 그左側에 있는 美 제10군단과의 中間接際部를 통하여 南으로 침투하기 시작하여 그中의 北共 제2사단은 이미 安東—義城지구에 침투하여 후방을 교란하고 있던 제10사단과 연결하기 위하여 原州—堤川—安東線을 따라 南下하여 12일에는 元滿墟(南大里 西쪽 15km)에 집결하였고, 敵 제9사단과 제31사단은 我 제3군단의 방어선인 黃牛線 南쪽인 春陽—乃城—榮州間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9사단은 寧越 東南쪽 玉洞里를 경유 注文里(南大里 西北 10km)로 침투하였으며 제31사단은 南大里로 침투하였다。(제38장 제6절 "南大里戰鬪"참조)

이리하여 美 제10군단장은 이날 제8사단(장, 崔榮喜준장)을 黃江(忠州 東쪽 12km)에, 제2사단(장, 咸炳善준장)을 丹陽에, 그리고 제5사단(장, 閔機植준장)을 榮州로 進出시켜 美제7사단(장, Claude B. Ferenbaugh소장)과 美 제187공수연대 전투단(장, Frank S. Bowen, Jr. 준장)과 더불어 原州—堤川—丹陽—榮州—安東—義城間을 연하는 中央線에 종심적 전술전개를 단행하였다.

이리하여 12월下旬, 安東—義城間에 침투한 敵 제10사단과 南侵하는 敵 제2사단과의 연결을 차단하는 동시에 敵 제10사단을 孤立시킨 다음 各個섬멸전을 斷行하기 위하여 이날 美 제8군사령관은 興南철수 이래 馬山에서 재편중이던 美 제1해병사단(장, Oliver P. Smith소장)을 抽出하여 敵 제10사단을 安東—盈德線에서 저지 섬멸키 위하여 北上시켰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美 제2사단(장, Robert B. McClure소장)은 이날 접적이 없는 가운데 原州를 재탈환 하기 爲한 진지강화와 一部 戰線의 整理를 단행하는 한편, 南下中의 敵에 의한 側方攻擊을 분쇄하고 있었다.

곧 제9연대(장, Edwin J. Messinger대령)를 原州—堤川本道上에, 그리고 제23연대와 제38연대를 原州—忠州街路上에 각각 종심 배치하였다.

原州—堤川間을 占領한 제9연대는 이날 연대본부를 周浦里에서 제2대대가 위치한 神林里로 약진 개설함과 동시에 周浦里의 제1대대를 東쪽 4km 地點인 萬福洞으로 진출시키는 한편 神林驛의 제3대대를 공격제대로 하여 金倉里(神林里 北쪽 4km)로 北上시켰다.

그리고 左翼인 제23연대와 제38연대는 原州—忠州間을 占領하고 外南松(原州 南쪽 3km)—行住里洞間에 前哨陣地를 占領하고 제38연대 제2대대와 佛蘭西대대(장, Lemire소령)의 1개중대를 東西로 배치하였으며, 그로부터 1km후방인 구억말—銀杏亭—下升安洞간의 主抵抗線에는 제23연대 제2대대와 제38연대 제1대대, 그리고 Netherland대대의 3개중대와 제23연대 제3, 제1대대의 順으로 東西로 배치하였으며, 그 後方 6km 地點인 漢村에는 제38연대 제3대대를 예비대로 配置하였다.

이날 제23연대본부는 梅芝里(牧溪里 北쪽 20km)에, 제38연대본부는 雲南里(牧溪里 北쪽 12km)에, 그리고 사단사령부는 牧溪里(忠州 北쪽 17km)에 각각 위치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사단의 주력부대가 原州—堤川道와 原州—忠州道上에서 종심으로 진지占領을 완료한 이날 오후, 200명 규모의 敵이 原州—堤川間의 回論屈(原州 東南 10km 속칭 또아리굴)부근에 出現하였다. 이에 金倉里로 進出하던 제9연대(장, Edwin J. Messinger대령)의 제3대대를 지원中인 砲兵중대는 2km 前方에 있는 이 敵에 대하여 火力을 集中하

이 50%에 達하는 損失을 입히고 이 敵을 擊破하였다。

1월 12일 : 이날 사단의 각 부대는 堤川—原州線과 忠州—原州線을 따라 原州를 탈환하기 위한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즉 사단의 右一線으로 堤川—原州線을 따라 北上한 제9연대(장, Edwin J. Messinger대령)의 제3대대는 金倉里에서 進擊을 시작하여 전날 龍兵隊에 의하여 이 적퇴된 回論屈을 經由하여 계속 北上하여 金倉里 海美山城(原州 東南 6km)을 占領하였다. 忠州—原州線을 따라 北上한 제23연대(장, Paul L. Freeman대령)와 제38연대(장, George B. Peploe대령)는 제38연대 제2대대를 선두로 原州의 西側方을 공격하여 抵抗의 敵을 격퇴하고 市內에 突入하였다。

이에 敵은 敗兵을 督戰하여 다시 反擊을 試圖하였는데 이들은 隊號와 兵種이 서로 相異한 非正規 混成編隊로 波狀的인 攻擊을 계속하였다。

이 무렵 銀杏亭—下升安洞間에 進出한 左一線부대들은 原州 市內에 突入하는 右一線부대를 엄호하면서 北으로 進擊하여 沙峴里일대의 敵을 격퇴하고 △420—△339—△243등의 大小高地線을 모두 奪還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12일에 原州를 占領한 사단은 夜間陣地를 구축하고 四周防禦에 들어갔는데 다음 날인 13일 04.00부터 제23연대(장, Paul L. Freeman대령)의 占領지역을 目標로 攻勢로 轉移한 敵은 이날 07.00에는 제38연대(장, George B. Peploe대령) 陣地에도 急襲을 試圖하여 彼我間에는 다시 치열한 교전이 反復되었다. 그러나 敵은 계속적인 兵力의 增援으로 완강하게 저항 하였으므로 사단 주력은 160餘名을 射殺한 다음 原州의 防禦陣地를 철수하고 忠州를 向하여 且戰且退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제37야전砲兵大隊(장, John B. Hector중령)는 原州에서 追擊하려는 敵의 先鋒을 強打하여 마침내 그 追擊을 斷念케 하였다。

이로써 原州地區의 攻防戰은 끝났으며, 사단은 다음날 美 제8군사령부의 命令에 따라 堤川 一帶에 배치된 美 제7사단(장, Claude B. Ferenbaugh소장)과 연계하기 위하여 寧越—모산리(堤川 北쪽 3km)—죽판리(牧溪 東北쪽 15km)—담암리(長湖院 東北 12km)線으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美 제2사단은 本作戰期間中 1일 平均 1,000名의 敵을 殺傷하였다고 報告하고 있으니 이로써 推計한다면 北共 제2, 제9 및 제31사단의 人命損失은 도합 10,000名線에 達할 것이다。

이상으로써 사단은 中東部戰線의 한국군 철수작전을 엄호하는 동시에 敵의 急激한 南侵活動을 저지하였으며 次期의 反擊作戰을 위한 要衝地를 固守하였다。

따라서 사단이 본 전투에서 거둔 成果는 清川江戰線에서 입은 "인디안苦刑"의 汚名을 씻고도 能히 남음이 있는 榮光된 決戰이었다고 評價하여 마땅할 것이다。

9. 赤城里 戰鬪 (1951년 1월 12일부터 / 1951년 1월 15일까지)

참조 : 상황도 제25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美 제10군단특별공격대대		제2중대	장 중위 孫 章 來
	장 소령 裵 東 傑	제3중대	장 소위 鄭 昶 和
제1중대	장 대위 尹 性 模	병력 : 300명	

敵 軍		
北共 제10사단 예하연대	3,000명	

나. 전투진의 개황

美제10군단의 興南地區撤收作戰을 掩護하던 同軍團의 韓國軍特別攻擊大隊는 1950년 12月 24日 午後에 마지막 撤收部隊로서 連浦飛行場에서 美輸送機에 의하여 撤收, 이날 釜山水營飛場에 到達하였다。

25日 同大隊는 釜山 北方 50km地點에 있는 神佛山(△1299)으로 前進하여 殘匪의 掃滅作戰에 임하다가 다시 北上 慶州—永川을 거쳐 1951년 1월 10일에는 安東에 이르렀다。

당시의 戰況은 中共軍이 1월 1일에 38°線附近에서 全面的인 攻勢를 展開함으로써 我軍은 再次 首都를 포기하고 水原線으로 戰線을 移動시키고 있었고 中部戰線의 韓 제3군단과 美 제10군단 사이에는 구멍이 생기게 되어 이곳으로 약 2개사단으로 推算되는 北共軍이 侵透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敵軍은 洪川(1월 4일)—橫城(6일)—原州(8일)를 거쳐 그 一部兵力은 安東線까지 南下하고 있는 實況下에 있었다。

이와같은 危機를 打開하고자 美 제10군단장 Almond 소장은 馬山地域에 있는 美 제1해병사단을 安東으로 轉進시켜 敵의 南下를 沮止하고 我軍의 補給路(盈德—安東—咸昌)를 지키게 하였다。

同時에 군단장은 韓國軍 특별공격대대로 하여금 月陽쪽에서 山岳地帶로 잠투하는 敵을 探索 또는 擊滅시키기 위하여 1월 11일에 探索行動을 命하였다。

이리하여 裵東傑 소령이 지휘하는 특별공격대대는 不過 300名미만의 兵力을 가지고서 左右에 友軍

이 없는 가운데 聞慶郡 東魯面 赤城里가 있는 溪谷으로 探索行動을 시작하였다。

赤城里는 1km平方의 山間盆地인데 西南쪽으로 흐르는 河川을 境界로 하여 南쪽은 魯隱里이고 北쪽은 赤城里인데 그 中間 장기마을에 東魯面 事務所 및 支署 그리고 郵遞局 등이 있고 魯隱里에 東魯國民學校가 있다。이곳 住民들은 약 500명이며 避難을 가지 않고 그대로 生業에 從事를 하고 있었다。

이곳 地形은 小白山脈의 主流에 속하는 地帶로서 바로 北쪽은 海拔 1,000m가 넘는 수리봉, 황장산이 솟아있고 赤城里 左側方向에는 天主峰(△823)의 남카로운 縱隔室이 南쪽으로 흐르고 있다。역시 右側에도 600~700m의 不規則한 橫隔室이 指形처럼 흐르고 있어서 進入路는 九折羊腸과 같았으며 겨우 車輛의 一方通行이 可能한 곳이었다。

當時 氣候는 零下 15°C를 上下하는 氣溫이었으며 약 15cm의 積雪이 쌓이 있었다。

特히 同大隊는 日本에서 편성되어 嶺南地區에 上陸하였으나 接敵의 機會는 없었고 神佛山의 殘匪攻擊戰에서 첫 戰鬪를 하였는데 險惡한 山中에서 敵을 探索攻擊하다가 若干의 犧牲者를 내고 심한 苦生들을 하였기 때문에 士氣는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다。그러나 이 大隊는 普通의 大隊보다 火力裝備가 優勢하였다。즉 個人裝備만 보아도 大部分이 M2칼빈(개머리판이 쇠로 되짓), 自動小銃, 輕機關銃 로켓트砲로 武裝하였고 重火器班員들은 擲彈筒 二重으로 裝備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大隊에는 3名의 美 顧問將校와 通信下士官들이 있었고 同大隊는 美 제10군단의 Special Activities Group의 團長인 Haynes 中領이 統制하고 있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월 12일 : 전날 安東에서 車輛으로 店村에 移動한 특별공격대대는 이날 未明에 店村을 出發하여 戰術行軍隊形로서 目標를 赤城里에 두고서 行軍을 시작하였다。

上級部隊에서 探索部隊를 赤城里부근으로 投入한 理由로는, 敵이 丹陽에서 南下하려면 어차피 이 溪谷을 通하지 않고는 自由스러운 侵透行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또한 赤城里는 丹陽, 榮州, 聞慶, 店村, 醴泉等을 連結하는 圓周上의 求心點에 位置하고 있어 特히 店村, 安東方面으로 進出하는 山間盆地인 것이다。

특별공격대대는 제2중대가 첨병중대 그리고 제1, 제3중대의 순위로 前進하였는데 이렇다 할 敵情이 없는 가운데 突兵中隊인 제2중대는 孫章來 중위(대대 作戰將校겸무) 지휘下에 13.00경에 東魯面의 장기部落에 도착하였다。

한편 제2중대가 이곳에 到着하기 전에 水坪里(赤城里에서 8km 南쪽)에 이르렀을 때 이곳에는 東魯面 支署員과 青年防衛隊員 약 60여명이 集結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진술에 의하면 丹陽쪽에서 避難하여 온 住民들로부터 入手한 敵의 南下情報에 따라 그들은 大部 南

쪽의 陵山으로 集結하라는 上部의 命을 받고 移動中이 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我軍이 赤城里로 前進한다는 말을 듣고, 이들이 앞장서서 偵察을 하면서 異常없이 目的地에 도착하게 된 것이다。그리고 赤城里에 도착하자 그중 靑防隊員 3명이 제2중대원 2명의 支援을 받아 赤城里마을 北쪽에 있는 벌재(慶尙北道와 忠淸北道 道界에 위치한 고개)로 진출하여 丹陽쪽에서 南下하는 敵情을 수집하는 임무를 스스로 맡았다。

한편 제2중대장 孫章來 중위는 地形을 판단한 결과 이날밤 이곳에서 宿營하려면 지역내에 東鳥國民學校가 있어 敎室을 이용하면 좋겠으나 敵이 언제 이곳에 侵攻할지 모르는 判局에 安逸하게 잘 수 없다고 결심하고 東鳥面 支署 後面의 稜線 一帶에 우선 防禦陣地를 점령하기로 構想하고 있었다。

14.00경에는 主力부대와 本隊가 도착하였는데 대대장 裵東傑 소령의 의견으로서는 아직 이렇다할 敵情이 正面에 없는데 구태여 宿營을 벌판에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면서 國民學校에서 宿營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내일 다시 行軍하려면 그래도 敎室內에서 자는 것이 兵士들의 疲勞를 회복하는데 좋을 것이라는데 생각이 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대장은 결국 작전장교인 제2중대장의 건의를 받아 대대가 우선 全面 防禦陣地를 점령하기로 하고 壕 構築作業에 着手하는 동시에 황장山 계곡 일대에 搜索隊를 파견하여 敵情을 蒐集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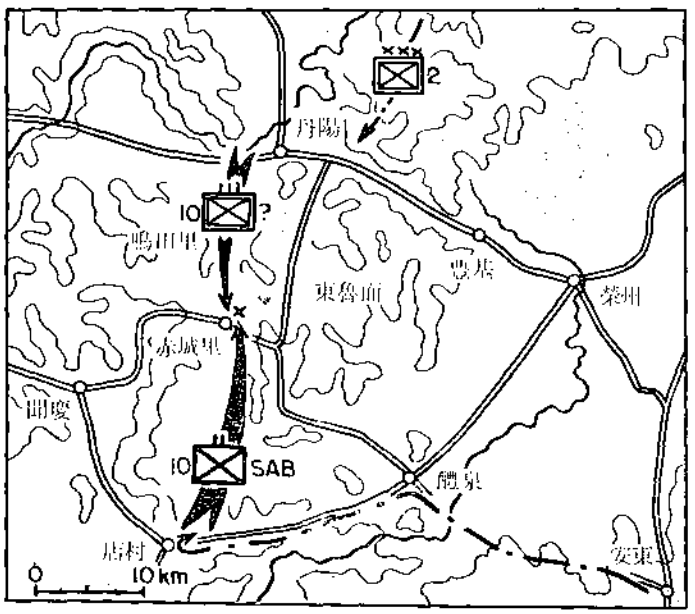
陣地工事는 3~4명의 共用壕를 파게 하였는데 北쪽은 제2중대, 東쪽은 제1중대, 西南쪽은 제3중대로 각각 담당케 하고 本部는 支署에 자리를 잡았다。 支署의 주위에는 2m 높이의 石築이 構築되어 있었고 要所에 콩크리트 토치가가 마련되고 있었다。그리고 東側에는 1m 높이의 石壁이 構築되어 있어서 陣地는 그럭대로 強度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 陣地는 盆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敵이 周圍의 稜線에서 攻擊을 加하는 경우 그야말로 〈독안에 든 쥐〉 格이나 다름 없었다。더구나 敵이 迫擊砲로 集中射擊을 하게 되면 이를 막아낼 方途가 없는, 防禦上의 不利點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支署員 16名과 靑防隊員 42名이 本部의 防禦正面을 擔當하였는데 靑防隊員들은 99式 日製小銃에다 實彈은 挺當 5發미만을 휴대하고 있었다。

20.00경에는 벌재쪽에서 銃聲이 울려왔다。 靑防特攻隊長 林煥琦는 洞里의 老人 2명을 벌재에 보내어 敵情을 탐색시켰던 바 그들의 歸還報告에 의하면 我軍伏哨所에 가보니 아무도 없고 해서 그냥 돌아왔다고 하였다。마침 이때 靑防隊員 1명이 들아와서 報告하기를

상황도제25호 赤城里戰鬪



敵이 이곳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하면서 自己와 함께 있던 軍人들은 敵과 交戰하였는데 그후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고 하였다。

한편 北共 제10사단의 연대兵力은 발재를 넘어오다가 我 경계부대와 조우하게 되자 我軍이 赤城里에 駐屯하고 있음을 察知하고 兵力들을 東西南北으로 機動시켜 四周의 要部稜線을 占領하였는데, 이곳에는 지난해 그들이 侵攻하였을 때 內務署가 東鳴面에 位置하면서 自體警備를 하기 위하여 稜線周圍에 構築한 交通壕가 그대로 남아 있어 敵들은 쉽사리 良好한 陣地를 획득하여 我陣地를 四方에서 包圍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我軍들은 敵의 이와같은 行動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1월 13일 : 壕속에서 지루한 하루밤을 새운다는 것은 그리 容易한 일이 아니었다。 氣下 18°C의 寒氣속에서 거이 뜬 눈으로 새우게 되었다。

05.00경 北쪽인 赤城里와 東側에서 꽹과리와 북소리가 울리기 시작한 것을 信號로 하여 東쪽과 北쪽에서 機關銃, 小銃射擊이 我 陣地에 집중되었다。

이와같은 사격은 꽹과리와 북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약 30분간 계속되더니 05.30부터는 敵의 近接攻擊이 시작되었는데 그 第一波는 東쪽에서 我 제1중대 正面에 加하여졌다。

05.00경이지만 視界는 積雪로 因하여 50m 거리는 觀測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我軍은 敵의 攻擊波를 근거리까지 접근시킨 다음 M1 小銃과 M2 칼빈小銃으로 요격하였다。

敵도 多發銃으로서 요란스럽게 攻擊하여 왔지만 我軍 역시 M2 칼빈小銃을 爲始한 機

銃, 自動小銃으로 應射하니 敵의 一次攻擊은 06.00경에 많은 屍體를 남기고 그들의 陣地로 退却하고 말았다。

大隊長 以下 全將兵은 敵의 우세한 攻擊에 당면하여 緊急會議가 開催되었는데 大體的인 의견은 이곳을 철수하자는 案이었다。 왜냐하면 我軍은 후속부대가 없는 探索部隊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敵과 交戰할 必要性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以上 對敵하다가는 全滅을 免치 못할 것이라는 假定과 아직까지 南쪽으로는 退路를 開拓할 수 있다는 結論을 펴기도 하였다。

한편 대대장도 당시의 危機를 벗어나고 싶은 것은 솔직한 心情이었는데 美顧問官들도 대대장의 결심을 促求하게 하였다。 대대장의 판단으로서는 이곳을 탈출할 수는있겠지만 그 대신 많은 희생을 각오해야만 하였다。 또한 敵이 東西北의 三面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南쪽의 我 補給路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을理가 없었다。 그래서 後退하다가 죽을바에야 죽던 살던 陣地에서 支撐해 보기로 결심하고 陣地死守를 命令하였다。 그리고 대대장은『날이 밝게되면 我 증원부대가 오게 될 것이다』하면서 部下들을 격려하였다。

적의 제2차 공격은 제2중대 정면인 赤城里쪽에서 加하여 왔다。 이미 어둠이 트이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我軍의 사격은 照準射擊으로써 敵兵들을 擊殺하였으나 숫적으로 우세한 敵은 희생을 무릅쓰고 波狀的으로 육박하여 왔다。 중대장 孫章來 중위는 대원들을 격려하면서 3.5″ 로켓트砲로 敵을 직접 사격하기도 하고 경기관총 사수가 고장排除를 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즉시 배제시켜 사격을 하는 등 분전을 하였으나 06.40경에 中間 소대정면의 陣地가 돌파되었다。

그러나 대원들은 陣地內에서 肉薄戰을 전개하였는데 銃劍으로 격투를 벌리는가 하면 突破한 敵병들에게는 제3중대와 左右의 인접소대들이 M2 칼빈으로 集中打를 加함으로써 敵의 突破口를 봉쇄하고 原陣地를 回復하였는데 陣地에 접근하였던 敵兵들은 모조리 擊滅되었다。 이 肉薄戰鬪에서 我軍은 若干名의 損失이 있을뿐 全대대는 健在하였다。

敵은 두번째의 波狀攻擊이 막대한 희생자만 내고 실패하자 이번에는 제3중대 정면인 西쪽과 西南쪽에서 공격을 가하여 왔다。 그러나 그 正面은 敵이 攻擊하기 不利한 곳이었다。 왜냐하면 西南쪽은 支署의 石築防壁에다 토치카陣地가 있었고, 또 西쪽도 공격하여 오려면 일단 露出된 밭으로 機動하지 않을 수 없었던바 대대의 強力한 火力을 遮蔽할 掩蔽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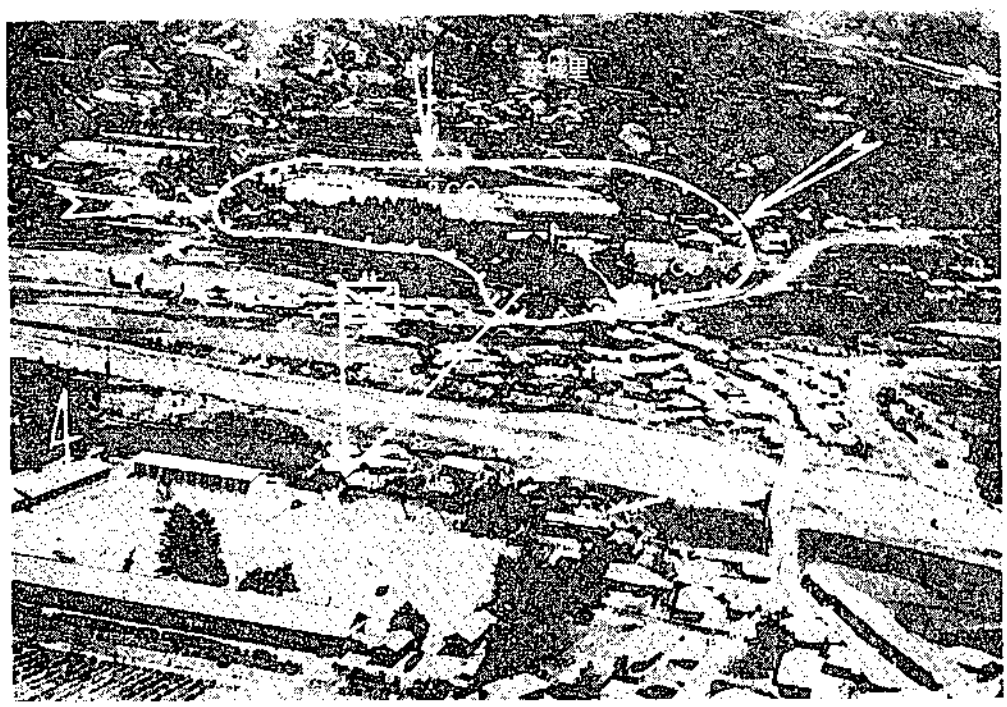
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敵은 躍起가 되어 일거에 눈앞에 있는 我軍들을 全滅시키려고 무모하게 多發銃을 휘두르며 攻擊하여 왔는데 이들도 我陣前 50m를 넘지 못하고 많은 屍體를 남기고 또 退却하게 됨으로써 我 將兵들에게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必勝의 信念을 더욱 갖게 하였다。

이 싸움에는 대대장을 위시하여 副官 許泰運 중위, 情報官 韓新海 중위, 補給官 李國英 중위 등 參謀에 이르기까지 本部正面의 敵을 陣前에서 擊滅하였다。

이와같이 3次의 攻擊에 失敗한 敵은 晝間에는 더 以上의 攻擊戰을 斷念하고 四方에서 神經質的인 射擊을 加하였고 10여발의 迫擊砲射擊이 있었으나 不發彈이 大部分이라 被害가 없었다。

敵이 發射한 砲彈은 82mm 迫擊砲였는데 多幸히도 그들은 砲彈이 不良한데다가 그마저 彈藥이 없어서 더 以上 射擊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미루워보아 我軍으로서는 天祐神助나 다름 없었다。만약 敵이 迫擊砲로서 我陣地에 地域射擊을 加한다면 대대는 앉아서 이를 막아낼 方途가 없었던 것이다。



<赤城里의 全景과 當時의 狀況>

이날 美 顧問官들은 本隊에 대하여 無線으로 呼出하였으나 午後에야 交信이 됨으로써 支援을 要請하였다。

1월 14일 : 전날 밤에도 敵은 四方에서 꽹과리와 북, 그리고 呼角을 불면서 部分的인 공격으로 我軍을 괴롭히다가 이날 01.00에는 四方에서 全面的으로 一齊히 공격을 가하여 왔다。

彈藥의 휴대량을 勘案한 대대장은 彈藥을 節約할 必要性을 느끼고 各 兵士들에게 敵이 10~20m의 至近距離에 이르렀을 때 正確한 사격을 하라고 強調하는 한편 결정적인 時期에만 手榴彈을 사용하도록 指示하였다。

敵도 前日의 막대한 損失때문인지 攻擊威勢는 弱化되었으나 執拗하게 攻擊을 계속하였다。我軍들도 이제는 침착하게 사격을 함으로써 陣前에는 屍體들이 즐비하게 깔리기 시작하였다。이리하여 交戰은 날이 밝을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대대가 始終 침착하게 陣地를 堅守함으로써 敵의 企圖를 좌절시키고 말았다.

날이 밝을때까지 계속된 交戰은 敵으로서는 마지막 決戰企圖였는데 그것이 좌절되고 말았다。

날이 밝자 09.03에는 我 偵察機가 飛來하여 자세한 偵察을 하고서 돌아갔다。약 30분 후에는 F—51 戰爆機 4機編隊가 上空에 이르렀는데 이를 본 我將兵들의 士氣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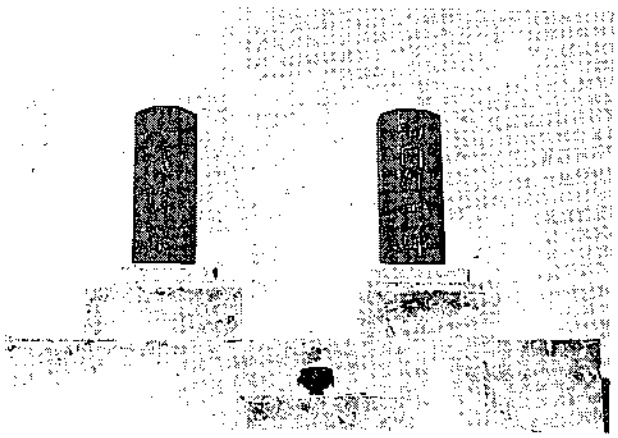
戰爆機들은 美 顧問官들의 無線誘導를 받아 敵陣에 네이팜彈과 機關銃彈으로 洗禮를 퍼부었다。

이들 戰爆機들이 모든 攻擊을 끝내고 사라지자 이번에는 헬리콥터가 飛來하여 實彈을 東魯國民學校 校庭에 投下하였고 또한 C-Ration을 補給하였다。

我軍들이 補給品을 운반하기 위하여 支署에서 學校運動場으로 躍進해 나가는 途中 木橋를 건느는데 敵이 集中射擊을 加하여 美 連絡장교인 Harrison 소령과 通信兵이 부상을 당하였다。敵은 學校에 追擊砲彈을 數발 쏘았는데 그中 1發이 校舍지붕에 命中하여 校舍가 파괴되었다。

그러나 我軍과 靑防隊員은 犧牲을 무릅쓰고 決死的으로 이들 補給品을 모두 옮기는데 成功하였고 이때 제2차로 F—51 戰爆機 4臺가 支援次 來援하여 敵陣을 強打함으로써 敵은 침묵을 지키게 되었다。

我軍들은 식량과 탄약을 보급받고서 士氣가 올라가 앞으로 얼마던지 싸울 수 있는 마음



<住民들이 세운 戰勝碑와 慰靈碑>

의 준비가 더욱 굳어졌다.

한편 美 제10군단의 本部에서는 특별공격대대가 敵에게 包圍당하여 苦戰을 면치 못하고 있자 이를 救援하고자 裝甲機動部隊를 急派시켰으나 이들이 前進途中 松坪里(陣地에서 3km 南쪽지점) 道路上에 敵이 埋設한 對戰車地雷에 의하여 先導車가 破壞됨으로써 後續車輛의 進路를 遮斷하였다。따라서 이들 增援部隊(裝甲 및 補給車輛 等 70餘臺)들은 더 以上 進出을 하지 못하였다。왜냐하면 地雷除去作業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들 增援 및 補給車輛들이 松坪里에서 이와같은 事故가 있었다는 것을 韓國軍 특별공격대대는 다음날 戰鬪가 끝나고서야 비로소 連絡됨으로써 알게 되었던 것이다。

밤이 되면서 敵은 역시 前日의 攻擊手法대로 공격을 再開하여 왔는데, 我軍은 實彈이 그런대로 確保되고 휴대食糧으로 배를 채우고서 敵을 요격하였다。

我軍은 敵의 공격方法을 알고 있기 때문에 10m 앞까지 끌어당겼다가 手榴彈으로 3~4명의 蝟集된 隊形에게 던지고 이어서 다시 일어나는 敵은 M2칼빈으로 이를 射殺하였다。그야말로 鐵桶같은 全面防禦陣地였다。

支署員과 향防隊員들도 現役軍에게 뒷지 않게 가지고 있는 實彈을 모두 발사하였고 手榴彈으로 敵兵들을 쓰러뜨렸다。

1월 15일 : 날이 밝으면서 敵의 공격은 中止되고 말았다。敵으로서는 그간의 헤아릴 수 없는 大損失로 因하여 더 以上 攻擊을 지속할 能力이 없었다。따라서 敵은 일부 兵力의 掩護隊를 남기고 北쪽 丹陽方向으로 後退하였고 11.30頃에는 이들 掩護部隊를 마저 退却함으로써 만 2일에 걸친 赤城里地區 戰鬪는 韓國軍 특별공격대대의 一方的인 大勝利로 끝나고 말았다。

敵兵들이 四方의 稜線을 타고 北方으로 退却하는 것을 目擊한 我將兵들은 3일만에 壕밖으로 나와서 各中隊正面에 대하여 探索活動을 전개하였는데 대대가 거둔 總戰果는 다음과 같았다。

戰 果		損 失	
사 살	1,247명	전 사	9명
포로, 군관	7명	부 상	2명
사병	72명	미군부상	2명
각종소총	370정	민간인사망	4명
박격포	82mm 2문	경찰부상	1명
		청방대원전사	7명

※ 遺棄屍體에 比하여 鹵獲武器가 적은 것은 敵의 攻擊梯隊가 後退時에 戰死者의 武器를 回收해 갔기 때문이다。

라. 전투후의 개황

전투가 끝나고 戰果가 거의 確認되었을 때 增援部隊가 도착하였는데 특별공격대대의 團長인 Haynes中領은 우선 空前의 大戰果 앞에 경탄하였고 그의 將兵들도 그들 自身이 戰果를 확인하고서도 믿으려 하지 않을 정도였다。

이와같은 大勝利의 報告에 접한 제10군단장 Almond 소장은 헬리콥터로 참모들을 대동하고 飛來하여 裵東傑 소령의 報告를 듣고 極口讚揚하면서 가장 훌륭한 장교라고 어깨를 두드렸다。

한편 陸本에서도 如上한 勝戰의 報告을 받고서 副官監 李贊衡准將이 現地에 到着하여 일일히 戰果를 確認하고 돌아갔다。

1월 16일 특별공격대대는 敵 제10사단의 1개 연대를 완전 섬멸시키고 이날 美 제10군단의 명에 의하여 忠州方面으로 轉進을 하였다。

賞 勳

다음은 赤城里戰鬪에서 혁혁한 戰功을 세운데 대하여 美 제10군단장이 특별공격대대장에게 보낸 表彰내용이다。

美 第10軍團司令部 1951. 1. 31

特別攻擊部隊長 貴下

讚辭

1. 美 第10軍團에 의한 北共軍 第2軍團격멸에 있어서 특별공격부대가 성공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茲에 그 功績을 찬양하는 바입니다。

2. 특별공격부대는 그 보다 數倍나 되는 큰부대가 擔當하여야 할 地域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果敢한 機動性과 탁월한 指揮精神으로 숫적으로 훨씬 우세한 敵에게 打擊을 주었던 것입니다。여러번 숫적으로 2~3倍나 되는 敵을 打擊하였으며 비교적 적은 損害로 적의 多大數를 擊滅하였읍니다。또한 作戰地域은 험한 山岳地帶로서 冬期酷寒期였으며 將兵들에게 極甚한 困難을 주었던 것입니다。

3. 本官은 특별공격대대가 맡은바 使命을 遂行함에 있어서 成功的이었음을 致賀하는 바입니다。

美 第10軍團長

陸軍少將 Edward M. Almond

§ 參戰者의 證言

◇ 東魯面 靑防特攻隊長 林煥琦
(1971. 4. 16. 東魯面 魯隱里에서)

당시 住民들은 避難가지 않고 生業에 從事하고 있었는데 忠淸北道에서 避難온 사람들이 좀 있었다。

나는 靑防特攻隊長으로서 北共軍이 南下한다는 情報에 의하여 警察과 함께 大邱쪽으로 나가다가 松坪里에서 進駐하는 國軍을 만나서 같이 東魯面에 들어와서 특별공격대대와 같이 전투를 하였다。

우리 靑防隊員들은 支署兵力과 함께 北共軍俄式步銃 또는 99式 小銃으로 武裝하였는데 실탄은 最高 5발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쏘지를 못하고 敵을 죽일 수 있을 때만 사격을 하였다。

美軍헬리콥터가 東魯國民校에 補給品을 投下하자 우리 隊員들은 銃彈이 빗발처럼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오로지 우리가 이것을 軍人한테 갖다주어야 싸워서 이길 것이라고 믿고서 모두 運搬하는데 成功하였다。

北共軍大佐(負傷 다리貫通)를 사로잡아 대대 S—2가 訊問하는 것을 보았는데 敵의 所屬이 南海師團인데 이 部隊는 狗嶺에서 再編成하였다고 하였다。

戰鬪가 끝나고 16日 우리는 일단 三北面으로 철수를 하였다。 왜냐하면 敵이 또 나서 反擊해서 올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이때는 住民들도 함께 나왔다。

1月 20日 우리는 다시 部落으로 들어갔는데 그동안 짐승들이 北共軍屍體들을 마구 뜯어먹었다。 그래서 우리는 敵의 屍體를 큰 구덩이를 여러군데 파서 合同埋葬을 하였는데 이때 헤아린 數字가 1,247具이었다。

赤城里, 魯隱里 部落民들은 彼我의 銃彈 밑에 밖을 내다 볼 수도 없었고 마루 밑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다。 住民 4名이 犧牲된 것은 我 戰爆機가 敵이 逃亡가는 것을 飛行機에서 機關銃으로 사격할 때 집안에서 犧牲이 된 것이었다。

전투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北共軍 負傷者들을 양주막 堤川郡 德山面 이곳에서 60里가 되는까지 後送하였다고 하였다。 赤城三里와 金谷部落의 住民들이 強制로 동원되어서 약 900名(推算)을 後送하였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처음 北共軍들이 어디 있다가 赤城里로 侵攻하였는가 하면 이곳에서 西北方 30里에 鳴田里라고 있는데 여기서 行動하여 赤城里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敵의 捕虜나 避難民의 이야기가 一致되었다。

◇ 東魯面住民 李圭燮, 金鍾昌。趙相五, 鄭昆煥, 丁夏鎭, 權順吉, 南東喆
(1971. 4. 16 現地에서)

우리가 알건데 赤城里 전투에서 우리 國軍이 大勝利를 거둠으로써 우리 住民 500名들의 生命과 財產을 保護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地方의 機關長과 有志들이 모여서 이 작은 마을이지만 戰勝記念碑를 세워서 永遠히 後世에 남기고 또한 자라나는 2世國民들에게 反共과 愛國의 精神을 심어주고자 뜻을 모았다。 또한 大韓靑年團員과 靑年防衛隊員들이 이 고장을 지키다가 이 땅의 守護神이 된 同志들의 慰靈碑를 함께 세울 것이다。 現在 碑石이 唐村에서 作業中에 있는데 5月 20日에 除幕式을 갖기로 하였다。

10. 海軍 YMS—510艦 仁川 奇襲上陸戰(1951년 1월 25일 부터 1951년 1월 27일 까지)

가. 참가 함정 및 주요 지휘관

YMS—510 艦장 대위 咸 德 昌

나. 전투 경과의 개요

1951년 1월 초, 我軍이 서울과 仁川에서 南으로 後退한 직후에 YMS—510艦(장, 咸德昌대위)은 仁川앞 海域의 봉쇄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월 11일에 敵이 장악하고 있는 仁川港에 돌입하여 피난민 590여명을 구출하여 德積島에 수송하였으며 그 뒤 25일에는 또다시 仁川港內에 돌입하여 仁川機械製作所 一帶에 함포사격을 加하였고 연근 島嶼를 왕래하는 敵의 帆船 10척도 격침한 바 있었다.

이 무렵 西海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UN해군에서는 地上에서 我軍이 後退한 뒤의 서울 仁川지역의 敵情을 파악하지 못하여 암중모색하고 있던 터여서 YMS—510艦의 용맹스런 활동을 들게된 제95機動部隊사령관(CTF 95) A. E. Smith소장은 YMS—510함장 咸德昌 대위를 招致하여 仁川地區의 보다 자세한 情報수집을 요청하였다. 이에 咸대위는 仁川에 特攻隊를 상륙시켜 敵을 사로 잡아오자는 제의를 하여 합의를 보았다.

1월 27일 美 함정으로부터 40mm砲彈 1,000발과 20mm砲彈 2,000발의 보급을 받은 510함은 勇躍 06. 58—07. 36間의 滿潮때를 이용하여 仁川港內로 침투하여 들어갔다. 上陸豫定地인 仁川機械製作所 앞에 이르자 510함의 전 포문이 터졌으며 操舵士 金珉九 三等兵曹가 거느리는 4명의 特攻隊는 救命 Boat로서 상륙을 감행하였다.

이 지점에는 敵이 약 1개소대 병력으로 交通壕를 구축하고 경비를 하고 있었으며 特攻隊가 상륙하자 敵은 치열한 사격을 加하기 시작하였다. 彼我간에 불뿜는 사격전을 전개하던 끝에 特攻隊들은 일제히 수류탄을 던지면서 壕속에 뛰어들었다. 母艦으로부터 계속되는 지원사격과 특공대의 肉彈공격에 壓倒를 당하게된 敵은 마침내 패주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敵을 一時에 추격한 특공대는 北共軍 1명과 中共軍 1명 도합 2명을 사로 잡는데 성공하였으므로 피투성이가 되어 510함에 귀함하였다. 이

싸움에서 위의 포로 획득 외에도 敵 사살 47명, 小銃 2정, 重機 4정을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위와 같은 YMS—510함의 1월 25일과 27일 2次에 걸친 활약에 대하여 Smith소장으로부터 「Well done to R.O.K YMS 510」이라는 褒彰電報와 아울러 다음과 같은 엣세이지가 전달되었다.

『今般 510함의 혁혁한 무훈은 전파를 타고 순식간에 널리 알려졌음 余는 韓國戰史에 찬란한 한 페이지를 장식한 510함의 무훈을 全軍에 傳達하니 각자 일층 분발하라.』

이 싸움에 참가한 特攻隊의 名單은 다음과 같다.

操舵 三等兵曹 金 琪 丸
信號 一等水兵 高 萬 吉
通信 一等水兵 李 九 華
甲板 一等水兵 金 容 洙
甲板 一等水兵 金 容 澤

(註) (이상은 金琪丸의 진술을 근거로 하였으나 착오가 있을지도 모름)

§ 參戰者의 證言

◇YMS—510艦장 咸德昌대위
(1965년 10월 26일 南方開發公社 職員)

1951년 1월 25일에 우리 배(510함)는 月尾島 쪽으로부터 40mm機關砲를 發射하면서 들어 갔다. 仁川機械製作所 앞에서 상가 지점에 사격을 加하였으며 한편 北共軍의 배치상황도 확인하였다.

그 뒤 Smith소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찾아갔더니 「어떻게 敵情을 알 수 없느냐」는 것이었다. 本人이 「敵을 사로 잡아오면 된다. 내일 아침 9시까지 잡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항공기의 지원도 약속받았다.

27일 아침 밀리시부터 속력을 높추어 들어가면서 全火力으로 사격을 계속하였다. 특공대 5명이 상륙을 감행하여 肉彈戰 끝에 敵 2명을 잡아왔다. 이 포로를 美艦에 인계하였다.

포로가 船間室에서 나오자 美艦艇의 함포사격이 시작되었다.

◇YMS—510艦 操舵士 특공대장 金琪丸 三等兵曹
(1972년 5월 26일 상사 해군본부 주임상사)

1951년 2월 27일 함장님으로부터 仁川機械製作所 쪽에 주둔하고 있는 敵의 병력과 裝備를 확인하고 敵을 잡아 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水兵 중에서 4명을 선발하여 특공대를 구성하였다. 그들에게 기습작전에 대한 임무와 행동계획을 지시하고 나서 救命袋를 타고 목적지에 상륙하였다.

해변에 도착하자 우리는 3m 간격을 두고 포복으로 전진하였다. 敵으로부터 熱烈한 집중사격을 받았으나 우리는 수류탄을 던지고 敵陣에 돌입하였다. 육박전이 벌어진 끝에 敵은 다침내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굴속에 숨어 있는 敵병 2명을 사로잡고 전원 무사히 귀함하였다.

11. 海軍의 第2次 仁川 上陸作戰 (1951년 2월 1일 부터 / 1951년 2월 10일 까지)

가. 참가 함정 및 주요 지휘관

PC—701艦	장 소령 盧明鎬	YMS—302艦	장 대위 洪元杓
德積島駐屯部隊	장 소령 金鍾琪	YMS—306艦	장 중위 崔炳起
YMS—301艦	장 대위 朴基政	YMS—310艦	장 대위 牟禮振

나. 전투 전의 개황

1951년 1월 5일 我軍이 仁川에서 철수한 뒤 敵은 北共軍과 中共軍 各 1개대대 합계 700명의 병력으로 仁川市를 占據하였다. 그들은 月尾島에 82mm野砲 8문과 그 밖에 迫擊砲 重機關銃 등으로 堅固한 砲台를 구축하였으며 戰車 1台까지 配置하고 있었다。

또한 同市의 中央의 氣象臺가 있는 △220에도 砲台 2개를 構築하였고 海岸線 一帶에는 다수의 地雷를 埋設하였으며 高地와 海岸地帶 사이는 塹壕로서 連絡하고 있었다. 그리고 敵의 聯隊本部는 富平에 位置하고 있었으며 大隊本部와 指揮所는 我軍의 艦砲射擊으로 말미암아 그 定處를 갖지 못하고 隨時로 이동하는 形便이었다。

한편 韓國 艦隊는 PC—701함(장, 盧明鎬 소령)을 旗艦으로 하여 YMS—310함(장, 咸德昌대위), YMS—301함(장, 朴基政대위), YMS—302함(장, 洪元杓대위), YMS—306함(장, 崔炳起중위), YMS—310함(장, 牟禮振대위) 등이 仁川 外港과 江華島 海域을 封鎖하면서 警戒任務에 從事하고 있었으며 UN艦隊의 美 巡洋艦 Helena號(CA75)와 驅逐艦(DD—702) 그리고 英國 巡洋艦인 Belfast號 등 제95.14 기동분대가 仁川 外港을 遮戈하면서 수시로 仁川 市內에 艦砲射擊을 集中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 地上軍은 水原에서 永登浦를 攻擊 중이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2월 1일에 PC—701함은 西海地區의 제95.14 기동분대와 協同作戰을 遂行하라는 作戰命令을 받고 06.00에 鎭山을 출항하여 2일 10.50에는 德積島 前洋에 到着한 다음 3일 11.50에는 敵情을 把握하기 위하여 敵의 장악에 있는 仁川 港內에 突入하여 月尾島 前方 1,000Yds 地點에 肉迫하여 敵의 砲台와 哨舍에 砲擊을 加하여 이를 粉碎하였다。이 戰鬪에서 敵의 應射로 말미암아 PC—701함의 主砲長 崔石麟 兵曹長이 右腿部로부터 大腿部를 貫通하는 重傷을 입었으며 操舵士 林仁正 水兵이 輕傷을 입

었으나 重傷者는 곧 美 巡洋艦 Helena號로 수송 加療케 하였다。

한편 仁川 港外에 있는 德積島에는 駐屯部隊長 金鍾琪 해군 소령이 1개 중대의 海兵隊를 거느리고 주변의 島嶼確保와 陸地의 情報收集活動을 遂行하고 있었는데 收集된 情報에 의하면 地上의 敵은 我軍의 攻擊으로 서울로 後退 중이며 仁川 市內의 敵도 크게 動搖를 일으키고 있음이 判明되었다。

때마침 앞서 仁川에 奇襲을 敢行하였던 PC—701함이 德積島에 寄港하자, 德積島 駐屯部隊長 金鍾琪 소령은 同 艦에 便乘하여 仁川港內로 再次 侵入하여 敵情을 探查하게 되었고 艦長 盧明鎬소령과 金鍾琪소령은 이 자리에서 德積島 駐屯 海兵隊 兵力을 仁川에 기습 상륙전을 敢行할 計劃을 구상 협의하게 되었다。

2월 8일 美 巡洋艦 Helena號에서 上記 兩人은 仁川의 敵情을 判明하고 上陸에 관한 협의를 하게 되었으며 이 결과 다음과 같은 事項의 決定을 보게 되었다。

『① 2월 10일 17.00를 期하여 德積島 駐屯 海兵隊를 仁川에 上陸시킨다。

② 上陸場所는 仁川機械製作所 앞바다로 한다。

③ UN艦艇은 上陸部隊의 援護射擊 및 航空支援을 맡는다。

④ 海軍艦艇은 上陸部隊의 輸送과 護送을 맡는다。

⑤ 上陸 後 敵의 位置를 정확히 연락하여 海上의 艦艇으로 하여금 敵의 主力을 粉碎토록 한다。』

2월 10일 作戰實施의 날은 왔다. YMS—310함(장, 咸德昌대위)은 07.00에 上陸豫定部隊인 德積島 駐屯 海兵隊를 수송하라는 命을 받고 仁川 外港을 出發하여 10.10에 德積島에 到着하였다. 그러나 島內에 散在하는 海兵隊를 召集하는데 많은 時間이 所要되었으며, 潮水關係도 좋지 못하여 約束된 時間인 16.00에 兵力을 수송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같은 急報에 接한 PC—701함장과 德積島 駐屯部隊長은 作戰에 차질이 있을 것을 念慮하여 緊急措置로서 各 艦艇에서 志願者를 모집 上陸部隊를 編成하게 되었다. 15.00에 각 함정을 集合시켜 함정에 備置된 小兵器의 數가 制限되어 있음으로 많은 志願者 중에서 上陸部隊長 金鍾琪소령과 小隊長 崔英燮 중위 외 35명 計 37명의 特攻隊가 조직되었다。

앞서 德積島에 파견된 YMS—510함에게는 그대로 海兵隊의 乘艦을 계속하여 끝나는 대로 仁川으로 向航토록 지시한 바와 같이 上記 37명의 特攻隊는 上陸艦으로 指定된 YMS—302함(함장대리, 鄭榮重중위)에 乘組하여 PC—701함과 YMS—301함 그리고 YMS—306함 등 支援艦과 더불어 16.30에 八尾島를 출발하여 一路 上陸 豫定地點인 仁川機械製作所 前方 岩壁을 향하여 出動하였다。

18.00에 前記의 약속대로 UN艦艇으로부터의 支援射擊이 시작되었으며 또한 同艦艇의 支援射擊을 받으면서 YMS—302함은 滿潮時를 利用하여 豫定地에 接岸하고 全 上陸部隊를 上陸시키는데 成功하였다。

上陸에 成功한 部隊長 金鍾琪 소령은 全 隊員을 集合시켜 다음과 같이 命令하였다。

『이제 우리들은 敵地에 있다。艦砲는 우리가 行動하는 範圍內에는 떨어지지 않게 되어 있다。너희들은 돌아가려 해도 보다시피 우리를 싣고 온 艦은 이미 離岸하고 없다。나를 믿고 나의 命令에 따라 行動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이제 海軍 上兵인 너희들을 陸戰을 위하여 訓練할

여가도 없고, 長時間에 걸쳐 指示할 여유도 없다. 너희들은 이제 이곳에서 헤어져 각자 진격을 개시하여 21.00까지 이미 392艦上에서 指示한 대로 仁川市 氣象台 高地에 集合하라。21.00까지 集合하지 않는 사람은 戰死者로 認定한다。』

마침내 特攻隊의 진격은 개시되었다. 각 隊員은 마치 우리의 大部隊가 上陸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각기 「大隊 앞으로」「中隊 앞으로」 등의 口令을 고함지르며 突擊해 나갔다. 21.00에 部隊長 金鍾甲소령은 도망치는 敵을 쫓아 氣象台高地에 도착하였는데 도중에 체포한 敵兵을 審問한 결과 敵은 우리 大部隊가 上陸한 것으로 錯覺하고 이미 退却하였다는 것이었다。

차츰 각 대원이 집결하기 시작하였다. 金소령은 그들이 도착하는 대로 高地에 불을 피우며 분주히 왔다갔다 뛰어다니며 萬歲와 軍歌를 부르게 하였다. 我軍의 士氣를 드높이는 한편 敵의 氣勢를 꺾기 위함에서 였다。마침내 全員이 集結하였으며 部隊長 金鍾甲소령은 發光信號로서 『21.00 我 奇襲上陸部隊는 氣象臺 高地를 占領함』이라는 信號를 旗艦에게 보냈다. 23.00에는 다시 1개분대를 市廳에 파견하여 이를 占領하게 하여 이곳에 部隊本部를 設置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11일 아침 東쪽 하늘은 밝아왔다. 殘雪에 뒤덮인 仁川市 거리는 要所마다 지키는 우리 特攻隊員 외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찾아볼 수 없었다. 敵은 완전히 敗走하여 버린 것이며, 不過 37명의 우리 海軍의 特攻隊는 地上의 我軍이 미처 진격하기에 앞서 仁川을 完全히 奇襲確保하였다。

07.00에는 앞서 德積島에 있던 YMS—310함이 海兵隊 89명을 태우고 到着하여 仁川의 治安確保를 맡게 되었으며 16.00에는 UN군의 選遣隊가 仁川에 突入하였으나 우리가 이미 進駐確保하고 있음을 確認하자 後事를 一任하고 되돌아 갔다。

이 戰鬪에서 우리 上陸部隊가 올린 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戰　果		경기관총	2정
사살	82명	다발총	2정
포로	1명	소총	8정
전차	1대	기타 : 탄약, 통신기, 수류탄 등	
82mm야포	3문	**損　失**	
122mm야포	1문	부상	3명
중기관총	3정		

12. 海軍 JMS—306艦의 甕津地區 戰鬪 (1951년 2월 20일 부터 1951년 2월 26일 까지)

가. 참가 함정 및 주요 지휘관

JMS—306艦 장 중위 崔 炳 起

나. 전투 경과의 개요

지난 해(1950년) 겨울 中共軍의 侵略으로 인하여 부득이 我軍이 戰線을 南으로 이동 유지하게 되자 그 틈에 敵은 黃海道 一圓에 侵入하였고 51년 1월 20일에 海州를 점령한 敵은 그 一部를 海岸線을 따라 延安 방면으로 진출시키고 다른 병력으로 黃海道 西部의 殷栗—長淵—松禾 등지를 거쳐 마침내 甕津半島와 興蝠面 等 黃海道 南部의 海岸地帶로 진출하여 주둔하게 되었다。

元來 黃海道 南部의 海域은 서울에 출입하는 關門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散在하는 大小 여러 島嶼는 우리 海軍의 확보아래 인근 육지로부터 탈출한 수많은 피난민을 수용하고 있었으며 더우기 피난 나온 靑年들로 구성된 靑年防衛隊의 Guerrilla활동의 근거지가 되고 있었다. 따라서 海岸을 점거한 敵은 그에 그치지 않고 執拗하게 島嶼로 진출하려는 의도를 노출시키고 있었다.

1951년 2월 중순 同 지역의 적의 配置狀況은 다음과 같았다。

『① 甕津郡 東南面 沙里里와 桃洞里에는 北共軍 70명이 重機 2정과 輕機 등으로 무장하고 인근 高地에 포진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바로 다주 보이는 甘島에 상륙할 목적으로 주야로 사격을 가하고 있었다。

② 甕津郡 東南面의 俗稱 솔모루里에는 北共軍 50명이 완전 무장하고 주둔하고 있었다.

③ 甕津郡 興蝠面 楮川里(俗稱 뒤내리)에는 北共軍 40명이 마을의 행길에 個人壕를 구축하고 경비중이었다.

④ 甕津郡 興蝠面 安樂里에는 완전무장한 北共軍 70명이 트치카를 구축하고 重機 1정과 迫擊砲1문으로 주둔중이었다.

⑤ 甕津面 興蝠面 石浦里(돌개리)에는 北共軍 15명이 완전무장하고 수시로 순찰 경비중이었다.

⑥ 甕津郡 眞鳥面 樂洞里(낙말리)에는 北共軍 70명이 인근 해안가에 토치카를 구축하고 경비중이었다。』

1951년 2월 20일 앞에서 언급한 東南面의 沙里里와 桃洞里에 주둔한 약 1개소대 규모의 敵은 바로 前面에 있는 甘島에 침입하려고 연일 사격을 가하고 있었는데 이 섬에는 2,000여명의 피난민과 주민이 靑年防衛隊의 보호를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었으나 위와 같은 敵의 행동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時急하게 되었다。

이에 同 海域을 경비하고 있던 JMS—306艦(장, 崔炳起중위)은 甲島 東쪽 0.5mile 지점까지 水路를 따라 깊숙히 進入하여 沙里里와 桃洞里 敵陣에 함포사격을 실시하였으며, 22일에도 02.59부터 03.39까지 同 지역에 함포사격을 실시하여 마침내 敵의 甲島에 대한 上陸企圖를 분쇄하고 말았다。

한편 興龍面 일대의 敵은 주민들로부터 양곡을 수탈하는 등 횡포가 막심하여 거의 30,000명에 달하는 피난민과 주민의 생활문제가 심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同 지역은 我軍이 확보하고 있는 龍湖島와 延坪島 등 여러 섬과는 對峙하는 位置에 있어 우리 해군함정의 행동에도 커다란 지장을 주고 있었다。

2월 23일 아침 龍湖島 앞에 錨泊중인 JMS—306艦에 同 섬의 靑年防衛隊 隊長 以下 一行 3명이 방문한 자리에서 『興龍面 一帶에 龍湖島의 靑年防衛隊를 상륙시켜 敵을 섬멸하는 동시에 주민들을 구출하려는 계획』을 협의하게 되었는데 艦長以下 이 積極性 있는 作戰構想에는 아무런 異議가 있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2월 24일 01.35에 제1차로 상륙할 靑年防衛隊 67명(A部隊라 칭함)을 태우고 龍湖島를 출발한 JMS—306艦은 07.17에 甲島 東쪽에 投錨하고 北緯 37°48′ 東經 125°39′ 지점에 상륙을 단행하게 되었다。이 奇襲的인 상륙에 성공한 A부대는 東쪽으로 진격을 개시하여 北緯 37°48′ 東經 125°26′03″ 지점을 즉시 확보하였다。

A부대를 상륙시킨 JMS—306艦은 곧 제2차로 靑年防衛隊 120명(B部隊라 칭함)을 北緯 38°48′30″ 東經 125°25′39″ 지점에 상륙시키는데 성공하였으며 B부대는 상륙하는 즉시로 東으로 진격하여 安樂里, 石浦里로 進出하자 패주하는 敵을 끈히 추격하면서 栗本里를 확보하기에 이르렀으니 그 威勢가 마치 突風과도 같았다。

이와같이 2차에 걸쳐 靑年防衛隊를 상륙시키고 JMS—306艦은 07.00부터 한 時間에 걸쳐 同面 西南部의 九月峰과 九月浦 일대에 함포사격을 실시함으로써 상륙부대를 지원하였으며 그 뒤에는 인접한 鳳鳴面에 配置된 敵이 興龍面에 加勢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10.35에 鳳鳴面의 冠角山—鷄湖洞—栗洞里 등에 함포사격을 集中하였다.

때 마침 이 지역에는 北共軍 보병 제23여단장 일행 20여명이 순찰중에 있었는데 그들 一行이 興龍面에 주재하고 있는 사실이 A부대로부터 급보되었으므로 JMS—306艦은 즉각 敵의 一行에 집중 사격을 하였으며 A부대도 배를 같이하여 敵 여단장 일행을 目標로 공격을 시작하여 마침내 전원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고 여단장이 소지하고 있던 敵의 兵力配置圖와 도치카 配置圖 등 기밀문서도 선물로 받는 결과가 되었다. 24일에 JMS—306艦이 상륙부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함포사격에 소비한 탄약은 40mm포탄 446발 이상이었으니 이 一戰의 熾烈度를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敵의 여단장 일행이 섬멸되자 敵의 주력부대는 움직을 취하지 못한 탓인지 대대적으로 A부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25일 JMS—306艦은 06.00에 UN공군에 연락하여 A부대에 대한 공중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상륙부대는 철수토록 명령하였다. 14.30에 이르러 새로이 탄약의 보급을 받기 위하여 PF—62艦 (장, 李哉協 중령)에 繫留하여 40mm 포탄 320발을 수령한 다음 15.07에 적이 집결하고 있는 德谷山 기슭의 松山里에 함포사격을 가하여 철수하는 A부대를 엄호하였다。

26일 19.30에 B부대는 철수하는 도중 安樂里 부근에서 敵과 교전을 벌리고 있었으나 인근 安樂里

—召浦里—栗木里 등의 敵이 支援할 거세였으므로 JMS—306艦은 20.00에서 20.45까지 사이에 상기 지점에 함포사격을 集中하여 B부대의 철수를 엄호하였다。

이리하여 B부대는 마침내 敵에게 억류되어 있던 良民 96명을 구출하고 무사히 철수하였다。

이 싸움을 통하여 거둔 戰果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戰　果

敵 射殺	59명	토치카 構築圖	
捕　虜	4명	通信暗號書	
노　획		兵力裝備表	
輕　機	1문	**파　괴**	
다발총	3정	輕　機	4정
수류탄	13개	車輛燒却	1臺
각종 실탄	224발	토치카	4개소
쌀	130가마니	**良民救出**	96명
敵 여단장 소지품		**損　失**	
兵力配置圖		負　傷	5명

13. UN空軍의 活動 (1951년 2월 1일부터 1951년 2월28일까지)

要旨
가. 참가부대및 주요 지휘관
나. 航續距離의 연장에 따르는 UN空軍作戰上의 隘路
다. UN空軍의 遮斷作戰과 近接支援

要 旨

UN空軍은 中共軍의 제3차 공세로 UN地上軍을 따라 北韓에서 南韓으로 撤收作戰을 展開함과 동시에 遲戰防禦를 하고 있는 地上軍에 對한 근접지원과 果敢한 遮斷作戰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敵의 南侵은 계속되어 UN軍의 撤收계획으로 地上軍이 京仁地區에서 撤收하므로써 UN空軍에서도 前方 基地인 金浦(K—14)와 水原(K—13)비행장에서 大邱(K—2)로 後退하였다。

이로써 敵 Guerrilla의 跳梁으로 말미암아 地上補給이 극히 어려워 지자 極東空軍 전투물자 空輸司令部에서는 山岳地帶에서 熾烈한 戰鬪를 계속하는 美 제10軍團에 보다 적극적인 空中投下보급을 敢行하였으며 美 제8軍에 對하여서도 C—119수송기로 空輸補給을 실시하였다。

UN空軍은 地上 戰況에 따라 大邱에서 다시 釜山(K—9)과 鎭海(K—10) 基地로 移動하였다가 이 兩飛行場에 各各 1個의 비행단을 남겨 놓고 全部 日本으로 撤收하였으니 日本에서 韓國戰線의 여러 目標에 對하여 직접 空中攻擊을 加하게 되었다。

1950年 가을 作戰中에 경험 하였던 바와 같은 作戰上의 많은 難關에 또 다시 부닥치게 되었는데 航續距離의 연장으로 전투 行動半徑에 따르는 燃料難을 해결하기 위하여 燃料補助탱크(Pylon Tank)를 裝着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로써 外部武裝(External Armament)을 搭載하였던 F—84E 戰鬪機들은 外部 武裝을 못하게 되어 全戰線에 대한 充分한 攻擊을 敢行할 수 없었다。

戰鬪 行動半徑에 따르는 航續距離의 연장으로 전투 能力이 減少된 UN空軍은 綿密하고 정확한 武裝偵察로 短時間內에 敵을 攻擊하고 日本 基地로 귀환하였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空中攻擊이 제한되었으므로 敵의 MIG機들은 鴨綠의 安東近方에 있는 작전 基地에서 航續距離가 미치는 곳까지 韓國의 西北部上空을 侵襲하였으나 UN空軍은 빈틈 없는 작전계획을 세워 適時 適所에 戰鬪邀擊機와 戰爆機를 出擊시켜 UN軍이 再反擊을 할수 있도록 全力을 다하였다。

UN軍은 空地 立體作戰의 實效를 거두어 2月 21日에 原州—橫城 그리고 寧越—平昌線을 따라서 漢江 東쪽의 敵軍을 섬멸하는 『Killer 作戰』에 綿密한 근접지원과 遮斷作戰으로 戰況을 好轉시켰으며 2月 23日에 前進基地로써 제49전투 비행단의 大部分의 大隊들이 日本 Tsuiki에서 大邱에 돌아와 前方地域에 出擊하기 위한 작전 준비를 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大邱(K—2)基地가 다시 前方基地

로 되었는데 이곳에서 戰線으로 出擊하는 전투 폭격기에 燃料를 再補給하였으며 그로 因하여 燃料難이 多少緩和되기에 이르렀다。

2月末에는 제40비행대대와 제39전투 邀擊大隊에서 派遣隊를 水原(K—13)基地에 보내게 되므로써 日本基地에 比하여 200mile이나 戰線가까이에 位置하게 되었으니 後方地域의 氣象狀況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도 水原(K—13) 비행장에 派遣된 전투기들 만으로도 能히 緊急한 근접지원에 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期間을 通하여 UN空軍은 도합 18,710回의 出擊을 記錄하였는데 이중 近接支援이 3,002回였고 遮斷出擊이 6,178回였으며 輸送支援은 도합 6,690回의 出擊이었다。

가. 참가부대및 주요 지휘관

美 極東공군 사령관	중장 George E. Stratemeyer
美 제5공군 사령관	소장 Earle E. Partridge
美 極東공군 전투물자 空輸사령관	소장 William H. Tunner
美 極東공군 폭격 사령관	준장 James E. Briggs

나. 航續距離의 연장에 따르는 UN空軍 作戰의 險路

제27전투 폭격전대는 大邱(K—2)基地 보다도 Itazuke 비행장에서 훨씬 훌륭한 滑走路와 附屬建物 그리고 充分한 整備施設등을 가지고 作戰에 임할수 있었으나 戰線 目標 地域까지의 距離가 190mile이나 멀어져 있었으므로 F—84E. 전투기의 戰鬪能力이 많이 減縮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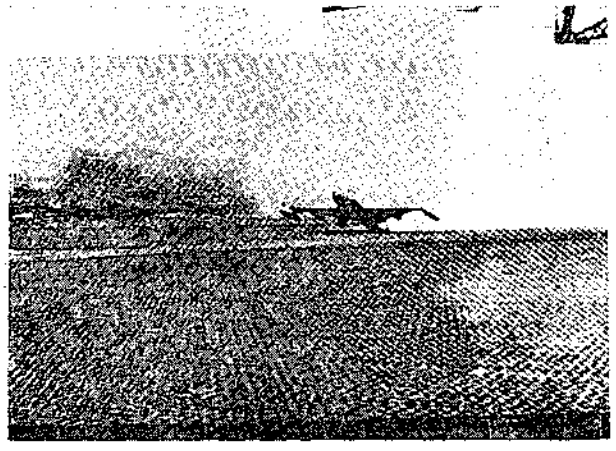
航續距離에 따르는 燃料難을 해결하기 위하여 左右翼에 裝着한 外部武裝(External Armament)中, 右翼의 武裝을 떼어 버리고 그곳에 燃料補助 탱크(Pylon Tank)를 附着하는 등 온갖 苦心끝에 어느 정도 燃料難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方法으로 몇 차례 試驗하여 본 다음에 표준 積載定量으로 1個의 Pylon Tank에 150 Gallon의 燃料 積載와 110 Gallon의 Napalm Tank 1個를 싣기로 하였다。

2月初에 있었던 武裝偵察을 위한 出擊에는 1機가 Pylon Tank에 150 Gallon의 燃料를 積載하였고 左翼에 5 Inch 高性能 航空機 Rocker 2個, 또는 110 Gallon의 Napalm Tank 1個를 싣고 出擊하였다。

그러나 滑走路의 延長이 上昇함에 따르는 離陸거리가 연장되므로써 Pylon Tank 積載量을 100Gallon으로 減少시키지 않으면 안되었고 2月末에는 外部武裝을 積載한 F—84E 전투기에 다시 Pylon Tank를 裝着할 수 없었기 때문에 航續距離를 短縮하지 되었다。

日本의 Itazuke와 Tsuiki에서 作戰하던 F—80 전투기 戰隊들도 外部 武裝으로 因하여 航續距離와 武裝積載(Armament Loading) 문제에 直面하게 되었는데 제8전폭 전대의 총 비행중 距離의 85% 以上이 戰線과 작전基地間의 비행인데 전폭기가 目的地까지 往復에 所要되는 연료 關係로 할 수 없이 武裝積載量을 減少시키는 道理 밖에 없었다。



<Jet 보조滑走路>

日本의 Tsuiki에 있던 제5전투 邀擊비행단은 또 다른 臨路에 逢着하게 되었으니 곧 Tsuiki 비행장은 日前武인 까닭으로 5月 以前까지는 滑走路가 7,000 Feet로 연장될 可望이 없었고 봄이 가까워지고 날씨가 점점 따뜻하여 지자 F—8) 전투기가 離陸하는데 Jet 補助 離陸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 結果로 噴出되는 연기 때문에 編隊離陸이 위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航續距離의 문제로 말미암아 時間 제한을 받게되어 日本에 基地를 두고 있는 Jet 전투기들은 目標 上空에서 필요한 시간 만큼 지체 할수 없었으며 따라서 目標物을 확실히 파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武裝도 완전히 積載하기 힘들게 되었다。

이와 같은 困境에 處하여 있던 제49전폭전대는 不連續線의 氣象圈를 形成하고 있는 2月에 단지 1,835回의 有效 出擊을 실시 하였으며 天氣로 因한 장애로 많은 事故까지 誘發하였다。

그러나 2月 23日에 제49전투 폭격전대의 各 大隊들이 日本의 Tsuiki에서 大邱(K—2)로 前進되었기 때문에 大邱의 軍需 기구가 向上 되었다。

그 反面에 大邱基地의 氣象狀態가 不良한 탓으로 空軍작전에 많은 방해가 되었지만 韓國內에 前進基地가 없었던 까닭으로 2月中 제5空軍에서는 大邱基地를 前方 地域의 出擊을 위한 基地로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8전투 폭격전대와 제51전투 邀擊 전대의 戰鬪機들은 Itazuke와 Tsuiki에서 韓國戰線에 對한 2回의 出擊 임무를 賦與받고 離陸하여 各機마다 1回의 임무를 수행한 다음에 大邱(K—2)로 着陸하여 다시 攻擊 目標에 對한 작전 부리핑(Briefing)을 받는 한편 再武裝과 燃料 再補給을 받고 남은 1回의 出擊 임무를 마치는 즉시로 本 基地로 귀환하였는데 때때로 再出擊의 임무를 遂行할 때에 많은 時間이 所要된 戰鬪機들은 大邱(K—2)에 다시 着陸하여 中間의 燃料를 보급 받은 연후에 日本으로 돌아갔다。

최초에는 제19전폭전대의 人員이 燃料 再補給과 再武裝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들 人員은 每日 6시간에 걸친 근무로써 平均 60回의 出擊을 支援하였다。

이와 같이 UN空軍은 航續距離 연장에 따르는 번거러운 작전을 하고 있는 동안 UN地上軍의 再反擊으로 戰況이 好轉되어 2月末에는 水原(K—13)을 再奪還하게 되었고 이로 因하여 제35전투 邀擊전대에서도 水原(K—13)비행장에 派遣隊를 進駐시켰는데 제39전투 邀擊大隊와 제40전투 邀擊大隊에서 各各 2臺 또는 4臺의 戰鬪機가 派遣되었으며 F—51전투기를 整備하고 再武裝시킬 人員도 아울러 進駐하게 되었다。

이러한 派遣의 前進조치를 取한 결과 同一한 目標 地域을 每日 4回에 걸친 出擊을 하게 되므로 조종사들은 地形에 慣熟되어 地上目標에 쉽사리 接近할 수 있었다。

한편 제12, 제15, 제45偵察大隊는 모두 2月 25日에 創設된 새로운 偵察部隊이며 제543전술지원 전대와 제162및 제8전술 偵察大隊가 다시 改編되어 武裝偵察을 실시하였다。

또한 비상 조치로서 2月末에는 제4전투 邀擊戰隊의 제334 大隊를 臨時로 大邱(K—2)에 進駐시켰고 제336 大隊는 水原(K—13)에 派遣시켰다。

다. UN空軍의 遮斷作戰과 近接支援

UN空軍의 制空權의 掌握은 美제5空軍이 日本으로 撤收하게 되어 극히 어려워 졌는데 특히 西北韓의 上空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제4전투 邀擊戰隊의 Satre Jet 戰鬪機들이 日本으로 移動하자 多數의 敵 MIG戰鬪機들이 UN空軍의 遮斷攻擊을 방해하게 되었고 鴨綠江 沿岸地域을 撮影하러간 RF—80 偵察戰鬪機를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이 空中 攻防의 形勢가 逆轉하게 되자 美제5空軍에서는 2月 中에 겨우 2台의 敵機를 격추하였을 뿐이었는데 그중 敵機 1台를 격추한 것은 제67전폭대대의 F—51 (Mustang)이었다。 이때에 조종사가 平壤 근처에서 軍列車를 공격하고 機銃掃射의 低空進入으로부터 上昇하다가 蘇製 舊式 항공기인 YAK—9戰鬪機가 前面에서 F—51(Mustang) 전폭기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發見하자 곧 機銃으로 擊墜시켰던 것이다。

이와같이 2月中에 敵의 空軍은 비록 상당한 規模로 效果的인 反擊을 敢行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勢力은 차츰 強盛一路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이 결과로 UN空軍의 遮斷作戰에 많은 妨害를 받게 되었는데 敵 전투기의 反擊이 심한 地域에 強力한 전투기를 投入하여 B—29爆擊機를 보호할 目的으로 2月 5日 極東空軍 司令官 George E. Strateme-yer 중장은 제5空軍 司令官 Earle E. Patridge 소장에게 命令하되 『韓國 北西部 地方에 必要한 遮斷攻擊을 敢行하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B—29폭격기 조종사들에게는 『韓國北部 中央地域과 北東地域에 遮斷攻擊을 하라』는 제5空軍 司令官의 命令이 下達되었다。

이러한 遮斷攻擊中에 B—29 폭격기들은 敵 MIG機의 공격을 回避할 道理가 없었다。

즉 2月 25日에는 B—29 폭격기 4台가 順川 操車場을 공격 하였는데 이때에 MIG機 4台는 護衛機가 없는 B—29 폭격기를 집중 공격 하였으나 마침내 失敗하였고 B—29 폭격기 射手가 發射한 총탄에 MIG機 1台가 擊墜되었다。

더구나 敵의 MIG 전투기 공격을 받고 있는 B—29 폭격기들은 航續距離의 연장으로 말미암아 大槪를 폭격할 만한 위력있는 폭탄을 積載하고 비행할 수가 없었으므로 2月 26日 제5空軍司令官 Earle E. Patridge 소장은 韓國의 西北部를 遮斷攻擊하라는 任務를 免除토록 하여 달라고 極東空軍 司令官

George E. Stratemeyer 중장에게 要請하여 그 승인을 얻게 되었다。

이리하여 韓國의 西北部에 對한 遮斷공격은 原來 極東空軍의 B—29 폭격기들이 담당하게 되었다.

極東空軍에서는 타이존 폭탄(Tarzon bomb)공격을 하기에 적합한 目標를 찾아서 몇 차례 훌륭한 戰果를 거두었는데 2月 1日에는 제307 폭격전대의 폭격기 4台를 1編隊로 하여 洪原에서 端川으로 通하는 주요한 鐵橋의 徑間(Span)둘을 끊어 버렸으며, 2月 11日에는 無線 操縱되는 6ton의 폭탄 1個를 投下하여 江界에 있는 주요한 徑間(Span) 2個를 폭파하였다.

이에 對하여 極東空軍 司令官 George E. Stratemeyer 중장은 정확한 폭격으로 얻은 戰果에 찬사를 보냈다。

제452폭격전대의 B—26폭격기들도 敵軍의 集結地와 건물 및 보급품 集積所를 폭격하는 이외에 교량과 교통시설 目標에 對하여 強烈한 爆擊을 集中敢行하였다。

2月 中에 B—26 폭격기가 遮斷出擊 할때에 低空에서 500LBS와 1,000LBS의 機動防禦 폭탄(Para-demolition bomb)과 遲延信管을 가진 在來式 一般用 폭탄을 敵陣에 投下하여 많은 피해를 주었다。

한편 韓國 東北地域에서 敵의 大大的인 移動 隊列을 捕捉한 極東空軍에서는 제5空軍에 命令하되 『2月 7日부터 며칠 동안 계속하여 이 地域을 集中的으로 空中攻擊하라』고 하였으며 제5空軍은 2月 13日 단 하루에 敵의 차량 318台를 파괴하는 記錄을 세웠다。

또한 2月 14日 제5空軍은 極東空軍에게 새로운 武裝偵察 方式을 提示하였다。

즉 특수공격과 계속적인 같시 지역에 對한 出擊을 斷行하여 各근 지정된 전투비행 전대에게 맡기는 方式인데 이러한 方式은 조종사들이 1個 地域에 慣熟되어 쉽사리 敵의 僞裝된 目標物을 捕捉할 수 있다는 데서 提示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제18전폭전대에서는 2台를 1編隊로 武裝偵察에 使用하여 各機는 目標 地域에서 1時間마다 서로 交代로 作戰을 敢行하게 되었는데 1台는 100~350 Feet의 低高度에서 地形을 이용하여 飛行하고 다른 1台는 500~1,000 Feet 高度에서 上空의 엄호에 臨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武裝偵察로 敵 차량의 大部分은 B—26 약간폭격기와 F—51(Mustang) 전폭기에 의하여 파괴되었고 B—26과 F—51의 두 爆擊機들 때문에 敵의 차량들이 作戰機動上에 오랜 期間동안 나타나지 못하였다。

제49전투 폭격전대의 F—80 戰鬪機들도 2月 13日에 敵 차량 40台를 파괴하는 등 제5空軍에서는 遮斷作戰에 重點을 두어 期間中에 도합 1,366台의 敵 차량을 파괴 하는 한편 美 제8軍과 제10軍團에 對한 近接支援과 空輸作戰에 만전을 期하였다。

이와 같이 UN空軍의 近接支援과 空輸作戰에 힘입게 된 美 제10軍團은 敵戰線의 中央部를 突破하는데 成功한 결과 측면에 대한 威脅을 除去하게 되자 UN軍은 西部地域에서 더욱 北進할 수 있게 되었으며 美 제25사단은 2月 10日에 공격을 再開하여 敵의 反擊없이 金浦와 仁川을 탈환하였다。

한편 美제5空軍에서는 2月 14日에서 16日까지 3日동안에 걸쳐 敵의 포위권내에 들어 있던 美 제23보병대대와 佛蘭西 大隊에 C—119 수송기 87台로서 탄약과 Gasoline 그리고 Ration을 空中投下 하였으며 砥平地域에서의 치열한 戰鬪에서도 美 제10軍團은 제5空軍 전폭기들의 強力한 支援을 받았으며 防衛陣에 이르는 최종 後面 비탈길에 있는 敵軍에게 Nanalm 탄 1個를 投下하여 많은 殺傷과 壞滅効

果를 주게 되었다。

그리고 原州—橫城—寧越—平昌線을 따라 漢江 東쪽에서 敗走하는 敵軍을 섬멸하기 위한「Killer 作戰」에서도 제314공수비행대는 原州 北쪽에서 作戰中인 美 제10軍團에 對한 많은 物資를 支援하는 重大한 任務를 담당하게 되어 2月 23日에서 28日까지 사이에 菊秀里에서 敵과 接戰하고 있는 제1機甲師團과 原州에 있는 海兵 제1사단에 C—119 수송기 64台로서 도합 329.1 ton의 물자를 投下하였고 富坪里에서 敵과 接戰하고 있는 제24사단에 C—46 수송기 2台로서 Ration 4ton을 投下하는 한편 原州 北方지역에 C—119 수송기 265台를 出擊시켜 도합 1,358 ton의 물자를 投下하기도 하였다.

敵의 2月攻勢가 끝난 다음 Almond 소장은 美제10군단 장병을 가장 마음 든든하게 또 흐뭇하게 하여 준 것은 敵陣에 對한 강력한 폭격이었다고 믿은 나머지 美제5空軍이 과감하고도 效果的인 空輸 지원을 계속하여 준데 대하여 極東空軍 司令官 George E. Stratemeyer 중장에게 뜨거운 謝意를 表明하였다。

UN空軍은 이와같이 果敢한 遮斷作戰과 UN軍의 再反擊戰에 密接하는 敏活한 空, 地 立體作戰을 展開한 것인데 그 결과로 期間中에 얻은 戰果는 다음과 같다.

一般 航空機 (YAK—9) 擊墜—1台

MIG機 擊墜—1台

一般 車輛—1,366輛

敵射殺—600名

敵戰傷者—300名

第 39 章

東部地區 反擊作戰

要 旨

1. 江陵附近 戰鬪
2. 橫城一浦洞里附近 戰鬪
3. 橫城附近 戰鬪
4. 旌善一倉里附近 攻防戰
5. 講林一安興一烽火山 進擊戰
6. 下珍富里一東沙里附近 戰鬪
7. 下珍富里附近 戰鬪
8. 泰岐山附近 戰鬪
9. 安東地區 共匪 擊滅作戰
10. 注文津一襄陽 進擊戰
11. 檜川里附近 戰鬪
12. 麟蹄附近 戰鬪
13. 海兵隊의 安東·盈德地區 戰鬪
14. 海兵隊의 寧越附近 戰鬪
15. 海兵隊의 洪川附近 戰鬪
16. 美海兵隊의 橫城一洪川附近 戰鬪
17. 海軍의 永興灣島嶼 上陸作戰
18. 海軍YMS—514艦의 通川地區 奇襲戰
19. 海軍의 掃海作戰
20. UN空軍의 活動

第39章 東部地區 反擊作戰

要 旨

敵의 1月攻勢에 의하여 철수한 我軍의 全부대는 1월 24일 현재 三陟—寧越—堤川—長湖院—竹山里—安城—平澤 線에 배치하고 있었다。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南大里전투」에서 北共 제9, 제31사단이 我제3사단에 의하여 擊退되고 北共 제2사단이 堤川—丹陽지구에서 美제7사단의 공격을 받아 退却하자 中部戰線에는 비로소 平隱을 되찾게 되었다。

이 무렵 西部戰線의 美제1군단과 美제9군단은 長湖院—竹山里—安城—平澤線에서 1월 25일 漢江南岸地區를 搜討하면서 北進하여 中共軍과 北共軍의 主抵抗線을 분쇄하기 위한 Thunderbolt 作戰을 發効하여 26일에는 利川—水原線에 進出한 다음 1월 31일에는 楊平西쪽의 楊子山에서 水原 西北側의 修理山에 배치한 敵을 攻擊하고 있었다。

如斯한 西部戰線의 Thunderbolt作戰과 併行하여 東, 中部戰線의 我제3군단(我제3, 제7, 제9사단)과 美제10군단(我제2, 제5, 제8사단과 美제2, 제7사단)의 偵察部隊인 美제2사단이 1월 31일 原州—橫城과 原州—砥平里線을 軸으로한 威力偵察을 전개하여 2월 2일에는 機甲支隊가 橫城에 突入한데 이어 翌日인 3일에는 제23연대가 砥平里에 突入하였다. 이 무렵 敵의 抵抗은 微弱하였으며 洪川부근에는 北共제2, 제5군단이 집결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을 뿐이다。이 疑問을 解決함과 동시에 戰線의 凸凹을 整理하기 위하여 軍은 我제3군단과 美제10군단으로 하여금 『2월 5일 攻勢를 開始하여 洪川北側線에 進出하라』는 Round up作戰의 命令을 하달하였다。

그 구체적인 內容은 대개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곧 美제10군단은 原州—橫城—洪川線을 軸線으로 하여 兩側에서부터 我제8사단 美 機甲支隊 我제5사단의 順으로 配列하여 洪川을 包圍攻擊케 하고, 美제2사단으로 하여금 我제8사단의 右側背를 掩護케 하는 한편 我제3사단은 橫城에, 美제7사단을 原州부근에 집결하여 豫備隊로 한다。이와 한편 我제3군단은 寧越—平昌線을 따라 北進할 것이며 군단의 左側師團은 美제10군단에 배속하여 我제5사단의 右側을 엄호하라』는 要旨였다。

2월 3일 이 Round up作戰은 예정대로 開始되어 北進이 展開되었으나 2월 8일에는 強力한 北共軍 部隊가 我제5사단의 右側과 我제3군단의 正面에 대하여 反擊으로 轉移함으로서 苦戰을 免치 못하게 되자 美제10군단은 我제5사단을 東面防禦케 하고 豫備의 我제3사단을 起用하여 洪川포위의 임무를 계승케 하였다。이에 我제3사단과 我제8사단은 9일부터 10일까지에 걸쳐 攻擊을 계속하였으나 戰爭은 여전히 進展되지 않았다。

2월 11일밤, 이 中東部戰線에 集中되었던 敵의 "二月攻勢"는 兩個의 軸線을 따라 감행되었다。

이무렵 西部戰線의 美제1군단은 2월15일 漢江 兩岸에 進出하여 南漢山 橋頭堡의 中共軍部隊와 對峙하고 있었다。

中共 제13병단 예하 제40군과 제66군 및 北共 제5군단등 13개사단은 我제3, 제5, 제8사단와

방어선인 橫城지구에 南下하였고 北共 제2, 제3군단은 麻善—平昌간의 我제7, 제9사단의 正面으로 南下하였으며 다시 中共 제39군단의 3개 사단은 原州 西쪽 砥平里의 美제2사단 제23연대의 固陣을 포위하였다。

본작전에 성공한 敵은 13일 原州를 攻圍하는 一方 北共軍의 주력 제6, 제7사단은 原州를 東側方으로 迂回하여 堤川으로 그리고 麻善—平昌 간의 北共제2, 제3군단은 寧越—堤川간으로 각각 指向하여 敵은 平昌—寧越—堤川—原州를 連結하는 "U"字型 도로망의 內部 山岳地帶로 침투하였다。

이에 美제8군은 美제5기갑연대 전투단으로 하여금 砥平里를 救出토록 하는 동시에 美제9군단으로부터 我제6사단과 英제27여단을 抽出하여 文幕正面으로 투입하고 美제7사단과 我제3, 제5, 제8사단을 堤川正面의 突破口에 투입하였다。

이 敵의 攻勢는 18일을 前後하여 急激히 微弱하여져 있거니와 어떻든 敵의 이 二月攻勢는 當時 中共軍과 北共軍이 使用可能한 兵力의 대부분을 동원하여 實施한 것이었다。

이 무렵 中共軍의 在韓兵力은 9個軍 30個師團이었으나 長津湖畔과 咸興지구에서 作戰한 第9병단(제20, 제26, 제27군)의 12個사단은 아직 移動中이거나 再編中에 있었고 제50군은 水原지구에서 격파되었기 때문에 그 使用可能兵力은 5個軍이었다。

이 5個軍中 제40, 제66군을 原州正面에 제39군을 砥平里의 攻圍에 제38군을 南漢山脚頭堡의 確保와 水原에의 出擊에 當케하였으며 損失이 컸던 제42군을 예비로서 整備하였기 때문에 中共軍은 그 全稼動兵力을 이 2月攻勢에 動員한 것이된다。

그리고 北共軍은 거의 그 全力이라고 말할 수 있는 第2, 第3, 第5군단을 平昌—堤川의 突破에 當케 하였기 때문에 中共 및 北共軍의 攻勢兵力은 25개사단 이상에 달하였고 그 규모는 1月攻勢와 거의 匹敵할만한 강력한 것이었다。다만 그 戰法에는 顯著하게 차이를 나타내어 1月攻勢는 全面的攻擊인데 反하여 2月攻勢는 兵力을 一點에 集中하여 運用한 點이 였다。

그런데 2月攻勢기간을 통하여 中東部戰線 諸部隊의 指揮體系 또는 戰線形成上에는 약간의 變動이 일어나고 있었다.

2월 12일 12.00에 陸本作戰指示 第45號에 의거 東海岸의 第1軍團司令部는 堤川郡 孫通里로 이설하여 美第10軍團예하 제3, 제5, 제8사단을 統轄함과 동시에 美제10군단(美제2, 제7사단)에 작전 배속하였고, 이에 따라 我제3군단은 戰鬪正面을 東海岸으로 擴大하여 麻善—寧越간의 제7, 제9사단과 아울러 東海岸의 首都師團을 統括하게 되었다。

어떻든 2월 18일부터 敵의 攻勢가 그 限界點에 달하자 2월 20일 軍은 退勢를 換回하여 대대적인 反擊作戰을 도모하게 되었다。

陸本作戰命令 제262호 수정작전지시 제13호와 美8군사령부의 20일자 작전명령은,

『美제9군단과 美제10군단 (我제1군단포함)은 1951년 2월 21일 10.00를 期하여 漢江東部와 Arizona一般線(芳林—대미등—현천리—새말—풍수원—△527—楊平) 南部의 敵을 섬멸하기 위하여 原州—橫城 및 寧越—平昌의 軸線을 따라 攻擊하고 我제3군단은 전진하는 美제10군단의 東側方을 엄호한다』는 요지였다。

이에 따라 中東部戰線의 我제3군단과 美제10군단은 치열한 공격을 가하여 3월 5일에는 Arizona線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그런데 이 보다 앞서 3월 3일 18.00에 陸本作命 제263호와 美 제8군 작전명령은 다시,

『美제1, 제9, 제10군단은 3월 6일 08.00를 기

하여 공격을 개시 概線 Idaho線(江陵—橫溪里—東沙里—洪川—서울)南方의 敵을 섬멸하는 동시에 敵물자 및 보급품을 파괴할 것이다。我제1, 제3군단도 동시에 江陵—東沙里간의 도로를 확보하고 Idaho線 南方의 敵을 섬멸함과 아울러 軍의 東側方을 방호한다』는 요지였다。

그리고 이 작전명령에 의하여 我제1군단과 제3군단의 指揮體系가 變更되어 제1군단 사령부는 다시 江陵으로 이동 前제3군단 예하 首都사단과 제9사단을 統轄하고 제3군단은 제3, 제7사단을 지휘하게 되었다。

中東部戰線의 我제1, 제3군단과 美제10군단의 北進은 강력히 추진되어 3월 20일경에는 Idaho線은 완전히 확보하였고 敵은 38°線 일반선상으로 퇴각하여 我軍의 진격을 저지하려 하였다。

이에 我軍은 戰線을 재정비한 다음 3월 25일 08.00를 기하여 육군본부작전명령 제263호 수정작전지시 제10호는 요지 다음과 같이 하달하였다。

『① 美제10군단(我제5사단, 美제2, 제7사단)은 3월 26일 담당지구내 Cairo線(東海岸의 加平里(襄陽 東北2km)로부터 下西林 및 新村(驪里東南 4km)을 경유하여 西南으로 신수리(自隱里東北 10km) 및 美제9군단과 제10군단의 지경선상에 이르는線)을 점령 확보하기 위하여 공격을 개시할 것임。

② 我제1군단 및 제3군단은 3월 25일~26일간에 야간공격을 실시하여 담당지구내 Cairo線을 점령하라。』

이에 대한 공격을 개시한지 4,5일여에 Cairo線이 確保되자 3월 30일 육군본부는 12.00를 기하여 요지 다음과 같은 작전계획 제22호(4월 4일 제264호로 개칭)로 하달하였다。

『① 美제8군은 D일 H시(D일은 4월 5일로 확정)를 기하여 현진지로부터 공격을 개시 Kansas線(東海岸의 五山里(襄陽東쪽 3km)에서 西쪽으로 馬山里—寒溪里(驪蹄東北10km)—加兒里—竹谷里—楊口를 경유 華川貯水池 南端에 沿하여 原川里(華川東쪽 5km)에 이르는 線)南方의 敵을 섬멸하고 敵物資 및 보급품을 파괴할 것임。

② 軍은 제1군단 및 제3군단으로써 4월 5일 현진지로부터 공격을 개시 一般線 Kansas南方의 敵을 섬멸하고 敵物資 및 보급품을 파괴하는 동시에 美제8군의 右(東)側方을 방호한다。』

이에 따라 中東部戰線의 我제1, 제3군단과 美제10군단은 北進을 계속하여 4월 15일을 전후하여는 Kansas—一般線 上의 落山寺—漢溪嶺—元通—驪蹄—楊口線上에 진출하였다。

1. 江陵附近 戰鬪 (1951년 2월 3일부터 1951년 2월 7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15 호
작명부록 제207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제 1 군단	장 소장 金 白 一	제 3 대대	장 소령 林 觀 默
首都사단	장 준장 宋 堯 讚	제 1 연대	장 대령 韓 信
제26연대	장 대령 徐 廷 哲	제 1 대대	장 대위 咸 溶 爾
제 1 대대	장 소령 權 用 性	제 2 대대	장 중령 申 彦 國
제 2 대대	장 소령 韓 鶴 琰	제 3 대대	장 대위 李 聖 鳳
제 3 대대	장 소령 朴 徹 洙	배속부대	
제 1 기갑연대	장 대령 金 東 洙	제10야포대대	장 중령 李 奎 三
제 1 대대	장 소령 朴 京 虎	수도야전공병대대	
제 2 대대	장 소령 朴 鎬 均	병력 장비	사단 T/O 및 T/E

敵 軍

제 2 군단	제69여단
제15사단	吉元八유격부대
제 4 군단	

나. 전투 전의 개황

제1군단 예하 首都사단이 그 동안 軍防禦線인 黃牛線(Bull Line) 上의 담당진지(三陟—松溪里線)에서 攻勢로 轉移하여 江陵및 大關嶺일대를 공격 점령한 것은 1951년 2월 3일부터 2월 7일 사이였는데 먼저 이 작전지역의 일반적인 地形을 개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인 작전지역은 江原道 南端인 三陟과 溟州의 二個郡 일대로서 여기에는 三陟—墨湖—江陵을 連하는 비교적 양호한 東海岸沿道가 있고 三陟에서 北西경유 松溪里로 通하는 內陸西向道路와 松溪里에서 北向하여 邱山里에 이르는 道路는 매우 險難하여 部隊機動에 많은 지장을 받게 되어 있었으며 天險의 大關嶺을 가로 넘은 江陵—珍富里의 京江道路는 彼我 사이에 중요한 지형지물로 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太白山脈의 中腹을 形成하는 黃柄山(△1407)—仙子嶺(△1097)—大關嶺(△885)—大花寅山(△1010)—石屛山(1055)등의 連峰은 敵의 유격통로로 많이 이용되어 왔으며 울창한 숲과 함께 敵 遊擊隊의 根據地와 그 跳梁에 많은 素地를 부여해 준 셈이 되었다。

이와같이 太白山脈 東斜面을 담당한 首都사단의 廣大한 작전지역은 江陵 南쪽 4~6km의 野山 및 水稻地帶를 제외하고는 거의 山岳密林地帶로서 작전수행상 많은 難關이 있었으며 특히 酷寒期와 平均 100mm 이상의 積雪및 東海岸 特有의 눈보라는, 휘몰아 치는 烈風과 함께 視界를 많이 制限하였고 지형상으로 死角이 많아 공격부대로서는 여러가지로 不利한 與件이 되었다。

敵軍의 상황 : 我軍이 "C"線上인 注文津附近에서 "E"線(黃牛線으로 改稱)上인 三陟—松溪里線으로 이동하여 진지를 점령하고 있는 틈을 타서 敵 제69여단(民族保衛省直轄 제4군단 예하)및 吉元八 유격부대 약 6,000명은 江陵附近까지 南下하여 江陵—大關嶺 일대를 중심으로 진지를 구축하고 공세방어전을 취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敵의 일부수색대가 我軍의 진지부근인 松溪里 北쪽부근까지 潛入 하여 유격전을 시도하였으나 1월 15일~20일사이에 제1기갑연대에 의하여 격퇴된 바 있었는데 이 潰走敵兵과 合流한 敵 主力은 1월末경에 江陵—邱山里線 일대에서 더욱 진지를 강화하고 있었다。

즉 敵 제69여단은 草堂里(江陵 東北쪽 4km 海岸 鐵路邊)에 지휘소를 두고 예하 6개대대의 병력으로서 江陵 南쪽 3~5km 일대에 楕圓形의 진지와, 江陵 西쪽 金山里—邱山里—獐項山(大關嶺 東麓)일대의 東江道路 北쪽에 각각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江陵附近에서 지연전을 겸한 防守態勢를 갖추려 하고 있었다。

그 細部 配備상황을 보면, 江陵 南쪽 靑良里와 茅山峰(△104) 부근 및 馬山里부근에 각각 1개대대가 防禦陣을 구축하고 있었고, 江陵 西쪽 金山里와 獐項山(노루목이산)및 玉帝山부근에 각각 1개대대가 진지를 점령 보강하고 있었다. 그리고 敵 제2여단 일부와 吉元八부대는 제1기갑연대에 의해 潰散당한 후 大關嶺을 넘어 平昌 방면으로 西南進하고 있었다。

이러한 敵은 81mm박격포 이상의 重裝備는 없고 主로 체코式輕機나 重機및 小銃으로 裝備되어 있었으며 我軍이 黃牛線으로 이동할때 까지만 해도 그 士氣가 漸高된바 있었으나 西部 鳥山線에서의 友軍 反擊으로 인한 中共軍의 退却과 我軍의 계속적인 制空權의 장악으로 그 士氣는 점차로 低下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左隣接 제3군단 前面의 敵은 약 10,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었으며 이는 敵 제2, 제9사단과 제3보병연대로 보였고 그 후방에서는 敵 제27사단이 후퇴를 엄호하고 있는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敵들의 일반적 動向은 많은 兵力의 손실로 인하여 再編成하기 위한 후퇴를 企圖하고 있었으나 同時에 곳곳에서 지연작전을 감행하려 하였는데 여기서 敵이 취할 가장 가능성 있는 지연작전 線은 旌善—下珍富里間의 道路와 平昌—倉平里間의 道路로 分析되었다。(陸作命 제262호 敵情事項참조)

我軍의 상황 : 1월 10일 黃牛線을 점령한 이래 제1군단은 首都사단 만으로서 東部戰線을 專擔토록 하였는데 東海岸 墨湖부근에서 左隣接 제3군단과의 境界인 松溪里부근까지 防禦陣을 구축하고 있던 首都사단은 제26연대가 사단 右一線인 墨湖부근을, 제1기갑연대가 사단 左一線인 松溪里부근을 담당하고 제1연대는 사단예비대로서 三陟附近에 控置되어 訓練및 部隊整備에 임하고 있었다。

이렇게 首都사단이 黃牛線上의 담당 진지에서 防禦戰을 遂行하는 一方으로 江陵과 大關領 南쪽까지 遠距離 威力探索戰을 감행하고 있었는데 이는 左隣接 제3군단의 진출 상황과 보조를 같이하기 위하여 제1군단장 金白一 소장의 작전지시에 따라 首都사단의 제26연대 제2대대와 제1기갑연대 제1대대가 각각 담당 지역 정면에서 北쪽으로 軍團進出路를 打開하기 위하여 搜索활동을 전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1월 28일 제26연대 제2대대장 韓鶴頂소령은 玉溪에서 출발하여 江東津里 경유 江陵 南쪽 6km 지점인 茅田里까지 搜索進出하여 진지를 점령하고 露營하게 되었는데 이때 사단 유격대의 제1, 제3대대는 이날 未明에 安仁里(江陵 東南쪽 7km)에서 靑良里(江陵 南쪽 3km)의 敵 前哨 1개대대의 陣地를 突破하고 그 一部가 江陵市內에까지 突入하였으나 敵의 側方火力의 증가로 다시 安仁里로 철수하여 제26연대 제2대대와 安仁里—茅田里線에서 진지를 강화하고 있었다.

한편 사단 左一線인 제1기갑연대는 松溪里—般院里 附近에서 진지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朴東虎 소령이 지휘하는 제1대대가 邱山里까지 接敵하여 威力搜索戰을 展開하게 되었는데 28일 05.00에 松溪里를 출발한 대대는 12.00에 都麻里에 진격하여 不斷히 수색활동을 펴면서 四周防禦에 臨하고 있었다. 이후 대대는 제9사단 수색대와 연계를 유지하면서 31일에는 邱山里附近의 五峰山—五峰里까지 진출하여 一時 진지를 점령하고 있다가 本隊와의 過度한 距離으로 인하여 연대장이 撤退命으로 수를 명하게 되자 2월 2일에 前記目標로 轉進하여 연대주력의 진출을 엄호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사단전면에서 2개대대가 각각 江陵과 邱山里 南쪽까지 搜索前進하여 진지를 점령하게 된 것은 사단이 이 부근의 공격점령에 先行한 확고한 전술적 기반을 공고히 조성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와함께 사단 주력은 2월 2일 현재 東쪽의 제26연대가 玉溪부근에서, 제1기갑연대가 松溪里부근에서 각각 공격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으며 제1연대는 사단 예비대로서 三陟附近에 控置되고 있다가 松溪里 부근으로 진출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2월 2일 현재 각급 지휘소는 다음과 같다.

제1군단—蔚珍

首都사단—三陟

제1연대—三陟

제1기갑연대—松溪里

제26연대—玉溪

나.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我軍및 友軍은 西部 鳥山戰線에서의 반격과 때를 같이하여 東部 三陟線에 이르는 全戰線(黃牛線, Q線)에서 그동안 공세방어전을 펴다가 總進擊으로 轉換하게 되었는데 이와같

은 反擊作戰은 陸本作命 제262호 (참조 작명부록 제207호)에 의하여 시작되었으니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軍은 美 제10군단과 合勢하여 D日 H時에 공격을 개시, 當面의 敵에 對하여 再編成과 再補給의 여유를 不許하고 최대한의 損害를 加하여 가능하면 敵을 완전히 捕捉 撃滅하려 한다。

제1군단은 D日 H時 Q線으로부터 공격을 개시하여 中央線인 X. Y. Z線을 통과, 地域內의 모든 敵을 撃滅하고 R線을 확보하라. 左側 제3군단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공격속도는 제3군단장과 협의하라。」

이상과 같은 공격명령을 받은 제1군단장 金日一 소장은 최종 진출선으로 명시된 "R" 線을 공격 점령하기 위하여 首都사단(장, 朱堯讚준장)으로 하여금 현재선인 Q線(墨湖—松溪里線)에서 부터 X. Y. Z線을 축차적으로 진격케 한다음 군단 主目標를 江陵에 두고 이를 점령케 하는 한편이와 아울러 邱山里—大關嶺을 同時에 점령한 다음 京江道路 北方의 "R"線을 向하여 계속 진격케 하였다。

이에 首都사단장은 우선 敵의 據點으로 판단되는 江陵을 사단 제1목표로 하고 邱山里—大關嶺—橫溪里도 함께 공격 점령한 다음 진출 제한선인 "R"線까지 진격하여 이를 점령 확보키 위한 작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즉 이미 진지를 점령하고 있는 墨湖부근의 제26연대와 松溪里 부근의 제1기갑연대를 左右 攻撃梯隊로 삼고 三陟부근에 있는 제1연대를 사단 예비대로 控置하여 작전을 수행키로 하였다. 각 연대 전투지경선을 대체로 東西로, 縱斷兩分하여 제26연대는 右一線으로 展開하고 江陵攻撃에 있어서 사단의 主攻을 담당케 하였으며 제1기갑연대를 左一線으로 하여 邱山里—大關嶺일대를 공격케 하였다. 그리고 제1연대를 사단예비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狀況에 따라 運用함과 아울러 일단 제1기갑연대를 후속 전진하다가 제26연대의 江陵공격이 완료된 다음에는 그 主攻部隊와 임무를 교대 超越토록 하여 江陵北쪽의 R線을 점령 키로 하였다。

그리고 사단에 배속된 제10포병대대의 제1중대는 제26연대에 제3중대는 제1기갑연대에 각각 직접지원케 하며 제2중대는 제1연대에 배속토록 하고 사단 대전차공격대대는 제26연대장이 統合지휘 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와같은 要旨의 사단작명 제3호를 수령한 主攻의 제26연대장 徐廷哲 대령은 三陟 지휘소에서 다음과 같은 연대작명을 예하 각 대대에 하달하게 되었다。

「① 제3대대장은 Q.X.Y線을 逐次전진하여 연대 右翼大隊로서 목표 B를 공격 점령하라。

② 제2대대장은 연대주력이 Y線 진출시까지 현재선(安仁里—茅田里)을 계속 확보하여 연대의 진진을 엄호한 다음 주력이 진출되면 연대 左翼大隊로서 목표 A를 공격 점령하라

③ 제1대대장은 2월 3일 행동을 개시하여 Q.X.Y線을 逐次로 前進한 다음 연대 예비대가 되어 특히 제2대대의 A목표 공격을 지원하라。」

한편 사단 左翼梯隊인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 대령은 제23연대의 江陵 공격과 병행하여 邱山里—大關嶺—橫溪里일대및 그 北쪽 R線을 공격 점령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제1대대장은 현재선(邱陵嶺)에서 연대의 진출을 엄호한 다음 연대 右翼대대로서 花峻峰—邱山里를 공격 점령하라。

제2대대장은 연대 左翼대대로서 2월 3일 拱溪里에서 출발하여 大基里를 경유하고 橫溪里—靑蓮庵을 각각 공격 점령하라。

제3대대장은 연대 예비대로서 제1대대를 후속하다가 都麻里—七峰山의 敵에 對備하고 제1대대의 邱山里 공격을 지원하라。」

(2) 작전실시

2일 3월 : 제26연대장 徐延哲 대령은 江陵탈환전투의 主攻을 담당하게 되자 부대戰列을 가다듬고 제반작전계획을 수립하여 하달한 다음, 배속 받은 사단 戰車攻擊大隊를 통합지휘하여 璽湖 附近에서 연대 주력및 지휘소를 玉溪面 豚內里까지 躍進시켰다。

玉溪에 진출한 연대는 그 主力이 공격준비에 만전을 期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지난 1월 30일 이래 연대 威力 搜索隊로 江陵 南쪽 7km 地點인 茅田里 일대에서 진지를 점령하고 있는 제2대대(장, 韓鶴頊소령)가 계속하여 江陵 南쪽의 敵情을 살피고 있었다。그리고 제1대대(장, 權用性소령)는 玉溪에 진출 집결한 다음 일부 수색대가 玉溪 西北쪽으로 전진하여 △755 彼來山(△754) 西쪽 4km까지 진출하여 진지를 점령하고 威力偵察戰을 전개하고 있었다。이 무렵 제3대대(장, 朴敬洙소령)는 연대예비대로서 玉溪—正東津里間에 진지를 점령 또는 집결하고 있었으며 戰車攻擊대대는 玉溪周邊의 敵 예상접근로를 경계하고 있었다。

이때 敵은 연대 正面인 靑良里—茅山里線에서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江陵死守의 기세가 농후하였으며 연대 左前面인 彦別里 부근에는 敵의 前哨部隊가 警戒하고 있었다。

한편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대령)는 사단 左翼攻擊梯隊로서 松溪里 附近에 집결하고 江陵附近 공격에 있어서 그 西측 邱山洞—大關嶺 일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일대의 敵은 江陵—大關嶺을 지키기 위한 敵 제69여단 소속 약 2개대대 규모의 병력으로 이들은 邱山里 부근에 집결하여 旺帝山(△231)~獐項山(노루목이산)線에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七峰山—五峰山—帝旺山일대에도 敵 前哨線이 形成되어 있었고 일부 尖兵兵은 都麻里(邱山里 南쪽 6km)부근까지 出沒하여 我軍의 상황을 偵察하려 하였다。

이러한 상황아래 공격을 시작한 제1대대(장, 朴東虎소령)는 전날부터 점령하고 있던 揷唐嶺 진지에서 연대주력의 진출을 엄호하다가 木界里—花郎峰(△1069)線을 수색 전진하였는데 本隊를 지휘하던 대대장은 「산넘어 부락에도 國軍이 있다」는 住民의 이상한 제보를 받고 이는 必是 敵 유격대가 國軍을 가장한 것으로 판단하는 즉시로 이를 撲滅키 위한 조치로서 야간기동으로써 奇襲的으로 포위코자 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夜暗을 利用하여 포위망을 압축하면서 花郎峰 東쪽 幽谷의 山村에서 敵 雪元八유격부대의 主力인듯 한 약 400명 규모의 蝟集地를 發見하고 다음날 未明에 이를 急襲하여 그 참모장이하 거의 全員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으니 敵은 대대의 疾風같은 急襲에 敢히 눈코를 뜨지 못한듯 하였다。

제2대대(장, 朴翊均소령)는 연대 左一線 공격대대로서 松溪里 일대의 공격대기 지점에서 이날 공격을 시작하여 大基里경유 大關嶺 西麓을 향하여 진출하였는데 대대 수색대는 연대 수색대와 함께 大關嶺 西側入口인 橫溪里까지 전진하고 있었다。

제3대대(장, 林觀默소령)는 葛田里에서 臨溪里로 이동한 다음 연대 예비대로 松溪里附近에 控置되고 있었다。

한편 제1연대(장, 韓 信대령)는 그간 三陟부근일대에서 경계임무수행과 교육훈련에 임하고 있다가 江陵—大關嶺 공격에 있어 사단 예비대 임무를 맡고 이날 三陟에서 제1기갑연대의 공격방향에 후속하기 위하여 松溪里 방면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轉進經路는 三陟—北坪—新興里—稷院里—松溪里의 接近路를 이용하였다。

이와같이 부대이동에 앞서 연대는 三陟附近의 南陽里(제1대대)와 浦里(제2대대)및 市洞(제3대대)에서 경계및 훈련의 임무를 끝마치고 부대이동의 준비를 완료한 다음 제1대대(장, 咸溶奭대위)와 제2대대(장, 申彦國중령)는 이날 12.00에 현진지를 출발하여 16.00에 松亭里에 진출하였고 제3대대(장, 李聖鳳대위)는 北坪—松溪里間의 機動路를 補修하였으

며 연대 주력의 이동과 때를 같이하여 연대 지휘소는 松亭里로 함께 이동 開設되었다。

2월 4일 : 제26연대는 이날 그 전방 지휘소를 玉溪에서 安仁里(제2대대의 旣占領陣地)에 躍進시키고 연대장 이하 각 참모들은 江陵 東南쪽 7km지점 일대에서 불과 2~3km 前方에 있는 敵과 서로 對峙한 채로 江陵攻略을 위한 여러 方途를 숙의하고 있었다。

제1대대(장, 權用性소령)의 주력은 이미 전날 △775까지 진출한 수색대의 뒤를 이어 이날 14.30에 圓京洞에 진출하고 圓京洞—寺洞(절골)線에서 진지를 점령하였다. 이렇게 됨으로써 左隣接 제1기갑연대의 제1대대와 戰線을 平衡으로 維持하게 되었는데 진지 점령 이후 계속하여 수색대를 파견하고 於圓里 및 彦別里 부근의 敵情을 살피고 있었다.

제2대대(장, 韓鵬琪소령)는 연대의 最先頭 部隊로 전날에 이어 점령하고 있던 茅田里 일대의 진지를 강화하는 한편 雲山里—金光里—加比里線에 대한 공격계획에 착수하였다. 이는 茅田里—江陵에 이르는 接近路와 그 東側을 장차 제3대대에 인계할 목안이었기 때문이다。

제3대대(장, 朴敏洙소령)는 그간 연대예비대로 控置되어 있다가 이날 玉溪에서 09.30에 출발하여 13.30에 主力이 正東津里에 진출 집결하고 일부 先遣隊는 제2대대의 旣設陣地인 安仁里까지 진출하여 그 일대를 경계하고 있었다。

이렇게 제26연대가 逐次로 진출하여 江陵攻擊의 諸戰을 위한 基盤을 확고히 조성하고 있을 무렵 江陵南쪽 茅山峰(△104)일대의 敵 제69여단의 主陣地가 더욱 강화된듯 하였으며 그 西쪽 邱山里 附近의 敵勢도 또한 그 방어태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었고 일부 敵 수색대가 木界里—五峰山부근에 出沒하고 있는 한편 전날의 岩洞八 유격부대의 潰滅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收容部隊가 殘置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 敵 제69여단은 內陸平昌方面의 그들 인접부대와 連繫를 유지하기 위하여 直屬 연락반을 京江道路를 따라 西進시켰는데 이 敵들이 橫溪里 北쪽 青蓮庵 부근에 進出하였을 때에는 이미 제1기갑연대 제2대대의 수색대가 이 일대를 占領 遮斷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行動이 如意치 못하게 됨을 알게되자 青蓮庵 부근의 山間에 潛伏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고 木界里 西쪽 稜線에서 接敵 진출을 계속하고 있는 제1기갑연대 제1대대 수색대는 都麻里—邱山洞 부근에서 지연전을 감행하려한 敵 前哨부대를 발견하자 곧 이를 擊破하여 邱山洞 방면으로 潰散시켰다。

이와같이 제1기갑연대는 제1대대(장, 朴京虎소령)가 都麻里 附近에 진출하여 △491 및 △841등을 점령함으로써 邱山里 南쪽의 敵 據點을 喪失케 하였고 연대 左一線인 제2대대(장, 朴錫均소령)는 橫溪里 附近까지 진출하여 江陵—平昌의 敵 連絡線을 遮斷하

고 있었다。

한편 제1연대(장, 韓 信대령)는 포병 제2중대를 포함한 그 주력이 松亭里에서 15.00에 桃花洞으로 진출완료하고 제3대대는 전날에 이어 路面補修를 하여 가며 이날 穉院里까지 진출하였다。

2월 5일 : 首都사단장은 三陟에 있는 사단 전방지휘소를 이날 墨湖에까지 躍進 開設시키고 예하 연대의 江陵一大關嶺 공격에 대한 작전지도를 하고 있었다. 즉 사단 주력이 그 진출선을 예정대로 진출 점령하게 되자 공격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江陵南方의 敵 最後阻止線을 一擧에 突破하려 하였다。

사단 右一線의 제26연대(장, 徐廷哲대령) 主力이 A線(雲山里一金光里線)을 점령한 다음 현재선에서 攻擊을 再開하였는데 이때에 江陵 南쪽 일대의 敵陣에 砲兵이 공격준비사격을 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동 연대 제1대대(장, 權用性소령)는 이날 未明에 佛京洞 진지에서 北上 진격하여 연대 제한점인 △547와 △533를 12.30에 점령하고 인접 제1기갑연대와 제휴하여 彦別里一於眞里를 향하여 계속 추격하였는데 이때 그동안 潰走한 敵 2개중대 규모의 병력이 江陵防禦의 前哨線을 이루어 彦別里 北쪽 山麓에서 완강히 저항하고 있었다。이와같은 敵을 발견한 대대는 日沒로부터 前半夜에 걸쳐 波狀的인 공격을 계속하다가 深夜로 접어들자 일단 공격을 멈추고 彦別里一於眞里 南쪽 2km인 山麓에서 各중대를 전술 배치하고 敵과 對峙된 상황아래 엄중한 四周경계에 임하게 되었다。

제2대대(장, 韓鷄頊소령)는 이 彦別里의 敵을 東側에서 挾攻할 態勢를 갖추고 이날 06.30부터 공격을 시작하였다. 즉 대대 주력이 金光里一加屯地에 진출하는 즉시로 진지를 점령함으로써 彦別里의 敵은 그 東側方이 완전히 遮斷당한 셈이 되었으며 左隣接의 제1대대의 彦別里 西南쪽에 진지를 점령한 결과로 敵은 馬路里으로 包圍된 形勢에 이르렀다。

이 무렵 제3대대(장, 朴敏洙소령)는 제2대대의 彦別里 挾攻배치를 위해 加屯地一金光里 일대의 진지점령으로 인하여 正東津里에 집결중인 대대 주력이 급거 茅田里線의 前 제2대대 진지에 진출하고 연대의 右一線 진격부대가 되었다. 그리하여 현재선에서 더욱 진격하여 雲山里一後浦線까지 진격한 다음 급편진지를 구축하고 다음날의 일제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東쪽에서부터 江陵飛行場 南쪽一雲山里一金光里線을 점령한 제3대대및 제2대대 정면의 敵은 그 陣地가 強固하여 이를 突破하기가 如意치 못하였다. 특히 靑良里一茅山峰

에 이르는 開濶地는 敵陣에서 完全히 瞰制될 뿐만아니라 또한 相對的으로 敵陣이 완강하여 여기를 躍進하기가 困難하였다. 이러한 地形的인 隘路의 打開를 위하여 제26연대를 직접지원하는 포병제1중대는 이 敵陣일대에 晝間부터 夜間에 이르기까지 同時集中砲擊 및 夜間觀測사격을 계속 실시하여 敵의 銳鋒을 꺾고 있었다。

한편 사단 左一線인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대령)는 그 主力이 계속 邱山里를 향하여 진격하였는데 이때 敵은 邱山里를 가운데 두고 그 東南쪽의 七峰山에 이르는 山稜線과 그 西쪽 五峰山 일대에 각각 1개내대 규모의 兵力을 배치하고 江陵市의 外廓선과 大關嶺을 확보하려고 완강히 저항하고 있었다。이날 未明부터 공격을 시작한 제1대대(장, 朴京虎소령)는 五峰山의 敵을 공격하여 여기를 점령하는 동시에 그 北쪽으로 潰走하는 敵을 추적하여 계속 邱山里를 향하여 진격하였다。그간 예비대로 제1대대를 후속하던 제3대대(장, 林觀默소령)도 攻擊梯隊로 戰線에 投入되자 곧 제1대대 東쪽을 공격하여 △355를 점령한 다음 邱山里를 제1대대와 같이 挾攻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사단 예비대인 제1연대(장, 韓 信대령)는 이날 계속 전진하여 松溪里로 이동집결하고 先頭인 제1기갑연대의 戰勢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즉 挑花洞에서 露營을 마친 제1대대(장, 咸洛翼대위)는 이날 07.30에 이곳을 출발하여 白伏嶺北麓의 험준한 고개와 稷院里一監溪里를 경유하여 松溪里 北쪽 3km인 高圓里까지 이동집결하였고 제2대대(장, 申彦國중령)는 제1대대와 행동을 같이하여 18.50에 동상정(俗稱)에 진출하였다。그리고 제3대대(장, 李聖鳳대위)도 이날 07.30에 挑花洞을 출발하여 松峴里에 진출한 다음 野營을 하면서 夜間경계에 임하게 되었다。

이 무렵 酷寒期였으나 氣溫은 비교적 溫暖하였으며 날씨는 晴天으로 戰鬪活動에 유리한 편이었으나 夜間에는 氣溫이 急降하여 寒冷으로 戰野의 어려움이 많았다。그리고 補給과 裝備상태는 그동안 三陟附近의 防禦戰때에 이루어져 비교적 良好한 편이었으며 士氣도 反擊戰에 접어들면서 매우 높아 있었다。

사단 전방지휘소는 그간 三陟에 位置하고 있다가 各연대의 追擊速度가 빨라 江陵에 肉迫함에 이르자 보다 유기적인 戰況파악과 새로운 작전지도를 위하여 그 位置를 北平一玉溪경유 鏡湖에 躍進開設하였으며 군단지휘소도 이날 蔚珍에서 三陟으로 前進하였다。

2월 6일 : 제26연대(장, 徐廷哲대령)는 전날 제2대대의 관측소였던 속칭 골말高地에 연대관측소를 개설하고 이날 09.00부터 江陵奪還을 위한 총 공격을 시작하였다。

제3대대(장, 朴敬洙소령)는 연대 右一線 공격梯隊로서 제2대대와 함께 이날 09.00에

江陵飛行場 南端에서부터 공격을 시작하여 門岩里—靑良里附近의 敵을 追擊하였다。 이 일대는 江陵이 불과 2~3km 밖에 되지않은 그 外廓線의 要地要部이기 때문에 敵은 그 능력을 있는대로 발휘하여 死守하려는 形勢이었다。 그러나 대대주력은 砲兵의 동시 집중火力의 지원을 받으며 突破와 躍進의 互用으로 16.00에 門岩里附近에 突入하였다。 이때 敵의 側方火力의 增加와 一部의 敵의 侵襲으로 대대는 유리한 地點에 진지를 옮기고 門岩里 南쪽에서 다음날의 공격을 준비하면서 야간경계에 임하였다。이때 연대에 배속된 제10포병대대(장, 李亞三중령)의 제1중대는 安仁里에서 砲陣地를 구축하고 江陵附近의 敵根據地에 晝間부터 夜間에 이르기까지 集中砲擊과 夜間攪亂砲擊을 계속하고 있었다。

연대 左一線부대인 제1대대(장, 韓用性소령)의 前面의 敵은 전날 彦別里附近에서 강력하게 저항하다가 이날 拂曉에 我軍의 협공태세가 갖추어 졌음을 看破하였는지 夜暗을 이용하여 江陵쪽으로 退却하려 하였다。이에 대대는 때를 놓치지 않고 06.00에 彦別里—△547線에서 공격을 시작하여 博月里—淡山里까지 突破躍進하였는데 石橋일대에서 완강히 저항하는 敵과 19.00에 이르기까지 치열한 接戰이 벌어졌다。 이 일대가 江陵防守의 前哨地였기 때문에 敵은 끝내 抗戰하려 하였으며 대대도 鶴山里 附近에서 急編陣地를 구축하고 夜間戰鬪態勢에 임하였다。

그리고 연대 중앙突破부대인 제2대대(장, 韓鶴頊소령)는 이날 09.00에 공격을 시작하여 靑良里 一茅山里일대의 敵과 近接戰을 전개하였다. 15.00에 主力이 茅山里를 突破하고 계속하여 劍石川을 건너 靑良里 南端까지 진출하였으나 敵의 側方火力이 急增하므로 戰線을 정리하고 西側의 제1대대 진지와 연계하여 茅山峰—靑良里 南쪽에 진지를 점령한 다음 夜間경계에 임하게 되었다。

한편 사단 左一線 공격梯隊인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대령은 인접 제26연대가 江陵 東南쪽 外廓의 敵陣을 突破하여 江陵奪還이 目前에 다달았음과 때를 같이하여 江陵 西側의 邱山洞과 五峰山—七峰山일대의 敵 근거지를 一擧에 擊破키 위한 方途를 강구하고 주력 제1대대로 하여금 邱山里를 向하여 진격케 하였다。

이에 제1대대장 朴京虎소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 10.00에 邱山里의 공격을 再開하였는데 이때 敵은 五峰山과 △342에 각각 2개중대 규모의 병력및 開闊地附近에 一部兵力을 配備하였고 비교적 有利한 地形地物을 利用하였기 때문에 대대의 공격을 끝까지 저지하려는 듯하였다. 戰勢가 이와같이 되자 대대는 즉시 敵의 配置狀況을 判斷하고 제1중대로서 五峰山前方 무명고지를, 제2중대로서 七峰山 西麓稜線을, 제3중대로서 △342를 各各 目標로

하여 突擊을 敢行키로 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중화기 중대는 박격포를 비롯한 증강된 火力으로서 敵陣을 연속적으로 強打하는 한편 연대에 배속된 포병 제3중대로써 五峰山 일대의 敵陣에 砲擊을 加한 결과 敵의 行動에 큰 제약을 주게 되었다.

이러한 지원화력에 힘입으면서 대대장병들은 上下 일치로 유기적인 연락체제 아래 迅速果敢한 공격을 시작하여 敵의 鋭鋒을 꺾고 追擊을 계속하였는데 16.00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邱山里에 突入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敵이 繼戰意志를 상실한 채로 邱山里 北쪽으로 潰走하기 시작하자 대대의 士氣는 더욱 沖天하여 追擊의 속도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계속하여 江陵 西側方의 敵 據點을 격파한 다음 그 주위 일대를 점령하여 突破口를 擴張한 다음 급편 방어태세에 들어 갔다.

그리고 제3대대(장, 林觀奭소령)는 연대예비대로서 都麻里 일대에 縱深깊이 配備되어 敵 유격대의 기습에 대한 後側方을 防護함으로써 先頭 제1대대의 공격을 원활하게 하였으며 이어 제9중대는 △605에 진출하여 제1대대와 연계한 그 左翼으로서 旺帝山을 점령하게 되었다. 이날 邱山里 突入戰에서 연대는 敵 78명을 사살한 바 있었다.

이로써 이날 현재 사단 右一線의 제26연대와 左一線의 제1기갑연대가 江陵外廓의 敵陣을 擊破하게 되었고 한편 제1기갑연대 제2대대(장, 朴翊均소령)는 전날에 이어 橫溪里를 점령하여 大關嶺의 京江道路를 掌握하고 그 北쪽 일대에 대한 威力搜索戰을 펴고 있었다.

한편 제1연대(장, 韓 信대령)는 그간 사단 예비대로 제1기갑연대를 후속 진출하고 있다가 사단 主攻인 제26연대가 江陵에 肉迫하고 사단 左一線공격제대인 제1기갑연대가 五峰山—邱山里附近에서 敵에게 鐵槌를 加하고 있을 무렵 그 兩個연대의 中間 間隙地帶인 七峰山東麓을 分斷突破하기 위하여 이날 攻擊梯隊로 第一線에 參加하게 되었다.

즉 연대장 韓信대령은 배속된 포병 제2중대를 통합지휘하면서 연대 전방 지휘소를 木界里로 躍進開設하고 예하 3개대대를 집중적으로 運用하여 七峰山과 그 北쪽을 突破코자 하였다.

그리하여 제1대대(장, 咸溶翼대위)는 전날의 露營地인 高圓里에서 이날 07.00에 차량행군으로 松峴里—木界里—都麻里를 경유 一擧에 七峰山 東麓인 馬山里附近까지 진출하여 목표 ①인 △86를 거쳐 목표 ②로 진출중 △734일대에서 敵 약 1개중대 규모의 병력과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이를 거의 壞滅하였으며 계속하여 목표 ⑥인 △155까지 추격의 속도를 멈추지 않고 진격하여 이를 점령한 다음 현재선에서 전선을 정리하였다.

제2대대(장, 申彦國중령)는 전날 진지인 挿雪嶺 下麓에서 木界里—塔洞을 경유 邱山里를

瞰制하는 七峰山으로 진출하여 제1기갑연대의 東側을 補強하였으며 계속하여 南大川을 건너 芝岩里까지 突破追擊하였다. 그리고 처음에 예비대로 연대주력을 후속하던 제3대대(장, 李聖鳳대위)는 松峴里에서 玷舊里로 진출하여 主力이 南大川을 渡河한 다음 부터는 江陵西北쪽의 敵 退路를 차단할 목적으로 竹軒里까지 진격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자 江陵—邱山里附近의 敵 제69여단의 제1, 제3, 제5, 제6대대등은 그 東—南—西쪽의 각 진지가 모조리 突破당하는 바 되니 江陵死守의 意志마저 상실한 듯 屍體를 버려 둔채로 四散潰走하기 시작하였다。

2월 7일 : 이렇게 江陵附近의 완전한 공격태세를 갖춘 사단은 이날 06.00를 期하여 일제히 공격을 시작하여 主攻인 제26연대(장, 徐廷哲대령)가 10.00에 江陵市에 突入하는 즉시로 10.30까지 殘敵을 擊滅하고 이곳을 완전히 점령하게 되었다。

즉 연대 제1대대(장, 權用性소령)는 이날 未明에 공격대기 지점인 淡山里 일대에서 공격준비를 완료한 다음 06.00에 江陵 西側을 向하여 진격하며 尋福里附近의 敵 最後저지선을 突破한 然後에 南大川을 건너 市街西北쪽 稜線까지 一擧에 追擊하여 敵의 殘留收容부대를 擊破하는 즉시로 四周경계에 임하였다. 제2대대(장, 韓鶴頊소령)는 전날의 진지에서 연대중앙공격부대로 06.00부터 공격을 시작하여 茅山峰과 門岩里일대에서 완강히 저항하는 敵陣을 分斷하고 추격을 계속하여 10.00에 南大川을 건너 江陵市街 中央部를 突破하였으나 市街안에서 敵影을 볼수 없게되자 계속 東北쪽 4km까지 추격하여 敵 제69여단 사령부가 위치한 草堂里를 점령완료하고 그곳으로부터 西北쪽 主接近路에 이르는 高地사이에 진지를 구축하고 엄중한 四周경계에 임하였다。

그리고 제3대대(장, 朴徹洙소령)는 연대 東翼攻擊梯隊로서 左인접 제1대대와 같이 06.00에 일제히 공격하여 靑良里의 敵 最後 收容陣地를 擊碎하고 一路 市街를 向하여 追擊한 다음 그 一部는 市街 殘敵을 수색하며 主力은 14.30에 市街 北쪽 野山丘陵지대인 사단공격목표 ③을 완전 점령하였다。그뒤에 제1대대에 陣地를 인계한 다음 市內 城德國民學校 校庭에 集結하여 戰列을 가다듬었다。

이 江陵공격전투에서 그간에 올린 연대의 종합戰果는 다음과 같다。

戰　果

사살—151명	小銃—42정
포로—23명	다발총—8정
BAR—11정	直射砲—3문
重機—3정	로켓砲—1문

수류탄—3개

損 失

戰 死—43명

부 상—124명

실 종—4명

(제26연대 부대역사자료철 2월 7일字참조)

한편 사단 左一線攻擊梯隊인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대령)는 右인접 제26연대의 江陵 점령과 때를 같이하여 邱山里 西北쪽의 敵 退路를 遮斷하기 위한 공격을 계속하였는데 제1대대(장, 朴京虎소령)는 전날 邱山里를 점령한 다음 그곳에서 계속 威力搜索戰을 펴 가며 山岳狹谷을 뚫고 진격하다가 水晶洞에 本部를 둔 듯한 敵 약1개대대 규모의 병력이 그 北쪽 3km의 △635로 潰走함을 발견하자 곧 攻擊隊形으로 散開한 다음 敵 後尾와 그 側方에 대하여 機先을 制하여 공격을 加하였다。비록 潰走中이던 敵이 었으나 그 저항이 완강하여 2시간여에 걸친 격전끝에 이 敵을 모조리 擊滅하고 말았으며 蓮谷川을 瞰制하는 이 일대에서 전선을 정리하여 진지를 보강하였다。

제2대대(장, 朴翊均소령)는 전날 橫溪里北쪽 靑蓮庵부근의 敵을 격퇴하고 이날도 계속 그 西北쪽 黃炳山(△1407) 방면으로 진격하여 右側 제1대대와 戰線을 平衡으로 유지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敵의 敗殘한 合流兵은 蓮谷川의 上流를 건너 五台山부근으로 潛入한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제3대대(장, 林觀默소령)는 이날 邱山里 北쪽 帝王山으로부터 正北쪽으로 진격하여 無逸里—三旺里등을 탐색하면서 전진하고 제10중대가 沙器幕里까지 진출하여 잠복하고 있다가 敵 약 100여명이 유격활동을 펴면서 北上하려는 것을 발견하자 곧 은밀히 접근하여 첫 銃聲一發로 敵은 抗戰氣力마저 잃은 듯이 앞을다투어 四散되어 潰走하고 말았다。

이와같이 제1기갑연대의 각 대대는 廣濶하고 錯雜한 山岳을 橫斷한 정면에서 據點을 主로한 敵의 退路를 봉쇄하며 연대 최종진출 예정선(육본작명 제262호, 작명 부록 제207호에 명시된 "R"線)을 예정대로 모두 점령하는데 成功하였다。

이날 연대의 戰果는 다음과 같다。

戰 果

사살—76명

포로—5명(여자 2명포함)

多發銃—7정

同實彈—1,200발

小 銃—29정

同實彈—500발

手榴彈—6개

毛 布—2枚

배 낭—3개

損 失

전 사—2명

건상—6명(제1기갑연대전투상보 참조)

한편 제1연대(장, 韓 信대령)는 右隣接 제26연대가 江陵奪還을 완료하자 사단主攻의 임무를 사단작명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인계받고 제26연대가 江陵市에 捺營된데 反하여 연대는 江陵北쪽을 계속하여 진격하게 되었다. 이렇게 됨으로써 연대는 사단 右一線을 맡은 결과가 되었고 전날부터 공격제대에 가담한 이래 사단 中央地帶를 突破 進擊한 다음 芝岩洞—盧洞까지 진격한 바 있었는데 이날에는 敵의 縱深깊은 防禦陣地를 더욱 깊숙히 뚫고 들어가 雲溪峰(△530) 北쪽 馬岩墟—俗稱 너래部落線까지 진격한 다음 이 線에서 陣地를 점령하고 蓮谷川 北쪽의 敵陣과 서로 맞대고 있었다。 이때 연대에 배속된 砲兵 제2중대는 그 陣地를 江陵北쪽 道路를 따라 逐次로 躍進시켜 石隅里까지 北進하고 그곳에 陣地를 占領한 다음, 연대를 직접지원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사단의 主攻擊目標인 江陵과 그 西쪽 戰術上의 要衝地帶인 大關嶺—橫溪里를 완전히 점령하고 계속 진격한 다음 蓮谷川 南쪽 雲溪峰—黃烟山을 이은 線에 사단 主陣地를 점령완료하게 되었다。

이때 墨湖에 開設된 사단전방지휘소에는 總參謀長 丁一權 소장과 군단장 金白一 소장이 來訪하여 사단장 宋堯讚준장으로부터 江陵奪還작전의 經過報告를 받은 뒤 合席한 參謀將校團에게 「首都사단의 빛나는 전통을 더욱 살리라」는 要旨로서 그동안의 勞苦를 致賀激勵하고 一線을 시찰한 다음 大邱에 있는 陸軍本部로 歸任한 바 있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敵의 動向 : 敵 제4군단 소속 제69여단은 江陵—大關嶺線에서 死守를 大呼標榜하면서 防禦에 힘썼으나 사단의 一擊에 決定打를 받고 그들의 督戰隊의 斷末魔的인 發惡도 헛수고가 된채로 注文津 北쪽과 太白山脈의 縱貫寶山岳에 이르는 狹路를 타고 四散潰走하고 말았다。

이 무렵 제3군단 正面의 敵 제2, 제9사단등 敵 제2군단 소속부대들도 全體的으로 後退하게 되어 中東部 戰線의 敵은 38°線및 그 北쪽으로 敗退한 다음 再編을 위한 時間의 餘裕를 얻고자 하였다。

특히 戰線最東翼의 敵 제69여단은 江陵附近이 戰術的인 要衝地임을 알아차려 固守하고 首都사단의 진격을 한 전선에서 저지코자 企圖하다가 2월 6일 그 主力이 江陵—邱山里線에서 擊碎된 다음부터는 거의 再起不能한 상태로 後退에 餘念이 없었으며 여단사령부 所在地인 草堂里마저 제26연대에 점령 당하자 그들의 指揮體制는 麻痺狀態에 빠지게 된듯 하였으며 이로 인한 士氣도 극도로 떨어지고 나머지 敗殘兵의 再收拾도 如意치 못한 듯 하였다。

또한 이들의 企圖였던 珍富里 西쪽의 敵 제2군단 主力과의 連繫作戰마저도 제1기갑연대에 의하여 橫溪里 北쪽에서 遮斷 당하게 되자 그 集結力이 瓦解되고 孤立無援상태로 山岳에 潛入하였다가 다시

分散潛走한 것으로 判斷되며 그 潛走經路를 山岳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制空權을 우리쪽이 장악하고 있는 이유도 있지만 東海上에 遊戈하는 우리쪽 艦隊가 海岸一帶를 艦火의 洗禮로서 威壓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제1연대가 江陵을 占領한 다음날인 2월 8일 接敵없이 注文津附近까지 진출한 事實에서도 能히 首肯될 수 있으리라.

我軍의 動向: 사단은 5일간에 걸친 江陵 附近 일대의 攻擊을 終結하고 제1연대(장, 韓 信대령)는 右一線으로서 石橋里—馬岩嶺 일대와,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대령)는 左一線으로써 △635—黃柄山 일대의 線에서 각각 진지를 점령함으로써 始初 육본작명 제262호에 명시된 "R"線의 담당진지를 모두 점령 완료하게 되었다. 또 제26연대(장, 徐廷植대령)는 江陵奪還後 사단 右一線을 제1연대에 인계한 다음 江陵市에 集結하여 次後作戰을 위한 예비대로 一時 控置되고 있었다.

이 무렵 鏡浦에 開設된 사단전방 지휘소에서는 사단장 이하 각 참모들이 그간의 전황을 銳意 검토하는 한편 다음 작전을 위한 모든 策案을 강구하고 있었고 제1연대의 전방지휘소는 主力이 이미 점령한 盧洞까지 急遽 躍進하여 開設하므로서 雲溪峰—盧洞北方을 점령한 一線陣地의 강화에 有機的으로 對處할 수 있게되었다.

그리고 제1기갑연대의 지휘소는 松溪里에서 邱山里로 진출하여 開設하고 더부 擴散된 연대 一線진지의 정리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제26연대는 主力이 江陵 城德國民學校에 집결함과 때를 같이하여 그 지휘소도 이곳으로 移動하였으며 이후 再補給및 부대戰列을 가다듬고 있었다.

한편 사단의 江陵附近戰鬪에서 그간에 거둔 綜合戰果는 다음과 같다.

戰　　果

敵 사살—429명
　포로—28명
　소총—71정
　同실탄—500발
　다발총—15정
　同실탄—1200발
　BAR—11정
　重機—3정
　手榴彈—9정
　直射砲—3문
　로켓砲—1문
　毛布—2장
　배낭—3개

損　　失

전사—45명
부상—130명
실종—4명

(以上 1R, CAVR, 26R 전투상보 종합참조)

2. 橫城—浦洞里附近 戰鬪 (1951년 2월 5일 / 1951년 2월12일)

참조 : 별책부도 제16, 17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軍		敵軍	
美 제10군단장	소장 Edward M. Almond	北共 제5군단	병력 : 약 8,000명
제5사단	장 준장 閔機植	제6사단	장비 : 각종 포 35~40문
제27연대	장 대령 李相喆	제7사단	
제1대대	장 소령 李南爀		
제2대대	장 중령 金在仁		
제3대대	장 대위 朴元寬		
제35연대	장 대령 朴炫洙		
제1대대	장 소령 金順喆		
제2대대	장 소령 金致佰		
제3대대	장 소령 李圖得		
제36연대	장 대령 黃 雄		
제1대대	장 중령 李承雨		
제2대대	장 소령 趙始衡		
제3대대	장 소령 河相道		
배속부대			
포병 제26대대	장 중령 盧載鉉		
제5야전공병대대			
지원부대			
美 제7사단 포병대대			
美 제187 공수연대 전차소대			
병력 : 약 7,500명			
장비 : T/E에 준한 장비를 갖추었음.			

나. 전투 전의 개황

50년 7월 17일에 慶南 馬山에서 解體한 제5사단은 同年 10월 8일에 國本一般命令 제86호에 의거하여 慶北大邱에서 閔機植대령(50년 10월 23일 준장진급)을 사단장으로 하여 再編되었고 10월 16일에는 육본 直轄로부터 제3군단에 配屬되었으며 10월 20일에는, 육본 作命 제220호에 따라 제27연대(장 李相喆대령)가 慶北 浦項으로, 제35연대(장, 金成泰대령)가 晋州—河東地區로, 그리고 제36연대(장

徐鍾喆대령)가 金泉地區로 出動하여 地方共匪와 敗殘兵擊滅作戰에 臨하였으나, 北共의 所謂 제2전선부대가 春川—加平—清平으로 侵襲하여 跳梁하므로써, 사단은 제3군단 作命 제9호(50.11.16)에 따라 作戰任務를 제9, 제11사단에 引繼하고 春川을 目標로 進擊하였다.

11월 24일에 사단 CP는 서울을 거쳐 清平으로 躍進하였고 28일에는 제27, 제36연대가 加平부근에 侵襲한 敵 제2전선부대를 驅逐하고 治安을 回復하였으며 제35연대(장, 金成泰대령)는 제2사단(장, 咸炳善준장)에 배속됨과 동시에 제2사단 제31연대(장, 朴魯珪대령)가 사단에 배속되었다. 12월 1일에는 金成泰대령 後任으로, 朴炫珠대령이 제35연대장으로 就任하였고 다음날에는 제27, 제31연대가 春川으로 進擊하였으며 사단 CP는 3일에 清平에서 春川으로 推進開設하였다.

12월 12일, 제36연대장 徐鍾喆대령은, 黃燁중령과 交替되어 사단 참모장으로 就任하였고, 15일에는 육본 電文 제3506호에 의하여 제35, 제31연대가 각각 원대복귀 하였다. 육본 作命 제246호 訓令 제6호(참조: 작명부록 제67호)에 의하여 華川으로 進擊중이던 사단은 美 제1, 제9군단, 그리고 제2군단이 38°線 부근으로 撤退함에 따라 제27연대(장, 李楣喆대령)를 右一線, 제35연대(장, 朴炫珠대령)를 中間, 그리고 제36연대(장, 黃 燁중령)를 左一線으로 하여 春川北 쪽의 鉢山里—새남골—仁嵐里—芝岩里 線을 占領하여, 北共 제10사단의 侵襲을 擊退하던중 50년 1월 1일 子正을 期한 敵의 一齊攻勢로 春川으로 撤收를 開始하였다.

사단은 北共 제2군단의 侵襲으로 春川지구를 撤收하여, 洪川—橫城線에서 遲延作戰을 展開하던 중 陸本作命 제257호(참조: 작명부록 제115호)에 의거하여 51.1.3부로 제3군단으로부터 美 10제군단으로 배속 변경되었으며, 1월 5일에는 사단作命 제3호에 의하여 原州 西南쪽 漢江沿岸의 原川里—興湖里일대에 陣地를 점령하여, 美 제10군단의 左翼으로서 右로는 제8사단, 左로는 美 제9군단 예하 美 제24사단과 連繫하여 敵의 계속적인 侵襲을 저지하고 있었다.

이 무렵, 北共 제2군단 예하, 제2, 제9, 제31사단은 洪川—橫城線에서 我軍을 挾擊한 다음, 7일에는 原州正面의 美 제2사단 陣地를 突破하여 戰略上의 要衝인 原州를 奪取하였으며, 10일에는 그 主力(제2, 제9사단)이 黃牛線(三陟—寧越—長湖院—烏山) 陣地를 占領중인 제3군단 正面의 原川과 寧越의 間隙으로 侵襲하여 後續한 제31사단 및 제5군단 예하 제12사단과 더불어 美 제10군단 및 제3군단을 前後方에서 挾擊하고자 試圖하였다.

美 제2사단은 Ridgway중장 特有의 對突破戰術의 一環으로 12일 原州를 攻略하여 再奪還하였으나 다음날 堤川—長湖院線의 黃牛線陣地를 점령하여 美 제7사단과 連結을 유지하고 北共 제2사단이 美 제10군단 正面에 대하여 試圖하는 陽攻을 저지하였으며, 美 제7사단은 제3군단과 協同하여 南大里—瓦谷—元滿墟 일대까지 侵襲한 北共 제2, 제9사단에 대한 擊滅作戰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상황의 진전에 따라, 제5사단은 군단 예비가 되어 11일 사단 CP를 榮州로 推進하는 한편, 12일에 제27연대는 豊基로, 제35연대는 永山里(忠北 堤川)로, 그리고 13일에 제36연대는 豊山으로 각각 移動하였으나, 北共 제2사단 일부 병력의 侵透 前線이 韶川里—順興으로 擴大됨에 따라 16일부터 군단계획에 의한 擊滅作戰을 展開하였다.

즉, 제27연대는 豊基 부근의 龍山洞—五叢里—韶川里 一帶에 展開하여 敵의 侵襲을 阻止하였고,

제36연대는 제1대대로서 豐山 부근의 敵을 擊滅케 하는 한편, 연대主力은 17일 葉川로 進出하여 葉川—豐基間의 主補給路를 확보하고 葉川주변에 대한 敵의 威脅을 除去하였으며, 제35연대는 水山里에서 군단 後方 경계임무를 제8사단에 引繼한 다음, 제1대대는 順興으로, 연대主力은 豐基로 각각 進出하여 豐基—丹陽間의 主補給路 주변의 敵을 驅逐하였다.

1월 21일 美 제7사단과 제3군단 左翼인 제3사단 예하 제23연대(제7사단에 배속중)가 角洞里(寧越東南 7km)에서 連結하여 寧越—堤川線을 확보함으로서, 제5사단은 군단예비로 복귀하여 再編成과 教育訓練을 서둘렀다.

이 즈음, 美 제10군단장 Almond 소장은 後方에 浸透한 北共 제2, 제9사단을 邀擊하여 제3군단과 美 제10군단이 黃牛線 陣地를 回復함으로써 退却하는 敵을 계속 追擊하여 捕捉擊滅하는 一方 退路를 遮斷하고 增援하는 敵의 集結據點인 洪川을 包圍공격코자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군단 右翼으로 指定된 제5사단은 美 제7사단을 超越한 다음 橫城 東北方을 공격하기 위하여 橫城부근으로 進出하기에 이르렀다.

사단이 군단 右翼으로서 공격작전 임무를 수행하게된 전투지경선은 右로는 雲橋里(橫城, 屯內)—雲橋里, 左로는 兵之坊里—橫城을 각각 南北으로 連한 線이며 後方지경선은 平昌—橫城間의 42番 作戰路線으로서 右側은 제3군단 예하 제7사단이, 左側은 제8사단이, 그리고 군단 後方지역은 美 제7사단과 美 제187 공수연대가 각각 擔當하였다.

전투지역 西北方에는 春川北方에 이르는 關門인 洪川이, 그리고 西南等에는 戰略上 要衝인 原州가 있으며, 中東部 戰線의 中樞神經線인 春川—洪川—原州 道路가 西側方에 있고, 江陵—大關嶺—橫城 道路는 사단지역 後方을 가로 지르고 있었다. 東側方으로는 泰岐山(△1261)의 連峰이 솟아 海拔 800~1,000m의 高山峻嶺을 이루고 있으며, 正面과 西쪽으로도 竹林山, 國師峰을 비롯한 △499~△609가 雄立하고 斷崖를 이룬 險峻한 山岳地帶로서, 우거진 雜木과 松林, 그리고 不規則한 地形條件은 視界과 視界를 制限하고 直射火器보다 曲射火器의 効用이 增大하였으며 隱蔽와 掩蔽는 彼我間에 良好하나 防者인 敵에게 더욱 有利하였다. 柳洞里 北쪽 鳳凰山에서 橫城으로 흐르는 錦溪川은 사단正面의 中西部를 가로 지르고, 酒泉江은 屯坊內里에서 安興里로, 南北으로 흐르나 結氷하여 彼我間에 障碍物이 되지는 못하였다. 禾洞里에서 屯坊內里를 거쳐 陽地村에 이르는 道路는 橫城—山田里—陽地村—柳洞里에 이르는 441番 本道에 연결되며 橫城—玉洞—中金里를 거치는 山間道路 또한 錦溪川 北方에서 441番 本路에 連結된다. 山岳地帶로서는 比較的 良好한 道路網을 保有하나, 險峻한 地形은 道路 以外의 地形에서의 車輛 및 機甲部隊의 기동을 제한 하였다.

기간중 날씨는 晴明하여 視界과 視界 그리고 空中支援에는 支障을 주지 않았으나 山岳地帶 初春의 아침 저녁 氣溫은—10°C를 오르내렸고 全高地를 뒤덮은 15~20cm의 積雪量은 機動에 障碍가 되었으며 凍土는 築城에 어려움을 주었다.

敵軍의 상황 : 사단과 對峙하게 될 正面의 敵은, 北共 제5군단 예하 제6사단의 主力과 제7사단의 일부로써 제6사단은 그 指揮所를 浦洞里(橫城, 甲川)에 두고 禾洞里—甲川里—屯坊內里—鳥項里를 連하는 線과, 下引里—山田里 浦洞里를 連하는線, 그리고 龍屯里—井金里—酒坊里를 連하는 線에 各各 1개연대를 배치하여 據點을 形成하였다. 제7사단의 1개연대는 中金里—大官堡里 一帶에 據點을

形成하고 제6사단을 增援하고 있었다。

또 제12사단은 군단 예비로서 洪川부근과 柳洞里 一帶에 位置하였으며, 匪隊號 未詳의 1개 포병대대는 浦洞里에 위치하여 제6사단을 지원하고 있었다。

군단은 所謂 敵의 1월공세에서는 제2군단을 後續하였고, 그 先遣부대인 제12사단은 제2군단의 後方侵透와 때를 같이하여 原州—堤川線을 侵襲하였으나 美 제2사단에 의하여 심한 損失을 입고 洪川正面으로 潰走하여 再編成中에 있었으며 後續한 主力인 제6, 제7사단은 제2군단(제2, 제9, 제10, 제27, 제31사단)이 我 제3군단과 美 제10군단의 反擊으로 潰滅하여 撤退하게 되자 이의 退却과 再編成을 掩護하고 我軍의 洪川線 進擊을 阻止코자 1월 下旬에 이곳으로 南下하여 견고한 據點工事를 끝내고, 中共軍의 增援과 同時에 공세로 轉換코자 劃策하고 있었다. 敵은 제12사단을 除外하고는 완전편성에 가까운 人員과 장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地形의 利를 활용하여 下引里—井金里—龍屯里에 중점적으로 據點을 形成하여 사단의 진격을 阻止하는 한편, 險峻한 山岳地帶인 東側方에서는 據點을 形成하지 않고 準遊擊戰으로서 攻防을 配合하여 사단을 誘引 挾擊코자 하였다。

한편 北共 제2군단 主力은 제3군단 正面에서 退却中에 있었고, 北共 제69여단 및 吉元八부대는 東海岸에서 제1군단의 進擊을 저지하고 있었으며, 北共 제1군단은 서울을 侵攻한 다음, 水原 부근에서 美제1군단과 對峙하였고 北共 제3군단은 예비로써 春川北方에 位置하였다. 또한 中共 제38, 제39, 제40, 제42군은 西部戰線의 美 제1, 제9군단과 對峙하고 있었으며 제66군은 예비로서 華川北方에 位置한 것으로 判斷되었다。

我軍의 상황 : 제5사단은, 사단作命 제21호(51.2.1)에 의하여 榮州—豊基—豊山지구의 後方경계 임무를 제2사단에 인계하고 2월 2일 橫城지구로 移動하기 시작하였다. 사단 CP는 2일 榮州에서 平庄里(原城, 所草)로 躍進하였고 제27연대는 順興에서 橋項里(原城, 所草)로 進出하였다. 또 제35연대 主力은 2일 05.00에 豊基를 출발하여 이날 21.00 橋項里로 進出하였으며 竹嶺부근의 主補給路를 경계중이던 연대의 제1대대는 3일 24.00에 橋項里로 移動하였다. 한편 제36연대는 後發隊로서 3일 榮州를 출발하여 이날 저녁에 平庄里로 前進함으로써 사단은 橫城지구로의 進出을 모두 完了하였다。

4일에 제27연대는 美 제187공수연대 戰車 1개소대의 掩護下에 安興里(橋項里 東南 3km)에 進出하여 부근의 △636~△629 일대를 점령하였으며, 제36연대는 烏原里(橋項里 東쪽 7km)로 進出하여 △574—△417—△588를 점령하였다. 제35연대는 橋項里 北쪽의 高地 一帶를 占領하므로써 각 연대는 展開를 完了하고, 공격준비를 서둘렀다。

한편, 美 제10군단 예하 美 제7사단은 1월 14일부터 제3군단과의 協同作戰으로 突破를 試圖한 北共 제2군단 예하 제2사단을 邀擊하고, 1월 24일 寧越—堤川線을 確保한 다음 1월 30일에는 磨磋里—酒泉里 線으로 進出하여, 제3군단 예하 제7사단과 連繫해서 계속 進擊中에 있었다. 美 제2사단은 美 제7사단의 擊滅作戰期間中에 原州—堤川線에 대한 敵 제12사단의 陽攻을 擊退하고 原州를 無血占領한 다음, 2월 2일에 橫城을 占領하였고, 다음 날에는 砥平里를 奪還하여 橫城—砥平里線을 確保하였다。

한편 我 제2사단은, 제5사단의 橫城進出에 따라 2월 3일에 醴泉에서 豊基로 移動하여 軍團後方 경계에 臨하는 한편, 敵 遊擊隊擊滅작전을 수행중에 있었다. 군단 左翼으로서 攻擊作戰에 참가하게된

제8사단은 1월 29일에 黃江(里北 堤川)에서 周浦里로 移動하였고, 2월 4일에는 陵隅里로 進出한 다음 제10연대는 珠山里에, 제16연대는 陵隅里에, 제21연대는 橫城에 각각 展開하였다.

한편 제3군단 右翼인 제9사단은 雅善으로, 左翼인 제7사단은 平昌으로 각각 進擊中에 있었다.

이 무렵 東部戰線의 제1군단은 三陟—松溪里를 確保하고 江陵—大關嶺에 威力偵察隊를 推進하고 있었고, 西部戰線의 美 제1, 제9군단은 1월 25일에 反擊作戰을 開始하여 水原—驪州線에 進擊中에 있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今般의 作戰은, 제3군단과 美 제10군단이 北共 제2군단의 黃牛線 後方 侵透企圖를 粉碎하고 美 제2사단이 橫城—砥平里를 확보함으로써 계획된 것으로 美제10군단계획과 陸本作命 제262호 (참조 작명부록 제189호)에 의하여 제1, 제3군단이 協同하여 수행하게 되었는데, 이 作戰의 主目的은 첫째로 洪川지역을 急速包圍하여 敵의 增援據點을 粉碎하고 要地인 洪川일대를 確保하며 둘째로 제3군단 正面에서 潰滅退却中인 北共 제2군단을 계속 추격하여 再編成의 시간적 여유를 주지않고 捕捉섬멸하며, 세째로는 江陵—大關嶺—下珍富里—洪川—漢江線으로 戰線을 整理하여 서울奪還을 비롯하여 全戰線에 걸쳐 反擊態勢를 갖춘다는 데 있었다.

美제10군단장 Almond소장은 이러한 作戰槪念에 立脚하여 要旨 다음과 같은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① 제5사단은 군단 右翼으로서 橫城 東北方의 敵을 擊滅하고 洪川 東側方을 包圍攻擊한 다음 豐岩里—洪川線을 確保하라.

② 제8사단은 군단 左翼으로서 橫城北方의 敵을 擊破한 다음, 洪川—龍頭里線을 確保하라.

③ 美 제7사단은 平昌—橫城間 道路線(42番道路)까지 進出하여 군단 예비가 되어 제5사단의 側後方을 掩護하며 美 제2사단은 原州—砥平里에서 군단 예비가 되어 제8사단의 側後方을 掩護하라.

④ 美 제187공수연대 戰車隊는 洪川正面에서 제5, 제8사단의 공격을 지원하라.

⑤ 美 포병 2개대대는 제5, 제8사단을 각각 直接支援한다.』

이와 같은 군단계획에 接한 사단장 閔機植준장은 사단의 擔當正面이 작전 初期에 있어서는 20km에 達하는 廣正面이어서, 有機的인 攻擊部隊의 운용이 어려운 點을 考慮하

여 敵情이 比較的 稀薄한 東側方, 즉 烏項里, 所思里, 屯坊內里, 禾洞里地域에 1개연대를 急速히 進擊케 하여 雲橋里—禾洞里線을 確保하므로써 敵의 後方을 遮斷하는 一方, 主攻은 敵線의 中央部로 指向하여 山田里—浦洞里—柳洞里에 이르는 441番 道路線을 中心으로 進擊케 하고 柳洞里—草峴里線을 공격, 奪還함으로써 雲橋里—禾洞里—柳洞里—草峴里線에서 一旦 戰列을 가다듬은 다음, 洪川 東側方을 集中攻擊하는 二段階 作戰計劃을 수립하고 그 一段階 계획에 따라 作命 제22호(51.2.4 13.00)를 下達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洪川 南方에서 蠢動하는 敵을 包圍섬멸하려 한다.

② 제27연대는 烏項里, 所思里를 占領한 다음 屯坊內里—雲橋里—禾洞里로 急速히 進擊하여 敵의 退路를 遮斷하고 包圍섬멸하라.

③ 제36연대는 下大里—山田里—龍屯里를 占領하고 浦洞里를 奪還한 다음 柳洞里—草峴里로 進擊하라.

④ 제35연대는 사단 예비가 되어 현위치에서 차후 지시를 받으라.

⑤ 포병 제26대대는 제27연대를 直接 支援하라.

⑥ 제36연대는 美 포병 1개대대가 공격간 연대를 直接支援한다.

⑦ D일 H시는 51.2.5. 08.00이다。』

(2) 작전 실시

2월 5일 : 이날 사단은 08.00를 期하여 공격개시線인 華昌—橫城間 42番 道路線에서 일제히 躍進,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敵의 큰 저항을 받지 않고 烏項里—所思里—下大里—上下住里線으로 進出하였다。

1. 제27연대(장, 李相喆대령)는 제2, 제3대대를 공격梯隊로 하여 포병 제26대대(장, 盧載鉉중령)의 直接支援을 받으며 공격을 개시하였는데, 右一線인 제2대대(장, 金在仁 중령)는 경계부대로 推定되는 1개소대 규모의 敵의 산발적인 사격을 制壓하고 池邱里를 점령한 다음, 烏項里로 進擊하여 △837를 確保하였으며, 左一線인 제3대대(장, 朴元寬 대위)는 敵과의 接觸없이 所思里(烏項里 西쪽 6km)를 占領한 다음 德高山(△705)을 確保하고, 敵의 侵襲에 대비하였다. 한편 연대 예비인 제1대대(장, 李南周소령)는 공격梯隊인 제2, 제3대대가 烏項里와 所思里로 진격함에 따라, 德鋤山(△664)으로 진출하였으며, 연대 CP는 東倉村으로 躍進하였다. 또한 이날 연대의 공격을 直接支援한 포병 제26대대(장, 盧載鉉중령)는 安興里에서 東倉村으로 推進하여 이날 밤 騷亂射擊을 계속하여 敵의 戰意

를 低下시켰다.

2. 제36연대(장, 黃 燁대령)는 烏原里를 출발하여 美軍 포병대대의 支援射擊을 받으며 下大里—永々浦로 進出하여 각 대대를 展開하였는데 右一線인 제2대대(장, 趙始衡소령)는 대대 관측소를 △358에 두고 그 北쪽 稜線一帶에 陣地를 占領하였으며 左一線인 제1대대(장, 李承雨중령)는 관측소를 △303에 둔 다음 너름바위—永々浦에 이르는 一帶에 각 중대를 배치하여 △547와 △339의 敵과 對峙하였다. 그런데 20.00에 이르러 下大里 東北쪽 △547로 부터 제2대대(장, 趙始衡소령) 지역에 대한 敵의 擾亂射擊이 있자 대대장 趙始衡소령은 81mm 박격포로 즉각 응사하는 한편, 美 포병대대에 制壓射擊을 요청하여 이를 制壓시켰으며, 제1, 제2대대는 敵의 侵襲에 대비하여 경계陣地를 強化하였다. 한편 제3대대(장, 河相道소령)는, 연대예비로서 연대指揮所와 같이 烏原里에 位置하여 연대 側後方 경계에 任하였다.

3. 또한 제35연대(장, 朴炫洙대령)는 사단예비로서 계속 橋頂里에 位置하여 전투준비를 서둘렀으며, 15.00에는 각 대대별로 軍裝검사를 실시한 다음 "군인의 사명"에 관한 연대장 朴炫洙대령의 精神訓話가 있었다.

이날 사단 右隣接인 제7사단(장, 金炯一준장)은 長岩山—桃花德—平昌線까지 進擊하였고, 左隣接인 제8사단(장, 崔榮喜준장) 제21연대(장, 河申清대령)는 치열한 전투끝에 台峰과 碧鶴山을 占領하였다.

2월 6일 : 공격 2일째인 이날, 사단은 어제의 進出線인 烏頂里—所思里—下大里—永々浦에서 중간목표 屯坊內里—蘇屯—陽地村—龍屯里에 대한 공격을 敢行하여, 右一線인 제27연대(장, 李鍾赫대령)는 전투지역내 要地인 酒峰(△896) 龍馬峰(△1,026), 白主峰(△889)을 占領하고 屯坊內里(烏頂里 北쪽 7km)로 진격한 反面, 左一線인 제36연대(장, 黃 燁대령)는 下号里와 龍屯里 一帶에서 敵의 頑強한 저항에 부닥쳐, 연대 右一線인 제2대대(장 趙始衡소령)가 △547를 점령, 확보하는데 그쳤고, 左一線인 제1대대(장, 李承雨중령)는 敵의 強力한 壓迫으로 전날의 陣地인 土下佳里로 撤收하였다。

한편, 사단장 閔機植준장은 제36연대(장,黃 燁대령) 正面에서의 敵의 頑強한 저항에 對應하여 사단 예비인 제35연대(장, 朴炫洙대령)를 제36연대 接敵線의 西쪽인 玉洞으로 進出시켰다。

1. 제27연대장 李鍾赫대령은 사단계획에 의거하여 공격전진에 앞서 要旨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橫城—浦洞里전투에서 奮戰하는 勇士들>

『① 제2대대는 酒峰을 攻擊한 다음 龍馬峰으로 進擊하라.

② 제3대대는 屯坊內里를 공격, 확보하여 敵의 退路와 增援을 차단하라.

③ 제1대대는 제3대대의 공격을 지원한 다음 白主峰을 공격, 확보하라.』

이에 따라 연대는 포병 제26대대(장, 盧載鉉중령)의 공격준비 사격에 이어 06.00에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연대 右一線인 제2대대(장, 金在仁중령)는 전날의 陣地인 △837(鳥頂里 부근)를 떠나 △678 부근에서 1개소대 규모의 敵을 격파한 다음 제5, 제6중대는 酒峰(△896)을 제7중대는 △827(酒峰 西쪽)를 각각 공격하여 08.00에 2개소대 규모의 敵의 저항을 물리치고 酒峰을 奪還하였다. 대대는 포병 제26대대(장, 盧載鉉중령)의 永浪里(鳥頂里 西쪽 4km) 進出에 따라 熾烈한 지원사격을 받으며 △929를 점령한 다음 16.00에는 공격목표인 龍馬峰(△1026)을 점령, 확보하였다.

한편 屯坊內里를 목표로 급속 진격을 개시한 제3대대(장, 朴元寬대위)는, 後續하는 제1대대(장, 李商周소령)의 掩護下에 上嶺里에서 禾洞里에 이르는 道路를 따라 11.00에 屯坊內里로 突入한 다음, 散發的으로 사격하는 敵을 추격하여 △594(屯坊內里 北쪽 3km)와 △665(甲川一里)를 각각 점령하고 敵의 侵襲에 대비하면서 진지편성을 서둘렀다. 제1대

대(장, 李南周소령)는 제3대대(장, 朴元寬대위)가 屯坊內里를 占領한 뒤에 迂回하여 屯坊內里 東쪽 3km의 △736를 占領하고, 1개소대 규모의 敵의 저항을 81mm 박격포의 사격으로 制壓한 다음 白主峰(△889)을 奪還하였으며, 제3중대는 △720(屯坊內里 東北 3km)로 進出하여 제9중대와 連繫하였다。

2. 제36연대장 黃 燁대령은 다음과 같은 공격계획을 수립하였다.

『① 제1대대는 美 戰車隊와 協同하여 △339를 占領한 다음 陽地村(地圖表記는 향촌)—龍屯里 線을 공격, 확보한다.

② 제2대대는 △547—△485를 占領한 다음 蔚屯—陽地村을 奪還, 확보한다.

③ 예비인 제3대대의 1개중대는 蔚屯으로 急速진격케 하여 제2대대 전투 지역내의 敵의 退路를 차단하고 挾擊한다.』

이 계획에 의거하여, 연대의 공격梯隊는 공격준비 사격에 이어 06.00에 일제히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제2대대(장, 趙始衡소령)의 先攻梯隊인 제6중대(장, 金仁德소위)는 △547에서 野砲의 支援을 받는 1개대대 규모의 敵의 頑強한 저항으로 攻擊이 頓挫되자 대대장 趙始衡소령은 연대를 直接支援中인 美 포병대대에 掩護사격을 요청하는 한편, 後續中인 제5중대(장, 朴逸相중위)와 제7중대(장, 姜寅周소위)를 제6중대(장, 金仁德소위) 兩側方으로 增援하였다. 天地를 뒤흔드는 포병의 集中사격과 계속한 美 공군 전투기편대의 空中支援을 받으면서, 일제히 突擊을 敢行하여 3시간에 걸친 一進一退의 熾烈한 攻防戰 끝에 △547 頂上을 奪還한 다음 제7중대(장, 姜寅周소위)를 參望에, 제5중대(장, 朴逸相중위)와 제6중대(장, 金仁德소위)를 탁박골(山田里 北쪽 1km)에 각각 配置하여 敵의 逆襲에 대비하였으며, 제1대대(장, 李承雨중령)의 先攻梯隊인 제1중대(장, 李寅德대위)는 △339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堅固하게 구축된 陣地에서의 頑強한 敵의 저항에 부닥쳐, 한때 공격이 鈍挫되었으나, 美 포병대대의 즉각적인 掩護射擊과 美 제187 공수연대 戰車隊의 火力增援으로, 2시간에 걸친 熾烈한 전투 끝에 △339를 奪還하였다. 대대장 李承雨중령은 餘勢를 몰아 제2중대(장, 金鍾聲중위)와 제3중대(장, 孫萬壽중위)에 敵이 退却한 △317—△412—△247 連綿에 대한 계속공격을 命令하였다. 제2, 제3중대는 瞰制高地인 △412를 集中공격하여 14,30에 陣前에 突入하여 白兵戰을 전개하였으나 井金山에서 增援된 敵 1개대대의 逆襲과 △317와 △247의 敵의 側方사격을 받아 18.00에 上下佳里 陣地로 복귀하였다。

한편 연대예비인 제3대대(장, 河相道소령)는, 제9중대(장, 鄭鉉哲소위)가 蔚屯을 目標

로 진격 중에 있었으나, 제1, 제2대대가 頑強한 敵의 저항에 부닥쳐 진격이 어렵게 되자 연대장 黃 輝대령의 새로운 지시에 따라, 통골(烏原里 東北 4km)로 進出하였고, 제10중대(장, 李殷洙소위)는 上葛里 부근의 △479로 進出해서 연대 右側方을 掩護하는 한편 烽火山 一帶의 敵과 對峙하였으며 제11, 제12중대는 계속 연대 예비로서 烏原里에 位置하였다。

이날 08.00에 작전참모 趙淵表중령과 정보참모 河泰榮소령을 帶同하고 연대를 訪問한 사단장 閔機植준장은 연대의 공격작전을 직접 指導하였는데 비록 계획된 중간목표를 확보하지는 못하였으나 將兵들의 旺盛한 士氣와 果敢한 공격정신에 讚辭를 아끼지 않았다。

한편 사단장 閔機植준장은 제36연대(장, 黃 輝대령) 正面의 敵의 強力한 저항에 對應하기 위하여 사단 예비인 제35연대(장, 朴炫洙대령)를 사단 左一線으로 急進시켜 제36연대 西側方을 攻擊케 하고자 要旨 다음과 같은 命令을 하달하였다。

「제35연대는 24.00까지 玉洞으로 進出하여 龍屯里—井金里—中金里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라.」

3. 제35연대(장, 朴炫洙대령)는 이에 따라 19.00에 玉洞을 목표로 橋頭里를 떠났는데 前衛인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가 下陽东里(橋頭里 東北 5km)에 이르렀을 무렵 敵의 熾烈한 포격을 받아 각 대대는 즉시 전개하여 진격을 계속하였다. 前衛인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는 21.00에 玉洞에 突入하자 곧 1개중대 규모의 敵과 白兵戰을 전개하여 이를 驅逐하고 계속 追擊 중에 있었으며 後續한 제2대대(장, 金致白소령)와 제1대대(장, 金顯哲소령)는 22.00에 楸洞里로 進出한 다음 그 北쪽의 △188와 △166 一帶에 각각 陣地를 占領하였다。

2월 7일 : 이날 航空觀測과 수집된 諜報에 依하면 제7사단(장, 金炳一준장)과 제5사단(장, 閔機植준장) 正面에서 活發한 敵의 움직임과 南下中인 牛馬車가 目擊되었으며, 洪川方面으로 西部戰線의 中共軍 일부 부대가 移動中인 것으로 判斷되었다。

軍은 이러한 敵情으로 미루어 中共軍의 洪川正面에 대한 增援을 우려하였고, 敵이 攻勢로 轉換한다면 戰略上의 要線인 洪川—橫城—原州—堤川 線을 따라 中共軍의 主攻을 指向하고 北共 제2, 제5군단은 堤川—寧越 線으로 助攻할 것으로 판단하여 洪川 正面에 대한 1개사단의 增援을 考慮하였고, 美 제10군단장 Almond소장은 군단 예비인 美 제2, 제7사단에 대하여 군단 左右側方에 대한 경계를 強化토록 措置하는 한편, 제5사단(장, 閔機植준장)과 제8사단(장, 崔榮喜준장)의 洪川 線 進擊을 督勵하였다。

사단장 閔機植준장은, 이러한 상황의 推移에 對應하여, 제27연대(장, 李相喆대령)로서 禾洞里 一帶를 掌握케 하고 敵의 퇴로와 增援을 遮斷하는 한편 일부 병력으로서는 제36연대(장, 黃 燁대령) 正面의 敵 後方을 邀擊케 하는 동시에, 제36연대(장, 黃 燁대령)와 제35연대(장, 朴炫洙 대령)는 早速히 敵의 主抵抗線을 突破한 다음, 敵의 主要據點인 浦洞里와 柳洞里를 점령토록 指示하였다。

1. 제27연대 수색중대는 01.30에 △555—△648(永浪里 北쪽5km)에서 埋伏中, 後方으로 侵透하는 1개중대 규모의 敵을 捕捉하여 2시간에 걸친 熾烈한 交戰끝에 이를 擊退하였으며 04.00에는 迫擊砲의 지원을 받은 增強된 1개대대 규모의 敵이 甲川里 北쪽으로부터 제3대대(장, 朴元寬대위) 正面으로 侵攻하였다. 대대는 즉각 誘導된 포병의 近接支援 사격과 제1대대(장, 李南周소령)의 側方支援을 받으면서 치열한 접전을 반복하였으나, 계속 증원된 敵은 左側인 제11중대에 主攻을 指向하여 包圍코자 試圖하였다. 대대장 朴元寬대위는 제12중대의 全 화력을 左側으로 轉換하는 한편, 제10중대의 1개소대를 △685(甲川—里 南쪽 1km)로 增援하여 侵透하는 敵을 手榴彈과 銃劍으로 血戰을 거듭한 끝에 07.30에 드디어 敵을 擊退하고야 말았으며, 敵은 55具의 屍體와 16정의 小銃을 遺棄하고 禾洞里 北쪽으로 潰退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적인 砲擊과 波狀的인 牽制攻擊으로서 연대의 進擊을 저지코자 發惡하였다。

연대장 李相喆 대령은 제2대대(장, 金在仁중령)를 屯坊內里로 진출시켜 연대 예비로 掌握하는 한편 제1, 제3대대는, 현 陣地를 補強하여 敵의 再侵攻에 대비토록 하였다. 제2대대(장, 金在仁중령)는 06.00에 전날의 진지인 龍馬峯(1026△)을 떠나 10.00에 屯坊內里로 진출하여 예비 진지를 占領하였으며, 제1대대(장, 李南周소령)는 대대 左側인 제3중대와 제4중대로서 제3대대(장, 朴元寬대위)를 지원한 다음, 自主峯(889△)에서 陣地의 再編成을 서둘렀다。

2. 제36연대(장, 黃 燁대령)는 이날 06.00부터 전날에 이어 敵의 主要據點線인 葛屯—陽地村—龍屯里에 대한 공격을 敢行하여 激戰을 전개하였으나 전날 보다도 增強된 敵의 저항으로 그 進展을 보지 못하였다. 右一線인 제2대대(장, 趙始衡소령)는 葛屯—陽地村을 목표로 공격중 下弓里(山田里 東쪽 2km)를 통과할 무렵 △485—△348 一帶로부터 野砲의 支援을 받는 增強된 1개대대 규모의 敵의 頑強한 抵抗을 받았다. 포병 제압사격에 뒤이어 대대는 일제히 躍進을 거듭하여 突擊線에 이른 다음 白兵戰을 전개해서 △485 頂上까지 進出하였으나 敵의 逆襲으로 下弓里 부근의 △367—△518로 후퇴하여 陣地를 占領

하였다. 또 左一線인 제1대대(장, 李承浦중령)는 陽地村—龍屯里를 목표로 하여 전날의 苦戰을 挽回코자 일제히 突進해서 △339의 敵을 白兵戰으로 一擊에 무찌른 다음 敵의 據點인 △317—△412—△247 連峯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였으나, 증강된 1개대대 규모의 敵의 頑強한 저항으로 一進一退의 攻防戰을 전개중이었다. 치열한 砲撃과 空中爆撃으로서도 掩蔽된 壕속에 숨어 있는 敵에게는 큰 打撃을 주지 못한듯 하였으며, 무릎이 빠지는 積雪量은 대대의 공격기동에 많은 障碍가 되었다. 연대 예비인 제3대대(장, 河相道소령)는 제9, 제10중대를 전날에 이어 통골 —△479에 배치하고 제11, 제12중대를 웃거리(烏原里東쪽 2km) 부근의 △462로 진출시켜 연대 側後方 경계를 강화하였다。

3. 제35연대(장, 朴炫洙대령)는 07.00에 進撃을 시작하였으나 隣接 제36연대(장, 黃 燁대령)가 強力한 敵의 저항으로 진격이 阻止되자, 사단장 閔機植준장의 命令으로 玉洞北쪽 高地一帶에 각 대대를 전개하고 새로운 作戰指示를 待機中에 있었는데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는 △212에, 제2대대(장, 金致伯소령)는 △291에 그리고 연대 예비인 제1대대(장 金順鎭소령)는 "무덤실"부근의 △174를 각각 占領하였으며, 연대指揮所는 이날 10.00에 美 戰車隊의 엄호를 받으면서 橫城을 경유하여 玉洞으로 推進 開所하였다。

4. 한편 포병 제26대대(장, 盧載鉉중령)는 전날에 이어 永浪里에서 제27연대(장, 李相鎭대령)를 직접 支援하였으며, 제5야전공병대대는 대대 CP를 平庄里에 두고 제1중대를 제36연대(장, 黃 燁대령)에 배속하여 對戰車 地雷와 障碍物을 除去하며 美 戰車隊의 進出을 誘導하였고, 제2, 제3중대는 美 제7사단 공병대대와 協同하여 平昌—橫城間 42番 道路를 補修하였다. 또한 대전차 공격대대는 사단 예비로서 平庄里에 위치하여 사단 CP 경계임무를 담당하였다。

2월 8일 : 이날 사단은 右一線인 제27연대(장, 李相鎭대령)가 공격목표인 禾洞里를 奪還 확보하고 일부병력으로서 敵의 後方據點인 飢洞里를 기습하였으나 敵의 逆襲으로 撤收하게 되자, 사단장 閔機植준장은 主攻인 제36연대(장, 黃 燁대령)의 상황을 勘案하여 戰線을 整理하고자 제27연대 主力을 烏頂里—古用里—所思里線으로 撤收토록 命令하였으며, 사단 主攻인 제36연대(장, 黃 燁대령)는 右一線인 제2대대(장, 趙始衡소령)가 下弓里 北쪽의 據點을 奪還하였으나 天然的인 大障壁(前方에 전초 기지로서 적합한 △339가 있으며 그 後方 1km지점에 主陣地로서 조건을 갖춘 △317—△412—△247가 東西로 連峯을 이루며 東側方으로는 △350—△344가, 西側方으로는 △378—△411가 각각 南北으로 防壁을 이루고 後方으로는 △476—△439가 聳立하여 逐次的인 예비진지로서 適合하다)을 이룬 要地

를 占據한 北共 제6사단 예하 1개연대의 敵을 3일째 계속 공격중인 제1대대(장, 李東雨중령)는, 一進一退의 격전을 거듭할 뿐으로 커다란 進展을 보지 못하였다. 한편 제35연대(장, 朴泫洙대령)는 제36연대의 西側方 瞰制高地인 國師峯(△498)을 탈환 확보함으로써 難攻 可守를 믿고 있던 敵의 據點도 그 西側背가 遮斷되어 威脅을 받기에 이르렀다.

1. 제27연대제3대대(장, 朴元寬대위)는 04.00에 공격을 시작 하여 제1대대(장, 李南周소령)의 並進 掩護下에 1개중대 규모의 敵을 기습공격하여 05.30 禾洞里를 占領한 다음, 退却하는 敵을 추격해서 北쪽 △652—△508를 탈환 확보하고 陣地編成을 서둘렀으며, 제1대대(장, 李南周소령)는 제3대대의 禾洞里 진출과 동시에 사단계획에 따라 敵의 後方을 기습공격하여 攪亂함으로써 膠着된 제36연대(장, 黃輝대령)의 進出路를 打開코자 敵의 後方據點인 柳洞里를 목표로 隱密히 기동하였다. 08.00에 柳洞里 東南쪽에 있는 △301에 다다랐을 무렵 敵 경계부대에 발견되어 交戰이 전개되자, 대대는 즉시 공격을 加하여 2개소대 규모의 敵을 擊破하고 北쪽의 △364를 占領하였으나 北共 제12사단 소속으로 推定되는 增強된 1개대대 규모의 敵이 대대兩翼을 포위하면서 逆襲을 加하였다. 대대는 대대장 李南周소령의 陣頭指揮下에 渾然一體가 되어 激戰을 전개하였으나 優勢한 병력의 敵은 대대를 완전히 포위하는 동시에 사시각각으로 포위망을 압축하였다. 대대장은 상황의 緊迫함을 直感하고 즉시 이 重圍를 돌파하면서 全力撤收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肉迫戰을 계속하면서 血路를 뚫고 突出路를 헤치게된 대대 主力은, 俗稱 종지말(甲川—里北쪽 2km)까지 進出한 제11중대의 收容下에 敵의 追擊을 저지하면서 屯防內里로 逐次로 撤收한 다음 14.30에 東倉村으로 集結하였으며 분산된 일부병력은 계속 집결중에 있었다.

한편 대대의 撤收를 掩護하던 제11중대가 계속적인 敵의 공세로 상황이 불리하여 지자, 제3대대 主力은 甲川—里(禾洞里 西南쪽 4km)로 轉進하여 敵의 侵襲을 저지하였으며, 제3대대(장, 朴元寬대위)가 禾洞里로 進出한 다음, 그 東쪽에 있는 正門巨里로 進擊하였던 제2대대(장, 金在仁중령)는 敵 2개중대 규모의 侵攻을 擊退하였으나 제3대대의 轉進에 따라 右側方을 掩護하면서 역시 逐次的으로 後退하게 되었다. 이러한 戰況報告를 받은 사단장 閔機植준장은 제36연대(장, 黃輝대령)의 進出線을 勘案하여 戰線을 整理하고자 제27연대 主力의 撤收를 命令하였다. 이에 따라 接敵을 維持하면서 18.00에 右用里(鳥頂里 西北쪽 4km)로 撤收한 제2, 제3대대는 酒峯(△896)—右用里 一帶에 제2대대(장, 金在仁중령)를, 俗稱 아래 가무대(右用里 西쪽)—德高山(△705)에 제3대대(장, 朴元寬대위)를

각각 배치하여 急編防禦케 하였다. 그런데 23.30에 연대 主力을 追擊한 1개대대 규모의 敵은 右側里와 아래가무대로 侵攻하였으나 포병의 近接支援射擊과 果敢한 반격으로 다음 날 00.15에 이 敵을 擊退하였으며 敵은 42具의 屍體를 버리고 龍馬峰으로 潛走하고 말았다。

2. 제36연대 제1대대(장, 李承雨중령)는 전날 밤부터 △317—△412—△247 線의 敵 主抵抗線에 대한 공격을 계속 敢行하였으나 敵의 頑強한 저항으로 一進一退를 거듭할 뿐 별다른 進展을 보지 못하였다. 04.00에 美 포병대대의 集中支援을 받으면서 發起공격을 敢行한 대대는 제1, 제2중대가 △412를, 제3중대(장, 孫萬壽중위)가 △247을 각각 공격하여 突擊線까지 進出한 다음 手榴彈과 白兵으로 肉迫戰을 전개하였으나 거듭된 敵 예비대의 陣前出擊으로 △339로 撤收하여 追擊하는 敵과 熾烈한 攻防戰을 계속중에 있었으며, 제2대대(장, 趙始衡소령)는 04.00에 下弓里 北쪽의 △348—△485 線의 敵을 기습공격하여 2시간에 걸친 近接戰 끝에 여기를 奪還하고 곧이어 敵의 逆襲을 激戰 끝에 擊退함으로써 下弓里 一帶를 掌握하기에 이르렀다. 대대는 제1대대(장, 李承雨중령)의 混戰 상황을 打開하려는 연대장 黃 燁대령의 命令에 따라 △485 北쪽 稜線과 △272(山田里 北쪽 2km) 一帶로 迂回하여 제1대대의 右側方을 掩護하는 한편 △317의 敵 陣地에 대하여 대대 全火力을 集中發揮한 결과 敵을 擾亂狀態로 이끌게 되었다. 이때에 연대 예비인 제3대대(장, 河相道소령)는 제2대대가 △485—△272로 진출함으로써 暴露하게 된 연대 右一線을 擔當하여 烽火山(△670)으로 進出하였으며 연대 指揮所는 이날 15.00에 鳥原里로부터 자작고개(杜谷里 南쪽 2km)로 推進하였다。

3. 제35연대(장, 朴炫洙대령)는 사단장 閔機植준장의 出動命令에 따라 제36연대 제1대대(장, 李承雨중령)가 激戰中인 △412—△247의 西側方을 攻擊하였는데 연대장 朴炫洙대령은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와 제2대대(장, 金致伯소령)를 併進시켜 龍屯里 北쪽의 國師峰(△498)—△336를 공격케 하는 한편 연대 예비인 제1대대(장, 金順喆소령)는 美 戰車隊와의 步戰協同으로 연대 공격목표 北쪽의 △328를 超越 공격케 하여 敵의 增援과 退路를 遮斷키로 하였다。

右一線인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는 國師峰(△498)을 공격하였는데 北共 제7사단 예하 단대호 미상의 1개대대 규모의 敵은 堅固한 방어陣地를 占領하고 火網을 構成하여 완강하게 저항 하였으므로 대대는 제1대대(장, 金順喆소령)와 美 戰車隊의 東側方을 掩護하면서 一進一退의 激戰을 전개하였으나 14.30에 제1대대(장, 金順喆소령)가 步戰協同으로

△328를 奪還함으로써 挾擊된 國師峰의 敵은 일부의 阻止부대를 殘置하고 井金山으로 退却하기 시작하였다. 대대는 제1대대(장, 金順喆소령)와 美 戰車隊의 支援下에 敵의 阻止부대를 擊破한 다음, 16.30에 國師峰(△498)東쪽 稜線으로 進出하여, 제36연대(장, 黃燁대령) 正面의 敵 主抵抗線 西側背를 遮斷하는 한편, 全火力을 井金山(△476)—△378로 集中하여, 敵 後方을 強打하였다. 한편 左一線인 제2대대(장, 金致伯소령)는 激戰 끝에 2개중대 규모의 敵의 저항을 물리치고 △326를 奪還한 다음, 餘勢를 몰아 △294를 공격 奪還하였으며, 제1대대(장, 金順喆소령)는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가 國師峰을 占領한 다음 玉洞으로 복귀하였다.

4. 한편 이날 右隣接인 제7사단(장, 金炯一준장)은 若洞里—柳浦里線으로 진격하였고 左隣接인 제8사단(장, 崔榮喜준장)은 五音山—大三馬峙—松芝峰 線의 敵 據點을 공격하였으나 敵의 頑強한 저항으로 激戰을 전개중에 있었다. 또한 제3사단(장, 崔錫준장)은 陸本作命 제262호 修正 作戰指示 제3호(참조;작명부록 제198호)에 의하여 제3군단(장, 劉載興소장)으로부터 美 제10군단(장, Edward M. Almond 소장)으로 배속이 변경되어 橫城으로의 진출을 서두르고 있었다.

2월 9일 : 공격개시 5일째인 이날 제35, 제36연대는 일제히 공격을 敢行하여 敵 主力이 이날 6일부터 4일간에 걸쳐 頑強하게 버티던 △317—△412—△247 連峰의 主要 據點을 突破한 다음 井金里—龍屯里—舊衙里—中金里를 一據에 占領하여 錦溪川 沿岸을 遮斷하는 한편 北共 제6사단 지휘소가 위치한 浦洞里를 兩面으로 包圍하였다.

1. 제36연대 제1대대(장, 李承雨중령)는 美 포병대대의 支援射擊과 제2대대(장, 趙始衡소령) 및 제35연대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의 側方 지원을 받으면서 이날 04.00에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317—△412—△247를 固守하는 敵은 발악적으로 頑強히 저항하였으나 제1중대(장, 李貢德대위)에서 抜進한 15명의 特攻隊는 一躍又一躍으로 敵陣속으로 뛰어들어 미친듯이 불을 뿜는 敵 기관총 진지를 手榴彈과 帶劍을 휘둘러 하나 하나 擊滅하였는데 여기에 힘입은 대대 主力은 일제히 喊聲을 지르며 突擊戰을 敢行하여 △412를 일거에 점령한 다음, △317와 △247의 敵背後를 찔러 逐次로 奪還하고, 井金山으로 潰走하는 敵을 계속 追擊하였다. 그런데 敵은 17~18세의 나이 어린 北共 兵士의 발목에 鐵鎖를 채워 기관총에 매달아 놓은채 天人共怒할 督戰을 하고 있었으나 正義의 鐵槌는 드디어 그들의 主據點을 撲殺내고야 말았으며 126具의 屍體와 8정의 기관총 그리고 각종 소총 35정을 遺棄한채 앞을 다투어 潰走하였다. 士氣衝天한 대대는 敵 收容부대의 繼戰意

志를 잃은 散發的인 저항을 擊破하고 12.30 에 井金山(△476)을 占領한 다음 각 중대는 앞을 다투어 戰果를 확대하였다. 제1중대(장, 李寶德대위)는 계속 敵을 熊谷(舊坊里 北쪽 2km)으로 追擊한 다음 △355를 占領하고 1개소대를 浦洞里 西北쪽인 △268로 推進매복케 하였으며, 제2중대(장, 金鐘燁중위)는 △495로, 제3중대(장, 孫萬壽중위)는 △345로 각각 진출하였다. 한편 제2대대(장, 趙始衡소령)는 제1대대(장, 李承雨중령)의 공격을 支援한 다음, △280(陽地村)의 敵 1개중대를 擊破하고 18.00에는 구용골(陽地村 東北쪽) 부근으로 進出하여 △372—△350 一帶에 陣地를 占領하고 浦洞里의 敵과 對峙하였으며, 제3대대(장 河相道소령)는 06.00에 烽火山(△670)으로부터 공격을 개시하여 △527(下弓里 東쪽 2km)를 奪還하고 다시 △448(堂下 부근)를 공격해서 敵 1개중대를 무찌른 다음 △292--△448 線에 陣地를 占領하여 敵의 侵襲에 대비하였는데, 이날의 전투에서 제11중대장 李光雨소위는 壯烈한 戰死를 하였다. 이로써 연대는 지난 6일부터 4일간에 걸친 一進一退의 激戰끝에 敵主抵抗線을 突破하고 熊谷(大官基里 東쪽 2km)에서 高地에 이르는 東面斜線上에 陣地를 占領하였으며, 主抵抗線에서 退却한 北共 제6사단 主力은 浦洞里에 收容부대를 殘置한 다음 柳洞里—草峴里--栗洞里 一帶로 撤退하였고 舊坊里--中金里에서 退却한 北共 제7사단 예하의 1개연대 규모의 敵은 三巨里부근 御踏山으로 潰走하였다。

2. 한편 제35연대(장, 朴炫洙대령)는 제36연대(장, 黃燁대령)의 主抵抗線突破와 때를 같이하여 錦溪川 沿岸을 목표로 공격 전진하였는데 右一線인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는 제36연대 제1대대(장, 李承雨중령)의 △317—412—247 線에 대한 공격을 側方支援한 다음 敗敵을 追擊하여 熊谷 西쪽의 △306--△247로 進出하므로써 제36연대 제1대대(장, 李承雨중령)와 連結하였다. 또 左一線인 제2대대(장, 金致伯소령)는 △252(大官基里 부근)를 점령하고 계속 追擊中, 2개중대 규모의 敵의 거센 저항에 부닥쳐 金溝里 부근 無名高地에 陣地를 占領하였고, 연대 예비인 제1대대(장, 金順喆소령)는 美 戰車隊와 協同하여 戰果를 擴大하면서 中金里로 진출하였다。

3. 제27연대(장, 李相喆대령)는 이날 00.15에 酒峰(△896)과 아래가무네(所思里 北東 4km)에 대한 1개대대 규모의 敵의 攻勢를 격퇴한 다음, 06.00부터 제2, 제3대대의 陣地를 再編成하였는데, 右一線인 제2대대(장, 金在仁중령)는 △743(馬領里 東쪽 3km)— △861(寺峴부근)—酒峰(△896) 一帶에 제7, 제5, 제6중대를 각각 配置하였다. 또 제3대대(장, 朴元煜대위)는 △576(酒店村부근)—△553(아래가무네 부근)—德高山(△705) 一帶에 제11, 제10, 제9중대를 配置하여 陣地구축을 서둘렀다. 연대 수색중대는 △693—△694(馬頂里

北쪽 5km)까지 推進偵察하였으나 接敵狀況은 없었으며, 연대 예비인 제1대대(장, 李南周소령)는 東倉村(池峴里 西쪽 2km)에서 再編成中에 있었다。

2월 10일 : 이날 사단장 閔機植준장은 제3사단(장, 崔錫준장)의 橫城진출에 따라 作戰임무와 전투地境線의 일부가 變更될 것에 미리 對備하여 戰線을 정리하는 한편 攻擊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要旨 다음과 같은 命令을 下達하였다。

『① 제35연대는 제36연대를 超越하여, 浦洞里를 攻擊한 다음 A線上의 陣地를 占領하라.

② 제36연대는 제35연대의 공격을 支援한 다음 命에 의하여 A線上의 陣地를 점령하라.

③ 제27연대는 現作戰 임무를 美軍側에 引繼하고 浦洞里로 진출할 준비를 갖추라.』 그런데 이 作命에서 말하는 A線은 제27연대의 現陣地線인 烏頂里—石用里를 起點으로 하여 활마루(浦洞里 東南쪽 4km)—浦洞里—父兄岩(浦洞里 西北쪽 3km)을 連하는 線이다.

1. 제35연대 제2 및 제3대대는 제36연대 제1대대(장, 李承雨중령)를 超越 공격하여 2개중대 규모의 敵守부대의 저항을 擊破하고 浦洞里 부근의 △322, △418高地를 逐次로 奪取한 다음, 10.00에는 드디어 敵의 主要 據點인 浦洞里를 完全히 占領하였으나 이곳에 位置하였던 北共 제6사단 指揮所는 이미 退却한 다음이어서 捕捉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敵의 逆襲에 對備하여 警戒中인 勇士들>

많은 敵文書와 25箱子의 實彈을 鹵獲하였으며 연대는 계속 浦洞里 北쪽의 △362와 △290를 占領하고 사단作命에 따라 A線上의 陣地를 占領하고 이를 보강하였다.

즉 제2대대(장, 金致伯소령)는 △341(浦洞里 北쪽 2km)를,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는 △283(浦洞里 西北 4km)를, 그리고 後續한 제1대대(장, 金順喆소령)는 △547(浦洞里 西北 4km)를 각각 占領하여 敵의 逆襲에 대비하였으며, 연대 指揮所는 이날 舊防里로부터 浦洞里로 推進開所하였다。

2. 제36연대(장, 黃 燁대령)는 主攻임무를 제35연대(장, 朴炫洙대령)에 引繼한 다음 該연대의 공격을 지원하여 成功으로 이끌게 하였으며 그뒤에 現陣地에서 再編成과 部隊정비를 서둘렀는데, 13.00에 연대장 黃 燁대령의 안내로 제1대대(장, 李承雨중령)를 방문한 사단장 閔機植준장은 전날의 △317—△412—△247 전투의 승리를 致賀하는 동시에 殊勳중대(장, 李寅德대위)의 勇戰을 激讚하고 特攻隊원 15명에 대하여는 金一封을 주어 10일간의 특별 휴가를 명하였다。

3. 제27연대(장, 李相喆대령)는 移動준비를 갖추며 防禦임무를 계속 遂行하였는데 屯坊內里 부근으로 推進한 연대수색중대는 △665(屯坊內里 東쪽 2km)와 △685(屯坊內里 西北 3km) 一帶에서 出沒하는 1개연대 규모의 敵을 目擊하였으며, 復歸中 △645(屯坊內里 南쪽 2km)에서 敵 1개소대의 기습사적을 받았으나 30분간의 交戰으로 이를 擊退한 다음 11.30에 歸隊하였다。

21.30에는 1개중대 규모의 敵이 제7중대 正面인 느름실(鳥頂里 東쪽 5km)에 威力搜索을 敢行하였으나 1시간의 交戰끝에 擊退하였다。

4. 한편 포병 제26대대(장, 盧載鉉중령)는 이날 10.00에 永浪里로부터 鳥原里로 轉進한 다음 계속 제27연대(장, 李相喆대령)를 直接支援하였으며 제5야전공병대대의 제2, 제3중대는 平昌—橫城間의 作戰路 보수작업을 美 제7사단 공병대대에 인계하고 陽地村으로 진출하여 地雷除去와 浦洞里에 이르는 補給路 보수작업을 서두르고 있었다。

이날 橫城으로 진출한 제3사단(장, 崔 錫준장)은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를 玉洞으로, 제23연대(장, 金淙舜대령)를 引川里(橫城 東北쪽 7km)로 각각 진출시켜 제5사단 제35연대(장, 朴炫洙대령)의 작전지역을 인수하기 시작하였다。

2월 11일 : 이날 사단장 閔機植준장은 제3사단(장, 崔 錫준장)의 橫城 北方 進出에 따라 確定된 美 제10군단(장, Edward M. Almond 소장)의 作戰計劃에 의거하여 作命을 示達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洪川 包圍作戰 임무를 제3사단에 인계하고 전투지역내의 敵을 계속 공격하려 한다.

② 제27연대는 現作戰임무를 美 제187 공수연대에 引繼하고 51.2.11. 24.00까지 浦洞里로 移動하여 차후의 指示를 받아라.

③ 제35연대는 51.2.11. 11.00를 期하여 目標 N(註 草峴里, 柳洞里)를 공격 확보하라.

④ 제36연대는 1개대대로서 △463를 점령하여 제35연대의 공격을 支援하고 A線上의 陣地를 점령한 다음 제35연대가 目標 N를 확보하는 즉시로 공격을 개시하여 目標 O(下大二里, △685, △520)를 확보하고 계속 目標 P(中川一里, △578, △591)를 攻擊하라.

⑤ 포병 제26대대는 51.2.11. 09.00까지 陽地村으로 移動하여 美 포병대대와 交代한 다음 사단을 一般支援하라. 但 火力의 優先權은 제35연대에 附與한다.

⑥ 제3사단과의 전투地境線은 陽地村에 制限點을 두고 兵之坊里(浦洞里 北東 7km)까지 連結한 線이다.』

1. 제35연대장 朴炫洙대령은 사단 作命을 受領한 다음 目標 N공격에 앞서 要旨 다음과 같은 공격命令을 下達하였다.

『① 제2대대(장, 金致伯소령)는 △364(草峴里 東쪽 3km)를 공격 확보한다.

②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는 △590(栗洞里)를 점령한 다음 △662(栗洞里 北쪽 1km)를 奪還하라.

③ 제1대대(장, 金順喆소령)는 제2, 제3대대의 공격을 지원한 다음, 제2대대의 △364 점령과 동시에 道路를 따라 突進하여 △388(柳洞里 東北 2km)를 공격확보하라.』

이와같이 하여 연대는 사단의 先攻梯隊로서 敵의 最後據點인 草峴里—柳洞里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11.03에 △341(浦洞里 北쪽 2km)에서 공격을 시작한 金致伯소령 지휘하의 제2대대는, 사단계획에 의거하여 △463(浦洞里 東쪽 3km)를 점령확보한 제36연대 제1대대(장, 李承雨 중령)의 掩護下에 梅日里(浦洞里 東北 2km)로 進出한 다음, 草峴里 東北쪽의 △281 下端開濶地를 통과할 무렵 강력한 포병지원을 받는 1개대대 규모의 敵의 熾烈한 사격을 받아 공격이 鈍挫되었으며,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는 栗洞里 南쪽의 △352로 進擊中 敵의 熾烈한 포격과 1개대대 규모의 敵의 陣前 出擊으로 一進一退의 激戰을 전개하였다. 地形의 不利와 상황의 緊迫함을 勘案한 연대장 朴炫洙대령은 즉시 사단장 閔機植준장에게 현재의 상황을 보고한 다음, 再攻擊을 위하여 일단 撤收할 것을 命令하였다.

제2대대(장, 金致伯소령)는 제36연대 제1대대(장, 李承雨중령)의 掩護아래 △342(梅田里 西北 1km)로 撤收한 다음 浦洞里 부근의 △325—△341로 移動하였고,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는 後續한 제1대대(장, 金順喆소령)의 收容陣地를 거쳐 △547(浦洞里 西北 4km)로 撤收하였다. 한편 △283(浦洞里 西北 4km)에서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의 撤收를 掩護한 제1대대(장, 金順喆소령)는 △342를 점령하였다. 이와같이 陣地를 점령한 각 대대는 再編成과 再攻擊 준비를 서둘렀으며, 연대의 공격을 支援한 사단 포병대대는 草峴里—栗洞里—柳洞里에 대한 射擊을 계속하여 敵의 砲兵陣地를 제압하는 한편 敵의 逆襲을 遮斷하였다。

2. 제36연대 제1대대(장, 李承雨중령)는 사단作命에 의거하여 이날 08.00에 공격을 시작하여 1개중대 규모의 敵의 頑強한 저항을 擊破하고 11.30에 嗾制高地인 △463(浦洞里 東北 3km)를 점령하여 제35연대 제2대대(장, 金致伯소령)의 공격과 撤收를 掩護한 다음 연대장 黃 燁대령의 命令에 따라 A線上의 陣地인 浦洞里 東南 1km지점의 無名高地를 점령하여 연대 主力의 "A"線 陣地 進入을 掩護하였다. 사단장 閔機植준장의 口頭命令에 의거하여 19.30에 A線上의 陣地進入을 개시한 연대 主力은 21.00에 제2대대(장, 趙始衡소령)가 △482(陽地村 東北 3km)에 그리고 제3대대(장, 河湘道소령)가 △547(陽地村 東쪽 3km) 一帶에 각각 陣地를 점령하였다. 그런데 연대의 機動을 探索한 敵은 陣地編成도 完成하기 전에 野砲射擊을 加하여 교란을 획책하는 한편 1개대대 규모의 敵은 竹林山(△641)으로부터 제1, 제2대대 정면으로 侵攻하였다. 연대는 이날 烏原里로부터 陽地村으로 躍進한 포병 제26대대(장, 盧敬鉉중령)의 近接支援射擊下에 2시간에 걸친 치열한 공방전 끝에 敵을 격퇴하였으며 포병대대는 竹林山(△641) 一帶에 계속 사격을 集中하여 敵의 砲兵을 制壓하는 한편, 增援과 再侵襲을 遮斷하였다。

3. 제27연대(장, 李相喆대령)는 現陣地를 美 제187 공수연대에 引繼한 다음 浦洞里를 목표로 進出中에 있었으나 제35연대(장, 朴炫洙대령)의 목표 N(註 : 草峴里—柳洞里)에 대한 공격이 鈍挫되므로써 사단장 閔機植준장의 口頭命令에 따라 제2, 제3대대는 山田里와 陽地村으로 각각 進出하게 되었는데, 제1대대(장, 李南周소령)는 08.00에 東倉村을 撤收한 다음 中山—虎岩峴—蘑菇—陽地村을 거쳐 24.00에 浦洞里로 進出하여 北쪽의 △362를 점령하였으며, 제2대대(장, 金在仁중령)는 09.00에 烏頂里(橫城 東南 23km)에 集結하여 酒店村—虎岩峴을 거쳐 제1대대를 後續해서 23.00에 山田里(橫城 東쪽 9km) 北쪽 닥박골로 進出하였다. 또한 제3대대(장, 朴元寬대위)는 자작亭에 집결한 다음 高德峴—蘑菇

을 거쳐 21.00에 陽地村 西쪽 △317에 陣地를 占領하였다。

4. 포병 제26대대(장, 盧敬鉉중령)는 이날 06.00 美 제187공수연대 전투단 戰車隊의 掩護下에 烏原里를 출발하여 08.30에 陽地村에 進出한 다음 美 포병대대와 그 임무를 교대하여 사단을 一般支援하였다。

2월 12일 : 이날 02.00를 期하여 敵의 所謂 2월공세는 美 제10군단 全線에 걸쳐 敢行되었다. 中共 제13병단(장, 李天佑) 예하 제66군(장, 鍾新提)의 제196, 제197, 제198 사단과 제3, 제8사단이 正面으로 侵攻하였고, 제40군(장, 韓先楚)의 제118, 제119, 제120사단은 제8사단 西側方으로 侵攻하는 한편, 中共 제39군(장, 吳信泉)의 제115, 제116, 제117사단은 華平里의 美 제23연대 陣地를 包圍하기 시작하였다.

北共 제5군단 예하 제6사단 主力은 平昌--橫城間의 42番 作戰路를 遮斷하기 위하여 中川里—屯防內里—烏頂里—右周里 一帶로 迂回하여 平昌 西側方으로 直衝하였고, 北共 제12사단은 제3사단 正面으로, 北共 제7사단 主力은 제5사단 正面으로 각각 그 重點을 指向하였다。

1. 제27연대 제1대대(장, 李南周소령)는 전날 24.00에 浦洞里 北쪽 △362에 進入하여 急編防禦中, 이날 02.00에 敵 1개대대 규모의 공격을 近接戰으로 一旦 擊退하였으나, 2개대대 규모로 증강된 敵의 再次攻勢로 地形과 兵力上으로 連次로 不利하게 되어 熾烈한 交戰을 계속하면서 03.50에 △495(浦洞里 西南 3km)로 逐次 遲延戰으로 계속 敵의 侵襲을 阻止하고 反擊態勢를 갖추었으나 사단계획에 의하여 05.00에 撤退를 개시하여 08.00에 新村으로 轉進하였으며, 제3대대(장, 朴元寬대위)는 △317(陽地村 西쪽 1.5km)에 阻止陣地를 점령한 다음 06.00에 제3사단(장, 崔 錫준장) 正面을 突破하고 侵透하는 中共 제196사단(장, 成小甫) 예하의 1개대대 규모의 敵을 捕捉하여 熾烈한 交戰 끝에 擊退한 다음, 10.00에 新村으로 集結하였다. 한편 제2대대(장, 金在仁중령)는 △271(龍屯里 南쪽 1km)에 병력을 배치하고 敵의 侵襲을 阻止中 10.00에 撤退를 개시하여 12.00에 新村에 集結하였다。

2. 제36연대(장, 黃 鍾대령)의 正面은 敵의 초기 공세에 있어서는 侵攻이 없었으나, 07.30에 이르러 後方으로 侵透한 1개대대 규모의 敵이 堂下(浦洞里 南쪽 4km)로 侵襲하여, 제3대대(장, 河相道소령) 後方을 威脅하는 한편, 2개소대 규모의 敵은 제1, 제2대대 後方으로 侵透해서 連帶 사격으로써 增援을 遮斷코자 하였다。

제3대대(장, 河相道소령)는 四周방어 陣地를 編成하고 後方의 敵을 邀擊中, 1개대대 규

모의 敵이 正面에서 挾擊하여 血戰이 전개되었다. 연대장 黃 輝대령은 일부병력을 差出하여 제1, 제2대대 後方을 威脅하는 敵을 擊退하였으나 계속 侵透하는 敵이 陽地村一帶를 遮斷하므로서 增援의 길을 打開치 못하였으며 곧 이어 态行된 正面의 敵의 侵攻으로 제1, 제2대대도 熾烈한 交戰을 展開하게 되었다. 孤立된 제3대대(장, 河相道소령)는 휴대할 수 없는 補給品을 전부 燒却하고 대대장 河相道소령의 陣頭指揮下에 白兵戰을 展開하면서 凄絶한 血鬪를 거듭한 끝에 突出路를 打開하고 撤收를 시작하였으며, 제1, 제2대대는 1개대대 규모의 敵의 侵攻을 阻止中「제36연대는 현 陣地를 撤收하여 栗峴에 集結하라」는 사단장 閔機植준장의 명령으로 逐次로 撤收하여, 敵의 侵襲을 阻止하는 한편 敵의 包圍網을 突破하면서 23.00에 栗峴에 集結하였다。

3. 한편 제35연대장 朴炫洙대령은 제27연대 제1대대(장, 李南鳳소령)가 浦洞里 東쪽 高地에서 敵 2개대대와 激戰을 전개하고 있을 무렵인 03.30에 舊坊里에 位置한 제1대대(장, 金順喆소령)의 後方補給所가 中共軍 1개대대로 부터 奇襲을 당했다는 報告를 받았다. 연대장은 즉시 연대지휘소 요원으로 2개소대를 편성하여 △345(浦洞里 西쪽 2km)로 挺進하여 埋伏토록 하는 한편, 제2중대장 李 雄중위 指揮下에 2개소대를 舊坊里 北쪽으로 急進시켜 敵을 邀擊토록 하였으나 △355 南쪽에서 敵과 遭遇하여 進擊이 阻止되었다. 이때, 제27연대 2개 소대와 제3사단 제22연대 1개중대가 原隊로부터 落伍되어 연대에 合流하였으며, 狀況의 緊迫함을 把握한 연대장 朴炫洙대령은 四周防禦陣地를 強化하고 敵의 侵襲에 對備하였다。

14.00에「제35연대는 고내고개(陽地村 北쪽)의 敵을 擊退한 다음, △495를 점령하여 敵의 侵攻을 阻止하라.」는 사단장 閔機植준장의 명령에 따라 14.00에 연대는 浦洞里 北쪽 陣地를 撤退하기 시작하였다。

前衛인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는 浦洞里 西쪽 △418—△322 一帶의 敵의 포위망을 激戰끝에 突破하고 △495를 점령 확보하였으며 後續한 제2대대(장, 金致伯소령)는 道路 右側의 △348—△332(浦洞里 西南 2km)를 占領하였고 後衛인 제1대대(장, 金順喆소령)는 敵의 追跡을 阻止하면서 17.30에 △280(陽地村)를 占領하고 계속 侵襲하는 敵과 熾烈한 交戰中에 있었으나, 다시 示達된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19.30에 橋頂里를 목표로 撤退를 개시하여 血戰을 거듭하면서 敵의 包圍網을 突破하고 다음날 10.00 橋頂里에 集結을 完了하였다。

이 무렵 中共軍 主力에 挾擊된 제8사단(장, 崔榮喜 준장)은 師團 CP를 周浦里로 轉

進하는 한편 原州一文幕線에서 兵力을 收拾하고 있었으며, 제3사단(장, 崔 錫준장)은 遲延戰을 거듭하면서 法泉里 부근으로 集結中에 있었다。

사단장 閔機植준장은 계속되는 敵의 侵攻을 阻止하고 平昌一橫城間의 42番 機動路를 確保하기 위하여 要旨 다음과 같은 作命을 下達하였다。

『① 사단은 雲橋里(平昌, 芳林)一牛頂里(橫城·堤川)線에서 敵을 阻止하려한다.

② 각 연대는 51.2.13. 12.00까지 다음 陣地를 占領하여 敵을 捕捉섬멸하라.

㉮ 제35연대→雲橋里--裵嶺峰(△868)

㉯ 제27연대→裵嶺峰一酒泉江

㉰ 제36연대→酒泉江--牛頂里

但 陣地 進入은 제36, 제27, 제35연대 順으로 한다.

③ 대전차 공격대대는 제36연대 진지 進入과 동시에 原位置로 복귀하여 사단 CP 경계에 任하라.

④ 포병 제26대대는 鶴谷里에 集結하라.

⑤ 사단 右側은 제7사단이, 左側은 제3사단이 각각 擔當한다.』

라. 전투 후의 개황

2월 12일 새벽을 期하여 恣行된 敵의 所謂 2월 攻勢는 中共 제66군(제196, 제197, 제198사단)및 제40군(제118, 제119, 제120사단)이 主軸이 되어 洪川一橫城線에서 제3, 제8사단을 挾擊한 다음 橫城을 奪取하고 中共 제66군은 原州로, 제40군은 原州一文幕으로, 中共 제39군은 砥平里로 각각 殺到하여 美 제2사단을 포위하였으며, 北共 제5군단(제6, 제7, 제12사단)은 平昌一橫城線을 突破하고 堤川正面을 威脅하기에 이르렀다。

美 제8군 사령관 Ridgway 중장은 이러한 美 제10군단 正面의 危機에 對處하여 突破口의 肩部인 原州一砥平里를 확보하고 底邊인 寧越一堤川正面을 封鎖하여 敵 공세의 銳氣를 꺾은 다음에 反擊을 敢行키로 決心하고, 美 제5연대 전투단을 砥平里에 急進시켜 中共 제39軍 主力이 포위공격중인 美 제2사단(결제9연대)을 增援하고 美 제9군단 예하 英 제27여단과 제6사단 제19연대를 美 제2사단 제38연대가 砥平里로 增援함으로써 생긴 文幕正面의 間隙를 擔當토록 하는 한편 美 제7사단, 그리고 제3, 제5사단으로써 堤川正面의 突破口를 封鎖하도록 命令하였다. 한편 軍은 隨本作指 제45호(51.2.12)로서 三陟에 位置한 제1군단(장, 金白一소장)사령부를 堤川으로 急進시켜, 제3, 제5, 제8사단을 麾下에 두고 指揮體系를 確立하는 한편 効率的인 作戰指導로서 美 제10군단의 작전을 支援도록 措置하였다. 美 제10군단 계획에 따라 13, 15.00 烏原里를 撤退한 제5사단은 제27연대를 掩護부대로

하여 門峙一安興里一拜鄕山(寧越, 水周, 斗山) 부근에서 追跡하는 敵과 激戰을 전개하면서 14,21.00에 酒泉一松寒里一務道里 一帶로 移動한 다음 15, 14.00부로 제1군단에 그 배속이 변경되었다。

사단은 CP를 蘆洞(堤川, 松鶴)에 開設하고 公順院 東쪽 酒泉江沿岸一酒泉一新興洞一五味里線에 제27, 제36, 제35연대를 配置하였으나, 16일 새벽 北共 제12사단의 1개연대 규모의 敵이 五味里로 侵襲하므로 제35연대는 金馬里(堤川 東北 12km) 부근 靑龍山(△575)으로 轉進하는 즉시로 사단후방 浸透를 企圖하는 敵을 擊退하였고, 17일에는 제36연대를 松鶴山(堤川 東北 10km) 北쪽에 제27연대를 浦田里 부근인 龍頭山(△874)에 각각 配置하여 戰線을 整理하는 한편 사단 CP와 全 연대CP는 紫谷里(堤川 東北 7km)로 移動하였다。

이 즈음 제1군단 사령부는 務道里(洪川 東北 6km)에 位置하였고 제3사단은 CP를 周浦里에 두고 黃地里(堤川 北쪽 11km)一城南里(原城)間을 占領하여 堤川—原州線을 確保하였으며, 제8사단은 군단예비가 되어 周浦里에서 再編成中에 있었다. 또한 美 제7사단은 사단 右隣接으로서 寧越一堤川線을 그리고 제3군단 예하 제7사단은 寧越正面을 각각 確保하였다. 18일에 이르러 中共 제66, 제40군은 原州一武平里에서 30,000명에 이르는 大量殺傷을 당함으로서 그 銳鋒이 꺾였고 好機를 捕捉한 美 제10군단과 제1군단은 21일을 期하여 일제히 反擊을 開始하였는데, 제5사단은 安東지구의 美 제1해병사단이 橫城지구로 進出하여 反擊作戰에 參加하게 됨으로써 제1군단 作命 제134호(51.2.21)에 의하여 작전임무를 美 제7사단에 인계하고 丹陽一豊基間의 主補給路 경계와 부근에서 蠢動出沒하는 遊擊隊의 격멸을 위하여 22일 丹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 참전자의 증언

◇제27연대 연대장 李相喆대령

(196'.8.28 제2군단장실에서, 소장

사단의 右一線이었던 우리 연대는 제35, 제36연대를 增援하기 위하여 李南周소령이 指揮하는 제1대대를 前衛로 하여 橫城北方 溪谷에 들어갔다가 다음날에 所謂 敵의 2월공세로 後退하게 되었는데, 이때 우리는 門峙一下安興里一拜鄕山에 각 대대를 배치하고 다른 연대의 撤收를 掩護하였다。

堤川을 目標로한 正常的인 機動路는 原州에서 堤川으로 빠지는 것이었으나 時間的인 餘裕가 없고 또 이 道路가 美 제8군의 MSR이어서 下安興里에서 酒泉에 이르는 샛길을 擇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연대는 掩護임무를 끝내고 夜間에 撤收를 開始하였으나 追及한 敵에 包圍되어 激戰을 展開하였고 이 戰鬪에서 제2대대장 金在仁중령이 壯烈한 戰死를 하였다. 나는 陣頭에 서서 제3대대를 直接指揮하며 敵의 包圍網을 突破하였는데 잊지 못할 일은 慶北出身의 朴奭基라는 勇敢하고 百發百中의 名射手가 앞장 서서 出沒하는 敵을 모조리 單發에 處置하며 血路를 打開하였던 일이다. 이 士兵은 勳章도 탓으나 그 다음에 戰死하였다。

여기서 내가 얻은 敎訓은 包圍網을 突破할때에 名射手를 앞장 세우면 큰 成果를 거둘수 있다는 것이었다.

◇제36연대 제3대대장 河相道소령

(66.10.19 제8사단에서, 대령)

제11중대장 李光雨소위는 나의 친구 동생인데 하루는 부대를 벗어나, 美軍과 술을 마시다가

연대장 黃 煒대령에게 摘發되어 處罰하겠다는 말까지 있었읍니다. 나는 내가 處罰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데려다가 잘 타 일렀읍니다。

그 다음 날에 蔚山부근의 高地를 공격하게 되었는데 李光雨 소위는 前非를 뉘우치고 自願하여 決死隊를 組織해서 先頭에 서서 공격하였읍니다。

午後 3時에 이르러, 무전기에서 "대대장님! 高地를 땄읍니다. 高地를 땄읍니다." 하는 李少尉의 歡聲이 연이어 들리다가 무전이 딱 끊어졌읍니다. 나는 "李少尉! 李少尉!"하고 불렀더니 通信兵이 代身 응답하기를 "중대장님은 방금 戰死했읍니다"는 것이에요. 무전기를 잡고 報告하는 瞬間에 敵 狙擊兵의 銃擊으로 목에 致命傷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 瞬間의 나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더군요.

지금까지도 잊지 못할 각슴 아픈 일중의 하나입니다。

3. 橫城附近戰鬪 (51년 2월 5일부터 51년 2월 12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18 호
작명부록 제199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美제10군단 장 소장 Edward M. Almond
제 8 사단 장 준장 崔 榮 喜
제10연대 장 대령 權 泰 順
제 1 대대 장 소령 朴 致 玉
제 2 대대 장 소령 金 同 會
제 3 대대 장 소령 崔 明 道
제16연대 장 대령 李 存 一
제 1 대대 장 대위 鄭 春 泰
제 2 대대 장 대위 韓 炳 甲
제 3 대대 장 대위 崔 昌 煥
제21연대 장 대령 河 甲 淸
제 1 대대 장 소령 元 秉 漢
제 2 대대 장 소령 朴 瑞 權
제 3 대대 장 소령 金 榮 俊

對戰車砲대대 장 소령 朴 蓍 岩
지원부대
포병 제50대대 장 소령 崔 東 勳
포병 제20대대의 2個포대
戰車 1個소대
병력 : 11,300명
장비 : 4.2″追擊砲6문
81mm追擊砲32문
60mm追擊砲82문
3.5″Rocket砲165문
2.36″Rocket砲34문
75mm無反動銃 9정
57mm無反動銃 27정

敵 軍

北共
제 5 군단
제 7 사단
제12사단
中共
제13병단 장 李 天 佑
제40군 장 韓 先 楚
제66군 장 蕭 新 槐
병력 : 96,000명
장비 : 82mm追擊砲—103문
60mm追擊砲—38문
小銅砲 54문
對戰車砲 20문
山砲 41문
92mm步兵砲 29문
化學追擊砲 20문
76mm聯隊砲 18문
76mm師團砲 36문
76mm自動砲 24문
Rockct砲 72문
120mm曲射砲 27문
122mm曲射砲 18문

나. 전투 전의 개황

三陟—烏山線에서 再反擊을 시작한 軍은 51년 2월 初에 西部戰線에서는 美제1, 제9군단이 驪州—利川—水原을 넘어 漢江線으로 進擊하고 있었으나, 中東部 戰線에서는 後方 깊이 侵襲한 北共 제2군단을 捕捉擊滅하기 위하여 그 진출이 지연 되다가 대체로 1월 下旬까지 作戰을 一旦 끝마치고 戰力을 補強한 다음 2월 5일 08.00를 期하여 全面공격으로 移行 하였다。이때에 제8사단(장, 崔榮喜준장)은 中部戰線을 擔當한 美제10군단(장, Edward M. Almond소장)의 左翼으로 橫城地區에서 攻擊을 준비하고 洪川—龍頭里線으로 진격 하였는데 敵도 이른바 2월 攻勢를 敢行하여 그 主攻을 洪川—橫城 軸線을 따라 指向하므로서 여기에 彼我가 서로 크게 激突하게 되었다。

敵軍의 狀況：이 전투 初期에 있어서의 군단 正面에는 北共 제5군단 (제6, 제7, 제12사단)의 團隊號를 確認하였는데 이 敵은 所謂 一月攻勢당시의 北共 제2군단에 後續한 兵團으로서 제12사단을 先頭로하여 原州—堤川線을 沿하여 侵掠하다가 美제2사단의 一擊으로 극심한 損傷을 받고 洪川부근까지 정신없이 後退한 것이다。그뒤에 제6사단은 군단의 右翼인 我제5사단의 正面에서, 제7사단은 當제8사단의 正面에서 各各 저항하는 한편 打擊이 가장 컸던 제12사단은 洪川부근에서 再編 하는것으로 推測되었다。

이들의 企圖는 군단의 공격銳鋒을 막아보려는 同時에 中東部戰線의 背後에서 殲滅的인 쓴맛을 보고 潰走 北上中인 北共 제2군단의 撤收를 掩護하여 부대의 再編成과 再補給의 시간적 여유를 얻고자 하였으며 장차 後續부대의 增援을 기다려 새로운 攻勢로 轉換코자 하였다。

사단 正面의 北共 제7사단은 그 지휘소를 陽德院里 부근에 두고 主力을 展開하되, 5番道路(橫城—洪川)와 6番道路(新村三巨里—龍頭里間)가 交叉되는 三叉路 北方의 碧鶴山(△333)—台峰山(△352)—草院里 一帶에는 연대규모의 兵力을 배치 하였으며 豊水源 北쪽의 聖智山(△791) 一區에는 연대규모로 潛據 하였고 그 예비대는 蒼峰里(洪川 南쪽 11km)부근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團隊號未詳의 砲兵부대가 桃源里(洪川 南쪽 12km)北쪽에서 이들을 支援하는 것으로 揚言하였다。그뒤 사단의 진격에 따라 阻止線이 무너지자 敵은 예비대인 제12사단의 一部가 投入補強되어 集中的으로 五音山(△930)—大三馬峙의 線에서 사단右—線인 제21연대의 進路를 막고 洪川에 이르는 關門을 지키고자 하였으며 이에 呼應하여 聖智山—桃源里를 連하는 要域에서도 그 抵抗이 尋常치 않았다。

그러나 戰車와 重裝備로써 增強된 사단의 과감한 雪中진격으로 그들의 壞滅이 時間문제로 남게되었을 때인 12일 零時를 期하여 攻勢를 取한 中共 兵團群의 狂波로 말미암아 그들은 起死回生을 꿈꾸게 되었고 사단은 새로운 兇敵과 正面으로 衝激하게 되었으니 中共은 이웃 불난집에 揮發油消防호스를 드리댄 것이다。

이 當初 敵은 中共 제13병단(장, 李天佑) 예하의 제66군(장, 肅新槐)과 제40군(장, 韓先楚) 및 제39군(장, 吳信泉)이 中部戰線에 都賣값으로 投入되어, 그 제66군은 三峴里(洪川 南쪽 4km)부근에서 또 그 제39군은 德水里(龍頭里 西쪽 3km)부근에서, 그리고 그 제40군은 陽德院里 부근에서, 各各 反擊 준비를 하다가 이날 大擧攻襲한 것이다。

이들은 中部의 山岳地帶로 戰線을 擴張하여 西部戰線의 突出을 牽制하는 동시에 全戰線의 頹勢를

挽回할 目的으로 그 主攻인 제40, 제66군은 洪川—橫城 軸線을 따라 사단의 正面과 側面을 同時에 攻擊 하였으며, 제39군은 左翼인 美제2사단의 제23연대가 占領하고 있는 砥平里를 包圍 하였다。

사단 前面에는 中共軍 外에도 이에 가담한 北共 제5군단의 一部까지 合勢하여 무려 96,000명에 達하는 큰무리 였으며 그위에 戰車를 포함한 各種 重裝備까지 隨伴 하였으니 즉 122mm曲射砲 18문과 120mm曲射砲 27문, 그리고 Rocket砲 72문과 76mm自動砲 24문을 비롯하여 76mm師團砲 36문과 76mm聯隊砲 18문, 그리고 化學迫擊砲 20문과 92mm步兵砲 29문, 그밖에도 山砲 41문과 對戰車砲 20문을 包含하고 또 小銅砲 54문, 82mm迫擊砲 103문을 爲始하여 60mm迫擊砲 380문 등의 火力을 동원하면서 夜襲으로 攻擊하여 激烈한 血戰을 전개하게 되었다。

我軍의 狀況 : 사단은 이戰鬪에 앞서 1월 中旬부터 下旬까지 군단 後方의 敦溪—沙岩—黃江—堤川 일대에서 北共제2군단의 撲滅戰을 마치고 2월 2일 現在로 사단 指揮部와 제16연대는 周浦里(堤川郡 雲陽面)에 그리고 제10, 제21연대는 神林(原城郡 新林面)부근에 집결하여 各各 부대를 정비하고 교육 훈련을 실시 하면서 다음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무렵 군단은 美제2, 제7사단과 제187공수연대전투단을 一線으로 展開하여 平昌—酒泉里(平昌 西南쪽 15km)—原州 線을 確保하고 漸進 北上中에 있었으며 그 一線 搜索隊는 安興里(橫城 東쪽 20km —橫城—砥平里까지 진출하지 探索戰을 계속하였다。한편 제5사단(장, 閔機植준장)은 丹陽—豐基—榮州 일대에서 군단 東側背로 侵透한 敵을 擊退하고 榮州에서 부대정비와 전투준비를 계속 하였으며, 제2사단(장, 咸炳善준장)은 醴泉에서 부대를 整備中이었다。

이와같이 中部戰線의 前後方에서 새로운 轉機를 마련한 군단장 Almand소장은 軍의 計劃에따라 現前線을 洪川—龍頭里—漢江 線까지 前進 시키기 위하여 戰線의 再調整에 이어 공격을 준비하였으니 곧 제5사단을 榮州로부터 平昌里(原城郡 所草面)로 躍進시켜 군단의 右翼으로 삼고, 當 제8사단은 周浦里에서 橫城부근으로 진출시켜 左翼을 맡도록 하는한편 美제2, 제7사단은 現占領선에서 隣接 군단과의 戰線을 補強하고 側後方을 整成토록하여 攻勢준비를 마친 다음, 2월 5일 08.00을 期하여 全面에 걸친 진격전을 斷行키로 決心하였다。

이當時 사단이 賦與받은 任務의 要旨를 보면『군단의 左翼으로 搜索進出하여 中共 제19병단의 動向을 探索 하는 한편 當面의 敵을 擊滅하고 洪川—龍頭里 線을 占領하라』하였는데 이 攻擊軸線은 5番道路를 主軸으로 하여 橫城—洪川—龍頭里를 連하는 三角形을 이룬 道路網 안의 重山深谷이었다。

이리하여 사단은 2월 4일에 지휘소를 周浦里로부터 橫城 西南쪽 6km의 陵隅里로 躍進開設하고 隸下隊를 橫城부근으로 前進시켜, 河印淸대령이 지휘하는 제21연대와 사단 직할대는 橫城으로, 李存一대령이 지휘하는 제16연대는 珠山里(橫城 西南쪽 9km)로, 楊泰順대령이 지휘하는 제10연대는 사단 지휘소 부근의 衣冠里로 4일까지 이동시킨 다음, 공격준비를 하였다。

사단의 右翼에는 제5사단이 橫城以東을 맡아 平昌里 부근에서 진격준비를 하였으며 左翼에는 美제2사단의 제23연대가 砥平里로 진출하여 사단을 掩護키로 하였다。

사단의 兵力은 예매속 부대를 포함하여 11,300명이었으며 重要裝備는 4.2″迫擊砲6문과 81mm迫擊砲 32문, 그리고 60mm迫擊砲 82문과 3.5″Rocket포 34문을 비롯하여 75mm無反動銃 9挺, 57mm 無反動銃 27정, 등이었고 지원부대로서는 포병 제50대대와, 포병 제20대대의 2個포대 및 戰車 1個小隊(5輛)가 사단을 直接 支援 하였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이 橫城부근의 攻防戰은 陸本 작전 명령 제262호(참조 부록작명 제189호)와 美제8군사령부의 2월 3일자 작전명령에 依據하여 中東部 戰線 진출計劃의 一環으로 惹起하게 되었다。

위의 두가지 작전명령은 同一한 작전槪念으로서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제1, 제3군단과 美제10군단은 D일 H시를 期해 공격을 개시하여 擔當正面의 敵에 對한 再編成과 再補給의 여유를 주지않고 이를 捕捉 擊滅하려한다。

② 現戰線을 江陵—大關嶺—下珍富里—洪川—漢江 線까지 진출시켜 서울 奪還과 38°線으로 向하는 前進據點을 確保한다。

③ D일 H시는 美제10군단장이 現地與件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에따라 美제10군단장 Almond소장은 擔當正面의 洪川—龍頭里—漢江 線까지 진출키 위한 작전계획을 수립 하였는데 당시 군단에서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當面에는 北共 제5군단과 제3군단의 一部가 合流하여 저항할 것으로 예상 하였으나 春川까지 南侵한 中共 제19병단의 行方이 不明이므로 아직 敵의 能力을 측정키 어려운 터이어서 이에 대한 威力搜索을 兼한 局部戰으로 要旨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하였다。

『① 제5, 제8사단을 戰車와 砲兵으로 增强하여 威力搜索을 兼한 局部戰을 斷行하되 제5사단은 右翼으로 鳳岩里—洪川 間을 점령하고 제8사단은 左翼으로 洪川—龍頭里線을 占領한다。

② 美제2, 제7사단은 平昌—橫城—砥平里에서 제2線을 形成하고 敵의 攻擊移轉에 對備하면서 一線 진출부대를 掩護支援한다。

③ 美제187공수연대전투단은 洪川 正面으로 躍進하여 제5, 제8사단의 공격을 支援한다。

④ 제2사단에 배속中인 포병제20대대를 前方으로 推進시켜 一線사단을 直接지원토록 한다。

⑤ 隣接군단과 협조하여 D일 H시를 2월 5일 08.00로 우선 결정한다』

이상과 같은 군단계획에 接한 사단장 崔榮喜준장은 自體의 진출계획을 策定하였다。그런데 사단의 前進軸線上에는 五音山(△930)—碧鷄山—望峰山—聖智山(△791)—萬基山(△685) 등이 雄立하여 그 山容이 峻嶮할 뿐아니라 평균 30~50cm의 積雪로 徒步부대 및 機

械化부대의 機動에 많은 制限을 주었으며, 공격正面은 21km에 達하는 廣正面인 까닭으로 有機的인 梯隊 運用이 어려웠고, 아직 正確한 敵情을 入手하지 못한채로 威力搜索을 兼한다는 條件등을 配慮한 끝에 機械化 부대의 運用이 容易한 5番道路(橫城—洪川간)와 6番道路(新村三巨里—龍頭里간)를 兩軸으로 하면서 逐次로 약진키로 하였다。 즉 제21연대(장, 河甲淸대령)를 主攻으로 하여 戰車小隊(5輛)와 포병 제20대대에서 지원하는 2個포대로써 直接지원토록 그 衝擊力과 火力을 補強토록 한다음 5番道路의 軸線을 따라 洪川으로 진격케 하였으며 左一線에는 제16연대(장, 李存一대령)를 6番道路를 따라 龍頭里로 약진토록 하였고 제10연대(장, 權泰順대령)는 中央으로 진출하여 聖智山을 넘어 陽德院里로 급진토록 하여 全面에 걸친 위력 수색을 단행할 결심을 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사단 작전명령 제110호(51. 2. 4)를 下達 하였다。

『① 사단은 搜索戰을 펴면서 當面의 敵을 擊滅하고 洪川—陽德院里—龍頭里線까지 진출 하려한다。

② 제21연대는 5番道路를 따라 碧鶴山—독재峰—五音山을 점령한다음 洪川으로 진격하라。

③ 제10연대는 梨木洞—豊水源을 攻略한다음 聖智山을 넘어 上西安里(洪川 西南쪽 6km)—陽德院里 線을 점령하라。

④ 제16연대는 6番道路를 따라 曾安里로 진출한 다음 靑綠峰(△443)을 넘어 龍頭里로 진격하라。

⑤ 전차소대와 포병 제20대대(一)는 제21연대를 직접지원 하라。

⑥ 포병 제50대대는 사단을 一般支援하되 火力의 우선권을 제16연대에 두라。

⑦ 各연대는 목표를 점령하면 陣地를 構築하고 擔當正面에 대한 探索戰을 전개하라。

⑧ 공격개시 시간은 2월 5일 08.00이다。』

(2) 작전실시

2월 5일 : 사단은 전날까지 전투준비를 완료하고 계획대로 이날 08.00를 期하여 공격을 開始 하였다。

이날의 前進目標는 橫城 西北쪽 6km지점인 新村三巨里로 부터 6番道路 以南을 占領하여 前進據點을 確保 하는데 있었는데 三叉路 北方의 要線을 占據한 敵의 저항으로 左一線 부대의 진출이 遲延 되었다。

1, 제21연대(장, 河甲淸대령)는 先頭에서 5번도로를 中心으로 제3대대를 右一線으로 제

2대대를 左一線으로 展開하는 한편 제1대대를 예비대로 控置하여 左右一線大隊는 橫城으로부터 躍進을 시작하였다。

제3대대(장, 金榮俊소령)는 △369(橫城 北쪽 3km)을 저항없이 점령한 다음 계속 碧鶴山(△333)으로 진격하다가 2個중대 규모의 敵과 激突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敵은 "다리골"과 △255의 兩 斷崖를 끼고 미리 要地에 潛伏하여 頑强하게 저항 하므로 대대장은 左右로 兵力을 展開하여 包圍壓縮을 加하면서 挾擊한 결과 이 敵을 淸谷里 쪽으로 擊退하고 △393를 점령 하였다。

이 무렵 제2대대(장, 朴瑞權소령)는 新村三巨里를 거쳐 鶴潭골로 진격하다가 台峯山(△393) 中腹에서 저항하는 중대규모의 경계부대를 擊破하고 台峯山을 점령 하였으며 제1대대(장, 元乘漢소령)는 예비대로서 橫城에 남아 邑一圓을 경계하면서 다음전투를 준비 하였다。

2. 제16연대(장, 李亨一대령)는 이날 06.00에 玄德里로부터 橫城으로 이동한 다음 제21연대의 뒤를 이어 左一線으로 진격 하였다。

當時 연대는 제3대대를 尖兵대대로 하고 제1, 제2대대가 그後續 梯隊가 되어 豊水源(橫城 西北쪽 15km)을 目標로 機動을 시작하였는데 新村三巨里와 台峰山을 지나 西進을 계속 하다가 台峰山 西北쪽 1.5km인 △410 南麓에서 尖兵中隊가 증강된 중대규모의 敵으로부터 進路를 遮斷 당하자 제3대대장 崔昌變대위는 대대를 敵의 抵抗據點인 東側方으로 右回轉으로 展開하는 즉시 이를 攻擊하였으며, 그동안 제1대대(장, 鄭春泰대위)가 새로히 先頭가 되고 제2대대(장, 韓炳甲대위)가 그뒤를 이어 계속 진출하다가 날이 저물자 "밤골" 부근에서 自衛경계를 하면서 野營 하였다。

3. 제10연대(장, 權泰順대령)는 사단의 逐次진출 계획에 따라 珠山里로 부터 橫城 西北쪽 3km의 大谷里로 이동하여 다음전투를 준비 하였으며 포병 제50대대는 橫城부근에 砲陣地를 설치하고 一線연대를 지원하였다。

8월 6일 : 전날에 이어 계속 攻勢를 취한 사단의 右一線인 제21연대는 目標線을 예정대로 점령 하였으나 左一線인 제16연대는 敵의 主抵抗線에서 一進一退를 거듭하면서 接戰하게 되자 사단장 崔榮喜준장은 곧 제10연대(一)를 中央으로 진출시켜 이를 增援토록 하는 한편 제21연대의 제2대대로 하여금 敵의 背後를 迂回 急襲토록하여 마침내 이 敵을 擊退하고 前進據點을 確保 하였다。

1, 제21연대(장, 河甲淸대령)는 步戰協同으로 계속 진격하였는데 제3대대(장, 金榮俊

소령)는 전날 점령한 碧鷄山의 陣地를 출발하여 그 東北쪽 3km의 독재峰(△342)을 공격 하던次 여기에서 다시 2個중대 규모의 敵과 2시간 동안의 격전끝에 이敵을 富谷里쪽으로 擊退하고 이날의 목표선을 점령하였으며, 제2대대(장, 朴鎬權소령)는 台峰山麓의 旣設陣地를 제16연대의 제2, 제3대대에 引繼한 다음 右一線과 併行하여 △536로 진격 하였다。그런데 이때 연대장으로 부터 명령 하기를, 『제2대대는 신속히 △773를 점령하여 제16연대 正面의 敵을 背後에서 擊破하라』고 하였다。이리하여 대대장은 대대를 戰術機動 隊形으로 轉換하자 곧 △536의 東側으로 迂回하여 急速 △773를 공격 하였는데 豫測하지 못한 急速공격의 탓인지 이 高地는 거의 無防備상태로 있어서 대대는 無血로 이를 점령한 다음 계속 그 北쪽의 △732를 공격하다가 날이 저물자 △773에서 固守태세를 갖추었다。

한편 제1대대(장, 元秉漢소령)는 前方대대의 진출에 따라 橫城으로 부터 新村으로 躍進하면서 一線投入의 好機를 노리었다。

2, 제16연대(장, 李存一대령)는 전날에 이어 豊水源으로 진출코자 하였으나 敵의 主力과 不時에 對峙하게 되어 激戰을 反復하였다。 즉 제1대대(장, 鄭春泰대위)는 "밤골"부근의 △692에서 대대규모의 敵과 격전을 전개 하였으며, 제2, 제3대대는 제21연대 제2대대의 진출前面을 引受하여 부근 山岳 일대를 수색하면서 前進 하다가 台峰山 北쪽에 있는 △467에서 대대규모의 敵과 激突하게 되어, 연대는 이 兩高地에서 18.00까지 熱戰을 反復하던次에 사단의 砲擊지원과 隣接제10연대의 協力으로 이 敵을 擊退하고야 말았는데 새로 占領한 山野에는 積屍가 累累하고 白雪위에 碧血이 點點하였다。

3, 제10연대(장, 權泰順대령)는 제16연대가 敵의 主抵抗線에 부딪쳐 그 進出이 지연되자 제1, 제2대대가 이를 支援키 위하여 前方으로 진출하였다。즉 제1대대(장, 朴致玉소령)는 大谷里를 출발하여 新村—台峯山을 지나 "밤골"까지 이동한 다음 "안밤골" 溪谷으로 迂回하여 제16연대 제1대대의 正面에서 저항하는 敵의 左肩部를 攻擊 하였으며, 제2대대(장, 金同會소령)는 新村 西南쪽의 △573로 진출하여 제16연대 戰線後方으로 侵襲을 企圖하는 중대규모의 敵을 격퇴하였다。

이 무렵 敵陣은 제21연대 제3대대의 敵後方 急襲으로 混戰이 惹起되어 敵의 戰列이 무너지고 앞을 다투어 潰退하기 시작하자 이 機會를 捕捉한 兩연대는 全力을 이를 追擊하여 많은 戰果를 거두었다。

2월 7일 : 사단은 左一線인 제16연대의 苦戰에 따르는 진출 遲延으로 有機的인 戰線을 形成하지 못하다가 전날 敵의 一線을 擊破하고 그 저항 據點을 占領하자 이날 부터는 逐

次진출 하던 各 연대를 當初 사단의 計劃대로 全面展開 하였으며, 反面에 敵은 弱勢를 補強키 위하여 洗川과 龍頭里에 이르는 兩道路를 中心으로 固守據點을 確保 하려는 듯이 보였다。

1, 제21연대(장, 河甲淸대령)는 이날 지휘소를 橫城으로부터 廣田(台峰山南麓)으로 前進開設하고 진격전을 계속 하였다, 즉 제3대대(장, 金榮俊소령)는 독재峰을 中心으로 한 陣地를 출발하여 淸谷里—佳谷里—公峴里를 차례로 攻略한 다음 五音山(△930)을 목표로 西北進을 계속 하였는데, 13.00에는 道峰里(五音山 南쪽 2km) 부근에 다다라 △338와 △438을 동시에 占領하고 逆襲하는 2個중대 규모의 敵을 戰車소대와 協同공격으로 擊破하자 계속 追擊하면서 五音山으로 突進 하였다。 그러나 그 南쪽 1km의 △779와 △489에서 다시 대대규모의 逆襲부대와 激突케 되자 대대는 공격개시 以來 最初로 苦戰亂鬪를 전개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兩稜線은 五音山 南麓에 雙立하는 制高點으로서 어기를 領有하면 五音山과 三馬峙嶺을 眼下에 睥睨할수 있는 要衝인 까닭에 敵은 死生決斷인 듯이 물고 느러지므로 이날은 至近距離에서 彼我가 서로 銃砲를 겨누면서 對峙하기만 하였다。

한편 제2대대(장, 朴瑞權소령)는 전날 확보한 △773에서 다시 △732를 공격 하였는데, 제16연대 正面에서 後退한 대대규모의 敗敵이 미리 反擊을 노리면서 潛伏하고 있다가 死中求活로 逆襲을 敢行하였으므로 挾擊 一進一退만을 反復하다가 끝내 이 堅陣을 突破하지 못하고 다시 原陣地로 反轉하였으니 必死와 死生의 隔差는 이와같이 큰 것이었다。一線대대의 이와 같은 격전속에서 예비대이던 제1대대(장, 元乘漢소령)는 新村으로부터 下草院里 西北쪽의 △505와 △339가 서로 連하는 鞍部를 目標로 진출하여 陣地를 점령하고 前方兩대대 간의 戰線을 補強 하면서 戰勢의 趨移를 觀望하였다。

2, 제10연대(장, 權泰順대령)는 이날 사단의 前面 中央을 目標로 진출하여 指揮所를 大谷里로부터 新村을 거쳐 12.00에 梨木洞에 推進하고 제1, 제2대대를 연대지휘소로 집결시켜 前線 投入을 준비토록 하는한편 연대 수색중대로 하여금 "밤골"과 豊水源間의 연대진출 正面에 對한 探索戰을 전개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梨木洞을 출발한 수색중대는 △672를 西南쪽으로 돌아 聖智山 南麓으로 수색진출 하다가 중대규모의 敵과 衝突하게 되었으나 중대는 激戰을 피하면서 敵情을 把握하는 즉시로 이를 報告 하였다。

한편 예비대인 제3대대(장, 崔明道소령)는 夏日을 출발하여 戰線後方인 石村洞과 聽蛛

山(△559) 一帶의 未踏地域에 對한 수색전을 펴면서 豊水源을 目標로 轉進하여 戰線加入을 待機 하였다。

3, 제16연대(장, 李存一대령)는 이날 指揮所를 新村—梨木洞—豊水源을 거쳐 11.00에 曾安里로 躍進移設하고 各대대를 擔當正面으로 機動 시켰다。 즉 제1대대(장, 鄭春泰대위)는"밤골"에 집결한 다음 梨木洞—豊水源을 거쳐, 曾安里로 이동 하는 즉시로 四周를 경계하였으며, 제3대대(장, 崔昌煥대위)는 이날 13.00에 福祚洞에 집결한 다음 梅南峙(豊水源 東南쪽 2.5km) 부근으로 躍進 하였고, 제2대대(장, 韓炳甲대위)는 兩대대가 機動하는 동안 聖智山 東南쪽에 있는 △748 中麓에 白雪을 헤치면서 展開하여 연대 戰線整理를 掩護 하였다。

2월 8일 : 사단은 전날 戰線을 擴張展開함에 따르는 戰勢를 補強하고 이날부터는 全面에 걸친 搜索을 併行하면서 44番道路(洪川—龍頭里間)線을 目標로 진격 하였다。

1, 제21연대(장, 河甲淸대령)는 예비대인 제1대대를 △505—△339線의 경계陣地로 부터 躍進시켜 제2대대와 併行으로 五音山—大三馬峙 線을 공격토록 하는한편 제2대대로써 △732의 점령을 目標로 진격토록 하였다。

제1대대(장, 元秉漢소령)는 現陣地를 떠나 上蒼峰里를 점령한 다음 여기서부터 步戰協同으로 大三馬峙로 진격 하였는데 敵은 道路 곳곳을 破壞하고 障碍物을 설치하여 機械化부대의 機動을 阻止할 뿐아니라 대대규모 이상으로 推測되는 보병부대로써 이 고개(大三馬峙)의 瞰制要地를 점령하고 熾熱한 火網으로 戰車의 急襲과 直衝의 威力에도 屈하는 氣色없이 끝까지 發惡하였다。

元來 이고개는 洪川 南쪽 10㎞에 있는 山間要衝地로서 左右에는 標高 500m以上의 險山이 峨峨하고 峻嶺이 巍巍하며 瞰制의 視野가 廣濶하여 洪川에 이르는 關門으로 五音山과 雙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敵의 저항은 더욱 執拗 하였다。



<步戰協同으로 蒼峰里를 攻擊하는 제8사단勇士들>

이런 까닭으로 대대는 여기에서 血戰을 거듭하게 되었으며, 제3대대(장, 金榮俊소령)는 이무렵 이에 呼應하여 五音山을 직접 공격하였으나 계속 增強되는 敵의 戰勢로 말미암아 五音山—大三馬峙를 連하는 要線을 끝내 奪還하지 못

하였으나 비록 匹夫라도 關門을 지킨다면 千人의 勇士가 뚫기 힘들다는 것이 果然 이와 같았다。

한편 제2대대(장, 朴瑞權소령)는 △732를 공격하여 격전끝에 이를 점령하고 계속 前進態勢를 갖추었다。

2, 제10연대(장, 權泰順소령)는 제1, 제3대대를 공격梯隊로 展開하고 제2대대를 예비대대로 控置하면서 聖智山의 敵을 공격 하였는데, 右一線인 제1대대(장, 朴致玉소령)는 聖智山 東側, △700 稜線에서 小隊규모의 敵埋伏組를 一蹴하고 계속 진출한 끝에 聖智峯과 "안밤골" 사이의 陣地를 占領 하였으며, 제3대대(장, 崔明道소령)는 "덕길고개"를 넘어 △591와 △532를 동시에 占領하였다。한편 제2대대(장, 金同曾소령)는 福祚洞에 集結하여 다음 전투를 준비 하였다。

3, 제16연대(장, 李存一대령)는 사단의 左一線으로 畵綵峯 一帶를 수색하면서 龍頭里로 진격하려 하였으나 그 左翼에 있는 美제2사단의 제23연대가 13km 西南쪽인 砥平里까지 겨우 進出한 까닭으로 露出된 側後方에 대한 敵의 壓迫으로 진출이 지연 되었다。

즉 제1대대(장, 鄭春泰대위)는 曾安里 北쪽에 있는 △352와 △434에서 敵의 수색대를 一擊하고 그 一帶의 要線을 점령 하였는데 左一線인 제3대대(장, 崔昌煥대위)는 梅南峙를 넘어 △727를 공격하다가 대대규모의 敵과 치열한 격전끝에 이 高地를 점령하였으나 敵勢를 輕視 할 수 없어 梅南峙 △579를 連하는 線까지 離脫한 다음 연대의 側後方을 防護하면서 次期공격을 준비 하였다。

한편 제2대대(장, 韓炳甲대위)는 警戒正面을 제10연대 제1대대와 交代하고 福祚洞으로 집결하여 예비대로 控置되었다。

이상과 같이 全연대가 漸進態勢를 갖추자 사단은 이날 16.00에 指揮所를 橫城으로 移設하고 더욱 拍車를 加하였으나 右翼인 제5사단은 이날 그 右肩部(제27연대)가 突破되어 戰線을 再調整하였으며 左翼인 美제2사단이 西南쪽에서 彎曲線을 形成하여 사단은 사실상 군단戰線中에서 가장 突出된 銳角部를 차지하게 되었다。

2월 9일 : 사단이 全面공격을 斷行하자 當面의 敵은 예비대(北共 제12사단)를 投入하여 이날부터는 兵力과 火力을 계속 증강하면서頑強 히 저항할 뿐만아니라 左一線에서는 逆襲까지 감행하여 全戰線이 膠着狀態에 陷入하게 되었다。

1, 제21연대(장, 河甲淸 소령)의 제1, 제3대대는 步戰砲의 協同으로 이날도 五音山一大三馬峙의 線을 공격 하였는데, △592와 △562(5番道路西便)를 占據한 敵은 계속 一方的으

로 병력을 增強하고 砲擊을 集中하면서 類例없이 固守하는 까닭으로 彼我間에 灼熱된 火力과 白兵力 그리고 衝擊力과 強打力이 交錯되었을 뿐 進展없는 攻守進退만이 反復되었다。이 무렵 제2대대도 역시 △773와 △732의 兩稜線에서 一進又一進의 執拗한 攻略戰을 展開中이었는데 哨煙과 剃風이 서로 指呼하고 爆塵과 雪雲이 서로 跳飛 하였다。

2, 제10연대(장, 權泰順대령)는 如前히 제1, 제3대대를 左右로 展開하여 공격을 재촉 하였는데, 제1대대(장, 朴致玉소령)가 聖智山 北麓에 있는 △766에서 중대규모의 敵을 蹴破하고 계속 진출하고 있을때 左一線인 제3대대(장, 崔明道소령)는 △591와 △532에서 店村으로 向하다가 증강된 대대규모의 敵과 激突하게 되었다。이 敵은 13.00부터 砲火를 集中하더니 14.30에는 제3대대의 正面으로 逆襲마저 試圖하여 我進이면 彼退하고 彼攻이면 我守하는 一大격전이 전개되었다。그런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地形上으로 不利한 대대가 漸次로 苦戰에 빠지게 되자 연대장 權泰順대령은 兩大隊를 △767—聖智峯—△591를 連하는 線에서 再整備한 다음 攻勢로 移轉하는 태세를 갖추어 끝내 이 敵을 擊退 하고야 말았다 그 뒤에 연대는 一旦 이날의 공격을 중지하고 다음전투를 준비중에 있을때에 夜暗을 利用하여 다시 2個중대 규모의 敵이 제1대대 제3중대를 目標로 夜襲하였으나 중대는 火力을 집중하고 肉追戰을 敢行하여 最後一刻까지 必擊하고 最後一人까지 必勝을 다짐하면서 陣地를 固守하였다。

한편 제2대대(장, 金同曾소령)는 福祚洞에서 예비대로 控置된 가운데 一部兵力을 수색대로 편성하여 鷹峰山 一圓에 대한 搜索警戒를 더욱 強化하였다。

3, 제16연대(장, 李存一대령)의 제1대대(장, 鄭春泰대위)는 曾安里 北쪽으로 계속진출하여 陽地村으로 突入하다가 △417(曾安里 東北쪽 2.5km)에서 대대규모의 敵과 激突케 되었는데 敵은 △368 稜線上의 懸崖部를 끼고 대대의 進路를 막아 그저힝이 頑強 하였다。이리하여 대대는 砲擊支援과 白兵突破로 치열한 공격을 加하였으나 끝내 이 敵陣을 突破하지 못하고 日沒과 더불어 △400 稜線上의 氷雪을 파헤치면서 守勢로 移行하였다。

제3대대(장, 崔昌煥대위)는 전날 점령한 △579와 梅南峙에서 敵의 逆襲을 받았는데 이때에 대대규모의 敵은 石花里로부터 △579溪谷을 따라 대대의 右一線 後方깊이 侵襲하는데 成功하자 곧 이어서 豊水源을 엿보고자 하였으므로 이를 看破한 대대장은 즉시 대대를 梅南峙—△727 線上에 展開하여 이 敵을 격퇴하고야 말았으니 敵이 「진군」하면 我는 「민군」하는 格이었다。

한편 제2대대(장, 韓炳甲대위)는 一線대대가 격전을 전개하자 睡手奮發하여 松峴里로 急

進 한 다음 곧 第一線의 超越交代를 待機하였으나 이날도 이대에게는 기쁜 命令이 내려지지 않았으니 아마도 「最後의 精兵」이라는 自慰로써 스스로 달래었을 것이리라。

2월 10일 : 사단의 全戰線이 膠着되어 진출이 늦어지게 되자 사단장 崔榮喜 준장은 군단에 空中支援을 요청하고 可用한 步戰砲의 全火力을 同時에 集中하여 一戰을 決하고자 하였으나 敵의 狂氣서린 저항은 그 極에 達하여 이날도 突破口를 찾지 못하고 分斷의 好機를 얻지 못하는 가운데 擊戰만이 反復 되었다。

1, 제21연대(장, 河甲淸대령)는 전날에 이어, 五音山—大三馬峙 線을 공격키 위하여 연대의 左一線인 제2대대를 △732로부터 上蒼峰里로 이동시킨 다음 연대의 一線主力을 合勢하여 步戰砲의 協同으로 突進하였다。그러나 敵은 헤아릴 수 없는 殺傷의 山野를 넘어 肉迫하고 炸裂하는 破片속에서도 오히려 砲擊으로 對應하고 積疑가 累累한 堅壘에 依支하여 더욱 執拗하게 저항 할 뿐아니라 그 兵力이 계속 增強되는듯 하여 사단의 銳鋒으로써 공격을 加함에도 不拘하고 戰況의 好轉을 보지 못하였다。

2, 제10연대(장, 權泰順대령)의 제1, 제3대대는 이날도 聖智山 要域에서 攻勢를 취하여 一路 진출하다가 聖智山—△767 線에서 다시 대대규모의 敵과 서로 衝突하게 되었다。즉 右一線인 제1대대(장, 朴致玉소령)는 △767 부근에서 약간 진출을 보았으나 제3대대(장, 崔明道소령)는 특히 제9중대 正面에서 대대규모의 敵으로부터 集中공격을 받아 一時 混亂相을 빚게되자 대대장은 제9중대로 하여금 敵을 牽制토록 하는 동시에 兩面挾擊을 斷行하여 이 敵을 擊退하였으나 사실상 연대는 桃源里 一帶를 점령코자 하던 이날의 目標線까지 진출치 못하고 여기에서 다음 전투를 준비하였다。

이렇듯 제21, 제10의 兩연대가 격전을 계속 하는동안 自然發生的으로 兩연대간에 相當한 間隔이 생기게 되자 사단장은 사단의 對戰車砲대대를 곧 前方으로 진출토록 하였다。즉 대전차포대는 橫城으로 부터 5番道路를 따라 蒼峰里까지 車輛으로 機動한 다음 여기서부터 戰術隊形을 취하여 496番道路(蒼峰里와 陽德院里간) 南쪽에 있는 △476를 점령하고 戰線을 補強하는 同時에 공격준비를 갖추었다。

3, 제16연대(장, 李存一대령)는 예비대인 제2대대 까지 投入하여 이날 全面공격을 시작하였다。즉 제1대대(장, 鄭春泰대위)는 전날에 계속하여 倉安里 北쪽의 △417를 공격 하여 如前히 치열한 攻防戰이 전개될뿐으로 戰況의 進展을 보지못하였으나 제2대대의 增援을 받은 제3대대(장, 崔昌煥대위)는 梅峙峙와 △727線에서 대대규모의 頑敵을 격퇴하고 △579를 掌握한 다음 곧 石芳里 부근까지 이 敗敵을 追擊하여 많은 戰果를 거두었다。

2월 11일 : 공격개시 7일째 되는 이날 사단은 當面한 北共의 戰威를 꺾고 前進據點을 확보 하였으나 이날밤부터 中共軍의 大규모 出現으로 攻守逆轉의 妖雲이 감도는 가운데 守勢로 移行하게 되었다。

1, 제21연대(장, 河甲清대령)는 이날 旣定計劃의 一部를 바꾸어, 敵의 主力이 저항하는 大三馬峙를 공격하되 1個대대를 五音山으로 迂回 진출시켜 敵의 腹背를 急襲토록 하면서 이에 呼應한 全面공격을 斷行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제1, 제2대대는 大三馬峙 前面에서 衝擊行動을 倍加하였으며, 그동안 제3대대는 五音山(△930)으로 직접 진격 하였다。 그런데 豫想外로 이곳의 敵勢 또한 強大하여 대대의 進路마저 직접 截斷코자하니 대대장 金榮俊소령은 兵力을 左右로 展開하는 즉시 白兵을 휘몰아 突擊戰을 감행 하였다。 이때에 敵은 有利한 制制地域과 氷雪上의 堡陣을 占據하고 督戰隊의 鐵鞭下에 執拗 저항하여 彼我間에 격전이 계속 되다가 右側인 제10중대의 進出로써 一大轉機를 捕捉한 대대는 全面突進으로 이 高地를 점령하니 喊聲과 銃砲聲이 서로 和音하고 銀光과 雪影이 서로 彩色하였다。

이 무렵 제1, 제2대대도 이에 뒤질세라 大三馬峙를 넘어 五音山—△443 線까지 一擧 진출 하였으나 暮暗이 가까워 지자 여기에 陣地를 점령하고 夜間전투에 대비하였다。

2, 제10연대(장, 權泰順대령)는 如前히 聖留峰과 △767을 連하는 線上에서 攻擊을 준비하고 있을때 이날 04.00에 제1대대正面으로 대대규모의 敵이 掩襲하였으나 격전끝에 이를 격퇴하고 追擊戰을 전개하자 이에 呼應하여 제3대대도 또한 進擊을 시작 한였다。 그뒤에 연대는 聖留山 부근의 要域을 완전히 領有하고 제1대대는 桃源里 東北쪽 高地一帶까지 진출 하였으며 제3대대는 桃源里 西北쪽으로 진격을 계속 하였다。

3, 제16연대(장, 李存一대령)는 전날 戰線西南쪽에서 저항하던 敵을 격퇴하자 이날은 제2대대를 右一線으로 진출시켜 △417에서 2일간에 걸쳐 격전을 거듭하던 제1대대의 擔當正面을 引受하여 진격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임무를 交代한 제2대대(장, 韓炳甲대위)는 敵의 저항을 물리치고 △417를 점령한 다음, 다시 △504를 넘어 제10연대의 제3대대와 並行하여 潰退하는 敵을 追擊 하였으며 제3대대(장, 崔昌煥대위)는 △579에서 제2대대와 連繫하여 "야산리"로 진격 하였다。

한편 제1대대(장, 鄭春泰대위)는 예비가 되어 豊水源으로 집결하여 대대를 정비하였다。

4, 전날 "陽地谷" 부근의△476로 진출한 對戰車砲대대(장, 朴蒼岩 소령)는 敵의 輕微한 저항을 물리치고 제21, 제10연대의 戰闘接境 부근을 搜索하다가 三馬峙里 北쪽 谷地에서

사단규모로 보이는 木棉服의 大群이 蟻集하고 있음을 發見하자 이를 즉각 사단에 보고하는 한편 上檢洞과 △397를 連하는 線上에서 防守태세를 갖추었는데 陣地위에 때아닌 血雨가 將至하려 하였다。

이상과 같은 보고를 받은 사단장 崔榮喜준장은 悠然히 作戰地圖를 들고 일어나 各연대로 하여금 擔當正面에 대한 探索을 強化토록 指示하였는바 22.00까지 蒐集된 報告에 依하면 各연대의 正面에는 中共의 大兵力이 機動中인것을 확인하게 되자 곧 美제10군단장 Almond 소장에게 이 眞相을 보고 하는 동시에 現進出線을 梨木洞—蒼峰里의 線으로 短縮하여 固守방어陣地를 構築토록하고 이 敵을 邀擊할 決心을 건의 하였으나 當時 군단에서는 敵을 過少評價한 나머지 이 建議를 默殺하게 되자 사단장은 一旦 부대를 現戰線에서 그대로 守勢로 轉換하여 邀擊態勢를 完備토록 하였다。

이날 사단의 右翼에는 제3사단(장, 崔 錫준장)이 제5사단(장, 閔機植준장)의 공격正面을 引受 하였는데, 제3사단은 제3군단 소속으로부터 배속이 변경되어 전날 橫城으로 移動한 다음 제5사단의 東北進으로 因하여 發生케된 제5, 제8사단間의 戰線을 補強하여 진출하고 있었으며, 左翼에는 美제2사단 제23연대가 아직 砥平里를 固守하고 있었다。

2월 12일 : 前述한 바와같이 사단은 예비대가 없이 五音山으로부터 倉安里까지 18km에 達하는 廣正面에 展開하여, 제21연대는 五音山—上蒼峰里 線에서, 對戰車砲대대는 上蒼峰里—上檢洞 線에서, 제10연대는 上檢洞—桃源里 線에서, 제16연대는 桃源里—倉安里線에서, 各各 방어태세를 취하고 있다가 이날 拂曉에 이르러 中共 大部隊의 侵襲을 받게 되었는데 그勢가 마치 狂濤와 恰似하였다。즉 中共 제66군(장, 蕭新槐)은 그의 3個사단으로 三峴里(洪川 南쪽 4km)부근에서 波狀攻勢를 취하였는데 戰車를 비롯한 各種砲兵부대를 따르게 하고 5番道路를 沿하여 大三馬峙의 제21연대 正面으로 直搗 하였다。또 제40군(장, 韓先楚)은 陽德院里 부근에서 攻勢로 移向하여 葛基山을 넘어 제16연대의 正面과 左側方으로 包圍企圖를 보였고 제39군(장, 吳信泉)은 左翼에 있는 美제2사단 제23연대의 正面인 砥平里를 攻圍 하였다。또한 이에 便乘한 北共 제5군단은 分散된 敗兵을 다시 集結하고 督戰하여 右翼인 제3사단의 正面으로 侵攻을 敢行하였으니 昨日의 연가시(蜿蜒)가 今日의 지네(蜈蚣)로 豹變한 것이다。

이와같은 戰況의 急轉回 속에서 一波又一波의 激突에 直面하게 된 사단은 全將兵이 渾身의 力戰을 다하였으나 時時刻刻으로 戰勢는 逆轉하여 敵의 重圍속에서 苦戰하기에 이르렀다。

1. 제21연대(장, 河甲清대령)는 전날의 激戰場인 五音山—大三馬峙線에서 中共의 主攻으로 推測되는 제66군과 激戰케 되었는데 이때에 敵은 步兵 3個사단이 各種砲火와 戰車의 지원을 받으면서 夜襲하여 02.00에는 陣前가까이 까지 肉迫 하였다. 이와같은 敵의 狂威속에서도 全將兵은 勇戰奮鬪를 다하고 步戰砲의 全火力을 集中하여 極甚한 타격을 加하였으나 怒涛와도 같은 醜敵의 物量을 끝내 阻止하지 못하고 戰線의 一角이 突破되자 연대장 河甲清대령은 곧 부대를 수습하여 碧鷄山과 盤案山 사이의 要線을 지키기로 決心하였다. 그러나 敵은 夜暗을 타고 一부병력을 戰線 後方으로 미리 投入한다음 下草院里(碧鷄山 北쪽 1km)부근에서 機動路를 爆破하고 이에 呼應하여 一大包圍戰을 감행 함으로 연대는 四面 楚歌의 渦中으로 陷入되었다。

이러한 苦戰의 연속中에서도 연대장은 戰車소대를 先頭로한 突破작전을 전개키로 決心하였으나 이미 機動路가 破壞되고 夜暗이 겹쳐 그뜻을 이루지 못하자 05.00에는 蒼峰里부근에서 부대를 再수습하고 命令을 下達하기를 『各隊는 携帶가 可能한 以外의 모든 裝備를 破壞하고 敵陣을 突破하여 橫城으로 집결하라』고 하였다。

以後 연대는 各大隊別로 敵中에서 重圍를 뚫고 撤收하게 되었다。

2. 제10연대와 對戰車砲대대는 上楡洞—桃源里의 線에서 같은 시각에 中共 大部隊의 侵襲으로 치열한 攻防戰을 전개 하였다。 그런데 敵은 葛基山을 넘어 연대의 正面으로 侵攻하는 한편 제16연대의 左側部를 強打하고 戰線 後方으로 潛侵하여 前後方에서 同時에 攻圍 하므로 연대와 對戰車砲대대는 夜暗과 混亂속에 苦戰하게 되었다. 이러한 難局에서도 힘써 兵力을 수습 하면서 부대를 陣頭指揮하던 연대장 權泰順 대령은 여기에서 壯烈한 護國의 防牌로 散華 하였으며 부대는 各隊別로 血路를 찾아 사단사령부가 위치한 橫城으로 撤收하였다。

3. 제16연대(장, 李存一대령)는 같은 시각에 桃源里—倉安里의 線에서 中共 제40군의 攻圍를 받아 力戰을 거듭 하였으나 倉安里와 砥平里間의 15km사이에는 友軍의 片影도 없이 孤立된 左一線 부대가 되메다 左側方으로 大部隊이 侵襲한 까닭으로 연대는 前方과 側後方의 兩面공격속에 끝내는 제3대대의 방어진이 무너지고 全연대가 위기에 놓이게 되자 사단장 命令으로 阻止陣地인 石村洞부근으로 撤收하기 시작 하였다。 즉 一線에 展開되었던 제2, 제3대대와 豊水源에 집결한 제1대대가 合勢하여 지연전을 펴면서 石村洞으로 撤收한 다음 △492와 △317에 兵力을 전개하고 阻止線을 형성 하였다。

그러나 시시각각으로 戰況은 急轉直下하여 여기에서도 敵의 四面공격을 받아 苦戰이 계

속 되었으니 사단 主力의 撤收를 掩護하던 연대는 漸次로 敵陣中에서 孤立 無援하게 되어 갔다。

이와같이 全戰線에서 血戰이 계속되고 있을때 군단장 Almond 소장으로부터 要旨 다음과 같은 命令이 下達 되었다。

『① 제8사단은 周浦里로 撤收하여 부대를 再編하고 此後命令을 待機하라.

② 배속된 戰車소대와 增援砲隊는 철수間에 運用한 다음 原隊로 復歸 시키라。』

그러나 이와같은 命令을 받았을 때에는 사단의 全隷下隊가 이미 敵中에 包圍되어 各隊別로 分散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有機的인 撤收를 遂行하지 못하였으며, 砲兵 대대와 戰車소대도 機動路의 爆破 直前에 草院里를 넘어선 포병 제20대대의 2個增援砲隊와 戰車 2臺를 除外하고는 그 大部分이 敵中에서 退路를 잃고 自體 防護能力을 상실한 채로 苦戰하고 있었다。

이에 反하여 敵의 侵攻度는 急速 하였으니 이날 04.00에는 그 先遣隊가 이미 橫城까지 侵襲하여 사단 지휘소를 威脅하였으며 제16연대가 固守占領 中인 石村洞 一帶의 阻止線을 넘은 敵의 兵勢는 계속 增加 一路에 있었다。

이와같은 危機에 直面하게된 부대를 救出키 위하여 사단장 崔榮喜준장은 군단에 支援을 요청하고 철수方法을 摸索하여 難局打開를 위한 心血을 傾注 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戰況은 따라서 不利 하여지고 組織的인 부대 運用이 困難하게 되자 要旨 다음과 같은 사단 작전명령 제112호(51. 2. 12)를 下達 하였다。

『① 사단은 周浦里로 철수하여 부대를 整備하고 後圖를 策하려한다.

② 各隊는 可用한 모든 機動路를 通하여 敵陣을 突破하고 周浦里로 集結하라.

③ 포병 제20대대와 戰車소대는 철수하는 즉시로 原隊에 復歸하라.

④ 各隊는 철수에 앞서 推進 困難한 모든 裝備를 破壞 또는 사용不能케 하고 機動間 落伍者 收容에 最善을 다하라。』

그뒤 各연대와 對戰車砲대대는 힘써 兵力을 수습하면서 名寧 그대로의 雪岳의 山路를 따라 敵陣을 뚫고 原州를 거쳐 文幕과 周浦里로 계속 철수하였으며, 포병 제50대대와 戰車소대(一)는 道峰里 부근에서 重裝備를 破壞 또는 埋設하고 兵力만으로서 철수 하였고, 포병 제20대대의 增援포대(2個砲隊)는 戰車 2臺의 掩護下에 原州로 復歸 하였다。

10.00 以後에는 各부대간의 通信이 杜絶되고 敵의 威脅이 加重되자 사단장은 이날 12.00에 指揮所를 周浦里로 移設하는 한편 原州—文幕과 原州—堤川間에 落伍者 收容線을 設定

하여 兵力을 再收拾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敵의 動向 : 中部戰線에서 攻勢를 취한 敵은 이 戰鬪가 끝났을 때에는 戰線을 더욱 擴張하여 中共 제13병단예하의 제40군(장, 韓先楚)과 제19병단 예하의 제66군(장, 蕭新槐)은 橫城으로 南侵하여 계속 橫城—原州 輪線을 따라 美제2사단(一)의 正面을 強打하였으며, 제39군(장, 吳信泉)은 美제2사단 제23연대(佛大隊配屬)가 占領하고 있는 砥平里를 包圍 하였고, 北共 제5군단 예하의 제7, 제12사단은 分散된 潰走兵力을 集出하여 橫城地區에서 再編한 다음 原州 東北方의 雉岳山脈을 東으로 迂回하여 安興里—酒泉里—堤川線을 따라 南下 하였다。

한편 北共의 南方遊擊隊인 제6지대와 敗殘混成부대가 合流하여 雉岳山(△1288)과 南台山(△1182)에 根據를 두고 서로 呼應하면서 跳梁을 시작하였으니 들에서는 野盜의 무리가 되고 山에서는 山賊의 一團이 되었으며 夜暗에는 殺人强盜의 一群이 되고 白晝에는 地下깊이 숨어두는 두더지의 신세가 된 것이다。

이와같이 敵은 中部戰線에서 西南進을 계속하여 壓迫을 加하면서 西部戰線에서 北進中인 美제1, 제9군단의 進出을 牽制 하는한편 계속적인 南侵을 企圖 하였는데 특히 군단의 左翼의 突角部가된 砥平里를 敵重으로 攻圍 하였으며 原州—砥平里 사이로 大兵力을 投入하여 不斷한 强壓으로 一貫하였다。

我軍의 動向 : 이렇듯 敵의 攻勢가 加熱化되자 平에서는 美제2사단(佛大隊, Netherland대대, 제187공수연대, 제18연대배속)과 美제7사단으로 하여금 敵의 공격一線을 牽制토록 措置하는 동시에 中部戰線의 補强에 着手하였다. 즉 美제5연대 전투단을 砥平里로 進出시켜 美제23연대를 支援토록 하는 한편 利川 東北쪽에서 北進中인 美제9군단 예하의 제6사단(장, 張都暎준장)과 英제27여단을 文幕正面으로 急派하여(14일 11.00부) 原州—砥平里 사이로 侵攻하는 敵을 邀擊토록 하였으며 또한 陸本 작전지시 제45호(51.2.12)로서 三陟에 위치한 제1군단(장, 金白一소장) 본부와 直轄隊를 堤川으로 移動하여 제3, 제5, 제8사단을 麾下에 두고 堤川과 寧越間에서 敵을 막아 美제10군단의 작전을 지원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戰線整理를 마친 군단은 15일부터 一大 擊滅戰을 전개하여 莫大한 戰果를 거두고 21일부터는 反擊진출 하였거니와 當時 사단은 12일에 周浦里로 이동한 다음 제1군단의 예비가 되어 原州—文幕—驪州—堤川—忠州線까지 落伍者 收容線을 피고 부대를 정비 하다가 15일에는 다시 指揮所를 堤川郡 寒水面 黃江里로 移設하고, 제10연대는 그 西南쪽인 新梅里에, 제16연대는 東北쪽인 西倉里에 各各 이동하여 부대를 정비 하였으며, 제21연대는 사단작명 제113호(51.2.17)로서 2個 전투대대를 新編하여 洞里靖대령 지휘下에 堤川으로 이동한 다음 제5사단의 石嚴岩(堤川 北쪽)전투를 지원 하였다。

그뒤 全戰線이 進展되고 反擊戰이 시작 되었을 때에 사단은 隷下의 全연대를 掌握하고 22일에 原北大邱로 이동하여 戰力을 補强한 다음 後方警戒 임무를 맡았다。

§ 參戰者의 證言

◇ 제8사단장 崔榮喜 준장

(66년 3월 29일 Turkey大使, 예, 중장)

周浦里에서 공격명령을 받고 사단 主力을 橫城부근으로 前進시킨 다음, 사단 작전계획을 작성하여 군단에 보고 하였더니 군단장 Almond소장이 『예비대 없이 全面공격을 斷行하라』고 하면서 작전계획의 修正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戰術 原則上, 공격부대로서 敵情을 把握하지 못한 가운데 예비대도 없이 24km에 達하는 廣正面에 全面展開하여 進擊한다는 것은 妥當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군단장의 命令인지라 3個연대를 一線에 전출 시키되, 각 연대 및 대대로 하여금 自體의 예비대를 確保 하면서 진격토록 하였으며, 사단에서는 林參謀소령이 지휘하는 對戰車砲대대를 增強시켜 예비대로 한 다음 전격전을 決行 하였는데 漸次 戰線이 擴大되고 激戰이 전개됨에 따라 各부대간에 間隙이 생기게 되어 예비대까지 投入 하였으니 사실상 사단은 總力戰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에도 中共의 反擊만 없었더라면 洪川과 龍頭里까지는 큰 損失없이 占領할수가 있었는데, 12일 拂曉에 中共 大集團이 反擊을 감행하여 敵 2個군단과 激突케 되었다. 이렇게 되니 衆寡不敵으로 苦戰하게 되었으며, 이때 空路로 橫城에 到着한 군단장은 부대를 周浦里로 撤收하라고 하였으나 이때는 이미 各隷下隊와의 通信이 杜絶되고 敵의 重圍속에서 刻苦의 突破작전을 펴고 있는 터이라 나는 偵察機를 타고 "부대자루"에 撤收命令書와 돌(石)을 넣어 戰線으로 돌아 다니면서 작명을 下達 하였다.

戰後에 알게된 바이지만, 當時 美제8군에서는 敵 主力의 所在를 파악하기 위하여 當사단을 威力搜索부대로서 전출 시켰기 때문에 全戰線의 進擊戰을 効率的으로 展開 할수가 있었으며 中部戰線에서 大勝戰을 거둘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理由로 나는 開戰보다도 美國의 銀星勳章을 받았으나 當時 잃어버린 部下는 지금도 잊을수 없다.

◇ 제21연대장 河甲淸대령

(66년 12월 14일 文化財管理局, 예, 소장)

우리연대가 主攻으로서 洪川으로 進擊하였는데, 大三馬峙를 奪還 하였을 때에 中共軍이 反攻 하였다.

여기에서 中共軍 8명을 捕虜하여 押送 하였으며, 渾身의 力戰을 다 하였으나 敵은 3個사단이 洪川과 橫城間의 補給線을 따라 夜襲 하였기 때문에 終乃는 敵勢속에 빠지게 되었다.

그뒤 蓉峰里에서 부대를 收拾해 가지고 이틀만에 包圍網을 突破하여 原州로 나와서 사단 主力과 合勢 하였으며, 다시 周浦里로 이동한 다음 2個戰鬪대대를 편성하여 堤川부근에서 제5사단의 百谷里전투를 支援하다가 大邱로 移動하였다.

◇ 제10연대 제1대대장 朴致玉소령

(66년 7월 5일 대한석탄공사)

激戰 이틀만에 聖智峰을 占領하고 계속 前進하였는데, 12일 새벽에는 中共大群이 피리와 나팔을 불면서 새까맣게 올라왔다. 이리하여 水冷式 기관총을 비롯한 全火力을 集中하여 猛擊을 加하였으나 나중에는 實彈이 모자라 탄약보급소로 兵士를 내려 보냈더니 소식이 없었다. 그러더니 연대CP쪽에서 예광탄이 發射되고 敵이 背後에서 挾擊하여 이때부터 戰勢는 逆轉 되었다.

날이 밝자 L—19(偵察機)가 날아와서 戰線視察을 하는듯 하여 대공포판을 깔고 신호를 하였으나 끝내 支援을 받지못하고 一週日 동안 敵中에서 重圍突破를 摸索한 끝에 橫城과 原州를 거쳐 제6사단의 正面으로 나왔다.

◇ 제10연대 제16중대 소대장 金得成소위

(69년 10월 5일 종무차에서, 예중령)

우리 소대는 聖智峰 東北쪽의 稜線을 占領하

고 있었는데, 이 陵線은 前斜面이 비교적 緩慢하여 敵의 接近이 可能 하였기 때문에 더욱 熾烈한 激戰이 전개되었다。

이리하여 頂上一帶에 二重으로 小隊員을 散開하고 手榴彈과 肉薄으로서 敵을 邀擊하면서 血戰을 전개한 끝에 13명을 射殺하고 陣地를 固守하였다。 그러나 날이 밝으니 戰線後方이 온통 敵의 무리로 뒤덮이고 到處에서 中共魏匪들이 跋扈하여 이 敵陣을 突破키 위한 온갖努力을 기우렸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小隊員은 各個分散 하기에 이르렀다。

4. 旌善—倉里附近 攻防戰 (1951년 2월 16일부터 1951년 2월 24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20 호
작명부록 제220호
제224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제 3 군단	장 소장 劉 載 興	제30연대	장 대령 高 時 福
제 9 사단	장 준장 金 鍾 甲	제 1 대대	장 소령 金 祖 義
제28연대	장 대령 李 昌 植	제 2 대대	장 소령 金 鍾 煥
제 1 대대	장 소령 金 祥 圭	제 3 대대	장 소령 金 在 康
제 2 대대	장 소령 金 寅 文	배 속 부 대	
제 3 대대	장 소령 李 成 烈	제30 포병대대	장 소령 張 庚 石
제29연대	장 대령 高 昌 主	제 9 야전공병대대	장 소령 羅 南 麟
제 1 대대	장 소령 趙 鏞 吞	제101 박격포중대	장 대위 宋 善 陽
제 2 대대	장 소령 張 泰 煥	대전차공격대대	
제 3 대대	장 소령 李 永 鎬	병 력 : 10,000명	

敵 軍

제 2 군단	장 중장 崔 仁
제 2 사단	
제 4 사단	
제 9 사단	
제10사단	
제15사단	
제27사단	
제31사단	
제 3 군단	
제 1 사단	
제 3 사단	
제 5 사단	

나. 전투 전의 개황

제9사단이 담당한 旌善—倉里(平昌 東쪽 12km)부근의 공방전은 敵의 "二月攻勢"에 있어서 原州를 中心으로 하는 中東部戰線의 左翼部를 固守한 美제2사단의 전선과 서로 指呼하는 右翼部를 사단이 직접 담당한 다음 敵의 계속적인 南下를 저지하고 我軍의 철수를 엄호한 防禦작전으로서 장차 我軍의 次期反擊을 유리하게 전개토록 하려는 見地에서 본다면 전략상 커다란 의의를 內包하고 있는 一戰이다.

敵軍의 상황 : 2월 12일 02.00를 기하여 실시한 敵의 所謂 二月攻勢는 兩個의 軸線을 따라 我軍의 中東部戰線에 집중되었다.

곧 東側方의 北共 제2군단(장, 崔 仁)과 제3군단은 下珍富里—蒼村선으로 北進한 제3군단(장, 劉振興 소장) 예하 제9사단(장, 金鍾甲준장)과 제7사단(장, 金炳一 준장)의 정면으로 南下하여 旌善—平昌線에 접근한 다음 寧越—堤川線을 점령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南下를 기도하였으며, 戰線의 左側方에서는 中共 제13병단(장, 李天佑)예하 제40군(장, 韓先楚)과 제66군(장, 蕭新槐) 및 北共 제5군단등 도합 13개사단이 美제10군단에 작전 배속된 제3, 제5, 제8, 3個사단의 방어선인 橫城지구로 南下한 然後에 中共은 原州를 攻圍하는 일방 北共은 그 東側方으로 迂回하여 깊숙히 堤川까지 侵透하였으며, 中共軍제13병단 예하 제39군(장, 吳信泉)의 제115(장, 張翔藏), 제116(장, 汪洋), 제117(장, 倪天允)의 3개사단은 原州 西쪽을 占領한 美제23연대 陣地인 孤平里를 포위하였다.

我軍의 상황 : 이러한 敵의 "二月攻勢"가 시작되자 육군본부는 2월 12일 20.00를 期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작전지시 제45호를 하달하였다.

『①. 美제1, 제9, 제10군단 및 제1해병사단은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임.

②. 軍은 담당지구를 調整하고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려함.

③. 제1군단장은 首都사단 및 제1, 제9, 제10경비대대의 배속을 해제하여 1951년 2월 13일 06.00부로 제3군단에 배속케 하라. 그리고 군단 사령부 및 직할부대는 美제10군단 담당지구에 도착함과 동시에 當該군단에 배속한다.

④. 제3군단장은 1951년 2월 13일 06.00부로 제1군단에서 배속해제한 首都사단 및 제1, 제9, 제10경비대대를 통합지휘하라.

⑤. 美제1해병사단에 배속중인 韓國 제1해병연대는 1951년 2월 13일 오후 堤新里로 이동함과 동시에 제3군단에 배속한다.

⑥. 방어선 "LL"(江陵白日洞—堤洞)로 진출한 각 부대를 철수시키고 이 線 以南으로 침공하려는 敵을 저지하는 동시에 담당지대의 敵을 포착섬멸하라.』 (참조 작명 부록 202호)

이에 따라 당 제3군단은 2월 13일 이전에 제1군단이 담당한 東部전선의 首都사단과 제1, 제9, 제10경비대대와 제1해병연대를 통합지휘하게 되었거니와 당시 군단 左側 美제10군단과의 전투지경선은 乃城—寧越—堤洞—泰岐山(△1261)을 連하는 線이며 그 線上은 제3군단에 속하게되었다.

이와 같은 "LL"線 以南으로의 철수명령에 따라 제3군단 全병력은 그 후방으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下珍富里—蒼村일대에 집중된 敵제2, 제3, 兩군단의 優勢한 공격은 제3군단으로 하여금 "LL"線의 확보를 困難케 하였다. 이리하여 2월 15일 현재로 군단의 戰線은 대략 다음과 같은 선상에서 연계되었다.

곧 東部 首都사단(장, 宋堯讚 준장)의 주력부대는 "LL"線上인 江陵—邱山里線을 占領한 반면 제7, 제9의 兩사단은 下珍富里—蒼村線에서 계속 후퇴하여 제7사단은"LL"線의 20km후방인 壓磋里(寧越北쪽 7km)—文谷里線으로 철수하였으며 제9사단은"LL"線 南쪽 10km인 旌善—蒼里 線으로 철수하였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이날 美제8군사령부에서는 다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작전명령을 하달하게 되었다.

『① 제3군단은 騎馬峰(△383 江陵 南쪽 15km)—萬德峰△1035)—五臟山—上元山(△142)—△1146;

(旌善 西北쪽 12km)—藥水里(平昌 南쪽 6km)를 점령 확보하라.

② 제7사단은 도문(平昌 南쪽 7km)에서 美제7사단과 접촉을 유지하라.

③ 제9사단 제30연대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제7사단장에게 부여하라。』

이상과 같이 하여 제3군단의 공격목표선은 확정되었거니와, 제30연대가 제7사단의 지휘하에 蒼里 부근을 占領한 그 다음날인 16일에는 다시 命令하기를

『① 17일 12.00부터 제3군단과 美제10군단의 지경선을 아래와 같은 現在線으로 변경한다。

廣灘里(道場谷)—板雲里—창전里—雲橋里—墨洞—後谷—九頭尾—泰岐山을 連하는 線, 板雲里가 制限點이다.

② 韓國軍총참모장에게 H線(藥水里—檜洞里—△1140—△1146—上元山—(五臟山)—萬德峰—騎馬峰의 一般線을 따라 東海岸에까지 진지를 확대할 권한을 부여한다.

단 이 線까지의 철수는 敵의 壓迫으로 강요되었을 때에 限한다.

③ 藥水里—務道里間 도로의 계속적인 안전을 유지하고 이 지역에 대한 西北으로 부터의 敵의 침투를 방지하라.

④ 제30연대는 17일 08.00부로 그 配屬을 解除하고 제9사단에 복귀하라.

⑤ 제7사단과 제9사단과의 지경선인 石項里—능암덕山(△805)—栗峙里—南屛山(△1150)을 連하는 線은 17일 08.00부터 有効하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사단장 金鍾甲 준장은 사단의 현占領線인 餘糧里—旌善—倉里일대에서 線上의 上元山—△1146—△1140—檜洞里—笠峰 △1055(倉里 西北쪽 5km)線을 점령하고 倉里方面에서 南下하는 敵을 격멸하기 위하여 요지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下達하였다。

『① 사단은 전면의 敵을 섬멸하고 "H"線을 확보하려함.

② 제28연대장은 餘糧里일대의 진지로 철수하여 旌善으로 이동, 사단의 후방 경계에 임하며 1개대대를 倉里로 진출시켜 제30연대의 작전을 지원케 하라.

③ 제29연대장은 예하 全병력을 南坪里로 진출시킨 다음 주력으로써 "H"線上의 上元山—下峰間을 점령하고 담당지구내의 敵을 섬멸하라.

④ 제30연대장은 "H"線上의 사단 左線을 점령하고 倉里일대의 敵을 격멸하라。』

(2) 작전실시

2월 16일 : 작명에 따라 사단 예하의 각 부대는 이날 목표를 향하여 이동하기 시작하였다。사단예비대인 제28연대(장, 李昌禎대령)의 제1대대(장, 金祥圭 소령)는 14.30에 餘糧里를 떠나 南으로 撤收하여 16.30 旌善에 도착하였고, 제2대대(장, 金寅文 소령)는 餘糧里에서

제29연대의 진출을 엄호한 다음 16.00에 진지를 철수하여 旌善으로 이동 하였다。그러나 제3대대(장, 李成烈 소령)는 이날 제30연대(장, 高時福 대령)의 倉里전투를 지원하기 위하여 CP와 그 주력인 제11, 제12중대를 麻田峠로 이동하였다。

이에 따라 제29연대(장, 高白圭 대령)는 이날 제28연대 제2대대의 엄호하에 제28연대와 진지를 교대한 다음 CP를 南坪里에 개설하고 대전차공격중대로서 경계임무를 담당케 하는 한편, 제1대대(장, 趙鏞春 소령)는 13.30에 羅田里를 출발하여 14.20에 長悅里에 도착, 제1중대로서 上元山—△1147를, 제3중대로서 그 左側인 △1147—△779를 각각 占領케 하였다。

따라서 제2대대(장, 張泰煥 소령)도 이날 16.30에 箱岩里를 출발하여 18.00에 羅田里에 집결하여 연대의 예비대가 된데 반하여 제3대대(장, 李永鎬 소령)는 長坪에 집결한 다음 제10중대를 △779—△1059간에, 그리고 제11중대를 下峰—加里旺山에 각각 배치하였다。

한편 17일 08.00에 제30연대(장, 高時福 대령)의 CP는 麻田里에 개설, 제2대대(장, 金鍾煥 소령)는 본부를 龍灘里에 둔다음 주력을 제29연대의 左側과 連繫, H線上의 檜洞里—行遊洞간에 배치하였으며 연대의 주력 제1대대(장, 金相義 소령)와 제3대대(장, 金在康 소령)는 松林洞의 鼎蓋山(△849) 일대에 배치하여 倉里의 敵과 대치하고 있었다。

이날 사단사령부는 旌善에 개설하였고 사단직할부대중 공병대대(장, 羅南麟 소령)는 본부와 제1중대가 旌善에 위치하는 한편 제2중대는 旌善—長省간의 도로 보수작업과 재설작업을 착수하였으며, 대전차공격대대의 CP와 주력은 旌善에서 사단사령부를 경호하였고 제3중대는 龍灘里에 위치, 일부 병력을 箱岩里로 파견하여 敵情을 탐색케 하였다。

한편 사단 左側 제7사단(장, 金炯一 준장)은 後方지휘소를 寧越로, 前方지휘소를 磨碓里 각각 철수하였고, 제3연대(장, 鄭 震 대령)는 磨碓里에서 元洞으로 철수하였으며 제5연대(장, 金道榮 대령)는 文谷里에 배치, 제8연대(장, 李賢進 대령)는 魯論里 방어선에서 敵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2월 17일 : 이날 사단은 전기한 바와 같이 제29연대와 제30연대의 제2대대 병력으로 "H" 線을 확보하는 가운데 제30연대의 주력과 제28연대 제3대대의 병력으로써 倉里의 敵을 공격하였다。

곧 제28연대(장, 李昌禎 대령)의 제3대대(장, 李成烈 소령)가 이날 11.20 麻田峙를 출발, 西川里에 도착하는 즉시 제30연대(장, 高時福 대령)의 제1, 제3대대와 合同하여 倉里의 敵 1개연대 병력을 공격하여 치열한 교전 끝에 12.30에 완전히 탈환하였다。이 전투에서同연대의 제9중대가 거둔 전과만도 敵사살 13명을 포함하여 다발총 1정, M1 2정 , 칼빈소총

1정, 소총 1정을 노획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 我軍의 손실도 4명의 전사자와 9명의 부상자 및 12명의 실종자를 내었고, M1 6정, 칼빈소총 4정, 3.5'' 로켓트포 2문을 잃는 등 격전의 결과에 따른 손실은 불가피하였다。그러나 23.30에 敵 1개연대는 夜陰을 틈타고 제30연대의 지휘소를 기습할 목적으로 背後를 目標로 奇襲을 加함으로써 제28연대 제3대대는 對戰車砲中隊와 協力하여 笠峰 松林洞을 占領하면서 이를 맞아 激突하는 가운데 제30연대의 第一線 주력은 연대지휘소가 위치하는 麻田里로 철수하였다。

이 철수작전으로 我軍은 6명이 전사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3명이 실종되었다。

이와 같이 사단의 左一線에 위기가 迫頭하게 되자 사단장은 포병대대(장, 張庚石 소령)를 寧越郡 德浦里로 이동하게 하고 제101박격포중대(장, 宋錫陽 대위)를 旌善郡 沙內里로 진출시켜 제30연대를 지원케 하였다。

한편 제28연대 제2대대(장, 金寶文 소령)는 전날 제29연대의 진출을 엄호하고 16.00에 출발하여 이날 03.30에 旌善에 도착한 다음 번평—入雲—東洞간에 예비 진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12.00에 旌善을 출발하여 이날 24.00 佳灘里에 도착하였다。한편 이날 上元山—下峰간에 주력을 배치한 제29연대(장, 高白圭 대령)의 正面에는 敵情이 없는 가운데 대전차포중대를 上立石에서 24.00에 中洞으로 집결시켰으며 연대 예비대로 羅田里에 위치한 제2대대(장, 張泰煥 소령)는 馬坪里 前方에서 決戰防禦태세에 들어갔다。

한편 전일에 이어 旌善—長省간에서 도로보수와 제설작업을 계속한 공병대대(장, 羅南麟 소령)의 제2중대는 이날 17.00에 作業을 끝마치고 旌善으로 집결하였다。

그리고 이날 사단 左側 제7사단(장, 金炯一 준장) 제8연대(장, 李賢進 대령)는 碧論里 부근의 陣地선에서 倉里—小洞 부근의 새로운 防禦線을 확보하고 陣地를 構築하였다。

2월 18일 : 사단장은 이날 戰況의 推移를 분석한 끝에 口頭로 命令하기를

『① 제28연대는 제30연대와 그 임무를 교대하고 來侵하는 敵을 主抵抗線 전방에서 저지 격멸하라.

② 제30연대는 제28연대와 교대한 다음 旌善에 집결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제28연대(장, 李昌禎 대령)의 제3대대(장, 李成烈 소령)는 이날 松林洞—栢洞간의 진지를 더욱 강화하였고 제30연대(장, 高時福 대령)는 CP와 제1대대(장, 金相義 소령)가 麻田里에 留屯하는 반면에 檜洞里에 배치하였던 제2대대(장, 金鍾煥 소령)와 麻田峠의 제3대대(장, 金仁康 소령)는 旌善으로 이동한 뒤 다시 龍灘里로 轉進하여 碧灘—基谷일대

에 배치하여 사단의 西側方을 경계하게 되었는데 이때 사단장은 전차공격대대의 제3중대를 龍灘里로, 제101重迫擊砲中隊를 魯洞里(旌善 西쪽 8km)로 각각 진출시켜 제30연대를 지원케 하므로써 旌善의 西北方 방어선을 강화하였다。

한편 사단의 右一線부대인 제29연대(장, 高白圭 대령)는 이날 사단장의 긴급지시에 따라 일부 전선을 정리하였다。 곧 제1대대(장, 趙鍾泰 소령)는 전일에 이어 본부를 長悅里에 설치하고 주력을 上元山—△1146—△779線에 배치하고 있던중 이날 제3중대의 일부 병력을 柳川里에 있는 白石峰(△1187)의 西쪽△1119에 진출시켰으며 제2대대(장, 張泰煥 소령)는 연대의 예비대로 羅田里에 위치, 제5중대를 그 西쪽 2km 전방에 있는 △622와 馬頭峰 일대로 진출시키고 제6중대를 그 西南쪽 民屯峰에 배치하여 左側의 제30연대 진지와 연결하였으며, 다시 제7중대를 △842와 上元山으로 진출케 하여 사단의 北쪽 방어진지를 강화하였다。

따라서 제3대대(장, 金在康 소령)도 長坪里에 본부와 제9, 제12중대를 두는한편 제1대대 방어선 左端에 連繫하여 제10중대를 △779—1059간에 제11중대를 加里旺山(△1561)—中峰—下峰(△1379)간에 각각 배치하여 방어선 西北方을 담당케 하였다。

이상과 같이 제29연대가 上元山—加里旺山간의 北쪽 진지를 강화하는 한편으로는 예비대를 投入하여 下峰—民屯峰에 이르는 西쪽방어선을 점령케 한것은 平昌—寧越線을 目標로 南侵하는 敵이 사단의 西側方을 直衝하였기 때문인데 당시 太白山脈을 타고 침투한 유격대의 跳梁도 또한 증가되고 있었다。이날 同 연대의 南坪里 지휘소에서는 03.00에 CP의 경계진지로 敵의 유격대대가 침투하여 대전차중대가 이를 격퇴하고 敵 7명을 사살하였거니와 이는 사단의 後側背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할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날 사단의 직할부대중 工兵대대(장, 羅南麟 소령)는 旌善일대와 盤岩里—長省간의 제설작업에 臨하였고 포병대대(장, 張庚石 소령)는 寧越郡 德浦里에 放列을 펴고 있었다。한편 사단의 左側 제7사단(장, 金炯一 준장)은 지휘소를 寧越에서 春陽으로 철수하여 개설하였고 倉里—小洞간의 제8연대(장, 李賢進 대령)도 磨碓里 東쪽 接山(△823)일대로 철수하고 있었다。

2월 19일 : 이날 사단의 西側方에서 旌善을 목표로한 敵의 攻勢는 더욱 增強되었는데 특히 제28연대 제3대대(장, 李成烈 소령)가 占領한 麻田峠의 방어선과 제30연대 제3대대(장, 金在康 소령)가 占領한 龍灘里의 방어선에 그 衝力이 집중되고 있었다。

즉 제28연대 제3대대는 이날 松林洞—栢洞간의 진지를 철수한 다음 △891—麻田峠를 占領하여 倉里에서 來襲한 敵과 치열한 교전끝에 19.00에 이를 완전히 격퇴하였다。이에 따라 제1대대(장, 金祥奎 소령)와 제2대대(장, 金貴文 소령)는 旌善西쪽 3km 전방으로 진출하여 제3대대의 후방을 방호하게 되었다。

그뒤에 제28연대 제3대대 右側方인 龍灘里를 占領한 제30연대(장, 高時福 대령)의 제3대대(장, 金在康 소령)는 檜洞里일대로부터 急襲한 1개연대규모의 敵과 이날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旌善으로 철수하였다。

이상과 같이 사단 西側方의 戰況이 不振한 이 무렵에는 平昌—寧越—堤川—原州를 連하는 線內의 U字型도로망으로 圍繞된 山岳지대에 침투한 敵의 戰力은 이미 그 限界點에 달하고 있었다。

이러한 情勢를 看破하게된 군단장 劉載興 소장은 餘糧里—長悅—南坪里—旌善—佳灘—義林吉을 連하는 機動路와 그 東쪽要域을 확보하므로써 사단의 左側에서 寧越—堤川까지 철수한 제7사단과 美제10군단의 反擊을 위한 右翼의 軸心部를 構成키로 決心하였다。이리하여 제3사단의 地境線을 東쪽으로 後退시키는 동시에 그 南北간의 戰線을 확대하라는 요지의 구두명령을 하달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사단장 金鍾甲 준장은 19일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작전명령 제48호를 하달하였다。

『① 제28연대장은 麻田峠의 방어선을 철수하여 旌善일대에 견고한 방어 진지를 구축하라.

② 제29연대장은 餘糧里—長悅里—南坪里의 軸線을 점령하라.

③ 제30연대장은 현진지를 철수하여 佳灘—義林吉을 확보하고 사단후방에 침투하는 敵을 捕捉 섬멸하라。』

이에 따라 18.00에 사단사령부가 旌善에서 訥岩里(旌善 東쪽 22km)로 移設하였고 이어 제28연대의 CP도 旌善에서 民坪里(旌善 東쪽 4km)로 後退하였으며 제30연대(장, 高時福 대령)는 漁川(旌善 東쪽 1km)—下石項—禮味里로 撤收하기 시작하였다。이때에 餘糧里—南坪里—民屯山간의 제29연대(장, 高白圭 대령)는 진지를 강화 固守하면서 부대의 이동과 진출을 엄호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부대본부 및 주력부대의 이동과 아울러 사단의 直轄 부대도 현위치로 부터 목적지를 향하여 이동하고 있었다。즉 공병대대(장, 羅南麟 소령)는 13.00에 사단사령부와 함께 旌善을 떠나 18.00에 訥岩里에 도착하였는데 제2중대는 訥岩里—葛田里간의 作戰路

의 補修工事중 長田里의 무명高地에 잠복하고 있던 敵 8명을 急襲하여 포로로 잡았다。

그리고 대전차공격대대의 제2, 제4중대는 22.00에 龍岩里에 도착하는 즉시로 사단사령부를 경계하게 되었는데 同대대의 CP와 제1, 제3중대는 龍岩里 4km 西쪽인 陰地座沙를 占領하게 되었다。

2월 20일 : 전일에 이어 사단 西側方에 대한 敵의 攻勢는 그 正面을 확대하고 있었다。

전날 麻田峠에서 敵을 격퇴한 제28연대의 제3대대(장, 李成烈 소령)는 이날 07.00에 진지를 철수하여 旌善으로 집결한 다음 연대의 예비대가 되어 旌善邑內의 后山인 飛鳳山에 배치하였고 이에 대신하여 旌善西側方의 戰線은 제1, 제2대대가 담당하였다。이 兩대대는 CP를 米川(旌善 西쪽 4km)에 개설하고 北에서 南으로 新論—生谷—龍灘里간에 제2대대(장, 金寅文 소령)를, 龍灘里—鳥彌—耳坪—原石간에 제1대대(장, 金祥圭 소령)를 각각 배치한뒤 그 西方으로 진출하여 麻田峠의 敵과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와같이 제28연대가 新論—鳥彌—原石線에서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던 이날 연대의 右側方에 있는 제29연대(장, 高仁圭 대령)의 정면에도 敵의 대대적인 強襲이 集中되고 있었다。이리하여 제29연대장은 제1대대(장, 趙鎭春 소령)의 주력인 제1, 제3중대가 담당한 방어선 上元山—△1146—△779를 제2중대에 일임케 하고 제1, 제3중대를 南坪里로 집결시킨 다음 제4중대와 아울러 南坪里를 출발케 하였다。이리하여 제3중대는 新德—民屯—山內谷을 경유하여 飛龍洞—民屯山일대를 占領하고 연대지휘소를 경비중인 대전차공격중대의 일부 병력을 그 左側인 細谷—內谷간에 배치하였다。이에 OP를 民屯山으로 推進하였고 제4중대는 방어진지 후방인 夜味에 梯置하였다。이리하여 대대는 제28, 제29兩연대의 間隙을 閉鎖하게 되었는데 이때 同 연대의 左一線 △779—△1059—加里旺山(△1561)—下峰(—△1379)간을 방어하던 제29연대 제3대대(장, 李永鎬 소령)는 이날 01.00에 1개중대 규모의 敵병력이 下峰을 占領한 제9중대를 포위함으로서 熾烈한 攻防戰이 전개되었다。

이에 연대장은 △779—△1059간에 배치한 제10중대로 하여금 長坪—下峰간의 보급로를 보수 확보토록 하는 한편 제12중대의 火器소대로 하여금 제9중대를 지원토록 하였다。

이때 同 대대의 左側인 제30연대 제2대대(장, 金鍾燮 소령)가 占領中인 烏頭峠—웃텃골 일대에서도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었다。

곧 대대의 주력인 제5, 제6중대는 16.00에 출동하여 제5중대는 下峰의 東쪽 능선에서 烏頭峠—웃텃골간의 진지를, 제6중대는 웃텃골—安盤谷간의 진지를 각각 점령하게 되자

제7중대는 安盤谷一할미골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그 前方의 △899를 완전 점령하게 되었다。이 제7중대의 △899 공격에 있어서는 右側의 제6중대와 水岩里에서 합세한 제11, 제12 兩중대의 박격포소대가 火力으로 지원하였었다。

한편 제30연대(장, 高時福 대령)는 제1대대(장, 金雄義 소령)가 사단 사령부를 경계하기 위하여 華票洞으로 이동함을 제외하고는, CP와 제2, 제3대대는 다시 사단후방 餘田里일대에 침투한 敵을 我제1해병연대와 협동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고 출동하기 시작하였다。

곧 제2대대(장, 金鍾煥 소령)는 11.00에 石谷里를 출발하여 24.00 黃池里에 進擊하였으며 제3대대(장 金在康 소령)는 09.00에 下石項을 출발하여 高頭岩으로 기동하였다。그런데 同대대의 수색대는 內德里一餘田里 일대로 출동하여 敵情을 탐색하고 있었다。

이 무렵 사단의 西側方에서 寧越線까지 철수한 제7사단(장, 金炯一준장)은 이날 제9사단에 인접한 제8연대(장, 李賢進 대령)가 倉里 南쪽 10km인 要峰과 그 東南쪽 接山간을 占據中에 있었으며 그 左端에 連하여 제3연대(장, 鄭 震 대령)가 磨磋里부근을, 그리고 제5연대(장, 金道榮 대령)가 그 右側에 있는 文谷里를 각각 占領하면서 美제10군단과의 연계를 維持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이무렵 敵의 強與의 焦點은 中東部戰線의 左肩部인 原州부근과 그 右肩部인 旌善일대를 擔當한 제9사단으로 집약되었으며 戰線의 基底部에 해당하는 寧越一堤川선에 대한 공세는 我 제3제5 및 美제7사단의 執拗한 防守로 말미암아 漸次로 쇠진한 상태에 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한편으로는 打擊을 입은 敵의 주력부대를 戰線의 北방으로 遠隔케 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右肩部인 제9사단은 이들 南侵하였던 北共의 제2·제3군단이 潰退하는 窮鼠의 물결과 激突하게 되므로서 豫期치 않던 背面攻擊을 받게 되었다。

사단의 西쪽 全戰線에 걸쳐 치열한 교전을 전개한 이날, 敵의 兵力은 增增하여 20.00를 전후한 暮夜부터는 그 數를 能히 헤아릴 수 없는 대집단으로 同時에 組織化된 도전을 加하기 시작하였다。

전황이 이에 이르자 사단장 金鍾甲준장은 作戰地域을 接하고 즉시 回頭 명령을 하달하였는데 그 要旨는 사단의 주력으로 漢江의 西쪽을 占據한 진지를 戰術上 포기하고 餘福里一南坪里一旌善線 東側高地를 領有하므로써 後圖를 策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鷄岩里에 위치한 사단사령부는 19.00에 출발한 다음 東쪽으로 이동하여 24.00에는 葛田里에 개설하였고 이어 제28연대(장, 李風植 대령)도 진지를 철수하여 德雨里(旌善

東쪽 12km)로 이동하였다。그러나 제29연대(장, 高白圭 대령)主力은 현지를 고수하는 한편 연대지휘소와 직할대 및 제3대대(장, 李永鎬 소령)는 20.00에 德雨里를 향하여 이동하던중 北里에서 敵과 치열한 교전을 전개한 뒤 新月里(旌善 東쪽 8km)에 도착하는 즉시로 새로운 陣地를 占領하였다。

2월 21일 : 敵 제2·제3 兩군단의 合流병력으로 敢行한 대대적인 공세는 전일에 이어 이날도 제28연대와 제29연대본부 및 제3대대가 固守하는 德雨里—新月里선의 陣地에 重點的으로 집중되었으며 그 일부는 我軍의 後側背까지 침투하여 退路를 차단하였으니 이것이 物量戰法의 常套的인 唯一方式인 것이다。

이리하여 제28연대(장, 李昌植 대령)는 德雨里 東쪽인 鷹岩을 따라 強襲한 2개연대 규모의 敵과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였으며 新月里를 占據中인 제29연대(장, 高白圭 대령)의 CP와 直轄隊 및 제3대대(장, 李永鎬소령)는 19.00에 新月里를 撤收하여 연대의 주력이 위치한 南坪里로 이동중 愛山里(旌善東쪽 2km)에서 數千群의 敵의 기습을 받고 격전중에 있었다。이때 後續한 제101追擊砲중대(장 宋善陽 대위)도 이 巨波에 휩쓸려 함께 치열한 火力전을 전개하였으니 炸裂하는 銃砲聲은 幾重이 깊은 山野에 메아리쳤다。

이상과 같은 상황하에 이날 南坪里에 본부를 둔 제29연대의 제1대대(장, 趙鍾晉 소령)는 飛龍洞—民屯山線을 堅持中인 일부병력을 抽出하는 즉시로 新月里—愛山里에서 激戰중인 본부 및 연대직할대를 엄호하기 위하여 左側方인 旌善일대의 要線을 占領하자 곧 攻勢로 移行하여 敵의 西側方을 目標로 強打하였으며 同대대의 右側에 배치한 제2대대(장, 張泰煥 소령)는 烏頭峰에 來襲한 敵을 擊破하자 곧 追擊을 加하면서 飛龍洞—新論을 連하는 線까지 진출하였는데 白雪은 피로 물들고 朔風은 硝煙에 가득차 있었다。

이와 같이 德雨里—新月里—愛山里 일대의 제28연대와 제29연대의 일부병력이 敵과 격전을 전개하고 있을 무렵 사단사령부가 위치한 葛田里를 連하는 作戰路上에 있는 華嚴洞(德雨里 東쪽 12km)에는 제30연대(장, 高時福 대령)의 제1대대(장, 金相義 소령)와 대전차공격대대의 3개중대가 13.40부터 鷹岩里(華嚴洞 西쪽 1km)에 가득찬 敵群을 向하여 銃鋒을 集中하였다。그러나 원시 數的으로 우세한 敵은 이에 屈하지 않고 오히려 반격으로 나와 左右로 협공함으로써 24.00에 我軍은 退路를 打開하면서 서서히 △855(鷹岩里 東쪽 2km) 高地로 철수하였다。

한편 사단의 후방을 방호하고 葛田里에 침투한 敵을 격멸 하기위하여 제30연대(장, 高時福 대령)의 CP와 제3대대(장, 金在康 소령)는 이날 12.00를 期하여 高頭岩을 勇躍 출발하

여 14.00에는 이미 內德里에 진출하였고 제2대대(장, 金鍾煥 소령)는 여기에서 제1 해병연대와 협동 作戰으로 餘田里를 強占한 敵을 격퇴할 준비에 골몰하고 있었다。

이날 사단의 直轄隊 중에서 공병대대(장, 羅南麟 소령)는 黃洞里에서 그 부근의 機動路를 開拓하고 있었으며 포병대대(장, 張庚石 소령)의 C포대는 三陟郡 上長面 黃池里로 躍進한 다음 支援射擊을 준비하였다。

2월 22일 : 전일에 이어 이날 제28, 제29의 兩연대는 執拗的인 人海戰術로 挑戰하는 敵과 正面으로 激突함으로써 熾烈無比한 攻防戰을 계속하였다。

전날 德湖里에서 2개연대규모의 敵과 血戰을 거듭한 제28연대(장, 李昌禎 대령)는 이날 死中求活로 重圍를 突破分斷한 다음, 제1대대(장, 金祥生 소령)는 餘糧里를 向指하던중 新月山(△870 旌善 南쪽 4km)과 瓦坪里(旌善 東쪽 4km)에서 미리 潛伏하고 있던 敵 大群의 挾擊을 받은 결과 火力과 白兵力을 發揮할 時間餘裕도 없이 各個別的으로 분산 철수하기에 이르렀으며, 제2, 제3대대는 16.00에 東쪽 高岩里에서 威勢를 자랑하던 敵에게 一擊을 加하고자 敢然히 공격을 加하였으나 豫想보다도 頑強한 敵의 반격에 부딪쳐 일부는 血路를 뚫고 北上하여 高陽里에 집결하였으나 주력은 계속 사단사령부가 위치한 葛田里를 향하여 東쪽으로 離脫하고 있었다。

이무렵 제29연대(장, 高白生 대령)의 본부와 직할대 및 제3대대(장, 李永鎬 소령)도 愛山里의 兇敵에 대한 大量殺戮을 거듭하였으나 一波又一波로 달어닥치는 物量앞에 밀리는바 되어 작전상 불리한 戰勢를 打開코자 第101迫擊砲中隊는 新月里에서 迫擊砲 8문과 중요기재를 地下깊이 埋沒하는 동시에 차량을 비롯한 중요裝備들을 파괴한 뒤 연대병력과 같이 南坪里로 後退하여 집결하였다。그러나 이 중대는 旌善을 탈환한 다음인 2월 26일에 이곳에 埋沒處分하였던 砲를 비롯하여 트럭 4대와 1/4Ton 짚 6대 및 그밖의 裝備를 도로 찾았으니 一時의 狂喜는 필경 巨岩의 壓容을 삼켜버리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即說하고 이때에 연대의 주력부대인 제2, 제3대대도 본부직할대 및 제3대대가 南坪里에 집결하자 下峰一帶龍洞—吳亡山 일대의 진지를 철수하고 연대지휘소 및 직할대와 함께 餘糧里에 집결하기 시작하였으며 제3대대(장, 李永鎬 소령)는 다시 高陽里로 이동 집결하였다。

한편 이날 제30연대(장, 高時福 대령)의 주력은 內德里로부터 西進하여 俗薛 서루차를 占領한 다음 제1해병연대와 협동하여 이날 05.00에는 餘田里까지 進出하였다。

이와 같이 사단의 전황이 急轉一下로 惡化하여지자 군단장 劉載興 소장은 다시 全戰局

을 冷徹하게 分析한 결과 斷案을 내리되 『首都사단 제26연대(장, 徐廷哲 대령)를 제9사단에 배속하는 즉시로 當面의 敵에 대한 반적을 斷行하라』 하였으니 死中에서 活路를 찾고 既死에서 回生을 圖謀하려는 勇斷만이 能히 이 難局을 打開하는 唯一의 要道임을 일깨워 주는 것이었다。이에 따라 제26연대는 곧 CP를 兎山里에서 骨只里로 이설하고 제1대대는 水出里—後谷峠에서 葛田—旌善가로를 따라 西進하여 이날 後文을 경유 大基 南方 △892로 향하였고 제2, 제3대대는 骨只里에 집결중에 있었으니 장차 旌善邊境에 風雲이 急하려 하였다。

이때 그 西北方 華票洞에는 對戰車攻擊大隊가 決死一戰하려는 鬪志를 안고 전일의 진지를 강화중에 있었으며 사단장의 구두 명령에 따라 사단수색중대(장, 李弘燁 대위)의 精兵 70名은 水下里를 向하여 氷雪을 踏破하면서 急進中에 있었다。

2월 23일 : 이날 사단장은 首都사단에서 배속된 제26연대와 사단의 주력부대로서 旌善—倉里—帽의 敵을 격파하기 위한 攻勢移轉을 계획하는 즉시로 所要의 부대 再配置를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28연대(장, 李昌禎 대령)는 CP를 餘糧里에 개설하는 동시에 제1대대를 이날 09.30까지 高養里에 집결토록 命令하였으며 제2, 제3대대로 하여금 일부 병력을 高養里에 집결케 하는 한편 주력을 蟾岩里를 경유 骨只里에 집결토록 措置하였다。

이당시 제29연대(장, 高白圭 대령)는 전날에 이어 主力으로써 餘糧里에 집결하여 戰力을 補強하면서 이 敵을 斷然코 擊滅코자 銃劍을 다시 갈았다。

이날 연대의 제1대대(장, 趙鏞泰 소령)는 예비대로서 그 부근일대에 捺置되었으며 제2대대(장, 張泰煥 소령)는 주력을 長悅里—月川(文谷里)간을 占領하여 연대의 西側方을 방호하였다。이러한 가운데 제3대대(장, 李永鎬 소령)는 이날 04.00에 전날에 집결하였던 高陽里를 떠나 餘糧里에 도착한 뒤에 22.00 연대장의 직접 명령을 받고 다시 骨只里로 이동한 다음 제26연대와 차후 작전을 위한 事前協調와 전투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사단의 주력부대인 제28, 제29 兩연대가 사단전투지경내의 北端인 高陽里—餘糧里일대와 東部후방지역인 葛田里—骨只里일대에 집결하여 차기작전의 必勝을 期約하였으며 제30연대의 제1대대와 對戰車攻擊大隊 및 제26연대는 旌善—蟾岩里—華票洞—後文—葛田里선을 따라 太白山脈을 目標로 東進하려는 敵의 주력과 正面으로 對峙中에 있었다。

즉 제30연대(장, 高時福 대령)의 제1대대(장, 金相義 소령)는 이날 사단 CP를 경계하다가 大基까지 진출하는 즉시로 強襲을 敢行하는 敵을 저지하던 중 제26연대(장, 徐廷哲 대

령) 제1대대와 그 임무를 교대한 다음 筏文里로 移動하였으며 大基 東쪽 長江村을 占領中인 대전차공격대대는 06.00에 출동하여 龍岩里의 文峠를 목표로 西進하였다。그리고 前述한 바와 같이 제26연대의 제1대대는 제30연대 제1대대와 임무를 교대하자 當面의 敵을 擊破하고 大基에서 다시 西南方으로 진격하여 이날 俗稱 한치에 진출하였으며 제30연대의 조공제대인 제2대대는 筏文里에, 그리고 예비대인 제2대대는 長江村에 각각 진출하여 騎虎의 勢을 서로 겨누었다。

碌田里일대에서 제1해병연대와 제30연대는 協同작전중 이날 사단장의 구두명령을 받고 제3대대로써 烏洞里에 진출한데 이어 제2대대로써 內德里를 출발하여 역시 烏洞里에 이동하였으며 연대지휘소도 또한 高頭岩에서 烏洞里로 약진하였다。

이날 사단의 CP는 葛田里에 위치한 가운데 공병대대(장, 羅南麟 소령)는 廣東里에 CP를 두고 廣東里—葛田里—兎山里간의 作戰路整備 및 架橋설치작업에 從事하였고 제30포병대대(장, 張庚石 소령)는 08.00에 黃池里를 떠나 15.00까지 葛田里로 집결하였다。

이날로써 사단이 敵 二月攻勢이래 中東部戰線의 右肩部로서 敵제2, 제3군단의 우세한 병력과의 공방전에서 고전을 면치못하였던 東側方의 固守작전은 그 일단계가 종결되었다。

지난 19일 美 제8군사령부는 美 제9, 제10의 兩군단의 점령목표인 Arizona線 〔芳林(平昌 北쪽 10km)—新村(橫城 北쪽 5km)—蜜龍(旌平 北쪽 5km)—楊平〕이 設定된데 이어 20일 12.00에는 다시 육군본부에서 요지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 제262호 수정작전지시 제13호 (참조: 부록작명 제210호)를 하달하였다。

『① 美제9군단과 美제10군단은 1951년 2월 21일 10.00를 期하여 南漢江 東쪽과 Arizona—線線 南쪽의 敵을 섬멸하기 위하여 原州—橫城및 寧越—平昌의 軸線을 따라 공격한다.

② 軍은 1951년 2월 21일 10.00를 期하여 담당지구내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Arizona 線 南方의 敵을 섬멸하는 동시에 美제8군의 東側方을 防護하려 한다.

③ 제3군단은 1951년 2월 21일 10.00를 期하여 담당지구내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線北方의 모든 敵을 섬멸하라.

④ 담당지구내의 진출은 美 제10군단과 그 步調를 같이하여 美 제8군의 東側方을 방호하라.

⑤ 全主要部隊를 전적히 유지할 수 있고 또한 군단내 및 군단간의 모든 필요한 横的협조를 유지할 수 있는한 敵에게 최대한의 손실을 加하라。』

그러나 이상의 작전지시는 原州지구의 美 제2사단과 美제1해병사단과의 임무교대가 지

연되어 22일 18.00에야 완료됨으로써 21일 10.00의 공격일시는 23일로 연기되었다。

이리하여 이날 中東部戰線의 我 제3군단과 美 제10, 제9 兩군단이 일제히 Arizona線을 향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즉 제9사단의 南쪽인 餘田里에 진출한 제30연대(장, 高時福 대령)가 사단장의 구두명령으로써 馬洞里로 北上한 것은 이미 前述하였거니와 이 馬洞里 左側 5km지점인 石項里에 제7사단(장, 金炯一 준장)의 제5연대(장 金道榮 대령)가 21일에 이동하여 이날 제30연대와 협동하여 旌善으로의 北進 준비를 가추었고 그 西쪽 接山에 위치한 同 사단의 제8연대(장, 李賢進 대령)는 旌善 西쪽 5km에 있는 龍灘里를 그리고 同 사단 左一線部隊인 제3연대(장, 鄭 震 대령)는 倉里를 목표로 北進하기 시작하여 同 제3연대는 이날밤 倉里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상과 같이 中東部戰線의 Arizona線을 향한 北進作戰이 전개되자 군단장은 군단 當面의 敵에 대한 正面및 側方공격을 단행하기 위한 要旨 다음과 같은 구두명령 제48호를 각 사단장에게 하달하였다。『제9사단장은 사단의 주력부대인 제28, 제29, 首都사단 제26의 3개연대로 하여금 敵의 東側方을 目標로 공격토록 하고 제30연대를 北上시키기 위한 戰線정리를 단행한 다음 24일 09.00를 期하여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라』

이로써 4個연대를 統合한 사단은 비록 兵力比率에 있어서는 劣勢하다 할지라도 斷乎攻勢로써 敵에게 鐵槌를 一加키로 하였으니 사단 將兵들은 酷寒과 風冷을 마다하지 않고 堂堂한 步武로 凍土를 踏破하게 되었다。

2월 24일 : 이날 사단은 09.00 담당지역내에 침투한 敵을 섬멸하고 H線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敵의 東側方을 공격하기 위하여 餘糧里—長悅里—南坪里—旌善간을 北에서 南으로 연결배치한 사단 주력부대중 右一線인 제29연대(장, 高白圭 대령)는 그 주력으로써 H線上을 점령하고 左一線연대의 西進을 엄호하는 동시에 차기의 반적을 준비하기 위하여 09.00에 현진지에서 목표지역을 向하여 急進하기 시작하였다。

제2대대(장, 張泰煥 소령)는 右一線으로 長悅里에서 北進하여 上元山—△590—泉谷에 展開하였으며 제1대대(장, 趙鍾春 소령)는 左一線으로 餘糧里를 출발하여 長坪—下峰간에 展開를 完了하였다。이에 따라 연대의 지휘소도 餘糧里에서 南坪里로 推進하였는데 이 무렵 전날 倉只里로 이동하였던 제3대대(장, 李永鎬 소령)는 高麥里에 있는 上將山을 奪取한 2개중대 규모의 敵을 擊滅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즉시로 此敵을 一蹴하고 退却하는 敵을 余

谷里까지 단숨에 추격하였다가 南坪里로 이동한 다음, 연대 예비대로 措置되자 이에 不平을 품은 將兵들은 팔을 거두고 北天을 노려 보았다。

이때 骨只里에 완전집결한 제28연대(장, 李昌禎 대령)의 제2대대(장, 金寅文 소령)는 文來山(△1081)을 南쪽으로 迂回한뒤 제29연대 제3대대의 左側으로 不意에 진출하여 高陽山(△1151)을 奪取하는 한편 일부 병력으로써 그 南쪽의 白岩(속칭 함바위)까지 다시 掌握한 다음 계속 余谷里로 진출하여 旌善을 目前에 指向하였으며 同대대의 左側에서는 다시 제1대대(장, 金祥圭 소령)가 08.00에 骨只里에서 출동하여 北洞里—上北洞을 경유 一氣에 余谷里로 진출하였다。

이무렵 연대지휘소는 餘糧里에서 骨只里로 이설되었고 제3대대(장, 李成烈 소령)가 예비대로써 그 주변일대에 배치 경계하였다。

다음, 葛田里—鵲岩里—旌善을 連하는 作戰路를 따라 진격중인 首都사단 제26연대(장, 徐廷哲 대령)는 연대 右側에 있는 제28, 제29 兩연대의 반격작전에 呼應하기 위하여 제30포병대대(장, 張庚石 소령)제3중대의 지원을 받으면서 공격제대인 제1대대가 大基—鵲岩里를 경유하고 旌善에 진출함에 따라 제2대대는 長江村에서 출동하여 제1대대를 지원 진격하였으며 예비대인 제3대대도 筏文里에서 출동하여 角戲山(△1083)을 占領한 다음 旌善을 향하여 劍尖을 돌리었다。

이에 따라 文峙—角을 固守하면서 연대의 진출을 엄호하던 대전차공격대대는 임무를 끝내고 21.30에 대대 CP와 사단사령부가 위치한 葛田里에 復歸하였다。

한편 제30연대(장, 高時福 대령)는 CP를 烏洞에서 義林吉로 이설하여 左側 제7사단(장, 金炯一 준장)제5연대(장, 金仁哲 대령(22일 교대)와 협동하여 旌善을 목표로 敵의 정면을 突破하면서 北上하기 시작하였으니 難兄難弟로 堅陣을 攻陷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믿음직 스러웠다。

연대의 주력부대중 제3대대(장, 金在康 소령)는 烏洞에서 義林吉로 이동하여 제5연대와 연계한뒤 06.00에 출동하여 南面 文谷里—樂洞里를 경유 瓦坪(旌善 東南쪽 4km)에 진출하였으며 제2대대(장, 金鍾煥 소령)는 俗稱 회절치 부근의 敵을 추격하면서 俗稱 탑거리로 진출한 다음 瓦坪의 제3대대를 超越공격하여 漁川과 旌善에 배치하였다。이에 따라 연대 CP도 漁川에 이설되었다。그러나 제1대대(장, 金相義 소령)는 鵲岩里진지에서 철수하여 葛田里에 집결한뒤 이날 10.00에 출동하여 18.00까지 黃池里에 진출한 다음 사단의 후방경계에 임하였다。

이상과 같이 전황이 호전됨에 따라 사단장은 Arizona 線上으로 부대를 이동배치하기 위하여 제101迫擊砲中隊를 松溪里(葛田 北쪽 24km)로 躍進시키는 동시에 사단전방지휘소를 松溪里에 개설하였다。이날 포병대대의 CP는 葛田里로 推進하였으며 공병대대는 전일과 같이 廣東里에서 骨只里—黃池里간의 作戰路를 보수하였다。

이날 左隣接인 제7사단(장, 金炯一 준장)은 제5연대(장, 金仁哲 대령)가 旌善에 진출한데 이어 제8연대(장, 李賢進 대령)가 龍灘里로 진격하였으며 同 사단의 左—線을 담당한 제3연대(장, 鄭 震 대령)는 전일 磨磋里에서 출동하여 倉里를 점령하였는데 이에 따라 사단전방사령부는 寧越에서 磨磋里로, 후방지휘소는 春陽에서 寧越로 각기 太白山脈의 雪中을 약진 또 약진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이상과 같이 하여 사단은 敵의 二月攻勢이래 我軍의 反擊이 本軌道에 오르기 까지 10일간에 걸쳐 中東部戰線의 右肩部를 담당하여 肉迫戰과 角逐戰을 거듭하여 왔다。

25일 현재로 사단의 주력부대는 목표 H線(五臟山—上元山—△1146—△1140(下峰 西南쪽 2km)—檜洞里—藥水里)내의 敵을 섬멸함으로써 26일에는 旌善西側方을 제7사단에 인계하고 松溪里—餘糧里선으로 이동배치하여 Arizona線을 점령하기 위한 北進을 개시하게되었다。

이 무렵 敵의 주력은 사단의 전방 高丹里—德九山(△1000)—南谷里—高飛德山(△1020)—松川里일대에 엄호부대를 배치하고 주력은 太白山脈을 따라 魯師山(△1322)과 그 西北方의 發旺山(△1458)으로 遁避하고 있었다。

이로부터 敵의 저항은 미약하여 갔고 墨湖일대에서 太白山脈을 따라 潰退한 殘敵의 跳梁이 있었을 뿐이었다。

3월 3일을 전후하여 我軍은 中東部戰線의 Arizona線을 점령하게 되자 38°線上을 향한 새로운 北進作戰을 단행하기 위하여 일부 전선의 정리에 착수하기 시작하였다。

곧 3월 5일 육군본부는 12.00를 期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작전명령 제263호 수정작전지시 추가 제1호를 하달하였다。(참조; 작명부록 제224호)

『① 1951년 3월 6일 12.00부로 제9사단 首都사단(결 제26연대) 제1경비대대 및 제10경비대대를 제3군단 배속으로부터 해제하여 제1군단장에게 전속한다。

② 1951년 3월 7일부로 제3사단(결 제18연대)을 美 제10군단장 배속으로부터 해제하여 제3군단장에게 배속한다。

③ 1951년 3월 7일 12.00부로 제1군단장은 제9사단을 육군본부 事前승인없이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제9사단은 제3군단에서 배속이 해제되는 즉시로 제1군단에 재배속되었다。그러나 작전지휘는 육군본부의 사전승인을 전제로 하고 있었는데 육군본부는 다시 3월 7일 20.00에 작전명령 제263호 수정작전지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달하였다。(참조; 작명부록 제223호)

『① 제1군단장은 육본의 사전승인없이 제9사단(결 제30연대) 병력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3군단장은 배속된 부대(제3사단병력)로써 현재 제3군단 구역내에 있는 제1군단부대와의 교대를 급속히 추진하라。』

이에 따라 사단장 李成佳 준장(3월3일교대)은 제1군단장의 직접지휘하에 들어 갔으며 이후 同사단은 군단후방에서 殘敵격멸과 보급로 확보를 專擔하여 제28연대(장, 李昌禎 대령)가 3월 16일~17일양일간에 山溪里—石屛山일대에서 敵제10사단사령부와 2개중대 병력의 退路를 遮斷하여 공격한 외에는 接敵 狀況이 없었고 제29연대(장, 高白圭 대령)는 地境洞을 占領하면서 군단의 후방 경계에 임하였다。

다음 3월 23일의 軍團作命 제136호에 依하면『제9사단장은 주력을 邱山里 부근에 집결시켜 군단 예비대가 되어 부대의 재편과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제29연대는 松溪里에 위치하여 敵 제10사단의 殘敵섬멸과 邱山里—松溪里—北坪간의 주보급로 경비에 임하라』는 명령에 따라 제28연대(장, 李昌禎 대령)를 20일에 사단사령부가 약진한 邱山里(江陵西南쪽 6km)로 이동케하고 제29연대(장, 高白圭 대령)는 地境里에서 松溪里로 이동하여 海路를 따라 東海岸의 北坪(鏡湖 南쪽 12km)으로 機動한 다음 松溪里를 거쳐 中東部戰線으로 운반되는 보급품의 수송을 경비하게 되었다。

그러나 3월 27일 首都사단의 주력부대인 제26, 제1의 兩연대가 38°線을 돌파하게 되자 30일 사단사령부를 江陵으로 이설한데 이어 4월 1일 군단장(대리 李俊植 준장 4.1부)은 다시 松溪里의 제29연대를 首都사단에 배속케 하였다。이에 제29연대 直轄各隊 도합 731명은 사단 작명 제59호에 의거하여 江陵郡 嘉里로 이동한 다음 (사단작지 제107호에 의거 4월 2일 首都사단에 배속)제1대대(장, 趙鏞泰 소령)는 悅里에 이동하여 제26연대(장, 徐廷哲 대령)와 익일 12.00까지 "Kansas"線에서 교대하고 제2대대(장, 張泰奭 소령)는 襄陽에 제3대대(장, 李永鎬 소령)는 下水余里에 각각 배치하였다。

이리하여 4월 6일에는 下道門里(襄陽 北쪽 12km)—中福里—正田里—白岳里 (雪岳里 南等)—馬里간에 東에서 西로 제1기갑연대 제29연대, 제1연대의 순으로 배치하였으며 제28연대는 江陵에서, 제30연대는 大基里에서 후방경계 임무를 담당하였다。

§參戰者 證言

◇제9사단 제28연대장 李昌禎 대령

(71.3.25. 기능올림픽大會 韓國委員會에서, 聽 少將)

제9사단(장, 李成佳 준장)이 麻善 東北方 松溪里에 군단예비로 있을 때인 51.3.12.에 北共 제10사단 殘敵이 安東地區로부터 제2사단(장, 咸炳善 준장)의 追擊을 받아 北上潰走하여 사단地域에 侵透하였다。

그때 우리 연대(제28연대)는 松溪里 北쪽 8km인 松峴里에 CP를 두고 있었는데, 제29, 제30연대가 먼저 이들의 擊滅任務를 맡아 松溪里 東南쪽 2km인 石耳岩山(△972)에서 白茂嶺(△923)(石耳岩山 東北 10km)에 이르는 間隙에 展開하여 敵의 北上에 대비한 阻止線을 設置 하였다。

3월 14일 밤에 제30연대의 前線이 藏雅里(石耳岩山 東南 5km)에 進出한 敵을 捕捉하여 接戰이 시작되었는데, 敵은 掩護部隊로써 頑強하게 연대와 對峙하는 동안에 敵 主力은 阻止線을 通過하여 通田里—九龍里—禮院里—芦峙(속칭, 갈고개)—山溪嶺을 經由하여 그중 700명정도로 推算되는 敵은 3월 15일 오후에 山溪里(白茂嶺 西

北쪽 5km)에 集結하였다。

이래서 3월 16일 07.00에우리연대가 出動하게 된 것인데, 나는 당시에 사단예비로 松溪里에 있던 제3대대를 指揮하여 금저 山溪里로 挺進하였다。

現地에서 제1대대와 合同하여 山溪里의 敵에 猛擊을 加하자 敵은 山溪里 北쪽 錦田洞으로 分散潛走하였다가 그중 600여명이 밤을 타서 錦田洞에서 다시 奇蕭門洞(錦田洞 西쪽 7km)으로 向하여 逃走하였다。

그 이튿날 제20연대가 奇蕭門洞 西北 4km 九花洞일대에 遮斷網을 設置한 가운데 우리연대는 다시 奇蕭門洞의 敵을 攻擊하게 되었는데, 나는 松峴洞에 있던 제2대대를 推進시켜 奇蕭門洞 南쪽을 공격하게 하고 제1대대를 東쪽으로부터 奇蕭門洞에 突入시켰다。三面包圍를 당한 敵이 猝惡的인 抵抗을 하여 상당히 熾烈한 전투가 벌어졌으나 날이 저물어 그 戰果를 확인할수 없었다

연대는 그날 밤 22.00에 제29연대와 連繫하여 奇蕭門洞 東南쪽 斗里峰과 東北쪽 萬德峰을 連하는 線으로 完全 包圍하여 攻擊하였는데 7월18일 04.00에 敵은 제29연대의 阻止線을 뚫고 脫出하여 本界里를 거쳐 大基里쪽으로 潛跡하였다

그래서 나는 敵이 주로 北쪽으로 逃走한 企圖인 것으로 判斷하고 大基里로 追擊하여 그날 16.00 大基里에서 적의 全滅시켰다。그때 戰果는 사살 805명, 포로 135명, 그리고 각종 소총 358정과 수류탄 201개를 노획하였다。

그리고 우리측 손실은 전사 20명, 전상 29명이 었는데, 작전중에 병력이 分散되어 有無線通信網에 지장이 많았다。

그래서 내가 직접 1개소대 병력을 機動化하여 이끌고 중대 CP를 순회하면서 敵情把握과 作戰指導에 임하였다。

그때문에 자연히 機動의 신속성을 강조하게 되어 연대를 「도깨비부대」라고 호칭하게 되었는데 지금도 제9사단 제28연대를 「도깨비 부대」라고 부르고 있는 것으로 안다。

5. 講林—安興—烽火山 進擊戰 (1951년 2월 23일부터 1951년 3월 4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20 호.
작지부록 제202, 210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제 1 군 단	장 소장	金 白 一	
제 3 사 단	장 준장	崔 錫	
제18연대	장 대령	任 忠 植	
제 1 대대	장 소령	李 秉 衡	
제 2 대대	장 소령	趙 東 三	
제 3 대대	장 중령	安 岐 一	
제22연대	장 대령	張 春 權	
제 1 대대	장 소령	金 貴 稷	
제 2 대대	장 소령	金 高 崇	
제 3 대대	장 소령	鄭 淳 珉	
제23연대	장 대령	金 涼 舜	
제 1 대대	장 소령	金 尤 榮	
제 2 대대	장 소령	文 泰 俊	
제 3 대대	장 소령	崔 尙 俊	

배속부대

제11포병대대	장 소령	宋 貴 鎬	
제3야전공병대대	장 대위	金 在 植	

병력 : 약 7.500명

장비 : 60mm 박격포 52
81mm 박격포 34
3.5" Rocket포 23
57mm 대전차포 11
75mm 직사포
105mm 곡사포 12

敵 軍

北共 제 5 군단
제 7 사단
北共 제12사단
南方遊擊隊 제6지대

나. 전투 전의 개황

제3사단의 講林—安興—烽火山 진격전은 2월 12일부터 18일까지 계속된 所謂 敵의 二月攻勢에 대한 反擊戰으로써, 2월 23일부터 시작된 美제9, 제10 兩군단의 Arizona線(芳林 : 平昌 北쪽10km—新村 : 橫城 北쪽 5km—資龍 : 砥平 北쪽 5km—楊平)을 목표로 한 총반격작전의 先驅的인 前哨의 一着으로 전개 된것이다。

敵軍의 상황 : 敵의 二月攻勢는 그 重點을 中東部戰線에 指向하였으며 兩個의 軸線을 따라 감행되었는데 參加한 主動勢力은 中共 제13병단(장, 李天佑) 예하 제40군(장, 韓先楚)과 제66군(장, 黃新廷) 및 北共 제5군단 등 도합 13개사단으로 構成되었다。이 거창한 兵力群은 我 제3, 제5, 제8의 3개사단의 방어선인 橫城지구를 目標로 南侵하여 彼我간 連3일에 걸친 血戰끝에 我軍의 原州—堤川간

철수작전으로, 一段落을 보는듯 하였지만 敵은 곧 原州를 攻圍하는 한편 北共 제5군단으로 하여금 原州를 東으로 迂回케 하여 堤川 지역까지 침투토록 하였거니와 戰線의 東쪽을 맡은 北共 제2군단(장, 중장 崔 仁)과 제3군단은 麻谷—平昌간의 我 제9, 제7 兩사단의 정면을 突破 南下하여 寧越—堤川간을 直衝하려는듯 하였다。

이중 原州를 迂回 南下한 北共 제5군단과 平昌—寧越線을 따라 南下한 제2군단의 일부병력은 平昌—寧越—堤川—原州를 연결하는 "U"字型 도로망의 內部 山岳地帶를 掌握하고 間斷없는 奇襲과 侵透를 反用하기 시작하였다。

곧 鷹峰(△1232)—直洞간의 敵 제2군단(장, 중장 崔 仁)의 제2사단은 2월 15일에 月岩里—白德山을 경유하여 上板雲里와 △818를 占領하는 즉시로 堤川의 東側方을 強打하였고, 敵 제5군단의 제7, 제12 兩사단은 橫城—洪川 부근의 전투에서 分散된 殘兵을 再結合하여 德鄕山—安興里일대로의 南下를 試圖하였다。

그중 제12사단은 講林里—夏日里간에 방어진지를 구축한 다음 주력은 桃川里—金馬里—五味里를 거쳐 堤川 北쪽 8km의 龍頭山(△874)까지 潛入하여 堤川을 정면에서 壓迫하였으며, 敵 제7사단의 일부 병력과 南方遊擊部隊 제6지대의 合同 병력은 原州 東쪽에 있는 雉岳山 깊이 침투하여 原州—堤川간을 威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敵의 攻勢도 我 제1군단(제3, 제5, 제8사단)과 美 제10군단(제2, 제7 및 제187공수연대전투단)의 決戰을 企圖하는 방어에 부닥쳐 그들의 戰力은 攻勢의 限界點에 이르렀음인지 18~19일을 전후하여서는 일부의 경계병력만이 出沒하였고 그밖의 주력부대는 再編을 서두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我軍의 상황 : 이와같은 敵의 二月攻勢에 따라 我軍은 2월 13일부터 寧越—堤川—原州線으로 철수한 다음 2월 20일 현재로 平昌—寧越—堤川—原州간의 "U"字型도로망을 따라 東에서 西로 寧越—堤川간은 제3군단과 連繫한 美 제7사단이 占領하고, 堤川에는 제5사단이 그리고 堤川—原州간은 제3사단이 또 原州에는 美 제2사단과 제3사단의 제18연대 및 美 제187공수연대전투단이 각각 位置하여 敵의 南下를 阻止코자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中東部戰線의 韓國軍에 대한 지휘체계는 그간의 敵 二月攻勢로 말미암아 若干의 변동을 초래하였으니 2월 12일 20.00에 육군본부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작전지시 제45호(참조 작명부록 제292호)를 하달하였다。

『① 제1군단과 제3군단과의 전투 정면을 相互교체하려 한다。

② 제1군단은 首都사단과 제1, 제9, 제10경비대대의 배속을 해제함과 동시에 항공기 및 차량으로 堤川에 이동하여 美 제10군단 지휘하에 배속한다。』

이에 따라 三陟의 제1군단 지휘소는 堤川郡 松鶴面 務道里에 移設하여 제3, 제5, 제8사단을 統轄함과 동시에 美 제10군단에 작전상 배속되었으며, 東側의 我 제3군단은 전투정면을 東部로 확대하여 麻谷—寧越간의 제9, 제7사단과 아울러 東部戰線의 首都사단을 管掌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12일이래 제1군단에 배속된 제3사단은 13일부터 橫城 北쪽 12km까지 철수하여 20일 현재까지 대략 다음과 같은 작전경로를 밟아 왔다。즉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13일 磨天里—弓川里線에서 철수한 다음 14일부로 美 제187공수연대전투단에 작전배속되어 原州 東北쪽 4km 雉山洞—

台庄洞일대를 占領하므로써 原州의 방어에 참가하고 있었다。

또 제22연대(장, 李昌東대령)는 13일 玉洞으로부터 周浦里로 철수하여 15일에는 堤川 北쪽의 龍頭山(△874)에 침투한 敵 제2사단의 일부 병력을 攻破하여 25명을 사살하고 1명을 포로로 하는 동시에 小銃 3정과 다발총 7정, 그리고 水冷式重機 1정과, 책코식輕機 3정을 노획하였다。

그리고 제23연대(장, 金漆霖대령)는 13일에 佳谷里—三塘里(橫城 北쪽 10km)에서 철수하기 시작하여 15일에는 城南面(原州 東南쪽 2km)일대를 占領한 다음 20일 현재까지 安興—講林線을 따라 南侵하는 敵을 邀擊하였다。

제3사단 사령부는 주력부대의 철수에 따라 15일에 堤川에서 鎭陽面 周浦里로 이동하였고 이어 17일에는 金盛里(原州 東南쪽 15km)에 移設하였다。그런데 이 무렵에는 전술한 바와같이 敵의 攻勢는 이미 弱化되어 있었다。

이와같은 情勢를 判斷하게된 美 제8군은 장차 中東部戰線에서 總反擊을 次行코자 戰線을 整理하기 위하여 美 제10군단에 요지 다음과 같은 작전 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아래의 지경선은 2월 19일 12.00부터 有効하다。

가) 美 제2사단과 韓 제3사단의 地境은 橋頭—돌경이—車道里—院西—長善里—道路交叉點—淸風간을 連하는 線。

나) 韓 제3사단과 美 제187공수연대전투단과의 地境은 陽地村—三峰—加里波洞—海美山城을 連하는 線。

다) 美 제187공수연대전투단과 美 제7사단과의 전투地境은 亭子洞—陵山—飛山—靑龍—堤川 南쪽 도로를 따라 邑上里에 이르는 線。

② 韓國軍 제1군단은 목표 直洞을 점령하고 美 제7사단의 전진을 지원하라.』(美제8군 정기 작전 보고철 참조)

이에 따라 제3사단은 主力으로써 南台峰(△1182)—城南里(原州東 南쪽 15km)간을 占領할 目的으로 原州—堤川사이 周邊地區에 分離되어 있는 부대들을 이동 집결하기 시작하였다。

즉 原州 北쪽에 있는 제18연대는 19일에 美 제187공수연대 전투단에서의 配屬이 解除되는 즉시로 梨山洞—台庄洞 地區로부터 雉岳山—直峽線으로 이동 集結하였고 제22연대는 같은 날 龍頭山일대의 진지를 철수하여 주력을 神林으로, 그리고 일부를 金盛里로 北上시켰다。이때에 제23연대는 15일 이후부터 계속 위치한 城南里방어 진지에서 사단 집결 부대를 엄호 中에 있었다。

그런데 제3사단 當面의 공격목표인 講林—安興—烽火山지구는 西쪽으로는 雉岳山脈이 南台峰(△1182)—雉岳山(△1228)—梅花山(△1085)—烽火山(△670)를 連하고 있으며 이 山脈의 東端에는 酒泉江이 南北으로 貫流하고 있다。따라서 이 일대의 道路網은 일찍부터 발달하지 못하여 平昌—安興—橫城간을 연결하는 20番道路상의 安興에서 南으로 講林—倉村—葛谷에 이르는 細路가 있을 뿐이며 그 나마도 1m에 達하는 深雪과 雙山된 急傾斜로 부대의 기동에 不到하였다。이런 까닭으로 본 작전 지구에서는 차량의 活用이 期待하지 않았고 다만 山岳에 依한 山岳戰만이 가능하였다。이로 미루어 본대에 美 제10군단의 작전지역중에서 直地的인 興味으로 맡미암아 제3사단이 이 지역을 맡게된 것으로 推測된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제3사단의 작전계획은 2월 20일 12.00에 하달된 陸本作戰命令 제262호 수정작전지시 제13호(참조 부록작지 제210호)와 美 제8군의 2월 20일자 작전명령에 의거하여 수립되었다。

이상 두곳에서 하달된 작전명령의 내용은 일치하는 것으로써 그 要旨는 대개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① 美 제9, 제10 兩군단은 1951년 2월 21일 10.00를 期하여 南漢江 東쪽과 Arizona線 南쪽의 敵을 섬멸하기 위하여 原州—橫城 및 寧越—平昌의 軸線을 따라 공격한다。

② 前項 兩군단의 攻擊地境線은 다음과 같다。

가) 美 제9군단과 美 제10군단의 地境線 : 현재 선상의 彌勒山에서 東北으로 觀雪里—杏口洞—德御山에 連하는 線。

나) 美 제10군단과 韓 제3군단의 지경선 : 현재 선상의 寧越에서 北으로 面屯峙—楊平—白日洞—△1350에 連하는 線。

③ 美 제10군단장은 美 제9군단장과 合議한 日時에 Arizona線 南쪽의 敵을 寧越—平昌軸線을 따라 공격하라。

④ 美 제10군단장은 美 제1해병사단이 原州로 이동하면 美 제2사단을 군단 지역내로 이동 배치하라。

⑤ 韓 제3군단은 전진하는 美 제10군단의 東側方을 掩護한다。』

이상과 같이 美 제10군단에 주어진 전투지경선 내에서 제3사단은 군단의 左翼을 담당하였고 동시에 原州—橫城 軸線을 따라 진격할 美 제9군단 예하 美 제1해병사단 東側方을 防護하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그리고 더우기 前記한 바와같이 雉岳山脈과 酒泉江의 溪谷을 따라 北上하면서 山岳戰을 전개할 當사단의 임무는 敵의 常套的인 正規戰과 遊擊戰의 配合된 戰法과 대결하는 見地에서도 많은 難關을 內包하고 있다。

그런데 사단은 橫城지구의 敵 二月攻勢에서 입은 손실이 적지 않았고 그 중에서도 제22연대의 전투손실은 매우 컸었다。그러하여 연대는 2월 14일부터 21일 사이에 제1보충대와 대전차공격대대의 新規配屬과 사단사령부로부터 새로 編入된 장교 54명과 사병 1,224명으로 부대를 재편성 하였다。

그밖에 제23연대의 경우를 보아도 2월 18일에 사단사령부로부터 장교38명과 사병 576명을 보충받아 新編하였으므로 戰力의 低下는 어쩌할 수 없는 必然的인 現狀이었다。이와

같은 상황下에서의 전투능력을 評價한 나머지 사단장 崔 錫 준장은 제22연대를 예비대로 控置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하여 20일 要旨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 제89호를 下達하였다。

『① 제18연대는 釜谷里로 진출한 다음 21일 10.00를 期하여 주력으로써 △1046—三峰 일대의 敵을 격멸하라.

② 제23연대는 21일 10.00를 기하여 講林里로 진격하는 즉시로 倉里부근의 敵을 격멸하라.

③ 제22연대는 사단 예비대로 現在地에서 후방을 경계하라.』

이와같은 작명에 따라 사단의 右—線이된 제23연대(장, 金淙舜대령)는 OP를 上城南으로 就進하는 동시에 제1대대(장, 金尤榮소령)를 △901로, 제2대대(장, 文泰俊소령)를 △1123—大峠(△965)로, 제3대대(장, 崔尙俊소령)를 △965—△1.000로 각각 진출시켰으며, 左—線이된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毗盧峰—橋洞—直峠—南臺峰간에 南에서 北으로 대전차공격중대, 연대수색중대, 제2, 제3, 제1대대의 梯次順으로 陣地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제22연대(장, 李召東대령)는 培香洞의 진지를 철수하여 그 주력을 下城南(神林 北쪽 3km)에 집결 하는 동시에 일부를 金垈里로 진출시켰다。

그러나 본격적인 공격은 美 제1해병사단의 機動上의 蹉跌로 美 제2사단 및 美 제187공수연대 전투단의 임무 교대가 지연되어 23일에야 비로소 그 序幕을 열게되었다。

즉 美 제1해병사단의 주력인 제1, 제5연대가 忠州를 떠나 原州에 進出한것은 21일 오후였고 제7연대가 浦項에서 原州로 기동을 완료한것은 22일 18.00였다。

이리하여 原州 周邊에 배치하였던 美 제2사단과 여기에 배속된 美 제187공수연대전투단의 제1, 제3대대 및 Netherland와 佛蘭西대대가 美 제1해병사단과 그 임무를 교대하고 美 제10군단의 작전지경내로 이동한 狀況은 다음과 같다。

① 美 제2사단 제9연대의 제1, 제2대대는 21일에 교대하고 神林으로 轉進하여 22일 16.30에야 熙鳳山(△766)을 占領하였다。

② 美 제23연대도 또한 21일에 原州를 출발하여 다음날인 22일에 堤川에 집결 하자 道谷洞(酒泉 北쪽 4km)을 목표로 전진하였다。

③ 美 제38연대는 Netherland대대와 함께 周浦里로 이동 집결하였다。

④ 美 제187공수연대 전투단의 제1, 제3대대와 佛蘭西 대대는 21일에 原州 부근의 진지를 인계한 다음 堤川으로 이동하여 22일에 그 집결을 완료하였다。

이상과 같이하여 22일 현재의 美 제10군단 전투지경선내의 部隊序列은 東에서 西로 美

제7사단, 美 제2사단, 제3사단의 順이었고 제3사단의 左側인 原州—橫城線에는 美 제9군단에 배속된 美 제1해병사단이 進出하였다.

이와같이 하여 美 제9, 제10兩군단의 戰線整理가 겨우 완료됨으로써 Arizona線에 대한 反擊作戰은 23일부터 본격적인 단계에 돌입하게 되었고 따라서 제3사단도 20일의 사단작명 제89호의 명령에 따라 23일 05.00를 공격 日時로 定하게 되었다.

(전투상보(21) 제23연대 공격전투 참조)

(2) 작전실시

2월 23일 : 이날 사단의 주력부대는 작명에 따라 講林里의 敵을 포위 공격하기 위하여 제23연대를 講林里의 右側方에 진출시킨 다음 左一線인 제18연대를 그 左側 및 正面에서 공격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제18연대의 先頭인 제3, 제7의 兩중대는 이날 倉村 西쪽에 있는 △632의 敵을 不時에 격파하고 그 陣地를 占領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사단 右一線인 제23연대(장, 金漆彝대령) 제2대대(장, 文泰俊소령)는 연대의 第一次攻擊梯波로 이날 05.30부터 攻擊前進을 시작하여 12.00에 釜谷里 東쪽에 있는 △671 下麓에 進出하자 1개중대규모의 敵이 講林里를 占據中이라는 急報에 接하고 곧 제6, 제7중대를 △671頂上에 제5, 제8중대를 △776中腹에 각각 배치하여 敵의 東南側을 牽制토록 하였다. 한편 同연대의 제3대대(장, 崔尙俊소령)도 07.30에 大峙—△1001線에서 攻擊을 시작하여 △691를 경유, 葛谷으로 進出한 다음 18.30에 다시 俗雜 오래골을 目標로 進攻하다가 22.00에 오래골의 제5, 제8兩중대 진지의 후방을 占領하면서 역시 敵의 東南側을 동시에 牽制토록 하였다.

한편 제1대대(장, 金尤榮소령)는 연대의 左一線을 담당하여 09.00에 上院洞— △901線에서 攻擊을 시작하고 12.00에 大峙를 경유하여 3시간 뒤인 15.00에 葛谷까지 進出하였을 때에는 講林里 西쪽 △632 일대에 敵影이 나타나 제1중대로서 太宗壘의 南쪽 無名高地를, 제2중대로서 葛谷 北쪽 △771를, 제3중대로서 撤洞 東北쪽에 있는 △698를, 제4중대로서 △516을 각각 占領한 다음, 16.00에 敵의 西側方을 공격토록 하였다. 그러나 이 正面이 제18연대의 전투지경선이기 때문에 17.00에 작전의 임무를 제18연대에 인계하고 18.00에 葛谷으로 撤收하여 연대의 後方경계에 臨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대 주력부대의 전진에 따라 연대 OP는 09.30에 上城南으로부터 葛谷으로 移設하였다.

사단의 左一線인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의 제1대대(장, 李秉衡소령)는 제3중대를 主攻으로 하고 제1중대를 助攻부대로, 그리고 제2중대를 예비중대로 하여 06.00에 一齊히

杏口洞을 출발하여 07.00에는 △1130를 점령하고 14.00에는 △1062를 점령한데 이어 △886를 확보하였다。

다시 15.00에는 제7중대와 合勢하여 △632의 敵을 挾擊하여 17.00에는 이를 격퇴하고 방어임무를 제7중대에 인계한 다음 △886로 復歸하였고, 제2중대는 그 左側인 △1130에 그리고 제1중대는 제3중대의 後方지역을 占領하였다。

따라서 이날 제2대대(장, 趙東三소령)는 △970의 右側 稜線에서 08.00에 출동하여 12.00에 新林洞을 경유하고 釜谷洞에 도착하였는데, 제5중대는 太宗嶺 前方高地에, 제6중대는 제23연대의 제6, 제7중대가 배치하고 있는 △671 일대로 각각 진출하여 敵의 南側方을 警側하였다。 그리고 제7중대는 △632의 敵을 西北方에서 공격한 제3중대와 협동하여 敵의 正面을 공격하여 마침내 이를 占領하였다。

또 제3대대(장, 安昶一중령)는 주력부대의 전진에 呼應하여 07.00에 △970를 출발하고 14.00에 高地를 경유하여 鞍岩에서 제1대대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중대를 △1046 東쪽의 無名高地로 前進시켰다가 △632의 敵을 격퇴하자 19.00에 제10중대와 橋洞에 配置한 제11중대 등 대대의 全병력을 원대로 復歸시킨 다음 21.40에는 葛谷으로 이동하여 연대의 예비대가 되어 연대지휘소 및 연대후방경계에 臨하였다。

한편 연대의 대전차포중대는 이날 △1043에서 08.00에 출동하여 11.00에는 葛谷에 도착한 다음, 지휘소 경비에 臨하였으며 연대수색중대는 이날도 계속 最前方에 推進하여 敵情을 수집하였다。

이날 제22연대(장, 張春權대령)는 사단의 예비대로서 후방경계에 臨하고 있었는데 同연대의 지휘소는 사단작명에 따라 鳳陽里에서 金城里로 移設하고 연대장의 교체가 실시되어 前任연대장 李召東대령은 사단 사령부로 轉出되는 한편 제18연대 부연대장이었던 張春權대령이 그 後任으로 새로운 指揮棒을 들었다。

2월 24일 : 이날 사단주력의 공격목표는 右一線의 제23연대 正面인 △700(平昌郡 水平面)와 左一線 제18연대 정면인 梅花山을 連하는 高地線이었다。

전날 제23연대(장, 金漆舜대령)의 中央에 展開한 제2대대(장, 文泰俊소령)는 08.30에 △700를 占領中인 2個중대 규모의 敵을 공격하기 시작하였으나 여기를 死守하려는 敵의 抵抗은 거의 發惡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러나 대대의 調和된 三面에서의 同時挾攻으로 끝내 이 敵의 抵抗을 一蹴함으로써 12.00에는 同高地를 완전히 占領하였는데 이 接戰에서 대대는 敵 16명을 사살하고 1명을

사로잡는 반면 戰傷者 4명의 損失을 입었다。

이와같이 同 △700를 점령한 대대는 제7중대로써 이곳을 固守토록하고 제5중대를 △557로부터 그 前方으로 躍進시키는 동시에 제6중대를 △776 右側으로부터 제5중대의 右側第一線을 確保케 하였으며 제8중대와 대대 OP를 △776 後方으로 각각 併進 시키므로써 次期 攻防을 준비토록 하였다。

以上과 같이 제2대대가 △700를 占領할 무렵 俗稱 오래골을 占領中인 연대 右一線의 제3대대(장, 崔尙俊소령)도 이날 05.00에 △613를 목표로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제9중대는 俗稱 정바우—△479로, 제10중대는 정바우 西南—仙界로, 제11중대는 △82—右坪으로 각각 진출하여 △613의 敵과 熾烈한 교전을 전개하던중 이날 19.00에 日沒과 더불어 一切공격을 중지하고 講林里로 撤收하여 河川—제소골을 堅守하면서 敵의 夜襲에 對備하였다。

연대주력부대의 이와같은 전진에 따라 이날 연대 예비대인 제1대대(장, 金光榮소령)는 08.00에 葛谷을 출발하여 講林里로 機動하고 15.00부터 四周防禦에 들어갔으며 연대 OP역시 08.00에 출발하여 講林里로 躍進하였다。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도 이날 사단 右一線 부대의 진격에 呼應하여 梅花山의 敵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네 곧 제1대대(장, 李秉衡소령)는 제2중대를 主攻, 제1중대를 助攻, 제3중대를 예비대로 하고 06.00부터 攻擊前進끝에 △1087와 △907를 경유하여 16.00에는 △756를 占領하였다。

이로부터 제2중대가 最先鋒으로 躍出하여 梅花山의 敵과 정면에서 激突하여 공격 끝에 이를 격퇴하고 17.30에 同高地를 완전히 占領함에 따라 그 右側背後를 공격한 제1중대도 18.00에는 梅花山의 右側 稜線을 확보하였고 또 △756를 掌握한 제3중대는 21.00에 梅花山의 左側 稜線으로 進擊하여 이곳을 확보한 다음 徹夜하였다。

이상과 같은 제1대대와 併行하여 이날 제2대대(장, 趙東三소령)도 06.00에 攻擊으로 躍進하였는데 제5중대는 △606로, 제6중대는 그 右端으로, 제7중대는 제1대대와 제2대대의 中間으로 각각 진출하였다。

한편 제3대대(장, 安政一중령)는 예비대로서 對戰車공격중대 및 연대의 전방지휘소와 더불어 倉村을 確保하였다。

2월 25일 : 이날의 전투는 제23연대 正面의 △613와 제18연대 정면의 △600에서 전개되었는데 전날 日沒로 공격을 中止하였던 제23연대(장, 金漳舜대령)의 제3대대(장, 崔尙俊소

령)는 △613를 목표로 講林里에서 攻擊前進 하였다。

대대는 酒泉江을 건너 俗稱 "개건너"마을에 진출한 뒤 敵을 三面으로 포위하여 △44 및 △613의 西南쪽에 展開하자 곧 공격을 敢行하였는데 2개중대규모로 推算되는 敵은 이미 견고한 진지를 據守할 뿐아니라 重火器의 火力을 發揮하여 執拗하게 抵抗 하므로 彼我間에 鐵火가 紛飛는 攻防戰이 展開되었으나 敵의 執拗한 抗拒力에 비추어 불때 同高地를 손쉽게는 奪還할수 없음을 깨닫게된 대대장은 곧 攻擊방법을 바꾸어 08.00부터는 직접肉迫으로써 一決코자 敵陣안으로 白兵을 휘몰아치면서 突入하여 수류탄의 炸裂音속에 刺突力으로 盾牌하는 醜虜를 席捲하므로써 마침내 頂上을 征服하고 朝食을 準備中인 豫備陣地까지 突進하므로써 이 堅陣을 완전히 점령하였는데 이때가 바로 08.30이었고 아침안개가 寒天雪野에 덮였다。

대대는 이高地를 中心으로 더욱 戰果를 擴大한 다음 16.00에는 다시 栗木洞으로 돌진하였는데 攻必取의 氣概도 드높은 가운데 戰必勝의 喊聲이 우렁찼다。이 一戰에서의 대대의 綜合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戰　果

사살 186명, 포로 7,
수류탄 15개, M1소총 31정,
99식 소총 1정, 水冷式重機 1정,
機關 砲2정, 각종실탄 3,200발,
장총 92정, 각종포탄 120발,

損　失

전사 2명, 부상 13명,
실종 3명
(전투상보(21), 23R安興里전투참조)

제3대대가 △613를 中心으로한 安興里의 要域을 점령함에 따라 講林里의 제1대대(장, 金尤榮소령)도 내여짜 뒤질소냐 08.00부터 頂上를 차면서 출동하여 15.00에는 △613의 西側背길이 迂廻하여 栗木洞까지 進出하여 제3대대와 合勢하였고 전날 △700를 占領한 제2대대(장, 文泰俊소령)는 09.00에 陣地를 隨意撤收하여 09.45에 講林里에 一旦 집결하였다가 18.00에 이곳을 출발하여 이날 20.00에는 註川里에 進出하자 곧 이附近에 집결한 殘敵을 공격하였는데 이敵들은 栗木洞의 제1대대를 逆襲하려는 利那였던 것이다。그리하여 대대는 敵 1명을 사로잡고 Rocket포탄 1발과 60mm박격포탄 3발 그리고 對戰車수류탄 1개를 노획하는 동시에 逆襲의 初動을 強打하여 敵으로 하여금 다시 손을 餘地가 없도록 하였다。

이날 堤川郡 松秀里에 있던 연대본부는 還至하는 捷報를 들으면서 寧越郡 下順南里로 躍進하였는데 연대장 金漆燁대령은 우선 師團長에게 要旨報告를 한 다음 現場에서 戰況를 헤치면서 詳報를 聽取하였다。

이상과 같이 사단의 右一線을 담담한 연대가 △613을 占領하고 栗木洞 一帶로 진출함과 동시에 左一線인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사단의 左側方을 掩護하는 한편, 梅花山 北方의 △600와 △681의 敵을 동시에 공격하였다。

전날 梅花山을 점령한 제1대대(장, 李秉衡소령)는 이날 07.00부터 攻擊을 斷行하였는데 梅花山 右側 稜線의 제1중대가 10.30에 丹芝洞에 진출하여 △600—△681 陣地線에서 熾烈한 攻防戰을 反復한 끝에 12.30에 이 兩高地의 頂上을 점령하자 助攻인 제2중대는 이에따라 14.30에 輕微한 敵을 一蹴하면서 丹芝洞을 確保하였다。 이에 따라 OP 및 제3. 제4중대는 山器洞을 경유하여 12.00에 丹芝洞에 進出한 다음, 14.00에는 △600 中腹에 陣地를 占領하고 연대의 예비대가 되었다。

이와같이 제1대대가 梅花山 東北으로 進擊함에 따라 전날 연대의 예비대로서 倉村에서 脾肉을 歎하던 제3대대(장, 安致一중령)는 07.00부터 출동하자 北進을 계속하여 제1대대를 追越한 다음 梅花山 北쪽에서 제9중대를 主攻, 제11중대를 助攻 제10중대를 예비대로 하여 安興里—橫城間의 作戰路를 遮斷한 뒤, 13.30에 제11중대가 鳳吹山을 占領함에 이어서 제9중대가 또한 그 右側 △570를 확보하였으니 武人의 面目을 걸고 彼一進하면 我一躍하는 것이었다。

이와같이 연대의 主力으로 梅花山 北方까지 一擧에 진격한 반면, 제2대대(장, 趙東三소령)는 右側인 제23연대와 連繫하면서 07.00에 출동하자 栗木洞에서 제23연대를 超越하고 巨里坪에 진출한 다음, 제6중대는 安興里—橫城間의 道路 2km北쪽인 대대의 警戒陣地線까지 진출하였으며 제7중대는 道路 北端의 △692를 제5중대는 그 左側 稜線일대를 占領하였으니 由來로 弱兵이라도 勝機를 타면 實力以上으로 強하여지거늘 하물며 國軍의 勇과 膽 그리고 銳와 精에 있어서랴。

2월 26일 : 이날로서 사단의 講林—安興—烽火山 진격작전의 제1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 講林—安興의 奪還戰은 대체로 완료된 셈이었다。

이리하여 사단의 右一線인 제23연대(장, 金漳舜대령)는 07.00에 연대 OP를 佳川里로 推進시켰으며 제1, 제2의 兩대대는 佳川里를 점령하고 陣地를 補強하였으며 제3대대(장, 崔尙俊소령)는 栗木洞에서 圓形陣地를 점령하고 四周를 防禦하는 한편, 수색대 1개분대를 安興里 東北쪽에 있는 池邱里로 파견하여 威力搜索을 실시하던 바 5명을 사살하고 小銃 2정을 노획한 뒤에 敵情을 蒐集하고 17.00에 復歸하였다。

한편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 제1대대(장, 李秉衡소령)는 예비대로서 丹芝洞—梅花山

일대를 점령하고 있었으며 제2대대(장, 趙東三소령)는 陽地村의 △692 일대에, 그리고 제3대대(장, 安昶一중령)는 그 右側인 △570와 風吹山(△699)일대를 각각 점령하였고 陣地의 補強과 次期作戰을 위한 敵情을 探索하였다.

그런데 다만 제3대대는 이날 13.00에 그동안 예비대로서 △632에 殘留하였던 제10중대를 風吹山 西北쪽 31km에 있는 俗稱 "개미재"의 △547로 진출시켰으며 苔峠에서의 연대의 전방지휘소를 경비중인 對戰車공격중대의 間隙인 △387로 진출시켰다.

이상과 같이하여 平昌—安興里—橫城을 連하는 線이 酒泉江과 交叉하는 陽地村을 境界로 하여 그 東쪽의 安興지구를 제23연대가 점령하여 右側인 美제2사단과 연결하였으며 제18연대는 陽地村에서 道路 北岸을 따라 △692--△570—風吹山(△699)—△387—△574線을 점령하면서 그 左側인 美 제1해병사단과 限界點을 維持하였다.

이로서 講林—安興의 진격전은 성공적으로 끝마쳤거니와 —10c°를 下廻하는 寒波속에서

綜合 戰果 및 損失

구분 \ 부대별		18 연 대		23 연 대	
		전과	손실	전과	손실
인원	사살	173		208	
	포로	51		9	
	전사		59		2
	전상		26		20
	실종				4
노획무기 및 장비	수류탄	24		18	
	蘇式소총	93			
	다발총	9			
	체코式輕機	3			
	M1소총	3		31	
	대전차지뢰	120			
	기관포	1			
	99식소총			1	
	水冷株重機			1	
	기관포			2	
	소화기신탄			3.400	
	공용화기신탄			5	
	박격포			1	
참고자료		(전투상보(21) 18R 講林전투)		(전투상보(21) 23R 安興里전투)	

積雪과 堅氷으로 덮인 狹路를 뚫고 또는 敵의 固守防禦를 企圖하는 執拗한 抵抗을 물리치면서 사나운 進擊과 凄絶한 血鬪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敵의 主力을 破하고 이에 呼應하려는 遊擊의 初動마저 粉碎한 다음, 계속하여 30km이상을 北上하고 平昌—橫城間의 중요한 橫斷機動路를 확보하므로써 次期작전의 基盤을 造成하였다。 이作戰中의 각 연대별 종합 戰果와 損失의 大要는 別表와 같다。(前面 종합전과 및 손실표 참조)

2월 27일 : 美 제9군단과 제10군단의 主力부대가 진날로서 平昌—安興里—橫城間의 作戰線까지 進出하자 이날 美 제8군에서는 美 제10군단에 要旨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下達하였다。

『① 美 제9군단과 제10군단의 전투지경선을 다음과 같이 變更하고 이를 延長한다. 牧溪—檜村—밤벌눈—거름터—草峴—楸洞里—전촌里—△636—△887—△683

② 美 제10군단과 韓 제3군단과의 지경선은 現在線에서 東沙里—피박골까지 연장한다.

③ 韓 제3사단과 美 제2사단과의 지경선은 현 지경선 상의 栗木洞에서 北으로 酒泉江을 따라 酒店村에 그리고 "둔방내리"의 △614까지로 定한다.

④ 韓 제3사단은 Arizona線 南쪽의 敵을 섬멸하라。 右側인 美 제9사단과의 접촉점은 酒店村에 그리고 左側인 美 제9군단과의 접촉은 杜谷里로 定한다.

⑤ 韓 제3사단장은 제23연대를 金倉里로 집결시킨 다음, 28일에는 原州 東北쪽에 있는 美 제5해병연대와 임무를 교대 하라。』(美 제8군 정기작전 보고철 참조 육본所藏)

이에 따라 사단장 崔錫준장은 다음과 같은 要旨의 작전命令을 하달하였다。

『① 제18연대는 현 安興里—新村간의 陣地를 강화하는 한편 南下하는 敵을 격멸하라.

② 제22연대는 原州—新村間으로 北上하여 제23연대의 陣地교대를 掩護하라.

③ 제23연대는 연대 본부를 原州로 이동하는 동시에 부대를 金倉里—新村으로 前進시켜 美 제5해병연대의 진지를 引受하라。』

이에 따라 지난 25일 下順南里로 이동한 제23연대(장, 金漆舜대령) 본부는 原州로 이동하는 한편 연대主力을 佳川里—栗木洞의 진지에서 金倉里로 집결한 다음, 다시 原州로 이동할 준비를 갖추었으며 사단 예비대인 제22연대(장, 張春權중령)의 본부와 主力은 觀雪里를 떠나 原州에 推進하였다。

2월 28일 : 전날 觀雪里에서 原州로 이동한 제22연대는 原州 東北쪽 4km의 松門內—坪場에 이르는 道路 東쪽 稜線을 占領하였으며 제23연대(장, 金漆舜대령)는 金倉里에 집결한 다음 "웃양적"—"수재울"—新村線으로 이동하여 美 제5해병연대와 그 任務를 교대하고, 제1대대(장, 金尤榮소령)를 정암리—웃양적 간에 제2대대(장, 文泰俊소령)를 웃양적—新村

間에, 그리고 제3대대(장, 崔尙俊소령)를 新村—上街里(△502)에 배치하여 제18연대의 제3대대(장, 安旼—중령)와 연결하였다。

이 연대와 교대한 美 제5해병연대는 楊村(原州 北쪽 8km)으로 이동 하였는데 이와같이 연대가 그 任務를 교대하여 사단의 전투 正面을 西쪽으로 擴大하게 되자 제22연대를 연대의 後方으로 집결하여 縱深陣地를 形成하는 등 사단의 戰線정리가 완료되자 이날 12.00에 美 제8군은 제1군단에 대하여 要旨다음과 같은 命令을 下達하였다。

『① 韓 제1군단과 美 제2사단의 前哨線은 현재의 美 제9군단과 제10군단의 지경선상인 염숫골(原州 北쪽 8km)—浦洞里—陽村에서 美 제2사단과 美 제7사단 지경선상의 柳浦二里까지로 定한다.

② 韓 제3사단은 上記 前哨線인 염숫골—浦洞里—陽村을 공격확보하라。』

이 무렵 사단 정면의 敵情은 대략 다음과 같이 파악되고 있었다。

"사단 정면의 敵은 北共 제3군단의 제6사단과 제12사단(3월 2일에 제7사단과 교대)병력 5,000여명으로서 德御山(△664)—烽火山(△670)을 據點으로 安興里—新村—웃양적간의 도로 北쪽 高地를 占領하고 있다。"

즉 제18연대 제2대대 當面의 敵은 北共 제3군단의 정찰대대 규모로서 池峴里—松內洞에 개중대 병력이 據를 구축하고 있으며 제3대대 정면의 논골—△689에도 要據를 구축중인 것으로 確認되었다。

그리고 제18연대 左一線인 제3대대의 正面에 있는 烽火山—삼실간의 稜線上에는 1개연대 규모의 병력이 배치되었고 安興—新村—웃양적의 도로 北岸의 △589와 △675 및 風吹山(△694) 등에는 비교적 강력한 前哨진지를 구축하고 執拗하게 抵抗할 것으로 판단하였다。(전투상보(21) 18R의 烽火山전투 및 23R의 新村전투 관계자료 참조)

如斯한 戰況을 檢討한 사단장은 전날 다음과 같은 要旨의 작전명령 제88호를 하달하였다。

『① 제18연대는 주력으로서 陽地洞—浦洞里線을 점령하라.

② 제22연대는 坪場—新村間에 진출하여 제23연대의 전진을 지원하라.

③ 제23연대는 浦洞里—염숫골 線을 점령하라。』

3월 1일 : 이날 사단의 주력부대는 全正面에 걸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右一線인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의 제2대대(장, 趙東三소령)는 06.00에 공격을 시작하여 右側인 제7중대는 △617.6를 목표로 진격하였으나 地形의 不利와 敵의 執拗한 抵抗으

로 19.00에는 △598.9를 점령固守하면서 夜間진투를 준비 하였고 左側인 제5중대는 06.00에 △675에서 △698.3을 目標로 진격하던중, 19.00부터 日沒과 더불어 長子洞 西쪽 無名高地를 占領堅持하였다.

또 제6중대는 대대의 예비로 06.00에 △3917에서 출동하여 △631를 占領한 뒤 경계태세에 들어갔으며 제8중대와 OP는 巨里坪에 위치하여 攻擊 兩中隊의 前進擊을 火力으로 지원하였다.

연대의 右一線인 제2대대가 이상과 같이 前進함과 동시에 이날 연대 左一線인 제3대대(장, 安政一중령)도 對戰車공격 중대와 함께 06.00에 공격하기 시작하여 목표 △547를 확보한 뒤에 그 前方 一帶에 夜間埋伏組를 配置하였다.

이날 연대의 예비부대인 제1대대(장, 李秉衡소령)는 丹芝洞 부근에서 豫備陣地를 占領하였고 수색중대는 最前方으로 挺進하여 敵情을 蒐集하였다.

한편 사단의 左一線인 제23연대(장, 金涼舜대령)의 제3대대(장, 崔前俊소령)는 제18연대 제3대대의 左側에서 이날 06.00부터 △479를 目標로 공격을 斷行하였는데 當面의 敵은 堅固한 陣地를 구축하고 대대의 進擊을 執拗 阻止하므로써 彼我間에 一進一退의 攻防戰을 反復하였다. 이 當面의 敵도 執拗하게 陣地固守에 힘썼거니와 대대의 強靭한 打擊力은 끝내 敵陣까지 接近하는데 成功하고 수류탄의 速續폭파에 肉接攻迫함으로써 敵의 出血을 強要하고 그 銳氣를 꺾고야 말았으나 數日間에 걸쳐서 強化한 敵의 陣地가 壁을 이루었을 뿐아니라 이를 死守하려는 最後發惡이 또한 尋常치않으므로 많은 損失없이 손쉽게 突破할 수 없음을 看破한 대대장은 19.00에 日沒과 더불어 우선 공격을 중지하고 "매내골"의 陣地까지 移動하여 그 西北쪽 △318를 占領하였다.

이 제3대대의 공격과 때를 같이하여 연대의 左一線인 제2대대(장, 文泰俊소령)도 06.00부터 △281에서 공격을 시작하여 △358를 占領한 다음 숨돌릴사이도 없이 계속하여 "상하가리"의 △289를 공격하였다.

敵의 견고한 陣地에서의 執拗한 抵抗으로 彼我間에 熾烈한 血戰을 展開한 大隊는 이醜敵을 놓치지 않고 全力으로 再反擊을 敢行하였으나 火力支援의 不振으로 狀況이 好轉되지 못하여 17.00에 "하양적里"를 거쳐 △358의 東側方으로 轉進하여 제5, 제7, 제6중대의 順으로 縱深陣地를 確保하였다.

이날 제1대대(장, 金尤榮소령)는 "덕가래"一帶의 陣地에서 新村을 目標로 進出한 다음 연대예비로 措置되었으며 연대의 OP 역시 08.00에 新村으로 이동하여 다음 一戰을 준비하였다.

3월 2일 : 사단의 左一線인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의 主力은 이날도 역시 熾烈한 攻防戰을 展開하고 있었다。

전날에 이어서 제2대대(장, 趙東三소령)는 05.00에 一齊히 공격행동을 開始하였는데 제7중대는 酒泉江을 따라 北進하여 "못두둑"의 △598를 공격중 左側方에서 제6중대가 △631를 공격하는 것을 側背로부터 支援하기 爲하여 一旦 공격을 중지하고 "동창말"을 경유하여 "신바우골"을 占領하였다。 이때에 제6중대는 중간말에서 △631에 대한 猛烈한 反擊을 加한 결과 15.00에 稜線을 넘고 同高地를 占領하였으나 19.00以後의 日沒과 동시에 同高地를 再奪還코자 增強된 敵의 대규모 反擊이 斷行되는지라 血戰끝에 "중간말"의 원위치로 撤收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高地의 一戰에서 敵은 많은 損失을 보아 數波의 梯隊가 潰退를 당하였던 것이다。

한편 "장사터"의 제5중대는 그 前方의 △689 敵을 공격하였으나 敵의 執拗한 抵抗으로 역시 前進이 如意치 못하였고 제8중대는 지휘소와 같이 巨里坪에서 공격梯隊의 前進을 支援하였으며 제1, 제3의 兩대대는 전날의 陣地인 丹芝洞과 △547를 점령하고 진지를 더욱 강화하였다。

그러나 한편 사단 左一線인 제23연대(장, 金漆鎭대령)의 제3대대(장, 崔尙俊소령)는 전날에 이어 이날 06.00부터 △318에서 東쪽으로 진격하여 △479를 다시 공격하였다。 이때에 敵은 더욱 強化된 陣地를 이용하여 끝까지 抵抗하므로써 彼我間의 격전은 20.00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는데 逐次로 增強되고 一波又一波로 逆襲을 敢行하는 敵勢가 輕視를 不許하였다。

이렇게함으로 대대는 立地的 與件과 日沒로 因한 不利한 狀況下에서의 出血 공격을 斷念하고 "매내골" 西쪽 稜線上의 陣地로 隨意離脫한 다음 原陣地인 △318를 確保하였다。

이와같이 右側의 제3대대가 △479를 공격한 무렵에 左側의 제2대대(장, 文泰俊소령)도 또한 06.00에 △358에서 출동하여 전날에 공격한 △289를 다시 力攻하기 시작하였다。

이곳의 敵 또한 狂的 發惡으로 數波의 交代 抵抗을 반복하므로 대대는 一步도 前進할 수 없는 不利한 狀況下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대대장 이하 全 隊員은 我軍의 全般的인 北進에서 차지하는 이 高地의 重要性을 再認識한 결과 悲壯한 覺悟로 前後三次에 걸친 全力공격을 敢行하여 敵을 先制하고 수류탄 投擲에 이은 肉彈戰으로 突進하자 마침내 敵은 支離分裂된 가운데 그 일부가 "수통목"이 東쪽 高地를 向하여 潰退하였는데 負傷者의 哀呼聲이 凄凉하기도 하였다。 17.30에 대대는 高地를 確保하고 1개중대를 殘置한 다음

主力은 原陣地로 復歸하여 戰力을 再整備하였다。

그리고 同 연대의 제1대대(장, 金尤榮소령)는 新村의 예비陣地에서 06.00부터 △281—잣나무골 線으로 이동 배치하였으며 연대 OP는 그대로 新村에서 金戰線의 動向을 살피면서 次期攻擊을 策案 하였다。

3월 3일 : 전날에 이어서 사단의 主力부대는 계속적인 공격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敵의 거점 방어를 위한 △598와 △689 및 △479등에는 견고한 陣地가 구축되어 있을 뿐아니라 敵은 平昌—橫城線에서 我軍의 前進을 지연시키는 한편, 主力부대를 再編하려는 企圖였는지 必死的으로 抵抗 하였다。

따라서 我軍은 逐次로 敵의 거점을 制壓하면서 진격하여야만 하였고 이들의 거점을 占領하려면 優勢한 兵力으로 急襲的인 各個擊破를 斷行하여야만 하였다。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의 右一線인 제2대대장 (趙東三소령)는 이날 06.00에 공격을 시작하여 제7중대는 △617를, 제5중대는 △689를 각각 強打하였으나 敵은 兵力을 交代하고 增強하면서 끝까지 抗戰하므로 血戰을 거듭한 뒤에 兵力을 溫存하기 위하여 18.00에 공격을 一旦 중지하고 원 위치로 復歸하였다。또 연대 左一線인 제3대대(장, 安政一중령)도 이날 06.00에 공격을 시작하여 △647에 진출하고 그前方에 솟아있는 烽火山(△670)을 目標로 突破를 企圖하였으나 敵의 우세한 병력과 必死的인 저항으로 激戰만을 치른 다음 通谷 一帶의 稜線을 占領 하면서 夜間경계에 들어갔다。

그리고 제1대대(장, 李秉衡소령)는 전날과 같이 연대의 예비대로서 梅花洞(俗名 단짓골)에 豫備陣地를 構成한 다음 주력부대의 前進을 支援하였다。

한편 사단 左一線인 제23연대(장, 金漆舜대령)의 右一線으로 있던 제3대대(장, 崔尙俊소령)는 전날밤 23.30에 △479로부터 侵襲한 敵을 모조리 擊退한 다음 이날 06.00에 다시 공격을 시작하여 △547 西南쪽 △500—△318를 連하는 線에 제9, 제10, 제12중대를 展開하여 △479의 敵 主力을 西側方에서 牽制하는 한편, 제11중대로 하여금 同 高地를 직접 奪還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무려 3차에 걸친 集中공격 끝에 敵陣 접근에 成功하고 수류탄으로 連打를 加하였으나 견고한 "토치카"속에 숨어있는 敵은 끝까지 버티면서 抵抗하므로 18.00에는 一旦 전투를 중지하고 병력을 △479의 南쪽에 있는 細川谷 一帶의 稜線上에 配置하였다。

이와 동시에 제3대대에 배속된 제2중대는 俗稱 "아랫양적"으로 轉進하는 한편, 예비대로서 "잣나무골"—△281 間에 대기하였던 제1대대(장, 金尤榮소령)가 △479의 西南으로 前

進하여 제3대대와 連繫한 陣地를 占領함으로써 同 高地를 東西南 三面으로 포위하게 되었다。

이날 연대 左一線의 제2대대(장, 文泰俊소령)는 02.00에 전날에 확보한 △289에서 敵의 夜襲을 받았으나 白兵戰으로 이를 擊退하고 固守 防禦를 계속하였다。

3월 4일 : 전날에 이어 사단의 主力부대는 敵의 거점을 粉碎하기 위하여 局部的으로 必要한 공격을 加하고 있었다。

사단 右一線인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의 제2대대(장, 趙東三소령)는 △675 北쪽에 있는 新堡(俗稱 새터)의 右側 △646로 진출한 제1중대와 合勢하여 08.00부터 △689의 敵陣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敵은 高地中腹의 견고한 陣地를 堅守하면서 우세한 화력의 집중과 새로운 兵力을 交代로 投入하면서 必死的으로 抵抗을 하므로써 激戰을 거듭한 나머지 19.00에 日沒과 더불어 공격을 중지하고 陣地로 復歸하였다。

이 제2대대의 공격과 並行하여 그 左側에 있는 제3대대(장, 安政一소령)도 06.00에 출동하여 제9, 제10의 兩중대는 通谷을 확보한 뒤 그 東쪽의 △581에 배치하였으며 제11, 제12 兩중대 및 대대 OP는 그 後方의 △547를 占領하였다。

이날 제1대대(장, 李泰衡소령)는 제2중대를 △646로 진출시킨 반면, 지휘소와 대대의 주력은 梅花洞에서 待機하였다。

한편 사단의 左一線인 제23연대(장, 金漆舜대령)의 제3대대(장, 崔尙俊소령)는 전날의 陣地線에서 계속 防守중에 있었는데 이날 02.00에 △479의 약 3개중대 규모의 敵이 제9, 제10兩중대의 正面으로 強襲을 斷行하였다。

이에 연대는 이를 擊退하려고 奮戰하였으나 이미 敵에게 機先을 빼앗겼을 뿐아니라 그들의 우세한 병력과 집중 火力으로 不利한 戰況을 挽回하기가 어려워 04.00에 一旦 배치선에서 철수한 다음, 06.00에 反擊을 決行하여 一進一退의 攻防戰을 거듭한 끝에 14.00에는 끝내 이醜敵을 強打한 다음 陣地를 다시 奪還하였는데 曠野에 屍臭가 차고 寒天에 醜風이 가득하였다。

대대는 이 攻防戰을 通하여 8명의 戰死者와 49명의 戰傷者를 내게 되었으며 반면에 敵 45명을 사살하고 7명을 사로 잡았으며 다발총 6정과 M1소총 2정, 그리고 책코式輕機 1정과 水冷式重機 1挺 등을 노획하였다。

陣地를 탈환한 대대는 제9, 제12 및 제2중대를 배치한 다음 제11중대로 하여금 △479의

敵을 공격하였다。

중대는 4차에 걸친 집중공격을 加하여 마침내 敵陣 접근에 成功하고 肉彈戰을 取行하게 되었으나 敵의 강한 抵抗으로 同 高地를 奪還하지 못하고 18.00에는 전날에 占領하였던 綿川谷(속칭 매내골)로 復歸하였다。

이무렵 △318로 진출한 제1대대(장, 金尤榮소령)는 제3대대의 後側方을 防護하고 있었거니와 한편 그 左側의 제2대대(장, 文泰俊소령)는 제3대대가 奇襲을 받았던 時刻과 때를 같이하여 02.00에 △289의 제6중대 제1소대의 正面으로 敵이 侵襲한 까닭에 이를 맞아 또한 奮戰하였으나 衆寡不敵으로 狀況이 不利하여 06.00에 대대의 主陣地로 撤收하였다。

이날도 연대의 OP는 新村에 계속 머무르면서 장차 風雲이 일어나려는 戰局을 靜觀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사단의 烽火山지구 전투가 膠着상태에 빠졌던 3월 5일에 육군본부는 12.00부로 要旨 다음과 같은 陸本作命 제263호 修正 작전지시 추가 제1호를 下達하였다。

『① 1951년 3월 6일 12.00부로 제9사단, 首都사단(欠 제26연대) 제1경비대대, 제10경비대대를 제3군단 배속으로부터 解除하여 제1군단에 배속한다.

② 1951년 3월 7일 12.00부로 제3사단(欠 제18연대)을 美 제10군단 배속으로부터 解除하여 제3군단에 배속한다。』

이리하여 이제 사단 사령부 및 각 연대의 본부는 이날 목적지를 향하여 躍進하고 있었다。

즉 原州郡 金垈里에 있는 사단 사령부가 寧越郡 北面 磨磋里로 移設함에 이어 原州郡 板富面 觀雪里의 제18연대 본부와 原州邑에 駐留中인 제23연대의 본부가 磨磋里로, 그리고 觀雪里의 제22연대 본부가 旌善으로 각각 躍進하였다。

따라서 각 연대의 병력 역시 제18연대를 一旦 제외하고는 이날 陣地를 交代하고 있었다。

사단의 左一線인 제23연대(장, 金淙舜대령)의 제1대대(장, 金尤榮소령)는 △318를 占領중, 17.00에 美 제2사단 제23연대와 그 임무를 교대하라는 사단의 작전 지시에 따라 부대를 德加淵(속칭 덕가래, 新村 南쪽 1km)으로 철수하여 待命중에 있었으며, 제2대대(장, 文泰俊소령)는 △385에서 防守中 이날 03.00에 敵 1개대대의 공격을 받고 3시간餘의 交戰끝에 이를 격퇴한 다음, 17.00의 사단 작전지시로 美 제23연대와 임무를 교대하고 德加淵에 집결하였다。

대대는 이 전투에서 敵30명을 사살하고 따발총 15정과 장총 10정을 노획하였다。

그런데 제3대대(장, 崔尙俊소령)는 02.30에 敵 主力부대의 全面的 공격을 받고 熾烈한 교전을 展開한 뒤 03.30에 제1대대의 배치선인 △318로 移陣하여 防禦태세를 取하게 되었는데 上記한바 17.00의 작전지시로 陣地를 美 제23연대에 引繼하고 德加淵으로 집결하였다。

한편 제23연대의 임무교대를 掩護하기 위하여 이날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의 제1, 제2대대는

전날의 陣地에서 방어중이었고 제3대대(장, 安吹一중령)는 敵의 關心을 誤導하기 위하여 06.00에 출동하였는데, 11.30에 △479 東南쪽의 無名高地를 점령하고 계속 前進하여 △647에 진출한 다음 隣接부대의 進擊遲延으로 主力을 △547로 轉進시켰다。

이상과 같이하여 사단은 美 제10군단의 작전상 배속과 제1군단의 배속이 모두 解除되고 제3군단에 새로이 배속되기 위하여 예하의 全 방력을 旌善一麟蹄里 一帶를 目標로 逐次的으로 轉移하게 되었거니와 7일 20.00에는 다시 『제3군단장은 배속된 제3사단의 방력으로서 현재 군단 구역안에 있는 제1군단 부대와의 교대를 迅速히 推進하라』는 陸本作命 제263호 修正 작전지시 제1호가 下達됨으로써 사단 예하의 全방력을 旌善一麟蹄里 일대로 移動하였다。

6. 下珍富里—東沙里附近 戰鬪 (1951년 3월 1일부터 1951년 3월 4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21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제3군단	장 소장 劉 載 興	제1대대	장 소령 權 用 性
首都사단	장 준장 宋 堯 讚	제2대대장	소령 韓 鶴 頊
제1기갑연대	장 대령 金 東 洙	제3대대장	소령 具 泰 益
제1대대	장 소령 朴 京 虎	배속부대	
제2대대	장 소령 朴 翊 均	제10포병대대	장 중령 李 奎 三
제3대대	장 소령 林 觀 默	수도야전공병대제대	
제26연대	장 대령 徐 廷 哲	병력 및 장비 T/O 및 T/E	

敵 軍	
北共제2군단	제31사단
제2사단	제69여단
제27사단	병력 약 11,480명
제9사단	

나. 전투 전의 개황

敵軍의 상황 : 首都사단의 主力이 下珍富里—東沙里를 공격하기 위하여 大關嶺 西麓 橫溪里에 진출하고 있을때 敵은 이곳을 中心으로 한 京江道路 南北쪽에 大大的인 兵力을 집결하고 있었다。 이는 敵 제2군단 소속으로서 지난 2월 20일에 寧越附近까지 南侵하였다가 我軍의 全戰線에 걸친 反擊으로 23일 이래 退却하기 시작한 敵의 一部였는데 그 構成을 본다면 제7사단의 추격으로 大和에서 北上한 敵兵力과 또 제9사단 前面의 曼旺山 일대의 敵 및 東沙里 附近에 집결하고 있는 敵 제2사단 그리고 五臺山 南쪽 月精寺 附近과 德斗洞 일대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敵 제27사단등으로 보였다。

이와같은 敵을 「陸軍定期情報報告書」의 제60, 제61, 제62호의 단편기록에서 종합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다。

『① 제3군단 정면의 敵은 發旺山—新基里—內新基—下珍富里에 집결하고 있다.

② 大和北方에서 약 1,000명의 敵이 我軍의 전진을 저지하려 하고 있다.

③ 首都사단 수색대는 2월 28일 晩項峠에서 敵 1개대대 규모의 병력을 발견하였고 月精寺부근 九曲洞에서 敵 1개소대 규모의 병력과 交戰하였다.

④ 月精洞 北쪽에 집결하고 있는 약 2,000명은 敵 제27사단이다.

⑤ 下珍富里 및 晩項峠 일대에 약 4~500명이 준동하고 있다.

⑥ 束沙里에는 敵 제2사단 主力이 집결하고 있다.

⑦ 百日坪에서 南下하는 敵 300명은 下珍富里—晩項峠의 敵과 合流를 企圖하고 있다.

⑧ 敵 戰鬪序列은 敵 제2군단 소속으로 敵 제27, 제2, 제9, 제31사단등이다.

⑨ 敵 제2군단의 종합판단 병력은 11,483명인데 그중 2D—2,418, 9D—1394, 27D—2434, 31D—2,000명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敵은 사단공격목표인 下珍富里—束沙里 일대에 전부 집중집결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我軍의 공격 正面에서 縱深있는 橫廣陣地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당시 敵의 能力은 注文津以西—原州線의 戰線을 볼때 敵 제2, 제3, 제5군단은 我軍의 反擊에 그들의 初期企圖를 포기하고 全戰線에서 후퇴하다가 沈川—豐岩—桂芳山—黃炳山—注文津을 連하는 線에서 인접 中共軍과의 連繫아래 지연전을 계속하면서 38°線 부근으로 총퇴각한 다음 再整備할 것이고 急速한 증원없이 現有力量으로는 攻勢移轉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敵 제2군단 主力이 退却을 始作한 이래 그들은 局部的으로 侵襲을 감행할 능력이 있는듯 하였으나 현재까지는 계획적인 후퇴로 일관하였다。이와함께 그들은 冬傷者의 속출과 食糧 및 彈藥의 부족으로 士氣가 많이 저하되었으며 특히 계속적인 우리쪽의 空中爆擊으로 그 행동이 제한될 뿐 아니라 戰鬪力도 半減되었을 것으로 分析되었다。

그러나 時日이 경과하는 대로 어디서든지 中共 제3集團軍의 증원이 가능하고 北共 後方軍인 제6, 제7군단이 증원됨과 아울러 그들 자체의 再編이 완료되는 대로 局部的 또는 全面的인 反擊이 예상되며 桂芳山—五臺山—黃炳山—注文津을 連하는 山岳地帶에서 제2전선을 形成하여 我軍의 진격에 對應할 수 있는 能力이 있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我軍의 상황：2월 中旬에 敵은 東部山岳地帶에서 大和—平昌—寧越—旌善까지 南侵하여 제7, 제9사단이 일시 그 後方으로 철수하게 됨에 따라 全戰線上에 均衡을 이루지 못하다가 2월 20일 이후 전반적인 反擊을 시작함을 계기로 敵 제2군단 主力은 2월 23일 이래 下珍富里—束沙里 방면으로 총퇴각하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제7사단은 2월 25일 平昌—旌善線을 점령하고 계속해서 大和부근으로 진격하기 시작하였고 제9사단은 餘糧 부근에서 軍團豫備로 控置되면서 戰力을 강화하고 있었다。

한편 首都사단은 지난 2월 7일 江陵奪還이래 蓮谷川(五臺山 東쪽) 南岸의 "R"線 진지를 계속 점령하고 있다가 2월 10일이후 그 西隣接地帶인 大和—平昌—寧越일대의 敵 侵襲으로 인하여 橫溪里(大關嶺西側) 北쪽 일대에서 진지를 확보하고 있던 제1기갑연대가 松溪里부근으로 철수하여 사단의 後側方을 防護하고 있었다。그러다가 2월 13일 사단은 제1군단에서 제3군단으로 編入되고 同日附로

제1해병연대와 제10경비대대를 배속받고 이와함께 江陵에 開設되어 있는 사단전방지휘소를 三陟으로 이동 하게 되었다。 이후 군단의 反擊과 때를 같이하여 2월 26일 사단전방지휘소를 다시 江陵으로 復歸시켜 작전지도에 임하게 되었다。

이 무렵 사단 一線부대인 제1연대는 江陵奪還이래 진지변동이 없이 계속해서 連谷川 南쪽인 盧洞一沙器幕里 일대에서 진지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제1기갑연대는 松溪里에서 邱山里로 主力의 진출과 함께 지휘소를 躍進시켰다가 다시 大關嶺을 넘어 橫溪里로 진출하였다。 그리고 제26연대는 2월 22일 제9사단의 상황악화로 인하여 잠시 제9사단에 편입된 다음 同사단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다가 2월 25일부로 首都사단에 復歸하고 이어 邱山里에 진출한 다음 다시 橫溪里에 진출하여 下珍富里 일대의 敵퇴로를 차단하기 위한 戰列을 강화하고 있었다。

2월 25일 현재 각급 지휘소는 다음과 같다。

제 3 군단—寧越

首都사단—江陵

제 1 연대—竹軒里

제 1 기갑연대—橫溪里

제26연대—邱山里

제10포대—江陵

제 7 사단—寧越

제 9 사단—松溪里

그런데 이 무렵(2월 27일) 西部戰線에서는 仁川을 탈환하고 美 제25사단 및 제1사단은 漢江南岸일대에서 서울 再奪還을 위한 反擊戰을 계속하고 있으며 中部 전선에서는 제3사단이 原州로 육박하고 제5사단은 丹陽 제8사단은 黃江里 일대에서 진격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와같이 反擊을 시작한 이래 戰況은 날로 好轉되어 我軍의 士氣는 날로 높아가고 있었으며 東部전선의 首都사단도 補給面에서나 또는 士氣面에서 매우 良好한 가운데 전열을 강화하고 있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제3군단장 劉載興 소장은 2월 14일附로 首都사단을 編入받고 東部 太白山脈 以西의 山岳地帶를 공격하게 되었는데 五臺山을 中心으로 한 그 東南쪽은 새로 編入된 首都사단(장, 宋堯讚 준장)이 그 西側은 제7사단(장, 金振一 준장)이 각각 담당토록 하여 攻勢移轉의 준비에 임하게 하고 제9사단(장, 金鍾甲 준장)은 軍團豫備로 控置하였다。

군단장은 제7사단이 平昌—旌善線을 점령한 다음 敵 제2군단 主力이 總退却함에 이르자 大和正面과 側方에서 이를 공격하고 東沙里 후퇴로를 차단하여 敵을 一擧에 捕捉擊滅하

는 동시에 左翼接 美 제10군단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首都사단은 1개연대로서 別命時에 下珍富里—東沙里를 공격하라」는 要旨의 군단작명 제47호를 2월 25일 寧越지휘소에서 하달하였다。

이와같은 명령을 받은 首都사단장 宋堯讚 준장은 江陵지휘소에서 2월 25일 16.00附로 要旨 다음과 같은 사단작명 제124호를 하달하여 공격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군단은 旌善附近에서 潰走하는 敵을 계속 추격중이며 인접 제9사단은 "Arizona"線에 진출하고 美 海軍은 당 사단을 계속 지원할 것이다。

사단은 今 25일 16.00를 期하여 제1연대는 "R"線을 점령하고 제1기갑연대는 別命이 있을때 下珍富里—東沙里를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제26연대는 제9사단으로부터의 배속해제와 동시에 사단예비대 임무를 수행하고 별명이 있을때 下珍富里—東沙里를 공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와같은 명령에 따라 東沙里 주공임무를 받은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 대령은 즉시 亭項里 西쪽 月精洞 附近까지 수색대를 파견하여 연대 정면의 敵情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작전계획을 수립하여 2월 26일 22.00附로 亭項里 지휘소에서 要旨 다음과 같은 연대작명 제7호를 하달하였다。

『①. 敵情은 別紙敵情附錄 참조

②. 연대는 사단작명에 의거 일부병력으로서 敗殘北上하는 敵을 포착 격멸하려 함。

③. 가). 제1대대장은 透明圖와 같이 目標 1, 2, 3, 4를 점령 A線을 확보하라。

나). 제2대대장은 1개중대 병력으로서 目標 5, 6, 7을 점령하여 제1대대 공격을 용이케하라。

다). 제3대대장은 1개중대 병력을 亭項里에 차출하여 지휘소 및 경계배치를 완료하고 그 일대의 경계에 임하라。

라) 배속포병중대장은 목표 1, 6을 점령한 다음 진지 B에 일부병력을 추진시켜 계속 제1, 제2대대의 공격을 지원하라。』

이상 명령은 月精洞 부근 공격대기지점 점령을 위한 예비명령이었다。

그리고 제26연대장 徐延哲 대령은 사단 예비대 임무의 수행과 동시에 제1기갑연대의 공격을 엄호 지원하기 위하여 橫溪里 부근에서 제반전열을 강화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일련의 作命으로 사단 각 연대가 현 진지에서 만반의 공격준비를 하고 있을 무렵 2월 28일 08.00에 군단작명 제48호가 또 하달되었으니 그 要旨에 이르기를 『首都사

단은 즉시 행동개시하여 신속히 東沙里를 확보하고 그 西, 北, 南쪽에 강력한 진지를 점령하여 北上을 企圖하는 敵을 捕捉 擊滅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사단장은 제1기갑연대의 진출상황 및 그간에 얻은 첩보를 종합 판단하여 사단작명 제125호를 작성 2월 28일 14.00附로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

『一. 가. 별지정보부록참조.

나. ① 美 제10군단은 계속 북진중에 있으며 美 제7사단은 長坪里를 향하여 공격중임.

② 군단은 敵의 퇴로를 차단하고 敵을 京江道路에서 捕捉擊滅할 목적으로 공격중임.

③ 제7사단의 주력은 "Arizona„線에 진출하고 그 1개대대는 東沙里를 공격전진하여 사단의 작전을 엄호할 것임.

④ 美 해군 및 공군은 계속 사단을 지원함.

二. 가. 사단은 제3군단 작명 제47호에 의거하여 계속 현방어선을 확보하는 동시에 증강된 1개연대로서 D日 H時에 공격을 개시하여 下珍富里—東沙里를 점령 敵의 퇴로를 차단하고 敵을 京江道路線에서 捕捉 擊滅하려함.

나. 공격목표, 전투지경선, 공격출발선, 別紙투명도 참조, 공격방향—西方, 공격개시시간 D日 H時.

三. 가. 제1연대는 계속 현재선을 확보하라.

나. 제26연대는 즉시 행동을 개시 R線에 前進하여 明日 10.00까지 別紙투명도와 같이 제1기갑연대와 陣地를 교대하고 공세방어를 실시하라.

다. 제1기갑연대는 D日 H時 공격을 개시하여 別紙투명도와 같이 목표 ①②를 점령하여 敵의 退路를 차단하고 東沙里부근과 그 西쪽에 강력한 阻止陣地를 점령하여 敵을 京江道路線에서 捕捉擊滅하라.

라. 사단수색중대는 즉시 행동을 개시하여 江陵—黃溪里—檢川里를 경유 月精寺에 轉進한 다음 부근일대를 면밀히 수색하여 제1기갑연대의 공격을 엄호하라。』

그러나 사단장은 이상과 같은 要旨의 공격명령을 하달하고 나서 그간 보고된 예하부대의 상황을 종합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같은날(28일) 18.50에 군단장에게 電文으로 보고하였다。

『① 5일간이나 계속되는 降雪로 인하여 邱山里—大關嶺—橫溪里 일대의 교통이 두절되었음.

② 사단은 全力을 다하여 除雪作業中이나 공격 개시는 3월 2일 前에는 不可能한 상태

임。』

이러한 電文을 받은 군단장은 同日 21.40에 敵 후퇴로를 긴급히 차단할 필요에 의해 3월 1일 以內로 東沙里를 점령하라는 다음과 같은 要旨의 電文을 首都사단장에게 발송하였다。

『① 제7사단장 보고에 의하면 敵은 外巨文里에 3,000명 新基里에 2,000명이 집결하여 同사단 수색대와 교전중이라 함。

② 제1기갑연대의 일부병력으로 이 敵의 背後를 공격하여 敵을 攪亂시키라。

③ 外巨文里 및 新基里에 요란사격을 실시하라。

④ 明 3월 1일 이내로 東沙里에 진출하라。』

이러한 군단장의 再지시를 받고난 사단장은 이미 하달된 사단공격 명령에 따라 當初 계획대로 東沙里 공격에 着手하게 되었다。

한편 28일 14.00에 사단작명 제125호를 수령한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 대령은 다음과 같은 연대 최종공격명령을 同日 22.00에 中頃里 지휘소에서 하달하였다。

『一. 別紙情報부록 참조

二. 연대는 사단작명 제125호에 의하여 목표 ①②를 연대주력으로서 공격 점령하려함。

가. 목표 東沙里

나. 공격방향 西方

다. 공격개시 일자 3월 1일 06.00

三. 가. 제1대대장은 연대 右翼제대로서 별지투명도와 같이 목표 ④①⑦을 공격 계속 연대목표 東沙里를 점령하라。

나. 제3대대장은 연대 左翼梯隊로서 목표 ③⑤①을 공격하고 계속 목표 ⑥을 거쳐 연대 목표를 右翼 제1대대와 협조하여 공격 점령하라。 작전지시 제4호에 의하여 先進한 제10중대를 공격전진과 동시에 통합 지휘하라。

다. 제2대대는 예비대로서 後進하다가 차후 지시에 응하라。

라. 대전차포대장은 1개소대의 병력으로서 下珍富里—東沙里間의 제1선 공격대대와 併進하고 敵의 지휘소 및 特火點에 대비하면서 공격 전진하라。

마. 배속공병대장은 1개소대병력을 對戰車砲小隊에 先進시켜 장애물 제거에 임하고 1개소대병력을 연대장 직할에 두어 차후지시에 응하라。

바. 배속포병대장은 연대 공격전진과 併進 제1선대대에 火力으로서 직접 지원하여 그

공격전진을 용이케 하라。』

(2) 작전실시

3월 1일 : 首都사단(장, 宋堯讚 준장)의 공격제대인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 대령)는 下珍富里—東沙里의 敵 집결지 및 退路를 차단한 다음 京江道路에서 이를 撃滅할 목적으로 嶺東의 險要인 大關嶺 西쪽 車項里—上珍富里間에서 積雪과 零下의 寒冷을 무릅쓰면서 이날 06.00를 期하여 공격을 시작하였다。

연대의 제1대대(장, 朴京虎 소령)는 연대작명 제8호에 의거하여 右翼梯隊로서 전날 이미 진출하여 점령한바 있는 月精洞 일대에서 그 西쪽 九石洞 뒷산 △762와 下珍富里—東沙峠—東沙里등 4개목표를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제2대대(장, 朴翊均 소령)는 左翼梯隊로서 廣川 및 盤鞍洞 일대에서 그 西쪽 屛頭山—通靈岩—下珍富里—射南山—東沙里등 5개 목표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이로써 연대 제1목표인 下珍富里와 同 제2목표이며 사단 목표인 東沙里를 2개 대대가 併立하여 兩翼포위로 敵을 撃滅하기 위하여 일제공격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이 공격에 참가하지 않은 제3대대(장, 林觀默 소령)는 연대 예비대로서 主力에 후속하기 위하여 橫溪里에서 제26연대(장, 徐廷哲 대령)와 그 진지를 교대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1, 제2대대도 이 공격에 앞서 이미 占有한 陣地를 제26연대와 교대하였던 것이다。

이날 10.00까지 제1대대(장, 朴京虎 소령)는 그 선두인 제2중대로써 △859로부터 무명고지(月精洞과 下珍富里 中間의 道路邊)에 진출한 다음 11.20에 그 무명고지 일대에서 敵과 첫 교전을 전개하였는데 이때 △762를 지키고 있던 350명 규모의 敵은 그중 100명이 加佑洞 左側 능선으로 퇴각하여 배치되었고 主力 250명은 廣川里로 퇴각하면서 德斗洞에서 대대와 교전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이에 따라 대대는 機先을 제압한 先制공격으로 敵 21명을 사살하고 M_1 9정과 칼빙 1정 다발총 2정을 노획하는등 攻勢初動에 있어서 敵을 制壓하는데 큰 전과를 올렸으나 대대도 加佑洞 부근의 근접전에서 부상 15명과 전사 1명의 손실이 있었다。

이 무렵 제2대대(장, 朴翊均 소령)는 연대 左一線공격부대로서 盤鞍洞 일대의 무명고지에서 西쪽 무명고지로 수색 전진하여 그 선두부대가 虎鳴里까지 진출하였다。제3대대(장, 林觀默 소령)는 龍山里에서 廣川으로 이동하다가 晩項峠 경유 元卜洞에 증원하려던 敵 1개대대를 공격하여 晩項峠로 격퇴시키고 廣川으로 이동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연대 선두 공격부대가 이렇게 진격하고 있을 무렵 이날 13.45에 제3군단장 劉

載興 소장은 首都사단장 宋堯讚 준장에게 제1기갑연대로 하여금 당일내로 東沙里 방면에 진출시키라는 要旨 다음과 같은 電文 명령을 下達하였다。

『① 今日 10.00현재 제7사단 정면의 敵 약 300명은 馬坪里와 巨文里, 新基里에서 제5연대와 교전중이며 南方으로 진출할 기세를 보이고 있음。此敵은 北共軍 제27사단 제7연대 및 제32연대임。

② 제5연대는 △1,039, △825로부터 博芝山 線에서 交戰中이며 제3연대 제2대대는今朝 08.45에 大和를 출발하여 白作洞에 진출중임。

③ 貴師團은 如何한 困難이 있을지라도 이를 克服하여 今日內로 東沙里까지 진출하여야 함。』

이와같이 군단장 劉載興 소장은 下珍富里 東쪽 6km 巨文里 일대에서 예하 제7사단과 교전하고 있는 敵 제27사단 주력을 擊破할 目的으로 敵 後方 깊숙히 東沙里를 차단키 위하여서는 首都사단의 공격이 時急하다고 判斷한 결과 前記한 바와 같은 電文을 下達하게 된 것이다。사단장은 군단장의 作戰方策을 알아차리고 이와같은 상황을 연대장에게 지시하는 동시에 積雪로 인한 補給推進上의 隘路打開를 군단장에게 건의하였던 바 군단장은 제1기갑연대의 보급에 관하여 萬不得으로 必要한 경우에는 空中 보급을 敢行할 것이라고 打電하였으니 이는 作戰遂行上 필요하면 補給上의 一時困境을 克服하여서라도 所期의 作戰目的을 達成하려는 군단장의 굳은 決意로서의 大膽一策이었으리라。한편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 대령은 이와같은 일련의 緊迫한 상황을 판단하였으나 이날까지 東沙里 진출은 하지 못하고 21.00에 이미 下達한바 있는 연대작명 제8호를 사단장命에 의거 修正하고 부대를 신속히 집중적으로 운용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즉 제1대대의 공격 목표를 △833.4—東沙峠—東沙里등 3개로 定하고 제2대대의 공격 목표를 下珍富里— 東沙峠—東沙里등 3개로 定하였으며 또 제3대대는 다음날 04.00까지 龍山洞의 현 진지를 제26연대와 교대한 다음 月精洞에 집결하여 공격 梯隊로 가담토록 하고 그간의 상황을 감안하여 총 공격개시 시간을 3월 2일 09.00로 決定하는 등 연대공격 목표인 東沙里의 점령을 위하여 공격부대의 변경 및 공격목표의 재조정 등을 내용으로 한 연대작명 제8호를 전면 修正하여 작명 제8호의 1호를 하달하였다。

그런데 이날 24.00현재 기갑연대의 배치상황은 다음과 같다。

제1대대 ＯＰ—九石洞

제1중대—△762—皮木亭 間

제2중대—九石洞

제4중대—九石洞

제3중대—無名高地—△762間

제2대대 OP—무명고지

제5중대—廣川—무명고지間

제6중대—虎鳴里—神多洞間

제7중대—機台洞—南作洞間

제3대대 OP—무명고지

대대주력—무명고지—龍山洞間

일부 大關嶺 일대의 제설작업중

이상과 같은 진지에서 제1기갑연대의 각 대대는 수정명령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戰列을 가다듬고 일부는 진지를 교대하고 지시된 집결지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단에 배속되어 있던 제10포병대대(장, 李奎三 중령)는 지휘소를 江陵에 설치하고 이미 제1기갑연대와 같이 車項里에 진출하여 있던 포병 제3중대가 기갑연대의 下珍富里 공격을 직접 지원하기 위하여 이날 車項里로부터 廣川(車項里와下珍富里 中間 楡川里 東쪽1.5km)에 이동하여 砲陣地를 점령하고 지원 사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편 제26연대(장, 徐廷哲 대령)는 사단작명 제125호에 의하여 제1기갑연대의 공격을 적극 엄호하고 이미 점령하고 있던 제1기갑연대의 진지를 교대하기 위한 부대 이동을 단행하였다。 즉 전날인 2월 28일에 연대 지휘소를 邱山里(大關嶺 東麓)에서 大關嶺을 넘어 橫溪里(大關嶺 西쪽 入口)로 躍進 설치한 바 있었는데 이날 제3대대는 大關嶺의 東麓에 있는 金山里에서 전날 밤부터 출발하여 徹夜의 強行軍으로써 이날 未明에 楡川里(月精洞 東쪽)에 진출하여 제1기갑연대 제1대대와 그 진지를 교대한 다음 04.30에 병력배치를 완료하고 진지를 구축중이었다。즉 右側에서부터 제9, 제10, 제11중대 순으로 配備하고 있었는데 제9중대와 제10중대는 月精洞에서 皮木亭—虎鳴里에 이르는 도로변에 제11중대는 西쪽 虎鳴里에서 屛頭마을 北쪽 무명고지 일대에 진지를 점령하고 사격호 및 개인 엄폐호를 구축하여 진지를 강화하고 있었다。이날 21.00에 이르러 下珍富里 및 그 東쪽 晩項峠(늦목재) 부근의 敵이 약 2개중대 규모의 병력으로 合流하여 제3대대(장, 具泰益 소령)의 左側을 담당하고 있던 제10, 제11중대의 전면인 虎鳴里 일대에 대한 夜襲을 試圖하였으나 제10중대의 제1소대장 金判山 소위가 지휘하는 소대전원이 이미 견고하게 구축된 진

지에서 先制射擊으로 集中火力을 加하자 敵은 많은 시체를 遺棄한 채로 夜暗을 이용하여 潰走하고 말았다。이때 晩項峠(下珍富里 東쪽 5km)에서 屛風山과 虎鳴里 부근에 나타난 敵은 400~500명으로 추산되었고 下珍富里 부근에서 虎鳴里 방향으로 나타난 敵은 300여 명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포병 제1중대는 當 연대를 지원차 邱山里로부터 大關嶺을 넘어 車項里로 이동하고 있었다。

또한 이날 사단의 東海岸 정면에서 작전중인 제1연대(장, 韓 信 대령)는 盧洞(注文津 西쪽 4km)에 연대지휘소를 개설중이었고 각 대대는 盧洞—沙器幕里—石橋里 일대의 진지를 점령하여 仁邱里 부근에 집결중인 것으로 판단되는 敵 제24연대(敵 제69여단의 改稱인 듯) 제3, 제5, 제6대대의 약 2,000명의 敵과 서로 對峙하면서 진지를 강화하고 있었다。그러니까 이 제1연대만으로서 東海岸의 注文津 南쪽에서 連谷川 南岸의 戰線을 專擔하고 있었으며 또한 연대가 제1기갑연대의 下珍富里, 東沙里 전투와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東海岸 방어와 사단 全戰線의 均衡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東海岸 지구의 敵은 UN海軍의 艦砲사격으로 인하여 이 方面에서의 양호한 接近路를 이용하지 못한채로 주로 산악속으로 들어가 유격활동을 전개하려는 듯 하였다。

그리고 사단에 배속되어 있던 제10포병대대의 제2중대가 芮洞里에 포병진지를 점령하고 基準點 사격을 실시하며 제1연대를 직접 지원하고 있었다。

이날 군단에서의 3·1절 記念式에서 군단장 劉載興 소장은 예하 장병의 정신무장과 새로운 각오, 그리고 士氣振作을 위하여 要旨 다음과 같은 훈시를 하였다。

『오늘은 諸官들이 잘 알다시피 3·1절이다。지금으로부터 33년전 己未年 오늘 武器없는 우리의 先烈들은 日帝의 虐政을 물리치고 겨레의 자유를 위하여 맨주먹으로 투쟁한 날이다。그 당시는 日帝의 銃劍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는데 오늘날은 그 때와 달라서 20만의 國軍이 있고 또한 우리 國軍은 날로 精強하여지고 있다。諸官들의 하루 하루가 다 共 오랑캐와 民族叛逆者들을 擊滅키 위한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우리는 수백만의 오랑캐나 수천만의 스탈린 走狗가 침범하여 온다 하여도 先烈의 위대한 정신을 받들어 國土의 영원한 번영과 자손만대의 榮光을 위하여 최후까지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또한 우리는 友邦의 힘만 依賴치 말고 友邦國家의 軍人보다도 더욱 용감하게 싸워야 한다。우리에게는 오직 前進이 있을 따름이다。후퇴는 결코 없다。자손만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疆土를 우리 손으로 奪還하여 놓아야만 한다。本人은 우리 全將兵이 가장 씩씩한 정신을

가지고 있음을 잘 안다。이제 決戰 단계에 있어서 敵을 맞이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 이길 것을 諸官들과 함께 盟誓하는 바이다。』

3월 2일 :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 대령)는 전날 22.00에 수정한 연대작명 제8호의 제1호에 의하여 이날 未明부터 下珍富里—東沙里附近의 一帶 공격을 위한 LD線上(北쪽에서 南쪽으로 億斗洞—九石洞—屛洞—屛頭山을 連하는 線)의 공격준비를 완료하고 그밖의 모든 戰列을 가다듬은 다음 계획된대로 이날 09.00에 LD線을 통과하여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 무렵 敵 유격대는 下珍富里 南쪽 巨文里 일대에 배치되어 있는 敵 1개연대의 主力을 我軍의 포위공격으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하여 제1기갑연대 전면에서 강력한 抵抗을 企圖하고 있었다。

제1대대(장, 朴京虎 소령)는 연대 右一線 공격제대로서 연대작명 제8호의 1호에 명시된 대대목표 ① (九石洞 西쪽 4km 763 및 △833 일대)과 계속하여 목표 ③ (東沙峠) 및 연대 최종목표인 東沙里를 공격 점령하기 위하여 이날 08.00부터 月精洞 西쪽 진지에서 행동을 개시하여 九石洞 후방 高地의 LD를 09.00에 통과한 다음 그 西쪽 加佑洞에서 敵 350명과 교전끝에 이를 격퇴하고 △870를 점령하였다。연대 중앙 정면을 돌파하고 北上하는 제2대대의 엄호아래 계속하여 17.00에 △833까지 전진한 대대는 그 일대에서 진지를 점령 강화하여 야간경계에 임하는 한편 다음 날의 공격을 준비하였다。

제2대대(장, 朴錫均 소령)는 이날 06.00부터 漢川에서 北上하여 08.30에 月精洞에 진출한 다음 제1대대와 協調를 완료하고 09.00에 LD線을 통과하여 下珍富里를 공격하기에 앞서 우선 △676(皮木峯 西쪽 1km)를 점령한 다음 이미 개울(川)을 따라 分進한 제7중대와 合勢한 다음 14.00에는 下珍富里에 돌입 17.00에는 그 北쪽에 있는 △764에서 敵 제2사단 제4연대 소속 1개대대 규모의 병력을 격퇴하는데 成功하였다。

이때 대대 첨병중대로 挺進하던 제7중대가 敵과 접촉하여 교전중 진황이 불리하여 前進이 如意치 못할 때에 제5중대가 신속히 증원하여 30분만에 敵을 격퇴하기도 하였다。이 공격과 동시에 제6중대가 下珍富里 東쪽 入口에 진출하였을 때에 사과밭 부근 高地에서 敵의 심한 사격을 받았으나 제5중대가 역시 치열한 사격으로 엄호하여 敵을 마침내 격퇴하였으며 敵 10명을 사살하고 2명을 포로로 하였으며 계속하여 제5, 제6의 兩중대가 一線一占으로 어려高地를 逐次로 점령하면서 약진하였다。

이와같이 공격을 계속한 제2대대는 東沙里 부근 공격을 계속하였는데 이때 敵勢가 증

강되자 統空支援을 요청한 결과 잠시후에 출격편대가 상공에 이르자 대대에서는 敵 목표에 대하여 박격포의 白燐연막탄으로 敵陣을 알리게 되니 폭격편대는 목표에 네이팜탄과 Rocket砲 그리고 기총소사 등으로 敵陣을 크게 震動시켜 놓았다。이 순간을 이용하여 제5, 제6중대는 재빨리 敵陣가까이 접근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爆擊이 끝나자마자 즉시 60mm박격포, 3.5"Rocket砲 그리고 소총화력을 集中하면서 돌격을 敢行한 끝에 東沙峠 부근의 敵陣을 점령하고야 말았다。

이때 高地의 모든 有蓋壕에는 군데군데 숯불을 피워놓았다。이당시 積雪로 인한 大關嶺의 교통杜絶로 보급 수송이 되지 않았으며 가장 時急한 것이 식량과 실탄의 追送問題였다。이날 밤에 이르자 각 중대장은 다음 날의 공격을 위하여 야간 경계배치와 敵 예상 접근로에 중점적인 潛伏哨를 세운다음 일부병력은 山間 火田民家의 빈 집에서 교대로 휴식을 취하고 일부 병력은 山家의 잡곡을 이용하여 주식조달에 힘쓰는 형편이었다。(제5중대장 朴昌遂 중위 증언)

이와같이 하여 이날 21.00에는 東沙峠 까지 진격하여 그 일대를 점령 확보하고 즉시 四周방어에 들어갔다。

제3대대(장, 林親默 소령)는 龍山洞에서 제26연대 제3대대(장, 具泰益 소령)와 이날 04.00까지 진지를 교대하고 月精洞으로 집결하기 위하여 진출하다가 06.00에 元下洞에서 수 미상의 敵을 발견하자 1시간여에 걸친 공격끝에 月精洞까지 진출하였으며 예정보다 좀 늦은 11.00에 九石洞에서 LD를 통과 전진함으로써 앞서 공격한 연대 주력과 함께 全연대가 모두 공격梯隊에 加擔되게 되었다。대대는 연대 중앙 정면을 돌파하기 위하여 加佰洞 후방고지를 경유 18.00에 △797까지 진출한 然後에 여기를 확보하고 제2대대의 東沙峠 공격을 엄호하였다。

이날 LD통과 이후 연대는 東沙峠까지의 공격전투에 있어서 敵 사살 32명, 포로 5명, 다발총 3정 同실탄 450발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로써 연대는 계획된 목표 ① (下珍富里 北쪽 3km), ② (下珍富里) 및 ③ (東沙峠)을 모두 점령하고 최종목표인 東沙里를 공격하기 위해 東沙峠 부근 일대에서 진지를 강화하는 한편 다음날의 공격을 위한 확고한 전술적 기반을 造成하였다。이때 연대를 지원한 포병 제3중대는 廣川으로 부터 中項里로 이동하여 M48탄 45발의 사격을 실시하였다。

이와 반면에 이날 22.00에 이르러 연대 후방에는 五臺山 방면으로부터 南下한 敵 2,000명 규모의 兵力은 月精寺 일대에 배치된 사단 수색중대를 夜襲하였으므로 수색중대가 百

日洞—百日坪 방면으로 진지를 後退하자 敵은 계속 이를 따라 南下하여 제26연대 제3대대 진지 부근인 △967(百日坪과 檢川里 中間)까지 진출하고 車項里—檢川里間을 차단하였으며 일부 병력은 屛頭山 일대에서 北上(방향 未詳)한 敵과 合流하여 제26연대 檢川里 방어진지를 압박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제26연대는 제1기갑연대의 공격을 위한 진지교대를 끝마친 다음 그 南東側方(晩項里(늦목재) 일대의 敵을 격퇴키로 하고 이날 04.00까지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였다。 즉 제3대대(장, 具泰益 소령)는 龍山洞 일대에서 제1기갑연대 제3대대와 진지를 교대한 다음 俗稱피대골(늦목재 北쪽 2km)의 △1082(제 9, 10중대)와 屛頭山(제11중대) 일대에서 각각 敵 1개중대 규모의 병력을 目擊하자 곧 重火器中隊의 박격포 근접지원 아래 이를 격퇴하여 그 일대에 진지를 점령하였으나 午後가 되자 百日坪(檢川里 北쪽 4km) 부근에서 敵 火力이 증가되어 만약의 경우에는 敵의 夜襲으로 선두 공격제대인 제1기갑연대의 後方이 차단될 우려가 있으므로 16.30에 현 진지에서 檢川里로 撤收하여 四周防禦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곳을 通하고 있는 京江도로를 중심으로 제9중대가 東쪽에 제10중대가 南쪽에, 제11중대가 北西쪽에 각각 진지를 점령하였는데 21.30에 이르러 제10중대 정면에서 400여명 규모의 敵의 夜間攻擊이 있었으나 檢川里 도로변에 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重火器 중대의 집중 화력으로 敵은 皮木亭 방면으로 흩어져 潰走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 北西쪽에 있는 제10중대 정면인 百日坪 부근에도 약 300여명의 敵이 그리고 北쪽의 제9중대 정면에는 晩項里에서 東北쪽으로 迂回한 敵 약 500여명의 일부 병력이 대대진지의 南·東·北면으로 侵襲하였으므로 대대의 각 중대는 치열한 사격을 가하여 彼我간 격전이 전개되었고 다음날 새벽 04.00까지 계속되었다。 이때 彼我 구별이 곤란할 정도로 서로 접근하여 惡戰苦鬪끝에 날이 새기까지 混戰과 육박전을 계속하였으며 我軍은 일시 분산상태에까지 이르렀다가 다음날 08.00에 敵을 격퇴시키고야 말았다。 이 敵은 檢川里를 거쳐 그 北쪽 3km인 間坪里 방면으로 潰走하고 대대는 일부 분산된 병력을 再수습하여 車項里 연대지휘소로 집결하였다。 이 전투에서 敵은 도합 275명이 사살되고 장교(대위) 1명을 포로로 하였으며 체코식 경기 1정과 다발총 5정, 장총 2정, 기관총 1정, 수류탄 50발과 각종 실탄을 노획하였는데 그 밖에도 戰果가 많았으나 戰線의 混亂으로 자세하게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와함께 본 전투에서 대대의 손실로는 전사 126명(장교 1명 포함)과 부상 17명 그리고 실종 41명(장교 1명 포함)이었고 M_1소총 29정, 칼빙소총 8정, BAR 2정, 3.5″

Rocket砲 1문 등을 忘失하였음은 중과부적의 치열한 전투양상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이 제26연대의 楡川里 철수는 東沙里를 공격하고 있는 제1기갑연대의 후방이 차단된 결과가 되어 선두 공격부대가 敵陣에 고립된 결과를 초래하였고 사단작전에 큰 차질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런데 이에 앞서 大關嶺 일대에는 계속 降雪中이어서 후방에 위치하던 제26연대 일부 병력과 사단공병대가 除雪작업을 계속 強行하여 보급로 개통에 盡力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 이날 16.00에 사단장은 군단장에게 다음과 같은 電文을 발송하여 이에 대한 措置를 기다리게 되었다。

『① 大關嶺은 積雪로 인하여 道路가 차단되었음。

② 사단공병대와 제26연대 일부 병력으로서 除雪作業을 계속중이나 3월 4일 이내로는 완전開通이 不可能함。

③ 제1기갑연대와 제26연대는 보급이 杜絶되었으며 明 3일 오전중으로 공중 보급을 실시하지 못하면 兩個연대는 후방으로 철수 불가피함。』

3월 3일 :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 대령)는 전날 점령한 진지에서 각 대대가 東沙峠—東沙里의 敵을 공격하기 위하여 이날 未明부터 우선 東沙峠 공격부터 企圖하였으나 敵은 야간을 이용하여 東沙峠를 中心으로 한 北—西—南의 三방면과 제26연대 제3대대의 진지였던 楡川里 부근까지 침투하여 四周包圍의 形勢로 전개하였다。 이것은 전날 연대의 공격으로 潰走하였던 敵이 徹夜로 증강된 것인데 연대 정면인 東沙里 부근에는 敵 제2사단의 主力 1,000여명이 반격을 준비하고 연대 西北쪽인 △937(德斗洞 西쪽 3km) 부근에도 1,000여명이 연대 南側方인 사오개(東沙峠 南쪽 2.5km) 부근에서 1개대대 규모의 敵이 그리고 연대 東南 후방인 內新基(下珍富里 東南쪽 5km) 부근에서도 敵 제15사단 主力이 北上 출현하고 또 北쪽에서는 敵 제2사단의 증원부대가 北漢江의 細川을 따라 南下하는 등 四面으로 부터의 合擊態勢가 농후하였다。 더우기 연대 後側方은 제26연대 제3대대의 龍山洞—晩項峠부근의 진지 이동으로 거의無防備의 空間상태를 나타내고 있었다。(首都師 포병전투상보 敵情에는 坪村 1,600명. 장군바위 2,500명. 內新基 200명. 음점골 3,000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敵의 團隊號는 제2군단의 제2, 제7사단 및 제24연대로 그 兵力이 도합 6,000명임)

이와같은 戰況속에서 제1기갑연대의 3개대대는 東沙里부근에서 그 일대의 敵 제2사단 제4, 제6연대의 主力 1,300 명과 전날에 이어 5次에 달한 攻防戰을 전개하였으며 그뒤에

연대는 현 진지에서 該敵을 격퇴하고 四周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局部的으로 逆攻勢을 계속하고 있었다。

즉 下珍富里와 東沙里 중간지점인 도로 西南쪽에 배치되었던 제2대대는 이날 未明 全대대병력이 진지를 강화하고 있었는데 그 後方에 위치하고 있는 대대지휘소 방향에서 요란한 총성과 수류탄 터지는 소리가 밤의 靜寂을 깨뜨렸다。이 순간 前까지도 제5중대장 朴昌燮 중위는 대대지휘소와 有線연락을 취한 바 있었는데 총성이 터진 이후 有無線이 통하지 않게되자 그는 대대본부가 夜襲당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각 소대의 연락병 및 중대지휘소 요원을 高地로 올려보내면서 인접 제7중대장과 같이 신속한 급편방어진지를 편성한 다음 이를 강화하고 상황을 注視하게 되었다。그때 중대 정면과 側方에서도 敵인지 我軍인지 분간할 수 없는 수십명의 병력이 중대진지로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자 곧 前後左右로 철저한 응전태세를 갖춤과 동시에 사격명령을 하달하였다。이때 제7중대장은 유탄에 손을 맞아 지휘가 곤란하여지게 되자 제5중대장이 통합 지휘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치열한 근접전이 전개되었다。제3소대장 田순구 소위가 陣頭指揮하다가 戰死하자 곧 선임하사 金운재 상사가 M_2를 가지고 敵陣에 뛰어들어 10여명을 사살하고 그 또한 戰死하였다。이와 동시에 제2대대의 全지역과 인접 제1대대의 陣地에서도 敵의 공격이 加熱되고 앞뒤의 敵이 연대 지휘소까지 포위하게 되었으므로 四面에서 敵의 侵襲을 받게된 것이다。이무렵 대대지휘소에서는 侵襲한 敵을 격퇴하고 무전으로 연대지휘소와 연락중이었고 다시 각 중대에서도 연락망을 개설함과 동시에 현 진지에서 敵과 寸步도 양보 없는 격열한 사격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사단 前方 東沙里 부근의 제1기갑연대 상황이 이와같이 急變하자 사단장은 同연대의 철수를 결심하고 이날 江陵지휘소에서 다음과 같은 要旨의 사단 작전지시 제106호를 電文으로 하달하였다。

『① 제26연대장은 1개대대로서 즉시 檢川里 방면을 공격 전진하여 그 前方에 고립된 제1기갑연대와 연결하라。

② 제1기갑연대장은 周圍의 敵을 격파하면서 檢川里 방면으로 철수하여 제26연대와 연결하라。

③ 사단 수색중대는 계속 間坪里 일대를 사수하여 제1기갑연대의 철수를 엄호하라。

④ 제9사단의 제29연대가 橫溪里 부근으로 증원될 것이다。』

이와같이 사단장이 제1기갑연대의 孤立 被包圍에 대한 措置를 강구하자 연대장 金東洙

대령은 下珍富里 北쪽 2km의 △797에까지 躍進하여 開設한 연대 전방지휘소에서 연대의 철수를 결심하고 연대 집결지를 楡川里 北쪽 △965로 한다는 要旨의 다음과 같은 연대작명 제9호를 예하 각 대에 하달하기에 이르렀다。

『一. (가) 敵 제2사단 제6연대는 속 3일 03.00를 期하여 일제공격을 감행하고 있음。

(나) 晩頃東一元卜洞 西方高地에 위치하던 敵 제6연대 일부병력은 제26연대 병력 배치의 간적을 이용하여 廣川 방면에 進入, 我 보급로를 차단하는 동시에 제26연대 방어선을 압축하고 있으며 同 연대는 속朝 07.00를 기하여 楡川里를 공격하고 있다 함。

二. 연대는 사단 命에 의하여 부득이 현 방어선을 포기하고 楡川里線에 진출 제26연대의 공격을 용이케 하려함。

연대 집결지 △965(D S 660, 708) 부근

撤收엄호부대 A線 제 1 대대 / B線 제 2 대대 / C線 제 3 대대 } 別紙 투명도 참조

三. (가) 제1대대장은 현 진지를 연대주력이 B線 통과시까지 사수하라。非戰鬪員은 제3대대 후방과 같이 철수하라。

(나) 제2대대장은 즉시 행동개시 제3대대 右側面을 통과 C線에서 연대주력 철수를 엄호하라。

(다) 제3대대장은 현 진지로부터 B線의 敵을 공격 연대주력 철수로를 開通하는 동시에 主力 철수를 엄호하라。』

이상과 같은 명령을 받은 제1가감연대 각 대대는 현 진지에서 행동을 개시하여 철수를 시작하였는데 제1대대(장, 朴京浣 소령)의 엄호아래 제2대대(장, 朴翊均 소령)가 A線(△883—△797 일대)을 향하여 이동하고 急編 收容陣地를 편성하여 연대주력의 철수를 엄호하였다。또 제3대대(장, 林觀默 소령)은 敵의 공격에 대해 신속기민한 부대 운용으로서 敵을 격퇴하고 위기를 극복한 바 있었다。이와함께 同 대대는 B線(△870—△676 일대)을 향하여 이동하였으나 敵은 계속 증강되었고 특히 제26연대 및 제7사단의 공격 前進의 지연으로 인하여 연대는 일시 포위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그러다가 16.00에 이르러 제1대대는 △803.6로부터 무명고지 일대에 진출하고 제2대대는 무명고지로부터 △763.8 일대를 경유하여 下珍富里에 진출하였다。이렇게 유기적인 엄호아래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있었지만 제2대대는 중과부적으로 집중공격을 받아 고전을 겪게 되었던 바 제5중

대장은 통합지휘하게 된 제7중대의 병력을 이끌고 제1, 제2 포위망을 뚫고 세번째 포위망을 치열하게 싸워서 突破한 다음 안전지대로 이동하였다。(朴昌燦 중위 증언) 제3대대는 加佑洞을 향하여 철수하였으나 그후 敵의 압력이 심하여지고 더우기 夜間에 이르러 彼我의 식별이 곤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全 연대는 有機的인 엄호, 收容부대의 奮鬪로 月精洞까지 진지를 이동하고 月精洞 앞 개천을 통과하여 다음날 02.00에 廣川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이날 연대는 이와같이 戰況의 불리에도 불구하고 진지 이동의 초기에서부터 엄호작전에 이르기까지 침입한 敵을 공격한 결과 敵 사살 300명의 전과를 올린바 있었다。

그러나 연대도 장교 5명, 사병 54명의 戰死者와 부상장교 2명, 부상사병 117명의 손실을 보게 되었으며 망실 장비로는 81mm 박격포 11문, 60mm박격포 18문, 3.5″ Rocket 포 10문, LMG 7문, BAR 54정, M1 303정, 칼빙 775정, 小銃 12정의 손실과 장교 15명, 사병 785명이 실종되었는데 이 실종 將, 士兵은 대부분 다음날 原隊로 復歸하였다。(제1기갑연대 전투 상보 참조) 이로써 미루어 보더라도 이 전투가 얼마나 치열한 근접전이었던가를 알 수 있다。

한편 제26연대 제3대대(장, 具泰益 소령)는 전날 밤 제1기갑연대의 後側方인 屛頭里—龍山里 부근에서 檢川里로 이동하여 진지를 점령한 다음 四周방어를 하고 있다가 이날 새벽 04.30까지 치열한 사격전을 전개하였다。그 뒤에 未明을 틈타서 侵襲한 敵이 間坪里 방면으로 潰走함과 더불어 대대는 前方 제1기갑연대와의 連繫를 維持하지 못한채로 檢川里에서 亞項里로 이동하게 되었다。

한편 제1군단(장, 金白一 준장)은 陸本작전계획 제21호에 의하여 中部戰線으로부터 東部戰線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이날 08.00에 제1군단 지휘소인 務道里(忠北)에서 江陵으로 轉進하기 위하여 榮州—春陽을 경유할 예정이었으나 도중 敵 유격대의 출몰로 그 계획을 변경하고 榮州—安東을 거쳐 三陟에 진출한 다음 東海岸 道路를 따라 江陵으로 이동하려 하였다。(이 군단은 3월 6일에 江陵에 進出하여 그 지휘소를 江陵 재판소에 開設하였다。)

3월 4일 : 이날 제1기갑연대 主力은 전날 밤부터의 철수작전으로 일시 士氣가 떨어졌으나 날이 밝자 다시 勇戰奮鬪를 계속하여 敵을 견제해 가면서 진지를 축차적으로 전환하고 있었다。特히 이날 拂曉의 混戰속에 제1대대 제1중대장 郭응철 중위는 敵과의 근접육박전을 전개하다가 다리에 貫通傷을 입고 지휘가 곤란하게 되자 지휘를 제5중대장에게

인계하고 제2대대 軍醫官 李봉열 중위에게 응급치료를 받은 다음 부축을 받으며 本隊를 따라 행동하고 있었다。뒤 따르던 제2대대 제5중대(장, 朴昌燮 중위)가 이 제1중대를 통합 지휘하여 약 200여명을 이끌고 下珍富里 南쪽에까지 이른 다음 여기에서 上珍富里 쪽으로 곧장 가느냐 아니면 下珍富里 벌판을 건너 東쪽으로 迂回하여 대대집결지로 가느냐를 생각하다가 前者의 경로인 上珍富里 쪽으로 진출하다가 敵情이 심하면 東쪽 능선을 택하여 나갈 것을 결심하고 이를 試圖해본 결과 敵情이 너무 頑強하므로 後者의 경로인 東쪽 우회경로를 뚫고 車項里 방면으로 이동하였다。중대원들이 敵情이 없는 곳에 이르렀을 때는 기진맥진한 상태이었고 눈 위에 쓰러져 있는 경우도 많았다。이때 산비탈을 내려오면서는 거의 미끄럼으로 내려왔고 民家에서 조밥을 먹고난 뒤 연대 CP가 있는 橫溪里 부근으로 行軍을 재촉 하였다。橫溪里못미쳐 民家에서 숙영하고 그 다음날 제26연대 수색대가 배치되어 있는 곳에 진출한 다음 연대 집결지가 40km 남은 것을 알고 행군을 계속한 결과 무사히 연대 집결지까지 진출하였다。

이때 수색중대장 제8중대장 등이 전사하고 심지어 연대장까지 동상에 걸려 있었으며 당시에 일시 분산된 병력이 속속 부대집결지로 집결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제1기갑연대는 이날 24.00 현재 全 主力이 俗稱가사머리(袈裟頭, 大關嶺 西쪽 入口, 橫溪里 東쪽 4km)에 거의 집결하였는데 이때 집결된 인원은 1,150명이었다。

한편 제26연대도 이날 04.00에 楡川里 부근에서 分散상태에 이르러 車項里로 제1기갑연대보다 먼저 이동하였다가 다시 楡川 쪽으로 증원하였으나 그 공격속도가 부진하여 제1기갑연대의 주력과 연계를 짓지못하고 橫溪里부근으로 다시 철수하게 되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敵의 動向 : 敵 제2사단 및 제27사단 主力이 平昌—大和線에서 제3군단의 反擊에 의하여 退却하는 途中에 京仁道路上의 東沙里—下珍富里 일대에 집결코자 할 때에 제1기갑연대의 그 後方遮斷作戰은 可히 緊要한 것이었다。그러나 그 攻勢初動에 있어서는 成功的이었지만 3월 3일 이후 그간 消散과 合流를 반복한 敵 제2군단 主力의 逆襲으로 사단은 東沙里를 점령하지 못한채로 衆寡不敵으로 그 陣地를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이 일대에는 敵 제2사단이 東沙里에서 再編하고 增援을 받아 組織的인 反擊을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敵 제2사단이 五台山 方面에서 我軍의 後側方을 向해 南段하였고 또한 新基里 發旺山 일대에서 北上한 團隊號未詳의 敵이 我軍의 東南側方을 遮斷하려 하였다。그러나 東沙里 攻擊部隊인 제

1기갑연대의 신속한 상황처리로 部隊를 그 後方으로 撤收하게 되자, 敵 제2군단 소속 上記部隊들은 더이상 反擊을 못한채 東沙里附近에 엄호부대를 殘置하면서 主力은 38°線附近으로 일단 後退하여 部隊를 再整理할 것으로 보였다。 이는 그들이 退却하는 途中에 東沙里에서 一時 侵襲한 바 있었지만 그들의 완전한 再編을 위해서는 安全地帶로 그 主力을 빼내어 그간 혼란된 지휘체제와 함께 시간적인 여유를 얻어 戰列를 강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였다。 이는 3월 5일 제26연대 수색대가 該敵들에 끌려 使役中에 탈출한 民間人 一名으로부터 얻은 提報대로「億斗洞에서 人民軍의 患者 800명을 塔洞里 방면으로 後送시키고 일부병력도 이동한 것을 목격했다」라는 내용에서도 알수 있었으며 특히 敵들은 冬傷과 食糧 및 補給不足으로 士氣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다。

한편 사단 正北쪽 前方인 注文津 附近에는 敵 제69여단이 再編과 아울러(이 당시 情報報告에는 제24연대로 改稱한 것으로 나타남) 그 지휘소를 襄陽 南쪽 8km 지점인 末谷里에 두고 그 主力은 仁邱里—亭子里—魚城田里 線에서 防禦陣을 펴고 사단의 東海岸 追擊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보였다。

我軍의 動向：東沙里戰鬪가 끝나기 前後하여 사단전방지휘소는 계속 江陵에 開設하였고 攻擊梯隊이었던 제1기갑연대는 3월 4일 車項里에 집결하였다가 大關嶺—邱山洞을 경유 3월 5일과 6일 사이에 江陵에 모두 집결하였다。그리고 제26연대도 橫溪里에서 江陵으로 이동하여 部隊整備에 임하고 있었다。그리고 제1연대는 東沙里 전투에 참가하지 않은 채로 사단 北쪽인 蓮谷川의 南岸일대에서 陣地변동이 없이 계속 抵抗線을 확보하고 있었다。

한편 제1군단 지휘소가 江陵으로 躍進하여 開設됨과 아울러 師團은 그간 제3군단에 編入되어 작전임무를 수행하다가 다시 제1군단으로 復歸되고 이때에 제9사단, 제1, 제10경비대대도 함께 編入되었다。이어 제1군단장 金白一 소장은 3월 8일에 江陵지휘소에서 각 사단장 회의를 開催하고 그간의 모든 戰況을 검토 분석한 다음 此後作戰에의 對備策을 강구하였다。그리고 군단장 임석아래 제1기갑연대 제3대대장 林觀默 소령과 金鍾成 일등중사 外에 65명에게 공훈장이 수여되었는데 이들은 下珍富里 전투에서 敵의 포위기도를 꺾고 危機를 극복하여 부대철수를 용이하게 한 탓이었다。

그런데 사단에서는 제1기갑연대와 제26연대의 병력 장비보충을 포함한 부대戰力을 강화하는 한편 3월 9일附로 제1기갑연대장을 更迭하여 사단 작전참모였던 李 龍 중령을 신임연대장으로 就任토록 하였다。

戰 果

사살	306명
부상	15명
포로	3명
첵코식 輕機	1정
다발총	7정
M1	9정
칼빈	1정
蘇式소총	2정
기관총	1정
수류탄	50개

(以上 CVR, 26R 전투상보 종합)

損 失

제1기갑연대

전사	5/56명

부상	3/117명
신종	15/789명(8월복귀자 8/110명)
81mm박격포	11문
60mm 〃	18문
3.5"Rocket포	10문
BAR	54정
M_1	775정
CAR	303정

(제1기갑연대 전투상보)

제26연대

전사	1/125명
신종	1/40명
M1	29정
CAR	8정
BAR	2정
3.5"Rocket포	1문

(제26기갑연대전투상보)

§ 研　　究

제1기갑연대와 제26연대의 下珍富里—東沙里 공격은 失敗로 돌아가 많은 人員과 裝備의 손실을 보았는데 이 전투의 失敗原因을 몇가지 지적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敵情判斷錯誤와 軍團의 無理한 作戰。

敵 제2군단 主力이 平昌—大伯線에서 後退할 때 그 能力을 過小評價하였고 결정적으로 敵兵力判斷의 錯誤를 가지왔다。我軍과 敵과의 兵力差異가 현저하였고 그 例로 下珍富里 附近에 후퇴 집결해 있는 병력이 10,000여명으로 이는 我軍 1개연대의 3,000여명 병력과 비교해 볼때 그 3倍數에 달하고 있었다。

③ 隣接部隊와의 協同無理。

제7사단이 敵의 완강한 지연 작전으로 下珍富里에의 突入이 지연되어 제1기갑연대와의 協同작전이 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敵의 集中공격을 받게되었다。

② 補給推進狀態의 惡化。

天然障碍物인 險要의 大關嶺과 特히 積雪 및 惡化된 氣候로 因하여補給路가 遮斷됨으로서 攻擊部隊의 補給推進이 어려웠고 後續增援部隊를 運用하려 해도 많은 制約이 있었다。특히 實彈不足으로 砲兵의 同時集中砲擊이 계속될 수 없었다。

④ 通信의 杜絶。

攻擊部隊 後側方이 敵에게 遮斷 당하자 有線이 杜絶되고 또 敵에 의해 我軍의 無電이 盜聽되어 我軍의 企圖와 行動이 暴露되었다。

⑤ 豫備隊運用의 不撤底와 縱深陣地의 虛。

攻擊部隊와 豫備隊의 連繫가 維持되지 못하였다。그 例로 제1기갑연대 後方에 위치한 제26연대의 진지가 敵에게 侵襲되어 瓦解된 점이다。

그리고 이렇게 됨으로써 縱深陣地 및 後續部隊가 없게 되었고 攻擊部隊自體의 後側方에 대한 考慮도 거의 없었다。

⑥ 一線下級指揮官의 建議不徹。

下級指揮官의 戰況判斷에 의한 上部에의 建議가 충분히 참작되지 못한 점이다。그 例로 東沙峙—東沙里 공격에 있어 무리한 追擊戰을 계속케한 것이다。

7. 下珍富里附近 戰鬪 (1951년 3월 6일부터 1951년 3월 12일까지)

참조 : 작명부록 제189, 202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제 3 군단	장 소장	劉 載 興	제 3 대대	장 소령	尹 在 善
제 7 사단	장 준장	金 炯 一	제 8 연대	장 대령	李 賢 進
제 3 연대	장 대령	鄭 震	제 1 대대	장 소령	咸 炯 甲
제 1 대대	장 소령	朴 俊 鎬	제 2 대대	장 소령	金 弼 虎
제 2 대대	장 소령	李 再 起	제 3 대대	장 소령	朴 寬 榮
제 3 대대	장 소령	李 永 吉	배속부대		
제 5 연대	장 대령	金 仁 哲	포병제16대대	장 소령	金 聖
제 1 대대	장 소령	申 健 善	兵 力 : 13,000명		
제 2 대대	장 소령	趙 在 俊	裝 備 : 사단T/E에 銃砲93% 차량32%		

敵 軍

北共 제 2 군단	장 중장	崔 仁	北共 제27사단		
〃 제 2 사단	장 소장	崔 玄	〃	군단독립 제33연대장	
〃 제 9 사단	장 소장	朴 호 상			

나. 전투 전의 개황

보병 제7사단은 51년 1월 下旬에 寧越을 탈환한 다음 육본作命 제262호(참조 부록작명 제189호)에 의한 반격명령에 따르는 군단작전계획에 의하여 2月 初旬에 旌善—平昌간의 北쪽 高地로 進擊하였는데 敵은 同월 12~14일간에 全戰線에서 공격을 하였는바 사단은 이 지역에서 敵과 一進一退의 공방전을 거듭하던 끝에 이달 末日에는 이 敵을 擊退하고야 말았다。

이 당시 韓國軍은 東部戰線인 江陵—平昌간을 담당하였으며, 그 左側에 UN軍이 연결하여 原州—洪川—楊平—漢江南岸을 連한 西部戰線을 담당하였다。그리고 각각 戰列을 整理하고 있었는데 江陵原州線에는 아직도 敵이 平昌지역을 突出部로 形成하고 있어서 이 敵을 조속히 격퇴하고 東沙里(平

昌 北쪽 30km)—下珍富里線까지 進擊하는 것이 當面의 急務였다. 그런데 이 線을 連하여 陣地를 점령하고 있는 敵은 我軍의 進攻을 끝까지 阻止코자 안간힘을 쓰는듯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그 後方에서는 흩어진 부대를 재편성하는 한편 진지 強化에 全力을 다하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단이 담당한 戰線의 地形은 太白山脈이 西쪽으로 뻗은 高原地帶로서 특히 平昌에서 東海岸으로 通하는 唯一한 機動路(平昌—東沙里—江陵)의 兩側에 있는 峻險한 峻嶺은 白雪에 뒤덮여 彼我간의 기동에 제한을 줄 뿐 아니라 3월 初이지만 계속되는 추운날씨는 모든 作戰 行動에 至大한 영향을 주었다。

敵軍의 狀況：寧越—平昌지역에서 退却한 敵은 北共 제2군단(장, 중장 崔 仁)의 휘하 6개사단으로서 지난 2월 初旬까지 丹陽—寧越—平昌지역에서 사단 및 美제7사단으로부터 甚한 打擊을 받아 北共의 제19, 제31의 2개사단을 解體한 다음 제2, 제9, 제10, 제27의 4개사단을 재편성하고 2월 中旬에 平昌지역을 재차 侵攻하였다가 또 다시 많은 損失을 받고 大和 北쪽으로 潰走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旌善—平昌간의 北쪽에 있는 높은 山岳지대에 布陣하고 사단의 先頭부대가 下珍富里까지 進攻한 것을 後退케 하였는데 이 때에 北共의 제2사단(장, 소장 崔 玄)이 馬坪里(下珍富里 南쪽 7km)—博芝山(△1391)간을 점령하고 그 南쪽 5km에 있는 白石山(△1364)—文通洞지역에 경계부대를 배치하였으며, 또한 北共의 제9사단(장, 소장 朴호상)은 白積山(△1141)—龍田里지역을 장악하고 4km 南쪽에 있는 蠶頭山—古上谷(大和 北쪽 5km) 일대에 前哨線을 마련하고 있었다. 그리고 北共의 독립 제33연대는 長坪里(大和 北쪽 10km) 지역을, 제27사단은 下珍富里일대를 각각 점령하고 부대를 재편성하는 듯 하였으며, 군단지휘소는 柳洞里(平昌 西北쪽 30km)에 있었다. 이 당시 敵의 士氣는 비교적 低下된 편이었는데 그 까닭은 계속 敗退한 끝에 混合편성된 부대일뿐 아니라 탄약 및 食糧도 조달이 원만치 못한데 있다고 본다。

我軍의 狀況：제3군단은 예하의 제9사단이 橫溪里(江陵 西쪽 18km)에서 大基(旌善 北쪽 12km)간을, 그 左側에 제7사단이 大和까지 連한 線을 각각 확보하였으며, 군단의 右側에는 제1군단(장, 金白一소장)의 首都사단(장, 宋堯讚준장)이 江陵—大關嶺—橫溪里간을, 左側에는 美제10군단(장, Edward M. Almond 소장)의 美제7사단(장, Claude M. Ferenbaugh 소장)이 巨文山(大和 西쪽 3km)—장미山간을 각각 점령하고 敵과 對峙하였는데 이 때에 군단사령부는 寧越에 있었다. 그런데 제9사단(장, 李成佳 준장)은 육본作命 제263호(참조 작명부록 제222호)에 의하여 제1군단으로 배속이 변경되고, 美제10군단에 배속되었던 제3사단(장, 崔 錫 준장)이 51년 3월 5일 12.00부로 배속되었으므로 군단은 제7, 제3의 2개사단으로서 이 작전을 斷行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군단의 前線은 사실상 사단이 담당한 大基—大和간의 戰鬪正面으로서 右一線에 제5연대가 大基지역을, 左一線에 제3연대가 大和일대에, 그리고 제8연대는 예비대로 下安味里(平昌 北東쪽 11㎞) 부근을 각각 점령하였으며, 포병제16대대 및 사단사령부도 이곳에 있었다. 이에 앞서 사단은 3월 初에 旌善—平昌線에서 退却하는 敵을 追擊하여 예하 제3, 제5연대의 先頭부대는 道路와 溪谷을 따라 下珍富里지역까지 進攻하였으나 豫期치 않았던 敵은 博芝山과 白積山의 험준한 地勢를 이용하여 先頭부대의 後方을 차단할 目的으로 挾攻을 企圖하므로 不得已 지연작전을 펴면서 大基—大和를 連한 線으로 撤收하여 戰列을 가다듬고 반격을 준비하였다。

한편 美제5공군은 制空權을 계속 장악하면서 敵의 行軍隊列과 예상집결지역 및 보급소 등을 強打

하는 동시에 地上部隊에 대한 直接 支援을 계속하고 있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육본작명 제263호(참조 작명부록 제222호)에 의하면 제1, 제3군단은 51년 3월 6일 H시를 期하여공격을 개시하여 江陵—東沙里간의 作戰線을 조속히 확보하라는 것으로서 이에 따르는 군단작전계획으로 사단장은 當面한 사단의 임무를 分析한 결과 첫째로 이 線上의 作戰路를 확보하기 위한 사단의 공격 목표를 下珍富里와 東沙里지역으로 정하였으며, 둘째로 敵은 이 지역을 확보코자 白積山—兄弟峯간을 固守할 것이 예측되어 여기를 통제선으로 하고, 셋째로 사단의 主攻方向은 기동이 용이한 大和—東沙里—下珍富里로 通하는 道路를 이용토록 하며, 넷째로 主攻과 左隣接인 美제7사단의 進攻이 늦어질 것을 고려하여 예비연대는 主攻연대의 後續부대로 進出케 하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임무분석과 戰線을 담당한 兩연대의 戰鬪力을 감안하여 사단장 金炳一 준장은 要旨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① 사단은 51년 3월 6일 08.00에 2개연대의 併進으로 現 接觸線에서 北쪽으로 공격을 개시하여 下珍富里—東沙里지역을 점령 확보하려 한다。② 제3연대는 東沙里를 점령하라。③ 제5연대는 下珍富里를 占領하라。④ 제8연대는 제3연대에 後續 進擊하면서 사단의 左側方을 방호하라。⑤ 포병 제16대대는 前線 兩연대를 지원하라。 火力의 우선권을 제3연대에 指向한다。』 이러한 要旨의 명령에 따라 제3연대는 鑿頭山(△1241)과 白積山(△1141)을, 제5연대는 白石山(△1364) —博芝山(△1391)과 兄弟峯(△822)을 각각 最初 및 中間목표로 선정하고 공격을 준비하였다。

(2) 작전실시

3월 6일 : 사단은 이날 08.00에 사단作命 제95호(51. 3. 6)로 제5연대를 右一線에, 제3연대를 左一線으로 하여 일제히 현 接觸線인 大基—大和線을 突破한 다음 저항하는 敵을 分斷하면서 兩연대의 최초목표를 점령하고 다음날의 공격을 준비 하였다。

1. 제5연대(장, 金仁哲 대령)—接觸線인 大基 3km 北쪽에 있는 △1038—△1139에서 공격을 전개한 연대는 南漢江 上流의 한 支流가 下珍富里에서 연대 전투지대의 中央으로 흐르고 있으므로 이 江을 中心으로 제3대대를 東쪽에, 제1대대를 西쪽으로 展開한 2개대대로 進擊하다가 저항하던 2개중대 규모의 敵을 격퇴하고 최초목표인 博芝山—白石山을 점령하였다。 이 때에 제3대대(장, 尹在善 소령)는 △1038에서 北쪽으로 뻗은 稜線

을 따라 進擊하여 文通洞에서 저항하던 敵 1개소대의 兵力을 擊退하고 △1208를 점령한 다음 계속 進擊하던 중 前方 芝山에 占據한 1개 중대 규모의 敵과 교전이 전개되어 2시간에 걸친 치열한 전투끝에 이 山을 점령하였다. 또 제1대대(장, 申健善 소령)는 △1139에서 白石山을 向하여 공격을 시작하여 저항하는 1개중대 규모의 敵을 擊破하고 이 山을 점령한 다음 계속 4km 前方에 있는 △1039까지 進擊하여 다음날의 공격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제2대대(장, 趙在俊 소령)는 예비대로 大基에서 △1208로 進出하여 연대의 右側方과 後方을 경계하였으며, 연대장은 大基에 설치된 지휘소에서 全般을 지휘하였다. 이날 연대가 거둔 戰果는 捕虜 1명과 射殺 15명이었다.

2. 제3연대(장, 鄭 震 대령)는 上大和에서 공격을 시작하여 1개대대 규모의 敵을 擊破하고 最初 目標인 蠶頭山—△1019간을 점령하였는데 제1대대(장, 朴俊鎬 소령)는 前方 △887에 있던 경미한 敵을 격퇴하고 俗稱 샘터골을 거쳐 白作亭으로 진격하여 蠶頭山을 공격하였으나 敵은 2개 중대 규모의 兵力으로 여기에 깊은 散兵壕를 구축하고 執拗하게 저항하므로 대대장은 포병의 火力을 集中發揮토록 하면서 무려 3시간에 걸쳐 一進一退의 攻防戰을 거듭하던 끝에 16.00에 이 山을 점령하였다. 또한 제2대대(장, 李再起 소령)는 古土谷에서 저항하던 1개 중대 규모의 敵을 격퇴하고 여기를 점령한 다음 退却하는 敵을 急히 追擊하여 敵에게 對抗할 여유를 주지 않고 △1019에 突進하여 이 山을 占領하였으며, 예비대인 제3대대(장, 李永吉 소령)는 大和에서 白作亭으로 진격하여 연대의 後方을 경계하였고 연대본부도 다음 날의 공격을 위하여 白作亭으로 진출하였다. 이날 연대는 166명의 敵을 射殺하였으며, 戰死 8명과 戰傷者 37명의 손실을 보았다.

3. 제8연대(장, 李寶進 대령)—下安味里에서 大和로 진격한 다음에 主攻인 제3연대가 공격 前進함에 따라 사단의 左側方을 방호코자 제2대대(장, 金弼虎 소령)가 先頭대대로 古土谷에 진격하여 진지를 점령하였는데 前方 △111를 점령하고 있던 敵은 1개중대 규모로 侵攻하였으므로 이 敵과 1시간에 걸쳐 교전끝에 擊退시킨 다음에 이 지역을 수색한 결과 射殺된 敵의 屍體 25具를 발견하였고 多發銃 1挺과 手榴彈 40發을 鹵獲하였으나 대대도 戰死 4명과 戰傷者 6명의 損失을 보았다. 이 당시에 제1대대(장, 咸炳甲 소령)는 上光千으로 진출하였으며, 제3대대(장, 朴寬榮 소령)는 연대본부와 같이 上大和에 있었다.

4. 포병제16대대(장, 金 聖 소령)—前線 공격연대가 進擊함에 따라 간단없는 지원사격을 계속하면서 下安味里에서 大和로 진격하여 여기에 진지를 점령하고 敵陣地인 白積山—巨文里에 대한 制壓사격을 集中하였다.

그런데 이날 博芝山—白石山 一帶를 占領하였던 北共의 제2사단(장, 소장 崔 玄) 휘하의 主力은 兄弟峯—通盤岩(통진바우)의 △1213 일대에 布陣한 原所屬부대와 合勢하여 그 지역에서 진지를 구축하는듯 하였으며, 蠶頭山에서 退却한 敵은 白積山 後方으로 潛走하였다。이 당시 군단의 정보보고에 의하면 이 지역을 담당한 北共 제9사단(장, 소장 朴호상)의 主力은 白積山을 固守하기 위하여 東沙里에서 南下하고 있다는 것이며, 下珍富里에서 부대를 정비하던 北共의 제27사단은 兄弟峯과 博芝山쪽으로 南下 中이라 하므로 이 敵은 사단의 右側方을 공격할 企圖인 것으로 判斷되었다。

3월 7일 : 사단은 전날에 이어 공격을 계속하였으나 敵은 白積山과 長坪里(大和 北쪽 10km)일대에서 執拗하게 저항하는 한편 사단의 右側方인 博芝山 東쪽의 험준한 山岳과 제5연대의 전투지대에 있는 南漢江畔을 따라 大兵力으로 侵攻하였으므로 치열한 激戰을 展開한 끝에 전날에 점령한 博芝山의 防守가 危機에 놓여지게 되고 여기를 固守하는데 血戰을 다하였다。

1. 제5연대—이날 08.00에 공격을 계속하였는데 前面에 있는 兄弟峯과 △1213를 占據한 敵은 迫擊砲와 小火器의 사격을 亂射하며 완강히 저항하므로 연대장 金仁哲 대령은 射距離 관계로 포병 火力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예비대대의 81mm迫擊砲까지 前方으로 推進케 하여 제압사격을 集中하면서 進擊을 強行하였으나 敵은 오히려 2개연대 규모의 兵力을 增強하여 반격을 決行하므로 우선 이 敵을 阻止擊滅한 다음 진격토록 하였다。

이 때에 右一線인 제3대대는 博芝山에서 치열하게 激戰하는 동안에 敵은 이 山을 迂回하여 俗稱 모래재에서 대대의 後方에 있는 △1341에 侵攻하였으므로 포위상태에 놓이게 된 대대는 연대장 명령으로 15.00에 지연작전을 펴면서 大基로 撤收한 다음 부대를 점검하고 연대의 예비대로서 전날의 接觸線이었던 △1038—△1139간을 점령하였다。한편 제1대대는 △1039에서 前方에 있는 仁樂院—馬坪里지역의 敵과 격전을 계속하였는데 19.00에 이르러 전날에 投入된 北共 제27사단의 主力으로 看做되는 2,000명의 兵力이 南漢江畔을 따라 馬坪里로 侵攻하는 동시에 일부 병력은 博芝山을 넘어 阿峙谷(아치골)까지 侵攻하므로써 대대는 三面의 敵과 치열한 激戰을 持續하였으나 數的으로 劣勢하기 때문에 孤立無援 상태로, 점령하고 있는 △1039—△1014의 七部稜線 上層部를 固守하기만 하였다。이 때에 예비대인 제2대대는 △1208에서 제3대대의 撤收를 엄호한 다음 계속 侵攻하는 敵과 격전을 전개하면서 19.00에 阿峙谷에 侵透한 敵을 제1대대와 合同으로 擊退하였으나 北쪽의 △1341에서 侵攻한 敵은 그 兵力을 더욱 증강함으로서 전투는 더욱 苛

烈한 樣相으로 激化되었다。

2. 제3연대(장, 鄭 震 대령)의 제2대대는 이날 △1019에서 北쪽으로 뻗은 稜線과 일부병력은 右側面으로 하여 白積山(△1141)을 공격하였는데 이 山을 점령하였던 敵은 意外에도 激戰을 避하는듯 하였기 때문에 즉각 突進하여 이 山의 頂上을 점령하였다。그러나 이 때에 敵의 작전企圖는 많은 兵力으로 이 山의 上空을 점령하기만 하여도 다만 我軍의 砲火의 餘物이 될 것이므로 중대 규모의 병력으로 對抗케 하고 主力으로써 逆襲을 斷行하려는 듯이 判斷되었는데 夜陰이 되자 果然 1개연대 규모의 兵力으로 포격을 加하면서 左右側面에서 陣前出擊을 敢行하는 것이었다。대대는 이 敵과 1시간에 걸친 混戰亂鬪를 계속한 끝에 重圍를 突破하면서 지연작전으로 白作亭까지 겨우 撤收하였는데 장교 2명과 사병 88명의 失踪者를 내는 慘烈한 一戰이었다。한편 제1대대는 이날 제5연대 正面의 敵과 때를 같이하여 侵攻한 1개대대 규모의 敵과 靈頭山陣地에서 激戰을 展開하였는데 결국 敵은 대대의 威勢앞에 壓倒되어 巨文里로 敗走하였으며 대대는 이 敵을 白積山의 南東端까지 追擊한 다음 △973를 점령하고 前面의 敵과 對峙하던 중 23.00에 제2대대가 撤收하는 것을 엄호한 다음 계속 侵攻하는 敵을 격퇴하고 말았다。그리고 예비대인 제3대대는 계속 白作亭에서 부대를 정비하면서 後方을 경비하였다。

3. 제8연대(장, 李賢進 대령)의 제2대대는 전날에 점령한 古土谷에서 主攻인 제3연대가 白積山을 점령함에 따라 △1019로 진격하여 여기에 진지를 구축하여 미리 전투준비를 하고 있다가 白積山에서 撤收하는 제3연대의 제2대대를 엄호한 다음 이 대대의 後尾를 따라 侵攻하는 敵을 擊退하였다。한편 제1대대는 上光平에서 古土谷으로 진격하여 진지를 점령하였는데 18.00에 이르러 1개 중대 규모의 敵은 長坪里에서 道路와 △978를 따라 侵攻하였는바 山芝浦에 진격한 美제7사단의 제32연대(장, Charles M. Mount 대령)와 合同으로 이 敵을 물리쳤으며, 제3대대는 大和에서 계속 예비대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3월 8일 : 사단은 이날 一面 공격을 계속하는 동시에 一面으로는 戰列을 整備하였는데 사단장 金炯一 준장은 敵이 사단의 右側方으로 侵攻하는 것을 銳意 注視하면서도 下珍富里지역을 조속히 점령하여 敵의 退路를 차단하고 지역내에 敵을 모조리 擊滅할 決心으로 예비대인 제8연대를 投入함으로서 사단의 3개연대 全力으로서 戰線을 담당하고 激戰을 反復하였다。

1. 제8연대(장, 李賢進 대령)—예비대로서 사단의 左側方을 防護하다가 이날 사단장의 명령으로 공격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는데 07.20에 北共의 독립 제33연대는 長坪里(大

和 北쪽 10km)에서 侵攻하였으므로 제1대대(장, 咸利甲 소령)는 古土谷진지에서 포병의 지원사격을 받는 가운데 2시간에 걸친 치열한 전투끝에 이 敵을 물리치고 退却하는 敵의 背後를 急襲하여 前方 △978를 점령한 다음 北쪽의 △1074—△1035간의 敵을 他方面으로 이동치 못하도록 抑留하면서 전투를 계속하였다. 한편 제2대대(장, 金爾虎 소령)는 △1019에서 예비대대로 있다가 前方에 있는 △1034의敵을 공격하여 白積山의 左側方을 強打함으로서 이 山을 공격하는 제3연대가 용이하게 점령토록 支援한 다음 左前方에 있는 △1035의 敵과 對峙하였으며, 예비대인 제3대대(장, 朴寬榮 소령)는 上大和에서 부대를 정비하였다. 이날 연대가 거둔 戰果는 전날에 失踪된 제3연대의 士兵 1명을 救出한 것을 비롯하여 9명의 敵兵을 射殺하였다.

2. 제3연대(장, 鄭 震 대령)는 전날에 奪取당한 白積山을 탈환하기 위하여 美제5공군과 포병의 지원을 받아 가면서 이 山을 공격점령 하였는데 敵은 전날과 같이 재차 夜暗을 이용하여 侵攻하였는 바 이 敵을 誘引하여 부대를 戰術的으로 撤收한 다음 이 山에다가 모든 砲火를 集中시켜 敵의 戰鬪力을 弱化시켰다. 이날 제1대대(장, 朴俊鎬소령)는 09.00에 蠶頭山에서 공격을 전개하여 白積山을 目標로 進擊하였는데 여기에 占據中인 1개대대 규모의 敵은 포격을 加하면서 執勁하게 저항하였으므로 彼我간의 砲火와 小火器의 彈幕이 炸裂하고 交叉하는 가운데 7시간에 걸친 攻防戰을 계속한 끝에 마침내 이 山을 점령한 다음에 연대의 계획에 따라 소수의 경계병만을 배치하고 대대는 蠶頭山—白石山간으로 撤收하여 진지를 점령하였다. 그 뒤에 夜間으로 접어들자 敵은 예측한 대로 探索만을 하다가 23.00에 2개대대 규모의 兵力으로써 또 다시 侵襲을 敢行하였는바 대대는 경계병을 撤收한 다음 大和지역에 있던 美제7사단의 포병火力까지 증원받아 集中사격을 加하여 敵에게 損失을 強要하였다.

한편 제3대대(장, 李永吉 소령)는 제1대대가 白積山을 점령함에 따라 蠶頭山의 北斜面을 점령하고 23.00에 白積山에서 侵攻하는 敵을 격퇴하였고, 전날에 白積山에서 苦戰한 제2대대(장, 李再起 소령)는 연대의 예비대가 되어 自作亭에서 부대를 정비하였다. 이날 전투에서 연대가 거둔 戰果는 捕虜 3명, 射殺 227명과 기관총 및 多發銃 각 2정, 기관단총 1, 장총 5挺을 鹵獲하였으며, 戰死 2명, 戰傷者 14명의 損失을 보았다.

3. 제5연대(장, 金仁哲 대령)는 전날에 侵攻한 敵과 전투를 계속하였는데 敵은 馬坪里(下珍富里 南쪽 7km)와 博芝山에서 南쪽 2km에 있는 阿非谷을 장악한 다음 연대를 分斷할 企圖로 南漢江邊을 따라 大兵力으로 계속 南進中이므로 연대장은 白石山을 中心으

로 진지로 점령하고 이 敵을 擊滅코자 前線대대를 축차적인 지연작전을 벌이면서 撤收한 다음 戰線을 가다듬고 激戰을 반복하였다。 이날 三面에서 敵에게 強壓을 받던 제1대대(장, 申健善 소령)는 △1039—△1014의 頂上을 固守하다가 연대계획에 따라 白石山의 東北쪽인 △1319—△1083로, 제2대대(장, 趙在俊 소령)는 △1208에서 白石山의 南쪽 △1179로 각각 撤收하여 진지를 점령하고 北쪽과 東쪽에서 侵攻하는 敵과 격전을 展開하는 가운데 敵은 兵力을 더욱 증강하였으므로 전투는 激化 一路를 치닫게 되었다。 그런데 敵의 일부는 幕洞里쪽으로 南下하였는데 전날에 △1139—△1038로 撤收한 제3대대(장, 尹在善 소령)가 이 敵을 目擊하는 즉시로 幕洞里 南쪽에 있는 △982—△846—△992—△1038를 連한 線을 向하여 直衝하여 이 敵을 격퇴하고 말았으니 이 당시 戰線의 一進一退는 참으로 눈부신 바가 있었다。



<焦土化된 白石山의 한 稜線>

3월 9일 : 사단은 이날 △1038—白石山(△1364)—蘿頭山(△1241)—△1019—△978를 連한 線에서 戰線을 整理하다가 侵攻하는 敵과 전투를 계속 하였는데 敵은 그 병력을 더욱 증가하며 大和를 목표로 한듯이 白石山을 中心으로 공격을 加重하였는바 사단 장병의 強靭한 전투력과 砲擊과 爆擊의 威力으로 이들을 擊滅하여 敵은 많은 死傷者를 내면서도 退却의 氣勢는 보이지 않고 發惡함으로서 전투는 더욱 苛烈하기에 이르렀다。

1. 제5연대(장, 金仁哲 대령)는 이날 白石山을 中心으로 격전을 전개하였는데 제1대대는 北쪽의 竹田谷(대발골)에서 제2대대는 東쪽의 華義里에서 그리고 제3대대는 幕洞里까지 侵透한 敵과 각각 치열한 激戰을 계속한 결과 敵의 攻勢를 多少 弱化시켰으나 敵은 끈질기게 寸步를 다투어 侵攻하므로써 血戰이 反復되기만하였다。 그런데 美제5공군의 전투기는 이날 08.00

에 연대 正面인 馬坪里지역에서 幕洞里로 南下하는 대대 규모의 敵을 발견하고 20분간에 걸쳐 溪谷을 누비면서 機銃掃射를 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敵은 깎아세운 듯한 絶壁과 密生한 雜林을 이용하면서 執拗하게 공격을 연속하였으며 공군보고에 의하면 이 敵 150명을 射殺하였다는 것이다。

2. 前述한 바와같은 제5연대 상황을 파악하게 된 사단장은 大和를 확보하는 一環策으로 제8연대장 李賢進 대령에게 일부 병력으로 △1350(白石山 3km 南쪽)를 점령 확보하라고 명령하였으며 이 명령을 받은 연대는 즉각 上大和에서 부대를 정비하던 제3대대로써 △1350를 점령케 한 다음 東쪽 3km에 있는 幕洞里에서 侵攻가능한 敵에 대처토록 하였으며, 前線을 담당한 제2대대의 1개중대는 전날에 △1034로 進擊하여 경계부대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白積山을 根據地로 하여 破竹之勢로 侵攻하는 敵과 치열한 激戰끝에 대대 主力이 점령한 △1019 後方의 △883로 撤收하였는데 이 後尾를 따라 侵攻하던 敵은 대대의 陣前에서 臨戰無退를 다짐하는 대대에 의하여 擊退되었으나 敵도 白積山을 固守하는 手段으로 出擊한 것으로 推測되었다。 그리고 제1대대는 △978에서 侵攻하는 敵을 물리쳤는데 대대가 확보하고 있는 高地는 彼我간의 進擊路가 되는 要線이므로 전투 初日부터 계속 激戰을 展開하였던 것이다。

3. 제3연대(장, 鄭 震 대령)는 이날 早朝부터 侵攻한 1개대대 규모의 敵과 교전을 전개하여 擊退하였는데 제1대대는 蠶頭山—白石山간의 진지에서, 제3대대는 蠶頭山의 北斜面진지에서 각각 激戰끝에 敵을 물리친 다음 진지를 補強하였으며, 제2대대는 예비대로 自作亭에서 부대를 정비하였다。

4. 이날 군단에서는 下珍富里지역을 조속히 確保하기 위하여 사단의 後方을 威脅하는 敵에 대하여 예비사단의 일부병력을 投入하였는데 이 때에 제3사단(장, 崔 錫 준장)의 제18연대(장, 任忠植 대령)가 이날 제8연대의 제3대대가 점령한 △1350로 進擊하였다。

한편 右隣接인 首都사단(장, 宋堯讚 준장)의 제26연대(장, 徐廷哲 대령)는 橫溪里에서 小康狀態의 戰線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左隣接인 美제7사단(장, Claude M. Ferenbaugh 소장) 예하인 美제32연대(장, Charles M. Mount 대령)의 主力은 大和에서 長坪里 앞까지 進擊하여 當面의 敵과 對峙하였다。

3월 10일 : 사단은 이날 공세를 위한 방어 진지를 점령하고 있는 陣前에서 2개연대 규모의 敵과 決戰하게 되었는데 그 동안의 여러 전투에서 自信을 얻게 된 장병들은 步砲와 空地 協同으로 勇戰奮鬪하여 敵에게 戰意를 상실할 만치 打擊을 加하였다。 이리하여 白

石山을 노리던 企圖가 水泡로 돌아가게 된 敵은 마침내 兄弟峯과 白積山을 넘어 北쪽으로 潰走하게 되었으며 사단은 이를 따라 多少의 進擊을 보게 되고 다음날의 공격준비를 서둘렀다。

1. 제5연대(장, 金仁哲 대령)는 白石山의 △1083—△1179와 幕洞里 南쪽에 있는 △982—△1038를 連한 線에서 華義里—幕洞里를 따라 侵攻한 敵에 대하여 포병의 火力지원을 받으면서 兩面包圍를 企圖하였는데 2개대대 규모의 敵은 壓制를 당하는 底地帶에서 안간힘을 다하여 2시간 동안 對抗하였으나 결국 연대장병의 과감한 攻擊 앞에 무릎을 꿇고 博芝山과 兄弟峯 넘어로 退却하였는데 이날 연대가 거둔 戰果는 捕虜 6명, 射殺 30명과 多發銃 3, 기관총 2, 장총 4挺을 鹵獲하였으며, 戰死 3, 戰傷者 6명의 損失이 있었다。그 뒤 사단의 공격을 순조롭게 하기 위하여 연대의 後方인 △1350에 進出한 제3사단의 제18연대가 退却하는 敵을 追擊하여 △1039를 점령함으로서 연대의 右側方을 堅守하게 되었다。

2. 제3연대(장, 鄭 襲 대령)는 이날 1개연대 규모의 敵을 擊退하였는데 제1대대(장, 朴俊鎬 소령)는 02.00에 敵의 기습을 받았으나 점령한 蠶頭山—白石山간의 진지를 固守하면서 포병의 火力과 예비중대를 적절히 제1선에 참가시켜 3시간에 걸친 치열한 공방전을 거듭하던 끝에 이 敵을 擊滅하였다。또한 제3대대(장, 李永吉 소령)는 蠶頭山의 北斜面 진지에서 侵攻한 敵과 激戰을 展開하는 동안에 前方에 있는 △984의 防禦가 崩壞直前에 놓였으나 대대장은 곧 예비중대를 投入하여 이 敵을 擊破한 다음 退却하는 敵을 追擊하여 △973를 점령하고 白積山의 敵과 對峙하였다。또 제2대대(장, 李再起소령)는 自作亭에서 부대를 정비하며 後方경계를 강화하였는데 이날 연대는 捕虜 1, 射殺 541명과 多發銃 3, 소총 10, 기관단총 1, AR 2挺, 手榴彈 30發을 鹵獲하였으며, 戰死 13명, 戰傷者 33명, 失踪者 8명의 損失을 보았다。

3. 제8연대(장, 李賢進 대령)는 이날 敵 1개대대 규모의 兵力이 威力搜索을 兼한 공격인듯한 氣勢로 侵攻하는 것을 追擊砲彈 및 각종 銃彈으로 가차없이 노출된 敵兵을 射殺하였으며 이 敵이 결국 퇴각하는 氣勢가 보이자 연대는 즉각 反擊하였는데 이 때에 제1대대(장, 咸炯甲 소령)는 △978에서 進擊하여 敵이 白積山을 死守하는데 左側方의 要地를 形成한 △1074—△1085간을 점령함으로써 이 山의 左側面인 長坪里지역에 있던 敵도 스스로 退却하고 말았다。한편 제2대대(장, 金弼虎 소령)는 △1019에서 전날에 경계부대가 撤收하였던 △1034까지 進擊하여 다음날의 공격준비를 하였으며, 제3대대(장, 朴寬

榮 소령)는 白石山 後方의 △1350에서 제5연대의 戰況이 好轉됨에 따라 上光千(大和 3㎞ 北쪽)으로 轉進하여 연대의 後方을 경비하였다。 이날 연대가 거둔 戰果는 捕虜 1명, 射殺 25명과 기관총 2, 다발총 1, AR 2, 장총 8挺을 鹵獲하였으며, 戰傷者 3명의 損失을 내었다。

4. 이날 白石山을 공격하던 北共의 제27사단은 분산되어 下珍富里 方向으로 潰走하였으며, 鐵頭山을 노리던 敵은 흩어진채로 巨文里로 退却하였고, △1074—△1085에서 싸우던 北共의 제9사단은 東沙里로 그 자취를 감추었으므로 이들은 兄弟峯—白積山간에서 마지막의 固守防禦를 取할 것으로 判斷되었다。

3월 11일 : 사단은 전날에 敗退한 敵이 부대를 再結合할 시간의 餘裕를 주지 않기 위하여 즉시 공격을 再開한 다음 步砲와 空地의 協同作戰으로 敵이 東沙里—下珍富里지역을 固守하는데 橋頭堡역할을 하는 白積山을 점령하고 계속적인 進攻을 준비하였다。

1. 제8연대(장, 李賢進 대령)는 전투기의 對地공격과 포병의 지원사격을 받으면서 공격을 전개하여 白積山 南쪽稜線에서 執拗하게 저항하는 1개대대 규모의 敵을 擊破하고 山頂을 점령하였는데 이 때에 제2대대는 그 前方에 있는 △1038로 진격하였으나 여기를 固守하던 敵에 의하여 치열한 激戰이 계속되었다。 연대장은 전날에 △1085를 점령한 제1대대로 하여금 白積山의 左側方인 谷安里로 진격케 하여 側後方을 強打함으로서 敵은 결국 退却하고 대대는 14.00에 이 山을 점령하였는데 이 때에 退却하지 못한 敵 2명을 사로 잡았으며 敵의 屍體는 120具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고, 多發統 4정 장총 4정 자동소총 1挺을 鹵獲하였다。 제3대대는 이날 계속 上光千지역에서 부대를 정비하였다。

2. 제3연대(장, 鄭 震 대령)의 제3대대는 △973에서 白積山의 右側方을 目標로 제8연대와 挾攻하여 우선 東斜面인 △879를 점령하고 前方 巨文里지역에 있는 敵과 對峙하였으며, 제1대대는 다음날의 공격준비로서 超越前進할 지대인 제3대대의 진지를, 그리고 제2대대는 제8연대의 진지를 각각 事前에 답사하는 동시에 사단에서 補充兵 200명을 받아 부대편성을 보강하였다。

3. 제5연대(장, 金仁哲 대령)는 占領하고 있는 白石山 근방에서 彷徨하는 敵敗殘兵을 掃滅하기 위하여 제1대대로서 竹田谷—阿峰谷간을, 제2대대로서 華義里지역을, 그리고 제3대대로서 幕洞里일대를 각각 탐색토록 하였으나 敵은 모조리 退却하여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 뒤에 다음날의 공격준비로서 △1039—馬坪里 △825일대를 계속 탐색한 다음 연대는 阿峰谷과 마음洞지역으로 轉進하여 공격준비를 갖추었다。

3월 12일 : 사단은 戰力이 低化된 듯한 敵을 계속 擊破하면서 最終目標인 東沙里—下珍富里지역을 점령 확보함으로써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였는데 이날 사단장 金炯一 준장은 中間목표였던 白積山의 중요성으로 보아 전날에 이 山을 점령한 제8연대는 그대로 여기를 확보토록 하고, 最初의 作命대로 제3, 제5연대에게 부여된 目標를 조속히 점령토록 명령하였다.

1. 제3연대(장, 鄭 瀅 대령)는 이날 07.00에 제1대대를 右一線, 제2대대를 左一線으로 展開하여 공격을 斷行하였는데 경미한 敵의 저항을 물리치면서 16.00에 東沙里지역을 점령하였다. 이 때에 제1대대는 雞頭山에서 공격하여 11.00에 △818를 점령한 다음 계속 진격하여 △970(東沙里 北東쪽 2㎞)를 점령하였으며, 제2대대는 白作亭에서 外立石을 經由하여 △953(東沙里 西北쪽 2km)를 점령하고 각각 當面의 敵과 對峙하였으며, 제3대대는 예비대로 東沙里 南쪽에 있는 △879—△1003간의 無名高地를 점령하였다. 이날 연대는 捕虜 5명을 얻고 1명을 射殺하고 多發銃 1정 소총 3정 A R 1挺을 鹵獲하였다.

2. 제5연대(장, 金仁哲 대령)는 接戰없이 下珍富里에 進擊한 다음 제1대대는 藥水洞(下珍富里 3km 東쪽)을, 제2대대는 △764—△841(下珍富里 3km 西쪽)간을, 그리고 제3대대는 예비대로 兄弟峯을 각각 점령하였는데 敵은 전날에 이미 이 지역에서 潰退하고 그 主力에 대한 믿을만한 情報는 入手하지 못하였다.

3. 제8연대는 白積山에서 공격연대를 지원한 다음에 부대를 정비하여 다음날의 작전을 준비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敵의 動向 : 戰線의 最先鋒부대로 突出部를 形成하고 下珍富里—東沙里지역을 固守하려던 北共의 제2군단 휘하인 제2, 제9, 제27사단 및 군단독립 제33연대는 이 지역을 死守코자 마지막의 안간 힘을 다하여 오히려 반격까지 敢行하였으나, 사단의 熾烈한 火力과 白兵力 앞에 壓倒된 끝에 退却을 거듭하다가 下珍富里 北쪽으로 潰走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흩어진 일부병력이 정계부대로 △963—△1120—△1185(下珍富里와 東沙里 北쪽 7km)를 連한 線上에서 戰力을 再整備하는듯 하였으며, 그 主力은 거의 戰鬪力을 喪失하여 당분간 再起할 能力이 없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그러므로 이들의 力量은 遲延과 撤退의 兩者擇一하는 것 以外에는 妙策이 없는 것으로 보였으나 北共 제5군단의 일부가 投入된 듯 하므로 이들은 防衛 또는 지연작전의 2가지 方途를 실시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分析되었다. 그 후에 이들은 3월 下旬 韓國軍 및 UN軍의 進攻으로 말미암아 또 다시 敗하는 바 되어 38°線 北쪽으로 그 醜態를 감추게 되었다.

我軍의 動向 : 사단은 山岳전투의 精鋭으로 自負하는 北共 제-군단의 휘하부대를 모조리 擊破하고 점령한 下珍富里—東沙里간의 진지를 補強하는 동시에 부대를 再조정하였다. 이 때에 제8연대는 右一線으로 외日里(下珍富里 4km 北쪽)을 目標로 진격하여 그 제1대대는 △859를, 그 제2대대는 △804—△937를, 그리고 제3대대는 直洞(곧은골)부근을 각각 점령하였으며, 연대본부는 直洞(곧은골)을 점령하였다. 또한 제3연대는 左一線으로 그 제1대대는 △1108를 점령하고 前方 △1154에 경계부대를 배치하였으며, 그 제2대대는 △982를 점령하였고, 제3대대는 예비대로 東沙里에 연대본부와 같이 있었다. 그리고 제5연대는 사단의 예비대로 下珍富里에 있었으며, 포병 제16대대는 東沙里지역에서 前線 각 연대를 지원하였고, 사단사령부는 下珍富里에서 그 指揮所를 설치하였다.

이 무렵 友軍의 戰線을 살펴보면 제1군단이 東海岸의 註文津—江陵—橫溪里간을, 제3군단이 橫溪里—東沙里간을, 담당하였고 여기에서 洪川간의 지역을 美제10군단이, 洪川—楊平지역을 美제9군단이, 그리고 漢江南岸을 따라 金浦지역을 美제1군단이 각각 점령하고 있었다.

그뒤 사단은 3월 下旬에 군단이 38°線을 目標로 進攻할 때에 後續부대로 군단 後方지역에 出沒하는 殘敵을 擊滅하면서 4월 下旬에는 麟蹄지역까지 進擊하여 다음 작전을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이 작전 기간 중에 거둔 綜合的인 戰果와 損失은 아래와 같다.

구분 / 내용 / 부대명	戰果							損失			
	포로	사살	소총	자동소총	다발총	기관총	수류탄	전사	부상	신종	계
제3연대	9	935	18	3	6	3	30	23	84	108	215
제5연대	7	45	4	0	3	2	6	3	6	—	9
제8연대	3	180	12	2	6	3	40	4	9	—	13
계	19	1,160	34	5	15	8	70	30	99	108	237

§ 參戰者의 證言

◇ 제8연대 제2대대장 金弼虎 소령。

(1972. 5. 육군본부에서 소장)

당시 연대는 사단의 예비대로서 주둔지역인 사단 後方지역내에 있는 敗殘兵을 擊滅하다가 大和로 進擊하여 戰鬪에 參加하였는데 大和에서 下珍富里로 通하는 機動路를 포함한 左側에는 美軍이 담당하고 攻擊을 하였읍니다. 이 때에 대대는 연대의 先頭부대로 進攻하여 사단의 左側方을 防護하다가 地名은 잘 記憶이 나지 않지만 彼我간에 重要視하는 高地를 占領한 敵을 攻擊하여 그곳에서 며칠간 敵과 치열한 攻防戰을 계속하였는데 대대의 장병들은 눈이 쌓인 高地와 溪谷을 누비면서 寒冷을 克服하고 勇敢하게 참 잘 싸웠읍니다。그래서 결국에는 제1대대와 合同作戰으로 그 高地를 점령함으로써 敵은 北쪽으로 멀리 潰走하고 이 전투를 成功裡에 이끈 結果라고 생각됩니다。

◇ 제3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제3소대장

李宅成 소위

(1966. 8. 16, 제27사단에서 소령)

당시 소대장으로서 大대부근 전투에 참가하였는데 右側에서 제1대대가 공격을 하고, 저의 대대는 左一線에서 공격을 하여 敵과 數次에 걸친 치열한 激戰을 하였읍니다。 이 때에 敵이 我軍의 對空標識을 도용하는 것을 모르고 右側대대가 進攻한 것으로 착각하여 제7중대는 突兵중대로 한 高地에 突進하여 대대가 그 곳을 점령하였는데 敵은 我軍을 誘引한 다음 기습공격을 敢行하여 대대는 苦戰을 하면서 지연작전으로 약간의 戰術的인 撤收를 하게 되었읍니다。 여기서 나는 負傷을 當하여 高地에서 대대 CP로 내려 오니까 자세한 檢查를 받은 다음 治療를 하여서 그 後에 알아보니 當時에 自害事件이 많아서 이를 엄중히 處理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며 저를 後方 病院으로 後送하였읍니다。

◇ 제5연대 제1대대 제1중대
제2소대장 姜 協 소위。

(1965. 8. 9. 제6군단사령부에서 소령)

당시 저의 소대는 중대의 突兵小隊일 뿐아니라 대대의 先遣隊로 下珍富里를 目標로 하여 進擊하다가 敵과 전투를 시작하였다。 이 때에 저는 中隊長으로부터 수색 정찰임무를 받고 똑똑한 士兵 1개분대를 지휘하여 夜間에 南漢江 上流를 따라 한 高地모퉁이를 돌아 進出하였는데 前面에서 불이 깜짝거려서 그곳에 隱密히 接近한 다음 2명의 兵士로 하여금 探索하다가 敵과 銃擊戰이 벌어져 掩護射擊으로 探索兵을 撤收시킨 然後에 대대에 보고하므로써 대대는 기습을 받지 않코 攻擊戰鬪를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前記한 2명의 兵士가 보고 하기를 그 곳에는 北共의 장교로 추측되는 10餘名이 食事를 하고 있기에 수류탄으로 그들을 擊滅할까 아니면 보고를 먼저 할까 잠시 판단하는 순간에 敵의 보초병을 발견하고 사격을 加하였다고 한다。

◇ 제8연대 수색대원 朴永龍 일병。

(1966. 3. 2. 육군본부에서 상사)

연대의 수색중대원으로서 加里旺山을 수색할 때에 그 峻嶺한 山에는 눈이 많이 쌓여서 하루 종일 수색하느라고 苦痛이 많았으나 敗殘兵이 불을 피웠다가 미쳐 꺼지도 못하고 逃亡한 곳을 발견하고 精神이 바싹들었다。 그래서 周圍에 敵이 있음을 豫測하고 崇林이라는 戰友와 한 山麓에서 잠복근무를 하였는데 夜間이 되자 敗殘兵은 給食을 求하러 오는듯 山頂上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이 때에 그들이 50m까지 接近하기를 기다리다가 崇林이라는 戰友와 일제히 사격을 하여 2명을 射殺하고 1명은 놓쳤는데 그도 아마 負傷당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8. 泰岐山附近 戰鬪 (1951년 3월 6일부터 1951년 3월14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23 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敵 軍	
美제10군단 장 소장 Edward M. Almond		제 1 대대 장 소령 孫 介 同	
제 5 사단 장 준장 閔 機 植		제 2 대대 장 중령 趙 始 衡	
제27연대 장 대령 金 義 濬		제 3 대대 장 소령 李 圭 昇	
제 1 대대 장 소령 李 南 周		배속부대	
제 2 대대 장 소령 成 泳 煥		포병 제26대대 장 중령 盧 載 鉉	
제 3 대대 장 대위 朴 元 寬		제5야전공병대대장	
제35연대 장 대령 朴 炫 洙		지원부대	
제 1 대대 장 대위 鄭 仁 澤 (대리)		美 제 2 사단 포병대대	
제 2 대대 장 소령 李 基 族		美 제 7 사단 포병대대	
제 3 대대 장 소령 李 昌 得		병력 : 약 7,500명	
제36연대 장 대령 黃 燁		장비 : T/E에 준한 장비를 갖추었음.	
제 5 군단		병력 : 약 5,500명	
제 6 사단		장비 : 박격포 10~12문	
제12사단		기관총 60정	

나. 전투 전의 개황

2월 12일 새벽을 期하여 美 제10군단 正面에 主攻을 指向한 所謂 敵의 「2월 공세」는 寧越—堤川 正面을 攻略하고 原州—砥平里를 포위하여, 한때는 그 氣勢가 자못 높았으나 我軍의 계속된 폭격과 포격, 그리고 協調된 突破口의 封鎖作戰으로 2월 18일부터는 그 銳鋒을 거두게 되고, 2월21일 10.00를

期하여 敢行한 我軍의 總反擊作戰으로 敵은 決定的인 打擊을 받고 全戰線에 걸쳐 潰退하기 시작하였다。

즉, 東部戰線의 北共 제69여단은 遲延戰을 試圖하며 西쪽의 北共 제2군단의 撤退를 掩護하였고 中東部戰線(原州以東)에서 我 제3군단 및 美 제10군단과 對峙한 北共 제2, 제5군단은 西쪽의 中共 제66군과 連繫하여, 注文津—貢柄山—桂芳山—豊岩里—洪川線에서의 再編成을 目的으로 遲延戰을 펴면서 退却中이었으며, 中部戰線(原州以西)의 中共 제66, 제40, 제39, 제42군은 美 제9군단의 거센 反擊으로 橫城北쪽에서 執拗한 저항끝에 潰退하였는데, 이들은 洪川—清平—議政府線에서 再編成中인 것으로 判斷되었다。한편 西部戰線에서 美 제1군단과 對峙한 中共 제38, 제50군 및 北共 제1군단은 現 戰線인 漢江北岸에서 계속 我軍의 進擊을 阻止코자 注力하였다。

이무렵 郭은 Arizona 線까지 進擊하여 제一段階의 反擊作戰을 成功裡에 끝내므로써, 육본 작명 제263호(참조 작명부록 제222호)를 示達하여, 그동안 務通里에서 제3, 제5사단을 지휘하면서 美 제10군단의 反擊作戰을 지원한 제1군단 본부를 江陵으로 復歸시켜, 首都사단 및 제9사단을 麾下에 두고 第二段階의 反擊 作戰을 敢行케 하는 한편, 제3사단을 제3군단으로, 제5사단을 美 제10군단으로 각각 그 배속을 변경 하였다。

이에 따라, 美 제10군단장 Almond 소장은 군단 작명 제16호로써 美 제2사단으로 하여금 제3사단 지역을 담당케 하는 한편 丹陽에 CP를 두고 丹陽—豊基間의 主補給路경계임무를 수행중이던 제5사단을 安興里(橫城, 安興)로 진출시켜 美 제2사단의 陣地를 交代케 하므로써 사단은 수般의 제二段階의 反擊作戰에 참가하기에 이르렀다。사단이 담당한 전투지역은, 右로는 興亭里—眞鳥里—芳儀洞—雲橋里로, 左로는 東頭村—新垈里—甲川里—池邱里를 각각 南北으로 連한 지역이며 後方地境線은 平昌—橫城間의 42番 作戰路로써 右側은 美 제7사단이 左側은 美 제2사단이 각각 담당하였다。

사단正面은 秦岐山(平昌 西北쪽 27㎞), 鳳復山(△1028)을 비롯하여, 900—1000m의 山嶽이 聳立하고 斷崖와 狹谷을 이룬 連峰峻岳으로써 우거진 雜木과 巨樹, 그리고 不規則한 巨巨亂石은 觀測과 視界를 제한하고 直射火器보다 曲射火器의 効用이 더욱 컸으며 近接戰이 強要되었고, 隱蔽와 掩護는 彼我間에 良好하나 攻者보다 防者인 敵에게 더욱 有利하였다。전투지역내의 道路는 俗稱 황달모루(安興里 北쪽 10km)—屯坊內里—禾洞里에 이르는 6番 作戰路가 있으나 이 道路의 進入을 위하여서는 安興里에서 美 제2사단 지역의 東倉村—태오지(俗稱)—자작골에 이르는 山間狹路를 거쳐야만 하였고, 雲橋里—俗稱 병모루에 이르는 山間道路는 作戰初期에 있어서만 그 効用性이 있을뿐으로 車輛 및 機甲部隊의 機動에 큰 제한을 주었다。

기간중 날씨는 淸明하여 觀測과 視界 그리고 空中支援에는 支障을 주지 않았으며, 初春의 朝夕 氣溫은 —7c°~—8c°를 오르내렸고 全高地를 뒤덮은 15~20cm의 殘雪은 機動에 障碍가 되었으며, 凍土는 築城에 어려움을 주었다。

敵軍의 상황 : 사단과 對峙하게 된 敵은, 北共 제5군단 예하 제6사단과 제12사단의 1개연대로써, 제6사단은 橫城—浦洞里전투(51. 2. 5~2. 12)에서 사단에 의하여 큰 損失을 입은바 있으며, 그들의 所謂 2월공세에서는 主力인 中共軍의 侵襲에 便乘하여 現川正面까지 侵透는 하였으나 2월 21일을 期하여 敢行한 反擊作戰에서 美 제2사단에 依하여 또다시 打擊을 받고 桂村里—鳥項里—永浪里線으로 潰退하고 있었다。그러나 제12사단 일부병력의 增援과 地形에 慣熟한 秦岐山連峰인 이 地域에 이

르자, 제법 戰力을 結合하여 整備하고 遲延陣地를 占領하기에 이르렀다。제6사단은 그 指揮所를 俗稱 솔골(烏項里—東北쪽 6km)에 두고 芳儀洞—烏項里線과 烏項里—永浪里線에 각각 1개연대를 배치하였고 1개연대는 예비로써 屯坊內里에 錯置하였으며 그 西翼인 제13연대 指揮所는 酒店村(永浪里 北쪽 3km)에 위치한 것으로 判斷되었다。한편 제12사단 예하의 1개연대는 △929(烏項里 東北쪽 5km)—右用里(烏項里 西北 4km)에 據點을 形成하고 제6사단을 增援하였다。

主力인 제6사단의 現有兵力은 4,189명(51.3.1 陸本定期情報報告 제60호) 이고 砲兵의 支援을 받지는 못하나, 10~12문의 追擊砲와 60정의 각종 機關銃을 보유하였으며, 1개월에 걸쳐 계속된 전투와 각종 보급품의 부족으로 士氣는 저하되었으나 發惡的인 저항은 계속될 것으로 判斷되었다。

敵의 現有能力으로서는 攻勢防禦 또는 攻勢移轉은 어려울 것이며 桂芳山—豊岩里—洪川線에서의 再編成을 목적으로 계속 退却하거나 또는 有利한 地形의 活用如何에 따라서는 遲延戰과 局部的인 攻勢를 取할 수 있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我軍의 상황 : 제5사단은 육본 작명 제263호에 의하여 51.3.3. 18.00부로 제1군단으로부터 美 제10군단으로 그 배속이 변경되었으며 군단 작명 제16호에 의한 丹陽—豊基間의 主補給路에 대한 경계임무를 끝내고 丹陽(사단 CP, 제27연대)—豊基(제35연대)—長林里(제36연대)를 출발하여 堤川—酒泉里를 거쳐 3월 5일에는 雲橋里—安興里로 進出하였다。사단CP는 5일 12.00에 酒泉江邊의 웃거리(安興里 北쪽 1.5km)로 躍進하였고, 제35연대는 이날 새벽 雲橋里로 진출하여 연대CP를 開設한 다음, 月岩洞(雲橋里 北쪽 2km) 一帶의 美 제2사단 예하 제23연대와 佛蘭西대대의 陣地를 交代하였으며 제36연대는 연대CP를 俗稱 새터(安興里 東北 1.5km)에 設置하고, 池邱里一帶의 美 제9연대 陣地를 引受하였다。한편 제27연대는 酒泉里로 진출하여 사단예비가 되었으며 포병 제26대대는 사단CP와 같이 俗稱 웃거리로 躍進하여 陣地를 占領하고 支援태세를 갖추었다。

이 무렵 美 제10군단 사령부는 周浦里에 위치하였으며 右隣接인 美 제7사단은 CP를 道敎(平昌 西南 5km)에 두고 右一線인 제32연대는 阿彌洞—朝令里—上安美里를 連하는 線에, 그리고 左一線인 제17연대(美 제2사단 제23연대 제2대대 배속중)는 鄕校터—桂村—月岩洞線에서 각각 進擊준비를 서둘렀는데 이 당시 제31연대는 사단예비로서 九浦洞부근의 主補給路와 사단CP에 대한 경계임무를 담당하였다。한편 左隣接인 美 제2사단은 작전임무를 제5사단에 인계한 다음 제3사단 지역으로 이동하여 美 제9연대는 所思里—上大里에 이르는 제18연대陣地를 引受하였고, 美 제23연대(—제2대대)는 上大里—山田里—永永浦間의 제23연대의 陣地를 交代하였다。美 제38연대(Netherland 대대배속)는 군단예비로써 周浦里에 位置하여 후방경계임무를 담당하였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 계획

美 제8군계획과 육본 작명 제263호에 의하여 斷行하게 된 이번 작전은 潰退중인 敵을 捕捉殲滅하고 그 集結據點을 粉碎하여 제1군단은 江陵—橫溪里, 제3군단은 橫溪里—東沙

里線의 作戰路를 完全히 掌握하는 동시에 美 제10군단은 東沙里—德巨里—泰岐山—魯川里線을, 그리고 美 제9군단은 魯川里—洪川—兩水里線으로 進擊하여 江陵—下珍富里—洪川—漢江을 連한 線에서 戰線을 整理한 다음, 美 제1군단의 서울奪還과 呼應하여 一路 38° 線까지의 決定的인 反擊을 敢行코자 하는데 그 主目的이 있었다。

이러한 作戰槪念에 立脚하여 美 제10군단장 Almond 소장은 제5사단에 대하여 要旨 다음과 같은 작전임무를 賦與하였다。

『① 제5사단은 D日H時를 期하여 Arizona線(芳儀洞—酒店村)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지역내의 敵을 捕捉殲滅한 다음, 泰岐山을 奪還하라。

② 공격간 要請에 의하여 美 제2, 제7사단의 포병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군단 작명에 接한 사단장 閔機植준장은 제35연대(장, 朴炫洙대령)를 右一線으로 제36연대(장, 黃 燁대령)를 左一線으로 展開하고 제27연대(장, 兪義濬대령)를 사단예비로 控置하여 6番作戰路를 中心으로 執拗한 敵의 저항이 豫測되는 右用里—屯坊內里—禾洞里를 連한 線을 目標로 進擊하되 主攻을 제36연대(장, 黃 燁대령) 正面에 指向키로 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사단 작명을 하달하였다。

『① 제35연대는 酒案(△896)을 奪還한 다음, △929~杜元里와 △1061~△693을 거쳐 白土案(△889)을 逐次로 攻略하고 泰岐山(△1261)을 奪還한 다음 이를 確保하라.

② 제36연대는 周案(△827)—酒店村을 공격, 확보한 다음, 右用里—屯坊內里—禾洞里—新基里를 逐次로 奪還하고 △1073—鳳凰山(△1028)을 공격하여 이를 확보하라.

③ 제27연대는 사단예비로서 安興里에 進出하여 차후 命令을 待機하라.

④ 포병 제26대대는 1개중대로써 제35연대를, 2개중대로서 제36연대를 각각 직접 지원하라.

⑤ 제5야전공병대대는 6番作戰路와 連結하는 安興里—白作亭間의 山間道路를 補修確保하라.

⑥ 공격간 각 연대는 요청에 의하여 美 제2, 제7사단의 155mm 砲의 支援을 받을 수 있다.

⑦ D日H時는 51.3.7.08.00 이다。』

(2) 작전 실시

3월 6일 : 공격개시 전날인 이날, 사단은 공격개시선인 Arizona線(芳儀洞—酒店村)을 목표로 進擊을 시작하여 右一線인 제35연대는 中間村—烏項里線으로, 左一線인 제36연대는

熾烈한 交戰끝에 俗稱 동박골—後坪—中山線으로 각각 進出하였다。

1. 제35연대(장, 朴炫洙대령)는 08.00에 俗稱 하우개—裵台峯(△868)에서 進擊을시작하였는데 右一線인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는 1개소대규모의 敵의 散發的인 저항을 擊破하고 12.00에 △922(烏項里 東쪽 1km)를 점령한 다음 이를 확보하였으며, 左一線인 제2대대(장, 李基換소령)는 △872—△837(烏項里南等)線에서 執拗하게 저항하는 2개중대 규모의 敵을, 熾烈한 交戰끝에 무찌르고 13.00에 烏項里를 占領하여, 그 北쪽 高地에 병력을 배치하는 즉시로 다음 공격준비를 서둘렀다。제1대대(장, 鄭仁淳대위)는 연대예비로써 雲橋里에 위치하여 42番作戰路와 연대CP경계를 담당하였다。

2. 제36연대 제1대대(장, 孫介同소령)는 전날 밤 21.00에 제2중대 正面인 △642(池邱里東北 3km)로부터 侵襲한 2개중대규모의 敵과 激突하게 되자 포병 제26대대 제1, 제2중대의 近接支援射擊을 받으면서 果敢한 反擊으로 이날 06.00에 이를 격퇴한 다음, 08.00에 진격을 개시하여 △837—△716에서 저항하는 敵 1개중대를 무찌르고 11.00에 △781를 奪還하였다。또 左一線인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는 전날 20.00에 △688(池邱里 北쪽 2km)로 진격중, 1개대대 규모의 敵의 頑強한 저항으로 △627—△638에 陣地를 점령하고 거듭된 敵의 侵襲을 격퇴한 다음 이날 08.00에 포병 제1, 제2중대의 集中支援射擊下에 反擊을 敢行하였다。

연대장 黃燁대령은 敵의 頑強한 저항에 대응하여 연대예비인 제2대대(장, 趙始衡중령)를 池邱里부근으로 進出시키는 한편 제8중대를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에 增援하였다。대대장 李圭昇소령은 제9중대를 右側으로 제10중대(장, 白基淳중위)를 左側으로 迂回공격케 하는 한편 제11중대를 正面에 展開하여 一齊히 突進토록 하였는데 1개대대규모의 敵의 저항을 白兵戰 로 擊破하고 13.00에 △688를 完全히 점령한 다음, 後坪—中山(池邱里 北쪽 3km) 一帶에 急編陣地를 構成하고 다음날의 공격을 준비하였다。

3. 사단예비인 제27연대(장, 俞義濬대령)는 08.00에 酒泉里를 출발하여 17.00에 下安興里로 進出한 다음, 제1대대(장, 李南周소령)를 △581(池邱里 西北 1km)에, 제2, 제3대대를 安興里 北쪽에 각각 배치하여 사단 후방지역을 경계하는 한편 攻擊梯隊의 지원태세를 갖추었다。

3월 7일 : 이날 사단장 閔丁植준장은 一齊攻擊에 앞서 敵의 頑強한 저항에 對應하여 사단 작명 제29호 작전 훈령 제2호를 하달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제35연대는 目標 1(酒峯△896)을 占領한 다음, 目標 2(龍馬峯 △1192—△1018—△

1010—△1061)를 공격, 확보하라。

② 제36연대는 目標A(周峯△827) B(酒店村부근 △576)를 占領後 계속하여 目標C(屯坊內里부근 △685) D(杜元里 北쪽 4km △795—△665)를 공격 확보하라。』

1. 제35연대장 朴玆洙대령은 사단계획에 따라 제2대대(장, 李基煥소령)를 主攻으로써 目標1(酒峯)을 공격케 하는 한편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는 △929를 牽制攻擊토록 명령하였다。右一線인 제3대대는 공격준비사격의 延伸과 同時에 공격을 시작하여 △728(烏項里 東北 3km)에서 頑強하게 저항하는 1개중대 규모의 敵을 擊破하고 潰走하는 敵을 추격하여 △930로 진격하였을 무렵, 2개중대 규모의 敵의 熾烈한 사격을 받아 一進一退의 激戰을 展開하였고, 主攻인 제2대대(장, 李基煥소령)는 俗稱 소새목에 肉迫하였으나 迫擊砲의 支援을 받는 1개대대규모의 敵의 執拗한 저항에 부딪쳐, 공격의 氣勢가 一時 挫折되는 듯하였다。연대장 朴玆洙대령은 敵火力의 熾烈함과 不利한 地形을 考慮하여 夜間공격으로 轉換키로 決心하고 『제3대대는 △728로, 제2대대는 절고개(烏項里 東北 1km)로 각각 機動하여 夜間攻擊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였다。이 명령에 따라 16.00에 △728로 撤收한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는 21.00에 공격을 개시하여 △930의 敵陣地를 白兵戰으로 一擧에 무찌른 다음, 공격목표인 △929로 계속 肉迫하고 있었으며, 제2대대(장, 李基煥소령)는 포병 제26대대 제3중대의 直接支援下에 一擧히 躍進하여 △884의 敵을 肉迫戰으로 격퇴하고 酒峯(△896)으로 突進하여 一進一退의 激戰을 展開한 끝에 다음 날 05.00에 完全히 目標를 奪還하였다。한편 제1대대(장, 鄭仁淳대위)는 계속, 연대예비로써 △762—△884(雲橋里 北쪽 1km)에서 연대후방 경계임무를 담당하였다。



<눈을 헤치면서 一進, 또 一進하는 勇士들>

2. 제36연대(장, 黃 煒대령)는 이날 08.00에 전날의 陣地인 俗稱 동박골—△781—後坪—中山에서 공격을 시작하여 공격목표 A, B를 奪還하므로써, 攻擊 첫날의 緒戰을 빛냈다。즉, 右一線인 제1대대(장, 孫介同소령)는 공격준비사격의 延伸

과 同時에 제2, 제3중대를 攻擊梯隊로 하여 目標A(周峯△827)로 진격하였는데 陽地村(周峯 南쪽) 부근에 陣地를 占領한 北共 제13연대 예하 1개대대 규모의 敵의 執拗한 저항으로 공격이 一時 頓挫되자, 대대장 孫介同소령은 美 제2사단의 砲兵의 火力增援과 空中支援을 要請하는 한편 제1중대를 제2, 제3중대 進出線 東쪽인 △678로 增援하였다。13.00에 砲兵支援射擊에 뒤이은 空中支援과 同時에 대대는 一齊히 突進하여 肉迫戰을 展開한 끝에 공격목표인 周峯(△827)을 奪還 확보하였다。이때에 目標B(△576)를 공격한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는 △624~576를 連하는 線에서 저항하는 2개중대규모의 敵을 擊破하고 14.00에는 제11중대가 △624를, 제9중대가 △576를 각각 奪還, 確保하였으며, 後續한 제10, 제12중대는 △626(永浪里 東北 2.5km)에 陣地를 점령하였다。한편 연대예비인 제2대대(장, 趙始衡중령)는 연대主力을 後續하여 永浪里로 진출한 다음, OP를 △593에 두고 제3대대의 전날陣地인 後坪—中山一帶에 陣地를 점령하고 연대의 西側背를 掩護하였다。

周峯(△827)—△576에서 潰走한 北共 제13연대 主力은 △645(主峯 北쪽 2.5km)—△648(右用里 西北 2km)에 集結하여 據點을 形成하고 地域內의 唯一한 作戰路인 6番道路를 遮斷하는 한편, 사단의 진격을 遲延 또는 阻止코자 企圖하였으며, 北共 제6사단예비인 1개연대규모의 敵은 계속 屯坊內里에 位置한 것으로 判斷되었다。

3. 제27연대(장, 兪錫睿대령)는 계속, 사단예비로써 安興里一帶에 위치하였으며 09.00부터는 全將校를 召集하여 中共軍編制와 戰法에 關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4. 한편 右隣接인 美 제7사단은 이날, 제32연대를 右一線으로 하고, 제17연대를 左一線으로 하여, 阿彌洞—下光村里—德壽山—厚洞線에서 진격중에 있었으며, 左隣接인 美 제2사단은 이날 사단CP를 周浦里에서 新陽里로 移動한 다음, 제9연대를 右一線으로, 제23연대를 左一線으로 하여, 俗稱 장자터—봉곡—탁박골—楸洞線에서 공격중에 있었다。

3월 8일 : 이날 사단은 전날에 이어 계속 공격을 敢行하였으나 敵의 執拗한 저항으로, 右一線인 제35연대(장, 朴炫洙대령)는 △929一杜元里에 進出한 다음 再編成에 이어 공격준비를 서둘렀으며, 左一線인 제36연대(장, 黃雄대령)는 △645一△648 前方에서 공격이 頓挫되었다。

1. 제35연대(장, 朴炫洙대령)는 전날 21.00를 期하여 △929—酒峯(△896)을 目標로 야간공격을 斷行하였는데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는 熾烈한 突擊戰을 反復한 끝에 이날 새벽 04.00에 드디어 敵을 驅逐하고 △929를 完全히 占領하였으며, 제2대대(장, 李基煥소령)는 포병 제3중대의 近接支援과 果敢한 白兵戰으로 05.00에 敵이 執拗하게 버티던 酒峯(△

896)을 奪還한 다음 敗敵을 急히 追擊하여 14.00에는 杜元里를 占領하였다。한편 연대 正面에서 潰走한 敵은, 北共 제12사단 예하 1개연대의 掩護下에 △1061~△693(杜元里 北쪽 15km)를 連하는 線에서 再編하는 한편 연대의 進擊을 阻止코자 發惡하였으며, 연대는 △929—杜元里線에 陣地를 점령하자 곧 이 敵의 逆襲에 對備하는 一方 부대정비를 서둘렀다。

2. 제36연대(장, 黃 雄대령)는 이날 06.00에, 北共 제6사단예하 제13연대 主力이 固守하는 △645—△648(右用里 西北 2km)에 대한 공격을 敢行하였는데 右一線인 제1대대(장, 孫介同소령)는 제3중대와 제1중대를 攻擊梯隊로 하여 1개중대 규모의 敵의 저항을 制壓하고 右用里를 점령한 다음, 敵의 據點인 △645(右用里 北쪽 1.5km)로 進擊하였으나 迫擊砲의 지원을 받는 1개대대 규모의 敵의 頑強한 저항으로 공격이 頓挫되자 공격제대인 제3, 제1중대는 △645 南斜面後線에 急編陣地를 占領하고 頂上의 敵과 對峙하여 熾烈한 사격전을 展開하였으며, 後續한 제2, 제4중대는 右用里 北쪽 高地로 進出하여 제3, 제1중대를 掩護하였다。한편 左一線인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는 △561(俗稱 황달모루)부근에서 敵의 前進陣地로 推定되는 1개중대규모의 防衛線을 무찌르고 공격목표인 △648로 突進하였으나 1개대대규모의 敵의 執拗한 저항으로 一進一退의 攻防戰을 反復하던 중, 熾烈한 火力과 不利한 地形으로 △561南斜面으로 撤收한 다음, 砲兵支援射擊下에 全火力을 △648로 集中하고 再攻擊準備를 서둘렀으며 16.30에는 美 공군 전투기편대가 △645—△648을 連하는 線에 계속적인 對地공격을 加하였으나 敵의 저항은 如前히 執拗하여 공격을 再開하지 못하였다。이에, 연대장 黃 雄대령은 연대 전투지휘소를 새목(酒店村 北方 1km) 부근 高地로 躍進시켜 직접 陣頭지휘에 나서는 한편, 연대예비인 제2대대(장, 趙始衡중령)를 전날의 陣地인 後坪—中山에서 酒店村으로 躍進시켜 상황의 변동에 即應토록 措置하였다。

3. 사단예비인 제27연대(장, 俞義濬대령)는 攻擊梯隊인 제35, 제36연대의 진격에 따라 敵의 저항이 漸次로 熾烈하여지자 사단장 閔機植준장의 명령에 따라 出動준비를 갖춘 다음, 이날 20.00에 제36연대 CP가 위치한 俗稱 새터(安興里 東北 1.5km) 부근으로 集結, 대기중에 있었다。

4. 제5야전공병대대는 CP를 俗稱 농골(上安里부근)에 두고 美 제2사단 공병대대와 協同하여 地域內에서의 唯一한 機動路인 安興里—태오지(俗稱)—自作亭에 이르는 山間道路를 補修하고 있었다。

3월 9일 : 공격 3일째인 이날 사단의 右一線인 제35연대는 激戰끝에 敵의 主要據點인 △

693을 奪還하였으나 左一線인 제36연대는 敵의 執拗한 저항으로 戰線이 膠着되었으므로 사단장 閔機植준장은 사단예비인 제27연대를 厚坪(鳥頂里 北쪽 1km)으로 進出시켜 戰線投入태세를 갖추도록 명령하였다。

1. 제35연대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는 08.00에 전날의 陣地인 △929에서 공격을 시작하여 △874(龍馬峰 西쪽)에서 增強된 1개중대규모의 敵을 驅逐하고 14.00에는 △1061를 점령하였으나 1개대대가 占領한 陣地로서는 그 正面이 地形上 適合치 않으므로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929로 移動하였는데 21.00에 이르러 제9중대 正面인 俗稱 감동지로부터 1개소대규모의 敵이 威力探索을 加하였으나 15분간의 交戰으로 이를 擊退하였다。 左一線인 제2대대(장, 李基煥소령)는 △592의 敵 1개중대를 擊破하고 敵의 主要據點인 △693를 目標로 進擊중, 1개대대규모의 敵의 頑強한 저항에 부닥쳐 한 때 공격이 頓挫되었으나 포병 제3중대의 熾烈한 支援射擊으로 敵의 迫擊砲陣地를 制壓한 다음, 一齊히 突進하여 白兵戰을 展開한 끝에 16.30에는 이 高地를 完全히 占領하였다。 한편 제5중대는 俗稱 하자퀼(△693 北쪽 1km)까지 진격하여 戰果를 擴大하는 一方 제36연대 正面의 敵後方을 攪亂한 다음 18.00에 △693로 복귀하였다。 그런데 △736(△693 北쪽 1.5km) 쪽으로 潰走한 敵은 23.30에 三面으로 대대를 포위하려는 形勢로 侵襲하였으나 即刻 誘導된 美 제7사단의 포병대대의 掩護射擊下에 熾烈한 攻防戰을 敢行한 결과 다음날 02.00에 이 敵을 擊退하고 말았다。

2. 제3연대 제1대대(장, 孫介同소령)는 전날에 이어 △645 頂上의 敵과 對峙하고 熾烈한 交戰을 계속하였으며 △648의 敵 1개대대와 對峙한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는 04.00에 黎明攻擊을 斷行하였으나 커다란 戰勢의 進展을 보지 못하고 東幕峴—△576를 連하는 線으로 撤收하여 陣地를 占領하였다。

이와같이 戰線이 膠着되기에 이르자, 연대장 黃 鍾대령은 연대예비인 제2대대(장, 趙始衡중령)를 投入하여 敵의 西側背를 強打하므로써 연대의 進擊路를 打開코자 決心하였다。 이러한 연대장의 決心에 따라 제2대대(장, 趙始衡중령)는 제3대대를 超越하여 09.30에는 善樂洞(△648 西쪽)을 占領한 다음, 1개중대규모의 敵의 執拗한 저항을 擊破하고 上義里를 奪還하였으나 敵의 逆襲으로 19.00에 俗稱 새목—아래가무데(右用里 西北 1.5km)로 撤收하였다。 한편 연대CP는 이날 18.00에 새터에서 銀洞(永浪里 北쪽)으로 前進하였다。

3. 사단예비인 제27연대(장, 金義雀대령)는 이날 『제27연대는 12.00까지 厚坪(鳥頂里 北쪽1km)으로 前進하여 공격준비를 갖추라』는 사단장 閔機植준장의 명령에 따라 11.30에

厚坪으로 進出한 다음 제1대대(장, 李南周소령)를 절고개(鳥項里 東北쪽 1km)에 제2대대(장, 成泳煥소령)를 酒峯(△896)에 그리고 제3대대(장, 朴元寬대위)를 周峯(△827)에 각각 配置하여 一線연대에 대한 增強태세를 갖추었다.

3월 10일 : 1. 제35연대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는 이날 02.00에 侵襲한 1개대대규모의 敵과 熾烈한 攻防戰을 전개하였으나 左翼인 제10중대 正面이 무너짐에 따라 △929 頂上으로 撤收한 다음 05.00에 反擊을 敢行하여 敵을 擊退하고 陣地를 回復하였으며 제2대대(장, 李基煥소령)는 전날 23.30에 侵襲한 1개대대규모의 敵을 激戰끝에 이날 02.00에 擊退하고 陣地를 強化한 다음, 波狀的인 敵의 攻勢를 계속 물리치면서 △693를 확보하였다. 한편 연대예비인 제1대대(장, 鄭仁淳대위)는 雲膳里에 位置하고 무근一帶를 수색하였으나 敵情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高地에서 敵情을 살피는 勇士들>

2. 제36연대 제1대대(장, 孫介同소령)는 지난 8일부터 △645頂上의 敵과 對峙하고 熾烈한 交戰을 展開하던 중 이날 03.30를 期하여 포병 제1, 제2중대의 集中支援射擊下에 △645로 突進하여 執拗하게 저항하는 敵을 白兵戰으로 一擊에 무찌르고 04.20에 電擊的으로 이 高地를 奪還한 다음 제1중대는 潰退하는 敵을 追擊하여 市場터(△645 北쪽 1km)까지 進擊하였으며 대대主力은 △645 西쪽 稜線으로 진출하여 △648의 敵의 東側背를 強打하므로

서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의△648공격을 支援하였다。한편 左一線인 제 3 대대(장, 李圭昇소령)는 제1대대의 △645점령과 同時에 △648을 目標로 進擊하여 제1대대의 側方支援下에 發惡的으로 저항하는 敵을 1시간에 걸친 熾烈한 白兵戰끝에 敵의 主要據點인 이 △648을 07.20에 完全히 奪還하였다。이때에 먼 동이 트는 새봄의 大氣속에 피와 땀으로 얼룩진 將兵들의 士氣는 마냥 높아가기만 하였다。한편 제2대대(장, 趙始衡중령)는 제3대대를 超越하여 潰走하는 敵을 急히 追攻하였는데 17.00에는 2개중대로 推算되는 敵 收容부대를 부쩌르고 △722(△648 北쪽 2km)를 점령한 다음, 제7중대를 殘置하고 上蘇里—善樂洞에 이르는 西面陣地를 占領하여 敵의 侵襲에 대비하였다。

한편 연대 전투지휘소는 공격제대의 進出에 따라 11.00에 △648西쪽 無名高地로 推進하였다。

3. 사단예비인 제27연대(장, 金義煥대령)는 전날에 이어 연대CP를 原地에 두고 절고개(寺峴)—酒峯—周峯을 連한 線을 確保하고 공격 준비를 서둘렀다。

4. 포병 제26대대(장, 盧載鉉중령)는 이날 대대CP를 계속 俗稱 관터(安興里 東北 2km)에 두고 제2중대를 桂村(鳥項里 東쪽 5km)으로 推進시켜 제35연대(장, 朴炫洙대령)를 直接支援하였고 제1, 제3중대는 제36연대(장, 黃 燁대령)를 直接支援하기 위하여 後坪(永浪里 北쪽)으로 躍進시켰다。

5. 사단 통신참모 李龍億소령은 통신중대를 진두지휘하여 이날 12.00에 각 연대와 사단間에 각각 3회선의 有線網을 架設하였고 모든 무전기의 點檢을 完了하였다。

3월 11일 : 이날 右一線인 제35연대(장, 朴炫洙대령)는 계속적인 敵의 侵襲을 擊退한 결과 △929—△693를 連하는 線을 확보하고 공격준비를 서둘렀으며, 左一線인 제36연대(장, 黃 燁대령)는 제2대대(장, 趙始衡중령)로써 공격을 敢行하였으나 큰 進展을 보지 못하였고 主力은 △645—△648를 連하는 線을 계속 확보하면서 공격준비와 再編成을 서둘렀다。

1. 제35연대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는 전날의 陣地인 △929를 확보하고 龍馬峯(△1026)으로부터 侵襲하는 1개대대규모의 敵의 계속적인 波狀攻擊을 물리쳤으며 左一線인 제2대대(장, 李基燮소령)는 △694—△693를 連하는 線에서 陣地를 強化하고 05.00에 增強된 1개대대규모의 敵의 侵襲을 포병 제2중대의 近接支援下에 一進一退의 熾烈한 攻防戰을 反復하여 06.30에 이 敵을 擊退한 다음 부대정비를 서둘렀으며, 대대수색대는 俗稱 상자골(△693 北쪽 1km)까지 進出하여 敵前方을 攪亂하고 11.00에 복귀하였다。이 때에 대대正面에서 退却한 敵의 主力은 白主峯(△693 北쪽 2km)에 集結하여 散發的인 迫擊砲射擊을

加하면서 再侵의 기회를 노리는 듯하였다。한편 연대CP는 이날 11.00에 雲橋里에서 內月岩(烏頂里 東쪽 2km)으로 推進하였으며 연대예비인 제1대대(장, 鄭仁澤대위)는 △861(烏頂里 東北 2km)로 進出하여 攻擊部隊의 支援態勢를 갖추었다。

22.00에 사단장 閔機植준장의 요청에 따라 즉시 出擊한 美 공군 전폭기편대는 敵의 集結據點인 白主峯(△889)—△795—△665을 連하는 線을 強打하니 爆音은 山野를 震動하고 鐵火는 敵陣을 뒤흔들었다。

2. 제36연대 제2대대(장, 趙始衡중령)는 제7중대로 하여금, 俗稱 안창말(屯坊內里 南쪽 1km)에 侵攻한 1개중대 규모의 敵을 邀擊케 하는 한편, 대대主力은 08.00에 공격을 시작하여 △632(上盛里 北쪽 2km)의 敵陣地를 奪還한 다음, 16.00에는 포병 제26대대 제1, 제3중대의 直接支援下에 敵의 主要據點인 △685(上盛里 北쪽 2.5km)를 공격하였으나 1개대대규모의 敵의 끈질긴 저항으로 一進又一進의 격전을 展開하였으며, 제1, 제3대대는 △645—△648를 連한 陣地를 固守하면서 進擊의 好機를 노리고 再編成을 서둘고 있었다。

3. 제27연대(장, 金義淵대령)는 사단예비로서 전날에 이어 절고개—酒峯—周峯 一帶에 陣地를 점령하고 부근일대를 수색하면서 第一線 增強을 待機하고 있었다。

3월 12일 : 이날 사단장 閔機植준장은 攻擊部隊인 제35, 제36연대의 Phenix線(膺峯—陽地村—텃골) 占領을 督勵하는 한편 사단예비인 제27연대의 1개대대를 俗稱 判官터(屯坊內里 東쪽)로 진격시켜 제36연대(장, 黃 輝대령)를 增援토록 措置하였다。

1. 제35연대(장, 朴炫洙대령)는 04.00를 期하여 黎明攻擊을 敢行하여 膺峯(△741)—白主峯(△889)으로 進擊하므로써 Phenix線을 확보하였는데 右一線인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는 지난 8일부터 확보중이던 △929에서 躍進하여 △1061의 敵을 기습 공격한 결과 06.00에 頂上을 完全히 占領한 다음, 계속 진격하여 14.00는 1개중대 규모의 敵收容陣地의 저항을 무찌르고 공격목표인 膺峯(△741)을 점령, 확보하는 즉시로 對空布板을 設置하였다。이때에 左一線인 제2대대(장, 李基煥소령)는 06.00에 △736(△693北쪽 1km)를 奪還하고 계속하여 △795(白主峯 西南쪽)의 頂上을 指向할 무렵, 2개중대 규모의 敵의 陣前出擊으로 亂戰混擊을 展開하였다。대대장 李基煥소령은 즉시 포병 제2중대의 急速사격을 要請하여 敵의 迫擊砲陣地를 制壓하는 한편, 제5중대를 東쪽으로 迂回시켜 白主峯(△889)을 공격케 하여 敵의 저항一角을 瓦解케 하는 同時에 대대主力으로써 △795를 目標로 突擊을 敢行하여 白兵戰과 火力戰의 互用으로 一擧에 이 高地를 奪還한 다음, 全火力을 白主峯으로 集中하여 제5중대의 공격을 支援하였고 제5중대는 더욱 態勢를 높여 一躍又一躍으로

肉迫戰을 反復한 끝에 15.40에 白主峰(△889)의 頂上을 完全히 占領하므로써 이날의 殊勳중대가 되었다。이때에 頂上에는 敵屍가 累累하고 我軍의 劍光이 燦然하였다。연대예비인 제1대대(장, 鄭仁淳대위)는 공격제대의 진격에 따라 △929로 進出하여 연대후방 경계를 담당하였으며 연대CP경계임무는 연대수색중대에 引繼하였다。

2. 제36연대 제2대대(장, 趙始衡중령)는 전날, △685에 대한 공격이 膠着狀態에 빠지게 되자 俗稱 劍頭峠에 急編陣地를 占領하고 敵과 對峙하면서 再突進을 準備하던 中 이날 05.00에 포병 제1, 제3중대의 集中的인 지원火力에 屬接하여 一擧에 突擊을 敢行한 결과 08.00에 △685를 奪還한 다음, 潰走하는 敵을 跟隨追擊하여 △665(甲田一里)를 계속 점령하였으나 연대장 黃 雄대령의 명령으로 △685로 後退한 다음 △586—685를 連하는 線에 陣地를 占領하였다。제3대대(장, 李圭昇소령)는 제2대대의 △685점령과 동시에 진격을 시작하여 散發的인 敵의 저항을 무찌르고 △594(下馬荏北쪽)를 점령하고 제2대대(장, 趙始衡중령)와 連繫를 維持하였다。한편 제1대대(장, 孫介同소령)는 △645一帶의 陣地를 제27연대 제1대대(장, 李南周소령)에 引繼한 다음, 연대예비가 되어, 대대OP를 俗稱 아래가무내 부근의 △561에 設置하고 제1중대를 俗稱 황달모루西쪽後線에, 제3중대를 上梨里西南쪽 高地에 각각 배치하여 연대의 西側方을 掩護케 하였고 제2, 제4중대는 △648 부근에 集結하였다。

3. 제27연대 제1대대(장, 李南周소령)는 사단장 閔機植준장의 명령에 따라 06.00에 俗稱 절고개를 출발하여 10.00에 △645에 있는 제36연대 제1대대(장, 孫介同소령) 陣地를 引受한 다음, 제1중대를 △614(屯坊內里 東쪽)로 進出시켰으며 제2, 제3대대는 전날에 이어 酒峰(△896)—周峰(△827)을 점령하고 사단후방경계를 담당하는 한편 戰勢의 推移를 注視하고 있었다。

3월 13일 : 이날 敵은 戰勢의 계속적인 萎縮을 挽回하지 못한 나머지 결국 全戰線에 걸쳐 退却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당시의 諜報에 의하면 柳洞里에 集結중이던 敵의 主力은 이미 38°線을 넘어 北上하였다는 것이다。

사단장 閔機植준장은 이러한 敵의 動向을 大觀하고 當面의 敵을 急히 擊滅하고 主要據點인 泰岐山(△1261)을 奪還하고자 要旨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일부 戰鬪地境線을 변경하고 계속 진격하려 한다.

② 제35연대는 3.13.12.00까지, △1232의 東 제17연대陣地를 引受하고 계속 진격하여 泰岐山(△1261)을 奪還하라.

③ 제27연대는 제36연대陣地를 인수하고 Phenix線(西川—白主峰—텃골)에서 공격을 敢行하여 지역내의 敵을 捕捉殲滅하라.

④ 제36연대는 제27연대와 交代後 사단예비가 되어 次後의 戰線增強을 준비하라.

⑤ 포병 제26대대 제1, 제3중대는 제27연대를 직접 지원하라。』

1. 제35연대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는 제9중대를 △1011(膺峯 東北 1km)로 進出시켜 美 제17연대의 일부陣地를 引受한 다음, 『55°線(橫座標)까지 進擊하라』는 연대장 朴炫洙대령의 명령에 따라, 散發的인 敵의 저항을 一蹴하고 21.00에는 西門洞(柳浦2里 北쪽 3km)—큰삽다리재(俗稱)에 이르는 △754—△937로 進出하였다。한편 제2대대(장, 李基煥소령)는 07.00에 공격을 시작하여 敵의 收容陣地의 저항을 포병사격으로 制壓하면서 進擊을 계속하여 16.00에는 雲橋一里(白主峯 北쪽 4km)를 占領한 다음, 2개중대 규모의 敵의 逆襲을 擊退하는 즉시로 △1039(泰岐山 南쪽 2.5km)를 占領하였으며, 공격목표인 泰岐山(△1261)에 迫擊砲射擊을 集中 發揮하므로써 敵陣을 攪亂하였다。한편 연대예비인 제1대대(장, 鄭仁淳대위)는 전날의 陣地인 △929에서 07.00에 행동을 개시하여 11.30에 △1192(柳浦二里 西쪽 1.5km)—△1232(桂村里 北쪽 2.5km)의 美 제17연대陣地를 交代完了하였다。

2. 제27연대(장, 俞義濬대령)는 이날 제36연대(장, 黃 燁대령)와 작전임무를 交代하고 Phenix線(西川—膺峯—白主峯—陽地村—텃골)을 目標로 進出하였는데, 09.00에 酒峯(△896)을 떠난 제2대대(장 成泳煥소령)는 11.30에 俗稱 몰랑골(屯坊內里 東北 3km)로 진출하여 제36연대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의 陣地를 交代하였고, 周峯(△827)에서 행동을 개시한 제27연대 제3대대(장, 朴元寬대위)는 13.30에 俗稱 텃골(屯坊內 里西北 2km))로 進出하는 즉시로 제36연대 제2대대(장, 趙始衡중령)의 △685陣地를 引受하였다。한편 전날 △645로 진출한 다음 제36연대 제1대대(장, 孫介同소령)와 交代한 제27연대 제1대대(장, 李南周 소령)는 연대예비가 되어, △614—△645—帶를 확보하였으며 연대 C P는 이날 13.00에 市場터(屯坊內里 南쪽 1km)로 躍進하였다。

3. 제36연대(장, 黃 燁대령)는 이날 13.30에 제27연대와 작전임무를 교대완료하고 제1대대(장, 孫介同소령)는 俗稱 황달모루에, 제2대대(장, 趙始衡중령)는 안창말(屯坊內里 南쪽 1km)에, 그리고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는 市場터에 각각 集結한 다음 사단예비가 되었다。

3월 14일 : 이날 사단은 敵의 最後據點인 泰岐山(△1261)를 奪還하고 Albany線(白雪洞—新垈里)으로 進擊하였으며, 正面의 敵은 麟蹄를 向하여 一路 潰退하였다。

1. 右一線인 제35연대(장, 朴炫洙대령)는 이날 04.00를 期하여 一齊히 進擊을 시작하였는데, 전날 △1039(泰岐山 南쪽 2.5km)를 점령한 제2대대(장, 李基煥소령)는 地形의 利를 믿고 끝까지 버티어 보려는 2개중대 규모의 敵을 熾烈한 近接戰으로 擊退한 다음 12.40에는 드디어 공격목표인 泰岐山(△1261)을 完全히 占領하고 銃劍의 閃光을 높히 흔들었으며 喊聲이 蒼空에 메아리쳤다.

한편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는 제2대대를 後續하여 △1072(泰岐山 東南 3.5km)에서 最後의 氣力을 다하여 저항하는 2개소대 규모의 敵을 무찌르고 10.00에는 △941(泰岐山 南쪽 2km)로 진격하여 제2대대(장, 李基煥소령)의 泰岐山공격에 火力으로 增援하는 한편 △956(泰岐山 東쪽 1km)를 強制攻擊하여 12.20에 이 高地를 占領하였다. 제1대대(장, 鄭仁淳대위)는 전날의 陣地인 △1232—△1192에서 행동을 개시하여 抵抗없이 進擊中, 龍浦洞(泰岐山 南쪽 3km)에서 落伍한 北共병 11명을 捕虜로 하고 14.00에는 安興洞(泰岐山 東南 3km)으로 진출하여 연대 側後方경계를 담당하였으며 연대CP는 이날 14.00에 內月岩에서 禾洞里(屯坊內里 北쪽 6km)로 躍進하였다.

2. 제27연대(장, 俞錫濬대령)는 이날 04.00에 Pherix線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Albary線으로 진격하였는데 右一線인 제2대대(장, 成泳煥소령)는 俗稱 몰랑골에서 躍進하여, 敵의 저항없이 10.00에 俗稱 들메치부근의 △830를 占領한 다음, 微弱한 敵의 저항을 一蹴하면서 13.00에는 △847(禾洞里 東北 5.5km)를 점령, 확보하였다. 左一線인 제3대대(장, 朴元寬대위)는 △685 一帶의 陣地에서 공격을 시작하여 1개중대 규모의 敵의 저항을 무찌르고 09.00에 △412(禾洞里 西北 2km)를 奪還한 다음, 계속 진격하여 14.00에는 △928(禾洞里 東北 4km) 一俗稱 낚시대를 繼續 점령하였으며 연대예비인 제1대대(장, 李南熙소령)는 전날의 陣地인 △614—△645 連線에서 △654(禾洞里 南쪽 1km)로 진출하여 연대 側後方경계를 담당하였다. 한편 연대CP는 攻擊梯隊의 진출을 避援하면서 이날 12.00에는 市場터에서 俗稱 솔정치(禾洞里 南쪽 2.5km)로 推進하여 太極旗를 左右로 크게 흔들었다.

3. 제36연대(장, 黃 燁대령)는 이날 14.00에 연대CP를 楸洞에서 안창말(市場터 南쪽)로 躍進하였고 제1대대(장, 孫介同소령)는 △648—아래가무대一帶에 陣地를 점령하여 사단 후방지역과 6番 作戰路경계를 담당하였으며 제2, 제3대대는 안창말에 集結하여 사단예비로써 再編成을 서둘렀다.

4. 포병 제26대대(장 盧載鉉중령)와 대전차공격대대는 이날 18.00에 市場터로 진출하였으며 웃거리(安興里 北쪽)에 位置한 사단CP는 市場터로의 推進을 준비하였는데 將兵

의 往來와 車輛의 出入으로 活氣가 가득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3월 7일 08.00를 期하여 東部戰線에서 中部戰線에 걸쳐 敢行한 反擊作戰으로 敵은 그들이 企圖한 注文津—黃柄山—桂芳山—豊岩里—洪川—淸平—議政府線에서의 再編成의 企圖를 拋棄한채로 潰滅狀態가 되어 北走의 발걸음을 摧促하고 있었다。即 東海岸의 北共 제69여단은 襄陽으로, 中東部戰線의 제2, 제5군단은 제3군단 예하 제15사단의 掩護下에 麟蹄—楊口線으로 潰退를 다투었으며 美 제9군단 正面의 中共 제66, 제37, 제40, 제42군은 華川—鐵原線으로 後退하였고 西部戰線의 中共 제38, 제26, 제50군 및 北共 제1군단은 美 제1군단이 3월 14일에 서울을 奪還하자 議政府—東豆川을 거쳐 臨津江線을 넘어 退却中인 것으로 判斷되었다。

이 무렵, 東部戰線의 제1군단은 CP를 江陵에 두고 江陵—橫溪里間의 作戰路를 補修 확보하였는데 首都사단은 下屈岩—馬岩頭—將峯線을 확보하면서 進擊을 준비하였으며 제9사단은 CP를 松溪里에 두고 首都사단을 뛰다르면서 殘敵을 覆滅하고 있었다。한편 제3군단은 寧越에 CP를 둔 다음, 右一線인 제3사단이 間坪里—鰲鞍洞—九石洞線을 확보하였고 左一線인 제7사단은 九石洞—上珍富里—發旺谷—加里峠線으로 進擊하였다。한편 제5사단의 右隣接인 美 제7사단은 CP를 道敦에 두고 제31연대는 磨磋里—下安美里—倉洞里間의 主補給路경계를 담당하였고, 제32연대는 CP를 倉洞里에 두고 廣幕洞—德巨里線을 確保하였으며 제17연대는 군단예비로써 平昌에 集結하고 있었다。左隣接인 美 제2사단은 下大里에 CP를 두고 淸涼里—月嶺—鳳鳴里—兵武山線으로 진격하고 있었다。

제5사단은 15일에 사단CP를 市場터로 推進開設하였고 전날 泰岐山(△1262)을 奪還한 제35연대는 이날 Idaho線으로 진출하여 俗稱 곧은골—九目嶺을 連하는 線에 陣地를 점령하였으며 左一線인 제27연대는 鳳復山(△1023)을 점령한 다음, 俗稱 배나무골—면골에 이르는 一帶를 確保하므로써 Idaho線까지의 진격을 完了하였다。

16日에는 지난 50.12.2에 제35연대 제2代 연대장으로 赴任한 以來로 赫赫한 戰功을 세운 朴炫洙대령이 육본 특감 제200호(51.3.10)에 의하여 보병학교로 轉屬하였고 제6사단으로부터 洪淳龍대령이 제3代 연대장으로 赴任하였다。

17일에는 下大月(泰岐山 北쪽 12km) 부근의 △582—△631 一帶에 埋伏한 제27연대 제6중대(장, 車奎鉉대위)와 제7중대(장, 朴準喆대위) 그리고 제2대대 수색대(장, 曺暎喆소위)는 敵이 後退 당시에 隱匿한 武器와 實彈을 搬出할 목적으로 侵透한 600명의 敵을 捕捉하여 425명을 射殺하고 57명을 사로 잡았으며 각종 기관총 24정과 박격포 22문, 그리고 무전기 6대와 각종 소총 68정을 鹵獲하는 大戰果를 거두어 泰岐山지구 勝戰의 餘光을 더욱 燦爛하게 裝飾하였다。

사단은 Idaho線에 連한 陣地를 확보하고 前方에 대한 수색을 계속하는 一方으로는 次期 공격을 준비하였으며 3월 26일에는 군단계획에 따라 敵이 潰退한 麟蹄를 목표로 壯快한 進擊을 시작하였다。

泰岐山부근의 一戰에서 거둔 戰果는 다음과 같다。

戰 果

구분 / 부대별	射殺	捕虜	기관총	박격포	로켓포	M I	BAR	CAR	소총 장	99式	多發銃	對戰車砲	무전기
제27연대	489	74	25	22	11	23	35	1	54	26		3	6
제35연대	429	119	4			13			72		11		
제36연대	626	84	1			34	2	4	51	1	17		
계	1,544	277	30	22	11	70	37	5	177	27	28	3	6

損 失

凡 例 장교/사병

구분 / 부대별	戰死	負傷
제 27 연 대	/	1/6
제 28 연 대	1/7	5/97
제 36 연 대	3/23	5/132
계	4/30	10/245

9. 安東地區 共匪 擊滅作戰 (1951년 3월 18일부터 1951년 3월 29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21 호
작명부록 제227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제 2 사단	장 준장	咸 炳 善	배속부대
제17연대	장 대령	李 貞 錫	
제 1 대대	장 소령	柳 昌 熟	방위군 제 3 연대 장 중령 金 武 龍
제 2 대대	장 소령	咸 展 烈	제 7 경비대대 장 소령 姜 永 燕
제 3 대대	장 대위	梁 成 植	제207경찰부대
제32연대	장 대령	趙 在 美	병력 및 장비 : 부대 T/E상 완전 편제임
제 2 대대	장 소령	朴 東 錫	

敵 軍

北共遊擊제 1 지대	장 金 應 彬	제 3 여단	장 洪 賢 基
제 1 여단	장 李 鍾 明	遊擊제 3 지대	장 朴 鍾 根

나. 전투 전의 개황

이 作戰은, 지난 해 11월 7일에 서울에서 新編된 제2사단(장, 咸炳善 준장)이, 敵의 1월攻勢이후에 國軍 豫備部隊로서 大邱~安東~忠州間의 主補給路를 확보하면서 安東에서 부대를 재정비하여 戰力을 倍養하던 중, 3월 초에 敵 유격대 제1, 제3지대가 大邱—慶을 攪亂할 企圖아래 前線으로 부터 太白山脈을 타고 南下하여 사단 地境內에 侵透하므로서 이를 邀擊하기 위하여 展開하게 되었다。

당시에, 我軍의 前線이 攻擊態勢로 轉換되고 있었음에 비추어서, 사단이 장차 前線의 攻擊隊列에 참가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部隊整備와 戰力補強이 時急하였음에도 不拘하고, 사단이 작전을 直接 主導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理由가 있었다。

첫째, 敵 유격제1, 제3지대는 慶南 및 全南일대에 跳梁중인 敵의 旣存 유격대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여, 뚜렷한 目標를 가지고 敵의 後方에서 계획적으로 南派되었다는 점과 당초에 1개연대 규모로서 正規戰을 遂行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我軍의 後方에서 일정한 據點을 확보하여 長期戰을 노렸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아, 地域 警察部隊나 防衛軍만으로는 短期間에 完全 擊

滅하기 어려울 것으로 判斷되었기 때문이며

둘째, 敵이 육군본부와 美 제8군사령부가 위치한 大邱一圓을 攪亂함으로서, 我軍의 注意를 끌어, 前線에 投入될 사단 규모의 병력을 이 敵前에 묶어두게 하여 我軍 前線의 全般的인 戰列整備에 蹉跌을 가져 오도록 하려는, 그들의 策略을 육군본부로서는 또한 看過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我軍은 前線의 戰力을 계속維持하기 위하여서도 이러한 敵의 意圖를 꺼르는 電擊的인 作戰이 더욱 必要하였던 것이다。

敵軍의 狀況：北共人民遊擊隊(장, 金應彬：前南勞黨 서울市黨委員長)는 1950년 11월 초에, 제2사단(장, 咸炳善 준장)의 創設과 거의 같은 時期에 平南 孟山에서 我軍의 後方攪亂을 목적으로 한 「南朝鮮遊擊總司令部」로 發足되었다。

그 사령부 예하에는 3개 유격여단(제1, 제2, 제3여단)으로 구성되었는 바, 총병력 2,500명으로서 그해 11월 중순에 孟山을 출발하여 敵 제2군단의 拖護아래 陽口—麟蹄—五台山을 경유하여 南下하면서 我軍 前線에서 後方으로 侵襲코자 하였으나 麟蹄 北쪽에서 敵 제2여단이 潰滅되어 殘存 兵力을 敵 제1여단(장, 李鍾卿)과 제3여단(장, 洪賢基)에 編入시킨 다음 부대를 재정비하여 다시 平昌 西北쪽으로 迂回 侵襲하였다。

그 후에 寧越을 거쳐 재차 東쪽으로 이동하면서 團隊號를 「朝鮮人民遊擊隊 제1지대」로 改稱하고, 太白山脈을 따라 虎村里—古汗里로 南下하여 3월 14일에 사단 地境線 北端인 慶北 奈化郡 小川面 川坪里에 그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敵 「北共人民遊擊隊」 第3支隊(장, 朴鍾根：前南勞黨 慶北道黨委員長)는 1951년 2월20일에 江原道 平昌에서 총병력 350명으로서, 지대 예하에 都部隊(장, 都永浩)와 邑部隊(장, 邑 某)의 2개 부대(대대규모)로 편성하여, 太白山脈을 타고 은밀히 南下하여 敵 제1지대(장, 金應彬)보다 앞서인 3월 2일에 사단 地境線을 越境하여 奈化郡 小川面 廣回里에 진출하였다。

이 무렵 지난 1월 25일에, 中共軍의 1월 攻勢와 더불어 麟蹄—縣里線으로 南下하여 산악지대를 타고 靑松—義城으로 侵襲하였던 敵 제10사단 殘敵이 그간 普賢山일대에서 匪賊化되어 跳梁하다가, 大邱 北쪽 八公山에 據點을 마련할 企圖였으나, 사단병력과 太白山지구 전투경찰사령부(사령관, 尹潤運 경무관) 예하 경찰부대의 敎勳한 추격과 차단작전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殘敵 3,000명은 2월 20일을 前後하여 마침내 北上 退却을 시작하였다。

이들 敵 제10사단의 殘敵은 제2사단의 추격을 避하여 放火와 掠奪등을 恣行하면서 軍威—靑松을 거쳐 3월 4일에 南海龍里에 進出하여, 마침 廣回里로부터 南下한 敵제3지대(장, 朴鍾根)와 合流하였다。

그러나, 이미 千辛萬苦끝에 北上한 敵 제10사단의 殘敵은 그 行首를 다시 돌릴 수 없음을 감안하였음인지 北上을 계속하고, 敵 제3지대만 단독으로 敵 제10사단으로 부터 병력 155명을 補充받고 東南으로 향하였다。敵 제3지대(장, 朴鍾根)는 제2사단 병력과 접촉을 극력 회피하면서 英陽郡 首比面 新岩洞, 按嶽洞을 경유하여 羊邱洞(英陽 東南쪽 15km)일대에서 彷徨하다가 사단(제7경비대대)의 強力한 차단으로 3월 17일 이후로 △808(羊邱洞 南쪽 8km)에 遁入하기에 이르렀다。한편, 敵 제1지대(장, 金應彬)는 3월14일에 사단接境線 北쪽으로 潰走하는 敵 제10사단을 추격하여 永川으로부터 急進한 제17연대(장, 李貞錫 대령)에 의하여 侵透路를 차단당한 가운데 梧味山으로 迂回하여 3월 17

일에 前珍那 西面 德古里와 雙田里까지 進出하였으나 通古山 일대에서 역시 南下를 阻止당하게 되었다。

제1, 제3지대는 敵 제2군단을 경유한 中央黨의 집적 指令을 받아 八公山에 蟠據하려는 同一한 目的을 가지고 각각 別個로 行動하여 사단接境線의 浸透는 일단 성공하였으나, 그 이후로 연속적인 打擊을 받아 3월20일 현재에, 그 兵力은 제1지대가 891명, 제3지대가 275명으로 감소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빈틈없는 地域警戒로 인하여 掠奪등에 의한 現地調達이 困難하게 되어, 사실상 敵의 戰力은 兵力減少率보다 훨씬 더 크게 損傷되어 있었다。

따라서 敵의 이 보급품의 缺乏現狀은 士氣의 低下에 결정적인 要因이 되고 있었다。

我軍의 狀況 : 사단은 1950년 11월 7일에 예하부대로, 독립연대인 제17연대(장, 李貞錫 대령)를 基幹으로 제31연대(장, 申東雨 중령)와 제32연대(장, 대리 白基千 중령)을 新編하는 일방, 11월 19일에 「鐵의 三角地」 일대에서, 이른바 「第2戰線」을 형성하고 있던 敵 제2군단殘敵의 蠢動을 制壓하기 위하여 加平, 洪川지구로 轉進하였다。

그 뒤 11월 29일에, 西部戰線이 점차 압축되어, 사단은 다시 主力을 議政府—抱川—漣川지역으로 옮겨, 臨津江 渡河點과 서울 北方 主補給路를 경비하던 중 12월 10일에 이르러, 敵 제2군단이 西部戰線의 敵 제1군단과 협공하여 서울을 攻略하려는 徵兆를 보이기 시작함에 따라, 제3군단(장, 李學根 준장)에 배속되는 동시에 清平으로 이동하여 12월 22일부터 제3군단 左翼으로 "B"線방어에 임하였다。

中共軍의 1월공세와 함께 사단은, 51년 1월 1일에 제3군단에서 美 제10군단(Almond 소장)으로 배속이 변경되어 驪州—堤川—店村을 경유하여 1월 19일에 醴泉으로 轉進하였다。

2월 3일에, 제1, 제2군단이 美 제10군단과 協力하여 總反擊을 開行함에 따라 醴泉에서 豊基로 前進하여 사단 主力을 美 제10군단 前線에 配備하고, 安東지구 보급시설을 경계하였다。

사단은 2월 13일에 다시 美 제10군단에서 陸本直轄로 복귀하여 제1, 제3군단, 美 제10군단 후방지역의 平定任務를 담당하게 되어 사단본부를 豊基에서 義城으로 옮기는 同時에 육본 작전국방지휘소(一名 李成佳 전투부대) (장, 李成佳 준장)로부터 제5, 제6, 제7경비대대와 국민방위군 제1사단 제1연대 및 전투경찰 2개대대를 배속받아 永川—浦項, 永川—安東, 安東—盈德間의 主補給路를 확보하면서 부대를 재정비하는 한편, 普賢山일대의 敵 제10사단 殘敵을 擊滅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사단이 本格的으로 地域平定態勢를 갖추자, 敵 제10사단의 殘敵은 2월20일에 北上遁走를 시작하였다。

사단은 敵 제10사단을 추적하여 南海龍里일대에 이르러, 敵 제3지대를 또한 擊滅하게 되었는데, 이때 육본작명에 따라 3월 6일에 사단본부를 義城에서 安東으로 躍進하였다。

다시 3월 13일에 永川지구에서 보급로를 경비하고 있던 제17연대를 敵 제10사단 殘敵의 退路上의 사단接境線 北端인 春陽으로 挺進시켜 敵에 대한 추격을 促進시켰다。

이때에 敵 제1지대의 突然한 출현으로 말미암아, 육군본부는 이 敵을 먼저 섬멸하도록 決心함에 따라 사단은 敵 제10사단에 대한 추격임무를 제1군단 지역의 제9사단(장, 李成佳 준장)에 인계하고 敵 제1, 제3지대를 擊滅하기 위한 새로운 준비를 갖추게 된 것인데, 이 무렵의 사단의 작전 지휘소

位置는 다음과 같다。

사단본부—安東	제32연대—義城	제6경비대대—慶州
제17연대—春陽	방위군 제3연대—眞寶	제7경비대대—英陽
제31연대—榮州	제5경비대대—金泉	제207경찰부대—平海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이 작전은 당초에, 普賢山일대에서 北上退却하던 敵 제10사단 殘敵을 追擊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인 바, 육군본부는 3월 12일에 사단으로 하여금 이 추격을 強化하도록 作戰命令을 하달하였으나, 이때 敵 제1지대의 돌연한 出現으로 말미암아 我軍 背後에 대한 不安要素를 除去하는 것이 當面의 急先務가 되었으므로 3월 14일에 다시 육본작명 제263호 수정작전지시 제2호(참조 작명부록 제225호)를 下達하였는데 그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제1군단은 필요한 병력으로서 敵 제10사단 殘敵을 捕捉擊滅하라.

② 제2사단은 敵 유격 제1지대의 侵透를 阻止擊滅하라。』

따라서 사단장 咸炳運준장은 敵 제10사단의 殘敵追擊을 敵 제1지대의 侵透阻止로 즉각 轉換하였다。

그런데 이 작전에 앞서서, 大邱—安東—丹陽間의 主補給路를 계속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과 對遊擊戰의 特殊性을 고려한 사단장은, 敵이 사단에 依하여 一次的으로 遮斷을 당하자 예정된 據點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現狀態를 固着시켜, 敵 제1, 제3지대를 同時에 殲滅할 계획을 세웠다。

따라서 사단장은 예하 각급부대로 하여금 敵 제1지대를 通古山일대에서, 그리고 제3지대를 華田洞일대에서 각각 차단케 하여 敵의 行動半徑을 압축하면서 南下企圖를 牽制토록 하는 한편, 작전준비에 만전을 期하게 하는 同時에 3월 20일 12.00에 安東 사단본부에서 다음과 같은 要旨의 작전명령 제57호를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3월 21일 08.00를 기하여, 사단 지역내에 侵透하여 通古山지구와 華田洞지구에서 出沒하고 있는 當面의 敵 유격 제1, 제3지대를 捕捉 殲滅 하려 한다.

② 제17연대(장, 李貞錫 대령)(春陽)는 3월 21일 08.00부로 제207경찰부대 제2대대(平海)의 배속을 받아 通古山지구의 敵 제1지대를 擊滅하라.

③ 제32연대(장, 趙在美 대령) (결, 제1, 제2대대 : 義城)는 3월 21일 08.00부로 방위군 제3연대(眞寶)와 제7경비대대(英陽)의 배속을 받아 羊峙洞지구의 敵 제3지대를 擊滅하라.

④ 제31연대(장, 李長錫대령)(榮州)는 제1대대(豊基)와 제2대대(北下里) 및 제3대대(榮州)로서 安東—榮州—豊基—丹陽間의 보급로를 확보하고 담당지역내의 경계를 계속하라.

⑤ 제32연대 제1대대(新寧)와 제3대대(義城)는 永川—義城間의 보급로를 확보하고 담당지역내의 경계를 계속하라.』

그리고 사단장은, 이러한 작전기본계획 아래, 작전의 特殊性을 거듭 강조하여 다음과 같은 要旨의 「作戰指導要領」을 示達하였다。

『① 對遊擊戰인 만큼 각급부대는 以夷制夷로 敵 보다도 더욱 能動的인 遊擊活動을 展開하라 따라서 소대 이하의 小部隊를 活用하여 敵과 끊임없는 接觸을 유지하라.

② 榮敵에 主力하되, 情報에만 依存하지 말고 威力搜索을 兼하여 敵情을 捕捉하라.

③ 兵力 機動에 대한 保安措置를 철저히 할 것이며, 兵力을 이동할 때에 可能한 限 民間人과의 접촉을 避하라.

④ 晝夜間을 莫論하고 부대간의 暗號(號出 및 應答)에 格別 유의하여 小部隊의 分散活動에 따르는 我軍상호간의 偶發的인 충돌을 避하라。』

(2) 작전실시

3월 18일(D—3일) : 사단은, 지난 15일에 제17연대(장, 李貞錫 대령) 제2대대가 사단 北方地境線에서 敵 제1지대와 交戰한 이래, 연대의 全主力으로 敵을 포착토록 하는 한편 사단수색중대를 敵의 南下豫想經路上인 春陽郡 小川面 承富洞으로 推進시켜 敵情을 수집하게 한 바, 敵이 太白山에서 上川坪—石浦里를 경유하여 椵味山으로 迂回이동 하였다가 계속하여 通古山으로 南下중임을 확인하였다。

사단장은 연대로 하여금 敵 제1지대의 企圖를 분쇄토록 하고, 사단수색중대는 계속 威力搜索을 하여 敵情을 수집토록 하였다。

上. 제17연대(장, 李貞錫 대령) : 연대는 CP를 春陽에 두고, 이날 椵味山에서 南下하는 敵 제1지대를 포착하기 위하여 제1대대(장, 柳昌勳 소령)로 敵의 後尾를 뒤쫓게 하는 동시에, 제2대대(장, 咸晟烈 소령)와 제3대대(장, 梁成植 대위)를 德古里와 雙田里에서 敵의 進出을 차단토록 하였던 바, 제2대대가 23.50에 雙田里에 집결한 敵 400명을 邀擊하여 召光里쪽으로 潰散시켰다。

한편, 사단에 배속되어 있던 제207경찰부대는 東海岸 平海에 위치하여 제1대대는 平海

一盈德間의 보급로를 경계토록 하였으며, 제2대대는 平海 西南쪽 三溪洞에서 敵 제3지대의 跳梁을 制壓하고 있었다。

2. 제32연대(장, 趙在美 대령) : 연대는 義城에 위치하여, 제1대대(장, 崔奎然 대위)는 新寧에서 永川—義城間의 보급로를 확보토록 하고, 제3대대(장, 朴東錫 소령)를 軍威에 두어 地域을 警戒토록 하였으며 제3대대(장, 姜聖塔 대위)를 연대 예비부대로 義城에 配置하였다。

그리고, 이날 사단에 配屬된 방위군 제3연대(장, 金武龍 중령)는 연대본부를 眞寶에 두고, 제1대대는 眞寶 西南에서, 그리고 제2대대는 眞寶 東南에서 각각 敵 제3지대를 수색토록 하고, 제3대대는 연대 예비부대로 眞寶에서 自隊警備를 하였다。

3. 사단에 배속된 제7경비대대(장, 姜永燾 소령)는, 대대본부를 英陽에 두고, 전날에 제1, 제2중대를 洪溪洞에서, 그리고 제3, 제4중대를 羊邱洞에서 각각 索敵토록 하였던 바, 敵 제3지대 主力 300명이 羊邱洞을 거쳐 羊邱洞 南쪽 △808로 이동하였다는 敵情을 입수하였다。

이에 대대는 전날 오후 늦게, 대대 全兵力을 英陽으로 집결시켜 戰列을 가다듬은 다음에, 이날 새벽 05.00에 △808의 敵 擊滅을 위하여 出動하였다。

대대장 姜永燾소령은, 제 1, 제2, 중대및 제4중대를 英陽으로부터 化川洞을 경유하여 羊邱洞에 進出시켜 제2중대를 攻擊梯隊로 하여 제4중대의 掩護아래 △808의 敵의 北쪽 正面을 공격케 하고, 제1중대는 敵의 東쪽을 차단하여 分散을 저지토록 하였다。그리고, 제3중대는 羊邱洞에서 △808의 西쪽을 迂回하여 △808의 西南쪽 三宜洞으로부터 敵의 南쪽 背後를 협공함과 아울러 敵의 退路를 차단토록 하였다。

대대장의 이러한 작전계획에 따라 16.00에 공격준비를 완료한 대대는 17.00를 期하여 △808의 敵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대대장으로부터 공격명령을 받은, 제2중대장 曺昌大대위는 攻擊梯隊長으로서 제1소대(장, 崔日燮 소위)와 제2소대(장, 張云煥 소위)를 지휘하여 敵前으로 공격기동을 하였다。

敵은 高地 北쪽 山麓의 有利한 능선에서 암석과 수목들을 利用하여 構築한 掩蔽壕에서 중대의 공격에 對峙하고 있었다。

그리고, 3월 解凍期라고는 하지만 高地帶에서는 추위가 아직 가시지 않아, △808의 溪谷과 稜線 斜面에는 結氷한 殘雪이 到處에 깔려 있어서 중대의 기동을 阻害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날은 음력 초닷새로서 日沒과 함께 초생달이 이미 西山으로 기울기 시작하였는

데, 밤이 깊어감에 따라 그 여린 달빛으로 하여금 殘雪위에 차거운 閃光을 일게 하여 중대원의 視界를 방해하면서, 企圖를 敵에게 露出시켜 주고 있었다。

이러한 地形的인 불리한 여건속에서 중대는 殘雪위를 포복으로 前進하여 20.00에 敵의 主抵抗線에 肉迫하였다。

그러나 敵의 저항은, 제4중대의 掩護火力의 威壓에도 불구하고, 執拗하여서 더 이상 제2중대의 接近이 용이하지 않았다。

이에 중대장은 突擊戰을 감행할 결심으로, 特攻組로 하여금 手榴彈으로 먼저 敵 特火點을 制壓하도록 하였다。

중대장의 이와같은 결심에 따라, 崔鍾赫, 蘇鎭世, 徐元道, 金容官일등중사와 金鍾煥이등중사등 5명이 敵의 彈雨속을 뚫고 들어가 21.00에 敵의 特火點을 奪取하여 敵 防禦線一角을 攪亂하였다。

이때에, 중대장의 돌격명령과 함께 중대가 怒濤와 같이 敵陣으로 突進하자, 21.30에 敵은 마침내 戰意를 잃고, 제1 제3중대의 차단망을 避하여 △808 南쪽 葡萄山과 明東山일대로 潰走하고 말았다。

이렇게 하여, △808의 敵 제3지대 主力을 擊破한 제7경비대대(장, 姜永燾 소령)는 이날 戰死 1명과 負傷 14명의 損失을 입은 반면에 敵 射殺 25명과 捕虜 7명을 비롯하여 M1 9정, 蘇製小銃 5정, 多發銃 6정, 手榴彈 52발, 對戰車地雷 1개 등을 鹵獲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3월 19일(D—2일) : 사단장 咸炳春준장은 이날 작전회의를 열어 작전계획을 熟議하는 한편, 각 연대별로 兵器와 車輛檢査를 실시하여 작전개시와 동시에 即刻的으로 발휘할 수 있는 機動力과 火力을 점검하는 등, 작전준비를 마무리 짓고 있었다。

1. 제17연대(장, 李貞錫 대령) : 연대는 전날에 이어 敵 제1지대에 打擊을 계속하였다。

제1대대(장, 柳昌勳 소령)는 이날 未明에 召光里로부터 敵 一個을 추격하여 通古山으로 南下하였는데, 이 敵 가운데에 120명이 通古山 東쪽 3km 東水谷으로 潛跡함에 따라 대대는 通古山일원에 대한 威力搜索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제2대대(장, 咸晟烈 소령)는 敵의 南下 豫想進路上의 龍華洞(通古山 西南 10km 地點) 일대로 轉進하여 敵의 南下 侵襲을 저지하면서 축차적으로 通古山을 수색할 준비를 하였다。

한편, 제3대대(장, 梁成植 대위)는 이날 새벽에 雙田里에서 潰散된 敵을 追跡하여 召光

里쪽으로 進出하였다。

2. 제32연대(장, 趙在美 대령) : 제1대대(장, 崔重烈 대위)는 新豊에서, 제3대대(장, 姜聖塔 대위)는 義城에서 지역경계를 계속하고, 제2대대(장, 朴東錫 소령)는 연대장 명에 따라 來久에 전개된 英陽지구의 敵 제3지대 殘敵 擊滅作戰에 대비하여 駐屯地인 軍威로부터 九山洞으로 轉進하였다。

3. 방위군 제3연대(장, 金武龍 중령)는 이날에 연대본부와 연대예비대인 제3대대를 眞寶에 두고 敵 일부가 白岩山일대에도 分散될 것을 예측한 사단의 白岩山지구 경계강화 지시에 따라 제3대대는 白岩山으로 轉進시키는 한편, 제2대대를 三宜洞 南쪽으로 轉進시켜 △808에서 潰散된 殘敵의 南下를 저지토록 하였다。

4. 제7경비대대(장, 姜永燕 소령)는 전날 밤 △808의 勝戰餘勢를 몰아 △808일대에 威搜索을 하면서 敵影을 쫓고 있었다。

3월 20일(D—1일) : 사단은 이날 12.00에 작전계획을 매듭짓고 지역내에 侵襲한 敵 제1, 제3지대를 擊滅하기 위한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리고 眞寶에 前方CP를 開設하기 위하여 先發隊를 先遣하는 한편, 사단 수색중대를 蔚珍으로 轉進시켜 東海岸쪽에서 敵 제1지대의 敵情을 수집함과 아울러 蔚珍—平海間의 보급로를 확보토록 하였다。

1. 제17연대(장, 李貞錫 대령) : 제1대대(장, 柳圖勳 소령)는 08.00부터 索敵을 시작한 바, 13.00에 東水谷에서 敵을 포착하여 공격하였으나, 敵은 저항없이 東水谷 南쪽 水下里로 潰走하였으므로 이를 계속하여 追擊하였으며, 제2대대(장, 咸晟烈 소령)는 전날에 이어 通古山 西南쪽으로부터 通古山을 정밀 수색중에 있었다。

그리고 제3대대(장, 梁成植 대위) 역시 전날에 계속하여 北쪽으로 潰走한 敵의 一團을 추격하다가 18.00에 召光里 南쪽 2km 地點에서 敵을 포착하여 공격한 결과 射殺 18명과 捕虜 5명의 戰果를 올리고, 梧味山쪽으로 潛跡한 敵을 계속하여 追擊하였다。

2. 제32연대(장, 趙在美 대령) : 제2대대(장, 朴東錫 소령)는 △808일대에서 敵을 수색하고 있는 제7경비대대 및 방위군 제3연대와 合同하여 敵을 撲滅하기 위하여, 九山洞에서 靑松부근으로 進出하였다。

방위군 제3연대(장, 金武龍 중령)는, 敵 제3지대의 南下를 阻止하는 것이 急先務라는 사단의 再지시에 따라, 전날에 白岩山으로 이동시킨 제1대대를 다시 △808 西南쪽 新村洞으로 복귀토록 하였다。 그리고 三宜洞 南쪽에서 敵의 南下에 對備하여 차단線을 設置하

고 있던 제2대대는, 지난 18일에 △808에서 제7경비대대에게 擊破당하여 葡萄山쪽으로 潛走하였던 敵 제3지대의 主力 일부가 다시 靑鉢 東南쪽 △812로 南下하였다는 敵情을 入手하고, 이를 追跡하여 △812에서 敵 제3지대 참모장과 晶부대 제1중대장을 射殺하였는데, 殘敵은 △812 東쪽 △712일대로 分散逃走하였다.

3. 제7경비대대(장, 姜永鎭 소령)는 전날에 이어서 △808에서 潰散된 敵을 포착하기 위하여 三宜洞 南쪽과 葡萄山 北쪽일대를 威力수색하였다.

3월 21일(D일) : 이날, 사단장 咸炳善준장은 정보참모 金慶祥중령과 작전참모 李寬植중령등 장교 15명과 사병60명을 대동하고 眞寶에 設置한 前方 C P에 도착하여 본격적인 작전지도에 임하였다.



<共匪를 搜索中인 제2사단 將兵들>

1. 제17연대(장, 李貞錫 대령) 제1대대(장, 柳昌勳 소령)는 전날에 이어 敵影을 쫓아서 이날에 水下里에서 다시 通古山—巨應洞으로 逆搜索을 하여 春陽 東쪽 縣洞으로 轉進하였으며, 제2대대(장, 咸晟燮 소령) 역시 通古山일대를 수색한 다음에 巨應洞으로 進出하여 巨應洞—春陽間의 보급로와 지역을 경계하였다.

그리고 제3대대(장, 梁成植 대위)는 전날에 梧味山쪽으로 潛跡한 敵 일단을 추적하여 이날 石浦里로 進出하여 梧味山일대의 수색을 계속하였다.

한편, 사단작명에 따라 이날 08.00부로 사단에서 제17연대로 배속이 변경된 제207경찰부대 제2대대는, 연대장 작전지휘아래 敵 제1지대 殘敵 擊滅에 임하기 위하여 駐屯地인 三溪洞으로 부터 차량기동을 하여 石浦里로 進出하였으며 제1대대는 平海로 부터 寧海로 이동하여, 平海—盈德間의 보급로를 계속하여 확보하는 동시에 英陽郡 入比面일대의 지역을 경계하였다.

2. 제32연대(장, 趙在夏 대령) : 이날 08 : 00부로 방위군 제3연대와 제7경비대대가 연대에 배속됨에 따라 연대장은, 전날 △812에서 敵 제3지대 참모장등의 고급지휘관이 방

위군 제3연대 제2대대에 射殺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敵 主力이 △812와 △712일대에 潛伏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방위군 제3연대의 일부 병력으로 하여금 △812와 △712일대에 강력한 위력수색을 실시케 하여 敵情을 露出시키도록 하는 한편, 이들 敵의 再北上에 대비하여 방위군 제3연대의 일부 병력으로 △812와 △712 北쪽 일대에 北上阻止線을 설치케 하고, 연대 예하 제2대대(장, 朴東錫 소령)를 九山洞으로 부터 △812 西南쪽 大前洞으로 이동시켜 敵의 南下에 대비한 遮斷遮斷網을 構成하도록 하였으며, 제7경비대대는 전날에 이어 △812 東北쪽 三宜洞北方일대를 계속 수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방위군 제3연대(장, 金武龍 중령)는 제2대대와 眞寶에서 연대예비로 있던 제3대대로 △812와 △712일대에 위력수색을 強化하였으며, 17.00에 白岩山으로 부터 △812 北쪽 12km 新村洞에 도착한 제1대대로서, 新村洞에서 완만하게 東南向한 河川에 沿한 幹線道路를 따라 院前里에 이르기 까지의 8km線上에 敵 北上 차단망을 設置하였다。

3. 한편, 羊邱洞 西쪽 2km의 主山일대와 △808일대를 수색하던 제7경비대대(장, 姜永燕 소령)는 12.00에 三宜洞에 다시 集結한 敵 제3지대 都부대 120명을 포착하였다。

대대장은, 이 敵을 擊滅하기 위하여 13.00에, 主山을 수색중인 제1중대로 三宜洞 西北 △711를, 그리고 △808을 수색중인 제2중대는 三宜洞 東쪽 △694를 각각 점령케 한 다음에 三宜洞의 東西 양쪽을 협격토록 하고, 제4중대는 三宜洞 北쪽 △645로 부터 제1중대와 제2중대의 공격을 支援토록 하였으며, 대대 수색대로 三宜洞 南쪽 △711와 △694 사이의 溪谷에서 敵의 退路를 차단하도록 지시하여, 17.00까지 각 중대로 하여금 三宜洞 四周의 三角 高地群을 장악하도록 하였다。

대대는 지난 18일에 있었던 △808의 공격때와는 그 狀況이 判異한 가운데 日沒을 期하여 各各 高地로 부터 三宜洞으로 향하여 攻擊機動을 개시하여 夜暗이 짙어지면서 交戰이 시작되었는데, 完全包圍되었음을 直感한 敵이 民家에 潛伏하면서 執拗的인 저항을 하여 밤이 깊도록 彼我間에는 混戰을 거듭하였다。

그러다가 24.00에 제1중대의 金憲連이등중사와 李贊安일등병 및 제2중대의 崔鍾赫일등중사와 崔庾浩일등병등이 挺身하여 打開한 進出路를 따라 兩個 중대가 同時에 三宜洞으로 突入하여 左右에서 挾擊하자, 敵은 미침내 支離滅裂 상태로 潰散되어 22일 04.00에, 대대가 예상한대로, 수색대가 차단하고 있는 南쪽 1個東山일대로 潰走하였다。

이렇게 하여, 제7경비대대는 사단 작전의 개시와 더불어 三宜洞에서 다음과 같은 戰果를 세워 그 緖戰을 裝飾하였다。

戰　果

射　殺 55명

鹵獲 M1 3정, 쏘식소총 44정, 실탄 120發

損　失

負傷 3명

3월 22일(D+1일) : 사단장은 이날 眞寶에서 自體警戒狀況을 일일히 점검하는 한편, 예하 情報機關과 民間人 諜報등 각급 情報網에게 2시간에 한번씩 정보보고를 하도록 지시하여 情報활동의 신속성을 期하도록 하였다。

1. 제17연대(장, 李貞錫 대령) : 이날 제1대대(장, 柳昌勳 소령)는 縣洞에서 春陽 西北쪽 10km까지 進出하여 지역을 경계하면서 敵情을 수집하였으며, 제2대대(장, 咸晟烈 소령)는 전날에 계속하여 巨應洞일 대에서 보급로 확보와 索敵에 임하고 있었다。

한편, 제3대대(장, 梁成植 대위)는 제207 정찰부대 제2대대와 함께 石浦里일대에서 敵을 수색하던 중 梧味山 北쪽에서 敵 敗走兵 일단을 발견하여 射殺 16명, 捕虜 6명과 俄式步銃 3정, 多發銃 2정, M1 3정을 鹵獲하였는 바, 敵 제1지대는 그간 연대의 鐵槌로 分散되었으며, 그 主力은 勢窮力盡하여 大德山一高陽山을 통하여 北上退却중임이 捕虜의 陳述에 의하여 밝혀졌다。

2. 제32연대(장, 趙在美 대령) : 제2대대(장, 朴東錫 소령)는 전날 △812일대의 敵이 南下할 것에 대비하여 大前洞에서 차단망을 설치하고 있다가 이날 △812 東쪽 7km 地點으로 進出하여 敵情에 따라 신속하게 推移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다。

3. 방위군 제3연대(장, 金武龍 중령)는 전날에 이어 제2, 제3대대를 投入하여 △812일대를 수색하였으나 별다른 敵情이 없음에 따라 20.30에 수색을 완료하고 △812 南쪽 梨田洞으로 集結하여 敵의 南下에 대비하였으며, 제1대대는 계속하여 新村洞에서 敵의 北上을 阻止하고 있었다。

4. 제7경비대대(장, 姜永燕 소령)는 전날 三宜洞에서 明東山쪽으로 潰走한 敵을 추적하여 明東山일대를 수색한 다음 院前里(明東山 西南 6km)로 南下하여 △812일대를 中心으로 지역일대를 수색하였다。

3월 23일(D+2일) : 사단장 咸炳善준장은 이날, 제17연대가 담당한 北部지역의 敵 제1지대의 主力이 石浦里로 北上함에 따라, 사단병력으로 이 敵을 殲滅할 결심으로 제17연대로 하여금 사단地境線을 越境한 敵을 계속 추적하여 殲滅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제32연대가 담당한 南部地域의 敵 제3지대의 南下의 鈍化에 따라서는 제32연대장으로 하여금 예하 제2대대와 방위군 제3연대 및 제7경비대대의 3개부대로서 협동작전토록 하여 一擧

에 敵을 擊滅하도록 指示하였다。

그리고 이날 安東에 있는 사단본부에서는, 참모장 柳根昌대령 이하 全 參謀와 각 연대 副聯隊長이 參觀하는 가운데 14.00부터 2시간에 걸쳐, 포병 제18대대의 105mm 砲兵射擊訓練을 安東 北쪽 14km地點의 野山에서 실시하였는데, 한동안 安東一帶를 震動한 砲聲이 마치 惡魔의 怒號와도 같아 連日 사단의 鐵槌아래에서 戰戰兢兢하는 敵의 肝膽을 더욱 서늘하게 하였다。

1. 제17연대(장, 李貞錫 대령) : 제3대대(장, 梁成恒 대위)는 진날 谷浦里에서 西北쪽인 大德山으로 潰走중인 敵 제1지대 主力을 추격하여, 이날 오전에 제207경찰부대 제2대대와 함께 大德山으로 急速 挺進하여, 경찰부대는 大德山 左側으로 迂回하여 大德山 西北쪽을 수색케 하고, 대대는 大德山 南쪽 일대를 수색하던 중 13.00에 大德山 東南 1km 地點인 茶竹里에서 敵 300명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대가 全兵力으로써 공격하자, 敵은 일부 掩護부대로서 대대의 공격을 저지하면서 退却하여 大德山(△1,307)으로 逋入하였다。

대대는 즉시 大德山으로 추격하여 15.00에, 제11중대가 主攻이 되어 大德山 東南쪽 正面의 敵을 공격하고, 제9중대는 右側 東北쪽에서, 그리고 제10중대는 敵의 左側 西南쪽에서 각각 협공하며 제12중대는 제11중대를 掩護하여, 再次 공격을 개시하였다。

대대의 包圍 공격으로 말미암아 당황한 敵은, 大德山 東南山麓에서 有利한 地形地物을 이용하여 急編防禦陣地를 마련하고 應戰을 試圖하였으나, 戰列을 미쳐 整備하지 못하여 조직적인 저항을 할 수 없었을 뿐만아니라 대대의 攻擊銳氣에 압도되어 이미 戰意마저 잃은 狀態였다。

이러한 敵의 弱點을 看破한 제11중대(장, 崔允燮 중위)는 敵의 방어선 中央部에 全力을 集中하여 제1선을 突破하였다。

제11중대가 이와같이 敵을 兩斷함과 때를 맞추어서 右側 제9중대와 左側 제10중대가 앞을 다투어 협격하여 左面右突하게 되자, 敵은 18.00에 大德山에 또 하나의 屍山을 이루어 놓고 一敗塗地하고 말았다。

이렇게 하여 대대는 이날 大德山에서 다음과 같은 戰果를 거두고 그 餘勢를 몰아 大德山 西北 老木里쪽으로 간신히 潰走한 殘敵을 계속 추격하였다。

戰　果	鹵獲—俄式步銃 30정,
射殺 142명,	多發銃 8정,

捕虜 29명, | M1 13정, 칼빙 5정, 99式小銃 1정,

한편, 제1대대(장, 柳昌燁 소령)는 전날에 이어 春陽 北쪽에서 지역을 경계하고 있었으며 巨嶺洞의 제2대대(장, 咸晟烈 소령)는 이날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大德山 일대의 敵 分散에 대비하여 제5, 제8중대를 大德山 東쪽 前頭里로 急進시켰으며 제6, 제7중대는 계속 巨嶺洞에 掩置하여 平海-巨嶺間의 보급로를 확보하면서 德古里일대에 徘徊중인 殘敵을 搜索토록 하였다。

2. 제32연대(장, 趙在美 대령) : 연대는, 連日 波狀的인 연대의 공격으로 인하여 方向感覺을 잃고 △812일대에서 停頓狀態에 빠진 敵의 行方이 전날부터 杳然하여 짐에 따라 이날 敵 제3지대 殘敵의 動向把握에 腐心하고 있었다。

연대 예하 제2대대(장, 朴東錫 소령) △812 東쪽에서 이날 洛平里(院前里 東南 5km)로 轉進하여 院前里에 위치한 제7경비대대(장, 姜永基 소령)와 함께 지역일대를 威力搜索하였으나 별다른 敵情은 없었다。

3. 한편, 방위군 제3연대(장, 金武龍 중령) 제1대대는 新村里에서 敵 北上遮斷網을 계속 設置하고 있었으며, 제3대대는 전날에 이어 △812 南쪽 梨田洞에서 敵의 南下에 對備하여 阻止線을 構成하는 가운데, 제2대대가 △812일대의 수색을 계속하였다。

이날의 狀況으로 보아서, 敵 제3지대는 △812일대에서 부대를 재정비하면서 새로운 突破口를 찾고 있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3월 24일(D+3일) : △821지구의 敵 제3지대가 이날 새벽에 돌연히 그 馬脚을 들어내어 北上潰走함을 察知한 사단은 이 敵에 대한 追擊戰을 다시 敢行키로 하였다。

1. 제17연대(장, 李貞錫 대령) : 연대는 전날에 이어 敵을 추격하는데 더욱 東奔西走하였는 바, 제3대대(장, 梁成植 대위)는 전날 大德山에서 潰散한 敵이 老木里에서 西北方向으로 뻗어나간 산악지대를 타고 高陽山으로 向할 것으로 判斷하고 제11중대로 하여금 敵의 後尾를 追跡케 하는 한편, 제9, 제10중대로 하여금 산악 左右로 併進하면서 이 敵을 急히 追擊토록 하였다。

제11중대는 08.00에 敵影을 좇아 老木里(大德山 西쪽 7km)에 이르러, 民家에서 식량을 掠奪하고 아침 食事를 準備中이던 敵 40명을 포착하여 이를 急襲하였다。

連日 계속한 潰走로 因하여 극도의 疲勞와 飢餓에 빠진 敵은, 중대의 不意의 奇襲에 또 한번 魂飛魄散하여 食事를 하지 못하고 老木리 西쪽인 老木山으로 退却하였다。

中隊員 역시 徹夜에 걸쳐 強行한 追擊과 接戰으로 敵에 못지 않게 體力을 消耗하였으나

士氣만은 旺盛하였다。중대는 老木里에서 敵 射殺 8명, 捕虜 6명의 戰果를 올리면서 계속 追擊의 고비를 늦추지 않았다。

이때 제12중대는 대대본부와 함께 老木里 西北쪽 鷹川으로 進出하였다。

한편 제1대대(장, 柳昌勳 소령)는 전날과 같이 春陽 北쪽에서, 그리고 제2대대(장, 咸成烈 소령)는 巨應洞과 前頭里에서 각각 수색임무를 계속하고 있었으며, 제207정찰부대 제2대대는 이날 老木里 西南쪽 3km인 舍北里일대를 수색한 뒤에 앞서 進出한 제3대대 主力을 따라 西北으로 轉進하면서 敵情을 수집하였다。

2. 제32연대(장, 趙在美 대령) : 전날에 연대가 △812일대의 敵情수집에 별다른 進展이 없어 苦心하고 있을 무렵, 敵은 이미 △812를 벗어나 南下하여 朱岩山(△721) (△812 南쪽 3km)에서 병력 250명을 再糾合한다음 연대 포위망의 突破口를 찾고 있었던 바, 그간의 狀況을 감안하여 八公山에 蟠踞할 企圖를 抛棄하고 이날 北上退却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敵의 企圖는 이날 02.20에 新村洞에서 敵의 北上遮斷網을 구축하고 있던 방위군 제3연대(장, 金武龍 중령) 제1대대의 埋伏組가 敵의 偵察隊를 발견하여 交戰하는 동안에, 敵 主力이 대대의 차단망을 통과하여 北上하므로써 露呈되었는데, 이들 제3지대의 殘敵은 다시 三宜洞一主山에 연하는 山岳帶을 이용하여 金藏山一通古山으로 北上할 것으로 보였다。

3. 이에 따라, 新村洞의 방위군 제3연대 제1대대와 院前里의 제7경비대대(장, 姜永燕 소령), 그리고 洛平里의 제32연대 제2대대(장, 朴東錫 소령)는 이날 03.00부터 戰列을 갖추어 그 敵을 동시에 추격하기 시작하였다。

4. 제7경비대대(장, 姜永燕 소령)는 院前里 北쪽 梅花洞일대를 수색한 다음에 敵의 北上經路을 따라 三宜洞으로 躍進하였던 바, 08.00에 三宜洞 北쪽 1km地點인 無名高地에서 隊伍를 整備하는 敵을 포착하였다。

이 無名高地는 標高 600m로서 北으로 主山과 東北으로 △808, 그리고 南으로 △711에 연하는 험준한 山이었으며 특히 雜木이 울창하여 視界가 극히 불량하였다。

대대가, 敵의 정확한 상황조차 把握할수 없었으리만큼 難境이었던 것을 무릅쓰고, 09.05을 期하여 高地 東南쪽으로 부터 공격을 개시하여 11.30에 敵 據點에 突入하였을 때에는 敵은 이미 西北으로 병풍과 같이 펼쳐진 山嶽을 타고 主山쪽으로 退却한 다음이었다。

대대는 다시 이 敵을 추격하여 主山으로 進出하였다。

이때, 敵의 豫想退路를 迂回하여 수색 前進하던 제32연대 제2대대(장, 朴東錫 소령)와

방위군 제3연대(장, 金武龍 중령) 제1대대는 제7경비대대(장, 姜永燾 소령)가 無名高地에서 敵을 공격하자, 제7경비대대를 초월하여 敵 退路를 차단하기 위하여 축차지점인 羊邱洞으로 急進하였다。

그리고 梨田洞에서 敵의 南下阻止線을 설치하고 있던 방위군 제3연대 제2대대와 제3대대는 敵이 朱岩山으로부터 北上함에 따라 朱岩山—△812—△712—△910일대를 정밀수색한 다음에 이날 늦게 院前里에 집결하였다。

5. 한편, 이에 앞서 제32연대장 趙在美대령은 敵이 三宜洞 北쪽 無名高地에서 主山으로 이동함에 따라, 각 부대의 협동작전으로 敵을 一擧에 殲滅할 계획을 세우고, 제7경비대대(장, 姜永燾 소령)로 하여금 主山 東南쪽에서 계속 敵을 壓迫하게 하고, 敵을 알절리 羊邱洞에 대기중인 방위군 제3연대(장, 金武龍 중령) 제1대대로서 主山의 敵 西쪽을 협격케 하는 한편, 제32연대 제2대대(장, 朴東錫 소령)는 主山 西北쪽인 英陽에서 東南쪽 寧海로 향하는 弧狀의 幹線道路上에 遠大한 馬蹄形의 차단진지를 구축하도록 지시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춘 다음, 14.30을 기하여 제7경비대대에게 공격을 명령하였다。

6. 이에 따라, 제7경비대대(장, 姜永燾 소령)는 제1중대를 右一線, 제2중대를 左一線으로 하여 主山 東南쪽을 공격하고 제3중대는 主山을 右側으로 迂回하여 東北쪽의 退路를 차단한 가운데에 제4중대가 제1, 제2중대의 공격을 지원하여 15.20부터 熾烈한 接戰이 展開되었다。

主山은 天然的인 掩蔽物이 많아 敵이 몇차례나 占領하였던 곳인 만큼, 대대 역시 數次에 걸친 陷破결과 地形에는 익숙하였으나, 頂上을 장악하여 機先을 잡고 있었던 敵이 手榴彈을 投擲하며 執拗하게 저항하므로 한때 대대의 공격이 頓挫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제4중대의 火力 制壓과 더불어 刻一刻 敵前으로 육박하여 16.00에 제1중대가 敵 방어선 前面을 壓縮하자, 百尺竿頭에 다다르게 된 敵은 그런중에도 岩石을 굴러내리는 등 死力을 다하여 斷末魔的인 발악을 하였다。

이에 제4중대의 支援火力으로 敵의 主抵抗線을 集中強打한 다음에, 제1, 제2중대가 일제히 敵의 방어선을 突破하여 白兵戰으로서 그 敵을 과감하게 무찔렀다。

이리하여 대대는 16.30에 敵을 潰走시킨 뒤에, 메아린 血火가 滿山한 主山戰場을 정리한 결과, 敵 75명을 射殺하고 5명을 사로잡았으며 M1 7정, 蘇式小銃 20정, 多發銃 2정, 機關短銃 1정, 水冷式重機 1정을 鹵獲하는 戰果를 세운 반면에 대대는 戰死 1명, 負傷 2名의 輕微한 損失을 입었다, 한편 방위군 제3연대 제1대대는 損失없이 敵 射殺 4명, 捕

虜 3명과 蘇式小銃 1정, 手榴彈 1發을 鹵獲하였다。

3월 25일(D+4일) : 이날 사단장 咸炳善준장은 각 연대로 하여금 敵에게 시간의 여유를 주지 않고 더욱 強壓하도록 하는 한편, 전날 主山전투에서 潰散한 敵 제3지대의 北上을 저지하기 위하여 사단 수색중대를 高珍으로부터 英陽郡 首比面 發里洞으로 轉進시켜 지역경계를 強化토록 하였다。

1. 제17연대(장, 李貞錫 대령)제3대대(장, 梁成植 대위)는 전날에 이어 대대본부를 甘川에 두고 제9, 제10, 제11중대로서 敵을 계속 추격케 하였다。

이에 따라 老木里에서 西北으로 退却한 敵의 右側으로 迂回前進하던 제9중대는 沒雲里를 거쳐 龍岩里 南쪽으로 進出하였으며, 敵의 後尾를 뒤쫓던 제11중대는 이날 늦게 後坪으로 轉進하였다。

한편, 敵의 左側으로 迂回하였던 제10중대는 馬德으로 進出하여 그地域 일대를 수색하다가 馬德 北쪽 2km 地點, 億谷에서 敵 9C명을 捕捉 공격하여 射殺 42명, 포로 10명, 그리고 蘇式小銃 15정, M1 10정, 칼빙 1정을 鹵獲하는 戰果를 올리고 殘敵을 樂同里(億谷 西쪽 4km)와 高陽山쪽으로 分散 潰走시켰다。

이때 제1대대(장, 柳昌勳 소령)는 부대를 再 배치하여 대대본부와 제4중대를 縣洞에 두어 縣洞—春陽間의 보급로를 경비케하고, 제2중대를 春陽 西北의 西壁里에, 제3중대를 蓋竹里 西南쪽 5km인 無名高地에, 그리고 제1중대는 九連里 南쪽 2km인 △913일대로 각각 轉進시켜 제3대대의 打擊으로 낙오된 제1지대 殘敵을 擊滅토록 하였다。

그리고 제2대대(장, 咸晟烈 소령)는 전날에 이어 巨應洞과 前頭里일대에서 지역 경계를 하였으며, 제207경찰부대 제2대대는 樂洞里일대로 進出하여 수색을 계속하였다。

2. 제32연대(장, 趙在美 대령) : 전날에 主山 東北쪽에서 主山과 4km 간격으로 弧狀의 차단망을 설치하고 있던 제2대대(장, 朴東錫 소령)는, 이날 08.CC에 대대의 차단망을 통과하려는 敵 一個을 포착하여 8명을 射殺하고 3명을 사로잡은 다음 分散된 敵을 追擊하여 16.CC에 鷲經山 北쪽 3km인 峨山洞으로 進出하였다。

3. 제7경비대대(장, 姜永燮 소령)는 대대본부를 眞寶로부터 羊山洞으로 推進하여 전날 主山에서 潰散된 敵의 추적에 박차를 加하면서 主力을 化川洞으로 進出시켰다。

4. 방위군 제3연대(장, 金武龍 중령) 主力은 院前里에서 지역일대를 계속 수색하고, 전날 제7경비대대와 함께 主山의 敵을 擊滅하였던 제1대대는 이날 主山 北쪽 2km인 △525일대로 進出하여 수색을 하였다。

이에 제32연대장 趙在美대령은 敵 제3지대 殘敵이 전날 밤 夜暗을 틈타서 제7경비대대와 방위군 제3연대 제1대대의 間隙으로 主山을 脫出하여 제32연대 제3대대의 차단망을 避하여 北上한 것으로 판단하고, 院前里의 방위군 제3연대 主力일부를 敵의 北上 退路上으로 挺進시키도록 지시하였다。

방위군 제3연대장 金武龍중령은 12.00에 제10중대와 제12중대를 院前里에서 차량기동을 하여 英陽으로 轉進시켜 다시 機動待機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英陽으로 이동한 제10중대와 제12중대는 英陽에서 대기 하다가 다시 연대장의 지시에 의하여 21.00에 英陽을 출발하여 東北쪽 首比로 향하던 중에, 23.00에 門岩里에서 車輛전복사고가 발생하여 重傷 1명, 輕傷 26명의 人命損失을 내었으나 事故現場을 수습하여 24.00에 首比에 도착하는 즉시, 殘敵의 金藏山 指向에 대비하여 제10중대는 金藏山 西南 新院里에, 그리고 제12중대는 本新里에 각각 進駐하여 지역경계에 임하였다。

3월 26일(D+5일) : 이날 사단에서는 10.00에 「李承晩대통령 誕辰 제77주년 慶祝式」과 아울러 戰鬪有功者에 대한 勳章授與式을 거행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사단장 咸炳善준장에게 二等勳章이 수여 되었으며, 그외 22명의 將兵에게 각각 三等과 四等勳章이 수여 되었다.

그리고 12.00에는, 安東天主敎會에서 「대통령탄신기념 軍慰安會」를, 安東禮拜堂에서 「勳章授與者 祝賀慰安會」를 각각 열어 將兵의 勞苦를 위로하고 士氣를 한층 북돋아 주었다。

1. 제17연대(장, 李貞錫 대령) : 제3대대(장, 梁成植 대위)는 이날도 豊川에서 敵 추적을 계속하였다。

06.00에 제11중대는 九達里에서, 그리고 제9중대는 沒雲里에서 각각 행동을 개시하여 敗敵을 쫓던 중 08.00에 高陽山 西南쪽 6km인 △845의 下部 稜線에서 敵70명을 발견하여 兩個 중대가 동시에 이를 공격하자 敵은 저항없이 高陽山으로 退却하였다。

兩 중대는 다시 추적하여 15.00에 高陽山 東南 山麓의 溪谷에서 敵을 포착하였는데,

敵이 또 저항하지 않고 各個분산하여 標高 1.151m인 험준한 高陽山속으로 깊숙히 潛跡할 것을 예측한 兩 중대는, 敵의 分散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하여, 제9중대가 먼저 隱密하게 迂回하여 溪谷 後面 稜線위에 狙擊火網을 설치한 다음 제11중대가 敵의 西南으로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제11중대는 예측한 비와 같이 저항을 하지 않고 退却에만 급급한 敵을 打擊하면서 능선쪽으로 驅逐하고, 제9중대의 狙擊網은 능선으로 허겁지겁 기어오르는 敵을 여유 있는 態勢로서 照準射擊을 퍼부어, 敵 48명을 射殺하고 7명을 捕虜로 하였다。

한편, 전날 億谷에서 敵을 擊破한 제10중대는 敵 일부가 樂同쪽으로 潰走하였음에 따라 이날 樂同으로 進出하여 대기중이던 제207경찰부대 제2대대와 함께 敵을 수색하다가 樂同東北쪽 山嶽地帶에서 高湯山쪽으로 退却하는 敵 30명을 추격하여 13명을 射殺하고 10명을 捕虜로 하였다。

한편, 제1대대(장, 柳昌勳 소령)는 縣洞에서, 제2대대(장, 咸聲烈 소령)는 巨應洞에서 각각 전날과 다름없이 보급로를 확보하면서 지역을 수색하였다。

따라서 제17연대는, 이날 高湯山과 樂同里일대에서 敵 제1지대의 主力을 完全히 擊滅하였는데 이날의 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戰　果

射　殺　61명

捕　虜　17명

鹵　獲　蘇式小銃　24정, 多發銃　2정, M1　18정, 칼빈　2정

99式小銃　1정, 俄式小銃　1정

損　失　戰死 1명

2. 제32연대(장, 趙在美 대령) : 제2대대(장, 朴東錫 소령)는 이날 岐山洞에서 竹波洞과 五十峰(△877)일대를 수색 進出하였으며, 방위군 제3연대(장, 金武龍 중령)는 敵 제3지대 殘敵이 竹波洞—本新里—金藏山으로 退却할 것으로 예측하고, 제10중대는 新院里에서, 제12중대는 本新里에서 각각 전날에 이어 敵의 차단임무를 계속하도록 하였으나, 敵 100명이 제10, 제12중대의 차단망을 避하여 東쪽으로 迂回하면서 이날 새벽에는 이미 本新里와 金藏山의 間隙을 통하여 本新里 뒷산에 侵透하고 있었다。

제12중대는 13.30에 民間人으로 부터 本新里 뒷산 넘어 北쪽 4km인 本洞에 敵 5명이 出現하여 마을에서 食品을 掠奪한 뒤에 本新里 뒷산으로 운반하여 갔다는 提報를 入手하자 곧 16.00에 4개소대로서 本新里 뒷산을 東南에서 頂上으로 압축하면서 威力搜索을 실시하였다。

중대의 수색이 시작되자, 敵은 金藏山으로 연하는 本新里 뒷산 右側 능선에 掩護兵力을 배치하여 중대의 추격을 저지하게 하면서, 18.00에 金藏山으로 潰走하였다。

중대는 本新里 뒷산에서 敵 射殺 6명, 捕虜 8명, 그리고 M1소총 3정, 多發銃 1정, 俄式小銃 2정, 권총 1정, 手榴彈 5發을 鹵獲한 다음에, 敵이 남기고 간 血痕을 따라 金藏山下部 능선일대를 수색하다가 金藏山과 本洞사이의 要地에 매복하여 밤을 세웠다。

한편, 전날 主山 北쪽 △525일대를 수색하던 방위군 제3연대 제1대대는 이날 역시 그 일대를 수색하다가 17.00에 新谷洞에 집결하여 차량기동으로 21.00에는 首比에 進出하였다.

그리고 제7경비대대(장, 姜永燕 소령)는 이날 대대본부를 羊陵洞에서 德風으로 轉進하여, 德風 東北쪽 5km인 △629일대로 主力을 進出시켜 敵情수색을 계속하였다.

3월 27일(D+6일) : 사단장 咸炳善준장은 이날, 극도로 飢餓狀態에 빠진 敵이 食糧을 調達하기 위하여서는 良民殺傷의 蠻行이라도 不辭할 것으로 보고, 作戰地域內의 民間人의 행동을 制限하는 한편, 사단병력으로 지역경계와 機動隊를 강화하여 敵이 民家에 접근하는 것을 극력 저지함으로서, 敵의 補給手段을 粉碎하도록 지시하였다.

1. 제17연대(장, 李貞錫 대령) : 이날 제3대대(장, 梁成植 대위)는 豊川에서 제207경찰부대 제2대대와 合同하여 高陽山 南쪽 松洛峰(△889)과 下北洞일대를 수색하였다.

제1대대(장, 柳昌熙 소령)는 縣洞에 대대본부를 두고, 제1중대는 **道士里**를, 제2중대는 西隱里를 각각 수색토록 하였으며 제3중대는 전날 △849에서 東南쪽으로 轉進하여 九士里일대를 수색토록 한 결과, 16.00에 제3중대가 敵 8명을 射殺하고 3명을 사로 잡았다.

한편 巨應洞의 제2대대(장, 咸晟烈 소령)는, 제6중대로서 德古里 北쪽 2km인 大鳳亭일대를 수색케 하고, 제7중대로서 南海龍里일대로 遠距離 수색에 임하게 하였으며, 제5중대와 제8중대로 하여금 前頭里에서 계속 殘敵의 退路를 차단토록 하였다.

2. 제32연대(장, 趙在美 대령) : 제2대대(장, 朴東錫 소령)는 竹波里에서 이날 本新里로 進出하여 14.00에 金藏山을 정밀수색하였다.

방위군 제3연대(장, 金武龍 중령) 제1대대는 首比에서 水下里로 進出하여 지역일대를 위력수색 하였으며, 전날 밤에 金藏山 西쪽 山麓에서 매복하였던 제12중대는 金藏山을 경유하여 北쪽 2km인 △704로, 그리고 新院里에 있던 제10중대는 本新里를 거쳐 西北쪽 1km인 △667일대에서 本洞으로 각각 進出하면서 정밀수색을 계속하였으며 제12중대는 16.00에 金藏山에서 敵 소대장 1명을 사로 잡았다.

한편, 제7경비대대(장, 姜永燕 소령)는 德風에서 門岩洞으로 轉進하여, 방위군 제3연대의 西北쪽을 超越하여 敵을 수색하였다.

3월 28일(D+7일) : 사단은 제17연대가 담당한 敵 제1지대 主力이 지난 26일을 前後하여 擊滅된 것으로 판단하고 연대로 하여금 現駐屯地域의 경계를 계속하면서 차기 작전에 대비토록 하는 한편, 제32연대 지역의 敵제3지대는, 그 主力의 일부가 24일에 潰滅되었으

나 殘敵이 通古山일대에 散在하여 있는 敵 제1지대 殘敵과 함께 앞서 退却한 敵 제10사단의 北上經路를 따라 退走할 것으로 내다 보고, 연대의 병력을 敵의 예상 退路上으로 轉進케 할 준비를 갖추게 하였다.

1. 제17연대(장, 李貞錫 대령) : 제3대대(장, 梁成植 대위)는 이날 오전까지 高陽山 南쪽일대를 수색하였으나 별다른 敵情이 없어 15.00에 高陽山 南쪽인 松洛峰 일대의 수색임무를 제9사단 제29연대(장, 高白圭 대령)와 交代하고 上士美里(前頭里 西北쪽 5km)로 東進하여 제2대대의 제5, 제8중대가 담당하였던 前頭里일대의 경계와 敵에 대한 차단임무를 引受하였다.

제2대대(장, 咸熙烈 소령)는 前頭里에서 敵의 北上에 대비하고 있던 제5, 제8중대를 이날 巨應洞으로 철수시켜 제6, 제7중대와 合同케 한 다음 巨應洞일대의 지역수색을 강화하는 한편, 敵 제3지대 殘敵의 退路를 차단토록 하였다.

또 제1대대(장, 柳昌勳 소령)는 縣洞에서 襄陽 西北쪽 道上里, 西垈里일대를 경계수색하면서 高陽山에서 潰滅分散된 殘敵의 出沒을 제압하였으며, 제207경찰부대 제2대대는 蔚珍一三斤里로 이동하여 通古山일대에 徘徊중인 敵 제1지대 殘敵을 수색토록 하였다.

2. 제32연대(장, 趙在美 대령) : 연대는 이날, 小部隊를 작전지역내에 分派하여 敵情을 露出시키도록 하는 한편, 殘敵의 南下를 저지하도록 지시하였다.

연대 예하 제2대대(장, 朴東錫 소령)는 전날에 이어 全力으로 金藏山을 수색하였으며, 방위군 제 3연대(장, 金武龍 중령)는 金藏山 西南쪽 本新里에 제1대대를, 院前里에 제2대대를, 그리고 中坪洞에 제3대대를 각각 배치한다음 敵의 再南下에 대비하여 南下阻止線을 설치하였다.

한편, 제7경비대대(장, 姜永燕 소령)는 대대본부를 英陽으로 옮기고, 대대 主力을 東쪽 金藏山에서 西쪽 日月山에 이르는 間隙에 配置하여, 敵의 日月山에 潛入하는 것을 저지케 하면서 축차적으로 北上하여, 敵을 北쪽 제17연대의 阻止線으로 압박하였다.

3월 29일(D+8일) : 전날 밤에 지역 全般의 敵情을 統意검토한 사단장은 이날 08.00에 지난 21일부터 실시한 이 作戰의 제1단계를 終了하고, 새로운 作戰을 구상하기 위하여 前方 CP를 眞寶로부터 撤收하여 安東으로 移轉하였다.

그러나 각 연대는 이날도 작전을 계속 수행하면서 차기작전에 대비토록 하였다.

1. 제17연대(장, 李貞錫 대령) : 이날도 역시 제1대대(장, 柳昌勳 소령)와 제3대대(장, 梁成植 대위)는 縣洞과 上士美里에서 지역을 경계하였으며, 巨應洞에 있는 제2대대(장,

咸成烈 소령)는 제5, 제7중대를 通古山일대로 이동케 하여 通古山 南쪽지역을 위력수색토록 하였는바, 이날 오후 늦게 通古山 東쪽 5km인 大麻田일대에 敵 150명이 北上하고 있는 敵情을 入手하고 대대는 이를 포착 擊滅할 준비를 하였다.

2. 제32연대(장, 趙在美 대령) : 연대 예하 제2대대(장, 朴東錫 소령)는 전날에 이어 金藏山을 수색하였으며 방위군 제3연대(장, 金武龍 중령) 역시 金藏山 西南쪽에서 敵의 南下에 대비한 차단망을 계속 설치하고 있었다.

한편, 제7경비대대(장, 姜永燾 소령)는 金藏山과 日月山 사이를 축차적으로 수색하면서 前進하여 이날에 通古山 南쪽 10km 地點인 安岩里로 進出하였다.

이날의 이러한 狀況으로 미루어, 敵 제3지대 殘敵은 主山에서 제7경비대대에 強打를 당한 이후로 夜暗을 이용하여 北上退走하면서 제1지대의 殘敵을 糾合하여 이날 현재 150명의 병력으로서 通古山 東南쪽 大麻田일대에 潛伏한 것으로 보였으며, 이들 殘敵은 제10사단과 같이 通古山一楣味山一蓮花山을 따라 退却할 企圖인 것으로 判斷되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이 작전은 결과적으로, 安東에 進駐한 이후에 新兵力으로 再編되어 戰歷이 日淺한 제2사단(장, 咸炳善 준장)의 戰鬪能力을 再평가 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사단은 作戰期間동안 그야말로 寢食없이 東奔西走하면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綜合戰果를 기둠으로서 사단의 名聲을 유감없이 떨치게 되었다.

戰果 : 射殺 439명

捕虜 90명

鹵獲 : 蘇式小銃 178정, M1 82정, 칼빈 9정, 99式小銃 6정, 多連銃 16정, 擊銃 1정, 重機關銃 1정, 輕機關銃 1정, 其他, 文書, 裝備, 數點

損失 : 戰死 4명

負傷 25명

따라서 사단은, 이 작전으로 사단의 담당지역을 平定하여 後方의 支援態勢를 확고하게 造成한다는 본래의 目的을 달성하였음은 물론이려니와, 實戰經驗을 통하여 戰技를 硏磨할 수 있게 하는 絶好의 기회가 되었던 바, 이로 말미암아 사단의 戰鬪力을 한층 더 增強하게 되었다.

敵의 動向 : 敵 제1지대主力은 그간 제17연대의 鐵槌에 견디다 못하여 北上潰走하던 도중 3월 26일에 高陽山일대에서 擊滅됨으로써 敵 제1지대의 足跡은 일찍 없어 졌거니와, 그 殘敵과 제3지대 역시 4월 8일을 前後하여 제17연대에 의하여 慘憺한 최후를 마치고 말았다.

이리하여, 당초 2,700명으로서 我軍의 後方攪亂을 劃策하였으나, 4월10일 현재로 敵은 도합

2,400명을 前線과 사단지역내에서 잃고 불과 140명이 간신히 사단의 추격을 避하면서 脫出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八公山에 盤據하려던 敵의 企圖는 결국 水泡로 돌아갔을 뿐만아니라, 나아가서 「결정적인 시기」를 노리며 潛行暗躍을 꾀하고 있던 南勞黨 慶北道黨 殘黨과 그 同調者들이 一掃되므로써, 全南北지구의 敵 제4지대 및 慶南지구의 제5지대와 連繫하여 형성코자 하였던 敵의 「第2戰線」의 萌芽를 自招하게 되었다。

我軍의 動向：사단은, 이 작전에 이어서,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제17연대(장, 李貞錫 대령)를 主軸으로 한 제2단계 殘敵擊滅作戰을 展開한 결과 通古山 北쪽 平田지구에서 敵 120명을 射殺하고 36명을 捕虜로 하여 지역내 殘敵의 蠢動을 制壓하였다。

이렇게 하여, 다시 한번 그 威力을 과시한 사단은 4월 5일에, 사단본부를 安東에서 榮州로 推進하고 제32연대(장, 趙在美 대령)를 義城에서 堤川으로 推進시켜, 新戰鬪地境으로 一步 前進한 다음, 각 연대로 하여금 部隊整備와 敎育訓練을 強化토록 하여 前線 參加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이 무렵, 我軍의 前線은 攻勢를 反復하여 東部戰線은 이미 38°線을 넘어 北進一路에 있었다。

그런데 이때 4월25일을 前後하여, 그동안 劣勢를 挽回하기에 안간임을 다 하였던 敵 中共軍이 前後方의 全兵力을 동원하여 春攻(제2차 春季攻勢)을 試圖하므로써 사단은 육군본부의 작전명령에 따라 前線一翼을 담당하여 敵의 攻勢를 擊碎하기 위하여, 사단의 全兵力을 堤川으로 집결하여 戰列을 再整備한 다음, 4월 29일에 美 제9군단(장, Hogs 소장)에 배속되어 다시금 風塵을 휘몰아 京畿 驪州로 躍進하여, 바야흐로 前線에서 耀兵하게 되었다。

10. 注文津—襄陽 進擊戰 (1951년 3월 25일부터 1951년 3월 30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25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제 I 군단	장 소장 金白一	
	준장 李俊植 3월29일 부터 代理	
首都사단	장 준장 宋堯讚	
제 1 연대	장 대령 韓 信	
제 1 대대	장 대위 咸溶翼	
제 2 대대	장 중령 申彦國	
제 3 대대	장 대위 李星鳳	
제26연대	장 대령 徐延哲	
제 1 대대	장 소령 朴徹洙	
제 2 대대	장 소령 韓鶴頊	
제 3 대대	장 소령 具泰益	
제 1 기갑연대	장 대령 李 龍	
제 1 대대	장 대위 車文錫	
제 2 대대	장 소령 朴翊均	
제 3 대대	장 소령 林觀默	

배속부대

제10야포대대	장 소령 房景源
首都야전공병대대	장 소령 朴興柱

병력·장비

사단 T/O 및 T/E 유지

敵 軍

제 2 군단	제69여단
제10사단	

나. 전투 전의 개황

敵軍의 狀況 : 首都사단(장, 宋堯讚준장)은 我軍의 전반적인 反擊에 따라 江陵 北쪽에서 注文津—38°線—襄陽 輔線을 공격하게 되었는 바, 우선 사단 正面의 敵情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敵 제69여단은 그간 사단 전면에서 계속적으로 對陣한 부대로 3월초 이래 38°線 부근으로 후퇴하여 仁邱里—城田里線에서 布陣하고 있으면서 제1연대의 수색 진출을 견제하고 同時에 사단적인 여유를 얻어 戰力을 補強하려 하고 있었다。이 부대의 本部는 3월 22일 현재 仁邱里에 위치하다가 23일

宋谷里로 退却하여 하룻동안 머물은 다음 다시 襄陽으로 후퇴하여 그곳에서 지휘소를 개설하였고 그 예하 부대 약 2,000명은 사단의 攻勢 初動에는 後浦梅里—下月川里—漁城田里 線에서 前哨陣地를 占領하다가 待峰里—元日田里附近으로 후퇴한 다음 다시 3월 24일 현재 襄陽 南쪽의 老姑峰(△125)—牛岩里線으로 潰走하여 그곳에서 襄陽 防禦를 위한 최후 저지선을 구축한 것으로 보였다。이외 그들은 일부병력이 仁邱里 南쪽 3km 지점에서 我軍服裝으로 變裝하고 기만전법을 쓰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그 후방에 저지선을 펴고 있는 5,400명의 主力은 그간의 제1연대 威力捜索戰때 상당한 손실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南大川 南岸線에 集中的으로 配備하고 襄陽을 死守하려는 태세이었다。

이와 아울러 敵 제10사단은 제9사단 陣地에서 潰散된 다음, 그 일부가 五台山 東側의 老人峰—松川—鐵甲嶺을 경유하여 北上 후퇴하다가 敵 제69여단 一線 진지에 合流하려는 企圖였고 특히 3월 24일에는 牛岩里에 집결하여 연합 전선을 편 것으로 예상되었다。그런데 이 사단은 3월 19일 이전에의 大體兵力이 4,000명이었으나 그 뒤의 손실이 2,000명이 넘어서 現有兵力은 1,500명 內外로 分析되었고 이들은 300~400명씩 合流하여 38°線 北쪽으로 후퇴하고 있었다。그런데 이 후퇴에 대하여 北共 最高司令部에서는 同 사단장에 명령위반이라고 하여 問責했다는 情報가 있었다。

이러한 諸問의 사실을 감안할때 敵의 士氣는 상당히 저하되었을 것이며 그 많은 손실병력으로 말미암아 당장에는 조직적인 反擊이 고려될 수 없었고 그들 裝備는 個人火器 이상의 것은 많지 않아 全體的으로 戰力이 弱化되고 있는듯 하였다。따라서 그들은 일단 38°線 北方으로 退却하여 再整備에 임하면서 시간적인 여유를 얻는 동시에 後方部隊의 증원을 받아 再起를 策할 것으로 예상되었다。3월 24일의 情報報告에 의하면 敵제32사단이咸南의 德源 附近에서 그들의 一線 증원차 南行中이라고 한것을 보면 이는 必是 東部山岳地帶의 戰力補強을 위한 증원임을 알 수 있었다。그러나 이때 敵 제2군단 지휘소는 縣里 附近인 宮洞에서 다시 후퇴 北上하여 驛縣附近인 德山里로 집결하고 있을 때라고 풀이되었다。

사단 正面의 敵情은 이와 같거니와 東部戰線에서의 全般的인 戰況은 東海岸 38°線附近으로부터 西쪽으로 華川貯水池까지 連하는 線에 部隊를 집결하고 陣地를 構築하면서 그들의 戰列을 강화, 증대시키고 있었다。

我軍의 상황 : 首都사단은 이와같은 形勢아래 그간(3월 6일 이후) 江陵 北西쪽 連谷川—老人峰—大關嶺線에서 각각 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제1연대(장, 韓 信대령)가 사단 右一線으로 盧洞—沙器幕里 일대에서 連谷川을 수색 진출하여 3월 14일 天馬峰(△121)을 점령 확보한 다음 注文津 南쪽 冬德里에 集結하였다가 3월 23일에는 다시 三橋里까지 진출하여 본격적인 攻勢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이 무렵 제26연대(장, 徐延哲대령)는 車頭里—楡川里間에서 사단 西側方을 경계하다가 3월 19일附로 사단 작전지시 제122호에 의하여 大關嶺—江陵 경유 石橋里로 轉進하여 제1연대와 같이 連谷川 일대의 威力 수색전에 合同으로 羅兵하였다。그러다가 先頭 제1연대가 連谷川까지 진출하고 그 北쪽 三兄弟峰—下月川里—漁城田里 軸線까지 또다시 진격하여 38°線 正南方에서 전술적 기반을 조성하게 되자 연대는 사단 右一線으로서 襄陽攻擊에 參與하기 위하여 3월 25일 현재 眞木亭에서 一擧에 仁邱里로 躍進한 다음 그곳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공격을 준비하게 되었다。

한편 제1기갑연대(장, 李 龍 대령)는 사단예비대로 江陵에 配置되어 있으면서 제3대대만이 鏡浦津을 경계하고 있다가 3월 25일에는 연대 全주력이 江陵에 合同집결하여 注文津으로 진출하고 그곳에서 다시 예비대로 配置되면서 아울러 사단의 後側方을 경계하고 있었다。

이때 사단 전방지휘소는 3월 23일에 江陵에서 注文津으로 躍進開設하고 그 후방지휘소는 군단지휘소와 함께 江陵에 계속 위치하고 있었다。

한편 西部戰線에서는 3월 14일에 서울 再奪還을 비롯하여 中東部戰線에서도 점차로 38°線에 肉迫하고 있었으며, 당 사단을 비롯하여 그 동안 各戰線에서 人員裝備의 補充과 많은 戰力强化가 이루어졌었고 계절적으로 解氷과 함께 士氣는 漸高되고 있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陸軍本部에서는 그간 戰況의 趨移에 따라 이미 하달한 바 있는 陸本作命 제263호를 수정하여 3월 18일 12.00附로 要旨 다음과 같은 修正作戰指示 제7호를 하달하였다。

『軍은 "Idaho"線의 현 진지로부터 "Queen"線까지 北方길이 敵 後方地區에 對한 수색을 실시하려한다。

제1, 제3군단장은 현재 점령하고 있는 "Idaho"線上 師地로부터 "Queen"線까지 敵 後方에 대한 강력한 수색을 개시하라。』

위와같은 計劃이었는데 "Idaho"線은 東海岸 注文津 南쪽에서 連谷川을 따라 西쪽으로 連한 線이며 "Queen"線은 東草附近에서 西쪽으로 文惠里(鐵原 南쪽 10km) 附近을 이은 線이다。

이에 따라 제1군단장은 首都사단장에게 "Idaho"線 北方을 강력하게 수색토록 명하였는데 이는, 이 線을 突破하고 襄陽을 공격 점령하려는데 있어서 그 緖戰이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3월 25일 08.00에 陸本作命 제263호 修正作戰指示 제10호로써 다음과 같은 要旨의 공격명령이 하달되었다。

『제1군단및 제3군단은 1951. 3.25~26日 兩日間에 공격을 실시하여 담당 지역내의 "Cairo"線을 점령확보하라。(註, "Cairo"線은 東海岸 襄陽으로부터 西쪽으로 盈德里—縣里—於論里를 連하는 38°線 北쪽 線임)』

이에 따라 군단장은 首都사단으로 하여금 이 "Cairo"線 진출및 襄陽을 攻擊점령토록 하고 제9사단은 그 西側을 防護하면서 逐次的으로 진출토록 措置하였다。

首都사단장은 이러한 一聯의 狀況과 군단의 공격명령에 따라 3월 25일에 要旨 다음과 같은 사단작명 제128호를 하달하였다。

『제26연대는 즉시 注文津에 진출하여 사단 右一線으로 東海岸 沿道를 따라 襄陽을 공격 점령하라。

제1연대는 38°線 附近 明池里線에서 戰線을 정리하여 사단 左一線으로 牛岩里—襄陽 西側을 제26연대와 병행공격하여 점령하고 "Cairo"線을 확보함과 아울러 인접 제3군단과 連繫하라。

제1기갑연대는 江陵에서 注文津으로 진출한 다음 사단 예비대로 措置한다。

공격개시 시간은 3월 26일 07.00임。』

(2) 작전실시

3월 25일 : 首都사단장 宋堯讚준장은 이틀전에 사단 전방지휘소를 江陵에서 注文津으로 躍進 開設한 이래 이날까지 "Idaho"線(連谷川線, 陸本作命 제263의 수정 작전지시 제8호에 의해 설치된 線)에서부터 威力捜索戰을 감행하면서 38°線 正南方인 仁旺里—漁城田里線까지 진격한 제1연대에 追隨하면서 작전지도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襄陽 공격의 하루전날인 이날 예하 연대를 전술적으로 再調整하여 38°線 北쪽 12km에 있는 襄陽 一帶를 攻擊하기 위하여 사단작명 제128호를 하달하고 예하 연대에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하는 동시에 제1연대에는 이미 지난 23일부터 계속한바 있던 담당정면의 威力捜索戰을 續行케 하였다。이것은 사단작명 제136호에 의하여 連谷川 北쪽의 진출 임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제1기갑연대는 江陵에서 부대를 정비하고 있었고 제26연대는 지난 12일에 제3군단에서 배속 해제된 이래 楡川里 附近에서의 진지로부터 江陵을 경유하여 그 北쪽 9km 지점인 石幢里에 진지를 推進 점령하여 "Idaho"線上의 東翼主抵抗線을 확보하고 있다가 前方에 진출하고 있던 제1연대가 漁城田里—滿月山 일대를 점령하자 同 연대는 仁旺里까지 一擧에 진출하여 38°線 突破및 襄陽 攻擊에 있어 그 東翼攻擊梯隊로 참가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이 무렵 敵 제2군단 지휘소는 縣里 北方 宮洞에 있다가 다시 麟蹄 東北쪽 4km 德山里로 후퇴하여 開設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그 主力은 麟蹄附近으로 漸走北上하여 再編의 時間的 餘裕를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보였다。그리고 사단 正面의 敵 제69여단은 군단와 再攻擊作戰으로 因하여 戰意가 꺾인 다음부터 連谷川 일대에서 전반적으로 退却을 계

속하여 38°線 부근의 旣設陣地와 그 北쪽 襄陽—南大川線에서 각각 縱深陣地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松溪里 西北쪽 제9사단 正面에서 敗殘된 敵의 一部兵力이 北上退却한 敵 제10사단을 따라 五台山—老人峰—松川線을 潰走한 끝에 제9사단의 後側方 진지에서 間歇的으로 出沒하여 侵襲을 企圖하면서 敵 제69여단 主力과 合流할 것으로 分析되었다.

이와같이 敵 제69여단및 제10사단은 襄陽을 固守하려는 목적으로 그 南쪽 38°線 부근에 강력한 방어선을 펼것으로 예상되었고 그 前哨 또는 收容부대가 下月川里—滿月山(△623)—明池里 一帶의 主要 據點을 점령하면서 일단 我軍의 진격을 저지해보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敵의 前哨線은 제1연대가 지난 20일 이래 차례로 擊破하게 되었는데 즉 23일 06.00에 同 연대 제1대대(장, 咸溶奭대위)가 三兄弟峰 北麓 화동瀑—下月川里線에서 敵 斥候인듯한 1개소대를 擊滅하고 24일에는 제2대대(장, 申彦國중령)가 滿月山 附近에서 敵 2개중대규모의 병력을 발견하고 제1대대 제2중대가 正面에서 견제하고 있는 동안 同 대대가 迂回하여 1시간여의 공격으로 敵을 완전히 擊滅하고 38°線 旣設陣地에서 지연전을 시도한 敵에게 鐵槌를 加한바 있었다. 그러다가 이날 襄陽 공격을 위한 戰術的 부대정리의 단행에 따라 同 연대는 後浦梅里—下月川里線에서 明池里—元日田里線으로 진출하여 戰線을 정리하였고 이와 아울러 연대 전방지휘소도 後浦梅里에서 待峙里로 단숨에 躍進開設하고 사단 左一線攻擊梯隊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攻擊待明地點의 진출및 제반 對策을 완료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무렵 사단 포병대대(장, 房景源소령)는 그 F.D.C.를 橋項里에 設置하고 제1연대를 직접지원하는 제2중대는 재궁洞에, 일반지원하는 제1, 제3중대는 橋項里에 각각 砲陣地를 점령하여 大隊의 集中사격으로서 △316—△178—△594 일대에 砲擊을 加하다가 그 날 14.00에 공격부대의 진출에 따라 다시 注文津 北쪽 香湖里로 全 砲陣地를 推進케 하고 역시 大隊사격으로 △871에 集中砲擊으로 敵의 銳氣를 크게 꺾어 버린바 있었다. 그러다가 24일에는 다시 砲陣地를 舟里附近으로 躍進시키고 제1연대를 直接 및 一般지원으로 △198 일대에 大隊諸元 사격을 실시한바 있었다. 이날에는 제1연대에 이어 제26연대가 攻擊梯隊에 加擔하여 사단 右一線을 담당하게 되자 다시 대대를 舟里에서 仁邱里로 前進시키고 이곳에서 제1, 제3중대는 제26연대를 지원하였으며 제2중대는 仁邱里에서 西北進하여 亭子里에 砲陣地를 推進하고 제1연대를 계속 직접지원 하였으며 동시에 제26연대 정면인 上光丁里와 제1연대 正面인 明池里 北쪽에 각각 요란사격을 集中發揚하

였다。

한편 제26연대(장, 徐廷哲대령)는 사단 東翼 공격제대로서 東海岸에 接한 仁邱里—襄陽 軸線을 따라 공격하기 위하여 그간 일부 병력이 제1연대 東側에서 수색活動을 펴다가 主力의 진출에 따라 仁邱里 北쪽으로 戰線을 정리함과 아울러 연대 전방지휘소도 石橋里에서 仁邱里로 躍進 開設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1기갑연대(장, 李龍대령)는 그간 사단 예비대로서 江陵에 控置되어 있다가 사단 主力의 전진에 따라 이날 연대 주력및 그 전방지휘소를 注文津으로 推進하고 그 일대에서 사단 후측방 防護와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제1연대 수색대가 元日田里에서 포로로한 敵 위생병의 진술에 따르면 敵 제10사단 敗殘兵 300~400명이 牛岩里에 집결하였다가 다시 襄陽으로 退却하려는 企圖이었다 하며 또한 사단에서 노획된 敵文書에 따르면 敵 제69여단 병력은 3월 10일 현재로 도합 5,403명이며 그중 軍官(장교)이 536명, 下士官이 383명, 戰士(兵卒)가 3,550餘名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그리고 이날 友軍 情報에 의하면 敵 제8군단 증원 列車인 제5,066列車가 漁大津(淸津—吉州中間)에서 南行하는 것을 목격하고 UN空軍機가 이를 強打하여 전부 파괴시켰는데 食糧 3個 車輛을 비롯하여 兵員이 1輛이고 그밖에 자동차가 1輛에 탄약이 2輛이고 피복 2輛에 砲(26門) 1輛등 모두 13個輛을 炎上케 하였다는 것이다。이 증원 列車는 만 하루동안이면 38°線 北方의 敵部隊에 증원이 가능할것으로 예상되었던 것이니 敵으로서는 雪上加霜이 아닐수 없었을 것이다。(定期情報報告書 3.25日字 참조)

3월 26일 : 이날 07.00를 期하여 사단의 襄陽공격이 일제히 시작되었다。이번의 이 공격은 韓國戰爭이 勃發한 이래 2번째의 공격이 된 셈인데 그 첫번째는 지난해 10월 2일에 있었던 總反擊作戰期間中의 공격 점령이고 그리고 두번째는 바로 이날의 공격인 것이다。이와같이 襄陽공격에 있어서 사단은 右一線 공격제대로 제26연대, 그 左一線에는 제1연대가 각각 담당하고 仁邱里 北쪽 38°線 旣設陣地 附近에서 공격이 斷行되었다。그리고 제1기갑연대는 사단 전방지휘소가 開設되어 있는 注文津과 그 附近에서 지휘소및 사단 後側方을 防護하는 동시에 그 예비대임무를 兼하고 있었다。

즉 사단 右一線 攻擊梯隊인 제26연대(장, 徐廷哲대령)는 전날 점령하였던 下光丁里—上光丁里線의 공격대기 지점에서 如雲浦里—上陽穴里 軸線을 따라 襄陽 攻擊을 시작하였는데 이때 연대 正面의 敵 제69여단 소속 數未詳의 병력은 이미 전날에 襄陽 東南쪽 近接外廓地點으로 退却한듯 하여 연대 主力이 上陽穴里 진격까지에는 아무런 接敵이 없었다。그러

나 그 北쪽 2.5km 地點인 老姑峰(△125) 일대에는 敵의 강력한 防禦 乃至는 收容陣地가 구축된 것으로 판단되자 사단 포병대대의 제1, 제3중대는 射程의 延伸으로 이 일대에 대하여 일시에 집중 砲擊을 加하므로써 敵의 銳鋒을 꺾고 攻擊연대의 躍進을 鼓舞하였다. 상황이 이와같이 되자 연대장 徐廷哲 대령은 襄陽 攻擊에 앞서, 그 東南쪽 要地要部인 老姑峰을 먼저 奪取하기 위하여 연대 전방지휘소를 上陽六里로 신속히 躍進 開設하고 一線 공격 部隊에 近接하여 직접 작전을 지도하였다. 그런데 예상외로 이곳의 敵陣이 완강함을 알게된 연대장은 襄陽에 이르는 道路 경계부대를 제외하고 全 연대 主力을 전투대형으로 展開시켜 이 老姑峰의 突擊을 號令하였다. 이리하여 예하 각 대대는 上陽六里—密陽里를 連하는 線에서 이날 16.00부터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연대의 全火力이 이곳을 指向하고 砲兵대대의 제1, 제3중대의 砲門이 一時에 불을 吐하여 집중사격으로 敵陣을 뒤 흔들어 놓았다. 이와 같은 同時集中의 火力戰의 결과로서 敵 제69여단의 左翼防禦線인 이 老姑峰 일대는 삽시간에 煙火로 가리워 졌고 요란한 爆音이 春三月의 大地를 震動하게되자 끝까지 抵抗하려던 敵은 督戰隊의 銃뿌리를 헤치면서 急히 南大川을 건너 遁走累累한 가운데 襄陽 北쪽으로 潰走하기 시작하였다. 연대 主力의 喊聲과 銃砲聲 그리고 號令과 劍光이 交叉하는 가운데 1시간여에 걸친 진격끝에 이날 17.00에 이곳을 점령하였을 때에는 敵 약 1개대대 규모의 병력中에서 爆殺 또는 射殺된者가 188명이나 되었고 四肢가 성하지 못한 負傷者는 헤아릴수 없어 그 呻吟소리는 同族相殘의 悲慘性을 더하기만 하였으며 간신히 兩손을 들고 投降하는 敵 8명을 포로로 하였는데 이 포로는 즉시 初報를 하여준다음 사단 지휘소가 開設되어 있는 仁邱里로 押送하였다. 당시 一線 進擊部隊가 南大川—襄陽을 向하여 突進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 老姑峯일대에서의 戰場 정리 결과, 박격포 1門과 重機關銃 5挺을 포함한 數十點의 敵武器를 노획하였다. 그러나 연대에서도 近接戰에서 戰死者 4명과 부상자 9명의 손실을 내었다.

한편 사단 左一線 공격제대인 제1연대(장, 韓 信대령)는 각 대대가 전날까지 공격대기 지점과 戰線정리를 上光丁里—漁城田里 線에서 완료한 다음 이날 07.00를 期하여 牛岩里—襄陽西쪽 軸線을 향하여 공격을 시작하였다.

제1대대(장, 咸溶奭대위)는 연대 右一線인 主攻部隊로써 待峰里 北쪽 陣地에서 一路 牛岩里를 向하여 進攻하였는데 이때 연대를 직접지원하는 砲兵 제2중대가 亭子里에 있는 放列陣地에서 대대 正面을 계속 火力지원하였다. 15.00에 이르러 牛岩里 附近의 △130에서 敵 제69여단의 一線 防禦部隊로 보이는 약 2개중대 규모의 병력과 敵 제10사단 패잔후

퇴병으로 판단되는 300여명이 이곳에 合流하여 완강하게 抵抗함을 목격하자 대대는 機先을 制壓한 先制사격으로 30분간의 집중공격을 加한다음 곧 突擊을 敢行하여 16.00에 이 高地및 牛岩里 일대를 완전히 점령하였는데 突擊부대의 劍光앞에는 積屍가 嘽嘽하였다。

연대 左一線의 앞에는 제2대대(장, 申彦鎭중령)도 이날 07.00에 明池里 附近에서 공격을 시작하여 堂山洞—內谷里를 차례로 점령하면서 진출한 다음 右隣接 제1대대와 병행하여 오후에는 水里(牛岩里 西쪽 3km)까지 진격하게 되자 이때 이 부근의 △246에서 敵 약 1개중대규모의 병력을 目擊하고 즉시 射擊과 躍進으로서 이를 擊退하는 동시에 急編陣地를 점령함과 아울러 東側 제1대대에 대한 火力支援도 함께 하고 있었다。그런데 이 水里 附近의 敵은 전날 堂山洞에서 연대 수색대가 探知한바 있는 100여명의 潰走北上한 敵兵인 것으로 보였는데 그 屍體中에도 少年兵의 可憐한 모습도 보였으니 그의 어머니는 어데 있으며 그의 魂魄은 어디를 彷徨하고 있을까!

이무렵 제3대대(장, 李堈鳳대위)는 연대예비대로서 元田里에 진출 집결하여 공격부대의 증원을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그런데 이날 牛岩里—水里 附近 공격에 있어 확인된 戰果로는 敵 사살 70명, 포로 3명, 蘇式소총 12정, 다발총 3정, 輕機 1정및 각종 실탄 多數를 노획하였으나 연대에서도 치열한 근접전의 결과 전사자 9명, 부상자 13명의 손실도 있었다(제1연대 전투상보 1.26참조)。

이와같이 襄陽 東南쪽 4~6km인 老姑峰—牛岩里線에서의 敵의 最後防禦線이 연대의 銳鋒으로 崩壞되자 그들은 襄陽固守의 결정적인 要衝을 잃은 채로 南大川을 건너 襄陽 北쪽 高地群과 그 西쪽 寒溪里—麟蹄로 通하는 雪岳山 入口로 退却하여 그곳에서 강력한 收容陣地를 구축하고 그 일부는 계속 東草와 麟蹄 附近으로 潰退한 것으로 보였다。이와함께 東海岸 草堂里에 있던 敵 제69여단 사령부도 이날 東草까지 후퇴하여 그곳에서 지휘소를 開設 한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一線 狀況이 이와같이 전개되고 있을 때 사단 예비대인 제1기갑연대(장, 李 龍대령)는 注文津에 配置되어 있으면서 部隊戰列을 가다듬고 내일을 위한 戰力을 강화하고 있었다。

3월 27일 : 제26연대(장, 徐廷哲대령)가 사단 右一線으로서, 老姑峰의 大勝은 前述한바 있거니와 이날도 연대는 그 餘勢를 몰아 계속 襄陽으로 追擊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이때 襄陽 北쪽 野山에는 敵의 收容부대가 殘置되어 그들의 후퇴를 용이하게 하고 연대의 突進을 최소한 지연시켜 보려는 듯 하였다。연대 주력이 南大川을 건너 襄陽

市街에 突入할 무렵 砲兵 제1, 제3중대는 上陽穴里로 急히 砲陣地를 推進시켜 연대 正面의 예상 敵陣에 集中 砲擊을 加하고 있었다。이 직접지원의 砲火力은 有効適切하여, 步砲協同作戰이 유기적으로 수행되자 敵의 維戰意志를 꺾는데 決定的인 鐵槌를 加한 셈이 되었다。그러나 이와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襄陽 北쪽의 약 1개대대 규모의 병력으로 보이는 敵 엄호부대는 계속 應戰으로 맞서고 있었다。이에 연대는 襄陽 市街를 接敵없이 奪還한데 이어 躍進과 突擊의 反復으로 敵의 收容陣地를 突破하였는데 이때 연대 장병의 士氣는 高調된바 있는 데다가 敵은 前後로 242명이나 射殺되자 戰意를 상실하고 殘餘 敗殘兵은 황망히 潰走하여 그 一部는 東草方面으로, 또 一部는 雪岳山 東쪽 入口인 上坪洞과 △221를 分散 退却, 한다음 督戰隊의 怒號로 겨우 거기의 敵과 合流하기에 이르렀다。

또 이날의 전투에서 연대는 포로 31명, 蘇式小銃 14정, 다발총 12정, 輕機 5정, 60mm 박격포 1문, 대전차수류탄 50개등을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고 襄陽및 그 北쪽에서 일단 戰線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로써 襄陽은 연대에 의하여 완전히 점령되었는데 그 北쪽에는 敵이 退却해버려 敵情이 없었으나 襄陽 西쪽 雪岳山 入口의 上坪洞—加羅皮里 사이의 △221와 △387에는 敵 제10사단및 제69여단 合流兵들의 축차적인 엄호진지가 완강히 구축되어 있어 사단 左一線 제1연대 正面에서 彼我사이에 팽팽한 對峙狀態를 이루었으나 마치 驟雨將來에 風滿樓와 같은 情景을 보이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제1연대(장, 韓 信대령)은 전날 牛岩里를 점령한데 이어 연대 正面의 敵을 驅退하기 위하여 이날 연대 작명 제30호를 하달하고 그 전방지휘소도 09.00에 待峙里에서 牛岩里로 躍進 開設하여 火力計劃및 제반 공격준비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그간 연대 主攻부대인 제1, 제2대대는 牛岩里—水里일대를 점령한데 이어 凡卓里—△386—盈德里를 連한 南大川 南岸의 稜線을 東으로부터 제1, 제2대대 順으로 점령하여 그 西北쪽 上坪里—松巖里 일대의 敵과 對峙하고 있었다。이리하여 연대는 11.00까지에 右隣接 제26연대와 左隣接 제3사단 제18연대와 襄陽및 西林里를 各各 東西로 連繫하여 Cairo線(陸本作命 제263호의 수정작전지시 제10호에 명시된 진출線)을 점령 확보하게 되었다。이렇게 됨으로써 사단은 襄陽—麟蹄, 襄陽—西林里間의 遮斷陣地의 점령을 일단락보게 된 셈이었다。그런데 연대주력의 진출에 이어 제3대대는 전날 선두 공격제대의 牛岩里—水里線의 목표를 점령하는 즉시로 水里에 진출하여 연대主力이 遮斷진지를 점령하고 있는 동안 대대는 이를 초월하여 上坪里 일대의 敵을 공격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한편 제1연대 正面의 敵陣이 강화되자 연대를 직접지원하고 있던 砲兵 제2중대가 이날 亭子里에서 上陽穴里로 急遽 躍進하여 上坪里 일대의 敵陣에 集中砲擊을 加하여 敵의 行動을 크게 制限시킨 다음 다시 襄陽 南쪽 1.5km 지점인 月里로 前進하여 雪岳山 入口의 敵 엄호진지에 대한 制壓사격을 퍼붓고 있었다。

이 무렵 사단 후방의 注文津에 搾置되어 있던 제1기갑연대는 이날 連谷川 上流인 三山里 北쪽에 있는 鐵甲嶺(△1013) 附近에서 敵의 유격대가 출몰 한다는 첩보를 얻게되자 同 연대의 제1대대(장, 車文錫대위)는 이를 즉시 擊滅하기 위한 出動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3월 28일 : 敵 제69여단및 제10사단은 襄陽—南林里間의 遮斷陣地를 사단에 맽기는 바 되자 이미 전날부터 東草—杆城 부근으로 潰走하여 그 西北쪽 彌矢嶺—元通을 連하는 線에서 병력을 再整備하고 防禦戰으로써 버티어 보려고 벼르는듯 하였다。그러나 襄陽에서 東草에 이르는 東海岸 一帶에서는 強力한 海軍艦隊의 巨砲가 晝夜를 가리지 않고 咆哮함으로써 沿海道路上에서의 據點을 形成할 수는 도저히 힘들었으므로 일단 東草線以北으로 退却하는 도리 밖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이와 反面에 襄陽에서 雪岳山一麟路에 이르는 內陸區間에서는 艦砲의 直接射程에서 벗어난 地帶인 탓으로 敵 제10사단 및 기타 合流兵들이 서로 앞을 다투어 活路를 開拓하는데 이용되고 보니 그들은 要地 要部에 大小 據點을 마련한 다음 九死에서 一生을 찾아 보려고 固守態勢를 강화하게 되었다。그 一例가 바로 이 제1연대 正面인 上坪里의 △221와 加羅皮里의 △387 一帶이었다。이곳에서 敵은 收容陣地와 固守據點을 混合形成하여 襄陽 南北쪽의 경계 임무와 함께 연대의 진격을 최대한으로 저지 함으로써 이미 땅에 떨어진 體面의 一部를 되찾아 보려고 하였다。그러나 그들의 전반적인 士氣는 混落 一路에 놓여지게 되고 계속되는 退却作戰으로 戰意는 날이가고 時間을 거듭 할수록 짧인 데다가 補給마저 杜絶되어 굶주린 창자를 움켜쥐면서 흩어지는 戰列을 더욱 어지럽게 만들었으며 또한 전날부터 계속되는 砲兵의 **擾亂射擊**으로 제 精神마저 차리지 못하고 다만 督戰隊의 威脅밑에서 죽지못한 發惡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狀況아래 襄陽을 점령한 제26연대(장, 徐廷哲대령)는 그 北쪽 高地일대에서 일부 병력이 決戰방어를 준비하면서 연대 主力은 襄陽市內에서 부대를 정비한 다음 장차 展開될 一戰을 위한 銳氣을 培養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단 左一線 제1연대(장, 韓 信대령)의 前面에서는 敵陣이 완강하여짐에 따라 이

를 擊破하기 위한 戰力結集과 만반의 공격준비를 갖춘 다음, 이날 未明을 期하여 공격을 단행하게 되었다。즉 제1대대(장, 咸溶奭대위)와 제2대대(장, 申彦澈중령)가 南大川南岸의 凡卓里—西林里線의 遮斷陣地를 점령하고 火力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 제3대대(장, 李聖欽대위)가 凡卓里의 공격대기 지점에서 06.30을 期하여 南大川을 건너 上坪里 △221의 敵陣을 공격하게 되었다。이리하여 대대가 南大川을 敵前渡河하고 上坪里의 △221 東南쪽 능선에 接近할 때까지 인접 대대및 포병의 화력지원은 계속되었고 突擊地點에까지 포복 전진하여 부대를 전개한 다음 小銃의 유효사거리에 진출하자마자 직접 支援砲兵의 射程은 延伸되면서 대대의 일제사격이 시작되었다。그러나 2개소대규모의 병력으로 보이는 敵은 颱風과 같이 四散六騎을 空中에 날리면서도 오히려 既設된 토치카에서 완강히 저항하자 대대의 집중사격은 사정없이 계속되었고 死屍가 累累한 가운데 그들의 銃聲이 꺾어진 순간을 이용하여 突擊과 白兵戰의 계속으로 両 高地는 마침내 대대의 手中에 점령되고 말았다。이때가 08.00로 敵은 시체12軀를 最頂上에 遺棄한 채로 그 高地 西斜面 능선을 경유하여 血路를 뚫고 2km 거리의 △387을 向하여 서로 다투어 퇴각하였으니 그 모양이 마치 百千窮鬼가 獄門을 헤치는듯 하였다。이때 포로 1명과 白米 5叭을 함께 노획하였다고 記錄에서 傳하고 있으나 그 實數줏는 일일히 헤아리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날 군단장 金白一 소장은 예하 제9사단의 戰線을 시찰하고 L—5機(조종사 權重熙중위)로 14.40에 下珍富里를 출발하여 江陵軍團指揮所로 歸任하던 중이었는데 數時間이 지난 다음에도 江陵에 도착하지 않았다。이에 군단사령부에서는 或 亂氣流로 遭難되지 않았나 疑心하고 즉시 제9사단(장, 李成佳준장) 수색대로 하여금 大關嶺 일대및 京江道路附近을 수색케 하였으나 군단장을 실은 L—5機는 좀체로 발견되지 않았다。(註, 이 군단장 전용의 L—5機는 만 1년후인 1952년 4월에 大關嶺 森林속에서 草夫에 의해 발견되어 空軍에 의해 機體와 군단장및 조종사의 유해를 확인하였다)

군단장 金白一 소장은 지난해 9월 12일에 제1군단에 赴任한 이래 總反擊作戰에 있어서 韓國軍 단독으로 東部戰線을 맡아 38°線을 돌파하고 破竹之勢로 元山—咸興—清津및 惠山鎭등을 점령하여 韓滿國境을 目前에 두었을 때(韓國戰爭史 四卷, 首都사단 및 제3사단 項目참조) 中共軍의 侵略으로 興南에서 海上철수를 단행하여 鏊湖—蔚珍으로 轉進作戰을 끝낸 다음 다시 38°線을 突破하여 襄陽을 점령한 다음날 그 혁혁한 무훈을 말없이 남기고 大關嶺에서 장열한 최후를 마친것이다。특히 그의 탁월한 지휘능력은 反擊當時 東部戰線을 全擔하여 友軍 어느부대 보다도 먼저 38°線을 돌파하고 東海要港인 元山을 平壤보다 10일전

에 점령함으로써 美 제10군단의 元山상륙작전을 行政的 上陸으로 변경시키게 되었고 아울러 韓國軍단독으로 東部 全戰線을 席捲하기에 이른 壯快한 作戰의 直接指導者였으니 戰勝의 이날을 깊은 憂愁로 보내게 된것은 무엇보다도 가슴아픈 일이었다。옛부터 一將功成에 萬骨枯라하였거니와 그는 몸소 陣頭指揮하다가 一將死而萬骨生의 참모습을 보여준 野戰의 猛將이었다。

3월 29일 : 군단장이 一線指揮中에 散華하자 부 군단장 李俊植 준장이 군단을 지휘하게 되었는데 襄陽 西北쪽 雪岳山入口의 진격작전은 예정된 計劃 그대로 계속되었고 全將兵의 醜敵撲滅의 決意는 燎原의 불길과도 같았다。

제1연대 제3대대(장, 李聖鳳대위)가 上坪洞의 △221를 점령하는 즉시로 연대主力은 이날 07.00부터 一時에 공격을 시작하여 敵의 退路를 遮斷하고 이를 包圍격멸키로 하였다。이때에 敵은 松魚里—加羅皮里--△387 線에서 大隊규모의 병력을 糾合하자 굳 강력한 저항을 시도하고 있었으며 특히 387高地는 雪岳山—寒溪里—元通에 이르는 初入의 要衝高地로서 彼我間에 매우 중요한 戰術的인 爭奪目標였다。즉 敵은 이 高地를 빼앗기면 雪岳山 일대의 據點확보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아 그들이 즐겨쓰는 유격전법의 企圖가 水泡로 돌아 갈 뿐만 아니라 다시 大병력을 그 以北으로 철수시켜야만 活路를 開拓할수 있었기 때문이다。또 그 보다 더욱 중요한 이유는 襄陽--雪岳山—元通—麟路를 이은 太白山脈의 中腰이 군단에 의해 橫으로 截斷된다면 中東部 戰線에서 미처 후퇴를 못하고 있는 敵 제2군단 主力이 완전히 一握之中에 포위당하게 되는 절대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다분히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와같은 這間의 用兵上 이유로 연대 정면의 △387 附近에는 敵 제10사단및 제69여단의 殘餘 兵力이 거의 모두 집결하여 그야말로 決死的인 最後發惡의 태세를 갖추고 一戰을 決할 心算이었을 것으로 推斷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단의 左一線에서 공격하고 있던 제26연대(장, 韓 信대령)는 인접 제26연대(장, 徐廷哲대령)에 의하여 襄陽이 이미 점령된데다가 더우기 전날 제3대대(장, 李聖鳳대위)만으로서 上坪里의 △221 점령으로 士氣가 더욱 高揚되어 어떠한 戰況이 닥친다 하더라도 能히 一擊에 擊破하리라는 自信에 넘쳐있었다。由來로 싸움터에서의 士氣란 不敢當하고 不可測함이 대개 이와같은 것이다。

연대장 韓信대령은 제3대대를 이 高地(△387) 공격의 主攻으로 指定하고 上記와 같은 敵情을 감안하여 부대의 昂揚된 士氣에 힘입어 鎚袖一擲으로 戰果를 확대키 위하여 地上

공격부대를 잠시 制御케 하는 반면 砲兵 제2중대에게 이 일대에 徹底한 同時集中火力을 퍼붓도록 조치하였다。이에따라 제26연대를 지원한바 있던 砲兵 제1, 제3중대도 下旺道里및 月里에 제2중대와 合同하여 大隊사격으로 △387 일대를 強打하였는데 天空에는 鐵火가 飛飛하고 地軸에는 雷爆이 炸裂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제3대대(장, 李聖鳳대위)는 직접공격을 시작하였으나 敵은 有利한 制高地에서 최후 斷末魔的인 저항으로 그 공격이 如意치 못하여 대대는 일단 △221 西斜面에 急編陣地를 구축하면서 계속 射擊으로서 敵影을 놓지지 않고 一彈一敵의 射擊과 秒速千發의 急襲을 互用하면서 總突進을 期하고 있었다。

한편 제26연대(장, 徐廷哲대령)는 襄陽에서 부대 戰列을 강화하고 있었으며, 제1기갑연대(장, 李龍대령)는 注文洋에서 사단後側方 防護를 계속하고 있었다。그런데 같은 연대 제1대대(장, 玉文錫대위)만은 이미 連谷川 上流의 鐵甲嶺에 진출하여 이 일대의 敵 유격대를 수색하고 있었으니 龍虎相搏의 暗雲이 去來하고 風雨가 將至하려하였다。

3월 30일 : 전날부터 이날 未明까지 砲兵 제2중대는 月里에 있는 砲兵의 放列陣地에서 △387에 集中砲擊을 加하다가 그 射程을 延伸하여 甘魚里—加羅皮里線및 白岩里까지 火網으로 뒤덮었다。이때 敵은 점차로 分散 상태에 빠지면서도 △387에는 1개중대 규모의 收容部隊가 最後까지 물고 느러져 그들 主力의 후퇴를 엄호코자 奮戰하였으나 아마도 連退維谷속의 督戰의 힘이 였을 것이다。

제1연대 제3대대는 전날 공격에 이어 이날 07.30에 이 일대에 再공격을 감행하였는데 09.00부터 激化된 戰鬪는 11.00까지 계속되었으며 끝내 死守와 固守에 徹하려던 敵을 격멸하고 13.00에 이 △387上의 主人이 되고 그 一帶를 완전히 점령하고야 말았다。이때에 제1, 제2대대의 측방지원과 유기적인 步砲協同의 火力制壓은 이 高地를 奪還하는데 있어 많은 익활을 하였거니와 窮極의 成敗要因은 敗를 不認하는 必勝의 信念 그것만이 절대적인 것이었고 이 전투에서 다음과 같은 戰果를 기록하였다。

戰果				損失	
敵 사살	47명	노획	小銃 15정	戰死	2명
포로	1명		다발총 1정		
			M1 1정	부상	20명

(제1연대 작전상보 3.30현자)

이와같이 敵 收容部隊가 潰滅되자 그들은 白岩里—五色里를 경유 雪岳山 南麓으로 退却하였고 사단은 襄陽및 雪岳山入口에 진출적 기반을 확고히 조성하여 襄陽을 중심으로 한

北一西쪽 10km의 반경을 완전히 掌握하게 되었다。

이렇게 襄陽 西北쪽 △387의 敵 要衝地를 奪還하고 이 일대를 制壓하게되자 사단의 戰線을 시찰하기 위하여 總참모장 丁一權 소장및 副軍團長 李後植준장 그리고 사단장 宋堯讚준장이 襄陽에 來到하여 一線부대의 戰功을 致賀하고 격려한바 있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敵軍의 動向 : 사단 正面의 敵 제69여단은 襄陽附近에서 潰走한 이래 消極的인 接觸을 維持하면서 계속 東草一杆城方面으로 退却하여 그 일대에서 防禦線을 形成하면서 次期 공격을 준비할 企圖인듯 하였다。그들은 襄陽에서 後退한 다음 東草一翰瑟嶺線에서 제2차 防禦線을 펼 예정인듯 하였으나 사단의 急襲으로 하는수없이 그 主力을 後退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敵 제10사단은 雪岳山入口 △387에서 제1연대에 의해 潰散한 다음 藥水里一寒溪里에서 逐次的인 防禦陣을 강화하면서 그 合流 主力은 雪岳山 일대에 據點을 마련하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편 敵 제2군단 主力이 連敗北上하자 敵 제8군단이 증원되어 이와 交代한 然後에 군단의 西側을 迂回하면서 侵襲을 企圖하게 되었으며 敵 제2군단은 交代後에 外金剛 山岳에서 再編하다가 時日이 경과한 다음에는 再次 南下하여 一線部隊와 合勢로써 全面的인 攻擊을 取한 企圖로 보였다。

그런데 사단 西北쪽 前面인 雪岳山 南麓 一帶, 즉 藥水里및 寒溪里 附近이 元通里에 이르는 要地임을 감안한 敵은 약 1,000명 규모의 병력이 집결하여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였는데 이는 제1연대와 인접 제3사단 제23연대의 挾攻에 미리 對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我軍의 動向 : 사단은 襄陽一△387를 점령한 다음 그 일대에서 더욱 진지를 強化하는 한편 4월 2일附로 제9사단 제29연대(장, 高白圭대령)를 配屬받고 襄陽一遠山里一馬山里一寒溪里를 連하는 線에서 敵 수색대를 捕捉擊滅하는 한편 威力搜索을 계속하고 있었다。

사단은 4월 3일 그 전방지휘소를 仁邱里로 前進開設하고 左一線인 제1연대를 인접 제3군단과 盤德里 西쪽에서 一擊又一擊하여 사단 左翼地帶에서 決戰防禦를 敢行하도록 措置하였다。이 무렵 제26연대는 襄陽에서 戰列을 강화하였고 제1기갑연대는 香湖里에서 仁邱里로 北進하여 계속 사단 예비대로 勃勃한 雄心을 包藏하고 있었다。그리다가 4월 5일에는 사단 전방 지휘소를 다시 襄陽으로 躍進하고 이와함께 제9사단 전방지휘소도 이곳으로 合同하였다。

이 무렵 제3군단은 그 전방지휘소를 下珍富里에 開設하였고 제3사단(장、金鍾五준장) 및 제7사단장, 金炯一준장)은 加里山里一五作洞一蒼村 等地에서 Kansas線을 점령확보하고 있었다。

또 한편 군단지휘소는 3월 6일이래 계속 江陵에 位置하였고 부 군단장 李後植 준장이 代理로 군단을 지휘하다가 4월 6일附로 白善燁 소장이 군단장으로 就任하여 새로운 구상아래 군단을 지휘하게 되었다。

§ 研　究

註, 「제1군단사」草稿本에는 연대의 손실이 전사1, 부상 14명으로 되어있고 또, 砲兵大隊 전투 상보 3월 30일字에는 敵 사살 2개소대로 記錄되어 있다。

11. 楡川里附近 戰鬪 (51년 3월 17일부터 51년 3월 22일까지)

참 조 : 별 책 부 도 제 2 6 호
작명부록 : 제223, 224, 227, 229, 230, 231, 233, 236 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제 3 군단	장	소장	劉 載 興	제 2 대대	장 소령 文 泰 俊
제 3 사단	장	준장	金 鐘 五	제 3 대대	장 소령 崔 尙 俊
		(51년 3월 17일 부터)		배속부대	
제18연대	장	대령	任 忠 植	제11포병대대	장 소령 宋 贊 鎬
제 1 대대	장	소령	李 秉 衡	제3야전공병대대장	대위 金 在 植
제 2 대대	장	소령	趙 東 三	병력 : 약 7,500명	
제 3 대대	장	중령	安 岐 一	장비 : 60mm 박격포	52문
제22연대	장	대령	張 春 權	81mm 박격포	34문
제 1 대대	장	소령	崔 喜 學	3.5″ Rocket포	23문
제 2 대대	장	소령	金 高 崇	57mm 대전차포	11문
제 3 대대	장	소령	鄭 淳 珉	75mm 직사포	
제23연대	장	대령	金 錄 舜	105mm 곡사포	12문
제 1 대대	장	소령	金 尤 業		

敵 軍

北共	제 2 군단	장	중장	崔 仁	병력 : 약 10,000명
	제 2 사단				장비 : 장총, 따발총, 체코式경기
	제27사단				60mm 박격포
	남방유격대제3지대장			朴 鍾 根	83mm 박격포
			(2개대대규모)		

나. 전투전의 개황

당 제3사단의 楡川里부근전투는 前述한 講林—安興—烽火山진격전의 다음에 치룬 작전이다。

사단은 所謂 敵의 「二月攻勢」에 대하여 中東部戰線에서 斷行한 大反擊作戰의 一環으로 2월 23일부터 3월 5일까지 講林—安興—烽火山의 진격작전을 치루고 目標인 Arisena線에 進出한 다음, 육군본부의 작전명령 제263호 追加修正작전 지시 제1호 (참조 작명부록 제224호)에 의거하여 3월 7일 12.00附로 제1군단으로부터 제3군단에 배속되었다。

이에따라 사단은 安興里 一帶의 陣地를 美 제2사단에 인계하고 平昌부근으로 이동하였으며 3월7일에 『제3군단장은 배속된 제3사단으로써 현재 제3군단 區域안에 있는 제1군단 부대와의 교대를 迅速히 推進하라』는 육본작명 제263호 修正작전지시 제1호(참조 작명부록 제223호)가 下達됨에 따라 제3군단 배속이 해제되고 제1군단에 配屬되었던 제9사단의 작전지역인 旌善 一帶의 陣地를 引受하였다。

이 무렵 사단의 前方에서는 군단의 右翼一線을 擔當한 제1해병연대(장, 金聖恩대령)가 餘糧里—發旺山—楡川里 軸線을 따라 진격하고 있었으며 그 左側에서는 제7사단(장, 金炯一준장)이 下珍富里—東沙里間을 목표로 熾烈한 공격을 加하고 있었다。

그러나 敵은 山岳을 등진 堅固한 陣地를 據點으로 執拗하게 抵抗함으로써 我軍의 戰況이 不利하게 되자 군단장 劉載興소장은 제1해병연대를 제3사단에 작전상 배속하는 동시에 사단의 주력부대로 하여금 해병연대와 제7사단의 間隙으로 進出케 하였다。

이리하여 12일에는 下珍富里를 占領하였고 다음날인 13일에는 橫溪里—楡川里—下珍富里—東沙里線을 확보하므로써 비로소 京江街道를 開通하게 되었고 동시에 東部戰線의 제1군단과 併立하는 前線을 形成하게 되었다。

敵軍의 狀況— 이상과같이 我軍이 京江街道를 확보하게 되자 敵 제2군단은 그 以北쪽으로 退却하고 17일을 前後하여 五臺山(△1563)일대에 800명 그 左側 大臺山에 600명으로 각각 堅固한 前哨陣地를 構築하였고 그 後方인 西面에는 제2사단과 제27사단의 주력부대 3,000여명이 집결하여 있었다.

한편 이 무렵 당 제3사단의 후방에서는 敵 제10사단이 麟蹄지구로 집결하기 위하여 太白山脈을 타고 北上하고 있었다。

이 제10사단은 대개 다음과 같은 경로를 밟고 당 사단의 전투지경내인 楡川里 일대로 北上하게 되었던 것이니 이들은 「1차공세」를 통하여 靑松—義城지구에 침습한 뒤에 다시 普賢山으로 침투하여 我軍의 後方攪亂를 꾀하다가 大邱 東쪽 八公山에 據點을 確保할 計劃이었으나 安東지구의 我 제2사단(장, 咸炳善준장)과 太白山지구의 전투 警察사령부(사령관 尹明運경무관) 隷下 경찰대의 殘敵 擊滅戰에 쫓기는 바 되어 2월 20일에 사단 병력 3,000여명으로써 北으로 退却하기 시작하였다。그리하여 軍威—靑松을 거쳐 3월4일에는 南海龍里로 北走하였고, 3월9일에는 蓮花山(太白山옆)에, 3월10일에는 다시 三陟郡 遠東面 砂谷里에 집결한 다음, 太白山脈을 따라 北上하던 3월14일에 我 제9사단에 의하여 도합 899명이 사살되고 84명이 사로잡히는 바 되었다。

그러나 殘敵은 退却을 계속하여 3월 16,17일 兩日에는 江陵 南쪽 20km인 石頭峰(△989)에 이르러 일부는 花郎峰(△1069) 鷄項峙—△956—水下里 一帶에 出沒하기 시작하였다。

我軍의 狀況— 이와같은 敵의 狀況下에 展開된 제3사단의 楡川里부근 전투는 전방의 黃柄山과 老人峰—五臺山 일대에 있는 敵 제2군단의 南侵을 방어하는 동시에 中東部戰線의 Idaho線을 확보하고 또한 普賢山—八公山 일대로부터 太白山脈을 따라 北上退却하려는 敵 제10사단을 擊滅하는 것이 그 主任務였다。육군본부는 3월14일 20.00에 『제3군단장은 敵 제1, 제3유격여단 및 제10사단의 敗殘兵 주력부대를 阻止 또는 擊滅할 것이며 제2사단(春陽부근) 및 右側의 제1군단과 작전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維持하라』는 작전명령 제263호 修正 작전 지시 제4호 (참조 작명부록 제227호)를 下達하였다。

이어서 3월 17일 09.00에는 다시 『①제3군단장은 제1해병연대를 현 임무로부터 解除하여 3월17일

18.00까지 下安味里부근 집결지에 도착하도록 이동시키라.

② 3월17일 18.00부로 제1해병연대를 제3군단장 배속으로부터 해제하여 美 제9군단에 배속하라』는 작전명령 제263호 修正작전 지시 제6호 (참조 작명부록 제229호)를 하달하고 있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육본작명 제263호의 修正작전 지시 제4호와 제6호에 의거하여 前方의 敵과 後方으로부터 北上하는 敵의 早期擊滅과 사단 右側 我 해병제1연대와의 임무교대를 早速히 실시하기 위하여 사단장은 3월 17일에 要旨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 제9호를 下達하였다。

『① 제18연대장은 예하의 全병력을 間坪里로 이동시킨 다음 1개대대는 Idaho線上의 東大山(△1434)—△1301間의 陣地를 占領케 하고 1개대대는 虎鳴里 一帶로 南進시켜 敵 제10사단의 北上을 阻止 擊滅하라。

② 제22연대장은 主力을 현지로부터 北上시켜 △1243—東大山間의 Idaho線을 점령케 하고 1개대대는 上直洞—發旺洞間에 배치하여 發旺山에 침습한 敵을 擊滅하라。

③ 제23연대장은 현陣地로부터 北上시켜 제1해병연대와 陣地를 교대한 다음 黃柄山(△1047) 일대의 陣地를 점령하라』

(2) 작전실시

3월 17일 : 이날 사단 예하 全병력은 사단작명 제95호에 따라 각각 담당지역을 점령하기 위하여 機動하였는데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의 제1대대(장, 李秉衡대령)는 加牛洞에서 間坪里로 이동하여 연대의 예비대가 되었으며 제2대대(장, 趙東三소령)는 東山里로부터 △1061—△929를 경유하여 Idaho線上의 △1301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제3대대(장, 安旼一중령)는 虎鳴里(楡川里 南쪽 3km)의 屛頭山(△988)에 배치하여 南쪽에서 北上하는 敵에 對備하였다。

이와같이 연대의 主力부대가 轉進함에 따라 이날 上珍富里에 있던 연대지휘소도 間坪里로 移設하여 사단의 左一線을 담당 지휘케 되었다。

사단의 中央부를 담당하게된 제22연대(장, 張春權대령)의 제1대대(장, 崔章學소령)는 △1140—間坪里로부터 北上하여 九舜里를 거쳐 △1244—東大山間에 진출하고 左側제18연대 제2대대와 連繫하여 Idaho線을 確保하였다。

한편 제2대대(장, 金高崇소령)는 廣川에서 北進하여 △905—△812에 이르러서 제1대대의 후방 방어선을 형성하였으며 제3대대(장, 鄭淳珉소령)는 龍鞍洞부근에서 南으로 출동하여

直洞—發旺洞間에 병력을 展開하여 發旺山(△1458)에 侵襲한 敵의 北上을 阻止하였다。

따라서 이날 연대의 지휘소는 虎鳥里의 제18연대 제3대대가 進出하는 즉시 楡川里를 경유하여 九龍里로 移設하였다。

제23연대(장, 金漆龍대령)는 본부를 旌善에 開設하고 제1대대(장, 金光燦소령)는 柳田洞에 본부를 두고 제1중대를 高陽山(△1151)에 제2, 제3중대를 水基里 일대에 각각 配置하였으며 제3대대(장, 崔尙俊소령)를 余糧里에 배치하여 사단의 後方경계 및 敵 제10사단의 退路를 遮斷하였다。

한편 제2대대(장, 文泰俊소령)는 제11포병대대(장, 宋賢錦소령)와 함께 同월 16일에 旌善에서 車項里로 移動하였는데 이날 집결을 마치고 제1해병연대와 교대한 다음 柏峙—△1017를 거쳐 다시 內狗宿 北쪽 1km일대의 Idaho線上에 있는 陣地를 점령하기 위하여 계속 北進하였다。

제2대대와 함께 전날 旌善에서 車項里로 이동한 제11포병대대는 이날 A, B중대를 月精里에 C중대를 高灘에 각각 配置하였다。

이날 사단사령부에서는 사단장 離就任이 이루어졌는데 崔錫준장이 江陵에 주둔한 陸本前方지휘소 소장으로 轉任하고 당 사단의 제9대사단장으로 제1군단 參謀長인 金鍾五준장이 부임하였다。

3월 18일 : 이날 사단은 전방으로부터의 敵情사항은 없었던 반면, 後方지역에서는 전날 제1군단 지역에서 사단의 戰鬪지경선 後方인 花開峰一帶로 침습한 敵 제10사단 제27 및 제29연대 병력(약 800명으로 推算)이 이날 水下里—龍山을 거쳐 廣川—白日坪—黃柄山—老人峰—五聖山으로 進出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사항으로 미루어 볼때 敵의 北上 經路는 제22연대(장, 張春權대령)의 작전지역이었다。

그런데 이 연대의 後方 廣川里일대에는 3월 17일字로 사단에 配屬된 제7사단의 제7연대(장, 金仁哲대령)가 占領하고 있었기 때문에 自然히 이 지역으로 北上하는 敵과의 一戰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편 敵의 先遣부대 500여명은 이날 05.00에 發旺山에서 北上하여 元卜洞—晩項峙의 제5연대의 防禦線을 突破한 뒤에 廣川里의 제2대대(장, 趙在俊소령)를 奇襲하여 보급품을 奪取한 다음 將軍峰으로 向하고 있었다。

이 무렵 제22연대(장, 張春權대령)는 제1대대(장, 崔章學소령)가 △1243—東大山(△

1434)間을 占領하여 北方을 防禦하였고 제3대대(장, 鄭淳珉소령)는 直洞—發旺洞間을 占領하여 發旺山의 敵을 阻止하고 있었으며 제2대대(장, 金高崇소령)는 楡川北쪽 4km 前方 坪內里 一帶에 배치하였는데 대대 본부를 석장골에 開設하고 제5중대를 외박골에 제6중대를 將軍峰에, 제7중대를 그 南쪽 △1140에 각각 展開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楡川의 제5연대 제2대대가 기습을 받았다는 보고에 接하자 연대장 張春根대령은 제1, 제3대대의 경계를 더욱 徹底히 하도록 하는 동시에 제2대대로 하여금 곧 이 敵을 撃滅토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서 07.00에 제7중대는 將軍峰 最高稜線으로 進出하였고 제5중대는 그 右側稜線을 連하여 공격을 開行한 결과 23명을 사살하고 3명을 사로잡았는데 一部의 殘敵은 白日坪을 거쳐 이날 12.30에는 △1198로 退却하였고 또 一部는 右側의 △1126을 거쳐 老人峰으로 退却한 것으로 判明되었다。

이 무렵 사단의 左一線을 담당한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의 에비대인 제1대대(장, 李秉衡소령)는 06.30에 사단장의 口頭命令에 따라 間坪里에서 연대의 後方 경계대 陣地를 철수하여 京江街道 北쪽 △967에 진출하여 北上退却中인 敵의 西側方을 威脅하였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육군본부는 이날 12.00를 期하여 다음과 같은 要旨의 육본작명 제263호 修正 작전 지시 제7호 (참조 작명부록 제230호)를 下達하였다。

『一. ① 정보에 의하면 敵은 華川貯水池 東쪽으로부터 東海岸에 이르는 38°線부근에 부대를 집결시키고 砲座 및 陣地를 구축하는 등 敵의 出沒은 增大되고 있다。

② 美 제10군단은 담당지구에서 敵後方지구에 대한 수색을 실시한 것이다。

二. ① 軍은 Idaho호線上의 현陣地로부터 Queen線까지 北쪽 깊숙히 진출하여 敵의 後方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려 한다。

② 下記한 전투지경선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가) 제1군단과 제3군단間의 전투지경선은 現전투지경상 투정항里로부터 △1183—盈德—白岩里間를 통과 하여 靑石里까지 연장한다。

(나) 제3군단과 美 제10군단間의 전투지경선은 現 線上인 피박골로부터 △1436—△847—△1519를 통과하여 △766까지 연장한다。

③ Queen線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同線은 東海岸(정암里부근)으로부터 雪岳山을 경유하여 제3군단과 美 제10군단의 전투지경線上인 鐵里까지 西쪽으로 延長한 線이다。

三. 제1, 제3군단장은

① 즉시 현재 점령하고 있는 Idaho 上線 陣地로부터 Queer線까지 敵後方에 대한 수색을 개시하라。

② 수색정찰대 및 諜者에 置重하여 각 군단장이 使用할 수 있고 또한 陸本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든 地上 수색기관을 활용하라』

이리하여 전투지경線은 Idaho線上에서 北으로 확대되었으며 공격에 앞서서 수색진에 對應할 준비를 서둘러야 만 하였다。

이로부터 사단은 Idaho線上으로 향하는 부대의 北上을 圖謀하는 한편 지역내에서의 敵의 退路로 예상되는 곳을 遮斷하기 시작하였다。

사단사령부가 旌善을 떠나 平昌郡 大和里로 躍進하는 가운데 이날 제18연대의 제2대대(장, 趙東三소령)는 右側 제22연대 제1대대와의 連繫을 위하여 Idaho線上의 東大山—△1301間의 陣地를 점령하였으며 전날 虎嘯里에 進出한 제3대대(장, 安政一중령)는 사단장의 口頭명령에 따라 車輛수송으로 間坪里—小巢鶴洞을 경유 北으로 移動하고 老人峰 西南쪽의 △1037를 점령하여 敵의 退却路를 遮斷, 壓滅하기 위하여 待機하였다。

한편 사단의 右一線을 담당한 제23연대(장, 金錄舜대령)는 이날 제2대대(장, 文泰俊소령)가 黃柄山을 향하여 北進하는 가운데 제1대대(장, 金光榮소령)는 柳田洞에서 車項里로 이동하고 있었고 제3대대(장, 崔尙俊소령)는 余糧里일대에서 屈峰부근으로 北上하였으며 따라서 연대 CP도 旌善을 출발하여 18.00에는 車項里로 이동하였다。

3월 19일 : 사단은 전날 發旺山에 집결하였던 敵 제25연대 및 제1지대 제1여단 소속 병력이 北上 退却함에 따라 이를 섬멸하기 위한 작전을 展開하였는데 敵의 後續부대는 전날과 같이 鳳山里—發旺山—龍山—檜峙—白日坪—西谷—△1198를 경유하여 老人峰으로 향하였다。

이에따라 이날의 緖戰은 鳳山里에 배치한 제5연대(장, 金仁哲대령) 제1대대(장, 申健善소령) 正面에서부터 전개되었는데, 敵140여명이 鳳山里—發旺谷에 出沒함에 따라 대대는 이를 공격하기 시작하여 發旺谷으로 추격함으로써 敵은 龍山일대로 潰走하였다。

이에 直洞—發旺谷間에 배치하고 있던 제22연대(장, 張春根대령)의 제3대대(장, 鄭澤銀소령)는 다시 이를 龍山부근까지 추격하여 敵 제10사단 偵察참모 보좌관(少佐)이하 6명을 사로잡았다。

同 보좌관의 진술에 이르기를 『제10사단은 三和里에서 2個梯隊로 分離하여 제1梯隊는 사단본부와 제27연대로서 大關嶺을 경유하여 北上할 예정이었으나 如意치 못하여 西쪽으로 迂回 北上하라는 命令으로 發旺山—龍山—屈川里—黃柄山—老人峰을 連하는 線을 따

라 北上하였다。또 제2梯隊는 제25연대 병력 600명(전투병력 약400명)과 사단 직할대, 공병대, 통신대, 敎導대대의 병력 약 600명(전투병력 약200명)으로 편성하였다。』라고 하였다。

이때에 同대대는 이 敵을 擊退한 다음 △1169間을 占領하고 發旺山부근의 敵에 對備하였다。

同연대의 제1대대(장, 崔章學소령)는 △1243—東大山間의 陣地에서 小集鶴洞—△929間으로 移動하고 제2대대(장, 金高崇소령)는 이와 連繫하여 白日坪—小集鶴洞間을 占領하여 北으로 退却中인 敵을 擊滅할 態勢를 갖추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龍山으로 北上한 敵은 다시 제23연대(장, 金漆舜대령)가 占領한 車項里—黃柄山을 指向함에 따라 要所마다에 배치한 同연대의 소속부대에 阻止되겠금 되어 있었다。

同연대의 제1대대(장, 金光榮소령)는 車項里에서 四周防禦중 07.00에 出動하여 제2대대를 後續으로 하여 右側稜線으로 進擊하던중 400명으로 推算되는 敵과 遭遇하여 熾烈한 교전끝에 敵이 老人峰 方面으로 退却함으로써 이를 追擊하여 18.00에는 老人峰 南쪽 2km지점에 進出하였다。

제2대대(장, 文泰俊소령)는 제18연대(장, 任忠範대령)의 지휘하에 黃柄山을 중심으로 東南西間으로 배치하였다가 이날 08.00에 출동하여 老人峰을 향하여 진격하던중 10.00에 黃柄山 北쪽 1km지점에서 제1대대의 追擊을 받고 退却중인 敵 400명이 후방으로부터 공격을 加함으로 一時 我軍으로 誤認하였으나 곧 敵임을 확인하는 瞬間부터 應戰하였다。

대대는 이 敵을 包圍 격멸할 계획으로 移動배치 하였으나 시간적인 餘裕와 地形의 不利로 敵은 我軍이 배치된 右側으로 迂回하여 老人峰 방면으로 遁走하였다。

이에 대대는 계속 追擊하여 敵을 격퇴하고 18.00에 主力을 內狗洞 전방高地 일대에 배치하는 동시에 제8중대와 ＯＰ를 東山洞에 開設하였다。

이 戰鬪에서 兩대대는 도합 204명을 사살하고 17명을 사로잡았으며 그 밖에도 장총 28정과 따발총 30정, 그리고 M1소총 6정과 자동소총 6정을 비롯하여 水冷式 輕機 1정과 책코式 경기 2정 및 박격포 1문을 노획하였다。

그런데 我軍의 損失은 5명이 전사하고 16명이 戰傷하였다。

이상과 같이 제1, 제2대대가 北으로 轉進함에 따라 제3대대(장, 崔高俊소령)는 09.30에 屛峰일대의 陣地에서 출동하여 發旺山을 수색한 뒤 21.00에 車項里에 도착하여 四周防禦태세를 갖추었으며 연대의 ＣＰ도 이날 車項里로 躍進 開設하였다。

한편 사단의 右一線부대인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의 제1대대(장, 李秉衡소령)는 08.00에 △967의 진지를 撤收하여 10.00에 間坪里에 도착하여 연대의 예비대가 되었고 東大山—△1301間의 제2대대(장, 趙東三소령)는 이날 17.30에 제5중대를 먼저 △1028로 移動한 다음 그 主力은 月精寺의 北쪽 △929—△1061間으로 撤收하였다。

제3대대(장, 安玟一중령)는 △1037를 占領하던중 이날 右側의 제23연대 제2대대와 協同작전을 전개하기 위하여 09.30에 출동하여 退却중의 敵을 追擊하고 18.00에는 老人峰 부근까지 진출한 제9중대를 △1243에, 제10중대를 老人峰에, 제11중대를 진고개에 配置하고 제12중대와 대대지휘소는 △1243南쪽에서 각각 머물렀다。

이날의 전투에서 대대는 17명을 사살하고 2명을 사로잡았으며 水冷式 重機 1정과 小銃 5정, 그리고 60mm박격포 1문을 노획하였다。

한편 이날 10.00에는 我空軍에 의하여 黃柄山 西北 3km에 집결한 400여명의 敵을 強襲하여 150여명을 쓰러뜨리는 등 敵 제10사단의 北上 退却하는 병력을 到處에서 擊退 또는 潰滅시켰다。

3월 20일 : 이날의 敵情은 전날 退却하지 못한 一部의 收殘兵이 사단의 작전지역안에서 散見되었을 뿐이다。

사단의 수색대는 이날 11.00에 老人峰 前方의 俗稱 "두드령"부근의 △200에서 敵 제10사단 제27연대 소속 2명을 사로잡았는데 이들의 진술에 의하면 그 부근일대에는 약600명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었고 01.00에 車項里부근에서는 사단 사령부까지 連絡을 위하여 車輛으로 출발한 제23연대의 인사장교 외2명이 柱峙부근에서 數未詳인 敵의 奇襲을 받았으며, 俗稱 "사이숫터" (사단의 後方인 發旺山 東南쪽 7km)에서는 殘敵 10명이 나타나 마을사람에게 發旺山으로 가는길을 묻고 北上하였다는데 그뒤에 50여명이 따르고 있었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상황하에 이날 사단의 각 부대는 전선을 정리하고 진지를 強化하였다。

즉 사단 右一線인 제23연대(장, 金淳舜대령)의 제1대대(장, 金尤榮소령)는 08.00에 전날의 陣地를 철수하여 Idaho線上의 老人峰 일대에 진출 하였고 제2대대(장, 文泰俊소령)는 제18연대장의 지휘하에 復歸하여 08.00에 전날의 陣地인 內浦館 前方에서 西南으로 이동하여 食湯洞에 집결한 다음, 10.30에 여기를 떠나 18.00에 車來地를 경유하여 車項里에 도착하는 즉시로 연대 C P를 경계하였으며 제3대대(장, 崔尙俊소령)는 07.30에 車項里를 출발하여 黃柄山으로 진출하고 부근일대를 占領하였다。

한편 사단의 中央인 제22연대(장, 張春權대령)의 제1, 제2대대는 전날에 이어 △929—

小巢鶴洞一白日坪간에서 陣地를 占領강화하고 있었으며 제3대대(장, 鄭澤珉소령)는 龍山一△1169간에 進出한 다음 發旺山의 殘敵을 공격하고 있었다。

사단의 左一線인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전날의 상황에 변동없이 진출선상에서 陣地를 강화하고 있었다。

이와같이 사단의 상황이 有利하게 進展되자 군단장의 명령으로 그동안 사단에 배속되었던 제7사단(장, 金炯一준장)의 제5연대(장, 金仁哲대령)를 배속해제하였다。

그러나 東部戰線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敵이 北上하고 있음을 勘案한 육군본부는 北進에 앞서서 徹底한 수색전과 後方침투부대의 섬멸을 위하여 이날 12.00에 要旨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 제263호 수정작전지시 제8호(참조 작명부록 제231호)를 下達하였다。

『① 일반적으로 現 확보陣地를 확인하기 위하여 Idaho線을 左記와 같이 수정한다. 韓 제3군단과 美제10군단間의 전투지경線上 △1221로부터 北으로 △1282에 이르러서 東北으로 △539(三山里)一東海岸의 영진리의 連谷川 江口에 沿하는 線。

② 제1군단 및 제3군단은 軍의 東側方을 防護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Idaho線(제1항의 수정된線)을 방어하고 작전지시 제7호로써 지시한 敵 후방지구에 대하여 수색활동을 展開하라。』

3월 21일 : 이날의 전투는 전날 05.00에, 京江街道를 北上한 敵의 제2제대인 제10사단 文化副師團長과 砲兵隊隊長이 지휘하는 제25연대와 사단직할대 및 포병연대의 退路를 차단 섬멸하는 작전이었다。

이 당시의 敵情에 대한 판단은 대략 다음과 같은 內容이었다。

『이날 08.00에 △1198에 출현한 500명 규모의 敵은 東北으로 이동하여 08.30에는 △1167 南쪽 稜線을 넘어 老人峰을 경유하여 16.00까지 "구지리" (老人峰 北쪽 5km)에 집결하였으며 그중 100여명의 殘敵은 17.00 현재 老人峰 北쪽 1km지점을 통과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敵 제2제대의 退路는 我 제23연대의 地境內에 들어 있으며 그중 일부만이 左側 제22연대와의 間隙에 해당하였으므로 이날의 전투는 자연 제23연대 지역에 집중되었던 것이다。

08.00 △1198까지 北上한 敵의 주력은 그 北쪽 2km인 食湯洞一黃柄山간에 배치중인 我 제23연대(장, 金漆燁 대령) 제3대대(장, 崔尙俊소령)의 제12중대 陣地後方으로 공격하였다。

이에 대대는 이 敵을 저지하여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였으나 그들은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뚫기위한 저항끝에 마로소 제9, 제10兩중대의 간극을 뚫고 老人峰으로 潛走하였다。이

에 대대는 추적전을 계속한뒤 20.00 日沒과 더불어 原配置線으로 복귀하였다。 이와같이 제3대대의 추격을 받고 北上한 敵은 다시 10.00에 老人峰일대에 배치한 제1대대(장, 金光榮소령)의 陣地 後方으로 來襲하였다。

이에 조우한 대대는 이 敵을 포위섬멸할 기도로 陣前으로 접근시킨 다음 일제 사격을 감행하자 敵은 我軍의 치열한 火力集中에 당황하여 老人峰을 西側方으로 迂回하여 "구지리" 방면으로 潰走하였다。이에 대대는 老人峰 1km前方까지 追擊한 다음 18.00에 老人峰一삼정평간에 배치하였다。

이 전투를 통하여 兩大隊는 敵 39명을 사살하고 4명을 사로 잡았으며 M1 5정과 각종 소총 16정, 그리고 다발총 9정과 BAR 2정을 비롯하여 81mm박격포 1문과 쵁코식 LMG 1정 및 기관단총 1정을 노획하였다。

이상과 같이 연대의 주력이 敵의 退路를 차단하여 치열한 전투를 계속하게 되자 전날 예비대로 車項里에 집결한 제2대대(장, 文泰俊소령)는 제7, 제8중대로 하여금 敵의 退路를 追擊하면서 北上하여 18.00에는 食湯洞일대에 배치하여 右側 제2대대의 진격을 엄호하였다。

한편 연대의 左側을 占領한 제22연대(장, 張春權대령)는 敵의 주력이 제23연대 지역으로 퇴각하자 이날 戰線을 東側으로 擴大하였다。

곧 제1대대(장, 崔章學소령)는 △929—小巢鴉洞간으로부터 東進하였는데 제1중대는 속창 "짓떠기" 일대에서 數未詳의 殘敵과 교전하여 11명을 사살하고 1명을 포로로 하였으며, 제22대대(장, 金高崇소령)로 屛內里 東쪽 1km인 △967로부터 출동하여 2개중대는 白日洞에 집결하는 한편 2개중대는 △1140—△1167간으로 진출하여 그중 제6중대는 이날 敵 1개중대와 교전끝에 42명을 사살하고 11명을 사로 잡았으며 小銃 38정을 노획하였다。

그리고 전날 邊旺山의 敵을 공격한 제3대대(장, 鄭淳珉소령)는 이날 敵 제2제대의 北上으로 진지를 철수하여 狗宿里로 기동 한다음 연대의 예비대가 되었다。

그런데 이날 연대의 수색중대는 13.00에 △1280에서 4명을 사살하고 1명을 포로로 한 뒤 다시 △1197에서 1명을 사살, 4명을 사로 잡았으며 老人峰 北쪽 "솔대"까지 침투하여 21.00에 350명의 敵을 奇襲하여 23명을 사살 하고 다발총 3정과 칼빈 2정을 노획하였다。

이상과 같이 사단의 中東部地境內에 격전이 전개되자 이날 左一線인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主力으로 東北쪽으로 진출하였다。

즉 제1대대(장, 李秉衡소령)는 間坪里의 집결지를 떠나 △1243—食湯洞간의 제3대대(장, 安岐一 중령)를 초월 한다음 狗宿里를 경유하여 老人峰의 敵 後尾를 추격한 결과

01.30에 이를 포착하여 45명을 사살하고 소총 5정을 노획한 뒤 18.00에 철수하기 시작하여 22.00에 間坪里로 복귀하였다。

제2대대(장, 趙東三소령)는 月精寺 北쪽 高地일대의 수색과 경계에 임하였는데 이에 따라 제3대대는 사단 左側方을 방호하기 위하여 九谷洞으로 轉進하였다。

이날로써 敵 제10사단의 第4梯隊와 第二梯隊의 主力은 많은 섬멸적인 타격을 받으면서 완전히 제3사단의 地境內를 통과하여 麟蹄지구로 退却하기 시작하였으며 일부의 落伍兵만이 後續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사단사령부는 이날 大和里를 떠나 楡川里로 躍進하였고 總參謀長 또한 부대의 實情把握과 將兵의 勞苦를 致賀하기 위하여 楡川里로 飛來하였다。

3월 22일 : 이날의 전투는 전일 退却하지 못하고 後續중에 있던 敵 제10사단의 제2제대 중 150여명이 屛內里의 我 제22연대 제2대대 진지후방에 출현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즉 제22연대(장, 張春權대령) 제2대대(장, 金高崇소령)는 屛內里부근을 占領하고 주로 후방을 경계하고 있던중 이날 09.40에 右側에있는 無名高地에 敵의 포병연대 병력 150명이 나타나자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으므로 敵의 主力은 將軍岩쪽으로 후퇴하는듯 하였다。 11.40에 대대는 신속한 기동으로 敵을 포위한 다음 全 화력을 집중하자 敵의 士氣는 약화되고 대대는 더욱 포위망을 압축하여 12.00에는 드디어 敵을 완전히 籠中으로 몰아넣은 다음 13.00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섬멸전을 전개하여 모두 80명을 사살하고 49명을 사로 잡았는데 포로 가운데에는 敵 제10사단 작전참모(中佐)도 끼어 있었다。

한편 제1대대(장, 崔章學소령)는 倉湯洞일대의 진지로부터 北으로 1km를 전진하여 △1037를 점령, Idaho線上의 방어진지를 강화하였으며 제3대대(장, 鄭潭珉소령)는 계속 狗宿里의 예비진지를 확보하였다。

이 무렵 연대의 右側에 있는 제23연대(장, 金漆舜대령)의 제1대대(장, 金光榮소령)는 黃楓山一老人峰간에서 수색전을 전개하였고 제2대대(장, 文泰俊소령)는 제3대대(장, 崔尙俊소령)와 임무를 교대하고 東頂里로 이동하였다。

한편 사단의 左一線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의 제1대대(장, 李秉衡소령)는 間坪里에 제3대대(장, 安政一중령)는 九谷洞을 각각 占領하고 연대의 후방경계에 임하고 제2대대(장, 趙東三소령)는 思考寺 南쪽 Idaho線上의 진지를 강화하고 있었다。

이날 제11포병대대(장, 宋賢鎭소령)의 본부와 제1, 제2중대는 狗宿里에, 제3중대는 間坪里에 각각 陣地를 占領하였고 제3야전공병대대(장, 金在植대위)본부를 柏峰로 이동하고

葛山일대를 占領하면서 사단의 후방을 경계중에 있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3월 17일부터 6일간에 걸친 橫川里 부근전투는 Idaho線의 유지와 後方에서 北上 침투하는 敵 제10사단을 섬멸하는 兩面戰線을 형성하는 가운데 전개되었다。

기간중 晝間은 비교적 溫暖하였으나 夜間에는 積雪로 인한 기온의 下降으로 零下 20°c를 上下하였고 退却兵의 晝夜를 不問한 北上은 교묘히 險路를 取擇함으로써 積雪이 뒤덮인 地形的 惡條件을 극복하면서 성공적인 전과를 획득하는데 많은 고난을 不免하였다。그러나 사단의 각 연대는 긴밀한 협조와 신속한 敵情파악으로 發旺山—將軍岩—黃柄山—老人峰의 敵 退路를 차단하면서 敵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가한것은 놀랄만한 성과였다。

敵軍의 상황 : 敵 제10사단의 北上 退却이 전개되는 가운데 敵 제2군단사령부는 宮洞(縣里 北쪽 km)에서 20일 19.00에 德山里 (驪隱北쪽 4km)로 이동하였으며, 25일 현재 敵은 제3사단의 正面인 昌寧里부근에 제10사단을 下西林에 그리고 제27사단을 芳東里—縣里간에 제9사단을 각각 배치하는 한편 제27사단의 후방에는 다시 제2사단을 重復 집결하여 38°線上에서의 我軍의 진격을 阻止코자 하였다。

我軍의 狀況 : 이상과 같이 敵의 주력부대가 38°線上으로 退却하여 방어진지를 占領하는 가운데 我軍의 戰線이 정비된 3월 25일 08.00에 육군본부는 北으로의 진격을 推進하기 위하여 要旨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 제263호 수정 작전지시 제10호 (참조 작명부록 제233호)를 하달하였다。

『① 美 제10군단은 1951년 3월 26일 담당지구내 Cairo線을 점령 확보하기 위한 공격을 개시할 것임。

② 進出線 "Cairo"線은 美 제9군단과 美 제10군단간의 전투지경선상의 "신수리" (自隱里 東北쪽 10km)로부터 東北으로 新村(縣里 東南쪽 4km) 및 下西林을 경유하여 東海岸의 加平里(襄陽 東北 2km)에 이르는 線이다。

③ 제1군단 및 제3군단은 1951년 3월 25일에서 26일의 兩日에 야간공격을 斷行하여 담당지구내 Cairo線을 점령 확보하라。

④ 이 공격은 軍司令官의 基本意旨 즉 군단相互間 및 군단內에서 최대한으로 협조하며 주력부대의 全戰鬪能力을 유지하면서 敵에게 최대한의 손실을 가한다는 방침에 符合하도록 실시하라。』

이에 따라 사단은 제18연대를 主攻, 제23연대를 助攻, 제22연대를 예비부대로 하여 26일 08.00에 當面의 敵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의 주력부대는 間峴里에서 출동하여 接敵없이 26일 16.00에는 早開洞을 점령한뒤에 西林面를 向하여 계속 전진한다음 葛川里를 경유하여 27일 10.00에 Cairo線上의 西林里를 확보하여 30일 현재 그 일대를 확보하고 있다。이에 따라 제23연대(장, 金榮舜대령)도 老人峰일대의 진지에서 27일 月精洞에 집결한 다음 北으로 진격하여 上院寺—中大寺일대를 占領한 다음 30일 早開洞으로 진출하였다。

예비대인 제22연대(장, 張春權대령)도 27일 16.00에 廣川의 집결지를 떠나 東沙里를 경유 28일 廣院里로 前進한 다음 30일 10.00 葛川里 西北쪽 王城洞으로 進出하였으며 사단사령부는 27일 13.00에 楡川里에서 東沙里를 경유 17.00에 廣院里로 약진 하였다。

이와같이 30일 현재로 사단의 주력부대가 葛川里에서 Carlo線上의 西林里일대까지 進出하게 되자 육군본부는 이날 12.00를 기하여 요지 다음과 같은 작전계획 제22호를 하달하였다。

『① 美 제8군은 D일 H시를 기하여 현진지로부터 공격을 개시 Kansas 線南方의 敵을 섬멸하고 敵物資 및 보급품을 파괴할 것임。

② 軍은 제1군단 및 제3군단으로써 D일 H시를 기하여 현진지로부터 공격을 개시하여 Kansas線南方의 敵을 섬멸하고 敵 物資 및 보급품을 파괴하는 동시에 美 제8군의 右(東)側方을 방호하려함。

③ Kansas線은 東海岸의 五山里(襄陽 東쪽 3km)에서 西쪽으로 馬山里—寒溪里(麟蹄 東北10km)—加兒里—竹谷里—楊口를 경유 華川貯水池 南端에 沿하여 原川里(華川 東南쪽 5km)에 이르는 線임。』

이 작전계획은 4월 3일 10.00부로 하달된 육본작전계획 제22호 수정 작전 지시 제3호에 의거하여 4월 4일 18.00부로 육본작명 제264호로 개칭됨과 동시에 "D"일은 4월 5일로 확정되었으며 "H"시는 각 군단장이 선정하여 陸本에 보고토록 하달되었다。(참조 : 작명 부록 236호)

4월 5일 사단은 작명에 의거하여 眞黑洞—道探洞—縣里線에서 제23연대를 右一線으로 제22연대를 中央線으로 제18연대를 左一線으로 展開하고 공격을 개시하였는데 제23연대(장, 金漆舜대령)의 주력은 이날 降仙里—貴屯里간에 진출한 다음 계속 北進하여 點鳳山(△1424)—望對岩山(△1100)을 경유 4월 11일에는 禁標岩(雪岳山 西南 4km)—寒溪嶺(△1004)—△1082—△496線을 점령하고 前哨부대를 △1578—△1408—大勝瀑布에 각각 배치하였다。

中央線을 담당한 제22연대(장, 張春權대령)도 4월 5일 眞黑洞—道探洞간에서 右石谷—雲裡山(△799)간에 진출한 다음 계속 진격하여 牛馬洞—軍糧田간을 경유 4월 11일에는 長水坐 西쪽 △496—△545—小麻田간의 방어진지를 점령하였다。 또 左一線의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도 4월 5일 縣里—鷹峰山(△984)線에서 北進을 계속하여 縣里—麟蹄가도를 확보하면서 進攻하여 10일에는 寒石山(△1119)을 점령한 다음 德積里와 △748—△581간에 진출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은 제3군단의 공격제대로서 4월 10일을 전후하여 목표인 Kansas線을 점령하게 되었다。

12. 麟蹄附近 戰鬪 (1951년 4월 9일부터 1951년 4월 17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27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美 제10군단
- 장 소장 Edward M. Almond
- 제5사단 장 준장 閔機植
- 제27연대 장 대령 俞義濬
  - 제1대대 장 소령 李南周
  - 제2대대 장 소령 成泳煥
  - 제3대대 장 소령 朴元寬
- 제35연대 장 대령 洪淳龍
  - 제1대대 장 소령 金順喆
  - 제2대대 장 소령 金致伯
  - 제3대대 장 소령 李昌得
- 제36연대 장 대령 黃 燁
  - 제1대대 장 중령 李承雨
  - 제2대대 장 중령 趙始衡
  - 제3대대 장 소령 李註昇

배속부대
- 제26포병대대 장 중령 盧戒鉉
- 제5야전공병대대

지원부대
- 美 제7사단 포병대대

병력 : 약 7,500명

장비 : T/E의 85%를 갖춤

敵 軍

北共 제5군단
- 제12사단
- 제3군단
- 제15사단
- 제45사단

병력 : 약 10,000명

장비 : 각종 砲 30門, 기관총 70정

나. 전투 전의 개황

사단은 51년 3월 7일—3월14일에 걸친 春岐山부근 전투를 끝낸 다음 부대 정비와 威力搜索을 계속하던 중 군단계획에 따라 3월 26일 08.00를 期하여 敵의 集結據點인 麟路를 目標로 北進을 再開하였다. 下大月—院岩里를 連하는 443番 作戰路를 공격개시선으로 하여 進擊한 사단은 27일에 제27연대(장,

俞義濬 대령)가 上南里(泰岐山 西北쪽 23km)—駕馬峰(△1191)線으로 제36연대(장, 黃 燁 대령)가 可得峰(△1,060)—瓦野里線으로 각각 進出한 다음 右隣接인 美 제7사단이 左隣接인 美 제2사단 陣地를 引受하는 동안 陣中訓練을 實施하였고 사단예비인 제35연대(장, 洪淳龍 대령)는 市場터에서 俗稱 돈네미골(豊岩里 東南쪽 3km)로 躍進한 사단 C P를 직접 경계하였다。

4월 5일에 이르러 제36연대(장, 黃 燁 대령)는 사단 作命 제34호에 따라 공격을 再開하여 甲屯里(麟蹄 南쪽 15km)로 進擊하고 다음날에는 제27연대(장, 俞義濬 대령)도 鷹峰山(△984)—俗稱지래이(甲屯里 東쪽 3km)로 進出한다음 戰線을 整理하였으며 7일에는 漸次 熾烈하여지는 敵의 저항을 擊破하고 右一線인 제27연대(장, 俞義濬 대령)는 遠垈里—藍里線을 奪還 확보하였고 左一線인 제36연대(장, 黃 燁 대령)는 藍田里—望待峰(△773)—△663를 連한 線으로 進擊하여 麟蹄攻略의 態勢를 갖추었다。

사단이 담당한 戰鬪地域은 東으로는 元通五里—高沙里—遠垈里를, 西로는 長坪—곰은골(俗稱)—冠垈里—桃水庵을 각각 南北으로 連한 線으로써 右側은 제3군단의 제3사단(장, 金鐘五 준장)이 左側은 美 사7단이 각각 담당하였다。사단 正面은 元通무근에서 北川과 昭陽江이 合流하여 麟蹄 北쪽에서 다시 內麟川과 昭陽江으로 分流하여 昭陽江은 西南쪽으로, 內麟川은 東南쪽으로 흘러 공격 正面을 가로막으므로써 進擊에 큰 障碍가 되었으며 昭陽江을 沿한 44番 作戰路 以外에는 600m 乃至 700m의 險峻한 山嶽이 聳立하고 斷崖와 狹谷을 이룬 地帶로써 機動에 어려움을 주었다。 우거진 雜木과 巨樹 그리고 錯雜한 疊疊深谿은 觀測과 視界를 制限하였고 直射火器보다 曲射火器의 効用이 더욱 컸으며 近接戰이 必要하였다。隱蔽와 掩蔽는 彼我間에 良好하나 攻者보다 防者인 敵에게 더욱 有利하였다。期間中 날씨는 계속 淸明하여 空中支援에 아무런 支障을 주지 않았다。

敵軍의 상황 : 사단과 對敵하게 된 北共 제5군단 제12사단과 이를 增援하는 제3군단 예하 제15사단의 제3연대 및 제45사단의 제2연대는 昭陽江 東岸과 南岸에 前哨陣地를 設置하고 西北岸一帶에 있는 旣成陣地를 補強하여 據點化하고 地形의 利를 活用하여 사단의 進擊을 昭陽江線에서 阻止하는 한편 潰退한 敵의 主力이 再編成을 끝마치는 대로 攻勢로 轉換하기를 企圖하는듯 하였다。

敵 제12사단은 所謂 1월공세以來 계속된 打擊으로 그 장비와 병력 그리고 戰鬪力이 보잘것 없었으나 2월공세에 參加하지 않았던 제15, 제45사단은 我軍의 反擊에 따르는 打擊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完全한 장비를 갖추고 戰鬪力과 士氣도 比較的 높은 것으로 判斷되었다。

我軍의 상황 : 4월 7일에 遠垈里—藍田里—望待峰(△773)—△663를 連한 線으로 進擊한 사단은 다음날 一齊히 공격을 敢行하여 右一線인 제27연대(장, 俞義濬 대령)는 △734—朴達高地(△770)로 進擊하였고 左一線인 제36연대(장 黃 燁 대령)는 △343—△393(麟蹄西쪽 5km)를 占領하여 麟蹄를 目睫之間에 두고 昭陽江 渡河準備를 서둘렀으며 사단예비인 제35연대(장 洪淳龍 대령)는 사단장 閔機植 준장의 명령에 따라 桃水庵(富平里)으로 進出中에 있었다。

이 무렵 美 제10군단(장, Edward M. Almond 소장)은 그 C P를 새터(洪川 東北쪽 4km)에 두고 그 예하 제7사단은 군단 전투지경선의 변경에 따라 작전임무를 제3사단(장, 金鐘五 준장)에 引繼한 다음 4월 4일에 그 C P를 東沙里에서 寒溪로 移動하여 美 제 2사단의 작전임무를 引受하였는데 右一線인 美 제17연대는 淸久洞—△682線을, 左一線인 美 제32연대는 △682—水山里線을 확보하고 進

擊태세를 갖추었으며 美 제31연대는 사단예비로써 大平里(洪川 東北쪽 10km)에 위치하였다。

한편 美 제7사단에 작전임무를 引繼한 美 제2사단은 CP를 三松里에서 瓦村(洪川 東北쪽 7km)으로 轉進한 다음 美 제23연대를 俗稱 용소메기—하우고개(富貴里南쪽)를 連하는 線으로 進出시켰고 美 제38연대는 大平里에 集結대에 있으며 美 제9연대는 군단예비로써 東草里에 위치하였다。

또한 美 제7사단의 陣地를 引受하므로써 사단의 右隣接이 된 제3사단(장, 金鍾五 준장)은 CP를 廣踏里에 두고 제23연대(장, 金悳舜 대령)를 右一線으로, 제22연대(장, 張昌權 대령)를 中央 그리고 제18연대(장, 任忠植 대령)를 左一線으로하여 貴亀里—陽地村—北里샛말에 이르는 線을 확보한 다음 進擊을 계속하였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美 제10군단장 Almond 소장은 제5사단에 대하여 要旨 다음과 같은 작전命令을 示達하였다。

『① 제5사단은 군단主攻으로서 敵의 集結據點인 麟蹄를 奪還한 다음 Kansas線(烽火峯—月下洞—長坪)으로 進擊하라。

② 공격間 美 제7사단의 155mm 포병대대는 제5사단을 一般支援할 것임』

이러한 군단 작명에 接한 사단장 閔機植 준장은 右一線攻擊梯隊로서 昭陽江 沿岸으로 進擊한 제27연대(장, 兪鏞濬 대령)를 사단예비로 措置하는 한편 左一線인 제36연대(장, 黃 燁 대령)를 右一線으로 轉換하여 麟蹄를 攻擊케 하고 사단예비인 제35연대(장, 洪淳龍 대령)를 左一線으로 起用하여 昭陽江 西岸의 山岳地帶를 따라 Kansas線까지 進擊케 하기로 決心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사단 作命 제35호를 下達하였다。

『① 사단은 麟蹄를 奪還한 다음 Kansas線(峰火峯—月下洞—長坪)으로 進擊하려 한다。

② 제36연대는 제35연대의 昭陽江渡河와 동시에 加路里부근에서 昭陽江을 渡河하여 南北里—麟蹄—元通里를 逐次로 奪還한 다음 Kansas線으로 進擊하라。

③ 제35연대는 4월9일 20.00를 期하여 淸久洞에서 昭陽江을 渡河한다음 開運里—△719—△940를 逐次로 攻擊하고 Kansas線으로 進擊하라。

④ 제27연대는 제35연대의 昭陽江渡河와 同時에 사단예비가 되어 現位置에서 次後명령을 待機하라。

⑤ 제26포병대대는 사단을 一般支援하되 火力의 優先權은 제36연대에 두라。

⑥ 要請에 따라 美 제7사단 155mm포병대대의 火力增援을 받을 수 있다。』

(2) 작전실시

4월 9일 : 사단의 右一線인 제36연대(장, 黃 燁 대령)는 제35연대의 昭陽江渡河를 支援하는 한편 渡河準備를 서둘렀으며 左一線인 제35연대(장, 洪淳龍 대령)는 淸久洞에서 昭陽江을 渡河하여 △439를 奪還하므로써 橋頭堡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1. 右一線인 제36연대(장, 黃 燁 대령)는 전날에 이어 제2대대(장, 趙始衡 중령)를 △343에, 제3대대(장, 李圭昇 소령)를 △363에, 그리고 제1대대(장, 李承雨 중령)를 연대 예비로 하여 藍田里부근을 각각 占領토록 하고 昭陽江 渡河준비를 서둘렀으며, 23.00부터는 연대의 全火力을 集中하여 제35연대(장, 洪淳龍 대령) 제1대대(장, 金順喆 소령)의 渡河작전을 支援하였다。

2. 제35연대(장, 洪淳龍 대령)는 이날 09.00에 桃水庵으로 進出하여 제1대대(장, 金順喆 소령)를 陰陽洞(桃水庵 西北쪽 2km)에, 제2대대(장, 金致伯 소령)을 俗稱 뒤재에 그리고 제3대대(장, 李昌得 소령)를 桃水庵부근 高地에 각각 展開한 다음 渡河준비를 서둘렀다。제1대대(장, 金順喆 소령)는 제26포병대대(장, 盧載鉉 중령)와 美 제7사단 포병대대의 熾烈한 공격준비사격에 이어 23.00를 期하여 淸久洞에서 渡河를 敢行한 다음 24.00에는 渡河點을 瞰制하는 △439의 2개중대 규모의 敵을 擊破하고 이 高地를 奪還하므로써 昭陽江北岸에 橋頭堡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3. 제27연대(장, 尙義澤 대령)는 이날 사단예비가 되어 제3대대(장, 朴元寬 소령)를 △734로 제1대대(장, 李南周 소령)를 △770로 그리고 제2대대(장, 成泳煥 소령)를 △674로 각각 進出시켜 陣地를 점령한 다음 사단 右側方경계를 담당하였으며 연대 CP는 基龍谷으로 躍進하였다。

4. 제26포병대대(장, 盧載鉉 중령)는 이날 새벽에 陰陽洞으로 躍進하여 美 제7사단 포병대대의 火力增援下에 昭陽江北岸의 敵陣地에 대하여 攪亂射擊을 加하였다。

5. 제5야전 공병대대는 전날에 이어 西谷里에서 新村에 이르는 作戰路를 補修 확보하였으며 대전차공격대대는 瓦野里에서 사단 CP 경계임무를 담당하였다。

4월 10일 : 사단主力은 敵의 頑強한 저항과 執拗한 逆襲을 擊退하면서 昭陽江을 渡河하여 제36연대(장, 黃 燁 대령)는△494—△593로 제35연대(장, 洪淳龍 대령)는 無名高地(冠金里 西北쪽 3km)로 각각 進擊하는데 成功하였다。

1. 제36연대 제6중대(장, 金仁德 중위)는 △346 北쪽稜線을 따라 01.00에 昭陽江을 渡



<昭陽江을 敵前渡河 하는勇士들>

密하게 渡河하여 △494(麟蹄 南쪽 3km)의 敵陣地를 기습공격 하였다。 중대는 2개중대 규모의 敵의 執拗한 저항으로 한때 공격이 頓挫되었으나 即刻 誘導된 제26포병대대(장, 盧載鉉 중령)와 美 제7사단 포병대대의 熾烈한 支援射擊下에 공격을 再開하여 一進一退의 激戰끝에 11.30에 이 高地를 奪還하는데 成功하였으나 그러나 곧 敢行된 敵의 逆襲으로 再編成을 위한 時間의 餘裕도 없이 混戰을 거듭하기에 이르렀다。 연대장 黃 燁 대령은 제2대대 主力과 제10중대(장, 白基淳 중위)를 即刻 渡河시켜 △494에 대한 敵의 逆襲을 격퇴하고 瞰制高地인 △593를 계속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12.30에 昭陽江을 渡河한 제2대대(一)와 제10중대는 제6중대를 增援하여 敵의 熾烈한 逆襲을 격퇴하였고 제6중대(장, 金仁德 중위)는 進擊을 계속하여 16.00에는 2개중대 규모의 敵의 執拗한 저항을 擊破하고 △593를 奪還하여 이날의 殊勳중대가 되었다。 제2대대(장, 趙始衡 중령) 主力과 제10중대(장, 白基淳 중위)는 △494에서 제6중대의 공격을 支援한 다음 공격준비를 서두르면서 昭陽江 東岸에서의 敵의 侵襲에 대비하였으며 △363를 점령중인 제3대대(장, 李重昇 소령)(一)는 加露里부근으로 進出하여 開運里 부근으로 부터의 敵襲에 대비하였다。 한편 연대예비인 제1대대(장, 李承雨 중령)는 전날에 이어 藍田里에서 후방경계를 담당하였다。

2. 전날 24.00에 昭陽江北岸의 △439(冠岱里 北쪽 1km)를 占領한 제35연대 제1대대(장, 金順謙 소령)는 계속 공격을 敢行하여 이날 새벽 02.30에는 △542(冠岱里 北쪽 2km)로 進擊하였으나 2개중대 규모의 敵의 執拗한 저항으로 공격이 頓挫되어 다시 △439로 복귀하였다。 13.00에 공격을 再開한 대대는 제26포병대대(장, 盧載鉉 중령)의 熾烈한 支援射擊下에 △542의 敵을 肉迫戰으로 驅逐하고 一擧에 奪還한 다음 그 餘勢를 몰아 敵의 主要據點인 △712로 肉迫하였으나 1개대대규모의 「敵이 險峻한 地形을 따라 構築한 堡壘에서 執拗하게 저항하므로 이 高地를 奪還하지 못하고 18.00에 △542로 撤收하여 急編

防禦態勢를 갖추고 敵의 逆襲에 대비하였으며 22.00에는 特攻隊 1개소대를 編成하여 △712의 敵堡壘에 대한 기습공격을 敢行하였으나 또한 成功치 못하였다。

한편 제2대대(장, 金致伯 소령)는 이날 06.00에 제1대대의 掩護下에 昭陽江을 渡河하여 西麟里부근으로 進出하였고 연대예비인 제3대대(장, 李昌得 소령)는 08.00에 桃水庵에서 清久洞으로 進出하여 연대 후방경계를 담당하였다。

3. 사단예비인 제27연대(장, 金義洛 대령)는 전날에 이어 △734—朴達高地(△770)를 占領하고 內麟川 西岸을 따라 捜索戰을 展開하였으나 敵情없이 복귀하여 계속 사단후방경계 임무를 담당하였다。

4월 11일 : 이날 사단의 右一線인 제36연대가 麟蹄부근으로 進擊한 反面, 左一線인제35연대는 開運里 부근에서 執拗한 敵의 저항으로 공격이 頓挫되었다。사단장 閔機植 준장은 제36연대의 일부로써 △725(開運里 東北쪽 2km)를 공격하여 敵의 退路를 遮斷하는 한편 제35연대의 進擊路를 打開하도록 명령하였다。

1. 제36연대장 黃 燁 대령은 사단장 閔機植 준장의 명령에 따라 제10중대장 白基源 중위에게 제35연대 전투지역내의 △725공격을 명령하였다。제10중대(장, 白基源 중위)는 08.00에 △494에서 공격을 시작하여 △593를 占領中인 제6중대(장, 金仁德 중위)를 超越한 다음 1개중대 규모의 敵의 執拗한 저항을 激戰끝에 擊破하고 12.00에 △725를 奪還하였고 19.00에는 이곳으로 進出한 제35연대 제7중대(장, 李容瑄 중위)와 交代하였다。

제2대대(장, 趙始衡 중령)는 제5, 제7중대를 공격梯隊로 하여 2개중대 규모의 敵을 驅逐하고 17.00에는 麟蹄西南쪽 高地로 進擊하므로써 麟蹄攻略의 태세를 갖추는 한편 대대全火力을 麟蹄北쪽 敵陣地로 集中하여 敵을 攪亂하였다。한편 제3대대(장, 李圭昇 소령)는 11.00에 加路里 東쪽에서 昭陽江을 渡河하여 南北里 부근으로 進出한 다음 西面陣地를 編成하고 제35연대(장, 洪淳龍 대령) 지역에서의 敵의 侵襲에 대비하였다。연대예비인 제1대대(장, 李承雨 중령)는 연대主力의 進擊에 따라 15.00에 加路里로 進出하였고 연대 C P도 이날 加路里로 躍進하였다。

2. 제35연대 제1대대(장, 金順喆 소령)는 전날 22.00의 特攻隊공격에 뒤이어 두차례에 걸쳐 △712에 대한 夜襲을 敢行하였으나 별다른 進展을 보지 못하자 이날 07.00를 期하여 포병제26대대(장, 盧載鉉 중령)와 美 제7사단 포병대대의 集中支援下에 一齊공격을 敢行하였다。 그러나 堅固한 堡壘속의 敵의 頑強한 저항으로 一進一退의 激戰을 反復할뿐, 進展을 보지 못하였다。이에 激憤한 金順喆 소령은 夜間공격으로 轉換하기로

決心하고 俗稱쪽박골(冠垈里 西北 2km) 부근의 無名高地로 撤收토록 명령하였다。 대대는 再編成을 끝낸 다음, 21.00에 特攻隊의 手榴彈공격에 뒤이어 一齊히 喊聲을 지르면서 突進하여 熾烈한 白兵戰 끝에 22.30에 드디어 △712를 奪還하였다。

한편 전날 昭陽江을 渡河하여 冠垈里 부근으로 進出한 제2대대(장, 金致伯 소령)는 08.00에 제5, 제7중대를 攻擊梯隊로 하여 開運里(南北里 西南쪽 1.5km)로 進擊하였으나 熾烈한 敵의 射擊으로 攻擊이 頓挫되자 제5중대(장, 金能燮 소위)는 △379西南쪽 稜線에 急編陣地를 占領하고 敵과 對峙하였으며 제7중대(장, 李春璿 중위)는 연대장 洪淳龍 대령의 명령에 따라 冠垈里一加路里를 거쳐 昭陽江을 다시 渡河한 다음 開運里를 迂回하여 19.00에 △725로 進出하는 즉시로 제36연대 제10중대(장, 白基淳 중위)로부터 陣地를 引受하였다。한편 淸久洞에 위치한 제3대대(장 李昌得 소령)는 이날 12.00에 昭陽江을 渡河하여 △542부근 稜線을 점령하고 次後명령을 待機중에 있었다。

3. 제27연대 제3대대(장, 朴元寬 소령)는 이날 內麟川岸의 △717로 進出하여 東側方 경계를 強化하였고 제2대대(장, 成泳煥 소령)는 제3대대의 進出에 따라 △722로 進出하였다。

4월 12일 : 이날 사단은 07.00에 淸久里로 躍進하여 C P를 開所하였고 右一線인 제36연대(장 黃 煒 대령)는 麟路와 △548(麟路 東쪽 2km)로 進擊하였으나 左一線인 제35연대(장 洪淳龍 대령) 正面에서는 執拗한 敵의 저항으로 그 進展을 보지 못하였다。

1. 제36연대 제1대대(장, 李承雨 중령)는 이날 새벽에 加路里에서 행동을 개시하여 筍浦를 거쳐 內麟川을 渡河한 다음 散發的인 敵의 저항을 一蹴하면서 07.00에는 제1중대(장, 李寅德 대위)가 △631를, 제2중대(장, 金元俊 중위)가 △548를 각각 점령하여 右隣接인 제3사단 제18연대(장 任忠植 대령)와 連繫하는 한편 연대主力의 麟路공격을 側方支援하였다。이때 제2대대(장, 趙始衡 중령)는 麟路와 그 北쪽稜線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으나 二重三重으로 構築한 堅壘와 堡壘로 말미암아 그 進展을 보지 못하자 포병제26대대(장, 盧淑鉉 중령)의 掩護射擊下에 一旦 原陣地로 復歸한 다음 14.00에 공격을 再開하여 一躍又一躍의 激戰끝에 22.00에 비로소 제7중대(장, 元相均 중위)가 麟路邑內에 突入하였으며 대대主力은 麟路西北쪽 無名高地를 占領하고 △538의 敵과 對峙하였다。한편 제3대대(장, 李圭昇 소령)는 제11중대(장, 金炳國 중위)를 先攻梯隊로 하여 2개중대 규모의 敵의 熾烈한 저항을 무찌르고 15.00에 △640(麟路 西北쪽 2.5km)를 奪還한 다음 제2대대(장, 趙始衡 중령)의 공격을 側方에서 支援하였고 대대主力은 △640東側 稜線으로 進

擊하여 제2대대와 連繫하였다。

2. 제35연대 제2대대(장, 金致伯 소령)(一)는 이날 04.30에 加路里에서 昭陽江을 또다시 渡河하여 포병 제26대대(장, 盧載鉉 중령)의 集中된 火力支援下에 開運里의 敵을 迂回 공격하였으나 1개대대규모의 敵의 頑強한 저항으로 一進一退의 激戰을 展開할 뿐으로 그 進展을 보지 못하자 △725南쪽 後線에 急編陣地를 占領하고 熾烈한 射擊戰을 展開하였다。한편 제1대대(장,金順喆 소령)는 08.00에 △735에 대한 공격을 敢行하였으나 迫擊砲의 支援을 받는 1개대대 규모의 敵이 끝까지 저항하므로 공격이 頓挫되어 夜間공격으로 轉換하기 위하여 △712로 복귀하였으며 전날 △542로 進出한 연대예비인 제3대대(장1李昌得 소령)는 대대 全火力을 開運里 부근으로 集中하여 제2대대(장, 金致伯 소령)의 공격을 支援하는 한편 제1대대(장, 金順喆 소령)의 東側方을 掩護하였다。

3. 사단예비인 제27연대(장, 俞載濬 대령)는 이날 연대 C P를 楮龍谷에서 藍田里로 推進開設하였고 각 대대는 전날의 陣地를 계속 확보하면서 사단후방경계를 담당 하였다。

4월 13일 : 이날 右一線인 제36연대(장, 黃 燁 대령)는 제1대대(장, 李承雨 중령)의 1개중대를 陽地村(麟蹄 東北쪽 4km) 부근으로 進擊시켜 연대 主力正面의 敵의 저항을 牽制하는 한편 空中支援을 要請하여 △658—△538를 連하는 線의 敵陣地를 猛打하였으며 左一線인 제35연대(장, 洪淳龍 대령)의 제2대대(장, 金致伯 소령)는 開運里로 內迫하였고 제1대대(장, 金順喆 소령)는 △735南쪽의 無名高地를 占領하였다。

1. 제36연대 제1대대장 李承雨 중령은 제1중대(장, 李寅德 대위)를 △498(陽地村南쪽)로 進擊시켜 이를 奪還한 다음 1개소대를 논골(麟蹄 東北쪽 3km)에 배치하여 麟蹄北方의 敵의 東側背를 威脅射擊으로 攪亂하였고 제2중대(장, 金元俊 중위)에서 差出한 2개소대를 昭陽江과 內麟川의 分岐點인 突出部로 進出시켜 射擊을 加하므로써 敵을 欺瞞토록 하였다。 제2대대(장, 趙始衡 중령) 正面의 敵은 밤사이에 增援한 10餘門의 迫擊砲사격으로 대대의 공격을 牽制하므로 연대장 黃 燁 대령은 대대의 공격을 中止시키고 제2, 제3대대의 全火力을 △658—△538로 集中하는 한편 포병제26대대(장, 盧載鉉 중령)에 制壓사격을 要請하여 熾烈한 射擊을 加하였으나 끝내 이를 制壓하지 못하자 다시 空中支援을 要請하였다。11.40에 出擊한 美 공군 전폭기편대가 △658—△538를 連하는 線을 猛打하여 硝煙이 하늘을 뒤덮자 제2대대(장, 趙始衡 중령)는 곧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堅固한 壕속의 敵은 依然히 熾烈한 射擊으로 저항을 계속하므로 연대장 黃 燁 대령의 명령에 따라 夜間공격으로 移行키 위하여 原陣地로 복귀하였다。

22.00에 공격을 再開한 대대는 一進一退의 激戰끝에 △538를 奪還하고 △658로 肉迫하였으나 다음날 03.30에 三面으로 包圍한 敵의 逆襲으로 전날의 陣地로 복귀하였다。 한편 제3대대(장, 李圭昇 소령)는 전날에 이어 △640와 그 西南쪽 一帶의 稜線을 점령하고 제2대대(장, 趙始衡 중령)의 공격과 撤退를 掩護하는 한편 開放된 연대 西側方을 防護하였다。

2. 제35연대 제7중대(장, 李春璿 중위)는 지난 11일에 △725로 進出하여 主力의 進擊을 待機하며 이 高地를 계속 확보하던중 이날 02.30에 2개중대규모의 敵이 侵襲하므로 중대는 手榴彈投擲과 銃劍으로 2시간에 걸친 肉迫戰 끝에 이 敵을 擊退하였으며 전날에 開運里공격이 頓挫되어 △725南쪽 稜線에 急編陣地를 占領하고 敵과 對峙하였던 제2대대(장 金致伯 소령) 主力은 △542(冠岱里 北쪽 2km)에서 昭陽江沿岸을 따라 공격하는 제3대대(장, 李昌得 소령) 1개중대의 支援下에 제6중대(장, 金東浩 중위)를 右側으로 제5중대(장, 金能燮 소위)를 左側으로 하여 開運里를 包圍하고 激戰을 展開하며 敵의 據點인 △379로 肉迫하고 있었다。 제1대대(장, 金順喆 소령)는 02.00에 공격을 再開하여 03.00에는 △735東南쪽의 無名高地를 一擧에 奪還하고 餘勢를 몰아 △735로 突進하였으나 1개대대규모의 敵의 頑強한 저항으로 이를 占領하지 못하고 無名高地로 逐次撤收하여 波狀공격을 계속하였다。 한편 제3대대(장, 李昌得 소령)는 제12중대(장, 南福元 대위)로써 제1대대의 공격을 火力增援하는 한편 제10중대(장, 成宗鎬 중위)는 昭陽江沿岸을 따라 △379를 공격하여 제2대대(장, 金致伯 소령)의 공격을 支援하였다。

3. 사단예비인 제27연대(장, 俞義濬 대령)는 전날에 이어 제3대대(장, 朴元寬 소령)를 △717에 제2대대(장, 成泳煥 소령)를 △722에 그리고 제1대대(장, 李南周 소령)를 朴達高地(△770)에 각각 배치하여 사단후방경계를 담당하는 한편 再編成을 서둘렀다。

4월 14일 : 이날 사단은 右一線인 제36연대(장, 黃 燁 대령)가 공격의 進展을 보지 못한 反面에 左一線인 제35연대(장, 洪淳龍 대령)는 敵이 執拗하게 버티던 開運里—△735를 奪還하고 進擊을 계속하였다。

1. 제36연대 제2대대(장, 趙始衡 중령)는 전날 22.00에 포병제26대대(장, 盧載鉉 중령)의 熾烈한 支援射擊下에 공격을 개시하여 △538의 敵을 一擧에 무찌르고 계속 突進하여 이날 03.30에 제5,제6의 兩중대가 △658北쪽 無名高地를 奪還하고 제7중대(장, 元相均 중위)는 △658頂上까지 肉迫하였다。 이때에 2개대대규모의 敵은 대대를 三面으로 包圍하고 逆襲하므로 一進一退의 激戰을 展開하였으나 衆寡不敵으로 제3대대(장, 李圭昇 소령)

의 掩護下에 接敵을 維持하면서 전날의 陣地로 撤收하였고 제26포병대대와 제8, 제12중대의 追擊砲는 △538—658의 敵陣地를 계속 強打하였다。

제1대대(장, 李承雨 중령)는 제2대대(장, 趙始衡 중령)의 공격이 進展을 보지 못하자 제4중대를 開陽洞(麟蹄 東北쪽 1km))으로 推進시켜 麟蹄北쪽의 △538에 射擊을 계속하여 敵의 東側背를 威脅케 하고 대대主力은 전날의 陣地를 확보하면서 공격준비를 서둘렀다。한편 제3대대(장, 李圭昇 소령)는 제2대대의 공격과 撤收를 掩護한 다음 19.00에는 △640로 進擊한 제35연대 제3대대(장, 李昌得 소령)에 陣地를 引繼하고 그 東쪽 稜線으로 移動하여 제2대대와 陣地를 連繫하면서 공격준비를 서둘렀다。

2. 제35연대 제2대대(장, 金致伯 소령)는 전날 아침에 공격을 再開하여 激戰을 展開하면서 開運里로 肉迫하던 중 이날 07.30에 드디어 職制高地인 △379를 奪還한 다음 제7중대(장, 李春璿 중위)가 확보중인 △725를 거쳐 敵이 占領한 △665(開運里 北쪽 2km)를 계속 공격하고 있었다。한편 제1대대(장 金順鎬 소령)는 △735東南쪽 無名高地를 占領하여 △735의 敵과 對峙하고 射擊戰을 展開하던중 이날 새벽 一齊히 突進하여 手榴彈과 銃劍으로 白兵戰을 展開한 끝에 07.30에 드디어 △735를 奪還함으로써 지난 12일以來 3일간에 걸친 激戰의 幕을 내렸다。연대장 洪陳龍 대령은 제2대대(장, 金致伯 소령)가 開運里를 奪還하고 제1대대(장, 金順鎬 소령)가 △735를 占領하자 要旨 다음과 같은 연대 작명을 下達하였다。

『① 제1대대는 연대예비가 되어 現陣地를 확보하며 차후 지시를 받으라。

② 제2대대는 연대 右一線으로써 △665—△719—△940—△586를 逐次 奪還한 다음 Kansas線으로 進擊하라。

③ 제3대대는 △640의 제36연대 제3대대 陣地를 引受한 다음 연대 右一線으로써 泉谷寺—蘆田坪—셋말을 계속 奪還하고 Kansas線으로 進擊하라。』

이에 따라 제3대대(장, 李昌得 소령)는 開運里—南北里를 거쳐 △640로 進擊하여 19.00에 제36연대 제3대대(장, 李圭昇 소령) 陣地를 引受하였는데 21.30에 이르러 1개대대 규모의 敵이 대대를 兩面으로 包圍하고 공격하였다。대대는 대대장 李昌得 소령의 陣頭指揮下에 제36연대 제3대대의 側方支援을 받으면서 3시간에 걸쳐 一進一退의 攻防戰을 展開한 끝에 敵을 擊退하였다。

3. 제27연대(장, 俞義濬 대령)는 사단예비로써 전날의 陣地를 확보하고 사단 後方경계에 임하였다。

4월 15일 : 이날 右一線인 제36연대(장, 黃 燁 대령)는 제2대대(장, 趙始衡 중령)가 △538로 進擊하였고 제3대대(장, 李圭昇 소령)는 西側方으로 侵透한 敵을 擊退한 다음 제35연대 제3대대가 失陷한 △640을 再奪還하였다。한편 左一線인 제35연대(장 洪淳龍 대령)는 △640의 제3대대(장, 李昌得 소령)가 敵의 侵襲으로 激戰을 展開하였고 제2대대(장, 金致伯 소령)는 △665를 奪還한 다음 △719로 進擊하였다。한편 사단예비인 제27연대(장, 俞濬濟 대령)는 사단장 閔機植 준장의 명령에 따라 藍田里로 集結하여 進擊태세를 갖추었다。

1. 제36연대 제3대대(장, 李圭昇 소령)는 이날 03.40에 제35연대 제3대대가 △640에서 撤收함에 따라 西側方으로 侵透한 敵 2개중대의 奇襲공격으로 一旦 普賢寺北쪽 稜線까지 撤收하여 兵力을 收拾한 다음 06.00에 反擊을 敢行한 결과 △640東南쪽의 連峯을 逐次로 奪還하고 15.30에는 제35연대 제3대대(장, 李昌得 소령)와의 協同공격으로 △640를 完全히 奪還하였다。한편 제3대대의 反擊을 支援한 제2대대(장, 趙始衡 중령)는 20.00에 제5, 제6중대를 攻擊梯隊로 하여 △538—△658를 連하는 線에 대한 공격을 敢行하였다。제5, 제6의 兩중대는 隱密히 機動하여 △538와 △640 사이의 河川을 渡河할 무렵 敵 1名을 捕虜로 잡고 이날 밤의 暗口號 "밤나무—소나무"를 探知하는데 成功하여 제5중대(장, 朴逸相 중위) 제1소대와 제6중대(장 金仁德 중위) 제1소대를 각각 先頭로 하여 暗口號를 불러가며 △538頂上까지 無血進出한 다음 一齊히 奇襲공격을 敢行하여 또한 100명을 射殺하는 戰果를 거두었다。△658로 退却한 1개대대 규모의 敵은 即刻 逆襲하였으나 士氣衝天한 兩중대는 手榴彈을 投擲하면서 白兵戰으로 △538를 끝까지 固守하였다。한편 연대 主力의 進擊을 待機중인 제1대대(장, 李承雨 중령)는 昭陽江 東岸에 있는 전날의 陣地를 계속 확보하면서 공격을 준비하였다。

2. 제35연대 제3대대(장, 李昌得 소령)는 전날 밤 21.30부터 侵襲한 1개대대규모의 敵을 3시간에 걸친 激戰으로 一旦擊退하였으나 계속되는 敵의 포위반격으로 이날 03.00에는 대대예비인 제9중대(장 許 憲 대위)의 掩護下에 △593(南北里 北쪽 1km) 北쪽 稜線으로 撤收하여 再編成을 서둘렀고 제9중대는 主力의 撤收와 동시에 反擊을 敢行하여 激戰을 展開하였으나 큰 進展을 보지 못하였다。15.00에 再編成을 끝낸 대대는 제36연대 제3대대(장, 李圭昇 소령)와의 協同공격으로 △640를 再奪還하여 陣地를 回復하였고 제10중대(장 成宗鎬 중위)는 潰退하는 敵을 追擊하여 泉谷寺부근까지 進出하였다。한편 전날에 開運里를 奪還하고 △665를 공격한 제2대대(장 金致伯 소령)는 이날 새벽에 이르러 이 高地를

奪還하는데 成功하고 계속 追擊하여 1개대대규모의 敵의 逆襲을 물리치고 12.30에는 △719를 奪還하여 제3대대(장, 李昌得 소령)와 連繫하였다。 연대 예비인 제1대대(장, 金順謙 소령)는 △735를 계속 확보하면서 연대의 西側背를 掩護하였다。

3. 사단예비인 제27연대(장 俞義濬 대령)는 사단장 閔機植 준장의 명령에 따라 15.00에 鹽田里로 集結하여 사단主力을 後續할 준비를 갖추었다。

4. 제5야전공병대대는 이날 冠垈里—麟蹄사이의 44番 作戰路와 부근 一帶에 埋設된 地雷를 除去하고 道路를 補修 확보하였다。

4월 16일 : 사단은 이날 全正面에 걸쳐 4km를 進擊하여 이 공격 개시以來로 最大의 進擊記錄을 세웠다。 즉 右一線인 제36연대(장, 黃 燁 대령)는 제1대대(장, 李承雨 중령)가 俗稱솔거리—栗坪里로, 제3대대(장 李圭昇 소령)가 △551—俗稱하소호(麟蹄北쪽 4km)로 각각 進擊하였고 左一線인 제35연대(장, 洪淳龍 대령)는 △567(鹽田坪)—△586(元通里 西쪽 4km)로 進擊하였다。

1 제36연대(장, 黃 燁 대령) 제 5, 제6중대는 전날 밤에 △538를 奇襲공격하여 이를 奪還하고 敵의 逆襲을 手榴彈과 白兵戰으로 一旦 擊退하였으나 계속 增強되는 敵의 波狀공격으로 衆寡不敵하여 이날 02.00에 原陣地로 逐次撤收하였다。 제2대대(장 趙始衡 중령)는 04.00에 右隣接인 제3사단 포병대대의 支援射擊下에 공격을 再開하여 一進又一進의 激戰을 展開한 끝에 1개대대 규모의 敵을 擊退하고 05.00에 △538를 再奪還한 다음 연대예비가 되어 再編成을 서둘렀다。 이때에 제3대대(장, 李圭昇 소령)는 제2대대의 공격개시와 동시에 △658에 대한 진격을 敢行하여 1개대대규모의 敵의 頑強한 저항을 擊破하고 05.30에 이 高地을 奪還한 다음 △492(元通里 西南쪽 4km)를 계속 奪還하고 20.00에는 2개중대규모의 敵의 저항을 부쉬르고 △551를 또다시 奪還하여 俗稱 하소호—△551에 이르는 稜線一帶에 陣地를 占領하였다。 한편 昭陽江東岸의 제1대대(장, 李承雨 중령)는 연대主力의 進擊에 따라 散發的인 敵의 저항을 集中射擊으로 制壓하고 進擊을 계속하여 俗稱 솔거리(元通 東北쪽2km)—栗坪에 이르는 北川沿岸陣地를 占領한 다음 Kansas線으로의 進擊태세를 갖추었다。

2. 제35연대(장, 洪淳龍 대령)는 06.00를 期하여 제26포병대대(장 盧載鉉 중령)의 直接支援下에 一齊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右一線인 제3대대(장, 李昌得 소령)는 제10중대(장, 成宗鎬 중위)를 先攻梯隊로 하여 泉谷寺北쪽의 無名高地를 奪還한 다음 1개중대규모의 敵의 저항을 擊破하고 19.00에 鹽田坪(元通里 西南쪽 3km)으로 進擊하였고 대대主力은

제10중대를 後續하여 泉谷寺로 進出한 다음 △492(麒路 北쪽 3km) 西쪽 稜線을 占領하자 곧 敵의 逆襲에 대비하는 一方 Kansas線으로의 進擊을 준비하였다。 한편 左一線인 제2대대(장, 金致佰 소령)는 전날의 陣地인 △719에서 공격을 시작하여 2개중대규모의 敵의 執拗한 저항을 무찌르고 07.00에는 사단 전투지역내의 最高峰인 △940를 奪還하였고 제5중대(장, 金能燮 소위)는 潰退하는 敵을 追擊하여 △586(元通里 西쪽 4km)를 계속 奪還한 다음 急編陣地를 占領하여 敵의 侵襲에 대비하였다。 연대예비인 제1대대(장, 金順喆 소령)는 主力의 進擊에 따라 이날 15.00에 △640—△710線으로 進出하여 연대 後方 경계를 담당하는 一方, 一線대대의 支援태세를 갖추었다。

2. 사단예비인 제27연대(장, 俞義濬 대령)는 전날부터 鹽田里에 集結하여 進擊태세를 갖추면서 새로운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4월 17일 : 이날 사단은 右一線인 제36연대(장, 黃 燁 대령)가 Kansas線으로 進擊하여 △579—△481를 連하는 線에 陣地를 확보함으로써 作戰任務를 完遂하였고 左一線인 제35연대(장 洪淳龍 대령)는 蘆田坪—△586—745線으로 進擊하여 敵의 反擊을 맞아 激戰을 展開하였다。

사단장 閔機植 준장은 主力의 進擊에 따라 要旨 다음과 같은 사단 作命 제36호를 下達하였다。

『① 제35, 제36연대는 Kansas線으로 進擊하여 強力한 防禦陣地를 構築하고 敵情을 捜索하라。

② 제27연대는 △586—△494—△725—△619로 進出하여 사단의 後方地域을 경계하라。

③ 제26포병대대는 南北里로 進出하여 계속 사단을 一般支援하라。

④ 제5야전공병대대는 俗稱 두일(鹽田里 北쪽 2km)로 移動하여 44번 作戰路를 계속 補修하여 확보하라。』

1. 제36연대(장, 黃 燁 대령)는 04.00를 期하여 제1대대(장, 李承雨 중령)가 北川을, 제3대대(장, 李圭昇 소령)가 昭陽江을 각각 渡河하기 시작하여 Kansas線上의 最終目標에 대한 공격을 敢行하였다。 右一線인 제1대대는 제2중대(장, 金元俊 중위)를 先攻梯隊로 하여 北川을 渡河한 다음 공격목표인 烽火峰(△579)을 向하여 진격 하였는데 2개중대규모의 敵의 저항으로 一進一退의 激戰을 展開하였으며 後續한 대대主力의 支援射擊下에 10.00에 白兵戰끝에 이 高地를 奪還하므로써 Kansas線에 최초로 進出하는 殊勳중대가 되었다。 한편 左一線인 제3대대(장, 李圭昇 소령)는 제10중대(장, 白基淳 중위)로 하여금 先攻梯隊로써

昭陽江을 渡河케 하였는데 1개중대규모의 敵을 무찌르고 △426(元通里 西南쪽 1km)를 奪還하자, 대대主力은 중대를 超越한 다음 △481에서 發惡的으로 저항하는 2개중대규모의 敵을 擊破하고 14.00에 이 高地를 奪還하므로써 Kansas線上의 陣地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연대예비인 제2대대(장, 趙始衡 중령)는 전날의 陣地인 △538—△658를 계속 확보하고 再編成을 서두는 한편 연대 후방경계를 담당하였으며 연대 CP는 主力의 進擊에 따라 이날 麟蹄로 躍進하였다。

2. 제35연대(장, 洪淳龍 대령)의 右一線인 제3대대(장, 李昌得 소령)는 전날 蘆田坪으로 進擊한 제10중대(장, 成宗鎬 중위)를 계속 先攻梯隊로 하여 06.00에 공격을 시작 하였는데 중대는 俗稱 셋말(元通里 西쪽 3km)로 進擊할 무렵 1개대대규모의 敵의 執拗한 저항으로 공격이 頓挫되었다。 대대장 李昌得 소령은 제9중대(장, 許憲 대위)를 △567로 進出시켜 제10중대를 增援토록 하였으나 계속된 敵의 攻勢로 제10중대는 제9중대의 掩護下에 △567로 逐次 撤收하였다。 이때에 제11, 제12의 兩중대는 전날부터 占領한 △492西쪽 稜線에서 △567로 進出한 다음 主力과 合流하고 21.00부터 敢行된 1개대대규모의 敵의 侵襲을 一進一退의 激戰끝에 擊退하였다。 한편 左一線인 제2대대(장, 金致伯 소령)는 제5중대(장, 金能憲 소위)가 1개중대규모의 敵의 저항을 무찌르고 08.00에 △745를 奪還하자 대대主力은 12.00에 △586로 進擊하여 그 西쪽 稜線에 陣地를 占領하고 제5중대와 連繫하였는데 24.00부터 敢行된 敵의 侵襲으로 激戰을 展開하였다。 연대예비인 제1대대(장 金順喆 소령)는 15.00에 △940로 進擊해서 공격梯隊의 支援태세를 갖추었고 연대 CP는 16.00에 麟蹄로 推進開設하였다。

3. 사단예비인 제27연대(장, 俞義濬 대령)는 사단장 閔機植 준장의 修正 명령에 따라 △586—△494—△725—△619線으로의 進出을 中止하고 鹽田里에 계속 集結하여 다음 命令을 待機하고 있었다。

4。 제26포병대대(장, 盧載鉉 중령)는 이날 麟蹄 南쪽의 南北里로 躍進하여 사단 防禦正面을 一般支援하기 위하여 防禦火力 計劃을 作成하였으며 제5야전공병대대는 麟蹄—長坪(元通里 西北 5km)間의 作戰路補修와 地雷除去作業에 着手하였다。 사단 CP는 계속 淸久洞에 위치하였고 대전차 공격대대가 사단 CP경계를 담당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사단正面의 北共 제5군단 제12사단은 사단의 進擊에 따르는 계속적인 打擊으로 潰滅狀態에 빠져 그 任務를 北共 제3군단 예하 제15사단에 넘기고 巫山(△1320)부근으로 退却하여 군단主力과 더불어 再編成을 서둘렀고 제15사단은 月雲里부근에 主力을 두고 그 예하 제3연대로써 계속 遲延戰을 펴는 한편 東쪽의 제45사단, 西쪽의 제1사단과 連繫한 다음 北共 제5군단의 支援下에 我 제3군단 및 美 제10군단 正面으로 反擊을 加하고자 그 準備에 狂奔하였다。이 무렵 北共 제69여단은 高城부근에 위치한 제32사단의 支援下에 我 제1군단과 對峙하였고 中共 제39, 제40, 제27군은 美 제9군단 正面에, 中共 제63, 제64군 그리고 北共 제1군단 예하 제47, 제8, 제19사단은 美 제1군단正面에서 각각 새로운 南侵의 機會를 노리고 있었다。

反面에 我 제5사단은 右一線인 제36연대가 4월 17일에 Kansas線으로 進擊한데 뒤이어 左一線인 제35연대가 敵의 最後發惡的인 反擊을 擊退하고 19일에 Kansas線으로 進擊하여 月下洞一△644에 陣地를 확보하므로써 麟路부근의 봉적작전을 끝내고 사단작명 제37호에 의거하여 防禦陣地를 補強하는 한편 威力搜索을 계속 하였으며 20일에 下達된 육본작명 제265호(참조 작명부록 제251호)와 美 제10군단계획에 따라 Alabama線까지의 進擊준비를 서둘렀다。이무렵 東部戰線의 제1군단(제11, 首都사단)은 洛山寺—金城里—寒溪里線으로 進擊하였고 下珍富里에 CP를 둔 제3군단(제3, 제7사단)은 제3사단을 一線으로하여 禁標里—寒溪嶺—大勝瀑布線으로 進擊하므로써 Kansas線을 확보하였다。

한편 사단 左隣接인 美 제7사단은 CP를 陽地村에 두고 佳栢作里—楊口線을 확보하였고 美 제2사단은 瓦野里에 CP를 둔 다음 제23연대를 井林里—月明里에 進出시켰고 제38연대와 Netherland군대대는 사단예비로써 城山里에 위치하였으며 제9연대는 군단예비가 되어 新大里에 위치한 군단CP경계를 담당하였다。

中西部戰線의 美 제9군단은 CP를 土花溪里에 두고 華川—漣川線으로 進擊하였고 西部戰線의 美 제1군단이 漣川—臨津江線으로 進擊하므로써 我軍과 UN軍은 全戰線에 걸쳐 戰線을 整理하기에 이르렀다。

이 작전기간중의 戰果 및 損失은 다음과 같다。

戰果

구분 / 부대별	射殺	捕虜	多發銃	短銃小銃	重機關銃	輕機關銃	M1小銃	自動小銃(BAR)	對戰車砲	手榴彈
제35연대	286	12	22	51	4	12	3	1	3	358
제36연대	292	27	38	79	9	14	42	6		402
계	578	39	60	130	13	26	45	7	3	760

損　失

구분 / 부대별	戰　死	負　傷	失　踪	계
제35연대	1/33	11/192		12/225
제36연대	3/39	13/293		16/332
계	4/72	24/485		28/557

凡 例
장교/사병

§ 參戰者의 證言

◇ 제36연대 연대장 黃　　燁 대령

(1966.11.1 제2군사령부 부사령관 소장)

麟蹄부근 전투는 나의 記憶에 새로운 전투중의 하나 입니다。交通의 要衝이자 敵의 集結據點인 이곳에서의 전투는 彼我間에 큰 意義가 있었던 것입니다。

美 제10군단의 最右翼이자 主攻인 우리 연대는 金仁德 중위가 지휘하는 제6중대를 先攻梯隊로 하여 昭陽江을 奇襲渡河한 다음 趙始衡 중령이 지휘하는 제2대대를 主攻으로 해서 麟蹄를 攻擊하였는데 麟蹄西쪽에서 西北쪽에 걸친 △538—△658의 전투는 一進一退의 熾烈을 極한 것이었읍니다。

여기서 特히 말씀드릴 것은 제6중대장 金仁德 중위의 武功입니다。寡默한 사람입니다만은 어려운 전투는 혼자서 떠맡아 하는 突擊隊長 같은 사람으로써 이 전투에서는 勿論 피의 鐵線戰鬪에서도 두드러진 武功을 세워 美國의 銀星勳章을 받았읍니다。

또 한사람 趙始衡 중령을 들수 있는데 勇敢하고 判斷이 正確하고도 빠른 훌륭한 指揮官이었읍니다。

이처럼 勇敢하고 優秀한 指揮官들의 勇戰奮鬪가 戰鬪에서의 勝利의 原動力이 되었던 것입니다。

◇ 제36연대 작전장교 李 福 亨 중위

(1965.11.17 合參本部 중령)

제36연대는 麟蹄공격에서 제1대대를 예비로 하고 金仁德중위가 지휘하는 제6중대를 先攻梯隊로 하여 昭陽江을 奇襲渡河 하였읍니다。

연대는 계속적인 奇襲공격으로 敵을 擊破하면서 麟蹄南方高地까지 進擊하여 麟蹄를 奪還하였으나 麟蹄北쪽高地에서 敵의 頑強한 저항을 받게되어 연대예비인 제1대대를 麟蹄 東側方으로 進擊시켜 敵을 牽制하는 한편 主力의 공격을 側方支援케 하였읍니다。

제2, 제3대대는 數日間에 걸쳐 一進一退의 激戰을 展開한 끝에 麟蹄北쪽의 △538—△658를 奪還하고 Kansas線으로 進擊하였는데 내가 이 전투를 通하여 切感한 것은 奇襲공격의 効果였읍니다。

◇ 제35연대 제1대대 金 秉 璧 하사

(1966.8.5 제6사단 작전처 대위)

우리 대대는 昭陽江을 건너 冠峰里에서 麟蹄로 가는 道路邊의 高地를 공격하였는데 苦戰의 連續이 들었읍니다。

敵은 우리가 接近할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手榴彈을 一齊히 던지고 機關銃을 갈겨 댑니다。그러면 우리는 올라도 내려도 가지 못하고 업드렸다가 또 공격을 계속하였으나 번번히 失敗하였읍니다。그래서 대대는 主로 夜間에 奇襲 공격을 敢行하곤 하였으나 堅固한 陣地속의 敵의 頑惡的인 저항으로 激戰을 展開하였고 白兵戰鬪로써만 敵을 擊退할 수 있었읍니다。이때 어려웠던 點은 通信장비가 不足하여 傳令으로써 연대와 대대間에 連絡을 維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13. 海兵隊의 安東·盈德附近 戰鬪 (1951년 1월 24일부터 1951년 2월 13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28, 29호
상 황 도 제 26 호
작명부록 제264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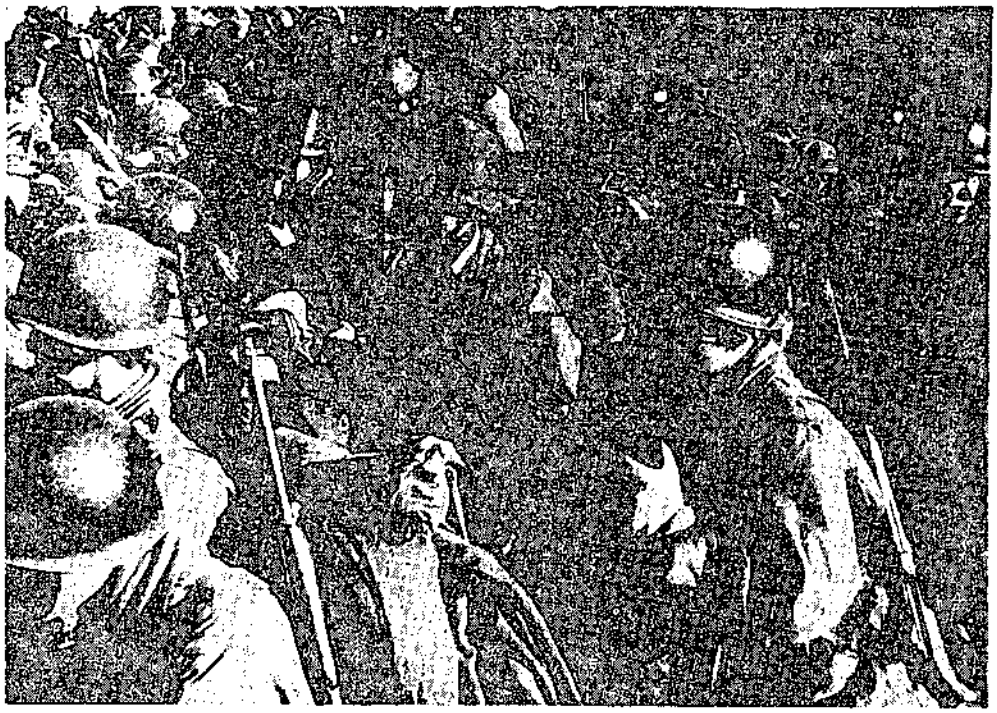
해병제1연대	장	대령	金	聖	恩	제3대대	장	소령	金	龍	國
제1대대	장	소령	孔	正	植	제9중대	장	중위	徐	判	己
제1중대	장	중위	李	西	根	제10중대	장	중위	李	東	昱
제2중대	장	중위	李	應	德	제11중대	장	중위	朴	東	烈
제3중대	장	중위	姜		勇	화기중대	장	중위	林	東	根
화기중대	장	중위	李	供	均	해병독립제5대대	장	소령	吳	命	福
제2대대	장	중령	張	鳳	生	제21중대	장	중위	朴	利	稷
제5중대	장	중위	李	丙	文	제22중대	장	중위	李	鶴	均
제6중대	장	중위	鄭	泰	弼	제23중대	장	중위	金	在	赫
제7중대	장	중위	趙	容	銀	화기중대	장	중위	姜	永	求
화기중대	장	중위	李	元	炯						

敵 軍

北共 제10사단	제27연대
제25연대	제29연대

나. 전투 전의 개황

中共軍의 不法侵略으로 해병대는 元山, 咸興地區로부터 撤收하여 1950년 12월 16일 鎭海에 集結한 다음, 次期 작전에 對備하여 12월 20일에 부대를 再編成하였다. 이로서 해병대는 이때까지 각 戰鬪대대의 작전 指揮를 司令部에서 直接 수행하던 것을 止揚하고, 제1연대와 독립제5대대를 새로 編成하여 戰術指揮와 行政支援 體制를 確立하게 되었던 것이다。



<出動에 앞서서 軍裝檢閱을 받는 해병대>

이와 같이 해병대는 새로운 面貌를 갖추고 月餘에 걸쳐 敵背訓練에 精進하면서 다음 진투에 對備하고 있던次에 命에 依하여 1951년 1월 24일 我軍戰線의 後方으로 浸透한 敵 Guerilla 부대를 擊滅하기 위하여 安東과 盈德지역으로 再出動하게 되었다。

敵軍의 상황 : 安東, 盈德지역에 浸透한 敵은 北共 제10사단으로서, 本來 我軍의 總反擊작전으로 敗走瓦解되었다가, 華川부근에 再集結하여 中共軍의 도움을 받아 遊擊戰을 위하여 再編成된 부대였다。그 後에 이 敵은 1950년 12월 末부터 東部山岳지역을 따라 浸透南下하기 시작하여, 다음해인 51년 1월 初에는 敵의 南侵부대가 原州—堤川을 따라 大擧 侵攻하므로써 생긴 제3군단과 美제10군단의 間隙을 따라 南侵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敵은 1월中旬에는 太白山脈에 連한 安東, 義城부근까지 南侵하였으며 곳곳에서 出沒하여 我軍의 後方民心을 攪亂하고 補給路와 通信網을 遮斷하는 等, 遊擊活動을 恣行하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敵 사단은 靑松부근에 제25연대, 安東부근에 제27, 제29연대와 지원부대가 編制되어 있으며, 그 兵力은 도합 6,000명으로 推算되었고 裝備는 主로 小火器와 日製未詳의 박격포를 保有하였다。또한 我軍의 後方에 浸透한 以來 補給을 받지 못하여 現地調達이라는 美名아래 民家掠奪을 일삼고 있었으니, 이러한 狀態아래서의 敵의 士氣는 低下되어 있는 것으로 推測되었다。

我軍의 상황 : 韓國軍과 UN軍은 急變한 戰況을 打開하기 위하여, 1951년 1월 8일에 三陟—堤川—驪州—平澤을 連하는 線에서 最後防禦線을 결정한 다음, 있는 힘을 다하여 敢行하는 敵의 進攻을 擊退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이어서 攻勢로 移轉하기 위한 모든 준비에 着手하였다。그러나 이때 遊擊戰을 위하여 南派된 北共 제10사단은 이미 제3군단과 美제10군단의 後方 지역까지 浸透하므로써,

이 지역의 後方施設과 主補給路가 威脅받기에 이르렀으나, 一線部隊의 圓滑한 작전을 위하여는 이 敵을 早期에 撃滅할 수 있는 措置가 要望되었다。

따라서 美 제8군사령관 Ridgway중장은 于先, 美해병제1사단(장, Oliver P. Smith소장)에 安東—盈德間 도로 以南지역에 대한 敵의 侵透를 阻止하고, 浦項—慶州—永川—義城을 連하는 主補給路를 防護하라는 임무를 賦與하고 즉시 이 地域으로 出動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때 美해병제1사단은 興南으로부터 撤收한 以後, 美 제8군의 예비대로서 馬山에 駐屯하여 부대를 再整備하고 있던次에, 이러한 명령을 받게 되니 사단은 즉시 麾下의 제1연대를 先發隊로 이동을 개시하여 1월 16일에는 사단 CP를 新興里(浦項 南쪽 5km)에 開設하고, 慶州로부터 安東에 이르는 東部山岳 地域을 책임지역으로 하여 對 Guerilla 작전을 展開하였다。

이때 해병대는 命에 依하여 美해병제1사단을 增援하는 한편, 韓美合同으로 効果的인 對 Guerilla 작전을 遂行코자 이 地域으로 急遽出動하게 되었다。이에 앞서 司令官 田鉉俊 준장은 이미 작전지역인 美해병제1사단과 協議를 通하여, 『제1연대는 美해병제1사단의 北쪽인 盈德과 靑松—靑송을 작전지역으로 하여 敵의 南侵通路와 北上退路를 遮斷하고, 독립제5대대 (장, 吳命福소령)는 별도로 敵情이 가장 많은 安東지역의 美해병제1사단 麾下 제1연대를 增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麾下部隊에 出動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리하여 독립제5대대는 1월 24일 07.00에 陸上機動으로 鎭海를 出發하여 이날 20.00에 安東 南쪽에 있는 亭下洞에 集結한 다음, 美해병제1연대에 작전上 배속되었고, 이어서 제1연대(장, 金聖恩 대령)는 1월 25일과 26일 兩日間에 海上機動으로 鎭海을 出航하여 1월 30일 09.00에 下猛洞(江口 北쪽 4km)에 上陸한 다음, 이날에 盈德에 集結하였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安東부근 전투 (해병독립 제5대대 : 1951. 1. 24~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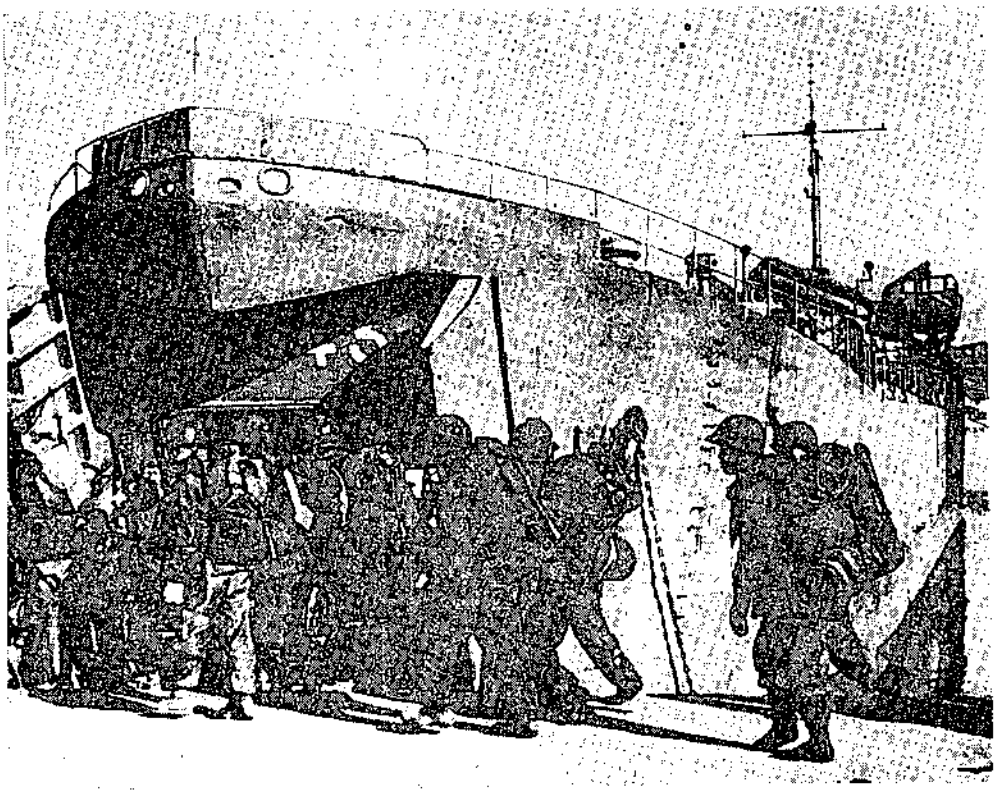
1월 24일 : 해병독립제5대대는 亭下洞에 集結하자 곧 다음과 같은 임무를 賦與받았다。

『美해병 제1연대의 예비대로서 安東과 이 地域內의 軍事施設을 경계하고, 安東—大邱間의 補給路를 確保하면서 地域內에서 跳梁하는 敵을 擊滅한다』

이와 같은 임무를 받게된 대대장 吳命福소령은 우선 地域內의 敵情과 友軍의 配置狀況을 검토한 결과,

『첫째, 地域內의 敵의 병력은 1개연대 규모로서 그 규모가 비교적 크고, 또한 그 手法이 惡辣하므로, 可能한 限 병력을 集中的으로 使用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둘째, 美해병대의 1개 대대가 이미 義城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安東과 義城의 中間에 1개 중대를 배치하여 義城以北에 대한 補給路를 確保한다。



<해병대의 再出動>

세째, 최초에는 小單位 部隊級으로 정찰을 强化하여 敵情을 蒐集하고 情報가 入手되는 즉시로 병력을 集中投入하여 敵을 擊滅한다』는 基本 作戰槪念을 세우고, 이를 基礎로 하여 다음과 같은 要旨의 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대대는 安東地域 경계와 美해병제1연대의 포병부대 및 의무시설을 掩護하고 安東—義城間의 補給路를 確保하며, 地域內 敵의 活動을 阻止하고 그 主力을 擊滅한다.

② 제21, 제23중대는 亭下洞에 位置하면서 指定되는 地域에 對한 정찰을 실시하고, 隨時로 出動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라.

③ 제22중대(증강)는 光音里 岩山에 位置하면서 安東—義城間의 補給路를 確保하고, 地域內의 敵을 擊滅하라.

④ 화기중대는 박격포 1개반(2문)과 重機 1개반(2정)을 제22중대에 배속하고 중대는 亭下洞에 위치하라.』

1월 25일 : 대대作命에 明示된 대로, 이날 제21, 제23중대와 화기중대(一)는 대대 CP와 같이 亭下洞에 배치되어 정찰基地를 構築하였으며, 제22중대(증강)는 이날 아침에 亭下

洞을 출발하여 13.30에는 岩出(安東 西南쪽 7km)에 진출하여 또한 정찰 基地를 構築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이 基地를 據點으로 하여 정찰活動으로 敵情을 蒐集한 다음 이것을 기초로 敵을 捕捉殲滅하게 되었다。

1월 26일 : 대대장 吳命福 소령은 이날 09.00에 첫 작전회의를 開催하고 작전 수행에 따르는 모든 참모활동을 確認하였으며 이때에 指示 및 確認된 事項은 다음과 같다。

첫째, 入手된 情報에 의하면 地域內의 敵은 1개연대 규모이며, 臨河面一帶에 根據를 두고 있다。

둘째, 위의 敵情에 따라서 대대는 敵의 根據地에 重點을 指向하고 搜索정찰을 展開한다。

세째, 對 Guerilla 戰에서는 連絡이 매우 중요하므로 通信保安에 留意할 것이며 有線網을 主로 사용한다。

네째, 食糧은 安東보급소로부터 推進 보급한다』

이상과 같은 內容은 곧 각 중대에 명령으로 하달되었다。

이리하여 대대는 이날부터 분대, 또는 소대 규모로서 臨河面을 중심으로 한 敵의 出沒예상지역에 대하여 本格的인 搜索정찰을 展開하였다。

1월 28일 : 대대는 그동안에 多角的이고도 集中的인 搜索活動을 展開하였는데도 不拘하고 接敵狀況이없던 次에, 제23중대(장, 金在赫 중위)는 梨泉洞—新德洞 一帶를 정찰한 결과, 이날 아침에 200명 규모의 敵이 楸木洞에 侵襲하였으며, 이에 對抗하던 駐屯 경찰은 衆寡不敵으로 松川洞으로 撤收하였다는 정보를 確認하였다。

이러한 보고를 받은 대대장 吳命福 소령은 부 대대장 李鳳出 대위로 하여금 제21중대(장, 朴利稷 중위)와 화기중대의 1개소대로써 出動부대를 編成하여, 다음날인 29일 새벽에 楸木洞으로 出動하여 이 敵을 捕捉殲滅하라고 명령하였다。

부 대대장 李鳳出 대위는 대대장의 명령을 받는 즉시로 부대편성에 着手하는 한편, 美해병제1연대로부터 필요한 차량을 얻어 出動준비를 갖추었다。

1월 29일 : 出動부대는 이날 03.00에 차량편으로 孝下洞을 출발하여 漆黑같은 어두움을 뚫고 行軍한 끝에 06.00에는 俗稱 포진까지 진출하여 이곳에서 下車한 다음, 楸木洞을 目標로 전진하였다。이리하여 06.30에 楸木洞까지 近接한 제21중대(장, 朴利稷 중위)의 先頭는 뒷산에 埋伏하고 있던 敵으로부터 不意에 사격을 받았다。어두움이 채 가시지 않아 敵을 발견할 수 없었던 중대는 이 사격으로 비로소 敵의 位置를 確認하자, 即刻 反擊을 開始하였는데, 指揮官의 號令一下 단 2분만에 重機의 火力이 集中되었으며 또한 3분만에 박

격포의 第一彈이 불을 뿜었다。特히 金京泰 三等兵曹는 彈雨를 뚫고 敵陣에 突入하여 敵을 攪亂 하였고, 박격포射手 金貴鉉 三等兵曹는 어두움 속에서도 迅速한 박격포 操作으로 指示되는 目標들을 命中하였으며, 또한 重機射手인 洪大輿 三等兵曹도 後退하는 敵에게 命中彈을 퍼부어 50여명의 敵을 射傷하는 殊勳을 세웠다。이리하여 중대는 反擊을 시작한 後 불과 40분만에 敵이 배치되었던 楸木洞 뒷산 △270를 점령하니, 敵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長興洞 근방으로 退却하고 말았다。이어서 중대는 楸木洞 부근에 대한 綴密한 搜索을 전개한 다음, 일단 이곳에서 夜間埋伏으로 轉換하였다。

1월 30일 : 부 대대장 李鳳出 대위는 다시 敵을 追擊하기로 決心하고, 이날 09.00에 敵이 後退한 곳으로 보여지는 長興洞을 目標로 하여 중대를 전진시켰다。그러나 중대는 이곳에서 더 이상 敵의 痕跡을 찾아볼 수 없었으므로, 이날 18.00에 高下洞의 정찰基地로 복귀하고 말았다。

前날부터 있었던 이번 戰鬪에서 중대는 兵力의 손실이 없는 反面 敵사살 8명, 負傷 52명을 내게하고 M1소총 2정과 박격포탄 5발을 노획하였다。이때 이 전투에 참가 하였던 美해병제1연대의 연락장교 "그린튼"중위는 제21중대의 敏捷한 전투능력에 感歎하여, 연대에 戰鬪經過를 보고하는 가운데, 『韓國해병대는 美해병대에 조금도 遜色이 없는 훌륭한 전투부대』라고 激讚한바 있었다。

이와 같이 緖戰을 勝利로 이끈 대대는 더욱 士氣가 衝天하여 見敵必滅의 정신으로 敵情蒐集에 온 힘을 기우렸다。

1월 31일 : 이날 入手된 첩보에 의하면 300명 규모의 敵이 盈德洞에 根據를 두고 機動路上의 奇襲과 破壞및 民家에서의 掠奪과 殺傷行爲를 계속한다는 것이었으므로 이 敵을 擊滅하기 위하여 義城에 배치되어 있는 美해병제1연대의 제1대대는 이미 작전을 展開하고 있었으나, 아직 敵을 捕捉하지 못하였으며 연대장 McAlister 대령은 해병독립 제5대대에 이 敵을 合同으로 擊滅토록 要請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대대장 吳命福 소령은 우선 제22중대(장, 李鶴均 중위)로 하여금 增強된 1개소대를 이날 11.30에 俗稱 계란재(義城 北쪽 3km)에 배치토록 하여 부근의 道路경비를 强化하는 한편, 제21중대를 機動부대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은 要旨의 명령을 하달하였다。

『제21중대(증강)는 2월 1일 09.00에 盈谷으로 出動하여 美해병제1대대의 작전統制下에 이 地域內에서 跳梁하는 敵을 捕捉擊滅하라。

화기중대는 박격포 1개반과 重機 1개반을 제21중대에 배속하라。』

또한 대대장은 出動부대의 행정지원을 위하여 통신, 수송, 보급, 의무요원을 追加로 編成하여 全體的인 指揮를 부 대대장 李鳳出대위가 하도록 措置하였다。

2월 1일 : 제21중대(장, 朴利馥중위)를 基幹으로 하는 出動부대는 이날 10.30에 부 대대장 李鳳出 대위의 指揮下에 亭下洞을 출발하여 12.30에 點谷(一名 沙村, 義城 東北쪽 9km)에 도착하는 즉시로 정찰基地를 構築하는 한편, 義城의 美해병제1대대와 작전을 協調하고 필요한 諜報를 얻었다。그리고 우선 이날 제2소대(장, 安桂春 견습사관)로 하여금 孤雲寺 一帶를 정찰케 하였으나 敵情을 얻지 못하였다。

2월 2일 : 중대장 朴利馥중위는 이날 2개 소대로 新溪洞과 亭子洞 一帶를 정찰키로 계획하였다。이리하여 제3소대(장, 朴千萬 견습 사관)는 이날 06.30에 중대基地를 출발하여 07.20에 亭子洞까지 진출한 다음 아침 이슬을 밟으며 隱密히 搜索을 하던中에, 소대의 先頭가 경계병으로 보여지는 敵兵 1명을 사로잡는데 성공하였다。이 捕虜를 審問한 결과, 敵 250명이 隣近野山에 集結하여 있다는 諜報를 入手하고 더욱 企圖秘匿에 留意하면서 소대를 전개하여 敵이 集結하고 있는 野山을 包圍하였다。드디어 소대장의 신호에 따라 소대는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니, 數的으로 優勢한 敵은 처음에는 執拗한 抵抗을 試圖하였으나 이미 包圍된 狀態임을 알게되자, 戰意를 잃고 脫出하기에 汲汲하였다。소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일제히 敵陣에 突入하여 마침내 敵을 완전히 擊退하고 말았다。이때 先任下士官 安榮福 二等兵曹는 소대의 先頭에서 突擊에 제일 앞장 섰으며, 제1분대장 千春植 三等兵曹는 분대를 指揮하여 執拗하게 抵抗하는 敵陣을 뚫고 들어가 左衝右突하면서 敵을 擊退하는 戰功을 세웠다。

이와같이 野山을 완전히 점령한 다음에, 소대장 朴千萬 견습사관은 즉시 일부병력을 돌려서 敵이 後退하는 南쪽의 金鶴洞근방으로 이를 追擊하였으나, 敵은 완전히 分散된듯 하여 接觸이 끊어지고 말았다。이리하여 소대는 더 이상 追擊을 斷念하고 戰場정리를 끝마친 다음, 이날 저녁에 중대基地로 복귀하였다。

이 戰鬪에서 소대는 손실없이 다음과 같은 전과를 거두었다。

戰果 : 사살 30명, 포로 11명

노획 : 다발총 3정, 蘇式소총 4정, M1소총 10정, 칼빈 2정, 重機 1정, 각종 실탄 5,000발。

2월 3일 : 이날 대대는 美해병제1사단(장, Smith소장)으로부터 『美제10군단에 배속이 轉換되어 榮州로 이동하라』는 要旨의 명령을 받았다。이리하여 대대장 吳命福 소령은 分散

되어 있는 각 중대를 孝下洞으로 集結하여 이동준비에 着手할 것을 명령하는 한편 細部작전協調를 위하여 美제10군단 CP로 向하였다。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點谷의 제21중대(장, 朴利駿 중위)는 이날 13.00에, 岩山의 제22중대(장, 李鶴均중위)는 14.00에 각각 孝下洞에 集結하였으며, 여기에서 부대이동 준비에 着手하였다。

이무렵 榮州地域에는 北共 제10사단의 一部로 판단되는 Guerilla가 出沒하여 治安을 攪亂하고 있으므로 이 地域一帶의 治安과 補給路의 確保가 要望되고 있었으며, 安東地域은 지난 1월 24일 대대가 投入된 以後, 이미 대부분의 지역이 平定되었으므로 대대는 다시 榮州地域의 治安 및 補給路를 確保하고, 地域內에 跳梁하는 敵을 擊滅한다는 새로운 임무를 맡고 榮州로 이동하게 되었다。

대대장 吳命福소령은 美제10군단장 Almond 소장으로 부터 이와같은 基本임무를 賦與받고, 이를 分析, 檢討한 다음, 『대대主力을 榮州에 배치하여 그 부근의 敵을 擊滅하며 治安을 確保하고, 1개중대는 별도로 醴泉에 배치하여 榮州—虎村間의 補給路를 確保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날 16.00에 다음과 같은 要旨의 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대대는 2월 2일 16.00를 期하여 美제10군단에 작전배속되어 榮州一帶의 治安과 補給路를 確保하고, 地域內의 敵을 捕捉, 擊滅한다.

② 제21, 제22중대는 榮州에 위치하여 指示되는 지역에 대한 정찰을 실시하라

③ 제23중대(증강)는 醴泉에 위치하여 부근의 補給路를 確保하고, 지역내의 敵을 捕捉擊滅하라.

④ 화기중대는 박격포 및 重機 각 1개반을 제23중대에 배속하고, 중대(—)는 榮州에 위치하라。』

대대가 安東을 떠나기에 앞서, 이날 美해병제1연대장 Francis M. McAlister 대령은 다음과 같은 致賀文을 전달하였다。

『우리는 韓國해병독립 제5대대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였음을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이번에 貴대대와 헤어지게 되었을 섭섭하게 여기는 바입니다。貴대대 將兵들의 活躍, 특히 제21중대의 善戰을 높이 評價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申鉉俊 海兵隊司令官님께 전하여 주십시오。』

2월 4일 : 대대는 이날 12.00에, 美해병제1연대의 餞送을 받으면서 列車便으로 安東驛을 출발하여 17.00에 대대 主力은 榮州에 도착하였으며, 이어서 CP를 榮州西部국민학교에 설치하고 제21, 제22중대는 각각 榮州外郭高地에 배치하는 한편, 제23중대(장, 金在赫중위)

는 별도로 醴泉에 배치하였다。

2월 5일 : 대대는 각 중대별로 榮州와 醴泉부근에 대한 정찰에 着手하였는데 榮州지역의 治安을 確保하는데는 特히 住民의 積極的인 協助가 필요하였다。이리하여 대대장 吳命福 소령은 이날 14.30에, 이 지방의 有志와 機關長을 소집하여 懇談會를 열고 軍官民의 작전에 대한 協調와 治安의 維持문제를 協議하였다。이 會議에서 대대장은, 敵情에 관한 住民의 철저한 申告와 경찰의 迅速한 情報提供을 要望하였고, 또한 대대의 任務를 納得시키고, 治安確保를 위하여 駐屯경찰에 임무를 賦與하였다。

이와같이 대대主力은 榮州 지역의 治安을 確保하는 一面, 強力한 捜索정찰을 통하여 地域內의 敵을 捕捉殲滅하는데 主力하였고, 제23중대(장, 金在赫 중위)는 醴泉에서 補給路를 確保하는 임무를 계속하였으나, 대대가 이곳에 배치된 以後, 敵의 활동은 小康狀態를 이루고 있었다. 이때 이미 後方地域에 侵透하였던 敵은 韓, 美해병대의 綿密한 對 Guerilla 작전으로, 마침내 그 組織이 瓦解되어 戰鬪能力을 喪失하고 있었다。

한편 이 무렵, 第一線의 韓國軍과 UN軍은 이미 反擊작전을 展開하고 있었으며, 西部戰線에서는 漢江 以南까지 전진하고 있었다。이리하여 대대는 榮州지역에서의 작전 임무를 끝마치고, 다시 命에 依하여 仁川으로 이동하여, 西部戰線의 第一線에서 北進의一翼을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2월 12일 이동준비를 끝마치고, 主力은 이날밤 安東으로 이동하여 이곳에서 제23중대와 合勢하였다。이어서 다음날인 13일에 대대는 新江口로 전진하여 美해군 LST에 搭乘한 다음, 이날 10.50에 仁川을 向하여 出航하였다。

이 戰鬪期間中에 대대가 거둔 綜合전과는 다음과 같다。

戰果 : 사살 38명, 射傷 52명, 포로 1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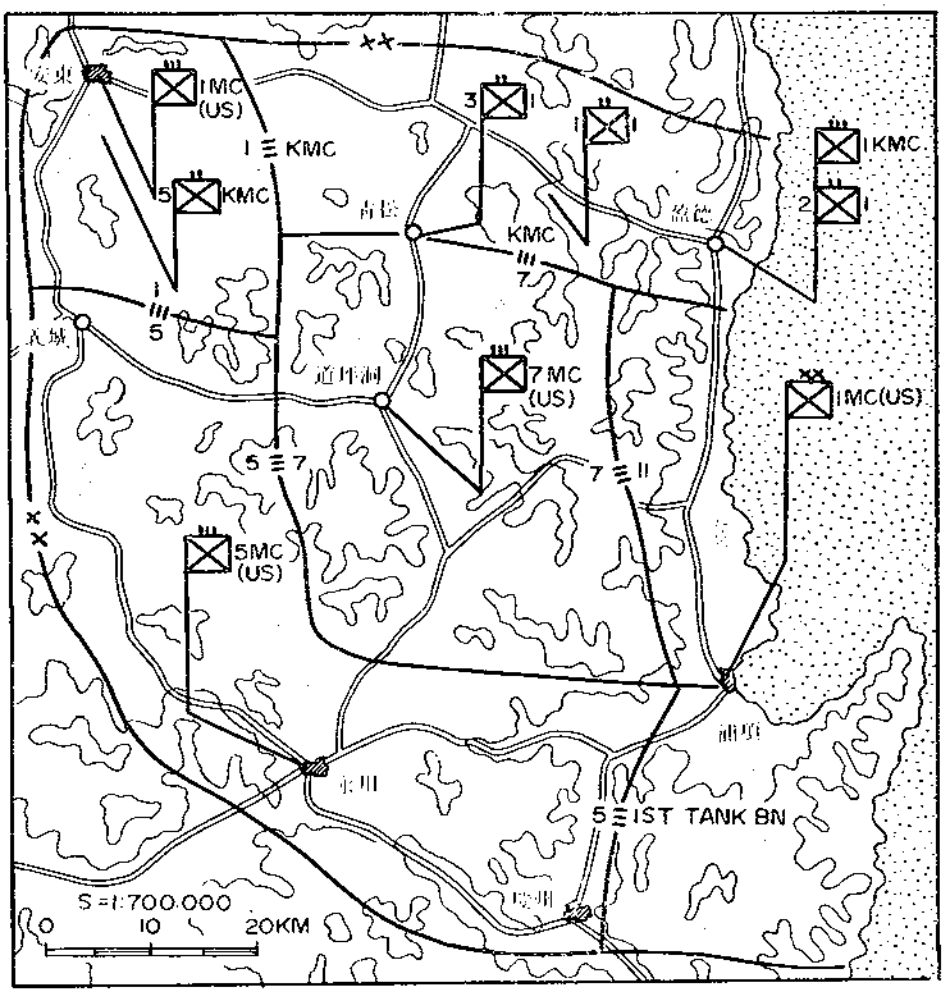
노획 : 蘇式소총 4정, 다발총 3정, M1 소총 12정, 칼빈 2정, 重機 1정, 신호용 권총 1정, 수류탄 3발, 박격포탄 5발, 重機실탄 3상자, 소화기 실탄 3,650발。

(2) 盈德부근 전투(해병제1연대 : 1951. 1. 30~2. 13)

1월 30일에 盈德에 集結한 해병제1연대의 임무는, 安東—盈德間 도로를 中心으로 하는 盈德, 靑松—淸을 전술책임지역으로 하여, 安東—盈德間 補給路를 確保하고, 地域內로 侵透하는 敵을 捕捉殲滅하는 것이었다。

이때 이미 연대의 南쪽에는 美해병제1사단 隷下의 제7, 제11연대가 작전中이었고, 西쪽에는 제1연대와 한발 먼저 도착한 해병독립 제5대대가 작전을 展開하고 있었으며, 또한 北

◇ 상황도 제26호 韓美 海兵隊의 浦項·盈德 附近 戰鬪配置圖 (1951. 1. 31)



쪽에는 東部戰線의 제1군단 後方지역과 隣接되어 있었다。

연대장 金聖恩대령은 연대에 賦課된 임무를 分析하고, 隣接부대의 상황과 美해병제1사단으로부터 얻은 敵情을 檢討한 결과, 다음과 같은 基本作戰指針을 세웠다。

첫째, 3개대대를 地域內에 分散배치하여 각각 책임지역을 制壓하고, 처음에는 대대 單位로 작전을 展開한다。

둘째, 小單位 부대로 정찰활동을 強化하여 敵의 활동을 阻止하고, 諜報蒐集에 注力한다。

세째, 情報가 入手되면 연대의 戰力을 集中하여 敵을 包圍殲滅한다。

이러한 작전指針을 바탕으로 하여 연대장은 각 참모의 세부적인 地形分析과 方策建議를 檢討한 後에, 다음과 같은 要旨의 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연대는 安東—盈德間의 補給路를 確保하고, 地域內로 侵透하는 敵을 包圍, 殲滅한다.

② 제1대대는 院前洞에 위치하여 연대의 中央地域을 전술책임 지역으로 하고, 強力한 정찰을 전개하여 지역내의 敵을 捕捉殲滅하라.

③ 제3대대는 靑松에 위치하여 연대의 西側地域을 전술책임 지역으로 하고, 強力한 정찰을 전개하여 지역내의 敵을 捕捉殲滅하라.

④ 제2대대는 연대 예비대대로서 盈德에 위치하여 연대의 東側地域을 전술책임 지역으로 하고, 연대 본부경계를 위하여 1개중대를 차출하라.

⑤ 통신은 有線을 主로 하며 出動時는 無線으로 한다. 연대 CP는 盈德 재판소에 위치한다.』

1월 31일 :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제1, 제3대대는 이날 院前洞(盈德 西北쪽 18km)과 靑松에 각각 전진한 다음, 정찰基地를 構築하였고, 제2대대는 연대 CP와 같이 盈德에 배치되었다. 이와같이 부대를 展開한 다음, 연대는 각 基地를 補強하면서 즉시 搜索정찰에 着手하였다.

이때 入手된 敵情에 의하면, 제3대대의 西쪽에 隣接한 三距里 西南쪽 一帶에는 400명 규모의 敵이 跳梁하고 있었으며, 한편 이 敵을 擊滅하기 위하여 美해병제1연대가 작전을 展開하고 있었으나, 이때까지 敵을 捕捉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報告받은 연대장은 美해병제1연대와 協調한 끝에, 연대가 이 敵을 擊滅하기로 決心하고, 手始 제3대대장 金龍國 소령에게 『1개소대를 三距里로 出動시켜 부근 一帶에 대한 정확한 敵情을 確認하라』고 명령하였다.

2월 1일 : 제3대대장 金龍國 소령은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이날 아침에 박격포와 重機로 增強된 1개소대를 三距里로 出動시켜 敵情을 確認한 결과, 150명 규모의 敵이 이미 前날인, 31일 밤에 三距里에 侵襲하여 경찰支署를 불태운 다음, 東北쪽 龍溪洞과 西南쪽 栢子洞 근방으로 潛跡하였음을 確認하였다.

이와 같은 敵의 出沒狀況이 確認되자, 연대장 金振恩 대령은 제3대대로 하여금 1개중대를 追加로 出動시켜 이미 三距里에 出動한 소대를 增強하고, 이를 부대대장 韓禮澤 대위가 指揮하도록 措置하였다.

2월 2일 : 이날 아침, 부대대장 韓禮澤대위가 指揮하는 增強된 1개중대는 靑松을 출발하여 11.30에 三距里에 진출한 다음, 이곳에서 정찰중인 소대와 合勢하였다. 이어서 중대는 이미 潛跡한 敵을 目標로 栢子洞 方向으로 계속 追擊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敵의 활동은 極히 部分的인 發惡이었으며, 그동안 上級 및 隣接부대로부

터 入手된 敵情을 綜合分析할 때, 北共 제10사단은 이미 Guerilla작전에 대한 自信을 잃고 北으로 脫出을 企圖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北共 제2군단장이 제10사단장에게 보낸 1월 23일字 指令文에도 잘 表現되어 있으나,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全兵力을 敵의 包圍網으로부터 脫出시켜 平昌 以北으로 遲滯없이 撤收하라。 連絡組를 무전기와 함께 보냈음。 만일 貴부대의 脫出路를 알릴 수 있다면 군단은 貴부대의 전진을 돕겠음。 脫出이 不可能할 時는 敵의 後方에 Guerrilla로서 殘留하라』(硏究 1 참조)。

이러한 狀態아래에 놓인 敵은 北으로 脫出하기 위하여 主力을 道坪洞을 中心으로 한 美해병제7연대의 작전지역에 集結시킨 다음, 다시 北上을 企圖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 연대는 盈德—院前洞—靑松—三距里를 連하여 이미 配置하고 있었으므로 敵은 마치 "그물안으로 뛰어든 물고기"格이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彼我의 形勢를 分析한 연대장 金鳳恩대령은 敵의 北上退路를 三距里로 이르는 吉安川과 靑松으로 이르는 용전川 계곡으로 판단하고, 이 退路를 遮斷하기 위하여 부대를 再配置하기로 決心한 後, 다음과 같은 要旨의 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安東—盈德間 도로 以南의 敵은 北上을 企圖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敵의 北上退路는 吉安川과 용전川계곡으로 豫想된다.

② 연대는 北上하는 敵의 進路를 遮斷하여, 이를 捕捉殲滅하려 한다.

③ 제1대대는 靑松으로 이동하여 용전川 계곡 一帶를 遮斷하고, 北上하는 敵을 捕捉 殲滅하라.

④ 제3대대는 三距里로 이동하여 吉安川계곡 一帶를 차단하고, 北上하는 敵을 捕捉 殲滅하라.

⑤ 제2대대는 增強된 1개중대를 院前洞에 배치하여 연대의 東側지역에 대한 작전을 계속하고, 1개중대는 연대예비대로 차출하라.

⑥ 연대 CP는 변동 없다。』 (작명부록 제264호 참조)

2월 3일 : 前날 이미 三距里에 出動하여 敵을 追擊하던 제3대대의 增強된 중대는 夜陰을 무릅쓰고 稻子洞을 目標로 계속 전진한 끝에, 이날 04.00에 稻子洞을 包圍하여 공격한 결과, 敵 16명을 사살하고, 5명을 포로로 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한편 이날 각 대대는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일제히 부대이동을 개시하였다。 제1대대(장, 孔正植 소령)는 院前洞에서 靑松으로 이동하여 용전川을 中心으로 遮斷陣地를 점령하였고 제3대대(장, 金龍國 소령)는 靑松에서 三距里로 이동하여 이곳에서 作戰中인 중대와 合勢

한 다음, 吉安川을 中心으로 遮斷陣地를 점령하였다。또한 제2대대(장, 廉鳳生 중령)는 1개중대를 연대예비대로 差出한 다음, 1개중대는 院前洞에 배치하였다。

이로서 연대는 盈德에서 三距里에 이르는 遮斷線을 완전히 形成하였으며, 北上하는 敵을 捕捉하기 위하여 強力한 정찰을 展開하였다。한편 이와 때를 같이하여, 美해병제1연대(장, Francis M. McAlister 대령)는 西側에서, 제7연대(장, Homer L. Litzenberg 대령)는 南쪽으로부터 각각 包圍網을 壓縮해 들어가고 있었다。

2월 4일 : 연대는 더욱 정찰을 強化하면서 特히 靑松과 三距里 一帶에 耳目을 集中하고 있었다。이날 10.00에 제1대대의 情報搜索隊는 靑松근방을 搜索中, 脫出路를 찾아 헤메는 敵敗殘兵 6명을 포로로 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이 연대가 靑松, 三距里부근에 注力하는 동안, 北上中인 敵의 主力 2,000명은 項洞(俗稱 먼내) 一帶에 集結하여 계속 北上을 企圖하고 있었으며, 그 先頭인 300명 규모의 敵은 이미 德山洞부근까지 進出하였다。

2월 5일 : 이날 제2대대장 廉鳳生중령은 대대의 정찰지역을 南쪽으로 擴張키로 하고 제6중대의 정찰 經路를 德山洞까지 延長하였다。이리하여 제6중대(장, 鄭奉翊중위)는 13.00에 德山洞까지 진출하였을 때, 중대본부가 부근 高地에 潛伏하고 있던 300명 규모의 敵으로부터 不意에 사격을 받았다。중대는 곧 戰列을 가다듬고 反擊을 試圖하였으나, 敵은 有利한 瞰制高地를 占領하여 自動火器와 박격포로 奇襲的인 사격을 加한 後, 潛跡해 버리고 말았다。이 交戰에서 중대는 敵 1명을 포로로 하고 蘇式소총 1정을 노획하였으나, 我軍도 전사 5명, 부상 1명, 실종 10명의 큰 손실을 입었다。特히 이 交戰에서 부 중대장 金東俊 소위는 敵의 奇襲的인 사격을 받고도 조금도 당황함이 없이 陣頭에서 指揮하여 反擊을 加하는 勇戰을 계속하였으나 아깝게도 兇彈에 쓰러지고 말았다。(硏究 "2" 참조)

이리하여 연대장 金聖恩 대령은 敵의 主力이 項洞—八角山을 連하여 北上하고 있음을 確認하고, 우선 德山洞에 出沒하였던 敵을 擊滅하기 위하여 『제3대대장은 1개중대를 新陽洞으로 이동하여 제2대대에 배속하라。제2대대장은 제6중대와 제3대대의 1개중대를 지휘하여 德山洞에 出沒하였던 敵을 捕捉殲滅하라』는 要旨의 명령을 하달하였다。이에 따라서 제3대대장은 즉시 제11중대를 差出하여 新陽洞으로 急派하였다。

2월 6일 : 제2대대장 廉鳳生 중령은 이날 06.00에, 제6중대(장, 鄭奉翊 중위)와 배속받은 제11중대(장, 朴東烈 중위)를 指揮하여, 敵이 潛跡한 곳으로 추측되는 德山洞 東쪽의 △313 一帶에 대한 搜索을 개시하였다。대대장 以下 全將兵은 期必코 이 敵을 찾아 擊

滅하고야 말겠다는 覺悟아래, 부근一帶에 대하여 緻密하게 搜索하였으나, 이날 저녁에 이르기까지 敵을 捕捉하지 못하고, 야간매복으로 轉換하게 되었다. 이때 제11중대는 야간매복陣地를 점령하던 中에, 敵 3명을 목격하고, 이미 어두움이 깔리기 시작하였으나 끝까지 이를 追擊하여 사살하고야 말았다。

한편, 이와 같이 제6, 제11의 兩個중대가 작전을 展開하는 동안, 연대장 金聖恩 대령은 이미 項洞과 八角山一帶까지 北上한 敵의 主力을 擊滅하기 위하여 八角山공격을 계획하고 있었다。

八角山(△627)은 연대의 南쪽인 美해병제7연대의 작전지역에 있으며, 南으로는 東大山(△793)을 따라 香爐峰(△930)까지 連結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退路를 갖고 있는 敵을 한方向에서 공격한다는 것은 無意味한 일이므로, 遮斷부대가 절실히 필요하였다. 이리하여 연대장은 美해병제7연대장 Litzenberg 대령과 合同작전을 展開하기로 하고 協調한 끝에 『연대는 北에서 南으로 八角山을 공격하고, 美해병제7연대는 西南쪽에서 敵을 遮斷하면서 漸次 東北으로 전진하여, 敵을 包圍殲滅한다』는 槪念의 合同작전계획을 樹立하였다。

이와같은 基本계획에 따라 연대장은 첫째, 八角山의 攻擊正面은 1개대대 규모가 適切하며, 둘째 연대의 전술책임지역에 대한 基本임무는 계속 수행할 것을 考慮하여, 제1대대를 공격부대로 결정하고, 연대의 細部 작전계획을 세우는 한편, 予先 『제1대대는 즉시 新陽洞으로 이동하여 공격에 投入될 준비를 하라. 제2대대의 제5, 제7중대는 大枝洞에 集結하라。제3대대는 제1대대의 작전지역을 引受할 준비를 하라』는 要旨의 준비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서 제1대대(장, 孔正植 소령)는 이날 아침 靑松을 출발하여 新陽洞(盈德 西北쪽 5km)으로 전진하였고, 제5, 제7중대는 18.00에 大枝洞(盈德 西南쪽 6km)에 集結하였다。

2월 7일 : 前날 靑松을 출발한 제1대대는 夜間에도 強行軍을 계속하여 이날 01.00에 新陽洞에 진출한 다음 부대를 整備하면서 次期 명령을 待機하였다。

이때 연대장 金聖恩대령은 계획樹立을 끝마치고, 다음과 같은 要旨의 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項洞과 八角山一帶에는 2,000명 규모의 敵이 集結하였으며 이 敵은 계속 北上할 것으로 판단된다.

美해병제7연대의 1개대대는 泥峴洞에 배치되어 있으며 연대와 步調를 맞추어 東北으로 八角山을 공격할 것이다.

② 연대는 現行임무를 수행하면서, 美해병제7연대와 合同으로 頂洞, 八角山一帶의 敵을 공격 殲滅한다.

③ 제1대대는 2월 7일 12.00를 期하여 德山洞으로부터 八角山을 공격하여 一帶에 集結된 敵을 撃滅하고, 계속 南쪽으로 공격할 준비를 하라.

④ 제2대대는 제6중대로 德山洞부근에 대한 정찰을 계속하고, 대대(一)는 大枝洞에 위치하여 제1대대의 공격을 지원할 준비를 하고 待機하라. 제11중대의 배속을 해제한다.

⑤ 제3대대(一)는 1개중대를 三巨里에 殘留시켜 現行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主力은 靑松에 이동하여 제1대대의 작전지역을 引受하라.

⑥ 제11중대는 연대예비대로서 최초 新陽洞에 위치하라.

⑦ 2월 7일 12.00 以後, 연대 전방CP는 大枝洞에 위치한다。』

이 명령에 따라 제1대대(장, 孔正植 소령)는 다시 德山洞으로 전진하여 제1, 제2중대를 第一線, 제3중대를 예비로 하여 부대를 전개한 다음, 공격준비에 着手하였다. 또한 제3대대(장, 金龍國 소령)는 제9중대(장, 徐判已 중위)를 三巨里에 殘置하고 대대CP와 제10중대(장, 李東昱 중위)는 이날 08.00에 三巨里를 출발하여 12.40에 靑松에 진출한 다음 즉시 정찰에 着手하였다。

한편 공격준비를 끝마친 제1대대는 12.00를 期하여 八角山을 目標로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여 一擧에 이를 점령하였다. 이때 敵은 처음에는 약간의 抵抗을 試圖하는 듯 하였으나, 대대의 電擊的인 공격에 당황한 나머지, 四分五裂되어 新基(俗稱 새터) 부근으로 後退하고 말았다。

2월 8일 : 제1대대는 이날 07.00에 敵이 後退한 新基를 目標로 다시 공격을 단행 하여 12.00에는 이곳마저 점령하였다。그러나 敵은 이미 組織的인 抵抗을 抛棄한듯 하였으므로 대대는 分散된 敵을 捕捉하기 위하여 부근一帶를 捜索한 결과, 敵 6명을 포로로 하고, 輕機 1정을 노획하였다。

이때 대대장 孔正植소령은 포로審問과 其他 諜報를 分析한 결과, 대부분의 敵은 東南쪽의 東大山(△793) 一帶로 後退한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날 이곳을 공격하기로 決心하는 동시에 연대장에게 建議하여 承認을 받았다。

한편 제3대대의 제9중대(장, 徐判已 중위)는 이날 三巨里를 中心으로 정찰하던 中에 金谷(三巨里 西南쪽 5km)에서 100명 규모의 敵과 不時에 衝突하여, 交戰끝에 敵사살 40명 포로 2명의 전과를 거두는 한편, 我軍도 전사 3명의 손실을 입었다。

2월 9일 : 제1대대는 이날 아침 東大山을 目標로 계속 공격하여 16.00에 이를 완전히 점령한 다음, 부근一帶에 대한 정찰에 着手하였다. 이때 1개분대의 정찰대는 東大山 부근에서 1개소대 규모의 敵을 捕捉하고, 이를 包囲 공격하여 그中 1명을 사살하고, 16명을 사로 잡았으며, 鹵獲소총 5정, 수류탄 2발, 소총실탄 600발을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리하여 八角山과 項洞一帶에 集結하였던 敵은 제1대대가 八角山으로부터 이를 追擊하여 東大山까지 進擊해 들어가고, 또한 美해병제7연대(장 Homer L. Litzenberg대령)가 西南쪽으로부터 攻攻하므로써, 마침내 그 北上企圖가 挫折되었고, 대부분 分散瓦解되어 山岳을 타고 香爐峰一帶로 潛跡하고 말았다。

연대장 金聖恩 대령은 이와 같은 상황을 檢討한 다음, 제1대대의 東大山부근 작전을 끝마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은 要旨의 명령을 하달하였다。

『제1대대는 2월 10일 08.00를 期하여 東大山부근 작전을 終了한 後, 1개중대를 新基에 殘留시켜 부근一帶에 대한 정찰을 계속하고, 대대(一)는 玉川洞에 集結하라。殘留중대는 敵情이 없을 時, 11일 12.00까지 대대에 復歸시키라.

제2, 제3대대는 현행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제11중대는 2월 11일 12.00를 期하여 原隊로 復歸하라。』

2월 10일 : 제1대대는 이날 08.00를 期하여 東大山부근 작전을 끝마치고, 대대主力은 玉川洞(盈德 西南쪽 9km)에 集結하였다。한편, 1개중대는 新基에 殘留하여 부근一帶를 정찰中, 15.00에 敵 장교 1명과, 하사관 1명을 사로 잡았다。

2월 11일 : 제1대대장 孔正植 소령은 新基부근에서는 더 以上 接敵이 없을 것으로 判斷한 결과 이날 12.00에 이곳 殘留하였던 중대를 대대에 復歸시키고 다음 명령에 對備하였다。

이때 연대장 金聖恩대령은 八角山 공격작전으로 인하여 變動된 연대의 배치상태를 檢討해 볼 때, 제1대대는 玉川洞, 제2대대는 大枝洞, 제3대대는 靑松에 각각 배치되어 있으므로, 제1대대만을 新陽洞에 再배치키로 하고, 각 대대의 책임지역을 再調整하였다。

이에 따라서 제1대대는 新陽洞에 이동하여 安東一盈德間 도로의 以北지역을 제2대대는 大枝洞에 위치하여 이 도로의 以南지역을, 또한 제3대대는 靑松에 위치하여 연대의 西側지역을 각각 책임지역으로 賦與받고, 지역내에서의 對 Guerilla 작전을 계속 展開하였다。

그러나 이때부터 敵의 활동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니, 이때 敵은, 이미 그 組織이 瓦解되어 遊擊戰의 能力을 喪失한듯 하였다。

다로서 연대는 이 지역에서의 작전임무를 完遂하고, 命에 依하여 다시 東部戰線의 第一線에 投入되어 北進反擊작전에 참가하게 되었다. 연대는 2월 13일에 海上機動을 위하여 下猫洞(江口 北쪽 4km)에 集結한 다음, 제1대대를 先發隊로, 이날 14.00에 美해군LST便으로 墨洞을 향하여 出航하였다。

戰果 : 사살 60명, 포로 45명

노획 : 蘇式소총 7정, 輕機 1정, 수류탄 4발, 소총실탄 600발

라. 전투 후의 개황

韓國해병대와 美해병대의 緻密한 對遊擊작전으로 이 지역에 浸透하였던 北共 제10사단은 거의 潰滅되었으니, 2월 5일 美해병제1사단장 Oliver P. Smith 소장이 美제8군사령관에게 보낸 報告文에 依하면 『北共 제10사단은 分散, 瓦解되어 그 戰鬪能力은 40%로 減少되었으며, 이 以上 組織的인 戰鬪行爲를 수행할 能力이 없다』고 하였다。

이로서 安東, 盈德을 비롯한 敵이 浸透하였던 지역에 있어서, 敵의 威脅이 除去되므로써 治安은 回復되고, 戰線에 이르는 補給路 또한 確保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해병제1연대는 2월 14일에 墨洞에 上陸하여 제3군단에 다시 배속되어 寧越부근 戰線에 投入되었고 해병독립 제5대대는 2월 13일 新江口를 出航한 다음 2월 16일에 仁川에 上陸하여 西部戰線의 金浦부근 戰線에 投入되었다。

한편 美해병제1사단도 역시 2월 15일에 작전을 끝마치고, 中部戰線으로 이동을 개시하므로서 지난 1월 中旬부터 1개월에 걸쳐 展開된 Guerilla 殲滅작전은 모두 終了되었다。

이 작전기간중 해병대의 綜合戰果는 다음과 같다。

전과 : 사살 98명, 부상 52명, 포로 56명

노획 : 蘇式소총 11정, M1 12정, 칼빈 2정, 다발총 3정, 기관총 2정, 권총 1정, 수류탄 7발, 기관총 실탄 3상자, 소총 실탄 4,250발, 박격포탄 5발

§ 研 究

1. **北共 제2군단장의 指令文** : 美해병戰史 "U.S. Marine Operation in Korea"의 제4권, 제3장(浦項지역 Guerilla 掃蕩)에서 拔萃, 引用하였다。
2. **제2대대 제6중대의 被襲** : 해병제1연대의 戰鬪詳報에는 다만 "제6중대장이 指揮하는 1개소대"가 奇襲당한 것으로 記載되어 있으나, 參戰者 面談資料에 依하면 被襲 當時 參戰者는 중대본부와 화기중대로부터 배속된 화기소대 요원이었으며, 부 중대장이 戰死한 點으로 보아 被襲부대

는 중대본부와 배속된 화기소대로 看做하고, 本文에는 중대본부로 取扱하였다.

§參戰者의 證言

◇제5대대 제21중대장 朴利馥 중위

(1955.6.30 해병上陸戰基地參謀長室에서, 대령)

安東地域에서 제5대대는 美해병 제1연대와 合同으로, 主로 搜索작전을 展開하였는데, 敵은 Guerilla부대로 編成된 北共제10사단으로서 우리는 敵의 위치를 몰라서 苦衷이 많았다.

우리 중대가 亭子洞에 出動하였을 때에는 제3소대가 尖兵소대로 전진하였는데, 우리가 먼저 敵의 경계병을 발견하고 사로 잠으므로써 敵을 완전히 包圍공격할 수 있었다. 不時에 기습을 받은 敵은 抵抗도 제대로 못하고 修羅場이 되어 우리는 한명의 손실도 없이 敵을 거의 全滅시켰다. 이 戰鬪의 功勞로 제3소대장 朴子萬 견습사관은 勳章이 上申되어 그 後에 받았고, 당시 해군참모총장 孫元一提督이 직접 致賀해 주었다.

◇제2대대 제5중대 부중대장 姜福求 소위

(1955.2.19.해병교육기지해병학교장室에서, 대령)

우리는 鎭海에서 부대整備를 마친 다음 盈德지역으로 出動하여 敵의 Guerilla부대를 殲滅하는 작전을 展開하였다, 이때 우리는 主로 정찰전을 실시하였는데 제6중대가 八角山 근방에서 敵의 奇襲을 받게되자, 이 敵을 찾아서 우리 대대 전부가 그 地域을 搜索하였으나 敵을 찾지 못했고 이어서 제1대대가 八角山을 공격하여 많은 전과를 거두었다, 그後, 우리는 墨湖로 전진하여 東部戰線에 投入되었다.

14. 海兵隊의 寧越附近 戰鬪 (1951년 2월 19일부터 1951년 3월 16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30 호
상 황 도 제 27, 28, 29, 30호
작명부록 제 265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해병제 1연대	장	대령	金	聖	恩	제 6중대	장	중위	鄭	奉	錫
제 1대대	장	소령	孔	正	植	제 7중대	장	중위	趙	容	銀
제 1중대	장	중위	李	西	根	화기중대	장	중위	李	元	圳
제 2중대	장	중위	李	應	德	제 3대대	장	소령	金	龍	圓
제 3중대	장	중위	姜		勇	제 9중대	장	중위	徐	判	已
화기중대	장	중위	李	映	均	제10중대	장	중위	李	東	星
제 2대대	장	중령	康	鳳	生	제11중대	장	중위	朴	東	烈
제 5중대	장	중위	李	丙	文	화기중대	장	중위	林	東	根

敵 軍

北共 제 2 군단
제 2 사단
제15사단
제 3 군단
제 1 사단
제 3 사단
遊擊제 3 여단

나. 전투 전의 개황

盈德地區에서 Guerilla 殲滅作戰을 끝마친 해병제1연대는 1951년 2월 14일에 海上機動으로 下浦洞(江口 東北쪽 3km)을 출발하여 2월 15일 14.50에 墨湖에 上陸하므로서 東部戰線에서의 戰鬪에 첫발을 디디게 되었다。연대는 上陸과 동시에 제3군단戰下의 首都사단에 작전상 배속되었으며 이어서 2월 16일 08.00에 墨湖를 출발하여 이날 17.00에 三陟에 진출한 연후에 이곳에 CP를 開設하고 다가올 전투를 위한 부대정비에 착수하였다。

元來, 해병제1연대가 전투를 벌인 2월~3월中의 東部戰線 山岳地帶의 氣象을 살펴보면 이 地域一帶에는 불순한 日氣가 계속되고 있었으며 高地帶를 덮고 있는 짙은 안개와 頻繁한 降雪은 작축에 많은 제한을 주고 있었다。또한 地形은 900m以上의 險峻한 高地群이 重疊되어 있으며 高地帶에는 1m以上의 눈이 쌓여 있었다。이러한 氣象과 地形은 敵의 步兵部隊의 侵透에 유리하였으며 我軍의 차량 및 기갑부대의 機動과 空中活動에 많은 제한을 주었다。

敵軍의 상황 : 이 무렵 東部戰線의 敵은 我軍의 總反擊으로 敗走하였다가 再編된 北共 제2군단(제2, 제4, 제9, 제10, 제15, 제27, 제31사단)과 제3군단(제1, 제2, 제5사단)이 主力을 이루고 있었으며 이 敵은 해병제1연대와 제2사단이 寧越부근에서, 제2, 제15사단이 倉里부근에서, 제1, 제2, 제3, 제15사단 및 遊擊제3여단이 餘糧里 및 原山里부근에서 각각 접촉되었다。

이 敵의 장비는 主로 輕裝備로서 保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補給路는 我軍의 空中爆擊으로 遮斷되어 거의 現地調達로서 보급을 充當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士氣는 매우 低下된 것으로 추측되었다。이와같이 劣勢에 몰리게된 敵은 東海海岸地帶를 따라 江陵부근까지 南下하였으나 我軍의 優勢한 海上艦砲射擊 및 空中爆擊으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를 입고 더 이상의 南進이 불가능하게 된듯 하였다. 戰勢가 이렇게 되자 敵은 그 主攻方向을 我軍의 機動力과 空中活動에 많은 제한을 주는 內陸으로 指向하고 寧越 東北쪽의 山岳地帶에서 我軍의 戰線을 突破하기 위하여 모든 力量을 傾注하여 兵力을 集中하고 있었다。

我軍의 상황 : 이러한 敵과 2월 10일 現에 서로 對峙하고 있던 我軍의 戰線을 一瞥하여 본다면 제1군단 隸下의 首都사단(2월 13일에 제3군단으로 轉任됨)은 江陵부근에 배치되어 있었고 그 西쪽에는 제3군단隸下의 제9사단이 下珍富里 부근에, 그리고 제7사단이 磨碌里(寧越 北쪽 8km)부근에 각각 배치되어 있었다。그러나 敵의 主力이 下珍富里—倉里를 連하는 山岳地帶를 目標로 指向하게 되자 下珍富里 부근의 제9사단은 2일 15.00에 餘糧里—倉里를 連하는 線까지 撤收하였고 16일에는 제9사단의 左一線인 제30연대가 倉里에서 南下하는 敵을 맞아 치열한 攻防戰을 전개하였으나 2월 17일에 敵이 倉里 부근에서 突破口으로서 戰線에 間隙이 생기고 말았다。 敵은 이 突破口를 擴張하면서 계속 南下하여 寧越 東쪽 山岳地帶까지 長驅하기에 이르니 제9사단은 그 左一線이 敵에게 포위될 위기에 直面하게 되었고 寧越마저 威脅을 받게 되었다。

이와같이 寧越부근의 戰況이 緊迫하게 됨에 따라 2월 17일에 제3군단장 劉載興소장은 처음에는 작전上 首都사단에 배속되었던 해병제1연대를 군단의 直轄로 하여 寧越을 目標로 急速 진출케 하는 한편, 方途로 1개대대를 연대에서 差出하여 제7사단에 배속토록 措置하였다。 그 까닭은 우선 해병1개대대로써 제7사단을 增援케 하여 寧越을 威脅하는 敵을 擊退케 하는 동시에, 해병제1연대의 主力으로 南下中인 敵의 主戰勢力을 물리치므로써 全戰線을 다시 回復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연대장 金星煥대령은 제3군단장의 명령을 받고 상황을 檢討한 결과,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우고 즉시 이를 命令으로 하달하였다。

첫째, 寧越의 確保가 時急하므로 제1대대를 迅速히 派遣하여 제7사단에 배속하며, 이에 따른 所要차량을 확득한다。

둘째, 연대본부가 우선적으로 寧越로 이동하여 작전指揮를 위한 現地의 상황을 파악한다。

세째, 敵의 突破가 豫想되는 寧越東쪽은 我軍의 戰線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고, 敵情이 不明確함을 勘案하여 연대의 主力을 직접 寧越로 投入하는 것을 避하고 蔚珍—春陽을 거쳐 迂回北上하여 南下하는 敵을 邀擊키로 한다。

이와같은 연대장의 작전企圖에 따라 2월 17일, 제1대대가 먼저 차량으로 三陟을 출발하였고, 이어서 18일에 연대본부와 제2, 제3대대가 寧越로 진진하였다。

이리하여 연대는 寧越부근 戰鬪에 投入된 後에, 一定한 전투지역을 맡지 않고 戰線의 어려운 곳을 찾아 轉轉하면서 最初에는 대대별로, 제1대대는 『吉雲里부근의 전투』를, 제2대대는 『龍田里부근의 전투』를 거의 同時에 치루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연대의 全力을 集結하여 『倉里부근의 搜索戰』과 『餘糧里—鳳山里부근의 전투』를 展開하게 되었다。

(2) 吉雲里부근의 전투(제1대대 : 2월19일~2월24일)

2월 19일 : 제1대대(장, 孔正植소령)는 2월 17일에 三陟을 출발하여 이날 13.00에 寧越에 도착하는 즉시로, 제7사단에 작전上 배속되었다。 이때 倉里부근의 제9사단 제30연대(장, 高時福대령) 戰線을 突破한 敵은 寧越 東北쪽에 있는 神屛山과 八雲山 一帶까지 南下하여 寧越을 직접 威脅하면서 계속 南進을 企圖하고 있었다。 대대장 孔正植소령은 대대참모를 帶同하고 제7사단(장, 金炯一준장)의 C P에서 이와같은 戰況을 청취한 다음, 사단장으로부터 『이 敵을 捕捉, 殲滅하고 寧越을 방어하라』는 임무를 받았다。

이리하여 대대장은 敵이 增援되기 以前에 當面의 敵을 擊退키 위하여는 一刻도 遲滯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 이날 저녁에 계속하여 부대를 진진시켜 17.50에 俗稱 속골(寧越 北쪽3km)까지 진출하였다。

2월 20일 : 이 지역은 彼我의 戰線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 敵情이 不明確하여 언제 敵과 서로 衝突할지 알수 없으며 또한 제9사단(장, 金鍾甲준장)의 위치도 模糊하여 부대를 진진시키는데 매우 힘들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대대장 孔正植소령은 우선 敵의 前線을 確認하는 것이 急先務라고 판단한 결과 命令하기를 『대대主力은 吉雲里로 진출한다。 제1중대는 대대의 右側을 엄호하면서 滿池洞으로 진출하는 同時에 정보수색대를 앞세워 接敵되기 전까지는 수색활동을 겸하면서 전진하라』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이날 09.00에 대대는 俗稱 속골을 출발한 다음 14.30에 대대主力으로써 吉雲里에 그리고 제1중대는 滿池洞까지 진출하여 敵情把握에 힘썼으나 險峻한 山岳이 重疊된 지형에 視界조차 불량하여 敵과의 接觸을 이루지 못한채로 야간 전투에 대비하게 되었다。

2월 21일:이날 대대는이 지역일대를 지배하는 神屛山과 八雲山의 敵을 공격할 目的으로

主力으로서 06.00에 露營地를 출발하여 11.00에 古雲里까지 진출하였다。 대대장 孔正鎬 소령은 우선 要旨 다음과 같은 攻擊計劃을 세워 命令으로 下達하였다。『제1중대는 八雲山을 거쳐 北上하여 漢江以南지역을 장악하라。 제2, 제3중대는 右側에 있는 神屛山 一帶를 점령하고 계속 北上하여 지역내의 敵을 보는대로 擊滅하라。 화기중대는 主로 제2, 제3중대의 공격을 지원하라』。 이리하여 제3중대는 古雲里를 중심으로 右側이 되고 제2중대는 中央에 그리고 제1중대는 左側이되어 展開하게 되었고 각 중대가 공격대기지점을 점령하자 12.30에 대대는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본래 神屛山 一八雲山一帶의 지형은 海拔 700~800m의 高地帶로서 急傾斜를 이루고 있으며 깊이 1m가 넘는 白雪로 덮여 있으므로 隊員들의 공격기동에 많은 제한을 주었다。 더우기 제1대대는 單獨으로 投入되었기 때문에 포병지원을 期待할수 없었으므로 攻擊間에는 다만 自隊의 火力만에 의존하게 되었다。 당시 대대본부요원으로 참전하였던 張大吉준위는 그때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모든 지역이 4~6휘트 가량의 눈으로 덮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전진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더우기 隣接友軍도 없고 지원받을 포병부대도 없는 1개 보병대대만으로 敵을 추적하다 보니 보급지원도 못받았지만 우리는 그저 敵을 殲滅하여야만 한다는 一念으로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서 진격해 나갔다』

이와같이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전진을 계속하던 차에 13.40에 이르러, 神屛山 右側으로 전진하던 제3중대(장, 姜 勇중위)는 古雲里 東北쪽 △737에서 南進하던 敵 2개 대대규모의 병력과 衝突하게 되었다。 중대장 姜 勇중위의 명령에 따라 중대는 일제히 이 敵을 向하여 공격을 시작하니, 이때 마침 左側에서 전진하던 제2중대(장, 李應德중위)도 즉시 接戰에 들어 갔다。 이때에 화기중대(장, 李映均중위)는 눈속을 헤치면서 제2, 제3중대를 後續하던 中에 제3중대로부터 지원사격 요청을 받았으나 暴雪로 발미암아 OP요원이 미처 高地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화기중대장 李映均중위는 直接 제3중대장과 무전으로 彈着을 修正받으면서 全火力을 敵陣에 퍼부었다。 이와같이 제2중대가 左側을 掩護하는 동안 제3중대는 화기중대의 지원을 받으면서 계속 한발 한발 敵陣에 肉迫하여 들어 갔다。 이리하여 무려 9시간 동안에 걸친 熾烈한 交戰끝에 제3중대는 마침내 △737를 점령하고 敵을 擊退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餘勢를 몰아 제2중대도 역시 敵의 右側을 무찌르니, 敵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夜陰을 이용하여 德川洞을 거쳐 北으로 退却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寧越을 威脅하던 敵부대를 擊退하는데 성공한 제2, 제3중대는 神屛山— △737를 連하는 線에서 夜間防禦陣地를 점령하고 敵의 逆襲에 대비하였으며 제1중대(장, 李西根중위)도 역시 이날 八雲山을 무난히 점령하고 계속 야간전투에 대비하였다.

한편 敵情把握을 위하여 대대의 전방에서 活動中이던 정보수색대도 이날 13.30에 德川里에서 1개소대 규모의 敵과 交戰끝에 이를 擊退하고야 말았다.

2월 22일 : 그동안 대대는 寧越을 출발한 이래 계속되는 機動과 險峻한 山岳으로 말미암아 보급지원을 받지못하고 있던 차에 이날 寧越후방CP에 잔류하였던 부대대장 安昌寬대위의 노력으로 약간의 식량을 지원받았으나 겨우 一線小銃 소대요원들에게만 一食分씩 분배할수 있을 정도였으니, 제1대대 장병들이 겪은 어려움중에서도 보급문제는 가장 참기 힘든 일중의 하나였다(硏究"1"참조).

이와같이 제1대대가 敵을 擊退하는 동안 隣接 제7사단은 磨碓里 北쪽에서 敵의 攻擊을 擊退하는데 성공하였고 제9사단의 제30연대는 해병제1연대 제2대대가 礪田里를 점령하므로서(礪田里 부근의 전투 참조) 다시 烏洞里까지 전진하였다. 또한 제9사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首都사단의 제26연대가 出動하므로서 제9사단은 戰列을 가다듬고 反擊을 준비하고 있었다.

2월 23일 : 대대는 이날 07.30에 다시 공격을 개시하여 제1중대는 文山一里를 거쳐 八雲里 北쪽 △805 (俗稱제재)를 점령하므로서 八雲里 北쪽 漢江以南지역을 완전히 掌握하게 되었고, 제2, 제3중대는 전날 방어선을 출발하여 德川里一帶를 점령하고 부근 一帶를 수색하였으나 敵은 이미 漢江을 渡河하여 北上한 것으로 보였다. 한편 磨碓里 北쪽에서 敵을 擊退한 제7사단은 反擊을 개시하여 이날 倉里까지 진출하였고 제9사단도 역시 反擊에 들어갔다. 이와같은 我軍의 反擊作戰으로 말미암아 南進을 기도하던 敵은 다시 敗走하여 北으로 後退하기에 汲汲하였으니 戰勢는 오히려 我軍의 逆轉勝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2월 24일 : 제2, 제3중대는 이날 08.00에 다시 德川里로부터 공격을 개시하여 漢江을 渡河한 다음 文希里까지 전진하였고 이곳에서 제1중대와 合勢한 연후에 대대는 계속 北進하여 15.20에는 斗峯里 까지 진출하였으나 敵은 이미 北上敗走 하였으므로 더 이상 接敵하지못하였다.

이와같이 제1대대가 前進을 계속하는 동안 제7사단은 CP를 磨碓里로 이동하여 계속 北進하였고 제9사단의 제30연대도 또한 文谷里까지 다시 진출하므로서 我軍戰線은 완전히 回復되었으며 이로서 대대는 군단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던 것이다.

이어서 대대는 제7사단의 작명에 따라 이 吉雲里부근의 戰鬪를 일단 끝마치고 原隊로 복귀하기 위하여 이날 23.30에 다시 德川里로 이동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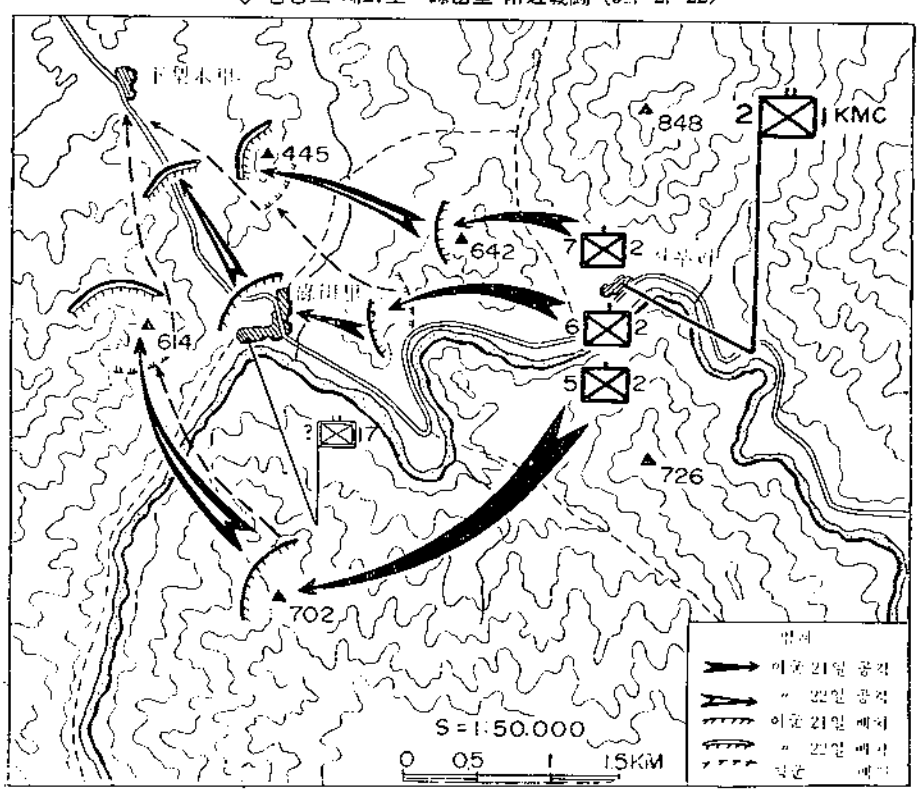
2월 25일 : 대대는 이날 08.00에 德川里를 출발하여 禮美里에 도착하였고 대대의 모든 장병들은 敵의 突破勢力을 粉碎하여 제3군단의 戰線을 回復시켰다는 自負心으로 勝利의 凱歌를 부르면서 차량편으로 이날 23.40에 寧越에 돌아가 해병제1연대에 復歸하였다。

2월 26일 : 제1대대의 吉雲里 전투와 제2대대의 碌田里 전투(碌田里 부근의 戰鬪참조)에서의 戰功을 致賀하기 위하여 당시 총사령관인 丁一權소장은 이날 10.00에 寧越 해병제1연대본부를 방문하여 全將兵에게 『今般 寧越地區의 危機를 막아낸 海兵隊의 作戰成功은 실로 驚異的인 것이며 赫赫한 功勳이다』라고 讚揚하였다。(硏究"2"참조)

(3) 碌田里 부근의 전투(제2대대 : 2월20~2월22일)

제2대대(장, 廉鳳生중령)는 제1대대에 뒤이어 2월 18일 08.00에 三陟을 출발하여 蔚珍을 거쳐 2월 19일 20.00에는 春陽까지 전진하였다。 이때 제9사단의 제30연대 지역을 突破한 敵의 先頭부대로 판단되는 1개대대 규모의 敵은 이미 碌田里를 점령하여 寧越—春陽間의 補給路를 遮斷하였으며 제30연대는 戰列을 가다듬기 위하여 俗稱 "고두암"으로 철수중이었다。

◇ 상황도 제27호 碌田里 附近戰鬪 (51. 2. 22)



이와같은 상황을 검토한 해병제1연대장 金聖恩대령은 즉시 北上중인 제2대대에게 命令하기를 『綠田里에 侵攻한 敵을 攻擊하여 이를 擊滅한 다음 寧越—春陽間의 補給路를 再確保하라』 하였다。

2월 20일 : 이날 새벽에 春陽을 출발하여 北上中에 위와같은 연대장의 명령을 받은 제2대대는 경계를 더욱 強化하면서 이날밤 俗稱 시루里(綠田里 東쪽 2km)까지 진출하였는데 대대장 雁鳳生중령은 다음날인 21日 새벽에 공격을 개시하기로 決心한 後에 要旨 다음과 같은 攻擊計劃을 세웠다。『제5, 제7중대로써 綠田里 周圍의 敵制高地를 占領하고 있는 敵을 공격하여 이를 確保케 하고, 이 兩個중대의 掩護下에 제6중대로써 綠田里마을을 공격 점령케 한다。 火力은 제6중대에 優先配屬 한다』 이와같은 構想으로 각 중대에 공격명령을 하달하니 이에따라 각 중대는 夜間을 이용하여 공격준비를 완료하였다。

2월 21일 : 이날 새벽에 이미 하달된 명령에 따라 제7중대(장, 趙容銀중위)는 대대의 右側으로 綠田里 北쪽 敵制지형인 △642—△445를 그리고 제5중대(장, 李丙文중위)는 대대의 左側으로 綠田里 南쪽의 敵制지형인 △702—△614를 각각 목표로 하여 공격하는 한편 제6중대(장, 鄭泰翊중위)는 대대의 中央에서 綠田里를 목표로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또한 화기중대(장, 李元馴중위)는 최초에 시루리에 배치되어 一線中隊의 공격을 지원하면서 제6중대를 後續하였다。

이와같이 대대가 電擊的으로 공격을 敢行하게되자 敵은 처음에는 執拗한 저항을 試圖하는듯 하였으나 제5, 제7중대가 △702와 △642를 각각 점령하므로서 兩側의 敵制지형으로부터 威脅을 받게되자 北으로 後退하기 시작하였다。 제6중대는 이 때를 놓치지 않고 果敢히 敵陣에 突入하여 敵을 擊退하고 綠田里를 완전히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때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대대장 雁鳳生중령은 더 이상 敵을 추격하지않고 방어진지를 점령하여 敵의 夜間逆襲에 대비하였다。 (이날 後續南下한 敵部隊도 역시 吉雲里에서 我해병제1대대에 의해 擊退되어 北上敗走하였다。 吉雲里 전투 참조)

2월 22일 : 날이 밝자 대대는 다시 공격을 시작하여 제7중대는 △445를, 제5중대는 △614를 각각 점령하므로서 綠田里 一帶를 완전히 掌握하였고, 제6중대는 綠田里 前方 下梨本里까지 진출하였으나 敵은 이미 北上 退却한것으로 보였다。 이로서 綠田里까지 南下하였던 敵은 완전히 擊退되어 北으로 分散敗走 하기에 이르렀고 이때까지 遮斷되었던 補給路도 다시 開通을 보게 되었다。 이와같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한 제2대대는 이날 後續한 제3대대(장, 金龍國소령)에 이 地域의 작전임무를 인계하고 다시 北上하여 24.00에

石項에 전진한다음 부근一帶를 占領하고 정찰활동을 계속하였다。 이 전투에서 제2대대가 거둔 戰果 및 損失은 다음과 같다。(硏究"3"참조)

戰果 : 敵사살 84명

노획 : 蘇式소총 10정, 蘇式기관총 1정, 3.5″ Rocket실탄 119발, 50mm중기관총실탄 50발, 소총실탄 3,000발, 경기실탄 1,300발, 수류탄 10상자, 통신기 1대。

損失 : 전사 3명, 부상 8명。

(4) 倉里부근 搜索戰(2월25일~3월1일)

前述한 바와 같이 해병제1연대는 吉雲里 및 綠田里에서 我軍戰線을 突破하여 南下하는 敵을 擊退하므로서 戰線을 다시 回復한다음, 제3군단의 예비대로서 寧越一石項一綠田里一帶를 占領하고 후방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한편 제7, 제9사단은 敗走하는 敵을 추격하여 계속 北進中에 있었으며 2월 25일에는 白日洞(寧越 北쪽 29km)—餘糧里를 連하는 線까지 진출하였다。 이때 해병제1연대는 제3군단의 作命에 따라 倉里一帶의 搜索任務까지 맡게 되었으니 이는『後退中인 敵이 倉里北쪽 山岳地帶를 利用하여 다시 侵透南下하려는 企圖를 事前에 粉碎하고, 아직 後退하지 못하고 山岳地帶로 潛入한 敵敗殘兵을 殲滅하여 後方을 掩護하므로써 前方사단의 진출을 容易케 한다』는 뜻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작전이었다。

이와같은 임무를 맡게된 연대장 金聖恩대령은 연대의 배치상태를 檢討한 결과 寧越과 石項을 각각 占領하고 있는 제1, 제2대대로 하여금 倉里一帶의 搜索任務를 담당케하고, 綠田里에 배치되어 있는 제3대대는 그 責任地域을 石項까지 擴張하여 綠田里에서 倉里에 이르는 後方의 脆弱地域에 대한 搜索 및 경계임무를 수행토록 한다』는 작전계획을 세우고, 2월 25일 예하 대대에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와같은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제2대대는 2월 26일 16.00에 石項을 출발하여 22.00에 倉里 南東쪽 高地一帶를 占領하였고, 이에따라 제3대대는 제11중대를 綠田里에 殘留시키고 19.00에 石項으로 진출하여 제2대대의 임무를 引受하였다。다음날인 2월 27일 08.00에 제1대대와 연대본부는 제2대대에 뒤이어 寧越을 출발하여 10.30에 倉里에 진출한 다음 제1대대는 倉里 北西쪽 高地一帶에 배치되어 제2대대와 더불어 威力搜索을 전개하였다。이날 제1대대 제3중대(장, 姜 勇중위)의 1개분대는 搜索活動中에 敵 2개분대 규모의 병력과 교전끝에 1명을 사살하고 1명을 포로로 하였으며 2명을 부상시켰고, 다음날인 2월 28일에 敵이 潛跡한 一帶를 계속 搜索하여 다시 1명을 포로로 하였다。(硏究"4"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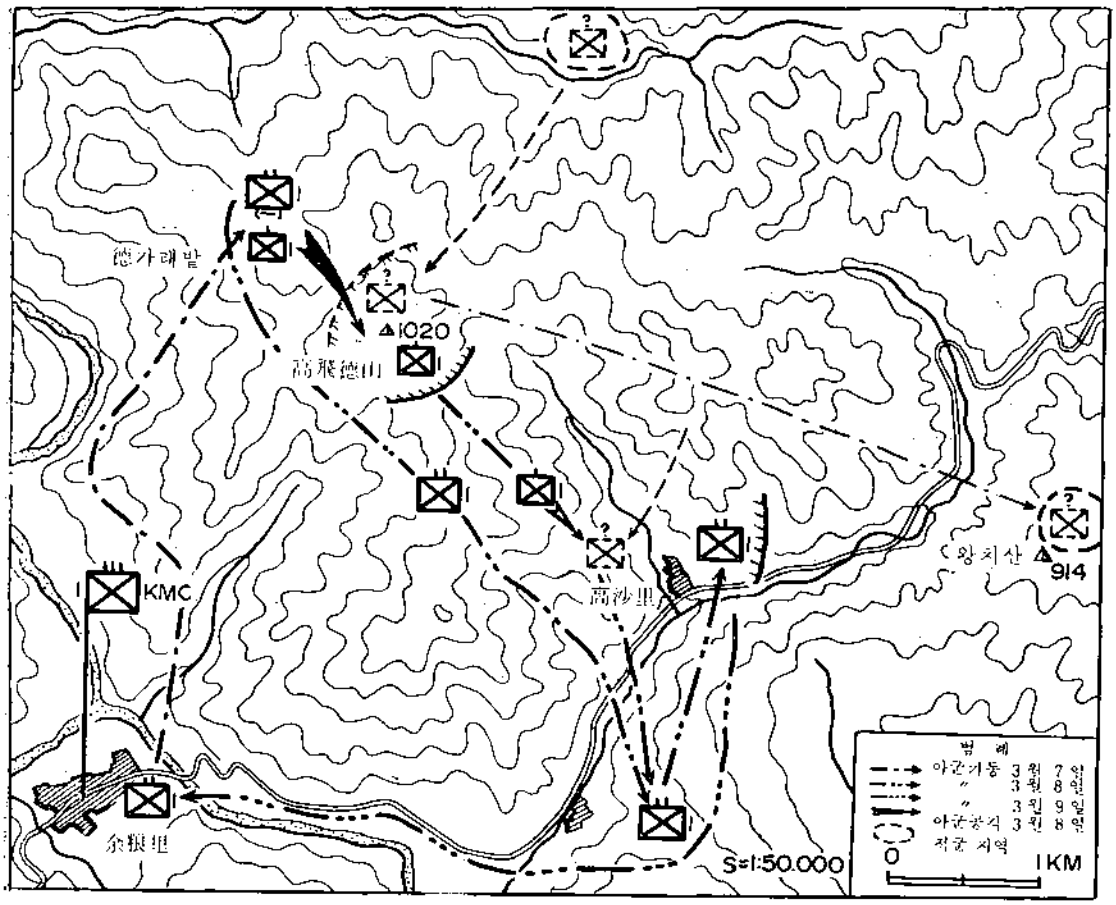
이와같이 연대의 主力은 倉里一帶에서 強力한 威力搜索을 전개하는 한편 제3대대는 石頂과 篠田里 一帶에서 경계 및 정찰활동을 계속하였으나 커다란 接敵 없이 3월 1일에 이르렀다。또한 이때 제7사단은 上大和里까지 진출하므로서 後方인 倉里지역에 대한 敵의 威脅은 거의 없어지게 되니, 연대는 다시 제3군단의 작명에 따라 旌善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5) 餘糧里—鳳山里부근의 전투(3월4일~3월13일)

3월 2일 : 해병제연1대는 倉里一帶를 主要據點으로 삼으면서 後方의 脆弱地域에 대한 搜索戰을 展開하던 中, 이날 旌善을 向하여 이동을 개시하였는데, 제1, 제2대대는 倉里를 출발하여 16.30에는 제2대대가, 그리고 18.30에는 제1대대가 각각 旌善에 도착하였고, 제3대대는 篠田里에 배치되었던 제11중대와 石頂에서 合勢한 다음, 19.00에 倉里로 向하였다。

3월 3일 : 이날 07.00에 倉里에 도착한 제3대대는 계속 전진하여 10.50에 旌善에 도착하

◇상황도 제28호 餘糧里 附近戰鬪(51. 3.7~3.9)



였는데, 한편 연대본부는 14.00에 倉里를 출발하여 16.30에 旌善에 진출하므로써 부대이동을 完了하게 되었다。

이 무렵 旌善 北쪽인 下珍富里 一帶의 戰況을 살펴보면, 我軍의 反擊으로 후퇴를 계속하고 있던 敵은 下珍富里 一帶에 集結하여 北共 제2, 제15의 兩個사단이 主力이 되어 戰列을 가다듬고 다시 我軍戰線을 突破할 목적으로 接際部의 間隙을 探索하고 있었다。이와 對峙한 제3군단은 首都사단으로 下珍富里 東側을 占領케 하고, 이와 연결하여 제7사단이 巨文里까지 진출하였으며 제9사단은 예비대로써 CP를 松溪里에 두고, 제30연대를 旌善에 제29연대를 餘糧里에 각각 배치하고 있었다。

이때 首都사단은 先制공격으로 敵의 企圖를 事前에 壓碎하기 위하여 3월 2일에 그 隷下인 기갑연대로 하여금 下珍富里를 공격케 하여 이를 점령하였으나 이날 夜陰을 이용하여 增強된 敵이 大規模의 攻勢移轉을 敢行하였으며 계속 增強된 敵은 이 餘勢를 몰아 제7사단의 右側인 兄弟峰(下珍富里 南쪽 4km)--博芝山(下珍富里 南東쪽 6km) 一帶로 大擧 侵攻하게 되니, 我軍戰線이 다시 무너질 危機에 直面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병제1연대는 이에 앞서 제3군단의 작명에 따라 『首都사단과 제7사단의 間隙을 補強하라』는 任務를 擔當하게되어 鳳山里—發旺山을 連하는 線까지 진출하기로 하고 이날 밤에, 연대장 金聖恩대령은 要旨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제2대대는 연대의 右一線으로 發旺山을 공격 점령한 다음 즉시 이를 固守하라。제3대대는 연대의 左一線으로 鳳山里를 공격 점령한 다음 즉시 이를 固守하라。제1대대는 연대 예비대로서 최초 旌善에 위치하여 後方지역에 侵透를 企圖하는 敵을 捕捉殲滅하고 依命 前方에 投入될 준비를 하라』(작명부록 제265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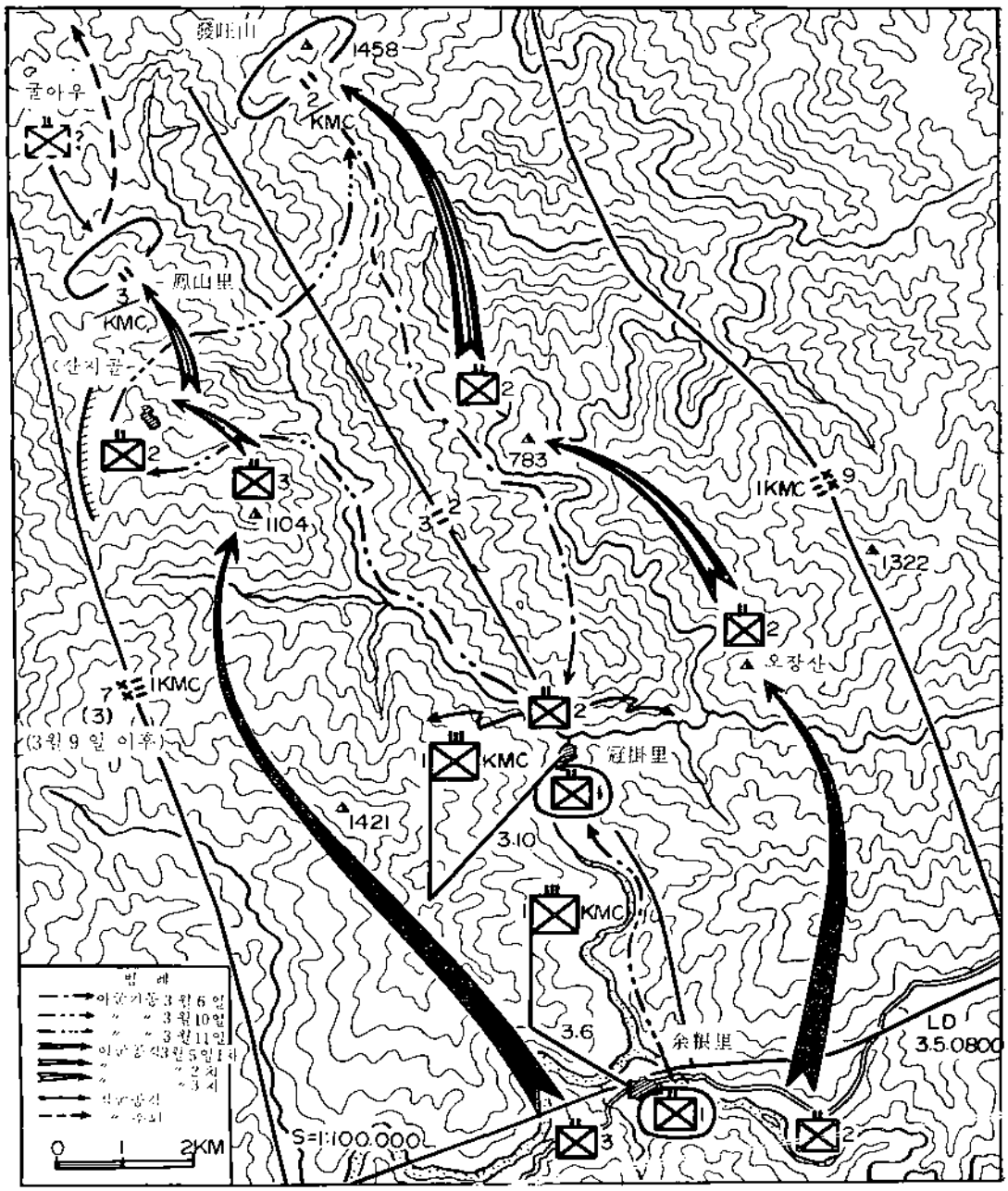
3월 4일 : 이날 04.00에 연대作命에 따라 제2, 제3대대는 旌善을 출발하여 15.00에 餘糧里에 도착하는 즉시로 공격준비에 착수하였으나 前述한바와 같이 首都사단의 戰況이 더욱 緊迫하게 되어 이날 原陣地로 後退하게 됨에 따라 해병제1연대가 首都사단과 제7사단의 間隙인 鳳山里—發旺山 一帶에 投入된다는 것은 매우 時機適切하였으니 연대에 賦課된 임무는 더욱 重且大한 것이었고 全將兵은 새로운 覺悟로 전투에 임하게 되었던 것이다。

3월 5일 : 연대의 공격에 있어서의 主目的은 곧 南侵中인 敵이 到達하기 前에 목표까지 진출하는 것이었으므로 이 당시에는 迅速한 진진이 무엇보다도 重要視 되었다。이리하여 이날 08.00에 공격을 개시한 연대는 빠른 속도로 진진을 계속 한 끝에 다음날인 3월 6일 02.00에 제2대대(장, 康鳳生중령)는 中間목표로 정한 五賊山과 △783 (새수터)를 거쳐

최종목표인 發旺山을 점령하였고, 제3대대(장, 金龍國소령)도 역시 中間목표인 △1104(불당골)와 △1,008(산지골)을 거쳐 최종목표인 鳳山里를 점령하여 즉시 방어진지를 構築하는 한편, 敵情探索을 위한 前方정찰을 실시하였다. 한편 예비대인 제1대대(장, 孔正植소령)는 이날 前方공격대대의 渡河를 지원한 다음 旌善부근에 대한 정찰을 실시하였다.

3월 6일 : 제1대대는 전날에 이어서 敵情을 계속 偵察中 敵 1,500여명이 中洞(餘糧里 北

◇ 상황도 제29호 鳳山里 附近戰鬪 (51. 3. 4~11)



쪽 3km) 一帶에 侵入하였다는 諜報를 入手하게 되자 이날 17.00에 곧 餘糧里까지 전진한 다음 이 敵을 찾아서 다시 中洞으로 向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제2, 제3대대가 鳳山里, 發旺山 一帶에서 固守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餘糧里 一帶에서 후방지역에 侵襲한 敵을 捕捉殲滅하는 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3월 7일 : 전날에 餘糧里를 출발한 제1대대는 이날 새벽 01.00에 德가래밭(餘糧里 北쪽 3km)까지 전진하였으나 中洞에 侵入하였던 敵은 이내 南下하여 高飛德山(△1020)을 점령하고 있었다。 대대장 孔正植소령은 즉시 전진을 중지하고 대대를 德가래밭 一帶에 배치하는 한편 제1중대로 하여금 高飛德山을 공격하여 이 敵을 擊滅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와 같이 후방에서의 敵情이 漸次로 增加하자, 연대장 金聖恩 대령은 發旺山에 배치하고 있던 제2대대를 다시 冠掛里로 이동시켜 부근 一帶를 수색케 하므로서 후방지역을 補強하였다。

한편 前方의 敵은 계속 增強되어 제7사단 陣地에 侵攻하므로 사단의 右一線인 제5연대는 3월 6일 以來로 白石山(下珍富里 南쪽 11km)까지 후퇴하게 되니 제3대대는 孤立된 상태에서 더욱 側方방어의 태세를 굳게하고 있었다。

3월 8일 : 이날 前方의 제3대대와 後方의 제1대대는 동시에 熾烈한 激戰을 展開하게 되었으니 우선 제1대대는 대대장으로부터 高飛德山을 공격하라는 임무를 받은 제1중대(장, 李西根중위)가 이날 새벽 03.00에 공격을 개시하여 화기중대의 金火力을 지원 받으면서 執拗하게 저항하는 敵과 5시간에 걸친 熾烈한 교전끝에 高飛德山을 점령하고 敵을 擊退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때 敗退한 敵은 왕치산 一帶에 集結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대대장 孔正植소령은 계속 敵을 追擊하기 위하여 高飛德山을 점령한 제1중대를 先頭로 이날 10.00에 高砂里로 전진을 시작하였다。 중대는 高飛德山을 내려오면서 高砂里로 전진하던 차에 15.00에 이르러 중대의 선병소대가 高飛德山 南쪽 2km지점에서 50명의 敵과 不時에 衝突하게 되었다。 地形上으로 有利한 險峻地帶를 占有하고 있던 제1중대는 果敢한 교전끝에 이를 완전히 殲滅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와같이 거듭되는 勝戰으로 士氣가 衝天한 제1대대는 계속 전진하여 18.45에 高砂里까지 진출하였으나 더 이상 接敵하지 못하고 야간방어에 대비하였다。

한편 제3대대(장, 金龍國소령)는 孤立된 상태에서 방어진지를 補強하고 있던 차에 이날 13.00에 이르러 400명 규모의 敵이 제10중대(장, 李東星중위)와 제11중대(장, 朴東烈중위) 진지에 공격을 敢行하였으므로 이에앞서 이미 공격에 대비하고 萬般의 준비를 갖추고 있던 대대는 5시간에 걸친 熾烈한 교전끝에 이 敵을 또한 擊退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와같은

연대의 頑強한 방어에 부닥친 敵은 많은 損失만을 입고 다시 北으로 退却하고 말았다。

3월 9일 : 이 무렵 제3군단은 加重되는 敵의 攻勢로 말미암아 제7사단의 戰線이 점차로 물러나게 됨으로써 全군단戰線이 다시 崩壞寸前의 危機에 놓여지게 되자, 지난 3월 6일부로 제3군단에 배속된 제3사단(장, 金鍾五준장)을 敵의 主攻方向으로 판단되는 제7사단 右一線인 제5연대 지역에 投入하여 果敢한 反擊을 斷行하게 되었다。따라서 해병제1연대는 이날부터 연대의 左側에 接하게된 제3사단에 작전上 배속되어 사단의 右一線으로 反擊작전에 着手하게 되었다。연대장 金聖恩대령은 제3사단의 反擊작전에 따른 연대의 임무를 分析한 결과 鳳山里에 배치된 제3대대가 敵의 공격을 擊退하여 陣地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연대는 左側의 제3사단이 전진하여 제3대대와 연결될때까지 우선 현진지를 계속 確保할 것을 決心하게 되었다。이를 위하여 연대장은 첫째, 露出되어 있는 제3대대의 左側을 掩護할 것과, 둘째 충분한 예비대를 保有할것을 考慮하여 이날밤 要旨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제2대대는 俗稱 산지골로 이동하여 제3대대의 左側과 연결하는 동시에 연대의 左側方을 방어하고, 제3대대는 현 진지를 계속 固守하라。제1대대는 연대예비대로서 최초 冠掛里에 위치하여 依命 投入될 준비를 하라』

한편 高砂里까지 진출하였던 제1대대는 이날 아침 數未詳의 敵이 蟠龍山(△1069) 一帶에서 出沒하고 있다는 諜報를 入手하고 09.30에 高砂里를 出發하여 蟠龍山을 目標로 전진하던 차에 이와같은 命令을 받게 되었다。이리하여 대대는 蟠龍山공격을 變更하고 이날 13.30에 우선 餘糧里에 集結하는 한편, 제1중대에서 2개 소대와 정보수색요원 5명을 差出하여 高麥里와 高昌里(蟠龍山 南쪽 1km) 一帶를 搜索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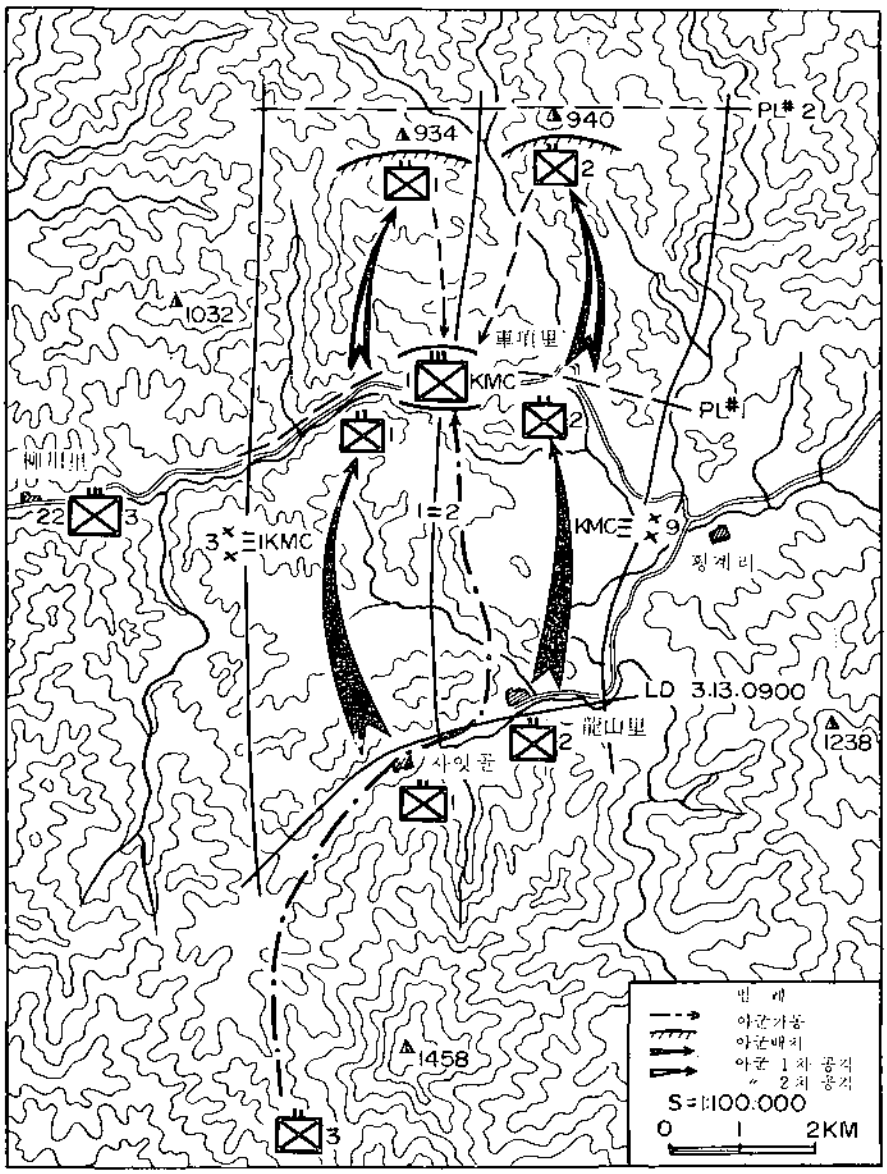
3월 10일 : 제2대대는 전날에 하달된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이날 14.30에 산지골을 向하여 전진한 다음 부대를 배치하는 즉시로 前方에 대한 敵情 정찰에 착수하였고 제1대대는 이날 13.30에 冠掛里로 진출하여 연대예비대로서 부근一帶에 배치되었다。한편 제3대대는 鳳山里 陣地를 계속 固守하면서 제9중대를 대대의 右側인 △1226로 이동배치하여 대대 戰鬪正面을 넓혔다。이날 연대 CP는 계속 餘糧里에 있었다가 14.30에 冠掛里로 약진하므로서 연대는 反擊을 위한 모든 부대배치를 완료하고 左側에 있는 제3사단의 전진과 서로 呼應하기 爲하여 待機하였다。

3월 11일 : 이날 연대 左側의 제3사단은 전진을 계속한 끝에 제3대대와 연결하므로서 산지골에서 側方을 방어하던 제2대대는 다시 北上하여 제3대대의 右側인 △1226와 연결

하여 벌박골 까지에 걸쳐 一線配置하였는데 이때에 제3대대는 제2대대의 이동을 掩護하고 있던 中, 17.00에 이르러 1개소대 규모의 敵 병력이 제9중대(장, 徐判已중위)의 右側소대 진지에 侵襲하였으므로 交戰끝에 이를 擊退하니, 敵은 굴아우 쪽으로 敗退하고 말았다. 이로서 연대는 敵의 侵攻을 완전히 擊退하고 陣地를 固守하므로서 我軍戰線의 危機를 다시한번 謀免케 하고 反擊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我軍의 全般的인 反擊으로 敵은 다시 北으로 敗退하기 시작하였고 이때를 놓치지않고 제3군단은 全戰線에서 敗退하는 敵을 追擊하여 일제히 北進을 시작하였다.

◇ 상황도 제30호 車項里 進擊戰 (51, 3, 13~15)



3월 12일 : 敵의 敗退에 따라 연대장 金聖恩대령은 이날 要旨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 하였다。

『연대는 제3사단의 右一線으로 현진지로부터 PL#2까지 北進 공격하려한다。

제2대대는 연대의 右一線으로 PL#2上의 목표를 점령하라。 제1대대는 연대의 左一線으로 PL#2上 목표를 점령하라。제3대대는 연대예비대로서 前方대대를 後續하면서 후방을 掩護하라』

이리하여 이날 12.00에 제1대대는, 冠掛里에서 鳳山里로 전진하고 이어서 16.40에 윗동암에 진출하였으며, 제2대대는 發旺山을 넘어 13.30에 龍山里 까지 진출하므로서 공격을 위한 부대 展開를 끝마쳤다。

3월 13일 : 연대는 이날 09.00에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여 PL#1을 넘어 계속 북진한 끝에 13.20에는 제2대대(장, 廉鳳生중령)가 東역골, 제1대대(장, 孔正植소령)가 西역골까지 진출하므로서 PL#2까지 무난히 진출하였다。이와같은 一線대대의 전진에 따라 예비대인 제3대대(장, 金龍國소령)는 18.00에 車項里까지 진출하였고 연대CP 역시 15.00에 車項里까지 躍進하였다。

3월 14일 : 연대는 이날 戰線整理를 위하여 제3사단의 作命에 따라 一線대대를 약 2km 후방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방어진을 構築하고 左側의 제3사단 제22연대의 전진을 기다렸다。이때 敵의 主力은 이미 北上退却하여 組織的인 敵의 저항은 거의 없었으므로 연대는 戰鬪地帶一帶에 대한 정찰을 실시하였다。

3월 15일 : 연대는 이날 다시 車項里로 이동, 集結하여 제3군단의 작명에 따라 제3사단의 제22연대(장, 張春權대령)에 作戰地域을 인계하였다。

이로써 해병제1연대는 寧越부근 戰鬪에 投入된이래 我軍戰線의 어려운 곳을 찾아 吉雲里—綠田里—倉里—鳳山里—餘糧里에서의 戰鬪를 모두 勝利로 이끌므로서 賦與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完遂하고 다시 中部戰線인 洪川부근으로 移動하게 되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3월 15일에 車項里에 集結한 해병제1연대는 3월 16일 附로 육군 제3군단으로부터 美 육군 제9군단의 美 海兵제1사단에 작전배속되어 洪川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로서 韓國해병대는 美해병대가 韓國戰에 參加한 以來 세번째로 美해병대와 어깨를 같이하여 合同작전을 전개하게 된것이다。

3월 16일 연대의 主力은 제3군단의 지원차량으로 車項里를 출발하여 11.40에 芳林里에 도착한 다음 다시 美해병대의 지원차량으로 3월 18일 17.30에 洪川에 集結하였다, 한편 제1대대는 연대의 主

力과 별도로 耳項里를 출발하여 3월 18일 16.50에 芳林里에 도착한후 다시 洪川으로 向하였다。

해병제1연대의 將兵들은 寧越부근 戰鬪에서 敵과 싸우는 한편, 자연의 障碍와도 싸워야 하는 어려움을 克服하였으니 海拔 1,000m가 넘는 險峻한 山岳地帶와 1m가 넘는 積雪量은 부대의 機動과 補給支援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으며 또한 我軍戰線의 어려운곳을 찾아 移動을 거듭하는 동안 數日間씩 補給이 斷絶되어 마지막에는 航空投下까지 받아야 하였던 것이다。이와같은 어려운 條件밑에서도 조금도 屈하지 않고 敢鬪精神을 發揮하여 連戰連勝하므로서 常勝海兵의 傳統을 빛내려 하였다。

이 전투에서의 綜合戰果는 다음과 같다。

제1대대

敵사살 127명, 포로 14명

노획 : 蘇式소총 10정, M1 3정, 소총실탄 2,500발

제2대대

敵사살 84명

노획 : 蘇式소총 10정, 蘇式경기관총 1정, 소총실탄 3,000발, 경기실탄 1,300발, 50mm중기관총실탄 50발, 3.5″ Rocket포탄 119발, 수류탄 10상자, SCR694무전기 1대。

제3대대

敵사살 7명, 포로 1명

노획 : 蘇式소총 2정, 50mm중기관총실탄 862발, 81mm박격포탄 20발, 3.5″ Rocket포탄 20발, 소총실탄 100발, 수류탄 5발。

§ 硏 究

1. 食糧補給 : 2월 22일 제1대대가 食糧補給을 받았다는 記錄은 없으나, 參戰者의 面談記錄에 依하면 『제1대대는 2월 19일 寧越을 출발한 以後 "2~3日間" 食糧補給을 받지못하여 困難을 받던차에, 부대장이 주먹밥을 만들어 民間勞務者로 하여금 推進케 하였으나 前方部隊가 位置한 "高地가 매우 높아서" 運搬중에 거의 紛失되고 겨우 200명분만을 받아서 小銃小隊員들에게만 分配하였다』라고 한다。이는 제1대대가 21일에 敵을 擊退한후 22일에는 機動하지 않았고, 23일에 機動을 시작하였다는 點과, 부대가 높은 高地에 배치되어 있었던때는 22일밖에 없다는 點으로 비루어 보아 食糧補給은 22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2. 丁一權소장 禮訪 : 해병제1연대 戰鬪詳報에는 丁一權소장의 訪問에 대한 記錄이 없으나, 해군作戰經過報告書 제3권(기간 : 1951.1.1~3.31)과 參戰者의 面談錄에 記錄되어 있다。本文에는 上記한 해군 作戰經過報告書의 記錄을 引用하였다。

3. 戰果 : 해병제1연대戰鬪詳報에는 全寧越戰鬪期間中(1951.2.19~3.15)의 각 대대별 綜合戰果만 기록되어 있으나, 해군作戰經過報告書 제3권의 "해병대 寧越戰鬪報告" (기간 : 1951.2.19~2.26)에는 제1대대의 吉峯里戰鬪 戰果와 제2대대의 孫田里戰鬪 戰果의 記錄이 있다。그러나 제2대대의 戰果는 해병제1연대의 戰鬪詳報와 一致하나, 제1대대의 전과는 差異가 많으므로 本文에서는 각 戰鬪別

전과에 있어서, 제2대대의 碌田里전투의 전과만을 記述하였다。

4. 倉里부근 搜索戰의 전과 : 해병제1연대 戰鬪詳報에는 記錄이 없으나 해병戰鬪史 제1집(增補版)의 記錄을 引用하였다。

§ 參戰者의 證言

◇ 제2대대 제7중대장 趙性俊 (當時 趙容銀)중위

(1965. 3. 14. 金浦 해병여단 제3연대장室에서, 대령)

제2대대는 三陟에서 春陽을 거쳐 北上하여 碌田里에서 처음으로 接敵하였는데, 이때 대대는 제7중대가 右一線, 제5중대가 左一線으로 공격하고, 제6중대는 中央에서 도로를 따라 전진하였다。

그런데 제6중대의 전진이 너무 빨라서 敵과 먼저 激突하여 苦戰하게 되자 제5, 제7중대가 兩側高地에서 掩護하므로써 危機를 謀免하게 되었고, 敵은 北으로 後退하고 말았다。이때 제5, 제7중대가 먼저 진출할때까지 제6중대가 기다렸다면, 敵을 兩側으로 包圍하여 더 많은 전과를 거두었을 것이다。

◇ 제1대대 화기중대장 李珙均중위

(1965. 6. 30. 해병제1상륙사단제2연대장室에서, 대령)

제1대대는 三陟에서 寧越에 도착하는 즉시, 吉雲里로 전진하여 神屛山을 공격하였는데, 이 때 제3중대가 右側, 제2중대가 左側이었고 화기중대는 前方중대를 後續하였다。이날 눈이 많이 내려서 앞을 觀測할수 없을 정도였고, 1m가 넘는 積雪로, 火器를 운반하는데 苦衷이 많았다。이때 제3중대가 敵과 遭遇하여 支援사격 要請을 받았는데, 觀測을 할수가 없어서 나는 제3중대장 姜勇중위와 直接 無電으로 彈着을 修正하면서 사격하였다。그런데 다행히 첫 彈이 敵陣에 的中하여 무려 5~6시간동안 사격을 集中하였다。제3중대가 高地를 점령한 다음 올라가 보니, 흰눈이 거의 피로 물들어 있어서 敵의 손실을 가히 짐작할 수 있었다。

15. 海兵隊의 洪川附近 戰鬪 (1951년 3월 19일부터 1951년 4월 5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31호
작명부록 제266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軍			我軍		
해병제1연대	장 대령	金 聖 恩	제6중대	장 중위	鄭 孝 斌
제1대대	장 소령	孔 正 植	제7중대	장 중위	朴 正 模
제1중대	장 중위	李 西 根	화기중대	장 중위	李 元 坰
제2중대	장 중위	李 應 德	제3대대	장 소령	金 龍 國
제3중대	장 중위	姜 勇	제6중대	장 중위	徐 判 己
화기중대	장 중위	李 昳 均	제10중대	장 중위	李 東 昱
제2대대	장 중령	雍 鳳 生	제11중대	장 중위	朴 東 烈
제5중대	장 중위	李 丙 文	화기중대	장 중위	林 東 根

敵軍	敵軍
北共 제13사단	제6사단

나. 전투 전의 개황

漸越부근의 戰鬪에서 連戰連勝한 다음 계속 下珍富里의 東北方에 있는 車項里까지 진출하였던 海兵 제1연대는 1951년 3월 16일에 韓國육군제3군단 地域을 떠나 3월 18일에는 中部戰線의 洪川에 集結하여 美海兵제1사단에 作戰配屬되었다。

이 무렵 中部戰線의 韓國軍 및 UN軍은 지난 3월 7일부터 總反擊을 敢行하는 「Ripper 作戰」을 展開하였다。이 「Ripper 作戰」의 主 目的은 『敵에게 可能한 最大限의 損失을 強要하고, 敵戰線에 계속적인 壓力을 加하므로서 敵이 企圖할수 있는 새로운 攻勢를 事前에 粉碎한다』는 것이고 副次的으로는 『中部戰線에서의 迅速한 前進으로 서울과 臨津江以南 地域을 東側面에서 包圍하여 이 地域에 있는 敵에게 敗退를 強要한다』는 것이었다。이러한 作戰目的으로 中部戰線에서는 「Ripper 作戰」의 最終 진출목표線을 春川北方의 38°線까지 設定하고 美제9군단과 제10군단이 主軸이 되어 北進을 계속하고 있었다。이때 美해병제1사단은 美제9군단의 右翼으로서 北進을 계속하여 3월 15일에는 洪川을 점령한 다음 洪川北方 10km까지 진출하고 있었으며 그 西側에는 美제1기갑사단이, 東側에는 美제10군단의

美제2사단이 각각 竝進하고 있었다。

이와같이 中部戰線에서 我軍이 迅速한 前進을 계속하자 敵은 3월 14일에 서울을 抛棄하고 後退하므로서 西部戰線에서도 我軍은 일제히 漢江을 被渡하여 北進을 開始하고 있었다。

이 무렵 洪川 北方의 敵情을 살펴보면, 敗退를 거듭하던 中共 제39, 제69의 兩개군은 이미 38°線 以北으로 退却하였고 이와 代置된 北共軍이 山岳地帶를 據點으로 하여 敵主力의 後退를 掩護하고 我軍의 進擊을 遲延시킬 目的으로 部分的으로 執拗한 抵抗을 계속하고 있었다。이 敵은 北共제13사단의 1,500여명(제7사단 兵力도 一部 包含되어 있음)과 제6사단의 5,000여명이 主力을 이루고 있었으며 裝備는 박격포 20여문, 重機및 輕機 40여정을 비롯한 小火器가 主가 되고 있었고 補給狀態는 現地調達을 爲主로 하고 있었으나, 彈藥 및 兵器의 支援은 약간 받고 있는것으로 보였다。또한 敵의 士氣는 後退를 거듭하고 있었으므로 매우 低下되어 있는것으로 판단되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3월 18일 洪川에 集結한 해병제1연대는 3월 19일 16.00에 美해병제1사단으로 부터 UN軍의 全般的인 작전계획에 따른 연대의 任務를 賦與받고 즉시 공격준비에 着手하였다。이때 賦與된 연대의 任務는 Cairo 線上의 目標 "K, L, M"을 공격 점령하는 것이였는데, 그中 목표 "M"은 이 地域一帶에서 가장 險峻한 加里山(△1051)을 비롯하여 그 一帶의 高地群으로 形成되어 있었다。

加里山은 海拔 1,051m의 高地로서 洪川一春川一麟路를 連結하는 三角道路網의 中間에 있어 부근 一帶를 모두 瞰制할수 있었으므로 我軍이 이곳을 掌握한다면 中部의 交通要地인 春川과 38°線以北의 麟路地域까지 無難히 진출할수 있는 要衝이였다。따라서 敵도 또한 여기를 우선 確保하기 위하여 가장 精銳한 部隊들이 加里山一帶에 배치되여 堅固한 防禦陣地를 構築하고, 執拗한 抵抗을 준비하고 있었다。

연대장 金聖恩대령은 이와같은 狀況아래서 여러 方策을 검토한 결과,

『첫째, 연대의 결정적인 목표를 加里山을 包含한 목표 "M"으로 決定하고, 主攻을 여기에 指向한다。

둘째, 목표 "K"와 "L"은 助攻으로 삼고 可能한 限 早速히 奪還토록 하여 主攻의 공격을 支援한다。

세째, 強力한 豫備隊를 確保하여 主攻方向에 投入할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基本作戰槪

念을 세우고, 3월 19일 저녁에 다음과 같은 要旨의 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연대의 右側에는 美해병제1연대, 左側에는 美해병제5연대가 並行 공격하며 美해병제11연대(포병)의 제3대대가 연대를 직접지원한다。

②. 연대는 3월 20일 07.00를 期하여 공격을 개시하여 목표 K, L, M, 을 점령한다。

③. 제2대대는 연대의 右一線으로, 목표 1, 5, 6, 7, 8, 11, 을 공격점령하고 의명 계속 공격하여 목표 "M"을 점령하라。

제3대대는 연대의 左一線으로, 목표 2, 3, 4, 9, 10, 12, 13, 14, 16, 17, 18, 을 공격점령하고 의명 계속 공격하여 목표 "K"와 "L"을 점령하라。

제1대대는 연대예비대로서 최초 九成浦里에 位置하여 의명 목표 "M"에 투입될 준비를 하라。

④. 연대지휘소는 최초 九成浦里에 위치한다。』(작명부록 제266호 참조)

이때 LD는 美해병제1사단의 진출線인 Buffallo 線으로 設定되었다。

이리하여 연대는 19일 20.00에 洪川 北쪽 九成浦里에 진출하여 공격준비에 착수하였으며, 右一線인 제2대대는 이날 23.00에 夜陰을 이용하여 먼저 행동을 개시하였다。

(2) 작전실시

3월 20일 : 전날밤에 이미 행동을 개시하였던 제2대대(장, 韓原生중령)는 이날 새벽 06.00에 俗稱 새접말(洪川 東쪽 7km)에 전진한 後, 西北쪽 △454를 점령하여 LD까지 진출하였으나 右側의 美해병제1연대와의 連結을 위하여 더 이상 전진하지 않고, 제6중대를 右, 제7중대를 左, 제5중대를 예비로 하는 공격隊形으로 부대를 이곳에 展開하였다。한편 제3대대(장, 金龍國소령)는 『제11중대를 左側으로 하여 목표 "K"를 공격케 하고 대대(一)는 右側의 목표 "L"을 공격한다』(연구"I"참조)는 계획아래 예정대로 07.00에 공격을 한다음 迅速한 전진 끝에 11.00에는 이미 목표 "12"와 "14"까지 進出하였다。이때 대대는 목표 "12"에서 少數의 敵으로 부터 약간의 抵抗을 받았으나 이를 가볍게 蹴退하고 12.30에는 목표 "12"와 "14"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한편 이때 연대 前面의 敵은 거듭되는 後退作戰으로 처음에는 組織的인 防禦를 試圖하지 못하고 散發的인 抵抗이 있을 뿐이었다。따라서 연대는 各 대대별로 捜索隊의 활동을 強化하여 敵의 敗殘兵을 捕捉하는 한편 敵의 主 防禦線을 確認하는데 注力하면서 전진하였다。

이날 제1대대는 九成浦里에 집결하여 제2대대에 後續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연대 CP는 14.40에 俗稱 물골까지 躍進하였다。

3월 21일 : 이날 제2대대는 右側의 美해병제1연대와 連結이 되자, 08.00에 공격을 개시하여 10.00에 제6중대(장, 鄭奉翊중위)는 목표 "7", 제7중대(장, 朴正模중위)는 목표 "8"까지 각각 점령하였다. 이때 敵情 探索을 위하여 前方에서 활동하던 대대 情報搜索隊는 13.00에 목표 "8"의 前方 능선에서 中共軍 200명 규모의 兵力이 北上 退却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대대는 즉시 박격포로 사격 하는 한편 美해병대의 포병사격을 誘導하여 敵 部隊에 집중타격을 加한 바, 敵은 混亂한 상태에 빠져 分散潛跡하고 말았으나 그 전과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

한편 제3대대도 이날 08.00에 다시 전진을 시작하여 11.10에 목표 "17"을, 이어서 14.30에는 목표 "18"까지 점령한 연후에 즉시 前方에 대한 搜索作戰을 전개하였다. 이리하여 목표 "17"의 東側一帶를 수색하던 제9중대(장, 徐判已중위)는 15.00에 中共軍 30명과 不時에 衝突하여 交戰끝에 이를 擊退하고, 敵 사살 8명, 다발총 3정을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는 한편, 我軍도 부상 3명의 손실을 입었다. 또한 左側의 제11중대도 역시 목표 "18" 前方에서 敵 1명을사로 잡았고, 一線中隊를 後續하던 화기중대(장, 林東根중위)도 敵 3명을 포로로 하였다.

3월 22일 : 연대는 08.00에 다시 공격을 계속하였다. 제2대대는 09.30에 최종목표"M"을 공격하는데 발판이 되는 목표 "11"을 점령하였고 이어서 11.30에 대대 情報搜索隊는 목표 "11"의 左側 능선에서 北共軍 2명을 사살하고 2명을 포로로 하였다.

또한 제3대대는 11.00에 제9, 제10중대가 목표 "16"을 점령하였고, 제11중대는 목표 "K"를 공격하여 이를 점령하므로서 隣接인 美해병제5연대와 連結을 이루었다.

한편 예비대인 제1대대는 이날 연대본부 경계를 위하여 1개소대를 差出하고, 主力은 白衣洞(九成浦里 北쪽 5km)으로 전진 하였다.

이와같은 我軍의 電擊的인 攻擊에 唐惶하여 변변한 抵抗도 못해보고 後退만을 거듭하던 敵은 목표 "11"을 점령 당하여 加里山 一帶의 防禦陣에 威脅을 느끼게 되자, 이날 23.30에 1개소대 규모의 병력으로 △710의 제6중대 陣地에 奇襲을 敢行하였는데 이는 연대의 陣地를 攪亂하여 前進을 鈍化시키기 위한 것으로 看做되었다. 제6중대(장, 鄭奉翊중위)는 즉시 이에 應戰하여 2시간에 걸친 交戰끝에 다음날인 3월 23일 02.00에 이를 擊退하고야 말았다. 이 交戰에서 제6중대는 敵 사살 1명, 포로 1명과, 다발총 2정, M1 2정, 칼빈 1정, 蘇式소총 2정, 수류탄 7발을 노획하는 한편 我軍도 전사8명, 부상 6명, 실종 2명과 소화기 9정의 손실을 입었다.

3월 23일 : 날이 밝자, 제2대대는 全將兵이 불타는 敵愾心으로 一擧에 최종목표 "M"을 공격 점령할 氣勢로, 最終공격을 개시하였으니, 洪川부근 戰鬪期間中 가장 熾烈하였던 攻防戰이 이곳에서 전개되었던 것이다。

목표 "M"은 加里山(△1051)을 頂點으로 하여 東南쪽으로 △995—△787를 連結하는 一連의 高地群으로, 敵은 所謂 黑龍江部隊라 稱하는 그들의 精銳部隊를 이곳에 배치하는 동시에 △995—△787의 急傾斜面을 이용하여 堅固한 防禦陣을 構築하고 있었다。 또한 各 高地에 이르는 通路가 狹小하여 大部隊를 投入할 수 없기 때문에 공격에는 매우 不利한 地形으로 많은 손실을 覺悟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제2대대(장, 雎鳳生중령)는 기어이 이 목표를 占領하고야 말겠다는 決心으로 狀況을 分析한 끝에 『右側의 제6중대는 △787를, 左側의 제7중대는 △995를 공격 점령한 後에 一連의 능선을 따라 加里山을 공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날 아침에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리하여 제2대대는 全 地上火力과 美해병대의 航空支援을 받으면서 공격을 개시 하여 우선 12.00에 목표 "15"를 점령하였다。 이어서 제7중대(장, 朴正模중위)는 △995 右側 능선을 따라, 敵의 熾烈한 사격을 받으면서 한발 한발 敵陣으로 진격하여 200m 前方까지 근접하는데 성공하였으나, 地形이 워낙 急傾斜이고, 敵의 火力으로 부터 완전히 露出되어 隊員들이 발을 부칠수가 없었고, 이 反面에 敵은 유리한 職制地帶에서 대대의 행동을 충분히 관측하면서 사격을 加하므로 더 이상 前進치 못하고 공격이 일단 鈍挫狀態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중대장 朴正模중위는 더 이상 전진하는 것은 손실만을 加重하는 無謀한 일이라고 판단한 결과 대대장에게 상황을 보고한 다음 一旦 중대를 능선의 中腹인 목표"15"까지 철수키로 하였다。

한편 '△787를 공격하던 제6중대(장, 鄭泰翊중위)도 역시 제7중대와 같은 不利한 地形條件과 執拗한 敵의 抵抗으로 공격에 성공치 못하고 14.00에 중대를 철수시키고 말았다 (硏究 2 참조)。

이와같이 제2대대의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자 대대장 雎鳳生중령은 유리한 地形을 利用하여 堅固하게 防禦하고 있는 敵의 職制를 받으면서 晝間白日下에 공격하는 것보다는 대대의 행동을 隱蔽하면서 奇襲効果를 거둘수 있는 夜間攻擊을 감행할것을 決心하였다。 이리하여 대대장은 목표 "M"을 점령하기 위하여는 우선 목표의 右側下端에 있는 △787를 점령한 다음 능선을 따라 △995를 目標로 一擧에 공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예비대로 있던 제5중대에 △787에 대한 야간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

이 명령을 받게된 제5중대장 李丙文중위는 悲壯한 覺悟아래 중대의 細部 공격계획을 각 소대장에게 하달하는 즉시로 야간 공격을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면서 날이 어둡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이날 22.30에 공격을 개시한 제5중대는 隱密한 接敵행동으로 敵陣 가까이까지 近迫하는데 성공하였으나 集中火力과 手榴彈의 폭발로 끝까지 固守하려는 執拗한 敵의 抵抗으로 한때 매우 危急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나 중대는 이 熾烈한 火網속에서도 조금도 屈하지 않고 一進一止를 거듭하면서 前後 3次에 걸친 突擊끝에 마침내 敵陣에 突入하여 肉迫戰으로 이 敵을 擊退하고 24.00에는 目標의 高地를 완전히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때 敢行된 야간공격은 韓國해병대로서는 처음으로 실시된 壯烈하기 이를데 없는 중대규모의 正規的인 야간 突擊이었다。 當時 제2대대 작전장교로 參戰한 趙容銀중위는 이때의 상황을 證言하기를 『그때 대대본부는 後方高地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제5중대가 敵陣에 突入하면서 외치는 喊聲을 대대본부에서도 能히 들을수 있었고 치열한 肉迫戰을 생각하면서 모든 本部장병들의 가슴을 조이게 하였다』(研究 3 참조)

한편 이와같이 제2대대가 激戰을 겪는 동안, 제3대대는 이날 08.00에 다시 공격을 시작하여 순조로운 전진을 계속한 끝에 11.45에는 제9, 제10의 兩중대가 목표 "L" 공격의 발판이 되는 △832를 점령하므로서 最終목표 "L"공격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때 각 대대의 공격을 직접 指揮하던 연대장 金鳳煥대령은 제2대대가 過重한 敵의 抵抗에 부닥치게 되자, 예비대를 投入할것을 決心하였다。 이리하여 연대장은 목표 "M"을 上端部와, 下端部로 나누어 『제2대대가 下端部의 △995를 공격하는 동안 제1대대는 上端部의 加里山을 同時에 공격하므로서 연대의 모든 戰力을 集中投入하여 早期에 목표를 奪還한다』는 예비대의 活用계획을 세우고, 제1대대에 加里山공격 명령을 하달하였다。

3월 24일 : 제1대대(장, 孔正植소령)는 연대의 예비대로 있다가 加里山 공격명령을 받고 이날 04.30에 행동을 개시하여 제2대대의 左側을 超越한 다음 09.00에는 加里山 左側 능선의 下旋까지 전진하였다。 이어서 대대는 제2중대를 右側, 제1중대를 左側으로 공격을 개시하여 12.00에는 능선의 中腹인 △781를 점령하였고, 16.00에는 執拗한 敵의 抵抗을 물리치고 加里山 左側에 隣接한 △902를 점령하였다。 이 공격에서 대대는 敵 사살 17명, 포로 3명과 수류탄 140발을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는 한편 我軍도 부상 5명의 손실을 입었다。

한편 제2대대는 제5중대가 △787를 夜襲으로 점령하게 되므로써 士氣가 衝天하여 이날 05.00에는 다시 △995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때에 이 高地 공격을 맡게된 제7중

대장 朴正模중위는 前日의 경험에 비추어 볼때 正面攻擊은 다만 많은 손실이 예상되고 그 攻擊의 進陟도 또한 힘들것이므로 左側으로 迂回攻擊할것을 企圖하였다。이리하여 중대는 제5, 제6의 兩중대가 △995의 正面과 右側 능선에서 支援하는 동안 左側으로 迂回하여 敵陣 20m 前方까지 진진하는데 성공하였다。이때 중대의 先頭는 敵의 側方경계병을 발견하고 이를 그대로 捕獲코자 하였으나 그뜻을 이루지 못하고 마침내 사살하자, 敵은 我軍의 企圖를 알아차리고 일제히 火力을 集中하였으니 마치 벌집을 건드린 격이었다。

그러나 이미 突擊開始線까지 接近하였던 중대는 일제히 喊聲과 같이 一時에 敵陣에 突入하여 닥치는대로 敵을 무찌른다음 이 △995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으니, 몇번에 걸친 惡戰苦鬪 끝에 드디어 이를 점령한 중대 將兵들의 感激은 참으로 큰 것이었다。

제2대대가 목표 "M" 공격을 시작한 以後 제5중대가 △787 제7중대가 △995를 점령하기까지 거둔 종합전과와 손실은 다음과 같다。

전과 : 敵사살 33명 포로 4명(人的 전과만 記述하였음)

손실 : 전사 8명 부상52명(硏究 4 참조)

이와같이 제1, 제2대대가 加里山 頂上을 除外한 주위高地를 모두 점령하자 敵은 더 이상 加里山을 確保할것을 斷念하고 主力이 北으로 退却하여 버리므로서 연대는 數차례의 激戰을 거듭하였던 목표 "M"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한편 제3대대도 제9, 제10중대가 이날 새벽에 최종목표 "L"을 공격하여 執拗하게 抵抗하는 敵을 물리치고, 09.00에 이를 완전히 점령하였는데 이 공격에서 대대는 포로 1명과 다발총 3정, M2 1정, 기관단총1정, 수류탄 200여발을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으며 我軍도 전사 8명, 부상10명의 손실을 입었다。

이로서 연대는 지난 20일에 美해병제1사단의 中央에서 가장 險峻한 山岳地帶를 戰鬪地帶로 맡고 Buffalo線으로 부터 공격을 개시한 以來, 5일만에 최종 목표인 "K""L""M"을 모두 점령하여 Cairo線을 確保하므로써 「Ripper작전」의 최종진출 목표線까지 突進하게 된 것이다。

3월 25일 : 최종목표를 완전히 점령한 각 대대는 Cairo線을 따라 방어진지를 強化하면서 前方에 대한 搜索정찰에 着手하였다。이날 18.00에 제1중대(장, 李西根중위)는 前方을 搜索중, 接敵하여 敵 2명을 사살하고 수류탄 8발을 노획하였다。

한편 隣接 美해병제1사단을 비롯한 UN軍部隊도 이때 이미 Cairo線上에 진출하였으므로 「Ripper 작전」의 목표는 이미 達成되었으나 美 제8군사령관 Ridgway 중장은 다시 새로운

공세작전을 계획하였으니 이는 北進攻擊을 멈추지 않고, 그 氣勢를 몰아 敵에게 대한 계속적인 압력을加 하므로서 새로운 공세 移轉이나 突破등을 企圖할 有形無形의 餘裕를 주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이리하여 美해병제1사단은 右第一線인 美해병제1연대를 New Cairo線(Cairo 線을 東側으로 延長한 線)까지 진출시키므로서 Idaho 線을 따라 東南方으로 뻗친 現 진출선을 東一西로 均衡있게 再調整하여 장차 계속될 北進 공격작전을 미리 對備하게 되었다。

이러한 美해병제1사단의 戰線調整 계획에 따라, 연대장 金聖恩대령은 제1대대로 하여금 New Cairo 線上의 목표 "T"를 점령케 하므로서 부대를 東側으로 伸張배치하여 右側의 美해병제1연대와 連結할 계획을 세우고, 이날밤 다음과 같은 要旨의 명령을 하달하였다。

『연대는 목표 "T"를 점령하여 New Cairo 線까지 부대를 伸張배치 하고, 계속 北進할 준비를 한다。

제1대대는 연대의 右一線이 되어 목표 "T"를 공격점령하고 右側의 美해병제1연대와 連結하라。

제3대대는 연대의 左一線이 되어 목표 "K"와 "L"을 계속 確保하고 左側의 美해병제5연대와 연결을 유지하라。

제2대대는 연대의 예비대로서 목표 "M"을 계속 確保하면서 當面의 敵에 대한 搜索정찰을 실시하라。』

3월 26일 : 제1대대(장, 孔正植소령)는 이날 07.00에 목표 "T"를 향하여 공격을 개시하여 17.00에 목표 中央에 있는 △883를 確保한 다음 이어서 18.00에는 右端 高地까지 전부 制壓 하므로서 목표 "T"를 완전히 점령하고 右側의 美해병제1연대와 連結을 이루웠다。

이로서 연대는 Cairo線과 New Cairo線을 連하여 부대를 전개하고 다시 北進할 態勢를 갖추게 되었으며 공격이 再開되기 까지 前方에 대한 정찰활동을 強化하였다。

3월 27일 : 13.00에 제3대대의 제11중대(장, 朴東烈중위)는 목표 "K"의 前方에서 數米群의 中共軍을 目擊하고 16.00까지 追擊을 敢行하면서 交戰끝에 敵 8명을 사살하고 3명을 포로로 하였다。

3월 28일 : 각 대대는 前方에 대한 搜索정찰을 계속하였고, 이날 24.00에 연대본부의 情報搜索隊는 北共軍 2명을 사로 잡았다。

3월 29일 : 이날 美제8군사령관 Ridgway 중장은 "Ripper 작전"에 뒤이어 이미 계획하고

있던 "Rugged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이 작전은 退却하는 敵을 계속 追擊하여 Kansas 線까지 北進을 계속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美제8군의 北進계획에 따라 다시 공격을 개시하게 된 美해병제1사단은 右一線인 제1연대 지역을 美제10군단에 引繼한 다음, 연대를 사단의 예비로 하고, 韓國海兵제1연대를 右一線, 제5연대를 左一線으로 하여 目標로 設定된 Ready線을 向하여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3월 30일 : 美해병제1사단의 공격계획에 따라, 연대는 北進에 대비하여 이날 14.30에 俗稱 물골에 있던 C P를 大坪里(洪川 北쪽 10km)로 이동하였다。또한 제1대대의 정찰대는 이날 前方을 搜索中, 敵 1명을 사살하고, 蘇式소총 1정을 노획하였다。

4월 1일 : 이날 연대장 金聖恩대령은 다음과 같은 要旨로, Ready線까지의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

『연대의 右側에는 美제10군단의 美제2사단, 左側에는 美해병제5연대가 並行공격하며 美해병제11연대(포병)의 제4대대가 연대를 直接지원 한다。

제1대대는 연대의 右一線으로, Ready線上의 목표 9, 10, 11, 15를 공격점령 하라。

제3대대는 연대의 左一線으로, Ready 線上의 목표 12, 13, 14를 공격점령 하라。

제2대대는 연대본부 경계를 위하여 1개소대를 差出하고 대대(-1개소대)는 연대예비대로서 現位置를 確保하라。』

4월 2일 : 연대는 이날 08.00에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여 순조로운 전진끝에 이날, 목표 6, 7, 8, 10, 11, 을 連하는 線까지 진출한 後에 一旦 야간방어에 對備하였다。

이와같이 我軍이 전진하는 동안, 組織的인 敵의 抵抗이 없는 것으로 보아, 敵의 主力은 이미 北上 退却한 것으로 보였다。

4월 3일 : 연대는 다시 迅速한 전진을 계속하여 이날 Ready線上의 목표를 모두 점령하기에 이르렀다。이때 목표 "12"를 공격하던 제3대대의 제11중대(장, 朴東烈중위)는 17.10에 數末群의 敵으로 부터 執拗한 抵抗을 받았으나 중대는 즉시 高地를 包囲攻擊하여 이 敵을 擊退하고 목표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이 交戰에서 중대는 敵사살 8명, 포로1명, 蘇式소총 1정, 수류탄 6발 실탄 200여발을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다。이로서 Ready 線을 완전히 確保한 연대는 즉시 방어진지를 強化하면서 隣接부대와의 連結을 꾀하였다。이때 左側의 美해병제5연대도 Ready 線에 진출하여 제3대대와 連結을 이루게 되었다。

이리하여 Ready 線을 완전히 確保한 美해병제1사단은 美제9군단의 作命에 따라 그 작

전지역을 美제10군단에 引繼한 다음 이미 Kansas 線에 진출한 春川北方의 美제1기갑사단과 交代하게 되었다。이것은 美제8군이 계속적인 北進을 위하여 軍團間의 戰鬪地境線을 再調整함에 따라 美제10군단 지역이 美제9군단의 右翼인 美해병제1사단 地域까지 擴張되므로서 美해병제1사단은 西側으로 이동하게 된데 基因하는 措置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연대는 작전지역을 美제10군단의 美제7사단부대에 引繼하고, 春川北方에 이동되기 前까지, 우선 春川 南쪽 4km에 있는 鶴谷里에 集結하게 되었다。연대장 金聖恩대령은 上級및 隣接부대와 協調를 끝마친後 다음과 같은 要旨의 부대 이동명령을 하달하였다。

『연대는 4월 4일 18.00를 期하여 現陣地를 美제7사단 제32연대와 美제2사단 제23연대에 引繼하고 春川 南쪽에 있는 鶴谷里에 集結한다。

제1대대는 美제7사단 제32연대제 2대대에 작전지역을 引繼하고 自隱里에 集結한 後, 차량으로 鶴谷里에 이동하라。

제2대대는 4월 4일 12.00에 孝內里에 集結한 後, 차량으로 鶴谷里에 이동하라。

제3대대는 美해병대가 支援하는 水陸兩用차량으로 昭陽江을 渡河하여 29番道路를 따라 鶴谷里에 이동하라。』

4월 4일 : 연대는 이날 즉시 부대이동을 위한 준비에 着手하여, 제1대대는 12.00에 작전지역을 引繼한 다음, 自隱里에, 그리고 제2대대는 孝內里(自隱里 南쪽 5km)에 각각 集結하였다。

4월 5일 : 제3대대는 交代부대의 到着이 遲延되어 이날 새벽에 작전지역을 引繼한 다음 昭陽江을 渡河하여 29番道路(楊口—春川—洪川)을 따라 15.30에 鶴谷里에 集結하였고, 같은 시간에 제1, 제2의 兩개대대도 이곳에 到着하였다。

이리하여 鶴谷里에 集結된 연대는 C P를 鶴谷里마을에 設置하고, 각 대대는 주위 高地에 배치하여 自體경계태세를 갖추는 한편, 다음 전투에 對備한 敎育訓練과 部隊整備에 邁進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1951년 3월 7일 부터 「Ripper 작전」이라는 명칭하에 總反擊戰을 展開한 韓國軍 및 UN軍은 3월 末頃에 이르러 平均 35mile이나 北進하였으며, 가장 前進한 中部戰線의 美제9군단 中央은 春川 北方 38°線까지 진출하였다。

이 작전 期間中, 美제9군단 進出路의 가장 險峻한 地形에 자리잡은 加里山一帶의 攻擊戰은 가장

熾烈한 전투의 하나였으며 해병 제1연대가 이 地域을 점령하므로서 美제9군단의 春川점령이 可能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我軍의 공격으로 敗退한 敵은 所謂 鐵의 三角地帶라 일컫는 鐵原—金化—平康 一帶에 集結하여 再攻勢 準備를 하고 있었으며, 이를 事前에 粉碎하기 위하여 美제8군은 38線을 넘어 계속적인 北進攻擊을 계획하고 부대배치를 再調整하게 되었다。이에 따라서 春川 東側 昭陽江까지 진출하였던 美해병제1사단은 美제1기갑사단이 위치한 春川 北方에 再配置되어 北進공격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UN軍 部隊의 움직임에 따라 해병제1연대는 4월 5일 鶴谷里에 集結한 後, 4월 8일까지 다음 전투를 위한 敎育訓練과 部隊整備를 끝마치고, 美해병제1사단과 같이 다시 春川 北方에 投入되어 北進공격을 계속하게 되었다。이 洪川부근의 戰鬪기간중 해병제1연대가 거둔 대대별 綜合전과는 다음과 같다。

제 1 대대 : 사살 43명, 포로 30명

노획 : 다발총 5정, 蘇式소총 4정, BAR 1정, 소총실탄 4,000발, 수류탄 14발

제 2 대대 : 사살 38명, 포로 5명

노획 : 蘇式重機 1정, 輕機 1정, 다발총 9정, 蘇式소총 4정, M-1 4정, 칼빈 1정, BAR 1정 수류탄 107발

제 3 대대 : 사살51명, 포로 11명

노획 : 다발총 11정, 蘇式소총 2정, M-1 1정, 기관단총 1정, 각종 소화기실탄 3,100발, 60㎜ 박격포탄 69발, Rocket포탄 21발, 대전차수류탄 30발, 쌍안경 1개

연대본부 : 포로 2명

§ 硏　　究

1. 제3대대의 공격隊形 : 해병제1연대의 戰鬪詳報에는 3個中隊를 전부 一線에 投入한것으로 記述되어 있으나 제11중대가 左一線이라는 것만이 明確하고, 中央및 右一線 중대에 대해서는 不明確하다。또한 傍證할 資料가 없으므로 本文에서는 대대(—)로 記述하였다。

2. 제1차 △995및 △787 공격 : 3월 23일 제7중대가 △995를, 제6중대가 △789를 공격하였던 事實은 戰鬪詳報에는 記載되지 않았으나, 本文에서는 海兵戰鬪史 제1집(增補版)과 參戰者面談資料를 參照하였다。또한 △995와 △787는 戰鬪詳報및 上記 海兵戰鬪史에 旣히 △975와 △627로 記載되어 있으나 戰鬪詳報의 作戰經過透明圖와 地形을 對照해본 결과 誤記임을 판단하고 本文에서는 上記와 같이 修正하였다。

3. 제5중대의 야간공격 : 제5중대의 야간공격은 戰鬪詳報에는 3월 24일로 記載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根據로 本文에서는 3월 23일로 修正하였다。

첫째, 3월 24일 주간에 제7중대가 △995를 이미 점령하였으므로 地形과 戰術上으로 보아 後方의 보다 낮은 高地인 △787를 야간공격까지 감행하여 점령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또한 △787의 점령이 先行되지 않고는 △995 공격이 매우 不利하므로 △787공격은 3월 23일 야간에 실시하였을 것이다。

둘째, 參戰者 面談資料에 의하면 제5중대의 야간공격 後에 제7중대의 △995공격이 실시된 것으로 證言하였으며 前後狀況을 對照하여 볼때 妥當한 것으로 판단 되었다。

세째, 海兵戰鬪史 제1집(增補版)과 해병교육 참고 제2호 해병전투사에도 3월 23일에 실시한 것으로 記述되어 있다。

4. 제2대대의 목표 "M"공격시에 거둔 전과 : 戰鬪詳報에 記載된 바에 의하면 "3월 24일字, 제2대대의 전과는 사살 123명 포로 4명"이고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제2대대의 綜合전과는 사살 38명 포로 5명"이다。이는 서로 相反되며 당시 狀況과 參戰者의 證言, 海兵戰鬪史를 檢討한 결과 後者를 擇하고, 前者의 "사살 123명"은 "사살 33명"의 誤記로 보았다。이는 123명이「漢字를 縱으로」記載되어 있으므로 33명으로 보고 日日 戰果를 綜合하면 後者와 一致하기 때문이다。또한 노획무기의 數도 역시 相反되므로 本文의 3월 24일, 제2대대 전과에는 人的전과만을 記述하였다。

§ 參戰者의 證言

◇ 제2대대 제5중대장 李丙文중위

(1972. 9. 11. 해병대사령관室에서, 대장)

해병대의 渡川부근 전투中에, 가장 熾烈하였던 전투는 加里山 攻擊戰이었는데, 제2대대가 이 高地를 공격하였고, 右側에는 美해병제1연대 左側에는 제3대대가 前進하였다。

제2대대의 목표는 加里山(△1051)과 그밑에 있는 △995, △787이었는데, 먼저 제6, 제7중대가 △995에 몇차례의 공격을 試圖하였으나, 성공치 못하여, 우리중대가 △787에 야간공격을 감행하게 되었다。그동안 제5중대는 항상 대대의 一線중대로써 전투에 한번도 실패한 일이 없었으므로 중대원은 士氣가 衝天하였으므로 나는 自信을 가지고 중대를 指揮할수 있었다。이날 22.00에 공격을 시작하여 거의 突擊線까지 전진하니까, 敵의 사격이 너무 熾烈하여 우리중대는 더 이상 전진하면 많은 손실을 각오해야 하고, 또한 後退할수도 없는 進退兩難에 빠지게 되었다。이때 나는 欺瞞작전을 쓰기로 하고, 前方소대는 일체의 對應사격을 中止시키는 한편, 예비소대로 하여금 個人壕를 파도록 하니, 어두움속에서 敵은 우리가 공격을 포기하고 야간방어를 준비하는 줄로 알고 사격을 멈추었다。이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는 일제히 突擊하여 敵陣을 突破하고 肉迫戰끝에 高地를 奪還하였다。當時 이 공격의 成功은 彼我의 士氣面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며, 날이 밝자 勇氣百倍한 대대는 즉시 공격을 再開하여 나머지 高地도 무난히 점령할수 있었다。

◇ 제1대대 제2중대장 李應德중위

(1966. 3. 18. 해병대사령부政策硏究委員室에서, 대령)

제1대대는 예비대로 있다가 제2대대의 左側에서 加里山 頂上을 공격하였는데 이때 이미 제2대대가 隣近高地를 전부 점령하므로써 頂上에는 少數兵力만이 남아 있었다。우리중대가 高地에 近接하였을 때 敵의 수류탄은 계속 떨어지는데 敵의 位置는 確認할수 없어서, 高地를 완전히 包圍한 다음, 한발 한발 包圍網을 壓縮해 올라가니, 마침내 敵은 도망하기 시작하여, 이때 우리는 일제히 突擊하여 高地를 점령하였다。나중에 안 일이지만, 敵은 겨우 머리만 보일 정도의 僞裝된 壕에 숨어 있었으므로 우리는 敵을 볼수 없었던 것이다。그 後, 대대는 계속 전진하여 昭陽江까지 진출하였다。

16. 美 海兵隊의 橫城—洪川附近 戰鬪 (1951년 2월 21일부터 1951년 3월 24일까지)

참조 : 상황도 제31, 32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美해병제 1 사단장 소장 Oliver P. Smith

준장 Lewes B. Puller
(2.24~3.4 간 대리)

제 1 연대장 대령 Francis M. McAlister

제 5 연대장 대령 Raymond L. Murray

제 7 연대장 대령 Homer L. Litzenberg

제11연대 장 중령 Carl A. Youngdale

제 1 탱크대대 장 중령 Harry T. Milne

제 1 공병대대장 중령 John H. Partridge

기타 직할대대

지원부대

美해병제1항공사단장
소장 Field Harris

敵 軍

中共 제66군

제196사단

제197사단

제198사단

제39 및 제40군 일부병력

나. 전투 전의 개황

美 해병 제1사단은 長津湖부근의 전투를 끝마치고 興南으로부터 海上機動으로 釜山에 上陸한 다음, 1950년 12월 16일에 馬山에 集結하여 美제8군의 예비로써 부대를 再整備하고 있었다。

1951년 1월初에 있어서의 前線은 三陟—平澤을 連한 線에서 最後固守陣地를 마련하고 있었는데, 이때 北共제10사단은 東部의 山岳地帶를 따라 安東을 지나 浦項부근까지 侵透하면서 後方 지역에서의 遊擊戰을 展開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은 美제8군의 작명에 따라 1951년 1월 16일에 安東—浦項지역으로 再出動하였고, 뒤이어 急派된 韓國해병대와 合同하여 2월 中旬까지 對遊擊戰으로 北共 제10사단 主力을 潰滅하고 말았

다。 이때에 中部戰線의 韓國軍과 美軍은 熾烈한 攻守戰을 계속 한끝에 原州方面에서는 敵의 侵襲을 撃退하는데 성공하고 이어서 攻勢로 移轉할 준비에 着手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은 美제8군의 작명에 따라 다시 中部戰線의 忠州로 진출한 다음 美제9군단에 배속되어 反擊작전의 一翼을 담당하게 되었다。

敵軍의 상황 : 이 무렵, 原州 北쪽에서는 中共제39, 제40, 제66군과 北共제5군단이 主力을 이루어 連日 계속한 侵襲에서 莫甚한 打撃을 입은 나머지 더 以上의 南進에 실패하게 되자 다시 새로운 策動을 꿈꾸면서 부대의 再編과 再補給을 위함인지 2월 18일부터 漸次로 撤收하기 시작하였고, 그 一部만으로써 主力의 退却을 掩護하고 있었는데 해병사단의 當面에는 中共제66군의 제196사단과 제39, 제40군의 一部가 아직도 健在中인 것으로 判斷되었다。

我軍의 상황 : 2월 19일, 驪州의 美제9군단 CP에서는 美제8군사령관 Ridgway 중장을 비롯하여 美제9, 제10의 兩군단장과 해병사단장이 參席한 가운데 反擊을 위한 작전회의를 열었으며, 이 회의에서 美제9, 제10의 兩군단을 主軸으로 하는 反擊계획이 確定되었고, 공격개시일을 2월 21일로, 작전명칭은 "Killer 작전"으로 決定하게 되었다。

이때에 사단의 임무는 美제9군단의 右翼으로써 原州 北端에서 美제10군단 主力을 超越공격하여 橫城北쪽에 設定된 Arizona線까지 進擊하는 것이었다。 이 당시 사단의 東側에는 美제10군단에 배속된 韓國軍제3사단이, 그리고 西側에는 美제9군단에 배속된 韓國軍제6사단이 각각 前進키로 되었는데 本節에서는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의 Killer作戰과 3월 7일부터 3월 24일까지 斷行한 Ripper 作戰의 概要를 取扱할 것이다。 이 作戰으로써 Arizona線—Albany線—Baker線—Buffalo線—Cairo線을 奪還하는 作戰目的을 完全히 達成하게 된 것이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 Killer 작전 (1951. 2. 21. 3~4)

(1) 작전계획

2월 19일의 작전회의에서 樹立된 반격계획에 따라 사단은 제1단계로 橫城 南東쪽의 高地群을 점령하여 橫城을 奪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제2단계로 橫城 北쪽의 高地群을 따라 設定된 "Arizona線"까지 進出하여 橫城을 점령한다는 基本계획을 세운 다음, 2월 20일 사단장 Smith소장은 다음과 같은 要旨 작명 6—51을 하달하였다。

『① 제5연대는 사단의 右一線으로써 美제187공수연대 전투단을 超越공격하여 제1단계 목표의 右半部를 점령하라。

② 제1연대는 사단의 左一線으로써 美제2사단 부대를 超越공격하여 제1단계 목표의 左半部를 점령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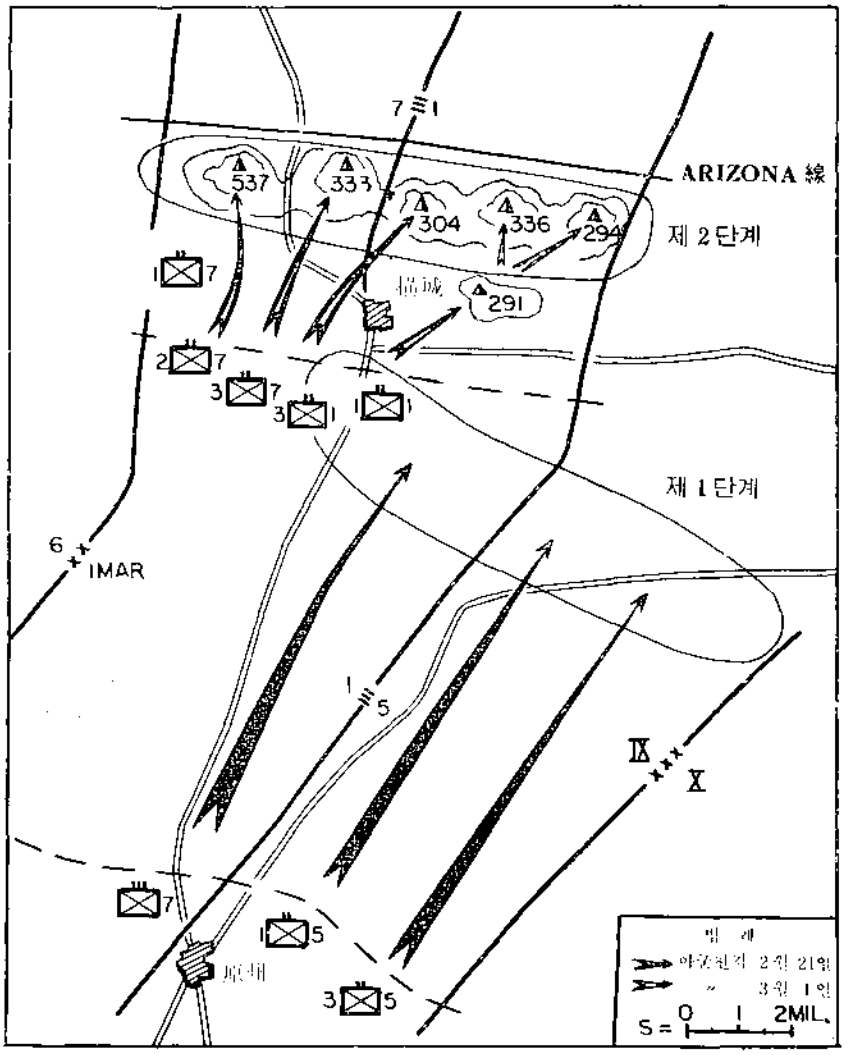
③ 제7연대는 최초 사단의 예비가 된다。

④ 공격개시 시간은 2월 21일 08.00로 豫定한다』

(2) 第一段階 作戰

2월 21일 : 사단은 이날 08.00부터 공격할 豫定이었으나, 忠州에서 原州에 이르는 主補給路가 많은 차량의 輻輳로 破損된 탓으로 戰鬪展開가 遲延되어, 10.00에 공격을 개시하였는데 敵의 抵抗은 거의 없었으며 사단은 敵의 抵抗線을 確認하기 위하여 愼重한 공격전진으로 始終하였다。

◇ 상황도 제31호 美 海兵 제 1 사단의 Killer 作戰



2월 22일 : 이날도 敵은 小規模의 散發的인 抵抗을 試圖할 뿐으로서 그 主力을 계속 退却하고 있는 듯하였다。그러나 사단은 敵의 抵抗에 못지 않게 눈과 비로 뒤섞인 진흙을 헤치면서 전진을 계속하여 將兵들의 苦勞이 많았다。

2월 23일 : 사단의 北進에 따라 敵의 抵抗은 漸次로 本格化하기 시작하였다。이날 左一線인 제1연대(장, McAlister 대령)는 전진中, 敵의 抵抗에 直面하였으며, 右一線인 제5연대(장, Murray 대령)도 역시 1개대대 규모의 中共軍으로부터 執拗한 抵抗을 받았으나 航空爆擊과 砲兵의 火力으로 이를 制壓하면서 전진을 계속하였다。

이날 사단은 中共軍 60명을 사살하고, 전사 1명, 부상 21명의 손실을 입었다。

2월 24일 : 사단은 전진을 계속하여 이날 제1단계 목표를 완전히 점령하므로써 橫城을 眼前에 내려다 보게 되었다。이어서 左一線인 제1연대 제 1 대대의 C 중대(장, Robert P. Wray 대위)와 戰車 1개소대로 橫城에 대한 威力수색을 實施하였는데, 중대는 橫城北쪽의 敵情을 確認하는 한편 지난번 戰鬪에서의 美陸軍 落伍兵 數名을 救出하고 날이 어둡기 前에 연대에 복귀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Killer작전"의 제1단계작전을 모두 끝내고 제2단계 작전에 對備하고 있었는데, 이날 美제9군단장 Moore 소장이 헬리콥터事故로 戰死하므로써 사단장 Smith소장은 이날 부터 군단장을 代理하게 되었고, 사단은 부 사단장 Puller준장이 指揮하게 되었다。

2월 25일 : "Killer작전"의 제1단계가 끝나자, 驪州의 美제9군단 CP에서는 이날 美제8군 사령관 Ridgway 중장이 參席한 가운데 작전회의를 열렸고, 이 회의에서 Ridgway 중장은 前線의 再調整과 再補給을 위하여 제2단계작전은 3월 1일부터 개시하기로 決定하였으며, 美제9군단과 제10군단의 戰鬪地境線이 再調整되었다。

이에 따라서 사단은 右側의 제5연대 지역을 美제10군단에 引繼하고, 제7연대를 사단의 左側인 韓軍團 제6사단지역에 배치한 다음, 제1연대를 右一線, 제7연대를 左一線, 제5연대를 예비로 하여 공격키로 계획하였다。

(3) 第二段階作戰

3월 1일 : 사단은 이날 제2단계 공격을 위하여 橫城 南쪽에 設定한 공격개시선에 展開하였는데, 右一線인 제1연대는 제2대대를 右, 제3대대를 左一線으로, 또한 사단의 左一線인 제7연대는 제3대대를 右, 제2대대를 左一線으로 展開하였다。

그러나 左一線인 제7연대의 前方에서, 中共軍은 熾烈한 砲擊으로 執拗한 抵抗을 試圖하였으므로 사단은 우선 航空爆擊 및 砲兵사격으로 이 敵을 制壓한 後에 다음 날 공격을 개

시키로 하였다。

3월 2일 : 사단은 이날 08.00에 제2단계 목표인 橫城 北方의 Arizora線을 向하여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여 제1연대 제2대대는 △291을 점령하고, 제7연대 제2대대는 △537을, 제3대대는 △333을 각각 공격하였으며 제3대대는 사단의 左一線에서 隣接한 韓國軍제6사단과 接觸을 維持하였다。

3월 3일 : 이날 제1연대(장, McAlister 대령)는 제2대대(장, Clarence J. Mabry소령)가 激戰끝에 △336, △294를 점령 하였는데, 이 兩個高地의 전투에서 대대는 中共軍 70명을 사살하고 전사 3명, 부상 28명의 손실을 입었으며, 또한 제3대대(장, Virgil W. Banning 중령)도 △304을 점령하므로써, 연대는 목표의 右半部를 모두 점령하였다。

그러나 제7연대(장, Litzenberg 대령)는 △333, △537로부터 執拗한 中共軍의 抵抗을 받고, 熾烈한 接戰을 계속하였으나, 이날 목표를 점령하지 못하고 야간전투에 對備하였다。 연대는 이날 전투에서 전사 14명, 부상 104명의 손실을 입었다。

3월 4일 : 제7연대는 이날 08.00에 △333. △537에 對한 공격을 再開하였는데 敵은 前날 연대의 熾烈한 공격으로 많은 損失을 본 나머지, 夜陰을 이용하여 소리없이 退却하였으므로, 연대는 더 이상의 抵抗을 받지 않고 高地를 모두 점령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Arizona線"에 진출하여 橫城을 완전히 奪還하였고, "Killer 작전"의 目的을 達成하게 되었다。

이 "Killer 작전" 기간중 사단은 전사 48명, 실종 2명, 부상 345명의 손실을 입었으며, 中共軍사살 274명, 포로 48명의 전과를 거두었는데, 敵의 實際 損失은 더욱 많을 것으로 推測되었다。또한 이날, 美제9군단장에 William H. Hoge 소장이 赴任하여, Smith 소장은 다시 사단장으로 복귀하였다。

◇ **Ripper작전(1951. 3. 7~3. 24)**

(1) 작전계획

"Killer 작전"으로 "Arizona線"까지 진출한 美제8군은 다시 "Ripper작전"을 계획하여 3월 7일 08.00에 北進을 再開키로 결정하였다。이 작전의 目的은 退却하는 敵에게 最大의 피해를 주고 계속적인 壓力을 加하여 敵의 次期공세를 事前에 粉碎하며 또한 中部전선에서의 迅速한 전진으로 西部의 敵을 側面包圍하므로써 撤收를 強要하려는데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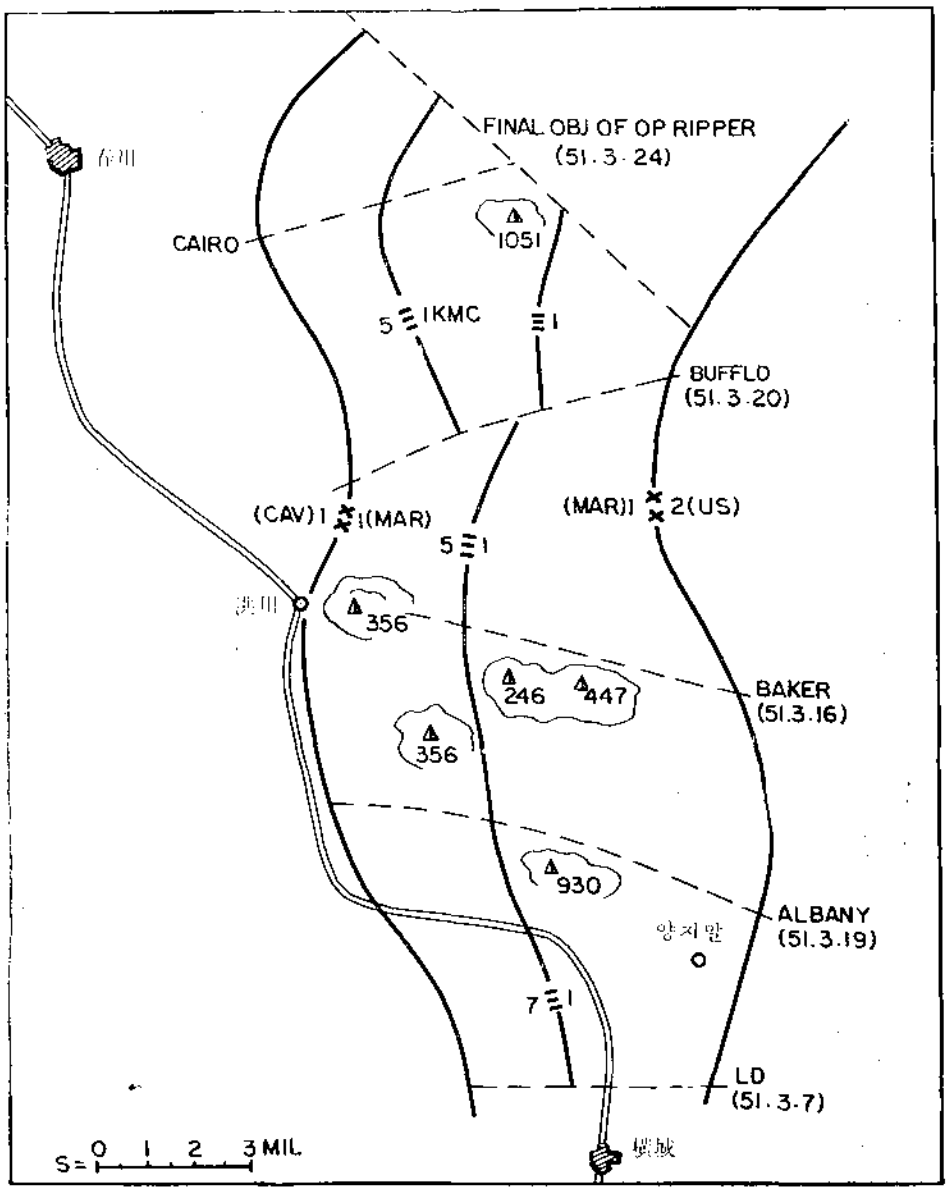
이 작전에서 사단의 임무는 美제9군단의 右翼으로써 北進을 계속하는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서 사단장 Smith 소장은 제1연대를 右一線, 제7연대를 左一線, 제5연대를 예비

로 하는 現攻擊隊形을 그대로 維持하면서 제1단계로 "Albany線"까지 進擊하기로 계획하였다。

또한 사단의 東側에는 美제10군단의 美제2사단이, 西側에는 美제1기갑사단이 각각 並進하였으며, 사단當面의 敵은 中共 제66군의 제197사단이 東, 제196사단이 西, 제198사단이 예비로 控置되어 사단과 對峙하고 있었고, 그 兵力은 24.000명으로 推算되었다。

(2) 第一段階作戰

◇ 상황도 제32호 美海兵 제1사단의 Ripper 作戰



3월 7일 : 사단은 이날 아침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여 비교적 順調롭게 전진하였는데, 敵은 小規模의 散發的인 抵抗을 試圖할 뿐이었다。

3월 8일 : 사단은 敵의 部分的인 抵抗을 받았으나, 優勢한 航空 對地攻擊 및 砲兵火力을 最大로 이용하면서 계속 전진하였다。이때 敵은 少數의 兵力을 要所에 配置하여 사단의 진진을 遲延 시키면서 主力은 계속 北으로 退却하는 誘引戰法을 피하는 것으로 推測되었다。

3월 9일 : 사단은 이날 제1단계 목표인 Albany線까지 진출하였으나, 右側의 美제2사단의 진출이 遲延되어 戰線前方에 대한 정찰을 실시하는 한편 사단의 兩側에 정찰대를 파견하여 진격중인 隣接부대와 連結을 企圖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은 2일간에 걸쳐 정찰활동을 계속하는 동안 3월 13일에 이르러, 隣接인 美제2사단 및 기갑사단이 Albany線까지 진출하므로써 Ripper작전의 제1단계는 끝을 맺었고 제2단계에는 洪川을 連하여 設定된 Baker線까지 進擊키로 계획하였다。

(3) 第二段階作戰

3월 14일 : 사단은 이날 다시 Baker 線을 向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때 美제9군단은 해병사단과 기갑사단이 迅速히 전진하는 동안 洪川 北쪽에 제187空輸聯隊戰鬪團을 投下하여 洪川부근의 敵을 包圍擊滅코자 계획하였으나 敵의 主力이 이에 앞서 退却하므로써 그 計劃을 中止키로 하였다。

3월 15일 : 이날 左側의 제7연대(장, Litzenberg 대령)는 橫城—洪川間의 幹線도로를 따라 迅速히 전진하여 洪川을 무난히 점령하였으나 右側의 제1연대(장, McAlister 대령)는 洪川 東쪽의 △246, △429로부터 執拗한 抵抗을 받았다。

이때 제1연대는 제2대대(장, Robert K. McCellard중령)가△246, 제3대대(장, Banning 중령)가 △429를 각각 공격하였는데, 제2대대는 △246을 점령한 다음 E중대(장, Johnny L. Carter 중위)로 △429의 側面을 目標로 迂回하여 제3대대와 連結을 企圖하였으나 역시 執拗한 敵의 抵抗에 부딪치게 되자, 대대장 McCellard중령은 12.30에 D 및 F중대를 同時에 投入하여 공격을 계속하였다。그러나 敵은 優勢한 陣地에 배치되어 熾烈한 抵抗을 계속하므로써, 대대는 일단 △246으로 다시 撤收한 다음, 야간전투에 對備하였다。이날 전투에서 제2, 제3의 兩個대대는 中共軍 93명을 사살하고, 전사 7명, 부상 86명의 손실을 입었다。

3월 16일 : 사단장 Smith소장은 제1연대가 苦戰하게 되자, 예비대인 제5연대의 제3대대(장, Donald R. Kennedy 중령)를 제1연대의 右側에 投入하여 연대를 支援토록 措置하였다。

이날 아침, 제1연대는 다시 △429를 공격하였는데, 敵은 지난 밤사이 모두 退却하고 말

았으므로 연대는 無難히 高地를 奪還하였다。

또한 제7연대는 洪川 北쪽의 △339를 공격하여 敵의 抵抗을 물리치고 高地를 점령하였으므로 이로써 사단은 Baker線을 완전히 確保하고 다음단계의 공격을 준비하였다。

3월 17일 : 사단은 이날 군단으로부터 계속 Bufflo 線까지 進擊을 계속하라는 명령을 받고 사단장 Smith 소장은 左一線인 제7연대와 제5연대를 交代하여, 제1연대를 右一線, 제5연대를 左一線, 제7연대를 예비로 공격을 再開하였다。

또한 이날 UN軍사령관 MacArthur 元帥가 사단의 前線을 視察하고, 將兵들을 激勵하므로써 사단의 士氣는 더욱 높아졌다。

3월 18일 : 敵은 全戰線에서 我軍의 電擊的인 進擊과 優勢한 航空爆擊으로 계속 敗走하여 北上 退却하고 있었다。사단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敗走하는 敵을 追擊하여 迅速한 전진을 계속하였다。또한 이날, 韓國해병 제1연대(장, 金聖恩대령)가 東部戰線의 韓國軍 제3군단으로부터 사단에 배속되어, 韓美해병대는 다시 合同 작전을 展開하게 되었다。

(4) 第三段階作戰

3월 20일 : 사단은 迅速한 전진을 계속한 끝에, 이날 Bufflo線에 진출하였고, 이어서 제3단계 작전으로써 제1연대를 右一線, 韓國해병제1연대를 中央, 제5연대를 左一線, 제7연대를 예비로 하여 Ripper 작전의 最終목표선을 向하여 공격을 계속하였다。

이때 사단의 前方에는, 敵의 主力인 中共 제66, 제39 兩군이 모두 38°線 以北으로 退却하고, 이와 交替된 北共軍이 사단의 전진을 阻止하면서 主力의 後退를 掩護하고 있었다。

3월 24일 : 사단이 進擊하는 동안, 가장 熾烈한 전투를 展開하였던 곳은 中央의 韓國해병제1연대 지역에 있는 加里山 전투였다。(해병대의 洪川부근 전투 참조) 그러나 이날 韓國해병제1연대가 이 高地를 점령하므로써 左, 右側의 제5, 제1연대로 역시 Cairo 線에 진출하여 사단은 Ripper 작전의 最終 목표선을 모두 確保하였고, Ripper작전은 終了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사단은 Ripper작전이 끝난 다음, 계속 進擊하여 4월 3일에는 昭陽江까지 진출하였다。

이때 敵은 敗退를 거듭한 끝에, 이른바 鐵의 三角地帶인 鐵原—金化—平康 一帶에 集結하여 次期 攻勢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美제8군은 敵의 攻勢를 事前에 粉碎하기 위하여 38°線을 넘어 北進을 계속키로 하고 一部戰線을 再調整하였다。

이에 따라서 사단은 4월 10일, 蓉川北方의 Kansas線에 진출하였던 美제1기갑사단과 交代한 다음 華川을 向하여 계속 進擊하였다。

17. 海軍의 永興灣島嶼 上陸作戰 (1951년 2월 7일부터 1951년 3월 4일까지)

참조 : 상황도 33, 34, 35호
작명부록 제 262호

가. 참가함정 및 주요 지휘관

我軍			美 海軍
麗島상륙작전 지휘관	중령	柳 海 巨	美 海軍 제112 驅逐艦戰隊
LST—801함	장 중령	柳 海 巨	사령관 대령 B. F. Roeder
YMS—505함	장 중위	姜 基 憲	美 驅逐艦 Wallace L. Lind號
YMS—507함	장 중위	白 麟 基	함 장 중령 E. B. Carlson
YMS—501함	장 대위	咸 德 昌	美 驅逐艦 Ozbourn號
YMS—512함	장 중위	朴 世 忠	함 장 중령 C. D. Akers
YMS—513함	장 중위	蔡 在 錫	美 海軍 제3 掃海戰隊
제 5 三葉丸	船長	鄭 元 出	사령관 대령 R. C. Williams

나. 작전 전의 개황

中共軍의 侵略으로 인한 戰局의 急變으로 全戰線은 一時 38°線 以南으로 撤收하게 되었으나 51년 2월에 들어서면서 UN군은 鳥山—三陟 線에서 反擊戰을 전개하여 北進을 계속하고 있었다. 東部戰線의 首都師團이 三陟에서 江陵으로 진격을 하고 있을 무렵 해군에서는 UN군과 긴밀한 協調밑에 元山 앞바다까지 깊숙히 침투한 다음 永興灣내의 여러 섬을 점령함으로서 敵의 側背를 찌르는 上陸作戰을 계획하게 되었다。

이 작전이 성공하는 경우 地上에서의 我軍의 작전에 呼應하여 전체戰局에 미치는 영향은 要旨 다음과 같은 觀點에서 매우 클것으로 豫想되었다.

① 敵은 元山市의 방어를 위하여 불가불 一線에서 병력과 장비를 빼돌려야 할 것이며 이는 곧 戰線에서의 敵의 戰力의 弱化를 뜻하게 될 것이다。

② 同 灣의 敵의 機雷를 掃海함으로서 앞으로 있을 我軍의 作戰에 能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我軍이 앞으로 元山 北쪽으로 진격하는 경우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後方支援을 위하여서는

元山港口의 存在價値는 매우 크고 그 利用의 必要性이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③ 元山은 東海岸의 敵의 交通의 要衝地로서 戰線으로 연결되는 기차나 자동차 통로가 元山에 집중되므로 이에 따라 同港의 확보는 이 交通路를 掩護하거나 또는 제압하기 위한 함포사격을 보장할 것이다.

④ 我軍의 同 港의 확보는 敵에게 있어서는 곧 東海岸의 가장 중요한 港口를 폐쇄당하고 그 大動脈을 切斷당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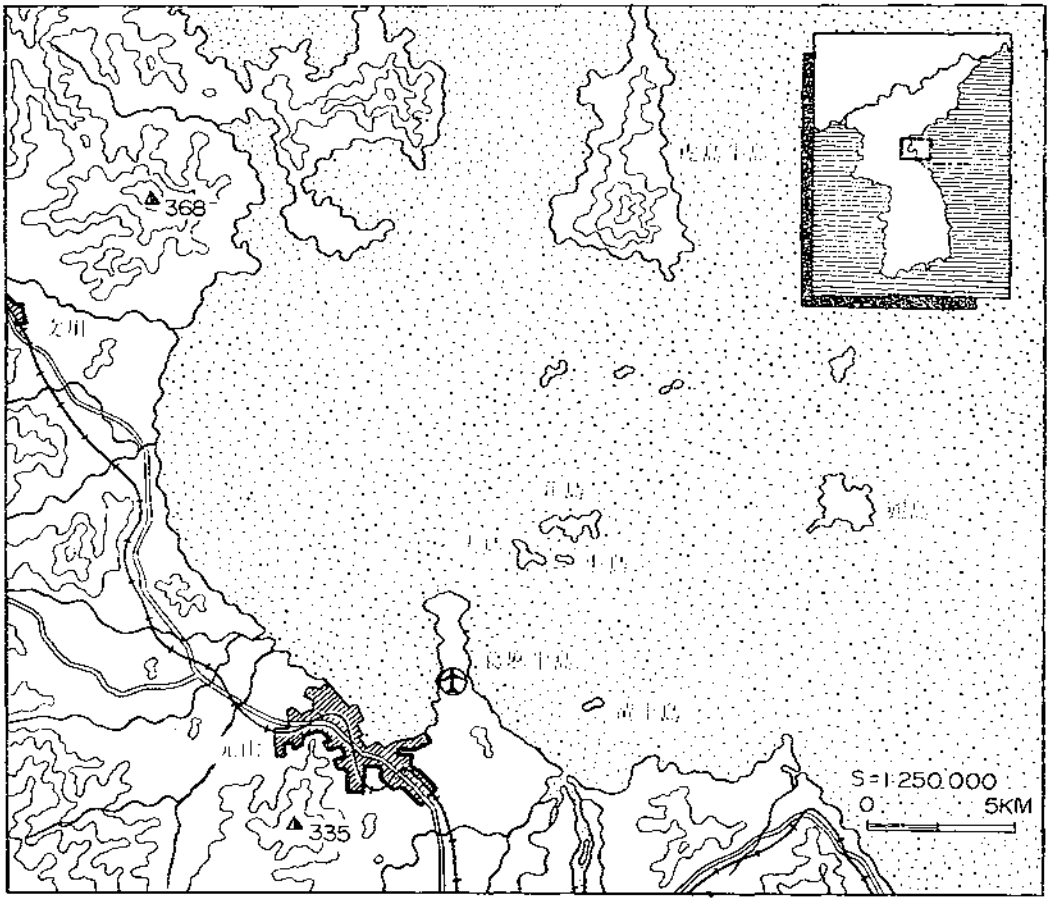
⑤ 我軍의 정보수집과 遊擊 활동의 절호의 근거지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⑥ 同 地域에 출격하는 우리 항공기나 조종사의 중요한 탐색 및 구조지점이 될것이다.

⑦ 우리 地上軍이 보다 南쪽에서 작전을 전개하고 있을 때 敵의 후방의 중요지점을 감령하고 함포사격이 계속될 때에 敵에게 주는 威脅的인 効果와 我軍에 미치는 鼓舞的인 効果가 決코 無視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永興灣에서 작전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要旨 다음과 같은 觀點에서 보다 많은 위험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 상황도 제33호 永興灣 地形圖



① 同灣은 三面이 육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敵으로부터 치열한 포격을 받게될 것이다.

② 지난 가을에 있어서의 我軍의 소해작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機雷가 남아 있을뿐 만아니라 敵은 그 동안에 이미 소해를 완료한 구역에 까지도 새로이 기뢰를 부설하였을 것이 예상된다.

③ 敵의 기뢰의 존재와 더불어 同灣 내의 수많은 작은 섬과 暗礁 그리고 沙洲는 함정의 행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 麗島 上陸作戰

(1) 작전계획

韓國海軍의 LST—801함장 鄭海臣 중령은 1951년 2월 6일에 海本 作命甲 제67호로서 元山앞 永興灣의 麗島에 대한 上陸作戰 指揮官에 임명되었으며 아울러 다음과 같은 요지의 목적과 계획도 하달되었다。

① 我軍은 海兵隊를 麗島에 上陸시켜 이섬을 점령 확보하여 據點으로 하는 동시에 敵의 기뢰부설을 방지하고 육상에서의 敵의 情報를 수집함으로서 次期작전에 대비코자 한다.

② 이 上陸作戰의 指揮官은 LST—801함에 승조하여 2월 7일 11.00에 釜山을 출항하여 鎭海와 墨湖에서 지정된 海兵隊 兵力과 기타 軍需物資를 적재하고 2월 10일 07.00까지 麗島에 도착하는 즉시로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同島를 확보하라.

③ 海兵隊 鎭海搜索部隊의 責任將校는 海兵隊 兵力을 차출하여 2월 7일에 鎭海에 입항하는 LST—801함에 승조시키라.

④ 墨湖警備府 사령관은 예속 해병대를 2월 9일 06.00에 墨湖에 입항하는 LST—801함에 승조시키라.

⑤ YMS—505함(장, 姜基源중위)은 第5 三榮丸(船長, 鄭元昌)을 지휘하여 麗島에 도착한 다음 上陸作戰 指揮官의 지휘를 받아 麗島의 敵情을 수색하라.

⑥ 上陸作戰 指揮官은 YMS—505함과 三榮丸의 수색 결과를 보아 麗島에 敵이 있을 때에는 YMS—505함과 美 海軍艦艇에 연락하여 함포사격을 실시하여 敵을 완전히 제압한 뒤에 상륙을 실시하라.

⑦ 軍需局長, 兵器監, 通信監, 醫務監, 人事局長, 情報監 등에 각 소관 업무면에서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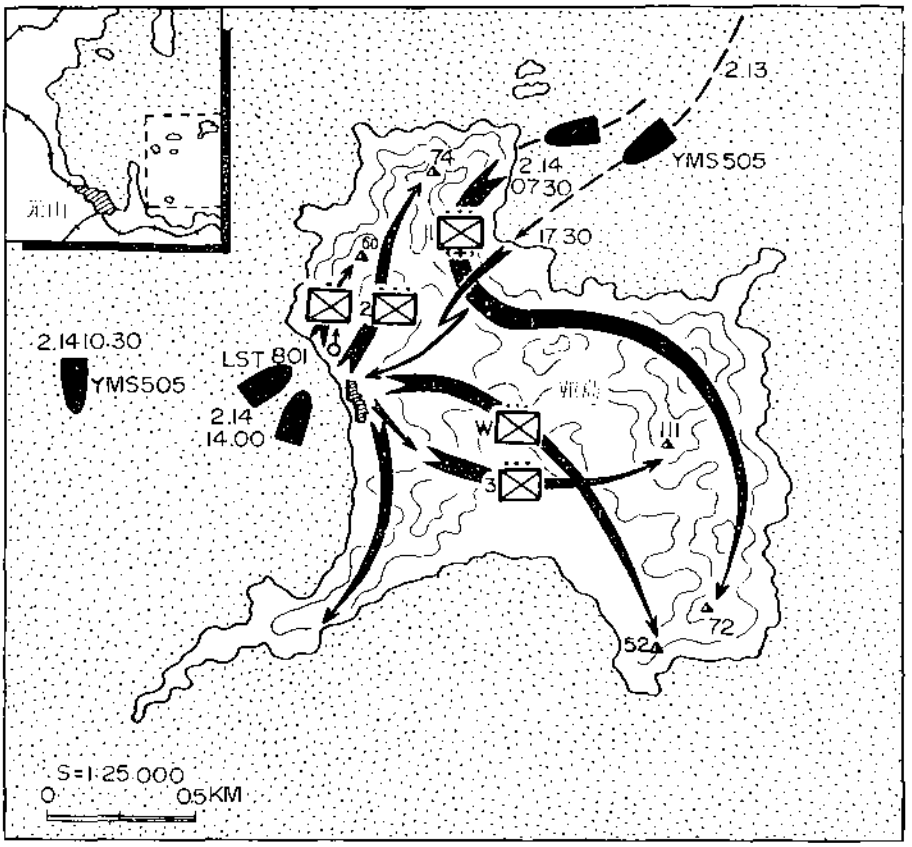
(2) 작전 실시

2월 7일 11.00에 前記와 같은 作命에 따라 釜山을 출항한 L S T—801함은 16.00에 鎭海에 도착하여 海兵隊 兵力을 탑재하고 다시 23.00에 鎭海를 출항하였으며 8일 07.30에 다시 釜山에 寄港하여 燃料와 彈藥 및 裝備등을 적재하고 17.30에 墨湖를 향하여 출항하였다。

9일 15.30에 墨湖에 입항한 LST—801함은 10일 10.00에 海兵隊兵力을 승조시키고 이곳에서 합류한 Y M S—505함의 淸水補給이 끝나는 16.00에 출항할 예정으로 있었으나 海軍本部로부터, 美海軍에서 앞으로 있을 작전의 사전협의를 墨湖에서 갖도록 요청하여 왔다는 急電에 따라 대기하게 되었다。

11일 09.00에 가다리던 美海軍의 驅逐艦 1척과 LST 1척 및 掃海艇 7척이 墨湖에 입항하였으며 兩者의 會合에서 美掃海艇은 11일밤 안으로 麗島에 도착하여 그 부근 一帶 海域의 掃海作業을 실시할 것과 LST—801함은 13일 10.00에 北緯 39° 18′06″ 東經 128°

◇ 상황도 제34호 麗島上陸戰(51. 2. 13~14)



06′04′ 지점에서 美 驅逐艦과 상봉하여 작전지역까지 수로를 안내한다는데 합의를 보았다。

12일에 LST—801함은 YMS—505함과 漁船 三榮丸을 指揮하고 墨湖를 출항하였는데 한편 美 掃海艇들은 전날의 협의에 따라 이날 麗島 일대의 소해작업을 완료하였다。

13일 10.30에 LST—801함은 北緯 39° 17′ 東經 127° 50′ 지점에서 전날에 약속한 대로 美 掃海驅逐艦(DMS) 35호(Endicott호)와 상봉하여 開14일에 실시될 구체적인 작전을 협의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美艦과의 협의가 끝나자 上陸作戰 指揮官은 YMS—505함과 三榮丸으로 하여금 麗島의 敵情을 수색토록 지시하였다。

17.00에 YMS—505함은 三榮丸을 거느리고 麗島에 도착하자 우선 主砲로서 同島 上峰에 威嚇射擊을 加하였으나 아무런 저항이 없었으므로 三榮丸을 接岸시켜 捜索隊(장, 沈熙澤 소위) 14명을 상륙시켰던 바 同隊는 마을로 진격하여 島民 5명을 동반하고 18.20에 전원 무사히 歸艦하였다。

島民들로부터 聽取한 現地의 형세는 要旨는 다음과 같았다。

『① 1월 16일에 北共軍 87명이 麗島에 상륙을 기도하였으나 島內의 靑年 300명의 역습을 받은 결과 전멸하였으며 靑年들은 후환이 두려워 그날로 帆船을 타고 墨湖로 南下하였다

② 1월 26일 새벽 敵 약 1개중대가 상륙하여 이틀 동안 체류하다가 元山으로 돌아갔다.

③ 현재로는 공산당원 3명이 잠복하여 정보수집과 공산당 조직에 종사하고 있다.

④ 이 섬에는 현재 民家 32戶에 주민 200명과 피난민 200명이 살고 있다。』14일 07.30에 드디어 上陸作戰은 개시되었다. LST—801함에 승조하였던 海兵隊의 제1소대와 수색분대의 45명의 선발대가 三榮丸에 옮겨 타고 LST—801함과 YMS—505함 그리고 美 驅逐艦 LST등 11척의 함포지원을 받으면서 10.30에 △74 東端에 상륙하는데 성공하였다。(上陸후의 部隊 動靜은 本卷 所載「海兵隊의 活動」參照 以下 각 작전 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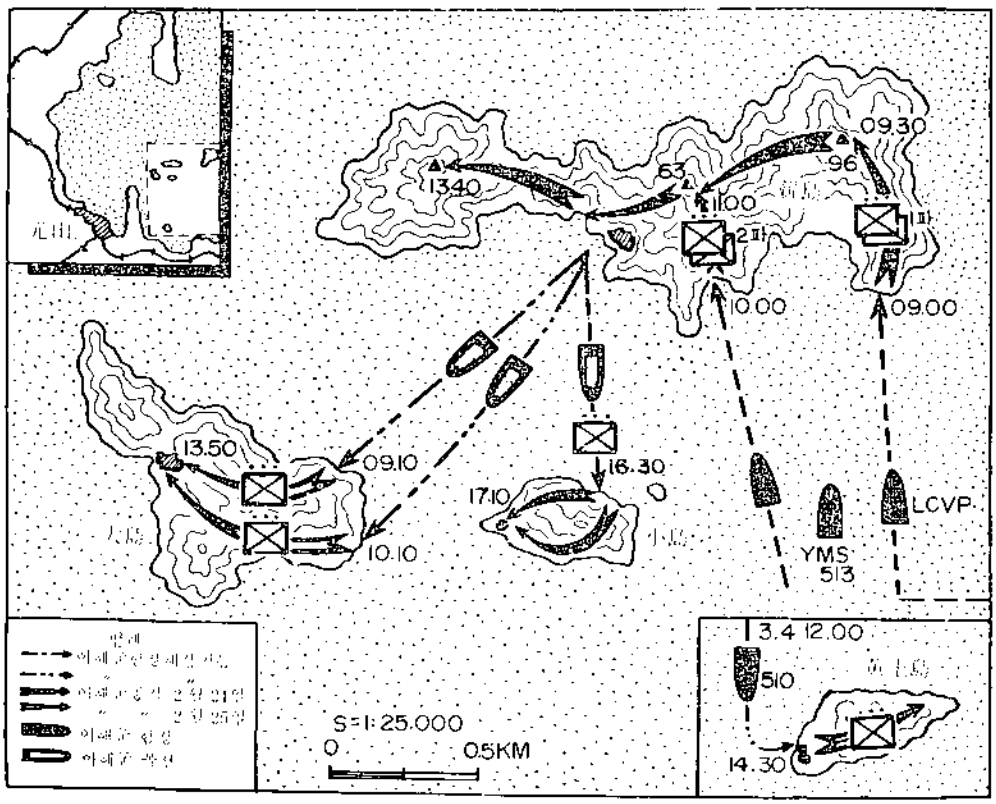
한편 部隊 主力을 태운 LST—801함은 美 驅逐艦의 先導로 섬을 迂回하여 12.30 麗島 西쪽 灣에 이르러 14.00에 接岸시켜 海兵隊의 제2, 제3소대를 상륙시켜 兩소대가 순조롭게 진격을 계속하자 15.30에 重火器小隊와 砲分隊에 이어 中隊本部를 상륙시켰으며 揚陸部隊는 彈藥과 兵器 그리고 기타 軍需品과 補給物資의 揚陸作業을 실시하였는데 이때에 島民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많았다. 10.00에 드디어 상륙한 부대는 全島를 장악하였는데 이 작전에 참가한 海兵隊는 中隊長沈熙澤 소위가 거느리는 233명이었으며 작전중 我의 손실은 전무하였다。(戰果에 대하여는「海兵隊의 活躍」參照 以下 각 작전 동)

◇ 기타 島嶼(薪島 小島 大島 黃土島) 上陸作戰

永興灣의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麗島의 점령에 성공하자 이 섬을 중심으로 韓美 海軍의 掃海作業에 이어 艦砲射擊과 空中支援 등 제반에 걸친 활동이 전개되었으나 보다 본격적인 작전의 敢行을 위하여서는 同灣內의 다른 섬들에 대한 점령확보가 절실히 요망되었다. 이에 따라 海軍에서는 美 海軍의 제95機動部隊 사령관 A. E. Smith 소장의 요청으로 同灣의 薪島와 小島 그리고 大島와 黃土島 등 여러 섬에 대하여 차례로 상륙작전을 실시하여 모두 확보하게 되었다.

薪島는 麗島의 西쪽에 있어서 元山에 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敵의 飛行場이 있는 葛麻半島로부터는 4,000yds 떨어져 있어 함포사격을 위한 관측소보서 絶好의 위치일 뿐 아니라 元山市內의 동정을 한눈에 살피는데도 유리한 곳이었다. 또 黃土島는 본래 나무하나 없는 황량한 바위섬이며 육지에서 불과 3,000yds 거리에 있어 元山市와 적의 砲陣地에서 가장 가깝게 있으므로 이 섬의 高地에서 바라보면 元山市街는 물론 적의 飛行場과

◇ 상황도 제35호 薪島—小島—大島—黃土島上陸戰(해군·해병대)(1951. 2. 24—2. 25)



主要 補給路인 安邊道路 특히 道路 要所의 橋梁까지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여 이섬의 확보는 작전상 지극히 중요한 곳이었다。

(가) 薪島 上陸作戰

수집된 정보에 의하면 敵은 이 섬의 東部海岸 高地에 76mm 砲 3문으로 진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南쪽 海岸에 指揮所를 두고 있는 듯하였다. 이에 아군은 상륙부대를 2 분하여 이 섬의 東南端과 南쪽 해안에 상륙을 실시키로 하고 美 함정은 함포지원을 담당토록 계획하였다。

2월 24일 07.00에 海兵隊의 상륙에 앞서 美 해군의 제112驅逐艦戰團(사령관 B. F. Roeder 대령)에 屬하는 2척의 驅逐艦 Wallace L. Lind호(함장 E. B. Carlson 중령)와 Ozbourn 호(함장 C.O. Akers 중령) 등에 의하여 함포사격이 시작되었다. 약 두시간 계속된 이 사격에서 358발의 5″ 포탄과 259발의 3″ 포탄이 集中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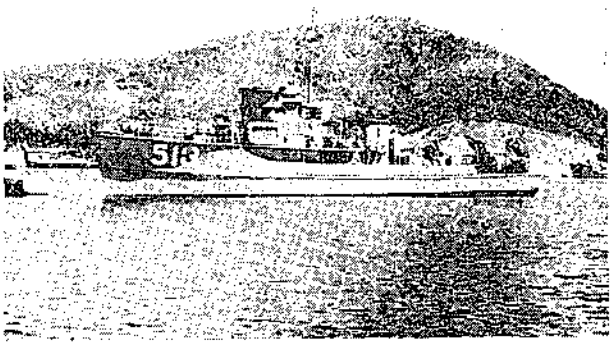
한편 이와 때를 같이하여 07.30에는 LST—801함에 승조한 海兵隊의 제1, 제2소대와 중화기분대로서 제1차 상륙부대를 편성하고 중대장 沈熙澤 소위의 지휘로 YMS—513함(장, 蔡在錫 중위)의 지원을 받으면서 薪島 東南端에 상륙을 감행하였으며 10.00에는 제3, 제4소대와 중화기소대로 편성된 제2차 상륙부대가 南쪽 海岸으로부터 상륙을 계속하였다。

이리하여 이 상륙에 성공한 각 부대는 진격을 계속하여 13.40에는 마침내 섬을 모두 장악하기에 이르렀으며 92고지에 1개분대, 73고지에 1개분대, 그리고 부락 후방 고지에 1개분대, 부락경비를 위하여 1개분대를 각각 배치하여 경비에 만전을 기하고 薪島 上陸作戰을 끝맺었다。

이 섬에는 島民 64명과 피난민 73명, 도합 137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나) 小島 上陸作戰

薪島를 점령한 뒤 일부 병력을 경비를 위하여 이 섬을 계속 占領토록 한다음 중대장 沈熙澤 소위는 병력 2개소대를 직접 거느리고 이날(24일)로 薪島 南쪽에



<薪島에 상륙작전을 지원한 YMS—513艦>

있는 小島에 상륙을 斷行하였다。

이 上陸부대는 16.00에 島民의 木船을 이용하여 薪島를 출발하여 16.30에 小島의 一角에 상륙한 다음 부대를 두 隊로 나누어 一隊는 마을로 향하게 하고 一隊는 高地를 점령키 위하여 진격하였는 바 20.00에 드디어 상륙부대는 전 섬을 장악하게 되었다。

(다) 大島 上陸作戰

小島를 점령한 상륙부대는 다음 날인 25일에 인접한 大島에 상륙을 실시하였는데 이 大島는 日帝 당시에는 日本海軍의 基地가 있던 곳이었다。

이날 08.00에 제1차 상륙부대가 島民의 木船을 이용하여 薪島를 출발한 다음 大島의 東南角에 상륙을 감행하였는데 이 때에 葛麻半島의 敵 砲壘로부터 치열한 사격이 있었으므로 上陸부대는 즉각 이에 응사하여 20분간에 걸친 교전 끝에 이를 침묵시켰으며 뒤이어 제2차 상륙부대는 10.10에 東北端에 상륙하는데 成功하였다. 이리하여 각 부대는 예정대로 진격하여 大島를 완전히 확보하였다。

(라) 黃土島 上陸作戰：

麗島를 비롯하여 永興灣의 각 島嶼를 점령한 우리 海軍은 마지막으로 黃土島에 대한 상륙작전을 실시하게 되었다。2월 20일에 먼저 수색대를 파견하여 島民 2명을 연행하여 조사한 결과 현재 적은 주둔하고 있지 않으나 상륙을 시도할 경우 육지의 敵 진지로부터 치열한 사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本來 계획으로는 3월 1일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氣象狀態가 惡化되어 작전은 3일간 연기되었으므로 다음 날인 2일에 이르러 작전개시를 기다리면서 永興灣의 경비를 담당하던 YMS—507함(장, 白麟基 중위)과 YMS—512함(장, 朴世忠 중위) 그리고 함장 YMS—513함(장, 蔡在錫 중위)은 葛麻半島로부터 적의 포격을 받고 30분 동안에 걸친 교전끝에 이를 침묵시켰다。

또한 이날 처음부터 이번 작전에 참가하여 크게 활약한 三葉丸이 이날 19.41에 심한 풍랑을 무릅쓰고 이동하다가 YMS-507함과 충돌하여 마침내 침몰하는 悲運을 맞게 되었다。

그뒤 3월 4일 12.00에 중대장 申大鉉 대위(研究 참조)의 지휘로 2개소대가 LCVP 2척에 분승하여 麗島를 떠나 도중에 YMS—510함(장 咸德昌 대위)에 옮겨타고 黃土島로 향하였다. 14.30에 美 함정의 지원사격을 받으면서 섬 西端에 상륙하고 島내로 진격을 개시하자 元山方面으로부터 적의 迫擊砲彈이 集中하기 시작하였다. 해상의 우리 함정에서는

즉각 집중적인 함포사격으로 이에 맞서 마침내 적의 포격 제압하였으며 상륙한 부대는 16.30에 섬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 研 究

1. 本 作戰에 對한 文獻으로는

가. 海軍本部 作戰局 刊行의 『作戰經過報告書』 卷三(自 1951年 1月 1日 至 1951年 3月 31日)에 收錄된 「元山港 麗島及 各 島嶼上陸作戰 戰鬪詳報 (自2月 7日 至2月 28日 現在)」와 「元山 新島 上陸作戰 1951. 2. 24 海兵隊麗島駐屯部隊」가 비교적 體系的인 內容을 갖고 있고 그밖에 該當 作戰期間 중의 「作戰經過」條에 散發的으로 나타나는 斷片的인 記錄이 있으며 (以下 "가" 史料라 칭함)

나. 海兵隊司令部 刊行의 『東海地區 戰鬪詳報(自1951年 2月 13日 至1951年 9月 30日)』 11卷에 收錄된 各島嶼別 「戰鬪詳報」가 있다. (앞으로 "나"史料라 칭함)

다. 美 海軍 側 史料로 美國의 Uuited States Naval Institude에서 刊行한 Malcolm W. Cagle 海軍中領과 Frank A. Manson 海軍中領 共著인 "The Sea War in Korea" 第12章 The Siege of Wonsan에 敍述된 內容과 (以下 "다"史料라 칭함)

라. 美國政府 刊行의 James A. Field, Jr. 著인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의 第10章 The Second Six Months가 있다. (以下 "라"史料라 칭함)

마. 한편 通史로는 海軍本部 戰史編纂室 刊行의 『大韓民國 海軍史 作戰篇』 第1輯의 第3編 第3章 「島嶼確保作戰」과 (以下 "마" 史料라 칭함)

바. 海兵隊司令部 刊行의 『海兵戰鬪史』 第1輯의 「六, 島嶼部隊의 活躍」이 있다. (以下"바" 史料라 稱함)

사. 이 밖에도 各 作戰에 參加한 海軍艦艇의 當時의 『航海日誌』가 完全치는 못하나 殘存하고 있어 利用하였다. 利用할 수 있었던 艦艇의 航海日誌는 아래와 같다。

LST—801함 1951년 2월분과 3월분
YMS—505함 〃 2월분과 3월분
YMS—507함 〃 3월분
YMS—510함 〃 3월분

위의 각 史料중 "마"史料와 "바"史料는 그 行文이나 記述內容으로 보아서 각기 "가" 史料와 "나"史料에 依存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2. "가" "나" "다" "라" 各 史料는 同一事件을 다루면서도 細部에 있어서는 相互 差異를 露呈시키고 있다. 현재 航海日誌 외에는 當時의 直接史料를 求得할 길이 전혀 없어 그 是非를 가리기 곤난하였다. 위의 史料가 모두 권위있는 곳에서 公刊된 것이기에 對照 檢討하는 讀者의 混亂을 피하기 위하여 몇몇 대목에 대한 註記를 붙인다。

3. 麗島와 新島의 上陸作戰實施의 先後 問題

"가" "나" 兩 史料가 모두 麗島에 對한 上陸作戰이 (2월 14일) 新島의 그것(2월 24일)에 앞서 實施되었다고 記述하고 있으며 LST—801함과 YMS—505함의 當時의 航海日誌도 이를 立證하고 있으나 "다"史料에서는 「元山灣 內의 여러 섬 가운데 제일 먼저 占領된 섬은 新島」 The first Island captured was Sin-do 「다음의 섬이 麗島」 The next Island occupied was Yo Do 라고 叙記하고 있어 그 先後가 뒤바뀌고 있다. 그러나 實施日字에 대하여는 "다"史料에서 新島上陸을 2월 24일로 기술하여 "가" "나" 史料에 一致하나 麗島上陸 日字에는 言及이 없다. "라" 史料에서는 新島上陸을 2월 24일에 實施한 것으로 記述하고 麗島上陸에 대하여는 따로 기술이 없

다。

4. 作戰에 參加한 美 海軍艦艇 問題

(가) 巨濟島 上陸作戰에 참가한 美 海軍艦艇에 對하여 "다"史料에는 「同島을 占領하기 위하여 제112驅逐艦戰隊 司令官(B. F. Roeder대령)麾下의 2척의 驅逐艦과 2척의 驅逐艦」이 艦砲射擊을 실시하였다고 記述하고 있는데 대하여 "라"史料에서는 「2척의 驅逐艦과 1척의 frigate艦 그리고 1척의 韓國海軍의 LST」가 參加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 서로 相違되는 점이 보이며, 韓國側의 "가" "나"史料에는 다만 「美 艦隊」라고만 記錄되어 있다。

나. 麗島 上陸作戰에 參加한 美 艦艇에 對하여 구체적으로 記錄한 史料는 없다. "가"史料에서 2월 11일 墨湖에 入港한 美 艦艇을 「掃海艇 7척 驅逐艦 1척 LST 1척」이라고 하고 2월 13일에 있었던 韓美會議에서 14일에 「美 驅逐艦 35와 相逢」한 것을 約束하였다는 記錄과 2월 14일에 上陸을 위하여 LST—801함이 「美 驅逐艦 案內」로 麗島로 출발하였다고 보인다。

11일에 墨湖에 入港한 美 「掃海艇 7척」은 그날의 협의에 따라 「11일 夜中으로 麗島 近海에 이르러 該海域을 掃海」하기로 되었는데 이는 "라"史料에 보이는 2월 12일 「美 第3 掃海艇戰隊에 의하여 시작된 掃海作業」이란 記述과 "라" 史料의 12일에 「掃海艇들이 調査차 元山水路에 들어갔다」라고 記述한 內容의 主人公 이었던 것으로 推定된다。

또한 11일 墨湖에 到着한 「驅逐艦 1척」의 驅逐艦과 13일 LST—801함과 相逢케 되는 「美 驅逐艦 35」와 14일 上陸 時 LST—801함을 麗島로 안내하는 美 驅逐艦이 모두 同一艦艇으로 보이나 「驅逐艦 35」는 當時 韓國戰爭에 참가한 美 海軍艦艇 중에는 보이지 않으며 아마도 掃海驅逐艦 DMS—35 Endicott호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확정을지 수 없는 탓으로 本文에서는 13일 條의 「驅逐艦 35」만을 掃海驅逐艦 DMS—35 Endicott호」로 補正記述하고 나머지는 原史料대로 記錄하였다。

한편 "나"史料에는 「801함, 505함, 美 구축함 美 LST 등 11척」의 支援下에 麗島 上陸作戰이 實施되었다고 記述되었다. 이 11척 중 未詳의 7척은 "가"史料에 보이는 墨湖에 入港한 美 「掃海艇 7척」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推定이 옳다고 하면 麗島 上陸作戰에 參加한 美 艦艇은 11일 墨湖에 入港한 美 艦艇과 一致한다. 따라서 이 作戰에 참가한 美 海軍艦艇은 驅逐艦 (DMS—35) 1척 LST 1척 掃海艇 7척이었던 것 같다。

5. 上陸部隊의 兵力 問題

"가" 史料에 보이는 「元山港 麗島 及 各 島嶼 上陸作戰 戰鬪詳報」所收—의 海本 作命 甲 第67號에는 2월 7일 「19.00까지 指定된 海兵隊 000名 及 所要 軍需品을 積載 完了」한 것과 「2월 9일 06.00墨湖에 到着 即時 海兵隊 000명을 便乘시킨 것을 命하고 있으나 肝要한 兵力數字는 缺字되어있고 「四, 二月 十四日 上陸 當時의 出動編成表」에는 將校 5명 士兵 218명 합계 223명으로 記錄되어있다. 그러나 LST—801함의 航海日誌 2월 7일欄에는 「18.30 海兵隊 103명 其他 物資積載」라고 記入해 있고 2월 10일 欄에는 墨湖에서 「海兵隊 100명」이 乘組한 것으로 記錄되어 있어 합하면 203명이 된다。

한편 巨濟島上陸 時의 兵力을 "다"史料에는 「韓國 海兵 210명」이라고 하고 "라"史料에서는 110명의 韓國 海兵隊」가 作戰에 참가하였다고 記述하고 있어 서로 다른 숫가를 들고 있으나 韓國側의 "가" "나" 史料에는 모두 분명한 兵力數의 기록이 없다。

그러나 巨島에 上陸을 실시한 부대가 제1소대 제2소대 제3소대 제4소대 중화기소대 등으로 기록되어 아마도 麗島에 上陸한 全兵力이 이에 참가하지 않았나 싶다。

6. 三榮丸 問題

"가" "나" "마" "바" 등 韓國側 史料에는 「三榮丸」「三浪丸」 등이 作戰에 參加한 것으로 나온다. 即 "가" 史料 所收 海本 作命 甲 제67호의 三, 9에 「505함은 제5 三榮丸을 指揮하여 2월 9일 12.00 墨湖를 出港하여 2월 10일 麗島 北端에서 801함과 상봉 上陸部隊 指揮官의 指示를 받아 「主先發動船 三榮丸을 同島에 接岸시켜」 敵情을 수색하도록 命令을 받는데 여기에 보이는 「三榮丸」 「제5 三榮丸」이 同 作命 三, 10에서 「제5 三浪丸은 505함의 지휘를 받아 上陸作戰에 참가하라」라고 「제5 三浪丸」으로 記錄되어 있다.

이같은 誤記混用은 "가"史料의 도처에서 發見된다. 同 史料 所收 作戰命令의 「四, 水路指示」의 3項에 「三榮丸」으로 麗島 敵情을 수색하는 것에 言及하였고 「二, 戰鬪經過」의 5項에서는 2월 12일 505함과 같이 墨湖를 出港한 船舶을 「三浪丸」으로, 13일의 敵情 搜索을 「三浪丸」이 實施한 것으로 記錄하고 9項에서는 2월 14일의 先發隊의 上陸을 「505함에 호위된 三浪丸」으로 표시하였다고 記錄하였다.

이 밖에도 "가"史料의 2월 13일의 「海上作戰現況」 欄에는 801함, 505함과 더불어 「삼랑호」가 墨湖에서 北上 중인 것으로 圖示되어 있으며 14일, 15일 欄에는 「삼랑호」가 801함, 505함과 더불어 元山 前洋에서 作戰 중인 것으로 圖示되었다.

또한 "가"史料에 收錄된 「上陸經過 及 兵力配置圖」에도 2월 13일의 수색작전이 「三浪丸」으로 實施된 것으로 記錄되고 上陸時에도 801함과 더불어 「三浪丸」이 보인다.

이와 같이 "가" 史料에서 보는 兩 船舶名의 混用은 海軍本部의 公式刊行物인 通史 "마"史料에서는 모두 三浪丸으로 統一 記述되고 말았다. 한편 海兵隊側의 "나"史料나 公刊 通史인 "바" 史料에서는 三榮丸으로 記述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混亂을 가져 온 이 船舶이 「제5 三榮丸」인 것은 分明하다. 즉 YMS—505함의 航海日誌 2월 6일 欄에는 「07.00 第5 三榮丸 浦項警備府에서 派遣되어 墨湖 入港」이라고 記入되어 있으며 또한 13일의 摘要欄에는 「No. 5 삼영환에 수색부대 便乘함」이라고 記入돼 있다.

또한 "가"史料의 3월 2일부의 「戰鬪經過」 5項에 「元山 麗島 上陸作戰에 參加하였던 三榮丸이 遭難 當한 것으로 記錄되었으며 이 조난 사실은 YMS—507함의 航海日誌 3월 2일 欄에도 三榮丸의 遭難經過가 자세하게 記錄되어 있다. 同 日誌에 의하면 同 船은 浦項警備府 徵發船으로 船主 鄭南浩 船長 鄭元出 徵發登錄番號 No. 0626號 乘組員 6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附加하여 同 船의 遭難經緯에 관련된 記錄으로는 既述한 것 외에도 海軍本部 政訓監室 刊行의 『해군일화집』 제2권에 수록된 「34,507정장의 동료애」와 海軍本部 所藏文書인 『함정관계철』1951 <5101>이 있다.

7. 黃土島 上陸部隊의 中隊長

"나" 史料에는 沈熙澤 소위로 기재되어 있으나 YMS—510함의 航海日誌 3월 4일 欄의 14.25에는 「麗島 주둔 중인 我 海兵隊 一部 中隊長 大尉 申大鉉 以下 29명 승조 黃土島 上陸作戰차」라고 記入되어 있어 本文에서는 後者를 택하였다.

18. 海軍YMS—514艦의 通川地區 奇襲戰 (1951년 3월 21일부터 1951년 3월 22일까지)

가. 참가함정 및 주요 지휘관

YMS 514함 장 대위 玄 時 燕

나. 전투경과의 개요

韓國海軍의 YMS—514함장 玄時燕 대위는 海本 作命 甲 제116호에 의거 元山灣 一帶의 警備任務를 UN해군과 협동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3월 24일 釜山을 출항한 다음 一路北上한 끝에 6일에 元山灣의 麗島에 도착하였다.

이 무렵 同 海域에서는 島嶼確保作戰을 성공리에 마친 我 海軍과 UN海軍이 同灣의 掃海作業을 활발히 전개하는 한편 元山市를 中心한 적의 군사요지에 연일 집중적인 함포사격을 감행하고 있었고 이에 자극된 敵도 元山市와 그 주변의 葛麻半島와 虎島半島 등 연안에 다수의 海岸砲를 架設하고 작전 중의 우리 함정에 치열한 포격을 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海陸의 對峙가 절정에 있을 시기에 같은 灣의 경비를 담당한 514함은 3월 15일 UN함대의 요청으로 葛麻半島의 敵의 海岸砲 사정권내 깊숙히 침투하여 13.00와 16.10의 2次에 걸쳐 敵과 치열한 포격전을 전개한 바 있으며 20일 13.40에는 虎島半島 근처에 추락한 UN航空機 조종사를 救出하는 등 활약이 많았다.

3월 21일 旗艦인 美 驅逐艦 696호로부터 514함에 特殊任務가 부여되었으니 그것은 곧 敵陣 깊숙히 침투하여 情報活動을 전개하고 있는 UN정보원과 접촉하여 지원과 연락을 취하라는 것이었다.

그날 18.00에 北緯 39°16′ 東經 124°44′24″地點에서 美 驅逐艦 777호와 상봉하여 美 정보장교 2명, 한국 육군의 정보장교 1명을 승조시키고 아울러 현지 정보원에게 지급할 資材와 補給物을 인수 적재한 다음에 20.40 목적지를 향하여 出航하였다.

목적지인 江原道 通川地區에 이르는 海岸線일대는 敵이 점거하고 있어서 514함은 東海를 우회하여 항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진로를 東으로 잡고 東海로 나가 北緯 39°18′ 東經

128°04′地點에서 針路를 179°로 變針하여 南進을 계속한 다음 卵島 西前方인 北緯 39°01′ 東經 128°03′48″地點에서 다시 286°로 變針하고 일로 목적지로 치달렸다。

3월 22일 01.35에 목적지인 通川郡 七賓里 前洋(北緯 39°03′25″ 東經 127°49′)에 도착하여 投錨한 뒤 이미 도착하여 육지에서 대기하던 우리 정보원에게 武器와 食糧 기타 자재를 고무 보드로서 공급한 다음 그들이 수집하여 놓은 정보를 入手하였다。

그들 정보원의 말에 따르면 그 곳 七賓里에서 약 1.5miles 南쪽인 浦川 南쪽 高地 중턱에 북괴군 약 275명이 큰 병사를 짓고 주둔중이며 砲 3문도 가설하고 있다는 것이었다。그러나 敵은 동 지구 前洋에 機雷를 부설하여 놓고 있는 까닭에 我軍이 해상으로부터 침공하여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여 放心하고 있는듯 함으로 海上으로부터 공격을 감행하는 경우 적의 섬멸이 가능하리라는 것이었다。

일단 부여된 임무를 완수한 514함은 상기 정보에 따라 적을 기습 섬멸할 것을 기약하고 04.05 상기 지점을 출발하여 04.05 浦川 南쪽 入口의 前洋 1,000m까지 果敢히 肉迫하여 들어갔다。

때마침 떠오른 보름달의 月光으로 고지에 자리잡은 적의 커다란 兵舍를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으며 적은 我艦의 출현과 앞으로의 자기 운명을 꿈에 눈치채지 못한듯이 마치 颱風前夜와도 같은 無氣味한 靜寂만이 감도는 가운데 잠들고 있는듯 하였다。

04.45에 드디어 514함의 主砲가 砲門을 열었으며 제1탄이 적의 兵舍에 명중하여 불꽃을 튀겼고 이어서 전 砲門이 불을 뿜고 적 병사에 炸烈하였다. 불기둥이 中天에 솟아 올랐고 上空을 붉게 물들어 놓았다。

05.03에 이르러 敵의 兵舍가 완전히 燒燼된 것을 확인한 연후에 사격을 중지하고 이어서 적의 砲臺가 가설된 고지에 대하여 砲彈의 세례를 퍼부었다。

이리하여 기습은 성공한 것이며 적의 진지 후방에서 관전하던 우리 정보원에 의하면 적의 병력은 거의 섬멸되었고 砲臺도 完全히 파괴되었다고 하였다。

이 기습전에서 514함은 20mm포탄 550발, 40mm포탄 208발, 重機關銃彈 575發을 적에게 퍼부었다。

모든 작전을 끝내고 04.05에 同地를 출발한 514함은 07.20에 美驅逐艦 777호 右舷에 계류하여 便乘하였던 情報將校들을 내려놓고 다시 元山灣 경비 임무에 돌아갔다。

19. 海軍의 掃海作戰 (1951년 1월 1일부터 1951년 5월 31일까지)

참조 : 상환도 제 36, 37호

가. 참가 함정 및 주요 지휘관

第1掃海艇隊 사령관 중령 尹 英 遠
YMS—501함 장 대위 李 琓 鎬
YMS—502함 장 대위 姜 景 遠
YMS—503함 장 중위 張 琓 燮 (51. 4. 8까지)
장 중위 金 正 卿 (51. 4. 18까지)
장 대위 金 燗 培
YMS—506함 장 중위 金 顯 浩
YMS—507함 장 중위 白 麟 基 (51. 3. 14까지)
장 중위 申 光 永
YMS—512함 장 중위 朴 世 忠 (51. 3. 12까지)
장 대위 姜 壽 福
YMS—515함 장 대위 鄭 一 燦

나. 掃海作戰 前의 상황

1950년 겨울 中共軍이 鴨綠江을 건너 侵略함으로써 戰局은 一變하여 我軍은 부득이 38°선 이남으로 戰略的인 後退를 斷行하게 되었는데 이 같은 情勢의 急變은 우리 海軍의 對 機雷戰에도 새로운 局面을 열어 놓게 되었다。

즉 北韓의 全 海岸을 다시 차지하게 된 敵은 반드시 주요 港灣과 海岸에 또다시 機雷를 敷設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싸움에서 海軍의 海岸封鎖와 艦砲射擊 그리고 戰勢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上陸作戰 등 海軍作戰에 의하여 甚大한 打擊을 받았던 적은 앞으로도 海上勢力의 一方的인 열세를 挽回하기 어려운 처지에서 취할 수 있는 對策이란 고작 海岸砲臺의 增設이 아니면 보다많은 機雷의 敷設을 企圖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해에도 우리 海軍은 仁川—鎭南浦—元山 등지에 부설된 繫留機雷와 東西 海域의 到處에서 浮游하고 漂流하는 機雷로 말미암아 作戰上 또는 艦艇의 運航上에 있어 커다란 지장을 받았었고 우리 함정의 高貴한 희생도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豫想되는 적의 이같은 對應조처에 맞서기 위한 우리 海軍의 對 機雷戰의 態勢에도 지난날에 比하여 여러모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으니,

첫째로, 掃海作戰을 專擔하기 위하여 韓國海軍에 第1掃海艇隊가 創設되어 本格的인 活動을 전개할

것을 들 수 있다。지난해 10월 23일에 있었던 이 艇隊의 發足以前에도 우리 海軍에는 美國으로부터 移讓받은 掃海艇(AMS)과 解放된 日本海軍에서 접수한 掃海艇(JMS)이 있기는 하였지만 본래의 임무인 掃海作業보다도 주로 沿岸警備에 전력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난해 가을에 前記한 鎭南浦—仁川—元山 등지에서 UN군의 작전상의 필요에서 掃海問題가 제기되었을 때에도 우리 해군으로서는 掃海作業을 수행할 編制나 裝備 그리고 訓練된 乘組員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艦艇單位로 海軍에 協力하는데 그쳤던 것이다。

둘째로, 裝備와 技術面에서의 質的 向上을 들 수 있다. 앞서 言及한 대로 당시 우리 해군의 소해정이 갖춘 장비나 乘組員의 專門的인 知識과 技術은 보잘것이 없었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닐것이다. 그러므로 同艇隊가 發足한 뒤에는 무엇보다도 時急한 問題가 곧 掃海裝備의 改善과 乘組員의 敎育訓練이었다。

이 艇隊는 創設 사흘 뒤인 10월 26일에 所屬 艦艇중 YMS—501함(장 金正坤중위)과 YMS—502함(장, 姜景遠 대위) 그리고 YMS—503함(장, 張璡燮 중위)과 YMS—506함(장, 金相浩 중위)을 비롯하여 YMS—507함(장, 白鱗基 중위)과 FS—金海號(大韓海運公社 所屬, 海軍 徵發艦, 船長 姜泰俊)등을 日本 Sasebo(佐世保)港에 파견하여 美 海軍으로부터 掃海裝備의 補強과 乘組員의 訓練과 敎育을 받게 하였던 것이다。

다음해인 51년에 들어서자 第2次로 1월 6일에 YMS—515함(장, 鄭一燦 대위)과 YMS—502함(장, 姜景遠 대위) 및 YMS—503함(장, 張璡燮 중위)등을 파견하였으며 제3차로 4월 25일에 YMS—505함(장, 姜基憲 중위)과 YMS 510함(장, 成德昌 대위) 및 YMS—501함(장, 蔡在錫 중위)를 보다시 Sasebo에 파견하여 장비개선과 기술연마에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였던 것이다。

이밖에도 지난 해의 掃海作業보다 달리진 樣相으로서는 지난해에 있어 해군이 仁川—鎭南浦—元山 등지에서 掃海作業을 실시할 때에는 現在 港灣의 形便과 敵의 機雷敷設에 대한 情報가 전혀 없어 危險性과 時間消費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지난해의 경험을 有效하게 살릴수 있으며 또한 지난해의 掃海作業이 항시 促進한 時限을 두고 實施된데 比하여 앞으로는 보다 여유를 갖고 計劃的인 소해 작업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 期間에 美海軍의 第3 掃海戰隊 司令官으로서 參戰하여 우리 海軍의 第1掃海艇隊와 協同作戰을展開한바 있는 Richard C. Williams 대령은 새해의 掃海任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Cagle and Manson著「The sea war in Korea」제17장 "The battle of the mines part Ⅱ")

『첫째로, 1951년의 掃海作業의 主目的은 UN艦艇이 함포사격이나 적의 交通路 遮斷을 위하여 적의 海岸線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수 있도록 하는데 있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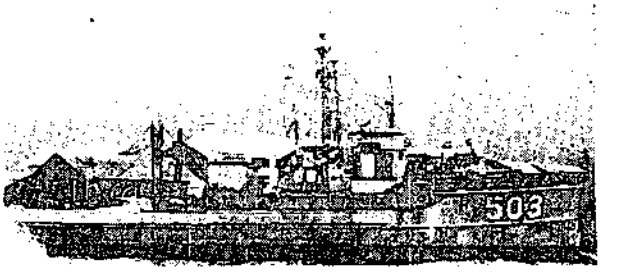
둘째 목적은 戰術上의 欺瞞策을 강구하는 것이었다. 我軍의 上陸作戰이 開始될지도 모른다는 危懼心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敵의 兵力과 裝備의 分割使用을 강요하여 地上의 戰線에서 我軍에 대한 적의 압력을 감소시키려는 것이었다。

세째로, 掃海艇들이 港口 사이에 安全 航路區域을 마련함으로써 UN함정의 封鎖作戰이나 航空支援時의 效果를 높이며,

네째로, 韓半島 周邊을 航海하는 艦艇과 船舶에 대한 적의 浮遊機雷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었다。』라고 하였다。

다. 掃海活動의 槪要

韓國艦隊의 第1掃海艇隊 司令 尹英遠 중령은 海軍本部로부터 東海岸의 38°線에서 迎日灣에 이르는 沿岸의 機雷를 掃海하라는 命令을 받게 되자 곧 麾下艦艇인 YMS-501함(장, 李琓鎭 대위)과 YMS-506함(장, 金貞浩 중위) 그리고 YMS-512함(장, 朴世忠 중위)과 FS-裡里號 (海軍徵發船)의 四隻을 거느리고 1951년 1월 3일 12.30에 釜山港을 출항하여 一路 襄陽을 向하여 出動 하였다.



<소해작전을 수행한 YMS503함>

이 출동은 同 艇隊가 創設된 以來 처음으로 실시된 大規模의 掃海作戰으로서 29일간에 걸쳐 賦課된 掃海作業을 성공되어 完遂하였을 뿐 아니라 作戰途中에 該 地域에서의 피난민의 後送과 陸軍의 軍需物資 輸送에도 協力하여 좋은 成果를 거두었던 것이다.

同 艇隊의 活動狀況을 日字順으로 要約하여 記述하면 다음과 같다.

1월 3일 : 12.30에 東海 沿岸의 掃海任務를 띠고 釜山港을 출항하다.

1월 4일 : 11.20에 襄陽 前洋(北緯 38°00′10″ 東經 128°45′20″)에 寄着 投錨하고 美 海軍의 掃海艦隊와 會合하여 司令 尹英遠 중령은 美 掃海艇隊 司令官을 掃海母艦에 직접 방문 하고 앞으로 실시할 소해구역 분담을 협의하다.

1월 5일 : 07.30에 上記 地點에서 揚錨하여 곧 掃海作業에 着手하여 38°線에서 注文津 前洋까지의 掃海를 完了하고 17.30에 注文津에 入港하다.

1월 6일 : 08.30에 注文津港을 출항하여 12.00에 墨湖港에 入港하다. 14.00부터 各 艇은 油類(燃料)와 淸水의 供給을 받아 이 날 掃海作業을 中斷하고 墨湖港에 寄港한 것은 이곳에 집결한 피난민을 수송하기 위하여서였다.

1월 7일 : 避難民들을 각 함정에 乘艦시키는 한편 陸軍의 軍需物資를 적재하다.

1월 8일 : 17.00에 陸軍用 軍糧인 白米 228가마니와 砲彈 132상자 그리고 피난민 1,500명을 각 함정에 分乘시키고 墨湖港을 출항하여 22.00에 竹邊港에 到着한 다음 피난민을 下陸시키다.

1월 9일 : 아침에 陸軍用 補給物資를 揚陸시키고 09.15에 竹邊港을 출항하여 다시 墨湖港에 歸港하다。

1월 10일 : 이 날도 종일 피난민 수송에 종사하다. YMS—506함과 YMS—512함은 墨湖港에서 피난민을 滿載하고 外港에 碇舶중인 KBM Smith號에 두차례에 걸쳐 왕복하여 총 4,000명을 수송南下토록 하다。

1월 11일 : 피난민을 YMS—506함에 450명, YMS—512함에 500명을 각기 편승시켜 墨湖港을 出發하여 19.00에 竹邊港에 到着하는 즉시로 全員을 下陸시키다。

1월 12일 : 05.30에 竹邊港을 출항하여 墨湖港에 일단 寄港하였다가 다시 출항하여 15.00부터 海上에서 各 艇의 射擊訓練을 실시하다。

1월 13일 : 07.45에 艇隊 司令이 승조한 YMS—506함을 旗艦으로 定하고 掃海를 위하여 墨湖港을 출발한 다음 豫定된 掃海區域인 德山과 臨院 間의 掃海作業을 完了한 然後에 竹邊港에 歸港하다。

1월 14일 : 08.00에 竹邊港을 출항하여 어제에 이어 臨院—竹邊사이의 掃海를 끝마치고 18.00에 竹邊港에 돌아오다. 이날 FS—裡里가 補給物資를 受領하기 위하여 釜山으로 출발하다。

1월 15일 : 09.00에 竹邊港은 출발하여 어제에 이어 竹邊 前洋에서 17miles 海域을 掃海한 다음 18.00에 竹邊港으로 돌아오다。

1월 16일 : 竹邊港을 출발 어제의 소해구역에 이어 17.00까지 소해작업을 실시하고 厚浦外港에 투묘하다。

1월 17일 : 08.00에 厚浦 外港에서 揚錨하여 오늘의 掃海區域인 寧海 前洋으로 향하다. 該 海域의 소해를 마친 뒤 16.00에 厚浦港에 歸港하여 投錨하다。

1월 18일 : 美 海艇隊 司令官을 YMS—506함에 同乘시키고 07.30에 厚浦外港을 출발한 다음 豫定된 掃海區域의 작업을 마치고 13.00에 厚浦港으로 歸港하다。

1월 19일 : 07.30에 厚浦港을 출발하여 厚浦前洋에서 亞山 前洋에 이르는 海域의 掃海作業에 종사하다. 이 날 作業途中 12.15에 YMS—506함의 乘組員 2명이 海中에 墮落하였으므로 1명은 救助하였으나 나머지 1명인 1水兵 閔丙星에 대하여서는 2시간에 걸친 전함정의 救助作業에도 불구하고 종내 救助를 斷念하게 되고 17.30에 厚浦港에 돌아오다。哀哉여!

1월 20일 : 08.30에 美 艦艇으로부터 淸水補給을 받은 다음 어제 끝내지 못한 掃海區域

의 作業을 마치고 17.00에 厚浦港에 歸港하다。

1월 21일 : 이날은 海上의 風波가 심함으로 掃海作業을 中止하고 將兵에 休息을 주다. 14.00에 앞서 釜山으로 돌아갔던 ＦＳ－裡里號가 補給物資를 적재하고 墨湖港에 돌아오다。

1월 22일 : 09.45에 厚浦港을 출발하여 어제에 이어 厚浦 前洋에서 丑山 前洋에 이르는 海域의 掃海作業을 完了하고 18.30에 厚浦港에 돌아오다. 24.00에 ＦＳ－裡里號가 墨湖로부터 厚浦港에 도착하다。

1월 23일 : 天候不順으로 掃海作業은 中止하고 各艇은 ＦＳ－裡里號로부터 淸水와 油類기타 補給物資를 供給받다。

1월 24일 : 08.00에 掃海區域을 南쪽 迎日灣으로 옮기기 위하여 厚浦港을 출발하여 12.30에 浦項港에 入港하다。

1월 25일 : 07.00에 浦項港을 출발하여 새로운 소해구역인 迎日灣에서 소해작업을 실시하고 20.30에 浦項에 歸港하다. 이날 17.00에 日本 Saseho(佐世保)港에서 修理와 敎育을 마친 ＹＭＳ－507함(장, 白麟基 중위)이 이곳의 소해작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直路로 來航하여 合勢하다。

1월 26일 : 將兵에 休息과 外出이 許可되다。

1월 27일 : 09.25에 浦項을 출발하여 迎日灣內의 掃海作業을 실시하고 16.20에 浦項에 歸港하다. 이 날 작업도중에 ＹＭＳ－512함의 推進機가 掃海具로 인해 파손되어 24.00에 할 수 없이 제1소해 作命 제8호로서 釜山에 歸港토록 하다。

1일 28일 : 07.00에 浦項港을 출발하여 14.00에 歸港할 때까지 迎日灣內의 소해 작업을 실시하다。

1월 29일 : 그 동안의 작업으로 豫定하였던 東海岸 一帶의 소해를 一段落지었으므로 美掃海艇隊와 會同하여 그간의 소해경과를 검토하다. 13.00에 ＹＭＳ－501함은 제1소해 作命 제9호로서 釜山에 歸港하다。

1월 30일 : 07.20에 浦項港을 출발하여 美 掃海艇隊와 合同으로 殘餘 掃海區域의 소해를 마치고 16.00에 浦項港에 도라오다。

1월 31일 : 만 29일에 걸친 東海沿岸의 掃海 任務를 完遂한 第1掃海艇隊는 09.30에 浦項港을 출발하여 18.10에 釜山에 歸港하다。

2월에 들어서자 地上의 西部戰線에서는 我軍의 反擊作戰이 奏功하여 頑強히 저항하는 적을 追擊하면서 北上을 계속하고 있을 때 地上軍보다 앞서 우리 海軍의 ＰＣ－701함(장

盧明鎬 소령)등 海軍艦艇에서 선발된 特攻隊가 2월 10일 仁川에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同市를 점령 확보하게 되었다。

이 무렵 我軍의 南邊으로 東, 西海의 仁川과 元山등 港口를 使用할 수 없게 되어 海外로부터 運至하는 軍需物資의 揚陸港으로는 오직 釜山 一港뿐이어서 莫大한 物量을 소화시켜야 하는 까닭에 그 混亂과 支障은 極甚한 것이었다. 더우기 서울의 收復과 戰線의 北上을 고려할 때 仁川港의 確保는 매우 時宜를 얻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港口의 利用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적이 새로히 부설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機雷를 除去하는 문제가 선행하여야 되었다。

仁川을 占領한 直後인 2월 11일에 海軍本部에서는 PC—701함에 命令하여 仁川 近海의 적의 機雷敷設 與否를 조사 보고하라고 하였으며 12일에는 第1掃海艇隊 司令 尹英遠 중령이 麾下 YMS—501함(장, 李院鎬 대위)과 YMS—507함(장, 白麟基 중위), 그리고 FS—裡里號를 거느리고 仁川 近海를 掃海次 釜山을 출발하였으며 다음 날 (13일) YMS—506함(장, 金植浩 중위)과 YMS—512(함장, 朴世忠 중위)이 그 뒤를 역시 仁川으로향하였다。

한편 東海에서는 元山 앞 永興灣의 島嶼 占領作戰이 우리 海軍과 海兵隊 그리고 UN海軍의 三者合同으로 進行되고 있었다. 2월 14일에 麗島를 占領하게 되자 同島를 근거지로 전개될 앞으로의 작전을 위하여 同灣의 소해작업을 UN海軍과 더불어 大大的으로 實施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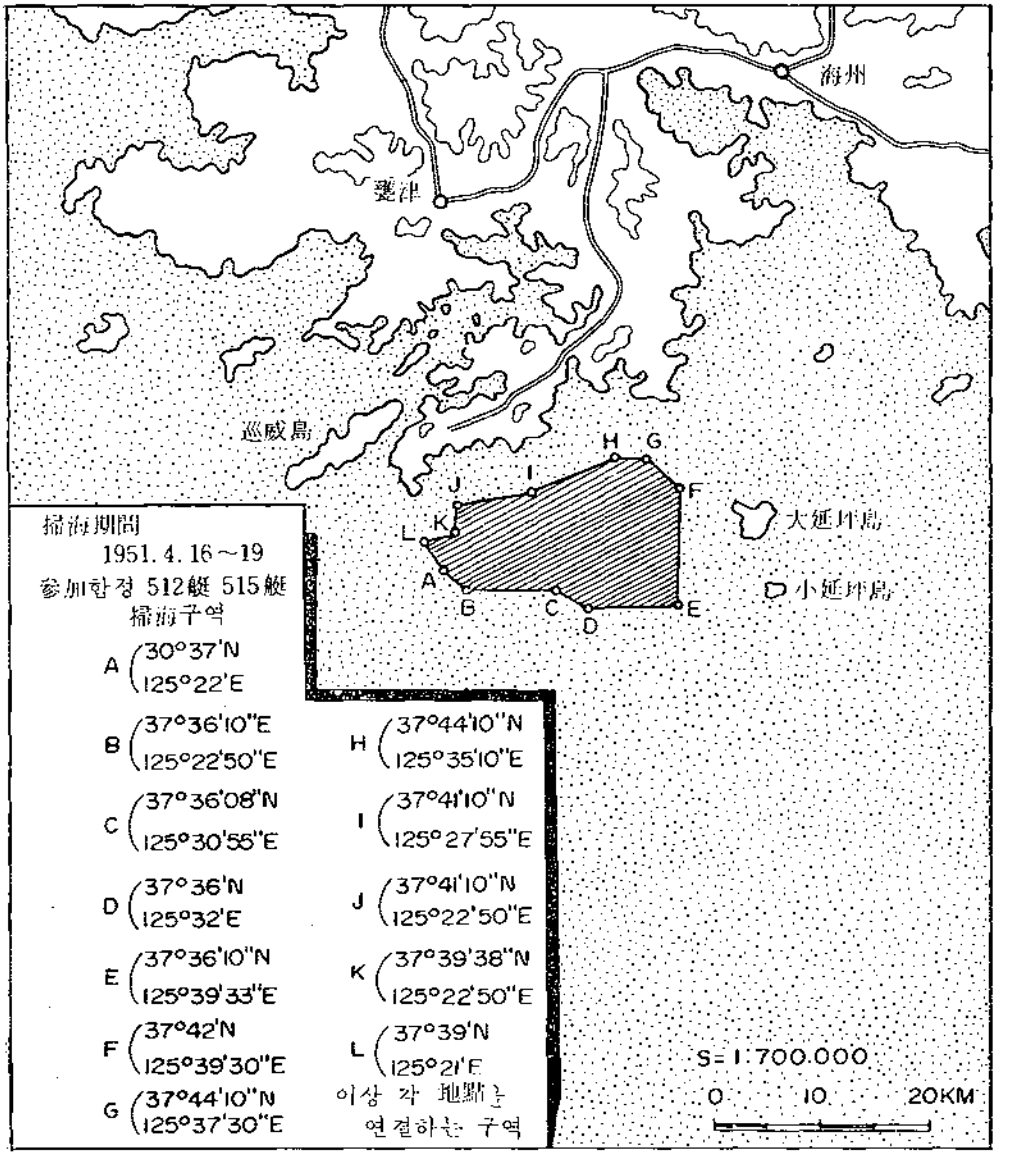
2월 17일에 이르러 海軍本部에서 앞서 仁川 近海의 掃海차 출동중인 第1掃海艇隊에게 該 海域의 掃海作業이 끝나는대로 즉시 元山으로 廻航하여 美 掃海艇隊와 合勢하라는 命令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YMS—507함과 YMS—512함이 당일로 仁川을 출발하여 23일에는 麗島에 도착하여 이미 소해작업에 착수한 UN海軍과 合勢하였다。

이보다 앞서 2월 21일에는 YMS—506함과 YMS—515함이 永興灣에 도착하여 4월 2일까지 掃海作業에 종사하였으며 4월 3일에는 YMS—501함을 비롯하여 YMS—507함과 YMS—513함이 同 海域에 到着하여 23일까지 소해作業에 종사하였다。

4월 16일 現在로 永興灣에서의 韓美合同 掃海作業의 결과 機雷 49개를 색출 폭발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4월 16일 현재로 城津灣과 元山灣부근의 主要 水路의 掃海가 完了된 區域은 다음과 같다(상황도 제36호 참조)

◇ 상황도 제36호 西海地區掃海 실시상황(1)



(1) 城津灣 掃海完了區域

A 地點—40°23′30″N 129°07′36″E

B 地點—40°35′48″N 129°21′48″E

C 地點—40°39′42″N 129°18′42″E

D 地點—40°26′36″N 129°03′30″E

以上 A, B, C, D, 의 地點을 연결한 線의 內部가 掃海完了되었음。

(2) 元山灣의 掃海가 完了된 區域

各 浮標 座標

WS	—39°17′56″N	127°57′32″E
H	—39°15′17″N	127°39′33″E
M	—39°15′21″N	127°37′33″E
G	—39°15′01″N	127°35′60″E
E	—39°13′55″N	127°34′44″E
L	—39°13′04″N	127°37′07″E
K	—39°12′55″N	127°32′25″E
가	—39°11′15″N	127°31′27″E
나	—39°10′21″N	127°32′40″E
F	--39°11′55″N	127°34′50″E
O	—39°12′38″N	127°35′44″E

WS浮標로부터 H浮標까지는 諸 浮標를 연결한 線을 中心으로 하여 兩側 100yds가 掃海完了되었으며 H浮標로부터 M浮標까지는 M浮標를 中心으로 하여 半徑 500yds의 圓을 그려서 H浮標를 중심으로 한 兩側 100yds의 線上에서 이 圓에 切線을 그은 內部와 G浮標와 E浮標에서 역시 切線으로 연결한 線의 內部가 掃海完了 되었으며 또한 G L K 가 나 F O E 各 浮標를 연결한 內部가 掃海完了區域이다。

한편 西海에서의 掃海作業도 계속 활발히 진행되었다. 3월 9일 海本 作命 甲 제129호로서 YMS—502함(장, 姜景遠 대위)과 YMS—503함(장, 張璋燮 중위)을 白翎島 近海에 출동시켜 PC—720함(장, 李鍾徹 소령)과 UN함대의 CTE 95.12와 협동하여 소해작업을 실시케 하였다。

4월 19일에서 26일에 걸쳐서 第1掃海艇隊는 YMS—512함(장, 姜壽福대위)과 YMS—515함(장, 鄭一燦 대위)으로 하여금 海州灣一帶의 掃海 作業을 實施케 하였다. 그 結果 4월 26일의 작업 때 機雷 2개를 切斷 浮上시켜 이를 爆發시켰다。(12.25에 東經 125°34′ 北緯 37°43′20″ 地點에서 1개, 15.07에 東經 125°32′30″ 北緯 37°42′30″ 地點에서 1개)

위의 소해작업으로 완료된 구역은 다음과 같다。

A	—37°37′ N	125°22′ E
B	—37°36′10″N	125°22′50″E

C—37°36′ 08″N 125°30′ 55″E

D—37°36′ N 125°32′ E

E—37°36′ 10″N 125°39′ 33″E

F—37°42′ N 125°39′ 30″E

G—37°44′ 10″N 125°37′ 30″N

H—37°44′ 10″N 125°35′ 10″E

I—37°41′ 10″N 125°27′ 55″E

J—37°41′ 10″N 125°22′ 50″E

K—37°39′ 38″N 125°22′ 50″E

L—37°39′ N 125°21′ E

5월에 들어서자 西海警備를 맡고 있던 英國艦隊로부터 새로운 掃海 要請이 들어왔다。

지난 해 11월에 실시한 鎭南浦 前洋의 掃海完了區域에 대한 檢索掃海(Check Sweeping)의 緊急要請이 그것이다. 원래 일단 完了된 掃海區域이라도 적어 다시 기뢰를 부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시 끊임없는 감시가 있어야 하는 것이나 그 지역이 거리상으로나 기타 조건으로 계속적인 감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시로 검색소해를하여야 하는 것이다。

위의 英國艦隊의 요청에 따라 UN함대에서는 4척의 掃海艇과 기타 支援艦이 指定되였으며 우리 海軍에서는 YMS—501함(장, 李琓鎬 대위)과 YMS—515함(장, 鄭一燎대위)이 참가하였다。

海本 作命 甲 제280호에 의거하여 前述한 檢索掃海에 參加하게 된 YMS—501함과 YMS—515함은 5월 15일에서 20일에 걸쳐 西海의 椵島와 鹿島近海에서 長山串에 이르는 海域의 掃海作業을 完了하였으며 그 完了區域은 다음과 같다。(참조 상황도 제37호)

(1) 다음의 W X Y Z 4地點을 연결한 四角形 內部

W—38°09. 6′ N 124°34. 7′ E

X—38°04. 4′ N 124°38. 9′ E

Y—37°59. 0′ N 124°27. 2′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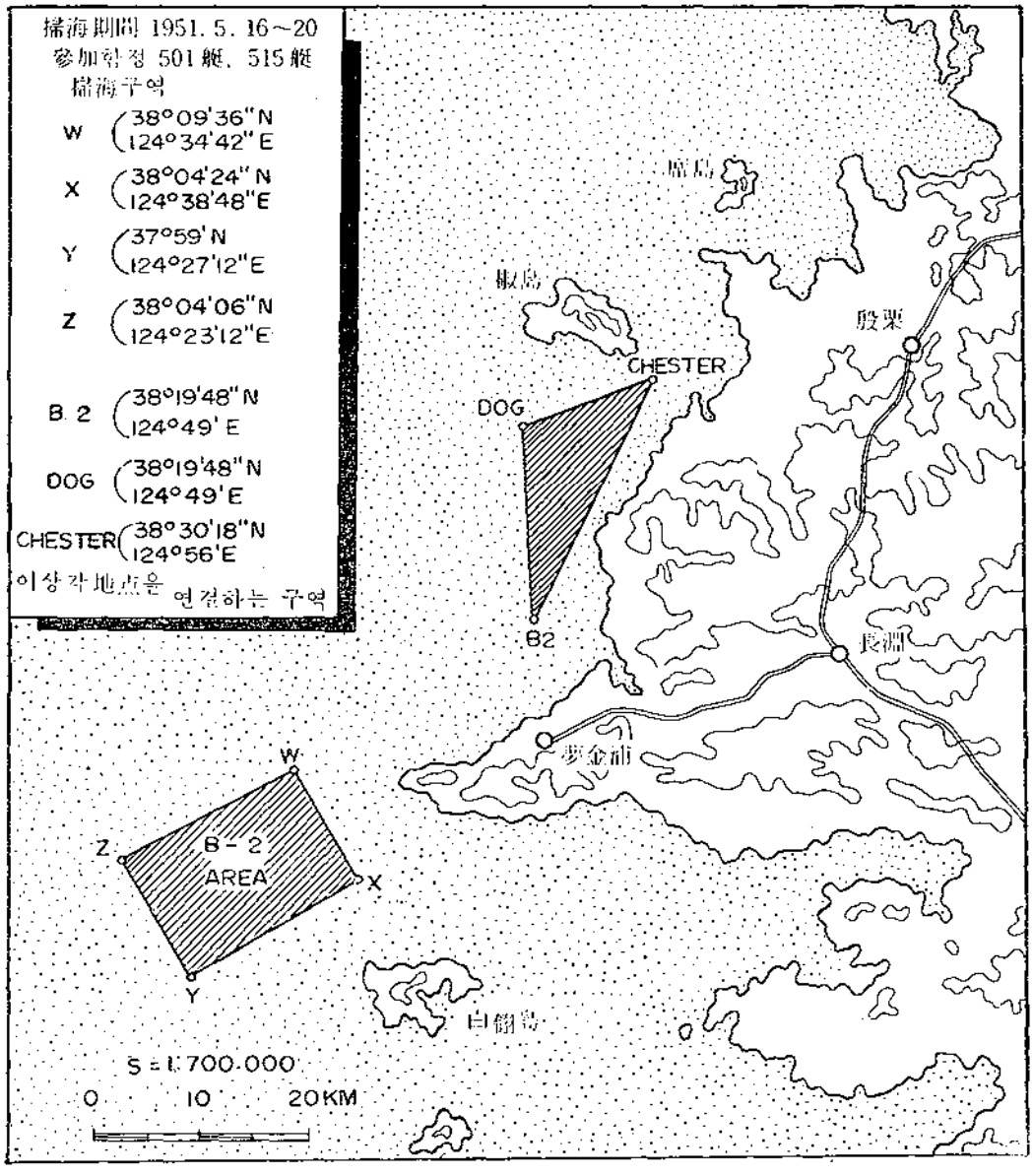
Z—38°04. 1′ N 124°23. 2′ E

(2) 다음의 B—2, DOG, CHESTER 3地點을 연결한 三角形 內部

B—2——38°19. 8′ N 124°49′ E

DOG——38°29. 3′ N 124°49. 3′

◇ 상황도 제37호 西海地區 掃海실시 상황(2)



CHESTER—38°30.3′ N 124°56′E

이 밖에도 각처에서 浮遊機雷가 發見되어 爆發 處理되었으니 3월 2일에 江原道 盈德郡 昌浦洞 近海에서 浮遊 중의 機雷 1개를 浦項警備府에서 發見하여 爆發시켰으며 3월 19일에는 JMS—320함(장, 洪元杓 대위)이 北緯 38°17′ 東經 124°51′ 海上에서 浮遊機雷 1개를 발견하여 射擊을 가하였으나 폭발치 않음으로 인근의 각 함정에 연락하여 주의를 환기

시켰으며 4월 3일에는 全羅南道 務安郡 長山面 多水里 연안에 漂着한 大型機雷 1개를 爆發시켰고 全羅南道 珍島郡 鳥島面 방섬 근처에 漂着한 大型機雷 1개도 역시 폭발시켰다。

(1) 各 艦艇別 機雷爆發 統計

(1951. 1. 1부터 1951. 6. 30까지)

艦艇	62	302	309	502	506	507	512	515	計
機雷	1	5	1	1	2	2	2	2	16

以上 統計는 海軍本部刊「作戰經過報告書」卷3과 卷4의 同 題號附錄을 合算 轉載한 것임.

(2) 敵 機雷處置 綜合統計表

	日字	種類	艦艇	數量	位置
1	1950. 12.31	浮遊機雷	304	1	38—39—30N 125—00—30E
2	1951. 1.14	〃	61	1	38—02—50N 124—34—04E
3	2. 5	〃	309	1	37—52—30N 124—53—30E
4	3. 2	〃	501	1	38—17—00N 124—44—00E
5	3.14	〃	502	1	37—48—00N 124—39—00E
6	3.14	〃	503	1	38—03—00N 124—42—00E
7	3.27	〃	浦項警備府	2	36—20—00E 129—20—00N
8	3.27	〃	〃	1	36—27—00N 129—25—00E
9	3.30	〃	506	1	39—14—33N 127—48—54E
10	4. 1	〃	506	1	39—14—57N 127—48—48E
11	4.16	繫留機雷	512	1	37—43—00N 125—34—00N
12	4.16	〃	512	1	37—42—10N 125—32—30E
13	4.26	〃	515	1	37—43—03N 125—32—00E
14	4.26	〃	515	1	37—43—00N 125—33—00E

※ 海軍本部 政訓監室 刊行「大韓民國海軍史 作戰篇」第二輯「제 6 장 掃海作戰」에서 轉載。

§ 硏 究

위의 두 統計는 각기 註記한 刊行物에서 轉載하였으나 統計內容이 一致하지 않으며, 또한 本文(주로 海軍本部 刊行「作戰經過報告」 卷三과 卷四의「作戰經過」條에 散見하는 零星한 資料와 각 艦艇의 當時의「航泊日誌」를 使用하였음)과도 相互出入이 있으나 현재의 형편으로는 修正判別할 길이 없어 그대로 轉載한다。

20. UN空軍의 活動 (1951년 3월 1일부터 1951년 3월 31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32호
상 황 도 제38호

要 旨

UN空軍의 눈부신 活動을 바탕으로 하여 地上軍의 再反擊戰으로 敵을 北으로 敗走시키게 되자。 UN空軍에서는 日本으로 撤收하였던 各戰術 비행전대들을 大邱(K—2)를 前方 基地로 하여 韓國의 各 비행장으로 다시 移動케 하였다。이로써 水原(K—13)과 金浦(K—14)에는 전투기를 派遣하여 敵과 接戰中인 UN地上軍에 對한 活潑한 근접지원 작전을 展開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極東空軍 司令部에서는 敵의 보급로를 遮斷하기 위하여 敵 背後의 주요한 橋梁과 鐵路를 폭격 目標로 설정하고 B—29 重爆擊機로 하여금 果敢하고 熾烈한 폭격을 集中하였다。이와같은 橋梁폭격에 있어서는 4臺의 비행기가 1個의 編隊로 構成되어 28°~37°의 銳角(Inside Acuet Angle)으로서 目標에 接近하여 길고 좁은 目標에 보다 많은 폭탄을 集中適打하는 方式을 採用하였다。

敵의 操車場과 補給地域도 대체로 같고 폭기때문에 4臺가 1個編隊를 이루어 그 길이를 따라서 投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결과 1時間에서 140時間까지의 時數를 갖인 時限 폭탄을 投下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3月中에는 敵의 對空砲火가 激增하였기 때문에 B—26 輕爆擊機들은 中間高度(Midium Altitude)에서 폭격하는 수 밖에 없었다。

한편 敵 空軍에서는 期間中에 8次에 걸쳐서 夜間 습격기가 서울 近郊의 UN軍 戰線을 폭격하였으며 MIG機들은 UN空軍의 遮斷作戰을 防害하였고 때때로 夜間 습격기들이 侵攻하였으므로 UN空軍에서는 제4비행단의 2個전투 邀擊大隊를 大邱(K—2)와 水原(K—13)에 推進시켰으며 水原基地에 推進시킨 大隊로 MIG通路(MIG Alley)를 空中堵截토록 하였다。

그러나 水原(K—13) 비행장의 작전시설이 狹小한 탓으로 一時不便하였으며 前方戰域에 Sabre Jet機로써 制壓케 하므로써 MIG의 出沒領域을 最少限으로 縮할 수 있었다。

또한 제68全天候 전투비행대대에서도 每日 저녁 F—84 夜間戰鬪機 1臺를 水原基地에 常駐시켜서 비행장의 警報와 서울上空의 哨戒비행을 敢行하도록 하였으며 제39, 제40전투 邀擊大隊의 邀擊機 8臺를 固定 配置하여 每機마다 每日 4回의 出擊을 敢行할 수 있게 하였고 3日마다 비행기와 조종사가 교대되었고 地上근무자는 1週日에 1回씩 교대되었다。

이와같은 飛躍的인 UN空軍의 活動으로 MIG機들의 威勢를 크게 萎縮시켰으며 敵의 보급로와 주요 군사시설에 많은 打擊을 주었다。

더구나 UN空軍의 武裝偵察과 遮斷作戰으로 많은 피해를 입게되자 敵은 점차로 새로운 對應方案에 腐心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그들은 僞裝戰術에 注力하여 車輛들을 건물이나 山 기슭사이에 감추는가 하면 降雪에서는 흰 防水幕으로 덮어 씌우는등 여러가지 形態의 欺瞞策을 併用하였다가 3月末에 이르러서는 消極策인 僞裝方式에서 脫皮하고 高射砲의 防衛陣地를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夜間에 車輛들이 대피할만한 아주 접근하기 어려운 山기슭에 UN空軍機들이 공격하기 어렵도록 통나무 砲床防壁(Log Bunker)를 구축하였고 利用가능한 모든 터널(Tunnel) 속에 車輛과 보급물들을 감추게 되었다。

그들은 첫날 밤에 업중히 防禦된 高射砲 방위지역에서 車輛들을 砲床뒤로 移動시켰다가 이튿날 수송이 끝난 뒤에 다시 Bunker에 돌아가서 다음날 다시 後方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方法을 適用하는 것이었다。

UN空軍의 F—51(Mustang) 전투기들은 이러한 敵의 새로운 防衛方法을 파괴하려고 아침 동이트기 전과 저녁늦게 出擊을 하여 敵의 車輛들이 엄호 장소로 들어가거나 나올때에 攻擊을 加하는 한편 다른 전투기들은 Tunnel을 埋沒하여 버리는 目的으로 50 LBS의 一般用 폭탄을 Tunnel 入口에 投下하기도 하였다。



<F—51과 B—26 폭격기에 의하여 파괴된 列車터널>

이와같이 敵의 수송력을 계속하여 송두리채 뒤흔들어 놓았고 또 敵이 漆黑같은 暗夜를 이용하여 겨우 수송활동을 할수 있도록 한다음 適時適所에서 폭격을 敢行하여 그들이 必要로 하는 物資의 많은 量을 戰線에 輸送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으며 계속적인 공습으로 많은 敵의 兵力이 地下대피소에 숨어있다가 埋沒 되었고 공습에 대한 恐怖症을 誘發케 하는 한편 死傷者들의 속출로 士氣의 低下를 招來케 하는 副次的인 効果도 아울러 거둘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믿을 만한 情報에 依하면 輸送路에 대한 공격으로 敵은 數日間에 걸쳐 식량의 보급을 全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러한 結果로 中共軍 제35사단이 3月 21日 鴨綠江을 건너서 戰線에 進出하기까지는 前後 19日이나 걸렸으며 戰線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미 전투 능력을 완전히 喪失한 뒤였다는 것이니 그들의 困阨相을 能히 推測할 수 있을 것이다。

極東空軍 司令部에서는 鴨綠江이 解氷되는 3月末이 되자 지난 11月에 미쳐 파괴하지 못하고 남겨 놓았던 鴨綠江의 鐵橋들을 B—29 重爆擊機로써 爆擊하는 한편 공중수송과 空中投下로써 UN地上軍의 機動力과 輸送力에서 隘路를 克服할 수 있도록 全力을 傾注하였다。

또한 3月 21日부터 27日까지에 걸쳐 汝山里에서 展開된 바 제187空挺聯隊의 공수작전에 極東전투물자 空輸司令官 Tunner 소장 麾下인 제314비행단의 C—119 비행전대 80機와 제315비행단의 C—46 비행전대 55機를 계속 出擊케 하므로써 많은 兵力과 各種 보급품을 空中投下하는데 成功하였다。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美 極東空軍 司令官
준장 George E. Stratemeyer
美 第5空軍 司令官
소장 Earle E. Patridge
美 제315비행단장
준장 John H. Henbry
美 제19전투 폭격전대장
대령 Payne Jennings, Jr.
美 제817空挺聯隊 전투단장
준장 Frank S. Bowen

나. 再反擊에 對한 UN空軍의 活動

서울 再 奪還에 있어서 많은 出血을 막기 위하여 Ridgway 중장은 3月 7日에 前面 공격 대신에 「Ripper작전」을 樹立 하였는데 이 作戰은 橫城—春川軸을 따라 주요 機動路에 대한 공격에 重點을 指向하는 작전이었다。

美 제25사단의 前方 부대는 이 Ripper작전으로 공격 初日에 北漢江과의 合流點부근에서 漢江을 건넜으며 敵은 3日間에 걸친 激戰 끝에 分散狀態에 빠지면서 北쪽으로 潰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美 第1機甲師團과 美 해병 제1사단은 洪川에서 二重 包圍 작전을 展開 하였으며 이 결과 3월 12일에는 敵의 中央抵抗線이 무너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3월 15일에는 洪川을 奪還하였고 3월 14일과 15일 밤사이에 中共軍은 아무런 抵抗 없이 서울을 拋棄하게 되었으며 UN軍은 3월 18일까지 全戰線에서 敵戰線을 全面에서 擊退시키기로 作定하였다。

이 Ripper 작전으로 中共軍이 당황하게 되자 UN空軍의 빈틈없는 連續制空으로 敵은 大量殺傷을 當하게 되었으니 3월 16일에 F—84E전투기 4台와 F—80전투기 8台가 모스키토(Mosquito) 관제사가 指定하는 目標를 따라 1,200名으로 推算되는 敵陣을 爆擊한 結果 地上軍이 여기를 占領하여 본즉 死者 600名과 傷者 300名을 算하기도 하였다。

3월 24일에 MacArthur 元帥는 말하기를 「UN空軍과 海軍이 24時間 동안 계속하여 敵에

게 강력한 공격을 퍼부어 敵의 보급로를 파괴하므로써 前方의 敵軍은 모든것이 극히 不足한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또한 夜間 비행의 필요성이 점차로 증가되는 것과 夜間이나 全天候 狀況下에서 地上軍에 대한 근접지원을 敢行하여야 할 긴요성을 勘案하여 極東空軍 司令官 George E. Stratemeyer 중장은 放送을 通하여 指示하기를 『極東空軍은 夜間과 全天候 出擊을 斷行할 수 있는 管制기술을 向上하여야 한다』라는 要旨였으니 그의 決意가 尋常치 않았음을 能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또 1월中에는 無線標識(Beacon)을 만들어 내는 AN/UPN—4 地上 Radar를 試驗하고 이 無線機를 利用하여 戰線에서 夜間 근접지원을 하는데 限界가 있기는 하였으나 어느 정도의 效果를 거두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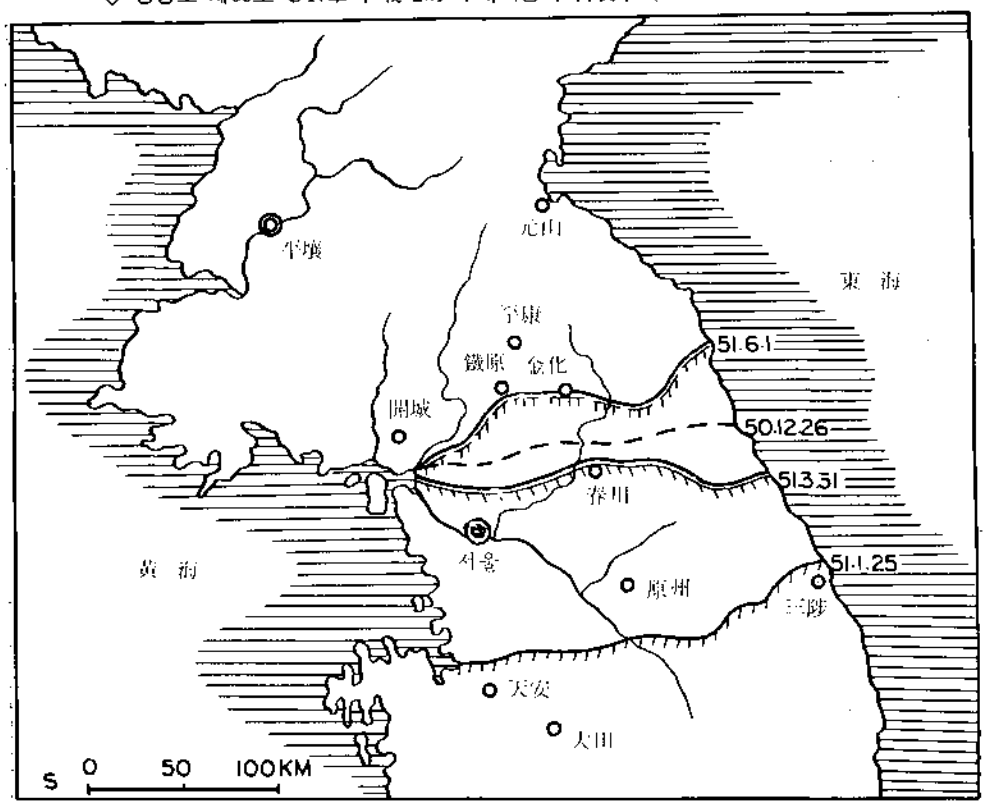
그러나 제5空軍에서는 이 無線機를 使用하기가 困難하다고 하여 MPQ—2 Radar를 使用하도록 提案하였는데 이 MPQ—2 Radar는 第2次 世界大戰末葉에 무차별 爆擊統制(Blind Bombing Control)을 위하여 使用하였던 砲에 裝着한 SCR—558 Radar를 개량한 것이며 大戰後 몇년 동안에 걸쳐 Radar 폭격 照準을 목적으로 꾸준히 개량되어 왔던 것이다。

美 戰略空軍 司令部의 제3903 Radar 폭격 記錄大隊에 소속하는 3個의 派遣隊가 1950년 9월에 釜山으로 進出하였으나 戰鬪에 使用된 경우는 거의 없지만 1951년 2월末에 Partridge 소장은『MPQ—2. Radar는 B—26과 B—29 폭격기가 戰線에서 夜間 폭격하는 것을 管制하는데 만족스러운 成果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要旨의 報告文을 UN軍 司令部에 提出하였다。이로써 미루어 본다면 제5空軍에서 秘密裡에 여러차례의 試驗을 한 것을 立證할 수 있다。이 MPQ—2 Radar는 對空砲의 車輛行軍隊列에 함께 실을 수 있으므로 地上에서 어느정도 자유로이 機動할 수 있게 되었고 3個의 美 軍團本部의 부근에 가까이 位置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3월末에 MPQ—2 Radar 1個의 派遣隊는 제1군단과 함께 漢江 北쪽에 位置하고 있었는데 이 군단이 이 Radar를 利用한 夜間 폭격지원에 의하여 얻은 戰果에 대하여는 그곳에서 얻은 포로들의 진술에서 밝혀졌는데 그 要旨에 이르기를 『UN空軍의 정확한 夜間 공격으로 방공호가 무너져 많은 人員들이 埋沒 되었으며 九死一生으로 그곳에서 뛰쳐나오게 되자 이미 美地上軍의 捕虜身勢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니 그 威力의 一理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理論的으로 자유로운 機動性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美 제1군단과 같이 있던 派遣隊 外의 2個 MPQ—2 Radar 派遣隊는 韓國의 中部와 東部地域의 험한 山岳地帶

◇ 상황도 제38호 UN軍의 戰略的 부대이동과 再反擊 (50. 12. 6~51. 6. 1)



에서는 作戰에 적합한 位置를 찾는데 많은 困難을 겪기도 하였다。

美 제8군이 38°線을 向하여 前進하게 되자 이에 比例하여 敵의 抵抗도 또한 苛烈하여 자기는 하였으나 地上 戰況은 대체로 만족스러웠으며 3월末에는 主戰線이 汶山里에서 東쪽으로는 春川으로부터 縣里까지 그리고 北東쪽으로는 太白山脈을 넘어 襄陽까지 이르렀으며 이 襄陽은 3월 27일에 韓國軍에 依하여 奪還되었던 것이다。

UN軍은 2個月餘에 걸친 期間동안 空地 立體作戰으로써 敵을 38°線 以北으로 潰敗케 하는 한편 UN軍 情報處에서 入手한 諜報內容에 따른다면 當面의 敵 主力軍은 이해 5월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38°線을 固守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5월頃이나 또는 그들의 戰勢가 浮動하게 될 公算이 있으면 이 보다도 더욱 빨리 全面的인 春季攻勢를 斷行할 計劃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情報分析은 氣象 조건과 敵의 強大한 抵抗으로 보아 그들이 豪言하는 春季攻勢가 臨迫하였다는 信憑性을 짙게 하였으며 春季의 季節條件으로서는 機械化部隊의 작전이 困難한데 反하여 敵은 徒步로써 執拗하게 機動하므로써 晩春以後의 夏期에 作戰을 發動

하는 것이 有利하다는 데 그 根據를 두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UN軍은 冬季의 空中作戰이 오히려 最適이었으나 春夏兩季에는 비와 구름을 비롯한 많은 氣象障害가 따르기 때문에 극히 不利한 時期로 看做하였는데 이러한 判斷에도 불구하고 極東空軍 司令部에서는 敵의 보급로와 機動路를 遮斷하기 위하여 敵 背後의 주요한 橋梁과 鐵路에 대한 폭격 목표를 確定하고 大量同時의 爆擊을 敢行키로 하였다。 즉 3월 1일 F—80 전투 邀擊機 護衛下에 B—29 重爆擊機 18台가 敵 MIG전투기 防衛圈內에 있는 鐵橋를 폭격코자 出動하였는데 F—80와 B—29가 함께 行動하기 위하여 느린 速度였기 때문에 F—80전투기들은 制限된 時間 밤에는 護衛할 수가 없어서 B—29 폭격기들의 임무를 完遂하기 전에 歸路에 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까닭으로 B—29 폭격기 編隊는 古軍營洞 橋梁에 폭탄을 投下한 直後에 MIG 전투기 9台의 공격을 받게 되었고 30分동안에 걸친 熾戰끝에 MIG 1台를 擊墜하고 다른 2台에게 一部破損을 주었으나 B—29폭격기 2台도 一部 破損을 當하면서 비상 귀환하게 되었다。

이해 3월末에 이르게 되자 極東空軍 爆擊司令部에서는 鴨綠江도 이미 解氷하였으므로 그 前에 完全히 파괴하지 못하고 남겨 놓았던 鐵橋들을 또다시 파괴하게 되었는데 極東軍의 目標分析家들은 鐵橋의 元製作者인 日本人의 도움을 받아 新義州 철교의 가장 파괴하기 쉬운 부분을 알아 내게 되었는바 이 鐵橋는 지난해 11월에 파괴하는데 많은 心勞를 치렀던 곳이었다。

이리하여 3월 29일에 B—29 폭격기로써 이 鐵橋를 폭파하려고 出擊하였으나 鴨綠江 上空에 구름이 짙게 깔려 있었으므로 하는 수 없이 계획을 변경하고 平壤 비행장(K—23)을 폭격하였다。

또한 極東空軍 제19전투폭격단의 B—29폭격기 3台가 新義州에 가설되어 있는 鐵橋와 人道橋의 末端部를 폭격할 目的으로 12.000 LBS의 Taryon 폭탄을 積載하고 出擊하였는데 3台中 1台가 Engine 不良으로 基地로 돌아갔으며 2番機에는 제19폭격 전대장 Payne Jennings 대령이 탑승하고 있었으나 黃海上에서 航路를 잃어버렸고 3番機만은 目標 上空에 나타나 폭탄을 연속 投下하였다。

이때에 B—29 폭격기를 護衛하던 F—80전투기들이 大部分의 MIG機를 擊退해 버렸으며 B—29의 3番機가 단독으로 目標 上空에 나타났을 때에는 MIG機 6台가 옆을 스쳐갔으나 아무런 損失도 입지 않았다。



<B—29 爆擊機에 의하여 爆破되는 北韓의 橋梁>

그러나 期間中에 目標上空과 各 基地上空의 惡天候로 말미암아 폭격에 적지 않은 支障을 招來 하였고 제98폭격전대는 日本의 yokota에서 夜間에 400 Feet 以內의 上昇高度와 0.25 mile의 視程으로 鴨綠江 鐵橋의 폭격을 目標로 離陸하였으나 이 出擊은 얼마 전에 증원된 승무원들의 기술을 熟達시키는 것을 兼한 것이었다。

이처럼 重要한 폭격에 새로 증원된 승무원들을 탑승시켰기 때문에 폭격의 效果는 거두지 못하였지만 極東空軍 폭격 司令部에서는 이 橋梁들에 對하여 도합 3回에 걸쳐 效果있는 폭격을 敢行하게 된 것이다。

3월 30일 B—29 폭격기 38台가 新義州 西北쪽 3.3mile에 位置한 淸城鎭의 橋梁에 폭탄을 投下하여 2個의 徑間(Span)을 폭파하였고 여기에 架設되어 있는 浮橋에 1,000 LBS 폭탄을 投下 하였으며 滿浦津의 鐵橋의 徑間(Span) 몇개도 파괴하는데 成功하였으니 이로서 敵의 後方兵站線과 韓滿機動路에 많은 威脅을 주게 되었다。

다. 汶山里의 大 空輸作戰

3월 21일 美제8군사령관 Ridgway 중장과 極東공군 사령관 Partridge 소장은「Tomahawk 작전」을 위하여 各麾下 部隊에 警戒態勢를 取하도록 命令하였다。

그리하여 제187空挺聯隊를 汶山里에 投下 시키기로 계획하였는데 여기는 서울과 開城 사이의 臨津江邊 가까운 本道上에 가로질러 있는 마을로서 이러한 投下로써 美 제1사단에 潰退를 당하고 北쪽으로 分散撤收하는 敵을 垂直으로 捕捉하여 一擧에 殲滅코자 하는 것이 그 主目的이었다。

이리하여 UN空軍에서는 3월 21일에 제315전투공수단의 제314전투공수전대 소속의 C—

119수송기 80台와 제437공수전대 소속의 C—46수송기 55台를 大邱(K—2) 비행장에 미리 集結시켜 놓았으며 이 輸送機들은 앞서 계획하였다가 취소한 春川 空挺作戰을 위하여 機動하였던 것으로써 이것을 이번의 空挺作戰에 集結使用키로 한 것이었다。

3월 初에 第187空挺聯隊 전투단은 大邱에서 새로운 空挺補習訓練을 받기 위하여 美 제8軍의 戰線으로부터 大邱로 移動하였으며 春川 空挺作戰을 위하여 계속 많은 物資가 大邱基地에 積載 되었고 多數의 輸送機들이 集結 되었으나 그 輸送機 Engine에 霜氷가 심하게 끼어 있기 때문에 輸送機들을 分散하여 配置시키기 전에는 滑走 조차 할 수가 없었다。

이날 12,00에 제315비행단장 John H. Henbry 준장은 이틀뒤인 23일 아침에 제187空挺聯隊의 전투단이 汶山里에 空中投下 될 것이라는 作戰情報를 接受하고 麾下 2名의 전대장 제314공수 전대장 R. W. Henderson 대령과 제437공수 전대장 John R. Roche 대령과 第187空挺聯隊 전투단장 Frank S. Bowen 준장과 함께 이날 午後 늦게 目的地를 직접 偵察한 다음에 17.30에 Partridge 소장과 Ridgway 중장을 만나서 攻擊開始日(D—day)을 3월 23일로 定하고 攻擊開始 時間(H Hour)을 09.00로 확정하였다。

이리하여 行動開始日까지 남 은 時間이 얼마 없으므로더 以上 重大한 변경이 없으리라 믿고 Henbry 준장과 Bowen 준장은 취소된 春川 空挺作戰에 對備하여 이미 積載하여 놓은 物資와 補給品을 그대로 使用할 것을 策定하였다。

汶山地域에는 12,000名 以上의 敵軍이 集結하여 있다는 情報를 入手하고 될수 있는 대로 빨리 제187空挺聯隊의 전투단을 2個의 落下地域에 投下시켜 地上에서의 戰鬪態勢를 遺漏없이 갖추도록 留念하였다。

3월 23일 아침의 氣象狀況은 空挺作戰에 最適이었으며 落下時間(Jumping time) 前에 30分동안에 걸쳐 제5空軍의 제3폭격전대와 제452전투폭격 전대의 B—26 폭격기 56臺를 出擊시켜 2個의 落下地域에 500 LBS 폭탄을 投下한 다음 低空飛行으로 機銃掃射와 Rocket 공격으로 그 地域에 미리 鐵槌를 加하기로 하였다。

이날 F—51전투기 16臺가 수송기의 護衛를 專擔하였고 Mosquito 機上에 탑승한 管制士의 指示에 따라 다른 전투기들이 支援토록 하였다。

또한 大邱基地에서는 수송기에 먼지가 너무 많이 끼어서 離陸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으나 조종사들은 各機마다 10초 간격을 維持하면서 1臺의 事故도 없이 離陸을 完了 하였으며 目標의 上空에서는 5個의 隊列로 수송기들이 아무런 障碍없이 空挺隊員들을 落下시켰고

이어서 裝備를 投下하였다。

모두 6個의 隊列中에서 1個의 隊列만이 指揮官이 탑승한 1番機가 없었기 때문에 多少의 紛亂을 이르키기는 하였으나 두번째 隊列의 1番機인 C—46 수송기가 離陸한 얼마뒤에 Engine 고장을 일으켜 하는 수 없이 大邱 西部비행장(K—37)에 着陸하였다。

한편 두번째 隊列에서는 1番機가 없었으므로 2番機가 代行하였는데 무거운 짐을 가득 積載한 2番機 C—46 수송기가 적절한 時間을 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最初目的地點(Initial point)를 지나서 機首를 南쪽 投下 지점으로 向하였다。

그러나 低空航法 착오를 일으켜 2番機는 指定目標地를 착각하였기 때문에 1個大隊의 空挺隊員을 北쪽 投下地域에 落下시켰다。

또한 大邱西部 비행장(K—37)에 着陸하였던 두번째 隊列의 長機는 豫備 C—46 수송기 1臺에 空挺大隊長과 참모들을 탑승시키고 離陸하여 그들의 主張에 따라 南쪽 投下地域으로 가서 落下시켰다。

이때 地上에서 쏘아 올리던 敵의 Caliber 攻擊으로 미루어 보아 大隊長外 30名의 참모들이 참변을 입은것이 틀림없다는 情報를 받고 Bowen 준장은 즉시 이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1個中隊를 急派하였다。

이처럼 投下 지점에 착오를 일으켜 잘못 落下된 것 以外에는 만족스러운 空挺作戰이 展開되었다。

C—119수송기 72臺가 2011名의 空挺隊員과 204 ton의 補給品을 投下하였고 C—46 수송기 48臺가 1.436名의 空挺隊員과 15.5 ton의 탄약 그리고 식량과 통신장비들을 投下하였다。

第187空挺聯隊의 戰鬪團에서는 Jump 直後에 84名의 Jump 事故가 발생하였고 敵의 攻擊으로 18名 부상에 1名이 戰死하였는데 Jump 事故者中의 40名은 즉시 회복되어 작전에 임할 수 있었으며 작전 진행중에 敵의 對空火器에 의하여 C—119수송기 5臺가 小破 되었고 C—119수송기 1臺가 갑자기 불이나서(敵의 攻擊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基地로 急히 귀환하다가 空中폭파되어 조종사와 부 조종사가 殉職하였다。

第187空挺聯隊의 전투단은 곧이어 서울로 부터 이곳까지 온 美 戰車대대와 連結되었으나 地上補給은 아직도 지원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UN空軍에서는 계속하여 地上軍 작전에 긴요한 보급품을 D+1일과 D+2일 그리고 D+3일과 D+4일에 空中投下 再補給을 실시하였다。

3월 24일 C—119 수송기 36機가 兵力 40名을 落下시키고 보급품 187.7ton을 汶山里에 投下 하였으며 3월 26일에는 C—46 수송기 4機가 보급품 10ton을 投下 하였고 3월 27일 C—119 수송기 12機가 탄약과 보급품 65.8 ton을 投下하였다。

이러한 空中投下 再補給은 道路 보급이 극히 困難한 地域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마지막 이틀 동안(26일과 27일) 空挺部隊들에게 무척 긴요한 것이었다。

汶山里의 空挺作戰 遂行後에 第187空挺聯隊의 전투단과 제315비행단의 各 참모들이 연구할 과제를 찾아내어 檢討하였다。

제315비행단장인 Henbry 준장이 말하기를 『第2隊列의 2番機가 指定된 地域에 空挺隊員을 落下시키는데 착오를 일으킨 것은 人間의 失手였으나 敵空軍의 反擊狀況이 弱하여 이를 突破하고 작전을 遂行할 수 있을 때에는 航法과 二重 無線通信裝置 장비를 完備한 機上搭載 指揮網으로 落下傘投下 작전중에 投下 地域統制도 돌봐야 한다。 또 空挺部隊의 指揮官들과 수송기 各 隊列의 先後任 指揮 조종사가 모두 함께 Briefing을 하여 各各 특별한 임무와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또 第817空挺聯隊戰鬪단장인 Bowen 준장은 말하되 『補給品을 꾸리고 싣는 것 그리고 補給品 投下의 책임이 空挺部隊에게 있었으므로 이번 작전중에 重裝備를 投下 시키는데 발생하였던 失手는 自身의 책임이지만 期間中의 피해는 順川과 蕭川投下 작전을 敢行할 때보다 훨씬 적었으며 이번 損失의 原因은 대부분 落下傘 使用이 잘못되어 발생하였으므로 다음 空挺作戰에서는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空中投下 再補給(Aerial Resupply) 문제에 관하여 空挺隊員들이 着陸하는 즉시로 空地 통신식별절차(Rebecca—Eureka radio beacon)를 使用하는 것이 投下地點의 識別을 훨씬 容易하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리고 Henbry 준장은 『投下面前에 어떠한 변경조치가 取하여지든 수송기들이 出擊 준비를 완전히 갖추도록 最少한 4時間 以前이어야 하며 空挺作戰을 展開하기 전에 경계태세를 취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수송기의 「離陸準備를 完了하는데 적어도 5時間의 準備期間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이 空挺作戰이 기술적으로는 成功을 거두었으나 敵軍을 殺傷하고 사로잡는 戰術的인 面에서 볼때에 그 戰果는 그다지 큰 것이 못되었다。

이 空挺攻擊으로 敵의 死傷者는 대략 150名~200名으로 推算되었고 87名이 捕虜되었으나 防禦陣地를 구축한 뒤에 또다시 24名을 사로잡았다。

이 作戰地域에 머물러 있던 敵의 部隊는 北共軍 제19사단 소속의 1個聯隊 뿐이었으며 그나마도 2級戰鬪部隊였는데 UN空挺部隊員에게 사로잡힌 捕虜들은 3월 21일 敵의 高位司令部로부터 第187空挺聯隊 전투단이 3월 23일 汶山里에 落下 할것이라는 警告를 받았고 아울러 撤收命令도 받았다고 陳述하였으나 무슨 이유로 撤收하지 않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敵이 UN軍의 작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陳述한 것은 事實과 判異하였다。

期間中에 極東空軍 司令部에서는 UN地上軍의 再反擊戰을 따라 근접지원이 총 5.405回의 出擊을 하였으며 공수지원 작전에는 6.511回에 達하는 出擊을 실시하였고 遮斷作戰에는 도합 7.371回의 出擊을 하여 얻은 綜合戰果는 다음과 같다

敵 MIG 機擊墜	4대
敵 MIG 機半破	2대
一般車輛	2.261대
敵殺傷	1.100명
橋梁破壞	2個所

第 40 章

中·西部地區 反擊作戰

要　旨

1. 第2次 서울 奪還戰
2. 春川西北方 進擊戰
3. 史倉里附近 戰鬪
4. 烏山—漢江線 進擊作戰
5. 長湖院—砥平里—38°線 進擊戰
6. 서울—38°線 進擊作戰
7. 海兵隊의 金浦附近 戰鬪
8. 海兵隊의 東·西海 島嶼作戰
9. 海軍PF—62艦의 身彌島 戰鬪
10. 海軍의 輸送 支援作戰
11. 空軍 白鷗部隊作戰
12. UN空軍의 活動

第40章 中·西部地區 反擊作戰

要 旨

이 反擊作戰은 美 제1, 제9군단이 威力搜索을 全面攻擊으로 擴大하여 漢江線으로 진격하고 敵의 이른바 2月攻勢를 阻止한 다음, 서울奪還에 이어 38°線 일대까지 진격한 1月中旬에서 4月中旬間의 狀況을 包括하는 것이다。

兩 軍團이 長湖院—安城—平澤線의 陣地에 進入한 다음, 1월 14일에 제8군 사령관 Ridgway 중장은 敵과의 接觸을 回復하기 위한 威力搜索의 展開를 지시하였거니와, 이 Wolfhound작전의 결과로 敵은 主力이 利川—水原線까지 南下하여 다음 攻勢를 準備中인것으로 판단되었다。그러나 20일이 지나도록 敵은 아직 준비가 끝나지 않은 듯, 散發的인 抵抗이 있을 뿐이었다。이에 제8군은 兩 軍團에 Thunderbolt작전을 시작토록 명령하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要旨였다。

『1월 25일을 期하여 大規模의 전투수색대를 驪州—水原 線으로 진출시켜 敵을 攪亂시키고 最大限의 打擊을 加하라。』

이에 따라 진격을 시작한 兩 軍團은 美 제1기갑사단이 利川을 탈환하고 美 제25사단이 水原南쪽까지 진출한 다음, 26일에는 利川—水原 線을 넘어서니 실질적인 反擊의 序幕이 열린 것이었다。

다음날, Ridgway 중장은 漢江南岸의 敵을 驅逐키로 斷案을 내려 兩 軍團에 全面攻擊의 態勢를 갖추게 하니, 31일에 美 제9군단은 驪州—利川—龍仁 일대로부터 美 제24사단이 右翼, 美 제1기갑사단이 左翼으로 공격을 시작하여 驪州—楊平 間에서 敵을 격퇴하고 2월初旬에는 楊平—南漢山 線으로 진격하였다。

그리고 美 제1군단은 金良場—水原—九龍谷일대로부터 右翼인 美 제3사단과 左翼인 美 제25사단이 光敎山—修理山일대의 敵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제3사단은 2월 2일에 光敎山을 奪還하고 4일에 板橋里—文衡山 일대로 진격한 다음, 左隣接인 我 제15연대의 진출에 힘입어 容易하게 淸溪山을 탈환하여 10일까지는 千戶洞—蠶室일대에 진출하였다。이때 美 제25사단에는 我 제1사단의 제15연대가 配屬되었거니와, 연대는 제25사단의 右一線으로서 彌勒洞일대로부터 공격을 시작하여 2월 3일에 輞洛山의 敵을 擊退하고, 계속하여 9일에 冠岳山을 奪還한 다음 10일에는 銅雀洞—鷺梁津에 이르는 漢江 南岸을 確保하였다。그 左側에서는 美 제35연대와 Turkey여단이 第一線을 맡아 京水間의 要衝인 修理山을 공격하더니 2월 2일에 그 主峰을 탈환하고 4일까지는 일대를 完全 奪還하여 安養까지 진출한 다음, 역시 10일까지는 永登浦일대로 진격함으로서 美 제25사단도 永登浦—素砂—仁川 일대를 점령하였다。

한편 제9군단 右隣接의 美 제10군단은 제1, 제9군단의 진격을 容易케 하기 위하여 1월 31일부터 大規模의 威力搜索을 敢行하였는데, 2월 3일

에 美 제2사단의 제23연대는 砥平里에 진출하고 군단 主力은 橫城에서 敵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더니, 2월 11일부터 敵의 이른바 2月攻勢로 불리우는 대규모 공격을 받게 되었다。中部戰線에 集中된 이 攻勢로 군단은 原州로 後退하였을 뿐 아니라 13일에 이르러 中共 제39군은 砥平里를 포위하고, 西部에서도 中共 제38군이 水原近郊까지 逆襲을 企圖하였었다。이때 美 제9군단의 主力은 楊平—南漢山 線에 이르고 제10군단은 原州地區에 集中됨으로써 그 間隙에는 砥平里의 美 제23연대 뿐으로 제8군은 反擊의 重要據點을 威脅받는 셈이었다。이에 Ridgway 중장은 文幕里의 美 제2사단 제38연대로 하여금 제23연대를 增援토록 군단장에게 지시하는 한편 美 제9군단에 대하여도 右翼의 제6사단과 英 제27여단으로 砥平里와 文幕里 사이의 間隙을 閉鎖토록 하였다。그런데 美 제38연대는 九里里 南쪽에서 敵의 저항으로 前進이 頓挫되니, 美 제23연대 支援任務가 美 제9군단에 부여되어 군단은 예비의 美 제5기갑연대로 하여금 砥平里를 包圍中인 敵을 공격케 하였다。연대는 仙水里를 거쳐 15일에 敵의 包圍網을 突破하고 美 제23연대 陣地에 到達하였으며, 한편 제6사단과 英 제27여단도 砥平里를 향하여 北上하니 逆包圍의 威脅을 받은 敵은 守勢에 몰려 洪川으로 退却하였다。그리하여 砥平里를 작전지역에 편입한 美 제9군단은 2월 18일에 美 第1海兵師團을 새로 배속받아 原州부근으로 진출시킴으로서, 原州—驪川間에서 東으로부터 美 第1海兵師團, 제6사단, 美 제1기갑사단, 美 제24사단이 併列하여 楊平—加平—春川의 軸線을 따라 진격케 되었다。이렇게 洪川—楊平線을 確保한 군단은 3월 13일에 제6사단과 美 제1기갑사단을 交替하여 美 第1海兵 및 제1기갑사단을 右翼, 제6 및 美 제24사단을 左翼으로 공격을 계속하여 3월 21일에 美 제1기갑사단이 春川을 점령하고 美 제24사단이 淸平에 진출하였다。다음날 北漢江을 渡河한 제6사단은 4월 2일에 春川 北쪽 山岳地帶에서 抵抗하는 敵을 擊破하였으며, 3일에는 38°線을 넘어 Kansas 線(芝坪里—華岳山)으로 진격한 다음 20일부터는 史倉里 일대에서 敵과 激突하니 20일 現在 군단은 楊L1—華川—連川線까지 진격하였던 것이다。

그 동안 美 제1군단은 美 제25사단을 南漢山 攻擊에 增援하고, 美 제3사단과 我 제1사단이 漢江 南岸에서 搜索戰을 展開하고 있더니, 中部戰線의 戰況이 好轉됨에 따라, 3월 14일부터 漢江을 渡河하여 서울市內로 진출을 시작하여 16일까지는 제1사단의 제15연대가 中浪浦以東의 市內 대부분을, 美 제3사단이 退溪院—雙門洞間을 점령함으로서 70餘日만에 首都를 되찾게 되었다。이렇게 서울을 奪還한 군단은 3월 22일 現在 右翼인 美 제25사단이 淸平—退溪院間을, 美 제3사단이 退溪院—雙門洞間을, 左翼인 제1사단이 北漢山—水色—金浦半島 일대를 確保한 가운데 38°線을 向한 진격을 서두르고 있었다。그리하여 23일에 제3사단은 議政府를 점령하고, 제1사단은 汶山을 향하여 진격을 재촉하였는데, 이날 汶山에는 敵의 退路를 遮斷코자 美 제187공수연대가 落下하여 24일까지는 臨津江 南岸의 敵을 대부분 擊退하였다。美 제25사단은 25일에 竹葉山과 酒桼山을 탈환한 다음 抱川일대의 敵을 壓縮하여 28일에는 美 제3사단과 함께 抱川東豆川일대를 점령하더니 4월 中旬에는 連川일대까지 진격함으로서 군단은 臨津江 沿線을 確保하게 되었다。

1. 第 2 次 서울 奪還戰 (1951년 3월 14일부터 1951년 3월 16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33호
상황도 제39, 40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軍		我軍	
美 제1군단 장 소장	Frank W. Milburn	제3대대	장 중령 金 基 容
제1사단	장 준장 白 善 燁	제15연대	장 대령 金 安 一
제11연대	장 대령 文 亨 泰	제1대대	장 중령 劉 載 成
제1대대	장 중령 柳 重 秀	제2대대	장 중령 崔 炳 淳
제2대대	장 소령 裵 斗 龍	제3대대	장 소령 金 國 柱
제3대대	장 중령 鄭 永 洪	사단 공병대대	장 중령 金 永 鎬
제12연대	장 대령 金 點 坤	배속부대	
제1대대	장 소령 柳 文 鎬	포병 제17대대	장 중령 黃 鍾 申
제2대대	장 중령 趙 成 來		

敵軍		敵軍	
北共 제1군단		제148사단	장 趙 鶴 亭
제47사단(2개 연대)		제442연대	제2대대
中共 제50군	장 曾 澤 生		

나. 전투 전의 개황

1월 下旬, 竹山—安城 線의 陣地로부터 威力偵察을 敢行한 끝에 美 제9군단이 利川에, 美 제1군단이 水原에 진출하게 되자, 美 제8군 사령관 Ridgway 중장은 當面의 敵勢를 一擧可破로 내다보고 漢江 以南의 敵을 驅逐할 것을 결심한 다음 각 군단에 全面攻勢을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美 제1군단은 美 제3사단을 右翼, 美 제25사단을 左翼으로 楊子山—光敎山—修理山일대로부터 北共 제8사단의 일부와 中共 제50군의 제148, 제149, 제150사단 및 제38군의 일부 등을 공격하기 시작하였거니와, 이 당시 제1사단은 主力이 군단 예비가 되어 安城일대에서 警戒任務를 遂行中

이었고, 제15연대만이 서울로의 進擊隊列에 참가하는 唯一한 韓國軍部隊로서 美 제25사단의 右一線을 맡게 되었다.

그리하여 연대는 1월 29일에 지휘소를 水原 北쪽의 孝子里로 옮기고 제1대대를 右側攻擊梯隊, 제2대대를 左側攻擊梯隊로 다음날 午後부터 공격을 시작하여 2월 3일에 五金里—龍洛山 일대까지 전격한 다음, 예비대인 제3대대를 제1대대와 交代케 하였다. 이때 左隣接의 美 제35연대는 修理山을 점령한 다음 安養으로 진출하니, 연대는 이와 併行하여 2월 7일에 下溝溪 南쪽—外飛山洞을 잇는 Erie線으로 진격하였고, 다음날 8일에는 午前中에 제3대대가 冷井—普光寺 일대를, 제2대대가 文原里 △283을 奪還함으로서 Omaha線(冷井—普光寺—文原里 △283—內飛山洞 西北方 念佛庵부근을 連하는 線)을 確保하였다.

이렇게 冠岳山만 奪還하면 一擧에 漢江까지 진출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자, 연대는 戰車와 步兵 1개 중대 및 工兵 1개 소대 등으로 特別部隊를 편성하여 地域內의 交通上 要地를 확보토록 하여, 8일에 同 部隊는 첫 목표인 Item(제비울—葛峴里—富林村—仁德院洞을 포함한 일대)을 점령하였으며, 9일에 冠岳山을 탈환한 다음에는 Xray(果川, 官門里를 中心으로 下里 南쪽에 이르는 일대) 지역을 확보하여 安養, 서울로 通하는 道路를 掌握하였다. 그런데 冠岳山은 層層巨岩으로 덮인 629m의 高地로서 아직 白雪이 그대로 쌓인 위에, 9일 아침 그 上峰에는 雲霧가 자욱하게 끼어 視界마저 不良하여 08.30부터 거듭된 左 第一線의 제2대대의 공격에도 1개중대 규모의 敵은 堅設陣地에 占據하면서 저항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右 第一線인 제3대대가 10.00에 官門里를 거쳐 △162에서 저항하는 1개 분대 규모의 敵을 一蹴한 다음 南泰嶺—冠岳山 東麓일대를 확보하는 한편, 美軍 戰車와 對戰車砲가 敵陣을 強打하는 가운데 제2대대는 突進을 敢行하여 午前中에 冠岳山 頂上을 奪還하고야 말았다. 이어 대대는 潰走하는 敵을 急히 追擊하여, 16.20까지는 同山의 北麓인 標高 300m 稜線(觀音寺 北쪽)으로부터 紫霞洞 北쪽 溪谷에 이르는 일대까지 躍進하여 제3대대와 連結함으로써 연대는 Penn線(下里 東北쪽의 內洞—南泰嶺 北쪽—觀音寺 北쪽—紫霞洞 北쪽의 冠岳山 北麓을 橫斷하는 線)을 完全히 掌握케 되었다.

이와같이 漢江畔으로 다가서게 되자 연대장 金安一 대령은 지휘소를 官門里로 前進시킨 다음 10일 01.00에 作戰指示 제7호로서 Seoul線(方背洞—通村 南쪽—梨水 北쪽—乾里頂 北쪽—上通洞 堂谷에 이르는 일대) 및 Ankara線(銅雀洞—鷺梁津—永登浦驛前의 漢江 南岸)에 대한 공격을 指示하였다. 따라서 제2, 제3대대는 08.00부터 공격을 시작하였거니와, 敵의 主力은 이미 江北으로 退却하고 分散된 일부만이 散發的으로 저항을 할 뿐이어서, 각 대대는 午前中에 漢江 南岸까지 一擧 진출하였다. 즉 제3대대는 舍堂洞에서 梨水로 前進한 제10중대가 11.10에 △158을 점령한데 이어 11.40까지는 銅雀洞—黑石洞 江邊에 진출하여 대대관측소를 華藏寺에 설치하고 漢江 人道橋에 이르는 江 南岸 高地에 右側으로부터 제10, 제11, 제9중대를 展開하였다. 그리고 제2대대는 09.30에 乾里頂 北쪽—獅子庵—上通洞 일대에 진출한 다음, 11.10에 江邊으로 前進하여 人道橋 左側으로부터 永登浦區廳앞까지 제5, 제6, 제7중대를 展開하였는데, 12.30에는 제5중대의 1개 소대가 人道橋 北쪽에서 江 건너 중대 정면에 射擊을 加하는 1개 소대 규모의 敵을 驅逐하였다.

한편 그동안 제11연대는 大牟里—金義—大安—水原의 京釜線 沿邊에 배치되어 主補給路를 확보하

고, 제12연대는 安城일대의 陣地에서 警戒任務를 遂行하고 있었는데, 사단(一)은 점차 제15연대를 뒤따라 2월 7일에 그 前輕隊의 일부가 水原을 목표로 출발하고 제12연대도 水原으로 轉進하였으며 10일에는 사단 지휘소를 水原 北쪽 芭長里의 國民學校에 設置하였다。

그런데 이 무렵 軍團右翼에서는 아직 南漢山일대의 攻防戰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더욱 中部戰線에는 敵의 이른바 2月攻勢가 集中되어 美 제10군단이 原州地域에서 이에 대한 反擊을 벌리고 있었다。 이와같이 中部戰線에서의 진격이 遲延됨에 따라 美 제8군은 不必要한 戰力의 消耗를 避하여 西部戰線에서는 계속 漢江 南岸에서 敵을 牽制토록 하는 한편 美 제25사단은 南漢山攻擊에 增援토록 轉進케 하였다。

따라서 사단은 中浪橋로부터 漢江鐵橋에 이르는 서울 全域을 담당하여, 그 以東 東北郊外를 맡은 美 제3사단과 더불어 서울奪還의 攻擊命令만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제11, 제12연대도 모두 漢江 南岸으로 前進한 가운데 제15연대는 西쪽으로 옮겨 鐵橋—永登浦에 이르는 汝矣島 對岸에 제3대대를, 永登浦—鹽倉의 江 南岸에 제1대대를, 그리고 大方洞일대에 제2대대를 예비대로 배치하였으며 연대본부도 2월 19일에 九老里로 移動하였다。 또 제12연대는 16일에 素砂로 진출하여 사단 左一線으로 鹽倉—金浦일대의 漢江 南岸에서 殘敵의 掃蕩을 牽制하고 있었으며, 제11연대는 예비대로서 27일에 제1대대가 水原으로 제2대대가 金浦로, 제3대대와 본부는 安養으로 각각 前進하였다。

그런데 敵은 北共 제1군단의 제3, 제17, 제47사단과 제5군단사령부 및 中共 제50군의 일부등이 서울北部와 南山·漢江南岸일대에 집결한 것으로 推定되었던 바, 3월 初旬에는 대부분이 後退하였고, 北共 제47사단 사령부 및 2개 연대와 1개 대대 규모의 中共軍만이 남아 江邊과 南山, 仁旺山一鞍山일대에 防禦陣地를 構築하여 我軍의 渡河를 遲延시키고자 企圖하였던 것으로 判斷되었다。

그동안 사단은 제15연대로 하여금 搜索活動을 強化케 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대의 각 대대는 소대 乃至 분대 규모의 搜索隊를 渡江시켜 市內의 敵情을 探索하였고, 江 南岸에서는 適時의 敵陣에 銃砲擊을 加하는 한편, 市街戰에 對備한 訓練을 實施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軍團右翼과 中部戰線에서 敵의 攻勢를 막고 美 제10군단이 3월 13일에 漢比—楊平일대를 확보하고, 美 제25사단은 西水里부근에서 北漢江을 건너 10餘km나 北進하니, 敵은 일부 偵察隊만을 潛伏시킨 채 모두 물러가기 시작하였으며, 사단은 市內로의 渡河進出을 서두르게 되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 계획

美 제8군은 中共軍이 侵入한지 2個月半만에 처음으로 全面攻擊을 시작한 以來 날마다 一定한 統制線을 設定하고 모든 공격부대로 하여금 그 以上은 前進치 못하도록 制限을 加함으로써 隣接部隊間에 密接한 連結을 維持케 하는 신중한 躍進을 거듭하여 왔다。 그런데 美 제1군단이 漢江線에 진출한 다음에 시작된 敵의 攻勢로 中部戰線에서의 我軍의 진격이

遲延되자, 美 제8군 사령관 Ridgway 중장은 美 제9, 제10군단이 이 敵의 攻勢를 꺾지 않으면 全戰線에 龜裂이 갈 것이라고 판단한 나머지 中部戰線에 重點을 두는 한편, 美 제25사단도 南漢山 攻擊에 參加토록 함으로써 서울은 제1사단이 거의 專擔케 되었다。換言하면 Ridgway 중장은 美 제9, 제10군단으로 하여금 敵의 主力을 撃滅함으로써 西部戰線에서는 되도록 我軍의 損失을 줄이며 敵을 追擊할 것을 企圖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사단이 서울全域을 맡게 되자 사단장 白善燁 준장은 水原으로부터 진격한 제15연대로 하여금 계속 市內로 진출토록 하고, 제11, 제12연대는 漢江 南岸에서 그 左側方 및 後方을 경계하여 제 15연대의 서울奪還을 掩護케 할 계획으로 제15연대에 市街戰에 對備한 訓練 및 捜索活動의 強化를 指示하였다. 따라서 제15연대장 金安一 대령은 訓練 및 捜索을 계속하는 가운데 공격을 시작하면, 각 대대가 汝矣島에서 麻浦로 渡河한 다음 제1대대는 新村일대로 前進하고 제2대대는 鍾路-新設洞을 거쳐 彌阿里—回基洞일대로 진출하며, 제3대대는 中央廳일대를 확보한 가운데 北岳山—仁旺山 일대에서 殘敵을 撃滅케 할 것을 계획하였다。

(2) 작전 실시

3월 14일 : 中部戰線에서 我軍과 UN軍이 거둔 勝戰끝에 洪川 南쪽으로 진출하고, 美 제25사단도 北漢江을 건너 진격함에 따라 東側面의 威脅을 받은 서울의 敵은 掩護部隊마저 敬禧洞과 水色을 거쳐 모두 물러가고 市內에는 落伍兵과 일부 偵察隊가 潛伏하였을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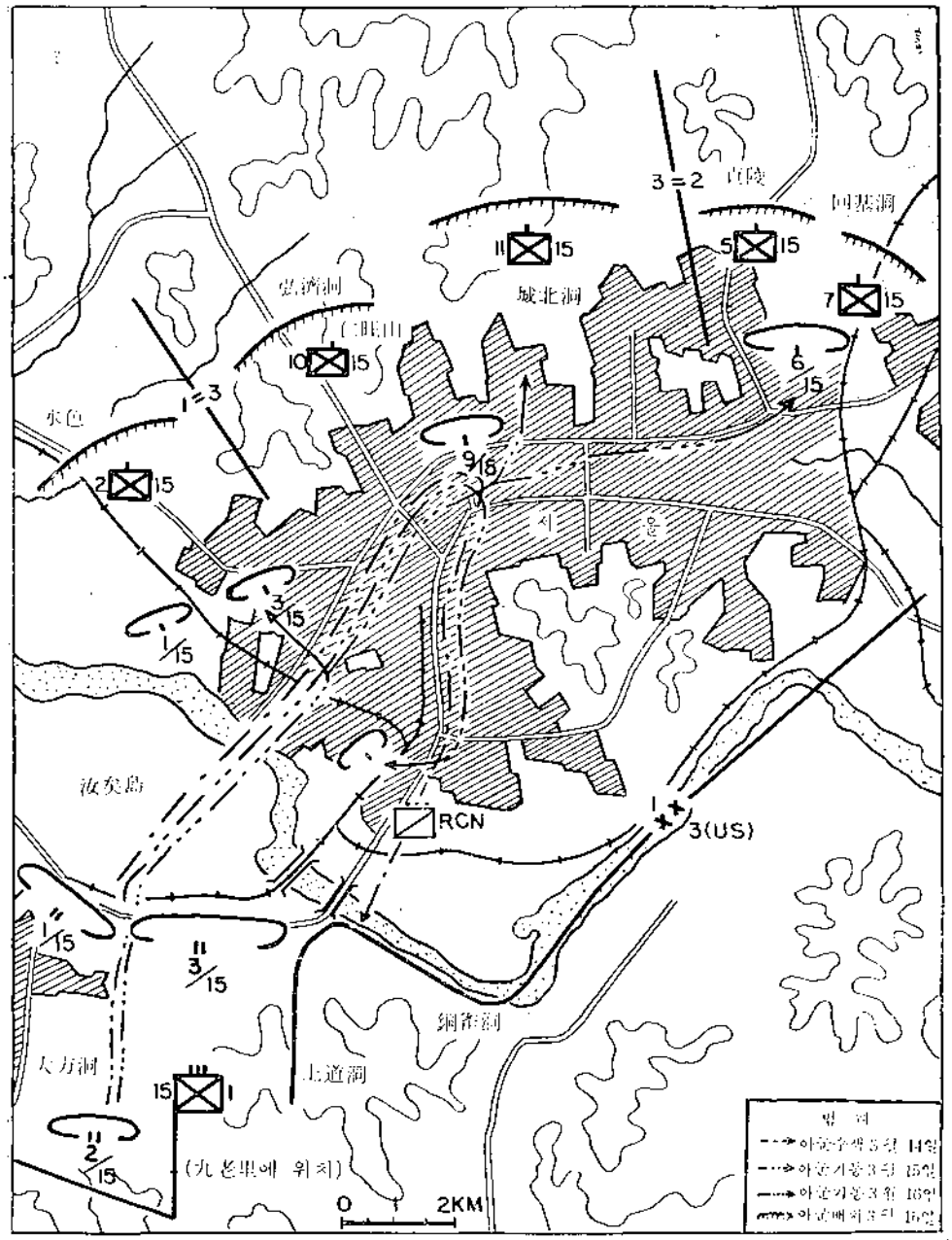
그리하여 제15연대는 捜索隊를 市內로 진출시켜 敵情을 確認토록 하였던 바, 舟艇으로 江을 건는 수색대는 中央廳으로 진출하여, 機關銃으로 抵抗하는 3명의 敵을 射殺한 다음 太極旗를 揭揚하고 感激의 「萬歲」를 부르면서 한동안 일대를 점령하고 있다가 市廳—서울驛—龍山을 거쳐 다시 江 南岸으로 돌아오니 서울은 이미 我軍의 手中에 돌아온 것이나 다름 없었다。

이때 右隣接의 美 제3사단은 麻浦일대에서 사단과의 긴밀한 협동으로 서울 東北方인 弘濟院—雙門洞일대로 前進하기 위하여 萬般의 進擊態勢를 갖추고 있었다。

3월 15일 : 사단은 이날 제15연대의 일부 兵力을 市內로 진출케 함으로서 본격적인 捜索과 아울러 渡河據點을 確保케 하였다。

즉 이날 05.30에 제15연대의 제6중대는 汝矣島로 건너가 다시 08.00에는 北岸 麻浦로 渡河한 다음, 西大門쪽으로 진출하여 弘濟洞 일대까지를 捜索하고 11.25에 中央廳에 突入하였다。 여기에서 중대는 3명의 敵을 捕虜한 뒤에 다시 市廳앞—서울驛—龍山을 거쳐

◇ 상황도 제39호 第二次 서울 奪還戰(51·3·14~16)



17.30에는 龍山驛 東北쪽의 △41 일대에 陣地를 심령하고 警戒에 臨하였다。 또 제1대대에서는 09.00에 제3중대의 1개소대가 合井洞으로 渡河하여 西橋洞—城山洞—水色일대를 搜索한 다음 上岩洞을 거쳐 다시 西橋洞 일대에 兵力을 배치하였으며, 午後에는 제3대대도

數個組의 分隊級 斥候를 渡河시킨 바 있다。

그리고 연대 搜索隊는 07.00에 阿峴洞의 △77 일대를 수색한 끝에 所謂 內務署員을 포함한 4명의 敵을 사로 잡아 押送하였고, 11.00에는 孝子洞의 西大門 네거리—佛光洞 道路 東쪽 高地帶에서 1개 소대 규모의 敵 偵察隊와 부딪쳐 20分間의 交戰으로 損失없이 3명의 敵을 射殺하고 4명을 捕虜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한편 이와같이 서울을 奪還케 됨에 이르러 李承晩대통령은 MacArthur元帥에게 感謝의 書翰을 보낸바 있거니와 元帥는 이날자의 回翰에서 다음과 같이 그의 見解를 말하였다。

『暴虐한 군대가 물러가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그러나 敵 守備軍이 이번에 지난 9월과는 달리 決定的인 敗北를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注意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따라서 서울 奪還은 心理的으로는 극히 중요한 意義를 갖는 것이나 軍事的 見地에서는 戰鬪의 한 附帶的인 事實에 不過한 것입니다。서울이 今後에 完全히 安全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本人은 韓國政府가 즉시로 서울에 歸還하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고 믿는 바입니다。』

3월 16일 : 이날 제15연대의 각 대대가 모두 漢江을 건너 市內에 진출함으로서 사단은



<見敵必殺의 기개로 敵陣을 노리는 제1사단 勇士>

서울 全域을 掌握하게 되었다。

제15연대는 이날 아침 제2대대(장, 崔炳淳 중령)가 先頭에서 麻浦로 渡河한데 이어 제1, 제3대대도 모두 江을 건넜으니, 제2대대는 07.00에 大方洞으로부터 前進하여 08.30에 漢江을 渡河하였는데 이미 전날에 진출하여 있던 제6중대도 本隊에 合勢한 다음, 서울驛을 거쳐 新設洞으로 진출하였다。그리하여 대대 CP를 安岩川邊(現 大光高等學校 부근)에 설치하고, 제7중대를 中浪川 西쪽一里門洞—回基洞 일대에, 제6중대를 鍾岩洞 南쪽에, 제5중대를 彌阿里 일대에 배치하고, 1개 소대를 月谷에 진출시켰다。

또 汝矣島 南岸으로부터 진출한 제3대대(장, 金鳳柱 소령)는 西大門으로 前進하여 平洞 △85에 CP를 설치한 다음 그 일대에 제9중대를, 城北洞—付岩洞의 北岳山일대에 제11중대를, 仁旺山—鞍山 일대에 제10중대를 배치하여 警戒에 臨하였다。

그리고 제1대대(장, 劉載成 중령)는 新村부근으로 진출하여 鞍山 西麓—延禧洞 北쪽—城山洞일대에 제2중대를, 倉前洞 高地일대에 제1중대를 배치하고, 대대 CP와 제3중대는 老姑山洞에서 警戒함과 아울러 다음 出動을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한편 13.00에는 戰線視察에 나선 國防長官一行이 연대의 漢江渡河狀況을 살펴보았으며 대통령으로부터의 祝賀電文을 받기도 하였는데, 사단장은 이에 自慢치 말고 더욱 軍人으로서의 姿勢를 가다듬어 軍民一體의 結實을 거두고자 部隊指下의 각 마을에 대해 對軍輿論 및 民弊를 調査토록 指示키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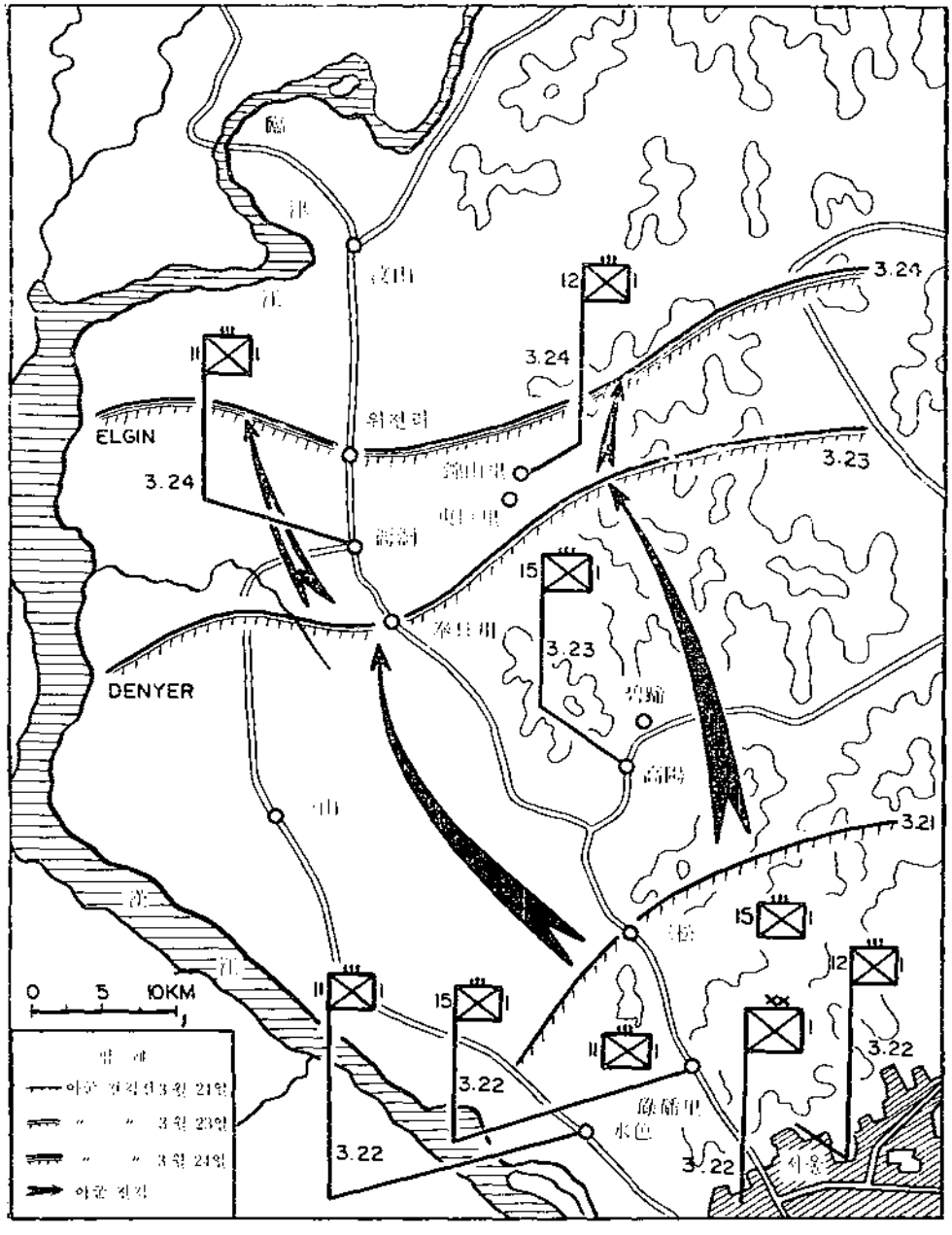
라. 전투 후의 개황

사단은 서울을 奪還한 다음 臨津江 일대로의 진격을 서둘러 3월 17일에 제15연대는 본부를 麻浦區 桃花洞으로 前進하고, 사단의 對戰車攻擊大隊도 16일附로 사단에 배속된 海兵 獨立 제5대대에 金浦일대의 防禦任務를 引繼하고 始興으로 復歸하였다。그러나 敵은 아직 완전히 물러가지 않고 主力은 開城일대에 집결하는 한편, 北共 제8사단 제3연대로 알려진 일부가 碧蹄里—水色일대를 前哨線으로 高陽—一山 및 坡州—汶山일대에 남아 我軍의 움직임을 窺視한 企圖였다。

그리하여 西部戰線의 美 제1군단도 美 제3, 제25사단이 道溪院을 中心으로 清平과 双門洞에 이르는 일대에서, 제1사단이 서울 西北方에서 각각 진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거니와 美 제8군은 西部에서의 迅速한 진격을 위하여 美 제187공수연대의 汶山일대 投下를 준비하고, 군단은 서울 外廓으로부터의 急速機動을 위하여 서울—汶山 主機動路를 진격할 Gloucester 특별부대를 편성하였다。

이때 사단은 예비대로 있던 제11연대를 서울 西北方에 배치하여 제15연대와 함께 臨津江線으로 敵을 追擊할 계획으로, 3월 18일에 제11연대로 하여금 安養으로부터 麻浦로 진출케 함으로서 연대의

◇ 상황도 제40호 서울—臨津江 進擊戰(51. 3. 21~24)



제1대대는 제15연대 제1대대와 交代하여 延慶洞 西쪽으로부터 臨倉에 이르는 陣地에 進入하였고, 제2, 제3대대는 연대본부와 함께 麻浦—西江驛일대에 집결한 다음 出動態勢를 가다듬었다。 이렇게 사단 右一線인 서울—汶山 本道 東쪽에서는 제15연대가, 그 西쪽 左一線에서는 제11연대가 全面을 擴大하며 진격한 태세를 갖추는 한편, 제12연대는 20일에 본부를 加里峰里로 옮긴 가운데 臨倉—金

浦 일대의 경계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3월 21일에 臨津江線으로의 진격을 시작하게 되자 제15연대는 北漢山 일대로 舊把撥里까지 진출하였으며, 제11연대(장, 文亨泰 대령)는 제3대대를 右側, 제2대대를 左側攻擊梯隊로 08.00에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鷹岩洞—南加佐洞일대로 진격한 제2대대(장, 黃擧洙 소령)는 孫浦洞일대에서 미처 後退하지 못한 일부 敵을 擊滅한 다음 葛峴洞—龜山洞일대를 거쳐 三松里—東山里일대로 진출하였다。그리고 제2대대(장, 張斗龍 소령)는 제7중대가 右側, 제6중대가 左側에서 水色일대로 진격하였으나 敵은 이미 後退하여 接敵狀況이 없는 가운데 花田里—德陵里일대로 진출하였다。이렇게 13.50까지는 昌陵川 南岸의 線을 確保한 연대는 일부 前哨部隊로서 前方의 敵情을 살피게 하는 한편 예비대인 제1대대(장, 鄭重秀 중령)도 南加佐洞일대로 前進케 하였다。

다음날인 22일에는 사단사령부가 西大門區 冷泉洞으로 前進하여 金華國民學校에 指揮所를 설치하였고, 제11연대 본부는 水色으로, 제15연대 본부는 孫浦里로 각각 前進하였는데, 鹽倉 西쪽에서 殿後대이던 제12연대(장, 金點坤 대령)도 제15연대와 交代하기 위하여 서울로 진출하여 본부를 弘濟洞으로 옮긴 가운데 右一線으로 진격할 차비를 차렸다。

23일이 되자 사단은 昌陵川 南岸으로부터 공격을 시작하였고 美 제187공수연대가 뜨디어 坡山일대에 降下함으로서 我軍은 1개 연대 규모로 판단되는 敵을 가운데 두고 南北에서 壓縮하기 시작하였다。사단 右一線에서는 제15연대가 高陽里로 指揮所를 옮기고, 제12연대가 碧蹄里로 前進함으로서 前線部隊가 되나, 사단은 右一線에 제12연대, 左一線에 제11연대, 제15연대는 예비대로 진격을 계속하게 된 것이다。제11연대는 역시 제3대대를 右側一線 제1대대를 左側一線으로 01.00에 이날의 統制線인 Denyer線을 향하여 공격하기 시작하였으니, Denyer線은 倉滿里—東巨里—泰日川里 北쪽—校洞里 일대를 連하여 設定되었으므로 敵은 이線 北쪽 坡山 南쪽에서 我軍의 挾攻으로 潰退될 형편에 놓였다。제3대대는 제11중대가 右로 新院里—官山里—东遊里—新谷里일대로, 제9중대가 元興里—芝英里—泰日川 일대로 진격하여 東巨—金陵里일대를 確保하였으며, 제2대대는 제7중대가 馬上洞—城石里—昌陵川 南岸으로, 제6중대가 陵谷—山里의 鐵路沿邊을 거쳐 삼다리—新基洞일대로 진격하여 16.30까지는 Denyer線을 모두 確保한 다음 敵地 깊숙히 搜索을 展開하고 있었다。다음날 제12연대는 坡州 新山里로 前進하였고, 제11연대는 08.00에 공격을 시작하여 15.00에 錦屛山 北麓—延豊里 南쪽—釜谷里—烽岩里 南쪽—德陵里—錦山里일대에 이르는 Elgin線으로 진격하니 退路가 遮斷된 敵의 일부는 潛走하고 일부는 分散되어 속속 我軍에 投降 또는 射殺되었다。이때 美 제187공수연대는 일부의 敵을 追擊하여 東進하였고, 사단은 이제 戰爭以前의 原陣地인 臨津江 南岸을 완전히 掌握하게 되었다。

이제 사단은 右一線인 제12연대가 錦屛山(△293)—坡平山 일대에, 左一線인 제11연대가 坡山일대에 堅固한 防禦陣地를 構築하고, 제15연대를 예비대로 泰日川里일대에 배치한 가운데 江邊까지의 前哨線일대에서 搜索活動을 벌렸는데, 다시 江北으로 後退하여 接觸이 끊어진 敵의 狀況을 搜索하여 그 企圖를 探知할 必要에 따라 臨津江을 渡河하여 敵陣에 대한 奇襲을 敢行하게 되었다。그리하여 각 연대는 小規模의 渡河搜索을 벌리오던 가운데 군단에서 捕虜獲得을 要望함에 따라 이번에는 航空·砲兵·戰車·工兵등의 立體的인 支援을 받으며 本格的인 奇襲攻擊을 企圖하였으니, 첫번째로 3월 31

일에는 제15연대의 제3중대(장, 鄭享澤 대위)가 攻擊中隊로 抽出되어 東波里의 △191, 즉 白月峰을 奇襲하였다。

한편 그 1週日 뒤인 4월 6일에는 육군본부 일반명령 제28호(4月 6日附)에 따라 戰爭勃發前부터 계속 사단을 지휘하던 白善燁 준장이 제1군단장으로 榮轉되고, 後任사단장으로 姜文奉 준장이 赴任하였다。그리고 다음날 7일에는 對岸의 北共 제3연대가 제2연대와 交代하여 配置된 것을 探知하자 제12연대 제2대대의 2개 중대를 抽出하여 1개 중대의 掩護下에 1개 중대로서 다시 △191를 奇襲케 하였다。04.30에 渡河를 시작한 我軍은 06.45에 高地로 突進하여 15.00에 이르기까지 일대를 계속 점령하고 있다가 어두울 무렵에 江을 건너 歸隊하였다。

또 13일에도 제12연대가 紫芝浦 北쪽의 △91를 奇襲하여 捕虜의 獲得과 아울러 對峙中인 敵情을 把握하는데 중요한 諜報도 얻는 등, 계속 敵攻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4월 22일에 이르러 그 동안 준비를 갖춘 敵이 다시 본격적으로 攻攻을 态行하니, 이로부터 戰況은 38°線 沿線에서 一進一退를 되풀이하는 새로운 樣狀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戰果			損失		
射	殺	351명	戰	死	9명
捕	虜	151명	戰	傷	46명
小	銃	86정			

(제15연대 2월 19일~3월 16일분 및 제11연대 3월 18일~3월 24일분의 合計)

§ 參戰者의 證言

◇ 제1사단장 白 善 燁 준장

(1971년 3월 16일, 戰史編纂委員會에서, 예 대장)

반격을 시작하여 水原으로부터는 상당한 交戰을 치르면서 右側의 美 제3사단과 並行하여 진격하였다。그리하여 우리는 永登浦—金浦半島로 展開하였는데, 漢江을 사이에 두고 敵과 많은 砲火의 交換이 있었다。서울 탈환의 작전개념은 東側方을 우회하여 서울에 있는 敵의 철수를 強要하는 것으로 美 제25사단이 그쪽으로 진격했고 우리는 麻浦로 들어가 中央廳에 太極旗를 달게 되었다。그와 동시에 美軍 戰車를 배속받아 汶山으로 突進하게 되었다。

◇ 제15연대 제7중대 黃 芝 龍 상사

(1970년 8월 忠南論山邑에서)

安城 방어선에서 반격태세를 갖춘 我軍은 2月初에 서울을 탈환하기 위해 冠岳山을 공격하게 되었다。險峻한 이 산에서는 1개 중대로 추산되는 敵이 저항하였는데, 우리 제2대대는 몇차례나 공격을 거듭한 끝에 美軍 戰車의 지원을 받아 8~9시간만에 이를 점령하였다。

◇ 제15연대 제9중대 제3소대장 李 錫 源 중위(1970년 8월 21일 京畿道 始興郡 安養邑 安養里에서)

3月初旬 두차례나 엷은 얼음이 깔린 漢江을 건너 공격을 試圖하였으나 실패한 다음, 결국 대대적인 砲支援을 받으며 1개 소대가 渡河하여 龍山의 敵 고사포 진지를 공격하였다。이미 敵의 저항은 없었고, 다시 명령에 따라 서울驛을 거쳐 中央廳으로 진출하였는데 기관총을 갖고 저항하는 3명의 敵을 射殺하고 太極旗를 揭揚하였다。감격의 순간이 지난 다음 다시 龍山으로 돌아와 교대로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 10餘名의 시민들이 술을 들고와 위로하였다。그때 우리 대대장 金國佳 소령도 건너왔고 我軍은 본격적으로 江을 건너 공격을 시작하고 있었다。

2. 春川 西北方 進擊戰 (1951년 3월 22일부터 1951년 4월 6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34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美 제9군단 장	소장	William M. Hoge	
제 6 사단	장	준장	張 都 暎
제 2 연대	장	대령	金 鳳 喆
제 1 대대	장	소령	李 昆 憲
제 2 대대	장	소령	金 德 福
제 3 대대	장	대위	崔 勳 大
제 7 연대	장	대령	梁 仲 鎬
제 1 대대	장	소령	印 聖 勳
제 2 대대	장	소령	閔 邦 瑛
제 3 대대	장	대위	吳 充 石
제19연대	장	대령	林 益 淳
제 1 대대	장	소령	金 俊 敎
제 2 대대	장	중령	朴 杜 根
제 3 대대	장	소령	朴 鍾 吉
포병제27대대	장	중령	金 [illegible]
사단교육대	장	소령	田 東 植

병력 및 장비 : 대체로 편제상의 사단 병력과 장비

敵 軍

中共 제13병단	장	李 天 佑	
제42군	장	吳 瑞 林	
제124사단	장	蘇 克 之	
(제370, 371, 372, 연대)			
제125사단	장	王 排 淵	
(제373, 374, 375, 연대)			
제126사단			
(제276, 377, 378, 연대)			

병력 및 장비 : 병력—18,085명
장비—대체로 보병화기

나. 전투 전의 개황

이 전투는 1951년 3월 22일 제6사단(장, 張都暎준장)이 中部戰線으로 진출하여 그 要衝地帶인 春川 西北方에서 中共 제42군(장, 吳瑞林)을 擊破하고 38°線을 넘어 Kansas 線(사단 戰區內는 芝村里와 薪岳山을 連하는 線임)까지 占領한 進擊戰이다。

이 전투에 앞서 사단은 3월 13일에 龍門山 南麓의 廣灘里(楊平郡 龍門面)에서 美 제9군단(장, William M. Hoge소장)으로부터 군단 작전계획 제9—51호에 의하여 前進輔線과 공격목표를 賦與받고 진격을 開始 하였다。敵은 龍門山(△1157)과 洪川江 및 北漢江의 地理的 利點을 이용하여 지연전을 펴면서 北上退却 하더니 春川 西北方의 38°線 부근에 이르러서는 그 일대에 堅固한 陣地를 구축하고 兵力을 증강하여 決定的인 방어전을 企圖함으로서 一大激戰이 전개 되었다。

이 지역은 中西部戰線을 가로지른 廣州山脈의 南端地地를 이룬데다가 華岳山(△1,287)—鷹峰山(△1436)—燭培峰(△1125)—修德山(△794)—北塔山(△867) 이 雄立하여 山岳이 險峻하고 處女林이 우거져 機動路가 아직 開拓되지 못하였으며 또한 破虜湖(華川貯水池)로 부터 春川湖와 衣岩貯水池를 거쳐 加平으로 흐르는 北漢江은 이 지역일대를 감싸고 西南쪽으로 흘러 難攻의 堅塞를 이룬 까닭으로 敵은 이곳을 지키고자 企圖하였으며, 사단은 이를 擊破하고 金化—平康—鐵原의 三角地帶로 向한 前進基地를 確保하려 한 것이다。

敵軍의 상황 : 敵은 機動防禦를 하면서 그 主力이 北上後退 하다가 3월 20일 사단이 北漢江(戰區內의 北漢江은 衣岩저수지와 加平사이임)南岸 까지 急히 進擊하였을 때에는 地域방어 대형으로 轉換하여 사단의 正面에는 李天佑가 지휘하는 中共 제13병단 예하의 제42군이 그 지휘소를 芝岩里(加平 北方 18km地點) 부근으로 移動設置하고 그 主力은 華岳山—鷹峰山—燭培峰—蒙德山 일대에서 陣地작업을 하였으며 그 방어 一線은 사단의 前方 10km 北쪽인 北塔山(△867)과 修德山(△794) 一帶에 점차 연대 규모의 병력으로서 占領 하였고 또한 대대 규모의 警戒部隊가 제7연대의 渡江 예정지점인 衣岩저수지 北岸과 제19연대 正面인 玉女峰(加平 北쪽 2km) 일대에서 堅壁작업을 실시 中이었다。

이 무렵 右翼사단의 前面에는 中共 제40군(장, 韓先楚)이 春川부근에서 進路를 막았으며, 左翼사단의 前面에는 淸平 北쪽에서 역시 中共 제38군(장, 宋時輪)이 固守하면서 38°線上에 戰列이 急하였다。

그러나 敵은 그 兵力에 比하여 重裝備가 거의 없고 補給상태가 미약 하였으며 가둡되던 分散潰走로 인하여 大體로 士氣가 떨어져 있었다。

我軍의 상황 : 이에 反하여 軍團에서는 작전의 主導權을 掌握하고 中部戰線으로 一路進擊한 끝에 春川—加平—淸平을 連하는 北漢江 南岸까지 진출 한다음 여기에서 다시 敵의 主力이 固守할 것으로 예상되는 38°線을 向한 진격을 준비 하였다。

이때 사단의 目標는 春川 西北方 20km인 芝村里와 華岳山을 連하는 Kansas 線이었으며 사단의 現進出線은 春川 西南쪽 6km인 衣岩里와 加平間의 江南岸 이었다。

여기에서 사단은 前方 CP를 撤谷里(北漢江 南쪽 8km)에 開設하고, 右一線인 제2연대(장, 金鎭萬대령)는 衣岩里와 江村里 일대를 점령 하였으며 左一線인 제19연대(장, 林益淳대령)는 加平 東南쪽에서 劍峰(△530)일대를 점령 하였고 제7연대(장, 梁仲鎬대령)는 예비대로서 蓄洞里 부근에 집결한 가운데 각각 다음 전투를 위하여 人員과 裝備를 補充하고 彈藥과 기타 보급품을 확보하는 同時에 一部兵力으로 敵情 探索戰을 전개하는 한편 指揮部에서는 敵情을 分析하고 작전계획을 熟議 하였다。

이 무렵 사단의 右翼에는 美제1기갑사단(장, Charles D. Palmer소장)의 제8기갑연대가 21일 12.40에 이미 春川에 突入 하였으며 左翼에는 美제24사단(장, Blackshear M. Bryan소장) 이 淸平에서 공격준비를 하였다。

당시 사단의 병력은 3個연대에 예배속부대를 포함하여 11,000명에 달하였으며 대체로 T/E상의 장비를 갖추었고 포병제27대대(장, 金 聖중령)가 지원 하였다。또한 乘勝長驅로 진출함에 따라 將兵들의 사기가 드높았고 보급도 원활하여 戰意가 왕성 하였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38°線에서 守勢를 취한 敵은 北漢江과 鏡州山脈을 軸心으로 春川 西北方에 堅固한 陣地를 構築하고 끝까지 抵抗할것을 企圖하는 한편 그 예비대를 一線으로 增加 하였는데 이러한 事實을 看破한 군단에서는 追擊戰의 餘勢를 몰아 속히 이 敵陣을 擊破한 다음 平康—金化—鐵原을 衝擊할 前進基地를 확보키로 一部의 計劃을 변경 하였다。 즉, 3월 21일 하달된 군단 작전계획 제9—51호 수정 제1호의 要旨에 따르면 現 戰闘地境線의 一部를 조정하여 右翼인 美제1기갑사단을 春川北方으로 진출시켜 敵의 左肩을 壓制토록 하는 한편 제6사단과 美제24사단은 北漢江을 건너 敵의 正面을 突破하고 이를 직별 토록 하였다。

이와같이 調整된 사단의 前進軸線은 現 進出線에서 北漢江을 건너 北塔山과 修德山을 점령한 다음 芝岩里 부근에서 38°선을 넘고 다시 그 北쪽 2km의 Kansas 線까지 進出하는 24km의 長程이었다。

이리하여 사단장 張都暎 준장은 이 一帶의 地形分析과 可用한 機動路를 檢討하고 火力支援문제, 예비대의 운용문제, 軍需지원문제 등을 포함한 여러 與件과 敵情을 고려한 결과 2단계로 區分하여 進擊計劃을 세웠다。 즉 제1단계는 北漢江을 건너 北塔山과 修德山을 連하는 中間目標(작전명령上 "C"선)를 점령하여 공격 基地를 確保하는 것이고 제2단계는 38°線上에서 敵의 主力을 격멸하고 Kansas 線(작전명령上 "I"선)까지 一擧에 攻擊을 단행하는 것이었다。 또한 공격隊는 洪川江을 渡江한 以來로 右一線 공격부대이던 제2연대(장, 金鳳燦대령)를 예비대로 돌리는 한편 제7연대(장, 梁仲鎬대령)를 主攻으로 하여 右一線으로 진격토록 하고 제19연대(장, 林益源대령)는 助攻으로써 左一線으로 진출시켜 중간목표를 점령한 然後에 敵의 動向에 따라 對應措處할 計劃으로 22일 渡江을 시작하였는데 이에 앞서 下達한 사단 작전명령 제149호의 要旨는 다음 같다。

『① 사단은 北漢江을 건너 중간목표인 "C"선을 점령한 다음 계속 "I"선까지 진격 하려한다.

② 제7연대는 衣岩里에서 德의院里로 渡江하여 北塔山을 점령한 다음 계속 華岳山으로 진격하라.

③ 제19연대는 文義谷에서 達田里로 渡江하여 加平을 점령한 다음 계속 修德山으로 진격하여 "C"線을 확보하고 다음명령을 대기하라.

④ 제2연대는 제19연대의 現陣地까지 引受하여 北漢江 南岸에 병력을 전개하고 敵의

逆襲에 對備하면서 第一線의 攻擊을 지원 하다가 主力이 중간목표를 占領하면 加平으로 이동하라.

⑤ 포병대대는 火力의 優先權을 제7연대에 두고 22일 07.00부터 지원사격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⑥ 사단은 第一線 攻擊 부대가 鷄冠山을 점령하면 加平으로 前進하여 指揮所를 開設한다。』

(2) 작전실시

3월 22일 : 사단은 3월 13일 廣灘里(龍門山南麓)에서 새로운 作戰區域을 맡게된 以來로 潛走하는 敵을 追擊하여 龍門山(△1157)과 洪川江을 占領하고 20일에는 北漢江(戰區內의 北漢江은 衣岩里와 加平사이임) 以南의 擔當全域을 席捲 하였는데 여기에서 사단장 張都暎준장은 敵의 主力이 決戰을 企圖하는 38°線을 19km 北쪽에 두고 새로운 進擊戰을 위한 만반의 態勢를 갖춘다음 드디어 이날 拂曉에 渡江작전을 시작 하였다。

1. 제7연대(장, 梁仲鎬대령)는 右一線 연대로서 春川 西南쪽 6km지점인 衣岩里에서 德斗院里를 目標로 渡江한 다음 北塔山으로 진격하기 위하여 이날 02.00에 前方CP를 南春川驛부근의 鼎足里로 躍進開設하고(楸谷里에서) 主力을 공격대기 지점으로 이동시키는 한편 연대장은 다음과 같은 要旨의 공격명령을 下達 하였다。

『① 연대는 北漢江을 건너 橋頭堡를 확보한 다음 계속 中間目標인 北塔山으로 진격 하려한다.

② 제2대대는 衣岩里에서 江南岸 一帶를 점령하고 主力의 진출을 掩護한 다음 敵의 逆襲에 對備하면서 次後의 명령을 待期하라.

③ 제3대대는 迅速히 渡江하여 對岸에 있는 三鶴山 一帶를 점령하고 後續부대를 엄호한 然後에 北塔山의 西側으로 진격하라.

④ 제1대대는 渡江하는 즉시로 戰線을 擴張하여 明月里를 점령한 다음 北塔山의 東側으로 진격하라。』

각 대대장이 이상과 같은 임무를 부여 받았을 때에 機動兵力은 八味里 부근의 공격 대기 지점으로 집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곧 戰列을 갖춘다음 이미 計劃된 順序에 따라 제2대대(장, 閔邦瑛소령)를 선두로 07.00에 공격개시선을 출발 하였다。

이리하여 尖兵중대가 衣岩貯水池 南岸에 다다랐을때 소대규모의 敵의 저항을 받았으나 즉각 이를 擊破하고 계속 진출하여 10.00에는 제2대대가 此岸의 陣地를 점령 하였으며,

그 뒤를이어 제3대대(장, 吳充石대위)가 急速渡江하여 三鶴山(△654)으로 진격 하였는데 이때 새로히 先頭가 된 제6중대가 三鶴山의 中腹에서 중대 규모의 敵으로부터 치열한 사격을 받았다。 그러나 대대장은 兩後線에 병력을 전개하고 一齊히 左右挾擊을 加하여 이 敵을 격퇴한 다음 三鶴山을 점령하고 后續부대의 進路를 확보 하였다。 제1대대(장, 印鎭熙소령)는 渡江하는 즉시 右一線으로 진출하여 明月里를 공격 하다가 중대 규모의 敵과 衝突하여 격전을 전개한 끝에 22.00에는 이 敵을 격퇴하고 △331를 점령 하였다。

2. 제19연대(장, 林益澤대령)는 左一線 연대로서 芳荷里의 "부니골"(文義谷)에서 達田里(加平 南쪽 2km)를 目標로 渡江한 다음 加平으로 진저할 계획으로 이날 05.00부터 渡江을 시작 하였는데 現在 부대가 배치하고 있는 곳이 險한 山岳地帶로서 機動에 많은 制限을 주는 까닭으로 연대장은 우선 교두보를 확보 하는데 力點을 두고 제1대대의 掩護下에 제2대대를 先行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제1대대(장, 金俊敎소령)는 제1, 제2중대를 芳荷洞 一帶의 江南岸에 전개하여 掩護陣地를 점령 하였으며 제3중대는 加平鐵橋 부근의 南岸에 散開하여 江沿岸을 警戒하면서 遠距離로 부터 진출부대를 지원 하였다。

제2대대(장, 朴桂根중령)는 이와같은 지원下에 渡江하는 즉시로 제7중대로 하여금 達田里一帶의 要地를 점령케 하고 後續부대의 進路를 확보토록 하는 한편 主力은 계속 加平쪽으로 진격 하였으며 제3대대(장, 朴鍾吉소령)는 白揚里 부근에서 제2연대의 제1대대와 陣地를 교대하고 22.00에 文義谷으로 集結 하였다。

이와같이 主力이 移動하자 연대CP도 이날 17.00에 鉢山里로 부터 九萬里(江村里부근)로 前進開設 하였다。

3. 한편 제2연대(장, 金鳳鎬대령)는 예비가 되어 제16연대의 방어正面이던 劍峯(△530) 일대의 陣地까지 引受하여 北漢江 南岸의 一圓에 방어진을 형성하고 진출부대를 지원 하였으며 공병대대는 江村里에 假橋設置를 위하여 資材를 운반 하였다。

사단 前方CP는 계속 楸谷里(北漢江 南쪽 8km)에 있었다。

3월 23일 : 사단은 전날 橋頭堡를 확보하고 이날은 작전명령上의 "C"선(北塔山과 修德山을 連하는 線)을 目標로 진격 하였다。 이때 敵은 鷄冠山(△665)과 玉女峯(△505) 일대에 警戒陣地를 占領하고 主抵抗線은 北塔山(△867)을 中心으로 選定한듯 하였으며 右인접부대인 美제1기갑사단의 正面에서 退却한 1,500~2,000명으로 推算되는 中共軍이 15km 北쪽의 芝岩里와 楸月里 부근을 占領한듯 判斷되었다。

1. 제7연대(장, 梁仲鎬대령)는 北塔山에 이르는 中間據點인 △507와 鷄冠山을 目標로 06.00에 공격을 개시 하였다。

제1대대(장, 印璟勳소령)는 △507를 목표로 明月里에서 공격을 시작 하였는데 11.00에 이르러 攻擊부대가 玄岩里 부근에 까지 진출 하였을때 △387 (衣岩貯水池 西側)에 潛伏하고 있던 중대 규모의 敵과 激突하여 交戰을 展開하였으나 대대는 제3중대를 正面에서 공격토록 하고 제2중대가 左側方에서 協擊하여 이 敵을 격파한 다음 계속 追擊한 끝에 많은 戰果를 거두고 德斗院里 北쪽으로 격퇴하였으며, 제3대대(상, 吳充石대위)는 鷄冠山을 목표로 진격 하다가 12.00에는 塘林里 부근의 △293까지 進出하여 날이 저물자 이곳에서 陣地를 점령하고 搜索戰을 전개 하였다。

한편 제2대대(장, 閔邦瑛소령)는 아직 衣岩里에서 방어진지를 점령하고 전술적 운용을 위하여 예비대로 控置되어 있었다。

2. 제19연대(장, 林益淳대령)는 06.00에 공격을 시작하여 12.00에는 加平을 완전히 점령하고 계속 진격 하였다。

이때 先頭인 제2대대(장, 朴柱根중령)가 玉女峯(△505)을 공격 하다가 이 高地 一帶에 潛伏하고 있던 대대 규모의 敵과 對峙하게 되었는데 이 高地는 堅塞를 이룬데다 三面의 射界가 良好하고 또한 미리 有利한 지형을 택하여 陣地를 구축한 敵이 끝까지 저항하는 까닭으로 대대는 一時 混亂된바 있었으나 대대장은 즉각 제5중대로 하여금 正面에서 牽制토록 하는 한편 제6, 제7중대를 左右로 전개시켜 包圍網을 형성한 다음 사단 포병대대(장, 金炳중령)의 支援下에 이를 壓縮 하면서 挾擊 하였다。 이때 敵은 自動火器를 비롯한 全火力을 集中하여 頑強히 저항 하였으나 14.00에는 第一線이 그 中腹에 까지 육박하여 集中射擊을 加하자 敵陣은 一大混亂이 惹起되고 瓦裂의 渦中에서 分散潰走 하려 하였다。 이 機會를 捕捉한 제5중대가 正面衝擊을 감행하여 많은 戰果를 올리고 드디어 15.00에는 이 高地를 완전히 점령 하였다。

이 무렵 제1대대(장, 金俊敎소령)는 加平을 경유하여 계속 東北쪽으로 진출한 다음 馬場里에서 제2대대와 戰線을 連繫 하였으며 제3대대(장, 朴鍾吉소령)는 達田里에서 出動을 準備하고 있었다。

3. 한편 제2연대(장, 金鳳喆대령)는 如前히 北漢江 南岸을 占領하고 있었으며 공병대대는 江村里에서 假橋設置 작업을 하는 한편 京春街道上의 지뢰를 제거 하였다。

이날의 사단 종합戰果는 다음과 같다。

戰　果

적　사　살—124명
포　　로—2명
山　　砲—3문
각 종 소 총—13정
포　　탄—800발
수　　류　탄—4,599발
소　　총　탄—105,000발

損　失

전　　사—7명
부　　상—26명

3월 24일 : 사단은 "C"線을 목표로 진격전을 계속 하였으나 攻擊正面이 17km에 達하는 山岳地帶인 까닭으로 사단장은 이날 鷄冠山(△665)을 중심으로한 새로운 攻擊師團을 형성키로 하였다。

1. 제7연대(장, 梁國鎬대령)는 06.00에 공격을 시작하여 제1대대(장, 印鳳勳소령)가 德斗院里로 진격하다가 明月里 西北쪽 △307에서 소대 규모의 敵을 격파하고 계속 進擊하여 同 高地를 넘어 섰을때 다시 11.30부터 2個중대 규모의 敵과 激突한 끝에 치열한 싸움을 전개 하였다。이때 대대장은 제3중대로 하여금 敵의 右側背를 强打토록 하는 한편 대대의 主力으로 一齊히 正面공격을 감행하여 이 敵을 격퇴하고 德斗院里로 急進공격하자 敵陣은 混亂과 相互衝突을 거듭 하면서 그 一部는 東北쪽의 △422 方面으로, 나머지는 北端山쪽으로 分散潰走 하였다。

이 무렵 左一線인 제3대대(장, 吳亮石대위)는 散發的인 敵의 저항을 물리치고 계속 鷄冠山 中腹에 진출하여 제19연대의 제3대대와 戰線을 연결하고 수색전을 전개 하였으며, 제2대대는 연대의 예비가 되어 衣岩里로 부터 主戰線 후방으로 이동 하였다。

2. 제19연대(장, 林益淳대령)는 예비대대 이던 제3대대를 右一線으로 진출시켜 鷄冠山을 목표로 진격토록 함으로써 대대는 제1대대의 진지를 超越하여 接敵없이 開谷里를 지나 鷄冠山 中腹에서 제7연대의 제3대대와 戰線을 連結 하였으며, 제2대대는 전날 점령한 △505를 奪 제24사단에 引繼한 다음 東北方으로 진출하여 開谷里 부근에서 제3대대와 連繫하여 戰線을 형성 하였다。

3. 한편 제2연대(장, 金鳳喆대령)는 제1대대를 白楊里에, 제2, 제3대대를 江村里에 各各 집결하는 한편 一部의 搜索隊를 편성하여 北漢江 일대를 수색경계토록 하였으며 공병대대는 假橋設置 작업과 地雷除去 작업을 계속 하였다。

3월 25일 : 사단은 공격개시 4일째 되는 이날 中間目標인 "C"線까지 進擊할 計劃으로 前方 CP를 楸谷里로 부터 加平으로 前進開設하고 砲擊支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06.00를 期하여 총공격을 시작하였다。

1. 제7연대(장, 梁仲鎬대령)는 사단의 主攻으로서 北培山(△867)을 目標로 진격하되 제3대대(장, 吳允石대위)를 正面으로 제1대대(장, 印聖勳소령)는 그 右側에서 並進토록 하여 공격개시선을 출발 하였다。12.00에 선두인 제3대대가 北培山 南麓에 進出하였을때에 연대 규모로 推算되는 敵이 그 一圓에 미리 堅固한 陣地를 점령하고 執拗하게 저항 하므로 대대는 사단의 砲擊지원과 제1대대의 側面支援을 받으면서 공격을 敢行하여 치열한 격전을 전개 하였다。이때 연대에서는 예비대인 제2대대 까지 增援하여 진격전을 계속 하였으나 地形上의 不利와 공격병력의 隔差로 끝내 이 敵을 격파하지 못하고 날이 저물자 연대장은 19.00에 急速히 부대를 전날의 陣地로 撤收시킨다음 逆襲에 對備한 방어진을 형성하고 敵情 探索戰을 실시 하였다。

2. 제19연대(장 林益淳대령)는 助攻으로서 左前方의 修德山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여 先頭인 제3대대(장, 朴鍾吉소령)가 △504(北培山 西南쪽 2km)까지 진출 하였을때 대대규모의 敵과 直衝하게 되었는데 敵은 山岳의 嶮을끼고 執拗하게 저항 하였으므로 대대는 正面 공격을 避하고 이 敵陣을 迂回하여 修德山 쪽으로 진격코자 하였으나 右一線 연대인 제7연대가 北培山 南쪽에서 一進一退를 거듭하며 進出치 못하고 있었을 뿐아니라 前面의 敵勢가 尤甚하여 너무 敵陣깊이 진출 하게되면 오히려 敵陣中에 孤立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연대는 18.00에 沐洞里 南쪽에 진지를 점령하고 探索戰을 전개 하였다。

3. 한편 제2연대(장, 金鳳喆대령)는 如前히 白揚里와 江村里에서 待機中에 있었으며, 포병대대는 北培山 一圓에 破壞射擊을 실시 하였고, 공병대대는 春川 西南쪽 4km지점인 衣岩里 부근에서 橋梁작업과 지뢰제거 작업을 계속하였다。

3월 26일~29일 : 사단은 25일 공격에서 目標線("C"線)까지 진출치 못하고 전날의 陣地인 衣岩貯水池와 鷄冠山을 連하는 線으로 撤收 하였거니와 26일 새벽부터는 진눈개비가 내리는 가운데 강한 西風이 불고 視界가 흐려 敵情搜索과 부대기동이 困難한데다가 左인접부대인 美 제24사단이 加平 西北쪽 3km까지 밖에 진출치 못하고 있는 까닭으로 이곳에서 일단 방어진을 형성하고 戰機의 成熟을 기다리면서 搜索戰을 전개 하였다。

이때 敵은 如前히 北培山 一圓에 견고한 진지를 점령하고 있었으며 그 東北쪽 6km의 西上里 부근에는 1.000명이, 梧月里와 芝岩里 부근에는 7.000명의 中共 집단이 陣地작업을 계속하고 있었고 左前方에 濟寧里와 修德山 일대에는 2.000명 규모의 中共軍이 역시 塹壕作業을 하고 있었다。

이와같이 敵은 華岳山—鷹峯山—燭坮峯—蒙德山을 連하는 山岳地帶의 嶮을 끼고 38°線

上에서 방어전을 試圖하였으며 그 前進 據點인 北培山은 防者에게 有利한 天然要線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陣地를 固守하려는 듯 하였다。이리하여 사단은 氣象條件과 敵情을 고려한 결과 부대를 攻勢로부터 守勢로 轉換하고 26일 부터는 探索戰과 威力搜索戰을 전개 하다가 戰機를 捕捉하여 決戰을 감행코자 하였다。

1. 제7연대(장, 梁中鎬대령)는 右一線 陣地를 계속 占領하면서

가) 26일에는 彼我間에 交戰이 없이 對陣한 가운데 연대 수색대를 배치하고 主力은 陣地작업을 하였으며,

나) 27일에는 如前히 強한 季節風(西北風)이 불고 진눈깨비가 내렸으나 主力은 계속 陣地를 補強하는 한편 제3중대의 1個소대와 제9중대의 2個소대가 수색전에 나섰다。09.30에 陣地를 출발한 제3중대 수색대는 北培山 右麓의 △422 부근에서 중대 규모의 敵과 20분간 교전 하였으나 彼我間에 激突이 없이 敵의 배치 상황만을 確認하고 부근 일대를 수색하면서 16.00에 復歸 하였으며 제9중대의 1個組는 10.30에 北培山 南쪽 2km 지점인 沐洞里에서 역시 중대 규모의 敵으로 부터 사격을 받았으나 즉각 應射하여 敵의 火力과 兵力의 배치상황을 탐색한 다음 搜索歸還 하였고, 一個組는 北培山 下麓의 芳洞里 일대를 수색하여 중대 규모 이상의 敵勢를 확인한 다음 16.00에 歸隊 하였다。

다) 28일에는 바람결은 잠잠하였으나 아직 가랑비가 내리는 가운데 제1대대의 2個중대와 예비대인 제2대대가 威力수색전을 展開 하였다。즉 제1대대(장, 印聖勳소령)는 제3중대를 先頭로 12.00에 芳洞里 北쪽 △361에 다다랐을때 潛伏哨戒하고 있던 중대 규모의 敵을 발견하고 진격하여 30분간의 교전끝에 이 敵을 北培山쪽으로 擊退하고 이 高地를 占領한 다음 계속 潰走北上하는 敵을 추적하다가 다시 대대 규모의 敵과 北培山 南쪽에서 遭遇하여 치열한 교전을 전개 하였으나 익시 激突을 피하고 敵情만을 확인한 다음 15.00에 復歸하였으며, 제2대대(장, 閔丙勇소령)는 제3대대의 陣地를 넘어 北培山의 正面으로 진격 하다가 △714 일대에 潛伏하고 있던 대대규모의 敵과 對峙하여 치열한 교전을 전개 하였으나 敵의 抵抗이 執拗하고 峽谷지대가 되어 14.00에는 原陣地로 復歸 하였다。

라) 29일에도 西風이 불고 흐렸으나 차츰 개이기 시작 하였으며 전날까지 敵의 陣地와 火力의 배치상황을 확인 함으로서 연대는 다음 작전을 위하여 主力은 攻擊準備를 갖추도록 하고 예비대인 제2대대의 一部兵力으로 如前히 芳洞里 까지 수색전을 진개하여 敵의 注意力을 分散시켰다。

2. 제19연대(장, 林益淳대령)는 左一線에서 沐洞里 南쪽으로 부터 楓谷里에 連하는 일

대의 陣地를 점령하고

가) 26일에는 局地경계조를 편성하여 前哨로 埋伏시키고 主力은 陣地작업을 하였으며

나) 27일에는 계속 陣地를 補強 하면서 15명을 1個組로 한 3個組의 수색대를 편성하여 兩天을 무릅쓰고 北塔山 西側과 修德山 下麓에 까지 수색전을 전개 하였던바, "말골" 부근에는 중대 규모의 敵이 배치 되어 있으며 修德山에는 대대 규모의 敵이 占據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다) 28일에는 예비대인 제1대대(장, 金俊敎소령)가 威力搜索戰을 전개 하였는데 이날 06.00에 제2대대의 陣地를 넘어 修德山 쪽으로 진출 하다가 제2중대가 09.30에 "말골"부근에서 陣地작업대인 중대 규모의 敵을 발견하고 이를 強打한 다음 계속 추격 하였으나 너무 敵陣깊이 진출을 삼가고 17.00에 原陣地로 돌아왔다。

라) 29일에는 사단의 지시에 따라 공격준비를 하는한편 제6, 제9중대의 一部로 수색대를 편성하여 수색전을 전개하되 接敵交戰을 삼가고 敵陣의 兩側面에서 敵情探索만을 敢行토록 하였으며 특히 제2대대의 제5, 제7중대는 左인접 부대인 美 제24사단이 玉女峯 北쪽에서 △677로 진격하는 동안 그 側方을 支援한 다음, 19.30에 修德山 南쪽 2.5km의 上村에서 戰線을 連繫하였다。

3. 한편 제2연대(장, 金鳳鎬대령)는 예비대로서 계속 北漢江 南岸에서 出動態勢를 갖추고 있을때 28일 上午에 사단장 張都暎준장으로 부터 要旨 다음과 같은 명령을 받았다。

『① 2.000명으로 推算되는 殘敵이 龍門山(△1157)을 根據로 洪川江 沿岸의 留賣里까지 出沒한다함.

② 제2연대는 신속히 이 殘敵을 撲滅한 다음, 부대를 加平으로 이동하라。』

이상과 같은 명령을 받은 연대장은 判斷 하기를 重裝備가 없고 組織力이 弱한 殘敵 撲滅을 위하여 大部隊를 動員 하느니 보다 신속히 1個大隊를 出動시켜 敵情을 확인한 다음 그 對應策을 마련할 決心을 하고 于先 제2대대(장, 金德福소령)를 이날 13.00에 出動시키는 한편 主力을 出動待機 시켰다。

江村里를 출발한 제2대대는 16.00에 洪川江 北쪽 2km지점인 鉢山里까지 機動한 다음 이곳에서 제5, 제6중대를 江北岸으로 진출시켜 수색전을 전개토록 하였으나 특별한 敵情이 없었으며 다만 23.00에 △205에 설치된 대대의 무전기에 청취 되기를, "배성부대로 부터 칠성부대에 明朝 食事困難함을 문의"하는 中國語 交信을 入手할 뿐이었다。

이리하여 대대는 四周警戒를 하면서 이곳에서 露營을 마치고 29일 早朝 敵의 出沒地域

으로 指目된 留浪里를 急襲하여 그 일대를 수색하였으나 亦是 敵情이 없었으며 이와같은 상황을 보고받은 연대장은 搜索을 끝마치도록 조치 함으로써 대대장은 제5중대로 하여금 上狮岩里쪽으로 돌아 北漢江 沿岸을 수색 하면서 江村里로 集結토록 하고 제6중대는 俗稱 "곰돌이"부근을 수색한 다음 역시 江村里로 집결토록 하였으며 기타는 대대본부와 함께 江村里로 直行 하였다。

이날 18.00에 연대 지휘부와 제1, 제3대대는 加平으로 이동 하였으며 제2대대는 다음날(30일) 12.00에 加平으로 移動하여 本隊와 合勢 하였다。

3월 30일 : 사단은 이날 美제24사단으로 부터 戰車1個小隊(4台)를 지원받고 포병대대의 火力을 총동원하여 步戰砲 協同으로 드디어 全面攻擊을 斷行 하였다。

Ⅰ. 제7연대(장, 梁仲鎬대령)는 05.00를 期하여 제1, 제3대대를 공격梯隊로 하고 제2대대를 예비대로 하여 공격을 개시 하였다。11.00에 이르러 右一線인 제1대대가 輕微한 敵의 저항을 격파하면서 芳洞里 부근으로 진격하고 있을때 제3대대는 北漢山 西南쪽 2km지점의 △504에서 대대규모의 敵과 치열한 격전을 전개하였는데 이때 敵은 堅固한 陣地를 점령



<38°線을 再奪還한 제6사단 將兵들의 歡呼>

하고 熾烈한 火力으로써 執拗하게 저항 하였다. 이에 연대장은 예비대인 제2대대를 敵의 右側背로 挾擊토록 하는 한편 포병대대의 砲擊支援을 받아 과감히 進攻토록 하여 14.00에는 難攻의 險地인 이 高地를 점령하고 많은 戰果를 거두었다。이때 제1대대 역시 芳洞里 일대를 점령하고 戰線을 연결 하였으니 이로써 연대는 敵陣의 兩端을 무너 뜨리고 北培山의 一角에 다가선 셈이 되었다。

2. 제19연대(장, 林益淳대령)는 美제24사단으로부터 지원된 戰車小隊와 제1대대가 步戰協同으로 俗稱"범바위골"(虎岩里)에서 修德山(△798)의 右側으로 진격 하였으며 이에 呼應하여 제2대대의 제6, 제7중대가 正面에서 分進合擊 함으로서 대대 규모의 敵의 치열한 火網을 뚫고 그 核心陣地를 무너뜨려 14.00에는 上峯에까지 肉薄 하였다. 이곳에서 執拗하게 저항하는 敵에게 심멸적인 타격을 加한다음 이 高地를 점령하여 所注里부근까지 진출한 제3대대와 戰線을 연결 하였다。

이와같이 사단은 이날 전투에서 비록 北培山의 鞍峯을 넘어 서지는 못하였으나 사실상 中間目標를 점령한 셈이었으며 이로서 이 進擊戰의 地盤을 굳히게 되었다. 이날 종합전과는 敵사살 120명 포로 16명을 비롯한 많은 火器와 탄약을 노획 하였다。

3. 한편 제2연대(장, 金鳳烈대령)는 全연대가 加平에 집결하여 다음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공병대대는 橋梁보수와 加平飛行場 보수작업을 실시 하였고, 포병대대(장, 金聖중령)는 이날 지원사격을 마친다음 105mm 1個포대를 加平부근으로 轉進케 하여 제7연대를 直接支援토록 하였다。

3월 31일 : 사단이 전날의 전투에서 敵陣의 兩肩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戰機를 마련하자 將兵들의 사기는 더욱 衝天하여 敵에게 時間의 餘裕를 주지않고 一路진격 하였다。

1. 제7연대의 제1대대는 06.00부터 공격을 시작하여 계속 진출 하다가 07.00에는 北培山 東側 2km의 △535에서 斷崖를 利用하여 陣地를 구축한 중대 규모의 敵과 對峙하여 어려운 상황속에서 接戰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대장 印聖勳소령은 제2, 제3중대로 하여금 敵의 正面에서 牽制토록 하는 한편 제1중대를 △631의 稜線을 따라 敵의 後背를 공격토록 하여 險難한 山岳을 극복하고 5시간에 걸친 激戰끝에 12.00에는 이 高地를 완전히 점령 하고 많은 戰果를 거두었다。

이때 제3대대(장, 吳充石대위) 역시 제9, 제11중대를 공격梯隊로 하고 제10중대를 예비대로 하여 07.00부터 北培山(△867)을 目標로 공격하여 대대 규모의 敵과 치열한 교전 끝에 12.00에는 이 敵을 加德山(△858)쪽으로 擊退시키고 드디어 北培山을 완전히 점령 하

였다。특히 이 전투에서 砲兵대대의 火力지원이 奏効 하였으며 공격간 제11중대는 선두에서 많은 戰果를 올렸다。

2. 제19연대는 06.00에 공격을 개시하여 修德山 北쪽의 △796에서 第二線防守부대로 보이는 數未詳의 敵을 격멸하고 修德山 一帶의 連峯을 점령 확보 하였으며 이날 18.00에 美제24사단으로 부터 지원 받았던 戰車소대는 많은 戰功를 세우고 原隊로 復歸 하였다。

3. 한편 제2연대는 계속 加平에서 주둔지 경계를 하면서 출동준비에 萬全을 期하였으며, 포병대대는 1個포대를 俗稱 "석장"으로 이동하여 제7연대 正面의 △867 및 △535 一帶에 火力支援을 增強 하였고, 공병대대는 계속 京春街道上의 橋梁과 도로보수 작업을 실시 하였으며 공병 제1중대는 江村里에서 橋梁警備 임무를 수행 하였다。

사단의 이날 綜合戰果는 敵 射殺 104명, 捕虜 6명을 비롯하여 60mm迫擊砲 1門과 各種 小銃 21정, 수류탄 200발, 소총탄 5상자를 鹵獲하였다。

4월 1일 : 사단이 중간목표(작명상 "C"선)를 점령하고 이 전투의 最終目標인 Kansas線의 南쪽 12km까지 進擊하였을 때 敵은 지금까지 正面에서 저항하던 中共軍 제42군의 指揮所가 史倉里 西北쪽으로 北上退去 하였으나 그 主力은 아직도 主陣地前 5km인 鵝培峯(△1125)을 中心으로 蒙德山과 加德山에 陣地를 占領한듯 하였으며 芝岩里와 華岳山(△1287) 부근에서는 陣地工事를 하면서 최후의 저항을 企圖 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사단에서는 一擧에 이 敵을 격멸하고 최종목표까지 進出키 위한 對策을 熟議 하는 한편 우선 現戰線上의 地形과 敵情을 고려한 결과 右一線인 제7연대를 加德山 南쪽의 西上里까지 진출케하여 공격준비를 갖추도록 하였으며 제19연대는 現進出線에서 敵情 探索戰을 전개 하면서 다음 전투를 준비토록 하였다。

1. 제7연대(장, 梁仲鎬대령)는 제1대대(장, 田聖勳소령)를 西上里쪽으로, 제3대대(장 吳充石대위)를 加德山 南쪽인 俗稱"퇴골고개"까지 진격토록 하는한편 예비대인 제2대대(장, 閔邦携소령)로 하여금 戰線 東南方의 △422(北堵山 東쪽 4km)를 捜索한 다음 後續토록 하였다。이리하여 一線대대는 接敵없이 목표까지 다다라 다음전투를 준비 하였으나 제2대대는 10.00부터 △422 中腹에서 2個중대 규모의 敵과 不時에 衝突하여 交戰이 치열 하였다。이때 대대는 제5중대의 1個소대가 敵陣에 肉迫하여 混戰을 벌이자 一時에 左右挾攻을 加하여 한시간 동안의 접전끝에 이 敵을 격퇴하고 11.00에는 이 高地를 점령한다음 主力의 後方으로 이동 하였다。

2. 제19연대(장, 林益澤대령)는 修德山 一帶의 現陣地에서 수색조를 편성하여 柳洞 東

北쪽의 △625와 中峯下麓에 까지 수색전을 전개하였으며 제2연대는 加平에, 계속 戰線投入을 待機中에 있었다。

4월 2일 : 사단은 드디어 이날 07.00를 기하여 최종목표를 向한 進擊戰을 敢行하게 되었는데 이에 앞서 下達된 공격명령의 要旨에 이르기를

『① 사단은 신속히 Ready선을 확보한 다음 계속 Kansas 線까지 진격하려 한다。

② 제7연대는 急速히 當面의 敵을 擊滅하고, 加德山과 蒙德山을 점령한 다음 華岳山 東쪽의 Kansas 線을 目標로 진격하라。

③ 제19연대는 左一線으로 進擊하여 攻擊軸線上의 橫座標 "99"線을 점령하면 부대를 守勢로 轉換하고 다음 명령을 대기하라。

④ 제2연대는 一線연대가 Ready線에 다다르면 신속히 부대를 이동하여 제19연대의 攻擊正面을 引受한 다음 燭培峯을 점령하고 계속 Kansas 線으로 진격하라』 하였으니 여기에서 이르는 Ready선이란 군단 작전지시 제197호에 의하여 設定된 蒙德山과 修德山을 連하는 線으로서 사단장 張都暎 준장은 부대를 이 線까지 신속히 진출 시킨다음 예비대이던 제2연대를 左一線으로 投入하여 急速攻擊을 단행키로 決心한 것이다。

1. 제7연대(장, 梁仲鎬대령)는 제1, 제3대대를 一線에 展開하고 07.00부터 加德山(△858)을 向하여 공격을 시작 하였는데 09.00에 이르러 右一線인 제1대대가 加德山 東北쪽의 △716로 진격하고 있을때 제3대대는 제9, 제10중대가 加德山 南麓에서 대대 규모의 敵과 격렬한 교전을 전개 하였다。이 때에 대대장은 砲兵의 火力지원을 요청하고 제11중대로 하여금 敵의 右側背를 強打토록 하였으나 13.00현재까지 이를 擊破하지 못하고 苦戰을 계속하다가 제2대대의 協力과 사단의 砲兵지원을 받아 15.30에는 드디어 이 高地를 점령한 다음 潰走하는 敵을 追擊하여 蒙德山 南麓에 까지 一擧에 진출하였다。

2. 제19연대(장, 林益澤대령)는 敵의 主力이 저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燭培峯의 正南方을 目標로 진격 하였으나 오히려 敵情이 輕微하여 14.00에는 그 南쪽 4km의 楸洞부근에까지 진출한 다음 사단에서 지시된 橫座標 "99"線 일대에 병력을 전개하고 左隣接부대인 美제24사단의 제21연대와 戰線을 連繫 하는 한편 수색대를 편성하여 燭培峯과 中峯의 敵陣 깊숙히 探索戰을 전개 하였던바 △1055의 稜線上에서 陣地작업 中인 敵을 확인하였다。

3. 한편 제2연대(장, 金風鎭대령)는 出動準備를 갖추면서 待機하였으며 공병대대는 加平으로부터 芝岩里에 이르는 山間道路의 지뢰제거 작업과 도로보수 작업을 실시 하였고

공병 제2중대는 江村里에서 橋梁경비를 계속 하였다。

4월 3일 : 사단은 敵에게 時間의 餘裕를 주지않기 위하여 이날도 Kansas 線을 向한 攻擊을 계속 하였다。

1. 제7연대(장, 梁仲鎬대령)는 07.00에 이미 蒙德山의 中腹까지 進擊하여 이곳을 固守하고 있던 중대 규모의 敵으로부터 自動火器와 手榴彈을 利用하는 執拗한 저항을 받았으나 제3대대(장, 吳充石대위)의 勇進敢闘로 이 敵을 격퇴하고 16.00에는 △635에 連하는 蒙德山 부근을 점령 하였다。

2. 예비대이던 제2연대(장, 金鳳錫대령)는 左一線으로 진격하기 위하여 이날 03.00에 修德山 南麓의 莫谷(막골)로 진출한 다음 제2대대(장, 金德福소령)를 右一線으로, 제3대대(장, 崔勳大대위)를 左一線으로 展開하는 한편 제1대대(장, 李星憲소령)를 예비대로 하여 제19연대의 陣地를 超越하는 즉시로 疾風을 타고 진격 하였다。이리하여 계속 敵의 경미한 저항을 격파하면서 진출한 끝에 19.30에 제2대대는 燭坮峯 南쪽 3km의 △625를 점령한 다음 제7연대와 戰線을 連結 하였으며 제3대대는 더 깊숙히 △1055까지 점령한 다음 左翼사단의 英國軍 제27여단과 中峯(△1446) 南쪽에서 提携 하였다。

3. 한편 제19연대(장, 林益淳대령)는 새로히 예비대가 되어 前方연대가 燭坮峯 南端에 進出하자 16.00에는 所法里로 集結 하였으며 공병대는 如前히 山間機動路의 地雷除去 작업과 江村里의 橋梁警備를 계속 하였다。

4월 4일 : 사단은 이날도 攻擊을 계속 하였다。

1. 제7연대(장, 梁仲鎬대령)는 제2, 제3대대가 如前히 공격제대가 되어 蒙德山의 陣地를 출발 하였는데, 右一線인 제3대대(장, 吳充石대위)가 急速진출하여 △632를 점령 하였을때 左一線인 제2대대(장, 閔邦琇소령)는 09.00에 敵의 저항없이 芝岩里를 점령하고 그 西北쪽으로 계속 진격 하다가 11.30에 △710에서 중대 규모의 敵과 激戰을 전개 하였다。

이 高地는 燭坮峯과 鷹峯을 연결하는 中間據點으로써 敵의 退路를 遮斷하기에 容易한 까닭으로 제2대대는 急히 占領코자 하는 反面에 敵은 끝까지 지키려 하여 戰勢가 더욱 激化 하였으나 13.00에는 대대의 제6중대가 右側方에서 지원하고 제3대대가 全面공격을 감행하여 이 敵陣을 擊破하고 同 高地를 점령 하였으며, 그뒤에 연대는 계속 진출하여 17.00에는 드디어 38°線에 다다라 圓坪里와 燭坮峯을 連하는 一帶의 陣地를 점령하고 敵의 退路를 遮斷하였다。

2. 제2연대(장, 金鳳喆대령)는 제2, 제3대대를 공격梯隊로 하고 제1대대를 예비대로 하여 06.00부터 燭坮峯으로 進擊 하였는데, 08.00에 그 中腹에 까지 진출한 제2대대가 重火器 陣地를 포함한 대대 규모의 敵으로 부터 치열한 사격을 받았다。여기에서 대대장은 사단의 砲兵支援下에 2시간에 걸친 격전을 전개하여 이 敵을 격퇴하고 계속 추격한 끝에 12.30에는 燭坮峯을 넘어 그 連峯一帶의 殘敵을 격멸 하였다。이 무렵 제3대대는 △1101까지 진출하여 燭坮峯 西北쪽 1.5km의 △662에서 제3대대와 戰線을 연결 하였다。

3. 한편 제19연대(장, 林益淳대령)는 이날부터 所法里에 集結하여 一線投入을 待機하였으며, 포병대대는 12.00에 新洞里로 砲兵陣地를 이동 하였고, 공병대대는 前方연대에 各 1個중대씩 지원하여 機動로上의 障碍物을 除去 하였다。

4월 5일~6일 : 38°線을 固守코자 끝까지 抵抗하던 敵은 極甚한 打擊을 받았을 뿐 아니라 右翼인 美 제1기갑사단이 春川 北쪽에서 芙蓉山까지 진출하고, 左翼인 美제24사단이 國望峯(△1168) 까지 肉迫하여 38°線 一帶의 要地를 점령하게되자 하는 수 없이 그 計策을 버리고 殘置部隊로써 遲延戰을 펴면서 退却 北上 하기에 이르렀다。이리하여 사단장은 이날부터 兩翼 연대를 急히 攻擊前進토록 하여 Kansas 線까지 진출하는 즉시로 華岳山을 中心目標로 하는 分進合擊으로 이 敵을 격멸키로 決心하였다。

1. 제7연대(장, 梁仲鎬대령)는 華岳山 東側 Kansas 線을 目標로,

가) 5일 07.00에 圓坪里 一帶의 陣地를 출발하여 敵의 저항 없이 一齊히 38°線을 넘어 進擊 하였다。

11.30에 左一線인 제2대대(장, 閔邦瑛소령)가 鷹峰山 東北쪽 3km의 無名高地에서 2個소대 규모의 敵의 저항을 받았으나 곧 이를 격멸한 다음 진격전을 계속하여 연대는 이날 馬坪里(春川湖 西쪽의 마을)로 부터 鷹峯山을 連하는 一帶를 완전히 점령 하였으며,

나) 6일에도 06.00부터 進擊戰을 계속하여 제3대대(장, 吳充石대위)는 △722에서 저항하는 小數의 敵을 물리치고 15.00에 드디어 이 戰鬪의 最終目標인 Kansas 線을 점령하였고, 제2대대(장, 閔邦瑛소령)는 제8중대를 先頭로하여 華岳山으로 진격한 끝에 중대 규모의 敵을 격멸하고 Kansas 線을 점령한 다음 제2연대와 戰線을 連繫 하였다。

2. 제2연대(장, 金鳳喆대령)는 華岳山 西側方 Kansas 線까지 진출하기 위하여,

가) 5일에는 06.00부터 그 中間據點인 鷹峯山(△1438)을 공격 하였는데, 제2대대(장, 金德福소령)가 鷹峯山의 200m 南쪽에서 중대규모의 敵으로부터 치열한 사격을 받아 10.00까지 進出치 못하고 있었다。이 무렵 左一線인 제3대대(장, 崔勳大대위)가 △1062까지 진

출 하였으므로 연대장은 제10중대를 俗稱 "시룬고개"로 迂回시켜 敵의 左側背를 공격토록 하여 包圍網을 형성한 다음 이를 壓縮하자 敵은 危機에 直面함을 깨닫고 退却하려 하였다。이 機會를 捕捉한 연대는 全面공격을 감행하여 거의 殲滅的인 戰果를 거두고 鷹峯山을 점령 하였다。

나) 6일에도 06.00부터 공격을 시작하여 계속 진출한 끝에 제2대대는 華岳山에서 제7연대의 제2대대와 挾擊하여 殘敵을 격멸하고 Kansas 線까지 진출 하였으며 제3대대는 石龍山 東北쪽에서 Kansas 線을 점령 하였으니 이로서 사단(장, 張都暎준장)은 春川 西北方으로 進出하여 中共 제42군(장, 吳瑞林)을 격멸하고 새로히 北進의 前進基地를 確保하게 되었다。

3. 한편 제19연대(장, 林益淳대령)는 如前히 所法里에서 사단 豫備隊로 控置하였으며 포병대대는 6일에 砲陣地를 芝岩里로 이동 하였고, 공병대대는 지뢰제거 작업과 도로보수 작업을 계속 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敵의 動向 : 사단 當面의 中共 제42군(장, 吳瑞林)은 38°線에서 방어 하려던 企圖가 挫折되고 심대한 타격을 받아 戰鬪能力을 상실한 결과 金化方向으로 北上退却 하였거니와 敵은 새로이 韓先楚가 지휘하는 제40군 예하의 제120사단(장, 徐國夫)을 投入하여 史倉里를 中心으로 東北쪽의 將軍山(△478)과 西北쪽의 上海峰(△848)에 연대 규모의 병력으로 主抵抗線을 占領하고 그 8km南쪽 頭流山과 明月里 부근에 대대 규모의 警戒부대를배치 함으로써 戰局은 새로운 樣相을 보이게 되었다。

이와같이 敵은 一線에서 牽制 하는 한편 所謂 그들의 春季攻勢를 위하여 中共 제24, 제37, 제38, 제66군이 平康—金化—鐵原의 三角地帶에서 공격집단을 형성 하였으며 또 大成山(△1175)부근에는 **李政國**이 지휘하는 中共 제20군 예하의 제58, 제59, 제60사단이 집결하여 金化—華川 및 金化—史倉里間의 機動路를 보수하는 同時에 飛行場의 滑走路작업을 실시 하였으며, 一日平均 1.000~1.500臺의 차량이 운행되는등 눈부신 反擊準備의 徵候가 뚜렷하였다。

이들은 지금까지의 追擊戰에서 潰走分散되던 때와는 달리 충분한 보급과 예비대를 확보하고 野砲隊를 포함한 重裝備를 갖추었으며 指揮體系를 세우고 4월 中旬부터는 그 行動이 積極化 하여 主陣地前 4km인 △774—△569—△641에 수색대가 出沒 하면서 22番道路를 넘나 들었다。

我軍의 動向 : 이리하여 美제9군단(장, William M. Hoge소장)에서는 右一線사단이던 美제1기갑사단(장, Charles D. Palmer소장)을 美1해병사단(장, Oliver P. Smith소장)과 4월 10일에 교대시켜 春川 北方에서 華川에 이르는 戰區를 맡도록 하였으며, 사단(장, 張都暎준장)은 군단의 左一線으로 史倉里를 넘어 金化에 이르는 戰鬪地域을 擔當하여 戰機가 무르익을 때까지 일단 방어態勢를 취하도록 함으로서, 사단은 이미 점령 확보한 Kansas 線 일대에 병력을 전개하고 다음 전투를 준비하였다。

즉, 사단 지휘소는 加平에 그대로 머무른채 右一線에는 제7연대(장, 梁仲鎬대령)가 CP를 "움막골"(華岳一里부근)에 開設하고 芝村里로부터 華岳山까지의 陣地를 점령 하였으며 左一線에는 제2연대(장, 金鍾喆대령)가 CP를 柳洞(△625 南쪽)에 두고 華岳山으로부터 石龍山(△1103)을 連하는 陣地를 점령하는 한편 제19연대(장, 林益澤대령)를 예비대로 하여 4월 7일부터 2週日 동안에 걸쳐 敵情을 探索하고 兵力과 裝備를 補強하며 彈藥과 기타 보급품을 확보 하는等 다음 전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戰 果

敵사살 690명
포 로 56명
81mm박격포 1문
60mm박격포 5분
2.36" Rocket포 8문
트 럭 3대
자동소총 16정
각종소총 165정
포 탄 1,190발
수 류 탄 5,209발
소 총 탄 10상자 11,000발

損 失

전 사 17명
전 상 58명

3. 史倉里附近 戰鬪 (1951년 4월 20일부터 1951년 4월 25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35, 36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軍		我軍	
美제9군단 장	소장 William M. Hoge	제3대대 장	대위 吳 充 石
제6사단 장	준장 張 都 暎	제19연대 장	대령 林 益 淳
제2연대 장	대령 金 鳳 琯	제1대대 장	소령 金 俊 敎
제1대대 장	대위 洪 載 瀚	제2대대 장	중령 朴 桂 根
제2대대 장	소령 金 東 哲	제3대대 장	소령 朴 鍾 杏
제3대대 장	대위 崔 勳 大	제27포병대대 장	중령 金 聖
제7연대 장	대령 梁 仲 鎬	사단교육대 장	소령 田 東 植
제1대대 장	소령 印 聖 勳	병력 : 장교 712명	사병 11,621명
제2대대 장	소령 閔 邦 瑛	장비 : 대체로 T/E상의 사단장비	

敵軍		敵軍	
제20군 장	廖 政 國	제60사단 장	劉 亭 雲
제58사단 장	왕 쪼우 링	(제 178. 179. 180연대)	
(제 172. 173. 174연대)		제40군 장	韓 先 楚
제59사단 장	차 이 거 린	제120사단 장	徐 國 夫
(제 175. 175. 177연대)		(제 358. 359. 360연대)	

나. 전투 전의 개황

三陟—鳥山線에서 軍이 제2차 반격전을 개시한 以來 제6사단(장, 張都暎준장)은 美제9군단(장, William M. Hoge소장)에 배속되어 忠北 鎭川으로 부터 長湖院—驪州—原州—加平을 차례로 점령한 然後에 계속 中部戰線으로 진격하여 加平 北쪽의 38°선 부근에서 中共軍 제42군(장, 吳瑞林)을 격퇴하고 4월 6일에는 Kansas 線까지 완전히 점령 확보 하였다。

이곳은 史倉里 南쪽 8~9km의 지점으로 芝岩里부근의 △722와 華岳山(△1287)을 連結하는 산악

지대 였으니 사단은 이곳에서 군단의 계획에 따라 一旦 방어진을 형성하고 戰列을 정비 하였다。

이때의 全戰線은 中東部에서는 제1, 제3군단이 襄陽 北쪽과 院堡里에서 北共 제3, 제5군단을 追擊하고 있었으며 中部전선에서는 美제9, 제10군단이 春川과 加平 北方까지 진출하여 中共 제39, 제40군과 對峙하였고 西部전선에서는 美제1군단이 北共 제1군단과 中共 제26, 제27군을 臨津江 以北으로 격퇴하고 高浪浦에 이르는 臨津江 沿岸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이와같이 全戰線에서 一路진격한 國軍및 UN軍이 38°線에 이르러 一部는 戰列을 정비하고 一部는 추격을 계속하자 제1차 反擊作戰時와 같이 38°선의 越境공격 與否에 대한 對內外的인 輿論이 紛紛한 가운데 UN군 사령부에서는 우선 戰略的인 見地에서 數的으로 優勢한 敵에 대하여 軍은 增援軍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아니라 無制限으로 北進하여 戰線이 연장되면 敵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보급상태가 좋아지고 後備隊의 運用이 용이 하여지기 때문에 38°선을 基準으로 終戰을 예상한 작전을 계획 하였으며 이와는 달리 國軍은 戰勢가 許容하는 限 全面的으로 北進하여 一大決戰을 감행코자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敵은 38°선에서 방어하려던 企圖가 挫折되자 北共 제3군단과 中共군 제39, 제40, 제64군등의 새로운 부대를 戰線에 投入하여 對峙하는 한편 이른바 春季攻勢를 위한 부대의 再編과 공격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으니 즉, 主로 開城北쪽과 九化里지역, 漣川과 鐵原지역, 金化와 華川지역 等에 大부대의 공격집단을 형성하고 또한 淮陽一平康一伊川—金川—酉溪 等地에 작전예비대를 집결시켜 全線의 공격태세를 강화 하더니 4월 中旬부터는 그活動이 積極化하면서 侵攻의 樣相이 뚜렷 하여졌다。

사단의 방어正面에는 38°선에서 潰滅分散된 中共 제42군이 金化 北쪽으로 後退하고 韓先楚가 지휘하는 제40군 예하의 제120사단(장, 徐國夫)이 새로이 投入되어 방어진지 前方 8~12km의 將軍山(△847)과 上海峰(△848) 그리고 頭流山(△993) 부근에 各各 대대 규모 이상의 병력을 布陣하는 한편 그 北쪽 12km의 大成山(△1174)을 中心으로 한 華川과 金化지역 일대에는 鄭政國이 지휘하는 제20군 예하의 제58, 제59, 제60사단이 공격준비에 狂奔하고 있었으며 그 背後로는 金化, 鐵原, 平康의 三角지대에 제24, 제38, 제66군 等의 충분한 예비대를 保有하고 있었다。

이 敵은 연대 규모 이상의 강력한 砲兵火力을 갖추었으며 山岳進出을 위하여 騎兵연대를 保有하였고 裝甲車와 各種車輛을 大幅으로 증강하여 大大的인 공격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특히 이 전투 당시의 제40군은 實戰經驗이 豊富한 八路軍 출신이 대부분으로서 山岳戰과 夜間戰鬪에 능숙 하였고 險山의 機動制限을 克服하기 위하여 大大的으로 말(馬)을 利用함으로서 據點輸送 方法을 擇한 보급추진이 容易한듯 하였으며 機動速度가 急速한 點이 特異하였다。

이와같이 敵의 南下企圖가 顯著하여지자 軍에서는 全戰線의 방어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機先을 制하여 中部의 現戰線을 Wyoming 線(華川부근—金化 東南方—鐵原—臨津江口의線)까지 진출 시킨 다음 敵의 企圖를 粉碎하려 하였다。이에 따라 사단은 美제9군단의 左翼 부대가 되어 現방어선인 Kansas 線으로부터 史倉里와 賓乃嶺을 넘어 사단正面의 Wyoming 線(大成山—文月里의線)까지 진출한 다음 이곳에서 敵의 南下를 저지하고 이를 격멸코자 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은 4월 7일부터 2週日동안 방어하던 부대를 攻勢로 轉換하여 20일에 前方CP를 加平으로부터 14km 北쪽의 栢子洞으로 前進開設하고 金鳳燦대령이 지휘하는 제2연대를 右一線으로, 林益

連대령이 지휘하는 제19연대를 左一線으로 하는 한편 제7연대(장, 梁仲鎬대령)를 예비대로 保有하여 中間目標인 Quantico 線(白馬山—上海峰의線)을 目標로 4월 21일 공격을 개시 하였다。

이 당시 사단에서 把握된 敵情은 前方에는 第流山과 上海峰, 將軍山 等地에 연대 규모의 敵이 布陣하고 있으며 그예비대는 金化方面에 있을 것으로 判斷되었으며, 敵 後方지역에 一日平均 1.000~1.500臺의 車輛이 운행되고 비행장 滑走路와 도로보수에 奔走한 것으로 보아(군단 항공정찰대의 확인) 敵은 공격준비를 서두르는 것으로 推測되었고, 中共 제40군 소속 捕虜들의 진술에 의하여 不遠間 一大공격이 있으리라는 諜報를 入手한바 있으나 사단은 지금까지의 追擊戰에서 乘勝長驅로 敵을 擊破하던 여세를 몰아 能히 격퇴 할수 있으리라 判斷한듯 하다。

공격당시 사단의 右翼에는 美제1해병사단(장, Smith소장)이 華川 北쪽으로 진격하고 있었으며 左翼에는 美제24사단(장, Blacksheor M. Bryan 소장)이 Wyoming 線을 目標로 並行공격하고 있었으나 4월 22일 거의 同時에 敵의 反擊과 서로 衝突하게 되어 擔當正面에서 격전을 전개하게 되었으며 특히 敵은 主攻을 사단의 正面으로 指向하여 集中공격을 감행함으로서 一大 격전이 전개 되었다。

이 전투 당시의 사단은 3개연대에 예, 배속부대를 포함하여 장교 712명과 사병 11,621명의 병력을 보유하였으며 거의 완전한 사단 장비를 갖추었다。

期間中에는 날씨가 흐리고 朝夕으로 濃霧가 甚한 데다가 山火까지 겹쳐 敵情把握과 火力支援에 지장이 많았으며 通信裝備가 不足하였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春季攻勢의 준비에 狂奔하던 敵은 4월 中旬에 접어들면서 中共 제63, 제64군은 西部에서 臨津江 渡河를 試圖하고 中部戰線에서는 제20, 제39, 제40군이 廣州山脈을 따라 南下한 다음 京春街道를 遮斷하고 美제1, 제9군단을 二重으로 압박하여 다시 서울을 強占하려고 企圖하였다。

이와같은 敵의 企圖를 看破한 軍은 中部戰線의 要衝인 金化—鐵原—平康의 三角地帶를 攻略함으로서 敵의 공격집단을 미리 粉碎하기 위하여 現戰線을 Wyoming 線까지 진출코자 하였다。

이 計劃에 따라 군단은 美제1해병사단을 華川北方으로, 제6사단은 金化方面으로 진격토록 計劃하였으나 사단이 진격할 攻擊軸線은 華岳山(△1287)과 石龍山(△1103)을 連結하는 Kansas 線으로부터 史倉里를 中央에 끼고 寅乃谷과 福住山(△1152)을 넘어 六月里에 이르기까지 北쪽으로 25km에 達하는 險峻한 山岳地帶였다。이 지역은 中西部를 가로지른

廣州山脈이 白岩山(△1179)을 基點으로 西南方으로 뻗어 보통 海拔 1,000m 內外의 山이 重疊하고 險한 溪谷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山岳戰과 奇襲戰을 主로 하는 敵에게 有利한 反面, 공격부대인 사단으로서는 심한 機動制限과 氣象條件의 不利까지 겹친 까닭으로 사단장 張都暎 준장은 정보참모 崔澤元 중령과 작전참모 曺精鍊 중령을 대동하고 작전계획의 수립에 따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검토 하였다。

첫째 : 攻擊軸線上에는 東北쪽으로 頭流山(△993)과 將軍山(△847) 및 白積山(△884)等이 連立하고 西北쪽으로는 白雲山(△904)과 上海峯(△848), 福柱山(△1152)等이 있어서 敵情觀測이 곤란하고 기동에 많은 제한을 받을 뿐 아니라 隣接부대와의 戰線연결이 어렵다는 점。

둘째 : 徒步부대의 機動이 가능한 山間小路는 여러곳에 있으나 機械化부대 및 軍需支援을 위한 차량 기동로는 春川과 新浦里를 경유하여 史倉里로 연결되는 50餘km의 迂回路를 사용할수 밖에 없으며 이 單一 기동로 마저 起伏과 屈曲이 심하여 신속한 부대운용이 어렵다는점(加林으로부터 道馬峙를 넘어 史倉里로 通하는 西方通路가 있었으나 당시의 상태로는 사용이 不可能하였다 : 당시의 포병대대장 金聖중령의 面談에서)。

세째 : 史倉里로 부터 多木里까지의 進出기동로는 狹小한 溪谷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부대진출이 어렵다는점。

네째 : 현재 사단이 保有한 通信裝備와 機材로서는 戰線延長에 따른 充分한 通信軸線의 유지가 어렵다는점。

다섯째 : 氣象通報에 의하면 대체로 날씨가 흐리고 濃霧가 심한데다가 山火까지 겹쳐 充分한 火力支援과 敵情把握이 困難하다는점 等을 검토한 사단장은 이상과 같은 制限條件을 克服하기 위하여 一旦부대를 史倉里부근의 龍潭里와 白雲山까지 진출시킨 다음 戰列을 再整備하고 砲兵대대를 史倉里로 이동시킨 然後에 急速攻擊을 단행할 결심을 하였다。 이리하여 제2연대를 主攻으로 하여 寅乃嶺을 넘어 多木里로 指向토록 하고 제19연대는 助攻으로서 六月里를 指向토록 하여 敵의 主力이 抵抗할 것으로 예상되는 福柱山을 左右로 迂回시켜 이를 격멸한 다음 신속히 최종목표인 "B"선(작전명령상 前方統制선)을 점령 코자 하였다。

이리하여 要旨 다음과 같은 사단 작전명령 제154호를 下達하였다。

『① 사단은 중간목표 Quantico 線(白積山—福柱山의선)을 점령한 다음 계속 Wyoming 線까지 진출하여 南下를 企圖하는 敵을 포착 격멸 하려한다。

② (가) 제2연대는 右一線으로 진격하여 頭流山을 점령한 다음 계속Wyoming線으로 진출할 준비를 하라。

(나) 제19연대는 左一線으로 진격하여 上海峯을 점령한 다음 계속 福桂山의 左側背를 공격하여 제2연대의 진출을 지원한 然後에 步調를 같이하여 Wyoming 線까지 진출할 준비를 하라。

(다) 제7연대는 現위치에서 一線연대의 진출을 지원한 다음 攻擊先端이 Quantico 線을 점령하면 신속히 부대를 이동하여 "A"선(頭流山—上海峯의線)을 점령하고 다음 명령을 대기하라。

(라) 포병대대는 現진지를 史倉里로 이동하여 22일 06.00부터 지원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

(마) 공병대대는 新浦里와 史倉里間의 機動路를 보수하고 특히 橋梁경계를 철저히 하라。

③ 사단은 Quantico 線 점령 以後부터 史倉里에 開設할 것이다。』

(2) 작전실시

4월 20일 : 사단은 4월 7일부터 2週日동안 芝峴里 부근의 △722와 華峴山을 連하는 Kansas 線에서 방어진지를 점령하고 敵情把握을 위한 探索戰과 교육훈련을 並行실시하면서 다음 전투를 준비하고 있다가 이날 前方CP를 加平으로 부터 14km 北쪽의 栢亭洞으로 前進開設하고 各隊로 하여금 부대를 攻勢으로 轉移케 하였다。

1. 제2연대(장, 金鳳龍대령)는 右一線연대로서 頭流山—寶乃嶺—多木里의 攻擊軸線으로 진출키 위하여 現陣地를 제7연대의 제2대대(장, 閔邦琇소령)에 引繼하고 이날 14.00에 華厉山 부근으로 집결하여 梯隊編成과 裝備整頓等의 공격준비를 하였으며,

2. 제19연대(장, 林益淳대령)는 예비대이던 現任務를 바꾸어 左一線에서 白雲山—上海峯—福桂山—六丹里의 軸線으로 진출키 위하여 부대를 石龍山(華峴山 左側 6km)부근으로 이동한 다음 공격준비를 하였다。

3. 제7연대(장, 梁仲鎬대령)는 예비가 되어 現 사단 방어全面에 兵力을 展開하고 敵情探索戰을 계속 하였다。

이와같이 사단이 攻擊梯隊를 편성하고 그 준비를 완료 하였을때 前方의 敵情은 史倉里를 中心으로 東北쪽 8km 지점인 將軍山(△847)과 西北쪽 9km 지점인 上海峯(△848) 一帶에 各各 대대 규모 이상의 中共軍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그 前哨로 예상되는 대대 규모의

敵은 頭流山(△993)과 明月里부근에 까지 進出하고 있었다。이 敵은 4월 中旬부터 積極的인 行動을 취하면서 小隊 또는 中隊규모의 정찰대가 제7연대 正面의 △774와 제2연대 正面의 △569 및 △641 等에 出沒하여 사단의 威力수색대와 散發的인 衝突이 있었다。

4월 21일 : 드디어 사단은 이날 史倉里를 목표로 華岳山과 石龍山부근의 공격예정선에서 07.00를 기하여 공격을 개시 하였다。

1. 제2연대는 제1대대(장, 洪載瑢대위)를 右一線으로, 제3대대(장, 崔勳大대위)를 左一線으로 하여 공격개시선을 出發한 다음 敵의 저항 없이 史倉里 東側의 龍潭里까지 進出하였다。여기에서 연대는 다시 頭流山으로 進擊하자 稜線一帶에 潛伏하고 있던 중대규모의 敵은 輕微한 저항을 하면서 後退하기 시작 하였으며 계속 이를 追擊하였을때 左前方 明月里부근에 布陣하고 있던 중대 규모의 敵마저도 決戰을 避하고 上貴乃里의 △798와 △697一帶의 溪谷으로 後退하였다。이렇듯 敵이 輕微한 저항만을 하면서 地形上 不利한 溪谷으로 誘導하려는듯 하자 연대는 一旦 추격을 멈추고 龍潭里부근에 병력을 전개하여 진지를 점령한 다음 捜索戰을 전개 하였다。

2. 제19연대는 石龍山 부근에서 戰列을 갖춘다음 左一線으로 공격을 개시하여 白雲山下麓에까지 進擊하였을때 그 稜線일대에 潛伏하고 있던 2個중대 규모의 敵이 저항 하였으나 제2대대(장, 朴柱根중령)가 이를 擊破하여 芳花洞(史倉里 西北쪽 8km) 方面으로 격퇴시킨 다음 연대는 제2연대와 戰線을 연결하고 史倉里 西南쪽 一帶에서 진지를 점령한 然後에 敵情 탐색전을 전개 하였다。

3. 한편 제7연대는 一線 攻擊梯隊가 史倉里를 掌握하자 12.30에 연대CP를 "오목골"(修德山부근)로 이동하고 主力은 加林으로 집결 하기 위하여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공병대대는 楊灘里(新浦里부근)로 이동하여 新浦里와 史倉里間의 도로 보수작업을 실시 하였다。

이와같이 사단이 이날 急速공격을 하지 않고 史倉里 까지만 진출한 것은 攻擊軸線이 險한 山岳地帶였기 때문에 포병대대(장, 金聖중령)와 에비대의 効率的인 運用에 蹉跌이 없도록 하고 戰列을 再整備한 다음 急速攻擊을 감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된다。

4월 22일 : 사단은 이날 中間目標인 Quantico 線을 점령 한다음 계속Wyoming 線까지 진격할 계획으로 總공격을 개시 하였다。

1. 제2연대(장, 金鳳喆대령)는 龍潭里에서 07.00에 공격을 개시하여 제1대대는 頭流山



<史倉里 溪谷을 따라 進擊하는 勇士들>

을 점령하고 제3대대는 史倉里를 東北쪽으로 돌아 이를 確保한 다음 464番道路(史倉里—六丹里間의 도로)를 中心으로 左右로 展開하여 계속 敵의 輕微한 저항을 물리치면서 上貢乃里까지 進擊하였다。이때 12.00에 이르러 제3대대가 △798에서 執拗하게 저항하는 敵과 接敵하게되자 대대장 崔熙大대위는 제10중대를 先頭로 과감하게 공격하여 많은 戰果를 거두고 14.00에는 △798를 완전히 점령하였다。이리하여 대대는 계속 潰走하는 敵을 추격하면서 龍柱山(△1152)의 東側背로 진출 하였을때 이곳에 潛伏하고 있던 主力과 合勢한 적은 頑強하게 저항하였으며 17.00에 이르러서는 새로이 연대 규모의 中共軍이 大擧 侵襲하였다。

이와같이 急轉하는 상황을 看破한 대대장은 戰況을 報告하는 한편 即刻 대대를 守勢로 전환하여 제10, 제11중대로 하여금 △798 일대에 急編방어진을 형성토록 하고 一大決戰을 전개할 준비를 하였다。

이러는 동안 제 1대대(장, 洪敏翊대위)는 上貢乃里를 점령하고 계속 진출하다가 14.00에 萬山峴부근에 潛伏하고 있던 대대 규모의 敵과 對峙하게 되어 제3중대가 敵의 自動火器 및 기관총等의 집중사격으로 一時 혼란상태에 놓이기도 하였으나 대대는 同時 集中공격을 감행하여 치열한 격전을 전개한 끝에 이 敵을 격파하고 계속 진격하였다。그러나 17.00에 이르러 대대는 大部隊의 中共軍과 遭遇하게 되었으니 이때 敵軍은 中共 제20군 예하의 제60사단과 제40군 예하의 제120사단을 先頭로 제58, 제59사단이 後續부대가 되어 이날

16.00부터 反擊을 개시하여 主攻은 제2연대 正面으로, 助攻은 제19연대 正面으로 南下 하더니 17.00에는 寶乃里와 芳花洞 일대의 사단 진지에 砲擊을 증가 하면서 그 先頭의 2個 연대가 제2연대 正面으로 急襲하였다。

이와같이 戰況이 急變하자 연대장 金鳳燦 대령은 各隊로 하여금 守勢로 轉換케 하여 방어진지를 점령토록 하고 이곳에서 敵의 南下를 저지 격멸코자 하였다。

그러나 敵은 極甚한 被害를 받으면서도 兵力과 火力을 더욱 증강하여 正面으로는 波狀的인 侵攻을 감행하고 右前方의 上萬山洞 부근에 大兵力을 집결하여 頭流山으로 迂回 南下하고 있었으며 福住山 부근으로 侵襲한 연대 규모의 敵은 常套的인 手法으로 연대의 예비대인 제2대대(장, 金京哲소령)의 側後方으로 侵襲하여 포위전을 전개하려 하였다。

이상과 같은 戰況報告를 받은 사단장 張都暎준장은 命하기를 『신속히 부대를 "A"선으로 철수하여 頭流山과 明月里일대의 진지를 점령하고 敵을 저지 격멸하라』하였다。이리하여 연대는 20.00에 철수를 개시하여 사단 규모 이상의 敵의 火網을 물리치고 接敵을 維持하면서 "A"선으로 後退한 다음 제1대대는 頭流山을 점령토록 하고 제3대대는 明月里부근의 진지를 점령토록 하였다。

이때 제1대대의 제1중대는 急速侵攻하는 敵을 反擊하여 그 一部를 격퇴하였으며 제2대대의 제6중대는 제1대대와 제3대대의 간격으로 侵襲하는 敵을 격퇴하기도 하였으나 衆寡不敵으로 戰勢는 漸次 不利하여지고 大兵力의 潮流속에서 勇戰敢鬪도 하는 수 없이 연대 CP마저 敵의 射程內에 놓이게 되자 제2, 제3대대는 24.00에 史倉里 부근의 예비선으로 다시 後退하였다。그러나 洪敍弼대위가 지휘하는 제1대대는 계속 頭流山에서 陣地를 固守하고 연대 主力의 撤收를 掩護하였다。

2. 제19연대(장, 林益澤대령)는 이날 07.00에 공격을 개시하여 景德山(△1045)에서 敵의 輕微한 저항을 격파하고 계속 진출한 끝에 12.00에는 芳花洞 부근까지 진격하였다。

이때 右一線인 제1대대(장, 金俊敎소령)는 계속 芳花洞 東北쪽 2km지점인 △892까지 진격하여 13.30에 同高地를 점령하였으나 前方△900稜線 一帶에 潛伏한 敵의 저항이 執拗하고 福住山 後麓으로부터 側面攻擊을 받게 되어 대대는 一進 一退를 거듭하고 있었으며, 左一線인 제2대대(장, 朴桂根중령)는 공격 正面의 △547에서 執拗하게 저항하는 敵과 對峙하여 치열한 격전을 전개한 끝에 13.00에 이 敵을 격퇴하고 이高地를 점령하였다。이때 敵은 다시 逆襲을 試圖하여 反擊하려하자 대대는 極甚한 打擊을 加하여 이를 격퇴한 다음 계속 攻勢를 취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547 北쪽의 無名高地까지 到達하여 15.40에 제6중대를 先頭로 砲支援下에 突擊을 감행하여 이 高地를 점령 하였으나 戰線은 全般的으로 膠着되고 17.00부터 右一線부대인 제2연대가 大部隊의 中共軍과 격전을 전개하고 있는 까닭으로 이날 目標線까지의 진출이 어렵게 되자 연대장 林益淳대령은 부대를 攻勢로 부터 守勢로 전환할 결심을 하고 各隊로 하여금 現진출선에서 방어진을 형성토록 하였다。

그러나 時間이 경과 할수록 敵의 砲擊은 增加하고 戰勢는 急變하여 1개연대 규모의 敵은 연대 방어진지 後方의 "하오고개"까지 迂回侵襲 하였으며 연대 규모의 敵 騎馬隊는 右前方의 道德洞에 집결하더니 그 一部가 연대의 正面에 출현하였다。

이와같은 戰況속에서도 全將兵은 陣地를 固守하고 一大決戰을 전개하려 하였으나 20.00에 이르러 제2연대가 撤收하기 시작하자 相互 連絡이 杜絶되고 反面에 敵은 時時刻刻으로 兵力을 증강하여 退路를 遮斷하고 포위망을 壓縮함으로서 연대는 敵中에 孤立되게 되었다。

이때 사단에서 下達된 電文命令에 이르기를『제19연대는 신속히 부대를 철수하여 "A"선으로 이동한 다음 敵의 南下를 저지 격멸하라』하였으니 연대의 擔當戰區內에 設定된 작전명령 상의 "A"선은 △1027와 上海峯을 連하는 선으로서 이때는 이미 이곳까지 敵이 侵襲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대장 林益淳 대령은 敵陣을 突破하여 부대를 철수시킨 다음 要地를 擇하여 決戰을 단행할 비장한 결심을 하고 철수를 개시 하였다。

이리하여 機動하던 부대의 선두가 上海峯 부근에 다다랐을때 夜陰을 利用하여 溪谷一帶에 布陣하고 있던 敵과 衝突하게 되어 一大混戰이 전개되었다。이곳에서 연대는 一時混亂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敵은 더욱 肉迫하였으나 연대장 林益淳대령은 힘써 병력을 수습하고 全火力을 集中하여 敵陣을 突破한다음 "A"선까지 後退하였다。 그러나 23.30에 다시 敵의 奇襲을 받게되자 할수없이 병력을 수습하여 李敬淳대위가 지휘하는 重砲中隊는 연대 CP의 警備를 擔當하고 主力은 제7연대의 제1대대(장, 田聖勳소령)와 合勢하여 敵을 突破하면서 24.00에 史倉里 西北쪽 "안골"부근으로 이동하여 부대를 再編하고 있었다。

3. 한편 제7연대는 사단 예비대로서 이날 上午에 前方연대가 진출하자 08.30까지 主力이 加林으로 집결하여 09.00부터 徒步機動으로 史倉里 北쪽의 明月里와 德德里까지 이동한 다음 17.00에는 작전명령 상의 "A"선(頭流山一上海峯의線)을 점령 하였다。

이때 前方의 戰況이 急轉한 까닭으로 연대는 阻止陣地를 占領하고 23.00까지 主力의 撤收를 엄호 하였으나 大兵力의 敵이 急速侵攻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24.00 에는 史倉里 부근의 예비진지로 後退하였다。

4. 포병대대(장, 金聖중령)는 史倉里로 砲陣地를 이동한 다음 前方연대의 진출을 지원하다가 敵의 大大的인 反擊이 시작되자 總火力을 집중하여 打擊을 加하였으나 戰況이 漸次不利하게 되어 다시 龍潭里 부근으로 이동하였으며 공병대대 역시 史倉里 부근에서 도로 보수작업을 실시하다가 楢灘里로 이동하였다。

4월 23일 : 사단이 전날 "A"線上의 阻止陣地에서 敵의 反擊一線을 粉碎하지 못하고 史倉里부근의 예비진지로 이동하여 부대를 再編하고 있을때 이날 拂曉에 敵의 主力은 史倉里를 目標로 夜陰을 利用하여 급속 南下하고 있었으며 一部의 敵은 廣德里로 부터 白雲山(△904)으로 侵攻하였고 또한 大成山(△1174) 부근에는 대부대의 예비대가 集結하여 南侵을 서두르고 있었다。

1. 이러한 가운데 제2연대(장, 金鳳燮대령)의 제1대대(장, 洪載翊대위)는 계속 頭流山에서 陣地를 固守하면서 敵의 진출을 牽制하고 있었으며 제2, 제3대대는 史倉里부근에서 부대의 再編을 서두르고 있었다。

이때 연대(一)는 史倉里에서 다시 敵의 強襲을 받게되자 夜暗과 濁濘의 苦難속에서도 이를 克服하고 용전분투 하면서 龍潭里부근으로 철수 하였으나 敵은 大兵力으로 계속 侵襲하면서 一大 포위진을 전개하려 하였다。

이와같이 狀況이 惡化되고 혼란이 거듭되자 연대장은 遲延戰을 펴면서 華岳山과 鷹峯山(△1436)을 連하는 38°線上의 旣成陣地로 부대를 撤收시킬 決心을 하였으니 이곳에서 부대를 再編한 다음 敵의 南下를 阻止擊滅코자 함이었다。이리하여 이 지점까지 철수한 연대는 이날 19.00부터는 진지를 점령하고 局部的인 반격을 加하면서 38°선 일대에서 방어진지를 형성하였으나 19.30에 다시 敵은 대대 규모의 先頭부대가 華岳山으로 肉迫하였으며 그 뒤를이어 1個대대 규모의 敵은 방어진지 後方의 鷹峯山과 燭培峰까지 侵襲하였다。

2. 제19연대(장, 林益淳대령)는 史倉里 西北쪽 2km 지점인 "안골"에 집결하여 방어진지의 점령을 꾀하다가 01.00에 다시 大部隊의 敵과 激突하게 되어 제9중대는 熾熱한 交戰을 전개하기도 하였으나 衆寡不敵으로 戰況은 不利하여지고 부대가 混亂상태에 빠지려 하자 힘써 병력을 수습하여 國望峯(△1168) 一帶의 38°선으로 철수하기 시작 하였으며 以後 연대는 國望峯과 石龍山間의 要地를 점령하고 敵의 南下를 저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敵은 계속 急進하여 이날 13.00에는 2個대대 규모의 선두부대와 騎馬隊가 白雲山을 넘어 방어正面의 道馬峙에 까지 侵襲하였으며 17.20에는 연대 규모의 後續부대가 白雲山 方面으로 南下를 계속하고 있었다。이렇듯 中共軍의 大攻勢속에서도 연대의 「全將兵

은 苦戰을 계속하였으나 敵의 大兵은 계속 방어진지 後方에 까지 侵透하여 迂回공격을 감행하려 하였다。이리하여 연대는 敵의 包圍網을 突破하고 加林을 경유하여 14.00에는 道大里까지 後退한 다음 이곳에서 부대를 再編하는 즉시로 부근 一帶의 要地를 점령하고 방어태세를 갖추었다。

3. 제7연대(장, 梁仲鎬대령)는 史倉里부근에서 부대를 집결하고 있을때 사단장 張都暎 준장으로 부터 『신속히 부대를 이동하여 38°선 일대의 진지를 점령하고 主力의 撤收를 掩護한 다음 계속 敵의 南下를 阻止격멸하라』는 命令을 받고 연대장 梁仲鎬대령은 부대를 石龍山(△1103) 부근으로 이동하여 이날 10.00부터 各大隊를 展開하고 방어진지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急速侵攻하던 中共軍은 正面공격을 피하고 左右로 迂回하여 13.00에는 벌써 제19연대의 방어진을 돌파한 다음 道馬峙를 넘어 연대의 左側方으로 侵襲하고 있었으며 19.30에는 제2연대의 진지後方인 燭坮峯까지 侵襲함으로서 오히려 敵中에 孤立되자 연대는 21.00에 加林으로 집결하여 사단 前方CP가 위치한 栢子洞一帶에 23.00까지 부대배치를 완료하고 陣地를 固守하였다。

4. 한편 포병대대(장, 金聖중령)는 이날 11.00에 撤收를 시작하여 龍潭里로 부터 新浦里를 向하여 8km 着度 機動하다가 山谷間의 單一路인 464番 道路上에서 隣接사단(美제24사단)을 지원하던 自走砲의 故障으로 機動路가 가로막혀 지연되고 있을때 不意에 敵의 奇襲을 받아 상황이 惡化되자 할수없이 砲의 重要部分을 分解破壞하고 各種裝備를 燒却하여 사용 不能케 한다음 兵力만이 敵과 交戰을 계속하면서 後退하였으며 工兵大隊는 栢灘里에서 병력을 집결하여 後退移動하였다。

이날 사단CP는 加平으로 移設하고 敎育隊(장, 田東植소령)로 하여금 警備토록 하는 한편 警備中隊는 一線에 增強出動시켰다。

4월 24일 : 사단은 華岳山과 石龍山 一帶의 38°선에서 敵을 저지 격멸하려 하였으나 大兵力의 敵勢로 因하여 그뜻을 이루지 못하자 사단장이하 全장병은 悲壯한 각오를 하고 北漢江을 背水陣으로 한 방어진을 형성하는 동시에 反擊戰을 決行코자 그 준비에 着手하고 있었다。

1. 제2연대(장, 金鳳喆대령)의 제2대대(장, 金京哲소령)와 제3대대(장, 崔勳大대위)는 惡戰苦鬪의 萬難속에서도 敵陣을 돌파하고 戰列을 整理한 다음 지연전을 거듭하면서 加平부근으로 철수하여 佛岐山(△601) 一帶의 指示된 진지를 점령하고 主力을 展開하였으며

연대CP는 이날 16.00에 下色峴(加平)에 開設하였다。이날 16.00 現在까지 집결된 인원은 1,200명이었다。

한편 제1대대(장, 洪成翊대위)는 이날 03.00까지 有線網을 確保하고 계속 頭流山에서 陣地를 固守하면서 敵의 南下를 牽制하고 있었으나 以後 모든 연락이 杜絶되고 敵中에 완전히 孤立되어 四顧無援의 상태에 놓이게 되자 대대는 사단의 最後撤收부대로서 敵陣을 突破하고 血路를 타개하여 右隣接사단인 美제1해병사단(장, Oliver P. Smith소장)의 戰區로 철수 하였다。

2. 제19연대(장, 林益澤대령)는 道大里에서 계속 陣地를 固守하고 있다가 이날 새벽에 修德山 부근으로 侵襲한 敵으로 부터 奇襲을 받아 一時 혼란되었으나 敵陣을 돌파하고 加平으로 철수한 다음 主力은 加平 西北쪽 5km 지점인 △910 일대에서 방어진지를 점령하였으며 연대CP는 清平으로 移動開設하였다。

3. 제7연대(장, 梁仲鎬대령)는 栢子洞에서 집결하여 敵陣을 돌파하고 玉女峯 後麓으로 이동한 다음 제19연대와 連繫하여 加平 西北쪽의 △492를 점령하고 방어 태세를 갖추었다。

이와같이 사단이 加平과 清平間의 重要據點을 점령하고 反擊戰을 준비하고 있는동안 敵은 계속 侵攻하여 이날 15.00에는 加平北쪽 9km의 修德山(△794)에 까지 出現하였으며 16.00에는 그 一部가 玉女峯 北쪽 2km지점까지 接近하고 있었다。

이날 사단CP는 清平南쪽의 琴南里로 移動開設하고 砲兵대대가 그 경계 임무를 수행 하였으며 사단교육대와 경비중대는 一線增強을 위하여 出動하였다。

4월 25일 : 急速한 侵攻을 계속하던 中共軍은 사단의 遲延戰으로 因하여 侵攻속도가 多少 緩和한듯 하더니 이날 03.00에는 다시 加平과 清平間의 主補給路를 遮斷할 企圖下에 急遽 侵襲하였다。

제7연대(장, 梁仲鎬대령)의 正面으로는 대대 규모의 敵이 侵襲하였으며 제19연대(장, 林益澤대령)가 점령방어하고 있는 △910로는 약 400명의 敵이 夜暗을 利用하여 急襲하였다。이때 兩連隊는 陣地를 固守하고 치열한 激戰을 전개하여 敵에게 많은 被害를 加하자 07.30부터 敵은 退却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機會를 捕捉한 各 연대는 反擊戰을 개시 하였으니 제19연대는 07.30부터 이 敵을 追擊하여 18.00에는 金峯山(加平 西北쪽7km)까지 진격한 다음 그 일대의 진지를 점령 하였고 제2연대와 제7연대도 步調를 같이하여 09.00부터 反擊進出한 끝에 14.00에는 加平 西北쪽 3km지점인 △438를 점령하였다。이후 각 연대

는 現進出線을 確保하고 前方 5km의 敵陣에 까지 搜索戰을 전개하였다。

이날도 계속 一部 落伍되었던 병력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으며 18.00 현재까지 集結編成된 人員은 제2연대가 1,823명, 제7연대가 2,056명, 제19연대가 1,275명, 공병대대 545명 기타 614명으로서 都合 6,313명이 였다。

이날 以後 戰區內의 戰線은 小康狀態를 유지하였으나 華岳山과 國望峯 일대에는 敵의 主力이 새로운 공격집단을 형성하는듯 하였으며 그一部가 修德山과 玉女峯에 까지 진출하여 地形上의 要地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現戰線에서 다음작전을 模索하고 있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사단이 이 전투에서 中共軍 4個사단과 對峙하여 苦戰을 치루고, 加平 一帶에서 反擊준비에 총력을 기우리고 있을때 全戰線은 東部의 襄陽 北쪽으로부터 中部의 春川과 加平을 거쳐 西部에서는 議政府에 이르고 있었으며 敵의 大主力은 서울을 目標로 集中攻擊을 敢行하였다。

그러나 25일 英國軍 제29여단의 議政府 방어전을 고비로 牛耳洞과 水色까지 侵奪하려던 敵은 軍의 반격에 의하여 공격개시 6일만에 退却하기 시작하였다。

이와같이 西部戰線의 進出企圖가 挫折되자 敵은 中部의 산악지대를 根據로 中部전선을 擴張하려고 企圖하였으니 사단正面의 華岳山일대에는 中共軍 제40군이, 國望峰부근에는 제20군이 各各 집결하였으며 그背後로는 제28, 제39군이 집결하여 그동안의 損傷에도 不拘하고 攻擊집단을 형성 하면서 反攻의 徵候가 顯著하여 졌다。이러한 敵의 企圖를 看破한 군단에서는 現戰線의 地形上 不利를 고려한 결과 사단의 主抵抗線을 龍門山 一帶로 移轉케 하여 反擊준비를 갖추려 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은 27일 前方CP를 龍門山 麓麓의 龍門으로 轉進開設하고 各연대를 接敵없이 逐次的으로 機動시켰다。즉 제2연대는 長樂山 부근으로 이동하여 洪川江과 北漢江의 南岸一帶를 점령하였으며 제7연대는 龍頭峰(△1157) 一帶에 主力을 展開하였고 제19연대는 예비대로서 龍川里부근에 集結하였다。

또한 사단은 戰鬪前哨를 편성하여 12km 北쪽의 江村里와 達田里에 까지 배치하고 철저한 防禦陣을 形成하는 同時에 攻勢移轉을 위한 萬般의 태세를 갖추었다。

그뒤에 사단은 이곳에서 이른바 龍門山 戰鬪를 전개한 결과 3個사단의 中共軍을 격멸하고 반격전을 감행하여 5월 26일에는 다시 史倉里를 奪還하였으며 東北쪽으로 華川까지 점령하는 勝戰을 記錄하게 되었다。이 戰鬪의 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戰 果		노 획
적사살(추정) 1,420명		자동소총 72정
포로 4명		기관총 5정

수류탄 175발

損失

전사 : 장교 5명 병 24명
전상 : 장교 18명 병 203명
실종 : 장교 66명 병 1,542명
105mm 곡사포 9문
75mm 무반동총 4문
57mm 무반동총 2문
3.5inch Rocket 54문
81mm 박격포 3문
60mm 박격포 28문

§ 參戰者의 證言

◇ 제2연대장 金鳳喆대령

(67년 2월 25일 서울자택, 예. 순장)

當時 제6사단은 38°線까지 진격하는 동안 乘勝長驅로 진출 하면서 敵에게 殲滅的인 타격을 加하였기 때문에 余勢를 몰아서 能히 金化까지 攻略할수 있으리라 判斷하였으며, 敵의 攻勢準備상황을 正確히 把握하지 못하였다。

더우기 攻擊軸線에는 山岳이 峻하고 機動路가 制限되어 史倉里로부터 金化에 이르는 狹小한 溪谷에는 攻擊부대와 支援부대가 同時에 利用함으로서 混線이 많았으며, 敵의 反擊으로 因하여 激戰이 전개되었을 때에는 白積山과 福住山이 가로막혀 隣接부대와의 연락이 杜絶됨으로서 戰況의 進展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제1대대는 끝까지 頭流山에서 陣地를 固守하고 遲延戰을 폈으며, 연대主力은 進陸山 一帶에서 격렬전을 전개 하였으나, 敵은 所謂 春季攻勢를 준비한 다음 사단의 正面으로 集中攻擊을 감행하여 苦戰을 하게 되었으니 敵의 能力을 過小評價하고 敵情파악을 정확히 하지 못한데 그 큰 原因이 있었다。

그뒤 龍門山으로 撤收하여 부대를 整備한 다음 敵의 銳鋒을 꺾고 철저의 反擊戰을 敢行한 끝에 다시 史倉里를 奪還하였다。

◇ 제6사단 정보참모 崔澤元 중령

(67년 11월 3일, 제5군관구 사령관실에서, 소장)

進擊當時 敵은 靑星(註 제6사단 부대 표시)만 보면 潰走할 程度로 우리 사단은 잘 싸웠다。 그런데 38°線에서 부대를 整備한 다음 金化로 진격할 때에는 그 戰鬪樣相이 달랐으니 史倉里를 攻略하고 福住山을 넘어선 一線연대가 22일부터는 진출이 頓挫되어 進展없는 激戰이 反復되었다。

이리하여 사단에서는 航空偵察에 依한 戰況을 分析하고 부사단장인 林富澤대령은 戰線을 視察하였던바, 예상외로 敵은 大群이 反擊을 감행하여 激突相이 苛烈한 뿐아니라 계속적으로 增援부대가 南下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阻止陣地를 점령하고 이 敵을 粉碎 擊滅하려 하였다。

그러나 陣地도 점령하기 前에 戰線一角이 突破되더니 다음날 새벽에는 各隷下隊와의 通信이 杜絶되고 05.00에는 사단 지휘소 부근까지 敵이 侵襲하여 加平으로 집결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부대를 收拾하여 敵의 銳鋒을 꺾었으나 군단의 계획에 따라 龍門山으로 移動하여 방어陣地를 점령하였다。

◇ 제27포병 대대장 金聖 중령

(67년 9월 29일, 仁川東洋化學에서, 예 준장)

當時 우리대대는 제6사단에 配屬되어 처음에는 沐洞부근에 砲陣地를 設置하고 一線연대를 지원하다가 21일 밤에 新浦里를 경유하여 史倉里로 陣地를 옮겼다。이때는 機動路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新浦里와 史倉里間에서는 美제987自走砲대대와 各種補給차량까지 겹쳐 障礙가 많았으나, 이날밤 안으로 砲陣을 完全히 移動設置하고 22일에 斷行된 진격전을 지원하였다。

그런데 이날 下午부터 戰勢가 逆轉되어, 무수한 砲擊지원에도 下拘하고 철수하게 되었으니 우리 대대는 다시 鶴潭里를 경유하여 新浦里로 나올 수 밖에 없었는데, 이 單一 機動路가 美제987대대의 自走砲의 故障으로 遮斷되어 이 疏通을 위하여 周旋하고 있을때 敵의 奇襲을 받았다。

여기에서 一時 敵을 擊退하고 機動路를 打開키 위한 心血을 기우렸으나 거듭되는 敵의 侵攻으로 할수없이 砲를 分解하여 破壞하고 各隊別로 인솔하여 철수하였다。

◇ 제7연대 제3중대 소대장 趙源浩소위

(72년8월12일, 국방부 보안사령부과검관서신에, 대령)

22일 17.00에 우리 중대는 明月里 부근에서 警戒分哨를 배치하고 固止陣地를 점령 하였는데 22.00에 敵의 大隊과 激突케 되었다。이때에 敵은 莫大한 被害를 무릅쓰면서도 피리와 나팔을 불면서 狂波처럼 밀려들어 끝내 包圍되게 되었으니 여기서 부터 突破戰을 펴면서 加平으로 向했다。

23일 10.00에 道馬峙 부근에서 제19연대장 林益淳대령과 제19연대 제1대대장 金俊敎소령을 만나 突破부대로 再編한 다음 金俊敎소령의 지휘하에 철수를 決行하여 道馬峙 溪谷으로 나오다가 進路를 遮斷코자 하는 敵을 擊滅하고 加平으로 철수하였으며 그뒤 本隊와 合勢하여 "갈。峰부근에서 敵의 侵攻을 막았다。

4. 烏山—漢江線 進擊作戰 (1951년 1월 31일부터 1951년 2월 4일까지)

참조 : 상 황 도 제41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美 제8군 사령관
중장 Matthew B. Ridgway

제1군단장
소장 Frank W. Milburn

제3사단장
소장 Robert H. Soule

제7연대장
대령 Tames O. Boswell

제15연대장
대령 Dennis M. Moore

제65연대장
대령 William W. Harris

제25사단장
소장 William B. Kean

제24연대장
대령 John T. Corley

제27연대장
대령 John H. Michaelis

제35연대장
대령 Henry G. Fishir

韓 제1사단 장 준장 白 善 燁

제11연대 장 대령 文 亨 泰

제12연대 장 대령 金 點 坤

제15연대 장 대령 金 安 一 (美 제25사단에 배속)

제1대대 장 중령 劉 載 成

제2대대 장 중령 崔 炳 淳

제3대대 장 소령 金 國 柱

Turkey旅團 장 준장 Tahsin Yazici (美 제25사단에 배속)

英 제29여단 장 준장 T. Brodie, D. S. O

배속부대

美 기갑포병 제999대대

고사포병 제21대대

기갑전차(重) 제64대대

兵力 : 각부대 T/O의 85~90%

裝備 : 각부대 T/E의 80~85%

敵 軍

中共 제38군 장 宋 霜 根

제112사단 장 江 擁 揮

제113사단 장 唐 靑 山

제114사단 장 翟 仲 儒

中共 제50군 장 曾 澤 生

제148사단 장 趙 鶴 亭

제149사단	장 龍 燿	장비 : 160㎜ 및 152㎜ 곡사포
제150사단	장 王 家 善	120㎜, 82㎜, 60㎜ 박격포
北共 제17사단		기관총, 소총
병력 : 각사단 8,000~9,000명		

나. 전투 전의 개황

美 제1군단은 51년 1월 4일 서울을 포위한 敵을 漢江 南岸에서 阻止코자 企圖하였으나 大規模의 포위기동과 後方에 대한 威脅으로 말미암아 지연작전을 展開키로 方針을 變更하는 동시에 安城—平澤을 連한 線으로 撤收하기에 이르렀다。이 당시 我軍側의 作戰構想은 비교적 좁은 戰面인 三陟(제1군단)—寧越(제3군단)—堤川(美 제10군단)—長湍院(美 제9군단)을 連한 線上에서 戰力을 再整備한 然後에 反擊을 斷行키고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逐次的인 지연작전으로 敵에게 많은 損失을 주었으므로 敵의 攻勢銳氣가 어느 程度로 弱化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部分的으로는 계속 侵攻하여 彼我간에 攻防戰이 쉴새없이 반복되었다。

이때에 군단의 主戰闘地區인 平澤—水原—永登浦지역은 낮은 野山이 點綴되고 交通網이 發達하여 双方에 좋은 기동공간을 제공하였으나 冬節인 까닭으로 추운 날씨와 積雪로 因한 行動의 難澁을 免할 수 없었다。

敵軍의 狀況 : 西部地域 到處에서 侵襲의 實効를 거두고 서울 周邊을 다시 掌握한 敵은 中共 제38, 제50의 2個軍과 北共의 제17사단으로서 連結無間한 漢江을 건너 利川—水原線을 奪取한 다음 그 先鋒부대는 長湍院—烏山線까지 侵透하였다가 我軍의 威力偵察隊에 밀리는바 되어 利川—水原北쪽으로 潰退하고 말았다。이당시 그들의 작생은 利川—水原을 連한 線을 확보하면서 계속 南侵을 노리고자 한 듯 하였으나 長期에 걸친 冬期戰과 制空權의 剝奪로 大兵團의 기동과 보급추진이 圓滑치 못한듯 하여 이 線에서의 固守방어를 준비하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이러한 狀況에서 中共 제38군(장, 宋霜根)은 지휘소를 廣州郡 東安里에 설치하고 利川—水原간을 점령하였는데 휘하의 제112사단(장, 江擁輝)은 利川—金良場里(水原 東쪽 16km)간을, 제113사단(장 唐清山)은 그 西쪽에 연결하여 水原간을 각각 점령하였으며 제114사단(장, 翟仲儒)은 後方 金井山(現 廣州郡地 부근)—松坡간에서 부대를 재편성하는듯 하였다。또한 中共 제50군(장, 曾澤生)은 水原 西쪽을 점령하고 지휘소를 安養부근에 두었는데 휘하의 제148사단(장, 趙鶴亭)은 先鋒부대로 前記한 바로 烏山부근까지 南侵하였다가 많은 損失을 받은다음 安養지역으로 潰退하고 1월下旬에 投入된 제150사단(장, 王家善)이 水原 北쪽 일대를 점령하였으며 제149사단(장, 龍躍)은 그 後方에 있는 冠岳山(安養 東北쪽 6km)과 清溪山(安養 東쪽 12km)간을 점령하고 있었다。그리고 北共의 제17사단은 瓦里(安養 西쪽 9km) 지역에서 西海岸을 경비하는 것으로 推斷되었다。

我軍의 狀況 : 安城—平澤을 連한 線上으로 撤收한 美 제1군단의 제3사단은 安城지역을, 제25사단은 平澤지역을 각각 점령하고 戰線을 整理하였으며 지연작전을 실시하던 一部兵力은 烏山—葛里(烏山

東쪽 11km) 일대에서 侵攻한 敵과 部分的으로 激突하였다。이리하여 군단은 縱深깊은 戰鬪力을 확보한 다음 1월 25일부터 敵主力의 戰況을 探索하기 위하여 威力偵察을 併行하면서 축차적으로 進擊하여 30일에는 金良場里(水原 東쪽 16km)—水原—半月場(水原 西쪽 9km)을 連한 戰線에서 當面의 敵과 對峙하고 공격을 준비하였다。

이때에 美 제3사단은 水原—果川—梨水橋를 連한 戰鬪地境線의 東쪽을 담당하여 그 예하의 제15연대가 金良場里—新葛간을 제65연대가 新葛—水原간을 제7연대는 葛里부근을 각각 점령하고 있었으며 사단포병단은 金良場里 南쪽에서 前面을 지원하였는데 사단사령부는 安城부근에 있었다。

또한 美 제25사단은 韓國軍 제1사단의 제15연대와 Turkey旅團 및 美 제89戰車대대를 배속받아 水原에서 半月場으로 通하는 道路를 따라 西海岸까지의 前線을 담당하였는데 韓 제15연대가 龍物洞(水原 北쪽 4km) 일대에 美 제35연대는 半月場지역을, Turkey旅團은 九龍谷(水原 西쪽 12km)을 각각 점령하였으며 美 제24연대는 兩老里일대(水原 西南쪽 12km)에서 前線後方의 西海岸지역을 경비하는 한편 일부병력으로 水原 飛行場을 경비하였으며 美 제27연대는 사단의 예비대로 사단포병단과 같이 水原부근에 그리고 사단사령부는 平澤부근에 있었다。

당시 군단예비대인 韓 제1사단(—)은 安城부근에서 英 제29旅團은 烏山에서 각각 後方지역을 경비하였으며 제64重戰車대대와 기갑포병 제999대대는 烏山지역에서 군단 前面을 지원하였고 군단사령부는 天安에 있었는데 고사포병 제21대대가 對空防護를 담당하였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1월 25일 美제8군사령관 Ridgway 중장은 美 제1, 제9군단으로 하여금 이날 07.30을 期하여 현接觸線에서 漢江線을 目標로 進擊하라는 命令을 下達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美 제1군단은 威力偵察을 強行하면서 一擧에 敵의 主陣地前까지 進出하였는데 30일에 군단장 Milburn 소장은 要旨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군단은 51년 1월 31일 07.30을 期하여 現接觸線인 金良場里—水原—半月場을 連한 線上에서 北쪽으로 공격을 전개하여 板橋里—安養을 連한 지역을 점령한 다음, 계속 하여 漢江南岸까지 進出하려 한다。② 제3사단은 板橋里(安養 東쪽 15km)—金丹山을 목표로 進擊하라。③ 제25사단은 安養—始興을 목표로 進擊하라。④ 기갑포병 제999대대는 군단을 일반지원하라。火力의 우선권은 제25사단에 둔다 ⑤ 고사포병 제21대대는 군단사령부를 防護하라。⑥ 韓 제1사단(—)과 英 제29旅團 및 제64重戰車대대는 예비대로 현위치에서 待期하라。⑦ 統制線은 板橋里—安養을 連한 線으로 한다。그리고 전날에 배속된 부대는 계속 유효하다。』

이러한 要旨의 명령을 받은 兩사단은 前線을 담당한 연대로써 공격토록 기동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제3사단은 新葛(水原 東쪽 7km)에서 北쪽의 板橋里—松波로 通하는 機動路를 中心으로 제15연대를 右一線으로서 稼室里(金良里 北쪽 6km)의 △457—文衡山을, 제65연대를 左一線으로 光敎山—板橋里를 각각 목표로 進攻토록 하고 제7연대는 예비대로 하여 우선 統制線을 점령한 다음 계속 淸溪山과 金月山을 經由하여 漢江線까지 進擊키로 하였다。한편 제25사단은 水原지역에서 修理山(安養 西南쪽 4km)—安養—永登浦를 目標로 제35연대를 主攻으로서 공격토록 하고 그 右側에서 韓 제15연대를 噶洛山—冠岳山—銅雀洞을, 그 左側에서 Turkey旅團은 素砂를 각각 목표로 하여 併進토록 하였다。이와 동시에 같은 사단의 제24연대는 사단이 공격 轉進함에 따라 西側方에서 仁川으로 進擊하였으며 제27연대는 예비대로 하였고 전날에 배속받은 제89전차대대는 前線 3개부대에 1개중대씩 배속 운영토록 하였다。

(2) 작전실시

1월 31일 : 군단은 이날 金良場里—水原—半月場을 連한 北쪽의 接觸線에서 제3사단을 右一線으로, 제25사단을 左一線으로 展開하여 공격을 시작한 다음 각기 目標를 向하여 進擊토록 하였다。

1. 제3사단(장, Robert H. Soule 소장)—金良場里와 水原간에서 東쪽에는 제15연대를 西쪽에는 제65연대를 展開하였다。제15연대(장, Dennis M. Moore 대령)는 △234(金良場 北쪽)—新葛간에서 공격을 시작하여 石城山에서 抵抗하는 敵의 경계부대를 擊破한 다음 麻城里의 △350와 그 西側에 있는 南洞간을 점령하였으며 그리고 연대 수색중대로 金良場里에서 北쪽으로 흐르는 京安川을 따라 進擊케 하여 東側方을 방호케 하였다。

한편 제65연대(장, Willam W, Harris 대령)는 新葛—水原北端간에서 대대를 貯水池의 左右로 전개하여 공격전진하다가 저항하는 1개소대 규모의 敵을 擊退하고 鷹峯(△237)과 城竹谷間을 점령하였다。제7연대(장, James O, Boswell 대령)는 蒼里에서 金良場里로 進出하여 이곳에서 新葛간의 道路를 비롯하여 사단의 [後方지역을 경계하였고 사단포병단은 坪村(金良里 西쪽)에서 第一線 兩個연대를 直接支援하였다。또 사단사령부는 安城부근에서 前方지휘소만 新葛부근으로 躍進하였다。

2. 제25사단(장, William B. kean 소장)—彌勒洞(水原 北쪽 4km)와 九龍谷(半月場

西쪽 3km)간에서 韓 제15연대를 右一線, 제35연대를 中央 제一線으로 그리고 Turkey旅團을 左一線으로 併立하여 공격을 시작하였다。이때에 제15연대(장, 金安一 대령)는 雞勒洞 일대에서 步戰協同으로 공격을 展開하였는데 제1대대(장, 劉載成 중령)는 彌勒洞 東北方으로부터 旺谷里 東쪽一百碧等일대에 進出한 다음 13.00에 제2중대를 右로, 제3중대를 左로 전개하는 즉시로 공격을 시작하였다。그런데 1개대대 규모의 敵은 前面에 있는 帽洛山 일대에 마련한 防禦陣地를 占據하고 그 警戒前哨로서 1개중대 규모의 兵力을 1km 南쪽에 있는 △213일대에 배치하여 연대의 前進을 阻止하고 있었으나 제2중대는 迫擊砲와 機關銃등의 支援射擊을 받으며 우렁찬 喊聲과 함께 突擊을 敢行한 끝에 13.50에 △213를 탈환하였고 제3중대는 그 右側으로 迂回하여 △213와 △237 및 △200의 세 高地로 둘러싸인 盆地와 같은 五馬洞에 集結中인 敵을 포위 공격함으로서 17.00까지는 △213의 西쪽 稜線일대를 占領하였다。

또한 제2대대(장, 崔炳淳 중령)는 通山一谷井일대에서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제6중대가 美 戰車隊와 함께 京水國道부근에서, 重火器중대가 그 東쪽(通山 東北쪽)에서 각각 支援하는 가운데 右側攻擊梯隊인 제7중대는 △237의 敵을 正面으로 공격을 하였으며 左側攻擊梯隊인 제5중대는 內谷으로 進出한 다음 △237의 西麓을 공격하였다。이 때에 여기를 占據中인 2개중대 규모의 敵은 그 北쪽 帽洛山(△383)에 있는 1개대대의 火力支援을 받으면서 執拗하게 抵抗하였는데 대대는 15.00에 敵의 防禦陣地에 대한 制壓射擊을 加하고 200m稜線까지 進擊한 다음 일제히 敵陣에 突擊하여 20分동안에 걸친 肉迫戰을 벌였다。炸裂하는 手榴彈이 旋風을 흔들고 一閃 又 一閃하는 銃劍이 雪影속에 빛났는데 대대는 마침내 敵을 擊滅함으로서 이 高地를 점령하고 말았다。그리고 예비대인 제3대대(장, 金國柱 소령) 제9중대를 제2대대에 배속시키고 2개중대로서 제1대대 後方인 上光敎부근에서 前線대대의 進擊에 따라 前進할 준비를 하였다。

한편 제35연대(장, Henry G. Fishir 대령)는 半月場 일대에서 戰車中隊를 先頭로 하여 공격을 개시한 다음 경미한 敵의 저항을 물리치고 退却하는 敵을 追擊하다가 △277와 半月場에서 安養으로 通하는 道路 左側에 連繫한 無名高地를 占領中인 1개대대 규모의 敵과 2시간에 걸친 激戰끝에 그 陣地를 점령함으로서 敵은 修理山으로 退却하였다。그리고 제24연대(장, John T. Corley 대령)의 主力은 兩老里지역에서 계속 後方의 西側方을 防護하면서 일부 兵力으로 水原飛行場을 경계하였으며 사단포병단은 水原부근에서 前線 공격부대를 지원하였고 예비대인 제27연대(장, John H. Michaelis 대령)는 水原 北쪽일대를 점

령하고 水原을 防禦하였으며 사단 前方사령부를 水原에 설치하였다.

3. Turkey旅團(장, Yazici 준장)은 제25사단의 左一線부대로서 九龍谷에서 戰車중대와 더불어 △154를 공격하여 1개중대의 敵을 擊退하고 그곳을 점령한 다음 北쪽으로 뻗은 稜線을 따라 계속 △205와 △75를 점령하였는데 修理山 南쪽의 여러 高地를 占據한 敵은 포격과 小火器를 亂射하므로 戰車砲와 火力으로 이 敵을 制壓하고 다음날의 공격을 준비하였다.

4. 기갑포병 제999대대는 烏山부근에서 水原 南端으로 進出하여 군단을 일반지원 하였다.

5. 군단의 예비대인 韓 제1사단(장, 白善燁 준장)은 安城부근에서 부대를 정비하였으며 英 제29旅團(장, T. Broie, D. S. O 준장)은 天安—水原간의 機動路를 경비하였고 제64重戰車대대는 烏山부근에서 계속 다음 작전을 待機하였다. 그리고 군단 前方지휘소는 天安에서 水原으로 進出하였는데 고사포병 제21대대의 1개포대도 水原으로 進出한 다음 제25사단에 배속되어 군단 및 사단 전방사령부와 이 지역에 있는 부대에 대한 對空防衛를 담당하였다.

6. 이날의 敵情을 살펴보면 제3사단 正面에서 退却한 中共 제38군의 제113사단(장, 唐靑山)은 文衡山과 光敎山을 占據한 부대와 合勢하였으며 제25사단의 正面에서 一戰한 中共 제50군의 제150사단(장, 王家善)은 修理山을 固守하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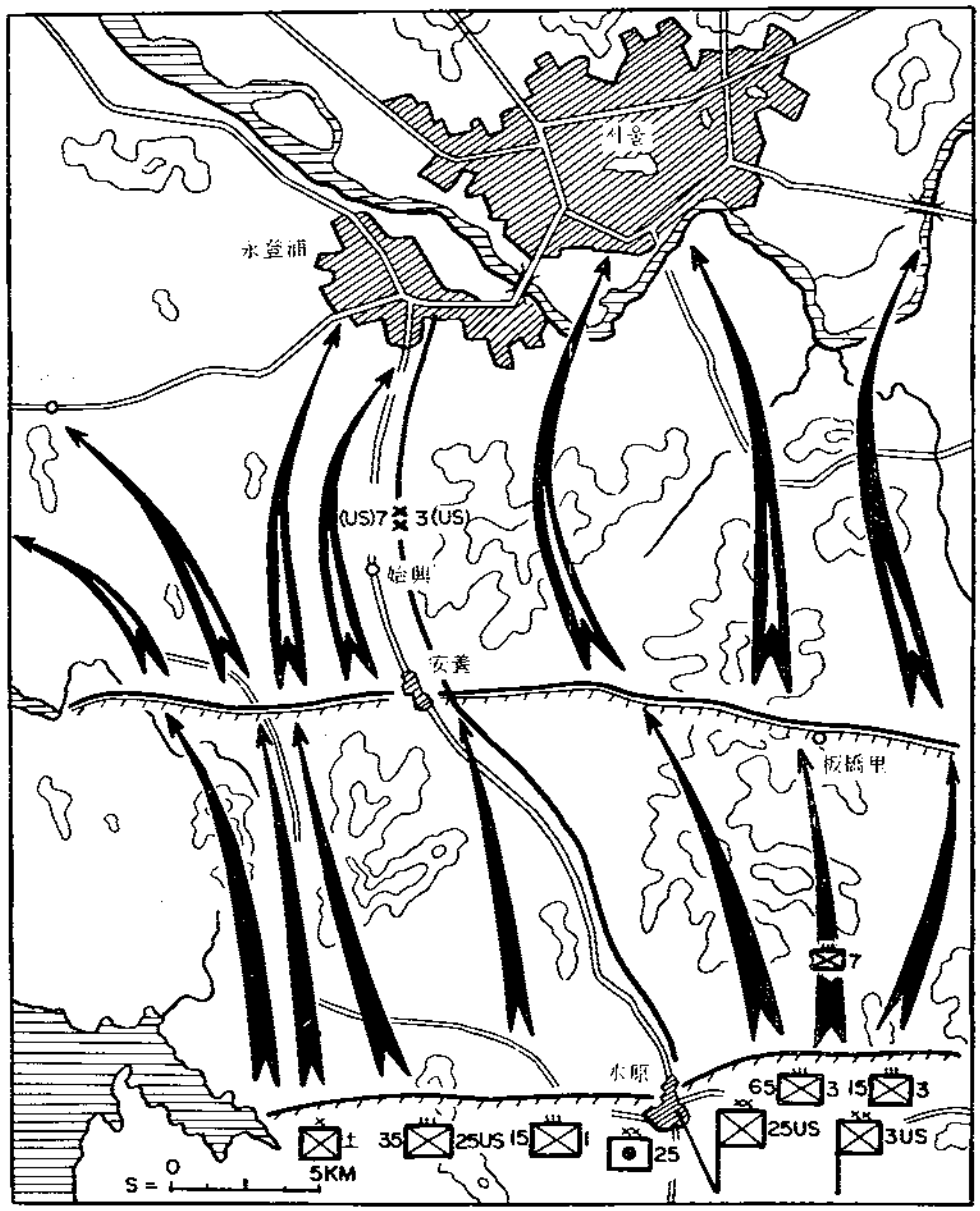
2월 1일 : 군단은 전날에 이어 공격을 계속하였으나 敵은 光敎山과 修理山에서 執拗하게 저항하므로 이 敵을 阻止하면서 치열한 激戰을 反復하였다.

되었다.

1. 제3사단(장, Soule 소장)은 麻城里를 中心으로 △350—鷹峯간에서 공격하였는데 △457와 光敎山을 占據한 1개연대 규모의 敵이 執拗하게 저항하였으므로 사단장은 모든 가용砲火를 집중하여 激突을 거듭하면서 축차적으로 突進한 결과 △457를 점령하는데 成功하였으나 그 左側 光敎山을 固守하는 敵은 小火器와 手榴彈을 亂射亂投하면서 發惡하여 치열한 激戰은 더욱 白熱化되었다.

이때에 제15연대(장, Moore 대령)는 麻城里의 △350—南洞에서 공격을 反復하였는데 前面인 △457에 있는 1개대대 규모의 敵이 완강히 저항하므로 연대장은 포병의 火力을 集中하면서 이 山에서 東南과 西南쪽으로 뻗은 稜線을 따라 主力을 突進시켜 2시간에 걸

◇ 상황도 제41호 烏山—漢江線 進擊作戰 (51. 1. 31~2. 15)



천 一進一退의 攻防戰을 거듭한 끝에 맞침내 △457를 점령하였으며 이에따라 일부병력은 그 左側인 法和山을 점령한 다음 水原에서 把發路(板橋里 東北쪽 12km)으로 通하는(319番) 道路까지 進出하였다。

한편 제65연대(장, Harris 대령)는 鷹峯—城竹谷 일대에서 저항하는 2개중대 규모의

敵을 擊退하고 △262와 △449를 점령한 다음 계속 光敎山을 目標로 공격하였는데 이 山을 強占한 2개대대 규모의 敵은 死力을 다하여 저항하므로 연대장은 모든 火力을 집중시켜 突擊을 反復하였으나 敵은 動搖의 氣色도 없이 끈질기게 亂射를 계속하므로 연대는 現戰線을 확보하면서 다음날의 공격을 준비하였다.

이와같이 前線의 兩側연대가 進擊하여 兩側方에 있는 사단의 목표로 主力이 進出하게 되자 사단장은 中央正面이 虛弱하여지는 對應策으로 제7연대(장, Bosewell 대령)의 일부로써 豊德內(新葛 北쪽 5km)를 점령토록 명령하였으며 이 명령을 받은 연대장은 즉각 제2대대로 하여금 그곳을 점령케 하였고 연대 主力은 南洞일대에 집결하여 다음 작전을 준비하였다.

2. 제25사단(장, kean 소장)은 修理山을 確保하기 위하여 제35연대와 Turkey旅團의 合同作戰으로 공격을 敢行하였으나 이 山을 占據한 증강된 1개연대 규모의 敵은 執拗하게 抵抗하므로 數次에 걸친 血戰을 反復하다가 겨우 6部稜線을 확보하고 激戰을 거듭하였다.

主攻인 제35연대(장, Fishir 대령)는 三城의 無名高地와 △227에서 공격을 시작하여 △258를 점령하였는데 4km가 넘는 橫隔窒로 된 修理山의 陣地를 점령한 敵은 깊은 壕속에서 연대를 瞰制하면서 各種火器의 集中과 步砲射彈의 亂舞로 彼我間에 白兵戰까지 展開되었다. 이때에 연대장은 우선 이 敵을 擊滅코자 戰車砲와 野砲로서 동시에 集中的으로 制壓하면서 급편방어진지를 구축케 한 다음 一步一步로 敵陣을 突破하며 敵이 구축한 壕를 하나 하나 破壞토록 하였다.

한편 韓 제15연대(장, 金安一 대령)는 左右隣接부대와 步調를 맞추기 위하여 잠시 前進을 멈추고 전날에 점령한 陣地를 보강하였는데 제1대대(장, 劉載成 중령)는 △213에서 제2대대(장, 崔炳淳 중령)는 △237에서 각각 陣地를 굳게 구축하였으며 예비대인 제3대대(장, 金國柱 소령)는 上光敎부근에서 다음 作戰을 待機하였다. 그리고 後方地區의 西側方을 防護하던 제24연대(장, Corly 대령)는 계속하여 华月場에서 南陽으로 通하는 機動路와 水原 비행장을 경비하였으며 예비대인 제27연대(장, Michaelis 대령)는 水原 北쪽 外廓에서 水原을 경비중에 있었다.

3. 修理山의 左側面을 공격하던 Turkey旅團(장, Yazici 준장)는 △205와 △75간에 展開하여 공격을 시작한 다음 修理山의 左南端인 無名高地를 점령하였는데 그 山(△431)의 南斜面을 占據中인 敵의 執拗한 저항으로 激戰만을 계속하였다.

4. 군단예비대인 韓 제1사단(一)는 군단계획에 따라 烏山—天安간의 主補給路와 鐵道를 경비하게 되었는데 예하의 제11연대(장, 文字燮 대령)가 이 임무를 遂行코자 安城陣地에서 제1대대(장, 卿重秀 중령)는 天安으로, 제3대대(장, 鄭永洪 중령)는 太平里로 각각 이동하기 시작하였으며 제2대대(장, 姜斗龍 소령)는 水原 비행장 경비임무를 引受코자 水原으로 進出하였다。

이에따라 水原—天安간의 主補給路를 警備하던 英제29여단(장, T. Brodie, D. S. O준장)는 水原—烏山간의 補給路만 경계하였고, 제64重戰車대대는 烏山부근에서 水原南端으로 進出하여 다음 작전을 待機하였다。

2월 2일 : 군단은 이날 서울을 奪還하기 위한 前進 據點이 되는 光敎山과 修理山을 점령하고 계속적인 進擊을 준비하였다。

1. 제3사단(장, Soule 소장)은 侵攻하는 敵을 擊退한 다음 要衝地인 光敎山을 점령하는 한편 一部兵力으로 다음날의 공격을 준비하였다。이날 02.00에 敵이 光敎山을 確保하고 固守코자 한듯이 1개중대 규모로 南侵하자 제65연대(장, Harris 대령)는 △262—△



<修理山 戰鬪에서 中奮戰인 砲兵들>

449간을 점령한 직후에서 즉각 擊退하는 동시에 黎明을 期하여 光敎山을 공격하였는데 1개대대 규모의 敵은 固守를 위하여 끝까지 血戰하였으나 연대가 集中하는 砲火力과 一步一步로 進擊을 계속하는 白兵力 앞에 마침내 敵은 견디지 못하고 北쪽으로 潰走하였으며 연대는 光敎山을 점령하는 즉시로 일부 병력으로 하여금 3km 東쪽에 있는 △291를 急히 占領토록 하였다。

제15연대(장, Moore 대령)는 전날에 점령한 △457를 中心으로 陣地를 확보하고 이 山前面에 가로놓인 319番道路까지 進出하여 다음날의 공격을 준비하였고 제7연대(장, Boswell 대령)는 豊德內에서 1km前方에 있는 아래손골까지 進擊하였는데 이 一帶는 敵으로부터 壓制되고 積雪이 甚한데다가 低地帶여서 敵의 觀測砲擊을 계속 받았으나 연대는 즉각 對砲兵戰으로써 制壓하고 장병들은 눈속을 헤치면서 前進을 뚫코 突進을 계속하였다。

2. 제25사단(장, Kean 소장)은 彼我간에 爭奪要地인 修理山을 점령하였는데 이날 敵은 증강된 1개연대 규모로 이 山을 固守코자 안간힘을 다 하였는 바 壓制下의 不利한 地形에서 공격하는 사단은 때마침 南風을 利用하여 煙幕彈으로 敵의 觀測을 遮障하는 가운데 砲火力을 山頂을 目標로 集中發揚하는 한편, 제89전차대대로써 山本里로 機動시킨 다음 500—1000m의 거리에서 直接照準으로 敵의 銃眼을 破壞하는 동시에 後側方을 强打하면서 3시간에 걸친 공방전을 거듭한 결과 결국 敵을 潰退하고 제35연대(장, Fishir 대령)는 修理山(△474)의 東側을, Turkey旅團(장, Yazici 준장)은 △431를 포함한 西側으로 각각 突進하여 그 山을 모두 점령하는데 成功하였다。 이리하여 측후방의 要衝地를 구축하고 敵의 逆襲에 對備하였는데 23.00에 이르러 敵은 이 高地를 目標로 再逆襲을 피하였으나 美, Turkey의 兩部隊는 火力과 白兵力으로 끝내 擊退하고 말았다。

한편 韓 제15연대(장, 金安一 대령)의 제1대대(장, 劉載成 중령)는 白雲山과 光敎山의 敵을 壓制함으로서 右翼接인 제65연대의 進出을 掩護하는 한편 다음날의 공격을 위하여 前面에 있는 △200일대를 수색하였으며 제2대대(장, 崔炳彦 중령)는 戰車의 直接警戒隊인 제6중대가 △237를 점령하고 있는 제7중대와 교대한 다음 공격준비를 갖춘 가운데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었고 예비대인 제3대대(장, 金國柱 소령)는 上光敎부근에서 계속 다음 작전을 待機하였다。

제24연대(장, Corley 대령)는 兩날里—半月場간에서 後方地區의 西側方을 방호하면서 水原비행장 경비임무를 군단예비대인 韓 제1사단(一)에 引繼하였다。 그리고 사단예비대인 제27연대(장, Michaelis 대령)는 前線부대가 前進함에 따라 水原—半月場간을 점령하

고 사단의 後方을 경계하였다。

3. 군단의 예비대인 韓 제1사단(一)은 天安—烏山간의 道路를 경비하는 동시에 군단 계획에 따라 水原비행장의 경비임무를 제24연대로 부터 引受하였는데 이부대는 제11연대의 제2대대(장, 裵斗龍 소령)이었다。그리고 英 제29여단은 烏山—水原간의 道路를 계속 경비하였고 제64重戰車대대는 水原부근에서 待機中에 있었다。

2월 3일 : 군단은 이날 安養을 攻略하기 위하여 戰力을 集中하였으나 敵은 그곳을 固守코자 마지막 死力을 다한 탓으로 그 目的을 達成하지 못하고 다만 敵에게 많은 打擊을 주어 戰鬪力을 弱化시키는 한편 多少의 進擊끝에 다음날의 進攻을 준비하였다。

1. 제25사단(장, kean 소장)은 제64重戰車대대의 直接支援을 받아 安養을 점령코자 하였으나 이날 01.30에 同地域부근에서 부대를 再편성하던 中共 제148사단(장, 趙鶴亭)의 휘하부대로 看做되는 1개연대 규모의 兵力은 오히려 修理山을 노리고 공격을 먼저 시작하였는 바 이 山의 北斜面을 점령한 사단장병은 照明彈을 月光과 같이 계속적으로 비추면서 勇戰奮鬪한 끝에 이들을 擊退한 다음 계속 追擊하였다。

이 때에 제35연대(장, Fishir 대령)는 修理山의 △474에서 侵攻한 1개대대 규모의 敵을 擊退하는 즉시로 제64重戰車대대의 支援을 얻어 더욱 士氣揚揚한 가운데 敗敵을 追擊하여 그들에게 抵抗할 시간의 여유를 주지 않고 一氣에 △427로 突進한 다음 이 山의 北斜面을 점령하였는데 頂上에는 狼藉한 敵屍와 裝具가 累累하였다。또한 西海岸을 경비하던 北共 제17사단의 일부兵力이 執拗하게 抵抗함으로써 사단의 左側面을 威脅하기 때문에 사단장은 제24연대장 Corley 대령에게 命令하여 즉시 瓦里에 있는 馬霞山을 점령케하고 西側方을 방호토록 措置하였으므로 연대는 즉각 半月場에서 下楊台로 進擊한 다음 馬霞山을 공격하여 2개중대 규모의 敵을 擊退하자 곧 그 高地를 점령하고 西側方을 경계하였다。그리고 예비대인 제27연대(장, Michaelis 대령)는 水原—半月場간에서 사단의 後方을 경비하였다。

한편 韓 제15연대(장, 金安一 대령)는 이날부터 進擊을 다시 시작하였거니와 연대장은 이미 전날 18.00附로 다음과 같은 要旨의 作戰指示 제2호를 隷下 各隊에 下達한바 있다。

「① 연대는 2월 3일 06.30을 期하여 現在의 配置線으로부터 作戰命令 제4호에 依한 攻擊을 再開하여 F線까지 進出하려 한다。

② 제1대대는 內葉里 北方의 △237를 공격하라。

③ 제2대대는 帽洛山(△383) 일대를 공격하라。

④ 제3대대는 제1대대 後方 1km를 續行하면서 연대 右側方 警戒 및 殘敵剔抉의 任務를 遂行하라。

⑤ 豫定된 進出을 完了하면 제1대대는 帽洛山 東北麓—△237 北麓—鶴儀里 일대에 제2대대는 軍浦場 北쪽의 덕현里--△133—帽洛山 일대에 각각 兵力을 배치하고 제9중대는 原隊로 復歸하라。』

이에 따라 제1대대(장, 劉載成 중령)는 우선 前方에 있는 △200를 점령코자 09.50에 砲兵 및 戰車의 掩護射擊을 받으며 제2중대가 右側 제3중대가 左側으로 前進을 시작하였다。그런데 △200일대에서는 1개대대 규모의 敵이 執拗하게 抵抗하여 제2중대는 1개분대의 突擊으로 그 東端의 無名高地를 점령한 다음 15.00에는 다시 抵抗하는 1개중대 규모의 敵을 擊退하여야만 되었고 제3중대는 △200 西南쪽 50m地點에서 敵의 手榴彈投擲 및 集中射擊으로 공격이 鈍挫하게 되니 大隊捜索隊가 2개소대 규모의 敵을 擊破하고 △383南쪽 150m 地點까지 진출함으로서 제3중대를 掩護하였다。그러나 低地에서 高地로 攻擊하는 地形의 不利와 敵의 獰惡的인 抵抗으로 대대는 일단 △200 山麓으로 물러서게 되었다。이에 대대는 다시 戰意를 가다듬고 제3중대의 1개소대가 砲兵의 掩護砲擊을 받으며 突擊을 敢行하였는데 그 사이에 날이 저물어 어둠속에서 手榴彈이 亂舞하고 爆音이 震動하는 가운데 白刃이 交叉하는 接戰이 벌어지게 되었다。

左—線 攻擊梯隊인 제2대대(장, 崔炳淳 중령)는 이날 07.30에 공격을 시작하여 제7중대 및 美戰車隊의 步戰協同部隊로부터 支援을 받으며 16.00에 이르러 帽洛山을 점령하였다。즉 08.00에 重火器中隊가 軍浦場 東南쪽에서 敵陣에 공격준비 사격을 加한 다음 제5중대는 帽洛山의 西峰인 △133를 確保하고 △383쪽으로 進出하여 敵退路의 遮斷을 企圖하니 鶴山里 南쪽으로부터 2개소대 규모의 敵이 이를 妨害코자 抵抗하였다。이에 중대는 15.00에 步戰協同部隊의 掩護下에 논을 가로질러 이 敵을 擊滅하고 제7중대도 鶴山里 西쪽의 無名高地를 점령함으로서 △383의 背後를 威脅하였다。한편 △237로부터 帽洛山 正面을 공격한 제6중대는 이미 11.00에 △383 南麓에 진출한 다음 各 1개소대가 左右를 迂回攻擊하면서 主力은 正面을 공격하였는데 敵은 △383로부터 그 東北峰에 連하는 稜線일대에 構築된 防禦陣地에서 계속 抵抗하였다。그러나 중대가 제5, 제7중대의 東側 迂回와 아울러 正面으로 突擊하여 白兵戰을 벌이니 끝까지 버티던 敵은 모조리 潰滅만을 당하게 되고 중대는 16.00전에 △383를 掌握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비대인 제3대대(장, 金國柱 소령)는 이날 上光敎 西北쪽으로 進出하였는데 제2

대대에 配屬된 제9중대는 △237일대를 확보하고 있었다。

2. Turkey旅團(장, Yazici 준장)은 이날 修理山의 △431에서 侵攻하는 2개대대 규모의 敵과 激戰을 展開하여 그 左側方이 한때 위태로웠으나 旅團長은 예비대와 戰車를 즉시 出動시켜 側擊함으로써 敵을 무찌르고 北쪽으로 뻗는 稜線으로 突進하여 △389頂上을 점령하는 한편 一部兵力으로써 虛後洞 北쪽에 있는 無名高地를 점령하였다。

3. 제3사단(장, Soule 소장)은 이날 수색정찰대의 一部를 急進시켜 要地을 확보케 하는 한편 사단主力으로써 다음날의 공격을 준비하였는데 제15연대(장, Moore 대령)는 △457에서 文衡山을 공격하기 위하여 右前方에 있는 陵坪里일대를 探索케 하였으며 左前面에 있는 △318에는 警戒部隊로 推測되는 敵 1개소대 규모가 占據하고 있으므로 즉각 1개중대로써 공격끝에 점령하였다。또한 제65연대(장, Harris 대령)는 光敎山을 점령하고 있는 부대로 百雲山을 探索케 하였는바 이 山을 占領하고 있던 1개중대 규모의 敵이 저항하므로 연대는 즉각 이를 공격하여 30분간에 걸친 交戰끝에 점령하였으며 제7연대(장, Boswell 대령)는 下手谷(아래손골) 陣地를 強化하면서 戰備를 가다듬었다。

4. 군단예비대인 제64重戰車대대는 이날 군단계획에 따라 제25사단을 直接支援하였는데 水原南端에서 安養으로 通하는 機動路를 따라 漸장터까지 進擊한 다음 △427를 占據中인 敵을 發見하고 즉시 戰車砲의 集中사격을 퍼부어 제35연대의 공격을 支援한 탓으로 연대가 쉽게 그 高地를 점령하자 戰車대대는 다시 水原北端으로 移動하고 부대를 整備하였다。한편 韓 제1사단(一)과 英 제29여단은 敵情을 收集하면서 戰力을 강화하여 장차 다가오는 決戰에 對備하였으니 그 氣勢가 마치 暴風前夜와도 같았다。

2월 4일 : 군단은 이날 板橋里—安養을 連한 統制線으로 進出하여 굳게 확보함으로써 漢江線까지 一擧突進할 風雲을 안고 虎視眈眈하였다。

1. 제3사단(장, Soule 소장)은 統制線上에 있는 目標인 文衡山(△497)과 板橋里를 점령하였는데 여기를 固守하던 敵은 主力으로서 이미 金丹山(△542)과 清溪山쪽으로 撤退한 듯 하였으며 一部만으로써 抵抗한 까닭으로 激突없이 敵을 一蹴하였다。

제15연대(장, Moore 대령)는 이날 早朝에 포병의 火力支援을 받아 319番道路에서 文衡山을 공격하였으나 意外에도 敵의 抵抗없이 그곳을 容易하게 점령한 다음 前方 △252에 先遣陣地를 점령하였다。또 제65연대(장, Harris 대령)는 △291와 百雲山간에서 攻擊戰을 展開한 끝에 輕微한 敵을 驅逐하고 △311—發羅山(△426)간을 점령하고 先頭부대는 계속 進擊하여 板橋里에서 安養으로 通하는 道路線을 점령하였다。그리고 제7연대(장,

Bosweell 대령)는 下手谷(아래손골)에서 공격을 시작하여 △312를 점령한 다음 分堂里의 장터까지 進擊하였으니 이날 사단은 全戰線에 걸쳐 乘勝의 氣勢로써 寒風속을 一路北進한 것이다。

2. 제25사단(장, Kean 소장)은 전날부터 執拗하게 저항하는 敵을 擊破하고 目標인 安養지역을 점령하는 동시에 수색하는 한편 西側方에 대한 수색정찰을 實施하였다。

제35연대(장, Fishir 대령)는 이날 早朝에 △427에서 侵攻하는 1개대대 규모의 敵을 擊退한 다음 사단공병중대와 合同으로 安養일대를 수색하여 對戰車地雷 120個를 모조리 除去하고 戰車의 進擊路를 打開하였다。그런데 이 地雷는 磁石地雷探知機가 作用하지 못하도록 木板으로 外部를 包裝한 것이 많았으므로 除去하는데 많은 苦衷이 있기도 하였다。제24연대(장, Corley 대령)는 馬鞍山 일대를 主攻地로 하여 三巨里지역에 대한 수색정찰을 실시하였는데 이 지역을 경비하던 北共 제17사단은 孤立될 것을 憂慮한 탓인지 싸우기 前에 모두 潰退함으로써 西側方에 對한 敵의 威脅을 一掃하게 되었고, 예비대인 제27연대(장, Michaelis 대령)는 水原—牛月場간에서 계속 後方을 경계하였다。

한편 사단의 右一線 攻擊梯隊인 韓 제15연대(장, 金安一 대령)의 제1대대는 전날밤부터 계속된 △200 공격에서 밤새 一進一退를 되풀이 하다가 4일 04.00에 이르러 豫備로 있던 제1중대가 攻擊에 參加하고 大隊 搜索隊가 無名高地에서 掩護하며 제2중대의 1개소대와 제3중대의 主力이 右側으로 迂回하는 가운데 正面突擊을 敢行하여 3時間에 걸친 激戰을 치른끝에 發惡的으로 抵抗하는 敵을 물리치고 07.15에는 △200를 점령하고야 말았다。그러나 대대도 적지 않은 戰力의 消耗를 보게되니 연대장은 예비대인 제3대대와의 交代를 命令하였다。따라서 4일 13.00에는 제3대대가 △200에 진출하여 연대 右側一線이 되었고 제1대대는 예비대로서 百雲山 西麓에 배치되었다。

연대는 다시 제3대대의 急速한 進出로 제2대대와의 連結을 이룬 다음에 貯水池洞 西北쪽 △162—민백里—虎溪里 北쪽 內洞일대로 진출할 것을 계획하였다。그리고 연대 前面의 冠岳山에 이르는 일대는 主로 논과 河川으로 이루어진 低地帶인데 敵이 退却하면서 곳곳의 橋梁과 道路를 破壞하였으므로 연대에 配屬된 工兵 제3중대는 이를 復舊하는데 全力을 기울이고 있었다。

3. Turkey旅團(장, Yazici 준장)은 제25사단의 左一線 攻擊梯隊로서 이날 修理山의 △389에서 北쪽으로 뻗은 高地로 進擊하다가 前面에 있는 △236에서 저항하는 敵과 그밖에 博達里(安養 西쪽 3km)쪽으로 迂回공격하는 敵의 兵力 都合 2개대대 규모와 치열한

攻防戰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때에 旅團長은 可用한 모든 砲火力을 同時에 집중하면서 步戰合同으로 白雪이 皚皚한 山野의 敵陣을 突破한 다음 △236를 점령하였는데 이로써 修理山을 中心으로 連綴한 모든 高地들을 旅團手中에 掌握하게 되었다。

3. 군단예비대인 韓 제1사단(一), 英 제29여단 그리고 제64重戰대대는 계속 戰力의 강화에 注力하였다。

4. 이날 군단에서는 兩사단이 統制線까지 進攻하기 앞으로의 突破作戰에 對備한 強力한 特殊任務부대를 編成하였는데 이 부대는 前線을 담당한 제3, 제25사단에서 1개대대씩 차출한 보병 2개대대와 戰車 2개대대 그리고 포병 1개대대와 공병 1개중대로 구성하였다。 그런데 이 부대를 편성하는데 고려된 사항은 첫째로 前線에서 漢江線까지 가장 가까운 곳은 果川—梨水橋사이의 直線거리가 12km라는 點과 둘째로 安養에서 永登浦와 仁川지역으로 進攻하는 데는 良好한 機動路와 野山 및 개활지로 되어 있어서 高度의 機動力과 火力이 要求된다는 點등이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敵의 動向：西部지역에 先鋒으로 侵攻하여 水原—利川을 連한 要域을 확보한 敵은 中共 제38, 제50과 北共의 제17사단으로 構成되었는데 이들은 계속 南侵을 의하였으나 군단의 反擊威力앞에 壓縮된 나머지 淸溪山과 冠岳山의 北쪽으로 潰退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그들은 흩어진 부대를 다시 整備한 다음 金丹山(現廣州團地부근)—淸溪山—冠岳山—始興을 連한 線上에서 군단의 進攻을 阻止하는 것으로 判斷되었는데 그 主力은 거의 戰鬪力을 喪失하여 再補充과 補給없이는 再起할 能力이 微分間 없는 것으로 推測되었으므로 그 方策은 자연전과 逐次的인 後退의 兩者以外에는 別妙策이 없을 것으로 判斷되었다。

그뒤 이들은 군단의 進攻作戰으로 말미암아 많은 損失을 받고 또다시 潰退하여 2월中旬부터 漢江을 건너 中共 제38군은 淸平지역으로, 제50군과 北共의 제17사단은 서울지역으로 각각 退却하였다。

我軍의 動向：板橋里—安養을 連하여 戰線을 확보한 군단은 敵이 戰力을 재편성할 시간을 얻지 못하도록 계속하여 공격을 전개한 다음 編成한 特殊任務部隊를 先頭로 하여 2월 10일에는 金丹山—始興을 連한 戰線을 擊破하고 中旬에는 漢江南岸을 連한 線까지 進擊하였다。

이때에 제3사단의 主力은 金丹山으로 進攻하여 千戶洞지역을 점령하였는데 제7연대가 千戶洞의 東쪽을 제15연대가 西쪽을 각각 점령하였으며 제65연대는 淸溪山을 점령한 다음 연대의 主力은 이곳에서 사단의 後方을 경비하고 일부병력은 蠶室里로 進擊하였다。 그리고 사단포병단과 사단사령부는 金丹山부근에 있었다。

한편 제25사단은 韓 제15연대가 果川(冠岳山)—銅雀洞으로 제35연대는 始興—永登浦로 Turkey旅團

은 葉沙지역으로, 그리고 제24연대는 仁川지역으로 각각 進攻하여 그곳을 점령하였으며 예비대인 제27연대와 사단사령부는 安養부근에 있었고 사단포병은 始興부근에서 사단前面을 지원하였다。

이에 앞서 韓 제15연대(장, 金安一 대령)의 進攻한 狀況을 간추려 본다면 예비대로 進出한 제3대대(장, 金國佳 소령)로 하여금 右一線 攻擊部隊였던 제1대대를 超越攻擊하여 冠岳山의 東側을 占據中인 敵을 擊破하고 果川—銅雀洞으로 進攻한 다음 이곳에서 漢江防衛을 점령하였으며 左一線 攻擊部隊인 제2대대(장, 崔炳淳 중령)는 冠岳山의 敵陣을 正面으로 공격하여 치열한 激戰끝에 그것을 점령한 다음 계속 上道洞으로 進擊하여 鷺梁津—永登浦區境간을 점령하였고 제1대대(장, 劉載成 중령)는 연대의 예비대가 되어 제3대대의 後續부대로 果川—金雀洞으로 進出한 다음 그곳에서 연대의 後方을 경계하였다。

한편 기갑크명 제999대대는 水原부근에서 군단 일반지원을 하다가 逐次的으로 進出하여 始興부근에서 군단前面을 支援하였으며 군단 예비대인 韓 제1사단(一)은 金浦地域으로 進擊하여 그곳을 점령하였고 美 제29여단은 把發嶺(金丹山 東쪽 7km)으로 進擊하여 군단의 東側方을 防護하였다。또 군단사령부는 水原에 있었다。

이 무렵 金戰線의 戰況을 살펴보면 韓 제1군단이 江陵 北쪽을、韓 제3군단이 平倉地域을, 美 제10군단이 原州일대를, 美 제9군단이 楊平부근을 각각 점령하고 當面의 敵과 激戰을 展開하고 있었으므로 군단은 中部戰線의 戰況이 好轉될 때까지 當分間 進擊한 線을 확보하고 다음단계 작전을 준비하게 되었다。

§研　　究

군단은 이 전투에서 많은 戰果를 거뒀으나 戰果에 對한 記錄은 아직 發見하지 못하여 記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追記할 문제이다。

5. 長湖院—砥平里—38°線 進擊戰 (1951년 2월 13일부터 1951년 2월 16일까지)

참조 : 삽화도 제42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美제9군단 장 소장 Bright E. Moore
美제1기갑사단장 소장 Charles D. Palmer
제5기갑연대장 대령 Marcel B. Cromgez
제 1 대대
제 2 대대
제 3 대대
美제10군단 장 소장 Edward M. Almond
美제2사단 장 소장 Clark L. Ruffner
제23연대 장 대령 Paul L. Freeman
제 1 대대 장 중령 Clare E. Hutchin
제 2 대대 장 중령 James W. Edward
제 3 대대
배속부대
佛軍대대 장 중령 Ralph Monclar
(美第23연대배속)

敵 軍

中共제13병단 장 李 天 佑
제39군 장 吳 信 泉
제115사단 장 張 竭 誠
제116사단 장 汪 洋
제117사단 장 倪 天 允

나. 전투 진의 개황

美 제9군단(장, Bright E. Moore소장)이 담당한 이 長湖院—38°線 進擊作戰은 敵의 2월攻勢를 擊碎하는 再反擊作戰으로서, 이 期間中의 勝敗의 關鍵은 砥平里에서의 攻防戰으로 集約될 수 있다。

우선 먼저 砥平里 戰鬪가 있게된 緣由부터 살펴 본다면 1월 9일을 前後하여 三陟—烏山線에서 敵의 1월攻勢를 終熄시킨 西部前線의 美 제I, 제9군단이 제8군명령에 의하여 長湖院—安城線으로부터 威力搜索次 일제히 北進을 開行하여 南漢山—楊平線으로 進擊하고 있을 무렵인 2월 3일에 군단 右隣接인 美 제10군단의 제2사단 제23연대(장, Paul L. Freeman대령)가 역시 敵情을 蒐集하기 위하여 砥平里(楊平 東쪽 12km)로 進出하여 陣地를 占領하고 있던 중 敵의 2월攻勢(2월 11일—2월 18일)로 말미암아 2월 13일에 中共軍 3개 사단에, 攻圍당하여 失陷의 危機에 直面하게 된것에 비롯한다。이에 美 제9군단의 제1기갑사단 제5기갑연대(장, Marcel B. Cromgez대령)가 中共軍의 重圍를 突破하여 砥平里의 제23연대를 支援함으로서 敵을 擊退하고 砥平里를 固守한 것이니 이것이 그 經過의 大要이다。

따라서 이 砥平里의 攻防戰은 단순히 戰鬪地域이나 主戰部隊로만 보아서는 美 제10군단 戰區의 狀況으로 取扱되어야 할 것이지만 戰鬪의 性向을 分析하여 본다면 그 原因과 結果에 있어서 美 제9군단이 38°線으로 進擊하는 過程과 不可分의 函數關係를 지니고 있기때문에 本節에서 이를 다루게 된것이다。

그 첫째, 原因으로서는 戰鬪의 發端에 있어서 군단이 직접적으로 關聯되었다는 점이다。즉, 당초에 제23연대가 砥平里를 占領한 것은 美 제10군단의 威力搜索의 一環이었으나, 中共軍의 2월 攻勢가 시작되면서 砥平里가 제9군단의 右翼 突出部로 重要視됨에 따라 제8군사령관 Ridgway중장이 「砥平里는 제9군단 右翼 防護의 絶對的인 要衝이다」라고 確保의 중요성을 強調하였고, 敵도 또한 그 점을 노리고 군단 右側 腰部를 攻擊하기 위하여 군단 正面에 配備된 兵力을 砥平里로 이동시켜 砥平里 攻略에 임하였던 만큼, 군단 右翼의 戰況과 有機的인 關聯을 가지고 새로이 浮刻된 砥平里의 地域的인 價値가 이 攻防戰을 誘發케 한 直接的인 原因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둘째, 結果로서는 이 戰鬪가 군단의 38°線進擊에 있어서 그 基幹을 마련토록 하였다는 점이다。

敵의 2월攻勢 以前의 美 제9, 제10군단 사이의 接境線은 南쪽에서부터 驪州—上橋里(砥平里 南쪽 9km : 驪州와 中間地點)—△583(砥平里 西쪽 5km : 楊平과 中間地點)를 連하는 線으로 設定되어 군단 右翼, 前線隅角의 三角地域을 제10군단이 담당하였던 바, 이로 因하여 驪州—砥平里—楊平間의 三角頂點에 위치한 砥平里를 제23연대가 占領하게 된 것이다。이는 당시 제9군단이 西部戰線에서 漢江線을 重要視함에 따라 취하여진 措處였으며, 敵의 2월攻勢가 中部戰線에 集中되어 제10군단이 原州地域에 注力케 됨으로서 제9군단은 西部戰線과 中部戰線의 間隙을 담당하게 되고 따라서 군단右側 接境線이 原州—橫城—洪川線으로 擴大되어 장차 군단이 이 砥平里를 基點으로 하여 楊平—加平—春川의 軸線을 따라 38°線으로 進出하게 된 것인 바, 砥平里 戰鬪를 契機로 하여 군단이 새로운 進路를 開拓하였던 것이다。

敵軍의 狀況 : 敵이 2월攻勢에 投入한 兵力은 中共 제38, 제39, 제40, 제42, 제66군의 5개 軍과, 北共 제2, 제5군단이었는데, 그 形勢는 1월攻勢에 못지 않았다。

敵은 中共 제40, 제66군과 北共 제2, 제5군단으로 하여금 中部戰線을 主攻토록 하여 前線을 突破케 하고, 西部戰線의 美 제1, 제9군단 前面에는 中共 제38, 제39, 제42군으로서 兩군단의 漢江線 進出을 反擊하여 背後를 遮斷토록 하였던 것으로서 이에 따라 中部戰線의 敵이 洪川—橫城—原州—堤川線으로 猛突함과 同時에, 西部戰線의 中共 제42군을 楊平 北쪽에 예비대로 措置하고 漢江橋頭堡를 確保하고 있던 제38군으로 水原을 侵襲 하였으며, 제39군은 砥平里로 이동하는 즉시로 여기를 攻略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中部戰線의 敵은, 我軍이 三陟—烏山線을 確保한 以後로 前線이 小康狀態를 維持하는 가운데 戰列을 再整備하였으나, 西部戰線의 敵은 美 제1, 제9군단이 1월 25일부터 서울 奪還의 基礎態勢確立에 主眼을 둔 제8군사령관 Ridgway중장의 命令에 따라 威力搜索을 實施하면서 北進을 시작함으로서, 이들 中共軍 제38, 제39, 제42군은 南漢山—楊平線에서 兩 군단의 北進을 阻止하기에 급급하게 되었던 바 戰列을 정비할 時間的인 여유가 없었을 뿐만아니라, 食糧缺乏이라는 致命的인 부담을 안고 있었다。

敵의 食糧缺乏現狀은 1월攻勢의 即後부터 계속된 것으로서, 이는 我軍이 서울을 撤收할 때에 敵의 進出路上에 있는 모든 補給施設과 補給品을 一掃하여 現地調達手段을 封鎖한 것이 가장 큰 原因이었다。이 때문에 부득이 420km나 떨어진 滿洲로부터 莫大한 量의 食糧을 들여오지 않을 수 없었던 敵은 부족한 輸送機關을 총 동원하다 시피하여 食糧의 前線 推進에 力點을 두었으나, 美 제5공군의 活躍으로 그 중 80%가 장거리 輸送 途中에 損壞당하는 實情이었으며 더우기 漢江의 渡河가 困難하여, 漢江 以南에 配備되어 있는 中共軍에 대한 食糧의 推進問題가 당시 敵으로서 가장 難題였던 것이다。

이러한 때 마침 1월 25일부터 美 제1, 제9군단이 漢江線을 압축하면서 敵이 設置한 補給施設과 物資를 破壞하는데 注力한 것이 더욱 奏效하여 漢江以南의 中共 제38, 제39군은 飢餓線上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中共 제39군은, 2월攻勢가 시작되는 2월 11일에 군단 正面인 南漢山으로부터 砥平里로 이동하여 2월 12일 밤에 砥平里 南쪽 6km인 曲水里와 東南쪽 5km인 九屯里에서, 砥平里에 이르는 機動路를 각각 차단하여 我軍의 增援에 대비하는 強力한 阻止線을 設置한 다음 2월 13일 아침부터 砥平里를 數重으로 包圍하였는데, 中共軍이 이토록 大部隊를 投入하여 完全無缺한 包圍網을 構成한 것은 일거에 제23연대를 擊破하고 그 餘勢를 몰아 驪州로 直下하여 空白狀態에 가까운 군단의 右側背를 攻略할 企圖였던 것으로 判斷된다。

我軍의 狀況：1월 9일을 前後하여 我軍이 三陟—烏山線에서 敵의 1월 攻勢의 銳氣를 꺾고 防禦線을 確保함에 따라 長湖院—安城間을 담당한 군단은 제1기갑사단과 제24보병사단, 그리고 韓 제6사단 및 英 제27여단으로서 군단 防禦陣地를 占領하고 戰列를 整備하면서 反擊의 機會를 노리던 중 1월 25일에 제8군사령관 Ridgway중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要旨의 작전명령이 下達되었다。

『美 제1, 제9군단은 1월 25일을 期하여 強力한 戰鬪搜索隊를 驪州—水原을 連하는 線으로 進出시켜 敵의 集結部隊를 覺悟分散시키고 兵力및 補給品에 最大限 打擊을 加하라。』

이에 따라 군단은 左隣接인 제1군단과 함께 戰列을 갖추어 제24사단(장, Blacksheas M. Bryan소장)을 군단 右翼으로 그리고 제1기갑사단(장, Charles D. Palmer소장)을 左翼으로 하여 地域을 搜索하면서 確保하는 적극적인 威力搜索을 시작하였는데 제8군은 이 作戰을 「Thunderbolt작전」이라고 命名하였다。

이 Thunderbolt작전은 漢江線의 敵을 擊滅하기 위한 豫備措置였음은 再論할 것도 없거니와 實質的으로 再反擊의 序幕이었던 것으로, 이로 因하여 我軍은 지난 해 11월에 中共軍이 敵의 攻勢에 가담한 이래 실로 2개월만의 첫 北進을 開始하게 된 것이다。

1월 31일에 Thunderbolt작전이 예정대로 進陟되어 西部戰線이 驪州—水原線을 通過하여 계속 北上함에 따라, 제8군사령관은 제1, 제9군단의 進擊을 더욱 容易하게 하기 위하여 제9군단의 右隣接인 제10군단으로 하여금 대규모의 威力搜索을 敢行토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제10군단 제2사단 제23연대가 砥平里로 進出하게 되고 同군단 主力은 橫城—洪川으로 向하게 되었는데, 2월 3일에 제23연대(장, Paul L. Freeman대령)는 敵의 가벼운 저항을 물리치고 砥平里를 占領 確保하였으나, 同 군단主力은 橫城에서 敵의 頑強한 저항에 부딪쳤다。

이때부터 敵의 2월攻勢의 前兆가 보이기 시작하여, 드디어 2월 11일 밤에 白雪이 덮힌 山野의 全

戰線에 걸쳐 敵이 大規模의 攻擊을 감행한 것인 바, 中部戰線의 敵이 原州로 侵攻하였고, 西部戰線의 中共 제38군이 水原을 逆襲하는 등 我軍의 全般的인 態勢가운데 2월 13일 砥平里가 包圍되어 孤立을 피로 물들인 空前絶後의 攻防戰이 展開된 것이다.

이때, 제9군단의 主力은 楊平—南漢江線에, 그리고 제10군단 主力은 原州地區에 集中되어 그 間隙에는 砥平里의 제23연대 뿐으로서 사실상 指揮權과 한의 空白狀態였다.

그리므로 이 砥平里 戰況의 直接掌握이 不可避하였던 제8군사령관 Ridgway중장은 제9군단으로 하여금 現 前線을 확보토록 하기 위하여 군단병력을 군단 右翼의 間隙으로 轉進케 하였다.

나.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2월 13일, 砥平里에 대아닌 妖雲이 감돌고 있음을 直感한 제10군단장 Almond소장은 헬리콥터 便으로 砥平里에 急行하여 Freeman 연대장으로부터 제23연대의 警戒狀況과 敵情을 보고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연대장 Freemam 대령은 그 이튿날 14일에 연대를 撤收할 것을 建議하였다.

이에 군단장 Almond소장은 군단으로서는 原州地區에 더욱 注力해야 할 必要性과 함께 연대의 緊迫한 周邊狀況과 對戰能力을 감안하여 연대장의 撤收案을 받아드리고, 이를 곧 제8군사령관 Ridgway중장에게 報告하였다.

砥平里戰況에 대하여 이러한 緊急報告를 接한 Ridgway장군은 砥平里戰況의 推移와 아울러 戰線 全般에 걸친 相關性을 綿密히 검토한 바, 『砥平里를 抛棄하면 인접 제9군단의 右翼이 폭로되어 同군단이 威脅에 直面하게 된다. 따라서 제9군단이 敵의 攻擊을 받게 되면 현재 수행중인 Thunderbolt작전의 成果를 기대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뿐만아니라 全戰線의 龜裂을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또한 反擊에 緊要한 據點을 잃게 되는 것이다.』라는 점을 指摘하고, 다음과 같은 結論을 내렸다.

『敵이 이번 攻勢를 成功시키기 위하여서는 砥平里 占領의 必要性은 絶對的인 것이다. 따라서 我軍은 如何한 일이 있더라도 砥平里를 確保하여야 한다.』

이렇게 斷案한 Ridgway중장은 즉시 砥平里 確保方策에 대한 作戰命令을 下達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제10군단은 文幕里에 位置한 군단 예하 제2사단의 제38연대로 하여금 砥平里의 제23연대를 增援케 하라.

② 제9군단은 군단 右翼의 韓國軍 제6사단과 英 제27여단을 砥平里와 文幕里 사이로 이

동시켜 제10군단 前面의 間隙을 閉鎖케 하라。』

이에 따라 제10군단은 이날 제38연대를 文幕里(原州 西南쪽 12km)로부터 砥平里로 推進시켰으며, 제9군단은 군단 右側에서 楊平으로 前進하고 있던 제6사단(장, 張都暎준장)과 英 제27여단(장, B.A.Ccad준장)을 2월 14일 아침까지 驪州로 集結하여 文幕里일원으로 進出할 준비를 갖추게 하였는데, 오후에 砥平里로 向하던 제38연대가 九亭里(砥平里 東南쪽 5km) 南쪽 2km인 玉女峯(△428) 일대에서 敵의 頑強한 遮斷으로 인하여 砥平里로의 前進이 鈍挫되고 말았다。

2월 14일에 제8군사령관 Ridgway중장은 原州地區에서 數的인 劣勢로 苦戰하고 있는 제10군단으로서는 더 이상 砥平里의 支援이 어렵다고 判斷하고 이날 오후에 제9군단장 Mccle 소장에게 砥平里의 제23연대를 支援토록하는 새로운 任務를 賦與하였다。

이에 군단장은 군단 예비로 長湍院에서 驪州로 이동중에 있는 제1기갑사단의 제5기갑연대(장, Marcel B.Crcmqez대령)를 進出시킬 決心을 하고 연대장에게 命令하기를 『제5기갑연대는 2월 14일 17.CC를 期하여 田水里(砥平里 南쪽 6km) 南쪽 茂村里로 進出하여 前進基地를 確保하여 공격준비를 完了한 다음 砥平里로 進擊하여 제23연대의 補給路를 打開하고 同연대를 支援하라。』

군단장은 이러한 要旨의 命令을 下達함과 同時에, 田水里일대에 敵의 強力한 阻止線이 設置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敵의 阻止線을 突破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機動力을 겸한 戰車의 火力이 결정적인 役割을 할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當時 연대에 配屬되어 있던 76mm砲의 M,A,戰車 2개소대로서는 그 火力이 未洽하다고 보고 戰車의 火力을 增強시키기 위하여 90mm砲가 裝備되어 火力과 性能이 優秀한 M-46戰車 1개중대를 茂村里로 急遽 投入함으로써 支援케 하였다。

(2) 작전실시

2월 13일 : 1. 제5기갑연대(장, Marcel B.Crcmqez대령)는 전날 제9군단의 左翼인 제1기갑사단(장, Charles D. Palmer소장)의 主力部隊로서 南漢山(△606) 東南쪽 10km인 東安里일대에 까지 進擊하여 地域을 占領하고 있던 바, 이때에 中部戰線의 戰況이 惡化되어 右側接인 제10군단 兵力이 原州地區에 集結됨에 따라 군단 右翼이 露出되었다。

따라서 군단 右翼에 있어서는 砥平里가 唯一한 前哨陣地 兼 一線防禦陣地였는데, 中共 제39군이 砥平里를 攻圍할 企圖아래 突然 砥平里로 이동함으로서 砥平里의 戰況도 또한

그 歸趨를 豫測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일련의 狀況을 銳意 注視한 군단장 Moore소장은 군단 右翼을 防護하는 것이 當面의 急先務라고 판단하고 전날 밤에 연대로 하여금 군단 右翼을 防護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연대는 이날 06.00부터 長湖院으로 轉進하여 13.00에 연대 CP를 同地에 開設하고 全 兵力을 集結시켜 戰列을 再整備하였다。

2. 美 제10군단(장, Edward M. Almond소장)의 主力이 이날 敵의 猛攻을 받아 橫城으로부터 축차진지인 原州쪽으로 轉進함에 따라, 군단 左側背와 美 제9군단(장, Bright E. Moore소장)의 右側背를 同時에 掩護하는 位置에 있던 砥平里는 敵陣속에 顯著한 突出部를 形成하게 됨으로서, 敵에게 攻圍당한다는 것이 必至의 事實로 되었다。

이에 제23연대장 Paul L. Freeman대령은 연대를 砥平里에서 撤收할 決心을 한 바 있으나 제8군사령관 Ridgway중장의 死守命令에 따라, 다시 心機一轉하여 全 將兵과 더불어 砥平里 死守의 決意를 다짐하고 곧 防禦陣地를 強化하였다。

이에 앞서 연대는 2월 3일에 砥平里를 占領한 뒤에 마을을 중심으로 하여 直徑1.6km의 圓形陣地를 構築하고 있었는데, 실은 直徑 5km주위에는 南쪽에 望美山(△397)과 西南쪽에 △248 및 西北쪽에 △345, 그리고 北쪽에는 △207, 東北쪽에는 △212등이 圓形으로 砥平里를 둘러싸고 있어서 이 地點들을 連結하면 絶好의 圓形陣地를 形成할 수 있었으나 이 둘레는 18km에 달하여 연대의 兵力 4개대대(제1, 제2, 제3, 佛蘭西대대)로서는 陣地를 유지하기 어려웠으므로 연대兵力으로서 확보가 가능한 범위로 圓形을 축소하였던 것이다。

이 때문에 西쪽은 논(畓) 가운데에, 그리고 다른 쪽은 40~100m의 낮은 丘陵위에 陣地를 펴게 되었던 것으로서, 제1대대는 北쪽 △207의 南斜을, 제2대대는 南쪽 望美山 下部稜線을, 제3대대는 東쪽 △212 東南斜面을, 그리고 佛蘭西대대는 西쪽 盆地의 논 가운데와 楊平으로 向하는 鐵道沿邊을 각각 分擔하여 間隙없이 四周를 警戒하고 있었다。

그러나 圓形陣地의 外面을 最少限으로 축소하였다고는 하지만 둘레의 全長이 6km나 되어 4개 대대로서는 完璧한 四周防禦態勢를 갖추기에 힘이 겨웠다。

연대장 Freeman대령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날 예비병력으로 연대에 1개중대와 각 대대에 1개 소대씩만을 控置하고 그 이외의 全 兵力을 第1線에 投入하게 함과 아울러서 戰車중대를 일선 外角에 配備하였다。그리고 鐵條를 더욱 깊게 파는 한편, 對人地雷와 照明地雷를 陣地주위에 埋設하고 각 부대間의 모든 間隙을 自動火器의 火網으로 補塡시켰다。

그런데, 연대가 사단 主力과 25km이상이나 떨어 진 敵陣속에 孤立되었다는 것을 意識한 연대장이 이렇게 間隙없는 四周警戒에 盡力함에 따라, 相對的으로 防禦戰에 있어서 절대로 必要한 예비병력과 陣地의 縱深이 없다는 致命的인 脆弱點을 露呈하게 되었는데, 이는 연대에 配屬된 155mm 曲射砲 1개 중대(6門)와 105mm曲射砲 1개 대대(18門), 그리고 高射火器 1개 중대 및 戰車 1개 중대(21대), 迫擊砲 51門의 火力으로 補強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이날 日沒時까지 火力試射와 步, 戰, 砲間의 通信網을 재 점검하는 등, 만반의 對敵準備를 갖추고 敵의 挑戰을 기다렸다.

해가 지자, 예측한 대로 敵은 그들의 優勢를 한층 더 돋보이기 위하여 손에 손에 횃불을 밝혀 들고 陣地의 四周에서 包圍圈을 壓縮하기 시작하였다.

기다렸던 연대의 全 砲門은 일시에 불을 吐하여 陣地 周邊에 빈틈없는 彈幕을 構成하였다.

이날 밤에 연대의 砲 1門當 平均 250發을 集中發射하여 可恐할 威力을 발휘하였는데, 敵도 이에 뒤질세라 연대 CP주위에 300餘發의 砲彈으로 反擊하였는 바, 이로 因하여 연대장 Freeman대장이 臀部에 負傷을 당하고 S-4가 戰死하였다.

이런 가운데, 敵은 積屍를 넘어 연대의 彈幕을 뚫고 그 特有의 胡笛소리에 맞추어 분대規模의 兵力으로 간단없는 數梯波의 接近을 試圖하여 手榴彈을 投擲하면서 突擊을 감행하였는데, 연대 제1선은 이에 맞서서 自動火器로 阻止하기도 하고 逆襲으로서 과감하게 擊退하기도 하여 一進一退의 混戰은 날이 새도록 계속되었다.

2월 14일 : 1. 硝煙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제23연대(장, Paul L. Freeman대령)의 陣地에 동녘이 밝아지자 中共軍의 攻擊이 霧散되었다.

日出이후로는 空軍戰爆機가 陣地 南쪽 望美山일대에 集結한 敵을 세차례에 걸쳐 爆擊하는 등 空中掩護를 계속하였는데 敵은 間歇的인 迫擊砲 射擊에만 依存하면서 별다른 攻擊活動을 展開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날 밤에 敵이 試圖하였던 소규모의 散發的인 近接攻擊은 연대의 兵力配置와 火網構成狀況을 探索하기 위한 일련의 威力搜索인 것으로 판단되어 이날 밤에는 本格的인 敵의 物量攻擊을 예상하게 되었다.

이에 연대는 대대별로 陣地주위를 搜索하여 陣地에 近接潛伏하고 있는 殘敵을 擊滅하는

한편, 陣地를 補強하고 彈藥을 空中補給받아 戰列을 다시 갖추었다。

日沒과 同時에 敵은 다시, 夜叉의 울부짖음과도 같은 喇叭과 징소리를 앞세워 夜襲을 시작하였다。

夜暗이 짙어지면서 接戰이 苛烈化되자 22.00에는 그 絶頂에 달하게 되었는데, 이로부터 3시간에 걸쳐 戰場은 照明彈 사이를 縫놓는 曳光彈과 爆竹과 같이 乱散하는 信號彈의 불꽃이 彼我의 陣營을 網羅케 하도록 明滅하는 銃火와 아울러 말하늘에 一大 壯觀을 이룬 가운데, 연대가 일찌기 경험한 바 없었던 空前絶比한 大 混戰相을 展開하였다。

특히 敵은 그主攻을 陣地 南쪽을 담당하고 있는 제2대대의 右翼인 G중대 正面으로 指向하였으며 望美山으로부터 沙汰와 같이 밀어닥친 敵勢로 말미암아 漸突이 반복되면서 白兵戰에 突入한 G중대 前面은 그야말로 阿鼻叫喚 그것이었다。

굶주린 이리떼와 같은 敵의 狂奔앞에 分隊員의 不退轉의 鬪志가 맞서서 陣地四周의 前線이 膠着狀態에 빠지게되자 24.00에 敵은 G중대의 正面을 突破하기 위하여 全力을 G중대와 西쪽 佛崩西대대의 間隙으로 集中하기에 이르렀다。

이 무렵 聖燦속에서 血鬪中인 分隊員의 視野는 硝煙으로 가리워졌으며 聽覺은 砲聲과 喊聲으로 麻痺되었는데, 加平里를 南北으로 貫通하는 作戰路上의 死角을 利用하여 연대규모의 敵이 一時에 殺到하게 되었다。

이때에 연대장이 入手한 戰況報告에 이르기를 『敵이 「萬歲攻擊」을 하고 있다!』는 그 한마디 뿐이었는데 이 「萬歲攻擊」이라 함은, 中共軍의 物量攻擊을 太平洋戰爭當時의 日軍의 猪突的인 突擊에 比喩한 것으로서, 敵이 죽기 위하여 突擊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었다。

25일 02.00에 끝내 踏襲不敵인 G중대의 右翼分隊의 聖燦가 敵手에 被奪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하여 蹂躪되기 시작한 G중대 陣地는, 중대장 이하 全分隊員과 대대예비 1개분대 및 보병으로 지원된 砲兵의 敢鬪도 無爲로 돌아가, 03.00에 이르러 全 陣地를 抛棄하게 되었다。

縱深이 없는 협소한 凹形陣地의 一角이 奪取된다는 것은 곧 全 防禦線의 動搖를 뜻하여 연대는 실로 一觸即發의 危機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에 연대장은 대대장으로 하여금 연대 예비 1개소대와 대대의 全 予備兵力(1개소대)을 G중대에 增援케 하여 그陣地를 奪還하도록 嚴命하였다。

그러나 이때 이미 G중대의 戰力은 바닥이 났으며 2개 소대의 增援兵力으로 이 敵을 擊退하기란 以卵擊石과도 같은것이었다。

이런 까닭으로 대대장은 중대진지의 奪還目的을 達成하지 못하고, 이날 새벽에 G중대를 연대 CP쪽으로 200m를 後收케 하여 逐次진지를 急編토록 하였다。

이때에 나머지 三面은 惡戰苦鬪하면서도 계속 陣地를 固守하고 있었는데, 특히 西쪽 盆地에 자리잡은 佛瀾西대대는 인접 제2대대의 陣地 일부가 失陷되어 側面威脅을 받게 된 가운데에서도 끝내 그 守地를 확보하므로서 敵의 縱深突破를 粉碎하는 큰一役을 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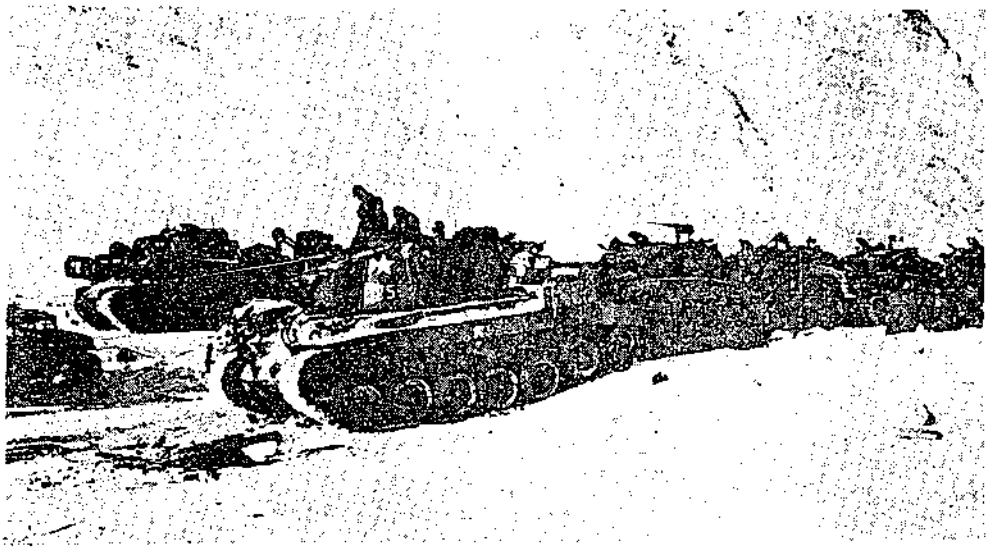
제2대대가 G중대 陣地의 敵에 대한 逆襲을 敢行하여 비록 失陷陣地를 奪還하지는 못하였으나, 敵의 前進을 遲延하도록 寄與하였으므로 날이 밝기까지 敵은 더 이상의 突進을 斷念하게 되었다。

2. 延平里의 제23연대(장, Paul L. Freeman대령)가 中共軍과 前哨戰을 치루고 났던 이날 아침, 長湖院에서 戰列을 整備하고 있던 제5기갑연대(장, Marcel B. Cromqez대령)는 군단장 Moore소장으로부터 要旨 다음과 같은 命令을 받았다。

『제5기갑연대는 군단 右翼을 가장 효과적인 方法으로 防護할 수 있는 陣地로 이동하라。그리고 즉시 北쪽과 北東쪽 및 東쪽을 探索하라。』

이 命令은 군단장이 延平里의 危機를 勘案하여 장차 戰況의 推移에 따라 연대로 하여금 伸縮性있게 對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따라 연대는 제10군단과의 接境線上인 驪州로 北進하였는데, 이날 오후에 연대가



◇ 機動待期中인 美軍戰車

아직 驪州에 進出하기 전에, 군단장으로부터 다시 砥平里의 제23연대를 支援토록 하라는 命令을 받게 되었다。

연대는 17.00에 南漢江을 渡河하여 夜暗속에서 희미하게 반사되고 있는 눈(雪)길을 따라 曲水里 南쪽 2km인 茂村에 進出하여, 군단장 命令에 따라 별도로 集結한 제6전차대대 D중대와 제23연대를 直接支援할 補給車輛 및 Ambulance 등의 機動狀態를 점검한 다음, 연대의 隊伍를 다시 정비하였는데 이때에 연대에는 예하 3개대대 이외에 砲兵 2개 대대와 工兵 1개 중대, 그리고 M—46(90mm砲) 전차 1개 중대(제6전차대대 D중대)와 M_4A_3(70mm砲)전차 2개 소대(제70전차대대 A중대)가 배속되어 있었다。

기동준비를 완료한 연대는 24.00에 曲水里로 進出하였으나, 同地 南쪽 洞口의 關門인 교량이 파괴되어 重裝備의 前進이 不可能하였다。

이에 연대는 四周防禦陣地를 急編하여 自體整戒를 하면서 공병중대의 교량 복구작업을 掩護하였다。

2월 15일 : 1. 제5기갑연대(장, Marcel B. Cromqez대령)는 전날 밤 曲水里 南쪽 洞口의 교량을 복구하는 공병중대를 掩護하여 徹夜한 다음 이날 아침 교량 복구작업이 완료되자 즉시 主力의 機動態勢를 갖추게 하고 前哨部隊를 先遣하였던 바, 이 部隊가 교량을 통과하기도 전에 曲水里 양쪽 高地 稜線으로부터 敵의 急射擊을 받았다。

연대는 곧 제1대대를 曲水里 右側에 그리고 제2대대를 左側에 併列하여 2개대대의 포병과 航空의 支援을 받아 敵을 攻擊하여 中央의 제3대대의 進出路를 打開하려고 하였으나, 敵의 抵抗이 熾烈한 탓으로 正午가 지나도록 커다란 進展을 보지 못하였다。

이에 연대장 Cromqez대령은 연대의 全 兵力으로 敵의 阻止線을 분쇄하면서 逐次的으로 前進하여서는 이날 중으로 砥平里의 제23연대(장, Paul L. Freeman대령)와의 連繫가 不可能할 것으로 判斷하고 曲水里에서 砥平里까지의 거리가 6km에 不過한 까닭으로 戰車機械化隊로써 敵中을 突破強進하기로 決心하였다。

그러나 曲水里에서 砥平里까지의 機動路는 一車線의 시골길인 데다가 道路 左側에는 注屯山(△583)이 그리고 右側에는 望美山(△397)이 솟아 있어서 여기에서 뻗어내린 丘陵이 道路兩側에 연하여 늘어서 있으므로 敵이 이러한 地形을 이용하여, 戰車의 進路를 차단코자 挾擊을 企圖할 公算이 많았으므로 연대는 이 敵中突破에 따르는 상당한 위험과 희생을 覺悟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연대장은 15.00에, 제6전차대대 D대중대와 제70전차대대 A중대 2개 소대의 戰車 都合 23대에, 제3대대 L중대원 160명을 搭乘시켜 突擊縱隊를 편성한 다음 戰爆機의 掩護를 要請하여 突破口의 敵을 制壓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山水里 北쪽과 望美山 西쪽 斜面에 대한 航空爆擊을 集中한 다음 제1, 제2대대가 山水里 양쪽 稜線의 敵을 牽制하여 戰車縱隊의 進出을 掩護하는 가운데 15.45에 縱隊는 突破前進을 개시하였다。

이때에 연대장은 先頭에서 다섯번째 戰車에 승무원과 같이 搭乘하였으며, 제3대대장과 L중대장은 여섯번째 戰車 위에 分乘한 중대원과 함께 타고 있었고, 縱隊를 先導하는데 있어서는 네번째 戰車의 D전차중대장이 步, 戰을 統合하여 指揮하였다。

이렇게 하여 發進한 戰車縱隊는 車間距離 50m를 유지 하므로써 그 全長이 1.500m에 달하였다。

縱隊가 敵의 抵抗을 물리치면서 山水里를 突破하는 동안 敵의 集中된 步砲火力으로 말미암아 두번이나 行進을 멈추어 양쪽 高地를 占據한 敵의 박격포와 기관총을 制壓하였는데, 이때 戰車에서 뛰어내려서 주위에 散開하여 戰車를 掩護하던 L중대원 중에 제3대대장등 60여명이 落伍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數個組로 分散하여 이날 밤까지 각각 山水里 南쪽에 있는 연대본부로 復歸하였지만, 그 중에 數名은 雪寒野山을 彷徨하다가 敵의 捕虜가 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敵의 彈雨를 헤치면서 突進하여 砥平里와의 中間 地點인 發里와 玉鉤 및 石谷을 지날 때에는 敵으로부터 肉彈攻擊까지 받게 되었다。

爆藥을 안은 中共軍들이 얼어 붙은 개울 가운데에서나 마을의 建物위에서, 戰車가 지나갈 때에 뛰어 들었는데 이럴때 마다 戰車위에 搭乘한 L중대원이 射殺하여 敵의 接近을 阻止하였다。

그러나 이러는 동안에 無防備 狀態로 戰車위에 타고 있던 L중대원 역시 敵에게 殺傷을 당하는 바 되어 山水里에서 落伍된 중대원 이외에 도합 30~40명의 損失을 입었다。

이리하여 6km의 敵中을 突破한 縱隊는 드디어 最後이자 最惡의 難關에 逢着하게 되었다。

右側 望美山의 아랫재와 左側 △282 사이의 接敵部를 뚫어 놓은 마지막 峽路를 通過하게 된 것이다。

이 峽路는 길이가 140m로서 戰車 한대가 간신히 지나칠 수 있는 路幅에 그 兩面에는

15m 內外로 聳立한 絶壁이 마주 서 있었다。

단 한臺의 戰車라도 峽路上에서 擱坐되면, 全 戰車縱隊는 그 자리에 停頓될 것이므로 地形으로 보아서 敵이 戰車縱隊를 攻擊하기에 最適의 場所였으며, 峽路를 벗어나면 곧 加平里 南쪽 開闊地였기 때문에 位置로 보아서도 敵이 全力으로 戰車의 前進을 阻止하지 않으면 안될 곳이었다。

果然 예상한 대로 先頭戰車가 峽路 入口에 들어서자 맹렬한 박격포와 Rocket 砲의 集中射擊을 받았는데 그중 한발이 砲塔을 命中하였으며 이어 D전차중대장이 탄 戰車가 Rocket 砲 洗禮를 받아 중대장이 戰死하였다。

그러나 戰車는 불이 붙는 가운데 침착하게 峽路를 벗어나 擱坐의 危機를 모면하였다。 140m의 峽路를 1,500m의 戰車縱隊가 通過하는 동안 이 縱隊의 突破와 阻止에 彼我 서로 火力과 技倆과 勇氣를 다투었다。

양쪽 絶壁위에서 中共軍이 手榴彈과 空罐에 油類와 火藥을 混入한 手製爆彈과 地雷등을 던지면서 Rocket砲, 박격포 및 機關銃을 亂射亂擊하여 火焰에 휩싸인 峽路는 마치 煉獄과도 같았다。

이에 戰車縱隊는 먼저 峽路를 벗어난 戰車가 後續戰車의 進出路를 열어주기 위하여 峽路 양쪽의 敵을 制壓하고, 後尾戰車는 先導戰車를 掩護하는 한편 峽路를 지나는 過程에서는 戰車위에 탄 L중대원과 戰車의 自動火器로 峽路 左右를 掃射하면서 一絲不亂하게 一氣에 突進하였다。

이러한 千辛萬苦끝에 戰車縱隊는 17.00에 峽路를 벗어나게 되었는데, 이때 聯隊가 戰車縱隊로서 電擊的인 突破作戰을 감행하리라고는 敵이 미쳐 豫期치 못하였음인지 峽路上에 對戰車地雷를 埋設하지 않았기 때문에 戰車의 직접적인 損失은 없었으나 戰車위에 搭乘하였던 L중대원 50여명이 峽路에서 損失되고 殘存兵力은 L중대장을 위시하여 모두 13명뿐이었다。

연대는 加水里에서 峽路에 이르는 동안에 損失되었던 兵力보다 더 많은 兵力을 峽路上에서 잃은 것인데, 이로 보아 이 峽路가 鐵火로 閉鎖된 血路이었음을 能히 想察할 수 있으리라。

17.00에 1시간 15분에 걸쳐 6km의 敵中을 突破한 연대의 戰車縱隊가 加平里에 進出하여 마침 望美山 西쪽 山麓을 砲擊하고 있던 제23연대의 戰車와 連繫하여 望美山의 敵을 向하여 憤怒의 砲門을 열어 G중대陣地의 敵을 潰散시키고 마침내는 望美山을 搖動하였다。

이날 밤, 연대의 戰車는 L중대원의 警戒을 다짐하면서 제23연대의 圓形陣地 四周에 配置되어 敵의 夜襲에 對備하였다。

2. 驚天動地의 激戰一夜가 지나고 아침이 되자, 颯風一過의 靜寂이 咸平里 戰場을 掩襲하였는데, 제23연대(장, Paul L. Freeman대령) 로서는 실로 惡夢같이 긴 밤이었다。

薄明속에서 보는 陣地주위에는 그 數를 헤아릴 수 없는 數千의 中共軍의 시체가 곳곳에 새로운 언덕을 만들었으며, 終夜토록 砲擊에 地殼이 벗겨진 荒凉한 산 허리는 피에 젖어 있었다。

전날 밤, 中共軍은 莫甚한 打擊을 받으면서 연대의 陣地 一角인 G중대 高地를 奪取하자는데 그쳤던 것이다。

그러나 연대로서도 G중대陣地의 失陷은 큰 損失과 威脅이었다。 이 G중대陣地가 占領당함으로서 연대의 圓形陣地의 縱深이 不安한 凹地形으로 變形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 제2대대장은 연대의 全 豫備兵力과 步, 戰, 砲의 火力을 통합지휘하여 G중대陣地를 奪還하기 위하여 이날 낮에 몇 차례에 걸친 攻擊을 반복하였으나 頑強한 敵의 逆襲으로 끝까지 目的을 達成하지 못하였다。

이날 종일 敵은 전날 밤과 같은 物量攻擊은 되풀이 하지는 않았으나 G중대陣地에서 연대 CP로 迫擊砲彈을 간단없이 퍼부었다。

敵이 再攻擊準備를 갖추면서 연대에 이러한 위협을 加하는 가운데, 헬리콥터 5대가 重傷者를 後送하였는데 지난 13일 밤에 연대장 Freeman대령이 負傷을 당한 채 이날도 陣地補強과 戰列整備를 陣頭指揮하는 것을 군의관이 보고 後送할 것을 建議하였으나 斷固히 이를 거절하고 계속 決戰準備를 서둘기만 하였다。

15.30에 戰爆機 4機編隊가 晴天의 짙은 구름을 뚫고 望美山 敵陣에 네이팜 彈과 Rocket 彈 및 機銃掃射등으로 地上近接攻擊을 反復하여 敵을 制壓하였는데, 잠시 후에 南쪽으로부터 요란한 砲擊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다。

Cromqez 대령이 지휘하는 제5기갑연대의 戰車縱隊가 敵의 包圍網 突破를 試圖한 것이었다。

이에 Freeman 연대장은 陣地의 戰車 1개 소대를 望美山 西쪽 下端部에 峽路 北쪽으로 進出시켜 望美山 西쪽을 砲擊토록 하여 제5기갑연대의 前進을 掩護케 하였다。

17.00에 연대의 戰車소대는 峽路를 通過한 제5기갑연대의 戰車縱隊와 劇的으로 連繫하

게 되었는데, 제5기갑연대의 戰車縱隊가 威風도 堂堂하게 砥平里에 突出하자 望美山 西北山麓에서 버티고 있던 敵은 마침내 動搖의 빛이 歷然하였다。

제5기갑연대의 戰車縱隊가 怒號의 戰車砲火를 吐하면서 G중대陣地 南쪽 背面의 敵을 強打, 潰散하자 戰意를 喪失한 敵은 對應할 바를 모르고 허둥지둥 望美山 비탈을 기어올라 山그늘 속으로 逋入하고 말았다。

이날 밤, 연대는 제5기갑연대의 戰車가 陣地 일선에 增援된 가운데 士氣百倍하여 敵의 攻擊을 기다렸으나 敵은 陣地주위 곳곳에 횃불을 밝혀놓고 胡笛과 꽹과리소리를 요란스럽게 울리고 있을 뿐 밤이 깊도록 攻擊할 氣勢를 보이지 않았다。

砲隊 觀測將校가 敵의 胡笛소리와 횃불로 位置를 標定하여 砲兵射擊을 誘導하였으나 敵砲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한밤중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中共軍이 陣地주위에 몰려들었다。

연대가 이날 밤에 陣地의 露出을 우려하여 照明彈을 發射하지 않았으므로 陣地주위는 漆黑과 같았는 바, 敵은 行動을 개시하는 즉시로 迫擊砲의 火網으로 陣地를 強打하였으나 16일 04.00까지 눈(雪)속에서 횃불을 들고 소란스럽게 陣地주위를 몰려다녔을 뿐으로서 직접 陣地를 攻擊하지 못하였다。

연대는 敵이 날이 샐 무렵에 攻擊할 것으로 豫想하고 긴장한 가운데에서 徹夜하였으나 날이 밝은 다음에도 敵의 攻擊은 없었다。

뿐만아니라 陣地주위에서는 敵影을 찾아볼 수 없었고 또한 그 많았던 敵의 시체조차 볼 수가 없었다。

밤새 내린 積雪로 山野에 쌓여진 시체들을 깨끗이 매장하였고 그 일부는 이날 밤 敵이 거두어 가 버렸던 것으로서, 敵은 그들의 시체를 거두기 위하여 밤이 새로록 陣地주위를 徘徊한 것이 判明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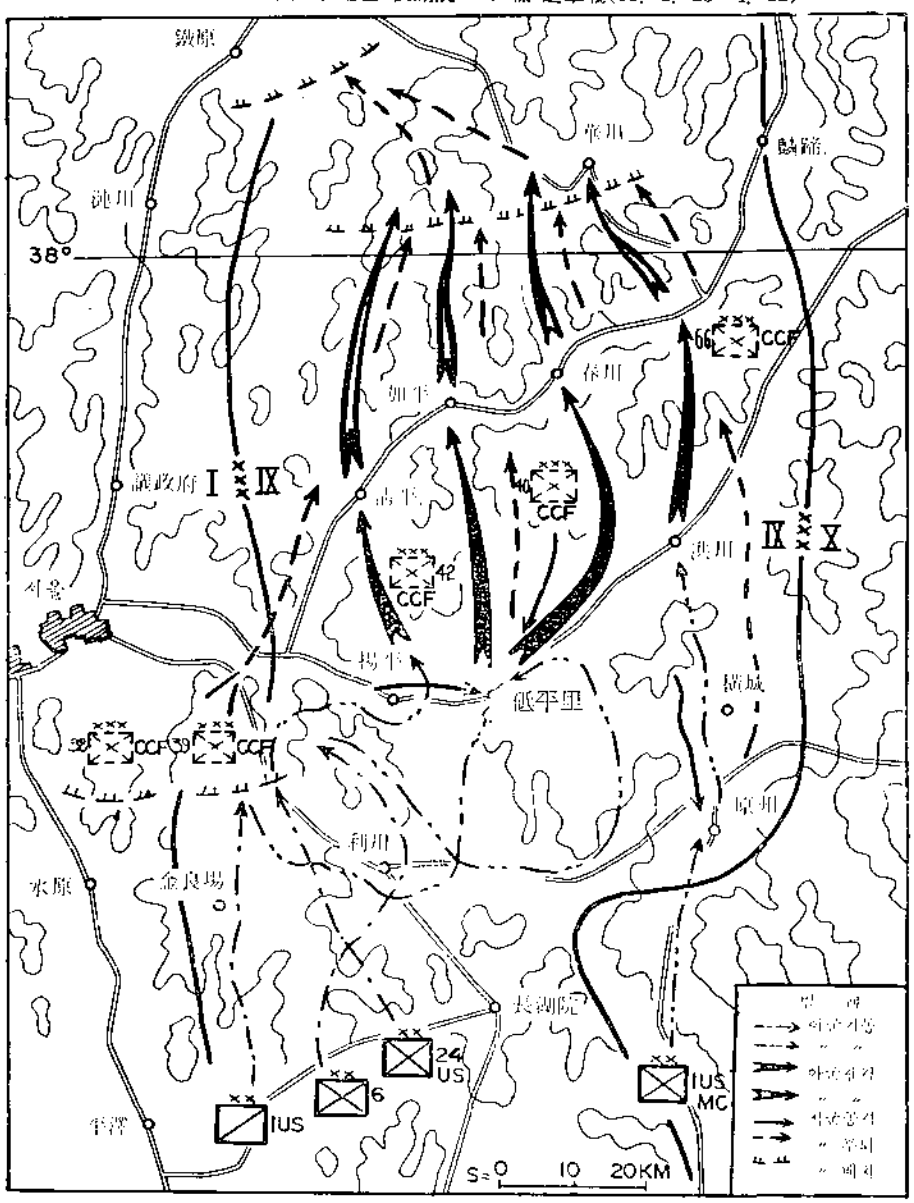
中共軍은 이날 낮에 연대 陣地를 재공격할 企圖아래 부단한 危脅을 加하고 있었으나, 日沒무렵에 제5기갑연대의 戰車縱隊가 背後로부터 包圍網을 突破하여 연대를 增援하므로 말미암아 砥平里에 대한 早期 奪取의 可望이 稀薄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고, 더우기 砥平里 攻略이 끝내 失敗로 돌아 갈 경우 때마침 東南쪽에서 砥平里로 北上중인 한국군 제6사단(장, 張都暎준장)과 英 제27여단(장, B.A.Coad준장), 그리고 西南쪽 川水里에 있는 제5기갑연대의 主力에 의하여 逆包圍될 위험마저 느낀 나머지 이날 夜暗을 타서 潰走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리하여 砥平里는 晝夜 3日間의 激戰끝에 16일 아침에 寒村의 靜謐 그대로 平穩을 되찾았다。

라. 전투 후의 개황

砥平里 戰鬪는 我軍의 聯隊兵力이 3개師團規模의 中共軍을 擊退함으로서 敵의 2월攻勢를 破碎하는 決定的인 勝因을 얻게 되었거니와 前後方에서 可用한 모든 兵力을 모조리 投入하여 乾坤一擲의 快勝

◇ 상황도 제42호 美 제9군단 長湖院—38°線 進擊戰(51. 1. 25~4. 22)



을 노리던 敵의 2월攻勢가 挫折됨에 따라, 我軍은 騎虎之勢로 敗退하는 敵을 追擊하여 38°線에 進出하게 된 것이다。

敵의 動向：中共 제39군이 洪平里 攻圍에 失敗함에 따르는 作戰의 遲滯과 戰力의 損失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그들이 自信하였던 物量攻擊이 고스란히 擊破당한다는데 대한 心理的인 打擊이 더욱 甚大한것으로 推測되었으며 이러한 惡영향이 敵의 全 戰線에 크게 波及되어, 敵은 2월 18일에 이르러 攻擊에서 防守로 전환하면서 徐徐히 退却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하여 洪平里를 攻圍하였던 제39군은 洪川으로 北上한 다음 原州를 攻襲한 제60군과 合流하여 일대 華川쪽으로 潰走하였으며 洪川 南쪽을 攻擊하였던 제40군은 春川을 거쳐 38°線으로 北上하였다。그리고 楊平 北쪽에 있던 제42군은 加平에서 역시 38°線을 넘었으며 美 제1군단지역인 南漢山 橋頭堡를 확보하고 있던 제38군은 淸平을 경유하여 38°線을 指向하고 北上退却하였다。

이들 中共 제38, 제39의 兩軍은 거의 再不能의 打擊을 입었으므로 각각 獨自的인 戰鬪活動을 하지 못하였으며 中部戰線으로 投入되었던 제40, 제66의 兩軍도 또한 戰力의 消耗이 甚大하였을 것이다。

이 중에서 제42군만은 2월攻勢 당시에 예비대로 配置되었던 탓으로 비교적 손실이 적었던 바, 3월 22일에 이 군이 北漢江線에서 防禦陣地를 占領한 다음 掩護部隊로서 지연전을 펴는 가운데 그나머지 兵團은 38°線 北쪽인 「鐵의 三角地」 要域을 確保하면서 反擊을 위한 再編을 서둘렀다。

我軍의 動向：2월 17일에 제8군사령관 Ridgway중장은 군단 右接境線을 東쪽으로 확대하여 洪平里를 군단 作戰地域으로 編入시킴과 同時에 Freeman 대령이 指揮하는 제23연대를 군단에 配屬시켜 재속 洪平里를 확보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군단 左翼이었던 제1기갑사단(장, Charles D. Palmer소장) 主力을 제5기갑연대에 追及케 되었으며, 18일에는 그간 安東—盈德地區에서 對遊擊戰을 展開하다가 15일에 원주로 躍進한 美 제1해병사단(장, Oliver P. Smith소장)이 군단에 配屬되어 군단 右翼인 原州地區에 進出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美 제1군단의 서울 奪還을 助攻하던 군단은 中部戰線 原州—利川間의 險준한 進路를 개척하고, 군단 右側으로부터 美 제1해병사단, 한국군 제6사단, 美 제1기갑사단, 美 제24사단의 順으로 併列하여 戰力을 強化한 다음, 2월 21일을 期하여 Killer작전(2월 21일~3월 4일)과 Ripper작전(3월 7일~3월 24일)을 展開하여 楊平—加平—春川의 軸線을 따라 축차적으로 進擊하게 되었다。(美 제1해병사단의 橫城—洪川부근 戰鬪 참조)

2월 23일에 군단 左翼인 제24사단이 楊平地區에서 漢江을 渡河하게 되었는데, 그 이튿날 헬리콥터로 사단의 渡河現況을 視察하던 군단장 Moore 소장이 不意의 事故로 漢江邊에서 戰死하였다。

3월 5일, William M. Hoge소장이 군단장으로 임명되어(2. 25~3. 4는 美 제1해병사단장 Smith소장이 군단장을 代理) 3월 13에 洪川—楊平線을 확보한 군단은 前線을 再調整하여 한국군 제6사단(장, 張都暎준장)과 美 제1기갑사단을 交替시킨 다음, 美 제1해병사단과 제1기갑사단으로 군단 右翼을 담당하게 하여 장차 洪川—春川—38°線으로 전격케 하고, 한국군 제6사단과 美 제24사단을 左翼으로 하여 淸平—加平—38°線으로 進出케 하였다。

이리하여 3월 21일에 右翼인 제1기갑사단이 春川을 占領하고, 左翼인 제24사단이 淸平을 通過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敵의 抵抗이 漸減되었다。

3월 하순부터 4월 초에 이르기까지 진눈깨비가 섞이는 季節風으로 因하여 視界가 3~4m以下인 惡天候였으나, 군단은 이를 무릅쓰고 進擊을 強行하여 4월 2일에 春川 北쪽 山嶽地帶에 構築된 敵의 最後 防禦據點을 占領하고 4월 3일, 드디어 38°線을 越境하게 되었다。(한국군 제6사단의 春川 西北方 進擊戰 참조)

4월 20일에 군단은 楊口—華川—漣川線으로 進出하자 敵의 抵抗이 頑強하여 敵이 遲延戰을 攻擊戰으로 다시 轉換코자하는 徵候가 보이므로써 未久에 敵의 反擊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4월 22일에 기어코 敵이 逆襲을 斷行하여, 이른바 「春季攻勢」를 시작함에 따라 戰線은 새로운 局面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6. 서울—38°線 進擊作戰 (1951년 3월 23일부터 1951년 3월 28일까지)

참조 : 상황도 제43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美제1군단	장	소장	Frank W. Milburn
제3사단	장	소장	Robert H. Soule
제7연대	장	대령	James O. Boswell
제15연대	장	대령	Dennis M. Moore
제65연대	장	대령	WilliamW.Harris
제25사단	장	소장	William B. Kean
제24연대	장	대령	John T. Corley
제27연대	장	대령	John H. Michaelis
제35연대	장	대령	Henry G. Fishir

배속부대

Turkey여단 장 준장 Tahsin Yazici (제25사단에 배속)

英제29여단 장 준장 J. Brodie. D. S. O. (제1군단에 배속)

美제187공수연대 (제1군단에 24일까지 / 제3사단에 25일부터)

Belgium대대 장 중령 B. E. M. Crahay (제3사단 제15연대에 배속)

Philippines대대 장 중령 Mariance, Azurin (제3사단제65연대에배속)

兵力 : 각 부대 T/O의 90~95%

裝備 : 각 부대 T/E의 85~90%

敵 軍

中共제26군	장	張仁初
제76사단	장	吳大林
제77사단	장	沈 華
제78사단	장	方 正
北共 제8사단		

兵力 : 각 사단 8,000~9,000명

裝備 : 160·및 152㎜ 곡사포, 76㎜대전차포, 120㎜, 82㎜, 60㎜박격포, 기관총, 소총

나. 전투 전의 개황

美제1군단은 中共軍이 서울南쪽까지 깊숙히 侵攻한 以來 처음으로 水原地域에서 戰場의 主導權을 掌握하고 反擊을 斷行하여 51년 2월 中旬에 漢江南岸을 連한 線을 確保한 다음 서울 一圓에 대한 探索戰을 展開하다가 中部戰線의 戰況이 好轉되자 3월 中旬에는 韓제1사단과 美제3사단의 合同作戰으로 서울을 탈환하였는데 反擊당시 永登浦로부터 進擊한 美제25사단은 서울東側에서 當面의 敵과 對

峙하였다。

이 무렵 全戰線을 살펴보면 韓國 제1, 제3군단은 東部戰線인 註文津—金村(下珍富里 北쪽 18km)간을, 美 제9, 제10군단은 그左側에 연결하여 中部戰線인 洪川—加平을 連한 線을 각각 담당하고 部分的으로 攻防의 激戰을 反復하고 있었는데 이 戰線에서 對峙한 敵은 이미 戰鬪力을 喪失한 前線부대의 一部를 交代하고 있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군단이 담당한 戰域은 그大部分이 낮은 野山으로 連繫되고 交通網이 發達하여 彼我간에 機械化부대를 使用할 수 있는 좋은 기동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나 右側正面에 있는 廣州山脈의 南端인 清平—抱川—東豆川을 이은 地帶의 高地는 그 標高가 500m에서 800m에 불과하나 平地에 높이 솟은 山塊일 뿐 아니라 서울지역을 攻防하는 軍事的인 要地이어서 雙方의 激戰地로 豫想되었다。그리고 기간중의 날씨는 초봄으로 晝間작전에는 支障이 없었으나 夜間에는 아직도 寒冷하여 渡土의 陣地工事가 容易하지 않고 河川은 重裝備의 氷上渡河를 妨害하였다。

敵軍의 狀況：서울지역에서 退却한 敵은 中共 제50군과 北共 제17사단으로서 지난 2월 初旬에 水原地區에서 많은 損失을 받은 데다가 我軍의 進攻作戰으로 말미암아 3월 中旬에는 또다시 서울地域에서 큰 打擊을 받아 主力은 臨津江 너머로 後退하고 少數兵力만이 抱川—議政府—金村里(議政府 西쪽18km)을 連한 地域에서 지연작전을 펴는듯 하였는데 中共 제26군이 漣川에서 抱川과 東豆川지역으로 南進하여 前線에 投入된 것으로 判明되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縣里(清平 北쪽 10km)—富平里(退溪院 北쪽 12km)—議政府—金村里를 連한 線上에서 決戰을 企圖하고 主力을 배치하면서 一部兵力을 4~6km 南쪽까지 浸透시켜 我軍의 進攻을 阻止한 다음 서울地域을 再攻攻할 속셈인듯 하였는데 그 계획은 西部의 개활지역인 金村里—汶山으로 UN軍을 誘引하면서 군단正面의 東側인 西坡—富平里—退溪院과 抱川—議政府로 通하는 兩側機動路와 連結한 高地를 利用하여 서울을 攻略할 것으로 判斷되었다。

이러한 企圖아래 새로 投入한 中共 제26군(장, 張仁初)은 지휘소를 抱川부근에 두고, 휘하의 제76사단(장, 吳大林)이 議政府지역의 △337—虎鳴山(△468)간을 점령하고 경계부대를 그南쪽에 있는 道峰山과 水落山일대에 배치하였으며, 제77사단(장, 沈 革)은 竹葉山(抱川南쪽 12km)과 酒琴山(△814)간을 점령하고 一部兵力은 그南쪽 4~6km가 되는 上山과 親鑑山—△781—千點山일대를 점령하고, 제78사단(장, 方 正)은 예비대로서 東豆川과 抱川간의 험악한 山岳지대의 南端인 海龍山일대를 점령하였다。또한 北共 제8사단의 일부병력은 金村里—汶山지역에서 西海岸을 경비하는 것으로 推斷되었다。

我軍의 狀況：美제1군단의 제25사단은 清平—退溪院으로 通하는 機動路 北쪽의 高地를, 제3사단은 그左側에 連結하여 雙門洞지역을 각각 確保하였으며, 군단의 右側에는 美제9군단(장, Bryant E. Moore 소장)의 제24사단(장, Blackshear M, Bryan소장)이 加平부근을, 左側에는 韓제1사단(장, 白善燁준장)이 西把發—漢江下流의 南岸을 각각 점령하고 敵과 對峙하였는데 군단사령부는 永登浦에 있었다。

이 당시 군단은 戰域의 西側인 金村里—汶山지역이 機械化부대를 運用할수 있으므로 여기를 조속히 점령한 다음 東側의 抱川을 目標로 進攻할 계획으로 戰力을 強化하였는데 3월 22일의 前線부대를 살펴보면, 제3사단의 제15연대는 佛岩山을 中心으로, 제65연대는 雙門洞일대를, 그리고 제7연대는 예비

대로 上鳳洞을 각각 점령하였으며, 사단사령부는 蠶室洞에 있었다。또한 제25사단의 제24연대는 退溪院—梧山洞(金谷 北쪽 6km)간을, 제27연대는 天磨山일대를, 그리고 제35연대는 예비대로 坪內里(金谷 東北쪽 4km)를 각각 점령하였으며, 사단사령부는 月文里(金谷 南쪽 4km)에 있었다。

한편 Turkey旅團은 제25사단에 배속되어 淸平과 磨石간의 北쪽에 있는 △678(淸平 西쪽 5km)—△331간을 점령한 다음 先頭부대는 西쪽 前面에 있는 △444의 右側稜線까지 進擊하였다。이에앞서 여단은 이 사단의 右—線 攻擊梯隊로서 漢江을 渡河할때에 松村里(金谷 東南쪽 13km)부근으로 進擊한 다음 이 江을 右側에 두고 저항하는 敵을 계속 擊破하면서 逐次的으로 進攻하여 △494—△373를 점령하고 그 뒤에 前記한 線까지 進擊한 것인데 이때에 여단본부는 磨石에 있었다。

Phillippines대대는 3월 3일 12.00부로 제8군직할에서 제3사단에 배속되어 中旬부터 馬弼巨里(現 良才洞)—松坡간을 점령하고 사단의 後方을 경계하다가 21일에 金谷—退溪院으로 進出하여 22일에는 이번 공격작전에 參加하기 위하여 水驗洞으로 轉進한 다음 사단 예하인 제65연대에 다시 배속되어 雙門洞의 右端인 서울—議政府간의 機動路를 中心으로 점령하였다。

Belgium대대는 3월 6일 水原에서 제3사단에 배속되었는데 이 대대는 51년 1월 31일 UN軍으로 韓國戰에 參加하기 위하여 釜山에 도착한 다음 美제8군 직할로서 2월에는 大邱—金泉간의 國道및 鐵道를 경비하다가 그뒤 제3사단에 배속되어 馬弼巨里—鷺梁津간을 점령하고 漢江南岸을 경비하다가 22日에 泰陵으로 進出한 다음 사단예하인 제15연대에 다시 배속되어 佛岩山의 左側面을 점령하고 이번 공격작전에 參加하게 되었다。

英제29여단은 이 작전을 支援하기 위하여 3월 21일부로 美제8군직할로부터 군단에 배속되어 군단예비대로서 永登浦에 있었다。그리고 제5공군은 制空權을 계속 掌握하면서 敵의 후속부대와 예상집결지 및 보급소 등을 強打하는 동시에 地上부대에 대한 直接支援을 계속하였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군단은 美제8군 작전계획에 依據하여 臨津江을 따라 汶山—東豆川—抱川을 連한 線까지 進攻할 계획으로 제25사단은 淸平—退溪院간에서 北쪽으로 連繫한 高地를 目標로 進擊하여 抱川지역을, 제3사단은 退溪院—雙門洞간에서 議政府—東豆川 지역을 目標로 하여 進攻토록 군단장 Milburn 소장은 要旨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군단은 51년 3월 23일 08.00를 期하여 現接觸線인 △678—雙門洞간에서 北쪽으로 공격을 시작한 다음 抱川—汶山간을 점령하려한다。

② 제3사단은 東豆川을 점령하라。

③ 제25사단은 抱川을 점령하라。

④ 英제29旅團은 군단예비대로 현위치(永登浦)에서 待機하라。

⑤ 각 사단에 배속된 부대는 계속 유효하다。』

이러한 要旨의 명령을 받은 兩사단은 곧 기동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제3사단의 제15연대(Belgium대대배속)는 議政府—東豆川을, 제65연대(Phillippines 대대배속)는 그 左側에 있는 虎嶺山(議政府 西쪽 4km)—紺嶽山(東豆川 西쪽 9km)을, (제7연대는 최초예비대로) 제25사단의 제24연대는 蘇利峯—海龍山을, 제27연대는 竹葉山—旺方山(抱川 西北쪽)을, (제35연대는 최초예비대로) 그리고 사단에 배속된 Turkey旅團은 酒琴山—國事峰(△547)을 각각 目標로 하여 공격토록 하였다。

한편 제8군에서는 군단의 작전을 조속히 遂行하기 위하여 敵情이 輕微한 坡州—汝山지역에 군직할인 제187공수연대를 投下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계획에 따라 군단은 特殊機械化부대를 편성하였는데 이 부대는 제7연대의 보병1개대대와 제6전차대대, 그리고 기갑포병 2개대대(제58, 제999)와 공병1개중대로 구성한 다음 Glcucester 부대로 호칭하였으며, 또한 韓제1사단이 장차 그 지역을 담당토록 구성한 特殊戰鬪團은 사단의 대전차 공격대대와 제64전차대대의 1개중대, 그리고 공병2개중대로 편성하여 Boone부대라 稱하였다。

(2) 작전실시

5월 23일 : 군단은 이날 제25사단을 右翼으로, 제3사단을 左翼으로 展開하여 現接觸線인 清平—서울北端을 連한 線上에서 일제히 공격을 시작하였으며 第一線의 兩사단은 각기 目標를 向하여 進擊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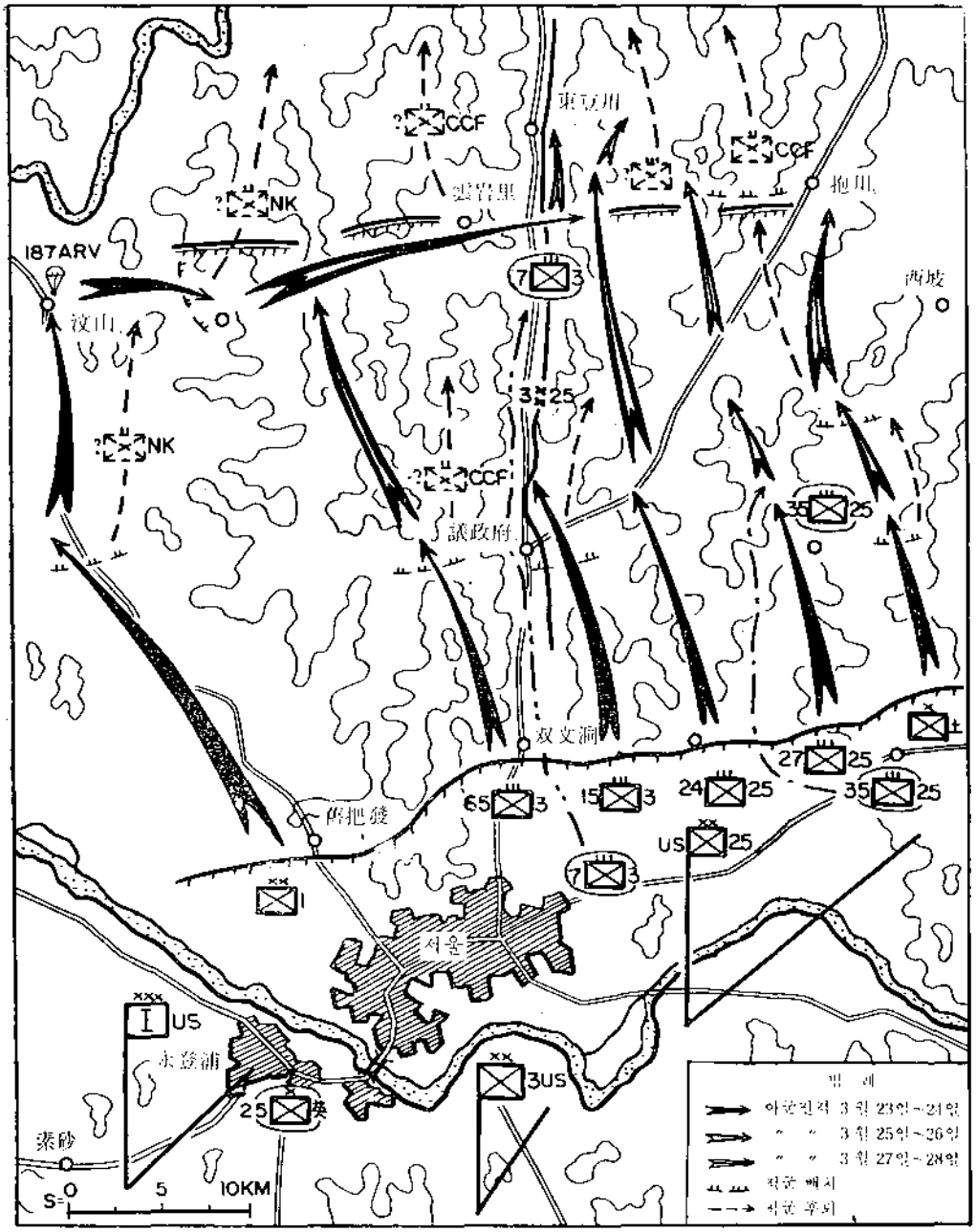
1. 제25사단(장, Kean 소장)은 清平과 退溪院간에서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제24연대(장 Corley 대령)는 楯山洞과 △218(退溪院 北쪽 3km)간에서 경미한 敵을 擊退하고 內洞(內谷里)의 千點山까지 進出한 다음 西北에서 退溪院으로 通하는 機動路를 차단하였으며, 제27연대(장, Michaelis 대령)는 楯山里—天摩山간에서 △581를 공격하여 그곳을 점령한 1개중대 규모의 敵을 一蹴하고 △711로 退却하는 敵을 追擊하면서 一部兵力으로 그北의 右側面인 △453로 迂回케 하여 그高地를 占據한 敵마저 물리치고 △711의 西前面인 △291까지 進擊하였고, 제35연대(장, Fishir 대령)는 예비대로 坪內里에서 사단의 後方을 경계하였다。

2. 한편 Turkey旅團(장, Yazici 준장)은 제25사단의 右側에 있는 △678—△444간에서 제2대대를 右一線으로, 제3대대를 左一線으로, 各各 展開하고 제1대대는 예비대로 控置하여 北西쪽으로 각각 공격을 시작한 다음 제2대대는 별다른 接戰없이 進擊하여 內坊里

의 △296—△338간을 점령하고 前面에 있는 △464의 敵과 對峙하였으며, 제3대대는 敵의 경계부대로 推測되는 1개중대 규모를 擊破하고 △781를 점령하였고, 예비대인 제1대대는 芝屯里에서 어단의 後方을 경계하였다。

3. 제3사단(장, Soule 소장)은 退溪院과 雙門洞간에서 敵의 경계부대를 擊破한 다음

◇ 상황도 제43호 서울—38° 線 進擊作戰(51, 3, 23~28)



議政府까지 進擊하였다。이때에 제15연대(장, Moore 대령)는 佛岩山에서 北쪽으로 뻗은 稜線을 따라 공격을 계속하여 水落山을 점령한 다음 議政府를 공격하였는데 여기를 防守하는 1개중대 규모의 敵은 道路障碍物과 地雷를 매설하여 연대의 進攻을 妨害하므로 연대는 그곳에 砲彈을 퍼부어 機動路를 打開하면서 突進하는 한편 東側에 있는 富龍山(△211)도 점령하였다。그러나 議政府 東北쪽의 △337 일대를 占據한 敵은 執拗하게 저항하였으나 砲火의 集中사용으로 制壓하면서 다음날의 공격을 준비하였다。

제65연대(장, Harris 대령)는 雙門洞에서 道峰山을 점령코자 연대를 左右로 展開한 다음 공격을 시작하였으나 敵은 이미 후퇴하고 없어서 쉽게 점령하고 議政府—松秋를 連하는 機動路까지 進擊하였으며, 예비대인 제7연대(장, Boswell 대령)는 前線의 兩연대가 前進함에 따라 上鳳洞에서 雙門洞부근으로 進出하였다。

4. Belgium대대(장, Crahay 중령)는 제15연대의 左一線부대로 佛岩山의 西側面에서 공격을 시작하여 水落山(△638)의 前斜面까지 進擊한 다음 議政府를 防守하는 敵의 前哨를 발견하자 이를 즉각 공격하여 2명을 射殺하고 2명을 사로 잡았고 그 나머지는 退却하였다。그뒤 연대의 前線일부를 담당하고 敵과 對峙하였는데 23.30에 이르러 敵1개소대 규모의 역습을 받아 대대는 △97(議政府 東쪽)진지에서 교전끝에 擊退시켜 敵 5명을 射殺하고, 戰傷者 6명을 내었다。

5. Phillippines대대(장, Azurin 중령)는 제65연대의 右一線부대로 雙門洞의 右端에서 공격을 시작하여 敵의 抵抗없이 서울에서 議政府로 通하는 機動路를 따라 進擊하는 한편 일부병력은 道峰山으로 進擊하여 이山의 北斜面인 △549를 中心으로 하여 前面에 있는 △198—△339간을 점령하고 다음날의 공격을 준비하였다。

6. 英제29여단(장, T. Brodie·D. S. O. 준장)은 군단예비대로서 水登浦에서 일부 兵力은 鷺梁津으로 進出케 하여 다음작전을 待機하였는데, 한편 군단의 右隣接인 제24사단(장, Bryan 소장)은 清涼山(清平 北쪽 5km)—△639간에서 清平—西浦로 通하는 機動路를 中心으로 進攻하여 祝靈山을 점령한 다음 계속 上山으로 進擊하였으며, 左隣接인 韓제1사단(장, 白善燁준장)은 군단과 合同작전을 展開하여 舊把發에서 경미한 敵을 擊破하고 15km를 一擧에 進擊한 다음 東巨里—金村里를 連한線을 점령하였다。

7. 이와같이 군단의 戰況이 好轉되자 美제8군에서는 當初에 계획한대로 敵의 退路를 차단하여 地域內에 있는 敵을 조속히 擊滅토록 제187공수연대를 汶山地域에 投下하는 동시에 공수연대를 군단에 배속하였다。이때에 군단장 Milburn 소장은 즉각 연대장에게 조속

히 작전태세를 갖추어 그 지역을 確保하라고 명령함으로써 연대는 落下한 汶山의 東側 2~4km지역에서 제5공군의 掩護를 받으면서 작전을 전개하였다。그런데 이 지역에 있던 敵의 主力은 전날에 臨津江을 건너서 退却하였는지 2개중대 규모만이 그곳을 固守코자 抵抗하였으나 強力한 火力과 機動力을 갖춘 연대는 그들을 擊滅하고 일부를 사로 잡았으며 또 일부는 北쪽으로 潰走하였으므로 이 敵을 追擊한 끝에 汶山과 그北쪽에 있는 臨津江 南岸까지 점령한 다음 四周防禦를 하였다。

8. 이에따라 特殊戰鬪團으로 편성한 Gloucester 부대와 Boone 부대는 공수연대와 연결작전을 위한 준비로서 서울에 집결하여 다음 작명을 待機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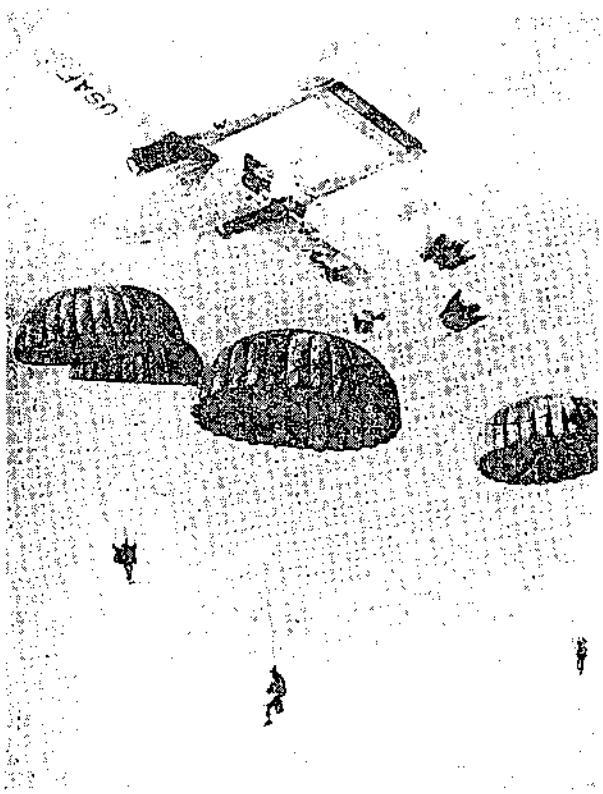
3월 24일 : 군단은 이날 공격을 계속하는 한편 전날에 점령한 汶山부근의 戰線을 擴大하고 제3사단과 연결하도록 要旨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Gloucestr 부대는 先頭부대로서 汶山을 目標로 進擊하여 제187공수연대와 연결하라。

② Boon 부대는 後續부대로서 汶山에 進擊하라。

③ 연결작전이 끝나면 Boone 부대는 汶山을 확보하며, 제187공수연대와 Gloucester 부대는 合同作戰으로 東進하여 東豆川을 目標로 進擊하라。

④ 제3사단은 조속히 進攻하여 제187공수연대(Gloucester 부대포함)와 연결하라。』



<汶山지구 奪還을 위하여 투입되는 공수부대 勇士들>

1. 이러한 명령을 받은 Gloucester와 Boone의 兩부대는 서울에서 金村里을 經由하여 坡州로 進擊하였는데 이날 06.30에 汶山부근에서 제187공수연대와 合勢한 다음, 10.00에 Boore 부대가 그 地域을 防禦하는 한편 제187공수연대(Gloucester 부대포함)는 東豆川을 목표로 進擊하여 法院里(坡州 東쪽 5km)를 점령한 然後에 前面에 있는 高地를 수색하면

서 계속 進攻을 준비하였다。

2. 제3사단(장, Soule 소장)은 이들의 부대와 連結코자 議政府를 中心으로 左右側에서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337(議政府 東北쪽 2km)—虎鳴山(議政府 西北쪽 5km)간을 固守하려는 敵 1개연대 규모의 執拗한 抵抗으로 치열한 激戰을 反復하다가 右側面만 多少 占領하여 當面의 敵과 對峙하였다。

이때에 제15연대(장, Moore 대령)는 △211와 議政府에서 △337의 敵을 공격하다가 미리 △337와 △268간을 占據한 敵과 激戰을 惹起하여 戰車砲와 砲兵의 射擊을 集中하는 가운데 2시간에 걸친 공방전 끝에 兩高地를 점령하였으나 敵은 右側方인 △266에서 逆襲을 敢行하므로 연대는 다시 激戰을 벌인 끝에 이 敵마저 擊退한 다음 右隣接부대가 進擊할때까지 계속 陣地를 確保하고 다음날의 공격을 준비 하였다。

한편 제65연대(장, Harris 대령)는 議政府와 松秋간에서 △347와 △388를 공격하여 警戒부대로 判斷되는 敵을 擊破하고 兩高地를 점령한 다음 계속 進擊하였는데 虎鳴山(△468)과 △516를 占領한 敵은 그高地를 防守코자 死力을 다 하므로 연대는 砲擊을 加하면서 突進을 反復하였으나 敵의 抵抗은 더욱 執拗하여 激戰만을 계속하였다。그리고 예비대인 제7연대(장, Boswell 대령)는 雙門洞에서 議政府 南端으로 進出하여 後方을 경계하였으며, 사단 사령부는 鐵室洞에서 淸凉里로 進出하였다。

3. Belgium대대(장, Crahay 중령)는 議政府에서 제15연대와 合同으로 △337의 敵을 공격하였는데 이곳에 있던 1개중대 규모의 敵은 小火器射擊으로 抵抗하므로 1시간에 걸친 激戰끝에 그高地를 점령한 다음 계속 進攻할 目的으로 前面에 있는 △147일대를 수색하였다。

4. Phillippines대대(장, Azurin 중령)는 제65연대의 右一線인 △339—△198간에서 敵 1개소대 규모를 一蹴하고 △347를 점령한 다음 계속 虎鳴山(△468)을 공격하였으나 그곳을 점령한 敵이 執拗하게 저항하므로 대대는 砲火를 集中하면서 北쪽으로 뻗은 稜線과 東側面의 △156를 目標로 突進하였는데 敵은 바위와 바위사이에 구축한 壕속에서 수류탄과 소총을 亂射하기 때문에 치열한 激戰만 계속되었다。그뒤 야간으로 접어들자 공격을 중지하고 敵의 逆襲에 對備하여 점령한 △347를 확보하면서 當面의 敵과 對峙하였다。

5. 제25사단(장, Kean 소장)의 제24연대(장, Coley 대령)는 전날 점령한 千點山—△289간에서 敵을 공격하여 저항하는 2개중대 규모를 擊退하고 蘇利峰을 占據한 다음 北斜面의 稜線을 따라 계속 進擊하여 茂林里의 △351와 自日洞의 △202에 進出하였으나 敵에

게 瞰制당한 △202에는 敵이 砲擊을 수없이 加한 탓으로 그 高地를 점령한 兵力은 1km東쪽에 있는 △235로 轉進하여 對포병사격으로 制壓하면서, 敵을 견제하였다.

제27연대(장, Michaelis 대령)는 △291에서 接敵없이 前進하여 富坪里의 △265와 無名高地에 進出할 무렵 前面에 있는 明德山과 竹葉山을 占領中인 1개연대 규모의 敵을 接敵에서 砲擊과 小火器사격을 集中하므로 연대는 모든 砲火力을 同時에 加하면서 突擊을 敢行하여 △265와 無名高地를 점령한 다음 그들과 對峙하였다. 그리고 예비대인 제35연대(장, Fishir 대령)는 前線부대가 進攻함에 따라 坪內里에서 內洞(內谷里)으로 進出하여 激戰하는 제27연대의 戰況을 注視하면서 投入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待機하였다.

6. Turkey旅團(장, Yazici 준장)은 △296와 △781에서 北쪽으로 공격을 시작하여 酒琴山과 그西쪽에 있는 △372를 점령코자 하였으나 이미 兩高地를 占領한 2개대대 규모의 敵은 그곳을 防守코자 全力을 다하였는바, 여단은 항공지원을 요청하는 동시에 砲擊을 加하면서 突擊을 敢行하여 △372를 점령하는데 成功하였으나 酒琴山(△814)의 敵은 더욱 끈질기게 抵抗하므로 激戰이 苛烈化되었다. 이때에 제2대대는 △296에서 저항하던 1개중대 규모의 敵을 壓破하고 秘琴里의 △464와 △633을 점령한 다음 계속 酒琴山을 공격하였으나 敵의 執拗한 저항으로 치열한 激戰만을 反復하였으며, 제3대대는 △781에서 進擊하여 △190를 점령한 다음 △372의 敵을 공격하였는데 四面이 小路로 둘러싸인 獨立된 이 高地에는 敵 1개중대 규모가 점령하고 對抗하였으므로 대대는 2시간에 걸친 激戰끝에 敵을 물리치고 이곳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여단본부는 작전을 효과적으로 지휘하기 위하여 麻谷에서 예비대인 제1대대가 위치한 芝里里로 進出하였다.

7. 英제29여단(장, T Brodie. D.S.O. 준장)은 永登浦—鷺梁津간에서 부대를 정비하면서 군단예비대로 다음작전에 참가할 준비를 하였다.

3월 25일 : 군단은 이날 공수부대와의 連合작전에 成功하는 한편 彼我 攻防上의 要地인 竹葉山과 酒琴山을 점령함으로서 抱川으로 進攻하는데 유리한 地形을 확보하였다.

1. 제187공수연대(Gloucester 부대포함)는 法院里에서 東豆川으로 通하는 316番 機動路에 沿하여 進擊하면서 左右側面에 있는 敵을 모조리 擊退하고 △228(東豆川 西쪽 k3m)와 三巨里(東豆川 西쪽 10km)간을 점령한 다음 일부부대는 제3사단과 連合作戰을 위하여 三巨里에서 議政府로 轉進하였는데 전날 이 사단의 正面에서 執拗하게 저항하던 敵은 後方의 차단으로 말미암아 抱川—東豆川간의 山地로 潛退하자 곧 이를 追擊하였으며 敵은 分散 潛走하기에 이르렀다.

2. 제3사단(장, Soule 소장)은 前記한 戰況으로 因하여 커다란 激戰없이 제187공수연대와 連合하는데 成功하였으며 군단에서는 공수연대를 사단에 배속시켰다. 이때에 제65연대(장, Harris 대령)는 △347—△388간에서 進擊하여 전날 敵이 固守하던 虎嶋山과 △516를 경유하여 佛國山과 興竹里의 △380간을 점령한 다음 그 先頭부대는 계속 進擊하다가 新村(議政府 北西쪽 7km)에서 제187공수연대와 合同하였다。한편 제15연대(장, Moore대령)는 金梧洞(議政府 東北쪽)의 △337일대에서 4km를 進擊하여 光沙里의 △217를 점령하였으며, 예비대인 제7연대(장, Boswell 대령)는 議政府 南端에서 金梧洞의 △337일대로 進出하여 다음작전을 待機하였다。

3. Phillippines대대(장, Azurin 중령)는 △347에서 계속 제65연대의 右一線대대로 進擊하여 前述한 공수연대와의 合同작전에 성공한 다음 佛國山과 △369를 점령하고 계속 進攻을 준비하였다。

4. Belgium대대(장, Crahay 중령)는 △337에서 제15연대의 右一線대대로 進擊하여 △217의 西側에 있는 揚地일대를 점령하고 계속 進攻할 德亭里지역에 대한 敵情수색과 地形偵察을 하면서 다음작전을 準備하였다。

5. 제25사단(장, Kean 소장)의 제24연대(장, Corley 대령)는 전날 점령한 △235—△351간에서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이날 議政府를 固守하던 敵의 主力이 이미 退却한 까닭으로 저항하던 敵 2개중대 규모를 가볍게 물리치고 4km前面에 있는 △378—△101간으로 突進한 다음 그一帶를 점령하였다。그러나 제27연대(장, Michaelis 대령)는 富坪里의 △372와 無名高地에서 明德山과 竹葉山의 敵을 공격하였으나 1개연대 규모의 敵은 그 高地를 빼앗기면 抱川까지 一路 潰退하여야만 하기 때문인지 끝까지 發惡하므로 연대는 一進一退의 치열한 激戰만을 거듭하였다。

이때에 사단장은 공격의 氣勢를 늦추지 않고 山地 要部를 조속히 점령코자 예비대인 제35연대(장, Fishir 대령)로써 竹葉山의 左側面을 強打토록 명령하게되자 연대는 즉각 內洞에서 제24, 제27연대간의 戰鬪接境線인 直洞里를 直衝하여 兩연대의 지원사격을 받는 동시에 모든 砲火를 그곳에 集中하면서 2시간에 걸친 치열한 激戰끝에 明德山과 竹葉山을 점령하였는데 夜暗으로 접어들자 敵의 역습으로 전투는 계속되었다。

6. Turkey旅團(장, Yazici 준장)은 占領中인 △633에서 新葉山에서 공격을 계속하여 1개대대 규모의 敵과 저항하는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는데 배속된 戰車부대로 하여금 內里에 있는 30°角度가 되는 △330를 점령케 하고 그 山의 後側方을 打強케 하는 동시에

突擊을 斷行하여 마침내 酒琴山을 점령하였다。

7. 이날 敵의 動向을 살펴보면 議政府지역에서 退却한 中共 제76사단(장, 吳大林)은 東豆川 東側에 있는 山岳지대에서 부대를 再編合하여 東豆川을 확보할 企圖인듯 하였으며 竹葉山과 酒琴山을 防守하던 제77사단(장, 沈華)은 兩山 北쪽에 있는 國事峯(△547)으로 退却하여 그곳에서 竹葉山을 노리고 逆襲을 加하는듯 하였고, 예비대로 抱川—東豆川간의 海龍山을 中心으로 점령한 제78사단은 1개연대 규모로 竹葉山을 다시 공격코자 그곳으로 南進하는 것으로 推斷되었다。

8. 군단예비대인 英제29여단(장, T Brodie. D. S. O. 준장)은 戰況이 好轉됨에 따라 駐屯한 永登浦—鷺梁津간에서 차기작전에 對備한 戰技를 練磨하였다。

3월 26일 : 군단은 이날 酒琴山—竹葉山—德峙里(議政府 北쪽 11km)—法院里—汝山을 連한 線上에서 大擧侵襲하는 敵을 擊破한 다음 계속 進攻할 준비를 하였다。

1. Turkey旅團은 전날에 점령한 酒琴山에서 侵攻하는 1개대대 규모의 敵과 交戰하게 되었는데 이 敵은 여단을 他方面으로 轉進하지 못하도록 牽制하는듯 東北쪽에 있는 △622를 主軸으로 散發的으로 挑戰하였는바 여단은 그때마다 즉각 擊退하면서 敵의 豫想집결지역에 대한 砲擊을 集中하였다。

2. 제25사단(장, Kean 소장)은 竹葉山과 △378간의 陣地를 固守하면서 侵襲하는 敵과 전투를 계속하였다。이날 敵은 증강된 1개연대 규모로 竹葉山을 目標로 공격하므로 사단전 장병은 頑強한 鬪志와 우세한 火力으로 이 敵을 擊退하여 그攻勢를 多少 弱化시켰으나 敵은 계속 끈질기게 侵攻하므로 彼我간에 血戰이 反復되기만 하였다。이때에 제35연대(장, Fishir 대령)는 竹葉山의 陣地에서 전날밤부터 侵攻하는 敵과 激戰을 계속하였는데 이 敵은 새로이 投入된 부대로 推斷되는 1개연대 규모와 合勢하여 左右兩側面인 國事峯(△547)과 稼洞里에서 竹葉山을 노리고 공격을 集中하였다。연대는 모든 可用砲火로 이 敵을 一時擊破하였으나 勇戰奮鬪하는 장병의 威勢앞에 많은 死傷者를 내면서도 撤退의 氣勢를 보이지 않고 發惡하므로 치열한 激戰이 지속되었다。

한편 제24연대(장, Corley 대령)는 △378—△101간에서 2개중대 규모의 敵을 一擊하였는데 이곳은 비교적 개활한 지역이므로 敵도 연대의 進攻을 阻止하기 위한 手段인 듯이 午前에 걸쳐 各 1回式 侵攻하다가 연대의 火力에 依하여 退却하고 말았다。그리고 제37연대(장, Michaelis 대령)는 戰鬪正面을 제35연대에 引繼하고 사단의 예비대가 되어 內洞(內谷里)으로 移動하여 後方을 경계하는 한편 前線연대의 戰況을 注視하면서 다음작전을 待

機하였다。

3. 제3사단(장, Soule 소장)은 이날 戰列을 整備하면서 侵攻하는 敵을 擊退하였는데 敵은 七峯山(東豆川 東南쪽 4km) 일대에서 공수부대의 後方을 차단코자 東豆川을 거쳐 北쪽으로 흐르는 新川을 따라 德亭里를 目標로 侵攻하였으나 사단은 곧 이敵을 擊退하고 그 지역을 확보하였다。

이때에 사단에 배속된 제187공수연대(Gloucester 부대포함)는 先頭부대로서 전날에 점령한 △228(東豆川 南쪽 3km)와 8km西쪽인 三巨里간을 確保하고 있었는데 이날 06.02에 敵은 1개대대 규모로 △228를 공격함으로써 연대는 1시간에 걸친 激戰끝에 擊退하였으나 이敵은 七峯山(△507)에서 侵攻하는 1개대대 규모의 敵과 合勢하여 德亭里로 南進하고 있었다 이 무렵 제15연대(장, Moore 대령)는 △219(德亭里 南쪽 4km)에서 德亭里로 進擊하여 △158(德亭里 西쪽 3km)간을 점령하자마자 南侵하던 敵과 交戰끝에 기갑포병(제187연대)의 지원을 받아 마침내 擊退하고 말았다。

그런데 敵은 공격에 失敗하자 進擊이 不振한 제25사단과의 戰鬪地帶인 高岩里(德亭里 東南쪽 2km)로 그 공격 方向을 轉換하는듯 하므로 사단장은 예비대인 제7연대(장, Borwell 대령)로 하여금 高岩里일대를 占領토록 하고 侵攻하는 敵을 곧 擊滅토록 명령하자 연대는 즉시 △337(議政府 東北쪽)에서 그곳으로 進擊한 다음 그 지역을 점령하였는데 이때에 敵은 연대가 미리 豫測한 대로 侵攻하는 것을 즉각 擊退한 것이었다。한편 제65연대(장, Harris 대령)는 공수연대가 그 前面을 점령한 관계로 奧竹里에서 接戰없이 進擊하여 葛谷里(東豆川 西南쪽 12km)의 老姑山(△401)일대를 점령하고 계속 進攻을 준비하였다。

4. 이날 Belgium대대(장, Crahay 중령)는 楊地에서 接敵없이 進擊하여△158--△197(德亭里 南쪽 5km)간을 점령하였는데 敵은 右前方에 있는 △178에서 공격을 敢行하였으므로 대대는 제15연대와 合同으로 그 敵을 擊退하는 즉시로 계속 高岩里지역을 수색하다가 여기에서 제187공수연대와 처음으로 合同하게 되었다。

5. Phillippines대대는 新村에서 北西쪽으로 進擊하여 老姑山의 右前斜面을 점령한 다음 제65연대와 合同으로 三巨里—梧峴里(東豆川 西쪽 10km)일대를 수색하였으나 敵은 이미 전날에 제187공수연대가 모조리 擊退하여 버린 탓으로 별다른 첩보를 수집하지 못하고 復歸하여 계속 進攻준비를 갖추었다。

6. 군단예비대인 英제29여단(장, T. Brodie D.S.O. 준장)은 永登浦와 鷺梁津간에서

前線狀況을 注視하는 동시에 어느지역에 投入하여도 즉각 戰鬪할 수있는 態勢를 갖추면서 待機하였다。

3월 27일 : 군단은 이날 侵攻하는 敵을 擊退하는 즉시로 곧 追擊을 加하는 동시에 抱川 지역을 防守하는 敵을 壓縮하면서 계속 進攻할 준비의 一環策으로 抱川—東豆川간을 占據中인 敵을 強打하여 戰力을 弱化시켰다。

1. 제25사단(장, Kean 소장)은 전날부터 侵攻한 敵을 그때마다 勇戰으로 擊退하였는데 사단은 敵의 攻勢가 鈍化된 데다가 退却의 徵候마저 있음을 看破하자 즉각 反擊을 시작하여 潰退하는 敵을 追擊하였다。이때에 제35연대(장, Fishir 대령)는 竹蔕山에서 전날부터 侵攻하던 敵과 전투를 계속하였는데 03.00에 이르러 敵은 마지막의 총공격을 企圖하는듯 2개대대 규모로써 侵襲하였는바 연대장병은 陣地의 一角도 讓步치 않고 오히려 모조리 擊退한 다음 날이밝자 潰退하는 敵을 急追하여 金峴里(抱川 南西쪽 7km)를 점령하고 抱川으로 向하는 進攻을 준비하였다。

제24연대(장, Corley 대령)은 △378에서 1개대대 규모의 敵을 擊退하고 4km前方에 있는 △309를 占領한 다음 先頭부대는 계속 進擊하여 海龍山을 공격하는 발판이 된 △423를 점령하였다。그리고 예비대인 제27연대(장, Michaelis 대령)는 계속 內洞에서 後方을 경계하였으며, 사단사령부는 戰況의 好轉에 따라 前方CP를 月文里에서 金浩洞(議政府 東北쪽 2km)으로 躍進케 하여 다음날의 抱川공격을 준비하였다。

2. 한편 Turkey旅團(장, Yazici 준장)은 酒幕山에서 1개대대 규모의 敵을 擊退하고 계속 追擊을 加하여 공격 目標인 國事峯(△547)을 점령하였는데 이때에 제3대대는 助攻으로 △372에서 追擊하여 △312를 점령한 다음 △547의 敵을 前面에서 牽制하는 동안 제2대대가 主力으로써 그 右側面을 強打하여 점령하였다。

3. 제3사단(장, Soule 소장)에 배속된 제187공수대대는 △228에서 그 南쪽 3km에 있는 七峯山의 敵을 自體裝備인 步戰砲의 集中으로 공격하였는데 敵은 증강된 1개대대 규모로서 執拗하게 저항하였으나 步戰의 協同突進으로 무난히 擊破한 다음 그 高地頂上을 포함하여 紙洞里(東豆川 南端)일대까지 모두 掌握하였다。

이에따라 제15연대(장, Moore 대령)는 제187공수연대가 점령하고 있던 雲岩里(東豆川 西南쪽 4km)에 進出하였으며, 제65연대(장, Harris 대령)는 葛谷里에서 梅谷里(東豆川 西쪽 9km)로 躍進하여 그 北쪽에 있는 △424—△366간을 점령한 다음 目標인 紺嶽山을 수색하였으나 그곳에는 2개중대 규모의 敵이 占據하고 있어서 그들의 配置狀況만을 探索함

으로서 이를 參酌하여 다음날의 기동계획을 수립하였고, 예비대인 제7연대(장, Boswell 대령)는 高岩里에서 進擊하여 德亭里—龍岩里간을 점령하고 사단의 後方을 경계하였다。

4. Belgium대대(장, Crahay 중령)는 △197에서 제15연대의 左—線대대로 進擊하여 전날에 정찰한 雲岩里의 △203를 점령하였는데 이 高地는 개활지에 웃뚝솟아 四方을 瞰制할수 있었으므로 敵도 主要視할것을 豫測하고 진지를 튼튼하게 구축하였다。

5. Phillippines대대(장, Azurin 중령)는 老姑山의 前斜面에서 제62연대의 右 第一線부대로 進擊하여 △424를 점령한 다음 그 東側에 있는 龍龍谷을 수색하였으나 별다른 敵情이 없어서 紺嶽山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였다。

6. 군단예비대인 英제29여단(장, T. Brodie, D.S.O 준장)은 계속 永登浦—鷺梁津지역에서 별다른 狀況없이 待機하였다。이날 제5공군의 1개 전투기 편대는 군단의 작전을 支援하였는데 竹葉山지역에서 退却하는 敵을 擊滅하는 동시에 抱川—東豆川간에 있는 海龍山과 旺方山 그리고 國祀峯(△754)일대를 占據한 敵에게 機銃掃射를 비롯한 爆擊을 加하여 견고한 敵의 陣地를 破壞함으로서 그들의 戰鬪力을 弱化시켰다。

3월 28일 : 군단은 이날 戰力이 弱化된 듯한 敵을 계속 擊破하면서 抱川과 東豆川지역을 점령함으로서 부여된 임무인 抱川—東豆川—汶山을 連한 戰線을 확보하고 다음작전을 준비하게 되었다。

1. 제25사단(장, Kean 소장)은 제5공군의 지원을 받아 目標인 抱川지역을 점령하였는데 이날 제35연대(장, Fishir 대령)는 戰鬪機의 掩護를 받으면서 戰車부대를 先頭로 金峴里일대에서 抱川으로 突進한 다음 旺方山과 △528를 점령하였다。이때에 兩高地를 固守中인 1개대대 규모의 敵은 步戰協同과 空地連合으로 集中強打하는 연대에 威壓되어 攻擊의 進展에 따라 北쪽으로 潰退하기만 하였다。

제24연대(장, Corley 대령)는 △309일대에서 海龍山(旺方山 西南쪽)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는데 그곳에있던 敵의 主力은 전날에 제187공수연대가 그山 西北쪽에 있는 七峯山을 점령하고 後側面을 強打한 탓으로 역시 退却하고 말았으며 一部兵力만으로 저항하였는 바 연대는 一擧에 이를 擊破하고 雪云里와 △423로 突進하여 그 山을 점령하였으며, 예비대인 제27연대(장, Michaelis 대령)는 內洞에서 富坪洞부근으로 躍進하였다。

2. Turkey旅團(장, Yazici 준장)은 전날에 점령한 國事峯(△547)에서 진지를 보강하면서 이날의 작전을 待機하다가 右隣接인 제24사단이 西波要域을 점령하자 이에 呼應하여 水源山의 東北쪽에 있는 無名高地로 進擊하여 抱川 東쪽 一角을 점령하였다。

3. 제3사단(장, Soule 소장)은 目標인 東豆川과 紺嶽山을 점령하였는데 배속중인 제187공수연대는 紙杏里에서 △279를 공격하여 저항하던 2개중대 규모의 敵을 擊退한 다음 계속 進擊하여 東豆川을 奪還하였으며, 제15연대(장, Moore 대령)는 雲岩里에서 接戰없이 3km 進擊하여 無名高地(東豆川 西쪽 4km)일대를 掌握하였다。 한편 제65연대(장, Harris 대령)는 △424—△366(神岩里)간에서 공격을 시작하여 目標인 紺嶽山을 점령하였는데 그 山을 防守하던 敵은 臨津江쪽으로 退却하는듯 하더니 연대를 誘引하면서 東側面에 도사리고 있던 2개중대 규모의 敵과 合勢하여 逆襲을 敢行하는 한편 左側面에 있는 雪馬嶺의 接近路(道路)를 이용하여 50명으로 推算되는 騎馬兵이 後方을 차단코자 突進하였다。 이때에 연대장은 곧 後續하던 예비대로써 東側面의 敵을 擊退하고 戰車부대로써 騎馬兵을 阻止한 다음 反擊을 敢行하여 敵을 擊破하였는데 그들은 臨津江沿岸으로 潰走하자 연대는 砲擊을 加하여 완전히 江건너로 潰退하였다。 그리고 예비대인 제7연대(장, Boswell 대령)는 계속 德亭里에서 사단의 後方을 경계하였다。

4. Belgium대대(장, Crahay 중령)는 이날 雲岩里에서 進出하여 △130를 掌握한 연후에 제15연대와 東豆川을 점령한 제187공수연대의 진지를 引受할 준비로서 紙杏里 北쪽에 있는 △279(東豆川 東쪽 2km)일대를 偵察하였다。

5. Pillippines대대(장, Azurin 중령)는 △424에서 제65연대와 合同으로 연대의 目標인 紺嶽山의 東側面을 攻取하였는데 이날 그곳을 점령한 2개중대 규모의 敵은 右側에 있는 小路를 따라 역습을 加하였으나 대대는 1시간에 걸친 激戰끝에 모두 擊退하여 대대의 戰鬪力을 빛냈다。

6. 군단예비대인 英제29연단(장, T Brodie, D. S. O. 준장)은 계속 永登浦—鷺梁津간에서 전투기술을 더욱 鍛鍊하는 동시에 다음작전에 참가할 준비를 갖추면서 待機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敵軍의 動向：군단과 치열한 激戰을 계속하던 中共 제26군은 抱川과 東豆川지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竹葉山—議政府를 連한 지역을 固守코자 마지막의 反擊까지 敢行하였으나 군단의 空輸作戰을 비롯한 優勢한 火力과 白兵力 앞에 退却을 거듭한 결과 戰鬪力을 喪失한듯이 抱川과 東豆川간의 北쪽에 있는 鍾懸山일대에서 흩어진 부대를 再편성하며 일부兵力만이 國祀峰(△754)과 道遙山(東豆川東北쪽 4km)일대에서 彷徨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의 戰力은 當分間 攻勢는 取하지 못할 것이며 지연전과 退却의 두가지 方途以外에는 없

는 것으로 判斷되었으나 이때에 我軍의 정보보고에 의하면 中共 제15군이 漣川지역으로 南進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敵은 防禦戰과 또는 지연전을 실시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判斷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뒤에 군단의 進攻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敗하여 4월 中旬에는 38°線을 넘어 鐵原지역으로 潰走하였다。

我軍의 狀況 : 군단은 6일간에 걸쳐 敵의 主力인 中共 제26군을 擊破하고 抱川—東豆川—汝山을 連한 地域을 점령한 다음 戰線을 整理하면서 다음작전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때에 제25사단의 제35연대는 抱川—旺方山간을, 제24연대는 海龍山일대를, 예비대인 제27연대는 抱川 南쪽부근을 각각 점령하였으며 사단사령부는 金福洞(議政府부근)에 있었다。또한 Turkey旅團은 계속 제25사단의 작전지휘를 받아 富坪里지역에 집결하여 차기작전을 待機하였다。한편 제3사단은 제15연대가 東豆川지역을, 제65연대는 紺嶽山일대를, 예비대인 제7연대는 德亭里를 점령하였으며 사단사령부는 議政府부근에 있었다。또한 Belgium대대는 제15연대의 右一線을 담당하여 제187공수연대가 점령하였던 紙串里의 北쪽에 있는 △279일대를 점령하였으며, Pillippines대대는 제65연대의 右一線을 담당하여 紺嶽山의 東側面을 점령하고 前面에 있는 臨津江일대를 수색하였다。그리고 제187공수연대는 야전투가 끝난다음 29일 22.20분附로 군단의 배속에서 해제되어 제8군 직할로 복귀하였으며, 英제2여단은 군단의 계속 進攻작전에 參加코자 31일 16.00부로 군단 배속으로부터 제3사단에 그 배속이 변경되어 永登浦에서 東豆川의 西쪽 6km에 있는 鶴龍谷부근으로 進出하였다。

이 무렵 全戰線의 狀況을 살펴보면 韓國軍 제1, 제3군단이 襄陽—春川간을, 美 제10, 제9군단이 春川—加平간의 北쪽 高地를 각각 점령하고 當面의 敵과 部分的으로 激突하고 있었다。

그뒤 군단은 38°線을 目標로 進攻하여 4월 中旬에는 漣川지역을 점령한 다음 그 지역에서 부터 臨津江을 沿한 戰線을 確保하고 차기작전을 준비하였다。

이 작전 기간중 군단이 거둔 戰果는 아래와 같다。

부대 \ 구분	射殺	捕虜	계	비고
제 3 사 단	101	449	1.211	Turkey 旅團 포함
제 25 사 단	1.892	91	3.122	
제 187공수연대	402	263	796	
계	2.743	458	5.129	

※ Belgium대대 포로 2명, 사살 7명
Pillippines대대 포로 10명, 사살 7명 >제3사단의 전과에 포함된 數임。

7. 海兵隊의 金浦附近 戰鬪 (1951년 2월 16일부터 1951년 6월 10일까지)

참조 : 백책부도 제37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해병독립제5대대	장 소령	吳 命 福	제23중대	장 중위	金 在 赫
제21중대	장 중위	朴 利 稷	화기중대	장 중위	姜 永 求
제22중대	장 중위	李 鶴 杓			

나. 전투 전의 개황

해병독립제5대대(장, 吳命福소령)는 安東, 榮州지역에서 Guerrilla 殲滅작전을 끝마치고, 1951년 2월 16일에 仁川에 上陸하여 다시 西部戰線에서 전투를 展開하게 되었다.

이 무렵, 西部戰線의 韓國軍과 UN軍은 이미 지난 1월 末부터 反擊을 개시하여 2월 10일에는 仁川과 永登浦를 再奪還하였으며, 제1사단(장, 白善燁준장)은 漢江의 南岸을 따라, 제15연대(장, 金安一대령)는 永登浦에, 제12연대(장, 金鍾甲 대령)는 素砂에 展開하여 對岸에 對한 砲擊과 偵察戰을 계속하면서 서울 奪還을 企圖하였다.

제1사단과 對峙하고 있는 敵은 北傀 제47사단과 中共 제148사단의 一部로써, 漸次 敗色이 짙어짐에 따라 主力은 北으로 退却하기 시작하였고, 그 一部 殘敵이 漢江北岸을 따라 防禦陣을 構築하여 제1사단의 渡河를 阻止하는데 汲汲하였으며, 金浦半島와 仁川一帶에는 小數의 敗殘兵과 Guerrilla 부대가 남아서 散發的인 抵抗을 試圖하고 있었다.

金浦半島는 그 東部와 北部가 漢江과 臨津江 河口로 連繫되어 있는 地理的인 特性때문에, 彼我가 漢江을 中心으로 對峙하고 있는限, 我軍은 그 主力을 배치할 수 없었으므로, 이 半島의 완전한 確保는 서울부근 戰線의 進展如何에 따라 左右되는 것이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해병독립제5대대(장, 吳命福소령)는 仁川에 上陸하자, 곧 警戒임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이어서 戰線이 漸次로 北上함에 따라 金浦半島로 前進하여 그 北端을 主陣地로 占領하면서 對岸인 開豊郡一帶에 對한 偵察戰을 展開하였던 바, 本節에서는 1951년 6월 10일까지의 戰況을 「仁川 警戒作戰」과 「金浦半島의 防守」로 區分키로 한다.

(1) 仁川 警戒作戰

2월 16일 : 대대는 이날 13.00에 仁川第一埠頭에 上陸하는 즉시, 이곳에 駐屯하고 있던 美제2특별공병여단(장, Tweney준장)에 作戰上 배속되어 仁川警戒임무를 맡게 되었다。

이 무렵, 仁川은 그 동안 陸路에만 依存하고 있던 UN軍의 補給品 揚陸과 支援부대의 後續上陸으로, 重要한 後方의 兵站基地가 되었으나, 부근一帶에 殘在하는 敵敗殘兵과 Guerrilla의 威脅은 완전히 除去되지 않고 있었다. 대대장 吳命福소령은 이러한 諸般狀況과 대대의 임무를 分析한 다음, 2개중대를 仁川의 東側 外廓에 배치하여 侵透하는 敵을 阻止케 하고, 1개중대를 예비로 措置하여 市內를 警備케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要旨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대대는 仁川을 防守한면서 지역내의 主要施設을 警備하려 한다.

② 제22, 제23중대는 각각 仁川의 東側△68와 東南쪽 △117를 점령하여 市內로 侵透하는 敵을 阻止, 擊退하라

③ 화기중대는 박격포와 重機 1개반을 제22, 제23중대에 각각 배속하고, 중대(一)는 대대 CP에 위치하여 指示되는 區域을 경계하라.

④ 제21중대는 대대예비대로써 仁川南中에 위치하여 市內 巡察과 主要施設을 경계하라.

⑤ 대대 CP는 仁川南中에 위치한다。』

이리하여 대대는 이날 17.30에 全중대의 배치를 끝마치고, 새로운 임무에 着手하였다。

2월 17일 : 대대장 吳命福소령은 이날 09.00에 첫 작전회의를 열고, 대대의 임무수행에 따른 諸般事項을 討議한 결과 要旨 다음과 같은 특별지시를 하달하였다。

『① 徹底한警戒心으로써, 恒時 出動할 수 있는 態勢를 갖출 것.

② 事故를 防止할 것.

③ 機會敎育을 통하여 次期작전에 對備할 것.

④ 市內 巡察에서는 必히 장교가 指揮할 것。』

이는 당시에 대대의 임무가 特殊하므로, 이를 수행하는 데는 民間人과의 接觸이 많을 것을 考慮하여, 將兵의 姿勢를 確立하기 위한 대대장의 措置였던 바, 이것이 곧 대대가 仁川에 駐屯하고 있는 동안 全부대원의 行動指針이 되었다。

2월 18일 : 대대는 이날부터 仁川港灣司令部의 一般명령 제1호에 따라, 民政機關이 復舊될 때까지 仁川市의 治安까지 담당하게 되었다。이는 戰勢가 漸次로 好轉됨에 따라서 避難民의 復歸가 날로 늘어 나므로, 治安을 確立하기 위하여 取한 暫定的인 措處였다。

대대장 吳命福소령은 이러한 대대의 附加된 임무에 따라서, 仁川市 駐屯 軍憲兵과 경찰을 統合指揮하여, 治安維持에 따르는 임무를 각각 賦與하는 한편, 隸下중대의 정찰지역을 漸次로 擴張하여 素砂의 隣接부대와 연결하므로써, 主補給路인 京仁도로를 確保하였다。

2월 21일 : 대대는 이날 1개분대를 永登浦의 漢江南岸까지 파견하여 정찰을 실시하였다。즉, 대대정보 하사관이 指揮하는 10명의 정찰대는 09.00에 仁川을 출발하여 永登浦一帶의 隣接부대 배치상황과 對岸의 敵情을 確認하였던 바, 敵의 主力은 이미 退却한듯 하며, 一部병력이 제1사단 陣地를 奇襲하는 等, 抵抗을 계속하고 있으나, 제1사단은 언제라도 渡河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戰鬪 상황을 確認하고 16.00에 복귀하였다。

이와같이 대대는 정찰지역을 더욱 擴張하여 제1사단과 連結을 유지하면서 3월 16일까지 仁川을 防禦하고, 또한 治安을 確立하는 임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2) 金浦半島의 防守

中部戰線의 韓國軍과 UN軍이 진격을 계속하므로써, 西部戰線의 敵은 側方이 包圍될 危機에直面하게 되자, 3월 中旬에 서울을 抛棄하고 北으로 退却하기에 이르렀으며, 제1사단(장, 白善燁준장)은 일제히 漢江을 渡河하여 3월 15일에는 서울을 완전히 奪還하였고, 이어서 계속하여 北進을 준비하였다。

이와같이 戰線이 北上함에 따라, 대대는 仁川防守와 治安임무를 끝마치고, 美제2특별공병여단으로 부터 제1사단에 배속되어 佳山洞(仁川 東北쪽 10km)으로 전진하게 되었다。

이때 대대에 賦與된 임무는 제1사단과 漢江을 사이에 두고 連結을 유지하면서 金浦半島에서의 敵의 上陸을 阻止하고 固守함으로써 사단의 左側을 防護하는 것이었다. 또한 金浦半島는 江華島를 비롯한 西海의 여러 島嶼에 影響을 미치는 要域이므로, 水陸兩棲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해병대가 이 지역을 맡게 된 것이다。

3월 16일 : 대대장 吳命福소령은 이날, 佳山洞으로 이동하여 3월 17일 1.000를 기하여 제1사단에 배속되라는 美제1군단장의 작명을 받고, 우선 사단의 작전 現況과 대대의 임무를 分析한 다음, 부대 이동계획을 세우고 다음과 같은 要旨의 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대대는 佳山洞으로 전진하여, 제1사단의 左一線으로써, 金浦半島를 防禦하려 한다.

② 제21중대(증강)는 陽谷里에 위치하여 賦與된 지역을 確保하고, 金浦半島의 北半部에 對한 敵의 上陸을 阻止하라.

③ 제23중대(증강)는 金浦에 위치하여 賦與된 지역을 確保하고, 金浦半島의 南半部에 대

한 敵의 上陸을 阻止하라

④ 화기중대는 제21, 제23중대에 박격포 및 重機 1개반을 각각 배속하고, 중대(一)는 佳山洞에 위치하여 增與된 後方지역을 確保하라.

⑤ 제22중대는 대대예비대로써 최초 佳山洞에 위치하여 增與된 後方지역을 確保하고, 의명 出動할 준비를 하라

⑥ 대대 CP는 佳山洞에 위치한다。』

3월 17일 : 대대는 이날 09.00에 부대 이동을 개시하여 16.00에 제21중대(장, 朴利榮중위)는 陽谷里(金浦 西北쪽 7km)에, 제23중대(장, 金在赫중위)는 金浦에, 그리고 제22중대(장, 李鶴均중위)와 화기중대(장, 姜永求중위)는 佳山洞에 각각 배치되어, 이날부터 지역내 殘敵을 捕捉殲滅하고, 敵의 上陸을 阻止하기 위한 정찰에 着手하였다。

그러나 敗走一路에 있던 敵이 金浦半島에 上陸할 徵候는 보이지 않았으며, 殘敵도 역시 이미 渡河한 듯 하여 대대는 이날 以後에 接敵을 이루지 못하였다。

3월 31일 : 이 무렵 金浦半島의 西側인 江華島에는 육군에서 派遣한 遊擊부대가 活動中이었는데, 대대는 이 부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화기중대의 박격포소대(장, 朴俊善견습사관) 25명을 派遣하고 있었던 바, 소대장 朴俊善견습사관은 北쪽 對岸인 開豊郡一帶의 敵情을 蒐集하고 後方을 攪亂하기 위하여, 이날 12.00에 遊擊부대와 合同으로 海路里에 上陸을 斷行하였다. 敵陣上陸에 성공한 소대는 부근 一帶의 敵情을 觀望하면서 우선, 이곳에 據點을 마련하고 다음날부터 정찰에 着手할 준비를 하였다。

4월 1일 : 소대는 이날 緊急時에 脫出할 수 있도록, 海路里에 橋頭堡를 確保키로 하고, 부근 一帶에 綿密한 搜索網을 편 끝에, 敵의 遊擊隊員 3명을 사로잡고, 수류탄 11발을 노획하였다。

4월 2일 : 前날 잡은 포로의 陳述에서 光德里(開城 西南쪽 9km)에 敵이 潛伏하고 있다는 까닭으로 소대장 朴俊善견습사관은 이 敵을 奇襲하기로 決心하고, 內陸으로 진출하여 이날 10.00에 光德里까지 전진하였다. 소대는 우선 敵의 배치상태를 確認한 다음, 이를 包圍하여 不時에 공격을 감행하니, 敵은 미쳐 抵抗도 못하고 四分五裂되어 分散退避하고 말았다。이와같이 敵을 擊退한 다음, 소대는 敵의 增援부대가 反擊하기에 앞서 즉시 海路里로 철수하여 이날 20.00에 江華島에 復歸하였는데, 이 交戰에서 소대는 손실없이 北共軍 15명을 사살하고, 北共軍 12명과 內務署員 18명을 사로 잡았으며, 다발총 2정과 소총

6정을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4월 4일 : 그 동안 제1사단(장, 白善燁준장)은 北進을 계속하여 이미 臨津江까지 진출하고 있었던 바, 대대는 사단의 작명에 따라 金浦半島의 北端까지 전진하여, 漢江河口로부터 臨津江을 따라 제1사단과 連結하게 되었다。

대대장 吳命福소령은 2개중대를 前方, 1개중대를 예비로 하여 半島의 北端을 連하여 主抵抗線을 構築키로 계획하고 이날 다음과 같은 要旨의 명령을 하달 하였으며, 今後 이 작전槪念 밑에서 金浦半島 防禦임무를 계속하였다。

『① 대대는 金浦半島의 北端을 主抵抗線으로 하여 이를 固守하면서 제1사단의 左側을 掩護하려 한다.

② 제21중대는 대대의 右一線으로 賦與된 전투지대를 防禦하라.

③ 제22중대는 대대의 左一線으로 賦與된 전투지대를 防禦하라.

④ 화기중대는 一線중대에 박격포 및 重機 1개반을 각각 배속하고 중대(一)는 대대의 제2예비대로써 최초 陽谷里에 위치하여 대대 左側을 防護하라.

⑤ 제23중대는 대대 제1예비대로써 최초 陽谷里에 위치하여 대대右側을 防護하고, 의명전방에 投入될 준비를 하라.

⑥ 대대CP는 陽谷里에 위치한다。』

4월 5일 : 대대는 이날 08.00에 부대이동을 개시하여 11.30에 제21중대(장, 朴利稷중위)는 德洞에, 제22중대(장, 李鶴均중위)는 通津에 각각 CP를 設置하고, 제23중대(장, 金在赫중위), 화기중대(장, 姜永求중위) 및 대대 CP는 陽谷里에 전진하였으며 15.00에 이르러 대대는 防禦陣地의 점령을 끝마쳤다. 그러나 대대의 防禦正面은 너무 넓었으므로 대대는 主抵抗線에 連하는 主要 據點에만 병력을 배치하고, 그 間隔은 정찰로서 補強하는 槪念아래 맡어 임무를 계속하면서 4월末에 접어 들었다。

이때 全戰線의 戰況은 다시 急變하여 臨津江까지 전진하였던 제1사단도 다시 後退하게 되었으나, 즉, 38°線 以北으로 後退하였던 敵은 4월 22일부터 全戰線에 결쳐 이른바, 人海戰術로써 南進하므로써 제1사단은 熾烈한 전투를 계속하였으나 4월 27일에는 서울 外郭防禦線까지 後退하였다. 제1사단의 右側인 東豆川 北方에 배치되었던 英聯邦사단의 제29여단도 역시 敵의 攻勢를 맞아 熾烈한 전투를 展開한 끝에 彼我間에 많은 손실을 내고, 여단은 永登浦로 撤收하여 美제1군단의 예비대로써 부대를 再整備하는 한편, 漢江 以

南 지역과 金浦半島를 작전 統制하게 되었다。

4월 26일 : 대대는 美제1군단의 작명에 따라 이날 06.00를 기하여 제1사단으로 부터 英제29여단에 배속이 轉換되었으나, 대대의 임무는 變함이 없었으므로, 急變하는 戰況에 對處하여 더욱 防禦態勢를 堅固히 하였다。

이와같이 金浦半島를 中心으로 防禦임무를 수행하면서, 대대장 吳命福소령은 金浦半島의 地理的인 特性과 敵의 能力을 分析한 결과, 『敵은 渡河장비를 갖추지 못했으며, 또한 制空權이 없으므로 大部隊의 上陸은 없을 것이며, 만일 있다면 少數의 병력이 侵透하는데 不過할 것이다』라는 結論을 얻고, 對岸인 開豊郡一帶에 奇襲上陸을 감행하여 偵察戰을 展開키로 계획하였으니 그 意圖는,

첫째, 敵의 主力이 서울부근 戰線에 注力하고 있는 틈을 타서 後方의 虛를 찌르므로써 敵을 動搖케 하여 戰力을 分散시키고,

둘째, 敵情을 蒐集하고 敵의 後方施設과 補給路를 破壞 및 遮斷하며,

세째, 金浦半島에 對한 敵의 攻擊企圖를 事前에 粉碎하므로써 積極的인 防禦效果를 거두는데 있었다。

5월 3일 : 대대는 一週間에 걸쳐 奇襲上陸을 준비한 다음, 이날 첫 정찰대를 投入하였던 바, 정보수색대 1개분대는 對岸인 領井里에 上陸을 斷行하여 부근 一帶를 捜索中 17.30에 北共軍 1개소대 규모의 병력과 不時에 交戰하여 敵 1명을 사살하고, 3명을 負傷케 하였으며 다발총 1정과 소총 1정, 그리고 실탄 900발을 노획하였다。

5월 4일 : 전날 上陸하였던 분대는 이날 內陸으로 더욱 전진하여 12.00에 月岩里一帶를 捜索한 끝에, 北共 政治保衛部 要員 1명을 사로잡고, 다시 上道里로 전진하여 부근 一帶를 捜索한 끝에, 北共軍 2명을 포로로 하는 동시에 다발총 1정과 수류탄 2발을 노획한 다음, 이날 金浦半島에 復歸하였다。

한편, 韓國軍과 UN軍은 지난 4월 22일부터 시작된 이른바, 敵의 春季攻勢를 완전히 粉碎하고, 5월 20일부터 다시 反擊을 개시하니, 제1사단은 5월 22일에 臨津江까지 전진하였고, 英제29여단도 다시 東豆川부근의 戰線에 投入됨에 따라, 대대는 5월 28일 12.00를 期하여 다시 제1사단에 배속이 전환 되었다。

이와같이 戰況이 好轉됨에 따라, 대대는 開豊郡一帶에 대한 정찰戰을 계속하면서, 보다 本格的인 정찰전을 위하여 敵情을 蒐集하고, 地形을 確認하였다。

6월 5일 : 이날 대대장 吳命福소령은 각 중대의 배치를 再調整키로 하고, 09.00를 期하여

左一線인 제22중대를 右一線으로, 예비대인 제23중대를 左一線으로, 左一線인 제21중대를 예비대로 하여 부대를 再展開하였다。

6월 6일 : 부대를 再배치한 대대장은 그동안 蒐集한 敵情을 基礎로 하여 對岸에 대한 本格的인 威力搜索을 展開키로 계획하고, 이날 다음과 같은 要旨의 명령을 하달 하였다。

『① 대대는 對岸에 對한 強力한 威力搜索을 展開하여 敵의 後方을 攪亂하고 敵情을 蒐集한다.

② 제22중대는 6월 7일 19.00에, 1개소대 규모의 정찰대를 新里에서 渡河시켜, 多文里에 上陸한 다음, 鳳東里(開城 東南쪽 5km) 一帶에 對한 정찰을 실시하라.

③ 제23중대는 6월 6일 19.00에 1개 소대규모의 정찰대를 康寧浦에서 渡河시켜, 下照光里에 上陸한 다음, 月岩里ー光德里一帶에 對한 정찰를 실시하라。』

이리하여 제23중대(장, 金在赫중위)는 즉시 1개소대로 정찰대를 編成하여 19.00에 民間船舶으로 康寧浦를 출발하여 對岸의 下照光里에 上陸하였다。

6월 7일 : 이날 제22중대장 李鶴杓중위는 제2소대(장, 趙漢昇소위)와 박격포 1개반으로 정찰대를 編成한 다음, 이를 부중대장 李東用중위가 指揮토록 하여 渡河준비에 着手하였다。준비가 끝나자, 정찰대는 19.00에 新里를 출발하여 對岸의 多文里에 上陸한 다음, 이곳에 정찰基地를 構築하였다。

한편 전날밤 下照光里에 上陸한 제23중대정찰대는 이날 이 부근에 대한 정찰을 계속하였다。

6월 8일 : 제23중대정찰대는 이날 西北으로 전진하여 光德里一帶를 정찰中, 16.00에 △146에서 北共兵 60명과 不時에 交戰하여 敵 1명을 사살, 권총 1정을 노획한 다음, 敵이 계속 增強될 趨勢를 보이자, 20.30에 下照光里로 이동하여 康寧浦에 복귀하였다。

6월 9일 : 제22중대 정찰대(장, 李東用중위)는 이날 01.30에 北으로 전진을 시작하여 15.30에 鳳東里에 진출하여 一帶를 정찰中, 鳳東里 뒷산 △49(紅文山)에 배치되었던 1개중대 규모의 中共軍을 捕捉하고, 李東用중위의 指揮에 따라 즉시 西北으로 迂回하여 高地를 包圍한 다음, 喊聲과 동시에 일제히 突擊하여 닥치는 대로 무찌르니, 敵은 四分五裂되어 潰走하고 말았다。이 交戰에서 정찰대는 敵사살 29명(장교 4명 포함), 부상 21명과, 소총 7정, 기관단총 2정, 칼빈 1정, 쌍안경 2개, 수류탄 1상자, 白米 250ton, 밀가루 10포대 및 裝具等을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으며, 전사 2명의 손실을 입었다。

6월 10일 : 제22중대 정찰대는 이날 △49를 確保하면서 노획한 食糧을 附近住民들에게

分配한 다음, 17.00에 多文里를 거쳐 新里로 복귀하였다.

대대는 이 紅文山의 전투를 契機로 보다 積極的이고 큰 규모로 對岸에 대한 정찰戰을 展開하게 되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韓國軍과 UN軍은 敵의 春季攻勢를 완전히 擊退하고 北進을 계속하여, 中部戰線에서는 6월 10일에 敵의 要塞인 鐵의 三角地帶를 突破하여 鐵原과 金化를 奪還하기에 이르렀으나, 西部戰線에서는 臨津江을 中心으로 戰線은 膠着狀態를 維持하고 있었다.

해병독립제5대대는 제1사단의 左側으로써 사단의 戰線이 臨津江을 中心으로 固定됨에 따라, 金浦半島의 防禦임무를 계속하는 한편, 對岸인 開豊郡에 前哨陣地를 構築하여 보다 積極的인 偵察戰을 展開하니, 敵은 부득이 一部主力을 이곳에 投入하므로써 熾烈한 전투가 展開되었고, 이로 인하여 敵은 戰力의 分散을 自招하게 되었다. 또한 대대는 계속 한곳에 배치되어 있으므로써 비교적 安定된 상태아래서 敎育과 訓練에도 精進할 수 있었다.

이 戰鬪期間中, 대대가 거둔 戰鬪전과는 다음과 같다.

戰 果 : 사살16명, 포로39명, 負傷3명,

노 획 : 다발총4정, 소총7정, 수류탄13발,

§ 參戰者의 證言

◇ 제5대대 제22중대 부 중대장 李東馬중위 (1972. 9. 10. 해병대사령부 군수참모부장교, 소장)

제5대대는 仁川에 上陸하여 처음에는 仁川市를 방어한 다음, 金浦반도로 전진하였다. 이때 대대의 主抵抗線은 金浦半島의 北端이었지만 대부분의 전투는 정찰대를 對岸에 派遣하여 開豊郡에서 展開되었다.

紅文山전투 : 開豊郡一帶의 정찰戰中에 가장 큰 전과를 거둔 것이 紅文山 전투인데, 이때 나는 정찰대장으로써 제2소대와 박격포 및 輕機 1개반을 이끌고 臨江을 渡河하였다. 內陸으로 前進함에 따라 대대와 交信이 잘 않되어 要所에 無電中繼要員을 배치하면서 開城 南東쪽의 觀東里에 이르렀을 때, 住民으로 부터 隣近에 中共軍이 布陣하고 있다는 諜報를 入手하고, 나는 이를 確認한 다음 3개 分隊로 이를 包圍하여 不時에 기습을 감행하였다. 敵은 당황한 나머지 觀東里 뒷산인 紅文山(△49)으로 달아나는 것을 계속 追擊하여 우리는 이 山마저 점령하여 敵을 거의 全滅시켰다. 이어서 우리 정찰대는 開城까지 전진할 계획이었으나 敵의 增援부대가 올 것을 고려하여 노획한 食糧은 住民들에게 나누어 주고 무기만 회수하여 대대로 복귀하였다. 이때 나는 住民들에게 "國軍이 여러분들을 아직 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우리가 곧 進擊해 올 것이다"고 위로하고 다 같이 萬歲를 부르니, 모두들 感激하였었는데, 그들이 아직 共産治下에서 苦生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8. 海兵隊의 東·西海 島嶼作戰(1) (1951년 2월 13일부터 1951년 5월 24일까지)

참조 : 상황도 개33, 34, 35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1) 東海 島嶼작전

해병독립제42중대장 소위 沈 熙 澤
제1소대 장 소위 李 성 길
제2소대 장 소위 白 南 德
제3소대 장 兵曹長 林 文 善
搜索소대 장 소위 金 성 언

해군상륙작전지휘관 중령 柳 海 巨

(2) 西海 島嶼작전

해병독립제41중대장 중위 李 東 湖
제1소대 장 소위 金 海 萬
제2소대 장 소위 鄭 二 燕
제3소대 장 소위 李 台 鍾

나. 작전 전의 개황

1951년 1월 初에, 地上에서의 戰線이 다시 38°線 以南에 形成됨에 따라서 韓國해군과 UN 해군은 敵의 後方海岸지역에 對한 작전을 더욱 強化하기 위하여, 東海岸의 永興灣을 封鎖키로 계획하였다. 이는 東海岸 교통의 要衝인 元山港을 封鎖하고, 이 海域에 對한 敵의 機雷敷設을 阻止하여 海上작전을 圓滑케 하며, 또한 海岸에 連한 補給路를 遮斷하고, 上陸戰에 對한 威脅을 加重하여 敵에게 병력分散을 強要하는데 그 目的이 있었다.

이러한 해군의 작전계획에 따라서, 해병대는 永興灣에 散在한 島嶼에 上陸하여, 이를 確保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한편 이 무렵, 西海岸에서는 急變하는 戰線을 따라 미처 南下하지 못한 避難民이 海岸地域에 集結하여 스스로 義勇隊를 組織하여 敵에게 抗拒하고 있었으며 해군은 隣接한 島嶼를 中心으로 海上작전을 展開하는 한편, 避難民을 救出하는데 全力을 기우리고 있었다.

이때 해병대는 해군의 작전계획에 따라서 西海岸의 島嶼도 또한 確保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던바, 이는 海上작전을 보다 圓滑케 하고, 內陸에서 活躍하는 義勇隊를 지원하는 한편, 이 島嶼를 據點으로 敵의 後方을 攪亂하고, 補給路를 遮斷하는데 그 目的이 있었다. 더우기 敵의 병력과 補給品의 수송이 西海岸에 隣接한 京義本道에 集中되고 있었으므로 이 島嶼의 戰略的인 위치는 더욱 重要한 것

이었다。

이와같이 東, 西海岸의 諸島嶼를 確保하는 임무를 맡은 해병대는 1951년 2월 5일, 鎭海에서 독립 제41, 제42중대를 새로 編成하여, 主力인 제1연대와 독립제5대대가 地上戰에서 勇戰奮鬪하는 동안, 제42중대는 東海岸에, 뒤이어 제41중대는 西海岸에 각각 投入하여 島嶼작전을 展開하게 되었다。

다. 작전 경과의 개요

(1) 東海 島嶼작전

독립제42중대(장, 沈熙澤소위)는 新編되는 즉시로 사령관 申鉉俊준장의 出動명령을 받고 해군의 작전 指揮아래, 東海岸으로 出動하게 되었다。 즉, 해군본부는 1951년 2월 6일 작명甲 제67호로써 永興灣의 麗島上陸작전 명령을 하달하니, 중대는 이에 따라, 上陸작전 지휘관으로 任命된 해군 柳海巨중령의 指揮아래 LST 801艦에 搭載한 다음, 2월 7일에 鎭海를 出航하여 一路 永興灣으로 航進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麗島를 비롯하여 新島, 小島, 大島, 黃土島의 順으로 上陸작전을 展開하게 되었던 바, 本文에서는 各 島嶼別로 작전상황을 槪述키로 한다。

(가) 麗島 上陸戰

2월 13일 : 중대는 7일간에 걸친 航進끝에, 이날 麗島 北쪽 3mile 海上까지 進出하였다。

이 섬은 永興灣에 있는 섬 가운데에서 가장 크고, 또한 灣의 入口에 있으므로 內岸의 섬에 上陸하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점령하여야 하며, 섬의 敵情은 거의 蒐集된 바 없었다。

중대장 沈熙澤소위는 上陸에 앞서, 上陸작전지휘관 柳海巨중령의 명령에 따라 우선 섬의 敵情을 確認키로 하고, 捜索隊員 10명, 情報要員 2명과 同伴한 義勇청년 1명으로 정찰대를 編成, 이를 指揮하여 이날 11.30에 三榮丸(선장, 鄭元出)에 옮겨 탄 다음, 섬의 東北海岸에 隱密히 상륙하였다。이어서 정찰대는 南쪽으로 전진하여 同伴한 청년으로 하여금 부락민 5명을 데리고 오게 한 다음, 敵情을 探問한 결과, 다음과 같은 諜報를 蒐集하고 母艦에 復歸하였다。

① 北共軍 87명이 이 섬에 駐屯하고 있었으나, 지난 1월 16일에 義勇청년 300명에 依하여 全滅당하였으므로, 靑年들은 敵의 報復을 憂慮하여 墨湖로 避難하였다.

② 1월 26일 05.00에 北共軍 1개중대 병력이 再次 上陸하여 2일간 駐屯後에 元山으로 이동하였다.

③ 이 섬에는 原住民과 避難民 各 200명이 居住하고 있으며, 共産黨員 3명이 배치되어 組織事業을 하고 있다。

上陸작전지휘관 柳海臣중령은 이와같은 敵情을 報告받고, 섬의 地形을 分析한 다음, 上陸海岸은 섬의 東北과 西쪽의 2개 海岸을 사용하고, 敵의 抵抗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上陸艦船은 LST 801艦과 三榮丸을 直接 接岸키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서, 중대장 沈熙澤소위는 다음과 같은 중대의 上陸계획을 세웠다。

『① 제1소대 및 搜索소대와 義勇청년 3명으로 先發隊를 編成하여, 三榮丸으로 東北海岸에 上陸한다.

② 제2, 제3소대는 LST 801艦으로 西쪽 海岸에 上陸한다.

③ 화기소대와 砲分隊는 LST 801艦의 甲板에 배치되어, 제2, 제3소대의 上陸을 掩護한 다음, 後續 上陸한다。』

2월 14일：이날 아침, 先發隊는 三榮丸(선장, 鄭元出)에 옮겨 타고 07.30에 계획된 東北海岸에 上陸하는 즉시로 東北쪽 △72를 目標로 전진하여 11.30에 이를 점령한 다음, 부근 一帶를 수색한 끝에, 약간의 砲彈을 노획하였다。

이어서, 제2, 제3소대는 14.00에 西쪽 海岸으로 上陸하여, 제2소대(장, 白南德소위)는 北쪽의 △74를 점령하였고, 제3소대(장, 林文善 兵曹長)는 마을을 搜索한 끝에, 潛伏한 共産黨員 3명을 索出하여 逃走하는 1명은 사살하고, 2명은 사로 잡았다。

이와같이 一線소대가 順調롭게 진출함에 따라, 15.30에는 화기소대와 砲分隊가 上陸하여, 17.00에 화기소대는 △52를, 砲分隊는 △60를 각각 점령하였고, 이어서 揚陸작업대가 탄약과 보급품을 전부 揚陸하므로써 중대는 이날 19.00에 敵의 抵抗이 없는 가운데 上陸을 完了하였다。

(나) 薪島—小島—大島 上陸戰

麗島가 점령, 確保된 다음, 해군은 美해군과 協調한 끝에, 다시 薪島를 점령하기로 계획하니, 중대는 2월 24일부터 薪島를 비롯한 小島와 大島에 上陸을 斷行하게 되었다。

薪島는 元山비행장이 있는 葛麻半島로 부터 불과 3km 떨어져 있는 섬으로써 그 南쪽에 小島와 大島가 바로 隣接해 있으며 그동안 入手된 諜報에 依하면 薪島에는 규모 未詳의 敵이 防禦하고 있는데, 東南端高地에는 76mm포 3문이 배치되어 있고, 主力은 東北쪽 △96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推測되었다。

上陸작전 지휘관 柳海臣중령은 이러한 敵情과 섬의 地形을 分析한 결과,

『① 上陸海岸은 섬의 南쪽과 東南端의 2개 海岸을 사용한다.

② 上陸작전間에 艦砲사격을 실시한다.

③ 一部병력은 殘留시켜 麗島를 계속 確保한다。』는 指針을 세우는 한편, 上陸부대의 艦岸移動을 위하여 美해군으로 부터 VP 5척을 지원받았다。이때 艦砲사격은 513艇(장, 蔡在陽중위)과 美해군 艦艇이 지원키로 계획되었다。

이와같은 基本指針에 따라, 중대장 沈熙澤소위는 다음과 같은 중대의 上陸계획을 세웠다. 즉,

『제1, 제2소대와 화기소대의 1개분대로 제1波를 編成하여, 東南端해안에 上陸하여 △96를 점령한다.

제3, 제4소대와 화기소대(一)로 제2波를 編成하여, 南쪽 海岸에 上陸하여 섬의 中央에 있는 △63를 점령한다。』

2월 24일 : 중대는 이날 07.30 에 LST 801艦(장, 柳海巨중령)에 搭載한 다음, 麗島를 출발하여 薪島의 東南 海上에 設定된 "랑데부 區域"에 도착하였다。이어서, 제1波는 중대장 沈熙澤소위의 指揮아래 VP 5척에 각각 옮겨타고 海上突擊을 敢行하여, 09.00에 東南端 海岸에 上陸한다음, 09.30에는 目標인 △96를 점령하였다。

또한 제2波는 10.00에 南쪽 海岸으로 上陸하여 11.00 에는 目標인 △63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豫想하였던 敵의 抵抗은 전혀 없었으므로, 중대장 沈熙澤소위는 艦砲사격을 中止토록 要請하는 한편, 섬의 中央에 있는 마을을 수색키로 하고 중대를 이곳으로 전진시켰던 바, 제3소대(장, 林文善 兵曹長)와 제4소대는 11.40에 마을을 점령하고 搜索을 하였으나 敵은 이미 撤退한 것으로 보였다。중대는 계속 西쪽으로 전진하여 13.40에는 섬의 西端까지 모두 搜索을 끝마치므로써 섬을 완전히 점령하였다。

이때 上陸작전 지휘관 柳海巨중령은 美해군 제95기동함대 사령관 Smith소장의 致賀電文과 함께 小島에 上陸하라는 명령을 하달하니, 중대는 숨을 돌릴 겨를도 없이 다시 小島 上陸준비에 着手하였다。

중대장 沈熙澤소위는 즉시 2개소대로 上陸부대를 編成한 다음, 이를 指揮하여 이날 16.00에, 住民이 사용하던 木船으로 薪島를 출발하여 16.30에 小島의 北쪽 海岸에 上陸하였다。그러나 이 섬에서도 敵의 抵抗이 없었으므로, 중대장은 2개소대를 東, 西로 나누어 搜索에 着手하였다。이리하여 17.10에 西側소대는 섬의 西端에서 敵의 彈藥庫를 발견하여 火藥 500상자를 노획하였고, 東側소대는 元山에서 避難온 청년 6명을 救出하였다。중

대는 더욱 綿密한 搜索을 계속한 끝에, 潛伏해 있던 敵 3명을 사살하고, 76mm포 4문, 실탄 42발과 약간의 敵文書를 노획하고, 이날 20.00에 섬을 완전히 점령하였다。

2월 25일 : 중대는 이날 다시 大島에 上陸하게 되었던 바, 중대장 沈熙澤소위는 新島에 殘留하였던 2개소대를 2개波로 編成하여 東北과 東南의 兩개 海岸에 각각 1개소대씩 上陸키로 계획하였다。

제1波(1개소대)는 이날 08.00에 木船으로 新島를 출발하여 09.10에 東南 海岸에 上陸한 다음, 東쪽의 △68를 目標로 진진하였다。이때 소대는 葛麻半島로 부터 敵의 砲擊을 받았으나, 즉시 艦砲사격을 要請하니, 韓, 美해군은 優勢한 火力을 敵의 砲壘에 集中하여 20분만에 이를 沈默시키므로써 소대는 11.35에 △ 68를 무난히 점령하였다。

한편 제2波(1개소대)는 09.30에 역시 木船으로 新島를 출발하여 10.10에 東北海岸에 上陸하였고, 10.50에는 西南쪽의 마을을 점령하여 一帶를 搜索하였으나 이 섬에도 敵은 없었으므로, 중대장 沈熙澤소위는 제2소대장 白南德소위의 指揮아래 50명을 殘留시켜 이 섬을 계속 確保토록 措置하고, 主力은 麗島로 復歸하였다。

(다) 黃土島 上陸戰

중대는 麗島에 본부를 두고, 이미 점령한 섬들을 確保하고 있던 次에, 다시 해군의 作전 명령에 따라 3월 1일에 黃土島에 上陸키로 계획하였다。

이 섬은 葛麻半島의 東쪽 2km에 있는 內陸에 가장 近接한 섬으로서, 이 섬에 上陸하는데는 敵의 陸上砲壘의 威脅이 따르고 있었다。

중대장 沈熙澤소위(朝洗"2"참조)는 우선 上陸에 앞서 이 섬의 敵情을 確認하기 위하여 2월 28일에 搜索隊를 隱密히 上陸시켜 敵情을 確認한 결과, 다음과 같은 諜報를 蒐集하였다。

『黃土島內에는 敵의 부대는 없으나, 小數의 敵이 情報蒐集을 위하여 潛伏하고 있으며, 敵은 중대가 上陸時에 內陸에서 砲擊을 加할 것이다。』

중대장은 이러한 敵情과 섬의 규모를 考慮하여 2개소대만으로 上陸부대를 편성한 다음 萬般의 준비를 갖추고 上陸日을 기다렸으나, 이때 마침 永興灣 一帶의 海上에는 甚한 風浪이 일고 있었으므로 上陸日은 元來계획인 3월 1일에서 3월 4일로 延期되었다。

3월 4일 : 중대장 沈熙澤소위의 指揮아래, 상륙부대는 이날 12.00에 麗島에서 510艇(강, 威德昌대위)에 搭載한 다음, 12.30에 이곳을 출발하여 新島의 南쪽 海上에 設定된 "랑데부 區域"에 도착하였다. 이어서 上陸부대는 美해군으로 부터 지원받은 LCVP 2척에 分乘하

여 14.30에 黃土島 南쪽 海岸에 上陸하는 즉시, 섬의 高地를 目標로 전진하였다.

이때 敵은 內陸으로 부터 熾烈한 砲擊을 加하였으나, 이미 海上에 待機하여 上陸부대를 掩護하던 韓, 美해군은 일제히 艦砲사격을 敵陣에 集中하여, 마침내 이를 沈默시키고 말았다.

이에, 上陸부대는 더욱 士氣가 衝天하여 高地를 점령한 다음, 搜索을 계속하여 16.30에 섬을 완전히 점령하였다.

이로써 중대는 永興灣의 島嶼上陸작전을 모두 끝마치고, 각 섬에 병력을 分散배치하여 防禦態勢를 갖추게 되었다.

(라) 海岸奇襲 및 黃土島 防禦전투

5월 20일 : 중대는 月餘에 걸쳐 敵의 활동을 注視하면서 情報를 蒐集하던 차에, 黃土島의 해군工作隊는 下長津(元山 東南쪽 20km)에 敵 1개소대 규모의 병력이 民家에 5~6명씩 分散駐屯하고 있다는 諜報를 入手하였다.

下長津에는 東海岸의 幹線鐵道와 道路가 南北으로 連結되어 있고, 內陸으로는 높은 山岳이 가로 막혀 敵의 增援에 不利한 地形이므로, 중대는 이 地域에 夜間奇襲을 계획하니, 그 임무는 黃土島駐屯 부대가 맡게 되었다.

黃土島 派遣隊長 金東完 三等兵曹는 즉시, 해군 工作員을 포함하여 16명을 3개조로 編成한 다음, 이를 직접 指揮하여 木船 2척으로 이날 밤에 黃土島를 출발하였다.

5월 21일 : 奇襲부대는 이날 01.40에 下長津 앞 海岸까지 近接하여 敵의 警戒狀態를 確認한 다음, 01.50에 隱密히 上陸하였다. 金東完 三等兵曹는 부대를 지휘하여 이미 目標로 삼은 下長津人民委員長 朴기봉의 집을 包圍하고, 潛伏하고 있던 敵 장교를 사로 잡으려 企圖하였으나 敵이 끝까지 抵抗하므로 40분간의 交戰끝에 부득이 6명을 모두 사살하였는데 그 가운데 3명은 장교였다. 이리하여 부대는 부근一帶를 搜索하고 권총 1정과, 諜報蒐集에 필요한 장교복장 3착을 노획하고, 날이 밝기 前에 黃土島에 復歸하였다.

5월 23일 : 敵은 중대의 積極的인 奇襲작전에 脅威한 나머지 報復을 위하여 黃土島에 夜間奇襲을 企圖하였던 바, 이날 새벽에 20명의 敵은 浪城里(黃土島 東南쪽 5km)로 부터 木船 1척으로 黃土島에 侵襲하여, 01.30에는 섬의 500m前方까지 接近하였다. 그러나 이때, 敵陣을 監視하던 경계병이 이를 早期에 발견하고 즉시 본부에 報告한 즉, 派遣隊長 金東完 三等兵曹는 全병력을 전투배치하고, 敵船이 射程거리 안에 들어 오기를 기다려서,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니, 敵은 처음에는 輕機와 소총으로 抵抗하였으나 더 이상 전진치

못하고 船首를 돌리기 시작하였다。이때를 놓치지 않고 부대는 後退하는 敵船에 더욱 사격을 集中하여 마침내 敵船을 撃沈시키니, 敵은 대부분 사살되거나, 물에 빠져서 全滅하고 말았다。

5월 24일 : 前날의 奇襲에 실패한 敵은 이날 새벽에 元山으로 부터 다시 黃土島에 侵攻을 企圖하였는데, 그 규모는 北共 水路局 소속의 木船 5척과, 병력 100명으로써 重機 2정과 輕機 3정으로 重武裝되어 있었다。

이날도 역시 黃土島 경계부대는 물샐틈 없는 경계태세를 갖추고 敵陣을 監視하고 있던 차에, 01.30에 이르러, 섬의 西南쪽 400m前方에서 侵襲하는 敵을 발견하고, 派遣隊長 金東完 三等兵曹는 즉시 全병력을 배치하여 全力으로 敵의上陸을 阻止하는 한편, 隣近 海上에 있던 해군艦隊에 艦砲지원을 要請하니, 이때 發射되는 照明彈으로 부근 海上은 대낮같이 밝아 졌다。이리하여 勝機를 잡은 부대는 海上에 완전히 露出된 敵에게 사격을 集中하여 마침내 敵船 1척을 撃沈시키니, 敵은 戰意를 잃고 後退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미 黃土島 부근까지 접근한 해군艦隊는 이를 追撃하여 1척을 撃沈시키고, 나머지 3척은 破壞된 채로 拿捕하므로써 敵은 全滅하고 말았다。

이로써 黃土島 경계부대는 二次에 걸친 敵의 侵攻을 모두 撃退하였으며, 兩日間에 걸친 戰鬪에서 거둔 전과와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 果	損 失
敵 船 3척撃沈, 3척 拿捕, 사살 120명	부 상 1명
포 로 1명	

(2) 西海 島嶼작전

해병독립 제41중대(장, 李東洲중위)는 鎭海에서 新編된 以來, 月餘에 걸쳐 부대를 整備하고 特殊작전에 適合한 훈련을 쌓은 다음, 3월 23일에 해군본부작명甲 제172호에 따라 LST 801艦에 승선하여 西海로 出動하게 되었다。

이 무렵, 地上의 戰線에서는 韓國軍과 UN軍이 전반적인 反撃을 展開하고 있었는데, 西部戰線에서는 제1사단(장, 白善燁준장)이 臨津江까지 진출하였고 漢江河口인 金浦半島는 해병독립제5대대(장, 吳命錫소령)가 確保하고 있었다。

한편, 敵은 臨津江 以北으로 後退하여 再攻勢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西海岸의 延白郡 一帶에는 北共軍 제8사단의 제2연대가 있었고, 그 一部 병력이 漢江河口와 海岸에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西海岸의 여러 島嶼에는 敵의 影響이 미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곳에는 해군이 救出한 義勇청년들로 編成된 遊擊隊와, 이를 統制하는 陸, 海軍機關이 活躍하고 있었으나, 防禦態勢가 確立되지 않아 戰勢는 流動的이었다。

이때 해병 독립제41중대(장, 李東潤중위)는 이 島嶼들을 점령, 確保하는 임무를 맡고 喬洞島—白翎島—唐島의 順으로 각 섬에 上陸하게 되었는데, 初期에는 接敵上陸은 아니었다。

(가) 喬洞島 上陸

4월 2일 : 중대는 지난 3월 28일 鎭海를 出發하여 5일간의 航海끝에, 이날 아침 喬洞島의 南쪽 海岸에 전진하여 09.15부터 上陸을 시작하였다。

喬洞島는 江華島의 西側에 隣接한 섬으로써, 元來 大韓청년단, 鄕土防衛隊等이 自體防禦를 위하여 組織되어 있었으나 1950년 11월에 모두 南쪽으로 避難하였고, 뒤이어 12월에는 黃海道로 부터 義勇청년들이 이 섬에 避難하였는데, 이때 白翎島에 본부를 둔 해군정보대는 배속된 해병特攻隊로 하여금 이들을 訓練하여 遊擊隊를 組織하였으며, 이들은 육군 遊擊부대의 작전 指揮아래 延白郡一帶에서 活躍하고 있었다。 그러나 對岸의 敵은 언제라도 이 섬을 奇襲하여 一時的으로 점령할 能力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虎視耽耽 機會를 노리고 있었으니, 중대의 上陸은 매우 時機適切하였던 것이다。

4월 3일 : 중대의 上陸을 알아차린 敵은 이날 03.00부터 對岸인 峰火里에서 砲擊을 加하였으나 중대는 즉시 이에 對應하여 5시간에 걸친 砲擊戰끝에 敵을 沈默시키는 한편, 補給物資의 揚陸을 계속하여 19.00에 上陸을 모두 끝마쳤다。

중대장 李東潤중위는 우선 중대를 섬의 重要高地에 배치하여 防禦態勢를 確立하는 한편, 積極的인 對民宣撫 活動에 着手하였던 바, 중대가 斷行한 措置는 다음과 같다。

『① 面長, 支署主任, 각 청년단체의 책임자로 부터 섬의 現況을 把握한 다음, 布告文을 撒布하여 敎育機關의 復舊, 居住民調査, 船舶 및 각 團體의 登錄을 要求하므로써 治安을 確立하였다。

② 民間難民人에게 食糧을 支給하여 避難民의 生活對策을 마련하고, 豫防接種, 患者加療等을 통하여 防疫을 強化하였다。

③ 政訓장교로 하여금 住民에게 軍作戰을 認識시키고, 戰況설명을 통하여 戰時態勢를 갖추게 하는 한편, 軍牧 中隊중위로 하여금 現地 住民으로 政訓組를 編成케 하여 民心收拾에 注力하였다。

④ 지방청년 100명을 訓練하여 遊擊隊를 編成하는 한편, 이미 組織되어 있는 遊擊隊 400명을 육군으로 부터 引受하여 작전指揮 系統을 一元化하였다.』

또한 중대는 對岸의 峰火里에 艦砲사격을 要請하여, 4월 5일에는 해군 306艇이 敵의 砲臺를 파괴하였고, 4월 10일에는 延安一帶에 敵 4,500명이 集結하였다는 諜報에 따라, 美제5공군으로 하이금 이를 爆擊케 하여 敵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다.

이와같이 중대는 軍民이 渾然一體가 되어 이 섬을 確保하면서, 指揮下의 遊擊隊를 活用하여 情報蒐集과 敵의 後方을 攪亂하는 작전을 계속 展開하였다.

(나) 白翎島 上陸

4월 23일 : 중대는 20일간에 걸쳐서 舊洞島의 防禦態勢를 確立한 다음, 이곳을 떠나 다시 白翎島에 上陸하여, 이 섬을 防禦하고, 섬안에 있는 軍事施設을 防護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이때, 白翎島는 西海岸 海上작전과 情報活動의 中心地였으며, 이곳에는 육군과 해군경비대 100명, 경찰 8명, 美육군 항공대 87명이 駐屯하고 있었고, 避難民 8,000명이 居住하고 있었으나, 이들은 地上전투원이 아니었으므로 섬의 防禦는 이 海域에서 작전中인 해군艦艇에 依存하고 있었다.

중대장 李東潤중위는 이러한 섬의 現況을 把握한 다음, 본부를 沙谷洞에 設置하고 白翎島비행장 부근에 병력을 배치하는 한편, 섬안의 各軍 부대와 協調하여 警戒區域을 設定하고, 避難民 청년 300명을 訓練, 武裝시켜 섬의 防禦態勢를 確立하였다. 또한 이곳에서도 例外없이, 積極的인 對民宣撫활동을 통하여 軍民의 緊密한 協調體制를 이룩하였다.

(다) 席島 上陸

5월 7일 : 중대는 白翎島로 부터 北上하여 다시 席島에 上陸을 斷行하게 되었는데, 崔우성二等兵曹의 指揮아래 遊擊隊 50명이 先發隊로 編成되어, 이미 지난 5월 3일에 白翎島를 출발하였고 뒤이어 이날 중대의 主力이 席島에 上陸하였다.

중대가 席島에 上陸하므로써 얻어지는 利點은,

첫째, 여기는 黃海道의 北端에서 불과 3km떨어져 있으므로 黃海道一帶에 대한 情報활동의 主要據點이 確保되고,

둘째, 그동안 이 섬을 中心으로 展開되던 散發的인 遊擊활동을 一元化하여 組織的인 活動을 展開할 수 있으며,

세째, 遊擊戰을 통하여 敵의 後方을 攪亂하고, 補給路를 遮斷하므로써 一線의 敵 能力

을 弱化시키는 本來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는 것이었다。

중대장 李東湖중위는 上陸을 끝마친 다음, 住民들의 自發的인 協調를 받아 섬의 主要高地에 防禦陣地를 構築하는 한편, 內陸地形에 能通한 청년 100명으로 義勇隊를 組織하고, 諜報要員 50명을 訓練하였으며 또한 船員 50명을 雇傭하여 將次 奇襲上陸을 위한 萬般의 준비를 갖추었다。

라. 작전 후의 개황

東海岸의 永興灣 封鎖를 계획하였던 韓國해군과 UN해군은 해병독립 제42중대가 永興灣의 諸島嶼를 점령, 確保하므로써 최초 企圖하였던 바 작전效果를 모두 達成할 수 있었다。 중대는 이 섬들을 계속 確保하면서, 情報蒐集과 監視활동을 통하여 我해군 작전을 방해하는 敵의 機雷敷設과 陸上砲擊의 活動을 阻止하고 積極的인 內陸奇襲작전을 통하여 敵의 後方을 攪乱하는 작전을 계속하였다。

한편 西海岸의 독립제41중대는 이미 점령한 島嶼를 계속 確保하는 한편, 島嶼를 中心으로 內陸에 奇襲上陸을 敢行하여 組織的인 遊擊戰을 展開하므로써 敵은 작전에 큰 打擊을 받게 되었다。

이와같이 島嶼작전의 效果와 比重이 커짐에 따라 해병대는 1951년 8월에는 다시 독립 제43중대를 新編하여 東海岸에 投入하게 되었으며, 이 부대들은 다시 大隊級으로 開編되어, 後日 해병島嶼부대의 母體가 되었다。

§ 硏 究

1. 東海岸의 永興灣 封鎖작전의 全般的인 작전배경과 계획은 本書의 "韓國해군의 永興灣 島嶼上陸작전"을 참조할 것이며 本文에는 上陸軍의 地上작전을 主로 다루었다。

2. 黃土島 上陸時 中隊長 : 해병 東海부대 전투 詳報에는 沈熙澤소위로 나와 있으나 해군의 記錄(上記 永興灣 島嶼上陸작전의 文獻硏究 참조)에는 中大統대위로 記錄되어 있다。本文에는 前者를 引用하였다。

§ 參戰者의 證言

◇ 독립 제41중대장 李東湖중위

(1972. 10. 14.해병교육기지 사령관실에서, 소장)

독립 제41중대의 편성 : 처음에 編成할 때는 독립 제41중대로 命名되었으나 後에 제42중대로 改稱되었다。그때 나는 중대장으로 任命되어 鎭海에서 新兵과 병원에서 復隊된 인원 150여명으로 중대를 編成하고 訓練에 着手하였는데, 처음에 우리중대의 編成目的은 敵의 後方에 空輸로 投入되어 特殊任務를 수행한다고 하여 訓練은 空輸訓練, 潛伏과 奇襲, 避避 및 脫出等 特殊訓練을 主로 하였다。이리하여 一個月에 걸쳐 猛訓練을 거듭하니 가히 一當百의 精兵이 되었으나 後에

敵陣에 空輸投下하는 계획이 變更되어 西海의 島嶼작전에 參加하게 되었다。

喬洞島 上陸：上陸當時는 敵情을 알지 못하고 敵陣上陸의 態勢로 上陸하였는데, 實際로 敵은 없었다。그 다음 나는 主로 對民宣撫活動과 治安確保에 注力하였는데, 特히 當時 軍敎이었던 申成國중위의 活躍이 컸다。 또한 地方청년들로 遊擊隊를 組織하였는데 이들을 武裝시키기 위하여 申중위를 사령부에 보내서 해병대가 京仁작전에서 노획한 武器 400명분을 獲得하였다。

白翎島 上陸：우리중대가 白翎島에 上陸하니 그곳에는 해군의 文基燮씨가 指揮하는 情報부대가 있었다。나는 于先 섬의 방어態勢를 再調整한다음 對民 宣撫活動과 遊擊隊를 組織하였다。그런데 어느날, 喬洞島에서 우리가 組織하였던 女子政訓組 5명이 白翎島로 우리중대를 찾아 와서 데리고 오지 않은 것을 怨望하면서, 끝까지 해병대와 같이 國家를 위해 奉仕하겠다고 歎願하여 나는 그들의 愛國精神에 感銘을 받았다。그들은 後에 席島까지 우리 중대에서 從軍하면서 많은 活躍을 하였다。

席島 上陸：白翎島에서 席島로 이동할 때는 民間魚船을 利用하였다。그 後에 우리중대는 席島를 中心으로 黃海道의 海岸地帶에 上陸하여 本格的인 전투를 시작하였는데, 이때 創設當時 鎭海에서 닦은 特殊訓練의 效果를 最大로 發揮하였다。또한 같이 從軍한 遊擊隊의 活躍도 컸으며 이들은 後에 해병대에 現地 入隊시켜서 海兵 제9期가 되었다。

9. 海軍 PF—62艦의 身彌島 戰鬪 (1951년 4월 11일부터 1951년 4월 16일까지)

참조 : 상황도 제44호

가. 주요 참가 함정 및 지휘관

PF—62함	장	중령	李 哉 松
YMS—512함	장	중위	朴 世 忠
YMS—515함	장	대위	鄭 一 燦
YMS—308함	장	대위	白 慶 在

나. 전투 경과의 개요

1951년 4월 11일 : 海軍本部에서는 10일 美 海軍으로부터 적의 MIG—15戰鬪機 1機를 鴨綠江 下流의 身彌島의 北緯 39°35′ 東經 124° 55′ 地點에 撃墜시켰다는 通報를 받고 즉시 西海에서 警備任務를 遂行하고 있던 PF—62함(장, 李哉松 중령)에게 現地에 出動하여 動態를 調査하고 可能하면 敵機의 機體를 運搬하도록 命令을 내리었다。

이 戰爭의 始初부터 우리 空軍은 完全히 制空權을 掌握하고 있었으나 年末부터 敵은 새로운 機種인 蘇聯製 MIG—15戰鬪機를 登場시켜 우리의 制空權 掌握에 制動을 걸어왔던 것이며 이 MIG—15戰鬪機는 몇가지 性能에 있어서 UN航空機보다 優秀한 것으로 認定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UN當局에서는 이 새로운 戰鬪機의 性能을 探知하기 위하여 機體의 入手에 온갖 努力을 傾注하고 있었던 것이다。

4월 12일 : PF—62함장 李哉松 중령은 命令을 받고나서 06.50에 鎭海中의 白翎島를 出港하여 12.45에 大靑島에 이르러 英國艦 Warramurga호와 맞나 앞으로의 行動을 協議하고 16.17에는 다시 白翎島를 돌아와서 麾下 艦艇인 YMS—512함(장, 朴世忠중위)과 YMS—515함(장, 鄭一燦 대위), 그리고 YMS—308함(장, 白慶在 대위)의 各 艦長들을 불러 作戰會議를 召集하였으며 17.25에는 旗艦인 PF—62함을 先頭로하여 YMS—308함 YMS

—512함 YMS—515함의 順序로 隊形을 짜고 一路 身彌島를 向하여 出動하였다.

4월 13일 : 이날은 風浪이 甚하여 각 함정은 大和島와 小和島 近海에서 風浪이 잦기를 기다리며 警備任務를 遂行케 하였으며 PF—62함장은 18.25에 同 艦의 甲板士官 李學洪 중위로 하여금 士兵 7명을 거느리고 小和島에 上陸하여 住民들로부터 近者의 身彌島의 敵情을 探知케 하였다.

4월 14일 : 06.20에 小和島 錨泊地를 出發한 함정들은 身彌島 一帶의 巡航警備에 從事하였으며 YMS—308함은 身彌島 西쪽 蝶島(俗稱 나비섬)에 이르러 우리 空軍特別工作隊員을 救出하게 되었다. 이들은 앞서 10일에 MIG—15戰鬪機의 機體 回收의 任務를 띠고 身彌島에 落下傘으로 投入되었었으나 機體는 끝내 發見하지 못하고 적의 공격을 받고 이 蝶島에 이동하여 救出을 고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14.15에 YMS—308함은 이 空軍特別工作隊員 16명과 그들이 捕獲한 적의 情報員 5명을 救出하여 다음 날(15일) 20.00에 PF—62함에 引繼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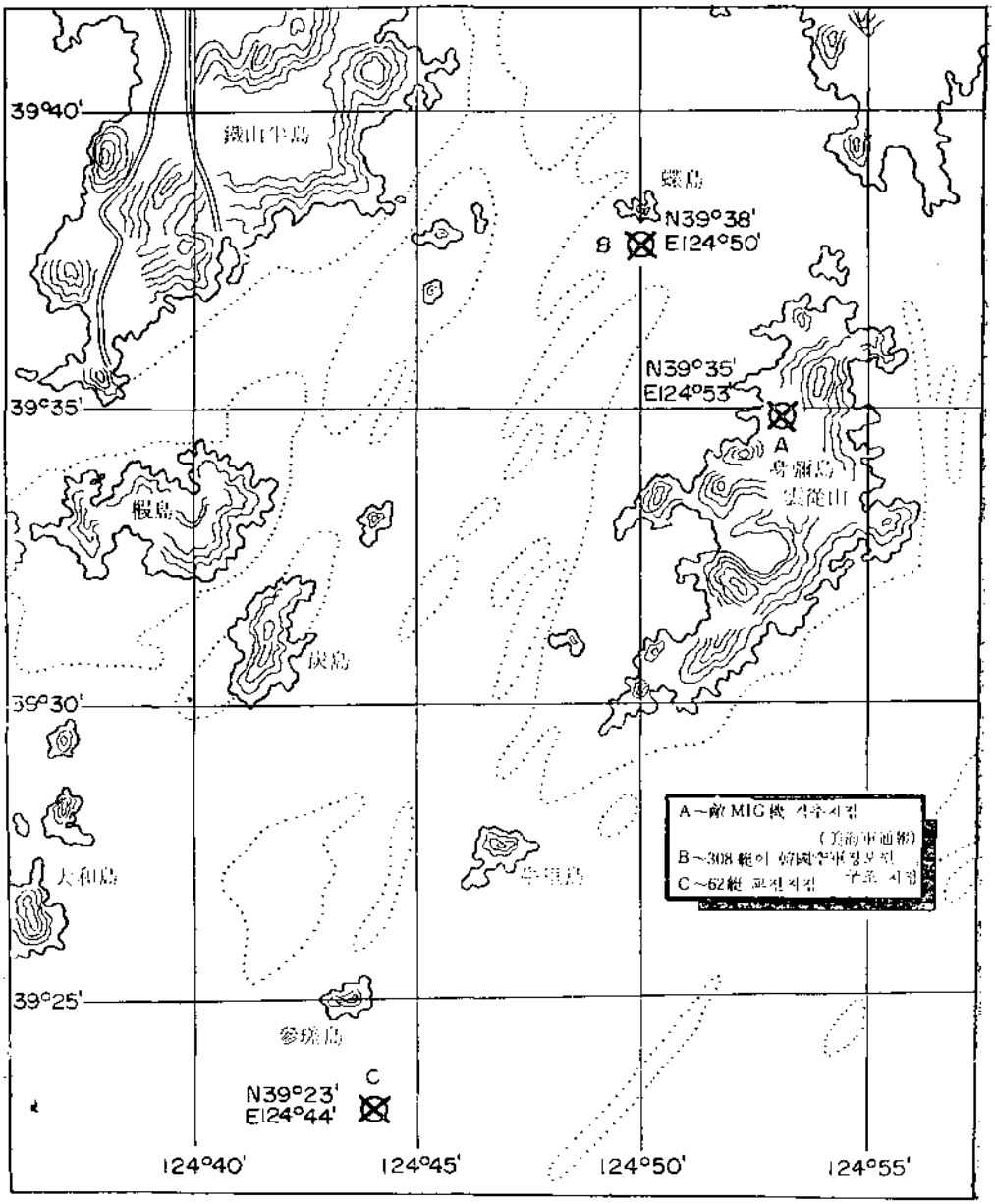
4월 15일 : 身彌島 東쪽 海域을 警備 중이던 YMS—512함이 17.05에 北緯 39°34′50″ 東經 124°50′55″ 地點에 坐礁하는 事故가 발생하였다. 이 一帶는 干潮 時에는 陸地와 뻘로서 연결되는 水深이 아주 낮은 海域이었다. PF—62함과 YMS—515함이 급거 救助 차 달려갔으나 同 艦은 多幸히 다음 날(16일) 04.30 滿潮 時를 利用하여 自力으로 離礁하는데 成功하였다.

4월 16일 : 이날 아침에 任務를 完遂한 함정들은 PF—62함을 先頭로하여 歸航길에 올랐다. 鴨綠江 下流인 이 海域은 滿洲에 基地를 둔 적의 航空機의 活動圈內에 있어 PF—62함은 警戒航海當直으로 針路 224° 速力 16knot로 航進하고 있었으나 08.00 北緯 39°23′ 東經 124°44′ 地點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敵의 YAK戰鬪機 4臺의 습격을 받았던 것이다.

적기들은 아침 해를 등지고 東쪽에서 기습하여 왔다. 우리 監視兵의 눈을 瞞着하기 위한 細心한 의도가 엿보였다. 제1차 공격은 2臺의 적기가 左舷 艦尾方向으로부터 急降下하면서 艦首方向으로 공격하므로서 시작되었다. 차례로 爆彈을 投彈하면서 機銃掃射를 加한 다음 艦首에서 右舷으로 旋回하였으며 이어서 세번째의 적기는 艦尾로부터 我艦 左舷의 中央部를 향하여 기총소사를 퍼부었다.

瞬息間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08.00에는 海軍함정에서는 當直交替 시간으로서 上下番 當直者의 交代로 인한 약간의 어수선한 틈바귀에서도 全 將兵은 재빨리 各自의 部署를 찾아 뛰어 갔으며 적기가 제2차의 공격을 하였을 때에는 戰鬪態勢는 完全히 갖추어져 있었다.

◇ 상황도 제44호 身彌島 作戰



이번에는 4機의 적기가 차례로 左舷 艦尾로부터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爆彈과 機銃掃射를 퍼붓고나서 機首를 치켜드는 瞬間에 이 기회를 노리던 各砲要員은 一齊히 砲門을 열어 火力을 集中시켰다。

이 때 적의 제1번기에 砲彈이 命中하여 敵機는 機體를 右便으로 기우뚱 기우리더니 나머지 爆彈을 발악하듯 海中에 떨어뜨리고 我艦의 右舷 艦首 前方 500yds 海上에 爆音도

요란하게 墜落하여 海中에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한편 나머지 3台는 악착같이 제3차의 공격을 시도하였다。 左舷 上空으로부터 빗발치듯 기총소사를 加하여 急襲하는 적기에 대하여 我艦의 砲火는 또다시 炸裂하였다。 마침내 적기의 1台가 胴體로부터 黑煙의 꼬리를 길게 내뿜으면서 비틀거리며 北쪽으로 逃走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2台도 뒤질세라 뒤를 따라 退走하고 말았다。

이 海와 空의 對決은 不過 13분만에 끝났으나 來襲한 적기 4台 중에서 1台를 擊墜하고 1台를 擊破하였다。 火力도 充分치 못한 警備艦인 Frigate 型艦이 4台의 戰鬪機와 對決하여 이 같은 戰果를 올린 것이다。

이 戰鬪에서 我方의 損傷은 8명의 重輕傷者를 내었으며 敵機가 投彈한 폭탄의 海中爆發로 因하여 我艦의 艦首 左舷底部에 相當한 破損을 입었으나 乘組將兵의 防水作業과 美救助艦의 來援으로 應急措置를 完了하여 釜山으로 歸航하게 되었다。

10. 海軍의 輸送支援作戰 (1951년 1월 1일부터 1951년 5월 31일까지)

海上 補給 輸送 業務는 戰時 中 우리 海軍이 수행한 주요한 作戰任務의 하나였다. 母港을 떠나 멀리 떨어져 장기간 海上에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艦艇에게 油類(燃料)와 彈藥 및 食糧을 비롯한 그 밖의 모든 補給物資를 적시에 안전하게 現地補給하여야 하는 輸送艦艇의 역할은 一線에서 활약하는 戰鬪艦艇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었다.

이 번 期間에 우리 海軍이 수행한 주요 輸送 支援을 위한 모든 海上 活動은 위에서 言及한바와 같이 一線의 戰鬪艦艇에 대한 現地補給 外에 다음과 같은 特殊面을 띄고 있었다.

첫째는 避難民의 輸送과 救護活動의 展開이다. 1950년 겨울 中共軍의 侵略으로 惹出된 我軍의 撤收에 있어서 赤治下의 生存을 거부하고 我軍을 따라 南下하려고 男負女戴하여 雲集한 北韓同胞들을 鎭南浦—仁川—咸興—元山 等地에서 救出하여 巨濟島와 濟州島의 收容所를 비롯하여 南韓 各地에 수송하는 한편 그들에게 제공되는 各 機關으로부터의 救護物資의 輸送을 擔當하였다.

특히 敵의 신속한 侵入으로 말미암아 敵中에 孤立된 黃海道 西部地域의 주민들이 同道 西南部 海岸에 몰려 海上으로의 脫出路를 찾게되자 西海를 警備 중이던 우리 海軍艦艇이 雪寒과 風浪을 무릅쓰고 直接陸地로 부터 그들을 救出하여 椵島—白翎島 등 여러 島嶼에 수송하는 作戰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둘째는 우리 陸軍과 UN軍의 兵力과 軍需物資의 輸送支援이다. 地上의 戰線의 三陟—鳥山 線으로 形成유지되자 仁川, 元山등 港口의 使用이 不可能하게 되고 海外로부터 遠至하는 支援 物資가 오직 釜山港에만 集中하게 되어 그 방대한 물량을 消化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海軍이 그 重要한 一翼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特히 濟州島에 陸軍第1訓練所가 設置되고 그 밖의 여러 부대도 뒤따라 集結하게 되자 濟州島로의 訓練兵을 위시한 人員과 補給物資의 수송은 우리 海軍의 주요한 責任과제로 浮刻되었던 것이다.

元來 우리 海軍의 輸送業務는 今次戰爭 以前에는 海上輸送은 作戰局 作戰課에서, 그리고 陸上輸送의 鐵道便은 軍需局 補給課에서, 自動車便은 企劃課에서 各各 分掌하여 오다가 本戰爭 이후부터는 作戰局 水路課에서 一括 管掌하고 있었다。

그리고 所屬 船舶으로는 戰爭開始 以前까지는 交通部 所管인 LST와 FS 각 1척을 1949. 7. 1에 引受하여 出動과 警備 및 艦艇의 海上補給 業務를 수행케하여 왔으나 戰爭이 일어나자 戰時體制로 轉換하는 第1段階로 官民所有의 大型船舶에 대한 徵發措置를 取하게 되어 從前까지는 海運公社의 所屬이었던 LST 8척과 FS 10척을 모두 海軍에 隷屬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위의 徵發 船舶 중에서 이 번 기간에 활약한 것으로는 LST 蔚山號와 加平號 그리고 溫陽號와 洪川號를 비롯하여 安東號와 三浪津號 그리고 丹陽號와 烏致院號가 있었고 또 FS는 忠州號와 平澤號 그리고 倭館號와 驪州號를 爲始하여 金海號와 原州號가 있었다。 地上軍이 東, 西兩海岸에서 철수할 때에 실시된 피난민의 구출 및 救護 작전은 別途 項目에서 취급키로 하고 여기에서는 여타의 수송지원 활동을 日誌體로 기술키로 한다。

1951년 1월 2일 : 馬山에서 公演을 갖기 위하여 海軍 政訓音樂隊를 釜山에서 馬山까지 수송하였다。

1월 5일 : 群山에 積置되어 있는 政府가 管理하는 米穀을 疎開 輸送하기 위하여 LST 蔚山號와 LST 加平號를 각기 釜山에서 群山으로 廻航시켰으며 LST—801함(장, 柳海臣 중령)은 政府用 資材와 避難民을 滿載하고 濟州에 입항하였다。

1월 8일 : LST 洪川號는 陸軍用 軍需物資를 積載하고 三陟과 墨湖 등지에 수송하였으며 한편 補項警備府에서 모집한 海軍의 新兵 240명을 鎭海로 수송하였다。

1월 9일 : FS 忠州號(船長 金鐵元)는 韓國銀行의 貨幣와 軍警家族을 濟州와 木浦에 수송하였으며 YMS—501함(장, 李玩鏞 대위)과 YMS—512함(장, 朴世忠 중위)은 墨湖로부터 陸軍用 軍糧과 軍需物資 그리고 避難民 1,000명을 竹邊에 수송하였다。

1월 11일 : 釜山의 赤崎에 집결한 피난민을 LST 烏致院號에 乘船시켜 巨濟島 수용소로 수송하였으며 墨湖에 放置되어 있는 內務部 所屬 60ton級 起重機를 徵發船 智異山號로 하여금 釜山港에 曳引토록 하였다。 또한 YMS—513함(장, 蔡在錫 중위)으로는 注文津港에서 陸軍과 警察家族 150명을 편승시켜 墨湖港에 수송토록 하였으며 仁川地區의 피난민을 YMS—313함(장, 朴兌鉉 대위)에 120명을, YMS—510함(장, 咸德昌 대위)이 500명을 각기 德積島에 수송하였으며 JMS—310함(장, 李禮振대위)이 110명을 大川里에 수송하였다。

1월 12일 : 徵發船 第15 東興丸으로 軍糧米를 釜山에서 鎭海 海軍士官學校에 수송토록 하였으며 徵發船 第2 中吉丸으로는 濟州基地司令部에 供給할 重油를 수송케 하였다。

1월 14일 : 徵發船 清興丸과 그 밖의 3척을 동원하여 巨濟島의 長承浦에 피난민을 수송하였다。

1월 16일 : 木浦 부근의 각 도서에서 召集되는 陸軍 第2國民兵의 수송을 위하여 木浦警備府에서는 徵發船 6척을 동원 협조하였다。

1월 17일 : 群山에 공급할 補給物資를 徵發船 第15 京仁丸으로 하여금 수송토록하고 아울러 동 지구의 政府 管理 糧穀을 濟州에 수송토록 하였다。

1월 18일 : 徵發船 慶洋號로서 鎭海에 所在하는 各種 海軍 學校에 入校할 士兵을 釜山港에서 수송하였다。

1월 20일 : LST 溫陽號(船長, 李繼弘)가 群山에서 政府 管理 糧穀을 적재하고 西海의 於靑島에 수송하기 위하여 釜山港을 출항하였다。

1월 21일 : FS 平澤號가 軍需物資를 鎭海에 수송하기 위하여 釜山을 출발하였다。

1월 23일 : LST 洪川號를 水營에 廻航시켜 軍需物資를 적재하고 濟州로 수송토록 하였으며 그 뒤에 다시 群山으로 가서 政府 管理 糧穀의 수송에 종사토록 하였다。

1월 24일 : 墨湖에 수송할 陸軍의 兵器와 彈藥 기타 軍需物資를 FS 平澤號를 派送 수송케 하였다。

1월 26일 : 美 海軍으로부터 受領할 彈藥을 水營에서 鎭海까지 수송하기 위하여 FS 倭館號를 파견하였다。

1월 28일 : 東海岸의 汀羅港에 방치되어 있는 沒落船을 釜山에 曳引하기 위하여 海軍의 6號艇과 徵發船 延日號를 派遣하였으며 FS 驪州號(船長, 金景水)로는 韓國銀行 貨幣를 濟州에 수송하고 나서 木浦에 廻航하여 政府 管理 糧穀을 다시 濟州에 수송토록 하였다。한편 鎭海에 있는 軍港과 工廠 및 海軍士官學校등의 제반 시설을 시찰하기 위한 UN委員團의 一行을 PC-701함(장, 盧明錫 소령)이 釜山港에서 수송하였다。

1월 29일 : FS 金海號(船長 裵泰俊)로 하여금 石炭을 積載하고 濟州에 수송케 한 다음 木浦에 寄港하여 政府 管理 糧穀을 濟州에 수송토록 하였다。

2월 2일 : FS 倭館號는 軍需物資를 적재하고 釜山港을 出發한 다음 濟州港에 수송하였으며 그뒤에 木浦-濟州間에서 政府가 管理하는 糧穀을 수송하는 任務에 종사하였다。한편 LST 烏致院號는 美軍用 彈藥과 기타 軍需物資를 釜山港에서 江口港(慶北)에 수송하

였다。

2월 3일 : FS 驍州號를 木浦에 派遣하여 그 곳의 政府 管理 糧穀을 鎭海로 수송토록 하였다。

2월 10일 : 東海岸 竹邊에 집결한 피난민에게 공급할 社會部 所管의 救護米를 FS 金海號에 적재하여 수송토록 하였다。

2월 11일 : 麗水와 晋山에 수송할 農林部 所管인 油類와 國防部 第三局 所管인 揮發油를 LST 加平號가 담당 수송하였다。

2월 18일 : 陸軍用 彈藥과 軍需物資를 LST 洪川號로 하여금 釜山港에서 竹邊港까지 수송케 하였으며 墨洞에 집결한 元山 앞 巨島 등지에서 南下한 피난민을 위하여 FS 忠州號가 救護米를 수송 제공하였다。

2월 20일 : 鎭海에 派遣되어 가는 美 海軍의 報導班 一行을 PC—702함(장, 李鍾徹 소령)이 수송하였다。

2월 21일 : 美軍用의 彈藥과 軍需物資를 LST 安南號로 하여금 釜山에서 竹邊까지 수송케 하였다。

2월 23일 : 釜山에서 木浦와 濟州에 수송할 陸軍用 車輛과 軍需物資를 LST 三浪津號(船長 許炳錫)로써 수송하였다。

2월 24일 : 大韓造船公社의 所屬 船舶인 東榮號를 日本 Osaka(大阪)에 曳引하기 위하여 LT—1號艇(장, 金玉卿 소령)을 차출하였다。

2월 25일 : 油類 100,000G/L을 油槽船 106號艇에 싣고 鎭海港으로 廻航시켜 前山 貯藏庫(鎭海 所在)에 收藏하였으며 한편 FS 驍州號는 警察官 150명과 補給物資를 싣고 仁川으로 출발하였다。

2월 28일 : 海軍 士官候補生을 鎭海로 수송하기 위하여 FS 原州號가 차출되어 釜山港을 출발하였다。

3월 1일 : FS 溫陽號는 商工部에서 日本으로 수출하는 黑鉛 1,500ton을 적재하고 日本 Osaka 港으로 향하였다。

3월 3일 : 海本 作命 甲 제114호로서 LST 鳥致院號는 陸軍의 軍需物資를 수송하기 위하여 釜山港을 출항하였다。

3월 7일 : 海本 作命 甲 제126호로서 FS 原州號가 京仁地區에 수송할 救護物資와 救護官員을 싣고 釜山을 출발하였으며 또 鳥致院號는 海本 作命 甲 제127호로서 陸軍의 軍需

物資를 墨湖港으로 수송하였다。

3월 8일 : LST—801함은 元山 앞 永興灣의 여러 섬에서 피난민 264명을 편승시키고 釜山으로 歸航중에 있었다。

3월 9일 : FS 驪州號는 元山 앞 麗島 등 여러 섬에서 南下한 피난민 250명을 巨濟島 長承浦에 수송하였다。

3월 10일 : LST 加平號는 海本 作命 甲 제133호에 의거하여 美軍用 軍需物資와 社會部에서 보내는 피난민用 救護米를 적재하고 釜山港을 출발한 다음 白翎島로 직향하였다。

3월 12일 : FS 忠州號는 濟州에 수송할 軍需物資와 社會部의 救護物資를 적재하고 釜山港을 출항하였다。

3월 15일 : FS 驪州號는 延坪島에 수송할 救護物資와 醫藥品을 적재하고 釜山港을 출발하였다。

3월 16일 : 仁川에 있는 朝鮮機械製作所의 器材를 철수시키기 위하여 徵發船 海光號가 釜山港을 출발하였다。

3월 17일 : LST 洪川號는 濟州에 수송할 陸軍의 兵力과 車輛 및 軍糧米를 적재하고 釜山港을 출발하였으며 YMS—504함은 海軍教訓音樂隊의 馬山 公演을 위하여 釜山—馬山間의 往復輸送에 종사하였다。

3월 18일 : 徵發船 榮魁丸은 蔚山에 있는 海兵隊의 彈藥을 鎭海로 수송하기 위하여 釜山港을 出發하였다。

3월 19일 : FS 原州號는 美 第8軍 民事處에서 白翎島에 집결한 피난민에게 공급하는 救護糧穀과 食鹽 등을 滿載하고 釜山港을 출발하였다。

3월 21일 : LST 丹陽號(船長 金依良)는 西海에서 作戰 중인 艦艇에 대한 補給物과 서울派遣要員을 수송하기 위하여 釜山을 출항하였다。

3월 25일 : FS 忠州號로 하여금 釜山港에서 第2國民兵을 乘船시켜 群山港으로 수송한 다음 다시 仁川港으로 廻航하여 美 病院船(콘소레이숀號)으로부터 醫療器材와 醫藥品을 受領하고 歸港토록 하였다。

3월 26일 : FS 金海號가 馬山港에서 軍糧米를 적재하여 釜山港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출발하였다。

3월 27일 : LST 洪川號는 三千浦港에서 陸軍 兵力을 濟州에 수송하기 위하여 釜山港을 출발하였으며 FS 裡里號는 麗島에 공급할 補給物資를 적재하고 釜山港을 출발하였다。

3월 28일 : 西海의 喬洞島에 대한 海兵隊의 上陸作戰을 위하여 海本 作命 甲 제172호에 의거 LST—801함은 海兵隊 兵力과 所要物資를 탑재하고 鎭海를 출발하였으며 LST 安東號는 陸軍의 彈藥을 적재하고 釜山港을 출발 東海岸 五山港으로 향하였다。

3월 31일 : LST 洪川號가 濟州에 수송할 補給物資와 社會部의 救護物資를 적재하고 釜山港을 출항하였다。

4월 1일 : FS 金海號가 群山과 木浦의 海軍警備府에 수송할 補給物資와 仁川으로 떠나는 政府要員을 便乘시키고 釜山港을 출발하였다。

4월 2일 : 濟州에서 LST 洪川號가 勞務者와 軍需物資를 仁川港에 수송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다。

4월 5일 : LST—801함을 蔚山港에 廻航시켜 陸軍의 第二國民兵 2,554명을 乘船시켜 濟州에 수송케 하였다。

4월 6일 : 國會의 國政監査班 一行을 鎭海로 수송하기 위하여 YMS—513함을 差出하였으며 椒島의 피난민에게 공급되는 救護糧穀 150ton을 수송하기 위하여 FS 倭館號를 출동시켰다。

4월 7일 : 馬山에 있는 政府의 管理 糧穀 1,000ton을 浦項港에 수송하기 위하여 LST 溫陽號를 출동시켰다。

4월 8일 : 仁川港의 埠頭作業에 종사할 勞務者를 群山에서 徵發船 安城號로 仁川에 수송케 하였다。

4월 10일 : LST—801함은 美軍用인 軍需物資를 적재하고 釜山港을 출발하여 墨湖港으로 향하였으며 한편 仁川基地司令官에게 命令하여 仁川에 入港한 FS 金海號에 專賣局의 所管인 食鹽을 적재하여 釜山港으로 수송토록 하였다。

4월 12일 : 墨湖港에 碇泊하고 있는 LST 安東號는 同地에서 捕虜 110명과 彈皮 10ton 그리고 戰傷者를 싣고 釜山에 歸港하도록 命令을 받아 즉시 出航하였다。

4월 13일 : FS 忠州號가 濟州로부터 非常用 糧穀을 釜山港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17.00에 출항하였다。

4월 17일 : LST 三浪津號가 仁川앞 喬洞島와 白翎島에 수송할 美軍의 軍需物資를 적재하고 釜山港을 출항하였다。

4월 20일 : 景武臺의 所管 貨物을 釜山에서 群山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FS 忠州號가 出航하였으며 한편 LST 洪川號는 陸軍의 負傷兵 1,000명을 釜山에서 忠武까지 수송한 다음

다시 麗水에 廻航하여 第2國民兵 2,500명을 싣고 濟州에 수송하기 위하여 出航하였다。

4월 21일 : 蔚山과 長生浦에 있는 海軍用 軍糧米 1,500 가마니를 釜山에 수송하기 위하여 FS 金海號가 출발하였다。

4월 22일 : LST 丹陽號는 西海에서 작전 중인 각 함정과 鴛洞島등 각도에서 경비중인 海兵部隊에게 補給物資를 수송하기 위하여 釜山港을 출발하였다。

4월 25일 : FS 倭館號가 濟州와 木浦 그리고 西海의 椵島에 수송할 軍需物資와 救護糧穀을 적재하고 釜山港을 출항하였으며 또 LST 溫陽號는 陸軍用 軍需物資를 적재하고 釜山港에서 墨湖港으로 향하였다。한편 仁川의 朝鮮機械製作所의 器材를 撤去하여 운반하기 위하여 徵發船 海光號가 釜山港을 出發하였다。

4월 27일 : FS 忠州號는 木浦와 濟州島에 駐屯하고 있는 海兵隊를 鎭海에 輸送하기 위하여 釜山港을 출항하였다。

4월 28일 : 元山 앞 麗島와 그 인근섬으로 부터의 피난민 1,400명을 巨濟島 長承浦에 수송하기 위하여 LST—801함이 釜山港을 출항하였다。

4월 29일 : LST 安東號가 仁川에 있는 公務員과 그 家族을 釜山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출항하였으며 또 FS 金海號는 피난민用 救護糧穀을 麗島에 수송하기 위하여 釜山港을 출발하였다。

5월 1일 : 海本 作命 甲 제246호에 의거하여 LST 加平號는 美軍用 軍需物資를 적재하고 釜山을 출발하여 墨湖港으로 향하였다。

5월 4일 : FS 驪州號는 海本 作命 甲 제251호에 따라 軍糧米 4,000 가마니를 鎭海로부터 釜山까지 수송하였다。

5월 9일 : LST 加平號는 釜山으로부터 墨湖港으로 이송하는 陸軍用 軍需物資를 수송하였다。

5월 11일 : LST 溫陽號가 陸軍用 軍需物資를 적재하고 墨湖港으로 향하여 출발하였다。

5월 12일 : LST 洪川號를 馬山에 派送하여 그 곳에서 濟州에 이동하는 陸軍 兵力의 수송을 담당케 하였다。

5월 18일 : LST 鳥致院號가 CAC 救護藥品 150ton을 적재하고 木浦와 群山 兩港으로 가기 위하에 釜山港을 출발하였으며 LST 洪川號는 政府의 救護糧穀 4,000가마니를 싣고 白翎島와 延坪島를 향하여 釜山港을 출발하였다。

5월 20일 : LST 丹陽號로 하여금 西海에서 작전 중인 각 함정과 各 島嶼部隊에게 공급

하기 위한 補給物資를 적재하고 釜山을 출발토록 하였다。

5월 24일 : LST 溫陽號는 釜山에서 募兵한 海軍 新兵을 便乘시켜 鎭海로 수송한 다음 麗水港에 寄港하여 그 곳의 陸軍 兵力을 濟州까지 수송하고 濟州로 부터는 海軍의 軍需物資를 적재하고 釜山으로 歸航토록 命令하였다。

5월 26일 : 油槽船 106號艇은 輕油 100,000 G/L을 鎭海의 前山 貯藏庫에 供給하였다。

5월 27일 : LST 三浪津號가 嘉山에서 仁川까지 陸軍用 油類를 수송하기 위하여 釜山港을 출발하였다。

5월 31일 : LST 溫陽號는 白翎島에 수송하는 陸軍의 軍需物資를 적재하고 釜山港을 출발하였다。

各種 統計

(1) 徵發船 輸送統計 一覽表 (1951. 4. 1에서 1951. 6. 30까지)

艦艇名	鳥致院	三浪津	溫陽	安東	加平	丹陽	洪川	原州	金海	驪州	忠州	倭館	合計
輸送人員(名)	92	3,343	13,849	10,026	529	195	11,951	103	50	—	337	54	40,529
輸送軍需品(ton)	1,759	6,204	9,108	6,264	6,541	1,300	2,077	767	1,458	250	659	1,453	40,840
航程距離(mile)	2,186	3,813	2,455	3,029	1,729	1,880	2,007	3,588	2,116	724	4,339	3,189	

※(1) 위 統計는 海軍本部 作戰局 刊行의 「作戰經過報告書」 卷四 附錄 「徵發船 運航統計一覽表」를 轉載한 것임。

(2) 1950년 12월 31일에서 1951년 3월 31일간의 該當 統計가 「卷二」와 「卷三」에 收錄되어 있으나 現在 「卷二」는 求覽할 길이 없으며 「卷三」은 單 1卷이 있으나 該當部分이 缺張되어 있어 收錄할 수 없었음。

(2) 各軍 別 輸送 統計表 (1950. 6. 25 에서 1951. 6. 25 까지)

項目	海軍	陸軍	空軍	美軍	計
兵力 (名)	22,736	32,205	405	8,310	115,661
軍需品 (ton)	21,267	47,699	2,918	9,558	81,442
避難民 (名)					145,384

※ 海軍本部 刊 「大韓民國 海軍史 行政篇 第2輯」에서 轉載。

(3) 人員 및 物品 輸送 實績 統計 (1950. 6. 25부터 1951. 6. 25까지)

避難民	公務員	軍需品	兵力	車輛	民需品	救護品	政府米穀
13,997名	15,971	70,884	116,242	901	316,058	9,121	23,896

※ 海軍本部 刊 「大韓民國 海軍史 行政篇 第2輯」에서 轉載

11. 空軍 白鷗部隊 作戰(1951년 4월 3일부터 1951년 5월 31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38 39호
상 황 도 제45, 46, 47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공 군 총 참 모 장 소장 金 貞 烈
白 鷗 부 대 장 중령 金 信

나. 작전 전의 개황

韓國軍 및 UN군은 中共軍의 侵略으로 三陟—原州—水原을 連하는 防禦線을 구축하여 敵을 阻止하면서 반격의 鐵槌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중 2월 21일에는 漢江 南岸일대를 占領함으로서 江陵—原州—金浦를 連하는 線까지 進出하게 되었고, 3월 14일에는 드디어 서울을 다시 奪還하는데 성공하였으며 漢江 北岸으로의 進擊을 계속한 다음 3월 27일에는 各 戰線에서 다시 38°線을 突破하고 北進攻擊을 再開하기에 이르렀다。

총참모장 金貞烈소장은 中共軍의 侵略으로 戰局이 長期化될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判斷한 결과 制限된 攻勢作戰을 계속 敢行하는 한편 自主的인 空軍의 獨立 作戰을 遂行할 수 있는 戰力 增強을 爲하여 操縱士의 기술과 整備士의 정비 능력 그리고 特技 향상에 注力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리하여 平壤의 美林 비행장에서 大田 기지로 撤收하였던 전투 비행단은 비행단 特命 제54호에 의거 하여 小數의 作戰要員 및 비행장 確保 人員만을 大田에 殘有시키고 50년 12월 20일에는 空本作命 제58호에 의거하여 다시 濟州 기지로 移動하였다。

이당시 大田 기지는 戰況이나 地理上으로는 適切하였지만 항공기의 離着陸을 위한 技術上으로는 그 비행장이 不適合 하였다。

이 基地의 殘留 병력을 指揮하던 金信중령은 操縱士와 整備士등 도합 20名으로 1個의 戰鬪單位部隊를 創設하였는데 이것이 곧 白鷗部隊이다。

이 部隊는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훈련된 조종사의 부족으로 인하여 美 공군 Dean E. Hess 중령 휘하에 조종사 4명의 협조를 받아 空軍이 引受한 F—51 전투기(Mustang) 6臺를 가지고 韓國 空軍 조종사 4명과 混成編隊로 작전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部隊가 大田 基地(k—5)에 있는 동안에는 사실상 美 제6146부대의 基地 支援을 하였을뿐 韓國 공군으로서의 작전은 없었으며 戰勢가 好轉됨에 따라 3월 27일 이 부대를 서울 汝矣島기지(k—16)에 前進시키고 비행단에서는 短時日內의 飛行訓練을 끝마친 예하 제11비행중대 소속인 李康和대위와 吳春睦대위 그리고 李世暎대위와 崔鍾奉대위등 4名의 조종사를 汝矣島기지에 前進시켜 美 空軍조종사와의 작전을 하는 한편 白鷗부대의 항공기 정비 지원을 爲하여 비행단에서는 朱鍾哲대위 이하 23名의 정비사를 派遣支援토록 함으로써 4월 3일부터 開始된 本作戰의 態勢를 비로소 갖추게 되었다。

이 당시 汝矣島 비행장은 中共軍의 侵略으로 京仁地區를 撤收할 때에 敵이 使用하지 못하도록 B—26 폭격기로 滑走路를 폭파한 곳이 있었으나 基地장병들과 隣近 주민들의 협조로 항공기의 離着陸이 가능하도록 復舊하게 되었다。



<作戰指示中인 空軍總參謀長 金貞烈소장과 金信중령>

이리하여 4월 1일 空本 一般命令 제22호에 의거하여 제101기지 戰隊를 創設하여 基地內에 駐屯하고 있는 헌병대와 시설대 그리고 통신대와 기상대등의 少規模의 單位 部隊들을 統合運營하게 되었는데 이 基地戰隊는 白鷗部隊의 작전지원은 물론 空軍本部 예하 서울 地區部隊의 後方支援을 맡도록 하는 機能이 賦與됨으로서 效率的인 군수지원 업무를 遂行하기에 이르렀다。

이 基地戰隊의 長은 金信중령이 初代로 任命되었기 때문에 白鷗部隊의 長은 당시 計器비행 교육次로 渡日하고 있던 제11비행중대장인 朴熙東소령으로써 內定되었다。

다. 작전 경과의 개요

이 作戰 期間中에는 少數의 조종사와 老大한 出擊戰線 그리고 항공기의 지원 裝備의 不均衡한 보급으로 말미암아 操縱士와 整備士는 물론이고 그 밖의 모든 장병에게 強靭한 인내력과 용감한 勝共理念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가장 緊要하게 요청되었다。

4월 23일 中共軍이 中部 및 中東部 戰線에서 春季 공세를 開始함에 따라 공군은 지상군의 反擊作戰을 지원하기 爲하여 大部分이 中部戰線의 後方에 있는 敵의 補給路와 機動路를 遮斷하고 탄약과 기타 많은 군수물자가 貯藏된 目標만을 選定하여 폭파하는등 敵의 勢力을 强打함으로써 敵전선의 진출을 遲延시키는데 모든 戰力을 傾注하였다。

즉 中部 戰線의 敵의 後方 補給路를 遮斷하고 兵力과 補給品의 集結地 및 各種 陣地를 擊破하므로서 敵의 戰力을 弱化시키는 임무가 賦與되었을 뿐 아니라 特定 地域에 對한 日日作戰 계획의 樹立은 韓國 空軍의 單獨으로 武裝偵察을 실시한 結果에서 얻어지는 敵情과 美 제5공군司令部의 情報判斷과 空軍本部의 作戰指示에 따라 이루어 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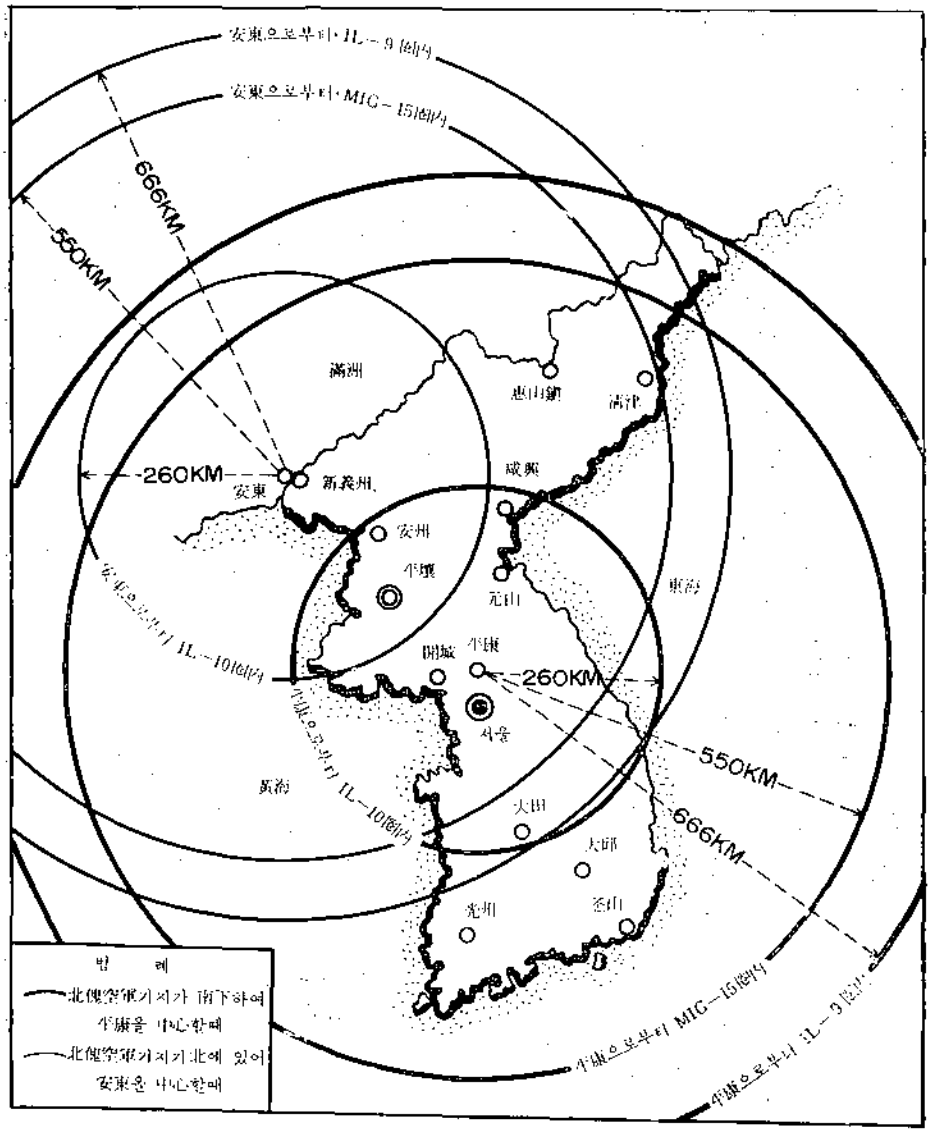
이와 같이 相互 密接한 連繫을 가지고 있던 美 空軍의 조종사들은 태극과 "마—크"가 표시된 韓國 空軍의 항공기를 직접 操縱하면서 韓, 美 조종사의 混成으로 편대를 구성하고 日日 出擊을 敢行하였다。

이즈음 友軍의 戰線은 雪岳山 기슭에서 汶山—麟里—鐵原을 連하는 線을 중심으로 接戰하고 있었는데 이 線은 戰況上의 顯著한 進展없는 少康상태를 계속 維持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UN공군은 이 接戰지역에 對한 友軍의 지상지원을 爲한 전술적인 폭격을 담당하는 한편 멀리 韓滿 國境線까지 出擊하여 敵의 第2線以下의 後備 戰力을 鈍化시키는 戰略 폭격을 맡았는데 韓國 공군은 이 UN공군의 戰略 폭격과 併行하여 獨自的인 작전을 遂行하였다。

이 당시에 敵機의 출현은 거의 없었으며 韓半島에서의 制空權은 友軍이 완전히 掌握하

◇ 상황도 제45호 北共空軍 保有飛行機 出擊可能範圍圖



고 있었으며 初期에는 伊川地區를 중심으로 작전하여 新溪—南川店—松亭里—銀杏亭里등 中部前線으로 集結하고 있는 敵의 後方에 散在한 보급품 集積所와 군수품 수송차량 그리고 機動路를 遮斷하는등 敵의 진격氣勢를 弱化시키는데 全力을 다 하였다。

伊川地區의 지상군 지원작전에서는 敵의 對空砲火로 因하여 2名의 조종사와 2臺의 항공기가 損失을 보게 되었는데 이 조종사와 항공기는 4월 22일과 23일에 모두 補充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敵은 空中攻勢가 不可能할 것으로 判斷되는 夜間과 雨天을 利用하여 보급수송용 차량과 牛馬車등의 隱密한 진출을 꾀하였으나 공군은 氣象條件이 致命的인 지장을 招來하지 않는 이상 꾸준한 공중 공격을 반복하여 敢行하였다。

또한 濟州 基地 비행단에서 訓練을 끝마친 金成龍대위와 丁永鎭대위 그리고 金斗萬대위와 田鳳熙대위의 充員과 2臺의 F—51전투기의 補充을 받으므로서 戰友와 愛機를 빼앗아 간 中部戰線의 伊川地區는 1次로 充員된 조종사들의 主要한 攻擊 目標로 選定되었으며 4월末까지의 계속적인 공격으로 이 지역의 敵의 活動을 거의 無氣力하게 만드는 戰果를 거두었다。

4월 25일에 丁永鎭대위가 이끄는 美 조종사 2名을 포함한 3臺의 편대는 開城 北쪽의 紙洞里와 深川里를 連結하는 敵 보급로에 대한 武裝偵察의 任務를 띠고 離陸하여 보급로를 통과하는 敵의 보급수송차량 4臺를 발견하자 곧 이에 對한 集中的인 공격을 加하게 되었다。

이때에 美 조종사 Metcalf대위가 對空砲火에 맞아 落下傘으로 脫出하였는데 對空砲火가 落空을 누비는 敵 地上으로 急降下하게 되었다。

편대장 丁永鎭대위와 나머지 1名의 美조종사는 즉시 母基地에 헬리콥터를 요청하는 한편 2時間 동안에 걸친 끈질긴 공중엄호 사격을 敢行하던 중 헬리콥터의 出動으로 이 조종를 구출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사건은 對地 공격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 Metcalf 대위의 구출작전은 韓, 美 공군간의 紐帶를 더욱 強化하는 契機가 되었으며, 서로 協同하고 서로 團結하면 마지막 勝利가 우리에게 있다는 信念을 안겨주었다。

敵의 對空砲火는 對地공격을 敢行하는 모든 조종사에게 언제나 不安感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빈번하게 발생한 이 부대의 損失은 공격방법을 변경운용하는 動機가 되었는데 이것은 곧 燃燒彈(Napalm Bomb)의 登場이었다。

이 폭탄은 高度의 파괴력과 連鎖的인 燃燒性 그리고 煙幕에 依한 僞裝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對空砲의 主陣地를 먼저 폭파한 다음 다른 目標物을 안전하게 공격하는 것인데 이는 對地 공격에서 처음으로 敢行된 적극적인 공격방법이었으며 이 뒤부터는 敵의 對空砲火에 依한 損耗는 거의 없게 되었다。

5월 1일에는 申敏浩소령과 姜錫倫소령등 2名의 조종사를 증원하고 2臺의 F—51전투기를 새로 補給하여 작전에 만전을 期하였는데 이로써 白鷗부대는 조종사 9명과 8臺의 항공기를 保有하게 되었다。

4월 작전에서 中共軍의 공세가 어느 정도 挫折되고 沙里院—遂安—開城등이 새로운 攻擊目標로 追加 選定되었는데 이러한 措置는 中共軍의 主攻방향이 東쪽에서 西쪽으로 轉換되었기 때문이었다。

中西部 지역은 地形物이 不利한 伊川지구에 비하여 공군으로서는 作戰遂行에 유리한 조건이 많았으니 그것은 空軍偵察이 容易하여 補給路와 作戰路上의 대량수송과 특정한 곳에 있는 보급품의 대량 저장소가 모두 공군의 百發百中의 制壓下에 놓여지게된 까닭이다。

5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伊川을 中心으로 法洞—陽德—谷山방면의 보급로와 橋梁 그리고 對空砲陣地등을 계속 強打하였고 다음날인 12부터 末日까지의 11일간에 걸친 出擊에서는 金化—鐵原—平康—華川—雲川—沙里院—遂安—開城 등 中西部 戰線의 광범위한 지역을 攻擊目標로 定하였는데 그 中의 主要한 戰果는 4월에 이어 敵의 春季 제2차공세에 對한 友軍의 再反擊에 呼應하여 이 戰線에서의 敵의 공세를 阻止시키는 동시에 敵의 軍用시설과 병력 集結所등을 폭격한 점이었다。

白鷗部隊가 작전을 遂行하는 동안 총참모장 金貞烈소장은 항상 名實相符한 韓國 공군의 독자적인 작전을 遂行하여야 되겠다는 熱望을 希求하던 중 51년 5월 15일에 美 제5공군사령관 Earle E. Partridge 중장에게 『韓國 공군의 戰力擴張에 對한 提議』라는 書翰을 보낸 결과 彼此間에 서로 합의를 보게 되었다。

이리하여 次期의 自主的인 作戰遂行을 目的으로 조종사와 정비사를 비롯하여 모든 後方要員들까지도 訓練에 全力을 기울이기 爲하여 51년 5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이 白鷗部隊 作戰을 끝마치게 되었다。

본 作戰은 조종사의 전투 경험을 많이 體得케 하여 次期의 獨自的인 作戰을 效果的으로 遂行하여야 되겠다는 총참모장 金貞烈소장의 決心에서 이루진 것으로서 이는 事實上 韓國空軍이 主管하였던 것이며 Hess중령은 총참모장 金貞烈소장을 언제나 補佐하는 立場에

서 모든 업무를 遂行하였다。

이와 같이 濟州 基地의 飛行團에 예속되어 中部戰線의 近接 航空支援作戰을 爲한 前進기지로서 汝矣島에 展開되었던 것이다。

이때 Hess 중령의 麾下에는 Wilson이라고 하는 公報將校 소령이 있었는데 이 將校는 本 作戰에서 얻어진 모든 戰果가 美 공군의 조종사와 Hess 중령에 의하여서만이 이루어진 것처럼 誇張報導하는 事例가 빈번 하였음으로 韓美 空軍間의 유대를 阻害하는 일도 있었다。

期間中의 氣象은 대체적으로 양호하여 作戰遂行에 큰 支障을 招來하지 않았으나 5월에는 雨天과 흐린 날이 많았음으로 조종사들은 美 조종사들과의 相互 토론과 地上敎育 그리고 地形硏究를 하였으며 정비사들은 항공기의 비행前 點檢과 정비에 對한 特技훈련을 各各 계속함으로서 언제라도 出擊할 수 있는 作戰態勢의 만전을 期하고 있었다。

期間中의 주요 작전을 날자 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4월 3일

崔鍾泰대위는 이날 06.30에 Hess 중령과 함께 汝矣島 비행장에서 2臺의 편대로 出擊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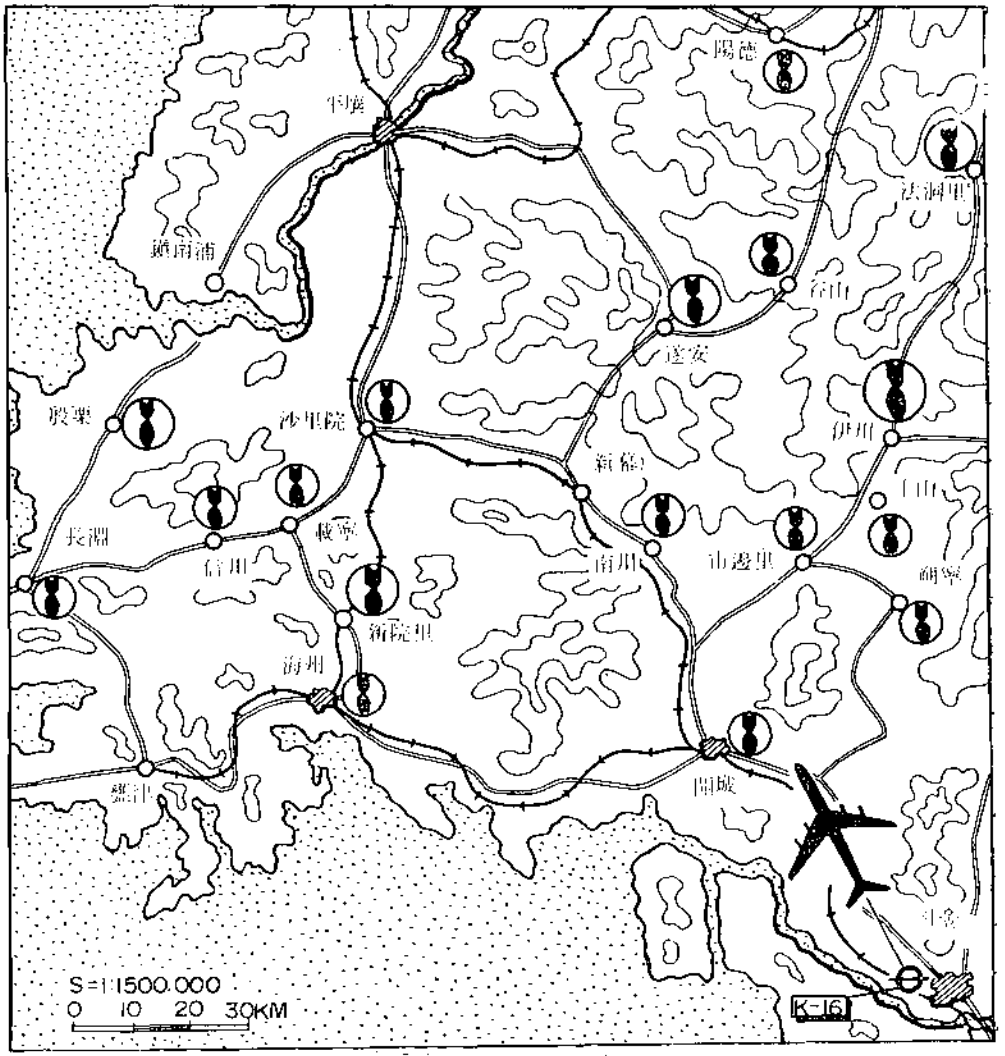
日出시간을 前後한 4월의 기상은 內陸 지방이나 海岸을 막론하고 짙은 안개가 끼는것이 通例였으나 目標 地點인 伊川 北方 개천을 따라 道路周邊에 있는 敵의 陣地는 쉽사리 발견할 수가 있었으니 이때 걷히기 시작한 안개가 조종사에게 유리한 조건을 준 까닭이다。여기에서 敵의 연료 集積所 2個所와 건물 3棟 그리고 橋梁 1個所를 완전히 폭파하고 무사히 귀환하였다。

이날 14.40에는 吳容鎭대위와 李世暎大尉 그리고 Hess중령과 Metcalf대위등의 4臺의 編隊는 伊川 西北쪽의 松亭里 부근에 있는 건물 5棟과 橋梁 1개소 그리고 1個의 탄약 集積所를 폭파한 다음 16.10에 무사히 귀환하였다。

4월 4일

南川里 東쪽 2km 지점으로부터 新溪—文下里—松亭里—伊川을 連結하는 機動路上에 보급수송차량이 移動한다는 情報를 入手하자 08.30에 武裝偵察의 임무를 띠고 基地를 離陸한 李康和대위와 2名의 美 조종사가 탑승한 3臺의 편대는 目標 지점에 이르러 移動中인 보급품을 積載한 4臺의 트럭을 발견하는 즉시로 이를 격파하고 군용건물 1棟을 완전히 폭파 한다음 10.40에 무사히 돌아왔다。

◇ 상황도 제46호 白鷗部隊作戰(1)



崔鍾奎대위와 Hess중령은 伊川 西北쪽 松亭里에 있는 兵力集結所인 학교 건물을 폭격하기 爲하여 12.50에 離陸한 다음 中隊規模의 병력을 機銃射擊하고 트럭 4臺를 폭파하였다。

4월 5일

이날 이른 아침에 구름이 끼었다가 차차 걷아지자 08.40에 吳春陸대위와 李世映대위는 美 공군조종사 2名과 4臺의 편대로 伊川과 銀波洞里를 연결하는 機動路를 遮斷할 목적으로 基地를 出發하였다。

河川을 따라 連結된 이 機動路 周邊에 大小의 많은 敵의 보급품 貯藏所와 수송차량들이

群을 이루고 있었는데 敵의 對空砲火는 對地공격에 支障을 주기도 하였으나 이 공격에서 군용 건물 1棟과 트럭 3臺를 불태우고 10.20에 귀환하였다。

이날 14.50에 李康和대위와 美 조종사 1名이 各各 탑승한 2臺의 편대는 文岩里 西쪽 一帶의 보급로에 공격을 加하여 巧妙하게 숨겨진 군용건물 1棟과 트럭 4臺를 폭파하였다。

4월 7일

雨天으로 6일 하루를 출격하지 못한 空軍은 이날 구름이 짙은 惡天候임에도 不拘하고 出擊을 敢行하였다。

崔鍾泰대위가 이끄는 韓, 美 混成 4臺의 편대는 09.40에 出發하여 文岩里 西쪽 6km에 있는 龍浦里와 文岩里 西쪽 4km 지점을 連結하는 보급로를 공격하여 敵의 군수품을 수송하는 트럭 1대와 敵이 集集한 건물 1棟을 불태웠다。

또한 14.00에 組를 달리한 李康和대위등 4 臺의 편대는 敵의 後方 보급로를 遮斷할 目的으로 龍浦里와 法洞里 南쪽 보급로를 공격하였는데 이 공격에서 敵이 숨겨놓은 1個의 燃料貯藏所를 폭파하고 군수품을 수송하는 牛馬車 1臺를 격파하였다。

4월 8일

이날은 吳春陸대위를 편대장으로 하는 美 조종사등 3臺의 편대로 출격을 敢行하였는데 08.45에 離陸하여 市邊里一伊川 그리고 伊川 北쪽 烽火山에 이르는 機動路邊의 동굴 1個所를 機銃掃射와 로켓트탄을 퍼부어 격파하고 路上에 放置된 車輛 2臺를 폭파한 다음 10.20에 基地에 귀환하였다。

이어서 崔鍾泰대위와 美 조종사 2名이 各各 탑승한 3臺의 편대는 13.50에 基地를 떠나 文岩里 西쪽 3km지점의 作戰路상에서 移動中인 보급차량을 발견하자 곧 이를 공격하여 5臺를 全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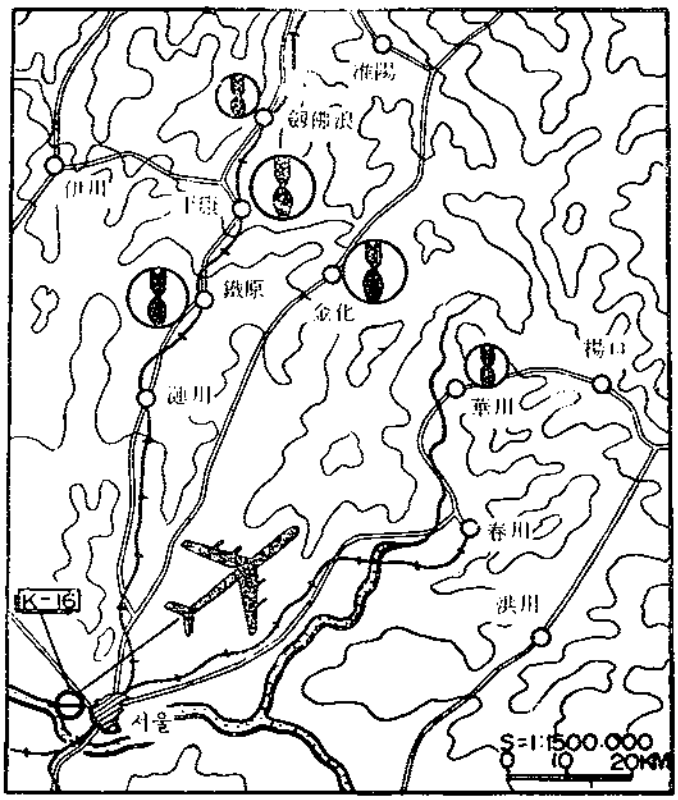
이날 16.40에 美 조종사 Hess중령과 Metcalf대위는 13.50에 崔鍾泰대위등 3기편대의 目標地였던 文岩里에 다시 출격하여 敵주둔 건물에 거의 다다른 敵의 트럭 5臺를 격파하고 18.10에 무사히 돌아갔다。

4월 9일

이당시 文岩里 西쪽을 통하는 補給路上에는 군수품의 集積所가 많았는데 모두 巧妙하게 僞裝되어 공중에서 쉽사리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李世暎대위와 美 조종사가 탑승한 2臺의 편대는 機動路邊의 陣地인듯한 곳을 공격하고 뒤이어 2個所의 보급품 集積所와 1臺의 트럭을 全破하였으며 14.00에는 吳春陸대위와 李

◇ 상황도 제47호 白鷗부대의 作戰(2)



康和대위 그리고 美 조종사 1名이 탑승한 3臺의 편대는 松亭里를 중심으로한 敵의 集結地를 폭격하였는데 군수물자의 集積所 1個所와 보급품을 積載한 트럭 1臺를 격파하였다。

4월 10일

이날은 中部 內陸地方에 짙은 下層雲이 끼었으나 10.00부터 개이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崔鍾奉대위등 韓, 美 混成編隊로 구성된 4臺의 편대는 松亭里 一帶의 敵 보급로와 보급품 貯藏所를 격파하는 任務를 맡고 出擊하였다。

伊川 北쪽의 松亭里 一帶는 개천을 낀 小路에 大小의 陣地들이 숲밑에 僞裝되어 있기 때문에 目標物의 眞否를 確認하기 위하여서는 두번이상의 底高度 비행을 敢行하여야만 공격에 突入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偵察飛行을 겸한 출격임으로 항공기의 공중 滯在 시간은 연장되어야 하였으며 이로 因한 조종사의 疲勞度는 더욱 加重되었다。

이날 午前의 출격에서 숲밑에 있던 6臺의 트럭과 幕舍 1棟을 폭격하였는데 트럭에는 폭발물이 滿載된 까닭으로 이 誘發로 隣近 林野에 連鎖的인 山불을 이르키기도 하였다。

14.00에는 吳春燁대위를 편대장으로 李康和대위 그리고 美 조종사 1名의 3臺의 편대가

出擊하였는데 敵 後方 깊숙이 있는 德川을 攻擊하는 것이 主任務였다。

이곳 德川은 各 戰線에 通하는 敵 보급로의 分岐點이며 對空 防禦陣地가 구축된 이 地域에 對하여 爆擊을 敢行하므로서 군용건물 4棟과 大型車輛 2臺를 全破하였다。

4월 12일

11일의 日氣不順으로 休息과 작전 熟議로서 하루를 보낸 韓, 美 조종사들은 이날 殷栗지역을 攻擊目標로 選定하였다。이리하여 07.40에 吳春睦대위를 편대장으로 하는 5臺의 1個편대는 目標 地區에 있는 3個所의 敵 보급품 集積所를 불태워 버렸으며 移動中인 트럭 3臺를 모조리 격파하고 09.30에 귀환하였으며 곧 이어 10.30에 1個編隊가 다시 출격을 敢行하였는데 이 편대는 崔鍾泰 대위가 편대장이었으며 李世映대위 그리고 美 Metcalf대위와 Gilespie중위가 조종사였다。

이 편대는 殷栗 南쪽의 補給路 一帶를 機銃掃射와 로켓트탄 그리고 폭탄등을 퍼부어 南下하는 敵의 군수품 수송차량 3臺를 불태워 버렸다。

이 出擊에서 李世映대위가 조종하던 F—51(Mustang) 26號機의 오른쪽 날개 중간에 敵의 소총탄이 몇발 命中하였으나 비행에는 支障이 없었으며 着陸하는 즉시로 곧 修理되었다。

14.00에는 吳春睦 대위가 이끄는 韓, 美조종사가 조종하는 4臺의 편대는 殷栗 北쪽 5km에서 3km에 이르는 사이의 보급로와 長淵까지 이르는 敵 要衝地에 對한 공격에서 南下中인 트럭 2臺를 폭파하고 敵兵이 숨어 있거나 보급품을 숨겨둔 건물 8棟을 차례로 불살았다。

이날 消耗된 탄약은 CAL 50기관총탄 21,600발과 로켓트탄 78個 그리고 폭탄은 14個였으니 이날의 폭격이 熾烈하게 敢行되었음을 알 수 있다。

4월 13일

崔鍾泰대위를 편대장으로한 4臺의 편대는 09.00에 出擊하여 沙伊谷里에 이르렀는데 여기는 遂安 東南쪽 10km에 있는 마을이며 군수품을 숨겨놓은 2個의 集積所와 보급품을 積載하고 南下中인 2臺의 트럭을 폭파하였다。

또 13.30에 李康和대위와 美 조종사 2名의 3臺편대는 一路 北上하여 遂安 東쪽 4km에 있는 五柳洞에서 부터 沙伊谷里 南쪽 1km에 이르는 機動路를 強打하여 보급품을 貯藏하고 있는 건물 4棟을 불태우고 수송차량 1臺를 격파하였다。

4월 14일

崔鍾泰대위와 李世映대위 그리고 美조종사 2명의 편대는 이날 07.30에 기지를 떠나 海

州 北쪽 10km에 있는 新昌里에서 敵이 숨어있는 幕舍와 물품 貯藏所 4個所를 격파하고 이어 鶴裝하여 놓은 차량 4臺를 폭파한 다음 09.00에 귀환하였다。

또 吳春雄대위와 李康和대위 그리고 美 조종사 2名의 4臺편대는 10.30에 海州와 載寧사이에 있는 新院里에 이르러 西南쪽 10km부터 臨灘里(新院里 南쪽 5km지점)까지의 作戰路 주변에 집중적인 對地射擊을 加하였으나 爆煙으로 視界가 불량하여 전과를 확인하지 못한채 11.50에 기지에 돌아왔다。

또 이날 아침 07.30에 出擊하였던 편대가 13.50에 再次 출격하였는데 載寧 西南方 10km의 보급수송로를 폭격하여 수송차량 隊列에 致命打를 加하였으며 民家로 鶴裝된 3棟의 군수물자 貯藏所와 보급품 수송을 爲하여 滿載된 大型 차량 2臺를 격파하였다。

이날 3次에 걸친 출격에서 도합 21,600발의 기관총탄과 72個의 로켓트탄 그리고 12개의 폭탄을 사용하였다。

4월 15일

밤새도록 흐렸던 날씨가 이날 아침에는 활짝 개인 快晴한 날씨였다。

이날 美 조종사 Metcalf대위와 Gillespie중위 2名의 편대는 1回의 출격을 敢行하여 海州와 未力洞 (新院里 北쪽 7km)에 은폐된 敵의 根據地에 對地 공격을 斷行한 결과 군용건물 1棟과 1個所의 燃料貯藏所 및 牛馬車 2臺를 파괴한다음 11.00에 귀환하였다。

4월 16일

이날 中部雲이 짙게 뒤덮인 날씨였으나 出擊을 감행키로한 吳春雄대위가 이끄는 4臺의 편대는 08.30에 出擊하여 目標地인 松亭里에 이르렀는데 이 松亭里 東쪽 2km지점을 連結하는 溪谷과 伊川 北쪽 15km의 山岳一帶에 구축된 陣地들은 이달 初旬의 공격에서 많은 被害를 주었는데도 不拘하고 계속 蹂躪하는 態勢가 엿보임으로 집중적인 공중 공격을 다시 加하기로 하였다。

이 공격에서 트럭 1臺와 4個의 보급품 集積所 그리고 군용건물 6棟을 불사르는 한편 牛馬車 3臺를 격파하였다。

이날 흐린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13.30에는 崔鍾泰대위와 李世映대위 그리고 美 조종사 2名의 4臺편대는 午前에 이어 文岩里 西北쪽 6km인 山溪谷에 있는 陣地와 松亭里 西쪽 2km에 있는 溪谷을 누비면서 敵陣地를 強打하는 동시에 兵力을 收容한 것으로 보이는 건물 4棟과 幕舍옆에 숨겨놓은 차량 5臺를 폭파하였다。

이날의 出擊에서 崔鍾泰대위는 22호기를 조종하다가 熾烈한 敵의 對空砲火로 24歲의 젊

은 青春을 祖國하늘에 바쳤다。

4월 17일

松亭里 一帶는 차량의 機動이 가능한 狹谷임으로 敵으로서는 有利하고 攻者로서는 불리한 地形條件이었고 아울러 공중 공격에 있어서 視界에 많은 制限을 주는 攻擊하기 힘든 곳이었다。

雀鍾峯대위를 앗아간 怨恨의 골짜기인 이 松亭里와 文岩里 一帶의 溪谷에 대하여서는 敵의 완강한 對空砲火와 熾烈한 소총사격을 뚫고 며칠동안에 걸친 계속적인 집중공격을 敢行하였다。

吳春陸대위등 4名으로 구성된 편대는 09.00에 基地를 出擊한다음 文岩里 一帶의 溪谷을 따라 南下하는 敵의 차량 隊列을 發見하자 6臺이상의 車輛을 폭파하고 1個所의 燃料貯藏所를 爆破하였는데 타오르는 연기와 치솟는 火炎은 敵의 士氣를 뒤흔드는데 充分하였다。

이날 14.10에는 아침에 出擊하였던 吳春陸대위의 편대가 再次 출격을 敢行하였는데 伊川 西쪽 10km에 있는 鶴峰里 일대의 狹谷을 強打하였으며 落合주변에 숨겨둔 트럭 6臺를 파괴하고 건물 28棟을 폭격하는 상쾌한 공격을 敢行하였다。

이날 消耗된 탄약은 기관총탄 14,400발 로켓트탄 48個와 폭탄 8個로서 이날의 熾烈하였던 攻擊狀況을 能히 알수 있을 것이다。

4월 18일

이날은 약간 흐린 날씨였으나 出擊에는 支障이 없었다。

李康和대위가 이끄는 韓, 美 4名의 混成 1個편대는 09.00에 離陸하여 松亭里에 이르렀을때 北쪽으로 뻗어 있는 補給路에서 4臺의 수송차량을 발견하자 곧 이를 全破한 다음 10.10에 돌아왔으며 14.00에는 午前에 출격하였던 李世欽대위는 吳春陸대위의 僚機를 이끌고 출발하여 松亭里 西쪽 1km와 北쪽 3km 및 4km 사이에 있는 군용건물 6棟과 차량 3臺를 격파하였다。

雀鍾峯대위의 戰死로 나머지 3名의 韓國 空軍 조종사들은 4日 거의 2回에 걸친 출격을 敢行하였으므로 心身의 피로가 적지 않았으나 이에 屈하지 않고 계속되는 작전을 毅然히 遂行하였다。

4월 21일

지난 2일간은 日氣가 고르지 않아 出擊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날도 일단 개였다가 다시 흐려지는 날씨에도 不拘하고 출격을 敢行키로 하였다。

편대장 李康和대위는 李世映대위와 美 조종사 2名의 4機 편대로 이날 08.40에 松亭里로 直向한 다음 여기에서 西쪽 1km와 3km사이에 있는 1個所의 군수품 集結所와 군수물자를 가득실은 大型 차량 3機를 격파 燃燒시키고 10.30에 귀환하였다。

視界가 아주 좋지 않은 가운데 이날의 2次 出擊이 계속되었는데 吳春陸대위와 李世映대위 그리고 美 조종사 2名의 1個편대는 13.00에 또다시 松亭里를 急襲하였다。

이곳의 西北쪽 약 5km이내의 지역 一帶에는 敵의 陣地가 많이 구축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敵의 砲陣地 1個所를 비롯하여 군수물자를 積載하고 있는 트럭 6機를 폭파하였다。

이때에 砲陣地에서 2名의 射手가 爆死하는 것을 확인하였을뿐만 아니라 많은 對空砲와 포탄이 불을 吐하는 것을 確認하였다。

그러나 오전에 이어 계속 출격에 나섰던 李世映 대위는17호機를 타고 편대장 吳春陸대위의 僚機로서 공격에 參加하였는데 松亭里 北쪽 3km 지점을 強打中에 敵의 對空砲火에 依하여 격추되고 말았으니 이미 이 작전에서 두번째의 人的 損失을 보게된 것이다。

崔鍾泰대위와 李世映대위는 各各 愛機와 더불어 敵中 깊숙히 散華되어 久遠한 護國의 길을 떠나게 된 것이다。

本 作戰을 展開한 以來로 이미 2名의 戰鬪 操縱士를 잃게 되었는데 총참모장 金貞烈소장은 出戰 경험이 적은 韓國空軍 조종사가 世界大戰에 參戰하였던 경험있는 美 조종사와 같이 출격함으로서 空中作戰을 練磨하여 技能의 向上을 期待할 수는 있을지라도 戰鬪 경험이 적기 때문에 조종사의 人命 損失을 招來할 可能性이 많을 것과 韓國空軍으로서는 自主的인 작전을 遂行하여야 되겠다는 觀點에서 本作戰을 銳意 再評價하면서도 如前히 出擊을 계속하지 않으면 아니되였다。

4월 22일

4월 中旬부터 많은 兵力과 莫大한 보급 물자를 中部 및 中東部전선에 集結시킨 中共軍은 春季攻勢를 꾀하는듯이 그 氣勢가 만만치 않게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對空砲의 陣地가 數的으로 증가하였으며 作戰路上에서 可動하는 차량도 敏感한 僞裝으로 공중 偵察로 발견하기가 매우 困難하였으니 敵은 制空權의 劣勢에 대한 대응책에 注力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名의 조종사를 잃은 白鷗부대는 조종사의 充員이 不可避하였으므로 丁永鎭대위와 金成龍대위 그리고 田鳳熙대위와 金斗萬대위등 4名의 조종사가 補充되였는데 사실상 지난날까지 출격한 조종사들과의 交替인 것이였다。

이날 07.30에 美 조종사 2名만의 1個편대가 出擊하였는데 이들은 中東部戰線으로 通하는 金化 西쪽 3km에서 金化 北쪽1km 사에 있는 敵의 砲陣地 1個所를 파괴하였다。

이어서 13.40에는 金斗萬 대위가 이끄는 美 조종사 2명의 편대가 松亭里地區의 출격에 나섰는데 이 편대는 이날 3個所를 공격하였다。즉 松亭里 西쪽2km의 作戰路와 伊川 北쪽 약10km 지점에 있는 군수물자 集積所 그리고 文岩里 西쪽 4km의 補給路를 공격하여 僞裝된 大型 차량 8臺와 燃料貯藏所 1個所를 폭파하고 15.20에 무사히 基地에 귀환하였다。

4월 23일

이날 09.00에 金斗萬대위와 美 조종사 2名의 편대는 松亭里와 伊川 西北쪽 15km에서 南쪽 3km에 있는 山중턱을 占領한 敵의 陣地를 공격하여 砲臺 1個所를 격파하였고 文岩里에서 補給路邊에 숨겨놓은 차량 3臺를 破壞하였으며 보급품 集積所 2個所를 폭격하여 불태웠다。

이어 14.00에는 田鳳熙대위가 美 조종사 2名과 같이 1個편대를 이루어 松亭里 부근을 強打하였고 군용트럭 5臺를 폭파하였다。

4월 24일

이 작전이 시작된 以來로 敵의 이날의 氣勢가 가장 堂堂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니 그것은 敵의 對空火力의 熾烈한 集中發揮와 地上 可動裝備의 大量運行에서 엿볼수 있다。

또한 폭격에 依하여 파괴된 橋梁이나 作戰路는 시간을 다투어 復舊되였으며 牛馬車나 人力에 依한 보급품의 수송 방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였다。

이날 07.20에 편대장 丁永鎭대위는 田鳳熙대위와 2名의 美 조종사와 合同으로 4臺의 편대로 出擊에 나섰다。

兎山 南쪽 約1km에 있는 對空砲陣地에 對하여 集中的으로 火力을 퍼부어 격파한 다음 兵力이 收容된 學校校舍에 機銃掃射를 加하였는데 戰果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이 早朝 出擊에 이어 09.50에는 金斗萬대위가 이끄는 3臺의 編隊는 다시 兎山地區 공격에 나섰다。

이번 作戰期間中에 처음으로 Napalm탄을 쓰게되였는데 이것은 거의 對空砲陣地의 격파에 集中的으로 사용되였다。

兎山 南쪽에 있는 다른 1個所의 對空砲陣地에 Napalm탄을 投下하여 全燒시키고 바로 그 밑에 세워놓은 차량 3臺를 파괴한 다음 이어서 보급품을 積載한 트럭 1臺를 격파하고 많은 敵兵을 射殺한 다음 11.30에 귀환하였다。

12.40에 丁永鎭 대위의 편대는 村面 北쪽의 作戰路上에서 차량 3臺를 격파하고 보급품이 集積된 이 마을을 撃破하였으며 鐵原 西쪽 약 8km의 機動路上에서 트럭 4臺를 폭파한 다음 14.20에 귀환하였다。

15.40에는 丁永鎭대위가 이끄는 4臺의 편대가 또 다시 村面을 強打하였는데 그 北쪽 山허리에 있는 陣地를 격파하고 보급품 集積所 1個所와 차량 2臺를 폭파하였다。

이 출격에서 金斗萬대위가 조종하는 26호기의 연료탱크가 敵彈에 맞아 연료가 새기 시작하였으나 16.40에 무사히 基地에 歸着하였다。

이날의 탄약 消耗量은 이 작전 開始以來 가장 많은 량이였는데 CAL 50 기관총탄 27,000발과 로켓트탄 82발 그리고 Napalm탄 16발이였다。

항공기의 武裝에서 Napalm을 裝着하면 그만큼 다른 폭탄을 裝着하지 못하는 制限을 받았다。

같은 特定地域에 日日 4回의 출격이란 近來에 없었던 상황이였으며 敵의 氣勢 또한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4월 25일

이날 편대장 金斗萬대위는 田鎭熙대위와 2名의 美 조종사로 구성된 4臺의 편대를 이끌고 08.30과 10.30에 걸쳐 계속 2回의 출격을 감행하였는데 제1回 출격에서 村面 東北쪽 5km에 있는 山중턱에 있는 陣地를 격파한 결과 특별한 戰果를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제2회 出擊에서는 鉤寧 東쪽 약 2km 지점의 보급로와 村面東쪽의 山 중턱을 공격하였다。

鉤寧地區에서는 巧妙하게 僞裝된 敵의 砲陣地와 보급품을 積載한듯한 牛馬車 4臺를 격파하였으며 村面 東쪽에서는 보급품을 쌓아놓은 1個所와 군용 건물 6棟을 폭파하였다。

이날 午後에 丁永鎭 대위와 美軍 2名이 操縱하는 1個편대는 開城 北쪽의 紙洞里와 深川里를 連結하는 機動路에서 紙洞里를 向하여 달리던 트럭 4臺를 공격하던중 2番機에서 機體異狀이라는 無電이 傳播되였다。

이 2番機는 美 Metcalf대위가 操縱하였는데 연기를 뿜으며 上昇姿勢에서 高度를 取한 다음 Bail Out(落下傘 降下)를 하고 있었다。

이 美 조종사는 僚機들의 빠른 판단과 熾烈한 엄호사격으로 구출에 성공하였다。

4월 26일

이날 金斗萬대위의 편대는 伊川 北쪽 4km지점의 北으로 通하는 作戰路를 폭격하였는데 4個所의 橋梁을 파괴하여 차량의 機動을 阻止시키는 戰果를 거두었다。

4월 29일

지난 2日間 계속하여 비가 내리다가 이날 10.00이후부터 개이기 시작하였는데 편대장 美 Hess중령이 指揮하는 丁永鎭 대위와 田鳳熙대위등 4機의 편대는 10.20에 基地를 떠나 文岩里 北쪽 약 15km의 山頂을 目標로 一路 北上하였다。

熊鷹州里의 東北쪽 山중턱에 있는 陣地를 공격하여 연료 貯藏所와 보급품 集積所 各 1個所와 차량 1臺를 擊破하였다。

15.00에는 朴熙東소령과 金斗萬대위 그리고 美軍 2名의 4機 편대가 南쪽의 上平岩里에 출격하여 연료 貯藏所 4個와 차량 5臺를 폭파하였는데 연료 貯藏所의 爆炎은 上平岩里 一帶의 上空을 뒤덮였다。

4월 30일

이날 09.00에 金斗萬대위의 편대는 敵後方 깊숙히 있는 法洞里를 急襲하였는데 이곳 南쪽 10km의 道路邊 警介를 사격한 다음 橋梁 3個所를 파괴하고 路上의 牛馬車 1臺를 폭파하였다。

5월 1일

午前과 午後 2次에 걸쳐 金斗萬 대위의 편대와 朴熙東 소령의 편대가 伊川 北쪽의 城北里와 法洞里를 各各 공격하였는데 午前 출격에서는 城北里에서 橋梁 3個所와 보급품 수송차량 牛馬車 1臺를 爆破 또는 破壞하였고 午後에는 法洞里 南쪽 10km 지점에서 연료 補給所 1個所와 보급차량 6臺를 폭파하는 戰果를 걷우었는데 탄약의 消耗量이 다른날에 비하여 많았다。

5월 2일

이날은 法洞里 北쪽 6km 지점과 陽德 南쪽 약 15km까지 北上하여 敵 後方 깊숙히까지 공격을 敢行하였는데 이것은 敵의 後方勢力에 대한 動靜을 살피기 爲한 무장 偵察을 겸한 공격이였다。

이 지역에서 南侵을 위한 敵의 動向은 엿보이지 못하였는데 頑強하게 抵抗하는 對空火力만은 如前하였다。

편대장 金成龍 대위는 田鳳熙대위와 美 조종사 2名등 4名의 編隊로서 09.50에 城北里에 對한 출격에 나섰다。

UN 공군이나 韓國 空軍에 依하여 파괴된 作戰路와 橋梁은 쉽사리 復舊되었는데 이것들이 午前폭격에서 파괴된것이 午後에는 파괴된 상태로 維持되여 있다가 다음날 출격에서

복구되어 있는것을 볼 때 夜間에 이러한 復舊作業이 遂行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었다。

이날도 전날에 파괴한 橋梁이 비교적 큰 다리였는데 그 큰 다리가 다시 놓여져 있었으며 다른 橋梁 2個도 말끔히 復舊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들 편대는 이 다리들을 다시 폭파하고 트럭 1대를 격파한 다음 11.50에 귀환하였다。

또 14.40에 이들 편대는 陽德 南쪽 15km까지 急襲하여 大小차량 5輛를 파괴하였다。

5월 3일

짙은 안개로 午前의 출격은 中止되었으며 13.00에 편대장 朴熙東소령의 4機 편대는 전날에 파괴한 橋梁들을 다시 폭파하였다。

難工事로 판단되는 復舊工事중 1個의 큰 다리는 그런대로 쉽사리 復舊되었는데 두개의 山 기슭을 連結하는 이 橋梁의 가치가 높이 評價되는 것으로 分析된다。

편대는 이날 세번째로 3個의 같은 다리들을 폭파하기에 이르렀다。

쉽사리 復舊된 시설은 허술하기 마련인데 4機의 항공기가 各各 1回씩의 공격으로 全破되고 말았다。

또 이날 16.00에 文岩里와 文下里를 連結하는 作戰 路上의 敵을 기관총으로서 사격하였고 文岩里 西쪽 6km에 있는 山 기슭에 숨겨놓은 트럭 3輛를 폭파하였다。

이 地域의 山기슭에는 對空砲陣地가 비교적 많이 구축되어 있었으며 이 출격에서 金成龍대위의 편대는 17.20에 임무를 마치고 귀환하였다。

5월 5일

전날에 이어 구름이 거치지 않은 날씨로 多少 無理한 氣象 상태에서 출격을 敢行하였다。

10.20에 朴熙東 소령을 편대장으로 하는 4機의 편대는 伊川과 新幕 南쪽에 있는 厚坪里를 目標로 출격하여 伊川 北쪽 7km지점에 구축된 砲陣地 1個所를 격파하고 작은 다리 3個所를 폭파하였으며 厚坪里에서는 北쪽 1km에 있는 作戰路를 통과하던 2輛의 차량중 1輛를 全破하고 나머지 1輛는 半破하였다。

5월 6일

濟州島에 있는 基地 비행단에서 조종사 육성에 全力을 傾注하던 申敏浹소령과 姜鎬倫소령의 두 조종사가 이 작전에 參與하게 됨으로서 편대가 補強되었다。

이 두 조종사는 작전 경험이 많은 戰鬪操縱士였음으로 中部戰線 一帶의 地形에 익숙하였다。

이날 07.30에 申攸浹소령은 金成龍대위와 2名의 美 操縱士를 이끌고 基地를 離陸하였다。이번의 攻擊 目標는 城北里 지역의 橋梁을 폭격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지난번 공격에서 세번이나 폭파된 바 있는 문제의 橋梁들이었다。

전에 비하여 對空砲火가 활발하게 치솟았으나 이들 3個의 橋梁을 모두 全破하였으니 이것으로서 네번째 부서지는 다리가 되었다。

09.50에 金斗萬대위의 편대가 城北里와 伊川에 출격하여 城北里에서 武裝偵察을 完了하고 伊川에 이르러 北쪽 3km 지점에서 燃料補給所 2個所를 全燒시키고 11.40에 基地에 돌아갔으며 뒤이어 또 이날 14.00에는 姜鎬倫소령의 편대가 또 다시 城北里를 공격하여 橋梁 1個를 폭파하였다。

이날 3次에 걸친 출격에서 消耗된 탄약은 기관총탄 10,800발과 로켓트탄 36발 그리고 Napalm탄 8個였다。

5월 7—8일

이틀간은 全國的으로 雲高가 800~10,000피트에 達하였으며 降雨가 계속하여 出擊이 困難하였으므로 교육과 討論등으로 出動을 待機하는 것이 常例였다。 目標地點의 選定과 비행편대의 編組등에 있어서는 때로 韓·美 관계 操縱士간에 意見差異가 있는 일이 가끔 있었는데 이럴때 마다 Hess 중령의 雅量으로 調整되기도 하였다。

5월 9—10일

이 兩日간에 申攸浹소령과 Hess중령의 兩편대가 各各 1回의 출격을 敢行하여 城北里에서 橋梁 1個를 파괴하였다。

5월 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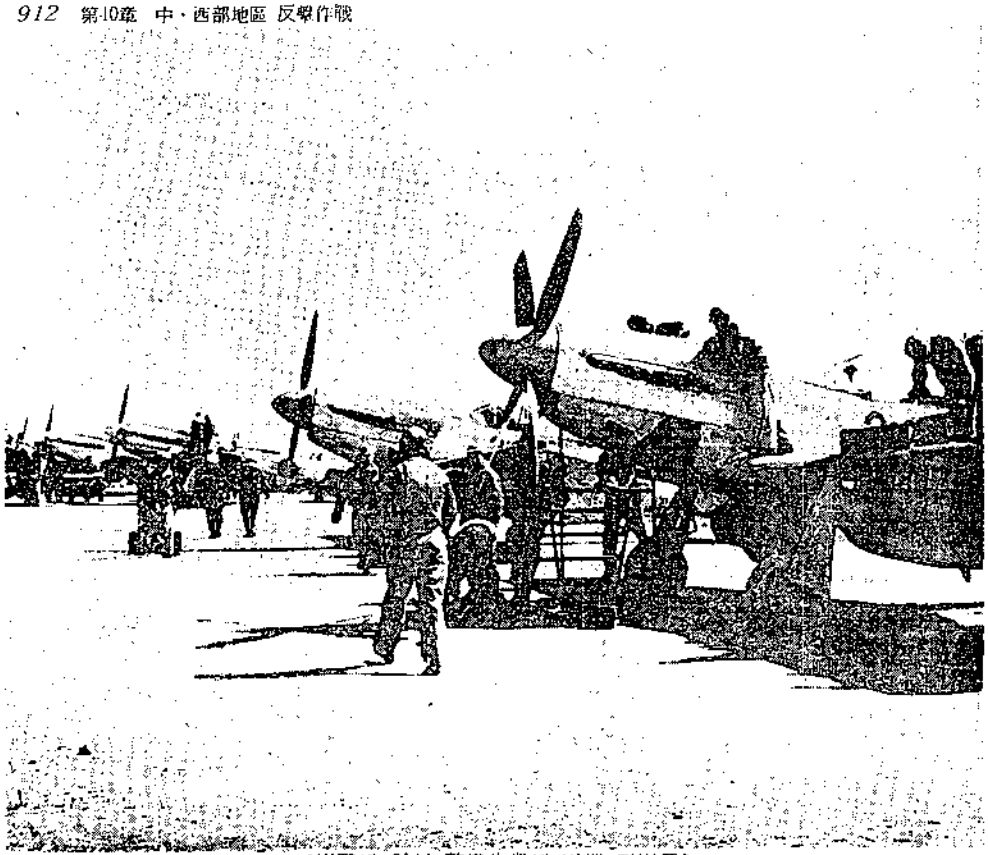
이날은 08.00에 편대장 Hess중령과 朴熙東소령등 4臺의 편대로 역시 城北里의 다른 1個의 橋梁을 폭파함으로서 이 地域의 陸上 機動을 阻止하였다。

13.20에 金斗萬대위와 田鳳熙대위 그리고 美 操縱士 2名이 操縱하는 4臺의 편대는 松亭里와 城北里를 連結하는 橋梁 1個를 完破하고 城北里에 거의 다달은 보급 차량 5臺를 폭파한 다음 15.10에 돌아왔다。

5월 12일

이날 申攸浹소령등 4名으로 編組된 4臺의 편대는 09.20에 基地를 떠나 中東部 戰線의 鐵原과 金化地區에 出擊하였다。

이곳에서 大隊規模의 敵에게 기총사격을 加하였고 金化 南쪽 약 20km의 山岳에 구축



<出擊에 앞서 整備作業에 바쁜 장병들>

된 군용 落倉 3棟과 場岩里 부근의 砲陣地에 125kg 폭탄을 投下하여 全破하고 돌아왔는데 이날도 기상의 惡化로 그 以上의 출격을 하지 못하였다。

5월 17일

지난 4日間의 日氣의 不順은 敵에게 파괴된 군사 시설을 再復舊하는데 좋은 기회를 주었다。

10.40에 金成龍대위와 美Gillespie중위는 金化 東쪽 약 5km 지점에 있는 橋梁을 파괴하였고 15.30에 田鳳熙대위와 Gillespie중위의 2機의 편대로 金化 南쪽에 있는 豊岩里 부근에서 敵의 군용건물 1棟과 牛馬車 1臺를 각각 파괴하였으며 군수품 貯藏所 2個所를 불태웠는데 앞서 파괴된 牛馬車는 敵의 탄약이 滿載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連鎖的인 폭발로 敵陣을 뒤흔들어 놓았다。

5월 19일

18일의 출격은 雨天으로 中止되었으며 이날 09.20에 金斗萬대위와 Gillespie 중위는 1個編隊로 鐵原 南쪽 약 9km 지점에 있는 磊池里를 目標로 出擊하였다。

이곳 山 허리에는 많은 敵의 砲陣地가 구축되어 있었는데 이중 高射砲陣地 2個所와 格納 2棟을 폭파한 다음 14.30에 귀환하였다。

13.30에는 申攸浹소령과 美 조종사 1名의 편대가 沙里院에 출격하여 民家에 숨어 있는 敵을 공격하였는데 26호기를 조종하던 申攸浹소령의 항공기에 機體異狀을 이르켜 공격도중 基地에 귀환하여야만 하였다。

5월 20일

姜錦倫소령과 美 조종사 1名의 편대는 10.40에 金化 西北쪽 약 4km 지점의 敵 陣地를 공격하였는데 이기에서 作戰路邊에 있는 군용건물 3棟과 보급품을 쌓아놓은 3個의 集結所 그리고 牛馬車 3臺를 各各 폭파하였다。 이때에 敵은 牛馬에 보급품등을 積載하여 수송하는 방법도 이용하였던 것을 確認할 수 있었다。

이어 이날 午後에는 金成龍대위의 편대가 平康 東南쪽의 芝岩里와 平康 지역에서 군용건물 4棟을 全燒시키고 많은 敵을 射殺하였으며 보급품을 運搬하고 있던 牛馬車 5臺를 파괴하였다。

5월 22일

21일은 中部地方 一帶에서의 氣象의 不順으로 작전 評價와 圖面研究로 하루를 보냈으며 이날 田鳳熙대위와 金斗萬대위의 兩편대가 午前과 午後에 걸쳐 平康 南쪽의 山 기슭에 있는 敵陣을 각각 한번씩 공격하였다。 午前에 出擊한 편대는 氣象의 制限으로 임무수행이 如意치 않았으며 午後 편대가 같은 地區에서 군용건물 2棟과 牛馬車 8臺를 폭파시켰다。

5월 23일

10.30에 편대장 姜錦倫소령은 美 Wigglewarth 대위등 3名의 4臺 편대로 平康 東南쪽에 있는 山岳地帶를 目標로 출격하였다。

山 기슭에서 行軍中인듯한 敵 1個小隊를 발견하는 즉시로 이를 공격하여 약 30名을 射殺하였으며 군용건물 4棟을 불태웠다。

午後에는 美 操縱士 2名만의 편대로 出擊하였는데 劍佛浪 東쪽 약 1km의 溪谷에서 敵 25名을 射殺하였다。

5월 24일

申攸浹소령과 金成龍대위는 各各 2名씩의 美 操縱士를 搭乘하여 09.10과 14.20에 3臺편대로 芝浦里와 雲川里쪽의 敵을 섬멸하였는데 이들은 이날 敵 66名과 高射砲 陣地 1個所 그리고 트럭 1臺를 各各 격파하는 戰果를 올렸다。

5월 25일

華川 北쪽 10km의 蘆洞里에 구축된 敵陣地의 폭격이 이번의 攻擊目標이었다. 이곳 中東部 地區의 上空에는 中層雲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08.40에 金斗萬대위등 美 조종사들과 混成으로 편성된 4機 편대는 目標인 作戰路邊에 이르러 보급품을 쌓아놓은 3個所와 탄약을 숨겨놓은 1個所를 불태웠을 뿐만 아니라 10名의 敵을 射殺하고 수송차량 1臺를 격파한 다음 09.50에 귀환하였다。

이어서 14.00에 申攸洙소령이 이끄는 4機의 편대가 華川地區로 출격하여 北쪽 약 10km에 있는 山溪谷에서 군용건물 1棟과 보급물품 貯藏所 1個所 그리고 트럭 1臺를 폭파하였다。

이날 消耗된 탄약은 CAL 50기관총탄이 14.400발이었다.

5월 29일

지난 26일부터 3일간은 風雨의 不順한 날씨가 계속되었으며 이날 15.40에 姜鎬倫소령과 金成龍대위등 4機 편대는 遂安 東北쪽 5km에 있는 山 기슭에서 敵의 砲陣地 1個所를 完破하고 그곳에 숨겨놓은 차량 2臺를 파괴하였다。

5월 31일

이날도 日氣의 不順으로 작전에 많은 支障을 초래하였으나 16.00에 美 Metcalf대위 등 2名이 출격을 敢行하여 栗里 東北쪽 15km에 있는 山 溪谷에서 敵의 大型 탄약고 1個所를 폭파하고 17.50에 귀환하였다。

綜 合 戰 果

概 要	戰 果		損 失
1. 작전기간 : 51 4. 3—5.31	병 력	131名	1. 전사 崔鍾奉 대위 李世映 대위 이상 조종사 2명
	차 량	155臺	
	건 물	105棟	
2. 작전기지 : 여의도기지	橋 梁	25個	
	탄 약 집 적 소	6個所	2. 항공기 3機 손실
	보 급 품 집 적 소	33個所	
3. 총출격회수 : 261회	연 료 집 적 소	12個所	3. 탄약소모량
	砲 陣 地	13個所	CAL 50기관총 430,900발
	우 馬 車	22臺	로켓트탄 : 1,460個
	진 지	3個所	폭 탄 : 214個
			Napalm탄 : 38個

12. UN空軍의 活動 (1951년 4월 1일부터 1951년 4월 30일까지)

要 旨

UN空軍은 中共軍의 人海戰術에 의한 侵略으로 日本으로 撤收하게 되자 航續距離가 연장된 까닭으로 戰闘行動 半徑의 短縮과 武裝積載量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敵과 接戰하고 있는 UN地上軍에 對한 근접지원을 비롯하여 敵의 戰略的인 要地를 攻擊目標로 선정한 다음 果敢한 遮斷 작전을 展開하였다.

이와 같은 UN空軍의 活躍으로 敵은 군수보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戰意를 喪失하고 있었으나 UN軍은 空地 立體作戰으로 敵을 서울 近郊까지 破竹之勢로 敗走시켰으며 無血로 서울을 再奪還하기 위하여 Ripper 작전을 展開하고 橫城과 春川軸을 따라 敵의 주요한 機動路와 補給路를 攻擊하므로써 3월 15일 밤 漢江을 건너 北으로 敗走하는 敵을 계속 追擊하는 한편 3월 21일에는 汶山里에 120,000名의 敵이 集結하여 있다는 情報를 入受하고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空挺作戰으로 敵陣을 뒤흔들어 놓았다.

그리하여 地上戰의 好轉에 따라 UN空軍의 各 戰闘飛行團들이 日本에서 다시 韓國으로 進出하였고 그로 因하여 制空權을 다시 擴張하여 더욱 果敢한 遮斷作戰을 斷行하게 되었는데 極東空軍 司令部에서는 3월末에 아르러 鴨綠江의 解氷에 따라 다시 鐵橋梁 폭격을 시작하였으며, 敵의 機動路에 對한 폭격을 併行하였다.

4월에도 B—29 重爆撃機로서 鴨綠江의 鐵橋와 北韓에 散在한 各 비행장에 對한 폭격은 계속 敢行하였는데 Matthew B. Ridgway대장과 James A. Van Fleet중장의 赴任에 곧 이어 美 제8군은 Rugged와 Dauntless 작전 등으로 北進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美 제8군은 鐵의 3角地帶라고 불리우는 鐵原과 金化 그리고 平康의 敵軍과 補給集結 지역에 다달아 敵의 강력한 공격에 부딛치게 되었는데 Van Fleet중장은 즉시 敵의 공격을 물리칠 계획을 수립하고 UN軍이 一齊히 撤收(Coordinated withdrawals)하게 될지도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一連의 線을 그어 撤收線으로 限定시켰으며, 또 敵과 계속 接戰하면서 우세한 지상과 空中火力을 集中投入하여 敵에게 最大의 損失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美 제8군은 어느 때라도 共産軍이 공격하면 즉시 反擊하도록 되어 있었고 敵의 공격이 4월 20일에서 5월 1일 사이에 敢行될 것으로 豫想한 바와 같이 4월 22일 中共軍의 제5次攻勢는 서울을 向하여 侵攻하였으나, UN空軍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敵陣에 폭격을 敢行하여 危機에 있던 UN地上軍이 苦難을 극복하고 北으로 進擊할 수 있도록 協力하였는데 특히 UN空軍의 夜間 폭격은 惡辣한 敵의 抵抗을 抹殺하는 効能을 보이기도 하였다.

極東空軍 전투물자 司令部에서는 敵의 제5차 공세를 맞아 제1차春季 作戰을 展開中인 UN軍에 對하여 大大的으로 전투물자를 공수지원 하였는데, 滑走路가 不良하여 困難을 겪었으며 山岳地帶에 空中投下할 때에는 地形的인 障碍로 落下地點을 여러번 통과하면서 投下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期間中에 UN空軍은 모두 22,611回의 出擊을 記錄하였는데 그중 近接支援은 2,598回였고 遮斷作戰은 도합 8,655回에 達하였으며, 전투물자 공수에는 6,006回의 出擊을 斷行하였다.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美 極東空軍 司令官 중장 George E. Stratemeyer

美 第5空軍 司令官 소장 Earle E. Patridge

美 極東空軍 전투분자 空輸司令官 소장 william H. Tunner

美 極東空軍 폭격 司令官 소장 Emmett J. O'Donrel

美 極東空軍 폭격 副司令官 준장 James E. Briggs

나. UN空軍의 遮斷作戰과 제1차春季作戰

3월초부터, 鴨綠江의 橋梁들을 B—29 重爆撃機로 하여금 展開하였던 橋梁 폭파는 4월에도 계속되었는데 7일에 B—29 폭격기 35機가 平壤에 있는 迂回橋梁(By-Pass Bridge)과 新義州의 鐵橋 그리고 義州에 있는 橋梁에 폭탄을 投下하였으나 1個의 徑間(span)도 끊어 버리지 못하였다고 報告되었으나 그 橋梁들을 利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많은 破損을 입은 것이 틀림없다.

極東空軍에서는 이러한 폭격을 敢行한 다음 곧 이어 偵察飛行을 실시하였는데, 아직도 新義州 鐵橋를 利用하는 隊列을 확인하고 제1의 폭격 目標로 확정하였으며, 12일에 폭격司令部에서는 폭격기 39機에 2,000 LBS의 폭탄을 積載하고 폭격을 斷行하였다.

이러한 爆撃効果는 훌륭하여 여러個의 폭탄이 명중 되었으나 新義州의 鐵橋는 좀 처럼 파괴되지 않았다.

이 鐵橋 以外에도 B—29 폭격기들은 北韓에 있는 共産軍과 義州의 補給基地와 직통하는 鴨綠江에 架設된 대부분의 주요 橋梁에 對하여서도 폭격을 斷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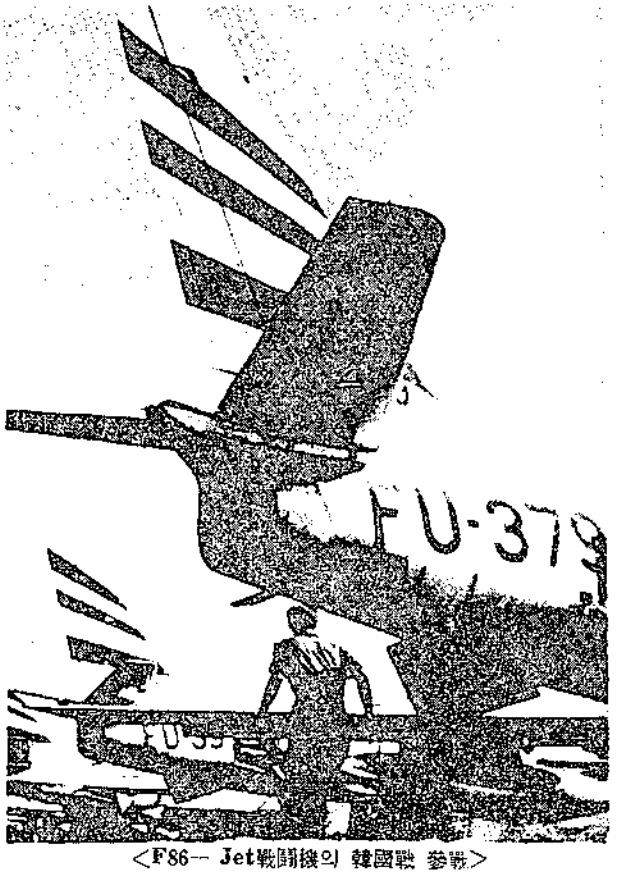
敵 空軍의 攻撃에 의한 폭격기의 피해를 볼 때에 鴨綠江의 橋梁은 무척 어려웠고 비용도 많이 들었는데 UN空軍機들이 出撃할 때 마다, MIG機의 邀撃이 있었으며, 7일에 MIG 攻撃으로 제307비행단의 B—29 폭격기 1機가 被襲되었고 12일에도 B—29 폭격기 1機가 被撃되었으며, 이날 제19전대의 B—29 폭격기 2機가 MIG機의 총탄을 맞고 墜落하였으며 다른 B—29 폭격기 7機도 被害를 입었다.

UN空軍의 B—29 폭격기 射手들은 MIG機 10機를 撃墜시켰고(未確認되었으나 4機는 더 撃墜된 것으로 推算됨) 1機에 半破의 被害를 주었다.

이와 같은 熾烈한 空中戰에서 F—86과 F—84E戰鬪機의 엄호와 護衛 비행을 하여 많

은 被害를 막았다。즉 제27전투비행단은 護衛任務를 담당하겠다고 주장하였으며, 日本의 Itazuke에서 鴨綠江까지의 距離 문제와 F—84E 전투기의 Pylon Tank의 연료 부족을 염려 하면서도 4월 7일 Partridge중장은 제27비행단에 護衛 비행 임무를 附與하였다。

이리 하여 제27비행단은 400 Feet 以內의 上昇高度와 視界 1 mile 未滿으로 이른 아침에 F—84E 전투기 49機가 15分 以內에 離陸을 完了하는 특수비행 방법을 강행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F—84E Thunder Jet機들은 鴨綠江까지 560mile을 護衛 비행하고 다시 그 곳에서 本基地로 귀환하는데 50分이 所要되었으나 成功的으로 계속 護衛 비행임무를 遂行하였다。



<F86— Jet戰鬪機의 韓國戰 參戰>

이때 敵의 MIG機 30機~40機가 邀擊하였으나 폭격기를 護衛하던 73機의 UN空軍 F—86과 F—84 Jet機 사이를 뚫고 邀擊한 것은 但 1機의 M I G機 뿐이었으며 이 空中戰에서 B—29 폭격기 1機가 파괴되었는데 이 損失은 결코 적은 損失은 아니었다。

그러나 極東空軍 폭격 副司令官 James. E. Briggs 준장은 이번에 B—29 폭격기를 護衛 비행한 F—86 F—84E Jet機의 防衛는 완벽에 가까운 것이었다 라고 말하였다。

또한 이 作戰中에 MIG機와 同型인 UN空軍의 後退翼 Jet 戰鬪機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敵機를 識別하는데 많은 혼란이 있었으나 제27비행단의 F—84E 조종사들은 MIG 1機를 擊墜시켰으며 다른 2機를 撃破하였다。

이날 F—86 Sabre와 F—84F Thunder Jet機는 도합 119回의 出擊을 記錄하여 24機에 達하는 MIG機를 擊墜 또는 撃破하자 敵 空軍도 보다 적극적인 공격을 하였으며 UN空軍機 보다 훨씬 多數의 MIG機가 邀擊하였는데 100機 以上으로써 B—29 폭격기를 공격한

적이 두 번이나 있었다。

특히 苦戰을 겪었던 것은 제19폭격전대의 B—29 폭격기 8臺와 護衛 비행하던 F—84E 전투기 14臺가 40臺의 MIG와 20分 동안 展開한 空中戰이 었는데 처음부터 敵機들은 B—29를 攻擊하였으며, 目的地에 도착할때까지 護衛 비행기들을 外面하는 태도로써 어떠한 희생과 난관을 무릅쓰고라도 계속 爆擊機만을 集中的으로 攻擊하였다。

이와 같이 敵이 強力한 防衛를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新義州의 鐵橋이 얼마나 重大한 價値가 있는가를 단적으로 말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爆擊司令部에서는 主要한 이 鐵橋를 완전히 파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極東空軍 司令官 George E. Stratemeyer중장은 4월 13일에 B—29 폭격기의 全力을 보다 주요한 敵의 戰略的인 要地를 攻擊하기 위하여 轉換시켰다。

이와 같은 B—29 폭격기 全力의 轉換은 지난 2월에 美 제9군단에서 사로잡은 中共軍 將校를 訊問한 結果 聯隊級 參謀將校들이 최근 華天의 特殊訓練會議로 부터 돌아 왔는데 그 會議에서 計器板을 가지고 戰線에서의 空地 연락방법에 관한 敎育과 指示를 받았다는 事實이 밝혀졌다。

捕虜로부터 入手한 이러한 情報는 韓國 戰爭에서 空軍과의 協同作戰이 全的으로 실패하였던 敵軍의 士氣를 북돋아 주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볼수도 있지만 3월中에 敵은 파괴된 北韓內의 10個 비행장을 修理하여 다시 使用이 可能하게 되었다。

敵 空軍力이 점차로 증강되고 있다는 보고와 함께 敵이 비행장을 再建하고 있음은 春季攻勢에 強力한 空中攻擊을 敢行하려는 意圖였다。

Partridge 중장은 敵의 攻擊이 매우 잦아지자 이제까지의 作戰에서는 취급하지 않았던 消極的 防衛方法을 採擇하게 되었다。

極東空軍 폭격 司令部의 政策에 따라 敵의 비행장이 復舊되어 作戰이 可能하여 졌다는 偵察 비행 결과를 얻을 때까지는 폭격을 中止한다는 方針을 策定하였다。

이리하여 4월 13일 爆擊司令部에서는 北韓의 비행장 시설을 제1의 攻擊目標로 定하고 1일 平均 12臺의 폭격기를 出擊시켜 安岳—新幕—順安—沙里院—龍州—咸興—連浦—江東 그리고 興南 비행장에 高性能 時限 폭탄을 多量으로 投下하였다。

4월 16일과 19일에는 平壤 비행장과 平壤東部 비행장에 B—29가 集中的으로 폭격을 加하였는데 이 兩 비행장에 도합 268.35 ton의 폭탄을 投下하였다。

B—29 폭격기의 비행장 폭격은 4월末까지 계속 되었고 이 때에 B—29 폭격기 戰力의

대부분은 다시 遮斷作戰에 投入되었다。

4월 22일 12.00에 敵은 드디어 제5차 공세를 敢行하였는데 33,700名으로 推算되는 兵力으로 美 제1군단과 美제9군단의 全面을 威脅하는 것으로 보아 그들은 서울을 侵攻하고 半島를 橫斷하는 서울과 杆城의 公路를 遮斷하려는 계획인 大攻擊으로 判斷되었다。

이때 UN空軍의 광범위한 기능을 最大로 발휘하여, 合同作戰本部에서는 晝間에 전투기를 出擊시켜 突破口를 만드는데 全力을 集中하였고 夜間에는 MPQ—2 管制下에 B—29 폭격기로써 敵陣에 폭격을 加하였다。

4월 26일이 되자, 美 제9군단은 어느 정도의 困境을 극복하였고 局地的으로 攻擊을 敢行하여 서울과 杆城사이의 公路를 밀고 進擊하기 始作하였다。

美 제1군단 戰線에서는 Mosquito機上 관제사와 전술 空中統制團의 指示를 받아 전투기들이 強力하게 UN地上軍을 支援하였고 夜間에는 MPQ—2 Radar 管制下에 B—26과 B—29 폭격기가 敵陣으로 出擊하여 폭격을 敢行하였는데 火焰속의 敵兵들은 마치 한 여름밤에 螢光燈을 찾아 亂舞하는 불나비와도 같았다。

이와 같이 서울 北쪽 3 mile까지 南侵한 敵의 攻擊으로 作戰上 다시 部隊를 撤收하였던 美 제1군단은 그곳에 防衛線을 維持하였는데 UN空軍力과 地上軍의 砲擊으로 말미암아 晝間의 戰線近方에서의, 活動은 거의 없어졌고 비록 있더라도 그 規模가 작은 것이 였으므로 UN軍은 夜間에 敢行될 敵의 攻擊에 充分한 對備를 할 수 있었다。

다. 韓國에 對한 空輸作戰

戰爭 初期의 敵의 南侵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의 春季攻勢에서도 空輸의 必要性이 增加되었다。

1951년 2월과 3월中에 제315전투 空輸團은 韓國 비행장의 不充分한 시설과 地形的인 障害 때문에 作戰上 많은 困難을 겪었는데 특히 Middle K-sites라고 불리우는 滑走路 문제가 가장 苦痛거리로서 滑走路 상태가 극히 不良하여 重輸送機들이 作戰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3월과 4월에 美 제8군이나 제5空軍에서는 地上과 海上輸送을 받았으나 山岳地帶에 對한 空中投下 보급이 時急하여 자자 제315전투 공수비행단의 C—119수송기들은 全體的인 整備와 再調整의 必要性이 점차 增加되였다。

이러한 까닭은 C—119수송기가 空中投下 보급 임무를 遂行하는데 最適이었기 때문에

3월 29일에 作戰을 強行시켰는데 C—119 수송기 2臺가 엔진 不良으로 수송업무를 中止하고 귀환하자 極東空軍에서는 C—119 수송기의 全部를 地上에 待機시켜 小規模의 修理作業을 실시하므로써 4월 18일 整備가 完了된 C—119 수송기가 空挺作戰을 할 수 있게 되었고 4월末에는 제315전투 공수비행단이 보유하고 있던 C—119 수송기 82臺中에서 60臺가 作戰 可用이었다。

또한 4월 20일에는 제21空輸大隊의 수송기들이 大邱(K-2)에서 金浦(K-14) 비행장으로 機動하였는데 이들의 임무는 美 제8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每日 140ton의 보급품을 前方 비행장에 空輸하고 負傷者들을 後送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C—119 수송기가 整備完了될 때까지 제437 공수비행단의 C—46 수송기가 空中投下 임무를 담당 하였는데 期待하였던 바와는 어느 程度 未洽하였다。

C—46 수송기들은 投下 地域에 보급품을 投下할 때 同一한地域을 3~4回에 걸친 통과를 하면서 愼重히 投下하였으나 보급 뭉치가 安全裝置에서 離脫될 때 C—46 수송기 3臺의 機體에 많은 損失을 입었다。

4월 24일 橫城에 小規模의 비행장 시설이 갖추어 졌는데 周圍에 山이 둘러 싸이고 또 滑走路가 狹小하여 離着陸時에 危險이 따랐으나, 이 危險을 무릅쓰고 C—54 수송기 30臺와 C—46 수송기 11臺가 325 ton의 POL裝備를 緊急 수송하였으며 4월 29일 C—54 수송기 42臺와 C—46 수송기 15臺 그리고 C—119 수송기 17臺가 韓國의 各 비행장에 도합 504 ton의 탄약을 공수하였다。

또한 4월 30일 金浦(K-14) 비행장에 1,562 ton에 達하는 탄약을 空輸하였는데 美 제8군의 戰況이 緊急하여 大部分의 공수보급이 地上軍에게 集中되자, 제5空軍은 한동안 空輸力의 不足으로 많은 곤란을 겪었다。

第 41 章

國立警察의 活動

1. 一般狀況

2. 國立警察의 共匪擊滅 狀況

第 41 章 國立警察의 活動狀況 (1950년 12월 1일부터 1951년 5월 31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40호
부표 제 8 호

1. 一般狀況

中共軍의 侵略으로 北韓동포의 南下피난민의 數는 점차로 늘어났고 後方地域內의 共匪들은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共匪들은 그들의 세력을 확대하면서 유격병력을 증강하기 위하여 良民을 拉致하였으며 後方교란으로 侵攻軍의 진격을 促進코자 온갖 惡毒한 선전과 유언비어를 流布하는등 實로 낙관할 수 없는 戰局으로 날로 緊張된 狀況下에 놓이게 되었다.

李大統領은 이러한 國難打開를 위하여 軍警에 訓令한 訓令에서 『軍警은 무질서 한 6.25의 戰訓을 거울 삼아 國防 및 內務部長官은 예하 각급 高位사령부와 철저한 협동하에 侵攻軍격멸과 國土의 통일을 목표로 一糸不亂한 지휘계통의 확립과 戰術責任의 완수를 위하여 전력을 경주하라』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狀況에 當面한 國立警察은 本然의 任務인 助長行政과 戰鬪警察로 분류해서 "行政과 戰鬪"를 아울러 수행하게 되었다.

그뒤에 一進一退를 거듭하는 血戰으로 中共軍 및 재편성 하여 내려온 北共軍에게 크나큰 타격을 주게 되자 國立警察도 士氣가 높아졌으며 敵으로부터 鹵獲한 武器로 싸우는, 即 "武器의 補給은 敵의 손에서"라는 口號를 걸고 勇戰奮鬪하였다.

또한 國立警察은 共匪를 조속히 격멸하는 것만이 戰鬪目的달성에 捷徑이 된다고 판단하여 在山共匪擊滅을 위한 國立警察의 戰鬪警察司令部를 法律로 設置하게 되었고 이로써 警察戰鬪師團이 創設되었으며 UN軍司令部의 戰鬪能力評價에서도 正規師團에 比하여 손색이 없다고 인정받아 군수지원과 전술지도를 임무로 하는 경찰고문관을 美軍 현역 고급장교로 常任케 하였다.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는 中共軍의 侵略으로 因한 戰局의 중대성을 여실히 증명하여 주었으며 이와 같이 변화가 격심한 상황을 分析하면 50.12.1~51.5.31 期間은 惡戰苦鬪에서 점차로 38°線으로 進擊하는 과정으로서 정부와 UN軍當局, 國軍과 警察 이렇게 軍, 官, 民의 總力體制를 급속히 완성하였고 이것은 51년도 후반기에 있은 결정적인 勝勢의 기반을 이룩하게 되었다.

가. 後方地域 共匪의 活動概要

9. 28收復으로부터 UN軍과 國軍이 韓滿國境까지 北進하던 기간중 완전히 士氣가 低下되어 있던 후방공비들은 50.11.16 中共軍의 侵略을 契機로 南路黨 軍事責이며 所謂 南半部인민유격군 총사령관인 李鉉相의 총지휘하에 後方地域을 威脅하고 攪亂하므로써 中共軍과 北共軍의 南侵세력을 강화하기 위한 活動을 시작하였다.

특히 軍警을 假裝한 共匪의 出沒, 奇襲이 현저하게 나타나 이에 대한 특별한 경계를 요하게 하였다.

非常警備總司令部 G—2統計로 보면 敵後方共匪의 수효가 50. 12. 31현재 완전무장공비 56.432명 비무장공비 4.000여명이 였으나 51년 前半期에 共匪는 지하당 조직확대와 유격병력 증강을 위한 良民拉致등으로 敵의 세력영향력이 공비출몰지구에서 「야간에는 所謂 "人共" 주간에는 "大韓民國"이다」라는 실정이었다。

共匪들은 조직적으로 據點 및 운용열차, 자동차를 기습하기에 이르렀고 이로 말미암아 國立警察과는 매일 격전이 전개되었다。

(1) 北共보병 제10사단 패잔병의 動態

敵 제10사단은 北進중인 我軍에 의하여 퇴로가 遮斷됨에 따라 所謂 "鐵의三角地帶"에서 매일 我軍警과 격전을 거듭하던중 中共軍이 侵略하자 독자적인 공세로 轉移하여 金化—華川—加平—春川을 一時에 攻略하여 南侵중인 中共軍 및 北共軍의 先鋒인양 계속 후방지역을 侵透하여 1951년 1월 초순에는 주력 5.000명으로 洪川—橫城—原州등지에서 攻略을 계속하였으나 我軍警의 협공을 당하여 주력의 절반을 잃었다。그러나 敵은 侵透를 계속하여 堤川—丹陽—榮州—鳥嶺—東倉—所領—聞慶—泰化—安東지구에서 在山共匪와 합세하여 후방치안을 擾亂하는 동시에 京釜線, 中央線과 이 線을 따라 並行되고 있는 軍主補給路를 遮斷코자 頑強히 試圖하였으며 한편으로는 侵透를 중지하지 않고 英陽—青松지구에서 갖은 蠢行을 恣行하는 동시에 소모병력의 보충과 식량을 備蓄하여 永川北方—普賢山에 집결하여 大邱—安東間, 大邱—永川—慶州—浦項線의 철도와 군 주보급로를 크게 威脅하였다。

이러한 敵은 1951년 2월 21일 01.00에 敵 10사단 제29연대 주력으로 大邱를 공격, 大邱 北方 외곽지대인 八公山地區의 架山을 侵攻하였다가 戰鬪警察隊 제200부대 제1대대의 공격을 받고 架山 東쪽 大栗洞으로 潛走하였다。그러나 그들은 다시 戰鬪警察 제200부대 제2대대의 기습공격을 당하여 軍威부근으로 패주하였는데 이때 역시 퇴로를 遮斷하고 공격대기중인 慶北戰鬪警察隊에 奇襲공격을 받아 敵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新寧—義興方面으로 패주를 거듭하다가 義城에 CP를 두고 있던 國軍제2사단 제32연대와 戰鬪警察 제106대대의 추적으로 擊滅되었다。

이러한 狀況에 接한 敵 제10사단은 全주력을 義城 東南方에 위치한 金洞에 총집결 시키고 1951년 2월 24일 10.00를 기하여 敵제2군단장 명령에 의거 一齊히 北上을 개시, 義城—普賢山—青松—安東—青安—英陽—日月山—泰化—三陟—慶省등지에서 我軍警에게 24時間 追擊을 당하면서 北上도중 慶省方面에서 대기중인 國軍제9사단과 추격중인 太白山戰鬪司令部 主力部隊 그리고 江原道 각 경찰서 전투부대의 挾攻에 의하여 殲滅되고 극소수의 패잔병만이 北上逃走하였다。

(2) 地方共匪의 動態

金日成으로부터 所謂 南半部인민유격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받은 南勞黨 실권자인 軍事責 李鉉相은 中共軍의 南侵에 따른 平澤—堤川—三陟線에서의 攻防戰에 대하여 신중한 태도로 臨하는 한편 38°線 以南에 산재중인 서울 市黨위원장을 위시하여 각市道위원장과 유격대를 江原道 太白山地區—忠北 俗離山地區—慶北 所嶺地區—泰化 地區—聞慶地區—忠南 大屯山地區—全北, 德裕山地區—回文山地區—高敞地區—聖壽山地區—南原地區—全南, 長城地區—靈光地區—靈岩地區—有治地區—母後山地區—和順地區—求禮, 谷城地區—順天地區—白雲山地區—潭陽地區—慶南, 陜川地區—居昌地區—咸陽, 山清地區등 全南北, 慶南地域인 智異山地區와 雲門山地區등에 그 地區출신 共匪를 基幹으로 하는 부대를 재편성

하여 所謂「해방지구」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赤化활동을 기도하였으며 유격군사관학교와 병기창등을 설치하는 한편 當該지구의 北共軍패잔병을 빨치산부대로 개편하여 次期작전에 대비케 하고 자신은 51년 6월 2일 淸州기습시까지 忠北 俗離山地區에서 潛伏지휘하다가 三道峰—德裕山—智異山에 이동하여 全 在山共匪의 행동을 직접 혹은 간접으로 지휘하였다。

특히 李鉉相은 현역군경을 가장한 기습부대를 편성하여 淸州를 위시한 據點襲擊 및 군경보급열차와 차량은 물론 민간인까지 기습하여 군경과 민간인을 離間하는등 心理戰을 恣行하였으며 乞人, 문둥병환자, 지하당원, 共匪가족등을 이용하여 첩보활동을 하게 한 사실등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케 하였다。

나. 後方國民의 民心動向

8.15以後 처음으로 國土가 통일되고 민족의 宿願이 이루어져서 감격된 平和를 되찾게되자 정부는 UN군 총사령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수복지구에 대한 大韓民國 통치권 행사의 제반조치를 착착 진행하고 있을때 소謂 中共의용군의 侵略에 직면하게 된 全국민은 中共에 대한 격렬한 憎惡로 充滿되었고 이런 대 현실을 비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전국민이 大同團結하여 總力戰體制를 확립하는 것만이 國難을 打開하는 길이라고 자각하고 오로지 우리의 국군과 UN군을 돕는일에 盡力하자는 여론과 행동이 絶頂에 達하였다。

特히 北韓지역에서 南下避難한 동포들은 자진해서 軍에 입대하거나 勞務師團에 從軍하는 愛國者들이 殺到하였고 敵의 작전지역상황에 精通한 靑壯年들은 軍營유격부대에 지원하여 良民을 假裝하고 後方으로 侵透된 敵의 五列과 공산극렬분자 색출에 크게 活躍하여 그들의 愛國행동은 눈부신 바 있었다。

또한 在日僑胞들은 조국의 국난 타개를 위하여 物心兩面으로 크게 기여하는 한편 학생들은 지원병으로 軍門에 자진입대하여 조국과 더불어 生死를 같이 하겠다는 정신을 행동화 하였다。

그러나 北韓지역에서 自由를 찾아서 南下避難한 老人, 부녀자들은 한때 「우리들은 조국 大韓民國의 승리를 확신하고 고향을 떠났는데 UN군 당국의 경솔한 急作撤收作戰으로 많은 가족을 구출하지 못하고 우리만 避難하게 된것은 크게 뼈아픈 일이다」하였으나 그들은 현실을 냉정히 판단하여 不法侵攻한 敵은 不遠 우리 國軍과 UN군의 성공적 작전으로 조속히 北進統一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戰時總力戰 國策에 순응하게 되었다。

또한 38°線 以南地域에서 南下避難하는 동포들은 6.25당시의 공산군과 공산계열의 兇惡相을 체험한 바 있어 이를 거울삼아 전서있는 철수작전에 자진협조하기에 이르렀고 학생들은 학도지원병으로 자진입대하는 예가 날로 증가되었다。

全國靑壯年들은 국민방위군에 입대키 위하여 전국작처에서 대대 혹은 연대단위로 방위군사령부의 집결, 행군, 숙영명령에 충실하였다。

그러나 방위군당국의 무계획적인 처사와 무능과 부정 및 情實은 도리어 행군중에나 숙영 및 집결지에서 많은 靑壯年을 死亡 혹은 凍傷과 饑餓상태로 陷入하여 귀중한 戰鬪充員能力을 크게 절감시키는 한편 高位방위군지휘자들은 자신들의 私利慾에 血眼이 되어 굽기야는 방위군에서 이탈하는자가 속출되고 國民의 怨聲이 최고도로 폭발하므로써 드디어는 國會에까지 飛火되어 51년 4월 30일 國會

는 국민방위군과 향토방위대를 해체하는 議案을 可決시켰다.

이와때를 같이하여 全南, 居昌에서는 所謂 居昌事件이 發生되어 智異山地區에서 共匪를 擊滅중이던 보병 제11사단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怨聲 또한 絶頂에 達하여 國會에서 크게 論難되다가 결국은 內務, 國防, 法務 3長官을 辭任케 하는 커다란 政治的 문제를 惹起하였다. 그런데 이 地域은 「낮에는 大韓民國이고 夜間은 人共이다」는 실정 이었다.

특히 여기에서 注目할 點은 在山共匪와 血緣關係로 얽매어 있는 현지의 실정은 후일 군경의 後方共匪擊滅作戰上 조심스러운 戰術運營을 해야하는 문제점을 提示해주는 결과가 되었다. 在山共匪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군경을 假裝하거나 良民을 假裝하여 자유자재로 후방지역을 攪亂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런 不祥事는 분명히 군에 대한 후방국민의 不滿이라고 할수 있으나 조국의 勝戰통일을 위하여 오직 군경만 信賴하는 국민들은 애국적 結束만이 현시점에서 필요하다고 認識하고 군경 전투부대 자진입대와 전방 군경위문등 격려하는 행사가 날로 激增하여 前線에서 奮鬪中인 國軍과 戰鬪警察을 흐뭇하게 하였다.

이러한 事實에 感銘된 UN군 당국은 韓國民族의 철저한 反共精神을 激讚하고 韓國復興에 많은 원조를 제공하는 風土가 造成되었다.

全國民은 UN군에 대하여 『滿洲爆擊만이 中共軍의 侵略을 봉쇄하고 國土와 民族의 統一은 물론, UN군은 자체의 戰費를 절약하고 명예로운 勝戰을 거둘 수 있다』라고 UN군의 行動化를 促求하는 여론이 沸騰하였다.

다. 國立警察의 後方作戰狀況

中共軍의 侵略으로 因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한도로 局限케 하려는 경찰각급지휘관이나 全경찰관의 決心은 確固하였다. 「一面戰鬪, 一面助長行政」이란 任務이외에 각종임무가 부여됨으며서 「軍은 前線을! 國立警察은 後方을!」 전달하는 각종한 업무량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全경찰관과 소방관 및 의용소방대, 義警등은 軍作戰과 後方治安에 全力을 다하였으며 특히 1.4 후퇴시 철수작전과 후방공비격멸작전은 후세에 많은 戰訓을 남기게 되었는데 이러한 임무수행은 國立警察 非常警備司令部 崔致奐警務官이 총지휘하였다.

(1) 非常警備總司令部의 活動

UN군 및 국군의 작전방침과 정부가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士氣는 北進작전의 성공과 더불어 크게 高潮되었다. 그러나 豫期치 못한 中共의 侵略과 我軍의 철수작전은 全경찰관을 緊張케 하고 이제 同族아닌 外敵과 싸워 꼭 승리해야한다는 결심으로 굳어졌다.

總司令部는 崔致奐경무관을 중심으로 하여 李成雨, 梁在鐵, 洪殷植, 朴根容총경등과 예하 참모요원 및 部員들은 민간인 및 경찰철수작전과 후방공비격멸작전등에 대한 戰術計劃과 작전지휘에 心血을 기우렸다.

특히 中共軍이 平壤—元山線에 侵攻함에 따라 급속히 南下피난해 오는 北韓戰災民과 38°線—37°線에 거주하는 민간인 疎開作戰을 敢行하기 위한 조치의 일부로서 江原道地域은 孫錫天경감으로, 黃海道南部 및 京畿道地域은 金德淳경감이 각각 最前線에 진출하여 현지 상황에 적응한 민간인 철수작전을 책임지휘하여 江水以北경찰관 및 일반관공서의 철수도 동시에 감행하여 최소한도의 피해로 局限

케 하는 한편 피난민 후송방법은 철도, 육로, 함해등으로 처리케 하였으며 국민방위군요원 疎開업무도 육군본부와 緊密한 협조하에 遂行하였다。

이와같은 非戰鬪要員의 疎開는 국립경찰에 부과된 대로 임무를 正確하고 迅速하게 遂行되었다。疎開하는 민간인피난민은 濟州島를 위시하여 南部地方에 收容所를 설치하여 정부가 이들을 보살폈는데 51년 1월 24일 현재 통계에 의하면 各道피난민은 2,173.226명이였고 각 피난민 수용소에 收容된 戰災避難民은 643,188명이었으며 51년 5월 31일 현재로 51년 6월 20일에 발표된 내무부 통계는 다음과 같다。

避 難 民	5,710,097명
復 歸 民	1,928,058명
避難民收容人	5,171,562명

또한 國立警察은 後方共匪擊滅作戰이 UN군과 국군의 士氣에 미치는 心理面을 고려하여 조속한 共匪殲滅이 무엇보다도 緊要하므로 총사령부는 UN군 및 국군수뇌부와 緊密한 협동하에 다음과같이 全國警察에 군 작전상 절대적인 治安確保를 위하여 治安命令으로,

① 全國警察의 완전무장화는 물론 강력한 重火器訓練과 並行한 戰鬪敎育을 반복하여 實施할것.

② 前線地域에서는 현지 군당국과의 철저한 협동작전을 敢行할것.

③ 鐵道施設, 列車護送, M.S.R 및 港灣警備에 完璧을 期할것.

④ 작전중인 전투경찰부대는 後方地域 治安確保와 勞務動員에 徹底를 期할것.

⑤ 민간인 철수작전에 현지 戒嚴民事部와의 緊密한 협동과, 민간인 疎開, 救護에 徹底를 期할것

⑥ 管轄地域內의 武裝共匪를 早速하고 徹底한 擊滅 및 地下共産系列과 五列殲滅作戰을 強行할것

⑦ 共匪殲滅作戰특별기간을 設定하여 全國 一齊히 作戰開始할것.

제1차 기간	51. 3.1—51.4.10
제2차 기간	51.4.15—51.5.25
제3차 기간	51.7.15—51.8.15

⑧ 警備保護作戰의 徹底로 對共匪補給를 封鎖할것.

⑨ 産業主要施設의 安全地帶疎開로 産業保護를 徹底히 할것.

⑩ 後方治安確保를 위하여 心理戰, 思想戰, 經濟戰, 武力戰을 多樣性있게 展開할것.

⑪ 共産系列, 容共分子 및 共匪에 대한 自首, 歸順工作을 徹底히 할것。

⑫ 其他 治安上 필요한 경찰활동을 強化할것。등을 各 市, 道, 경찰국장과 전투경찰사령관에 下命하여 본격적인 戰時경찰체제를 確立하여 軍隊로서 赫赫한 功勳을 樹立, 軍의 作戰에 큰 功勞를 세운바 있다。

이러한 戰術措置는 UN군사령부와 국군이 激讚과 支援을 아낌없이 해주었으며 UN군사령부는 국립경찰에 현역 고급장교로 구성된 군사고문관을 전투경찰과 各 市, 道경찰국에 常任配置함으로서 戰術責任區域內에서 組織的이고 強力한 共匪擊滅은 물론 군경합동체제의 確立과 戰技의 高度成長을 促進케 하여 信賴받는 국립경찰로서 名實共히 共産軍과 共匪의 最大攻擊대상이 된것은 再論할 필요가 없다。이로 因하여 後日 崔致奭경무관에게 국립경찰로서는 최초로 李承晩大統領으로부터 太極武功勳章이, 그리고 太白山地區 경찰전투사령부는 대통령 부대표창이 수여 되었으며 이로부터 各地경찰관과 소방관 및 義警에 이르기까지 많은 勳章이 수여되는 榮譽가 있었다。

非常警備總司令部는 51년 1월 3일 정부의 釜山遷都에 따라 大邱로 이동하여 軍部와의 작전협동에 최선을 다하게 하고 작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執務하기 시작하였다。

(2) 市, 道警察局의 撤收作戰狀況

서울, 京畿, 江原道경찰국은 1, 4後退결정에 隨伴되는 徹底한 민간인 疎開, 産業施設의 안전지대 疎開, 市, 道內의 모든 행정기관에 대한 철수작전에 臨하는 동시에 자율적인 전투네대를 편성하여 敵과의 交戰은 물론, 軍의 主補給路, 철도, 항만경비임무를 맡고 慶尙道경찰국은 道內에 설치된피난민 수용 및 救護와 通常경찰업무를 遂行하였고 忠南, 忠北, 慶北, 慶南, 全南, 全北경찰국은 共匪擊滅과助長行政업무에 臨하고 철도경찰대는 철도경찰 본래의 임무에 當하여 철도, 열차 護送경비에 臨하는등 各市, 道경찰국장은 當該戒嚴民事部와 긴밀히 협조하여 軍작전상 필요한 제반업무를 충실히 遂行하여 후방치안확보에 만전을 기하였다。

(3) 戰鬪警察司令部의 發足

非常警備總司令部는 정부의 훈령을 根據로 하여 전투임무만 수행하는「戰鬪警察司令部」를 설치하여 軍과 같은 방법으로 전술책임지역을 확정하여 작전지역내의 일반경찰도 작전상 지휘할 수 있게 하여 강력한 擊滅작전을 展開토록 하기 위하여 所謂 「解放地區」에 50년 12월 16일부로 太白山 및 智異山 지구에 각각 전투경찰사령부를 창설하고 51년 1월 30일부로 雲門山지구 전투경찰사령부를 增設하여 본격적인 공비擊滅에 當하게 하고 51년 5월 1일부로 철도기동부대 사령부를 창설하여 철도沿線 공비擊滅, 열차護送, 철도경비등 특수임무를 遂行하였는데 이들의 作戰狀況은 다음과 같다。

區分 / 司令部名	C P	사령관명	기간부대	주력규모	전술책임지역
太白山지구 전투경찰사령부	榮州	경무관 尹鵬運	200부대 207부대	여단	慶北, 江原, 南部, 忠北, 東部
智異山지구 전투경찰사령부	南原	경무관 宋丙燮	203부대 205부대	여단	全北, 全南 慶南, 西部
雲門山지구 전투경찰사령부	清道	경무관 韓景錄	京畿전투부대 서울전투부대	여단	清道, 尉山 梁山, 密陽
鐵道기동부대 사령부	大邱	총경 玄元德	201대대 202대대 206대대 208대대 209대대	연대 (독립대대)	京釜線 中央線 全羅線

編成에 있어서 총사령부의 建議에도 불구하고 전투경찰출신이 아닌 경무관으로 사령관을 補任한것은 정치적인 처사라고 非難이 되어 後日 경찰수뇌진에 老, 若兩派로 分裂되어 전투에 종사한 所謂 청년경찰층을 모함하거나 左遷케 하고 전쟁중 사소한 사고를 기화로 면직, 감원하는등 실로 어처구니없는 추태가 續出되었고 이러한 權謀術數를 例事로 하는 所謂 後方派와 高人層일부 고급경찰관들의 行狀는 국립경찰의 명예를 損傷케 하였을 뿐만아니라 後日 정치에 關與케 하여 경찰본래의 자세에서 堕落하여 국민의 怨聲을 도맡는 불행한 사태를 招來케 하는 결과가 되었다。

정부가 전투에 생소한 사람으로 사령관을 임명하므로써 비상경비총사령부는 젊고 전투경력이 풍부한 新進경찰간부로서 각급 단위지휘관을 임명하고 특히 작전참모 및 전술지휘관 배치에 중점을 두고

인사조치를 하는 동시에 精幹전투부대의 전투력강화에 주력하고 작전단위부대는 유격전법을 활용하는 전술운영을 徹底으로 독자적 작전을 遂行토록 하는 한편 경찰고문관으로 選拔配置된 美육군고급장교들은 전투부대의 작전지도, 美 제8군사령부와의 연락및 군수지원업무에 최대한의 협조를 해주었다. 이들의 지도와 지원활동은 국립경찰의 전투력을 크게 強化케 하였고 그 編制는 附表와 같다.

以上과같이 「戰鬪와 防衛行政」으로 구분하는 동시에 9.28收復後 情勢로 경찰서장급을 配置하였던 것은 일부 유능한 경찰관으로 하여금 크게 失望케 하였으나 戰局의 急變에 隨伴하여 경찰인사도 점차 능력본위로 改編되었다가 共匪의 통계가 縮小됨에 따라 경찰간부 人事秩序는 또다시 紊亂하여지기 시작하였다.

後方에서 安逸만 일삼던 사람들이 昇進榮轉하고 전투경찰출신은 차별대우와 人爲的인 迫害를 當하여도 呼訴할 곳이 없었고 이로 因하여 전투경찰출신과 所謂 後方출신과의 감정대립을 免할 수 없었고 특히 新進전투경찰관 사이를 故意로 離間하는 일까지 하여 자신들의 恒久的 榮達을 企圖하여 戰功경찰관들은 本人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生活苦가 甚하게 되어 마치 奸臣輩가 忠臣을 謀害하는 것을 彷彿케 하였다. 심지어 前方전투경찰대원은 훈장을 못탔으나 戰鬪와 전연 상관이 없는자가 高位勳章은 물론 그외에도 많은 훈장을 수여받은 사실은 전투경찰 전부를 激憤케 하였다.

2. 國立警察의 共匪 擊滅狀況

전투경찰부대는 智異共匪의 蠢動地域과 敵의 據點공격에 重點을 두고 作戰을 하고 地方경찰부대는 상황에 적응하여 작전하되 各個擊破에 전력하도록 하는 전술운영을 하고 발견된 敵은 24時間 추격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는 전쟁수단에 歸一토록 하였다. 특히 3차에 걸쳐 공비섬멸 작전기간을 설정한 경찰은 총공격작전을 각급전투 단위지휘관의 愛國競爭방법으로 指向하였다. 이로 因하여 매일 주야를 불문하고 大小전투가 계속되었고 특기할 것은 지방청년으로 편성된 義警들의 활동은 마치 옛날 義兵의 活躍과 彷彿한 殊勳을 세웠다. 그러나 그 반면에 전투경찰과 더불어 많은 戰死傷者가 났으니 後方共匪擊滅作戰이 얼마나 치열하였는가를 알수가 있었다.

가. 50年 12月中의 戰況

(1) 丹陽警察署(장, 智丁煥경감)

12월 13일 05.00에 丹陽郡外郭地帶山岳에 所謂 人民遊擊軍 南半部총사령관 李鉉相이 직접 지휘하는 南部軍團 공비 1,500명이 丹陽경찰서를 위시한 주변경찰지서에 대하여 일제히 奇襲을 감행하였다.

丹陽경찰서장 智丁煥경감은 51. 1. 5까지 24일간 예하 전경경찰병력과 忠北경찰국 응원병력 1개 대대를 통합지휘하여 地域一帶를 防禦하기 위하여 血戰을 거듭하여 敵의 企圖를 粉碎하는 작전에 성공하므로써 丹陽경찰서와 주변 경찰지서를 敵의 奇襲으로부터 防禦하였다.

戰　果

사　살　74명

포　로　2명

각종 총기 78정

(2) 金泉警察署 査察工作隊(장, 林仁道경감)

50. 12. 11 19.00 金陵郡 釜項面 海印里 2區 뒷山에 金陵郡黨 및 傘下 各面黨幹部와 數未詳의 共匪집단이 潛伏하고 있다는 情報를 當日 歸順工作에 의하여 歸順한 者로부터 입수하고 査察工作隊長인 査察係長 林仁道경감은 형사주임 李東德경위, 사찰유격대장 朴龍珠경사와 15명의 경찰대로 하여금 歸順者를 앞세우고 潛伏中인 敵을 急襲케 하여 釜項面黨 責외 1명을 사살하고 共匪 14명을 사로잡는 한편 각종 소총 7정을 노획하고 계속 敵의 據點을 急襲하여 金陵郡黨龜城面黨員 13명, 大德面黨員 4명, 釜項面黨員 7명 甑山面黨員 3명을 사살 혹은 사로잡고 소총 7정을 노획후 다시 修道山 丹芝峰에 潛伏中인 金陵郡黨委員長 朴判得외 27명의 敵과 接敵하여 1時間半의 交戰끝에 이를 섬멸하고 소총 7정을 노획하였다。

51년 1월 7일 05.00에는 修道山 丹芝峰에서 林仁道경감은 李東德경위, 徐又漢경사 부대 및 朴龍珠경사 부대를 指揮出動하여 敵 57사단 연락아지트를 急襲하여 공비사살 10명 敵 제57사단 제3연대 작전참모 許賛亨 北共軍소위외 간부 4명을 사로잡았다。

51년 1월 30일 05.00에 金陵郡 龜城面 作乃里 뒷山에서 組織部 아지트를 急襲하여 공비 2명사살하고 組織部長 徐基鉉외 2명을 사로잡는 동시에 소총 2정을 노획하였다。

51년 2월 23일 15.30에 金陵郡 甘川面 陽川洞에 侵入한 金陵郡黨幹部 1명사살 郡黨企劃課長 鄭永守외 1명을 사로잡고 소총 2정을 노획하였다。

51년 2월 25일 04.00 修道山에서 林仁道경감과 임무교대한 李仁甲경감은 李東德경위, 徐又漢경사, 朴龍珠경사의 사찰유격대를 지휘하여 敵 제57사단 아지트 3개소를 急襲하여 金陵郡黨員 1명과 제57사단 패잔 병 10명을 사살하고 총기 9정을 노획하였으며 기타 많은 戰利品과 敵文書등을 押收하였다。이는 철저한 對敵 공작과 경찰서장등의 충분한 보급을 아끼지 않은데 기인된 것이며 특히 工作의 名手들인 金泉경찰서 사찰계 형사, 辛相榮, 黃瑱浩, 李鎭熙경사외 형사진의 結束된 追跡工作으로 成功한 戰訓으로 즉시全國에 示達되었다。

戰 果

사 살 87명	소총 34정
포 로 31명	기타 戰利品 多數

(3) 軍 主補給路 警備狀況

總司令部는 軍輸送作戰을 強力히 支援하기 위하여 中共軍이 37°線까지 밀고 내려올 때를 前後하여 주로 철수한 서울, 京畿, 江原경찰병력을 32개 독립대대로 편성하여 軍 主補給路 경비와 주변의 殘匪 擊滅을 하였는데 그 狀況은 다음과 같다。

① 50년 12월 26일

京畿 1개대대를 UN군에 配屬하여 京畿道內 철도경비와 주보급로 경비에 臨하게 하였다。

② 50년 12월 26일

慶南 1개중대를 釜山지구 철도경비와 주보급로 경비에 臨하게 하였다。

③ 50년 12월 30일

江原제9대대를 平昌郡 大和方面에 忠北 1개대대를 堤川—丹陽—榮州間에 慶北 1개대대를 慶北 北

部지구에 서울 2개중대를 洪川—橫城間에 각각 配置하여 경비와 擊滅에 臨하게 하였다。

④ 51년 1월 4일

京畿道경비사령부를 淸州에 位置케 하고 예하 철수병력의 일부부대로서 利川—驪州—長湖院—陰城—淸州—忠州區間에 配置하여 경비에 臨하였다。

⑤ 51년 1월 6일

서울市경비사령관 李益興이사관으로 하여금 철수한 예하 全병력을 13개 독립대대로, 京畿道경비사령관 韓景錄경무관은 철수한 예하 全병력중에서 10개독립대대로 각각 편성하여 最前線으로부터 釜山까지 區間의 주보급로 경비와 주변의 殘敵擊滅에 臨하고 京畿道 철수병력 일부로 4개독립대대를 편성하여 釜山, 梁山지구에 1개대대씩, 蔚山지구에 2개대대를 配置하여 경비와 擊滅作戰에 臨하였다。

⑥ 51년 1월 7일

江原道경비사령부를 丹陽, 安東으로 逐次的인 철수를 하여 철수한 예하 全병력으로 丹陽—安東間의 경비 및 擊滅에 臨하고 京畿道경비사령부는 報恩에 철수하여 계속 부과된 任務遂行을 하였다。

⑦ 51년 1월 10일

1월 4일 02.00 仁川에서 UN軍輸送船으로 濟州道에 철수된 京畿道병력 1.200명을 京畿道경찰국 보안과장 文錫齊총경지휘하에 4개전투독립대대로 개편하여 釜山, 梁山, 熊村, 沃川에 각각 배치하여 경비 및 擊滅에 臨하게 하였다。

⑧ 51년 3월 3일

聞慶—延豐間에 太白山 경찰전투사령부 제207부대 제5대대(장, 鄭壽煥)를 配置하여 正規전투부대로서 烏嶺一帶에서 蠢動하는 共匪를 擊滅케 하고 주보급로 경비에 臨하게 하였다。

⑨ 共匪의 출몰지구 警察警備狀況

湖南, 嶺南지방 경찰서장은 自律的으로 애국심이 強한 민간인으로서 義勇경찰대 혹은 特攻隊를 편성하여 마을 자체경비에 臨하게 하는 한편 주간에 한하여 도로경비와 마을 및 도로주변 共匪擊滅을 경찰관지휘하에 담당하여 많은 공훈을 세웠다。

⑩ 鐵道機動部隊 設置狀況

鐵道警察本隊長의 지휘하에 설치된 철도기동부대사령부는 51년 5월 1일부 治安命令에 依據 제201대대, 제202대대는 열차호송경비와 기동타격 전투임무를, 제206대대, 제208대대, 제209대대는 鐵路경비 및 鐵路와 併行되고 있는 道路 (主補給路) 경비를 맡아 軍의 철도수송작전에 많은 공훈을 세웠으며 사령관 玄元德총경은 이 功勞로 後日경무관에 승진하였다。

나. 51年 1月中의 戰況

(1) 加平地區 戰鬪司令部(司令官 文錫齊총경)

50년 11월중순부터 北共軍 제10사단 잔적일부 800명과 계속 攻防戰을 展開하고 있는 경찰부대는 淸平發電所의 防禦에 主力하였다。

그러나 12월하순경부터 金策이 총지휘하는 敵1개사단이 中共軍의 서울攻略준비에 호응하여 加平—淸平지구에 侵攻하여 彼我 激戰이 계속되고 있었다。

趙炳玉內務部長官은 수시로 崔致煥경무관을 현지에 파견하여 경찰작전은 물론 현지의 國軍과 協同하여 위기극복에 全力케 하였으나 我軍警部隊는 UN軍의 作戰方針에 따라 1월1일 19.00 次期作戰지역

으로 轉進하였는데 이 期間中 我軍警은 惡戰苦鬪를 면치못하였다。

戰 果

사 살 86명	소총 52정
포 로 7명	輕機 2정

(2) 全北 18戰鬪大隊(장, 車一赫경위)

1월 14일 05.00 全北 井邑郡所在 七寶發電所에 全北道黨委員長이 총지휘하는 回文山지구 공비 1.900명이 奇襲하여 이때 七寶發電所를 守備中인 全北 18전투대대 2개중대와 七寶지구 金貞煥경위가 지휘하는 支署병력 45명은 敵과 激戰을 展開하였으나 二重, 三重으로 包圍한 共匪는 좀처럼 물러서지 않고 더욱 包圍網을 압축하였다。

이때 대대장 車一赫경위는 증강된 4개중대로서 敵을 逆包圍하여 40分間에 걸친 攻擊끝에 守備部隊를 救出하고 敵을 猛追擊하여 제1중대 제3소대는 鳴川 △320, 詩山 △300를 白兵戰으로 14.40에 탈환하고 제2중대는 七寶發電所 後面 △418를 激戰끝에 17.15에 탈환하므로서 敵의 七寶發電所의 占領企圖를 粉碎하고 계속하여 車一赫대대장은 2개소대로서 仙王山高地를 19.00에 激戰탈환하였다。

그러나 敵은 後退를 거듭하면서도 再整備하여 20.00에 △418와 南王山高地를 再次逆襲하여 왔다。兩高地에서는 逆襲하여온 敵과 血戰을 거듭하였으나 彈藥不足으로 白兵戰을 展開하여 1時間동안 지탱하였으나 衆寡不敵으로 21.00에 철수하였다。

1월 16일 08.00에 제1중대는 △418로, 대대장은 主力으로 仙王山高地를 同時에 총공격을 敢行하여 激戰 1時間30分만에 완전 再奪還하고 敗走하는 공비를 大里高地까지 추격하였다。

戰 果

사 살 74명	**損 失**
多發銃 2정	戰 死 6명
M 1 2정	負 傷 18명

(3) 靈光 全南戰鬪部隊(장, 曺在容총경)

1월 20일 03.30에 靈光郡 白岫面 九首山에 據點을 두고 長期間에 걸쳐 靈光, 曙島, 나물, 任子島, 知島에서 良民을 1.400名이나 大量虐殺한 全南民青聯隊 南勞黨 빨지산대 木浦, 務安, 咸平, 羅州, 靈光 지구부대등 총병력 무장공비 305명, 비무장공비 1.000명은 白岫面을 소謂「解放地區」로 장악하고 我경찰이 攻擊하면 海上으로 도주할 것을 시도하면서 後方治安을 極度로 교란하였다。

全南保安課長 曺在容총경은 全南機動隊(장, 朱在善경위) 靈光署부대(장, 李旦東경감)를 指揮하여 敵을 포위공격하여 7時間에 걸친 격전을 전개한 결과 敵을 격퇴하고 3월 11일 재차 총공격을 함으로서 敵에게 막대한 타격을주었다。이 作戰으로 白岫面一帶에서 준동하던 敵은 완전히 驅逐되고 3월 12일 19.00 作戰이 종료되었는데 특히 이 전투에서 敵은 사살되는 자기 동료의 무기를 빼앗아 가지고 我戰鬪部隊에 抗戰하였는데 이러한 事實은 後日에 重要한 敎訓이 되었다。

戰 果

	양민구출 4,727명
사 살 422명	M-1소총 23정
포 로 117명	다발총 3정

0.3소총 2정	벼 4.000석
실 탄 600발	牛 14頭
白 米 20叭	

(4) 忠南大屯山戰鬪部隊(장, 洪仁出경감)

1월 29일 05.00 洪仁出경감이 지휘하는 大屯山戰鬪大隊는 擊滅作戰中 大屯山까치峯, 國師峰에 據點을 두고 준동하는 忠南道黨위원장 남로당원 南思烈과 論山郡黨위원장 郭海鳳이 지휘하는 무장공비 550명과 비무장공비 400명과 交戰하여 激戰이 전개되었는데 이때 近接지구에서 作戰中이던 國軍 제8사단 제21연대 1개중대와 협동공격하여 敵에게 막대한 손실을 주었는데 이때 경찰대대의 軍獨전과는 다음과 같다。

戰 果

사 살 90명

포 로 140명

노획 : 각종소총 51정

다. 51年 2月中의 戰況

(1) 錦山南二義勇警察隊(장, 朴壯夏)

2월 7일 05.00 錦山郡 南二面 乾川里 △600에 9.28收復이래 계속하여 後方을 교란중인 忠南道黨위원장 南思烈이 총 지휘하는 論山郡黨위원장 郭海鳳, 錦山郡黨 金南洙, 카츄사부대장 金一, 完州郡黨, 鎭安郡黨, 茂朱郡黨, 人民擊滅後方統計 부대장 朴貴吉, 나팔부대, 淸川江부대, 鴨綠江부대등 무장공비 350명과 비무장공비 400명이 포위공격하여 왔다。

이에 △600를 苦守하고 있던 義勇警察隊(장, 朴壯夏)는 敵을 맞아 文字그대로 大血戰을 展開하였는데 이러한 急報에 接한 錦山警察署長 崔萬永경감은 즉시 錦山警察署부대를 指揮하여 現地에 출동하는 동시에 隣近에서 作戰中인 제8사단 제21연대 1개중대병력을 지원요청하여 합동작전을 展開하여 激戰 5時間만에 義勇경찰대를 포위공격하는 敵을 逆包圍공격을 하여 擊退시켰는데 이戰鬪에서 敵은 많은 損失을 남기고 大屯山方面으로 敗走하였다。

이敵들은 9.28收復이후 매일 주야를 가리지 않고 波狀攻擊을 前後 800여회에 걸쳐 시도하였으나 地形의 묘를 活用한 △900 陣地는 敵의 공격에 동요되지 않고 據點을 굳혀 隣近에 준동중인 敵을 다양성있는 작전으로 격멸하는데 큰 功을 세웠는데 이에 內務部長官은 朴대장을 52년 2월 11일부로 경찰에 복무할것을 권유하여 경사로 특채하였다。그리하여 계속 △600 지휘관으로 만 4년8개월동안 상주 근무하였다。

戰 果	損 失
사 살 142명	戰死 義警隊員 16명
포 로 66명	南二面長 姜泰九
소 총 22정	南二面書記 宋大燮
아지트파괴 152개소	

(2) 任實警察署(장, 宋宇大경감)

2월 25일 07.00 任實警察署長 宋宇大경감이 指揮하는 경찰부대는 任實郡 靑雄面 南山里 周邊에 집결한 任實郡黨, 德峙, 三溪, 靑雄, 江津, 面黨등 공비 250명을 확인하고 靑雄面에 所在한 金鑛洞窟에 誘導하여 機智로서 敵이 脫出치 못하도록 28개 통로를 폐쇄하고 4개소에서 長期誘引공격하여 3월 14일 17.00에 敵을 完全殲滅하는 大戰果를 올렸다。

戰果	
사살 217명	다발총 4정
포로 79명	M-1소총 11정
蘇製경기 3정	칼빈소총 11정
蘇製소총 5정	M-1실탄 180발
	수류탄 10발

(3) 慶南査察工作隊(査察課長 李晩欽총경)

2월 27일 04.00 慶南査察工作隊는 分室長 金容採경감지휘하에 梁山郡 通道寺뒷산에 潛伏중인 慶南道黨 유격대를 추격하여 부사령관 池宗昊외 8명의 敵을 사로잡았였다。

戰果	
포로 9명	蘇製권총 1정
소총 8정	실탄 120발
	불온문서 다량

라. 51年 3月中의 戰況

(1) 全北 18戰鬪大隊(장, 車一赫경위)

3월 15일 06.00 七寶發電所 東쪽 1km지점(독고峰)에 回文山지구를 據點으로 하여 蠢動하던 지방 무장공비 90명이 來襲하였다。이때 이곳을 守備하이던 제18戰鬪大隊는 즉각 응전하여 독전관 鄭淳植경감 통제하에 6時間을 交戰한 끝에 敵에게 크나큰 타격을 주고 七寶發電所를 무난히 防禦하고 다음과 같은 戰果를 올렸다。

戰果		損失
사살 74명		전사 6명
소총 56정		

(2) 全北第二地區作戰部隊(장, 尹榮口경감)

3월 17일 05.00 全北第二地區作戰部隊長 尹榮國경감은 鎭安郡 德秦山에 全北빨치산 총사령부 직속부대 500명이 集結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즉시 全北 제18전투대대, 鎭安특공대, 長水특공대를 통합지휘하여 포위공격을 하여 10시간에 걸친 激戰끝에 敵에게 섬멸적 타격을 주었고 그 戰果는 다음과 같다。

戰果	
사살 117명	각종소총 86정
포로 38명	실탄 350발

(3) 大屯山戰鬪警察大隊(장, ①洪仁出경감②朴炳益경감)

3월 18일 13.00 大屯山 石泉寺一帶에 集結中인 忠南道黨, 論山郡黨 무장공비 550명 비무장공비

400명은 郭海鳳 총지휘하에 我側據點을 奇襲하려고 企圖中에 있음을 捕捉하고 洪仁出경감이 총지휘하는 大東山戰鬪大隊와 江景경찰서부대가 奇襲공격을 감행하여 「낙지峰」에서 3時間에 걸친 대격전을 展開한 끝에 敵을 격퇴하였으나 이作戰에서 총지휘를하던 洪仁出경감은 壯烈히 戰死, 51년 3월 18일 부로 경무관으로 추서되고 後任에는 朴炳益경감이 任命되었다。

戰　果	損　失
사　살　71명	전　사　1명(洪仁出경감)
각종소총　23정	

마. 51年 4月中의 戰況

(1) 靈岩警察署(장, 金成道경감)

4월 2일 06.30 靈岩郡 金井面 國師峰一帶에 靈岩지구유격대장 黃點澤은 6개군총사령관, 제3지구사령관 靈岩郡黨위원장직을 겸한 총지휘자로서 民青聯隊, 33부장 宣石泰(金鍾魯同期生 14聯隊출신) 金南지구당작전참모 李泰天등 잡단부장공비 450명, 비무장공비 4,500명이 潛伏中에 있다는 諜報에 接한 靈岩경찰서기동대는 隊長 李泰俠경사지휘하에 제1소대는 金鍾琦순경, 제2소대는 鄭燦昊순경이 挾攻奇襲作戰으로 敵을 3時間동안 波狀攻擊을 하여 敵으로 하여금 分散敗走케 하였는데 戰果는 다음과 같다。

戰　果	
사　살　30명(副司令官金德山포함)	M 1소총　1정
포　로　2명	칼빈소총　3정
노획 99식경기　1문	엽　총　1정

(2) 安東鐵道警察隊(장, 魏哲경감)

4월 5일 18.00 安東郡 禮安面에 位置한 「이들이 高地」에 據點을 두고 蠢動中인 慶北道黨 공비 500여명이 潛伏中이라는 情報에 接한 安東鐵道警察隊長 魏哲경감은 즉각 1개소대의 潛伏部隊를 禮安面 新南二區 구태미부락 뒷山에 隱密히 配置하여 潛伏근무중 4월 6일 01.00에 소총으로 武裝한 공비6명을 발견하고 일제히 공격을 하여 5명사살, 1명을 사로잡았는데 이를 심문하여 敵의 位置를 파악하고 探索한 결과 11.10에 敵이 「이들이高地」의 森林속에서 휴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奇襲공격을 敢行하니 당황한 敵이 반격을 함으로서 교전 1時間만에 敵을 敗走시켰다。

戰　果	
사　살　51명	38식소총　1정
포　로　1명	수 류 탄　25발
鹵獲경기　1문	다이나마이트 및 도화선　다량
鹵獲소총　5정	불온문서　66건
M-1소총　3정	식량의류　다량
99식소총　2정	北共지폐　다수

(3) 全北警察局(장, 金義澤경무관)

4월 17일 11.00 全北警察局長 金義澤경무관은 群山空軍기지에 주둔중인 UN공군당국에 요청하여

C—46 2대의 지원을 받아 全北관내에 散在하여 蠢動하고 있는 共匪에 대한 대대적인 귀순공작을 목적으로 回文山, 邊山半島, 德裕山, 智異山등 高山지구 상공으로부터 다량의 귀순권고전단을 撒布함과 동시에 공중 對敵방송을 실시하여 次期작전에 도움이 되는 많은 귀순자를 확보할 수 있었음은 경찰사상 최초의 戰術行動이었다。

이때 金義澤경찰국장은 고문관 스프린소령과 작전계장 鄭淳植경감을 대동하였다。

(4) 長興警察署(장, 張命圭총경)

4월 20일 05.00 長興郡 有治面 牛峙에 全南총사령부 民靑연대장 韓月洙가 지휘중인 民靑연대 무장공비 180명이 集結하고 있다는 情報에 接한 長興경찰서장 張命圭총경은 곧 경비주임 閔內讚경위와 제1중대(장, 黃昌燁경사), 유격 결사대(장, 趙貴南경사), 義警등 경찰부대를 총지휘하여 敵을 有治面 德龍山에서 포위공격하여 敵의 주력부대를 擊滅하였다。

戰 果	실 탄 2,000발
사 살 135명	의류식량 다량
포 로 34명	**損 失**
노획 : 각종소총 46정	부 상 1명

바. 51年 5月中의 戰況

忠南警察局(장, 宋眞洙경무관)

5월 12일 09.00 大屯山一帶에 南部軍團一部와 忠南道黨, 論山郡黨, 기타 지방공비 900여명이 준동하므로 경찰국장 宋眞洙경무관은 이들 殘匪를 擊滅하기 위하여 보안과장 朴蒙賢총경, 작전계장 南俊恒경감을 대동하고 현지작전중인 大屯山전투대대(장, 朴炳益경감), 江景경찰서부대(장, 李世煥총경) 기타 경찰義警부대등을 총지휘하여 石泉山一帶에서 敵을 포위공격하여 이에 대항하던 敵은 크게 타격을 입고 全北 산악일대로 分散逃走하였는데 여기서 경찰대는 다음과같은 戰果를 세웠다。

戰 果	蘇製중기 1정
사 살 132명	각종소총 23정
포 로 116명	아지트파괴 30개소
노획 : 美製기관총 2정	

사. 全國 殘匪殲滅期間 作戰概況

非常警備總司令部는 획기적인 조치로서 3차에 걸친 전국잔비섬멸기간을 설정하여 후방치안과 군의 작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후방공비를 短時日내에 擊滅코자 전국경찰에 共匪에 대한 대공세로 轉移한 것을 명령하는 동시에 各道에 作戰監督官을 총경급으로 固定派遣하여 철저한 共匪殲滅에 臨하게 하였고 期間中 李承晩大統領을 비롯하여 UN군사령관, 국군수뇌부 장성들이 현지에 임하여 작전상황을 視察하고 경찰의 勞苦를 激勵하였으며 경찰은 連日 제반애로를 극복하면서 有機的인 協同으로 治安確保를 하는데 功勳을 樹立하였다。

(1) 第1次 殘匪殲滅作戰

작전기간을 3월 1일 09.00~4월 10일 24.00로 設定하고 작전 主목표를 治安面의 疎遠으로 行政力이 미치지 못하는 未收復지구를 완전수복케 하는 武力行動이었다。

山岳地帶에 숨어 暗躍하는 敵을 茂盛期前에 探索殲滅하는 것이 作戰上 有利하므로 事前에 周到綿密

한 작전계획을 樹立한 경찰전투사령부는 敵주력 격파와 24時間에 걸친 추격 및 潛伏유격전을 展開하여 敵의 세력을 分散弱化 시키는데 주력하였으며 각 市道경찰국은 分散된 敵의 再集結을 粉碎하는 各個擊破戰術을 試圖하여 一次的으로 큰성과를 올렸다。특히 義警과 특공대는 물론 지방민간인들도 적극 경찰의 작전에 협조하였다。이러한 결과는 所謂 공비의 「解放地區」인 山淸郡 三壯지서를 탈환함을 계기로 後方지역을 완전수복하였는데 期間中 종합전과는 다음과 같다。

第1次 殘匪殲滅作戰 綜合戰果

(51. 4. 11통계)

部隊 / 전과	전투사령부		各市道경찰국											TOTAL
	太白山	智異山	서울	京畿	江原	忠北	忠南	慶北	慶南	全北	全南	濟州	鐵道	13
사살,보로,귀순	274	961	12	6	6508	170	33	1059	768	16,531	27,566	6	310	542,707
노획총포	96	234	-	-	5808	74	6	748	327	464	645	2	57	8,475

(2) 第2次 殘匪殲滅作戰

4월 15일 00.00~5월 25일 24.00 期間을 設定하고 작전목표를 제1차 잔비섬멸작전시 不意의 대공격을 당하여 지휘계통이 문란해진 공비가 세력을 재개편 하려고 서두르고 있으므로 경찰은 이를 중점적으로 粉碎하고 한편 後方경찰시설의 보호와 警備보호작전을 병행하였다。

특히 期間中 경찰은 대대적인 歸順工作과 敵의 보급로 완전봉쇄와 民間과 共匪를 分離하는데 全力하여 敵으로 하여금 고립되어 재기할 수 없도록 작전을 계속하였다。

期間中 경찰은 전투장비와 보급에 隘路를 겪었으며 戰鬪에 필요한 火力의 確保는 거의 敵을 공격하여 노획한 것으로 충당하고 심지어는 조준기도 없는 박격포를 사용하여 敵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砲術向上을 보았으며 이러한 경찰의 戰鬪능력을 보고 美고문관들은 이구동성으로 激讚과 격려를 해주었다。期間中 경찰의 綜合戰果는 다음과 같다。

第2次 殘匪殲滅作戰 綜合戰果

(51. 5. 26통계)

部隊 / 전과	전투사령부		各市道경찰국											TOTAL
	太白山	智異山	서울	京畿	江原	忠北	忠南	慶北	慶南	全北	全南	濟州	鐵道	13
사살,보로,귀순	38	128	-	2	497	121	86	176	341	3,827	3,304	3	147	8,670
노획총포	13	21	-	3	200	48	36	114	91	117	253	2	18	1,817

(아) 警察戰鬪司令部 作戰狀況

9월 15일 仁川上陸作戰과 韓滿國境線까지 UN군과 국군의 進擊作戰으로 敗走하던 北共패잔병과 공산군에 아부하여 갖은 민족반역행위를 恣行한 지방공산분자와 부역자들은 도피하던 퇴로를 차단당하고 太白山지구와 智異山지구 및 기타 山岳지대에서 隱匿하다가 中共軍의 侵略을 계기로 활기를 띠고 조직을 재수습 강화하여 후방치안을 교란함으로서 공격해오는 敵의 前進을 促進하는 전술을 강행하여

특히 곡창지대인 湖南一帶와 嶺南一帶를 所謂「解放地區」로 만들기 위한 무력전과 對民심리전에 拍車를 가하여 UN軍과 우리國軍의 作戰을 크게 위협하고 있었고 金化지구에서 北上치 않고 集結하고 있던 北共軍 제10사단의 지속적 南侵은 大邱를 向하여 단독南下를 계속하고 이들은 太白山지구에 준동하고 있던 共匪와 합류하려는 기도가 명백하므로 非常경비총사령부는 太白山경찰전투사령부로 하여금 敵10사단의 大邱공략기도를 極力粉碎하고 敵主力을 擊破하는데 중점을 두는 동시에 太白山지구의 지방공비격멸도 並行케 하였다。

또한 智異山을 중심으로 湖南一帶에서 蠢動하고 있는 敵패잔병과 지방공비의 주력을 섬멸하고 産業및 農業保護등 다양성 있는 작전을 전담케 하기 위하여 2개경찰전투사령부를 발족시켜 이 전투사령부는 전투에 유능한 경찰관으로 편성하였는데 崔致煥경무관의 卓越한 전술, 전법과 유능한 指揮로 각각 부과된 전투특수임무에 臨하고 雲門山경찰전투사령부는 雲門山지구에서 蠢動하고 있는 지방공비의 격멸과 雲門山지구에서 侵透코자 하는 共匪의 企圖를 견제케 하고 鐵道機動사령부는 군수송작전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것을 각각 작전목표로 하여 4개사령부는 제반 전투장비와 보급 및 차량의 不備한 여건하에서도 훌륭히 임무에 충실하였다。

(1) 太白山지구 警察戰鬪司令部의 作戰

(가) 戰鬪前 狀況

1. 北共軍제10사단장 李博南少將은 八路軍연대장 출신으로 전투지휘경험이 많은자로서 사단주력 제25연대, 제27연대, 제29연대, 포병연대와 교도, 통신, 공병, 군의, 정찰, 수송등 지원부대로 편성되어 그 병력은 3월 17일 사로잡은 敵 제27연대 제3대대장 黃河鍾소좌외 제25연대 작전참모 및 199명의 포로진술을 분석 해본바에 의하면 정규군 2,000명과 拉致充員兵力 1.361명으로 判明되었으며 敵의 主裝備는 M-1소총, 다발총, 칼빈소총 蘇製소총으로 個人무장이되고 대전차포 5문, 重기관총22문, 경기관총39문, 박격포 10문, 高射기관총, Rocket포, 대전차지뢰, 수류탄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화기 30대, 교환대 1대, 무전기 4대등 南韓에 蠢動中인 敵으로서는 최강전투부대로서 이들 敵의 企圖는,

① 京釜線과 中央線 및 浦項線遮斷

② 太白山지구공비와의 합류 및 상호연락

③ 大邱기습공격

④ 後方攪亂이라는 것이 確認되었다。

2. 敵유격 제3지대장 朴鍾根은 北共軍제10사단에서 200명의 병력보충을 받고 총병력 450명을 M-1소총으로 個人무장시키고 다발총은 소대장, 중대장 이상만이 휴대하였으며 그밖에 기관총 3문, 대전차지뢰 10개, 대전차수류탄 30발, T.N.T. 수류탄은 개인당 2발씩 휴대하고 무전기 4대를 보유하였는데 敵의 企圖는 江原道에서부터 太白山脈, 山岳地帶로부터 大邱外廓 八公山까지 침투하면서 後方을 攪亂코자 하고 있음이 포로진술에서 밝혀졌다。

3. 敵유격 제1지대장 金應彬은 平北 孟山에서 50년 11월초순에 제1, 제2, 제3여단으로 구분 3.500명으로 편성하여 50년 11월중순에 孟山을 출발하여 江原道로 침입하여 五台山—太白山지구로 南下하였으나 我군경의 작전으로 主力이 북으로 감소되었다。이들의 裝備는 M-1소총, 蘇製소총, 다발총, 칼빈소총, 수류탄으로 개인무장을 하였으며 박격포 3문, 重기관총 2문, 경기관총 11문, 무전기 1대로

시 이들의 企圖는 平昌, 寧越, 泰化등 勞動者와 無知한 농민으로 지하당 조직을 하고 大邱를 침공하려한 것이 포로의 진술에서 밝혀졌는데 敵의 특이한 전법은 至近距離공격 전법이었다。

4 敵 南半部인민유격군총사령관 李鉉相은 정치공작부대, 승리사단은 제727부대, 제322부대, 제926부대를 주력부대로 하고 연합부대는 제625부대, 제815부대부, 제207대로 각각 편성하였는데 총병력 450명으로 裝備는 M-1소총, 다발총, 쏘식소총 수류탄으로 個人무장이 되고 경기관총 5정, 중기관총 2정, 61mm박격포 2문으로 무장한 強力히 훈련된 敵이었으며 이들 敵의 企圖는,

① 제4차 투쟁기간을 설정하여 명열한 後方攪亂을 할것。

② 승리사단은 清州를 奇襲할것。

③ 연합부대는 烏嶺方面에서 軍주보급로를 최대한 威脅할것。

④ 투쟁목표를 달성하고 永同方面으로 南下할것 등으로 하고 俗離山지구에서 根據地를 확대 하여 가면서 蠢動하고 있음이 포로 李台榮의 陣述에서 밝혀졌다。

5 敵 지방공비등은 각기 소속지구에서 최대한 治安攪亂을 획책하였으나 그능력은 비조직적 이었다。

(나) 作戰企劃狀況

제1단계로 부대주력은 北共軍제10사단을 격멸하기 위하여 敵을 요격, 24시간 진격전을 強行하는것을 主作戰目標로 하고 제2단계로 3지대, 1지대, 南半部인민 유격군을 각개 격파하며,

제3단계로 제1, 2단계에서 분산된 敵과 지방공비를 추적 및 潛伏유격전으로 殘匪를 殲滅할 것을 기본전술로 하였다。

특히 전술책임지역내의 一般경찰과 義警을 支援部隊로 활용함에 빈틈이 없었으며 大邱防禦에 최대한 主力하였으며 제반기획의 細密化를 期하였다。

(다) 作戰 狀況

사령관 尹明運경무관은 작전참모 孫繼天경감으로 하여금 철저한 對敵措置를 하게 하는 동시에 前方指揮에 臨하였으며 敵의 企圖를 粉碎하는 첫戰鬪 1월 21일 臨東戰鬪보부터 장기적인 요격과 24時間 追擊戰을 展開하여 太白山경찰관전투 주력부대인 高尙遠총경이 指揮하는 200부대, 文鶴東총경이 指揮하는 207부대, 宰相默총경이 指揮하는 慶北전투부대와 지방경찰부대 및 주보급로를 경비중인 李丁錫경감이 指揮하는 서울 제106대대등 정예경찰 전투부대의 리레이식 추격전이 敢行되었는데 그 戰鬪를 보면

1월 23일 默溪戰鬪 1월 25일 吉安戰鬪

1월 25일 吉安攻防戰 1월 25일 葛田戰鬪

1월 26일 義城 金谷戰鬪

1월 27일 楸木戰鬪

2월 21일 大邱一八公山 大窟洞戰鬪

2월 22일 大窟洞 掃蕩戰

2월 24일 山頭峰 松住洞戰鬪

3월 8일 水下洞戰鬪

3월 22일 黃鶴山包圍作戰

3월 24일 羊邱洞 北山洞 군경합동작전

3월 29일 東水谷遭遇戰

4월 2일 水下洞戰鬪

4월 5일 高草一葛山掃蕩戰

5월 24일 昌坪洞戰鬪

5월 27일 青松戰鬪등으로 北共軍제10사단은 大部隊攻企圖가 완전히 粉碎되고 막대한 出血을 면치 못하고 전투경찰부대의 끈질긴 추격전에 말려 北上하여 江原道 五台山방면으로 패주하다가 국군 제9사단集結 地境內에서 江原道경찰 전투부대와 國軍의 挾攻을 받고 殲滅的 타격을 입고 少數병력만 간신히 北으로 敗出退却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우선 제1단계 작전목표는 성공하고 제2단계작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戰鬪部隊는 「戰鬪하면서 訓練」하는 것을 常習化하고 3지대, 1지대 및 李鉉相지휘부대를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였는데 太白山경찰 전투부대의 主要전투상황은 다음과 같다。

默溪 戰鬪

1월 23일 05.00 臨東에서 1월 21일 我경찰부대에 痛打를 당하여 後退한 北共軍제10사단 주력부대 1000여명이 △546로부터 二隊로 나누어 默溪洞을 包圍侵攻한다는 情報에 接하자 즉시 제207부대제2대대는 敵을 포위공격하여 激戰을 展開 09.00에 義城으로부터 美해병대 박격포 지원을 받아 포위를 압축하는동시 全火力을 集中하여 敵을 分散退却시키고 11.00 默溪洞을 탈환하고 계속 추격전을 展開하여 古潤洞에서 500명의 敵과 肉迫戰끝에 敵을 退却시켰다。 이때 戰勢不利한 敵은 日沒과 동시에 吉安本據地로 敗走하였다。

戰 果

사 살 100명

노획 : 소 총 4정

損 失

신 종 2명

경 상 3명

吉安 戰鬪

1월 24일 07.30 吉安面 松仕洞, 金谷洞, 古潤洞, 大寺洞一帶의 北共제10사단이 集結하였다가 三面으로 吉安支署소재지를 포위공격하여 據點化하려는 企圖를 파악한 제207부대 제2대대는 支署병력과 青防隊 200명의 지원을 받아 吉安防禦에 전원 죽엄을 각오하고 敵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21.00 我경찰대는 제1방어선에서 敵과 遭遇하여 激戰을 展開하니 敵은 吉安支署 2km지점에서 波狀공격을 가해 왔으나 交戰 8時間만에 敵을 격퇴하여 제1차방어전은 성공하였다。

1월 25일 16.00에 敵은 다시 제1차 방어선에 총공격을 감행하여 全火力을 집중하므로 我부대는 부득이 吉安支署까지 撤收하면서 手榴彈과 肉迫戰을 展開하여 밤새도록 激戰을 계속하여 급기야는 吉安支署 最後防禦陣地에서 날이새니 敵은 吉安에서 後退하였는데 1월 26일 04.00를 期하여 敵은 3차총공격을 개시하므로 我부대는 次期作戰을 위하여 後方陣地로 撤收하여 對備하다가 安東경찰서 특공대 50명의 지원병력이 도착하는 즉시 敵을 逆襲하여 1월 27일 末明에 攻擊을 開始하여 09.00에 吉安을 再奪還하고

敵은 臨河방면으로 敗走하였다。

戰 果		損 失	
사살	17명	전사	5명
포로	4명	중상	9명
노획 : 다발총	2정	경상	2명
M-1소총	2정	산종	28명
藍製소총	3정		

架山, 大栗洞戰鬪(大邱防禦)

2월 21일 普賢山지구에서 隱匿하고 있는 北共軍제10사단은 八公山침입을 斷策하고 있었다。非常警備總司令部는 大邱防禦를 위하여 12월 5 일 治安命令 제198호로서 京畿경찰로 제200부대 제2대대를 긴급편성하여 聖門山작전참모 金德淳경감을 대대장에 補任, 敵의 大邱侵攻에 對處하겠끔 이날 19.00에 大邱 外郭「과계재」陣線에 配置하는 한편 서울경찰병력으로 제207부대 제5대대를 편성하여 金東淳경감을 대대장대리로 임명하여 架山에 배치하였으나 대대장 대리 金東淳경감이 전투대비를 등한함으로써 비상경비 총사령관 金泰善이사관은 激怒하여 이에 대한 긴급대책으로 2월 17일 治安命令제199호로 제200부대 제1대대(장, 李東燦경감)로 하여금 大栗洞, 昌坪洞에 이날 17.00까지 긴급배치 하여 對敵措置케 하여 제200부대 제1대대와 2대대는 敵의 侵攻에 對備하였다。

2월 21일 01.00 敵 제29연대 주력 300명이 架山에 侵攻해오므로 제200부대제1대대가 즉각 이를 攻擊하니 敵은 大栗洞, 昌坪洞으로 侵入하였다。이에 我경찰대는 主攻을 제200부대제1대대, 제2대대로 하고 助攻을 幸福默총경이 지휘하는 慶北전투부대로 하였으며 美해병대 포병대의 포지원을 받아 敵을 大栗洞, 昌坪洞에서 驅逐함으로서 敵의 大邱侵攻企圖를 粉碎하고 제200부대 제2대대는 계속하여 大栗洞을 守備하면서 次期作戰에 戰備케 하고 제200부대 제1대대와 慶北전투부대는 敵을 추격北上하였다。

한편 義城—義興間 주보급로를 경비중인 서울 제106대대(장, 李丁錫경감)와 新寧—義興間 주보급로를 경비중인 제207부대 제3대대(장, 金建培경감)은 주보급로 주변에서 敵을 요격하는 大激戰이 展開되어 여기서 北共軍제10사단은 막대한 出血을 당하며 계속 我군경에 추격당하여 北上逃走하다가 드디어 前方地域 江原道 長省에서 51년 4월 8일 국군제9사단과 江原道전투경찰대, 太白山전투경찰대에 의하여 挾攻殲滅되고 極少數의 殘敵만이 北上逃走하고 말았다。

戰 果		
사살	79명	다발총 3정
포로	14명	칼빈소총 14정
경기	3문	박격포 2문
M-1소 총58정		무전기 1대
		수류탄 31발
		전화기 4대

黃鶴山 包圍作戰

3월 22일 13.50 黃鶴山 △918에 敵제1지대 예하 제1여단, 제3여단 殘匪 300명이 지방공비와 合勢하여 日月山, 通高山지구에서 後方攪亂을 하고 있어 국군제2사단(장, 咸炳善준장)이 蔚珍지구에 配備됨에 따라 전투경찰 제207부대 제1, 제2대대도 사단장의 지휘하에 활발한 공비擊滅작전에 들어갔다。我軍警은 黃鶴山에 潛伏中인 敵을 確認하고 陸軍제17연대(장, 李貞錫대령)와 전투경찰 제207부대제2대

대 및 太白山경찰 전투사령부 직할유격 鄕虎소대로서 敵을 攻擊하는 작전을 企圖, 육군제17연대는 黃鶴山 西南方 △ 820兩奧을, 제207부대 2대대와 鄕虎소대는 黃鶴山 東北方으로부터 13.50에 완전포위를 하는동시에 총공격을 斷行하니 敵은 유리한 地形地物을 이용하여 頑強히 저항하였다。이에 我軍警部隊는 突擊戰을 敢行하니 敵은 집예절려 14.20 莫大한 出血을 당하고 大德山으로 後退하였으나 이를 사전에 판단하고 부대를 潛伏시켰으므로 敵은 또다시 不意의 奇襲을 당하고 分散逃走하였다。

戰 果

사 살 153명

포 로 29명

노획 : 각종소총 66정

(2) 智異山地區 警察戰鬪司令部 作戰狀況

(가) 戰鬪前 狀況

9월 15일 仁川上陸戰과 北進作戰이 성공됨에 따라 洛東江西部 및 南部전선에서 退路가 遮斷된 北共軍 패잔병과 지방공비들은 智異山, 回文山, 德裕山, 白雲山, 黃梅山, 雲長山, 大德山, 海印寺, 高敞, 靈光, 母後山지구에 隱據하였는데 38°線以南에있는 공비총수의 90°%에 달하는 大兵力이었다。

이들은 湖南지방을 所謂「解放地區」化 하기 위하여 惡質的인 手法으로 治安을 攪亂하였으며 敵은 주로 보급투쟁과 據點奇襲과 列車襲擊을 하였으며 특히 생산기능을 마비시키고 營農을 방해하므로서 長期戰化를 企圖하였다。또한 敵은 李鉉相을 神格化하다시피 하여 그 指令활동에 충실한 공비들이므로 그 動向이 極히 주목되었다。

(나) 作戰企劃狀況

1단계로 敵의 主力을 擊破分散케 함으로서 지방경찰부대의 擊滅작전을 보다 容易하게 하여 作戰主導權을 갖게하고,

2단계로 敵의 糧道를 遮斷하며,

3단계로 良民과 공비를 分離시킴으로서 敵을 孤立시켜 短時日內에 後方治安을 確保하는 것을 作戰目標로 企劃하였다。

(다) 作戰 狀況

사령관 宋內燮경무관은 참모장 金萬壽총경으로 하여금 예하 제203부대(장, 趙石元총경), 제205부대장(金源勇총경)를 主力부대로 하는 동시에 전술책임지역내의 지방경찰서장을 指揮下에 두고 本格的인 敵主力探索戰에 臨하게 하였다。

黃梅山 戰鬪

4월 3일 06.00 黃梅山을 據點으로 咸陽, 山淸, 居昌, 陜川지구에서 惡質的인 蠻行을 계속중인 공비의 精銳 제107부대 160명과 제308부대 40명을 殲滅하기 위하여 咸陽, 山淸, 居昌, 陜川警察이 700명으로 연합공격부대를 편성하여 黃梅山으로 출동하여 11.00에 敵과 接戰을 展開하여 激戰끝에 敵에게 決定的인 被害를 주고 계속 추격하였다。

戰 果

사 살 97명

포 로 13명

노획 : 각종소총 53정

식 량 다량

長安山 戰鬪

4월 8일 07.00에 長水郡 蟾津面 長安山 沙岩里一帶에 方後均가 指揮하는 全北道黨, 保衛部隊 비락部隊, 鐵甲兵團 等, 地方共匪 980名이 蠢動하는 것을 제205聯隊(장, 金源錫總警) 主力이 威陽, 長水署部隊의 지원을 받아 探索 끝에 沙岩里에서 敵을 발견하여 斷續的 交戰 끝에 敵을 擊破하였다。敵은 沙岩里 南方으로 分散 敗走하였다。

戰　果	鹵　獲　多量
射　殺 212名	損　失
포　로 35名	戰　死 1名
노획 : Rocket砲 1門	負　傷 8名
各種小銃 75정	

(3) 雲門山地區 警察戰鬪司令部 作戰狀況

(가) 戰鬪前狀況

北上하지 못한 北共軍 敗殘兵 200명은 雲門山地區 山岳地帶에 잠복하여 地方共匪와 合流, 鐵道와 主補給路를 위협하였다。敵軍은 도시기습과 補給鬪爭을 획책하고 있음이 판명되었다。

(나) 作戰 狀況

敵의 기도를 분쇄하기 위한 敵 주력의 早期격파와 병행하여 主補給路의 警戒에 전력한 것을 作戰의 主目標로 하였다。사령관 韓景錄경무관은 작전참모 金德潭 경감에게 철저한 對敵活動에 先制공격하여 戰術운영토록 하고, 작할주력 5개 전투대대와 地境內 5개 경찰서 부대의 지원병력을 통합지휘하여 탐색을 전개하였으나 敵은 出沒하지 않고 있었다。敵은 莞山과 雲門山의 主峯에서 감시 출몰하였다가 곧 감복했기 때문에 探索활동만 강화하고 특별한 전투는 없이 경계에 그쳤다。

(4) 鐵道機動부대 사령부 作戰狀況

(가) 戰鬪前 狀況

京釜線, 中央線, 全羅線 주변의 敵 공비는 기회만 있으면 열차습격을 기도중이었다。

(나) 作戰狀況

사령관 玄元德 총경은 제201대대, 제202대대를 주력부대로 하여 列車護送 경비작전을 단행하고 철도경비는 3개대대로써 철로와 철도시설 경비에만 전력케 하였다。특수한 狀況없이 順調, 輸送作戰을 훌륭히 감행하여 UN軍과 우리 國軍의 작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자) 一般行政 警察活動 概況

(1) 1.4후퇴의 민간인 철수작전을 성공적으로 끝낸 후방지구 행정경찰은 후방지역에서 對民救護, 주요급로 경비 五列索出 및 전투지구의 군경지원 활동을 우선으로 하였으며, 전투경찰과 함께 전국에 散在하고 있는 在山공비의 擊滅작전을 강행함으로써 후방치안을 단시일 내에 확보하기 위하여 제반 對敵조치에 전력하였다。

특히 지방경찰서에 예속되어 있는 義勇警察隊와 特攻隊의 활약은 괄목할만 하였으며 수많은 戰功者가 있는 반면에 犧牲者도 적지 않았다。

(2) 女子경찰들은 포로수용소와 전투경찰 사령부에 파견되어 여자로도 심문과 감시, 경찰병원

의 부상경찰관 간호, 민간인 구호, 교통정리, 교환감독, 칩보활동 등 막중한 職時근무에 임하였고, 敵의 포로가 된 많은 여자경찰관은 敵의 非人道的인 方法으로 학살당하였다。

證言者名單

崔致煥, 李夏榮, 李成雨, 梁在鐵, 金璋漢, 文鶴東, 孫繼天, 胡英鎭, 金源湧, 辛相默, 高尙遠, 李相奇, 朴燦模, 鄭樂坤, 金南淳, 朱宰玹, 金然應, 都元根, 崔滿哲, 金顯仲, 安秉武, 朴美吉, 金相洙, 朴壯夏, 鄭淳植, 趙貴甫, 金快得, 柳忠烈, 洪秉亮, 金容植, 閔丙權, 鄭義澤, 黃澤周, 金徹鍾, 韓永煥, 朴莊遠, 趙永德, 金永斗, 吉炳胄, 金一俊, 金政鎬, 具國燦, 睦世釘, 李錫洪, 金亨洙, 宋相燮, 鄭庚和, 柳河烈, 鄭國成.

第 42 章

MacArthur 元帥의 解任

要　旨

1. 美國의 亞細亞 政策과 戰略
2. 韓國戰爭과 MacArthur元帥의 解任
3. 歸國演說과 聽問會의 論爭

第42章 MacArthur元帥의 解任

要 旨

戰爭은 政治의 延長이며 政治는 戰爭을 창조한다는 論理에 따르면 政治와 戰爭은 밀접한 主從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軍事政策은 어디까지나 政治政策을 分母로한 從屬관계의 테두리에서 이탈될 수 없다고 하겠으나 그러한 政治力學上으로 보아 統制力이 막약한 民主政治 體制下에 있어서는 政略과 戰略은 반드시 主從관계의 道德律을 준수하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相衝의 兩立現象을 나타낼 때가 적지 않게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源泉的으로 다음과 같은 要因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政治는 그 自身이 의도하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흥정의 手段으로서 戰爭을 강요하지만 그러나 戰爭은 一次的으로는 政治가 意圖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從屬관계의 自覺을 하다가도 경우에 따라서는 戰爭 그 自體의 生理的 작용에 스스로 휘말려 들어가 戰爭의 양상을 확대함으로써 政治가 意圖하는 목적과는 다른 향방으로 政治版圖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

따라서 政治와 戰爭은 主從관계에 있는 한편으로 미묘한 函數관계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한 意味에서 政略과 戰略은 그 本來의 從屬관계의 道德律을 준수하지 못한채 상호 대립의 양상을 빚을 때가 있으며 더군다나 民主政治 체제하에 있어서 政策決定者와 政策執行者는 制度上의 전통이나 規範과는 관계없이 相衝하는 예가 적지 않다.

그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政略과 戰略이 서로 그 領域을 달리함으로써 政策決定者와 執行者 사이에 애당초부터 相衝의 素地를 안고 있을 수 있는 까닭이다。

특히 政策決定者와 執行者가 文官과 武官이라는 身分上의 본질과 그 性向을 달리하고 있을 때에는 단순한 統帥權上의 權力構造를 떠나서라도 각각 특유의 領域을 가진데서 수반되는 모호한 裁量限界로 말미암아 서로 대립된 위치에서 맞서게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政策決定者와 執行者 사이에서는 政治및 戰爭의 効率的인 運用을 에워싸고 예측하지 못할 미묘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다。

그 例로서 美國의 極東政策 및 戰略에 대한 Harry S. Truman大統領과 Douglas MacArthur元帥와의 意見대립이 몰고 온 解任事件을 들 수 있다。

MacArthur元帥의 解任은 표면상으로는 政策戰略에 관한 大統領과 野戰軍司令官과의 意見대립이 비져낸 事件으로 집약되므로 一見은 意見대립을 비져낸 문제의 政策및 戰略에 대한 妥當性여부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日本占領軍司令官이며 極東軍司令官인 MacArthur元帥는 1950년 7월 1일에 최초의 UN軍司令官이라는 또 하나의 重任을 맡은 美國의 有數한 戰略家이다。

그는 韓國戰爭의 승리를 짧은 時日안에 爭取하기 위하여 유명한 仁川上陸作戰을 감행함으로써 그때까지 苦戰을 겪고 있었던 UN軍에게 승리의 榮光을 안겨준 동시에 韓國戰爭의 攻防形

勢를 하루아침에 전환시켰으나 그는 UN軍司令官으로 임명된지 10개월간인 1951년 4월 11일에 뜻하지 않게도 모든 직위와 現役에서 해임되어 52년간에 걸친 軍人생활에 終止符를 찍게 되었다。

韓國戰爭이 한창 치열한 국면에 접어 들고 있을 때 野戰軍司令官을 해임시킨 것은 실로 南北戰爭 이후 美國戰史上 유례없는 事件이 아닐 수 없었다。

半世紀를 넘는 軍人생활 가운데서 近 14년간을 亞細亞지역에서 지내바 있는 그는 단순한 地緣관계에서가 아니라 일찌기 第2次 世界大戰 당시부터 美國의 環太平洋 重點政策을 주장하여 왔었다。

실상 Truman政府의 環太平洋 重點政策의 背景은 美國의 實用主義的인 現實主義思想과 地域分擔中心의 孤立主義를 基調로한 國際體制를 중시한데서 시작하였고 그의 亞細亞 重點主義는 亞細亞 諸國의 民族투쟁을 民主主義의 土壤위에 정착시켜 世界질서의 새로운 세력으로 정비함으로써 世界赤化를 획책하는 共産세력의 팽창을 견제하려는 데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사태에 부닥칠 때마다 Truman政府의 미지근한 亞細亞政策에 솔직한 비판을 가하였다。

특히 韓國戰爭이 中共軍의 참략으로 말미암아 그 양상이 확대되자 Truman大統領과 그는 軍事행동의 地域限界를 에워싸고 상반된 意見대립을 비져내므로써 兩者사이의 간격은 크게 벌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意見대립은 臺灣문제를 비롯한 亞細亞政策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政策論議에 까지 번지게 되었고 더군다나 그와 臺灣訪問과 그 뒤의 聲明書 내용은 더욱 큰 파문을 일으키는 要因이 되고 말았다。

이와같이 兩者의 不和가 점차로 고조 되어갈 무렵에 Truman大統領과 그는 서로의 意見조정을 위한 접근을 시도하던 끝에 이른바 Wake島에서의 會談으로 진전되어 갔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 같이 兩者의 關係改善은 이루어 지지 않은채 여전히 미묘한 대립관계는 계속되었다。

그뒤 51년 1월 5일부터 시작된 我軍의 反擊작전으로 마침내 38°線으로 다시 육박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때 38°線 再突破문제가 다시 擧論되었다。

이 무렵 前線을 시찰하기 위하여 東京司令部를 떠나게 된 MacArthur元帥는 出發에 앞서 聲明을 발표하였는데 이 聲明이야 말로 MacArthur元帥를 解任으로 몰고간 결정적인 要因이 되었던 것이다。

즉 MacArthur元帥는 聲明에서 말하기를 『이제 UN軍은 南韓에서 조직적인 共産軍을 거의 소탕하였다。

中共이 수많은 희생을 내고 이 以上 전쟁을 계속하는 것은 공연히 韓國 國民을 塗炭에 빠뜨릴 뿐이다。

UN軍이 전쟁을 韓國에 局限하는 막대한 노력을 중지하고 軍事작전을 中國 본토에 까지 확대한다면 中共은 곧 군사적 붕괴에 직면할 것이다

中共 지도자가 宜當 韓國문제를 해결짓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는 언제든지 전쟁의 종결에 관하여 敵의 최고 사령관과 前線에서 협의할 用意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였다。

이 聲明은 美 行政府를 비롯한 各國에 일대 파문을 일으켰다。

심지어 英·佛 兩國은 軍司令官으로서 정치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정면으로 강경한 抗議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 무렵에 美 共和黨 下院議員인 Martine이 下院에서 3월 20일자 MacArthur元帥의

書簡을 공개하므로써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엉크러져 갔었다。

그것은 즉 Martine이 國會에서 中共軍에 대하여 國府軍을 사용하자는 제안을 한데 대하여 MacArther元帥가 書簡을 보낸 가운데서 그의 主張에 찬동의 뜻을 표하였다는 내용이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이때 下院議長 Sam Rayburn이 國會에서 말하기를 『滿州 및 韓國內의 敵軍은 中共軍뿐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제3차대전의 위기가 절박하고 있음을 경고하자 사태는 더욱 악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당황하게 된 Truman行政府는 수차에 걸친 會議를 거듭한 결과 급기야 MacArthur元帥를 解任할 것을 결정하였다。그리하여 그는 韓國전쟁이 가장 치열한 고비에서 一進一退를 거듭하는 중대한 戰勢를 둔진 채 本國으로 소환되었고 이윽고 議會와 聽問會에서의 마지막 증언을 끝으로 그는 마침내 軍人으로서의 訣別을 告하였다。

이 MacArthur元帥의 解任은 단순히 그의 個人行動로서의 終章으로 덮어 버릴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파란을 일으켰으며 後世의 史家에 의하여 공명정대한 비판을 받아야 할 많은 餘地를 남겼다。

물론 당시의 Truman行政府로서는 그가 주장하는 政略과 戰略을 그대로 용인하지 못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排除할 수 없을 것 같다。

한편 統帥權上의 命令계통에 物議를 일으키는 동시에 부여된 職權의 범위를 넘는 言行을 공공연하게 저질러 內外에 큰 파문을 던져변시 까지 行政府의 대외정책과 戰略에 意識的으로 항거한 그의 주장에도 合理的인 名分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그가 주장한 政戰略이 오늘날의 亞細亞정세와 거의 일치된 未來像을 이미 그 당시에 豫見한 바탕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때 解任事件은 더욱 많은 問題性과 課題를 안고 있다고 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1. 美國의 亞細亞 政略과 戰略

가. Truman行政府의 亞細亞政策과 그 背景

美國의 對內外政策은 거의 傳統化 되다시피 實用主義的인 現實主義思想을 背景으로 美洲爲主의 孤立主義에 충실하는데 置리고 있었다。

이러한 美洲爲主의 孤立主義는 美國의 軍事정책 목표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즉 美國의 軍事정책 목표는 『美國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고 美國民이 그들의 행복을 追求함에 있어서 安全을 保障하는데 있으며 따라서 外國軍隊나 혹은 外國과의 불필요한 緊張의 유네판계를 避하는 일이다。』라고 하는데 핵심을 두고 있다(1965년 5월 10일 UN軍總司令官 Hamilton H. Howze大將이 國防大學院에서 행한 講演文 참조)。

이러한 美國의 軍事정책은 그뒤에 世界정세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 여러차례 批判의 대상이 되어 孤立主義로 부터 世界集團安保의 국제체제로 政策轉換을 하지 않으면 안될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오랜동안 지속되어 온 歐洲中心의 國際체제에 대립하여 새로운 西半球思想이 대두됨에 따라 美國은 보다 강력한 地域機構의 활용을 熱望하게 되었으며 특히 第2次 世界大戰後 蘇聯을 宗主國으로 한 共産진영의 팽창으로 말미암아 世界의 세력균형이 美, 蘇를 頂點으로 한 兩極化 현상으로 정비되자 美國은 NATO와 SEATO를 구성하고 이윽고 SEATO를 조직하여 점차로 世界의 封鎖정책을 향하여 轉換하기에 이르렀다。

그뒤 核武器의 등장과 더불어 戰略概念의 변혁이 불가피하게 되자 이른바 大量報復戰略으로 전환하였던 美國은 다시 地域機構의 활용과 발전을 통한 紛爭의 방지와 관리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所謂 共存을 위한 多極化정책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美國의 對外정책은 여러차례의 번복을 거듭하였으나 그러나 政策樹立의 底邊에 깔려있는 孤立主義思想은 변질하지 않았던 것이다。

美國이 여러차례에 걸쳐 政策上의 번복을 하면서도 孤立主義정책을 修正하지 않은 데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要因이 작용하였던 것으로 볼수 있다。

첫째, 美國은 歐羅巴와 亞細亞의 어떤 國家보다도 월등한 超強大國의 위치에 君臨하고

있었으므로 美國 單獨의 國力으로서도 安保의 유지가 가능하다고 믿었다.

둘째, 美國은 第1, 第2次 世界大戰中 엄연한 參戰國으로서 聯合國側의 主導的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美國 本土는 단 한번도 戰禍를 입은 일이 없으므로 戰爭의 참상을 실감하지 못한 美國으로서는 당장에 美國의 安保에 위협이 되지 않는 他地域의 戰爭이나 紛爭에 대하여 직접 개입하는 것을 원치않고 있었다.

세째, 美國은 과거 韓國戰爭에 개입하여 적지 않은 상처를 입은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他地域의 紛爭에 뛰어 드는 것을 극력 꺼리고 있었다.

따라서 美國은 美洲 위주의 孤立主義를 배경으로 한 地域分權的인 封鎖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와같이 美國의 對外政策은 孤立主義를 배경으로 한 地域中心의 國際체제를 유지하는데 力點을 두고 있었으나 이러한 地域中心의 國際체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亞細亞를 비롯한 他地域보다도 歐羅巴가 훨씬 더 現實的인 實用價値가 높다고 판단하였다.

즉 歐羅巴는 첫째로 人種的인 血緣關係와 生活慣習 및 思考方式의 類似性 그리고 産業構造의 近代性과 文化藝術의 發展性 등, 諸般與件이 亞細亞나 다른 어느 地域보다도 歐羅巴가 앞서고 있으므로 貿易市場의 底邊擴大를 통한 經濟上의 實利를 얻는데 유익하다고 평가하였다.

둘째로, 美國은 歐羅巴가 兩次의 大戰을 겪은 끝에 종래의 勢力均衡이 무너지고 새로운 힘의 分布가 形成되었더라도 여기에 相當없이 早速한 經濟的 富強을 平衡하게 이룩할 수 있는 潛在力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세째로 美國은 그와같은 近代化된 歐羅巴諸國의 力量을 美國의 主導로 結合함으로써 蘇聯에 대비한 강력한 共同防衛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美國의 對外정책은 亞細亞보다도 歐羅巴에 力點을 두어 왔었는데 이러한 歐羅巴 重點정책은 한마디로 요약하여 經濟 및 軍事 兩面의 複合的 次元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수 있다.

실상 地政學上으로 보아 美國은 太平洋을 사이에 둔 亞細亞와, 大西洋을 사이에 둔 歐羅巴와의 中間地點에 자리잡고 있으므로 核武器가 開發되기 以前인 第1次 世界大戰으로 부터 第2次 世界大戰 기간중은 더 말할 것도 없고 核武器가 등장한 大戰末葉을 거쳐 戰後에 이르기까지 歐羅巴나 亞細亞는 다같이 美國의 安保에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던 것 같다.

그러므로 美國의 安保에 미칠 영향력이 歐羅巴나 亞細亞가 꼭같은 條件下에 있는 限 굳이 兩地域에 대한 軍事上의 配慮는 거의 불필요한 것으로 믿게 되었다。

그러나 巨觀的인 配慮를 전혀 排除할 수 없다는 조심스러운 자세에서 勘案할때 歐羅巴의 높은 文明度와 近代化의 潛在力을 지니고 있는 産業構造를 활용하고 혹은 支援함으로써 얻어지는 利點을 外面할 수 없다고 판단한 美國은 亞細亞보다도 歐羅巴에 눈길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 같다。

그런데 美國의 對外정책이 거의 一貫하다 시피 歐羅巴 重點정책으로 지속되는 동안 白堊館의 政策決定者는 歐羅巴에 대한 知識은 밝아질 수 있었으나 反面에 亞細亞에 대하여는 갈수록 無關心한 傾向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러나 美國이 亞細亞를 등한시 하는 동안 露西亞는 亞細亞地域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은근히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本是 露西亞는 그 地理的 與件으로 보아 獨逸, 英國, 佛蘭西등 列強들이 多極化의 勢力分布를 형성하고 있는 歐羅巴에는 감히 진출할 염두도 낼 수 없었다。

따라서 露西亞는 亞細亞地域에 淸國과 日本과 같은 無視할 수 없는 強國이 있다는것을 計算에 넣는다 하더라도 當時의 淸國과 日本의 國力은 露西亞의 亞細亞進出을 저지할 만큼 우세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줄곧 亞細亞進出에 魅力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하여 19세기 末葉에 이르러 滿洲의 대부분은 淸國과 露西亞에 依하여 개척되었고 1890年代에 가서 露西亞는 Siberia를 횡단하여 太平洋 沿岸까지의 鐵道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이와같이 露西亞는 北滿洲에 대한 經濟權을 장악하고 이 地域에 대한 行政 및 戰略上의 支配力을 갖게됨으로써 南滿洲와 韓國 그리고 中國大陸에 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布石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露西亞의 底意를 눈치 차린 英國은 그대로 있다가는 亞細亞地域의 大部分이 露西亞의 勢力圈內에 말려 들어갈 可能性이 있고 나아가서는 將次 印度支那 全域에 그 영향력이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露西亞의 進出을 막을 능력을 갖출 가능성은 오직 日本밖에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1902년에 이른바 英日同盟을 맺었다。

이러한 英國의 판단은 거의 들어 맞아 그 얼마 뒤에 滿洲와 韓國 그리고 中國에 대한 支配權을 에워싸고 競合상태에 있었던 露西亞와 日本은 及其也 1904년~1905년에 正面충돌하여 露日戰爭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戰爭에서 승리를 거둔 日本은 마침내 南滿洲와 韓國에 대한 支配權을 장악하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露西亞를 제패하고 滿洲와 韓國에 대한 支配權을 장악한 日本의 勢力강화는 露西亞의 亞細亞 進出에 一巨의 쐐기를 박은 결과가 되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日本의 등장은 곧 제2의 露西亞와 다름없는 野欲的인 植民擴張 정책으로 亞細亞 全域에 그 支配力을 미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美國은 露西亞와 교체한 日本의 支配權伸張을 마치 所望스러운 亞細亞地域의 安定을 의미하는 것처럼 善意의 判斷을 하였는데 이것은 큰 誤算이었다。

亞細亞地域에 대한 日本勢力의 등장에 관하여 당시 美國政府가 취한 판단을 Theodore Roosevelt는 다음과 같이 논평한 바 있다。

『1905년에 亞細亞地域에 있어서 日本과 露西亞사이에 勢力均衡이 이루어 졌으며 그 결과로 相互間에 抑制작용을 미치게 된것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이다。』라고 인정하고 그는 그뒤에 『우리의 利益은 우리가 日本에 대하여 敵對感情을 가졌다거나 혹은 日本의 利益에 대하여 아무리 些少한 정도라 하더라도 위협이 된다는 느낌을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日本으로 하여금 품게할 어떠한 조치도 滿洲에 관련시켜서 취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이다。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의 주장을 강요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그리고 滿洲에 관하여 日本이 우리가 反對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려고 할 때 우리들은 戰爭으로써 판가름 할 意向이 없는 한 이것을 지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그리고 滿洲에서의 戰爭에 승리를 거두려면 英國의 우수한 艦隊와 獨逸의 강력한 陸軍을 필요로 할 것이다. 中國에 있어서의 門戶開放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나는 그러한 처사가 一般的인 외교상의 협정에 의하여 유지될 수 있는 한 장래에 있어서도 利로울 것이라고 생각한다(後略). (George F. Kennan)著 American Diplomacy 1900參照)』라고 말하였다。

이와같은 見解와 꼭같이 美國政府는 日本이 韓國에 있어서의 優越한 지위를 굳힌데 대하여 아무런 念慮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뒤 美國과 日本은 1950년과 1905년의 두차례에 걸쳐 협정을 맺기까지 하였다。

한편 日本은 美國이 그들과의 협정을 맺는데 좋은 反應을 보이게 된 사실은 곧 美國이 滿洲에 있어서 획득한 日本의 지위에 대하여 事實上의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我田

引水格의 판단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美國은 露西亞를 꺾고 東部 亞細亞를 장악한 日本의 支配勢力을 所望스러운 새로운 安定秩序의 등장으로 간주함으로써 軍國主義日本에게 亞細亞席捲의 활로를 열어 주는 結果를 빚었던 것이다。

그런데 美國은 世界情勢의 未來像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非但 亞細亞뿐만 아니라 歐羅巴에 대하여도 거의 같은 結果를 가져 왔었다。

즉 美國은 이미 第1次 世界大戰 당시부터 歐羅巴 諸國이 거의 일치하다 시피 指向하고 있었던 膨脹主義를 어느 정도 認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戰後 獨逸의 再登場에 關與하는데 消極的이었던 탓으로 마침내 강력한 Nazi 獨逸이 성장할 수 있는 餘地를 허용한 결과를 가져 왔었다。

물론 Nazi 獨逸이 급속한 성장을 보이면서 강대화되기 까지의 一次的인 책임은 歐羅巴 諸國이 공동으로 짊어져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美國은 戰後 歐羅巴의 勢力형성에 적지 않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입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 責任의 一端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美國政府의 對獨逸정책에 관하여 George F. Kennan은 『獨逸에 관한 限 나로서는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두가지의 길이 있었다고 본다。그 어느 것이든 만약 원하였더라면 우리들 美國人으로서는 상당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첫째, 우리들은 Weimar共和國의 穩健分子에 대하여 보다 많은 이해와 원조 그리고 격려를 줄 수 있었을 것이다。그러나 그것으로서도 Nazism의 擡頭를 저지하는데 성공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때야말로 우리들은 Hitler의 初期의 도전과 침략에 대하여 보다 강경하고 보다 斷乎한 태도를 取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Hitler에 대하여 초기에 보다 강경한 태도를 取하였더라면 의심할 여지도 없이 Nazi 體制에 크나큰 쐐기를 박는 결과가 되어 그들이 짜놓은 시간표에 의한 행동을 크게 뒤지게 할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그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1936년 Rheinland 進駐 당시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다면 그것은 Muenchen 당시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 왔을 것이다。Hitler가 1933년부터 39년에 걸쳐 그 權力을 강화하는데 성공한 것은 물론 西歐 民主主義에 있어서 하나의 패배를 의미한다。그러나 獨逸國民 자체가 별다른 지향도 없이 Hitler를 그들의 지도자이며 지배자로서 환영하는 심경을 갖게된 그것부터가 西歐側의 보다 큰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와같이 第1次 世界大戰後 Nazi 獨逸이 새로운 勢力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美國이 對歐羅巴 정책에 적극 關與하지 않으므로써 Nazi 獨逸로 하여금 강력한 戰備를 갖출 수 있게 하였다는데 起因된다고 볼때 그뒤에 發勃된 第2次 世界大戰을 승리로 이끄는데 美國이 聯合國의 主導的 위치에서 공헌하였다 하더라도 美國이 저지른 遠因的인 실책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如何튼 美國은 싫든 좋든 第2次 世界大戰의 主導的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수 없었고 또 그러한 결과의 遠因이 바로 美國의 실책에 있었다는 因果관계를 是認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거니와 한편 亞細亞에 있어서도 美國은 歐羅巴에서의 前轍을 밟는 결과를 빚었다고 볼 수 있다。

즉, 美國은 거의 單獨으로 太平洋戰爭을 수행하여 마침내 승리를 거두는데 貢獻하였으나 太平洋戰爭의 發生遠因과 아울러 戰後의 亞細亞정세를 착잡한 局面에 접어 들게 한것도 따지고 보면 美國이 저지른, 다음과 같은 政策上의 실책에 基因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 美國은 日本이 露日戰爭에서의 戰利品으로 滿洲를 盤據하고 韓半島를 支配하게 된 것을 바람직스러운 安定秩序의 등장으로 낙관함으로써 급속도로 팽창하기 시작한 日本으로 하여금 中國大陸을 蠶食하기 위한 中日戰爭을 일으키게 하였으며 나아가서는 太平洋戰爭으로 擴戰하게 하였다。

둘째 : 美國은 中日戰爭을 통하여 國府軍에게 多少의 支援을 하였으나 그 支援規模가 미지근하였기 때문에 日本軍으로 하여금 中國의 殆半을 占領하게 하였다。

세째 : 美國은 太平洋戰爭에서 英國과 濠洲 및 Netherland 等 諸國의 小規模 병력이 參戰한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單獨으로 전쟁수행을 감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日本의 降服을 눈앞에 둔 終戰직전에 蘇聯軍을 끌어 들이므로써 戰後 亞細亞의 政治的 처리에 있어서 蘇聯에게 不知不識間에 對等以上의 權益을 제공한 결과를 가져 왔으며 그럼으로써 亞細亞情勢를 착잡한 양상속에 휘말려 들어가게 하였다。

네째 : 美 行政府는 戰後 日本軍의 降服을 접수하기 위한 軍事行政上의 節次를 考慮할 때 美合同參謀本部의 몇몇 參謀들이 단순히 蘇聯軍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한다는 近視眼的인 관점에서 美 蘇 兩軍의 軍事分界線으로 거론된 韓半島의 38°線을 아무 비판없이 결정함으로써 韓國民族에게 同族相殘의 비극을 초래하게 하였다。

이에 곁들여 또한가지 밝히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38°線을 軍事分界線으로 設定하고 美

蘇 兩軍이 進駐하기 직전인 1945년 8월 20일 Stalin은 全蘇聯軍에게 一般命令 第1號로서 『蘇聯의 陸海軍은 全力을 다하여 日本 北海道에 進駐하라』라고 下達한 일이 있다。

이것은 38°線 以北에 北海道가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이 당시 Yalta協定에 의하여 蘇聯軍의 進駐지역을 南樺太와 千島列島로 局限하였다손 치더라도 38°線을 軍事分界線의 기준으로 한다는 괴변적인 論理에 따르면 北海道에 進駐하겠다는 蘇聯의 主張은 물론 얼토당토 않은 주장이긴 하지만 그러나 侵略에 억지를 부리는 그들로서는 있을 수 있는 괴변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리하여 Stalin의 命令하달과 때를 같이하여 蘇聯의 駐日代表 Kuzma N. Derevyarkov 中將은 MacArthur元帥를 방문하고 『總司令部가 허가하든 말든 蘇聯軍은 北海道에 進駐할 것이다』라고 言明하였다。

이때 MacArthur元帥는 즉석에서 『나의 허가없이 단 한사람의 兵力이라도 北海道에 上陸한다면 당신을 포함한 駐日代表部의 全員을 즉시 투옥하겠다』라고 강경한 어조로 일축하였기 때문에 蘇聯軍의 北海道 進駐는 좌절되고 말았으나 만약 그의 斷乎한 억압이 없었더라면 蘇聯軍의 北海道 進駐는 실현되었을지도 모르는 것이며 그렇게 되었다면 亞細亞 정세는 보다 엄청나게 달라졌을 것이다。

다섯째 : 美國은 戰後 中國의 內亂이 발생하였을 때 國府軍에게 多少의 支援을 하였으나 그 支援이 不充分하였기 때문에 급기야 中國의 共產化가 이루어졌으며 이로 말미암아 오늘날 亞細亞는 공산침략의 위협을 받는 요인을 造成하고 만 것이다。

그런데 Truman政府가 中國의 內亂에 적극 介入하지 않은 데는 그나름대로의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John W. Spaner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Truman政府는 이미 臺灣의 防衛와 蔣介石政府의 옹호에 介入하고는 있지만 되도록이면 이를 축소하려고 생각하였다。

즉 美 行政府는 亞細亞의 不安定 要素가 亞細亞의 貧困과 西歐의 植民主義에 대한 反抗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신하였다。

蔣介石은 社會改革이나 보다 잘 살수 있는 생활환경을 바라는 農民들의 욕망을 만족시켜줄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國民들의 支持를 잃었으므로 美國의 援助나 특히 美國의 軍事介入은 中國 백성들에게 疏外感을 주어 더욱더 反美, 反西歐感情을 품게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中國백성들은 蔣介石을 대리한 美國의 간섭은 西歐 植民主義 또는 西歐

支配의 再現으로 간주할 것이며, 특히 美國의 노력이 中國백성들에게 强制性을 띄우게 되면 한층 더 亞細亞人들의 反美, 反西歐 感情은 굳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The Truman MacArthur Controversy and The Korean War 參照)。

이러한 John W. Spaner의 견해를 보더라도 美行政府의 中國觀 내지 亞細亞觀은 錯雜한 亞細亞속에 일단 발을 들여 놓으면 결국에는 그 소용돌이 속에 말려들어 進退維谷에 빠지게 될 것이므로 介入의 程度를 축소시켜 점차로 亞細亞에서 손을 떼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따라서 美行政府의 對亞細亞 政策은 美國이 亞細亞로 부터 퇴각하는 것은 곧 回生될 수 없는 亞細亞의 共產化를 招來한다는 것과 아울러 이러한 亞細亞의 共產化는 美國은 물론 全自由世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예측하지 못한 姑息的인 短見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여섯째 : 美行政府는 韓國戰爭의 勃發과 더불어 신속하게 美軍을 參戰시키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한편 臺灣政府가 韓國戰爭을 好機로 삼고 本土收復作戰을 기도하지 않을까 염려한 나머지 美第7艦隊를 臺灣주변에 배치하여 臺灣政府에 대한 압력을 가하였는데 이것은 도리어 中共으로 하여금 臺灣으로 부터의 本土上陸에 대비할 필요를 제거시켜 주므로써 마음 놓고 대병력을 韓國戰爭에 투입할 수 있는 여유를 주었다。

이와같이 對中國 정책에 있어서 적지 않은 실수를 저지른 Truman정부는 中國에서와 꼭 같이 戰後 對韓정책에 있어서도 그 前轍을 밟는 微溫的인 정책을 구사함으로써 韓國戰爭과 같은 불행한 사태를 낳게 하였고 또한 오늘날의 印度支那半島의 共產侵略을 가능케 하는 요인을 싹트게 하였던 것이다。

나. MacArthur元帥와 그 戰略思想

美國의 수많은 政治家나 軍事專門家 중에서도 東洋에 대한 理解心이 월등하기로는 MacArthur元帥를 따를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는 世界 各 民族의 民俗學을 연구하였고 그들의 軍事, 政治, 經濟등 모든 分野에 관한 歷史를 탐독하였거니와 그중에서도 東洋에 대한 知識과 理解는 매우 깊었다。

52년간의 기나긴 軍隊생활 가운데서 14년간을 東洋에서 지낸바 있는 그는 오랜 緣故관계로 인한 素朴한 情分때문에 東洋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언젠가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西洋사람들은 自己들의 推理作用이나 價値解釋을 동양사람들의 그것과 비교하여 그들이 양보한 것을 기대하여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하였다(Frank Kelley, Cornelius Ryan 共著 MacArthur Man of Action 參照)。

이 짤막한 말에서 느낄 수 있듯이 그는 東洋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理解心을 갖고 있었거니와 그렇다면 그는 왜 東洋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이해력을 갖고 있었을까?

어느 의미에 있어서 그는 先天的으로 東洋과의 因緣이 깊은 家門에서 태어났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父親인 Arther MacArthur將軍도 東洋과 因緣이 깊은 將軍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父親은 Philippines獨立戰爭에 參戰하여 Spain을 패배케 하고 Philippines의 獨立을 가져오는데 크게 공헌하였을 뿐 아니라 그뒤에 Philippines 駐在 美軍 司令官과 軍政總督을 역임한 將軍이었다。

그 당시 年少하였던 MacArthur元帥는 美國이 東洋의 한 작은 섬나라인 Philippines의 獨立戰爭에 參戰하여 마침내 이나라 국민의 소원인 獨立을 성취시켜 준 것이 父親의 공헌으로 이루어 졌다는 사실에 많은 감명을 받았으며 이때부터 그는 東洋에 대하여 一種의 鄕愁같은 것을 느끼며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는 자신의 回顧錄에서 당시의 所懷를 말하기를 『Paris條約에 따라 Spain은 美國에 Philippines를 양도하였고 美國은 그 代價로 2,000萬弗을 Spain에 지불하였다。

美國이 그 먼나라를 다스리게 된데 대하여는 말썽도 적지 않았다。

William Mckinley大統領은 그 사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議會에서 別途의 議決을 하지 않는 한 Philippines을 수호하고 그 국민으로 하여금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며 그 나라 모든 국민에게 온갖 合法的인 權利를 행사하도록 하는 동시에 勤勉하고 節用하도록 하여 美國人이 그들의 主權가 아니라 그들의 참된 빗임을 알려 주고 그 나라의 번영이 곧 우리들의 목적이고 그들의 福祉가 곧 우리들의 福祉임을 周知시키는 것이 大統領인 本人의 임무일 것이다。

美國人의 가슴에는 어떠한 帝國主義的 侵略意圖도 깃들어 있지 않다。 다만 그들에게는 우리 美國人의 感情과 思想과 목적이 잘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 먼나라 국민에게 이익을 줄수 있다면 누가 반대할 것인가? 만약 장래

그들이 자유의 法治國家를 건설하게 된다면 누가 우리들의 회생을 후회할 것인가? 우리들의 人道主義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나에게는 이 말이 얼마나 감명깊게 들렸는지 모른다。

그러나 약 50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 이 말이 패전한 敵國에 대하여 시행할 나의 占領政策의 指針이 될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라고 述懷하였다。

이 말을 보더라도 東洋에 대한 그의 관심은 이미 年少한때부터 싹트고 있었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東洋觀은 결코 年少한 시절의 感傷에서 비롯되었거나 혹은 또 즉흥적인 感賞에서 緣由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進取的 氣像이 박약하면서도 신랑하고 또한 온건하면서도 思慮깊은 東洋人의 氣風에 스스로 마음이 이끌렸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어쩌면 그는 未開發된 東洋에 民主思潮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民族闘爭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東洋人의 끈기있는 底力을 승화시켜 世界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人類福祉增進에 참여할 수 있도록 誘導助成하려는 도덕적인 사명감을 느꼈을 지도 모르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오래전부터 思慮깊은 東洋人의 性品과 生態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였고 東洋고유의 倫理意識을 존중하는데 깊은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東洋觀은 그가 亞細亞의 各地域에 駐留할 때마다 軍事政策을 시행하거나 혹은 또 個人的 처신을 하는데 있어서 실제 행동으로 나타내었던 것이다。

즉 그는 1935년 10월부터 太平洋戰爭이 일어날때까지 Philippines의 軍事顧問으로 在任하다가 戰爭의 發生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美陸軍에 복귀한 다음 比島 防衛司令官으로서의 重任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뒤 그는 日本軍의 기습을 받게 되자 Manila市의 無防備宣言을 단행한 다음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Corregidors島에서 철수하였는데 그후 그는 Philippines 國民과 약속한대로 1944년 10월 22일 다시 Philippines을 해방시켜 救國의 영웅으로서의 熱烈한 환영을 받았던 것이다。

그는 Philippines의 軍事顧問으로 있을 때나 防衛司令官으로 있을 때를 막론하고 一貫의 武斷的 시책을 지양하고 Philippines國民을 위한 진정한 救援軍司令官으로서의 本然의 책무를 수행하는데 심혈을 기우렸다。

그 당시 그는 Philippines 國民에게 戰前以上의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극히 위험

하다』라는 생각에서 『Philippines의 現地에 軍事作戰 내지 軍事上의 필요라는 美名下에 帝國主義 정책을 들여 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그의 所信을 밝힌 다음 Philippines 國民의 主權을 존중하는데 노력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실은 곧 Philippines의 自主독립을 존중하고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그들의 평화와 자유를 보장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우린 그의 政策思想을 實證한 좋은 예라고 하겠다。

그는 그뒤 太平洋戰爭이 종결된 다음 日本占領軍司令官으로서 통치의 책임을 맡고 있었는데 本是 그는 日本에 대하여 好感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日本人을 극히 경멸하고 있었다。

그는 회고록에서 日本에 대한 所懷를 말하기를 『몇 世紀동안 日本人은 中國—印度—Malaya 其他 太平洋 地域의 사람들과는 달리 언제나 戰爭의 技術과 武士階級의 제도를 연구하고 숭배하여 왔다。

그들은 태어 났을 때부터 太平洋의 戰士였던 것이다。

그들의 武力은 일찌기 한번도 패배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不敗의 信念을 지니게 하였으며 武士階級의 힘에 대하여는 거의 神話的인 信仰으로 받들게끔 되어 그들의 文明을 지탱하는 唯一한 정신적 礎石을 이루어 왔었다。

이 信仰은 政府機構뿐만 아니라 有形無形으로 생활의 모든 면에 침투하고 지배하였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상과 같이 그는 好戰性이 강한 日本의 武士根性을 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으나 그러나 占領軍司令官으로서 日本에 進駐한 이래 패전국에 대한 占領軍司令官으로서의 편협된 압제나 통제를 가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대등한 民主國民으로서 日本國民을 선도하는데 力點을 두었다。

그리하여 그는 日本國民의 人權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日本國旗를 게양토록 하여 日本人들에게 自信과 자존심을 갖게함으로써 그들을 크게 감동시켰으나 그 반면에 그들의 民主化를 저해할 가장 根源이 되는 요소는 神道에 있다고 확신한 나머지 天皇에 대한 神格主義를 추방하는데 과감한 조치를 취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言論, 宗教 및 學校敎育의 自由化를 단행하고 女性들에게 까지 參政權을 주었다。

또한 그는 과감한 財政改革을 단행하여 産業의 민주화를 꾀하는 동시에 土地改革을 실

천하여 耕作地의 89%를 자유로운 독립 自作農家가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밖에 노동자에게는 노동조합을 조직케 하여 단체교섭을 행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戰後 日本에 있어서 事實上의 天皇權限을 대행하는 地位에 있었던 그는 이처럼 日本統治의 求心點을 日本의 自主力量을 기르고 民主化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두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그는 Philippines에 있어서나 혹은 日本에 있어서나 東洋人의 心理를 이해하고 자존심을 손상치 않으며 東洋人의 道德觀과 死生觀을 숭상하는 입장에서 모든 善政을 베풀어 진정한 東洋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데 노력하였다。

그의 東洋觀에 대하여 Frank Kelley와 Cornelius Ryan은 그들의 著書에서 評하기를,

『MacArthur元帥의 言行의 大部分은 東洋사람들의 마음을 위하여 된 것이지 결코 西洋世界에서 消費되기 위하여 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만약 우리가 西洋사람들의 표준을 가지고 그의 행동을 판단한다면 그의 일거일동은 어리석고 과장되고 혹은 우매하게 보일지도 모른다。』(MacArthur Man of Action참조)라고 말하였다。

그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東洋에 대한 깊은 이해와 愛着을 갖게 된 것은 단순히 人道上의 동정심이나 道德上의 자비심에서 보다도 亞細亞에 대한 政略과 戰略의 兩次元에서의 價値觀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肯定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일찌기 亞細亞에 있어서 美國의 主導權은 상실되었다고 개탄한바 있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충분히 뒷받침 하고 있다.

즉 그는 戰後 對日講和條約을 체결할 무렵에 이 條約에 관한 그의 意見을 참고로 하기 위하여 보내온 共和黨 지도자인 Robert Taft上院議員의 書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낸바 있었다。

『日本을 위하여 공정한 평화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향하여 거침없이 전진하는 것은 亞細亞에서의 美國의 主導權을 구축하고 亞細亞 문제의 움직임에 관하여 잃었던 美國의 Initiative를 도로 찾는 방법이며 적어도 현재 생각되는 가장 극적이고 Dynamic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갈파하였다。

이와같이 그의 對日 占領政策은 매우 온건하고 柔軟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政策은 한편으로 적지 않은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즉 Truman政府와 一部 聯合國側에서는 그의 占領政策을 冷笑하며 심히 못마땅하다는 불평을 털어 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修正을 가하지 않고 그의 所信대로 밀고 나갔다。

그는 당시의 心境을 그의 회고록에서 述懷하기를 『나의 對日占領政策은 日本의 一般國民으로 부터는 용인되었지만 Washington의 國務省이나 歐羅巴에 있는 聯合國 一部에서는 냉냉한 반응을 샀다。

Stalin首相은 美國의 上院議員과 會談하는 자리에서 나의 日本占領政策은 너무 부드럽다는 불안을 표명하였으며 Molotov外相도 같은 말을 London에서 하면서 4個國 管理委員會를 만들어 나하고 바꾸어 놓을 것을 요구하였다。

나의 관대한 정책은 증오를 샀으며 復讐만을 노린 편견뿐인 계획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나는 싸움터에서는 日本人을 때려 눕혔지만 평화에서는 자유세계쪽으로 이끌어 들이는 것이다』라고 辛辣하게 蘇聯을 비난하였다。

이와같이 그는 그 自身이 是認한 것과 같이 對日占領政策에 있어서 敗戰國인 日本으로서는 감히 예상하지 못할 만큼 관대하고 宥和的인 정책을 베풀었다。

또한 그는 일찌기 美國의 孤立主義를 비판하면서 美國은 世界의 指導國으로 君臨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으므로 그러한 입지에서 세계정책을 다루어야 하는 使命과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왔었다。

더군다나 그는 美國의 歐羅巴 第一主義 정책에 정면으로 反旗를 들었거니와 그의 汎世界的 안목에서 본다면 歐羅巴와 亞細亞에 대한 政策上의 差等은 論理上 타당치 못한 것이지만 굳이 優先順位를 정한다면 歐羅巴보다도 오히려 亞細亞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年來의 持論이었다。

그는 第2次 世界大戰中 Franklin Roosevelt大統領의 歐羅巴 第一主義에 대하여 이미 반대의 뜻을 표명한 바 있었다。

실상 美國이 전통화 되다시피 한 孤立主義 정책에 치중하면서 亞細亞보다도 歐羅巴 偏重政策에 기우린 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지만 이러한 歐羅巴 중점主義 정책은 Truman정부에 의하여 더욱 현저하게 행사되었다고 할수있다。

그런 까닭으로 Truman정부와 그와의 政策上의 意見對立은 날이 갈수록 深化되는 수밖

에 없었으며 이러한 對立樣相은 적지않게 Truman 정부를 난처하게 만들어 놓기도 하였다。

그는 第2次 世界大戰中 어느 성명을 통하여 말하기를 『歐羅巴는 殘滅하는 組織이다。疲勞에 지쳐있고 經濟上으로나 工業上으로나 蘇聯이 主導權을 잡을 것이다。

數億의 주민이 살고있는 太平洋 地域이야말로 다음에 닥쳐올 數萬年의 역사를 결정지을 것이다。』라고 예언한바 있었는데 이러한 그의 예언은 오늘날 신통하게도 的中된 셈이다。

이와같은 사실을 보더라도 그는 확실히 東洋에 대한 날카로운 洞察力을 지니고 있었고 透視된 識見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가 歐羅巴보다도 亞細亞에 대한 重點정책을 제창한 데는 政略이 아닌 戰略上의 價値觀이 작용하였던 것 같다。

다시 말하면 歐羅巴는 이미 開發의 限界點에 이르러 다만 낡은 傳統의 전통을 바탕으로 그 명맥을 이어가는데 지나지 않지만 그 반면에 亞細亞는 광대한 大陸과 방대한 人口 그리고 無盡한 地下자원을 지니고 있는 개발 途上의 지역이므로 無限定한 발전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政治力學上으로 보아서 歐羅巴의 旣成세력은 힘의 停滯상태를 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머지않은 장래에 亞細亞의 新生 諸國中에서 반드시 새로운 강대국이 등장하여 세계를 주름잡는 힘의 균형을 左右하게 될 것으로 그는 展望하였던 것 같다。

이러한 그의 戰略思想에 관하여 John W. Spaner는 논평하기를 『MacArthur 元帥의 목표 가운데의 하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亞細亞民族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었다。

그는 일찍부터 亞細亞의 장래에 대하여 어떤 "비젼"을 품고 있었다。

1951년 그 時點에 있어서도 그는 같은 "비젼"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세계문제의 發源地는 순환하여 發生地로 되돌아 간다고 보고 있었다。

美國의 將來繁榮은 亞細亞의 新興諸國과의 무역에 달려 있다는 持論을 가지고 있었다』(The Truman MacArthur Controversy and The Korean War 參照)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의 戰略思想에 있어서 특기할 點은 그가 이미 30년전부터 공산세력의 亞細亞 지배를 예언한 실로 巨視的인 洞察力을 가졌다는 點인 것이다。

John W. Spaner는 그의 中共觀에 대하여 말하기를 『韓國戰爭에서 MacArthur元帥가 노리고 있었던 것은 中共을 韓國에서 몰아내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의 目標의 하나는 中共의 증대하는 위협에 대처하는 일이었다。』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그는 일찍부터 共産세력의 팽창을 경고하고 특히 中共에 의한 亞細亞의 共産化를 무척 우려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철저한 反共主義者로 유명하지만 그렇다고 그는 理念上으로 공산주의를 싫어하였다기 보다는 好戰根性으로 一貫된 日本帝國主義를 嫌惡하였듯이 그는 共産主義가 지니고 있는 帝國主義的 侵略根性을 매우 증오하고 있었다。

韓國戰爭이 발발하였을때 UN安全保障理事會에서 韓國戰爭에 대한 즉각적인 사후대책을 협의한 끝에 中共을 침략자로 규정한 것은 이미 周知의 사실이거니와 그는 일찌기 그보다도 더욱 過激한 感情의 語句로 共産主義者들을 악랄자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共産主義를 증오하였다。

그러기에 그는 太平洋戰爭이 종결된다음 東京에 駐在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이미 當時의 日本共産黨의 행동을 예리하게 注視하고 매섭게 비판한 바 있었다。

또한 그는 亞細亞의 悲劇이 무르익기 시작한 源泉은 蔣介石 정부에 대한 美國의 支援이 不透明한데서 부터 싹튼 것이라고 개탄하였다。

즉 그는 蔣介石 정부에 대한 Truman정부의 실책을 美國의 대외정책상 가장 큰 착오였다고 통열히 비난하였다。

그는 1947년 9월에 美國의 防衛線에서 韓國과 臺灣이 제외되었다는 美合同參謀本部의 極東防衛戰略을 당시의 Dean G. Acheson 國務長官이 공표함으로써 큰 파문을 일으켰을때 그 自身도 合同參謀本部의 防衛戰略에 同調하였다는 비난을 받았었다。

이 合同參謀本部의 極東防衛戰略에 그가 과연 同調하였는지 그 與否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가 同調하였다면 그는 다시없는 중대한 실책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如何間 그는 美 行政府의 對亞細亞 정책에 몹시 불만을 품고 매서운 비판을 가하여 왔었는데 그런데 무엇보다 注目을 끌게하는 것은 그는 평소부터 軍事戰略은 政治的 구속력에 종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한 그러한 현상을 매우 위험시 하였다는 점이다。

그는 戰略과 政略은 일단 양립된 차원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그리하여 궁극에 가서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하나의 調和속에 집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Robert E. Osgood는 그에 관하여 논평하기를 『정부는 政治上의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

다는 論理에서 軍事上의 노력에 명확한 구속력을 加하였다。

그러나 MacArthur는 명백한 軍事上의 승리를 얻기 위하여 최대의 敵을 격멸하여야 한다는 결의를 지니고 있다。

이 결의와 政治上의 구속력이 충돌하면 그는 결코 政治上의 구속을 묵인할 수 없었다。

政治上의 이유로 필요불가결한 軍事목표를 제외하는 데서 政治와 軍事사이의 融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逆說的으로 말하면 MacArthur는 軍人의 전문분야가 아닌 정치문제에 軍人은 개입하여서는 안된다는 견해에 철저한 몇사람 안되는 美國軍人의 한사람이었다。』(現代 美國의 軍事戰略에 대한 批判 參照)라고 하였다。

그러한 논평과 같이 그는 軍隊에서 잔뼈가 굳어진 전형적인 軍人임에 틀림없지만 그러한 그는 최도록 政治科學的인 次元에서 軍事戰略의 자주성을 擁立하려고 노력한 사람이었다。

美國의 저명한 軍事專門家들 가운데 그를 평하여 幻想家이며 神秘主義者인 동시에 自己陶醉의 영웅主義者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실상 強靭한 個性을 지닌 그의 性品가운데 전혀 그러한 一面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共産主義의 亞細亞 赤化를 根源에서부터 뽑아 버리려는 正義感과 使命感에 執拗한 그의 지나친 情熱이 그와같은 오해를 불러 일으켰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如何間 亞細亞에 대한 그의 基本戰略思想은 전통화된 東洋의 民族主義를 近代 民主思潮의 土壤위에 移植하여 矜持높은 東洋민족으로 하여금 민주세계의 一體感을 긍정케 함으로써 亞細亞에 절박하고 있는 共産化의 비극을 제거하려는데 있었던 것이다。

2. 韓國戰爭과 MacArthur元帥의 解任

가. 韓國戰爭과 UN軍의 參戰

1945년 8월 15일 日本帝國의 無條件항복은 第2次 世界大戰의 종식을 告한 歷史的 기념일에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표면상의 終戰에 지나지 않을 뿐 결코 완결된 戰爭의 종식을 意味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숙제를 안고 있었다。

왜냐하면 1945년 8월 15일의 終戰은 장차 보다 더 시끄럽고도 冷酷한 새로운 戰爭勃發의 가능성을 胚胎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두 말할 것도 없이 美·英·蘇를 主軸으로 한 연합국이 獨逸과 韓國에 있어서 국토를 兩分하는 軍事分界線을 설정한 다음 同床異夢格으로 進駐한데 있는 것이다。

연합국이 敗戰國에 대한 統治와 管理에 있어서 獨逸과 韓國을 각각 分割進駐한 것은 共同配分의 원칙을 존중하려는 처사로 볼 수 있으나 그러나 이러한 誤謬는 연합국이 제 2 차 世界大戰에서 치른 困苦보다 몇 갑절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局面에 장차 스스로 빠져들어 가리라는 것을 진혀 예상치 못한 처사였다。

獨逸의 경우는 且置하고라도 韓國에 있어서 理念上으로나 政治체제에 있어서 異質的인 美·蘇 兩軍이 38°線을 軍事分界線으로 하여 分割進駐한 것은 그 동기나 이유는 어찌 되었던 韓國民族의 분열을 초래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뿐 아니라 38°線 以北을 교두보로 한 共産세력의 極東進出을 가능케 한 요인을 만들어 놓고야 말았던 것이다。

그러한 意味에서 韓國問題 처리에 대한 美國의 실책은 두 가지 側面에서 비판되어야 할 것 같다。

그 하나는 Yalta 協定에서 蘇聯의 對日參戰에 同意하였다는 점이다。

여기에 관하여 당시의 美國務長官 Edward R. Stettinius는 말하기를 『Yalta 協定에서의 滿洲에 대한 支配權은 中國이 갖기로 되어 있었다。또 Roosevelt 大統領은 蘇聯軍이 滿洲에 들어오거나 北韓에 들어오는데 同意하지 않았다。사실에 있어 蘇聯軍의 北韓進駐는 日本軍의 항복을 받는 업무의 일부로서 美軍當局者에 의하여 協定된 것이었다』라고 하였다。(Frank kelley, Cornelius Ryan 共著 MacArthur Man of Action 參照)

그러나 이 말은 진상과는 다른 책임회피의 말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왜냐하면 첫째, Stalin은 Yalta 協定을 맺기 이전부터 Roosevelt 大統領에게 對日戰에 참전할 意向을 비친 일이 있었으므로 이미 事前同意를 얻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고 또 Yalta 協定에 蘇聯의 對日參戰을 示唆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蘇聯軍의 北韓進駐를 同意하지 않았다는 것은 論理上 타당치 못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 38°線을 軍事分界線으로 획정한 것은 美 合同參謀本部의 몇몇 參謀들이 日本軍의 항복을 받기 위한 단순한 業務 분담의 限界線으로서 잠정적으로 설정한 軍事分界線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 分界線은 英國政府와 蘇聯政府의 事前同意를 얻은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다면 몇몇 參謀들 나름대로 획정한 分界線이라는 변명은 語不成說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假使 몇몇 參謀들의 發想에 의하여 38°線이 軍事分界線으로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英國과 蘇聯의 公式 同意를 얻기 위하여는 節次上 美軍 高位 당국을 거쳐 白堊館의 承認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蘇聯의 對日參戰을 에워 싼 事前 동향에 관하여 MacArthur 元帥는 그의 회고록에서 지적하기를 『蘇聯의 太平洋戰爭 참가문제는 1944년 말부터 45년에 걸쳐 Yalta 會談 등 國際的 토의에서 진지하게 考慮되어 왔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회합에는 한 번도 불려간 적이 없으며 또한 나의 意見을 물어본 일도 없었다。

나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1945년에는 蘇聯의 개입은 필요치 않았다。

日本은 이미 천저하게 致命傷을 입었으며 陸海軍의 정예부대는 이미 없어졌고 日本 본토에 대한 공습과 聯合軍의 太平洋 여러 離島에 대한 上陸作戰앞에 꼼짝 못하고 있었다。

1941년에 나는 南太平洋과 東南亞細亞로부터 日本軍의 세력을 빼어내기 위하여 蘇聯의 參戰을 강력히 주장하였지만 1945년에 와서는 이미 그러한 개입은 불필요하게 되어 있었다。

이미 敗北한 것이나 다름없는 日本을 상대로 蘇聯과 어떠한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던가는 陸軍省 作戰部의 西南 太平洋地域 담당관인 William L. Ritche 將軍(당시大領)의 공개기록에도 나타나 있다。』라고 하였다。

이렇듯 38°線의 획정은 당초에 考慮하였던 美國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경계선으로 膠着됨으로써 韓半島의 비애는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이 무렵의 사정에 관하여 당시 美國務省은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日本軍의 항복을 수락하기 위하여 잠정조치로 마련하였던 分割線은 蘇聯側에서 兩占領地域間의 恒久的 경계선이라는 恣意的 해석을 내리게 되어 그들 사이의 교통은 兩地域의 軍司令官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하게 되었다。

美軍司令官은 韓國의 統一을 달성하기 위하여 蘇聯軍司令官과 협의 하고자 始終如一하게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태는 그대로 계속되었다。』

이 發表文은 뒤늦게나마 철폐될 가능성이 희박한 38°線의 實在를 확인한 美國務省의 詠念을 뜻하는 것이었다。

여하튼 38°線은 사실상의 國境線으로 확정된 채 兩地域에 각각 美蘇兩軍이 진주함으로써 南韓에는 美軍政이 실시되었고 北韓에는 蘇聯軍에 의한 衛星化 통치가 단행되었다。

이때부터 약 2년 뒤에 大韓民國 政府가 수립되기 까지 南韓은 美軍政의 中立 정책으로 말미암아 左翼 세력이 판을 치는 混迷한 政局 속에 휘말려 들어감으로써 民主右翼 陣營은 많은 困辱을 받게 되었고 또한 北韓을 점령한 蘇聯軍은 金成柱를 내세워 착착 共産陣營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었다。

이 당시 MacArthur 元帥는 北韓에 있어서 蘇聯軍이 시행한 衛星化 一邊倒의 통치를 냉렬히 비난하는 동시에 장차 韓半島에서 蘇聯의 背後操縱에 의한 民族相殘의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예상하고 『우리는 國際的인 掠奪軍隊가 亞細亞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大喝한 바 있었다。

그 뒤 1945년 12월 28일 Moscow 三相決議內容이 발표되고 이에 따르는 臨時中央政府 수립과 5년간의 信託통치를 실시하기 위한 美蘇共同委員會가 수차에 걸쳐 개최되었으나 끝내 결렬되고 1947년 11월 14일 UN總會에서 韓國問題에 관한 決議案이 통과되었다。

이리하여 南北韓을 통한 총선거를 실시하게 되어 UN韓國委員團이 南北韓에 각각 입국하게 되었으나 北共의 拒否로 인하여 南韓에서의 單獨 총선거가 실시됨으로써 1948년 8월 15일 大韓民國 政府가 수립되었다。

이 政府樹立의 式典에서 MacArthur 元帥는 演說을 통하여 말하기를,

『이 獨立의 기쁨은 現代史의 가장 큰 비극의 하나로 오려지고 있다。 그것은 貴國의 國土가 인위적인 경계선으로 分割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惹起된 것이며 이 경계선은 철폐되어야 한다。

韓國民族이 자유로운 市民으로 단결한 것을 이제는 아무도 방해할 수 없다。 韓國民族

은 자기의 聖스러운 목적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외국의 破壞思想에 굴복하기에는 너무나도 긍지가 높은 민족이다.』라고 역설하였다。

이 演說文에서 MacArthur 元帥는 韓國領土의 분할을 매우 안타깝게 개탄하였으며 이 國土分割이 철폐되지 않는한 韓國의 비극은 漸增될 것이므로 反共을 위한 韓國民族의 분발을 示唆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韓國의 獨立問題가 UN에서 거론될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 무렵부터 蘇聯은 韓國問題에 관한 UN에서의 거론을 방해하기 위하여 韓國의 獨立問題는 韓國民族의 自由意思를 존중하여 韓國民族에게 一任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는 第三國의 개입을 배제한 選擧의 자유 분위기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허울좋은 구실을 내걸고 美蘇 兩軍의 동시 철퇴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蘇聯의 제안은 美蘇 兩軍이 철퇴한 後의 軍事的 공백 상태를 계기로 高度의 군비를 갖춘 北共軍으로 하여금 南侵을 자행케 함으로써 美軍의 支援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韓半島의 赤化統一을 획책하려는데 그 底意가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蘇聯의 제안에 대하여 美統合參謀本部는 당시 美國政府의 입장에 비추어 철퇴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판단하였는데 이 판단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名分을 근거로 하고 있었다。

첫째 : 海外에 駐在하고 있는 병력을 철수시켜 軍事費를 절약하고 광범위하게 散在되어 있는 폭로된 地域의 부대를 철퇴시켜 戰略的 가치가 있는 지역에 집중시키는 것。

둘째 : 美國의 巨視的인 安全保障 面에서 韓國에 있어서의 軍事力은 그다지 필요치 않다는 것。

세째 : 美軍의 韓國 주둔은 韓國의 자유와 독립을 지연시키는 要因이 될 것이며 支持를 받지 못하는 占領軍을 韓國內에 駐留시키는 것은 韓國民族의 불만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

이상과 같은 세가지 명분을 근거로 統合參謀本部가 권고한 撤退案을 美國務省은 異議없이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美國은 蘇聯軍이 그들의 제안대로 北韓에서 철수할 것으로 믿고 약간의 軍事顧問團을 잔류시킨 다음 45,000명의 美軍 철수를 단행하였다。

이것은 美國政府가 北共의 南侵을 손쉽게 만들기 위하여 蘇聯이 미리 장만한 脚本에 고스란히 속아 넘어간 꼴이 되고 말았다。

물론 美軍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蘇聯軍도 北韓에서 名目上 철퇴하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蘇聯은 일단 병력을 철퇴시킨 다음 은밀히 北共軍의 대량 육성과 武器공급에 주력하였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支援은 1948년 9월 10일 이른바 北共政權의 수립을 계기로 더욱 本格化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이 北共이 蘇聯軍의 적극적인 支援으로 착착 南侵을 목표로 한 軍事力을 강화하고 있었는데 반하여 美國정부는 韓國에서의 兵力撤退時에 韓國軍에 대한 강화 육성에 等閑하였을 뿐 아니라 철퇴 후의 軍事援助에도 매우 인색하였다。그리하여 韓國軍과 北共軍의 軍事力은 점차 비교될 수 없는 隔差를 나타내게 되었으며 이것은 韓國戰爭의 유발을 촉진한 起爆劑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중대하고 根源的인 요인은 極東戰略에 대한 美國 政府의 견해를 공표한데서 발단되었다。

즉, Truman 政府의 極東戰略은 뜻밖에도 美國의 방위선에서 韓國을 제외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極東戰略은 韓國戰爭이 勃發하기 5개월 전인 1950년 1월 12일 Dean G. Acheson이 國務長官 就任 연설에서 合同參謀本部의 견해를 공표함으로써 비로소 밝혀졌던 것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Aleutian 列島로 부터 日本—沖繩를 거쳐 Philippines에 이르고 있다。

이 戰略地域에 대하여는 美國이 책임을 지고 곧 武力을 행사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 방위선 밖에 대하여는 美國은 구체적인 책임을 지지않는다。』라는 것이었다。

또한 同 長官은 附言하기를 『美國은 방위선 밖의 여러 나라에 대하여는 戰爭에 개입할 意志와 決意 그리고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할 수 없으나 武力以外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美國의 원조는 效率性있는 성과를 나타낼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당시에 南侵을 목표로 戰爭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北共의 입장에서 볼 때에 Acheson의 이와 같은 公言은 매우 鼓舞的인 말이었을 것이다。

또한 그의 말은 마치 덤벼들려고 노리는 獅子 앞에 스스로 고기덩어리를 내던져준 格이 되었다。

당시 美國의 極東戰略은 그와같이 不合理한 상황에 있었고 특히 韓國에 대하여는 거의 語不關焉으로 外面을 하다시피 되어 있었으므로 美國은 南侵準備에 狂奔하고 있는 北共의 동향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 Acheson 國務長官의 발언은 설혹 北共의 南侵이 있더라도 美國은 직접 參戰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公公然하게 明明한 것이 되었을 뿐 아니라 어느 意味에서는 北共의 侵略을 保障하고 나아가서는 그들의 身邊을 보호까지 하여 준 셈이 된 것이다。

실상 美國務省은 이미 1947년 초에 美國의 安全保障上 韓國이 어떠한 戰略的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데 대한 調査分析 작업에 착수하고 있었다。

즉 그 해 9월에 Truman 大統領은 George C. Marshall 國務長官에게 美國의 軍事的 安全保障을 검토하는 입장에서 韓國占領의 軍事的 중요성에 관한 合同參謀本部의 意見을 요청하도록 지시한 바 있었던 것이다。

이 때 James V. Forrestal 國防長官은 『韓國에 있는 部隊와 基地는 美國의 安全保障을 위하여 약간의 戰略的 가치 밖에 없다』라고 보고 하였다。

또한 당시 合同參謀會議 議長이었던 Dwight D. Eisenhower 元帥는 말하기를『敵이 공격하기 전에 충분히 증강하지 않으면 韓半島의 유지는 어렵게 될 것이므로 韓國에 美軍을 駐留시키는 것은 戰爭勃發時에 軍事的 책임을 짊어지게 되는 결과가 된다。』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보더라도 美國은 당초부터 韓國을 도외시 하려는 경향을 보였고 되도록이면 韓國에 대하여 깊이 개입하는 것을 꺼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韓國은 왜 美國의 방위선에서 제외되었으며 또 美國은 그 당시 北共의 南侵準備 상황을 그렇게도 모르고 있었을까?

그 당시 美國의 戰略槪念은 전적으로 全面戰에만 대비하고 있었으며 局地戰에 대하여는 뚜렷한 配慮가 없었던 것으로 推測된다。

따라서 美 行政府는 全面戰의 戰略槪念에 비추어 韓半島는 全面戰의 勃發을 가능케 할 戰略的 가치가 없으므로 韓半島에 대한 蘇聯의 도전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또한 北共의 실정으로서는 南韓을 침공할 능력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誤判하였다。

이러한 美國의 戰略槪念은 蘇聯으로 하여금 美國의 戰略的 盲點을 노려 局地戰을 유발하게 하였고 더군다나 北共의 능력을 過少評價하고 그의 동향을 등한시 한 것은 北共으로 하여금 고무적으로 분발시킨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美 行政府의 판단과는 달리 MacArthur 元帥는 수차에 걸쳐 北共의 南侵 가능성을 國務省에 보고하였다。

그는 그의 회고록에서 말하기를『나는 極東에 있어서의 共産 세력의 위협이 점점 심각하여져 가는 사실을 알리기에 애썼지만 조금도 그 효과는 거둘 수가 없었다。

1949년 부터 다음해 50년 6월에 걸쳐 나는 北共이 침범하여 올 위험성이 절박하였음을 Washington에 계속 보고하였지만 전반적인 무관심과 그리고 中共은 農地改革者에 불과하다는 一部의 意見 앞에 조그마한 반응도 살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당시 내가 제출한 보고 가운데에는 北共이 38°線을 넘어올 시기는 1950년 6월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비친 적이 있었다。』라고 하였다。

이와같은 MacArthur 元帥의 보고에 대하여 Acheson 國務長官은 말하기를『Mac Arthur 元帥의 정보가 韓國에 대한 侵入 日字를 1950년 春期 아니면 夏期로 본다고 보고하였다。』라고 是認한 바 있었다。

그러나 美國務省은 그러한 MacArthur 元帥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對韓政策에 대하여는 여전히 등한시 하였다。

美國이 對韓政策에 있어서 얼마나 姑息的이었는가 하는 것은 軍事援助面에서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즉 1949년도에 韓美間에 맺은 相互防衛 援助協定에 의하여 韓國軍에게 供與하기로 된 장비는 遲遲不振한 상태에 있었으며 北共이 南侵을 자행한 1950년도에 가서야 겨우 供與하기 시작한 정도였었다。

그러니까 당시의 韓國軍은 國防의 능력을 행사할 軍事力이라기 보다는 治安유지에 알맞는 장비 밖에 供與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외부의 침공에 대처할 능력은 전혀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당시의 韓國軍은 南侵을 기도한 北共에게 眞空地帶를 제공한데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MacArthur 元帥는 회고록에서 말하기를『韓國軍의 장비와 기구를 이 정도로 갖추게 한다는 결정을 내린 곳은 國務省이었다。

國務省이 이 결정을 내릴 때 내놓은 理論은 韓國이 北韓을 공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였다는 것이었지만 이러한 놀랄만한 近視眼的인 이유는 모름지기 北共으로 하여금 공격의 길을 열게 하여준데 불과하였다。』라고 證言하였다。

그러데 특히 놀라운 사실은 北共의 南侵이 개시되기 1주일 전인 6월19일에 John Foster Dulles氏가 美 國務長官 代理의 자격으로 韓國을 방문하였을 때 38°線 경계지대를 시찰한 그는 말하기를『韓國은 北쪽으로부터 만일에 공격을 받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만큼

준비가 되어있는 것 같다。』라고 매우 낙관적인 견해를 발표하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美國이 韓國에 대하여 얼마나 무관심 하였으며 또한 北共이나 蘇聯의 동향에 대하여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가를 端的으로 들어낸 예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그렇게도 낙관적인 公言을 한 Dulles는 그 당시 韓國國會에서 연설하기를 만일에 韓國이 공격을 받는다면 美國은 韓國을 방위할 것이라고 앞뒤가 맞지않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Dulles의 연설을 그 이전에 Acheson 國務長官이 美國의 방위선에서 韓國은 제외되었다고 밝힌 國務省의 戰略概念과는 전혀 二律背反的인 말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그때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되었든 6월 25일 北共의 南侵이 자행되자 美軍을 주축으로 한 UN軍이 參戰함으로써 Dulles 氏의 언명은 韓國民을 一時的으로 무마하기 위한 전혀 근거없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실증하기는 하였으나 여하튼 美國의 對韓政策은 骨格을 잃은 혼선을 빚고 있었던 것만은 부인 못할 사실이었던 것 같다。

나. 解任의 遠因

(1) 臺灣訪問과 그波紋

韓國戰爭이 勃發하였을때 세계의 耳目은 美國이 韓國 사태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것인가 하는데 집중되었다。그와 함께 또 한가지 세계의 관심을 끈것은 臺灣에 대하여 美國이 어떠한 대비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었다。

그 뒤 Truman 政府는 즉각적인 조치로서 韓國戰爭에 美軍을 투입하였고 이윽고 UN의 決議를 통하여 聯合軍의 參戰을 실현 시켰다。

Acheson 國務長官이 美國의 방위선에서 韓國과 臺灣은 제외 되었다고 공표한 極東 防衛戰略을 뒤집어 엎고 직접 韓國戰爭에 개입한 이상 美國은 臺灣문제에도 적극 關聯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 論理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臺灣과 蔣介石政府를 옹호하자면 국제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考察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Truman 政府의 고민이었다。

그렇다고 하여 蔣介石政府가 中共軍에 의하여 본토에서 축출 당한 끝에 마지막 據點인 臺灣에 옮겨 간신히 생명을 부지하려는 마당에서 다시 中共軍의 공격을 받아 마지막 命脈마저 끊어지는 것을 盟邦으로서 차마 방관하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臺灣마저 中共軍의 손아귀에 들어간다면 韓國과 日本의 安保도 크게 위협을 받게 된다는 政略的 次元의 考慮를 하지않을 수 없는 것이 또한 美國의 입장이었다。

그러하여 臺灣문제로 말미암아 골머리를 앓고 있던 Truman 政府는 窮餘之策으로 臺灣의 中立化를 들고 나왔으나 이에 대하여 中共은 美國에 의한 臺灣의 중립화는 中國 본토에 대한 武力侵略인 동시에 UN憲章에 대한 위반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러자 美國은 臺灣문제를 UN에 上程하여 國際조직에 의한 객관적인 조사를 통하여 可否를 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당시 UN駐在 Warren R. Austin 美大使는 UN事務總長에게 美國의 입장을 밝히고, 다음과 같은 7개 항목의 서한을 보냈다。

첫째 : 美國은 中國을 침략하지 않았고 또 侵略행위를 한 일도 없다。

둘째 : 美國의 행동은 臺灣이 中國本土와 交戰상태에 있고 또한 中共이 韓國戰爭에 參戰한 美軍에게 위협을 미치기 때문에 취하여진 것이다。

세째 : 美國의 행동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公正한 중립화를 목표로 한 것이며 결코 臺灣을 손아귀에 넣으려는 생각은 없다。

네째 : 美國의 행동은 臺灣의 지위에 대한 政治的 장래를 보장하려는데 있기 때문에 그 領利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다섯째 : 美國은 蘇聯과 비슷하게 歷史的으로 中國과 友好的인 유대관계를 맺어 온 기록을 가지고 있다。

여섯째 . 美國은 UN이 韓國戰爭의 침략자를 격퇴하기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병력을 轉用할 생각은 없다。

이러한 Truman 政府의 臺灣中立化 제안에 앞장 서서 반대한 것이 MacArthur元帥 였었다。

그는 이와 같은 政策 결과는 臺灣을 侵攻하려고 노리고 있는 中共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게 된다고 비판하면서 강력한 親 國民 政府 정책과 아울러 보다 적극적인 反中共 정책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무렵 蔣介石정부는 最新兵器로 장비된 66,000명의 병력을 韓國戰爭에 參戰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韓國派兵을 제안한 蔣介石정부의 意中에는 다음과 같은 속셈이 있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첫째, 蔣介石정부가 中共軍에게 패배당하여 臺灣으로 밀려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國府軍이 戰爭을 수행할 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中共에게 시위하는 것。

둘째는 國府軍이 韓國戰爭에 參戰하면 北共을 支援하기 위하여 中共軍이 개입할 것이므로 韓國전쟁에 中共軍을 끌어 들임으로써 약화된 本土 방위력을 노려, 收復戰을 전개할 기회를 포착하자는 것。

세째로 國民政府가 本土를 상실하고 臺灣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中國을 代表한 政府로서의 체면과 권위가 약화되었으므로 韓國파병을 통하여 國民정부의 엄연한 존재를 世界萬邦에 再認識시키자는 것。

네째로 韓國파병을 통하여 韓中 共同戰線을 강화하는 동시에 共同運命的인 反共유대를 재인식하자는 것。

以上과 같은 안목에서 蔣介石정부가 韓國派兵을 제안하자 Truman 大統領은 이 제안을 받아 들이려는 기미를 보였다。

그러나 Acheson 國務長官과 美 合同參謀本部는 國府軍을 韓國전쟁에 개입시키면 中共으로 하여금 더욱 더 전쟁을 확대하도록 자극하는 것이 되며 그럼으로써 國府軍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혀 장차 中共의 侵略으로부터 臺灣을 방위할 능력을 減縮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극력 반대하였다。

그리하여 Washington 當局은 國府軍의 韓國參戰을 거절하기로 결정하고 이러한 美國정부의 意思를 蔣介石정부에 이해시키기 위하여 MacArthur 元帥로 하여금 臺灣을 방문토록 하는 것을 考慮하게 되었다。

한편 이와 때를 같이하여 MacArthur 元帥도 韓國派兵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美國政府의 입장을 蔣介石정부에 설명하기 위하여 그 自身이 臺灣을 방문하겠다고 Washington 當局에 上申하였다。

그는 이상과 같은 필요에서 臺灣을 방문하기를 원하였으나 實相 이것은 표면상의 이유에 지나지 않고 그 보다 더 절실한 목적은 미묘한 臺灣정세를 그 自身의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그가 臺灣정세를 직접 시찰하고자 한 意圖는 國府軍에 대한 獨斷的인 軍事조치를 취하려는데 있은 것이 아니라 臺灣정세가 韓國戰爭에 미치는 영향과 中共軍의 동향을 파악하여 韓國전쟁의 指導方策을 모색하는데 參考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 같다。

"이리하여 그는 韓國전쟁을 統轄하는 분망한 틈을 타서 7월 31일 臺灣을 방문하고 蔣介

石정부의 高位 당국자들과 요담한 다음 東京으로 되돌아 갔다。

司令部로 돌아간 그는 성명을 발표하되 『臺灣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 國府軍과 美軍과의 相互 調整을 위한 協議를 하였으며 中共軍의 침략을 未然에 방지하는 것이 나에게 부과된 임무였다』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말하기를 『나는 國民정부 지도자들로부터 共産主義의 지배에 저항하는 불굴의 결의를 보았으며 이들의 決意는 모든 太平洋 諸國의 국민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결코 노예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美國 국민의 공통된 관심과 목적에 일치한다』라고 하였다。

이 MacArthur 元帥의 성명은 Washington 당국으로 하여금 적지않은 우려를 갖게 하였고 더군다나 그 뒤에 발표된 蔣介石總統의 선언은 마침내 예기치 않던 一大 波紋을 일으키고야 말았다。

그런데 그 宣言에서 蔣總統은 말하기를 『MacArthur 元帥와의 회담에서 臺灣의 방위와 아울러 國民정부의 中國과 美國과의 軍事的 협력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였다』라고 하였고, 이어서 共産主義의 위협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亞細亞에 있어서의 全體主義를 목표로 공통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그의 굳은 決意를 높이 찬양하였다。


<戰線을 巡訪한 MacArthur 元帥와 Ridgway중장>

또한 蔣總統은 말하기를 『우리들이 우리들의 오랜 우방인 美國과 軍事的으로 밀접한 유대를 맺으므로써 終局의 승리는 확실하여 졌다』라고 결론을 맺었다。

이 성명이 발표되자 Washington 당국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하였고 Acheson 國務長官은 곧 東京에 打電하여 臺灣에서 있었던 MacArthur 元帥의 회담내용을 자세하게 보고하도록 요청하였다。

한편 Truman 大統領은 그가 신

임하는 Averell W. Harriman을 東京에 파견하여 MacArthur 元帥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명령하였다。

Harriman은 그 후 MacArthur 元帥에 관하여 Trumun 大統領에게 다음과 같은 要旨의 보고를 하였다。

『元帥는 蔣介石의 大陸反攻에 대하여 우리가 지지하는 것은 東洋에 있어서 우리에게 부과된 책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는 中國과 臺灣에 관하여 잘못 취급한데서 발생되는 복잡한 문제를 UN에 있어서의 盟邦 間에 유지되어야 할 단결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라고 하였다。

이 당시의 MacArthur 元帥의 思考와 동향을 John W. Spanier 氏는 논평하기를

『그는 한 사람의 軍人으로서 大統領의 臺灣정책을 실사 옳은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더라도 그는 분명히 지지할 것을 Harriman에게 보장하였다。

그는 蔣介石을 지지하는 親 國民政府派였으며 共産主義와 싸우는 그 누구보다도 후원하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그는 中共의 위신을 높이는 그러한 中共의 承認을 결코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Harriman 氏가 MacArthur 元帥의 思考와 동향을 보고하기 위하여 Washington을 향하여 출발하자 MacArthur 元帥는 이 聲明을 발표하고 『臺灣 방문에서 非軍事的 문제까지 포함한 어떠한 문제도 協議한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中國政府의 장래나 大陸反攻의 문제, 또는 나의 軍事的 책임범위를 넘어선 문제는 토의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하였다。

이리하여 한때 紛紛한 物議를 일으켰던 MacArthur 元帥의 臺灣방문 문제는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점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려고 할 무렵에 그는 海外遠征軍人會長에게 聲明書를 보내었다。

이 聲明書는 8월 28일의 野營大會에서 朗讀될 예정이었으나 이것이 발송되자 잠잠하여졌던 臺灣문제는 다시금 거센 회오리바람을 일으켜 Washington 당국을 크게 놀라게 하였다。

그는 문제의 聲明書에서 말하기를 『美國은 蔣介石과의 약속을 最大한도로 지켜야 하며 그를 외면하지 말고 그로 하여금 강력한 힘을 갖게끔 支援하여야 한다。

共産主義와 싸우는 지도자로서의 蔣介石은 戰略的 이유에서도 그가 臺灣을 지키는데 필

요한 人物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臺灣에 대한 효과적인 방위의 必要조건은 Washington과 臺北間에 긴밀한 조화를 유지하는데 있다。

國民정부에 대한 美國務省 대표자들의 敵對的 태도는 蔣介石으로 하여금 임무달성에 필요한 緊密한 軍事協力을 방해하고 있다。

美國은 臺灣의 지배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되며 美國의 軍事基地로서 臺灣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다시 聲明書의 끝 부분에서 『美國이 臺灣에 대하여 취하여진 목적은 利己心에서나 好戰性에서가 아니라, 臺灣에 대한 방위 임무는 韓國戰爭에서의 原狀復舊가 실현되는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다』라고 美政府가 모든 외국에 대하여 거듭 설명하여 온 과거의 행동에 痛烈한 一擊을 가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이상과 같은 요지의 聲明내용은 Truman 政府의 臺灣정책을 날카롭게 비난하는 어휘로 가득한 것이었다。

이 聲明書의 내용을 알게된 Truman 大統領은 일찌기 느껴보지 못한 모독을 받은 것과 같은 불쾌감을 느꼈던 것 같다。

그리하여 Truman 大統領은 곧 그 聲明書를 철회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이미 그 때 聲明書 내용은 新聞雜誌에 게재된 채로 街頭에서 팔리고 있었다。

그러나 Truman 大統領의 마음 속에는 심상치 않은 생각이 감돌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바로 MacArthur 元帥를 해임할 것을 검토하려는 생각이었다。

그는 그 당시의 심경을 회고록에서 述懷하기를 『나는 MacArthur 將軍을 極東駐屯 野戰司令官職에서 해임하고 Omar N. Bradley 將軍으로 代替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여 보았다。

나는 MacArthur 將軍을 日本占領軍司令官職에 그대로 두고 韓國과 臺灣에서만 손을 떼게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세심하게 검토하여 본 뒤 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이상과 같이 Truman 大統領이 MacArthur 元帥의 해임을 考慮하였다가 스스로 철회한 것은 그가 그러한 결단을 내리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重大事件을 야기시키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生涯의 태반을 軍隊에 바쳤고 美國의 방위를 위하여 헌신한 그의 높은 공로를 생각할

때 차마 解任시킬 용단을 내릴 수 없었던 것 같다。

더군다나 戰場에서 UN軍을 指揮中인 野戰司令官을 해임하는 처사는 그다지 좋지않은 파문을 일으키리라는 것을 예감하였기 때문이리라。

이와 같이 深思熟考한 Truman 大統領은 그에 대한 해임조치는 현명치 않다고 판단한 끝에 Louis A. Johnson 長官에게 명령하여 MacArthur 元帥로 하여금 臺灣政策 비판에 관한 성명을 취소토록 하였다。

그러나 그는 臺灣이 차지하는 戰略的인 중요성과 太平洋에 있어서의 美國의 防衛태세와의 관계에 대한 個人意見을 표명한데 불과하다고 변명하였다。

그 뒤 1950년 10월 15일 Wake 島에서 Truman 大統領과 MacArthur 元帥가 會同時에 그는 Truman 大統領에게 말하기를 『그 聲明書가 어떤 疑惑을 자아내는 결과가 되었다면 사과합니다』라고 하였다。이에 대하여 Truman 大統領도 寬容으로 받아들였다。

여하튼 MacArthur 元帥의 臺灣방문과 그 뒤의 성명은 그 자신을 해임사태 직전에까지 몰고 갈만큼 심각하고도 중대한 파문을 일으켰으나 당시 美國이 처하고 있었던 시대적 배경의 긴박성으로 말미암아 그 파문은 일단 가라앉는 듯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하나의 수수께끼는 그 聲明書가 당시 美陸軍省을 거쳐 海外遠征在鄕軍人會에 전달되었다는 사실이다。

(2) Wake 島의 會同

仁川上陸作戰의 성공으로 韓國戰爭의 형세가 전면적으로 역전되자 그 여세를 몰아 北進을 시작한 UN軍은 一瀉千里로 北上하여 韓滿國境線에 육박하였다。

그런데 이 무렵인 1950년 10월 15일 MacArthur 元帥와의 會同이 열리게 되었다。

이 會同은 Washington과 東京사이에 서로 미묘한 對立을 빚고 있었던 때에 개최되는 만큼 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會同을 3일 앞둔 10월 12일에 그는 두 通의 電報를 받았는데 그 하나는 大統領 特別顧問인 Harriman으로부터 보내왔고 또 하나는 Marshall 國務長官으로부터 보내온 것이였다。

Mashall 國防長官의 電文은 Truman 大統領이 MacArthur 元帥와의 會同을 희망하고 있으며 會合場所에서는 Honolulu를 바라고 있으나 韓國 정세때문에 긴 旅行에 필요한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大統領은 즐거이 wake 島까지 갈 것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大統領과 15일 아침 wake 島에서 즐거이 만나뵙겠다고 응신하였다。

사실 Truman 大統領은 이미 훨씬 이전부터 오랜 海外生活을 계속하여 온 元帥에게 한 번쯤 본국에 다녀갈 것을 권고한 일이 있었으나 그는 任務수행상 긴 여행을 할 수 있는 時間여유가 없었다는 이유로 鄭重하게 사절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 뒤 Truman 大統領과 MacArthur 元帥 사이에는 臺灣 방문 뒤의 聲明문제에 이어 海外遠征在鄕軍人會長에게 보낸 聲明문제, 그리고 韓國戰爭에 있어서의 軍事행동의 제한문제를 둘러싼 戰略上의 意見차이로 심상치 않은 反目이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兩者의 불화는 점차 深化되어 갔었다。

더군다나 海外遠征在鄕軍人會長에게 보낸 聲明문제로 말미암아 Truman 大統領은 內心 MacArthur 元帥의 解任까지 考慮할만큼 兩者間의 관계는 악화되어 갔었다。

그리하여 그에 대한 문제로 적지않게 골머리를 앓고 있던 Truman 大統領은 元帥와 적당한 장소에서 만나서 흉금을 털어놓고 솔직한 意見교환을 시도하면 彼此間의 隔差를 좁힐 수 있고 意見의 調整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끝에 Wake 島에서의 會同을 추진한 것이었다。

그런데 會同장소를 Washington으로 定하지 않고 東京과 Washington의 中間지점인 Wake 島로 택한 것은 Truman 大統領이 평소부터 MacArthur 元帥에게 危懼와 열등감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Washinton에 불러 들이지 못하였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억측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Truman 大統領이 뛰어난 軍事지도자이며 戰略家인 그를 敬愛하고 존중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大統領이라는 最高統帥權者이며 國家元帥의 입장에 있는 Truman이 危懼와 열등감을 느낀 나머지 會同장소를 太平洋의 中間지점으로 양보하였다는 것은 信憑性이 없는 억측으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하튼 兩者의 會同은 급기야 이루어졌으나 이것은 兩者에게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 會同이 되고 말았다。

Truman 大統領은 會同을 1주일 앞두고 太平洋에서 元帥와 會同을 가진다는 것을 공표하면서 世界평화를 위하여 헌신한 元帥의 偉大한 노력에 대하여 國民의 감사와 찬사를 그에게 표명하겠다고 밝히고 그는 우리들의 偉大한 軍事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풍부한 상상력과 용기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任務수행에 임하고 있다고 極口찬양하였다。

드디어 10월 15일 아침 Wake 島에서 만난 두 사람은 예상한 것 보다는 훨씬 부드럽고 화기에 찬 분위기 속에서 2차에 걸친 會同을 가졌다。

MacArthur 元帥는 Trumam 大統領을 만난 당시의 所懷를 그의 회고록에서 밝히기를 『나는 Truman 氏가 신경질이 있고 好惡感이 심하다고 들고 있었지만 會同中의 그는 아주 禮儀 바르고 기분이 몹시 좋아 보였다。

Truman 氏는 사람을 끄는 性格의 소유자로 날카로운 「윗트」도 풍부하여 나는 처음부터 그가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였다。

한편, Truman 大統領도 그를 만난 것을 매우 유쾌하게 여기며 시종 흐뭇한 표정으로 會同에 臨하였다。

이 會同에서는 통일 후 韓國의 行政과 부흥문제, 戰爭포로의 취급문제, Philippines의 경제정세, Indochina 半島의 방위, 對日 평화조약에 관한 進展相, 日本과 韓國에의 보급문제 등 광범위한 懸案문제가 論議되었고 또한 中共軍과 蘇聯軍의 侵略 가능성에 대한 論議도 있었다。

여기서 元帥는 말하기를 『만약 中共軍이 개입하면 막대한 戰死傷者를 내고 말 것이다』라는 그 유명한 發言을 하였다。

즉, 그가 發言한 要旨는 『中共이 參戰할 징후는 매우 약한 것이며 기껏해야 5.6萬의 병력을 투입할 것이다。

그들은 空軍力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中共軍이 平壤까지 내려온다면 막대한 死傷者를 내고야 말 것이다。

蘇聯은 空軍力을 갖고 있으나 航空機와 操縱士의 質이 약하기 때문에 冬期가 닥쳐온 이때 병력을 투입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라는 내용이었다。

이 中共侵略의 가능성에 관한 그의 意見에 대하여 아무도 異議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으며 모두가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또한 Truman 大統領에게 그가 臺灣방문 뒤에 海外遠征在鄕軍人會에 발송한 聲明문제에 언급하여 위에서 이미 말한 바와같이 『그 聲明書가 어떤 疑惑을 자아낸 결과가 되었다면 사과한다』라고 鄭重하게 말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Truman 大統領을 따라 太平洋艦隊司令官 Atthor Radford 提督, 陸軍長官 Frank Pace 將軍, UN大使 Philip Joseph 統合參謀本部議長 Omar. N. Bradley 大將, 特別顧問 Avevrll W. Harriman, 法律顧問 Charles Murphy, 그 밖에 여러 補佐官과 35명의 記者, Camera man이 수행한 이 요란스러운 會同은 2차에 걸쳐 1시간 30분동안 개최된 끝에 그 막을 내렸던 것이다。

그 뒤 Truman 大統領은 會同을 마치고 Washington으로 향하는 귀로에서 다음과 같은 書翰을 元帥에게 보냈다。

『Wake 島에서의 會同에 나는 매우 만족하고 있다。당신과 만나서 日本, 韓國 其他의 極東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던 것은 즐거웠다。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었던 亞細亞정세 全般에 관하여 당신의 意見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을 나는 기쁘게 여기고 있다。

이번의 會同은 美國에서도 매우 평판이 좋은데 假使 별로 아무런 성과가 없었더라도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더 잘 알 기회를 얻었다는 것 만으로도 會同을 가진 가치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書翰을 받은 元帥는 回信하기를 『나는 이번 會同에서 서로의 이해가 깊어지고 또 意見을 교환할 수 있었던 것은 美國을 위하여 매우 유익하였다는 깊은 만족감을 느끼면서 Wake 島 會同場所를 떠났읍니다。

이 會同에 依하여 여러 쓸데없는 동기로 우리들 사이의 이해를 방해하려 하고 있는 側들에 대하여 장래 강력한 방벽이 쌓여지는 결과가 될 것을 나는 희망하고 있읍니다。충심으로 존경을 표하며』라고 하였다。

이렇게 會同中의 분위기로 보나 會同後의 주고 받은 兩者의 書翰으로 보나 그 동안 極東地域 전반에 걸친 政策戰略문제로 심각한 意見대립과 反目을 빚어 왔었던 두 사람은 이 會同을 통하여 표면상으로는 서로의 關係改善을 이룩한 것 같이 보였으나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皮相的인 접근에 그쳤을 뿐이고 內實 兩者의 心理的 底邊에 깔려 있었던 불화는 끝내 가시지 않은 채 작별한 셈이 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이 會同以後 中共軍의 侵略을 계기로 兩者의 政戰略上의 意見대립을 會同 以前의 原點 以上으로 번져 마침내 激突상태로 악화되어 갔기 때문이다。

그러한 뜻에서 이 會合은 兩者의 접근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善意의 神經戰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 會同이 과연 成功的이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따지기 以前에 그 무엇보다도 重大視 하여야 할 것은 이 會同이 진행되고 있을 때 韓國戰線에서는 엄청난 重大사태가 절박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會同에 參席한 이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바로 이 會同에서 中共軍의 侵略 가능성을 否認하고 있었던 그 시각에 일치하여 中共軍의 大兵力이 鴨綠江을 건너오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이다。

다. 解任의 近因

(1) 中共軍의 侵略

UN軍이 仁川上陸作戰의 성공을 계기로 그 餘勢를 몰아 38°線에 육박하고 있을 때 美合同參謀本部로부터 MacArthur 元帥에게 다음과 같은 指令이 내려졌다。

『貴官의 軍事목표는 北共軍을 괴멸시키는데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貴官이 韓國의 38°線 以北에서 軍事행동을 취하는 것을 허가한다。

다만 貴下의 陸海空軍 部隊는 어떠한 경우에도 滿州 및 蘇聯과 韓國과의 국경을 넘어서는 안된다。

또한 方針으로는 蘇聯과의 國境에 接한 東北部地方 및 滿州와의 國境地域에서는 韓國軍 이외의 부대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시 또 貴官이 38°線 以北 또는 以南에서 행하는 作戰을 위한 支援행동에는 滿州와 蘇聯 領土에 대한 海空으로부터의 공격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北共軍의 組織的 저항이 실질적으로 그쳤을 경우 殘存 北共軍의 武裝해제와 降服절차에 관한 實施는 主로 韓國軍에게 위임하지 않으면 안된다。

北韓을 어떠한 형태로 占領하느냐 하는 것은 그 때에 정세로써 정한다。

北韓占領을 위한 貴官의 계획을 合同參謀本部에 제출하라。』

이에 대하여 McaArthur 元帥는 즉시 다음과 같은 內容의 계획을 제출하였다。

『첫째 : 美第8軍은 현재의 편성대로 38°線을 넘어 平壤을 主軸으로 한 敵 防衛線을 공격한다。

한편 美第10軍團은 現 편성대로 元山에 水陸兩用 作戰을 감행하여 美第8軍에 호응한다。

둘째 : 美第3步兵師團은 최초 단계에서는 司令部의 豫備兵力으로 日本에 대기시킨다。

세째 : 定州—寧遠—興南을 연결하는 線 以北의 作戰을 韓國軍만으로 행한다。

네째 : 美第8軍의 攻擊開始 날짜는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 사이에 선택한다。』

이상과 같은 MacArthur 元帥의 作戰計劃을 合同參謀本部는 즉각 승인하고 6일 뒤에는 UN總會에서도 이를 확인하는 決議를 채택함으로써 UN軍에게 분명한 北進命令을 내리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UN軍은 8·15光復이후 최초로 北韓땅을 향하여 進入하게 되었다。

北韓의 곳곳에서 北共軍의 산발적인 저항이 있었으나 이미 敗色이 짙어진 北共軍은 힘없는 저항을 시도하다가 北方으로 퇴각하는 것이었다。

이를 추격하는 UN軍의 北進은 意氣衝天한 破竹之勢였다。

그러나 UN軍의 北進이 계속되는 동안 MacArthur 元帥는 항상 中共의 동향에 神經을 썼다。

그는 中共이 本土를 鞏固하고 政權을 탈취한지 얼마되지 않은 관계로 他國을 支援할 餘力을 갖지 못하였을 뿐아니라 아직도 內國의 諸般事情이 정비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광대한 本土全域을 赤化한 中共이 隣邊國家는 물론, 共産圈에 대한 國際的 영향력을 미치기 위하여 無謀한 蠻勇을 부려서라도 北共軍을 支援하며 韓國戰爭에 개입할지도 모른다고 假想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中共軍의 動態에 관한 情報획득에 신중을 기하였다。

한편 Washington에서도 中共軍의 동향에 대하여 상당한 배려를 한 것 같이 보였다。

즉, Washington에서는 每週 國家安保會議가 개최되고 있었는데 美軍이 韓國戰爭에 참전한 뒤 최초로 열린 會議에서 Bradley 大將이 韓國戰爭에 관한 브리핑을 하였다。

이때 Bradley 大將은 말하기를 『極東으로부터의 情勢보고에 의하면 戰鬪에 참가하지 않는 2개의 敵 師團이 北韓에 있고 이들의 參戰可能性 이외에 韓國人 또는 中國人이 滿洲로부터 투입될지도 모른다』라고 하였다。

그 뒤 國家安保會議는 合同參謀本部가 北進命令을 하달하기 이전이며 仁川上陸作戰이 감행되기 직전인 9월 11일에 또 다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Truman 大統領에게 建議하여 승인을 받고 있었다。

『만약 蘇聯이나 中共이 參戰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 MacArthur 元帥는 作戰을 38°線 以北에까지 연장하며 北韓占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

그러나 蘇聯이나 中共이 參戰할 경우에는 地上軍作戰을 38°線 以北에까지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以上의 建議내용에서 엿여져 볼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의 명백한 示唆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國家安保會議는 中共軍의 개입을 경계하면서 가급적이면 韓國戰爭을 戰爭勃發 당시의 分界線에서 속히 종결지으려는 意向을 분명히 나타냈다는 점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北進의 好機를 통하여 韓半島의 統一을 실현함으로써 美國이 과거에 韓

國民族에게 끼친 國土分斷의 過誤와 이로 말미암아 생겨난 威信의 損傷을 회복하려는 使命感을 느끼기는 고사하고 그 때까지 입은 韓美 兩國의 엄청난 人命財産의 손실도 아랑곳없이 戰爭이전의 原狀에서 종결되면 족하다는 태도에 그친 것이 安保會議의 建議내용이었다。

이와같이 戰爭확대의 被害妄想에 사로 잡혀 韓國民族과 UN軍이 치른 엄청난 희생과 또한 韓國의 장래에 닥치게 될 보다 큰 불행을 외면한 채 적당한 線에서 戰爭을 종결지으려는 데만 汲汲하였던 Washington 當局은 뜻밖에도 仁川上陸作戰의 획기적인 승리로 戰勢가 역전하자 종래의 縮戰태도를 수정하고 9월 30일의 北進命令을 하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命令도 蘇聯軍이나 中共의 侵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 또한 北進을 하더라도 韓滿 國境線 이북에 대한 어떠한 軍事행동도 엄격히 제한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命令이 내린 3일 뒤에 또 하나의 命令이 Marshall 國防長官으로부터 전달되었다。

즉 『우리는 貴官이 38°線 이북에 진격하는데 있어서 戰術的 또는 戰略的인 속박을 느끼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이었다。

이 두 번째의 것은 얼핏 볼 때에 合同參謀本部의 첫 번째 指令과 하등 다를 것이 없는 再確認의 지시로 간주할수도 있으나 MacArthur 元帥는 이 命令을 먼저의 지시에 대한 수정으로 해석하였다。

즉 그는 韓滿 國境線에 진격하는데 있어서의 戰術과 戰略上의 최종 決定權을 그 자신에게 全的으로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였고 또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速戰即決로서 韓國의 國土統一을 성취하고 戰爭을 종결지으려고 희망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유명한 X-mas 공세를 명령하였다。

John W. spanier는 X-mas 攻勢를 명령한 MacArthur 元帥의 戰略槪念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첫째—피로에 지친 兵士들에 대한 자극을 뜻하고, 둘째—歐羅巴에서 곧 任務를 맡게 될 Bradley 大將과 그의 부대에 대한 配慮에서 였으며, 세째—UN軍은 鴨綠江을 건늘 의향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中共에 확신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하였다。(The Truman war MacArthur Controversy and the korean war 參照)

그러나 MacArthur 元帥의 X-mas 攻勢는 예상치 못하였던 큰 장벽에 부딪쳐 무참하게

좌절되고 말았다。

즉, 그의 作戰 계획은 X-mas까지 北韓全域을 점령하고 戰爭을 종결 지으려는데 力點을 두고 있었으나 中共軍의 大兵力이 갑작스럽게 最前線에 출현함으로써 全戰線의 UN軍은 一大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사실 中共軍이 國境線沿岸에 집결하고 있다는 報告는 바로 Wake 島 會同이 개최된 그 날인 10월 15일부터 21일 사이에 있었던 것이다。

Hansen Baldwin은 韓滿國境線에 25만, 滿洲에 20만의 中共兵力이 있다고 추산하였다。

그러나 MacArthur 司令部는 그와 같은 보고를 잘못된 보고로 看做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으나 그 뒤 10월 26일에 이르러 韓國軍 第6師團의 1個聯隊가 國境線以南 25mile 부근에서 강력한 敵軍部隊와 遭遇하였다는 보도가 있자 第8軍司令官 Walton H. Walker 中將은 즉시 前方部隊로 하여금 신속히 후퇴하여 主力部隊와 합류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처럼 中共軍이 侵襲한 근거가 점차 확실하여지고 있는데도 MacArthur 司令部대변인은 말하기를『國境을 넘어 침입한 大部隊가 현재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며칠 뒤인 10월 30일 咸興附近에서 中國人 포로가 체포되자 비로소 그 이튿날인 10월 31일에 東京에서는 1개 聯隊 내지 1개 師團 규모의 中共軍이 作戰中에 있고 강력한 반격을 개시하였다는 것을 是認하였다。

이 中共軍의 침입에 대하여 Truman 大統領은 그의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中共軍이 戰鬪地域에 배치되어 UN軍과 실제로 交戰하고 있었던 증거는 10월 31일에 포착되었다。

最初의 보고는 元山地區의 第10軍團 司令部로부터 들어왔다。10월 26일과 그 이후에 체포된 捕虜들은 中國人으로 확인되었다。捕虜의 陳述에 의하면 10월 16일에 鴨綠江을 건넜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全面的인 中共軍의 침입이라는 충격적인 사태가 급속히 표면화됨에 따라 戰勢는 급변하는 징조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무렵인 11월 7일 UN의 韓國問題暫定委員會는 UN軍이 滿洲國境을 全面的으로 수호할 것을 선언하고 이윽고 6일 뒤에 6大強國의 決議案이 安保理事會에 회부되었다。

이것은 UN이 國境地域의 中共과 韓國의 利益을 全面的으로 보호하고 國境이 침해되지 않도록 保持하는 것을 재확인하는데 있었을 뿐 아니라 北韓地域의 UN軍 활동이 결코 韓

滿國境線을 넘으려는데 있지 않다는 것을 中共에게 인식시킴으로써 中共의 一方的 誤判에 의한 戰爭개입을 未然방지 하려는데 있었다。

한편 이와 때를 같이하여 Acheson 國務長官은 말하기를 『UN과 美國은 滿洲에 대한 어떠한 野望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強調하고 다시 그 이튿날 『만약 中共이 우리들의 意圖를 오해한다면 놀라운 性質의 世界的 비극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Truman 大統領도 말하기를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中國과 戰爭을 벌일 意圖는 갖고 있지 않다。

美國이 관계하고 있는 限 나는 世界평화를 위한 우리들의 獻身과 中國民과 우리들과의 長期에 걸친 友好관계를 위하여 우리는 極東에 있어서의 戰爭확대를 피하는데 명예로운 조치를 취할것을 밝히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一連의 聲明들은 한결같이 中共의 一方的인 오해로 말미암아 난행될지도 모를 韓國戰爭의 개입을 未然에 저지하려는 政治的 牽制작용을 노린데 있었으나 이것은 이미 때늦은 조치에 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國境線 以南 北韓에는 大規模의 中共軍이 침입하여 作戰행동을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MacArthur 元帥는 11월 28일 Washington에 다음과 같은 그의 悲壯한 심경을 토로한 電文을 보냈다。

『우리는 全的으로 새로운 戰爭에 임하게 되었다。그러한 결과로 야기된 情勢는 現地司令官의 決定 범위를 초월하는 考慮가 될 가능성을 아주 넓히는 전혀 새로운 양상을 빚어내고 있다。

本官은 능력껏 人間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였으나 이제 本官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이상과 같은 그의 電文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沈痛한 느낌을 갖게 하였다。

그렇다면 MacArthur 元帥가 침통하게 토로한 이 새로운 戰爭은 왜 야기되었으며 또 MacArthur 司令部는 中共軍의 侵略 가능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왜 그토록 엄청난 실책을 저질렀을까?

中共軍의 侵略 가능성에 대하여는 MacArthur 司令部 뿐만 아니라 合同參謀本部나 中央情報局에서도 전혀 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뒷날 MacArthur 당국은 極東의 軍事情勢에 관한 情報는 전적으로 極東軍司令部에 의

존하고 있었다고 피로운 변명을 하였으나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疑惑이 풀려질 수는 없는 것이었다。

물론 새로운 사태가 발생하리라는 가능성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第1次的 責任은 論理의 여지도 없이 MacArthur 司令部의 실책에 있다고 하겠으나 그러나 Washington 當局에도 크나큰 責任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MacArthur 司令部가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MacArthur 元帥가 中共軍의 侵略可能性이 희박하다고 단정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에 그 근거를 분석하면,

첫째 : MacArthur 元帥는 그 휘하의 情報機關을 너무나 過信하고 있었다。

둘째 : 그는 北共이 韓國侵略戰에서 패퇴한 主要 이유는 制空權을 갖지 못한데 있었으므로 空軍力이 빈약한 中共軍은 制空權의 保障이 없는 北韓地域에 大量의 兵力을 투입하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

세째 : MacArthur 司令部는 北韓과 滿州地域의 軍事동향을 空中偵察에 의존하여 탐지하는데 力點을 두고 있었으나 夜間을 이용한 병력의 이동은 空中偵察로서 포착되지 않는다는 것을 판단하지 못하였다。

네째 : MacArthur 司令部는 中共軍의 병력이동과 補給支援의 통로를 차단하는데 있어서 韓滿 國境의 鐵橋를 爆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으나 中共軍은 水中교량을 만들어 이동하는 한편 冬期에는 凍結된 氷上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미처 看破하지 못하였다。

다섯째 : 中共은 蔣介石政府의 本土反擊에 대비하여 臺灣沿岸의 방비에 주력할 것으로 보아 韓國戰線에 大量兵力을 투입할 여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敵情判斷은 近代의 戰略戰術의 次元에서 분석할 때 전혀 論理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中共軍의 原始的이며 무모한 人海戰術 爲主의 戰術槪念을 간파하지 못한데서 연유된 誤判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하튼 MacArthur 元帥가 『中共軍의 參戰 가능성은 희박하며 그러한 징조는 찾아볼 수 없다』라는 수차에 걸친 自信있는 判明을 전적으로 뒤집어 엎고 中共軍의 侵略은 現實的인 사태로 확인되었고 동시에 韓國戰爭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MacArthur 元帥는 오래 전부터 장차 亞細亞는 中共의 위협을 받게 되리라고 예언한, 바

있으나 그 시기가 이처럼 빨리 當到하리라고는 미처 그 자신도 예측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그의 뇌리에는 오히려 이 새로운 戰爭을 통하여 中共을 재기할 수 없는 철저한 파멸상태로 몰고 가야 한다는 단호한 決意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즉각 中共軍의 大兵力에 대비한 새로운 戰略에 착수하고 空軍으로 하여금 新義州와 安東을 연결하는 鴨綠江鐵橋를 폭격할 것을 명령하는 한편 全戰線의 부대로 하여금 漸進的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후퇴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와같은 MacArthur 元帥의 戰爭擴大조치를 알게된 Washington 當局은 『別命이 있을 때까지 韓滿國境 5mile 이내의 標的에는 일절 폭격을 금지한다』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러한 Washington 當局의 조치는 강력한 中共軍과 交戰中에 있는 UN軍의 당면된 苦戰相을 배려하지 않은 단순한 國際政治的 영향에만 危懼心을 기울인 조치였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MacArthur 元帥는 寸刻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을 눈 앞에 보면서 인내하기 어려운 制限戰爭의 쓰라림을 甘受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戰線은 하루하루 冬期戰鬪로 접어들었고, UN軍은 시시각각으로 불리한 형세에 빠져 들어갔다。

MacArthur 元帥와 Washington 當局이 戰略上의 見解차이로 步調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 UN軍의 死傷者는 늘어가고 戰勢는 더욱 더 악화되어만 갔다。

(2) MacArthur 元帥의 聲明과 解任

中共軍의 侵略으로 말미암아 北韓의 全戰線에서 철수하기 시작한 UN軍은 제1차 37°線을 방어선으로 획정하여 敵을 저지하고 이어서 반격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리하여 51년 1월 15일 西部戰線에서 시작된 반격작전은 烏山—金良場—利川등지의 탈환을 계기로 水原—原州—寧越을 再奪還하는데 성공하고 이윽고 東部戰線에서는 江陵을 그리고 西部戰線에서는 永登浦—金浦—仁川 등지를 탈환함으로써 2월 중순에는 漢江線 일대를 완전 확보할수 있게되었다。

그뒤 UN軍은 맹렬한 공격으로 敵에 대한 막대한 出血을 강요함으로써 戰勢를 유리하게 이끌어 갔으며 마침내 3월 14일에는 다시 首都 서울을 재탈환하고야 말았다。

이와같이 점진적으로 戰線을 정비하며 조심스러운 進攻작전을 감행한 我軍은 2월 23일까지 中共軍에게 20만 이상의 사상자를 내게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이리하여 3월 23일 議政府를 탈환한 것을 고비로 我軍은 東部, 中部, 西部의 全戰線에 걸쳐 38°線을 눈앞에 바라보는 線까지 육박하였다。

UN軍이 38°線에 이르자 이 線을 돌파하는 문제를 에워싸고 다시 세계의 耳目이 집중되었다。

이 무렵 MacArthur 元帥는 前線을 시찰하기 위하여 3월 24일 東京을 出發하였는데 出發에 앞서 그는 다음과같은 聲明을 발표하였다。

『이제 UN軍은 南韓에서 조직적인 共産軍을 거의 격멸하였다。

中共이 수많은 희생을 내고 이 이상 전쟁을 계속하는 것은 공연히 韓國國民을 도탄에 빠뜨릴뿐이다。

UN軍이 전쟁을 韓國에 국한하는 관대한 노력을 중지하고 軍事작전을 中國본토에까지 확대한다면 中共은 곧 군사적 붕괴에 직면할 것이다。

中共 지도자가 宜當 韓國문제를 해결짓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는 언제든지 전쟁의 종결에 관하여 敵의 최고사령관과 前線에서 협의할 用意를 가지고 있다。』

이 聲明이 발표되자 美 行政府를 비롯한 各國에서 물 끓듯한 物議가 일어났다。

그러나 聲明을 발표한 MacArthur 元帥는 태연스럽게 前線을 시찰하고 東京司令部로 돌아갔다。

그뒤 敵側에서는 이 聲明에 대한 하등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오히려 기대하였던 敵側으로부터의 반응은 없었으나 엉뚱하게도 美國內와 西方진영의 반응이 보다 크게 일어났던 것이다。

한편 MacArthur 元帥는 그러한 聲明을 발표하고 東京司令部로 되돌아 가기에 앞서 현지 사령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언제든지 38°線을 넘어도 좋다고 하였다。

그러자 대기하고 있었던 東海岸의 韓國軍은 다음날 25일부터 38°線을 돌파하기 시작하였고 中部戰線의 美軍도 4월 4일에 大擧 38°線을 돌파하였으므로 北韓에 대한 진격은 本格化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我軍의 38°線 돌파와 北韓進擊으로 말미암아 韓國戰爭은 이미 새로운 단계로 돌입하였는데 이때 MacArthur 元帥의 聲明문제는 다시금 意外의 파문을 일으켰다。

그 문제의 焦點을 요약하면 첫째 : MacArthur 元帥가 UN軍司令官 자격으로서 休戰에 관하여 現地 共産軍司令官과의 회담을 제의하였다는 것。

둘째 : 동시에 UN軍은 종래의 不擴大主義政策을 변경함으로써 中國 군사기지 및 그海岸地域 공격을 용인할 가능성조차 있다는 것을 暗示 하였다는 데 있었다。

이러한 요지의 聲明은 政治的으로 문제가 될 요소가 다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MacArthur 元帥는 사전에 Washington 당국과 아무런 협의도 하지않았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그 聲明을 사전 협의없이 발표한것은 MacArthur 元帥의 큰 실책이라고 할수 있으나 그러나 MacArthur 元帥의 聲明은 단순히 韓國전쟁을 조속히 종결지으려는 熱望에서 中共軍側에 압력을 가하는것 이외에 별다른 생각은 없었던 것이다。

그는 野戰軍司令官으로서 敵軍의 굴복을 종용하는 뜻의 성명은 능히 발표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또 그러한 聲明은 軍事작전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는데 投影的인 작용을 한다고 믿었던 것 같다。

여하간 MacArthur 元帥의 聲明이 발표되자 Washington 當局은 수차에 걸쳐 閣首會議를 개최하였으며 그결과 Truman 大統領은 3월 25일 MacArthur 元帥에게 命令하여 『정부는 將軍이 장차 행할 어떠한 聲明도 그公表전에 Washington 當局과 協議하기를 요청한다。』라고 하였다。

Truman 大統領은 MacArthur 元帥에게 문책할 생각도 하여 보았으나 되도록이면 문제를 중대화 시키지 않기 위하여 警告를 주는 정도로 문제를 수습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英國과 佛蘭西는 맹렬한 反對를 제기하면서 軍司令官으로서 정치문제를 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경하게 항의하였다。

그런데 이 무렵 설상가상으로 美共和黨下院議員인 Joseph Martire이 下院에서 3월 20일자 MacArthur 元帥의 書信을 공개함으로써 문제는 극도로 악화되고 말았다。

그것은 즉 Martine이 國會에서 『中共軍에 대하여 國府軍을 사용하자。』라는 제안을 한데 대하여 MacArthur 元帥는 書信을 보내어 그의 主張에 찬동의 뜻을 표하면서 『國府軍을 사용하여 第2戰線을 형성하여야 한다는 것과 歐羅巴 외교관들은 歐羅巴 第一主義를 생각하고 있으나 共産主義와의 전쟁에 있어서 亞細亞에서 패하면 歐羅巴의 붕괴도 피치못한다。』라는 것을 말하였던 것이다。

Martine이 그러한 MacArthur 元帥의 私信을 공개하자 國際정국에 일대 자극을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때 美下院 議長이며 民主黨領首인 Reyburn이 國會에서 말하기를 『滿洲및 韓國內의 敵軍은 中共軍뿐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第3次 大戰의 위기가 절박하고 있음을

경고함에 비추어 사태는 더욱 착잡하게 엉크러져 갔다。

內外의 政界는 온통 벌집을 쑤셔 놓은듯 술렁거리기 시작하였으며 금시 第3次大戰이 일어날듯이 떠들어 대었다。

MacArthur 元帥를 문책하라는 소리가 國內外에 걸쳐 沸騰하였다。

美國의 行政府를 비롯한 同盟軍들의 견해에 의하면 滿洲폭격을 포함한 中共과의 전쟁확대는 蘇聯을 자극하는 결과가 됨으로써 第3次대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美國은 제3차대전에 대응할 軍備面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으므로 MacArthur 元帥의 확대 戰略을 위험시 한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러나 MacArthur 元帥는 第3차대전에 대응할 軍備面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점은 美國이나 蘇聯이 다같은 상황에 있으므로 中共과의 전쟁을 확대하더라도 결코 제3차대전으로 확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여하간 MacArthur 元帥의 성명과 Martine 議員에게 보낸 그의 書翰은 걷잡을수 없는 파문으로 번져가서 마침내 Truman 行政府로 하여금 어떠한 단안을 내리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大統領과 野戰軍司令官과의 反目, 그것은 公的인 문제에 대한 見解差異이긴 하였으나 허용한도를 넘어선 極限點에 다다른 셈이 되고 말았다。

Truman 大統領은 당시의 심경을 그의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약 내가 文官의 권위에 그와같은 방법으로 反抗하는 그(MacArthur)를 용인 한다면 나는 憲法을 옹호한다는 나의 宣誓를 깨뜨리는 것이 될것이다。

MacArthur는 나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겨주지 않았다。

나는 이미 그의 不服從을 용인할 수 없었다。』

이상과 같이 말한대로 Truman 大統領은 급기야 MacArthur 元帥를 解任할 것을 결심하였던 것이다。

1951년 4월 11일 零時를 조금 지나서 白堊館은 01.00에 記者회견이 있다는 것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Truman 大統領이 UN軍司令官이며 極東軍司令官인 동시에 日本占領軍司令官인 MacArthur 元帥의 모든 指揮權을 박탈한다는 공식발표를 하기 위한 회견이었다。

이 놀라운事件은 곧 全世界에 新聞과 放送으로 보도되었고 東京司令部에서는 이날 午後 放送을 통하여 알게되었다。

때마침 MacArthur 元帥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韓國戰線으로 출발할 채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이 소식을 들은 순간 창가에 다가선채 바깥 풍경을 담담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와같은 MacArthur 元帥의 解任은 세가지 이유로 단행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첫째 : 그는 12월 6일 부로 하달된 『사전에 陸軍省의 허가없이 행하는 日當의 戰鬪狀態發表 이외의 공식발언은 신중한 注意를 요한다。』라는 海外駐在軍人 및 文官에 대한 大統領의 指示에 따르지 않았다는것。

둘째 : 그는 外交정책에 관한 國家의 대변자인 大統領의 역할에 挑戰하였다는 것。

세째 : 그는 韓國전쟁을 限定시키려는 결정에 同意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Washington은 그들의 統制下에 잘 복종하는 司令官과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것。

이상과 같은 이유로 Washington 당국은 그를 해임하였으나, 그 이유의 妥當性 여부를 是非할 겨를도 없이 이미 그에 대한 모든 문제는 사실상 終止符를 찍은셈이 되고 말았다。

어쨌든 그가 自身의 과단성과 영향력이 그대로 먹혀 들어갔던 지난날의 慣例를 지나치게 過信한 나머지 스스로의 이러한 사태를 自招케하였는 지도 알수 없는 것이다。

3. 歸國演說과 聽聞會의 論爭

가. 歸國과 議會의 演說

MacArthur 元帥의 解任이 발표되자 가장 놀란 것은 美國 國民들이었다。

그의 解任소식을 들은 市民들이 곳곳에서 反對시위를 벌이고 그를 解任한 大統領을 규탄하는 亂動을 벌이기도 하였다。

California의 一部 市民들은 Truman 大統領을 닮은 假想人形을 만들어 놓고 火刑式을 벌이고 Los Angeles 市議會는 MacArthur 元帥의 政治的 暗殺에 슬픔을 표명하면서 休會宣言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Truman 大統領을 추방하라는 프랑카드를 건 自動車가 都心地의 거리를 누비기도 하고 Illinois洲 議會를 비롯하여 Michigan—California—Florida洲 議會는 『Truman 大統領이 全體主義 침략에 저항하여 斷乎한 決意로 싸운 自由世界의 상징을 제거한데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표명하면서 政府의 정책을 贊賞하는 決議案을 채택하였다。

한편 上下兩院에서도 선풍적인 동요가 일어났으며 특히 共和黨은 院內外를 통하여 Truman 行政府의 정책을 辛辣하게 비난하였다。

MacArthur 元帥가 日本을 출발하던 4월 16일, 거리에는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려는 群衆이 20만명이나 몰려 나왔으며 日本天皇도 개인적으로 그를 방문하였다。

4월 17일 그가 San Francisco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50萬을 헤아리는 市民들이 환영하였고 4월 19일 그가 Washington에 도착하자 數萬名의 群衆이 공항까지 몰려나와 열광적인 환영 행사를 벌였다。

New York에는 그를 동정하며 격려하는 2萬通의 電文과 15萬通의 편지가 그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그러나 大部分의 國民들은 議會에서 행할 그의 마지막 연설에 보다 깊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

이날 正午 12.30에 그는 夫人과 令息을 동반하고 上下兩院 合同議會에 나타났는데 議員들은 일제히 기립하여 그를 환영하였다。

議長의 소개를 받은 그는 議員들이 일제히 보내는 박수갈채를 받으며 침착한 걸음으로 壇上에 올라 이윽고 謙虛한 자세와 우렁차고 위엄있는 어조로 대략 다음과 같은 要旨의 告別演說을 시작하였다。

『上院議長, 下院議長 그리고 훌륭하신 議員 여러분!

나는 깊은 겸손과 큰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 演壇위에 올라 왔읍니다。나보다 먼저 이 자리에서 연설하였고 美國의 歷史를 개척한 위대한 愛國者들을 생각할 때 나는 한없이 겸손하여 집니다。그리고 입법을 위한 이 토론장은 인간이 이때까지 고안하여 낸 것 중에 가장 순수한 형태로 인간의 自由를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에 나는 큰 프라이드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이 토론장이야말로 모든 인류의 希望과 抱負와 그리고 信念이 집결된 곳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어느 한 政派의 입장을 주장하기 위하여서가 아닙니다。왜냐하면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느 한 政派의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우리의 進路가 건전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우리의 장래가 보호되려면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들이 국가 이익이라는 높은 次元에서 해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한 美國 시민으로서 深思熟考한 끝에 내린 의견으로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실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인생의 황혼길에 접어든 나로서는 오직 한 가지 목적, 즉 祖國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목적 이외에는 아무런 고통이나 원한도 없이 나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들은 그 하나하나가 세계적이며 또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시켜서 생각한다는 것은 문제 전체의 破局을 초래할 따름입니다。

흔히 亞細亞는 歐羅巴로 향하는 입구라고 말합니다만 歐羅巴가 亞細亞로 향하는 입구라는 것도 또한 사실이며 亞細亞나 歐羅巴의 어느 한쪽이 가지는 방대한 영향은 반드시 상대방에게도 끼치게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美國의 힘이 亞細亞와 歐羅巴를 동시에 보호하기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을 分散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읍니다。그러나 이보다 심한 敗北主義를 나는 생각해 낼 수 없읍니다。

만약 우리의 敵性國家가 그 힘을 쪼개서 亞細亞와 歐羅巴를 동시에 공격한다면 우리로서는 동시에 敵에 대하여 반격하는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共産主義의 위협은 세계적인 것입니다。 만약 共産主義者들이 세계의 한 구역에서 성공을 거둔다면 다른 지역들도 따라서 破滅되게 마련입니다。 우리들이 亞細亞에서 共産主義者들에게 宥和政策을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항복을 하면서 동시에 歐羅巴에 진출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阻止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보다 큰 잘못은 없을 것입니다。

이와같은 단순한 眞理를 지적하면서 나는 亞細亞 문제에만 局限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亞細亞가 처해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亞細亞의 과거와 이 지역이 현재까지 겪어온 革命的인 변화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亞細亞는 所謂 植民主義 국가들의 오랜 搾取를 받아왔기 때문에 社會正義나 개인의 존엄성 또는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美國이 Philippines에서 追究한 이상적인 통치방법과는 판이한 것으로 亞細亞의 많은 국민들은 얼마 전에 끝난 太平洋戰爭 기간 중에 비로소 植民主義의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捕捉하였읍니다。 즉 이때까지 느껴보지 못한 존엄성과 정치적인 자유에 대한 자부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새벽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세계인구의 半과 自然資源의 60%를 차지하는 亞細亞의 여러 나라들은 빠른 속도로 정신적 및 물질적인 새로운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 힘을 이용하여 生活水準을 향상시키고 진전을 위한 近代化계획을 그들 固有의 문화적인 환경에 알맞도록 계획하기에 努力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植民主義 사상에 동조하거나 말거나, 이것이 亞細亞의 전진방향이며 이 전진은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必然的으로 세계경제의 경계선에 변화를 가져오게 마련인바, 세계政局의 중심은 최초의 출발점으로 되돌아가게 마련입니다。

亞細亞의 정세가 이렇진데 美國은 당연히 植民主義 시대가 지나고 亞細亞 사람들이 그들의 運命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현실에 눈을 감는 정책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進化를 지향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政策方向을 변경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 亞細亞의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友好的인 지도와 이해와 支援이며 帝國主義的인 감독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 從屬의 굴욕이 아니라 동등한 존엄성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할 정도로 낮았던 전쟁이전의 생활수준은 전쟁 중의 파괴로 말미암아 지금은 형편없이 더 저하되

어 있읍니다。

세계적인 이데올로기 문제는 亞細亞 사람들의 思考방식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고 있으며, 또 별로 이해되지도 않고 있읍니다。

지금 亞細亞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보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기회와 보다 나은 옷을 입을 수 있는 기회와 보다 튼튼한 지붕을 마련할 수 있는 가옥을 獲得하는 것과 정치적인 자유를 갈망하는 正常的인 民族主義 사상입니다。

이와같은 政治 및 社會面에 있어서의 상황이 美國의 안전에 끼치는 영향은 지극히 간접적인 것에 지나지 않읍니다만, 우리가 非現實主義의 錯誤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와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한 당면계획을 신중히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中略)

亞細亞로부터의 侵略은 水陸兩面作戰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으며 침략군은 그 통로상에 있는 海路와 그 海路의 상공을 지배하지 않고서는 水陸兩面作戰을 성공시킬 수 없읍니다。

우리가 制海權 및 制空權을 누리고 우리의 基地를 방위할만한 적절한 규모의 지상병력을 보유할 수만 있다면 美國이나 太平洋에 있는 우리 友邦에 대하여 亞細亞 대륙에서 아무리 대규모적인 공격을 가해 오더라도 그것을 좌절시킬 수 없읍니다。이와같은 상황 아래에서는 太平洋은 더 이상 침략자의 접근을 위한 통로가 될 수 없으며 그 대신 평화스런 수호로서의 우호적인 面貌를 갖추기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는 天然의 방위선을 가지고 있는 셈이며 그것은 최소한의 군사적인 노력과 예산으로 유지할 수 있읍니다。이제 太平洋은 어느 누구에 대한 공격을 예상하거나 攻擊作戰에 불가결한 보루 구실을 하지도 않으며, 그 대신 적절하게 유지할 수만 있다면 침략을 물리치기에는 難攻不落의 방위기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西部 太平洋의 海上방위선을 방위하려면 이 방위선상에 있는 모든 부분을 전부 방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왜냐하면 이 방위선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敵國에 의하여 돌파되는 날에는 다른 부분도 敵의 공격앞에 무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이것이 내가 보는 군사적인 평가이며 이 견해에 同意하지 않은 군사지도자를 나는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읍니다。

어떠한 環境 밑에서도 臺灣이 共産主義者들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그 군사적인 중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읍니다。

이와같은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날에는 당장 Philippines의 자유와 日本의 상실을 위협하게 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西部 경계선인 California洲, Oregon洲 및 Washington洲의 海洋線까지 후퇴하게 될 염려마저 없지 않은 것입니다。(中略)

전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도 우리 地上軍을 中國 大陸에 파견하라고 주장하지도 않겠거니와, 이런 계획을 考慮해 본 사실도 없읍니다마는 우리의 정치적인 목적이 北共軍을 敗北시키는 데에 있었듯이 이 새로운 敵을 패배시키는 데에 있던 것이라면 우리의 戰略에도 획기적인 修正을 가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敵이 鴨綠江 北쪽에서 누리고 있던 聖域的인 보호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군사적으로도 필요한 일이었지만, 다음과 같은 조치도 戰爭遂行上 必須不可缺하다고 생각하였읍니다。

첫째 : 中共에 대한 經濟봉쇄를 강화한다。

둘째 : 中國 海岸에 대하여 海軍에 의한 봉쇄를 강행한다。

세째 : 中國 海岸 및 滿洲에 대한 空中偵察의 제한을 해제한다。

네째 : 台灣에 있는 自由中國軍에 대한 제한조치를 해제하고 그들에게 兵站支援을 제공하여 공동의 敵에 대한 作戰을 효율적으로 遂行하도록 한다。

이상 말씀드린 조치들은 韓國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部隊들을 支援하고 전쟁을 최단시일내에 終熄시키며 그렇게 함으로써 美軍과 聯合軍의 생명을 최대한으로 건지기 위하여 순전한 專門家의 입장에서 구상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견해를 품었다는 단 하나의 이유때문에 나는 많은 「서어클」로 부터 특히 外國의 「서어클」로부터 맹렬한 비난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軍事的인 견지에서 볼 때 위에서 말씀드린 견해는 美國의 合同參謀本部를 비롯하여 韓國戰爭에 관련하였던 거의 모든 軍事지도자들이 賛意를 표명한 견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나는 增援부대를 요청하였읍니다만 增援부대를 보낼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읍니다。 나는 또 만약 鴨綠江 北쪽에 있는 敵의 보급기지를 파괴하는 허가를 내리지 않는다면, 만약 台灣에 있는 약 60만명의 自由中國軍 부대를 이용하는 허가를 내리지 않는다면, 만약 中國 海岸을 봉쇄하여 中共이 외부로부터의 원조를 방지하는 허가를 내리지 않는다면, 만약 大規模的인 부대增援를 보내준다는 희망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軍事的인 입장에서 볼 때 승리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것이 司令官으로서의 견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던 것입니다。

우리는 韓國에서 機動作戰을 끊임없이 전개함으로써 우리의 보급로에는 유리하고 敵의 보급로에는 불리한 지역에서 방위선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선의 경우에도 결말이 나지 않는 전투의 계속을 의미하는 것이며 만약 敵이 그 잠재적인 전쟁능력을 최대한도로 활용한다면 我軍에게 계속적이고도 可怨할 만한 消耗를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韓國 문제의 해결에 必須不可缺한 새로운 정치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을 계속 요청하였읍니다。그러나 나타난 결과는 나의 입장을 强化하는 것 뿐이었읍니다。즉 나를 가리켜 戰爭도발자라고 비난하는 것이었읍니다만, 이것보다 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는 없을 것입니다。

나는 현재 살아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전쟁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전쟁보다 나의 생리에 맞지 않는 것도 없읍니다。사실 나는 戰爭이 我軍이나 敵軍에게 똑같이 파괴만을 가져오며 국제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는 쓸모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전쟁의 완전 폐지를 오랫동안 주장하여 왔읍니다。

1945년 9월 2일, Missouri 艦上에서 日本의 항복식이 끝난 직후에 나는 다음과 같은 趣旨로 경고한 사실이 있읍니다。

人類는 그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평화를 추구하여 왔읍니다。오랜 세월을 통하여 國家間의 분쟁을 방지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國際的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법이 試圖되었읍니다。그러나 처음부터 개인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또는 해결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방법은 발견되었지만 규모가 큰 국가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한번도 성공을 거둔 예가 없는 것입니다。

그 동안 人類는 軍事同盟이라든지, 세력균형이라든지 또는 國際聯盟 같은 것을 시험하여 보았읍니다만 모두 실패에 돌아가고 전쟁이라는 시련을 통한 방법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극도에 달한 전쟁의 파괴력은 이와 같은 代案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읍니다。만약 우리가 좀 더 규모가 크고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계 최후의 결전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神學的인 것이며 人類가 과거 2천년 동안에 科學, 藝術, 文學 등 모든 물질적 및 文學的인 분야에서 이룩한 비약적인 발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는 정신적인 再生과 인간의 성격을 개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우리는 육체를 구제하려면 먼저 정신부터 구제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敵이 전쟁을 걸어오는 경우에는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전쟁을 조속히 종결시키는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쟁의 최종목표는 승리에 있으며 결말없는 전쟁을 한없이 계속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이렇듯 전쟁에는 승리를 대신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中共에 대하여 유화정책을 쓰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의 분명한 교훈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교훈에 의하면 유화정책은 새롭고 보다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유발할 따름입니다。

역사의 교훈에 의하면 독적이 수단을 정당화 시킨 예는 하나도 없으며 宥和는 오로지 위장된 평화를 가져올 뿐입니다。 협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宥和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새롭고도 보다 큰 代價를 계속 요구하게 만들 뿐이며 끝에 가서는 역시 협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폭력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게 마련입니다。

나의 부하들은 군사적인 利點을 敵에게 양보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읍니다만 나는 대답할 말이 없었읍니다。

어떤 사람들은 中共과의 全面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피하자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蘇聯의 개입을 피하자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설명도 설득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中共은 이미 그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으로 우리와 대결하고 있으며 蘇聯이 반드시 우리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행동을 일으킨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코브라」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새로운 敵이 나타난다면 그는 반드시 군사력이나 그 밖의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우리에게 덤벼들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韓國의 悲劇은 軍事행동이 지역적으로 制限되어 있다는 사실때문에 더욱 비참한 것이 되고 있읍니다。

이와같은 사실은 우리가 보호하여 줄 義務가 있는 이 나라를 全面的인 艦砲射擊이나 空襲에서 오는 파괴에 노출시키는 대신 敵은 안전한 聖域 안에 숨어서 이와같은 폭격이나 파괴를 면할 수 있다는 상태를 초래하고 있읍니다。

현재까지 世界의 모든 나라중에서 國力을 다하여 共產主義와 싸우고 있는 나라는 韓國 뿐입니다。

韓國國民의 용기와 確固不動한 신념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그들은 노예가 되느니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할 것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전한 最後의 말은 太平洋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었읍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子弟분들을 韓國의 싸움터에 남겨둔채 돌아왔읍니다。

그들은 韓國에서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있으며 모든 면에서 훌륭하게 싸우고 있다는것을 조금도 誇張없이 여러분들에게 보고할 수 있읍니다。

나는 그들을 잃지않고 이 悲慘한 전쟁을 명예롭게,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그리고 最少限의 生命의 희생으로 완결지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왔읍니다。

韓國戰爭은 流血을 점차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나는 깊은 슬픔과 불안을 느끼고 있읍니다。

지금 그곳에서 싸우고 있는 과감한 사람들은 언제나 나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을것이며 나는 그들을 위하여 늘 祈禱할 것입니다。

나는 52년에 걸친 軍人生活을 마치려 하고 있읍니다。내가 陸軍에 입대한 것은 아직 20世紀가 시작되기 전이었지만 당시 나는 少年時節의 모든 꿈과 희망을 충족시킬 수 있었읍니다。

내가 West Point의 敎場에서 宣誓한 이래로 세계에는 수 많은 변동이 일어났으며 나의 희망과 꿈도 사라진지 오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시 軍營에서 유행하던 노래의 후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 후렴의 자랑스러운 句節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老兵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 노래에 나오는 老兵처럼 나는 이제 軍人生活을 그만 두고 神의 啓示를 따라 自己 임무를 완수하려고 노력하여 온 한 사람의 老兵으로서 사라져 갑니다。안녕히 계십시요。』

波瀾많은 52년간의 軍隊生活에 大團圓의 幕을 내리는 그의 告別演說은 心琴을 울리는 것이었다。

그의 演說이 끝나자 우뢰와 같이 터져나온 박수갈채는 그가 퇴장할 때까지 그칠줄 모르고 계속되었다。

이제 그의 모든 것은 끝난 것이었다。人間에게는 告別이 있기 마련이다。

세계를 주름잡았던 위대한 將軍이며 出衆한 軍事指導者였던 그도 한 사람의 人間으로서 마지막 告別을 하였던 것이다。

나. 聽聞會의 論爭과 그 反響

MacArthur 元帥의 歸國과 더불어 Truman 大統領의 解任處事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높아지자 共和黨에서는 政府의 極東정책을 全面的으로 검토하라고 要求하면서 民主, 共和兩黨議員들로 구성된 特別委員會를 긴급 설치하고 公開 聽聞會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共和黨의 요구에 民主黨은 끝끝내 반대를 표명하였으나 결국에는 Richard Russell 上院議員을 議長으로 한 上院外交委員會와 軍事委員會를 합친 合同委員會를 개최하되 公開聽聞으로 하지 않고 秘密聽聞會의 형식을 취한 다음 나중에 國家安全保障에 저촉되는 사항만을 삭제한 연후에 新聞 放送에 발표하도록 合意를 보았다。

이렇게 하여 Russell 上院議員은 1951년 5월 3일 上院議會의 318호실에서 마침내 大論爭을 벌인 聽聞會의 開會宣言을 하였다。

이 開會宣言에서 Russell 議員은 말하기를 『元帥는 偉大한 軍人일뿐 아니라 政治科學에 대한 깊은 理解와 해박한 知識을 갖고 被占領國의 부흥과 安定을 가능하게 하였고 그럼으로써 지나간날의 敵이었던 國民들로부터 尊敬과 사랑을 받게 되었거니와 이러한 尊敬과 사랑은 그 自身뿐만 아니라 그의 國家에까지 미치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이윽고 MacArthur 元帥는 宣誓를 하고 及其也 證言臺에 올라섰다。

그는 표면상 엄격한 軍事用語를 쓰면서 말하기를 『戰爭은 일단 벌어지면 그 戰爭을 신속히 끝내기 위하여 効果的인 모든 수단을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戰爭의 궁극적인 目標는 승리에 있다。 질질 끌거나 優柔不斷하여서는 안된다。

斷片的인 방법으로 전쟁을 수행한 前例는 결코 없다。 大統領의 정책은 軍事力을 행사할 때 그 힘을 限定使用 할 수 있다는 假說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는 軍事作戰의 새로운 槪念이라고 할 수 있는 宥和의 槪念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侵略에의 抵抗은 계속적으로 공격하여 오는 侵略者의 潛在力을 파괴하는 것을 意味한다。

그것은 결코 勝利도 패배도 없는 戰爭을 無期限 계속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力說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Truman정부는 결코 韓國戰爭에서 승리를 얻으려고 노력한것 같지는 않았다。

그 목적은 되도록 傷處를 입지 않고 抵抗戰爭을 계속하는데 있었으며 部隊에 아무런 任務도 주지않고 明確치 않은 戰爭을 수행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따라서 이러한 Truman정부의 方法은 無意味하게 流血을 계속하는 것 뿐이고 피해를 증대하는 정책이라고 MacArthur 元帥는 論駁하였다。

그는 그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전쟁이야 말로 形言키 어려운 殘忍한 것이었으며 『韓國에서 일어난 피로서 피를 씻는 慘景을 일찌기 본 일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는 또 말하기를 『나는 많은 流血을 비저낸 慘事를 목격하였다。 나는 韓國에 있을 때

마지막 순간에도 몸서리치는 광경을 보았다。 數千名의 婦女子들이 무참하게 살해되고 모든 재물이 파괴되는 것을 볼 때 나는 치가떨리는 義憤을 참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도 이 戰爭을 계속하려고 한단 말인가』라고 辛辣하게 따져 묻기도 하였다。

MacArthur 元帥는 戰爭을 通常의 방법으로 끝장을 내고 최소한의 人的損失로서 명예로운 평화를 되찾는 代案을 내어 놓았다。

그는 우선, 美國은 戰場에서 共產軍을 격파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순히 우리가 敵의 侵略에 대하여 싸운다고 할 때 敵이 목적으로 하는 싸움에서 敵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그가 항상 주장하던 案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평소에 권고하였던 다음과 같은 案을 再次 발표하는 것이었다。

즉 그것은 『對中共海上封鎖, 經濟制裁의 强化, 蔣介石政府에 대한 拘束解除 그리고 滿洲 및 中國本土內의 飛行場 補給處 集結地에 대한 폭격』 등이었다。

또한 그는 말하기를 『만약 鴨綠江 北方에 있는 敵의 建設基地를 파괴하지 않고 臺灣에 있는 약 60萬의 中國軍을 사용하지 않고, 中共軍의 증원용 통로인 中國해안을 봉쇄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增援의 희망을 갖지 못하고 전쟁을 한다면 그것은 승리를 금지 당한거나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라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정책이야말로 곧 군사적 승리를 달성하는 첩경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비단 MacArthur元帥 한 사람뿐이 아니었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合同參謀本部는 물론, 당시의 戰線 指揮官들 모두가 이 정책을 전면적으로 支持하고 있었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사실 合同參謀本部는 1951년 1월 12일 MacArthur 元帥가 권고한 案을 滿洲空軍基地와 補給處에 대한 폭격만을 제하여 채택하고 계획서를 꾸미고 있었다。

그러나 이 案은 國防長官과 軍最高司令官에 의하여 거부되었던 것이다。

MacArthur 元帥의 증언이 여기에 이르렀을 때 Jonson 上院議員은 질문하기를 『合同參謀本部가 貴官이 주장한 계획을 支持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만한 것은 1월 12일의 기록외에는 없는가?』라고 하자 그는 대답하기를 『내가 아는 文書에는 없다』라고 하였다。

이어 Johnson 議員은 『口頭로 한 것은 없는가』라고 되물자 그는 『내가 아는바로는 없다』라고 대답하였다。

MacArthur 元帥는 이어서 自己가 주장한 案을 채택하였더라면 제3차 세계대전의 참사를 벌이지 않고도 결정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中共은 國民들에 대한 보급문제가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다。中共에 있어서 年間 500만 乃至 1,000만 이상에 달하는 사람들이 飢餓에 허덕이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빈곤 상태로 말미암아 多數의 국민들이 無秩序化되고 不滿分子들로부터 시달림을 받게 될 것이므로 國內의 긴장은 中共의 戰爭잠재력을 저하시킬 것이다。

그러한 견지에서 中共은 封鎖와 폭격에 의한 國內破壞에 매우 약한 상황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蘇聯이 中共의 패배를 그대로 보고만 있다고 보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여 『滿洲폭격은 蘇聯의 개입을 유발하는 원인은 되지 않는다。蘇聯이 韓國戰爭에 개입할 시기는 오히려 全地球의 힘의 균형이 蘇聯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 행하여질 것이다』라고 풀이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力說하기를 『亞細亞 대륙에서 약탈 공격을 개시하기 위하여 蘇聯이 증원兵力을 집결시킬만한 능력은 없다。

蘇聯軍의 배치는 전혀 방위적인 것이다。蘇聯의 極東軍은 대규모의 工業力에 의하여 支援되고 있지 않다。

Siberia 鐵道는 이미 현재의 蘇聯軍 병력을 유지하기에 여유가 없는 상태에 있다。물론 蘇聯은 日本에 대하여 공격을 개시할 수 있었으나 그러나 그것은 당시 美國의 制海, 制空權下에서의 침략이었다。蘇聯은 整備工場이나 石油도 그다지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長期間에 걸친 空軍활동을 유지할 수는 없다。

Uladivostok 地域에서 작전하는 多數의 蘇聯 潛水艦은 행동半徑이 짧기 때문에 거의 방위목적에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東京의 極東司令部에서 본다면 蘇聯軍은 결코 무서운 敵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結論으로 그는 말하기를 『美國이 全面戰爭에 대비하여 앞으로 수년간에 걸쳐 방위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韓國에서 時間을 얻자는 생각은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비판하면서 『우리가 時間을 얻으면 敵도 그만큼 時間을 얻는다。따라서 時間은 결코 自由世界側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어쩌면 蘇聯은 介入할지도 모른다。그러나 그것은 가능성의 문제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韓國에서는 虐殺행위가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내가 太平洋에서 직면하였던 일들은 장차 일어날 수 있는 사태라는 이야기가 아니다。현재 엄연히 일어나

고 있는 사실이다。 어떻게 하면 韓國에서의 虐殺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대로 虐殺을 계속하도록 할 것인가, 戰爭에서 美國을 방위하겠다는 여러분들의 全地球的인 방위계획은 太平洋에서 戰爭이 언제까지나 계속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인가。』

이렇듯 추궁하듯이 辛辣한 論調를 편 그는 승리를 획득하기 위한 단호한 행동만이 蘇聯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을 반복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西歐의 방위선은 韓國이며 결코 西獨은 아니다。 自身이 주장하는 戰略을 채택하는 것이야 말로 歐羅巴의 諸國家에 대한 利益이 될 것이다。

만약 亞細亞에 있어서 無敵의 결의와 勇氣를 가지고 戰爭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歐羅巴에서도 戰爭이 일어날 것이며 마침내는 패배하고 말 것이다』라고 역설하였다。

MacArthur 元帥는 평소부터 戰略戰術의 專門化를 주장한 사람이었다。 즉 戰略戰術은 어디까지나 政治人이 아닌 軍事專門家가 다루어야 하고 또 그렇게 一任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여 왔었다。 그는 이 聽問會에서도 그러한 주장을 또 한번 강조하였다。

즉 그는 『군대는 政治的 중립을 지켜야 할 조직체이며 그 作戰은 專門的인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한다』라는 美國의 軍事 Doctrine을 지키는 것을 재 강조하였다。

따라는 그는 『兵士는 非政治的이면서 또한 가장 効果的인 방법에 의하여 전투를 수행하는 非政治的 인물이어야 한다。 兵士의 唯一한 목적은 승리에 있고 그의 유일한 목표는 敵軍을 격파하는데 있다』라고 역설하였다。

中共軍이 侵略을 시작한 후 MacArthur 元帥는 네가지의 政治的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니 즉 그 첫째는 韓國의 統一과 解放을 위하여 北共軍을 一掃하는데 있었으므로 그는 이미 구체적인 정책목표인 韓國의 軍事的 統一을 그 임무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로, 中共의 증대하는 위협에 對處하는 길이었다。

그는 戰爭初期에 Marshall 國防長官에게 打電하기를 『中共은 亞細亞를 지배할 새로운 세력이다。 中共은 自衛를 위하여 蘇聯과 동맹을 맺었다。 그러나 中共 自身의 觀念이나 수단은 팽창主義的인 욕구에 사로잡혀 침략적인 帝國主義로 성장하면서 힘을 증대하여 왔었다。 그 侵略性은 비단 韓國뿐이 아니라 Indo-China, Tibet 그리고 계속되는 南方진출로서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侵略전쟁을 일삼고 있는 中共의 능력을 無力化하여 中共에 포위되고 있거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亞細亞를 救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政略과 戰略의 一致를 爲한 當宜性 있는 見解요 軍人은 政治에 超越하되 政治를 度外視하라는 主張과는

判異한 것으로 보는 바이다。

세째로 民主主義에 대한 亞細亞 民族의 支持를 획득하는 것이었다。

中共에 대한 軍事的 실패나 韓國統一의 실패는 亞細亞 민족에 있어서 美國의 論點을 들어내는 결과가 되므로 美國과의 友好感情을 더럽히게 된다는 것이었다。

네째로 亞細亞에 대한 관심은 결코 歐羅巴를 無視하는 것을 意味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흔히 亞細亞는 歐羅巴에의 玄關이라고 말하지만 마찬가지로 歐羅巴는 亞細亞에의 玄關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어느 한쪽의 廣大한 영향력은 반드시 다른쪽에 충격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對共產主義 방위선은 歐羅巴뿐 아니라 亞細亞에 있어서도 保持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歐羅巴 방위선은 현재 London도 아니고 Paris도 아닌 바로 韓國이다。만약 韓國전쟁에서 敗北하면 民主主義는 第3次 대전으로 번져 西歐諸國을 패망케 할 것이다。

그런데 MacArthur 元帥는 여기에서 한가지 지워버릴 수 없는 矛盾點을 들어냈으니 그것은 바로 中共軍을 격파하는 전략전술에 있어서 自身과 軍上級者 사이에서는 合意에 도達하고 있었으므로 大統領 및 그 閣僚들은 專門家의 戰爭수행에 干涉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었다。이러한 주장은 唯我獨尊의 自己過信이 아닐 수 없었다。

MacArthur 元帥는 陸軍參謀總長으로 在任時에 다음과 같은 演說을 한일이 있다。

『어떠한 戰爭에 있어서든 그 國家戰略은 國家의 長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따라서 國家戰略은 政府의 意志에 따라 作用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陸軍參謀總長 당시의 MacArthur 元帥가 演說한 論理에 비추어 보면 大統領 및 그 閣僚들은 專門家의 戰爭수행에 干涉하여서는 안된다는 聽問會에서의 주장과는 너무나도 矛盾된 주장이 아닐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自己矛盾을 들어낸 MacArthur 元帥였기 때문에 일부 人士들 가운데 그를 가르켜 극단적인 神秘主義者이며 英雄主義者라는 혹평을 가하기도 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그는 Philippines에서, 日本에서 그리고 韓國에서 체류하는 동안 그나라 민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襄理를 지켜 왔으며 그는 西歐人들이 가지기 쉬운 優越感과 誇張된 긍지를 표현하기 이전에 成熟한 東洋人과 같은 禮儀를 보여주었다。

또한 그는 14년간 東洋에 머무르면서 東洋人과 같은 苦樂을 같이하며 共產主義에 대한 共同의 抵抗을 계속하는 동안 모든 東洋人의 숭상을 받을 수 있는 政策戰略을 행사하였으

며 실천에 옮기는데 분발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 自身이 회상하기에도 고통스러운 中共軍侵略의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 過失을 비롯하여 몇가지 지워버릴 수 없는 실책을 저질렀다. 하지만 그로 하여금 이러한 실책을 저지르지 않을 수 없게 한 要因이 과연 어디에 있었던가 하는데 대하여 歷史는 반드시 공명정대한 審判을 내릴 것으로 믿어 疑心치 않는다。

美國의 上下兩院 合同議會는 그후 MacArthur 元帥의 功勳을 찬양하여 感謝狀을 수여하였다。

이때 그 決議案을 提案한 「도온」下院議員은 提案說明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약 韓國전쟁의 초기에 MacArthur 將軍의 建議를 받아 들였더라면 세계는 오늘날과 같은 위기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다。만약 MacArthur 將軍이 자기의 계획대로 韓國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허용하였더라면 中共은 불과 몇개월 이내에 괴멸되고 세계의 勢力균형은 오늘날 자유진영에 훨씬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졌을 것이다。

北共軍의 공격과 그 뒤를 이은 中共의 參戰은 美國으로 하여금 Yalta와 Potsdam에서 저지른 비극적인 과오를 是正할 수 있는 絶好의 기회였다。』라고 하였다。

「도온」議員의 이상과 같은 提案說明처럼 MacArthur 元帥의 戰略戰術이 채택되었더라면 오늘날의 亞細亞 정세는 두말할 것도 없고 世界정세의 판도는 훨씬 달라졌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한 아쉬움은 영원히 亞細亞人의 腦裡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모든 東洋人들은 52년간의 장기간에 걸쳐 美國과 自由 亞細亞의 安全保障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MacArthur 元帥가 解任이라는 명예롭지 못한 終章으로 幕을 내린채 물러간 그의 쓸쓸한 告別에 한층 더 昇華된 人間味를 實感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附　　錄

1. 附表
2. 作命·訓令·指示
3. 戰歿者 名單
4. 年表
5. 索引

1. 附 表

附表 제1호 항공 관구 편성

區分 / 관구別	본부 所在地	관구장의官姓名	관 할 기 기
제 1	水 原	대위 金 鍊 器	서울, 水原, 平澤, 群山, 江陵
제 2	濟 州	대위 李 甲 錄	濟州, 光州
제 3	大 邱	대위 洪 帝 範	大邱, 浦項, 蔚山, 鎭海, 泗川
제 4	釜 山	중위 朴 萬 成	釜山
제 5	水 營	중위 金 京 南	金海, 水營

附表 제2호

군원물자 導入現況

단위 : 弗

區分 / 년월	항 공 기	항 공 기 부 품	항공油脂	地 上	탄 약	병 기	병 력	의 료	계
50, 12		38, 020, 000	8, 631, 078		54, 809, 560				594, 746, 678
51, 1	367, 868, 000		268, 444		20, 669, 050				58, 768, 194
2	12, 800, 000	12, 222, 600	2, 917, 104		21, 128, 205				239, 221, 754
3	59, 342, 000	6, 022, 700	224, 539		14, 822, 570		175, 000		21, 758, 579
4	90, 742, 000	21. 087, 800	4, 330, 738	2, 908, 813	401, 863, 345	53, 080	262, 870		524, 092, 296
5	745, 216, 000	1, 387, 525	3, 605, 856	696, 370	25, 026, 068	5, 800	759, 980		1, 032, 109, 286

附表 제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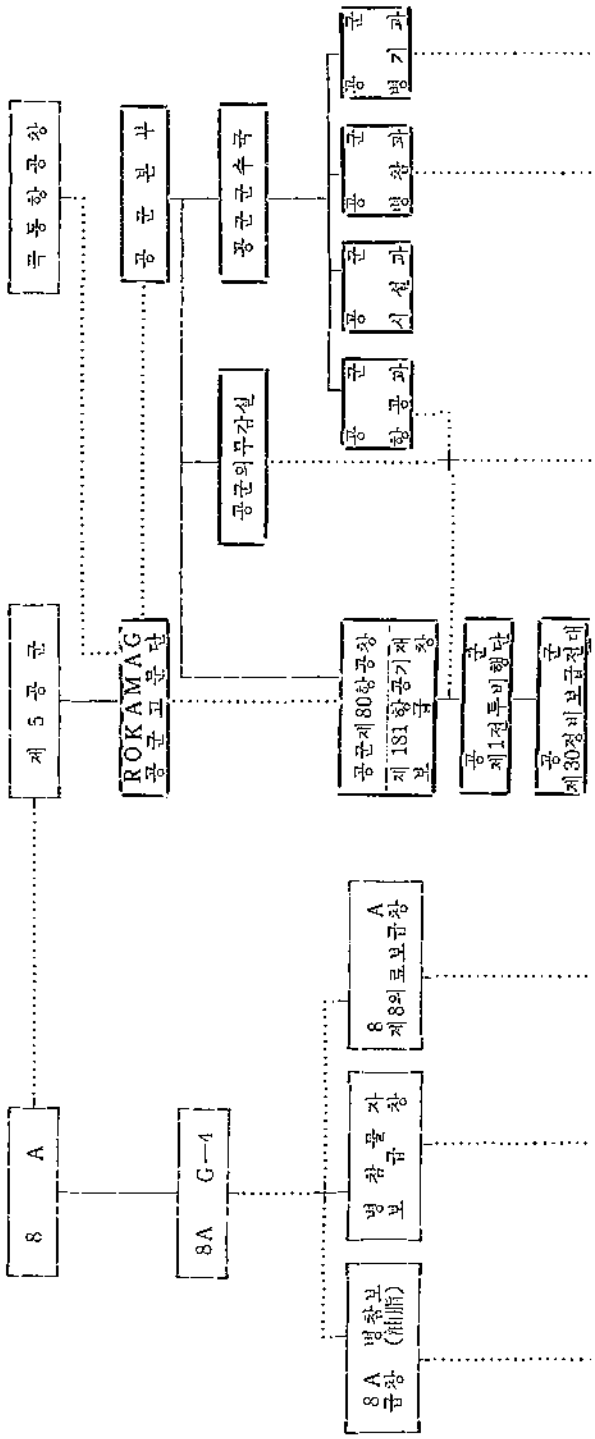
항공기 導入 現況

단위 : 弗

機種 / 년월	F—51	T—6	L—4	L—5	L—16	L—17	L—19	C—47	계
50, 12									
51, 1	4(台) 211, 768							1(台) 156, 100	5(台) 36, 868, 800
2				2(台) 12, 800					2(台) 12, 800, 000
3	1(台) 52, 942			1(台) 6, 400					2(台) 5, 934, 200
4	1(台) 52, 942		5(台) 16, 000				1(台) 21, 800		7(台) 9, 074, 200
5	13(台) 688, 216		7(台) 22, 400	2(台) 12, 800			1(台) 21, 800		23(台) 745, 324, 600

附表 제4호

군 원 물 자 도 입 계 통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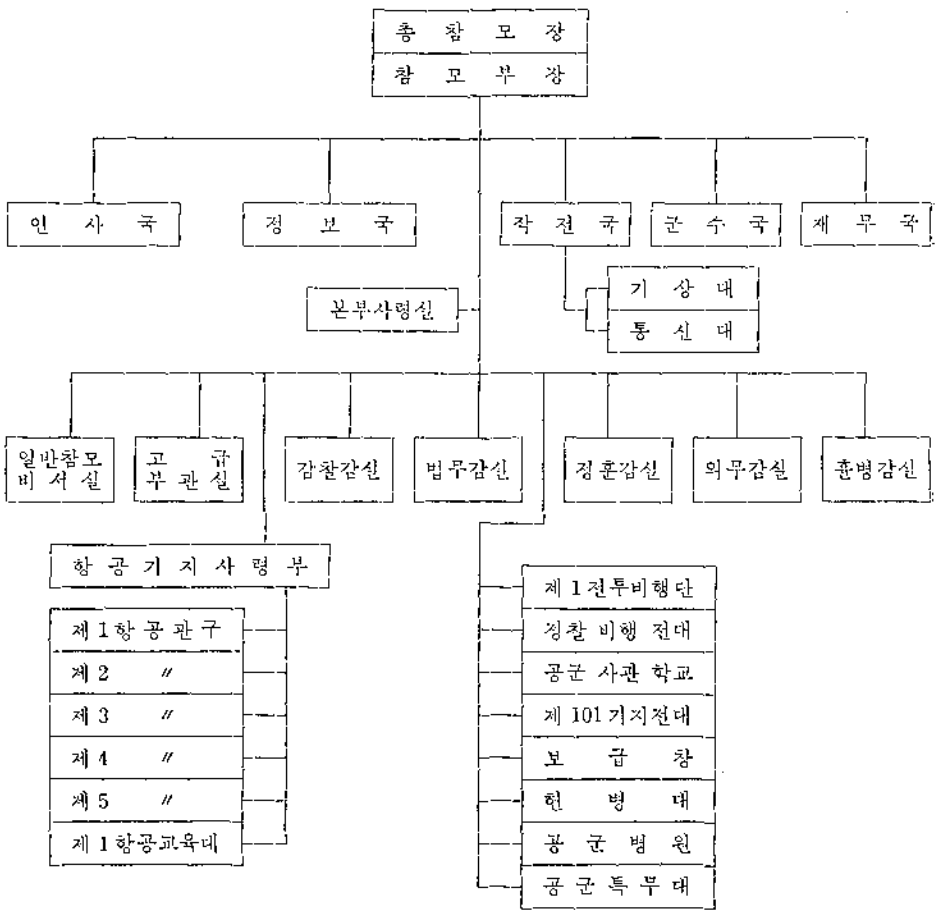


附表 제5호 개편된 항공 관구 편성

區分 / 관구명	본 부	관 구 장	관 할 기 지
제 1	서 울	대위 金 鍊 器	서울, 水原, 江陵
제 2	濟 州	대위 李 甲 鎔	濟州, 慕瑟浦
제 3	大 邱	대위 洪 帝 範	大邱, 浦項, 蔚山, 鎭海, 泗川
제 4	大 田	중위 朴 萬 成	大田, 群山, 光州
제 5	水 營	대위 姜 揮 鎰	水營, 金海

附表 제6호

空 軍 編 成 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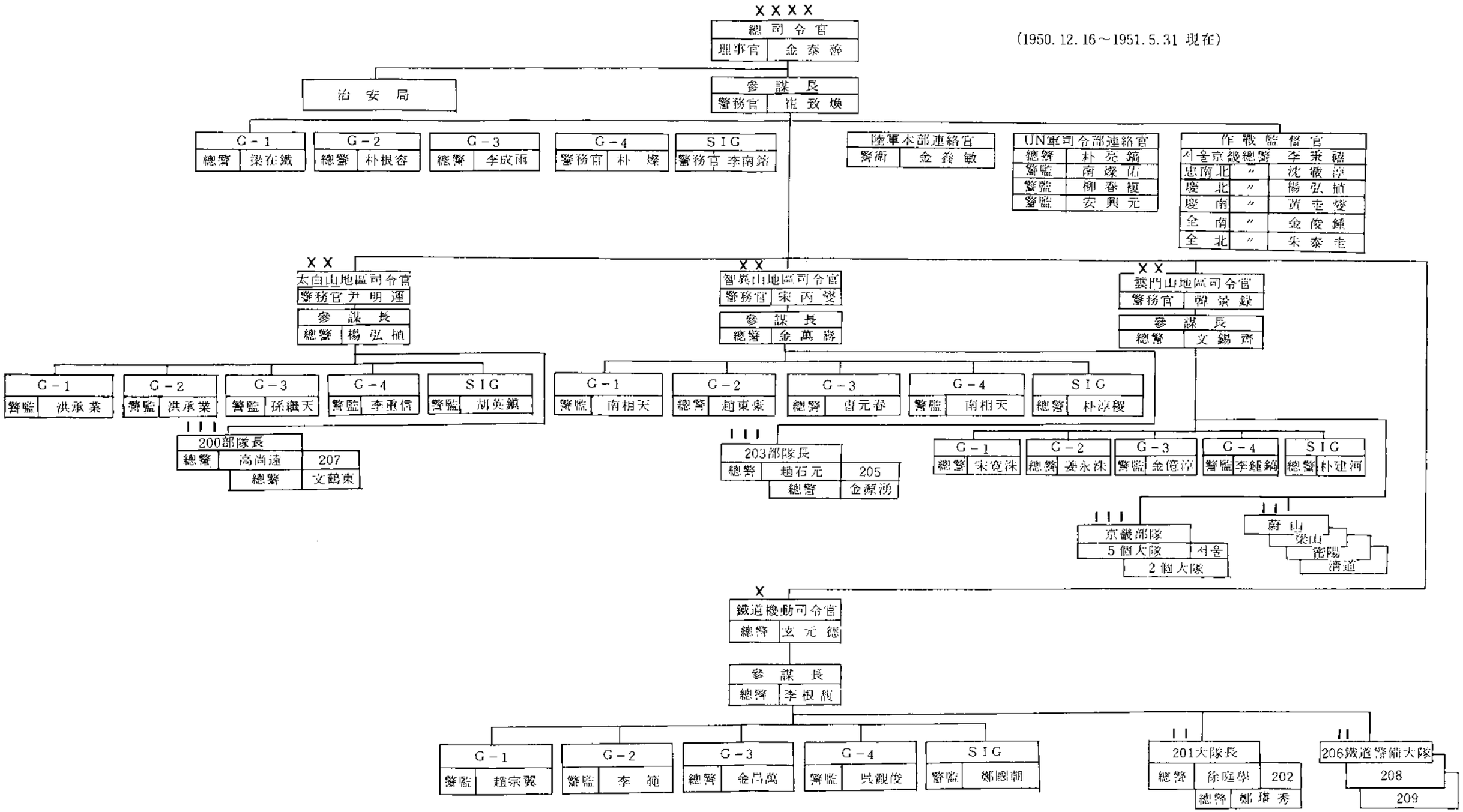
附表 제7호

각 종 교 육 현 황

區分 / 교육	期 別	人員	임 관 일(교육기간)
조 종	1기 사관 1차	13	49. 6. 10—52. 11. 20
	〃 2차	11	〃 —52. 12. 31
	〃 3차	12	〃 —53. 3. 24
	2기 사관 1차	28	51. 1. 5—53. 11. 7
	〃 2차	11	〃 —54. 3. 20
	2기 조종 하사관	12	51. 4. 6—52. 3. 1
각 종 장 교	통신장교 1기	7	50. 12. 20
	기술장교 1기	40	51. 2. 15
	경리장교 2기	21	〃
	군의장교 2기	12	〃
	행정장교 1기	19	〃
	정훈장교 1기	10	〃
	헌병장교 1기	29	〃
	행정장교 2기	89	4. 10
	1기 기술 행정	105	51. 2. 15
	기술 장교 2기	48	4. 16
사 병	1기 각종 기술 하사관	107	50. 12. 20—51. 3. 28
	10기 일반병	293	51. 3. 25—51. 5. 25
	11기 〃	434	51. 5. 25—51. 7. 15
	2기 헌병 하사관	61	50. 2. 20—51. 3. 28
	2기 통신 하사관	32	50. 11. 13—51. 1. 9
	1차 운전병	32	51. 5. 5—51. 7. 5

非常警備總司令部및戰鬪警察司令部編制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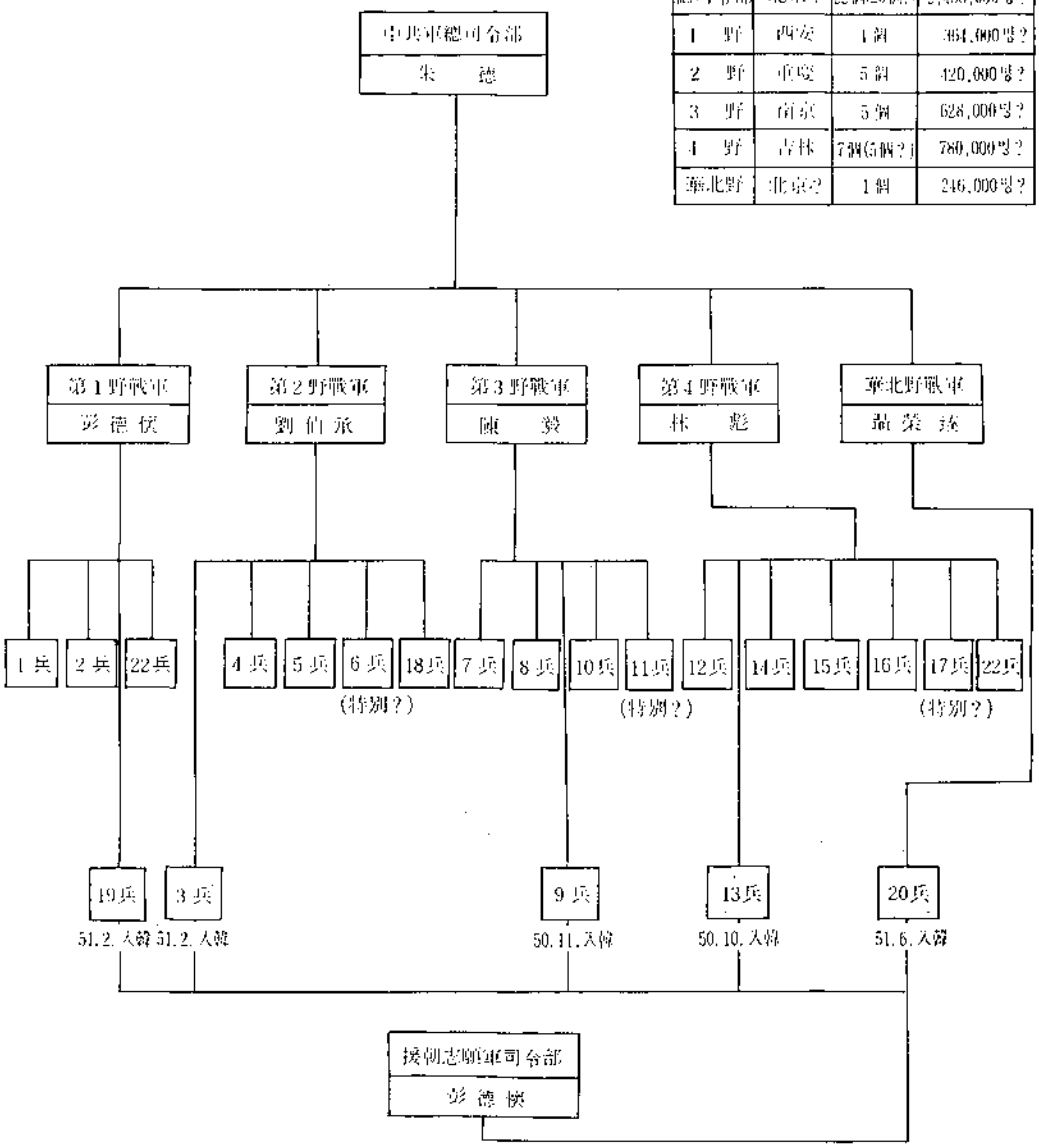
(1950. 12. 16～1951. 5. 31 現在)



附表 제 9 호

侵韓前 中共軍의 編成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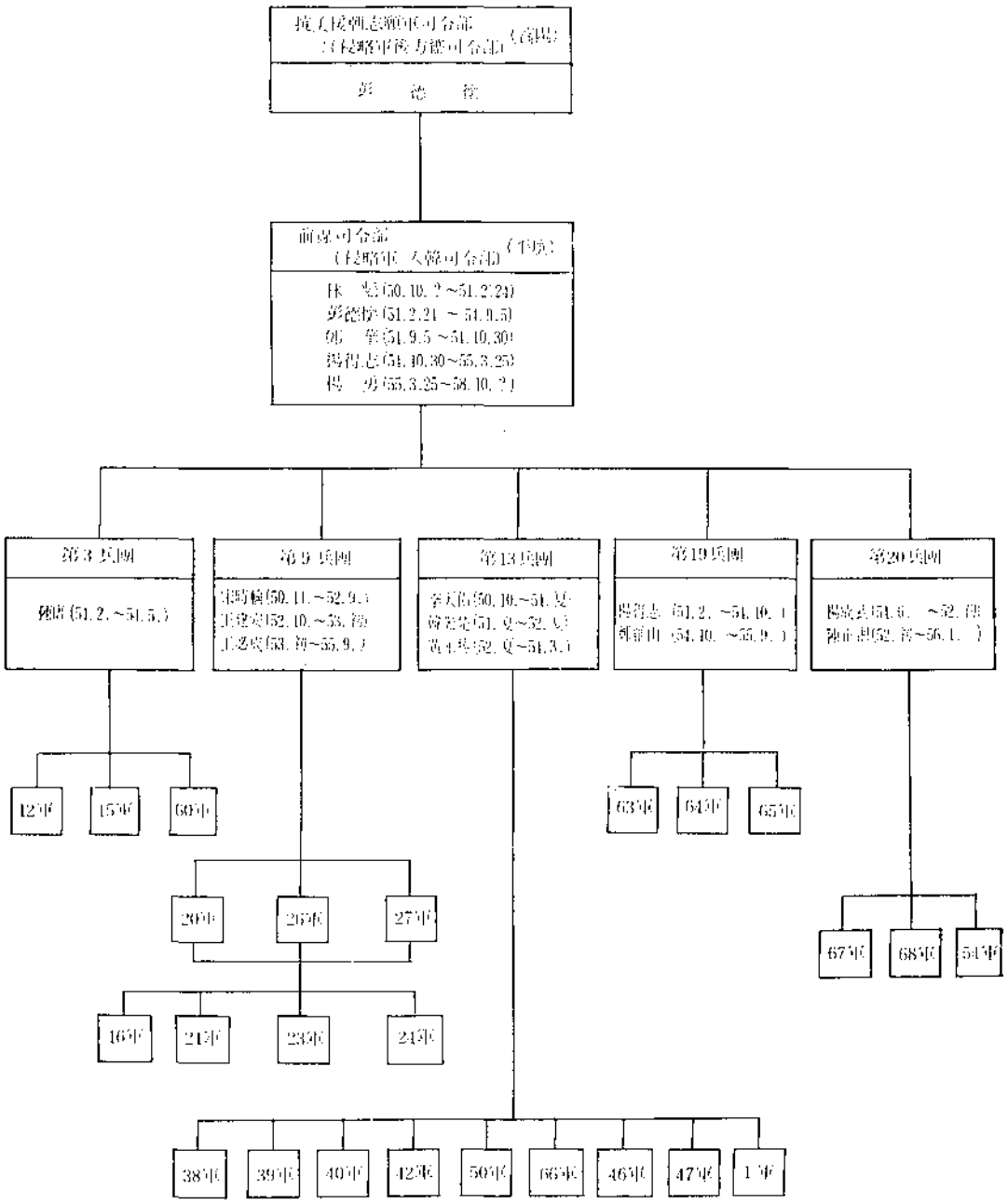
區　別	駐屯地	兵團數	兵　力
總司令部	北京?	22個軍20個師	2,438,000명?
1　野	西安	4個	364,000명?
2　野	重慶	5個	420,000명?
3　野	南京	5個	628,000명?
4　野	吉林	7個(5個?)	760,000명?
華北野	北京?	1個	246,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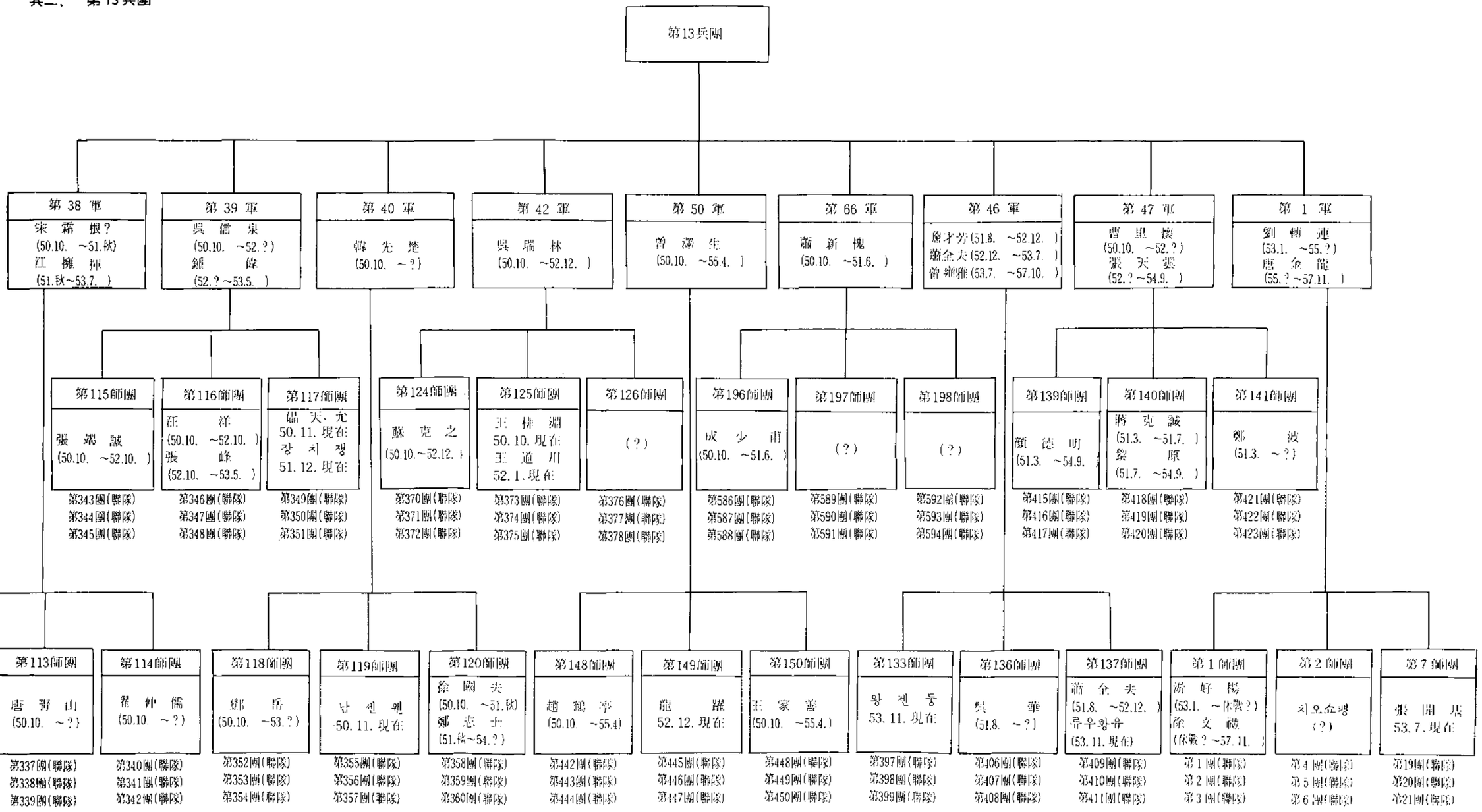
附表 제10호

侵韓 中共軍의 編成 및 指揮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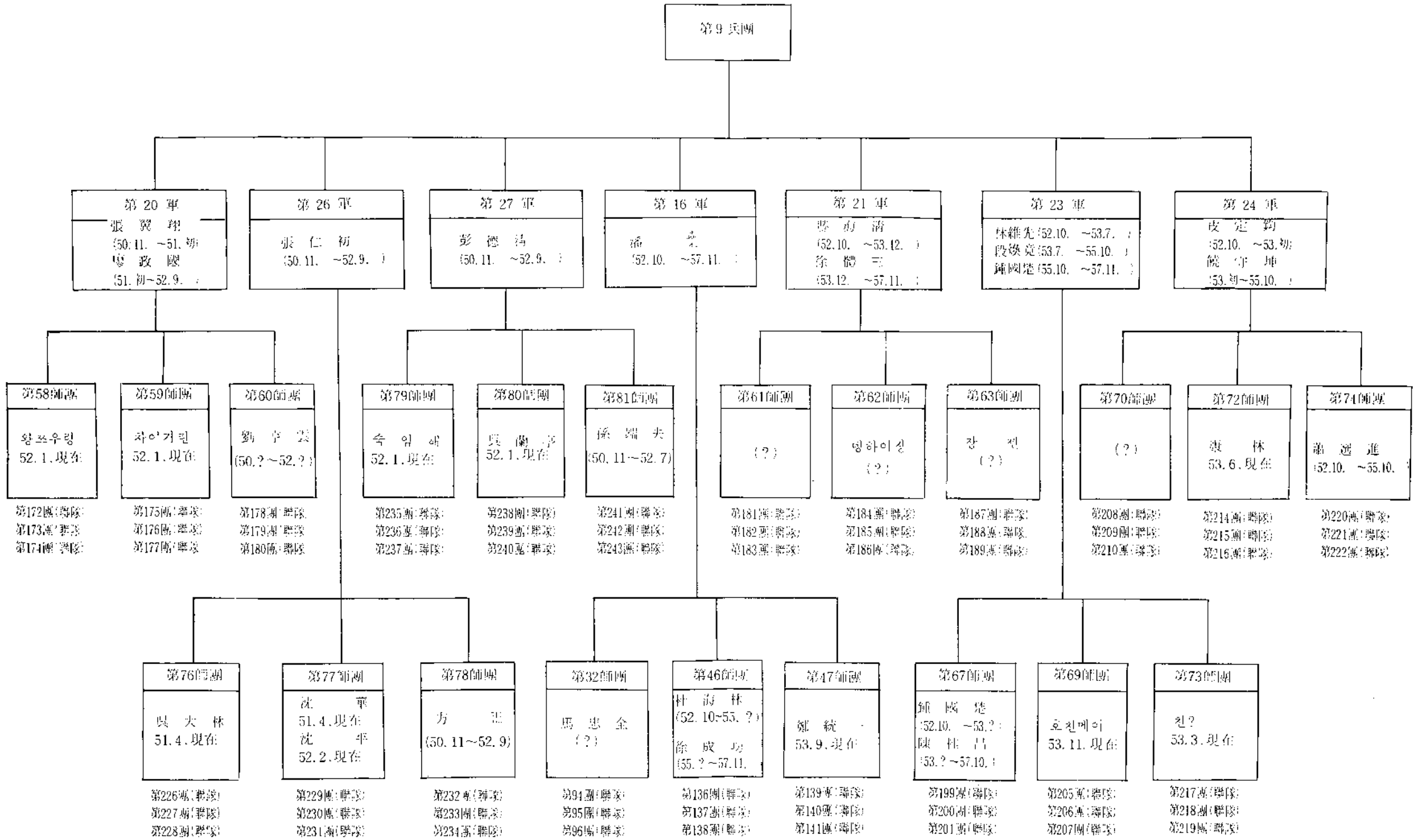
其一, 侵韓軍 司令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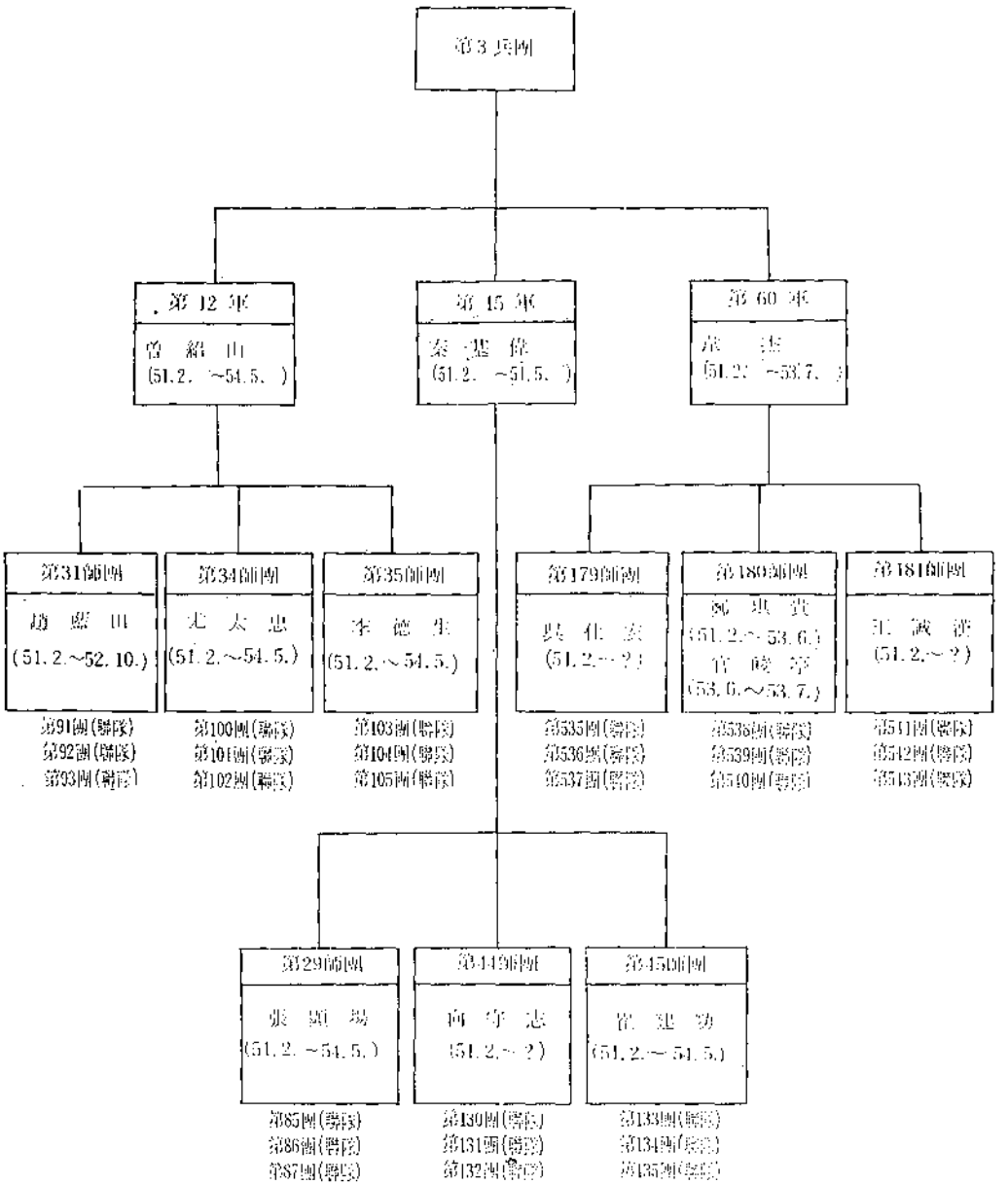
其二、 第13兵團


第13兵團
第 38 軍
宋 霖 根？
(50.10. ~51.秋)
江 擁 輝
(51.秋~53.7.)
第 39 軍
吳 儒 泉
(50.10. ~52.？)
鍾 偉
(52.？~53.5.)
第 40 軍
韓 先 楚
(50.10. ~？)
第 42 軍
吳 瑞 林
(50.10. ~52.12.)
第 50 軍
曾 澤 生
(50.10. ~55.4.)
第 66 軍
蕭 新 槐
(50.10. ~51.6.)
第 46 軍
龐才芳(51.8. ~52.12.)
蕭金夫(52.12. ~53.7.)
曾維雅(53.7. ~57.10.)
第 47 軍
曹 里 懷
(50.10. ~52.？)
張 天 雲
(52.？~54.9.)
第 1 軍
劉 輔 連
(53.1. ~55.？)
唐 金 龍
(55.？~57.11.)
第115師團
張 鍚 誠
(50.10. ~52.10.)
第116師團
汪 洋
(50.10. ~52.10.)
張 峰
(52.10. ~53.5.)
第117師團
陽 天 元
50.11. 現在
장 치 쟁
51.12. 現在
第343團(聯隊)
第344團(聯隊)
第345團(聯隊)
第346團(聯隊)
第347團(聯隊)
第348團(聯隊)
第349團(聯隊)
第350團(聯隊)
第351團(聯隊)
第124師團
蘇 克 之
(50.10.~52.12.)
第125師團
王 排 淵
50.10. 現在
王 道 川
52.1. 現在
第126師團
(？)
第370團(聯隊)
第371團(聯隊)
第372團(聯隊)
第373團(聯隊)
第374團(聯隊)
第375團(聯隊)
第376團(聯隊)
第377團(聯隊)
第378團(聯隊)
第196師團
成 少 甫
(50.10. ~51.6.)
第197師團
(？)
第198師團
(？)
第586團(聯隊)
第587團(聯隊)
第588團(聯隊)
第589團(聯隊)
第590團(聯隊)
第591團(聯隊)
第592團(聯隊)
第593團(聯隊)
第594團(聯隊)
第139師團
顏 德 明
(51.3. ~54.9.)
第140師團
蔣 克 誠
(51.3. ~51.7.)
黎 原
(51.7. ~54.9.)
第141師團
鄭 波
(51.3. ~？)
第415團(聯隊)
第416團(聯隊)
第417團(聯隊)
第418團(聯隊)
第419團(聯隊)
第420團(聯隊)
第421團(聯隊)
第422團(聯隊)
第423團(聯隊)
第112師團
江 擁 輝
(50.10.~50.12.)
陽 大 易
(50.12. ~？)
第113師團
唐 青 山
(50.10. ~？)
第114師團
翟 仲 儒
(50.10. ~？)
第118師團
鄧 岳
(50.10. ~53.？)
第119師團
남 천 웨
50.11. 現在
第120師團
徐 國 夫
(50.10. ~51.秋)
鄉 志 士
(51.秋~54.？)
第148師團
趙 鶴 亭
(50.10. ~55.4)
第149師團
龍 躍
52.12. 現在
第150師團
王 家 善
(50.10. ~55.4.)
第133師團
왕 젠 둥
53.11. 現在
第136師團
吳 華
(51.8. ~？)
第137師團
蕭 金 夫
(51.8. ~52.12.)
류우황유
(53.11.現在)
第 1 師團
游 好 陽
(53.1. ~休戰？)
徐 文 禮
(休戰？~57.11.)
第 2 師團
치오쇼펑
(？)
第 7 師團
張 開 基
53.7. 現在
第334團(聯隊)
第335團(聯隊)
第336團(聯隊)
第337團(聯隊)
第338團(聯隊)
第339團(聯隊)
第340團(聯隊)
第341團(聯隊)
第342團(聯隊)
第352團(聯隊)
第353團(聯隊)
第354團(聯隊)
第355團(聯隊)
第356團(聯隊)
第357團(聯隊)
第358團(聯隊)
第359團(聯隊)
第360團(聯隊)
第442團(聯隊)
第443團(聯隊)
第444團(聯隊)
第445團(聯隊)
第446團(聯隊)
第447團(聯隊)
第448團(聯隊)
第449團(聯隊)
第450團(聯隊)
第397團(聯隊)
第398團(聯隊)
第399團(聯隊)
第406團(聯隊)
第407團(聯隊)
第408團(聯隊)
第409團(聯隊)
第410團(聯隊)
第411團(聯隊)
第 1 團(聯隊)
第 2 團(聯隊)
第 3 團(聯隊)
第 4 團(聯隊)
第 5 團(聯隊)
第 6 團(聯隊)
第19團(聯隊)
第20團(聯隊)
第21團(聯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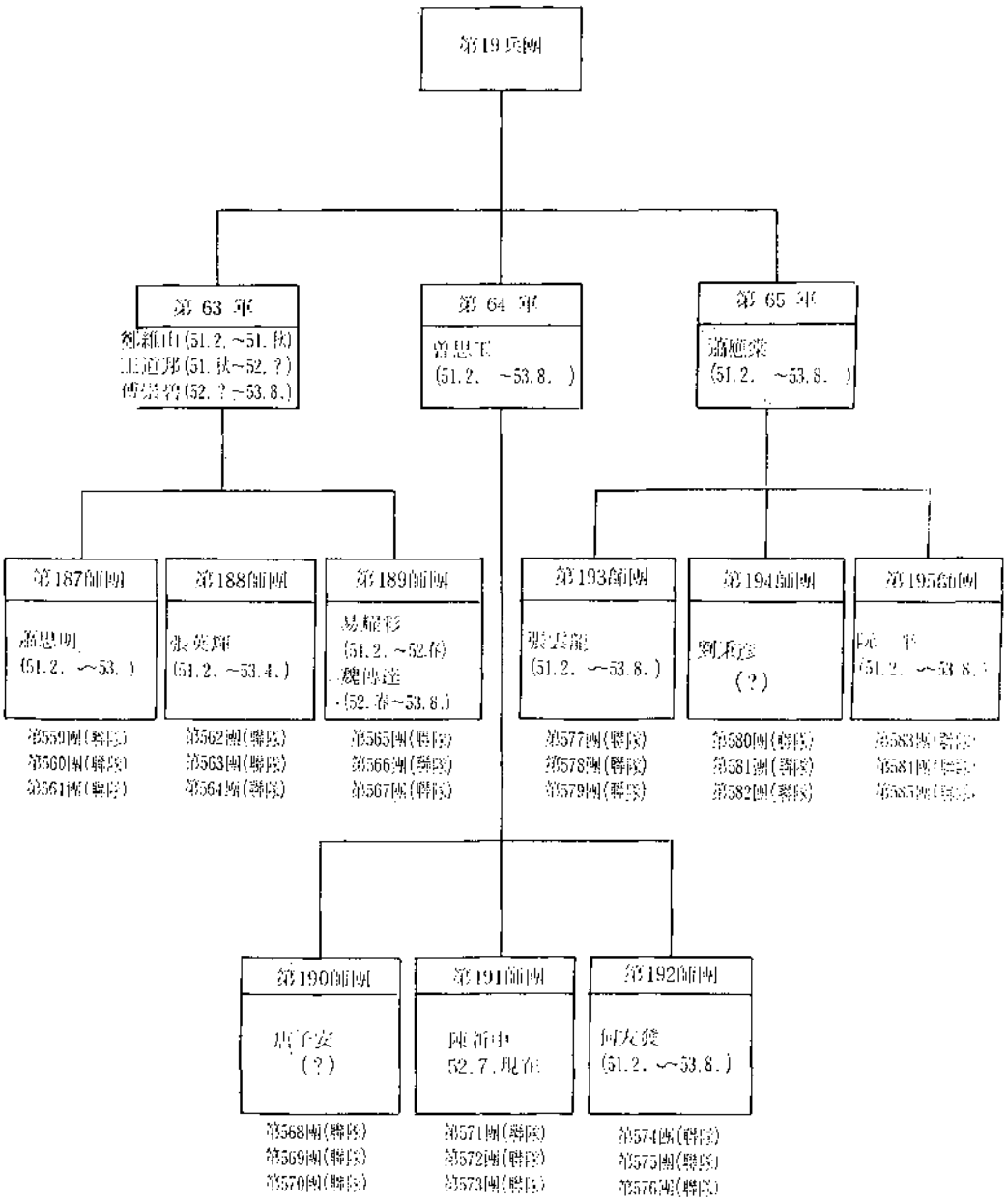
其三、 第 9 兵團


第9兵團
第20軍
張翼翔
(50.11. ~51.初)
廖政國
(51.初~52.9.)
第26軍
張仁初
(50.11. ~52.9.)
第27軍
彭德清
(50.11. ~52.9.)
第16軍
潘榮
(52.10. ~57.11.)
第21軍
楊前清
(52.10. ~53.12.)
徐體三
(53.12. ~57.11.)
第23軍
林維先(52.10. ~53.7.)
段煥竟(53.7. ~55.10.)
鍾國楚(55.10. ~57.11.)
第24軍
皮定鈞
(52.10. ~53.初)
饒守坤
(53.初~55.10.)
第58師團
왕쓰우링
52.1.現在
第172團(聯隊)
第173團(聯隊)
第174團(聯隊)
第59師團
차이거린
52.1.現在
第175團(聯隊)
第176團(聯隊)
第177團(聯隊)
第60師團
劉亨雲
(50.?~52.?)
第178團(聯隊)
第179團(聯隊)
第180團(聯隊)
第79師團
숙임해
52.1.現在
第235團(聯隊)
第236團(聯隊)
第237團(聯隊)
第80師團
吳蘭亭
52.1.現在
第238團(聯隊)
第239團(聯隊)
第240團(聯隊)
第81師團
孫端夫
(50.11~52.7)
第241團(聯隊)
第242團(聯隊)
第243團(聯隊)
第61師團
(?)
第181團(聯隊)
第182團(聯隊)
第183團(聯隊)
第62師團
명하이싱
(?)
第184團(聯隊)
第185團(聯隊)
第186團(聯隊)
第63師團
장전
(?)
第187團(聯隊)
第188團(聯隊)
第189團(聯隊)
第70師團
(?)
第208團(聯隊)
第209團(聯隊)
第210團(聯隊)
第72師團
康林
53.6.現在
第214團(聯隊)
第215團(聯隊)
第216團(聯隊)
第74師團
龐選進
(52.10. ~55.10.)
第220團(聯隊)
第221團(聯隊)
第222團(聯隊)
第76師團
吳大林
51.4.現在
第226團(聯隊)
第227團(聯隊)
第228團(聯隊)
第77師團
沈華
51.4.現在
沈平
52.2.現在
第229團(聯隊)
第230團(聯隊)
第231團(聯隊)
第78師團
方正
(50.11~52.9)
第232團(聯隊)
第233團(聯隊)
第234團(聯隊)
第32師團
馬忠全
(?)
第94團(聯隊)
第95團(聯隊)
第96團(聯隊)
第46師團
杜海林
(52.10~55.?)
徐成功
(55.?~57.11.)
第136團(聯隊)
第137團(聯隊)
第138團(聯隊)
第47師團
鄭統一
53.9.現在
第139團(聯隊)
第140團(聯隊)
第141團(聯隊)
第67師團
鍾國楚
(52.10. ~53.?)
陳桂昌
(53.?~57.10.)
第199團(聯隊)
第200團(聯隊)
第201團(聯隊)
第69師團
호친메이
53.11.現在
第205團(聯隊)
第206團(聯隊)
第207團(聯隊)
第73師團
친?
53.3.現在
第217團(聯隊)
第218團(聯隊)
第219團(聯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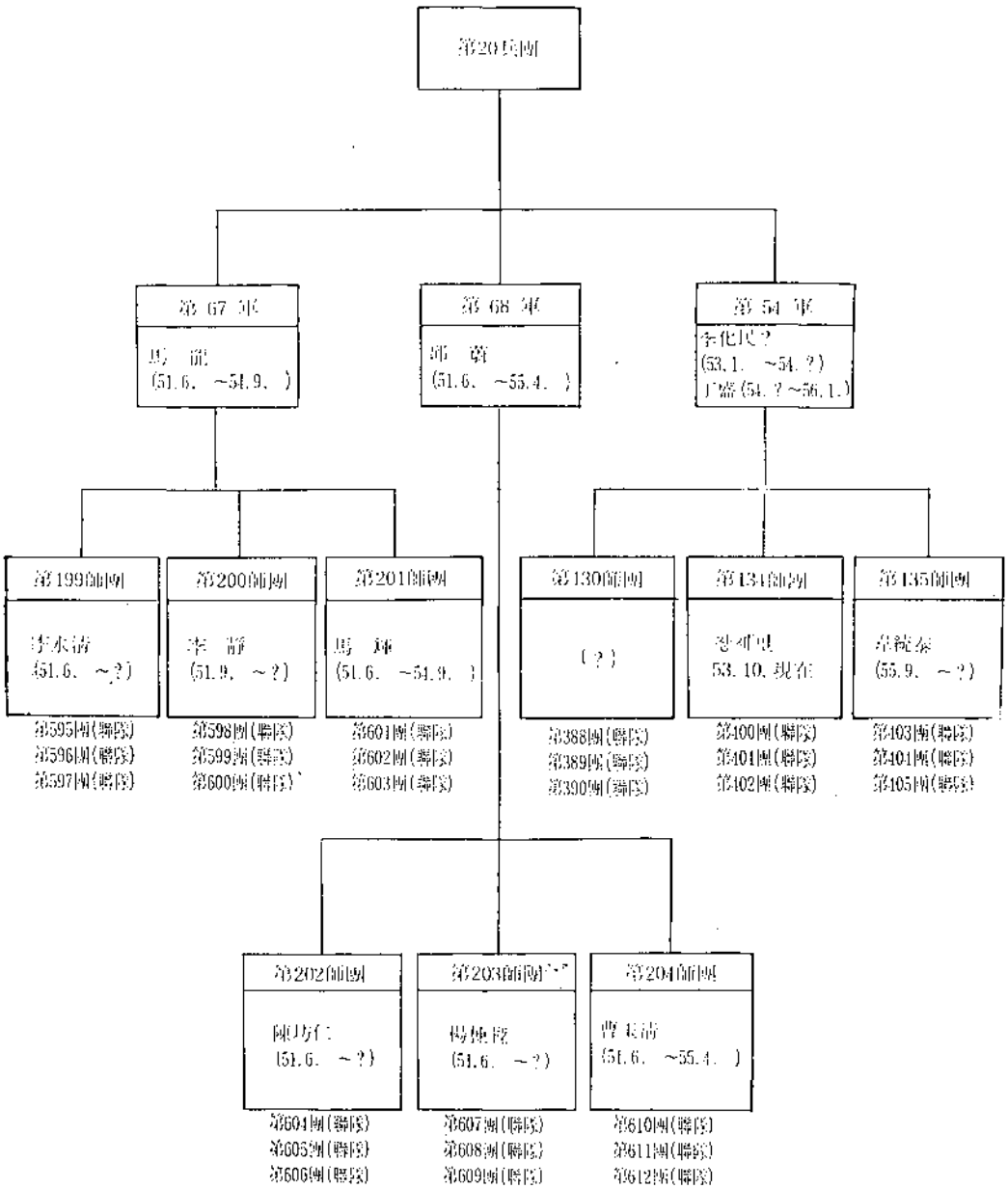
其四，第3兵團


第3兵團
第12軍
曾紹山
(51.2.～54.5.)
第15軍
秦基偉
(51.2.～54.5.)
第60軍
(51.2.～53.7.)
第31師團
趙藍田
(51.2.～52.10.)
第34師團
尤太忠
(51.2.～54.5.)
第35師團
李德生
(51.2.～54.5.)
第179師團
(51.2.～?)
第180師團
(51.2.～53.6.)
(53.6.～53.7.)
第181師團
(51.2.～?)
第91團(騎隊)
第92團(騎隊)
第93團(騎隊)
第100團(騎隊)
第101團(騎隊)
第102團(騎隊)
第103團(騎隊)
第104團(騎隊)
第105團(騎隊)
第535團(騎隊)
第536團(騎隊)
第537團(騎隊)
第538團(騎隊)
第539團(騎隊)
第540團(騎隊)
第541團(騎隊)
第542團(騎隊)
第543團(騎隊)
第29師團
(51.2.～54.5.)
第44師團
(51.2.～?)
第45師團
(51.2.～54.5.)
第85團(騎隊)
第86團(騎隊)
第87團(騎隊)
第130團(騎隊)
第131團(騎隊)
第132團(騎隊)
第133團(騎隊)
第134團(騎隊)
第135團(騎隊)

其五，第19兵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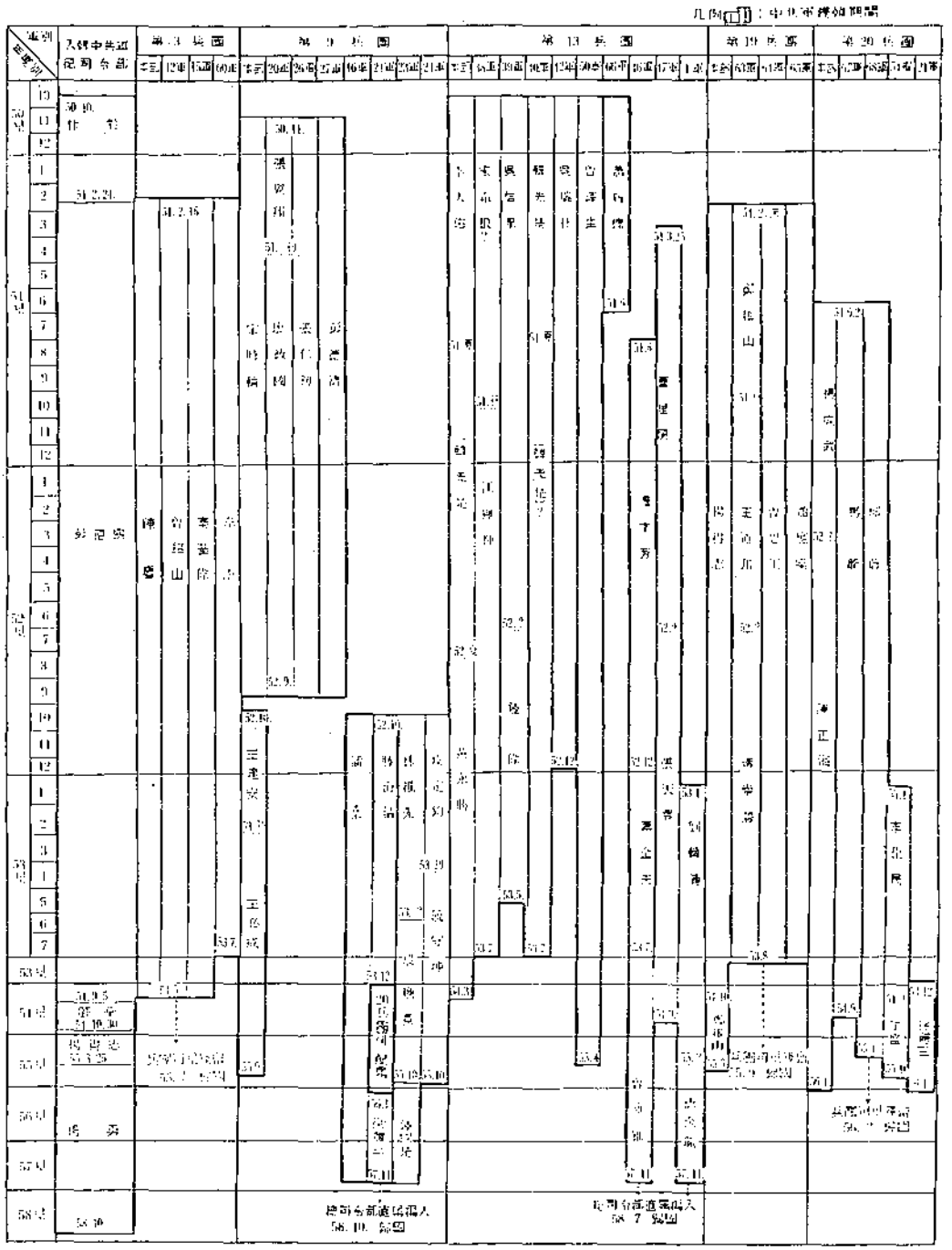

第19兵團
第63軍
鄧維山(51.2.~51.秋)
王道邦(51.秋~52.?)
傅崇碧(52.?~53.8.)
第64軍
曾思玉
(51.2. ~53.8.)
第65軍
蕭應棠
(51.2. ~53.8.)
第187師團
蕭思明
(51.2. ~53.)
第188師團
張英輝
(51.2. ~53.4.)
第189師團
易耀彩
(51.2. ~52.春)
魏傳達
(52.春~53.8.)
第193師團
張雲龍
(51.2. ~53.8.)
第194師團
劉秉彥
(?)
第195師團
第559團(聯隊)
第560團(聯隊)
第561團(聯隊)
第562團(聯隊)
第563團(聯隊)
第564團(聯隊)
第565團(聯隊)
第566團(聯隊)
第567團(聯隊)
第577團(聯隊)
第578團(聯隊)
第579團(聯隊)
第580團(聯隊)
第581團(聯隊)
第582團(聯隊)
第583團(聯隊)
第584團(聯隊)
第585團(聯隊)
第190師團
唐子安
(?)
第191師團
陳新中
52.7.現在
第192師團
何友發
(51.2. ~53.8.)
第568團(聯隊)
第569團(聯隊)
第570團(聯隊)
第571團(聯隊)
第572團(聯隊)
第573團(聯隊)
第574團(聯隊)
第575團(聯隊)
第576團(聯隊)

其六，第20兵團


第20兵團
第67軍
馬　龍
(51.6.　~54.9.　)
第68軍
邱　蔚
(51.6.　~55.4.　)
第54軍
李化民？
(53.1.　~54.？)
丁盛(54.？~56.1.)
第199師團
李永清
(51.6.　~？)
第595團(聯隊)
第596團(聯隊)
第597團(聯隊)
第200師團
李　靜
(51.9.　~？)
第598團(聯隊)
第599團(聯隊)
第600團(聯隊)
第201師團
馬　輝
(51.6.　~54.9.　)
第601團(聯隊)
第602團(聯隊)
第603團(聯隊)
第130師團
(？)
第388團(聯隊)
第389團(聯隊)
第390團(聯隊)
第134師團
53.10.現在
第400團(聯隊)
第401團(聯隊)
第402團(聯隊)
第135師團
韋統泰
(55.9.　~？)
第403團(聯隊)
第404團(聯隊)
第405團(聯隊)
第202師團
陳坊仁
(51.6.　~？)
第604團(聯隊)
第605團(聯隊)
第606團(聯隊)
第203師團
楊棟梓
(51.6.　~？)
第607團(聯隊)
第608團(聯隊)
第609團(聯隊)
第204師團
曹玉清
(51.6.　~55.4.　)
第610團(聯隊)
第611團(聯隊)
第612團(聯隊)

附表 제11호

中共軍 軍別 侵韓年表



2. 作命·訓令·指示

부록 제 1 호

陸本作命 제220호 훈령 제1호 (陸軍本部, 서 울, 1950. 10. 22. 12. 00)

訓 令

지도 : 大韓 250,000分之1

一. a. 別紙 정보투명도 참조。

b. 華川에서 北上한 적 약 1,500은 金化를 기습 후 平康을 향하여 北上 도주중임. 金城, 昌道, 新高山부근 山谷에는 100~200씩 야간을 이용하여 계속 北上, 谷山방면으로 향하고 있음。

二. 군은 일부 병력을 이동시켜 北上도주하는 적을 저지 섬멸하려 함。

三. 1. 제17연대장은 예하 제3대대를 1950년 10월 22일 20.00까지 제3대대를 1950년 10월 24일 17.00까지 각각 平康(CT 5153)에 진출시켜 부근의 잔적을 소탕하라。

2. 제1대대는 江陵(DS 9188) 襄陽(DT 6713) 杆城(DT 5547) 高城(DT 4180)輔線을 따라 소수의 적을 소탕 진출케 하라。

3. 제17연대장은 前 제1항에 지시한 잔적을 소탕하면 즉시 연대본부 및 제2대대를 平康(CT5130)에, 제1대대를 金城(CD 5853) 제2대대를 昌道(CT 8463)에 각각 배치하여 1950년 10월 26일 24.00까지 별지 루트선상의 요점을 확보 북상도주하는 잔적을 저지 섬멸하라.

4. 제17연대는 前記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군단 전투지경내에서 작전함을 허가한다。

四. 행정사항 : 변경없음。

五. 통신사항

통신규정에 의거 실시하라。

단, 세부지시는 통신감실에서 수령하라。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 2 호

陸本作命 제221호 훈령 제1호 (陸軍本部, 서 울, 1950. 10. 27. 08.00)

陸本作命 제221호 일부 修正의 件。

一. 담당지구내의 적을 완전 섬멸하여 韓國 北端 國境線까지 급속 전진을 계속하라。

二. 韓國軍 제2군단의 西方 지경에 관한 협의를 하기 위하여 美 제1군단과의 직접통신을 허가한다

三. 목표선 "A" 이북에 있어서의 韓國軍이외 聯合軍 사용에 관한 제한은 제거되었음.

총 참 모 장

부록 제 3 호

陸本作命 제220호 훈령 제2호 (陸軍本部, 서 울 1950. 10. 28. 20.00)

訓 令

陸本作命 제220호 일부 修正의 件.

1950년 10월 20일 영시附 陸本作命 제220호를 下記와 같이 일부 수정한다.

記

一. 제3군단장은 예하 제36연대를 현재 위치 馬山 (DP 6495)으로부터 金泉(DQ 2197)에 1950년 10월 31일 24.00까지 이동 완료하라.

二. 제36연대 1개대대를 1950년 10월 29일 24.00까지 현재지 馬山(EP 6495)으로부터 晋州(DP 1964)에 이동하라.

三. 제3군단장은 前記 병력 이동완료와 동시에 즉시 陸本에 보고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 4 호

陸本作命 제221호 훈령 제2호 (陸軍本部, 서 울 1950. 10. 31. 08.00)

訓 令

陸本作命 제221호 일부 修正의 件

一. 제8연대 제1대대를 즉시 美 제1군단 배속으로부터 해제하고 제2군단에 원대복귀한다. 부대이동에 관하여 美 제1군단과 제2군단과의 직접통신을 허가한다.

二. 제2군단—美 제1군단간 전투지경을 즉시 下記와 같이 변경한다. (부록 제2군단~美 제1군단 전투지경 변경 참조)

현 전투지경선 YE 4627로부터 BV 5567에 있는 수준基標 1146으로 東北向, 그곳으로부터 BA 4931 鴨綠江 교차지점까지 北上함. 上九洞(YE 4423)은 美 제1군단에 속한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 5 호

陸本作命 제228호 훈령 제1호 (陸軍本部, 서 울 1950. 11. 1. 12.00)

訓 令

作命 제228호(1951. 10. 30. 08. 00附)修正

1950년 10월 30일 08.00附로 下達한 陸本作命 제228호의 세부지시를 下記와 같이 下達함.

記

一. 공병부대는 38°선 以南의 韓國 제3군단 관하의 도로 교량을 수리·유지·건설하고 부대시설을 건설 수리하며 지뢰 및 지뢰지대를 탐지 제거하고 항공기 착륙시설을 합으로써 제3군단을 지원한다.

二. a. 국도건설단(民間)은 제3군단 공병부장 작업지휘하에 둔다.

b. 국도건설단(민간)은 투명지의 圖線 또는 다쉬선으로 표시된 책임지역 내의 연락로를 유지하고 그 도로상의 교량수리 및 가설을 담당한다.

1. 국도건설단 제1대대는 경기도와 강원도를 포함하는 제2사단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국도건설단 제2대대는 慶尙南北道를 포함하는 제5사단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국도건설단 제3대대는 忠淸南北道 및 全羅南北道를 포함하는 제11사단 및 제9사단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사단 공병은 담당지역내의 부대시설을 정비하며 투명도의 점선으로 표시한 사단부대에 대한 보급로를 수리 유지하며 사단 전방보급소를 정비 운용하며 지뢰를 탐지 제거한다.

三. 제1001 공병창고중대 분견대는 대전에서 군단 보급소를 운용한다.

下記 파견대를 제외한 제1001 공병 창고중대는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四. 1. 軍前方 보급소 서울

2. 군단전방 보급소 大田

3. 사단전방 보급소

제 2 사단	大田
제 5 사단	永川
제 9 사단	大田
제10사단	光州

五. 국도건설단

a 국도건설단 제1대대 본부는 原州, 제2대대 본부는 大邱, 제3대대 본부는 大田에 둔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 6 호

陸本作命 제231호 (陸軍本部, 서 울 1950. 11. 1. 17. 00)

지 도 : 韓國 백만분지 1

군대구분 : 부록 제1호 참조

一. 1. 적 패잔병은 각종으로 편성하여 북위 38° 以南지구에 잔존 준동을 계속하고 있음。

二. 군은 主보급로(大邱~大田~서울)를 보호하고 경찰과 협력하여 북위 38° 以南지구의 잔적을 완전히 섬멸하려 함。

三. a. 제3군단은 1950년 11월 5일 영시이내로 가능한 한 조속히 美 제9군단 임무를 교대 인수하고 下記 b.c의 임무를 수행하라.

b. 잔적의 北進을 저지하라.

c. 담당지구내 잔적을 섬멸하라.

d. 임시 및 영구주둔지 : 부록 제2호, 부대위치 참조.

e. 영구 전투지경 : 부록 제3호 작전투명도 참조.

f. 공병사항 : 作命 제228호 훈령 제1호 참조.

1. 교대 세부협의를 위하여 제3군단과 美 제9군단과의 직접통신을 허가한다.

2. 국제연합군은 국제연합군 地上軍, 空軍, 海軍을 지원함에 필요한 시설을 계속 관리한다.

3. 부대지휘관은 부대행동 및 정보교환에 관하여 경찰 책임자와 협조하라.

4. 作命 제220호 훈령 제2호(1950년 10월 28일 20.00)의 一항의 제35연대를 제36연대로 각각 수정한다.

四. 행정사항

부록 제5호 행정명령 제11호 참조.

五. 통신사항

a. 현 통신규정 사용

b. 무전기와 연락병을 최대한으로 사용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 7 호

陸本作命 제231호 附錄 제1호

作戰訓令 제3호(1950년 10월 20일 12.00附 陸本作命 제221호 수정)

군대구분

제3군단 군단장 육군준장 李亨根

제2사단 사단장

제17연대

제31연대

제32연대

제30야포대대

제5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閔機植

제27연대

제35연대

제36연대

제20야포대대

제9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崔慶錄

제28연대

제29연대

제30연대

제26야포대대

제11사단 사단장육군준장 崔德新

제 9 연대

제13연대

제20연대

제27야포대대

부록 제 8 호

陸本作命 제232호 (陸軍本部, 서 울, 1950. 11. 1. 24. 00)

一. 적은 증공군의 응원을 얻어 熙川방면으로부터 球場 부근까지 침투하고 있음.

二. 군은 일부 병력을 이동 배속하려함。

三. 1. 제17연대는 1950년 11월 1일 24.00附 제3군단 배속을 해제하고 동시에 제2군단에 배속한다。

2. 제11(제31연대?)연대장은 수행중에 있는 현 임무를 가급적 속히 경찰에 이양하고 우선 平康(CT 5153)에 있는 1개대대를 11월 2일 17.00까지 鉄關里(YD 4798)에 이동시켜 제3군단장의 지휘를 받게하며 잔여 2개대대는 逐次 전진부대를 추구케 하라。

四. 행정사항 : 변경 없음。

五. 통신사항 : 통신규정 의거 실시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 9 호

陸本作命 제232호 훈령 제1호 (陸軍本部, 서 울, 1950. 11. 2. 08. 00)

訓 令

제17연대 배속 변경의 件

一. 陸本作命 제232호에 의하여 제2군단에 배속하기로 된 제17연대의 배속을 해제하고 陸軍本部직할 예비대로 변경함。

二. 기타사항은 陸本作命 제232호에 의함。

三. 陸軍本部 전방지휘소는 平壤에 있음。

총 참 모 장

부록 제10호

陸本作命 제221호 훈령 제3호 (陸軍本部, 서 울, 1950. 11. 3. 10. 00)

訓 令

1950년 10월 20일 13.00附로 下達한 陸本作命 제221호를 下記와 같이 수정함。

一. 제2군단은 北倉里(BV 7186)에 차단점을 설치하고 YE 4804 부근 韓國軍—美 제1군단간 전투지경과 淸川江과의 교차점으로부터 北倉里에 이르는 線 以南 혹은 北西로 지향하는 적 행동을 저지하는 동시에 YE 4804부근에서 美 제1군단과의 직접 접촉을 확립 유지하라。

二. 제2군단은 陸軍本部 명령이 있을 때에는 北方에 대하여 공격작전을 취할수 있도록 준비하라。

三.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美 제1군단과의 직접통신을 허가한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11호

陸本作命 제233호 (陸軍本部, 서 울 1950. 11. 2. 20. 00)

一. 1. 省略

2. 헌병 1개중대는 平壤에 위치하고 있음。

二. 軍은 일부 병력을 배속하려 함.

三. 헌병사령관은 平壤에 있는 예하 헌병 1개중대를 美 제187공수 연대에 배속하여 該부대의 지휘를 받게하라。

四. 행정사항 : 변경 없음

五. 통신사항

美 제187공수 연대 통신 주임장교의 지시를 받으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12호

(1950. 11. 8)

韓國軍 총참모장

美 제1군단장

美 제9군단장

GX 27429 KGO

一. 제9군단장 :

본관 서한 GX 27372 KGO 참조。제2군단(韓國軍)과 협조하여 전기서한 1에서 지시한 1개연대의 엄호대를 증원된 1개대대로 감소하고 東側方 전황을 보고하라。軍 사령부 명령이 있을 때엔 美 제1군단이나 韓國軍 제2군단 담당지구에 출전할 수 있도록 준비한 美 제2사단 잔여부대를 順川 YD5267에 집결시켜라。제9보병 전투연대는 順川지구 도착 즉시로 귀관지휘하로 복귀한다。

二. 韓國軍 총참모장

한국군 제2군단장은 美 제10군단 제한점까지 군東側方을 방호함은 물론 담당지구 전체에 대하여

전적 책임을 담당하도록 지시하라, 美 제10군단과의 接觸 및 적당한 차단점의 확립은 한국군의 책임임。美 제9군단 지휘하의 증원된 일개대대는 韓國軍 제2군단과 협조하여 北倉里 군 수색임무를 수행함。

三. 美 제1군단장

제9보병 전투연대를 順川부근에 집결시키라. 제9보병 전투연대 順川도착과 동시에 美 제9군단장에 복귀시키라。

四. 소관계관

직접통신을 허가함。

駐韓 美8군사령관

부록 제13호

陸本作命 제234호 (陸軍本部, 서 울, 1950. 11. 9. 10. 00)

一. 伊川에 집결중이던 적 패잔병(2, 6, 10사단) 12,000명은 11월 6일 瑞溪를 점령하고 계속 平康지구를 경유 金化, 鐵原에 南進하여 11월 8일 10.00 金化부근 일대에 약 9,000명 鐵原부근에 700명이 집결 계속 南進 기세임。

二. 군은 일부 병력의 배속을 변경하려 함。

三. 1. 제1201공병단장은 예하 제201건설 공병대대의 1개소대를 1950년 11월 15일 24.00까지 平康에 이동시켜 제17연대에 배속하라。

2. 제3군단장은 예하 제5사단에 배속된 포병 제20대대의 1개중대(75粍)를 1950년 11월 12일 24.00까지 平康에 이동시켜 제17연대에 배속하라。

3. 제17연대장은 前記 병력을 통합지휘하라。

四. 행정사항 : 변경없음。

五. 통신사항 : 省略

총 참 모 장

부록 제14호

(1950. 11. 9. 15. 45)

韓國軍 총참모장

美 제1군단장

GX 27470 KGO

1950년 11월 7일附 본관서한

GX 27333KGO 참조

一. 1950년 11월 6일 제8군 사령부 작전계획 제14호에 약술한 공세준비로서 즉시 담당지구내에서 공격을 실시하여 下記 공격개시선을 점령 확보하라。清川江口로부터 嘉山(YD 1298)을 통과하여 東

北으로 향하여 長鮨洞(YE 1904), 龍山洞(YE 3011)을 통과하여 일반적으로 東으로 향하여 寧邊(YE 4010)을 통과, 水準標標 1180(BV 5413), 寺洞(BV 7112), 寧遠(BV 9011)을 거쳐 제10군단 전투지경에 이른다.

二. 美 제1군단과 韓國軍 제2군단장은 兩軍團 전투지경선상 진출에 관하여 협조하라.

三. 도로사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1950년 11월 7일附 본관 서한 GX 27372 KGO에 규정된 美 제1군단과 韓國軍間의 전투지경을 下記와 같이 시달한다. 順川(YD 5368)으로부터) YD 5676까지 大同江 東岸을 따라 北上하여 수준기표 325(YD 5693)까지 북상 그곳으로부터 球場洞(BV 4517)까지 東北으로 向하여(BV 5139)의 도시까지 東北向 그곳으로부터 北으로 向하여(BV 5365) 지점 현 전투지경에 연결, 順川 및 球場洞은 美 제군1단에 속함.

駐韓 美 제8군 사령관

부록 제15호

陸本作命 제235호 (陸軍本部, 서 울 1950. 11. 9. 24. 00)

一. 1. 적은 德川~孟山~元山間 도로차단을 기도 또한 아군 제2군단 東側方으로 진출하려 하고 있음. 적 약 500명은 北倉里(BU 7176)에 출현하고 있음.

2. 아군 제2군단 東側方을 담당하고 있던 美 제38연대는 그 주력을 철수하고 1개대대를 殘置시킨다 함.

二. 군은 軍東側方 방호에 철저를 기하려 함.

三. 1. 제2군단은 군단 右側 전투지경선상의 美 제10군단 제한점까지 포함하여 군단 東側方을 방호함은 물론 담당지구 전체에 대한 작전 수행에 만유감 없도록 기하라.

2. 제2군단장은 美 제10군단장과의 접촉 및 적당한 차단점을 확립하라.

3. 美 제10군단 지도하의 증원된 1개대대는 제2군단과 협조하여 北倉里부근으로부터 군 수색임무를 수행할 것임.

四. 행정사항 : 변경 無함

五. 통신사항 : 통신규정에 의거 실시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16호

陸本作命 제236호 (陸軍本部, 서 울 1950. 11. 9. 24. 00)

一. 중공군 3개사(師)以上 및 人民軍으로서 清川江, 德川, 寧遠을 연한 北方線 일대에서 저항중임.

二. 군은 공세 이전을 위한 공격개시선을 결형 확보하려함.

三. 1. 제2군단장은 차후 시달될 공세준비로서 즉시 담당지구내에서 공격을 실시하여 下記 공격개시

신을 점령 확보하라(별지 투명도 참조)

淸川江口로부터 嘉山(YD 1298)을 통과하여 東北으로 향하여 長鼎洞(YE 1904)龍山洞 (YE 3011)을 통과하여 일반적으로 東으로 향하여 蔚遠(YE 4010)을 통과 수준基標 1180(BV 5413) 寺洞(BV 7112) 蔚遠 (BV 9011)을 거쳐 제10군단 전투지경에 이른다。

2. 英 제1군단장과 韓國軍 제2군단장은 兩 군단전투지경선상 진출에 관하여 협조하라。

3. 도로사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美 제1군단과 韓國軍간의 전투지경을 下記와 같이 정정한다。(별지 투명도 제1 참조)

順川(YD 5368)으로부터 (YD 5676)까지 大同江, 東岸을 따라 北上하여 水準基標 325(YD 5693)까지 北上 그곳으로부터 球場洞(BV 4517)까지 東北으로 향하여 (BV 5139)의 도시까지 東北向 그곳으로부터 北으로 向하여 (BV 5365)지점 현 전투지경에 연결(順川 및 球場洞은 美 제1군단에 속함)

四. 행정사항 : 변경없음。

五. 통신사항 : 통신규정에 의거 실시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17호

陸本作命 제237호 (陸軍本部. 서 울 1950. 11. 11. 10. 00)

一. 省略

二. 군은 일부 병력을 배속하려 함。

三. 1. 제7훈련소장은 예하 대전차포 3문 및 이에 附隨되는 인원 및 기재 일체를 1950년 11월 13일 24.00까지 順川(YD 5467)에 이동시켜 제2군단장의 지휘를 받게하라。

2. 제2군단장은 前記 병력을 제6사단 제7연대에 배속하여 부대재편에 만전을 기하라。

四. 제7훈련소장은 배속되는 전차포 3문에 부수되는 인원 명부를 陸本 고급부관에게 제출할 일。

五. 통신사항

제7훈련소장은 이동부대로 하여금 통신사항에 관하여 제2군단장의 지시를 받게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18호

陸本作命 제238호 (陸軍本部. 서 울 1950. 11. 11. 12. 00)

一. 敵情 : 金化방면으로부터 南下하는 적 일부 약 5,000은 11월 10일 09.00경 華川, 楊口를 점령한 후 春川을 위협하고 있으며 抱川 北方 12km 지점인 城洞 부근에 11월 10일 19.00경 약 5,000명이 抱川을 향하여 南下하고 있음。

二. 군은 일부 병력을 이동 투입하여 春川 방향으로 南下하는 적을 저지 섬멸하려 함。

三. 1. 제3군단장은 유격사령관 金冠五 대령으로 하여금 洪川(DS 0272)의 유격 제2대대 및 原州

(DS 0634))의 유격 제1대대를 즉시 春川으로 이동시켜 春川(CS 8893)에 있는 유격 제7대대를 통합 지휘하여 지휘소를 春川에 위치하고 華川(CT 7418), 楊口(DT 1117)방면으로부터 南下하는 적을 저지 섬멸하라。

2. 유격사령관은 매일 04.00, 11.00, 15.00, 24.00현재의 상황보고를 陸本에 하라。

四. 행정사항 : 변경 없음。

五. 통신사항 : 통신규정에 의거 실시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19호

(1950. 11. 11. 14. 15)

韓國軍 총참모장

美 제25사단장

GX 27587 KGO

一. 美 제25사단장

平壤地區의 보급실정이 긴박하여 貴부대의 北으로의 이동을 연기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음。귀관은 後方지구 및 主補給路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伊川—平康—鐵原지구 적을 섬멸하라。귀관은 귀부대의 이동을 이 임무수행에 필요할 때까지 연기함을 허가한다。즉시 韓國軍 제17연대를 귀부대에 배속한다。

二. 韓國軍 총참모장

즉시 韓國軍 제17연대를 美 제25사단에 배속하라。美 제25사단은 배속된 트이기 여단 및 제17연대(韓國軍)를 통합 지휘하여 귀군 담당지구 伊川—平康—鐵原地區에서 작전할 것임。

三. 韓國軍 총참모장 및 美 제25사단장。

이 임무에 관하여 생기는 문제를 상호 협의하기 위하여 兩官間의 직접통신을 허가한다。

駐韓 美 제8군 사령관

부록 제20호

陸本作命 제239호 (陸軍本部, 서 울 1950. 11. 11. 24. 00)

一. 省略

二. 군은 일부 병력을 배속하려 함。

三. 1. 제17연대는 1950년 11월 11일 17.00附 陸軍本部 직할로부터 해제하고 同時에 美 제25사단에 배속한다。

2. 제17연대는 즉시 제25사단장의 지휘하에 들게하라。

3. 현재 배속중에 있는 포병중대 및 공병소대도 같이 포함된다。

4. 제17연대장은 美 제25사단장의 완전 장악하에 들면 즉시 전과를 보고하라。

四. 행정사항 : 변경 無

五. 통신사항 :

제17연대장은 陸本과 교신을 계속 실시하는 동시에 美 제25사단장의 통신에 관한 지시를 받으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21호

陸本訓令 제101호 (陸軍本部, 서 울 1950. 11. 13)

훈 령

국군 非行 엄금에 관한 件

目下로 군인은 물욕에 결백하고 국민에 친절하고 겸손함을 생명으로 한다。공산도배의 불법 남침 이래 국군장병은 일체를 無에 귀일시켜 오로지 失地회복만을 위하여 분투하였으며 우리의 전우는 조국의 승리를 믿었으며 또 付託하고 호국의 神이 되었다。그러나 전세가 급속도로 호전됨에 따라 목전의 승전에 도취한 일부 지휘관 및 장병은 자기의 성스러운 임무를 망각하고 전몰한 전우와 국가의 명예를 잊고 사욕에 사로잡혀 물욕은 탐내는 나머지 일선장병 가족후생이라는 美名下에 작전상 권수조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노획물자 및 점령지구내의 물품을 불법으로 후방에 반출하여 모리배와 결탁하고 形容할 수 없는 행동을 당당히 하고 있음은 실로 국군은 물론 국가장래를 위하여 크게 우려되는 바이다。물욕에 사로잡힌 군인이 조국에 충성을 다할 수 없음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 바이다。

去般 陸本 訓令 제77호로 下達한 바 있으나 不美한 행동은 日益증가하고 일선 장병의 사욕은 날로 심해가고 있는 현실임으로 재차訓令으로 엄히 下達하니 각급 지휘관은 이 취지를 명심하여 以身作則의 결심을 가지고 국군 역사상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

下記 사항을 특히 지적하는 바이니 소장병은 이를 명심하여 어김없이 준수할 것을 강조한다。아울러 만약 이에 위반하여 겨레의 명예에 추호라도 해를 끼치든지 또 군의 명예를 손상하는 자가 있으면 本職은 계급의 상하와 직책의 여하를 불문하고 극형에 처할 것을 경고한다。

記

一. 1950년 11월 10일附 陸本 軍需發 제51호의 엄수를 기할 일。

二. 서울지구 및 以南 도시에 산재하고 있는 각 군부대연락사무소를 폐지하고 11월 20일까지 원대로 복귀하라。

三. 각 부대 후생사업을 엄금함。

四. 本官의 허가없이 물자를 자유반출 및 처분함을 엄금함。

五. 정당한 가격을 지불치 않고 물자의 구입 및 취식을 금함。

六. 부녀자에 대한 치욕행위를 엄금함。

陸海空軍 總司令官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22호

陸本作命 제240호 (陸軍本部, 서 울 1950. 11. 14. 12. 00)

一. 1. 谷山 및 谷山郡 일대는 金榮이가 자휘하는 효성부대(金榮부대) 약 3,000명 외 南勞系 악질분자 등 匪賊 다수가 점령지 부근일대에 준동하고 있음。

2. 제2사단 제31연대는 서울에 있음。

二. 군은 일부 병력을 이동시키려 함。

三. 1. 제3군단장은 예하 제2사단 제31연대를 급속한 시일 내에 谷山(BT 9795)으로 이동 완료하라

가. 이동 개시일은 11월 15일 영시부터로 함。

나. 경로는 서울(CS 2158)~開城(BT 8605)~南川(BT 7446)~谷山(BT 979)道를 사용하라。

四. 행정사항 : 변경 無

五. 통신사항 :

제3군단장은 예하 제2사단 통신장교 1명을 陸本 통신감실에 출두케 하여 출동부대 제31연대의 통신사항에 관한 상세한 지시를 받으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23호

(1950. 11. 15. 08. 00)

作戰계획 제5호

지도 : AMS L302 大韓 100만분지 1

AMS L551 大韓 25만분지 1

군대구분 별지 제1호 참조。

一. a. 정보 : 별지 제2호 정보 참조。

b. 국제연합군은 滿浦南方 韓國 國境 南方 韓國전역을 점령 확보하기 위하여 공세작전을 계속하고 있음。

(1) UN 제1군단 美 제24보병사단 韓國軍 제1사단 및 英軍 제27 코만웰스 여단을 사용하여 현 확보진자로부터 D일 H시에 공격을 개시하여 大川 YE 1322지구 大川 東方고지 및 일반선 내청정 YD 0396~大川 YE 1322를 점령하라。군의 西方측면을 보호하고 계속해서 지구내 진출준비를 갖추라。

(2) UN 제9군단 美軍 제2사단 제25보병사단 및 제1 토이기 군관구 사령부를 사용하여 UN 제1군단 부대를 통과하라。운정 YE 4744지구를 공격 점령하라。일반선 영연동 YE 2831~운정 YE 4744를 공격 점령하라。계속해서 지구내 진출준비를 갖추라。

(3) 제9군단 포병대 제일 먼저 155미리 유탄포 1개대대 및 8吋유탄포 1개 중대를 가지고 BV 4913 및 수준기표에 이르는 선까지 韓國軍 제2군단을 증원할 준비를 갖추라。제2군단 지구내의 진지지구에 관하여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韓國軍 제2군단과 협의하라。

(4) UN 제10군단 :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c. UN항공군 :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d. UN해군 :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二. a. 韓國軍은

(1) 제2군단으로 하여금 D일 H시 현 확보진지로부터 공격을 개시하여 지구내 적을 섬멸하여 熙川 BV 6849지구를 점령하고 일반선 "제부라" 熙川 BV 6849~국화천 BV 8656~인조리 CV 1837 까지 진출하여 지구내 진출준비를 갖추려 함。

(2) 제3군단으로 하여금 주요보급로를 담당지구내의 통과 적을 격멸하려 함。

b. 제2군단 공격 개시선 및 전투지경에 관하여서는 별지 제3호 b 제2군단 작전 투명도를 참조하라。

三. a. 제2군단

(1) 일반선 BV 4513부터 CV1013에 이르는 선에 공격개시선을 확보하고 D일 H시 계속 진출 준비를 갖추라。

(2) D일 H시 현 확보진지로부터 공격을 개시하여 지구내의 적을 섬멸하라。熙川 BV 6849지구를 점령하라。일반선 "제부라" 熙川 BV 6849~국화천 BV 8656~인조리 CV 1837까지 진출하라。

(3) 군의 東方 측면을 보호하라。

(4) 인조리 CV 1837 부근에서 UN 제10군단 부대와 접촉을 유지하라。

(5) 진출에 관하여 左側面의 UN군 9군단과 협조하라。

(6) 주력 공격을 지연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통과하는 적을 섬멸하라。

(7) 主力의 기습을 피할 수 있을 만큼 側面 및 후방경비대 병력은 충분하여야 함。야간 경비에 특히 유의하라。

(8) 이 본부의 명령이 있는 즉시 한국의 북방 국경까지 진출할 준비를 갖추라。

b. 제3군단

(1) 첨부한 작전투명도(별지 제3호 a)에 표시한 할당지구를 수송기관이 이용되는 대로 첨부한 이동표(별지 제4호)에 의거하여 인수 담당하라。

(2) 주요 보급선을 보호하고 지구내 통과 적을 섬멸하라。

c. 工兵(별지부록 제5호 참조)

X. (1) 필요한 협조를 하는데 있어서 인접 군단장간의 직접통신은 가능함。

(2) UN군은 UN군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제3군단 지구내의 시설관리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3) 서울 (C S 2258) 및 平壤 (YD 3920)으로 가는 또는 上記 양지점을 통과하는 부대이동은 이 본부에서 명령 지시하여야만 가능함。

(4) D일 H시는 후달할 것임。

四. 행정사항

이 본부발행명령 제12호 참조。

五. 통신사항

a. (1) 현 통신규정 유효

(2) 무전 및 연락병을 최대한으로 사용하라。

b. 지휘소 소재지

(1) 陸軍本部——서울

(2) 제 2 군단——順川

(3) 제 3 군단——大田

c. 통신축선

(1) 軍 서울——平壤

(2) 제2군단 順川—德川—球場洞

총 참 모 장

부록 제24호

陸本作命 제241호 (陸軍本部 서 울 1950. 11. 16. 17.00)

지 도 : 大韓 百만분지 1, 25만분지 1

군대구분 : 별지부록 제1호

一. 적정 별지부록 제2호

二. 군은 일부 병력을 이동 배치하려 함。

三. 제3군단은

1. 별지부록 제3호 작전투명도에 표시된 할당지구에 별지 이동표(별지 부록 제4호)에 의거하여 이동 완료하는 동시에 담당지역내의 적을 섬멸하라。

2. 제3군단장은 주요 보급로를 보호하며 담당지구내의 준동하는 잔적을 격멸하라。

3. 工兵, 별지부록 5호 참조

4. 이동 현상을 매일 05.00, 11.00, 17.00, 23.00 현재로 陸本에 보고하라.

X1. 필요한 원조를 하는데 있어서 인접 군단장간의 직접통신을 허가함。

2. UN군은 UN군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제3군단 지구내의 시설관리 임무를 계속 수행함。

3. 서울 및 平壤으로 가는 또는 兩地點을 통과하는 부대이동은 陸軍本部에서 명령하여야 가능함。

四. 행정사항 행정명령 제12호 참조。

五. 통신

a. 1. 현 통신규정 유효

2. 무전 및 연락병을 최대한으로 사용하라。

b. 지휘소 소재지

1. 陸軍本部 서울

2. 제 2 군단 順天

3. 제 3 군단 大田

c. 통신축선

1. 軍 서울—平壤

2. 제2군단 順川—德川—球場洞—熙川

총 참 모 장

부록 제25호

陸本作命 제241호 훈령 제1호 (陸軍本部 서 울 1950. 11. 17. 12.00)

訓 令

제3군단 장

제2사단 장

제5사단 장

一. 1950년 11월 17일 24.00附로 제2사단을 현재 위치에서 제3군단 배속으로부터 해제하고 陸軍本部 직할로 한다。

二. 1. 제5사단은 현재 진행중인 서울로의 이동을 계속하라。

2. 서울 도착과 동시에 제5사단은 제3군단 배속으로부터 해제하고 陸軍本部 직할로 한다。

三. 전투지경 별지부록 작전명령도 제3호 참조。

총 참 모 장

부록 제26호

陸本作命 제242호 (陸軍本部 서 울 1950. 11. 17. 12.00)

지 도 : 25만분지 1

一. 鐵原방면에서 준동중이던 共産軍 패잔병의 일부는 加平, 淸平을 위협중이고 華川일대를 점령한 共産 패잔병 및 楊口를 점령한 共産軍 패잔병은 春川 東北方 7.8km 지점 산악 일대에서 春川을 점령하고저 南下中에 있음。

二. 軍은 일부 병력을 이동하여 春川 방면의 적을 완전히 섬멸하려 함。

三. 1. 제3군단장은 제2사단장으로 하여금 제31연대의 이동을 중지케하고 즉시 春川方面에 이동케

하라。

2. 제2사단장은 제31연대를 1950년 11월 17일 서울을 출발, 清平을 경유, 加平에 전진 부근의 적을 소탕 진로를 개척한 후 春川에 진출시키라。

3. 제31연대장은 主力을 가지고 春川에 진출하면 유격사령부가 수행중에 있는 현 임무를 교대 인수하고 楊口, 華川방면으로부터 침투하는 적을 포착섬멸하라。

4. 현재 盆山에 이동중인 제1대대는 서울에 복귀하는 즉시 주력을 급진하라。

5. 유격사령관 金冠五 대령은 예하 1, 2, 7대대를 1950년 11월 17일 12.00附 제2사단장에게 완전히 인계하라。

X. 제2사단장은 예하 각 부대 상황을 매일 05.50, 12.00, 17.00, 24.00에 보고하라。

四. 1. 변경없음

2. 이동에 소요되는 차량은 陸本 군수국장에 신청하라。

五. 통신사항

통신규정에 의거하여 통신을 실시하라。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27호

陸本訓令 제102호 (陸軍本部 서 울 1950. 11. 17. 14.15)

훈 령

예하 全軍位隊 貴下

一. 국제연합군 土耳其 여단 경비행기의 표지를 기술 시달하니 예하 전원에게 주지시키라。

1. 翼(下面) 白色 외곽을 두른 赤色 사각형

2. 胴體(양측) 白色 외각을 두른 赤色 사각형

3. 尾(방향타에 한하여 양측에) 全面 赤色으로 된 方向舵上에 3일 日과 星(土耳其 국기)

총 참 모 장

부록 제28호

作戰訓令 제4호(1950년 11월 15일 8시附 陸本發 作戰계획 제5호의 수정임)

(陸軍本部 서 울 1950. 11. 18. 01.00)

韓國 제2군단장 귀하

1. 1950년 11월 15일 08.00시부 陸本發 작전계획 제5호를 작령 제243호로 개칭하여 下記와 같이 수정을 가하여 실시하라。

a. D일은 1950년 11월 24일 H시는 후달。

b. 제2항 a(1)를 하기와 같이 수정함。

제2군단을 사용하여 D일 H시에 현 확보진지로부터 공격을 개시하여 지구내 적을 섬멸하고 院站(BV 7351) 菊花站(BV 8556) 仁照里(CV 1837) 를 연하는 일반선에 진출하여 계속 진출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라。

c. 1항 b(3)을 삭제함。

d. 韓國軍 제2군단과 美 제9군단전투지경을 下記와 같이 변경한다。현전투지경선부터 北倉里(YD 5577)까지 거기서 西倉(BV 5901)까지 西北向 거기서 (BV 7139)지점 寺刹까지 西北向 거기서 淸凉洞(BV 6958)까지 北向 거기서 現 전투지경선상 甘站(BV 5385) 지점까지 북향(별지—제2군단, 제9군단 전투지경 변경)

e. 1항 b(2)를 下記와 같이 변경한다。

美 제2사단, 제25사단 및 제1토이기군관구사령부를 이용하여 UN군 제9군단은 UN 제1군단 및 한국군 제2군단 부대를 통과하라。

熙川(BV 6849) 및 溫井(YE 4744) 지구 및 영연동(YE 2831)—溫井(YE 4744)—熙川(BU 6849)를 연하는 일반선을 공격 점령하여 지구내 진출 준비를 갖추다。

f. 3항 a(2)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A일 H시에 현 확보진지로부터 공격을 개시하여 지구내 적을 섬멸하고 院站 BV 7351—菊花站(BV 8556)—仁照里(CU 1837)를 연하는 일반선까지 진출하라。

二. 전투지경을 변경하고 공격에 관한 협조를 하기 위하여 군단장 간의 직접 통신을 허가한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29호

陸本作命 제243호 (陸軍本部서울 1950. 11. 18. 10.00)

지도 : 백만분의 1. 25만분의 1

一. 적은 제2군단 정면에서 후퇴기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병력으로서 美 제1군단과의 경계를 타서 南下중에 있음。

二. 군은 공격移轉을 취하여 당면의 적을 섬멸하려 함。

三. 1. D일을 1950년 11월 24일, H시는 후달함。

2. 제2군단은 D일 H시에 현 확보진지로부터 공격을 개시하여 地區內 적을 섬멸하고 院站 (BV 7351), 菊花站(BV 8556) 仁照里(CV 1837)을 연하는 일반선에 진출하여 계속 진출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라。

3. 제2군단과 美 제9군단 전투지경을 左記와 같이 변경한다。

현 전투지경선부터 北倉里(YD 5577)까지 거기서 西倉(BV 5901)까지 西北向 此地에서 BV 7139 지점 寺刹까지 西北向 此地에서 淸凉洞(BV 6958)까지 北向 此地에서 현 전투지경선상 甘站(BV 5385) 지점까지 北向(별지 투명도 참조)

4. 전투지경 변경된 사항 및 공격에 관한 협조를 하기 위하여 군단장간의 직접통신을 허가한다.
四. 행정명령 제12호 참조。
五. 변경 없음。

총 참 모 장

부록 제30호

陸本作命 제244호 (陸軍本部 서울 1950. 11. 18. 16.00)

지도 : 25만분의 1

一. 省 略

二. 군은 일부 병력을 이동하려 함。

三. 1. 1950년 11월 19일 12.00附로 제3, 제5, 제6 유격대대를 제3군단으로부터 배속을 해제하고 제2사단에 배속한다。

2. 제2사단장은 前記 배속병력을 통합지휘 下記와 같이 배비하여 관하 잔비토벌의 만전을 기하라。

가. 제3유격대대 江陵(DS 9177)

나. 제5유격대대 蔚珍(ER 2996)

다. 제6유격대대 三陟(ES 1443)

四. 행정사항 : 변경 없음。

① 이동부대는 통신장비기재를 携行하고(사단소속 相違時의 요 보관 전환 및 처리) 통신규정에 의거 실시하라。

② 제3유격대대장은 江陵 도착과 동시 橫城, 江陵間 電話線 1회선을 江陵 우편국 교환대로부터 대대본부 교환대로 이전 접결하여 橫城중계 城武臺와 대대본부간 有線 통신망을 구성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31호

陸本訓令 제103호 (陸軍本部 서울 1950. 11. 18. 18.00)

훈 령

一. 貴 제25사단 배속에서 해제되면 제17연대는 韓國軍 제2사단에 배속된다。제17연대 본부는 平康으로 이동하라。

연대는 平康(CS 5152) 鐵原(CS 4334) 金化(CS 6539) 지구를 제31연대와 교대 받을 때까지 담당지구 殘匪소탕에 만전을 기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32호

陸本作命 제245호 (陸軍本部 서울 1950.11.18. 24.00)

一. 省 略

二. 軍은 作戰의 진보에 따라 陸軍本部 일부를 전진 이동시키려 함。

三. 1. 陸軍本部 해당 局監은 별지 이동계획표에 의거하여 서울을 출발 1950년 11월 23일 08.00부터 新位置에서 작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라。

2. 선견대의 책임관은 본부 사령이며 후발대는 정보국장이 지휘한다。따라서 이동축선은 서울~開城~南川店~沙里院~平壤으로 한다。

四. 행정사항

1. 수송은 자대차량에 의거 실시하되 요 철도수송병력 및 급수품은 군수국장의 지시를 받으라。

2. 가타는 변경 없음。

五. 통신사항

既設有無線을 최대한 이용하라。

총 참 모 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33호

陸本訓令 제104호 (陸軍本部 서울 1950.11.19. 01.00)

訓 令

一. 1950년 11월 15일 作戰계획 제5호를 참조하라。

二. 軍은 11월 24일 공격개시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려 함。

三. 1. 제2군단장은 가능한 한 신속히 공격 출발 예정선인 左 전투地境으로부터 사동(BV 5413) 寧遠(BV 9012)을 지나 右 전투 地境까지에 이르는 선에 공격 진출하라.

2. 공격 개시선을 점령 확보하면 강행 정찰을 실시하고 局部的 공격을 加하여 적으로 하여금 균형을 잃게 하라。따라서 공격 개시선 주위에 있는 好適地形을 확보하며 가일층 유효적인 陣地가 있으면 그 선까지 전출하라。

3. 前線의 각 부대는 강력한 전투를 수행하여 저항하는 적을 최대한으로 격파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34호

陸本作戰訓令 제5호 (陸本作命 제243호 수정) (陸軍本部 서울 1950.11.22. 08.00)

使用지도 : 25만분지 1 大韓

一. 加平—春川—華川—鐵原—漣川—伊川—平康 지구에서 준동하는 적은 주보급로 및 군 후방 시설에 대하여 막대한 위협을 야기하고 있음。

二. 가. 군은 군예비인 제2, 제5사단으로 하여금 차단점을 설치하고 전진軸線을 따라 소탕작전를 실시하여 담당지구내 적을 섬멸하려 함。

나. 전진軸線 차단점 및 최대목표 부록 제1호 작전투명도 참조。

三. 가. 제2사단

1. 제27연대를 사용하여 漣川~鐵原부근에 차단점을 설치하고 南 또는 西南으로 향하는 적 행동을 저지하는 동시에 접촉하는 모든 적을 완전 섬멸하라。
2. 제31연대를 사용하여 春川부근에 차단점을 설치하고 東南 및 東을 향하는 적 행동을 저지하는 동시에 접촉하는 모든 적을 완전 섬멸하라。
3. 清平里부근에서 제32연대의 개편을 계속하고 개편 완료 즉시로 제32연대를 原州부근으로 이동하여 담당지구 경비책임을 담당케 하라。
4. 청평리 부근 수력발전소 및 "댐"에 대한 경계를 확립하라。
5. 제5사단 부대가 통과한 후에는 포병 제20대대의 배속을 해제하고 同대대에 대한 지휘권을 제5사단에 인계하라。
6. 제5사단 부대가 제31연대를 통과한 후에는 제31연대를 平康으로 이동하여 담당지구 경비책임을 담당케 하라。
7. 제5사단 부대가 제17연대를 통과한 후에는 제17연대를 谷山으로 이동하여 담당지구 경비책임을 담당케 하라。

나. 제5사단

1. 26일 06.30 제36, 제27연대를 사용하여 加平—春川—金化—平康—伊川軸線을 따라 공격을 실시 전진선내 모든 적을 완전 섬멸하라。
2. D일 H시에 제35연대를 사용하여 議政府—자작리(CS 4062)—문해리(CT 5227)—강산리(CT 4839)—다람당(CT 2851)—상화암리(1151) 軸線을 따라 공격을 실시 전진軸線上의 모든 적을 완전 섬멸하라。
3. 伊川을 확보하는 즉시로 제36연대로 하여금 市邊里—南川店軸線을 따라 南川店까지 계속 진출케 하는 동시에 전진 軸線上의 모든 적을 완전 섬멸케 하라。

제36연대는 南川店 도착과 동시에 담당지구 경비를 담당케 하라。

4. 伊川을 확보하는 즉시로 제27연대로 하여금 谷山까지 소탕작전을 계속 전진軸線上의 모든 적을 완전 섬멸케 하라。

제27연대 谷山 도착과 동시에 平壤까지 계속 이동 담당지구 경비책임을 담당케 하라。

5. 제35연대는 상화암리 도착과 동시에 서울까지 계속 이동 담당지구 경비책임을 담당케 하라。
6. 제2사단이 완전 통과하는 즉시로 제20 포병대대의 작전지휘권을 장악하라。

① 모든 전진은 粗雜地를 지처 廣大한 정면을 保持하여 행하며 주요도로는 보급로로만 사용하라。

② 각 부대는 집단적인 적에 대하여 최후적 공격을 가하기 전에 만반 노력을 다하여 가능한 적의 퇴로를 차단하라。적을 분산시키지 말고 필히 완전 섬멸하라。

③ 제2, 제5사단은 부록 제2호(전투지경)에 규정된 최후 전투 지경선 및 연대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대책임담당 지구를 배정하라。

④ D일 H시는 陸軍本部에서 후달한다。

⑤ 정확한 협조를 하기 위하여 제2, 제5사단간 및 각 연대간의 직접통신을 허가한다。

四. 최후 목표를 점령할 때까지 제5사단 및 제31연대 보급소는 서울에서, 제27연대 보급소는 漣川에 위치함。기타 후방지원은 行政命令 제12호의 규정과 동일함。

五. 통신사항

a. 現 통신규정을 사용하라。

b. 지휘소 소재지

① 陸軍本部—서 울

② 제 2 사단—清平里

③ 제 5 사단—서 울

c. 통신축선

① 제1사단 : 清平—加平—春川

② 제5사단 : 서울—加平—春川—金化—南川店

총 참 모 장

부록 제35호

陸本作命 제243호 訓令 제6호 (陸軍本部 서울 1950. 11. 23. 12.00)

一. 加平~洪川~春川~鐵原~漣川~平康지구에서 준동하는 적은 주보급로 및 군 후방시설에 대하여 甚大한 위협을 야기하고 있음。

二. 가. 군은 일부병력의 배비를 변경 소탕작전을 실시 담당지구내의 적을 포착 섬멸하려함。

나. 별지 부록 제1호 작전투명도 참조。

三. 가. 제5사단

1. 제36연대는 1개대대로 하여금 清平보급기지의 左側方을 경계케 하고 主力으로 하여금 左側 산악의 소수 匪徒를 소탕하면서 우회 제2사단 제31연대(欠 1개대대)와 배비 교대한다。

2. 右翼隊인 제27연대는 左翼隊인 제36연대의 L.D선에 도달시까지 국부적인 공격을 실시하여 사단 主攻부대에 策應助攻한다。

나. 제2사단

1. 제31연대(欠 1개대대)는 제5사단 제36연대와 배비 교대하는 대로 차량기동으로서 洪川線에

急速, 春川方面에서 작전중인 예하 제1대대 및 제32연대 편성 보충요원으로서 현재 洪川에 있는 450명을 통합지휘하여 사단 주력과 합세한다.

2. 제32연대는 즉시 서울로 이동 집결하여 개편 특히 美式장비화 한다.

X 戰線배비 교대는 11월 25일 11.00까지 교대완료하고 투명도와 같은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四. 1. 보급 제1 및 제3종 보급 제5사단 서울驛遡보급소

2. 기타는 陸本命令 제12호에 의하라.

五. 變更 無

총 참 모 장

부록 제36호

陸本作命 제243호 훈령 제7호 (陸軍本部 서울 1950. 11. 24. 08.00)

訓 令

1950년 11월 23일 24.00附로 제5사단을 제3군단 배속으로부터 해제하고 陸軍本部 직할로 한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37호

陸本作命 제243호 修正訓令 제9호 (陸軍本部 서울 1950. 11. 25. 18.00)

訓 令

一. 1950년 11월 22일 02.00附 陸本作戰 훈령 제5호(作命 제243호 수정훈령 제5호)。 제3조 5항 및 6항은 이를 취소함。

二. 1950년 11월 25일 24.00附로 제20포병대대(缺 A중대)를 제2사단 배속으로부터 해제하고 제5사단에 배속시켜 그 작전지휘하에 들게 한다。

三. 제20포병 대대의 제1중대(A)는 종전과 같이 제2사단 제17연대에 계속 배속 한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38호

陸本訓令 제105호 (陸軍本部 서울 1950. 11. 26. 17.00)

訓 令

一. 군은 地區 방위사령부에 대하여 左記와 같이 병력 운용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지휘계통을 명확히 하고 作戰운용에 적절을 기하려 한다。

二. 地區 방위사령부는 담당 지구내의 방위 업무를 관장한다。따라서 모든 군사기관 및 부대는 방위

업무상 同司令官의 區處를 받는다(단, 陸本은 除外).

단, 병력 운용에 있어서는 使用 2시간 前 총참모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경우에는 獨單活用으로 병력사용의 권한을 행사하되(단 서울 市를 제외한다). 上部 기관의 기도를 명찰하고 大局을 판정하여 상황의 변화에 즉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량의 방법을 강구하고 그 경위를 48시간 내에 총참모장에게 보고함을 요한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39호

陸本作命 제243호 훈령 제10호 (陸軍本部 서울 1950. 11. 27. 10. 30)

訓 令

. 군은 1950년 11월 27일 24.00까지 萬難을 극복하고 鐵原(CT 4033)~文恵里(CT 5327)~春川(CS 8994)~冠堡里(DS 3073)를 연하는 제1차 진출예정선까지 진출하려 함.

. 1. 제5사단

가. 제27, 제30연대는 현재 진출 중에 있는 전진축선을 따라 즉시 春川線까지 진출하라.

나. 제35연대(缺 제1대대)는 議政府(CS 2878)~漣川(CT 4916)의 축선을 따라 文恵里(CT 4327)線까지 즉시 진출하라.

다. 제35연대의 제1대대가 議政府(CS 2878)에 도달하면 下記 축선을따라 제36연대와의 間隙을 湔滅하고 즉시 공격진출시켜라.

라. 議政府(CS 2878)~抱川(CS 4495)~신상리(CS 5589)~청룡리(CT 6104)~광동리(CT 6418)~金化(CT 6538)~동망里(CT 5235)線

마. 작전지휘소의 소재에는 변경없음.

2. 제2사단

가. 제17연대는 풍망리(CT 3328)~마전里(CT 3331) 축선을 따라 鐵原선까지.

나. 제31연대 주력 제1, 2대대는 洪川~元昌里(CS 9286) 축선을 따라 春川까지, 제3대대는 洪川~揷金里(DS 3073) 축선을 따라 冠堡里(D S 3073)까지 각각 진출하라.

다. 제17 및 제31연대는 각각 진출 예정지점에 도착하면 즉시 강력한 차단점을 설치하고 南方 및 東南方 혹은 西南方으로 이동하는 적을 차단 섬멸하라.

X 전진 각 부대는 전진축선 연선의 적을 철저히 수색 섬멸하라.

전진 각 부대는 공격전진시 특히 横的 연계를 긴밀히 하여 적으로 하여금 我 후방 잠입을 차단 방지하는 동시에 철저히 포착 섬멸하라.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40호

陸本訓令 제106호 (陸軍本部 서울 1950. 11. 27. 12.00)

訓 令

組織體 制定에 관한 件

一. 이는 전투중 난잡한 후퇴로 인하는 전력소모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조직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二. 共匪는 침범이래 다수한 전투를 통하여 혹은 정보획득戰을 통하여 혹은 자대내의 不意의 반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조직력은 확실히 강력하였다。 이것은 아군의 痛擊을 받았을 때의 정연한 후퇴와 기회를 잃지 않는 再반격 등으로서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따라서 我軍의 전투수행에 있어서는 加益 곤란을 초래하게 되었었다。

이에 鑑하여 군은 종전보다 더욱 강력한 조직을 확립시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일환 단합시켜 국토통일 성업과 민주보루의 첨병적 역할을 영원히 촉진시키고저 한다。

세부는 別表에 의거하고 일부는 下記와 같다。

追 記

각 군단 장은 예하부대에 강력히 지시하여 조속한 시간에 실행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라。

記

普 通 部

1. 分隊下에 3개組를 두고 1개조에 3인씩。
2. 組에 조장을 두고 조장은 조원을 지도 및 감찰한다。
3. 分隊長은 부분대장의 보좌를 받아 각 관하 조장을 지도 감찰한다。
4. 政訓요원은 자기관하 장병에게 일일政訓 교육재료를 준비하여 각 조장에게 配布 조장으로 하여금 전투 중 혹은 小休憩時라도 교육토록 하라(특히 강요하는 바임)。

特 殊 部

1. 각개조원 상호간에 일정한 監察 및 협조체제를 설치하라。
2. 각 분대장은 직접 처벌권을 부여한다(陸本訓令 제68호 참조)。

총 참 모 장

부록 제41호

陸本訓令 제107호 (陸軍本部 서울 1950. 11. 27. 12.00)

訓 令

. 현병사령관은 예하 헌병 1개중대를 1950년 11월 27일 24.00까지 平壤에 증파하여 헌병 부사령관 지휘하에 들게 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42호

陸本訓令 제108호

원본 缺

부록 제43호

陸本作命 제246호 (陸軍本部 서울 1950. 11. 28. 12.00)

지도 : AMS L552 25만분지 1

군대구분 : 부록 제1호 군대구분 참조。

. 일반상황

1. 적정 : 우수한 교육을 받고 적절한 장비를 갖춘 정규부대 및 유격대로 구성된 적은 鐵原 및 春川 부근 산악지대 일대에서 준동하고 있다。제4, 제9, 제10, 제12사단으로써 편성되었던 약 1만 내지 2만으로 추산되는 적은「金策」이 지휘하는 人民軍 제2군단 예하에 속하였었다。병력은 극소수이라고는 하나 각 사단의 연대 병력은 각각 도합 4백 내지 8백이다。그러나 제10사단만은 예외로서 도합 8천 내지 9천으로 추산된다。이들 적 부대는 그들의 현 진지에서 또는 아군의 전진로를 따라 연속되어 있는 진지에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그 외에 아군 주요부대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대열을 기습하고 국부적 반격을 실시할 수도 있다。
2. 가. 美 제1군단 및 제9군단은 (YD 0509)지점 淸川江口로부터 東北 楡川(YE 2100) 東方 院里(YE 5005) 東南 北倉里(BU 7186) 東南 泰乙里(CU 0859)를 연하는 일반선으로 후퇴하여 이 선상에서 방어, 조속한 시일 내에 공세 이전을 실시할 것임。
3. 美 제10군단은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임。
4. 극동 방면 공군은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임。
5. 극동 방면 해군은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임。
1. 군은 담당지구내의 적을 계속 섬멸하려 함。
2. 전투지경 : 부록 제2호 작전투명도 참조。

. 1. 제2군단은

가. 제6사단(加 제3연대)을 즉시 美 제9군단에 배속하라。

나. 석주리(BU 5621) 부근에서 제7사단 및 제8사단의 재편을 계속하라。

다. 當 本部 명령에 의하여 부과될 장차 임무에 대한 준비를 갖추라。

2. 제3군단은 담당지구내 적을 섬멸하는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부록 제2호 작전투명도 참조)

3. 제2사단은

가. 1950년 11월 29일 11.00부로 제31연대를 제5사단에 배속하고 제35연대를 통합지휘하라。

나. 1950년 11월 29일 14.00附로 제1, 제2, 제3 경비대대를 제5사단에 배속하라。

다. 1950년 11월 29일 24.00附로 포병 제30대대를 통합 지휘하라。

라. 즉시 제35연대를 담당지구로(부록 제2호 작전 투명도 참조) 下記와 같이 배속하라。

1. 연대본부 및 1개대대~汝山里(CS 0591)

2. 1개대대……金川(BT 7927)

3. 1개대대……九化里(CT 0918)

高浪浦里(CT 1106)

간에 배치하고 兩지점에 있는 대대병력을 주둔 시켜라。

제35연대로 하여금 주보급로 및 臨津江 渡河點을 경비케 하라。

마. 제32연대를 議政府(CS 2878) 부근에서 계속 재편하라。각 대대가 작전 가능하게 되는대로 우선 議政府—자작里—문해里 축선상의 차단점 설치에 사용하라。부대가 완전히 작전가능케 되면 제32연대로 하여금 자작里—문해里—鐵原—장포리 축선을 따라 공격을 실시하여 진출 선상의 모든 적을 완전 섬멸케 하라。

바. 上記 3. 마항 및 3. 바항의 임무를 완수하는 즉시로 제17연대 및 제32연대를 담당지구 내의 여하한 잔적에 대하여도 혹은 침투하여올 여하한 적에 대하여도 최대효과를 발휘하여 작전할 수 있도록 배치하라。

사. 陸本 명령이 있을 때엔 현 담당지구 북방 및 서방지구에 대한 책임을 추가 담당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

4. 제5사단은

가. 1950년 11월 29일 11.00부로 제35연대를 제2사단에 배속하고 제31연대를 통합 지휘하라。

나. 1950년 11월 29일 24.00부로 제1, 제2, 제3 경비대대를 통합지휘하라。

다. 1950년 11월 29일 24.00부로 포병 제20대대(缺 1개대대)를 제2사단에 배속하라。

라. 1950년 11월 20일 24.00부로 포병 제26대대를 통합지휘하라。

마. 春川—金化—平康—伊川—谷山축선을 따라 계속 공격을 실시하여 진출선상의 모든 적을 完全 섬멸하라。

바. 上記 4 마항의 임무를 완수하는 즉시로 부대를 담당지구내의 여하한 적에 대하여도 혹은 침투하여올 여하한 적에 대하여도 최대효과를 발휘하여 작전할 수 있도록 배치하라。

사. 陸本명령이 있을 때엔 북위 39°線 以南의 美 제10군단 담당지구에 대한 책임을 담당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

X (가)모든 진출은 광대한 정면을 保持할 粗雜地를 통과하여 행하여야 하며 중요도로는 보급로로만 사용하라.

(나)각 부대는 집결된 적에 대하여 공격을 실시하기 전에 전반 노력을 다하여 예상되는 적의 퇴로를 차단하라. 적을 분산시켜서는 안되며 필히 완전 섬멸하여야 한다.

(나)정확한 협조를 하기에 필요할 때에는 각 관계본부 간의 직접통신을 허가한다.

四. 1950년 11월 2일부 行命 제12호 수정 제1호를 참조하라.

五. 통신사항

1. 현 통신규정을 사용하라.

2. 지휘소 소재지

가. 陸軍本部—서 울

나. 제2사단—議政府

다. 제5사단—春川(현재 加平)

2. 통신 축선

가. 제2사단 : 議政府~와초리~市邊里

나. 제5사단 : 春川~金化~平康~伊川~谷山

총 참 모 장

省略 : 作命 제246호 부록 제1호

부록 제44호

陸本訓令 제109호 (陸軍本部 서 울 1950. 11. 28. 12.00)

訓 令

一. 1. 제2사단

가. 제32연대는 서울에서 11월 28일 개편 완료됨.

나. 제31연대는 洪川(CD 0270) 지구에서 작전 임무 수행중.

2. 제5사단

가. 제35연대(缺 1대대)는 抱川(CS 4295) 지구에서 경비중

나. 제35연대의 제1대대는 晋州로 이동중에 있음. (DP 0694)로부터 (SE 9000)

3. 경 비

가. 1개대대의 병력은 加平지구에서 경비 임무 수행중.

나. 1개대대는 서울에 있음.

二. 1. 내무부 비상경비 사령부

가. 加平지구 경찰대대 1개대대 및 서울지구에서 편성된 경찰 1개대대를 즉시 議政府(CS 0478) 抱川(CS 4295)線을 따라 文峴里(CT 3525)線에 진출하여 該지구 경비임무를 담당하라.

나. 장차 도착되는 제32연대와 협동하는 同時에 제2사단장의 작전지휘를 받게 하라.

다. 서울大隊의 抱川까지의 이동수송은 군에서 담당한다。

2. 제2사단

가. 1호의 경찰 2개대대를 통합 지휘하라。

나. 제32연대는 11월 30일 24.00까지 議政府(CS 4295)—抱川(CT 5325)線을 따라 文惠里(CT 5325)에 진출하여 담당지구 경계책임을 담당하라。

3. 제5사단

가. 제35연대는 新配屬되는 경찰대대에게 抱川지구 경계책임을 인계하고 11월 29일 24시까지 下記와 같이 이동 배치 완료하여 담당지구의 경비책임을 담당하라。

記

(1) 연대본부 및 1개대대는 汝山(CS 0692)에

(2) 1개대대는 金川(BT 7927)에

(3) 1개대대(현재 이동중인 제1대대)는 高浪浦里(CT 1106)에

총 참 모 장

부록 제45호

陸本訓令 제110호 (陸軍本部 시 1950. 11. 29. 17.00 올)

訓 令

1. 1950년 11월 29일 12.00附로 제3군단의 北部전투지경을 下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현 전투地境上 (CS 8818) 지점으로 부터 문방리(CS 9528)를 통과하여 橫城(DS 1149)에 이르기까지 河川線을 따라 東北向, 거기서 下安興里(DS 2540)를 통과하여 (DS 4542)지점까지 도로를 따라 東南向, 거기서 (DS 4118) 지점까지 평창江을 따라 南下하여 河岸까지 현 전투지경을 따라 東向함(別紙투명도 참조)

총 참 모 장

부록 제46호

陸本訓令 제111호 (陸軍本部 시 1950. 11. 29. 22.30 올)

訓 令

O(오) 地區 설정에 관한 件

一. 이는 폭격선 후방에 특정지구로서 O지구를 규정하여 同지구내에서는 空地연락없이 誘導機 혹은 탑승자 관측으로 운동하는 잔비폭격의 簡便을 기하여 종전보다 많은 폭격의 효과를 걷우기 위한 것이다。

二. 지휘관은 예하 전장병에게 O地區로서 규정된 諸지역을 통고할 책임이 있다。

三. 각 군단 각 사단은 그 翌日에 O地區로 규정할 지역을 좌표로 매일 04.00까지 보고 하라。

四. 이 지구 설정으로 인하여 야기될 우려가 있는 부위한 인명의 피해 및 불필요한 파괴를 미연에 방지키 위하여 下記 사항을 예하 부대에 임달 실시케 하라。

1. O지구 설정은 신중 면밀히 할 것。
2. 對空 식별과 대공 표지를 확실히 할 것。
3. 布板을 소유치 않는 부대는 O지역내에 머물지 말 것。
4. 지역내에서는 正服, 民間人 복장을 불문코 友軍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집단에 대하여서는 공격을 한 것임。
5. 공격을 요하는 시간을 명백히 할 것。

총 참 모 장

부록 제47호

陸本訓令 제112호 (陸軍本部 서 울 1650. 11. 30, 12.00)

訓 令

전물사용에 관하여 일부 주의를 환기하는 바이니 각급 지휘관은 그 감독 및 보존에 만전을 기할 일。

現今, 군소유물의 不足 및 혐소로 인하여 각 부대는 문교부 소관의 학교건물 또는 사회의 일반 민간소유 건물 기타 군소유 아닌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예가 많은나 該건물의 비품, 기타 부수물을 파손하거나 심지어는 난방용으로 연소하는 등 국가재산을 고의로 소모하는 행위가 극심하여 관계당국 및 민간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게 하며 또 받고 있음은 각급 지휘관의 예하 장병에 대한 교육 감독과 국가 재산에 대한 애호심의 결핍으로 인한 것임。

각급 지휘관은 그의 부당함을 부하 전 장병에게 철저히 교육, 시달하여 부하 장병으로 하여금 이와같은 과괴행위가 소無토록 철저히 단속하여 국가재산의 애호보존에 만전을 기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48호

陸本作命 제247호 (陸軍本部 서 울 1950. 12. 1. 08.00)

지도 : 5만분지 1

一. 최근 정보에 의함。

二. 군은 수도방위에 만전을 기하려 함。

三. 1. 수도 방위사령관은 별책 수도방위 계획에 의거하여 1950년 12월 7일까지 병력 배비를 완료하고 수도방위에 만전을 기하라。

2. 수도 방위사령관은 1950년 11월 26일 17.00附 陸本訓令 제105호에 의하여 수도 현존 각부대(국방부, 육본을 제외함) 치안국 산하 재경 경찰병력 일체, 수도 방위 관구내 주둔 병력 일체를 수도 방위업무에 관한 한 통할지휘하라。

3. 여하한 부대라 할지라도 일단 수도에 이동케 되면 駐留기간 장단을 막론하고 수도방위 업무에 관한 한 방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다。

4. 수도방위 사령관은 이 계획에 의거하여 세부계획을 작성 1950년 12월5일 한 陸本에 제출하라。

5. 수도 방위사령관은 일일 현황을 매일 17.00까지 陸本에 보고하라。

四. 행정사항 省略

五. 통신사항 省略

총 참 모 장

부록 제49호

陸本訓令 제113호 (陸軍本部 서 울 1950. 12. 12.00)

訓 令

一. 1950년 11월 29일 20.00附 陸本作命 제246호의 作命番號를 제248호로 修正함。

총 참 모 장

부록 제50호

陸本作命 제248호 (陸軍本部 서 울 1950. 12. 29. 08.00)

지도 : 25만분지 1 大韓

一. 1. 省略

2. 砲兵 제20 및 제26대대는 1950년 11월 29일 24.00附 일반명령 제114호에 의하여 각각 배속이 변경되었음。

二. 군은 일부 포병의 이동 및 배속을 변경하려 함。

三. 1. 1950년 11월 29일 24.00附 포병 제20대대는 제5사단으로부터 포병 제26대대는 제9사단으로부터 각각 배속을 해제하고 동시에 포병 제20대대는 제2사단으로 포병 제26대대는 제5사단으로 각각 배속한다。

2. 제5사단장은 포병 제20대대(缺1)를 1950년 12월 1일 17.00까지 議政府에 이동시켜 제2사단장의 지휘하에 들게하라。

3. 제9사단장은 포병 제26대대(缺1)를 1950년 11월 30일 12.00까지 加平에 이동시켜 제5사단장의 지휘하에 들게하라。

4. 현재 抱川에 위치하고 있는 제26대대 1개중대는 포병 제20대대의 도착과 동시에 원대복귀하라。

X. 1. 병력 교대에 관한 협의를 하기 위하여 양 사단간의 직접통신을 허가한다。

2. 병력 교대 배비로 인한 전투지원상의 공간이 야기치 않도록 특히 유의하라。

3. 이동 개시 시각 및 이동완료 시각을 각각 陸本에 보고하라。

四. 1. 행정사항 변경 없음。

2. 포병 제20대대장 및 포병 제26대대는 부대장비(특히 統砲차량) 현황을 포병사령부 경유 陸軍本部에 보고하라。

五. 통신규정 의거 실시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51호

陸本訓令 제114호 (陸軍本部 서 울 1950. 12. 1. 12.00)

訓 令

지 도 : 大韓 35만분지 1

一. 1. 美 제24步兵 사단 사령부는 順天으로부터 成川으로 이동중에 있음。

2. 美 제187공수 전투연대는 평양에 있음。

二. 제2군단장은 下記와 같이 담당지구내의 적 정규부대 및 유격대를 제거할 책임을 담당하라。

1. 수리對岸인 大同江 東岸(YD5836) 지점으로부터 大同江을 따라 大同江과 南江의 합류점까지 西南向~南江을 따라 南江과 상천강의 합류점까지 東南向~용원(BU4804)까지 상원강을 따라 東南向~栗里(BU6206)까지 도로를 따라 東南向~풀은洞(CU0617)까지 도로를 따라東北向~혜청(BU8030)까지 高地를 따라 西北向~승인里(BU8026)까지 2급도로를 따라 南下~高峯里(BU6127)까지 도로를 따라 西向~江東(BU5936)까지 소로를 따라 西北向~단양(YC5836) 지점까지 西向~谷山 및 谷山~新溪간 도로를 따라 강력한 정찰을 실시하라。

2. 공양(CU1836)의 韓國海兵隊와 신흥(BT8564)의 제187공수전투연대의 부대들과 접촉을 확립하라。

3. 제2군단~美 제24보병사단간 전투地境上의 合同정찰을 위하여 제24보병사단과 매일 접촉을 유지할일。

4. 정찰 및 前哨를 사용하여 左右양측 인접부대와의 접촉을 유지하라。

5. 平壤~新溪間 도로사용에 관하여는 제187공수전투 연대장과 협의하라。

6. 군단 임무수행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즉시 當本部에 제출하라。

7. 제24보병사단장 및 제187공수전투 연대장과의 직접 통신을 허가한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52호

陸本作命 제246호 수정훈령 제2호 (陸軍本部 서 울 1950. 12. 2. 11.00)

訓 令

지 도 : 25만분지1

제2사단장 귀하。

제2사단장은 예하 제35연대의 1개대대로서 陸本作命 제246호 3.(라)항에 규정된 지명이외에 市邊里(BT9932)의 경비를 담당 확보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53호

陸本作命 제246호 수정훈령 제3호 (陸軍本部 서 울 1950. 12. 2. 12.00)

訓 令

지 도 : 25만분지 1

제2군단장
제7사단장 귀하

1950년 12월 1일 24.00附로 제3연대를 美 제9군단으로부터 배속을 해제하고 제7사단 原隊에 복귀시키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54호

陸本作命 제246호(修正) 훈령 제5호 (陸軍本部 서울 1950. 12. 2. 21.00)

訓 令

제 2 군단장
제35연대장 귀하

一. 1950년 12월 2일 24.00附로 제35연대를 제2사단 배속으로부터 해제하고 美 제187공수전투연대장에게 배속한다。

二. 제2사단—제187공수 전투연대간의 전투지경 : 부록 제1호 작전투명도 참조。

三. 적절한 협조를 하기 위하여 제2사단장에게 제187공수 전투연대장과의 직접통신을 허가한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55호

陸本訓令 제115호 (陸軍本部 서울 1950. 12. 3. 09.30)

訓 令

一. (가) "오렌지 地區" (O지구)에 대한 요청은 일체 고문계통을 통하여 제출하라。

(나) 우군에 대한 공중공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렌지地區"는 반드시 공중으로부터 認知하기 용이한 地形地物로서 설정하라。

(다) 1개 좌표나 혹은 수개 좌표로서 그것을 연결시켜 "오렌지地區"를 설정하지 마라。

(라) 이와 동일한 지시를 고문계통을 통하여 시달하였음。

총 참 모 장

부록 제56호

陸本訓令 제116호 (陸軍本部 서울 1950. 12. 3. 12.00)

訓 令

對空 通信布板 적극사용의 件

一. 對空 통신용 布板의 효과적인 사용은 飛行機의 誤見으로 因한 우군 폭격피해를 全無케 하며 따라서 空地연락의 충분을 기함과 동시 유리한 전투를 전개 가능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의 졸열 또는 全然 不使用으로 인하여 시시로 발생하는 友軍機의 폭격으로 인하는 友軍의 손해는 실로 유감천만의 일임。

따라서 下記와 같이 그 사용을 강조하니 각급 지휘관은 최대한으로 활용할 것을 지시함。

1. 이에 記述함은 과반배포된 對空 布板 통신법(AP~30)을 말하는 것이며 通信規定 항목 번호

16의 5호에 기술한 對空布板 표지(AP~50)와 혼동치 말것.

2. 그 사용법중 숫자 布板을 이용하며 自部隊 고유명칭을 이 조관으로서 표현하여 空中시찰 가능토록 할것.

예컨대 제9061부대는 9061이라고 敷布할 것임.

3. 이 布板을 이용하여 各種 표지를 비행기에 통보하여 지원을 효과적으로 받을 것.

총 참 모 장

부록 제57호

陸本訓令 제117호 (陸軍本部 서 울 1950. 12. 3. 12.00)

訓 令

지 도 : 大韓 25만분지 1

一. 1. 美 제1, 제9군단은 갑리(YD1038)~△546(YD3952)~(YD4651)~대성우리~(YD5749)~동역천(BU6239)~동용里(BU7232)를 連하는 노상에 방어선을 구성 제1기갑사단은 이를 전방에서 엄호하고 있음.

2. 美 보병 제24사단은 大同江 南岸의 大部隊와 함께 "수주리"(BU5520) 부근 집결 지역에 이동하여 "江東" 南岸의 軍東側을 방어할 추가임무를 담당하고 군예비대로 잔류하는 동시에 "동연리"(BU7232)로부터 "신천"에 이르는 東側上에 있어서 敵의 이동상황을 探知하기 위하여 수색 및 지상정찰을 실시중임.

二. 1. 제2군단은 즉시 "遂安"~"新溪"地區에 이동하여 軍 東側方을 防禦하기 위하여 "遂安"~"新溪"線의 東側方지구에 있어서 적군에 대하여 강력한 작전을 수행하라.

2. 前項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可及的 속히 "谷山"을 점령 확보하라.

3. "遂安"(YC7187) 및 "新溪"(YC8564)에 위치하고 있는 美 제24보병 사단장 및 제187공수전투 연대장과 긴밀히 연락하라.

4. 작전 협의 목적으로 각 담당관간의 직접 통신연락이 허락된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58호

陸本訓令 제118호(同 제116호 修正) (陸軍本部 서 울 1950. 12. 3. 20.00)

訓 令

1. 1950년 12월 3일 12.00附 陸本訓令 제116호중 一의 2항을 下와 같이 수정한다.

2. 그 사용법중 숫자 布板을 이용하여 自部隊名을 비행기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실시 개시일 및 각 부대숫자 명칭은 이를 통신규정으로서 別途로 후달한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59호

陸本訓令 제119호 (陸軍本部 서 울 1950. 12. 3. 24.00)

訓 令

지 도 : 25만분지 1

一. 1. 제8군은 제1차 지연진지를 東二浦(YC2990)～九浦(YD4111)～德同里(YD5814)～新倉(BU5714)～大鋼里(BV8407) 線에 제2차 지연진지를 海州(YC3913)～百橋里(YC6145)～新幕(BT5956)～新溪(BT8565)～伊川(CT1661)～望日里(CT3260)線에 점령 12月 4日 08.00부터 제1차 지연진지로 후퇴를 개시할 것임。

2. 美 제9군단은 제1차 지연진지까지 후퇴한 후에는 가능한한 조속히 한국 제2군단과 교대인수하는 동시에 東南方 및 西南方으로 향하는 적 행동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遂安～新溪東方지구에 美軍 1개사단에 해당하는 병력을 사용하여 군 東側方을 경비 담당할 것임。

二. 1. 제2군단은 美 제9군단장이 同 임무를 인수 교대할 때까지 遂安～新溪線 東方에서 谷山으로 향하여 作戰을 실시하는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여 同 지구내에서 東南 및 西南으로 향하는 적 행동을 저지하라。

2. 美 제9군단장이 同 임무를 인수 교대한 후에는 新溪 南方지구에 집결하여 당 본부명령이 있을때엔 강차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60호

陸本作命 제249호 (陸軍本部 서 울 1950. 12. 5. 12.00)

지 도 : 大韓 25만분지 1

一. 省略

二. 군은 일부 병력을 이동하여 再編成을 실시하려 함。

三. 1. 제2군단장은 예하 제7사단 포병 제18대대의 완전 1개중대를 제외한 잔여인원 및 장비를 1950년 12월 10일 24.00까지 서울에 이동하여 포병사령관의 지시를 받게하라。

2. 제2군단장은 예하 제8사단 포병 제50대대 본부 및 본부중대와 1개중대의 인원 장비를 제외한 잔여 병력을 1950년 12월 10일 24.00까지 서울에 이동하여 포병사령관의 지시를 받게 하라。

3. 포병 사령관은 前記 포병 제50대대 및 제18대대의 잔여 병력으로서 재편을 완료하라。

四. (1) 보급

1. 변경없음

2. 포병 제50대대 제3중대의 105미리 곡사포 1門을 군단 병기중대에 반납하라。

(2) 수송은 각대수송에 의하라。

(3) 人事

제18대대 및 제50대대장은 前記 잔여 이동 병력의 명부를 陸本 고급부관에 제출하라。

五. 통신사항

서울 상경부대는 잔치(殘置)하는 중대에 통신기재 일체를 인계하고 서울에서 재편성시 편제에 의하여 새로히 陸本 통신감실에 청구 수령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61호

陸本訓令 제120호 (陸軍本部 서 울 1950. 12. 5. 12.00)

一. 제5사단장은 1950년 12월 5일 24.00까지 1개 중대를 清平발전소에 配置하여 경비의 만전을 기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62호

陸本訓令 제121호 (陸軍本部 서 울 1950. 12. 6. 08.00)

訓 令

近間 軍의 전략적인 전진작전을 감행함에 따라 군인으로서의 本分과 武器의 존귀성을 망각하고 생명보다도 마땅히 존중해야할 무기를 포기하는 비겁한 자가 있음은 군인의 일대 치욕일은 물론 국가적 수치라 아니할 수 없다。

각 官은 이후 여하한 악경(惡境)에 임할지라도 군인정신을 발휘하여 자기의 生命인 병기를 사수하며 최후 승리를 획득하기에 死力을 다하라。

만약 이후 여하한 치욕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者를 발견한 때는 계급여하를 막론코 斷罪의 聖劍을 용서없이 내릴 것이다。

각 官은 더욱 분발하여 聖戰완수에 死力을 다하여 有終의 美를 영구히 거둘지어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63호

陸本訓令 제122호 (陸軍本部 서 울 1950. 12. 6. 12.00)

訓 令

一. 제2군단을 즉시 市邊里(BT9943)로 이동하라。

二. 1. 제2군단장은 일부 병력으로서 伊川(CT1662)—平康(CT5152)—金化(CT6539)線을 최단시일내에 確保하라。

2. 이후 華川(CT8718)을 통과 계속 남으로 移動할 준비를 하라。

※ 1. 제2, 제5사단과 긴밀한 연락을 保持하라。

2. 이동상황을 매일 12.00, 17.00, 23.00에 陸本에 必着토록 報告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64호

陸本訓令 제123호(GX29687, KGOO) (陸軍本部 서 울 1950. 12. 6.)

訓 令

一. 제8군은 禮成江口(BS 7195)～金川(BT 7926)～市邊里(BT 9941)～鐵原(CT 4335)～地境洞(CT

'5533)～華川(CT 8718)을 連하는 일반선상에 가장 유리한 防禦진지를 점령하기 위한 이동준비로서 軍사령부에서 시달하는 日時에 海州(YC 3913)～石橋里(YC 6145)～新幕(BT5956)～新溪(BT 8465～伊川(CT 1661)～望日里(CT 3260)～平康(CT 5153)～金化(CT 6538)를 연하는 일반선상에 지연진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후퇴를 실시할 것임。

二. 제8군의 東側方을 경비하는 동시에 爰 제9군단의 주보급로를 경비하기 위하여 下記 사항을 지휘한다。

三. 1. A. 제2군단은 즉시 市邊里(BT 9941) 부근에 집결 즉시 東北方을 공격 伊川(CT 1562)을 확보하라。

B. 伊川(CT 1562)을 확보하면 즉시 연결하여 東南方을 공격하여 平康(CT 1552)～金化(CT 6538)～華川(CT 8718)을 점령 확보하라。

2. A. 제2사단은 즉시 와초里(CT 3122)로 부터 東北方을 공격하여 鐵原(CT 4334) 및 文惠里(CT 5327)를 점령 확보하라。

B. 議政府(CS 2878)～地境洞(CT 5633)間 및 議政府(CS 2878)～鐵原間 통로상의 적을 소탕하고 同 도로를 경비 확보하라。

C. 제187공수 전투연대와 交代 완료 즉시로 原隊(제2사단)에 복귀할 제25연대를 통합 지시하라。

3. 제5사단은 즉시 東北方을 공격하여 華川(CT 8718)을 확보하라。

4. 제3군단은 즉시 제9사단을 原州(DS 0634)로 이동시켜 內坪里(DT 0300)로부터 濟陽(DT 6713) 間에 강력한 차단진지를 설치하고 이 線 以南으로 지향하는 여하한 적이라 할지라도 적극 저지하는 동시에 軍 東側方을 경비하라。

※1. 관계 各 官과의 직접 통신을 허가함。

2. 제8군 사령부의 후퇴에 관한 사항 및 本 訓令은 1950년 12월 8일 06.00부터 효력을 발생함。

四. 별도 행정명령 제13호에 의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65호

陸本作命 제247호 훈령 제1호 (陸軍本部, 서울, 1950. 12. 7. 07.00)

訓 令

一. 1950년 12월 1일 08.00附로 下達된 陸本作命 제247호를 下記와 같이 수정한다。

二. 수도 방위사령관은 별책 수정계획에 의거하여 1950년 12월 8일까지 예하 병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하시 여하한 전황이 발생하여도 능히 즉응할 수 있는 대비에 만전을 기하라。

三. 방위사령부 예비병력으로서 제7훈련소 병력을 지휘하라。

四. 군수관과 협의하여 下記사항을 조속히 처치하라。

1. 主陣地 및 예비진지의 완전구축

2. 공사상의 主點으로

A. 砲座

B. 장애물 설치

C. 차폐 및 위장

3. 통신망의 완성

4. 각 지구대 협동사격 계획

5. 탄약 소비수량의 기준결정

五. 이 훈령에 대한 세부 계획을 1950년 12월 9일 限 陸本에 제출하라。

六. 수도 방위 사령관은 일일 상황을 매일 17.00까지 陸本에 제출하라。

七. 기타 세부지시는 구두 시달함。

총 참 모 장

省略 : 首都防衛 修正計劃

부록 제66호

陸本訓令 제124호 (陸軍本部, 서울 1950. 12. 7 07.00)

訓 令

一. 軍은 수도방위 계획에 의거한 연습을 실시하려함。

二. 수도방위사령관은 별책 방위계획에 의거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

三. 특히 가동력 확보와 시간엄수에 유의하고 병력파악에 철저를 기하라。

총 참 모 장

演習計劃

目的

軍은 이 훈련을 실행함으로서 何時 如何한 사태가 발생할 때라도 별도 지시된 방어계획에 의한 수도방어에 만전을 기하며 유기적이며 통일적인 군사행동에 촌각의 지연과 촌분의 착오도 발생치 않도록 충분한 훈련과 이에 숙달함을 획득하는 데 있다。

方針

이 훈련은 在京 全부대가 실시하되 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 용의주도한 방어연습으로서 이를 철저히 주지 숙달시키는데 있다。

一. 想定 : 金華 鐵原 방면에서 잠동하는 殘匪 약 2,500은 我軍配備의 間隙으로 아군 방어권내에 침투하였음。

二. 金華 방면에서 南下중인 敵 약 2,000은 議政府를 占領 후 12월 9일 08.00경 倉洞(678~284) 및 近方高地에 급조진지를 구축하는 한편 수색대를 파견 아군 配備상황을 탐지코저 적극적인 方針을 쓰고 있음。

一方 殘餘 500은 迂回하여 春川 가도에 侵出, 12월 9일 09.00 道路沿方洞里 사라리(665 355) 및 1330(662 352)를 奇襲한 후 계속 서울로 침투중임。

三. 我 要地점령부대는 과감히 적과 접촉, 악전고투를 감행하면서 主抵抗線을 향해 착착 후퇴중에 있음。만약 증원부대를 급파치 않는다면 主抵抗線은 돌파당할 우려성이 농후함。

四. 서울 市民은 불안과 공포심에 싸여 그 일부는 이미 避難을 개시하였음。

在京 諸部隊는 일선의 지원 후방부대임. 그러나 수도방위 계획상에 있는 兵力은 동원할 수 있음。

命令

一. 上記와 같음。

二. 軍은 이 상황에 대비하여 수도방위에 만전을 기하려 함。

三. 1. 수도방위 사령관은 별도 시달한 수도방위 계획에 의한 예비 병력을 12월 9일 11.30까지 집결을 완료하라。

演 習 計 劃 (首都防衛)

	제 1 단 계	제 2 단 계	제 3 단 계
課程	명령하달부터 완전집결까지	집결지~완전배치	交戰~완전섬멸
方針	가능한한 차량으로 부대를 수송	左 同	
實施要領	09.00 ① 陸本에서 防司에 상황부여 ② 防司에서 예하대에게 집결명령下達 ③ 명령하달 임무부여 (각대 전원 집합) ④ 상황은 시시로 口達함	各 隊別로 각각 진지로 向해 출발 (행동개시) 隊長명령에 의하여 행동상황은 시시로 口達함	각 대별로 행동 ① 적근접 ② 交戰 ③ 퇴각 ④ 진격 ⑤ 전쟁청소 檢閱官이 부여
着眼點	① 명령下達법 ② 수령부대의 동작 ③ 지휘관 및 각 참모 동작 ④ 집결동작 ⑤ 軍裝如何	① 지휘관 및 참모동작 ② 수색대 동작 및 보고요령 ③ 완전한 진지점령 및 배치요령 ④ 위장 및 공사 ⑤ 인접부대와의 접촉상태 ⑥ 주지 척후 동작 ⑦ 통신망 구성 ⑧ CP, OP의 임무 수행상태	① 지도관 및 참모동작 ② 경계병 및 정찰대동작보고요령 ③ 화망구성, 사격군기 ④ 보병협조 ⑤ 인접부대간의 협동 ⑥ 정보교환 상황 ⑦ 대대 분대소의 설정 및 운용상태 ⑧ 예비대 운용 ⑨ 지형지물 이용 ⑩ 추격동작
時間	09.00 개시 소요시간 약 2시간 반	소요시간 약 1시간 반	소요시간 약 1시간 반
檢閱官氏名	統監 作戰局長 陸軍준장 姜 文 奉 수행 각 국감실 1명	左 同	左 同
備考	연습완료후 공설운동장에 강평 및 훈시가 있음	집합 담당관, 작전국장	

2. 집결하면 主力은 議政府 가도를 따라 急進 要地 점령부대와 합세하고 △144 (62.6~28.2) △123 (64.7~27.1) △224 (65.3~24.3)를 연결하는 능선상에 강력한 진지망을 구성하고 적을 陣前에서 포위 섬멸하라。가능하면 강력한 수색대를 차출 적을 유도 및 교란시켜 作戰을 유리하게 진전시키라。

3. 일부병력은 京畿가도를 따라 진출시켜 主抵抗線상의 △106(60.3~29.3)와 △144를 連하는 線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성하고 한편 경계병을 배치하여 전투정찰대를 전방 깊이 침투시켜 最大限의 위력을 발휘토록 하라。

4. 일부 병력을 汝山 도로지대에 급파 도로봉쇄, 수색 및 경계임무를 완수케 하라。

四. 省略

五. 省略

총 참 모 장

부록 제67호

陸本作命 제246호 수정훈령 제6호 (陸軍本部, 시 1950. 12. 8 분 15.00)

訓 令

지도 大韓 25만분지 1

一. 1950년 11월 28일 12.00附로 하달된 陸本作命 제246호를 下記와 같이 수정한다.

1. (가) 제2군단은 즉시로 市邊里(BT 9941) 부근에 집결하여 伊川(CT 1562)을 점령 확보함에 있어 東北方을 공격하라。

(나) 伊川을 점령 후에 伊川(CT 1562)~平康(CT 5152)~金化(CT 6538)선을 점령함에있어서 계속 東南方을 공격하라。

2. (가) 美 제187공수 연대는 가급적 속히 현 사명을 띤 韓國 제35연대와 교대하게끔 지시되었다。

(나) 교대한 후에 韓國 제35연대는 美 제187공수연대의 지휘를 떠나 韓國 제2사단에 복귀됨。

3. (가) 제2사단은 즉시로 東北方을 공격하여 鐵原(CT 4334)~文惠里(CT 5327)선을 점령하라。

(나) 鐵原과 文惠里를 점령 후 西方 및 西南方으로의 적의 이동을 저지하며 議政府(CS 2878)~地境洞(CT 5633)간 및 議政府—鐵原(CT 4334)간의 도로경비를 유지하라。

4. (가) 제5사단은 즉시로 北方을 공격하여 華川(CT 8718)을 점령하라。

(나) 華川(CT 8718)을 점령 후에는 南方, 東南方 및 西南方으로의 적의 이동을 저지하라。

5. (가) 제3군단은 가급적 속히 제9사단의 1개연대를 江陵(DT 9177) 부근에 이동시켜 천동리(DT 5407)로부터 襄陽(DT 6713)에 걸쳐 차단진지를 설치하라。

(나) 제9사단의 殘餘隊는 가급적 속히 內坪里(DT 6300)로부터 천동리(DT 5407)에 이르는 제차단진지에 이동하여 이 선으로부터의 적의 南方으로의 이동을 저지하는 동시 군의 東側面을 방어하라。

(다) 배정지구에 도착한 즉시로 제9사단은 제3군단의 배속으로부터 해제되는 동시에 陸軍本部

직할下에 둘어감。

6. (가) 有線 간선사용은 육본지시에 의하여야 하며 임의로 절단하여 自部隊에만 편리토록 하고 全軍에 영향을 미치지 않토록 하라。

(나) 旣設有線을 최대한 이용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68호

陸軍作命 제246호 수정훈령 제 7 호 (陸軍本部, 서울 1950. 12. 8 15.00)

訓 令

지도 : 大韓 25만분지 1

. 1950년 11월 28일 12.00附로 下達된 陸本作命 제246호를 左記와 같이 수정한다。

. 제3군단 전투지경을 부록 제1과 같이 변경한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69호

陸本訓令 제125호 (陸軍本部, 서울 1950. 12. 8 19.00)

訓 令

-. 1950년 12월 07.00附 陸本訓令 제123호(首都防衛 계획에 관한 件)의 訓令 번호를 제124호로 修正함。

총 참 모 장

부록 제70호

陸本訓令 제126호 (陸軍本部, 서울 1950. 12. 8 15.00)

1950. 12. 8. 14.10

GX 29794 KGOO

作戰계획 제18호

-. 省略

二. a. 군은 엽하東岸(BS 8467) 지점으로부터 엽하東岸을 따라 (BS 8383) 지점의 엽하와 漢江의 交流點까지 北向하여 그곳으로부터(BS 9383) 지점의 漢江과 臨津江의 交流點까지 漢江의 南岸을 따라 東向하고 그곳으로부터 하포里(CS 0999) 및 적현洞(CT 4917)까지 臨津江南岸을 따라 東北向하고 그곳으로부터 華川(CT 8718) 및 襄陽(DT 6713)까지 東向하여 連하는 防禦진지 "B"上의 가장 유리한 地形을 점령 방어하기 위한 차후의 후퇴준비로서 시달하는 일시에(BS 7195) 지점 禮成江口로부터 한포里(BT 7832) 市邊里(BT 9941) 鐵原(CT 4334) 華川(CT 8718)을 통과하여 "A"를 점령하기 위한 후퇴를 개시하려 함。

b. 美 제 1 군단

美 제9군단장 전투地境은 下記와 같음。

現 전투地境線上 401高地(BT 8850) 지점으로부터 도산(CT 1240) 까지 東南向 그 곳으로부터

(CT 2607) 지점의 臨津江과 漢灘江의 交流點까지 臨津江을 따라 東南向 그곳으로부터 楊州를 통과하여 715高地까지 南下함。

臨津江 및 臨津江에 併行하는 도로는 제9군단에 속함。

c. 제9군단

韓國軍間 전투地境은 下記와 같음。

630高地(CT 5829)로부터 新八里(CS 4889)까지 도로를 따라 西南向 그곳으로부터 (CS 5052)지점의 北漢江과 漢江의 交流點까지 南下 그곳으로부터 능암里(CS 9304)까지 漢江을 따라 東南向 漢江은 韓國軍에 속함。

三. a. 韓國軍(缺)

(1) 防禦陣地 "A"上의 진지를 점령하라。

(2) 제2사단으로 하여금 議政府(CS 2879)~鐵原(CT 4334) 및 議政府~地境洞(CT 5532)間 道路를 경비하는 동시에 美 제9군단과 교대할 때까지 同지구를 확보케 하라。 제9군단과 교대 완료 후에는 同 사단을 韓國軍 담당지구내에 사용하라。

(3) 제2군단은 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金化(CT 6538)도착 즉시로 韓國軍에서 사용할 수 있음。

(4) 軍 東側方을 경비하라。

(5) 本 사령부 명령이 있을 때엔 上記 2.a항에 기술한 방어진지 "B"상의 진지를 점령하라。

b. 美 제1군단

(1) 本 사령부 명령이 있을 때엔 담당지구내의 上記 二.a항에 기술된 방어진지 "A"로 후퇴하라。

(2) 필요에 응하여 제9군단장과 협의된 바에 의하여 제9군단의 제1군단 담당지구 통과 후퇴를 허가하라。

同부대에 대하여 도로사용 우선권을 부여하라。

(3) 본 사령부 명령이 있을 때엔 上記 二.a항에 기술한 방어진지 "B"로 후퇴하라。

c. 美 제9군단

(1) 본 사령부 명령이 있을 때엔 담당지구내의 上記 二.a항에 기술된 방어진지로 후퇴하라。

(2) 후퇴기간 중 美 제9군단 東側方에서 작전하는 韓國軍 부대와 협의하여 군 東側方을 경비하라。

(3) 必要에 응하여 基幹부대를 美 제1군단 담당지구를 통과 후퇴시킴에 관하여 제1군단장과 협의하라。 同부대에 대하여 도로 사용 우선권을 부여함。

(4) 上記 二.a항에 기술한 진지로의 후퇴 개시와 동시에 제24보병사단을 방어진지 "A"점령에 사용하기 위하여 배속해제 제9군단에 복귀시키는 동시에 제1기갑사단을 군예비로서 서울 지방와 본 사령부에서 지정하는 집결지로 이동시키라。

(5) 上記 제2항 "A"에 기술한 "A" 방어진지 점령후에 美 제9군단 지구내에서 작전을 수행중인 韓國軍 제2사단 요원은 해제되여 韓國 총참모장 지휘에 들어감。

(6) 本 사령부 명령이 있을 때엔 上記 二.a항에 기술한 방어진지 "B"로 후퇴하라。

d. 제187 공수전투연대(배속부대 포함)

(1) 후퇴기간 중 主補給路를 경비 확보하라。

(2) 市邊里(BT 9941)~와초리(CT 3122)지구 적을 소탕하며 현 임무를 수행하라。

(3) 現 임무완료 후에는 제187공수전투연대 예하부대를 군 담당지구 何處에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牧山里(CS 0952) 부근에 집결시키라,

e. 제2병참관구

(1)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2) 본 사령부 지시에 의거하여 재고량을 없애고 제3병참관구의 긴요치 않은 부대를 외부로 이동시키라。

f. 軍 예비

(1) 제2사단은 차후 작전준비로서 재편 및 재장비를 계속하라。

이 지구에서 작전할 가능성이 있음으로 그 준비로서 金浦飛行場(CS 0558) 西北方 반도를 漢江線 先端까지 수색정찰하라,

X (1) 후퇴는 本 사령부 명령에 의거하여 실시하라。

(2) 각 군단장은 후퇴 실시에 관하여 상호협의하라。

(3) 후퇴로의 교통정리를 엄격히 실시하라。

(4) 원호부대는 후퇴기간중 접적을 확립 유지하라。적 진출에 관한 조속한 정보를 획득 전달하기 위하여 주요 접근로상 각 요점에 감시반을 殘置하라。

(5) 중공군과 접적하게 되면 즉시로 그 위치 병력 및 진출方向을 本司令部에 긴급보고로서 보고하라。

(6) 후퇴를 실시하는 대로 최대한의 폭파를 실시하라。

⑦ 각 지휘관은 上記 二.a항에 기술한 방어선 "B"상에서 결정적 방어를 실시할 준비를 갖추라。

四. 행정사항 : 행정명령 제30호 참조。

五. 통신사항 : 변경 없음。

제8군 사령관

부록 제71호

陸本訓令 제127호 (陸軍本部 서 울 1950. 12. 9. 10.00)

訓 令

一. 軍은 일부 포병의 배속 및 개편을 실시하려 함。

二. 1. 포병 사령관은 포병 제166대를 1950년 12월 14일 07.00 서울出發 보병 제7사단에 배속하라。

2. 포병사령관은 포병 제186대대 A중대를 1950년 12월 14일 07.00까지 포병 제50대대 B중대로 개편을 완료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72호

陸本訓令 제128호 (陸軍本部 서 울 1950. 12.10. 17.00)

訓 令

一. 1950년 12월 9일 10.00附로 下達된 陸本訓令 제127호 제2의 2항을 左와 같이 수정한다。

二. 1. 제7사단장은 포병 제18대대 B중대를 1950년 12월 14일 07.00까지 제8사단장 예하에 넣으라。

2. 제8사단장은 前記 병력을 통합 지휘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73호

陸本訓令 제129호 (陸軍本部 서 울 1950. 12.10. 10.00)

訓 令

武器 亡失 防止에 관한 件

中共이 한국전선에 가입함은 배달민족에게 중대한 위기를 齎來케 하였다。그간 사력을 다하여 민족과 국가의 원수 공산 괴뢰정부 및 그의 군대를 격멸시킴에 이르렀음은 오로지 장병 諸位의 충성심과 성스러운 정혈의 결정임을 누가 부인할 수 있으랴。연이나 과거의 전례 2.3을 회고 검토할 때 군인의 생명이요, 적 격멸을 목적으로 각자에게 배당된 무기를 弊履와 같이 유기하고 서도 책임을 느끼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아끼어 일반의 총탄, 일정의 소총조차 生産치 못하는 我國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무기를 유기함으로서 軍을 위태롭게 하며 간접적인 이적행위를 취함은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음。國家와 軍은 무기없는 만명보다 무기를 소지한 1명의 士兵이 필요할 것이다。쓰러진 戰友의 간호에 앞서 무기를 회수하여 다음오는 씩씩한 전우에게 인계함이 옳으다。무기를 잃는 것보다 무기를 안고 전사함이 그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이며 사내의 갈길이 아닌가 각급 지휘관은 부하중에 그러한 비겁한 장병이 없도록 강력한 지휘권으로서 보급 군기를 확립하고 무기방실 방지에 諸官의 노력이 다대하였다면 현재 2개사단의 병력을 전투에 가입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명심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74호

陸本訓令 제130호 (陸軍本部 서 울 1950. 12. 11.)

訓 令

全軍位 貴下

近日 我國內에서 사용될 美 제5항공대의 신예 항공기의 標識을 下記와 같이 시달하니 全 예하 장병에게 주지시킬 일。

記

機名—노스아메리칸 FS6A 세이버

特徵—單胴, 噴射式추진, 機鼻 및 機尾開孔. 主翼 및 尾翼은 35° 각도로 後斜.

標識—類似型 젯트전투기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F-86은 下와 같은 標識을 美 항공대 보통표지 이외에 추가할 것이다.

「主翼 및 胴體後部에 八吋幅 흑백帶 三條式 交錯하여 標識」

총 참 모 장

부록 제75호

陸本訓令 제131호 (陸軍本部 서 울 1950. 12.12. 12.00)

訓 令

강력한 공세이전에 대비하는 이제 각급 지휘관 특히 고급 지휘관의 무단 부대 이탈하는 일이 많아 있음은 극히 유감천만의 일임.

각급 지휘관은 전반 하달한 陸本訓令 제12호 이행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 下記사항을 엄수할 일.

記

一. 각급 지휘관은 자기 직속 상관의 허가없이 부대이탈을 엄금함.

二. 특히 서울 등지 大都市의 무용한 출장을 엄금함.

이후 이와 같은 행위자를 발견시는 엄격한 처단을 내릴 것을 명기할 일.

총 참 모 장

부록 제76호

陸本訓令 제132호 (陸軍本部 서 울 1950. 12.15. 15.30)

訓 令

無線機 亡失防止에 관한 件

적 기습으로 인한 부대의 장비손실은 실로 막대한 것이 있는 바 就中 無線機의 損失은 他의 여하한 병기보다도 그 보충이 곤란하며 특히 SCR—300호 無線機는 在韓 美軍 각 부대에서도 全無상태이며 借用조차 不可能한 現狀임에 비추어 각급 지휘관은 전투의 大小와 그 利, 不利를 막론하고 여하한 상황과 역경에 있어서도 格別한 유의를 하여 만반 수단方法으로서 이 種類 무선기를 保存케 함과 동시에 1대 무선기로 인하여 때로는 大部隊의 存亡如何가 결정됨을 명심하여 그 손실이 全無토록 만전을 기할 것임.

총 참 모 장

부록 제77호

陸本作命 제250호 (陸軍本部 서 울 1950. 12. 9. 10.00)

지도 : 25만분지 1

一. 1. 省略

2. 제5경비대대는 1950년 12월 8일 24.00 서울에서 편성 완료되었음.

二. 군은 일부 병력을 이동하려 함.

三. 1. 1950년 12월 9일 12.00附로 제5경비대대를 陸軍本部 직할로부터 해제하고 제3군단에 배속한다.

2. 제5경비대대장은 즉시 大川으로 이동하여 제3군단장 지휘하에 들게하라.

3. 제3군단장은 前記 병력을 통합 지휘하라.

四. 1. 수송은 철도 수송에 의하되 군수국장의 지시를 받으라.

2. 기타는 변경없음.

五. 省略

총 참 모 장

부록 제78호

陸本作命 제251호 (陸軍本部 서 울 1950. 12.10. 12.00)

지 도 : AMS L552 25만분지 1 大韓

군대구분 : 부록 제1호 군대구분 참조.

一. a. 정보사항 : 부록 제2호 정보사항 참조.

b. 美 제1군단 및 美 제9군단은 지시하는 일시에 德成江口(BS 7195) 및 汗浦里(BT 7832)로부터 市邊里(BT 9941)~鐵原(CT 4334)을 통과하여 (CT 5730) 지점까지 東北 및 東으로 연하는 일반선상 방어진지 "A"로 후퇴를 개시할 것임.

c. 극동방면 공군은 전선에 침입하였거나 혹은 침투하고자 위협하는 적을 공격 섬멸함으로서 후퇴를 지원하고 전선을 고립시키고 또한 지상부대를 밀접 지원하는 현 임무를 계속할 것임.

d. 극동방면 해군은 현 임무를 계속할 것임.

二. a. 군은 초기에는 현 임무를 계속하고 美 제8군의 東側方을 경비하며(CT5730) 지점으로부터 華川(CT 8718)을 통과하여 襄陽까지 東南 및 東方으로 연하는 일반선 방어진지 "A"상의 가장 유리한 지형을 점령 방어하려 함.

b. 전투지경 및 담당지구 : 부록 제3호 작전투명도 참조.

三. a. 제2군단 :

(1) 즉시 市邊里(BT 9942) 및 鬼山(CT 1041) 지구에 집결하라.

(2) 도보 및 자대 수송기관으로 漣川(CT 3118) 및 漣川으로부터 南으로 향하는 철도연선 집결지점으로 이동하라.

(3) 제2군단 부대가 漣川에 도착함에 따라 제2군단 사령부, 제2군단 직할 특별부대 및 제7사단을 철도로 原州(DR 0773) 및 橫城(DS 1149)에 이동하여 즉시 재편 재장비하는 동시에 제8사단을 철도로 加平(CS 6987)으로 이동하라.

(4) 제8사단이 加平에 도착하는 즉시로 배속을 해제하여 陸軍本部 직할로 들게하라.

(5) 제7사단 및 제2군단 직할 특별부대의 재편완료 즉시로 담당지구로 이동하라(부록 제3호 작전투명도 참조)。

(6) 제2군단 사령부 東沙里(DS 5665)부근 도착 즉시로 제9사단 및 제1, 제2, 제3 경비대대를 통합지휘하라(배속)。

(7) 제7, 제9사단 및 제1, 제2, 제3 경비대대를 사용하여 담당지구내 방어진지 "A"상의 가장 유리한 지형을 점령 방어하라(부록 제3호 작전투명도 참조)。

b. 제2군단

(1) 陸軍本部 명령이 있을 때엔 제3군단 사령부 및 군단 직할 특별부대를 楊平(CS 6749) 부근으로 이동할 준비를 갖추라。

(2) 제3군단 사령부 大田 출발과 동시에 제11사단을 배속 해제하여 陸軍本部 직할로 돌게 하라。

(3) 제3군단 사령부 楊平부근 도착과 동시에 제2, 제5, 제8사단을 통합 지휘하여 下記 3. c. d. e에서 부과한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c. 제2사단

(1) 美 제9군단과 현 임무 교대 완료 즉시로 담당지구로 이동 가장 유리한 지형을 이용하여 방어진지 "A"를 점령 방어하라。

(2) 제3군단 楊平 도착과 동시에 제2사단은 陸軍本部 직할로부터 해제 제3군단 지휘하에 들게 하라(배속)。

(3) 제35연대는 陸軍本部로부터 배속 해제할 때까지 군 예비로서 春川에 이동하라. 陸軍本部로부터 배속해제와 동시에 제35연대는 제5사단 지휘하로 복귀시키라。

(4) 적절한 협의를 하기 위하여 美 제24사단과의 직접통신을 허가한다。

d. 제5사단

(1) 현 임무를 계속하는 동시에 가장 유리한 지형을 이용하여 담당지구내 방어진지 "A"를 점령 방어하라(부록 제3호 작전투명도 참조)。

(2) 제3군단 楊平도착과 동시에 제5사단은 陸軍本部 직할로부터 해제 제3군단 지휘하에 들게 하라(배속)。

e. 제8사단

(1) 加平 도착과 동시에 제8사단은 제2군단 배속으로부터 해제 陸軍本部 직할로 들어가라(배속)。

(2) 즉시 담당지구로 이동 가장 유리한 지형을 이용하여 방어진지 "A"를 점령 방어하라(부록 제3호 작전투명도 참조)。

(3) 최소한도 1개연대를 春川부근에 보유하고 陸軍本部의 사전 승인이 없이는 사용치 마라。

(4) 제3군단 楊平도착과 동시에 제8사단은 배속 해제하여 제3군단 지휘하에 들게하라(배속)。

f. 제9사단

(1) 제2군단이 東沙里(DS 5665) 부근에 도착 할 때까지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2) 제2군단 東沙里(DS 5665) 도착과 동시에 제9사단은 배속 해제하여 제2군단 지휘하에 들게하라(배속)。

g. 제11사단

(1) 제3군단 사령부 大田 출발과 동시에 담당지구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라(부록 제3호 작전 투명도 참조)。

(2) 담당지구내 주보급로를 경비하라。

(3) 현재의 능력 범위 내에서 담당지구내 적을 계속 섬멸하라。

(4) 제5경비대대 金泉(DQ 0197) 도착과 동시에 同大隊를 통합 지휘하라。

(5) 제6, 제7, 제8경비대대를 편성하고 편성 완료시엔 통합지휘하라(배속)。

h. 공병사항 : 부록 제4호 공병사항 참조。

X (1) 방어진지에 폭파물, 지뢰, 및 야전축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라。

(2) 후퇴는 陸軍本部 명령에 의거하여 실시하라。

(3) 후퇴에 관하여 각 지휘관은 상호 협조하라。

(4) 후퇴노상의 교통을 통제 정리하라。

(5) 엄호부대는 후퇴기간중 접적을 확립 유지하라。적 진출에 관한 조속한 정보를 획득 전달하기 위하여 주요 접근로상 각 요점에 감시반을 배치하라。

(6) 中共軍과 접촉하면 즉시 그 위치, 병력, 시간 및 이동 방향을 긴급 보고로서 陸軍本部에 보고하라。

(7) 후퇴함에 따라 폭파를 최대한으로 실시하라。

四. 1950년 12월 12일 18.00시 附 행정 명령 제13호 참조。

五. a. 통신

(1) 현 통신규정을 사용하라。

(2) 지방전화선은 陸軍本部 통신감이 할당하는 分만을 사용하라。

(3) 신 지휘소(CP)에 통신이 설치되어 운용할 때까지 구 지휘소는 폐쇄하지 말라。

(4) 신 지휘소를 설치하면 즉시 차위 상급본부에 그 위치를 보고하라。

b. 지휘소 소재。

(1) 軍—서울

(2) 제2군단—東沙里

(3) 제3군단—楊平

(4) 제11사단—보고에 의함。

c. 통신축설

(1) 2군단 : 서울—橫城

(2) 3군단 : 서울—楊平

총 참 모 장

省略 : 부록 제1호

省略 : 부록 제2호 정보보고

부록 제79호

陸軍作命 제246호 훈령 제8호 (陸軍本部 서 울 1950. 12. 11. 15.00)

訓 令

一. 1950년 11월 28일 12.00附로 下達된 陸軍作命 제246호를 下記와 같이 수정한다.

1. 제9사단은 陸軍本部에서 同 임무를 해제할 때까지 原洞(DS 0733)의 육군보급 집결소의 경비책임을 담당하라。

2. 제9사단 사령부 江陵도착과 동시에 제1, 제2, 제3경비대대를 제5사단 배속으로부터 해제하여 제9사단에 배속한다。

3. 1950년 12월 10일 12.00附로 제18포병대대 제2중대를 제50포병대대에 배속한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80호

陸本訓令 제128호 (陸軍本部 서 울 1950. 12. 15. 01.00)

訓 令

乾坤一擲의 一大攻防戰을 예상하는 결전단계에 당하여 특히 철두철미한 공병운용의 묘를 발휘함이 緊切함。따라서 그 요점을 재지시하니 공병의 誤用을 피하고 공병 본래의 임무를 완수케 하여 諸兵의 연합의 진수를 발휘함에 유감없도록 기하라。

一. 교통차단

1. 지휘관(사단장, 독립연대장 이상을 지칭함。이하 同)은 폭파 지뢰매설 장애물 설치에 의하여 최대의 저지효과를 거양하도록 착안하여야 한다。

2. 지휘관은 작전수립 계획에 있어서 공병참모에게 작전계획에 부합한 교통차단 지역의 면밀한 정찰을 실시케 하여야 한다。

3. 지휘관은 차단설치, 파괴정도 및 차단시기를 공병장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야 한다。
특히 시기 결정에 있어서는 戰況의 변화를 명확히 파악하여 최소한 我方 보급품 및 차량을 수용한 후이어야 하며 가능하면 적이 可前에 도달하였을 때에 실시하여야 한다。
단, 어하한 경우에도 차단설을 파괴前에 적에게 점령당함은 不可하며 이는 지휘관의 책임임을 銘記하여야 한다。

4. 상급 및 인접부대 간에 충분한 협조연락을 하여야 한다。

5. 각종 작업에는 엄호병력을 차단지점에 강력히 배치하여야 한다。

6. 교량 측면의 迂回路에도 지뢰 매설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특히 迂回路에의 지뢰매설에는 我方 피해의 絶無를 위하여 세심 적절한 표시와 설치가 필요하다。

7. 하천 교통차단에는 附近의 舟艇筏木 等도 파괴하여 완벽을 기하여야 한다。

二。지뢰지대 표시

過般 누차 下達된 훈령 및 지시에 의하여 철저한 표지를 이행하여 我方 피해의 절무를 기하여야 한다。만약 지시에 의한 표지를 실시치 않고 不祥事가 발생한 때에는 엄벌에 처할 것임(陸本訓令 제

33호, 陸本乙兵乙發 제86호 참조). 특히 지뢰지대 통과에 있어서는 각급지휘관을 위시한 全將兵은 공병부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三. 도로보수 및 유지

全 공병단위대는 각기 담당지역내의 도로보수 및 유지에 책임을 진다. 각 單位隊의 작업범위 및 한계는 야전교범(FM 515)을 참조하라. 특히 冬期의 氷雪도로와 急曲路에 대한 안전保持를 위하여 日向, 風向, 경사山影 등 세밀한 관찰과 유의로써 가능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四. 야전축성

지휘소, 통신소 포병의 중무기를 위한 砲座구축의 지원요청에는 응할 수 있으나 散兵壕 등의 작업은 보병이 자체 실시하여야 한다.

단, 요청에 의하여 공병장교를 파견하여 位置 선정 및 기술적 지도를 담당할 수 있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81호

陸本作命 제251호 수정훈령 제1호 (陸軍本部 서울 1950. 12. 15. 07.00)

訓 令

一. 1950년 12월 10일 12.00附 陸本作命 제251호를 下記와 같이 修正한다.

二. 12월 14일 12.00附 제11사단을 제3군단으로부터 배속을 해제하고 동시에 陸本직할로 한다.

三. 12월 14일 12.00附 제9사단을 제3군단으로부터 배속을 해제하고 동시에 제2군단에 배속한다.

四. 12월 14일 12.00附 제1, 제2, 제3 경비대대는 제9사단 직할로부터 해제되어 동시에 제3군단장의 직접지휘를 받는다.

五. 12월 15일 12.00附 제3사단을 軍 직할로부터 제2군단에 배속한다.

六. 12월 15일 12.00附 제8사단을 제2군단으로부터 배속을 해제하고 동시에 제3군단에 배속한다.

七. 제2군단장은 예하 1개대대 병력을 가능한 신속히 三陟(ES 1544)으로 이동시켜 부근 일대의 경비를 담당케 하라. 이 임무를 완수하면 즉시 결과를 보고하라.

八. 제7사단은 즉시 현 임무를 중지하고 春川(CS 8893)에 이동한다. 春川 도착 즉시로 제7사단은 제2군단으로부터 해제되어 陸軍本部 직할로 한다.

九. 제2군단장은 제3사단으로 하여금 군단 담당구역 西半部를 담당케하여 "A"선상에 방어진지를 구축케 하라.

十. 제7사단은 春川 북방 일대에 방어진지를 구성하고 적의 東北, 西北 및 東方으로부터의 春川접근을 저지 섬멸할 것이며 제5사단 및 제8사단지구에 침투하는 적을 하시라도 반격 혹은 추격할 수 있는 완전한 준비를 갖추라.

十一. 제3군단은 12월 15일 12.00附 제2, 제5, 제8사단을 통합지휘하여 이미 부과된 임무를 완전히 수행하라.

十二. 별지 작전투명도 참조.

총 참 모 장

부록 제82호

陸本訓令 제133호 (陸軍本部 서울 1950 12. 16. 17.00)

訓 令

工兵 運用에 관하여

過般 현지 각 부대장은 공병부대를 보병전투에 사용하였으므로 공병 本然의 야전 임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에 下記 요령에 의하여 임무를 부여하여야 함。

一. 임무

國軍 공병의 주요한 야전 임무는 건설 및 파괴로서 아군의 이동을 용이케 하며 또는 적군의 이동을 저지함으로서 我軍의 전투력을 증가하는데 있다。 공병은 또한 他부대가 방어진지 구축에 필요한 기자재의 공급과 기술적인 원조를 하며 필요에 따라서 전투도 한다。

二. 義務

1. 工兵은 左記 作業을 함으로서 友軍의 이동을 용이하게 한다。

(1) 장애물의 제거 또는 돌파。

(2) 교량가설。

(3) 도로건설 및 보수。

(4) 전방 비행장 건설 및 보수

2. 공병은 파괴를 수행하고 장애물을 설치함으로써 적의 이동을 저지한다。 장애물은 도로차단 댓지뢰지대와 같은 급조적인 것과 정밀하게 준비한 장애물 지대도 구축할 수 있다。 장애물은 砲火로 방어보호하지 않으면 전술적 가치가 적을 것이다。

3. 방어진지 구축에 있어서 공병은 폭파를 실시하며 지뢰 지대와 부비추랩 등의 장애물을 설치한다。 또 공병은 방어진지 구축에 필요한 기자재의 공급과 기술적인 원조로서 他兵科의 방어력을 증강한다。

4. 河川 방어에 있어서 공병의 중요 임무는 「浅越」 橋梁 기타 적의 도움이 될 물자를 파괴하고 河川에 따르는 지형을 정찰하여 지상 방어조직을 원조하며 예비부대의 신속한 이동을 위하여 도로를 정비하는 것 등이다。 공병은 또 장애물이나 지뢰로서 적의 접근로를 차단함。

5. 使用

(1) 공병은 주로 기술과 특수장비를 요하는 작업에 사용하여야 함。 工兵에 대한 작업할당은 관하 전체작업의 주요성을 기준으로 하는 우선순위에 의거하여야 하며 공병부대를 개별적으로 각종 부대 또는 작업에 할당할 수 있는 노무자와 기술자의 集合地所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또 공병은 보병 전투에 충당하기 위하거나 지휘소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전투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2) 전투에 工兵을 사용하여야 할 때는 工兵에게 일반 예비대로 소집명령을 발하여야 함。 그러나 그런 조치는 필요한 공병작업을 수행하는 것과 비하여 어느 편이 효과적인 가를 주밀하게 評衡한 후에 취하여야 함。

6. 지원부대

주요 전투 사령부를 지원하는 공병부대는 그 주요부대장이 명령권에 속하지 않고 陸軍本部의 命令下에 그 일반적 임무를 수행하며 요구에 의하여 지원받은 부대의 전투력을 증강하기 위한 기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이 특수작업의 요구는 관계지휘관의 공병참모를 통해서 지원부대로 전달되어야 함。

총 참 모 장

부록 제83호

陸本作命 제251호 수정훈령 제3호 (陸軍本部 서울 1950. 12. 16. 24.00)

訓 令

工兵임무 부여를 左記와 같이 수정한다。

. 제1102 야전 공병단

1. 春川(CS 8893)~洪川(DS 0272)~原州(DS 0732)간 도로 및 原州(DS 0732)~속사里(DS 5565)간 보급로를 보수정비하고 標識하라。
2. 제104 야전 공병대대를 江陵(DS 9178)으로 이동하여 同 대대로 하여금 江陵(DS 9178)~三陟(ET 1443)간 및 江陵(DS 9178)~속사里(DS 5565)간 보급로를 보수 정비하고 標識하라。
3. 原州(DS 0732)~丹陽(DR 3978)~安東(DR 7546)간 보급로를 보수 정비하고 標識할 준비를 하라。
4. 下記 주요 철교상에 폭파장치를 하지않은 곳에 폭약을 즉시 준비하고 경비하라。국천(CS 7648), 단 江(CS 9636), 기라川(DS 1424), 창명川(DS 2809), 南漢江(DR 3989)。

. 제1103 야전공병단

1. 제3군단 지구내 작전을 지원하라。
2. 서울(CS 2258)~大谷里(CS 6987)~春川(CS 8892)간 및 도로교차점(CS 3964)~揚平(CS 6749)~驪州(CS 7928)간 보급로를 보수 정비하고 標識하라。
3. 驪州(CS 7928)~原州(DS 0733)~忠州(DR 0591)~丹陽(DR 3987)간 보수 정비하고 표지할 준비를 갖추라。

. 上記 1항에 기술한 보급로를 조속히 수색하여 그 결과를 신속히 공병명령 계통을 통하여 陸軍本部에 보고하라。

만일, 동보급로중 군화물의 통과 불가능한 곳이 있을 때는 그에 대치할 보급로를 선택하여 陸軍本部에 보고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84호

陸本作命 제252호 (陸軍本部 서울 1950. 12. 16. 24.00)

. 1. 省略

2. 제101 重박격포 중대는 교육을 완료하고 현재 서울에서 대기중。

二. 군은 일부 병력을 배속하려 함。

三. 1. 1950년 12월 17일 12.00附 제7훈련소에 있는 101重 박격포 1개중대를 제2군단에 배속한다。

2. 제2군단장은 前記 병력을 1950년 12월 21일 12.00까지 江陵(DS 9079)에 이동시켜 제9사단장에게 배속하라。

3. 제9사단장은 前記 병력을 통합 지휘하라。

4. 완전히 장악하면 즉시 그 현황을 陸本에 보고하라。

四. 1. 변경 없음。

2. 수송은 陸本 군수국장의 지시를 받으라。

五. 통신규정 의거 실시하라。

참 모 총 장

부록 제85호

陸本訓令 제134호 (陸軍本部 서울 1950. 12.17. 16.00)

訓 令

戰病死者의 屍體 수용 및 처리에 관한 件

국가에 대한 유공자의 사후를 돈독히 遇함으로서 후세에 그 範을 垂하여 그 뒤를 추종하는 자를 속출케 하였음은 古今東西를 통한 사실에 비추어 如實한 것이며 또 제1선에서 失地회복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분투 동고동락하는 전우의 시체를 수용하여 그 처리를 정중히 함으로써 그의 명복을 소원함은 전우애의 발로로서 당연지사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6.25 사변 이후 전사자의 시체를 수용하여 그 유골을 안치한 수는 극소수임。이같은 현실은 실로 한심지사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며 특히 제1선에서 용전분투하는 장병에게 水火를 불사하고 死地에 돌입하는 정신적인 요소를 멸소시켜 士氣를 앙양 진작시키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의 유가족 및 일반국민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不少할 것임을 각급 지휘관은 깊이 명심하고 곤란한 상황과 극악한 조건이라할지라도 銳意적절한 전장소제를 실시하여 극력 전사자의 시체수용에 노력하고 감정규정 제14호 「戰病死者의 처리 및 그 친근자에 대한 通知」에 의한 처리를 철저히 實行할 것을 玆以 示達함。

記

1. 각 부대는 묘지등록에 관한 定期 업무보고를 陸本 병참감실에 매일 1일, 15일, 양회에 걸쳐 정확히 제출하라。

2. 상황이 許하는대로 화장을 실시하며 계통을 따라 후송하라。

3. 상황이 불리할 때는 현지 매장을 하고 필히 이후 후송할 수 있도록 標識를 하라。

4. 유품은 필히 규정대로 후송하라。

5. 陸軍本部 병참감 및 각부대 병참부장은 기지등록 업무에 관하여 직접 실천하는 책임을 가짐을 명심하고 이 업무수행에 적극 노력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86호

陸本訓令 제135호 (陸軍本部 서울 1950. 12. 16. 20.00)

訓 令

一. 근래 전반적인 전선을 一見하건대 최전선부대와 최근거리에서 가장 주도면밀한 작전지도와 적시적절한 명령으로서 전투를 수행하여야 할 전투지휘소가 하등 무가치한 지점에 위치하여 전투지휘소로서의 기능을 발휘치 못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즉응하여 재반처치를 하지 못함으로서 심지어는 요구되는 시일내에 작전을 수행치 못하여 전반적인 작전을 지연시키는 등의 부당함은 일대 유감지사라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일선 지휘관의 전기를 명찰치 못하는 원인에 기인한다 아니 할 수 없음. 각급 지휘관은 如斯之事 全無토록 全 力量을 경주하여야 한 것이며 下記 사항을 절대 엄수할 것을 玆以 엄히 시달한다。

1. 상황이 許하는 한 최전선까지 진출 위치할 것。
2. 彼我의 상황을 능히 관찰할 수 있을 것。
3. 上下左右의 연락이 용이할 것。
4. 變轉無常한 전황에 즉응할 수 있을 것。
5. 攻防여하한 경우를 불문하고 충분히 추진할 수 있을 것。
6. 四周로부터 가능한 掩蔽 혹은 遮蔽가 될 것。
7. 지정된 노선을 항상 약진적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
8. 신속한 진지를 위한 통신망 가설이 용이할 것。
9. 최前線부대에서 4km를 이탈치 말 것(단, 정면의 적 화포를 고려함。주로 연대이하)。
10. 가능한 비행장에 가까울 것(단, 군단에 한함)。

요컨대 지휘관은 군대지휘의 중추이며 단결의 핵심이고 사기진흥의 근원인 동시에 군대활동의 원동력임。고로 전장에 있어서 지휘관의 위치는 전투지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한 그 위덕을 예하 장병에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상황이 허하는 한 제1선까지 이를 정하고 劍電彈雨之間에도 용맹침착 부하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에 중책을 인식케 하여 軍의 최후전첩을 확득토록 할것이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87호

陸本作命 제253호 (陸軍本部 서울 1950. 12. 17. 22.00)

一. 1. 敵 패잔병 일부는 元曉山 일대에 준동하여 부근주민을 소란케 하는 일방 軍주보급로를 위협하고 있음。

2. 1950년 12월 13일 陸本 일반명령 제122호에 의한 제67 경비대대는 釜山에서 편성중。

二. 군은 일부 병력으로서 이 적을 완전히 섬멸하려함。

三. 1. 제11사단장은 예하 6.7경비대대가 편성을 완료하는 즉시로 元曉山 부근 일대를 소탕케 하여 최단시일내에 軍 주보급로상의 적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라。

2. 前記 지구에 대한 소탕작전이 완료하면 사단 방침에 따라 중점적으로 사용하라。

3. 下記 부대의 편성 완료시일 및 토벌 가입 일자를 각각 陸本에 보고하라。

四. 행정사항 : 省略

五. 통신사항 : 省略

총 참 모 장

부록 제88호

陸本作命 제254호 (陸軍本部 서울 1950. 12. 18. 15.00)

一. 省 略

二. 군은 일부 포병을 원대시키려함。

三. 1. 포병사령관은 陸本作命 제249호에 의하여 재편한 제50포병대대 C중대를 1950년 12월 19일 08.00 서울 出發 원대 복귀시키라。

2. 제50포병대대장은 前記 병력을 통합지휘하여 제8사단장 지휘하에 들게 하라。

3. 미수리중에 있는 砲 3門은 제8사단에서 정비 사용케 하라。

四. 행정사항 : 변경 없음

五. 통신사항 : 통신규정 의거 실시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89호

陸本作命 제251호 훈령 제5호 (陸軍本部 서울 1950. 12. 18. 21.00)

訓 令

지 도 : AMS L552 25만분지 1 大韓

군대구분 : 부록 제1호 군대구분 참조。

一. 제1군단

1. 上陸 완료 후 가능한 한 급속히 제1군단장 및 제2군단장 간 상호 합의되는 日時에 제9사단 및 제1, 제2, 제3 경비대대를 통합 지휘하라。 합의된 日時를 최신속한 방법으로 陸軍本部에 보고하라。

2. 수도사단을 즉시 상륙한 지점으로 부터 담당지구 東部 방어진지로 이동하라。

3. 제9사단 수도사단 및 제1, 제2, 제3경비대대를 사용하여 담당지구내 방어진지 "A"를 점령방어하라(부록 제22호 작전투명도 참조)

二. 제2군단

1. 제1군단장 및 제2군단장 간에 상호 합의된 일시에 제9사단 및 제1, 제3경비대대를 배속 해제하여 제1군단장에 배속하라。

2. 陸軍本部에서 지시하는 일시에 제3사단을 배속 해제하여 陸軍本部 직할로 들게 하라。

3. 적절한 협의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1군단장 및 제2군단장간의 직접통신을 허가한다。

4. 공병사항 : 제1101야전공병단 三陟 도착과 동시에 공병임무 命課를 下記와 같이 수정한다.

가. (1) 제1군단 배속으로부터 해제 담당지구내에서 제1군단을 지원하라.

(2) 제104야전공병대대를 통합지휘하라. (배속)

(3) 原州(DS 0733)~芳林里(DS 4942)~속사里(DS 5663)~江陵(DS 9178)간 및 三陟(ES 1443)~江陵(DS 9178) 간보급로를 보수 정비하고 標識하라.

(4) 三陟(ES 1443)~蔚珍(ER 3593)~浦項(EQ 3387) 간 보급로를 보수 정비하고 標識할 준비를 갖추라.

(5) 1950년 12월 16일 24.00附陸本作命 제251호 訓令 제3호에 의거하여 담당지구내 障碍物 및 폭파에 관한 책임을 담당하라.

나. 제1102 야전공병단

(1) 제2군단 배속으로부터 해제한다.

(2) 제104 야전공병대대를 배속 해제하여 제1101 야전 공병단에 배속하라.

(3) 原州(DS 0733)~속사里(DS 5565)간 보급로에 대한 책임으로 부터 해제한다.

(4) 1950년 12월 16일 24.00附陸本作命 제251호 훈령 제3호에 의거한 제1101야전 공병단 담당지구내 장애물 및 폭파에 관한 책임으로 부터 해제한다.

(5) 본 훈령의 실시를 위하여 제1101 야전공병단 및 제1102 야전공병 단장 간의 직접연락을 지시한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90호

陸本訓令 제136호 (陸軍本部 서 울 1970. 12. 17. 09.00)

訓 令

下記에 略說하는 계획은 韓國軍 지역내의 장애물 설치 폭파준비와 실시에 대한 책임을 할당하고 그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다.

記

一. (1) 38선 以南에 있어서의 軍사상 폭파는 무전기, 전화기 교통용 도로 및 철도, 비행장, 이동불가능한 군용보급품과 장비등에 한해서만 실시하라.

건물, 전력 및 수도시설 기타 직접 군용가치가 없는 민간시설은 파괴치 말고 殘置하라. 문자와 시설을 적이 사용치 못하게 하기 위하여 또 우군의 작전력을 증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모든 파괴수단을 충분히 이용할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실시토록 지시한다.

(2) 방한지대의 설치, 要衝, 철도 및 도로 시설 폭파 준비 등에 우선적으로 주력하라. 그러나 방어수단은 이런 작업에 국한해서는 안된다. 가능한 한 모든 적의 접근로에는 장애물과 지뢰로서 차단하며 모든 인도교 및 철교에는 폭파장치를 하라.

(3) 적의 渡河에 도움이 될만한 河川가의 모든 物資를 파괴할 준비를 하라.

(4) 시간의 여유가 있는대로 安東을 통하는 軍線철로를 폭약장치에 의하여 완전 파괴토록 준비

하라。

. 軍 工兵部隊는 附錄 제1호에 획정한 담당지역내에서 즉시 點火藥장치를 하지않은 폭약을 장치하고 사단공병부대가 교대할 때까지 경비하라。

(1) 제1101 야전공병단

(ㄱ) 담당지역(부록 1)內의 요형도로시설에 點火장치를 하지않은 폭약장치를 하라。

(ㄴ) 군단장이 지정하는 사단공병부대가 교대할 때까지 폭약장치에 경계병을 두라。

(ㄷ) 구역 내에 장애물과 지뢰지대를 설치하라。

(2) 제1102 야전공병단

(ㄱ) 담당구역(附錄 1)內의 모든 要衝道路 및 철도시설에 點火藥장치를 하지 않은 폭약장치를 하되 別添一番에서 五番까지의 철도시설을 우선적으로 하라。

(ㄴ) 담당구역 내의 군단장이 지정하는 사단 공병부대가 교대할 때까지 폭약장치를 경비하라

(ㄷ) 담당구역 내에 장애물과 지뢰지대를 부설하라。

(ㄹ) 제1101 야전 공병단 담당구역에 대한 책임을 그 부대가 交代할 때까지 담당하라。

(3) 제1103 야전공병단

(ㄱ) 담당구역 내(부록 1)의 모든 요형도로 및 철도시설에 點火장치를 하되 六番, 十番 및 十一番의 要衝철도 시설을 우선적으로 하라。

(ㄴ) 담당지역내의 군단장이 지정하는 사단 공병부대가 교대할 때까지 그 폭약장치를 교대하라。

(ㄷ) 담당지역 내에 장애물과 지뢰지대를 부설하라。

(4) 사단 공병부대

(ㄱ) 적의 접근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對戰車 및 대인지뢰를 포함하는 有刺 철조망 및 기타 障碍物을 설치하되 부록 1에 표시된 긴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라。

(ㄴ) 담당지역 내에 점화장치 없는 폭약장치를 하고 該當 지휘관의 명령에 의하여 폭파를 실시하든가 철거할 때까지 경비하라。

(ㄷ) 후퇴하는 경우에는 폭약장치를 경비하고 軍 공병부대와 교대하여 군단장 또는 그가 지정한 책임자의 명령에 의하여 점화장치를 하고 폭파시킬 수 있도록 대기하라。

(5)(ㄱ) 폭파는 해당 군단장 또는 그가 지정한 책임자의 명령에 의해서만 실시하라。

(ㄴ) 준비된 폭약장치 장애물 및 지뢰지대는 적당한 공병양식에 의하여 기록하라。 기록은 안접부대에 통지하여 공병계통을 통하여 陸軍本部에 보고하라。

(ㄷ) 군단장은 담당지역에 대한 상세한 장애물 및 폭파계획을 작성하여 그 일부를 가급적 속히 陸軍本部에 제출하라。

폭파 및 기타 이 계획에 소요될 물자 예상고도 이 계획에 표시하여야 함。

(ㄹ) 서울 東方(CS 5157) 지점에 있는 철교는 美 제9군단 지역에 있는 故로 그 폭파는 그 부대가 준비할 것이다。

. 美 제3철도 수송대는 적의 노획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철도상의 차량을 후송 또는 파괴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차량이 적에게 노획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美군 제3철도수송대에서 이것을 不知하고 있을 때는 군단장은 모든 차량을 후송 또는 파괴하고 부록 1에 기재한 要領시설 기타는 가능한 한 모든 중간 교량을 파괴하라。

四. 上記 지시한 이외에 군단장은 후퇴하는 경우에 있어서 철도 및 도로망의 적절한 폭파를 수행할 책임이 있음。

총 참 모 장

省略 : 別紙부록—폭파 및 장애물 투명지

부록 제91호

陸本訓令 제137호 (陸軍本部 서울 1950. 12. 19. 10. 20)

訓 令

新兵機會敎育 실시에 관한 件

一. 각급 지휘관은 보충된 신병에 대하여 一戰一鬪間 寸暇를 적절히 이용함으로서 作戰과 併行한 기회교육을 실시하라。

二. 敎育重點은 전투수행상 必須하며 작전과 병행하여 실시 가능한 것으로 그의 철저를 기하라。

1. 사격 교육

2. 진중(陣中) 근무

3. 야간 전투

三. 각급 지휘관은 이 훈령에 의한 교육 실시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는 동시에 실행보고를 매주 수요일까지 제출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92호

陸本訓令 제138호 (陸軍本部 서울 1950. 12. 18. 20. 00)

訓 令

陸本作命 제251호 訓令 제3호(1950. 12. 16. 24. 00附) 修正의 件

一. 철수하는 경우에는 北漢江에서 釜山까지의 京慶線(中央線) 철로의 모든 軌條를 파괴하라는 지시를 上級 사령부로 부터 받았음。이 파괴 실시에 대한 책임은 제1102 공병단의 지원을 받은 제3군단장에 있음。

二. 파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궤도를 길게 연결하는 접속板에 二對度 폭약을 장약하라。

三. 임무수행을 위하여는 효과적인 모든 수단을 取하여야 하지마는 다음 方法의 한가지를 시사함。

1. 8명으로 되는 3개의 폭파반을 조직하고 각반에 作業隊用 手動車 2대와 추력 1대를 장비함。

제1반은 手動車로 北漢江을 출발하여 楊平까지 그 임무를 수행함。제2반은 제1반이 사용한 것과

같이 手動車에 새로운 폭약을 적재하여 신천(CS 8443)에 進行하면서 임무를 수행함.

제3반은 原州에서 제2반을 만나 역시 같은 方法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進行함. 그간 제1반은 추력으로 탄약보급소에서 또다시 폭약을 실어 제3반과 교대함.

2. 각 반의 線路 담당구역은 사전 정찰한 결과에 의하여 결정 별도지시함.

四. 北漢江에서 原州以南 철도의 폭파는 각 구역순서로 전투상황이 결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행하되 그 실시는 제3군단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責任者 命에 의하여 실시함.

五. 線路를 폭파하기 전에 철도수송부와 긴밀한 연결을 취하여 使命가능한 철도차량을 후송 또는 파괴하여야 함.

六. 폭파용 보급품은 방기감설이 다음 탄약 보급소에 준비하여서 이 사용달성을 용이하게 하여야 함

1. 서울 폭약		12,500封度
	非電氣式 뇌관	6,500개
	도 화 선	6,500呎
	점 화 기	M1 6,500개
2. 原州 폭약		27,040封度
	非電氣式뇌관	13,700개
	도화선	13,700呎
	점화기	M1 13,700개
3. 安東 폭약		23,700封度
	非電氣式뇌관	12,000개
	도화선	12,000呎
	점화기	M1 12,000개
4. 永川 폭약		24,000封度
	非電氣式뇌관	12,000개
	도화선	12,000呎
	점화기	M1 12,000개
5. 釜山 폭약		15,500封度
	非電氣式뇌관	7.700개
	도화선	7,700呎
	점화기	M1 7,700개

6. 다음과 같은 里程表를 참고로 첨부함.

釜山~永川	94.8마일
永川~安東	55.3마일
安東~原州	91.8마일
原州~서울	77.2마일
計	319.1마일

총 참 모 장

부록 제93호

陸本作命 제251호 훈령 제6호 (陸軍本部 서울 1950. 12.20. 07.00)

訓 令

지도 : 大韓 25만분지 1

1950년 12월 16인 24.00附 陸本作命 제251호를 下記와 같이 修正한다。

一. 제7사단

즉시 군 직할로부터 해제하고 동시에 제2군단에 배속한다。

二. 제2군단

1. 제2군단장은 즉시 제7사단을 통합 지휘하라。
2. 제2군단은 즉시 제1, 제3 경비대를 제1군단에 배속하라。
3. 제7사단에 부과된 임무를 인수하라。
4. 제3사단의 주력은 洪川에 위치하게 하고 최소한의 일부 병력을 가지고 담당지구내 "B" 연선상의 유리한 지형지물을 점령 확보하여 방어에 철어를 기하라。

三. 제1군단

1. 제1군단장은 즉시 제1, 제3 경비대대를 통합지휘하라。
2. 제9사단은 제1, 제3경비대대로 하여금 지역내의 "B"선상의 유리한 지형지물을 점령 확보하여 방어에 철저를 기하게 하라。

四. 1. 제2군단~제3군단 경계

DT 13~15 도로교차점으로 부터 南方으로 BM 85~08

DT 0901~南으로 △ 1051(DS 0892)~南西里 △ 554(DS 0584)까지

2. 제1군단~제2군단 경계

DT 26~15 지점으로 부터 加露里(DT 2510) 甲屯里(DS 2397)를 통과하여 △ 633(DS 2079)까지。

五. "B"방어선

CT 5107지점으로 부터 東方으로 대략 38선을 따라 東海岸에 이르는 線。

六. 각 군단은 "B"선상 혹은 이북의 유리한 현 진지에 축성을 실시함에 全 노력을 경주하라。

七. 동일한 내용의 지시를 고문단 계통으로 부터 시달한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94호

陸軍作命 제255호 (陸軍本部 서울 1950. 12. 20)

一. 1. 省 略

2. 美 제8군사령부는 12월 22일 14.00附로 大邱에서 그 업무를 개시함.

二. 군은 1950년 12월 22일 14.00부터 陸軍本部의 업무를 大邱에서 실시하려 한다。

三. 1. 陸軍本部 각국감 및 관계 각 지휘관은 별지 陸軍本部 이동계획에 의하여 각각 이동 1950년 12월 22일 14.00부터 大邱에서 업무 개시토록 하라.

2. 작전지도는 서울에서 依然 실시한다.

四. 행정사항 : 별지 육군본부 이동계획표 참조.

五. 省 略

총 참 모 장

부록 제95호

陸軍作命 제251호 修正훈령 제7호 (陸軍本部 서울 1950. 12.21. 08.00)

訓 令

군대구분 부록 제1호

一. 省 略

二. 1. 군은(CT 5107)지점으로 부터 東海岸에 이르는 38선 일반선상 방어진지 "B"上의 가장 유리한 지형을 점령 방어하려 함.

2. 전투지경 및 방어진지 ~부록 제2호 작전부명도 참조.

三. 1. 제1군단

(ㄱ) 1950년 12월 19일 24.00附로 제9사단 및 제1, 제3 경비대대를 통합 지휘하라.

(ㄴ) 수도사단, 제9사단 및 제1, 제3경비대대를 사용하여 담당지구내 방어진지 "B"上의 가장 유리한 지형을 점령 방어하라.

2. 제2군단

(ㄱ) 1950년 12월 19일 24.00附로 제7사단을 통합지휘하라.

(ㄴ) 1950년 12월 19일 24.00附를 제9사단 및 제1, 제3 경비대대를 배속 해제하여 제1군단에 배속하라.

(ㄷ) 제7사단을 사용하여 下記 책임을 담당하라.

A. 春川(CS 9902) 부근 및 북방에 차단진지를 설치하여 北方, 東北方 및 西北方으로 부터 春川에 접근하는 적을 저지하라.

B. 제3군단 담당지구내에 대한 여하한 적의 침투라도 반격 격퇴할 준비를 갖추라.

(ㄹ) 제3사단 병력 중 최소한도로 필요한 병력만을 배치하여 담당지구내 방어진지 "B"선상의 가장 유리한 지형을 점령 방어하며 제3사단의 大部병력은 洪川(BS 0671)에 殘置하라.

3. 제3군단은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4. 제11사단은 현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 1. "B"선 부근이나 혹은 현 진지지가 "B"선 이북일 경우에는 현 진지상의 가장 유리한 지형상에 최대노력을 경주하여 축성공사를 실시하라.

2. 각급 지휘관은 인접부대간 상호 긴밀히 협의하여 전투지경 선상의 간격 소멸 방어에 만전을 기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96호

1950년 12월 24일

陸軍本部 이동계획

一. 目 的

이 계획은 陸軍本部 이동에 대하여 兵員 및 물자의 질서있는 수송을 완수할 것을 목적으로 함。

二. 실시요령

1. 수송은 자대수송과 철도수송으로 함。
2. 자대수송은 현재 각 국감실이 보유하는 차량에 한함。
3. 자대수송 이외의 것은 철도수송으로써 함。
4. 이동간의 給養은 본부사령이 담당하고 소요 휴대약排(24分)을 12월 20일 16시까지 이동대에 보급하다。
5. 이동간의 경계는 자대가 담당하라。
6. 화차 및 자동차 및 자동차 적재는 야간을 이용함으로 각 국감은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日中에 정리 및 준비의 만전을 기하라。

三. 자대수송

1. 경로 부록 제1
2. 출발일시 12월 21일 01.00
3. 교통정리
   a. 헌병사령관은 경로상의 요소에 소요헌병을 배치하여 교통관리의 만전을 기하라。특히 漢江교 부근의 교통관리에는 주의를 요함。
   b. 헌병사령관은 경로상의 難所에 표지를 하여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라。
   c. 헌병 設置장소와 標識설치점은 헌병사령관이 이를 결정하라.
   d. 행군속도 매시 10마일
      현하의 도로상황에 감하여 속침 조정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
   e. 차량간 거리 10m
   f. 이동대 편성, 부록 제2, 이동서열 부록 제3
4. 행군표 부록 제4
5. 수송 지휘관은 소속차량 兵員및 물자를 파악하라。
6. 수송지휘관은 12월 21일 오전 1시 정각 本部 앞에 집합 점검후 출발하라。
7. 이동간 경비
   a. 각 차량은 부동액을 충분히 준비하라。
   b. 각 차량에는 가능한 체인을 착용하라。
   c. 공병감은 救難車를 준비하여 도중 救難에 대비하라。
   d. 도중 고장 장비에 대한 輕장비는 병기감이 이를 담당하고 수리불가능한 차량은 그 위치를 이동 후 그 차량의 소속 부대장이 보고하라。

고장차량은 정비에 방임하고 기타 차량은 초월 전진하라。

四. 철도수송

1. 시발역 淸涼里
2. 도착역 大 邱
3. 경로 淸涼里—原州—永川—大邱
4. 수송순위 및 지휘관 : 본부사령 육군중령 金華山

나. 제2대 수송지휘관 : 재무감 육군대령 元泰燮

다. 각대의 구성은 별표 제5에 의하라。

5. 적재 및 출발일시

梯 隊	적 재 개 시	적 재 완 료	출 발
제 1 대	12.20, 19.00	12.20. 24.00	12.21. 01.00
제 2 대	12.21. 00.00	12.21. 03.00	12.21. 03.00

6. 소요 객화차 할당은 별표 제5에 의하라。

五. 본부 : 淸涼里간 수송

1. 東部發 : 12월 20일 18.00부터
2. 소요차량 : 가급적으로 자대차량을 이용하라。
3. 할당 병참단 추력은 제1대부터 작업을 개시할 것이며 작업지휘관은 수송완료 국감실 할당차량을 즉시로 미완료 국감실에 배속하며 적재완료 시간을 엄수케 하라。
4. 각 국감실 추력 할당

제1대

국 감	할 당 트 럭
참모총장실	1대
G—1	2대
G—2	자대트럭
G—3	대
陸本군악대	
본부사령실	
헌병사령부	
계	대

지휘관 : 인사국 선임참교

제2대

국 감	할 당 트 럭
G—4	3대
병 기	/
조 달	1대
공 병	/
병 참	3대
법 무	1대
감 찰	1대
후 생	1대
의 무	/
UN연락장교단	1대
통 신	2대
A—G	2대
FIN	1대
민사부	자대트럭
계	16대

지휘관—↔재무감

註 : 제1대 지휘관은 작업종료 즉시로 제2대 지휘관에 인계하여 적재시간 내에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省略 : 부록 2, 3

부록 제97호

陸本訓令 제139호 (陸軍本部, 서울 1950. 12. 21 08.00)

訓 令

今般 陸軍本部가 서울로 부터 大邱로 轉進함에 있어서 일부 장병중에는 냉정한 戰局의 관찰을 缺하고 심지어는 국민의 시범이 될 군인으로서의 矜持를 망각하고 불필요한 危懼心으로 후퇴 운운하여 民心에 악영향을 초래케 함은 지극히 유감된 일임。

지휘관의 위치라 하는 것이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兵學上 상식임。 今次 陸軍本部의 이동도 또한 戰략상의 處置인 것이다。 더구나 서울은 현재 제1선이 北緯 38度 선상에 결전 방어선을 구성함에 있어서 그 통사령부 위치로서는 제1선과 近距離로 복잡성이 많이 있을 뿐 아니라 各 전투부대 전술상 행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며 동시에 美 제8군사령부가 동일한 意義에서 大邱에 위치함으로 作戰上 긴밀한 연락을 取하여야 할 것이며 또 국제통신의 중심지이며 軍作戰 지휘면으로나 교통보급면으로나 최적 위치이며 중심지인 所以로 轉進하는 것이니 각급지휘관 및 전장병은 불필요한 위구심을 일소하고 조국에 대한 영예와 大韓民國 국민된 責度를 견지하고 국가중대 위기에 處한 이제 각자는 自己에게 부과된 임무에 성심성의 死力을 다하여 滅共聖戰의 완수와 맡은바 임무의 完遂를 期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98호

陸本訓令 제140호 (陸軍本部 大邱 1950. 12. 24 10.00)

訓 令

一. 陸本作戰計劃 제11호를 別紙와 같이 示達한다。

二. 제1, 2, 3군단장 및 제11단장은 別紙 작전계획에 의거하여 담당구역 내에 필요한 수색을 실시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별도 후달하는 日時에 즉시 행동할 수 있는 萬般의 준비를 갖추라。

三. 이 계획의 발효시기는 별도 후달하며 일단 발효日字가 시달되면 이 계획은 作戰명령으로서 취급될 수 있다。

省略 : 別紙

총 참 모 장

부록 제99호

陸本訓令 제141호 (陸軍本部 大邱 1950. 12. 26 24.00)

訓 令

交通規制 및 車輛運行統制에 관한 件

군은 본격적인 冬期作戰에 당면함으로서 去益 수송력 확보와 순조로운 교통순환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자연적 장애로 인한 수송력 감퇴와 교통규칙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무익한 수송력의 소모를 초래하고 있음은 대단히 유감된 일임. 특히 소퇴의 동맥인 자동차 수송에 관하여 左記의 교통규칙과 차량통제 사항을 시달하니 엄히 이를 이행하여 탁월한 작전의 우위와 부단한 보급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각급 지휘관의 적극적인 예하부대 수송기관에 대한 통제감독의 강화를 요망한다.

記

一. 교통규칙

가. 속도제한

1. 차량은 항시 도로 및 天候상태에 따라 적절히 운행하되 左記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2. 최대속도
   a. 公路 시속 20마일
   b. 市內 시속 15마일
   c. 夜間有燈 시속 15마일
      無燈시속 10마일
3. 헌병사령관은 수시 순찰헌병으로 하여금 운행 차량 속도를 철저히 감독케 하라.
4. 교통사고의 9할이 속도과실에 기인하니 冬期에 있어서는 특히 제한속도를 엄수케 함과 동시에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중하게 하라.

나. 정 비

1. 강설, 결빙지구에서는 필히 "체인"을 사용하라.
2. 부동액을 충분히 활용하여 보유차량의 능률은 최고도로 발휘하라.
3. 각급 지휘관은 항상 차량 정비를 실시 감독케 하여 소차량의 부대정비가 최고수준을 유지하도록 격별한 주의를 요한다.
4. 운전병에 대하여는 적절한 휴양이 필요하며 특히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하여 과로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라.

다. 수 송

1. 1마일 간의 차량밀도는 50대 이하로 한다.
2. 차량 1개梯隊의 수는 20대를 초과치 못한다.
3. 장거리 수송에 있어 적재량 이상의 荷積을 엄금한다.

二. 차량 운행 통제

가. 각 군단 및 사단차량이 군단장의 허가없이 지원담당보급소 이남을 운행할 때는 이 차량을 몰수하고 책임관에게 책임을 추궁하라.

나. 헌병사령관은 일반시민 및 민간물자를 적재 운용하는 차량일체를 몰수할 것이며 이 책임관에

게 책임추궁하라。

다. 보급소 후방 운행이 허가된 차량으로서 허가된 목적지 이외의 운행을 취체하라。

라. 과견된 병참단 자동차는 임무수행 즉시로 원대복귀하여 항상 군 수송력을 확보하라。

마. 교통군기의 확립。

총 참 모 장

부록 제100호

陸本訓令 제142호 (陸軍本部 大邱 1950. 12. 27. 12.00)

訓 令

低俗軍歌 폐지에 관한 件

군대의 사기를 앙양하는 군가는 허다하나 그 중 하기와 같은 군가는 군가로서 하등의 가치성을 발견할 수 없을 뿐더러 도리어 軍人들의 士氣를 저하시킬 우려가 농후함으로 금후 此等 군가는 일체 폐지하고 가창을 금지하니 각급 지휘관은 부하 장병으로 하여금 철저히 주지시켜 즉시 유창을 엄금한 것을 지시함。

記

一. 忠誠歌 (가사省略)

二. 이별가(사나이의 꽃) (가사省略)

총 참 모 장

부록 제101호

陸本訓令 제143호 (陸軍本部 大邱 1950. 12. 27. 15.00)

訓 令

軍 主補給路 경비계획

一. 1. 省略

2. 군 철수지역으로부터 철수된 경찰 병력은 전투경찰 부대로 개편함。

二. 1. 左은 전투경찰부대 및 연선에 이미 배치한 일반 경찰로 하여금 軍의 주보급로 大邱(DQ6370)～永川(DQ9479)～慶城(DR7222)～安東(DR7546)～榮州(DR6675)～丹陽(DR3888)～堤川(C0272～原州(DS0733)～橫城(DS1149)～洪川(DS0272)을 연하는 간선 및 인선부근의 경비를 담당강화하려함。

2. 전투경찰 대내 배비 및 주보급로 별지 제1호 투령도 참조(25만분지 1지도)

三. 1. 內務部 非常경비사령부

(1) 作戰軍 철수지역으로부터 철수된 경찰병력으로 가급적 속히 다수의 전투경찰 대대를 편성할 일。

(2) 편성 완료되는 대로 제1, 제2, 제3區間 順으로 급속히 배비하여 旣배비된 일반경찰 및 연

선에 주둔중인 군 각 기관과 긴밀한 연락하에 군주보급로 경비에 만전을 기할 일。

(3) 비상 경비 사령관은 前記 임무수행에 관한 제반 진척사항 및 전투경찰대대 편성에 관하여 시시로 당 본부에 보고할 일。

(4) 각 구간에 배비하는 병력은 최소한 1개대대로 하되 병력사정이 허락하는 한 다수 배비하라。

(5) 각 대대장은 교통 통신상 요점에 그 지휘소를 두고 담당구역 내 지형상 요부, 요점(돌출부 애로등)에 치중하여 배비하되 철도시설은 가급적 고유철도 경찰병력으로 담당케 하라。

(6) 각 대대장은 작전 업무에 한하여 배비 지역내에서 작전중인 군 지휘관의 區處를 받는다。

2. 제3군단

별지 제1호 투명도에 의한 관하군 주보급로 경비경찰의 임무에 적극 협조하며 소요사항을 區處하라。

3. 제11사단

별지 제1호 투명도에 의한 관하 軍 주보급로 경비경찰의 임무수행에 적극 협조하며 소요사항을 區處하라。

※ 협조를 긴밀히 하기 위하여 각급 지휘관간의 직접통신을 허가한다。

四. 행정사항

1. 전투경찰대대의 장비, 현 장비와 동일함。

2. 보급 수송일체는 각각 자대에서 담당한다。

五. 통신사항

通信軸線 主補給幹線과 동일함。

戒嚴總司令官

부록 제102호

陸本訓令 제144호 (陸軍本部 大邱 1950. 12. 27. 20.00)

訓 令

暗號 使用에 關하여

我軍企圖의 사전 폭로는 적으로 하여금 그의 행동을 유리케 할 뿐만 아니라 我軍作戰行動을 위태롭게 함을 고려하여 비밀 문서 또는 電文은 필히 暗號化하여 送達하여야 하며 특히 전보푸文 송수는 下記경우 이외는 절대로 그 취급을 금한다。

一. 電文 내용이 긴급하며 적이 도청하여 방해행동을 개시코자하여도 我행동이 끝나고 사간적 여유를 주지않는 것 즉 비밀 보다도 속도를 요구하는 電文。

二. 적이 도청하여도 하등의 전략적 가치가 없는 내용의 전문。

총 참 모 장

부록 제103호

陸本訓令 제145호 (陸軍本部 大邱 1950. 12. 27. 12.00)

訓　令

防諜觀念의 철저를 기하라。

現代戰에 있어서 軍作戰 수행상 방첩의 중요성은 과거 전사에 비추어 재언을 요하지 않으며 國家存亡之秋에 처한 현 결전단계에 방첩관념의 철저를 기하기위하여 下記 각항을 지적 주의를 환기하나니 全장병은 항시 간첩은 나의 신변에 있음을 명심하고 무의식중의 一句言 흘어진 屑紙의 一片이 全軍의 운명을 패망의 危路로 이끌어감을 명기하고 방첩에 만유감 없기를 期하라。

一. 부대이동을 秘匿하라。

작전상 부대이동은 가장 중대하고 기밀에 속하는 것이며 부대행동이 사전에 적에게 탐지되면 不戰敗者의 비운을 不免할 것은 과거진례로 명확한 사실임。 연이나 현 아군내의 실정을 보건대 부대가 행동도 하기 전에 부대전원이 주지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친척, 친우에게 「何時, 何處를 간다」는 등 公公然히 말하는 사례가 많음은 한심스러운 일이며 각급 지휘관의 반성을 요하는 점임。

二. 기밀서류 보관을 철저히 하라。

기밀서류를 棚上에 방치하거나 관계자 이외의 者가 흥미적으로 閱讀하는 예를 발견할 수 있음。 기밀서류는 지정된 책임장교 이외의 閱讀을 禁할 것이며 특히 軍屬, 출입 地方人에 格別한 주의를 하라。

三. 屑紙 소각을 철저히 하라。

屑紙의 一片이 간첩에게 千金의 가치가 있으며 軍 作戰을 위태롭게 함을 명심하여 屑紙 소각에는 필히 책임장교 입회하에 실시할 것임。

四. 言動에 주의하라。

무의식 중의 一言이 軍 전반 작전계획을 누설케 하는 예는 戰史가 증명하고 있으며 또 적의 첩보분자는 그것을 노리고 있다。 軍에 관한 행동, 상황, 기획 등에 관하여는 계급여하, 친분여하를 막론하고 타인에게 일체 언급하지마라。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군대에서 제일 위험한 자이다。

五. 각급 지휘관은 예하부대 장병에게 철저한 방첩교육을 실시하고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관계 방첩기관은 가일층 방첩에 만전을 기할 것임。

총 참 모 장

부록 제104호

陸本訓令 제146호　　(陸軍本部 大邱 1950. 12. 28. 15.00)

訓　令

一. 陸軍 종합학교에서 교육중인 장갑차 10대 및 인원일체를 12월 30일 24.00附 下記와 같이 배속한다。

二. 육군 종합학교장은 교육이 완료하는 즉시로 인솔 책임장교를 차출하여 春川까지 이동시켜라。

三. 이동이 완료하면 下記에 의하여 각각 배속하라。

1. 5사단에 4대 인원 12명

2. 8사단에 4대 인원 12명

3. 종합학교에 2대(교육용) 인원 6명

四. 제5, 제8사단장은 각각 장갑차를 배속받으면 예하 각 연대 수색소대에 1대씩 사단수색 중대에 1대씩 배속 활용하라。

五. 각 관계관은 배속 완료 후 즉시 결과보고를 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105호

陸本訓令 제147호 (陸軍本部 大邱 1950. 12. 29. 15.00)

一. 去 12월 25일 02.00頃 제22연대 전투지휘소는 不意의 피습으로 무의미한 전력을 막대히 소모시키었다。如何한 不美스러운 戰例는 전면적인 전선의 파괴를 초래할 우려가 不少하며 이는 지휘관의 경계처치 불충분과 四周방어원칙을 무시한 결과라 아니할 수 없음。如斯 事例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이 그 전례를 기록하여 엄히 훈령하니 각급 지휘관은 가일층 경계심을 왕성히 하여 최후의 전승획득에 분발 노력하라。

二. 戰例

1. 일반상황

12월 20일 현재 군은 38°선상에 전면적으로 강고한 방어진지를 구축 적의침투각전에 대비하고 있으며 일부는 국부적으로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고 있다。

당시 제22연대는 於論(DS 17.8 98.0)지구에서 병력을 재정비하고 전면적인 방어선의 일각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그 지휘소는 역시 於論(DS 17. 8 98. 0)에 위치하고 약 2개중대의 예비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2. 經緯

A. 적 약2개소대는 我제18연대 제3대대의 전 병력이 일선에 배치된 것을 탐지하자 12월 24일 夜暗을 利用 (DT 1498)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대대지휘소를 습격하여 왔다。불의의 습격에 당황한 지휘소는 부득이 (DT 17.8~97.9) 지점으로 후퇴 적은 시간의 여유를 주지않고 급전하여 급거 제22연대 지휘소에 기습을 감행하였다。특히 적은 당시 위장의 철저를 기하여 피아 식별을 곤란케 하였다。

B. 연대지휘소는 당시 예비병력 2개중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전면에 경계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피아의 식별이 곤란하여 小敵의 철복을 발견치 못하였다。

연대장은 분산된 병력을 즉시 수습 반격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성공치 못하고 부득이 본의아닌 후퇴를 하게된 것이다。然이나 즉시 부대의 재편을 실시하여 25일 06.00 반격전을 감행하여 연대 지휘소 원위치(DT 17.8 97.9)에 복귀 부과된 임무수행에 노력하였다。

3. 결과(피해)

戰死 1명(중대장)

부상 7명, 실종 44명

M1 30정, 칼빙 20정, 자동소총 1정, 81미리박격포 3門, 로켓포 1門, 통신기 1대, 차량 1대,

4. 교훈

약 2개중대의 예비병력을 보유하면서 불과 2개소대의 적 기습을 방지치 못함은 敵我間 식별이 곤란하다 할지라도 본질적 경계의 불충분을 증명하는 것이며 항시 각급 지휘관의 기습경계에 대한 교육 불충분과 최후의 1인까지 임지를 사수한다는 감투정신의 결여를 증좌하는 것이니 각급 지휘관은 과거 剿匪 전투를 명심하는 동시에 전투는 경계로부터 개시되며 경계로 종료한다는 사실에 감하여 예하 부대교육에 철저를 기할 것이다.

재차 이와같은 사례를 재연하는 지휘관에게 엄중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106호

陸本作命 제251호 수정훈령 제9호 (陸軍本部 大邱 1950. 12. 30. 18.00)

訓 令

一. 작전훈련 제4호(陸本作命 제251호 수정, 1950년 12월 10일 12.00附) 명령 수령자에 제1군단장을 첨가한다.

二. 1950년 12월 29일 19.00附 제3경비대대를 제1군단 배속으로부터 해제하여 제11사단에 배속한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107호

陸本作命 제251호 수정훈령 제10호 (陸軍本部 大邱 1950. 12. 30. 18.20)

訓 令

一. 1950년 12월 10일 12.00附 陸本 作命 제251호중 부록 제4호를 下와같이 수정한다.

二. a. 제1102야전공병대대

(1) 제1201 야전공병대대가 安東도착 즉시로 丹陽(DR 3987)—安東(DR 7546)간 보급로에 대한 임무에서 해제된다.

(2) 그 즉시로 原州(DS 0733)—丹陽(DR 3987)간 보급로에 대한 정비강화 및 標識을 하라.

b. 제1201야전공병대

(1) 水原(CS 2526)—大邱(DQ 6488)간의 보급로에 대한 임무에서 해제된다.

(2) 永川—慶城(DR 7223)—安東(DR 7546)—榮州(DR 6675)—丹陽(DR 3987)간의 보급로를 정비 강화하여 이에 標識를 가하라.

三. 직접한 협조를 하기 위한 제1102 야전공병대대 및 제1201 야전공병대장 간의 직접통신은 지시되었음.

四. 上記 제2항에 규정된 보급로를 속히 정찰하여 그 결과를 즉시 공병계통을 거쳐 本部에 보고하라.

도로는 30톤급 重車 하물이 통과할 수 있도록 강화하라.

40톤급 하물이 통과할 수 있는 현 永久교량을 50톤급 하물이 통과할 수 있도록 강화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108호

陸本訓令 제148호 (陸軍本部 大邱 1950. 12. 31. 08.00)

訓 令

「中共軍 전투원칙」에 관한 件

不共戴天之怨讐인 中共軍의 전투원칙을 별지와 같이 배포하니 각급 지휘관은 예하 장병 교육 및 中共전투에 있어서 該 교훈을 충분히 활용하여 戰勝획득에 만유갑 없기를 기하라。

총 참 모 장

中共軍 전투원칙

一. 본 정보는 美 제8군 전투정보 제5호에서 발췌한 中共軍 전투원칙에 관한 정보를 요약한 것이다。

二. 中共軍이 아군에 대한 최초 경험에 입각하여 작성한 최근 발견된 中共軍 전투정보를 我軍 자신이 참고로 하는 동시에 적군이 아군에 가장 유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전법은 어떠한 것인가를 천명하기 위하여 下와 같이 布達한다。

三. 上記 中共軍정보는 상당한 지면에 亘하여 我 공격방법 및 방어방법을 분석하고 있으나 요점은 아군이 입체적 공격을 잘 한다는 것이다。즉 아군의 공격은 흔히 오전 8시부터 9시사이에 공군 포 전차 보병의 순서로 연속 공격을 실시하며 공격유산은 도로에 제한되며 아군은 大路나 평지에 따라서는 민속히 작전할 수 있다고는 믿으나 산악지대에서는 유효적절히 작전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다。

四. 아군의 방어방법 및 공격방법을 분석한 上記정보는 中共軍의 對我軍戰法을 下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공격전 중공군 각 團隊는 전후면에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여 이 진지를 이용하여 주간의 我공군 공격을 피하여 도로로 부터 원격지에 주둔하고 수색공격으로서 아군의 진지를 탐지하여 화력이 제일 약한 진지에 대하여 主力공격을 한다。

2. 공격시 반드시 1團隊로 하여금 아군의 측면을 포위하고 후방을 차단하는 임무를 준다。이 포위 우회를 실시함에 앞서서 일부 병력은 가급적 은밀리에 아군 측면 또는 후방에 진출한다。만일 이 병력이 저항에 조우하면 이 단대 지휘관은 그 저항을 회피하여 재차 기도하여 아군의 조직, 보급로, 퇴각로를 발견할 때까지 이를 반복한다。

3. 주간 공격시의 공격대형은 전면의 길이를 縱深으로 한 삼각형으로서 3분의 2 이상의 병력을 공격제대에 충당치 않는 대형이다。然이나 야간공격에 있어서는 아군의 방어화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四梯隊 一線배치의 대형을 이용한다。이 때 특히 지휘관은 암야로 인한 자기병력 분산 손실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후방 제2공격 제대와의 긴밀한 연락과 접촉을 유지하는 데 주의하도록 지시되고 있다。

4. 야간공격시 적군은 아군 측면을 탐사할 목적으로 소부대를 파견하며 대형은 병력분산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규정된 대형으로서 서서히 행동한다。더구나 산악지대의 야간전투에서는 지휘

관은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隣隊間의 연락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선도 정찰대는 공격을 감행하여 나팔을 불어 주력을 집결시키고 主攻을 지향하는 장소를 명시한다。

5. 아군진지를 침공시는 적군 지휘관은 최대한도로 수류탄 및 자동화기로서 부대를 무장하고 착검하여 영시이후 天明까지의 사이에 공격을 실시한다。

6. 한 지역을 점령하면 薄暮직전까지 방어진지를 완전히 구축하여야 한다。(上記 정보중 진지점령 후 반격에 대비할 편성을 즉시하는데 관한 지시 훈령이 전연 없는 점이 중요할 것 같다.)人員을 부근의 소 村落에 파견하여 불을 때고 불 부근에 부대가 있다고 착각을 일으키도록 한다。

7. 차폐된 지역 및 동굴을 선택하여 은폐에 노력한다. 노출지점에 僞진지를 구축하여 地上 공중의 포화를 집중시킨다。

8. 시설(대개 임시 군수품 집적소)은 소규모로 하고 분산, 위장되어야 하고 민속히 이동할 수있어야 한다。

前記한 적 전술의 개론을 결론하는 데 있어,

中共軍은 단기 훈련으로서 보통 이상으로 전술원칙을 이행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전술원칙급 실시 응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각급 지휘관 자신의 경험에 의거하여 그 실시 응용에 여러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적군이 專善하여 취하는 전투원칙을 항시 고려하고 있으면 지휘관은 예하 隊隊의 교육훈련 또는 對敵 전법을 案出하는 여러 교훈을 얻게될 것이다。

부록 제109호

陸本訓令 제149호 (陸軍本部 大臣 1950. 12. 31. 80.00)

訓 令

通信 保安에 관한 件

군 작전의 성공을 기하기 위한 軍 통신은 그 신뢰성과 안전성이 확실히 保持되어야 함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 바 만약 이를 소홀히 할 때는 전군의 과멸을 초래할 것임。然이나 근래 통신 보안법의 제규칙이행이 불철저함은 실로 한심스러운 일임。통신 안보에 관한 담당 책임 장병은 면밀주도하게 이를 硏鑽 그 원리를 깊이 인식하고 특히 下記 각 항에 유의하여 가일층 통신안보의 철저를 기하라。

1. 근래 각 통신장병은 통신보안법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不勘하며 특히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불구하고 암호에 속하는 電文을 平文으로 타전하여 군사행동 및 비밀을 누설, 적 정보로서 제공함이 甚多함은 실로 유감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當該 지휘관의 감시감독이 불철저함이라 인정되는 바 책임장병은 일층 통신보안에 주의하여 이와같은 일이 전무토록 만전을 기할 일。

2. 통신병 상호간 교신중에는 필히 규정된 이외의 機論을 엄금하며 교신 완료후 역시 不規 전보수신을 엄금함。

3. 통신안보상 각 통신시설이 있는 장소에는 직접 통신관계자 이외는 계급여하의 장병을 막론하고 접근함을 엄금할 것이며

4. 비밀암호, 문서, 비밀機器 및 등록문서 등은 시종 엄중 보관할 것이며 이를 분실 또는 약탈당하였을 때는 신속히 보고하여 지시를 받을 것.
5. 각 책임장병은 특히 SOI에 규정된 이외의 不規주파수 사용이 전무토록 항시 감시감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전파감사에 의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통신안보에 칠지를 기할 것.
6. 각급 지휘관은 電文작성시 암호문과 平文의 구별을 확실히 하여 통신취급소에 제시할 것이며 통신 책임장교는 이를 재확인 한다음 취급할 것.

총 참 모 장

부록 제110호

陸本 作命 제256호 수정훈령 제1호 (陸軍本部 大邱 1951. 1. 1. 14.00)

訓 令

1950년 12월 10일 12.00附 陸本 작전계획 제11호를 作命 제256호로 개칭하는 동시에 下記 사항을 변경하여 1951년 1월 1일 15.00附로 효력을 발생케한다.

一. 원 계획 부록 제1호 작전투령도 참조. 제1군단—제3군단간 전투地境을 別紙 부록 제1호 작전 투명도상에 표시된 바와 같이 변경한다.

二. 원 계획 3.a(3) 項을 삭제하고 下記와 같이 대치하라.

제7사단을 제2군단 배속으로부터 해제하여 제3군단에 배속하며 陸軍本部의 사전 승인이 없이 사용할 수도 있다.

三. 원 계획의 3a (4)항으로서 下記 사항을 첨가하라.

美 제9군단 방력과 楊平(CS 6749) 부근 제한점에서 육체적 접촉을 확립 유지하라.

四. 원 계획의 3a (5) 항으로서 下記사항을 첨가하라.

적의 압력을 고려하여 질서있게 철수함에 지장이 없는 이상 최장시간 春川(CS 8892) 및 加平(大谷里)(CS 7288)을 확보하라.

五. 원 계획의 3e 항으로서 下記 사항을 첨가하라.

工兵사항

(1) 제1101 야전 공병단

(a) 제1군단을 계속 지원하라.

(b) 原州(DS 0733)—방음里(DS 4942)—속사리(DS 5663)—江陵(DS 9178)간 보급로를 계속정비하라.

(2) 제1102 야전 공병단

(a) 洪川(DS 0272)—原州(DS 0733)—堤川(DS 3009)간 도로를 정비하여 제3군단의 방어진지 "C"로의 철수를 지원하라.

(b) 방어진지 "C"로의 철수 완료 즉시로 堤川(DS 3009)—榮州(DR 6675)—安東(DR 7546)간 보급로를 보수, 정비, 標識할 준비를 갖추라.

(3) 제1103 야전공병단

(a) 제3군단을 계속 지원하라。

(b) 驪州(CS 7927)—原州(DS 0733)—忠州(DR 0591)—丹陽(DR 3987)간 보급로를 보수, 정비 標識하라。

(C) 방어진지 "C"로의 철수 완료 즉시로 橫城(DS 3009)—原州(DC 0733)—堤川(DS 3009)간 보급로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라。

(4) 제1102 건설 공병단은 永川(DQ 9379)—安東(DR 7546)간 보급로를 정비하라。

六. 원 계획의 3X(9)항으로서 下記사항을 첨가하라。

가능하면 주간에 철수하라。

七. 원 계획의 4C항으로서 下記 사항을 첨가하라。

제9중 정비중대는 楊平으로부터 原州로 이동하여 제2사단 및 제5사단을 지원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111호

陸本 作命 제256호. 수정훈령 제2호 (陸軍本部 大邱 1951. 1. 1. 17.00)

訓 令

一. 제2군단

a. 가능한 한 조속히 原州(DS 0704)로부터 大田(CR 5921)으로 이동하라。

최신속한 방법으로 原州 출발 예정시각을 陸軍本部에 보고하라。

b. 原州 출발과 동시에 제3사단을 배속 해제하여 陸軍本部 직할로 둘게 하라(軍예비)。최신속한방법으로 原州 출발 정각을 陸軍本部에 보고하라。

c. 大田 도착과 동시에 제11사단 및 배속부대를 통합 지휘하여 현재 제11사단에 부과된 임무를 담당하라。최신속한 방법으로 大田 도착 정각을 陸軍本部에 보고하라。

二. 제3사단

a. 군예비로서 계속 平澤(DS 4735)으로 이동하라。

b. 韓國軍 담당지구내 방어진지상의 여하한 적의 침투라도 반격 격퇴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

三. 제11사단은 제2군단 사령부 大田도착과 동시에 배속부대와 더불어 제2군단에 배속한다。

四. 제2군단

該部 전투지경 부록 제1호 작전명령도 참조.

총 참 모 장

부록 제112호

陸本 작전계획 제12호 (陸軍本部 大邱 1951. 1. 1. 18.00)

군대구분

제1군단 군단장 육군소장 金白一

제9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金鍾甲

수도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宋堯讚

제2군단 군단장 육군소장 劉載興

제11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崔德新

제3군단 군단장 육군준장 李亨根

제2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咸炳善

제5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閔機植

제7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金炯一

제8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崔榮喜

제3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崔 錫

一. 省略

二. a. 軍은 後述하는 時日에 興海里(CS 7920)—原州(DS 0733)—1277高地(DS 3969)—1422高地(DS 6386)—院浦里(南涯里)(DS 8297)를 連하는 일반 線上의 방어진지 "D"로 철수를 개시하려 함。

b. 전투地境 및 방어진지 : 附錄 제1호 작전투명도 참조。

三. a. 제1군단

(1) 육군본부 명령이 있을 時엔 담당지구내 방어진지 "D"로 철수하라。

(2) "D"선상에 縱深으로 강력한 방어진지를 확립하여 同陣地로부터의 敵의 南進 및 진지로 통하는 南北間 도로상의 적의 진출을 저지하라。

b. 제2군단은 현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c. 제3군단

(1) 육군본부 명령이 있을 時엔 담당 지구내 방어진지 "D"로 철수하라。

(2) 방어진지 "D"상에 강력한 차단진지를 확립하여 同陣地로부터의 적의 南進 및 陣地로 통하는 南北間 도로상의 적의 진출을 저지하라。

(3) 적의 압력을 고려하여 질서있게 철수함에 지장이 없는 이상 최장기간 洪川(DS 0272) 및 橫城(DS 1149)을 확보하라。

d. 제3사단은 韓國軍 담당지구내 방어진지 "D"상의 여하한 적의 침투라도 반격격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라。

e. 工兵事項 : 현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1) 友軍방어진지 내에 폭파물, 지뢰, 野戰築城을 최대한으로 사용하라。

(2) 각 군단장은 철수 및 철수로에 관하여 협의하라。

(3) 군단장은 철수로상의 교통을 엄격히 통제정리하라。

(4) 철수 기간중 掩護부대는 接敵을 확립 유지하라。

(5) 철수를 실시함에 따라 퇴로상에 최대한의 폭파를 실시하라。

(6) 철수 작전기간중 적에게 가능한 한 최대한의 타격을 가하라。

(7) 각 지휘관은 이 계획 수령 즉시로 退路 "D"선상의 진지수색을 개시하라。

四. 行政事項

附錄 제2호 행정사항 참조(後述)

五. a. 通信事項 : 현 통신규정 사용

b. 指揮所在地

(1) 육군본부—大邱

(2) 제1군단—江陵

(3) 제2군단—大田

(4) 제3군단—堤川

c. 通信軌線

(1) 제1군단, 大邱—慶州—三陟—江陵

(2) 제2군단, 大邱—大田

(3) 제3군단, 大邱—安東—堤川

총 참 모 장

부록 제113호

陸本訓令 제146호 수정 제1호 (陸軍本部 大邱 1951. 1. 2. 08.00)

訓 令

제5, 제7, 제8, 제9사단장

병 기 감 貴下

一. 陸本 훈령 제146호(1950. 12. 2. 15.00附)에 의하여 제5, 제8사단에 배속키로 된 장갑차(각 4대씩)를 1951. 1. 2. 12.00附로 제7사단, 제9사단에 각각 4대씩 배속 변경한다。

二. 육군소위 李德恒(병기감실)은 장갑차 8대(인원 포함)를 지휘 原州에 향하여 1항에 의하여 각각 배속 완료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114호

陸本 훈령 제150호 (陸軍本部 大邱 1951. 1. 2. 08.00)

訓 令

전투 정찰에 관한 건。

一. 총칙

1. 근래 작전에 있어서 「적과 접촉이 없음」「적 병력 미상」「기습을 받았음」 등의 보고 등은 정찰

의 유효한 활용을 망각한 소이이며, 이와 같은 보고는 신로 정찰의 가치와 특성의 적용을 무시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2. 누차 강조한 바 있으나 적극 공세적인 정찰을 실시하라. 이 방침을 보강하기 위하여 정찰의 계획과 실시 요령의 기준을 시달한다.

二. 정찰의 종류

1. 수색 정찰—敵情, 지형 및 적의 근거지를 정찰하기 위하여 주간 혹은 야간에 派出하는 것이다. 각 정찰의 특수한 임무를 부여함을 요한다. 이 때에 정찰장은 지정된 장교로부터 주도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정찰의 병력은 그의 임무와 상황에 의하여 결정된다. 수색 정찰은 교전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나, 첩보를 수집하며 이를 전달하기 위하여 만단의 전투준비를 함을 요한다. 첩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점이다.

2. 전투 정찰—기습, 복병, 소탕, 포로의 획득, 적 시설의 파괴, 적의 위치 발견 혹은 要地要部의 점령을 위하여 주간 혹은 야간에 파출되는 것이다. 전투 정찰 병력은 그의 임무에 의하여 1개분대로 부터 증가된 1개중대까지이다. 이 정찰은 교전을 전제로 하고 공격적이며 기동성이 있어야 한다.

3. 가동 정찰—前面 및 側面에 대한 정찰, 적정, 지형 및 전진로의 확득, 前方, 側方 및 後方에 대한 경계, 前方 및 側方에 대한 인접부대와 연결유지 도로 장해물의 제지 및 요지 요부의 점령 및 확보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이 정찰의 특징은 광활 지역을 신속히 엄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三. 장점—정찰을 광범위로 적절하게 이용함으로서 아전 지휘관은 적과 접촉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적의 후방을 교란하고 적의 배치 상태와 역량을 탐지하여 我方側面을 엄호하므로서 적의 기습과 복병에 대비하여 항시 유리한 작전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四. 지휘관의 책임—지휘관은 적정을 수집하여 上司로부터 부과된 임무를 완수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보통 그는 정찰에 관한 세부 계획을 그의 참모에 위임한다. 이때 작전참모는 전투 정찰에 대한 계획을 하며 정보참모는 수색정찰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는 동시에 정찰의 임무, 부대정찰의 경로를 포함한 일일 정찰계획을 준비함을 요한다. 또한 정보참모는 새로운 임무를 받았을 때는 새로운 정찰은 일일 정찰계획에 부가하여야 한다. 이 계획은 지휘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결재되면 소요부대에 대하여 정찰을 파출할 것을 명한다. 참모 혹은 하급부대 지휘관은 정찰에 대한 簡明 상세한 지휘를 하여야 한다. 정찰에는 단일한 임무를 부과토록 함을 요한다. 경로, 출발시간, 귀환시간에 관한 인접 및 예하부대와의 협조는 정보참모가 하는 것이다.

五. 作戰의 성패는 정찰의 실시 여하에 영향이 다대한 것이다. 지휘관은 그의 전투지역 내에 광역적으로 정찰을 실시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지휘관은 정찰 이외의 방법으로 가장 확실한 정보를 획득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적정 및 지형에 관한 정보는 인접부대와 고급사령부로부터 입수할 수 있고 항공사진 등도 가치가 있으나 이와같은 것은 지상정찰의 한 보조재료에 불과한 것이다.

六. 온갖 수단을 다하여 유효한 정찰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한 전투간의 여가를 이용하여 특히 다음

사항에 강조하여 교육을 실시하라。

1. 주간 각개전투 교련
2. 야간 각개전투 교련
3. 야간 視度 훈련
4. 독도법
5. 전령 및 서신
6. 주·야간 정찰의 목적, 준비 및 실시요령
7. 전투정찰의 임무와 동작
8. 수색정찰의 임무와 동작
9. 기동정찰의 임무와 동작
10. 참모계획

총 참 모 장

부록 제115호

陸本作命 제257호 (陸軍本部 大邱 1951. 1. 2 17.00)

地 圖 大韓 25萬分之 1

군대구분

제1군단 군단장 육군소장 金白一
수도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宋堯讚
제1경비대대
제2군단 군단장 육군소장 劉載興
제11사단 사단장 육군소장 崔德新
제3경비대대
제5경비대대
제6경비대대
제7경비대대
제3군단 군단장 육군준장 李亨根
제7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金炯一
제9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金鍾甲
제2경비대대
제3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崔 瑛

一. 제8군은 가능한 한 강기간 포위되어 南方으로의 후퇴가 불가능하게 될 적전까지 서울 橋頭堡陣地 및 서울 橋頭堡陣地로부터 東方으로 연장된 "C" 방어선을 방어한다。

1. (1) 下記 직부대의 임무는 우군전선에 침투하여 부대 혹은 유격대로 행동하여 我主補給路를 차

단하고 통신을 방해하려는 것이다。

포로 심문결과에 의하면 橫城(DS 1149)은 北韓共産軍 제12사단의 공격목표라 한다。

(2) 北韓共産軍 제12사단은 DS 1558(전촌리; 橫城 北東쪽 10km) 부근에 소재하며 그 兵力은 약 4,000~6,000가량이다. 보고에 의하면 北韓共産軍 제12사단은 새로 滿洲에서 再編 재정비되었고 이는 전 北韓共産軍 제7사단의 後生인 것이다. 下記 각 부대는 대략 제12사단에 소속한 것 같다. DS 1155 (305高地; 橫城 北쪽 6km) 부근에 300名, DS 0758(하우고개; 洪川, 橫城 도로 中間) 道路 차단점에 1개대대, DS 0259(지오리; 하우고개 西쪽 5km) 부근에 150명, CS 9265 (갈운리) 도로 차단점에 있는 1개연대(적 제12사단 제3연대라함), CS 8856에 200명, DS 2842 에 있는 500명 그리고 DS 0156에 多數 있음。

(3) 北韓共産軍 제2사단은 DS 2070(물골; 洪川 東쪽 20km) 부근에 소재하고 있다. 병력은 약 2,800으로 추산되고 있다。적 제2사단은 제4, 제6, 제17연대로 구성되고 있다。

下記 각 부대는 적 제2사단 소속으로 추측된다。

DS 2570(960高地; 물골 東쪽 5km)에 있는 1,500명, DS 1876(장평리; 洪川 北東쪽 20km)에 1,000명

(4) 北韓共産軍 제10사단은 DS 2592부근에 있다. 병력은 약 3,8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적 제10사단은 제25, 제27, 제29연대로 구성되고 있다。

下記 각 부대는 적 제10사단 소속으로 추측된다。

DS 2592(상괘석 〈붓괘석〉 白隱里 東쪽 15km)에 있는 1개연대, DS 3286(미교 東쪽 25km)에 1,000명 DS 3696(방내리; 미교 東쪽 3km)에 500명。

(5) 下記와 같은 적 병력과 소재지가 되었으나 지금 그 적부대는 未知이다。DS 4078(창촌 北쪽 6km)에 1,800명, DS 4886(원당; 광원 西쪽 3km)에 1,000명, DS 5388(명외청도리; 광원 西쪽 2km)에 5,000명。

2. (1) 美 제1군단, 美 제9군단, 美 제3보병사단, 제1해병사단 및 제187공수전투연대는 계속하여 현 임무를 수행중。

(2) 美 제10군단은 1951년 1월 3일 12.00附로 현 위치에서 韓國 제2, 제5, 제8사단을 배속받아 楊平(CS 6749)부터 DS 1776間 "C" 방어선상 지역 수비책임 인수한다。

3. 極東航空隊~현 임무 수행중

4. 極東海軍~현 임무 수행중

二. 軍은 계속하여 "C" 방어선으로 후퇴 "C"선상 DS 1776부터 東海岸에 이르는 사이를 방어하라 함。

전투地境線 附錄 제1호 작전투명도 참조。

三. a. 제1군단

1. 계속하여 "C" 방어선으로 후퇴하라。

2. 1951년 1월 3일 12.00附로 제9사단 및 경비대대를 배속 해제하여 제3군단에 배속시키라。

3. 지정 지역내 "C" 방어선에 적의 南侵을 저지하라。

4. 後方지역 적을 격멸하라。

5. 이 本部指令에 의하여 제3사단을 배속받을 준비를 갖추라。

b. 제2군단

계속하여 현 임무를 수행하라

c. 제3군단

1. 계속하여 "C" 방어선으로 후퇴하라。

2. 1951년 1월 3일 12.00附로 제2, 제5, 제8사단을 배속해제하여 美10군단에 배속시키라。

3. 1951년 1월 3일 12.00附로 제9사단 및 제2경비대대를 배속받아 지휘하라。

4. 1951년 1월 3일 12.00附로 지정지역내 "C" 방어선상 방어책임을 인수하여 南侵하는 적을 저지하라。

5. 후방지역 적을 격멸하라。

d. 제3사단(軍豫備)

1. 계속하여 平昌(DS 4735)으로 이동하라。

2. 軍 담당지역내 何處에서라도 적의 침투에 대하여 반격할 수 있도록 또 후방지역의 적 출현을 격멸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

工兵 附錄 제2호 工兵事項 참조。

※(1) 파괴, 지뢰, 방어진지 축성을 최고도로 이용하라。

(2) 철저한 정찰로 적과의 접촉을 유지하라。

(3) 제1군단과 제3군단은 DS 6087에서 실질적 접촉을 확립하라。

(4) 각 관계 지휘관의 직접통신을 허가한다。

四. 行政事項

行政命令 제15호 참조

五. 通信事項

1. 현 통신규정 사용

2. 無線 및 傳令을 최고도로 이용하라。

3. 指揮所

軍 大邱

1군단 江陵

2군단 大田

3군단 平昌

3사단 平昌

4. 通信軸線

제1군단 : 大邱—慶州—江陵

제2군단 : 大邱—大田

제3군단 : 大邱—安東—榮州—寧越—平昌

省略 : 附錄제2호

총 참 모 장

부록 제116호

陸本 작전계획 제13호 (陸軍本部 大邱 1951. 1. 2. 18.00)

군대구분

제1군단 군단장 육군소장 金白一

수도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宋堯讚

제2군단 군단장 육군소장 劉載興

제11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崔德新

제3군단 군단장 육군준장 李亨根

제7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金潤一

제9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金鍾甲

제3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崔 錫

一. 省略

二. 軍은 後退하는 時日에 DS 2353~1277高地(DS 3909)~1422高地(DS 6386)~迎浦里(南涯里)(DS 8297) 일반선상 "D" 방어선까지 후퇴하려 함.

경계선 "D" 방어선 附錄 제1호 작전부명도 참조.

三. (1) 제1군단 현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2) 제2군단 현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3) 제3군단

a. 이 본부 명령이 있을 時는 지역내 "D" 방어선으로 후퇴를 실시하라.

b. "D" 방어선상에 강력한 차단진지를 구축하여 D線 및 南北으로 통하는 도로를 따라 南侵하는 적을 저지하라.

(4) 제3사단

軍 담당지구내 何處에서라도 적의 침투를 반격 격퇴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

(5) 工兵

계속하여 현임무를 수행하라.

(1) 파괴, 지뢰, 진지내 야전築城을 최고도로 활용하라.

(2) 각 군단장은 後退時 後退經路에 대하여 협의하라.

(3) 각 군단장은 後退路 교통정리를 임적히 실시하라.

(4) 後退時 掩護部隊는 적과 유지격멸하라.

(5) 後退時는 後退路 沿線에 最高度의 파괴를 실시하라.

(6) 후퇴 작전중 가능한 적에게 철저한 타격을 가하라.

(7) 이 계획을 접수하면 즉시 각 지휘관은 後退經路와 "D"線 진지 정찰을 실시하라.

四. 行政事項

附錄 제2호(後述)

五. 通信事項

(1) 현 통신규정 사용。

(2) 지휘소

軍 大邱

1군단—江陵

2군단—大田

3군단—平昌

(3) 通信軸線

1군단 大邱~慶州~三陟~江陵

2군단 大邱~大田

3군단 大邱~安東~榮州~寧越~平昌

총 참 모 장

부록 제117호

陸本 作戰指示 제19호 (陸軍本部 大 邱 1951. 1. 2. 20.00)

指 示

一. 1. 省 略

2. 美 제1군단 및 제9군단은 계속하여 현 임무 수행중 1951년 1월 3일 12.00附로 美 제10군단은 현 위치대로 제2, 제5, 제8사단을 배속받아 "C" 방어선중 CS 6749부터 DS 1776까지의 지역 방어 책임을 담당한다。

二. 1. 軍은 "C" 방어선중 DS 1776부터 東海岸까지 담당한다。

2. 境界線

가. 美 제10군단과 제3군단

長坪里(DS 1778)부터 南方으로 下安興里(DS 2540) 東南方으로 寧越(DS 5314)까지。

나. 제3군단과 제1군단

1424高地(DT 5011)부터 西南方으로 九曲洞(DS 6575)~(DS 7859)를 통과하여 松溪里(DS 8748) 南方으로 中峰里(DS 9136)가는 도로 西側을 따라 中峰里(9136)에서 東南方으로 팔계팔준里(ES 0120) 및 평반(ER 1692)을 통과하여 ER 1785까지。

三. 1. 제1군단

가. 1월3일 12.00附로 제9사단 및 제2경비대대 배속을 해제하여 제3군단에 배속하라。

나. 계속하여 上記 제2항에 명기된 지역에 "C"線을 점령 방어하라。

2. 제2군단 : 이 本部發(美 고문團) 電報 PX 1014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하라。

3. 제3군단

가. 1951년 1월 3일 12.00附로 제2, 제5, 제8사단을 배속 해제하여 美 제10군단에 배속하고 제9사단 및 제2경비대대를 배속받아 지휘하라。

나. 1월 3일 12.00附로 上記 제2항에 明記된 지역내 "C" 방어선 경비 책임을 담당하라。

4. 제3사단

이 本部發(美 고문側) 電報 PX 1014에 명시된 책임을 수행하라。

5. 工兵

1월 3일 12.00附로 제1102야전공병단 및 제1201건설공병단을 美 제2건설공병단에 배속시키라。

※ 관계 지휘관간 직접 통신을 허가한다。

四. 省略

五. 省略

총 참 모 장

부록 제118호

陸本 作戰指示 제20호 (陸軍本部 1951. 1. 2. 20.00)

指 示

治安局 非常警備司令官 貴下

전투경찰부대 배속에 관한 件

一. 作戰軍 철수에 수반하여 철수되는 경찰은 가급적 전투경찰 부대로 개편하는 동시에 그 주력을 榮州(DR 6775) 安東地區에 配備할 것이며 일부를 湖南地區에 투입케 할일。

二. 非常警備司令官은 一項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當 本部에 提出(가급적 급속히)하는 동시에 실행 경위에 관하여는 그때 그때 報告할 일。

戒 嚴 總 司 令 官

부록 제119호

陸本作命 제258호 (陸軍本部 1951. 1. 4. 12.00)

(이 命令은 無効로 하고 別途 訓令으로서 此要旨를 下達한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120호

陸本作命 제258호 수정훈령 제1호 (陸軍本部 1951. 1. 5. 20.00)

訓 令

一. 省略

二. A. 군은 1951년 1월 6일 09.00를 기하여 "黃牛線"으로 후퇴를 개시하려 함。

B. 전투지경 및 "黃牛線" 부록 제1호 작전투명도 참조。

三. A. 제1군단

가. 1951년 1월 6일 09.00를 기하여 단당지역내 "黃牛線"으로 후퇴를 개시하라。

나. 군 東側方을 경비하라。

B. 제2군단

가. 1951년 1월 5일 21.00附로 제3사단을 배속 해제하여 제3군단에 배속하라。

나.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C. 제3군단

가。1951년 1월 5일 21.00附로 제3사단을 통합 지휘하라(배속)。

나. 1951년 1월 6일 09.00를 기하여 담당지구내 "黃牛線"으로 후퇴를 개시하라。

다. "黃牛線"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확립하라。

라. 美 제10군단과 입체적 접촉을 확립 유지하라。

마. 전투상황이 허하는 한 제9사단을 재편 정비하라。

X. 가. 제1군단과 제3군단은 松溪里(DS 8749)에서 입체적 접촉을 확립 유지하라。

나. 각 군단간엔 橫적 접촉을 확립 유지하라。

다. 후퇴에 관하여는 각 군단장간에 협의를 실시하라。

라. 만반 노력을 다하여 국부적 공격을 실시하며 "黃牛線"上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확립, 적의 南進을 저지하라。

마. 적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폭파를 최대한으로 실시하라。

바. 적절한 협조를 실시하기 위하여 직접 통신을 행하라。

四. 下記 변경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명령 제15호를 적용하라。

가. 위치	운용부대	피지원부대
芳林里一閉鎖		
寧 越一開設	제202보급소대파견대	제3사단
		제7사단
		제9사단
		제3군단사령부

나. 제4탄약보급소

芳林里一閉鎖

제8탄약보급소

寧越—개설	제52탄약중대 제1소대	제3사단
		제7사단
		제9사단
		제3군단사령부

五. 지휘소 설치를 보고하라。

총 참 모 장

부록제 121호

陸本 훈령 제151호 (陸軍本部 大 邱 1951. 1. 8. 12.00)

訓 令

一. 1. 제1정훈대대는 대대본부를 大田에, 제1중대는 光州에, 제2중대는 釜山에, 제3중대는 鳥致院에 두고 정훈 공작 실시중에 있음。

2. 제2정훈대대는 대대본부를 大邱에 제5중대는 서울에서 철수하여 현재 大田에 제6, 제7중대는 大邱에 있음。

二. 1. 제1정훈대대장은 下記에 의하여 1월 15일부터 정훈공작을 실시하라。

가. 대대본부를 晋州에 설치하라。

나. 慶南지구 일대를 담당 실시하라。

다. 釜山 포로수용소에 2개중대를 파견하라。

2. 제2정훈대대장은 下記에 의하여 1월 15일부터 정훈 공작을 실시하라。

가. 대대 본부를 陸本 前方 지휘소 위치(현재 安東)에 설치하라。

나. 1개중대를 제1군단에 배속 실시하라(三陟)。

다. 잔여 주력을 제3군단에 배속 실시하라(乃城)。

三. 1. 제1, 제3군단장은 前記 배속부대를 통합 지휘하여 관하 정훈공작을 실시하라。

2. 陸本作命 제258호(1951. 1. 4. 12.00附) 정훈대대 배속에 관한 건은 금일부로 취소한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122호

陸本 작명 제258호 수정훈령 제2호 (陸軍本部 大 邱 1951. 1. 8 13.00)

訓 令

一. 1951년 1월 9일 12.00附로 제11사단은 제3, 5, 6, 7 경비대대와 함께 제2군단 배속으로부터 해제되어 陸軍本部 직할로 돌게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123호

陸本 작전계획 제14호 (陸軍本部 大 邱 1951. 1. 9 05.00)

一. 省略

二. a. 軍은 後退하는 時日에 현재線으로부터 "E"線으로 협동후퇴하는 동시에 軍團內 및 軍團 間에 있어서 완전한 협조를 하고 또 주요부대를 건전히 유지할 수 있는 한 적에게 최대한의 손실을 加하고 적을 최대한으로 지연시켜야 함。

b. 1. 전투地境 : 附錄 제1호 작전투명도 참조。

2. "E"線 : 附錄 제1호 작전 투명도 참조。

3. 中間線 "Eric" 附錄 제1호 작전투명도 참조。

三. a. 제1군단

1. 陸軍本部 명령이 있을 때에는 담당지역내 "E"線으로 후퇴를 실시하라。

2. 軍 東側方을 경비하라。

3. 후퇴를 실시함에 있어서 左側 제3군단과 협조하라。

4. "E" 線上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확립하고 적의 南進을 저지하라。

b. 제2군단

1. 陸軍本部 명령이 있을 때에는 담당지구내 "E"線으로 後退를 실시하라。

2. 후퇴를 실시함에 있어서 左側 美 제10군단과 협조하라。

3. "E" 線上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확립하여 적의 南進을 저지하라。

c. 제11사단은 이 계획 효력발생과 동시에 美 제1군단에 配屬한다。

X. 1. 적에게 최대한의 손해를 가하는 동시에 적을 최대한으로 지연시켜라。 기습 및 우회공격에 특별히 유의하여 連結없이 急速追尾하는 적을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라。

2. 軍團內 각 부대 및 軍團間의 협조는 中間線 "Eric"上에서 실시하라。 제1군단—제3군단간 협조점。 附錄 제1호 작전투명도 참조。

3. 후퇴 실시기간중 掩護부대는 接敵을 유지 확보하라。

4. 적의 공격을 받기 전에 적병력 집결위치를 발견하여 急速적대 공격 및 砲集대 사격을 하도록 만반 노력을 다하라。

5. 화력의 伸縮性 및 효지에 대한 최대화력 집중에 치중하라。

6. 縱陣地를 구성하여 四周警戒를 실시하라。

7. 모든 陣地間과 그 前方을 항상 계속적으로 정찰하라。

8. 인원 및 차량의 後方이동을 엄격히 통제하라。

9. 방어진지는 次位 上級部隊 권한에 依하는 경우에 한하여 拋棄한다。

10. 後方地區 적을 발견 섬멸하라。

11. 이 계획수령 즉시로 "E"선에 대한 수색을 개시하라。

△ 工兵事項

1. 제 1101 야전공병단은 韓國軍 제 1군단에 배속한다。

2. 제 1103 야전공병단은 배속된 제 104 야전공병대대와 더불어 제3군단에 배속한다。

四. 行政事項 : 別紙 참조。

五. 通信事項

a. 현 통신규정 사용。

b. 지휘소 소재지。

1. 陸軍本部—大邱 DQ 6369

2. 제 1군단—蔚珍 ER 3594

3. 제 3군단—乃城 DR 7683

4. 제11사단—大田 CR 5921

c. 通信軸線

1. 제 1군단 : 大邱 DQ 6369—慶州 EQ 1966—蔚珍 ER 3594
2. 제 3군단 : 大邱 DQ 6369—安東 DR 7545—乃城 DR 7683
3. 제11사단 : 大邱 DQ 6369—大田 CR 5921

육 군 총 참 모 장

부록 제124호

陸本作命 제259호(作命 258호 수정훈령 제3호) (陸軍本部 1951. 1. 9 大邱 16.00)

지 도 25만분지 1 大韓

一. 省略

二. 1. 軍은 일부 병력과 철수 경찰병력을 규합하여 軍 주보급로 및 주요도로의 경비 및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 함.

2. 別紙 작전투명도 참조.

三. 1. 1951년 1월 10일 18.00附 제11사단에 배속중인 제3,5,6,7경비대대를 각각 배속 해제하는 동시에 육본 직할로 한다.

2. 내무부 비상경비 사령관은 가능한 한 신속히 예하 전투경찰 17개 대대를 별지 작전투명도 제1에 의거하여 配備完了하는 동시에 下記에 의하여 각각 배속하라.

3. (a) 제3경비대대는 즉시 安東(DR 8546)으로부터 義城(DR 3223)으로 이동하라。이동완료하면 즉시 別紙 작전투명도 제1에 의거 5개 경찰대대를 통합지휘하여 永川(DQ 9479)으로부터 新寧(DQ 9188) 義興(DR 7503) 義城(DR 3223) 安東(DR 8546)으로 連하는 주보급로 및 安東, 眞寶, 盈德을 連하는 도로경비 및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

(b) 제5경비대대는 別紙 작전투명도에 의거 2개 경찰대대를 통합 지휘하여 大邱(DQ 6470)—金泉(DQ 2098)—永同(CR 9003)을 連하는 主道路의 경비 및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

(c) 제6경비대대는 즉시 蔚山(ER 3033)으로부터 慶州로 이동하라。 이동 완료하면 別紙 작전투명도 1에 의거 전투경찰 6개대대를 통합지휘하여 釜山(ED 0589)으로부터 蔚山(ER 3033) 慶州(EQ 2066) 永川(DQ 9580)을 連하는 主도로와 釜山으로 부터 梁山(EQ 0210) 慶州(EQ 2060)를 連하는 도로경비 및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

(d) 제7경비대대는 즉시 梁山(EQ 0210)으로부터 密陽(DQ 7927)으로 이동하라。이동완료하면 別紙 작전투명도 제1에 의거 전투경찰 4개대대를 통합지휘하여 釜山(EP 0589)을 시발하여 梁山(EQ 0210) 三浪津(DQ 8515) 密陽(DQ 7927) 慶山(DQ 7662) 大邱를 連하는 主도로 및 釜山(EP 0585) 金海(DP 9099) 진영(DQ 7505) 三浪津(DQ 8515)을 連하는 도로경비 및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

4. 헌병사령관은 예하헌병 17개 분대를 별지 작전투명도 제1에 의거 전투 경찰대대 주둔지에 각각 1개분대씩 配備하여 警察대대 본 임무수행에 관하여 긴밀히 협조하라。

(a) 각 부대는 담당지구 주요도로 경비에 만전을 期하기 위하여 도로 주변을 부단히 주도면밀한 수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b) 만약 도로상에서 불의의 사고가 돌발시는 그 담당경비 부대가 전책임을 져야한다。

(c) 각급 지휘관은 임무 수행상의 諸 진척사항을 수시로 이 本部에 보고하여야 한다。

(d) 각급 지휘관은 긴밀한 협조를 하기 위하여 자기 담당지역내 경비상황을 부단히 인접부대에 통보 혹은 청취하여야 한다。

(e) 각급 지휘관은 확실한 접촉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접촉점을 설치하라。

四. 行政事項

變更없음

五. 通信事項

제3, 5, 6, 7경비대대는 下記諸元으로서 이 作命수령 즉시 陸本을 호출하여 무선교신하라。

1. 陸本(ZH7) 제3경비대대(WJI) 및 제5경비대대(BC 9)로 구성한 三所一系 단 주파수 4725KC

2. 陸本(40R) 제6경비대대(YO2) 제7대대비경(6LC)로 구성한 三所一系 단 주파수 421KC

계 엄 총 사 령 관

부록 제125호

陸本作命 제260호 (陸軍本部 大 邱 1951. 1. 10 12.00)

一. 省略

二. 軍은 일부포병의 재편을 실시하려 함。

三. 1. 砲兵사령관은 보병 제2사단 예속 제20포병대대 大邱 도착 즉시로 최단시일내에 재편성을 완료하라。

2. 재편완료 즉시로 원대에 복귀시키라。

四。行政事項

部隊行政 例規에 의하여 실시하라。

五. 通信事項

省略

총 참 모 장

부록 제126호

陸本 훈령 제152호 (陸軍本部 大 邱 1951. 1. 12 12.00)

훈 령

무기와 인원은 전쟁에 절대 불가결한 유형적 요소이며 병기는 군인의 생명임은 재언을 불요함은 물론 병기를 망실한 군인은 군대에서 무가치한 존재이다。연이나 병기 보존에 관하여는 과거 훈령으

로서 누차 주의를 환기하였으며 교육 훈련을 통하여 병기의 손중성은 철저히 주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간 전진작전에 있어서 병기를 망실, 유기 혹은 피탈 당하는 예가 많으며 특히 그 실례로서 제2사단 소속 포병 제20대대는 지난 1월 2일 馬山(CT 5205) 부근에서 적에 기습 당하여 포를 피탈 당하고 그 포를 적이 사용하고 있는 現狀임。

이는 기습으로 인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파괴 혹은 중요 부분품을 제거하지 않은 소치이며 교육 불충분의 증좌임。

각급 지휘관의 猛省을 요하며 병기보존에 철저를 기할 것임。적에게 피탈당할 만부득이한 경우에는 혹은 부분품제거로 적으로 하여금 사용 불가능하게 하도록 부하장병에게 철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병기는 전부가 외국 원조에 의거하고 있음을 명심하여 병기에 대한 손중성을 가일층 확인시키라。

특히 병기를 부득이 피탈 혹은 유기하는 경우에는 주요 부분품을 분해 소지하고 귀환토록 하라。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27호

陸本훈령 제153호 (陸軍本部 大 邱 1951. 1. 12. 15. 00)

훈 령

현 我國內 전쟁에 있어서 我方의 완전한 제공권과 제해권의 확득으로 적기의 행동은 전 봉쇄되어 我 작전은 주야를 불문하고 자유로히 행동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임。

연이나 장래 증강될 가능성이 있는 적 항공력에 대비하여 만반 태세를 갖추고 대공 방어전에 승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下記 각 항에 대하여 엄밀한 대책과 지도 감독을 실시 대공 방어에 만전을 기하라。

一. 보급품의 疎開와 집적소의 철저한 위장。

一. 진지 및 시설의 위장과 은폐。

一. 등화 및 음향의 관제 특히 야간 자동차 조명등의 관제。

一. 일반 민중에 방공교육 및 대공지식의 보급。

一. 방공, 방화기재의 완전한 설비。

一. 대공사격 시설 준비 교육

총 참 모 장

부록 제128호

陸本 훈령 제154호 (陸軍本部 大 邱 1951. 1. 13. 10. 00)

훈 령

1951년 1월 13일 12.00附로 독립 제7포병중대를 제9사단에 배속한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129호

訓令 제155호 (陸軍本部 大邱 1951. 1. 13. 17. 00)

총포 및 차량의 유기금지 및 엄벌에 관한 건

군인의 생명인 총포 및 차량의 중요성과 국내 생산이 전무함은 이미 주지하는 사실이며 수차에 걸쳐 병기애호에 관한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황상 부득이 하다는 이유로서 총포 및 차량을 유기하는 폐단이 아직도 있음은 지극히 유감된 일임。총포 및 차량의 유기로 인하여 적의 전력을 증가케 하여 아군에 미치는 피해가 다대함은 물론 간접적으로 적의 사기를 앙양시켜 작전상의 불리를 초래하는 사실을 재인식하여 1정의 소총 1대의 차량의 유기도 없도록 사력을 다할 것임。

금후는 하기와 같이 이를 엄중 단속하니 명심하여 실천에 유감없기를 기할 일。

記

一. 총포 및 차량을 유기하였을 때는 사유 여하를 불구하고 당해 사병은 극형, 당해지휘관은 철저한 책임 추궁함을 원칙으로 한다。

二. 작전상 부득이 총포 및 차량을 유기 혹은 파괴하였을 때는 그 증거품으로 別表명세와 같은 부속품 혹은 이 병기가 재사용 불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품을 지참 귀환할 것임。따라서 낙오병이 이 부속품을 지참치 않고 귀가 하였을 때는 중대장 이상 지휘관에게 즉결 처분권한을 부여한다。

三. 금후 총포 및 차량의 보충은 이와 같은 증거품에 기준하여서만 추가 보급할 방책이니 이 취지를 이해하여 병기에 대한 책임감에 철저할 것이며 실천에 만전을 기할 일。

총 참 모 장

부록 제130호

陸本作命 제259호 수정훈령 제1호 (陸軍本部 大 邱 1951. 1. 13. 23. 00)

訓 令

1951년 1월 9일 16.00附 陸本作命 제259호중 三3(a)항을 下와 같이 수정한다。

1. 제3경비대대는 즉시로 "義城"부근 현 위치로부터 下와 같은 위치에 이동하라。

(가) 대대(3개 소총중대 제외)는 "永同" (CR 9094)

(나) 1개 소총중대는 "沃川" (CR 7319)

(다) 1개 소총중대는 "黃澗" (DR 0209)

(라) 1개 소총중대는"金泉" (DQ 2198)

2. 제3 경비대대 본부가 "永同"에 도착 후에는 제3경비대대장은 제10 필리핀 원정부대장 지휘하에 들어가라。

3. 前記 1항에 지시된 이동에 필요한 차량 수송은 1월 14일 내지 15일 간에 陸軍本部가 이를 부담

別 紙 明 細 表

品 目	휘 둑하 여야 한 부속	비 고
M1 소 총	방 화 물	파 손
칼 빈 소 총	〃	〃
자 동 소 총	〃	〃
기 관 단 총	〃	〃
공 냉 식 機 機	손 잡 이	〃
수 냉 식 機 機	〃	〃
중 기 관 총	방 화 물	〃
2.36 인 치 로 켓 포	〃	〃
3.5 인 치 로 켓 포	〃	〃
60 미 리 박 격 포	조 준 鏡	〃
81 〃 〃	〃	〃
57 〃 대 전 포	조 준 경 및 공 이 불	〃
75 〃 野 砲	〃	〃
105 〃 유 탄 포	〃	〃
M 1 903 A 3 소 총	노 리 쇠	〃
1/4 Ton J E E P	겐 자 레 바	개솔린 탱크에 방화할 것
3/4 Ton S	〃	〃
1 1/2 Ton D A D G E	〃	〃
2 1/2 Ton G M C	〃	〃
T O Y O T A	〃	〃
N I S S A N	〃	〃
기 타 차 량	〃	〃

완수한다。

4. 제3경비 대대장은 대대본부가 "永同"에 도착한 시간을 가능한 최속수단으로서 陸軍本部에 보고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131호

陸本 훈령 제156호 (陸軍本部 大 邱 1951. 1. 15. 08.00)

훈 령

一. 내무부 치안국 비상 경비사령관은 예하 정찰 병력의 일부를 左記에 의하여 1951. 1. 20. 12.00까지 配備 완료하는 동시에 그 지휘권을 陸軍 제1군단장에게 배속하라。

1. 치안명령 제147호에 의한 전투경찰대대는 江原道 제139대대 蔚珍(ER 3694), 제137대대 平海(ER

3964), 제130대대 盈德(ER 3328), 제150대대 淸河(ER 3105), 제131대대 江東(EQ 2182)에,

2. 浦項(ER 3387) 盈德(ER 3328) 蔚珍(ER 3694) 三陟(ES 1542)의 각 경찰서。

3. 前記 1.2項의 경찰병력을 1명의 경찰관으로 하여금 통합지휘케 하라。

4. 경무관은 前記 병력을 통합 지휘하여 육군 제1군단장의 지휘하에 둘게하라。

二. 육군 제1군단장은 前記 경찰 병력을 통합 지휘하여 군 東側方 및 軍수보급로 경비에 임하게 하라。

제 엄 총 사 령 관

부록 제132호

陸本 훈령 제157호 (陸軍本部 大 邱 1951. 1. 15. 21.00)

훈 령

來邱한 일선부대(또는 후방부대) 장병의 용무 및 그 소재를 명확히 파악함으로서 유사시에 대비케 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적 업신을 위한 제반운동을 엄금케 하기 위하여 장교에 대하여서는 來邱등록을 旣히 실시하고 있으나 1월 14일附로 사병에 대하여서도 실시케 되었으므로 각급 지휘관은 부하 전장병에게 이 등록취지를 주지시켜 公私務를 막론하고 來邱하는 전 장병은 大邱 도착후 24시간 이내로 陸軍本部 고급부관실에서 필히 등록한 연후 등록증을 휴대케 할 일。

이후 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來邱 장병을 발견할 때는 上司 명령지시에 대하여 불복종한 것으로 인정하고 엄격히 처벌할 것임。

육 군 총 참 모 장

부록 제133호

陸本 作戰指示 제21호 (陸軍本部 大 邱 1951. 1. 16. 08.00)

指 示

1951년 12월 11일附 陸本 訓令 제130호로 下達된 노스아메리칸—F86A—세이버機는 금일부터 我國 內戰線에 출현하니 각급 지휘관은 예하 장병에게 周知 시키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134호

陸本 훈령 제158호 (陸軍本部 大 邱 1951. 1. 16. 20.00)

詐病患者 및 환자 호송차 단속에 관하여

現下 戰局은 중공군의 새로운 출현으로 난국에 봉착하였으며 全전선은 一寸을 다투는 가열된 결전단계에 있다。

銃砲彈雨 속에 분전용투하다가 흉탄 맞아 부상을 당하거나 한기와 곤고속에서 과로끝에 질병이 발생되는 예는 전장에서 불가피한 사실이며 또 軍은 이러한 장병에 대하여 치료와 위로에 대하여 가능한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다。

연이나 일부 장병중에는 고의로 자기의 상처를 과대히 과장하고 허위의 질병을 작위하여 상관과 전우를 기만, 전장으로부터 후방으로 이송받아 오는 자 있음은 지극히 유감된 일이며 또 전우중에 부상당한 자를 호송한다는 구실로 전장을 이탈하며 더우기 부상장교는 자기의 부하를 공공연히 전속간호원으로 2.3명씩 대동하고 있음은 실로 통탄할 사실이다。

이러한 비겁하고 도피적 행위는 엄연한 군기를 문란시킬 뿐더러 어깨를 같이하여 싸우던 전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각급 지휘관은 명심하여 예하 장병에게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지시킴과 동시에 左記 각항을 철저히 이행하라。

一. 환자 후송은 군의관 진단하에 입원 가료를 요하는 자에게 한할 것。

一. 현지 가료 가능한 환자는 후송하지 말 것。

一. 부상자 또는 환자에 간호를 목적으로 사병을 대동 또는 수반함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一. 지리적 관계로 환자에게 부득이 수반호송자를 필요로 할 때는 부대장(연대장) 이상의 허가증을 소지한 것이며 호송 후는 즉시 복귀토록 하라。

一. 고의로 질병을 작위하여 후방병원으로 입원하는 자는 도피자로 인정 엄벌에 처한다。

一. 필요없이 부상환자에 수반하여 후방에 체류하는 자도 도피자로 인정할 것이며 지휘관에도 책임을 추궁할 것임。

一. 부상 장교로서 부하 사병을 간호로 종사시키는 자는 엄중 책임을 추궁한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135호

陸本 作戰指示 제22호 (陸軍本部 大 邱 1951. 1. 16. 17.00)

指 示

一. 최근 적 역량판단에 의하면 적이 韓國軍 담당지 도처에 심한 공중 공격을 가할 역량이 내포되어 있으며 지휘기관 보급로 및 요지 고정적인 後方 시설에 최대 노력을 집중하여 공중공격을 가해올 가능성이 있다。

二. 前記 一項에 기술한 공중 위협의 가능성이 많이 있음에 鑑하여 각 지휘관은 즉시 적절한 防空

조치를 취하라。

三. 각 지구 防空계획에는 下記 사항을 포함시키라。

A. 前方지구

1. 소극적 조치

가. 각개 방호책

나. 전등선 설치를 포함한 등화 관제 규제。

다. 차량 행군시 또는「모터풀」駐車時의 차량 분산。

라. 지휘기관 및 보급지역의 위장 및 遮蔽。

마. 대공감시 및 경보제도。

2. 적극적 조치

가. 시설 人員 및 장비를 방호할 수 있도록 자동화기를 최대한으로 사용하라。

B. 後方지구

1. 소극적 조치。

가. 각개 방호책

나. 등화관제 규제

다. 차량 및 장비의 분산

라. 對空감시 및 경보제도

마. 지휘기관 및 주요作戰本部用방공호 구축。

2. 적극적 조치

가. 통신기밀 확보책의 강화。

四. 적의 공중공격을 받을 때에는 下記사항을 記述하여 긴급히 陸軍本部에 보고하라。

1. 시간과 장소(被擊地의 좌표)

2. 來襲한 항공기의 종류 및 수

3. 적기가 사용한 병기의 종류 및 양(量)

4. 우군 인원 및 장비손실 범위

5. 내습 方向 및 도주방향

6. 적기 파괴수

총 참 모 장

부록 제136호

陸本 訓令 제159호 (陸軍本部 大 邱 1951. 1. 17 12.00)

훈 령

一. 경무관 宋內燮이가 지휘하는 전투경찰 제203대대는 南原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205대대는 咸陽에 위치하고 있음。

二. 내무부 비상 경비 총사령관은 예하 경찰 병력 일부(제203 및 제205대대)를 1951년 1월 17일

19.00附 제11사단장에게 배속하라。

三. 경무관 宋丙斐이는 예하 경찰병력 2개대대를 통합 지휘하여 1951. 1월 18일 12.00까지 제11사단장 지휘하에 들게 하라。

四. 제11사단장은 1951. 1. 18. 12.00附 前記 경찰병력 2개대를 통합 지휘하여 부과된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五. 右記 병력에 대한 배속이라 함은 작전지휘에 한함을 재확인 한다。

제 업 총 사 령 관

부록 제137호

陸本훈령 제160호 (陸軍本部 大 邱 1951. 1. 17 18.00)

訓 令

지도 : 大韓 25만분지1, 5만분지1

一. 1. 적 유격대는 太白山 루트를 통하여 南陵 臂山에서 준동하는 잔비(殘匪)와 합류할 기도임。

2. (가) 제3군단은 일부 병력을 사용하여 該 유격대를 수색 정찰중임。

(나) 국민방위 제1사단은 大邱에서 편성중

(다) 국민방위 제3연대는 永川에 집결 대기중임。

二. 군은 乃城(DR 7781)—平昌(DR 8384)—法田(DR 8983)—春陽(DR 9287)—倉村(ER 0288)—逢田(ER 1390)—小光里(ER 1692)—蔚珍(ER 3593)을 連하는 일반선상에 유리한 지형을 선택, 공고한 차단진지를 구성하려 함。

三. 1. 국민방위 사령관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국민방위 1개사단을 편성 左記에 의하여 제3군단장에 배속하라。

(가) 국민방위 제3연대장이 지휘하는 2개대대(永川에 있음)를 1951년 1월 18일 12.00까지 乃城(DR 7781)에 도착시켜 제3군단장의 區處를 받게 하라。

(나) 기타 잔여부대는 급속한 시일내에 편성 완료。 1개대대씩 수차적으로 乃城~小光里간에 配備하라。

(다) 각 부대 지휘소 위치는 左記에 依하라。

(1) 사단 사령부—春陽

(2) 제1연대 본부—法田

(3) 제2연대 본부—倉村

(4) 제3연대 본부—逢田

(다) 1개대대 이상의 부대편성이 완료되면 즉시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하라。

2. 제3군단

(가) 1항에 의한 국민방위 1개사단을 통합지휘 2조에 기술한 일반선상에 強固한 차단진지를 구성, 적 유격대의 남침을 저지하라。

(나) 霄山(ER 1073) 및 太白山(DS 9404) 부근에 준동하는 적 유격대 토벌에 철저를 기하라。

(다) 沿線 일대의 수색정찰을 철저히 실시케 하라。

(마) 前記에 의거한 국민방위 1개사단의 운용계획을 1월 22일 12.00까지 본부에 제출하라。

※ 군단장이 前記 각 부대 지휘소 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는 임기 변경하며 즉시 陸軍本部에 보고하라。

四. 행정사항

1. 보급

(가) 제1종(식량)은 제103 보급소에서 지원하라。

(나) 제3종(연료)은 제3군단장이 지출하라。

2. 후송 및 의료

(가) 戰病傷者에 대한 치료는 제3외과 치료반장이 상담하라。

五. 통신사항

右 배속부대를 위하여 필요한 최대한의 통신기재를 동 부대운용 계획서에 포함 보고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138호

陸本 훈령 제161호 (陸軍本部 大 邱 1951. 1. 17 19.00)

훈 령

적 공중작전에 관한 건

一. 韓國軍 제8군 부대 및 시설에 대하여 적이 낙하산부대 사용을 포함한 공중 작전을 실시할 수 있는 旣知 능력을 고려하여 만일 이와같은 공격이 있을 때엔 그 공격효과를 최소한도로 국한 저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즉시 착수하라。

二. 散開 위장사용 縱深築 등 준비를 실시하고 특히 후방부대는 여하한 낙하산 부대라도 신속히 대응 격멸할 수 있도록 주도 면밀한 준비를 갖추는 동시에 실행 가능한 범위 내로 즉시 실시하라。이와 같은 조치중 일부는 대유격전에도 유효할 것임。

三. 각 관은 右記 지시에 요구한 조치를 즉시 취하며 이 보고를 1951. 1. 20까지 陸軍本部에 제출하라。

四. 각 단위대(특히 후방 각 특별부대 병원 등)는 대공 방어계획을 작성 1월 21일 12.00까지 陸本에 제출하라。

육 군 총 참 모 장

부록 제139호

陸本 훈령 제162호 (陸軍本部 大 邱 1951. 1. 18 12.00)

훈 령

戰訓 資料 수집에 관하여

一. 1951년 1월 15일부터 발행되는 作戰정기보고 제8항에 작전을 결정적으로 유리 혹은 실패케 한지휘관의 과오 혹 戰例의 개요 및 전훈을 기재하여 지휘관의 참고로 제공하고 있음。

二. 각급 지휘관의 실지 경험하고 체득한 戰例로서 전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투 경과 및 교훈재료를 左記에 의하여 수시 본부에 보고하라。

1. 전투명 혹은 전투지명
2. 전투경과 및 전황要圖
3. 성공 혹은 실패의 원인
4. 지휘관으로서 참고 혹은 반성할 교훈
5. 기타

총 참 모 장

부록 제140호

陸本훈령 제163호 (陸軍本部 大 邱 1951. 1. 18 15.00)

훈 령

通信(無線)취급에 관하여

무선유통의 중요성은 췌언을 불요하는 바이나 현상을 보건대 긴급을 요하는 전문이 시간적으로 지연되어 작전상 지장을 초래케 하는 例가 많히 있음은 불필요한 문귀 삽입과 불필요한 전문의 증수에 기인하는 것임。

玆以 무선 통신운용의 원칙을 명시하니 그 이행의 철저를 기할 것이며 특히 관계 장교는 유의하라。

一. 전보 발신권자의 서명 유무를 매전문마다 조사하여 非擔者의 전문은 각하 할 것。 전보 발신권자의 한계를 左에 제지시함。非擔者로서 타전 필요시는 발신권자 승인하에 공통 명의로 할 것。

1. 陸軍本部 각국감실장 이상의 직책 소유자。
2. 군단 일반 및 특별 참모 이상의 직책 소유자。
3. 사단 및 연대 군단에 준함。
4. 기타 부대 사단에 준함。

二. 전보 원문을 검토하여 당분간(악습이 제거될 때까지) 불필요한 문귀를 抹消 원안자에 회송 재서를 요청할 것。

例

(原 文)	(修 正)
제○군단장 각하	○군단장
전투를 빕	全文不要
통보를 요청하나이다	통보요청

三. 발신전자 사명이 있는 전보라 할지라도 左記 내용 전문은 전부 각하하고 수리치 말라。

1. 시간적으로 急하지 않고 연락병으로 전달하여도 무방하다고 인정되는 전문。
2. 私信
3. 公文 식의 장문전보。

例 ○○兵 군번 번 성명 ○ ○ ○

급속히 진속……云云。

특히 각급 지휘관은 격별 유의, 무전군기 확립에 솔선수범할 것이며 통신소에 출입。 유선전화식 운용을 도모하는 例 전무토록 만전을 기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141호

陸本 作戰指示 제23호 (陸軍本部 大 邱 1951. 1. 18. 17.00)

指 示

지도 : 大韓 25만분지1, 5만분지1

제1군단 및 제3군단의 後方 경계선과 제10군단(제1해병사단)과의 경계선을 左記와 같이 변경한다

1. 제3군단과 제10군단과의 현 경계선상 DR 7847로부터 △204 DR 7647—東南方으로 △335 DR 8146—東南으로 신독洞 DR8541—東方 및 東南方으로 安東—盈德間 도로를 따라 盈德 東方 東海岸에 이르는 線。
2. 도로 및 沿線의 도시(安東에 있는 韓國軍 및 제8군 군사시설 포함)는 제1해병사단에서 경비 책임을 담당할 것이다。
3. 別錄 作戰부명도 참조

총 참 모 장

부록 제142호

陸本 作戰指示 제24호 (陸軍本部 大 邱 1951. 1. 18.00)

指 示

지도 : 25만분지1, 5만분지1, 大韓

제1군단 지역내 "前斗線"修正에 관하여 下記와 같이 指示한다。

1. 제1군단(고문계통)으로 부터 上申한 DS8938—DS9644—ES0248—ES1152線으로 승인 결정함。
2. 1前線 配備를 위한 후퇴는 1951년 1월 19일 08.00시 부터 실시하라。
3. 제1군단은 기갑연대를 左翼, 제26연대를 右翼, 각 연대에서 2개대대씩을 前線에 配備 방어할 것임。
4. 제1군단과 제3군단은 재한점 兎山里)DS 8938)에서 접촉을 확립 保持하라。

5. 別紙 附錄 작전투명도 참조。

총 참 모 장

부록 제143호

陸本 작전지시 제25호 (陸軍本部 大 邱 1951. 1. 18. 19. 00)

指 示

지도 : 大韓 25만분지1 5만분지1

1951년 1월 9일 06.00시附 陸本 作戰계획 제14호 참조。

一. 각 부대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E"線 및 "Erie"線을 下記와 같이 修正한다。

1. "E"線은 남대里 DR7198~부터 東으로 △1574 DS9212 및 △1267 ES1119를 통과하여 갈남里 ES2924를 連하는 線。

가. 제3군단과 제10군단과의 접촉점은 남대里 DS7198

나. 제1군단과 제3군단과의 접촉점은 ES0375 河川과 철로의 교차점。

2. 中間線 "Erie"은 대야里(DS 6007)로부터 東北方—주봉里(DS 9132)—東으로 영화里(ES 2727)를 連하는 線。

二. 이 지시에 대한 意見上申을 1951년 1월 19일 12.00까지 當 本部에 打電할 것이며 시간내에 上申이 없을 때엔 原案대로 효력을 발생한。

총 참 모 장

부록 제144호

陸本 훈령 제164호 (陸軍本部 大 邱 1951. 1. 18. 20.00)

훈 령

군 작전지역내 지방인 이동에 관하여

一. 각 군단장 및 사단장은 담당 지역내에서 左記 사항의 책임을 수행하라。

1. 우군 전선 직후방 혹은 기타 연합군 작전상 필요한 지역에 일반 지방인의 통과 진입을 방지하며 전재민 행렬이 전선에 접근하기 전에 그 행렬의 방향을 변경시키라。

2. 일반 지방인의 야간통행을 엄금하라。

3. 일반 지방인은 도보, 자동차 기차를 막론하고 보급로나 철도 노상의 통행을 엄금하라。

二. 군단 후방 경계선 이내지역에 거주하는 지방인은 군단장 혹은 사단장 허가없이 거주지로부터 10마일 이상 여행하지 못하며 원칙으로로 군작전상 필요한 지방인 및 중요관리는 일정한 시기에 下記 (1) (2)항에 의하여 피난을 허가하라。

1. 관계관청과 연락하여 군 보급로 및 철로에서 떨어진 도시에 도입하라。

2. 제1, 9군단 지역에서는 西南方으로 유도하여 全羅南北道에 도입하라。

제9군단 東方에서는 軍 보급로 이외의 도로를 이용하여 浦項 방면으로 도입하라。

三. 극소 예외로서 일반 지방인의 군보급로 혹은 철도상 여행을 허가할 수 있다。

즉 교회목사, 화폐를 이동시키는 은행원 또는 도지사 및 고급직원 (20명 이하) 그의 직계 가족 등은 군 보급로 상을 통하여 자기 차량으로 釜山까지 여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군단장은 이동 허가증을 소지한 美軍 하사관으로 하여금 案內케 할 것이다。그 허가증은 군단 경계선 후방에서는 무효로 한다。

단 한국군 정문에서는 군단장 혹은 사단장이 발행한 이동 허가증을 소지한 헌병 하사관으로 하여금 안내케 한다。

四. 정부 국립경찰 및 지방관청은 피난민 유도에 책임을 진다。

각급 지휘관은 군 작전에 영향을 미칠, 이 대책을 감독하며 협조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145호

陸本 훈령 제165호 (陸軍本部 大 邱 1951. 1. 18. 18.00)

훈 령

1951년 1. 8. 12.00附로 제301철도연대를 제8군 사령부에 배속한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146호

(제1군단 사령부 사령관실 APO358 1951. 1. 18.)

제8군 사령관 각하

件명 Operation Wolfhound(狼獵犬戰法)

一. 下命한 바에 의하여 귀 사령부 지시와 당군단 지도에 따라 이Operation Wolfhound(狼獵犬戰法)작전분석 및 효과 보고를 제출함。 이 작전은 1951년 1월 15일 개시하여 1951년 1월 16일 日沒後완료하였음。

a. 작전개요

보병 및 장갑부대 엄호하의 전투 정찰대는 군단 北方지역으로 진격하여 부여된 목적(최고도, 적, 인원, 기재파괴) 달성, 교전을 회피하고 원방진지로 귀환。

b. 참가부대

(1) 제25보병 사단 1개 보병연대 1개 야포대대, 1개 전차대대, 1개공병중대 지원。

(2) 제3 보병사단 : 2개 보병대대, 2개 전차중대 기타 지원야포대 및 보병。

(3) 韓 제1보병사단 : 1개 보병대대。

C. 주요 완수된 목적

(1) 군단 전회, 적의 정확한 위치, 배치, 병력파악, 水原—金良場 以南에는 대규모의 적 집결이

없음을 확인。水原—금양장 지역 적 존재와 점차적 적 추가부대가 烏山 西方 마란장(CS1412)에서 조직되고 있음을 확인, 서울서부터 南進하던 적 주력은 水原 전방에서 방향을 전환하였다는 항공정찰 보고를 가일층 확정。

(2) 일반 지방민, 피난민, 및 정보기관 등 정보와 반대로 北韓 인민군은 군단 전방에 없음을 결정。

(3) Operation Wolfhound(狼獵犬戰法) 작전지역내 대적 전격 파괴, 추격작전은 또 엄호항공대에 수다의 주둔하는 적 집단적 목표를 제공하였다。적 피해 概算은 左記와 같음。

(a) 지상부대에 의하여 사살 195, 포로2 (中共 제40군), 2(中共 제50군), 1(中共 제56군 합계 5。

(b) 비행기 사살 1180

(c) 지상부대, 비행기—사살 합계 1380

(4) 적은 이로 인하여 우군 전면 東부 전선서부터 西部전선으로 부대를 이동할 기색이 보인다。

d. 적에게 준 심리적 영향

(1) 기습 : 적은 그 진지부근 부락의 廣處에서 휴양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병 대부분은 자기 진지에 도착하기 전에 조우하여 버렸다。적은 이리하여 방어진지에 도착하기 전에 사살되어 큰 손해를 당하고 적 장교 및 하사관은 크게 체면을 상실하였다。

(2) 사기저하 : 비락같은 우군 박격포, 대포, 전차, 소총 사격은 엄호항공대 맹격소사와 아울러 우선 적의 전투의식을 상실케 하였다。

결과 : 전장경악, 사기저락

(3) 적에게 우군 역량, 기도를 판정할 수 없을 요소를 던졌다。

e. 관계 우군부대에 준 심리적 영향。

(1) 공격 역량 인식과 시위에 따라 공격정신 앙양。

(2) 행동에 간단없이 사기는 앙양。

(3) 병기 및 그 기동성에 대한 자신。

(4) 적의 취약성 폭로。

f. 우군손실

(1) 전사 美軍 3, 韓國軍 ○

(2) 부상 美軍 6, 韓國軍 1

7. 결론

Operation Wolfhound(狼獵犬戰法)와 같은 작전은 上記된 이유에 따라 적합하다고 사료하나이다。

사령관 E. W. 밀버 육군소장

부록 제147호

驛本 作戰指示 제26호

(陸軍本部 大 邱 1951. 1. 19. 10.00)

이후 安東 부근에 駐屯하거나 통과하는 여하한 부대든지 이 지휘관은 필히 陸軍本部 前方지휘소 소장에게 申告하고 필요한 행동의 지원을 받으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148호

陸本作命 제261호 (陸軍本部 大 邱 1951. 1. 19. 12.00)

一. 省 略

二. 軍은 교육훈련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일부 훈련소를 이동하려함。

三. 1. 제1훈련소장은 별지 세부지시에 의거하여 1951년 1월 12일부터 濟州道로 이동을 개시하라。

2. 陸軍綜合學校 총장은 제1훈련소 이동시 釜山지구에서 협조를 하라。

3. 제2훈련소장은 제1훈련소 釜山 도착후 출발시까지의 인원 장비 및 차량에 대한 집결소를 담당하라。

四. 行政事項

1. 제1훈련소장은 부대所要量 1개월분에 해당하는 食糧 및 휘발류를 수령휴대하라。

단 제2종 보급품에 관하여는 별도지시에 의하여 受領携行하라。

2. 수송은 별지 세부지시와 같이 군수국장 지시에 의하여 실시하라。

3. 이동후 정기수송에 관하여는 별도 후달함。

五. 通信事項

1. 濟州道派遣 무선통신소(軍과 一般 共同施設)에 무선망(陸軍本部, 釜山, 巨濟島, 濟州道 四所一系)을 이용할 것。

2. 濟州道 이동 완결후 濟州道 무선통신소요원(장교 1명, 병사 8명)의 급양을 담당할 것。

총 참 모 장

부록 제149호

陸本 훈령 제166호 (陸軍本部 大 邱 1951. 1. 19. 24.00)

훈 령

무기의 중요성은 현 대한민국의 실정에 비추어 多言을 요하지 않는 자명한 사실임。

연이나 현금 군의 轉進작전에 따라 무기를 포기하는 예가 많이 있음은 실로 유감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음。특히 火砲와 같은 중무기는 그 생산과 획득이 용이하지 않은 중요장비의 일종인즉 백반수단을 다하여 이를 망실치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만일 부득이한 경우에 처하여 이를 포기치 않으면 아니될 경우에는 자수, 이를 완전히 파괴하여 절대로 사용 가능한 무기를 적수에 넣어 我方에 손해를 주는 등 간접적인 이적행위가 전무토록 할 것임。특히 금반 포병 제20대대가 망실한 砲를 적에

이용하고 있다 하는 현상에 비추어 火砲 및 기타 기재의 파괴에 관한 참고사항을 左記에 약기하여 각급 포병 지휘관은 부하장병에게 이를 철저히 교육시켜 이후부터는 이와같은 일이 전무토록 노력할 일。

1. 원칙적으로 포 및 기타 기재장비의 파괴는 사단장 이상의 지휘관의 명령에 의하여 실시한다。 연이나 각급 포병 지휘관은 상황에 따라서는 독단 專行하여 사용 가능한 화기 기타 기재를 적수에 들게하는 일이 없도록 처치할 것임。
2. 포 및 기타장비를 파괴할 때는 동일한 부분품을 파괴하여 적이 제이용을 할 수 없도록 할 것임
3. 최악의 경우에 있어서도 砲鏡方向 (G F T扇形尺 및 圓筒)과 같은 중요한 기재 부분품은 필히 가지고 돌아올 것임。
4. 砲의 파괴법

(가) 각 부분의 油質을 잘 닦아낸 뒤 안전권을 뽑아서 발화장치를 한 뒤 대전차 수류탄이나 로켓트탄을 약21인치 약실에서 격리시켜서 거꾸로 砲口에 넣는다。 그리고 H E탄을 포에 장진한 뒤 약 100피트 후방에 있는 개인호 속에서 포를 발사한다。 (개인호의 위치는 사선에서 약20야드 떨어진 선상에 있음이 가함。위험계 500야드)

(나) 1門의 포를 약 200야드 떨어진 곳에 끌고가서 남어지 砲를 직접 조준 사격으로서 파괴한다。 남아있는 一門의 포는 (가)항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파괴한다。

5. 차량의 파괴법

소총, 기관총, 혹은 로켓포 등을 사용하여 주요부분을 파괴한다。 기타 기재의 파괴도 이 방법에 준한다。 (여기서 주요부분이라 함은 엔진 走行 장치 및 변속장치를 말한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150호

(제8군 사령부 APO 301
1951. 1. 20. 11.00)

韓國軍 총참모장 경유

제1, 제3군단장 귀하

件名 : Operation Wolfhound(狼獵犬전법)

一. 司令官命에 의하여 별지 "Operation Wolfhound"(狼獵犬전법) 작전보고를 韓美 각 군단 사단장이 잘 명기하도록 하려한다。 사령관께서는 이 작전 개념적 목적, 실행 전과는 대단히 흥미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군 각 부대의 사기를 고무하고 격려하는데 좋은 원동력이 될 것이다。

리지웨이 중장 명에 의하여
참모장 육군소장 레올 C 아렌

부록 제151호

陸本 훈령 제167호 (陸軍本部 大 邱 1951. 1. 20. 12.00)

훈 령

공습전보 취급에 관하여

전국이 적기내습의 기세가 농후함에 비추어 공습에 관한 전보(이하 공습전보라 칭함)의 취급을 左와 같이 규정한다。

一. 공습전보의 송달순위, 군기 전보로 취급 단 공습의 위험성에 비추어 비상전보(SOS)로 취급할 수 있음。

二. 우선 송달 방법(군기 전보 亦同)

공습전보를 긴급 송신상 불가피한 필요에 의하여 현재 실시중의 통신 또는 환호 및 응답을 중지코저 할 때는 좌기사항을 순차로 連送함。

통신 중지부호 DN 3회

자동 명칭 호출부호 1회

前항의 호출부호를 청취하였을 때는 즉시 통신 또는 호출 응답부호를 중지함。

三. 공습전문의 작성요령

저기의 종류, 수량, 시간, 방향 등 순위로 명기 발신함。

四. 공습전보의 수신 : 최우선으로 송신함과 동시에 직속 상급부대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하 각 대에 송신함。

전보 송달 순위에 있어 군기 전보라 함은 최우선적으로 취급하여야 할 최고 권위의 통신문임。따라서 군기전보는 군사행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비상 긴급 사항에 한하여 통신 할 수 있음。

(COP 통신 例規 참조) 이 후 군기 전보 발신에 심중 유의 작전 긴급 전보를 단연히 군기전보로 발신하는 예 없도록 嚴重 단속을 기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152호

陸本 訓令 제168호 (陸軍本部 大邱 1951. 1. 20)

訓 令

作戰 훈령 배포의 건

1951년 1월 15일 美 제1군단은 제8군 사령관 명령에 의하여 담당 정면중 적 집결 및 공격 준비 근거지로 예상되는 水原—金良場里 방면에 백주 步戰 연합부대로서 대규모적인 수색 및 기습공격을 가하여 다대한 성과를 거두었다。물론 斯種作戰 조건으로서

1. 지 형

2. 절대 우세한 기동력

3. 협동 지원 기갑부대

4. 절대적인 공중지원

등의 수반을 필요로 하나 규모와 방법의 차이는 있을진대 아군도 실시 가능한 것임。 특히 斯種作戰의 특수성과 의의는 적의 심리적 약점을 포착하여 심리적으로 주는 효과를 노린 것은 주목할만한 것임。

각급 지휘관은 별지 美 제1군단장의 물심양면으로 분석한 작전성과를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本 전법의 효과적인 활용을 기대한다。

특히 각급 지휘관은 현 방위선의 절대 안전을 위하여 일부 병력으로서 斯種作戰을 국부적으로 실시할것을 주장한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153호

作戰指示 제28호 (美第空軍總司令部 大邱 1951. 1. 20)

海軍總參謀長 貴下

海兵隊 位置 通報依賴의 件

標題의 件에 관하여 1951년 1월 19일 13.00附 8군 GX—1—1537 KGLS에 의한 指示에 의하여 貴 예하 해병대중 國聯軍 地上部隊에 배속중인 部隊의 제1종 보급을 陸軍에서 담당키로 되었는바 部隊위치 불명으로 곤란하오니 左記요령에 依하여 정기적으로 통보하여 주심을 仰請하나이다。

記

一. 배속부대명

二. 그 위치

三. 被 배속 부대명

四. 그 병력

五. 기타 참고 사항

六. 제출시기 매일 06.00, 08.00, 24.00 現在 것。

陸海空軍 總司令官

부록 제154호

陸本 훈령 제169호 (陸軍本部 大邱 1951. 1. 2112. 00)

훈 령

一. 군은 효과적인 병력 사용을 위하여 일부 경찰 병력을 제11사단장 지휘하에 들게하려 한다。

二. 내무부 치안국 비상 경비 총사령관은 예하 全羅南北道 경찰국장 및 그 지휘하에 있는 전경찰병력을 1951. 1. 22 12.00附 南原에 있는 보병 제11사단장의 작전상 區處를 받게 하라。

三. 全羅南北道 양 경찰국장은 1951. 1. 22 12.00附 보병 제11사단장의 작전상區處를 받으라。

四. 보병 제11사단장은 前記 병력을 1951. 1. 22 12.00附 유효 적절히 운용하여 부과된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계 엄 총 사 령 관

부록 제155호

陸本 훈령 제170호 (陸軍本部 大邱 1951. 1. 21 15.00)

훈 령

병기는 군인의 생명이라 함은 췌언을 불요하는 바이나 현하 전황을 불러 기습등으로서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병기를 전장에 유기 혹은 망실하고 전선을 이탈하는 폐단이 상금까지 근절되지 아니함은 심로 유감된 일이다。

이후 여하한 전투부대를 막론하고 1회의 전투에서 부대장비의 5분지 1 이상의 병기를 유기 혹은 망실하는 경우에는 책임 각급 지휘관은 물론 개인으로서 병기를 유기 혹은 망실하였을 때는 그 본인에 대하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군법회의에 회부 엄중 처벌한다。병기 보존에 관하여는 훈령 기타로서 누차 시달 훈계하였으나 아직 그 철저한 실행을 보지 못함으로 자이 엄중 시달하니 각급 지휘관을 본지를 예하 진장병에게 철저히 주지시켜 금후로는 여하한 경우라도 병기의 유기, 망실 등의 불명예의 일의 전무를 기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156호

陸本作命 제258호 수정훈령 제6호 (陸軍本部 大邱 1951. 1. 21 18.00)

訓 令

一. 제6경비대대는 현 위치로 부터 즉시 安東(DR 7646)으로 이동하라。

제6경비대대는 安東 도착과 동시에 陸軍本部 직할로부터 제3군단에 배속한다。

二. 제7경비대대는 현 위치로부터 즉시 安東(DR7646)으로 이동하라。

제7경비대대는 安東에 도착과 동시에 陸本 직할로부터 제3군단에 배속한다。

三. 右記 제1.2항에 지시한 이동에 필요한 자대수송기관 이외 차량 각각 26대씩 陸軍本部에서 1951년 1월 21일 24.00부터 차출 적극 지원한다。

四. 제6,7경비 대대장은 통신에 관하여 陸本과의 직접 무선 교신을 폐지하고 제3군당장 지시를 받으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157호

陸本 훈령 제171호 (陸軍本部 大邱 1951. 1. 21 19.00)

훈 령

一. 陸軍 종합학교에서 교육중인 MA—2장갑차 24대(요원포함)를 1951년 1월 27일 24시附로 좌기의 사단에 각각 4대씩 배속한다。

수도사단, 제2사단, 제3사단, 제5사단, 제6사단, 제8사단

二. 육군 종합학교장은 1951년 1월 27일 장갑차 교육을 완료하는 즉시로 인솔 책임 장교를 차출하여 大邱 陸軍本部까지 이동시키라。

三. 병기감은 右記 장갑차를 인수하는 즉시로 각각 인솔 책임장교를 차출하여 현지까지 이동시키라。

四. 右 장갑차를 배속받은 각 지휘관은 이를 유효적절히 운용하여 소요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라。

五. 각 관계관은 배속 완료후 즉시 보고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158호

陸本 作戰指示 제29호 (陸軍本部 大邱 1951. 1. 21 19.00)

一. 제1훈련소는 1651년 1월 22일부터 濟州道로 이동을 개시한다。

二. 현병사령관은 예하 헌병 1개소대를 1951년 1월 21일 24.00까지 제1훈련소에 파견시키라。

三. 제1훈련소장은 前記 병력을 유효적절히 운용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159호

陸本 작전지시 제30호 (陸軍本部 大邱 1951. 1. 21 21.40)

左記와 같이 美軍에 대한 作戰指示를 下達하니 각급 지휘관은 필히 이를 參照하여 我軍에 적용되는 諸事項에 충분한 檢討와 研究를 거듭하여 적절한 계획을 작성, 군 작전행동에 최고도로 활용하라。

記

장차 기간의 장단을 막론하고 고정진지 점령 강화 시는 물론 공격 전진時 또한 후퇴 작전時에 있어서도 전투상황이 許하는 보병, 포병, 공병 및 공군지원하에 기갑부대를 사용 반격전을 강행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포착 활용하라。

현 基地作戰 지시에는 하등 변경없다。 즉 우군 주력에는 損害없이 적에게 최대한의 사상자 및 보급품 손실을 야기시켜 가급적 장기간의 지연작전을 감행하는 데 있다。 如斯한 작전에다 부단한 지형정찰 및 수색을 속행하여 지형 및 적정을 완전 파악한 후 왕성한 상상력을 활용 가미한,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각 군단 사단은 가능한 限 頻繁이 空中 支援下에 단기간 강력한 반격을 加할 수 있도록 기갑, 포병 및 보병진지를 사전에 적절히 결정하고 비록 小기갑부대라도 투입 활용할 수 있는 세밀한 계획을 세우라。

각 군단 사단장은 如斯한 계획의 概要 및 기갑부대로 하여금 반격전을 감행하도록 선택한 지역에 대하여 조속히 本司令部에 보고하라。

(리치웨이 중장 서명)

총 참 모 장

부록 제160호

陸本 훈령 제172호 (陸軍本部 大邱 1951. 1. 22)

훈 령

총검술 교육 실시의 건

백병전에 있어서의 총검술의 가치는 재언을 요하지 않으나 특히 유격전과 야간 기습 등을 상습으로 하는 공산군의 전법에 대하여서는 총검술의 필요성을 加益高唱하는 바임。

차제에 총검술교육이 중요성을 재각성하는 동시에 일선 각 부대에 있어서는 전투 간의 휴식을 이용할 것이며 각 교육기관에 있어서는 각개전투 교육시간 혹은 과외시간을 활용하여 철저한 총검술 교육을 습득시켜 실전에 있어서의 그 성과를 충분히 발휘하여 견적필살의 신념을 견지케 하며 아울러 近迫戰에 있어서는 탁월한 총검술로서 전승을 확득한다는 것을 부하 장병으로 하여금 인식 강조함으로써 이 교육실시에 만전을 기할 일。

추이 : 총검이 없는 부대에는 이를 장비토록 계획 중임。

총 참 모 장

부록 제161호

陸本 훈령 제173호 (陸軍本部 大邱 1951. 1. 22)

훈 령

一. 1951년 1월 9일附 陸本 作命 제259호에 의거하여 육군 제3, 제6, 제7경비대대에 배속중인 각전투경찰 대대는 1951년 1월 22일 12.00附로 배속을 해제한다。

二. 1. 내무부 비상경비 총사령부

가. 1항의 배속해제하여 원대복귀된 경찰을 통합지휘하여 군 주보급로 경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나. 예하 전투경찰 3개대대를 1. 22. 18.00까지 昔賢山地區에 투입 該地區를 점령하여 日月山地區로부터 南下하여 昔賢山地區에 감입할 기도를 가진 적 유격대를 철저히 포착 섬멸하라。

2. 제3, 제6, 제7경비대대는 별도 명령한 바에 의하여 행동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162호

陸本 作戰지시 제31호 (陸軍本部 大邱 1951. 1. 23 08.00)

一. 증강의 기세 농후한 적 항공력에 대비하여 항공태세에 만전을 기하려 함。

二. 陸軍本部 本部司令 및 在邱 陸海空軍 각 부대장은 자체방공에 만전을 기하라。

三. 육군본부 본부사령 및 在邱 陸海空軍 각 부대장은 左記 요소를 포함한 自體 방공계획을 1951년 1월 24일 12.00까지 陸本 작전국에 제출하라。

1. 보급품의 疎開와 위장
2. 건물의 위장과 疎開
3. 對空 방어시설(대공사격 포함)
4. 燈火 및 음향 관제
5. 방공호 구축
6. 대공 방어교육(사격 및 대피)
7. 대공감시
8. 구호대책
9. 방화기계의 준비
10. 경보

陸海空軍 總司令官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63호

陸本 作戰지시 제32호 (陸軍本部 大邱 1951. 1. 23. 08.00)

一. 軍은 일부 군악대로 하여금 軍管下 일부지구의 위문 연주를 실시하려함。

二. 1. 陸軍 군악대장은 1951년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左記에 의하여 軍管下 일부지구의 순회연주를 실시하라。

가. 2월 1일~2월 3일간

安東地區(陸本 前方 지휘소장)

2월 4일~2월 9일간

제3군단 지구(제3군단장)

2월 11일~2월 12일간

제1군단 지구(제1군단장)

2월 14일~2월 15일간

釜山地區(慶南 계엄민사부장)

나. 연주 실시 세부에 관하여는 군악대장이 계획 실시하라。

다. 가함에 의한 각 지구 지휘관의 지시를 받으라。

2. 陸本 前方 지휘소장, 제1, 3군단장, 慶南지구 계엄 민사부장은 1項군악대의 管下 위문연주에 적극 협력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164호

陸本 作戰계획 제14호 수정훈령 제1호 (陸軍本部 大邱 1951. 1. 23. 11.00)

訓 令

一. 1951년 1월 9일 06.00附 陸本 작전계획 제14호 제2조 B항(2), (3)을 별지 작전부명도와 같이 수정한다。

二. 이 훈령을 수령하는 각 부대는 즉시 예하 부대에 시달하고 확인 보고서를 가능한 한 신속히 당 본부에 제출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165호

陸本 作戰지시 제33호 (陸軍本部 大邱 1951. 1. 23. 12.00)

一. 陸本訓令 제173호의 제2조 나항을 下記와 같이 修正한다。

二. 내무부 비상경계 사령관은 예하 2개 대대병력을 普賢山(DQ 9901)지구에 이동시키라。

三. 該 경찰대대는 縣西(DR 9114)에 전투 지휘소를 설치하고 1월 23일 18.00時까지 普賢山地區를 점령하여 日月山(ER 0973)지구로부터 西下하여 普賢山(DQ 9901) 부근에 잠입할 기도를 가진적 유격대의 잠입을 방지하라。

四. 특히 美해병연대와 긴밀히 협조 혹은 연락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166호

陸本 作戰지시 제34호 (陸軍本部 大邱 1951. 1. 23. 17.30)

一. 내무부 치안국 비상경비 총사령관은 제3군단 전투地境內에서 행동하고 있는 예하전 경찰병력을 1951년 1월 23일 24時附로 제3군단장의 작전상 區處를 받게하라。

二. 제3군단장은 右記 병력을 1951년 1월 23일 24時附로 통할 유효 적절히 작전 지휘하여 부과된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부록 제167호

陸本 훈령 제174호 (陸軍本部 大邱 1951. 1. 23. 18.30)

부대 통상명칭 酋守에 관하여

이미 각 부대에는 통상 명칭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치 않고 신문지상 또는 방송 공고 부대 간판 등에 태연히 부대명을 발표 사용하여 군기를 漏泄케 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은 경소에 방첩 관념이 빈약하고 통상 명칭의 중요성을 망각한 것으로 기인되는 것임。

각 부대장은 부대명외로 대외에 발표할 때는 필히 부대 통상명칭을 사용할 것을 강조하니 그 실시에 만전을 기할 것임。 금후에 있어서 이를 위반하여 부대명으로 대외에 발표할 때는 군기밀을 漏泄한 것으로 인정하여 엄격히 그 책임을 추궁한 것이므로 부하 전 장병에게 철저히 주지시켜 위반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168호

陸本 作戰指示 제35호 (陸軍本部 大邱 1951. 1. 23. 23.00)

1951년 1월 21일 12.00附 陸本訓令 제169호에 의하여 제11사단장 지휘하에 들어가 作戰中인 경찰군의 활동범위를 左와 같이 추가 지시한다。

1. 美 제8군 현행사령관 지시에 의거한 피난민 이동의 통한 취급。
2. 美 제8군에서 指示된 主補給路의 경비방어。
3. 重要 시설의 경비 (발전소, 댐등)
4. 後方지구의 내부장관 및 前方지구의 관할軍團長 지휘下에서 일반 경찰업무수행。

총 참 모 장

부록 제169호

陸本 훈령 제175호 (陸軍本部 大邱 1951. 1. 24. 08.00)

훈 령

一、보급로상의 교통규칙을 엄격히 실행하고 교통정리의 만전을 기함으로서 군 작전에 요구되는 이동 및 보급수송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下記사항을 시달하니 각급 지휘관은 이의 철저한 이행으로서 군보급로의 안전과 사고 미연 방지에 적극 노력하라。

1. 자동차 縱隊가 도로상에 정지하는 것은 연료보급 및 수리목적에 한한 것이며 휴식 혹은 식사 목적이 아닌 정차 시간은 가급적 단축하라。
2. 자동차 종대가 정지할 수 있는 곳은 複軌移狹가 있는 장소나 혹은 지정 주차장에 한하며 정지 차량 종대 전후에는 필히 교통지휘병을 배치하라。
3. 차량종대가 도로상에 정차 때는 최대한도로 右側에 정지시킬 것이며 1개종대에 20차량을 초과치 못하며 정지 간격은 25碼로 하라。

4. 운행간의 차량간 거리는 25碼 이상으로 엄수하라。

5. 사용 불능한 차량은 도로 外側으로 제거하라。

6. 차량 집결지를 수색할 때는 憲兵 지휘관은 도로상의 집결지에 대한 안내표지를 하여 운전병으로 하여금 미혹치 않도록 할 것이며 차량을 지체없이 公路上으로부터 집결지로 도입하도록 노력하라。

7. 차량종대의 운행간 속도는 주간에 공로상에 있어서는 시속 20마일 市內에서는 시속 15마일을 초과치 못하며 야간 有燈時는 15마일, 無燈時는 10마일을 초과치 못한다。

헌병 사령관은 예하 헌병으로 하여금 보급로상의 교통정리를 실시케 하며 교통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170호

陸軍 作戰지시 제36호 (陸軍本部 大邱 1951. 1. 24. 12.00)

一. △ 1240 雲文山(EQ 0141) 및 △ 922 元曉山(EQ 1016)을 중심으로한 부근 일대에는 적 공비의 소동이 빈번하다함。

二. 내무부 비상 경비사령관은 예하 일부 전투경찰 대대(軍 주보급로 경비 경찰대대)를 雲文山 및 元曉山 地區에 투입 該 山岳을 점령 확보하는 동시에 부근 일대에 소동하는 적 공비를 금속한 시일내에 철저히 捕捉 섬멸하라。

三. 내무부 비상 경비사령관은 예하 경찰병력(특히 경찰대대) 행동에 관하여 매일 05.00, 12.00, 18.00, 24.00에 當 本部에 보고하라。

계엄총사령관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71호

陸本 훈령 제176호 (陸軍本部 大邱 1951. 1. 24. 15.00)

훈 령

一. 安東 혹은 盈德 지구에서 작전하거나 盈德—安東간 도로 南方으로 이동하는 韓國軍 전장병은 1951년 1월 28일 이후 片布착용을 下와 같이 시달한다。

1월 28일~白色, 29일~青色, 30일~赤色, 31일~白色

2월 1일~青色, 2일~赤色, 3일~青色, 4일~白色, 5일~青色, 6일~赤色

二. 上記 표지포편 색은 매일 06.00시에 변경한다。

三. 본 훈령 취급은 각급 지휘관에 한하며 연락 송달시는 封入하라。

총 참 모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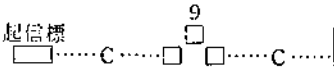
부록 제172호

陸本 훈령 제177호 (陸軍本部 大邱 1951. 1. 24. 24.00)

훈 령

一. 1950년 11월 1일附로 송달된 對空布板 통신법(AP—30사용)중

1. 제2편 어휘집의 60번 이후는 항공기에 대한 지령으로 되어 있다。



번호 91(즉 起信標 □……C……□ 9 □ □……C……□ C는 153布版기리)의 의미를 좌와 같이 결정하니 추가 기입하고 그 사용의 철저를 기하라。

「나는 SCR—300호 무전기의 주파수 띠(다이알 目盛) 20을 통해서 정찰기와 통화하고저 한다。」

단, 이는 주로 美 고문에 의하여 이용된다。즉 지상에서 美軍 정찰기와 무선통화코저 할 때는 右記號를 지상 布敷함으로서 상공 정찰기는 이를 발견함과 동시에 「알았다」는 소요의 신호를 기체로서 표현하고 즉시 양자가 통화하게 된다。

단 통화는 지상 기상을 막론하고 美고문에 의하여 영어로서 실시된다。 특히 보병대대 이하에서는 활용할 것이며 착오 없기를 기할 것。

2. 제2항 제1도에 표시된 숫자중 10은 10이 아니고 單只 0(零)의 인쇄 착오이므로 수정할 것。

총 참 모 장

부록 제173호

陸本 作戰지시 제37호 (陸軍本部 大邱 1951. 1. 25. 08.00)

"黃牛線"上의 制限點 變更의 件

一. 제1군단장 및 제3군단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黃牛線"上에 있어서의 兩軍團間의 制限點을 △58 (ES 870412)로 설정 수정하니 양군단은 긴밀히 접촉을 확립 保持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174호

陸本作命 제258호 수정훈령 제7호 (陸軍本部 大邱 1951. 1. 25. 18.00)

訓 令

一. 1951년 1월 5일 20.00附 陸本 作命 제258호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二. 1951년 1월 26일 영시附 포병 제30대대를 陸軍本部 직할로부터 해제하고 동시에 제9사단에 배속한다。

三. 1951년 1월 26일 영시附 포병 제7중대(독립)를 제9사단으로부터 배속 해제하고 동시에 陸本 직할로 한다。

四. 포병 제30대대장은 예하 병력을 지휘하여 1951년 1월 25일 08.00 大邱를 출발하여 제9사단 사령부(高頭岩 DS 8612)로 이동하라. 목적지에 도착하면 즉시 제9사단장 지휘하에 들어간다。

五. 제9사단장은 前記 병력을 통합 지휘하는 동시에 포병 제7중대(독립)로 하여금 포병 제30대대 이동용 수송기관을 이용하여 즉시 大邱로 이동케 하라。

六. 제9사단장은 前記 임무를 완료하면 즉시 陸本에 보고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175호

陸本 作戰계획 제14호 수정훈령 제2호 (陸軍本部 大邱 1951. 1. 26. 02.00)

訓 令

一. 1951년 1월 9일 06.00附 陸本 작전계획 제14호중 제2(b)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二. 1951년 1월 26일 18.00附로 大野里(DS 6007) 北方의 美 제10군단과 韓國 제3군단간의 전투지경을 아래와 같이 수정 변경한다。

寧越(DS 5315)—松峙(DS 5326)—지지동(DS 5132)—조동리(DS 5237)—매앨동(DS 5544)—屯田洞(DS 5162)

※ 단 右 전투지경상의 諸 洞里는 美 제10군단 전투지경내에 포함한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176호

陸本 作戰지시 제38호 (陸軍本部 大邱 1951. 1. 26. 10.00)

一. 제3군단장은 美 제10군단에서 平昌 혹은 그 이북으로 진격하는 부대의 右側을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二. 이 側翼 보호는 美 제10군단장 요청에 의하여 협의 후 실행하라。

三.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직접 통신을 허가한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177호

陸本 훈령 제178호 (陸軍本部 大邱 1951. 1. 26. 17.00)

훈 령

下記 사항은 空地 통신취급법 AP 30 제4절에 추가된다。

一. 통신문 投下 및 擧揚

投下 및 擧揚의 통신문은 주로 전방 야전梯隊 지상부대와 비행 정찰자간에 있어 통신을 위하여 사용된다。 또는 특수 입장에 있는 지상부대간의 통신 전달방법으로도 사용된다。 대대 혹은 중대 이하의 야전부대는 이 投下 및 擧揚통신 절차의 일반적 성격을 잘 인식하여야 한다。

1. 통신문 投下 절차

어떤 특수한 부대에 대하여 통신문을 投下할 경우 비행기는 그 통신문을 송달할 부대 상공에서 이미 약속된 신호탄이나 또는 신호를 하여 지상부대로 하여금 인정布板을 布設하도록 신호한다。

布板 표시할 장소와 통신문 投下 장소는 부대 지휘소 위치를 선정하여 비행기가 도달되었을 때 지체없도록 하여야 한다。

보통 경우에 있어서 통신문을 송달할 부대 위치가 이미 숙지되지 않고 또는 인정布板 표시 요구는 하지않고 投下할 때가 많다。 그런고로 지상부대는 우군 비행기가 飛來하면 그 비행기를 잘 보고 投下 통신문을 분실없이 수령되게끔 훈련되어야 한다。

비행기가 이미 약속된 신호를 하였거나 아니 하였거나 그 投下 통신문이 떨어진 곳에서 제일 근거리에 있는 부대가 조속히 수령하여 즉시로 지휘관이나 그 대행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지상부대는 그 통신袋 또는 그 포장을 받은 후 그것을 흔들어 보이거나 혹은 이미 약속된 布板표시 방법으로서 통신문수령을 비행기에서 投下한 자에게 확인케 하여야 한다。통신문 배송이 끝난 후 수령한 부대는 관계기관을 통하여 그 통신문 用袋 또는 포장을 반송하여야 한다。

2. 통신문 투하용 기재

상호간의 확인을 위한 신호탄이나 布板표지 이외에는 통신문 用袋 또는 包가 통신문 투하에 필요한 유일한 기재이다。 보통 이 통신문용 包袋는 정찰기가 배당된 부대의 TO/E에 있거나 空軍 전술비행기가 가지고 다니는 기준 지급품이다。또 이 包裝은 임시 대용품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다。이러한 때는 이 包裝은 두터운(厚) 布地類의 강인한 布地로 제작하고 길이 180cm 가량의 선명한 색채를 가진 色 "테이프"를 몇줄기 塗色 또는 부착하여 지상부대가 그 통신문袋가 낙하될 때 발견하기 용이하게 하며 이 包裝에는 중량물체를 달아서 지하로 낙하하게 할 것이며 또 綿綿이나 木板을 넣어 수면에 낙하해도 浮遊하고 있게한다。

3. 통신문 擧揚절차

비행기가 지상부대로부터 통신문을 擧揚하는데 二種의 方法이 있다。

(1) 揭揚法

이 방법은 支柱를 광장 또는 벌판 중앙 지점이나 혹은 擧揚하기 위하여 선정된 空閑지대(방해물 제거된 지대) 중앙지점에 설치하고 풍향결정과 그 표시에는 특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그이유는 조종사가 이 표시에 대하여 지상부대를 전적으로 신빙하고 있는 까닭이다。이 방법에 사용되는 기재는 포판을 제외하고는 전부 사용할 부대에서 임시 방법으로 대용품을 고안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投揚法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布板을 지면에 깔고서 擧揚받을 장소와 비행기의 비행할 방향을 지시하여야 한다。

양인이 重줄(組)의 "코드"線이나 혹은 "로프"線 양단에 모래를 넣어서 만든 통신문袋를 부착하나 가지고 잡고 있다가 飛來하여 오는 비행기 방향의 반대방향(최후로 飛去할 출구 방향)의 布板 말단부에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서 선다)선 자세로서 비행기가 접근하여 오면 양인은 각각 左側으로 혹은 右側으로 이동하여 비행기에서 引下한 曳引鎗機(갈구리)가 投揚할 "로프"의 중앙이 되도록 위치를 선정한다。비행기의 曳引鎗機의 통과시간과 投揚時間을 맞추어서 好時機가 되면 그 중 1인이 약속한 신호를 함과 동시에 양인은 그 投揚할 "로프"를 던져 올린다。 이 包裝을 연결시킨 "코드"線이여 "로프"線이 曳引鎗機에 걸린 비행사나 동승자가 揚引하도록 한다。

이 방법은 좌기와 같은 便宜點이 있다。

가. 擧揚이 비교적 적은 벌판에서 行할 수 있다。

나。비행기의 비행속도를 감소치 않아도 行할 수 있는 고로 비행기나 비행사의 위험성이 적다。

다. 曳引鎗機를 지면에 내하여 아주 저하 예인치 않아도 행할 수 있는고로 지상 인원에 대하여 위해를 줄 위험성이 적으며 높은 초목, 藪, 기타 장애물에 걸려서 사용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적다。

라. 投揚手續 시간이 짧고 필요한 기재는 용이하게 임시 방편으로 조작할 수 있다.

마. 지상부대원이 이 방법 훈련 습득이 용이하고 빠르며 비행기 측에서도 引揚의 훈련습득도 용이하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178호

陸本 훈령 제179호 (陸軍本部 次官 1951. 1. 26. 17.00)

훈 령

통신기재 유기 손실 엄금에 관하여.

병기의 유기, 파손에 대하여 누차 단속과 주의를 환기하여 陸本 훈령 제155호, 제166호, 제170호 등으로서 엄히 그 실천을 지시한 바 근래에 이르러서는 如斯한 사고가 점차 감소되어가고 있다. 연이나 현하 戰局의 긴박성에 비추어 특히 통신의 중요성을 각급 지휘관은 재명심하여 부대의 대소를 막론하고 통신기재의 유기, 파손으로 인한 기재부족으로 초래된 통신소통으로서 파급되는 군작전 임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엄연한 사실을 재인식하고 부대이동 또는 부득이한 전황으로 인하였다는 구실 등으로서 다대한 통신기재의 손실을 속출하고 있음을 엄히 감독 단속하여 陸本 훈령 제 155호에 준거하여 下記와 같이 그 실천에 만전을 기하라.

記

一. 소모품을 제외한 유무선기재 일체는 형(弟)의 대소를 막론하고 총포와 동일히 취급하며 부당한 망실 사고를 범하였을 때는 계급 여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책임을 추궁하여 엄벌에 처한다.

二. 작전상 부득이 該 기재를 파괴 혹은 유기하였을 때는 인정받을 수 있는 부속품 또는 증거품을 지참 귀대할 것이며 該 증거품 없이 귀대한 사병에 대하여서는 대대통신장교급 이상 책임장교에게 즉결 처분권을 부여한다.

三. 금후 전투 손실 보충은 該 증거품에 기준하여 보충 보급을 할 방침임으로 통신기재의 귀중성과 철저한 책임관념 왕성한 통신 병기 애호심 배양과 실천에 만전을 기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179호

陸本 작전훈령 제178호 (陸軍本部 次官 1951. 1. 27)

戰 訓

1. 敵이 규정한 아군의 전법과 전투능력의 심각한 연구자료로서 최근 美軍 제1군단에서 압수한 中共軍 문서, 美軍 제1사단과의 鐵山지구 전투 경험 결론에 관한 서적을 인용한 것이다.

2. 인용의 일부는 下記와 같다.

a. 여하간 적에 근접하게 되면 아군은 양 측면으로부터 적을 포위하여 포병 엄호사격하에 공격

을 실시하여야 한다.

b. 적 후방을 차단함에 있어서는 적의 측면을 침투한 후 중화기를 분산 배치하고 기도를 秘匿하여 관측소에서 호기를 간파한 신호가 있을 때 공격을 실시하여야 한다.

c. 후방을 차단치 못하면 그들은 하시라도 탄약 및 장비를 보급하여 화력을 증강시킬 것이다. 만약 후방 차단에 성공하면 그들은 모든 중화기를 그 자리에 포기할 것이다.

d. 그들은 우리들의 용감한 공격과 규율적 전투 및 침투에 공포를 느끼고 있다.

e.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서 일부대는 급속히 적의 주위로 공격 전진하여 적 후방을 차단하여야 한다.

f. 小兵器로 무장된 부대는 가능한한 過早히 사격함을 피하여 그들의 진지를 은익하는 동시에 적군 측면을 연하여 전지 이동을 계속하여야 한다.

g. 야간에 있어서는 적 진지를 수색 전진하여 가장 화력이 약한 진지를 공격하여야 한다.

h. 제1차적으로 적진을 포위하여 보급로와 후퇴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3. 前記 문서와 우리들 자신이 경험한 바와 같이 北韓 공산군에 대하여도 우리들이 특히 인식하여야 될 점은 동일하다. 즉 그들의 목적은 아군 지원부대와 사설의 고립화와 파괴에 있는 것이다.

4. 현금 군의 전투원칙은 개략 양호하나 왕왕이 此等原則을 무시하며 위반한다는 사실은 대단히 유감천 일이다. 각 지휘관은 별지 부록의 참고사항을 활용하여 각 부대에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서 적의 전법에 대처할 교육을 실시하라.

총 참 모 장

(附錄) 對敵戰法 기준원칙 검토 省略

부록 제180호

陸本 作戰指示 제39호 (陸軍本部 大邱 1951. 1. 27. 15.00)

一. 군 전투地境에서 행동하고 있는 일체 경찰 병력을 該 지구 전투 사령관의 作戰上 지휘을 받음은 이미 指達한 바와 같음.

二. 이후 각 군단 및 각 사단 전투지경내 경찰의 병력 配備 이동 일체는 각 군단장 및 該地區 군 전투 사령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함을 要함.

총 참 모 장

부록 제181호

陸本 훈령 제180호 (陸軍本部 大邱 1951. 1. 28. 08.00)

훈 령

철저한 對空 방어대세를 취하라.

현 전국은 적기 내습의 위험성이 농후하여 대공 방어대책이 긴말히 요구된다. 불의의 공습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를 방지하고 그 재해를 최소한으로 경감하기 위하여 군은 적극적인 방공행동에 수반하여 소극적 방공대세를 강화 對空行動의 민속 및 유사시 즉시 응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주의를 환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훈령 및 작전지시로 그 실시에 만전을 기할 것을 시달하였으나 상금 현저한

실행을 보지 못함은 지극히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음。 玆以 그 실례를 들어 각급 지휘관의 반성을 촉구하니 그 실행에 유감없기를 기하라。

記

1월 28일 01.10期 8군명령으로 全大邱 지구에 공습경보가 발령되었다。 이에 수반되는 각 기관의 즉응태세 미비점을 지적하니 조속히 시정하라。

1. 공습경보 전달의 통신취급상 최우선권에 관하여는 陸本 훈령 제167호로서 이미 시달하였다。

가. 교환대는 공습경보라고 하면 최우선적으로 전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昨夜 大邱 소방서와 陸本 작전과간의 직통 전화를 가설하라(시속 600마일의 비행기는 7분이며 70마일(300리) 飛來한다)。

나. 경보발령되면 교환대는 작전국 기타에서 취급되는 방공통화는 최우선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2. 신속한 措置체제

경보가 발령되자 美軍 각 기관은 완전하고도 신속하게 체제를 실시하였으나, 韓國軍 계통은 지극히 불량하였다。특히 陸軍本部, 憲兵, 陸軍病院, 정훈국등은 지극히 불량함。 지금 시정을 요한다。

3. 신속한 경보전달 방법 강구

경보발령되면 각 기관은 자체의 경보전달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요하면 近距 싸이렌, 호각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전달하라。昨夜는 하나도 실시되지 않았다。

4. 외박자(장병군속)는 경보발령즉시로 긴급 등청하라。

昨夜는 1명의 등청(登廳)자도 없었음。

5. 정훈국은 항시 책임장교를 대기시켰다가 경보발령과 동시에 방송국「라디오」 활용에 조력하여야 한다。昨夜는 1명의 장교도 없었다 함은 不可함。

6. 陸本 本部司令은 전사병에 대하여 방공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라。

昨夜 제1 관계가 불량한 곳은 本部 관계이었다。

가. 방화사, 방화수를 준비하고 발령과 동시에 전장병(防空 및 작전, 정보 통신근무자)은 대기태세를 취하라。

나. 방공정보 입수를 위하여 연락장교 1명을 작전국에 차출하라。

다. 본부대대 일직장교는 본부 사령실에 위치하라。

라. 陸本 일직사령은 경보발령과 동시에 작전국에 출두 필요 방공정보를 입수하여야 한다。昨夜 경보해제 후에 출두하였다。不可함。

마. 陸本 전기에 漏泄은 작전국 지시에 의하여야 한다。

昨夜는 전기 책임자가 없었다。

上記한 바와 같이 방공에 대한 처치 및 훈련이 지극히 불량하다。물론 훈련 미숙하고 초창인 관계라고도 할 수 있으나 현 상태로는 만일의 경우 무의미한 희생을 不免할 것임。

특히 관계관 이하 항시 전장경신에 투철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182호

陸軍 作戰指示 제40호 (陸軍本部 大邱 1951. 1. 28. 12.00)

一. 제5경비 대대장은 1951년 1월 9일附 陸本作命 제258호에 의하여 配屬받은 金泉(DQ 2197) 倭館(DQ 4683) 주둔 전투경찰대대(2개대대)를 1951년 1월 29일 12.00附 配屬 해제하여 原隊 복귀 시키라.

二. 치안국 비상 경비사령관은 前記 전투경찰 2개대대로 하여금 1951년 2월 1일 18.00까지 下記에 의하여 八公山地區를 점령 완료하여 적 유격대의 침투를 저지하라.

1. △1192(DQ 7385), 980△(DQ 7684) 636△(DQ 7774)의 각 高地를 점령 확보하라.
2. 2개대대의 통합 지휘소는 新寧부근에 설정하라.
3. 부근 일대의 원거리 수색을 철저히 하라.
4. 부근 주둔군 각 부대와 긴밀히 협조하라.

계 엄 총 사 령 관

부록 제183호

陸本 훈령 제181호 (陸軍本部 大邱 1951. 1. 28. 15.00)

훈 령

귀환되는 被포로병 취급에 관하여

북괴군은 근래 국군 포로취급을 변경하여 무기를 박탈한 후에는 간단히 정신교양을 실시한 후 무조건 귀가 증명서를 발행하여 귀가시키고 있는 현상임. 이 수단은 인원 및 무기획득의 유일한 술책이며 또한 아군의 물심양면의 전력을 저하시킬에 영향이 甚大한 것임. 특히 교육수준이 저열한 사병으로서는 군인본분을 몰각하고 포로당하였다는 수치는 고사하고 심지어는 생환한 것만 장한듯이 상호간 암암리에 누설하여 부대내에 불미한 선전이 유포되어 결국은 적으로 하여금 역이용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금후 장병의 동태가 극히 우려되는 바임. 적의 如斯한 술책을 방지하기 위하여 此後 귀환병 취급은 如下히 단행하라.

一. 평소에 철저한 정신교육, 정훈공작을 강화 실시하라.

二. 군인정신을 몰각하고 병기를 유실하고 귀환한 자는 군법회의에 회부 최고형에 처하라.

三. 설혹 병기를 휴행 귀환한 자라 할지라도 철저한 심사를 실시 玉石을 명백히 하고 누설 단속에 철저하라.

四. 귀환 時에는 가능한 한 적 포로를 연행 혹은 병기 획득을 교육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184호

陸本 훈령 제182호 (陸軍本部 大邱 1951. 1. 28. 12.00)

훈 령

수색망의 강화 및 완성

수색은 공격, 방어를 막론하고 작전간 不斷 실시하여야 할 군의 행동이다。특히 공격 혹은 공세방어에 있어서는 반드시 강력한 수색대를 차출하여 수색망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색망은 소극적으로는 적 정찰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적 역량 태진을 포함한 적정수색대가 되는 것이다。

즉 완전한 수색망의 구성은 부대의 경계망이며 또한 연장된 부대의 시력이다。왕왕 발생하는 부대 지휘소의 기습 혹은 불의의 공격을 당하는 것은 수색망 구성 불완전의 증좌이며 또한 피아간 진공상태의 간극지역을 조성하여 접적을 유지하지 못함은 수색을 실시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욱 산악전을 주로하는 韓國 전투지역에 있어서는 가일층 완전한 수색망의 구성은 극도로 필요한 것이다。

玆에 수색망 구성에 있어 下記와 같이 주의를 환기하니 각급 지휘관은 각종 수색기관을 총망라하여 수색망 구성의 철벽을 기할 뿐더러 따라서 此期 작전을 위한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라。

記

一. 수색망 구성

1. 각급 지휘관은 예하부대의 수색계획 및 수색행동을 조정하라。
2. 각급 지휘관은 예하부대의 수색정면 및 범위를 명시하라。
3. 각급 지휘관은 정보참모로 하여금 조정된 일일수색계획을 작성케 하여 그 실시를 감독케하라。
4. 각 부대 정보참모는 적절한 區處와 지시로서 각종정보(수색) 기관을 조정하여 상호협조케 하고 그 노력 방향을 요구하는 목표로 지향케 하라。
5. 수색병력의 차출은 정보, 작전참모 협조하여 결정하되 적 역량에 기본하여야 한다。
6. 획득된 정보는 신속한 방법으로 전달하여 일일 수색계획 및 그 결과보고를 제출하라。 특히 要報告 지점에 있어서는 이상이 있든, 없든 보고할 것을 임달한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185호

陸本 훈령 제183호 (陸軍本部 大邱 1951. 1. 29. 12.00)

훈 령

無認可部隊 해체에 관하여

근래에 이르러 왕왕히 陸本의 인가없는 부대의 행동이 발견되어 각 부대의 부대편성의 현황을 탐색한 바 陸本의 인가없는 부대를 獨斷히 편성하여 使用하고 있는 군단 및 사단이 있다。심지어 군내 구분에 기재되어 있는 무인가부대도 있으며 모 부대에서는 무인가부대를 편성하여 가지고 陸本에 은익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대도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무인가부대의 편성 사용으로서 기인되는 통솔아래 장악상의 지장과 인사보급면에 있어서도 적지않은 애로를 조성하여 군 작전수행에 다대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각 부대장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무인가부대를 1951. 2. 5 영시까지 해체하여 그 결과를 陸本에 보고하라。

금후 陸本의 인가없이 부대의 대소를 막론하고 편성 사용함을 엄금한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186호

陸本 作命 제258호 수정훈령 제8호 (陸軍本部 大邱 1951. 1. 30. 03.00)

訓 令

지도 大韓 25만분지 1, 5만분지 1。

一. 1. 敵情 최근 정보기록 참조。

2. a. 국민방위군 독립 제1사단(현재 제3연대만 출동중)은 제3군단에 배속중임。

b. 제6, 제7경비대대는 제3군단에 배속되어 英陽지구에 위치, 침입한 적 유격대 소탕중에있음。

c. 제8, 127, 128, 132, 133, 135, 136, 208 전투 경찰대대는 제3군단에 배속중에 있음。

二. 1. 군은 일부 배속부대의 해제 및 일부 전투지경을 변경하여 공비소탕에 철저를 기하려함。

2. 전투지경 별지 부록 제1호 작전투령도 참조。

線上은 前指所에 속한다。

三. 1. 제3군단

a. 제6, 제7경비대대는 1951. 1.31 12.00附로 제3군단 배속으로부터 해제하고 陸軍本部 직할로 한다。동시에 安東 陸本 전방 지휘소장 지휘하에 들게 하라。

b. 국민방위군 독립 제1사단(현재 제3연대 분)은 1951년 1월 31일 12.00附로 제3군단 배속으로부터 해제하고 陸軍本部 직할로 한다。 동시에 安東 陸軍本部 전방 지휘소장의 지휘하에 들게 하라。

c. 전투경찰 제8, 127, 128, 132, 133, 135, 136, 208 대대는 1951년 1월 31일 12.00附로 제3군단 배속으로부터 해제하고 陸軍本部 직할로 한다。 동시에 安東 陸本 전방 지휘소장의 지휘하에 들게 하라。

2. 제1군단

별지 부록 제1호 작전투령도에 의한 지역내(구 제1군단의 일부지역)의 경찰 일체는 1951년1월 31일 12.00 附로 제1군단 배속으로부터 해제하고 陸軍本部 직할로 한다。동시에 安東 육본 전방 지휘소장 지휘하에 들게하라。

3. 내무부 비상 경비 총사령관은 前記 1의 C항 및 2항의 경찰을 통합 지휘할 경찰 지휘관(경무관급) 1명을 安東에 파견하여 陸本 전방 지휘소장의 지시를 받도록 하라。

4. a. 安東 陸本 전방 지휘소장은 1, 2, 3항의 각 병력을 통합 지휘하여 별지 부록 제1호 작전투령도에 의한 소관구역내의 공비 소탕의 철저를 기하라。

b. 전방 지휘소장은 제1, 제3군단장과 긴밀히 협조하라。

※a. 상호간 협조를 긴밀히 하기 위하여 관계 지휘관 간에 직접통화를 허가한다。

b. 각 부대장은 인계 인수가 완료되면 즉시 그 결과를 陸軍本部에 보고 제출하라。

四. 행정사항, 변경 없음。

五. 1. 통신은 현 통신규정에 의한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187호

陸本作命 제258호 수정훈령 제9호 (陸軍本部 大邱 1951. 1. 30. 12.00)

訓 令

一. 1951년 1월 5일 20.00附 陸本作命 제258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二. 1951년 1월 30일 15.45 附로 제1 병참 수송대대의 "B"중대 "E"중대 "P"중대를 제1 병참 수송대대로부터 배속을 해제하고 동사附로 제3군단에 배속한다。

三. 제3군단장은 前記 수송중대를 통합지휘하라。

총 참 모 장

陸本작전지시 제41호 : 省略

부록 제188호

陸本 훈령 제184호 (陸軍本部 大邱 1951. 2. 1. 12.00)

훈 령

작전상 긴밀한 步, 砲 협동의 중요성은 췌언을 요하지 않는 바이며 火砲의 특징 및 능력을 고려한 지휘관의 적시 적절한 전술적 운용은 화력 발휘상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연이나 각급 지휘관의 원칙을 무시한 기형적인 砲운용과 특징 능력을 고려치 않는 화력지원을 요구하는 예가 많이 있으며 砲兵으로서의 소재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치 못할뿐 아니라, 방실, 파괴, 손상을 초래케 하는 예가 많이 있음은 실로 유감된 일임。

茲로 포병운용상 주의사항을 시달하니 각급 지휘관은 砲兵 분여의 임무수행에 만유감 없기를 기하라。

一. 砲兵은 화력으로서 他兵科를 지원하는 고로 원대한 진투 縱深을 보유함이 그 특징임。 고로 특별한 상황 및 지형을 제외하고는 적으로부터 근거리에 위치시키지 말 것。

105미리 곡사포—3마일 이상

75미리 곡사포—2마일 이상

二. 지원사격 요구는 전술상 견지에서 신중고려하여 선택할 것이며 無計劃的이고 무질서한 요구로서 砲火를 중대이하로 분산시킴을 피할 것。

三. 인솔차량은 포 인솔이외에 특수한 상황에서의 탄약 운반이외에는 사용을 금할 것。

四. 被 지원지휘관은 지원포병의 관측소 및 진지선정에 적극 협력하여 충분한 화력발휘의 機를 잃지 않도록 할 것。

五. 사격의 가부는 포병 지휘관이 전술적 견지에서 화포의 수명을 고려한 발사속도 및 대향, 사각 및 탄약 등의 諸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니 절대로 무의한 사격요구를 하지 말 것임。

총 참 모 장

부록 제189호

陸本作命 제262호 (陸軍本部 大邱 1951. 2. 2. 13.00)

지도 AMS L552 25만분지 1. 大韓

軍隊구분 변경없음。

一. a. 정보사항 : 최근 정기정보 참조。제1군단 전면에서 행동중이던 적은 人民軍 보병 제15사단 및 人民軍 제69여단이며 그 병력은 6,000명 가량이라고 한다。이 敵은 최근까지 江陵지구에 있었으며 이 敵부대는 우군과 접촉이래로 重武器를 사용한 예가 없다。이 兩個 敵부대의 장비는 대략 소총 혹은 기관총 정도라고 판단된다。敵은 해안도로 및 구산里 지구에서 저항하여 지연작전을 감행하려는 기도를 보이고 있다。제3군단 지역내에 있는 敵은 통합 1萬명 가량으로 추산되는 적 3개 사단이 判明되었다。즉 그 사단은 人民軍 제2,9,31 보병사단이며 최근까지(1951년 2월 1일 현재) 寨岐山(DS 3762)을 향하여 이동중에 있다。가장 믿을만한 소식통은 人民軍 제27보병 사단이 前記 각 사단 후퇴를 엄호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이 일반지역 적 동향은 박격포, 소화기, 기관총을 가진 적 참투부대에 불과하다。최근 정보에 의하면 적침투작전은 실패에 對하였고 재편성하기 위하여 北方으로 이동하려고 기도중이라 한다。여기서 적이 취할 가장 가능성 있는 지연작전을 취할 지점은 麻浦(DS 7137)—下珍富間 도로과 平昌(DS 4714)—倉坪間 도로인 것이다。

b. 美제10군단은 제1, 3군단과 합력하여 D日 H時에 공격을 개시하여 각 담당지역내 적을 격멸한다。

二. 1. 軍은 美제10군단과 합세하여 D日H時 공격을 개시 前面의 적에 대하여 재편성 재보급의 여유를 불허하고 최대한의 손해를 가하며 가능하면 적을 완전히 포착 섬멸하려 함。

2. 작전 투명도 제1호 참조。

三. a. 제1군단

1. 제1군단은 D日 H時 Q線으로부터 공격을 개시하여 중간선인 X.Y.Z Line을 통과 지역내의 모든 적을 격멸하고 "R"선을 확보하라。
2. 左側 제3군단과 긴밀히 협조하라。
3. 공격속도는 제3군단장과 협의하라。
4. 이 명령을 수령하면 軍團作戰계획을 2월 3일까지 陸本에 제출하라。
5. 中間線에 도달 혹은 통과할 때는 必히 陸本에 보고하라。

b. 제3군단

1. 제3군단은 D일H시 Q선으로부터 공격을 개시하여 중간선인 X.Y.Z.를 통과하여 지역내의 모든 적을 격멸하고 "R"선을 확보하라。
2. 左側 美제10군단 및 右側 제1군단과 긴밀히 협조하라。
3. 공격속도는 美제10군단장과 협의 하라。
4. 이 명령을 수령하면 軍團作戰계획을 2월 3일까지 陸軍本部와 美제10군단에 제출하라。
5. 중간선에 도달 혹은 통과할 때는 必히 陸本에 보고하라。

c. 제11사단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d. 李正一 전투부대는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e. 제5경비대대는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f. 工兵

1.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2. 前제1, 제3군단 지역으로서 현재 李전투부대에 속하고 있는 지역내의 도로, 橋梁 수리책임은 군단공병에 위임한다。

공병 작전투명도 제2호 참조

X(1) D일 H시는 美제10군단장이 示達한다。

(2) 空中 및 포병 지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라。

四. 行政事項

1951년 2월 3일 08.00附 行政命令 제16호 참조。

五. a. 通信

(1) 通信規定 적용

(2) 新 지휘소는 설치후 보고하라。

b. 指揮所

(1) 陸軍本部—大邱

(2) 제1군단—三陟

(3) 제3군단—乃城

(4) 제11사단—南原

c. 通信輻線

(1) 제1군단 三陟—江陵

(2) 제3군단 乃城—寧越

총 참 모 장

부록 제190호

陸本 작전지시 제42호 (陸軍本部 大邱 1951. 2. 2. 13. 00)

一. 陸軍 현병사령관 예하1개중대 병력을 1951년 2월 2일 12.00까지 방위국에 파견하라。

二. 국민 방위국장은 前記 병력을 장악하라。

三. 각 지휘관은 임무 완료하는 즉시 陸本에 보고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191호

陸本作命 제262호. 修正作戰指示제1호 (陸軍本部 大邱 1951. 2. 3. 09. 00)

一. 1951년 2월 3일 12.00附로 독립 제7포병중대를 陸本 직할로부터 해제하는 동시에 제7훈련소(포병 훈련소)에 배속한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192호

陸本 훈령 제185호 (陸軍本部 大邱 1951. 2. 3)

훈 령

1951년 2월 1일 브라안장군의 제24사단 소속 드룩크모든 대령이 지휘하는 제5연대는 日中 1마일 가량된 平野를 건너 1500呎되는 그 평지를 제압하는 고지에 대하여 공격을 하였던 것이다。

中共軍은 조직적으로 이 高地에 대한 방위를 하여 강경히 저항하였다。이 高地에는 개인호 혹은 地下 토치카(그 중에는 120미터 박격포를 거치한 掩體도 있었다。)등 강고한 방어진지로 구축되었던 것이다。오후 늦게 美 제8군 사령관은 와트중령이 지휘하는 제2대대를 방문하고 E.F중대가 점령한 지대를 가보았다。이는 완전히 제압지점과 중요산악 통로를 점령하고 적에게 막대한 손해를 주고 我 손해를 경미케 한 성공적인 작전이었다。그 이유는 절대적인 步砲 합동하에 정확한 지형 지물 이용과 탁월한 작전지도및 효과적인 포격이 평지 진격시 高地의 적을 沈默시킨 데 있다。이와 같이 兵種을 막론하고 戮力 협심 一意 임무수행에 노력하면 비로소 전투성과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이 작전은 차후 작전에 대한 좋은 시범이 될 것이다。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93호

陸本 훈령 제186호 (陸軍本部 大邱 1951. 2. 3. 12. 00)

훈 령

捕虜取扱에 관하여

今次 전쟁으로 인하여 我戰線에서 체포된 적 포로의 취급과 대우에 관하여는 행정명령으로서 누차 시달한 바와 같이 1950년 7월 4일 맥아더 사령관의 布告로서 1919년 제네바 국제회의에서 제정한 포로취급에 관한 협정과 또 세계 문명 제국가가 인정하여 원하고 있는 도의의 원칙에 입각한 것을 명시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간 일부 부대중에는 체포한 후 신속한 후송과 인도적 보호를 하지않고 학대 혹은 사살하는 예가 없지않다함은 文明국가의 군대로서 국제법규를 위반하는 위법일 뿐만 아니라 上司의 명령을 불복종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음。

玆에 재차 예하장병에게 포로 취급방법의 도의성을 고취하여 위법 행위 없기를 경고하는 바이니

금후의 포로취급에 있어서는 如斯한 학대, 사살 등의 처사 전무토록 期할 事。

총 참 모 장

부록 제194호

陸本作命 제262호 修正作戰指示 제2호 (陸軍本部 大邱 1951. 2. 5. 01. 00)

一. D일 H시를 2월 3일 08.00로 결정한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195호

陸本 훈령 제187호 (陸軍本部 大邱 1951. 2. 5. 12. 00)

鹵獲武器의 긴급후송

鹵獲武器의 현지부대 이동은 일선부대의 중요한 전력이 됨은 本官도 인정하는 바이나 점차 가열한 현 전국과 적의 특수한 전법에 대비하여 군은 모종계획을 수립하여 부대를 편성 가일층 鹵獲武器의 효과적 이용을 기하고저 하오니 각급 지휘관은 이 계획의 요구에 응하여 鹵獲한 일체의 무기는 신속히 병기감실로 후송하여 계획촉진에 협조할 일。

이 계획의 현 전국에 비추어 심각하고도 긴급한 중대성에 鑑하여 만일 이 훈령에 위반되는 처사가 있을 때는 관계관은 엄중한 책임추궁이 있을 것을 명심할 일。

총 참 모 장

부록 제196호

陸本 작전지시 제43호 (陸軍本部 大邱 1951. 2. 5.)

<수복지구에 대한 철수 경찰 原狀復歸의 件>

指 示

一. 치안국 비상경비 총사령관은 下記에 의거, 수복지구에 대하여 조속히 철수 경찰을 原狀復歸 配備하라。

1. 작전군의 진격으로 수복되는 지구에 대하여는 과거 철수한 경찰을 조속히 원상 복귀시키라。

2. 철수 경찰 원상복귀를 위한 軍주보급로 정비는 他 경찰로 교대 담당케 하라。

3. 수복지구 원상복귀 및 군 주보급로 정비교대 담당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 작성하여 2월 6일 12.00限 陸本에 제출 사전에 승인을 얻으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197호

陸本 작전지시 제44호 (陸軍本部 大邱 1951. 2. 8. 12.00)

一. 치안국 비상경비 총사령관은(陸本 작전지시 제43호 의거)예하 경찰 병력을 左記에 의거하여 美 제1군단장 휘하에 들게하라。

1. 差出 경찰 병력과 집결일시 및 집결지

部隊名	현위치	집결 완료 예정 일시	집결지	병력	이동시발지	이동先
제 118 대대	八公山	2.10 18.00	大邱	469명	大邱	大邱
제 122 〃	東萊	2.10 15.00	三浪津	365명	三浪津	〃
제 125 〃	熊上	2.10 12.00	釜山	365명	釜山	〃
제 126 〃	梁山	2.10 15.00	三浪津	278명	三浪津	〃
제 158 〃	八公山	2.10 18.00	大邱	541명	大邱	〃

兵力 총계 5개대대 2,018명

2. 前記 경찰대대의 현 경비담당 지역으로부터 철수 후에 있어서의 該 지역 경비계획을 작성하여 2월 9일 12.00까지 陸本에 제출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198호

陸本作命 제262호 修正作戰指示 제3호 (陸軍本部 大邱 1951. 2. 9. 08.00)

一. 1951년 2월 8일 19.00附로 제3사단은 제3군단 배속으로부터 해제되어 美 제10군단장 作戰指揮下에 들어간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199호

陸本作命 제262호 修正作戰指示 제4호 (陸軍本部 大邱 1951. 2. 9. 12.00)

一. 1951년 2월 2일 12.00附 陸本作命 제262호를 如下히 修正한다。

1. 1951년 2월 9일附로 白義耳대대가 倭館(DQ 4683) 附近으로 이동하여 大邱(DQ 6468)~倭館(DQ 4683)~金泉(DQ 2197)間 군 주보급로(철도포함) 경비를 담당한다。

단, 金泉市를 포함치 않음。

2. 제5경비 대대장은 白義耳대대 도착 즉시로 大邱一金泉間 군 주보급로 경비 책임을 白義耳대대에 인계하고 金泉市를 포함한 金泉北方 咸昌(DR 2896)間 군주보급로 및 철도 경비책임을 담당하라。

3. 제5경비 대대장은 상호 협의 인계완료 즉시로 陸本에 보고하라。

※ 협의를 위한 상호 직접통신을 허가한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200호

陸本 作命 제262호 修正作戰指示 제5호 (陸軍本部 大邱 1951. 2. 9. 20.00)

一. 제11사단장은 즉시 예하 1개대대를 永同(CR 9004)부근에 이동시켜 필리핀 제10전투 대대장의 작전지휘를 받도록 하라。

1. 이동될 대대명 및 현 위치 및 대대에 수반할 고문관 官氏名, 출발 예정시간 및 永同 도착예정 시간을 가급적 속히 이 本部에 보고하라。

2. 필리핀 제10전투 대대는 永同(CR 9004)에 있음。

육 참 모 장

부록 제201호

陸本 훈령 제188호 (陸軍本部 大邱 1951. 2. 11. 12.00)

防 諜

防諜에 관하여는 이미 수차 훈령 지시 기타로 강조한 바 있거니와, 尙今도 그 철저한 실시를 期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수다한 군 기밀이 도처에서 누설되고 있음은 실로 군으로서 一大 유감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음。 특히 作戰 전황의 진전과 아울러 적의 간첩 오열 행동은 가일층 활발화하고 있으며 적은 백방 수단을 다하여 我기밀 탐지를 노력하고 있을 뿐더러 심지어는 군部內까지 첩자를 침투시키고 있으며 근래 수다한 간첩, 오열분자가 軍部內에서 적발되고 있음은 그 實例라 아니할 수 없음。 또한 그 외에 수다한 장병이 의식 무의식중에 중요한 군기밀을 도처에서 누설하고 있는 例 적지 아니하며 중요한 내용의 電文을 평문으로 타전하는 등 실로 군의 방첩관념의 취약을 안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임。

그 부대 방첩은 그 지휘관의 책임임은 재언을 요하지 않거니와 자신 확인과 참모 감독으로서 항상 부대방첩의 완벽을 확인할 뿐더러 특히 下記와 같이 중요한 수개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오니 각급 지휘관은 격발한 주의와 감독으로서 그 실행에 만전을 기하라。

記

一. 지방인 채용에 있어서는 철저한 신원과 배후관계를 조사하여 오열침투를 방지할 뿐더러 채용 후도 항상 감독과 사찰을 계속하라。

二. 중요 작전계획에 관하여는 지휘관 및 주관참모 내지 필요한 최소한의 참모에 한하여 알 것이며 필요 이외의 인원에 대하여 발하지 말라。 특히 그 시간 및 부대 행동은 극비로 취급하여야 한다。

三. 작전명령은 물론 중요한 電文은 반드시 암호로 타전하여야 하며 該 통신규정을 엄수하라。

四. 여하한 건물장소에도 부대명의 게시를 엄금하며 필요하다면 통상명칭 혹은 隱蔽 명칭을 사용

하라。

不可한 實例「제3연대 제2대대 제5중대 제2소대 사병내무반」이라 제시한 간판 혹은 민가벽의 낙서。

五. 항상 장병에 대한 방첩교육을 실시하여 방첩관념에 철저를 기하여 의식 무의식 간에 기밀 누설을 방지하라。

六. 隱語교육을 실시하여 담화 특히 전화에 있어서는 隱語를 사용케 하라。

七. 배속 혹은 파견된 특무대를 십이분 이용하여 방첩함, 방첩지도 등 방법의 철저를 기하라。

본부 혹은 부대출입자를 최소한도로 단속할 뿐더러 그 감시에 철저를 기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202호

陸本 작전지시 제45호 (陸軍本部 大邱 1951. 2. 12. 20.00)

지도 : AMS L552 25만분지1 大韓

군대구분

제3군단 군단장 육군소장 劉載興

제7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金炯一

제9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金鍾甲

수도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宋堯讚

제1海兵연대 연대장 해군대령 金聖恩

제2경비대대

제9경비대대

제10경비대대

제11경비대대

一. a. 최근 정기 정보 보고 참조

b. 美 제1, 제9, 제10군단 및 제1海兵사단은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임。

二. a. 敵은 담당지구를 조선하고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려 함。

b. 전투지경 작전투령도 참조。

三. a. 제1군단

(1) 제1군단장은 수도사단 및 제1, 제9, 제10 경비대대의 배속을 해제하고 1951년 2월 13일 06.00附로 제3군단에 배속하라。

(2) 제1군단은 前記 부대 배속해제와 동시 현 임무로부터 해제된다。

(3) 제1군단 사령부 및 직할부대는 즉시 비행기 및 차량으로 浦川(DS 3010)으로 이동하라。

(4) 제1군단 사령부 및 직할부대는 美 제10군단 담당지구에 도착과 동시 美 제10군단장에 배속한다。

b. 제3군단

(1) 제3군단장은 1951년 2월 13일 06.00附로 제1군단으로부터 배속 해제할 수도사단 및 제1.

제9, 제10 경비대대를 통합지휘하라。

(2) 美 제1해병사단에 배속중인 韓國 제1해병연대는 1951년 2월 13일 오후 發朔里 (ES 1056) 도착과 동시에 제3군단에 배속한다。 제1해병 연대의 통합지휘 시작을 陸本에 보고하라。

(3) 방어선 "LL"로 진출되었던 각 부대를 철수시키고 이 線 以南으로 침공하려는 적을 저지하는 동시 담당 지구내의 적을 계속 捕捉 섬멸하라。

(4) 철수 실시기간중 엄호부대는 접적을 유지하며 우군 방어진지내의 폭파물 지뢰 및 진지 축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라。

c. 工兵事項

(1) 제1101 야전공병단은 1951년 2월 13일 06.00附로 제1군단 배속으로부터 해제하며 同時附로 제3군단에 배속한다。

(2) 그 외 부대는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X. (1) 각 명령 수령자간의 직접 통신을 허가한다。

(2) 제3군단장과 美 제1해병사단장과의 직접통신을 허가한다。

四. 行政事項

下記 사항을 제외하고는 行政命令 제16호를 적용하라。

a. 제1해병연대는 제2종 및 제4종 보급품 필요량을 제3군단사령부 경유 陸軍本部에 청구하라。 請求書에는 청구물품의 허가량, 在庫量 및 한항을 記載하라。

b. 보급

구분 / 보급소	명칭 위치	運用大隊	被支援部隊
(1) 탄약보급소—	제13탄약보급소 竹邊里	제53탄약중대	제1해병연대
(2) 路邊보급소—	原州	제101路邊보급소내 파견대	제1군단사령부 및 직할부대
(3) 해변보급소	竹邊里	제53탄약중대, 제1301공병전방보급중대 파견대 제301역변 보급소대 제81통신 창고중대 파견대 위생재료 가지 참고중대 파견 대	제1해병연대

c. 後送

제1해병연대 제1외과 치료반

d. 근무

(部隊)	(被支援部隊)	(位置)
(1) 兵器—제15병기대대	제1해병연대	竹邊里
제13병기중대파견대	제1해병연대	竹邊里
(2) 工兵—제801정비중대파견대	제1해병연대	三陟

五. 通信事項

a. (1) 현 통신운영 규정 사용

(2) 傳令 및 無電을 최대한으로 사용하라。

b. (1) 陸軍本部—大邱

(2) 제3군단—寧越

c. 通信軸線

제3군단~大邱(DQ 6369)~安東(DR 7545)~寧越(DS 5315)

참 모 총 장

부록 제203호

陸本作命 제262호 修正作戰指示 제9호 (陸軍本部 大邱 1951. 2. 13. 22.00)

一. 1951년 2월 2일 12.00附 陸本 作命 제262호를 如下히 修正한다。

1. 李正一 전투부대

1951년 2월 16일 12.00附로, 제6, 7경비대대 및 제3民防연대를 제2사단장에게 배속한다。前記 각 부대 배속해제와 동시에 李正一 전투부대를 解編한다。

2. 제2사단

1951년 2월 16일 12.00附로 제6, 7경비대대 및 民防 제3연대를 통합 지휘하라。동시에 李正一 전투부대의 현 임무를 인계 담당하라。

3. 李正一 전투부대가 제2사단장에게 인계한 현 임무는 下記와 같음。

下記지구로의 적 침투를 저지하는 동시에 同 지구내 잔적을 소탕 섬멸하라。

北은 수산리(ER 3591)~낙동(○○9785)~乃城(DR 7783)을 연하는 도로(도로포함), 西는 乃城으로 부터 송소(DR 8243)까지 南으로 연하는 선, 南은 송소—靑松(ER 0432)—鎭安洞(ER 0342)—盈德(ER 3329)을 연하는 도로(도로포함), 東은 東海의 선을 연결하여 구획한 지구임。

4. 직접 통신을 허가한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204호

陸本 작전지시 제46호 (陸軍本部 大邱 1951. 2. 14. 00.00)

一. 軍은 계속하여 수복되는 지역에 대하여 철수 경찰병력을 현상 복구케 하여 該地區 治安을 확보케 하려 한다。

1. 治安局 비상 경비 총사령관은 軍 주보급로 경비중의 서울특별시 경찰국 및 該局 예하 경찰병력을 현 임무로 부터 해제시켜 조속히 현상복구하게 하라。

2. 前記 경찰 병력은 현상복구와 동시 美 제1군단장의 지휘를 받으라。

3. 前記 경찰이 담당하는 軍 주보급로 경비는 제2 방참관구 사령관이 담당한다。

4. 원상복구 상황을 陸本에 매일 4회 보고하라。

5. 원상 복구 실시 계획을 작성하여 2월 15일 12.00까지 陸本에 보고하라。

계 엄 총 사 령 관

부록 제205호

陸本 작전지시 제47호 (陸軍本部 大邱 1951. 2. 14. 00.01)

1. 제8 경비대대를 1951년 2월 14일 07.00附로 陸軍本部 직할로부터 해편하고 同時附로 제2병참관구 사령부에 배속한다。

2. 제8경비 대대장은 前項日時부터 제2병참관구 사령관의 지휘를 받으라。

3. 경비 상황에 관하여는 陸本에도 매일 4회 보고하라。

참 모 총 장

부록 제206호

陸本 作戰指示 제48호 (陸軍本部 大邱 1951. 2. 14. 08.00)

1. 陸軍 군악대장은 下記에 의거하여 군관하 일부지구에 순회 위문 연주를 실시하라。

가. 순회 위문 연주일정

2월 15일 大邱出發～釜山到着

2월 16일 釜山시가행진 및 제2훈련소

2월 17일 釜山시내 각 주둔부대 및 훈련소

2월 18일 釜山市內 각 陸軍병원

2월 19일 釜山시민위안 및 연합군부대

2월 20일 육군종합학교 및 제2보충대대

2월 21일 東萊지구 각 육군병원

2월 22일 蔚山 육군병원 및 慶州 육군병원 및 연합군부대

2월 23일 大邱着

나. 연주 실시 세부에 관하여는 군악대장이 계획 실시하라。

2. 慶南地區 계엄 민사부장은 육군 군악대의 管下 위문연주에 협조하라。

3. 군악대장은 위문연주 완료하고 복귀하는 즉시 陸本에 보고하라。

참 모 총 장

부록 제207호

陸本作命 제262호 陸軍作戰指示 제10호 (陸軍本部 大邱 1951. 2. 14. 15.00)

1. 제3군단장은 제11경비대대를 下記에 의거하여 이동케 하라。

(1) 제11경비대대를 1951. 2. 19 20.00까지 釜山(ER 0578)에 이동케 하라。

(2) 제11경비대대를 이동 前까지 완전 편성완료케 하는 동시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중화기를 지급하며 이를 확인하라。

(3) 제11경비대대는 釜山 도착과 동시에 제3군단 직할로부터 해편하고 제2병참관구 사령부에 배속한다. 該대대의 부산 도착 예정시각과 배속 변경 정각을 陸本에 보고하라。

(4) 제11경비대대 이동에 필요한 수송신청서를(군수국 경유) 제출하라。

(5) 제2병참관구 사령관과의 직접통신을 허가한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208호

陸本作命 제262호 修正作戰指示 제11호 (陸軍本部 大邱 1951. 2. 15. 12:00)

. 大邱 방위의 전 책임은 大邱 군관구 사령관에게 있다。

.. 在邱 韓國軍부대의 일부는 제3지구를 담당케 되었음。

.. 1. 군은 별지 투명도에 의한 地區를 담당하고 地區隊의 편성 및 지휘관을 임명하려 함。

2. 헌병 사령관은 大邱 군관구사령관 지휘를 받아 제3지구 사령관이 되는 동시에 下記 각 부대를 방위 업무에 한하여 지휘하라。

A. 헌병사령부

제1801 공병단

국민방위사령부

B. 下記부대는 군관구사령관 지시에 의거 방위업무에 한하여 통합지휘한다。

UN 제42 C—C

UN 제8073 休浴中隊

UN 제142 사령부 C—C

UN 제308 C—C 전방 작전지구 정보처

3. 下記부대는 방위업무에 한하여 군관구 사령관이 지명한 각 지구 사령관의 지휘를 받으라。

A. 제1지구

병참 자동차 대대

제1301 철도중대

자동차 경비중대

B. 제2지구

통신운용 대대

헌병학교

제1001 공병 창고중대

제3정훈중대

C. 제4지구

보충대대

통신근무대대

포병사령부

제8경비대대

4. 제3지구 사령관은 방위업무 수행상에 한하여 大邱 군관구 사령관의 지휘를 받으라。

5. 제3지구 사령관은 병력 운용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이외는 사전 陸本의 승인을 득할 것이며 상황이 급하여 사전 승인없이 병력을 사용하였을 때는 최단시간 내에 사후 승인을 얻으라。

6. 제3지구 사령관은 陸本作戰局 및 지구내 관할 각대와 긴밀한 연락으로 방위업무 수행상 만전을 기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209호

陸本作命 제262호 수정作戰指示 제12호 (陸軍本部 大邱 1951. 2. 16. 19.00)

一. 陸本作命 제262호의 일부를 如下히 修正한다。

二. 제3군단장은 즉시 제9경비대대를 虎山里(ES 3014)로 부터 務道里(DS 3515)로 이동시키라。

三. 제9 경비대대는 務道里(DS 3515)에 도착과 동시에 제3군단 배속으로 부터 해제하고 제1군단에 배속한다。

四. 제3군단장은 前記제1항에 指示한 이동에 필요한 수송을 담당하라。

五. 제3군단장은 제9경비대대의 虎山里 출발시각을 陸本에 보고하라。

六. 제1군단장은 제9경비대대가 務道里 도착 즉시로 統合 지휘할 것이며 그 시각을 陸本에 보고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210호

陸本作命 제262호 修正 作戰指示 제13호 (陸軍本部 大邱 1951. 2. 20. 12.00)

지도 : AMS L552 25만분지 1, 大韓

一. a. 省 略

b. 美 제9군단 및 제10군단은 1951년 2월 21일 10.00시를 기하여 각 담당 지구내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漢江 東方 및 槪線 "아리조나"南方의 적을 섬멸할 것임。

二. a. 군은 1951년 2월 21일 10.00시를 기하여 담당지구내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아리조나"南方의 적을 섬멸하는 동시에 제8군의 東側方을 防護하려함。

b. 전투地境 및 진출예정선—별지 작전투명도 참조。

三. a. 제3군단은 1951년 2월 21일 10.00시를 기하여 담당지구내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아리조나"선

南方의 모든 적을 섬멸하라。

b. 담당지구내의 진출은 美 제10군단의 진출과 보조를 같이 하라。

c. 제8군 東側方을 방호하라。

d. 全주요부대를 전전히 유지할 수 있고 또한 군단내 및 군단간의 모든 필요한 橫的 협조를 유지할 수 있는 限 적에게 최대한의 손실을 가하라。

e. 陸軍本部 명령이 있을 때는 "일리노이"선으로 진출 同線을 탈취할 준비를 갖추라。

四. 變更 無

五. 變更 無

총 참 모 장

부록 제211호

陸本 作戰指示 제49호 (陸軍本部 大邱 1951. 2. 20 15.00)

一. 軍 전투地境內에서 행동하고 있는 경찰병력 일체는 該 地區 전투 사령관의 區處를 받아야 함은 이미 陸本 작전지시 제39호로서 示達되어 있음。

二. 내무부 비상경비사령관은 下記 병력을 1951년 2월 20일 17.00附 보병 제2사단에 배속하라,

乃 城(DR 8276)	전투경찰	제113대대
慈 山(ER 0181)	〃	제132대대
安 東(DR 7545)	〃	제207대대
義 城(DR 7122)	〃	제115대대
新 寧(DQ 8088)	〃	제110대대
縣 西(DR 9114)	〃	제138대대
하해동(DQ 7797)	〃	제111대대
乾川里(EQ 0965)	〃	제107대대
慶 州(EQ 1966)	〃	제 9 대대
慶 州(EQ 1966)	〃	제209대대

三. 보병 제2사단장은 前記 병력을 통합 지휘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212호

陸本作命 제262호 修正 作戰指示 제14호 (陸軍本部 大邱 1951. 2. 21 10.00)

一. (1) 1951년 2월 21일 12.00附로 포병 제20대대를 제2사단으로 부터 배속 해제한다。

(2) 제2사단장은 포병 제20대대를 즉시 大邱로 이동 포병사령관 지휘하에 들어가 급속히 재편을 실시하게 하라。

二. (1) 1951년 2월 28일 00.00시附로 포병 제18대대를 제2사단에 배속한다。

(2) 포병사령관은 포병 제18대대를 1951년 2월 28일 24.00까지 義城에 이동시켜 제2사단장 지휘하에 둘게 하라。

(3) 제2사단장은 前記 포병을 통합 지휘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213호

陸本作命 제262호 修正 作戰指示 제15호 (陸軍本部 大邱 1951. 2. 21 12.00)

一. 1951년 2월 22일 12.00附로 제3군단에 배속중인 政訓 제2대대 제7중대를 제3군단 배속으로 부터 해제하고 同日時附로 제2사단에 배속한다。

二. 1951년 1월 8일 12.00附 陸本訓令 제151호 참조。

총 참 모 장

부록 제214호

陸本作命 제262호 修正 作戰指示 제16호 (陸軍本部 大邱 1951. 2. 22. 12.00)

一. 군은 첩보기관의 一元化와 그 효과적 운용을 위하여 각 첩보대를 사단에 배속하려 함。

二. 육군 첩보부대장은 1951년 2월 25일 영시 附로 각 사단 및 지구에 파견중인 첩보대를 下記와 같이 사단에 배속하라。

記

1. 제1支隊(支隊長, 소위 金在圭) 首都사단
2. 제2支隊(支隊長, 중위 張寬賛) 제3사단
3. 제3지대(支隊長, 대위 金東石) 제1사단
4. 제5지대(支隊長, 소위 金科鄕) 제9사단
5. 제6지대(支隊長, 소위 黃致元) 제7사단
6. 제7支隊(支隊長, 대위 柳定鉉) 제11사단
7. 제8支隊(支隊長, 대위 張仁哲) 제2사단
8. 제9支隊(支隊長, 대위 崔鳳朝) 제8사단
9. 제10支隊(支隊長, 대위 鄭淳泰) 제6사단
10. 제11支隊(支隊長, 중위 金康悅) 제5사단
11. 제12支隊(豫備隊,)

三. 각 사단장은 배속된 첩보 支隊를 통합 지휘하여 첩보수집에 만전을 기하라。

四. 가. 각 사단은 별도 소속 첩보대를 편성함을 엄금한다。

既 편성첩보대는 별지 세부지시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나. 인사보급 및 기타 행정사항 : 별지 세부지시。

五. 가. 육군 첩보부대장은 즉시 별지 세부 지시를 포함한 실시 결과 보고서를 1951년 2월 27일 24.00까지 제출하라。

총 참 모 장

陸本 作戰指示 제1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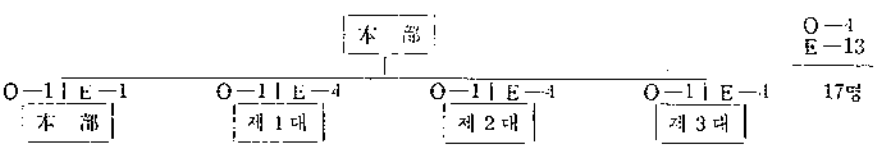
별지 제1

細部指示

1. 육군 첩보부대장은 별지 支隊 편성표에 의거하여 11개지대를 편성·배속 후 그 장병명부를 정보국장에게 제출하라。
2. 각 사단장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단 첩보대를 배속된 군 첩보대에 해편, 편입시킬과 동시에 그 장병명부를 정보국장 및 인사국장 참조로 육군본부에 제출하라。
3. 인사국장은 2항의 장병명부를 접수 즉시 該 인원을 육군 첩보부대로 전입케 하라。
4. 현 사단 첩보대장이 배속된 군첩보부대장 보다 상급자 또는 능력이 우수하여 대장교체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때는 사단장은 그 사유를 附記하여 정보국장 참조로 보고하라。
5. 배속된 군 첩보대는 사단장의 지휘하에 운영되며 該 첩보대에 대한 보급 기타 후방지원은 사단장이 담당한다。
6. 사단장은 군 첩보대에 의하여 획득된 첩보는 일체 사단통신을 이용하여 당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육군 첩보 부대장은 각 사단에 배속된 첩보대에 대하여 인사기록 및 보고, 교육 기술면의 지도 등에 관하여 책임진다。
8. 현 사단 소속 첩보대를 배속된 군 첩보대에 편입한 후는 첩보대의 보충 기타 인사는 陸軍 첩보부대장의 특명에 의한다。

   단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현지 사단장과 긴밀한 협조하에 실시함을 요한다。
9. 사단장은 군 첩보대의 편성 병력 이상의 증강을 필요로 할 때는 사단 소속 병력으로서 첩보대의 내부 조직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 증원할 수 있다。
10. 사단장은 배속된 군 첩보대에 관하여 항시 육군 첩보부대장과 적극적인 연락 협조를 유지하여 군 첩보대 육성에 만전을 기하라。
11. 차량은 별도 계획에 의한다。
12. 이 지시의 실시에 있어 각 사단장 및 관계각급은 목적하는 바 취지를 명찰하여 첩보대 일원화의 확기적 계획에 적극 협조 노력하라。

육군첩보부대 사단배속지대 편성표



「但 文官 및 첩자 未包含」

부록 제215호

陸本훈령 제189호 (陸軍本部 大邱 1951. 2. 23. 12.00)

훈 령

6. 25사변이후 극도로 混雜하여진 군인사행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훈령 공문 등으로 명시한 바 있거니와 지금까지 그 실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있는 고로 부득이 下記와 같이 엄명하니 각부대장은 명심하여 1951년 3월 15일까지 필히 실행하라。

記

一. 陸本 전속 특명없이 근무하고 있는 장병을 원소속대로 복귀시키라。

二. 陸本 전속 특명이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임시키지 않는 장병을 전속 발령된 부대로 부임 발령시키라。

三. 신편 부대로서 병력 충당하기 위하여 인사 충원계획 외의 장병을 타부대로부터 전속 특명 발령케 하여 준다는 구실하에 특명없이 인솔하는 등 事有한。 如斯한 경우에는 本人은 물론 인솔한 책임자에게 책임을 추궁함。

四. 前記 1.2.3.항에 해당된 장병은 자진적으로 원대복귀 또는 전속 발령된 부대로 출발할 의무가 있다。 만일 이 의무를 실행치 않을 때에는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함。

참 모 총 장

부록 제216호

陸本作命 제262호 修正 作戰指示 제17호 (陸軍本部 大邱 1951. 2. 26. 08.00)

一. 제8사단장은 예하 포병 제50대대를 1951년 3월 1일 12.00까지 鎭海(DP 6889)로 이동시키라。

二. 포병 제50대대는 鎭海 도착과 동시에 제8사단 배속으로부터 해제되어 陸軍本部 직할로 들어가라。

三. 포병 제50대대장은 포병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금속한 시일 내에 재편을 완료하라。

四. 재편 완료 즉시로 陸本에 보고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317호

陸本作命 제262호 修正 作戰指示 제18호 (陸軍本部 大邱 1951. 2. 26. 18.00)

一. 陸本作命 제262호중 일부를 下記와 같이 修正한다。

二. 제8사단은 1951년 2월 24일 19.00附 美 제10군단으로부터 배속이 해제되어 陸本 직할로 복귀한다。

三. 제8사단장은 부대재편에 관하여 금속한 처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陸本에 보고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218호

陸本作命 제262호 修正 作戰指示 제19호 (陸軍本部 大邱 1951. 2. 27. 19.00)

一. 1951년 2월 2일 12.00附 陸本作命 제262호중 일부를 如下히 修正한다。

二. 美 제10군단—韓國軍 제3군단간 전투地境을 北으로 下記와 같이 연장한다。

현 전투地境上의 DS 5650地點으로부터 속사里(DS 5665)를 경유하여 속사里와 비박골은 제3군단에 속함。

三. 이를 확인하면 즉시 그 결과를 보고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219호

陸本作命 제262호 修正 作戰指示 제20호 (陸軍本部 大邱 1951. 3. 1. 15.30)

一. 1951년 2월 2일 12.00附 陸本作命 제262호 중 일부를 如下히 수정한다。

二. 제2사단(缺 31R)은 각 별 명령에 의하여 2월 14일 18.00附 원대복귀되어 있음。

三. 제31R는 1951년 3월 1일 16.00附 제2사단에 복귀한다。

四. 제2사단은 3월 1일 16.00附 현 임무 외에 下記地區內 적의 섬멸 및 下記地區로 적 침입을 저지할 책임을 담당하라。

1. 현 제2사단—美 제10군단간 전투지경상 DR 7481지점으로부터 豊基(豊基는 美 제10군단에 속함)까지 西向하여 그곳으로부터 DR 5662지점까지 南北간 도로의 西側을 따라 南下한 다음 醴泉(DR 5256)까지 榮州(DR 6775)—醴泉간 도로를 따라 西南으로 向하여 (醴泉도로는 제2사단에 속함) 그곳으로부터 安東까지 醴泉—安東간 도로를 따라 東南으로 연하는 선임(도로 및 安東은 속함) 安東~豊基(豊基除外)間 보급로 경비에 특별히 치중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220호

陸本作命 제262호 修正 作戰指示 제21호 (陸軍本部 大邱 1951. 3. 2. 08.00)

一. 제5경비대대장은 1951년 3월 3일 18.00附로 大邱—金泉간 군주보급로 경비 책임을 白耳義대대로부터 추가 인수 담당하라。

二. 大邱~金泉간 주보급로상 위험한 지역에 경비력을 치중하라。

三. 大邱~金泉간 지역내 경찰을 통합지휘하라。

四. 임무교대를 위하여 직접통신을 허가한다。

五. 임무교대 즉시로 陸本에 보고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221호

陸本作命 제262호 修正 作戰指示 제22호 (陸軍本部 大邱 1951. 3. 2. 18.00)

一. 1951년 2월 2일 12.00附 陸本作命 제262호 일부를 如下히 修正한다。

二. 1951년 3월 3일 12.00附로 제13R 제3대대를 제11사단에 원대 복귀시킨다。

三. 1951년 3월 3일 12.00附로 제3경비대대를 陸本 직할로부터 제11사단에 배속한다。

四. 제11사단장은 1951년 3월 3일 12.00附로 현 담당 임무 외에 金泉(DQ 2197)~大田(CR 5921)간 (兩市는 제외함) 주보급로 경비책임을 담당하라。임무수행에 있어서 경찰과 최대한으로 협조하라。

五. 제11사단장은 매일 1회씩 上記 임무수행 상황을 陸本에 보고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222호

陸本作命 제263호 (陸軍本部 大邱 1951. 3. 3. 18.00)

지도 : AMS L552 25만분지1 大韓

군대구분 附錄 제1호 군대구분 참조。

一. 1. 附錄 제2호 정보사항 참조。

2. 美 제1, 제9, 제10군단은 D일 H시를 기하여 공격을 개시 鐵線 아이다호 南方의 적을 섬멸하는 동시에 적 물자 및 보급품을 파괴할 것임。

二. 1. 軍은 제1, 제3군단을 사용 D일 H시를 기하여 공격을 개시 東沙里(DS 5565)~江陵(DS 9178)間 도로를 확보하고 아이다호線 南方의 적을 섬멸하는 동시에 軍 東側方을 防護하려함.

2. 軍은 제2, 제11사단을 사용 보급로 및 사설을 경비하는 동시에 군 근무지구내에서 對유격 작전을 실시하려 함。

3. 전투地境 : 附錄 제3호 작전투명도(제1, 제3군단) 및 附錄 제3호 A 작전투명도(제2, 제11사단) 참조。

三. 1. 제1군단

(1) 즉시 군단사령부 및 군단특별부대를 江陵부근으로 이동하라。

(2) 군단司令部 전투지휘반 江陵도착후 제3군단장과 협의된 日時에 수도사단, 제9사단, 제1경비대대 및 제10경비대대를 통합지휘하라。

(3) 제9사단(欠 1개연대)을 예비대로서 橫溪里(DS 7469)에 집결시키고 陸軍本部의 事前承認이 있을 때에 한하여 사용하라。

(4) 江陵(DS 9178)~橫溪里(DS 7469)間 도로를 확보하고 아이다호線 南方의 모든 적을 섬멸하는 동시에 적 물자 및 보급품을 파괴하라。

(5) 全主力을 건전히 유지하고 군단내에서 필요한 橫的 협조를 실시하라。진출에 관하여는 제3군단장과 협조하라。

(6) 제9경비대대를 開慶(DR 2166)부근으로 이동하여 목적지 도착과 동시에 배속을 해제하여

제11사단장에게 배속하라。

(7) 제1, 제10경비대대를 현 위치로부터 浦項洞(EQ 3387)부근으로 이동하여 目的地 도착과 동시에 배속을 해제하여 陸軍本部 직할로 入하게 하라。

2. 제3군단

(1) 제1군단 사령부 전투지휘반 江陵 도착후 제1군단장과 협의된 日時에 수도사단, 제9사단 제1경비대대 및 제10경비대대를 배속해제하여 제1군단장에게 배속하라。

(2) 1951년 3월 5일 12.00 芳林里(DS 4942) 附近에서 제3사단을 통합지휘하는 동시에 軍團 담당지구내로 이동하라。

(3) 제3사단의 1개연대가 군단담당 지구내에 도착하는 즉시로 제1해병연대를 橫城(DS 1149)부근으로 이동하여 목적지 도착과 동시에 배속을 해제하여 美제9군단에 배속하라。

(4) D일 H시를 기하여 담당지구내에서 공격을 개시 아이다호線 南方의 모든 적을 섬멸하는 동시에 橫溪里(DS 7469)~東沙里間 도로를 확보하라。 D일 H시는 後述한다。 목표일은 1951년 3월 6일 08.00임。

(5) 全主力을 견진히 유지하고 군단내에서 필요한 橫的 협조를 실시하라。 進出에 관하여는 특히 美제10군단장과의 협조에 치중하여 제1군단장 및 美제10군단장과 협조하라。

(6) 제2경비대대를 大邱(DQ 6369)로 이동하여 목적지 도착과 동시에 배속을 해제하여 陸軍本部 직할로 入하게하라。

3. 제2사단

(1) 1951년 3월 4일 12.00 제5경비대대를 현 위치에서 통합지휘하라。

(2) 담당지구내 보급로를 경비하고 적을 섬멸하는 동시에 적의 물자 및 보급품을 파괴할 책임을 담당하라。(附錄 제3호 A작전 투명도 참조) 丹溪(DR 3987)~豊基(DR 5880)間 보급로 경비에 2개대대 이하의 병력을 사용치 못한다。

(3) 연대 및 배속부대는 陸軍本部의 사전승인이 있을 때에 한하여 작전 투명도상에 표시된 담당지구 외에 사용할 수 있다。

4. 제11사단

(1) 제9경비대대를 聞慶(DR 2166) 도착과 동시에 통합지휘하라。

(2) 제1, 제2, 제10경비대대를 제11사단장이 지정하는 제11사단 담당지구내 목적지 도착과 동시에 통합지휘하라。

(3) 담당지구내 보급로를 경비하고 적을 섬멸하는 동시에 적 물자 및 보급품을 파괴할 책임을 담당하라。(附錄 제3호 A작전투명도 참조) 延豊(DR 1168)~聞慶(DR 2165)間 보급로 경비에 최소한도 2개대대를 사용하라。

(4) 연대 및 배속부대는 陸軍本部의 사전승인이 있을 때에 한하여 (附錄 제3호 A)작전투명도상에 표시된 담당지구 외에 사용할 수 있다。

5. 제8사단

(1) 大邱 부근에서 편성 및 교육을 계속하라。

(2) 1951년 4월 1일 이후에는 전투 가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라。

6. 제1경비대대는 浦項洞 도착과 동시에 南原(C Q 5319)부근으로 계속 이동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라。최후 목적지 도착과 동시에 제11사단장에게 배속한다。

7. 제2경비대대는 大邱(D Q 6369) 도착과 동시에 南原(C Q 5319)부근으로 계속 이동할 준비를 갖추라。최후 목적지 도착과 동시에 제11사단장에게 배속한다。

8. 제5경비대대는 1951년 3월 4일 12.00 제2사단장에게 배속한다。

9. 제10경비대대는 浦項洞 도착과 동시에 大田(C R 5921)부근으로 계속 이동할 준비를 갖추라。최후 목적지 도착과 동시에 제11사단장에게 배속한다。

10. 工兵事項

(1) 제1101야전공병단 및 배속부대는 제3군단 배속으로부터 해제하여 제1군단에 배속한다。

(a) 三陟(E S 1444)~松溪里(D S 8748)間 槪線以北 南北間 東西間 통로를 포함한 發鶴里(E S 0955)해변 보급소로 부터 각 사단지구에 이르는 보급로 보수 및 유지에 최대한의 工兵力을 傾注하라。

(b) 同線 以南 東西間 및 南北間 도로보수 및 유지를 위한 工兵力은 제2차 순위로 하라。

(2) 제1103야전공병단 및 배속부대는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a) 松溪里(D S 8748)~寧越(D S 5315)~丹陽間 槪線以北 南北間 및 東西間 통로를 포함한 丹陽(D R 3937) 驛邊보급소로부터 각 사단지구에 이르는 보급로 보수 및 유지에 최대한의 工兵力을 傾注하라。

(b) 同線以南 東西間 및 南北間 도로보수 및 유지를 위한 工兵力은 제2차 순위로 하라。

(1) 이동책임이 있는 각 지휘관은 이동기간중 전 위치의 출발시각 목적지 도착 예정시각 및 실제 도착시각 가능한 곳에서는 이동 기간중의 전적상황을 陸軍本部에 보고하라。

(2) 사용 가능한 한 공중지원 및 포지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라。

四. 行政事項

1951년 3월 4일 08.00現 行政命令 제17호 참조。

五. 1. 通信事項

X (1) 現 통신규정을 사용하라。

(2) 新 지휘소 설치와 동시에 즉시 그 위치를 보고하라。

2. 指揮所 소재지

(1) 陸軍本部——大邱

(2) 제1군단——江陵

(3) 제3군단——寧越

3. 通信幹線

(1) 제1군단 : 江陵—東海岸 도로를 따라 北方으로。

(2) 제3군단 : 寧越—平昌—長坪里—東沙里。

4. 連絡兵에 의한 통신을 최대한으로 사용하라。

5. 구 지휘소는 新 지휘소가 설치완료될 때까지 계속 운영하라。

참 모 총 장

省略 : 부록 제1호

부록 제223호

陸本作命 제263호 修正 作戰指示 제1호 (陸軍本部 大邱 1951. 3. 7. 20.00)

1951년 3월 3일 18.00附 陸本作命 제263호를 如下히 修正한다。

一. 제1군단장은 陸本의 사전 승인없이 제9사단(欠 1) 병력을 사용할 수 있다。

二. 제3군단장은 배속된 부대(제3사단병력)로써 현재 제3군단 구역내에 있는 제1군단 부대와의 교대를 급속히 추진시키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224호

陸本作命 제263호 修正 作戰指示 제1호 추가 (陸軍本部 大邱 1951. 3. 8. 12.00)

一. 陸本 작전명령 제263호 修正 作戰指示 제1호를 如下히 추가 지시한다。

二. 1. 1951년 3월 6일 12.00附로 제9사단, 수도사단(欠 제26연대), 제1경비대대, 제10경비대대를 제3군단 배속으로 부터 해제하여 제1군단장에게 배속한다。

2. 1951년 3월 7일 12.00附로 제3사단(欠 제18연대)을 美제10군단장 배속으로 부터 해제하여 제3군단장에게 배속한다。

3. 1951년 3월 7일 12.00附로 제1군단장은 제9사단을 陸軍本部 사전승인없이 사용할 수 없다。

4. 1951년 3월 7일 12.00附로 제3군단장은 제1해병연대를 계속 통합지휘하라。

5. 1951년 3월 6일 12.00附로 제2경비대대를 제3군단장 배속으로부터 해제하고 陸軍本部 직할로 한다。

6. 1951년 3월 5일 18.00附로 제9경비대대를 제1군단장 배속으로 부터 해제하고 同時附로 제11사단장에게 배속한다。

7. 제102 중박격포 중대는 현 위치 鎭海(DP 6989)로 부터 1951년 3월 10일 24.00까지 大邱(DQ 6369)로 이동하라。大邱 도착과 동시 제8사단장에게 배속한다。

8. 제101 중박격포 중대 제3소대는 현 위치 鎭海(DP 6989)로 부터 최단시일내에 江陵(DS 9178)부근 원대위치에 이동하라。목적지 도착과 동시에 제101 중박격포 중대에 복귀한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225호

陸本作命 제263호 수정 작전지시 제2호 (陸軍本部 大邱 1951. 3. 12. 06.00)

一. 1951년 3월 3일 18.00附 陸本作命 제263호중 일부를 如下와 같이 修正한다。

二. 1951년 3월 9일 18.00附 제26연대를 제3군단장 배속으로 부터 해제하고 동시에 제1군단에 배속한다。동26연대는 제1군단에 배속과 동시에 수도사단에 원대 복귀한다。

三. 1951년 3월 7일 12.00附로 제3사단을 美 제10군단으로 부터 배속을 해제하고 동시에 제3군단에 배속한다。

四. 1951년 3월 6일 12.00附로 제101중박격포 중대를 제3군단 배속으로 부터 해제하여 제1군단장에 배속과 동시에 제9사단에 배속한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226호

陸本作命 제263호 修正 作戰指示 제3호 (陸軍本部 大邱 1951. 3. 12 11.00)

1951년 3월 3일 18.00附 陸本作命 제263호를 如下히 修正한다。

一. 1951년 3월 13일 12.00附로 제9사단 제30연대를 제1군단으로 부터 제2사단장에게 배속한다。

二. 제2사단장은

(1) 제17연대의 永川(DQ9479)~慶州(EQ1966)~浦項(EQ3388)간 주보급로 및 시설 경비 현 임무를 제6경비대대와 교대케 하라。

(2) 제17연대, 제30연대 및 필요한 제2사단 지원부대로서 구성되는 전투부대를 사용하여 1951년 3월 11일 08.00 현재로 ES 0450 부근을 北進중이라고 보고된 적 제10사단의 잔적을 추격 포착 섬멸하라。

적 제10사단을 완전 섬멸하면 동 전투부대를 陸軍本部 지시에 의거하여 제1군단 및 제3군단 일선부대 南方에 집결된 적 섬멸에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라。(同 作戰은 韓國軍 담당 지구내에만 국한된다。)

(3) 如斯 임무수행에 있어서 제1군단장 및 제3군단장과 긴밀하고도 필요한 협조를 실시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227호

陸本作命 제263호 修正 작전지시 제4호 (陸軍本部 大邱 1951. 3. 14. 20.00)

一. 1951년 3월3일 18.00附 陸本作戰命令 제263호중 일부를 如下히 修正한다。

二. 제2사단장은

(1) 1951년 3월 14일 21.00附로 제30연대의 배속을 해제하여 제1군단에 복귀시키라。

(2) 즉시 제17연대로서 3월 14일 16.00 현재(DS 9404)에 진출한 적 제1 및 제3유격여단을 공격하여 이를 격멸하라。

(3) 이 임무완수에 있어 제1및 제3군단장과 필요한 협조를 긴밀히 실시하라。

三. 제1군단장은

(1) 1951년 3월 14일 21.00附로 제30연대를 통합 지휘하라。

(2) 군단의 일부 병력으로서 3월 13일 16.25 현재(DS 9545)에 있다고 보고되어 있는 北共軍 제10사단 패잔주력을 격멸하라。

四. 제3군단장은 前記 적 제1, 제3유격여단 및 北共軍 제10사단 패잔주력 격멸작전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제2사단 및 제1군단과 긴밀히 실시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228호

陸軍作命 제263호 修正 作戰指示 제5호 (陸軍本部 大邱 1951. 3. 16. 18.00)

1951년 3월 3일 18.00附 陸本作命 제263호중 일부를 下와같이 修正한다。

一. 1951년 3월 13일 11.00附 제2경비대대를 陸本 직할로부터 제11사단장에게 배속한다。(陸本作命 제263호 7항 참조)

二. 1951년 3월 9일 17.30時附로 제10경비대대를 제1군단 배속으로부터 해제하여 陸本 직할로 한다 (陸本作命 제263호 三 1(7)항 참조)

三. 1951년 3월 13일 09.30附 제16경비대대를 陸軍本部 직할로부터 제11사단장에게 배속한다。(陸本作命 제263호 三(9)항 참조)

四. 1951년 3월 14일 11.00附로 제1경비대대를 제1군단장으로부터 배속을 해제하여 陸軍本部 직할로 한다。(陸本作命 263호 三. 1(7)항 참조)

五. 1951년 3월 15일 08.00附로 제1경비대대를 陸本 직할로부터 제11사단장에게 배속한다。(陸本作命 제263호 三(6)항 참조)

六. 1951년 3월 15일 00.01附로 포병 제20대대를 陸本 직할로부터 제8사단장에게 배속(편입)한다。

七. 제103 중박격포 중대는 즉시 鎭海(DP 6989)부근 현 위치로부터 大邱(DQ 6369)부근으로 이동하여 계속 훈련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229호

陸本作命 제263호 修正 作戰指示 제6호 (陸軍本部 大邱 1951. 3. 17. 09.00)

1951년 3월 3일 18.00附 陸本作戰命令 제263호중 일부를 如下히 修正한다。

一. 제3군단장은 제1해병연대를 현 임무로부터 해제하여 1951년 3월 17일 18.00까지 下安美里(DS

5145) 부근 집결지에 도착하도록 이동시키라。

二. 1951년 3월 17일 18.00附로 제1해병연대를 제3군단장 예속으로부터 해제하여 美 제9군단에 배속한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230호

陸本作命 제263호 수정 (陸軍本部 大 邱 1951. 3. 18. 12.00)

作戰指示 제7호

1951년 3월 3일 18.00附 陸本 작전명령 제263호중 일부를 如下히 修正한다。

一. a. 정보에 의하면 華川貯水池(DT 1120)東方으로부터 東海岸에 이르는 38도선 부근에 부대집결 砲座 및 진지구축 등 적 행동이 증대되고 있음。

b. 美 제10군단은 담당지구에서 北方 깊이 적 후방지구에 대한 수색을 개시한 것임。

二. a. 군은 "아이다호"선상의 현 진지로부터 "쿠인"線까지 북방깊이 적 후방지구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려 함。

b. 전투地境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1) 제1군단과 제3군단간의 전투 地境은 현 전투地境線上 특징항里(DS 6794)로 부터 1183高地(DS 6299) 영덕里(DT 6007) 간암리(DT 5814)를 통과하여 청고里(DT 5425)까지 연장한다。

(2) 제3군단과 美 제10군단간의 전투地境은 현 전투지경선상 비박골(DS 5483)로부터 1436高地(DS 4394)~847高地(DT 4503)~1519高地(DT 4216)를 통과하여 766高地(DT 3324)까지 연장한다。

C. "쿠인"線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동선은 東海岸(DT 6720) 부근으로 부터(DT 3820) 부근 美 제10군단~韓軍제3군단 전투지경까지 西方으로 연장된 선이다。

三. 제1 제3군단장은

(1) 즉시 현재 집령하고 있는 "아이다호"선상 진지로부터 "쿠인"선까지 적 후방에 대한 강력한 수색을 개시하라。

(2) 수색 정찰대 및 첩자에 치중하여 각 군단장이 사용할 수 있는 또한 陸軍本部를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든 地上 수색기관을 활용하라。

X. (1) 첩보 기본요소

(a) 집결된 적의 병력, 團隊號 위치, 태세(방어인지 혹은 공격인지)

(b) 방어진지의 위치 종류 및 그 범위

(c) 보급 및 병력이동의 방향및 수

(2) 최신속한 방법으로 수색기관이 수집한 보고를 급속히 보고함에 만전을 기하도록 만반 노력을 다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231호

陸本作命 제263호 修正 作戰指示 제8호 (陸軍本部 大 邱 1951. 3. 20. 12.00)

1951년 3월 3일 18.00附 陸本作命 제263호중 일부를 如下히 수정한다。

一. 일반적으로 현 확보진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이다호"線을 下記와 같이 수정한다。 韓軍 제3군단과 美軍 제10군단간 전투地境上(DS 5775) 지점으로 부터 北向하여(DS 5877) 지점에 이르러서 개략 北向 및 東向하여 (DS 7581) 지점을 경유하여 東北向으로 向하여 (DS 7886) 地點을 통과하여 개략 東向하여 (DS 8790)지점의 連谷川江口에 연하는 선으로 한다。

二. 제1군단 및 제3군단은 軍 東側方을 방호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아이다호"線(제1항의 수정된 선)을 방어하고 작전지시 제7호로서 지시한 적 후방지구에 대한 강력한 수색을 실시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232호

陸本作命 제263호 修正 作戰指示 제9호 (陸軍本部 大 邱 1953. 3. 23 18.00)

1951년 3월 3일 18.00附 陸本作命 제263호중 일부를 如下히 수정한다。

1. 제105 독립 포병중대는 鎭海부근(DP 7089) 현 위치로 부터 1951년 3월 28일 24.00까지 大邱(DQ 6369)에 도착하도록 이동하라。

2. 1951년 3월 28일 24.00附로 제105 독립 포병중대를 陸軍本部 직할로부터 포병사령관에게 배속한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233호

陸本作命 제263호 修正 作戰指示 제10호 (陸軍本部 大 邱 1951. 3. 25. 08.00)

1951년 3월 3일 18.00附 陸本作戰 명령 제236호중 일부를 如下히 수정한다。

一. 1. 省 略

2. 美 제10군단은 1951년 3월 26일 담당지구내 "카이로"선을 점령확보하기 위한 공격을 개시할 것임。

二. 1. 省 略

2. (1) 전투地境 변경 없음。

(2) 진출선 "카이로"는 下記와 같음。

美 제9군단과 제10군단간 전투지경상(DS 2396) 지점으로 부터 東北으로(DS 4499) 및 (DT 5805) 지점을 경유하여(DT 9917) 지점에 이르는 선으로 한다。

三. 1. 제1군단 및 제3군단은 1951년 3월 25일~3월 26일간 야간에 공격을 실시하여 담당지구내 "카이로"선을 점령 확보하라。

2. 공격 개시 시간은 군단장이 선정하여 陸軍本部에 보고하라。

3. 제3군단장은 美제10군단장과 협의하여 美 제10군단과 제3군단간 전투 地境上에 협조점을 설정하라。

4. 제1군단장과 제3군단장은 상호 협의하여 전투지경선상에 협조점을 설정하라。

5. 지휘관 간의 직접통신을 허가한다。

6. 이 공격을 군사령관의 기본지시 즉 군단내 및 군단간에 최대한의 협조를 실시하며 주력부대의 완전한 태세를 유지하면서 적에게 최대한의 손실을 加하라는 방침에 일치하도록 실시하라。

四. 省 略

五. 省 略

총 참 모 장

부록 제234호

陸本作命 제263호 修正 作戰指示 제11호 (陸軍本部 大 邱 1651. 3. 25 18.00)

1951년 3월 3일 18.00附 陸本作戰 명령 제263호중 일부를 如下히 수정한다。

一. 제8사단장은

1. 1951년 4월 1일 00.01 時附로 이동을 개시하여 제8사단(欠 포병 제20대대 및 독립 포병 제102중대)을 별지 투명도에 의한 담당지구로 이동하여 제11사단의 현 임무를 교대 인수하라(부록 제1호 작전투명도 참조)

2. 부대이동 및 제11사단과의 교대를 下記 순서로 실시하라。

(1) 제16연대(欠 1개대대)를 大邱 부근 현 위치로 부터 철도로 진주부근에 이동하여 제11사단 제9연대와 교대케 하라。

(2) 제16연대 1개대대를 大邱 부근 현 위치로 부터 차량으로 居昌 부근에 이동하여 제9연대 제3대대와 교대케 하라。

(3) 제10연대를 大邱 부근 현 위치로 부터 철도로 光州 부근에 이동하여 제11사단 제20연대와 교대케 하라。

(4) 제8사단 사령부 및 특별부대를 대구부근 현 위치로 부터 철도로 全州에 이동하라。

(5) 제21연대를 大邱 부근 현 위치로 부터 철도로 大田에 이동하여 제11사단 제13연대와 교대케 하라。

3. 제11사단 전방지휘소의 大邱도착과 동시에 포병 제20대대 및 독립포병 제102중대 배속을 해제하여 제11사단장에게 배속하라。

4. 제11사단장과 협의된 日時附로

(1) 제1, 제2, 제3, 제9, 제10경비대대를 통합 지휘하라。

(2) 담당지구내 보급로, 보급품 및 기타 시설 경비 및 적병력 섬멸 및 적 물자, 보급품 파괴 책임을 담당하며(별지 제1호 작전투명도 참조) 聞慶(DR 2165)~延豊(DR 1168) 간 보급로 경

비에 최소한도 2개대대를 사용하라。

5. 연대 및 배속부대는 陸軍本部의 사전 승인이 있을 때에 한하여 作戰투명도(부록 제1호)에 규정된 전투地境외에 사용할 수 있다。

二. 제11사단장은

1. 예하부대를 제8사단 병력과 交代되는 대로 下記 최초 집결지로 이동하라。

(1) 사단사령부 및 특별부대—金州(C Q 3365)

(2) 제13연대—大田(C R 5921)

(3) 제20연대—光州(C P 1091)

(4) 제9연대(欠 1개대대)~晋州(D P 1794)

(5) 제9연대 제3대대(欠 1개중대)—昌原(D Q 0149)

2. 최초 집결지에 집결 완료하면 수송이 허용되는 대로 大邱 부근에서 사단 재경비, 훈련소로 이동하여 강차 전투 가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라。

3. 사단 전방 지휘소 大邱 도착과 동시에 포병 제20대대 및 독립 포병 제102 중대를 통합 지휘하라。(배속)

4. 제8사단장과 합의된 日時에 제1, 제2, 제3, 제9 및 제10경비대대를 배속 해제하여 제8사단장에게 배속하라。

三. 최신속한 방법을 사용하여 각 부대 이동에 있어서 그 출발시각 및 도착시각을 陸軍本部에 보고하라。

四. 교대를 급속히 촉진하기 위하여 제8사단 및 제11사단의 차대 수송기관을 최초집결지 및 제11사단 각 부대 현재 위치의 인원 및 장비수송에 통합 공동사용하라,

五. 철도 수송은 매75명(현 일일 보고에 의거)에 1개차량 연대 본부 및 사단 사령부(특별부대 포함)에 3개차량의 기준으로 각 부대에 배정한다。차량 배정 확정 때엔 陸軍本部에서 각 승차 지점 및 도착 예정시각을 통고한다。

(附錄 제2호 철도수송 계획표)省略 : 附錄 제2호 철도수송 계획표

총 참 모 장

부록 제235호

陸本 훈령 제190호 (陸軍本部 大 邱 1951. 3. 30 08.00)

훈 령

降雨時 도로보존에 관한 件

降雨시에 도로유지 문제는 원칙적으로 工兵의 임무이나 소부대가 강우 후마다 도로上에 고이는 물을 각자가 즉시 배제함으로써 도로는 양호하게 유지되는 것임。

대개 이런 배수 작업은 1,2분간에 운전수가 삽으로 흙을 퍼서 도로상에 고인 물을 배제함으

로써 간단히 완료되는 것임。

이러한 배수작업의 효과는 지대한 것임。도로상에 체류한 雨水는 급속히 도로를 泥濘化하며 화물자동차가 왕래함으로서 결국 회복키 곤란한 큰 泥濘地를 조성케 하는 것임。

각급 지휘관은 이러한 간단한 작업의 필요성과 효과의 多大함을 적극 주지시켜 春夏期 강우시의 실질적인 도로보존에 萬遺憾 없기를 期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236호

陸本作戰계획 제22호 (陸軍本部 大 邱 1951. 3. 30 12.00)

(陸本 작전계획 22호는 修正 작전 지시 제3호에 의거하여 作命 제264호로 改稱됨)

지 도 AMS L552, 25만분지 1, 大韓

군대구분 變更 無함。

一. 1. 최신 정보 요약 참조.

2. 美 제8군은 D일 H시를 기하여 現 진지로부터 공격을 개시 一般線 "칸사스"(Kansas) 南方의 적을 섬멸하고 적 물자 및 보급품을 파괴한 것임。

二. 1. 軍은 제1군단 및 제3군단으로서 D일 H시를 기하여 현 진지로부터 공격을 개시 一般線 "칸사스"(Kansas) 南方의 적을섬멸하고 적 물자 및 보급품을 파괴하는 동시에 美 제8군의 右(東)側方을 防護하려 함。

2. (1) "칸사스"線—CT 9115로 부터 華川 저수지 南端을 沿하여 DT 1720지점의 도로교차점을 통과 DT 2121 한계里(DT 3521) 마산里(DT 5514)를 경유 DT 7115까지 東으로 連하는 線임。

(2) 美 제10군단~韓 제3군단間 전투地境—現 戰鬪地境上 2124高地(DS 5756)로 부터 DS 5560을 통과하여 概略 北上한다음 DS 4775, DS 4379, DS 3592를 경유 DT 3202까지 西北으로 向하여 그곳으로 부터 DT 3006 및 DT 3420을 경유하여 DT 3530까지 概略北上하여 連하는 線임。

(3) 제3군단—제1군단間 전투地境上 1183高地(DT 6298)로 부터 진동里(DT 5407) 1578高地(DT 4818)를 경유 명천里(DT 4326)까지 西北으로 連하는 線임。이에 기술한 지점은 전부 제1군단에 속함。

三. 1. 제1군단

(1) D일 H시를 기하여 "카이로"線上 現地로 부터 공격을 개시 담당 지구내 "칸사스"線 南方의 적을 섬멸하고 적 물자 및 보급품을 파괴하라。

(2) 가장 유리한 지형을 이용하여 담당지구내 一般線 "칸사스"上 진지를 점령하라。

(3) 제3군단장과 협의하여 제1~제3군단 전투地境上에 협의점을 설정하라。

2. 제3군단

(1) 추가 담당지구의 책임을 인도하기 위한 부대정비에 관하여 이 계획수령 후 가능한 한 급속히 美 제10군단장과 협의하라。

(2) 美 제10군단장 및 韓 제1군단장과 협의하여 美 제 10~韓 제3군단間 전투地境上 및 제3~제1군단간 전투地境上에 협의점을 설정하라。

(3) D일 H시를 기하여 "카이로"線上 현 진지로부터 공격을 개시 담당지구내 "찬사스"線 南方의 적을 섬멸하고 적 물자 및 보급품을 파괴하라。

(4) 가장 유리한 지형을 이용자여 담당지구내 一般線 "찬사스"上 진지를 점령하라。

(5) "찬사스"線 점령 후엔 1개사단을 楡川里(DS 6668)에 집결 완료되면 同 지정된 사단을 배속 해제하여 예비대로서 陸軍本部 직할로 入하게 하라。

X (1) 공격은 군단내 및 군단간의 필요한 모든 橫的 협조를 유지하며 主力부대를 완전한 태세를 유지 할 수 있는 限 적에게 최대한의 손실을 加하라는 軍司令官의 기본 지시에 일치하도록 실시하라。

(2) 이 계획을 기초로 한 군단장 계획을 사용 가능한 방법중 最신속한 方法으로 급속히 陸軍本部에 제출하라。

四. 1951년 4월 1일 附 行政命令 제18호 참조。

五. 變更 無

총 참 모 장

부록 제237호

作戰계획 제22호 수정 (陸軍本部 大 邱 1951. 3. 31. 18.00)

작전지시 제1호

一. 陸本 작전계획 제22호중 일부를 下와같이 修正한다。

1. 三. 2.(5)항을 下記와 같이 수정한다。

찬사스線 점령 후엔 제7사단(欠 1개연대)을 楡川里(DS 6668) 부근에 제7사단 1개연대를 (DS 5789) 부근에 軍團 예비로서 집결시켜 陸軍本部 명령이 있을 때에 한하여 사용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238호

陸本 작전계획 제22호 수정 (陸軍本部 大 邱 1951. 4. 3. 10.00)

작전지시 제2호

1951년 3월 30일 12.00附 陸本 作戰계획 제22호중 일부를 下와 같이 수정한다。

一. 作戰계획 제22호 二. 2. (2) 및 (3)항에 규정한 제 1~제3군단간 및 美 제10~제3군단간 전투地境은 1951년 4월 3일 12.00附로 효력을 발생한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239호

陸本作戰계획 제22호 수정 (陸軍本部 大 邱 1951. 4. 4. 18.00)

作戰指示 제3호

一. 1951년 3월 30일 12.00附 陸本作戰계획 제22호를 1951년 4월 4일 18.00附로 陸本作命 제264호로 개칭하는 동시에 효력을 발생 실시한다。

二. D일은 1951년 4월 5일임, H시는 각 군단장이 선정하여 즉시 陸軍本部에 보고하라。

三. 공격은 군단내 및 군단간의 필요한 모든 橫的 협조를 유지하며 주력부대를 완전한 태세로서 유지할 수 있는 限 적에게 최대손실을 가하라는 軍 사령관의 기본지시에 일치하도록 실시하라。

四. 각 군단장은 1951년 3월 13일附 陸本戰訓 제4호 전투원칙에 기술한 원칙을 준수하라。

五. 각 군단장은 규정된 作戰보고를 제출하는 外에 시기 적절한 긴급보고 방법을 빈번히 사용하여 진척상황 및 조우(遭遇)하는 적 저항의 성격을 항시 陸軍本部에 보고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240호

陸本作命 제263호 修正 (陸軍本部 大 邱 1951. 4. 3. 18.00)

作戰指示 제12호

1951년 3월 3일 18.00附 陸本作命 제263호중 일부를 下와 같이 수정한다。

一. 제11사단

1. 1951년 3월 15일 18.00附 陸本作戰지시 제11호 및 1951년 4월 2일附 陸本 보급각서 제1호에 지시한 바와 같이 大邱(DQ 6369) 부근에서 재편 재정비를 완료하는 즉시로 철도, 차량 및 해상으로 注文津(DS 8594) 부근에 이동하라。

2. 注文津 부근 도착과 동시에 陸軍本部 직할로부터 제1군단장에 배속한다。

3. 可能한 한 최신속한 방법을 사용하여 출발 예정시각 실지 출발시각 도착 예정시각, 이동간의 진척상황 및 목적지 실지 도착시간을 陸軍本部에 보고하라。

二. 제1군단

1. 제11사단을 부대가 注文津 부근에 도착하는대로 통합지휘하라。최신속한 방법으로 부대 도착시각 즉 통합 지휘시각을 보고하라。

2. 제11사단 注文津 도착 후 즉시 제9사단을 제1군단장이 지정하는 집결지로 이동하라。
이 지시 수령후 가능한 한 급속히 선정한 집결지를 陸軍本部에 보고하라。

3. 제9사단의 집결지 도착과 동시에 陸軍本部에서 後送할 각서에 규정된 제9사단의 재편 재정비 및 교육을 감독하라。

移動計劃表(大邱—注文津間 (豫定))

부대	大邱		浦項		注文津 (LST)	
	도착	출발	도착	출발	도착	출발
제 9 연대	1951. 4. 8	1951. 4.12 (18.00)	1951. 4.13	1951. 4.13 (03.00)	1951. 4.14	1951. 4.14
사령부및독립부대	1951. 4. 7	1951. 4.13 (18.00)	1951. 4.14	1951. 4.14 (08.00)	1951. 4.15	1951. 4.15
제 13 연대	1951. 4. 8	1951. 4.15 (18.00)	1951. 4.16	1951. 4.16 (08.00)	1951. 4.17	1951. 4.17
제 20 연대	1951. 4.11	1951. 4.16 (18.00)	1951. 4.17	1951. 4.17 (08.00)	1951. 4.18	

※ 야간이동
註 자대차량은 陸地로 장비수송
인원과 개인장비만을 浦項~注文津間 LST로 수송

총 참 모 장

부록 제241호

陸本作命 제263호 修正 작전지시 제13호 (陸軍本部 大邱 1951. 4. 4. 06.00)

1951년 3월 3일 18.00附 陸本作戰 명령 제263호중 일부를 如下히 수정한다。

一. 제8사단

1. 群山항만관구 지역을 적절히 경비함에 충분한 병력은 가능한 한 급속히 群山항만관구에 차출하라。

차출 병력은 群山항만관구 사령관과 합의된 바에 의하라。該 병력은 群山에 도착과 동시에 제 병참관구 사령관에게 배속한다。합의된 병력과 群山 도착시각을 陸本에 보고하라。

2. 北方 전투地境을 下記와 같이 변경한다。

原州(DS 0734)로 부터 개략 西方으로 驪州(CS 7929), 利川(CS 6327), 水原(CS 2428)를 통과하여 野牧里(CS 1227)에 이르는 線으로 한다。上述된 지명중 原州를 제외하고는 전부 각 지점을 연락하는 横道路와 같이 제8사단에 속한다。

3. 제2사단과의 전투地境을 下記와 같이 변경한다。

현 전투地境線上(DR 1588) 지점으로 부터 忠州(DR 0591)까지 西北方으로 향하고 北上하여 原州까지 연장한다。忠州, 原州 및 南北間 線上보급로는 제8사단에 속하지 않는다。

4. 水原 및 天安 軍 보급소와 烏山 軍 驛逓 보급소에 충당할 경비병력을 차출하라。

5. 현재 추가 담당지구내에 있는 경비병력과의 교대를 1951년 4월 6일 24.00까지 完了하라。교대 실시에 필요한 관계부대 지휘관과의 직접통신을 허가한다。

1. 北方 전투地境을 下記와 같이 변경한다。

三陟(ES 1514)으로 부터 西北으로 松溪里(DS 8749), 旌善(DS 7138), 牛峴(DS 4736), 芳林里(DS 4844), 새말(DS 1845)을 경우 原州에 이르는 線으로 한다。

2. 제8사단과의 전투 地境을 下記와 같이 변경한다。

현 전투地境上(DS 1588) 지점으로 부터 忠州(DR 0591)까지 西北方으로 향하고 北上하여

原州까지 연장한다。忠州, 原州 및 南北間 主보급로는 제2사단에 속한다.

3. 原州 및 提川 軍 보급소 및 忠州 軍 驛邊보급소에 충당할 병력을 차출하라。

4. 현재 추가 담당지구내에 있는 경비 병력과의 교대를 1951년 4월 6일 24.00까지 완료하라。교대 실시에 필요한 관계부대 지휘관과의 직접 통신을 허가한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242호

陸本 作命 제263호 修正 作戰指示 제14호 (陸軍本部 大 邱 1951. 4. 4. 08.00)

1951년 3월 3일 18.00附 陸本作命 제263호중 일부를 如下히 修正한다。

一. 포병 사령관은 1951년 4월 10일 24.00이내로 독립포병 제103포대를 下珍富里에 도착토록 이동시키라。

二. 1951년 4월 10일 24.00附로 독립 포병 제103 포대를 포병사령관으로부터 제3군단장에 배속한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243호

陸本作命 제263호 修正 作戰指示 제15호 (陸軍本部 大 邱 1951. 4. 4 15.00)

1951년 3월 3일 18.00附 陸本作命 제263호중 일부를 下와 같이 수정한다。

一. 1951년 4월 6일 12.00附로 제1, 2, 3, 9및 10경비대대를 제11사단장으로 부터 제8사단장에게 배속한다。

二. 1951년 4월 6일 12.00附로 포병 제20대대 및 독립포병 제102포대를 제8사단장으로 부터 제11사단장에 배속한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244호

陸本作命 제264호 修正 作戰指示 제1호 (陸軍本部 大 邱 1951. 4. 6. 18.00)

1951년 4월 4일 18.00附 陸本作命 제264호중 일부를 如下히 修正한다。

一. 제1801 기술공병단장은 예하 제901 工兵 舟橋中隊를 1951년 4월 9일 18.00까지 자동차량으로서 永登浦(C S 1551) 부근에 이동케 하라。

제901 工兵 舟橋中隊長은 목적지 도착과 동시에 美 제1169 야전공병단에 보고하라。

二. 1951년 4월 9일 18.00附로 제901 工兵舟橋中隊를 작전상 美 제1169 야전 공병단에 배속하고, 行政上 제1사단에 배속한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245호

陸本作命 제264호修正 (陸軍本部 大 邱 1951. 4. 7. 20. 00)

作戰指示 제2호

1951년 4월 4일 18.00附 陸本作命 제264호중 일부를 如下히 修正한다。

一. 제2사단장은 즉시 포병 제18대대를 현재地로부터 江陵(DS9178)부근으로 이동케 하라。

二. 포병 제18대대는 江陵到着과 同時에 제2사단(편입)으로부터 제1군단에 배속한다。

三. 兩 지휘관은 처치된 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히 陸本에 보고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246호

陸本作命 제264호 修正 (陸軍本部 大 邱 1951. 4. 8. 18. 00)

作戰指示 제3호

1951년 4월 4일附 陸本作戰命令 제264호중 일부를 如下히 수정한다。

一. 독립 포병 제106포대는 鎭海附近(DP 7089)現 위치로부터 조속한 시일내에 大邱부근(DQ 6369)에 이동하여 훈련과 장비를 계속함에 支障이 없도록 하라。

二. 독립 포대 포병 제106포대는 大邱부근(DQ 6369) 도착과 동시 陸軍本部 직할로부터 포병 사령관에게 배속한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472호

陸本作命 제264호 修正 (陸軍本部 大 邱 1951. 4. 9. 0. 00)

作戰指示 제4호

1951년 4월 4일 18.00附 陸本作命 제264호중 일부를 如下히 修正한다。

一. 제11사단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예하 포병 제20대대 및 독립포병 제102포대를 大邱부근(DQ6369) 현 위치로부터 江陵(DS 9178) 부근으로 이동시키라。

二. 포병 제20대대 및 독립 포병 제102포대는 江陵(DS 9178) 도착과 동시에 제11사단 예속으로부터 제1군단장에 배속한다。

三. 兩 지휘관은 처치된 결과를 陸本에 보고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248호

陸本作命 제264호 修正 作戰指示 제5호 (陸軍本部 大 邱 1951. 4. 15. 08. 00)

1951년 4월 4일 18.00附 陸本作命 제264호중 일부를 如下히 修正한다。

一. 포병 제50대대 및 독립포병 제81포대, 제82포대는 鎭海(DP 7089) 부근 현 위치로부터 1951년 4월 17일 24.00까지 大邱(DQ 6369) 부근으로 이동하라。

二. 포병 제50대대 및 독립 포병 제81포대, 제82포대는 大邱 부근 도착과 동시에 陸本 직할로부터 포병사령관에게 배속한다。

三. 포병사령관은 포병 제50대대 및 독립포병 제81포대, 제82포대의 교육훈련 및 장비에 만전을 기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249호

陸本作命 제264호 修正 作戰指示 제6호 (陸軍本部 大 邱 1951. 4. 19. 14. 00)

1951년 4월 4일 18.00附 陸本作命 제264호를 如下히 수정한다。

一. 1951년 4월 20일 24.00附로

1. 제2—제8사단간 전투地境을 如下히 修正한다。

현 전투地境上 DR0291 지점으로부터 概略 小河川을 따라 이담里(CR 9980)까지 南下한 다음 그곳으로부터 도로를 따라 槐山(CR9374)까지 南方 및 西南方으로 향하여 그곳으로부터 報恩(CR8537)까지 南方 및 西南方으로 향한 다음 그곳으로부터 尙州(DR2530)까지 南方 및 東南方으로 향하여 連하는 線임。上述한 양 도로는 제8사단에 속한다。

2. 제2사단 北方~제1군단 後方 전투地境을 如下히 修正한다。

현 전투地境上 DS 8849 지점으로부터 小路를 따라 ES 0254 및 현내里(ES 0362)를 경유하여 東海岸 ES 0563 지점까지 東北方으로 연하는 선임。

3. 제9 및 제10경비대대를 제8사단 배속으로부터 해제하여 제2사단장에게 배속한다。

二. 제2사단장은

1. 현담당지구 이외에 前記 1항 및2항에 규정한 지구내의 보급로 보급시설 및 기타 시설 경비책임 및 잔적 섬멸 책임을 담당하라。

2. 聞慶(DR 2166)—延豊(DR 1168)도로 경비에는 최소한 2개대대를 사용하라。

3. 가급적 조속히 제2사단 건제兵力을 사용하여 낙영山(CR 9555) 지구에 있다고 보고된 약600명의 적을 발견하여 교전 섬멸하라。

이 지시수령 후 가능한 한 급속히 이 임무수행 계획을 陸軍本部에 제출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250호

陸本作命 제264호 修正 (陸軍本部 大 邱 195. 4. 20. 00.30)

作戰指示 제7호

1951년 4월 4일 18.00附 陸本作命 제264호중 일부를 如下히 修正한다。

一. 1951년 4월 18일 13.00附로 제11사단을 陸軍本部 직할로부터 제1군단장에게 배속한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251호

陸本作命 제265호 (陸軍本部 大 邱 1951. 4. 20. 01.00)

지도 AMS L552 25만분지1 大韓

군대구분

제1군단 군단장 육군소장 白善燁

수도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宋堯讚

제9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李成佳

제11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崔德新

제3군단 군단장 육군소장 劉載興

제3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金鐘五

제7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金炯一

제2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咸炳善

제5경비대대

제6경비대대

제7경비대대

제9경비대대

제10경비대대

제8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崔榮喜

제1경비대대

제2경비대대

제3경비대대

一. 1. 最近 정보 개요 제260호 참조。

2. (1) 美 제1, 제9군단장은 現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임。

(2) 美 제10군단은 D일 H시를 期하여 공격개시 담당지구내 一般線 "아라바마"(Alabama)南方의 적을 섬멸하고 적 물자 및 보급품을 파괴할 것임。

二. 1. 軍은 제1, 제3군단을 사용 D일 H시를 기하여 현 진지로부터 공격개시 "레디"(Ready) 線을 통과하여 一般線 "아라바마" 南方의 적을 섬멸하고 적 물자 및 보급품을 파괴하는 동시에 軍 東側方을 防護하려 함。

2. (1) 레디線—美 제10~韓 제3군단간 전투地境上 DT2731 지점으로부터 1271 高地(DT 3931), 1051高地(DT 4735)를 통과하여 DT 5745지점까지 東北으로 連하는 線。

(2) "아라바마" 線—現 "켄사스"線上 DT 1420지점으로부터 1304高地(DT 2330), 加田里(DT 3141), 沙泉里(DT3853) 및 339高地(DT 4468)를 경유 海岸線上 DT 4571지점까지 東北으로 連하는 線。

(3) 美 제10~韓 제3군단間 전투地境—현 전투지경상 DT 3206지점으로부터 DT2715 지점까지 西北方으로 向한 다음 그곳으로부터 DT2715地點까지 北上하여 그곳으로부터 1090高地(DT 1458)까지 西北方으로 連하는 線임。

(4) 제1~제3군단間 전투地境—現 전투地境上 DT 4817지점으로부터 DT 4327 지점을 경유DT 3247지점까지 西北方으로 連하는 線。

3. D일 H시는 後述함。

1. 제1군단

(1) D일 H시를 기하여 현 진지로부터 공격개시 담당지구내 "레디" 線 南方 적을 섬멸하고 적물자 및 보급품을 파괴하라。

(2) 陸軍本部 명령이 있을 때엔 담당지구내 "아라바마"線 南方의 적을 섬멸하고 적 물자 및 보급품을 파괴하기 위한 공격을 계속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

(3) 가장 유리한 지형을 이용하여 담당지구나 "아라바마"線上 진지를 점령하라。

(4) 軍右(東)側方을 防禦하라。

(5) 제3군단장과 협의하여 제1, 제3군단間 전투지경상에 협의점을 설치하라。

(6) 제9사단, 襄陽—注文津 지구에 집결하여 陸軍本部 명령이 있을 때에 한하여 使用하라。

사단은 최근지시에 의거하여 교육 및 再編을 계속 실시하라。

2. 제3군단

(1) 美 제10군단과 협의하여 가능한 限 급속히 추가 담당지구 책임을 인수하기 위한 부대정비를 실시하라。

(2) D일 H시를 기하여 현 진지로부터 공격개시 담당지구내 "레디" 線 南方의 적을 섬멸하고 적 물자 및 보급품을 파괴하라。

(3) 육군본부 명령이 있을 때엔 담당지구내 "아라바마"線 南方의 적을 섬멸하고 적 물자 및 보급품을 파괴하기 위한 공격을 계속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

(4) 가장 유리한 지형을 이용하여 담당지구내 "아라바마" 線上 진지를 점령하라。

(5) 협의점 DT2634 및 DT2718지점 부근에서 美 제10군단과 접촉을 확립하라。

3. 제2사단은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4. 제8사단은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X. (1) 공격은 군단내 및 군단간의 필요한 모든 橫的 협조를 하면서 主力部隊를 완전한 태세로서 유지할 수 있는 限 적에게 최대 손실을 加하라는 기본지시에 일치하도록 실시하라。

(2) 각 군단장은 1951년 3월 13일附 陸本戰訓 제4호 "전투원칙"에 기술한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라。

(3) 주력부대가 위험에 陷入함이 없도록 하며 담당지구내에서 적극적 정찰을 실시하여 병력배치, 團隊號 및 兵力을 판단하라。

四. 行政事項

1951년 4월 1일附 行政命令 제18호 修正 참조。

五. 1. 통신사항

(1) 현 통신운용규정 참조。

(2) 新 지휘소 설치와 동시에 즉시 보고하라。

2. 지휘소 소재지

(1) 陸軍本部—大邱

(2) 제1군단—注文津

(3) 제3군단—下珍富里

3. 通信軸線

(1) 제1군단 : 襄陽(DT 6413)—頁浦里(DT 5941)—杆城(DT 5347)

(2) 제3군단··蒼村里(DT 4679)—驛里(DT 4101)—寒溪里(DT 3521)

총 참 모 장

부록 제252호

陸本作命 제265호 修正 (陸軍本部 大 邱 1951. 4. 20. 12. 00)

作戰指示 제1호

1951년 4월20일 01.00附 陸本作命 제265호중 일부를 如下히 修正한다。

一. 포병 사령관은 독립포병 제105포대를 1951년 4월 25일 24.00까지 도착토록 大邱 부근으로부터 下珍富里(DS1665)부근으로 이동하라。

二. 1951년 4월 25일 24.00附로 독립 포병 제105포대를 포병사령관 배속으로부터 해제하여 제3군단장에게 배속한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253호

陸本作命 제265호 修正 (陸軍本部 大 邱 1951. 4. 22. 18. 00)

作戰指示 제2호

1951년 4월 19일 18.00附 陸本作命 제255호중 일부를 如下히 修正한다。

一. 포병사령관은 독립포병 제107포대를 鎭海(DP 7087) 현 위치로부터 大邱(DQ 6369) 부근으로 1951년 4월 25일 24.00까지 이동케 하여 계속 훈련을 실시하라。

二. 독립포병 제107포대는 大邱(DQ 6369) 도착과 동시 陸本 직할로부터 포병사령관에게 배속한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254호

陸本作命 제265호 修正 (陸軍本部 大 邱 1951. 4. 23. 09. 00)

作戰指示 제3호

1951년 4월 20일 01.00附 陸本作命 제265호를 如下히 修正한다。

一. 군은 "아라바마"선에 대한 作戰을 즉시 중지한다。

二. 각 군단은 즉시 1951년 3월 20일 12.00附 陸本作命 제264호에 의한 "칸사스" 선상에 가장 유리한 地形을 이용하여 陣地를 安定강화하며 縱深 배비를 실시하라。

三. 1951년 4월 23일 10.00附로 제9사단은 제1군단 배속으로부터 해제하여 陸本 직할로 한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255호

陸本作命 제265호 修正 (陸軍本部 大 邱 1951. 4. 23. 22.00)

作戰指示 제4호

1951년 4월 20일 01.00附 陸本作命 제265호중 일부를 如下히 修正한다。

一. 제1군단장

1. 1951년 4월 23일 10.00附로 江陵(K—18)비행장 경비책임을 해제함。

2. 1951년 4월 24일 12.00附로 注文津(D S 8594) 경비책임을 담당하라。

二. 제9사단장은

1951년 4월 23일 10.00附로 江陵 (K—18)비행장 경비책임을 담당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256호

陸本作命 제265호 修正 (陸軍本部 大 邱 1951. 4. 24. 10.00)

作戰指示 제5호

1951년 4월 20일 01.00附 陸本作命 제265호중 일부를 如下히 修正한다。

一. 제9사단장은

1. 즉시 제29연대를 江陵(D S 9148) 부근으로 이동시켜라。

江陵 도착과 동시에 陸本 직할로 돌어간다。

2. 즉시 제9사단(缺29R)을 下珍富里(D S 6165)부근으로 이동시키라。下珍富里 도착과 동시에 제9사단(缺29R)을 제3군단장에 배속한다。

. 제3군단장은

1. 제9사단(缺 29R)이 下珍富里 도착과 동시에 이를 통합 지휘하라.

2. 완전 장악 일자를 陸本에 보고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257호

陸本作命 제265호 修正 (陸軍本部 大 邱 1951. 4. 26. 10.00)

作戰指示 제6호

1951년 4월 19일 18.00附 陸本作戰命令 제265호중 일부를 如下히 修正한다.

. 제12경비대대는 1951년 4월 21일 24.00附로 陸軍本部 직할로부터 美 제10군단에 배속한다.

총 참 모 장

부록 제258호

陸本作命 제265호 修正 (陸軍本部 大 邱 1951. 4. 26. 12.00)

作戰指示 제7호

1951년 4월 19일 18.00附 陸本作命 제265호중 일부를 如下히 修正한다.

. 제1군단과 제3군단간 전투지경을 下記와 같이 수정하고 즉시 발효한다.

(1) 현 전투地境線上 1271高地(DT 3931)로부터 1430高地(DT 4222)까지 南下한 다음 이 지점으로부터 1519高地(DT 4316) (제3군단에 속함)) 1424高地 (DT 4911)—芝方嶺里(DS 5895) 1360高地(DS 6392) 上院寺(DS 6382) 및 855 高地(DS 7276)을 경유 현 전투地境上 新基(DS 7859)까지 南北으로 連하는 線임.

(2) 별도 지시한 지점을 제외하고 (1)항의 各 지점은 제1군단에 속한다.

. 제1군단장은 가능한 한 급속히 제3군단 병력과의 교대를 촉진하여 추가 담당지구 책임을 인수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259호

陸本作命 제265호 修正 (陸軍本部 大 邱 1951. 4. 25. 13.00)

作戰指示 제8호

1951년 4월 20일 01.00附 陸本作命 제265호중 일부를 如下히 修正한다.

. 1. 제2사단장은 예하사단 전병력(缺工兵 제18대대)을 즉시 堤川부근에 집결시켜 陸本에서 지시하는 이후 이동 및 전투가입에 만반 준비를 갖추라.

2. 堤川(DS 3010)부근 집결 완료시간을 육본에 보고하라.

총 참 모 장

부록 제260호

陸本 作戰계획 제23호 (陸軍本部 大 邱 1951. 4. 25. 24.00)

지도 : AMS L532 25만분지1 大韓

군대구분 : 附錄 제1호 군대구분 참조.

一. 1. 최근 정보개요 참조.

2. 美 제10군단은 全 주력부대를 건전한 태세로 유지할 수 있는 限 적에게 최대한의 손실을 가하고 최대한의 지연 작전을 실시하며 CS 9882로부터 1051高地 및 新興洞 (DS 2091)을 經由, 西里(DT 3801)까지 東北을 連하는 담당지구내에서 一線上에 철수한 것임.

二. 1. 軍은

(1) 美 제10군단과 협조하여 "그린"線 (GREEN)上으로 철수하려 함.

(2) 가장 유리한 지형을 이용하여 "그린"線上에 縱深 진지를 확립하려 함.

(3) 軍 東側方을 방호하려 함.

(4) 軍 근무 지구내에서의 현 作戰을 계속 수행하려 함.

(5) 1개 사단을 예비로서 院堂里(DS 4885) 부근에 집결하려 함.

2. "그린"線

新興洞(DS 2094)으로부터 西里(DT 3801)를 경유 加羅皮里(DT 5914)까지 東北으로 向한 다음 그곳으로부터 東海岸(DT 4016)지점까지 東으로 延하는 一般線.

3. 美 제10군단—韓國軍間 전투地境 : 變更 없음.

4. 제1, 제3군단간間 전투地境

現 전투地境上 1271高地(DT 3931)로부터 1430高地(DT 4222)까지 南下한 다음 그곳으로부터 1591高地(DT 4316)—(제3군단에 속함) 1424地(DT 4911)—芝方嶺里(DS 5895) 1360高地 (DS 3692) 上院(東)(DS 6382) 및 885高地(DS 7267)를 경유 현 전투地境上 新基(DS 7859)까지 東南으로 延하는 線.

별도 지시한 곳을 제외하고는 上述한 각 지점은 전부 제1군단에 속함.

三. 1. 제1군단.

(1) "그린" 線上으로 철수하라.

(2) 제3군단과 협조하여 가장 좋은 방어지형을 이용 "그린"線上에 縱深 진지를 확립하라.

(3) 철수계획 및 실시에 관하여 제3군단장과 협의하라.

(4) 제3군단장과 상호 합의된 바에 의거하여 제1, 제3군단간 전투地境上에 협의점을 설치하라.

2. 제3군단

(1) "그린"線上으로 철수하라.

(2) 美 제10군단장 은 韓 제1군단장과 협의하여 가장 좋은 방어 지형을 이용 "그린" 線上에 縱深 진지를 확립하라。

(3) 철수계획 및 실시에 관하여 美 제10군단장 및 韓 제1군단장과 협의하라。

(4) 美 제10군단장이 지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美 제10, 韓 제3군단간 전투地境上에 협의점을 설치하고 美 제10군단과의 접촉을 유지하라。

제1군단장과 상호 합의된 바에 의거하여 제1—제3군단간 전투地境上에 협의점을 설치하라。

(5) 1개 사단을 院堂里(DS 4885)에 집결하라。지정한 사단은 집결지 도착과 동시에 배속 해제하여 陸本 직할로 돌어가게 하라。(軍예비)

3. 軍豫備

(1) 1개 사단(제3군단장이 지정)

(a) 院堂里(DS 4885) 부근에 집결하라。

(b) 韓國軍 담당 지구내 특히 제3군단 담당지구내 "그린"線을 여하한 적이라도 돌파할 때엔 이를 반격할 수 있로록 준비를 갖추라。

(2) 제29연대

(a) 江陵(DS 9178) 및 k—18 <江陵> 비행장을 경비하라。

(b) 韓國軍 담당지구내 "그린" 線을 여하한 적이라도 돌파할 때엔 이를 반격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

(3) 제2사단은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4) 제8사단은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X. (1) "그린"線南方으로의 철수는 陸軍本部 명령없이는 개시하지 못한다。

(2) 철수는 전투력부대를 건전한 태세로 유지하고 軍團內 및 군단간에 철저한 협조를 유지할 수 있는 限 적에게 최대한의 손실을 가하고 최대한으로 지연시키라는 기본지시에 일치하도록 실시하라。

(3) 我軍의 철수를 追尾하는 적을 반격하고 저지하기 위한 지연 병력을 사용하라。

(4) 각 군단장은 1951년 3월 13일附 陸本戰訓 제4호 "전투원칙"에 기술한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라。

(5) 가능한 限 철수는 주간에 실시하라。

(6) 1951년 2월 21일附 南韓 폭파정책에 규정한 방침에 의거하여 폭파를 실시하라。

(7) 1951년 4월 9일附 美 제8군 참謀 "지뢰교훈"에 규정한 교훈을 준수하라。(이는 後送함)

四. 1. 1951년 4월 1일附 행정명령 제18호 修正 참조。

2. 陸軍本部 승인없이 다량의 보급품을 遊棄치 못한다。

五. 1. 通信事項

(1) 현 통신 운용규정 참조。

(2) 통신 운용규정 2~1 "주파수" 12~1, 호출부호 31~1 軍 無電網의 발효시일 1951년 4월 29일 18.00시는 취소함。

2. 지휘소 소재지

(1) 陸軍本部—大邱

(2) 제 1 군단—注文津

(3) 제3군단—下珍富里

3. 通信輻線

(1) 제1군단—江陵

(2) 제3군단—下珍富里

총 참 모 장

부록 제261호

陸本 作戰계획 제24호 (陸軍本部, 大 邱, 1951. 4. 29. 12. 00)

지도 : AMS L552 25만분지1 大韓

군대구분

제1군단 군단장 육군소장 白善燁

수도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宋堯讚

제11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崔德新

제3군단(1개사단 軍예비)

군단장 육군소장 劉載興

제3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金鍾五

제7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金炯一

제9사단(欠29연대) 사단장 육군준장 崔 錫

太白山地區 전투사령부 사령관 육군준장 李成佳

제3경비대대

제5경비대대

제6경비대대

제7경비대대

제9경비대대

제10경비대대

民防 제3연대

제8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崔榮喜

제21연대

1. 최근 정보개요 참조

2. 美 제8군은 西方으로부터 東方으로 제1, 제9, 제10군단의 순서로 배치되어 있는 각 군단으로

하여금 명령이 있을 때엔 "웨이코"(WACO) 線으로 협동 철수케 할 것임。

二. 1. 軍은 美 제8군 사령관 명령이 있을 때엔

(A) "웨이코" 線으로 협동 철수하여 가장 유리한 지형을 이용하여 同線上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확립하려 함。

(B) 철수에 있어서는 美 제10군단장과 협조하며 美 제10군단장이 지정하는 협의점에서 접촉을 계속하라。

(C) 軍 東側方을 방어하려 함。

(D) 1개 사단을 下珍富里(DS 6165)부근에 예비대로서 집결시켜 美 제8군 사령관 명령이 있을 때에 限하여 전투 가입시키려 함。

(E) 軍 근무지구內에서의 현 작전을 계속 수행하려 함。

2. (A) "웨이코" 線—1009高地(DS 3178)로부터 櫻田洞(DS 5183) 및 1422高地(DS6385)를 경유 南涯里(DS 8199)까지 東으로 延하는 線임。

(B) 美 제10군단—韓國軍內 및 제1—제3군단간 전투地境 : 變更 없음。

(C) 이 계획은 陸軍本部 명령이 있을 때에 한하여 실행한다。이 작전암호 명칭은 後述함。

三. 1. 제1군단

(A) 陸軍本部 명령이 있을 때에 한하여 "웨이코"線으로 철수 제3군단과 협조하여 가장 유리한 방어지형을 이용 同線上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확립하라。

(B) 철수에 관한 모든 계획 및 실행에 있어서 제3군단과 협의하라。

(C) 제3군단장과 상호 합의된 바에 의거하여 제1~제3군단間 전투地境上에 협조점을 설치하라。

(D) 軍 右(東) 側方을 방어하라。

2. 제3군단

(A) 陸軍本部 명령이 있을 때에 限하여 "웨이코"線으로 철수 美 제10군단 및 韓 제1군단과 협조하여 가장 유리한 방어지형을 이용, 同線上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확립하라。

(B) 철수에 관한 모든 계획 및 실행에 있어서 美 제10군단 및 韓 제1군단과 협의하라。

(C) 美 제10군단장이 지정하는 협조점에서 美 제10군단과 접촉을 유지하라。

(D) 제1군단장과 상호 합의된 바에 의거하여 제1—제3군단간 전투地境上에 협조점을 설치하라。

(E) 1개 사단을 下珍富里(DS6165)부근에 집결시켜라。지정된 사항을 下珍富里 도착과 동시에 배속 해제하여 陸軍本部 직할로 돌게 하라。

3. 軍豫備

(A) 제 사단 (제3군단장이 지정)

(1) 下珍富里DS 6165) 부근에 집결하라。

(2) 韓國軍 담당지구내 특히 군단 담당지구내 "웨이코" 線을 돌파하는 여하한 적이라도 격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라。

(B) 제8사단은 현 임무를 계속수행하라。

(C) 太白山지구 전투사령부는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D) 제29연대

(1) 江陵(DS 9178) 및 k—18(江陵)비행장을 경비하라。

(2) 韓國軍 담당 지교내 "웨이코"線을 돌파하는 여하한 적이라도 격파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라。

X(A) "웨이코" 線으로의 철수는 陸軍本部 명령이 없는 限 실시하지 못한다。

(B) 철수는 주력부대를 건전한 태세로서 유지할 수 있고 軍團間 및 군단내에서 완전한 협조를 유지할 수 있는 限 적에게 최대 손실을 加하고 최대한으로 지연 시키라는 기본지시에 일치하도록 실시하라。

(C) 아군의 철수를 追尾하는 적을 반격하고 저지하기 위하여 지연 병력을 사용하라。

(D) 각 지휘관은 1951년 3월 13일附 陸本戰訓 제4호 "전투원칙"에 기술한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라。

(E) 가능한 限 철수는 주간에 실시하라。

(F) 1951년 2월 21일附 "南韓폭파정책"에"규정한 방침에 의거하여 폭파를 실시하라。

(G) 1951년 4월 9일附 美 제8군 사령부 書翰 AG 353 KEN "지뢰교훈"에 규정된 교훈을 준수하라。(美文으로는 下達되어 있으며 國文은 後達함)

四. 左記 事項을 제외하고는 1951년 4월 1일附 陸本 行政命令 제18호 및 同修正을 계속 적용한다。

1. 路邊補給所

(運用部隊)	(被지원부대)	(位置)
(A) 제1050보급	수도사단	注文津閉鎖
中隊파견대	제11사단	江陵開設
	제1군단 사령부	
	軍 직할부대	
(B) 제1050 보급	제9사단(欠)	蘆村里閉鎖
중대 파견대	제3사단	東沙里부근개설
	제7사단	
	제3군단 사령부	
	軍 직할부대	

2. 驛邊補給所

(A) 제1040보급	*제1사단	永登浦閉鎖
제1040보급 (中隊(欠))	*제1사단	水原
中隊	*제6사단	

*제1種 및 제2종 보급품에 限함。

3. 彈藥보급소

제52兵器	제11사단	제16탄약 보급소 注文津 閉鎖

	제1군단 사령부	
	軍 직할부대	
제51탄약중대	제3사단	제15탄약 보급소 東沙里
	제7사단	
	제9사단(欠)	
	제3군단 사령부	
	軍 직할대대	

4. 의료기관

(A) 제5이동 외과병원	제1사단	安養閉鎖
	제6사단	
(B) 제1후송중대(欠)	제5이동외과병원	
		安養閉鎖
		水原開設
(C) 제1이동외과병원	수도사단	注文津閉鎖
	제11사단	江陵개설
	제1군단사령부	
	軍 직할부대	
(D) 제1후송중대 제1소대	제1이동외과병원	注文津閉鎖
		江陵개설

5. 근무

(A) 제10중정비중대	제7사단	注文津閉鎖
	제9사단	楡川里개설
(B) 제12중정비중대	제1사단	安養閉設
	제6사단	水原개설
(C) 제11중정비중대	제3사단	下珍富里
	제3군단사령부	
	군직할부대	
(D) 제13중정비중대	수도사단	江陵
	제11사단	
	제1군단사령부	
	軍 직할부대	

五. 1. 通信事項 : 현 통신 운용규정 사용

2. 지휘소 소재지

(A) 陸軍本部---大邱

(B) 제 1.군단—江陵

(C) 제 3 군단—下珍富里

3. 通信輔線

(A) 제1군단 : 注文津—江陵—三陟

(B) 제3군단 : 下珍富里—旌善

총 참 모 장

부록 제262호

海本作命甲 第67號 (해군본부 부산 1951. 2. 6)

一. 情報에 依하면 永興灣 麗島(E 127度 37分 30秒 / N 39度 14分)에는 友軍及 避難民이 있는것 같다함。

二. 軍은 一部 海兵隊를 麗島에 上陸시켜 同島를 確保하고 同島를 據點으로 敵의 永興灣一帶 機雷敷設을 防止하며 陸上情報를 收集함으로서 次期作戰에 對備하려함。

三. 1. 海軍中領 柳海臣는 麗島上陸作戰 指揮官이 되여 801艇(L.S.T.)에 搭乘 2月 7日 11.00 釜山出港 同15·00 鎭海에 到着한後 同 19·00까지 指定된 海兵隊 ○○○名及 所要軍需品을 積載完了 同 20.00 鎭海出航 2月 9日 14·00 墨湖出港 2月 10日 07.00 麗島에 到着 別紙 細部指示에 依據 麗島에 上陸作戰을 敢行 同島를 確保하라。

2. 海兵隊鎭海수색部隊責任將校는 海兵隊 ○○○名을 個人裝備及 裝具를 完備시켜 2月 7日 15.00 鎭海에 入港하는 801艇(L.S.T)에 19.00까지 便乘完了시키라。

3. 墨湖 警備府 司令官은 隷屬 海兵隊 ○○○名을 2月 9日 06.00墨湖에 入港하는 801艇에 個人裝備 及 裝具를 完備시켜 13.00까지 便乘完了시키라。

4. 軍需局長은 2月 7日 11.00 釜山을 出港하는 801艇에 麗島 上陸作戰에 參加하는 海兵隊 ○○○名에 充分한 主副食 携帶食糧 及 防寒服과 空도랍 20個, 삽50個, 초2箱子, 성냥等을 供給하라。

各自 冬被服은 零下 10度에서 防寒할 수 있는것을 所持케하라。

5. 兵器監은 801艇이 2月 7日 15·00 鎭海에 到着하면 鎭海에서 37粍砲 ○○門(同實彈○○○發) 重機關銃 ○○정을 海兵隊搜索部隊에 供給하는 同時에 上陸部隊 完全 個人裝備를 시키고 所要彈藥을 供給하라。

6. 通信監은 通信士及 通信器 1台와 小型無線器 2台及資材를 801艇에 7日 10.00까지 積載하라。

7. 醫務監은 軍醫官及 衛生下士官, 所要醫藥品을 801艇에 7日 10.00까지 積載시키라。

8. 人事局長은 通信士及軍醫官, 衛生下士官을 7日 10.00까지 801艇에 配置發令하라。

9. 505 艇長은 第5三浪丸을 指揮하여 2月 9日 12.00 墨湖出港 2月 10日 07.00 麗港北端(別紙指定場所)에 到着, 同時刻에 到着한 801艇을 相逢하여, 上陸作戰指揮官 指示를 받아 麗島敵情을 搜索하되 予先, 發動船 三榮丸을 同島에 接岸시켜 敵 또는 友軍인가 確認시키는 同時에 505艇은 掩護射擊態勢를 가추고 待期또는 搜索하며 同島에 敵이 無하거나 友軍인 時에는 發動船을 着岸시켜 附近 一帶를 確認한後 801艇(LST)上陸을 敢行케하고 同島에 敵이 有할 時에는 上陸作戰 掩護次來航한 美戰艦 "미조리"及 驅逐艦과 協同하여 地上敵을 完全制壓한 後 801艇上陸을

敢行케하라。

10. 第5三浪丸은 505艇長 指揮를 받아 上陸作戰에 參加하라。

11. 各級 艇長은 上陸作戰敢行後 本部의 指示를 받으라。

12. 情報監은 所要情報員을 801艇에 7日 10·00까지 便乘시키라。

四. 1. 航路指示

釜山에서 水原端間은 掃海完了하였으며 水源端으로부터는 N39度10分 E128度 09分20秒地點을 目標로 度針하고 上記地點에서 다시 N39度 17分06秒 E 128度 06分 04秒地點을 目標로 變針하여 海軍本部作戰局水路課發行 元山港出入水路指示에 依據 麗島에 接近하라。

2. 505艇及 801艇은 2月 10日 07.00麗島北方에서 相逢할 地點은 N 39度 15分 30秒 E127度 38分 45秒地點임。

3. 上陸作戰 指揮官은 505艇及三葉丸으로 麗島敵情을 充分히 搜査하되 同時에 敵이 有할時에는 505艇及上陸作戰 掩護次 來航한 美艦隊가 地上敵을 完全制壓撲滅한 後 上陸을 敢行하라。

4. 上陸地點은 麗島 北京灣 西海岸 또는 同島南岸에 採擇하되 敵情에 依據 適問 實施하라。

5. 上陸後 801, 505艇은 同島周邊警備에 任하라。

6. 各艦 艇長은 本作戰中 有能한 機雷監視員을 配置하여 航海中 機雷의 徹底를 期하라。

7. 指揮官及各艦 艇長은 特히 時間嚴守하라。

8. 海兵隊 沈熙澤少尉는 麗島駐屯隊長이되어 鎭海及墨湖에서 出動한 海兵隊 ○○○名을 指揮하여 同島防備와 確保에 任하라。

五. 余는 釜山海軍本部에 있음。

海軍總參謀長 海軍少將 孫 元 一

부록 제263호

空本作命 第55號

(공군본부 서울 1950. 11. 30)

1. 飛行團長 張德昌 大領은 12월 1일 00.00부터 12월 3일 24.00까지 예하부대 全兵力과 裝備를陸路와 空路를 利用하여 大田基地로 移動을 完了하고 別命이 있을때까지 次期作戰을 爲한 準備에 萬全을 期하라。

2. 航空基地司令官 崔容德准將은 1950년 12월 4일 00.00부터 12월 8일 24.00까지 北韓의 各基地를 管轄하고 있는 第4管區와 第5管區의 全兵力과 裝備를 서울로 集結完了하고 基地展開를 爲한 態勢를 完備하라。

3. 憲兵隊長 金得龍少領은 北韓各基地의 殘餘 主要 施設을 使用 不可能한 狀態로 破壞하고 12월 9일 24.00까지 全兵力을 서울로 撤收하고 서울地區保安維持에 萬全을 期하라。

空軍總參謀長 空軍少將 金 貞 烈

부록 제264호

해병 제8063부대 작명 제6호

(해병 제8063부대 본부)
(慶北 盈德邑)
(1951. 2. 2. 23.00)

지도 AMS 1558…25,000分之1
AMS 1791…50,000分之1

部隊區分

제8063부대장 해군대령 金聖恩
제1125부대장 해군소령 孔正植
제2062부대장 해군중령 康鳳生
제3344부대장 해군소령 金龍國
연대본부중대장 해군대위 金載珠
연대근무중대장 해군대위 李元赫
연대의무중대장 해군소령 孫基浩

一. 가. 美해병제1사단 작전지역인 安東, 盈德 道路의 南方에 있는 敵은 北方으로 이동하라는 命令을 받은 것으로 判斷한다。敵의 退路는 吉安川溪谷 및 永田川溪谷과 道路로 推測한다。人民軍 제27연대소속으로 判斷되는 敵 약400명은 栢子洞(88—28)에 있는 모양이다。敵의 장비는 小銃 輕機, 重機 및 박격포이다。

나. 약 150명의 敵은 1월 31일 밤, 三巨里 警察支署를 공격, 이를 파괴하였다。이 敵은 南北方 龍溪洞(93—37)으로 이동하였다。

다. 美 제1해병연대는 當隊의 西北境界線에서 계속 偵察을 실시하고 있다。

二. 가. 部隊는 當地域內에 있는 敵을 捕捉하여 이를 격멸하려 한다。

나. 當內 戰鬪地區를 分割하여 東部, 中部 및 西部로 區分한다。

다. 各隊의 戰鬪境界線은 透明圖를 보라。

三. 가. 제1대대는 2월 3일 아침을 期하여 靑松(05—31)地區로 이동하여 中部地區에서 敵을 捜索, 이를 격멸하라。特히 龍田川과 邑川溪谷을 注意하라。

나. 제2대대는 東部地區內에 있는 敵을 捜索하여 이를 격멸하라。強力한 小銃 1개중대를 02.30. 08.00에 院前里(17—37)에 派遣하여 擔當地域에 대한 공격적인 偵察을 실시하라。1개 소총중대는 연대예비대로써 盈德에 殘留시키라。

다. 제3대대는 02.03 아침, 靑松으로 부터 三巨里(90—34)로 이동하여 西部地區에 있는 敵을 捜索, 이를 격멸하라。特히 吉安川溪谷에 注意하라。明 4일부터 敵을 추격하는 以外 他部隊 戰鬪地域에 들어가지 말라。

라. 연대본부중대, 근무중대, 의무중대는 盈德에 위치하여 現行任務를 수행하라。

四. 行政事項

가. 新地域으로 이동하는 各大隊는 제1, 제2, 제3, 제5종품을 전부 携帶하라。

나. 연대補給所는 盈德에 있다.

다. 차량은 다음과 같이 割當 한다。

제1대대 : 추럭1대, 견인차 1대。

제2대대 : 트럭2대, 견인차 1대。

제3대대 : 트럭1대, 견인차 1대。

라. 연대근무중대는 最少 2일分의 補給品을 各대대에 分配하라。

마. 負傷者는 연대의무대에 後送하라。

바. 포로는 즉시 연대본부에 護送하라。

사. 日報는 매일 09.00에 無電報告하라。

五. 가. 各대대는 B 19301로써 現行周波數를 계속 사용하라。

나. 제3대대는 靑松—三陟里間에 有線을 架設하라。

다. 연대통신소대는 院前洞—靑松洞에 有線을 架設하라。

라. 각대대는 매일 07.00, 19.00에 作戰報告를 提出하라。19.00報告에는 當日 偵察 및 翌日 偵察計劃을 記入하라。

마. 각부대의 指揮所는 다음과 같다。

연대본부 : 盈德

제 1 대대 : 靑松

제 2 대대 : 盈德

제 3 대대 : 三陟里

해병 제8063부대장 해군대령 金 聖 恩

부록 제265호

해병 제8063부대 작명 제16호

해병 제8063부대	본부
江原道	旌善
1951. 03. 03	2200

지도 : 旌善, 下珍富里 : 50,000分之 1

一. 가. 敵情 : 情報附錄 參照

나. 首都사단機甲연대는 東方으로 부터 下珍富里(61—65)를 공격중에 있으며 제7사단은 계속 北進中에 있음。

二. 가. 部隊는 제7사단과 제9사단의 戰線間隙으로 侵透南下하는 敵을 捕捉殲滅하고, 一擧에 聖旺山(71—61)까지 進出하려 한다。

나. 戰鬪地境線, 攻擊開始線 및 시간은 透明圖를 參照하라。

三. 가. 제1대대 : 旌善에 위치하여 強力한 遠距離搜索隊를 運營하여 蠢動하는 殘敵을 捕捉殲滅하라 別命이 있을 時, 豫備隊로써 出動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나. 제2대대 : 연대의 右第一線이 되어 목표 1, 2, 3을 順次로 공격占領하라。공격 前進間에 제9사단과 緊密히 協調하라。제3목표를 占領後에 防衛態勢를 取하라。

다. 제3대대 : 연대의 左第一線이 되어 區域內의 敵을 掃蕩하고, 목표 4를 공격占領하라。목표 4를 占領後에 防衛態勢를 取하라。

라. 1. 공격前進間에 隣接부대와 緊密히 協調하여 相互支援을 維持하라。

2. 側方에 대한 捜索偵察을 철저히 하라。

四. 行政事項 : 別途指示함.

五. 가. 연대와 대대間의 通信을 위하여 각대대에 TBY 1대씩 配屬함。

나. 각대대는 指揮所의 위치를 最初 餘粮里(75—46)에 設置하라。

해병 제8063부대장

부록 제266호

해병 제8063부대 작명 제20호

해병 제8063부대 본부
江原道 九成浦里
1951. 03. 19. 1800

지도 : 九成浦里 50,000分之1

一. 가. 中共軍主力은 大部分이 38°線부근으로 後退하고 있으나, 그 一部兵力으로 我軍의 進擊을 遲延시키고 있음。

나. 當隊의 右側에는 美해병 제1연대, 左側에는 美해병 제5연대가 併進하여 美해병 제1사단의 예비대로써 美해병 제7연대가 洪川 부근에 위치하고 있음。

美해병 제11연대 제3대대는 當隊의 공격을 支援함。

二. 가. 部隊는 사단의 中央第一線연대로서 03.20.07.00부터 공격을 개시하여 연대목표인 K, L, M을 占領하려함。

三. 나. 제2대대는 연대의 右第一線대대로서 中間목표 1,5,6,7,8을 占領한 後, 別命이 有한 時, 계속 공격하여 最終목표M을 占領할 준비를 하라。透明圖 參照。

나. 제3대대는 연대의 左第一線대대로서 中間목표 2,3,4,9,10,12,13을 占領한 後, 別命이 有한 時, 最終目標 K, L을 점령할 준비를 하라。透明圖 參照。

다. 제1대대는 연대의 예비대로서 最初 九成浦里부근에 位置하라。

라. 1. 각대대는 前進間 隣接부대와 緊密히 連繫를 保持하라。

2. 前進間 警戒에 대한 對策을 講究하라。

3. 戰鬪地域內에서 避難民의 通行을 一切 禁止하라。

四. 行政事項

가. 제3, 제5, 종품의 集積所는 九成浦里에 位置함。

나. 탄약은 각대대가 保有하고 있는 量을 전부 携帶하라。

五. 가. 연대와 대대間의 통신은 TBX 및 有線을 併用한다。

나. 공격개시후, 2시간마다 狀況을 報告하며 重大한 狀況은 즉시 보고하라。

다. 연대지휘소 : 九成浦里

제1대대지휘소 : 九成浦里

제2, 제3대대는 決定後에 報告하라。

해병 제8063부대장

3. 戰 歿 者 名 單

<陸 軍>

首都師團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사단본부	大 領	10767	李 碩 均	1950.12. 3		전사
〃	少 領	12459	姜 槓 熙	1950.11.12		〃
〃	〃	13573	金 吉 孝	1951. 3.17	大 邱 市	〃
〃	中 尉	17085	李 載 民	1950.11. 5	安 邊	〃
제1연대	少 領	12747	金 龍 洙	1951. 3.29		〃
〃	〃	13798	崔 天 英	1951. 2. 7	任 丘 地 區	〃
〃	〃	14188	鄭 東 然	1951. 3. 2		〃
〃	大 尉	13880	林 得 鍾	1950.12. 7		〃
제26연대	〃	12861	趙 南 醬	1950.12.22		〃
〃	〃	14979	金 陜 煥	1950.11.19		〃
〃	中 尉	17281	金 熙 玟	1951. 1. 4	○○高地	〃
기갑연대	少 領	15138	朴 命 緖	1951. 3. 2	江 原 道	〃
사단본부	大 尉	200077	崔 洪 來	1951. 3. 1		〃
〃	中 尉	200440	金 子 元	1951. 4.30		실종
〃	〃	200496	林 蓍 玉	1950.11.16	咸 北 永 岩	전사
〃	〃	200826	李 東 春	1950.12. 4		〃
〃	〃	203378	元 奎 成	1950.11. 2		〃
〃	〃	209716	金 在 規	1951. 3. 3	동 사 리	〃
〃	少 尉	200237	閔 鍾 基	1951. 4.15		불명
〃	〃	201764	崔 連 京	1951. 4.15		〃
〃	〃	208920	朴 彭 奎	1950.11.26		전사
〃	〃	223495	崔 致 錫	1950.12.18	함흥, 마적리	〃
〃	〃	223544	尹 完 吉	1951. 3.16	강 원, 구 산	〃
〃	〃	223561	崔 東 舜	1950.11.11	고 포	〃
〃	〃	223588	康 順 浩	1951. 4.16	삼 척, 맹 방	〃
제1연대	大 尉	200823	權 綱 遠	1951. 3. 2	강 원 도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제1연대	大 尉	207941	馬 德 龍	1951. 1. 1		전사
〃	中 尉	200479	元 允 成	1950.11.25	清 津	〃
〃	〃	200822	曺 振 玉	1950.12. 1	富 寧	〃
〃	〃	203379	孔 連 根	1950.11. 3	清津附近	〃
〃	〃	203392	朴 長 夏	1950.12. 2	함북부령	〃
〃	〃	203404	金 一 男	1950.11.29	清 安	〃
〃	〃	208886	鄭 寅 燾	1951. 3. 2	江 原	〃
〃	少 尉	208882	裵 甲 祚	1950.12. 3		〃
〃	〃	223487	文 晶 玉	1951. 3. 3		〃
〃	〃	223525	李 英 培	1951. 3.26	양양, 내현	〃
〃	〃	223528	金 舜 永	1951. 4.28	암 재 동	〃
〃	〃	223550	張 錫 泰	1950.11. 6	학 성 면	〃
제26연대	中 尉	201281	權 泳 鶴	1951. 1.30		〃
〃	〃	201316	裵 炳 淳	1951. 2. 4		〃
〃	〃	201318	都 原 根	1950.12. 8		〃
〃	〃	201770	金 仁 燁	1951. 4.13	縣南面光津里	사망
〃	〃	203036	李 元 吉	1951. 2.13	橫 城	전사
〃	〃	208346	金 基 淨	1951. 3. 3		〃
〃	〃	208650	白 三 鎭	1951. 2. 6	강능 강동	〃
〃	〃	208655	孫 日 祚	1951. 3.26	강 능	〃
〃	少 尉	208071	李 玉 鎔	1951. 2.28	江 東	실종
기갑연대	中 尉	202304	朴 熙 陽	1951. 2. 7	仁 邱	전사
〃	〃	202349	朴 俊 浩	1950.11. 4	吉 州	〃
〃	〃	203857	宋 燮 奎	1950.11. 4	吉 州	〃
〃	〃	205919	金 琢 淵	1951. 3. 6	평창, 東岩面	〃

1 사단

사단본부	中 領	11577	金 文 圭	1951. 4. 1	坡州 治東洞	전사
〃	少 領	13349	尹 性 模	1950.12.22	慶北 神佛山	〃
〃	〃	13479	申 東 奎	1951. 1. 1	坡州 清靖面	〃
〃	大 尉	14756	河 秉 紀	1950.11.27	春 川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제11연대	少 領	13428	黃 良 周	1951. 4.25	坡州 臨津	〃
〃	〃	13922	李 永 鎬	1951. 4.30		〃
〃	〃	14738	車 大 鎭	1951. 4. 3	汶 山	〃
〃	〃	15368	姜 潮 植	1951. 3.23	南 陽	〃
〃	大 尉	12872	尹 咸 學	1950.11.15	加平 北面	〃
〃	〃		趙 鏞 根	1951. 2.19	水 原	사망
〃	〃		鄭 憲 泰	1950.11. 2	平北 連日	전사
〃	中 尉	14057	孔 濟 根	〃		〃
〃	〃	14648	吳 聖 澤	1951. 1. 1		〃
제12연대	少 領	11955	朴 萬 錞	1950.11. 3	麻 亭 里	〃
〃	〃	13734	方 忠 默	1951. 1. 1	積 城	〃
〃	大 尉	13838	卓 然 龜	1950.12.31		〃
〃	〃	13865	李 載 雨	1951. 3.16	제 7 육군병원	사망
〃	〃	13891	孫 基 天	1950.12.28		〃
〃	〃	14677	李 錫 昌	1951. 1. 1	坡 州	전사
〃	〃	14903	成 洛 鳳	1951. 1. 1	積 城	전사
〃	〃	16075	金 鍾 萬	1951. 1. 2	〃	〃
〃	〃	16287	許 基 範	1951. 1. 1	〃	〃
제15연대	中 領	12153	朴 相 奎	1950.12. 5		〃
〃	少 領	14053	金 銑 一	1951. 1. 1		〃
〃	〃	14557	朴 濟 煥	〃		〃
야전공병대	〃	14552	柳 連 相	1951. 3.18	恩 平	〃
사단본부	大 尉	203524	愼 康 和	1951. 4.27	坡州 金村	〃
〃	〃	207385	李 建 鏞	1950.12. 5		〃
〃(공병대)	中 尉	205702	吳 寶 鍾	1951. 2.29	경기 坡州	〃
사단본부	〃	207382	崔 旦 述	1951. 1. 1	積 城	〃
〃	〃	209290	金 珏 圭	1951. 4.27	坡州 金村	〃
〃	〃	212658	韓 元 錫	1951. 4.25	坡 州	전사
〃	少 尉	200396	金 鍾 杓	1951. 2.12		불명
〃	〃	200604	金 鍾 植	1951. 4.30		실종
제11연대	中 尉	200268	朴 勝 芳	1951. 1. 2	首 陸 病	전사
〃	〃	200618	白 完 鉉	1951. 1.13	安城內防里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 사 일 자	장 소	구 분
〃	〃	200625	金 一 郎	1951. 1. 2		〃
〃	〃	205656	李 炳 林	1950.11.24	春 川	〃
〃	〃	205827	崔 燦 洙	1951. 4.29	경 기 선 통	〃
〃	〃	207369	李 貴 蓉	1951. 1. 2	積 城	〃
〃	少 尉	223556	權 炳 哲	1951. 4.29	고 양	〃
제12연대	中 尉	200285	金 錫 九	1951. 1. 2		〃
〃	〃	200289	金 斗 錫	1951. 1. 2	積 城	〃
〃	〃	200663	吳 城 根	1951. 1. 2		〃
〃	〃	201447	具 本 興	1950.12. 5	富 興	〃
〃	〃	203538	金 東 洙	1951. 1. 2		〃
〃	〃	203569	申 相 鉉	1951. 1. 2	積 城	전사
〃	〃	206513	朴 永 弘	1951. 1. 1		〃
〃	〃	209295	林 秀 岡	1951. 4.30	고양 사평	〃
〃	〃	209322	金 貞 高	1951. 4.24	坡 州	〃
〃	〃	209984	趙 在 明	1951. 4.24	坡 州	〃
〃	〃	209995	朴 在 善	1951. 4.23	坡 州	〃
〃	〃	210022	金 明 世	1951. 4. 7	임 진 강	〃
〃	〃	212566	韓 相 泰	1951. 4.23		〃
〃	少 尉	200318	金 熙 根	1951. 4.30		불명
〃	〃	223504	鄭 相 兌	1951. 1. 1	적 성	전사
제15연대	大 尉	200003	李 雷 雨	1951. 4.25	경기도坡州	〃
〃	中 尉	200297	李 鍾 根	1951. 4.24		〃
〃	〃	200693	崔 光 植	1951. 1. 2	積 城	〃
〃	〃	204677	吳 致 玉	1950.11.11	孟 中 里	〃
〃	〃	207394	李 作 支	1951. 1. 1	파 주	〃
〃	〃	207395	田 一 秀	1951. 1. 1	〃	〃
〃	〃	207400	李 在 京	1951. 1.30	水 原	〃
〃	〃	207401	金 貴 慶	1951. 1.30	〃	〃
〃	〃	210080	車 圭 逸	1951. 4.25	경기 坡州	〃
〃	〃	210344	金 在 鎭	1951. 3.20	북 한 산	〃
〃	少 尉	209272	蔡 奎 哲	1951. 4.27	坡州 광탄	실종

2 사단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사단본부	准 將	10180	權 東 贊	1950.12.30		전사
〃	〃	10216	朴 魯 珪	1951. 3. 4	慶 北	〃
〃	中 領	11018	尹 在 喆	1950.12.13		〃
〃	〃	11035	李 興 烈	1951. 3. 2		〃
〃	少 領	13697	嚴 基 周	1950.12. 5	東 全 谷	〃
〃	〃	14505	金 炳 曦	1951. 2.12	橫 城	〃
〃	大 尉	17095	魏 在 熙	1951. 1. 1		〃
〃	中 尉	16821	洪 淳 元	1950.11.24	春 川	〃
제17연대	少 領	12687	朴 泳 寶	1950.11.22		〃
〃	大 尉	15995	金 性 洙	1950.11.24		〃
제31연대	大 領	10679	李 鍾 國	1951. 1. 1	加 平	〃
〃	少 領	12278	柳 根 萬	〃	〃	〃
〃	大 尉	13650	李 完 根	〃	〃	〃
〃	〃	13833	朴 炳 潤	〃	〃	〃
〃	〃	14032	吳 世 曉	1950.11.22	〃	〃
〃	〃	15836	金 信 雄	1951. 1.30	〃	〃
〃	〃	16935	金 容 煥	1951. 3. 2	奉化 長洞	〃
〃	中 尉	15363	文 塘 一	1951. 1. 1	加 平	〃
〃	〃	17209	張 世 勳	1950.12.25	매 봉 산	〃
〃	〃	17322	申 曉 祚	1951. 1. 1	加 平	〃
제32연대	中 領	11387	崔 東 訓	1951. 2.17	軍 威 郡	〃
〃	少 領	11777	兪 象 在	1951. 1. 1		〃
〃	大 尉	14047	金 志 澤	1950.12.10	安 康	〃
(의무대)	少 尉	14992	崔 尙 模	1951. 4. 1		〃
사단본부	大 尉	202240	金 培 然	1951. 3. 5	奉化 小川面	〃
〃	中 尉	201334	柳 昱 鉉	1950.12.13	安 康	〃
〃(20포대)	〃	201475	申 商 徹	1951. 1.17		〃
〃	〃	202302	金 喜 九	1950.11.21	鐵 原	〃
	〃	205417	李 萬 熙	1951. 1.17		〃
〃	〃	205528	南 相 俊	1950.11.24	春 城	〃
〃	〃	205605	李 東 根	1950.11.25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 사 일 자	장 소	구 분
〃	〃	205636	金 銚 烈	1950.12.23	洪 川	〃
〃	〃	205640	林 澈 植	1950.11.14		〃
〃	〃	205824	白 允 鎭	1950.12. 9	강 원 도	〃
공병大隊	〃	206640	李 德 義	1951. 1. 7		〃
사단본부	〃	207592	趙 昊 熙	1951. 1. 2	加 平	〃
〃	〃	209057	金 永 玉	1951. 3. 4	牽化小川面	〃
〃	〃	209067	朴 成 錄	1951. 3. 5	〃	〃
〃	〃	209082	金 洞 東	1951. 3. 6	〃	〃
〃	〃	209200	鄭 弼 永	1951. 2.12	橫 城	〃
〃(20포대)	〃	201496	李 準 敎	1951. 1. 1		실종
〃	少 尉	205525	孫 錫 琪	1951. 1. 1		〃
〃	〃	208573	申 凡 洙	1951. 3. 1		전사
〃	〃	208628	金 聖 九	1951. 1.31		〃
제17연대	中 尉	200292	安 順 泰	1950.11.24	鐵 原	〃
〃	〃	201379	金 相 學	1950.11.11	首 陸 病	〃
〃	〃	202300	金 萬 壽	1950.11.12	平 康	〃
〃	〃	202312	李 杰	1950.11.21	鐵 原	〃
〃	〃	202315	楠 澤	1950.11. 4	平北仇川	〃
〃	〃	202329	李 在 明	1951. 1. 1	北 面	〃
〃	〃	202331	黃 永 俊	1951. 2.23	永 川	〃
〃	〃	202380	張 春 權	1950.11.24	鐵 原	〃
〃	〃	202383	金 容 熙	1950.12.24		〃
〃	〃	202400	姜 得 龍	1950.11.24		〃
〃	少 尉	200189	金 淳 鎭	1951. 2. 1		실종
〃	〃	202294	高 松 竹	1951. 1. 1	加 平	〃
〃	〃	205991	楠 相 凡	1951. 1. 1		분명
〃	〃	208023	金 建 鎭	1951. 1. 1	加 平	전사
제31연대	中 尉	200982	崔 鳳 休	1951. 1. 1	加 平	〃
〃	〃	201417	朴 載 賢	1951. 1. 1	加 平	〃
〃	〃	201462	李 在 洪	1950.11.21	〃	〃
〃	〃	205533	鄭 錄 燮	1951. 1. 1	〃	〃
〃	〃	205538	朴 在 珍	1951. 1. 1	〃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제31연대	中 尉	205540	徐 聖 祚	1950. 12. 10		전사
〃	〃	205559	金 永 基	1951. 1. 1		〃
〃	〃	205566	柳 隱 曙	1951. 1. 1	加 平	〃
〃	〃	205570	金 重 永	1950. 11. 22		〃
〃	〃	205571	鄭 暗 燦	1951. 1. 1	加 平	〃
〃	〃	205581	洪 淳 權	1951. 1. 1	〃	〃
〃	〃	205583	任 昌 虎	1951. 1. 1	〃	〃
〃	〃	205587	李 洪 敎	1951. 1. 1	〃	〃
〃	〃	205598	南 相 泰	1951. 2. 15		〃
〃	〃	205612	申 鉉 明	1951. 1. 1	加平 木洞	〃
〃	〃	205618	李 東 燦	1951. 1. 1	加 平	〃
〃	〃	205619	劉 龍 鍾	1950. 12. 27		〃
〃	〃	205635	李 鍾 九	1950. 11. 25	春 川	〃
〃	〃	205641	安 秉 文	1950. 12. 5	〃	〃
〃	〃	205635	宋 昌 錦	1951. 1. 1	加 平	〃
〃	〃	206009	金 炳 權	1950. 12. 13	〃	〃
〃	〃	206076	劉 承 熙	1951. 1. 1		〃
〃	〃	209108	李 復 奎	1951. 2. 20		〃
〃	少 尉	205542	金 永 奎	1951. 1. 1	加 平	〃
〃	〃	205600	朴 綠 植	1950. 11. 11		불명
〃	〃	205603	韓 佑 裕	1951. 1. 1	加 平	실종
제32연대	中 尉	205521	金 乙 植	1951. 1. 1		전사
〃	〃	205532	金 泰 植	1951. 1. 1		〃
〃	〃	205558	洪 完 植	1950. 12. 6	포 천	〃
〃	〃	205563	朴 炳 致	1951. 1. 1		〃
〃	〃	205655	朱 東 煜	1951. 1. 1		〃
〃	〃	205577	梁 宗 鉉	1950. 12. 6	포천 琉帽峰	〃
〃	〃	205613	趙 春 煥	1950. 12. 19	포 천	〃
〃	〃	205623	金 英 大	1951. 1. 1	加 平	〃
〃	〃	205657	李 容 鉉	1951. 1. 1	加 平	〃
〃	〃	205758	崔 昇 淳	1951. 1. 1	加平 木洞	〃
〃	〃	205762	梁 鄭	1950. 12. 7	포 천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제32연대	〃	206062	李 源 稷	1950. 12. 10	경기 포천	〃
〃	〃	206593	陣 興 業	1950. 12. 8	포 천	〃
〃	〃	206595	宋 命 宗	1950. 12. 15	加 平	〃
〃	〃	207905	姜 載 郁	1951. 1. 1		〃
〃	〃	208049	金 世 鎭	1951. 1. 1	加 平	〃
〃	〃	207943	洪 元 淵	1951. 1. 1		〃
〃	〃	207974	劉 海 凡	1951. 1. 1		〃
〃	少 尉	201437	李 重 植	1951. 1. 1		실종
〃	〃	202564	金 南 杓	1951. 1. 1	加平 木洞	〃
〃	〃	205769	梁 應 彩	1951. 1. 1		〃
〃	〃	206078	金 聖 九	1950. 11. 29	博 川	불명
〃	〃	206073	楊 近 植	1950. 12. 30		전사
〃	〃	209178	明 時 鎭	1951. 2. 12	영 주	순직

3 사단

사단본부	中 領	10693	吳 延 錄	1951. 2. 12	橫 城	전사
〃	〃	12094	金 高 宗	1951. 4. 25	麟 蹄	〃
〃	少 領	11752	盧 敬 億	1950. 11. 23	首 陸 病	〃
〃	〃	13593	金 文 一	1951. 2. 13	橫 城	〃
〃	大 尉	12512	宋 炳 學	1951. 2. 22		실종
〃	〃	16146	洪 相 浩	1951. 1. 8	平 昌	전사
〃	〃	61062	李 駿 烈	1951. 4. 15		〃
〃	中 尉	17343	崔 昌 明	1951. 2. 12		〃
제18연대	少 領	11334	李 元 桂	1950 12. 1	清 津 地 區	실종
〃	〃	12954	李 榮 吉	1951. 3. 15	平 昌	전사
〃	大 尉	16127	金 順 祚	1951. 3. 1		사망
〃	〃	17052	鄭 在 珏	1951. 2. 22	大 田	전사
제22연대	少 領	11769	胡 昌 洙	1950. 11. 26		〃
〃	大 尉	14653	周 甲 福	1950. 12. 24	洪川 於論里	〃
〃	〃	15545	李 鼎 大	1950. 11. 6	元 山	〃
제23연대	〃	14722	白 浩 鉉	1950. 11. 13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사단본부	大 尉	200528	鄭 在 東	1951. 4.23	麟 蹄	전사
〃	〃	201425	趙 春 奎	1951. 3. 7		〃
〃	〃	202297	金 元 浩	1951. 2.12	橫 城	〃
〃	中 尉	200094	呂 鍾 植	1951. 2.12	〃	〃
〃	〃	200226	方 金 成	1951. 2.10		실종
〃	〃	201396	金 鍾 植	1951. 2. 1		〃
〃	〃	201409	金 賢 東	1951. 2. 1		전사
〃	〃	203154	李 奇 鶴	1950.12.30		〃
〃	〃	203680	金 小 德	1951. 2. 1		〃
〃	〃	204389	金 舜 卓	1951. 4. 9	洪 川	〃
〃	〃	206059	李 海 晴	1950.12. 3	春 城	〃
〃	〃	206530	朴 明 煥	1951. 2.12	橫 城	〃
〃	〃	206561	金 承 琴	1951. 2.14	〃	〃
〃	〃	207437	鄭 五 相	1951. 1.12	〃	〃
〃	〃	208380	崔 太 玉	1951. 2.14	평 창	〃
〃	〃	208896	李 仁 澤	1950.12.18		〃
〃	〃	208904	朴 德 吉	1951. 4.23	인 제	〃
〃	〃	208907	朴 在 淳	1951. 2. 4		〃
〃	〃	208967	金 秉 嬉	1951. 4.23	인제 덕형	〃
〃	〃	209694	李 現	1951. 2.12		〃
〃	〃	210033	朴 長 周	1951. 4.27	인 제	〃
〃	〃	210031	金 炯 慶	1951. 4.25	〃	〃
〃	〃	210138	李 訓 塾	1951. 4.30	〃	〃
〃	〃	211749	權 冕 周	1951. 4. 7	홍 천	〃
〃	〃	211803	林 興 泰	1951. 4.30	인 제	〃
〃	〃	211815	趙 東 燦	1951. 3.17	용 산(강원)	〃
〃	〃	202997	楊 凡 烈	1951. 2.12	橫 城	실종
〃	〃	203001	金 奉 善	1951. 1.14	서 울	〃
〃	少 尉	208969	池 聖 達	1950.12.26	於 論	전사
〃	〃	223491	金 萬 坤	1951. 1. 1	春 川	〃
〃	〃	223516	趙 永 熙	1951. 4.13		〃
〃	〃	223526	金 器 義	1951. 2.12	橫 城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 사 일 자	장 소	구 분
	少 尉	223552	吳 極 根	1951. 4.25	인 제	전사
〃	〃	223587	文 洪 年	1951. 1.17	영 월	〃
〃	〃	223613	鄭 容 浩	1951. 4.23	인 제	〃
〃	〃	223618	朴 元 澄	1951. 4.25	〃	〃
제18연대	中 尉	202321	金 徹 會	1951. 2.12	橫 城	〃
〃	〃	208953	金 炳 玉	1951. 3. 2	安 興	〃
〃	〃	208957	李 圭 仁	1951. 4. 7		〃
〃	少 尉	203181	鄭 洪 允	1950.11.24		불명
〃	〃	203182	鄭 逸 浩	1950.11.24		〃
〃	〃	223479	金 永 澤	1951. 1. 2	화 수 리	전사
〃	〃	223498	李 廷 植	1951. 1.10	南 大 里	〃
〃	〃	223563	李 相 連	1950.11.14	만 포	〃
〃	〃	223617	金 仁 哲	1950.11.14	영 안	〃
〃	〃	223634	韓 南 洙	1950.11.11	풍 강	〃
제22연대	大 尉	202334	朴 秉 昭	1951. 3.16		〃
〃	中 尉	203686	河 允 源	1951. 1.30		불명
〃	〃	203687	黃 正 福	1951. 1.30		〃
〃	〃	208862	權 寧 花	1951. 2.12	횡 성	전사
〃	少 尉	203701	陵 定 洙	1951. 1.30		불명
〃	〃	206523	洪 敬 喆	1951. 2.18		실종
제23연대	大 尉	207676	孫 然 祚	1951. 2. 8	영 월	전사
〃	中 尉	202228	權 泰 元	1951. 2.14	橫 城	〃
〃	〃	208405	林 範 容	1951. 2.14	〃	〃
〃	〃	208959	宋 元 澤	1951. 2.14		〃
〃	〃	208973	金 士 文	1951. 2.14	橫 城	〃
〃	〃	211654	宋 秉 世	1951. 3. 3	영 월	〃

5 사단

사단본부	少 領	12483	鄭 龍 植	1951. 1. 1	洪 川	전사
〃	大 尉	14221	吳 泰 燮	1950.12.30		〃
〃	〃	15564	卞 基 秀	1951. 1. 1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	〃	17187	吳 昌 得	1951. 3. 9		〃
〃	〃	60438	金 基 德	1951. 2.25		실종
제27연대	大 領	10397	金 在 仁	1951. 2. 4	橫 城	전사
〃	少 領	12017	高 鍾 遠	1950.12.13	春城地區	〃
〃	〃	14199	崔 相 烈	1951. 4.25	麟蹄地區	〃
〃	〃	15546	孫 炳 賢	1951. 2.19	驛 越	〃
〃	大 尉	14474	具 文 範	1950.11.12	江原 七龍山	〃
제35연대	少 領	14205	朴 銓 夏	1951. 4.23		〃
〃	大 尉	14107	許 憲	〃		실종
제36연대	中 領	10906	韓 貞 熙			전사
〃	大 尉	14276	吉 炳 魯	1950.12.23		전사
〃	中 尉	16731	趙 英 達	1951. 3.22	제23육군병원	〃
사단본부	大 尉	203043	池 道 憲	1951. 3. 5	橫 城	〃
〃	〃	203052	金 元 漢	1951. 2.27	大邱東村	〃
〃	〃	204246	金 正 洙	1951. 4.24	인제 남북리	〃
〃	〃	204255	李 東 璐	1951. 4.22	인제 신정리	〃
〃	〃	204292	金 鍾 澤	1951. 4.14	인 제	〃
〃	〃	204298	申 彦 錫	1951. 3. 9	횡성 안흥	〃
〃	中 尉	200154	崔 基 永	1950.12.21	春城西面	〃
〃	〃	200507	高 昌 錫	1950.12.15	春 城	〃
〃	〃	201431	趙 炳 南	1951. 1. 1		〃
〃	〃	201538	李 殷 洙	1951. 2.11		〃
〃	〃	201541	李 昌 燮	1950.12.10	春 城	〃
〃	〃	201543	鄭 基 俊	1951. 1. 5	〃	〃
〃	〃	202528	李 光 雨	1951. 2.11		〃
〃	〃	203158	鄭 泰 熙	1950.12.15	江原 春城	〃
〃	〃	203207	朴 萬 福	1950.12. 2	端 川	〃
〃	〃	204243	金 光 鉉	1950.12.23	加 平	〃
〃	〃	204301	吳 鏞 熙	1951. 2.11	횡성 안흥	〃
〃	〃	204359	申 鍵 燮	1950.12.13	春 城	전사
〃	〃	204520	姜 鴻 吉	1951. 4.26	인 제	〃
〃	〃	204655	崔 海 石	1951. 2. 9	橫 城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사단본부	中 尉	204658	嚴 佳 澤	1951. 2.12	橫城 浦洞	전사
〃	〃	204665	李 鍾 浩	1951. 4.25	인 제	〃
〃	〃	205430	朴 允 在	1951. 1. 6		〃
〃	〃	205602	金 德 坤	1950.12. 9	春 城	〃
〃	〃	205632	金 錦 一	1950.12. 3	春 川	〃
〃	〃	207892	申 仁 奎	1951. 1. 1		〃
〃	〃	208397	孫 炳 求	1951. 1. 1		〃
〃	〃	208412	沈 在 哲	1951. 1. 1		〃
〃	〃	208419	金 東 煜	1951. 1. 1		〃
〃	〃	208460	孫 仁 植	1951. 2. 9		〃
〃	〃	209333	魚 龍 根	1951. 2.11		〃
〃	〃	209345	全 在 錄	1951. 3. 9	횡 성	〃
〃	〃	209821	李 尙 俊	1951. 4.23	인 제	〃
〃	〃	210122	李 昌 培	1951. 4.26	〃	〃
〃	〃	210623	安 又 慶	1951. 4.25	〃	〃
〃	〃	210721	柳 相 俊	1951. 3. 9	횡 성	〃
〃	〃	210804	金 光 成	1951. 4.23		〃
〃	〃	211479	吳 處 榮	1951. 4.12	洪川 신남	〃
〃	〃	211545	金 瑩 鍵	1951. 4.18	로 전 평	〃
〃	〃	211839	吳 仁 泳	1951. 4.24	인 제	〃
〃	〃	212647	金 起 元	1951. 4.18	6 이동외과	〃
〃	〃	212791	李 南 斗	1951. 4.23		〃
〃	少 尉	200716	金 學 然	1951. 2.12	橫 城	신종
〃	〃	203305	丁 秉 洙	1950.11. 6		불명
〃	〃	204652	朴 義 俊	1951. 2.18	연 성	신종
〃	〃	204668	吳 德 換	1951. 2.13	황 성	〃
〃	〃	207782	嚴 根 燮	1951. 4.13	춘 州	순직
〃	〃		張 徹 生	1951. 1. 1		신종
〃	〃	208016	尹 凡 官	1951. 2.12	橫 城	〃
〃	〃	210615	金 春 根	1951. 4.23	인 제	〃
〃	〃	211416	吳 煥 斗	1951. 4.23	〃	〃
〃	〃	212816	朴 聖 義	1951. 4.23	〃	신종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	〃	223501	吳 澤 龍	1950.12.25	漣 川	전사
〃	〃	223536	金 興 燮	1950.11.30	〃	〃
〃	〃	223559	任 普 彬	1951. 3. 2		〃
〃	〃	223619	金 在 順	1951. 4.15	홍 천	〃
〃	〃	223620	朴 建 五	1951. 3. 1	橫 城	〃
제27연대	大 尉	203230	李 約 均	1951. 4.25	인 제	〃
〃	〃	203639	尹 漢 重	1951. 4. 8		〃
〃	中 尉	203161	鄭 申 橫	1950.12. 9	春 城	〃
〃	〃	203213	金 哲 熙	1950.11.28	18 육 병	〃
〃	〃	203268	盧 永 澤	1950.11.28	加 平	〃
〃	〃	203019	朴 司 龍	1951. 2. 8		〃
〃	〃	204230	張 翰 珠	1951. 1.20	영 주	〃
〃	〃	204252	韓 熙 晃	1950.12.10	春 城	〃
〃	〃	204286	金 鎭 亨	1950.12.21	6 외 과 병	〃
〃	〃	205401	吳 海 泳	1951. 4.25	인 제	〃
제35연대	〃	204283	林 英 轸	1950.12. 6		실종
〃	〃	210731	朴 鍾 漢	1951. 4.25		전사
제36연대	〃	200090	金 企 哲	1951. 3. 3		〃
〃	〃	200966	禹 鍾 泰	1951. 1. 7		불명
〃	〃	202271	李 光 雨	1951. 2.11	橫城 안흥	전사
〃	〃	203273	尹 世 燮	1950.12.19	春城 西面	〃
〃	〃	203275	張 在 道	1950.12.15	〃	〃
〃	〃	203325	金 通 起	1951. 1. 1		〃
〃	〃	203331	李 東 龜	1950.12.15	春 城	〃
〃	〃	204313	申 彦 翊	1950.12.22	〃	〃
〃	〃	204330	姜 英 勳	1950.12.10	春城 西面	〃
〃	〃	204576	沈 化 燮	1951. 2. 5	2 외 과 병	〃
〃	〃	204619	康 承 翊	1950.12.15	春城 西面	〃
〃	〃	206424	金 萬 石	1951. 1.10		불명
〃	〃	207972	張 斗 燮	1951. 1. 1		전사
〃	〃	207973	李 東 洙	1951. 1. 1		〃
〃	〃	208361	崔 悅 燮	1951. 1. 1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제36연대	中 尉	209368	朴 炯 默	1951. 2.13		〃
〃	少 尉	206933	吳 亨 根	1951. 1. 2	加 平	실종

6 사단

사단본부	大 領	12403	韓 昌 銀	1950.12. 8		전사
〃	少 領	15050	李 熙 遠	1951. 4.15	春 川	〃
〃	〃	15552	柳 定 植	1951. 4.23		〃
〃	大 尉	15099	南 鉉 命	1950.12.17		실종
〃	〃	17021	林 英 淳	1950.11.12	堡 里	전사
〃	中 尉	17377	朴 允 鎬	1951. 4.23	華川 史內	〃
〃	少 尉	17358	金 重 達	1950.12.29	安 東	실종
제 2 연대	中 領	13166	朴 明 慶	1950.11.26	平南 德川	전사
〃	大 尉	13078	金 民 國	〃		〃
제 7 연대	中 領	11332	劉 亨 鍾	1951. 1. 1	東 豆 川	〃
〃	少 領	11385	元 鍾 奎	〃	〃	〃
〃	〃	14173	黃 圭 誠	1950.11.15	초 산	〃
〃	〃	14218	楮 赫 仁	1950.11. 1		〃
〃	〃	16073	姜 周 朋	1950.11.29	月 浦 里	〃
〃	大 尉	16998	金 英 烈	1951. 4.12	華川 史倉	〃
〃	〃	17033	朴 允 燦	1951. 4.23	〃	〃
〃	中 尉	16978	金 志 忠	1951. 4.22		〃
제19연대	中 領	11206	金 成 泰	1951. 1. 1	東 豆 川	〃
〃	少 領	12037	林 二 鍾	1951. 1.16		〃
〃	大 尉	13627	康 相 善	1951. 1. 1		〃
〃	〃	15611	吳 興 煥	1951. 3.30		불명
사단본부	大 尉	200727	申 仁 均	1951. 4.23	華川 史內	전사
〃	〃	200739	金 聖 出	1951. 3.28	楊 口	〃
〃	〃	200781	李 鍾 成	1951. 3.17	楊平 靑雲	〃
〃	〃	201011	柳 炳 熹	1950.11. 4		〃
〃	〃	202683	洪 起 峯	1950.11.29		〃
〃	〃	206275	金 南 龍	1951. 2.26		실종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	中 尉	200398	曺 有 煥	1951. 4.23	加 平	전사
〃	〃	200731	金 忠 根	1951. 1. 1	東 豆 川	〃
〃	〃	200745	劉 永 振	1950.11.26		〃
〃	〃	200746	沈 必 來	1950.12.12		〃
〃	〃	200763	崔 右 翼	1050.11.28		〃
〃	〃	200793	權 基 熙	1951. 3. 1	東 豆 川	〃
〃	〃	201413	李 龍 瑞	1951. 1. 1	〃	〃
〃	〃	201434	姜 桂 遠	1951. 4.22	加平北面	실종
〃	〃	202568	姜 錫 富	1951. 1.29		전사
〃	〃	203978	安 昌 傑	1950.11.29		〃
〃	〃	204077	洪 命 植	1951. 1.10	楚 山	〃
(포大隊)	〃	204284	崔 相 泰	1951. 1. 1		〃
〃	〃	205162	趙 秉 奎	1951. 3. 6		〃
〃	〃	205299	姜 淳 吉	1951. 1. 2		〃
사단본부	中 尉	205307	許 鎭	1951. 2.13	廣州 賀林	전사
〃	〃	205360	李 灃 雨	1950.11.26		〃
〃	〃	205361	鄭 甲 泰	1951. 2.15	광 주	〃
〃	〃	205368	梁 學 鉉	1951. 1. 1	雷 山	〃
〃	〃	205373	徐 碩 鉉	1951. 4.23	加平北面	〃
〃	〃	205382	李 凡 林	1950 11.25	西 倉	〃
〃	〃	205403	朴 來 赫	1950.12.30		〃
〃	〃	205708	姜 鍾 錫	1951. 1. 1	東 豆 川	〃
〃	〃	205721	朴 鍾 寬	1950.11.29	平北德川	〃
〃	〃	205734	宋 秉 昌	1951. 1. 1	東 豆 川	〃
〃	〃	206266	朴 得 基	1950.11.26		〃
〃	〃	206285	柳 貢 穆	1950.11.26		〃
〃	〃	207189	李 在 煥	1951. 1. 1	東 豆 川	〃
〃	〃	207213	金 喆 奎	1951. 4.22	강원 화천	〃
〃	〃	207310	金 乃 洵	1951. 1. 1	동 방 동	〃
〃	〃	209533	金 時 萬	1951. 2.15	강주 실촌	〃
〃	〃	209547	康 胤 植	1951. 3.26	1 외 과	〃
〃	〃	209586	李 元 浩	1951. 3.30	춘성 서면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사단본부	中 尉	209639	康 圭 鉉	1951. 4.22	화천 사창리	전사
〃	〃	209640	朴 泳 錫	1951. 2.25	횡 성	〃
〃	〃	209766	金 佳 源	1951. 4.23	화천 사내	〃
〃	〃	209797	金 重 旭	1951. 4.22	加平北面	〃
〃	〃	209815	李 珖 柱	1951. 2.13	경주 광주	〃
〃	〃	209836	申 學 諄	1951. 2.12	〃	〃
〃	〃	209845	李 茂 宗	1951. 2.23	횡 성	〃
〃	〃	209846	申 泰 亨	1951. 3.11	경기 용문산	〃
〃	〃	209856	申 漢 明	1951. 2.16	경기 광주	〃
〃	〃	209977	李 盛 植	1951. 4.23	사 창 리	〃
〃	〃	210649	金 明 華	1951. 3. 7	용 문	〃
〃	〃	210191	盧 昌 奎	1951. 4. 4	화 천	〃
〃	〃	210666	玄 章 男	1951. 2.28	서 원	〃
〃	〃	211442	閔 光 三	1951. 4.24	加 平	〃
〃	〃	212039	朴 泳 鎭	1951. 4.29	양평 단월리	〃
〃	〃	212318	鮮于昌範	1951. 4.23	화 천	〃
〃	〃	212345	范 俊 洙	1951. 4.23	加 平	〃
〃	少 尉	200714	朴 英 圭	1950.12. 2		불명
〃	〃	200719	李 根 德	1951. 4.30		〃
〃	〃	200740	白 基 德	1950.11.16		실종
〃	〃	201654	金 光 鎬	1950.11.15		〃
〃	〃	202468	朴 炳 奎	1950.12.26		〃
〃	〃	203611	崔 元 善	1950.11. 5		전사
〃	〃	203613	吳 太 煥	1950.11. 5		〃
〃	〃	205315	金 範 洙	1950.11.26		〃
〃	〃	205318	朴 宇 鍾	1951. 1. 1	東 豆 川	〃
〃	〃	205335	鄭 東 仁	1951. 4.23	화천 史內	〃
〃	〃	205337	崔 漢 烈	1950.11.26		전사
〃	〃	205356	趙 達 顯	1951. 1. 1	靑 山	실종
〃	〃	205391	梁 貞 鎭	1950.12.30		〃
〃	准 尉	303145	文 炯 一	1951. 1. 1	東 豆 川	전사
제2연대	大 尉	203554	鄭 斗 仁	1951. 4.23	화천 史內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제2연대	大 尉	206273	崔 翼 培	1950.11.26		실종
〃	中 尉	200757	丁 明 玉	1950.12.14		전사
〃	〃	204356	張 凡 吉	1951. 1.21	순창 복흥리	〃
〃	〃	205271	金 道 熙	1950.11.17	价 川	〃
〃	〃	205273	趙 尙 植	1950.11.26		〃
〃	〃	205281	金 采 湜	1951. 2.10	慶州 貿村	〃
〃	〃	205283	李 圭 鉦	1951. 2. 9	〃	〃
〃	〃	205311	徐 瑛 深	1950.11.17	价 川	〃
〃	〃	205844	宋 在 述	1951. 3.17	홍 천	〃
〃	〃	205856	崔 載 穆	1951. 1. 1		〃
〃	〃	206261	朴 魯 英	1951. 2.26		〃
〃	〃	206308	安 乙 俊	1951. 1. 8	酒 泉	〃
〃	少 尉	200772	李 哲 遠	1950.12.20		불명
〃	〃	205289	尹 秉 欽	1951. 1. 2	大 田	실종
〃	〃	205840	姜 善 赫	1951. 4.23	화 천	전사
〃	〃	205859	姜 永 珏	1950.11.26		실종
〃	〃	206319	金 雲 玉	1950.12. 1		〃
〃	〃	209513	盧 熙 天	1951. 4.22	화 천	〃
제7연대	中 尉	200746	徐 道 源	1951. 1.26		전사
〃	〃	200788	鄭 鎭 玉	1951. 1.26		〃
〃	〃	205291	李 奎 鎭	1951. 3. 1		〃
〃	〃	205322	李 諄 求	1950.11.22		〃
〃	〃	205855	李 燦	1951. 1.12		〃
〃	〃	206017	辛 允 根	1951. 2.13	문 막	〃
〃	〃	205849	石 宗 燁	1951. 1. 1		실종
제19연대	中 尉	202489	金 凡 哲	1950.12.13		전사
〃	〃	202499	朴 世 瑾	1951. 4.24	加平 北面	실종
〃	〃	203593	朴 容 宙	1951. 1. 1		전사
〃	〃	203605	蔡 奎 炳	1950.12.17	全 谷	〃
〃	〃	205970	田 裕 植	1951. 1. 5		〃
〃	〃	210072	鄭 堯 植	1951. 4.24	加 平	〃
〃	少 尉	203590	李 相 源	1950.11.29		실종

7 사단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 사 일 자	장 소	구 분
사단본부	大 領	10370	奇 世 源	1950. 12. 3	德 川	전사
〃	少 領	11600	裵 光 勳	1950. 12. 3	〃	〃
〃	〃	11763	金 基 鎭	1950. 11. 26		〃
〃	〃	14494	沈 鍾	1951. 1. 26		〃
〃	〃	14777	田 基 淸	1950. 12. 3		〃
〃	大 尉	14794	李 重 琦	1950. 11. 26		〃
〃	〃	15780	崔 相 植	〃		〃
〃	〃	16162	車 俊 五	〃	德 川	〃
〃	〃	17122	崔 鴻 基	1951. 1. 1		〃
〃	〃	60765	慶 完 浩	1950. 11. 26	德 川	〃
〃	中 尉	15638	金 炳 燦	1950. 12. 3		〃
〃	〃	16640	鄭 富 根	1950. 11. 26		〃
〃	〃	60562	李 漢 雨	1951. 1. 26		실종
〃	〃	60609	白 芝 濂	1950. 11. 26	德 川	〃
제 3 연대	中 領	10986	盧 東 熙	〃		전사
〃	少 領	11280	韓 敬 錫	1950. 11. 18		〃
〃	大 尉	15269	許 東 松	1951. 1. 8		〃
〃	中 尉	16796	徐 東 植	1950. 11. 1	寧邊 球場里	〃
제 5 연대	大 領	10147	朴 昇 日	1950. 11. 26	德 川	〃
〃	〃	10636	尹 千 泰	1950. 11. 26		〃
〃	中 領	11129	丁 吉 成	1950. 11. 11	慶南 河東	〃
〃	少 領	12870	金 泰 珍	1950. 11. 26	德 川	〃
〃	大 尉	14768	尹 元 明	〃	〃	〃
〃	〃	14533	李 圭 虎	〃	〃	〃
〃	少 尉	17329	金 完 用	1950. 12. 24		실종
제 8 연대	中 領	10987	崔 老 魯	1950. 11. 25	德 川	전사
〃	少 領	13217	崔 泳 振	〃	〃	〃
〃	大 尉	12888	金 順 成	〃	〃	실종
〃	〃	14220	曺 圭 龍	1950. 11. 4	价 川	전사
〃	〃	16780	柳 道 賢	1951. 2. 1		〃
〃	中 尉	10968	趙 成 華	1950. 11. 4	价 川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제8연대	〃	17264	鄭 愚 德	1950.11. 6	德 川	전사
〃	〃	17551	韓 松 俊	1950.11.25	〃	〃
사단본부	少 領	200050	鄭 順 源	1951. 3.13	白 積 山	〃
〃	中 尉	200289	韓 強 淑	1950.11.26	德 川	〃
〃	〃	200874	徐 應 石	1951. 2.20	영 월	〃
〃	〃	200881	林 基 培	1950.11.20		〃
〃	〃	200915	金 鳳 基	1950.11.26	德 川	〃
〃	〃	201439	金 根 成	1950.11.28	長 城	〃
〃	〃	201508	李 學 奭	1950.11.26		〃
〃	〃	201512	金 鍾 元	1950.12.10		〃
〃	〃	201522	朴 應 龍	1950.12.26		〃
〃	〃	205739	尹 承 曄	1951. 1.10		〃
〃	〃	211445	朴 秉 俊	1951. 3 17	두 루 봉	〃
〃	少 尉	201345	李 哲 璡	1950.11.26	德 川	〃
〃	〃	201836	李 應 三	1951. 2. 1	〃	실종
〃	〃	203772	洪 完 植	1951. 1. 3	洪 川	〃
〃	〃	204689	金 相 益	1951. 1.29		전사
〃	〃	223494	裵 甲 祚	1950.12. 9	勳 德 面	〃
제3연대	大 尉	201851	康 亨 淳	1951. 1. 1		실종
〃	〃	201857	林 順 榮	1950.11. 1		전사
〃	〃	202741	都 卜 夏	1950.11. 1		〃
〃	〃	203751	李 根 佑	1951. 3. 7	珍 富	〃
〃	〃	205909	李 晶 漢	1951. 2.17		〃
〃	中 尉	200840	尹 鎭 鉉	1951 2 19	麻 碑 里	〃
〃	〃	200849	金 承 玉	1950.11.26	〃	〃
〃	〃	201918	金 昌 洙	1951. 2.11	平昌 白雲洞	〃
〃	〃	201929	高 雲 夏	1950.12.26	內 坪	〃
〃	〃	201944	陳 庸 植	1950.11. 1	영변 球場里	〃
〃	〃	201945	孝 揆 斗	1950.11. 8	价 川	〃
〃	〃	203021	朴 鎭 陽	1951. 3. 3		〃
〃	〃	205338	姜 斗 植	1950.12. 2	平南 龍城里	〃
〃	〃	205392	崔 基 邦	1950.11. 8	价 川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 사 일 자	장 소	구 분
〃	中 尉	205395	尹 錫 載	1950.11.28	〃	전사
〃	〃	205407	李 仲 錫	1950.12.29	內坪里 △700	〃
〃	〃	206306	權 相 用	1951. 2. 4		〃
〃	〃	206461	崔 承 玉	1950.12.28	丹平文明 △	〃
〃	〃	207185	劉 漢 根	1951. 1.15	영월 록신리	〃
〃	〃	207220	金 泳 奎	1951. 1. 8	酒 泉	〃
〃	〃	207257	金 慶 善	1951. 4.26	인 제	〃
〃	〃	207264	尹 桂 凡	1950.12.13	內 坪	〃
〃	〃	207276	李 國 徹	1951. 1. 8	酒 泉	〃
〃	〃	208677	金 仁 錫	1951. 2.13	평창 백운대	〃
〃	〃	209255	徐 義 錫	1951. 3. 9	百 石 山	〃
〃	〃	209622	黃 光 潤	1951. 4.27	인 제	〃
〃	〃	210012	成 基 鉉	1951. 3. 6	巨 文 里	〃
〃	〃	210046	金 泰 植	1951. 4.26	인 제	〃
〃	〃	210149	羅 寅 觀	1951. 3.14		〃
〃	〃	210560	李 正 光	1951. 3. 6	巨 文 里	〃
〃	少 尉	202444	李 根 洙	1950.11. 3	德 川	실종
제5연대	大 尉	200930	朴 容 浩	1951. 2.12	平 昌	전사
〃	〃	202745	徐 兩 哲	1951. 1.16	德 川	〃
〃	中 尉	200030	朴 碩 文	1950.12.24		〃
〃	〃	200889	崔 宗 太	1950.11. 7	价川 朔陽	〃
〃	〃	203944	宋 南 錫	1950.11.25	德 川	〃
〃	〃	205898	李 斗 煥	1951. 1.16	영 월	〃
〃	〃	205899	金 海 信	1951. 1. 3		〃
〃	〃	206353	尹 耕 植	1951. 1.16	영성 하경면	〃
〃	〃	206364	金 永 源	1950.11.26	德 川	〃
〃	〃	206377	河 永 萬	1950.11.26		〃
〃	〃	206527	金 璋 漢	1951. 4.24	인 제	〃
〃	〃	207194	朴 允 男	1951. 2.19		〃
〃	〃	207195	高 基 鐵	1951. 3.17		〃
〃	〃	207219	明 建 植	1951. 4.23	원 통	〃
〃	〃	207246	沈 相 旭	1951. 1. 2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제5연대	中 尉	207281	金 益 燮	1951. 1.31		전사
〃	〃	209276	林 彰 和	1951. 4.26	인제상원대리	〃
〃	〃	209307	申 昶 淳	1951. 2.17	영월 덕산리	〃
〃	〃	209382	金 振 相	1951. 4.23	인 제	〃
〃	〃	209849	魏 雲 碩	1951. 3. 6		〃
〃	〃	209869	朴 盛 根	1951. 2.12		〃
〃	〃	209999	朴 勝 基	1951. 4.24	인 제	〃
〃	〃	210061	李 宋 圭	1951. 4.24	〃	〃
〃	少 尉	200890	李 成 圭	1951. 1.26	〃	실종
〃	〃	206348	鄭 斗 根	1950.12.24		〃
〃	〃	207168	金 元 錦	1951. 1. 3		전사
〃	〃	210556	李 貢 植	1951. 4.23	인 제	실종
제8연대	大 尉	200046	金 榮 柱	1950.11. 6	덕 천	전사
〃	〃	201841	金 學 凱	1951. 3. 1		〃
〃	〃	202742	朴 永 華	1950.11.26	德 川	〃
〃	中 尉	200304	金 應 俊	1950.11.25		〃
〃	〃	201531	孫 南 得	1950.11.17	介川 龍編里	〃
〃	〃	201533	金 龍 浩	1950.12.27	春 川	〃
〃	〃	202405	徐 鏞 珍	1950.11. 4	平北 价川	〃
〃	〃	205330	金 在 昌	1950.11.26		〃
〃	〃	205342	金 炳 秀	1950.11. 6	덕 천	〃
〃	〃	205305	林 賢 斗	1950.11. 6	〃	〃
〃	〃	205355	白 天 基	1950.11.26	〃	〃
〃	〃	205904	姜 漢 秀	1950.11.25	〃	〃
〃	〃	205911	金 允 鎬	1950.11.26	〃	〃
〃	〃	206367	趙 滿 勳	1950.11.25		〃
〃	〃	206369	張 鍾 述	1951. 2.13	영 신	〃
〃	〃	206371	高 點 洙	1951. 1. 3	영월 연화리	〃
〃	〃	206390	李 在 弼	1950.11.25	덕 천	〃
〃	〃	206391	朴 炳 淵	1950.11.26	〃	〃
〃	〃	206515	文 在 川	1951. 3.20	〃	〃
〃	〃	206581	黃 孝 奎	1951. 4. 1	영 월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제8연대	中 尉	206946	金 道 烈	1950.11.26	德 川	전사
〃	〃	206949	李 福 成	1951. 2.10	平 昌 郡	〃
〃	〃	207530	李 泰 雨	1951. 1.12	영 원 군	〃
〃	〃	207607	金 龍 起	1951. 4.27	인제 장수대	〃
〃	〃	209276	林 彰 和	1951. 4.26	인제상원대리	〃
〃	少 尉	200855	李 德 貴	1950.11. 6		신종
〃	〃	201331	元 貞 福	1950.11.26	德 川	〃
〃	〃	201534	金 鉀 泰	1950.11.26	〃	〃
〃	〃	201837	朴 龍 南	1950.11.26	〃	전사
〃	〃	202052	金 應 三	1950.11.25	〃	신종
〃	〃	202327	高 弘 來	1950.11.25	价 川	〃
〃	〃	206370	李 鍾 雨	1950.11.25	德 川	〃
〃	〃	206375	李 永 植	1950.11.25	〃	〃
〃	〃	206389	張 大 植	1950.11.26	〃	〃
〃	〃	206948	金 達 秀	1950.11.26	德 川	전사
〃	〃	207261	金 銀 秀	1951. 1.17	강원 영월	신종

8 사단

사단본부	准 將	10176	權 泰 順	1951.2.12	橫 城	전사
〃	大 領	10189	金 永 魯	1950.11.26		〃
〃	中 領	11616	崔 東 勳	1951. 2.11	橫 城	〃
〃	〃	12144	李 鍾 珪	1951. 2.11	〃	〃
〃	〃	12408	黃 東 淵	1951. 2.12	〃	〃
〃	少 領	10725	朱 培 玉	1950.11. 6		〃
〃	〃	10817	辛 日 善	1950.11.26		〃
〃	〃	12356	文 浩 讚	〃		〃
〃	〃	12493	金 鍾 聲	1951. 2.12	橫 城	〃
〃	〃	12666	李 龍 九	1950.11.25	雪 山	〃
〃	〃	14716	文 一 柱	1951. 2.11	橫 城	〃
〃	〃	14934	李 鎭 浩	1951. 2.12	〃	〃
〃	大 尉	11912	張 始 勇	1951 2.11		신종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사단본부	大 尉	14209	吳 重 鉉	1951. 2 11		전사
〃	〃	14211	林 炳 植	1951. 1.17		실종
〃	〃	14478	申 萬 泳	1950 12.11	連 川	전사
〃	〃	14765	李 景 九	1950.11.27		〃
〃	〃	15214	金 鍾 和	1951. 2.12	橫 城	〃
〃	〃	15529	朴 甲 洙	1950.11.26		〃
〃	〃	15692	金 喆 榮	1951 2. 8	橫 城	〃
〃	〃	15820	金 光 洙	1951. 2.12	橫 城	〃
〃	〃	16137	李 致 元	1950.12.14	〃	〃
〃	〃	16307	文 鍾 尙	1950.12. 3	黃海 新溪	〃
〃	〃	16520	張 勝 烈	1951. 2.12		〃
〃	〃	17006	劉 明 烈	1951. 3.27	제 36 병원	사망
〃	〃	60631	金 景 輪	1951. 2.12	橫 城	전사
〃	〃	60736	鄭 台 鎔	1951. 2.11	〃	〃
〃	中 尉	17529	宋 洙 龍	1951. 2.11	〃	〃
〃	〃	60235	表 龍 植	〃	〃	실종
〃	〃	60610	金 原 鎬	1951. 2.12	〃	〃
〃	〃	16134	宋 瑞 源	1950.11.27		〃
〃	〃	16644	朴 源 福	1950.11.26		전사
〃	少 尉	17370	金 龍 浩	〃	寧 遠	실종
제10연대	大 領	10125	高 根 弘	1950.11.25	〃	전사
〃	〃	10283	金 道 鎭	1950.11.26		〃
〃	〃	10632	河 炳 來	1951. 1.12	橫 城	〃
〃	中 領	10945	林 允 善	〃	〃	〃
〃	少 領	11443	李 錫 文	1951. 2.27		〃
〃	〃	12841	趙 崗 濟	1950.11.16	寧 遠	〃
〃	〃	12344	朴 孝 潛	1951. 2 6		〃
〃	〃	14876	李 明 學	1950.12.23		〃
〃	中 尉	14707	金 孝 燮	1950.11.26	寧 遠	실종
〃	〃	14996	李 泉	〃	〃	전사
〃	少 尉	16482	鄭 旺 基	〃	〃	〃
〃	〃	16495	姜 昌 根	〃	〃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제16연대	少 領	12907	李 明	1950. 11. 22	鹿 山	전사
〃	〃	12936	金 一 煥	〃		〃
〃	〃	13027	康 太 承	1951. 2. 12	橫 城	〃
〃	〃	13965	姜 信 梓	1951. 2. 8	〃	〃
〃	〃	14102	盧 永 基	1951. 2. 9	〃	〃
〃	〃	14275	金 益 法	1951. 2. 11		〃
〃	〃	15259	金 由 駿	1951. 2. 12		〃
〃	〃	16338	朴 晶 福	1951. 2. 11		〃
〃	大 尉	12934	金 鉉	1950. 11. 1		〃
〃	〃	15576	姜 鎬 英	1951. 3. 21		〃
〃	中 尉	15972	金 明 星	1950. 11. 30	妙 香 山	신종
〃	〃	16627	尹 致 燮	1950. 11. 5	〃	전사
〃	〃	17337	李 鍾 勳	1950. 12. 6	黃 海	〃
제21연대	소 尉	10626	吉 圭 英	1950. 11. 26		〃
〃	中 領	12922	李 輝 鎬	〃		〃
〃	〃	13425	李 建 洙	〃		〃
〃	〃	13430	李 杜 燦	1951. 3. 1		〃
〃	〃	13705	梁 英 萬	1951. 2. 12	洪 川	〃
〃	大 尉	12979	崔 泰 鎭	1951. 2. 11		〃
〃	〃	13779	姜 俊 基	1951. 2. 28	春 川	〃
〃	〃	13805	李 永 朝	1950. 11. 26		〃
〃	〃	14045	趙 容 哲	〃	抱 川	〃
〃	〃	14080	金 成 玄	〃		〃
〃	〃	14338	金 宰 烈	1950. 11. 10		〃
〃	〃	14364	金 哲 鉉	1950. 11. 10		〃
〃	〃	14461	申 英 淳	1950. 11. 21		〃
〃	〃	14926	李 宗 鎬	1950. 11. 26		〃
〃	〃	16000	朴 鍾 烈	〃		〃
〃	〃	13883	吳 德 根	〃		실종
〃	〃	14037	金 泳 萬	1950. 11. 10	公 州	전사
〃	〃	15885	金 宗 奎	〃	安 東	〃
사단본부	〃	200997	金 昌 萬	1950. 11. 26	寧 邊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사단본부	〃	203422	鄭 奉 汶	1951. 3. 4	15 육 병	전사
〃	中 尉	200392	姜 福 寶	1951. 2.12	橫 城	〃
〃	〃	200546	金 德 錦	1951. 2.12	〃	〃
〃	〃	200549	金 淳 彌	1951. 2.21	內 坪	〃
〃	〃	200569	朴 樂 仲	1951. 4. 1	橫 城	〃
〃	〃	200579	成 承 煥	1951. 2.11		〃
〃	〃	200595	朴 熙 倫	1951. 4.30		〃
〃	〃	200996	崔 武 賢	1950.12. 1	連 川	〃
〃	〃	201321	金 俸 基	1950.12.26		〃
〃	〃	201440	裵 景 大	1951. 2.11	橫 城	실종
〃	〃	201482	宋 仁 協	1950.12.29		전사
〃	〃	201615	趙 炳 植	1950.11.26	德 川	〃
〃	〃	202583	金 南 鶴	1951. 1.17		〃
〃	〃	202908	元 興 福	1950.11. 7		〃
〃	〃	203482	朴 喜 烈	1950.11.26		〃
〃	〃	203501	尹 基 萬	1950.11.26		〃
〃	〃	203505	高 正 成	1950.11.26		〃
〃	〃	203506	梁 東 錄	〃	〃	〃
〃	〃	203512	金 点 淳	1950.11.26		〃
〃	〃	203516	金 相 植	1950.11.26		〃
〃	〃	203519	朴 鴻 奎	〃		〃
〃	〃	203845	薛 鍾 儀	1950.11.20	永 川	〃
〃	〃	203846	鄭 相 和	〃	堤 川	〃
〃	〃	204111	李 東 王	1951. 4.30		〃
〃	〃	204581	崔 進 京	1951. 2.11	橫 城	〃
〃	〃	204595	金 經 漢	1951. 4.30		〃
〃	〃	204679	元 容 權	1951. 2.12	횡 성	〃
〃	〃	205174	李 元 載	1951. 2.12	〃	〃
〃	〃	205178	張 元 植	1951. 2.11	〃	〃
〃	〃	205411	郭 永 萬	1950.11.27		〃
〃	〃	205414	徐 長 洙	1951. 2.11	橫 城	〃
〃	〃	205725	趙 在 文	1951. 2.12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 사 일 자	장 소	구 분
사단본부	中 尉	206409	曺 圭 完	1950. 11. 26	寧 越	〃
〃	〃	206941	趙 奎 澤	1951. 2. 12	橫 城	신종
〃	〃	207187	俞 禮 錫	1950. 12. 12	황 해 은 산	전사
〃	〃	207201	盧 相 熙	1951. 2. 7		〃
〃	〃	207211	金 夏 鏞	1950. 12. 26	春 川	〃
〃	〃	207415	金 彰 鎬	1951. 2. 11	橫 城	〃
〃	〃	207456	李 相 學	1951. 2. 12	橫 城	〃
〃	〃	207522	鄭 海 珍	1951. 1. 2	洪 川	〃
〃	〃	207532	池 宋 蓮	1950. 12. 26	芙 蓉 山	〃
〃	〃	207855	黃 相 喆	1951. 2. 12	橫 城	〃
〃	〃	207876	朴 正 明	1951. 2. 8	〃	〃
〃	〃	207894	朴 魯 璧	1951. 2. 12	〃	〃
〃	〃	207918	丙 鈍 得	1951. 2. 12	〃	〃
〃	〃	207952	金 漢 旭	1951. 2. 12	〃	〃
〃	〃	207963	姜 甕 洪	1951. 2. 6	〃	〃
〃	〃	208001	權 赫 昊	1951. 2. 11	〃	〃
〃	〃	208423	宋 範 俊	1951. 1. 28	寧 越	〃
〃	〃	208514	權 五 暾	1951. 2. 5		〃
〃	〃	208537	金 昌 洙	1951. 2. 11		〃
〃	〃	208547	白 樂 道	1951. 2. 11	橫 城	〃
〃	〃	208819	高 斗 京	1951. 2. 12	〃	〃
〃	〃	208840	梁 治 植	1951. 2. 12	〃	〃
〃	〃	208844	都 千 圭	1951. 2. 7	濟 現 里	〃
〃	〃	209530	吳 昌 運	1951. 2. 7	유 현 리	〃
〃	〃	209544	白 王 七	1951. 4. 6	梨 陽 里	〃
〃	〃	209568	朴 基 植	1951. 2. 11	橫 城	〃
〃	〃	209569	李 炳 道	1951. 2. 11	橫 城	〃
〃	〃	209590	羅 乙 洙	1951. 2. 11	〃	〃
〃	〃	209623	韓 敬 浩	〃	〃	〃
〃	〃	209642	姜 善 敏	〃	〃	〃
〃	〃	209770	金 漢 斗	1951. 2. 8	〃	〃
〃	〃	209806	柳 汀 煥	1951. 2. 11	〃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사단본부	中 尉	209807	朴 凡 洙	〃	〃	전사
〃	〃	209829	李 聖 學	1951. 2.12	〃	〃
〃	〃	209851	卞 昌 洙	1951. 4. 7	〃	〃
〃	〃	209852	金 是 南	1951. 2.13	〃	〃
〃	〃	209862	金 喜 錫	1951. 2.11	〃	〃
〃	〃	211237	李 圭 恒	1951. 4. 6	전남 이양리	〃
〃	少 尉	203511	安 鍾 述	1951. 4. 1	橫 城	〃
〃	〃	204580	崔 大 燮	1951. 2.11	〃	신종
〃	〃	204642	朴 斗 植	1951. 3.25		불명
〃	〃	205410	尹 正 遠	1950.11.27		신종
〃	〃	206402	梁 福 東	1950.12.16		〃
〃	〃	206403	金 尙 凡	1950.11.26		신종
〃	〃	206411	李 炳 德	1950.11.27		〃
〃	〃	206412	李 長 淵	1950.11.26		〃
〃	〃	206419	鄭 宅 永	1951. 4.30		불명
〃	〃	207475	黃 雄 烈	1951. 1.12	橫 城	신종
〃	〃	207568	鄭 淳 昌	1951. 2.12		〃
〃	〃	207802	趙 堯 濟	1951. 2.12	橫 城	〃
〃	〃	207806	洪 順 英	1950.12.30		〃
〃	〃	207899	金 哲	1951. 2.12		〃
〃	〃	208645	金 漢 根	1951. 1.12	橫 城	〃
〃	〃	208675	金 鎰 黃	1951. 2.12	〃	〃
〃	〃	208822	崔 祥 旭	1951. 2.13	〃	〃
〃	〃	208828	周 貸 圭	1951. 2.13	〃	전사
〃	〃	208830	李 鍾 吉	1950.12.25	〃	〃
〃	〃	208836	張 德 海	1951. 1.11		불명
〃	〃	208845	金 炯 振	1951. 2.12	橫 城	신종
〃	〃	209224	金 壽 福	1951. 2.12	洪川 南面	전사
〃	〃	209606	朴 炳 鎬	1951. 2.11	橫 城	신종
〃	〃	209760	金 成 珍	1951. 2.12	〃	〃
〃	〃	209783	河 斗 淵	1951. 2.12	〃	전사
〃	〃	209894	邊 衡 九	1951. 2.12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사단본부	少 尉	223475	元 萬 鍚	1951. 2. 6	橫 城	실종
제10연대	中 尉	200531	鄭 基 出	1950.11.26	寧 遠	〃
〃	〃	200561	朴 碧 根	1951. 1.25		〃
〃	〃	201332	李 在 德	1950.12.28		〃
〃	〃	201390	朴 來 鵬	1950.11.26	寧 遠	〃
〃	〃	201399	玄 正 燮	1951. 2.12		실종
〃	〃	202210	皮 虎 鎭	1950.11.26	寧 遠	전사
〃	〃	202214	李 萬 秀	1950.11.17		〃
〃	〃	202218	陳 昊 華	1950.11.26		〃
〃	〃	202225	金 大 植	1950.11. 1	球 場	〃
〃	〃	202950	辛 承 愛	1950.11.26	寧 遠	〃
〃	〃	203408	任 成 華	1950.11.26	〃	〃
〃	〃	203420	朴 根 旭	1950.11.20	丹 陽	〃
〃	〃	203423	李 仲 殷	1951. 2.12	橫 城	〃
〃	〃	203463	朴 元 鎭	1951. 2.12	〃	〃
〃	〃	203843	金 奉 天	1951. 1.22	大 谷 里	〃
〃	〃	206399	金 石 世	1950.11.26	寧 遠	〃
〃	〃	206430	朴 萬 吉	1951. 2.12		〃
〃	〃	206432	宋 貢 傑	1951. 2.12	橫 城	〃
〃	〃	207247	李 龍 雨	1950.12.26	春 川	〃
〃	〃	207450	李 廷 湖	1950.12.24	內 坪	〃
〃	〃	207452	卿 義 京	1950.12.12	洪 城	〃
〃	〃	207457	朴 宗 燮	1950.12.26	內 坪 里	〃
〃	〃	207464	宋 珍 星	1951. 2.12		〃
〃	〃	207476	張 炳 珍	1950.12.24	內 坪	실종
〃	〃	207479	朴 茂 根	1951. 2. 9	地 玄 里	〃
〃	〃	207481	高 奎 洵	1951. 2. 7	流 里 里	〃
〃	〃	207484	金 哲 憲	1950.12.26	春 川	〃
〃	〃	207488	金 剛 浩	1951. 2.12	橫 城	〃
〃	〃	207494	金 浩 坤	1951. 4. 1		전사
〃	〃	207497	金 敬 達	1950.12.23	內 坪	〃
〃	〃	208046	黃 凡 昊	1951. 2.12	橫 城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제10연대	中 尉	211194	朴 龍 善	1951. 4. 6	이 양 리	〃
〃	少 尉	201408	李 德 鍾	1950.11.26	寧 遠	실종
〃	〃	203406	金 鎭 院	1950.11.26	寧 遠	전사
〃	〃	203413	曺 大 一	1950.11.26	〃	실종
〃	〃	203415	咸 在 眞	1950.11.26	寧 遠	〃
〃	〃	203424	孔 鐵 金	1951. 1.23	忠州大里	
〃	〃	203514	趙 斗 煥	1950.11.26	寧 遠	실종
〃	〃	203836	金 潤 植	1950.11.26	寧 遠	〃
〃	〃	203839	黃 惠 源	1951. 2.12	橫 城	〃
〃	〃	206427	安 泰 成	1950.11.26	寧 遠	〃
〃	〃	206429	金 文 起	1950.11.25	〃	전사
〃	〃	206431	車 武 敬	1950.11.26	〃	실종
〃	〃	207200	梁 大 湖	1951. 3.29	1 육 병	死亡
〃	〃	207286	鄭 好 龍	1951. 2.12	橫 城	전사
〃	〃	207489	朴 尙 秀	1951. 1.14		불명
〃	〃	207896	金 容 守	1951. 2.12	橫 城	〃
〃	〃	208842	李 淳 鎭	1951. 2.12	〃	실종
〃	〃	209228	金 周 淵	1950.11.26		〃
〃	〃	223478	柳 在 凡	1951. 1.16	마 구 령	전사
제16연대	大 尉	202650	楊 華 甲	1951. 2.12	橫 城	〃
〃	〃	203435	禹 相 喜	1951. 2.11	〃	〃
〃	中 尉	200570	金 小 善	1951. 4.30		실종
〃	〃	201349	李 秀 鄕	1951. 2.11	橫 城	〃
〃	〃	201362	朴 盛 業	1951. 1. 1		전사
〃	〃	201364	張 相 協	1951. 2.12		〃
〃	〃	201470	李 逢 春	1951. 2.11	橫 城	전사
〃	〃	202211	朴 弘 彬	1951. 2.11	橫 城	실종
〃	〃	202217	鄭 逢 鎰	1950.11. 1	球 場	전사
〃	〃	202223	崔 英 澈	1951. 2.11		〃
〃	〃	203433	徐 大 成	1950.11. 1	球 場	〃
〃	〃	203445	金 仁 亮	1951. 2.11	橫 城	실종
〃	〃	203451	朴 炳 徹	1951. 2.11	〃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 사 일 자	장 소	구 분
제16연대	中 尉	203841	鄭 敬 錫	1950. 11. 3	平南 신창	전사
〃	〃	204588	朴 萬 謙	1950. 11. 28	孟 山	〃
〃	〃	206401	林 南 植	1951. 1. 15	충북 한수면	〃
〃	〃	206433	張 明 植	1950. 11. 26	寧 遠	〃
〃	〃	207414	安 文 淑	1951. 1. 6	春 川	〃
〃	〃	207419	朴 在 浩	1950. 12. 19	芙 蓉 山	〃
〃	〃	207423	韓 弘 永	1950. 12. 19	〃	〃
〃	〃	208702	李 命 勳	1951. 2. 11		〃
〃	〃	208852	馬 天 熙	1951. 2. 8	橫 城	〃
〃	少 尉	200571	金 炯 九	1951. 4. 30		신종
〃	〃	200572	柳 昊 創	1951. 4. 30		〃
〃	〃	201473	李 濬 哲	1950. 12. 14		〃
〃	〃	203442	徐 康 允	1951. 2. 10	橫 城	전사
〃	〃	203461	曺 圭 相	1950. 11. 16	寧 遠	〃
〃	〃	206405	金 凡 益	1951. 2. 11	橫 城	신종
〃	〃	208847	尹 敬 昭	1951. 2. 12	〃	전사
〃	〃	223625	李 九 凡	1950. 11. 27	맹 산	〃
〃	准 尉	210538	尹 一 鉉	1951. 2. 11	횡 성	신종
제21연대	大 尉	200257	丁 海 杜	1950. 11. 27	寧 遠	전사
〃	中 尉	200258	金 基 鎬	1950. 11. 26		〃
〃	〃	200564	金 周 鳳	1951. 2. 12	恩 山	〃
〃	〃	202663	孫 奭 鉉	1950. 11. 26	寧 遠	신종
〃	〃	203205	元 萬 善	1950. 11. 26		전사
〃	〃	205692	鄭 相 日	1950. 11. 26		〃
〃	〃	206003	沈 相 讚	1950. 11. 28	영 덕	〃
〃	〃	206416	朴 永 益	1951. 2. 12	洪 川	〃
〃	〃	206517	金 珍 洙	1950. 12. 27	春 川	〃
〃	〃	206578	朴 思 洙	1951. 4. 1		〃
〃	〃	207439	金 永 浩	1951. 2. 10	二 外 治	〃
〃	〃	207482	鄭 萬 亨	1951. 1. 7	春 城 郡	신종
〃	〃	207505	金 性 圭	1950. 12. 25		전사
〃	〃	207516	朴 贊 雄	1951. 2. 11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 사 일 자	장 소	구 분
제21연대	中 尉	207873	李 兌 根	1951. 2.11	橫 城	전사
〃	〃	207916	趙 俊 東	1951. 2. 7	〃	〃
〃	〃	207957	曺 季 植	1951. 1. 9	貴 來	〃
〃	〃	208641	朴 考 燮	1951. 2.20	제 천	〃
〃	少 尉	203829	李 炳 德	1950 11.10		실종
〃	〃	206396	吳 興 燮	1950.11.28	寧 遠	전사
〃	〃	208985	朴 華 南	1951. 2.12	洪 川	실종
〃	〃	208996	羅 永 鎬	1950.11.26		〃

9 사단

사단본부	少 領	14719	金 明 福	1951. 2.16		전사
〃	〃	15327	嚴 東 赫	1951. 3.15	三陟 內達里	〃
〃	大 尉	15533	玄 永 植	1951. 2.29		〃
〃	〃	16174	柳 逢 洙	1951. 3.11	臥 溪 里	〃
〃	中 尉	60483	朴 祥 弘	1951. 4.25		실종
제28연대	大 尉	13960	弓 仁 哲	1950.12.27	洪 川	
〃	〃	13964	金 在 秀	1950.12. 7	開 城	전사
제30연대	少 領	13832	柳 在 源	1951. 3. 9	江 陵	〃
사단본부	大 尉	212082	洪 建 杓	1951. 4.19	양 양	〃
〃	中 尉	204727	李 基 泰	1951. 2.19	정 선	〃
〃	〃	204732	崔 相 得	1951. 4. 7	東 菜 里	〃
〃	〃	204771	張 亨 斗	1951. 2. 5	정 선	〃
〃	〃	204789	金 英 培	1951. 1. 3	大 嵐 山	〃
〃	〃	204790	金 鴻 聖	1951. 2.22	羅 匝 里	〃
〃	〃	204802	鄭 炳 紀	1951. 1. 2	洪 川	〃
〃	〃	204815	姜 元 主	1951. 3.15	정 선	〃
〃	〃	204820	權 繼 鍾	1950.12.23	현 리	〃
〃	〃	204826	金 春 德	1951. 3.15	강 능	〃
〃	〃	204845	李 廷 錫	1951. 2.23	江原 美灘里	〃
〃	〃	204850	洪 植	1951. 2.16		〃
〃	〃	204857	盧 堯 愚	1950.12.23	현 리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 사 일 자	장 소	구 분
사단본부	中 尉	204439	李 德 基	1951. 2.21	신 월 리	전사
〃	〃	207923	李 咬 換	1951. 3. 7	南 谷 里	〃
〃	〃	207934	秋 孔 雄	1951. 2.16	정 선	〃
〃	〃	208350	金 昔 祚	1951. 2.21	雲 岩	〃
〃	〃	208383	張 泰 文	1951. 2.23	정선 동면	〃
〃	〃	208453	李 鍾 官	1951. 3.15	정 선	〃
〃	〃	209045	朴 貴 鵬	1951. 2.25	右 谷 里	〃
〃	〃	209294	金 成 極	1951. 2.19	비 교 동	〃
〃	〃	209315	文 炳 學	1951. 2.20	교 암 리	〃
〃	〃	209323	沈 相 鎬	1951. 2.24		〃
〃	〃	209940	魯 道 植	1951. 2.27	石 谷 里	〃
〃	〃	211436	朴 奉 欽	1951. 4.25		〃
〃	〃	211509	鄭 炳 澤	1951. 4. 7		〃
〃	〃	212611	申 長 均	1951. 4.26	인 제	〃
〃	少 尉	204753	元 昌 興	1951. 1. 3	龍 沙 浦	신종
〃	〃	205028	金 基 泰	1950.12.23		전사
〃	〃	207565	朴 仁 秀	1950.12.28		〃
〃	〃	223537	池 正 鎭	1951. 3. 3	本 棟	〃
제28연대	中 尉	204768	金 奇 男	1950.12.23	현 리	〃
〃	〃	204854	金 晶 煥	1950.12.24		〃
〃	〃	207912	朴 茂 桑	1951. 1. 4	大 和	〃
〃	少 尉	208697	崔 福	1951. 3.21		〃
제29연대	中 尉	208596	鄭 龜 相	1951. 3.19		〃
〃	〃	208611	李 星 文	1951. 2.22	羅 田 里	〃
제30연대	大 尉	203996	金 基 官	1951. 3.15	江 陵	〃
〃	中 尉	204856	安 承 澤	1950.12.19	黃 元 里	〃
〃	〃	206000	權 景 卓	1951. 2.15	有 城 西 面	〃
〃	〃	208621	徐 慶 進	1951. 3.30		〃
〃	〃	208668	李 東 榴	1951. 2.20	정 선	〃
〃	〃	209112	金 乘 律	1951. 1.30		〃
〃	〃	209153	柳 東 河	1951. 2.16	정 선	〃

11 사단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사단본부	中 領	10208	裵 正 澈	1950.12. 3	長 城	전사
〃	〃	10794	俞 體 信	1951. 1.12	麗 水 近 海	순직
〃	大 尉	16558	朴 赫 根	1951. 2.21		전사
〃	〃	16562	南 基 琢	1951. 1.30		〃
〃	中 尉	14486	鄭 相 基	1951. 2.15		〃
〃	大 尉	60277	宋 相 久	1950.11.29	雲 峰 山	〃
제11연대	大 尉	16877	鄭 允 根	1951. 3.22	山 淸	〃
제20연대	少 領	11404	金 昌 德	1950.11. 5	노 량 진	〃
〃	〃	11641	李 武 先	1951. 4.13	和順 무등산	〃
〃	大 尉	201808	金 碧 彦	1951. 3.22	昌 平	〃
〃	中 尉	200060	申 哲 植	1951. 1.12		순직
〃	〃	201793	金 晉 鎬	1951. 1.26	淳 昌	전사
〃	〃	202268	李 陣 勳	1950.11. 3	金化 高山	〃
〃	〃	202552	高 在 童	1951. 2.21		〃
〃	〃	204291	金 鍾 泰	1950.12.19	남원 산내면	〃
〃	〃	204347	姜 凡 華	1950.11. 9	任實 신덕리	〃
〃	〃	204364	宋 成 吉	1950.11.13	雙 ○ 面	〃
〃	〃	20P382	卓 雲 煥	1950.11.19	井 邑	〃
〃	〃	204437	李 升 圭	1950.12.28	제 2 병 원	〃
〃	〃	204524	崔 錫 根	1951. 2.26	和 順	〃
〃	〃	204532	左 共 仙	1950.11.28	雲 峰 山	〃
〃	〃	204539	元 哲 孟	1951. 3. 1	完州 雲山面	〃
〃	〃	205113	池 原 申	1950.11.25		〃
〃	少 尉	205103	金 俊 洪	1950.11. 5		불명
〃	〃	212937	韓 良 信	1951. 4.26		사망
제 9 연대	中 尉	201820	尹 喜 文	1950.12.19		전사
제13연대	少 尉	200688	朴 鍾 基	1951 4. 30		실종
〃	〃	200689	南 孝 武	1951. 4.30		〃
제20연대	中 尉	203284	李 順 澤	1950.12.19	和 順	전사
〃	〃	203304	金 玉 峰	1950.11. 6	南原 大江面	〃
〃	〃	203311	金 亞 鐵	1951. 1.21	全南 光川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 사 일 자	장 소	구 분
제20연대	中 尉	204327	朴 三 省	1951. 3.20	2 육 병 원	전사
〃	〃	204440	金 榮 植	1951. 1.16	전 남 장 성	〃
〃	少 尉	223505	李 俊 同	1951. 4.27	양 구	〃

종합학교

종합학교	少 尉	206234	鄭 元 根	1950.11.20		전사
〃	〃	206235	金 錫 鎬	〃		〃
〃	〃	206236	金 東 默	〃		〃
〃	〃	206237	吳 大 煥	〃		〃
〃	〃	206238	方 成 海	〃		〃
〃	〃	206239	吳 錫 八	〃		〃
〃	〃	206240	崔 光 善	〃		〃
〃	〃	206241	李 光 雨	〃		〃
〃	〃	206242	朴 相 信	〃		〃
〃	〃	206243	金 榮 默	〃		〃

기 타

제1군단	中 將	10055	金 白 一	1951. 3.29	江原 大關領	전사
2군사6관구	大 領	14308	朴 斗 成	1951. 1.30		순직
경남지구 계엄사	中 領	12268	崔 鄕 斐	1950.12. 7		전사
전남지구편성 관구사령부	少 領	12457	金 春 錫	1951. 4.12		〃
헌병사령부	中 領	15160	金 仁 泳	1950.12.27		〃
〃	少 領	14590	崔 興 蓋	1950.11.11		〃
〃	大 尉	14590	具 然 吉	1950.12. 1		〃
수도경비사	少 尉	11157	金 正 煥	1951. 2.12		〃
1210병참 근무단	〃	13824	盧 椿	1951. 3.14	慶南 梁山	〃
육군피복창	大 尉	14466	李 法 魯	1950.11. 9	高 山 郡	〃
병 기 대	〃	16263	吉 龍 澤	1950.12. 4	黃 海	〃
육·병참 제2보급중대	中 尉	17418	申 幸 植	1950.11. 1	元山 비행장	〃
제1육군병원	大 尉	16121	南 永 錄	1951. 1. 5		순직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제 5 〃	〃	16186	崔 乙 壽	1950.11.13		전사
제15 〃	少 領	12006	金 弘 度	1951. 2.28		〃
제62통신대대	中 尉	15140	金 鍾 浩	1950.11.23		순직
제71 〃	大 尉	14895	金 鍾 哲	1950.11.25	鐵 原	전사
병기야전대대	大 尉	16570	金 西 旻	1951. 1.16	浦 項	〃
육·야전재무단	〃	17038	高 鎭 守	1951. 1.29	安 東	〃
육·통단	〃	60553	李 煥 春	1950.11.30		〃
육 본	少 領	13535	咸 德 潤	1951. 1. 3	서 울	〃
〃	中 尉	60858	朴 漢 復	1950.11.18		사망
육본직할18대대	〃	16145	李 鐵 重	1950.11.26	德 川	실종
미 7 사단	大 尉	60771	朴 俊 華	1951. 4.23	驛 踏	전사
〃	中 尉	60559	申 久 秀	1951. 3. 2	佳 葉 山	실종
미 2 사단	大 尉	60389	崔 昱 龍	1950.11.10	洛 東 江	전사
미제 2 사단	中 尉	60597	朴 河 洙	1951. 4.25		실종
UN연락장교	〃	60460	姜 炳 甲	1950.11.36	平 北 龍 山	전사
〃	〃	60551	河 昌 一	1950 11.24		순직
1201건송	大 尉	60109	洪 謂 建	1950.11.23		전사
1802기술공병단	少 尉	17600	李 龍 壽	1950.11.26	德 川	실종
제25연대	中 尉	12016	裵 吉 順	1950.12.18	제 7 육군병원	사망
〃	〃	16045	白 建 基	1950.12.25	東 豆 川	전사
〃	〃	17623	韓 養 錫	1951. 4. 7	慶南 龜浦	사망
제100포로수용소	少 領	11773	朴 商 喜	1950.12.23	안 양	전사
1 보 대	大 尉	16190	朴 興 洙	1951. 4.23		사망
(소속불명)	少 領	15493	金 炳 浩	1951. 1. 1		전사
〃	大 尉	16251	崔 昌 洙	1951. 3. 4		〃
제 5 병원	大 尉	201129	黃 花 益	1951. 2.10	牙 山 郡	전사
수도병원	少 尉	206752	金 蓮 峰	1951. 3.18		사망
18 병 원	少 尉	208064	全 大 鎭	1951. 3.26	경주 乾川間	〃
포병20대대	中 尉	201492	趙 明 權	1951. 2.12	橫 城	전사
〃	〃	207294	崔 炳 秀	1951. 2.12	橫 城	〃
포병 8대대	中 尉	201519	田 源 一	1950.11.26		〃
제 5 경비대대	〃	203169	金 洛 鎭	1951. 3 15	金 泉	순직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제6경비대대	〃	208171	張 義 錫	1951. 1.18		전사
11 〃	〃	201745	崔 義 烈	1951. 4. 3	창 원	〃
제1훈련소	〃	201585	李 潤 燮	1950.12.27		실명
〃	〃	202071	南 泰 基	1951. 2. 5	1 육 병	순직
제2훈련소	〃	208222	朴 鍾 河	1950.12.25		전사
1201건공단	〃	203873	林 炳 夏	1951. 1. 1		〃
〃	少 尉	223557	權 根 玉	1951. 2. 4		〃
1103야공단	中 尉	204995	尹 鉉 泰	1951. 4.16	홍 천	〃
〃	〃	206634	高 允 洙	1950.12.31	楊 平	〃
〃	〃	208299	金 鍾 大	1951. 1. 5		〃
〃	少 尉	209441	鄭 然 聲	1951. 1.32	경북 와룡	사망
1102야공단	少 尉	207572	崔 文 奎	1951. 1.15	영주 下望里	〃
〃	〃	207587	金 炳 道	1951. 1.21		〃
2육병원	〃	202843	權 寧 直	1951. 1. 8		〃
보충대대	〃	206090	金 完 淳	1950.11.23		실명
육본 정훈2대대	〃	206713	黃 瑞 禪	1951. 1. 4	大 邱	실종
첩 보 대	中 尉	207504	白 洪 鎬	1951. 2.26	漢江 잠실里	전사
UN특공대	〃	208562	鄭 昌 浩	1950.12.22	神 佛 山	〃
1801 기	少 尉	212744	朴 貴 洪	1951. 4.20		사망
제2군단	〃	201762	李 哲 元	1951. 4.15		실명

<海 軍>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통제부	1 組	8104198	尹 鶴 龍	1950.11. 3	순 천(順天)	전사
〃	兵組長	8101319	洪 龍 萬	1950.11. 5	진 해(鎭海)	〃
〃	1 組	8111219	朴 天 浩	1950.11.16	순 천(順天)	〃
〃	3 組	8111451	鄭 在 榮	1950.11.16	순 천(〃)	〃
원산전진기지	見 水	5101636	姜 守 泰	1950.11.25	원 산(〃)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 사 일 자	장 소	구 분
503 함	3 組	8104854	孫 讓 五	1950.12.21	해 주(海州)	〃
〃	2 組	8102340	金 錦 式	〃	〃	〃
〃	1 水	8112537	徐 成 熙	〃	〃	〃
〃	2 水	5100200	金 華 榮	1950.12.27	〃	〃
해군본부	3 組	8105399	黃 龍 河	1951. 1. 2	부 산(釜山)	순직
〃	1 組	8102299	吳 希 道	1951. 1.14	포 항(浦項)	〃
506 함	2 水	5100279	尹 丙 星	1951. 1.19	동 해(東海)	전사
군산전진기지	兵組長	8102576	孫 君 益	1951. 2. 5	평 택(平澤)	〃
〃	兵組長	8108001	洪 春 基	1951. 2. 5	군 산(郡山)	순직
504 함	2 組	8105239	俞 動 潽	1951. 2.27	부 산(釜山)	〃
510 함	1 組	8102443	李 賢 宗	1951. 3.16	신 도(薪島)	전사
510 함	2 組	8111365	李 相 浩	1951. 3.16	〃	〃
510 함	1 組	8104176	李 碩 夏	1951. 3.16	〃	〃
통 제 부	1 組	8101744	金 文 燮	1951. 4.12	진 해(鎭海)	〃

<空 軍>

將 校

소 속	계 급	성 명	전 사 일 자	장 소	구분
偵察飛行隊	中 尉	權 重 熙	1951. 3.28	江陵上空 L—5	전사
飛 行 團	大 尉	崔 鍾 泰	1951. 4.16	谷山上空 F—51	〃
〃	〃	李 世 映	1951. 4.21	〃 〃	〃

士 兵

	一 中	崔 沃 培	1950.12.18	咸南 金德飛行場	전사
	二 中	金 容 秀	1951. 1. 5		〃
	下 士	韓 龍 俊	1951. 1.10	京仁지구 낙하산강하	〃
	二 兵	金 潤 五	1951. 9.10		〃
	一 兵	金 賢 一	1951. 2.28		〃
	二 中	尹 鎭 儀	1951. 4.15	신미도 대공신호중	〃

<해 병 대>

將 校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제 2 대대	准 尉	8111814	吳 永 南	1950. 12. 18	咸 興
〃	中 尉	80805	金 東 俊	1951. 2. 5	盈 德
제 3 대대	〃	60174	姜 達 煥	1951. 2. 21	寧 越
제 1 대대	〃	60173	韓 德 濬	〃	〃
제 3 대대	〃	60052	金 哲	1951. 3. 8	雍 善
제 1 대대	〃	60034	柳 明 壽	〃	〃
제 3 대대	〃	80823	陳 斗 臺	〃	〃

下士官

제 5 대대	2 等兵組	9100199	李 奉 寬	1950. 12. 4	咸 興
〃	〃	9202572	文 永 錄	1950. 12. 7	〃
제 6 대대	3 等兵組	5102853	金 明 龍	1951. 1. 20	墨 湖
제 1 연대	2 等兵組	9100589	廉 根 泰	1951. 1. 30	
제 1 대대	3 等兵組	8104527	朴 仁 權	1951. 2. 1	盈 德
제 6 대대	3 等兵組	8112694	杜 操 吉	〃	漢 拏 山
제 2 대대	2 等兵組	9100133	韓 英 洙	1951. 2. 5	盈 德
〃	3 等兵組	8112822	金 永 煥	1951. 2. 5	〃
〃	〃	8113042	朴 成 云	〃	安 東
제 6 대대	兵 組 長	8102326	徐 在 潤	1951. 2. 11	漢 拏 山
〃	1 等兵組	8103818	康 也 潤	〃	〃
〃	2 等兵組	8104418	李 海 源	〃	〃
〃	3 等兵組	8112725	李 潤 錫	〃	〃
제 1 대대	2 等兵組	8112953	姜 大 漢	1951. 2. 21	寧 越
제42중대	3 等兵組	9200177	呂 洙 鉉	1951. 2. 24	元山灣 新島
제 1 대대	2 等兵組	9100315	金 正 彰	1951. 3. 8	雍 善
제 2 대대	〃	8112951	朴 淇 玉	1951. 3. 23	洪 川
〃	1 等兵組	8104255	白 湖 默	〃	〃
〃	2 等兵組	9100266	白 琪 湖	〃	〃
〃	3 等兵組	9200161	姜 享 萬	〃	〃
〃	〃	9200094	吳 在 道	〃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제2대대	3等兵組	9200706	張 萬 贊	〃	〃
〃	〃	9200298	郭 鎭 根	〃	〃
〃	〃	9200174	金 相 煥	〃	〃
〃	〃	9200360	丁 允 錫	〃	〃
〃	〃	9200445	黃 金 喆	〃	〃
〃	〃	9200469	金 泰 岐	〃	〃
〃	〃	9200449	玄 宇 必	〃	〃
〃	〃	9200467	康 祥 禹	〃	〃
〃	〃	9200451	康 仁 球	1951. 3.23	〃
〃	〃	9200780	全 外 革	〃	〃
〃	〃	9100679	林 善 福	〃	〃
제3대대	〃	9200840	安 泰 孝	1951. 3.24	〃
〃	2等兵組	9100170	李 龍 水	〃	〃
〃	〃	9100228	洪 淳 元	〃	〃
〃	〃	9100218	沈 仁 輔	〃	〃
제3대대	3等兵組	9200953	李 燦 協	〃	〃
〃	〃	9201067	申 仁 玉	〃	〃
〃	〃	9201062	李 乘 吉	〃	〃
제1대대	3等兵組	9200679	金 上 浩	1951. 3.26	〃
제3대대		9200825	梁 文 奎	1951. 3.30	江 原 道
제5대대	2等兵組	8112965	白 乘 錫	1951. 4.25	開 豊 郡
〃	〃	8112648	李 琮 玉	〃	〃
〃	〃	9100184	鄭 琦 銘	〃	〃
〃	〃	8112421	千 春 植	〃	〃

兵

제3대대	1等水兵	9201186	李 性 七	1950.12.12	元 山
제2대대	〃	9200065	金 源 德	1950.12.15	咸 興
本浦部隊	〃	8112728	朱 千 石	1950.12.16	鹽 岩
〃	〃	5100472	張 鍊	1950.12.30	〃
제3대대	2等水兵	9201685	曺 斗 所	1950.12.30	鎭海病院
제2대대	〃	9200759	夫 太 學	1951. 1. 6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제 1 대대	1等水兵	9200135	李 南 連	1951. 1.17	盈 德
제 2 대대	2等水兵	9200194	李 命 云	1951. 2. 2	〃
〃	〃	9209271	俞 南 石	〃	〃
제 3 대대	〃	9209262	崔 學 哲	1951. 2. 4	〃
〃	〃	9209207	李 草 植	〃	〃
제 2 대대	1等水兵	9200214	李 水 德	1951. 2. 5	〃
〃	〃	5102420	崔 文 贊	〃	〃
〃	〃	9200782	金 太 敬	1951. 2. 6	〃
제 5 대대	見習水兵	5102246	尹 泰 玉	1951. 2.12	榮 州
제 2 대대	〃	9209052	朴 相 燦	1951. 2.13	盈 德
〃	〃	9209028	金 龍 煥	1951. 2.13	盈 德
제 6 대대	2等水兵	5001451	趙 虎 喜	1951. 2.16	鎭海病院
제 3 대대	1等水兵	9201988	朴 在 蓮	〃	第3陸軍病院
〃	2等水兵	9201255	高 在 斗	1951. 2.17	鎭海病院
〃	〃	9209397	趙 萬 均	1951. 2.20	仁 川
제 1 대대	〃	9201772	曹 在 涉	1951. 2.21	寧 越
제 6 대대	1等水兵	5100926	朴 三 祚	〃	漢 拏 山
〃	〃	9200974	洪 植 植	〃	〃
〃	〃	5101029	金 順 九	〃	〃
〃	〃	5101457	金 洪 來	〃	〃
〃	〃	5110161	金 成 深	〃	〃
제 2 대대	〃	9200396	朴 南 植	〃	寧 越
제 1 대대	〃	9201792	鄭 孟 承	〃	〃
〃	〃	9201062	金 東 浩	〃	〃
〃	〃	9209864	金 鍾 澤	〃	〃
〃	〃	9201914	鄭 世 俊	〃	〃
제 2 대대	〃	9200196	權 永 植	〃	〃
제 1 대대	1等水兵	9208921	金 聖 朝	1951. 2.21	寧 越
제 2 대대	〃	9200730	權 龍 伯	〃	〃
〃	〃	2900146	李 泰 榮	〃	〃
〃	〃	9200205	林 鍾 秀	〃	〃
제 1 연대본부	2等水兵	9210054	趙 永 煥	1951. 2.22	榮 州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구 분
제1대대	〃	9100315	金正彬	1951. 3. 5	陸 葬
〃	〃	9208872	南相德	〃	〃
〃	〃	9202194	高東烈	〃	〃
〃	〃	5100997	朴先根	〃	〃
〃	〃	9201425	高成春	〃	〃
제3대대	〃	9209232	禹文鎬	〃	〃
제1대대	〃	9200889	朴達現	1951. 3.17	墨 湖
〃	〃	9201904	張千玉	1951. 3.18	〃
〃	〃	9209174	朴福鍋	〃	〃
제1연대	〃	9201115	文錫順	1951. 3.21	洪 川
〃	〃	9208853	朴龍貴	〃	〃
제6대대	2等水兵	5101442	金永貴	1951. 3.23	鎭海病院
제2대대	1等水兵	9208989	邊基德	1951. 3.23	洪 川
〃	〃	9208971	康正烈	〃	〃
〃	〃	9202710	具貴奉	〃	〃
제3대대	〃	9209174	李德淸	1951. 3.24	〃
제1대대	〃	9202663	朴珠鎔	〃	〃
제2대대	〃	5102470	高永順	1951. 3.25	〃
제3대대	〃	9209768	金基彦	〃	〃
제1대대	〃	5102739	李乙濟	1951. 3.26	〃
제3대대	2等水兵	9209224	金鍾錄	1951. 3.29	江 原 道
〃	1等水兵	9202320	高春資	1951. 3.30	洪 川
제6대대	2等水兵	5101330	金東現	1951. 4. 5	鎭海病院

4. 年 表

自 1950. 12. 1
至 1951. 4. 30

년월일	주 요 사 항
12월 1일	**軍 事**
	○長津湖의 美第7師, 美第1海兵師, 철수개시
	○美第8軍은 第24師 제5연대 및 英陸軍 1개대대의 지원으로 淸川江 橋頭堡로부터 철수.
	○淸川江附近에서 壓倒的 優勢인 中共軍과 UN軍 激戰.
	○春川 再奪還.
	○美空軍 1日 200回 出擊.
	○極東空軍司, 美제10군단 철수 작전지원(보급물공수) 및 中共補給路遮斷.
	政 治
	○國會의 韓國統一 復興對委, 4개의 小分科委員會 構成.
	○私刑禁止法, 附逆行爲特別 處理法, 地籍法, 物品稅法, 登錄稅法, 臨時租稅措置法, 改正法律等 公布.
	○트大統領의 原子彈使用言明에 UN各國代表는 平和的으로 中共을 韓國에서 撤退시키는 方案을 講究.
12월 2일	**軍 事**
	○長津湖에 中共軍壓力加重 美海兵隊와 熾烈한 戰鬪.
	○UN軍, 長津湖地上部隊 支援에 全力 空軍掩護로 孤立된 各部隊, 再連絡.
	○美7사단 소속 제31, 32步兵聯隊, 下碣隅里에 撤收.
	○鐵原東南方, 共產軍 집결.
	○平壤 東北方 20마일地點의 成川에 敵 6개사단 이상의 兵力으로 壓力加重.
	○平壤駐屯UN軍, 今夜부터 撤收開始.
	○東北戰線의 UN軍, 元山 西北 42마일 地點과 元山, 平壤을 連結하는 補給路上의 陽德일대 위해.
	○敵제41사, 朱乙에 到達, 敵 1개 연대 靑津에 侵入.
	○제5사단 春川突入.
	○제7사단 平壤東쪽부근 勝湖里에서 遂安—市邊里—漣川까지 지연작전.
	○美해병제5, 제7연대 柳潭里 撤收개시.
	○極東空軍司, 美2사단과 접전하는 敵에게 763回 出擊 명목.
	政 治
	○美代表, 소련불락 不參裡에 各國代表와 秘密會談.
	○UN總會 ① 소련이 中國을 侵入했다는 國府提案(政委提出)을 可決 ② 和蘭代表, 國府는 滅亡시켜 버리고 다시는 UN에서 國府에 관한 問題를 討議 말자고 發言.
12월 3일	**軍 事**
	○中共軍 약 6개師, 美海兵隊와 步兵部

년월일	주 요 사 항	년월일	주 요 사 항
	隊를 包圍, 彼我激戰中(東部).		○西北戰線의 右翼에 對한 中共軍의 浸透계속—中共軍 安州·新安州에 集結中共 正規軍, 北共軍 및 유격대가 平壤 西北方 수십마일 지점인 江東近方에서 合流.
	○東部戰線의 國軍, 吉州—明川—含水線에서 部隊 整備中.		○B29 新安州의 敵 보급기지에 120톤의 폭탄 投下.
	○長津湖附近에서 中共軍, 美軍포로 27명, 또 석방(AP5).		○제5空軍소속 폭격기와 전투기 180회 출격.
	○西部戰線의 UN軍, 順川, 肅川에서 撤收, 中共軍平壤指向 南下態勢.		○B26경폭기, UN軍의 철수엄호, 共產軍 폭격.
	○平壤 東北方 43km의 成川을 通過한 中共軍, 了波地區에 進出, 三登附近에 침투한 中共軍과 UN軍 激戰中.		○海兵第1, 第3大隊 馬轉里에서 元山으로 이동 元山港 방어.
	○B29폭격기, 新義州 近方의 敵軍攻擊 B29, B26 定州폭격, 또한 軍隅里西方의 中共軍 大軍輜부대 공격.		○제1사단 평양에서 沙里院으로 撤收.
	○海兵第2大隊 地境으로 이동咸興 地區防禦.		○長津湖 美해병제5, 제7연대 血路打開 下碣隅里에 撤收.
	海兵 第5大隊 黑水里로 전진.		政 治
	○空軍兵力및 裝備 北韓 各飛行場에서 大田基地로 撤收 集結.		○平壤市 全行政機關, 軍事機關, 民間團體 撤收.
	政 治		○UN韓委, 政府要員과 非公開會議.
	○現金 納稅는 通貨改革 차질을 招來하므로 地稅現物 納入에 大統領, 特別談話發表.		○UN印度代表와 中共代表間에 會談계속, 各國代表.會談結果를 焦燥하게 대기.
	○國會 緊迫한 戰局에 對備, 非常國會召集.		○中共의 韓國侵略을 규탄하는 6개국決議案 총회에 提出.
	○中國防長官, UN에 原爆使用을 要請,		○UN加奈陀代表, 今朝의 加外相 연설문 인쇄지를 UN本部서 各會員에 배부—內容, 韓國 以外 西歐, 亞細亞에서의 原子彈使用不可.
12월 4일	軍 事		○印度 UN代表—中共, 停戰의 先決條件으로 UN軍의 38°線까지의 후퇴를 要求說明하였다고 言明.
	○맥元帥, 中共이 北韓에 百萬大軍 集結中이라고 言明.		軍 事
	○中共軍, 咸興 및 元山에 압력 가중, 黑水里의 美第3師 所屬部隊 撤收.	12월 5일	○美國防省代辯人, 西北戰線의 UN軍의
	○東北戰線의 國軍, 戰線整備中		
	○4日 현재 戰線(西部)—永柔—成川—江東—三登을 연결한 선.		

년월일	주 요 사 항
	撤收는 성공이라고 言明.
	○中共軍, 平壤侵入.
	○中共軍, 大同江渡河, 南進開始.
	○中共軍, 谷山地區에 到達.
	○美제5空軍, 24시간 出擊, 西部戰線에서 中共軍 2,500 살멸.
	政 治
	○統一完遂 총궐기국민대회 거행.
	○石炭 23,000톤 入荷.
	○新任 UN韓委議長 「헨레이스톤」代表 最大 援助하겠다고 서울市民에게 聲言.
	○國立博物館, 重要物品釜山으로 疎開命令—出發.
	○6個國共同提案 UN總會上程案, UN運營委員會서 10:2로 可決, 美代表 UN總會에 直時行動을 勸議.
	○UN各國代表, 中共 政權의 反應待機
	○濠細亞, 「아랍」 13개국(「아프가니스탄」「버마」「埃及」「印度」「인도네시아」「이란」「아랍」「레바논」「파키스탄」「比」「南아라비아」「시리아」「네팔」) 中共과 北共에 대해 38°線 以南 不進擊의 聲明 發表要請.
12월 6일	**軍 事**
	○東北戰線에서 UN軍 아직 未撤收, 특히 長津湖附近의 UN軍, 敵의 包圍網을 突破, 後方戰線과의 連結에 성공.
	○西北戰線의 제8군, 新防禦線에 撤收 敵의 南下待機.
	○谷山再奪還.
	○제5空軍, 平壤에 侵入하는 敵을 痛擊, 敵 約 3,000명 이상 殲死.
	○「코린스」 美陸軍參謀總長, 韓國 戰線에 原爆을 使用할 戰略的 價値없다고 言明.
	○海兵第5大隊 黑水里에서 咸興으로 이동, 咸興地域 방어.
	○美해병제1사단 下碣隅里 撤收.
	○해군 제1수송선단 鎭南浦에서 美軍 1,700명, 피난민 6,000명, 搭載出航 椒島도착.
	政 治
	○美陸軍參謀總長 「코린스」장군 李大統領 訪問.
	○UN總會에서 美等 各國代表, 中共의 不法侵略을 糾彈, 韓國問題一大吾戰.
	○UN總會, 中共의 對韓武力干涉을 討議하기로 決定—55對5, 棄權 4, 소련불럭 反對, 印度, 「버어마」 棄權.
	○韓國에 停戰命令宣布를 「유우럽」聯盟事務總長 「엣삼·리샤」氏, UN事務總長 「리」氏에 提案.
	○UN總會, 中共을 阻止시키기 위하여 UN의 措置를 要求하는 6개국의 提案을 政治委員會에 回附할 것을 51對5로 可決, 소련불럭 反對投票 「아프카니스탄」, 「印」, 「인도네시아」, 「버어마」, 4국棄權. (6개국이란 美, 英, 佛, 「쿠바」, 「노르웨이」, 「에쿠아돌」)
	○蘇 「비신스키」外相, 政委서 演說—中共軍으로 하여금 38°線에서 停止케 하자는 13개국의 平和呼籲를 비난.
	○中共의 即時撤退 要求를 包含한 6개국 新決議案政委에 上程.

년월일	주 요 사 항
12월 7일	**軍 事**
	○UN空軍, 長津湖 左端을 猛爆, 東北戰線의 UN軍救出作戰 進陟.
	○UN軍, 惠山鎭地區에서 撤收·淸津占領한 國軍首都師團도 對敵戰鬪 계속하면서 撤收中.
	○中共 제65군全部隊, 下碣隅里附近에 集結.
	○國軍, 殘敵擊滅次 楊口, 華川에 肉迫
	○幅 58마일의 新防衛線 鎭南浦—谷山에 이르는 線에 構築.
	○南下하는 敵의 主力, 谷山에 集結中
	○UN海軍, 元山지구 함포사격, 西海岸에서는 英 和함대 作戰中.
	○美海軍폭격기, 東北戰線의 中共軍을 攻擊.
	○B29, 長津湖 지구에 500파운드의 폭탄 736개 투하, 또 一方 滿浦鎭에 88톤 投下.
	○美, 空軍 B-25 폭격기隊, 敵의 수송대 포착 폭격.
	○美 空軍, 都合 498回 出擊.
	○海兵 第3大隊 元山에서 釜山을 向하여 出航.
	○美해병 제1사단 古土里에 撤收.
	○해군 1차 철수작전 개시, 제3사단 및 수도사단 一部兵力을 탑재 城津港 出航.
	○美空輸司 C—119수송기로 M—2踏橋를 유사이래 最初로 美해병 제1사단에 空中投下.
	○空軍本部 및 各 部隊 大邱基地로 이동.

년월일	주 요 사 항
	政 治
	○今日부터 38°線以南 全地域에 非常戒嚴宣布.
	○서울市 管下 超非常警戒.
	○駐中大使에 李範奭氏 任命.
	○糧穀證券法等 公布.
	○中共軍의 韓國撤退에 관한 6개국案, UN政委에서 最優先討議할 것을 決定 42對 5.
	○UN政委, 中共軍撤退案 討議 開始.
	○UN政委, 韓國代表의 討議參加를 48對 5로 可決.
12월 8일	**軍 事**
	○長津湖美軍, 血路打開에 熾烈한 戰鬪展開, 美海兵隊, 美제7사단 소속부대는 古土里까지 脫出.
	○美제3사단, 包圍된 美軍부대 救出作戰 展開. 其他 東北戰線의 美步兵부대와 海兵隊 東海岸에 集結中.
	○美제25사단 先遣部隊, 平壤 以南 5마일에 陣地確保.
	○UN軍과 國軍, 兼二浦—中和—遂安—谷山—新溪의 線에서 防衛陣地堅持.
	○伊川方面의 北共軍부대, 재편성.
	○東北戰線에서 美함재기, 지상군 엄호 中共軍 1,300명 섬멸.
	○UN空軍, 長津湖에서 脫出하는 UN軍部隊 掩護, 敵에 一大攻擊을 加함.
	○古土里 南方 50마일에서 中共軍과 激戰.
	○和蘭 전투부대의 1개대대, 白耳義와 희랍 전투부대도 전선에 도착.
	政 治

년월일	주 요 사 항	년월일	주 요 사 항
12월 9일	○제8회 臨時國會召集. ○李大統領, 美에 53萬 武裝要求. ○李成傑副司令官, 婦女子釋放는 自由라고 言明. ○大韓女子青年團 發足(團長 毛允淑 女史). ○UN政委에서 比外相「로무로」氏, 中共은 蘇聯走狗라고 비난 연설. ○亞州 15개국, UN에서 會合—中共 38°線 停止確信. (15개국은 泰, 土耳其와 中共에 平和呼訴한 13개국) **軍 事** ○長津湖의 UN軍(美海兵隊, 제7사단 步兵部隊, 英海兵隊) 包圍하는 中共軍과 激戰. ○中共軍 4개師 以上의 兵力, UN軍 撤收路에서 대기하여, 제2의 包圍網設置企圖, 救援부대, 美제3사단 구원작전 進陣. ○惠山鎭에 突入한 美제7사단 所屬 17연대 및 國軍소속부대도 中共軍에게 包圍. ○UN諜艦船, 東北戰線의 UN軍 掩護 및 補給確保를 目的으로 興南近海에 碇泊中. ○UN空軍, 中共軍 輸送隊爆破, 新義州 上空에서 蘇聯 제트기와 交戰, 敵機 2대격파, 東部戰線 長津湖에서 包圍된 UN軍撤收路, 丘陵지대의 中共陣地에 地上砲兵隊와 呼應하여 猛擊. ○海兵第1大隊 我軍의 最後 撤收부대로서 元山出航 釜山 航進.	12월10일	○제8사단 鏡川으로 向하면 進路를 바꾸어 高原新경유 서울로 撤收. ○美해병제1사단 古土里에서 撤收. ○ 해군 2차철수작전개시 美제3사단 兵力 및 피난민 7009명을 수송선 Lane Victory 호에 탑재출항(원산항). **政 治** ○非常戒嚴地域內에 限하여 逮捕 其他에 令狀 不必要. ○留守廳 調査實施, 617명檢束. (서울) ○「워커」中將言明—싸우지않고 서울을 抛棄하지 않는다. ○中共에게 38°線停止를 呼訴한 13개국 代表會合. ○伍中共 代表, 印度 UN代表에게 38°線停止案 檢討中이라고 言明. ○「리」UN事務總長, 中共 代表와 會談 UN 各國代表, 韓國戰爭終了를 爲해서 奔走. ○林外務長官은 UN政治委員會에서 UN이 對中共宥和策 내지 屈服은 不當하다고 演說. ○印代表, 中共과의 協商開라고 言明. ○UN政委에서 蘇代表「비신스키」, 外國軍의 韓國撤退와 韓國問題를 韓國人 自身에게 맡기자고 提案. **軍 事** ○長津湖 先鋒部隊, 敵包圍網突破코 興南에 到着. ○敵 咸山에 侵入 ○敵 海州에 侵入 ○大同江 渡河한 北共軍, 黃州 沙里院에 接近, 黃海道 西海岸 一帶의 敗殘

년월일	주 요 사 항	년월일	주 요 사 항
	兵, 安岳方面에 集結.		○제1사단 35°線을 넘어 高浪浦로 撤收.
	○UN空軍 291回 出擊.		政 治
	○鴨綠江上空에서 一大空中戰, 蘇製제트機 1대 격추.		○李大統領 記者會見談—UN의 早速한 中共斷罪 決定 要求.
	政 治		○李大統領, 首都서울 死守를 言明.
	○人權記念日.		○6, 25사변 계기로 行方不明된 議員 除外하고 現在在籍議員數 178명, 臨時國會 第一次會議 開催.
	○50萬 以北同胞, 自由찾아 南下避難中		○「위커」中將, 李大統領 訪問 要談.
	○北韓同胞 피난민, 延白에 集結收容.		○金日成, 北平서 中共軍 激勵放送
	○제8군, 서울防衛의 言質준 일 없다고 發表.		○13개국平和案, 各國 意見差異로 難關 逢着, 그 內容 ① 적당한 시일로 부터 戰鬪를 停止할 것, ② 그런 후 停戰線을 設定하고 이에 관련된 모든 措置를 取할 것, ③ 또 그런후 美·英·佛·蘇·埃·印 및 中共代表와 會談하여 平和的 解決方法을 建議할 것.
	○「리」UN事務總長, 中共과의 妥協可期라고 談.		
	○美英線, UN經社委에 捕虜調査委員團 設置를 提案.		○UN 社會人道委員會에서 捕虜調査委員會 設置를 可決.
12월11일	軍 事		○印 UN代表談—中共代表 伍가 中共政府는 爾後交涉의 基礎로서 中共軍을 38°線에 停止시킬 것이라고 言明하였다.
	○長津湖 撤收作戰 完了, 中共軍 3개사단을 격파.		○UN白耳其代表「예루살렘」의 安定을 爲한 基礎調査의 使節派遣을 提案.
	○UN軍 殘留部隊, 계속 咸興平野에 집결.		
	○中共軍 元山 通過 南下中	12월12일	軍 事
	○北共軍 沙里院에 侵入, 中共軍, 谷山—遂安—新溪에 到達.		○제8군사령부 발표—UN軍, 38°線以北에서 作戰中.
	○敵 自動車部隊, 城津에서 南下.		○咸興, 興南橋頭堡를 夜襲한 中共軍, UN軍 守備隊에 依하여 擊退.
	○UN空軍, 沙里院 平壤等 猛爆.		○敗戰 北共軍, 再編成되어 沙里院에서 南下, 春川方面의 北共軍撤退, 鐵川 方面에서 抱川方面으로 南下하는 北共軍
	○UN空軍, 延 400대出擊, 新義州·平壤에 이르는 敵의 主要補給路 猛爆.		
	○B-29 19機, 新義州에 500개의 일반爆彈投下.		
	○美步兵 제2사단 被害, 死傷者 8,000명, 長津湖 脫出의 美海兵隊 損害 死傷者 6,000명		
	○中共軍 損害 150,000명		
	○맥將軍, 韓國戰線視察.		

년월일	주 요 사 항	년월일	주 요 사 항
	과 國軍激戰中.		UN軍 撤收하면 中共軍도 撤收한다고 言明.
	○해군선단, 육군제3사단兵力을 九龍浦에, 首都師團 釜山에 수송, 상륙시킴.		○新特別七國委員會, 中共代表 問題를 檢討.
	政 治		○UN總會, 原子力 管理委員會 設定.
	○서울市에서 UN 大韓民國承認記念式擧行.	12월14일	軍 事
	○韓國停戰決議案, 美英은 支持, 國府는 반대.		○東部戰線의 UN軍 海上 撤收開始.
	○韓國停戰印度案, UN政委 討議에 優先權獲與키로 可決—國府, 泰, 「에쿠아돌」 土耳其 等 4개국은 棄權, 蘇聯불럭 反對投票.		○淸津奪還한 國軍首都師團 및 美第7師團所屬 17연대도 興南에 歸還, 25,000의 美海兵隊 및 美第7사단, 包圍網 脫出 興南橋頭堡에 撤收.
	○13개국, UN政委에 3人委員會設置, 平和會議開催等 兩案을 提出.		○海空軍掩護下, 東部戰線의 UN軍, 撤收作戰은 圓滿進陟中.
12월13일	軍 事		○伊川—鐵原을 連하는 山岳地帶에서 國軍, 北共軍과 對峙, 史倉里및 華川 楊口 方面에서는 彼我 激戰中.
	○咸興周邊에 來襲한 敵, 즉시 격퇴.		○海州를 通過한 敵, 海岸線을 따라 延安方面으로 進出.
	○伊川, 新溪方面의 敵逆襲隊와 合流企圖, 華川, 史倉里, 楊口方面의 敵 제25, 27, 35연대와 격전중의 國軍, 敵의 攻擊을 制止.		○3,400명의 人員, 鎭南浦로부터의 撤收에 成功, 同人員中에는 軍醫 看護員, UN軍과 協力한 北韓政客, 負傷兵, 少年團, 中共捕虜, 避難民, 美軍人 等이 包含.
	○B29, 平壤 爆擊, UN전투기 등, 적의 後方基地補給線 爆碎.		○美機, 新義州上空에서 蘇製제트기 2대 격파.
	○美國防省發表—7日以來 13日 까지의 美軍損害는 死者 5,570명을 포함하여 33,870명.		○美제19전폭전대의 B—29機 平壤操車場 맹폭.
	○제7사단 原州에 集結.		○連絡비행장의 空中撤收作戰의 掩護支援作戰.
	政 治		政 治
	○ECA使節團長 「마이어」博士, 서울着.		○滅共總武裝國民大會 盛況.
	○UN總會—西南아프리카領 관리기구 설치를 可決. (51대 5, 國府 棄權, 蘇 불럭 反對)		○UN總會, 「아시아·아랍」13개국 韓國停戰決議案에 依하여 3人委員會 任命
	○UN 蘇불럭代表 「마리크」, 韓國에서		

년월일	주 요 사 항	년월일	주 요 사 항
	을 52 : 5로 可決(總會議長, 加外相 印度, UN代表의 3人)		○UN停戰委員會, 事務開始.
	○1951年度 UN總會 會議를 歐洲에서 開催하기로 決定.		○UN總會, 停戰委의 報告時까지 休會,
	○UN, 蘇에 대하여 日 獨 捕虜의 名簿 公表를 要請.	12월16일	**軍 事**
	軍 事		○中共, 咸興, 興南地區에서 再次來攻.
12월15일	○中共軍, 東部戰線의 UN軍 橋頭堡에 集團攻擊, 美第10군단의 猛攻으로 거의 殲滅.		○UN軍, 咸興撤收.
			○史倉, 陽口, 華川地區 戰鬪中.
			○殘敵, 五臺山에서 준동중.
	○中部山岳地帶의 敵, 新溪—伊川으로부터 市邊里 附近에 進出.		○春川地區 國軍, 反擊.
			○敵, 仁川方面 進出.
	○漣川西北方과 史倉里—華川—楊口를 連하는線에서 敵과 國軍 激戰中.		○敵, 市邊里에서 再次 南進企圖.
			○UN軍, 38°線 以北 敵陣地, 猛砲擊(西部).
	○西部戰線의 敵, 海州, 延安을 거쳐 南進中.		○美第5空軍, 平壤地區 猛爆.
			○西北戰線에서의 UN軍과의 接觸은 北共軍뿐.
	○海州地區 猛爆, 建物 115를 破壞 또는 損傷.		○海兵隊 鎭海 集結.
			○美해병 제1사단 馬山에 집결 美第8군의 예비대.
	○中共軍大部隊, 平壤地區 南方에서 南方과 東方으로 移動.		**政 治**
			○國民防衛軍法案, 國會通過.
	○空軍出擊 385回, B29, 24機 宣川 爆擊.		○UN總會停戰案 支持 멧세지, 國會에서 通過.
	○제7사단 洪川으로 突入.		○UN 中共代表 伍修權, 美國의 停戰提案에는 反對, 「비신스키」의 和平案을 支持하며 아울러 美軍의 朝鮮 撤退. 中共의 UN 加入을 要求한다고 記者會見에서 聲明 發表.
	○제6사단 東豆川 北쪽에서 38°線 防守陣 탈환.		
	○海兵제2, 제5대대 連浦비행장에서 이북, 釜山水營비행장 도착.		
	○해군제3차 칠수작전개시 興南에서 美	12월17일	**軍 事**
	해병1사단 兵力탑재, Bay field호 先頭로 釜山으로 出航.		○平壤地區 中共軍, 別無變動.
	政 治		○北共軍, 真空地帶 繼續 南下, 新陣地接近企圖(西北).
	○政府, 國會에 附逆行爲 特別處理法 改正案 提出.		○美第5空軍, 12월 9일 以後週間戰況—出擊 2,046回, 新型機 F84 「선더불

년월일	주 요 사 항
	트」제트機 出現, 共産軍 2個 聯隊以上 投入, 敵 MIG 70臺와 遭遇.
	○B29, 元山爆擊(500파운드 136톤 投下), 平壤 鎭南浦等地 爆擊.
	○F86新銳機, 參戰.
	MIG-15 敵戰鬪機 최초로 격추.
	○해군 제1군단 병력을 남제하고 삼척으로 出航.
	政 治
	○李大統領, 春川·原州地方 戰線視察.
	○11月 9日 新義州 爆擊以來 沈默中이던 北共放送, 今夜부터 亘界에서 再開.
	○UN 三人委員會, 會合.
	○三人委員, 周恩來에게 秘密電文 發送說.
12월18일	軍 事
	○興南 東北側 勞方이 北共軍임을 確認.
	○破興西方 彈藥庫를 艦砲 射擊.
	○鐵川方面 國軍, 敵을 攻擊. 鐵川 東南方 9마일地點, 敵少數 侵透企圖하였으나 即時擊退.
	○平壤, 華川 道路上, 敵의 交通 活潑.
	○B29, 鎭南浦—新安州間 敵 野營地帶 攻擊, 敵 被害 甚大.
	○滾 空軍, 宣川鐵橋 爆擊.
	政 治
	○西海岸 野砲部隊 先遣隊, 釜山入港.
	○租稅買上資金 74億4,490萬圓 放出.
	○三人委員會, 任務 終了時까지 UN政委의 中共 韓國平和問題 討議延期決定.
	○三人委, 中共에 會談同意 傳達.
12월19일	軍 事
	○我軍, 興南 橋頭堡 防衛陣地強化中.

년월일	주 요 사 항
	敵 攻擊 漸次 增大나 我軍 砲擊으로 敵攻擊弱化, 敵의 再次에 걸친 攻擊粉碎.
	○西海岸—寧陽間 全防衛線 完成.
	○敵軍, 開城周邊에 浸透企圖.
	○我 陸海空軍大力, 依然 敵의 進出制止(「미조리」, 「벤트윈」, 「코레스터」 등 艦艇參加).
	○戰果 敵 1,436殺傷, 建物 375破, 車輛 82破.
	○加奈陀 步兵第2大隊 到着.
	政 治
	○10億圓 僞裝團, 合同搜査本部에서 檢擧發表.
	○秋穀 收集成績 19日 現在 26%.
	○新年度 政府豫算案 提出, 新年初까지 遲延을 大統領, 國會議長에게 通告.
	○UN 平和監視委員會, 美代表「그로스」大使任命.
	○UN三人委, 對中共 第二次停戰 要請發送, 中共側 依然 無回答.
	○UN中共代表歸國.
12월20일	軍 事
	○敵, 攻擊 依然 繼續이나, 그의 消耗漸次增大.
	○西部 何等異常無(行候戰程度), 臨津江 7마일地點에 北共軍 出沒中, 全谷—楊口, 小規模戰鬪 散發的으로 展開中.
	○中部前線에서 18개의 北共師團 및 旅團을 確認.
	○해병대 전투부대 재편성, 제1연대와 독립제5대대로 분리편성.
	政 治

년월일	주 요 사 항
	○新聞記者 總蹶起大會 (서울市公館에서).
	○國會, 定期開會.
	○李大統領, 最後까지 首都防衛를 強調.
12월21일	**軍 事**
	○11月 27日 中共侵入 以後, UN軍 損害 13,000 敵損失 10對1.
	○北共軍 約3個大隊, 春川地方에서 來攻
	○美 海軍「로켓트」艦, 最初로 行動開始 (東北).
	○東部戰線의 我 橋頭堡, 北方에 대한 北共軍에의 攻擊 繼續, 北共 2개師 背後에 中共 3개師 存在.
	○F86, 蘇機 2臺와 空中戰, 其中 1機에게 損害를 줌.
	○해군 : 흥남에서 美7사단 兵力탑재 出航.
	政 治
	○國民防衛軍 設置法, 國會議員 在籍數에 關한 特別措置法 公布.
	○UN 新韓委, 業務報告.
	○北共, 平壤放送 再開.
	○「리」總長, 侵略에 繼續 對抗할것을 言明.
	○三人停戰委, 北平에 回答을 要求.
12월22일	**軍 事**
	○連川—金化, 金化—華川 地帶에 相當數의 中共軍 集結 移動中.
	○F86 제트機, MIG 156臺 擊墜.
	○第5空軍의 戰果—延出擊 250臺, 敵 死傷 25), 破壞建物 120棟.
	○超空中要塞機, 平壤等地 大爆擊.
	○美軍 損害—38,325명 (死亡6,432명, 負傷 27,012명)
	○美 海軍代辯人談—韓國水域에 9개국 艦船이 出動.
	政 治
	○李大統領, 汶山方面視察.
	○陸軍 中央野戰郵遞局(陸軍本部內), 海軍 中央野戰郵遞局(海軍本部內) 新設 遞信部令13號
12월23일	**軍 事**
	○「워커」中將, 前線視察 途中 自動車 事故로 急逝.
	○「워커」中將 後任에 「매튜.비.릿지웨이」中將 任命.
	○第3軍團戰果(15—20) 敵 射殺 19,000 捕虜 其他 鹵獲品 多數.
12월24일	**政 治**
	○大統領, 駐韓 UN軍에 感謝를 表示.
	○UN 三人委員會, 中共拒否 通知接受.
	軍 事
	○國軍을 包含한 12萬 UN軍 및 10萬 避難民, 興南地區 完全撤收 成功.
	○中共, 春川東北方에서 南下企圖하였으나 擊退.
	○中共軍, 楊口 38°線附近 出沒.
	○開城地區에 中共 相當數의 兵力集結中.
	○高浪浦 附近에서 我偵察隊와 中共衝突.
	○B29, 平壤 大爆擊, 其他 伊川, 鐵原等地도 大爆擊.
	○敵, 全線에서 近日中, 攻勢準備 繼續機微.
	○해군 : 흥남에서 美3사단 잔류 병력

년월일	주 요 사 항	년월일	주 요 사 항
	탑재, 出航.		를 殲滅, 殘餘捕虜.
	12월중 해군 총철수 수송량		○第8軍報告—中共 서울을 目標로 38°
	韓美軍兵力 : 105,000명		線 以南 進擊企圖라고.
	피 난 민 : 91,000명		○開城地區 敵兵力 계속 증강중.
	차 량 : 17,500대		○西部戰線에서 接敵狀態 平穩.
	화 물 : 350,000톤		○高浪浦方面 戰鬪 熾烈.
	○B29폭격기 敵陣 夜間폭격 興南, 城津, 元山 橋頭堡에서 美10군단 海上撤收 掩護.		○空軍 700回 出擊, 開戰後 記錄, 建物 1,000破壞, 殺傷 800명.
	政 治		**政 治**
	○李大統領, 서울市民에게 避難을 命令.		○李大統領, 政府移轉說 否認.
	○國會, 全員委員長에 李甲成氏 當選.		○趙內務部長官, 政府遷都 決定說을 否認.
	○麻浦刑務所에서 附逆者 特赦令 傳達式.		○學兵 出征壯行會, 於서울.
	○李大統領 UN軍 第9軍團訪問.		○李大統領, 제1사단장병 表彰.
	○UN, 三人委, 會合		○UN本部, 「뉴—욕」市 新築 廳舍로 移轉.
	○「아시아·아랍」 12개국 代表(13개국 中比不參) 緊急會.	12월27일	**軍 事**
12월25일	**軍 事**		○春川東北方 冠堡里, 內坪里사이에 中共 浸透企圖를 我軍 阻止코, 激戰 展開中, 國望峰附近 偵察戰 漸次 活潑.
	○東海岸 영초에서 包圍當했던 我軍, 包圍網 打開코 友軍과 連絡.		○高浪浦方面 敵, 我軍砲火로 分散.
	政 治		○戰鬪機및 爆擊機, 敵800殺傷 「릿지웨이」中將, 在韓 現地司令官으로 全 UN軍 統合指揮權 掌握.
	○軍法會議關係 附逆者 減刑 혹은 特赦		○「릿지웨이」中將, 前線視察時, 新戰術로 中共侵略野慾을 言明.
	○國會 來年 1月 10日까지 休會.		**政 治**
	○李서울特別市長, 非戰鬪員 疎開勸告.		○「릿지웨이」將軍 金浦着. 大統領 禮訪 前線視察, 또 申國防長官과 協議, UN 新韓委와도 協議.
12월26일	**軍 事**		○張副議長, 國會 서울殘留를 言明.
	○全戰線, 接敵狀態, 漸次 活潑.		○UN韓國停戰委, 그 失敗에 대한 報告書起草.
	○東北戰線에서 撤收한 UN軍(韓國軍 包含) 韓國東南部에 上陸完了.		
	○漣川附近 中共軍 集結中.		
	○春川方面에 北共軍과 交戰.		
	○全谷地方 我9861部隊, 中共 2개 中隊		

년월일	주 요 사 항
12월28일	**軍 事**
	○我軍, 春川東北方에서 內坪里附近 北共軍에 對하여 猛擊.
	○西海岸—高浪浦線에 中共 제39, 50, 66軍 集結配置中.
	○高浪浦—鐵原—金化線에 中共 제38, 40, 42軍 漸次 南進企圖.
	○中共제40軍의 精銳, 38°線突破코 開城占領後 繼續 南下中.
	○美제5空軍 戰鬪機, 鐵原, 金化, 全谷等地 猛擊.
	○延出擊 728機, 中共 50機(제트機) 出現.
	○美제트機, 敵 MIG—15, 1臺 擊墜.
	○「릿지웨이」司令官, 中部戰線視察.
	政 治
	○李서울特別市長, 市民에게 安心하고 生業에 運進하라고 談話發表.
	○李大統領, 第6師表彰.
	○戒嚴令 公布.
	○UN新韓委, 戰災民援助에 關하여 UN에 報告.
	○「아시아·아랍」12개국 UN 代表 緊急會議.
	○UN, 中共은 長期間 侵略準備를 하고 있었다는 맥將軍의 報告를 公開.
12월29일	**軍 事**
	○春川東北方 敗敵 再集結中. 我 前哨部隊 38°線北方 8km 地點까지 進出. UN軍 戰略的 轉進(東端에서)中共軍 東方으로 移動開始.
	○鐵原 漣川, 敵의動態 漸次 活潑.
	○高浪浦方向 少數 敵 偵察隊 來攻이나 이를 擊退.
	○中共, 臨津江에 架橋企圖.
	政 治
	○金交通部長官, 美軍指示에 依하여 不遠 漢江鐵橋工事 再開를 言明.
	○「릿지웨이」司令官, 前線視察後, 記者團 會見코, 窮極的 成功에 對한 全幅的 自信表明.
	○武功勳章令中 改正件 公布.
	○「리」事務總長 新年辭에서, UN에 對한 信賴를 要望.
12월30일	**軍 事**
	○UN軍 全戰線에서 38°線以南 16km 地點까지 撤收.
	○共產軍 38°沿線에서 重砲, 탱크, 추럭等으로 增強.
	○35~40臺의 MIG—15, 15臺의 美제이버제트機를 攻擊. 敵機 1 擊墜.
	○空軍機, 中部에서 敵의 砲 20, 탱크 5, 추럭 10, 砲臺 3 車輛 58을 破壞.
	○UN偵察隊, 서울北方 43km地點에서 中共과 4시간 激戰.
	○敵 遊擊隊, 大田, 大邱 等地에서 我 補給路 輸送部隊 襲擊.
	政 治
	○서울市內, 米價昂騰 一路.
	○서울市 疎開者 84萬餘(49%).
	○第8軍司令官, 釜山視察.
	○白善燁 准將 以下 12名에 美 銀, 銅星勳章 授與.
	○「아랍·아시아」12個國會合 中止. 印代表, 美, 中共과最高秘密會談劃策?

년월일	주 요 사 항
12월31일	**軍 事**
	○敵 夜間부터 重大攻擊開始.
	○敵, 38°線附近서 漸次로 兵力 增強化
	○開城附近에 多數의 敵 戰車, 裝甲車 集結
	○제1사단 楊城—汝山東側에서 激戰.
	○제6사단 東豆川 北쪽에서 中共 3개사단과 交戰 擊退.
1월 1일	**軍 事**
	○敵, 서울北方 24km地點에 進出.
	○中共 6個軍團 總攻擊 開始.
	○春川 西北方에서 中共軍 및 北共軍이 重砲, 迫擊砲, 野砲 掩護下의 攻擊前進.
	○高浪浦地區에서 敵 1個大隊, 第1師防禦線을 뚫고 漢江南進.
	○極東空軍 812回 出擊— 韓國戰爭以來 最大記錄, 敵死傷 2,650名.
	○제5사단 春川 北方(鉢山里—仁風里—芝洞里)에서 撤收.
	政 治
	○李大統領, 美第5空軍司令官에게 勳章 授與.
1월 2일	**軍 事**
	○議政府에서 中共軍 3개聯隊가 英第29旅團의 重砲크部隊에 大打擊을 줌(北京放送).
	○제6사단 倉洞으로 集結.
	政 治
	○政訓局發表—一切의 刊行物, 印刷物, 講演原稿, 脚本等은 事前에 政訓局報道課의 檢閱을 要함.
	○慶南地區 戰災民事務, 第3回 各機關長 治安會議開催—避難民 收容問題等 討議.
	○UN安保, 土耳其「브라질」印度의 後任으로 「큐바」「노르웨이」 埃及等 8個國이 新任理事國 就任.
1월 3일	**軍 事**
	○敵, 美第24師의 正面中央部를 突破하고 서울北方 11km地點에 進出.
	○서울東北方에서 敵, 美軍과 英國軍사이에 楔形으로 突入.
	○UN軍, 議政府撤收.
	○제5사단 美제10군단에 배속.
	政 治
	○政府및 國軍首腦部, 釜山으로 移轉.
	○最後出發 30萬市民, 徒步로 集結된 漢江渡河.
	○UN政委에서 『카우』印代表의 韓國戰爭停止를 爲한 많은 노력은 失敗되었다』라는 停戰交涉 三人委員會의 報告를 發表.
1월 4일	**軍 事**
	○開城 서울間, 連川 서울間 前路를 攻攻中인 中共部隊, 國聯軍에 近接進出中.
	○서울 撤收.
	○中共偵察隊, 서울西南地區서 漢江 渡河—UN軍 反擊으로 擊退.
	○金浦·仁川 撤收.
	○敵車輛 476대, 3일부터 4일까지 南下中.
1월 5일	**軍 事**
	○敵, 永登浦 侵攻.
	○開戰以來 今日까지의 美軍被害, 戰死 7,023, 負傷 30,000, 行方不明 5,030.

년월일	주 요 사 항
	○美 精銳部隊, 釜山에 上陸.
	○릿 將軍, 新防禦線 視察.
	○해군함정 피난민(62,000명) 구출작전
	○美5空軍전폭기, 서울 西北쪽 3.4mile 地點, 敵 500명사살.
	政 治
	○弘報外交同盟 結成委員長 金活蘭, 委員金東成, 吳緯泳.
	○釜山市民總蹶起大會.
	○「리」總長, 國際勞動機構로 하여금 蘇聯內의 勞動狀況을 調査케 할것을 要求.
1월 6일	**軍 事**
	○敵, 洪川을 占領.
	○原州 北西에서 激戰.
	○제5사단 忠北鎭川에서 陣地占領을 마치고 搜索戰 展開.
	○美제5공군전폭기 橫城 西北쪽 6mile 地點 폭격. 敵 100名 사살.
	政 治
	○慶南地區韓業推進會 結成.
	○海軍政訓軍樂隊, 韓美 親善音樂會 開催.
	○社會部長官 巨濟島 視察.
	○慶南地區戒嚴民事部, 燈火 管制 規則 發表.
	○三人委員會, 韓國戰爭終結案 作成完了
	1. 韓國에서의 즉시 그리고 恒久的인 停戰
	2. 統一獨立의 韓國樹立.
	3. 中共의 UN加入招請을 保障.
1월 7일	**軍 事**
	○敵, 忠州 32km地點에 進出.

년월일	주 요 사 항
	○中共軍 原州를 向하여 南侵中.
	○敵, 3개師 水原 侵攻.
	○UN軍, 烏山撤收.
	○秦皇艦艦, 韓國西海岸서 坐礁.
	政 治
	○李大統領, 美國에 銃器 50萬挺 要請했다고 言明.
1월 8일	**軍 事**
	○中部에서 激戰이 繼續.
	○UN軍, 原州 撤收.
	○我軍, 仁川 周邊을 連 4日間 艦砲 射擊.
	○敵, 烏山 侵攻.
	○제7사단 主力 寧越에 集結.
	政 治
	○李大統領, 國民에게 撤一人海戰에는 人海戰으로.
	○李大統領, 特別談話—愛國財政家의 總蹶起와 知人들의 協力要望.
	○UN政委
	① 「이스라엘」提出의 7項目 停戰案을 英은 贊成, 蘇는 拒否.
	②英「젭」代表, 最惡 境遇에는 UN加盟國과 中共의 關係 斷絶을 表明.
1월 9일	**軍 事**
	○UN軍 9—10日에 原州地區에서 小規模의 反擊을 行함으로써 撤收作戰 中止의 契機가 됨.
	○제7사단 寧越—旌善間 방어戰鬪.
	政 治
	○政府, 戰災民 各地 分散疎開, 流言蜚語團束等 當面 諸問題의 對策을 決定
	○慶南地區 戒嚴民事部長談—本官 赴任

년월일	주 요 사 항
	後 海外 密航者는 不過 4명(海外密航者와 一部 權力者 民船徵發에 對한 記者質問에서)
	○UN政委席上에서 英「셀」卿, 中共이 또 다시 停戰案 拒否時는 美政策支持하겠다고 演說.
1월 10일	**軍 事**
	○第美2師 偵察隊, 原州突入後 歸來.
	○和軍大隊, 原州西南을 攻擊.
	○烏山地區에서 1,500의 敵, 南侵中.
	政 治
	○今日부터 全國 保安課長會議.
	○社會部서 避難民을 爲하여 釜山에 牛乳給補所 設置 老弱, 榮養不足者에 牛乳죽 無料提供.
	○交通部長官, 次官, UN軍鐵道司令官과 協議—糧穀輸送에 對한 完全合意.
1월 11일	**軍 事**
	○美 第2師團所屬 美, 佛, 和軍, 原州 周邊서 敵 7千과 死鬪 그 중 3千은 殲滅陣地固守.
	○原州西方에는 中共軍 7개軍團 待機中
	○UN空軍, 烏山—大田街道 南進中의 中共 5千을 擊退.
	○UN空軍, 敵 1400 以上을 殺傷.
	○水原의 敵 補給庫, 建物等을 空襲.
	○美 地上軍 戰況發表權 一切를 美第8軍司令部가 맥司令部로부터 引受—嚴格한 檢閱實施.
	○제5사단 榮州로 歸收.
	政 治
	○UN韓國停戰 三人委員會 韓國平和解決案 五項目 提出.

년월일	주 요 사 항
	① 即時 停戰協定.
	② 正式 協定後, 그 때까지 取하여진 條件을 檢討.
	③ 外國軍隊의 撤退.
	④ 休戰中 UN의 韓國行政 承認.
	⑤ 協定後, 즉시 臺灣·기타의 極東問題해결을 위한 美·英·蘇·中共의 會合에 관한 條項을 設置.
1월 12일	**軍 事**
	○敵, 磨謀里(堤川, 丹陽間) 侵攻.
	○約 1,000명의 敵, 丹陽北方에—第8軍發表(AP 13).
	○UN軍, 原州方面 戰鬪서 北共軍 2개師 驅逐코, 戰略的高地 奪還.
	○B29 其他戰鬪機隊, 原州를 猛爆.
	○敵機, 元山附近을 爆擊—最後의 攻擊機에는 美國마크.
	政 治
	○李大統領, 日本軍參加說에 談話 發表—日本軍은 中共보다 먼저 擊退하여야 한다.
	○李大統領, 大邱巡視, 軍部視察.
	○韓委 和蘭代表到着.
	○傷痍兵第1次 除隊式, 제839部隊에서 擧行.
	○全國文教團體 精神武裝 總蹶起大會.
	○UN政委三人委의 五項目案 討議繼續
	○「제노사이드」(Genocide) 協約(人種·異教徒等의 集團殺害防止) 發效—國際法化.
1월 13일	**軍 事**
	○敵, 寧越을 侵攻.
	○敵機, 西川里附近의 UN軍陣地를 空

년월일	주 요 사 항	년월일	주 요 사 항
	襲.		○海軍將校談—反共愛國 青年을 鎭南浦 地區서 北共軍과 勇戰.
	○美제5공군 基地에서 南下攻擊하는 敵 150名 사살.		○「러포너」美 第2師團長 就任.
	○UN空軍 總 640回 出擊(AP 15)		○空軍飛行團 金海基地 經由 濟州 臨時 基地 이동.
	政 治		政 治
	○國務會議서 500圓, 5,000圓券發行 保留決定.		○道內務長官, 公報處를 通하여 發表—釜山·大邱 等의 避難民을 地方으로 分散 決定.
	○憲兵司令官更迭—新任에 崔慶錄 准將		○第1次 避難民 濟州道 疎開實施.
	○日本서 機關車 13대 導入		○慶南地區戒嚴民事 部長 談話—業務執行上, 組班長의 身分保障.
	○第8軍司令部의 命에 依하여 釜山地區 避難民 巨濟島 輸送中 車輛動員 不圓滑로 收容所에서 凍死者 發生, 釜山市 電興버스事務取締役 被逮.		○國防·內務所管 507億 追加豫算案 國會에 提出.
	○公報處에서 釜山市內 各新聞, 通信編輯局長會議.		○孔農林部長官談話—第1次 地價證券15日附로 交付.
	○防空準備管制實施—慶北地區戒嚴民事部 發表.	1월 15일	軍 事
	○今日부터 外電取扱		○東部戰線 平穩.
	○社會部長官 視察歸任談—濟州道 治安은 完璧, 近間 避難民 4萬名移送.		○原州地區 平穩.
	○社會部次官 記者會見—避難民 20萬을 巨濟島에 收容計劃		○約 4,000의 敵이 東海에 侵入한 것을 UN軍이 擊退.
	○UN政委, 二人委員會의 韓國 新停戰案 可決(50對 7)		○UN軍(「코린스」將軍發表 2時間後에) 西部서 突然 攻擊開始.
	同案은 UN事務局을 通하여 北京 政府에 傳達하기로 可決.		○UN軍, 散發的인 抵抗을 받으며 烏山 奪還.
1월 14일	軍 事		○UN軍, 金良驛里 到達, 敵의 猛攻으로 夜間 同地 바로 南方으로 一時撤收
	○敵 30萬兵力으로 中部 西部에서 攻擊開始.		○空軍爆擊으로 中共軍 水原地區 北上中
	○美第2師, 原州 固守.		○UN空軍, 서울東南方地區의 新着 中共第48軍을 攻擊 1,500 殺害.
	○UN空軍, 750臺 出擊—敵殺傷 540名		○美第5空軍 延 650台以上 出擊, 敵 1,550殺傷, 敵補給建物 900棟 破壞.
	○敵機, UN軍陣地를 爆擊, 敵機 最初로 燒夷彈 投下.		○「코린스」美陸軍總參謀長, 「반덴버그」

년월일	주 요 사 항
	空軍參謀總長 來韓.
	○「코린스」將軍言明—UN軍 繼續駐留.
	政 治
	○大韓海運公社 職員 1,000萬圓 獻金.
	○李公報處長談—南下 同胞 사랑하자.
	○傷痍軍人 靜養院開院式 擧行.
	○國會, 釜山劇場에서 再開.
	○國會 第6次 本會議—第2國民兵 處遇 改善 具體案作成키로 決議.
	○國會에서 맥元帥 感謝 決議 要請을 再決議.
	○申長官, 陸軍創設 5週年紀念談—大韓民國은 長足發展.
	○李政訓局長, 早期한 海外就走 計劃者들의 猛省 要望.
	○「리」總長, 「제네바」에서談—第三次戰爭 避可能.
1월 16일	軍 事
	○美第2師, 原州로부터 第防衛線으로 撤收.
	○美第8軍, 水原奪還.
	○第5空軍, 元山, 平壤飛行場 爆擊.
	○B26, 밤새도록 水原北方의 敵을 攻擊.
	○美空軍總參謀長 一線視察.
	○제5사단 豊基—豊山—榮州에서 前線後方으로 侵透한 北共 제2, 제9사단 격멸 작전개시.
	○美해병제1사단 安東, 浦項 지역에 再出動, 對게릴라戰 開始.
	政 治
	○UN韓委, 記者團會見에서 百萬 부상 문제에 談—人海전술에 대한 인해전술은 非科學的.
	○崔재무장관談—예금지불에 제한全無.
	○社會內務各長官, 國防部次官, 國會질의에 답변—UN軍의 승리 절대적, 각도 책임하 피난민 구호.
	○ECA관계로 트럭 200여대 導入.
	○許내부장관談—피난민은 정부 지시에 순응하라.
	○張경남지구 兵事司令官 기자회견—강제 募兵事實 없다.
	○許사회부장관 昨年 12월 부터 1월1일까지의 ECA 구호물자 배당결과 발표.
	○서울신문 釜山에서 續刊.
	○UN經濟社會理事會서 情報自由 規約 起草에 관하여 토의.
1월 17일	軍 事
	○UN軍 偵察隊 原州 突入.
	○水原 北方서 UN軍 偵察隊 활약. (서울까지 20mile 接近)
	○第77기동함대 艦載機隊, 元山부근 계곡에서 敵 3,000餘 발견, 2,200을 殺傷.
	○空軍 敵 562명 殺傷.
	政 治
	○趙內務長官, 釜山 東亞劇場에서 시국강연.
	○李大統領, 大邱에서 美육군총참모장 「코린스」대장과 회견
	○장택상外 16議員, 對日講和對策 수립에 관한 動議案 提出.
	○國會內의 民政同志會, 국민 구락부, 新政동지회의 이름으로 合作.

년월일	주 요 사 항
1월 18일	○國會第8次本會議—UN정전안을 政府國會 모두 反對. ○釜山 東萊극장에서 決戰구국 文化人대회. ○UN政委, 中共의 停戰提議拒否 예정을 發表. ○中共放送을 通하여 UN停戰案을 拒否—7개국(中共·蘇·英·美·佛·印·埃及)회의를 中共서 개최하기로 제안 ○中共침략자규정案, UN政委에 제출. **軍 事** ○寧越 北東方 10mile지점에서 交戰—금일 유일의 전투. ○UN探索隊, 치열한 市街戰후에 寧越서 撤收. ○敵의 偵察小部隊, 鳥山에 出現. ○소속불명의 비행기, 金良場南方의 UN陣地에 爆彈 5개 투하. ○UN軍, 12일—18일까지의 사이에38°線南쪽 50mile線에 160mile의 防禦線保持. **政 治** ○附逆行爲 특별처리법중 改正法律 公布 ○歸屬財産訴請 심사위원(金孝德·金秀學) 선출됨. ○바바서 再審不可能하다고 政府서 再議를 요구한 범죄처벌 특별조치령(死刑, 刑期 10年 以上 언도받은자는 再審要求可能)等 國會서 原案 재통과. ○公報處 발표—의료기술진과 시설을 巨濟島와 濟州道에 파견예정 ○國會 渡日代表, 李대통령과 요담. ○UN政委 美「오스틴」代表, 中共 규탄을 요구.
1월 19일	**軍 事** ○UN軍, 原州市 再탈환. ○UN軍 機甲부대, 鳥山 北方 2mile의 平川에 突入. ○제8군발표, 殷栗에 我軍 유격대 활동중. ○UN空軍, 敵 300여 殺傷. **政 治** ○國會, 긴급구호대책 강구결의안 上程 ○UN FAO(식량농업기구) 아세아의 쌀 需給에 관한 보고 발표에서 亞細亞의 쌀 不足을 경고(로이타 20)
1월 20일	**軍 事** ○敵, 五陵 侵攻. ○敵, 原州를 三方面으로부터 공격, 市街전중, 敵兵力 약 1개연대 ○UN偵察隊, 原州서 撤收, 主力 진지에 合流. ○英 陸相 下院에서보고—금일까지 英軍將兵死亡者 120명, 부상 366명, 行方不明 231명. ○맥元帥 第8次전선시찰—아무도 우리를 海中으로 몰아넣을 수 없다고 談話 **政 治** ○倭館철교 복구공사 재착수. ○李공보처장放送—일선 兵士를 후원하자. ○정부발표—60만戰災民을 濟州道, 巨濟島로 移送. ○國會, 戰災피난민 慰撫 및 戰意앙양 적려담 파견에 관한 결의및 錦江以北 30만 피난민 구출에 관한 결의안 통과

년월일	주 요 사 항
	○申·張·池 3議員, 大邱서 「릿」將軍과 會談.
	○國會, 中共침략자 결의안 가결.
	○美, UN에 中共침략자규정안 제출.
	○「라우」印 代表, 政委에서 談—美의 제안은 위험한 方法이며 現狀以上으로 中共을 널리하는 것이다.
1월 21일	**軍 事**
	○UN軍, 탱크, 大砲 지원하에 原州재탈환
	○敵, 堤川 東北 8mile의 UN軍 陣地에 來襲.
	○UN軍, 中共 제42軍의 3次반격으로 利川으로부터 철수.
	○B29 5개소의 共產軍 集結부대에 爆彈 176ton投下.
	○敵 開戰以來 最大의 「젯트」機群 투입 (41—54機).
	○일선전투사령관 「소울」少將談—命令만 있으면 서울탈환 可能.
	○丁총참모장, 寧越탈환에 偉勳세운 第7師 3聯隊를 표창.
	○美제5공군 F—84E항공기 MIG—15와 공중전 1대 격추.
	○空軍士官學校 大邱에서 濟州 墓瑟浦基地로 이동.
	政 治
	○政府, 地稅 임시조치법안, 國會에 提出.
	○許長官, 昨日과 今日 各地 戰災避難民 狀況 視察.
1월 22일	**軍 事**
	○北共軍, 安東近郊서 突然攻勢 開始.
	○UN軍, 原州飛行場및 그 近方의 233高地 탈환.
	○丹陽南方서 北共이 輕重 火器로 공격개시.
	○強力한 UN軍 정찰대 서울 25mile지점까지 突入후 귀환.
	○正午 UN軍, 烏山·金良場, 利川에 재돌입.
	○UN軍정찰대, 仁川 공격.
	○開戰이래 空軍이 적에 준 損害는 거의 9萬名.
	政 治
	○國民防衛軍本部機構改編, 擴張.
	○嚴議員外 51名, 國會法 대폭 개정안 제출.
	① 正副議長任期를 1年으로 단축
	② 常任委員會를 14개로 증설.
	○徐議員外 52명 政務 次官制를 신설하자는 政府조직법중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라우」印度代表, 政委에서 中共의 新覺書 發表.
1월 23일	**軍 事**
	○UN軍, 北共과 寧越市街서 激戰展開
	○UN軍戰車偵察隊, 原州突入— 8日間에 7回.
	○敵「MIG」15, 18내지 28대와 我 F—84 24대와 新義州上空에서 空中戰. 敵機 5대 擊破, 2대 破損.
	○夜襲한 B26에 敵 야크전투기가 襲擊.
	○UN空軍 牙山灣에서 敵小舟艇 23隻擊沈.
	○美太平洋艦隊司令官 「래드포드」提督, 「죠이」美極東 海軍司令官과 함께 「릿

년월일	주 요 사 항
	지웨이」장군 회담.
	政 治
	○國軍育戒공로자 「하우스맨」少領에 대한 李대통령의 表彰狀 전달식 於 大邱陸軍本部.
	○濟州道 收容避難民數 56,274명.
	○國軍 組織法中 개정 법률안을 정부가 국회에 提出.
	同案의 골자 ①三軍에 개별적으로 參謀總長을 둔다. ② 聯合參謀會議設置 ③ 從來單行法이던 空軍에 관한 것을 結合함.
	○國會에서 國民兵 처우에 대하여 張國防次官과 問答.
	○時局을 忘却한 무역업자의 외국 여행에 대하여 曹외무차관 담화발표.
	○합동수사본부 與檢事, 수사 대상자를 열거 일반의 협력요망.
	○李대통령, 「죠이」美極東 海軍사령관에 表彰狀 수여.
	○「아시아·아랍」12국代表, 7개국(美·英·佛·印·埃·中共·蘇) 예비회담 즉시 소집요구案을 提出키로 決定.
1월 24일	**軍 事**
	○UN軍 및 제7사단 寧越탈환.
	○UN탱크부대, 原州占領.
	○UN軍, 橫城탈환.
	○UN軍, 驪州탈환.
	○敵 젯트機 4台(1未確認)격추, 3대파손
	○美제5空軍「모스키트」誘導機 1機, 安養北方 10mile서 敵砲火에 擊墜당함. 승무원은 헬리콥터가 구출.
	○金白一소장 24日 성명—元山地區의

년월일	주 요 사 항
	북한 의용전투부대 일부 ○○基地에 도착.
	○美第8군발표—南韓地區의 敵 게릴러 약 2萬, 行動窒息中.
	○해병독립 제5대대 진해출발, 安東지역에 주둔한 美해병 제1연대 배속 대게릴타전 개시.
	政 治
	○금일 현재 각도 피난민 2,173,226명, 收容된 것은 643,188명. 구제비 55억원 社會部發表.
	○政訓局, 釜山分室發表—戒嚴令下, 一切의 出版物, 公表文, 放送, 강연 등 政訓局의 事前 檢閱必要.
	○UN政委서 美代表「오스틴」氏, 中共停戰案을 拒否.
	○情報自由起草會議에서 規約第1條 採擇.
	○「아시아·아랍」12개국 「아프가니스탄」「버마」埃及, 印度,「인도네시아」「이락」「이란」「레바논」「파키스탄」「사우디 아라비아」「시리아」「예멘」 새로운 解決案을 UN 政委에 提出.
1월 25일	**軍 事**
	○仁川地區에 敵影 全無.
	○美第1, 第9 兩軍團, 금일오전 7.30부터 일제히 局限된 공격개시.
	○全戰線서 적이라고는 小數의 北共뿐—UN情報將校 言明.
	○美第10軍團長, 我 제3 군단의 공훈을 表彰.
	○Thunderbolt 作戰開始. 美24사단, 제1기갑사단 長湖院—安城線에서 北進.

년월일	주 요 사 항
	○해병제1연대 盈德을 向하여 鎭海出航
	○해군함정, 仁川港포격. 범선 10척 격침.
	政 治
	○戰時 원호대책 중앙위원회 위원장에 許社會部長官.
	○傷痍軍人을 爲한 靜養院(社會部직영, 東萊溫泉) 開院式.
	○「라우」印代表, 韓國小康狀態는 中共의 政治的 協商待期하고 UN의 直接的 會談을 呼訴(AP26).
	○「아시아·아랍」12국의 新提案(제4차) UN政委에 正式으로 上程.
	○比「로물로」外相, 12개국 提案을 政委에서 痛烈히 비난, 北京 요구대로 作成된 제안이라고.
	○英「겝」卿, UN政委서 中共承認을 強調.
	○UN特別기관인 국제우편연합회서 美國의 反對에도 不拘하고 國府代表 逐出, 中共代表 加入을 可決.
1월 26일	**軍 事**
	○強力한 UN軍部隊, 서울 15mile地點까지 육박. 中共 477명을 銃劍으로 刺殺.
	○UN軍, 水原 金良場 탈환.
	○UN偵察隊 平昌에 突入, 敵과 接觸無
	○UN地上軍 敵 1,152명 殺傷.
	○우리의 戰爭目的은 自由 平和를 위한 것—릿將軍 일선병사질문에 答.
	政 治
	○李大統領 AP記者 會見談—美의 對日講和策支持, 韓日 友好관계를 희망.
	○申長官 發言문제(國會內에 五列이 있으면 어떻게 하며, 지적하면 어떻게 하느냐)로 국회에서 치열한 논전.
	○加奈陀, 「이스라엘」兩國. 韓國停戰折衝案 提出. (일주일 이내에 「레이크·썩세스」또는 「뉴델리」에서 7개국會談을 개최할 것.)
1월 27일	**軍 事**
	○美軍部隊, 전차포 및 야포로 平昌 공격.
	○UN軍, 서울 16km 지점까지 進出.
	○海軍 仁川港에 4시간의 上陸作戰 감행. 적사살 47, 포로 2명.
	○「래드포드」美太平洋함대사령관 기자회견—韓國戰爭이래 美海軍의 손해: 死傷 行方不明 291명, 掃海艇 3隻 상실.
	○在韓 美師團長更迭, 美第24師신임「브리얀」少將, 前 사단장 「처치」 소장은 本國 步兵學校 轉出, 美第7師新任 「패랜바우」少將, 7師團長 「바」 소장은 本國 機甲學校 轉出.
	政 治
	○梁又正議員 緊急動議(「네루」氏 韓國主權無視行動糾彈 멧세지를 UN에 送附)는 美國案 決定時까지 保留.
	○太盟締結緊急동의안 朴永出의원외 9인 제출—외무 국방위원회에 회부.
	○美代表 「오스틴」氏, UN政委서「아랍아시아」12개국 제안을 拒否.
	○林외무장관, UN政委서 全아세아 赤化威脅을 力說.
1월 28일	**軍 事**

년월일	주 요 사 항
	○UN偵察隊, 江陵南方 1mile 地點서 敵 1개중대와 교전, 적 15명 生捕.
	○UN軍 서울南方 10mile지점 (直線距離)에 突入.
	○UN함대, 仁川地區함포사격.
	○北共 제2軍團, 寧越, 丹陽서 潰滅.
	○韓國공군고문단장 言明—韓國 공군개전이래 3배로 강화, 美國이 지원하면 亞細亞 最強空軍.
	○美폭격기대장「에드만드슨」大領 美상공협회서 연설—美공군의 한국교량폭격에 대하여, 前에 그것을 가설한 日本기술자들의 설명이 큰 도움.
	政 治
	○政府, 임시군사특별회계법안, 해안경비법중 개정안 防空法案의 3개법안을 국회에 제출.
	○朴晉雄外 49議員 學生, 士官任用法案 國會에 提出.
	○UN韓委議長「아프리카」博士 일행 鎭海시찰방문, 孫堤督에 UN旗 증여.
	○張국무총리 귀국.
	○張국무총리 기자회견담—中共 무조건 항복만 수락.
	○南下한 서울변호사 25명 포로심사 담당.
1월 29일	軍 事
	○UN장갑정찰대, 橫城에 再突入.
	○UN軍, 丹陽西北 15mile 지점서 敵게릴라 1,300명과 交戰. 射殺 23, 生捕 9.
	○中共軍 約 1개대대, 서울南方 11mile 地點서 反擊.

년월일	주 요 사 항
	○美戰艦「미조리」號 등, 杆城地區猛砲擊.
	○美제77기동함대, 함재기群, 杆城地區猛爆擊.
	○제1사단(15연대) 서울 탈환작전 참가차 水原으로 前進.
	政 治
	○國會산업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地稅 임시조치법을 재차거부.
	○金貞烈空軍總參謀長에, 美極東空軍司令官으로부터 최고훈장 수여.
	○1월 21일부터 1월 29일까지 巨濟島피난민 수용소에서 286명의 附逆者 및 工作員을 合同수사본부서 적발.
	○韓國기독교연합회주최로 故「워커」大將追悼會, 釜山市 公會堂.
	○印代表, 中共斷罪案可決은 平和에의 全希望을 抹殺한다(毛澤東으로부터의 충고)고 UN에 경고.
	○「레바논」, 美國의 中共斷罪案에 대하여 附隨的인 修正案을 提出.
1월 30일	軍 事
	○UN軍 1개중대, 江陵 南方 1mile지점서 敵 約 1개중대와 交戰, 敵 200사살, 15 生捕.
	○「푸에르토리코」軍, 激烈한 白兵戰 끝에 水原東北方 3mile 高地 敵 擊退.
	○UN함대, 杆城地區 포격.
	○美極東盟際司令官「조이」中將談-UN海軍開戰以來 敵 24,500을 殺傷.
	○今日의 敵사상 3,742명(Easak 31)
	○中共軍 小年密偵(「小鬼頭」)多量을 韓國戰線에서 使用中.

년월일	주 요 사 항
	○15연대 美제25사단에 배속 水原北方 攻擊開始.
	○해병제1연대 美해병1사단에 배속盈德 地域에서 對게릴라戰 개시.
	政 治
	○非常事態下의 犯罪處理에 관한 특별 조치령중 개정法律 公布.
	○UN韓委, 韓國海軍의 羅進을 讚揚報告.
	○張국무총리 국회서 경과보고—외교전 강화긴요를 역설.
	○사대수습비(내무·국방兩部소관) 587억 4,539만 3,300원 국회에서 可決
	○中共은 26일 駐中印大使에게, 中共이 12개국案을 수락한다고 통고하였다고 「라우」印代表 言明.
	○UN政委, 12개국 決議案否決(UP31).
	○UN政委, 中共을 侵略者로 可決(44—7, 棄7) (AP31)
	○UN政委, 蘇代表 12개국 決議案에 修正案 提出.
	○UN託治委員會, 國府代表逐出討議는 UN總會가 中國代表問題를 決定할 때까지 延期하자는 美提案 可決.
	軍 事
1월 31일	○릿퍼將軍「푸에르토리코」軍을 포함한 일선 각부대를 訪問.
	○UN軍 東中部前線에서 500야드 前進
	○希軍, 初出戰에 殊勳—水原 利川間에서 3千의 中共軍을 격퇴.
	○美軍및 호주군 비행기, 적3,500을 殺傷(서부전선).
	○「비조리」其他 美함정, 高城에서 杆城에 이르는 20mile을 猛砲擊.
	○UN地上軍 敵 1,580명 살상.
	○白耳義, 「룩셈불크」軍 釜山에 入港. 즉시 전선향발.
	○美第1軍團 金銀里—水原—牛耳場北쪽線에서 공격개시.
	政 治
	○政府發表—「워커」대장 전사 관계운전수 3年刑, 기타 3명 무죄(紐育時報는 4月 15일 「워커」대장未亡人에게, 美軍 准尉가 말하기를 上記 四名은 銃殺에 처형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음).
	○UN安保理事會, 昨年 11월 13일 이래 처음으로 개최코 韓國問題를 議事에서 除外하자는 美제안 可決
	○UN託治委員會, 伊太利에게 「소말리랜드」에 관한 임시질문서 발송可決.
	○UN情報自由起草委員會에서 「例外規定」(國家保全을 爲하여 報道放送 等 自由의 제한)을 可決
2월 1일	**軍 事**
	○戰車에 敵三方面으로 來襲, UN軍이 이를 阻止
	○驪州 北方에서 白兵戰, 敵 3개연대를 擊退.
	○西部에서 我軍의 攻擊에 敵 依然抵抗無.
	○第5空軍 1日中 戰果. 敵 19,000을 殺傷.
	○美제307폭격전대 洪原 端川間의 철교 徑間(span) 폭파.
	政 治
	○張總理, 재반경제에 관하여 국회의원

년월일	주 요 사 항
	과 간담.
	○국회, 中共을 侵略者로 規定한데 대하여, UN에 感謝 멧세지를 보내기로 決定.
	○FCA, 韓國에 艀船 70여척 원조키로 法定.
	○貨物자동차 47대 入荷.
	○國民會本部, 釜山에 設置.
	○李大統領 言明—戰爭은 不遠終焉, 還都를 希望한다.
	○UN總會, 中共침략자 규정 美國결의안을 可決—44대7(政治委員會의 표결에 不參한 「南아타비아」는 棄權) 棄 9.
	○UN기술원조 보고(145件이 38개국에서 實施혹은 계획 중, 그중 20개국은 亞, 阿兩州.
2월 2일	**軍 事**
	○UN軍 장거리砲로 水原北方의 敵攻擊
	○UN軍, 서울砲擊射程圈內 進出.
	○安養 탈환.
	○敵軍內 전염병발병率漸高(AP).
	○北共前線司令官 金策 戰死(平壤放送)
	○美3사단 水原北方 光敎山점령 美25사단 修理山 점령.
	○土耳其旅團 美25사단과 合同作戰으로 修理山 西方側 占領.
	政 治
	○戰時 行政事務處理簡行令 實施.
	○國會에서 太平洋條約 促進을 政府에 建議(合同).
	○中國人, 北韓에서 대거 피난.
	○泰國白米, 釜山에 入荷(83,150袋).
	○美代表 「오스틴」氏 政委에서 蘇聯의 美國 臺灣侵略案은, 해괴無實한 것이라고 一蹴.
	○「리」總長 任期延長 可決.
	○UN託治委員會에서 託治地方의 地方經濟發展에 관한 政策, 法令, 실제운영을 연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佛提案 可決.
2월 3일	**軍 事**
	○美軍 平昌 탈환.
	○我軍橫城에 數次突入이나 未奪還.
	○利川에서 東方으로 2mile半 進出.
	○進擊順調, 서울까지 7mile 接近.
	○土耳其軍, 서울南方 17mile(水原北 10mile의 高地를 再奪還).
	○「릿」中將 發表—UN軍 反擊以來, 3日까지 敵손실 10,000
	○제5사단 橫城부근(平庄里—橋須里)으로 突入.
	政 治
	○李大統領, 第7함대 사령관 「스트루블」中將에 銀星勳章 수여.
	○張總理 就任式 擧行.
	○反民法廢止案, 國會通過.
	○政訓局 釜山分室 「軍民相談所」設置.
	○丁少將, 政訓工作隊 表彰.
	○38개국, 2억2천2백만불을 韓國救濟에 據出할 것을 確約.
	(UN韓國 및 「팔레스타인」避難民 救濟寄附金 수집위원회 發表).
2월 4일	**軍 事**
	○國軍, 江陵地區에서 敵 3개大隊 격파
	○美 佛軍, 瓜平 탈환.
	○金良場, 利川地區의 敵反擊도 격퇴.

년월일	주 요 사 항	년월일	주 요 사 항
	○韓軍, 水原 西北方 6mile의 383高地 奪還.		○「라우」印代表, 本國으로부터 3人調委에 加入을 制止하는 訓令을 수령.
	○서울南漢山麓에서 肉迫戰.		○「라우」印代表, UN總會議長에게 3人調委辭任을 正式通告.
	○38°線 進擊停止說, 美第8軍當局 否定		○國際아동구제기구(UNICEF) 北平에서의 事業을 閉鎖中이라고 發表.
	○해병독립 5대대 安東지역에서 榮州지역으로 이동.		○UNESCO에서 韓國民間事業 원조비로 10萬弗 지출 결정을 發表.
	軍 事		**軍 事**
2월 5일	○UN軍 서울南方 5mile 突入.	2월 6일	○中部戰線에서 38°線 25mile에 肉迫.
	○開戰後最大의 탱크隊, 서울南方 5mile의 敵陣에 突入.		○安養東北方 地域의 再奪還.
	○艦海艇 一隻 江陵 沿海에서 機雷抵觸으로 沈沒 戰死 4, 行方不明 4, 負傷 9, (美海軍省 發表).		○漢江南方에서 中共大部隊 포위 섬멸作戰.
	○空軍戰果—出擊 534, 敵 車輛 99, 殺傷 約 600名, 敵機 1대, 其他.		○서울南方 30mile에 육박.
	○「릿」中將, 前線에서 UN軍 攻勢 順調進行이라고 言明.		○릿將軍, 彼我의 損失 百對 一 이라고 談話.
	○제8사단 橫城에서 洪川—龍頭里間의 威力搜索實施.		**政 治**
	○해병대 진해기지에서 독립제41, 제42 중대창설.		○瑞典代表「그레푸스트롬」氏 3人 調停委員會에 就任.
	政 治		○蘇, 美機 滿洲爆擊非難을 再次 UN에 提出
	○李大統領, 38°線은 이미 없어 졌다고 進擊 停止說의 反駁.	2월 7일	**軍 事**
	○金剛, 北韓工作隊員을 檢擧, (金塊와 現金 押收)		○江陵東南 15km, 西南 8km의 敵抵抗은 激烈.
	○治安局 10.1—1.31까지의 戰果(경찰) 交戰數 2,294, 敵射殺 21,699, 生捕 13,809, 歸順 419.		○洪川 6mile에 肉迫, 橫城北方에서 熾烈한 戰鬪.
	○國會, 戰災民慰問團 各地에 出發.		○敵 中部戰線에서 總退却開始.
	○UN經濟社會理事會, 蘇聯의 中共代表參加案 11對 2로 否決.		○金良場北方 10mile 地點 탈환 (과거 5일간에 3차탈환)
			○我軍, 서울砲彈圈內에 到達
			○利川西北方 敵 25萬以上이 集結中.
			○敵殺傷 4,647, 飛機出擊 445, 敵탱크 3대 격파.

년월일	주 요 사 항
	○第7사단장 「바」小將談—在韓美軍部隊 士氣旺盛.
	○해병대독립42중대 永興灣을 向하여 出航(진해).
	政 治
	○「항가리」, UN식량 농업기구에서 탈퇴.
	○政委, 蘇의 美非難決議案 2개를 否決 ①美機滿洲領空侵犯 50對5, 棄 2. ②美國台灣侵略(美, 台灣을 中立化) 49對 5, 棄 3.
	○「킹스레」氏(現國際 피난민 기구이사장) UN韓國再建기관사무장에 被任.
2월 8일	軍 事
	○海軍, 東海岸 注文津突入.
	○國軍, 美軍橫城北方 5mile진격.
	○平昌東北方 12mil까지 진격.
	○美戰車部隊 서울 砲擊.
	○第8軍反擊戰개시이래 敵의해 57,000 추산.
	政 治
	○鐵警 督察隊 編成코 철도경비 강화.
	○金日成, 北共建軍 기념일에 全 北共軍에 檄(平壤通信),
	軍 事
2월 9일	○美 第25師團所屬 韓國 제15연대, 서울市에 突入—中共軍과 市街戰 관악산 탈환.
	○橫城周邊에서 白兵戰.
	○議平東方으로부터 洪川南方에 이르는 線에서 敵 頑強한 抵抗.
	○美 第3師의 「마익야」大尉 指揮의 기동부대 漢江에 到達, 지점은 가랑里.

년월일	주 요 사 항
	○美軍 정찰여 仁川突入
	○서울市 南方 11mile 지점에서 仁川과 서울 連絡遮斷.
	○戰艦 「미조리」號 16吋 砲彈 2,100톤 發射.
2월10일	軍 事
	○議平東方 8km의 我軍 敵의 激烈한 抵抗擊退.
	○橫城北方 13km의 我軍 敵의 夜間逆襲의 擊退.
	○金浦에 落下傘部隊 落下.
	○9.30 永登浦 16.30 金浦空港 完全奪還, 漢江에 到達.
	○仁川 奪還, 市廳에 太極旗.
	○我軍 各戰線에서 4.5mile 前進.
	○敵, 首都防衛는 北共에 맡기고, 中共軍은 北方에 逃走.
	○B29 平壤附近 鐵橋猛爆 宣川操車場 破壞.
	○제5사단 橫城부근(舖洞里) 탈환
	政 治
	○大韓通信記者 報道—避難民 前線地區 分布如下—公州地區 6萬, 牙山 27萬, 平澤 10萬, 天安 30萬, 淸州 15萬, 忠州 5萬, 槐山 5萬, 報恩 40萬, 慶北 北部 47萬 扶珍 12萬.
	○UN民間救護部에서 南韓全市民에 天然痘, 腸窒扶斯 發疹窒扶斯 豫防注射 實施
	○金浦飛行場, 仁川港 復舊에 着手.
2월11일	軍 事
	○首都師 38°線을 突破코 襄陽奪還.
	○서울 北方에서 약 2,000명의 敵 蠢動

년월일	주 요 사 항
	中.
	○UN軍 서울 철공태세, 市內에는 中共軍 全無.
	○東西兩線에서 敵輸送부대, 北方으로 總退却.
	○丁少將記者談—38°線은 없다. 敵出血이 主目的.
	○佛 AFP記者, 鐵平戰線에서 夜間偵察에 從軍中 戰死.
	○제6사단 제19연대 美제24사단을 지원하여 514高地 탈환.
	○極東空軍, 타이푼 폭탄으로 江界의 교량 徑間 2個 파괴.
	政 治
	○上空에서 본 수도 서울, 建物은 殘存하나 無人之境.
	○三人調停委員會 委員就任에 「멕시코」 代表 應諾—이로써 全員選出完了.
2월 12일	軍 事
	○第8軍代辯人談—襄陽 奪還部隊 歸還.
	○敵 반격개시 : 11일 予正을 期하여 6萬의 敵 猛烈한 反擊으로 橫城에서 白兵戰, 國軍部隊陣地에 侵透하여 國軍 第3. 5. 8師에 打擊을 줌.
	○中部戰線 反擊 敵은 中共 9個師, 北共 6개師, 我方은 國軍 2개師와 美 先遣部隊(AP 13).
	○敵, 永登浦에 野砲射擊
	○敵 偵察隊의 漢江 渡河企圖를 粉碎.
	○38°線 停止說에 一線將兵 憤慨—白頭山峰에 太極旗 휘날릴 때까지 進擊.
	○제8사단 中共 6개사단과 激突격퇴 撤收.

년월일	주 요 사 항
	政 治
	○某 機關에 潛入 暗躍하던 北勞黨員 金永根, 合搜에 逮捕.
	○治安局長談—收復地區 경찰은 復歸.
2월 13일	軍 事
	○맥元帥, 西部戰線을 시찰, 귀환후 성명발표—UN軍은 猛烈한 국부적 전투를 전개중. 그 장래는 대부분 국제적 고려에 의존할 것이다. 38°線 越境云云은 전략적 정세에 따른 우발 분산적인 탐색행동을 제하고는 현 전투단계에 있어서는 純全한 空論이라고.
	○UN軍, 橫城撤收—10萬 敵部隊의 반격에 봉착.
	○橫城西北方에서 美 2개 大隊와 國軍 1개연대, 敵 包圍網 脫出.
	○UN軍 猛烈한 交戰後, 利川 東北方 高地 奪還.
	○仁川 永登浦 等 陣地에 美 第25師 第3師 增強.
	○英軍, 美軍과 協力하여 漢江附近 高地奪還.
	○제8軍 發表—1月 25日 以來 敵軍 損害 80, 120名.
	○美제5空軍 新戰法으로 敵軍輛 358대 격파, 건물 1, 225棟. 橋梁 9, 殺傷 350 以上
	○38°線 突破는 誤報라고 第8軍 發表.
	○第8軍 參謀長, 避難民 귀향에 관하여 指示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경고.
	○美2사단 제23연대 鐵平里에서 中共軍 3個師團에 包圍.

년월일	주 요 사 항
	○해병 1연대 下猪洞에 集結, 墨湖를 向하여 出航.
	○해병독립 5대대 新江口에 集結, 仁川을 向하여 出航.
	政 治
	○「멕시코」代表 「네루보」氏 韓國調停委員會委員에 就任. 이로써 韓國調停三人委員會成立(「파키스탄」, 瑞典, 「멕시코」).
	○總會, 쏘련의 美非難 2개 결의안 否決 ① 美國이 臺灣을 中立化하였다. (48對 5棄 3) ② 美機 滿洲侵犯(51對 5, 棄 2)
	○UNCEF에서 희랍, 유고, 파키스탄, 各地 피난민 수용소 및 印, 臺灣, 파키스탄, 比, 泰 에의 救濟계획안 否決.
	○總會 駐巴里 「볼리비아」 大使의 次期總會는 巴里에서 開催할 수 있는 동안은 「줄리상에 도우스」에서 개최하는 것을 考慮하지 말자는 提案을 可決.
2월14일	**軍 事**
	○海兵隊 및 美海兵隊 元山上陸을 美第8軍에서 確認, 元山港 2개도서(虎島·麗島) 占領.
	○敵 早朝에 砥平을 包圍하고 戰車 및 自動砲로 攻擊中.
	○漢江 渡河 敵 1,152명 섬멸, 250명 生捕.
	○敵 損失 今日 10,993명(UP).
	○第5師團 堤川方向으로 撤收 방어.
	○제6사단 文幕 北쪽 前進.
	○해병 제1연대 墨湖에 上陸 제3군단에 배속.
	○해병 독립 제40중대 永興灣 麗島에 上陸.
	政 治
	○UN韓委議長 「사라신」氏(泰) 韓國再建臨과의 관계를 詳說—「再建局長은 總會에 責任을 지되 韓委의 全般的政策上의 권고를 참작할 것」이라고.
	○張국회부의장 언명—38°線 突破는 決定事項.
	○反民法廢止에 관한 法律公布.
	○UN經社理事會의 UN아시아 極東經濟委員會議 「파키스탄」의 「라홀」에서 開催.
	○UN原子力 共同委員會, 軍備均衡委員會에서 中國代表 問題 決議票決의 延期를 可決.
2월15일	**軍 事**
	○東部戰線 敵 接觸無.
	○美增援軍 제1기갑사단 제5연대 砥平到着 제23연대 지원.
	○原州 砥平地區에서 敵 4個師섬멸이라고 第8軍 보도.
	○驪州 東北 11km에 出現한 敵 150名中 47射殺, 4 生捕.
	○中部는 大體로 偵察戰程度.
	○서울 南方 및 東南方에 敵 1개 중대 出現, 격퇴.
	○廣州 東方 11km에 있는 敵 2개 중대를 擊破.
	○空軍 1,025회 출격, 개전이래 최대(국군총사령부 보도는 700회) 軍用전

년월일	주 요 사 항
	물 1050棟, 車輛 12, 其他 戰果多大 敵 1,000 以上 殺傷.
	○綜合戰果—敵 損害 4,935 捕虜 209.
	○UN水陸兩用부대사령관 택소장 仁川港 20시간內에 機能發揮한다고 言明.
	○맥元帥—트大統領의 38°線의 軍事的 越境에 관한 성명에 滿足을 表明.
	○美해병 제1사단 忠州로 前進, 美 제9군단에 배속.
	政 治
	○駐韓和軍司令官 「오덴」中領 戰死에 吉外務次官 吊意表明.
	○金融通化委, 特殊緊急資金에 特別金融措置할 것을 決定.
	○UN産業分委에서 韓中兩國을 逐出하라는 蘇동의를 否決(印「카라치」에서)
	○UN韓國代表 林長官, 韓國戰災民 救濟를 UN에서 強調.
2월16일	**軍 事**
	○東部 敵 接觸無.
	○敵 800, 堤川 5mile에 침투.
	○西部, 大體로 小康狀態, 仁川, 永登浦, 金浦를 確保 서울에 集中砲火.
	○敵後方의 我義勇軍, 殷栗, 長淵, 甕津, 延安方面에서 분투 중.
	○空軍 B29 咸興, 元山에 爆彈 120屯 投下, 敵機 對抗無, 其他 1000여機 各戰線에 出擊.
	○綜合戰果—過去 4日間의 中部戰線에서 敵 損害 20,000餘, 1月 25日 以來의 全戰線 戰果 100,000 以上.
	○「콜트」소장 「알몬드」少將 各各 中將으로 進級, 「콜트」中將은 美8軍 副司令官에 就任.
	○中共軍 2個사단 병력 잃고, 砥平里에서 退却.
	○해병 제1연대 三陟으로 이동.
	○해병 제5대대 仁川 上陸. 美제2특별공정여단에 배속.
	○美공군 C-119수송기로 적의 포위망에 있는 美23연대 불란시대대에 보급물자 空中投下.
	政 治
	○後方에 대기중의 피난민 약 200萬으로 추산.
	○「리」總長, 38°線 問題에 言及—38°線 및 其他 韓國軍事政策은 UN本部 및 參戰諸國間의 계속적인 討議問題가 되어 있다.
	○UN中共制裁對策委, 業務開始.
	○UN諸 代表의 「스타린」聲明에 대한 觀測—蘇聯의 極東政策에 何等의 變更을 주지 않을 것이다. 또 그것은 中共을 侵略者로 規定한 調停委員會와 集團對委의 設置를 매장하려는 것이다.
	○UN集團對策委員會, 土耳其 代表를 議長으로 選出, 副議長은 白耳義, 報告委員은 瀛洲 代表.
2월17일	**軍 事**
	○國軍部隊, 江陵으로 撤收.
	○敵 第5軍團(1萬내지 2萬) 堤川 3mile까지 先遣部隊 파견 我軍 이를 격퇴.
	○我軍 砥平東北 20mile까지 進擊.
	○我軍砲擊으로 利川北方에서 敵 死體

년월일	주 요 사 항	년월일	주 요 사 항
	600.		○原州北方에서 敵 12~16개 師團을 保有. (AP)
	○平昌 5~10mile, 寧越 8mile 지점에 敵 侵透.		○中共軍, 楊平의 司令部를 抛棄.
	○敵 二次의 漢江 渡河企圖, 我軍의 空中攻擊 및 砲擊으로 격퇴.		○12日부터 17日까지 中部戰線에서의 敵의 損害는 31,400여명 (8軍).
	○空軍出擊 745回. B26 平壤地方에서 敵 열차 25파괴, 적군 건물 1,276 파괴.		○서울市內 市街戰은 없을 듯(白師團長 言明).
	○戰果—全戰線에서 敵 5,407살상, 1月 25日 以來 敵 損害 약 11萬		○空軍 151回出擊(天候關係) 16日 以來 3,200回出擊, 敵 2,370名 以上 殺傷, 軍用建物 5,192, 탱크 10, 철도차량 59.
	○「릿지웨이」中將 성명—和蘭「오텐」中領의 戰死는 UN軍 全體의 損失.		政 治
	○해병 제1연대 영월지역 전진.		○張總理 外國記者會見(大邱)——
	政 治		① 韓國은 絶對安定
	○변外務次官, 38°線은 存在하지 않는다고 力說.		② 復興時期到達
	○崔社會部次官, 錦江 以北避難民에 食糧補給할 계획이라고 言明.		③ 38°線 越北攻擊에 관한 去年 10月의 UN決定은 尙今 有效.
	○張國防次官, 南韓出身 捕虜의 釋放을 決定하였다고 國會에서 言明, 36歲 以上의 第2國民兵은 合格, 不合格을 막론하고 귀가시킨다고 言明.		④ 韓國의 人的 資源은 豊富하나 現在 11萬名의 韓國軍은 共產軍과 투쟁하는데 충분한 武器가 없다.
	○崔韓委代表(프랑슨) 侵略軍을 驅逐하면 大韓民國에 依한 全國統一이 實現될것이라고 言明.		○仁川市 귀환시민 3만여명.
	○UN 中共 制裁對策委議長에 土耳其 代表를 選出.		○「스타린」聲明에 「리」總長言及을 回避.
			○「리」總長 UN經濟社會理事會에 參席코자 智利의 「산디아고」 到着.
2월 18일	軍 事	2월 19일	軍 事
	○東部에서 큰 接觸 無, 我軍 注文津을 確保.		○戰線整理의 必要上 國軍 江陵철수.
	○北共 1개師 堤川 4mile 以內를 攻擊.		○中部戰線에서 中共軍 계속 총 퇴각중 我軍, 敵의 경미한 저항을 물리치면서 平均 2000야드 前進.
	○35mile의 中部戰線에서 敵 總退却 개시.		○戰車隊, 堤川北方 4mile까지 進擊.
			○原州 東南方 中共軍 3개師를 격퇴.
			○英軍, 敵의 抵抗을 물리치고 서울 東方 17km까지 進出.

년월일	주 요 사 항	년월일	주 요 사 항
	○第5空軍, 安州 淸川江上에 출격.		殺傷中 中共 21萬6千, 北共 40萬8千.
	○「릿」中將談—敵兵은 戰線에서 離脫하려고 한다.		○맥元帥 戰線訪問, 原州에서 聲明發表—① 現戰況에 滿足, ② 斷續的으로 38°線 越北하지 않을 것이다. ③ 「스탈린」聲明反駁 좀 더 잘 싸우지 않으면 UN軍을 敗北시키지 못한 것이다.
	政 治		
	○張總理, 中國防長官, 西部戰線視察.		○「크라아크」大將(美야전군부장) 來韓 前線視察.
	○38° 線停止說 排擊 國民大會, 釜山에서 開催.		○美第27연대장 「마이켈러스」준장 승진(駐韓 以來 二次 昇進).
	○洪內務次官談—京畿道內 被害狀況, 平澤市 完全폐허 3분지 1 소실, 시흥 95% 파괴, 永登浦는 今次戰鬪에는 無被害.		○山岳戰의 총아인 노새를 UN軍이 요망.
			政 治
	○救護白米 34,261袋 入荷.		○江原地區에 醫療班 6개반과 多數藥品을 派送.
	○諸威 UN代表, 諸威는 韓國避難民 救護에 10萬 내지 90萬弗의 의연금을 調達中에 있다고 言明.		○大韓婦人會 美婦一行기등 수집, 군에 기증.
	○中共 制裁對委 三委員 連席會談.		○韓美 경제安定委, 大邱, 大田, 全州, 光州視察 向發.
	○UN軍 援助國家—① 14개국 地上部隊, 또한 3개국 約束. ② 9개국 海軍. ③ 8개국 空軍. ④ 12개국 기타 물자제공.		○全法務長官談—非常犯도 再審制로.
2월 20일	軍 事		○百萬무장원조교섭 국회 3代表의 渡日保留決定(渡日手續簡次 문제로).
	○酒泉 奪還		○「언더울」박사 死亡.
	○堤川 東北方 山岳地帶를 我軍 7mile 前進.		○UN經濟報告書(全文 392頁) 발표 日 1949.6~至 1950.12.
	○橫城地區에 敵 30,000 集結中.		① 生產指數(1937基準)
	○我 探索隊 서울 東南 5mile에서 渡河敵 30명과 交戰.		ㄱ. 世界生產 160. ㄴ. 美加 180.
	○敵, 서울에서 退却 開始.		ㄷ. 英 122. ㄹ. 蘇 205.
	○海軍, 元山에 艦砲射擊.		ㅁ. 西獨 100. ㅂ. 日本 70.
	○空軍, 1,335機 出擊(敵250殺傷, 車輛 152).		② 諸國間 美國物資 輸入감퇴.
	○戰果(美陸軍省發表) 2月15日—2月 20日까지 殺傷 62萬千 및 負傷 20萬6千.		③ 非共諸國家間 무역량 증대.
			④ 諸地域의 生活水準 戰前으로복귀.

년월일	주 요 사 항
	⑤ 韓國戰亂의 경제적 영향을 반영(원료가격 등귀, 광범한 軍需經濟統制).
	⑥ 全世界의 3분지 2에 達하는 미개발지역 개발로 世界경제발전을 도모.
	○「리」總長 「스탈린」聲明에 對하여 聲明 UN이 美國에 依하여 左右된다는 「스탈린」의 主張은 상습적인 비난의 반복에 불과.
	○UN經濟理事會 「칠리」의 「산디아고」에서 五週間會合 개시.
2월21일	**軍 事**
	○3軍將軍 陣頭指揮下, 中部戰線 總攻擊開始.
	○敵 洪川방면에 후퇴, 我平 東北方 4mile 敵 抵抗강력, 我軍 橫城 5mile 內에 到達, 平昌 4mile.
	○폭우로 二次에 걸친 我軍 漢江渡河 기도不成, 漢江以南 敵을 掃蕩中.
	○空軍 작천후로 250회 출격, B29 端川 興南 폭격.
	○海軍 元山地區 함포사격, 공산군 砲壘 2개소 파괴.
	○全戰線에서 敵 1,076殺傷, 捕虜 15.
	○開戰以來(8개월間)의 敵 손해(美陸軍省發表)—都合 624,000 北軍 418,000—殺傷 242,000 捕虜 136,000—其他 疾病 40,000 中共 206,000—殺傷 185,000 其他 疾病 21,000(中共포로무포함).
	○美軍 損失 開戰以來 49,132—美國防省發表.
	○「브래드리」准將, 美第22師團長에 就任.
	○美陸軍훈련감찰관 「우드널」소장 戰線視察—在韓 共產軍사령부는 「스탈린」과 그의 정치국이라고 언명.
	○해병 제1연대 寧越東北方에서 敵 2個大隊 격파 薤田里 탈환.
	○美해병 제1사단 反擊작전 개시.
	政 治
	○국회 正副의장 任期 2年으로 단축 가결, 의원 바서제는 否決.
	○李정훈국장, 학도의용대 총동원수 약 18만명이라고 言明.
	○援護物資 輸入 3만2천톤 外資 징수총액 760억.
	○「킹스리」UN再建局長 來韓—우선 救濟事業이 必要하며 復興再建은 그 다음 문제라고 談.
	○國會新政同志會, 團體交涉 名簿提出(84議員).
	○安保「카슈밀」문제 토의를 개시—美·英 決議案提出—人權투표로 同地方 문제 해결을 安保에 권고, 즉 印과兩軍철퇴하고 치안유지를 위하여는 UN軍 使用도 고려, 인민투표에는 이를 감시할 UN代表를 임명, 그리고 만약 이렇게 하여 협정에 도달치 못할 경우에는 兩國에 대하여 國際法廷에서 임명한 調停官의 命令에 복종할 것을 요청한다.
	○伊太利UN 託治 委員會에 議席획득. 다시 投票權 許可를 要求.
2월 22일	**軍 事**

년월일	주 요 사 항
	○申國防長官, 中部戰線 視察
	○敵 大部隊, 原州地方 6mile지점에 塹壕構築.
	○10萬의 UN軍, 中部戰線에서 12mile 前進, 橫城—平昌 等地에 近迫,
	○和政府發表—駐韓和軍新司令官에 「에크호트」少領任命.
	○제5사단 丹陽으로 移動.
	○제8사단 大邱로 移動하여 後方경비에 臨함.
	政 治
	○社會部調査—避難民수 480만여명.
	○공무원 2할 감원, 신년도부터 실시.
	○濟州道 비상경계령 해제, 申장관 島民의 분기를 요망.
	○米價 조절책으로 每人當 2合式 배급키로 決定.
	○第2回 건국국채발행(500억원—4월 1일부터 발매키로 決定).
	○社會部, 상이군인 직업알선 부조금으로 2만원씩 급여하고 있다고 言明.
	○合搜에서 軍機探偵하려는 北共檢事 鄭千同(32) 逮捕.
	○「킹스리」(UN재건국장)氏—韓國 再建費로 2억5만불 할당될 것이라고 言明.
2월23일	軍 事
	○我軍東部戰線에서는 접적없이 진지를 확보.
	○我軍 平昌을 탈환코 橫城에 접근.
	○砥平地區에서 敵 경미한 저항시도.
	○我 偵察隊, 서울 및 楊平地區에서 漢江渡河.

년월일	주 요 사 항
	○中共軍 서울市에서 총퇴각, 약간의 北共軍 잔존.
	○美 순양함 「만체스터」호 등, 元山地區 本土 및 新島 砲擊.
	○美 第5공군 延 300대 출격.
	○佛軍손해—戰死 44, 부상 201, 行方不明 3, 事故 부상 126.
	최초 1,112명을 保有(巴里 UP).
	○黃海道 信川地區 義擧隊, 重要地區 確保코 猛活動.
	○丁一權少將, 中將昇進.
	政 治
	○社會部長官 言明—行政기구를 수복지구에 먼저 귀환케 한 후 일반 귀환시킨다.
	○國會, 分委增設案을 可決(8로부터 12로)—運營委, 農林, 商工, 外務.
	○美海兵隊연맹(Marine corpes Leagul) 韓國孤兒들에게 보내온 50ton 선물인 수식거행, 대통령부인 장총리 第1해병사단 공군부사령관 「커쉬맨」준장 참석.
	○UN經社理事會, 世界勞聯의 佛政府에 대한 抗議청취 동의 부결.
	○三人調停委, 瑞典에 대하여 中共意向 打診을 요청.
2월24일	軍 事
	○美軍 步兵部隊 및 戰車部隊, 橫城에 突入, 芳林里 탈환.
	○맥元帥報告—敵 게릴러 25,000준동(丹陽·寧越).
	○美第9군단사령관 「무어」少將, 漢江邊에서 헬리콥터의 事故로 戰死.

년월일	주 요 사 항
	○中共 第4野戰사령관 林彪전출, 後任 在韓 中共軍 총사령관에 彭德懷任命(未確認 AP).
	○元山地區 麗島住民(200)國軍과 同乘.
	○해병독립 제42중대 영흥만 新島에 上陸.
	○해군 新島와 小島에 上陸.
	○美5空軍 수송기 64台, 原州주둔 美해병 1사단에 보급품 329t m 공중투하.
	政 治
	○戰時예산안, 국회에 제출, 총액 7,268億(國防治安 72%).
	○國會, 全南北 8개市에 戰災民구호 조사반 파견키로 決定.
	○崔社會部長官 一線訪問, 피난민에 구호물자 분배.
	○맥元帥, UN本部에 韓國전투 진전에 관한 狀況을 보고(12月 下半—1月 上半期).
2월25일	軍 事
	○海兵隊, 元川地區의 新島 및 秦島上陸.
	○橫城西北方의 一連의 참호 속에 敵 1만 내지 1만5천 반격기도 중.
	○서울에 通하는 道路에 대하여 敵, 野砲와 迫擊砲로 사격.
	○韓國海軍, 鎭南浦地區의 龍虎島, 新島를 탈취하려는 敵을 강습, 大島상륙.
	○第8軍, 과거 1개월간의 적 손해를 12萬으로 추산.
	○「올리버 스미드」소장(第1海兵사단장) 第9軍團 임시사령관에 취임.
	○美空軍 단거리 비행 보조장치 「쇼람」 사용개시.
	○맥元帥 第14次 보고서 중에서 滿洲基地로부터의 中共飛機 出擊과 소련의 反 UN선전을 비난.
	政 治
	○黃憲親준장 初代 美大使館附 武官被命.
	○李대통령, 故「무어」소장 미망인에게 弔電.
	○張체신부장관 지방시찰소감—운영농자금 융자가 긴급.
	○물가조정을 위하여 트럭 100대를 물자 반입에 충당.
	○國難 克服日 市內 각방업자들 獻金.
	○맥元帥, 安保에 第14次 보고.
	○「그로스」美代表, 소련이 칼레에 經濟社會會議의 교란을 기도한다고 비난.
2월26일	軍 事
	○現作戰 美第7, 제25사단도 參加.
	○美 합동참모의장, 「브레드리」氏. 在韓美軍 적어도 25만명, 海軍9만명이라고 言明.
	○東海岸 接敵無함.
	○楊平 西北方 및 東北方에서 경미한 偵察충돌.
	○芳林里 西方 및 北方에서 共産軍 후위대 강력한 저항 企圖.
	○麻浦 西北方 및 北方에서 경미한 충돌
	○美제25사 탐색대, 漢江 渡河하여 서울東南方 突入후퇴대.
	○空軍 龍頭里地域의 3,000 내지 5,000 敵을 猛擊.

년월일	주 요 사 항	년월일	주 요 사 항
	○地上軍 적살상 1,690명		少 11개師(16萬)의 兵力이 있다고 發表.
	政 治		○해병 제1연대 會里로 突入.
	○張總理, 國會에서 施政方針 演說—① 治安確保, 地方自治制의 確立, ② 社會救護政策, 特히 避難民救護, ③ 外交戰 外交陣을 一層強化할 것, ④ 農林政策, 特히 食糧對策 地價證券發給 ⑤ 財政에 있어 인푸레 抑制 産業復興.		政 治
			○公報處 고문 「가이싱거」中領 來韓.
			○金宗元慶南地區 戰災民事部長, 捜査機關 亂立에 警告.
			○國會防空法通過.
	○社會部長官, 東海岸에 救護物資를 繼續發送이라고 言明.		○社會部, 避難民 歸鄕要領 發表(피난민증, 귀향증 必要).
	○「언더울」(元漢慶)博士 社會葬 盛大擧行.	2월28일	軍 事
	○慶南地區 兵事區 司令官發表—38세以上 壯丁歸鄕.		○注文津, 江陵間 敵陣地 및 部隊에 熾烈한 砲撃.
	○仁川殘留中國人들 中共에 附逆行爲(合同).		○美 第7師, 中東部戰線에서 38°線 南方 31 mile까지 到達, 敵 大部隊를 奇襲分散시킴.
	○濟州道 폭동 主謀者 金澤弘, 合捜에 被逮.		○美 2개師, 芳林里 周邊의 敵 防禦線 粉碎後, 敵의 重要 東西補給線 차단.
	○UN調停委員會, 中共의 回答을 期待緊急會合開催.		○美 加兩軍 戰車隊, 步兵部隊, 龍頭里에 進出, 洪川에 急迫.
2월27일	軍 事		○서울 周邊에서 彼我 反撃戰 熾烈.
	○中部의 我軍戰線 健全, 敵의 反撃企圖 完全粉碎.		○美海兵隊機, 海州 鎭南浦間 補給地域 攻撃.
	○美 第1海兵師, 橫城東南方 高地奪還, 橫城突入.		○美空軍, 咸興 및 淸津을 攻撃.
	○美 第2師, 橫城東南方 15mile에서 北共의 5次의 反撃을 撃退.		○과거 1주간 적 손실 11,130명.
	○中東部에서 美 第7師의 1개 연대, 北共의 防禦線突破.		○9軍團長 後任에 「호지」少將.
	○第8軍發表—我軍 漢江 南岸陣地 계속確保.		○맥將軍, 敵의 次期 大攻勢가 있으리라고 言明.
	○UN軍司令部, 韓國戰線에UN軍은最		政 治
			○戰時救護對策 中央委員會組織(委員長에 許社會部長官).
			○今日現在 310防疫醫療班을 各道에 파견중.

년월일	주 요 사 항
3월 1일	**軍 事**
	○國軍·美第1海兵師, 英·加·新西蘭軍, 橫城을 中心으로 한 25mile 線에서 總攻擊開始하여 山岳地帶에 突入.
	○美第1海兵師, 橫城東方에서 白兵戰. 中共軍 88명을 射殺.
	○美第7師, 蛾嶺洞 占領.
	○美第3師 偵察隊, 今日 午後 蘿島의 敵과 5時間 交戰後 渡河귀환.
	○美제트機 4機, 敵 MIG제트기 9대와 新義州 上空에서 10分間 空中戰, 적기 3대를 격추.
	○UN地上軍, 今日 敵 殺傷 2,175 捕虜 36.
	○美國防省發表—美軍손해 50,765명(戰死 7,636명) 2月 23日까지.
	○릿中將, 佛大隊에 美武勳表彰狀授與.
	○B-29 폭격기 古軍洞 교량폭격.
	政 治
	○三一節(獨立宣言 32주년) 기념식, 각처거행.
	○在日 60만동포, 李대통령에게 三一記念 메세지 전달.
	○UN印度代表, 英·美의 「카슈밀」 문제해결안을 거부한다고 言明.
3월 2일	**軍 事**
	○美第1海兵師, 橫城에 完全入城.
	○今日부터 8일까지 UN軍 峨嶺地區에서 一進一退.
	○敵, 安興北方에서 頑強히 저항.
	○美軍 探索隊, 수개소에서 漢江渡河, 적진탐색.
	○開戰 以來 今日까지의 美軍 손해—戰死 8,853, 부상 33,781, 실종 8,724, 총계 52,448.
	○越北한 姜泰武(前國軍少領, 現 北共연대장); 1月中에 平昌서 戰傷死(北共포로談).
	政 治
	○南下 在釜 男女中學生 개학식(경남도청).
	○丁少將, 정발차량 100대 해제에 관하여 談話發表.
	○李대통령 一般國民의 政府擁護에 관하여 特別談話發表.
	○國會 37次 本會에서 張總理, 施政演說에 대한 국회 질문에 답변.
	○社會部次官, 水原 以南 수복지구에의 귀향은 美제8軍도 허락하고 있다고 言明.
	○「불가리아」, 希土 「유고」 三國이 共謀하여 自國領土 偵察한다는 非難을 UN사무국에 제출.
	○「카슈밀」 문제에 관한 英·美案, 印拒否, 「라우」 印代表 同문제를 兩國에 返還할 것을 主張.
	○UN原子力 管理 및 軍備縮小 特別委員會 初代委員에 美代表當選.
	○「아랍」 諸國代表들, 「모록코」 問題에 관하여 協議.
	○美11개 社會團體, UN의 重大性에 관한 宣言發表.
	○3人調停委, 中共에 再次 交涉意思通告.

년월일	주 요 사 항
3월 3일	**軍 事**
	○UN軍 全戰線에 걸쳐, 1~3mile 進出.
	○美海兵隊, 橫城北方 2.5mile 321高地의 敵 참호 공격중.
	○美第7師, 北共 第15師를 猛砲擊으로 潰滅, 蓄洞里 3mile 以內로 進擊.
	○美 第3師偵察隊, 서울東南 郊外突入.
	○UN軍, 서울을 猛烈히 砲擊, 敵도 應射하였음.
	○B26 야간 폭격대, 北韓의 보급로, 南下하는 적차량 700여대 중의 100여대 공격, 약 30대를 파괴내지 파손.
	○UN地上軍, 적 2,371살상 40명 生捕
	○해병 제1연대 麻浦에 突入.
	政 治
	○高等學校資格검정고시규정公布.
	○外國 우편요금 개정발표.
	○國民 방위군 장교훈련 수료.
	○國會 38次 本會議, 對國務總理演說質問 계속.
	○UN韓國統停委, 瑞典公使를 통하여 對 中共 打診(第2次).
	○UN蘇代表「마리크」「덜레스」特使와 對日講和에 關하여 會談하려고 한 일은 없다고 聲明.
3월 4일	**軍 事**
	○國軍陣地確保, 別無變動.
	○美海兵隊, 洪川 9mile에 肉迫.
	○國第3師, 10時間 交戰後, 橫城東南 9mile地點의 高地占領.
	○UN軍, 東沙里突入.
	○UN空軍, 695回 出擊, 北韓一帶에서 敵차량 650대 이상 發見코 攻擊, 190대 以上 격파, 군용건물 1,150棟 破壞 적 500以上 殺傷.
	○敵 殺傷 2,342명, 捕虜 40명.
	○해병독립 제42중대 영흥만 黃土島에 상륙.
	○美해병 제1사단 橫城탈환.
	政 治
	○社會部, 2月末 現在 76億圓의 難民救護費를 各道에 割當하였다고 發表.
	○李대통령, 中央가축화학연구소 시찰.
	○中國會議長의 對 서울市民 메세지, 李鎭洙議員이 서울에 空中散布.
	○恐水病 예방약 생산에, 保健部에서 成功.
	○朴魯哲大領 戰死.
	○公報處宣傳對策 中央위원회 主催「三一精神 재확기 전승 기록 미술전람회」, 釜山文總會館에서 開催.
	○「카칸」「파키스탄」UN代表, 「카슈밀」문제에 대한 美·英 提案수락 用意表明.
	○「말리크」소련 UN代表, 금후 對日講和 문제로는 「덜레스」씨와 相議하지 않는다고 言明.
	○Un Esco 主催의 「바에루트」會議에서 近東印度, 東南亞, 阿佛利加 地方의 500만 盲人에게 「부레이유」(Braille) 「알파베트」使用을 決議.
3월 5일	**軍 事**
	○國軍第7師, 38°線에서 25mile인 下珍富里에 到達, 적 35명 사살 2名 生捕.
	○美第2, 7師 및 佛軍, 中部戰線의 山岳

년월일	주 요 사 항	년월일	주 요 사 항
	地帶에서 추산 6천의 北共 追擊中.		鹽 5,000ton, 기타 물자 138,129吨, ECA物資原綿 6,021箱子 等 入荷.
	○美 제7사 전차 보병대, 蒼洞里에 突入, 夜間 다시 撤收, 敵夜襲에 待備.		○UN集團安全對策委員會에서—
	○美 第3師 偵察隊, 서울探索.		1. 「부라질」代表, 委員長 就任.
	○美제트기隊, 中部戰線에서 美軍部隊에 돌격가는 北共軍 6천을 네이팜彈으로 攻擊.		2. 「벤크롤트」美代理代表 各國兵力의 集團的 使用을 爲한 臨時措置 및 政·經 等 諸般手段의 集團的 使用案 推進焦急이라고 緊急動議.
	○UN空軍 延 670機 出擊, 적 750名 以上 殺傷, 戰線 後方의 都市村落 50개소 공격.		○美代表, UN會員國의 多大數가 9月 1日까지에 必要時에 쓸 수 있도록 武力을 保有할 것을 提議.
	○제5空軍, 지난 2月 24日부터 「쇼대」電波探知機 使用함을 發表.		○對韓國救濟金, 2,100萬弗 UN會員國이 捐出—「리」사무총장, 對記者談.
	○第5空軍 15萬回 出擊 수립 기념.		○泰國米, 韓旋中.
	○적산상 2,324.		○UN經社理事會(於 칠레 「산디아고」市)에서 波蘭代表, 南美諸國은 美國의 兵器廠이 되지 않기 위하여 좀 더 蘇聯衛星國家와 通商하기를 要請.
	○ William M. Hoge소장 美제9군단장에 취임.		○中國本土에서 國府支持者 20萬名 肅淸(過去 6개월間)—國府 國防部發表.
	○제5사단 橫城(雲橋里—安興里)더로 突入.		○UN全亞經濟會議, 英代表, 「스텔트」氏, 蘇聯은 自己 支配下의 國家의 自由를 全面 박탈한다고 非難.
	政 治		○蘇·比·濠·中 等, UN全亞 經濟會議에 日本 加入反對 論議
	○財務部長官에 白斗鎭氏 被任.		**軍 事**
	○政府, 土地改革法에 依하여 昨年度에 120만 小作人에게 土地分配했다고 發表.	3월 6일	○美 第2師, 長坪(서울東方 85mile) 탈환.
	○國會 39次會, 敎育法中改正案 上程.		○空軍 금일 출격 29회
	○李大統領, 大邱着.		○春川—洪川間에 상당수의 적군 이동, 少數 駱駝部隊도 出現.
	○李서울市長, 食糧問題에 관하여 對記者談—米穀 30萬石, 政府에서 割當, 3,200ton 糧穀 仁川에 入港.		○UN空軍 夜間偵察機, 北韓 各地에서 적차량 700대의 南下를 發見.
	○治安局管下 全國警察官, 新生活運動展開(料亭出入 許可制, 奢侈品 使用自肅, 家族皆勞).		
	○「무치오」大使, 前線視察.		
	○5일 現在, 救護物資—白米 7,721吨,		

년월일	주 요 사 항	년월일	주 요 사 항
	○맥·릿 兩將軍, 敵이 大攻擊을 爲하여 集結中이나 UN軍은 그것을 擊退할 수 있다고 言明.		○中部戰線, 敵, 防衛線後方에 9—12個師 10萬名(第3野戰軍所屬) 移動中.
	○第8軍, 開戰 以來의 國軍側 損害發表, 戰死 66,000, 負傷 87,000, 失踪 69,000 총계 169,000.		○맥元帥, 戰線 12次訪問後에 聲明發表—韓國動亂은 理論上 軍事的인 沈滯狀態에 빠지는 것은 不可能하다고.
	○밴第8軍司令官, 對 記者談—自己部下들은 如何한 共軍의 攻擊도 粉碎可能, 敵의2月 21日 以後 손해 20,500名.		○陸軍本部에 第5課 設置.
	○제7사단 龍善北쪽 高地탈환작전개시 靈鷲山, 白石山 탈환.		政 治
	○해병 제1연대 鳳山里進擊.		○孔農林部長官 車中談—4萬 以上 人口都市에는 食糧配給 實施計劃(9月末까지), 農作肥料 今 6月까지는 37萬 5千톤 入荷예정.
	政 治		○美트大統領, 白善燁准將에게 表彰狀 및 最高勳章授與.
	○農村 避難民, 收復地區 귀환許可一線 內務長官 發表.		○大邱에서 特別 地方長官會議 開催 當面緊急施策을 討議.
	○李大統領, 第5空軍司令官 表彰.		○國會, 敎育法改正案(6, 3, 3, 4) 可決.
	○美國 女子戰災救濟會로부터, 5千弗과 救濟物資 寄贈.		○中央放送局 周波數를 今日 저녁 放送부터 800kc로 變更(종전은 650kc).
3월 7일	軍 事	3월 8일	軍 事
	○國軍第7師, 敵의 壓力으로 餓峴面 近方에서 3—5mile 後退.		○敵, 今夜 UN軍 4個師에게 正面攻擊, 徹夜激戰.
	○英軍部隊(美第1機師所屬), 龍頭里東方에서 4mile 前進.		○美第25師, 前日의 橋頭堡 陣地를 5mile北方으로 擴大.
	○美第25師, 서울東南方 15mile 地點에서 漢江渡河, 橋頭堡陣地 構築.		○美巡洋艦「만체스타」및 驅逐艦 3隻 其他의 함대, 城津灣에 突入하여 城津의 軍事施設 砲擊.
	○美第1海兵師, 橫城北方 5mile까지 進出.		○美「제트」機隊, 新義州 上空에서 敵 MIG 60대와 遭遇(敵은 싸우지 않고 逃避).
	○美第25師, 楊平西方 3mile의 153 高地의 敵을 白兵戰으로 격퇴.		○B-29編隊, 春川大爆擊(220ton 投下).
	○美 第24師 所屬隊, 龍門山占領.		○第5空軍 戰爆機, 敵 500名 殺傷.
	○今日敵殺傷 11,400(開戰 以來 最高記錄).		○제7사단 龍善北方 白石山 탈환.

년월일	주 요 사 항
	政 治
	○李大統領, 地方長官會議(今日終了)에서 訓示—自給自足이 急先務라고.
	○釜山人口 : 889,931名.
	○敎育法中 改正案 審議, 通過分—中學은 3年, 初大 2年(初大는 高校卒業者入學資格).
	○馬 1,500匹, 牛 1,500匹 濟州道에서 移入決定—農林部 發表.
	○明年 3月까지 牛馬 屠殺禁止.
	○特別 地方長官會議에서 國民生活 最低限度 縮少討議.
	○慶尙南北道 非常戒嚴 해제동의, 國會提出.
	○31歲 以上 壯丁귀향, 天安·淸州·尙州·蔚珍 以南—尹益憲防衛副司令官談話.
	○校舍徵發緩和策, 對政府建議決議(國會에서).
	○國會自家肅淸問題는 不懲戒로 可決.
	○UN經社理事會席上, 美代表 「루빈」氏, 戰後蘇聯의 軍備 확장비난.
3월 9일	**軍 事**
	○美第7師, 北共과 白兵戰 끝에 大美에서 撤收.
	○美第25師, 漢江橋頭堡를 6mile 까지 擴大, 首都를 側面으로부터 威脅.
	○美第25師, 美第24師(楊平地區)와 連絡成功.
	○UN空軍 319回 出擊, 敵 200 以上 殺傷.
	○UN地上軍이 敵에게 준 今日의 殺傷者는 推定 6,977名.
	○美 第25師, 敵 200 以上을 生捕.
	○美 第2師團長 「카이저」 少將 「펜실바니아」 第5步兵訓練師團長에 轉出.
	政 治
	○歸屬農地 特別措置法案, 國會通過.
	○丁少將, 前線視察코 歸邱.
	○糧穀配給價格 改正, 白米 1kg 443圓, 60kg 1섬 25,000圓.
	○UN安保에 印 「라우」代表, 「카슈밀」問題는 當事國에 一任하라고 要請.
	○UN經社理事會席上에서 美「리드」代表, 未開發援助, 各國 責任分擔讚揚.
	○UN集團委員會, 對中共政治, 經濟的制裁 以外에는 아무 軍事的 制裁도 取하려는 計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發表.
3월 10일	**軍 事**
	○龍頭里北方의 美軍, 3km 前進 東方에서 英軍도 2km 前進.
	○橫城西方의 國軍, 接敵없이 크게 進出.
	○서울 西南方地區의 敵은 別無 活動.
	○UN軍은 漢江以北의 敵陣地 探索續行.
	○서울東方 24km 地點의 美第25師는 1—4km 前進.
	○美第24師 楊平 北西 10km의 860高地 탈환.
	○UN 空軍, 北韓全域에서 敵 車輛 1,100대 발견, 그 중 119대 격파.
	○UN空軍機, 橫城北方의 共產軍 部隊頭上에 빈 麥酒瓶 2,400개를 投下.
	○UN地上軍, 敵 4,988명 殺傷, 37명

년월일	주 요 사 항
	生捕.
	政 治
	○趙內務部長官, 私生活에 強壓發動 不許라고 경찰관의 婦女子 복장간섭에 注意喚起.
	○新 崔 財務部長官, 이취임식.
	○新 白斗鎭 財務部長官, 財政年度 隨時 計劃 實施를 談話.
	○密陽·天安 等地에서, 40萬ton 土炭 採掘計劃(農林部發表).
	○政府, 500億 建國國債等, 國會에 提出.
	○公報處, 外國刊行物 販賣는 事前 檢閱必要하다고 發表.
	○文敎部長官, 敎員·生徒의 不穩分子 再敎育을 爲하여 國民思想指導院 設置 예정이라고 記者會見에서 言明.
	○UN 美 代理代表「그로스」氏, 現 世界對立은 UN憲章수행자와 비수행자의 투쟁이요, 미·소의 투쟁은 아니라고 蘇聯선전을 비난.
	○國際 아동구제기금(UNICEF),「책코」政府가 그 計劃의 대부분에 協力하지 않으므로「프라그」사무소를 閉鎖.
3월11일	軍 事
	○芳林地域 中共軍, 완강 抵抗 계속중.
	○洪川地區 中共軍, UN軍의 攻擊으로 後退, 美海兵隊 洪川南方 6km, 38°線南方 49km 地點에 到達.
	○漢江渡河한 UN軍 先鋒부대 서울 南部로 2mile 前進.
	○美第2師, 敵의 경미한 저항배격, 4km 前進, 英軍 第27여단, 38°線 南方 40km에 있는 2개 고지 占領.
	○美第2師, 橫城東北方 6mile 지점의 北共軍을 夜襲, 北共軍資材 一切를 버리고 北走.
	○3月 8日의 敵 反擊으로 後退한 國軍, 失地回復코 戰線 귀착.
	○美第1기갑師, 陽德院에 도달.
	○UN 夜間폭격대, 적 차량 1,450대를 발견, 74대 이상을 격파.
	○만제스타號, 城津 砲擊.
	○UN地上軍, 敵 3,030名 殺傷.
	○中共 제66軍 洪川防衛 強化中.
	政 治
	○「콕」美總軍司令官 및「트」大統領 韓國戰線 特使「루우」少將, 戰線 視察코 東京으로 귀환.
	○非戰鬪員의 예방주사 실시 상황—천연두 200만, 장티프스 120만, 발진티프스 250만.
	○丁抹 病院船 釜山入港.
	○9個國(比·加·「홀듀라스」·英·白·和·諾·瑞典·丁抹) 代表로 구성된 16명의 UN出張 事務員, 韓國配置—韓國復興委員會 發表.
	○朝鮮에서, 每月 7萬尺 生産成功.
	○李大統領, 道路橋梁 修築事業 促進하라고 談話發表.
5월12일	軍 事
	○美 新鋭部隊, 交替繼續中.
	○敵 總 退却氣色.
	○UN軍 先遣隊, 洪川 5mile 地點에 到達.
	○中共軍, 서울에서 撤退開始.

년월일	중 요 사 항
	○B-29, 20대 金化猛爆, 200ton 投彈.
	○新義州上空에서 大空中戰(F86 12대, MIG 30대) 敵機 擊墜 破損 6.
	○UN 地上軍, 敵 3,085명 살상 114명 生捕.
	○韓國戰線에서 美軍, 無線操縱彈 使用說(UP).
	○「릿지웨이」將軍, 中部戰線 시찰코 談話—38°線 終戰計畫은 不關知, 38°線에서 終戰된다면 UN의 大勝利, 單 하나의 生命이라도 無爲消耗치 않도록 愼重用兵 今次 攻勢의 彼此 損害率은 60 : 1.
	○제7사단 旌善北方 下珍富里, 東沙里 탈환.
	○美86전폭기 MIG 2機 격추.
	政 治
	○李大統領, 鄂越方面 一線視察.
	○丁少將, 第3陸軍病院 表彰.
	○全警察에 重火器의 特別敎育實施.
	○金法務部長官, 拷問은 國民基本權 侵害라고 記者會見에서 談話.
	○海軍本部, 西海 一部 除外한 全海域 漁撈및 運航許可 布告, 外國船이「맥」라인 侵犯時는 拿捕토록.
	○UN 對 中共制裁委員會 委員長「제럼 사르라르」氏, 外交的制裁(現在狀態에서)는 別無効果, 經濟的制裁는 全自由國家의 忠實遂行如何에 달린 것. 38°線 突破問題는 軍事的 決定에 依할 것 等. 所信披瀝.
3월 13일	**軍 事**
	○全戰線에서 敵, UN軍과 接觸끊고

년월일	중 요 사 항
	後退開始.
	○東部地區의 敵軍, 全面的 撤退.
	○中部戰線의 國軍, 유동南西 4mile 地點에서 敵의 경미한 抵抗에 遭遇.
	○西部戰線의 敵의 抵抗 減退.
	○美第7師, 長坪占領.
	○韓國海軍艦, 黃海道 延白海岸을 急襲 北共軍을 敗走시키고 救護를 請하는 愛國青年 100여명을 救出, 椗泊島에서保護中.
	○美 第5空軍, F86 제트기, 新義州 上空에서 蘇製 MIG제트기 15대와 交戰 1대 破損, 잔여는 國境外로 逃走, 我方 損害無.
	○美 第10軍團長으로부터 崔榮喜准將에게 銀星勳章.
	○해병제1연대 車項里에 進擊.
	政 治
	○國防部 會計監査規定公布.
	○UN 救護米 3,700석, 釜山港 到着.
	○UN當局側 見解—「릿」駐韓8軍司令官의 12日 聲明은 韓國戰爭의 協商可能性을 提議한 것이라고(韓國武力統一斷念을 考慮中이라는 示唆).
	○UN經濟社會理事會席上에서 國際開發 은행총재 불랙氏, 未開發地 援助計劃 必要 力說, 今後 該銀行에서 15億弗 投入計畫수립을 言明.
	○UN經社理事會에서 UN會員國은 軍費의 30—50%를 縮少하여 社會事業에 돌리자는 波蘭提案을 否決.
3월 14일	**軍 事**
	○韓國海兵隊, 北共 第10師와 交戰.

년월일	주 요 사 항	년월일	주 요 사 항
	○第1海兵師團, 1개연대 裝備分의 武器 노획.		萬名을 射殺하였다고 虛構的 抗議를 提出.
	○美戰車部隊, 洪川通過, 38°線 18mile까지 進出.		○UN經社理事會(「산디아고」에서 開催)에서 西獨, 越南, 「라오스」, 日本의 UNESCO加入에 同意.
	○서울 再奪還		
	1. 第1師의 5개 偵察隊, 漢江渡河, 서울에 들어갔으나 敵이 전혀 없으므로(下午 9시 15분) 中央廳에 太極旗 게양코 귀환, 그 보고를 듣고 美第3師 入城.	3월15일	**軍 事**
	2. 敵의 서울拋棄는 3월 7일에 서울 東南方에 橋頭堡를 樹立한 美第3師가 서울 側面으로 깊숙히 進出하였기 때문임.		○美第2師, 龍頭里北方에서 北共軍과 白兵戰, 射殺 600, 生捕 8.
	○UN地上軍, 敵 1,500명 殺傷, 265명 生捕.		○美戰車部隊 및 美海兵 제1사단, 洪川掌握.
	○極東空軍, 無線操縱彈으로 橋梁爆擊에 好成果를 얻고 있다고 言明.		○서울 掃蕩完了.
	○UN軍 司令官들, 中共軍 總退却 理由를 愼重 檢討中.		○UN 空軍延732機出擊, 夜間에 敵 車輛 450대 발견코, 30대 이상 격파.
	○中共軍 「暫時」 서울에서 撤收하였다고 放送(中共放送).		○UN地上軍, 敵 1,580명 殺傷, 201명 生捕.
	○제6사단 龍門山 탈환.		○美 第5空軍司令官 「파트릿지」少將, 中將으로 昇進.
	政 治		○空軍士官學校 鎭海分校 設置.
	○大統領, 귀속財産拂下 경매에 관하여 特別談話.		**政 治**
	○880萬名分 의료품, UN으로부터 入荷.		○丁戒嚴司令官, 노획무기, 軍需物資의 移動禁止 布告.
	○李大統領, 各種稅 緊急徵收코 인프레 防止와 國務, 軍務에 支障없도록 各道知事 및 司稅官에 指令.		○國會法中 改正法律 公布.
	○北共政權, 蘇聯을 通하여 UN에 UN軍이 서울에서 7만5천명을 投獄하고,		○社會, 保健部, 一部 서울向 先發.
			○李大統領, 트大統領과 맥元帥에게 수도탈환 멧세지 發送.
			○文敎部에서 學徒 身體檢査制 實施.
			○古破鐵 對美輸出은 今日부터 交通部서 一括取扱
			○李大統領, 「릿지웨이」將軍, 「무쵸」大使와 大統領 官邸에서 要談.
			○李大統領, 民間實業家 招請코 인프레 問題協議.
			○空軍에 菊空俱樂部 發足.

년월일	주 요 사 항
3월16일	○中央 傷痍軍人 靜養院規則 公布. ○UN經社 理事會所屬, 經濟委員會, 1951—1952年度 各國 軍豫算 削減建議案(蘇, 「체코」 提), 否決(15對 3). ○UN 三人委, 秘密會議. ○UN經社理事會 美代表, 蘇聯內의 強制勞動實態調査를 爲한 5人委員會 設置를 提案—蘇聯에는 2—3백만의 抑留外國人 勞動者가 있다고 言明. 軍 事 ○美海兵隊, 洪川確保中. ○國軍第1師, 속속 서울 入城. ○UN空軍, 825回 出擊, 敵 車輛100대 이상 격파, 敵 650명 이상 살상. ○UN地上軍, 敵 950명 殺傷, 77명 生捕. ○開戰 以來 금일까지의 美軍 損害 55,814(戰死는 9,379). ○해병제1연대 제3사단 22연대와 교대, 洪川으로 向發. ○해병독립 제5대대 富平北方으로 전진 제1사단에 배속. ○空軍 各 基地部隊 汝矣島 基地로 前進. 政 治 ○멕元帥, 서울 遷都는 保留라고 李大統領에게 送翰. ○申國防長官, 38°線 越境問題에 관하여 聲明發表. ○申長官, 서울訪問. ○第2回 5分利國債, 各道割當, 서울 100, 京畿 50, 慶南 150, 慶北 80, 全南 50, 全北 30, 忠南 30, 忠北 20
3월17일	江原 20, 濟州 10(단위는 억원). ○農林部 次官에 崔昶德氏 任命. ○UN平和監視委員會 初會合—①「리」事務總長, 世界平和維持 爲하여 UN의 耳目되라고 演說. ② 이 會에 中共代表를 參加시키자는 蘇提案否決. ③ 今年度 會長은 「콜럼비아」의 「우루티아」박사. 軍 事 ○希軍, 香川에 이르는 한 高地에서 中共軍의 突擊을 2次나 격퇴. 敵 사상 222명, 生捕 12명, 敵 부상 600명, 敵機 2次에 걸쳐 洪川地區에 來襲. ○UN軍, 서울市 北方郊外로 1km진출. ○UN軍, 偵察隊, 서울 北方에서 敵과 小衝突. ○UN空軍 800회 이상 출격, 美F80제트機, 敵機 MIG와 충돌墜落. ○UN地上軍, 敵 4,650名 殺傷, 395名 生捕. ○1월 25일 以來 敵 損害 175,000. ○맥元帥, 戰線訪問(13次), 水原에서 38°線 突破 문제는 此後담변을 약속. ○美極東 空軍, 開戰以來 15萬回 출격. 政 治 ○趙內務部長官, 北韓行政에 대비하여 行政要員 短期講習所를 開設할 예정이라고 發表. ○韓國 및 美國憲兵隊, 釜山國際市場에서 10수레分의 美 軍需品 押收. ○金日成, 最後까지 싸운다고 「스타린」에 書翰(蘇聯 北韓共產 經濟文化相互

년월일	주 요 사 항	년월일	주 요 사 항
	援助條約 2주년 記念日).		○第8軍司令官, 敵의 春季 大攻勢를 警告(麾下將兵에게)
	○UN經濟委 智利 代表, 強制勞動에 관하여 蘇聯非難코 美英支持.		政 治
	○「라우」印 UN代表, 韓國停戰 爲하여 尙今努力不惜이라고 言明.		○國會, 4月分 政府豫算만 審議하기로 決議.
3월 18일	軍 事		○UN軍, 서울殘留市民에게 6萬名分 食糧配給.
	○全線에서 서의 接敵없음.		○釜山에서 군중대회, 38°線 抹消, 맥장군에게 滿洲爆擊權주라는 等의 勸告決意 表明.
	○高軍部隊, 洪川 西方上서 敵約 1,500과 遭遇.		○政府 112명의 先發隊를 서울로 出發시킴, 그러나 首都再建은 當分間 保留
	○UN空軍 580回 出擊, 敵後方施設攻擊		○政府, 召集된 約 20萬의 第2國民兵을 訓練設備 不足으로 召集해제 하겠다고 發表.
	○UN地上軍, 敵 555명살상, 33명 生捕		○北共放送—帝國主義 侵略과의 투쟁에 모든 可能한 援助를 주겠다고 한 「스탈린」의 金日成에게 보낸 祝電文을 發表.
	○第8軍代辯人, 五斯彈(砲彈 및 爆彈) 使用한일 없다고 中共放送 反駁聲明.		○UN 경제社會 理事會에서 강제노동조사위원회 설치안(美·英 제출)可決, (15:3).
	○北韓一帶, 敵車輛 400대, 夜間移動中	3월 20일	軍 事
	○제1사단 서울 西北方에 布陣 臨津江 진격준비.		○서울北方에서 國軍偵察隊, 敵2개소대와 交戰.
	○제2사단 安東지구에 침투한 敵유격대 격멸작전 投入.		○UN空軍, 740回 出擊, 軍用建物 1,100棟 以上 擊破.
	○해병 제1연대 洪川으로 이동, 美해병 제1사단에 배속.		○UN地上軍, 敵 650名射殺, 37名生捕
	政 治		○英 陸軍敎育總監「케일」中將 戰線視察談—中共의 主導權 재장악 없을타.
	○李內務部長官, 韓日通商協議 參席次 渡日.		○해병제1연대 洪川北方에서 北進開始.
	○盧監察委長, 公務員職責 完遂에 대하여 警告聲明.		政 治
	○李大統領, 大邱 視察.		○趙內務部長官, 首都 再建案에 대하여
3월 19일	軍 事		
	○美 裝甲探索隊, 議政府 南方에서 野砲 迫擊砲의 掩護를 받은 敵 1개 소대와 交戰後 撤收.		
	○地上戰關에서 敵손해 800명, 1月25日 以後 敵손해 177,000.		
	○敵, 38°線 以北으로 敗走中.		

년월일	주 요 사 항
	성명발표.
	○防衛軍 各級敎育隊 해체.
	○李대통령 歸釜.
	○敎育法中 改正法律 公布.
	○許社會部長官, 召集解除 귀향 장정에게 廣木 5嗎式 配給할 예정이라고 발표.
	○UN經社理事會, 未開發地區 技術援助計劃案 採擇.
	○UN社會委員會, 「제네바」에서 개최. 議長에 「샬크위지그」博士(南阿代表)
	○「카슈밀」문제, 英美 修正案 提出—自由選擧實施까지 UN軍이 同地域統轄.
	○UN定期總會, 巴里에서개최키로 決定
3월21일	**軍 事**
	○國軍 東部 38°線 8.5mile地點까지 進出.
	○中共 第3野戰軍, 第26兵團 出現.
	○美軍 탱크探索隊 春川에 無血 入城.
	○UN軍, 서울北方에서 敵2개소대와 交戰, 10명 生捕.
	○UN空軍 802回出擊, 敵 650명이상 殺傷.
	○UN地上軍, 敵 1,500名 殺傷, 98명 生捕.
	○開戰以來 今일까지의 在韓英軍 損失 980(戰死 165).
	○陸軍大領 朴東均, 劉升烈, 權晙, 安椿生, 尹致旺 各各 陸軍准將에 昇任.
	○제1사단 汶山一帶 攻擊개시.
	政 治
	○李대통령, 林富澤·任忠植 兩大領 表彰.
	○申國防部長官, 海兵隊 表彰.
	○洪內務部次官, 保衛局 密偵團逮捕 經緯 發表.
	○鐵道警察隊 本隊 및 鐵道警察隊 사무분장(分掌)規定 (內務部 訓令第12號) 廢止하고 內務部令第15호로 新規程公布.
	○UN第6次 定期총회, 來11月 6일 巴里에서 개최키로 可決.
	○UN經社理事會, 韓國復興에 UN會員國의 貢獻要請決議案(英提案) 可決.
	○「카슈밀」문제, 英美, 新共同決議案을 安保에 提出.
3월 22일	**軍 事**
	○第8軍, 午前 8時 일제공격개시.
	○F86 4대, MIG 1대와 空中戰(신의주) 적기 1기 격추. 1기 파손.
	○敵 살상 2,650명.
	○과거 9개월간 美第5空軍戰果, 적전차 900대 격파, 기관차 400대 격파 적기 331대 격추, 살상 93,000명 적차량 7,000대 격파, 추력 6,000대 격파,
	○美軍損失(開戰以來), 戰死 8,335, 戰傷 36,893, 行方不明 10,586名(AP).
	政 治
	○國境선총진격, 國民大會개최(釜山).
	○李대통령, 申國防部長官, 제9861부대 致賀및 위문품 送達
	○防空法 公布(단 施行期日은 大統領令으로써 定함)
	○趙내무부장관, 殘匪殲滅必遂期間(3月

년월일	주 요 사 항
	10日—4月 10日)中 우선 3月 19日까지의 戰果發表—공비 사살 2,054, 生捕 562, 自首 725 其他 武器多數.
	○強盜殺人한 前鍾路署刑事 3명 起訴.
3월23일	**軍 事**
	○美 第187空挺聯隊(VOA 보도) 汶山地區에 落下(午前 9시) 兵力 3,447名 補給品 2207.
	○上記作戰은 北共第1軍團 퇴로봉쇄가 目的이라고 릿 司令官談.
	○낙하산부대, 美기갑부대와 연락 성공
	○美極東부사령관 「크레이크」少將, 「헤네브리」 第315공수사단장, 낙하산 부대 작전을 공중시찰.
	○UN軍, 議政府突入.
	○F86, 15대와 MIG 15, 30대 신의주상공서 空中戰, 적 2대 격파.
	○淸平地區 공격개시.
	美25사단 : 淸平—退溪院間
	美3사단 : 退溪院—雙門洞間
	土耳其旅團 : 磨石北쪽 高地
	比律賓大隊 白耳義大隊)議政府부근 탈환.
	政 治
	○全南방직공장 발전소 완전복구.
	○申국방부장관, 취임 2주년 記念式.
	○今日午前 영시로 忠南, 慶南北, 全南北中 8市 28郡 비상계엄해제.
	○李대통령 특별성명—UN軍, 國境進擊 후 철퇴하여도, 50萬국군, 國土 保全可能.
	○李서울市長, 서울시찰.
	○崔憲兵司令官, 民弊根絶에 관하여 담화발표.
3월24일	**軍 事**
	○國軍偵察隊, 38°線突破—1.5~3km進出 敵과 交戰後 다시 귀환.
	○敵, 淸平北方에서 頑強히 抵抗.
	○美 第1기갑사 정찰대, 春川北方 38°線以南 2mile餘地點 돌입.
	○UN軍, 議政府에서 抱川에 이르는 高地를, 敵 2개대대와 白兵戰끝에 점령
	○敵, 汶山方面에서 我軍陣地에 散發的인 砲擊.
	○韓國海兵隊, 丹沙반도上陸, 적 100명 以上 殺傷, 67명 生捕.
	○F86, 16대 MIG15, 17대와 新義州 상공에서 空中戰, 적 1기손상.
	○UN地上軍, 敵 3,225명 살상, 341명 生捕.
	○맥元帥(戰線視察)—作戰上 必要時는 38°線 再突破, 現地司令官에게 命令.
	○맥元帥, 戰線—서울間視察(議政府 近方)(14次).
	○제1사단 汶山-東波里의 日月峰 奇襲戰
	○해병제1연대 加里山 탈환.
	○C—119수송기 汶山里에 보급품 187.7톤 空中投下.
	政 治
	○李政訓局長, 對記者談— 壯丁의 組織的 계획적 疎開政策奏效 讚賞.
	○趙內務長官, 京仁地區視察
	○國會, 戰時租稅特別法案 完全通過.
	○李大統領談話—韓滿 國境까지 進擊할 것이며 그 前에는 停戰不可라고.
	○陸軍綜合學校, 24期生卒業式 擧行.

년월일	주 요 사 항
3월25일	軍 事
	○國軍探索隊, 鐵網越境.
	○敵, 終日 散發的인 抵抗.
	○接敵 거의 없음(西部)
	○UN空軍, 108回 出擊, 夜間에는 敵車輛 180대중 25대 격파.
	○UN地上軍, 적 325명 살상, 180명 生捕.
	政 治
	○傷痍軍人, 第3次 除隊式.
	○UN集團對委委員長 「싸워」氏, 中共은 背後操縱 벗어나고, 最近 맥帥令官解任을 들으라고 談話.
3월26일	軍 事
	○春川北方에서 敵 1개소대와 交戰.
	○議政府로부터 北上中의 美戰車步兵部隊, 38°線 南方 10.mile, 議政府, 汶山地區로부터 東進해 온 美軍 부대와 合流.
	○UN空軍 750回 出擊, 적 462명 이상 살상.
	○UN地上軍, 적 1,360명 살상, 407명 生捕.
	○C—46수송기 汶山里에 보급품 10톤 空中投下.
	政 治
	○李대통령, 誕辰日에 談話發表—38°線 突破 攻擊態勢 完備.
	○國軍第7169부대 閱兵式— 李大統領, 申國會議長, 張국무총리등 참석(대구)
	○申國防部長官, 希獨立記念日에 담화 발표.
	○美製기관차 25대, 修理分 15대 釜山 入荷.
	○希독립기념식, 在韓希大隊本部에서 거행.
	○國會第51次 本會議에서 學期初 4月 1日로 可決. (但 今年만은 9月 1日로)
	○張國防部次官, 私設援護團體를 단속하겠다고 談話.
	○李대통령, 造林, 農土開拓 強化하라고 內務, 農林, 兩長官에게 특별 시달.
	○UNESCO, 韓國戰爭終熄에 대비 1,000萬弗의 敎育 및 부흥계획 진행준비
3월27일	軍 事
	○國軍부대, 襄陽北方 高地에서 敵 2개중대와 交戰끝에 이를 占領, 敵射殺 129명.
	○美軍, 中共 3개대대를 議政府 東北方에서 包圍.
	○B29, 北韓 各地 大擊擊.
	○C—119수송기대 보급품 65.8톤 汶山里에 空中投下.
	政 治
	○學制 6.3.3制 單一化—文敎部서 行政措置
	○戰災住宅 再建을 爲하여 30억원 計上—許社會部長官 對記者談.
	○서울市 殘留市民—中區 10,530, 東大門 22,325, 城東 31,040, 西大門 15,400, 龍山 4.215, 城北 25,000, 麻浦 24.584. 計 128,045명 永登浦 鍾路未詳).
	○國民思想指導院 職制公布 (大統領令第465號)
	○UN 韓國派兵 14개국, 會合後, 1주내

년월일	주 요 사 항
	성명발표 결정—席上에서 美·韓國戰爭에 관한 UN新政策關聯 성명草案, 13개국에 手交.
3월28일	**軍 事**
	○中共, 大部隊兵力集結 春川北方 約 9萬
	○春川地區서 終日接敵 계속.
	○國軍部隊, 高浪浦方面으로 進擊中.
	○UN기동부대, 元山(38日째), 城津(19日째) 함포사격.
	○B26, 平壤 開城을 夜間爆擊.
	○B26, 平壤 咸興 爆擊.
	○UN地上軍, 敵 約 1,670名 살상, 75명 生捕.
	○平壤—漢川間 敵大車輛부대 이동.
	○제1군단장 金白一少將, 大關嶺上空에서 飛行中 散華.
	○릿지웨이中將, UN軍高級司令官들과 秘密會談後 「무치오」大使와 單獨會談.
	○美25사단 抱川 탈환.
	○美3사단 東豆川 탈환.
	○土耳其旅團 542高地 탈환.
	○比律賓 및 白耳義大隊, 冠嶽山, 東豆川탈환.
	政 治
	○鴨綠발전소, 4月10日까지 복구로 1만kw 발전가능이라고 商工部 電氣局長談.
	○軍屬令中 改正公布(大統領令466호). (1951년 1월分부터 적용)
	○UN本部, 美國과 合議下에 UN專用우표 발행決定—단 UN本部로 부터의 발송우편물에만 사용.
3월29일	**軍 事**
	○UN軍, 敵 防衛線에 接近.
	○春川北方에서 激戰.
	○議政府方面, 敵 後衛부대 총퇴각.
	○美·英부대, 서울東方에서 선공세 展開.
	○UN함대, 元山에 대하여 41일째의 포격실시.
	○空軍 536회 출격, 차량31대 격파.
	○B29, 1대, 기관고장으로 추락.
	○F80, 12대, 定州操車場 폭격코 車輛 20—25대 擊破됨.
	○F80 4대, 谷山터널 폭파.
	○B26, 15대 沙里院 비행장 습격.
	○B29, 新義州 철교 및 平壤비행장 폭격.
	○F82 16대, MIG 15, 23대와 交戰.
	○敵 MIG15型 젯트기 1대, 宣川에서 列車夜間공격중인 B 26에 총격.
	○790名 살상, 57명 生捕(地上軍).
	○태국軍, 最初로 一線에 參加.
	○約 3만명의 中共軍, 戰線에 投入.
	○敵車輛 약 2,100대 北韓 各處 이동中
	政 治
	○張總理, 一般國民의 勤儉堅實生活 수립 요청담화 발표.
	○國會, 警察援護法 法案通過.
	○UN 世界人口調査局發表, 世界人口 1950年末 23억8천6백만, 1945년 終戰直後 18억3,400萬.
	○UN發表, 濠洲, 韓國救濟金, 440萬弗 納入.
3월30일	**軍 事**

년월일	주 요 사 항
	○國軍, 38°線以北 8mile 進出. ○春川—金化地帶, 共産軍 8萬 布陣. ○中共軍, 小規模反擊不斷. ○UN軍, 今日正午경, 東豆川南方 1km 地點에 進出. ○臨津江 左端에서 3—4mile 前進. ○UN空軍, 夜間에 北韓各地에서 移動中의 敵車輛 1,800대 발견, 100대 以上 격파. ○UN空軍, 敵戰車 7대를 京義街道에서 爆砕. ○B29, 38대 韓滿國境(新義州 철교)에 爆彈 280屯投下, 掩護한 美젯트기 35대와 挑戰한 敵 MIG15 38대 사이에 空中戰, 적 1기 격추, 2기 破損. ○敵車輛 이동, 28—30 3일간 5,900대 30일 적차량 100대 격파. ○敵戰車增援부대, 38°線으로부터 25—35mile 地點을 京義街道로 南下中. ○共産軍, 來月 3주이내, 空前의 大攻勢可能—第8軍 觀測者 發表. ○美軍死傷者(개전來) 57,120명. (死 9,602명) **政 治** ○國會 6.25 以後 殉職警官給與金 支給案通過(54次 會議) ○李大統領, 滅共 國民大會에서 연설—南北統一없이는 世界平和不可期라고. ○第2國民兵, 12萬 以上을 召集해제(각 교육대에서) ○國會, 居昌事件調査委員을 選出키로 決定. ○1950년도 學年末(8月末日) 및 1951년
3월31일	도 學年初(9月1日)에 관한 件 公布(法律184號) ○敎科課程 硏究委員會職制公布(文敎部令 16호) ○UN安保, 「카슈밀」 問題解決案(美英共同提案)可決 8對 0, 棄 3) ① 新UN委員團(未選定)은 앞으로 3개월간에 「카슈밀」의 國民投票로, 印·파 兩國에의 所屬을 決定하는데에 必要한 「카슈밀」의 武裝 해제에 대하여 印度, 「파키스탄」의 同意를 얻을것. ② 3개월이후, 未解決 문제는 국제裁判所長이 임명하는 仲裁者의 解決에 遲附할 것. **軍 事** ○國軍, 38°線 以北 10mile地點 도달. ○國軍부대, 汶山前面 임진강 渡河, 적 20명 사살, 35명 生捕하고 南岸에 귀환. ○美 2개 탱크탐색대, 議政府 北方에서 上午 10時 21分 및 下午 2時 40分에 각각 38°線 돌파, 야간에 일단 以南으로 귀환. ○B29편대, 韓滿國境 교량폭파, 彼我젯트 80대, 大空中戰, 적1기 추락 4기 파손. ○敵 1,000名 살상, 67명 生捕. ○美陸軍省 22日 現在, 敵損害 發表, (USIS)—中共 29萬3천명, 26만은 戰鬪로 인한 것, 3만1천은 非戰鬪로 인한 것, 포로 2,300명, 北共軍 46만7천명 28萬 3천은 전투로 인한것, 4만5천은 非戰鬪로 인한것, 포로 13만 9천명.

년월일	주 요 사 항
4월 1일	**政 治** ○朝鮮 石炭配給會社등 8개 회사, 國營企業體로 指定公布. ○6.25事變 收拾費, 特別會計法令 公布 ○國會 : 居昌事件調査委員 選出. ○國會 : 國政監査班 構成. 法制司法 1명, 內務 1, 外務 1, 國防 3, 財經 2, 農林 1, 文敎社 1, 交通通信委 1, 國會運營委 5, 專門委員 1, 職員 1. ○國會 56次會議, 第7回追加更正豫算案 上程審議, ○「섬머·타임」實施 保留. ○以北收復地區 爲하여 行政要員 123명 講習會終了. ○國防部本部 日直근무 규정 公布(國防部訓令 10호). ○오佛大統領, UN本部訪問. ○過去 UN訪問의 各國 領首—美·智·墨·印·「파키스탄」·英·「이란」·佛 **軍 事** ○東海岸縣里(38°線 南 3mile)의 敵, 수백㎜ 南下. ○韓國海兵隊 創建 2주년 紀念日. ○1月 總攻勢以來, 敵 出血 22萬. ○3月中, 第5空軍 戰果, 敵機 擊墜破 18, 車輛 擊破 3,900, 戰車 擊破 45, 敵爆破 1만千餘名, 2萬回 出擊. ○中共 第4野戰軍, 同第3軍과 交代. ○空軍 第101基地戰隊 및 補給廠 창설. **政 治** ○避難民, 서울에 陸續歸還. ○釜山市物價, 1月 1日의 約 2倍, 6.25 前의 6.3倍.
4월 2일	○釜山에서 反共華僑大會. ○四種新우표(5, 20, 50, 100원) 발행. ○慶州, 馬山線, 今日부터 일반 여객차 運行. ○UN韓國協會, 組織擴充. ○國債補助券法施行令 公布 (大統領令 467號). ○通行禁法中 改正法律公布(法律 180號). ○國債補助券發行에 關한 規程公布(財務部令 29호). ○韓國銀行, 國債補助券 事務取扱規程 公布(財務部令 30호). **軍 事** ○國軍, 東海岸에서 38°線 北 2 mile 진격. ○敵의 最後據點, 春川戰線에서 一大激戰. ○UN軍, 再次 西部에서 越境, ○今夜, 全前線에서 敵 抵抗 散發的. ○美國軍事情報局 心理作戰部, 現地司令官과 停戰交涉하자는 맥元帥의 親書文과 함께 降服勸告삐라를 中共軍陣地에 撒布. ○UN空軍, 新安州地區 猛爆. ○2,300대의 敵 車輛이동, 開戰以來 最高記錄. ○맥將軍談—中共擊滅確信. ○慶南鄕土防衛隊, 東部地區 殘匪討伐次 出發. ○맥將軍, 中共이 原爆企圖하고 있다는 警告성명 발표.

년월일	주 요 사 항
	政 治
	○內務部長官談—美軍需物資, 買賣嚴禁
	○內務部長官, 서울視察次出發.
	○國會, UN·트大統領·맥將軍에게 38°線停止 平和交涉 緩衝地帶 設置 反對의 멧세지를 보내기로 決議.
	○國會, 討伐軍編設置案 否決.
	○UN食糧農業機構(FAO), 華府에서 移轉하여 今日, 伊「로마」市에 新本部 開設.
4월 3일	**軍 事**
	○UN軍, 44萬의 敵과 對峙中.
	○東海岸 國軍, 橋頭堡擴大中.
	○UN軍, 大擧 38°線 越境.
	○希臘軍, 春川北方에서 38°線 到達.
	○國軍, 臨津江 渡河, 敵數個中隊와 交戰.
	○咸興, 平壤에 高性能 爆彈 250톤 投下.
	○新義州 上空에서 大空中戰(UN 젯트기 90대 참가).
	○2일간에 걱 MIG 4대 격파, 11대 大破.
	○延 707機 출동.
	○敵 損害 1,440명.
	○맥元帥 東部戰線 以北 15mile 地點을 視察, 戰略에 變動없다고 言明.
	○맥元帥談—敵 兵力은 63개師.
	○美海兵 제1사단 및 해병제1연대 昭陽江突入.
	○空軍 F-51機 伊川北方지역 폭격.
	政 治
	○張總理談—祖國分割決定은 絶對不可.
	○社會部長官談—在 濟州道 壯丁귀환中
	○郡中國大使談—本格的 本土 反擊作戰 不遠.
	○政府, 收復地의 敵性 通貨回收.
	○國會, 今日부터 15일까지 休會.
	○交通部, 4,800噸 造船計劃樹立.
	○北共政權, 拉致한 南韓青年을 滿洲에서 訓練說(大韓).
	○敵 從軍記者, 金日成은 「侵略者를 朝鮮에서 逐出할 自信있다」고 말하였다고 報道.
	○「에네즈엘라」 UN에 對韓 追加 援助 70,000弗을 提供하겠다고 申請.
	○「리베리아」, UN에 對韓 追加 援助 15,000弗의 生고무를 提供하겠다고 申請.
4월 4일	**軍 事**
	○國軍, 甘城占領.
	○國軍, 東海岸에서 38°線 以北 15mile 進出.
	○UN軍, 昭陽江 北岸에 橋頭堡構築, 春川上空에 所屬不明機 出現.
	○中部 38°線 以北 5mile 地點, 敵 抵抗微弱.
	○UN軍, 金化로 猛進擊.
	○UN軍 機動부대, 西部東側에서 38°線北 4mile 進擊.
	○空軍, 西部 38°線 北에서 敵 戰車 4대, 車輛 28대 격파.
	○敵機 11대 擊墜破,
	○美 F80 젯트機, 平壤北方서 敵 500명을 네이팜彈으로 攻擊, 300명 殺傷.

년월일	주 요 사 항	년월일	주 요 사 항
	○헬리콥터機, 北韓에서 墜落된 F80, F82機의 操縱士 2명의 구출에 성공. ○敵 殺傷 1,520명. ○해병 제5대대 金浦半島 탈환. ○F-51機 伊川北方 지역폭격. **政 治** ○內務部長官談(2,3日 視察後)—安養, 原州以南 農村避難民은 귀환中. ○濟州道 開發事業, 18億 융자로 本軌道에 오름.		威北의 一部(12月末)에 幽閉中. ○居昌事件調査團, 正體不明의 暴徒에 被襲·任務遂行치 못하고 귀환. ○美 在鄕軍人會에서, 李大統領에게 명예훈장 증정. ○漢江철교 복구 준공식. ○금일 현재 피난민 총수 720만. ○UN新韓委 一行, 서울視察. ○「아시아·아랍」 13개국, 對韓平和 해결안 검토.
4월 5일	**軍 事**	**4월 6일**	**軍 事**
	○國軍, 38°線 以北 15mile까지 進出(東部). ○金化·春川에서 擊攻作戰으로 敵을 總攻擊. ○UN軍, 中部戰線에서 開戰 以來 最大의 砲火掩護下 38°線 以北 수개高地 猛攻. ○西部·中部에서, 38°線 以北 5mile 探索. ○敵殺傷, 1,180명. ○美空軍, 敵 MIG 15型 5대를 擊破. ○內務部長官, 共匪最高 第2回 戰果發表, 射殺 3,263명. ○해병제1연대 昭陽江에서 美제7사단과 交代 春川 南方에 집결. ○空軍 F-51 伊川北方 敵 기동로 후방 차단. **政 治** ○地方放送局 職制公布(大統領令 468號) ○歸屬農地 特別措置法公布(法律 185號) ○金奎植·安在鴻氏 등 慈江道·平北·		○美軍, 寒溪·鵝峰間高地의 敵을 掃蕩. ○泰軍, 華川西方高地 奪還. ○美軍, 「용동」西方 및 北方에서 進擊中. ○38°線 以南의 敵 全部 驅逐. ○UN空軍, 開戰以來 敵機 275대 격파. ○白准將(第1사단장) 少將昇進, 第1軍團長으로 榮轉, 제1사단장에는 美文泰准將 新任. ○中共飛機 數千機 滿洲에 集結說(AP). ○美空軍本部發表, 滿州內 敵機 3천대 未滿(美空軍의 優秀한 카메라는 通한 情報라는 것을 暗示). ○맥將軍, 國軍遊擊부대를 讚揚. **政 治** ○申國防長官談—學徒義勇隊(正式 勤務者 外의) 政訓工作隊 解散. ○申國防部長官, 軍人으로서 軍關係 談話發表時는 國防長官의 許可가 必要하다고 發表. ○駐韓 ECA事務, CAC로 移管(4월 3

년월일	주 요 사 항
	일附).
	○李大統領, 勝利陶醉에 警告—戰爭은 未終了.
	○財産家들의 將兵慰問金, 今日현재 총액 5,900萬圓(大統領秘書室 發表).
	○「리」總長, 中共 停戰提案時까지 계속 전쟁하여야 한다고 言明.
	○「시리아」 UN安保理事會에 「이스라엘」의 爆擊事件 審議를 要求.
4월 7일	**軍 事**
	○國軍 2개사, 東部에서 15mile 進擊.
	○中西部 中共軍, 總退脚.
	○美軍, 「용동」에서 敵陣地 유린코 진격.
	○國軍, 臨津江 渡河코 交戰.
	○英 海兵奇襲부대, 城津南方에 기습 上陸, 海岸線 主要部 파괴코 귀환.
	○韓國海兵隊, 鴨島·延坪島의 향방대와 協同下에 옹진반도의 琴山里·花山里에 기습상륙, 戰果擴大中.
	○新義州 上空에서 敵機 2대 격추.
	○中共放送, 美機 安東 폭격을 非難(AP 9).
	○UN地上軍, 敵 1,320명 살상 72명 生捕.
	○제1사단 汶山부근 明峰 再次 기습.
	○B-29폭격기 草里 迂回교량과 新義州와 義州間 교량 폭격.
	○空軍 F-51機 龍捕里, 文岩里間 敵 補給路 폭격.
	政 治
	○外務部長官에 卞榮泰氏, 駐英公使에 李卯默氏, 駐佛公使에 全奎弘氏 決定.
	○李大統領, 團結을 強調.
	○駐美韓國大使館 初代武官 黃憲親准將 華府向發.
	○文總, 임시사무위원회에서 原稿料 引上 決定—散文 200자 1枚 천圓, 詩 1篇 萬圓.
	○遞信部長官, 國內航空우편 再開言明.
	○3月中 徵稅額 30億.
	○최람, 「불가리아」의 同國國境侵犯을 UN에 抗議.
4월 8일	**軍 事**
	○敵 抵抗漸次弱化, UN軍, 探索戰을 活潑히 展開.
	○春川北方 敵, 抵抗頑強, UN軍 先遣隊, 一時 後退.
	○彼我 정찰대, 漣川南方서 충돌.
	○甕津半島 上陸의 韓國海兵隊, 계속 松林面을 進擊中.
	○B-29, 嶺美·永興兩 鐵橋에 폭탄 160屯 投下.
	○B-29, 압록강 철교 맹폭, 彼我 젯트기 大空中戰.
	○F80젯트기, 肅川서 石油탱크에 命中彈.
	○릿中將 協商停戰에 反對한다고 談.
	○敵 960명 살상, 75명 生捕.
	○中共 기관지 人民報, 抗戰계속을 호언.
	○空軍 F-51機 伊川北方 烽火山 및 文岩里, 支岩里 作戰路 폭격.
	政 治
	○今日부터 慶南北, 忠南北(忠州郡外 2

년월일	주 요 사 항	년월일	주 요 사 항
	개군 제외) 全南北 地域 비상계엄해제 警備戒嚴令 實施.		께 전달하여옴.
	○防空法 公布.		○英「첼」代表, UN총회에서 對中共 制裁는 要 愼重이라고 演說.
	○日船, 맥線 侵犯 노골, 20일간 33척 나포.	4월10일	軍 事
	○맥線 撤廢 反對大會거행(釜山에서).		○UN軍, 高浪浦 탈환후, 계속 진격.
	○金白一少將 조난을 발표.		○鐵原·金化間 敵 集結處에 爆擊洗禮.
	○서울人口 32만명.		○華川 地區에서 敵, 遁走.
4월 9일	軍 事		○美軍, 昭陽江渡河(華川西南).
	○國軍, 杆城에 突入.		○漣川南方에서 小規模 散發的 충돌.
	○UN軍, 華川으로 進擊.		○中共, 西部戰線에 兵力增強中.
	○美軍, 鐵原市內에 砲火洗禮.		○新義州 上空에서 F86, 12대, MIG 15, 8대 간에 공중전.
	○UN軍, 臨津江 北方陣地 強化.		○敵 950명 殺傷, 31명 生捕.
	○中共軍, 華川貯水池 放水로 北走.		○「페이스」美陸軍장관과 릿지웨이將, 前線視察.
	○空軍, 午前中에만 240回 出擊.		○美해병제1사단 昭陽江에서 美7사관과 交代, 春川地方에 再配置.
	○敵 大輸送隊, 南下, 鐵原, 金化, 華川에 集結.		○空軍 F-51機 伊川 및 倉川지구 폭격.
	○第5師團 昭陽江 渡河.		政 治
	○空軍 F-51 利川北方 文岩里, 松亭里 中心 敵補給品, 集積所 명타.		○釜山에서 越南同胞 궐기대회.
	政 治		○UN麻藥委員會개최—阿片生産을 醫藥 및 科學用에 制限하자는 案等 討議.
	○中國會議長談—백元帥의 성명은 3千萬 意思와 符合.	4월11일	軍 事
	○大統領, 外資導入과 인푸레 억제책 강구 言明.		○UN軍, 華川貯水池로 進擊계속.
	○張총리, 대체적 시정방침 수립을 言明.		○UN偵察隊, 麟蹄에 突入(敵無).
	○張國防部次官談—日本 再武裝時, 韓國 武裝強化가 必要.		○UN軍, 漣川西南方에서 臨津江 渡河進擊, 聯隊 以上의 적과 激戰.
	○世界保健기구 총회에 具永淑氏가 參席키로 決定.		○UN空軍, 雨天으로 113회 출격.
	○布哇同胞, 今日附로 1,300弗을 義手, 義足 제작 기계구입 보조비로 大統領		○UN地上軍 敵 615명 살상, 30名 生捕.
			○릿지웨이將, 후임으로 「밴·플리트」(Van Fleet)中將이 취임(臨時로 「밀번」 제1軍團長이 指揮).

년월일	주 요 사 항	년월일	주 요 사 항
	○해군함정 압록강하류 신미도에 격추된 MIG-15 전투기 수송차 출항.		○空軍 F-51機 敵軍地域 敵 補給品 集積所 폭격.
	政 治		政 治
	○李大統領談—맥元帥 해임은 遺憾, 릿 장군 수완에 기대.		○「페이스」陸軍長官, 李大統領과 要談.
	○中國會의장談—맥元帥更迭은 유감.		○中議長, 맥將軍·릿中將에게 메세지.
	○李哲源公報處長談—맥元帥해임은 경악할일.		○白文敎部長官談—南下한 以北 敎員 再敎育中.
	○國會 梁外務委員談—맥장군 해임은 한국민에 천天벽력.		○內務部地方局, 地方稅法 改正要綱을 國會에 提出.
	○共匪占領下의 서울市民 凍餓死者 千여명		○駐美大使로 梁裕燦氏 正式任命.
	○「리」총장, 맥元帥해임에 논평거부.		○有力한 UN外交官을, 美國의 平和門戶 開放에 대하여 이번에는 中共이 態度를 表明할 것을 注視.
	○美代表, 맥원수 해임통고, UN, 「릿 리웨이」장군을 환영.		○UN總會, 各國이 「侵略防衛軍」(一朝有事時는 各國에 配置함)에 과견할 軍隊를 UN本部에 通告하여 달라고 要請.
4월12일	軍 事	4월13일	軍 事
	○漣川 貯水池 南方에서 敵 抵抗頑强.		○全線에서 敵, 反擊.
	○UN先遣隊, 漣川突入.		○漣川東南에서 敵反擊, 臨津西南에서 小衝突, 楊口, 麟蹄의 敵 抵抗增大.
	○UN軍, 鐵山江南方 中共陣地를 火焰放射器로 猛攻.		○UN地上軍 今日戰果, 敵 4,275명, 殺傷 30名 生捕.
	○美戰爆機(F-84E F-86) 114~124대(B-29, 30대 포함), 敵 MIG제트기 95대와 新義州上空에서 史上最大의 제트機 空中戰, 敵 제트機 5대 擊墜, 3대 격파, 15대 파손, B-29, 2대 상실.		○週間戰果(4.7—4.13) ① 空軍出擊 4,417, 敵戰車 12대 격파, 살상 1,600 以上, MIG 15, 28대 破損, ② 地上軍 敵射殺, 11,370名, 捕虜 278名.
	○적, 18만을 韓國戰線에 再投入, 敵 投入兵力 總數 69萬.		○被害, 開戰以來 B-29, 6대 喪失.
	○UN空軍, 799회 出擊.		○美空軍폭격기대, 新幕·順安·沙里院·龍州·咸興·連浦·江東 等 飛行場에 高性能 時限폭탄 大量投下.
	○敵 2,460名 殺傷.		○空軍 F-51機 遂安 東西쪽및 東等 補
	○릿將軍, 今日 日本에 갔다가 今夜 歸韓.		
	○第5師團 麟蹄 탈환.		

년월일	주 요 사 항	년월일	주 요 사 항
	給路 강타.		○楊口 東南, 麟蹄南쪽에서 敵의 抵抗 頑強.
	政 治		○UN軍, 鐵原을 包圍攻擊, 敵의 猛烈的 반격 격파.
	○忠武公 406周 誕生紀念日에 李大統領, 鎭海向發.		○UN軍, 楊口東北方 3.mile 夜村에 突入.
	○內務部, 警察戰鬪隊의 6개월간 綜合戰果를 발표—共匪 4萬 射殺.		○韓國海兵隊, 我遊擊隊 支援下에 鎭南浦 上陸.
	○孫提督, 忠武公 誕生日에 談話—日의 侵略根性粉碎必要.		○UN 海軍艦隊, 元山·淸津·城津港에 대한 砲擊 계속, 西海岸의 UN 海軍驅逐艦隊, 鎭南浦 南方의 長山을 砲擊.
	○金省三 海軍准將 등 35명에 대한 銀星章 수여식 거행(鎭海).		○美 젯트기, 敵 젯트기 4대 擊破.
	○李大統領, 「스미스」 美 海軍少將에게 功勳章수여(鎭海).		○UN空軍, 금間에 延 642台 出擊, 美空軍 F80 戰鬪機隊, 蘇製 MIG 15 戰鬪機 4대와 交戰, 彼我 損失無.
	軍 事		○UN空軍, 開戰以來 敵機 317대 擊墜破.
4월14일	○UN軍, 鐵原으로 進擊.		○B-29 海州·咸興을 猛爆.
	○場岩里 地區에서 敵 抵抗頑強.		○空軍 F-51機 海州 新院里間 연료저장소 폭파.
	○UN軍, 漣川에서 敵의 反擊粉碎하고 계속 北進, 敵 1,000여명 살상.		政 治
	○맨쳐司令官指揮下, 作戰進行.		○第839部隊, 第4次 陸隊式.
	○中共, 北韓에 飛行場 增設中.		○新任 第8軍司令官 맨中將, 鎭海 空港着, 李大統領·무쵸大使와 要談.
	○UN空軍, 765回 出擊. 敵 200 以上 殺傷.		○맨中將·무쵸大使同伴, 新韓委訪問.
	○UN 地上軍, 敵 1,635명 살상, 214명 生捕.		○北共外相, UN事務總長과 安保理事長에게 打電—伯林의 平和擁護大會宣言을 基礎로 한 和平解決의 用意가 있다(平壤放送).
	○제6사단 春川 西北方의 38°선 進擊.		○UN事務總長 「리」氏, 希臘 「아테네」에 到着.
	○海州 北쪽 新昌里 補給品 集積所 및 海州—載寧間 作戰路 폭격.		
	政 治		
	○內務部長官, 國議 補選實施를 言明.		
	○嶺合大學 査閱式(釜山에서).		
	○「마그너슨」 美議員, 李大統領과 漁業條約 締結問題로 要談.		
	○國政監査 完了.		
4월15일	軍 事	4월16일	軍 事

년월일	주 요 사 항	년월일	주 요 사 항
	○UN軍戰車部隊, 華川貯水池 東端 楊口에 突入.		○UN事務局, 北共側의 平和案 接受.
	○西海岸에서 我艦艇 對空射擊으로 敵機 1대 격추, 1대 격파.		○「유고」UN代表, 總會에 38°線 停戰協定을 提議.
	○F86 16대, MIG 30대와 平北 上空서 空中戰.		○「아랍」同盟諸國會議, 韓國戰爭問題를 討議.
	○B29, 平壤 飛行場 滑走路 폭격.	4월17일	軍 事
	○國軍 全線에서 敵 43명 殺傷, 56명 捕虜.		○國軍 杆城占領後 北進.
	○滿洲의 中共 基地 爆擊을 在韓 美司令官 力說.		○鐵原方面의 UN軍, 敵을 制壓漸進中, 華川 北方 50粁에 걸친 地帶에 共產軍 50萬 集結.
	○美 第24師團長 「마이어」少將, 交代法에 依하여 本國귀환, 후임에 「할록크」大領.		○華川地區의 強한 敵 砲兵부대, 今日부터 沈默.
	○敵, 北韓 一帶에서 煙幕戰術.		○UN空軍 夜間폭격대, 平壤·金城·新義州·安岳 等地 爆擊.
	○蘇와 東獨비행사, 韓國戰線에서 「젯트」機 操縱說(AP).		○UN空軍 젯트機隊, 3日에 걸쳐 敵의 철도시설 爆砕.
	○中國防長官, 東部戰線에서 펭中將과 會見.		○UN地上軍, 敵 1,515名 殺傷, 24名 捕虜.
	○空軍 F-51機 利川 一帶 敵陣地 및 補給品 集積所폭격.		○美軍隊 交代法에 依하여 第1次 本國귀환병, 離韓.
	政 治		○新任 펭第8軍司令官, 最初로 戰線시찰—8軍의 士氣는 旺盛, 決戰 準備充分하다고 談話.
	○政府 對日媾和條約에 萬端準備 外交委構成코 賠償問題 등 審議.		○空軍 F-51機 伊川 一帶 作戰路 및 연료저장소폭파.
	○卞榮泰氏 外務長官 就任.		政 治
	○SCAP의 要請으로 抑留中의 日進夫 200명을 日本에 送還키로 決定.		○丁抹電信會社, 浦項·方魚津間 海底電信線 國際犯人搜査에 5,000弗 현상금.
	○煙草播種面積擴張, 生產目標 2,800萬斤.		○「무지오」大使, 서울 視察.
	○國會, 臨時發行에 關한 政府案否決. (第58次 本會議에서).		○北韓和平提案을 UN 各 代表 묵살形
	○國會, 張總理의 國際情勢聽取를 動議可決.		

년월일	주 요 사 항
	勢.
4월18일	**軍 事**
	○敵 後退, 全線에서 繼續.
	○UN軍, 華川 및 貯水池 奪還
	○美步兵부대, 芝浦里 탈환.
	○美戰車 기동부대, 連川北方에서 敵彈藥庫를 폭파.
	○UN軍, 敵 489殺傷.
	○美最新式 潛水艦, 韓國水域에서 活躍中.
	○空軍 F-51機 伊川地區 松亭里 補給路 폭격.
	政 治
	○朝紡疑獄事件, 今日附로 軍法會議에 回附.
	○金 慶南戒嚴民事部長, 美 수사기관 근무 韓人도 韓人拘束時에는 令狀 必要하다고 發表.
	○全國 編輯記者會 創立總會개최.
	○金財務次官談—脫稅行爲 철저 단속.
	○國會, 居昌事件보고, 非公開會議.
	○內務·國防·財務 3長官 共同警告—寄附行爲 一切嚴禁.
	○李副統領, 慶北地方視察次 出發.
	○倭舘 洛東江 철교 開通式 거행.
	○公務員의 資格銓衡—高等銓衡委員 會方針決定.
	○「아시아·아랍」12개국, 和平에 대한 中共 態度 打診코저 秘密會議.
4월19일	**軍 事**
	○中部戰線에서 UN軍 偵察部隊에 敵 頑強히 抵抗.
	○美軍 戰車부대, 火焰放射器로 敵을 물리치며 鐵原 3mile 地點까지 進擊.
	○國軍偵察隊, 高浪浦 西方, 西北方 一帶 偵察 계속, 적과의 접촉은 거의 없음.
	○英 航母「데제우스」호 艦載機隊, 鎭南浦 地區에서 機雷부설중의 쟝크 65척과 敵兵舍 地區에 命中彈.
	○UN軍, 敵 4,015名 殺傷.
	政 治
	○在韓華僑, 反共 抗蘇 運動委員會 조직.
	○決戰 國民生產淨化聯盟 結成——總裁에 國務總理.
	○吉野川鐵橋竣工式—中央線 原州까지 開通.
	○大韓商工會議에서 第4次 장병 위문사업으로 6,000萬圓 醵出.
	○國會, 討議議案 提出議員 不在로 10分만에 散會.
	○金融通貨委員會에서 今年度 桑苗蠶種資金을 殖銀서 貸出키로 決定.
	○空家確保에 萬全, 物資搬出에는 洞會立會—盧 서울駐屯 헌병중대장 談.
	○濟州道에는 共匪殘徒 75(男 54, 女 21)뿐—軍警合同作戰奏效.
	○經濟安定委員會에서 生產, 電氣복구, 資金을 優先 융자키로 決定.
4월20일	**軍 事**
	○UN軍, 鐵原砲擊(戰車砲로)圈內에 到達.
	○金化, 平康間에서 中共軍 決死的인 遲延作戰.
	○UN함정, 元山을 62回째 砲擊.
	○B29隊, 連浦飛行場 爆擊,

년월일	주 요 사 항
	○UN항공대, 延 552機 出擊一敵 車輛 75대 격파.
	○開戰以來 敵의 損害는 959,018명
	살상 (北 共 104,835 / 中 共 291,895 / 不 明 17,143)
	포 로 145,145
	(美陸軍省 代辯人 20日 發表)
	○今日 敵 殺傷 1,115.
	○我 F42 함재기의 敵機 격추 수훈에 美극동함대 사령관 「조이」中將, 孫少將에게 賀辭.
	○敵 반격에 만반태세—戰線 初度視察로 귀환한 밴플리트談.
	○美 海軍當局, 我海軍 장교 3명外 士兵 5명에 銀星章 수여했다고 發表.
	政 治
	○李大統領, 播種前에 水田下의 土炭을 採掘코 火木使用 嚴禁을 各 道知事에게 指示.
	○公務員旅費規定 改定公布.
	○서울人口는 今日 現在 465,447명.
	○美國 CIO에서 世界 基督敎 구제회를 通하여 보내온 3,000弗分 救護物資 傳達式 거행, 式後同物資를 街頭戰災 노동자에게 分配.
4월21일	軍 事
	○UN軍 鐵原南方에서 頑強한 敵과 交戰.
	○UN軍 戰車隊, 臨津江 渡河北進.
	○美海兵隊 所屬 「크르세어」機 2대, 鎭南浦 近方 上空에서 敵 야크전투기 3대 격추, 1대 격파.

년월일	주 요 사 항
	○UN空軍, 적 차량 222대 격파.
	○UN地上軍 금일 敵 1,335 살상, 32 生捕.
	○空軍 F-51機 利川地域 敵 陣地폭격.
	政 治
	○憲兵隊司令官, 國民防衛軍 사건에 엄격한 法을 行使한다고 談話發表.
	○釜山 影島에서 實驗砲彈의 爆發, 11명 死傷.
	○16개 主要都市에 DDT 空中살포—保健部에서 春季防疫對策 발표.
4월22일	軍 事
	○敵, 豫期하던 春季攻勢개시(中部).
	○敵 1개연대, 金化南方 및 西南地區에서 浸透.
	○敵 1개연대, 高浪浦地區에서 臨津江 渡河企圖.
	○B29機, 安岳·新幕·沙里院·連浦의 各 飛行場 滑走路 爆擊.
	○美 第5空軍, 全機動員 出擊.
	○敵 2,025명 살상, 43명 生捕.
	○맨中將談—英軍의 사단전성을 환영.
	○맨中將談—적의 위험은 개전이래 最大이나 UN軍은 이를 격퇴 가능(敵 春季 공세개시 수시간 전의 전선기자회견에서).
	○제6사단 金化로 進擊中 史倉里에서 激戰.
	○空軍 F-51機 金化地區 敵 陣地 및 伊川地區 폭격.
	政 治
	○事變 이후 各種 곡물 총 피해량 812,379石, 價格 10,244,342,200圓.

년월일	주 요 사 항
4월23일	**軍 事**
	○鐵原南方 4mile 地點까지 進出했던 UN軍, 舊陣地로 철수.
	○敵, 金化南方의 UN軍 陣地에 大突破口를 뚫음.
	○UN軍부대, 敵의 反擊으로, 漢灘江南岸으로 撤收.
	○UN工兵隊, 漢灘江架橋架 1基와 舟橋 爆破.
	○美第5空軍 771回 出擊, 敵 1,800余상(開戰以來 最大記錄).
	○前線視察한 밴 中將, 記者會見談—敵側, 中共軍 北共 以外의 各種 義勇軍 동원하에 第3次 決戰 전개 예상.
	○美 극동공군사령관 談—滿洲폭격 않고서는 敵 空軍 대공세를 막을 수 없다고.
	○해병독립 제41중대 白翎島에 상륙.
	○空軍 F-51機 利川地區 敵 砲陣地 폭격.
	政 治
	○韓日通商협정 체결.
	○李副統領, 慶北地區 시찰마치고 歸釜 第2國民兵 待遇에 談話—남의 貴한 子息을 이제 무슨 꼴.
	○國聯 韓國會長에 趙炳玉박사 취임.
	○財務部에서 國債補助券 消化方法發表—금일부터 발매.
4월24일	**軍 事**
	○敵, 金化南方의 突破口를 따라 南進, 增強된 UN軍部隊, 이를 阻止成功.
	○今夜, 春川西方에서 接戰展開,
	○UN軍 戰車부대반격, 麟蹄를 재탈환.
	○敵의 夜襲에 대비하여 UN軍 2개사를 臨津江南岸에 배치.
	○敵, 高浪浦 南方의 UN軍 陣地에 침투, 彼我間에 激戰中.
	○UN軍戰車隊, 高浪浦南方에서 UN軍 一部隊를 救出.
	○F86, 24대와 MIG 40대 西北韓 上空에서 空中戰, 敵 제트기 1대 격추.
	○今日 敵 살상 7,155.
	○美 극동空軍司令官「스트라트메이어」中將談—滿洲 폭격 않는限, 敵 空軍 攻勢防禦 不能이라고.
	○릿 총사령관來韓, 美第1軍團長「밀번」中將 및 其他 基地 司令官들과 協議.
	○海軍本部, 法務감실장 金省三준장, 정훈감실장 겸임發令.
	○釜山市에 最初의 空襲경보.
	○空軍 F-51機 처음으로 NAPALM탄 사용 敵 陣地 파괴.
	政 治
	○릿將軍, 空路 韓國戰線시찰코 귀임—雌雄을 決定하는 一大決戰, 敵 粉砕에 自信滿滿하다고 談話.
	○滿洲에 國際共產軍(41개국) 50만 集結 司令官은 쏘련의「푸렝코프」元帥說 (마니라中央社).
	○比「모루모」外相, 中共軍이 三次戰을 야기킬 위험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談.
	○「아란」油田 노동자 17,000명 직장 복귀.
4월25일	**軍 事**
	○敵 약 2萬名, 白逸里 南方으로 약간

년월일	주 요 사 항
	침투.
	○國軍海兵隊, 華川地區에서 激戰中.
	○UN軍 西部戰線에서 38線 以南으로 철수.
	○B29 水豪비행장 맹폭.
	○美 극동공군, 出擊 1,000여회, 戰線 突破口의 敵에 集中공격.
	○UN地上軍, 敵 8,830살상.
	○맨將軍, 第8軍 將兵에 檄—自由世界 全人民, 侵略者와 決戰期 到來, 韓國과 母國의 平和를 爲하여 투쟁.
	○美海軍「스미스」少將, 中部戰線에서 陣地 死守한 韓國海兵隊(대장 金聖恩 대령)에게 찬사.
	○맨將軍「버크」英27여단장 방문코 회담.
	○空軍 F-51機 鉛寧 및 開城地域 敵陣地 폭격.
	政 治
	○金 法務長官辭任.
	○國會, 國軍 10개師 증설 可決—編成用武器를 美國에 申請하기로 決議.
	○國會內에 特別警備隊 設置.
	○治安局 非常경비 총사령부에서 경찰 참모회의 개최—緊急特別指令決議—① 全力을 和國에 ② 警察의 政治 도구화반대 ③ 警察內의 당파반대 ④ 순수無垢의 경찰육성.
	○UN韓國再建局次長 「럭키」경 來韓.
	○서울殘留市民에 撤收命令(사변후 세번째).
	○UN安保에서 「시리아」·「이란」國境問題討議.
4월26일	○「이스라엘」代表, 「시리아」國境爆擊을 UN 安保에게 謝過.
	軍 事
	○UN軍, 급속히 철수중(中部).
	○UN軍, 서울 西北方 17mile에서 敵 猛襲阻止.
	○UN軍, 서울東北方에서 反擊 2mile進出.
	○國軍 第3889부대, 제11中隊(中隊長 金應來대위) 加平 西方 6km, 543 高地에서 敵 1개 연대와 激戰, 全員壯烈한 玉碎.
	○UN젯트機隊, 平壤里 上空에서 敵 MIG隊를 邀擊, 敵3機 격파.
	○反擊以來, 敵死傷 7,185명.
	○今日 敵 殺傷 3,425명.
	○美第1海兵사단장에 「토마스」소장 新任.
	○맨中將談—漢江北岸에서의 防禦에 自信 滿滿하다고.
	○空軍 F-51機 伊川地區 作戰路 폭격.
	政 治
	○UN韓國再建局(UNKRA) 委員長 代理 럭키氏, 新韓委와 UN한국 再建局 事務所 設置에 관하여 예비회담.
	○申國防部長官, 辭表提出.
	○尹義士 의거 19年 記念日.
	○金상공부장관談—UN軍, 物資押收에 대한 過度의 是非論은 도리어 不愉快한 結果招來.
	○李大統領, 金海空港에서 「스미스」美 제1海兵사단장에게 銀星 二等 무훈장 수여.

년월일	주 요 사 항
	○國政監査報告(3일간) 完了.
	○金宗元大領 記者會見談—연합신문사 부국장 구타사건에 관하여, 언론인 구타한 것은 末安하다고.
	○今次 三장관 辭任은 次期 大統領선거와는 무관이라고 공보처장 談話.
	○釜山市 육군병원에서 後方부대장회의—軍紀確立과 民幣根絶에 市長官 및 丁中將訓示.
	○郵便物 集配 遲延, 輿論化.
4월27일	**軍 事**
	○UN軍, 春川—서울 街道地帶에서 撤收.
	○UN軍, 38線 以北의 最後據點 楊口를 拋棄.
	○中共軍 議政府에 侵入,
	○UN軍 西部戰線에서 撤收.
	○B29 平壤飛行場 滑走路를 猛爆.
	○敵 攻勢 以來 今日까지 UN空軍(함재기 포함)은 敵 12,200을 산상.
	○美육군省 在韓 第9군단의 洪川 西方戰鬪(3月 15. 17日)에 대하여 表彰狀 수여.
	○56명의 華僑志願특수공작대, 韓國戰線에서 활약중.
	○鰊路地方 高地에서 B-29 폭격기 敵 800名 사살.
	政 治
	○梁 駐美大使, 信任狀 받기 위하여 귀국.
	○國會, 租稅犯 處罰法審議.
	○國會事務총장, 국회의원 명의 도용에 경고.

년월일	주 요 사 항
	○韓銀卷發行高는 3月 現在 3,380억 8,800만원, UN軍 資金放出은 1,012억 1,700만원.
	○金價 58,000圓弱로부터 65,000원 대로 急騰.
	○大韓金融의 種穀수송지연, 여론化.
	○美憲兵사령관, 美製品 押收에 관하여 성명서 발표—UN軍 보급 물품암거래는 不法, 앞으로도 압수 계속.
4월28일	**軍 事**
	○UN軍 北漢江 南岸으로 撤收.
	○UN軍, 春川拋棄.
	○UN軍 서울 北方에서 敵 3개 중대 擊破.
	○敵, 서울北方에 增援부대 注入.
	○B25, 레이다 使用코 平壤 비행장 폭격.
	○敵 6일간 出血 45,625명.
	○美제10군단장 「알몬드」中將, 麾下將兵의 善戰에 謝意.
	○ 敵, 各 戰線에서 侵攻停止.
	○空軍 F-51機 伊川一帶 敵 補給品 및 연료집적소 맹타.
	政 治
	○1兆 344億 4,000萬圓의 新年度 예산, 國會에 上程, 國務委員參席下에 質疑戰, 財政경제委員會에서 총액 688억 삭감.
	○世界보건기구(WHO) 총회에 참가할 具永淑氏 「제네바」 向發.
	○故 河敬德박사 遺骨 東京으로부터 釜山에 到着.
	○美海軍 군무원의 對韓 구호물자 증정

년월월	주 요 사 항	년월일	주 요 사 항
	식 거행(釜山부두).		1,277회.
	○對中共軍需封鎖 爲한 UN 追加集團		○美 第5空軍도 最高記錄—960회.
	對策위원회 조직.		○UN 海軍, 東西 兩海岸에서 友軍 엄
4월29일	軍 事		호, 적을 포격中.
	○全線에서 UN軍 撤收中.		○UN軍 地上부대 敵 2,895명 살상 77
	○敵, 서울近郊에 壓力을 加해옴.		명 生捕.
	○美제5空軍 야간전투機隊 100여회 출		○約 5萬의 日本軍(기계化부대, 낙하산
	격, 敵 차량 200여대 격파.		부대, 司令官은 前 日本 관동군 참모
	○UN地上軍, 敵 4,100 살상, 80名 生		장 岩田少將), 平壤·新安州 北方配
	捕.		置說(聯合通信보도).
	○UN空軍, 지난 一週日에 B26.3. 전		○空軍 F-51機 法洞 南쪽 교량 폭파.
	투기 6을 喪失(적 지상 砲火로).		政 治
	○中共 第25旅 소속의 日兵 1명 시체를		○國會, 國民防衛軍, 鄕土방위대 해체
	東部戰線에서 發見(民主新報).		可決.
	政 治		○駐美, 佛 兩使節任命式(대통령관저에
	○新韓委에서 韓國食糧문제토의.		서).
	○國會, 新年度예산안 통과.		○干涉, 報復 두려워하지 말라—李公報
	○국회, 全南北 北方의 軍警에 依한 민		國民, 言論自由保障을 聲明.
	간피해상황 조사보고—全南만 ① 民		○忠淸南道 某地에서 神父들의 屍體多
	間醵出金額 11억원 ② 軍警 소각 民		數 發見.
	家 53,000戶.		○金宗元 憲兵부사령관, 개인소유 貨車
4월30일	軍 事		는 回收한다고 談.
	○鰊踏東方地區의 UN軍 부대, 敵 1개		
	연대의 猛攻으로 1km 후퇴.		
	○議政府 方面에서 敵 春季 攻勢 以後		
	最初의 敵戰車 5대 出現 UN軍, 그中		
	3대를 격파.		
	○牛耳洞 近郊까지 迫到한 中共 第19兵		
	團主力, UN軍의 強力한 反擊으로		
	12km 총퇴각.		
	○水色에 侵入한 北共軍 第8사단 主力		
	거의 섬멸당함.		
	○美極東 空軍 今日 出擊 최고기록—		

5. 索　　引

人 名 索 引

(ㄱ)

江擁輝　89, 128, 149, 371, 814
姜景遠　744
姜基憲　731
姜文奉　417, 780
姜福求　693
姜奉俊　888
姜聲塔　618
姜壽福　744
姜順馨　139, 409
姜永求　676, 863
姜永蕙　611
姜　勇　676, 694, 711
姜寅周　487
姜泰九　933
姜鎬倫　898
姜樺鎰　200
桂麟敎　206
高根弘　85, 115, 150
高吉勳　239
高萬吉　445
高白圭　335, 341, 523, 630
高尙遠　939
高相河　239
高時福　331, 341, 523, 696
高漢祚　89, 128
孔正植　676, 694, 711
郭海鳳　933
具泰益　338, 560, 568, 633
權錫基　239
權順吉　443
權用性　326, 464, 560
權重熙　897
權泰順　145, 504
吉元八　326, 341, 409, 464
金建培　941
金京哲　517, 799
金京泰　681
金景水　888
金慶祥　619
金高崇　523, 647
金光植　239
金國柱　771, 814
金圭轍　196
金吉成　204
金基容　78, 102, 141, 386, 771
金基鉉　681
金琪煥　445
金南洙　933
金能憲　666
金大植　239
金得模　301
金得成　521
金得龍　196
金德福　781
金道榮　409
金同曾　115, 504
金東培　206
金東斌　78, 102, 141, 149
金東洙　221, 285, 326, 464, 560
金東淳　941
金東完　876
金東俊　688
金東喆　200
金東浩　668
金斗萬　897
金萬壽　942
金武龍　611
金白一　207, 221, 280, 326, 341, 387, 464, 501, 523, 633
金炳國　666
金鳳翊　354
金鳳喆　371, 781, 799

金相京 202
金相均 228, 354, 397
金相峰 89, 128, 421
金相義 341, 523
金相台 197
金祥圭 341, 523
金石恒 202
金錫祐 202
金性洙 54
金成道 935
金成龍 897
金成泰 480
金 星 799
金 聖 59, 371, 409, 580, 781
金聖恩 333, 676, 694, 711, 871
金淳基 115
金順喆 479, 660
金 信 197, 894
金安一 396, 771, 814
金億淳 926
金 業 206
金鍊器 198
金永魯 115, 145
金永錫 102, 141, 385, 771
金榮吉 208
金榮一 202
金榮鍾 104
金榮俊 504
金玉卿 889
金容官 617
金容培 59, 371
金容洙 445
金容採 934
金容澤 445
金龍國 676, 694, 711
金龍紀 301
金龍周 89, 128, 155
金尤榮 226, 354, 397, 409, 523, 647
金旭篆 59, 371
金元錫 182
金元俊 666
金源湧 942
金潤根 239
金應彬 611, 938
金應祚 221, 354
金依良 184, 890
金義澤 935
金益烈 150
金仁德 487, 663
金仁哲 409, 580
金寅文 341, 523
金 一 933
金日成 33, 924
金在康 341, 523
金在植 354, 523, 647
金在仁 479
金在赫 676, 863
金點坤 78, 102, 141, 149, 386, 771, 814
金正海 185
金貞烈 196, 894
金貞煥 932
金楨浩 744
金濟馨 202
金宗璧 181
金淙舜 221, 354, 397, 409, 496, 523, 647
662
金鍾甲 301, 341, 523, 696
金鍾琦 935
金鍾琪 446
金鍾成 578
金鍾聲 487
金鍾洙 59, 371
金鍾昌 443
金鍾煥 341, 523, 617
金鏡五 59, 79, 150, 647, 661, 706
金俊敎 59, 371, 781, 799
金智會 935
金振暐 78, 390
金贊稷 523
金昌圭 203
金鐵元 887
金致伯 479, 660
金泰善 941
金判山 568

金弼虎 409, 580
金炯培 744
金炯一 409, 485, 580, 696
金煥秀 188

(ㄴ)

羅南麟 341, 523
羅昌俊 207
南東喆 443
南福元 668
남선원 59, 149, 163
南俊恒 936
南忠烈 937
魯迅信 205
盧明錫 888
盧明鎬 446
盧被鉉 479, 594, 660

(ㄷ)

唐清山 59, 102, 149, 163
鄭 振 89, 128, 149, 371

(ㅁ)

毛澤東 32
牟禮振 446, 886
文錫濟 931
文鍾泰 206
文泰俊 354, 397, 409, 523, 647
文亨泰 105, 141, 386, 771, 814
文鶴東 939
閔機植 417, 479, 517, 549, 660
閔邦瑛 781, 799
閔丙讚 936
閔容植 239

(ㅂ)

朴永浣 78, 102, 141
朴元寬 479, 594, 660
朴元錫 198
朴龍珠 930
朴利馥 676, 863
朴鍾均 326, 464, 560, 633
朴麟道 333
朴仁出 934
朴林恒 329
朴逸相 487
朴壯夏 933
朴延鎬 89, 128
朴鍾根 611, 647, 938
朴鍾吉 371, 781, 799
朴桂根 781, 799
朴俊善 866
朴俊鎬 89, 128
朴準喆 609
朴珍錫 105
朴京虎 326, 464, 560
朴寬榮 58, 89, 128, 409
朴光瀨 59
朴根容 926
朴基政 446
朴魯佳 480
朴東錫 611
朴東烈 239, 676, 694, 711
朴萬成 199
朴炳植 201
朴炳益 936
朴秉佳 115
朴瑞權 115, 504
朴成哲 239
朴世忠 731, 882
朴昇日 89, 128
朴勝一 151
朴炭吉 933
朴蒼岩 504
朴昌洙 571
朴昌燧 577
朴昌煥 576
朴千萬 682
朴 徹 59
朴徹榮 226, 326, 464, 633
朴忠默 206
朴致玉 115, 504
朴兌鉉 181, 887
朴判得 930

朴 泫 479, 594
朴호상 409, 580
朴熙東 895
房景源 86, 633
方 正 847
裵東傑 434
裵斗龍 102, 141, 386, 771
白慶在 882
白基淳 598, 664
白基千 613
白南德 60, 871
白善燁 78, 102, 141, 149, 386, 771, 814, 848
白潤基 81
白麟基 731
邊喜柱 207

(人)

徐國夫 59, 149, 163, 799
徐基鉉 930
徐又漢 930
徐元道 617
徐廷南 239
徐廷哲 221, 288, 326, 464, 560, 588, 633.
徐鍾喆 480
徐判己 676, 694, 711
徐鉉圭 203
石順天 59
宣石泰 935
成小甫 102, 141, 149, 163
成泳煥 594, 660
成宗鎬 668
成興基 95
蘇克之 115, 128, 781
蘇尙永 206
蘇鎭世 917
蕭新槐 102, 141, 163, 504
孫介同 594
孫繼天 926
孫萬壽 487
孫章來 434
宋寬洙 935
宋大燮 933
宋大厚 59
宋霜根 89, 128, 148, 371, 814
宋善陽 341, 523
宋時輪 43, 116, 151, 246, 279
宋堯讚 221, 280, 326, 464, 560, 588, 633
宋宇大 934
宋贊鎬 354, 397, 523, 647
申健善 89, 128, 409, 580
申東奎 390
申東雨 613
申尙澈 89, 103, 128, 142, 150, 375
申彥國 326, 464, 633
申攸浹 898
申鉉俊 239, 683, 872
辛相默 938
辛相榮 930
辛錫連 140
沈布學 239
沈 華 847
沈熙澤 737, 871

(O)

安桂春 682
安旼一 354, 397, 523, 647
安秉健 78, 102, 141, 386
安秉永 417
安昌寬 239
梁成植 611
梁麟錫 89, 128
梁在鐵 926
梁仲鎬 781, 799
梁漢杓 181
楊得志 43
楊成武 44
廉鳳生 239, 676, 694, 711
吳大林 847
吳德俊 328, 341
吳命福 676, 863
吳瑞林 115, 128, 151, 781
吳信泉 78, 102, 149, 163, 386, 830
吳在觀 417

吳廷錄　229, 354, 397
吳充石　781, 799
吳春睦　894
王滿鎬　208
王家善　149, 163, 814
王排淵　115, 128, 781
汪　洋　78, 149, 163, 386, 830
廖政國　799
龍　躍　149, 163, 814
元秉漢　115, 504
元相均　666
魏　哲　935
柳根昌　622
柳來赫　181
柳文鎬　771
柳義烈　205
柳重秀　78, 102, 141, 386, 771
柳昌勳　611
柳海巨　731, 871
柳洪烈　206
俞義濬　115, 145, 594, 660
劉敏相　206
劉載成　78, 102, 141, 206, 386, 771, 814
劉載興　59, 83, 89, 104, 115, 128, 142, 150, 334, 354, 387, 397, 409, 523, 560, 580, 647
劉亨雲　799
劉興守　105
尹明運　939
尹錫憲　206
尹性模　434
尹英遠　744
尹榮國　934
尹在善　409, 580
尹千奉　128
尹天柱　206
尹赫宰　202
尹興楨　333
李康和　894
李繼弘　888
李寬植　619
李寬熙　115
李光雨　494
李廣雨　206
李九華　445
李國英　439
李圭燮　443
李圭昇　594, 660
李圭星　203
李奎三　326, 464, 560
李奇建　89, 155
李起鵬　54
李基煥　594
李琪練　371
李南周　479, 594, 660
李東星　676, 694, 711
李東用　246, 869
李東湖　871
李萬甲　206
李晩欽　934
李敏雨　206
李博南　409, 938
李丙文　676, 694, 711
李秉德　930
李秉燦　941
李秉衡　354, 397, 523, 647
李용열　577
李奉天　935
李鳳出　239, 680
李相喆　479
李西根　676, 694, 711
李錫源　780
李성길　871
李成佳　85, 90, 115, 142, 581, 613
李成烈　341, 523
李成雨　926
李成浩　184
李星蕙　517, 781
李聖鳳　326, 331, 464, 633
李聖勳　59, 83
李世暎　894
李世煥　936
李召東　354, 397
李承晩　27, 54, 776, 927

李承雨 479, 660
李始榮 54
李良淑 202
李永吉 128, 499, 580
李永鎬 341, 523
李玩鎬 744, 887
李 龍 330, 578, 633
李龍德 604
李元珩 676, 694, 711
李元勳 337
李殷洙 488
李應德 676, 694, 711
李益興 931
李寅德 487, 667
李長錫 615
李再起 89, 128, 580
李載松 882
李丁錫 939
李貞錫 611, 941
李存一 504
李鍾明 611
李鍾烈 333
李鍾喆 81
李俊植 331, 633
李贊衡 442
李眞彦 182
李鎭熙 930
李且東 932
李昌得 479, 594, 660
李昌雲 354
李昌祐 341, 523
李天佑 43, 59, 79, 149, 163, 371, 504, 781, 830
李春燁 665
李台榮 939
李台鍾 871
李泰俠 935
李夏榮 206
李鉉相 923
李賢建 409, 580
李亨根 387, 613
李昳均 676, 694, 711
李鶴均 676, 863
李熙昌 181
印聖瑢 59, 371
印聖勳 781, 799
任文恒 54
任忠植 221, 334, 354, 493, 523, 588, 647, 666
林觀默 326, 454, 560, 633
林東根 239, 676, 694, 711
林文善 871
林炳祚 206
林富澤 59, 79, 102, 371, 812
林益淳 371, 781, 799
林仁道 930
林仁正 446
林春勃 89
林 彪 60, 79, 327
林憲九 82
林煥琦 443

(ㅈ)

蔣介石 32
張錫誠 78, 149, 163, 386, 830
張庚石 341, 523
張瑾嫚 744
張大吉 697
張德昇 204
張德昌 196
張都暎 142, 371, 396, 781, 799
張命圭 936
張盛煥 196
張云煥 616
張仁初 279, 847
張志良 200
張春權 397, 523, 647, 662
張泰煥 341, 543
羅仲儒 89, 128, 149, 814
田東植 781, 799
田鳳熙 897
全勉植 386
全海萬 871
鄭光鎬 239

鄭南浩　741
鄭萬壽　241
鄭滿鎭　239
鄭奉翊　76, 694, 711
鄭壽煥　931
鄭淳珉　354, 397, 523, 647
鄭淳植　934
鄭昇和　523, 647
鄭永守　930
鄭永洪　78, 102, 141, 386, 771
鄭元出　731, 872
鄭陸地　89
鄭二蓮　871
鄭仁淳　594
鄭一燦　744, 882
鄭在久　206
鄭址煥　443
鄭　震　128, 409, 586
鄭燦昊　935
鄭[illegible]和　434
鄭春泰　504
鄭鉉哲　487
鄭亨澤　780
丁永鎭　897
丁一權　26, 208, 331, 447, 699
丁夏鎭　443
趙貴市　936
趙東三　523, 647
趙炳玉　26, 931
趙相五　443
趙成來　78, 102, 141, 386, 771
趙石元　942
趙始衡　479, 594, 660
趙淵表　488
趙容銀　676, 694
趙鏞春　341, 523
趙在美　78, 102, 141, 149, 336, 611
趙在俊　409, 580
趙鎭滿　54
趙鶴亭　149, 163, 771, 814
趙漢昇　869
曹暎喆　609
曹在容　932
曹精鍊　385, 802
曹昌大　616
鍾德源　239
朱在善　932
朱鍾哲　894
周恩來　10
曾澤生　149, 163, 771, 814
池宗昊　934
智丁煥　929
陳　賢　43
陳　毅　279, 327

(ㅊ)

車甲俊　78
車奉鉉　609
車文錫　633
車一赫　932
蟲天允　78, 102, 149, 163, 386, 830
蔡在錫　887
蔡元出　731
崔奎烈　618
崔秉勳　504
崔萬永　933
崔明道　504
崔炳淳　102, 141, 386, 771, 814
崔三然　201
崔尙俊　354, 397, 409, 523, 697
崔　錫　221, 285, 304, 334, 354, 397, 422
493, 517, 523, 581
崔石麟　446
崔　億　205
崔用德　196
崔榮喜　147, 334, 485, 504
崔沃培　208
崔宇根　115
崔우성　879
崔源斗　385
崔允煥　622
崔　仁　341, 397, 409, 523, 580, 647
崔日燮　616
崔章學　647

崔鍾奉 894
崔鍾赫 617
崔昌煥 89, 115, 504
崔 晶 140
崔致煥 926
崔漢京 200
崔亨旻 206
崔 玄 490, 580
崔孝鎭 181
崔勳大 371, 781, 799
崔澤元 802

(ㅍ)

彭德懷 43

(ㅎ)

河甲淸 485, 504
河相道 179
河泰榮 488
韓景錄 931
韓國賢 82
韓東秀 81
韓炳甲 504
韓順華 78, 102, 141
韓先楚 59, 90, 102, 149, 163, 504, 799
韓 信 221, 285, 326, 464, 633
韓新海 439
韓禮澤 239, 686
韓龍頊 333, 464, 560, 633
韓周弘 326
韓 勳 421
咸德昌 444, 887
咸炳善 59, 83, 150, 611
咸晟烈 941
咸溶奭 326, 464, 633
咸炳甲 409, 580
許炳錫 889
許永杰 197
許贊亨 930
許泰運 439
許 憲 670
許 滋 246
玄時燕 742
玄時學 181
洪大興 681
洪淳龍 609, 660
洪元杓 446
洪殷植 926
洪仁出 933
洪載翊 799
洪帝範 200
黃聖洙 779
黃 燁 479, 594, 660
黃 泳 239
黃義俊 206
黃占澤 935
黃鎭岩 930
黃鍾甲 386, 771
黃지용 780
黃昌燁 936
黃河鍾 938

(A)

Acheson, Dean G. 10, 964
Akers, C. D. 731
Allmon, C. F. 282
Almond, Edward M. 111, 208, 222, 239, 249, 279, 325, 422, 423, 479, 504, 594, 613, 660, 830
Andrews, W. G. 189
Arndt, R. W. 282
Attlee 12
Austin, B. L. 297, 320
Austin, Warren R. 39, 924
Azurin, Mariano 847

(B)

Baldwin 986
Banning, Virgil W. 727
Barber, william E. 253
Barr, David G. 258, 279, 417
Beauchamp, Charles E. 279
Bertram, william E. 318
Boswell, James O. 279, 814, 847
Bowen, Frank S. 758
Bradley, Omar N. 40, 981
Briggs, James E. 315, 453, 916
Brock, J. V. 189
Brodie, T. D. S. O. 847
Brower, James H. 248
Bryan, Blackshear M. 782, 819, 832, 848

(C)

Capraro 273
Carason, E. B. 731
Carter, Johnny L. 792
Church, John H. 60, 87, 130, 142, 149, 373
Clark, J. R. 283
Coad, Basil A. 103, 149, 153
Collins 20
Conwell, L. C. 282
Cooke, Leroy M. 252
Cooney, Thomas E. 252
Corley, John T. 163, 814, 847
Coulter, John B. 103, 142, 163, 167
Crahay, Albert 847
Cromqez, Marcel B. 149, 830
Cronk, Welby W. 270
Crown 305

(D)

Davias, Raymond G. 256
Dawe, Harold L. 255
Dowsett 268
Doyle, J. H. 189, 279, 302
Drysdale, Douglas B. 248
Duke, I. T. 283
Dulles, John Foster 972

(E)

Edward, J. W. 830
Eisenhower, Dwight D. 971
Enthezam, N. 13

(F)

Faith, Don C. 265
Forguson, I. B. 149
Fishir, Henry G. 109, 163, 814, 847
Flaherty 305
Forney, Edward H. 296
Forrestal, J. V. 971
Freeman, Paul L. 163, 422, 830
Frenbaugh, C. M. 588

(G)

Gay, Hobart R. 83, 142, 149
Growden, John S. 78, 102, 141

(H)

Haines, P. B. 304
Harriman, A. W. 977
Harris, Field 248, 723
Harris, William A. 149
Harrism, William W. 279, 814, 847
Harrison 440
Haynes 435

Hector, John B. 422
Henbry, John H. 758
Henderson, R. W. 763
Hennig, William H. 78, 102, 141
Hess, Dean E. 894
Higgins, J. M. 279, 302
Hillenkoetter, R. H. 279, 302
Hinton, Bruce H. 212
Hoge, William M. 632, 727, 781, 799
Honeycatt 269
Hull, Milton A. 255
Hutchin 830

(J)

Jarrell. A. E. 302
Jaskilka, Samuel 254
Jennings, Payne Jr. 758
Johnson, L. A. 979
Joseph, P. 981
Joy, C. T. 189, 284, 302

(K)

Kean, William B. 109, 142, 814, 847
Keiser, Lawrence B. 96, 129, 142, 163
Kelly, S. G. 189, 279, 302
Kennedy, Donald R. 729

(L)

Lemire 422
Lie, Trygve 39
Litzenberg, Jr. Homer L. 248, 279, 688, 723
Lockwood, Randolph S. D. 263

(M)

Mabry, Clarence J. 727
MacArthur, Douglas 11, 31, 57, 105, 143, 164, 209, 248, 283, 758, 776, 947
MacLean, Allen D. 264
Malik 54
Marshall, George C. 971, 985
Martine, T. W. 26, 54, 996
McAlister, Francis M. 681, 723
McCarthy 257
McCelland, Robert K. 729
McLaughlin 272
McKinly, W. 958
McNaughton 269
McReynold 260
Messinger, Edwin, J. 422
Meyer, Strate 167
Michaelis, John H. 163. 396. 814. 847
Milburn, Frank W. 78, 90, 102, 141, 149 167, 386, 771, 814
Millikin, John 85
Milne, Harry T. 248, 723
Monclar, R. 830
Moore, B. E. 371, 387, 830, 848
Moore, Dennis M. 279, 814, 847
Moore, Ned D. 149
Morris, John E. 256
Morris, Warren 252
Mount, C. M. 585
Murphy, C. 981
Murray, Raymond L. 248, 279, 723
Myers 264

(N)

Neilson, G. L. 149

(O)

O'Donner, Emmett J. 207, 315, 916
Outhen, den, M. P. A. 422
Ovenshine, Richard P. 279

(P)

Pace 981
Palmer, C. D. 782, 830
Palmer, Raymond D. 83, 149
Partridge, Earle E. 202, 209, 315, 453, 758, 898, 916
Partridge, John H. 248, 723
Pearson, L. B. 13
Peploe, George B. 131, 163, 422
Petters, Uel D. 254
Phillips, Jr. Walter D. 255

Powell, Herbert B. 279
Printup, C.A. 282
Puller. Lewis B. 248, 279, 723, 797, 801

(R)

Ran, B.N. 13
Reyburn 54, 996
Ridge. Thomas L. 263
Ridgway, Matthew B. 21, 31, 300, 314, 387, 480, 758, 769, 771, 814, 831, 915
Roche, John R. 763
Rodford, A 981
Roeder, B.F. 731
Roise, Harold S. 252
Roosevelt, Franklin D. 953, 962
Ruble, R.W. 279, 302
Russell. 1002

(S)

Sawyer, Webb D. 275
Schmuck 276
Schrier, Harold G. 260
Seeley 273
Seydel 269
Shepherd 284
Sitter, Carl L. 264
Sloane, Charles C. 96, 163
Smith, A.E. 189, 736
Smith, Oliver P. 214, 248, 279, 723, 845
Smith, Samuel S. 254
Soule, Robert H. 279, 305, 814, 847
Spaner, J.W. 963
Spivey, Delmar T. 216
Spofford 309
Stephens, Richard W. 149
Stevens II, John W. 255
Stratemyer. George E. 202, 209, 315, 453, 916
Struble, A.D. 279

(T)

Taplett, Robert D. 253
Tarrell, A.E. 312
Thackrey, L.A. 189
Throckmorton, John L. 103, 149
Truman, H.S. 11, 40, 287, 957
Tunner, William H. 209, 315, 453, 916

(U)

Umbaugh 276

(V)

VanFleet, James A. 26, 915

(W)

Wainless, R.H. 304
Walker, Walton H. 19, 51, 58, 83, 90 111, 141, 149, 164, 223, 314, 387, 986
Weiner 230
Weyland, O.P. 211
Whitney 167
Williams, R.C. 731
Willoughby 167
Wilson 899
Wray, Robert P. 726
Wright 167

(Y)

Yazici, Talsin 163, 814, 847
Youngedale, Carl A. 248, 723

地 名 索 引

(ㄱ)

佳谷里 511
佳納里 391
假洞里 418
可得峰 350, 661
加德洞 110
加德山 792
加羅皮山 642
佳麗州里 909
加露里 664
加里峯 360
加里峯山 778
加里山 712, 730
加里旺山 526
加 林 802
加馬峯 129
駕馬峯 661
加比里山 470
袈裟頭 577
架 山 941
佳山洞 865
稼室里 817
加業里 392
加牛洞 649
加佑洞 566
佳月里 387
佳川里 549
佳灘里 527
加 平 78, 314, 386, 480, 770, 799, 831, 848
角洞里 481
間 洞 79
杆 城 316, 919
間 站 95
干波里 389
間坪里 576, 649
葛 谷 108, 546
葛谷里 859
葛基山 507
葛麻半島 305, 643, 873
葛 山 658
葛山里 825
葛月里 380
葛 田 939
葛田谷 337
葛田谷峯 349
葛田里 469, 529
葛 峴 178
葛峴洞 779
葛峴里 772
鹽溪里 472
紺嶽山 389, 850
監灘里 904
甲 山 128
甲川里 481
江 界 90, 129, 151, 222, 483, 596
江南山脈 80, 106
江 陵 198, 327, 342, 464, 562, 580, 636, 894, 933
江 東 142, 918
康東洞 87
康寧浦 869
講林里 546
江村里 782, 811
江華島 865
開谷里 787
价 川 19, 90, 128, 142, 152, 164
价石里 392
開 城 22, 148, 327, 762, 777, 800, 898
開運里 664

開豐郡 866
巨文里 567
巨文山 581
巨里坪 550
巨濟里 696
巨德洞 619
巨濟島 233, 290
居 昌 924
劍掛渡 913
劍 山 106
檢山面 114
劍山洞 246
兼二浦 180
京角洞 154
慶 山 436
庚申里 388
京安里 834
慶 州 300, 614, 924
京興里 243
鷄冠山 786
桂芳山 561, 595
鷄足山 413
桂之川 106
桂 村 595
里古介洞 295
高 橋 251
古軍巷洞 650
高登里 761
高頭里 531
古團洞 384
高浪浦 940
高陵里 147, 386, 800
古文里 374
高防山 380
高慈德山 113
高士洞 705
高沙里 335, 345, 661, 705
古 城 153
古城里 113, 229
古岩洞 105
高岩里 858
高 陽 388, 777
陽高里 534
高養里 534
高陽山 627, 650
高旺里 375
高圓里 472
古井洞 224
高 敞 924
高倉洞 229
古倉里 112
高 草 939
古土谷 583
古土里 214, 270, 282, 327
果 川 393, 772, 828
冠掛里 706
冠峯里 328, 359, 665
觀德洞 981
觀德里 109
館 洞 156
官門里 772
官山里 779
觀祥里 107
觀雪里 552
冠岳山 769, 772, 817
館下谷 112
館下洞 110
館 峴 390
光敎山 769, 771
廣大坪 347
光德里 866
光德山 806
廣東里 535
光沙里 856
廣永院 390
廣院里 346, 349
光音里 337
光 州 199
廣 州 396
光珠洞 347
廣州山脈 801
廣 川 556, 649

廣灘里 357, 781
廣坪里 910
光化里 109
廣回里 612
曲曲嶺 108
曲陵川 779
谷 里 185
谷 山 146, 180, 898
谷 城 924
曲水里 770, 832
골망高地 472
骨只里 534
公根里 511
公順院 502
掛 峯 100
掛石里 365
橋 洞 547
喬洞島 878
橋頂里 482
交通洞 581
交河里 779
九谷洞 350
九曲洞 561
九屯里 770, 832
來 穩 924
九考里 773
九龍江 86, 103, 151
九龍谷 769, 817
九龍浦 219, 286
九萬里 241
舊坊里 481
龜峯洞 104
九峯山 83
龜山洞 111, 779
九山里 564
邱山里 464, 568
九上里 169
九石洞 567
龜 城 80, 90, 103, 151, 165
舊城洞 106
九成浦里 713
九首山 932
狗窟里 656
九舜里 649
龜岩里 391
九月峯 450
九月山 147
九月浦 450
球場洞 70, 90, 103, 115, 129, 142, 150 164
舊把撥里 779, 848
九化里 147, 373, 800
國望峯 808
國事峯 850
國師峯 933, 481
菊秀里 456
群 山 198, 887, 935
軍隅里 49, 103, 141, 150, 164, 212
軍灘里 145
軍浦場 825
宮 洞 639
宮坪里 380
貴屯里 336, 347
錦 江 388
金剛里 338
金剛山 327
金 谷 849, 939
金谷里 392
錦溪川 481
金光里 470
琴南里 810
金丹山 817
金堡里 433, 547
金 洞 924
金陵里 779
錦屛山 392, 779
金峯山 810
錦 山 933
金山里 465
錦山里 779
金梧洞 856
金藏山 62
金倉里 432, 552
金 川 327, 375, 800

金村里　848
金波里　392
金風里　333
基橋洞　472
基谷里　375
基龍谷　667
騏驎島　186
新雨山　108
岐灘里　375
吉番山　347
吉　安　924, 939
吉雲里　696
吉　州　128, 219, 225, 281
金良場　769
金良場里　815
金　泉　614, 480
金　浦　210, 317, 452, 756, 770, 773, 853, 894, 920
金浦半島　180
金　海　198
金　化　129, 328, 782, 800, 898, 915, 924

(ㄴ)

나　곡　932
羅　南　219, 223, 225
奈遊里　779
羅田里　526
羅　州　932
洛東江　388
樂洞里　537, 449
洛平里　623
樂豊里　328
南加佐洞　779
南大里　397
南大川　637, 475
南面川　81, 152
南三里　104
南　山　773
南山洞　105
南山下洞　79
南涯里　372
南陽里　469
南陽堂里　383
南王山　932
南　原　924
南作洞　568
藍田里　661
南　川　147
南川里　899
南泰嶺　772
南台山　520
南坪里　533
南漢山　384, 769, 773, 833
南海龍里　612
南湖洞　159
納　德　530
남두里　392
納清亭　103, 104, 166
狼林山　120
狼林山脈　328, 222
浪城里　876
內狗宿　650
內德里　401
內　洞　110, 772
內坊里　850
內飛山洞　772
乃　城　402
內新基　561
內麟川　661
內寇里　640
冷　井　772
冷泉洞　779
老姑峰　634, 639
老姑山　858
老姑山洞　777
盧　洞　478, 502, 562
蘆洞里　913
魯彌里　528
魯梁津　393, 769, 772, 849
魯論里　529
魯隱里　435
老人峯　634, 637, 650
魯川里　597
盧波洞　391

碌磻洞 393, 775
碌田里 401, 410, 699,
論味洞 379
農浦洞 225
陵 谷 779
陵隅里 483
陵坪里 826
陵峴洞 147

(ㄷ)

多木里 802
多水里 754
丹 陽 300, 562, 595, 841, 924
丹藝洞 550
丹藝峰 930
端 川 219, 281, 456
達田里 783, 811
潭 陽 924
堂 谷 772
塘林里 786
堂山里 336
大官垈里 481
大關嶺 327, 454, 483, 560, 634
大 邱 197, 318, 387, 452, 520, 756, 919, 924
大 谷 359
大基里 468, 582
大德山 623, 942
大 島 736, 873
大 洞 92
大同江 131, 146, 314, 371
大同里 337
大屯山 924
大 寧 80, 103, 151
大陵里 394
大方洞 773
大寺洞 940
大沙里 338, 350
大成山 797, 800
大岩山 347
大野里 416
大栗洞 402, 924, 939
大 田 165, 196, 318, 894, 924
大枝洞 689
大川里 391
大青島 184, 882
大村洞 105
大 峙 546
待峙里 634, 641
大平里 772
大坪里 719
垈坪里 360
大 和 332, 350, 410, 560, 581
大和島 883
大和實山 465
大興洞 106, 107
大興里 359
大杏面 184
德加淵 558
德巨里 597
德谷山 450
德達里 104
德道里 393
德洞通路 255
德洞浦 184
德斗院里 783
德 山 145, 634, 635, 688
德雨里 531
德右里 615
德 源 241
德裕山 924
德隱里 779
德仁峰 117
德積島 187
德亭里 382, 856
德 川 19, 72, 91, 116, 128, 142, 159 164
德川洞 697
德川里 413
德泰山 934
德浦里 418, 527
德化洞 109
德興里 108
道寬里 345

道大里 809
道德洞 807
桃洞里 449
都巖里 466
道馬峙 802
道峰山 848
桃水庵 661
桃源里 517
道採洞 337
道坪洞 687
桃花洞 472, 777
獨 山 87
東巨里 394, 779
讀經山 626
東 谷 109
東南洞 104
東大里 416
東大山 640, 691
冬德里 634
東豆川 22, 148, 328, 371, 386, 770, 848
東 魯 924
東林里 384
東林山 60
東明飛行場 197
東邊里 93
東二洞 114
東山里 779
銅雀洞 393, 772, 769, 817
東川里 285
東波里 780
頭流山 800
豆滿江 222
頭帽山 107
斗武里 359
杜門洞 147
杜元里 601
頭流嶺 124
斗日里 592
斗只里 387
斗浦里 392
屯坊內里 481, 596
屯田洞 110

(ㅁ)

馬峰山 413
馬 山 220, 284, 479
馬山里 465
馬山洞 79
馬上洞 779
馬息領 242
馬岳墟 477
馬場里 153
馬轉里 249
馬弼臣里 849
馬智里 387
馬平里 567, 581
馬坪里 527, 796
馬坪洞 112
馬浦里 387
馬假山 824
麻葛潭里 118
麻駒嶺 402
麻城里 819
麻田洞 86, 365
麻田里 231, 288, 389
麻 浦 775
磨 石 849
磨叉山 372
磨碪里 526, 698
摩天嶺 301
望京臺嶺 124
望鏡臺山 412
萬境里 427
萬山峴 805
萬城里 114, 142
望德峰 332
望美山 839
望祥里 329
望待峰 661
梅谷里 859
梅竹峙 513
梅日里 497
梅峨嶺 126
梅花山 547

孟 山 118, 138, 165, 938
孟中里 104, 154
孟下里 88, 104
綿玉峙 334, 346
綿川谷 556
滅惡山脈 165
明燦洞 86
川德山 855
明東山 617
明沙十里 244
明池里 637
明 川 219, 224
茅田里 466
茂 山 222
茂林里 854, 834
茂 島 186
務道里 502, 516, 595
務 安 932
무태안 393
武坪洞 251
舞鶴洞 367
默 溪 939
墨 湖 288, 326, 464, 694
墨湖津 635
物 野 402
妙香山脈 60, 91, 117, 129, 143, 168
文谷里 118, 537
文丹里 800
文德里 112
文 幕 501, 519
文幕里 770, 833
文峰里 109
文修里 375
文岩里 901
文原里 772
文義谷 783
文衡山 769
文惠里 635
聞 慶 924
聞 站 96
門岩里 473
門 峙 502
汶 山 22, 375, 386, 770, 777, 848
汶山里 758, 896, 915
命生洞 401
溟 州 464
鳴 川 932
帽洛山 769, 772, 817
慕惡浦 198
無逸里 476
母後山 924
木界里 469
沐 洞 812
沐洞里 789
牧溪洞 429
牧牛山 103
木 浦 932
沒雲里 626
蒙德山 782
未谷洞 634
末力洞 904
末力里 155
彌勒洞 769, 817
彌呵里 775
美 林 197, 894
美風里 413
民屯峙 528
密陽里 331

(ㅂ)

朴達嶺 402
博達里 827
博月里 473
博芝山 567, 581
博 川 78, 96, 102, 129, 142, 155, 164
盤石洞 375
盤鼓洞 566, 649,
半月場 816
鉢山里 480, 790
發旺洞 650
發旺山 560, 650, 703
坊內里 332
芳洞里 789
訪露山里 241

方背洞 772
芳儀洞 595
防築洞 390
方下山里 242
芳花洞 804
栢 洞 527
白鷗島 181, 879
百嶺川 92, 117, 129
白碧山 82
白石山 581
白 岩 219
白岩山 121, 618, 892
栢岩里 526
白崖山 129
白楊里 785
白羽山 365
白雲山 924
白鼠里 373
百日洞 572
白日坪 561, 650
百日坪 572
栢子洞 686, 800
白嶺山 581, 801
百塔山 153
白土洞 82
筏文里 537
凡卓里 643
法 洞 898
法院里 147, 388, 853
法 田 401
法周里 501
碧 潭 62, 90, 166
碧踏里 779
碧鶴山 505
邊 山 936
辯 岩 547
屛內里 656
屛頭山 566, 649
兵六坊里 497
保川里 378
報 恩 931
普賢山 924, 941
福德院 415
福祥洞 513
福柱山 801
伏興洞 107
福興里 108
鳳東里 869
蓬萊山 418
鳳鳴里 96, 174
鳳山里 652, 702
鳳祥洞 108
鳳巢洞 87
鳳凰山 105
烽岩里 779
鳳岩里 373
鳳陽里 547
奉日川里 779
鳳之里 110
鳳泉里 94
鳳鳴面 450
奉 化 924
烽火山 556, 901
富 居 222
富居洞 219
釜谷里 546, 779
富 寧 222
富林村 772
釜 峰 347
釜 山 199, 215, 234, 282, 318, 387, 452 849, 931
付岩洞 777
芙蓉里 143
芙龍里 180
富龍山 852
富平里 243, 848
富坪洞 359
富興洞 82, 108
北塔山 782
北岳山 775
北 鎭 62, 151
北 倉 100, 129, 152
北倉里 177
北 川 661
北 靑 219, 281

北 坪 464
北漢江 770, 781, 839
分堂里 827
汾水里 394
雲柱峰 285
佛光洞 776
佛國山 392, 856
佛岐山 809
佛岩山 848
秘琴里 855
比 島 216
比岩里 393
飛龍洞 532
飛虎山 93, 116, 128, 152

(人)

沙串里 449
砂器洞 84
沙器幕里 476, 562, 634
射南山 566
沙內里 527
舍堂洞 772
寺 洞 470
沙浪里 377
沙里院 143, 328, 898, 918
沙伊谷里 903
舍人場 145
社稷洞 113
史倉里 770, 799
社倉里 166
泗 川 199
朔 寧 375, 908
朔 州 57, 89
山頭峰 939
山幕洞 550
山田里 481
산지골 706
山 清 924
三巨里 82, 239, 359, 827
三距里 376, 686
三橋里 634
三道峰 925
三 登 142, 165
三馬峙嶺 511
三峰里 114
三峰山 109
三山洞 347
三成里 142
三所里 142, 173
三松里 779
三 水 128, 226
三安洞 105
三安嶺 105
三玉一里 418
三宜洞 618
三井里 145
三 陟 198, 284, 312, 384, 426, 464, 50
694, 799, 830, 894, 924
三灘川 79, 152
三鶴山 784
三峴里 517
三兄弟峰 634
雪橋里 481
揷店嶺 466
上講洞 114
上橋里 831
上光丁里 332
上光千 585
上南里 336, 345, 661
上丹洞 110
上大田里 381
上道洞 772
上道里 868
上 洞 79, 107
上萬山洞 806
上鳳洞 852
祥雲里 331
上士美里 630
上城南 546
上聲洞 392
上水內里 359
上寅乃里 804
上岩洞 774
上陽里 100
上陽穴里 638
上院洞 508

上院洞　546
上元山　525
上檢洞　517
上一里　104
上珍富里　649
上蓋峰里　426
上秋洞　112
上八里　142, 179
上坪里　641
上豊洞　109
上下佳里　487
上海峰　800
上禾岩里　909
生地里　348
生　吞　530
西　谷　652
西橋洞　774
西大門　775
西　林　300, 327, 344, 643
西碧里　401
西　石　345
西城里　145
瑞雲面　396
서　울　148, 196, 314, 385, 762, 847, 919,
西　倉　129
西川里　526
西　坡　848
西湖里　228
西湖津　224
西興里　242
石谷里　531
石　串　143
石　橋　390, 473, 636
石纖岩　520
席　島　182, 879
石屛山　465
石峰里　108
石龍山　801
石泉山　936
石村洞　511
石浦里　449
石　項　410, 701
石　峴　87
石花里　514
仙　界　548
先達山　403
宣德面　236
善樂洞　602
仙岩洞　111
仙王山　932
仙宇嶺　465
宣　川　90, 106, 150, 211
仙花洞　372
雪馬嶺　861
雪岳山　288, 327, 896
星羅里　241
城北洞　777
城北里　909
성불골　173
城山洞　774
城山里　345, 357
城石里　779
聖壽山　924
城內里　633
城齊里　122
聖智山　507
城　津　215, 281, 302, 340, 749
成　川　19, 111, 141, 174
城川江　290
召光里　615
小　島　736, 873
小　洞　527
所　嶺　924
蘇利峯　850
小白頭山　167
小白山脈　388
所法里　792
素　砂　769, 865
所思里　483
素沙峴　393
小巢鵲洞　651
小睡鴨島　186
昭陽江　357, 661
逍遙山　379, 861

小仁里 375
小快山 118
小和島 883
俗離山 924, 939
束沙里 560, 580, 596, 661
束沙峠 566
束 草 327
솔모루里 449
松溪里 464, 537, 561, 637
松洛峰 630
松 德 226
松德洞 105
松 林 146
松林洞 526
松林站 95
松門內 552
松仕洞 939
松山里 450
松三里 105
松秀里 549
松魚里 644
松亭洞 79
松亭里 375, 469, 897
松 川 634
松川洞 333
松村里 849
松 楸 393, 852
松 峠 415
松 坡 815
松鶴里 114
松寒里 502
松 峴 389
松峴洞 79, 108
松峴里 514
松 禾 184
水 谷 110
水基里 650
修德山 782, 804
修道山 930
壽洞里 782
水洛山 848
水 里 640
水利峰 359
修理山 769, 817
水山里 365
水 色 774, 811
輸 城 223
遂 安 127, 146, 180, 409, 898
水岩里 531
壽岩里 428
水餘里 334
水 營 199
修隅洞 154
水 原 23, 198, 215, 318, 388, 452, 505
756, 771, 815, 832, 847, 894
水源山 860
水踰洞 107, 849
水靑洞 476
水坪里 435
水下洞 939
水下里 650
肅 川 19, 114, 142, 174
順 安 145, 918
巡威島 186, 450
順 川 19, 100, 138, 142, 165, 212, 455
924
承昌里 100
勝湖里 409
市 洞 469
시루里 700
市邊里 127, 145, 373, 409, 901
詩 山 932
始 興 393, 777, 816
食湯山 655
食峴里 390
新 葛 817
新乭波鎭 219, 282
新 溪 145, 180, 328, 800, 897
新 基 248, 690
新基洞 779
新基里 561
神奇峰 117
神多洞 568
新畓里 380

新 垈 557
新德洞 680
新德里 129
申 島 449
薪 島 736, 873
新洞里 796
新東面 393
新 幕 197, 372, 910
身彌島 882
新 寧 924
新論谷 348
新 里 105, 869
神林里 431
新林里 174
神屛山 697
新 峰 110
神佛山 434
新山里 147, 779
薪山里 147
新上里 107, 236, 244, 288
新設洞 775
新城洞 109
新成里 93
新安州 88, 104, 142, 151, 197, 210
新岩洞 109
神岩里 561
新陽洞 689
新院里 904
新月里 532
新義州 79, 90, 150, 164, 761, 918
新長里 383
新昌里 904
新倉里 142, 165
信 川 165, 903
新川江 379
新 村 364, 388, 510, 775, 856
新邨里 802
新豊里 230, 351
新 興 469
新興洞 350
新興里 90, 129, 214, 226, 241, 288
寶乃嶺 800
尋 里 475
沈 川 561
深川里 908
雙門洞 770, 848
雙田里 615

(O)

峨嵯山 87
阿峴洞 776
안 골 807
安 東 318, 339, 435, 576, 611, 676, 924 931
安樂里 449
安盤谷 530
鞍 山 773
安上里 129
安 城 147, 300, 384, 388, 769, 771, 815 830
安城川 396
安心洞 108
安心峴 109
安 岳 918
按岩洞 612
安 義 593, 769, 772
安院谷 415
安仁里 466
安仁津里 329
安 州 87, 105, 141
安坪里 106
安興里 379, 482, 520, 549, 595
鞍日嶺 173
鞍倉川 122
鴨綠江 57, 79, 103, 164, 211, 222, 314 761, 915
愛山里 532
兩嘉面 104
兩坎嶺 118
兩江洞 65
陽谷里 865
羊邱洞 612, 940
兩老里 817
陽 德 111, 127, 129, 141, 165, 372, 898
陽德院里 368, 508
陽 洞 177

梁 山 931
兩水里 373, 773
襄 陽 261, 314, 326, 633, 635, 760, 800, 862
楊子山 771
楊 州 174, 372
陽 地 87, 107
陽地村 481, 514, 550
陽 站 82
楊 村 553
楊 平 388, 580, 769, 773, 831
於口村 365
於論里 351, 357
御來山 401
魚城山里 334, 578, 635
於園里 470
魚踰洞 147
於隱洞 406
漁隱里 142
御重里 144, 180
於靑島 186
漁化島 185
億斗洞 560
彦利里 468
彦陽山脈 143
麗 島 733, 872
餘粮里 525, 561, 702
如雲浦里 331, 638
汝矣島 198, 215, 393, 773, 894
麗 州 505, 632, 769, 799, 831, 931
蓮谷里 391
蓮谷川 327, 332, 477, 561, 635
淵堂里 418
연덕里 337
連峰里 154
延山面 83
蓮上里 413
蓮池洞 104
蓮 川 165, 339, 372, 409, 770, 800, 848.
延坪島 186
連 浦 203, 214, 236, 241, 282, 918
延 豊 392, 779, 931
蓮花山 631
延興洞 106
延禧洞 777
鹽 倉 773
靈 光 924
盈 德 335, 676
永 同 939
永登浦 148, 180, 202, 393, 769, 847
寧 邊 78, 89, 103, 129, 142, 150, 164
靈 岩 924
英 陽 614, 924
寧 遠 115, 129, 142, 165
寧 越 330, 344, 410 ,426, 452, 480, 560 580, 696, 393
永 柔 114, 142
靈場里 393
領井里 868
榮 州 339, 480, 576, 614, 683, 924
永 川 300, 924
永平川 374
永興灣 731, 749, 871
禮美山 412
醴 泉 684
五金里 772
五臺山 288, 327, 346, 476, 560, 637, 650 938
梧灘里 402
五柳洞 903
梧里洞 372
五馬洞 818
梧峙山 615
五峰山 86, 165, 466
烏 山 384, 396, 465, 505, 799, 830
梧山里 393, 849
五色里 645
五十峰 628
烏原里 482
五音山 507
梧池里 912
梧灘里 804
吾鶴里 357
梧峴里 858

王 溪 328, 466
王洞里 407, 413
王山洞 364
王女峰 104, 155, 376, 782, 810
沃 川 931
溫水坪 228
溫 井 59, 79, 90, 115, 150, 164, 918
莞 津 449
瓦也洞 112
瓦野里 661
瓦 院 171
瓦 坪 529, 537
完澤山 413
王溪里 376
旺方山 850
王帝山 465
外巨文里 565
外南谷 432
外龍里 403, 413
外飛山洞 772
外祭里 145
龍溪里 154
龍南里 88
龍潭里 802
龍潭池 185
龍德里 119, 337
龍頭洞 108, 111, 152
龍頭里 483, 507
龍頭峰 811
龍屯里 481
龍登洞 90, 137
龍林洞 251
龍門山 91, 781, 811
龍伏里 177
龍頭山 413
龍北洞 103
龍 山 650, 775
龍山洞 80, 102, 150
龍山里 566
龍城洞 94, 172
龍首里 185
龍岩里 383, 856
龍淵洞 88, 941, 108, 134
龍原里 177
龍田里 581
龍井里 113
龍 州 918
龍珠里 88
龍川里 811
龍泉寺 98, 154
龍灘里 526
龍浦洞 82, 351
龍浦里 106, 142, 901
龍花面 88
龍峴里 94
龍湖島 450
龍興洞 81, 87, 105
牛岩里 335, 634
右川里 597
牛耳洞 811
牛頂里 501
牛賢洞 133
雲溪峰 477
雲橋里 481, 595
雲霧川 87
雲門山 924
雲 山 78, 90, 103, 150, 164
雲山里 470
雲石洞 108
雲岩里 388, 858
雲龍里 95
雲長山 942
雲嶺山 412
雲柱峰 230, 283
雲川里 898
雲鶴里 104
雲 興 87
雲興里 98, 153
蔚 屯 485
蔚 山 203, 284, 931
蔚 珍 198, 291, 326, 466
熊 谷 494
雄 基 223
熊潭里 391

熊 島 184
鷹峰洞 79
鷹峰山 347, 782, 808
鷹岩洞 779
熊 川 931
園東洞 470
院內里 431
元堂里 347, 390
院堂站 100
院垈里 335, 344, 661, 800
院 里 92, 115, 150
院卜洞 575, 650
元 山 22, 129, 141, 174, 197, 215, 220, 239, 280, 302, 742, 871
元旦田里 634
院場里 145
院前洞 686
院前里 624
原 州 22, 208, 316, 344, 358, 388, 409, 426, 452, 480, 519, 561, 580, 725, 770, 799, 831, 894, 924
元 通 327, 337, 344, 661
圓坪里 795
元峴洞 147
遠後洞 826
元興里 779
月 谷 777
月乃島 184
月 里 642
月文里 848
月尾島 446
月峰山 93, 128
月沙里 185
月岩洞 596
月岩里 868
月精洞 563
月精里 650
月精寺 650, 657
月浦里 126, 152
月下洞 674
嘴 島 932
渭川里 147
瑜伽洞 109
柳潭里 214, 223, 252, 281, 310
柳洞里 476, 481, 581, 798
柔院鎭 117
柳田洞 650
柳亭洞 236, 288
有亭洞 171
留眞里 790
楡川里 147, 564, 635, 647, 650
有 治 924
六丹里 801
栗 里 145, 914
栗木洞 450, 549
栗坪里 671
栗浦里 388
銀谷洞 110
隱谷里 392
殷 山 142
殷 栗 184, 903
銀坪里 108
銀杏亭里 433, 897
陰 城 931
陰陽洞 359
음전골 573
陰地座沙 530
義林里 537
義 城 614, 678, 924
衣岩里 509, 782
議政府 22, 328, 372, 387, 770, 811, 848
義 川 147
儀豊里 404
義 興 924
梨卵洞 151, 164
泥踏洞 84
梨木洞 508
梨木里 412
里門洞 777
梨 水 772
梨大橋 828
梨陽洞 136
利 原 224, 281
梨田洞 623

利 川 505, 769, 815, 845
伊 川 372, 800, 897, 931
梨泉洞 680
耳 坪 530
仁邱里 328, 344, 578, 633, 635
仁德院洞 772
仁樂院 584
仁旺山 773
麟 蹄 337, 344, 634, 660
仁處里 166
仁 川 22, 189, 319, 384, 562, 769, 864.
仁崗里 480
仁興里 95
日 谷 419
一 山 777
日迎里 393
日月峰 780
日月山 924
一和洞 105
笠 峰 525
立 石 86, 88, 150, 167
立石下洞 79
笠 場 396
臨溪里 469
臨 東 940
任 實 934
任子島 932
臨津江 147, 219, 293, 339, 372, 762, 848, 867
臨河面 680

(ㅈ)

慈 山 142, 180
自隱里 334, 357, 720
自日洞 854
自作洞 567
自作亭 583
紫長里 387
紫芝浦 390, 780
紫霞洞 772
蠶頭山 581
蠶 室 775, 769, 849
長江村 537
獐谷里 779
將軍峰 650
將軍山 801
長樂山 811
長南里 357
長 灣 165
長德里 242
長 洞 401
獐 洞 402
章文里 241
長 省 527, 924
長城里 331
長承里 333
長安山 943
場岩里 912
長湯里 427
長 淵 903
長淵郡 184
長淵里 113
長林面 109
長子洞 553
長津湖 19, 151, 220, 222, 248, 281, 318 327
長川洞 335
長 春 35
長灘里 380
長波里 387
長坪里 367, 373, 564, 581
長下里 129
獐項山 465
長湖院 129, 384, 396, 480, 799, 830, 931
長 興 219, 223
長興洞 936
藏 德 226
藏 寧 904
赤 城 387
赤城里 373, 434
赤岩里 389
狄踰嶺山脈 79, 103, 165
赤 峴 108
全 谷 375

前頭里 624
全 義 772
戰場浦 105
點 谷 682
點峰山 337
蝶 島 883
停車洞 154
正東津里 468
旌 善 330, 410, 465, 523, 561, 580, 650, 703
正養里 416
井 邑 932
亭子洞 362, 682
亭子里 334, 642, 772
鼎足山 335, 346, 784
定 州 104, 142, 152, 164
亭下洞 678
鼎 後 390
濟寧里 788
濟州島 198, 290, 894
堤 川 207, 384, 410, 426, 480, 519, 596 632, 924
朝陽洞 80
朝陽里 107
烏 嶺 924
烏項里 481, 595
鍾 路 775
鍾岩洞 777
種子山 372
鍾懸山 372
酒琴山 770, 848
注文里 412, 431
注文津 326, 388, 465, 477, 561, 595, 633, 635, 746, 848
周 峰 653
主 山 626
主山洞 940
珠山里 509
朱實嶺 401
舟月里 387
朱 乙 219, 225
注邑山 839
酒店村 596
酒泉江 551
酒泉里 520, 596
周浦里 431, 483, 519
朱興里 231, 290
竹 邊 747
竹 山 396, 771
竹葉山 770, 848
竹林山 481
竹田谷 587
竹軒里 562
茁 峙 551
中金里 481
中 洞 87, 704
中浪橋 770, 773
中幕洞 110
仲山里 107
中 站 98
中 和 146
曾安里 514
地 境 240
池邱里 550
知 島 932
紙洞里 897
智異山 924
支石里 104
芝石里 165
芝岩里 480, 782, 799,
芝英里 779
芝村里 770, 781,
砥平里 482, 507, 770, 830
芝浦里 913
紙杏里 859
支下里 899
直 洞 592, 650
直洞里 856
鎮南洞 107
鎮南浦 165, 189, 752
珍 島 754
眞木洞 112, 335
眞木亭 346, 634
眞 齋 614

珍 富 356
鎭 安 934
眞島里 595
晋 州 479
鎭 川 384, 799
鎭 海 198, 215, 319, 452, 877
眞黑洞 345
眞黑里 337
眞興里 273, 281, 310

(ㅊ)

車水谷 940
車項里 563, 634, 650, 708
楚谷峴 364
昌陵川 779
倉 洞 105, 383
倉 里 524, 701
蒼 幕 363
倉滿里 779
蒼峰里 367, 511
昌 城 80
倉前洞 777
倉 村 546, 848
蒼 村 332, 345, 350
倉平里 465
昌坪洞 940
昌浦洞 753
昌孝嶺 137
滄川里 897
尺川里 566
天馬峰 624
天磨山 849
川坊江 111
泉 水 363
天 安 396, 772
天耳山 88
千點山 848
泉峙里 368
天盛里 108
泉峴面 147
千戶洞 769
鐵甲嶺 624, 645
鐵 原 129, 328, 375, 782, 800, 862, 896, 915
淸溪山 769, 817
淸谷里 509
淸久洞 661
淸城鎭 762
靑 松 686, 924
靑岩里 427
靑良里 465
淸源里 854
靑蓮庵 468
靑龍站 175
淸凉山 852
廳院里 336
淸 州 165, 925
淸 津 221, 281, 327
淸川江 73, 80, 103, 129, 141, 150, 164, 211, 219, 314, 328, 341
淸 平 480, 595, 770, 777, 782, 810, 848 931
椒 島 182
草 里 416
草堂里 465
楚 山 17, 59, 79, 85, 90, 150, 164
草 原 244
草院里 505
草坪里 122
草峴里 484
草興里 230
燭台峰 782, 808
村 面 907
楸 洞 546
楸洞里 373, 426
楸 木 939
楸木洞 680
楸下里 241
秋盛山 848
秋 峙 650
春 陽 402, 410, 576, 613
春 川 328, 386, 409, 480, 758, 770, 800 831, 862, 924
春川湖 782
忠 州 207, 300, 316, 426, 442, 520, 931
鷲峰山 336

雉岳山 520
七龍里 405
七寶里 743
七峰山 438, 858
碡 橋 349
長橋里 375

(ㅌ)

塔 洞 474, 578
泰岐山 327, 349, 481, 595, 660
太白山 288, 924
太白山脈 326, 344, 454, 562
胎峰洞 147
台峰山 505
太宗台 545
泰 川 19, 80, 192, 142, 150, 164, 211
泰 平 72
澤 洞 857
土窖洞 223
兎 山 147, 375, 907
土隅洞 105
土 亭 390
土貢耳 346
通古山 624
通高山 941
桶 里 459
通 津 857
通盡岩 566
通 川 742
通 村 772
退溪院 770, 775, 848
退谷洞 335
退 潮 283

(ㅍ)

芭長里 773
坡 州 147, 777
板橋里 396, 769, 816
板 洞 64
八角山 689
八公山 924
八龍里 180
八雲山 697
平 康 129, 165, 328, 372, 782, 800, 898 915
平 洞 154, 777
平 壤 21, 83, 90, 103, 129, 141, 174 197, 215, 219, 317, 327, 761, 894
平原郡 114
平庄里 482
平 昌 332, 344, 410, 452, 465, 481, 507 561, 580, 930
平 澤 198, 300, 388, 769, 815, 924
平 海 614
坪內里 651, 848
坪 場 552
浦洞里 481
浦 項 203, 215, 479, 924, 938
浦項里 241
抱 川 372, 386, 770, 848
葡萄山 617
豊 基 480, 595
豊德山 100, 129
豊 山 128, 220, 281, 480
豊山洞 109
豊水源 509
豊 岩 561
豊岩里 345, 349, 483, 507, 595, 660, 912
豊 場 64
豊田里 129
豊中里 65
豊 川 626
風吹山 551
鳳項里 114
皮木亭 567
彼來山 468

(ㅎ)

下碣隅里 214, 223, 262
下讀洞 114
下弓里 485
下南里 335, 346
下大洞 660
下嶺谷山 118, 131
下 里 772

下 峰 526
下色峴 810
下西林里 335
下石埃 531
下松峠 367
下手谷 827
下順南里 549
下安味里 581
下岩洞 147
下月川里 634, 637
下長津 876
下猪洞 678
下熙光里 869
下知面 345
下珍富里 330, 344, 483, 507, 560, 589, 674, 848
下 站 154
下清溪 772
下草院里 511
下雉里 336
河 東 479
鶴谷里 501, 720
鶴潭里 813
鶴鼎洞 108
鶴登洞 114
鶴峰洞 108
鶴峰山 147
鶴山里 473
鶴城洞 229
鶴城里 427
鶴巢里 105
漢 江 316, 393, 562, 769, 771, 847, 915
漢灘江 372, 387
寒溪里 332, 368, 674
閑山里 389
咸 安 942
咸 陽 924
咸 平 932
咸 興 21, 180, 197, 215, 219, 224, 239, 280, 327, 918
合 水 221, 224, 281
合井洞 773
項谷山 129
項 洞 689
海龍山 848
해목동 848
海美山城 433
海 州 904
海嗆里 866
杏口洞 547
行邁洞 526
香爐峯 106
香積山 106
香中里 241
許沙里 184
縣內里 468
縣 洞 629
縣 里 330, 624, 760, 848, 896
玄岩里 786
挾楯站 98
狹 川 924
兄弟峰 119, 169, 582
惠山鎭 128, 219, 222, 281, 327
虎溪里 827
虎鳴里 566, 649
虎鳴山 850
호상리 236, 290
芦洞里 569
芦 屈 82
洪 君 229
洪 原 219, 229, 281, 456
洪 川 238, 286, 344, 354, 388, 409, 480 505, 580, 595, 711, 729, 758, 770 773, 831, 848, 924
洪川江 781, 811
洪川峠 334
弘濟洞 775
紅文山 869
華 山 943
華岳山 770, 781, 799
華遠里 587
華 川 316, 328, 480, 634, 770, 800, 858 924
和 順 924

和中里 113
和平里 110
花 島 218
花郎峰 469, 650
花翁洞 79, 81
花田里 154, 779
譁岩里 529
譁綠峰 508
貨泉里 139, 142
禾東里 481, 597
還賈洞 105
還覩洞 113
還興里 113
黃江里 562
黃谷里 228
黃溪里 581
黃梅山 942
黃柏山 465, 561, 595, 650
黃牛嶺 464
黃 州 143
黃池里 531
黃處嶺 116
黃土島 736, 875
黃鶴山 939
檜洞里 525
檜木洞 64
回基洞 775
回論堀 433
回文山 924
回春里 372
會 亭 222, 281
淮 陽 800
橫溪里 345, 357, 458, 480, 560, 596
橫 城 316, 452, 504, 726, 758, 770, 831, 924
橫川嶺 122
後 川 480
後 坪 598
後浦梅里 624
厚 浦 747
黑嶺山 142
黑石洞 393, 772
黑水里 240
欽 嶺 924
屹里頂 772
興 南 21, 215, 219, 208, 221, 277, 280, 302, 326
興德面 450
興陽里 427
興竹面 856
興亭里 595
熙 川 19, 60, 84, 90, 103, 117, 151, 166

參 考 文 獻

國防部編	韓國戰爭史 第一卷	戰史編纂委員會	1967
國防部編	韓國戰爭史 第二卷	戰史編纂委員會	1968
國防部編	韓國戰爭史 第三卷	戰史編纂委員會	1970
國防部編	韓國戰爭史 第四卷	戰史編纂委員會	1971
國防部編	韓國戰亂 一年誌	政訓局	1951
陸軍本部編	六·二五事變 陸軍戰史第四卷	軍史監室	1956
陸軍本部編	戰史 第60輯	軍史處	1965
陸軍士官學校編	韓國戰爭史		1964
陸軍本部編	北傀六·二五南侵分析	情報參謀部	1971
憲兵司令部編	韓國憲兵史	大建出版社	1952
陸軍砲兵學校編	포병의 발자취	陸軍砲兵學校	1963
第一軍團編	전진약사	政訓參謀部	1966
海軍本部編	大韓民國海軍史(作戰編)	政訓監室	1954
海軍本部編	大韓民國海軍史(行政編)	政訓監室	1958
海軍本部編	作戰經過報告書 第1, 第2卷	作戰局	1954
空軍本部編	空軍史 第1卷	政訓監室	1961
空軍本部編	空軍發展略史	政訓監室	1954
空軍本部編	날개의 聖地	政訓監室	1956
空軍本部編	空軍作命起案綴(記錄文書)戰鬪要報	作戰局	1950
空軍本部編	出戰期(記錄文書)	戰史編纂官室	1950
海兵隊司令部編	海兵戰鬪史 第一輯(增補版)	政訓監室	1962
內務部治安局編	警察10年史	治安局	1958
內務部編	內務部 行政治績史		
內務部治安局編	民族의 先鋒	大韓警察戰史發刊會	1951
	太白戰史(第一輯)		
	核戰爭과 外交政策		
	解放20年史		
文藝安著	南北三千里		1956
朴啓周著	自由共和國 最後의 날		1955
李基錫譯	맥아더回顧錄	新太陽社	1964
趙炳玉著	나의 回顧錄	語文閣	1963

西瑞書, 趙奎東共著	**韓國의 動亂**	兵學研究社	1950
崔用德著	**하늘의 開拓者**	空軍本部	1956
김용호譯	**韓國動亂史**(Robert T. Olives Verdict in Korea)		1960
國防部譯	**制限戰爭**	政訓局	1958
韓國問題研究所編	**動亂의 眞相**		1950
公報室編	**6·25動亂參戰勇士의 手記**		
陸戰史研究普及會編	**朝鮮戰爭 4**	原書房 日本東京	1969
陸戰史研究普及會編	**朝鮮戰爭 5**	原書房 日本東京	1970
陸戰史研究普及會編	**朝鮮戰爭 6**	原書房 日本東京	1971
陸戰史研究普及會編	**朝鮮戰爭 7**	原書房 日本東京	1971
中村好壽譯	**朝鮮戰爭と戰略論爭史**	原書房 日本東京	1970
神谷不二著	**朝鮮戰爭**	中央公論社 日本東京	1966
朝鮮民族研究會編	**朝鮮戰爭史**	コリア評論社 日本東京	1967
北共科學院歷史研究所編	**朝鮮人民の正義の祖國解放戰爭史**	外國文出版社 平壤	1961
黃震遐編	**中共軍人志**	香港當代歷史研究所	1968

Roy E. Appleman; **South to Naktong North to the Yalu** D/A Washington 1962

James, A. Field Jr;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 in Korea** Washington 1962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Department of the Air Force 1956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Department of The Air Force 1961

Hess; **Battle Hymn**

Lynn Wontrooss and Nicholas A. Canzona; **U.S. Marine Operation in Korea** HQ USMC Washington 1955

Manson; **Battle Report. The War in Korea**, New York 1952

Aron Whitehouse; **Amphibious Operation** New York 1963

其他各軍 各級部隊戰鬪詳報, 部隊歷史資料報告書, 部隊略史, 部隊歷史資料綴, 戰鬪要報, 軍團史 및 當委員會 所藏 面談資料綴, 督察官動記錄, 督察官內狀況報告書, 戰鬪督察官從軍手帖。

韓國戰爭史 第5卷 合同審議會芳名錄

부서	직책	계급	성명	서명
육군	자문위원	前陸軍參謀總長 陸軍大將	白善燁	백선엽
해군	〃	前海軍參謀總長 海軍大將	金榮寬	김영관
공군	〃	前空軍參謀總長 前國防部長官 空軍中將	金貞烈	[illegible]
해병대	〃	前海兵隊司令官 海兵中將	申鉉俊	신현준
	〃	文學博士 高麗大學教授	金英植	[illegible]
전쟁本部	政訓監	大領	金永國	[illegible]
陸本	軍史研究室長	大領	朴晨根	박성근
海兵隊	作戰參謀部 [illegible]	大領	鄭昌源	정창원
보안사	파견관	대령	조원호	[illegible]
작전국	차장	준장	안병기	안병기
정보국	차장	준장	김영상	김영상
〃	보안과장	대령	김재봉	김재봉
정훈국	국장		선우전	J. Sunwoo
공군본부	작전차장	준장	심재룡	심재룡
	비상의치원	前師團長 陸軍 [illegible]	지[illegible]호	지[illegible]호
		前出版社長	윤경섭	윤경섭

執　筆　陣

主幹	編纂委員		朴景錫
執筆者	編纂委員		柳承宙
	〃		李謙周
	〃		金源寬
	編修委員		金東郁
	〃		姜聲湖
	〃		甘成海
	專門委員	공군중령	李載一
	〃	해군대위	金秉杜
	〃	공군대위	金顯洙
	〃	해병대위	朴定秀
	製圖		李世哲

本戰史의 執筆陣은 이상과 같으며 어떠한 異議가 있을 때는 書面 또는 口頭로 一次 當委員會에 問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國戰爭史(第5卷)

1972年 12月 20日 印刷

1972年 12月 30日 發行

戰史編纂委員會 編纂

發行 國防部

印刷 서울新聞社

不許 無斷 複製